

서 하나로부터 시작하여 각기 실체를 위한 아르케 곧 수를 위해서는 하나를 그리고 공간 크기를 위해서는 다른 것을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을 설정한다 이런 길로 계속 나아 가면서 스페우싯포스는 많은 실체들을 증가 시킨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도스들 과 수들을 동일한 자연을 지니는 하나로 보아 하늘의 실체들 과 감각적인 것들 사이에 이(에이도스들과 수들)과 나란히 알론한 것들 곧 선들 과 면들이 늘어서 있다 라고 말한다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좋고(καλώς 1028b20) 좋지 않은지를 반드시 말해야 하며 그리고 무슨 실체들이 있는가를 그리고 감각 실체들과 나란한(παρὰ 1028b29) 어떤 것(실체)들이 있는지 또는 있지 않은지를 그리고 감각 실체들은 어떻게 있는지를 그리고 [감각 실체들과] 분리된 어떤 실체가 있는지를 그리고 있다면 왜 어떻게 있는지를 또는 감각 실체들과 나란한 어떤 (것도)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반드시 조사해야 만 한다 그러 러면,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첫째 개괄해야만 한다

(III) 실체란 하나일까 여럿일까 몸들만이 실체인가 감각 실체들만이 있는가 아니면 감각 실체들과는 알론한 실체들이 있는가 수학적인 것들과 에이도스들도 실체인가 라는 물음들을 제기하면서 텔레스는 이물들에 답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실체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해야한다 라고 언급한다 이 물음에 답 하는 부분이 바로 제에타 편(6권)이며 이 물음에 대한 답 이후에 제기되는 물음들에 대답하는 부분들이 에에타(7권) 이오타(9권) 랍다(11권) 뮈(12권) 뉘(13권) 편들이다 그의 타 메타 타 뤼지카 각 편들은 이렇듯 그 내용에 있어 이어진다 자,

그럼 그가 실체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그대로 따라가 보자

만약 (너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지 않는다)면 **실체**는 최소한도 네 가지로 말하여진다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τὸ τι ἧν εἶναι 1028b34) 과 보편자(τὸ καθόλου 1028b34) 와 류(τὸ γένος 1028b35) 그리고 네째로 기체(τὸ ὑποκείμενον 1028b36) 라고 여겨지는 것 처럼 보인다 이제,

알론한 것들이 자신의 (καθ' οἷον²⁸⁴) 1028b36) [속성-카테애고리아이] 이긴 해도 자신은 알론한 것들의 [속성-카테애고리아이] 이지지는 않는 바로 그것이 기체²⁸⁵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반드시 이 기체를 규정해야 만 한다 바로 이 기체가 첫 번째로 대 부분 실체로 여겨지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질료가(ἡ ὕλη 1029a2) 그러한 것이라고 그러나 다르게 보면 [결] 모양(ἡ μορφή 1029a3)이 그러한 것이라고 그러나 셋째로 이(질료 와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러한 것(기체) 이라고 말하여진다 **질료**에 의해서 나는 청동을 말하고 모양에 의해서 나는 이데아의 스케마²⁸⁶(τὸ σχῆμα τῆς

284) 여기서 나는 본문에 없는 말인 속성 또는 카테애고리아이를 본문 관계 대명사 2격 ' οἷον '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속성 또는 카테애고리아이 라고 옮겨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 καθ' '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다 직역하자면 '자신에 따라서 알론한 것들이 있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 알론한 것들을 나는 그 자신의 카테애고리아이 또는 속성인 결로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미심쩍다

285) 기체가 실체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162 쪽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우리말로 한다면 '어떤 것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될 것이다

286) 로스는 스케마를 'pattern (785쪽)' 이라고 옮기나 내가 보기에는 '가리켜진 이데아' 또는 '보여진 이데아' 또는 '나타난 이데아'로 옮기는 것이 나을 성 싶다 여기서 나는 그냥 직역해서 '이데아의 스케마'로 옮겨 보았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데아 라는 말을 어떻게 썼을까 그리고 이테아를 가리키는 이데아 주변의 말들이 플라톤에 있어서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보여졌다시 피텔레스는 모르페 와 스케마 라는 말들을 이데아 주변의 말들 로서 곧 이데아와 연관되는 말들로서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의 나에게서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와 파르메니데아스 와 소피스테아스에서 스케마 와 모르페에 라는 말이 이데아와 연관지워져서 보여지지 않을 뿐 만이 아니라 아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모르페 또는 스케마 라는 단어를 이데아와 연관지어 쓴 것은 텔레스의 기교적인 쓰임새인 것 같다

ιδέας 1029a4-5)를 말하며 이것들로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사람의 모습이) 새겨진 동상(銅像) 곧 합쳐진 전체(τὸ σῶλον 1029a5)를 말한다 따라서, 만약 에이도스가 질료 보다 먼저²⁸⁷⁾ 더 있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 이 양자로 이루어진 것 보다 에이도스가 더 먼저 있을 것이다

[속성 또는 카테애고리아이]인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들이 자신의 [속성 또는 카테애고리아이]가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실체임을 보여 주면서 우리는 실체가 무엇이다에 대해 약속했다²⁸⁸⁾ 그러나,

단지 이렇게 만 말하고 말아서 않된다 이것으로는 불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에 따르면 질료가 실체로 된다

만약 실체가 아니라면 알론한 어떤 것²⁸⁹⁾이 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⁹⁰⁾ 알론한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나면 단지 질료 이외에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게된다 알론한 모든 것들은 몸들의 속성(πάθη 1029a13) 과 생산들 과 뒤나뭇스들이지 실체는 아니며 또한 길이 너비 깊이역시 량들이

287) 먼저에 대해서는 261-269 쪽을 참조하십시오

288) 이러한 맥락을 따르자면 알론한 모든 것이 자신의 카테애고리아이나 자신은 알론한 어떤 것의 카테애고리아이 이지는 않다 라는 점에서 기체 와 실체는 같다 다시 말해서 기체 와 실체는 어떤 것의 속성 또는 카테애고리아이가 아니다 오히려 알론한 모든 것은 기체 와 실체의 속성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드러나겠지만 이러한 점에서 만 실체는 기체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렇다고 이 점으로부터 기체는 실체와 동일하다는 것이 이끌어 나올 수는 없다 기체는 실체가 아니다 설령 알론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기체란 실체이라 라고 말 할 수 있을 지언정 말이다

289) 속성 또는 카테애고리아이인 어떤 것들 일 것이다

290) 만약 제 일 실체가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실체는 모든 것의 기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범주들에서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169 쪽을 참조하십시오)

지 실체들이 아니다 량들이 첫 번째로 속해있는 실체가 그 량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이 너비 깊이가 제거되면 이것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어떤 것이 있지 않는한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속고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질료 만이 실체일 것 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질료에 의해서 나는 그 자체 무엇(τι 1029a20)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량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있는 것이 그것에 의해 규정되는 알론한 (다른 범주들)것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 각각이 그것의 카테애고리아이가 되는 바로 그 어떤 것이 있다

이 어떤 것의 있음은 카테애고리아이 각각과 헤테론하다 실체와 알론한 것들은 실체의 카테애고리아이가 되는 반면에 실체는 질료의 [카테애고리아가]되기 때문이다²⁹¹⁾ 따라서,

291) 여기서 애매해진다 어떤 것의 카테애고리아이지 않는 것이 실체요 기체이디는 이미 앞에서 분명해졌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실체란 질료의 카테애고리아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앞 문장에서의 어떤 것이 질료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선명해진다 그러나 질료가 어떤 것에 속한다면 아주 애매해진다 따라서 질료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내려지는냐가 중요하다 그에 따르면,

질료는 무엇 과 량 등의 카테애고리아이가 아니며 길이 너비 깊이로 규정되는(τὸ ὀριζόμενον 1029a18) 그러나 그 자체로는 규정되지않은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질료의 보기로 그는 청동을 든다 이러한,

질료의 카테애고리아가 바로 실체라는 것인데.....그렇다면 실체는 카테애고리아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질료의 카테애고리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질료는 **기체**라고 말하여진다는 것 그리고 기체는 알론한 것의 [카테애고리아]가 인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이 기체의 카테애고리아가 이라는 것그리고 이점에서 기체는 **실체**라는 것은 2 쪽에서 이미 말하여졌다 그러함에도 이제 여기서 실체는 질료의 카테애고리아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실체도 어떤 것의 카테애고리아이다 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의 카테애고리아가 결코 아닌 실체는 어떤 것의 ‘카테고리아’이다 여기서 나는 헛갈린다 앞의 어떤 것에는 질료가 속하지 않는 반면에 뒤의 어떤 것에는 질료 만이 속한다

[질료는] 그 자체 궁극적으로는 무엇도 아니요 량도 아니요 알론한 어떤 것도 아니며 이것들의 부정(αι ἀποφάσεις 否定 1029a25)도 아니다 부정들도 마찬가지로 우연적으로는 [그것(질료?)에]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면 질료는 실체가 이다 가 잇따르게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하다 분리 가능성 과 이것임(τὸ χωριστὸν καὶ τὸ τόδε τι 1029a28) 이 양자가 실체에 주로 속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에이도스 그리고 이 양자(에이도스와질료)로 이루어진 것이 질료 보다는 오히려 실체로 여겨질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양자 곧 질료 와 모양으로 이루어진 실체는 반드시 포기되어야 만 한다(ἀφετέον 1029a32) 라고 나는 말한다²⁹²⁾ [이것은] 더 늦으며 그리고 [그 자연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질료는 더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세 번째 것²⁹³⁾을 조사해 보아야만 한다 이 세 번째 것이 가

면 나는 헛갈리지 않는다

292) 질료 와 모르페로 이루어진 것들 역시 실체가 아니다 물론 질료 역시 실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질료도 실체가 아니요 이 질료 와 모르페로 이루어진 것 역시 실체가 아니다 라고 그가 분명히 말하고 있다

293) 이 세 번째 것은 이어지는 4 장에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이론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아 이 세 번째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제에타 끝에서 말하여지듯이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바로 에이도스 이며 그리고 3 장에서는 질료 와 모르페에 와 이 둘로 이루어진 것이 묶어져서 말하여지고 있는데 질료 와 그 양자로 이루어진 것은 그 본성 상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나 - 이것들 중 질료가 더 분명해진다 - 나머지 하나 세 번째 것 곧 모르페에 는 그 자연 상 분명하지 않아 곤혹스러운 것이므로 이 세 번째 것을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한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사실,

세 번째(τῆς τρίτης 1029a32)가 무엇을 가리키는 지가 현재의 나에게는 애매모호하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감각 실체가 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본디 텔레스의 강의 순서에 따른 것이라면 세 번째 것을 감각 실체

장 곤혹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감각적인 것들²⁹⁴⁾ 가운데 어떤 것들은 실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반드시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실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면서 그는 3 장에서의 자신의 로고스를 이끌어 가기 시작했다는 점을 나는 294 쪽에서 지적해 냈다 그가 잠정적으로 내 뺀 답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보편자 와 류 와 기체 등 4 가지였다 이 4 가지 가운데 보다 더 실체일 것 같은 것은 기체일 것이다 실체는 기체라고도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체가 곧 실체일까 그에 따르면 아니다 어떤 것의 카테애고리아이도

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제애타 편에서 이어지는 에에타 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감각 실체가 말하여지는 반면에 문제의 문장에 바로 뒤 이어지는 것은 제애타 편 제 4 장이며 4 장에서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이론화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가 질료 와 그 양자로 이루어진 것 다음으로 세 번째 고찰하려 하는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실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아주 곤혹스러운 어려운 것이다 ‘영혼에 관하여’에서 그는 몸에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영혼이라 한다 (412b11) 따라서 부분적으로 보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영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혼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으리라 몸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 세 번째 것을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보는 것이 감각 실체로 보는 것 보다 더 나은 성 싶다 이어지는 두 줄(1029a33-34)을 4 장에 붙힐 것이 아니라 에에타 편에 붙혀 읽는 것이 매끄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294) 감각적인 것들은 제애타 편에 이어지는 에에타 편에서 말하여지지 제애타 편에서 말하여지지 않는다

아닌 오히려 알론한 모든 것이 자신의 카테애고리아이인 그러한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기체는 곧 실체이다 그러나 기체가 실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동일하다면 질료 뿐 아니라 질료 와 모르페 이 양자로 이루어진 것 모두 실체일 것이다 질료 그리고 이 양자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에이도스는 각기 기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비록 질료가 더 분명한 해도 질료 그리고 질료와모르페로 이루어진 것은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분리된 이것이기 때문이다²⁹⁵⁾보아라 질료는 이것도 아닐 뿐 더러 분리된 것도 아님은 더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나에게 질료가 애매하게 닥아온다 질료란 무엇인가 ? 그에 따르면 질료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적절한 물음이 아니다 질료는 무엇이 아니며 량 등의 범주들도 아니기 때문이다 규정되는 것이 아니 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래서 애매한 건가 어쨌든,

질료는 실체가 아니다 그러기에 이 질료 와 모르페애로 이루어진 것도 실체가 아니다 물론 질료 보다는 더 실체에 가깝을 뿐 아니라 질료 보다 더 늦지 않기 있는 것이긴 해도 말이다 물론 이 양자로 이루어진 것은 더 늦게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세 번째 것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모르페애 또는 에이도스)도 실

295) 여기서 카테애고리아이에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자(181-186 참조) 거기에서는 숫적으로 하나임 과 동일한 것이 반대들을 받아드림이 실체에 고유한 것으로 드러나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분리 와 이것이 실체에 주로 속하는 것으로 드러난다(298 참조) 물론 이것(토데 티)은 범주들에서도 실체라고 말하여지기는한다 - 제 이 실체는 이것이 아니라고 한 점에 주의하시오 178 쪽 이하 - 그러나,

거기에서는 **분리**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는다 숫적으로 하나라는 말이 분리 라는 말을 함축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실체는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다 를 거기에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리라 그러나 실체는 분리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여기에서는 실체란 주로 분리해 있는 이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분리해 있지 않으면 실체가 아니라는 말일 것이다

이 정도로 만 언급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자

체가 아닐까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이 무엇이 우리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곤혹스러운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곤혹스러운 것에대한 어떤 이론을 펼칠까 그를 따라가 보도록하자

(IV) 시작할 때 실체들을 다양하게 규정했으므로 그리고 이런 (규정들)중의 하나가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라고 여겨졌으므로 우리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이론(Θεωρητέον 1029b2)을 반드시 전개해야만 한다

더 인식 될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πρὸ ἔργου 1029a3) 자연스레 덜 인식된 것을 통해서 더 인식 될 것으로(εἰς τὰ γινώριμα μάλλον 1029b5) 나아가는 식으로 모든 배움은 진행하기 때문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실천에 있어서도 각자에게 선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전체 선을 각자를 위한 선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각자에게 더 인식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연적인 인식을(τὰ τῆ φύσει γινώριμα 1029b8) 각자에게 인식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각자에게 그리고 [맨] 처음에 인식된 것은 보통 아주 적으며 있는 것(τού ὄντος²⁹⁶) 1029b11) 거의 지니지 못하거나 전혀 지니지 못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단지 각자에게 조금 인식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전체에게 인식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려 시도해야만 한다 이미 말했듯이 각자가 인

296) 있는 것을 지닌다 라고 옮기니 어딘가 어색하다 오히려 실재성(reality 로스 786) 라고 옮기면 덜 어색할 것 같다 따라서 실재성을 거의 또는 전혀 지니지 못한다 라고 옮겨보자 그렇다면 각자에게 그리고 처음에 인식된 것은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거의 실재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인식 또는 앎이 있음에 대해 어떻게 있으며 있음이 인식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 가 다시 말해 인식 과 있음의 상호 관련성이 건드려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리라 이정도로 문제 제기하고 넘어가자 내가 형이상학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이 형이상학은 크게보면 있는 것 과 인식에대한 로고스이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277쪽 참조하시오)

식하고 있는 것을 경유하여 말이다 그런데,

먼저 그 (있어지고 있는 무엇)을 논리적으로(λογικώς 1029b13) 우리는 말해야 한다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은 (어떤 것 그)자체(καθ'αὐτὸ²⁹⁷) 1029b14) 라고 말하여진다 음악적이라는 게 당신 자체는(κατὰ σαυτὸν

297)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그 어떤 것[의]) 자체라는 것이 그에 의해 선언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흔히 어떤 것의 본질 이라고 옮겨지고 있는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의 자체 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개에서 무엇이 있어지고 있는가 라는 물음 곧 개의 본질은 본질은 무엇 인가 라는 물음(62 쪽 참조)은 개 그 자체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과 같다 개 그 자체란 개의 본질을 말하고 있으며 개에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는 ‘그 자체에 따라(καθ'τὸ αὐτὸ)’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타 메타 타 퀴지카 델타 권 18 장 (1022a14-34)에서 ‘그 자체에 따라’를 ‘어떤 것에 따라’와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것(또는 그것)에 따름(τὸ καθ' ὃ 1022a14)[에있어서의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한편으로 예를들어 ‘[각기 프라그마타는] 선 그 자체 또는 선(καθὸ ἀγαθός 1022a15)에 따라’에서 처럼 각기 프라그마타의 에이도스 와 우시아가 그 하나이며 다른 한 편으로 예를들어 표면 안[의] 색에서 처럼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처음으로 자연스레 생성되는 그것이 그 하나이다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것은 ‘에이도스에 따라’이며 두 번째로 말하여지는 것은 각기 것의 질료 와 각기 처음 기체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에 따라’ 에서의 [그것에는] 원인(τὸ αἴτιον 1022a20)이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에 따라 (때문에) 그가 왔느냐 또는 무슨 목적으로 그가 왔느냐 라고 말하며 그리고 그의 추리는 무엇에 따라(때문에) 글렀고 그르냐 또는 그 추리의 원인 혹은 그 추리의 원인은 무엇이나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위치(θέσιν 1022a23)에 따라’ 라고 ‘그것에 따라’는 말하여진다 예를들

어 ‘그가 서있는 곳에 따라’ 또는 ‘그가 걷는데를 따라’에서 처럼 말이다 이 모든 것은 위치 와 자리(τόπον 1022a24 공간)를 말한다 따라서,

‘그 자체(스스로)에 따라(τὸ καθ’ αὐτὸ 1022a25)’도 여러 가지로 반드시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칼리아스는 그 자체(에 따라)로 칼리아스이며 [칼리아스 그 자체는] 칼리아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에서 처럼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의] 그 자체 가 그 하나이며 예를들어 그 자체로(에 따라) 칼리아스는 생물이다에서 처럼 무엇이 그것 (안)에 속해있는 바로 그것이 그 하나이다 왜냐하면 생물인 것이 칼리아스이므로 생물은 [칼리아스의] 로고스 (안)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 자체 안에 무엇이 처음으로 받아드려지거나 또는 그 자체의 어떤 것[이 그 하나이다] 예를들어 그 표면은 그 자체로(에 따라) 희고 사람은 그 자체로 살아있다에서 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인간의 어떤 부분이며 이 영혼 안에 생명이 처음으로 [속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자신 이외의 알론한 원인이 있지 않는 그것[이 그 하나이다] 생명(물) 두발등 사람의 원인들은 여럿이나 사람은 그 자체로 한 가지로(ἕως 1022a34)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하나[인 어떤 것]에 속하고 그리고 하나일 것[이 그 하나이다] 이 때문에 분리된 것(τὸ κεχωρισμένον 1022a35-36) 은 그 자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말은 다음 처럼 짧게 설명될 수 있으리라

어떤 것에 따라 예서의 어떤 것에는 프라그마토스의 에이도스 또는 우시아(예를들어 선(善)) 과 자신 안에서 무엇이 처음으로 생성되는 바로 그 자신(예를들어 질료 와 기체) 과 원인 과 위치 또는 자리가 속하므로 어떤 것에 따라 있는 것들은 에이도스 와 우시아에 따라 또는 질료 와 기체에 따라 또는 원인에 따라 또는 자리에 따라 있는 것들인 반면에

그 자체에 따라 예서의 그 자체에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자신 안에 무엇이 처음으로 받아드려지는 그 자신(예를들어 힘을 받아드리는 표면 과 생명을 지니는 영혼) 과 배타적인 원인 과 분리된 하나인 것 등이 속하므로 그 자체로 있는 것들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또는 영혼 또

1029b15) 아니므로 당신에²⁹⁸⁾ 있음(τὸ σοὶ εἶναι 1029b14)은 음악적으로 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 자체가 그것 [곧 (당신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그러나,

실로 이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표면에 있음은 힘에 있음이 아니므로 표면 흰 과 같은 것도 그 자체(καθ'αὐτὸ 1029b16)(있는 것)이 아니며 그 것²⁹⁹⁾(αὐτὸ 표면 자체? 1029b19)이 반복되므로 이 양자로부터 이루어진 '흰

는 배타적인 원인 또는 분리된 하나 등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는 '어떤 것에 따라'에서 '.....따라'에 대해 말하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어떤 것에 따라에있어서의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나으리라 따라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그 자체로 있는 것 곧 스스로 있는 것이어서 어떤 것에 의해서 비로소 생성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결론지어 말할 수 있다

298) '당신 자체로' 라고 옮기는 것이 더 나을 성 싶다 여기서 문제는 '그 자체'이다 본문에는 자체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삽입해 넣어 주어야 할 것 같다 자체 라고 말할 때 내가 염두에 두는 말은 'αὐτὸ' 이다 '하우토' 라는 이 말은 논문 내내 나를 괴롭힐 것 같다 (42, 72, 124, 205, 226, 278 쪽을 참조하시오)

299) 그것이 어떻게 쓰였을까 인칭 대명사 중성 3인칭 단수 1 또는 4 격 이니 앞 문장에 나타나는 중성 명사를 가리키거나 또는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중성 명사를 가리킨다면 그 중성 명사는 무엇인가 흰 표면에 있음일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자체(itself)'로 보면 어떨까 흰에 있음 과 표면에 있음 으로 이루어진 흰 표면에 있음 또는 표면 흰에 있음에는 있음이 반복되어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것에) 있음을 (어떤 것 그)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어떤 것 그 자체라고 그가 했으니 그럴 법도 한데.....어쨌든 현재 나에게서는 애매하다 그러나 그 자체 또는 있음이 반복되는 것으로

표면에 있음'도 그 자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고스에 그것 (자체)가 주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 (자체)를 말하고 [있는] 이것(οὗτος 1029b20)이 바로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이다 그러므로,

만약 흰 표면에 있음이 부드러운 표면에 있음 이라면 흰 표면에 있음은 부드러운 표면에 있음과 **동 일**할 것이다(τὸ αὐτὸ καὶ ἔν 1029b22) 그러나,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질 량 시간 장소 움직임 등에서 처럼 각 [범주]에 상응하는 어떤 것이 있으므로 알론한 범주들에 따른 복합(σύνθετα 1029b23)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들 각각에 있어지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있는 가를 조사해야 만 하며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힘에 사람으로 있어지는 그 무엇이 흰 사람에 [속하는 가를 조사해 보는 것] 처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이러한 것(복합)들에 속하는가를 조사해야 만 한다 자,

외투라는 이름을 그 (복합)으로 [간주] 해 보자 외투에 있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 자체로 말하여지는 어느 것들도 아니다 그 자체로(있지) 않는 것은 [다음] 두 가지로 말하여진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더함(προσθεῖς εως 1029b30)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하나는 예를들어 힘에 있음을 정의하는데 흰 사람의 로고스를 말하는 것 처럼 정의되는 것이 그 자체 알론한 것에 더해져 말하여지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정의되어져야 할 것 [대신]에 알론한 것이 [정의되는 경우이다] 예를들어 만약 외투가 흰 사람을 가리킨다면 흰 사람은 한 편으로 희지만 있어지고 있는 무었은 힘에 있음이 아니라 외투에 있음이므로 외투를 흰 으로서 정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τὸ τι 1030a2)은 '것' 전체인가 아닌가 (τι ἢ ὅ λως ἢ οὐ ; a2-3)³⁰⁰ 있어오고 있는 바로 [그]것(τι 1030a3)이 있어오고 있

보고싶다 로스는 '표면 자체'라고 한다(로스 167, 786 쪽 참조)

300) 외투에 있음이 전체적으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 아닌가 아마 아닐 것이다 라고 로스는 옮긴다

는 그 무엇(τι 1030a3)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여질 때 [그 알론한 것은] 바로 이 것(ὅπερ τὸδε τι 1030a4)이 아니다 예를들어 흰 사람은 바로 이것이 아니다 이 것은 단지 실체들에게만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고스가 정의 일 때 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 이름 과 로고스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면 정의는 있지 않다 무엇이든지 간에 일련의 로고스들을 위한 어떤 이름들이 있어서 심지어 일리아드조차 정의일 것이므로 모든 로고스가 정의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첫 번째인 어떤 것이 있을 때에 만 [정의가 있다] 이 (첫 번째) 것들은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여지는 알론한 것이라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어떤 류의 에이도스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에이도스들)에만 속해 있다 이것들(에이도스들)은 관여적인 것이라고도 속성이라고도 우연적인 것이라고도 말하여지지 않는 것 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고스는 한 편으로 각기 것의 [로고스] 이며 알론한 것들의 어떤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어떤 것이 어떤 것에(τὸδε τῶδε 1030a15) 속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이름은] 단순한 로고스 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이름은] 정의도 아닐 뿐 더러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도 아니다 또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있는 그 무엇이 한 편으로 실체 와 이것을 가리키며 다른 한 편으로는 량질과 같은 카테에고리아이 각각을 가리킨다 (그가) 있다는 같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것에 속한다 그러나 한 편으로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방식으로 있는 그 무엇이 순수하게(ἀπλώς 1030a23) 실체에 속하는 반면에 어떻게 든 알론한 것들에도 속한다 심지어 우리들은 질에 관해서조차 그 질이 무엇으로 있느냐 라고 물어 볼 수 있으리라 질 역시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하게가 아니라 있지 않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는 것도 있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³⁰¹⁾ 질도 역시

301) 소피스테이스 103 쪽 과 104 쪽을 참조하십시오

이와같다

의심할 것도 없이 우리는 각기 옷점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도 반드시 조사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넘어서서는 않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분명하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한 가지로(ὅμοιως 1030a29) 실체에 속하며 그 다음으로 알려진 것들에 속한다 있는 그 무엇이(τὸ τι ἔστιν³⁰²) 1030a31) 순수하게 있어지고 있는 무엇(τι ἦν εἶναι 1030a31) 아니라 질에 또는 량에 있어지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말이다 이것들은 반드시 호모뉘모스하게³⁰³(동음이의어적으로) 말하여지고 있는

302) 여기서 우리는 텔레스가 있는 그 무엇 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있는 그 무엇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량 과 질 등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그 무엇일 뿐이다 순수하게 보자면 이 둘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자면 이 둘은 같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에 만 지금 나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

303) 실체 와 차이들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시노오뉘모스하게(동음동의어적으로) 말하여진다 라는 카테아고리아이에서의 말을 비교해 보라(175 - 176 쪽) 거기서 실체 와 차이로부터 [말하여지는] 모든 것은 동음동의어적으로 말하여진다 해 놓구선 여기서 있는 그 무엇이 곧 실체 이외의 범주들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동의이의적으로 말하여진다 라고 말한다 또 형이상학 1060b32-35에서는 만약 있는 것이 동음이의어적으로 말하여져서 어떻게든 그 다양한 쓰임새에 공통적인 것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있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첫 번째 곳에서는 실체 와 차이로부터 [말하여지는] 모든 것은 동음동의어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며 두 번째 곳에서는 실체이외의 범주들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동음이의어적으로 말하여진다 하고 세 번째 곳에서는 있는 것이란 동음이의어적으로 말하여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자,

다시 정리해 보면 실체 와 차이로부터 [말하여지는] 모든 것은 동음동의어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이고 실체 이외의 범주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동음이의어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이며 있는 것은 동음이의어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어거지로 잇대본다면 실체 이외의 범

것들이며 또한 얇 아닌 것이 얇이다 라고 말하여지듯이 [있음을] 더하거나 빼내어 말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호모뉘모스하게 또는 그와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다 라고도 하나라고도 호모뉘스한 것이라 고도 말하여지지 않는 약을 동일한 것 과 하나에대해 적용하듯 말하는 것이 올바르다 호모뉘모스하게 또는 하나에 따라서(καθ'ἑν 1030b3) 약은 몸 과 효과 와 도구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대해(πρὸς ἑν 1030b3) [그렇게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것으로 말하든 차이 없다

정의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실체에 속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실체에 속하는 것과] 똑 같이 알려진 것들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곧 첫 번째 보다 많이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드린다면 [모든] 로고스와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정의가 잇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로고스와 동일한 정의가 잇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조건은 일리아드와 같은 어떤 연속에의한 하나가 아니라 또 함께 묶어짐에 의한 하나가 아니라 있는 것에 상응하는 것으로서의 하나 인 어떤 것의 로고스가 정의라고 말하여진다

있는 것은 한 편으로 이것을 가리키며 다른 한 편으로는 량 또는 질

주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든 동음이의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이나 있는 것은 동음이의어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체 이외의 범주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과 있는 것은 동일한 방식(길)로 말하여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잇따르게 될 것이다 있는 것이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험태론한 방식으로 말하여진다 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말이 아니다 실체 이외의 범주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역시 어떻게든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실체 또는 있음 또는 있는 것이 말하여지는 길(방식)은 지금 나에게 매우 흥미롭다 적어도 실체 와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만큼은 호모뉘모오스하게도 그리고 ὁσαύτως (1030a35)가 쉬모오뉘모오스하게로 옮겨질 수 있다면 쉬모오뉘모오스하게도 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여기에서는 분명해진다 그러나 있는 것도 그렇게 말하여진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인 것을 가리킨다 이 때문에 흰 사람의 로고스 와 정의가 **있다** 그러나 흰
의 로고스 와 정의 그리고 실체의 로고스 와 정의와는 알론한 길로 **있다**

3 장에서 4 장으로 넘어 오면서 그는 실체 보다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레 그 무엇을 축으로하여 논리가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에타 앞
장들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실체에 관한 로고스들을 한 자리에 모아 보는 것
도 뒷 생각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실체

는 가장 먼저 있는 것(범주 곧 무엇)을 가리킨다

는 카테에고리아이 안에 나타나는 것들이며 카테에고리아이들의
기체인 것들이다

는 반드시 순수하게(단적으로) 있는 것이다

는 로고스에 있어서든 인식에 있어서든 시간에 있어서든 알론한
모든 것 보다 가장 먼저(첫 번째) 라고 말하여진다

는 최소한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보편자 와 류 와 기체 라
고 말하여지는 것 처럼 보인다

는 모든 알론한 것들이 자신의 카테에고리아 이지만 자신은 알론
한 모든 것의 카테에고리아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체와 같
다 그러나 기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기체는 질료 라고
도 모르페라고도 질료와모르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말
하여지므로 질료 와 모르페 와 이 양자로 이루어진 것은
실체가 아니다

는 분리된 이것이다 분리 와 이것이 주로 실체에 속한다고 말하
여진다

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이러한 제에타 1 - 4 장에 나타난 실체를 카테에고리아이 와 델타 편
에 나타난 실체와 비교해보자(284 - 287 쪽 참조) 먼저,

범주들에서 나타난 말들을 마지막으로 요약해보자

실체

가 반대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실체에 가장 고유하다 그렇다고

실체가 반대들인 것은 아니다

는 더 많고 적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는 헤테론한 실체 보다 더 또는 덜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는 첫 번째 실체가 두 번째 실체 보다 더 실체이며 두 번째 실체

가운데 종이 류 보다 더 실체이다

는 모두 이것을 가리킨다

는 기체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체의 어떤 것도 아니다

실체

는 다른 모든 것들의 기체이다

가 있지 않다면 알론한 모든 것도 있지 않다

다음으로 형이상학 델타 편에 나타난 실체들을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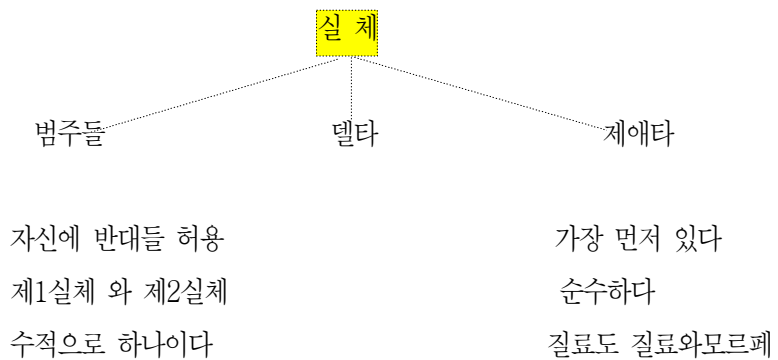
실체

는 궁극적인 기체(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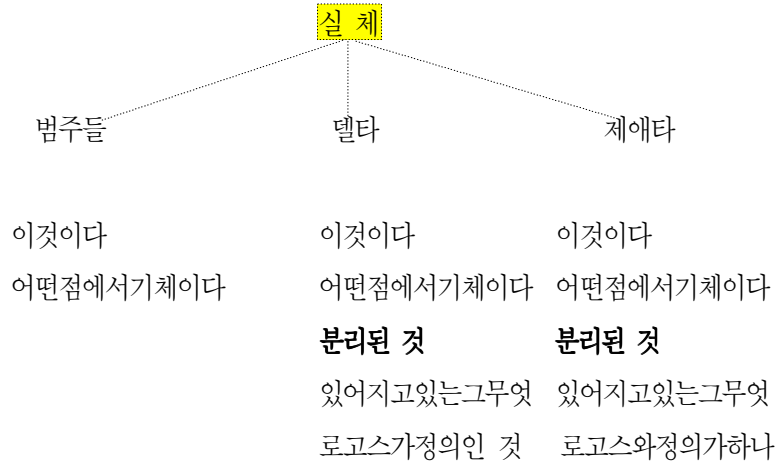
는 분리해 있는 이것(종) 으로서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
엇이다

는 자신의 로고스가 곧 자신의 정의인 것이다

한번 더 이 세곳에 나타난 실체를 비교해 보자 먼저 각기 곳에서 새
롭게 말하여지는 것들과 공통으로 말하여지는 것들을 다음 처럼 나타내 보
자



더 덜 하지않다
쉬모뉘모스하다
나뉘지 않는 것



앞 쪽에스 드러났듯 범주들 과 형이상학에서 실체에 관해 말하여지는 것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286 - 287 참조) 그 가운데 내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차이는 뒤에서는 실체란 분리 된 것이며 질료 와 모르페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앞에서는 사람인 것(어떤 사람)이 제 1 실체 라고 말하여진다는 점이다 물론 분리가 무엇과 분리된 것을 말하며 사람인 것(τ)에있어서의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먼저 분명해 져야하긴 해도 말이다 내가 보기에는 사람인 것 또는 어떤 사람은 질료 와 모르페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개별자)이기 때문이다

실체에 관한 언급³⁰⁴)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언급을 요약해 보도록하자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본질)
은 (각기 것의)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진다
은 에이도스들에 만 속해 있을 뿐 류(의 에이도스)에는 속해 있

304) 이러한 언급에 417쪽 언급을 덧붙혀보라

는 것이 아니다

도 정의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실체 와 이것을 가리키기
도 하고 량 질과 같은 카테아고리아이 각각을 가리키기
도 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리고 순수하게(단적으로)
실체에 속하며 그 다음에 알론한 것들에 속한다

의 로고스에는 그 무엇이 주어지지 않은 채(μὴ ἐνέσται³⁰⁵)
1019b19-20) 그 무엇이 말하여진다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본질)

의 로고스가 정의 일 때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었은 있다³⁰⁶)

에 있는 그 무엇이 순수하게 속하는 것은 아니다 있는 그 무었
은 질 또는 량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었일 뿐이다

따라서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었은 가장 먼저 그리고 순수하
게 실체에 속하는 것이며 자기 스스로 있는 것이고 자기의 로고스 와 정의
가 동일한 것이다 그는 본질(있어지고 있는 그 무었)을 그 로고스 와 정의
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4 가지로 그가 3 장에서 답했다는
것은 299 쪽에서 말하여졌으며 있는 것을 추적하는 실마리로 실체를 내세워
실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그가 1 장에서 던지고 있다는 것은 291 쪽에
서 말하여졌다 2 장에서는 소피스테아스를 본딴 것 처럼 보이는³⁰⁷) 실체에

305) 이 에네스타이 라는 말이 애매하다 ἐνέσται가 ἐνίστημι의 변화 형 일
까 엔이스테아미는 to put, set, place in, 등을 뜻한다는데.....그렇다면 일견
거기에 주어지다 놓여지다 또는 있다 위치하다 또는 위치해있다 라고 옮겨
질 수 있을 것 같은데....무슨 변화 형이지 ? 완료형일까.....

그 변화 형이라면 이 말을 에이나이와 어떻게 구별해야하나, 생각으
로만 있는 것일까 아니야 있는 것은 누우스도 있는 것이니 그렇지 않는
게야 말로 만 있는 것일까....? 말 과 있음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통용될 수 있을까 그렇것 같지 않다 휴우

306) 있다 라고 하는 게 올바른 건지.....오히려 말하여진다 라고 하는게 낫
지 않을 런지

관한 자신 이전의 이론들을 정리 비판한다 이제 그는 4 장에서 실체 보다는 오히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4 장 번역 요약에서 보여졌으리라 그런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그는 *이름 과 로고스 와 정의* 라는 말들을 자주 쓴다 이 말들을 매개로해서 5 장이 4 장에 이어지는 듯하다 물론 이 말들은 제아타 편 끝날 때 까지 자주 또는 종종 각 장에서 쓰여지며 12 장에서는 이 말들에 대해서만 말한다 우선,

4 장에서 쓰여진 이 말들을 정리하기 전에 그 무엇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는 길에 대해 그가 말한 것을 짚막하게 요약해보자

인식은 어떠한 것이든 각자에게 인식된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각자에게 인식된 것은 본디 아주 적으나 작은 이 각자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체에게 인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배움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배움이란 덜 인식된 것을 거쳐 더 인식될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배우는 사람의 임무는 각자에게 선한 것으로부터 전체 선을 각자를 위한 선으로 만드는 실천에 있어서 처럼 각자에게 더 인식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연적인 인식을 각자에게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자연 인식에 이르는 길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 자연 인식에 이르는 길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 전체 인식에 다다르는 길이다 301 쪽 각주 296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나는 여기서 각자에게 맨 처음에 인식된 것은 거의 실재성을 지니지 못한다 라는 그의 말이 나에게 흥미롭다 직역하자면 그 인식은 거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인데.....

이름 과 로고스 와 정의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먼저,

이름 과 로고스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면 정의는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일련의 *로고스*가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일련의 *이름*이 가리킬 것이

307) 292 쪽 가구 283 번 참조하시오

므로 심지어 일리아드조차 정의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로고스가 정의일 것이다 그런데 로고스가 정의일 때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으므로 [모든 로고스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모든 로고스(말)이 정의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정의도 가장 먼저 그리고 순수하게 분명히 실체에 속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알론한 것(범주)에 속한다 그러므로 알론한 것에 속하는 정의는 실체에 속하는 정의보다 더 많은 정의도 아니요 똑 같은 정의도 아니다 이렇듯,

정의는 모든 로고스와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로고스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일리아드 처럼 연속에 의한 어떤 하나 또한 함께 묶어진 어떤 하나가 아니라 있는 것[에 상응하는] 하나인 어떤 것의 로고스가 정의 라고 말하여진다[우연적인 하나에 대해서는 317쪽참조]

(실체와) 알론한 범주들에 따른 복합들 각각에 있어지는 그 무엇의 로고스도 있을까 예를들어 ‘흰 사람’의 ‘힘에 사람으로 있어지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있을까 ‘흰 사람’이라는 복합은 그 자체로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있는 것들³⁰⁸)을 다음 처럼 정의해서는 않된다

‘흰 사람’을 ‘외투’가 가리킨다고 해보자 이 경우 흰 사람은 한 편으로 회지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힘에 있음이 아니라 외투에 있음이므로 외투를 흰 으로서 정의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는 않된다 또한 힘에 있음을 정의하는데 흰 사람의 로고스를 말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정의되는 것이 그 자체 알론한 것에 더해진다 이런 식으로 정의해도 않된다 나중 정의는 어떤 것(힘에 있음)을 정의하는데 그 어떤 것을 알론한 것에 덧붙혀 (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앞 정의는 어떤 것(힘에 있음)을 정의하는데 그 어떤 것 대신에 알론한 것(외투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³⁰⁹ 정의하면 안된다 라고 그는 말한다

308) 범주들도 그 자체로 있는 것들임을 기억하라 279, 304 쪽을 참조하시오

309) 로스는 빠뜨리는 식으로 라고 말한다 ‘is omitted in the definition(167 쪽)..... ’

한 사람의 로고스 와 정의도 있긴하다 그러나 힘의 로고스 와 정의 그리고 실체의 로고스 와 정의와는 알론한 길로 있다 있는 것은 한 편으로 이것을 가리키면 다른 한 편으로 량 또는 질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자신의 로고스 와 자신의 정의가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단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일 뿐이다 그러기에 그 무엇의 로고스 와 정의는 동일하다 고로 정의되는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일 뿐이다 알론한 것으로 이루어진 복합은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단지 그 정의에 속할(?) 뿐이다³¹⁰⁾

이어지는 그의 말을 따라가 보자

(V) 더함으로 이루어진 로고스(도) 정의이다를 어떤 사람이 거부한다면 순수한 것들이 아니라 연결된 것들의(συνδεδυσσμένων; 1030b16) 어떤 정의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어려움이 있다 반드시 분명히 더함으로부터 [그것들은 정의될 것이기³¹¹⁾] 때문이다 예를들어 코 와 폭 꺼짐이 있으며 [이 둘 가운데] 어느 것 안에 어느 것이 [주어짐에 의해서] 이 둘로부터 이루어진 들창이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우연적이 아닌 코의 그 자체 속성(πάθος 1030b19)이 폭 꺼짐 또는 들창이다 힘이 칼리아스 또는 사람에게 속하듯 속하지는 않는다 칼리아스 혹은 사람에게 우연적으로 [속해]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컷이 생물에 속하고 똑 같음이 량에 속하듯 속한다 라고 말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 이것들의 속성들은 자신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그것의] 로고스 와 이름들에 속해있는 그러한 것들이며³¹²⁾ 그리고 [그것과] 분

310) 더해지거나 빼질 뿐이다?

311) 그 자체로 있는 것들은 이런 더함으로부터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

312) 이 부분을 옮기려다 내 이성은 파산 당했다 대충 옮겨 보았으나 부끄러울 뿐이다 로스의 번역을 여기에 옮겨 적으므로서 그나마 이것을 보는 이

리되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다 예를들어 흰은 사람 없이(ἄνευ 1030b25) 설명될 수 있으나 암컷은 생물 없이는 설명 될 수 없는 것 처럼 말이다 따라서,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며 과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의 정의도 있지않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던 것 처럼 그 무엇이며 과 그 정의가 있다면 알론한 [방식]으로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에 관한 헤테론한 두 번째 어려움이 있다³¹³⁾ 만약 들창 코 와

들에게 보답하고자 한다 “ 특별한 속성의 기체의 이름 또는 로고스를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속성들이다 (789 쪽) ”

313) 여기서 첫 번째 어려움을 정리해야할 필연성이 지금 나에게 있다 헛갈리는 것은 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실체 또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를들어 흰 사람, 폭 꺼진 코(들창 코)등과 같이 자신의 로고스가 정의인 것들이 아니다 이것들에게도 정의가 있을 수 있을까 어려운 물음이다 이것들 그 자체로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보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달리 보면 있다 바로 이 달리 보면 그 정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어째서 어려운가

흰 사람 과 들창 코 같은 것들은 어떤 것에 덧 붙혀져야만 비로소 그 로고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 어떤 것에 분리 되서는(그 어떤 것 없이는) 그것들에 관한 로고스를 결코 얻을 수 없으므로 그것들에 관해 말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흰이 사람에 폭 꺼짐이 코에 수컷이 생물에 폭 같음이 량에 덧 붙혀져야 - 물론 덧 붙혀짐은 우연이다 - 만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로고스가 얻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자체 어떤 것에 속하므로 속성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그 로고스 와 이름에 부분으로서 속해 있어야 만 한다 텔레스에 따르면 이러한 로고스도 정의인가 라는 물음은 답하기 어렵다 앞 설명에 따르면 정의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306쪽 참조) 물론 이러한 정의들은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정의가 아니다 순수한 정의와는 다른 정의들이다

폭 꺼진 코(συνή ρις καὶ κοίλη ρις 1030b29)가 동일한 것이라면 들창 과 폭 꺼짐은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들창이) 그것의 자체 속성인 그 프라그마(코?) 없이는 그 들창에 관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 들창은 코 안이 폭 꺼져 있기 때문이다 - 코가 들창 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거나 또는 코 코 폭 꺼짐 이라고 동일한 것이 두 번 말하여질 것이다 들창 코는 코이며 코가 폭 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속하는 것은 불 합리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들창 코에 알론한 코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지 실체의 정의 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알론한 카테에고리아이 의 정의가 있다면 반드시 [그 실체에] 덧 붙혀짐으로부터(ἐκ προσθέσεως 1031a2) 있게 될 것이다 예를들어 질의 그리고 엄청난 량(περιττού 1031a3) 의 [정의 처럼 말이다] 엄청난 량(홀수)은 수 없이는 [정의 될 수 없으며] 생물 없이는 암 것이 [정의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처럼 동일한 것을 두 번 말함으로서 얻는 것을 나는 덧 붙혀짐으로부터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예를들어 홀 수에서 처럼 연결된 것들의 [정의]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로고스]들이 정확하지 않

로고스와 동일한 정의를 지니는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 일 뿐 이어서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의 로고스는 정의와 동일할 수 없음을 주의 깊게 다시 새겨 보고서 이 어려움에 부딪혀 보라 이크,

그런데 두 번째 어려움 까지 요약하고 나니 내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 그 첫 번째 어려움은 그 덧 붙혀짐이 우연이라는 데 있고 그 두 번째 어려움은 예를들어 들창 코 등이 지니는 언어적인 어려움이다 만약 들창 코 와 들어간 코가 동일하다면 들창(코) 와 폭 들어감이 동일한 것이 될 것이고 동일하지 않다면 코가 들창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거나 동일한 말 코가 두 번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들 창코 같은 것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 면 들창 코 안에는 알론한 코가 항상 주어지게 되므로 있음이 무한히 반복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겠구나.....

으므로 이것은 별로 주목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의 정의가 있다면 우리들이 앞에서 말한 것 처럼 알려진 길에서 그렇다 정의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를 제외한 어떤 것에 속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보면(ωδì 1031a10) 실체를 제외한 어떤 것의 정의도 있지 않다 실체를 제외한 그 어느 것에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실체를 제외한 그 어떤 것의 정의도] 있다 그렇다면,

정의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이라는 것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만이 대 부분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순수하게 실체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5 장은 주로 로고스 와 정의 라는 말을 쓰면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4 장의 일 부분도 그러하다는 것을 나는 312 - 313 쪽에서 지적해 냈다 그러므로 4 장 일부 와 5 장은 로고스 와 정의 라는 말을 사용하여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두 장에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바로 정의 라는 ‘로고스’가 흐르고 있다 바로 이 로고스가 논리적으로 펼쳐진다

정의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이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흰 사람 과 들창 코와 같이 연결된 것들 또는 복합적인 것들의 정의는 있을까 4 장에서는 예를들어 흰 사람의 로고스는 있을까 라는 물음이 5 장에서는 예를들어 들창 코의 정의가 있을까 라는 어려운 물음들이 제기된다 이 두 보기들은 동일한 것들이 아니다 흰 사람 과 흰 표면에 있어서는 흰이 사람 과 표면에 우연적으로 속해 있으며 사람 과 표면 없이도 흰은 설명될 수 있는 반면에 들창 코에 있어서는 들창 (코)가 문제의 프라그마에 그 자체로 속해 있어서 그 프라그마(코?) 없이는 들창이 설명될 수 없다 ‘홀 수’ 와 ‘수컷 생물’도 이와같다 홀은 수(數)에 수컷은 생물에 그 자체로 속해 있지 우연적으로 속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의 정의가 있을까 먼저,

4 장의 논증을 짧게 말해보자 그가 논리적으로(λογικώς 1029b13) 말하고 있음에 유의하라

그 자체(있는 것 또는 있음)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라고 말해 놓구선 텔레스는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는 것에 흰 사람 과 흰 표면 등이 속한다 첫째,

음악적인(으로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이 당신은 아니므로 당신에 있음은 음악에 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 자체는 당신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일 뿐이다³¹⁴)

314) 이 첫 논증에서 보기로 들어지고 있는 ‘음악적인(μουσικός 1029b15)’은 범주론 11a28에서도 ‘음악(ἡ μουσική)’ 이라고 나온다 거기에서는 질 과 관계이 어떻게 헤테론한가 를 설명하는 가운데 음악(적인)이 그 보기로 들어진다 거기에 따르면(209 - 210 참조),

습성 과 성향은 질에 속하기도 하며 관계에 속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둘은 질 이며 동시에 관계인가 동시에 질이면서 관계라면 질 과 관계는 헤테론한 범주들이 아니게 될 것이고 텔레스의 범주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범주들은 순수한 것이며 그 자체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습성 과 성향은 그 류에 있어서는 관계이지만 그 각각에 있어서는 질이다 라고 말함을 통해 어려움에서 벗어나면서 그는 그 보기로 앎 과 문법 과 음악을 든다 문법 과 음악은 질에 속하며 앎은 관계에 속한다 류(예를들어 앎)는 헤테론한 어떤 것의 (류)그것(예를들어 앎) 이라고 말하여지지만 각각의 것은 헤테론한 것의 그것(예를들어 음악)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으므로 앎은 헤테론한 어떤 것의 앎이라 말하여지는 반면 문법 또는 음악은 헤테론한 어떤 것의 문법 또는 음악이라고 말하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가 들고 있는 ‘음악적인’은 질 이라는 카테고리아에 속한다는 것을 볼 수있다 계속 이어지는 말들에서 여러 차례 보여졌지만,

범주 예를들어 질도 가장 먼저 순수하게 주로 말하여지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말이다 둘째,

표면 흰 뿐만 아니라 힘 과 표면으로 이루어진 ‘흰 표면’도 역시 그 자체가 아니다 흰에 있음은 표면에 있음이 아니므로 표면 흰은 그 자체가 아니며 그것(표면 자체?)이 반복되므로(πρόσθεσιν 1029b19) ‘흰 표면’은 그 자체가 아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에 범주들이 연결된 복합적인 것들이다 이런 것들 역시 그 자체(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셋째로,

넘어가기 전에 그는 로고스³¹⁵)라는 말을 이끌어들인다 1-3 장에서는 한 두 번 나오나 4 장 만으로 볼 때 이 이전 까지는 로고스 라는 말이 한 번도 안나온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할 때 이 로고스 와 정의 라는 낱말이 그 자체 라는 낱말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에는 그 무엇이 주어지 있지는 않으나 그 무엇이 말하여지고 있다³¹⁶) 셋째,

예를들어 흰 사람 처럼 범주들이 (그 자체에 또는 실체에) 덧 붙혀져 이루어진 것들에(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속하며 이런 것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있을까³¹⁷)

우선적으로 순수하게 가장 먼저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실체 들 가운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 뿐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범주들고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지는 것에 속한다

315) 로고스는 일차적으로 말로 옮기는 가장 나오나 명제 또는 논의 또는 문장 또는 설명 으로도 옮길 수 있으리라

316) 여기서 말 과 있음을 분리할 수 있을까 그렇지 만은 않은 것 같다 ‘ μ ἢ ἐνέσται (1029a20) ’가 쓰였지 ‘ εἶναι ’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17)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참 있다가 ‘ ‘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 부정형

이런 복합들은 그 자체로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말하여지는 것들은 무엇에 덧붙혀져 말하여지는 것도 아니며 [그렇지 않는 것도] 아니다 ‘흰 사람’ 그리고 ‘외투 흰 사람’을 보기로 들어보자 흰 사람의 경우, ‘힘에 있음’을 정의하는 사람들은 흰 사람의 로고스를 말하게 될 것이므로 정의되는 것(힘)이 알려진 것(사람)에 덧붙혀져서 말하여진다³¹⁸⁾ 그 자체로 말하여지는 것들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외투 흰 사람’의 경우는 ‘흰 사람’의 경우와 같지는 않다 정의되어져야 할 것 대신에 알려진 것이 정의되어지기 때문이다 ‘흰 사람’을 ‘외투’가 가리킨다면(σημαίνει 1029a34) 흰 사람은 한 편으로 회지 만 있어지고 있는 무엇이 힘에 있음이 아니라 외투에 있음이므로 외투를 흰으로서 정의하게 될 것이다 그 자체로 말하여지는 것들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것들의 정의는 있지 않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있다 정의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이제 5 장으로 넘어가보자 정의와 로고스에 관련하여 문제의 보기들을 살펴보라

만약 [무엇에] 덧붙혀 지므로서 얻어진 로고스는 정의가 아니라면 예를들어 들창 코³¹⁹⁾ 처럼 연결된 것들의 정의가 있을 수 있을까 들창(코)은 코와 폭 꺼짐 가운데 어느 것이 다른 것 안에 [주어짐에 의해서] 연결된 것이다 본디 이것들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도 아니고 이것들의 정의도

에이나이 와 미 완료 과거 3 인칭 단수 예안이 쓰였다 - '을(그가) 있는 그 무엇 - 3 인칭 단수 에스틴이 쓰였다 - '으로부터 떼어낸다 '(그가) 있는 그 무엇'은 순수하게 있어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질 또는 량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한다 (307 쪽 참조)

318) 사람에게 덧붙혀져서 힘에 있음이 정의된다 복합들은 이 처럼 정의된다 그러나 그 자체로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319) 들창 코와 같은 연결은 흰 사람과 같은 복합은 아니다 흰은 사람 또는 칼리아스에게 우연히 속해있지만 들창은 코에 그 자체로 속해있기 - 들창은 코의 그 자체 속성이다 - 때문이다 수컷 생물 과 홀 수 등도 들창 코와 같은 연결들이다 참고로 들창(코)은 코와 폭 꺼짐의 연결이다

있지않다 그러나 본디와는 알론한 길로 보자면 있어지고 이것들은 있는 그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들의 로고스도 있다 그런데,

만약 들창 코 와 폭 꺼진 코가 동일하다면 들창 과 폭 꺼짐은 동일할 것이고³²⁰동일하지 않다면 자신이 그것의 자체 속성인 그 프라그마(코?) 없이 들창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 가능하므로 - 들창은 폭 꺼진 코 이기 때문이다 - 코가 들창이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거나 또는 코 코 폭 꺼짐 이라고 동일한 것이 두 번 말하여질 것이다 들창 코는 코이며 코가 폭 꺼졌기 때문이다

나는 동일한 것을 두 번 말함을 덧 붙임 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들창 코 와 홀 수와 같이 연결된 것들의 정의는 있지 않다 그러나

있다면 알론한 길로 있다

이상이 그가 4 - 5 장에서 이름 과 로고스 와 정의 라는 낱말들을 통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한 것이다 내가 같은 내용을 두 세 번 요약한 것은 나에게 그 내용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음악적인 사람 과 흰 표면 과 흰 사람 또는 칼리아스 과 들창 코 와 홀 수 와 암컷 생물등의 보기 들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싶었다

자신의 로고스 와 정의가 동일한 것은 실체들 가운데 단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일 뿐이다 음악적인 사람 과 흰 사람 과 들창 코등은 순수하게 말하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며 자신의 로고스 와 정의가 동일한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정의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넓게 말하면) 이것들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속하며 자신의 로고스가 곧 정의인 것들에 속한다

왜 이것들의 정의는 있지 않을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12 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충분히 분명해 질 것 같다 여기서 거듭 올려나오는 소리는

320) 그러나 들창 과 폭 꺼짐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마찬가지로 정의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는 말(로고스) 뿐이며 정의가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우연적인 것들에는 왜 정의가 속하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6 장³²¹⁾에서 그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그 각기 것과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헤테론한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므로서 그 장을 시작한다 여기서는 ‘예들들어 흰 사람’ 이라는 말이 그의 로고스를 지탱하기위해 나타난다 5 장에서 처럼 말이다 5장은 다음 처럼 끝났다

정의는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이라는 것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만이 대 부분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순수하게 실체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VI) (각기 것에)³²²⁾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각기 것(ἕκαστον³²³⁾ 1031a16)은 동일한 것 인지 또는 헤테론한 것인지를 조사해 보아야한다 이것은 실체에 관한 조사에서 쓸모있다 각기 것은 자신의 실체와 알론한 것

321) 6 장은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각기 것은 동일한가 또는 동일하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고 있는 장이다 그 자체로 있으면서 하나인 것은 동일한 그렇지 않는 것 곧 우연적인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헤테론한 것이다 우연적인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우연적인 것과 헤테론하다(다르다) 헤테론 과 동일에 대해서는 258 - 259 쪽을 참조하라

6 장에서는 그 물음에 대한 답도 흥미롭지만 그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말하여지는 것들이 훨씬 더 흥미롭고 그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관한 것들은 그때 그때 각주에서 말하여질 것이며 7 장 들어가기 전에 다시 정리 요약 될 것이다

322) 내가 괄호 안에 ‘각기 것’ 이라는 말을 집어 넣은 이유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1029b20)’ 이라는 표현을 보았기 때문이다(305 쪽 참조)

323) ‘각각’ 또는 ‘각기 것’을 범주론의 제 1 실체로 간주 할 수 있을까 (287 쪽 각주 272 번 과 283 쪽 각주 270 번을 참조하시오)

아닌 것 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각기 것의 실체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³²⁴⁾

우연히 (있는 것들)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의 경우에는 헤테론한 것 처럼 여겨진다 예를들어 ‘흰 사람’은 ‘흰 사람에 있음’ 과 헤테론한 것 처럼 말이다

동일하다면 말해지다 시피 ‘사람’ 과 ‘흰 사람’이 동일할 것이어서 ‘흰 사람에’ 와 ‘사람에’가 동일할 것이므로 ‘사람에 있음’ 과 ‘흰 사람에 있음’이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ἡ 1031a24),

우연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들이 반드시 아니다 그 극단들(τὰ ἄκρα³²⁵⁾ 1031b25)이 그런 식으로 동일한 것들로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를들어 흰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 처럼 그 극단들이 우연히 동일하

324)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그는 지금 말하고 있으나 실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자신의 로고스의 끝으로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에 대한 로고스를 펼치다 보니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건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실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로고스를 펼치고 있으며 결국 이 로고스는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제에타 편 만으로 볼 때 타 메타 타 퀴지카는 온토로지(ontology 존재론) 더 구체적으로는 우시아로지(ousiology 실체론) 이라고 말하여진다

325) 아마 힘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에 있어서의 힘 과 음악 등의 양 극단을 말할 것이다 힘 [사람] 음악에서 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 극단인 [사람에 속하는] 힘 과 [사람에 속하는] 음악은 동일한 것일까 하긴 힘 과 음악은 우연히 [사람에 속하므로] 동일할 것 처럼 여겨질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우연히 있는 각기 것은 자신에(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동일하지 않다 같다면 예를들어 힘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에 있어서의 힘 과 음악은 동일해야 할 것이니 그렇지 못하고 또한,

예를들어 사람에 있음 과 흰 사람에 있음에 있어서의 흰 사람 과 힘이 동일해야 할 것이니 그렇지 못하다

게 될 것 처럼 보이나 [실은] 그렇지는 않을 것 처럼 보인다³²⁶⁾ 그러나,

326) ‘흰 사람’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흰 사람’이 동일하지 않는 이유는 ‘흰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으로 있는 것은 흰 사람으로 있는 것과 동일하지 않고 흰 사람으로 있는 것은 사람으로 있는 것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흰 사람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흰 사람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인데.....그렇다면,

‘흰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은 왜 동일하지 않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302-303, 319에 나와 있는 것 같다 비록 거기에서 들어지는 보기가 ‘음악적인 당신’이긴 해도 말이다 - 그에 의해 들어지는 다른 보기들을 너무 쉽게 생각 마라 유사한 보기들의 차이 때문에 나는 여러 번 곤혹스러워 했다 -

음악적인 사람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 과 당신은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당신에 있음은 음악에 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이 동일한 하나가 아닌 이유는 음악 과 당신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흰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이 동일하지 않는 이유는 흰 과 사람은 동일하지 않아 흰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은 서로에 동일하지 않으므로 흰 사람 과 사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 런지가 의문스럽긴 하다 첫째,

315, 318 쪽에 나타 것 처럼 흰 사람 과 들창(코) 코 라는 보기들이 서로 동일한 보기(實例)들이 아니 듯 여기에 나타난 음악적인 당신 과 흰 사람 이라는 보기들이 서로 동일한 보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며 둘째,

거기서는 음악적인 당신이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닌 이유가 음악 과 당신은 동일한 것이 아니어서 음악에 있음 과 당신에 있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인 반면에 여기서는 흰 사람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흰 사람과 동일하지 않는 이유는 흰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차적으로 거기서는 음악적인 당신에서 음악 과 당신이 문제 삼아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흰 사람에서 흰 사람 과 사람이 문제 삼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흰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이 동일하지 않는 이유는 흰 사람 과 사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그 자체로 (있는 것)들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의 경우에는 동일할까 예를들어 [자신들] 보다 앞서는 헤테론한 자연도 헤테론한 실체도 있지 않는 어떤 실체들이 있다면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실체들을 이데아들³²⁷⁾ 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선한 그것’이 ‘선한 것에 있음’과 헤테론하다면 그리고 ‘생명(ζῶο v 1031a32)(인 그것)’ 과 ‘생물인 것에(τὸ ζῶο 1031a32)(있음)’이 그리고 ‘있는 것에 (있음)’ 과 ‘있는 그것’이 [헤테론하다면] 말하여진 것들과 나란히 보다 앞선 실체들인 그러한 실체들과 자연들과 이데아들이 있을 것이기 - 만약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라면 말이다 - 때문이며 그리고 [보다 앞선 실체들 과 늦은 실체들이] 서로 단절 된다면 앎이 있지 않게 될 것이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절된다(τὸ ἀπολελυθῆαι 1031b4-5)(면)에 의해서 나는 나는 ‘**있음 선에**’(τὸ εἶναι ἀγαθῶ, b5, **선에 있음**)이 선한 그것에(τῷ ἀγαθῷ αὐτῷ b5) 속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선한 그것) **에** 선한 있음(τὸ εἶναι ἀγαθόν 1031a6)이 (속하지 않는다면)을 말한다³²⁸⁾

327)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에 대해서는 파르메니데스 71 - 72 쪽을 참조 하시오 텔레스는 여기서 이데아를 ‘자신 보다 앞선 어떤 자연 과 실체도 있지 않는 그러한 실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데아에 관한 텔레스의 근본 입장은 14 장에서 말하여질 것이다 34 쪽에 나타났듯이 형이상학은 플라톤(주의자들)의 이데아론에 거칠면서도 섬세하게 대들고 있다

328) 가슴이 설렌다 선(善) 또는 착함 과 아름다움 과 있음이 뭉뚱그려 말 하여지고 있는 여기가 바로 그의 형이상학의 첫 고비임 과 동시에 진리를 말하고 있을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착한 것에 있음 과 아름다운 것에 있음 과 있는 것에 있음은 동일하므로 착함 과 아름다움 과 있음은 하나 일 것이라는 로고스가 흐른다 관련된 로고스들을 정리해 보자 먼저,

있는 것에 **있음** 과 있는 것이 헤테론한 것이 아닌 것 처럼 선한 것에 있음 과 선한 것도 헤테론한 것이 아니다 헤테론하다면 실체와 나란히 보다 앞선 실체가 있을 것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 실체가 앞선 실체와 단절된다면 앎 뿐 아니라 있는 것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 단절된다에 의해서 나는 있음이 선한 것에 [그리고]

선한 것 자체에 속하지 않으며 이것(선한 것?)에 ‘그 있음 선함’이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왜냐하면 우리들이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인식할 때 만 그 각기 것의 앎이 있으며 그리고 선 과 알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한 것에 있음이 선한 것이 아니라면 있는 것에 있음도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에 있음도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그 각기 것이 아니다 또한,

있는 것에 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알론한 것에 있음 어느 것도 알론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있음이 선한 것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선한 것에 있음 과 선한 것은 하나 이어야 만 하며 아름다운 것에 있음 과 아름다운 것도 반드시 하나 이어야 만 한다 알론한 것에 따라 있는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있는 그리고 가장 먼저 있는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 설령 에이도스들이 아니더라도 그러하다면 충분히 그렇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에 따르자면

있는 것에 **있음** 그리고 선한 것에 있음이 있는 것 그리고 선한 것과 헤테론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헤테론하다면 실체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므로 실체 보다 먼저 실체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있는 것 으로서의 실체 보다 먼저 있는 실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선한 것에 있음 그리고 있는 것에 있음은 선한 것 그리고 있는 것과 헤테론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에 나는 첫째,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있음이 동일해야만 그의 로고스는 성립될 것이며 둘째,

있는 것 과 선한 것이 어떻게 동일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라는 로고스를 덧 붙히고져 한다 그런데 이 두 로고스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연이어질 수 있을까.....글세..... 텔레스에 따르면,

왜냐하면 우리들이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인식할 때에 만 그 각기 것의 앎이 있으며 그리고 선의 경우 와 알론한 경우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이 선에 ‘있지’ 않다면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있지 않으며 하나가 하나에 있지 않을 것이다 (각기 것에)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모두 이 처럼 [각기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선한 것에 있음이 [자신에] 속하지 않은 것은 선이 아니다

‘선한 것에 있음’ 과 ‘선한 것’은 반드시 하나 이어야 하고 ‘아름다운 것에 있음’은 ‘아름다운 것’과 반드시 하나여야한다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리고 첫 번째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 심지어 에이도스들이 아니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하다³²⁹⁾ 이와 동시에,

만약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실체는 기

동일하지 않다면 ‘있음이 선한 것에 속하지 않음’에 의해서 곧 ‘단절’에 의해서 실체는 앞선 실체와 단절된다 그러나 단절되면 앎 뿐만 아니라 있는 것 마저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절된 실체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디어이다 그들이 말하는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실체들은 기체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 아이디어들은 한 편으로는 실체들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아이디어들은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않는 공허한 말일 뿐이다 단절된 ‘실체들’일 뿐이고 인식될 수 없는 따라서 알려질 수 없는 실체들일 뿐이다 이런,

즐지에 플라톤(주의자들의) 이데아론 까지 언급되었다 내 가슴이 설레인다 라고 말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 최고의 철학자 플라톤을 정면으로 까 부수고 있다 이런 까 부숨은 아주 치열하게 타 메타 타 피지카를 관통하고 있다

329) 나는 이 부분을 옮겨 적으면서 파르메니데에스 83 쪽을 옮겨 적으면서 받은 황홀함에 비록 적긴해도 휩싸였다 여기서의 아름다움 과 착함 과 있음은 동일하다가 말하여지는 반면에 거기서는 있지 않는 것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있음을 나누어 가져야한다 라고 말하여진다

체가 아님이 분명하다 이 이데아들은 한 편으로는 반드시 실체들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기체³³⁰)가 아니기 때문이며 나누어지님(관여³³¹)에 따라서만 그러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기 것 과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우연적이지 않는 것의 경우에 동일하다 앞선 로고스로부터 그리고 각기 것을 아는 것은 (그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아는 것이다 로부터 명백해진다 아울러 심지어 많은 경우들의 열거에 의해서도 이 양자가 하나임이 선명해진다 그러나,

ㄷ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있으며) 그 자체 (있는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각각이 자신(스스로)에 있음과 동일하며 하나 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입장에 대한 소피스테이스적인 이의 제기들 그리고 소크라테이스에 있음 과 소크라테이스는 동일한가 라는 물음은 명백히 동일한 해결에 의해 대답될 것이다 그 질문이 제기되어지는 입장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질문에 대답하는 입장에는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각기 것과 어떻게 동일하며 그리고 어떻게 동일하지 않는가를 설명했다

5 장에서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무엇이 각기 것과 동일한 것은 무엇이고 헤테론한 것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가 가 말하여진다 따라서 논증이라고 볼 수있다 먼저,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각기 것과 헤테론한 것은 우연적

330) 알론한 것들의 카테고리아이(속성)이 되지 않는 반면에 알론한 것들이 자신의 카테고리아이가 된다 라는 점에서 실체는 기체이다 라는 텔레스의 로고스를 기억하라 (295 쪽 참조 하시오)

331)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여(나누어지닌다)’라는 낱말은 시적인 언어로 볼 뿐이다 관여라는 말 프라그마를 나타내지 않는 그래서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공허한 말로 간주한다 (형이상학 992a25-30 참조)

인 것이다

예를들어 ‘흰 사람’을 살펴보자 흰 사람에 있어지고 있는 무엇 과 흰 사람은 헤테론하다 왜(πώς 1032a10) 그러한가

동일하다면 흰 사람 과 사람이 동일할 것이므로³³²⁾ ‘흰 사람에’ 와 ‘사람에’도 동일할 것이고 따라서 흰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이 동일할 것이다 [그런데 흰 사람 과 사람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그 프라그마가 보여주지 않는가] 따라서 동일하지 않다 또한,

이중으로 말하여지기 때문에 우연적인 것들은 자신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흰 사람의 경우, 한 편으로 힘은 자신이 그것에 있는 ‘사람’과 희다 라는 점에서는 같다 흰 사람 과 힘은 모두 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위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흰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은 동일하지 않다 사람과 흰 사람 그리고 사람에 와 흰 사람

332) 이러한 로고스가 어떻게 나오는가 만약 흰 사람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흰 사람이 동일하다면 이것으로부터는 흰 사람에 있음 과 흰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이 잇달아야 할 것인데 그에 따르자면 흰 사람 과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이 잇따른다는 어떻게 이것이 나오게되었는지가 애매하다 더구나,

이것을 근거로해서 흰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끌어낸다 이것 또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있음과 동일시 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동일한가? 글썄..... 텔레스는 이에 대답해야한다 가만,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각기 것이 헤테론 할 때 각기 것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흰 사람인가 아니면 힘 인가 나는 여태 까지 흰 사람이고 여겼다 그런데 힘이 될 수는 없는가 만약 힘이라면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각기 것이 헤테론하다면에 있어서의 각기 것은 ‘힘’이지 흰 사람이 아닐 것이고 각기 것에 있는 그 무엇은 ‘사람’일 것이다 이런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까지 반복하고 만 있었던 셈이 되잔아.....오해였던가....

이렇게 되면 내 로고스를 수정해야 하는데.....힘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힘 과 동일하다면 사람 과 힘이 동일한 것이 될 것이다 아이고 헛갈려...

에 그리고 사람에 있음 과 흰 사람에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연한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에 이름을 붙혀 보면 그 불합리함이 분명해질 것이다 말이라는 이름을 붙혀보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곧 말(馬)에 나란히 있어지고 있는 험악한 말이 있을 것이다 말이 여럿인 셈이다 그러나 그 무었은 하나가 아닐 뿐 만 아니라 그것(들)의 로고스도 그러하다는 것은 이미 말하여졌던 것 으로부터 분명해진다 우연적인 것의 경우 하나에 있음 과 하나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만약 알론하다면 무한히 있을 것이다 한 편으론 하나의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론 하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까지 우연적인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었은 그 우연적인 것과 험악하다는 것에 대해 말하여졌다 다음으로,

그 자체로 있으며 가장 먼저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각기 것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었은 그 각기 것과 동일하다 예를들어 착함(善) 과 아름다움 과 있음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었은 착함 과 아름다움 과 있음과 동일하다

있는 것에 있음이 있는 것과 험악하다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었은 실체이므로 실체 보다 먼저 있는 실체가 있을 것이다 이데아가 이런 실체들이다 이렇게되면,

그 ‘단절³³³⁾’ 때문에 앎이 있지 않을 뿐 더러 있는 것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었을 인식할 때에만 그 각기 것의 앎이 있기 때문인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었과 험악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었이 있으며 이러한 것이 무한하게 있으므로 인식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디 인식(정의)되는 것은 하나로 있어야만 한다] 착함 그리고 알론한 경우도 이와 같다 따라서,

선이 선에 ‘있지’ 않다면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있지않으며 하나가 하나에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모두 자신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이 알

333) 단절에 의해서 그는 ‘있음이 선한 것 과 선한 것 자체에 속하지 않음’을 말한다

론한 것에 있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 있음이 선한 것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³³⁴⁾

전체적으로 보아 텔레스의 논증을 이해할 것 같다 그의 논증 보다 내게 더 흥미로운 것은 이데아론을 여기서 그가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이데아가 실체라면 실체 그 자체는 [하나 보다는 여럿일 것이다] 만약 실체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면 그리고 실체가 이데아라면³³⁵⁾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이데아에 나란한 그 각기 것의 이데아가 있을 것이므로 실체 곧 이데아는 그 자체 여럿 이거나 또는 무한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말 이데아와 헤테론한 말 이데아 그리고 또 헤테론한 말 이데아.....처럼 말이다 이러한 것은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헤테론한 이데아들은 서로에 단절³³⁶⁾되어 있어서 인식되지 않으므로 알려지지 않는다 이데아들이 이데아에 속해있지 않으며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한지 않는 것에대한 정의 또는 앎이 있을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이데아들이 실체라면 실체는 기체가 아닐 것이다 이데아들은 단절되어 있어서 알론한 것들을 자신의 카테애고리아이로 지니지 않으며 따라서 알론한 것들이 자신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데아론에 대한 그의 비판은 다른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아직 나는 플라톤 대화 편 전체에 나오는 이데아를 종합적으로 번역 분석 요

334) 아직도 나는 왜 **선** 과 **있음** 과 **아름다움**이 동일한 것이 헛갈린다 **있음**이 **있음**과 동일하다는 것은 그 근거가 있는데 **있음**이 **아름다움** 그리고 **착함**과 동일하다는 것의 근거를 잘 모르겠다 물론 지금 나는 **있음**이 **아름다움** 그리고 **착함**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다

335) 그에 따르면 이데아는 실체가 아니다 1039a25 - 1040b4 (14 장) 참조 하시오

336) 자신에 **있음** 과 자신이 동일하지 않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동일하게 있지 않다는 말이다

약 정리 하지 못 했기 때문에 텔레스의 이데아 이해가 정확한지 분별 할 수 없을 것 같다 파르메니데아스 소피스테아스 티마이오스 편에 나오는 이데아들에 대해서는 요약 정리 해 두었다 이데아론에 대한 텔레스의 비판이 내 학위 논문 근간이 될 수도 있다 텔레스에 있음 과 플라톤에 있음은 헤데론 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존재론은 달라도 너무 다를 것 같다 그 다름을 길러 내는 과정에서 나는 타 메타 타 퀴지카를 요약 정리 하는 중이다 너무,

힘든 작업이다 해 낼 수 있을는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 대신에 실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면서 그는 이어지는 4, 5, 6,.....장에서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고 있는 중이다

로고스에서 그 자체가 주어져 있지지는 않지만 정의로서 나타나는 ‘(각기 것에)있어지고 있는 무엇’은 에이도스 로서 그 자체로 있는 것이며 순수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실체에 속한다 라는 것이 4 장에서 말하여지며 5 장에서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바로 정의라는 것이 말하여지고 6 장에서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그 각기 것이 동일한 것은 착함 아름다움 있음 과 같이 그 자체로 있는 것이라는 것이 말하여진다 이제,

7 장에서는 무엇이 말하여질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1033b7)라고 말하면서 7 - 9에서는 주로 생성이 언급된다 생성하는 것 과 생성하지 않는 것이 뚜렷히 갈라진다 그런데 이러한 갈라짐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나타난다³³⁷⁾

337) 135 쪽을 보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항상 생성되고 있는 그 무엇이 어서 결코 있는 것이 아닌 것 과 항상 있는 것이어서 생성을 지니지 않는 그 무엇을 먼저 나눈다(티마이오스 27d5 - 28a1)’ 여기를 보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이도스 또는 감각적인 것들 안에 주어지는 모양(μ ορφήν 1033a6)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생성되지 않으며 그것의 어떤 생성도 있지 않고 [또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도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1033a5 - 7)’ 라고 말한다 텔레스도 분명히 생성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생성에 연관지어 말하기 시작하는 그를 뒤 따라가보자

(VII) 생성되는 것들 가운데(τῶν γιννομένων 1032a12) 어떤 것은 자연스레 생성하고 어떤 것은 기교에 의해(τέχνη 1032a13) 생성되고 어떤 것은 자동적으로 생성한다

생성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ὑπό 1032a13) 어떤 것으로부터(ἐκ 1032a14) 무엇으로 생성된다 이 무엇(τι 1032a14))을 나는 이것(τὸδε³³⁸) 1032a15) 또는 량 또는 질 또는 장소 등 카테아고리아이에 따라서 말한다 [먼저,]

자연 생성들은 자연 으로부터의 생성이다 그리고 이 자연 생성들이 그것 으로부터 생성되는 그것을 우리는 질료³³⁹)라 말한다 그리고 자연 생성들이 그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것은 자연스레 있는 어떤 것이며 그 무어는 사람 또는 자라는 것(식물) 또는 알론한 이러한 것들이다 이(무엇) 을 우리는 대 부분 실체라고 말한다

자연적인 또는 기교적인 모든 생성은 질료를 지닌다 이(생성들) 각각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τούτο³⁴⁰) 1032a21)이 그 (생성) 각각 안에 있는 질료이다 또한,

보편적으로 자연 으로부터 자연으로(καθὸ 1032a22) [생성된다] 예를들

되는 것 과 생성되지 않는 것을 ‘나눈다’

두 사람다 나누어서 생각한다고 해서 ‘분리’하는 것은 아니리라

338) τὸδε τι 가 아님에 유의하라 178 쪽을 참조 하시오

339) 297 쪽 과 300 쪽에 나타난 질료를 참조하라 질료로부터 생성된다는 말일 것이다

340) 그렇다면 질료는 있거나 또는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로스는 capacity (791)라고 옮긴다

어 자라는 것 또는 생물 처럼 생성되는 것들은 자연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연이라고 말하는 에이도스³⁴¹⁾는 [비록] 알론한 것 안에 (있긴해도) 같은에이도스이다(ὁμοειδής 1032a24) 사람이 사람을 낳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 자연을 통해 생성되는 것들이다

알론한 생성들은 생산들(만들 ποιήσεις 1032a27) 이라고 말하여진다 생산되는 모든 것들은 기교로부터 또는 뒤나뒤스(힘)로부터 또는 디아노이아(숙고)로부터 온다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자연으로부터(ἀπὸ 1032a30) 생성되는 것들이 그러하듯 자동적으로 또는 (어떤) 기회에(ἀπὸ τύχης 1032a29) 생성된다 동일한 것들이 한 때는 씨로부터 그리고 (한 때는) 씨 없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에 조사해 보아야만 한다

자신의 에이도스가 [기교를 지닌자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이 기교로부터 생성되어진다 에이도스에 의해서 나는 각기 것의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첫 번째 실체(πρώτην οὐσίαν³⁴²⁾ 1032b2)를 말한다 심지어 반대³⁴³⁾되는 것(생성들)조차 어떻게 보면 동일한 에이도스를 지니기 때문이다 결여의 실체는 대립³⁴⁴⁾되는 실체이므로 [그렇다]

341) 그는 자연을 생성에 있어서 에이도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같은(동일한) 에이도스로서 많은 알론한 생성들 안에 들어 있는 것 으로서 말이다 그러다면 자연 생성에 있어서는 자연이 곧 에이도스이로구나

342)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실체가 범주론에 나오는 첫 번째 실체와 같은 것일까 만약 내가 옳긴 것이 맞다면 에이도스가 실체 가운데 첫 번째 것일 것이다 그러나 범주론에서는 분명히 에이도스는 류와 더불어 두 번째 실체라고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166, 168 쪽 참조) 사람은 두 번째 실체인 반면 사람인 것은 첫 번째 실체이다 그렇다면 어찌된 것인가 여기서 첫 번째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거기서는 두 번째 실체라고 말하여진다 내가 잘못 옳기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kai(1032b2)라는 말로 연결되고 있는데.....

343) 반대에 대해서는 252 - 258을 참조하라

344) 결여는 습성에 대립된 것으로서 범주론에서 말하여지고 있다 238 -

예를들어 병은 건강의 부재이므로 건강은 병의 (실체)이다 아울러 건강은 영혼 안에 있는 그리고 앎 안에 있는 로고스이다 실로 건강은 이러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생각의 [결과로서] 생성된다 이것(τοδι 1032b7)이 건강하므로 만약 건강하다면 예를들어 [몸의]한결같음과 같은 이것이 반드시 속해야한다 만약 이러하다면 따뜻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사는 자신이 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 이것으로부터 움직임 곧 건강을 향한 움직임이 생산이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건강은 건강으로부터 오고 집은 집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그리고 질료를 지니는 것은 질료 없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잇따른다 치료 기교(ιατρική 1032b13) 과 집 짓는 기교가 건강 과 집의 에이도스이기 때문이다³⁴⁵⁾

나는 질료 없는 실체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한다

잠시 정리하고 넘어 가기로 하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연관지어진 생성에 대해 그는 말하고 있는 중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에이도스이며 에이도스 로부터 에이도스로

250 참조하십시오

345) 생산(예를들어 건강)의 에이도스가 (예를들어 치료)기교로 있다면 그리고 생산의 에이도스(예를들어 건강?)은 기교 지닌자의 영혼 안에 로고스(1032b5)로 있는 것이라면 기교는 영혼 안에 로고스로 있는 에이도스라는 말이되는데.....잠깐,

쓰여진 말들을 살펴보자 치료 기교는 ιατρική를 읊긴 말이고 기교는 τέχνης(1032a32)를 읊긴 말이다 이 둘을 동일시 할 수 있다면 기교를 기교 지닌자의 영혼 안에 있는 로고스 로서의 에이도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건강은 에이도스 인가 아닌가 ? 건강은 병의 실체요 병은 건강의 결여라고 하니 실체 로서의 에이도스 일 것 같긴한데..... 사람과 같은 것 으로서의 에이도스가 건강은 아닌 것 같다.....모르겠다.....텔레스가 에이도스를 고정된 것으로 예를들어 사람 만 으로 보는 것은 확실하다 범주들과 형이상학에서 에이도스의 보기로 드는 것은 예외없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에이도스는 어떤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부터 생성되기 때문이다

자연 생성은 에이도스를 자연으로서 자신 안에 지닌다 따라서 자연 생성이 이루어면서 생성되는 것이 지니게 되는 에이도스를 자연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이 자연은 에이도스와 같은 에이도스이다 예를들어 사람(에이도스)으로부터 사람(자연 으로서의 에이도스)이 자연스레(자연에 의해) 생성한다 바로 이 에이도스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그런데,

기교 생성의 경우 그 에이도스는 기교를 지닌자의 영혼 안에있다 이 기교에 의해서 생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들어 의술을 살펴보기로 하자 의사의 영혼 안에 로고스로 있는 에이도스(건강?)로부터 건강이 생성된다 따라서 건강으로부터 생성된다 건강의 부재인 병으로부터 건강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건강은 병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건축 기교(술)도 마찬가지로 건축가의 영혼 안에 로고스로 있는 에이도스(집?)으로부터 집이 생성된다 여기서 에이도스³⁴⁶⁾란 의사 또는 건축가의 영혼 또는 앎 안에 있는 로고스를 말한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생성되듯 건강이 건강으로부터 집이 집으로부터 생성된다 따라서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에 의해서 무엇이 생성될 때 그 무엇은 에이도스로부터 에이도스로 생성되며 바로 이 에이도스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그는 이러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질료 없는(ἀνευ 1032b14) 실체라고한다

여기서 말하여지고 있는 생성을 요약해 보자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에 의해 무엇으로 되는 모든 생성은 어떤 것에 의해(ὑπο 1032a13) 일어나느냐에 따라 자연스레 일어나는 생성 과 기교에 의해 일어나는 생성 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성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생성 되는 그 무엇은 범주들에 따라 말하여진다³⁴⁷⁾ 첫째,

자연적인 생성은 자연 과 질료로부터(ἐκ 103216-17) 자연스레 있는

346) 자연 생성에 있어서의 자연 으로서의 에이도스와 비교해 보라

347) 이를테면 이것 이라고 또는 얼마만한 크기 라고 또는 어떤 질이라고 또는 어느 곳에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것에 의해 사람 과 식물 등의 무엇으로 생성된다 이 무엇을 우리는 대 부분 실체라고 말한다 따라서 생성들은 자연을 지니므로 자연① 과 질료로부터 자연②을 통해(διὰ 1032a26) 자연③으로 생성은 일어난다 자연① 과 자연② 와 자연③은 모두 같은 에이도스(ὁμοειδής 1032a24)이며 바로 이 에이도스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생성 과 기교적인 생성은 질료를 지닌다 둘째,

기교에 의한 생성은 생산이라고 말하여진다 기교 또는 뒤나뫼스 또는 디아노이아(숙고)로부터(ἀπο³⁴⁸) 1032a28) [온다] 이러한 생산은 생산(되는 것)의 에이도스가 생산자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의 생산이다 바로 이 에이도스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제 1 실체 라고 말한다

예를들어 의술에 의한 건강의 생산을 살펴보자 의사의 영혼 안에 있는 그리고 의사의 앎 안에 있는 로고스 로서의 건강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생각으로부터(ἀπὸ) 온다 만약 건강하다면 그 몸이 한결같이 따스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이 따스함을 생산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하면 그 몸이 따스해 질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또는 숙고)로부터 건강을 향한 움직임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이] 생산 될 것이다 따라서 건강은 어떻게 보면 (τρόπον 1032b11) 건강으로부터(ἐξ)온다 집도 마찬가지이다 텔레스는 치료 기교(ιατρική 1032b13) 와 집 짓는 기교를 건강의 에이도스 와 집의 에이도스라 한다(336 쪽 참조) 어떤 생산들은 자연 생성들이 그러하듯 자동적으로 또는 어떤 기회에 생성된다 셋째,

348) ἀπὸ 와 ἐκ를 구분해야 할 것 같다 본디 ‘아포’ 와 ‘엑’는 모두 ‘어떤 것으로부터’ 라고 쓰이긴 해도 ‘아포’는 ‘어떤 것의 표면 으로부터’ 라고 쓰이며 ‘엑’은 ‘어떤 것의 안 으로부터’ 라고 쓰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성이 어떤 것으로부터 일어난다 할 때는 ‘엑’이 쓰였고 생산이 기교 또는 힘 또는 숙고로부터 일어난다 고 할 때는 ‘아포’가 쓰였다 이 두 쓰임새가 어떻게 구분되는 지는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하여간 구분된다

자동적인 생성에 관해 아직 그는 말하지 않고 있다 단지 자연 생성들과 생산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자동적으로 또는 어떤 기회에 생성된다 라고만 말하여지고 있을 뿐이다 덧붙혀,

기교에 의한 생성이³⁴⁹⁾ 생산(ποίησις 1032a27) 이라고 말하여진다는 것이 흥미롭다

이 정도로 하고 이에 관한 그의 말을 계속 따라가 보자

생성들과 움직임들³⁵⁰⁾의 어느 한 쪽은 생각(νόησις 1032b15) 이라 말하여지며 어느 한 쪽은 생산이라 말하여진다 아르케³⁵¹⁾ 와 에이도스로부터[의 진행이] 노에에시스(생각)이며 생각의 마지막 [단계]로 부터[의 진행이] 생산이다 알론한 중간들 각각도 이 처럼 생성된다 예를들어 건강하다면 반드시 한결같이 [몸이 따뜻해야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그렇다면 한결같음(τὸ ὁμουνθήναι 1032b19)은 무엇인가 이것(τοδὶ 1032b19)이다 이것(τούτο 1032b20)은 만약 따뜻해진다면 있다 이것(τούτο)은 무엇인가 이것(τοδὶ 1032b20)이다 이것은(τοδὶ) 잠재적으로(힘으로) [따뜻해지는 것에] 속한다 그리고 이것은(τούτο) 이미(ἤδη 1032b21) 그(따뜻해지는)것에³⁵²⁾ [속해 있다] 그렇다면,

건강의 아르케 와 움직임은 만약 기교 로부터(ἀπὸ 1032b22) 라면 영혼 안에 있는 에이도스이며 만약 자동적으로 라면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하는 그리고 기교 로부터의 생산에 있어 그 생산이 그것 으로부터(ἀπὸ 1032b24) 시작하는 바로 그것이다 치료는 아마 따뜻하게 함 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몸 안의 따뜻함은 건강의 부분에 의해서 일어나든지 또는 직

349) αἱ ἄλλαι 라는 말이 쓰였긴 하다 알론한 것들에는 기교에 의한 생성만이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기교적인 생성 뿐 아니라 자동적인 생성에도 생산 이라는 말이 쓰여지기 때문이다(340 쪽 참조)

350) 생각으로부터 오는 움직임 곧 건강을 향한 움직임이 생산이라고 말하여진다고 말하여지는 336 쪽을 참조하라

351) 생성의 첫 시작을 말한다

352) ἐπι 라는 전치사가 쓰였다 338 쪽을 참조하라

접적으로든 혹은 여러 [중간 단계들] 통해서든 건강의 부분과 같은 어떤 것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극단)이 이것을 곧 건강의 부분을 생산한다 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집의] 궁극적인 것은 돌이다 알려진 것들에 있어서도 그렇다 따라서,

미리 아무 것도 있지 않다면 생성될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생성된 것의] 어떤 부분이 곧 **질료** [라는] 부분이 미리 필연적으로 있어야 만 한다 이(질료)가 [생성되는 것]에 속해 있으며 그리고 [무엇으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질료)는 로고스³⁵³ 안에 도 있을까 청동 이라고 말하여지는 질료 와그러한 것 [으로서의] 꼴(σχῆμα τοῦόνδε³⁵⁴) 1033a3) 이라고 말하여지는 에이도스 등 청동 원인 것(어떤 청동 원)에는 양자가 있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리고 꼴(모양)은 첫 번째로 받아들여지는 류(τὸ γένος 1033a4) 이다 실로 청동 원은 로고스 안에 질료를 지닌다

생성될 때 마다 질료 로서의 저것 으로부터(ἐκ 1033a5) 생성되는 것은 저것(ἐκεῖνο 1033a6)이 아니라 저것으로된(ἐκείνῳ 1033a7 그 질료로 된) 것 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흉상(ἀνδριᾶς 1033a7胸像)은 금이 아니라 금으로 된 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건강해진]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 그것으로부터 온 [바로] 저것(ἐκεῖνο 1033a8)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질료 라고 말하는 기체 와 결여 로부터 생성 - 예를들어 건강이 사람 과 병들 으로부터 생성 - 되기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결여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건강은 사람 또는 병들 으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처럼 말이다³⁵⁵)이 때문에 한 편으로 건강은 병들[으로부터 만] 이라고 말

353) 기교적인 생성의 경우, 기교를 지닌 자의 영혼 안에 로고스 로서 에이도스가 있다 라는 그의 말을 기억하라 335 쪽 참조 하시오

354) 스케에마 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티마이오스 148 쪽을 참조하십시오

355) 본문에는 ‘건강은 사람 보다는 병들 으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로스 처럼 ‘건강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보다는 병들 으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옮겨야 그 뜻이 통할 것 같다.(로스 793)..... ἦ 는 ‘또는’을 주로 뜻하므로 병들 또는 사람으로부터 라고 옮길 수도 있을 것같은데..... 그러나

하여지는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kai 1033a13) 다른 한 편으로 건강한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만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청동에 있어서의 [특별한] 모양(σχήματος 1033a14)의 (결여) 또는 벽돌 과 통나무에 있어서의 집 [으로서의 배열의]의 결여 처럼 분명하지 않는 그리고 이름이 [아직] 없는 것들의 결여[에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저것(ἐκεῖ 1033a16 건강한 것)이 병들[으로부터 생성되어지듯이 이것들의 [결여]로부터 생성되는 것 처럼 여겨진다³⁵⁶⁾ 그래서,

저것(건강한 것)이 이 저것(건강한 것)으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 것 처럼 통 나무 흉상(ἀνδριάς ξύλον 1033a17 胸像)은 통 나무가 아니라 [‘금으로 된’과 나란히] 통 나무로 된 (흉상) 이라고 그리고 (청동 원은) 청동이 아니라 청동으로 된 (원) 이라고 그리고 (돌 집은) 돌이 아니라 돌로 된(집) 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래서 집은 벽돌이 아니라 벽돌로 된 (집) 이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흉상은 청동으로부터 (의 흉상)이라고 또는 집은 벽돌로부터 (의 집)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으므로 만약 (생성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 본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생성은 [어떤 것 으로부터의] 변화³⁵⁷⁾(μεταβάλλοντος(1033b21-22)이지 [어떤 것에] 머무름 이라고 결코 말하여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렇게 이것은 말하여진다

생성은 에이도스로부터 에이도스로 일어난다는 것과 이 에이도스가

ἦ 비교구문에서는 than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서는 보다(than)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다

356) 이런 것들로 된[아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된 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 들어 금으로된 흉상 처럼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결여 또는 병들 으로부터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것 또는 이름 없는 것의 결여로 부터(의) 무엇 이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말인가?

357) 반대 질로의 변화가 달리됨 이며 이 변화 라는 움직임은 생성 이라는 움직임과 헤테론한 움직임 이라는 카테에고리아이 언급에 유의하라 273 - 274 쪽 참조하시오

바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 질료 없는 실체 라는 것 그리고 세 가지 생성의 류가 7 장 앞 부분(1032a12 - 1321b14)에서 말하여지는 반면 7 장 뒷 부분(1032b15 - 1033a23)에서는 이 세 가지 생성 가운데 생산 이라고도 말하여지는 것들 곧 기교에 의한 생성 과 자동적인 생성에 대해 말하여진다

이러한 생성³⁵⁸)은 생각(노에에시스) 와 생산(포이에에세이스)로 이루어지는데 에이도스로부터 이루어지는 생각은 에이도스로부터 이루어지는 생각이 생성의 시작이고 이 생각의 끝 으로부터 비로소 생산이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건강의 시작은 만약 기교에 의해 건강이 생성된다면 기교에 의해 건강을 생산하는 의사의 영혼 안에 있는 에이도스이며 만약 자동적으로 건강이 생성된다면 기교적인 건강 생산이 그것 으로부터 시작하는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기교적인 또는 자동적인 생산은 에이도스로부터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 이 생각의 끝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생산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생성 이전에 아무 것도 있지 않다면 생성 될 수 없으므로 어떤 것이 생성 될려면 생성 될 것의 어떤 부분이 미리 받드시 있³⁵⁹)어야한다 바로 이 부분이 질료다 그렇다면,

질료는 로고스 안에도 있을까 예를들어 청동 고리 라는 생성(된 것)을 살펴보자 청동 이라는 질료(휠레에) 와 (동금 이라는) 꿀(모양, 스케에마) 이 자신에게 속하는 청동 고리는 로고스 안에 질료를 지닌다 그리고,

질료 로부터 생성되는 것은 그 질료로 된 그것 이라고 말하여진다 금

358) 생성 과(카이) 움직임이 그러하다 라고 본문에서는 말하여진다 기교적인 생성 과 자동적인 생성에 있어서의 생성 뿐 만 아니라 움직임도 생각 과 생산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다 이 움직임을 문제의 생성들과 동일시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은 좀 더 세밀한 분별력을 요구한다

359) 본문에는 'ὑπάρξει (1032a32)' 라는 낱말이 쓰였으나 나는 '있다' 라는 말로 옮겼다 그대로 옮기 자면 '에 속하다'라고 옮겨야 하리라 가만 아예 '에 속하다' 라고 옮겨 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나 '에 속하다' 로 옮기려면 '어떤 부분이' 1격 또는 4 격이 아니라 '여격 τινι'로 되어야 할 텐데.....

이라는 질료로부터 생성된 흉상은 금이 아니라 금(으로된) 상 이라고 말하여지며 청동 또는 통 나무 라는 질료로 된 흉상은 청동 또는 통 나무(로 된) 상 이라고 돌 또는 벽돌 이라는 질료로부터 생성된 집은 돌(로 된) 집 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건강해진 사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 사람의 건강이 그것으로부터 온 바로 ‘그것으로 된’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 사람의 건강은 우리가 질료라고 말하는 기체(사람) 와 결여(병들)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를들어 사람 또는 병들(병들)로부터 건강한 사람이 생성된다 라고 말하여지듯이 결여(병들)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병들(결여)로부터 만 생성된다 라고 말하여지지는 않는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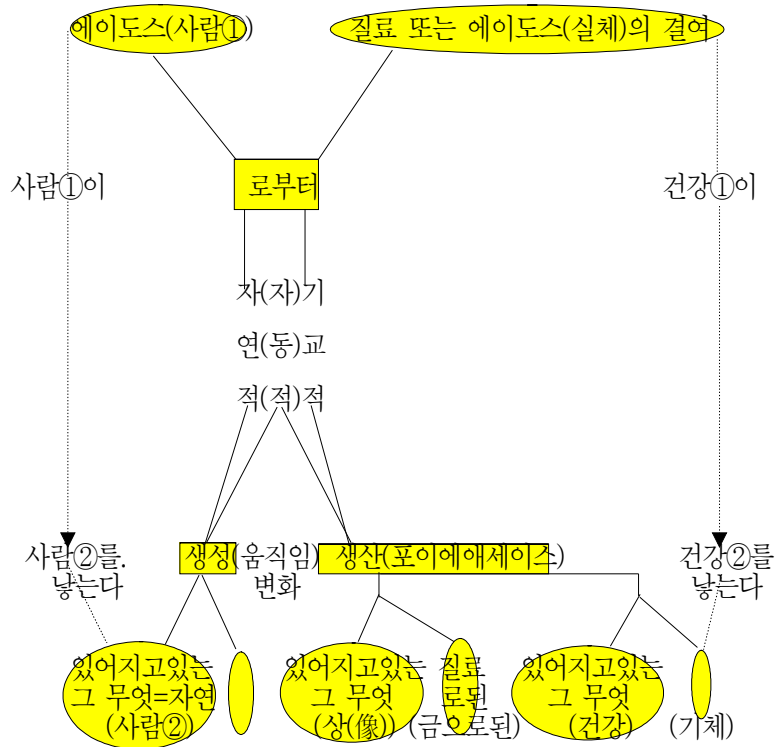
건강의 결여와는 달리 결여된 것³⁶⁰이 분명하지 않는 그리고 결여된 것의 이름이 아직 붙혀지지 않는 것들도 건강이 건강의 결여(병)으로부터 생성되듯 이 결여로부터 생성되는 것 처럼 여겨진다 예를들어 청동에 있어서의 특별한 꼴의 결여 또는 벽돌 과 통나무에 있어서의 집[으로서의 배열]의 결여 처럼 말이다³⁶¹

결론적으로 그는 생성은 변화 라고 말한다 생성이 머무름 이라고 말하여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성을 움직임 또는 변화로 보고 있다

360) 그 결여의 실체 라고 337 쪽에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건강의 결여인 병의 실체가 건강인 것 처럼.....

361) 지금 나는 애매하다 통 나무 또는 벽돌이 무엇을 결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결여로부터 생성된 것은 금으로된 상(像) 과는 달리 그 질료(금) 으로부터 된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의 보기로 건강한 사람 과 벽돌 또는 통나무(로 된?) 집 과 청동(으로 된?) 상 등을 그는 들고 있으나 이어서 벽돌 또는 통나무(로 된!) 집 과 청동(으로 된!) 상 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그는 말 하지 않는가....

생성을 다음 처럼 그려 보면서 7 장 요약을 마치기로 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에타 편에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여러 번 반복 했다 7 장 까지에서 그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311-312쪽 참조)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본질)

은 (각기 것의)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진다

은 에이도스들에 만 속해 있을 뿐 류(의 에이도스)에는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도 정의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실체 와 이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량 질과 같은 카테에고리아이 각각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리고 순수하게(단적으로) 실체에 속하며 그 다음에 알론한 것들에 속한다

의 로고스에는 그 무엇이 주어지지 않은 채(μη ἐνέχει³⁶²)

1019b19-20) 그 무엇이 말하여진다
 의 로고스가 정의 일 때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³⁶³⁾
 에 있는 그 무엇이 순수하게 속하는 것은 아니다 있는 그 무엇
 은 질 또는 량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일 뿐이다
 은 그 자체로 있는 것에서 있어지고 있을 때 자신이 그 안에서
 있어지고 있는 바로 그것과 동일하나 우연적인 것에서
 있어지고 있을 때에는 자신이 그 안에서 있어지고 있는
 바로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은 생산자의 영혼 안에 있는 생산의 또는 생성의 에이도스 이며
 자연 생성의 경우 에이도스는 자연이라고도 말하여진다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을 나는 질료 없는 실체 라고 말한다
 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생성되는 것 안에서 자기와 똑 같은 것
 을 낳을(생성할) 뿐이다

이러한 있어지고 있는 무엇이 생성과 연관지어져 7 장에서 말하여지
 고 있다 라고 나는 334 쪽에서 말했다 8 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생성(되는
 것) 안에는 에이도스 와 질료가 속해 있는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바로
 이 에이도스이며 에이도스는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³⁶⁴⁾

362) 이 에네스타이 라는 말이 애매하다 ἐνέσαι가 ἐνίστημι의 변화 형 일
 까 엔이스테에미는 to put, set, place in, 등을 뜻한다는데.....그렇다면 일견
 거기에 주어지다 놓여지다 또는 있다 위치하다 또는 위치해있다 라고 옮겨
 질 수 있을 것 같은데....무슨 변화 형이지 ? 완료형일까.....

그 변화 형이라면 이 말을 에이나이와 어떻게 구별해야하나, 생각으
 로만 있는 것일까 아니야 있는 것은 누우스도 있는 것이니 그렇지는 않을
 게야 말로 만 있는 것일까....? 말 과 있음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통용될 수 있을까 그렇것 같지 않다 휴우

363) 있다 라고 하는 게 올바른 건지.....오히려 말하여진다 라고 하는게 낫
 지 않을 런지

364) 질료 역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의 논

이 장은 생성(되는 것) 일반에 관한 로고스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생성된 각기 것과 나란히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에이도스는 생성된 것과 관련지어 볼때 쓸모없다(οὐθὲν χρίσιμα 1033b28) 라고 플라톤(주의 자들의) 에이도스론이 반박된다

(VIII) 생성(되는 것)은 어떤 것 (이것을 나는 생성의 아르케에 라고 말한다) 예의해서 그리고 어떤 것 (이것에 대해 우리는 이미 말했으므로 결여가 아니라 질료하고 해보자) 으로부터(ἐκ 1033a25) 그리고 무엇이(이것을 우리는 공 또는 반지(동그란 것) 또는 [그때 그때] 기회 있을 때 마다 알론한 것들 [이라고 말한다]) 생성되므로 기체 [곧] 청동이 생산되는 것도 아니며³⁶⁵ 이처럼 우연적이 아니라면 공이 생산되지도 않는다³⁶⁶ 청동으로된 공이 [바로] 공이며 저것(청동으로된 공)이 생산되기 때문이며 이것(τόδε τι 1033a31)을 생산(함)은 전체 기체로부터 이것을 생산(함)이기 때문이다 나는 등글게 된 청동을 생산함(ποίησιν 1033a33)은 등근 것 또는 공을 생산함(ποίησιν 1033a33)이 아니라 *헤테론한* 어떤 것을 [생산함 이라] 말한다 예를들어 에이도스는 *알론한* 것 안에 [있는 것] 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만약 생산된다면³⁶⁷ *알론한* 어떤 것으로부터 생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알론

리에 충실히 따르면 질료 역시 생성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성된 것은 에이도스 와 질료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이다

365) 본문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 무엇이 생산한다 라고 옮겨야 할까 ? 주어를 무엇이라고 한정하기 참 까다롭다 현대인에게는 사람이 생산하는 것 처럼 보이니까 현대인을 위해서 ‘우리’라고 일단 로스처럼 옮겨 보자 그러나....

차라리 비록 ‘포이에인’ 이라는 부정형(不定形)이 쓰여있긴 해도 수동으로 생성된다 라고 보아 기체 곧 청동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옮기는 것이 나을 성 싶다

366) 모든 생성(되는 것)은 우연적이라는 말일까 따라서 (청동으로 된) 공 역시 우연적인 생산일 뿐일까 아마 그런 것 같다 그래 분명해 생성은 우연이라는 말일게야 그러나 355 쪽에서 나오겠지만 생성을 우연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수는 없을 것 같다 생성[과정]에는 비 우연적인 있기 때문이다

한 어떤 것이 기체이다 예를들어 청동으로된 공이 생산된다 이것 (청동으로된 공)은 이 처럼 청동인 것으로부터 그 공인 것으로 생성된다 이것(청동인 것?) 그 자체가 생산된다면 분명히 [청동으로된 공이 생산되는 것] 처럼 그렇게 생산될 것이다 그리고 무한히 생산될 것이다³⁶⁸) 따라서,

367) 생산한다면 으로는 하는 게 좋을 지 생산된다면 으로는 하는게 좋을 지 헛갈린다 본문에는 부정형으로 나와있긴 하다 그리고 생산이라는 낱말을 에이도스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나올 성 싶다

에이도스는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로고스가 나오며 그리고 이 로고스가 8 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에이도스(사람)와 관련하여서는 생산하다(ποιίν) 라는 말 보다는 오히려 낳다(γεννάω 1032a25, 1033b23,b32) 라는 말이 쓰여지는 것 처럼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낳다 혹은 건강이 건강을 낳다 처럼 말이다

368) 예를들어 청동과 같은 질료 역시 생산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기서 그는 말하고 있을까 만약 생산된다면 청동으로된 공 처럼 그 청동이 생산되는 것은 분명할 것인데 청동 그 자체는 질료이므로 무한히 그 청동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

질료는 규정(정의)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은 297 쪽에 나와있으므로 질료가 생산된다면 그 생산은 무한히 계속된다 라는 말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 - 나는 아페이론(1033a4-5)을 무한이라고 옮기는 중이며 여기 질료에 연관지어 무규정이라는 말은 1029a21에 나오는 μηθὲν.....ἄπειρα를 옮긴 것이다 - 규정 되지 않은 것이 무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체가 생산된다면 기체는 헤테론한 어떤 것 으로부터 생산될 것이다 그래서 ad infinitum 할(무한 후퇴에 빠질) 것이다 라고 로스는 요약한다(로스 187 쪽) 그렇다면 무한 계열에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한히 반복된다는 뜻일텐데.....

질료가 그것 으로부터 생산될 그것은 로스에 따르면 헤테론한 질료가 될 것이며 그것 또한 헤테론한 질료로부터 생산되는 식으로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러한 무한 반복이 왜 거부되어져하며 이런 거부가 질료는 생성되지 않는다 라는 사태의 근거가 왜 될까.....질료는 그 자체 아

에이도스는 그리고 감각적인 것 안에 [주어져 있는] 모양³⁶⁹(μορφήν 1033b6)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성되지 않으며 이것(에이도스 또는 모르페에)의 생성은 있지 않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도 생성하지 않는 것] 선명하다 이것은 기교에 의해 또는 자연에 의해 또는 뒤나뮌스에 (의해) 알려진 것 안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³⁷⁰) 그러나,

폐이론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 규정되지 않는 것이 질료 아닌가.....질료가 무한 해서는 안되거나 또는 무 규정적이어서는 안된다 라고 말하면 텔레스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369) 스케아마(꼴)은 제쳐놓더라도 에이도스를 모르페에(모양)과 동일시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을 것 같다 그러나 같을까

370) 지금 나는 아주 중요한 길목(29쪽)에 서 있다 이 길목이 전체 도로 어디쯤에 있으며 어느 큰 길로 연이어지는 가를 잘 헤아려야 만한다

에이도스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그리고 감각적인 것들 안에 주어진 모르페에(모양) 등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기교 또는 자연 또는 뒤나뮌스(힘)에 의해서 알려진 것들 안에서 생산되는 것(들)이다 라는 로고스는 무슨 말인가 에이도스는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도 분명하고 에이도스는 알려진 것들 안에서 생산된다 도 분명하다 에이도스는 생성되지 않는다 라는 말 과 에이도스는 안에서 생성된다 라는 말은 어딘가에서 서로 어긋나는 말이 아닌가 안에서 라는 낱말이 덧 붙혀 졌긴 해도 어쨌든 생성된다고 하지 않는가 - γίγνεται (생성된다 1033a7) 라는 낱말이 쓰였다 - 다음 처럼 생각해 보면 어떨까

헤테론한 것 또는 알려진 것이라는 낱말이 자주 바로 앞 문맥에서 많이 쓰였다 어떤 것으로부터 생산되는 무엇은 이 어떤 것과 헤테론한 것으로 생산된다 라는 말 다음에 ‘예를들어 알려진 것 안에 이 에이도스 처럼’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두 문장은 어딘가 비약된 로고스들 처럼 보이기는 하나 서로 어긋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왜 어긋나지 않는가 에 대한 답은 잠시 미루어보자 더 급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생산 또는 생성되는 것은 생성의 아르카이와는 헤테론한

청동으로된 공은 생산(된)다 [청동으로 된 공은] 청동 과 공으로부터 생산(되기) 때문이다 에이도스가 이것 안으로(εις τοδι 1033b10) 생산된 것(τούτο 1033a10-11)이 청동으로된 공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δλως 1033b11) 공에 있음’의 생성이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이 [헤테론한] 어떤 것으로부터 있(어아한)다 생성된 것은 항상 반드시 나뉘어진 것으로 있어서 한 편으로 이것(τὸδε 1033b13)이 [생성된 것에] 다른 한 편으로 저것(τὸδε 1033b13)이 [생성된 것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 편으로 질료를 다른 한 편으로 에이도스를 말한다

만약 공(등금)은 가운데로부터 똑 같이 [떨어진] 꼴(σχῆμα 그어짐? 1033b14)이라면 이것(공?)의 [부분]은 한 편으로 생산되는 [이]것 안에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생산되는) 저것³⁷¹⁾(ἐκελευω 1033b15) 안에 있으며 그 전체(τὸ ἅπαν 1033b15)는 예를들어 청동으로된 공과 처럼 생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에이도스 또는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에이도스 또는 실체)에 따라 말하여지는 것이 생성된다는 것 그리고 생성되는 모든 것 안에는 질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생성된 모든 것 안에는] 한 편으로 이것(τὸδε 에이도스)이 다른 한 편으로 저것(τὸσε 질료 1033b19)이 있다는 것은 선명하다

공과 **나란한**(παρὰ τὰσδε 1033b20) 공인 것 또는 벽돌과 **나란한** 집이 있을까 만약 이렇다면 이것(τὸδε τι 1033b21)이 결코 생성되지 않을 것이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청동으로된 공은 그 에이도스 와 질료(청동)와 **헤테론한** 것임도 분명하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에이도스는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 안에서 생성되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에이도스의 생성은 있지않고 - 에이도스는 생성되지 않고 - 단지 그 에이도스가 들어있는 (감각적인) 것들 만이 생성된다 그 생성 안에서 에이도스(사람)은 동일한 에이도스를 낳을(γεννᾷ 1033b32) 뿐이다 여기서 그가 비록 생성된다 라는 낱말을 쓰긴 했어도 나는 그 생성된다 대신에 낳다 라는 말을 썼다 이런 쓰임새가 크게 그에 있어 잘못된 것은 아닐 것 같다

371) 여기의 [이]것 과 저것은 생성된 각기 헤테론한 것을 가리키며 다섯 줄 위의 이것 과 저것은 에이도스 와 질료를 각기 가리키는 것 같다

다³⁷²) 오히려 규정(정의)된 이것(τόδε 1033b22)이 아닌 그러한 것(τοιόνδε³⁷³) 1033b22)이 가리켜질 것이며 오히려 이것으로부터 그러한 것이 생산되고 태어날 것이고 태어날 때 마다 이것이 그러한 것일 것이다³⁷⁴) 그런데,

모든 이것³⁷⁵)[곧] 칼리아스 또는 소크라테아스 [등]은 이 청동으로 된 공과 같다 그리고 사람 과 생물은 공 청동 전체와 같다 그런데 각기 것과 나란한(παρὰ τὰ καθ' ἑκάστα³⁷⁶) 1033b17-28)에이도스가 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한다면 그러한 에이도스들(의) 원인들은 생성(되는 것들) 과 실체들에 관련해 [볼 때]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³⁷⁷) 그리고 이 때문에 그것들(에이도스들)은 그 자체[로 있는] 실체들일 [필요] 없다 실로 어떤 경우에는 낳는 것이 태어난 것과 그리하다는 것이 선명하다 그러나 동일한 것 또는 숫적으로 하나이지는 않다 에이도스에 있어서 (하나 요 동일할 뿐이다) 예를들어 말에 의한 노새의 생성과 같이 어떤 것이 자연에 반해(παρὰ 1033b33) 생성되지 않는한 자연적인 (생성)에 있어 그렇다 사람이 사람을 낳기 때문이다³⁷⁸) 심지어,

372) 에이도스가 생성된 것 안에 있지 않고 생성된 것과 나란히 있다면 다시말해 떨어져 분리되 있다면 이것 곧 생성된 것은 생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373) 이것 과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148 쪽을 참조하십시오

374) 그러한 것은 분리되어 떨어져 나란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에이도스 그리고 이것은 생성된 각각을 가리킨다

375) 'τὸ δ'ἄπαν τόδε(1033b24)'을 '이것 각각' 이라고 옮기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376) 여기를 근거로 각각 또는 각기 것을 제 1 실체로 간주할 수 있으리라 각기 것은 제 1 실체이다 라는 로고스는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그 로고스를 이끌어 낼 수 있다 323쪽 각주 320번 과 287쪽 각주 272번을 참조하십시오

377) 여기서도 플라톤(주의 자들)의 이데아론 곧 각기 것과 나란한 에이도스론이 공격 받는다

378) 344 쪽 그림 과 335 쪽 참조

이런(자연에 반하는 경우들에)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다 말 과 당나귀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 - 이것들(말 과 당나귀) 바로 다음의 류(τὸ ἐγγύτατα γένος 1034a1) - 이 [이것들의] 이름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의심할 것도 없이 그 양자와 [똑] 같을(ἴσως 1034a1)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이도스를 원형(παράδειγμα³⁷⁹) 1034b2)으로 설정 할 필요는 없다 대 부분 이러한 [에이도스들]을 추구됐을 것이다 대 부분 그러한 것들이 실체들 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생성자들의(τὸ γεννῶν 1034a4) 생산³⁸⁰) 과 질료 안에 있는 에이도스 원인으로 충분하다 이(ταίῳδε 1034a6) 살 과 이 뼈들 안에 있는 그러한 것 [으로서의] 에이도스 이 모든 것이 칼리아스와 소크라테에스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질료**³⁸¹) 덕에 헤테론하다 [이 질료가] 헤테론하기

379) 파라데이그마(원형)에 대한 티마이오스 언급은 137-138을 참조하십시오

380) 생산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라고 로스는 옳긴다(로스 795쪽)

381) 질료에 대해서는 297-298, 334 쪽을 참조하십시오 여태까지 나온 로고스들을 정리해보자

질료

는 무엇 량 등의 카테에고리아아가 아니며 이것들의 부정(否定)도 아니다

는 기체라고 말하여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알론한 것이 기체의 카테에고리아 라는 점에서 기체는 실체이나 질료는 실체가 아니다

는 길이 너비 깊이 등으로 규정은 되지만 그 자체는 규정되지 않는 것이다

와 에이도스로부터 생성된다 모든 생성은 질료를 지닌다 이(생성들) 각각은 있을 수 있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335 쪽)

때문에 모든 생성은 헤테론하다 질료가 헤테론하기 때문이다 (는 나뉘어진다 에이도스는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그러나 **에이도스**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에이도스는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까지 요약하면서 설명해 보자

어떤 것(아르케에)에 의해서 어떤 것(질료 예를들어 청동)으로부터 무엇(예를들어 청동으로 된 공)이 생성되며 그 어떤 것과 헤테론한 것 으로서 의 이 무것은 우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생성은 우연이다 그리고 이 알론한 것 안에 에이도스가 들어 [또는 속해] 있다 이 에이도스 따라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것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에이도스는 기교 또는 자연 또는 뒤나뮈스에 의해 알론한 것 안에서 생성된다

이 부분의 로고스가 나에게 혼란스럽다 해당 각주에서 언급된 점 이외에도 에이도스가 생성되지 않는 것에 대한 논리(논증)이 나에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논증은 해당 문맥에서 여기 저기 흩어져있다

생성된 헤테론한 것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에이도스라는 것은 1033a34에서 그리고 이것 안으로 에이도스가 생산됨으로서 비로소 이것(청동으로 된 공)이 생산된다는 것은 1033b11에서 말하여지는데 이 사이에 에이도스 또는 모르페에는 생성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생성되지 않는 이유는 γάρ (1033b7) 라는 낱말로 간단히 이어질 뿐이다 ‘ 이것(있어지고 있는 무것 또는 감각적인 것 안에 있는 모르페에 또는 에이도스)은 알론한 것 안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것은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것은 알론한 것 안에서 만 곧 헤테론한 어떤 것 으로부터 생성된 무것 안에서 **만** 생성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만 과 그 자체로 라는 말을 쓰므로써 안에서 생성되므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것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로고스에서 생성이라는 말의 겹쳐 쓰임을 구분해 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348 쪽 각주 370 번을 보시오

는 생성의 아르케이다 스스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355쪽)

이러한 그의 로고스는 에이도스는 생성된 것과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된 것 안에 있다 라는 로고스로 나아간다 예를들어 소크라테에스 또는 벽돌 집과 나란히 있는 사람 또는 집은 있지 않다 소크라테에스 와 벽돌 집 과 공인 것 안에 **만** 사람 과 집 과 공은 있을 것이며 만약 나란히 있다면 소크라테에스와 같은 이것이 생성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성(된 것)의 원인 으로서의 에이도스가 그 생성(된 것)과 나란히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그런 에이도스는 적어도 생성 과 실체에 있어서는 쓸모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그리고 나란히 있는 것을 허용하기에 실체가 아니라라고 텔레스는 말한다 아울러,

그에 따르면 알론한 것 안에서 자기와 똑 같은 것³⁷²⁾을 낳는(생성 또는 생산하는) 이러한 에이도스는 자기와 동일한 것³⁸²⁾을 낳는 것도 아니요 숫적으로 자기와 하나인 것을 낳는 것이 아니라 에이도스에 있어서 자기와 하나인 것을 생성된 것 안에서 낳는다 그렇다면

똑 같으면서 하나인 에이도스가 자신 안에 속해 있으므로 생성된 것은 그 에이도스를 자신 안에 지니는 알론한 것과 동일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질료 때문이다 소크라테에스 와 칼리아스가 똑 같으면서 하나인 에이도스를 자신들 안에 지니면서도 동일하지 않고 헤테론한 것은 그 질료 탓이다 따라서 에이도스에 있어 하나인 생성된 것들은 똑 같으면서도 헤테론하다 라고 그에 따르면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며 생성되는 것은 각기 우연적인 것 으로서 서로 헤테론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헤테론한 것들은 자신들 안에 낳아진 에이도스³⁸³⁾로 인해 비로서 생성되며 서로 똑 같게되거나 질료로 인해 헤테론하다는 것 그리고 이 에이도스는 나뉘어질 수 없는

382) 똑 같다 와 동일에 대해서는 223-224 와 258-259 쪽을 참조하시오 똑 같다 라는 말은 1034a1에서 쓰인다

383) 낳은 것이나 낳아진 것이다 비록 숫적으로는 하나가 아니지만 에이도스에 있어서는 하나이며 똑 같다 물론 동일한 것은 아니다

것으로서 바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며 그 에이도스 와 그 에이도스에 의해서³⁸⁴) 생성된 것은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된 것 안에 에이도스가 있다는 것 따라서 생성(되는 것)은 에이도스에 의해서 질료로부터 생성되는데 이 생성은 사람이 사람을 낳으므로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이 8장에서 말해지고 있다 9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8 장에서 거론된 보기들을 다시 확인해 보고싶다 첫째,

생성된 것의 보기로서 청동으로된 공이 들어진다 청동은 질료³⁸⁵)이고 에이도스는 그 공을 만드는 기교를 지닌 자의 영혼 안에 로고스로서 있을 것이며 청동으로 된 공 안에도 있을 것이다 별들로 된 집도 그러할 것이다 둘째,

노새는 자연에 반(反)하는(παρὰ 1033b33)생성의 보기로서 들어진다 노새의 경우를 제외한 자연 생성의 경우에도 생성되는 것 안에 낳아지는 에이도스는 낳는 로고스와 **하나**이나 **숫적**으로 하나이거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새의 경우도 실은 마찬가지로 보아야 만 한다 말 과 당나귀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인 말 과 당나귀에 가장 가까운 류 역시 말 과 당나귀 이 양자와 **똑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384) 생성의 아르케에를 에이도스라고 직접 그가 아직까지는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8 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이 어떤 것을 생성의 **아르케에**라고 한다 생성의 아르케는 질료이다 라고 그가 말했을까 아니다 그는 생성이 질료로부터 또는 (실체의) 결여로부터 이 아르케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을 뿐이다 334-335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그는 예를들어 사람과 같은 실체에 *의해서* 생성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아르케에**는 에이도스인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카테애고리아이 이든 타 메타 타 퀴지카 이든 한결같은 에이도스의 보기로 사람 등이 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이도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또는 기교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질료로부터 또는 결여로부터 무엇이 생성되어진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으리라 1034a31에서는 모든 것의 **아르케에**는 실체라는 말이 직접 나온다

385) 기체라고도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9 장으로 가 보자 어떤 것은 기교적으로 생산 될 뿐 아니라 자동적으로도 생산되는데 왜 어떤 것은 기교적으로는 생산되는 반면 자동적으로는 생산되지 않을까 라는 물음과 더불어 9장은 열려지면서 질료의 움직임 때문이다 라는 답으로 계속 이어진다

(IX) 예를들어 건강 처럼 한 편으로 어떤 것은 기교적으로 뿐 만 아니라 자동적으로(ἀπὸ ταύτομάτου 1034a10)도 생성되지만 왜(διὰ τί 1034a9) 다른 한 편으로 예를들어 집 처럼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을까³⁸⁶⁾ 라는 아포리아가 있다

그 원인은 기교적³⁸⁷⁾인 생산 과 되어짐에 있어서 그 생산의 아르케에 인 그리고 프라그마의 부분인 것이 거기에 속하는 그 질료 가운데 어떤 (질료)는 스스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인 반면 어떤 (질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며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러한 (질료) 가운데 어떤 (질료)는 일정하게(ὡδι³⁸⁸⁾ 1034a14) 움직이는 반면에 예를들어 춤 추는 것 처럼 많은 것들이 스스로 움직여질 수는 있지만 일정하지 않으므로 어떤 (질료)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료를 [지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의](질료에는) 예를들어 돌 처럼 다른 것에 의하지 않고는 일정하게 움직여질 수 없는 것도 있다 볼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것(생성)들은 기교를 지닌 자 없이는 있지 않는 반면에 어떤 것

386) 기교적으로는 생성되는데 자동적으로는 생성되지 않을까

387) ‘.....적’은 ‘ἀπὸ.....’를 옮긴 것이다 기교 또는 자동으로부터 보다는 기교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일상어에 더 친숙하기에 그리고 ‘ἀπὸ...’를 ‘ἐκ.....’와 구분하기 위해 ‘아포’를 ‘...적으로’라고 옮겼다 338 쪽 각주 348 번을 참조하시오 ‘엘’ 다음에는 에이도스 와 질료 - 주로 질료가 온다 - ‘아포’ 다음에는 여기 쓰임새 처럼 자동 또는 기교가 온다 338 쪽 쓰임새도 그렇다

388) 로스는 요구되어진 특별한 길로 스스로 움직이다 라고 옮긴다(로스 795쪽)

들은 없어도 있다 기교를 지니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뒤나뭇스에 의해 움직여질 것이거나 또는 기교를 지니지 않는 알론한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이거나 또는 [그 알론한 것의] 부분들로부터³⁸⁹⁾ 움직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하여진 것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것(생성) 처럼 호모오뉴모스한 것으로부터(ἐξ ὁμωνύμου 1034a22)³⁹⁰⁾ 생성되거나 또는 예를들어[그] 집이 [어떤] 집 으로부터 (생성되는 것) 처럼 호모오뉴모스한 부분으로부터 (생성되거나) 또는 기교³⁹¹⁾는 에이도스 이므로 누우스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또는 (만약) 비 우연적으로³⁹⁰⁾ 생성된다면 그 자체로 첫 번째로 생산하는 원인은 부분이므로 부분을 지니는 것은 [그] 부분으로부터 (생성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움직이므로서 [일어나는] 열은 몸에 열을 생산하는데 이(열)이 건강이거나 또는 (건강의) 부분이며 또는 그(열)에 건강의 부분인 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찬 가지로] 건강에 우연적으로³⁹²⁾ 잇 따르기 도하는 열이 그 건강을 생산한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추리(συλλυγισμοίς 1034a31 삼단논법 논증)에 있어서 처럼 실체는 모든 것들의 아르케에이다 추리는 있는 그 무엇 으로부터 있기[시작하기] 때문이다 생성도 그것(있는 그 무엇)으로부터(ἐνταύθα 1034a32) (있다[시작할 것이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들도 그와 같다 씨는 기교로부터[의] 생산 처럼 생산되기 때문이다 씨는 에이도스를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그리고 씨가 그것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호모뉴모스하므로 [그

389) 부분들에 의해서 라고 읊기고 싶은데.....

390) 호모뉴모스하게에 대해서는 175-176 쪽을 참조하십시오

391) 기교에 대해서는 335 쪽을 참조하라

392) 여기서 우연적이라는 말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 건강의 부분은 비 우연적으로 다시 말해 반드시 건강을 생산하지만 열은 건강에 우연적으로 잇 따르 다는 말인지

렇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은 반드시 아니다 - 여성은 남성(γυνή ἐξ ἀνδρός 1034a3)으로부터 [오기]³⁹³때문이며 이 때문에³⁹⁴ 노새는 노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 불구가 아닌 경우에도 말이다

저기서의³⁹⁵생성 처럼 자동적인 [생성들 가운데 어떤] 질료는 씨가(τὸ σπέρμα 1034b6) 움직이는 그러한 길에서 스스로 예의해 움직여질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어떤 질료는] 그것들³⁹⁶로부터의 생성[이외에는] 달

393) 로스는 다음 처럼 옮긴다

‘씨는 잠재적으로 에이도스를 지니므로, 그리고 씨가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손과 같은 이름을 지니므로, 그러나 단지 어떻게 보면 그럴 뿐이다 왜냐하면 부모 와 자손이 항상 정확히 같은 이름을 지닌다고 기대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남성 으로부터의 여성의 생성 처럼 말이다 여성은 여성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 자손이 불완전한 형상이 아닌한 그렇다 - 이것이 왜 노새의 부모가 노새가 아닌 이유이다 (796 쪽)’

394)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노새가 노새로부터 온다는 말이 아니다 씨가 그것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것은 씨와 호모뉘모스한 것이며 씨안에는 에이도스가 잠재적으로 있다는 점에서 자연 생성은 기교적인 생산과 같은데 그렇다고 모든 자연 생성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의 보기들로서 텔레스는 사람 과 노새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로부터 여자가 오나 남자 와 여자는 그 이름이 같지(호모) 않으므로 호모뉘모스한 것은 아니며 말 과 당나귀로부터 오는 노새의 경우도 이와 같다 - 내가 바로 앞 각주에서 로스 번역을 옮긴 것은 로스 처럼 설명할 수도 있다 라는 뜻에서 였다 - 따라서,

여자가 남자로부터 오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연 생성의 경우 생성된 것과 그 생성된 것이 그것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것은 호모뉘모스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 때문에’ 노새는 노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395) 356-357 쪽을 보라

396) ‘그것들로부터(ἐκ αὐτῶν 1034b7)’에서의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로스는 ‘부모 동물 그 자체들’ 라고 옮기고 있는데.....

여기서 또 번역상의 어려움이 있다 1034b4-7의 4 와 5 와 6에 각기 나오는 ὅσα 와 ὅσων 과 ὅσων을 어떻게 연결 처리해야 할까 뒷 둘은 앞 것의 복수 2 격 변화 형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셋은 서로 연결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럴 수 있다면,

저기에서 거론된 것 처럼 자동적으로 ①생성되는 한, ①¹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의 질료는 씨가(τὸ σπέρμα 1034b6) 움직이는 그러한 길에서 스스로 에 의해 움직여질 수 있는 반면, ①²그렇지 않는 질료를 지니는 어떤 것들은 그것들로부터 생성[이외에는] 달리 어떻게 생성될 수 없다에서 처럼 ① 에 속하는 ①¹ 과 ①² 로 옮길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의 질료는 스스로에 의해 움직이는 반면 어떤 것의 질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처럼 옮길 수 없다면 ①²는 ①에 속하지 않을 것이므로 - 로스는 ‘;’ 으로 일단 끊는 것으로 보아(796쪽) ①에 ①²가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 같다 - 스스로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는 질료로부터는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없다 라는 다시 말해 자동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것들은 자신들이 그것으로부터 생성된 바로 그 질료가 스스로에 의해 움직여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므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은 자신들의 질료가 스스로에 의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것 만 이다 라는 로고스가 이끌려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것들로부터 에서의 그것은 무엇을 가리킬까 1034a4에 ταύτα(스스로에 의해 움직여지는 질료로부터 생성되지 아니한 것들?) 이라는 말이 나온다 바로 이 타우타를 가리키지 않을까 나는 잠정적으로 이 타우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그렇지 않는 것들은 스스로 움직여지는 질료[의 움직임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곧 생성되는 것 자체의 움직임으로 움직일 것이다] 지금 내가 옮은 말을 하고 있나

생성 과 움직임 사이의 연관은 미묘한 것 같다 텔레스에 있어서생성을 움직임 이라고 하기에다 그렇고 움직임이 아니라고 하기에다 그렇고.....

리 어떻게 생성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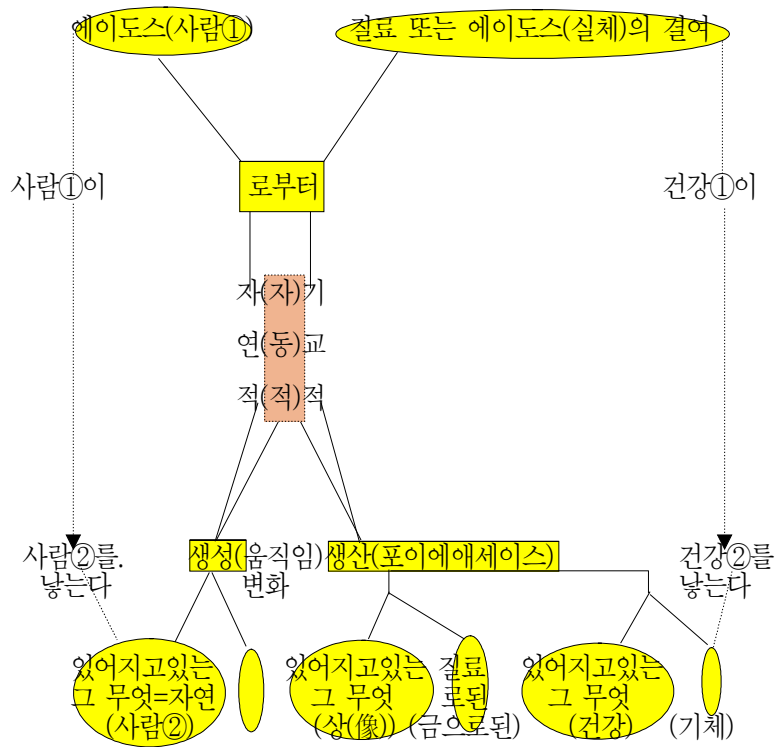
일단 여기 까지 요약 정리해 보자 그 내용으로 볼 때 9 장은 8 장 보다는 오히려 7 장에 더 가깝다 자연 생성 과 기교적인 생성 과 자동적인 생성 등 생성의 구분들은 8 장에서 보다는 오히려 7 장에서 말하여지고 있으며 9 장에서는 이러한 생성의 구분이 계속하여 말하여지고 있는 반면에 8 장에서는 생성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 주로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³⁹⁷⁾

7 장에서는 자연적인 생성 과 기교적인 생성에 대해서는 말하여지지만 자동적인 생성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여지지 않는다 물론 자연 생성들 가운데 어떤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처럼 기교적인 생성들 가운데 어떤 것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오기는 한다(335 쪽 참조) 따라서,

자동적인 생성은 기교적인 생성 과 자연적인 생성 모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참고로 344 쪽에 그려진 생성을 다시 보면서 9 장 매듭을 풀어가기로 하자

397) 그렇다고 순서가 7 - 9 - 8 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제에타 편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축으로 하여 펼쳐지는 가운데 7 - 8 - 9도 나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성을 축으로 해서 로고스를 풀어 본다면 7 - 8 - 9 보다는 7 - 9 - 8로 이어지는 것이 로고스의 매듭이 잘 풀려질 것 처럼 보인다 먼저 여러 생성을 말한 다음에 생성 그 자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에 더 어울릴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위 그림에 나타난 ‘자동적인 생성’이 9 장에서 다루어지면서 생성에 대해 움직임이 어떠한가도 건드려진다

기교적으로 생성 되는 것 가운데 건강은 자동적으로도 생산되는데 왜 집은 자동적으로 생성되지 않는가 질료가 그 원인이다 기교 생성들 가운데 어떤 것의 질료는 스스로에 의해서(ὅψ' αὐτῶν 1034a15) 움직여질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의 질료는 스스로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은 일정하게 움직이지만 예를 들어 춤추는 것 같은 것은 일정하지 않고 또 예를들어 돌과 같은 것은 다른 것에 의하지 않고는 일정하게 움직여 질 수 없다 라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따라서 어떤 것은 기교 지닌 자 없이는(ἀνευ 1034a18) 있을 수 없는 반면에 어떤 것은 기교지닌 자와 상관 없이 있다 기교를 지니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뒤나뭇수에 의해서 움직여 질 것이거나 또는 기교를 지니지 않는 알려진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이거나 또는 그 알려진 것의 부분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은 어떠한 점에서 기교적으로 생성되는 것과 구분될까 자신의 질료가 어떠한 움직임을 지니고 있는가를 통해서 구분된다는 것은 그의 직접적인 말에서 분명히 드러나나 그 움직임은 무슨 움직임인가 하는 것은 썩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직접 그가 이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움직임을 끄집어 낼 수 있다

스스로에 의한 움직임³⁹⁸)을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지닐 것이다 스스로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들의 뒤나뫼스³⁹⁹)에 의해서(ὕπὸ.....δυναμένων αὐτῶν 1034a19-20) 움직여지거나 또는 뒤나뫼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알론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또는 그 알론한 것의 부분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이다 나아가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자신의 뒤나뫼스에 의해 움직여진다면 기교적으로 생성되는 것(의 질료가)은 무엇에 의해 움직여질까 이 물음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기교를 지닌자 라고만 말하는 것 같다 이어,

그는 생성 일반에 대해 말한다 모든 생성은 자연 생성 처럼 호모오뉘모스한 것으로부터 오거나 또는 집이 집으로부터 오는 것 처럼 호모오뉘모스한 부분으로부터 오거나 또는 누우스로부터 오거나 또는 비 우연적인 생성의 경우 건강의 부분인 열로부터 건강이 오는 것 처럼 자신의 부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 졌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또한,

그에 따르면 생성은 있는 그 무엇 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추리도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는 여기서 호모오뉘모스 라는 말을 쓰고 있다 호모오뉘모스한 것에

398) 그런데 텔레스는 스스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질료 (또는 생성된 것)를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 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눈다 그러나 아마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든 일정하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든 모두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지닐 것이다 움직임에 대해서는 272-274쪽을 참조하시오

399) 113-114 쪽을 다시 한 번 읽어보라

대해 말하면서 그가 범주론을 열어 재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하 여졌다 거기에 따르면 호모오뇌모스한 것들은 그 이름을 공통으로 지니지만 그 이름에 상응하는 실체들의 로고스가 헤테론한 것들인 반면 이름을 공통 으로 지닐 뿐 아니라 그 로고스도 동일한 것이 쉬노오뇌모스한 것들이다(175-176참조) 그러므로,

자연적인 모든 생성은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온 바로 그것과는 이름을 공통으로 지니지만 그 로고스는 헤테론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름을 공통 으로 지니지 않는 생성도 있다 말 과 당나귀로부터 온 노새의 생성이 그리 한 생성의 보기로 그에 의해 들어진다⁴⁰⁰⁾ 노새는 말 뿐만 아니라 당나귀와 도 그 이름이 공통이지 않다 아울러 그 로고스도 헤테론하다는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분명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생성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텔레스는 이 경우에 도 호모오뇌모스하지 않는 경우가 우연적으로 있다 라고 말한다 남자로부터 오는 여자를 보아라 이름이 공통적인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아니한가 그 러나 사람으로부터의 사람의 생성이 호모오뇌모스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아닐게다 또,

그는 씨로부터의 자연적 생산에 대해서도 말한다 이러한 생산은 기교 적인 생산과 같다 기교를 지닌자의 영혼에 생성될 것의 에이도스가 로고스 로서 잠재적으로 있듯이 씨에도 에이도스가 [비록 로고스적으로는 아닐 것 이지만]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씨는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온 바 로 그것과는 호모오뇌모스하다 라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씨로부터의 생성은 호모오뇌모스하지 아니한 노새의 생성 과 여인의 생성과는 알론한 경우의 생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자연 생성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고 씨로부터의 생성은 씨 스스로에 의한 생성이므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들 의 움직임과 같은 움직임을 지닌다 라고 그는 덧붙인다

이제 까지 나는 움직임에 관련된 생성의 구분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해 보았다 이 설명에 지금 내가 만족하지는 않는다 아직도 무엇인가 뚫리지 않 았다 그러나,

움직임을 지니는 것은 에이도스가 아니라 질료 라는 점 과 움직여지 는 것은 생성되는 것이라는 점 과 움직임은 자신이 안에 지니고 있는 뒤나

400) 351 쪽에 들어지는 ‘노새’의 경우가 반복된다

뒤로부터 오거나 또는 뒤나뒤스를 지니지 않은 것은 뒤나뒤스를 지닌 알론한 것 또는 이 알론한 것의 부분으로부터 온다는 점 과 자신이 지니는 뒤나뒤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질료)이 스스로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라는 점 과 그렇지 않는 것은 스스로(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점 과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질료로부터 온 것이 기교적으로 생성된 것인 반면 스스로 움직여지는 질료로부터 온 것은 자동적인 생성이라는 점 등은 분명히 텔레스의 로고스이다 그런데,

자동적인 생성 과 기교적인 생성 이 양자 모두가 자연적인 생성에 속할지가 애매하다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것 가운데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있다(335 쪽 참조)라고 말한다 그러나 씨로부터의 생성과 같은 자연적인 생성은 기교적인 생성과 같다 라고 그는 말한다(358 쪽 참조⁴⁰¹) 그렇다면 자연 생성들 가운데 어떤 것은 기교적으로도 생성하고 어떤 것은 자동적으로도 생성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어떤 것이 기교적으로 생성되면서 동시에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자연 생성이 있을까 있다 적어도 건강에서는 그렇다 라고 텔레스는 말할 것이다 따라서,

기교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생성 될 수 있는 자연 생성이 있다 만약 건강이 자연 생성이라면 말이다⁴⁰²

401) 그런데 335 쪽에서 씨라는 말이 나온다 거기서는 자연적인 생성들 가운데는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것도 있거나 또는 어떤 기회에 생성하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그 이유로 씨로부터의 생성을 예들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프라그마를 관찰하고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르면,

동일한 것이 한 때는 씨로부터 생성되지만 한 때는 씨 없이 생성된다 무얼 보고 그는 이런 말을 한 것일까.....

402) 나는 지금 까지 건강한 것을 자연 생성으로 간주하고 로고스를 이어왔다 그러나 건강을 자연 생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336 쪽에서 나타나는 건강은 기교적으로 생성되는 것의 예로서 맨 처음 나타난다 의사의 치료 기교에 의해서 사람이 건강해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건강은 건강으로부터 온다 라고 말한다 이 두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 의사가 출현하는 경우는 병(곧 건강의 결여)로부터 건강이 생

이제 9 장 나머지 부분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대로 따라가 보자

[우리의] 로고스는 실체와 관련하여 에이도스는 생성되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했을 뿐 만아니라 예를들어 량 질 과 알론한 카테애고리아들 처럼 첫 번째로 [생성된 어떤 것에] 공통으로 [속하는] 모든 것들에 관련하여 [이것들도] (생성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분명히 했다 청동으로 된 공은 생성되나 등금(공)도 청동(χαλκός 1034b11)도 청동에 관한 것도(καὶ ἐπὶ χαλκοῦ 1034b11-12)(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생성된다면 항상 그 질료 와 그 에이도스가 (생성되는 그것에) 반드시 미리 속해야만 한다(προὔπαρχειν 1034b12) 무엇 과 량 과 질 과 이 와 같은 알론한 카테애고리아(403)에 관련해서도 이와 같다 그 질이 생성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의) 나무(가 생성되)며 그 량(크기)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량)의 나무 또는 생물이 생성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예를들어 생물이 생성된다면 [그] 생물을 생산하는(404) 현실태 실체(ἐντελεχεία οὐσαν 1034b17)에 헤테론한 실체가 반드시

산되는 경우 - 대립된 것으로부터 어떤 것(건강)이 생성되는 경우 - 인 반면 이 경우는 건강으로부터 건강이 생산되는 경우 - 호모오뉘모스한 경우 - 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를 자연 생성이라고 보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 같다 생성된 것이 그것으로부터 생성된 바로 그것과 생성된 것이 호모오뉘모스한 경우는 자연 생성의 경우라고 그는 말하기 때문이다(356 쪽 참조)

403) 그러나 이런 범주들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것으로)있는 무엇이려는 점을 따라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이도스)과 있는 그 무엇이든 구분 된다는 점도 기억하라(307 쪽 참조)

404) 관계 대명사 ἡ(1034b15)가 헤테론한 실체에 걸릴까 아니면 현실태 실체에 걸릴까 로스는 헤테론한 실체에 걸리는 걸로 보았으나(로스 797 참조) 나는 현실태 실체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 싶다 로스 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으나.....ἡ 바로 앞에는 현실태 실체 라는 단어가 있을 뿐 만아니라 그 뜻에 있어서도 현실태 실체에 걸리는 것이 나올 것 같다 현실적인 것이 생산

시 미리 속해야 한다⁴⁰⁵) 라는 실체에 고유한 것⁴⁰⁶)을 취한다 그러나 질 또는 량 (등이) 잠재적인 것 이외의 [방식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⁴⁰⁷)

9 장 끝 부분은 생성에 관한 이제까지 로고스를 요약하면서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에이도스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체와 결부지어 그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예를들어 생성된 것이 청동으로된 공이라 하더라도 청동과 공(등급)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각기 질료(청동)와 에이도스(공(등급))로서 생성될(된) 것 안에 반드시 미리 속해(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어떤 것에 생성되려면 생성될(된) 그것에 미리 질료와 에이도스가 반드시 속해 있어야만 한다 뿐 만 아니라,

량 질과 같은 카테에고리아이(범주들)도 미리 반드시 속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범주들은 에이도스 또는 질료와 마찬가지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에이도스(또는 질료)와 범주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생성될(된)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먼저(속해) 있는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서의 에이도스 예를들어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있는 그 무엇으로서의 카테에고리아이 이다 따라서,

생성되는 그 무엇은 먼저 있음(실체 또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사람으로 있음) 다음에 그 실체(있음 또는 에이도스 곧 사람)에 2 규빗(량) 또

하지 않겠는가....

405) 생물을 생산하는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있는 것에 이것과 헤테론하게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속해야 한다는 것....

406) 그 스스로 변함으로서 반대들을 받아드림이 실체에 고유한 것이라는 범주론 184 쪽을 참조하라 여기서 말하여지고 있는 실체에 고유한 것(속성)은 현실적인 실체에 그 실체와 헤테론한 실체가 속한다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실체가 예를들어 생물을 생산한다는 것 등이다

407) 범주들은 그 헤테론한 실체와는 달리 잠재적으로 현실태 실체에 미리 속해있지않다 라는 말일 게다

는 힘(질) 또는 배(倍)(관계) 또는 시장에서(어디에 또는 공간) 또는 어제(연제 또는 시간) 또는 누움(상태) 또는 신신음(지남) 또는 타오르는(행함 또는 능동) 또는 태워짐(겪음 또는 수동)이 속해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생성되는 것들이 아니다 생성되는 것은 예를들어 2 규빗 나무 또는 흰 나무 등일 뿐이다 그런데,

생성된(될) 것에 처음으로 공통으로 [속하는] 것들이 바로 범주들이다 라고 여기서 그는 범주를 새롭게 규정한다⁴⁰⁸)그리고,

그는 량 질과 같은 범주들을 실체와 구분하여 이 실체에 고유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현실태 실체(현실적으로 있음)에 이 현실태 실체와 헤테론한 실체(사람?)가 미리 속해 있는 반면 량 질과 같은 범주들은 단지 잠재적으로만 [그 현실태 실체(현실적으로 있음)에] 미리 속해 있다는 점에서 실체는 량 질과 같은 범주들과 구분된다 따라서 예를들어 생물을 생산하는 현실적인 실체 곧 있음(신?)에 다른 실체 곧 있음(예를들어 사람?)이 미리 속해 있다는 점이 실체에 고유한 것이다 라는 말인데...

여기서 나는 지금 헝클어진다 나에게 이 로고스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προῦπαρχειν(속하다 1034b17) 이라는 말을 어떻게 옮겨야하나 라는 어려움에 부딪혔다 로스는 ‘미리 존재하다’ 라고 번역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어느 정도 선명해진다 동물을 생산하는 다른 실체가 완성된 실체(현실태)

408) 이러한 규정은 범주들과 지금까지의 형이상학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것이다 범주들에 나타난 규정들은 158-152를 참조하라 거기에 나타난 규정들에 여기에 나타난 규정을 이어 보면 다음과 같다

카테애고리아이들

은 하위 류 와 이 하위 류에 속하는 상위 류들이 공통으로 지니는 동일한 차이 이다

은 어떤 연결도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다 예를들어 ‘사람’ ‘황소’ ‘달리다’ ‘이기다’ 등이다

는 생성되는 것에 처음으로 공통으로 속하는 것들이다

로 미리 존재해야 만 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로스797 참조) 여기서 나는 왜 로스에 만족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나열하지 않으려나 그러나 가장 큰 불만을 말해야겠다 ‘προϋπαρχειν’를 ‘there exist beforehand’로 번역할 수 있는가? 프로워파르케인을 존재하다(에이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외에도 불만은 수 없이 많다 둘째,

생물을 생산하는 이라는 말이 어디에 걸리는가 헤테론한 실체인가 아니면 현실태 실체인가.....세째,

.....

중세 근세 현대에 이르는 주석가들 특히 아퀴나스 아베로이즈 등을 거치는 동안 좀 더 나에게 선명해 질것이라 기대하면서 그만 여기서 중단하련다

9 장으로부터 10 장으로 넘어가기전에 나는 7-9 장을 에이도스(와 질료)로부터 모든 것이 생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에이도스(와 질료)는 생성되는 것이 아니며 바로 이 에이도스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실체) 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요약하련다 우리는 지금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10 장으로 가보자 4 장 일부 와 5 장 전부는 로고스 와 정의 라는 말을 사용하여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논리적으로 그는 말하고 있다 라고 나는 318 쪽에서 말한 적이 있다 10 - 12 장도 마찬가지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정의 와 로고스가 그 부분 과 전체에 연관지어져 말 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 - 5 장에서는 그 부분 과 전체가 문제 삼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4 - 5 장은 10 - 12 장과 헤테론하다

10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4 - 5 장에서 이와 연관지어져 무엇이 말 하여졌는지 다시 요약해 보는 것이 그의 이어지는 누우스의 정합(整合)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의

는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실체에 속한다 그 다음에 더 적게 알려진 것들에 속한다(308) 따라서 (순수하게는) 단지 실체의 정의 만이 있다(317) 만약 알려진 것(범주)들의 정의

가 있다면 (실체에) 덧 붙여짐에 의해서 만⁴⁰⁹⁾ 있게 될 것이다

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만이 대 부분 그리고 순수하게 실체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는 있는 하나인 것의 로고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일리아드 같은 연속에 의한 하나인 것의 로고스도 아니며 함께 묶여짐에 의한 하나인 것의 로고스도 아니다

역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317) 있는 것은 이것을 가리키기도 하며 량 또는 질인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308) 이 때문에 (비록 순수하게는 아니지만) 흰 사람의 정의 와 로고스가 있다 그러나 사람 (실체)의 정의 와 로고스와는 알론한 길로 있다

로고스⁴¹⁰⁾

가 곧 정의는 아니다 그것이 주어져 [있]지 않으나 그것을 말하는 바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 만이 정의이다 (305)는 이름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동일하다면 정의는 있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예를들어 일리아드 조차 정의일 것이므로 모든 로고스가 정의일 것이기 때문이다(306, 313) 그러나 이름은 단순한 로고스 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모두는 부분을 지닌다(369)

정의 와 로고스에 대해 제에타 4 - 5 장에서 말하여진 것들을 모아 보았다 이제 10 장을 따라가 보도록하자 모든 로고스는 부분을 지니는데 로고스의 이러한 부분은 로고스의 전체에 속할까 또는 속하지 않을까 라는 물음으로 10 장을 그는 열어 재긴다

“ (X) 정의는 로고스이고 모든 로고스는 부분을 지니며 그리고 로고

409) 동일한 것이 두 번 말하여짐에 의해서

410)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로고스’에 대해서는 133 쪽을 참조하십시오

스가 프라그마에 대해 있는 것 처럼 로고스의 부분도 프라그마의 부분에 대해 있으므로 **부분들의**(μερών 1034b13) 로고스는 **전체의**(ὅλου 1034b13) 로고스 (안)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라는 어려움은 이미 제기되었다. 원의 로고스는 호의 로고스를 지니지 않으나 음절의 로고스는 철자의(τῶν στοιχείων⁴¹¹)1034b26) 로고스를 지니므로 어떤 경우에는 (속해) 있는 것들로 여겨지나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음절이 알파벳(철자)으로 나뉘어지는 것 처럼 원은 호로 나뉘어진 다 더 나아가서,

부분이 전체 보다 먼저⁴¹²)라면 그리고 예각이 직각의 부분이며 손가락이 생물의 부분이라면 예각은 직각 보다 먼저(있을) 것이고 손가락이 사람 보다 먼저(있을) 것 이나 **로고스에** 있어서는 [손가락 과 예각이] 저것(생물 과 직각)으로부터 말하여지며 **있음에** 있어서는 서로 없이 [생물 또는 직각이] 먼저 이므로⁴¹³) [실은] 저것(직각 과 생물)이 더 먼저 있을 것으

411) 요소 라고도 옮겨지는 στοιχείον(철자)은 음절과 더불어 타 메타 위치 카 와 다른 강의록들에서 자주 그에 의해서 중요한 때에 등장한다. 여기서는 전체(음절)의 로고스에 부분(철자 또는 알파벳)의 로고스가 속하는 또는 전체의 로고스가 부분의 로고스를 지니는 경우의 보기로 들어진다. 1041b12-17과 참조하여보라

412) 먼저에 대해서는 261 - 269 쪽을 참조하시오

413) ‘ τῷ λόγῳ γάρ λέγονται ἐξ ἐκείνων, καὶ τῷ εἶναι δὲ ἄνευ ἀλλήλων πρότερα. (1034b31-32)’는 ‘ **그 로고스에** 있어서는 저것들로부터 말하여지나 **그 있음에** 있어서는 서로 없이 먼저 (이기) 때문이다’ 라고 옮겨 질 수 있을 것이며 손가락(부분)의 로고스는 생물(전체)의 로고스로부터 말하여지며 생물(전체) 있음은 손가락(부분) 있음 보다 먼저 이다를 뜻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전체 와 부분 일반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전체가 있어야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분이 말하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가 말하여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로고스는 부분이 없어도 전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없이는 부분이 있을 수 없다 라는 로고스를 허용할까 ‘서로’ 라는 말이 쓰였음에 유의하라

여기서도 들어진 보기들이 서로 헤테론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로고스 부분이 로고스 전체에 속할까 속하지 않을까 라는 어려운 물음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전체 와 부분으로서 각기 원과호 와 음절과철자 와 직각과예각 과 생물과손가락 등이 들어진다 원의 로고스는 호의 로고스를 지니지 않는 반면 음절의 로고스는 철자의 로고스를 지니므로 전체의 로고스에 부분의 로고스가 속할까 또는 속하지 않을까 라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원 과 음절은 전체이며 호 와 철자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흔히 사람들은 당연히 부분이 전체 보다 먼저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직각과예각 그리고 생물과손가락을 살펴보라 만약 부분이 먼저 라면 예각이 직각 보다 먼저일 것이고 손가락이 생물 보다 먼저일 터 이다 그러나 실은 직각 과 생물이 먼저 말하여져야 비로소 예각 과 손가락이 말하여지며 직각 과 생물이 먼저 있어야 비로소 예각 과 손가락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원과호 와 음절과철자 가운데 원과호는 전체의 로고스에 부분의 로고스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보기인 반면 음절과철자는 전체의 부분에 부분의 로고스가 속한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보기이며 직각과예각 과 생물과손가락은 전체가 부분 보다 먼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분이 말하여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가 말하여져야한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보기들이 다 아울러,

그가 이 문맥에서 프라그마(τὸ πρᾶγμα 1034a21)를 끄집어들이고 있다는 점에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로스는 프라그마를 thing(로스 797쪽)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은 적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으나 thing 또는 πρᾶγμα를 우리 말로 어떻게 옮기느냐가 문제이다 事物 요것은 그리 적절한 번역이 아니라고 만 볼 수는 없으나 이 번역어는 한자 이지 우리말 옮김이 아닐 뿐 더러 또한 정확한 것 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事 와 物이 섞여져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로고스 와 프라그마 가 서로 연관되 있듯이 - 31 쪽을 참조하시오 - 로고스의 부분도 프라그마의 부분와 서로 연관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연관을 그 근거로 하여 그는 보기를 든다 프라그마의 전체가 프라그마의

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원의 부분이 호 와 음절의 부분인 알파벳(철자)는 비록 똑 같이 부분 이긴해도 그 전체에 속할 수 있는 뒤나뉘스를 호는 지닐 수 없으나 알파벳 은 지니므로 모든 것의 부분이 모든 것의 전체에 속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 하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으며 그의 이러한 로기스모스(논리)에 나도 바 싹 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체(ούσια 1034a34)의 부분은 실체의 전체에 속할까 그는 이제 실체를 끌어드린다

더 나아가기 전에 413) 있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쓰어진 낱말들을 설 명하는 델타 편 25 장에 나타난 **부분** 과 **전체**에 대해 살펴보자

“ (25)량이 나뉘어진 것(ὁ διαμεθεῖν 1023a12)이 **부분**이라고 어떤 하 나의 길로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둘은 어떻게든 셋의 부분이라고 말하여지는 것 처럼 량으로부터 량으로서 취하여진 것은 항상 그 량의 부분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측정된 것들(τὰ καταμετρούντα 1023b8)만이 알 론한 길에서 (부분들이라 말하여진다) 이 때문에 둘은 한 편으로 셋(들)의 부분 이라고 말하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에이도스(중)이 량([에 관련] 없이 ἄνευ τοῦ ποσού 1023b17) 나뉘어 진 것들이 그 (에이도스)의 부분들 이라고 말하여진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에이도스(중)은 게노스(류)의 부분들이라고 말했다(170쪽 참조) 나아가서,

전체 또는 에이도스 또는 에이도스를 지닌 것이 그것으로 나뉘어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듯이 로고스의 전체도 로고스의 부분으로 나뉘어는데 왜 어떤 프라그마 또는 로고스에 있어서는 나뉘어지는 부분이 그 전체에 속하 는데 어떤 로고스 또는 프라그마는 그렇지 않은가 그러기에 이런 사태(事 태, 프라그마) 또는 사실(事實, 프라그마)가 있는가 그러므로,

이런 것을 미루어 보아 로고스의 전체 와 부분에 대한 이론이 필요 하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바로 정의이기 때문이며 로고스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나 또는 그것으로 합쳐진(σύνκειται 1023b19) [바로] 그것들이 (부분들이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청동으로 된 공 과 청동으로 된 육면체에서는 청동이 부분이며 곧 종이 안에 [들어 있는] 질료가 [그] 부분이며 그리고 각 들이 부분들인 것 처럼 말이다 나아가서,

각기 것을 분명하게하는(알게하는 τῷ δηλούντι 1023b23) 로고스 안 에 [들어 있는] 것들이 전체의 부분들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 때문에 류 는 종의 부분들이라 말하여진다 그러나 알론하게 [보면] 종이 류의 부분이다 ”

여기에서 그는 부분을 크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나뉘어진 량들 둘째, 나뉘어진 량들 가운데 측정된 것들 셋째, 량 없이 에이도스가 나뉘어진 것들 넷째, 에이도스를 지닌 것 혹은 전체가 나뉘어진 것들이거나 또는 그 전체를 이루는 것들 다섯 째, 로고스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부분들 이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부분들에는 량의 부분들 과 측정된 량의 부분들 과 에이도스의 부분들 과 에이도스를 지닌 것들의 부분들 과 로고스의 부분들 등이 그에 따르면 있다 이런 부분들 가운데 전체의 부분이라고 말하여진 것들은 로고스의 부분 과 에이도스를 지니는 것의 부분들 이라는 점 그리고 로고스의 부분들의 경우에는 류가 종의 부분이지만 에이도스의 부분들의 경우에는 종이 류의 부분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제애타 편 10 장에서 는 로고스의 부분 과 전체가 문제삼아 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이어서 전체 와 모든에 대해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보자

“ (26)그것들로부터 자연스레 전체 [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여지는 그 부분들 어떤 것도 부재(ἄπει 1023b26)해 [있지] 않는 것이 전체 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감싸여진 것[들]을 하나인 것 으로서 감싼 것(τὸ περιέχον 1023b27, 233 쪽을 참조하시오)이 [전체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이(전체)는 두 가지 로 [말하여진다] [이것(감싼 것 과 감싸인 것들)?] 각각 으로서의 하나 라고 말하여지거나 또는 이것들(감싸인 것들?)로부터의 하나 - 감싸인 것들이 합

해진 하나? -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우리들이 전체로 있는 것(ὡς ὅλον τι ὅν 1023b30)이라고 말하는 보편자 와 전체(τὸ καθόλου καὶ ὅλως 1023b29) 에 있어서 처럼 여럿을 감싼 것 으로서의 보편자는 각가가에 따라 그 카테에고리아된 것들을 감싸며 [여기서] 모든 하나(ἐν ἅπαντα 1023b31)는 예를들어 모든 사람 馬 神이 생물인 것 처럼 각각 으로서 있는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대 부분은 뒤나뮈스적(잠재적)으로 그러하지만 [때론] (뒤나뮈스적이) 아닐 경우에는 에네르게이아 적으로 (활동적으로) 여럿 이 속하는 하나인 것일 때 [의 전체는] 연속적인 것 과 제한된 것이므로(τὸ συνεχὲς καὶ πεπερασμένον 1023b33). 이러한 것들 가운데 자연스레 그러한 것들이 기교에 의해 그렇게된 것 보다 도 더 높은 정도에서 전체들이다 [실은] 전체란 **하나**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의 경우에 있어 말한다[(1016a4 참조)] ”

여기서 나는 약간 헤메고 있다 전체가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텔레스는 전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와 밀접히 연관되는 것 같다 우선,

자연스런 부분들이 하나도 부재(不在)하지 않는 것이 전체라고 말하여진다 그 다음으로,

어떤 것을 하나인 것(ἐν τι 1023b27) 으로서 감싸고 있는 것이 전체라고 말하여지는데 이러한 전체는 두 가지로 말하여진다 첫째,

[감싸인 것 과 감싼 것?] 각각이 하나인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데 우리는 보편자를 이러한 전체로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보편자는 자신의 여러 카테에고리아들을 그 각각 하나 로서 감싼 하나인 것이다 이 경우 모든 하나는 모든 사람 말 신이 생물 로서 각각 있듯 그렇게 있다 둘째,

감싸인 것들[?이 합쳐진] 하나인 것으로 말하여지는데 이러한 전체는 연속적인 것 과 제한된 것 이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전체는 대 부분 잠재적으로(뒤나메이) 때론 활동적으로(에네르게이아-) 여럿이 하나에 속한다 이러한 하나인 것 가운데 자연적인 것들이 기교에 의한 것(335 쪽 참조) 보다 더 전체들이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 가운데 내가 반드시 지적해야 만 하는 것들이 있

다 먼저,

전체를 두 번째로 말하면서 그는 부분이라는 말을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단지 첫 번째로 말하면서 딱 한 번 *부분*(μέρος 1023b26)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을 뿐이다 이점은 그의 섬세한 분별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를 단순히 부분들의 합으로 여기기 만 하는 분별력 없는 자들은 단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첫 번째로 전체라고 말하는 것 만을 전체라고 말할 것이다 전체는 ‘부분들의 어느 하나도 자신에 부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표현은 단순히 ‘부분들의 합’이라는 표현 보다 훨씬 덜 원숭이 다운 표현이다 그리고 전체는 부분들의 단순한 합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아니 전체는 부분들에 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두 번째로 전체에 관해 말하면서 아예 부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그는 두 번째로 전체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 와 여럿*(πολλά 1023b30,33)을 *부분* 대신에 말하는 것 같다 두 번째로 부분에 대해 말하는 그에 따르면 소위 부분이건 전체이건 모두 하나인 것이다 특히 전체가 하나인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전체를 그는 보편적인 것 과 연속적인 것등 두 가지로 말한다 보편적인 것은 여러 하나인 것들 각각을 모든 하나 로서 감싸고 있는 것인 반면에 연속적인 것은 여러 하나인 것들을 뭉쳐(ένυπαρχόντων 1023b33)감싼 것 이라고 말하여지며 연속적인 하나 전체에는 여러 하나들이 주로 잠재적으로 뭉쳐 있지만 때론 활동적으로 뭉쳐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보편적인 하나 전체에 속해있는 여럿 모두는 신(神) 과 말(馬) 과 사람 모두가 생물 하나인 것 처럼 그렇게 있다 이러한 로고스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세 번째로,

내가 지적해 내고 싶은 점은 전체를 그는 하나인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하나에 대한 그의 로고스를 엄밀히 살펴 본 후에야 가능할 것이리라 때가 오면 이 하나에 대한 그의 로고스를 추적할 것이다

전체를 **모든** 것(πάν 1024a2) 그리고 **토탈**과 구분함 으로서 그는 전체 와 **부분**에 관한 로고스를 마친다

“ 아르케에(시작) 과 중간 과 마지막을 지닌 것들 가운데 위치(ἡ Θεοῦ

ς 1024a2, 336-337쪽 참조, 그리고 1016b25의 ἄθετον을 참조)가 차이 나지 않는 것들은 **모든** (πάν 1024a2)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에 위치가 차이 난 것들은 **전체** 라고 말하여지고 그 양자(위치(경향)이 바뀐(τῆ μεταθεσει 1024a4) 후에도 그 걸 모습(모르페에)은 바꾸지 않으면서 자연이 동일하게 머무르는 그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모든 과 전체(토탈) 이라고 말하여진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양자(ἀμφω 1024a6 兩者)적이기 때문이다

물 과 액체 와 수(數)는 모든 이라고 말하여지지 전체 수 그리고 전체 물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물론 비유적으로 말하여지지 않을거라면 말이다 모두가 **하나** 로서 적용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분리되어 다루어질 때는 이 모든 수 이 모든 모나드 [라고 말하여진다]. ”

그에 따르면 전체는 모든 과 토탈(모든 과 전체)에 구분된다 처음 과 가운데 와 끝을 지닌 것들 가운데 그 경향(위치)가 차이 나는 것들이 전체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그 경향(위치)가 차이 나는 것들은 모든이라 말하여지고 차이 나는 것들 그리고 차이 나지 않는 것들 이 양자는 토탈(모든 과 전체)라고 말하여진다 왁스 나 껌질 처럼 위치(경향)이 바뀌어도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자연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토탈(모든 전체)인 것들이 다 그렇다면,

시작 과 가운데 와 끝을 지닌 하나인 것 가운데 그 위치(경향)가 차이 난 것들이 전체라 말하여진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이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위치(경향) 와 차이(διαφοράν 1024a2)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밝혀져야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빨리 여기서 빠져 나가고 싶어 도망간다 머리가 헛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향에 대해서는 247 쪽을 참조하고 차이에 대해서는 1037b10 이하 제 12 장을 참조하라 12 장을 지나야 313 장에서 암시된 것 처럼 어느 정도 밝혀질 것 같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그의 말을 계속 따라가 보자

“ 부분⁴¹⁴)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그 중의 하나가 량에 따른 측정된 것(τὸ μετρούν 1034b33)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이것은 제쳐두고 실체를 이루는 부분들에 관해 조사해보자

만약 한 편으로 질료가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에이도스가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이것들(질료 와 에이도스)로 [이루어진] 것이 있으며 그리고 질료 와 에이도스 와 이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실체라면⁴¹⁵) 한 편으로 **질료**가 어떤 것의 부분이라 말하여지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에이도스의 로고스**를 [이루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 들어 살은 폭 꺼짐의 부분이 아니다 이것(살)은 그것(폭 꺼짐)이 거기서 생성되는 질료이기 때문이다 (살은) 들창(코)의 부분이다 그리고 청동은 합쳐진 전체 [곧] 흉상의 부분이지 에이도스라 말하여지는 흉상(ἀνδριάντος 1035a7)의 부분이 아니다 에이도스 와 에이도스를 지닌 것이 각기 것(ἕκαστον 1035a8)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다 질료적인 것 그 자체(καθ' αὐτὸ 1035a9)가 (각기 것) 이라고 말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⁴¹⁶) 이 때문에,

415) 질료가 실체는 아니라는 것은 298쪽에서 이미 말하여졌다 여기에서는 ‘εἰ (1035a1라면)’이 쓰였다는 점에 유의하라 실체의 부분에 어떤 것들이 속할 수 있을까 라는 물어보면서 먼저 질료일까 라고 답해 보는 중임을 염두에 두라

416) 프라그마 로서의 ‘들창(σινότητος 1035a5-6)’ 와 ‘흉상(胸像)’의 사례(事例)는 제에타 편에 걸쳐 두루 나타난다 들창(코)에 대해서는 316-317, 321 쪽을 보고 흉상에 대해서는 340-341쪽을 보시오

청동은 합쳐진 전체 [곧] 흉상의 부분이지 에이도스라 말하여지는 흉상(ἀνδριάντος 1035a7)의 부분이 아니다에서 흉상은 남자의 상(像)을 말하며 이러한 말은 청동이란 남자의 像 과 靑銅이 합쳐진 전체(296 쪽 참조)의

원의 로고스는 호들의 로고스를 지니지 않으나 음절의 로고스는 철자들(τόν στοιχείων 1035a10)의 로고스를 지닌다 철자들은 에이도스의 로고스의 부분들이지 질료(의 부분)이 아닌 반면에 호들은 질료가 함께하는(ἐπιγιγνεται 1035a12)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둥근이 청동에서 생성할 때 청동이 [에이도스에 가까움] 보다(ἢ 1035a13) [그것들은(호들? 철자들?)은] 에이도스에 더 가깝다 그러나,

모든 철자들이 음절의 로고스에 주어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들어 밀납에 찍혀진 철자들 또는 공기 안에 [떠도는] 철자들 처럼 말이다 이미 이것들은 음절의 감각적인 **질료**로서의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선이 만약 반으로 나뉘어져 사라지거(φθεῖρεται 1035a18)나 또는 사람이 뼈 근육 살로 나뉘어져 (사라질) 때 [그것(반 뼈 근육 살? 아니면 선과 사람?)들은] 실체의 부분들로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질료로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들(?)은] 합쳐진 전체의 부분들이고 자신의 로고스가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의 그리고 에이도스의 (부분들이다) 따라서 더 이상 [그것들은] 로고스들 안에 [주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한 편으로 그러한 부분들의 로고스가 현재하나(ἐνέσται 1035a22) 다른

부분이지 남자의 像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살은 예를들어 코의 푹 꺼짐이 거기서 생성하는 바로 그 질료 일 뿐이다 따라서 살이 어떤 것의 부분 이라면 청동이 남자의 흉상과 청동이 합쳐진 전체의 부분인 것 처럼 코의 살 과 푹 꺼짐이 합쳐진 들창(코)의 부분이지 푹 꺼짐의 부분이 아니다 청동이 남자의 흉상의 부분이 아닌 것 처럼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텔레스는 (남자의 흉)像 곧 남자의 허리 위부터 머리 까지의 모습을 에이도스라고 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다 바로 밀 줄 (1035a8)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에이도스 와 에이도스를 지닌 것이 각기 것 이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것을 이어보라 각기 것은 에이도스 이므로 예를들어 남자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 과 청동이 합쳐진 것은 모두 각기 것 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각기 것 또는 각각(ἕκαστον 1035a8)에 대해서는 287 쪽을 참조하시오

한 편으로 함께 묶이지 아니하는 한⁴¹⁷⁾ (그러한 로고스가) 결코 (현재)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것들은 [그것] 으로 사라지는 그 아르케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예를들어 들창(코) 와 청동으로된 공과 같은 것들은 그것들(ταύτα⁴¹⁸⁾1035a27) 과 그것들의 부분 [곧] 질료로 사라진다 그러나 질료와 함께 묶여진 것이 아니라 질료 없이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로고스가] 단지 에이도스의 로고스 뿐 인 그러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으며 이러한 길에서 전체적으로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동일한 것들 τὰ ὑφ' αὐτὰ 1035a31-35)이 저것들⁴¹⁹⁾의 아르케 요 부분인 반면 저것들은 에이도스의 아르케도 아니요 부분들도 아니다 그러므로 진흙으로된 흉상은 (진흙으로) 사라지고 (청동으로된) 공은 청동으로 사라지며 칼리아스는 뼈 와 살로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원은 호들로 사라진다 [예를들어 원과 같은 것들은] 질료와 함께 묶여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말하여지는 원 과 각기 것에 따라 말하여지는 원⁴²⁰⁾은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진다 각기 것들에 고유한(ἰδιον 1035b2) 이름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지금 까지 말하여진 것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한다 약간 내가 헛갈리기 때문이다

실체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성되는 어떤 것에 가장 먼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이 무엇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똑 같은 것을 질료에다 낳는 그러한 것이다 순수하게 말하면 이것의 정의 만 있

417) 그 로고스가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 곳에서 라고 로스는 번역한다(798 쪽)

418) 그러한 것들의 재료(materials) 라고 로스는 번역한다(798쪽)

419) 질료와함께 이러한 동일한 것이 묶여진 것들.

420) 개별적인 원 이라고 로스는 번역한다 (로스 798) 각기 것을 개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로스 처럼 번역할 수 있으리라 내 생각으로도 로스의 번역은 그렇게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 같다

을 뿐이다 그 정의가 바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이다 자신에 대한 로고스와 정의가 동일한 것은 이 무엇일 뿐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외의 어떤 것도 자신의 로고스가 곧 바로 정의 일 수는 없다 자,

이러한 로고스의 부분들을 살펴보자 어떤 부분은 그 전체에 속하나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다 예를들어 원의 부분인 호와 음절의 부분인 철자를 보아라 원의 로고스는 호의 로고스를 지니지 않으나 음절의 로고스는 철자의 로고스를 지니므로 호의 로고스는 원의 로고스에 속하지 않으나 철자의 로고스는 음절의 로고스에 속한다 왜 그러한가 원이 호로 나뉘어지는 것과 똑 같이 음절도 철자로 나뉘어지는데도 말이다

철자들은 에이도스의 로고스의 부분으로서 질료적이지 않는 반면에 호들은 질료가 섞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자들의 로고스는 음절들의 로고스에 속하지만 호들의 로고스는 원들의 로고스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그의 로고스를 보고 있으면 그 부분⁴²¹⁾에 질료가 섞여 있느냐 또는 섞여 있지 않느냐에 따라 부분의 로고스가 전체의 로고스에 속하든지 또는 속하지 않든지 않다 철자⁴²²⁾에는 질료가 섞여있지 않으므로 철자의 전체인 음절의 로고스에 철자의 로고스는 속하는 반면에 호에는 질료⁴²³⁾가 섞여져 있으므로 호의 전체인 원의 로고스에 호의 로고스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텔레스의

421) 여기서 다루어지는 부분은 로고스의 부분이지 량이 측정되어 나누어진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라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고 싶으면 371 쪽 각주 414 번을 보라

422) 이 철자는 소리로 나타난 알파벳이나 종이에 쓰여진 알파벳을 말한 것 같지는 않다 그는 1035a14-16에서 ‘밀랍(종이) 또는 공기 안에 [떠도는] 것(τὰ κήρυκα ἢ τὰ ἐν ἀέρι)’ 과 같은 철자들의 로고스는 음절의 로고스에 현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철자들의 로고스가 음절의 로고스에 현재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디에서인가 가 지금 나에게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 어디에선가 로고스란 글(文)이 아니라 말(소리)을 가리킨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와 연계시켜 숙고해 볼 만 하다 그는 말하여진다(레게타이) 라고 함으로서 자신의 논증의 근거를 찾기 때문이다

생각이다 그렇다면,

로고스⁴²⁴)에는 한 편으로 질료가 섞인 것의 로고스가 있고 질료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의 로고스가 있을 것이므로 로고스의 부분에도 한 편으로 질료인 것(호)이 있고 질료 아닌 것(철자)이 있을 것이며 그러기에 질료(예를들어 살 과 청동) 역시 어떤 것(들창(코) 와 청동으로된 흉상)의 부분이며 에이도스(예를들어 남자의 허리 위 앞 모습(흉상))도 어떤 것의 부분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한 편으로 질료가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에이도스가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질료 와 에이도스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있으며 질료 와 에이도스 와 이 둘로 이루어진 것이 실체이기때문이다⁴²⁵)그런데,

질료 와 에이도스로 이루어진 것들(예를들어 들창(코) 와 청동으로된 공 과 칼리아스 와 원-둥근 것)은 질료(예를들어 청동 과 뼈와살 과 호)로 사라진다 바로 이러한 것들의 로고스의 부분은 로고스의 전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나 질료와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질료 없이(ἀνευ 1035a28) 있는 것(예를들어 음절⁴²⁶)의 로고스에는 질료 없는 그 부분(예를들어 철자)

423) 요놈의 질료가 문제이다 **질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 모습이 아마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질료에 대한 중간 요약은 351 쪽 각주 381 번을 참조 하시오 거기의 요약에 질료 그 자체는 각기 것(καθ' αὐτὸ 1035a9)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여기 언급을 덧붙혀보라

424) 10 장에서 그는 로고스의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다짐해보라

425) 그가 1035a2에서 질료를 실체라고 한 것은 질료도 일 종의 기체이며 기체는 알론한 것들을 자신의 카테아고리아로 삼는다 라는 점에서 바로 실체와 같다 라는 자신의 생각의 아마 연장일 것이다 이에 관한 로고스는 298 쪽을 참조하십시오

426) 여기서 그는 직접 에이도스 라는 말을 쓴다 그에 따르면 에이도스는 질료 없이 있으며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움직여지고 있거나 또는 알론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거

의 로고스가 속해 있으며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그의 말을 따라가 보자

“ 진실이 말하여졌다 그러나 같은 질문을 던져 가면서 더 선명하게
우리 말해 보기로 하자

로고스의 나뉘어진 부분들은 모든 것이든 또는 하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더] 먼저⁴²⁷다 그런데,

나 또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질료와 이 자동적으로 또는 기교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에이도스가 묶여질 때 비로소 어떤 것이 생성된다 이 경우에 에
이도스는 생성된 것과 나란히(παρά 1033b27, 350쪽 참조) 있다 따라서 생성
에 있어서는 에이도스를 그 생성(된 것)과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이데아론자들을 비판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생성되고 있는 것들
로 가득 찬 이 우주와 나란한 에이도스 우주를 상징하는 것은 프라그마에
들어 맞는 말이 아니다(아-토포스) 분리되어 생성되고 있는 우주는 생각 할
수 없다 생성은 질료 안에 에이도스가 스스로를 낳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마찬 가지로 질료 없는 에이도스도 있다 라고 그는 말한다 나는 여기
서 별 말을 얹으려나 단지 그가 있다 라고 말할 때 있다를 그는 여러 가지
로 말하고 있으므로 호모뉘모스하게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
(1036b32-35, 176쪽 참조) 그리고 실체는 쉬노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진다(176
쪽 참조)는 점 만 지적하고 넘어가려한다

427) 먼저 와 늦은에 대해서는 261 쪽을 참조하시오 아울러,

질료(적인 것의) (로고스의) 부분이 그 (로고스) 전체 보다 나중인 이
유에 대해 말하면서 텔레스는 정의를 이끌어들인다 문제의 그 부분을 정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체가 먼저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
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곧 에이도스의 로고스가 정의 라고 그가 거듭 말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308, 318, 383 쪽을 참조)

직각의 로고스는 예각의 로고스로 나뉘어지지 않으나(οὐ διαίρεῖται 1035b5) 예각의 로고스는 직각(의 로고스)로 (나뉘어진)다 예각을 정의하려는 자는 직각을 써야하기(χρήται 1035b7) 때문이다 원 과 반 원도 이와 같다 반원이 원에 의해 정의 되기 때문이다 손가락도 전체 [몸]에 의해 정의 된다 손가락은 사람의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ὡσθ' 1035b11),

질료의 나뉘어진 부분들은 무엇이든지 [더] **늦다**⁴²⁷ 그러나

로고스의 그리고 실체의 그리고 로고스에 따른 것의 (나뉘어진) 부분들은 모든 것이든 하나이든 무엇이든 간에 [더] **먼저**다 나아가서 생물의 영혼은 - 이것은 영혼을 지닌 것의 실체 이기 때문에 - 로고스에 따른 실체이며 에이도스이며 그러한 몸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므로⁴²⁸) 최소한도 우리가 잘 정의 하려면 감각적인 것 없이는 속할 [수] 없는 바로 각 부분의 그 작용(τοῦ ἔργου 1035b17)을 지시함 없이 각 부분을 정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혼의 부분들은 모든 것이든 하나이든 합쳐진 전체 [곧] 생물 보다[더] 먼저다 각기 것에게도 이와 같다 그러나(δὲ 1035b20),

몸 과 이(몸)의 부분들은 실체의 그것들(부분들) 보다 [더] **늦다** 그리고 질료 로서의 여러 부분들로 나뉘어지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합쳐진 전체이다 한 편으로 이 (여러 부분)들은 합쳐진 전체 보다 [더] **먼저** 이나 다른 한 편으로는 그렇지 않다⁴²⁹) [전체와] 분리된다면 그 부분들은

428) 영혼에 관하여 412b10-15를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텔레스노우트 46'- 42 쪽을 참조하십시오

429) 먼저이지 않는 경우의 사례들이 이어 들어지므로 그러한 경우는 프라그마적으로 뒷 받침된다 그러나 먼저인 경우의 보기들이 들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할까 영혼을 보기로 들면서 그는 에이도스 부분은 그 전체 - 여기서 에이도스 전체 라기 보다는 합쳐진 전체일 것 같다 그러나 그의 논리에 따르면 에이도스 전체여야 한다 - 보다 먼저 라는 것을 뒷 받침 했는데.....그리고,

질료의 부분들은 그 전체 - 여기서도 질료 전체 보다는 합쳐진 전체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질료 전체여야 그의 논리에 맞는다 - 보다 나중에 라는 것을 뒷 받침하기 위해 든 보기들은 합쳐진 전체의 부분은 그 전체

심지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생물의 손가락 이라고 해서 모두 [손가락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죽은 손가락은 단지 호모오뇌모스하게 만 [손가락이다] 또,

어떤 (부분은 합쳐진 전체와) 동시적이다(ἄμα⁴³⁰ 1035b25) 로고스와 실체가 주로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부분들)이 예를들어 만약 열 또는 두뇌 라면 그럴 것이다 이 둘 가운데 어느 것도 [그렇지] 않다 라는 [문제는 최소한도] 제기되지 [않기] 때문이다⁴³¹ 그런데,

사람 과 말 그리고 각기 것들에 [적용되는 것들은] 이 로고스와 보편자로서의 저 질료로 이루어진 합쳐진 전체이다 보편자(καθόλου 1035b28)는 실체가 아니다⁴³² 각기 것으로 [간주되는] 소크라테에스는 이미 자신 안에 궁극적인 질료로부터 있다 알론한 (각기) 것들도 이와같다

에이도스 - 에이도스를 나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 한다 - 의 부분이 한 편으로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그 에이도스와 질료로 이루어진 합쳐진 전체(τού συνόλου 1035b33)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질료 그 자체⁴³³]의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보다 나중이다 라는 것을 뒷 받치기 위해 들어진 보기들과 겹치는 것 같다 하여간,

그가 들고 있는 보기들은 나를 약간 혼란스럽게 한다

430) 동시에 대해서는 270 쪽을 참조하십시오

431) 먼저 또는 나중이다 라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여기가 나에게 분명치 않다

432) 보편자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13 장에서 말하여진다

433) 본문에는 ‘καὶ τοῦ συνόλου τοῦ ἐκ τοῦ εἴδους καὶ τῆς ὕλης αὐτῆς. (1035b33)’ 라고 나와 있다 ‘.....그대로 옮기자면 그 에이도스와 그 질료 자체로 [이루어진] 것의 합쳐진 전체의 (부분이 있다)’ 라고 될 것이다 그러나 로스는 진한 ‘아우테에스’를 떼어내 그 아우테에스를 [질료] 자체의 부분이 있다 라고 번역한다 로스 처럼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도 일단 로스 처럼 생각했다 무난할 것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이도스의 부분들 만이(μόνον 1035b34) 로고스의 부분들이다 그런데 (δε1035a4) 보편자의 로고스가 있다 등금에 있음 과 등금 그리고 영혼에 있음⁴³⁴) 과 영혼은 동일한 것(ταυτό 1036a1)이기 때문이다⁴³⁵) 또한(δε 1036a2),

예를들어 이 등금과 같은 합쳐진 전체의 곧 감각적 이든 생각적 이든 (νοητὸν 1035a3) 각각인 어떤 것(등금)의 정의(ὁρισμός 1036a6) - 나는 생각 적인에 의해서 수학적인 을 말하며 감각적인에 의해서 청동으로된 과 나무 로된을 말한다 -의는 있지 않다 [이런 것은] 노에시스 와 감각에 의해서 인 식된다 그런데 현실태로부터 멀어질 때 이 둘(감각적인 것 과 생각적인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 지 또는 있지 않을지가 분명하지 않다⁴³⁶) 그러나

연이어지는 사유들은 나를 머뭇거리게한다 질료의 부분도 있을까 ‘질 료 로서(ὡς 1035b12) 부분’ 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한다 그리고 나도 이 부분을 질료의 부분이라고 옮겼다 이렇게 보면 질료의 부분 이라는 말이 성 립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질료란 규정적이지 않다(297쪽 참조) 규정적 이 않는 것에 그 부분이 있을까.....

434) 여기서 쓰인 εἶναι(있음)는 동일함을 나타내는 듯 하다 영혼에 있음 과 영혼 그것이다(영혼에 있음과 영혼은 동일하다) 라는 말은 있음은 모든 것(여기서는 영혼)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324 쪽 과 327 쪽을 참조하시오

435) γὰρ(1036a1)에 의해서 그 이유 로서의 뒷 로고스(문장)에 그 이유로 서 이어지는 앞 로고스는 무엇인가 단지 에이도스의 부분 만이 로고스의 부 분이다 일까 아니면 그런데 보편자의 로고스가 있다 일까 아니면 이 둘일까 애매하다

등금에 있음 과 등금 그리고 영혼에 있음 과 영혼이 동일하기 때문에 에이도스의 부분 만이 로고스의 부분이다 라고 나는 이해하는게 더 나를 성 싶다 그는 에이도스를 바로 앞(1035b32)에서 (각기 것에)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모르페 에(형식)이 ‘등금 것 또는 등금에 있음’의 모르페에와 같을 것 같기 때문이 다 이 이상으로 나는 말 못하겠다

보편자의 로고스에 의해서 반드시 말하여지거나 인식되어진다 또한,

질료는 그 자체 인식되지 않는다(ἄγνωστος 1036a9)⁴³⁷⁾ 아울러 질료는 한 편으로 감각적인 (것)으로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생각적인 (것)으로 있다 예를들어 청동 과 나무 와 [어떻게든] 움직이는 것과 같은 질료가 감각적인 (질료)이며 생각적인 (질료)는 감각적인 것들은 아니지만 그 감각적인 것들 (안)에 속하는(ὑπάρχουσα 1036b11)⁴³⁸⁾예를들어 수학적인 것들이다

전체 와 부분에 관해 그리고 먼저 와 늦음에 관해 어떤한가 가 한편으로 말하여졌다 다른 한 편으로,

직각 과 원 과 생물이 먼저인가 또는 순수한 것들이 아니므로 [이것들이 그것들로] 나뉘워진 [바로] 그것들 과 (그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곧 부분들이 먼저인가 라고 물어졌을 때 마다 반드시 답해야한다

만약 영혼이 영혼을 지닌 각기 생물이거나 또는 (영혼을 지닌) 각기 (생물)의 (영혼) 이라면 그리고 원이 원에 있음이고 직각이 직각에 있음이며 실체가 직각의 (실체)라면 한 편으로 무엇(τι 1036a19 전체)는 어떤 것(τινος 1036a19 부분) 보다 더 늦다 라고 말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로고스 (안)에 [속한] 것들(의 부분들) 과 어떤 직각(의 부분들 보다 더 늦은 것) 처럼 [말이다] 청동으로 된 직각은 질료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으로,

질료 없는 것은 한 편으로 로고스 (안)에 (속하는) 것(부분)들 보다 늦으나 다른 한 편으로 각기 것 (안)에 (속하는) 부분들 보다 먼저다 따라

436) 그러나 합쳐진 전체 예를들어 청동으로 된 고리는 현실적인 것(ἐντελεχειας 1036a7)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다 면 청동으로된 이 고리가 있을지 있지 않을지는 분명치않다

437) 질료는 인식되지 않으나 질료로부터 생성된 것은 보편자의 로고스에 의해서 인식된다는 말인데.....우선 보편자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봐야 겠다 그러나 보편자에 대해서는 13 장에서 말하여지므로 서두를 것은 없고....

인식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중요하다

438) 로스는 799 쪽에서 주어진(is present in)이라고 번역한다

서(δè 1036a23),

단순하게 답해져서는 않된다 또한,

영혼은 생물이 아니라 헤테론 하더라도 말하여졌던 것 처럼 한 편으로 먼저이나 다른 한 편으로 (먼저가) 아니다 라고 답하여져야 한다 ”

부분이 전체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에 대해 이제 까지 말하여진 것은 진실이라 라고 하면서 그는 부분이 전체 보다 먼저 인가 아니면 나중 인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비록 질료(적인) 부분도 문제 삼아지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은 에이도스 부분을 축으로해서 그의 10 장 전체의 로고스가 펼쳐지므로 에이도스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제애타 편 1 장부터 여기 10 장 까지 근본적으로 문제 삼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10 장에서는 이 무엇의 또는 질료(적인 것)의 로고스의 전체 와 부분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 가 말하여진다 10 장 전반 부에서는 질료(적인 것)의 부분의 로고스는 질료(적인) 것의 전체에 속하지 않으나 이 무엇 곧 에이도스의 부분의 로고스는 에이도스 전체의 로고스에 속한다는 것이 말하여지는 반면 10 장 후반 부에서는 질료의 나뉘어진 부분들은 나중이며 에이도스의 부분은 에이도스의 전체 보다 먼저인 반면 합쳐진 전체의 부분은 합쳐진 전체 보다 어떤 때는 먼저이나 어떤 때는 나중이며 어떤 때는 동시적 이라는 것이 그리고 단지 에이도스의 부분 만이 로고스의 부분 이라는 것이 그리고 질료 그 자체는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합쳐진 전체의 정의는 있지 않으나 생각(노에시스) 과 감각에 의해서 합쳐진 그 전체는 인식된다는 것이 말하여진다 첫째,

질료 부분은 그 전체 보다 나중이고 에이도스 부분은 그 전체 보다 먼저인 반면 합쳐진 전체는 어떤 때는 먼저이나 어떤 때는 나중이며 어떤 때는 동시적이다

예각 또는 반 원 또는 손가락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직각 또는 원 또는 전체 곧 몸이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질료의 부분들은 나중이며 영혼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의 감각적인 작용을 지시함 없이 그 각 부분을 정의해야 할 것 이므로 영혼의 부분은 합쳐진 전체 곧 생물 보다 먼저이다⁴³⁹⁾그러나,

합쳐진 전체⁴⁴⁰)의 부분은 합쳐진 전체 보다 먼저 이거나 또는 먼저이지 않다 그 부분이 전체와 분리된다면 부분들은 심지어 있을 수 없으므로 그리고 죽은 생물의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고 단지 호모뉘모스한 것으로서 만 손가락이기 때문이다⁴⁴¹)아울러 어떤 부분은 동시적이다 열 과 두뇌처럼 말이다 이 열 과 두뇌에는 로고스 와 실체가 주로 들어있으며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먼저 또는 나중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⁴⁴²) 둘째,

에이도스의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부분 과 이 에이도스와질료로 이루어진 합쳐진 전체의 부분 과 지료 그 자체의 부분 등 그는 부분을 세 가지 [종]으로 나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단지 에이도스의 부분 만이 로고스의 부분 일 뿐이다⁴⁴³) 그런데,

439) 직각, 원, 예각, 반 원, 등은 그에 따르면 수학적인 질료(부분)인 반면에 영혼은 에이도스 곧 생물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 생물의 실체이다 따라서 나중에 말하여질 것이지만 로고스의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에이도스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뿐이므로 여기 보기들 가운데 영혼 만 이 로고스(의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40) 질료 로서의 부분로 나뉘어지는 것은 바로 이 합쳐진 전체이지 실체 곧 에이도스가 아니다 여기서 ‘로서(ὡς 1035b21)’가 문제이다 나는 앞에서 (382쪽) ‘호오스’를 ‘의’ 라고 옮겨 질료‘의’ 라고 옮겼다 그러나 질료의 라고 옮기고 보니 어딘가 어색했다 그러나 그렇게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런 옮김은 불안한 구석을 몰고왔다.....

439) 손가락은 그 부분이 전체 보다 먼저인 경우인가 아니면 먼저가 아닌 경우인가 아닌 경우 같다 아울러 전체 없이는 부분이 있지 않다 라는 로고스도 아닌 경우를 나타내는 것 같다 그렇다면,

먼저인 경우의 보기를 그는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442) 383 쪽에서 말 하여진 것 처럼 여기에서 나는 애매해진다

443) 전체 역시 부분에 상응하게 세 가지 [종(에이도스)]로 나뉘어 질 수 있느냐 라는 물음을 나는 던지고 싶다 사실 부분을 그가 세 가지 [부류]로

그에 따르면 보편자의(τοῦ καθόλου 1036a1) 로고스도 있다 그러나, 수학적인 것이든 감각적인 것이든 각기 것의 곧 합쳐진 전체의 정의는 그에 따르면 있지 않다 단지 합쳐진 전체 각각은 노에시스 와 감각에 의해서 인식 될 뿐이다 이것들이 현실태와 떨어져서도 있을 수 있을 런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보편자의 로고스에 의해서 인식되어진다⁴⁴⁴) 그러나 셋째,

질료 그 자체는 인식되지 않는다 질료와에이도스로 이루어진 각기 것 곧 합쳐진 전체는 범주론에 따르면 제 이 실체인 에이도스에 의해서 가리켜 지고⁴⁴⁵) 여기에 따르면 보편자의 로고스에 의해서 인식되긴 해도 말이다 예를들어 청동 과 나무 와 움직이는 [모든] 것과 같은 감각적인 질료 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적인 질료(ἡ νοητή 1036a9-10)도 있다 바로 수학적인 것이 그러한 생각적인 질료에 속한다 라고 그는 말한다

여기 까지 [우리는] 전체와부분 그리고 먼저와나중에 대해 말했다 라고 마무리 지으면서 그는 직각 원 생물 등의 사례(事例)⁴⁴⁶)들을 다시 열거

확실하게 나누었는지 조차 분명하지 않다(383쪽 각주 431 참조 하십시오)

444) 형이상학에서 보편자는 어떤 자신의 역할을 지닐까 13 장에서 말하여 질 것이지만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나 여기 10 장에서는 에이도스의 로고스가 로고스의 부분이며 보편자의 로고스도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는 도대체 보편자에 어떤 역할을 맡길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13 장을 거치면서 드러날 것이다

445) 알려진다 또는 인식된다 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알려지거나 또는 인식된다 라고 말 해야 할 것이다 그 자체 알려지는 것은 에이도스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범주론 부분을 못 찾겠다 형이상학 이라는 강의록에서 이와 관련된 말이 나왔는가? 아니야 분명히 범주론에 나와 있었는데...

446) 이러한 사례들은 이미 다 가리켜진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확인해 보는 그의 의도는 무엇일까 아마 어떤 로고스를 구체적인 사례 제시 통해 뒷 받침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 불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어

하여 그 먼저와나중에 관련된 물음에 대한 답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프라그마를 선명하게 말해 보려 한다

직각 과 원 과 생물이 먼저 일 까 아니면 이것들을 이루고 있는 것
(부분)들이 먼저일까 먼저,

앞 로고스에 따르면 직각과원의 부분인 예각과반원⁴⁴⁷⁾은 그 전체 보
다 **나중**이다 예각과반원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체인 직각과원
과이 말하여져야하나 그 거꾸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물에 연관된
부분 곧 손가락의 경우에는 좀 애매했다(382쪽각주429번참조)

생물의 손가락이라고 해서 다 손가락은 아니다 죽은 [생물의] 손
가락은 단지 호모뉘모스하게 말하여지는 손가락일 뿐이기 때문에 손가락
은 생물 보다 먼저가 아닐 것이다⁴⁴⁸⁾라는 로고스가 나온다 먼저 일지 먼저
가 아닐지가 애매하다 그리고 영혼의 부분은 그 전체⁴⁴⁹⁾보다 **먼저**이다 정
의되려면 감각적인 것 곧 그 부분의 작용이 가리켜짐이 없이 그 부분이 정
의 되어져야한다 영혼은 에이도스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각 과 원 과 영혼은 앞 두 가지는 자신의 부분 보다 먼저인 반면
영혼은 그 [합쳐진] 전체 보다 먼저인 셈이된다 자 그렇다면,

서가 아닐까 그 자신이 논증 과 귀납 과 단순 열거 방식에 대해 말해 놓은
것이 있다 아직 내가 분석론 전 후 편 과 해석론 과 토피카를 직접 읽지는
못 했으나 타 메타 타 퀴지카 만 가지고도 그 열개를 드러 낼 수 있다 알파
베타 감마를 거치는 동안 특히 감마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카파도 이러
한 열개를 나타낸다

447) 이 모든 것을 그는 질료적인 것이라 말한다

448) 그 내용의 이어짐으로 보자면 먼저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먼저일 것
이다 라고 말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μὲν(멘, 한 편으로) δ'(데,
다른 한 편으로). 로 이어지는 γὰρ(가르, 1035a23, 때문이다)로 앞 뒤 두 문
장이 묶여져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이다

449) 아무리 보아도 그 전체는 영혼 전체가 아니라 합쳐진 전체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직각과원과생물 보다 그것들을 이루는 그리고 그것들의 나뉘어진 부분들이 먼저인가 라고 여기서 다시 물어진다 직각 과 원의 부분은 나중이며 생물의 부분은 먼저가 아닐⁴⁵⁰⁾ 것이며 영혼의 부분들은 [그 합쳐진] 전체 보다 먼저이다 라고 앞에서는 말하여졌었다

만약 원이 원에 있음이고 직각이 직각에 있음이며 직각의 실체라면 그리고 영혼이 영혼을 지닌 각기 생물이거나 그 각 생물의 영혼이라면 [그 부분들은 그것들(원과직각과생물?)보다 나중이라고 말하여져야한다 그러나,

질료없는 것은 한 편으로 로고스에 속한 것(부분?⁴⁵¹⁾) 보다는 나중이나 다른 한 편으로는 각기 것에 속하는 부분 보다 먼저다 따라서 영혼은 생물이 아니라 생물과 헤테론하더라도 한 편으로는 먼저이나 다른 한 편으로는 [먼저가] 아니다 라고 말하여져야한다 따라서,

10 장 후반 부의 마무리 부분에서는 질료적인 부분이 그 전체 먼저인가 나중인가 가 확인되기 보다는 에이도스의 부분이 전체 곧 에이도스 전체 또는 합쳐진 전체 보다 먼저인가 나중인가 가 확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물 흐르듯 치밀하게 펼쳐지는 그의 로고스에 들어 맞는다 그는 에이도스 곧 있어지고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해오고 있으며 생물의 에이도스는 생물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영혼이 영혼을 지닌 생물이거나 각 생물의 영혼이라면 그 전체 보다는 나중인 반면 영혼이 각 생물과 헤테론하다면 한 편으로는 나중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먼저이다 없는 것은 로고스에 속한 것 보다는 나중이나 각기 것에 속한 것 보다는 먼저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을 그는 10 장을 두루 통해 하고 싶었고 전체 와 부분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으며 그리고 어느 것이 먼저이고 나중인가 라고하는 어려운 물음을 던졌 던 것이다 그는 에이도스(또는 영혼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전체는 그 에이도스 부분 보다 나중인 반면 합쳐진 전체 곧 각기 것의 전체는 자신의 부분 보다 먼저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450) 본문에서는 접속법(아닐 $\mu\eta$) 이아니라 직설법(아니다 $o\ddot{u}$ 1036b23)

451) 부분으로 해야 만 할 것 같다

내가 여기서 자꾸 ‘.....한 것 같다’ 또는 ‘.....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에이도스가 전체 와 부분으로 갈릴 수 있을 까 라는 의아심에서 였다 그에 따르면 실체 또는 에이도스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298, 310, 349) 질료를 지닌 것 만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없는 것 예를들어 철자(381참조)휴우

이어지는 11 장에서 그는 계속해서 부분에 관해 말하기는 하나 여러 내용들을 덧 붙인다 물론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축으로해서 말한다 그가 11장에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보자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에이도스의 부분들 만이 로고스의 부분들이며(384 쪽)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그 전체에 속한다 라고 말함으로서 에이도스의 부분으로 우리를 몰아 가는 가운데 우리 더러 11장에 닥아서도록한다 11 장에서 그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XI) “ 에이도스의 부분은 어떠한 것이며(ποίη 1036a26) [에이도스의 부분이]아닌 합쳐진 것의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어려움이 [이와] 비슷하게⁴⁵²⁾ 떠오른다 만약 이(어려움)이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각기 것도 정의하지 못할 것이다 정의(ὁ ὀρισμός 1036a29)는 보편자와 에이도스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

에이도스의 부분들이 무엇인가 라는 어려운 물음이 밝혀져야 우리는 정의에 닥아설 수 있다 정의는 에이도스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부분에는 에이도스 부분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료의 부분 과 와 에이도스의 부분도 있으므로 먼저 부분 과 질료와에이도스가 합쳐진 전체의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에이도스의 부분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그러한 부분들은 청동 과 돌 과 나무 와 살 과 뼈 등 질료적인 부분들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에이도스의 부분들 곧 실체의 부분들이 아니다

452) 부분들의 로고스는 전체의 로고스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라는 어려움이 떠오르면서 10 장은 시작 됨에 유의하라 (369 쪽 참조)

“ 이제 만약 어떠한 것들이 질료의 부분들이며 어떠한 것들이 질료의 부분들이 아닌가 가 선명해지지 않는다면 프라그마의 로고스도 선명해지지 않을 것이다⁴⁵³ 종적으로 헤테론한 것들에서(ἐφ' 1036a31) 생성되는 것들의 경우에 예를들어 등금(공)이 청동 과 돌 과 나무 안에 [있는 것 처럼]⁴⁵⁴ 이(청동 돌 나무)것들은 어떤 것도 등금 것의 실체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처럼 여겨진다 청동도 돌도 그것[등금 것의 실체?]들과 분리되기⁴⁵⁵ 때문이다 분리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들 가운데(ἄρα 1036a34) 어느 것도 그(에이도스)와 같다는 것을 금하는 것은 있지 않다⁴⁵⁶ 마치 모든 등금 들이 청동일 것 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3) 사태에 관한 말이 불 분명해 질 것이다 라는 말이다

454) 따라서 청동 과 돌 과 나무는 그 에이도스에 있어 헤테론한 것들이다 라고 말 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등금(원 또는 공)이라는 에이도스를 본문의 에이도스적으로 라는 말이 가리키지 않는다는 말 인데.....에이도스적으로 에서의 에이도스를 어떻게 받아드려야하지 ? 이제 까지 청동 과 돌 과 나무는 그에 의해서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이었다 그렇다면 에이도스적으로 헤테론한 질료들 이라는 셈인데 실제로 로스는 800 쪽에서in specifically.....materials, 라고 옮긴다 물론 휠레에를 matter라고 옮기기는 해도 말이다

455) 무엇으로부터 분리될까 등금 청동으로부터 청동이 분리된다 라고 나는 잠정으로 간주하련다 그러나 등금 청동으로부터 청동이 분리되는지 아니면 등금으로부터 청동이 분리되는지가 약간 애매하다 등금 청동(청동으로 된 등금 것)으로부터 청동이 분리된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나올 성 싶다 생성되는 것은 알론한 것으로부터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 가능하므로 (청동은 에이도스-등금-과) 분리된다 라는 로고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성되는 것 곧 청동으로된 등금 것은 알론한 것으로부터 생성되지 않는가 분리된 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라는 303 쪽의 말에 유의하라

456) 분리된 것 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 에이도스를 지니지 않도록 - 방해하는 것은 있지 않다 라는 말 곧 분리되 있지 않게 보이는 모든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분리되지 않으면 같다는 말이다

청동은 어떤 에이도스의 [부분]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청동)을 생각으로부터(τῆς διανοια 1036b3)몰아 내는 것은 심히 어렵다⁴⁵⁷⁾ 예를들어 사람의 에이도스는 살 과 뼈들 과 같은 부분들에서 항상 발견되어지는 것 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에이도스의 그리고 로고스의 부분들인가 아니면 질료인가(1036b6)⁴⁵⁸⁾ 그러나 알론한 것들에서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 가능하므로 분리된다⁴⁵⁹⁾ ”

등금이 각기 청동 과 돌 과 나무 안에 주어진 예를들어 등근 청동 과 등근 돌 과 등근 나무를 살펴보자 이 경우 청동 과 돌 과 나무는 등근 것의 실체가 아님은 분명하다 청동 과 돌 과 나무 등이 등근 청동 과 등근 돌 과 등근 나무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이다 분리되지 않는다면 아마 같은 것 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등금이 청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청동은 어떤 에이도스(등금)의 부분이 결코 아니다⁴⁶⁰⁾따라서 이러한 청동 등의 질료를 생각 끝에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 또,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자 사람의 에이도스는 살 과 뼈 등의 부분들에

457) 청동은 에이도스가 아니긴 하나 그렇다고해서 이러한 청동에 대해 숙고하지 않는다 - 염두에 두지 않는다 - 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 만큼 청동은 에이도스와 분리된 긴 하나 밀접히 붙어있다는 말이다 여기서의 디아노이아가 노에시스와 어떻게 구분되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에이도스는 노에시스적인 것이지 디아노이아적인 것은 아니며 그리고 디아노이아는 수학적인 것에 향한 노에시스 라고 잠정적으로 단정하기 때문이다

458) 로스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다 라고 옮김 으로서 물음 부호를 무시한다 (로스 800 쪽 참조) 그 물음에 던지시 드러나긴 하나 텔레스가 직접 말하지 않는 답을 로스가 제시하는 것 같다 크게 보아 무리는 없는 듯 한데.....

459) 알론한 것으로부터 살 과 뼈는 생성된다는 것이 살 과 뼈가 사람의 에이도스와 분리된다는 것의 원인이 될까 한 번 더 깊숙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60) 프라그마를 보라 청동이 어찌 등금인가 ! 이렇듯 텔레스의 로고스의 근거는 프라그마이다 반드시 어떤 로고스에 프라그마가 상응한다

서 발견된다 그렇다면 이 살 과 뼈는 질료인가 아니면 에이도스의 부분인가 그러나 살 과 뼈는 사람의 에이도스와 분리된다 알론한 것으로부터 반드시 생성되기 때문이다 분리된 이러한 살 과 뼈 등이 에이도스의 부분들이 아니라고 해서 생각 끝에 제거해 버리려 해서는 안된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질료를 제거해 버리므로서 모든 것을 하나로 해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다⁴⁶¹⁾ 피타고라스 사람들과 이테아론 자들을 질료를 제거하므로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로 그는 본다

“ 이것은 그럴 것 같다 라고 여겨지나 언제(πότε 1036b8) 그러한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서 선들 곧(καὶ 1036b9) 연속적인 것⁴⁶²⁾을 지시함에 의해서 등금 과 세모를 정의하는 사람은 옳치 않으리라⁴⁶³⁾ 그리고 이것들(선 등 연속적인 것들)은 살 과 뼈들이 사람에게 대해 있는 것 처럼 그리고 청동 과 돌이 흉상에 대해 있는 것 처럼 모든 것⁴⁶⁴⁾[에 대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등금 과 세모에 대한 아포리아(어려움)를 떠올린다 그리고선 모든 것들을 수로 [환원시킨다] 그러면서 선의 로고스는 둘의(τῶν δύο 1036b13) 로고스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테아들(τὰς ιδέας 1036b13-14)에 대해 말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두 겹(τὴν διῶδα 1036b14)을 선 그 자체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두 겹을 선의 에이도스로 [본다] 한 편으로 예를들어 두 겹 과 두 겹의 에

461) 이러한 그의 로고스(말)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말이 아님은 분명하다

462) 범주들에 따르면 선 면 몸 시간 공간 등은 연속적인 량에 속하는 반면 수 말(言語) 등은 연속적이지 않는 량에 속한다(32 쪽 과 216 쪽을 참조하라)

463) 이어져 내려오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그 당시에 점 으로부터 선을 선으로부터 면을 면으로부터 체를 체로부터 모든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수로부터 이끌어냈다

464) 모든 것에 등금 과 세모도 포함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일차적으로 수학적인 것들 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각적인 질료를 지닌 모든 것도 포함하는 것인지.....아마 포함 할 것이다

이도스 처럼 [어떤] 한 경우에는 에이도스 와 [어떤] 것의 에이도스는 동일한 것으로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 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실로(δὴ 1036b17),

자신들의 에이도스가 헤테론하게 나타나는 그 여럿들의(πολλῶν 1036b 17)에이도스 하나가 있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사람들에 있어서 처럼 잇따른다 하나를 모든 것들의 알론한 에이도스들이 아니라 그(동일한 αὐτὸ 1036b19)에이도스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⁴⁶⁵⁾ ”

청동 과 돌 과 나무 그리고 살 과 뼈 등의 질료는 각기 등급 그리고 사람 등의 에이도스와 분리되긴 하나 언제 그렇게 분리 되는가를 모른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살 과 뼈가 사람에 대해 있고 청동 과 돌이 흉상에 대해 있듯이 선 과 연속적인 것이 등급 과 세모에 대해 있다 라고 말한다 이들은 선을 둘(二)의 로고스로 간주하면서 모든 것들을 수로 환원시킨다 이데아 론자들은 또 어떠한가

어떤 이데아론 자는 두 겹을 선으로 보며 어떤 이데아론 자는 두 겹을 선의 에이도스로 본다 예를들어 두 겹과 같은 어떤 것의 경우에는 어떤 것의 에이도스 와 어떤 것은 동일하나 예를들어 선과 같은 어떤 것의 경우에는 어떤 것의 에이도스 와 어떤 것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찬 가지로 피타고라스 사람들에게도 잇따르는 것이 곧 헤테론한 에이도스를 지니는 여럿들의 에이도스 하나가 있다는 것이 이데아론 자들에게도 잇따른다 하나를 모든 것들의 알론한 에이도스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그] 동일한 에이도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텔레스의 로고스들은 나를 지루하게한다 부드러운 연결고리로 매끄럽게 빈틈없이 이어지던 그의 로고스가 느슨해지며 부차적인 것들이 끼어드는 것 같다 그럼에도 물론 그 내용은 이어진다 계속해서 결코 제거될

465) 그는 여기서 자신이 파악한 플라톤주의 자 와 피타고라스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플라톤을 이데아 와 수를 동일하다고 보는 자로 여긴다 이와 같은 파악은 타 메타 타 켄지카 전체에 나오는 이데아 비판의 주요한 근간들 가운데 하나이다

수 없는 질료에 대해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 역시 감각적인 것을 지니며 심지어 수학적인 것조차 비록 감각적인 것은 아니긴 해도 질료를 지닌다 라고 그는 말한다⁴⁶⁶⁾

“ 정의에 관한 어려움들⁴⁶⁷⁾ 과 그 (어려움의) 원인에 관해 말하여졌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해 버려⁴⁶⁸⁾ 질료를 몰아내 [제거해] 버리는 것은 헛 일($\pi\rho\lambda\iota\epsilon\rho\gamma\omega\nu$ 1036b23)이다⁴⁶⁹⁾ 어떤 이것 안에 어떤 이것이 있거나 또는 (어떤) 이것을 (어떤) 이것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젊은⁴⁷⁰⁾ 소오크라테에스가 든 생물⁴⁷¹⁾의 비유는 좋지 못하다 청동 없

466) 감각적인 모든 것은 질료이나 모든 질료가 감각적인 것은 아니다 수학적인 것 예를들어 원을 보라 원은 감각적이지 않는 질료를 지닌다 따라서 감각적인 것 과 질료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467) 정의의 부분들 다시 말해 로고스의 부분들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쉽게 답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질료가 정의에 있어 차지하는 몫은 무엇인가 질료는 정의의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해 놓구선 질료를 제거하는 것은 헛 일이다 라고 그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의 로고스가 잘 연결이 안된다 다시 살펴보자

정의하려는 것에 질료가 붙어 있기에 그리고 이러한 질료는 비록 분리되긴 해도 제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의는 어렵다 라는 말인가 질료는 정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97 쪽 참조하십시오)

468) 하나 에이도스로 만들어 버리는 것

469) 바로 이 점이 플라톤과 크게 헤테론한 점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질료를 생성의 아르케에 가운데 하나로 내 세우나 플라톤은 생성의 원인에 관해 말할 때 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137 쪽 참조) 다시 말해 텔레스는 질료를 생성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반면에 플라톤은 질료를 생성의 원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질료(휠레에) 라는 말이 티마이오스에 딱 한 번 나타나는 것 같다

470) cf. pl. Theaet. 147d ; Soph. 218 b ; Pol. 257 c ; Epp. 358 d.

이 등급이 있을 것 처럼 자신의 **부분** 없이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더러 추측하게 함으로서 진리에서 벗어나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지 않다 생물은 감각적인 어떤 것이며 그리고 움직임[을 지시함이] 없이는 [그 생물 또는 감각적인 것을] 정의(규정)되지 않으므로 어떤 상태에 있는(ἐχόντων πῶς. 1036b30) 그 부분들[을 지시함이] 없이는 [그 생물 또는 감각적인 것이]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γὰρ 1036b30) 손 모두가 사람의 부분이 아니라 단지 그 손이 자신의 활동(기능 τὸ ἔργον 1036b31)을 수행할 때 만 그래서 영혼이 [그것에] 있을 때 만 손이다 영혼이 있지 않다면 [그 손은 사람의]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수학적 것과 관련해서 [보자면] 무엇 때문에 로고스들은 로고스들의 부분이 아닌가⁴⁷²⁾ 예를들어 반원⁴⁷³⁾들은 (무엇 때문에) 원의 로고스에

471) cf a 34 - b 7

472) “ 왜 부분들의 로고스들은 전체의 로고스들의 부분들이 아닌가 (로스 801) ” 라고 로스는 옮긴다

473) 원 과 반 원이 보기로 들어지는 곳 382 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 따르면 원의 로고스는 반 원의 로고스로 나뉘어지지 않으나 반 원의 로고스는 원의 로고스를 필요로한다 반 원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의 로고스가 쓰여져야 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 원의 로고스는 원의 로고스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부분들 곧 반 원들(의 로고스들)은 원의 로고스에 속하지 않는다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가 말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거기 와 여기가 어떻게 서로 이어질 것인가 거기서나 여기서나 다 같이 로고스가 문제시 되며 그 로고스의 전체 와 부분이 문제시 된다 그러면서 전체인 원의 로고스가 부분인 반원들의 로고스들에 대해 어떻게 있는 프라그마(사태)가 말하여진다 거기에서는 그 부분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체가 필요 하나 그 전체가 정의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에 여기서 그 (정의 또는 로고스의) 부분은 그 (정의 또는 로고스의) 전체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부분

[속하지 않는가] [이것들가운데] 어느 것도 [서로] 차이나지 않으므로 이것들은 감각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일까 심지어 감각적이지 않는 어떤 것조차 질료를 받드시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혼은 제 1 실체이며 몸은 질료라는 것⁴⁷⁴) 그리고 사람 또는 생물은 보편자 로서의(ὡς 1037a7) 이 양자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만약 영혼이 두 겹[이라]면 소크라테에스 또는 코르시쿠스는 한 편으로 영혼으로서 다른 한 편으로 합쳐진 전체(τὸ σύνολον 1037a8)로서 [있을 것이]나 만약 영혼과 몸이 순수하게 이것(τόδε 1037a9)[이라]면 [소크라테에스는] 보편자와 각기 것 (τὸ καθόλου καὶ τὸ καθ' ἕκαστον 1037a9-10)[일 것이다]⁴⁷⁵)

들의 보기로 377 쪽에서는 호들이 들어진다 호들이든 반원들이든 모두 원의 부분들이든 점에서는 같다 이렇듯,

11 장은 그 내용에 있어 10 장과 긴밀히 이어진다

474) 생물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다 곧 생물에 있어서 제 1 실체는 영혼이며 생물에 있어서 질료는 몸이라는 말이다

475) 영혼이 두 겹으로 말하여질 수 있다면 소크라테에스는 영혼이라고 또는 영혼과 몸이 합쳐진 전체 라고 말하여질 수 있는 반면에 단순히(ἀπλῶς 1037a9)영혼과 몸이 이것으로 말하여진다면 (영혼과몸은) 보편자와 각기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뜻일게다 그러나,

“ 소크라테에스 또는 코르시쿠스는 만약 심지어 소크라테에스의 영혼이 소크라테에스라고 불리워진다면(cf 1036a16-17, viii. 1043b2-4) 두 가지 의미들을 지닌다(어떤 사람은 그러한 용어들에 의해서 영혼을 의미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소크라테에스 또는 코르시쿠스가 단순히 이 특별한 영혼과 이 특별한 몸을 의미한다면 개별자는 그 복합에 있어서의 보편자와 유사하다(로스 801-802) ”라고 로스는 의역한다 로스의 의역은 나를 헛갈리게한다 오히려 이 부분은 다음 처럼 설명될 수 있으리라

영혼이 두 겹으로(διπτόν 1037a8)으로 말하여진다면 다시 말해 이중(二重)으로 영혼이 말하여진다면 소크라테에스는 영혼이라고 말하여질 수도 있고 이 영혼과몸이 합쳐진 전체(것)라고 말하여질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이 영혼과 이 몸이라고 단순히 말하여진다면 [소크라테에스는] 보편자 이

이런 실체들의 질료와 나란히 알론한 어떤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그리고 이것들과 헤태론한 어떤 것 예를들어 수 또는 이와같은 것들이 실체인가를 후에 반드시 조사해야만 한다⁴⁷⁶⁾ 감각적인 실체들을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실체에 관한 이론(Θεωρία 1037a16)은 피지카(자연학) 곧 제 2 철학(δευτέρως φιλοσοφίας 1037a15)의 활동(일)이다 자연학자는 반드시 질료를 인식해야 할 뿐 만아니라 로고스에 따라 [그 감각적인 실체]를 더 많이 인식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의들의 경우에는 로고스 안의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정의의 부분들이며 무엇 때문에 정의는 로고스[와] 하나인가를 우리는 후에 반드시 숙고해야만 한다⁴⁷⁷⁾”

그에 따르면 질료를 제거하는 것은 헛 일이다 어떤 이것 안에 어떤 이것이 있거나 또는 어떤 이것을 어떤 이것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젊은 소크라테에스가 든 생물의 비유는 좋지 못하다 청동 없이 등금이 있을 것 처럼 사람(생물)의 부분 없이 사람(생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진리에 어긋난 추측을 사람더라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감각적인 어떤 것인 생물은 어떤 상태에 있는 움직이는 부분 없이는 정의되지 않으므로 모든 손이 사람(생물)의 부분이 아니라 활동하는 손만이 생물(사람)의 부분이다 영혼이 있을 때 만 손은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영혼이 있지 않다면 그 손은 사람의 부분이 아니다 또,

수확적인 것 예를들어 원 과 반원을 살펴보자 이것들은 어느 것도 차이나지 않으므로 감각적인 것들은 아니나 질료를 지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사람(생물)의 제 1 실체는 영혼이며 몸은 라는 것 그리고 보편적인 양자(영혼 과 질료)로 사람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면서(kai 1-37a10) 각기 것 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476) 이테아들 과 수도 실체인가 라고 뭐 와 뒤 편에서 물어진다

477) 바로 다음 장에서 이러한 것이 숙고 될 것이다

질료와 나란히 알론한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영혼?)과 헤테론한 것 예를들어 수와 같은 것이 실체일까 가 후에 반드시 조사 되어져야 만한다 감각적인 실체를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감각적인 실체에 대한 이론이 곧 피지카(자연학, 제 이 철학)의 활동이다 그래서 자연학자는 질료를 반드시 인식해야 할 뿐 아니라 로고스에 따라 그 감각적인 실체를 더 많이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얼마나 많은 로고스의 부분들이 정의의 부분들이며 무엇 때문에 정의 와 로고스가 하나 인가를 후에 반드시 숙고해야한다

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후에 우리가 조사해야 할 것을 미리 말하므로써 자신의 전체 강의가 연이어지는 긴밀한 물음들에 대한 답으로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는 자들에게 던지시 알려주고 있다 먼저 물음을 제기한 후 그 물음에 답하면서 자신 답하는 가운데 말하여진 로고스를 자신의 논의 끝에서 정리한다 정리하고서는 다시 물음을 제기하고 답하는 가운데 로고스를 정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의 타 메타 타 피지카 전체 강의는 흘러간다 뒷 사람에 의해 편집된 그의 강의록에서 이런 순환 고리를 발견할 수 있으니 편집된 그 강의록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11 장 까지를 요약 정리하면서 12 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아래 역시 이런 그의 강의 방식을 보여준다

“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무엇이든 어떻게 그 자체로 있는 그러한 것인가 가 모든 경우에 보편적으로 말하여졌다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어떤 로고스⁴⁷⁸⁾는 무엇 때문에 정의[되는 것들]의 부분들을 지니는 반

478)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로고스 가운데 어떤 로고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들 가운데 어떤 로고스를 뜻한다 이 어떤 로고스가 바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로고스이며 이 무엇이든 로고스가 정의의 부분들을 지니는 말이다

희랍어 본문을 보면 어떤(τῶν 1037b22)이 로고스에 먼저 걸린다는 점이 선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한글 구조나 어법에 따라 옮겨진 글에서는 언뜻 보면 ‘어떤’이 어디에 걸리는 가 가 애매할 것이다 어떤 앞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으면 바로 뒤에 로고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에 어떤 것들의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실체의 로고스 안에는 질료적인 부분들(μέρη ὡς ὕλη 1037a24-25)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말하여졌다] 이 질료적인 부분들은 실체의 부분들이 아니라 합쳐진 전체의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합쳐진 전체 ?)의 로고스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있지 않다 479)는 무 규정적인 (정의되지 않는 ἀόριστον 1037 a27)) 것이므로 질료와 더불어 로고스는 있지 않으나 제 1 실체에 따르는 로고스는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사람의[경우에] 영혼⁴⁸⁰⁾의 경우 처럼 말이다 실체는 에이도스 [와] 하나이다 예를들어 폭 꺼짐⁴⁸¹⁾ 과 같은 이 에이도스 와 질료로

본문에 따르면 어떤 뒤에 로고스가 있고 그 로고스 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으며 로고스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바로 앞에 정관사 ὁ (1037a22-23)가 있어서 토오온(어떤)이 직접 로고스에 걸린다는 것이 언 듯 보아도 뚜렷해진다

479) 질료에 대해서는 351-352 쪽을 참조하십시오

480) 495 쪽에 나와 있듯이 사람 또는 생물의 경우, 텔레스에 따르면 제 1 실체는 영혼이다 그런데,

여기 맥락의 영혼에 관련하여 그는 두 겹으로 말한다 첫째 영혼을 그 영혼을 지니는 생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그러한 생물 각각의 영혼으로 보며 둘째 이와는 헤테론한 것으로 그 영혼을 보기 때문이다(385쪽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여기서 말하여지는 제 1 실체로서의 영혼을 범주론에서 말하여지는 제 1 실체로 보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서 말하여지는 제 1 실체는 사람 인 것 (사람 각각) 예를들어 소크라테이스 또는 칼리아스이다 - 사람은 제 2 실체로 말하여진다 (166 쪽 참조) - 그러나,

어느 한 날 말을 여러 가지로 말하곤 하는 그의 방식이 ‘제 1(πρώτην)’이라는 낱말을 말하는 데도 적용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주로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첫 번째(제 1)’은 어떤한 것인가(286 쪽도 참조하십시오)

481) 폭 꺼짐에 관련된 프라그마(사태)를 알아보려면 317과321을 참조하십시오

합쳐 이루어진 것이 실체라고 말하여진다 이 에이도스 와 코로부터 들창 코 와 들창(코)(*συνὴ ῥίς καὶ ἡ συμότης* 1037a31)⁴⁸²가 있기⁴⁸³ 때문이다 이것 들(들창 코 와 들창 (코))에는 코가 두 번 속해 있다 그런데,

‘합쳐진 전체 실체’에는 예를들어 들창 코 와 칼리아스에는 **질료**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구부러짐 과 구부러져(구부러짐에) 있음이) 첫 번째 (것)이라면 예를들어 구부러짐 과 구부러짐에 있음 [이 동일한 것 처럼] 제 일(첫 번째) 실체들 처럼 어떠한 것의 경우에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각기 것이 동일하다⁴⁸⁴ 라고 말하여졌다 ‘첫 번째(제 1)’에 의해서 나는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 안에 곧(kai 1037b4-5) 질료 로서의 기체인 것 안에 있다(있음)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는⁴⁸⁵’것을 말한다 그러나,

오

482) 들창 코 와 들창 (코) 사이의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제에타 편 전체를 통해서 주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긴 하다 그러나 이 구분이 넘지시 드러내는 프라그마(사태)를 선명히 보지 못한다면 핵심적인 단어 ‘정의’를 결국 이해하지 못하고 만다 사실 지금 나도 이해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미답지 못한 구석이 바로 이 부분이다 다시 315-323 쪽을 읽어보라

483) ἐγι(1037a31)가 쓰였다 자 ! 바로 여기에서 솟아나는 어려움이 내 논문이 쓰여지도록 부추킨다 에스티(있다) 라는 낱말이 들창 코 또는 들창(코) 라는 생성된 것에 쓰였다 텔레스는 이러한 쓰임새를 용납할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용납하지 않는다 플라톤에 따르면 생성된 것에는 있다라는 낱말이 붙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붙혀 쓰는 잘못 된 쓰임새를 직접 플라톤은 꺾어낸다(144-146 쪽을 참조하시오)

484) 애매하긴 하지만 395 쪽 각주 468 번을 참조해 보시오 어떤 실마리가 보여질 것 같기도하다 각기 것에는 구부러짐이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는 구부러짐에 있음이 상응할 것 같다 또한 이 말은 아마,

로고스 와 정의가 동일하다 라는 말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동일에대해서는 259 쪽을 참조하시오

질료인 것들은 또는 질료가 섞어진 것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각기 것이) 동일하지 않다(οὐ ταῦτό 1037b5) 또한,

‘소크라테스 와 음악적인’ 과 같은 우연적인 하나[의] 어떤 것도 동일하지 않다 이것들은 단지 우연적으로 만 동일하기 때문이다 ”

11 장에 더 가까운 장들부터 11 장 까지를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서는 제에타 편 심지어 그의 형이상학 전체를 조감(照鑑)해 주는 로고스들이 특 튀어나온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언은 에이도스이며(7장 335 쪽, 10장 383 쪽) 그리고 그 자체로 있는 것이라는 것이 (4장 302 쪽) 말하여 졌으며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언의 로고스는 정의이며(5장 318쪽) 이 무언은 질료 또는 질료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무언의 로고스의 부분이 그 전체에 속하기 때문에(10장 379 쪽) 그 무언의 로고스는 정의 부분들을 지니는 반면에 질료 또는 질료적인 것의 로고스의 부분은 그것이 질료 또는 질료적인 것이어서 그 전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10장 377쪽) 그 로고스는 정의의 부분을 지니지 않다는 것이 말하여졌고 따라서,

실체의 로고스 안에는 질료적인 부분들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10장 380-381쪽)이 말하여졌다 이 질료적인 부분들은 실체의 부분들이 아니라 합쳐진 전체의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록 실체의 로고스와는 알론한 방식으로이긴해도 합쳐진 전체의 로고스도 있기는 하다(5장 317 쪽)

485) “ 자신 이외의 어떤 것 안에 즉 질료로서 작용하는, 깔려[있는] 어떤 것 안에 주어진 어떤 것을 함축하지 않는 것을 나는 제 일 [실체]에 의해서 말한다 (로스 802 쪽) ” 라고 로스는 번역한다 그러나 로스의 번역에 나는 헛갈린다 희미하긴 해도 다시 정돈하면,

‘자신 안에 알론한 어떤 것 - 질료 로서의 기체인 것 -이 있지 않는’ 을 ‘첫 번째’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 듯하다 다시 말하면 알론한 것 안에 주어져면서 그 알론한 것의 기체로 있는 반면에 자신 안에는 어떠한 알론한 것도 자신의 기체로 주어져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이 첫 번째 것이라는 말인데.....이러한 말은 범주론에 나온 제 1 실체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다(166-168 쪽을 참조하시오)

그러나 순수하게 말하면 합쳐진 전체의 로고스는 있지 않다 로고스는 무 규정적인 질료와 더불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1 실체에 따라서 있기 때문이다

실체는 에이도스와 하나이다

예를들어 폭 꺼짐이라는 에이도스 와 질료가 합쳐진 것이 실체라고 말하여진다 이 에이도스 와 코로부터 들창 코⁴⁸⁶) 와 들창(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들창 코 와 칼리아스와 같은 ‘합쳐진 전체 실체’에는 질료가 주어진다 그러나 질료는 그리고 질료가 섞어진 것 각각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동일하지 않다 아울러,

‘교양있는(음악적인) 소크라테에스’ 처럼 우연적으로 하나인 것 역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동일하지 않다 단지 우연적으로 만 동일⁴⁸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부러짐 과 구부러져 있음⁴⁸⁸)과 같은 첫 번째(제 1) 실체 각각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동일하다 자! ,

문제의 ‘첫 번째(제 1)⁴⁸⁹’ 라는 낱말이 나타났다 첫 번째(프로오토스) 라는 낱 말은 범주들 261-269에서 말하여진 먼저(프로테로스) 라는 낱 말과

486) 들창 코에는 코가 두 번 속해 있다 정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겹침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이렇게 겹친 것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317 쪽에서 말하여졌다

487) 우연적인 동일에 대해서는 258 쪽을 참조하십시오

488) 구부러짐(καμπυλότης 1037b2)에는 에이나이(있음)이 붙어 있지 않는 반면에 구부러짐에 있음에는 에이나이가 붙어 있다 그의 로고스에서는 이들이 곧 잘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이 동일함을 어떤 논증의 근거로 삼는다(324-325의 논증을 참조하라)

489) 첫 번째 라는 말은 앞 또는 주로 뒤에 실체(우시아)를 달고 나는데 이제 일(첫 번째) 실체가 바로 형이상학에서 그가 말 하고 자 했던 것이다 제 1 실체를 통해서 그는 모든 프라그마를 올바르게 짧게 말하고 있는(169 쪽 참조)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조심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⁴⁹⁰⁾ 그에 따르면,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 안에 곧 질료로서의 기체인 것 안에 있다’라고 말하여지지 않는’이 ‘첫 번째(인)’이다 따라서 첫 번째 것은 자신이 기체인 알론한 것 안에 있는 것도 자신 안에 기체인 알론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라 자신이 알론한 것⁴⁹¹⁾ 기체로 있는 것이다 물론 알론한 기체의 어떤 것으로 있는 것도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첫 번째(제 1)에 속하는 첫 번째 실체(1037a1-2)가 카테에고리아이 2a14-15에 나오는 첫 번째 실체와 같을까(166-186쪽 참조) 지금 나는 같다 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⁴⁹²⁾ 그는 실체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 그리고 실체는 쉬노오니모스(동음 동의어 적으로, 176 쪽 참조)하게 말하여진다 라는 점에 유의하여 숙고해 보라

11 장 정리 요약을 마쳤다 다른 장과는 달리 11 장은 다소 느슨하고 산란하게 로고스가 펼쳐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서로 관련 없이 로고스가 전개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먼저,

정의는 에이도스 또는 실체의 정의 이므로 에이도스의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 가 말하여진다 에이도스의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 가 말하여 질려면 질료의 부분 과 질료와에이도스의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여져야 할 것이다

질료(예를들어 청동)는 실체 또는 에이도스의 부분이 아니라는 분명

490)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의 수(數) 와 지금 우리의 수는 달라도 한 참 다를 것 같다 또 우리의 수 와 미국 사람 또는 서양 사람의 수 역시 다르며 우리 가운데서도 수학자의 수 와 일상 사람들의 수 또한 다를 것 같다 지금 나로서는 고대 희랍 사람들이 사용하던 수가 훨씬 더 다양한 쓰임새를 지닌 것 같다 어쨌든,

첫 번째는 순서(順序)에 있어서의 맨 먼저를 나타내며 먼저는 이 첫 번째의 비교급 으로서 헤테론한 것에 대해 먼저 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먼저 있는 것은 헤테론한 것에 대해 먼저 있는 것이된다

491) ‘의’에 대해서는 165-166쪽 과 186쪽 각주 161 번을 참조하시오

492) 402 쪽 각주 482 번을 참조하시오

하다 청동은 그것(실체 예를들어 등금?)과 분리되기 때문이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그 질료는 에이도스(실체, 등금)와 같을(ὁμοίως ἔχειν 1036a35) 것이다 따라서 청동(질료)는 에이도스의 부분이 아니다 질료는 에이도스와 분리됐으므로 질료는 에이도스의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둘째,

그렇다고 질료(청동)을 숙고 끝에 제거(ἀφωλεῖν 1036b3)해 버릴 수는 없다

살 과 뼈와 같은 부분들에서 항상 사람의 에이도스가 발견되지 아니한가 살 과 뼈가 에이도스의 부분 또는 로고스의 부분일까 에이도스와 분리된 것이므로 그 살 과 뼈는 에이도스의 부분이 아니라 질료일 것이다 살 과 뼈는 알려진 것들로부터 생성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πότε 1036b8) 분리되는가 가 분명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휘타고라스 사람들은 연속적인 (량) 으로서의 선을 지시하여 등금 과 세모를 정의하려한다 그러나 이들은 올바르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휘타고라스 사람들과 이데아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우선,

휘타고라스 사람들은 살과뼈가 사람에 대해 있듯 그리고 청동과돌이 흙상에 대해 있듯 선 곧 연속적인(량)이 둥근 것 과 세모난 것 등 모든 것에 대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수로 환원시킨다(ἀνάγουσι 1036b12) 따라서 이들은 선의 로고스는 둘의 로고스이다 라고 말한다 나아가서,

어떤 이데아론 자들은 선 그 자체(αὐτογραμμὴν 1036b14)를 두 겹으로 보고 어떤 이데아론 자들은 두 겹을 선의 에이도스로 본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것의 에이도스 와 그 어떤 것이 동일한 반면 어떤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들로부터는 휘타고라스 사람들로부터와 마찬가지로 여럿의 에이도스 하나가 있다 가 잇따른다 따라서 이 양 쪽 사람들은 하나를 모든 것들의 알려진 에이도스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그 동일한 에이도스로 만들어 버린다 결국 모든 것을 하나로 해 버리는 셈이다

이 양쪽 사람들이 질료를 숙고 끝에 제거해 버렸다 라고 직접 여기서 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단지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로 환

원시였다 라는 로고스를 내 세우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두 진영의 사람들은 질료를 숙고 끝에 제거해 버렸다 라고 그는 생각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 할 수 있을까 ,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나올 것 같기도 하다 두 진영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는 숙고 끝에 질료를 제거해 버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이다(χαλεπὸν 106b2) 라고 그리고 이어 피타고라스 사람들은 옳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쓸모 없는 힘을 고통스럽게 들여 프로그래마적으로 제거될 수 없는 질료를 [상상 속에서]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며 그가 보기에는 질료 그 자체(의 τῆς ὅλης αὐτῆς 1035b33, 부분)는 질료와에이도스로 합쳐진 전체(의 부분)과는 별도로⁴⁹³⁾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수학적인 것들은 비록 감각적인 질료는 아니긴 해도 질료를 지닌다 그러기에 예틀들의 반원의 로고스는 원의 로고스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미 10 장 377 쪽에서 드러난 로고스이다 넷째,

감각적인 실체를 이론화 하는 것이 자연학(피지카)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자연학자는 반드시 질료를 인식해야 할 뿐아니라 로고스에 따라 감각적인 실체를 더 많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섯 째,

실체의 로고스 안에는 질료적인 부분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질료적인 부분들은 실체의 부분들이 아니라 합쳐진 전체의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여섯 째,

질료는 무 규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질료와 더불어 로고스는 있지 않다 그러나 제 1 실체에 따르는 로고스는 있다 일곱 째,

493) 질료의 부분 과 합쳐진 전체의 부분을 별도의 것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383 쪽 각주 433 번에서 간략하게 숙고해 보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일단 그럴 수 있다는 쪽에 가능성을 두고 나는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는 쪽으로 더 쏠린다 텔레스에 따르면 수학적인 것도 비록 감각적인 질료가 아니긴하나 질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인’에 의해서 그는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 안에 곧 질료로서
의 기체인 것 안에 있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을 말한다 그리고,

첫 번째 실체의 경우에는 각기 것 그리고 있어지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동일하다 그러나 질료인 것 그리고 질료가 섞어진 것의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다 또한 우연적으로 하나인 것도 동일하지 않다⁴⁹⁴⁾

위에서 처럼 7 가지로 11 장의 로고스를 정리하고 있는 나는 그가 말
하고 있는 분리에 대해 잠시 숙고해 보는 것으로 11 장을 마치려한다

11 장에서 분리는 맨 처음에는 수동 부정(不正) 동사형으로 그 다음
에는 수동 분사 현재형으로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나타난다

“ 이제 만약 어떠한 것들이 질료의 부분들이며 어떠한 것들이 질료의
부분들이 아닌가 가 선명해지지 않는다면 프라그마의 로고스도 선명해지지
않을 것이다⁴⁹⁵⁾종적으로 헤테론한 것들에서(ἐφ’1036a31) 생성되는 것들의
경우에 예를들어 동금(공)이 청동 과 돌 과 나무 안에 [있는 것 처럼]⁴⁹⁶⁾

494) 첫 번째 실체의 경우의 보기로 그는 구부러짐 과 구부러짐에 있음을
들며 질료가 섞어진 것의 경우의 보기로 우리는 청동으로된 동근 고리를 들
수 있겠고 우연적인 하나인 것의 보기로 그는 ‘교양적인(음악적인) 소오크라
테에스(417쪽 참조)’를 든다

495) 사태에 관한 말이 불 분명해 질 것이다 라는 말이다

496) 따라서 청동 과 돌 과 나무는 그 에이도스에 있어 헤테론한 것들이다
라고 말 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동금(원 또는 공)
이라는 에이도스를 본문의 에이도스적으로 라는 말이 가리키지 않는다는 말
인데.....에이도스적으로 에서의 에이도스를 어떻게 받아드려야하지 ? 이제
까지 청동 과 돌 과 나무는 그에 의해서 질료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이었다
그렇다면 에이도스적으로 헤테론한 질료들 이라는 셈인데 실제로 로스는
800 쪽에서in specifically.....materials, 라고 옮긴다 물론 휠레에를
matter라고 옮기기는 해도 말이다

청동 둘은 어떤 것도 동근 것의 실체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청동도 둘도 그것[동근 것의 실체?]들과 **분리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 처럼 여겨진다 **분리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들 가운데(ἄσα 1036a34) 어느 것도 그(에이도스)와 같다는 것을 금하는 것은 있지 않다⁴⁹⁷⁾ 마치 모든 동금 둘이 청동 일 것 처럼 말이다 (1036a31- b1) ”

질료(의 부분들)은 실체(에이도스)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생성되는 것들의 경우 생성된 것들의 질료(의 부분은) 생성된 것들의 실체로부터⁴⁹⁸⁾ **분리되기** 때문이다 만약 **분리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그 실체(에이도스)와 같을 것이다

에이도스의 부분은 질료의 부분이 아닌 원인을 그는 질료(의 부분)가 에이도스와 분리되기 때문으로 본다 물론 생성된 것에는 이 둘이 반드시 함께(μετὰ 1037a27⁴⁹⁹⁾)있다 그러므로 비록 생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둘이 함께 있을 지라도 이 둘이 동일한 것은 아닌 듯하다 생성된 합쳐진 전체에 ‘하나’ 로서 속해 있다손 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이 분리라는 낱 말을 그는 플라톤을 위시한 이데아론 자들이 불 합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분리’를 문체삼고 있다 이데아를 실체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이데아론 자(들)는 불 합리한 말을 하고 있다고 텔레스는 플라톤을 비판한다⁵⁰⁰⁾그러나

497) 분리된 것 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 에이도스를 지니지 않도록 - 방해하는 것은 있지 않다 라는 말 곧 분리된 것이 없게 보이는 모든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498) 복수 2 격이 쓰였다

499) 이 지시는 메타가 2격 명사를 지배하여 함께(with) 라는 뜻으로 쓰인 용례(用例)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 맥락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오 만약 메타가 ‘타 메타 타 퀴지카’에서 처럼 4격을 지배하면 뒤(after)를 뜻하게 된다 따라서 타 메타 타 퀴지카를 형이상학으로 옮기면 그 뜻에 있어서는 어떨는지 몰라도 그 낱 말의 본디 뜻에는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게 옮기려면 ‘자연[학] 뒤에’로 옮겨야 할 것이다

500)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1039a25-1040b4 와 1078b7-1079b11 과

어쨌든 텔레스도 비록 디아노이아(사유, 숙고, 생각) 측면이긴해도 에이도스와 분리된 질료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숙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해 두자

있는 것 과 실체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생성 과 부분을 지금 까지 거쳐오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어주는 고리가 로고스와 정의 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주로 말 하여지고 있다는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바로 정의이기 때문이다 이 무엇의 로고스의 부분 만이 그 전체에 속하며(377 쪽 참조) 그 전체에 먼저이다(381-382 쪽 참조) 그러나 질료의 부분은 그 전체 보다 늦으며 합쳐진 전체의 부분은 그 전체 보다 먼저 이거나 늦다

만약 부분이 전체에 속한다면 순수한 하나⁵⁰¹⁾ 일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곧 에이도스(실체)의 부분은 전체에 속하므로 실체는 순수한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 무엇 예를들어 사람의 로고스가 두 발 달린 생물이라면 사람은 두 발 생물 등 여럿이 아닐까 여럿이 아니고 하나라면 무엇을 통해서 그러할까 라는 물음이 던져지 므로서 12 장은 열린다 사람(실체)의 이러한 로고스가 바로 정의이다 라는 것이 덧 붙여지면서 말이다 결국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순수한 하나라는 것을 12 장은 말한다

(XII) “ 우리들이 분석론에서⁵⁰²⁾ 정의에 관해(περί ὀρισμοῦ 1037a9) 말하지 아니했던 한에서 이제 먼저 말해보기로 하자 거기에서의⁵⁰³⁾ 아포리아(물음)는 실체에 관한 우리의 로고스들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아포리아들을 말한다

1082b25-b37을 참조하라

501) 하나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502) cf. An. Post. ii(B, 베타 권). 3-10(장), 13(장).

503) cf. ib. 97a29

우리가 그것의 로고스가 정의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일까 예를들어 [그것의 로고스가] 두발 달린 생물[인] 그 사람의 [경우에서] 처럼 말이다⁵⁰⁴) 그 (사람)의 로고스[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왜 이 (사람)은 하나이고 여럿(πολλά 1037a14)이 아닐까 곧 생물 과 두 발 (달림) 이 아닐까

사람 과 힘의 경우 한 편으로 해태론한 것이 해태론한 것에 속하지 않는 한 여럿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속해서 기체 곧 사람이 속성을 지니는 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니면 하나가 생성되어져 흰 사람이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⁵⁰⁵) 해태론한 것이 해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οὐ μετέχει 1037b18) 류가 차이들(τῶν διαφορῶν 1037b19)을 나누어 지닌다고 여겨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누어지닌다면] 동시에 동일한 것⁵⁰⁶)이 반대들

504) 따라서 두 발 달린 생물은 사람의 로고스 곧 사람의 정의가 될 것이므로 여기서 생겨나는 물음은 무엇을 통해 ‘사람’은 하나일까 일 것이다 그것의 로고스가 정의인 바로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발 달린 생물’이라는 로고스가 무엇을 통해 하나인가 라는 물음이 여기서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사람의 로고스 와 사람이 동일하다면 이런 물음은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일까 라는 물음과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로고스 와 사람은 동일할까 지금 나는 무어라 말 할 수 없다

505) 두 발 달린 생물에서는....

506) 류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종(에이도스)를 가리키는가 범주들 259 쪽을 보면 류가 아니라 종일 것 같다 거기에서는 자신들의 질료 와 실체가 종에 있어 또는 수에 있어 하나인 것들이 동일하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며 여기 바로 앞에서 류가 차이들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류 와 종 사이의 관련은 어떠할까 - 이 관련에 대해서는 범주들 159-160 그리고 170-172 쪽을 참조하시오 - 그런데,

‘류(생물)이 두 발 달림(차이)’ 또는 ‘두 발 달린 생물’ 이라는 사람(종)의 정의 곧 실체(사람)의 로고스에서는 종(에이도스)이 빠져있다 종(실체)의

을 나누어 지닐 것이므로 [그렇다] 류가 그것들에 의해서 차이나는 그 차이들은 반대들⁵⁰⁷⁾이기 때문이다⁵⁰⁸⁾ 설령,

만약 [혜태론한 것이 혜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닌다고 해도 로고스는 동일하다⁵⁰⁹⁾ 예를들어 발 달림, 두 발 달림, 날개 없음 처럼 차이들이

정의에 종이 빠지다니.....또,

혜태론한 것은 또 무엇 가리키는가 범주들 258 쪽에서는 어떤 것들의 종들이 또는 질료가 또는 [어떤 것의] 실체의 로고스가 여럿이라면 [그것들은] 혜태론하다 라고 그리고 혜태론은 전체적으로 동일에 대립된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범주들 235 이하 특히 238 쪽에서는 반대들은 서로 혜태론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고 그리고 여기서의 차이들은 반대들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에 혜태론한 것은 반대 곧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아가서,

차이는 또 무엇인가 범주들 258 쪽에서는 *혜태론하지만* 수에 있어서 뿐 만 아니라 종에 있어서든 또는 류에 있어서든 또는 유비적으로든 *동일한 것으로* 있는 한 차이 [난 것] 이라고 말하여진다 그 이전 254 쪽에서는 동일한 것에 동시에 주어지지 않는 류적인 차이들이 반대들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507) 반대들에 대해서는 235 쪽 이하 특히 238 쪽을 참조 하시오

508) 그럴 것 같다 혜태론한 것이 어떻게 혜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닐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류가 차이들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혜태론한 것이 혜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의 원인이 될까 분명히 γὰρ(때문이다 1037b18) 헛갈린다 이 놈의 류가 문제야 류가 그의 형이상학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

류가 차이들에 의해서 차이난다 라고 했는데.....그렇다면 생물은 발 달림 또는 두 발 달림 또는 날개 없음 등과 같은 차이들에 의해서 차이난다는 말인데 차이 남 으로서 종(에이도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실체, 사람)이 구분되고 우리는 이 종을 알며.....하휴.....

여럿이기 때문이다⁵¹⁰)무엇 때문에 하나이지 여럿이 아닐까 [안에] 속하기(ἐνυπάρκει 1037b24-25)⁵¹¹)때문이다⁵¹²)아니라 그렇게[속하므로] 모든 것들로

509) 로고스가 동일하다는 말은 무슨 뜻 인가 실체(종)의 로고스는 동일하다는 뜻 인가 아니면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된다는 뜻 인가(로스는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된다 라고 번역한다 - 로스 803 쪽 참조 -) 또,

무엇이 무엇을 나누어 지닌다는 말인가

510) 여기서도 헤테론한 것은

511) 속하다(ὑπ-άρχω) 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ὑπό(바로 밑에, under) 와 ἄρχω(시작하다, to begin)으로 이루어진 ὑπάρχειν(휘파르케인)은 있기 시작하다(to begin to be) 또는 [어떤 것에] 속하다(to belong to [something])로 옮겨 쓸 수 있다

이러한 휘파르케인을 텔레스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절대 절명한 중요한 일이다 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 라는 나의 석사 학위 논문을 제대로 마칠려면 에이나이에 대해 알아야하며 텔레스의 에이나이는 문제의 이 휘파르케인을 통과해야 만 나에게 닥아설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2 장 들어서면서 언급된 분석론 후편 뿐아니라 분석론 전편 과 토피카 와 해석에 관하여 와 범주들을 옮기면서 요약 정리해야만 텔레스의 휘파르케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나의 이해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 같기에 난감하다 그러나 범주들 과 자연학 뒤에(타 메타 타 퀴지카, 형이상학)를 요약 정리 옮겼으므로 이 두 권 이내에서의 휘파르케인을 집어낼 수는 있다 먼저,

범주들 166-168 쪽 과 형이상학 367 쪽을 참조하라 나아가서,

그는 휘파르케인 앞에 ἐν(엔, 1037b23-24) 또는 προ(프로, 1034b17)를 붙혀 엔-휘파르케인 또는 프로-휘파르케인 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한다 구지 그대로 옮기자면 (안에) 속하다(안에 있기 시작하다, 안에 있다) 또는 미리 속하다(미리 있기 시작하다, 미리 있다)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ἐν이 εἴναι 바로 앞에 붙어 엔에이나이(안에 있다)라는 쓰임새도 있다 어디선가 이러한 쓰임새를 기록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εἰς ἅπαντων 1037b24) 하나는 있기 때문이다⁵¹³) 그런데,

정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ἐν 1037b24)임에 틀림 없다
정의는 실체의 로고스와(καὶ 1037b26) **하나**인 것이기 때문이다⁵¹⁴)그래서 그

512) 속하지 않으니까 여럿들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속한다면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에 대한 텔레스의 로고스는 적절한 곳에서 요약
정리 옮길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 속할까 서로일까 아니면 하나인 그 무엇일까 로스는 ‘.....in
one thing(로스 803)’라고 번역한다 아마 어떤 하나인 것에 동시에 속하지
않으니까 여럿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러기
에 여럿이다 라고 텔레스는 생각했을까 차이들이 여럿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말한다 무엇 때문에 차이들이 여럿인가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것
에 속하지 않는가 서로들일까 아니면 동일한 어떤 것일까 차이들은 반대들
이라는 점에 그리고 대립들 4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반대라는 점 그리고 반대
들에는 중간이 있는 것 있지 않는 것이 속한다는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속고
해보라

513) 차이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원인은 그것들이 안에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란 본디 그렇듯이 모든 것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이
라는 것이 그의 로고스인데.....

동시에 속하지 않는 길로 차이들이 알론한 것에 속한다고 해서 그것들
이 여럿인 것은 아니다 하나란 전체적으로(모든 것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차이들은 전체적으로 또는 모든 것으로 동시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로 있지 않으므로 여
럿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그의 로고스를 이해하면 안될까

그의 로고스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크게 무리(無理)한 것이 아닌 듯
하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의 결론 부분 곧 하나로 있지 않으므로 여럿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아포리아가 생겨난다 그에 따르면 하나 와 여럿
은 그 사이에 중간이 없는 모순 으로서의 반대일 수 있을까 그러한 반대일
수 있다면 하나가 아닌 모든 것은 여럿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 와 여럿을 반
대(대립)들로 보고 자신들의 로고스를 펼치는 자를 반박하는 그의 로고스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 나는 지금 그 부분을 찾느라 10 여분 헤메고 있으나
못 찾고 있다 나중에 반드시 찾으리라

것(정의)는 반드시 하나인 어떤 것의 로고스여야만 한다 우리가 말한 것 처럼 실체는 하나인 것 과 이(것인) 것(ἐν τῷ καὶ τὸδε τῷ 1037b27)이기 때문이다⁵¹⁵⁾ ”

여기서 일단 끊고 정리한 후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정의는 에이도스(실체)의 정의이고 에이도스의 부분은 질료(적인 것)가 아니라는 것이 주로 말하여지는 11 장에 이어 12 장은 정의가 그것의 정의인 바로 그것 곧 에이도스(실체)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인가에 대해 말하여지면서 열려진다 따라서 하나 와 정의가 여기서 주로 말하여진다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그런데,

이러한 하나 와 정의가 여기서 비로서 처음부터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론한 곳에서 말하여진 부분에 이어져 말하여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12 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알론한 곳들을 먼저 번역 요약 정리해야 할 것이다 먼저⁵¹⁶⁾,

알론한 곳⁵¹⁷⁾에서 **하나**에 대해 텔레스가 말한 것을 숙고해 보자 아울러 우리는 이 하나가 플라톤에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이스 라는 대화 편에서의 하나는 있는 하나 이면서 있지 않는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는 5-12 그리고 37-92 쪽을 보시오 이제,

텔레스가 하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 보자

“ 6) 우연적으로 (하나인) 것 과 그 자체로⁵¹⁸⁾ (하나인) 것으로 하나

514) 실체의 로고스와 하나인 것이 바로 정의이다 라는 말일 게다

515) 181 과 178 쪽 그리고 309-311쪽을 참조하시오 실체가 빠삭하게 드러난다

516) 정의에 관해 말하는 알론한 곳 곧 분석론 후 편 베타 권 3-10장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자

517) 1015b16-1017a6을 보라

518) καθ' αὐτο(1015b16)라는 말은 κατά(아래(쪽으로), down(wards)) 와 αὐτὸ(그 자체로, self)로 이루어진 말로서 그 자체로 라고 옮기면 무난할 듯 싶다 우선,

αὐτό를 살펴보자 αὐτό는 첫째,

3인칭 대명사 αὐτός(그이 he), αὐτή(그녀 she), αὐτό(그것, it)와 연관있다 이 3인칭 대명사들이 관사 없이 명사와 함께 놓여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면 문제의 그 명사를 강조하게된다 이러한 강조를 영어로 번역하면 예를들어 the apostle himself (αὐτός ὁ ἀπόστολος 또는 ὁ ἀπόστολος αὐτός) 처럼 ‘~self(~자체(강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처럼 3인칭 대명사는 때론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 까지나 이러한 쓰임새는 지시 대명사로서의 쓰임새일 뿐이다 이러한 쓰임새는 재귀 대명사의 쓰임새와 그 형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지시 대명사들은 관사를 지니면 ὁ αὐτός, ἡ αὐτή, τὸ αὐτό가 되는데 Att. 의 경우 αὐτός, αὐτή, ταυτό와ταυτόν으로 줄어들어 -축약되어 - 쓰인다 둘째,

αὐτός는 재귀 대명사의 중성 단수 4 격으로 쓰인다 이 αὐτό 역시 영어로 ~self로 옮겨진다 그러기에 나는 αὐτό를 설명하면서 지시 대명사 αὐτό를 말하였다 두 쓰임새 모두 self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번째 것은 강조의 뜻으로 두 번째 것은 재귀(reflexive, 再歸)의 뜻으로 쓰인다는 점에서는 헤테론하다 재귀 대명사(ἑαυτοῦ(αὐτοῦ) 그이 자신의, of himself), ἑαυτῆς(αὐτῆς) 그녀 자신의, of herself), ἑαυτοῦ(αὐτοῦ) 그것 자신의, of itself)의 경우 자기 절의 주어를 다시 가리킨다 따라서 주격은 없으며 아울러 중성 1인칭 과 2 인칭도 없다(문법 노트 97 쪽 참조) 셋째로,

이러한 재귀 대명사 ~self는 **동일한 것**을 나타낸다 요 념의 동일이 문제다 동일에 대해서는 범주들 258-259 쪽을 참조하라 거기에서 동일한 것 또는 그 자체인 것 (καθ'αὐτὰ(ταύτὰ)1018a5(6))은 자신들의 질료 와 실체가 중 또는 수에 있어 하나인 것 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것은 재귀 대명사(재귀)가 아니라 지시 대명사(강조)이다 재귀 대명사 나 지시 대명사 나 모두 이미 나왔던 명사를 대신 가리키므로 가리켜진 것은 중복 내지는 반복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만 숙고한다면 두리 몽실 넘어갈 수 있으나 분명히 그 형식 과 문법적인 뜻이 다르지 아니

는 말하여진다

우연적으로 하나⁵¹⁹⁾의 보기들은 ‘코리스코스 와 음악적임’ 그리고 ‘음악적인 코리스코스’ 왜냐하면 ‘코리스코스 와(καὶ 1015b18) 음악적임’ 이라고 말하는 것 과 ‘음악적인 코리스코스’ 라고 말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악적임 과 올바른’ 그리고 ‘음악적이고 올바른 코리스코스’ [등]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적으로[에의해서]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올바름 과 음악적임(τὸ δίκαιον καὶ τὸ μουσικόν 1015b21-22)’은 실체 *하나*와 **더불어 생기기** 때문에⁵²⁰⁾ 그리고 ‘음악적인 것 과 코리스코스’는 헤테론한 것이 헤테론과 더불어 [비로소]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길에서 보면 ‘음악적인 코리스코스’는 코리스코스와 하나이다 이

한가 텔레스토 이 셋 곧 지시 대명사 아우토(καθ' αὐτὰ(ταῦτα)1018a5(6)) 와 재귀 대명사 하우토(καθ' αὐτὸ 1026b16) 와 재귀 대명사 헤아우토(καθ' ἑαυτὸ 1020a16)을 가기 다른 곳에서 쓴다 이 세 가지 쓰임새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냥 두리 몽실하게 그 자체로 라고 옮겨 버릴까...휴...**42**, 72, 124, 205, 278 참조하십시오)

519) 314 쪽 과 408 쪽을 보면 우연적인 하나가 그의 로고스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520) 실체 하나의 우연이기 때문에 라고도 옮길 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우연(συμβεβηκος)적인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선 συμβέβηκεν 이라는 동사로 쓰였다 συμβαίνω의 완료 부정형이 συμβεβηκένα에 유의하라 본디 συμβαίνω는 σύν (함께, along(together) with) 와 βαίνω(가다 또는 서다, to walk or to stand(to be))로 이루어진 말로서 함께오다(to come together) 또는 함께 서다(to stand with, so as to assist,)를 뜻한다 이러한 동사의 완료형이므로 쉘베베에켄은 ‘더불어 **생긴** 또는 더불어 일어난’ 이라는 뜻일게다 따라서,

우연은 어떤 것(실체 하나인 것)과 더불어 비로소 **생긴** 또는 일어남을 말할 것이고 우연적인 것은 어떤 것과 더불어 비로소 **생겨난** 것을 말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과 헤테론한 것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말의 부분들 중의 헤테론한 것이 [알론한] 헤테론한 것과 더불어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음악적인이 코리스코스와 더불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악적인 코리스코스’는 ‘올바른 코리스코스’와 (하나이다) 각각의 부분이 동일한 [기체⁵²¹] 하나와(τῷ αὐτῷ ἐνὶ 1015b27) 우연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⁵²²)

류의 경우 [또는] 어떤 보편적인 이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연(더불어 생김)[이다] 라고 말하여질 것이다 예를들어 사람 과 음악적인 사람이 동일할 것 처럼 말이다⁵²³) 왜냐하면 음악적임이 실체 하나인 사람과 더불어 생기기 때문이거나 또는 이 양자(음악적임 과 사람)가 어떤 개별자 곧 코르니코스과 더불어 [비로소]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길에서 이 양자가 [그 코르니코스]에 속하는⁵²⁴) 것은 아니다 아마 한 편으로는 류 로

521) 코리스코스를 말한다

522) 각각의 부분이 코리스코스와 더불어 하나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라고 풀어 말할 수 있으리라

523) 그런데 이 보기들이 적적한가 사람은 종의 보기로서 그에 의해 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물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를 꾸준히 따르자면 여기에서는 사람 보다는 생물이어야 할 것 같은데.....

524) 속하는 길이 동일하지 않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가 주옥 그의 글을 읽으면서 ‘속한다’ 라는 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독자는 모를 것이다 이런 고통의 일부가 413 쪽 각주 511 번에 스며들어있다 그런데,

범주들이 실체에 속하는 길 하고 제 2 실체가 제 1 실체에 속하는 길이 그에 따르면 알론 또는 헤테론하다는 것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한다 에 이도스를 그가 질적인 어떤 것이라고 그가 말할 때 이 질 역시 노랑 등과 같은 질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또는 헤테론한 것 이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하듯이 말이다

제 2 실체(에이도스, 사람)이 제 1 실체(사람인 것 또는 코리스코스에 속하는 길이 곧 안에 있는 길이 노오란 [색]이 코리스코스에 속하는 또는 안에 있는 길과 헤테론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것을 지금 그는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속하는 길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지금 나는 말 못

서 그 실체 안에 (속하는 것 - 있는 것 -) 같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 실체의 습성 또는 속성(ὡς ἕξις ἢ πάθος 1015b34) 으로서 (속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연적으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은⁵²⁵⁾ 이런 길에 의해서⁵²⁶⁾ 그렇게 말하여진다 ”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우연적으로 하나인 것들에 대해 간략하게 말하고 있다 우선,

‘코리스코스 와 음악(교양)’ 과 ‘음악적인 코리스코스’는 각기 헤태론한 것(음악)이 헤태론한 것(코리스코스)에 습성 또는 속성 으로서 속함으로서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음악은 코리스코스와 더불어 비로서 생기기 때문에 음악은 코리스코스의 우연(속성)이라 말하여진다 따라서 음악과코리스코스는 음악적인 코리스코스와 마찬가지로 우연적으로 하나이다 코리스코스의 속성 또는 습성 으로서 음악은 코리스코스와 하나이며 코리스코스에 속한다 아울러,

‘음악적임 과 올바른’ 그리고 ‘음악적이고 올바른 코리스코스’도 우연적으로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올바른 과 음악적임이 실체 하나와 더불어 생기고 ‘음악 과 코리스코스’는 헤태론한 것(음악)이 헤태론한 것(코리스코스) 과 더불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음악적인 코리스코스’ 와 ‘코리스

할 것 같다 텔레스 역시 류 로서 제 1 실체 안에 속하거나 제 1 실체의 속성 또는 습성으로서 그 제 1 실체 안에 속할 것 같다 라고 ἵσως(1015b33) 라는 말을 써서 추측할 뿐이다 속하는 길이 헤태론하다는 것을 말하는 알론한 곳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 곳이 어디더라.....못 찾겠네(10분 소비) 그러나,

질적인 에이도스(제 2 실체, 사람, 종)이 질적인 노오랑 과 어떻게 차이나는 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은 실체(있음)에 있어서의 질인 반면 노오랑은 자연에 있어서의 질이라고 그가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179 쪽)

525) 곧 실체와 더불어 생기므로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526) 류 로서 그 실체 안에 속하거나 또는 그 실체의 습성 또는 속성으로서 그 실체안에 속하므로서 곧 있으므로서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코스'는 하나이며 '음악적인 코리스코스'는 '올바른 코리스코스'와 하나이다 각각의 부분이 동일한 기체 하나와 우연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람 과 음악적인 사람' 역시 동일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음악적임이 실체 하나인 사람과 더불어 생기거나 또는 음악(교양) 과 사람 이 양자가 어떤 개별자 코르니코스과 더불어 비로소 생기(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코르니코스의 우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이라는 코르니코스의 속성이 코르니코스에 속하는 길과는 달리 류⁵²⁷⁾ 로서 코르니코스에 속한다

습성 혹은 속성 으로 또는 류로 (제 1) 실체에 속하므로서 (실체 안에 있으므로서) 그 속성은 또는 류 와 실체는 우연적으로 하나로 있다 그 속성 또는 류가 실체와 더불어 생기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자체로 하나인 것들로 넘어가자

“ 스스로(καθ'ἑαυτὰ⁵²⁸⁾ 1015b36)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가운데 예를들어 다발은 끈에 의해서 그리고 나무 조각들은 아교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 굽었다고 하더라도 선이 만약 연속⁵²⁹⁾적이라(συνεχής 1016b2)면 그렇게 (스스로)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팔 과 다리 처럼 말이다 이러

527) 류가 아니라 종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미 165 쪽 각주 139 번에서 이미 지적된 것 처럼 텔레스에 있어서의 류 와 종이 고정되었다면 말이다 예외 없이 사람은 에이도스(종)의 보기로 들리며 류의 보기는 생물으로 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류일 것 같기도 하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정의 또는 정의되는 것이며 정의에는 차이 와 류가 나타나지 에이도스(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류이어야 할까.....어렵다.....왜 류가 쓰였을까,

528) αὐτό 대신에 ἑαυτὰ가 쓰였음에 유의하라 그는 이 두 말을 번 갈아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둘은 한 가지로 재귀대명사 라고 말하여진다 어떤 사람(Alston Hurd Chase, 98쪽)은 헤아우토가 하우토 보다 더 오래된 말이라고는 하는데.....416 쪽 과 42 쪽을 참조 하시오

한 그 [스스로]들 가운데 자연적인 연속은 기교(τέχνη⁵³⁰) 1016a4)에 의한 연속 보다 더 하나이다

그 자체로(καθ'αὐτὸ 1016a5) [자신]의 움직임 하나[를 지니지만 그 자체로와] 알론하게는 그와 같지⁵³¹)않는 것이 **연속**(적인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연속은 나뉘어지지 않는 것 그것도(δὲ 1016a6) 시간⁵³²)에 따라 나뉘지 않는 것이다

접촉에 의한(ἀφ᾽ 1-1016a7) 하나가 아닐 경우에 만 그 자체로 연속이다 만약 당신이 나무 조각들을 서로 접촉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이 (나무 조각)들을 연속적인 나무 조각 하나 또는 몸 하나 또는 알론한 어떤 것 하나 있다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로 곱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연속(적)이면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곱지 않는 것들이 더 (하나 라고 말하여 질 것이다) 예를들어 정강이 또는 넓적 다리는 발 [보다 더 하나이다 발의 움직임은] 하나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곱은 것은 곱은 것 보다 더 하나이다 그러나 곱어서 각진 것을 우리는 하나 라고 말하기도 하며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기도한다 그것의 움직임은 동시(ἄμα 1016a15)적이거나 또는 동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곱은 것은 항상 동시적이다 그리고 크기를 지닌 곱은 것의 어느 부분도 다른 부분이 움직이는 동안 곱은 것 처럼 쉬지는 않는다⁵³³)

529) 연속에 대해서는 범주들 216-217 쪽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형이상학 1068b34-1069a14 와 자연학 231a21-232a22를 참조하십시오

530) 기교적인 생성 과 연속적인 생성을 참조하십시오(334-335 쪽 참조)

531) 움직임 하나를 그 자체로 이외에는 지니지 않는 것이 연속적인 것이라 말하여진다

532) 시간 그 자체는 연속적인 량 이라고 말하는 범주들 216 쪽을 참조하십시오

533) 곱은 것의 어느 부분은 알론한 부분이 움직이는 동안 쉬고 있다는 것이 그가 관찰한 프라그마인 것 같다 어느 한 부분은 움직이는데 알론한 부분은 쉰다 그럴 것 같다 그가 본 프라그마가 맞다 틀리다 라고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것이 하나인 원인은 그것의 움직임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

알론한 길에서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기체가(τὸ ὑποκείμενον 1016a18) 그 에이도스(중)에 있어 차이나지 않게(ἀδιάφορον 1016a18)있으[면 하나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에이도스가 감각적으로⁵³⁴(κατὰ αἴσθησι ὃν 1016a19) 나뉘어지지 않는 것들[의 기체]은 차이나지 않는다 기체는 마지막(목적 τὸ τέλος 1016a20)에 대해 첫 번째 또는 마지막 [것 이다] 왜냐하면 포도 주도 하나라고 말하여지며 꿀도 하나라고 말하여지는데 종에 있어 나뉘어질 수 없으므로 [그러한] 반면 예를들어 기름 과 포도 주와 같은 모든 즙들은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용해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그렇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동일한 것은 물 또는 공기이므로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기체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비록 대립되는 차이들에 의해서(ταῖς ἀντικειμέναις διαφοραῖς 1016a25) 차이 나긴해도 [자신들의] 류가 하나인 것들은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이런 것들 모두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그 차이들이 [속하는] 류 (또는⁵³⁵)

는 로고스를 내 세우고 있다는 점에 나는 조심스러워한다 어떤 것의 전체를 이루는 부분의 움직임들이 동시에 있으면 어떤 것은 하나라고 말하여진다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하나는 그 자체 연속적인 것이다 굵은 것 역시 그 굵은 것의 부분들이 동시에 움직이면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어느 하나는 움직이는데 알론한 하나가 쉬고 있으면 굵은 그것은 하나가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

534) 에이도스가 감각적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에이도스는 부분이건 전체이건 간에 질료적이지 않으며 에이도스는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에 의해 말하여졌지 않은가()...마져...생성의 경우 에이도스는 기체 안에 있지 않은가 이 기체가 감각적으로 나뉜다 라고 받아드리면 될 것 같긴한데.....그 에이도스의 기체가 말하여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에이도스 와 기체 사이의 연관이 문제시 되는데.....(162 쪽 과 295 쪽을 참조하시오)

535) 또는(ἢ)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류 와 기체는 각기 1 격으로 로고스 안에 나타난다 나는 동격(同格)으로 보아 ‘또는’으로 류 와 기체를 이었다 여기서 류는 거기에 차이들이 속하는 그 기체 - 이 점에서는 기체가 중적

기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말(ἵππος 馬 1016a27) 과 사람 과 개는 모두 생물 이므로 하나이듯 말이다 그리고 실로 [이것은] 절료가 하나인 길 과 비슷한 길로 (하나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때로 그렇게 하나라고 말하여 지나 예를들어 이등변(二等邊) 과 등변(等邊)이 세 각을[지녔으므로] 동일한 것 과 하나(τὸ αὐτὸ καὶ ἓν⁵³⁶) 1016a31) 이듯 류의 마지막 에이데에(종들) 이 [곧] 그러한 보다 상위(류들)의 에이도스들이 그것(차이나는 것)들⁵³⁷ 이 라면 때로는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상위 류(τὸ ἄνω γένος

으로 차이하지 않는 것들과 동일한 길에서 하나인 것 처럼 보이는데 -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이들이 3격으로 쓰였으므로 본문대로 하자면 차이들에 기체 또는 류가 (속해)야지 기체 또는 류에 차이들이 속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서서히 내가 헛갈리기 시작한다 이 놈의 속하다 라는 말 때문이다 418 쪽 각주 510 번을 다시 보라

536) ‘타우톤 카이 헨’을 ‘동일(同一)한 것 과 하나(一)’ 라고 옮길 것이 아니라 ‘동(同) 과 일(一)’ 그래서 ‘동일(同一)’로 옮겨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어느 누가 물어올 수도 있으리라 나도 처음에는 동일로 옮기고 싶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이 잇따랐다 우선,

동(同)은 ‘같을’ 同이다 만약 타우톤을 同으로 옮긴다면 같다를 가리키는 ὁμός,τι,ὄν (one and the same)’을 무슨 우리 말로 옮겨야 할까 비슷하다로 옮길까 그럼 ἕοικα,ας,ε (to be like, 플라톤의 소오피스테아스 236a8, 240b7, 범주들 259 쪽)를 무슨 우리말로 옮겨야 할까 닮다로 옮길까 닮다로 옮겨서 호모스 비슷하다 로 에오이카를 닮다로 타우톤을 같다로 옮길까 그럴수는 없다 타우톤은 같다를 뜻하는 것이아니라 절대적으로 같음 곧 동일을 뜻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한 용어들은 섬세하게 구분해서 써야한다는 것은 과학을 포함 모든 학문의 근본 전제이다 따라서,

나는 ‘타우톤 카이 헨’을 ‘같음 과 하나’라고 옮길 수 없었다 오히려 더 헛갈렸다 비록 일(一)이 거듭 쓰여져서 317 쪽에 지적되어진 ‘들창(코)코’를 정의할 때의 잘못을 고스란히 안더라도 ‘동일 과 하나’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엄연히 타우톤 과 하나는 헤테론하기 때문이다 동일 과 일(하나)가 헤테론 하듯이 말이다 로스는 'the same and one'으로 번역한다

537) 예를들어 이등변 과 등변....

1016a29)이다⁵³⁸⁾ 나아가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하는 로고스가 그 프라그마를 밝혀주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하는] 알론한 [로고스]와(πρὸς 1016b33) 나누
어지지[떨어지지] 않을 때 [그 두 로고스는]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그 자체로
모든[각기] 로고스는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가된 것과 감소
된 것 조차 하나이다 그 로고스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평면 도형들의 종들의
(로고스가) 하나인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⁵³⁹⁾ 가운데 생각(νόησις 1016b1)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생각(νοῦσα 1016b1)은 나뉘어지지 않으며 시간에 있어서
든 장소(자리)에 있어서든 분리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이다 이런
것들 가운데 특별히 실체[가 있다 나누어] 지지 않는 한 보편적으로 나누어
지지 않는 것은 하나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만약 사람이 나누
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이며 만약 생물이 나누어지지 않는
다면 그러한 생물은 하나이고 만약 크기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크기가 하나이다 이제⁵⁴⁰⁾,

해태론한 어떤 것을 행하거나(ποιεῖν 1016b7) 또는 지니거나 또는 겪
거나 (해태론한 그) 어떤 것에 대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πλείστα
1016b7)이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실체가 하나인 그러한 것이나(δὲ 1016b9) 연속적인 하나

538) 류에 있어 하나 라고 말하여지기도 하지만 때로 그 상위 류에 있어
하나라고도 말하여진다 라는 말이다 상위 류(아노오 게노스) 라는 말은 로
스는 ‘higher genus (로스 758)’ 라고 옮긴다

539) 이런 것들(ἅν 1016b1)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동격일 것 같지 않
다면 곧으로 연결시킬 수 없을 것 같은데.....그렇다면 ἅν(이런 것들 가운데)
는 무엇을 가리킬까.....하나인 것들인가 또 νοῦσα는 무엇인가.....

540) 지금 까지 하나라고 말하여진 것들을 묶어서 말하는 것 같다 다시 말
해서 지금 까지 말 하여진 것들은 모두 해태론한 어떤 것을 행하거나 겪거
나 지니거나 해태론한 어떤 것에 대해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에이도스에 있어 하나 또는 로고스에 있어서 하나인 것[도 있다] 연속적이지 않는 것들 또는 자신들의 에이도스에 있어 하나가 아닌 것들 또는 자신들의 로고스에 있어 하나가 아닌 것들을 우리들은 하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헤아리기 때문이다

만약 량 이면서(καὶ 1016b12) 연속적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로 있다 라고 말하는 반면 만약 전체인 것이 아니라면 곧 하나[인] 에이도스를 지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들이 신발의 부분들이 함께 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 부분들이 연속적임 때문이 아닌 한 같은(ὁμοίως 1016b14)하나 라고 말하지 말아야한다 그러나 만약 그 부분들이 신발로 있기 위해 함께 모여서 이미 어떤 에이도스 하나를 지닌다면 단지 하나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줄(τὼν γραμμῶν 선 1016b17)들 가운데 등금(원)이 전체이며 끝나(완성되어) 있으므로 대 부분 하나라고 말하여진다⁵⁴¹⁾ ”

이어서 텔레스는 수 로서의 하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끊어 그 자체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에 대한 그의 로고스를 정리 요약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나은 이해를 보장할 것 같다 물론 이해를 방해하는 수도 있지만 말이다 첫째,

자연적으로든 기교적으로든 연속적인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이다 예를 들어 끈에 의한 연속적인 다발 과 아교에 의한 연속적인 나무 조각들 과 굵은 (선) 과 연속적인 팔 다리 등 처럼 말이다 그러나 기교적인 연속 보다는 자연적인 연속이 더 하나이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연속적인 일리아드(형이상학 314 쪽)가 연속적인 나무 조각들 보다 더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그 자체로 연속적인 하나는 접촉에 의한 하나가 아니다 나무 조각을 접촉시켜 놓고 당신은 그 조각들을 연속적인 하나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굵은 것은 굵은 것 보다 만약 굵은 것이 연속적이라면 더 하나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정강이 또는 넓적 다리는 발 보다 더 하나이다

541) 등금이 하나라고 주로 말하여지는 원인은 등금이 가장 연속적이기 때문이라는 말일 것이다

발의 움직임은 하나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진 굽은 것을 우리는 하나 라고 말하기도 하며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기도한다 각진 굽은 것의 부분들의 움직임 동시적이거나 또는 동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곧은 것 (의 부분의 움직임)은 항상 동시적이다 크기를 지닌 곧은 것의 어느 부분도 다른 부분이 움직이는 동안 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굽은 것의 부분은 헤태론한 부분이 움직이는 동안 쉬는 헤태론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연속적인 것의 부분들은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인 것은 그 부분들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자체로 하나인 것은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기체가 종적으로 차이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종(에 이도스)가 감각적으로 나뉘지 않는 것들의 기체는 종적으로 차이하지 않는다 본디 기체란 끝에서 첫 번째 또는 마지막 것이다 예를들어 포도 주 와 물 또는 기름 과 포도 주는 그 기체가 종적으로 차이하지 않으므로 하나라 말하여진다 여기서는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기체인 물 또는 공기가 동일한 것(ταύτα⁵⁴²) 1016b24)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류가 하나인 것들 역시 그 자체로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차이들이 속하는 류 또는 기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말 과 사람 과 개는 모두 생물이므로 곧 그 류가 하나이므로 하나이다 이것은 질료가 하나인 길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 상위 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 라고 말하여지기도 한다 예를들어 이등 변 과 등변은 세 각을 지녔으므로 동일하며 하나이듯이 말이다 여기서 세 각은 상위 류이며 이 등변 과 등변은 차이들 또는 그 [상위?] 류의 마지막 종들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될까⁵⁴³)넷째로,

542) 하나(ἓν) 라고 하지 않고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음에 유의하시오 (418 쪽 각주 534 참조하시오

543) 자신이 없다 여기서도 류 와 종 과 차이의 상호 관련이 애매해진다 이 등변 과 등 변 과 세 각의 경우 이 등변 과 등변의 상위 류는 세각 이라는 것은 그에 의해 확실한 것 같다 그렇다면 차이는 이 등변 과 등 변이 될 것 같고 그럼 종은 무엇인가?...?...“ 류의 마지막 에이데에(종들이) [곧] 그러

나뉘어지지 않는 로고스들은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대 부분의] 모든 로고스는 나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고스가 하나이면 증가된 것 과 감소된 것 조차 하나이다 평면 도형들의 종들의 로고스가 하나인 것 처럼 말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생각은 시간에 있어서든 자리에 있어서든 분리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이다 특히 실체가 보편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사람 또는 생물 또는 크기는 나뉘어지지 않는한 하나이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많은 것들은 헤태론한 어떤 것을 행하거나 지니거나 겪거나 헤태론한 것에 대해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이런 하나인 것들 가운데 실체가 첫 번째로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반면에 연속적인 것도 자신들의 에이도스가 하나인 것도 자신들의 로고스가 하나인 것도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그렇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숫적으로 하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헤아리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연속적인 것에 대해 덧 붙혀 말하면서 하나는 전체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비록 어떤 것이 연속적인 량이긴 해도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면 곧 에이도스 하나를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라 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연속적인 신발은 어떤 에이도스 하나를 지녀야 곧 전체인 것이어야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그러기에 줄(선) 가운데서도 동금(원)이 전체이며 끝나 있으므로 주로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텔레스의 덧 붙히는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 그의 이 로고스를 제대로 내가 이해 했을 런지 두렵다 그러나 지금의 나로서는 이러한 나

한 보다 상위(류들)의 에이도스들이 그것(차이나는 것)들 이라면 때로는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상위 류(τὸ ἄνω γένος 1016a29)이다 ”의 밑 줄 친 곳을 ‘세각 이라는 류의 이 등변 과 등 변 이라는 마지막 종이 차이 난다 라고 ’ 설명할 수 있다면 이 등변 과 등 변이 에이도스(종)일 것 같은데.... 제기될 차이 와 종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을까 차이는 류에 속한다는 것은 그에 의해서 확실해 졌다 그러나 그를 따르자면 류적인 차이 라고 말하기 보다는 종적인 차이 라고 말하곤 해야 할 것 같은데.....

의 설명은 나의 지금 한계이다 하나인 것은 곧 전체이며(끝나 있으며 - 완성된-) 그리고 에이도스 하나 544)라는 것이 텔레스의 로고스일 것 같다 마지막으로,

그 자체 하나로 있음에 대한 그의 로고스들을 더 간략히 요약 정리해보자

가장 먼저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실체이다 그 다음으로 자연스레 또는 기교적으로 연속적인 것 과 기체가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는 것들과 류 또는 상위 류가 하나인 것들과 나뉘어지지 않는 로고스들을 지닌 것(예를들어 실체)이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이런 것들 가운데 기교에 의한 연속 보다 자연스런 연속이 더 하나이며 굵은 것 보다는 곧은 것이 더 하나 이고 등급이 주로 하나라고 말하여진다는 로고스는 흥미롭다 하나에 더 와 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실체는 더 와 덜이 허용하지 않으나(범주들 180쪽) 제 2 실체 가운데 종이 류 보다 더 실체라는(170 쪽) 그의 로고스도 참조하라 또,

유념해야 할 점이 하나있다 연속적인 것은 하나와 더불어 움직임이 말하여진다는 점이다 연속적 하나의 부분들은 동시에 움직인다 그렇지 않는 것은 예를들어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지닌 굵은 것은 하나가 아니다 움직임이 시간에 따라 나뉘어질 수 없을 때 하나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순수한 하나는 실체 뿐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수의 있음의 아르케 로서의 하나에 있음으로 넘어간다

“ 하나에 있음은(ἐνὶ εἴῃαι 1016b18)수의 있음[의] 어떤 아르케에(시작)이다545) 이 아르케에는 우리들이 그것에 의해서 (각기 류를) 처음으로

544)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에스에 나온 이데아 하나에 관한 플라톤의 설명을 참조하시오(71쪽) 거기서 플라톤은 이데아를 ‘ 우리들이 전체라고 부르는, 모두로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인 어떤 것 ’ 이라고 말한다 이 이데아를 텔레스의 에이도스가 그대로 닮지 않았는가

545) 하나는 수의 아르케(시작)이다 라는 뜻일텐데.....로스는 ‘하나인 무엇

인식하는 그 첫 번째 척도(τὸ πρῶτον μέτρον 1016b18-19)이기 때문이다 이[척도]는 각기 류의 첫 번째 척도(尺度)이다 그러므로 하나는 각기 것에 관한 인식의(τοῦ γνωστού 1016b20) 아르케에(시작)이다 그러나 하나는 모든 류에 있어 동일한 것은 아니다⁵⁴⁶⁾ 한 편으로 여기서는 디에시스(4분의 1 음 διεσις⁵⁴⁷⁾ 101621-22)이며 다른 한 편으로 거기서는 자음 또는 모음이며 무게의 (하나)도 헤테론하고 움직임의 (하나)도 알론하기 때문이다 ”

수 로서의 하나에 대해 그가 말하는 부분은 의외로 적다 겨우 6 줄 일 뿐 아니라 그것도 계산할 때 쓰여지곤하는 숫자⁵⁴⁸⁾ 일(1, —)만을 순수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있음**(존재)와 더불어 하나가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수는 있음의 아르케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있음과 더불어 하나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로부터 **있는** 모든 것을 이끌어 내려는 피타고라스 사람들 과 이데아론자들은 헛 일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394-395쪽에서 말하여졌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를 통해서 각기 류를 인식한다 라고 말한다

하나에 있음은 수의 있음의 시작(아르케에)이다 이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각기 류를 처음으로 인식하므로 각기 류의 첫 번째 척도 로서의 하나는 각기 (류)에 관한 인식의 아르케에 이기도하다 그러나 하나는 모든 류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한 편으로 4 분의 1음이 다른 한 편으

의 본질은 수의 일종의 시작이다(로스 759)’라고 옮긴다

546) 류 마다 하나는 각기 다르다 라는 말이지 류들 가운데 어떤 류들에 있어서는 하나가 동일하고 어떤 류들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다 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로고스는 부분 부정이 아닐 것이다 이어지는 로고스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이러한 척도 로서의 하나는 예를들어 4분의 1 음 과 자음 또는 모음에서 처럼 각기 류 마다 다르다 라는 말인데.....

547) 로스에 따르면 음악에 있어서 [소리]의 가장 작은 간격이 디에시스이다(로스 304 쪽) 4분의 1 음(색 quarter-tone 로스 759 쪽)이라고 번역한다

548) 수(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1076a8-2093b29(형이상학 뒤 와 뒤 편)을 참조하시오

로 자음 또는 모음이 그 척도 로서의 하나이며 움직임의 하나 와 무게의 하나도 각기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텔레스는 순수한 수 로서의 하나 보다는 있는 하나⁵⁴⁹⁾ 또는 류 인식의 척도 로서의 하나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의 범주들에 따르면 수는 연속적이지 않는 량이므로(범주들 216 쪽 참조) 첫 번째 척도 로서의 數 하나 역시 비 연속 량일 것이다 이제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는 량 또는 에이도스(종)에 있어서 나뉘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나뉘어지지 않는 량인 모나드 와 점 그리고 나뉘어지는 연속 량인 선 면 몸 등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 량에 있어서든 종에 있어서든 어느 곳에서 건 하나는 나뉘어질 수 없다 이제,

량에 있어서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은 [만약 그것이] 모든 방향(πάντη 1016b25)에서 그리고 위치 없이(ἄθετον 1016b25) [있다면] **모나스(모나드, μονάς 1016b25)**라고 말하여지며 [만약 그것이] 모든 방향에서 그리고 위치를(θέσιν⁵⁵⁰⁾ 1016b26)를 지니[면] 점(σημήν 1016b26)이라 말하여지고 [만약 그것이] 한 방향(차원 μοναχῆ⁵⁵¹⁾ 1016b26)으로 (나뉘어진다 [면]) 선(γραμμῆ 1016b26)이라 말하여지며 [만약 그것이] 두 방향(차원)으로 (나뉘어진다 [면]) 면(τὸ δὲ διχῆ ἐπιπεδον 1016b26-27)이라 말하여지고 [만약 그것이] 모든 방향에서 그리고 세 방향(차원)에서(πάντῃ καὶ τριχῆ 1016b27) 량적으로 나뉘어진다[면] 몸(σώμα 1016b28)이라 말하여진다 그리고 [순서를] 거꾸로 두 방향으로 (량적으로) 나뉘어진 것은 면이며 한 방향으로 나뉘어진 것은 선이고 어느 방향으로도 량적으로 나뉘지않는 것은(τὸ δὲ μηδαμῆ διαίρετον κατὰ τὸ ποσὸν 1016b29-30) 점 과 모나스(드)이다 모나스는 위치를 지니지 않는 반면 점은 위치를 지닌다 ”

549) 있는 하나에 대해 플라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는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이스 49 쪽 이하 특히 52 쪽을 참조하시오

550) θέσιν(위치, 傾)에 대해서는 범주들 216 쪽 과 248 쪽을 참조하시오

551) 한 차원(次元) 또는 한 방향(方向)이라고 옮겨 보았다

량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량 가운데 모나스는 모든 방향으로 위치 없이 있는 반면 점은 모든 방향으로 위치를 지니채 있다 그리고,

량적으로 나누어지는 연속적인 량 가운데 선은 한 방향으로 나누어지며 면은 두 방향으로 나누어지고 몸은 모든 방향 그리고 세 방향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한 방향으로 량적으로 나뉘어진 것은 선이라 말하여지며 두 방향으로 나뉘어진 것은 면 이라고 말하여지고 모든 그리고 세 방향으로 나뉘어지면 몸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도 량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것은 점 과 모나스 라고 말하여지는데 점은 위치를 지니는 반면 모나스는 위치를 지니지 않는 량이다

여기서 점 과 모나스를 일단 량이라 말하였지만 텔레스가 량으로 생각할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위치 와 방향(차원)을 통해 정확히 무엇이 말해지는지가 지금 나에게 분명하지 않다 아울러,

그는 모나스 와 점 과 선 과 면 과 몸을 모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는 나누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연속적인 것은 하나이다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들 모두가 하나일 것 같긴하다 그러나 순수한 하나는 모나스 와 점 뿐이 아닐까.....

이어 그는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하나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 나아가서 어떤 것들은 숫적으로 하나이고 어떤 것들은 에이도스(중)적으로 하나이며 어떤 것들은 류적으로 하나이고 어떤 것들은 유비적으로(κ $\alpha\tau\acute{\alpha}\nu\alpha\lambda\omicron\gamma\iota\alpha\nu$ 1016b32)하나이다 숫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그것들의 질료가 하나이며 종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그것들의 로고스가 하나이고 류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그것들[에 적용되는] 카테애고리아의 式($\sigma\chi\eta\mu\alpha$ figure 1016b34)이 동일한 것이며⁵⁵²⁾ 유비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알려진 것이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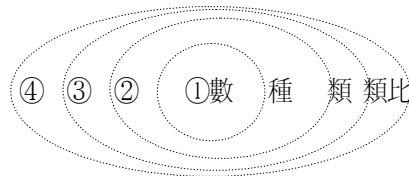
552) 동일한 카테애고리아가 적용되는 것들 이라고는 뜻일까.....그렇다면 범주들의 스케애마는 무엇일까 스케애마는 영어로 form, shape, figure 로 번역되는데....그것들에서 보여지는 범주들이 동일하다는 말일까 아니면 범주들이 그것들에서 변형되어 나타난 것들이 동일하다는 말일까 스케애마에 대해

론한 것에 대해 있는 것과 같은 (ὡς 1016b34)상태인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데,

앞의 것들이 있을 때에는 항상(ἀει 1016b35) 뒤 것들이 발견된다 예를들어 수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항상 종적으로 하나인 반면에 종적으로 하나인 것들이 모두(πάντα 1016a36) 숫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종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모두 류적으로 하나인 반면에 류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모두 종적으로 하나인 것들 아니다 그러나 유비적으로는 모두 하나이다 반면에 유비적으로 하나인 것들이 모두 류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아니다”

하나인 것들은 숫적으로 하나이거나 종적으로 하나이거나 류적으로 하나이거나 유비적으로 하나이다 질료가 하나인 것들이 수적으로 하나이며 로고스가 하나인 것들이 종적으로 하나이고 보여진 카에에고리아가 동일한 것들은 류적으로 하나이며 서로에 대해 있는 알론한 것들은 유비적으로 하나이다 그런데,

이 처럼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의 경우 앞 것들은 항상 뒤 것들이나 뒤 것들은 항상 앞의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①수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항상 ②종적으로 하나인 것들이나 종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모두 수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아니며 종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모두 ③류적으로 하나이나 류적으로 하나인 것들이 모두 종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아니고 류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모두 ④유비적으로 하나인 것들이나 유비적으로 하나인 것들이 모두 류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아니다 이러한 상태를 다음 처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서는 형이상학 295쪽 340 쪽 과 티마이오스 148 쪽을 참조하시오 340 쪽에서는 스케에마란 ‘생성되는 것이 첫 번째로 받아드리는 류’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자신들에 속하는 질료(수적으로 하나) 와 로고스(종적으로 하나) 와 나타난 범주(류적으로 하나)가 하나인 것들이 각각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것도 새겨 볼 아포리아 이지만 **유비적으로**(κατ'ἀναλογίαν 1016b32)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서로에 대해 있는 것들이 유비적으로 있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에 대해(πρὸς⁵⁵³) 1016b34) 경우 이 알론한 것들이 유비적으로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항(二項) 또는 (여러 항)으로 관련된 것들이 유비적으로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여질 것이다 이제,

그는 하나에서 여럿으로 넘어간다 그를 따라가기 전에 하나에 대한 로고스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로 하자 하나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우연적으로 하나 라고 말하여지기도 하고 그 자체로 하나 라고 말하여지기도 한다 먼저,

우연적으로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실체 하나와 더불어 생기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음악적인 코리스코스’ 또는 ‘코리스코스 와 음악’의 경우 코리스코스와 더불어 음악이 비로소 생기므로⁵⁵⁴) 이

553) ‘(해태론한 것에) 대해 있음’ 이른바 ‘관계’에 대해서는 범주들 186-187 쪽을 참조하십시오

554) 음악과 더불어 코리스코스(이 사람 또는 사람인 것)이 비로소 생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어려움이 줄 곧 형이상학을 읊기고 번역 하며 쓰고 보고 요약하는 나를 괴롭힌다

형이상학 과 범주는 종(種) 예를들어 사람 이라는 에이도스를 축으로 해서 펼쳐진다 사람(제 2 실체, 종)을 가운데 놓고 사람인 것(코리스코스, 제 1 실체) 와 생물(제 2 실체, 류)와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둘러 쌓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주가 지구 또는 사람을 축으로 해서 움직인다 라는 의견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이 아니다 아니어도 한 참 아니다 아마 그 당시 와 현대의 신(神)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주로 그러한 의견을 지녔을 것이다 고 중세 현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 그 누가 지구 또는 사람 중심

들은 우연적으로 하나이다 ‘음악 과 올바른’ 또는 ‘음악적이고 올바른 코리스코스’도 그렇다 ‘음악과올바름’은 실체 하나 곧 코리스코스와 더불어 생기므로 이 셋은 우연적으로 하나이다 그리고

‘음악적인 코리스코스’는 ‘코리스코스’와 우연적으로 하나이며 ‘음악적인 코리스코스’는 ‘올바른 코리스코스’와 하나이다 각각의 부분이 동일한 하나 곧 코리스코스와 우연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 길에서 우연적으로 하나이지는 않다 예를들어 우연적으로 하나인 ‘사람’ 과 ‘음악적인 사람’의 경우 사람은 류 로서 실체 하나에 속하는 것 같고 음악은 습성 또는 속성 으로서 실체 하나에 속할⁵⁵⁵⁾ 것 같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그 자체로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 있다 이런 하나 역시 있는 것 과 실체 와 정의 등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듯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수적으로 하나 라고도 종적으로 하나 라고도 류적으로 하나 라고도 유비적으로 하나 라고도 말하여지는데 이것들 가운데 앞 것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뒤 것이 있으나 그 거꾸로는 않된다 라는 점에 유의하면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설을 말했는지 모르겠다

비록 신을 섬기지는 못 했을 지라도 그리고 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헤태론한 것을 움직이게하는 자로 만 인식했을 지라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 이상의 초월적인 그 무엇을 인정하긴 했다 내가 이 학위 논문에 이 처럼 메달리는 것도 다 하나님을 알며 경배하고 싶기 때문이다 철학 박사 학위 논문등 여러 논문들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 하나님의 있음(존재)를 내 있음으로 하는 삼아가는 과정에서 잉태(孕胎)될 것이다

555) ‘속할(ὡς 1016b33) 것 같다’ 라고 옮길 수도 있고 ‘똑 같이(ὡς 1016b33) 속한다’ 라고 옮길 수도 있다 히소오스 라는 말은 equally 또는 perhaps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하니 말이다 나는 로스의 번역(758쪽)을 따랐으나 똑같이 라고 옮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속한다는 점에서는 똑 같으나 ὡς(로서, as, 1016b34,35) 다음의 것 으로서 속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길로 속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기교에 의한 또는 자연적인 연속들이다 물론 끈에 의해 묶여진 나무 다발 하나 연속 과 코리스크스 하나 연속에서 처럼 기교에 의한 연속 보다는 자연 적인 연속이 더 하나이긴 해도 말이다 그러나 그 나무 조각들이 접촉해 있다고 해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것은 자신의 움직임이 그 자체로 지니지 그 자체 이외의 방식으로 움직임을 지니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연속적인 것들의 부분들의 움직임은 예를들어 굵은 것의 부분들 처럼 반드시 동시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들어 굵은 것의 부분들 처럼 그 움직임이 동시적이지 않으면 하나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물론 자신의 부분들이 동시적으로(ἅμα 1016a15) 움직이는 그런 굵은 각진 것도 있다 이런 굵은 것도 우리는 하나라고 말다 그러기에,

연속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시간적으로(κατὰ χρόνον 1016a6) 나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연속적인 것이 하나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길과는 알론한 길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있다

자신의 기체가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으면 하나라고 말하여진다⁵⁵⁶)종(에이도스)이 감각적으로 나뉘지 않으면 그 종은 차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포도주 와 물’ 그리고 ‘기름 과 포도 주’는 각기 종적으로 나뉘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이것들의 동일한 것은 물 또는 공기(공 基體) 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립되는 차이들에 의해 차이나긴 해도 류 또는 상위 류가 하나인 것 들은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그에 따르면 (상위)류 역시 기체이다 예를들어 사람 과 개는 모두 생물(공 기체)이므로 그리고 이등변 과 등변은 세각(상위 류 로서의 기체)을 지니므로 하나이라고 말하여지듯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길은 질료가 하나인 것이므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길과 비슷

556)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는 기체를 지니는 하나인 것 과 연속적인 것으로서의 하나인 것이 반드시 겹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그가 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겹치지 않는 것이기에 이런 말을 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아마 반드시 겹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한 길이다 또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하는 알론한 로고스들이 나누어지지 않을 때 그 로고스 - 모든 로고스는 그 자체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 들은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그래서 증가된 것의 로고스 와 감소된 것의 로고스는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평면 도형의 종들의 로고스가 하나인 것 처럼 말이다 여기서도 나누어지지 않는 것 곧 연속적인 것이 하나라는 로고스가 통용됨을 알 수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 아주 중요하다⁵⁵⁷⁾

실체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생각은 나뉘어지지 않으며 시간에 있어서든 공간에 있어서든 분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이다 자 !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이도스, 종, 실체)이 하나인 원인은 실체의 생각은 나뉘어지지 않으며 시간에 있어서든 자리(장소)에 있어서든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이며 나누어지지 않는 생물도 하나이며 나누

557) 지금 형이상학 제에타 편에 형이상학 델타 편을 끼워 요약하고 있으므로 어디 까지나 나는 제에타 편의 흐름 과 내용을 따라간다 이렇게 볼 때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다 제에타는 실체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축으로 해서 굴러가기 때문이다

있는 것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실체로서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며 바로 이 무엇의 로고스 만이 정의이다 라고 이제까지의 제에타 편을 요약할 수 있으리라 이제 12 장에서는 이 정의의 아포리아(어려움)를 해소하려하면서 무엇 때문에 여럿 일 것 같은 정의 예를들어 ‘두 발 달린 생물’ 이라는 로고스가 하나인가 라고 그는 묻는다 두 발 과 생물은 서로에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하나가 문제 삼아진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에 대해 델타 편에서 말하여지는 로고스를 서 너 번째 요약하는 중이다

무엇 때문에 ‘실체’ 곧 ‘에이도스’ 곧 ‘종’ 곧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하나일까 라는 그의 물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에 대한 그의 로고스를 살펴 보아야 한다

어지지 않는한 크기도 하나이다 그리고,

실체 만이 첫 번째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연속적인 것 또는 종적으로 동일한 것 또는 (상위)류적으로 동일한 것또는 로고스에 있어 동일한 것이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이리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하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헤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헤태론한 것을 행하거나 또는 지니거나 또는 겪거나 헤태론한 것에 대해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량적인 하나에 대해 말한다

량이면서 연속적인 것은 하나로 있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 예를들어 신발의 부분들이 연속적이지 않는한 우리는 그 신발을 같은 하나 라고 말하지 말아야한다 신발로 있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미(ἴδιον 1016b16) 어떤 에이도스 하나를 지녀야한다 지닐 경우에만 우리는 하나라고 말한다

그가 여기서 들고 있는 량적인 것 으로서의 신발의 보기가 의외이긴 해도 이어 들어지는 보기 수를 보면 그의 논증이 치밀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신 발은 본디 두 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에 관련된 로고스가 너무나 짧음에 허망하기도 하리라 허망한 사람은 형이상학 뒤 와 뒤 편을 보라 다시 답답해 질 것이다

그에 따르면 로고스(말)와 더불어 수는 비 연속 량이다

이러한 비 연속 량인 수의 첫 있음의 아르케에가 바로 하나에 있음이다 수의 있음은 하나에 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일 것이다 이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각기 류를 처음으로 인식하므로 수의 첫 있음의 아르케에 로서의 하나는 각기 류의 첫 번째 척도이다 그러나,

첫 척도 로서의 이러한 하나는 모든 류에 있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4분의 1음이 그 척도 로서의 하나 이기도 하고 자음 과 모음이 그 척도 로서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게의 척도 와 움직임의 척도도 알론 하다

량에 관한 그의 말은 이제 수로부터 기하학적인 것들 곧 모나드 점 선 면 몸 등으로 나아간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일까 량적으로든 종적으로든 결코 하나는 나뉘어질 수 없다 라는 점에 유의하라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으면서 모든 방향에서 위치 없이 있는 것은 모나스(드)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위치를 지니면서 모든 방향에 [열려] 있는 것은 점이라 말하여진다 모나스 와 점이 하나 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량 이면서도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 과 면 과 몸도 하나인 것들인가 그럴 것 같지 않다 선 면 몸은 각 기 나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한 방향으로 량적으로 나뉘면 선이라고 두 방향으로 나뉘면 면이라고 세 또는 모든 방향으로 나뉘면 몸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선 면 몸들은 하나가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왜 그 자체 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선 과 면 과 몸을 거론 하고 있는가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서 실체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첫 번째 로 말하여지는 하나이며 알론한 하나들은 이 실체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여 진다는 것을 결코 그에 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어지는 여럿에 대한 로고스들을 옮기면서 요약 정리해 보자

“ 분명히 여럿은(τὸ πολλά 1017a3) 하나에 대립⁵⁵⁸된다 라고 말하여 진다 연속적으로 있기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여럿이며 첫 번째[가장 가까운] 질료이건 마지막 질료이건 [자신들의] 질료가 종적으로 나뉘어지기⁵⁵⁹

558) 하나는 여럿에 모순인가 라는 물음을 나는 414 쪽 각주 513 번에서 제기 만하고 답은 못했는데...

559) 422 쪽에서는 에이도스가 감각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것들의 기체]는 차이 나지 않으며 기체가 에이도스에 있어 차이 나지 않을 때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아직도 나는 ‘에이도스가 감각적으로 나뉘지 않는 것’ 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에이도스는 그 자체 질료적인 것도 아니며 나뉘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때문에 여럿이고 어떤 것들은 [자신들에게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많기(τὸν λόγον πλείους 1017a6) 때문에 여럿이라 말하여진다 ”

여럿에 대한 그의 말은 간략히 위 뿐이다

하나에 대립된다 라고 말하여지는 여럿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연속적이지 않는 것들이며 어떤 것들은 자신들의 질료가 종적으로 나누어지는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많은 것들이다 그런데,

그가 곧 잘 들곤하는 보기들을 여기서 만큼은 제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여럿의 보기들이 위 로고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서인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연속적이지 않는 것은 여럿이다 라는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질료가 종적으로 나뉜다는 말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많다 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수학적인 질료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많다는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관한 겹치는(317, 329 쪽) 또는 정확지 않는 로고스를 말하는 것일까 그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하나라고 하지 않는가 하나 라면 그 로고스도 하나여야 할 터이고 그러한 로고스가 바로 정의 일 터이니 말이다

이제 정의에 대해 말하는 제에타 편 12 장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의 정의 와 그것은 하나이라고 말하는 12 장 들어가기 부분을 나는 410-415 쪽에서 옮겼으니 우선 그리 많은 양이 아니니 그 부분을 다시 여기에 올려 붙히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요약 정리 문제 제기 하기로 하자

여기 ‘자신들의 질료가 종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들은 여럿이라고 말하여진다’ 에서의 ‘질료가 종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질료가 종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니....그에 따르면 질료는 본디 에이도스(종)와 분리된 것이 아닌가 비록 생성된 것들 안에 섞여져 있긴 해도 말이다.....무슨 뜻이 있을 텐데....

(XII) “ 우리들이 분석론에서 정의에 관해(περὶ ὀρισμοῦ 1037a9) 말하지 아니했던 한에서 이제 먼저 말해보기로 하자 거기에서의 아포리아(물음)는 실체에 관한 우리의 로고스들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아포리아들을 말한다

우리가 그것의 로고스가 정의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일까 예를들어 [그것의 로고스가] 두발 달린 생물[인] 그 사람의 [경우에서] 처럼 말이다 그 (사람)의 로고스[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왜 이 (사람)은 하나이고 여럿(πολλά 1037a14)이 아닐까 곧 생물 과 두 발 (달림)이 아닐까

사람 과 힘의 경우 한 편으로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에 속하지 않는 한 여럿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속해서 기체 곧 사람이 속성을 지니는 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니면 하나가 생성되어져 흰 사람이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οὐ μετ ἔχει 1037b18) 류가 차이들(τῶν διαφορῶν 1047b19)을 나누어 지닌다고 여겨 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누어지닌다면] 동시에 동일한 것이 반대들을 나누어 지닐 것이므로 [그렇다] 류가 그것들에 의해서 차이나는 그 차이들은 반대들이기 때문이다 설령,

만약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닌다고 해도 로고스는 동일하다 예를들어 발 달림, 두 발 달림, 날개 없음 처럼 차이들이 여럿이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하나이지 여럿은 아닐까 [안에] 속하기(ἐνυπάρκει 1037b24-25)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들로(전체적으로 ἐξ ἀπάντων 1037b24) 하나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ἐν 1037b24)임에 틀림 없다 정의는 실체의 로고스와(καὶ 1037b26) **하나**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 (정의)는 반드시 하나인 어떤 것의 로고스여야만 한다 우리가 말한 것 처럼 실체는 하나인 것 과 이(것인) 것(ἐν τι καὶ τόδε τι 1037b27)이기 때문이다 ”

이것을 요약해 보자

정의에 관한 아포리아(어려움)은 실체에 관한 로고스에 적용되므로 자신은 정의에 닥아선다 라고 말하므로써 그는 12 장을 열어 재깁다 자!

사람의 정의가 두 발 (달린) 생물 이라면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인가 라는 것이 어려움이다 두 발 과 생물은 여럿이기 때문이다⁵⁶⁰)

사람 과 힘을 보라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에 속하지 않는한 여럿인 반면 속해서 기체 곧 사람이 힘이라는 속성을 지녀 [헤태론한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흰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류가 차이들을 나누어 지닌다고 여겨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누어 지닌다면] 동일한 것이 동시에 반대들을 나누어 지닐 것이므로 [그렇다] 류가 그것들에 의해서 차이나는 그 차이들은 반대들이기 때문이다 설령,

나누어 지닌다고 해도 로고스는 동일하다 예를들어 발(달림) 두 발(달림) 날개 없음 같은 차이들은 여럿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왜 하나이지 여럿은 아닐까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는 모든 것들로부터(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이다⁵⁶¹) 그런데,

정의에 있는 것들은 하나임에 틀림없다 실체의 로고스와 하나인 정의는 반드시 하나인 것의 로고스여야한다 실체는 하나인 것 과 이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정리해 보자

예를들어 두 발 생물 과 같은 정의는 무엇 때문에 하나인가 실체의 로고스가 정의인데 그 실체가 하나인 것 이며 이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체가 하나이므로 실체의 로고스인 정의 역시 하나 라고 그는 말한다 그런데,

560) 여기서는 ‘두 발 생물’ 이라는 프라그마를 사람의 로고스 곧 정의가 그 대로 비추어낸다는 것이 상정되고 있다 인식 모사설(模寫說)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561) 하나는 전체로 있다 라는 말은 425 쪽에서 말하여졌다

물음을 제기하고 답하는 사이에 그가 펼치는 논증이 지금 나에게 애매하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잡힌다

사람 과 힘의 경우 해태론한 것에 해태론한 것이 속하지 않는한 여럿인 반면 속해서 사람 곧 기체가 속성을 지니면 하나이다 하나가 되어서 흰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논증이 애매하다,

두 발 생물경우 두 발은 차이이며 생물은 류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류가 차이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런데 ‘두 발 생물’ 이라는 로고스 만을 문제 삼는다면 언뜻 보아 두 발 달린 것은 생물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로고스는 사람이 정의라는 점을 신중하게 숙고해 보면 두 발 달린 것은 생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퍼뜩 떠올라 올 것 같기도 하다 생물이 두 발 달렸다면 이미 그 생물은 정의에 따라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⁵⁶²⁾ 이것을 받아드린다면, 류(생물)이 차이(두 발)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⁵⁶³⁾는 말을 이해 할 수는 있을 것 같다⁵⁶⁴⁾

두 발 생물의 경우 해태론한 것은 해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류는 차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나누어 지닌다면 류가 그것들에 의해서 차이나는 그 차이들은 반대들이므로 동일한 것이 동시에 반대를 나누어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562) 그 누가 사람도 생물 아니냐고 물어 오면 난 그에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563) 차이를 나누어지 지니는 것은 종(에이도스)일 것이다 그렇다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차이 곧 해태론을 나누어 지닌다 다시 말해 동일한 것이 해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닌다 라는 말이렸다

564) 그런데 묘하다 내가 텔레스에게 속은 것 같다 그러나 실체의 로고스에는 문제의 그 실체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주어지지 않지만 그 로고스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실체)를 말하고 있다 라는 그의 로고스를 다시 되 새겨 보라(305쪽) 물론 여기서의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사람이다

나누어 지닌다고 해도 로고스는 동일하다 발, 두 발, 날개 없음 같은 차이들은 여럿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이지 여럿은 아닌가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들로부터(전체적으로) 하나로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의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임에 틀림없다 실체는 하나인 것 과 이것 이므로 실체의 로고스 와 하나인 정의는 반드시 하나인 것의 로고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로고스는 무엇을 논증하는가 ‘ 두 발 생물’은 ‘흰 사람’과는 달리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에 속하므로서 하나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 하나이며 이것인 실체의 정의이므로 하나 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걸까 아마 그럴 것 같다가 지금 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답일 것 같다

그러한 원인은 ‘흰 사람’의 경우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에 속하므로서 하나로 되지만 ‘두 발 생물’의 경우에는 속하므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발 생물’ 이라는 정의가 그것의 로고스인 바로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이며 이것이기 때문이다

두 발 생물의 경우 류가 차이를 나누어 지닌다면 류가 그것들에 의해 차이나는 그 차이들은 반대들이므로 동일한 것이 동시에 반대를 나누어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차이를 류가 ‘두 발 생물’의 경우 나누어 지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다 발 두발 날개없음 등 차이들은 여럿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하므로 하나로 되는 ‘흰 사람’과는 달리 ‘두 발 생물’은 그 자체로 하나이다⁵⁶⁵⁾

♥ 부분이 아직도 나에게 애매하다

이제 그만 머뭇거리고 정의에 대해 그가 무어라 하는지 그를 따라가 보자

565) 흰 사람은 우연적으로 하나 라고 말하여지며 두 발 생물은 그 자체로 하나라고 말하여질 것이다(417-419 참조) 그러므로 이 논증은 두 발 생물은 그 자체로 하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로고스이다 아울러 흰 사람은 우연적으로 하나라는 것이 넘지시 드러난다

“ 우리는 먼저 나눔에 따른(κατὸ τὰς διαιρέσεις⁵⁶⁶) 1037b28) 정의에
관해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한다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류 와 차이들을 제외하면 정의 안에는 헤태론
한(ἕτερόν⁵⁶⁷) 1037b29) 어느 것도 있지않다

알론한 류들은 첫 번째 (류)것 과 이 (첫 번째 류)와 더불어(μετὰ τοῦ
του 1037b31) 함께 취하여진 차이들이다 예를들어 첫 번째 류는 생물일 것
이고 그 다음 류는 ‘두발 생물’일 것이고 그 그 다음 류는 ‘날개 없는 두 발
생물’일 것이다⁵⁶⁸) 더 많다(πλειονων 1038a1)래도 이와 같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여럿(πολλών 1038a2) 또는 더 적더(ὀλίγων 1038a2)래도 차이나지 않
는다 따라서 더 적든 [단지] 두 개이든 차이나지 않는다⁵⁶⁹) 그런데 이 둘

566) 자 여기서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와 이어진다 소피스테이스는 나눔에
의해서 소피스테이스를 정의(소피스테이스 23-24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
이상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제애타 편 그 가운데 에서도 너무 중요한 12 장
에서 소피스테이스와 이어진다는 점을 있는 것에 대한 로고스로서의 소피
스테이스 연장 선 상에서 텔레스가 자신의 로고스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넌지시 알려준다

567) 류 와 차이는 서로 헤태론한 것이라는 말인데.....자신의 종들이 또는
질료가 또는 실체의 로고스가 **많은**(πλειω 형이상학 1018a9) 것들이 **헤태론**
하다 라고 말하여지며 이러한 헤태론은 동일에 대립되다 라고 그는 말한다
는 것이 범주들 258쪽에서 가리켜졌다 그런데 왜 거기서는 류가 빠졌나...

아울러 여럿이라 말하여지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은 **있어지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많기(πλειους 1017a6) 때문에 어떤 것은 자신의
질료가 종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
럿이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형이상학 439 쪽을 참조하라

568) 따라서 류들은 첫 번째 류 와 차이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
리는 알 수 있으리라 생물도 류이며 두 발 생물도 류이고 날개없는 두발 생
물도 류이다 그럼 **종**(에이도스, 사람)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나.....(범주들
170-172 와 특히 179쪽을 보라)

종 과 류는 그의 로고스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며 종 과 류는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

가운데 [하나는] 차이 [이고 하나는] 류이다 예를들어 ‘두 발 생물(τού ζῷου δίπουν 1038a4)’에서 생물은 류인 반면 차이는 헤태론한 것이다⁵⁷⁰⁾

만약 류가 순수하게(ἀπλῶς 1038a5) 류의 에이도스와 나란히 있지 않다면⁵⁷¹⁾ 또는 만약 [나란히] 있더라도 질료로서 있다면 - 소리는 류와 질료인 반면 차이들이 에이도스와⁵⁷²⁾ 철자를 이(소리)로부터 만들기(생산하기)⁵⁷³⁾ 때문이다 - 분명히 정의는 차이들로 [이루어진] 로고스이다⁵⁷⁴⁾ 그러

569) 차이들이 하나이든 두 개이든 류들은 첫 번째 류와 차이들 임에 차이없다 라는 말인지 정의 안에 있는 것이 더 적든 또는 둘이든 류는 첫 번째 류와 차이들 이라는 말인지.....로스는 뒤 것이라고 본다(로스 803쪽 참조) 텔레스는 차이와 류가 그 둘 이라고 직접 말한다

570) 여기서 그는 차이를 헤태론한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생물을 류라고 말한다 이걸 보면 헤태론한 것은 류를 가리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이와 관련해서는 411 각주 506번 참조하시오

571) 떨어져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572) ‘καὶ(1038a7)’를 로스는 ‘i.e.’라고 옮긴다 철자들(τὰ στοιχεία 要素 1038a7)은 질료적이지 않다 라는 형이상학 377 쪽을 보면 로스의 번역이 맞을 것 같기도 하다 오히려 綴字(철자)라는 내 번역이 부 적절한 것 같다

573) ‘차이들로부터 이 류와질료(소리)와 더불어 에이도스(종 곧 요소-철자-)가 스스로를 생산하다’ 라고 풀어 말하면 어떨까

574) 류와 종은 떨어진 것이 아니며 설령 떨어져 있더라도 질료로서 종(에이도스, 형상(形狀))과 떨어져 있으므로 정의는 차이들로 이루어진 로고스 라는 말인데.....하여간,

종이 류에 대해 또는 류가 종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 라는 것은 참으로 미묘하다 텔레스에 따라 모든 것을 류와 종에 가두어 생각할 수 있다면 말이다 우선,

종과 류는 서로 떨어져 나란히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할 것 같다 떨어져 나란히 있다고 하더라도 류는 질료로서 그러할 것이다 라는 말을 그가 덧 붙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고스도 그가 εἶ(만약1038a5) 이라는 가정(假定) 하에 있으므로 반드시 그러하다고 말할 수 만은 없을 것

나,

차이로부터 차이가 반드시 나뉘어진다는 것이 필연적이다 예를들어 아래 [쪽] 발⁵⁷⁵)(τὸ ὑπόπουον 1038a10)은 생물(동물)의 차이이다 다시 아래 발 생물의 차이는 아래 발로부터⁵⁷⁶ 반드시 보여져야한다 따라서 우리가 좋게 말하려 한다면 아래 발(의)로부터 한 편으로 날개 다른 한 편으로 날개 없음[이 나뉘어진다] 라고 말해서는 않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수 없는 [일]을 해(ποιήσει 1038a13)버리는 셈이된다⁵⁷⁷)그러나,

같다 실제로 그러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만 그러할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의에는 류 와 차이가 들어 있으므로 차이 만으로 이루어진 것 또한 아니라 그런데도 차이들과류로 이루어진 로고스 라고 말하지 않고 정의는 분명히 차이들로 이루어진 로고스이다 라고 말한 원인은 무엇일까 정의에 주어지지 않는 종(에이도스)과 떨어져 나란히 류는 있지 아니해서 또는 질료는 정의 또는 규정되지 않는(352, 397쪽) 것이어서 일까.....

575) 몸을 위 아래로 나누었을 경우 아래에 발이 달린 이란 뜻이다

576) 앞 차이로부터는 차이의 2격이지만 뒤 차이로부터는 차이의 2격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여성 단수 3격 ἥ로 이어지는 아래 발에 걸리는 차이의 4격(수동 부정(不正)형의 주어 로서의 4 격)을 옮긴 것이다 그러나,

앞 차이로부터 차이가 나뉘어진다는 차이의 차이가 나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부정형의 주어 로서의 4격을 앞 뒤 모두 일관적으로 살려주는 옮김이므로 더 나올 것 같다 그렇게되면 뒤를 아래 발 생물의 차이는 아래 발이라는 차이[로부터] 보여진다 또는 아래 발이라는 차이가 보여준다 라고 옮겨야 할 것 같은데.....어딘가 어색하다

577) 말이 변한다고 해서 프라그마(사태 또는 일)이 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에따르면 일어난 프라그마를 섬세하게 구분하여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아래) 발로부터] 한 편으로 갈라진 발이 다른 한 편으로 갈라지지 않는(α^{578})-σχισόν 1038a14) 발이 [나누어져야한다] 이(갈라짐 과 갈라지지 않음)이 발의 차이들이기 때문이다 갈라진 발이 발인 것($\pi\delta\sigma\tau\iota\varsigma\ \tau\iota\varsigma^{579}$)

따라서 (아래) 발로부터 두 발이 나누어져 나온다 라고 말해야지 아래 발로부터 (위) 날개가 나누어져 나온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할($\pi\omega\iota\upsilon\sigma\epsilon\ \iota\ 1038a13$, (335쪽 참조)) 수 있는 것 이상을 말($\lambda\epsilon\kappa\tau\epsilon\acute{o}\nu\ 1038a12$)해버리는 것이다

578) $\acute{\alpha}$ (아닌, 非)에 대해서는 범주들 249쪽을 보시오 그리고 나서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 126 쪽도 참조하십시오

579) 바로 여기가 내가 범주들 이후 찾고져 했던 곳 곧 $\tau\iota$ 의 뜻을 결정지어주는 확실한 곳이다 비록 그 전체 뜻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말이다 범주들에서 말하여지는 제 1 실체가 사람인 것($\tau\iota$, 166쪽)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발 정도로 옮기어도 될 것 같으나 ‘어떤’으로 옮기면 분리와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발인 것 또는 사람인 것으로 옮겼다.....

로스는 갈라짐-발이 발의 ‘에이도스’(형상, (로스 804))이라고 번역한다 따라서 발의 갈라짐이 발의 형상(꼴, 모습, 외형(外形)) 갈라진 모습이 발의 에이도스(종)이라..... 미묘한데.....그러나,

에이도스라는 말은 텔레스에 의해 쓰여지지 아니했다 발의 갈라짐이 발의 종(種)라면 생물의 사람이 생물의 종일 것이다 그렇다면 생물은 사람의 류이므로 발은 갈라짐의 류(類)여야한다 유비적으로 말해서 갈라짐(종)이 발(류)에 대해 있듯이 사람(종)은 생물(류)에 대해 (갈라짐 : 발 = 사람 : 생물)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말하여 졌듯이 류는 발이 아니라 갈라진 발이다 (하위) 류는 차이 와 (상위) 류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차이에 종이 들러 붙을 수 없을 것 같다 종(에이도스)가 사라져 버린다 만약 류가 상대적이라면 사람은 상위 류의 종이면서 하위 종의 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사람은 종 이면서 류이게 되고.....그러나,

로스 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로스적으로 생각하면 차이는 헤 태론한 것이고 차이임(different-ness)은 에이도스(종, 형상)이 될 것이다 그럴 것 같기도 한데,

1038a15)이므로. 그러나,

차이나지 않는 것들에 [이를] 까지(εις τὰ ἄ-διάφορα 1038a16)이렇게 계속 [나위어져야]한다 그렇게 되면 차이들이 있는 만큼 발의 에이도스(중)들이 있을 것이다⁵⁸⁰⁾ (아래) 발 생물들도 차이들과 똑 같은 [個 數일] 것이다 실로 만약 이러하다면 (뎌) 끝 차이가 분명히 프라그마의 실체이며 정의 일 것이기 때문이다⁵⁸¹⁾

정의들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 반드시 여러 번 말해져서는 안된다 남아들(περίεργον 1038a21)기 때문이다⁵⁸¹⁾ (아래) 발 두 발 생물 이라고 말할 때 두 발 지님은 생물이 발을 지님 이외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남아도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고유한 나뉘에 의해서 나눈다면 차이들이 있는 만큼 많이 [동일한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차이가 차이로부터 생성된다면 (뎌) 끝 [차이?]이 에이도스(중)요 실체일 것이다⁵⁸¹⁾ 그러나 만약 우연적으로 (나눈다면) 예를들어 (아래) 다리로부터 한 편으로 힘을 다른 한 편으로 검음을 나눈다면 (나뉘어진) 조각들(αἱ τομαὶ 1038a28)만큼 [차이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이들로 이루어진 또는 올바른 길을 따라 [나뉘어진] 차이들 가운데 (뎌) 끝으로 이루어진 로고스가 분명히 정의이다⁵⁸²⁾ 예를들어 사람의 (정의)

580) 발의 차이들이 있는 그 만큼(ὅσαίπερ 1038a17) 종이 있다고 해서 헤태론한 종들이 있다 라고 말해야 할까 그럴 수 있다면 내가 앞 각주에서 지적했듯이 좋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헤태론한 여럿일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으로서 사람 만이 종이라면 갈라진 발의 에이도스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차이들이 있는 그 만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될까 음.....안 될 것 같은데.... 갈라진 두 발 생물들에는 사람 뿐 아니라 타조도 속하기 때문이다 아이고 헛 갈려!

581) 정의 에서는 동일한 것이 겹쳐서는 안된다 라는 것은 이미 317쪽에서 말하여졌다 들창(코) 코도 그러한 보기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582) 끝 차이가 정의요 실체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끝 차이로 이루어진 로고스가 정의이다 라고 받아드려야 할 것인가

의 경우 생물 두 발 발 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이러한 정의의 순서를 거꾸로 한다면 분명해질 것이다 두 발이 말하여졌을 때 (아래) 발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⁵⁸³) 그러나,

실체에는 순서(τάξις⁵⁸⁴ 1038a33)가 있지 않다⁵⁸⁵) 먼저 와 늦음⁵⁸⁶)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만 할까 나눔에 따른 정의들에 관해서 우리들은 이(정의)들이 어떠한 것들(ποιοι 10138a35)인가를 먼저 말했다 ”

정의를 차이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상위) 류 와 끝 차이가 정의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를 그것의 정의인 그 실체 곧 종(에이도스)는 맨 끝 차이라는 로 고스를 받아드려야 하지 않을까 글썄.....진짜로 그럴까 ? 차이가 곧 종(실체) 라면 두 발 생물에서 두 발이 실체(종, 에이도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텔레스는 종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가 끝 차이가 실체(종)이라면 두 발이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당신은 두 발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끝 차이는 프라그마의 실체 라는 로고스 그리고 갈라진 발은 발인 것이라는 로고스는 끝 차이가 실체라는 로고스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지탱해 주지 않을 것 같다 발인 것은 그야 말로 그가 내 세우는 제 1 실체요 프라그마의 실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실체가 종(에이도스)를 말하는 것 같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583) 재치있는 보기이다 맨 끝 차이로 이루어진 것이 로고스가 정의 곧 ‘생물 두발(1037b12, 1038a4)’의 끝에 ‘발’을 놓아 ‘생물 두발 발’이라고 그 끝 순서를 바꾸어보자 두 발을 말할 때 이미 동일한 것 곧 발이 말하여 졌으므로 ‘생물 두발 발’ 이라고 말하면 발을 두 번 말하게 된다 그러나 정의에서는 동일한 것이 두 번 반복 되서는 않된다 라는 것은 317 과 448 쪽에서 말하여졌다

584) 탁씨스에 대해서는 247 쪽을 참조하십시오

585) 맨 끝 차이가 실체요 실체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끝 차이가 실체라는 것은 이미 말하여졌다

586) 먼저 와 늦음에 대해서는 범주들 261-269쪽을 보시오

그것의 정의인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인 것이며 이것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헤태론한 것 생물 과 두 발로 이루어진 정의 역시 그 자체로 하나이므로 예를들어 흰 사람 처럼 힘(헤태론한 것)이 사람(헤태론한 것)에 속하므로 하나인 그런 우연한 하나가 정의는 아니다 라는 것이 제에타 12 장 앞부분에서는 말하여 졌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정의는 어떠한 것이며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말하여지는 가운데 실제 와 에이도스가 무엇이라는 것이 약간의 애매하게 밝혀진다 자 옮기는 것은 끝 냈으니 요약해 보자,

먼저 반드시 나눔에 의한 정의를 조사해야한다

정의(두 발 생물) 안에는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류(생물) 와 차이(두 발)⁵⁸⁷⁾ 이외에는 헤태론한 어떤 것도 있지 않다 첫 번째 류 이외의 알려진 류는 첫 번째 류와 더불어 취하여진 차이일 것이다 예를들어 첫 번째 류가 생물이라면 알려진 류는 ‘두 발 생물’일 것이고 그 다음 류는 ‘날개 없는 두 발’일 것이다 여기서 헤태론한 것은 차이들이다

이러한 차이(들)로 정의는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류의 에이도스 와 나란히 류가 순수하게 있지 않거나 설령 나란히 있다하더라도 질료로서 있다면 그러하다 예를들어 류와질료인 소리로부터 에이도스와철자를 차이들은 만들기때문이다⁵⁸⁸⁾

그는 이제 나누어지는 차이의 차이에 대해 말한다

차이(의)로부터 차이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생물의 차이인 발로부터 나뉘어져 갈라짐 과 갈라지지 않음 이라는 차이가 나온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올바르고(κατὰ τὸ ὀρθόν 1038a30) 좋게(καλῶς 1038a13) 그리고 고유하게(τῆ οἰκειῆ 1038a24)나누는 길이지 발로부터 날개 와 날개 없음으로 나뉘어져서는 안된다 이렇게 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리는

587) 여기서 헤태론한 것은 차이인 반면 류는 생물이다

588) 류인 소리는 스스로를 생산하는(되는) 에이도스와철자와 나란히 떨어져 있다하더라도 질료로서 그러하다 질료는 에이도스와 합쳐져 있으나 분리 되 있다 라는 392 와 293 쪽을 참조하라

셈이된다 따라서,

갈라짐 과 안 갈라짐이 발(차이)의 차이이며 갈라진 발이 바로 발인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차이 안 나도록 나누어져야한다 그러는 가운데 차이들이 있는 그 만큼 종(에이도스)들이 있게 될 것이다 발 생물들도 차이들과 똑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다른 끝 차이가 바로 프라그마의 실체이며 정의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의할 때 ‘발 두 발 생물’ 처럼 동일한 것을 여러 번 말해서는 않된다 두 발 지넘은 생물이 발 지넘 이외의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남아돌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유하게 나누어 간다면 차이들이 있는 만큼 (동일한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차이의 차이가(차이로부터 차이가) 생성된다면 [그 차이의] 끝이 종(에이도스)요 실체일 것이다 그러나,

우연적으로 예를들어 발로부터 힘 과 검음으로 [나누어 간다면 나뉘어진] 조각들 만큼 [차이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올바르게 [나뉘어진] 차이들 가운데 (맨) 끝으로 이루어진 로고스가 정의라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사람의 경우 생물 두 발 발 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정의의 순서를 거꾸로 해보라 두 발이 말하여졌을 때 발은 [이미] 남아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에는 순서가 없다 먼저 와 나중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만 할까

나눔에 따른 정의와 관련해서 정의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우리는 말했다

이제 요약이 끝났으니 정리해 보기로하자

그것의 정의 와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라는 것이 12 장 앞 부분에서 말하여지면서 정의는 차이의 차이로 나누어진 맨 끝 차이로 이루어진 로고스이며 이 끝 차이가 바로 실체요 에이도스(종) 라는 것이 말하여지는 뒤

부분이 열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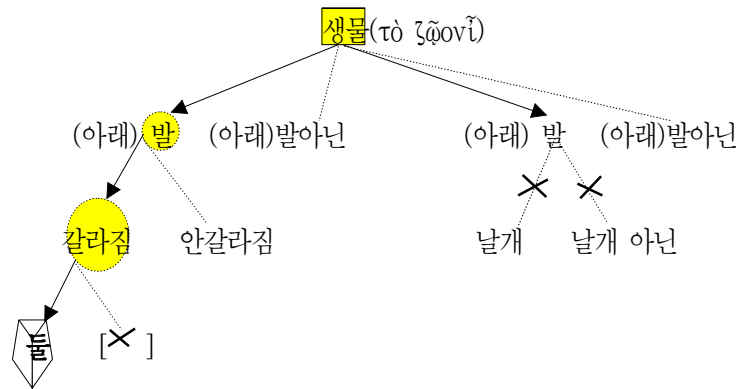
차이의 차이로 나누어 가는 길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 좋고
올바르며 고유한 방식으로 프라그마에 따라 나누어 가야한다 이런 나눔의
길은 이미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 24 쪽에 그려져 있다

플라톤은 소피스테이스를 정의하면서 에이도스에서 에이도스로 곧 에
이도스의 에이도스로 나누어 가는 반면에 텔레스는 차이에서 차이로 곧 차
이의 차이로 나누어간다 텔레스가 차이를 에이도스라고 했으니 둘 다 에이
도스 또는 차이를 나누어 간다 라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차이(디아
포라)라는 말을 플라톤이 소피스테이스에서 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헤태론
이라는 말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헤태론하게 쓰인 것 같다

플라톤은 헤태론이라는 말을 소피스테이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파
르메니데이스에서 그 말을 자주 쓴다⁵⁸⁹⁾ 파르메니데이스 편 역시 형이상학
처럼 있는 것 과 실체에 대해 말하므로 두 사람의 쓰임새 틈새가 벌어져 있
다 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텔레스는 플라톤의 쓰임새를 넓
혀 가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정의에 있어 두 사람의 틈새가 벌어져있다 라
고 보는 것 보다 더 낫다 지금,

나는 플라톤의 나눔의 방법(소피스테이스 22 쪽)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나눔의 길과 비교해 보려는 중이다 플라톤이 사람(남자)를 기교 라는 뒤나
뫼스(힘, 능력)지닌 사람 과 다른 능력 지닌 사람으로 나누기 시작하나 (24
쪽 참조) 텔레스는 생물을 나누기 시작한다 그런데 플라톤은 소크라테이스
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람을 나누어 가면서 구분하기 시작하는 반면에 텔레
스는 사람을 정의하기 위해서 생물의 에이도스를 나누기 시작한다 그러나
소피스테이스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플라톤과는 달리 텔레스는 정의가 나
눔에 의한 것이라면 정의란 무엇이며 올바르게 나누는 길은 어떤 길인가
에 대해 말한다 그러한 나눔의 길은 다음 처럼 그려질 수 있으리라

589) 파르메니데이스 44, 56, 73, 77쪽을 참조하시오



올바른 고유한 좋은 나눔

불 가능한 나눔

네모는 류이며 등금은 차이이다 이 차이의 차이로 나뉘어지므로 차이로부터 차이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차이 안 날 때까지 나뉘어져야한다 더 이상 차이 나지 않을 바로 아 차이의 끝⁵⁹⁰(삼각 기둥)이 그에의해 에이도스요 (프로그마의) 실체라고 말하여지며 이 끝으로 이루어진 로고스가 정의이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사람의 정의는 두 발 생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차이들이 있는 그 만큼 에이도스(종)이 있을 것이다

정의(사람)에는 류(생물) 와 차이(두발) 만이 있으며 이 첫 번째 류(생물)과 알론한 류들은 ‘첫 번째 또는 상위 류와 더불어 취하여진 차이’이다 예를들어 다음 류는 ‘두발 생물’이며 그 다음 다음 류는 ‘날개 없는 두 발 생물’일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의는 그 자체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그것의 정의인 그것 곧 실체가 그 자체로 하나이며 이것이기 때문이다 알론한 기체에 속하므로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제 정리가 끝 났으니 물음을 던져보자 이미 던진 물음이긴해도 여기서 다시 물어 보아야겠다

그에 따르면 차이가 곧 에이도스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어져온 장

590) 이것 역시 차이이기도 하다

들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실체이며 이 실체는 에이도스(종)이고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라고 말하므로 차이(들)이 곧 가장 먼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실체이고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차이가 곧 에이도스인가

범주 와 형이상학 여러 곳에서 에이도스(종)은 사람이며 류(기체)는 생물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음에도 에이도스는 차이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곧 ‘두 발’이라는 말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 발 생물’이라는 로고스가 사람의 정의이지 않는가 사람은 두 발 생물이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라는데..... 어찌 두발(에이도스)이 사람(에이도스, 종)일 있겠는가 그리고 두 발 생물이 사람의 정의라는 말은 생물 가운데 두발 지닌 것이 사람이라는 말일 것이므로 비록 주어지지 않는 않지만 그 말(로고스)에서 보여(에이데나)인 것(스케에마)은 사람이 될 것이다 두 발(차이)을 통해 보여진 생물이 사람이라는 말일 것이다 이렇다면,

어찌 차이(에이도스)가 에이도스(사람, 종)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 하다면 여기에서 말하여지는 차이로서의 에이도스는 종이 아닌 다른 무엇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무엇(실체)를 말하는 4-12 장과는 달리 그는 13장 부터는 3장 처음으로 되 돌아가 거기서 4 가지로 말하여진 실체 가운데 두 번째로 그에 의해 실체라고 말하여진 보편자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네 번째로 그에 의해 실체라고 말하여진 기체는 3장에서 그리고 첫 번째로 실체라고 말하여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4-12장에서 말하여졌다 하나 와 나눔 과 정의 와 실체에 대해 말하는 12 장을 넘어 실체는 보편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13 장으로 가보자 13 장으로 넘어가면서도 나는 헤태론한 차이들이 종들이요 실체이다 라는 그의 말이 목에 걸린다

“ (XIII) 실체에 관한 것이 [우리의] 숙고(ἡ σκέψις 1035b1)이므로 다시 [그리로] 닦아서 보자 기체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그리고 이것들⁵⁹¹⁾

591) 기체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이것들이 가리킨다면 여기서는 기체를 질료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 같은데....그렇다면....질료 와 에이도스로 이

로 [이루어진] 것 과 보편자(τὸ καθόλου 1038b3)가 실체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한 편으로 두 가지 것은 말하여졌다 생물이 그 속성들(πάθεισιν 1038b6)에 [속해있]듯이 있는 이것(τόδε τι ὄν 1038b5)[으로서] 또는 현실태에 [속해 또는 깔려 있는] 질료로서 [등] 두 가지로 깔려있다(ὑπόκειται 1038b5) 라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기체(τοῦ ὑποκειμένου 1038b5)에 관해 우리들은 말했기 때문이다⁵⁹²)그런데,

보편자도 주로(μάλις, 1038b7) 원인 또는 아르케에 라고 어떤 자에 의해서 여겨지는 것 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이것(보편자)에 우리는 닦아서 기로하자 ”

생물이 속성들에 [속해 있]듯이 있는 이것 으로서 깔려있다 라고 또는 현실태에 [속해있는] 질료로서 깔려있다 라고 우리는 있어지고 있는 그

루어진 것들 곧 생성된 것들도 실체라 말하여진다 라고 이곳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질료 만이 기체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295 쪽의 말에 따르자면 기체를 질료(적인 것)으로 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나는 일단 여기에 나오는 기체가 주로 질료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넘어가려한다

592)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은 일단 무엇의 기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경우에는 생물이 어떤 속성들에 [속해 또는 깔려] 있는 생물 처럼 있는 이것 으로서 깔린 반면 [기체의 경우에는] 현실태에 [깔려 또는 속해]있는 질료로서 깔리기 때문이며 어떤 것에 깔린 것은 어떤 것의 기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체가 곧 실체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298쪽을 보라 그렇다면,

흔히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것 모두가 실체는 아니다 라고 여기에 나오는 ‘말하여진다’(λέφεται 1038b2, 1028b33)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니라고 해서 전혀 실체가 아닌 것은 아니다 히플로오스(순수하게) 말하여지는 실체가 아닐 뿐이다

무엇 과 기체에 관해서 말했으므로 이제 어떤 자에 의해서 원인 또는 아르 케에 라고도 말하여지는 보편자에 대해 닥아서자

“ 무엇이건 보편자를 실체라고 말하는 것은 불 가능할 것 처럼 보이 기 때문이다 첫째,

실체는 각기 것에 고유한 것(ἕδος 1038b10)이어서 알려진 것에 속하 지 않는 반면 많은 것에(πλειοον 1038b11) 자연스레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 여지는 **보편자**는 [그 많은 것에] 공통적인(κοινόν 1038b11) 것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공통적인) 것이 어떤 것의 실체일까 [실체라면] 모두 다(ἀπάντων 1038b12-13)의 [실체이거나] 또는 하나 아닌 것의(οὐδενός [실체]일 것이 기⁵⁹³)때문이다

그러나(δ' 1038b13) 모두 다의 (실체와 같은) 그런 것은 [있지않다] 또 한(δ' 1038b13),

만약 [공통적인 것이] 하나의(ένός 1038b13) (실체)라면 마찬가지로 이 하나는 알려진 것들일 것이다 자신들의 실체가 하나이며 그리고⁵⁹⁴) [자

593) 보편자는 많은 것에(πλειοον 1038b11) 자연스레 속하므로 **모든 것의** (ἀπάντων 1038b12-13) 실체이거나 또는 어떤 하나의(οὐδενός 1038b14) 실 체는 아니거나 할것이다 여기서,

나는 텔레스가 쓰고 있는 수량어(數量語)를 구분해 보고져한다 하나 여럿(416-433) 많음 **모든**(πάν 1024a2, 375쪽) 전체(372-373)에 대한 텔레스 의 로고스는 이미 말하여졌다

ἅ-παν(모두 다 all together) 와 πάν(모든 all)을 어떻게 구분할까 ‘아 판’을 ‘다 함께 또는 모두 다’ 정도로 읊기면 좋을 것 같으나 언뜻 적절한 낱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는 판(모든)을 ‘처음 과 가운데 와 끝을 지닌 것 들 가운데 위치에 있어 차이하지 않는 것’ 이라고한다 이런 판(모든)에 계사 (copul) ‘α’가 붙어 ‘아-판’이 되었다 아(a)가 부정어(否定語)가 아니니 ‘비 (非) 모든’은 아닐 것이고아마 ‘뭉어져 한 단위 척도로 쓰여지는 모두’ 를 뜻하지 않을까 한 ‘뭉치’ 또는 두 ‘뭉치’ 처럼 말이다

594) 그리고(καί 1038b14)를 곁으로 읊기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처럼 보인

신들에게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인 것들은 마찬가지로 그들 자체 하나이기⁵⁹⁵⁾ 때문이다⁵⁹⁶⁾ 나아가서,

다 물론 주로 순수하게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다 그러나 이 무엇이 아닌 것은 전혀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실체는 쉬모오니마(동음동의어, 범주 176쪽)한 것이기 때문이다 곧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595) 이러한 하나에 대해서는 425, 431쪽 참조하십시오

596) 여기 나오는 논증이 지금 나에게 선명해지지 않으므로 그 논증을 다시 따라가야 할 것 같다

“ 무엇이건 보편자를 실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첫째,

실체는 고유한 각기 것이어서 알론한 것에 속하지 않는 반면 많은 것에 자연스레 속해 있는 것 으로서의 보편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것들에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것이 어떤 것의 실체일까

[실체라면] 모두 다의 실체이거나 또는 하나 아닌 것의 실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체는 각기 것이다 라는 것이 실체에 고유하므로 실체는] 모두 다의(실체와 같은) 그런 것(실체)는 있지 않다 또한,

[보편자가] 하나의 (실체)라면 [보편자는 많은 것에 속해 있으므로] 하나(어떤 것)이 알론한 것[과 동일한 것이 될 것]이다 실체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인 것들은 마찬가지로 그들 자체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자는 (어떤 것) 하나의 실체일 수 없다 실체라면 알론한 것들이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공통적인 것이 어떤 것의 실체라면 모두 다의 실체여야 할 것인데 모두 다의 실체는 있지 않으며 그리고 공통적인 것이 어떤 것 하나의 실체라

실체는 기체에 따르지 않는 것(τὸ μὴ καθ' ὑποκειμένου 1038b15)⁵⁹⁷)
인 반면에 보편자는 어떤 기체에 따르는(붙는) 것이라고 항상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ἄρα 1038b17)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인] 그런 길에서
[보편자는 실체]일 수 없긴해도 이(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안에 [보편자는]
속하기는 한다 예를들어 생물이 사람 과 말 안에 (속하는 것)⁵⁹⁸처럼 말이
다 [그렇다면],

그것(생물 곧 보편자)의 로고스가 어떤 것(τις 1038b19)인지가 분명하
(지않)다⁵⁹⁹ 심지어 실체안에 (속하는 또는 있는) 모든 것의 로고스가 있을

면 그 어떤 것 하나가 알론한 것과 동일한 것이 되버려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일 수는 없다(395쪽 참조) 따라서 많은 것
에 공통적인 것은 어떤 것의 실체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공통적인 것인 보
편자 예를들어 류는 실체가 아니다 라고 지금 나는 이해하련다

597) 로스는 805쪽에서 기체의 속성이 아닌 것 이라고 옮긴다

598)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류(생물)를 보편자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그가 에이도스(종, 사람 또는 말)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실체)으로 여기
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종(사람)에 보편자(류, 생물)가 속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599) ‘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이다(805)’
라고 로스는 번역한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면 ‘οὐκὸν δῆλον(그래서(이
라는 것이) 분명치 **않다**)’에 나타나는 ‘οὐκ(않다)’가 로스의 번역에서 보여
지지 않게 되는데.....,

본문 1038b18-19에서는 οὐκὸν(그래서 아니, so not)이 아니라 οὐκὸν
(그래서, therefore)가 쓰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οὐκὸν(그래서 아니, so not)
로부터 부정적인 뜻 ‘아니’를 잃어버린 οὐκὸν(결국(結局, 그래서, therefore),
1039b7,12, 473쪽)이 나왔으므로 ‘우쿠운’안에는 ‘아니’가 스며들어있다고 볼
수 있으리라 로스는 살리지 아니했지만 나는 이 ‘않다’라는 부정(否定)을 살
리고 싶다 따라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속하기는 하나 보편자(생물)은 그 무엇이 실체
인 그런 길에서 실체가 아니므로 생물(보편자)의 로고스가 어떠한 것인지가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없다 못지 않게 이것(보편자?)은 어떤 것의 실체이기 때문이다⁶⁰⁰) 사람 안에 속하는 그 사람[인 것]의 [실체가] 사람 [일 것]처럼(ὡς 1038b21) [말이다] 따라서,

예를들어 자신(생물) 안에 고유한 것으로서(ὡς ἴδιον 10138b23)속하는 생물[이 실체일 것] 처럼 실체는 저것의 실체라는 동일한 [결과]가 잇따른다 [더] 나아가서,

이(것 τὸ τὸδε 1038b24) 과 **실체**가 만약 어떤 것들로부터 있다면 실체들로부터 있음도 아니요 이것(τοῦ τὸδε τι 1038b25)으로부터 (있음도)아니라 질(ποιού 1038b25)로부터 있다 라는 것은 불 가능하고 불 합리(ἄτοπον

선명하(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고 있다 라고 옮겨질 수 있을 것이다

류(보편자)는 자신의 로고스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일까...

600) 비록 류(여기서는 보편자)는 종 보다는 덜 실체이긴 해도 실체이다 라는 범주 170 쪽을 참조하시오 종(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실체)에 못지 않게 (οὐθὲν γὰρ ἦπτον 1038b20)실체이기 때문에 하등의 차이 없다 라는 말이다 왜 차이 없다 했을까

모든 로고스들 가운데 있어지고 있는 것의 로고스 만이 정의 라는 것은 여러 번 강조되어 말하여졌다 그 만큼 정의 로서의 로고스는 분명한 앎 이라는 앎이라는 것 곧 순수한 앎이라는 것이 아닐까 순수한 것인 그 만큼 알려지는 것(종, 사람, 에이도스, 실체)도 분명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질료로부터 분리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류(생물, 보편자)의 로고스는 정의가 아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생물의 로고스가 있다 손 치더라도 문제의 그 생물은 사람 만큼은 분명치 못할 것이거나 또는 아예 분명치 못할 것이다 정의 만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앎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분명히 로스와는 알론한 옮김이 정당화 될 수 있을까.....

1038b24)하다

실체 보다 그리고 이(것) 보다 먼저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질⁶⁰¹) 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하다 왜냐하면 로고스에게도 시간에게도 생성에게도 실체 보다 먼저 속성(τὰ πᾶθη 1038b28)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있다면 속성 과 그 실체가] 분리⁶⁰²) 되므로 [그렇다 더 더] 나아가서,

실체 소크라테스(안)에 실체가 속할 것이다⁶⁰³) 그래서 실체 두 개 가 [있을 것이다]

사람 과 그렇게 말하여지는 것들 모두(ὅσα 1038b31)실체라면⁶⁰⁴) 로고

601) 질에 대해서는 범주들 200-201쪽을 참조하시오 그는 보편자(류, 생물)를 일 종의 질적인 것으로서 간주한 것이 아닐까 사실 종(사람) 과 류(생물)을 그는 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는 한다 비록 자연적인 질과는 알론한 질이긴 해도 말이다(범주들 179쪽)

602) 이데아론자들은 불 합리한 원인도 분리 때문이다 라고 텔레스는 말한다 분리에 대해서는 우선 408-410을 참조할 것이며 이데아 비판에 대해서도 우선 395 쪽을 참조하라 분리 와 비판에 대해서는 있음에 관한 요약 요약 정리 문제제기 후에 본격적으로 옮기면서 요약 정리 문제제기할 것이다

603) 류(생물, 보편자)는 실체(종, 사람)안에 속한다는 것은 바로 앞 부분에서 말하여졌다 보편자(류, 생물)가 실체(사람, 사람인 것 - 소크라테스-)에 속한다면 그리고 보편자(생물)가 실체라면 실체 소크라테스 안에 실체(생물)이 속할 것이다 라는 말 일게다 그러나,

텔레스 자신도 범주들 170쪽에서 생물(류)을 종(사람)과 더불어 비록 종 보다는 덜 실체이긴 해도 제 2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데....아마,

여기서 그는 순수한 실체를 말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실체 이외의 알론한 실체를 여기서 그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거라는 말이다 음.....꼭 이렇게 만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604) 무엇 때문에 이 말이 특 튀어 나왔는가 모르겠다 보충적인 설명들이

스 안에 있음[인] 것들⁶⁰⁵ 가운데 어느 것도 어떤 것의 실체가 아니며 그것들(실체들?)과 분리되지도 않으며 알론한 것 안에 [있지도 않는다 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잇따른다 예를들어 어떤 것과 나란한 생물은 생물인 (어떤) 것(어떤 생물, τὸ ζῷον 1038b33)이 아니며 알론한 것은 로고스들 안에 [있는] 어떤 것과도 [분리되 있지 않다 곧 나란히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나는 말한다 실로,

[위] 이론으로부터(ἐκ τε δὴ τούτων θεωρούσι 1038b34)[바라 본다면] 보편자에 속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도 실체가 아님은 분명하다 공통 범주⁶⁰⁶들 가운데 어느 것도 이것을 가리키는 아니라 [공통 범주들은] 그러한 것(τοιόνδε⁶⁰⁷. 1039a1)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⁶⁰⁸ 많은 어려움들이 특히 세 번째 사람⁶⁰⁹[이라는 어려움]이 잇따른다 나아가서,

이렇게(ὥδε 1039a2) 분명해진다 현실적(ἐντελεχεια 1039a4)으로 그렇게 [실체인 것은] 비록 잠재적으로는 둘 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둘일 수 없고

무엇 때문에 이리 나를 어렵게하고.....아냐,

실체에 속하는 것들도 실체라고 말하여진다면 으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실체에 속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것들 마저 실체라면 으로 읽는다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많은 것 과 실체를 동일한 것으로 보기에는 좀 꺼림찍 하긴해도 보편자는 실체들 또는 많은 것에 속한다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605) 로고스 안에 있는 것들은 또 무엇인가.....첫 번째 류 와 차이들을 말하는 것일까(444쪽) 이 두 가지는 정의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닌가!

606) 공통 범주(τῶν κοινῆ κατηγορουμένων 1039a1)라는 말은 보편자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마 그런 것 같다 그렇다면 범주들도 류 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앞에 코이네에(공통) 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이다 그럼 범주들 가운데 [많은 것에] 공통으로 있는 범주가 류라는 말일까.....그럴 것 같기도 하다

607)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148쪽을 참조하시오

608) 공통 범주 곧 보편자(류, 생물)이 그러한 것을 가리키지 않고 이것을 가리킨다면

609) 907b17을 참조하시오

하나일 것이므로 실체는 [자신] 안에 현실적으로 속하는 실체들로부터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배(διπλασία 1039a6) 는 반 두 개로부터 잠재적으로 [있으나] [그 반들의] 현실(화)는 [그 반 두 개 와 배를 서로로부터] 분리시킨다(610) 따라서,

실체가 하나라면 [자신] 안에 속하는 실체들로부터는 있지 않는 그래서 (καὶ 1039a8) [실체는] 데아모크리토스가 옳게 말한 그런 길로 있을 것이다 둘로부터 하나가 또는 하나로부터 둘이 생성되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실체들을 크기들[에 있어] 원자들(나누어지지 않는 것들 τὰ ἄτομα 1039a10)로 만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 처럼 모나드(611)들의 합쳐진 것(σύνθεσις 1039a12)이 수라면 수의 경우에도 분명히 이와 같다(612) 하나는 둘이 아니며 모나드 안에는 현실적인 모나드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포리아(어려움)가 연이어진다 [보편자는] 이것이(τόδε τι 1039a16) 아니라 그러한 것(τοίονδε 1039a16)을 가리키므로 어떤 실체도 보편자로부터 있지 않다면 그리고 어떤 실체도 현실적으로 있는 실체들로부터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실체는 합쳐진 것이 아닐 것이며(613) 따라서 어떤 실체의 로고스도 있지 않을 것이다(614) 그러나 실로 단지 주로 실체의 정의만이 있다는 것은 오래전에 말하여졌고 그리고 모두에 의해서 그렇게 여겨

610) 그 결과 잠재적으로 두 개인 ‘반들’이 하나인 현실태 ‘두 배’가 된다

611) 모나드에 대해서는 430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 따르면 모든 방향에서 위치없이 있는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것이 모나드이며 이 모나드에 위치가 부여된 것이 점이다

612) 하나는 둘로부터 둘은 하나로부터 있을 수 없다

613) 이와 같은 말은 자주 반복되는 말인데 반복되는 곳을 가리킬 없구나 읽다보면 나오겠지요 311쪽 과 ...

614) 실체는 현실적인 실체들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가 실체의 로고스가 있지않다 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1038b19 과 31에 나오는 로고스와 그 위 아래 줄에 나온 로고스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 로고스 와 정의에 대해서는 우선 368쪽을 보라

졌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여겨질 수] 없을 것 처럼 보인다⁶¹⁵⁾ 그렇다면 어떤 것의 정의도 있지 않을 것이다 또는 어떻게 보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뒤에 [잇따르는 것]으로부터 분명해질 것이다 ”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면서 13장은 실체 와 보편자가 무엇이나가 말하여진다 그 논증이 약간 또는 너무 헛갈린다 우선,

위 13 장 옮김을 아래 처럼 요약할 수 있으리라

보편자는 실체라고 말하여질 수 없다 첫째,

실체는 각기 것에 고유한 것이므로 알려진 것에 속하지 않는 반면 많은 것에 자연스레 속한다고 말하여지는 보편자는 [많은 것에]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공통적인 것이) 어떤 것의 실체일까 [실체라면] 모두 다의 실체이거나 또는 하나 아닌 것의 실체일 것이다 그러나,

모두 다의 실체와 같은 그런 것은 있지 않다 또한,

하나의 (실체)라면 이 하나는 알려진 것들일 것이다 자신들의 실체가 하나이며 자신들에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인 것들은 마찬가지로 그들 자체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기체에 따르지 않는 것이 실체인 반면 보편자는 어떤 기체에 따르는 (붙는) 것이라고 항상 말하여진다 그러나 결국(ἀρα 1038b17)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인] 그런 길에서 [보편자는 실체]일 수 없긴해도 이(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안에 [보편자는] 속하기는 한다 생물이 사람 과 말 안에 (속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그것(생물 곧 보편자)의 로고스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심지어 실체 안에 (있는) 모든 것의 로고스가 아니라(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보편자?)은 어떤 것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사람 안에 속하는 그 사람의 [실체

615) 실체의 로고스가 정의이므로 만약 실체의 로고스가 있지 않다면 실체의 정의는 있을 수 없게 되며 없다면 실체의 정의 만이 있다라는 우리를 포함한 많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려운 문제다

가] 사람 [일 것] 처럼 말이다 따라서,

예를들어 자신(생물) 안에 고유한 것으로서 속하는 생물[이 실체일 것]처럼 실체는 저것(실체, 생물?)의 실체라는 동일한 [결과]가 잇따른다⁶¹⁶⁾

616) 이 논증이 지금 나에게 분명해지지 않는다 ‘첫째로(πρώτη 1038b10)’에 이어지는 ‘나아가서(ἔτι 1038b15)’이므로 ‘나아가서’에 이어지는 로고스들은 보편자란 실체가 아님을 두 번째로 논증하는 로고스들일 것이다

보편자는 기체에 붙는 것인 반면 실체는 기체에 붙는 것이 아니므로 보편자는 기체가 아니다 예는 별 다른 아포리아가 없다 그러나 이어지는 로고스들이 나에게 선명하게 닥아오지 않으므로 다시 한 번 그 로고스들에 닥아서 보자

그 로고스들이 보편자란 실체가 아닌 원인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그 원인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들인지가 분명치 않다 내가 보기에는 보충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설명이 애매하기에 나에게 아포리아하다(어렵다) 다음처럼 다시 요약하는 가운데 가닥이 잡힐런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인 그런 길에서 실체일 수 없긴해도 예를들어 생물(보편자)가 사람 과 말 안에 속하는 것 처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사람)에 보편자(사람)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실체)에 속한다 [그렇다면],

그것(보편자 또는 생물?)의 로고스는 어떤 것(τις 103819)인가 [바로 어떤 것이] 분명하(지 않)다 심지어 실체 안에 속하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로고스를 [지니지] 않더라도 [분명하지 않다 리는 점에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못지 않게 이것(보편자)는 어떤 것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사람 안에 속하는 그 사람인 것의 실체가 사람일 것 처럼 말이다 따라서,

예를들어 자신(생물)안에 고유한 것으로서 속하는 생물이 [실체 일 것] 처럼 실체는 저것(실체?)의 실체라는 동일한 결과가 잇따를 것이다 > 그러나,

나 처럼 해석하면 <.....>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 부분은 앞 내용을 긍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부정하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이것 과 실체가 만약 어떤 것들로 있다면 실체들로부터 도 아니요 이것으로부터 도 아니라 질로부터 있다라는 것은 불 가능하고 불 합리하[므로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다] 실체 와 이것 보다 먼저인 것이 실체가 아니라 질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로고스에 있어서도 시간에 있어서도 생성에 있어서도 실체 보다 속성이 먼저 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먼저 있다면 속성 과 그 실체가] 분리되므로 [그렇다 더 더] 나아가서,

[보편자가 실체라면] 실체 소크라테에스 안에 실체가 속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실체가 [있을 것이다]

사람 과 그렇게 말하여지는 것들 [만] 모두 실체라면 로고스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의 실체가 아니며 그것들과 분리되지도 않으며 알론한 것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잇따른다 나(텔레스)는 어떤 것과 나란한 생물은 있지 않으며 알론한 것은 로고스들 안에 있는 어떤 것 과도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실로,

이렇게 보면 보편자는 실체가 아님이 분명하다 공통 범주들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어려움 특히 세 번째 사람 [이라는 어려움이] 잇따른다 나아가서,

이렇게 분명해진다 현실적으로 실체인 것은 비록 잠재적으로는 둘이 더라도 현실적으로 둘일 수 없어 하나일 것이므로 실체는 자신 안에 현실적으로 속하는 실체들로부터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현실적으로 하나인] 두 배는 잠재적인 반 두 개로부터 있다 그 [반 두 개의] 현실(화)가 그 두 개를 [서로]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가 하나라면 실체는 자신 안에 속하는 실체들로 있지 않으므로 데아모크리토스가 옳게 말한 그런 길로 실체는 있을 것이다 그는 둘로부터 하나가 또는 하나로부터 둘이 생성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실체들을 크기에

있어서의 원자들로 만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 처럼 모나드의 합쳐진 것이 수라면 수도 이와 같다 하나는 둘이 아니며 모나드 안에는 현실적인 모나드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려움(아포리아⁶¹⁷)가 연 이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보편자는 가리키므로 보편자로부터는 실체가 있지 않다면 그리고 어떤 실체도 현실적인 실체들로부터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실체는 합쳐진 것이 아닐 것이므로 어떤 실체의 로고스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실로 실체의 정의 만이 주로 있다 라고 오래 전에 말하여졌고 모두 그렇게 여겼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을 것 처럼 보인다 결국 어떤 정의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요약을 다시 정리해보자

13 장에서 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로고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17) 이 어려움을 12 장의 어려움(411쪽)과 비교해보라 거기서의 어려움은 정의와 관련된다 정의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사람)의 로고스이며 사람의 정의가 두발 생물이라면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인가 라는 것의 그 어려움인 반면 여기서의 어려움은 실체의 정의가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어려움이다

만약 토이온데(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보편자로부터도 실체가 있지 않다면 그리고 실체는 현실적인 실체들로부터 합쳐진 것이 아니라면 어떤 실체도 합쳐진 것이 아닐 것이므로 어떤 실체의 로고스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체(있어지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정의라고 하지 않는가 결국 실체의 정의는 있지 않게되지 않는가....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인 실체들로부터 합쳐진 것이 아니라고해서 어떻게 그 실체의 로고스가 있지 않게 되느냐는 것이다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로고스는 무엇인가...

많은 것에 자연스레 속하는 것이어서 많은 것에 공통적인 것이며 기체에 항상 붙은 것이고 어떤 질도 실체 보다 먼저인 것이 아니므로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고유한 각기 것이어서 알론한 것에 속하지 않으며 기체에 붙는 것이 아니고 실체 보다 먼저 있는 것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실체는 데에모크리토스의 원자와 같은 것으로서 자신안에 현실적인 실체를 지니않는다 따라서 모나드들의 합쳐진 것을 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모나드와도 같은 것이다 모나드는 자신 안에 모나드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하나는 둘로부터 둘은 하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게 하는 로고스들은 보편자 와 실체는 무엇이다 라는 로고스가 아니라 보편자가 실체아님을 논증하는 로고스이다 그 논증을 따라가다 여간 당황한게 아니다 이런 당혹함 때문에 다시 그 논증을 정리할 필요가 내게 생겼다 논증 가운데 드러나는 로고스(전제)들은 그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시 13 장 마무리에서 그는 이러한 논증과 관련하여 새로운 어려움이 솟아 오름을 논증한다 그러나 이 논증도 지금 내게는 애매하다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다 첫째,

각기 것에 고유하므로 실체는 알론한 것에 속하지 않는 반면 많은 것에 자연스레 속하므로 보편자는 많은 것에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공통적인 것은 어떤 것의 실체가 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그러할까

만약 공통적인 것이 실체라면 자신이 속해 있는 모두 다의 실체이든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의 실체 이든지 할 것이다 그런데,

모두 다의 실체와 같은 그런 실체는 있지 않다 실체는 각기 것에 고유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 것도 아닌 것의 실체일 수 없다 실체는 어떤 것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하나의 실체라면 이 하나는 알론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 와 알론한 것에 자연스레 속해있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 와 알론한 것의 실체이며 그리

고 실체(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인 것들은 마찬가지로 그 자체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모든 것은 하나가 아니다(395쪽) 둘째,

실체는 기체에 붙지 않는 반면 보편자는 기체에 항상 붙기 때문이다 기체에 붙은 것 곧 기체의 속성은 실체가 아니다⁶¹⁸) 그런데 예를들어 생물이 사람 과 말 안에 속하는 것 처럼 보편자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실체)은 아니긴해도 그 실체에 속한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생물(보편자)의 로고스가 어떤 것인가가 분명 *하(지 않)다* 심지어 실체 안에 속하는 모든 것의 로고스가 반드시 있어야할 필요는 없더라도 실체 안에 속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보편자⁶¹⁹)가 실체라면 그 보편자의 로고스가 분명히 어떤 것이어야 할 *텐데*도 말이다 못지 않게 어떻게 보면 보편자도 어떤 것의 실체일 것이기 때문이다⁶²⁰) 사람 안에 속하는 사람인 것의 실체가 사람일 것 처럼 말이다 따라서,

예를들어 자신 안에 고유한 것 으로서 속하는 생물인 것의 실체가 생물일 것 처럼 생물이 저 생물인 것의 실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체라면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첫 번째 논증에 어긋난다 따라서,

보편자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실체)에 속한다 라고 말하여질 수 없을 것이다 셋째,

618) 주로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실체는 기체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도 기체의 어떤 것도 아니라는 범주들 166쪽을 참조하시오 그리고 질료도 기체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형이상학205쪽도 참조하시오

619) 실체는 기체는 아니나 기체적인 것이기에 어떤 사람들은 질료를 실체라고 말한다 라는 298쪽을 참조하시오 따라서 여기서 기체에 속한다는 말은 실체에 속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거꾸로가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620) 류(생물)도 덜 실체이긴해도 종(사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더불어 제 2 실체이라고 그에 의해 말하여진다는 점에 유의하시오(범주들 170-171쪽)

실체 와 이것 보다 먼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실체가 어떤 것으로(부터)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실체 또는 이것으로(부터) 있지 질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질로(부터)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 가능하고 불 합리 하다 질로부터 있다 라고 말한다면 **질**(ποιού 1038b25)이 실체 보다 먼저 있는 셈인데 실은 로고스에 있어서든 생성에 있어서든 시간에 있어서든 **속성**(τὰ πάθη 1038b28)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먼저 있다면 속 성 과 실체가 분리 될 것이다 그리고,

보편자가 많은 것에 공통으로 자연스레 **속한다**(ὑπάρχειν 1038b12)면 그 보편자는 자신이 속하는 것의 속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다 셋째로,

실체가 실체 안에 속하게 되 실체 두 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는 잠재적으로 둘이긴해도 현실적으로는 하나이다⁶²¹⁾ 하나가 현실적으로 둘로부터 둘이 현실적으로 하나로부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라! 배(διπλασία 倍 1039a6)는 반 두 개로부터 잠재적으로 있으나 그 반 들의 현실화는 반 두 개로부터 배 하나를 분리시키지 아니한가 그래서 실체 는 모나드 또는 원자와 같다 모나드 안에는 현실적인 모나드가 있지 아니하 며 원자는 크기에 있어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체가 하나라면 실체 안에 현실적으로 속하는 알론한 실체들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보편자를 실체라고 해 보자 보편자는 어떤 것(실체)들에 공통적으로 속하므로 실체(소크라테아스) 안에 실체(생물)이 있게 되 ‘실체 안에 실체’ 곧 실체 두 개가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실체라면 사람의 로고스 안에 있는 것들(두 발, 생물)은 실체 가 아니며 실체와 분리해 있지도 않고 실체와 알론한 것 안에 있지도 않는 다 예를들어 생물은 실체(사람)과 나란히 있는 것도 아니며 알론한 것 역시 로고스 안에 있는 어떤 것과 나란히 있지도 않다 따라서,

621) 실체가 수적으로 하나라는 것은 여러 번 거듭 말하여졌다(범주들 181 쪽) 그러나 하나 라는 수 (1088a3-4)가 실체이지는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 뒤 편에서 말하여질 것이다

보편자(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보편자(공통 범주)가 실체라면 결국 세 번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제,

실체는 보편자들로부터도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있는 실체들로부터도 있지 않다면 모든 실체는 합쳐진 것이 아니(ἀσύνθετον 1039a17-18)므로 실체에 대한 어떤 로고스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체의 정의 만이 주로 순수하게 있으며 로고스와 정의가 하나인 것은 오직 실체 뿐이라고 우리는 말해왔다 어찌된 건가 여기에서는 로고스가 있지 않다고 하지 않는가 13 장 끝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어려움이다

이러한 그의 논증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은 합쳐지지 않았다고해서 로고스가 있지 않을까 라는 물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며 이 맥락에서는 로고스와 정의가 아주 섬세하게 구분되어 쓰여지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실체이건 아니건 모든 것의 로고스가 있으나 그 로고스가 정의인 것은 오직 실체일 뿐이다 차이와 상위 류로 이루어진 정의가 바로 그 로고스이다 그런데 실체 곧 합쳐지지 않는 것에는 로고스가 있지 않다니.....로고스와 정의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 가 먼저 파악되어야 제에 타 편 전체 논의가 선명해 질 것 같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실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실체는⁶²²⁾

기체적인 것 곧 알론한 것의 기체이다 속성들이 이 기체에 붙어 있다 그러나,

기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458) 따라서,

고유한 각기 것이어서 알론한 것에 속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실체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

622) 실체에 관한 요약 309-311 쪽을 참조하시오

와 알론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듯이 크기들에 있어서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원자요 모나드이다 모나드 안에는 현실적인 모나드가 있지 않으며 원자적인 하나는 둘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14 장으로 가려는 우리에게 이데아가 텔레스를 통해 닥아선다

“(XIV) *이데아*(τὰς ἰδέας 1039a25)을 **분리**해 있는 실체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류 와 차이로부터 *에이도스*가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무엇에 직면할 것인가가 이것들로부터⁶²³⁾ 분명해진다 만약 *에이도스*⁶²⁴⁾가 있다면 그리고 생물이 사람 과 말 안에 있다면 수적으로 하나이거나 헤테론하기 때문이다⁶²⁵⁾

623) 위에서 말한 것들로부터

624)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이데아의 보기를 든다면 우리는 그 보기로 무엇을 들어야할까 생물일까 사람일까 플라톤의 이데아를 그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분리된 *에이도스*일까 아니면 *에이도스*와는 헤테론한 것일까

아마 이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있음)가 드러날 것이다

625) 수적으로 하나인 것은 무엇인가 *에이도스*인가 아니면 생물인가 아니면 이데아인가 아니면 생물 과 사람 과 말인가 이데아는 *에이도스*가 아닌 것으로 지금 나에게 닥아선다 류 와 차이로 있긴하나 분리된 것이라 말하여지는 *에이도스*가 이데아 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것(사람 과 말)과 분리해 있으면서 그것 안에 있는 *에이도스*(생물?)와 그것이 수적으로 하나이거나 또는 헤테론한 것이라 여기서 수적으로 하나인 것들이 동일한 것이다 라는 범주들 259 쪽 과 수적으로 하나인 것 그리고 동일한 것이 반대들을 받아드린다는 것이 실체에 가장 고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범주들 181 쪽을 참조하시오 그런데,

생물을 *에이도스*라 할 수 있을까 그에 따르면 류는 사람이요 종(*에이도스*)은 생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물이 *에이도스*인 것으로 보아야하지 않겠는가 하긴,

한편으로 로고스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이다 로고스를 말하는 자는 각기 경우에 동일한 로고스를 말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자체로 이것이며 분리된(κεχωρισμένον 1039a31) 사람인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루는 부분들 예를들어 생물⁶²⁶) 과 두 발도 반드시 이것을 가리킬 것이며 분리해있을 것이고 실체일 것이다 따라서 생물도 반드시 그러할 것이다

한편으로 당신 안에 당신이 (하나이며 동일한 것으로 있듯이) 만약 말 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말 과 사람과] 동일한 것이고 하나라면 분리된(χωρίς 1039b1) 것들 안에 있는 하나가 어떻게 [그 분리된 것과] 하나일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것으로부터 이 생물이 무엇 때문에 분리해 있지 않을까 나아가서,

한 편으로 두 발 과 여러 발을 나누어지닌다면 불 가능한 어떤 것(ἀδύνατον τι 1038b3 결론)이 잇따른다 반대들이 하나로 있는 그것(생물)에 동시에 속하기⁶²⁷) 때문이다 만약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생물은 두 발 또는 발 달린 어떤 것이다 라고 할 때 마다 도대체 어떤 길에서 말하여지는 것일까 아마 함께하든지(σύνκειται 1039b6) 또는 접촉하든지 또는 섞어질(μέμικται 1039b6)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 합리(ἄτοπα⁶²⁸) 1039b6)하다

그러나⁶²⁹) 각기 [사람] 안에(ἐν ἑκάστῳ 1039b7)(있는 것(생물?)과 각

덜 실체이긴 해도 류 역시 종 처럼 실체이므로(범주들 170쪽)... 분리된 실체라는 점에서 이 둘을 서로 통용하는 것일까...

626) 생물도 사람의 부분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부분에 대해서는 371-372쪽을 참조하십시오

627) 실체에도 반대들이 동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182쪽 참조)

628) 장소에 들어 맞지 - 앓는(ἄ - τοπα) 말들이라는 것 일 케다 불합리(不-合理, un-reasonable)하다 라는 말이 이런 뜻일까 로스는 807 쪽에서 abs-urd 라는 말을 쓴다

629) 그러나(ἀλλ' 1039b7)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 1039b28에나온 μὲν(한편으로) 일까 아마 그럴 것이다 사람 안에 있는 생물이 사람과 분리된다면

기 [사람이]) 헤태론하다면 자신들의 실체가 생물인 그러한 것들이 무한히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생물로부터(ἐκ 1039b8)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생물 자체가 여럿일 것이다 각기 (것 안에 [있는]) 생물(τὸ ἐν ἐκάστῳ⁶³⁰) ζῷον 1039b9-10) 이 실체이기 때문이다 [생물은] 알론한 것에 따라⁶³¹) 말하여지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실체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⁶³²) 사람이 저(알론한) 것으로부터 있을 것이며 사람의 류가 저(알론한)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테아*들(ἰδέαι⁶³³) 1039b12)일 것이다 결국 알론한 것⁶³⁴) 이테아도 있지 않을 것이며 알론한

생물은 사람과 동일하며 하나인 것일까 아니면 헤태론한 것일까 라는 물음에 그는 지금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630) 위 세 번째 줄의 각기와 같은 것을 가리킬까...위 아래 각기가 무엇을 각각 가리키는지가 애매하다 본문의 엔(ἐν)을 살려 각기 안에 라고 옮기면 또 그 뜻하는 바가 달라진다 엔을 살린다면 각기는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 지금 맥락에서는 사람 과 말 안에 있는 생물이 문제시 되므로 각기 사람 또는 각기 말을 ‘각기’는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이거나 헤태론한 것은 각기 사람 또는 말과 생물일 것이다 다시 말해 각기 사람 또는 이 생물과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고 생물이 각기 사람 또는 말과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지 생물이 사람 또는 말과 또는 사람 또는 말이 생물과 동일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리고(καὶ 1039a27)’로 이어진 에이테아(에이도스) 와 쯔오온(생물)이 문제다 이 둘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여지는 에이도스란 무엇을 뜻할 까.....

631) ‘κατ’ ἄλλο(알론한 것에 따라, 1039b10)’에 대해서는 302쪽의 ‘어떤 것에 따라’를 참조하라

632)만약 생물이 알론한 것에 따라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면

633) 분리해 있는 실체 (이면서 류 와 차이로 이루어진 에이도스)라는 말 대신에 이테아 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 이러한 실체 만이 ‘...의...’이라고 말 하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것의 실체도 있지 않을 것이다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ἀρα 1039b13)각
기 것 안에 (있는) 생물이 생물들 안에 (있는) [각기] 것들과 동일할(αὐτ
ὸ.....τῶν 1039b13-14)것이다⁶³⁵ [더 더] 나아가서,

이것(생물)⁶³⁷은 무엇으로부터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것(그 무
엇)⁶³⁶으로부터 생물이 [있을]까 또는 예를들어 [자신의] 실체가 생물인 그
러한 것 자체 그것과 나란히 어떻게 생물이(παρ' αὐτὸ τὸ ζῷον ; 1039b16)
있을까⁶³⁷ [더 더 더] 나아가서,

634) 이 2격에 대해서는 범주들 186쪽 각주 161 번을 참조하시오 그런후
실체는 기체의 어떤 것도 아니요 기체 안에 있지 않다라는 범주들 166 쪽을
참조하시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실체란 어떤 것의 실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것이다 물
론 기체의 실체는 아닐 것이지 만 말이다

635) 헤태론하다면 이러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결국 그리 그리하게
있다면 동일한 것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의 논증이다

사람 안에 있는 생물이 사람과 헤태론하다면 사람을 이루는 모든 것들
이 이데아들일 것이며 알론한 것의 이데아도 있지 않으며 알론한 것의 실체
도 있지 않을 것이다 헤태론하다면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생물 안에
있는 각기 사람 과 각기 사람 안에 있는 생물이 동일할 것이다

636) 앞의 이것 과 뒤의 그것은 같은 것을 가리킬까

아마 같은 것 곧 생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앞의 그것은 지시 대명사 이것(τούτο 1039b14)의 중성 1격이며 뒤의 그것은
3인칭 대명사 남성 또는 중성(αὐτοῦ 1039b30)2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생물은 무엇으로부터 있으며 또한 생물로부터 생물이 있을 수 있
을까 라고 옮겨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무엇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생물)은 무엇으로부터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
무엇으로부터 생물이 있을까 라고 옮겨질 것이다

나에게는 나중 옮김이 더 나올 성 싶다아마 동일한 것 곧 생물을 가리키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감각적인 것들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심지어 이런 것들 보다 더 불합리한(ἀτοπώτερα. 1039b17) 것들이 잇따른다 실로 만약 (잇따르는 이런 것들이) 불 가능(ἀδύνατον 1039b17)하다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감각적인 것들의 [바로] 그러한 에이도스들은 분명히 있지 않다⁶³⁸⁾ ”

다른 장 보다 심하게 논증하는 13 장 보다 더 심하게 14 장은 논증한다 아예 14장은 논증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여기서 무엇을 논증하려는 걸까 내가 이미 34 쪽에서 말한 것 처럼 그는 형이상학 전체 칼날을 이데아론에 들이댄다 바로 이 이데아론으로부터는 불 가능 할 뿐 만 아니라 불 합리한 결론이 잇따른다는 것을 논증한다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은 보여진 사태(프라그마) 그대로 있음 또는 있는 것을 말하려하지만⁶³⁹⁾ 다르게 보면 형이상학은 사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 로고스들이 서로에 대해 있는 방식에 관해 말하려한다 로고스들이 서로에 대해 연이어져 있음을 밝힌 것을 바로 논증⁶⁴⁰⁾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가운데 필연적으로 맨 마지막에 떠오르는 로고스가 불 가능하거나 또는 불 합리하면 혹은 불 가능하면서 동시에 불 합리하면 혹은 더 덜 불 가능하면서 동시에 덜 더 불 합리하면 그 맨 첫 번째 로고스는 옳은 것이 아니라 그르다 결국 전체(첫 번째 로고스)의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셈이다 그래서,

637) 불 가능하다는 말일 것이다

638) 분리해 있다면 감각적인 것들의 에이도스들은 있지 않다는 말일 것이다

639) 말하다 보니 신이 로고스로 튀어 나온다

640) 그는 변증적인 논의 와 논증적인 논의(ἀποδείξεις 1014a37, 분석론 전편 24a22-24b12, 토피카 100a25-30) 와 귀납적인 논의 등 여러 논의를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 가운데 그의 논리(συλλογισμοί, 삼단논법)가 떠오른다 텔레스의 논리 역시 나에게서 흥미거리이다 텔레스의 논리 와 플라톤의 논리는 플라톤의 있음 과 텔레스의 있음 만큼 차이 날 것이다 혹자는 텔레스의 삼단논법(셀로오기코스)은 플라톤의 변증법을 변형시킨 것이라고도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할 것인가

형이상학에서 이어지는 그의 논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이렇다
라고 말하는 것 보다 이렇다면 이러한 것이 잇따르는데 그러한 것은 불 가
능하다 라고 더 많이 말한다 이제, 여기서는 불 가능하다 라는 말에 불 합
리하다 라는 말⁶⁴¹⁾이 덧붙혀진다

불 가능하면서 불 합리한 로고스를 품고 있는 첫 번째 로고스란 무엇
일까 류 와 차이로부터 있는 **에이도스**가 바로 분리해 있는 **실체**로서의 그
이데아들이다 라는 로고스가 바로 그 첫 번째 로고스이다 이 전체(첫 로고
스)로부터 어떻게 불 가능하며 불 합리한 마지막 로고스가 이어지는지를 간
단히 요약해보자

이테아를 분리해 있는 실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류 와 차이로부
터⁶⁴²⁾ 에이도스가 있다 라고 어떤 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에이도스가 있다면 그래서 생물이 사람 과 말 안에 있다
면 [그 에이도스는 사람 또는 말과] 수적으로 하나이거나⁶⁴³⁾ 또는 헤태론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무엇에 그들은 직면할 것이다 [먼저,]

641) 불 가능하다 와 불 합리하다 라는 말은 이 전에도 가끔 쓰였으나 이
두 말이 덤터기로 동시에 쓰여 여기서는 불 가능함과 동시에 불 합리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 만큼 지금 말하여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라는 말일게
다

불 가능하다 라는 말이 홀로 쓰인 곳 447쪽(아뒤나테인 1038a13) 과
불 합리하다 라는 말이 홀로 쓰인 곳 1075a26을 참조하라 그런 다음 여기를
참조한 후에 불 합리하긴하나 보다 더 불 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곳인
1089a12-13을 참조하라 텔레스가 말을 얼마나 섬세하게 쓰고 있는지를 볼
것이다

642) (상위) 류 와 차이로부터 (하위) 류가 있다 라는 444 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 따르면 류 와 차이로부터 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면 류 와 차
이로부터 에이도스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에이도스(중) 와 류는 동일한 것
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맨 끝의 차이가 에이도스(중)요 실체라고 말하는 448 쪽에 따르면 차
이가 에이도스이지 않는가 어찌했건.....

그 자체 이것이며 분리해 있는 사람인 것(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이루는 예를들어 생물 과 두 발 같은 부분들 역시 반드시 이것이며 분리해 있을 것이므로 역시 실체일 것이다⁶⁴⁴[이제,]

만약 말 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그 말 과 사람에 동일한 것이고 하 나라면 분리된 것(말 과 사람)들 안에 있는 것(생물)이 어떻게($\pi\acute{o}\varsigma$ 1039a34) 그 분리된 것들과 하나일까 그리고 그 분리된 것들(사람 또는 말)과 이 생물이 무엇 때문에($\delta\iota\grave{\alpha}$ $\tau\iota$ 1039b1) 분리해 있지 않을까⁶⁴⁵)나아가서,

[생물이] 두 발 과 여러 발을 나누어지닌다($\mu\epsilon\theta\grave{\epsilon}\xi\epsilon\iota$ 1039b2)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될 것이다 반대들⁶⁴⁶)이 하나로 있는 것에 동시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생물은 두 발 또는 발[로] 있다 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어떤 길에서 [생물은 두 발 또는 발로] 있는 것 일까 함께 [있는 것일까] 또는 접촉[해 있는 것일까] 섞어져[있는 것일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 합리하다⁶⁴⁷][다음으로,]

643) 로고스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일 것이다 로고스를 말하는 자는 각기 (사람 또는 말) 안에 있는 것에 관한 동일한 로고스들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로고스에서는 실체(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말하여지기만 할 뿐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305 쪽 과 에이도스의 부분들 만이 로고스의 부분들이다 라는 384 쪽을 참조하십시오

644) 실체에 주로 속하는 것은 ‘분리 와 이것’ 이다 라는 298 쪽을 참조하십시오

645) 분리해 있는 것임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일 수 있으며 그리고 설령 어떻게든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분리해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분리해 있지 않을까 라고 그는 여기서 묻고 있다

646) 두 발 과 여러 발은 서로 반대이며 헤테론한 것임에 유의하십시오

647) 여기서의 차이들이 생물에 속하는 길들이 문제 삼아진다

만약 나누어지님 곧 관여(關與)함이라면 두 발 과 여러 발 등 반대들이 동시에 그 생물에 속할 것이다 생물의 발은 두 개 또는 여러 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누어지님이 아니라 함께함 또는 접촉 또는 섞여짐일까 그러나 이러

만약 각기 [사람] 안에 있는 것(생물)과 [각기 사람이] 헤태론하다면 자신들의 실체가 생물인 그러한 것들이 무한히 있을 것이다⁶⁴⁸) 생물로부터 사람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생물 자체가 여럿일 것이다 각기 것(사람) 안에 있는 생물은 알론한 것에 따라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체이기 때문이다 만약 (생물이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여진다)면 사람은 저 (알론한) 것으로부터 있을 것이고 저 (알론한) 것이 사람의 류가 될 것이다⁶⁴⁹)나아가서,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있을 그 모든 것들이 이데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이데아들은 알론한 것의 이데아도 아닐 것이고 알론한 것의 실체도 아닐 것이다 [그러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각기 것(사람 또는 말) 안에 있는 생물이 생물들 안에 있는 [각기] 것들과 동일할 것이다 [더 더] 나아가서,

이것(τούτο, 생물, 1039b14)은 무엇으로부터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 것(생물)으로부터 생물이 있을까 예를들어 [자신의] 실체가 생물인 그러한 것이 어떻게 생물 그 자체와 나란히 있을까 [더 더 더] 나아가서,

감각적인 것들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이런 것들 보다 더

하게 속함은 불 합리하다 따라서,

차이들은 생물에 접촉하므로서 또는 섞여짐으로서 또는 함께하므로서 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나누어 지니므로서 속한다는 것을 그는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 그럴 것 같지 않다 나누어 지닌다면 반대들이 동시에 동일한 것에 속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나누어지님(관여) 라는 말을 텅 빈 것이요 시적인 비유(μεταφοράς 1079b26)라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우스는 자신의 대상(누우스화 된 것)을 나누어 지니므로서(μετάληψιν 1072b20, 관여함 으로서)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누어지닌다 라는 이 말을 쓴다는 것에 유의하라

648) 헤태론한 것은 하나가 아닌 것이며 하나가 아닌 것은 여럿 또는 많은 것이며 여럿 또는 많은 것은 한정 없는 것이기 때문일까.....

649) 따라서 생물은 사람의 류가 아니게 될 것이다

불 합리한 것들이 잇따른다 실로 [이런 것들이] 불 가능하다면 감각적인 것들의 에이도스들은 분명히 있지 않다

이제까지의 로고스들은 그리고 이 다음 15 장에서 이어지는 로고스들은 제애타 편을 포함한 모든 장에서 말하여진 부정적(否定的)인 로고스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로고스들인 것 같다 플라톤(주의자들)의 이데아들은 실체가 아니며 있지 않다 라는 부정적인 로고스는 형이상학에서 주어지는 부정적인 로고스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로고스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상 부정적인 언급들에서는 별로 말하여지는 것들이 없듯이 여기서도 별로 말하여지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낯지시 말하여지는 것들이 있다 낯지시 말하여지는 것들을 집어내기 위해 나는 다시 한번 그의 로고스들을 정리할 것이다

류 와 차이로부터 있는 에이도스가 **분리해** 있다(χωριστὰς εἶναι 1039a25) 라고 말하여진다면 곧 이데아라고 말하여진다면 그 이데아 또는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것(생물)과 숫적으로 하나이든지(동일하든지) 또는 헤테론할(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하든 헤테론하든 모두 불 가능하다면서 불 합리한 것들이 잇따르므로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 곧 이데아가 실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치 못하다

예를들어 사람 안에 있는 생물이 사람과 분리해 있다고 해 보자 사람도 실체이며 생물도 실체일 것임은 분명하다 분리해 있으며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불 가능하다면서 불 합리한 것들이 잇따를 것이다 (συμβαίνει 1039b3)첫째,

사람 과 생물이 동일하며 하나라면 분리해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동일할 수 있을까 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생물과 분리해 있지 않을까 사람 과 생물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사람이 생물과 동일하며 하나라면 발(차이)가 어떻게든 생물에 속해야 할 것이다 발을 나누어 지님 으로서 발이 생물에 속한다면 반대들(두 발 과 여러 발)이 동시에 생물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들이 동시에 동일한 하나(실체)에 속하는 것은 불 가능하므로 나누어지됨에 의해서는 사람⁶⁵⁰

과 생물은 동일하지 않다 또한,

속하는 길이 나누어지님(관여)가 아니라 함께 또는 접촉 또는 섞어짐 이라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길들은 불 합리하기 때문이다 발이 생물에 함께한다거나 접촉한다거나 섞어진다는 것은 장소에 있어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리해 있는 것들(사람 과 생물)이 수적으로 하나일 수는 곧 동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둘째,

헤테론할 수도 없다

헤테론하다면⁶⁵¹⁾ 생물로부터 사람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들의 실체가 생물인 그러한 것들이 무한히(ἄπειρα 1039b7)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실체가 있는 만큼 한정 없이 자신도 실체로서 있을 것이다 서로 헤테론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각기 것 안에 있는 생물 자체도 실체이므로 생물이 여럿 있을 것이다 분리해 있으므로 생물이 알론한 것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며 실체는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물이 알론한 것에 따라 있다면 사람은 저 알론한 것으로부터 있을 것이며 사람의 류가 생물이 아니라 저 알론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생물이 여럿이라는 것은 불 가능하다 나아가서,

사람은 이데아들로부터 있을 것인데 분리해 있으므로 알론한 것의 이데아도 알론한 것의 실체도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각기 것 안에 있는 생물이 생물들 안에 있는 각기 것과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실체는 알론한 것⁶⁵²⁾의 실체이지 않는가 곧 어떤 것을 속성으로 지니지 않는가 나아가서,

650) 맨 끝 차이 곧 두 발을 에이도스(사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곳을 나는 앞 옮김 과 요약에서 이미 거듭 가리켰다

651) 헤테론은 전체적으로 동일에 대립된다 라고 말하여지는데 자신의 종들이 여럿이거나 또는 자신들의 질료가 여럿이거나 또는 자신의 실체의 로 고스가 여럿이면 헤테론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범주들 258 쪽을 참조하십시오

652) 알론한 것은 기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체에 붙는 속성들을 말한다

생물은 무엇으로부터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생물이 그 무엇으로부터 있을까 또는 자신의 실체가 생물인 것과 나란히(παρ'1039b16) 어떻게 생물이 있을까 나아가서,

감각적인 것들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심지어 이런 것들 보다 더 불합리한 것들이 잇따를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불 가능하다면 감각적인 것들의 그러한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는 분명히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분리해 있는 실체로서의 에이도스 곧 이데아는 자신이 그것과 분리해 있는 바로 그것과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든 또는 바로 그것과 헤태론한 것이든 모두 불 가능하고 불 합리한 것들이 잇따르므로 결국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로서의 이데아는 불 가능하다

분리해 있는 것이 어떻게 동일할 것이며 동일한 것이 무엇 때문에 분리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동일하다면 반대들이 동시에 동일한 것에 속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속함은 불 가능하다 아울러,

헤태론하다면 자신의 실체가 생물인 그러한 실체가 무한이 있을 것이며 실체로서의 생물이 여럿 있을 것이고 각기 사람 안에 있는 생물 과 생물 안에 있는 각기 사람이 동일할 것이다 사람은 이데아들로부터 있을 것인데 분리해 있으므로 알론한 것의 이데아도 알론한 것의 실체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물은 무엇으로부터 있어야 할것인데 어떻게 이 무엇으로부터 생물이 있을까 또는 자신의 실체가 생물인 것과 나란히 어떻게 생물이 있을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 가능하며 불 합리하다 감각적인 것들의 경우에는 더 불 합리하다 감각적인 것들과 분리해 있는 감각적인 것들의 에이도스는 분명히 있지 않다

이제 까지 말하여지고 있는 불 가능하고 불 합리한 로고스들을 다시 한 번 모아보자

분리해 있는 사람 과 생물은 하나이며 동일하다
동일한 것에 반대들이 동시에 속한다
발(차이)이 분리해 있는 생물에 속하는 것은 나누어지님 또는 함께
또는 접촉 또는 섞어짐이다
자신의 실체가 분리해 있는 생물인 것들은 무한히 있다

분리해 있는 생물이 여럿있다
사람은 이데아들로부터 있다
자신의 실체가 생물인 것과 나란히 실체로서의 생물이 있다

위와 같은 로고스들은 이데아(분리해 있는 에이도스)⁶⁵³를 인정할 때
잇따르는 불 가능하고 불 합리한 로고스들이다

에이도스⁶⁵⁴는 분리해 있지 않다 곧 이데아가 아니다 라는 로고스를
논증하는 14 장에 이어 15 장에서는 이데아의 정의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
여진다 먼저 그는 감각적인 실체들의 정의 와 논증은 있지 않는 원인에 대
해 말하기 시작한다⁶⁵⁵

“(XV) 실체[에는] *합쳐진 전체*(τὸ σύνολον 1039b20) 와 로고스 - 나
는 한 편으로 실체란 질료와 더불어 취하여진 로고스이다 라고 말하며 다른
한 편으로 [실체란] 전체 로고스 [라고 말한다] - [등] 해태론한 [두 가지가]
있으므로⁶⁵⁶[그리고 앞에서] 그렇게 말하여진 [실체]에는 생성이 있으므로
소멸(파괴)가 있는 반면 로고스에는 생성이 (있지 않으므로) 파괴되지 않는
다 집에 있음이 아니라 이 집에 있음(τὸ τῆδε τῆ οἰκία εἶναι) 1039b25)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성 과 파괴 없이 로고스는 있다 그리고 있지
않다 어떤 것도 이것들을 생성하거나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감각적인 실체*⁶⁵⁷들 각각에 관한 정의도 논증(ἀπόδειξις 1039b28-29)

653) 이데아를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654) 이 에이도스는 류 와 차이로부터 있다 라는 점을 유념하라

655) 이러한 실체에게는 생성 과 파괴가 있으므로 생성하지도 않으므로 파
괴되지도 않는 로고스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실체들의 정의 와 논증은
있지 않다 라고 그는 말한다

656) 합쳐진 전체가 에이도스(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보다 덜 실체라고 한
곳을 내가 어디서 보았는데....로고스를 실체라고 한 곳은 못 봤다

657) 14 장이 감각적인 실체에 대한 말로 끝났음에 유의하라 에이도스가
분리해 있(는 이데아라면)다면 감각적인 실체의 경우에는 더 불 가능하며

도 있지 않다 감각적인 실체들은 [자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연을 지닌 질료⁶⁵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감각적인 실체들) 각각들 모두는 파괴적이다 이제,

만약 **논증**은 필연적으로 진실이며 **정의**는 앎[의 과정]이라면 그리고 만약 앎은(ἐπιγινῶν 1039b32-33) 때론 앎이었다 때론 인식이 아니(ἄγνοιαν 1039b33)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역견(δῶζα 1039b34)이 그러한 것이라면 그리고 논증 과 정의 역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역견이 알론하게⁶⁵⁹ 되는 것이라면 분명이 이러한 것들⁶⁶⁰)의 논증 과 정의는 있을 수(ἐνδέχεται 1040a7) 없다 소멸하는 것들이 감각들로부터 흘러갈 때 앎을 지니는 자들에게는 그 소멸하는(사라지는) 것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영혼 안에 그러한 것들의 로고스가 [변화하지 않은 채] 남아 있긴 해도⁶⁶¹) 더 이상 정의도 논증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정의하는 자들 중의 어떤 사람이 각각 것들(καθ' ἑκάστη 1040a6)을 정의할 때 자신의 정의가 뒤 떨어진다라는 것을 그는 반드시 인정해야한다 이런 (각기 것들은)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

감각적인 실체들 과 각기 것들(개별자들)은 정의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말 하면서 이제 그는 각기 것들이므로 이테아들 역시 정의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불 합리한 것들이 잇따른다 라고 그에 의해 말하여졌다(475쪽)

658) 질료에 대해서는 352-352 쪽을 참조하십시오

659) 자신의 상태가 변한다는 것.

660) 감각적인 것들? 아니면 역견들? 아니면 자신의 상태가 알론하게 되는 것들?

여기서 역견 과 감각적인 것은 일련의 같은 선 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러한 상황은 플라톤에 있어서도 같다 있지 않는 것 곧 감각적인 것을 생각해 놓은 것이 역견이기 때문이다(파르메니데스 19 쪽 과 소피스테이스 100 과 133 쪽을 참조하십시오)

661)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주론 182-184 쪽을 참조하십시오

“ 이데아들 가운데 어느 것도 정의되지 않는다 이데아론자들이 말하는 것 처럼 이데아는 각기 것이며 분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고스는 반드시 이름들로부터 있어야 만하나 정의하는 자가 이름을 만들려해서는(ποίησει 1040a10) 안된다 [이름은] 인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정된 것(로고스)들은 모든 것에 공통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알려진 것에도 반드시 속한다 예를들어,

어떤 자가 당신을 정의한다면 여윈 또는 흰 또는 [당신 이외의] 알려진 자에게 마찬 가지로 속하는 헤테론한 어떤 (것)을 그는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자가 분리되어 취하여진 모든 것[속성]들이 많은 것들에 그러나 동시에 단지 이 하나에[도] 속한다 라고 말하여진다면 첫 번째로,

양자⁶⁶²)에 먼저 속한다 라고 말해져야한다 예를들어 ‘두발 생물’이 두 발 과 생물에 속하듯이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들(τῶν αἰδίων 1040a17)의 경우에도 필연적이다 [그 영원한 것들의] 부분들은 합쳐진 것 보다 먼저⁶⁶³)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분리해 있다면 [영원한 것]도 분리해 있(을 것)이다 어떤 것도 [분리해 있지 않거나] 또는 양자가 [분리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⁶⁶⁴)

한편으로 만약 어떤 것도 [분리해]있지 않다면 류는 종(사람)들과 나란히(παρὰ 1040a20) 있지 않을 것이나 다른 한 편으로 만약 [분리해] 있다면 차이들이 [분리해] 있을 것이다⁶⁶⁵) 그 다음으로(εἴθ' 1040a21),

662) 예를들어 ‘흰 생물’ 이라면 ‘흰’ 과 ‘생물’ 이 양자 ?

663) 정의의 부분은 그 합쳐진 전체 보다 먼저 있다 라는 377 과 382쪽을 참조하라

664) 이 곳은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 곧 이데아는 실체가 아니디를 논증하는 곳(464 쪽)에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665) 어떤 것도 분리해 있지 않다면 종(사람)과 나란히 류가 있지 않을 것이므로 서로 분리해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분리해 있는 종(사람) 곧 이데아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가] 분리해 있다면 차이들이 [있을 것이다]

[생물 과 두발은 ‘두 발 생물’ 보다] 있음에 있어(τῷ εἶναι 1040a21) 먼저⁶⁶⁶)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것들[생물 과 두발]은 [‘두발 생물’이 소멸 해도] 사라지지 않기(οὐκ ἀνταναρρεῖται 1040a22)[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아이디어들이 아이디어들로부터 [있다]면 - 그것들로부터 [있을 경우] 그것들이 더 복잡적이지 않기(ἀσυνθετώτερα 1040a23) 때문에 - 나아가서 아이디어들이 그것들로부터 [있는 바로] 그것들 [곧] 예를들어 생물 과 두 발은 많은 것들의 카테에고리아이가 되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인식될까 하나 보다 더 많은 것의 카테에고리아가 될 수 없는 어떤 아이디어(이테아인 것)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⁶⁶⁷) 모든 것은 아이디어를 나누어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 영원한 것들의 경우 [각기 것은] 정의될 수 없다(ἀδύνατον 1040a28)라는 것이 주목받지 않는다⁶⁶⁸) 특히 해 와 달과 같은 유일 무이한 것에 있어서 [그렇다] 예를들어 ‘지구 주위를 돛’ 또는 ‘밤이 숨어 있음’과 같이 해에 덧 붙혀진 것들을 제거해도 해는 존속할 거라고 말 함에 의해서 뿐 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견해로부터 보면 만약 해가 여전히 서 있거나 또는 [밤에] 보여질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해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불 합리할 것이다 해는 어떤 실체⁶⁶⁹)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에 그러한 것(로고스들)이 덧 붙혀질 때 마다 예를들어 만약 이와 같은 것(로고스)⁶⁷⁰)들[을 지나는] *해태론한* 것이 생성된다해도(ἐὰν

음.....나중 것이 어떻게 아이디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차이라..... 차이(종)이 분리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분리해 있는 에 이도스(종, 사람)은 있지 않다는 것이 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666) 먼저에 대해서는 범주들 261-269쪽을 참조하십시오

667) 아이디어는 많은 것의 카테에고리아가 되는 것 처럼 보인다는 말일까 그렇다면 아이디어는 류 처럼 보편자 라는 말인데.....

668) 얼른 눈에 띄지 않는다

669) 282쪽을 참조하십시오

1040a34) 분명히 해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고스는 공통적(koivòs 1040a34-b1)이다 그러나 클레오온 또는 소오크라테에스 처럼 해는 각기 것들이다 결국,

무엇 때문에 이데아론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데아를 정의하지 못할까(οὐδεὶς ὄρον.....:671), 1040b2) 이들도 시도해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까지 말해진 것이 진실임이 선명하게 될 것이다 ”

15 장은 급격히 감각적인 실체로 기울면서 나의 주목에서 벗어난다 말하여지고 있는 로고스들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로 내가 평소에 늘 텔레스에 대해 던지고 있었던 ‘당신은 이데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여기서 찾았다 이 실마리는 이 장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말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 간단히 이 장을 요약 정리하기로하자

각기 것 (속칭 개별자)는 정의되지 않으며 분리해 있는 이데아 역시 각기 것이므로 이데아는 정의되지 않는다 보라! 하고 많은 이데아론자들 가운데 [플라톤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이데아를 정의할 수 있는 자는 없지 않은가 라는 것이 15 장에서 말하여지는 로고스이다 이러한 로고스를 지탱하기 위해서 각기 것 으로서의 *감각적인 실체*가 슬며시 나타난다672)

670) 알론한 것에 덧붙여지는 것들

671) 수 많은 이데론자들 가운데서 플라톤을 포함 그 어느 누구도 이데아를 정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데아란 정의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각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기 것은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672) 꼭 지탱하기 위해서 만든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는 이 제애타 편에서 실체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 즈음해서 감각 실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장소에 맞다) 여겼기에 여기서 그 감각 실체에 대해 말하고 있을 것이다

실체에는 [서로] 해태론한 것들인 합쳐진 전체 와 로고스⁶⁷³)가 있으므로 그리고 합쳐진 전체에는 생성이 있으므로 (그 합쳐진 전체에는) 소멸이 있다 반면 생성이 있지 않는 로고스에는 소멸이 있지 않다 소멸하는 것은 집에 있음이 아니라 이 집에 있음이기 때문이다 로고스[로서의 실체는] 생성 과 소멸 없이 있으며 있지 않다 어떤 것도 로고스를 생성하거나 소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감각적인 실체 각각은 모두 소멸한다

논증은 필연적인 진실이며 정의는 얇이라면 그리고 얇은 때론 얇이었다 때론 얇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역견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면 그래서 논증과 얇은 알론한 [상태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역견이 알론한 [상태를 지닌다]면 이런(감각적인) 것들의 논증 과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소멸하는 것들이 감각들로부터 흘러갈 때 얇을 지니는 자들에게는 소멸하는 그것들이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영혼 안에 그러한 것들의 로고스가 [변화하지 않고 남아 있긴 해도 더 이상 [그것들의] 정의도 논증도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각기 것(감각적인 실체)을 정의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정의가 뒤 얹어 진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한다

(*감각적인 실체*들 곧 각기 것들은)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데아들 역시 어느 것도 정의되지 않는다 이데아론 자들 말하는 **이데아는 각기 것이며 분리해 있는 것**⁶⁷⁴)이기 때문이다

정의하는 자는 비록 이름⁶⁷⁵)들로부터 로고스가 있긴해도 [그] 이름을

673) 로고스 와 이름 과 정의와 관련하여 305 쪽 과 313 쪽을 참조하십시오

674) 분리(성) 과 이것(임)이 실체에 주로 속하는 것들이다 라는 298 쪽을 참조하십시오

675) 이름 과 로고스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에 관해서는 306쪽을 참조하십시오

지으려 해서는 안된다 (이름은) 인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립된 로고스들은 모든 것에 공통이므로 이(로고스)들은 알려진 것들에도 반드시 속한다

당신을 정의하는 자는 예를들어 여윌 또는 힘과 마찬가지로 알려진 자에게 속하는 해태론한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분리되어 취하여진 이런 모든 (속성)들은 많은 것들에 속할 뿐 아니라 동시에 어느 하나에도 속한다 라고 말하여진다면 [첫째,]

예를들어 ‘두발 생물’이 ‘생물’ 과 ‘두발’에 속하듯 양자에 먼저 속한다 라고 말해져야한다 영원한 것들의 경우도 필연적으로 이와 같다 부분이 합쳐진 것 보다 먼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분리해 있다면 [영원한 것?]도 분리해 있을 것이다 어떤 것도 분리해 있지 않거나 또는 양자가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 편으로 어떤 것도 [분리해] 있지 않다면 류는 종들과 나란히 있지 않을 것이나 만약 다른 한 편으로 [분리해] 있다면 차이날 것이다 [둘째,]

[생물 과 두발은 ‘두발 생물’ 보다] 있음에 있어 먼저다 이것들(생물 과 두발)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이데아들이 이데아들로부터 [있다]면 - 그것들로부터 [있을 경우] 그것들이 더 복잡적이지 않기 때문에 - 나아가서 이데아들이 그것들부터 [있는 바로] 그것들 [곧] 예를들어 생물 과 두발은 많은 것들의 카테이고리아가 되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인식될까 하나 보다 더 많은 것의 카테이고리아가 될 수 없는 이데아인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모든 것은 이데아를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 영원한 것들의 경우에는 [각기 것이] 정의 될 수 없다 라는 것이 주목 받지 않는다 특히 해 와 달과 같은 유일 무이한 것에 있어서 [그렇다] 예를들어 ‘지구 주위를 돛’ 또는 ‘밤이 숨어 있음’과 같이 해에 덧 붙혀진 것들이 제거되도 해는 존속할 것이라고 말함에 의해서 뿐 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견해로부터 보면 만약 해가 여전히 떠 있거나 또는 [밤에] 보여질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해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가] 아니라면 불 합리할 것이다 해는 어떤 실체를 가리키

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에 그러한 것(속성들)이 덧 붙혀질 때 마다 예를들어 그러한 것(속성들)[을 지니는] 헤태론한 것이 생성된다해도 분명히 해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고스(그 속성들)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클레오온 또는 소오크라테에 스 처럼 해는 각기 것들이다 결국,

무엇 때문에 이데아론 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데아를 정의하지 못할까 이데아론 자들도 시도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까지 말해진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될 것이다

이데아의 정의는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마찬가지로 정의가 있지 않는 감각적인 실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므로서 14 장을 열어 재긴다 라고도 볼 수 있으리라⁶⁷⁶⁾

때론 앎이었다 때론 앎이 아니었다 하는 역견과는 달리 정의는 항상 앎이어서 그 상태가 알론하게 변하지 않는다 필연적인 진실인 논증도 마찬가지이다 (진실은 항상 진실이지 진실 이었다가 진실이 아니었다 하지 않는다⁶⁷⁷⁾)그러므로,

감각적인 실체들의 정의 와 논증은 있지 않다 생성하므로 소멸하기도 하는 감각 실체들은 생성했다 소멸하고 소멸했다 생성하는 등 그 상태가 알론하게 변하는 가운데 생성해 (있을) 때에는 설령 인식에 그것들이 포착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흘러 소멸해 버릴 때에는 더 이상 인식에 포착되지 않

676) 또 다르게 보자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이 다음 16 장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기 위해서 우선 그 무엇이 아닌 것으로서 감각적인 실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해 그는 그 무엇이 아닌 것들 곧 이데아 와 감각적인 실체 와 각기 것들을 먼저 말하므로서 그 무엇을 향해 우리를 점 점 몰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제에타 편 앞 장들에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에이도스이다 라고 말하여지므로 이렇게 만든 볼 수 없을 것 같다

677) 진실이었다가 거짓이되는 로고스 와 역견에 대해서는 범주들 182-184 쪽을 참조하시오

아 인식이 애매하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각적인 실체 곧 각기 것⁶⁷⁸⁾을 정의하려는 자는 어느 순간 자신의 정의가 뒤 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할 것이다 (앞의 그 상태가 알론하게 변해 버리므로) 각기 것들 곧 감각적인 실체들은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데아들 가운데 어느 것도 정의되지 않는다 이데아론 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데아는 각기 것이며 분리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드디어,

정의에 관해 말하는 가운데 이데아가 툭 튀어 나왔다 그것도 감각적인 실체에는 억견이 있지 정의는 있지 않다 라는 로고스 다음에 말이다 그에 따르면 이데아 곧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는 실체가 아니다⁶⁷⁹⁾ 실체라면 이데아에 정의 와 논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데아의 정의는 있지 않다 보라플라톤을 포함한 수많은 이데아론 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데아를 정의하는 자가 없질 않은가

실체(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 만이 정의이며(356쪽) 로고스는 반드시 이름들로부터 있다 그럼에도⁶⁸⁰⁾ 정의하는 자가 이러한 이름을 지으려(ποίησει 1040a10)해서는 안된다 [정의는 **없**인 반면에] 이름은 **인식**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678) 텔레스가 감각적인 실체를 각기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감각적인 것들은 각기 것(개별자)과 하나이다 라고 보아도 큰 잘못은 없을 것 같다

679) 뒤 와 뒤 편에서 분명히 이데아는 실체가 아니라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에 제에타 편 14 장 과 15 장에서는 함축적으로 만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

680) 이름으로부터 있는 로고스 가운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실체)의 로고스가 정의이라고 해서 정의하는 자가 로고스를 이루고 있는 이름을 지으려(ποίησει 1040a10)해서는 안된다 이름은 인식(앞)에 포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지어져 있는 이름 또는 로고스는 모든 것에 공통이므로 알려진 것에도 반드시 속한다 예를들어 ‘여윈 그리고 흰 당신’이 정의된다고 해 보자 정의하는 자는 힘 또는 여윈 등의 이름 이외에도 당신 이외의 알려진 자에게 속해있는 헤테론한 어떤[어떤 속성]의 이름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각기 이름으로부터 있는 이런 모든 [로고스]가 분리되어 많은 것들에 동시에(ἀμα 1040b15) 하나에 속한다면 예를들어 ‘두발 생물’이 ‘두발’ 과 ‘생물’에 속하듯 양자(ἀμφοίν, 兩者, 10040a16)에 속한다 라고 첫 번째로 말해진다 아울러,

영원한 것들⁶⁸¹도 반드시 이와 같다 부분이 합쳐진 것(전체) 보다 먼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사람[‘두발 생물’]이 분리해 있다면 실로 [영원한 것 예를들어 해와 달도]분리해 있(을 것이)다 어떤 것도 분리해 있지 않거나 또는 [두발 과 생물 이] 양자가 분리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 편으로 어떤 것도 분리해 있지 않다면 류가 에이도스와 나란히 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다른 한 편으로 [분리해] 있다면 차이들이 [분리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εἰθ 1040a21),

[생물 과 두발 이 양자는 ‘두발 생물’ 보다] 먼저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생물 과 두발 양자]는 [‘두발 생물’이 소멸해도] 지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테아들 이테아들로부터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있을 겨우 그것들이 더 복합적인 것은 아니므로 이테아(사람 곧 ‘두발 생물’)들이 그것들로부터 있는 바로 그것들 예를들어 ‘생물’ 과 ‘두발’은 많은 것들의 카테애고리아이

681) 그는 해 와 달을 영원한 것들 가운데(τῶν ἀίδιων 1040a17)하나 라고한다 따라서 감각적인 실체들 가운데 영원한 것들이지 감각적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은 아닐 것이다 감각적인 것들의 이테아는 있지 않다 라는 475 쪽의 논증을 참조하라

가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다 하나 보다 더 많은 것의 카테애고리아
이가 될 수 없는 어떤 이데아(이데아인 것)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데아인 것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든 것이 이데아를 나누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⁶⁸²⁾

여기서 텔레스는 다시 영원한 감각적인 실체들로 말을 슬며시 돌린다

아까 말하여진 영원한 것들 각각(각기 것)은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은
[얼른]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해 와 달과 같은 유일 무이한 것에 있어서
그렇다

예를들어 ‘지구 주의를 돛’ 또는 ‘밤이 숨겨짐’ 처럼 해에 덧 붙혀지는
것들을 제거해도 해는 존속할 거라고 말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
하는 자들의 견해로부터 보면 만약 해가 [밤에] 여전히 떠 있거나 또는 [밤
에] 보여질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해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⁶⁸³⁾그러
나,

그런데도 해라면 불 합리할 것이다 해는 어떤 실체를 가리키기 때문
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것(로고스)들이 알론한 것에 덧 붙혀 질 때 마다 그러한 (로고
스이 덧붙혀지는) 해테론한 것이 생성된다해도 해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

682) 통렬한 이데아 비판론 일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그가
제시하는 보기들을 건드리면서 지나가고저한다 그가 제시하는 보기들이 말
썩을 일으키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텔레스는 사람의 이데아의 보기로 ‘두발 생물’을 그리고 사람의 이데아
가 그것으로부터 있는 바로 그 이데아들의 보기로 ‘두발’ 와 ‘생물’ 이 兩者
(ἀμφοίον 1040b16, ἄμφω 1040b19)을 드는 것 같다 그렇다면 사람(인 것)의
이데아 ‘두발 생물’은 ‘두발’이라는 이데아 와 ‘생물’이라는 이데아로부터 있
다 라고 말해도 괜찮을까 그는 분명히 두발(차임)를 에이도스라고 말하고
있다(448쪽 참조)

683) 그 상태가 변해 버리지 않았는가 정의는 이러 이러하다가 저러 저러
한 상태로 변하는 것들 곧 감각적인 것들에는 있지 않다는 것은 위에서 말
하여졌다

고스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클레오온이나 또는 소트라테에스 처럼 해는 각기 것들이다 결국,

무엇 때문에 이데아론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데아를 정의하지 못할까 그들도 만약 이데아를 정의하려 시도해 본다면 지금 까지 말하여진 것들이 분명히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따라서,

15 장은 텔레스는 이데아의 정의는 있지 않다 라는 로고스에 닥아서 기 위해서 감각적인 실체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한(αἰδιος) 감각적인 실체를 통과했다 그에 따르면 이 세 가지 것들의 정의는 있지 않다 이마 이것들에 대한 의견들만 있을 것이다

감각 실체들은 생성 소멸 하므로 그 상태가 알론하게 변한다 그러나 알려졌다 또는 인식되었다 가 알려지지 않는 또는 인식되지 않는 등 그 상태가 변하는 것에 대한 앎은 있지 않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δῶξα 1039a33) 만이 있을 뿐이다 앎(ἐπιτήμην 1039b32-33)을 통해 항상 필연적으로 진실한 논증(ἀπόδειξις 1039b31)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앎이 정의이다 따라서 따라서 각기 것들인 감각적이 실체들의 정의는 있지 않다 이 각기 것들을 정의하는 자는 자신의 정의가 뒤 떨어진다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한다 마찬가지로,

해 와 달 처럼 감각적인 영원한 실체의 정의도 있지 않다 이것들은 그 있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다시 말해 있다가 있지 않거나 있지 않다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 정의가 있지 않을까⁶⁸⁴⁾

이름으로부터 있는 로고스는 감각적인 것들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도 있다 이러한 로고스는 모든 것들에 공통이므로 반드시 알론한 것들에도 속한다 속한다면 첫 번째로 양자에 속한다 예를들어 '두발 생물'이 두

684) 모든 로고스가 정의인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308 쪽에서 말하여졌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 만이 정의 일 뿐이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감각적인 실체가 아니라 감각적인 실체 곧 각기 것(개별자)안에 있는 있음 바로 에이도스이며 이러한 에이도스에게 만 정의가 있다

발 과 생물 이 양자에 속하듯 말이다⁶⁸⁵) 영원한 것들의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그렇다 영원한 것들의 부분은 합쳐진 것 곧 영원한 것 자신 보다 먼저있으며 분리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먼저 있다 합쳐진 것이 사라지더라도 그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구 주의를 돛’ 또는 ‘밤이 숨어 있음’ 처럼 해에 지금 덧 붙혀고 있는 로고스들을 해(영원한 감각적인 각기 것으)로부터 제거해도 해는 있을 것이며 또 밤인데도 해가 여전히 떠 있거나 보여진다면 더 이상 그 해는 해가 아닐 것이다 해의 로고스는 ‘밤에 숨어 있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알론한 것에 이러한 로고스가 덧 붙혀진다면 설령 그러한 로고스가 덧 붙혀지는 해태론한 것이 생성된다해도 분명히 그러한 것 곧 알론한 것과 생성된 해태론한 것은 분명히 해일 것이다 유일 무이한 해에 지금 붙혀지고 있는 로고스가 붙혀지고 있는 것은 해가 아니면 알론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고스는 많은 모든 것에 공통적인 것이다 자!

유일 무이한 해가 그 보기로 들어졌긴 해도 어쨌든 영원한 감각적인 것들이 지니는 그 로고스들이 변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진실한 논증을 이루는 앎 으로서의 정의는 비록 그것이 영원히 있긴해도 그것에 덧 붙혀지는 로고스가 변하는 그러한 감각적인 영원한 것에는 있지 않다 따라서,

감각적인 각기 것들의 정의가 있지 않듯이 영원한 각기 것들의 정의 역시 있지 않다 영원한 감각적인 실체를 정의하려다 보면 그 정의가 뒤 집혀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나아가서,

이데아의 정의 또한 있지 않다 그는 이데아를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로 받아드리는 듯하다 그렇다면 분리해 있는 사람은 이데아 사람일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정의는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⁶⁸⁶)

13장에서는 보편자란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여졌으며 14 장에서는 [일 종의 보편자인] 그리고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인 이데아를 내 세우는 자

685) ‘당신’을 정의하려는 사람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깡 마른 흰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깡 마르고 흰’ 과 ‘사람’ 이 양자에 속할 것이다

686) 사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일까.....

들이 직면하는 불 가능하고도 불 합리한 로고스들이 말하여졌다 15 장 끝에서는 이데아론 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데아를 정의하지 못한 것은 [그 원인이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말하면 이데아는 각기 것이며 분리해 있으므로 정의되지 않는다(*ὑπιοσθαυ* 1040a8) 라고 그는 말한다 각기 것들(개별자들) 가운데 감각적인 실체들 과 감각적인 영원한 실체들은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까지 15 장 에서 말하여졌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실체들은 각기 것이고 이 두 가지 실체는 정의되지 않으므로 각기 것 가운데 하나인 이데아도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실체) 역시 각기 것이기 때문이다⁶⁸⁷⁾ 따라서 각기 것 모두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안되고 오히려 어떤 각기 것은 정의되나 어떤 각기 것은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분리’로 닥아서야 한다 그러나 ‘분리(됨)’ 역시 실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이 아닌가 따라서,

각기 것이며 분리해 있으므로 이데아는 정의되지 않는다 라는 로고스는 어딘가에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어디는 ‘분리’이다

‘사람’의 로고스 ‘두발 생물’을 **분리**해 있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로고스는 많은 것들에도 또는 단 하나에도 속하다고 해보자 첫째, 속한다면 ‘두발’ 과 ‘생물’ 이 양자에 속할 것이다⁶⁸⁸⁾ 그 부분이 합쳐진 전체(사람) 보다 먼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분리**해 있으므로 생물 과 두발도 **분리**해 있을 것이다⁶⁸⁹⁾ 둘째, ‘생물’ 과 ‘두발’이 ‘두발 생물’ 보다 먼저 있으므로 ‘두발 생물’이 소멸해도 ‘생물’ 과 ‘두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두발’(의) 이라는 이데아 와 ‘생물’(의) 이라는 이데아 등 이 두 가지

687) 분리해 있고 이것이어야 실체이라는 말은 너무 거둬 나에 의해 말하여졌으므로 그 출처를 여기에 제시하지 않는다

688) 영원한 것들의 로고스도 이와 같다

689) 분리해 있음에 대한 논의는 율김 과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이데아들로부터 ‘사람(두발 생물)’(의) 이라는 이데아가 있을 것이므로 ‘생물’과 ‘두발’은 많은 것들의 *카테애고리아*가 되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람(두발 생물)’은 **인식될 수 없다(어떻게 인식될까 πώς γνωρισθήσεται ; 1040a25)** 하나 보다 많은 것의 카테애고리아가 될 수 없는 이데아인 것(두발 과 생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이데아는 각기 모든 것이 나누어 지는 [보편자이기⁶⁹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리된 **이데아는 인식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에는 앎도 없으며 정의도 없다 설령 그것에 대한 로고스는 영원한 감각적인 실체 처럼 있을 지언정 말이다

휴우.....지금 내가 맞게 말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어찌 났건 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이데아를 부정(否定的)함 으로서 말하고자 했던 것을 집어 내려고 무단히 발 버둥 쳤다 그가 부정하려한 것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만이 실체에 대해 그가 긍정적(肯定的)으로 말한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잠재적으로 있는 실체들에 관해 말하므로서 이어지는 16 장을 연다

“(XVI) 실체들 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잠재적으로(δυνάμεις 1040b6) 있다 생물의 부분들 - 이(부분들) 가운데 어느 것도 분리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⁶⁹¹) 분리될 때 이것들 모두는 단지 질료로서 [만] 있다 - 과 흙 과 불⁶⁹²) 과 공기 [등이 그렇다]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하나가 아니며⁶⁹³) 소멸하기 전 까지 덩어리(ὁ ὅρος 1040a9)로 있

690) 여기서 13 장 과 14 장 과 15 장 그리고 그 이전 장들이 한 곳으로 쏠려들어 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691) 그렇다면 분리해 있지 않는 것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있는 것들이란 말인가

692) 불 등과 같은 순수한 몸들도 실체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282 쪽을 참조하시오

693) 현실적인 것들은 하나인 것이다 라는 말인가

어서 이것들로부터 하나인 것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을 지닌 것들의 부분들 과 영혼의 부분들을 잠재 와 현실(έντελεχεια 1040b12) 양자적으로 생성하는(있는)⁶⁹⁴ 것으로 사람들은 쉽게 간주할 것이다 [영혼의 부분들은] 자신들과 묶여진 것들(ταίς καμπαίς 1040b13)의 움직임의 아르케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떤 생물은 나뉘어져도 산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들은 어거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레 하나로 성장하여 연속적일 때만 잠재적일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것은 비 정상적(πῆρωσις⁶⁹⁵ 1040b16)이기 때문이다 ”

실체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잠재적으로 있으며 또한 어떤 것들은 잠재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있다는 것이 말하여졌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하나도 심지어 있는 것도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

“ 나아가서, 하나도 있는 것 처럼 말하여지므로⁶⁹⁶ 그리고 하나의(τού ἐνός 1039b17) 실체는 하나(μία 1039b17)이며 자신들의 [실체가] 수적으로 하나(μία)인 것은 수적으로 하나(ἐν 1039b17)⁶⁹⁷이므로 분명히 하나도 있는 것도 프라그마들의 실체일 수(ένδέχεται 1040a18) 없다 요소에(로) 있음도 아르케로(에) 있음도 실체일 수 없듯 말이다⁶⁹⁸ 그런데,

694) 본문에는 ‘기네에타이(생성되다)’라고 나와 있으나 있다라고 옮겨도 될 듯 한데.....아마 생성되다가 맞을거야.....

695) 잠재적으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있는 것이 잠재적으로 있는 것은 비 정상적이라는 말일 게다

696)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것 처럼 하나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도 있는 것으로 말하여진다는 것인가

697) 그에 따르면 수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동일한 것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나는 거듭 필요한 곳에서 말하였다

698) 여기서 우리는 텔레스가 실체라는 낱말을 아주 섬세하게 있음 또는 있는 것과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우시아(실체)라는 말은 에이나이(있음)의 현재 분사 여성 단수 1 격이므로 곧 있다(에이나이)의 변화 형(있음, 우시아)이므로 그 문법적인 뜻이 원형 있다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어떤 것을] 더 잘 인식하기 위해서 아르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사해야 할 것이다 한 편으로 이것들⁶⁹⁹가운데 있는 것 과 하나는(τὸ ὄν καὶ ἐν 1040b21) 아르케 와 요소 와 원인 보다 더 실체적⁷⁰⁰이다 그러나 만약 알론한 어떤 것[과]도 공통적인⁷⁰¹은 실체가 아니라면 이런 어떤 것들도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자신을 제외한 어떤 것에도 또는 실체가 그것의 실체인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지니는 바로 그것에도 속하지(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하나는 동시에 여럿(πολλαχῆ, 여러 곳?, 1040b25)으로 있지(속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공통적인 것은 동시에 여럿으로 있(속한)다 따라서 분명히 보편자들 가운데 어떤 것도 분리되어 각기 것 과 나란히 있지(속하지) 않(는)다(ὑπάρχει⁷⁰² παρὰχώρας 1040b23)⁷⁰³)”

하나 와 있는 것이 실체가 아닌 원인은 실체란 알론한 어떤 것과도 공통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체는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나는 아주 신물나게 말했다 그래서 그래서 그에 따르면 하나도 있는 것도 아르케도 요소도 원인도 순수한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실체이기는 한데 그럴 경우 하나 와 있는 것이 나머지 것들 보다 더 실체이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는 ‘있는’ 것(온 : 에이나이의 현재 분사 남성 단수 1 격)도 같은 분사 형이긴해도 ‘실체(우시아)’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하물며 ‘있음(에이나이)’과 실체가 어찌 구분이 아니되겠는가

699) 있는 것 과 하나 와 아르케 와 요소

700) 더 실체적이다 라는 말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류는 종 보다 덜 실체적이다 라는 범주론 170 쪽을 참조하라

701) 486 쪽 아래서 네 번째 줄에 나오는 ‘공통적’ 이라는 말 그리고 456쪽 아래서 4 번째 줄에 나오는 ‘공통적’이라는 말과 비교해 보라

702) 휘파르케인에 대한 나의 번민은 413쪽을 참조하라

703) 각기 것과 분리되어 나란히 [어떤 것에] 속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어떤 보편자도 각기 것과 분리해서 각기 것과 나란히 있지 않다 라는 말일리라

“ 그러나 에이도스들을 말하는 자들⁷⁰⁴)은 한 편으로 만약 [에이도스들이]실체들이라면 그 에이도스들이 **분리**해 있다 라고 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옳은(ὀρθός 1040b28)반면 다른 한 편으로 에이도스를 여럿에 걸친(ἐπι 1040b29)하나 라고 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원인은 이러한 실체들이 무엇인가를 선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곧 [실체들은] 각기 것들 과 감각적인 것들에 나란히 [떨어져] 있는 소멸하지 않는 것들(αἱ ἄφθαρτοι 1040b31)이다 라고 선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체들을] - 우리가 알고있는 그러한 [실체들인] - 소멸하는 것들과 그 에이도스에 있어서 동일한 것들(τὰς αὐτὰς 1040b32)로 만들었다 감각적인 것들에 자체(τὸ αὐτό, 동일한 것, 1042b34)라는 낱말을 덧붙여 사람 사람자체(과 동일한 것)와 말자체(과 동일한 것 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별들⁷⁰⁵)을 보지 못 한다 하더라도 그 별들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과 나란히 [있는] 영원한 것들이라고 나는 상정한다 그래서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것도 없이 필연적이다 그렇다면(οὖν 1041a4),

보편자들 가운데 어떤 것도 실체라고 말하여지지 않으며 실체는 어떤 것도 실체들로부터 있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⁷⁰⁶) ”

13 장에 말하여지고 있는 보편자는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닌 그래서 많은 것들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그러한 것이므로 고유한 각기 것인 실체가 아니었다 14 장의 끝 역시 이러한 로고스로 맺어진다 그런데,

그 길이 약간 알론하다 13 장에서는 보편자를 축으로해서 로고스를

704) 이들은 플라톤 까지 포함한 이데아론 자들을 가리키는가

705) 여기서 들어진 별들 이라는 보기는 486 쪽에서 들어진 유일 무이한 해 와 달과 동일한 선상(線上)의 것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알고있는 그러한(실체들인)’ 이라는 구(句)가 마음에 걸린다

706) 어떤 보편자도 실체가 아니다 라는 것은 456 쪽 이하에서 말하여졌으며 실체는 (현실적인) 실체들로부터 있을 수 없다는 것은 462 쪽에서 이미 말하여졌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실체에 관한 로고스는 위 쪽들이 속해 있는 13 장과 직접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펼치면서 그 보편자가 실체라면 이러 이러한 (불 합리한) 결론이 잇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므로서 실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14 장에서는 실체를 축으로 해서 펼치면서 실체는 보편자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무리 짓는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다 13 장이 더 포괄적이기는 해도 말이다

그는 많은 실체들이 잠재적으로 있는 반면에 잠재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있는 실체도 있다 라고 말한다

생물의 부분들 과 흙 과 불 과 공기 처럼 실체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잠재적으로 있다 이것들은 소멸하기 전 까지 텅어리로 만 있어서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인 것들은 이것들로부터 생성된다 그러나,

영혼의 부분들 과 영혼을 지니는 것들의 부분들은 자신들과 묶여진 것들의 움직임의 아르케를 지니므로 잠재 와 현실 이 양자적으로 있다(생성한다) 이 때문에 어떤 생물들은 나뉘어져도 산다 어거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레 성장하여 이 부분들이 연속적인 하나일 때 만 잠재적으로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잠재적으로 있는 것은) 비 정상적이다

나아가서 그는 하나 와 있는 것 과 아르테 와 요소 와 원인도 실체가 아니라 라고 말한다

나아가서, 하나($\mu\iota\alpha$)의 실체는 하나($\xi\nu$)이며 자신들의 실체가 수적으로 하나($\mu\iota\alpha$)인 것은 수적으로 하나($\xi\nu$ 1039b17)이고 하나 역시 있는 것 처럼 말하여지므로 분명히 하나도 있는 것도 프라그마의 실체일 수 없다 요소로 있음도 아르테로 있음도 실체 일 수 없듯 말이다 만약 실체는 알론한 것과 공통적이지 않다면 이(하나 와 있는 것 과 아르케 와 요소 와 원인)것들은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어떤 것에도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아르케 와 요소 와 원인 보다 더 하나 와 있는 것은 실체이다⁷⁰⁷ 나아가서,

707) 있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도 여러 가

하나를 동시에 여럿으로 있지(속하지) 않으나 공통적인 것은 동시에 여럿에 속한다(있다) 따라서 분명히 어떤 보편자도 분리되어 각기 것과 나란히 있지 않다

이제 또 문제의 그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 라는 말이 또 나타난다 그러나 14 장에서 나타날 때와는 그 맥락(脈絡)이 약간 다른 것 같다⁷⁰⁸⁾

만약 [에이도스]가 실체라면 에이도스들은 분리해 있다 라고 말한다는 점에서는 에이도스를 말하고 있는 자들이 옳은 반면에 에이도스를 여럿에 걸친 하나 라고 말한다는 점에서는 옳지 않다 실체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에이도스에 대해서 옳게 말했다가 옳지 않게 말]한다

실체들은 각기 것들 과 감각적인 것에 나란히 [떨어져] 있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들은 선언 [했어야 했다]⁷⁰⁹⁾ 실체들을 이들은 - 우리들

지로 말하여지고 정의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그는 287쪽 과 306쪽에서 말한다 그런데 실체는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그가 직접 말하지는 않는 것 같다 비록 그 당시에 실체는 4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294 쪽에서 말하고 있고 범주론 176쪽에서 실체들은 쉬노오한 이름으로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고 있긴 해도 말이다 그러나,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 말하는 그를 따라가다보면 실체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순수하게 말하면 실체는 이것일 뿐이지만 또 어떻게 말하면 실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와 있는 것은 순수하게 보면 실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실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볼 때는 아르케 와 요소 와 원인 보다 하나 와 있는 것은 더 실체이다

708) 거기(417쪽 이하)에서는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 곧 이데아를 내 세우는 사람들은 불 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아주 불 합리한 사람들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여지는 반면 여기서는 에이도스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에이도스가 분리해 있다 라고 말하는 점에서 옳다 라는 식으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709) 본문에는 선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알고있는(ἴσμεν 1039b33) 그러한 [실체들인] - 소멸하는 것들과 종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감각적인 것들에 자체(동일함)라는 낱말을 덧붙혀 사람자체(과 동일한 것) 와 말자체(과 동일한 것)[가 감각적인 것들과 나란히 분리해 있다] 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별들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별들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ἡμεῖς ἦδ' εἴμεν 1041a2)과 나란히 있는 영원한 것들이라고 나는 상정한다 그래서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것도 없이 필연적이다

앞 장(486쪽)에서 그는 이데아론 자들이 이데아를 정의하지 못하는 원인을 이데아는 인식되지(알려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데아를 정의하려다 보면 그 때문에 정의가 안된다는 것이 진실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여기서 그들의 에이도스의 로고스를 그는 말하려하는 것 같다 로고스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 로고스가 정의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그들은 소멸하는 감각적인 것(실체)들과 그 에이도스에 있어 동일한 것을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분리시켜 그것들과 나란히 있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사람(인 것)과 나란히 그 사람 자체(그 사람과 종적으로 동일한 것)가 있어야했다 말 자체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감각적인 것들과 나란히 있는 소멸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실체이다 라고 말해야했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이들은 실체라면 에이도스들은 분리해 있다 라는 올바른 로고스를 지녔으면서도 에이도스는 여럿에 걸친 하나이다 라는 올바른 못한 로고스를 지니게되었다⁷¹⁰⁾ 결국,

텔레스에 따르면 플라톤을 포함한 이들은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나는 텔레스가 플라톤을 넘어 섰다고 스스로 생각한 지점⁷¹¹⁾이 바로 여

본문 옮김을 참조하라

710) 하나에 걸친 여럿이 에이도스이다 라고 말함은 무엇 때문에 잘못된가 걸쳐 있으려면 분리해 있지 않아야 하는데 그들은 분리해 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분리해 있지 않으면 에이도스가 아니라는 로고스가 필연적으로 진실이기 때문일까

기라고 말하고 싶다 그가 그토록 끝장내고 싶어하던 이데아론을 부정(否定) 하면서 받아드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16 장 끝에서 보기로 들어지는 별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별은 있다 라는 그의 로고스는 인식 과 있음 사이에서 어렵푸 시 떠오르는 경계를 그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리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더라도 그 무엇이 있다라고 말이다 이제,

그는 제에타 편 마지막 1열 일곱 번 째 장으로 달려간다 플라톤을 보 완해 넘어 섰다고 여겨지는 발 걸음은 가벼웠 겠으나 얼른 쉽게 발을 내 던 지는 못 했으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실체(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 해 말하기 시작한다 아마 비장했으리라 가슴도 설레었으리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위해지는 그 무엇 으로서의 그러한 [효과] 원인이기도 하며 맨 처음 움직이게 하는 무엇 으로서의 **있음의 원인**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실체이며 **질료의 원인**이기도하다 각기 것의 실체란 각기 것의 있음의 원인이다

“ (VII) 실체는 무엇이며 그리고 어떠한 것인지 다시 알론한 출발 [점]으로부터 말해보기로하자 이러한 출발 [점]으로부터 감각적인 실체들(τῶν αἰσθητῶν οὐσιῶν 1041a9)과 분리된 그러한 실체가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체는 아르케인 것이며 원인인 것이므로⁷¹²⁾ 이러한 측면에서 [실체

711) 497쪽 위에서 6줄에 나오는 ‘지점’과 연결시켜 나의 말을 숙고해보라 지금 나는 플라톤 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끊어지는 지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 서로 엇 갈리는 바로 이 지점이 더 나아지는 길목인지 아니면 더 나빠지는 길목인지 아니면 서로 보완하는 길목인지에 대해서 감히 나는 단언할 수 없다 단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어렵푹한 추측에 나는 기대고 있을 뿐이다

무엇이 나빠지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석사 박사 등으로 이어지는 논문 들이 답할 것이다

712) 바로 앞 장에서(498쪽)에서 그는 아르케와 원인은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물론 뒤 이어 [어떻게 보면] 실체이긴하다 라고 말하고 있긴 해도 말이다

를] 추적해보자

무엇 때문에(δὴ τι⁷¹³) 1041a11) 알려진 것은 알려진 어떤 것에 속하는가 라는 식으로 항상 ‘무엇 때문에(왜)’가 조사되었다. 무엇 때문에 음악적인 사람은 음악적인 사람인가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 했던 것 처럼 무엇을 통해서 사람은 음악적인가 또는 알려진 것인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무엇 때문에 동일한 것(αὐτὸ 1041a14)이 동일한가는 조사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라는 것 -예를들어 나는 달이 일그러진다는 것을 말한다’ 과 ‘**있음**(τὸ ὄτι καὶ τὸ εἶναι 1041a15)’에 분명히 **있는 것들**(ὅτινα 1041a15)은 속하기때문이다⁷¹⁴) [반면에,]

713) (그것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아주 심각하게 던짐으로서 형이상학 제2타편을 시작하였고 이제 까지 이르는 사이 사이에서도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음으로서 진지하게 로고스를 연이어 나간다. 1장에서 그는 있는 것은 ‘무엇’인가(291쪽) 라고 물으면서 다시 이 물음을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으로 바꾸어 묻는다.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는 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무엇인가] 또는 어떠한 것인가 라고 물으며(302쪽)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정의 안에는 헤대론한 것들이 있는데 그 정의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무엇 때문에 하나인가(411쪽) 라고 묻기 때문이다. 이제,

텔레스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마지막 장에서 산뜻한 답을 내리려한다.

714) 그것이 그것인 원인(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인 원인, A가 is A인 원인.)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 과 ‘있다(이다)’는 반드시 있(있는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달이 이그러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처럼 말이다.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인 원인을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 분명해서일까 아니면 ‘이라는 것’ - 예를들어 달이 일그러진‘다는 것’ - 과 ‘있음’은 분명히 ‘있는 것들’에 속하기 때문일까. 그러한 프라그마가 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프라그마(달이 일그러지는 사태, 범주 31쪽)인 것 있기 때문에 알려진 것(달)이 무엇 때문에 알려진 것(사태 - 기울어짐)에 속하는가를 우리는 조사해야한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달 과 일그러짐은 분명히 동일한 것이 아니리라.

다른 한 편으로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δτι 1041a16) 은 무엇 때문에(διὰ τι 1041a17) 그 사람은 사람이고 그 음악가는 무엇 때문에 음악인과 같은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로고스이다 각기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πρὸς αὐτὸ 1041a19) 나뉘어지지 않으며 이것은 하나(로)에 있음(ἕν 1041a19)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한 [말이다⁷¹⁵]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에 공통된 것이고 [그 물음과] 함께하는 [가장] 간략하고도[쉬운길]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람인 것(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인(τοιοῦτον⁷¹⁶) 1041a21) 생물인가는 조사할 수 있다(ζητήσεται 1041a20) 이것은 무엇 때문에 사람인 그 자가 사람인가를 조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을 통해서) 무엇이 어떤 것에(κατὰ τινος 1041a23) 속하는가(있는가)를 조사하고 있다 속한다는 것은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⁷¹⁷)

715) 그것이 그것이다라는 것(동일성)은 어떤 사람이 사람인 원인이요 로고스이며 어떤 음악가가 음악인 원인이요 로고스이다 그런데 각기 사람 또는 음악가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지(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각기 사람 또는 각기 음악가는 자기 자신과 하나(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을 제외하면 그 원인 과 로고스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일성을 지님으로서 만 어떤 사람은 사람이고 어떤 음악가는 음악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니다 그러한 동일성은 어떤 사람이 사람과 하나로 있다는 것을 말하며 어떤 음악가가 음악과 하나로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음악(가)는 음악이 아니다 따라서,

나뉘어져 (분리해) 있지 않는 한(πλὴν εἴ,이 아닌한, 1041a19) ‘그것은 그것이다(동일성)’ 어떤 사람이 사람인 원인 과 로고스요 어떤 음악(가) 이 음악인 원인과 로고스이다

716) 토이온데(그러한 것)를 텔레스는 실체(에이도스, 각기 것)인 이것(토테티)에 알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에 유념하라 티마이오스 148 쪽 과 형이상학 348 쪽을 참조하시오

717) 속한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어떤 사람이 생물에 속하고(어떤 사람이 생물로 있고) 생물로 어떤 음악(가)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있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사되는 것은 아무것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엇 때문에 천둥이 울리는가? 무엇(을 통해서) 때문에(διότι 1041a25) 구름(안)에서 소리가 생성되는가? 조사되는 것은 알론한 것이(알론한 것에 따라 그렇게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벽돌 과 돌들 같은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집인가? 분명히 우리는 그 원인(τὸ αἴτιον 1041a27)을 조사하고 있다 [바로] 이(원인)이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논리적으로(λογικώς⁷¹⁸) 1041a28) 말해서 [그렇다]

한 편으로 어떻게 보면(ἐπ' ἐνίῳν 1041a29)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예를들어 집 또는 침대의 경우 처럼 위해지는 어떤 것(τινος ἔνεκα, 어떤 것의 목적(目的), 1041a29)이요 다른 한 편으로는 어떻게 보면(ἐπ' ἐνίῳν 1041a30) ' [맨] 처음에 움직이게하는 무엇(τι ἐκίνησε πρῶτον 1041a30)이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그러한 원인⁷¹⁹)은 생성 과 소멸의 경우에 조사되는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해태론한 원인⁷²⁰)은 있음의 경우에 조사되는 것이다

알론한 것들에 따라(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을)[조사하는 경우에] 조사되는 것이 대 부분 간과된다(μὴ καταλλήλως 1041b33) 예를들어 사람은 무엇인가가 조사될 때 처럼 순수하게(ἀπλῶς 1041b1) 말하여지는 것

을 통해서(있기 때문에) 생물에 속하며 사람으로 있다

범주들 168 쪽 과 형이상학 343 쪽 과 413 쪽 과 499 쪽에서 나는 속하다 라는 낱말이 텔레스가 지니는 누우스의 어떤 부분을 이루는가에 대해 아주 곤혹스러워 했다 여기서 그에 의해 조금은 나의 곤혹스러움이 사그러질 것은 같다 무엇이 어떤 것에 속하는 것은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것이다 곧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어떤 것에서 스스로와 동일한 것을 낳고(335쪽)있는 것이다

718) 302 쪽에 나오는 '로기코오스'도 참조해보라

719) 집 과 침대 처럼 위해지는 어떤 것 다시 말해 어떤 것의 목적(효과원인)을 말한다

720) 맨 처음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서의 원인 곧 있음의 원인을 말한다

을 조사하긴 하나 이것은 [그렇고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그것을 대 부분] 규정(정의)하지 못 하기(μη διορίζειν 1041b2)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분명해 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사(調査)는 어떤 것의 조사 와 아무것도 아닌 것의 조사 사이의 경계에 있게 될 것이다

있음은 속함이며 지남이므로⁷²¹⁾ 무엇을 통해서(때문에) **질료**(τιήν ὄλην 1041b5)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무엇을 통해서 이것에 집이 있으며 집에 있어지고 있는 것이(δ, 무엇⁷²²⁾ 이것에(τοδι 1041b6)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은 이것에 [속하며] 또는 그 몸은 이것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되는 것은 **질료의 원인이다** 이것은 한 편으로 **무엇**(τι⁷²²⁾ 1041b8)이 그것에 의해 있는 그 **에이도스**이며 다른 한 편으로 **실체**이다 ⁷²³⁾ 따라서,

분명히 순수한 것들⁷²⁴⁾(τῶν ἀπλῶν 1041b9)의 경우에는 조사(탐구)도

721) ‘ . ἐπὶ δὲ δεῖ ἔχειν τε καὶ ὑπάρχειν τὸ εἶναι, (1041b4-5) ’

722) 이 무엇(τι)에 대해서는 334쪽을 참조하십시오

723) 앞에서 μέν.....δέ(1041a29-30)로 구분된 것을 여기δέ.....δέ(1041b8-9)으로 구분되는 것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해지는 어떤 것 곧 어떤 것의 목적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며 있음의 원인은 실체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724) 순수한 것들은 무엇들을 말하는 것일까 질료와 분리된 것을 순수한 것이라고 텔레스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질료의 원인은 순수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미 질료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질료와 더불어 원인일 것이기 때문이다

히플로스(순수)한 것은 진정 나를 골치아프게 하는 것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보다는 있음의 원인 으로서의 실체가 순수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실체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이도스와는 알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는 301쪽을

가르침도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길은 험테론하다 ”

이로서 텔레스의 형이상학 제애터 편은 실제로 끝나는 셈이다 이어지는 22줄로 된 부분은 음절 과 이 음절을 이루는 요소인 철자를 보기로 들어⁷²⁵⁾ 음절은 자신의 요소들인 철자들 만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음절이 있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말은 이미 생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곳인 334-336쪽(7-9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무더기 처럼(ὡς σωρός⁷²⁶⁾ 1041b12) 아니라 음절과 같은(ὡς ἡ συλλαβή 1041b12) 그런 길로 어떤 것으로부터 합쳐지므로 모든 것이 **하나**이다⁷²⁷⁾ 그러나 음절은 [자신의] 철자(요소)가 아니다 βα는 β 와 α가 아니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그리고,

507쪽에 나와 있듯이 분명한 것은 알려진 것에 따라 (있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순수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것은 그 자체로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자체로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라고 말하는 302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게다가 307쪽에서는 ‘순수하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라는 말이 나온다 범주들(량 질.....)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하여지긴해도 ‘순수하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라고 그는 거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로워하는 가운데 질료와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가 나에게 순수한 것으로 떠오른다 라고 말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에이도스를 찾아가는 길은 순수하지 않는 에이도스 곧 생성하고 있는 에이도스 곧 질료의 원인 곧 생성의 끝(τὸ τέλος, 목적, 1015a11)을 조사하는 길과는 험테론하다

725) 음절 과 철자(요소)이 보기로 들어진 다른 곳 377 쪽을 참조하십시오

726) 497쪽(1040a9)에 나오는 덩어리도 참조해 보라 여기와 관련된다

727) 그는 모든 것을 그 자체로 하나로 보지 않는다(395쪽) 아마 하나라면 우연적으로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에 대해서는 416 쪽 이하를 참조하라 그리고 음절의 로고스(전체) 와 철자의 로고스(부분)를 보기로

살은 불 과 흙이 아니다 [요소들이] 흠어들어 살 과 음절은 더 이상 있지 않으나 철자들(τὰ στοιχεία, 요소들, 1041b15)과 불 과 흙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절인 것(어떤 음절)이 있으 [며] 철자(요소)들 - 소리(모음) 와 소리 아닌 것(ἄφωνον, 자음, 1041b17)- 뿐 아니라 헤태론한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살 [그리고] 불 과 흙 또는 뜨거움 과 참이 있을 뿐이 아니라 [이것들과는] 헤태론한 어떤 것이 있다 그런데,

만약 [그 헤태론한] 저것이 반드시 요소(이거나) 또는 요소들로부터 (어떤 것)이라[고 해보자] 한 편으로 요소라면 다시 로고스는 동일할 것이다 이것 그리고 불 과 흙으로부터 (있는) 살 과 더 나아간 알론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어서 무한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요소들로부터(있는 어떤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로부터가 아니라 여럿으로부터 (있을 것이거나) 또는 저것(이 앞)과 동일할 것이어서 이 경우에 우리는 살 또는 음절의 로고스와 같은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요소가 아닌 어떤 있음(εἶναι τι 1041b25) 일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한 편으로 이것을 살로 다른 한 편으로 이것을 음절로 있(게하는) 원인(곧 **있음의 원인** 일 것 처럼 보인다) 알론한 경우들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바로 이것(τούτο 1041b28)이 각기 것의 **실체**이다 이것이 있음의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라그마들 가운데 어떤 하나가(ἐντα 1041b28) 실체는 아니고 오히려 자연에 따라서 그리고 자연적으로 [요소들이] 실체[로] 묶이므로(συνεληκται 1041b30) **자연**(ἡ φύσις⁷²⁸ 1041b30)이 실체와 동일한 것일 것 처럼 보인다 자연은 요소가 아니라 아르케이다 그런데 요소는 (어떤 것이) 그것으로 나뉘어지는 그리고 (그 어떤 것) 안에 질료 로서 주어지는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음절의 α 와 β 처럼 말이다 ”

들어 에이도스 전체 와 에이도스의 부분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377쪽 이하를 참조하라

728) 자연 스레 생성하는 것의 경우 자연을 에이도스라고 말하는 335쪽을 참조하십시오

결국 질료적인 요소들 이외에도 무엇(에이도스)가 있어야 이 요소들이 묶어져 어떤 것이 있게 되므로 실체(에이도스)는 있음의 원인이다 라는 로고스로 제에타 편을 마친다 따라서,

끝나는 이 부분은 질료가 자기 스스로 움직여 질료 자신으로부터만 어떤 것을 생성해 내는 것이 아니라 질료 와 에이도스로부터 어떤 것이 생성 소멸한다 라고 말하는 7-9장(334-367쪽)을 생각나게한다

17 장을 요약하기 전에 17 장에서 주요한 낱말들로 나타나는 원인 자연 아르케 요소 등을 그가 델타 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우리를 17 장에 좀더 쉽게 닥아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실체는 각기 것의 있음의 원인이요 때에 따라서는 자연이라고도 말하여지나 요소 라고는 말하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자연도 일 종의 아르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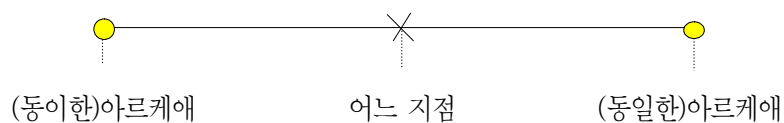
“ (Δ 편 I 장) 한 편으로 아르케에(ἀρχή 1012a14)는 프라그마인 것이 거기로부터 처음으로 움직일 [바로 거기가] 아르케에(시작)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선 또는 길의) 어느 지점에서의 (ἐνέθεν 1012a34) 헤태론한 반대[쪽]들로부터[의] 선 또는 길의 동일한 아르케에⁷²⁹)처럼 [말이다]

다른 한 편으로 각기 것이 거기(그것)로부터(ἔθεν 1013a2) 가장 잘 (생성)될(γένονται 1013a1) [바로] 그것(근원)이 (아르케에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배움에 있어 우리들이 반드시 첫 (아르케에) 그리고 프라그마의 아르케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가장 쉽게 우리들이 배우게 될 바로 그것 처럼 [말이다]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이] 처음으로 그것으로부터 생성되는(γίνετα 1013a4) [그리고 그 어떤 것] 안에 속하는(내재적인) [바로] 그것이 (아르케에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배의 용골 과 집의 기초 등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생물들 가운데 어떤 생물은 가슴이라고 어떤 생물은 두뇌라고 어떤 생물은 다른 부분이 그런 것이라고 상정되어진다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이] 처음으로 그것으로부터 생성되나 [그 어

729)



편 것] 안에 속하지 않는 그리고 움직임 과 변화(ἡ μεταβολή 1013a8)가 처음으로 거기로부터 자연스레 시작되는(ἀρχεσθαι 1013a8) [바로] 거기(그것)이 (아르케에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어린이는 자신의 아버지 와 어머니로부터 생성되고 싸움은 욕지거리로부터 (생성)된다

다른 한 편으로 움직이는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κατὰ προαίρεσιν 1013a10) 움직여지게하고 변하는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변하게하는 것이 (아르케에 라고 말하여진다) 그래서 도시의 장관들 과두정치인들 군주들 폭군들이 그리고 기교들 특히 이 기교들 가운데서 주로 건축기교(술)이 아르케에일 것이다

나아가서, 프라그마가 그것으로부터 처음으로 인식되는 [바로] 그것이 (아르케에 라고 말하여진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프라그마의 아르케에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전제들(αἱ ὑποθέσεις, 1013a16)은 논증들의 (아르케에 이다) 그런데,

원인들도 [아르케들과] 똑 같이 말하여진다 모든 원인들이 아르케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οὖν 1013a17),

(어떤 것이 그것)으로부터 있고 생성되며 인식되어지는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이 [위의] 모든 아르케에에 공통이다 또한(δέ 1013a19) 이러한 아르케에들 가운데 어떤 것은 [각기 것] 안에 속해있는 반면 어떤 것은 [각기 것]밖에(ἐκτός, 1013a20) (있다) 때문에,

[각기 것의] 자연이 아르케에이며 마찬가지로 요소들도 디아노이아(숙고)도 의도(뜻)도 실체도 위해지는 어떤 것도 (아르케에 이다) 선 과 아름다움이 여럿 들의 인식 과 움직임의 아르케에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그에 따르면 아르케에는 여섯 가지로 말하여진다 첫 째,

예를들어 길에서 움직이는 프라그마인 것이 그곳으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곳 으로서의 (움직임의) 아르케(출발 점) 둘째,

예를들어 그것으로부터 가장 쉽게 배우는 바로 그것 처럼 각기 것이 그것으로부터 가장 잘 되는 바로 그 아르케에(근원) 셋째,

예를들어 배의 용골 과 집의 기초 또는 어떤 생물의 가슴 혹은 어떤 생물의 두뇌 혹은 어떤 생물의 알론한 부분 처럼 각기 것이 그것으로부터 처음 생성되는 그리고 각기 것 안에 속해 있는 생성의 내재적(內在的)인 아

르케에 넷째,

예를들어 아기의 부모 또는 싸움의 육지거리 처럼 각기 것이 그것으로부터 처음 생성되긴하나 집의 기초와는 달리 각기 것 안에 속해 있지 않는 그리고 움직임 과 변화가 처음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레 시작하는 움직임 과 변화의 외재적(外在的)인 아르케에⁷³⁰ 다섯 째,

예를들어 군주들 과 건축기교 처럼 움직이는 것 과 변하는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하고 변하게하는 아르케에 여섯 째,

논증의 전제들 처럼 어떤 프라그마가 처음으로 그것으로부터 인식되는 인식의 아르케에 등으로 아르케에는 말하여진다 따라서

아르케에에는 ①움직임이 시작되는 곳 으로서의 아르케에 와 ②가장 잘 되는 것 으로서의 아르케에 와 ③생성의 내재적인 아르케에 와 ④생성 (또는 움직임 과 변화의) 외재적인 아르케에 와 ⑤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하고 변하게하는 것 으로서의 아르케에 와 ⑥인식의 아르케에 등이 있다

이러한 아르케에들로부터 각기 것이 생성되며 - 그러기에 원인들과 똑 같이 말하여지기도 한다 - 인식된다 따라서 여섯 가지 아르케에들 모두 첫 번째 것들이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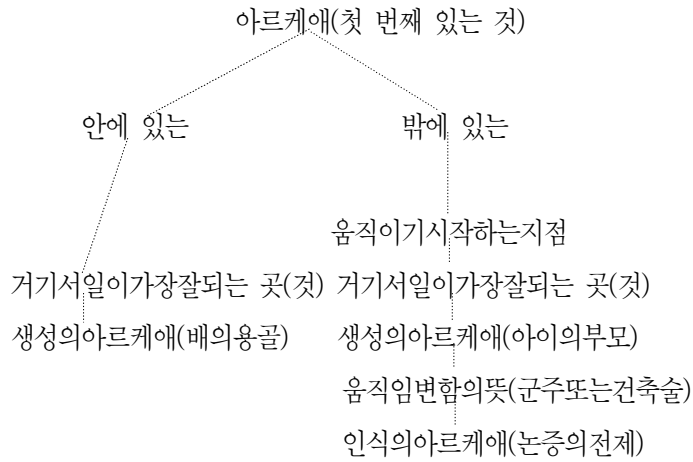
아르케에들 모두가 각기 것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아르케에들은 안에 있는 반면 어떠한 아르케에들은 밖에(ἐκτός 1013a20) 있다 아울러,

이러한 아르케에들은 각기 것의 자연이라고도 요소라고도 디아노이이라고도 뜻이라고도 실체라고도 위해지는 어떤 것⁷³¹(τὸ οὐ ἕνεκα, 목적, 1013a21)이라고도 말하여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르케에들을 다음 처럼 나누어 보자

730) 움직임의 이 아르케에를 움직임이 시작하는 곳 으로서의 아르케에와 비교해보라

731) 위해지는 어떤 것(목적)이라고도 말하여지는 원인은 선 과 아름다움은 여럿의 인식 과 움직임의 아르케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눔은 순전히 내 자의적이다 안(ἐν...1013a19) 과 밖(ἐκτός 1013a20)을 선명하게 구분하기는 해도 어떤 아르케가 각기 것 안에 속해 있고 어떤 아르케가 각기 것의 밖에 있는지를 텔레스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르케들은 원인들과 똑 같이(ἰσχυρός 1013a16) 말하여진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제 원인에 대해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어지는 그의 말을 따라가 보자

“(2 장) 안에 속하는(ἐνυπάρχοντος 1013a24-25) 어떤 것⁷³²이 그것으로부터 생성되는 [바로] 그 원인(αἴτιον⁷³³) 1013a24)이라고 한 편으로 하나의 길에서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흥상의 청동 그리고 은쟁 반의 은 그리고 이러한 류들 처럼 [말이다] 다른 한 편으로,

알론한 길에서 [보면] 에이도스 와 원형(τὸ παράδειγμα⁷³⁴) 1013a27)

732) 이렇게도 옮길 수 있으나 어떤 것 안에 속해 있는 이라고도 옮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로스는 내재적인 재료 로서 라고 번역한다

733) 원인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147 쪽을 참조하시오

734)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137 쪽 과 형이상학 355 ? 쪽을 참조하시오

(이 원인이라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모든 것들을 통해서 1 대(:) 2 와 전체적으로 수⁷³⁵) 와 로고스 안에 (있는) 부분들⁷³⁶) 처럼 [말이다] 나아가서,

그것으로부터 변화하는 것의 또는 머무르는 것의(τῆς ἠρεμύσεως 1013a30) 첫 번째 **아르케에**가 (원인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충고자는 [어떤 실천의] 원인이며 아버지⁷³⁷)는 아기의 (원인이고) 만드는 자가 만들어지는 것의 (원인이며) 변화하게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의 (원인 이다) 나아가서(ἔτι 1013a32),

끝(τὸ τέλος, 목적, 1013a33) 으로서 (원인은 말하여진다) 그런데 이것은 위해지는 어떤 것⁷³⁸)이다 예를들어 건강은 걸음의 (원인이다) 무엇 때문에 걷는가 라는 물음에 사람들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우리는 원인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 끝(건강)의 사이에(μεταξὺ 1013a36) 움직이는 알론한 것이 생성 되어질 때에도 그러하다 예를들어 건강[사이에서 생겨나는] 순해짐 또는 정화 또는 약들 또는 도구들 이 모든 것들은 비록 어떤 것들은 도구인 반면 알론한 것들은 작용(τὰ ἔργα 1013b4)이듯 그 있는 것 으로서는 서로 차이나긴 해도 건강을 위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 편으로 원인들은 이렇게 거의 자주 말하여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예를들어 조각의 기교 와 청동은 해태론한 것에 따른 어떤 것이 아니라 흥상 으로서의 그 흥상의 (원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길에서 [원인이] 아니라 하나는 질료 로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움직임이 그것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 [재원] 으로서 [원인이듯] 동일한 길에서 [그 기교 와 청동은 흥상의 원인이] 아닌 것 처럼 우리들은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말하며 그리고 우연적이지 않게 동일한 것의 여러 원인들이(πολλὰ τοῦ αὐτοῦ αἴτια 1013b5)

735) 로스는 이러한 것들이 한 옥타브(8개음)의 원인이라고 번역한다(로스 752)

736) 로고스(정의)의 부분들은 그 전체 보다 먼저 있다 라는 381 쪽 과 384 쪽을 참조하십시오

737) 아버지는 아기의 외부적인 아르케에 라고 말하여짐에 유의하라(510쪽)

738) 507 쪽 과 512쪽을 참조하십시오

있다는 것이 잇따르며 그리고,

예를들어 좋은 습성⁷³⁹의(τῆς εὐεξίας, 관습, 조건, 1013b10) (실)행 그리고 그 (실)행의 동일한 습성(조건)에서 처럼 동일한 길에서는 [원인은] 아니지만 하나는 끝 으로서 다른 하나는 움직임의 아르케에 로서 [원인이 듯] 서로의 원인(ἀλλήλων αἰτια, 1013b9)(이라는 것이 잇따른다)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ἐνίοτε 1013b12) 동일한 것이 반대들의 원인이다 예를들어 안전함의 원인인 항해사의 부재를 배의 난파의 탓으로 우리가 하는 것 처럼 어떠한 원인이 현재할 때 우리는 때로 짐을 실지만 부재할 때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⁷⁴⁰) 이 양자 곧 현재 와 부재(ἡ παρουσία καὶ ἀπουσία 1013b15)는 움직임의 원인이므로 [그렇다]

지금 말하여진 모든 원인들이 가장 분명한 4 가지 길들에 해당된다(πῖπτε 1013b17) 철자들은 음절들의 원인이며 질료는 가공된 것들의 원인이고 불 과 땅 과 이런 모든 것들은 몸들의 원인이며 부분들은 전체의 원인이고 전체는 결론의 원인들이다⁷⁴¹)이 (원인인) 것들로부터 그 (결과들) 각각이 있으므로 [그렇다] 그런데,

이(원인들) 가운데 어떤 것은 한 편으로 예를들어 부분들에서 처럼 기체 로서의(ὡς τὸ ὑποκείμενον, 1013b21) 원인이며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은 전체 와 합쳐진 것 과 에이도스 [에서 처럼] 있어 지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의 (원인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씨들 과 의사들 과 충고자들 과 행하는 자 전체는 변화 또는 습의 아르케에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나머지 것들은 알론한 것들의 끝(목적)이며 선 으로서의 (원인들이다) 위해지는 것들은 알론한 것들이 선 과 끝으로 있으려 하기 때문이다 선이라고 말했든 또는 나타나는 선(φαινόμενον ἀγαθὸν 1013b28) 이라고 말했든 차이 없다 ”

739) 습성에 대해서는 범주들 201 쪽을 참조 하시오

740) 항해사가 짐을 내리는 원인도 되고 짐을 싣는 원인도 된다는 말일 게다

741) 음절 과 철자 와 불에 대해서는 509쪽을 참조하고 전체에 대해서는 511 쪽을 참조하고 (로고스의) 부분에 대해서는 513쪽을 참조하라 이것들은 각각 실체 와 아르케 와 원인의 보기로 들어 졌을 것이다

여기서 그는 겹치는 원인들을 섬세하게 구분하여 묶으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러나 원인의 류를 확실하게 규정하여 수적으로 몇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단지 가장 선명하게(τοὺς φανερωτάτους 1013b17) 나타날 4 가지 원인 곧 기체(질료) 로서의 원인 과 에이도스(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로서의 원인 과 변화 와 쉼의 아르케 로서의 원인 과 끝(목적) 과 선 으로서의 원인 말할 뿐이다 이러한 원인들은 동일한 것이 여러 원인들일 수도 있으며 서로의 원인일 수도 있고 다시 동일한 것이 반대들의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원인들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말하기 시작한다

“ 그렇다면(οὖν 1013b28) 한 편으로 이러한 것들이 원인들이며 그리고 에이도스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요약해보면] 상대적을 적간해도 어떤 길에서 보면 원인들[의 다양함은] 숫적으로 여럿이다

원인들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심지어 동일한 같은 종(에이도스)의(αὐτῶν τῶν ὁμοειδῶν 1013b31) (원인들) 가운데서도 알론한 것은 알론한 것 보다 먼저이고 [알론한 것은 알론한 것 보다] 늦는⁷⁴²[데도 원인이라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의사 와 숙련가는 건강의(원인이며) 그리고 두 배[1 : 2] 와 수는 모든 것들(을 통한 것)의 (원인)이며 [특별한 원인들을] 포함하는 것들은 항상 각기 것에 따르는 [그 특별한] 것 (결과)들의 원인 [인 것 처럼 말이다] 나아가서,

예를들어 알론하게 보면 조각가가 흉상의 원인이지만 알론하게 보면 우연히 폴뤼클레이코스⁷⁴³가 조각가로(τῷ ἀνδριαντοποιῷ Πολυκλείτῳ εἶναι. 1013b35-1014a1)있으므로 폴뤼클레이코스가 (그 흉상의 원인인 것) 처럼 우

742) 먼저 와 늦음에 대해서는 범주들 261 쪽 이하를 참조하라

에이도스에 있어 동일한 원인들도 그 먼저 와 나중에 있다 의사 와 숙련가는 건강의 동일한 같은 에이도스의 원인이지만 숙련은 의사 보다 먼저이다 의사는 치료하는 기교에 숙련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연적인 (원인) 과 이러한 류(의 원인이 말하여진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δὲ 1014a1),

그 우연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도(τὰ περιέχοντα 1014a1) (원인이라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사람 과 전체적으로 생물은 흥상의 원인이다 폴뤼클레이코스는 사람이며 사람은 생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연적인 원인들 가운데서도 알론한 것들은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 이기도하고 더 늦기도하다 예를들어 만약 폴뤼클레이코스 또는 사람 만이 아니라 힘 과 음악도 흥상의 원인이라 말하여진다면 말이다 그런데,

고유한 것이든(τὰ οἰκείως 1014a7) 우연적인 것이든 이러한 모든 [다양한 원인들]과 나란히 한 편으로 뒤나뉘스(잠재)적인 것 으로서의 다른 한 편으로 활동적인 것 으로서의(ὡς ἐνεργούοντα 1014a8-9) (원인이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집 지어짐의(원인은) 집 짓는 사람(목수)과 집 짓고 있는 사람이다⁷⁴³) 원인들이 그것들의(결과들의) 원인이라 말하여지는 그런 것(결과)들의경우에도 이와 같다 예를들어 이 흥상의 또는 하나의 흥상의 또는 이(흥상과) 비슷한 것 전체의 그리고 이 청동의 또는 청동의 또는 질료 전체의 원인 이라고 어떤 것이 말하여질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우연적인 것 (결과)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나아가서,

한 편으로 마찬가지로 이것[우연적인 원인?] 과 저것[고유한 원인?] 이 함께 연결지워진(συμπλεκόμενα 1014a13) (원인이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우리들이 폴뤼클레이코스 (원인이라고도) 조각가 (원인 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폴뤼클레이코스 조각가 (원인 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수적으로 많은 여섯(ἕξ 1014a16)이지만 각기 두 가지 길에서 말하여졌다

각기 것 으로서의 또는 그 각기 것의 류 로서의 또는 우연적인 것 으로서의 또는 그 우연적인 것의 류 로서의 또는 이런 것들이 연결된 것들 로서의 또는 순수하게 말하여진 것들 로서의 (원인 이라 말하여지며) 나아

743) 집 짓는 사람 (목수)은 잠재적인 원인일 것이고 집 짓고 있는 사람은 활동적인 원인일 것이다

가서,

활동하는 것들로서의 또는 잠재적으로 [있는] 것들로서의 (원인이라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차이난다 한 편으로는,

활동적인 것들(ἐνεργούοντα 1014a21) 과 각기 것들은 동시에 있으며(καὶ 1014a21) 이것들은 자신들의 원인들[의 경우에는] (동시에)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치료하는 이(각기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이 각기 사람)에 (있지 않으)며 그리고 이(τῶδε, 1014a23, 각각) 건축가는 지어지고 있는 이(각기)것에 있지 않다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는,

잠재적인 것은 항상 (이것과 동시에)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집과 집 짓는 자가 동시에 소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위 옮김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원인은 여러 겹으로(πολλαχῶς 1013b31) 말하여므로 딱 꼬집어 몇 가지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는 없으나 그래도 네 가지로 말하여지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여섯 가지로 말하여질 수도 있고 그 여섯 가지가 다시 두 가지로 묶여져 말하여질 수도 있다⁷⁴⁴ 먼저,

모든 원인들은 두 가지로 묶어 말하여질 수 있다

모든 원인들은 잠재적으로 있든지 아니면 활동적으로 있어 서로 차

744) 자신이 있는 것을 말하면서 쓴 낱말들을 델타 편에서 설명하면서 텔레스는 순수한 하나 만의 뜻(쓰임새)를 말하는 것 보다는 그 당시에 말하여지는 여러 가지 쓰임새들을 나열하면서 그 보기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 당시의 일상적인 쓰임새를 자신이 교정하려는 듯하다 그렇다고 그 쓰임새들을 포기해야한다 라고 강요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 쓰임새를 더 분명히 갈라 주면서 이렇게 써야 올바르게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읽는 자들에게 일러주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쓰여지는 일상적인 용어들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단 하기 버리는 것이 있다 이테아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테아 그 당시의 쓰임새는 받아드린다

이나기 때문이다⁷⁴⁵) 어떻게 차이냐는가 그에 따르면,

활동적인 것들은 각기 것들과 동시에 있다 예를들어 [치료하는 사람은 이것(τῷδε 1014a22)에 있다 곧 이 사람 또는 이것이 치료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원인에 있어서는 활동적인 것이 각기 것과 동시에 있지 않다 예를들어 치료하는 이것은 건강해지고 있는 이것에 있지 않으며 이 건축가가 지어지고 있는 이것에 있지 않다⁷⁴⁶)반면에,

잠재적인 것의 경우에는 항상 동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집 짓는 이것 과 이 집이 동시에 소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⁷⁴⁷) 다음으로,

745) 차이 나므로 동시에 있지 않다

해태론하지만 종에 있어 또는 류에 있어 또는 유비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수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으로 있는 한 차이냐는 것이라 말하여진다 라고 하는 범주들 258쪽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신의 종들 또는 질료가 여럿이거나 또는 자신의 실체의 로고스가 여럿이면 해태론한 것이라 말하여진다 라고 그리고 해태론한 것은 전체적으로 동일에 대립된다 라고 말하여지고 있기도 하다

746) 동시에 있지 않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동일한 것은 동시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범주들 258-259쪽 참조하십시오

747) 무엇을 통해서(왜) 어떤 원인들은 잠재적이며 어떤 원인들은 활동적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선명하게 여기서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활동적인 것 과 잠재적인 것 사이의 구분은 분명하게 주어지나 이것들의 원인들 사이의 구분은 여기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활동적인 것들은 반드시 이것과 동시에 있으나 잠재적인 것들은 반드시 그런 것 만은 아니다 라는 그의 로고스는 활동적인 것은 잠재적인 것과 분명히 차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활동적인 것의 원인(ὅν αἴτια 1014a22)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잠재적인 것의 원인에 대한 언급은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는 여기서 잠재적인 것 또는 활동적인 것의 원인들을 문제삼고 있지 잠재적인 것 또는 활동적인 것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는 여기서 어떤 것의 원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지 어떤 것 그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모든 원인들은 여섯 가지로 말하여질 수도 있다 첫째,

심지어 동일한 같은 종의 원인들 가운데서도 먼저 것 과 나중 것이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리라

물론 1014a24에 나오는 ‘ τὰ δὲ κατὰ δύναμιν οὐκ ἀεί ’의 ‘δ (때)’가 어디에 걸리는 가를 분명히 밝히면 그 혼란을 사라질 수 있다 이 ‘때’는 1014a21에 나오는 ‘μὲν(멘)’에 분명히 걸리므로 한편으로(μὲν) 활동적인 것은 각기 것(이것)과 동시에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δὲ) 잠재적인 것은 (각기 것 과) 항상 (동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옮겨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활동적인 것들의 원인의 경우 그 원인(치료하는 이 사람)은 건강해지는 이 사람에게 있지 않으며 이 건축가(원인)은 지어지고 있는 이 집에 있지 않다 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므로 원인의 경우에도 활동적인 것 과 이것은 동시에 있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잠재적인 것들의 원인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텔레스는 이에 대해 말이 없고 단지 ‘ τὰ δὲ κατὰ δύναμιν οὐκ ἀεί φθείρεται γὰρ οὐκ ἔστιν ἡ αἰτία καὶ ἡ ὁδοῦμος. (1014a24-25)’ 라고 말한다 ‘다른 한 편으로 잠재적인 것은 항상 (이것과 동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집 과 집짓는 그 자가 동시에 소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제,

만약 잠재적인 것들 과 이것이 동시에 있다면 그리고 활동적인 것은 항상 동시에 있는 반면 잠재적인 것들은 집 과 집짓는 자가 동시에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항상 이것과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잠재적인 것들의 원인은 항상 이것과 동시에 있을까 그렇지 않다 라고 이 물음에 대답한다면 항상 동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잠재적인 것의 원인 과 활동적인 것의 원인은 어떻게 차이날까 그에따르면 치료하고 있는 이 사람은 건강해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있지 않으므로 활동적인 것의 원인은 이것(구체적인 개별자)와 동시에 있다 라고 말하여질 수 없으며 물론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것들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있다’는 ‘(...)에 있다’와 헤태론할 것 같은데....

있으므로 각기 것 으로서의 원인이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의사 와 숙련가는 건강의 원인이라고 말하여짐에도 불구하고 의사 보다 숙련이 먼저이며 두 배 와 수가 한 옥타브(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하여짐에도 불구하고 수 와 두 배 가운데 어느 하나가 더 먼저이고 그리고 결과 하나의 원인들이 각기 것 으로서의 여럿인 경우가 있다 둘째,

이러한 각기 것의 류 로서의 원인이 말하여진다 셋째,

조각가가 흉상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폴뤼클레이코스가 조각가이므로 폴뤼클레이코스가 흉상의 원인이라 말하여지듯 우연적인 각기 것 으로서의 원인이 말하여지며 넷째,

이러한 우연적인 각기 것의 류 로서의 원인이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사람 과 일반적인 생물이 흉상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폴뤼클레이코스는 사람이며 사람은 생물이기 때문이며 우연적인 것들 가운데서도 먼저 와 나중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만약 폴뤼클레이코스 또는 사람 만이 아니라 힘 과 음악도 흉상의 원인이라 말하여진다면 말이다 다섯 째,

이런 것들이 연결된 것들 로서의 원인이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그 원인은 폴뤼클레이코스도 조각가도 아니라 폴뤼클레이코스 조각가이다 라고 우리기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 여섯 째,

순수하게 말하여진 것들 로서의 원인이 그에 따르면 말하여진다⁷⁴⁸) 고유한 것이든 우연적인 것이든 이런 다양한 원인들과 나란히 잠재적인 원인과 활동적인 원인이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집(지음)의 원인은 집짓는 사람(목수, 잠재적인 것) 과 집짓고 있는 사람(활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흉상의 원인도 이와같으며 우연적인 것의 원인도 이와같다 그런데,

여섯 가지로 말하여지는 원인의 보기들은 나는 어거지로 그 원인들에 짜 맞추어 보았으나 텔레스가 확실하게 짜 맞춘 것은 아니므로 위 처럼 요약하는 것은 그리 정확한 요약은 아닐 것이다 그에 따르면 완전히 선명하게 구분하여지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게 구분해서 네 가지로 원인은 말하여질 것이다 첫째,

748) 순수하게 말하여진 것들 로서의 원인이 그에 따르면 말하여진다 그런데 순수하게 말하여진 것들이 무엇인가가 지금 나에게 선명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을 잠재적인 것 과 활동적인 것으로 일단 받아드려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으리라

그것 안에 속하는 어떤 것이 그것으로부터 생성될 경우 그것은 어떤 것의 원인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청동은 홍상의 원인이며 은($\delta \alpha\rho\rho\rho\varsigma$, 銀, 1013a25)은 은쟁반의 원인이다 둘째,

예를들어 2대1 과 수 전체 와 로고스적인 부분들이 모든 것[옥타브]의 원인인 것 처럼 에이도스 와 원형이 원인이라 말하여진다 셋째,

그것으로부터 변하거나 또는 머무르는 바로 그 첫 번째 아르케애가 원인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충고자는 어떤 실천의 원인이며 아버지는 아기의 원인이고 만드는 자는 만들어진 것의 원인이며 변화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의 원인이다 넷째로,

위해지는 어떤 것 으로서의 끝(목적)이 원인 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 들어 걷는 것의 원인은 건강이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걷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건강(끝)에 이르는 도중에 있는 순해짐 과 정화 와 약들 과 도구들이 모든 것들 그 있음에 있어서는 차이나나 건강을 위해 있으므로 이런 것들의 원인은 건강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예를들어 어떤 홍상(조각품)의 원인은 기교(움직임의 재원) 와 청동(질료)등 여러 가지이며 이 원인들 각각 알론한 길에서 원인인 것 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하며 마찬가지로 비 우연적으로 동일한 것의 여러 원인들도 말한다 나아가서,

예를들어 좋은 습성의 실행 과 그 실행의 동일한 습성에서 처럼 서로의 원인들을 우리는 말하기도 한다 이것들은 동일한 길로 서로 원인들은 아니긴 해도 하나는 끝 으로서 다른 하나는 움직임의 아르케애 로서 서로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예를들어 안전함의 원인인 항해사의 부재를 배의 난파의 원인이라고 우리들이 말한다면 동일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반대들의 원인이다 그 항해사가 현재할 때 우리는 짐을 실지만 부재하면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 양자 곧 현재 와 부재는 움직임의 원인이므로 그렇다

원인은 무엇($\tau\iota$)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어떠한 것들($\tau\iota$)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할 뿐이다

질료 와 에이도스(원형) 와 끝(목적) 과 변화와정지의 첫 번째 아르케에 등 4 가지가 원인이라고 말하여지며 이러한 원인들은 고유한(τὰ οἰκεῖ ὡς 1014a7)각기 것 과 각기 것의 류 와 우연적인 각기 것 과 각기 것의 류 와 이런 것들의 연결 그리고 잠재적인 것 과 활동적인 것 등에따라 그렇게 원인 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 가운데 어떤 원인들은 서로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동일한 원인이 반대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서로 헤태론한 길에서 동일한 하나의 여러 원인이 되기도한다 그런데,

그는 511 쪽에서 아르케에와 똑 같이 원인들이 말하여진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로고스들도 아르케에들과 별 차이 없는 것 같다 아르케에는 목적(끝)이라고도 말하여지며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것)이라고도 말하여지고 생성이 그것으로부터 안 과 밖으로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도 말하여지므로 원인들과 아르케들은 같은 것일 것 같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것들에서 굳이 차이 점을 찾아 보라고 한다면 **에이도스**라는 낱 말이 거기서는 나타나지 않는 - 그러나 실체(우시아, 1013a21)라는 낱 말은 나타난다 - 반면에 여기서는 **인식**(γνώσῶν 1013a14)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그렇다면,

어떻게 아르케에 와 원인은 서로에 대해 있으며 어떻게 헤태론한 것일까 동일한다면 원인 이라는 말은 쓰여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 나는 답할 수 없을 것 같다 내 나이 40에 답할 수 없다면 영영 답할 수 없다는 말일까 어쨌든,

이와 더불어 헛갈리는 낱 말인 요소에 괴롭더라도 닥아서 보기로 하자

“ (자신) 안에 속해(있는 그것)으로부터 처음으로 (어떤 것이) 합해지 는(σύχεται 1014a26) 그리고 헤태론한 증으로 종적으로 나뉘어질 수 없는 [그것이] 요소(στοιχείον 1014a26)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소리가⁷⁴⁹⁾ 그것들로 합해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그것들로 [나뉘어지는 동안에도] 그것들과 종적으로 헤태론한 알론한 소리들로 더 이상 (나뉘어지

749) 509쪽에 나오는 소리와도 연관해서 여기에 나오는 소리를 숙고해보라

나 않는) 소리의 [그] 요소들 처럼 [말이다] 그러나 저것(소리)들은 나뉘어
진다면 물의 부분들은 물인 것 처럼 같은 에이도스의 부분들일 것이다 그러
나 음절의 부분은 (음절이 아니다) 이와 같이,

몸들의 요소들에 관해 말하는 자들은 몸들이 궁극적으로 그것들로 나
뉘어지지만 저것들은(ἐκείνα, 몸들, 1014a33) 더 이상 종적으로 차이나는 알
론한 것들로 나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그것들)이 하나
이건 많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요소들이라고 부른다⁷⁵⁰ 그런데(δε 1014a35),

이와 거의 비슷하게 마찬가지로(παραπλησίως δε καὶ 1014a35) 기하
학적인 것들의 요소들 과 논증들의 요소들이 전체(일반)적으로 말하여진다
많은 논증들 가운데 속해(있는) 논증[에 있어서] 첫 번째 것들이 논증들의
요소들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δε 1014b2),

가운데 하나를 통해 세 개를 [진행하는] 그러한 합쳐진 로고스들(συν
οχυομοὶ 1014b2)이 [논증에 있어] 첫 번째 것들이다⁷⁵¹ 또한(δε 1014b3),

사람들은 요소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가운데(μεταφέροντες
1014b3) 여러 가지 쓸모 때문에 [그 요소들] 작은 있는 하나⁷⁵²(의) 것에
[적용한다] 이럼을 통해서 작고 순수하고(ἀπλοῦν 1014b5)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 요소라고 말하여진다 이것으로부터,

보편자⁷⁵³가 대 부분 요소이다 라고 말하여지게 된다 왜냐하면(ὅτι
1014b7) 하나이며 순수한 것 각각은 모든 것에 또는 가능한 많은 것에 또
는 여럿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 와 점이 *아르카이*(εἶναι
1014b7) 것 처럼 여겨진다 이제,

소위 류들은 보편자이며 나뉘어지지 않으므로(ἀδιαίρετα 1014b10) -
그 류들의 로고스⁷⁵⁴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 어떤 사람들은 류들은 요소들

750) 몸의 요소들 처럼 말이다

751)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로고스 세 개가 이어지는 합쳐진 로고스들(삼단
논법)이 논증의 요소이다

752) ἐν ὄν(있는 하나, 1014b4) 이라는 말을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49쪽에
나오는 ‘있는 하나’와 비교해서 숙고해 보시오

753)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456 쪽 이후를 참조하시오

이며 차이들 보다 더 (요소들)이다 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류가 (차이들 보다) 더 보편적이며 - 차이가 속하는 것에는 마찬가지로 류가 잇따르지만 류가 (속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모든(차이가) 잇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그리고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것은 각기 것의 요소이고 각기 것에 처음으로 속하는 것들 [곧 요소]이기 때문이다 ”

요소란 이런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확장 적용해서 심지어 이런 것들 까지 요소라고 말한다 는 식으로 요소에 대한 자신의 로고스를 펼쳐나간다

자신 안에 속하는 그것들로부터 어떤 것이 처음으로 합해질 경우 그것들은 요소들이라 말하여진다 따라서 어떤 것은 자신의 요소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자신의 요소들로 나뉘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자신의 종과 헤태론한 종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소리는 자신을 이루고 있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요소 곧 음절로 나뉘어지는 동안에도 소리는 자신과 종적으로 헤태론한 알론한 소리들로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의 부분이 물인 것 처럼 소리가 나뉘어진다면 같은 에이도스(소리)의 부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음절의 부분들은 음절이 아니다⁷⁵⁵⁾

몸들의 요소들도 이와 같다 몸들이 요소들로 나뉜다해도 그 몸이 차이나는 알론한 것들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몸이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이건 여럿이건 요소들이라 말하여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하학적인 것들의 요소 와 논증들의 요소에 대해서도 비유하여 말한다 그래서 많은 논증에 속한 것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논증들

754) 류들의 로고스에 대한 나의 아포리아는 458쪽을 참조하시오

755) 제에타 10 장(369쪽 이하)에 보면 음절의 부분은 철자(요소들)이며 이것들은 질료적인 것이 아니므로 철자(부분)이 음절(전체)에 먼저다 라고 말하여진다 철자 와 음절 과 소리 이것들의 어떻게 서로에 대해 있는가는 지금 나에게 황홀하면서도 난감하게하는 어려움이다 한 번 심각하게 숙고해볼 만한 것이다

의 요소 예를들어 삼단논법 이라고 말하여진다 가운데 하나 로고스를 통해 세 개 로고스로 진행되는 그러한 로고스들의 합이 바로 삼단논법 으로서 많은 논증들에 속하는 첫 번째 논증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쓰임새를 전이시켜(μεταφέροντες 1014a3) 아주 작고 순수하게 있는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를 요소라고 말하기도한다 이것으로부터,

보편자가 대 부분의 요소라고 말하여지게 된다 하나이며 순수한 것 각각은 (가능한) 모든 것 또는 여럿에 속할 것이[며 여럿에 속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⁷⁵⁶- 이 때문에 하나 와 점이 아르케인 것 처럼 여겨진다 - 이제,

소위 류들은 보편자이며 나뉘어지지 않으며 그리고 모든 것들에 공통적인 것은 각기 것의 요소이고 각기 것에 처음 속하는 것이므로 보편자는 요소이다 라고 그리고 차이 보다 더 요소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류가 차이 보다 더 보편적이기 때문이다⁷⁵⁷)

아르케 와 원인들에 이어 나는 요소들에 대한 그의 로고스들을 옮기면서 요약 정리해 보았다 아르케 와 원인은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을 정도

756) 같은 에이도스의 것이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한채 나뉘어진다면 그것은 자신을 이루는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요소들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은 자신들로 합해져 있는 어떤 것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것들이며 아주 작고 순수한 있는 하나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보편자이다 보편자는 여럿에 속한 것들이고 아주 작은 순수한 있는 하나 만이 여럿에 속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 와 점이 아르케에로 여겨지지 않는가

757) 차이가 속하는 것에는 반드시 류가 속해 있지만 류가 어떤 것에 속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어떤 것에 차이가 속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처럼 본문을 옮길 수 있다면 차이가 속하지 않는 그래서 단지 류만 속해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할 터인데.....그렇것 같진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옮겨야 할 것인가 ‘ἀκολουθεῖ (1014b13)’을 어떻게 옮겨야 할까 나는 ‘잇따르다’로 옮겼는데.....

로 엇 비슷한 것인 반면 요소들은 아르케 와 원인과는 사뭇 달랐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요소들은 바로 아르케와원인일 것 처럼 보인다 요소들로(εις 1014a33) 어떤 것들은 나뉘어짐과 동시에 요소들로부터(εξ 1014a26, 28)합해 지기 때문이다 물론,

합쳐진 전체(383쪽) 곧 생성된 것은 질료 와 에이도스로부터 있다 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렇긴 해도 우리는 에이도스를 요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는 요소를 질료 로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509 쪽) 에이도스(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는 질료(적인 것)이 있지 않기(때문이다⁷⁵⁸)

헛갈린다 게다가,

그는 또 자연을 에이도스인 것 으로서 보면서 자연을 요소가 아니라 아르케이다 라고 말하면서도(509쪽) 이제 어떻게 보면 요소이다(528쪽) 따라서 우리는 무거운 발 걸음을 자연을 향해 옮겨야만 한다

“ 한 편으로 어떤 길에서 보면 자연(φύσις 1014b16)은 자라는 것들의 근원(ἡ τῶν φύομένων γένεσις 1014b16-17)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웁실론(υ 1014b17)이 길게 말하여진다면 [길게 웁실론이 발음되어진 그런 것 에서 처럼 말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어떻게 보면 자라는 것들의 자람이 [그것]에 속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처음으로 자연이되는(φύεσθαι, 자라기시작하는, 생성하는, 1014b17) (바로 그것이 자연이라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자연스레 있는 것들 안에 그 자체로 속(해 있는) 첫 번째 움직임이 거기(그것)으로부터(ῥθεν⁷⁵⁹) 1014b18) 각기 것 안에(있기 시작하는) [바로 거기 그것이 [자연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예를들어 짝에서 처럼 꺾추에 의한 그리고 함께 자람 또는 [어떤 것으로] 자람에 의한 헤태론한 것의 성장(αύξηνον 1014b20)이 자라다(φύεσθαι 1014b20)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함

758) 그래서 순수하게 말하면 에이도스는 질료와 분리해 있는 것이다

759) ‘거기로부터’ 라는 말은 510 쪽 아르케에에 대한 로고스에서 어김없이 나타났던 것임에 유의하시오

계 사람은 접촉과 헤태론하다 한 편으로 접촉과(τὴν ἀφήν 1014b23) 나란히 헤태론한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은 아닌⁷⁶⁰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함께 자라는 것 안에는 접촉 대신에 [함께 자라는 것들을] 함께 자라도록 하는 그리고 질의 측면에서는 아니지만 연속 과 량의 측면에서 하나인 [바로] [함께 자라는 것들]양자 안에 있는 그 동일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자신의 뒤나무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모양지워질 수 없고(ἀποθμιζου 1014b27-28) 변화할 수 없는 자연스레 있는 어떤 것⁷⁶¹이 그것으로부터 처음으로 있거나 또는 생성되는 [바로 그것이] 자연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청동은 홍상의 그리고 청동 가구들의 자연이라 말하여지며 나무는 나무로된 것들의 자연이라 말하여진다 알론한 경우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각기 것이 있을 때 그 첫 번째 질료가 두루 보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길로 사람들은 자연스레 있는 것들의 요소들(τὰ στοιχεία 1014b33)을 자연이라 부른다 한 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이라 말하고 한 편으로 땅이라고 한 편으로는 공기라고 한 편으로는 이러한 것들과 알론한 것들이라고 한 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의 어느 하나라고 한 편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라고 말한다 나아가서,

알론한 길에서 보면 자연은 자연스레 있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자연은 합쳐진 첫 번째 것(τὴν πρώτην σύνθεσιν 1014a37)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엠페도클레스가 “자연은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ἀλλὰ 1015a1) 단지 섞어짐 과 분배를 통한 섞어짐일 뿐이다 자연은 사람들에게 의해 주어진 이름일 뿐이다” 라고 말했듯이 [말이다] 이 때문에,

자연(φύσει 1015a3)에는 (어떤 것이)있다 라고 하든 또는 (자연에서

760) 따라서 접촉으로 옮기는 것은 그리 적당한 것이 못된 것 같다 접촉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 과 무엇이 접촉하기 때문이다 가만.....여기서의 접촉은 일단 자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혼자 자라서 접촉하는 것으로 여기면 어떨까.....그래도 이상해.....그렇다면,

무엇으로 ‘ τὴν ἀφήν (1014b23) ’을 옮겨야 할까

761) 이제 비로서 ‘τ(어떤 것, 1014b27)’가 쓰여 졌다는 점에 유의하라 이제 실체의 차원에서 말하기 시작한다

어떤 것이) 생성된다 라고 하든 이미 자연스레(πέφυκε 1015a4) 생성되거나 또는 있는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은) 시작된다(ὑπάρχοντος, 에 그 어떤 것은 속한다, 1015a4)라고 말하는 자들은 아직 에이도스와 모르페에를 지나지 않는 자연을(τὴν φύσιν 1015a5) 지난다 한 편으로 예를들어 생물들과 이 생물들의 부분들처럼 이 양자(에이도스와 모르페에)[를 지닌] 것들은 자연스레(φύσει 1015a6)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자연은 그것에 대해 첫 번째 것인데다 *전체로서의* 첫 번째 것[인 그러한] 그 자체 두 겹(διχῶς 1015a8)적인 첫 번째 질료이다 예를들어 청동으로된 작품들의 경우에 청동은 그 작품들과 관련된 첫 번째 것인 반면 만약 녹여진 모든 것들이 물(ἕδωρ, 액체, 1015a10)이라면 *전체적[으로 보아]* 똑 같이 물이 (그 작품들에 관련해서 첫 번째일 것이다) 그리고 생성의 끝(목적)인 에이도스와 실체도 [그 작품들에 관련해서 첫 번째 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μεταφορᾷ⁷⁶²) 1015a11) *전체적으로* 모든 실체가 자연이라고 말하여진다 왜냐하면 자연도 실체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로(δὴ 1015a13),

말하여진 것들로부터 첫 번째로 주로 말하여지는 자연은 자신들 안에 움직임의 아르케에를 갖는 실체(들)이다 질료는 이러한(움직임의 아르케에) 것을 받아들이므로서 자연 이라고 말하여지며 그리고 생성과 자람은 이것(자연 으로서의 질료?)으로부터 있는 움직임 이므로 자연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자연은 잠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어떻게든 자연스레 있는 것들 안에 속하는 그러한 움직임의 아르케에이다 ”

원인에 대해 첫 번째로 주로 말하여지는 로고스를 말하지 않으므로서 나를 애매하게 했던 텔레스는 그러나 자연에 대해 주로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로고스를 말하므로서 어느 정도 나를 애매함에서 자유롭게 해주기는 하나 그러한 로고스로 나아가는 과정의 로고스들이 나를 괴롭히기는 때 일반이다 그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첫 째,

한 편으로 자연은 자라는 것들의 근원⁷⁶³)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762) 524쪽 1014b3에 나오는 같은 낱말의 쓰임새와 비교해 보라

763) ‘γένεσις (1014b16-17)’를 나는 여지껏 ‘생성’으로 옮겼으나 여기서는

다른 한 편으로 자라는 것들의 자람이 속하는 그리고 그 자람이 그것으로부터 처음 자라기⁷⁶⁴) 시작하는 그것이 자연이라고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자연스레 있는 것들 안에 그 자체로 속하는 첫 번째 움직임이 그것으로부터 각기 것 안에 있기 시작하는 바로 그것이 자연이라 말하여진다

이러한 세 로고스는 자연으로부터 자라기 시작한다 라는 로고스를 공통으로 지닌다 *자라는 것들의* 근원이 바로 자연이며 그리고 *자라는 것들의 자람이* 자연으로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며 그리고 *자연스레 있는 또는 생성하는 것들의 움직임*이 자연으로부터 처음으로 있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자연을 실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어쩔 수 없이 비록 한 낱말은 한 낱말로 옮기자는 철칙을 지키지 못하는 한 이 있더라도 ‘근원’으로 옮기고 말았다 슬프다

자연(튀시스의) 워실론(ω)이 길어져 ‘위오(ωω)’로 됴으로서 자라는 것들(튀오메오온)이 생겨난 것을 보면 자연은 자라는 것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그는 생각한다

764) 접촉(커지다) 과 함께 자람 등 두 가지로 자라다 라는 낱말을 그는 나눈다 커져서(접촉해서) 자라든 함께자라서 자라든 어쨌든 자라는 것이 헤태론한 것의 성장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헤태론한 것들이다 커지는 것(접촉하는 것)과 나란히 헤태론한 것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는 반면 함께 자라는 것들 안에는 (지 혼자) 커지는 것 대신에 (헤태론한 것과 함께 자라도록하는 그리고 질적으로는 하나가 아니지만 량적으로 연속된 하나인 그 동일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구분을 자연에 관한 로고스들에 적용할 수 있다 내가 커진다 (접촉한다)라고 옮겼던 그러한 자람은 자연으로부터 자라는 것들의 자람이 자라기 시작할 때 적용될 것이고 함께 자라다 라고 내가 옮겼던 그러한 자람은 다음에 말할 자연스레 있는 것들 안에 그 자체로 속해있는 첫 번째 움직임이 자연으로부터 움직여질 때(자랄 때) 적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이 확실하다라고는 내 자신도 말 못한다

자신의 힘(뒤나뒤스, 1014b28)으로서는 모양지워질 수도 없으며 변화할 수도 없는 자연스레 있는 어떤 것이 그것으로부터 처음으로 있거나 또는 생성하는 바로 그것이 자연이라 말하여진다 이러한 자연⁷⁶⁵)이 예를들어 청동 또는 나무이다 청동으로부터 흉상이 있으며 나무로부터 나무로된 것들이 있거나 또는 생성되기 때문이다 생겨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는 청동 또는 나무 등의 첫 번째 질료가 두루 보존된다 이러한 길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있는 것들의 요소들을 자연이라고 말한다⁷⁶⁶)불 또는 흙 또는 공기 등 등이 바로 이러한 자연이다 나아가서,

달리 보면 자연스레 있는 것들의 실체가 자연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연을 첫 번째 합쳐진 것이다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⁷⁶⁷)

이러한 자연은 아직 에이도스 와 모르페에를 지니지 않는다⁷⁶⁸)한편으

765) 그는 이러한 자연을 첫 번째 질료라고 말한다

766) 그런데 여기서 그가 들고 있는 보기들이 또 말썹을 불러 일으킨다 자연적인 생성 과 기교적인 생성 과 자동적인 생성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흉상을 기교적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분명히 340 쪽에서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는 여기서 흉상을 자연스레 생성된 것이라고 말하는가 그는 거기서 자연적인 생성의 보기로 자라는 것들(335쪽)을 들면서도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또 알론하게 생각하면 다음 처럼 말할 수도 있으리라

거기서도 기교적인 생성은 기교를 지닌자의 영혼 안에 있는 에이도스(기교)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말하여진다(335쪽) 바로 이 에이도스가 자연이지 않은가 자연적인 생성의 경우 자연이 바로 에이도스(335쪽)이듯이 말이다 글세,

이렇게 말하여질 수 있을까...아냐 그게 아니야 텔레스가 여기서 자연이라고 한 것은 청동은 그 자체 자연스레 있는 것이어서 그랬을 거야

767) 그래서 “ 자연은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섞어짐 과 분배를 통한 섞어짐일 뿐이므로 자연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일 뿐이다 ” 라고 엠페도클레스는 말했다 라고 텔레스는 언급한다

768) 자연에는 어떤 것이 있다 라고 하든 자연에서 어떤 것이 생성된다 라

로 생물들 과 이 생물들의 부분들 처럼 에이도스 와 모르페에를 지니는 것 들은 자연스레 있는 것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자연은 그것(들)에 대해 첫 번째 것인데다 전체로서의 첫 번째 것인 그 자체 두 겹적인 첫 번째 질료이다 예를들어 청동으로 된 작품들의 경우 이 작품들과 관련해서 첫 번째 것은 청동(자연①)인 반면 만약 녹여진 모든 것들이 물이라면 전체적으로 보아 물(자연②)도 그 작품들에 관해 청동과 똑 같이 첫 번째 것이며 마찬가지로 생명의 끝인 에이도스 와 실체도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을 모든 실체라고 비유적으로 말한다 자연도 어떤 실체(인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이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원인을 여기서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확실히 내게 집혀오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은 실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있는 것으로부터 어떤 것이 있거나 또는 생성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말하는 ‘자연’은 아직 모습(에이도스) 과 모양(모르페에)을 지니지 못했을 것이다 모습 과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은 예를들어 생물 과 그 부분들 처럼 ‘자연스레’ 있는 것들인 반면 자연은 이것들에 대해 첫 번째 것이면서도 자연스레 있는 것들 전체에 대해서도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다⁷⁶⁹⁾ 그래서

자연스레 있는 것들이기에 비로소 모습(에이도스)을 지니고 있다면 자신으로부터 자연스레 있는 것들이 있는 그러한 자연은 아직 미처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말을 그는 하는 것일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 비유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모든 실체가 자연이라고 말하여진다 자연도 어떤 실체이기 때문이다

고 하든 이미 자연스레 생성되거나 또는 있는 것으로부터 어떤 것이 시작된다 라고 말하는 자들의 자연은 모두 그렇다

769) 마찬가지로,

자연스레 있는 청동으로된 조각들의 경우에도 그렇다 자신으로부터 있는 조각들에 대해서 자연은 첫 번째 것이면서도 녹아진 모든 것들이 쇠물이라면 전체적으로보아 (쇠)물도 그 조각들에 대해 첫 번째 것이다

자연이 무엇 때문에 실체가 되는지 아직도 나에게 분명해지지 않는다
자연은 자연스레 있는 것들 또는 생성된 것들의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일까
그러기에 자연은 실체라는 말인가 자연적인 생성들 모든 것에 두루 보존되
있기 때문에 곧 깔려 있기 때문에 실체라는 것일까 범주들에서는 실체란 모
든 것들의 기체(모든 것들에 깔린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하며(범주들170
쪽) 형이상학에서는 첫 번째로 있는 것이 실체이다 라고 말하여지기는한다
(형이상학 288쪽)그런데,

“ 실체에 있어 가장 고유한 것인 ‘분리(성) 와 하나(임)’이 여기서 보기
로 들어지는 전체 로서의 물 과 에이도스(모습)에서 던지시나마 가리켜지지
않기 때문이다(형이상학298쪽) 그러나,

대충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 이리 이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자연을 실체라고 말하는 셈이 될 것이다 - 을 포착할 수
는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을 그가 포기하지 않는데에 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해서 다음 처럼 자연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 움직임의 아르케애를 지니는 실체가 첫 번째로 주로 자연
이라 말하여지며 이러한 움직임의 아르케애를 받아들인(δεκτικῆ 1015a16)므
로서 질료는 자연이라 말하여지고 생성 과 자람은 이 질료로부터 있는 움
직임이므로 자연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은 잠재적으로든 현
실적으로든 자연스레 있는 것들 안에 속하는 그러한 움직임의 아르케애이다
따라서,

자연을 실체라고 그리고 이러한 자연은 자연스레 있는 것들이 지니는
움직임의 아르케애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513쪽을 보면 이러한
자연은 곧 원인이라는 것이 쉽게 포착될 것이다 그렇다면 아르케애 와 원인
과 자연은 쉽게 뭉뚱그려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서로 험태론한 것이긴 해
도 말이다 그러나 뭉뚱그려진 이것에 요소는 쉽게 합쳐질 것 같지 않다 물
론 요소를 자연이라고 528쪽에서 그가 말하고 있기는 해도 말이다 이제,

그만 빙빙 돌고 “ 자연이 실체와 동일할 것 처럼 보인다 자연은 요소

가 아니라 아르케이다 그런데 요소는 (어떤 것이) 그것으로 나뉘어지는 그 리고 (그 어떤 것) 안에 질료로서 주어지는 그런 것이다 예를들어 음절의 α 와 β 처럼 말이다 (1041b30-33) ” 로 끝나는 제에타 편 마지막 장인 17 장으로 돌아가자 정리해보자 그는 이 장에서 감각적인 실체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실체와 분리된 실체를 추적한다

알론한 출발 점 곧 실체는 아르케인 것이며 원인인 것이라는 출발 점 으로부터 실체는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 말해보기로하자 그러면 감각적인 실체들과 분리된 그러한 실체가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알론한 것이 알론한 어떤 것에 무엇 때문에 속하는가에 있어서와 같은 ‘무엇 때문에($\delta\iota\alpha\ \tau\iota$, 왜, 1041a11)’를 조사하지 동일한 것이 무엇 때문에 동일한가에 있어서와 같은 ‘무엇 때문에’를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달 이 일그러진다는 것 [곧 사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⁷⁷⁰아울러,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생물인가에 있어서의 ‘무엇 때문에(왜)’도 우리는 조사한다 이 물음은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람인가 라는 물음과 [는 달리] 무엇이 무엇 때문에 어떤 것에 속하는 가라고 묻고 있으며 그리 고 속하는 것은 분명히 있음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 것도 조사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들어,

천둥이 무엇 때문에 울리는가 곧 구름 안에서 무엇 때문에 소리가 생 성되는가 라는 물음을 통해 조사되는 것은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에 따라 그렇게 있는 것이지 [아무 것도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벽)돌이 무엇 때문 에 집인가 라는 물음에서 우리는 분명히 원인($\tau\acute{o}\ \alpha\iota\tau\iota\omicron\nu\nu$ 1041a27-28)을 조 사한다 바로 이 원인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감각(질료)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에 따르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질료(감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37쪽) 그

770)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delta\tau\iota$ 1041a16)은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람이며 그 음악가는 무엇 때문에 음악가인가와 같은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로고스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각기 것(사람 또는 음악)은 자 신(사람 또는 음악)으로부터 나뉘지 않으므로 하나로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아주 간략하고 쉬운 것으 로서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다]

런데,]

어떻게 보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집 또는 침대 처럼 위해지고 있는 어떤 것(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움직이게 하는 무엇이기도 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이기 때문이다⁷⁷¹⁾이제,

있음은 속함이요 지님이므로 질료가 무엇을 통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무엇을 통해 이것에 집이 [있으며] 집에 있어지고 있는 이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이것에 속하거나 또는 그 몸이 이것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찾아지는 것은 질료의 원인인데 이것은 한 편으로 무엇이 그것에 의해서 있는 그 에이도스이며 다른 한 편으로 실체이다⁷⁷²⁾

실질적으로 제에타 편은 여기서 끝난다 이어지는 약간의 부분은 보기를 들어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연이 실체라고도 말하여진다 라는 새로운 로고스가 덧 붙여지기는 해도 말이다 그런데,

무엇 보다도 제에타를 끝내면서 내가 다시 끄집어 내야만 하는 것이 있다 순수하다고 말하여지는 것들은 헤태론한 길로 찾아져야한다고 그는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이도스가 순수한 에이도스 그리고 질료와 뒤섞인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에이도스로 나누어 말하여질 수 있다면 순수한 에이도스 곧 질료와 분

771) 목적 원인은 생성 소멸의 경우에 조사되는 것이고 처음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 으로서의 원인은 있음의 경우에 조사 되는 것이다 우리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조사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찾고져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있지 않는 것을 찾고져 하는 것인지 애매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를들어 사람(에이도스) 처럼 알론한 것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을 조사할 경우 그 조사 하고져 하는 바가 대 부분 눈에 얼른 띠지 않는다(간과 된다) 순수하게(ἀπλώς 1041b1) 말하여지는 것을 조사하긴 하나 이 경우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772) 따라서 순수한 것(질료와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들은 조사되지도 않으며 가르쳐지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을 찾는(조사하는) 길은 헤태론하다

리해 있는 에이도스를 찾아가는 길은 순수하지 못한 에이도스 곧 질료와 섞여진 에이도스를 조사하는 길과 헤테론한 길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에이도스(들)이 한 편으로 실체로서의 한 편으로는 생성되는 무엇이 그것에 의해 있는 그 에이도스로서의 질료의 원인이라고 그에 의해서 말하여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질료의 원인에 대한 이론(Θεωρητέον 10129a3)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텔레스에 따르면 이러한 원인은 한 편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의 끝(목적)이요 다른 한 편으로 어떻게 보면 맨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다 이 무엇도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성 과 소멸의 원인 으로서의 목적 과 있음의 원인 으로서의 맨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 등으로 원인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⁷⁷³) 이러한 두 갈래로 나뉘는 텔레스의 전체 생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의 누우스는 그 자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남은 약간의 끝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것으로 17장을 넘어가기로 하자 음절 과 철자(요소)를 보기로 들어 실체는 요소(철자, 부분) 와 음절과는 헤테론한 무엇으로서 음절과철자(소리(모음) 와 소리 아닌 것(자음)) 그리고 살과불과흙 등을 있게하는 있음의 원인이며 그리고 자연과 동일한 것이라고 실체에 대한 자신의 로고스들을 마무리한다

여기서는 철자(τὰ σφαιρία, 1041a13)가 음절의 요소(τὰ σφαιρία, 1041a13)로 간주되며 이 요소는 또한 모든 것의 요소로 간주되는 것 가운데 요소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아르케에 라는 것이 그 끝을 장식한다

덩어리 처럼 자신의 요소들이 단순히 합쳐지므로서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절 처럼 자신의 요소인 철자들로부터 합쳐지므로서 모든 것은 있다 이러한 음절(βα)은 철자가 아니다 곧 자신의 요소 β 와 α가 아니다 살 또한 자신의 요소인 불 과 흙이 아니다 요소들이 흩어질 때 살

773) 여기서 나뉘어 말하지는 길은 520 쪽에 나타나는 나뉘어지는 길과는 아주 헤테론한 길임은 분명하다

과 음절은 더 이상 있지 않으나 철자들 과 불 과 흠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편으로 어떤 음절(음절인 것)이 있으며 이 음절의 요소인 철자 - 소리(모음) 와 소리 아닌 것(자음) - 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이것들과 헤태론한 어떤 것이 있다 마찬가지로 살 과 불과흠 또는 뜨거움과참이 있는 반면에 이것들과 헤태론한 어떤 것이 있다 그런데,

헤태론한 그 무엇이 요소 또는 이 요소로부터 있는 어떤 것 이라고 해보자

요소라면 로고스는 위와 동일할 것이다 이 무엇① 과 불과흠으로부터 있는 살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알론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 알론한 것이 또 요소(적인 것)이라면 이 무엇② 과 무엇① 과 불과흠으로부터 라는 식으로 무한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⁷⁷⁴)그러나,

요소들로부터 있는 어떤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로부터가 아니라 여럿 으로부터 있을 것이거나 또는 살 과 음절의 로고스와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이것은 요소가 아닐 것 처럼 보인다 그래서,

헤태론한 이 무엇이 요소가 아닌 어떤 있음일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 무엇 이것을 살로 또는 음절로 있게하는 있음의 원인일 것 처럼 보인다 아울러,

이 무엇이 각기 것의 실체이다 있음의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δε 1041b29),

774) 무한히(ἀπειρον 1041b22, 1033b4-5) 이러한 과정은 이어지므로 이렇게 끝나는 전제 로고스는 무 조건 옳지 않다 라는 식의 논증은 그의 모든 강의들에서 이루어지는 논증의 꽃이요 핵이다 물론,

동일한 것이 동시에 있으며서 있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그에 의해 말 하여지는 모순을 이라는 비장의 논증 무기(근거)가 있긴 하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성(된 것)을 다루고 있다면 생성된 어떤 개체도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된 것과 관련된 모든 논증의 또 하나의 근거로서 ‘무한함(규정되지 않음)’가 적절히 쓰여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보이는 우주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이다

프라그마들 가운데 어떤 것이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에 따라서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요소들이 실체로 묶이므로(συνεχῆκασι 1041b30) 실체는 자연과 동일할 것 처럼 보인다 이러한 자연 역시 요소가 아니다 자연은 아르케이다 요소는 어떤 것이 자신으로 나뉘어지는 그리고 그 어떤 것 안에 질료로서 주어지는 그런 것이다 예를들어 음절의 α 와 β 처럼 말이다 이제,

17 장으로 이루어진 제에타 편을 마무리할 시점 에 이르렀으므로⁷⁷⁵⁾ 각 장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 보아야 할 것 같다 먼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로부터 항상 일어나는 물음은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과 동일하므로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가장 먼저, 288쪽) 있는 것인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조사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여지는 **1 장**에 이어,

2 장에서는 자신 이전 까지 말하여져온 실체들을 간략히 요약한 뒤 그는 이런 소위 ‘실체들’과 더불어 제기되는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실체란 무엇(τι 1028b32)인가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래서,

그 당시 실체라고 말하여지는(λέγεται 1028b33)것들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본질)’ 과 ‘보편자’ 와 ‘류’ 와 ‘기체’ 등 4 가지 가운데 우선 기체 또는 질료는 실체가 아니다 분리 가능성 과 이것임이 실체에 주로 속하기 (298쪽)때문이다 라고 **3 장**에서 말하여진다

여기 까지가 제에타 편 의 들어가기라고 말할 수 있다 있어지고있는 그 무엇(실체)에 대해 말하기(4장 이후) 위해 지금 까지(1-3 장)의 로고스 들이 필요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4 장부터 이어지는 다음 장들이 ‘본론’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며 자신의 로고스 와 정의가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유일한 것이고 이러한 로고스에 그 자체가 주

775) 35-36쪽에 드러난 13 편들 각각의 주제들을 다시 한 번 읽어 본 후에 제에타 편(6권) 각 장을 주제를 말하는 여기를 살펴 보라

어지지는 않지만(μη ἐνέσαι 1029b20, 305, 320쪽) 말하여지는 그 무엇 만의 정의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4 장에 이어,

5 장에서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만이 대 부분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순수하게 실체에 속한다는 것이 못 박아지면서 무엇 때문에 실체의 정의 만이 있는가에 대해 말하여지며 그리고,

6 장에서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그 각기 것과 동일한 것은(αὐτόν 1031a15, 323쪽)어떠한 것이고 헤태론한 것은 어떠한 것이며 왜 그러한가 가 말하여진다⁷⁷⁶⁾ 이제,

이어지는 7-9 장에서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 안에 스스로를 낳으므로 비로서 이 무엇으로부터 어떤 무엇⁷⁷⁷⁾이 생성한다 라고 말하여지는 가운데 생성이 설명되어진다

776) 따라서 논증이라고 볼 수 있는 장들이다

“ 먼저 그것(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관해 어떤(길)에서 **논리적으로(λογικός)** 우리는 말해야 할 것이다(102912-13) ” 라고 4 장에서 말하여지고 있으며(302 쪽) 끝나는 17 장에서도 “ 분명히 우리는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바로] 이(원인)이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논리적으로(λογικός)** 말해서 [그렇다](1041a27-28) ” 말하고 있듯이 그는 주로 이러한 것은 실체(원인)이 아니고 이것이 원인이다 라는 것을 ‘논증’ - 물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관한 순수한 논증(ἀπόδειξις, 1039b28-29) 역시 불 가능하다) - 하는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476쪽 참조)

777) 어떤 무엇(τι 1032a14, 334쪽)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τι)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제에타 편을 숙고하는 가운데 언 듯 언 듯 내 누우스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음이었다 그에 따르면,

질료 역시 생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 또한 하지 않는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역시 질료 처럼 소멸하지 않으므로 생성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있어지고 있는 이 무엇(에이도스, 종)은 이러한 질료 안에 자신과 동일한 것을 낳아 놓는다 바로 이 낳다(γεννάω, 1032a25, 1033b23,b32, 347 쪽)를 생성하다(되다, γίνομαι, 1032a12) 또는 생산하다(ποίησιν, 1033a33)와 일치시킬 수 있다면 어떤 무엇 과 이 무엇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생성(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지는 가운데 7 장에서는 자연적인 생성 과 기교적인 생성 과 자동적인 생성 등 이 세 가지 가운데 자연 생성 과 기교 생성 이 두 가지가 말하여진다 어느 생성이든 생성(되는 것) 안에는 에이도스 와 질료가 속해 있는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이 에이도스이며 에이도스는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335 쪽) 그러나,

생성의 경우 생성된 것 안에는 에이도스(種)라고 말하여지는 곧 감각적인 것 안에 주어져 있는 모르페에(μορφήν, 模樣, 1033b6, 348쪽) 뿐 만 아니라 질료도 있다 에이도스와 더불어 미리 있는 바로 이 질료 덕에 생성되는 것이 해태론하게 된다(351 쪽) 라고 말하는 8 장에서는 생성(된 것)과 관련지워 볼 때 생성된 각기 것과 나란히 분리 해 있다(778) 라고 말하여지는 에이도스는 쓸모 없다 라는 이데아 비판 론이 솟구친다 이어,

9 장은 어떤 것은 기교적으로 생산 될 뿐 만 아니라 자동적으로도 생산되는데 왜 어떤 것은 기교적으로는 생산되는 반면 자동적으로는 생산되지 않을까 라는 물음과 더불어 열려지면서 질료의 움직임 때문이다 라는 답으로 나아가다 끝 부분에서 다시 생성 일반에 대해 말하면서 에이도스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강조한다(360쪽 참조) 이제,

10-12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정의 와 로고스를 그 부분 과 전체에 연관지어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가 진짜로 우리에게 물어오는 물음은 에이도스(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부분은 무엇이나 라는 질문이다

그는 10 장에서 에이도스(또는 영혼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전체는 그 에이도스의 부분 - 이 에이도스 부분 만이 로고스의 부분이다(384

데,

텔레스 자신이 동일한 날 말을 쓰고 있으니 일치 안 시키고 어찌랴.....

778) 그러나 ‘분리’ 라는 낱말 그 자체는 텔레스의 누우스를 받혀주고 있는 기둥이다 분리된 에이도스야 말로 진짜 순수한 에이도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에이도스를 찾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식으로 해서 안된다 이와는 해태론한 길로 찾아져야 할 것이다(507-508쪽 과 536쪽 그리고 496쪽 과 477 쪽 이하 와 408-410쪽를 참조하시오)

쪽) -보다 나중인 반면 합쳐진 전체 곧 각기 것의 전체는 자신의 부분 보다 먼저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391쪽) 그런데,

만약 에이도스의 부분 만이 정의(로고스)의 부분이라면 에이도스의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ποίη, 1036a26)에 물음에 대해 질료(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⁷⁷⁹⁾ 답하는 **11 장**은 예를들어 소크라테스의 경우 그의 몸은 질료이며 그의 영혼은 에이도스 이므로 에이도스의 부분은 영혼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결국 순수한 하나라고 **12 장**에서 말하여진다 만약 부분이 전체에 속한다면 순수한 하나일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하나가 아니며 그 무엇이든 부분은 전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철자(요소, 소리 와 소리 아닌 것)가 음절에 속하 듯 말이다⁷⁸⁰⁾ 그러므로 정의 역시 하나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정의는 차이로부터 차이로 나누어짐에 의해서 얻어지며 바로 이 차이 가운데서도 맨 끝 차이가 에이도스이다(448쪽) 이제,

그는 다시 3장으로 되 돌아가 거기서 실체라고 말하여진 보편자가 진짜로 실체인가 라고 **13 장**에서 묻고선 아니다 라고 대답하므로서 실체에 대한 자신의 로고스를 계속 이어나간다 여러 많은 것들에 공통으로 속한 것이 보편자인 반면에 실체는 각기 고유한 것이며 여러 많은 것[속성]들이 자신에게 속해 있는 그래서 그 속성들의 기체이기기 때문이다(458쪽) 아울러,

류 와 차이로부터 있으면서 동시에 ‘분리’해 있는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에이도스 곧 이데아는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여지는(472쪽 이하) **14 장**에 이어 **15 장**에서는 그러한 이데아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정의 또한 있지 않으며 또한 감각적인 실체의 정의 역시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진다(484-496 쪽)그런데,

779) 그러기에 질료를 제거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시도는 헛일(περιεργον, 1036b23, 393쪽)이라고 그는 말한다

780) 철자 와 음절은 10-11 장에서 그리고 17장 끝에서 들어지는 보기들이지 12장에서 들어지는 보기가 아니다 12 장에서는 두 발 과 생물이 보기로 들어진다

13 장은 아주 논증적이며 14장은 13 장 보다 `더 논증적이며 15 장은 13 장 보다 덜 논증적이나 알론한 장들 보다 더 논증적이다 물론 알론한 장들도 논증적이었다 이런 철저한 논증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16 장 과 17 장에서 실체에 관한 긍정적인 자신의 말을 더 많이 내 뱉기 시작한다⁷⁸¹⁾ 그러나 실은 16 장도 부정적인 언급이 주로 행하여진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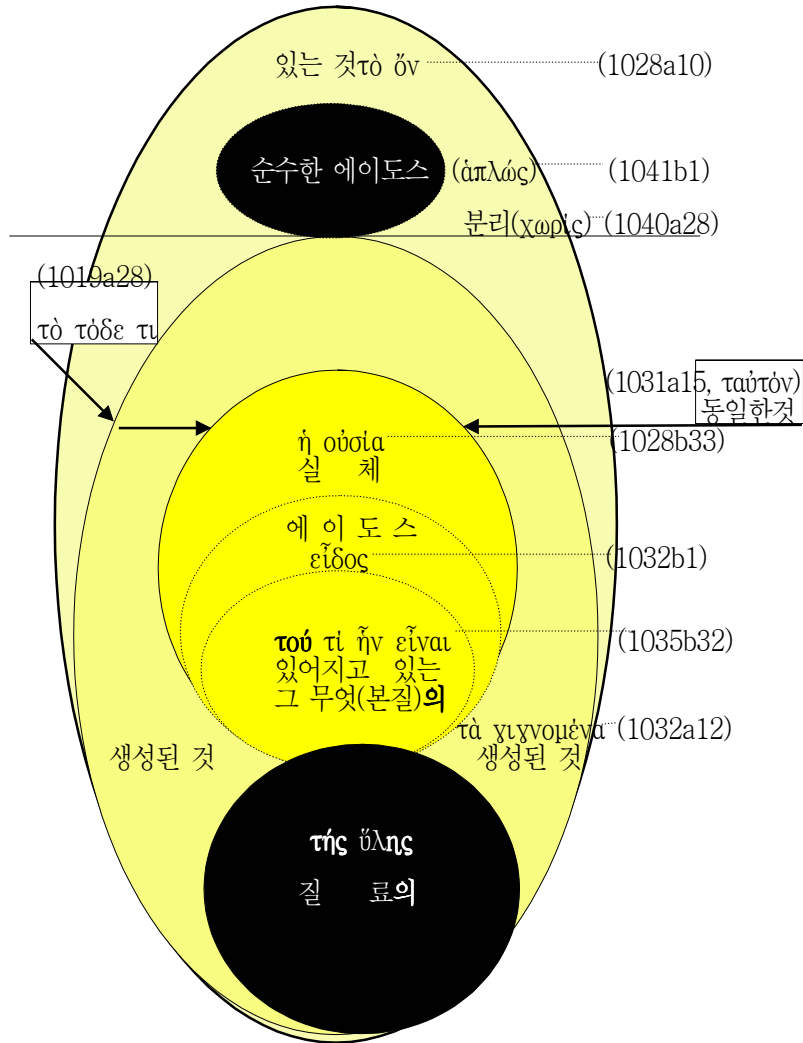
16 장에서는 하나 역시 실체가 아니다 라고 주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장 시작 부분에서 실체는 잠재적으로도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여지기는 한다 제에타 편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17 장은 그야 말로 긍정적인 언급으로 가득차 있는 제에타 편 끝 내기 장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위해지는 그 무엇 으로서의 그러한 [효과] 원인이기도 하며 맨 처음 움직이게 하는 무엇 으로서의 **있음의 원인**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실체이며 **질료의 원인**이기도하다 각기 것의 실체란 각기 것의 있음의 원인이다

17장의 끝 부분에서 음절 과 철자(요소)를 보기로 들면서 텔레스는 실체는 요소(철자, 부분) 와 음절 과는 헤테론한 무엇으로서 음절과철자(소리(모음) 와 소리 아닌 것(자음)) 그리고 살과불과흙 등을 있게하는 있음의 원인이며 자연과 동일한 것이다 **자연**에 따라서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요소들이 실체로 묶이기(συνεστηκασι 1041b30) 때문이다 라고 말하므로써 실체에 대한 자신의 로고스들을 텔레스는 마무리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제에타 편으로부터 알론한 편으로 옮겨가려한다

781) 물론 이 이전 장에서는 실체에 관해 긍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적절히 부정적인 언급과 더불어 실체가 말하여지긴 했어도 16 장으로 닥아서는 10 장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언급이 더 많았다는 말이다



가장 옅은 노오란 빛깔의 부분은 있지 않(τὸ μὴ ὄν, 1030a26, 소멸 된) 것이긴하나 어떻게든 있는 것이며 중간 빛깔의 노오란 부분은 생성 소멸하고 있는 부분 으로서 소멸된 것 보다 더 있는 것인 반면 가장 짙은 노오란 빛깔의 부분은 이렇게 있는 것들의 있음의 원인이다 물론,

검은 색 부분도 있는 것의 있음의 부분일리라 그런데 이러한 검은 색 부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없을 뿐 더러 알 수도 없는 반면에 옅은 노오란 색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겨우 인식할 수 있으나 ⁷⁸² 수는 없다 우리에게

782) 인식하다(γινώσκω, to perceive) 와 알다(ἐπίσταμαι, to know)를 나는 여기서 구분해 보았으나 실은 이러한 구분이 그에게 적용 될 수 있을 런지

게 알려지는 부분은 오직 가장 짙은 노오란 색 부분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노오란 색 부분에 대한 얇 곧 정의 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그림에서 보여진 것 처럼 심지어 있지 않는 것(소멸한 것)조차 있을 것이므로⁷⁸³⁾ 있는 것은 아주 그 폭이 넓다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이미,

가 의문스럽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한 원인은 각기 것들 곧 소멸하는 개별적인 감각 실체에 관한 인식(독사, δόξα)를 우리는 지닐 것이므로 그러한 개별적인 감각 실체도 어떻게든 우리의 시야(視野)에 걸려들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더라도 말이다

783) 있지 않는 것에 대해 텔레스는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으므로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실은 좀 켜기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그는 제에타 편 4 장 1030a25-26에서 있지 않는 것을 직접 언급한다 물론 있지 않는 것 만을 홀로 떼어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도 있는 것이라 말하여지는데 논리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있지 않는 것조차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고 말하면서 질도 있는 것이다 라는 로고스를 받혀 주기 위해서 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긴해도 말이다(형이상학 306쪽 참조) 그런데,

그가 그 어떤 사람들을 받아드리고 있느냐가 문제이다 나는 받아드리고 있다고 보았기에 앞 쪽에서 처럼 그려 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이전의 의견들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린다(4 쪽 참조) 여기에서 그는 심지어 있지 않는 것조차 있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카테고리들 가운데 하나인 질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라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자신의 로고스의 받침 대로 쓰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그는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있다 라고 하는 플라톤의 의견(δόξα)을 받아드리고 있다고(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 103쪽) 나는 상정한다

그는 델타 편에서 있는 것을 실체 와 진리 와 뒤나뮈스(힘, 잠재적인 것)과현실적인 것 등 여러 가지로 말했다(277-280쪽)는 것을 기억해 내야 할 것이다 실체와범주들로부터 이제 우리는 진리 그리고 잠재적인 것(힘) 과 현실적인 것으로 건너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 힘(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찾아 뒤적거리다보니 형이상학 테에타 편이 내 앞으로 성큼 다가선다

- Θ -

“ (1) 첫 번째로 있는 것인 그리고 있는 것의 알론한 모든 카테아고리아이(범주들)이 지시하는(ἀναφέρονται 1045b27) 실체에 관해 말하여졌다 알론한 있는 것들이 곧(‘, 1040a30) 량 과 질 그리고 이와같은 알론한 것들이 실체의 로고스에 따라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⁷⁸⁴⁾ 우리의 첫 로고스들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모든 것들이 실체의 로고스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렇다] 그런데,

있는 것은 한 편으로 그 무엇 또는 질 또는 량이라고 다른 한 편으로힘 과 현실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능(τὸ ἔργον 1045b34)에 따라서 말하여지므로 잠재(적인 것) 과 현실(적인 것, ἐντελεχειας, 1045a35)을 우리 규정해 보기로하자 비록 우리의 지금 의도에 쓸모있지는 않더라도⁷⁸⁵⁾ 대 부분 그리고 주로 말하여지는 잠재(성, δυνάμειω⁷⁸⁶⁾, 1045b35)을 먼저 규정해보기로하자 왜냐하면 **움직임**에 대해서만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힘(잠재적인 것) 과 활동(ἡ ἐνέργεια,

784) 량 과 질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순수하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있어지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라는 307쪽을 참조하십시오

785) 왜 쓸모 없을까 아마 잠재적인 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어떤 하나의 길에서 보면 실체적인긴 해도 말이다 또한,

잠재적인 것은 있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그는 잠재적인 것도 현실적인 것이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과 같이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먼저 있는가 가 문제이다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실체이며 우리는 지금 실체에대해 말하려하기 때문이다

786)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 113-114쪽을 참조하십시오

1046a2-3)은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⁷⁸⁷)그러나 이것(뒤나뫼스)에 관
해 말했을 때(εἰπόντες, 1046a2-3) 우리들은 활동적인 것 과 마찬가지로
지로 알론한 것들⁷⁸⁸)을 분명하게 말하게 될 것이다”

테아타 편을 열어 재끼면서 그는 먼저 비록 지금 우리의 의도(ὁ βουλ
όμεθα νύν⁷⁸⁹), 1045b36-46a1)에 쓸모 없기는 해도 잠재(힘)적인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잠재적인 것도 있는 것이요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실체이
기 때문이며] 잠재(적인 것, 힘)에 대해 말하다 보면 움직임에 대해 말하면
서 미처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 알론한 곳들에서 뒤나뫼스(힘) 과 힘있어지짐(τὸ δύνασθαι, 할수있
음, 1046a5)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라고 우리에게 규정 되(었)다 한
편으로,

이러한 것들 가운데 호모뫼모스(애매)하게 말하여지는 (모든) 뒤나뫼
스들은 [여기서 우리에게] 무시될 것이다 기하학에 있어서 처럼 호모뫼모스
한 것⁷⁹⁰)은 어떤 것에 (대해 τι, 1046a7)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과 마

787) 힘 과 활동에 대해 말하는 것은 움직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많이 넘
어선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움직임이고 있는 것은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텔레스는 본 것 같다 다시 말해 움직임을 생성으로 보는 것 같다 (361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서는 ‘스스로 움직이는’은 ‘자신이 지니는 뒤나뫼스(힘,
잠재[성])에 의해서(로부터) 움직이는’이라고 말하여지며 이렇게 움직이는
것(질료)로부터 생성된 것이 바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진다 따라서,

잠재해 있는 것 곧 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움직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이 힘(뒤나뫼스)으로부터 움직임이 오기 때문이다

788) 알론하게 말하여지는 (뒤나뫼스들?)일 것 같다(로스 239 쪽 참조)

789) 실체에 대해 말하려하는 의도(의지)

790) 나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호모뫼모스한 것(범주들 176쪽 참조)’의 보기

찬 가지로(*kai*, 1046a8) 어떤 것에 (대해, *τῷ*, 1046a8) 힘(있)다 와 무력하다 (*ἀδύνατα*, 1046a8) 그리고 힘없다 와 무력하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⁷⁹¹)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의 모든 아르케아들이면서 동일한 에이도스에 대해(*πρὸς*, 1046a9) [있는⁷⁹²] 그리고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 으로서 [들어 있는] 변화의 아르케아인 그런 (뒤나뫼스(힘들))만이 라고 첫 번째 (뒤나뫼스 라고 말하여진다) 왜냐하면 한 편으로는 겪는(*τοῦ παθεῖν* 1046a11) 뒤나뫼스(힘) 이고 곧 자신 안에 있는 알론한 것에 의해 겪는 그러한 알론한 것이 겪는 변화의(*μεταβολή*, 1046a12)아르케아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알론한 것 [안에

로 그가 여기서 기하학적인 것을 들고있다고해서 호모뫼스한 이러한 것을 유비적인(*by analogy*)것들로 로스 처럼 생각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기하학적인 모든 것이 비율을 지닌 것일까

791) ‘ 기하학에 있어서 우리들이 자신들 사이의 어떤 관계의 현재 와 부재에 의해서 어떤 것은 다른 것의 힘이고 힘이 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 처럼 어떤 [뒤나뫼스들은] 유비에 의해서 뒤나뫼스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 라고 로스 820 쪽 처럼 옮길 수 있을까

792) ‘ *potencies that conform to the same type.....(820)* ’ 이라고 로스는 옮긴 반면 나는 ‘ ...에 대해 있는(*those that are to the same eidos*) ’ 이라고 옮겼다 문제는 ‘ ...에 대해(*πρὸς*, *to*, 1046a9) ’ 이다

3격을 영어로 *to or for*로 옮기기도 한다 만약 ‘프로스(..에대해)’가 바로 위 두 줄(a8 과 a9)에 있는 3격들(*τινι* 와 *τῷ*)과 같은 문법적 쓰임새를 지닌다면 텔레스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 버린 호모뫼스하게 말하여지는 뒤나뫼스들도 어떤 것에 대해 있는 그러한 뒤나뫼스들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뒤나뫼스들 가운데 어떤 류들은 자신들이 ‘...대해 있다’ 라는 점에서 서로 같은데 바로 변화(움직임)의 아르케아 로서의 뒤나뫼스 와 호모뫼스하게 말하여지는 뒤나뫼스가 그러한 류들이다 라고 말하면 안될까

(ἢ 1046a14)](있는) 알론한 것에 의한 곧 변화의 아르케에에 의한 소멸(파괴) 와 더 나빠짐(τὸ χείον 1046a14)을 겪지 않는 그러한 습성(ἔξις⁷⁹³) 1046a13)이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경계(τοῖς ὅροις, 境界, 한계(限界) 1046a15)내에서 가장 먼저 말하여지는 뒤나뫼스들에 관한 로고스가 주어진다 다시,

잠재(적인 것)(힘)이라 말하여지는 것들은 그져(μόνον, 1046a17) 행하(하게 하)거나 겪(게하)는⁷⁹⁴ 또는 잘(καλῶς, 1046a17) (행하거나 겪는) 그러한 것들이므로 [여기서 말하여진] 이러한 것(뒤나뫼스)들의 로고스들 안에는 어떻게든 먼저 [말하여진] 뒤나뫼스들의 로고스들이 속해있다⁷⁹⁵ 그렇다면 (οὗν 1046a19),

분명히 행하는(행함의, τοῦ ποιείν, 1046a20) 힘 과 겪는 힘(뒤나뫼스, 잠재성)은 하나[인 것으] 로서 있다 겪음의 뒤나뫼스를 그것(αὐτὸ, 행함의 뒤나뫼스, 1046a21)가 지닐 수 있으며 알론한 것이 그[행함의 뒤나뫼스]에 의해서 (겪음의 뒤나뫼스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함 과 겪음의 뒤나뫼스는) 알론한 것들로서 있다 한 편으로(μὲν

793) 헬시스(습성)에 대해서는 범주들 201 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서는 습성이 하나의 질 이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습성은 잘 움직이고 재 빠르게 변하는 - 예를들어 뜨거웠다 차가워지는 또는 병들었다 건강해지는 - 그러한 경향(διάθεσις, 8b27)이 오랜 시간을 통해 변하기 힘들 정도로 굳어져 버리거나 자연화 된 것이다 이제,

텔레스는 이러한 습성을 곧 소멸이나 더 나빠짐 등을 겪지 않는 습성을 뒤나뫼스(힘) 라고 한다 다시 말해 자신 에 의해서 어떤 것이 소멸하거나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러한 ‘변화’의 아르케에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뒤나뫼스들 가운데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뒤나뫼스의 일면(一面)이다

794)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의 115 쪽 참조하시오

795) 가장 먼저 말하여지는 뒤나뫼스들에 관한 로고스들이 호모뫼모스하게 말하여진 뒤나뫼스들에 관한 로고스들 안에 속한다 라는 말일까 아마 그럴 것 같다

1046a22),

겪는 것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니는 것은] 어떤 아르케에
를 지니고 심지어는 질료 조차⁷⁹⁶ [이러한] 아르케에이므로 겪음(τὸ πάσχειν,
겪는 것 1046a24)역시 알론한 것에 의한 알론한 것[의 겪음이다] 한 편으로,

기름[을 지닌] 것이 태워[질 수 있]으며 [어떤] 이것(ὡδὲ 1046a25)이
빠진 것은(τὸ ὑπείκον 1046a25) 부서져버리기 때문이다⁷⁹⁷ 그리고 알론한 것
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른 한 편으로(δ' 1046a26),*

행하는 것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열 과 집 짓는 기교[의 경
우] 한 편으로는 열나는 것 안에 다른 한 편으로는 집짓는 자 안에 (있는
것 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합해진 것인(συμπέφυκεν, 유기체(有
機體), 1046a28)한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겪어질[수] 없다 하
나⁷⁹⁸)이지 알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뒤나뫼스(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스는 힘 없음 또는 할
수없음에 대해 짧게 말한다

“ 그리고 힘 없음 과 할 수 없음(ἡ ἀδυναμία καὶ τὸ ἀδύνατον

796) 질료 와 에이도스로부터 생성된다 라는 말을 기억해 내 보라(351쪽 과
510쪽을 참조하시오)

797) 무엇(기둥)이 빠지면 어떤 것(이 집)이 붕괴되는 것 처럼 기둥(무엇)
과 집(어떤 것)은 알론한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기둥이 집에 대해 있는
것 처럼 뒤나뫼스는 자신이 그것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것에 대해 있을 것
이다 기름 과 기름지닌 것도 마찬가지로 알론할 것일 것이며 그렇게 있을
것이다

798) 421 쪽을 참조하라 거기서는 자연스레 연속적인 하나는 기교에 의한
연속 보다 더 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 자연스레 합쳐진 것이 겪는다면 자기 스스로 겪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신 안에 있든 또는 자신 밖에 있든 알론한 것으로 있는 그 무엇
곧 뒤나뫼스(를 지닌 것)들에 의해서 겪어지기 때문이다 겪는 (또는 행하는)
것 안에 있는 뒤나뫼스에 의해서 겪거나 (또는 행한다)

1046a29)은 이러한 뒤나뫼스(힘)에 반대되는 결여(ἐναντία⁷⁹⁹) στέρησις⁸⁰⁰ 1046a30)이다 그래서 모든 뒤나뫼스 [각각]은 동일한 것의 그리고 동일한 것에 따라 힘 없음(非뒤나뫼스)[에 상응한다]⁸⁰¹)그런데,

결여는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뒤나뫼스를] 지니지 않음 [이라고] 그리고 [지닐 것이긴 해도] 전체적으로(ὅλως 1046a33) [뒤나뫼스를] 자연스레 지니는 것이 아님 또는 자연스레 [지닐 것이긴해도] 예를들어 끝 까지 모두(παντελώς, 완벽하게 1046a34) 또는 어떤 길에서든 에서 처럼 일관되게 (ὡδι 1046a33) [뒤나뫼스를] 지니지 않음 [이라고] 결여는 말하여지기 때문 이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지녔다가도 어거지로(βίαι, 강제로 1046a35) 지니지 않게 [될] 그러함도 결여된다 라고 어떤 한 경우에는 말하여진다 ”

799) 플라톤은 자신의 대화 편 소피스테이스에서 있지 않은 것은 있는 것의 반대(ἐναντίον 257b3)가 아니라 단지 있는 *ἕτερον*한 것을 말할 뿐이라고 언급하면서 否定詞 아님 또는 아님은 자신 앞에 붙은 이름 또는 프라그마에 알론한 무엇을 가리킨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플라톤에 따르면 있는 것의 경우 그 부정(否定)은 ‘없는’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이며 반대가 아니다 그러나,

텔레스에 따르면 뒤나뫼스의 경우 그 부정은 알론한 뒤나뫼스가 아니라 뒤나뫼스가 ‘없음’ 곧 결여(缺如)이며 반대이다 물론,

텔레스는 어디에 선가 - 지금 그 곳이 나에게 안 떠오름 - 부정어(否定語) 아님은 *ἕτερον*한 무엇이라는 것을 말하긴 한 것 같은데.....

800) 결여에 대해서는 238-250 쪽을 참조하십시오

801) 동일한 것의 뒤나뫼스 와 뒤나뫼스아님 그리고 동일한 것에 따른 뒤나뫼스 와 비뒤나뫼스 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뒤나뫼스 와 비뒤나뫼스는 서로 동일한 것에 관련하며 동일한 것에 속한다 라는 말일 것이다

범주들 238 쪽에서는 결여 와 습성 - 텔레스는 여기서 습성을 뒤나뫼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이 동일한 것과 관련되어 말하여진다 거기에서 그는 대답들에 속하는 반대 그리고 결여와습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이었다

테에다 편을 열어 재끼는 일 장에서 그는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뒤나
뫼스에 대해 말한 후 결여란 바로 이 뒤나뫼스가 있지 않음 이라고 언급하
면서 일 장을 닫는다 일 장을 옮겼으니 이제 일장을 요약해 보자

그것의 로고스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량과질 같은 알론한 모든 범주
들은 그것의 로고스에 따라서 말하여지므로 모든 알론한 범주들이 지시하는
그리고 첫 번째(가장 먼저) 있는 실체에 관해 말하여졌다 그런데,

량 질인 무엇으로 '있는 것'이 말하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으
로 와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기능적으로 '있는 것'이 말하여지므로 잠재적인
것(힘) 과 현실적인 것을 우리 규정해 보기로 하자 먼저,

비록 우리의 의도에는 쓸모 없는 언급이긴해도 잠재적인 것(힘)에대
해 아주 엄밀하게 말해 보기로하자 힘에대해 말하다 보면 움직임에 대해 말
하면서 언급되지 않는 것들이 말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실체(가장 먼저 있는 것, 첫 번째로 있는 것)가 말하여지는 것은
아니긴 해도 뒤나뫼스(힘)에 대해 우리가 말하다 보면 움직임(생성)을 언급
하면서 말하여지지 못 했던 로고스들이 언급될 것이므로 그는 힘(뒤나뫼스)
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로고스들은 있는 것 또는 있음에 대한 로
고스임은 분명하다 뒤나뫼스 또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것 처럼 뒤나뫼스 역시 여러 가지
로($\pi\omicron\lambda\lambda\alpha\chi\acute{o}\varsigma$ 1046a4) 말하여진다 그러나,

호모뫼모스하게 말하여지는 뒤나뫼스들은 무시하기로 하자 호모뫼모
스한 것들이 기하학에서 처럼 어떤 것에 대해 말하여지듯 힘 있다 와 무력
하다 역시 어떤 것에 (대해) 힘있다 와 무력하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뒤나뫼스는 어떤 로고스를 지닐까 동일한 에이
도스 축에 드는 어떤 것의 모든 그 아르케에이면서 알론한 것 안에 들어있
는 알론한 것 으로서의(η 1046a11) 변화의 아르케에인 그런 뒤나뫼스들만이
첫 번째 힘(뒤나뫼스)이라고 말하여진다 알론한 것이 자신 안에 들어있는
알론한 것에 의해 겪는 변화의 아르케에 이면서 다른 한 편으로 알론한 것
- 변화의 아르케에 - 에의한 소멸 과 더 나빠짐을 겪지 않는 알론한 것이
지니는 습성이 뒤나뫼스라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한계 내에서

가장 먼저 말하여지는 뒤나뫼스들의 로고스들이 주어진다 다시,

단순히 행하거나 겪음 또는 잘 행하거나 겪음이 뒤나뫼스(힘)이라고도 말하여지므로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뒤나뫼스들의 로고스에는 호모오뫼모스하게 말하여진 뒤나뫼스들의 로고스가 속해있다 그래서(ούv 1046a19),

행하는 힘 과 겪는 힘(뒤나뫼스)은 분명히 하나이다 겪는 힘을 [행하는 힘] 자신이 지닐 수 있는 반면에 [행하는] 힘을 지남에 의해서 알론한 것이 겪는 힘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행하는 힘 과 겪는 힘은 알론하게 있는 것들이다

겪는 것 안에 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르케에⁸⁰²⁾ 를 지니게되는 겪는 것은 알론한 것에 의한 알론한 겪음이다 한편으로,

기름을 지닌 것이 태워질 수 있으며 어떤 것은 이것이 빠져 버리면 부서져 버리기 때문이다 알론한 경우도 이와같다 다른 한 편으로,

행하는 것(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열 안에 그리고 집짓는 기교 안에 겪는 힘(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합쳐진 것인 한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겪어질 수 없다 자연적으로 합쳐진 것을 이루는 것들은 알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에 반대되는 힘 없음 또는 할 수 없음이 바로 결여이다 그리고 힘 그리고 힘에 상응하는 힘 없음(결여)은 동일한 것에 관련한다 그런데,

결여 역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힘을 지니지 않음 이라고도 그리고 힘을 지니긴 해도 전체적으로 자연스레 지니지 않음 이라고 또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레 지니긴해도 끝 까지 모두 완벽하게 일관된 어떤 길로 지니지 않음이라고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연스레 지녔다가도 그 힘을 어거지로 지니지 않게됨이라고도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테에타 편 일 장에서 그가 뒤나뫼스(힘)들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뒤나뫼스들에 대해 말하는 원인은 힘 역시 활동적인 것 또는

802) 심지어 질료까지도 이러한 아르케에에 속한다

현실적인 것과 더불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힘(뒤나뮌스)는 있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이 아니므로 실체가 아니긴해도 말이다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뒤나뮌스(힘)은 변화의 아르케에(μεταβολής 1046a11)이다 이러한 힘에 따라서 알론한 호모뮌모스한 모든 힘들이 (변화의 아르케에들이라고) 말하여진다 호모뮌모스하게 말하여지는 힘들은 어떤 동일한 에이도스 곧 첫 번째 뒤나뮌스에 대해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첫 번째 힘은 어떤 것 안에 알론한 것 으로서 들어있다 알론한 것 으로서 자신 안에 들어있는 힘(뒤나뮌스)에 의해 비로소 어떤 것이 변하므로 한편으로 알론한 것이 무엇을 겪으며 다른 한 편으로 소멸하지 않으려는 또는 더 나빠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습성(ἔξις 1046a13)을 알론한 것이 지닌다

이러한 힘들은 그저 또는 잘 [무엇을] 행하거나 겪는 그러한 것들임은 [분명하다] 자,

여기서 그는 행하는 힘 과 겪는 힘(포이에인 과 파스케인 1046a20)을 말하고 있다 행하는 힘 또는 겪는 힘에 의해 어떤 것은 알론한 것으로 변하며 그리고 소멸하거나 더 나빠지지(악화되지) 않는다는 - 좋은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 말이다 그런데 한 편으로,

행함 과 겪음은 하나이다 행하는 힘이 겪는 힘을 지닐 수 있으며 행하는 힘을 알론한 것이 지님으로서 겪는 힘을 그 알론한 것이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행함 과 겪음은 알론하다⁸⁰³) 한 편으로 겪음 안에 행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하는 것이 겪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과 알론한 것이 겪는다 보라 기름을 지닌 것이 태워지며 무엇이 빠져 버리면 어떤 것은 부서지지 아니한가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행하는 것 안에 겪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열 나는 것 또는 (집) 짓는 것 안에 열 받는 것 또는 지어지는 것이 있는 것 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합쳐진 것은 어떤 것도 자

803) 범주들 161 쪽에서는 행함 과 겪음은 로고스 또는 프라그마에 있어 그 각각 어떤 연결도 있지 않은 독자적인 범주들이라고 말하여진다는 점에 유의하라

기 스스로에 의해 겪어질 수 없다 텔레스에 따르면,

힘 없음 또한 이와 같다 힘을 결여한 것이 힘 없는 것이며 어떤 동일한 것이 힘 있다가 힘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 처럼 힘 없음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힘을 지니지 않음이 우선 첫 번째로 힘 없음 이라고 말하여지며 그 다음으로 지니긴 해도 전체적으로 보아 자연스레 지니지 않음이 또는 자연스레 지니긴 해도 끝 까지 완전하게 지니지 않음 혹은 일관된 어떤 길에서 지니지 않음이 힘 없음 이라고 말하여지고 그 다음으로 자연스레 지녔다가 도 그 힘을 어거지로 박탈 당함이 힘 없음이라고 말하여진다 결국,

모든 것은 힘으로 인해 무엇을 행하거나 겪음으로서 변하기 때문에 힘 없는 것은 어떤 상태(ἡ κείσθαι, 1b27(범주들),)를 유지하지 못할 뿐더러 알론한 상태로 변화지도 못하므로 힘은 변화의 아르케에이다 라고 말하는 테에타 편 일 장에 이어지는 이(二) 장에서 그는 로고스적인 것 과 비 로고스적인 것으로 힘을 나눈다

“ (2) 한 편으로 그러한 [어떤] 아르케에⁸⁰⁴들은 영혼 아닌 것에(ἐν τοῖς ἀψύχοις 1046a36) 속하며 다른 한 편으로 (그러한 어떤 아르케에들은) 영혼을 지닌 것(ἐν τοῖς ἐμψύχοις 1046a37)에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영혼 (안)에(ἐν ψυχῇ 1046a37)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영혼의 로고스를 지니는 것이므로(ἔχοντι, 1046b1) 분명히 뒤나뮈스(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로고스적이지 않은 반면에 어떤 것들은 로고스⁸⁰⁵와 더불어 [있다 - 로고스적이다] 이 때문에 모든 기교들 과 생산하는 능력들(ποιητικαὶ, 1046b3) 과 앎들도 힘(뒤나뮈스, 잠재적인 것들)이다 [이것들은]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으로서 있는 변화의 아르케에이기 때문이다 ”

힘을 로고스적인 것 과 로고스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 있는⁸⁰⁶ 텔

804) 뒤나뮈스(힘)는 변화의 아르케에 라는 548 쪽을 참조하십시오

805) 로스는 로고스를 ‘합리적인 도식 (rational formula, 로스 821쪽)’ 이라고 번역한다 합리성 이외의 다른 말로 로고스를 옮길 수는 없을까....

레스는 먼저 로고스적인 힘 곧 로고스와 더불어 있는 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 한 편으로 로고스와 더불어 모든 힘들은 반대들(τῶν ἐναντιῶν⁸⁰⁷) 1046a5)[을 생산하는] 그러한 (힘)들이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비 로고스적인 (힘)들은 단지 하나[만을 생산하는 그러한 힘]일 뿐이다 예를들어 열은 단지 덥게 만 하는 반면에 의술(ιατρικὴ, 약(藥), 1046b7)은 병 과 건강 [이 양자를 생산하는 것]⁸⁰⁸처럼 말이다 그 원인은 한 편으로 로고스란 앎이기 때문이며 한 편으로 동일한 로고스가 프라그마 와 결여를 설명하나(δηλοῖ 1046a8)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⁸⁰⁹)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로고스는] 그 양자(프라그마 와 결여)에 [적용되는 것] 으로서 있는 반면에 한 편으로 오히려 [그 양자에] 속하는 것(있기 시작하는 것, τοῦ ὑπάρχοντος⁸¹⁰), 1046b10)에 [적용되는 것] 으로서도 있다 따라서,

806) 힘에도 합리적인 힘 과 비 합리적인 힘이 있다는 것인데.....

807) 로고스적인 힘들은 반대되는 결과들을 가져오는 힘인 반면에 비 로고스적인 힘들은 그렇지 못하는 힘이라는 말일까 아니면 로고스적인 힘들은 그 자체 서로에 반대되는 힘들이 반면에 비 로고스적인 힘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일까 엔안티움(반대들)에 대해서는 범주들 254 쪽을 참조하시오

808) 여기서 우리는 힘이란 어떤 것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아르케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예를들어 열은 어떤 것을 뜨겁게하는 힘이며 의술은 건강 또는 병을 가져오는 힘이다 그런데,

텔레스에 따르면 열은 비 로고스적인 힘인 반면에 의술은 로고스적인 힘이다 열 이라는 힘은 단 하나 만의 변화를 일으키나 의술 이라는 힘은 반대되는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의술(치료기교)에 대해서는 336 쪽을 참조하시오

809) 프라그마 와 결여는 동일한 로고스 이외의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뜻인가.....

810) 그의 강의록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그 가운데 특히 나를 곤혹 스텝게하는 것들은 프라그마(사태(事態)) 와 결여(스테래시스, 缺如) 와 속하는 것(있기 시작한 것) 이 세 가지이다 프라그마는 일 - 도대체 무

한 편으로 그러한 **얹**들은 반대들의 [결과를 가져오는] (힘)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한 편으로 그 자체로(본질적으로) 그러하며 한 편으로 그 非-자체적으로(τού μὴ καθ' αὐτό, 우연적으로, 1046b12) 그러하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한 편으로 로고스는 [어떤 것] 그 자체에 따른 (로고스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길에서 보면 우연적 것에 따른 (그러한 로고스이기)때문이[며] 반대는 우선적으로 결여이고 그것(결여)는 헤태론한 것의 제거 이므로⁸¹¹⁾ 반대는 부정 과 제거에 의해서(ἀποφορᾶ 1046b14)선명해지기 (설명되기) 때문이다⁸¹²⁾ 또한(δέ 1046b15),

슨 일이 일어난거야? 몰라 나도 그 일이 무엇인줄... - 로 옮기는 것이 나올 성 있고 결여는 빠짐으로 옮기면 무난 할 것 같은데 휘파르콘타는 무엇으로 옮기지 ?

휘파르케인에 대해서는 어디에선가 말했는데....

811) 그러나 텔레스는 범주들 241 쪽에서 습성은 결여의 반대가 아니라 결여의 대립이다 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결여에는 반대되는 것이 있지 않고 단지 대립되는 것 만이 있다 바로 그 대립이 습성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 때문에 그는 결여는 우선적으로 반대이므로 반대는 부정 과 제거에 의해서 선명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결여는 우선적으로 반대라고 그는 말하는 것일까

812) ‘때문이다(γὰρ 1046b14)’는 어디에 걸리는 걸까

1046b12의 δὲ(데)에 걸린다면 “ **로고스**는 한 편으로 그 자체의 로고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는 우연적인 것의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는 우선적으로 결여이며 결여는 헤태론한 것의 제거 이므로 **반대**는 부정(否定) 과 제거에 의해서 선명해지기 ‘때문에’ **얹**은 한 편으로 자체적으로 다른 한 편으로 非-자체적으로 반대를 생산하는 힘이다 ”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러나,

1046b13의 δὲ(데)에 걸린다면 “ 반대는 우선적으로 결여이고 결여는 헤태론한 것의 제거이기 ‘때문에’ 제거 와 부정에 의해서 반대는 설명되므로 로고스는.....다른 한 편으로 어떤 길에서 보면 우연적으로 [반대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 라고 말하여 질 수 있으리라 그런데,

1046b13의 δὲ(데)에 ‘가르(때문에)’가 걸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

동일한 것 안에서 [동시에] 반대들이 생기지 않으며⁸¹³⁾ **얇은 로고스**를 지남에 의해 [비로소] **힘**(뒤나뒤스)이[되]고 영혼은 움직임의 아르케를 지니므로⁸¹⁴⁾ 한 편으로 건강한 것 만이 건강을 생산하며 열내는 것 만이 열을 생산하고 차가운 것 만이 차가움을 생산하는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얇을** 지니는 것(ὁ ἐπιστήμων 1046b19)은 [반대들 이] 양자를 [생산한다] **로고스**는 비록 같은 길에서는 아니긴 해도 [그] 양자에 있으며 움직임의 아르케를 지니는⁸¹⁴⁾ 영혼 안에 [그 로고스⁸¹⁵⁾]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되는 이] 양자를 동일한 것과 연결시키면서 [영혼은] 동일한 아르케에로부터 [그 양자를] 움직이게한다 이 때문에 로고스에 따르는 힘들은(τὰ κατὰ λόγον ὄντα 1046b23) 로고스 없는(ἄνευ 1046b23) 힘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생산한다 로고스에 의해서 단지 한 [방향의] 아르케에 만이 포함되어지기 때문이다

을 성 싶다

813) 수적으로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 반대들을 받아드릴 수 있다는 것은 실체에 고유한 것이다 라는 범주들 181 쪽 이하(以下)를 참조하라 예를들어 수적으로 하나이며 동일한 것의 색이 검고 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 때 희어졌다가 한 때 검어질 수는 있으리라 그러나 동시에 그러하지는 못하리라 동시에(함마)에 대해서는 범주들 270 쪽을 참조하시오

814) 지니다(ἔχειν or ἔχει, 1046b17 or 21) 라는 말이 쓰였긴 하나 오히려 이다(εἶναι) 라는 말을 쓰는게 현재 우리말로 더 적절하게 옮길 수 있을 것처럼 언 듯 보일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있음 과 지남은 분명히 서로 다른 카테고리(범주)이므로 지니다 라는 말을 살려 주어 야한다 우리 말에서도 지니고 있다 라고 엄연히 서로 지니다 와 있다는 구분되어 쓰이지 않는가

815) 영혼 안에 있는 로고스 라는 말은 텔레스에게 그리 낯선 말이 아니다 건강이 건강을 생산한다 라고 생성에 대해 말하는 336 쪽에서 그는 건강을 생산하는 자의 영혼 안에 있는 로고스로부터 곧 의술(치료기교)로부터 건강은 오며 그 건강(에이도스)는 바로 영혼 안에 있는 그 로고스이다 라고 말한다 바로 이 로고스가 의사의 **얇을** 이룬다 그런데,

여기서 텔레스는 그 영혼은 움직임의 아르케로 있다 라고 말한다

한 편으로 잘(εὖ 1046b25) (행하거나 겪는) 뒤나뉘스(힘)에 그져(μόνον 816)1046b25) 행하거나 겪기 만 하는 힘은 함축되나 저것(잘 행하거나 겪는 힘)은 이것(그저 행하거나 겪는 힘)에 항상 (함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선명하다 잘 행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반드시 행하나 단지 행하기만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반드시 잘 행할(εὖ ποιεῖν 1046b28)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변화의 아르케에가 바로 처음으로 말하여지는 힘(뒤나뉘스)이다 라고

816) 그저 또는 잘의 여기서의 쓰임새를 548 쪽의 그저 또는 잘의 쓰임새와 비교해보라 거기서는,

그저 행하거나 겪기도 하고 잘 행하거나 겪기도 하는 힘은 서로 하나인 반면에 서로 알론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글 줄기에서 그저 또는 잘 행하거나 겪는 것이 힘들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여지나 여기서는,

그저 행하거나 겪기만 하는 힘 과 잘 행하거나 겪는 힘을 나누어 말한다 나중 힘에는 반드시 먼저 힘이 들어 있으나 나중 힘에 반드시 먼저 힘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물론 이러한 나뉘이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그저...만(μόνον, 1046 a17, b25) 과 잘(καλῶς 1046a17, εὖ 1046b25)이라는 말들의 뜻이 섬세하게 갈라져야할 것이긴 해도 말이다 거기서도,

행하는 힘 안에 겪는 힘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행하는 것(행함) 과 겪는 것(겪음)은 하나이다 라고 말하여진다(549 쪽) 그러나 거기서는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힘(뒤나뉘스)란 변화의 아르케에이다 라는 로고스를 부연 설명해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말이 나왔을 뿐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힘에는 로고스에 따르는 힘이 있는 반면 로고스적이지 않은 힘도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과정의 마무리에서 잘 행하거나 겪는 힘에는 반드시 단지 행하거나 겪기만 하는 힘이 들어있는 반면에 그 거꾸로는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면 결국,

단지 행하거나 겪는 힘이 비 로고스적인 힘이라는 말인가.....좀 더 두고 보자.....

말하여지는 일(一)장에 이어 이(二) 장에서는 이러한 힘에는 로고스와 더불어
은 힘이 있는가하면 비(非)로고스적인 힘도 있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가 밝혀진다

변화의 어떤 아르케에는 영혼 아닌 것에 속하기도 하며 어떤 아르케
에는 영혼을 지닌 것에 속하기도 하고 어떤 아르케에는 영혼에 속하기도 하
며 어떤 아르케에는 영혼의 로고스를 지니는 것이므로 어떤 힘들은 로고스
적이지 않는 반면에 어떤 힘들은 로고스와 더불어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생
산하는 능력 과 기교 와 앎들이 힘이다⁸¹⁷⁾ 이것들은 알론한 것들 안에 알
론한 것들 로서 있는 변화의 아르케에이기 때문이다

로고스적인 힘은 무엇이며 로고스적이지 않는 힘은 무엇인가

로고스(와 더불어)적인 힘은 반대들을 생산하는 힘인 반면에 로고스
적이지 않은 힘은 단지 하나의 [결과] 만을 생산하는 그러한 힘이다 예를들
어 [로고스적이지 않는 힘인] 열은 단지 덥게 만 하는 반면 [로고스와 더불어
은 힘인] 의술은 반대들인 병 과 건강⁸¹⁸⁾을 생산하는 것 처럼 말이다 왜냐

817) 생산 (기교)능력 과 기교(형이상학 335-6쪽) 와 앎(범주들 163 쪽) 모
두 그에 따르면 생산 능력을 지니는 자 또는 기교를 지니는 자 또는 아는
자의 영혼 안에 있으며 변화의 아르케에이다 이 때문에 로고스와 더불어 있
기도 하며 그렇지 않기도 하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들인가 바로
이 물음에 답을 이 장에서 집어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변화의 어떤 아르케
에는 영혼 아닌 것에 속한다 라고 말해버리고 그만 두어서는 앎될 것이기
때문이다

818) 병 과 건강 이라는 보기는 그의 강의에서 자주 들어지는 보기 가운데
하나이다(범주들 237 쪽, 형이상학 336 쪽)

건강의 부재(ἀπουσία, 不在, 1032b4)가 병이라고 말하여지는 336 쪽에
서는 결여의 실체는 대립 실체이므로 심지어 반대되는 것(생성)들조차 어
떻게 보면 동일한 에이도스[로부터 오기] 때문에 생산되는 것에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이도스, 첫 번째 실체)이 기교를 지닌자의 영혼 안에 있는
그러한 생산은 기교로부터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여진다 바로 여기 반대되는

하면 로고스⁸¹⁹)는 **앞**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가 프라그마 와

생성들 예를들어 건강 과 병이 동일한 에이도스(건강)로부터 온다 라는 말에 주목해야한다 이 말은 로고스적인 힘 으로서의 의술은 반대들인 병 과 생산을 생산한다 라는 말로 테에타편 2 장에 거듭 나타난다 그렇다면 병은 건강에 반대라는 것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서,

237 쪽에서는 건강 과 병은 그 사이에 중간이 있지 않은 반대 라고 말 하여진다 병 아니면 건강이 몸에 필연적으로 속하기 때문이다 만약 힘 과 검음 처럼 헤테론한 어떤 반대가 필연적으로 몸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는 중간이 있는 반대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테에타 2 장에서 보기로 들어지는 병 과 건강은 자신들 사이에 중간을 허락하지 않는 반대들로서 서로 대립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텔레스가 이러한 맥락에서 결여라는 말을 이끌어 들인다는 점이 나를 곤혹스럽게한다 범주들 237-241쪽에 나와 있듯이 결여 와 반대 모두는 대립에 속하는 것이긴 하나 각기 서로 헤테론한 길에서 대립하므로 결여로 대립하는 것은 반대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병은 건강에 반대 로서 그것도 중간이 있지 않는 반대 로서 대립하지 건강의 결여 로서 건강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텔레스는 여기서 반대는 우선적으로(πρώτη 1046b15) 결여이다 라고 말한다 자 섬세하게 그의 말을 다시 정리해 보자

819) 로고스(말)에 대한 텔레스의 견해는 무엇인가 아마 분석론 전 후 편과 해석에 관하여 과 토피카 등 그의 논리적인 강의들을 지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그 견해가 드러날 것 같다 범주들 과 형이상학에는 로고스가 주제로 해서 말하여진 곳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313-323 쪽 과 제에타 편 7 장(410-453쪽)에서는 비록 (말)로고스가 주제로 삼아지지 않는으나 언급되어진다 그런데,

플라톤은 자신의 대화 편 소피스테이스에서 로고스를 화제로 삼아 말한다 소피스테이스 130-134 쪽 참조하시오 그러나,

텔레스의 범주들 이하 여러 논리적인 강의들 심지어 형이상학 마저 말(로고스)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리라 가운데 로고스 하나

결여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프라그마 와 이 프라그마의 결여에 그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그 프라그마 와 결여에 속하는 것에 적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얕은** 한 편으로 그 자체로 다른 한 편으로는 우연적으로 반대를 생산하는 **힘**이다 **로고스**는 한 편으로 그 자체에 따르는 로고스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반대는 우선적으로 결여이며 결여는 헤태론한 것의 제거이므로 제거 와 부정(否定)에 의해서 반대는 설명되므로 어떻게 보면 로고스는 우연적으로 [반대를 생산하는 또는 설명하는] 로고스⁸²⁰이기 때문이다

반대들은 동일한 것 안에서 결코 동시에 생기지 않으며 **로고스**를 지남에 의해서 비로소 **얕은 힘**이 되며 움직임의 아르케를 영혼이 지니므로 그리고 영혼 안에 로고스는 있으며 로고스는 비록 같은 길에서는 아니지만 그 양자⁸²¹에 있기[적용되기] 때문에 그 양자를 얕이(얕을 지니는 것이) 생산한다⁸²² 따라서,

양자를 동일한 것과 연결시키면서 영혼은 그 양자를 동일한 아르케로부터 움직이게한다 이 때문에 로고스에 따를 수 있는 힘은 로고스 없는 힘이 생산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생산한다 로고스에 의해서는 단지 한 [방향의] 아르케에 만이 포함되어지기 때문이다

를 통해서 로고스 세 개가 연이어진 소위 삼단논법(형이상학 524 쪽 참조)이라는 논증 또는 논리를 분석론 등에서 말하고 있으며 범주들 역시 쪼개진 다시 말해 연결되지 않은 말 조각들(범주들 30 쪽)이라고 말한 후 이 말 조각들(범주들)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있고 형이상학 역시 논리적으로(λογικώς, 1041a28, 507 쪽)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텔레스가 말 만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820) 여기서의 얕은 곧 로고스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말하여지는 것 같다

821) 양자는 어떤 것들을 가리킬까 반대들을 가리키지 바로 이어 들어지는 보기들(차가움 건강 뜨거움)을 가리킬 것 같진 않다 비록 차가움 과 뜨거움은 반대들이긴 해도 말이다

822) 물론 한 편으로 차가운 것 만이 차가움을 생산하며 열내는 것 만이 열을 생산하고 건강한 것 만이 건강을 생산해 내기는 해도 말이다

지금까지는 로고스적인 힘이 곧 앎이 어떻게 반대들을 생산하는가에 대해 말하여진 것 같다 이제 부터는 어떠한 것이 로고스적인 힘이며 어떠한 것이 비 로고스적인 힘인가에 대해 말하여질 것 같다

잘 행하거나 겪는 힘에는 그저 행하거나 겪기 만하는 힘이 포함되나 그저 행하거나 겪기 만하는 힘에 항상 잘 행하거나 겪는 힘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선명하다 잘 행(생산)하는 것은 반드시 생산(행)하나 그저 생산하기 만하는(행하기 만하는) 것은 꼭 잘 생산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약에 따르자면 잘 행하거나 겪는 힘이 로고스에 따르는 힘인 반면 그저 단순히 행하거나 겪기 만하는 힘이 로고스 없는 비 로고스적인 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지금,

있는 것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것 곧 우시아(실체)에 대해 주옥 말해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텔레스의 범주들 그리고 형이상학 델타와제에타 편을 지나 테에타 편 일 장 과 이 장을 지나 이제 삼 장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물론 이러한 텔레스를 따라 오기 전에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플라톤의 대화편 소피스테이스 와 파르메니데이스 와 티마이오스 편을 이미 거쳐 왔다 내 석사 학위 논문의 제목이 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있음)이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 에이나이를 따라 잡는 가운데 뒤나뫼스라는 말이 그 핵심어로 떠올랐다 자신의 대화편 소피스테이스(113-115쪽)에서 ‘ 있는 것들은 뒤나뫼스(힘)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니다(소피스테이스 247e3-4) ’ 라고 플라톤은 잠정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텔레스는 힘(뒤나뫼스, 잠재적인 것)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텔레스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논문은 ‘뒤나뫼스’ 라는 말을 붙들고 늘어져야 할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단지 지나는 길에 잠시 들리는 집에 머무는 것 처럼 이 말에 머물러 필요를 지금 이 순간 조금 느끼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텔레스에 따르면 힘은 변화의 아르케이이며(테에타 편 일 장) 이러한

힘은 로고스와 더불어 것 과 로고스 없는 것으로 나뉘는데 로고스 없는 힘은 단지 하나의 것 만을 생산하나 로고스에 따르는 힘은 반대들도 생산한다 바로 이러한 힘들을 지닌 것이 얇이요 기교요 생산능력이다⁸²³(테에타 편 이 장)

로고스적인 힘이 반대들 (예를들어 건강 과 병)을 생산하는⁸²⁴ 원인은 무엇인가 움직임의 아르케인 영혼 안에 로고스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고스를 지님으로서 얇은 힘을 프라그마를 변하게 한다 어떤 프라그마의 결여는 그 프라그마에 반대이며 바로 이러한 반대들을 얇(로고스에 따르는 힘)이 생산한다

영혼은 반대들 양자를 동일한 아르케에 연결시키면서 그 아르케에로부터 그 양자들이 움직이도록한다 영혼 안에 있는 로고스는 비록 같은 길에서는 아니더라도 그 양자와 관련하기 때문이다 또는 있기 때문이다⁸²⁵그래서 단지 한 방향의 아르케에 만을 따라가는 로고스에 의해서 로고스에 따르는 힘은 로고스 없는 힘이 생산하는 것에 반대를 생산한다 따라서,

로고스를 지님 으로서 힘(예를들어 의술)을 행사하는 (의사의) 얇이 비로소 (병의 결여 로서 병의) 반대(건강)을 생산한다 건강(에이도스)으로부터 (병의 반대인) 건강을 생산하는 것은 건강 그 자체를 생산하는 것 이지만 우연적으로 [그 반대(건강 과 병)을] 생산하기도 한다 반대는 우선적으로 결여이며 결여는 헤테론한 것 - 건강 과 병은 헤테론한 것이다 -의 제거이므로 헤테론한 것의 제거 와 부정에 의해서 (병의 반대인) 건강 과 (건강의 반대인) 병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얇(을 지니는 것)은 반대들 양자를 생산하다⁸²⁶ 그런데,

823) ‘지니다’ 라는 말을 슬며시 빼고 그냥 얇 과 기교 와 생산능력이 힘‘이다’ 라고 말해도 될 성 싶은데.....

824) 로고스 없는 힘들은(로고스를 따르지 않는 힘, 비 합리적인 힘, 폭력, 어거지) 그에 따르면 반대를 생산하지 못한다 단지 오로지 하나의 결과 만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825) 관련하는 또는 있는 길에 대해서는 336 쪽 이하를 참조하시오

826) 그런데 결여는 우선적으로 반대이다 가 이러한 그의 로고스의 전제이

로고스에 따르는 힘(예를들어 앎)이란 잘 행하거나 또는 겪는 힘인 반면에 로고스 없는 힘은 그저 단순히 행하거나 겪는 힘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말 할 수 있을까 텔레스와 연관지어 이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은 아직은 약간 무모한 것 같다 그러나,

잘 행하고 겪는 힘에는 반드시 그저 행하고 겪기만 하는 힘이 포함되는 반면에 그 거꾸로는 아니라는 것을 텔레스는 2 장을 끝 내면서 분명하게 말한다 그저 행하거나 겪는 것은 반드시 잘 행하거나 겪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

텔레스는 삼 장에서 이러한 힘(뒤나뮌스, 잠재성)을 활동성과 동일시 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장 끝 부분에서 활동을 현실(현실태)와 연결시킨다(συντιθεμένη 1047a31) 그리고 움직임을 넘어간다

“ (3) 예를들어 메가라 사람들이 말한 것 처럼 활동할(ἐνεργῆν 1046b29) 때만 (어떤 것은) 힘 있지(할 수 있지) 활동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힘 있지 않다(할 수 없다) 라고 그래서 예를들어 집 짓는 경우 집 짓고 있지 않는 자는 집 지을 수 없고(집 지을 힘이 없고) 오히려 집 짓고 있을 때에만 집 짓는 (힘이) 있다 알론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잇따르는 불 합리(ἄτομα⁸²⁷) 1046b33)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본다

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전제가 범주들에서 말하여지는 것들과 일관적인지가 미심쩍다 거기서는 대립 이라는 점에서는 반대 와 결여가 동일하지만 그 대립되는 길에서는 결여 와 반대가 서로 헤테론하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언급되었다 (559 -560쪽 각주 818 번)

827) 그는 이테아론자들도 불 합리 하다 라고 말하고 있음에 유의하라(473 쪽을 참조)

집 짓는 자(로)에 있음⁸²⁸)은 집 지을 수 [있는] 힘(으로)에 있음 이므로 집 짓고 있지 않는한 분명히 집 짓는 자(οικοδομός 1046b34, 건축가, 목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알론한 기교들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이제(οὖν 1046b36),

어떤 때 배워서(μανθάνοντά 1046b36) 얻지 않는한 그러한 기교들을 지닐 수 없다(ἀδύνατον, 1046b36)면⁸²⁹) 그리고(καὶ 1046b37) 항상 있으므로 프라그마들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잊음에 의해서든 어떤 것을 겪음에 의해서든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든 어떤 경우에 잃어 버리지 않는 한(μὴ ἀποβαλόντα 1047a1) 지니지 않을 수 없다면 쓰지 않을 때에는(ὅταν παύονται 1047a3) 그 기교를 지니고 있지 않은[셈이 될 것이다⁸³⁰] 그렇다면(ὅ 1047a4),

어떻게 다시 [그 기교를] 얻어서 곧 바로 집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영혼 아닌 것에 있어서도 실로 이와 같다

828) ‘어떤 것에 있음’ 과 ‘어떤 것’이라는 말은 그의 논증에서 여러 차례 나온다 예를들어 우연히 있는 것의 경우 흰 사람 과 흰 사람에게 있음은 헤테론하다 라는 로고스는 324 쪽에 나오나 선한 것에 있음 과 선한 것은 하나이어야 만한다 라는 로고스는 327 쪽에 나오고 영혼에 있음 과 영혼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말은 384 쪽에 나온다

829) 배우지 않았는데도 획득되는 그런 기교들이 잠재적이지 않다면 또는 그런 기교들이 힘이 아니라면 이라고 옮겨질 수도 있으리라 오히려 힘이 아니라면 이라고 옮기는 것은 가장 직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역(意譯)해서 ...할 수 없다면 이라고 옮기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옮김일 것 같다

830) 배우지 않아도 기교를 지닐 수 있으며 써 먹지 않아도 잊어 버리거나 잃지 않은 채 기교를 지닐 수 있다 라는 전제를 텔레스는 지니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들에 따르면 반드시 배움을 통해서 만 기교를 얻을 수 있으며 써 먹지 않으면 기교를 잃어 버리게 되는데 프라그마(사태)는 그렇지 않지 않은가 라고 그는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기교라는 말을 통해서만 그의 형이상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기교에 대해서는 356 쪽 과 335 쪽을 참조하시오

감각하고 있지 않다 [면] 차가움도 뜨거움도 달콤함도 가능한 감각(αισθητόν 1047a5) 전체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⁸³¹⁾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프로타고라스의 로고스가 잇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감각이 활동하지(ἐνεργῆ 1047a8)않는다면 어느 것도 감각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οὐδὲν 1047a8),

자연스레 [시력을 지녔을 것임도 불구하고 후천적으로] 시력(봄)을 갖고 있지 않은 눈먼 사람(τὸ τυφλόν, 奉事, 1047a8)이 자연스레 [회복]해(kαι 1047a9) [그 시력(봄)이] 여전히 있게 [되]면 동일한 사람이 대 낮에 여러 번 눈 멀 것이다⁸³²⁾ 귀머거리들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서,

831) 감각 역시 누가 감각하지 않더라도 있다 라는 진제를 텔레스는 지니고 있는 듯하다

832) 그런데 그들에 따르면 이것은 불 가능하다 라는 말인가.....

태어 날 때에는 볼 수 있었으나 나중에 눈 멀게 된 사람이 자연스레 시력을 회복해 볼 수 있게 된다면 ‘동일한 - 범주들 238 쪽에 나오는 동일한을 참조하시오 - ’ 사람이 장님 이었다가 장님이 아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로고스는 무엇을 말하려하는가

그들에 따르면 보지 않고 있으면 시력(감각)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장님이 된 사람을 보라 그는 태어날 때 자연스레 시력을 지녀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장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연히 시력을 잃게 되 보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람은 장님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자연스레 시력을 회복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자! ‘동일한’ 사람이 대 낮에 눈 안 멀었다가 눈 멀었다가 눈 안 멀었다하는 등 여러번 장님이 될 것이다 만약 보고 있을 때에만 시력(감각, 힘)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프로타고라스 편들에 따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 가능하다 그들에 따르면 보지 않을 때에는 시력이 있지 않을 것이므로 보아야만 시력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대 낮에(τῆς ἡμέρας 1047a10) 동일한 사람이 보았다 안 보았다 여러 번 그럴 수 있을까 시력이 있는(ὄν 1047a9) 사람은 **항상**(ἀεὶ) 보아야하는데 말이다 라는 말일까 글썄.....

잘못한 그의 말을 위 처럼 받아드린다면 변화 - 범주들 201 쪽을 참조하시오 - 를 거부하므로 프로타고라스 편들은 옳치않다 라는 말일까 어

만약 힘들을 결여(τὸ ἐξερημένον⁸³³) 1047a11)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생성되지 않을(μὴ 1047a11) 것은 생성될 수 없을 것이다 생성될 수 없는⁸³⁴ 것이 있다 또는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하게 될 것이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가리켜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로고스들은 움직임 과 생성⁸³⁵)을 제거해버린다(ἐξαιρούσι 1047a14) 설 수 없는 것이(설 힘이 없는 것이) 서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앉으면 서지 않으므로 선 것은 항상 서고 앉은 것은 (항상) 앉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이 처럼 말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힘 과 활동(δύναμις καὶ ἐνέργεια 1047a18)해대론하다 그러나 저 로고스들은 힘(잠재적인 것) 과 활동(현실적인 것)을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 때문에 [그 로고스들이] 제거해 버리려고한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한 편으로 있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을 수 있으며 한 편으로 있지 않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⁸³⁶(ἐνδέχεται δυνατόν 1046a20-21) 알려진 범주들⁸³⁷)의 경우들도 이와

럽다.....

833) 결여에 대해서는 범주들 238 쪽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834) 텔레스는 ἀδύνατον (1047a13) 이라는 말을 썼지만 오히려 나는 ‘아뒤 나툰’ 이라는 말 대신에 μὴ 라는 말을 써서 지금 생성해 있지 ‘않은’ 것도 어찌 보면 있거나 또는 있기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나,

호르는 로고스들의 줄기를 따르자면 텔레스 처럼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낫다 지금은 있는 것 보다는 있을 수 있는 것 또는 힘 과 할 수(569 쪽 각주 838 번을 참조하십시오) 있음에 관한 로고스들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835) 그에 따르면 생성은 결국 변화요(342 쪽) 움직임(363 쪽)인 셈이다

836) 자신의 대화 편 소피스테이스에서 플라톤은 있는 것 만이 있다 있음 만이 있으며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아버지 파르 메니데이스를 죽여 버릴 수 있는 위험을(소피스테이스 104 쪽) 감수 하면서

까지 엘레아 출신의 낯선 이방인으로 하여금 감히 ‘어떻게 보면 있지 않는 것도 있으며 다시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다(소피스테이스 241d6-7)’ 라고 말하도록 만든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형이상학 306 쪽 참조) ‘어떤 것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있지 않으며 있지 않으면서도 한 편으로 있을 ἔδυνατόν 1047a21)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ἐνδέχεται 1047a20-21)’ 라고 스스로 말한다 그런데,

플라톤이 한 말을 그대 이어 내려오면서 텔레스는 ‘...할 수 있다(뒤나톤)’ 라는 낱 말을 있다에 덧붙여서 있다가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있지 않다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점 하나를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말한 것을 비교해 보면 발견한다

플라톤은 소피스테이스 대화 편에서 엘레아 낯선이의 입을 빌려 있는 것은 뒤나투스(힘, 능력,할수있음)와 알론한 것이 아니다(소피스테이스 115 쪽) 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 맥락에 ‘할 수 있다’를 덧붙인 것은 새로운 점이 아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뒤나투스와 헤테론한 에네르케이아(활동) 또는 엔텔레케이아(현실) 라는 말을 텔레스는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쓴다 현재의 나는 티마이오스와 소피스테이스와 파르메니데스 등의 플라톤 대화 편들 안에서 에네르케이아 또는 엔텔레케이아 라는 낱 말이 있는 것과 연결지워져서 사용된 적을 보지 못 했으며 아예 그러한 낱말을 본 적이 없다 만약 나의 숙고가 옳다면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이 낱 말을 쓴 것은 텔레스 특유의 쓰임새(어법(語法))인 것 같다 플라톤과 구분되는 텔레스의 고유한 알론한 쓰임새들이 서 넷 있기는 해도 말이다 내 논문은 바로 이 특유한 쓰임새를 헤집고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아마.....두 사람의 있음이 다르리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엔텔레케이아(현실)로 있는 것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그는 에네르케이아(활동)에 대해 먼저 말한다 그리고 나서 이 활동(에네르케이아)를 뒤나투스(힘, 잠재성)에 연결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현실(엔텔레케이아)에 연결시킨다 따라서,

뒤나투스 보다는 이데아에 머물러서야 비로소 플라톤의 있음이 드러나

같다 견고 있다(ὄν 1047a23) 견지 않을 수 [있으며] 견지 않다가 걸을 수 있다 또한(δέ 1047a24),

힘(τὴν δύναμιν, 할 수 있음, 1047a25)을 지닌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에 *에네르게이아(활동)*가 속한다면 [바로] 이것이 ‘**할 수[있음]**’(δύνατον⁸³⁸)

듯 뒤나뫼스에 머물러서는 텔레스의 있음이 말하여지지 않고 대신에 엔텔레케이아에 들어서야 비로소 텔레스의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 론을 박살내려한다 - 아마 텔레스 자신은 이데아론의 불 합리한 점을 드러 냈으므로 박살냈다고 스스로 여길 것이다 - 그렇다면 그 제자가 말하는 엔텔레케이아는 무엇인가 어쨌거나,

이렇듯 그의 형이상학은 플라톤의 소피스테아스에 이어지는 작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현대에 이어지는 신학을 포함한 거의 모든 서양 존재론은 이 두 사람의 작업에 직 간접으로 맞 닿아 있는 작업이다

837) 실체를 지닐 수도 지니지 않을 수도 있듯이(파르메니데아스 67 쪽 참조) 량 관계 질 등등의 범주들을 어떤 것은 지닐 수도 지니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일까 다시 말해 실체를 제외한 알론한 범주들인 량 관계 질 언제 어디 상태 지님 행함 겪음 등도 한 편으로 있으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을 수 있으며 한 편으로 있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일까

838) 음.....나는 여지껏 ‘할 수 있음’ 과 ‘힘’을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왔는데.....여기서는 구분되는구나.....그렇다면 서로 어떻게 구분될까

뒤나뫼스(힘)에 활동[성]이 속하는(ὑπάρξις 1047a24) 곧 힘(뒤나뫼스)에 에네르게이아(활동)가 있기 시작하는 그러한 뒤나뫼스가 할 수 있음(능력)인 것 같은데.....음.....서로 구분되는 걸.....그렇다면,

아직 에네르게이아가 있기 않은 뒤나뫼스가 힘이 되어야 하는데.....다시 하나의 어려움이 떠오른다 이어 나오는 ‘엔텔레타이(가능하다, 1047a26)’는 또 무엇인가

, 능력, 1047a24)이다 예를들어 나는 만약 앗혀짐이 그것에 속할 [바로] 그 것이 앗혀질 수 있고 그리고 앗혀지기 시작한다(ἐνδέχεται 1047a26)면 어떤 것도 그렇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떤 것이 움직여지거나 움직이게한다면 또는 서거나 서 게 한다면 또는 있거나 생성된다면 또는 있지 않거나 생성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앗혀짐과] 같게 [말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현실(ἐντελέθειαν 1047a30)과 연결시키는 활동 이라는 이름은 대 부분 움직임들로부터 알론한 것들로 확장된 것이다⁸³⁹⁾ 대 부분 활동이 움직임 [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움직임(움직여짐)들에 실제 아닌 것을 배정하지 않는다 비록 알론한 범주들을 [실체 아닌 것에] 배정하긴해도 말이다 예를들어 생각의 대상(διανοητὰ 1047a34)과 욕망의 대상은 있지 않는 것들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나 움직이는 것들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활동에 의해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있을(ἔσονται , 있게 될, 1047a35) 것이므로⁸⁴⁰⁾ 그렇다 있지 않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잠재적으로(힘으로) 있긴해도(δὲ 1047b1)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있지 않으므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에네르게이아(활동)은 뒤나미스(힘)과도 해태론하며 엔텔레케이아(현실)과도 또 다르다 라고 3 장에서 에네르게이아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힘과 할 수 있음(능력) 과 활동 과 현실을 구분하며 그리고 심지어 활동이 대 부분 움직임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하긴하나 이 넷을 움직임과도 구분함

839) 힘 과 활동에 대해 말하므로서 우리는 움직임을 훨씬 넘어선다 라고 말하는 546 쪽 과 그 쪽의 각주 788 번을 참조하시오

840) 활동에 의해서 이미 있는 것들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것들 - 있어질 것들이므로 지금은 있지 않는 것들일 것이다 - 이 생산된다 라는 말일까.....그렇다면 따라서,

있는 것들은 움직이는 것들일 것이다 그래서 있음은 움직임이고 움직임은 있음이다 라고 말하려는 것일까 그러나 텔레스에게는 있음은 움직임 보다는 알론한 것에 더 훨씬 많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닐까 알론하게 말하면 움직임에도 열려 있긴해도 말이다

으로서 움직이지는 않지만 있는 그 무엇 - 물론 움직이는 것도 있는 것 가운데 하나(ἐνία 1047b1)이다 - 으로 나아가려한다 우선,

메가라 사람들 처럼 힘을 에네르게이아(활동 - 활동은 주로(μάλιςα 1037a31) 움직임이라 말하여진다)와 동일시 하는 자들이 가져오는 불 합리 함(ἄτοπα 1046b33)을 그는 지적해낸다

메가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 처럼 활동할 때만 힘 ‘있는’ 것이지 활동 하지 않을 때에는 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래서 예를들어 집 짓는 경우 집 짓고 ‘있는’⁸⁴¹⁾ 자에게 힘이 ‘있지’ 집 짓고 ‘있지’ 않은 자에게 힘 ‘있

841) 따옴표 ‘ ’을 내가 있는에 덧붙여 ‘있는’ 이라고한 것은 있다 라는 말이 “ οἶον μὴτὸν οἰκοδομοῦντα οὐ δύνασθαι οἰκοδομεῖν (1046b31 - 32) ”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내가 우리 말의 문법적인 관습 상 집어 넣었으므로 읽는 자들은 주의해 보라 라는 뜻에서 엮었다 이는 그 당시 아티카 지방의 헬라이어 와 현대의 영어 와 이 영어를 따라가는 우리 글이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οἰκοδομοῦντα(집 짓(고 있)는 것들) ’는 동사 ‘οἰκοδομεῖν(집 짓다)’의 현재 분사 중성 복수형의 명사적인 쓰임새로서 집 짓고 ‘있는’ 것들 보다는 집 짓는 것들 이라고 옮기는 것이 더 올바른 것 같다 우리글에는 본디 현재 와 진행이 구분 안됐을 것 같아 홍암이가 집 짓다 에는 이미 집 짓는 현재의 움직임(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들어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 Mr. Hongahm build a house.의 build 에는 집 짓는 움직임의 이어짐(진행)이 들어 있지 않다 들어 있게 할려면 소위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형식 being ing 가운데 build를 끼어넣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영어에서는 움직임의 현재 어느 한 시점 의 움직임 과 이러한 움직임 이 이어진다는 구분해서 표현하며 그러한 구분을 위해서 ‘있다(εἶναι, being)’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이러한 쓰임새를 미국에 빌 붙어 먹고 삶으로서 한국인을 억압 착취 하는 한국 것들이 그대로 우리나라 안으로 가져와 ‘집 짓고 있다’ 라고 말 하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우리의 언어 관습 그대로 ‘집 짓는 사람들’ 그러면 현재 진행이 드러난다 고대 희랍어 처럼 우리 글도 날 말의 끝이 사태가

는' 것은 아니며 알론한 경우들에도 이와같다 라고 메가라 사람 등 어떤 사람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불 합리한 것들이 잇따른다

집 지움에 있음은 집 지을 수 '있는' 힘에 있음일 것이므로 집 짓고

급변하듯 변하므로서 요동치는 그 사태(프로그마)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도,

한문 과 영어는 날 말들이 굳어져 거의 대 부분 문장 안에서의 고정된 위치를 지남에 의해서 그리고 해태론한 말을 덧 붙이거나 떼어냄에 의해서 굽이쳐 흐르는 사태를 표현하려 하므로 심오한 사상(思想)이나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사태(事態)를 드러내려 하면 복잡해지고 어수선히져서 왜곡해 버리거나 오도(誤導)해 버린다 -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해서 언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짧은 생각이다 변하는 것을 말하는 언어는 변해야 그 변하는 언어는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이미 수 천년 전에 플라톤이 이미 말한 바 있다(티마이오스 138 쪽을 보라) 언 듯 보아,

이들 언어로 쓰여진 것들이 그 내용에 있어 깊으며 있는 그대로 그림 묘사하듯 사태를 그려낸 듯 하나 쓰여진 그 만큼 사람의 영혼을 호도(糊塗) 하면서 진리 또는 **있음**(존재)로부터 멀어지게한다 - 그래서 영어 쓰는 것들과 한문 쓰는 것들은 그 만큼 덜 된 사람들이었으며 덜된 사람이고 덜될 사람들이다 - 따라서,

영어성경 과 중국어 및 한문 성경은 그 만큼 진리에서 멀어져있다 물론 떨어져 있는 우리 글에 약간 쳐져서 그 진리를 따라 오고 있긴해도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닥아서는 언어를 선택해서 인류가 사용해야하지 않겠는가 한글이 죽어 버리고 퇴화해 버린 것은 순전히 모두 그러 그러한 못 미치는 사람들 때문이다 우리 글이 살아 다시 움직이는 그 날 철학을 위해 나는 이 석사 학위 논문을 쓴다 그 날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 글을 아끼며 사용하는 위대한 학자들이 많이 나와 우리 글을 국가 권력의 뿌리로 삼아야하며 모든 학문 또는 과학의 근거이게끔 해야한다 권력 과 과학 과 학문 모두는 로고스(말)에서 나오며 말(언어)가 사라진 민족은 소멸하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한 분명히 집 짓는 자(목수)는 ‘있지’ 않다 라는 것이 잇따르기 때문이다⁸⁴²⁾알론한 기교에 있어서도 그렇다 만약 어떤 때 배워서 얻지 않는 그러한 기교들을 지닐 수 없다면 그리고 항상 있으므로 프라그마들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잊음에 의해서든 겪음에 의해서든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든 어떤 때 잃어 버리지 않는 한 문제의 기교를 지니고 ‘있지’ 않을 수 없다면 쓰지 않을 경우 어떤 기교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만약 쓰지 않을 경우 어떤 기교가 있지 않다면 예를들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활동하는(일하는) 목수는) 어떻게 기교를 다시 얻어 집 지을 수 있을까⁸⁴³⁾또한,

842) 그러나 집을 짓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목수(木手)가 목수로 있는 것이 아닌가 설령 지금 집을 짓고 ‘있지’ 않아도 목수는 있다 라고 텔레스는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843) 따라서,

(집 짓는)힘은 곧 활동(집 짓고 ‘있는’ 움직임)이다 라는 이들의 전제는 불행히도 집 짓고 ‘있어’야 만 목수에게 집 짓는 기교가 있다 라는 불 합리한 결론으로 나아간다

기교(를 지닌자)가 움직이고(활동하고) ‘있을’ 때에만 있다면 그래서 목수가 집 짓고 ‘있지’ 않을 경우 그 목수에게는 기교가 있지 않다면 쉬고 ‘있을’ 때에는 그 목수에게 기교가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 기교를 잊어 버리거나 잃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쉬었다가 다시 문제의 그 목수가 집 짓는다 - 한 번도 쉬지 않고 집 짓는 목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 이 경우, 목수는 어디서 기교를 얻을까 알론한 어떤 것을 겪음에 의해서 또는 문제의 기교를 잊어 버림에 의해서 또는 시간이 흐름에 의해서 어떤 때 홀연히 기교를 잃어 버리지 않는 한 프라그마는 항상 있어 파괴 되지 않으므로 (목수는) 반드시 기교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면 - 아마 정상이라면 쉬고 ‘있을’ 때 이렇게 잃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그리고 만약 단지 배움 으로서만 기교를 얻을 수 있다면 목수가 자신이 지나는 기교를 쓰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 기교가 자신에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목수는 엄연히 다시 집을 짓지 않은가 그래서,

영혼 아닌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것 처럼 감각하고 ‘있지’ 않다면 차가움도 뜨거움도 달콤함도 가능한 감각 전체도 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자신의 감각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 감각⁸⁴⁴은 자신에게 있지 않게 될 것이다⁸⁴⁵나아가서,

[이 사람들 처럼 어떤 것도] 힘을 결여할 수 없다면 생성 해 “ 있지 (ἔσται⁸⁴⁶ 1047a12) ” 않는 것은 결코 생성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성 할 수 없는 것도 [어찌 보면] 있다 또는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프로타고라스 사람들에 따르면] 거짓 말하는 셈이 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 의해] 가리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로고스들은 움직임 과 생성을 제거 해 버린다 설 수 없는 것이 서 있다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에 앉으면 서지 않을 것이므로 선 것

불 합리한 끝(결론)을 이들의 전체(로고스)는 담고 ‘있다’

844) αἰσθητικόν(아이스테에신, 1047a8)을 감각(感覺) 보다는 감각능력(感覺能力)이라고 옮기는 것이 나올 성 싶다

845) [태어날 때] 자연스레 시력을 지닌 사람이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자연스레 회복해 그 사람에게 시력이 [현재] 있다면 동일한 사람은 여러 번 한 낮에 눈 멀 것이다 귀머거리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시력 또는 청력(聽力, 듣는 힘)을 잃었다가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보거나 듣는 동안에만 감각(시력 또는 청력)이 있다 라고 우기는 자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한 낮에 한번 어떤 것을 보거나 또는 시끄러운 시장(市長, 끊임 없이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일단 소리를 들었다면 그 사람은 시력 또는 청력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들리거나 보이는 동안에는 시력 또는 청력이 그 사람에게 항상 있을 것이므로 시력 또는 청력을 결코 그 사람은 잃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잃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프로타고라스 이하 여러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

846) “있다”의 이러한 쓰임새를 플라톤은 “있다”의 적절치 않는(οὐδὲν ἄκριβὲς 티마이오스 38b3) 쓰임새 라고 티마이오스 144 쪽에서 말한다

은 항상 서고 앉은 것은 항상 앉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들의 로고스들은 불 합리한 로고스들과 연 이어서면서 급기야 움직임 또는 생성 마저 거부해 버리는 극도로 불 합리한 로고스로 나아간다] 그러나,

힘 과 활동(주로 움직임이라 말하여진다)을 동일한 것으로 봄 으로서 급기야 제거해 버린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움직임⁸⁴⁷⁾ 과 생성 과 변화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 과 활동(에네르게이아)은 분명히 헤태론 하다 그러므로,

있으면서 한 편으로⁸⁴⁸⁾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있지 않으면서 한 편으로 있을 수 있다 알론한 범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견고 있다가 견지 않을 수 있으며 견지 않다가 걸을 수 있다

이러한 ‘할 수’ [있다]는 힘에 에네르게이아(활동)가 속하는 경우이다 예를들어 나(아리스토텔레스)는 앉혀짐 이라는 [활동 또는 에네르게이아]가 힘에 속하는 경우 그 힘을 지닌 것이 앉혀질 수 있으며 앉혀지기 시작한다 (ένδέχεται 1047a26)면 어떤 것도 앉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한다 움직임점 또는 움직이게함 그리고 서게됨 또는 서게함 그리고 있거나 또는 생성됨 있지 않음 또는 생성되지 않음도 이와 같다 그런데,

비록 움직임과 알론한 것들이긴 해도 대 부분 활동은 움직임인 것으로 여겨지므로 움직임들로부터 확장된 것인 활동(에네르게이아)이 바로 현실과 연결된다 이 때문에 움직임들에 실체 아닌 것이 배정되지 않고 [실체 아닌 것과] 알론한 범주들이 배정된다 예를들어 생각의 대상 과 욕망의 대

847) 움직임 과 쉽 과 있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류 로서 플라톤에 의해 말하여지는 소피스테에스 123 쪽을 참조하라 거기에서는 첫 번째 두 가지 곧 움직임 과 쉽은 서로 섞어질 수 없으나 이 두 가지는 각각 있음과는 섞어질(έθειλεν, 소피스테에스 252e1) 수 있다 그러나 이 셋 각각은 서로 구분되는 헤태론한 것들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848) 있으면서 동시에(ἄμα 1005b19)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한 편으로(μὲν 1047a21)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δὲ 1047a21)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함마) 라는 말에 대해서는 범주들 280 쪽 과 자연학 226b21-22을 참조하시오

상은 있지 않을($\mu\eta$ 1047a34) 것들이긴하나 움직이는 것들은 아니다 라고 말하여지지는 않는다 **활동**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 의해서 있게 될 것들이므로 그렇다 있지 않을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힘**으로(잠재적으로) 있긴해도 **현실**적으로는 있지 않으므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주옥(珠玉) 같은 그의 로고스들이 흘러 나온다 어찌 보면 있는 것들에 관한 플라톤의 애매한 언급들이 보다 더 선명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드 넓게 흩어진 있는 것에 관한 플라톤의 말들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엮어 낸다는 것은 있는 것에 관한 그의 일관된 생각을 어지럽게 흐트러 트리는 것 만큼이나 힘들다 아니 불 가능 할 지도 모른다

플라톤을 거쳐 오며 흔들거리다 텔레스가 주옥 같이 내 뿜은 말이 바로 에네르게이아(활동) 또는 엔텔레케이아(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있는 것이 알론한 방향에서 말하여진다 있는 것은 한 편으로 있지 않는 것들이기도한 원인은 잠재적으로(힘으로) 있는 것이긴 해도 다른 한 편으로 현실적으로 보자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과 연결되는 활동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바로 이러한 **활동**(예를 들어 앓혀짐)이 속하게 됨 으로서 비로소 **힘(잠재성)**을 지닌 것이 활동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있게 시작할($\epsilon\nu\delta\acute{\epsilon}\chi\epsilon\tau\alpha$ 1047a26) 것이므로 그렇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잠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텔레스는 있는 것을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이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텔레스를 소피스테에스의 플라톤과 비교해 볼 수 있리라

여러 번 이미 반복 되어 말하여진 것 처럼 플라톤은 소피스테에스(102-103쪽)에서 낯선 엘레아 사람으로하여금 그 사람의 아버지 파르메니데아스를 죽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있지 않으며 있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mu\eta$, 소피스테에스 241d7) 있다 라고 말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에네르게이아(활동)이다 힘을 지닌 것)에 활동이 속할 경우에 비로소 힘을 지닌 것이 활동할 수 '있으며' 한 번 활동하게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그렇게 '있기' 시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거나 생성하는 것이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거나 소멸할 수 있다 있으려는 또는 있지 않으려는 에네르게이아(활동)이 힘을 지닌 것에 속하는 경우 그것은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있기 시작하거나 또는 있지 않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에네르게이아는 힘 이아니라 현실과 연결된다(συντιθεμένη 1047a31) 라고 말하여진다 물론 힘에 속하기는(ὕπαρξις 1047a24) 해도 말이다 그러나,

힘 과 에네르게이아(활동 - 주로 움직임이라 말하여지나 움직임과는 알론한 것임) 과 현실 이 세 가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할 수[있음]' 이 네 가지는 헤테론한 것들이다 그런데 메가라 사람들 처럼 힘 과 에네르게이아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움직임 또는 생성을 제거해 버리려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 합리한 로고스들이 닥아설 것이다

- 1) 집 짓는 동안에만 목수는 목수이지 집 짓고 '있지' 않으면 목수는 있지 않다 목수는 쉬지 않고 계속 항상 집 짓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 2) 쓰지 않을 경우 기교를 지닐 수 없다 집 짓는 기교를 목수가 쓰지 않고 있을 경우 목수는 그 기교를 지니고 있지 않다 집 짓고 있다 가 잠시 쉬는 목수는 집 짓는 기교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 3) 쉬고 있는 목수는 잊음에 의해서든 어떤 것을 겪음에 의해서든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든 그 기교를 잃어 버렸음에 틀림없다 이제,
- 4) 일을 다시 시작한 목수는 집 짓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제 그 기교가 목수에게 있다 그 목수는 어떤 순간에 그 기교를 다시 배워 얻었음에 틀림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 5) 감각해야만 감각이 있다 감각하지 않는다면 차가움도 뜨거움도 달

- 콤파도 가능한 감각 전체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 6) 보고 있어야만 시력이 있으며 듣고 있어야만 청력(聽力)있다 보거나 듣고 '있지' 않는 동안에는 시력도 청력도 있지 않다 게다가,
- 7) 날 때는 자연스레 시력을 지녔다가 뒤에 눈멀게 된 사람이 다시 자연적으로 시력을 회복한 사람은 한 낮에 여러 번 눈 멀 것이다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귀머거리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서,
- 8) 생성되 있지 않는 것이 있거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는 거짓 말하는 자들이다 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 9) 움직임 과 생성은 있지 않다 설 수 없는 것이 선 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앉으면 서지 않으므로 선 것은 항상 서고 앉은 것은 항상 앉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 10) 있는 것만 있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있는 것은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을 수 없고 있지 않는 것은 다른 한 편으로 있을 수 없다 알론한 범주들도 마찬가지이다 에네르케이아(활동)가 있을 때에만 뒤나뮈스(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들어 선 자에게만 설 힘이 있고 있는 자에게만 있을 힘이 있는 반면에 앉은 자에게는 설 힘이 없고 있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힘이 없다 그러므로 있는 것은 항상 있고 있지 않는 것은 항상 있지 않으며 선 것만이 항상 서고 앉은 것은 항상 앉는다 앉았다가 설 수 없고 섰다가 앉을 수 없다 움직임 과 변화 와 생성은 없다

활동할 때에만 힘 있다 라고 말하는 메가라 사람들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로고스들을 지니게 될 것이다 감각하는 자에게만 감각이 있다 라고 말하는 프로타고라스도 메가라 사람들과 같은 선 상에 있다 따라서,

힘은 활동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헤테론한 것이다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면 결국 생성 과 변화 와 움직임을 거부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변화의 아르케 로서의 힘 역시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텔레스에 따르면 힘은 변화의 아르케에이다 어떤 것은 힘을 지님 으

로서 변할 수 있다 라는 말일 것이다 이러한 힘에는 로고스 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로고스적이지 않은 것도 있다 라고 2 장에서는 말하여 졌고 이러한 힘을 **활동(에네르게이아)**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말하여 졌다 이어지는 4 장에서 그는 변항(變項) α 와 β 등을 써 가며 (있을)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박하면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다 라고 논증한다⁸⁴⁹) 이제,

이러한 4 장을 따라가 보자

“ (4) 만약 (할) 수 (있음 $\delta\upsilon\nu\alpha\tau\acute{o}\nu$ 1047b3)이 우리들이 잇 따라 말했 던⁸⁵⁰) [그러한] 것이라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있지 않을 이것($\tau\omicron\delta\iota$ 1047b5)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것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⁸⁵¹)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849) 여기서 말하여지는 것은 **힘(잠재)**이 아니라 **할 수 (있음)**이라는 점 그 리고 힘 과 할 수 있음(능력) 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활동(에네르게이아)** 과 할 수 있음(능력)도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라 ‘ 힘에 에네르 게이아(활동)가 속한 것이 할 수 있음 ’ 이라는 576 쪽을 참조하시오

엔텔레케이아(**현실**)로 넘어가는 과정 - **힘(뒤나미스)** → **할 수 있음** (뒤나톤) → **활동(에네르게이아)** → **현실(엔텔레케이아)** - 가운데 4 장은 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850) 576 - 577 쪽을 참조하시오

851) 그러나 현실로 있지 않는 것은 힘으로 있는 것이다 라는 578 쪽을 참 조하시오 그렇다면,

있을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인 반면에 **힘**으로(잠재적으로)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텔레스는 말하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인 반면에 힘으로 있는 것은 현실로 있지 않을 수 있으며 현실로 있는 것은 힘으로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로 있는 것이 현실로 있지 않을 수는 없다 라고 그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어떤 양상(樣相)으로 있든지 간에 그 양상의 차원에서는 있으면서 동

평행 사변형의 빗변은 측정 될 수 [있지]만 결국은(μέντοι 1047b7) [앞으로] 측정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어떤 자가 말했던 것을(εἶ 1047b6) 나는 말한다 그 자는 있을 수 없는(τὸ ἀδύνατον εἶναι 1047b8) 것을 논의 하지 않는다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려 하거나] 생성할 (수 [있으려하는 것을])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을 수 있으려 하거나 또는 [앞으로]있지 않을 수 있으려하는 것을 막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있지 않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있을]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거나 또는 생성된다는 것이 [그] 전제라는 것이라는 것이(εἰ 1047i0) 저기 우리들이 말했던 것들로부터 필연적일 것이다 측정 될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어떤 것도 ([앞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γὰρ 1047bb12),

실로 거짓(τὸ ψεύδος 1047b13, 가짜) 과 [있을]수 없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⁸⁵²⁾ 지금 당신이 서 ‘있다’는 한 편으로 거짓인 반면에 다른 한

시에 있지 않을 수는 없다 라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내가 582 쪽 각주 849 번에서 있으면서 한 편으로 있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하였을 때의 차원(次元)은 있는 것들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 - 있는 **힘** 과 있을 수 있음(가능(可能)) 과 있는 **현실** - 모두의 차원(次元) 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것은 그와 동일한 차원에서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말은 허용한다 “ 지금 너에게 있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 라고 자주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텔레스 식으로 말해서 “ 너의 꿈은 너에게 이루어 졌어! 너에게 앞으로도 그 꿈이 있을 수 있으니까.....그러나 한 편으로 너의 꿈은 너에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 왜냐하면 너의 꿈이 앞으로 너에게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것인지.....아니면 지금 나의 로고스들이 그른 것인지.....

852) 왜 갑자기 거짓(가짜) 이라는 말이 나타날까

‘ 있음 과 (그가) 있다는 진실을 가리킨다 있지 않음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소크라테에스는 음악적이다 라는 것도

편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만약 있는 알파로부터 반드시(ἀνάγκη 1047b15) 베타가 있다면 있음 알파의 있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마찬가지로 반드시 베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만약 있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으려는 것을(μὴ εἶναι δυνατόν εἶναι 1047b15) 막는 것은 있지 않기⁸⁵³) 때문이다 그런데,

실로 알파는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 보자] 이제 알파는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알파 베타,(τὸ A B, 1047b19)의 경우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잇따르지는 않는다 베타는 반드시 있다 그러나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ἦν⁸⁵⁴) 1047b20) 그런데,

진실이며 소크라테스는 희지 않다 라는 것도 진실인 반면에 [평행 사변형의] 측정되지 않는 빛 변은 있지 않다 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텔레스는 형이상학 280 쪽에서 말한다 그런데,

거기서 거짓이 나타나는 맥락 과 여기서 거짓이 나타나는 맥락이 같을까 아마 같을 것 같다 거기서는 측정되지 않는 빛 변은 있지 않다 라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여지며 여기서도 평행 사변형의 빛변은 측정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 측정되지 [못]할 것이다 - 빛 변은 측정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 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될 수 있다 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될 수 (있다) 라는 말이 덧 붙혀져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서는 있지 않는 것이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여지지만 여기서에서는 오히려 어떻게든 거짓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 함축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이 아닌 것 같다 853)있을 수 없는 것을 막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찌 않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는 것은 이미 이 장 시작하면서 말하여졌다

854) ἦν(있어지고 '있는')은 있다(에이나이)의 미 완료 직설법 단수 3 인칭 변화 형 으로서 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 라는 이름을 지닌 나의 학위 논문을 이루는 중요한 날 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플라톤에 있어서는 에

실로 [알과를]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 보자 만약 반드시 알과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 베타도 반드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있

이나이 와 에앤이 하나로 묶여져서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너무나 자주 텔레스에 있어서는 묶여져서 나타나며 그리고 묶여져서 자주 나타나는 이 낱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τὸ τί ἦν εἶναι, 294쪽 과 307쪽)은 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낱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톤에 있어서도 에앤(있어지고 ‘있는’)은 티마이오스 143 쪽 과 파르메니데스 45 쪽 등에서 독자적으로 쓰이기는 한다 그러나 있음(에이나이)과 묶여져 한 낱말로 쓰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있는 하나는 시간 안에 있지 않으므로 있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도 아니다 라고(45 쪽)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과 있게 될은 단지 시간 안에서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있다(있음, εἶναι)**는 그 영원한 실체에 적절히 고유하게 적용되는 [유일한] 말이다 라고(143 쪽)말하면서 플라톤은 *있어지고 있는(에앤)*이라는 낱말을 쓰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있어지고 있는(εἶναι)* 그 무엇은 에이도스로서 가장 먼저 있는 실체이다 라고 말하면서 *있어지고 있는(에앤)*이라는 말을 쓴다 이제,

굳이 이 두 사람의 쓰임새를 구분해 보라면 아마 어찌면 너무도 중요한 구분일지도 모르긴 하지만 한 사람에 있어서는 **실체**를 가리키는 **있음**(있다)에 있어지고 ‘있는’이 덧 붙혀진 반면에 한 사람에 있어서는 **실체**를 가리키는 **있음(있다)**에 있어지고 ‘있는’이 덧 붙혀져 있지 않다 다시 말해,

플라톤의 실체(있음)는 시간 안에 있지 않는 반면에 텔레스의 실체(가장먼저있음)는 시간 안에 있다 따라서 플라톤의 실체는 있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반면에 텔레스의 실체는 있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텔레스 역시 질료 와 에이도스로 이루어지는 생성된 것과 분리해 있는 순수한 에이도스(543 쪽 참조)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플라톤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으리라

을 것이다 그러나 따라서(ἀρα 1047a22) 알파는 (있을) 수 있는 것이었다(ἦν 1047b22) 따라서 베타도 (그렇다) 따라서 이렇듯 베타는 있는 알파로부터(τ ού Α ὄντος 1047b24) 있으므로 알파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베타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실로,

이렇듯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μὴ 1047b25) 알파 베타의 그러한 상태들로부터 베타도 [그러한다면] 알파 베타는 그러한 상태를 지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있을) 수 있는 것 알파로부터 반드시 (베타)가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알파가 있다면 반드시 베타도 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있는 베타(το Β εἶναι 1047b28)이기 때문이다 만약 알파가 (있을) 수 [있다]면 그렇다 만약 알파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있어 왔을 때 그렇게 반드시 있다 ”

뒤나뮌스(힘) 보다는 뒤나톤(할 수 ‘있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장에서는 뒤나톤이 **에이나이**(있음)과 묶어져 주로 말하여진다 할 수 ‘있다’(δυνατόν εἶναι 1047b17 또는 εἶναι δυνατόν 1047b16)에서 처럼 말이다⁸⁵⁵⁾

있을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있지 않는 것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며) 앞으로 있을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거부하면서 텔레스는 4 장을 연다 그가 앞서 576 - 577 쪽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있을 수 있는 것에는 그 있는 힘에 이미 에네르게이(활동)이 속하므로 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있을⁸⁵⁶⁾ 수 있으면 이미 필연적으로(ἀνάγκη 1047a15)있기 시작하는(ἐνδέχεται 1047a26)것이다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것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만약 할 수 있음

855) 따라서있음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무엇인가 라는 나의 물음에 대한 답이 이장에서 주어질 만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답을 얻기 위해서 무모한 분석을 시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여기서 나는 테애타 편 4 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려고 할 뿐이기 때문이다

856) 있을 대신에 앓을 또는 움직일 또는 설 또는 생성될(577쪽) 또는 측정될(580쪽) 등 등을 집어 넣을 수 있다

이 우리들이 말했던 그러한 것이라면 분명하다 예를들어,

[평행 사변 형의] 빛 변은 측정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측정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을 나(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는데 이런 자는 있을 수 없음을 논의하지(고려하지) 않는다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려 하거나 또는 생성할 수 '있으'려 하는 것을 어떤 것도 막지 못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을 것이 있지 않으려 하는 것을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고(οὐθὲν κωλύει 1047b8) 여기서 때문이다 그러나,

있지 않으면서 한 편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거나 또는 생성된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이라는 것이 저기서 우리들이 말했던 것으로부터 필연적일 것이다 측정 될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어떤 것도 앞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γὰρ 1047b12),

있을 수 없는 것 과 거짓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다'는 한 편으로는 거짓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설 수 '있다'는 아니기 때문이다

있을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이므로 있을 수 있는 것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건 앞으로 있을 것이거나 [또는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그는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것 같다 그러기에,

그에 따르면 평행 사변 형의 빛 변은 측정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측정 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보기로 들어가면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또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있을 수 없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⁸⁵⁷⁾] 라고 그는 말한다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려 하는 것을 막는 것도 있지 않지만 있지 않을 것이 있지 않으려 하는 것을 막는 것 역시 있지 않다 라고 여기서 때문이다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또는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을 또는

857) 다시 말해 있는 것 만이 있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기는 자들이다

있는 것이므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동시에,

예를들어 지금 당신이 서 '있다'는 당신이 앉아 '있다'면 거짓인 반면에 서 있다는 설 수 있다가 아닌 것 처럼 있을 수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것 과 거짓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거짓은 있지 않는 것이고(280 쪽) 있을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그는 A(알파) 와 B(베타) 라는 변항을 써 가면서 있는 것 과 있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를 말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한다

있는 알파로부터 반드시 베타가 있다면 있는 알파의 있을 수 있음으로부터 반드시 베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있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있지 않으려는 것을 막는 것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⁸⁵⁸)그런데,

알파를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 보자 알파는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알파 베타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맞 따르지 않는다 베타는 반드시 있으나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있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알파를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 보자 알파가 반드시 있을 수 없는 것을 있다면 베타도 반드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파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있어지고 있었다 베타도 그렇다 이렇듯,

베타는 있는 알파로부터 있으므로 알파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베타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알파 베타의 그러한 상태에서부터 베타도 그러하다면 알파 베타는 그러한 상태를 지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kai 104726),

있을 수 있는 것 알파로부터 반드시 베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알파가 있다면 베타도 반드시 있다 있을 수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있는 베타

858) 여기서 그는 있을 수 있는 것 그 자체 프로그마를 전제하고 있다

이기 때문이다 알파가 있을 수 있다면 알파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있어 왔을 때 그렇게 반드시 있다

이러한 텔레스의 로고스는 먼저,

있는 것의 있음으로부터(τοῦ εἶναι 1047b15) 있는 것의 있을 수 있음이 나온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알파로부터 베타가 반드시 있고 반드시 알파가 있으며 알파의 있음으로부터 알파의 있을 수 있음이 있다면 그 알파의 있을 수 있음으로부터 베타의 있을 수 있음이 분명히 나온다 베타를 있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있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 다음으로,

‘*καλύει* (막다, to hinder, to prevent, 1047b7, 17)’ 라는 말을 쓰므로 논증을 더 선명하게 한다 바로 이 말이 들어 간 로고스를 다시 여기서 따져 보아야한다 첫 번째로,

“ 평행 사변 형의 빗 변은 측정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측정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어떤 자는 있을 수 없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있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으려는 것을 또는 생성될 수 있으려는 것을 또는 있지 않을 수 있으려는 것을 또는 [앞으로] 있지 않을 수 있으려는 것을 막는 것은 있지 않다 [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

사변 형의 빗 변은 측정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있을 수 없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들은 측정 될 수 없는 빗 변은 앞으로도 측정되는 것으로 있을 수 없으며 있을 수 없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있을 수 없는 것을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 만약 있는 알파로부터 반드시 베타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있는 알파의 있을 수 있음으로부터 베타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있을 수 있음이 반드시 있지 않다면 있을 수 있지 않으려는 것을 막는 것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알파로부터 베타가 반드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알파의 있을 수 있음으로부터 베타가 있을 수 없다면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이었다 (ἤν)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다 라는 텔레스의 그 전체를 부정(否定) 하는 로고스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를 부정적으로 논증 하는데⁸⁵⁹⁾ 막다(코오뤼에이)라는 이 낱 말은 결정적인 역할을한다 결국,

4 장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장이라고 말 하여질 수 있으리라⁸⁶⁰⁾나를 혼돈 스텝게한 그러나 텔레스에 있어서의 에이 나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 해야 할 장이지만 나를 혼돈 스텝게한 4 장을 이제 떠나 이러한 (할) 수 (있음) - 능력 -을 행하는 기교(ποιητικ ἤ⁸⁶¹⁾ 1048a8)에 대해 말하는 5 장으로 넘어가자

“ (5) 예를들어 한 편으로 감각 처럼 태어 나면서부터(συγγενών 1047b31)[있거나] 다른 한 편으로 플루우트 [를 부는 힘] 처럼 습관(ἔθει 1047b32)으로부터[있거나] 다른 한 편으로 기교들의 [힘들] 처럼 배움⁸⁶²⁾ 으로부터 모든 힘(뒤나뮈스)들은 [있으므로] 습관 과 로고스에 의해서 [오는

859) 그 전체에 부정하는 말이 틀렸음을 보여 줌으로서 다시 그 말을 부정 하는 논증을 나는 여기서 말한다 다시 말해 부정의 부정이다 이 낱 말 바로 앞에 부정어(否定語) οὐθὲν(어떤 것도...하지 않다, 1047b8,17)이 쓰인 것을 보아도 부정적인 논증을 하는데 그 말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860) 그러나 지금의 나는 이 논증을 전체적으로 조감(照鑑)할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깝다 ἤν(있어지고 있는, 1047b20,22,29)의 쓰임새를 온전히 이해 못한 것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861)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교 다시 말해 능력(能力)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교.....

862) 기교들은 배움에 의해서 얻어질 수도 있다 라고 그가 565 쪽에서 말 하고 있음에 유의하시오

그런 힘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전의 활동에의해서(προενεργησαντας 1047b33-34) 반드시 획득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는 것들 과 겪기 [만 하는] 것들에게는 필연적이지 않다 그런데,

할 수 [있음]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음] 이고 그리고 규정(정의)된 알려진 것들이 어떻게 언제 [어떤 것을 할 수 있음이며] 그리고 한 편으로 로고스에 따라서 움직이게 할 수 [있고](δύναται κινεῖν 1048a2-3) 그런 것들의 힘들은 로고스와 더불어는 것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로고스적이지 않게 (움직이게 할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의] 힘들은 로고스적이지 않으므로 그리고 한 편으로 로고스적인 힘들은 영혼을 지닌 것들 안에 반드시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로고스적이지 않는 힘들은 (영혼을 지닌 것 과 영혼을 지니지 않은 것 이) 양자 안에 (있을 수 있으므로) [또한],

한 편으로 로고스적이지 않은 힘들과 관련지어지[면] 행하는 것 과 겪는 것은 [문제의 그] 힘들에 적절한 길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는 반드시 행하여야하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겪어야하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로고스적인 힘들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한 편으로 로고스적이지 않은 힘들은 모두 단지 하나 만을 행하는(ποιητική 1048a8)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로고스적인 것들은 반대들을 행하기 때문이다⁸⁶³)그래서 동시에 그 반대들을 행할 [까?] 그러나(δέ 1048b9) 그럴 수는 없다 따라서(ἀρα 1048b10),

따라서 주로 [이끄는, 향하는] 헤태론한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나는 이것을 욕망 또는 선택(ὄρεξις⁸⁶⁴) ἢ προαίρεσις 1048b11)이라고 말한다 할 수 (있는) 것 으로서 속해, 겪으려 할 때 두 가지 것 가운데(ὁποτέρο⁸⁶⁵) 1048a11) 어느 것을 주로 욕망해서 그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863) 이미 텔레스는 2 장에서 로고스적인 힘들은 반대들을 행하나 로고스적이지 않은 힘들은 단지 하나 만을 행한다 라고 555 쪽에서 말한다

864) 욕망에 대해서는 영혼에 관하여 433a18 앞 뒤를 참조하시오(노우트4 6'- 95) 거기서 욕망은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 으로서 영혼 안에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604 쪽을 참조하시오

865)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선 반대들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다

힘을 지니는 그리고 **힘** 으로서 지니는 것이 **욕망** 할 때 마다 로고스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은 이것을 행한다(ποιῆσει 1048a12) 그런데 겪어진 것이 현재 할 때는 그러한(ὥδι, 겪는, 1048b15)을 지닌 채 행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밖으로부터(τῶν ἔξω⁸⁶⁶) 1048a15)도 [그 행함을] 방해하여 제한 받지 않는다 나아가서 결코 그러지 않는다 행하는 힘 으로서 있는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어떻게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방해가 물리쳐지는 [때만 그렇다] 긍정적인 제한들 가운데 어떤 것(ἐνια 1048a21)에 의해서 이런 방해들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떤 것도 동시에 두 가지 것 또는 반대되는 것을 탐욕 또는 충동(βούληται ἢ ἐπιθυμῆ 1048a21)에 의해서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것들의 힘을 지니지 않으며 [그것들을] 동시에 행하는 힘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갈 수록 내용이 어려워진다 4 장의 내용도 다 파악 못 했는데 난해한 5 장의 내용이 밀려온다 그 줄거리는 잡아 낼 수 있을 것 같으나 줄거리에 붙어 있는 잡 것들이 더 어렵다 다시 요약하고 나면 더 나아지리라

주로 뒤나톤(할 수 있음 또는 능력)에 대해 말하는 4 장에 이어지는 5 장은 뒤나투스(힘)을 로고스적인 힘 과 로고스적이지 않는 힘으로 나누는 2 장에 오히려 더 이어지는 듯하나 실은 있을 수 있게 되는 다시 말해 능력이 어떻게 행(ποιεῖν 1048a21)하여지는가에 대해 말하므로 5 장은 있을 수 있음 에 대해 말하는 4 장에 더 밀접히 이어진다 그러나,

5 장에서 뒤나톤(할 수 있음)과 더불어 나오는 뒤나투스(힘)는 4 장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5 장은 먼저,

그러나 행함 과 겪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주로 [행하는]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한다는 것을 봐서는 반대들일 것 같기도 한 반면에 전체 맥락에서는 힘 과 할 수 있음(능력)이 발휘(發揮)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주로 이끄는 그래서 로고스적인 힘이 행하거나 겪게하는 이러한 힘 과 할 수 있음과는 헤태론한 그 무엇 곧 욕망 또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866) 밖이란 어떤 것의 밖이란 말일까.....

힘들을 어떻게 지니는가에 대해 말하면서 어떤 힘을 지닐려면 그 힘을 지니기에 앞서 먼저 **활동**해야한다(προενεργήσαντας 1047b33-34)라고 텔레스는 말한다

감각을 지니는 것 처럼 어떤 힘을 **태어 날 때부터** 지니기도 하나 한편으로 플루우트를 부는 힘 처럼 **습관**(τῶν ἔθει 1047b32)으로부터 어떤 힘을 지니기도 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기교들 처럼 **배움으로부터** 어떤 힘을 지니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습관 과 로고스로부터의 힘은 지너지기 이전의 활동에 의해서 온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힘 과 겪기 [만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어,

5 장은 이러한 힘들을 2 장 처럼 로고스적인 힘 과 로고스적이지 않는 힘으로 나누는 다음 이러한 나뉘에 상응하게 그 활동하는 길도 다르다 라고 말한다

할 수 [있음]은 규정된 알론한 것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로고스에 따라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알론한 것들의 힘들은 로고스와 더불어 힘인 반면 로고스적이지 않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비 로고스적인 힘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로고스적이지 않는 힘들은 영혼을 지닌 것 과 영혼을 지니지 않는 것 이 양자 안에 있을 수 있는 반면 로고적인 힘들은 영혼을 지닌 것 안에 반드시 있다⁸⁶⁷)또한,

867) 힘들을 로고스적인 것 과 로고스적이지 않는 것으로 이미 554 쪽에서 그에 의해 나누어 졌다는 점 그런데 거기서는 그 둘 사이의 구분이 아직은 애매 모호 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래서 나는 거기 562 쪽에서 그런 것 같다 라는 말을 써 가면서 요약했다 물론,

그는 거기서 로고스와 더불어 힘들은 반대들을 생산하는 힘인 반면 비 로고스적인 힘들은 단지 하나 만을 생산하는 그런 힘이다 라고 직접 이 두 가지 힘에 대해 말한다(555 쪽) 그리고 이 점은 588 쪽에서 다시 반복된다 그러나,

영혼 아닌 것에 속하는 힘은 로고스적이지 않은 힘인 반면 영혼을 지

로고스적이 않는 힘과 연관되어 행하는 것 과 겪는 것이 그 힘의 적절한 길에 이루어질 때 하나는 반드시 행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반드시 겪어야하는 반면 로고스적인 힘들에 관련되어져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로고스적이 아닌 힘들은 단지 하나 만을 행하는 반면 로고스적인 것들은 반대들을 행(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⁸⁶⁸) 반대들을 행할 수는 없다

여기 까지의 5 장은 2 장과 연이어져 2 장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물론 여기서 보충되는 것들이 2 장에서

닌 것 또는 영혼에 속하는 힘은 로고스와 더불어 힘이다 라는 점(554쪽) 그리고 잘 행하거나 잘 겪는 힘은 로고스에 따르는 힘일 것인 반면에 그저 단순히 행하거나 겪는 힘은 로고스 없는 비 로고스적인 힘일 것이라는 점 (558, 552 쪽)은 내가 나름대로 그러한 힘들을 규정해 본 것 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 힘에 대한 직접적인 그의 언급을 찾아 볼 수 있다 로고스적인 힘은 영혼을 지닌 것 안에 반드시 있는 반면 로고스적이 아닌 힘은 영혼을 지닌 것 안에 있을 수 있고 영혼을 지니지 않는 것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말이다 나아가서,

로고스적이 않는 힘과 연관되어 행하는 것 과 겪는 것이 그 힘의 적절한 길에 이루어질 때 하나는 반드시 행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반드시 겪어야하는 반면 로고스적인 힘들에 관련되어져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텔레스는 말한다 그렇다면,

내가 미리 두 가지 힘에 대해 지레 짐작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한 두 가지 점은 그릇된 것임이 드러난 셈이다 아...이러한 잘못을 내가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을까...

868) 여기에 나오는 동시에((ἅμα 1048b9) 그 반대들을 행할 수 없다 라는 말을 실체는 그 자체 변함 으로서 반대들을 받아들인다 라는 범주들 184 쪽 을 참조하시오

함축적으로 나타난 것들이긴 해도 아직까지는 첨가되는 새로운 어떤 것이 말하여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이 새로운 것을 말하기 위해 3 장 과 4 장 을 거친 5 장이 다시 2 장으로 다시 이어진다

바로 그 새로운 것이 영혼에 관하여 433a18 앞 뒤에서 심각하게 말하여지고 있는 욕망(*ὄρεξις*) 또는 선택이다 무엇 때문에 욕망 또는 선택이 이 순간 여기에서 튀어 나올까

로고스를 지니지 않는 힘들은 단지 하나 만을 행하므로 반대들을 행하지 못 한다는 것이 그리고 반대들을 행하는 것은 로고스적인 힘이긴해도 로고스적인 힘도 동시에 그러한 반대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로고스적인 힘들은 적절한 길에서 행함 과 겪음에 마주칠 때 하나가 반드시 행하고 다른 하나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고스적이 않는 힘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하여졌다 그렇다면,

로고스적인 힘이 *행하고 과 겪으*(869)려할 때 이 행하고 겪도록하는 헤태론한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만 로고스적인 힘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헤태론한 그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나도 이러한 텔레스의 생각이 옳다고 본다 그러기에 그는 여기서 욕망(오렉시스) 또는 선택을 이끌어 들인다(870)

[힘을 주로 있을 수 있게 하는 또는 **활동**하게 하는 그러나] 이런 것들과는 헤태론한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나(텔레스)는 이것을 욕망 또는 선택 라고 말한다 할 수 있는 것 으로서 속해 있어 겪으려 할 때 마다 두 가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를 주로 욕망해서 그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

869) 행함 과 겪음은 서로에 연결되지 않는 순수한(하플로스) 것들 로서의 카테에고리아들이었음을 기억하라(범주들 30 쪽)

870) 따라서 어떻게 보면 힘 과 할 수 있음 과 욕망 과 활동 과 현실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 영혼을 섬세하게 갈라 놓은 것들 처럼 보인다 요즈음 사람들은 영혼 이라는 말을 일부러 쓰려고하지 않지만 영혼의 양상 또는 움직임인 생각 과 감각 과 감정 등을 현대 심리학이 다루려고 한다면 텔레스 또한 여기서 현대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더불어 말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러하기 때문에,

힘을 지는 것이 **욕망** 할 때 마다 로고스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 이것을 **행**한다 그런데 겪음이 현재 할 때는 겪음을 지닌 채 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행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습성도 그 행함을 방해하여 결코 제한하지 않는다 행하는 힘으로 있는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방해가 물리쳐지는 그러한 때만 그렇다 긍정적인 제한들 가운데 어떤 것(ἐντα 1048a21)에 의해서 이런 방해들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떤 것도 동시에 두 가지 것 또는 반대 되는 것을 탐욕 또는 충동에 의해서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것들의 힘을 지니지 않으며 그리고 그것들을 동시에 행하는 힘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이 활동 할 수 있는 것은 욕망 또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5 장을 짚막하게 말 할 수 있으리라 **욕망** 하므로서 **힘**이 로고스적으로 **활동**하여 반대들을 **행**(ποιεῖν, 생산)한다 물론 **겪으면서 행**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이러한 행함을 방해하는 어떤 **습성** - 습성들 가운데 외부적인 방해를 물리치는 습성의 경우 그렇다 - 도 있지 않으므로 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듯,

힘이 활동하는 길에 대해 말하는 5 장⁸⁷¹)에 이어지는 6 장부터 그는 이제 활동 과 현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먼저,

6 장에서 그는 할 수 (있음) 과 움직임 과 실천 또는 활동을 구분한다

“(6) **움직임**에 따라 말하[여지]는 **힘**에 관해 말했으므로 **활동**(ἐνεργεῖα 1048a26)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가에 관해 말해 보도록 하자

순수하게든 또는 어떤 길에서든 자연스레 알론한 것을 움직이 거나(κινεῖν 1048a28) 또는 알론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짐 이것을 우리들은 할 수

871) 여기서 말하여지는 행함 과 겪음에 대해 더 숙고하고 싶으나 그 자료가 내 머리에 있지 않다

(있음 δυνατόν⁸⁷²) 1048a28)) 이라고 말할 뿐 만이 아니라 해테론하게도 [말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진 우리의 조사 가운데서 동시에 분명하다 이 때문에,

활동(에네르게이아)는 우리들이 말하는 뒤나뮈스(**힘**)과 같은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그마(τὸ πρᾶγμα, 일 또는 사태, 1048a31)에 속한다⁸⁷³)

872) 힘에 에네르게이아(활동)이 속하는 경우 힘을 지닌 것은 있을 수 있다 라고 569 쪽에서는 말하여진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 다시 말해서 **에네르게이아**가 속하는 **힘** 그것을 그는 할 수 (있음, 능(能))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여기서 그는 알론한 것을 자연스레 움직이게 하거나 또는 알론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게하는 것이 할 수 (있음, 능(력)) 이라고 말하여진다

앞 과 뒤에서 달리 말하여진다 라고 여겨질 수 있으리라 그러나 상호 보충(592 쪽)하는 것은 아닐까 어쨌든 **움직임**이라는 말은 뒤에서 앞을 새로 보충한다 물론 움직임 이라는 말이 처음 여기서 나타난다는 뜻은 아니다 이미 567, 570, 588 쪽에서 이와 연관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힘이 변화의 아르케이라고 말하여진다는(548) 점을 상기해 보면 할 수 있음이 힘에 대해 있듯이 움직임이 변화에 대해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 힘 과 할 수 (있음)이 동일한 것이 아니듯 변화 와 움직임 역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 서로 구분된다

873) 우리들이 현실에 주로 연결시키는 활동이라는 이름은 대 부분 움직임 으로부터 움직임과는 알론한 것으로 확장된 것이다 라는 570 쪽을 참조하라 따라서,

거기서도 활동은 힘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넘치시 드러난다 물론 여기서도 힘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에의해 선명하게 말하여진다 그리고,

범주들 81 쪽에 나타난 프라그마 라는 말을 여기에 나타난 프라그마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활동(에네르게이아)은 프라그마(일 사태(事態), 사상(事象))에 속한다는 말인데....

예를들어 헤르메스의 흉상은 나무 덩어리 안에 그리고 반(半)은 전체 안에 힘으로(잠재적으로) [있다] 라고 우리들은 말한다 분리⁸⁷⁴)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ὄτι ἀφαυρεθεῖν ἄν 1048a33) 그리고 심지어 이론을 [지니지] 못한 자조차도 만약 그가 이론을 [지닐] 수 (있다)면 알고 있는 자 라고 우리는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조적인 것들은] 활동적으로 있다

우리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귀납(τῆ ἐπαγωγῆ 1048a35-36)에의해서 각기 경우에 분명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의 정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유비적인 것(τὸ ἀνάλογον 1048a37)을 포착함에 만족해야한다 집 지음이 집 지을 [수 있음]에 대해 그리고 걸음이 걸을 [수 있음]에 대해 그리고 봄이 눈을 감았지만 시력을 지남에 대해 그리고 질료로부터 빚어 것이 질료에 대해 그리고 작업된 것이 아직 작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있듯이 말이다

차이나는(τῆς διαίφορας 1048b4-5)이러한 헤태론한 것들 하나로 **활동**을 취하여 보고 할 수⁸⁷⁵) (있음)을 [다른] 헤태론한 [하나로] 취하여보자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활동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은 아니다⁸⁷⁶) 그러

874) ‘ 실체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잠재적으로 있다 생물의 부분들 - 이 부분들 가운데 어느 것도 분리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리될 때 이것들 모두는 단지 질료 로서만 있다 ’ 라고 말하는 형이상학 497 쪽을 참조하십시오

875) 여기서는 힘(뒤나뮌스) 과 할 수 있음(뒤나톤, 능력)이 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곧 힘에 속하는 헤태론한 것에는 집 지을 수 있음 과 걸을 수 있음 과 눈 감은 시력 과 질료 와 작업된 것이 속할 것이지만 활동에 속하는 헤태론한 것에는 단지 봄만이 속할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집 지음 과 걸음 등은 단순한 움직임일 뿐 에네르게이 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876) 같은 감각으로 활동이라 말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활동은 힘에 대해

나 그것(τούτο, 활동, 1048b7)이 그것 안에 또는 그것에 대해 한 편으로 이것 안에 또는 이것(τόδε 1048b8)에 대해 (그 활동이 있듯) 유비적으로 말하여진다 한 편으로 **힘**⁸⁷⁵⁾에 대해 움직임 으로서 (있는) 것들이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질료인 것에 대해 실체로서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보는 것 과 걷는 것 과 보고 ‘있는’ 것(τῷ ὄρῳντι καὶ.....ὄρω μὲνῳ 1048b11-12)과 같은 많은 있는 것들에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게 한계 없는 것 과 텅 빈 것(τὸ κενὸν 1048b10) 과 이와 비슷한 모든 것들이 힘으로 그리고 활동적으로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런 것들은 어떤 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보고 ‘있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여지는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여진다) 그러나 한계 없는 것은 한 번이라도 **활동적인** 것으로서 분리되어(χωριστόν 1048b15) 있는 [식으로] 그렇게 **힘**으로 있지 않다 단지 한계 없는 것은 인식(γνώσει 1048b15)에 있어서만 (잠재적으로 있을 뿐이다) 나누는 과정이 결코 끝나지 않음은 이런 활동이 힘으로 있음을 담보하지 그 한계 없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를들어 사람들이 몸의 부분들을 얇게 만들고 있는 그 뚱뚱함을 제거함 또는 뚱뚱-제거와 같은 움직임 안에 몸의 그 부분들이 있는 것 처럼 그것을 위해(ὧν ἕνεκα 1048b21) 움직임이 있는 바로 그것에 속하지 않는다 [면] 한계 있는 실천들(τῶν πράξεων 1048b18) 가운데 어느 것도 끝(τέλος, 목적, 1048b18)이 아니고 그 끝 주변에(περὶ 1048b19)있으므로 이것은 실천이 아니거나 또는 끝이 있지 않으므로 최소한도 끝이 아니다⁸⁷⁷⁾ 오히려 **실천**은 끝이 속해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보다(ὄρα̃ 1048b23), 그러나 분별하다(φρονεῖ 1048b23) 와(καὶ⁸⁷⁸⁾

움직임으로 있는 반면에 한 편으로 질료적인 것에 대해 실체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877) 여기서 들어지고 있는 살 뺨 이라는 실천은 (순수한) 실천이 아니다 살 뺨이 그 진정한 그 끝(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살 뺨은 한계를 지는 실천일 뿐이다

878) kai(와, 그리고)를 로스는 ‘ at same time.....and..... ’라고 옮긴다 적

1048b23) 생각하다 와 생각했다 처럼 [말이다] 그러나,

배우다 와 배웠다 또 건강해지다 와 건강해졌다는 [그렇지] 않다 잘 살다(εὖ ζῆν 1048b25) 와 잘 살았다 그러나 행복하다(εὐδαιμονεῖ 1048b26)와 행복했다 [도 끝이 속해 있는 움직임이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끝이 속해있는 움직임이라면 이미) 어느 때 멈추었을 것이다 얇게 만드는 과정이 멈출 것 처럼 말이다 그런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살다(ζῆν 1048b27) 와 살았다[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실로,

한 편으로 이런 것들⁸⁷⁹⁾ 가운데 어떤 것들은 **움직임**(κίνησις 1048b28)이라 말하는 것들인 반면 어떤 것들은 **에네르게이아(활동)**이라 말한다⁸⁸⁰⁾

모든 움직임은 끝나지 않는다 얇게만듬 배움 걸음 (집)지움[등 처럼

절한 표현이다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했다(완료) 보면서 동시에 분별한다 또는 분별했다와 같은 이러한 말들은 끝이 안에 들어 있는 움직임들 로서 실천이다 그리고 현실이다 그러나,

배우면서 동시에 배웠던 것이 아니며 건강해지면서 동시에 건강해졌던 것이 아니고 행복하면서 동시에 행복해졌던 것은 아니고 살면서 동시에 살았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실이 아니다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보기들은 같은 차원의 보기들이 아니라 각기 헤태론한 차원의 보기들이다 살 빼다 와 배우다 와 걷다 와 집짓다 와 살다와 같은 움직임들은 끝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시 말해 끝나지 않을 움직임들인 반면에 보다 와 생각하다는 그 끝이 안에 들어 있는 움직임들이기 때문이다

879) 이것들은 배우다 건강해지다 잘 살다 행복하대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움직임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로고스들의 이어지는 순서를 따르자면 앞의 것일 듯하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로고스에서는 앞의 것 모두 활동이 아닌 것들로 나타나므로 뒷의 것일 듯 싶다

880) 현실(엔텔레케이아)과 연결되는 활동(에네르케이아)은 비록 움직임으로부터 확장됐지만 움직임과는 알론한 것이다 라는 570 쪽과 힘 과 활동에 대해 말하므로써 우리는 움직임을 훨씬 넘어선다 라고 말하는 546 쪽 각주 788 번을 참조하시오

말이다] 이것들은 끝나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다 걸으면서 동시에(ἀμα 1048b30) 걸었지 않으며 집 지으면서 동시에 집 지었지 않고 생성되면서 동시에 생성되지 않으며 움직여지면서 동시에 움직여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움직이다 와 움직여지다는 헤테론하다⁸⁸¹⁾그런데,

동일한 것을 보면서 동시에 보았고(ἐώρακε 1048b33)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했다 나는 이러한 것을 에네르게이아(활동)이라고 말하며 다른 편으로 저것(전자)을 움직임이라 말한다

이와 같은 그리고 이와 비슷한 숙고들에 의해서 에네르게이아(활동)은 무엇이며 어떠한 것(ποίησις 1048b36)인가 가 우리에게 분명해졌다 ”

에네르게이아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6 장은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507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움직임⁸⁸²⁾으로부터 확장된 것이긴해도 움직임과는 알론한 것이 바로 에네르게이아(활동)이기 때문이며 바로 이 활동이 현실과 연결되기 때문이다⁸⁸³⁾

움직임에 따른 힘에관해 말하여졌으므로 이제 활동이 무엇인가에 관해 말해보도록 하자

할 수 (있음)은 알론한 것을 자연스레 움직임 또는 알론한 것의에서 움직여짐 이라고 말하여질 뿐 아니라 이와 헤테론하게도 말하여진다는

881) “ ἀλλ’ ἕτερον καὶ κινεῖ καὶ κινεῖται. (1048b32-33) ” 움직이다 와 움직여지다는 헤테론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움직여지면서 동시에 움직여졌지(κινῆθηκεν 1048b32)는 않지만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였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여기서 κινῆθηκεν을 어떻게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움직임이 완료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확실하나 움직여졌던 것이 완료됐다는 말인가 움직이는 것이 완료됐다는 말인가

882) 움직임에 대해서는 범주들 255 쪽을 참조하십시오

883) 따라서 텔레스는 움직임을 무엇이라 하는가 라는 물음에 우선 답하고서 6 장에 들어서는 것이 나올 성 싶다

것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우리의 조사 가운데 분명해진다 그런데,

활동은 힘(뒤나뒤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그마(일 또는 사태)에 속한다

예를들어 분리되기 때문에 나무 덩어리 안에 또는 전체 안에 힘으로 있다 라고 우리들 말하는 헤르메스의 흉상 또는 반(半)과는 그리고 심지어 이론을 지니지 못하고 있더라도 만약 이론을 지닐 수 있다면 알고 있는 자 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활동적인 것은 [있다] 이제,

우리가 말하려고하는 것 -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것 - 은 귀납에 의해 각기 경우에 분명해진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모든 정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유비적인 것을 포착 함에 만족해야만 할 것이다⁸⁸⁴) 집 지음이 집 지을 수 있음에 대해 그리고 걸음이 걸을 수 있음에 대해 그리고 봄이 눈을 감았지만 시력을 지님에 대해 그리고 질료로부터 온 것이 질료에 대해 작업된 것이 아직 작업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있듯이 말이다 차이나는 이러한 헤태론한 것 하나로 활동을 취하여보고 할 수 있음을 [다른] 헤태론한 것 하나로 취하여보자 그런데,

모든 활동이 동일하게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 안에 또는 그것에 대해 활동이 있고 이것 안에 또는 이것에 대해 활동이 있듯이 유비적으로 말하여진다 활동은 힘에 대해서는 움직임으로 있고 질료인 것에 대해서는 실체로 있기 때문이다

여기 까지의 유비적인 그의 언급에 따르면 활동은 힘에 대해서는 움직임으로 있으며 질료적인 것에 대해서는 실체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다시 말해 움직임 과 실체가 활동이다 그러나 움직임 과 실체가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니다 힘에 관련 되어진 활동은 움직임인 반면에 질료적인 것에 관련 되어진 활동은 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의 차원을 떠나게 되면 활동은 움직임이라고 말해져서는 않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비적으로(κατὰ ἀνάλογον 1048b7) 말한다 그런데,

884) 따라서 에네르게이아를 그는 귀납적인 유비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논증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는 이따금 유비적으로 말하곤한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요약을 일단 멈추고 요약들 사이에 이어지는 말들을 끼워 넣은 원인은 한계 없는 것 과 텅 빈 등 다소 엉뚱한 낱 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마찬가지로 한계 없는 것 과 텅 빈 것 과 이와 비슷한 것 들은 보는 것 과 걷는 것 과 보이고 '있는' 것 처럼 있는 많은 것들에 적용 되는 것과는 다르게 힘으로 그리고 활동적으로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런 것들은 어떤 때는 진실을 말할 수 있게되기 때문이다

보고 '있는' 것은 한 편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한 편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힘 또는 활동적으로 말하여지나 한계 없는 것은 한 번이라고 활동적인 것으로서 분리되어 있는 식으로 그렇게 힘으로 있지 않다⁸⁸⁵⁾단지 한계 - 규정 - 없는 것은 인식에 있어서만 잠재적으로 있을 뿐이다 나누는 과정이 결코 끝나지 않음은 이런 (나누는 ?) 활동이 힘으로 있다는 것을 담보하지 한계 없는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는 것 과 걷는 것 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많은 것에 있어서의 힘 과 활동은 서로 분리해 있는 것과는 달리 한계 없는 것 과 텅 빈 것은 그렇지 않다 라고 그는 여기서 한계 없는 것 이라는 것을 보기로 들어 귀납적으로 말한다 이어 실천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그는 활동의 보기 와 움직임의 보기를 구분한다

예를들어 살 뺨과 같은 움직임에는 그것을 위해 움직임이 있는 그 끝 (목적)이 속하지 않으므로 실천이 아니다 한계 있는 실천들 그 어느 것도 끝이 아니라 끝 주변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끝이 속해 있는 움직임 바로 그것이 실천(ἡ πράξις 1048b23)이다 예를들어 보다 와 분별하다 그리고 생각하다 와 생각했다 처럼 말이다 그러나,

885) 따라서 봄 과 볼 수 있는 것 등은 분리 되어 각기 힘 또는 활동으로 있지만 한계 없는 것 과 텅 빈 것 등은 그렇게 분리 되어 각기 힘 또는 활동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다르게(ἄλλως 1048b9) 힘 과 활동으로 있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문제는 분리(χωριστόν, 1048b15, 分離)이다

배우다 와 배웠다 그리고 건강해지다 와 건강해졌다 그리고 잘 살다 와 잘 살았다 그리고 행복하다 와 행복했다는 끝이 속해 있는 움직임이 아니다 만약 끝이 속해 있는 [곧 한계 있는] 움직임 이라면 그 움직임은 이미 멈추었을 것이다 살 빼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지금 [보기로 들어진 움직임은] 멈추는 움직임들이 아니다 살다 와 살았다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움직임이라 말하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에네르게이아 라고 말한다

살뺌 걸음 배움 집지움 등과 같은 모든 움직임은 끝나지 않는 움직임이다 걸으면서 동시에 걸었지 않으며 (집)지으면서 동시에 집지었지 않고 생성되면서 동시에 생성되었지 않으며 움직여지면서⁸⁸⁶⁾ 동시에 움직여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것을 보면서 동시에 보았고 동일한 것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했다 나(텔레스)는 이러한 것을 에네르게이아(활동)이라 말한다

이와 같은 속고에 의해서 에네르게이아(활동)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가 가 우리에게 분명해졌다

에네르게이아(활동)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말하면서 우선,

그는 귀납적으로 말한다 활동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그는 보다 과 생각하다 그리고 살다 와 잘 살다 와 행복하다 와 살빼다 와 걷다 와 집 짓다 등의 보기들을 들어 이러한 보기들 가운데 어떤 것은 활동인 반면 어떤 것은 움직임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보다 와 생각하다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끝 없는 움직임인 반면 보다 와 생각은 끝을 담고 있는 것들 곧 활동이다 예를들어 살면서 동시에 살았지 못하므로 살다는 끝이 없는 반면에 보다 와 생각하다는 보면서 동시에 보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했으므로 그 끝이 문제의 그것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는 이러한 보기들을 유비적으로 말한다

886) 움직여지다는 움직임이다(움직이게하다)와 헤태론하다 라고 그는 이어 말한다

집 지음이 집 지을 수 있음에 대해 있으며 걸음이 걸을 수 있음에 대해 있고 눈은 감았지만 시력을 지남에 대해 봄이 있으며 질료에 대해 질료로부터 온 것이 있고 작업된 것이 아직 작업안 된 것에 대해 있으므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 곧 활동(에네르게이아)은 힘에 대해(πρὸς 1048b8)있으며 그리고,

질료적인 것에 대해서는 실체로서 활동이 있는 반면에 한 편으로 힘에 대해서는 움직임 으로서 활동은 있듯 이것 또는 저것에 대해(혹은 안에) 있으므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 곧 그 활동이 모두 동일한 것(ὁμοίως 1048b6)을 가리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들어지는 보기들 지니고 있는 혼돈 그리고 서로에 대해 있는 연관의 분명치 못함으로 인한 곤혹에 나는 빠지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곤혹 속에서도 움직임이 그를 통해서 아주 뚜렷하게 나에게 닥아온다

그에 따르면 움직임은 끝이 없다(ἀτελής 1048b29, οὐ τελεία 1048b20) 다시 말해 무한(τὸ ἄπειρον 1048b9)無限)하다는 것일 것이다 배움 처럼 말이다 그러나 봄 또는 생각 등 활동(에네르게이아)는 이러한 것이 아니다 배우면서 동시에 배웠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보면서 동시에 보았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했기 때문이다 봄 그리고 생각 안에는 이미 끝이 들어 있다⁸⁸⁷⁾아울러,

끝이 속해 있는 움직임을 그는 실천(ἡ πράξις 1048b23)이라고 함 으로서 실천을 움직임으로부터 떼어낸다 다시 말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모두 실천이라는 말은 아니다 움직임이 그것을 위해 있는 끝(τὸ τέλος 1048b27-28, 목적)이 문제의 그 움직임에 속해야만 실천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살 빼는 움직임에 그 목적(끝)이 속하지 않으면 실천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천은 활동과 동일한 것일까

887) 그러나 이러한 봄 과 생각 안에 들어 있는 그 끝을 다시 말해 엔텔레게이아(ἐντελεχεία 1049a5-6)를 생각 그 자체 또는 봄 그 자체와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에네르게이아(활동) 와 엔텔레케이아(현실)은 서로에게 해태론한 것들일 것이다

보다 와 분별하다 그리고 생각하다 와 생각했다 등 그가 들고 있는
보기들(1048b23)을 보면 실천은 바로 활동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보면서 동시에 보았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했다를
에네르게이아(활동)의 보기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1048b33)⁸⁸⁸그러므로,

움직임들 가운데 어떤 것은 활동(에네르게이아 또는 실천)인 반면 어
떤 것은 활동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면 비록
움직임들로부터 넓혀진 것이지만 움직임과는 알론한 것이라고 말하는 570
쪽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바로! ,

이 지점에 ‘ 움직임(또는 움직이게 함) 과 움직여짐은 헤테론하다(ετ
ερον 1048b32-33) ’ 라는 그의 로고스를 나는 붙혀 넣고 싶다 그런데 어떻
게 붙혀 넣을까.....나도 헛갈린다 움직임 과 움직이게 함을 구분하고싶기 때
문이다 그런데,

움직임으로부터 넓혀진 것이지만 움직임과는 알론한 것이 에네르케이
아 라고 하지 않은가 움직임 **이**라는 말인가 움직임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
다 아니다’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다 그냥 움직임에 대해 있다 다시 말해
움직임에 관련한다 라고 말하여 어떨까 움직임이 아닌 상태로 움직임에 관
련하는 것이 에네르게이아(활동)이다 라고 말이다 ?.....

7 장으로 넘어 가기 전에 활동은 우리들이 말하는 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그마(τὸ πράγμα, 일 또는 사태, 1048b31)이며 그리고 이러한 활
동이 현실(1047a30)과 연결된다 라는 그의 말을 7 장으로 넘어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다짐해 두고져 한다

‘아직도’ 엔텔레케이아(현실)에 대해 말하지는 않는 7 장을 지나 ‘다시’
어떤 때(πότε 1049b2) 힘으로 있으며 어떤 때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 말하는
8 장으로 닥아 서 보도록 하자

“ 각기 것이 **힘**으로 있을 때 와 힘으로 있지 않을 때를 [반드시] 규
정해야한다 [모든] 때(ὅποτεύιν 1049a1) 힘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888) 그러나 진정 동일한 것일까 라는 물음이 나에게서 솟구쳐 오름은 무
엇 때문일까 지금의 나에게 이 물음이 애매한데도 말이다

예를들어 흠은 사람(ἄνθρωπος 1049a1)[의] 힘인가 아닌가⁸⁸⁹⁾[아닐 것이다] 그러나(ἤδη 1049b2)씨들이 생성 될 때에도 똑 같이 [사람의 힘이 - 잠재적인 사람이]아니다 의술에 의해서 모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오 또는 우연히(ἀπὸ τύχης 1049b4) (모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건강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건강[의] 힘이다 그런데,

있는 힘으로부터(ἐκ⁸⁹⁰⁾ 1049a6)속고에 의해(ἀπὸ διανοίας⁸⁹¹⁾ 1049a5) 현실로 생성 되는 경계(ὄρος, 境界, 1049a5)은 의지⁸⁹²⁾를 행사할 때(ὅταν βουληθῆντος 1049a6) 밖으로부터의 방해⁸⁹³⁾가 있지 않을 [뿐]더러 건강해지려는 쪽 안에도 (의지를 행사하려는) 자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무 것도 있지 않는 [바로 그 때이다] 이와 같이,

집은 힘으로 (있다) 만약 (의지를 행사하는) 쪽 안에 그리고 생성되는 집의 질료 안에 방해하는 것이 아무 것도 있지 않다면 그리고 반드시 덧 붙혀져야하거나 또는 제거되어야하거나 또는 변화하는 것이 있지 않다면 이것이 [바로] 힘으로(잠재적으로) 있는 집이다 생성의 아르케에⁸⁹³⁾가 밖에(ἔξωθεν 1049a12) [있는] 알론한 것들의 경우에도 그와 같다 그리고 밖에서 (방해하는)것이 있지 않은 채 자기 스스로를 통해 있게되는 [바로](생성의 아르케에를) 자신 안에 지니는 [그러한] 것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힘으로 있다] 예

889) 흠은 잠재적으로 사람인가 아닌가

890) 잠재적으로(힘으로) 있는 것으로부터(ἐκ)의 ἐκ에 대해서는 346 쪽 과 338 쪽의 각주 348 번을 참조하십시오

891) 디아노이아(속고)로부터에 대해서는 338 쪽 과 336 쪽을 참조하십시오

892) 비로소 힘(잠재적인 것)이 실현(활동)되기 위해서는 선택 또는 욕망을 통해서 그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한다 라는 589 쪽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줄에 나오는 방해에 대해서는 586 쪽 과 589 쪽을 참조하십시오

893) 생성의 아르케에를 에이도스 와 질료(350 쪽)로 볼 수도 있겠으나 직접적으로는 배의 용골 또는 집의 기초 등이(510 쪽) 생성의 아르케에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를들어,

씨는 아직 [힘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씨는 알론한 것 안에 반드시 (있어야하며)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아르케애를 통해서 그렇고 그러한 것(τοιούτον 1049a16, 속성)을 이미 얻었을 그러한 상태의 씨는 힘으로[(잠재적으로) 있는 사람(ἄνθρωπος)이다] 반면에 [앞선 상태의] 저 씨는 헤테론한 아르케애를 필요로한다 흠이 아직 잠재적으로(힘으로) 흉상(ἀνδρίας, 胸像, 1049b17)이 아닌 것 처럼 말이다 (흠이) 변해야 낫쇠(χαλκός 1049b18)낫쇠⁸⁹⁴)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그 작은 상자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로 된 (것) 이고 나무는 흠이 아니라 흠으로 된 (ξύτινον⁸⁹⁵) 1049a20, 것)이다에서 처럼 우리들이 이것이 아니라 저것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때도 [상황은] 비슷하다 또 흠이 만약 이와 같이 알론한 것이 아니라 저것으로 된 (것) 이라면 항상 저것은 순수하게 잠재적으로(힘으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⁸⁹⁶]) 늦은 것이다 [그래서] 예를들어,

그 작은 상자는 흠으로 된 (것)도 아니고 흠도 아니고 나무로 된 (것)이다 이것(나무?)이 힘(잠재적)으로 [있는] 작은 상자이며 그것(이것)작은 상자의 질료이고 [그리고] 한 편으로 순수한 것의 순수한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이 나무의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 이외의] 알론한 [저]것에 따라 더 이상 저것으로 된 (것)이라 말 하여지지 않는 첫 번째⁸⁹⁷) 무엇이 있다면 이것은(τούτο 1049a25) 첫 번째

894) 바로 이 낫쇠가 흉상의 힘이다 다시 말해 잠재적으로 있는 흉상은 또는 흉상의 힘은 낫쇠이지 낫쇠로 변한 흠이 아니다

895) 이에 대해서는 340-341 쪽을 참조하시오

896) 있어서를 보다 더로 읽어도 될런지.....읽을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있는 것 보다 더 늦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읽어질 수 있을 것이나 그렇게 읽을 수 없다면 일련의 잠재적인 것들에 있어서 더 늦은 것이다 라고 읽어질 수 있을 것이다

897) ‘ 첫 번째에 의해서 나는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 안에 곧 질료 로서의 기체인 것 안에 있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은을 말한다 ’ 라고 텔레스는

질료⁸⁹⁸)이다 예를들어,

만약 흙이 공기로 된(ἀερίνη 1049a26) 이고 공기(ἀήρ 1049a26)는 불이 아니라 불로 된 이라면 불이 이것(τόδε τι 1049a27) 과 실체가 아닌⁸⁹⁹ 것 /으로서의/ 첫 번째 질료이다

왜냐하면 이것에(τούτω⁹⁰⁰),1049a27, 첫 번째 질료에) 이것((τόδε τι 1049a28)이 있느냐 또는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편자 와 기체**는 차이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겪음들(속성들 τοῖς πάθεσι 1049b29)(에 있어서)의 기체는 사람 곧(καὶ 1049a29) 몸 과 영혼인 반면 **속성**(겪음)은 음악적인 또는 흰이다⁹⁰¹ 음악이(μουσική 1049b32) 아니라 음악적인(μουσικὸν 1049b32)

402-3 쪽에서 말한다 거기서의 이 말 과 여기서의 첫 번째는 서로 보충해 준다

898) 질료에 대해서는 351-2 쪽을 참조하십시오

899) Immanuelis Bekkeri 1831년 판에는 οὐ 가 아니라 ὡς 로 되어있으나 W. D. Ross는 ὡς가 아닌 οὐ로 되었다 οὐ가 빠진 ὡς로 읽는다면 이것 과 실체 로서의 로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읽음은 형이상학 여러 곳과 어긋난다 질료는 실체가 아니며 이것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 라고(297 쪽) 거듭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900)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을 첫 번째 실체라고 보았는데.....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아마.....첫 번째 실체일 것이다

901)여기서 속성(겪음)이 보편적인 것(보편자)로 간주된다면 기체는 음악적인 과 흰에 속하는 사람(몸+ 영혼)일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질료에 이것이 있거나 또는 있지 않음에 의해서 보편자(속성)이 기체와 차이난다면 첫 번째 질료에 이것이 있지 않는 것이 속성 곧 보편자인 반면 있다면 기체일 것이다

이러한 로고스는 보편자는 여럿에 공통적인 것이어서(456 쪽)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므로 실체가 아니라는 463 쪽 과 실체는 주로 분리해 있는 이것이라는 298 쪽의 약간의 모자라는 듯한 로고스를 시원하게 보충해 준다 보편자 와 기체 모두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으로서 그것 안에서] 음악이 생성될 때 [그것은] 저것(기체)라고 말하여지며 [그것 안에서] 흠이 아니라 흰(생성될 때) [그것은] 사람이라 (말하여지고) 걸음 또는 움직임이 아니라 저것으로 된(τὸ ἐκεῖνινον 1049a33-34)과 흡사한 걷는 또는 움직이는이 [그것 안에서 생성될 때 그것은 (사람이라 말하여진다)]

한 편으로 이럴 때 마다 궁극적인 것은(τὸ ἔχατον 1049a34) 실체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에이도스인 것 과 이 카테애고리아일 때⁹⁰²⁾ 궁극적인 것은 질료 그리고 질료적인 실체(οὐσία ὑλική⁹⁰³⁾ 1049a36) 이다 그래서,

저것으로 된 질료 그리고 속성(τὰ πάθη, 꺾음, 1049b1)에 따라서 말하여진다 라는 것이 옳게 잇따른다 (질료 와 속성) 이 양자는 정의(규정)되는 것이 아니기(ἀόριστα 1049b2)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 편으로 어떤 때(πότε 1049b2) 힘으로 있고 어떤 때 그렇게 있지 않은가 가 말하여졌다 ” 따라서,

902) 그러나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에이도스인 것 과 카테애고리아일 때 궁극적인 것은 질료 와 질료적인 실체이다 라는 말일까....여기서,

생성하다 라는 말은 낳다(γεννάω, 1032a25, 형이상학 335, 344, 347 쪽)라는 말과 바꾸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궁극적인 것(τὸ ἔχατον 1049a35-36)은 무엇을 말하는가 ἔχατος, η, ον은 공간 또는 방향 또는 정도에 있어서 가장 멀리 떨어진(the furthest)을 뜻한다는데....그렇다면,

흰이 생성될 때 흰에 궁극적인 것은 실체이지만 어떤 에이도스가 낳아질 때 그 에이도스에 궁극적인 것은 질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럴 경우 에이도스는 흰 처럼 자연적인 질은 아니지만 일종(一種)의 실체의 질 곧 있음의 질을 가리킨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 없다(범주들 179 쪽)

903) 질료가 실체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질료로부터 생성된 각기 것을 말할 것이다 이것을 텔레스는 에이도스 보다는 덜한 실체라고 말한다 298 쪽을 참조하라

활동 과 현실을 말하는 것이이 아니라 힘을 말하므로 힘에 대해 말하는 1 장과 다시 묶어지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7 장은 힘으로 있는 ‘때’ 와 힘으로 있지 않은 ‘때’를 판 가름한다

각기 것이 힘으로 있는 ‘때’ 와 그렇지 않은 ‘때’를 규정해야한다 모든 ‘때’ 힘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흙은 사람의 힘인가 아닌가 아니다 생성될 때(ὅταν 1049a2)의 씨도 역시 아니다 또 의술에 의해서 모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요 또는 우연히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라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건강해[지므로 바로] 이것이 건강[의] 힘이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사람의 힘은 흙도 아니요 씨앗도 아니다 그리고 건강의 힘은 의술 또는 우연이라기 보다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으면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로고스를 그는 펼쳐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벗어나는 듯한 말을하는 것 같다 힘이 현실로 변하는 ‘때’에 대해 말하고 있기때문이다

힘으로부터 어떤 ‘때’ 현실로 변할까

있는 힘으로부터 숙고에의해(ἀπὸ διανοίας 1049a5) 현실로 되는 그 경계(ὅρος⁹⁰⁴), 境界, 1049a5, ‘때’)는 의지를 행사할 ‘때’ 밖으로부터의 방해가 있지 않을 뿐 더러 건강해지려는 쪽 안에도 [의지를 행사하려는] 자신을 방

904) 그 한계(限界) 곧 힘이 현실로 되는 그 순간을 말한다 힘 과 현실 사이에 금을 그어주는 곳이라고 달리 말할 수도 있으리라

나는 시간(時間)을 나타내 곤하는 ‘때’ 라는 말을 썼으나 이 순간 또는 그 곳 또는 이 때는 미래의 어떤 부분도 들어 있지 않은 과거의 극단(ἔσχατον 자연학 233b35) 이면서 과거의 어떤 부분도 들어 있지 않은 미래의 극단인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은 채 모든 시간에 과거 와 미래의 한계(πέρας 자연학 234a3)로서 속해 있는 ‘지금(τὸ νῦν 자연학 233b34)’과 통하는 것이 아닐까

548 쪽 과 219 쪽에 나타난 똑 같은 말인 경계를 참조하시오

해하는 것이 아무 것도 있지 않을 [‘때’]이다 그래서,

[의지를 행사하는] 쪽 안에 또 생성 될 집의 **질료** 안에 방해하는 것이 아무 것도 있지 않다면 그리고 덧 붙혀져야 하거나 또는 제거되어야 하거나 또는 변화하는 것이 있지 않다면 집은 **힘**으로 있다 그리고,

생성의 아르케가 밖에 있는 알론한 것들의 경우에도 그와 같으며 생성의 아르케애를 자신 안에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를 통해 있을 것의 경우에도 밖에서 방해하는 것이 있지 않다[면] 그와 같다

그런데 변하는 그 ‘때’(‘조건’)을 말하는 문맥의 끝에서 갑자기 힘이 힘으로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힘이 사람의 힘이라는 말일까..... 예를들어,

씨는 아직 [사람의 힘]이 아니다 씨는 반드시 알론한 것 안에 있으며 그리고 변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아르케를 통해 그러한 것을 이미 얻었을 때(ὄταν 1049a15)의 씨는 사람[의] **힘**이다 반면에 저 씨는 헤태론한 아르케를 필요로한다 흙이 아직 **흙상**[의] 힘이 아닌 것 처럼 말이다 변해야 **흙**은 **놋쇠**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고스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씨는 사람의 힘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졌다가 이제 여기서는 씨가 사람의 힘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이 바뀌었을까

흙이 **흙상**의 힘이 아닌 것 처럼 알론한 것 안에 있는 변하기 이전의 씨는 아직 사람의 힘이 아니나 자신의 아르케를 통해 그러한 변했을 때 그 씨는 사람의 힘이다 마찬가지로 **흙**은 **흙상**의 힘이 아니나 흙이 변해 **놋쇠**로 있을 때 [그 **놋쇠**가 **흙상**의 힘이듯 말이다] 이 경우 씨 또는 흙을 변하게 하는 아르케는 씨 또는 흙에 헤태론한 것이다 예를들어,

작은 그 상자는 나무로 된 것이며 나무는 흙이 아니라 흙으로 된 것이다에서 처럼 이것이 아니라 저것으로 된 것 이라고 말할 때도 [상황은] 비슷하다(ὅμοια 1049b18) 다시,

흙이 만약 알론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저것으로 된 것이라면 항상 저 것은 [흙의] (더) 늦은 순수한(ἀπλώς 1049a21) 힘이다[그런데 이제]

더불어 **질료** 라는 말이 **힘**과 더불어 나타난다 힘 과 질료를 그가 동일한 것으로 다루었는지 아니면 헤태론한 것으로 다루었는지.....가 지금 나에게 분명하지 않다 헤태론한 것일 것도 같은데...아마 헤태론한 것일 것이

다 비록 여기에서는 동일한 것일 것 처럼 보여도 말이다 예를들어,

[설령 나무가 흙으로 된 것이라고 해도] 그 상자는 흙도 아니고 흙으로 된 것도 아니라 나무로 된 것이다 바로 이 ‘나무’가 상자의 **힘**이며 이 ‘나무’가 상자의 **질료**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문제는 그가 ‘나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τούτο(1049a23) 라는 지시사(指示詞)를 썼다는 데 있다 이것이 나무를 가리킨다면 문제는 풀린다 그러나....가리키지 않는다면 풀리지 않는다 어쨌든,

작은 그 상자는 흙으로 된 것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나무로 된 것이다 이것(τούτο, 1049a23, 나무?)이 작은 그 상자[의] **힘**이며 그리고 그것(이것)은 작은 상자의 **질료**[이고 그리고] 순수한 [나무 상자]는 한 편으로 순수한 (나무)의 [순수한 나무 상자](인)[반면에] 이(τοδι 1049a24) [이 나무 상자]는 다른 한 편으로 이 나무(의) [이 나무 상자]이기 때문이다⁹⁰⁵ 게다가,

그는 질료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있는 질료 곧 첫 번째 질료에 대해 말하는데 까지 나아간다

더 이상 알론한 저것으로 된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 첫 번째 무엇이 있다면 이것은 첫 번째 질료이다 예를들어,

만약 흙이 공기로 된 것이고 공기는 불이 아니라 불로 된 것이라면 불이 이것 과 실체 아닌 것 으로서의 첫 번째 질료이다 그래서,

상자의 질료는 나무이며 나무의 질료는 흙이고 흙의 질료는 공기이며 공기의 질료는 불이라면 다시 말해서 불로 된 것이 공기이고 공기로 된 것이 흙이라면 불이 첫 번째 질료이다⁹⁰⁶ 그런데,

905) 로스는 ‘ 작은 상자 일반의 나무 일반이며 이 특별한 나무 상자의 이 특별한 나무이다 (828쪽) ’ 이라고 번역한다

906) 공기가 희박(μανωσις 稀薄)해지면 바람이 되고 바람이 희박해지면 구름이 되며 구름이 희박해지면 물이되고 물이 희박해지면 흙이 되며 흙이 희박해지면 돌이 되는 반면 공기가 응축(πύκνωσις)되면 불이 되므로 공기가 바로 아르케이다 라고 말하는 아낙시메네스를 텔레스는 거부하는 것일까

만약 불이 첫 번째 순수한(ἀπλώς) 질료 라면 거부하는 셈이 될 것이다 아마 전체적으로 거부한다는 차원 보다는 아낙시메네스 처럼 말하면 프라그

여기 까지 말하는 미묘한 시점에서 텔레스는 보편자 와 기체라는 말을 이끌어들이다 불이 첫 번째 질료인 원인은 보편자 와 기체가 서로 차이나는 해태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텔레스에 따르면 설령 서로에 속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질료 와 보편자 와 기체는 해태론한 것이다

왜냐하면 보편자 와 기체⁹⁰⁷는 이것에(τοῦτο 1049a27) 이것(τόδε τι 1049a28)이 있느냐 또는 있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겪음(속성)들의 기체는 사람, 곧 몸 과 영혼인 반면 겪음(속성)은 음악적인 또는 흰이다 음악이 아니라 음악적인 으로서 음악이 그것 안에서 생성될 때 그것이 기체[또는 사람이]라고 말하여지며 그것 안에서 흰이 아니라 흰이 생성될 때 그것이 사람이라 말하여지고 그리고 걸음 또는 움직임이 아니라 저것으로 된과 흡사한 걷는 또는 움직이는이 그것 안에서 생성될 때 그것은 사람이라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사람을 기체라고 하고 흰 음악적인과 같은 속성(겪음)을 보편자 라고 해 보자 그에 따르면 기체 와 보편자는 [첫 번째 질료에] 이것이 있느냐(εἶναι 1049a28) 또는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료에] 이것이 있는 것은 보편자일까 아니면 기체일까 보편자는 아니다 예를들어 흰 또는 음악과 같은 보편자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 속하는⁹⁰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체 예를들어 사람(몸 더하기 영혼)에 이것이 있어야할 것이다⁹⁰⁹그렇다면 기체에 이것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⁹¹⁰ 텔레스는 단지 보기들어 말할 뿐이다

마(사태)를 올바로 말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항의하는 차원일 것이다

907) 기체에 관해서는 162 쪽 이하 와 295 쪽을 보편자에 대해서는 456 쪽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908) 따라서 있다(εἶναι) 와 속하다(ὑπάρχειν)은 문맥에서 섬세하게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다 속하다에 붙는 곤혹스러움을 나는 이미 506 쪽에 써 놓았다 범주들 168쪽 과 형이상학 343. 413, 499쪽을 참조하십시오

909) 그렇다고 사람 과 기체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910) ‘ τόδε τι(이것) ’을 어떻게 말해야하나... 로스는 ‘this’ 또는 ‘the

그에 따르면 그것 안에서 음악 또는 힘 또는 걸음 또는 움직임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또는 흰 또는 걷는 또는 움직이는데 생성될 때 그것이 기체(사람)라고 말하여진다 도대체,

이러한 것들이 질료 나아가서는 힘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일까

그에 따르면 걷는 또는 움직이는 또는 흰 또는 음악적인은 ‘저것으로 된’과 흡사한 것들(ὡς 1049b33)이므로 나무는 흙이 아니라 흙으로 된 것이므로 흙은 나무의 질료인 것과 흡사하게(ὡς) 사람은 음악이 아니라 음악으로 된 것이므로 음악은 사람의 질료이다 라는 말일까 그래서,

질료를 힘이라고 말 할 수 있다면⁹¹¹⁾ 사람의 힘은 음악 과 힘 과 걸

particular(개별자)’ 라고 주로 번역하곤 한다 그 뜻은 무엇인가 ‘분리된 하나’를 말하는 것일까...

911) 질료는 힘이냐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때 힘으로 있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가운데 ‘질료로 된’에서의 ‘질료’도 ‘힘’과 비슷하다(ἔοικε 1049b18)라는 답이 나왔으므로 질료는 힘이냐 라고 곧 질료 와 힘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뜻쇠가 흙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은 흙이 변하여 뜻쇠가 됐다 라는 말일 것이고 그리고 저것으로 된(ἐκείνῳ 1049b21)에서의 ‘된’은 변하다(μεταβάλλειν 1049a15)의 ‘변환’을 가리킨다고 보아야하므로 질료는 어떻게 보면 힘이냐 라고 말해야할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때 힘으로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7 장의 핵심을 끄집어 낼 수 있어야한다 변화려 할 때 행사 되는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 안 밖 어디에도 있지 않고 더 이상 덧 붙혀지거나 제거될 수 없어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때 틀들의 집은 [사람의] 힘이냐 이 경우 [사람에 대해] 집이 있듯이 흉상에 대해 뜻쇠가 또는 뜻쇠에 대해 흙이 있을 것이다 두리 몽실하게 말하면 흙 과 뜻쇠 와 집은 각기 뜻쇠 와 흉상 과 [사람]의 힘 또는 질료이다 따라서,

행사되는 의지가 안 밖 어디에서든 방해 받지 않으며 그리고 의지가 행사 되는 것에 덧 붙혀지거나 제거될 것이나 변화 할 것이 더 이상 있지 않

음 과 움직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기체(사람) 안에서 걷는 또는 움직이는이 생성될 때 마다 궁극적인 것은 실체이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도스인 것 과 카테애고리아일 때 궁극적인 것은 질료 와 질료적인 실체이다 그래서,

저것으로 된은 질료 와 겪음(속성)에 따라서 말하여진다 이 양자는 정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잇따른다

여러 가지 말 줄기들이 겹쳐 흐르는 7 장을 전체 연관 속에서 분석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힘든 그 만큼 어거지 말도 많았을 것 같으나 내 나 림대로 어려운 로고스들을 받아드렸다는데서 설령 그 어거지가 곧 바로 나의 누우스를 잘못 이끌어 갔더라도 힘든 그 만큼 뿌듯하기는 하다

내가 어안이 병병해진 원인은 갑자기 질료와 더불어 첫 번째 질료에 순수한 또는 이것 또는 궁극적인 등이 뒤섞어지면서 빠로오눔(같은 어근(語根)을 지녔지만 그 끝이 살짝 변해버린 이름)들이 연달아 나와 그 뜻을 분별하기 어려웠던 데다 그러한 질료에 힘이 묶어져 말하여지고 있는데다 힘이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조사 하면서 힘 보다는 질료와 연관된 로고스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7 장에서 만 4-5일 끙끙 거렸지만 여전히 찻질하다 시위하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한계인가 보다 그럼에도,

자랑스럽게 나는 지금 7 장에 관한 누우스를 할 수 있는 한 간결하게 풀어 놓아야한다

힘은 질료와 흡사하다 흉상의 질료는 흙이 아니라 흙으로 된 낫쇠이 듯이 사람의 힘은 흙도 아니며 씨앗도 아니라 **변한** 씨앗이다 그런데,

이러한 씨앗에는 행사되는 의지를 안 밖에서 방해하는 어떤 것도 있지 않으며 더 이상 덧 붙혀지거나 제거되거나 변할 것도 없다 다시 말해 각기 것에 행사되는 의지가 안 밖에서 막히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각기 것이 가감 변화되지 않을 때 각기 것은 자신에 ‘궁극적인 것 또는 현실적인 것’의 힘이다 발아(發芽)된 씨앗이 사람의 힘이듯 말이다

을 ‘때’ 각기 것은 힘으로 있다

이런 씨앗은 흙으로 된 낫쇠와 같다 흉상(胸像)의 질료인 낫쇠 처럼 말이다 씨앗도 흙으로부터 된 것이다 또는 변한 것이다 이제,

어떤 때 힘으로 있는가에 대해 말하는 7 장을 그만 떠나 이어지는 8 장으로 건너 가기로하자 8 장에서는 힘이 활동(에네르게이아)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를 말하면서 에네르게이아란 실체 와 에이도스이며 그리고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 (8) 먼저(τὸ πρότερον⁹¹²) 1049b4)는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규정 되어지므로 **활동이 힘** 보다 먼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으로 (있는) 변화의 아르케에 라고 규정되어 말하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움직임 또는 쉼의 전체적으로 모든(ὅλος πάσης1049b7)아르케에 라고 (규정되어 말하여지는) 것을 나는 힘이라고 말한다⁹¹³)

알론한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 안에 동일한 것으로서 (있긴하)나 그러나 류적으로(γένει 1049b9) 힘과 동일한 자연⁹¹⁴)은 움직

912)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말하여지는 먼저에 대해서는 261-269 쪽을 참조하시오 그후 288쪽도 참조하시오

913) 움직임 과 쉼이 곧 변화라면 이러한 정의는 새롭지 않을 것이긴 해도 움직임 또는 쉼의 모든 아르케에 전체 라는 힘에 대한 새로운 규정(정의)가 나타난다 아울러 이미 548 쪽에 나타나는 변화의 아르케 라는 기존의 정의를 참조하라 그런데,

이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움직임의 아르케 뿐만 아니라 쉼의 아르케에도 힘이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쉬는 힘이 있어야 설 수 있다는 다시 말해 쉬는데도 힘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914) 힘은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으로서 있다 라는 로고스를 유념하시오 텔레스에 따르면 힘은 알론한 것으로서 알론한 것 안에 있는 반면 자연

임의(κινητικῆ 1049b9) 아르케에이므로 (자연은) 자기 자신 안에서 생성된다

이런 모든 것(힘 과 자연) 보다도 활동은 로고스에 있어서든(λόγῳ 049b11) 실체에 있어서든 (모두) 먼저이다 그러나 시간에 있어서는 한 편으로 먼저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먼저가) 아니다

로고스⁹¹⁵)에 있어 먼저라는 것은(ὅτι προτέρα 1049b12) 분명하다 활동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에 첫 번째(τῷ ἐνδέχασθαι⁹¹⁶) ἐνεργήσαι δυσά τοι.....πρώτως⁹¹⁷δυνατὸν, 1049b13-14)로(있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

은 자기 스스로 안에 자기 스스로와 동일한 것 으로서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있는 길이 다르긴해도 자연은 힘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아르케이다

생성에 있어서의 에이도스를 자연이라고 말하는 335 쪽을 참조하십시오 915) 이어지는 1049b17에서는 로고스 와(καί) 인식이라는 말이 나온다 활동의 로고스 와 인식은 힘의 로고스 와 인식 보다 ‘먼저다’ 라는 말이다 그런데,

‘먼저다’ 라는 낱말을 부득이 나는 쓰지만 ‘다’라는 말이 ‘있다’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물음은 범주들 269 쪽을 참조하십시오

916) 엔테케타이에 대해서는 569-70 과 584 와 615 와 623 쪽을 참조하십시오

917) 548 쪽에 나오는 첫 번째를 참조하십시오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힘이다 라는 말이다 그렇다 치고,

힘 과 (있을)수 (있음) 과 활동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을까 라고 나는 늘 텔레스에게 물어 왔다 이것들이 먼저 또는 나중이냐는 별로 문제삼지 않은 채 말이다 그런데,

‘활동할 수 있기 시작하는(ἐνδέχασθαι 1049b13)것이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의 로고스에서 이러한 나의 물음

다 예를들어,

‘능숙(能熟)하게 집 짓는’을 ‘집 짓는 **힘**’이라고⁹¹⁸⁾ 그리고 능숙하게 보는(ὁρατικὸν 1049b15)을 봄(τὸ ὁράν 1045b15)이라고 그리고 보는(ὁρατὸν 1049b15)을 보여질 **수** ‘있음’ 이라고 나는 말한다. 알론한 경우에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된다 따라서,

(활동의) 로고스 와 인식(τὴν γνώσιν 1049b17)은 (힘의) 인식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한다⁹¹⁹⁾

에 대한 답이 약간은 내 비쳐지는 것 같다 이 로고스에 대한 해석은 뒤로 미루기로 하자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

있기 시작하는(ἐνδέχεσθαι 1049b13) 이라는 말도 내가 570 쪽에서 일단 문제삼았다는 것도 여기서 지적하고 싶다

918) “ , οἷον λέγω οἰκοδομικὸν τὸ δυναμενὸν οἰκοδομεῖν, (1049a14-15) ” 에서 밑 줄 그은 ‘...ov’을 605 쪽에 나오는 ‘....으로 된(.....ov)’과 같은 쓰임새로 볼 수는 없을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집 지을 수 (있는)’ 또는 ‘집 짓는 힘으로 (있을) 수 (있는)’.....이 아닌가, 그럴 수 없을까야 차라리 집짓는 기교 또는 집짓는 힘이 라고 하는게 더 나올지도 몰라 그리고,

여기서 **힘** 과 (할) **수** (있는)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울러,

보아야 능숙하게 보며(ὁρατικὸν 1049b15) 능숙하게 집을 지어야 집 지을 수 있으며 보여질 수 있어야 볼 수 있다(ὁρατὸν 1049b15)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해야’ 라는 말을 덧붙힐 수 있을까.....그리고,

여기서 오라티콘 과 오라톤 이 두 낱 말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919) 예를들어 보아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봄 곧 활동이 볼 수 있는 곧 힘

시간에 있어서는 /이렇게(ὡδε⁹²⁰ 1049b18)/ 먼저다 수에 있어서가 아니라 에이도스(τῷ εἶδει, 종(種), 1049b18,)에 있어서 동일한 활동이 먼저다⁹²¹)

이미 활동에 따라 ‘있는’ 이 사람(τοῦ ἀνθρώπου τοῦ ἤδη ὄντος κατ’ ἐνέργειαν 1049b19-20) 과 그 곡식 과 보고 ‘있는’ 보다 아직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힘으로 있는 사람 과 곡식 과 봄들인 질료 와 씨⁹²²) 와 볼 수 (있음)이 /시간에 있어서[는] 먼저다 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이것들 보다 이것들이 그것으로부터 생성된(ἐγενετο 1049b24) [바로] 활동하고 있는 [그] 해태론한 것들이 시간에 있어 먼저다 왜냐하면 활동하

보다 먼저 인식된다 라는 말일까 그런데,

이렇게 말 할 수 있으려면 918 번 각주에서 의문을 제기 했듯이 ‘...해야’ 라는 말을 덧붙힐 수 있어야하며 할 수 있음 과 힘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로고스 와 실체에 있어서는 먼저지만 시간에 있어서는 먼저 이기도 하고 나중이기도하다 라고 말한 뒤에 그는 로고스에 있어서 먼저라는 것에 대해 말했으므로 이어 실체에 있어 먼저이다에 대해 말해야 할 것 같으나 시간에 있어서 먼저 와 나중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때가 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시간에 있어서 먼저 와 나중에 대해 그가 무얼 말하는지 그대로 따라가 보자

920) 베케리 판에는 빠져 있으나 A^b 판 과 로스 판에는 들어 있다

921) 수적으로 동일한 에이도스는 그 활동이 힘 보다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라는 말일까.....

922) 변하지 않는 씨가 아니라 알론한 것에 들어 있는 변한 씨를 말한다(앞장 605 쪽 참조)

고 있는 것은 활동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힘으로 있는 것으로부터 항상(ἀεὶ⁹²³) 1049b24) 생성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음악(적

923) 이 ‘아에이(항상)’이 무엇에 걸리는가

구문(句文) 구조(構造)에 따르면 생성된다(기그네타이 1049b25)에 걸려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항상....으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옮겨진다 그러나,

기그네타이 보다 세 낱 말 뒤에 있는 온토스(있는 것)에 걸리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가 그럴 수 있다면 항상 활동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힘으로 있는 것으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옮겨질 수 있으리라

컴마로 일단 끊어진 로고스 맨 앞에 ‘ἀεὶ’가 놓여 있으므로 컴마로 끊어진 그 로고스 맨 뒤의 낱 말에 걸리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어기지 같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수식되어지는 낱 말 앞에 수식하는 낱 말이 놓여진다 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로스 역시 항상이 생성되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로스 828 쪽) 그럼에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생성한다 라고 해 버리면 활동하고 있는 앞의 것 과 뒤의 것이 구분되지 않아 활동하고 있는 뒤의 것에 항상은 걸린다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얼 듯 생겨나는 것을 방해하기 힘들다 두 줄 밑에 나타나는 동일한 말 항상을 눈 여겨보라

두 줄 밑에서의 항상은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어떤 것의’ 바로 앞에 놓여 있으므로 ‘항상 움직이게하는 첫 번째 어떤 것의’ 라고 직역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2 격은 ὑπὸ(1049b26) 라는 전치사의 지배를 받는 목적어 2 격에 걸린다 그리고 이 ‘회포(...의해서)’는 한 줄 위의 회포와 동일한 쓰임새이다 그렇다면,

두 줄 위의 항상을 생성하다에 걸리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것에 의해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회포의 지배를 받는 그 2 격이 사람으로부터의 사람 와 음악 의해서의 사람의 와 음악의 이며 그리고 그 음악의 와 사람의 라는 2 격은 활동하고 있는 것의 예(例)로 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텔레스에 비추어 볼 때 항상 활동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

인)은 음악(적인)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런데(, 1049b26),

항상 움직이게하는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으며] 아울러(δέ 1047b27) 움직이게 하는 것(τὸ κινεῖν 1049b27)은 이미(ἤδη 1047b27)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생성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이 그리고 생성된 것은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생성된 그 어떤 것과 에이도스에 있어(τῷ εἶδει 1049b29) 동일하다는 것이⁹²⁴ 실체들에 관한 로고스들에서 말하여졌다 이 때문에,

(아무 것도) 짓지 않는다면(εἶναι μὴ οἰκοδομήσαντα⁹²⁵) 1049b30) 목수 일 수 없거나 또는 한번도 하아프를 켜지 않는다면 하아프 연주가일 수 없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하아프 연주를 배우는(ὁ μαθητῶν 1049b31)⁹²⁶ 자는 하아프를 연주 함에 의해서 하아프 연주를 배우기 때문이며 배우는 다른 모든 자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주 복잡한 문제거리가 생겨난다 앎을(τὴν ἐπιστήν 1049b33-34) 지

면서도 첫 번째로 움직이게하는 것 - (ἐπεὶ δ' ἐστὶ τι κινεῖν αὐτὸ ἀκίνητον, ἐνεργεῖα ὅν,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하는 활동하며 있는 어떤 것이 있으므로, (1072b7-8) 라고하는 그의 로고스를 참조하십시오 -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여야한다 바로 이것을 543 쪽의 그림에서 내가 그려낸 순수한 그리고 질료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에이도스라고 보면 안될까 순수한 현실 바로 그것이다

924) 에이도스가 동일한 에이도스를 낳는다 또는 생산한다 라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344 쪽을 참조하십시오

925) 아무 것도 짓지 않고 '있다'면 이라고 내가 옮기지 않는 이유가 있다 물론 있다를 넣어 옮기는 것이 원문에 충실한 옮김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럴 경우 집 짓고 있을 경우에만 목수가 있다는 것을 허용하는 메가라 사람들이 텔레스가 용인하는 셈이 되 버릴 것이다(565 쪽 참조)

926) 기교는 배움에 의해서 [도] 지닐 수 있다 라는 565 쪽을 참조하라 배우지 않고도 기교를 지닐 수 있는가 그는 아마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 처럼 보인다 거기서 가정(假定) 법이 쓰이기 때문이다

니지 않은 자가 그러한 앓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아프 연주를] 배우는 자는 [하아프 연주에 관한] (앓을) 지니기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성되는 것의 어떤 [부분]은 [이미] 생성되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의 어떤 [부분]도 [이미] 움직여졌으므로 - 이것은 움직임에 관한 고찰에서 이미 분명해졌다⁹²⁷) - 배우는 자는 반드시 앓의 어떤 [부분]을 지닌다(τὸν μανθάνοντα.....ἔχειν 1050a1)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활동**은 생성 과 시간에 따라 **힘** 보다 먼저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나 실로 마찬가지로(ἀλλὰ μὴν καὶ 1050a4) 실체에 있어서도 (먼저다) 첫째(πρώτον 1050a4),

생성에 있어서 나중은 에이도스(종(種)) 와 실체(τῆς οὐσίας 1050a4)에 있어서 먼저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남자어른(άνηρ 1050a5)는 아이 (보다 먼저이며) 사람(ἄνθρωπος 1050a6)은 씨앗 보다 먼저다 하나는 실로 에이도스(종)을 지니지만 다른 하나는 (자신의 종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생성되는 모든 것들은 각기 아르케애(시작) 와 끝을 향해(ἐπ' ἀρχὴν.... τέλος 1050a8) 나아 가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그것을 위해 [있는 바로] 그 것이 아르케애⁹²⁸)이며 생성은 끝(목적)을 위해 있고 활동은 [그] 끝이며 이

927) 물리학 vi, 6.

928) 여섯 가지로 아르케애가 말하여지는 델타 편(510-513)에서는 아르케애 위(爲)해지는 어떤 것(τὸ οὐ ἔνεκα 1050a8) 곧 어떤 것의 목적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곳은 거기에 나타나는 로고스를 보충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으리라 참고로,

위해지는 어떤 것이라는 말은 제에타 편 마지막 절에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언에 관한 로고스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언은 어떻게 보면 위해지는 어떤 것인 반면에 다르게 보면 맨 처음 움직이게하는 무언이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나타난다(507쪽) 그렇다면,

그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언(에이도스)를 아르케애 라고 말하고 있는

(활동)을 위해(τούτου χάριν 1050a9) 힘이 요구되므로 [그렇다] 생물(동물)들은 시력을 지니기 위해서(ἵνα ὄψιν ἔχωσιν 1050a10)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 위해서 시력을 지니며 이와 마찬가지로 집 짓기 위해서 사람들은 집 짓는 기교를 지니며 이론화(관조) 하기 위해서 이론화(관조) 하는 기교를(τὴν Θεωρητικὴν 1050a12) 지니기 때문이다 그래서(ἀλλ' 1050a12) 배우는 자들을 제외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론화하는 기교를 지니기 위해서 이론화하지 않으며 (배우는 자들도)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면 이론화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론화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서,

질료는 **힘**(잠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⁹²⁹⁾(질료가) 에이도스에 도달할(ἔλθοι 1050a15)것이므로 [그렇다] **에네르게이아**(활동)로 있을⁹³⁰⁾ 때 (질료는) 에이도스 안에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움직임이 끝인 그러한 알론한 것들의 경우에도 그와 같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이 다 가르쳤을 때 자신들의 끝(목적)을 이루어 낸 것으로 여기는 것 처럼 자연(ἡ φύσις 1050a19)도 이와 같다 만약 이러하지 않다면 우리는 파우소노스의 헤르메스를 다시 가져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 헤르메스의 경우에서 처럼 얹어 [학생] 안에 있는지 또는 밖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렇다] **에르곤**(τὸ ἔργον 1050a21, 활(活), 기능(技能), 작용(作用))이 **끝**이며 **에네르게이아**(활동(活動))가 그 에르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네르게이아 라는 이러한 이름이 에르곤(활(活), 작용(作用))으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현실**(ἐντελέχειαν 1050a23)에 까지 확장된다 그런데,

셈이된다

929) 질료를 힘과 흡사한 것으로 말한 곳인 610 - 614 쪽을 참조하시오

930) 접속법 현재 3 인칭 단수 ἦ 가 쓰였으므로 있을 이라고 옮기는 수밖에 없으나 있을 보다는 오히려 다다를 또는 도달할 이라고 옮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에 따르면 질료가 에이도스로 화(化)할 수 없을 것 같으며 더군다나 질료 와 에이도스(종 또는 형상(形狀))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활동에 도달할 때에 그 질료는 에이도스 안에 있다 다시말해 자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띠우게 된다 라는 말이다

한 편으로는 예를들어 시력에 있어서의 봄(ἡ ὄρασις 1050a24) - 이 봄 이외의 헤태론한 어떤 것도 시력으로부터 생성되지 않는다 -에서 처럼 그 쓰임새(ἡ χρήσις 1050a24)가 궁극적인 것인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예를 들어 집 짓는 기교(τῆς οἰκοδομικῆς 1050a26)로부터 집 짓는 활동(τὴν οἰκοδομῆσιν, 작용, 1050b27)과 나란히 집⁹³¹⁾이 [잇따르는 것] 처럼 어떤 것으로 부터 생성되는 어떤 것이 [궁극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경우에는 [봄-활동 또는 작용-이 그] 끝이며 다른 한 경우에는 힘 보다 더한 [것이] 끝이라는 점에서는 [더도] 덜도 말고 같다⁹³²⁾ 집 짓는 활동(또는 작용)은 집 지어지고 ‘있는’ 안에서 [실현되며] 그리고 생성되고 그리고 집과 동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쓰임새(ἡ χρήσις 1050a30)와 나란히 헤태론한 무엇이 생성되 있는 경우에 예를들어 집 짓는 활동(또는 작용)은 집 지어지고 ‘있는’ 안에 있으며 짜여지는 활동(또는 작용)은 짜지고 ‘있는’ 안에 있는 것 처럼 한 편으로 활동은 행하고 ‘있는’ 안에(ἐν τῷ ποιουμένῳ, 생산하는 ‘있는’ 안에, 1050a31)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움직임(ἡ κίνησις 1050a34)은 움직이고 ‘있는’ 것 안에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러나 에르곤(작용, 기능, 활(活))이 에네르게이아(활동)과 나란히 알론한 어떤 것 으로서 있는 것은 아니다 에네르게이아는 그러한 것들(에르곤? 또는 움직이는 것?⁹³³⁾)에 속한다 예를들어 봄은 보는 것 안에 [속하며] 이론(ἡ θεωρία, 理論, 관조(觀照), 1050a36)은 이론화 하는 것 (관조하는 것) 안에 [속하고] 생명은 영혼 안에 [속한다] 그래서 행복도 [마찬 가지이다⁹³⁴⁾] (행복은) 일 종의(ποιὰ 1050b1) 생명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

931) “ ἀπὸ ρῆς οἰκοδομικῆς(집짓는 기교로부터) οἰκία(집) παρὰ τὴν οἰκοδομῆσιν(집짓는 방식과 나란히) (1050a26-27) ”

932) 그 끝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같다 라는 말인가 다시말해,

시력의 경우에는 봄이 그 끝인 반면에 집 짓는 기교의 경우에는 생성 되는 집이 그 끝인 것 처럼 각기 경우에 그 끝이 있다 라는 점에서는 양자가 같다

933) 아마 에르곤 같다

라서 실체 와 에이도스는 에네르게이아(활동)로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로고스에 따르면 에네르게이아는 실체에 있어서도 뒤나뫼스(힘) 보다 먼저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들이 [앞에서] 말했던 것 처럼 항상 처음으로 움직이게하는 것의 에네르게이아에 이를 때 까지의 헤태론한 에네르게이아는 헤태론한 에네르게이아에 시간 상 항상 선행한다(τού χρόνου ἀεὶ προλαμβάνει 1050b4-5) [다섯 째],

그러나 실로(ἀλλὰ μὴν καὶ⁹³⁵) 1050b6) 가장 주로 [말하여지는 측면에서]도 [실체에 있어 활동은 힘 보다 먼저이다] 한 편으로 영원한 것은(τὰ αὐτὰ δια 1050b6-7) 소멸하는 것들 보다 실체에 있어서 먼저이며 다른 한 편으로 영원한 것은 뒤나뫼스(힘)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로고스는 다음과 같다

[각기 힘은] 동시에 모순(τῆς ἀντιφάσεως, 矛盾, 1050b8-9)의 힘이다 한 편으로 속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있기'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은(τὸ δυνατόν δὲ πᾶν ἐνδέχεται⁹³⁶) 1050b10)에네르게이아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934) 행복도 행복한 것 안에 속한다 라는 말일텐데.....그렇다면 행복은 행복한 것 바깥에 있다 라는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졌구나 아니야 꼭 그렇다고 만든 볼 수 없어 먼저 행복을 양자가 무엇이래 여기고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해.....

행복은 일 종의 생명이라는 것에는 나도 동의해.....

935) 이 '알라 메엔 카이'가 620 쪽에 나오는 '알라 메엔 카이(1050a4)'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936) 엔테케타이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570쪽 과 615쪽 과 623쪽을 참조하십시오

있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있기도 하며 마찬가지로 있지 않기도 하다 그렇다면,

동일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며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있지 않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τὸ δυνατόν μὴ εἶναι 1050b12) 있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있지 않기 시작하는 것은(τὸ ἐνδεχόμενον μὴ εἶναι 1050b13-14) 순수하게 말하여지든 -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것은 실체에 따라 (말하여지는 것이다) - 또는 장소에 따라서 혹은 질 또는 량에 따라서 있지 않기 시작하다 라고 말하여지든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힘으로 순수하게 있는(ὄν ἀπλῶς 1050b17) 어떤 것도 순수하게 소멸하지 않는 것들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긴 해도 예를들어 어떤 질 또는 어떤 장소와 같은 어떤 것에 따라서 [힘으로 있지] 못 하도록 막는 것은 아무 것도 [있지] 않다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 모든 것이 에네르게이아 [이다] 필연적으로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것들이다 만약 이것들이 있어지지 않고 ‘있다’면(μὴ ἦν 1050b19) 어떤 것도 있어지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영원한 무슨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힘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만약 움직이는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어디로부터 어디로(πῶθ' ἐν ποί 1050b21) [움직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 질료가 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있지 않다 그래서,

해 와 별들 과 전체 하늘은 항상 에네르게이아이다(활동한다) 자연 [철학자⁹³⁷]들이 때로 (해 와 달 과 별들이) 멈춰 버릴 것을 두려워 했던 것과 같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활동에 있어서 해 별 전체 하늘은] 지치지 않는다 움직임은(ἡ κίνησις 1050b21) 모순(矛盾)들의 힘 주위의(περὶ , 1050b25, 모순적인 힘과 연결된] 예를들어 소멸하는 것들과 같은 그러한 것들⁹³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937) 예를들어 엠페도클레스. De Caelo 284a24-26 (로스831쪽)

938) 해 와 달 과 전체 하늘의 움직임이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해 와 달 과 전체 하늘이 영원한 것인지.....아리송하다 아울러,

[모순의 힘과 연관되는 그러한] 움직임의 연속성은 방해받는다(ἐπιπνο
ος 1050a26)⁹³⁹) 이것의 원인들(αἰτια 1050b28)은 에네르게이아가 아니라 실
체 질료 와 뒤나뮈스(힘)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흙 과 불 처럼 변화하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
것들은 모방되어진다(μιμείται 1050b28) 이것들도 항상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움직임을 자기 자신들 안에 지니므로 [그렇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⁹⁴⁰) 알려진 힘들은 모두 모순의 (τ
ῆς ἀντιφάσεως, 모순(矛盾)의, 1050b31) (힘들)이다 [규정된 어떠한] 이 [길]
로(ὡδι 1050b32)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것)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규정
된]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고스에
따르는(κατὰ λόγον⁹⁴¹) 1050b33)한 [말이다] 그런데 모순[또는 부정(否定
)⁹⁴²]의 비 로고스(적인) 동일한 [힘]들은 [자신들의] 현재 와 부재에 의해서

모순(으로부터)의 힘과 연결지워진 또는 모순적인 힘과 연결 지워진
소멸하는 그러한 것들에 움직임은 향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도 될런
지.....

939) “ ὡς ἐπιπνον εἶναι τὴν συνέχειαν τῆς κινήσεως 1050b26-27) ” 움
직임 과 연속에 대해서는 꺾과 1065b5(9장) - 69a14(12장)를 참조 하시오

940) 623쪽 1050b8-9

941) 로고스에 따르는 힘 과 비 로고스적인 힘 등 힘에는 두 가지가 있는
데 로고스에 따르는 힘은 반대들을 생산하는 반면 비 로고스적인 힘은 단지
하나 만을 생산한다 라고 하는 556 쪽을 참조하시오

942) 942)) 여기서 부정의 (τῆς ἀντιφάσεως, 否정의 1050b34, 31, 25, 8-9)
라는 말 과 반대들의(τῶν ἐναντίων, 反對들의, 1046b5, 11) 라는 말을 섬세
하게 구분해 봐야 할 것 같다 우선,

τῆς ἀντιφάσεως(테에스 안티파세오오스)를 否정의 라고 옮길 수 있는
지부터 따져보자 나는 일련의 텔레스 강의들을 옮기면서 κατάφασις(범주들
2a5, 12b7, 12b11-12)대신에 긍정(肯定)을 ἀπόφασις(범주들 12b11, 14, 형이
상학1046b13-14)를 부정(否定)을 썼으므로(범주들 31쪽 과 240쪽, 형이상학

556쪽) τῆς ἀντιφάσεως(테에스 안티파세오오스)대신에 부정(否定)의를 쓴다는 것은 읽는 이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의 대신에 무엇을 쓸까 대립 또는 반대를 쓸까 이러한 말들 역시 읽는 이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τὰ ἐναντία(타 엔 안티아, 범주들 11b19) 대신에 반대(反對)를 ἀντικείμενοι(안티케이스타이, 범주들 11b17) 대신에 대립되다를 쓰기 때문이다(범주들 236쪽) 그래서,

τῆς ἀντιφάσεως(테에스 안티파세오오스)대신에 부정(不正)의도 반대(反對)도 대립(對立)도 쓰여지지 못 할 것 같다 그럼 무슨 말을 써야 읽는 이 과 나 스스로에게 혼동을 가져오지 않을까.....이런, 나는 이미 **모순(矛盾)**이라는 말을 ἀντιφασίς(형이상학 1018a20, 1054b20, 1062b19, 1068a3) 대신에 쓰고 있었구나(범주들 238 쪽) 따라서,

이 곳에서 쓰여진 부정(否定)의 라는 말을 모순(矛盾)의 라고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음..... 참고로,

로스 와 Hugh Tredennick 은 opposite 라는 말을 쓰는데 (로스 831쪽, 트레드닉 465 쪽), 이 ‘어퍼질’ 이라는 말을 로스는 ἀντικείμενα(안티케이메나, 1018a20) 대신에 쓰는 반면 ἀντιφασίς(안티파시스, 1018a20) 대신에는 contradictories이라는 낱 말을 쓴다(로스 762쪽 과 나의 범주들 253쪽을 참조) 텔레스가 용어들을 일관적이 못하게 쓰는 건지 아니면 로스가 그런 건지 또는 이 두 가지 말이 서로 바꾸어 쓰여질 수 있는 것인지....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바꾸어 쓰여질 수 있는 것이라면 텔레스는 굳이 구분되는 두 가지 용어들을 쓰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텔레스는 아주 말을 아끼며 엄밀하고 섬세하게 각기 낱 말들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텔레스의 강의들을 옮기는 나나 로스 역시 섬세하고 엄밀하게 낱말들을 구분해야 할 것이 아닌가.....다음으로,

모순의 와 반대의 라는 말들이 각기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 지를 따져 보자

영원한 것들은 소멸하는 것들 보다 실체에 있어서 먼저이며 영원한 이러한 것들은 힘으로 있는 것들이 아니므로 [에네르게이아(활동)은 뒤나뒤스(힘) 보다 먼저다 라고] 가장 주로 말하여진다 라는 로고스를 펼치면서 텔레스는 그 로고스 첫 부분에 힘은 [각기] 동시에 모순의(범주들 165 와

(τῷ παρῆναι⁹⁴³) καὶ μὴ 1050b33) [로고스적인 힘과] 동일한 [결과들을 초래 할 것이다 곧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 않게도 할 것이다⁹⁴⁴]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데아 같은 그러한 것들 또는 실체들이 어떤 자연들(φύσεις 1050b34-5)이라면 앎 그 자체⁹⁴⁵ 보다 더한 앎인 어떤

186-7쪽 참조) 힘이 다 라고 말한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요약 하면서 정리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그 맥락만 계속 집어내기로 하자 따라서 모순의 힘이 바로 힘이다

[엠페도클레스 같은] 어떤 자연 철학자 처럼 해 와 별 과 전체 하늘 이 때로 떼어 버리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 할 필요 없다 해 별 하늘은 지지 지 않는다 해 달 별의 움직임은 모순들의 힘과 연결되는 그래서 그 움직임 의 연속성이 방해받는 그러한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순의 이런 힘은 소멸하는 것들에 있다 따라서 움직임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원인 은 에네르게이아(활동이) 아니라 실체 질료 와 힘이다 그렇다면,

힘은 모순[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연속성이 방해 받는 움 직임은 이러한 힘에 대해 있다는 것이 분명해 지는 것 처럼 보인다 계속해서,

반대 쓰여지는 맥락을 집어내 보자 그러나 여기서는 이미 내가 범주 들 236-8 과 251-58에서 반대에 대한 그의 로고스를 요약했다는 것 그리고 사이에 중간이 있지 않은 반대가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해 내는 것으로 만족 하련다

943) 이 말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범주들 254 쪽(형이상학 1018a26)을 참조 하시오

944) 그러나 동일한 결과를 빚는다고 해서 ‘반대(τῶν ἐναντίων, 1046b5)를 생산하는 로고스적인 힘 처럼 비 로고스적인 힘 역시 반대를 생산한다는 것 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이미 555 쪽에 말하여졌기 때문이다 거기에 따르면 로고스 없는(ἀνευ, 1046b23, 558쪽) 힘들은 단지 하나의 결과 만을 생산한다

모순.....

것 또는 움직임 그 자체 보다 더 움직이는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것들⁹⁴⁶)은 [자신들의 자연에 있어] 더 활동적인 반면 저것들(ἐκεῖ ναί⁹⁴⁷) 1051a2)은 이것들의 힘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οὕτω 1051a2),

에네르게이아(활동)은 힘 보다 그리고⁹⁴⁸) 변화의 모든 아르케에 보다 먼저 라는 것은 분명하다(φανερὸν 1051a3) ”

8 장의 끝 로고스에서 말하여지고 있듯이 뒤나뮈스(힘) 보다 먼저인

945) 텔레스가 그들에 빗 대어 말하는 그 자체(αὐτὸ 1050b36)에 대해서는 499 쪽을 보라

946) 앎 그 자체 보다 더 많이 아는 어떤 것 과 움직임 그 자체 보다 더 움직이는 어떤 것

947) 앎 그 자체 와 움직임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그들에 따르면 앎 그 자체 와 움직임 그 자체는 **힘(뒤나뮈스)**일 것인 반면에 더 아는 것 과 더 움직이는 것은 그 자체들의 **에네르게이아(활동)** 들 일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 것 그 자체가 어떤 것 보다 덜한 것일 수 있으며 어떤 것 의 힘(잠재적인 것)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텔레스의 누오스인 것 같다

948) καὶ(1051a3)를 또는 혹은 곧 이라고 옮길 수는 없을 것 같다

힘이 전체적으로 변화의 아르케라면 곧 혹은 또는 이라고 옮길 수 있을 것 같으나 1049a5-8에 나타난 것 처럼 힘은 변화의 아르케에라고 말하여질 뿐만 아니라 움직임 과 힘의 아르케에 라고도 그에 의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변화의 아르케가 곧 전체적으로 움직임 과 힘의 아르케에 라면 그리고 변화가 곧 움직임 과 힘이라면 아마 또는 혹은 곧 이라고 카이(καὶ)가 옮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움직임의 아르케에이다 라는 점에서 류적으로는 힘과 같지만 그 자체가 힘은 아닌 자연이 그에 의해서 곧 바로 말하여졌지 않은가

것은 엔텔레케이아(현실) 보다는 에네르케이아(활동)이라⁹⁴⁹는 것을 8 장에서 그는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때로 논증하기도 하며 때로 힘 과 활동을 더 상세히 규정하기도 한다 물론 힘 과 활동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인가⁹⁵⁰라는 물음을 축으로해서 로고스가 나아가고 있긴 해도 말이다

먼저는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규정되므로(ἐπει⁹⁵¹) 1049b4) 에 네르케이아(활동)가 힘 보다 먼저다 라는 것은 분명하다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으로 있는 변화의 아르케에 라고 말하여질 뿐만 아니라 움직임 과 숨의 전체적인 모든 아르케에 라고 말하여지는 것을

949) 현실은 힘 보다 먼저가 아니다 라고 텔레스가 말했다는 것은 아니다 텔레스가 힘 보다 먼저인 것을 현실 보다는 활동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단지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물론 작용(에르곤) 과 활동(에네르케이아) 과 현실(엔텔레케이아)가 일련의 같은 선 상에 있는 낱 말들이라는 것은 이미 본문에서 지적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낱말들이 동일한 것들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950) 먼저 라고 해서 먼저 ‘인’ 것이 반드시 먼저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는 범주들 269 쪽에 나타나는 그림을 그렸다

951) ‘에페이’를 ‘.....하므로(since)’ 라고 나는 옮겼는데 이런 옮김이 적절할지가 의문이다 참고로 로스는 ‘...으로부터(from, 828쪽)’라고 번역한다 그런데,

ἐπει(에페이)는 어떤 시간 이후(以後)를 나타내는 또는 원인(原因)에 이어지는 결과(結果)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므로 활동이 힘 보다 먼저인 원인은 그 먼저가 여러 가지로 규정되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읽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는 것으로부터 힘 보다 활동이 먼저 있다는 것이 (반드시) 잇따라 나올까 하는 것이 의문이다 내 생각에는 잇따라 나오는 것을 보장하지 못 할 것 같다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는 것에 어떤 고유한 뜻이 있지 않는한 말이다

나(아리스토텔레스)는 힘이라고 한다 또,

류적으로 힘과 동일하나 [힘 처럼]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 안에 동일한 것으로서 있는 자연 역시 - 그래서 자연은 자기 자신 안에서 생성된다 - 움직임의 아르케에 이다

이러한 힘 과 자연 보다 에네르게이아(활동)은 로고스 와 실체에 있어서 먼저이지만 시간에 있어서는 먼저이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먼저가 아니다 이제,

텔레스는 무엇 때문에 에네르게이아(활동)이 힘(과 자연) 보다 먼저인지를 따진다 이후(以後) 로고스에서 그는 자연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 처럼 보일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그는 움직임의 아르케에 로서의 힘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아르케에 또한 자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먼저,

무엇 때문에 로고스에 있어 활동이 힘 보다 먼저라고 그가 말하는지 그의 로고스를 요약해 보자

로고스에 있어 먼저라는 것은 분명하다

활동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집 지을 수 '있음'을 나는 집 짓는 힘이라고 그리고 볼 수 '있음'을 봄 이라고 그리고 보는을 보여지는 힘이라고 나는 말한다 알론한 경우에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된다 따라서,

활동의 로고스 와 인식은 힘의 인식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한다(προῦν ἄρχειν 1049b17)

무엇 때문에 로고스에 있어 활동은 힘 보다 먼저인가에 대한 답은 위 로고스가 전부이다

활동하기 시작 할 수 '있어'야 처음으로 힘이 있으므로 활동은 힘 보다 먼저 라는 말이다 이렇게 그가 말할 수 있는 원인은 예를들어⁹⁵²⁾ 그가

952)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이러한 보기들에서 할 수 있음 과 힘이 그리고 보다 와 볼 수 있다 와 보는 힘이 한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알아 차릴 수 없다 그러나,

능숙하게 집 짓는을 집 짓는 힘 이라고 그리고 능숙하게 보는이 봄이라고
그리고 보는이 보여질 수 '있는' 이라고 말하여지며 그래서 활동의 로고스
와 인식은 힘의 로고스 와 인식 이전에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에 따르면 **활동하기 시작할 수**(δυνατόν 1049b13) '있어'야 비로소
힘 '있'(τὸ δυνάμενον 1049b14)으므로 활동의 로고스는 힘의 로고스 보다 먼
저인 것 같다 이어,

그는 시간의 경우(τῷ χρόνῳ 1049b17-18)로 들어선다 그에 따르면 시
간에 있어서 활동은 힘 보다 먼저거나 또는 먼저가 아니다 수적을 동일한
활동이 아니라 종(에이도스)적으로 동일한 활동이 힘 보다 먼저다 [그런데],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 과 그 곡식 과 보는 보다 아직 활동하고
있지 않고 힘으로만 있는 사람 과 곡식 과 봄인 질료 와 씨 와 볼 수 있음
이 시간에 있어서는 먼저다 라고 나(텔레스)는 말한다 그러나,

이것들 보다 이것들이 그것으로부터 생성된 바로 활동하고 있는 그
헤태론한 것이 시간에 있어 먼저다 활동하고 있는 것은 힘으로 있는 것으로
부터 활동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항상 생성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음악은 음악에 의해서 생성된다 또한,

항상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것이 있는데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것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생성은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 그리고
생성된 것은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생성되는 그 어떤 것과 에이도스(종)에
있어 동일하다는 것은 실체들에 관한 로고스들에서 말하여졌다 이 때문에,

아무 것도 짓지 않고 있을 거라면 목수일 수 없고 하아프를 한 번도
켜지 않을 거라면 하아프 연주가일 수 없다고 여겨진다 배우는 자는 하아프
를 연주함에 의해서 하아프 연주를 배우기 때문이며 다른 모든 배움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기들이 활동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처음인 것이라는 것의
보기로서 그에 의해 들어 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복잡해진다 하이프 연주를 배우려 하는 자는 하이프 연주에 관한 **앓**을 지니지 않고 있을 것 이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연주 해 보아야 비로소 배우므로] 앓을 지니지 않은 자가 그러한 앓을 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움직임에 관한 우리의 고찰에서 이미 분명해진 것 처럼 **생성**된 것의 어떤 것은 이미 생성되 있었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것은 이미 움직여진 것이므로 배우는 자는 반드시 **앓**의 어떤 것(부분)을 지닌다 그렇다면,

마찬 가지로 활동은 생성 과 시간에 따라 힘 보다 먼저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해진다

비록 여기서 내가 어수선히 썼지만 텔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 옷점은 겨우 끄지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에 있어서는 활동이 힘 보다 먼저 이지 앓은 경우가 있는 반면에 먼저인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러한 두 경우 모두 **생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미 334-467쪽에서 말해진 바로는 생성이란 어떤 것 [하나]로부터 어떤 것 [둘]에 의해서 무엇 [셋]으로 이루어지며 이 무엇 [셋]은 어떤 것 [하나]와 종적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로고스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 [하나]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헤태론한 [하나]이다 활동하고 있는 것은 활동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힘으로 있는 [갑(甲)]**으로부터 항상 생성되기 때문이다 라는 로고스가 덧 붙혀진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힘으로 있는 [갑(甲)] 과 활동하고 있는 [하나]로부터 활동하고 있는 [둘]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셋]이 생성한다

바로 힘으로 있는 이 [갑]의 보기들로 텔레스는 아직은 활동하지 않고 단지 힘으로 만 있는 사람(질료) 과 곡식(씨) 과 봄(불수있음)을 드는데 바로 이러한 힘들이 활동에 따라(κατ' 1049a20) 있는 이 사람 과 그 곡식 과 봄 보다 시간에 있어 먼저인 반면에,

텔레스가 사람 과 음악을 그 보기로 드는 활동하고 있는 [하나]는 힘으로 있는 [갑] 보다 시간에 있어 먼저이다 힘으로 있는 [갑]으로부터 활동하고 있는 [셋]이 활동하고 있는 [둘]에 의해서 생성하기 때문이다 사람 [셋]이 사람[하나]로부터 음악 [셋]이 음악 [하나]로부터 생성하듯 말이다

바로 이러한 [하나] 와 [셋]이 제에타 편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의 에이도스(중)이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낳으며 건강이 건강을 생산하고 음악으로부터 음악이 생성된다(360쪽 참조) 그래서 [하나]로부터 [둘]에 의해 생성되는 [셋]의 경우 [하나] 와 [셋]은 그 에이도스에 있어 동일하다 그러므로 수적으로는 해태론하지만 에이도스에 있어 동일한 이러한 활동은 힘 보다 먼저이다⁹⁵³⁾ 게다가(, 1049b26),

항상 움직이게하는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는데 움직이게하는 것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실체에 있어서도 활동은 힘 보다 먼저다 첫 째,

생성에 있어서 늦은 [셋]이 에이도스 와 실체에 있어서는 [갑] 보다 먼저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남자어른(άνηρ, 1050a5)은 아이 보다 실체 와 에이도스에 있어 먼저이며 사람(ἄνθρωπος 1050a6)은 씨앗 보다 실체 와 에이도스에 있어 먼저이다 남자어른 과 사람은 에이도스를 지니지만 아이 와 씨앗은 자신의 에이도스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르케에(시작) 과 텔로스(끝)을 향해 모든 **생성**은 나아가는데 어떤 것이 그것을 위해 있는 바로 그것이 아르케에이며 그리고 생성은 끝(목적)을 위해 있고 **활동**은 그 끝이며 이 끝을 위해 **힘**이 요구 되기 때문이다 생물은 시력을 지니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 위해 시력을 지니면 마찬가지로 짓기 위해서 짓는 기교를 사람은 지니며 이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론을 형성하는 기교를 지닌다 그래서 배우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론을 형성하는 기교를 지니기 위해서 이론을 형성하지 않는다 배우는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면 이론을 형성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론을 형성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서 [세째],

힘은 질료이기 때문이다 [힘 보다 활동이 먼저다] 질료가 에이도스에 도달할 것이므로 그렇다 에네르케이아로 있을 때 질료는 에이도스 안에 있

953) 위와 같이 나는 텔레스의 로고스를 풀어 말해 보았으나 아직도 미진(未盡)한 구석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째째하다

다⁹⁵⁴) 심지어 자신들의 움직임이 **끝**인 그러한 알론한 것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래서,

다 가르쳤을 때 그 **끝**이 이루어진 것 처럼 자연도 그렇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파우논의 헤르메스를 다시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 헤르메스의 경우에서 처럼 얹어 배우는 자 안에 있는지 또는 밖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렇다 **에르곤**(作用, 活, 技能)이 그 **끝**이며 **에네르케이아**(活動)가 그 에르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르곤(작용)으로부터 온 에네르케이아 라는 이름이 **엔텔레케이아**(현실)에 까지 확장된다⁹⁵⁵) 그런데,

한 편으로는 예를들어 시력 - 시력으로부터는 그 시력과 나란한 헤태론한 것이 생성되지 않는다 - 의 경우에서 처럼 그 쓰임새(ἡ χρῆσις 1050a24)가 궁극적인 것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예를들어 짓는 기교로부터 짓는 활동 또는 작용과 나란히 집이 생성되는 경우 처럼 그렇게 생성된 것이 궁극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봄**(활동)이 그 **끝**이고 다른 하나는 힘 이외의 [알론한] 것이 그 끝이라는 점에서는 같다⁹⁵⁶) 집 짓는 활동 또는 작용은 집 지어지고 ‘있음’ 안에서 실현되며 그리고 생성되고 그리고 집과 동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쓰임새와 나란히 헤태론한 무엇이 생성되 있는 경우에 예를들어 집 짓는 활동 또는 작용은 집 짓고 ‘있는’ 안에 있으며 짜여지는 활동 또는 작용은 짜여지고 ‘있는’ 안에 있는 것 처럼 **활동은 행**하고 ‘있는’ 안에(ἐν τῷ ποιουμένῳ, 생산하고 ‘있음’ 안에, 1050a31) 있다 알론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954) 비록 있음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들이 아니지만 감각의 에네르케이아와 감각되는 것의 에네르케이아는 동일하며 하나이다 라는 영혼에 관하여 425b25-28을 보시오(노우트아리 46'- 82 쪽)

955) 그 어원(語源)으로 볼 때 에네르케이아가 그것으로부터 온 그 에르곤은 바로 끝이며 이 끝을 안에 지닌 것이 엔텔레케이아(현실)이므로 에네르케이아가 엔텔레케이아로 확장된다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고 에르곤 과 텔로스 와 에네르케이아 와 엔텔레케이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같은 어간(語幹)을 지닌 채 어미(語尾) 차이나는 빠로오뉴마(범주들 176쪽)들에 에네르케이아 와 엔텔레케이아는 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956) 그 끝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움직이고 ‘있는’ 것 안에 있다 이 경우 그러나 에르곤(작용)이 에네르게이아(활동)과 나란히 알론한 어떤 것 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다 에네르게이아는 그러한 것들 안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봄(보는 활동 또는 작용)은 보(고 ‘있’)에 속하며 이론(활동 또는 작용)은 이론 형성에 속하고 생명은 영혼 안에 속한다 행복도 마찬가지로 영혼 안에 속한다 행복은 일 종의 생명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 와 에이도스는 에네르게이아 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로고스에 따르면 에네르게이아는 실체에 있어서도 뒤나뮈스 보다 먼저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넷째로,

텔레스는 헤태론한 에네르게이아는 헤태론한 에네르게이아 보다 먼저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앞서도 약간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지만 여기서부터 나는 더 어수선해지기 시작한다 어수선해지면서도 나는 무엇 때문에 에네르게이아가 실체 곧 에이도스인가 라는 물음에 텔레스는 앞에서 답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그러한 답의 연장 선 상에서 헤태론한 에네르게이아(활동)가 헤태론한 에네르게이아 보다 시간에 있어 먼저이다 라고 말하기에 이른다는 것을 읽는 이에게 다짐 해 주려한다 그가 이어 말하는 것을 계속 요약 해 보자

우리들이 앞서 619 쪽에서 말했던 항상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의 에네르게이아에 이를 때 까지의 헤태론한 에네르게이아는 헤태론한 에네르게이아에 시간 상 항상 선행한다(προλαμβάνει 1050b5) 이제,

주로 가장 많이(κυριωτέρως 1050b6) 실체에 있어 에네르게이아(활동)이 힘(뒤나뮈스) 보다 먼저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측면에서 텔레스는 로고스를 풀어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제 까지 그는 지금부터 말하여지는 측면 보다 덜 주로 말하여지는 측면에 있어서 에네르게이아는 힘 보다 먼저 실체이다 라고 말해 왔던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네르게이아는 뒤나뮈스 보다 가장 주로 말하여지는 측면에

서도 먼저 실체이다 영원한 것이 소멸하는 것 보다 실체에 있어서 먼저이며 영원한 것은 뒤나뒤스(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 당시⁹⁵⁷⁾에는 주로 말하여졌던 모양이다] 그 로고스는 다음과 같다

모든 힘은 동시에 모순의 힘이다 속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을 것이며 한 편으로 ‘있기’ 시작하는 모든 것은 에네르게이아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있기도 하며 마찬가지로 있지 않기도하다 그렇다면,

동일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며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있지 않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있지 않기 시작하는 것은 순수하게 말하여지든 -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것은 실체에 따라서 말하여지는 것이다 - 또는 장소에 따라서 혹은 질 또는 량에 따라서 있지 않기 시작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든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힘으로 있는 어떤 것도 순수하게 있는 것 곧 순수하게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있지 않다 그러긴 해도 예를들어 어떤 질 또는 어떤 장소와 같은 어떤 것에 따라서 힘으로 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무 것도 있지 않다 따라서,

에네르게이아(활동)은 소멸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필연적으로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힘(뒤나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것들이다 만약 이것들이 있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것도 있어지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은 소멸하는 것 보다 실체에 있어 먼저이며 영원한 것은 힘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에네르게이아)**은 **힘** 보다 실체에 있어서 가장 주로 말하여지는 먼저라는 로고스를 다시 논증해 보자

957) 4 쪽에서의 나의 ‘그 당시’ 라는 언급을 참조하라 그러나,

주로는 여기서 그 당시에 주로 그렇게 말하여졌다 라는 맥락에서 쓰였을 뿐 아니라 그렇게 많이 일상적으로 쓰였으므로 주로 그것이 사태(프라그마)에 들어 맞을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도 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힘 보다 활동이 실체에 있어 먼저인 원인은 소멸하는 것 보다 영원한 것이 실체에 있어 먼저이며 영원한 것은 힘이 아니기 때문이므로 무엇 때문에 영원한 것은 **힘**이 아니라 **활동(에네르게이아)**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면 아마 그 논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 때문에 에네르게이아는 영원한가 다시 말해 영원한 것은 무엇 때문에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속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반면 ‘있기’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에네르게이아(활동)이 아니므로 모든 힘은 모순의 **힘**이다 따라서 있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있기도 하며 있지 않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며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데 있지 않기 시작 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있지 않기 시작하는 것은 순수하게 실체에 따라 말하여지든 혹은 장소 또는 질 또는 량에 따라서 말하여지든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소멸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힘**으로 순수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질 과 장소 등의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힘으로 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있지 않더라도 말이다 따라서,

에네르게이아는 소멸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필연적으로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힘으로 있는 것들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것들이다 만약 이것들이 있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것도 있어지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증의 핵심은 에네르게이아(활동)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지 않는 것 곧 영원한 것(τὰ αἰδία 1050b6-7) 이라는데에 있다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소멸하는 것 보다 실체에 있어 가장 주로 먼저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네르게이아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라면 소멸하는 것은 **힘**일 것이다 소멸하는 것은 순수하게 실체에 따라 말하여지든 장소 또는 질 또는 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말하여지든 있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⁹⁵⁸⁾ 그런

958) 한 번 앗혀지기 시작하면 앗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570 쪽의 텔레스를 기억해 보라 앗혀지기 또는 앗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에네르게이**(활동)이 앗는 **힘**에 속해 그 앗는 힘이 앗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데,

있지 않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인 반면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있을 수도 '있으'며⁹⁵⁹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각주 958 번에서 다시 말하여졌듯이 있지 않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 지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있지 않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것이 있지는 못하다는 말이다 이렇게 있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 소멸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하게 소멸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힘으로 순수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어떤 것이 질 과 장소에 따라서 힘으로 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있지 않긴해도 말이다 그러므로,

소멸하지 않는 모든 것이 에네르게이아이다 에네르게이아는 에르곤(작용)안에 속해 있으며 바로 이 에르곤이 예를들어 보는 **움직임** 안에 들어 있는 봄 으로서의 끝(목적, 622쪽)이기 때문이다⁹⁶⁰나아가서,

해 달 별 하늘 전체의 **움직임**은 영원하므로 해 와 달 과 하늘 전체 역시 항상 활동(에네르게이아)한다 라고 그는 말한다

만약 영원한 무슨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힘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만약 움직이는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어디로부터 어디로 움직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영원한 이것에 질료가 속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야만 앗을 수 있는 것이 앗혀지기 시작한다 움직이거나 서거나 서게 하거나 있거나 생성되거나 또는 있지 않거나 생성되지 않거나 모두 이와 같다

959) . τὸ δυνατόν μὴ εἶναι ἐνδέχεται μὴ εἶναι τὸ αὐτὸ ἄρα δυνατόν καὶ εἶναι καὶ μὴ εἶναι. τὸ ἐνδεχόμενον μὴ εἶναι φθαρτὸν.....(1050b12-14)

960) 이러한 에네르게이아 또는 에르곤이 엔텔레케이아(**현실**)이다 물론 에네르게이아 와 에르곤 과 엔텔레케이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있는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것들이다 만약 이것들이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있어지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 와 별 과 전체 하늘은 항상 **활동**한다(에네르게이아이다) 어떤 자
연학자는 해 달 별들이 멈추어 버리거나 **않을**까 두려워 했는데 두려워 할
필요없다 이런 에네르게이아(활동)에 있어서 해 별 전체 하늘은 지치지 **않**
는다 움직임이 모순의 힘과 연관된 예들들어 소멸하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순의 힘과 연관되는 그러한 움직임의 연속성은 방해 받는다 이러한
것의 원인은 **에네르게이아**가 아니라 실체 질료 와 **힘**일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소멸하지 않는 것들을 모방하고 있는 것들 예들들어 흙 과 불 마저
항상 활동한다 - 에네르게이아이다 라고 텔레스에 의해서 말하여진다

예들들어 흙 과 불 처럼 변화에 종속 되어 있는 것들에 의해서 소멸
하지 않는 것들은 모방된다 자신들의 움직임을 그 자체로 자기 자신들 안
에 지니므로 흙 과 불들은 항상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론한 힘들은 모두 모순의 힘들이라고 이미 우리가 규정했다 로고스
에 따르는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은 마찬가지로 이렇지 않게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 로고스적인 힘은 자신의 현재 와
부재에 의해서 이렇게 또는 이렇지 않게 다시말해 저렇게 움직이게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이데아론 자들이 말하듯 이데아 같은 것들이 자연이라면 **얕** 그 자체
보다 더 많은 **얕**이 또는 움직임 그 자체 보다 더 움직이는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 만 한다 라고 이데아론 자들을 텔레스는 반박한다

사사건건(事事件件)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 그는 이데아론을 반박하므
로서 그 이데아론을 넘어선다고 자신이 여기는 로고스⁹⁶¹)를 결론적으로 아

961) 이러한 결론적인 로고스로는 제에타 편의 마지막 장인 열 일곱 번째
장이 그 보기로 들어질 수 있으리라(503-4 쪽 과 497 쪽) 여기 테에타 편도
마찬 가지이다

힘 과 활동 과 현실 이라고 말하여지기도 하며 진실이라고 말하여지기도
하는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36쪽)테에타 편은 10 장으로 이루어지나 대

주 찰막하게 내 놓는다 너무 간략해 주어 먹을 새로운 것이 별로 없을 것 처럼 나에게는 여겨지지 만 말이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데아 같은 그러한 것들 또는 실체들이 어떤 자연이라면 α 그 자체 보다 더 많은 α 과 움직임 그 자체 보다 더 움직이는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이다 α 그 자체 보다 더 많이 아는 어떤 것(τ ⁹⁶²) 1050b35) 과 움직임 그 자체 보다 더 움직이는 어떤 것은 더 활동적인 반면 α 그 자체 와 움직임 그 자체는 더 많은 α 과 더 움직이는 것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로고스가 사태에 정확히 들어 맞는 것일까 예를들어 만약 플라톤의 이데아는 텔레스가 말하는 뒤나뫼스(힘)라면 그리고 만약 플라톤의 이데아가 텔레스의 에네르케이아가 아니라면 혹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으리라 그러나 에네르케이아 와 엔텔레케이아 라는 말은 티마이오스 와 소피스테에스 와 파르메니데에스에선 안 나온다 심지어 지금의 내 기억으로는 에르곤 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몸 만이 실체 또는 있는 것이다 라고 우기는 자들에게 있는 것은 뒤나뫼스가 아닌가 라고 절충해서 말해보면 어떨까 라고 엘레아 낫선이가 테아이테토스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엘레아 낫선이의 입에서 뒤나뫼스라는 말이 물론 나오긴 해도 말이다(소피스테에스 113 쪽 참조) 그리고,

텔레스는 지금 여기서 뒤나뫼스(힘) 와 에네르케이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가 라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데아를 뒤나뫼스로 단정

부분의 장에서(1-9 장) 힘 과 에네르케이아 와 현실 로서 있는 것에 대해 말하며 단지 한 장(10 장)에서만 진실 로서 있는 것에 대해 말할 뿐인데,

바로 이러한 테에타 편 8 장 끝에서 특 이데아론 자를 건드리면서 그 이데아론을 거부한 뒤 테에타 편에서 마지막으로 힘 과 에네르케이아에 대해 말하는 장인 9 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아마 9 장은 결론적인 로고스 일리라

962) 범주들 166 쪽에 나오는 $\tau\iota\varsigma$ (2a13)와 비교해 보라 사람인 어떤 것(제일 실체) 이라고 τ 와 $\tau\iota\varsigma$ 를 뭉뚱그려 말 할 수 없을까

하고 있다 과연 두 사람에게서 말하여지는 뒤나뫼스가 동일한 것인가 라는 물음을 제쳐 두고 라도 플라톤의 이데아를 텔레스의 뒤나뫼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텔레스의 에네르케이아에 해당되는 플라톤의 낱말들을 모두 꼬집어 낸 다음에나 답하여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일 것이다 지금의 나로서는 이 모든 것에 접근하기 힘들다 어쨌든,

텔레스에 따르면 에네르케이아(힘)은 힘 과 자연(변화의 아르케에) 보다 먼저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듯 8 장에서는 힘 또는 자연 보다는 에네르케이아(활동)가 먼저라고 하면서 에네르케이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한다 첫째,

에네르케이아는 비록 시간에 있어서는 나중이기도하나 로고스 와 시간 과 실체에 있어서 모두 힘(뒤나뫼스) 보다 먼저이다 따라서 힘 보다 에네르케이아가 먼저 있으며 예를들어 이 사람의 생성을 제외한 생성 - 예를 들어 사람의 생성 - 의 경우 에네르케이아는(활동) 힘(잠재적인 것) 보다 시간에 있어 이르고 힘 보다는 현실이 앞서 인식(τὴν γνώσιν 1049b17)된다 둘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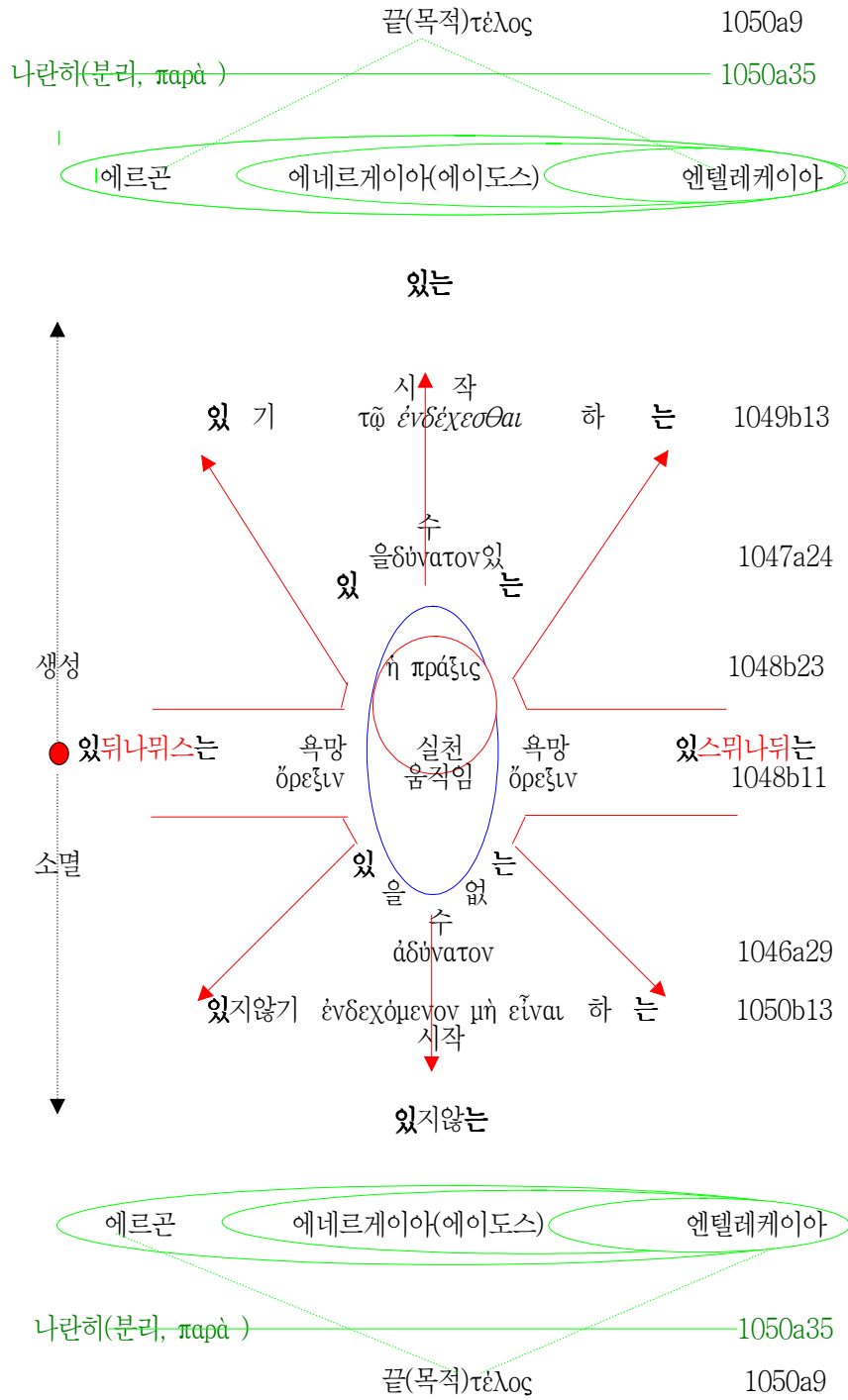
에네르케이아는 에이도스 (와 실체)로 있으며 셋째,

에네르케이아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고 필연적으로 있는 것으로서 첫 번째 것이므로 이러한 에네르케이아가 있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넷째,

움직이고 있는 어떤 것이 영원하다면 그것 역시 에네르케이아로 있는 것이다 해 와 별 과 전체하늘 처럼 말이다 그래서 해 와 별 과 전체하늘은 항상 활동한다 다섯 째,

이러한 소멸하지 않는 것들은 흙 과 불 처럼 변화하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모방되어진다 흙 과 불 역시 항상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에네르게이아(활동)은 일련의 에르곤(作用) 과 엔텔레케이아(현실)와 같은 선상(線上)에서 말하여진다 말하여지는 그 순서를 다음 처럼 나는 그려 보았다



욕망 또는 의지(βουληθέντος 1049a6)를 안 밖에서 막는 것이 있지 않을 경우에 (합리적인)뒤나뒤스(힘) 과 에네르게이아(활동)이 있는 그림인데 그에 따르면 활동하기 시작할 수 있어야 - 시작할 수 있는 점을 붉은 화살표의 화살 점이 나타낸다 - 처음으로(πρώτος 1049b13) 힘이 있게 된다 그런데,

그림을 앞 쪽에서 처럼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니 8 장 뿐 아니라 그 이전 장들에서 힘 과 에네르게이아에 대해 말하여진 것이 그 그림에서 드러남을 나 자신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디 8 장에서는 힘 보다 에네르게이아가 인식(로고스) 과 실체 그리고 심지어 시간에 있어서도 먼저라는 것을 논증한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앞 그림에서 드러내 고져 했던 에네르게이아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이 말하여질 뿐이다 따라서,

그 논증을 다시 내 나름대로 구성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첫째,

무엇 때문에 인식 과 로고스에 있어 에네르게이아는 힘 보다 먼저인가

활동하기 시작할 수 있어야 비로소 힘이 있게 되므로 활동은 로고스에 있어 힘 보다 먼저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능숙하게 보아야 보는데 바로 이 보는 것이 볼 수 또는 보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능숙하게 보아야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는 힘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동(예를들어 능숙하게 봄)의 로고스 와 인식은 힘(예를들어 볼 수 (있다))의 로고스 보다 먼저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논증이 담고 있는 애매함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한다

그는 논증에서 (있을) 수 (있음)의 '수'를 힘과 동일시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힘에 에네르게이아(활동)이 속해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1047b24-25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에르곤 과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게이아가 일련의 동일한 선 상에서 말하여진다 손 치더라고 구분 되는 것

처럼 비록 (있기) 시작하다(엔테케타이) 와 (할) 수 (있다, 뒤나톤) 과 힘(뒤나투스)이 일련의 동일한 선 상에서 말하여지더라도 구분되어야 할 것 같다 물론,

테에타 편 다른 어디에서인가 ‘수’을 ‘힘’인 것으로 말하는 것을 본 것 같으며 여기서도 (있을) 수 (있음)의 ‘수’를 힘인 것으로 말하는 것 같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숙고해 보아야 할 것 같으나 지금의 나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 다음으로,

논증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로고스가 무엇이라는 점이다

그는 kai(카이, 그리고, 1049b16) 라는 말을 써서 로고스를 인식에 붙히고 있다 카이를 어떤 뜻으로 받아드려야 하느냐를 문제 삼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로고스 와 인식은 바로 위에서 보기로 들어진 봄에 대해 어떻게 있느냐 라는 물음을 던져야 할 것 같다 그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로고스 와 인식이 무엇인가가 드러날 것 같기 때문이다

활동하거나 또는 능숙하게 보는 과정에서 인식 과 로고스가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고스(말)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활동(에네르게이아)가 힘 보다 시간에 있어 먼저일 경우에 생겨나는 어려움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활동이 힘 보다 먼저 인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 [셋⁹⁶³]은 활동하고 있는 사람 [둘]에 의해서 힘으로 있는 사람 [갑]⁹⁶⁴으로부터 생성하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963) 632 쪽 참조

964) 힘으로 있는 사람은 활동(에네르게이아)에 따라 있는 (ὄντος κατ' ἐνεργειαν, 1049b20) 이 사람 보다 먼저이긴하나 힘으로 있는 사람은 활동하고 있는(ὄντα ἐνεργειᾷ 1049b23-24)사람 보다는 먼저이지 않다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힘으로 있는 사람으로부터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움직이게하는 것이며 움직이게 하는 것

은 힘으로 있는 사람 보다 먼저이다 사람 [하나]는 사람 [둘]과 동일한 에이도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논증)이 꼬인다

집 짓는 기교 또는 하이프 켜는 기교를 배우므로서 사람은 집 짓는 사람으로 생성하고 하이프 연주하는 사람으로 생성하므로 집 지어 보지 않거나 하이프 켜 보지 않는다면 집 짓는 사람 또는 하이프 켜는 사람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셋]은 활동하고 있는 사람[둘]에 의해서 어떤 것(힘으로 있는 이 사람 [하나])으로부터 생성되며 사람 [둘 과 셋]은 에이도스에 있어 동일하므로 집 짓는 얹 또는 하이프 켜는 얹을 지니지 않은 그래서 집 짓는 기교 와 하이프 켜는 기교를 배우는 사람이 그러한 얹들을 행하는 셈이 될 것이다 하이프를 켜 보거나 집을 지어 보아야 만 하이프 켜는 사람 또는 집 짓는 사람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니지 않는 얹을 어떻게 그 사람 [셋]이 그 얹대로 행하며 지어보지 않은 집을 어떻게 지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텔레스는

남아지는⁹⁶⁵또는 생성하는 사람 [셋]의 어떤 부분은 이미 생성해 있어⁹⁶⁶ 하므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것은 이미 움직여진 것이므로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얹의 어떤 부분을 지닐 것이다 라고 답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생성 과 에네르게이아(활동)에 얹 과 배움이 섞여지므로서 논증(일)이 꼬여든다⁹⁶⁷ 꼬여드는 실 타래를 어찌 풀 것인가 나도 몰겠다 그냥 지나가자 자 !,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움직이게하는 것이 있다

965) 335 과 348 과 344쪽을 참조하십시오

966) 생성해 있다 라는 말은 플라톤에 따르면 적절치 못한(ἀκριβές 티마이오스 38b3) 말이다(티마이오스 144 참조)

967) 인식 과 얹 과 (활동)에네르게이아 와 힘.....배우기 전에 이미 배우고져 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하는가.....

텔레스가 말하듯 에네르게이아가 로고스 와 실체 와 시간에 있어 힘 보다 먼저라면 분명히 실체(가장 먼저 있는 것)은 로고스(말)과도 그리고 시간과도 헤태론할 것이다 동일하다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 과 시간이 실체 곧 가장 먼저 있는 것 일 수는 없으리라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 흥미 진진한 물음이 다 이제,

기나긴 8 장을 지나 힘 보다는 활동이 더 선하며 더 가치있다 라고 말하는 9 장으로 가야한다

“ (9) **에네르게이아**(활동)은 좋은(σπουδαιας 1051a4) **힘** 보다 더 선하며 가치 있다(βελτίων καὶ τιμωτέρα 1051a4)

[그것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그] 동일한 것은 반대들⁹⁶⁸)로 (있을) 수 있다 예를들어 [그것은] 건강해 (질) **수** (있다) 라고 말하여질 때 동일한 [그]것은 병 (걸릴 수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다] 건강함(의 힘) 과 병들의 힘 그리고 씬 과 움직여짐의 힘 그리고 집 지음 과 (집) 허름의 힘 그리고 집 지어짐 과 (집) 붕괴의 힘은 동일한 **힘**(뒤나뒤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 편으로 동시에(ἅμα 1051a11) 반대들이 (있어질) **수** (있는) 것에 속하는(ὑπάρχειν 1051a11)반면 다른 한 편으로 반대들이 동시에 속할 수 없다 그런데,

예를들어 건강함 과 병들에 **활동**(에네르게이아)은 동시에 속할 수 없다 그래서(ὡστ' 1051a13),

반드시 이것들(건강함 과 병들) 가운데 헤태론한 것이 선(τάχαθόν 1051a14)이다 그러나 (있어질) **수** (있는) 것은 [그] 양자 각각(ἀμφότερος 1051a14)과 같거나 또는 (그 양자) 어느 것과도 같지 않다 따라서,

활동이 더 선하다⁹⁶⁹)마찬 가지로,

968) 이 반대들(τάναντία 1051a6)를 555 쪽(1046b5)에 나오는 반대와 비교해서 숙고해보라

969) **활동**은 동시에 반대들에 속할 수 없는 반면에 **힘**은 동시에 반대들에

나쁜 것들의 경우에도 끝(τὸ τέλος 1051a16) 과 에네르게이아(활동)은 힘 보다 반드시 더 나쁘게 있다 힘 ‘있는’ 것은 그 반대 양자에 동일[하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⁹⁷⁰⁾ 따라서,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힘은 한 편으로 병들 수도 있고 동시에 건강해질 수도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건강해질 수도 없고 동시에 병들 수도 없는 반면에 활동은 건강에 속하면서 동시에 병들에 속할 수는 없으므로 - 물론 이어지는 그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활동이 병들에 속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병들에 속하면서 건강함에 속할 수는 없다 - 그리고 이 헤태론한 건강함 과 병들 가운데 어느 하나는 선하므로 활동은 힘 보다 더 선하다

건강하기만 한 것이 건강하기도하고 병들기도하는 것 보다 선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인데....

나는 헤태론한 반대 양자 가운데 반드시 어느 하나는 선해야한다(τάγα θόν 1051a14) 라는 그의 로고스에 의아(疑訝)해 한다 반대들 가운데 어느 하나 예를들어 건강 과 병의 경우 건강 또는 병이 반드시(ἀνάγκη 1051a13) 선해야한다 - 그는 때론 병도 선하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 같다 - 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강 과 병 그리고 쉽 과 움직여짐 그리고 집지음 과 집 허물과 같은 헤태론한 반대 가운데 어느 하나가 선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에는 만약 ἀγαθός(선(善) 대신에 τὸ εὔ(좋음)이 쓰였다면 더 나아올 성 싶은데.....

반대들의 경우 그 반대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무엇 때문에 반드시 선할까 선에도 반대 또는 모순이 있을 수 있을까 음.....반대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가 선을 언급하고 있는 범주들 253 쪽을 참조하시오

970) 나쁘기 만 한 것은 나쁘면서 동시에 선한 것 - 선한 것을 좋은 것으로 옮기고픈 유혹에 빠지지마라 좋은 것에 해당하는 εὔ 라는 말이 있으며 텔레스는 τὸ εὔ 라는 다른 어디에선 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 보다는 더 나쁠 것이다 그런데,

εὔ 라는 말은 내가 선(善)이라고 옮기고 있는 ἀγαθός(1051a14)와 짝

나쁜 것은 프라그마들과 나란히(παρά⁹⁷¹) 1051a18)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은 분명하다 나쁜 것은 자연(τῆ φύσει, 본성, 1051a18)스레 힘 보다 나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르케로(ἐξ ἀρχῆς, 처음부터, 1051a19) [있는] 것 과 영원히 [있는] 것
에는 나쁨도 결함도(ἀμαρτημα, 죄, 1051a20) 파괴도 있지 않다 왜냐하면 파
괴는 나쁜 것들의 (파괴)이기 때문이다

기하학적인 것들은 에네르게이아(활동)에 의해서 발견된다(εὐρίσκεται
1051a21-22) 나뉘면서(διαιρούντες⁹⁷²) 1051a22) 발견되기 때문이다 만약 나
뉘어지고 있었다면 (기하학적인 것들이) 선명하게 있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φανερὰ ἄν ἦν 1051a23) 그런데,

이제 기하학적인 것들은 힘에 속한다

무엇 때문에 세모[664쪽] 각은 두 직각인가 한 점 주위의(περὶ
1051a25) 각들이 두 직각과 똑 같기 때문이다 이제 만약 그 빗 변과 나란히
(παρὰ 1051a26) [선이] 위로 그어지고 있었음을 보았던 자에게는 곧 바로
[기하학적인 그 도형이] 있어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마찬 가
지로],

무엇 때문에 반원 안에 직각 일반이(있는가) 만약 두 개는 밑 변을
이루고 한 개는 가운데 수직으로 그어지고 [있었던] 똑 같은 (선) 세 개를
(보았)다면 **보았던(ἰδόντι** 1051a28) 그 자에게는 저 (삼각형)을 **보았던 자
에게(εἰδόντι**⁹⁷³) 1051a29) 분명했던 것 [처럼]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가] 분

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쁜이 라고 옳기고 있는 κακώς
(1051a15)와 짝을 이루므로서 아가도스(선) 만이 짝 없이 홀로 남는 것 같
다 물론,

여기 본문에서는 카코오스가 아가도스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971) 나쁘다 라고 말하여질 때 나쁜 것은 프라그마 라는 말일 것이다 다시
말해 프라그마(일, 事) 와 나쁨은 분리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972) 나눔에 대해서는 446 쪽을 참조하십시오

973) 에이데나이(εἰδέναι) 를 원형으로 지니는 이 동사는 형이상학 - ‘모든
사람은 자연스레 보려한다’ 라고 형이상학은 시작된다 -을 열어 재끼는 맨

명할 것이다 따라서,

힘으로 있는 것들이 활동으로 이끌림에의해서(εις ἐνέργειαν ἀναγόμε
va 1051a29-30) 발견된다는 것은 선명하다

[기하학자의] 생각(νόησις⁹⁷⁴) 1051a30)이 그 에네르게이아(활동)
라는 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힘은 에네르게이아로부터(ἐξ 1051a31) [발견된다, 기인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인식⁹⁷⁵)이 (진)행된다 에네르게이아는 수적으로는(κατ' ἀριθ
μόν⁹⁷⁶) 1051a32-33) 나중에 생성되기 때문이다 ”

테아타 편에서 힘 과 활동에 대해 말하는 부분의 마지막 장인 9 장에
서는 활동은 곧 노에에시스(생각)이며 바로 이 활동으로부터 힘이 인식된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여진다 ⁹⁷⁷)그런데,

첫 줄 980a22에 그 원형으로 나온다는 것을 참조하십시오

974) 에네르게이아가 생각이라는 것은 실천에 대해 말하는 597 쪽에서 이
미 은근히 드러난 바 있다 거기서는 생각에는 생각의 끝이 속해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 끝이 에르곤(작용)이며 에르곤과 일 련의 같은 선 상에 바로
엔텔레케이아(현실)이 있다 곧 그 끝을 지니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에네르게이아(생각)에는 그 끝이 있는 법이다

975) 로고스 와 인식에 있어서는 힘 보다 활동이 먼저라는 것이 여기서도
논증된다 이에관한 논증은 615-617을 참조하십시오

976) 이러한 맥락에서의 생성은 시간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는 시
간에 있어서 에네르게이아는 數적으로는 힘 보다 나중이다 라고 말하는
617-618쪽을 보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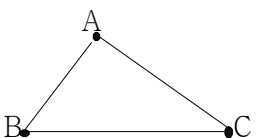
977) 이렇게 그의 말하는 길은 제아타 편을 마무리하는 길과 같다는 것은

활동(에네르게이아) 곧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텔레스는 기하학적인 것들을 끌어드린다 아마 기하학적인 것들이 생각하기에 설령 가장 적합한 것은 아니더라도 감각적인 것들 보다는 더 잘 또는 더 먼저 생각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어쨌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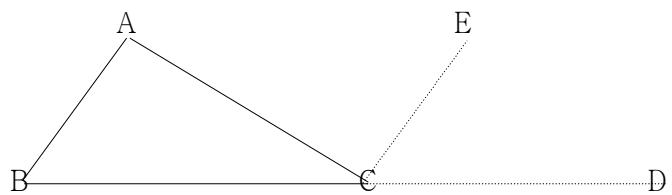
기하학적인 것들은 에네르게이아에 의해서 발견된다 나뉘면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나뉘어지고 있었으면서 기하학적인 것들이 있어지고 있었다는 (ñv 1051a23)것은 선명하다

[A, B, C 세 점의 각기] 한 점 주위의 각들이 두 직각과 똑 같기 때문에 두 직각인 세모 각들을 살펴 보자 만약 그 빗변과 나란히 선이 위로 그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았던 자에게 기하학적인 도형이 있어지고 있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다음과 같은 로스의 설명(269-70, 832쪽)을받아 드리려한다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본 i. 32에는  라는 세

모 꼴이 주어진다 자 세모를 이루는 각들이 합해서 2 직각이라는 것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세모 주변의 공간이 다음 처럼 나뉘어져야만 한다



세모 ABC 주변의 공간을 나누어 BC에 CD가 이어지게 하고 AB에 나란히 C에서 위로 선을 그어라 그러면 각 CAB는 각 ACE와 똑 같을 것이고 각 ABC는 각 ECD와 똑 같을 것이다(유클리드. i. 29) 따라서,

각 BAC 와 CAB 와 ABC를 합한 것은 각 BCA 와 ACE 와 ECD를 합한 것과 똑 같을 것이고 합한 이것은 각 BCA 와 ACD를 합한 것과 똑

이미 640 쪽 각주 962 번에서 말하여졌다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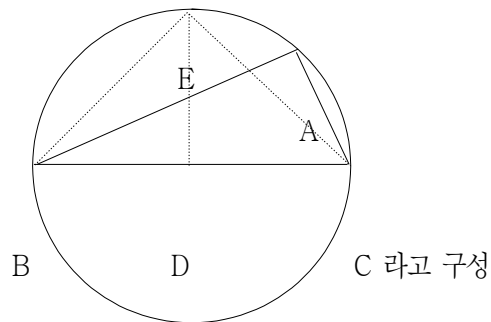
합한 그것은 2 직각과 똑 같을 것이다(i, 13) 이어,

텔레스는 기하학적인 것 반원을 보기로 들어 반원 안에 보편적으로(κ αθόλου 1051a30) 직각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므로서 [기하학자의] 생각이 기하학적인 것의 활동(에네르케이아) 이라는 것을 논증 하려한다

반원 안에 무엇 때문에 보편적으로 직각이 있는가 선 두 개는 [반 원 안에서] 밑 변을 이루는 반면에 나머지 한 개는 [반 원 안에서] 수직으로 있도록 그어지고 있었던 세 개의 선을 보았던 자에게는 저 세모 꼴을 보았던 자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2 직각인가 가 분명한 것 처럼 반 원 안에는 무엇 때문에 직각 일반이 있는가 가 분명한 것이다 이러한,

텔레스에 관한 로스의 설명을 계속 들어보자

유클리드 iii. 31.에는



될 수 있을 명제가 있다 각 BAC는 반원 안에 있는 한 개의 각이다 가운데 점 D로부터 선 BC에 수직이면서 점 E에서 그 반원과 만나는 선 DE를 그 어 보자 그리고 BE, CE와 연결하라 그러면,

DE는 DB와 똑 같을 것이다 따라서 각 DEB 와 DBE는 똑 같을 것이고 선 DE 와 DC도 똑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DEB 와 DEC를 합한 것은 DBE 와 DCE를 합한 것과 똑 같을 것이다 곧 BEC는 CBE 와 BCE를 합한 것과 똑 같다 그러나,

BEC 와 CBE 와 BCE를 합한 것은 2 직각과 똑 같다(i. 32) 따라서,
BEC는 직각이다 그러나,
BAC는 BEC와 똑 같다(iii. 21) 따라서,
BAC는 직각이다 그러나,

텔레스는 무엇 때문에 두 각과 같고 무엇 때문에 직각인가를 여기서 논증하려는 것 보다는 내각들의 합이 2 직각인 세모 꼴 과 반 원 안에 직각 일반을 지니는 세모 꼴과 같은 기하학적인 것들이 나눔을 통해 있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하학적인 그것들을 발견하여(εὐρίσκειται 1051a30) 인식하는(πυοιούvτες 1051a31) 생각이 바로 에네르게이아이며 그리고 이러한 에네르게이아로부터 힘 곧 기하학적인 것들이 인식된다는 것을 말한다

1051a24에 나오는 무엇 때문에(διὰ τι)는 동일한 것이 무엇 때문에 동일한가를 논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힘)이 알론한 것(활동)이 무엇 때문에 속하는가를 조사하는 그러한 무엇 때문에(διὰ τι, 1041a11, 534쪽)이라는 것은 여기서 텔레스가 기하학적인 논증을 문제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웅변(雄辯)해 준다 기하학적인 논증은 기하학적인 사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할 일이다⁹⁷⁸)따라서,

활동(에네르게이아)에 닥아섬에 의해서 힘으로 있는 것들은 그 활동에 의해 발견된다는 것은 선명하다 **생각이 에네르게이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은 에네르게이아로부터 [발견된다 또는 기인(起因)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인식이 진행된다 수적으로보면 에네르게이아는 나중에 생성되기 때문이다

텔레스는 기하학적인 것을 자신의 로고스에 끌어드리기 전에 이러한

978) 물론 기하학적인 논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증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간히 쓰여지는 곳도 있다 그러나 있음을 숙고할 때 어느 선까지를 제외하면 오히려 기하학적인 논증은 거추장스럽다 아니 거추장스럽다기 보다는 그 숙고를 방해하고 가로막기까지 한다 이렇게 본다는,

필요없다

맥락과는 약간은 헷갈린 듯한 맥락에서 에네르게이아에 대해 말한다 에네르게이아(활동)는 힘(뒤나미스) 보다 더 가치있고 더 선하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에네르게이아는 좋은 힘 보다 더 선하고 더 가치있다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동일한 것은 반대로 있을 수 있다 예를들어 건강해 질 수 있다 라고 말하여질 때 말하여진 동일한 것이 병에 걸릴 수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것도 동시에 말이다 건강의 힘 과 병듬의 힘은 동일한 힘이기 때문이다 쉽 과 움직여짐 그리고 집 지움 과 집 허물 그리고 집 지어짐 과 붕괴의 힘도 각기 동일한 힘이다 그렇다면 있어질 수 있는 것에는 반대들이 동시에 속하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는 반대들이 동시에 속할 수 없다 그러나,

활동(에네르게이아)은 예를들어 건강 과 병듬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건강함 과 병듬과 같은 헷갈린 반대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선이어야한다 그런데 [그 반대로] 있어질 수 있는 것은 그 반대 양자들 보다 더 같거나 또는 더 같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은 힘 보다 더 선하다⁹⁷⁹⁾ 그러나,

텔레스에 따르면 활동은 더 선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나쁜 경우에는 힘 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다

힘은 헷갈린 반대 양자에 동시에 속할 수 있는 반면에 에네르게이아는 동시에 속할 수 없으며 그리고 동시에 속한다면 힘은 나빠질 수도 있고 선해 질 수도 있어서⁹⁸⁰⁾ 힘은 어느 한 때 선하거나 또는 나쁘지 모든

979) 힘 보다 활동은 더 선하다 라는 그의 말은 반대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무엇 때문에 반드시 선한가 라는 의구심(疑懼心)이 해소된다면 나에게 아주 선명해질 것이다

980) 그렇다고 힘 그 자체는 선 악에 중성적이다 곧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라는 로고스를 텔레스에게 덧 붙힐 수는 없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로스가 덧 붙힌 것 같다 로스 267 쪽 아래서 두 번째 줄에 나오는 neutral

때 항상 선하거나 또는 나쁘지는 않을 것이므로 항상 선하거나 또는 항상 나쁜 에네르게이아 보다는 만약 나쁘다면 힘은 덜 나쁠 것이기 때문이다

나쁠 경우 에네르게이아(활동) 와 끝(목적)은 힘 보다 더 나쁘게 반드시 있다 힘 있는 것은 그 반대 양자에 동일하게⁹⁸¹⁾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쁜 것은 프라그마들과 나란히 분리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나쁜 것은 자연스레 **힘** 보다 나중이기 때문이다⁹⁸²⁾ 그래서,

‘아르케’로 처음부터 있는 것 과 영원한 것에는 나쁨도 결함도 파괴도 있지 않다 파괴는 나쁜 것들의 파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에 이어서 기하학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에네르게이아를 통해서 기하학적인 것들의 인식이 있게 된다는 로고스가 펼쳐진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생각이 에네르게이아(활동)이며 그리고 이러한 에네르

(중성적(中性的))이라는 말을 눈여겨 보시오

981) 텔레스는 ταὐτό (동일한 것, 1051a17) 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다섯 번째 와 여섯 번째 윗 줄 같은 맥락에서는 ἄμα(동시에) 라는 말이 쓰여진다 이는 1051a11 과 12에서 쓰여진 동시에 라는 말이 무얼 뜻할까 라고 꼼꼼히 숙고해 본다 슬며시 범주들 270 쪽의 말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동시에 라는 말 대신에 동일한 (것)이 쓰여질 수 있다면 힘은 동시에 그 반대들에 속한다 라는 로고스를 동일한 힘이 그 반대들에 속한다 라는 로고스로 바꾸어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982) 나쁜 것은 자연스레 힘 보다 나중이라는 로고스가 나쁜 것은 프라그마들과 나란히 떨어져 분리해 있는 것이 라는 로고스의 원인이 어떻게 될까 나쁜 것은 자연스레 힘 보다 나중에 있으므로(γὰρ 1051a18) 나쁜 것은 프라그마와 나란히 분리해서 프라그마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누우스(정신)인데..... 힘이 어떻게 프라그마와 연관되느냐는 것이 내 물음이다 프라그마에 대해서는 범주들 31 쪽을 참조하십시오

게이아로부터 힘이 [起因 한다] 라고 끝난다 이제,

형이상학 테에타 편 10장 에서는 뒤나뫼스(힘) 과 할 수 있음(뒤나톤, 能) 과 에네르케이아(활동)가 더 이상 주로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테에타 편 1 - 9 장에서 주로 말하여진 뒤나뫼스 와 뒤나톤(할 수 있음, 能) 과 에네르케이아에 관한 로고스를 다시 한 번 정리한 다음에 테에타 마지막 장인 10 장으로 건너 갈 것이다

뒤나뫼스(힘)

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뒤나뫼스는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 으로서 들어 있는 변화의 아르케에이다 이러한 힘은 그저 행하(게 하)거나 겪(게하)는 또는 잘 행하(게 하)거나 겪(게하)는 그러한 것들이다 (547-548쪽) 행하는 힘 과 겪는 힘은 하나인 것으로서 있기도 하며 알론한 것 으로서 있기도하다(549쪽)

들 가운데 어떤 것은 로고스적이지 않는 반면에 어떤 것은 로고스와 더불어 있다(554-6쪽)⁹⁸³ 로고스와 더불어 힘은 반대를 생산하는 반면에 로고스적이지 않은 힘은 단지 하나만을 생산할 뿐이다 예를들어 열은 단지 덥게만 하는 반면에 의술(앎)은 병 과 건강을 생산한다(555쪽)

으로 있는 것'은 '흠 - 흠은 낫쇠의 질료 -으로 된'과 같다(605쪽) 그래서 힘은 질료와 흡사하다(612쪽) 힘은 질료이다 (621쪽)

은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으로서 있는 변화의 아르케에일 뿐만 아니라 움직임 또는 쉽의 아르케에라고도 말하여진다

983) 어떤 변화의 아르케는 영혼을 지닌 것에 속하며 어떤 아르케에는 영혼 안에 속하는 반면에 어떤 아르케에는 영혼의 로고스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기교 와 생산하는 능력 과 앎의 힘이다 이것들은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으로서 있는 변화의 아르케에이기 때문이다

과 류적으로 동일한 것이 움직임의 아르케에 로서의 자연
이다 그러나 자연은 힘 처럼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 안에 동일한 것으로서 있다 (615쪽)

은 모순의 힘이다(624쪽)

할 수 있음(뒤나톤, 能(力))

은 힘에 에네르게이아(활동)이 속한 것이다 그래서 있으
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있지 않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있을 수 있다 다른 범주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
래서 걷고 있다가 걷지 않을 수 있으며 걷지 않다가 걸을 수 있
고 서 있는 것이 앉혀질 수 있고 그리고 앉혀지기 시작한다
(568-9쪽) 앉혀지기 시작한다면 앉혀지지 않을 수 없다(570쪽)
할(있을) 수 있음(뒤나톤, 능력)

이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동일한 것이 반대로 있을 수 있
다(646쪽) 힘을 지니는 것이 로고스에 따라 하려 하거나 꺾으려
할 때 반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주로 욱망 - 욱망 하거나 의지
를 행사할 때 밖으로부터도 안으로부터도 자신을 막는 것이 있
지 않아야한다 막는 것이 있다면 힘이 있지 않다(604쪽) - 하므
로서 그렇게 있을 수 있기 시작하거나 또는 그렇게 있지 않기
시작한다 그러나 동시에 두 가지 반대를 욱망하지는 않는다(589
쪽)

은 반대 양자 각각과 같거나 또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같지 않다(646쪽)

은 자연스레 알론한 것을 움직이거나 또는 알론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짐이다(594쪽)

만약 있는 알파로부터 반드시 베타가 있다면 있음
알파의 있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마찬가지로 베타도 있을 수 있
다는 것은 분명하다 있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
라면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으려는 것을 막는 것은 있지 않
기 때문이다(581쪽)

은 힘에 에네르게이아가 속한 것이다(569쪽)

의 활동(에네르게이아)가 움직임이다(707쪽)

에네르게이아(활동)

는 반대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646쪽)

은 힘과 분명히 헤태론하다(567쪽) 메가라 사람들은
은 활동을 힘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므로 결국 생성 과 움직임을
제거해 버리는 셈이된다

가 힘에 속해야 이 힘이 (있을) 수 (있음) 곧 능
能(력(力))으로 있다(569쪽)

에네르게이아(활동)

이라는 이름이 현실과 연결되는데(συντιθεμένη
1047a31) 이러한 이름은 대 부분 움직임으로부터 알론한 것들로
확장된 것이다(570쪽)

[이 힘을 지니는 자에게 먼저 있어야] 플루우트
부는 힘 처럼 습관으로부터 오는 힘 과 기교의 힘 처럼 배움으로
부터 오는 힘은 곧 습관 과 로고스로부터 오는 힘들이 획득된다
(588쪽)

은 힘과 같은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라그
마에 속해있다(594쪽)

도 유비적으로 말하여진다 그것에 대해 이것으로
있며 이것에 대해 그것으로 있다 라고 말이다 활동은 힘에 대해
움직임으로 있고⁹⁸⁴ 질료인 것에 대해 실체로 있기 때문이다

984) 힘 과 에네르게이아에 대해 말하므로서 우리는 움직임을 떠나게된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테아타 편은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想起)해 보라
(546쪽) 지금 우리는 움직이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가 또는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이 움직여지는가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언은 유비적으로 말하여진다 이것에 대해 저것으로 있고 저
것에 대해 이것으로 있다 라고 말하여지듯 말이다 예를들어 힘에 대해 움직
임으로서 있는 것들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질료인 것에 대해 실체로서
있는 것들이 있는 것 처럼 말이다 따라서,

텔레스는 그 무언은 움직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움직임
이 어떤 것에 대해 있고 실체가 질료인 것에 대해 있다 라고 말하여지듯 그

동일한 것을 보면서 동시에 보았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했다 나(텔레스)는 이러한 것을 에네르게이아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은 것을 움직임이라 말한다(597-598쪽)

에네르게이아(활동)

는 로고스 와 실체에 있어서 힘 보다 먼저이다 그러나 시간에 있어서는 먼저이기도 하고 나중이기도하다(615쪽)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비로소] 첫 번째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로고스에 있어서 먼저이며 수에 있어서가 아니라 에이도스에 있어서 동일한 활동이 먼저이다(615쪽)

하고 있는 것은 활동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힘으로 있는 것으로부터 항상 생성되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시간에 있어 먼저이다(618쪽)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움직이게하는 것이며 (움직이게한 것들 가운데도)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619쪽)

생성은 끝(목적)을 위해 있으며 바로 이 끝이 활동이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힘이 요구되며 어떤 것이 그것을 위해 있는 바로 그것이 아르케에이므로 그리고 이러한 아르케에 와 그 끝을 향해 생성되는 모든 것은 나아가기 때문에 실체에 있어서도 힘 보다 활동이 먼저이다(620쪽)

에네르게이아(활동)

가 있을 때 질료는 에이도스 안에 있다 질료는 힘이며 바로 이러한 질료가 에이도스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621쪽)

이라는 이름은 에르곤(작용)으로부터 왔으며 엔텔레케이안(현실)로 까지 확장된다 에르곤이 그 끝이며 에네르게이아가 그 에르곤이기 때문이다(622쪽)

은 예를들어 '보는' 안에서 실현되고 생성되며 그리고 '보는'과 동시에 있기 때문에 봄(활동 또는 작용)은 그 끝인

렇게 유비적으로 그 무엇이 있다 말하여진다 라고 그는 단지 말할 뿐이다

반면에 예를들어 집 짓고 있는 활동은 집 지어지는 안에서 실현되며 생성되며 집과 동시에 있기 때문에 활동은 행하고 '있는' 또는 생산하고 '있는' 안에 있다(622쪽)

와 에르곤는 서로 나란히 알려진 것으로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니다(623쪽)활동은 에르곤 안에 속한다 예를들어 봄은 보는 안에 속하며 이론(관조)은 이론화 하는 안에 속하고 생명 과 행복은 영혼안에 속한다 따라서,

에네르게이아(활동)

으로 있는 것은 에이도스 와 실체임라는 것이 분명하다(623 쪽)만약 영원한 무슨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힘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닐며 또 만약 움직이는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은 소멸하지 않는 것 곧 영원한 것이다(624쪽) 그리고 해 와 별 과 전체 하늘은 항상 에네르게이아이다 흙 과 불도 항상 활동한다 소멸하지 않는 것을 모방하기 때문이다(625쪽)영원한 것에는 나쁨도 곁함도 파괴도 있지않다(648쪽)

는 선 과 가치의 경우 좋은 힘 보다 선하며 가치 있는 반면(646쪽) 나쁨의 경우 힘 보다 더 나쁘다(647쪽)

에 의해서 기하학적인 것들 - 기하학적인 것들은 힘에 속한다 - 은 발견된다 힘으로 있는 것들이 활동으로 이끌림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는 생각이다(649쪽)

로부터 힘이 [기인(起因)하거나 또는 발견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식이 진행된다 에네르게이아는 수적으로는 나중에 생성되기 때문이다(649쪽)

는 묶여 있지 않은 실체이며 이러한 에네르게이아에는 속임이 있지 않다(665쪽)

는 몸 과 영혼에 공통으로 [속하는] 에르곤(작용)이다(709쪽)

마침내 생각(vóησις 1051a30)이라고 말하여지면서 에네르게이아(활동)

에 관한 여기서의 로고스가 끝난 것으로 보아 에네르게이아 와 뒤나뫼스에 대해 주로 말하는 테에타 편에서 그는 생각이 에네르게이아이다 곧 생각이 활동하고 있다 라고 가장 말하고 싶어했다 라고 나는 말해야 될 것 같다 이제,

1-9 장을 떠나 마지막 세 번째로 그에 의해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진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10 장으로 건너 가야 한다

“ (10)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한 편으로 범주들의 도식(τὰ σχήματα 1051a35)에 따라 말하여지며 다른 한 편으로 그 것(범주)들 또는 그 반대들의 힘(뒤나뫼스) 과 에네르게이아(활동)에 따라 말하여지고 다른 한 편으로 있는 진실 또는 거짓(ὄν αληθές ἢ ψεύδος 1051b1-2)이라고 가장 주로 (κυριώτατα 1051b1) 말하여진다⁹⁸⁵이것은 프라그마들⁹⁸⁶에 있어서의 [프라그마들의] 묶어짐 과 나누어짐에 [의존한다] 그래서,

985) 로스는 자신의 번역 책 833 쪽에서 ‘thirdly(세번째로)’ 진실 과 거짓의 감각에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어진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텔레스는 세 번째 라는 말을 쓰지 않고 퀴로오오타타(가장 주로) 라는 말을 쓴다 아마 그 당시 일상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게 진짜로 있다 또는 가짜로있다 라는 길로 있는 진실 과 거짓이 있는 또는 있지 않는 범주 와 있는 또는 있지 않는 힘 과 활동 보다 더 자주 주로 말하여졌던 것 같다

986) 앓아 있다 라는 긍정 과 앓아 있지 않다 라는 부정(否定)이 대립되 듯 이 각 프라그마 ‘앓은 그’ 와 ‘앓지 않은 그’도 대립된다 라는 범주들 31 쪽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여기에서는 프라그마의 묶어짐 과 분리에 있는 진실 과 거짓은 의존한다 따라서,

진실 과 거짓 그리고 긍정 과 부정이 네 가지 모두 프라그마와 연관된다는 것 그래서 범주들도 그러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뉘어진 것(프라그마)를(τὸ διηρημένον 1051a3) 나뉘어진 그대로 그리고 묶어진 것을 묶어진 그대로 상정하는(οἰόμενος, 想定, 1051a3) 것이 진실인 반면 그러한 프라그마와 반대로 (상정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렇다면],

언제(ποτ⁹⁸⁷) 1051b5) 진실 또는 거짓 이라고 말하여지는가 무슨 [때] 그러하다 라고 우리는 조사해서 말해야한다 당신은 희다 라고 우리가 상정함을 통해서 당신이 희다는 것은(εἶ 1051a7) 진실이 아니라 당신은 희다 [라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희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φάντες 1051a8) 실로(δὴ 1051b9),

만약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항상 묶여지기(συνκεῖται 1051a9)만 할 뿐 나뉘어질 수 없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다른 것들은) 나뉘어지만 할 뿐 묶여질 수는 없다면 반대들(τάναντια 1051b11)일 것이다 [그렇다면] 있음은 묶어진 것이며 하나인 반면 있지 않음은 묶여진 것이 아니라 여럿(πλειω 1051b12)이다⁹⁸⁸이제,

987) 힘 과 에네르게이아에 관련해서도 그는 언제 힘이 있으며 언제 힘이 있지 않는 가를 규정해야한다 모든 때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608 과 604 쪽에서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때 모든 것이 진실 또는 거짓일 수는 없을 것이다

988) 텔레스는 있음 과 있지 않음은 서로에 반대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기에 나는 늘 텔레스에게 불만이다 텔레스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반대로 여기는 것은 여기 뿐 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쉽게 드러난다 그 하나가 642쪽이다 그런데,

플라톤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반대로 여기지 않는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 있는 것과 헤테론한 것이다 라고 소피스테이스 126 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은,

있는 것의 반대가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직접 말한 곳을 텔레스에게서 나는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반대이다 라고 자신을 읽는 이로 하여금 상정하게 끄는 로고스를 여기 와 거기 이외의 여러 곳에서 본 것 같다 다음으로,

그는 있음을 kai(1051a11)를 통해서 하나와 연결시킨다는 점은 간략히

(있기) 시작하는 것들과 관련해 볼 때 동일한 의견(δόξα 1051b14) 과 로고스가 거짓 과 진실로 된다 그리고 한 때 진실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이 된다 그런데,

알론한 것일 수 없는(τὰ ἀδύνατον ἄλλως ἔχειν⁹⁸⁹) 1051b15-16)과 관련해 볼 때 (동일한 의견 과 로고스가) 한 때는 진실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진실이고 (동일한) 거짓이다 그런데,

묶어져 (있지) 않은 것(τὰ ἀσύνθετα 1051b17)과 관련지워진 있음 과 있지 않음 과 진실 과 거짓은 무엇인가(τι 1051b17)

묶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편으로 묶여질 때는 있음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나누어진다면 있지 않음이다 그 흰 나무 또는 그 측정될 [수] 없는 빗변 처럼⁹⁹⁰ 말이다 그러나(καὶ 1051b22),

지적만 하고 넘어 가련다

989) 다시 말해 알론한 것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것은.....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여기서 텔레스는 그 자체로 있는 것 과 우연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990) 로스(833) 와 트레드닉(471)은 ‘ ὡπερ τὸ λευκὸν ξύλον ἢ τὸ ἀσύμμετρον τὴν διάμετρον 1051b20-21)’을 ‘ 그 나무는 희다 또는 그 빗변은 통약적이지 않다 ’ 라고 번역한다 그런데,

형용사 흰(τὸ λευκὸν) 과 통약적이지 않은(τὸ ἀσύμμετρον) 관사 τὸ를 지녔으므로 그 나무는 희다 라고 술어적으로 번역 할 것이 아니라 그 흰 나무 또는 그 측정되지 않는 빗변 이라고 부가적으로 번역해야 될텐데 왜 이들은 'the white wood' or 'the incommensurable diagonal' 으로 번역하지 않고 'the wood is white' or 'the diagonal is incommensural' 로 번역할까 형용사의 부가적인 쓰임새 와 술어적인 쓰임새의 구별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진실 과 거짓은 저와 같은 경우⁹⁹¹)에 속하지 않는다 있음과 마찬가지로 진실도 이것들의⁹⁹²) 경우에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한 편으로 진실인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거짓이다⁹⁹³)

한 편으로 연언 과 주장은(τὸ θιγεῖν καὶ φάναι, 連言 과 主張, 1051b24)진실이다 긍정 과 주장(φάσις 1051b24)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몰 인식(τὸ ἀγνοεῖν, 沒認識, 1051b25)은 연언 이 아니다 있는 그 무엇에 관련해서는 우연히를 제외하면 속여짐은(ἀπατηθῆναι⁹⁹⁴), 붙음?, 1051b25)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관사를 지녀 부가적으로 쓰이면 관사를 지닌 그 형용사가 가리켜지는 반면에 관사를 지니지 않아 술어적으로 쓰이면 형용사가 가리켜지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자신이 수식하고 있는 것이 가리켜진다(J. Gresham Machen, 35쪽)

991) 이 앞의 경우? 곧 묶인 것들의 경우? 아니면 있기 시작하는 것의 경우? 와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것의 경우? 아니면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경우? 아마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것의 경우일 것 같다

992) 묶인 것들의 경우?

993) ‘저 경우’를 묶인 것의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묶인 것의 경우에는 있는 것 과 진실한 것은 항상 동일한 것인 반면 묶이지 않은 것의 경우에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도 한 때는 진실이 었다가 다른 때는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을 텔레스가 여기서 말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994) 로스는 934에서 contact(붙은) 이라는 말을 쓴다 묶인의 측면에서는 붙은(접촉(接觸))이라는 말을 써도 될 것 같으나 문제의 그 변화 형은 ἀπατᾶ ω를 그 원형으로 지니며 그리고 여기서는 진실 과 허위의 측면이 더 강하므로 속여짐 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듯 싶다 그러나,

붙은 이라는 번역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묶여(있)지 않는 실체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다 (묶여 있지 않은 실체와 관련해서도) 속여짐[붙음?]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묶여 있지 않은) 모든 (실체)는 에네르게이아로 있지 뒤나뒤스로 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생성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것 자체(τὸ ὄν αὐτὸ 1051b29)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⁹⁹⁵⁾ 실로,

있음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활동)인 것 [등] 그러한 것에 관련해서는 (περὶ ταῦτα 1051b31) 속여짐이란 있지 않다 그러나 [있음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인 것을]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에(ἢ νοεῖν ἢ μὴ 1051b31-32)(관련해서는 속여짐이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 라고 그러한 것들의 있는 그 무엇이 조사되어진다

진실로서의 있음 과 거짓 으로서의 있지 않음[에 관련해서는] 한 편으로 만약 [주어 와 술어가] 묶여 진다면 하나는 진실이고 만약 묶여지지 않는다면 거짓인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이라면 하나는 [있는] 그대로 있고 그렇게 있지 않다면 [그대로] 있지 않(는 것이다) 진실은 그것을(αὐτὰ 1052a1) 생각하는 것인 반면에 거짓은 있지 않다 속임(ἀπάτη 1051b2)도 있지 않다 [단지] 몰 인식 [만] 있다 [몰 인식은] 맹목(τυφλότης⁹⁹⁶⁾,盲目, 1052a3)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맹목은 어떤 생각하는 능력(τὸ νοητικὸν 1052a3)도 지니지 않는 그러한 것 으로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τῶν ἀκινήτων 1052a3)에 관련해 볼 때 어떤 때에 따라서 [곧 시간의 측면에서] 속임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만약 세모 꼴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상정 된다면 한 때 그 세모 꼴의 각들은 2 직각이지만 다른 때는 아니다 라고 상정되어서는 않된다 [그렇다면]

995) 텔레스 역시 있음 과 생성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있는 것 자체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구분은 티마이오스 편의 플라톤의 구분과 같다(티마이오스 136 쪽 이하)

996) 활동할 때 만 힘이 있다고 말하는 메가라 사람들의 로고스를 비판 하면서 τὸ τυφλὸν 1047a8 이라는 말이 쓰여 졌음에 유의하시오(566 쪽)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무엇이든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무엇이 아니다 예를들어 [수 가운데 짝(ἄτριον 1052a8)수는 소수(πρώτον, 素數⁹⁹⁷), 1052a8)가 아니지만 [수 가운데] 어떤 수는 (소수)이고 어떤 수는 (소수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와 관련해(περὶ ἓνα) [볼 때는] 이렇지 않다 한 편으로 어떠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어떠하지 않다 라고 상정되지는 않고(οὐκ οἰησεται 1052a10)오히려 항상 그러 그러한 [속성을] 지니는 것 으로서 [우리가 상정하는 것이] 진실 또는 거짓되기 때문이다 ”

테에타 편 마지막을 이루는 10 장은 그 이전 장들과는 달리 뒤나뮌스와 에네르게이아에 대해 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과 거짓에 대해 주로 말하면서 결정적인 곳 1058b28 에서 뒤나뮌스와 에네르게이아 라는 말이 모두 세 번 - 뒤나뮌스 한 번 에네르게이아 두 번 - 나타날 뿐이다

“ 묶여 있지 않은 실체에 관련해서도 이와 같다 묶여 있지 않은 실체에 관련해서도 속여짐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묶여 있지 않은 모든 실체는 **에네르게이아**로 있지 **뒤나뮌스**로 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생성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것 자체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 으로부터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있음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인 것에 관련해서는 곧 동일한 것에 관련해서는 속여짐이란 있지 않다 그러나 있음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인 것을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에 관련해서 속여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관해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또는 아닌가 가 조사된다 곧 그러한 것들의 있는 그 무엇이 조사된다 (1051b26-33) ”

위 인용 글월에 따르면 에네르게이아는 묶여 있지 않은 실체이며 이러한 에네르게이아에는 속임이 있지 않다 따라서,

10 장 역시 그 이전 장들과 좀 느슨하긴 하지만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긴해도,

997) 1을 제외하면 어떤 공통 수도 지니지 않는 수....라고....

10 장은 뒤나뫼스 와 에네르케이아을 말하기 위해서 열거했다 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있는 것을 말하는 적절한 순서에 따라 열거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는 형이상학 델타 편 7 장(1017a7-b9, 277-280쪽)에서 있는 것을 우연히 있는 것 과 그 자체로 있는 것으로 나누어 말하는 가운데 그 자체로 있는 것들을 카테고리아의 도식에 따라 말하는 것 과 진실 과 뒤나뫼스와 에네르케이아로 다시 나누어 짧게 그 순서에 따라 말하기 때문이다 첫째,

범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실체에 대해서는 제에타 편에서 주로 말하며 둘째 진실에 대해서는 거짓과 더불어 이 테에타 편 10 장에서 주로 말하며 셋째 뒤나뫼스 와 에네르케이아에서는 이 테에타 편 1-9 장에서 말하며 넷째 델타 편 순서에 따르면 10장이 1 장이 되는 반면 1-9 장은 2-10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으나 텔레스가 보기에는 먼저 뒤나뫼스와 에네르케이아를 말하는 것이 더 적절했던 것 같다 10 장으로 들어서면서 부터는 있음이라는 말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난다 테에타 편 3-4 장 과 8 장 후 반부 처럼 말이다 10 장으로 들어서면서 부터는 있음이라는 말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난다 테에타 편 3-4 장 과 8 장 후 반부 처럼 말이다⁹⁹⁸⁾ 그런데,

있는 것은 진실이라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말하여 졌던 모양이다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범주들의 도식에 따라 말하여지기도 하며 그 범주들의 뒤나뫼스 와 에네르케이아에 따라 말하여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가장 주로 말하여지기도 한다 이것은 프라그마들의 묶어짐 과 나뉘에 의존하다 그래서,

나뉘 프라그마를 나뉘 그대로 묶어진 프라그마를 묶어진 그대로 상정하는 것이 진실인 반면 그와 반대로 상정하는 것은 거짓이다⁹⁹⁹⁾

998) 10 장으로 들어서면서 부터는 있음이라는 말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난다 테에타 편 3-4 장 과 8 장 후 반부 처럼 말이다

999) 여기서 중요한 말은 프라그마(πραγμα) 와 묶음(τὸ συσκειμένον 1051a4) 과 나뉘(τὸ διηρημένον) 과 상정하다(οἰόμενος 1051a3)이라는 말이다 나뉘 프라그마를 나뉘 그대로 상정하고 묶인 프라그마를 묶인 그대로 상정하는 것이 진실인 반면 그 반대로 상정하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그는 상정하는 것에 진실 과 거짓이 있다 라는 것을 자신의 로고스의 전제로 깔아 놓고 말을 계속 이어 나간다 그렇다면,

언제 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말하여지는가 언제 그러하는가 가 조사되어야 한다

당신이 회다 라고 상정함을 통해서 당신이 회다가 진실인 것이 아니라 당신은 회다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회다가 우리에게 진실한 것으로 나타난다(φάντες 1051a8)

회 당신 이라는 프라그마 때문에 당신은 회다 라고 상정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말일 것이다

만약 항상 묶여지지만 할 뿐 나뉘어질 수 없는 반면 나뉘어지기 만 할 뿐 묶여질 수는 없다면 이는 반대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있음은 묶여진 하나인 반면 있지 않음은 묶여진 것이 아니라 여럿이다(1000)이제,

텔레스는 진실 과 거짓인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있기 시작하는 것들과 관련해 볼 때 동일한 의견 과 로고스가 거짓 과 진실로 된다 한 때 진실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것과 관련해 볼 때 동일한 의견 과 로고스가 한 때 진실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진실이고

생각하다(voeiv) 라는 말이1051b32에서 쓰인다 그러나 다시 1052a10에서 οἰήσεται 라는 말이 쓰이므로 생각하다를 상정하다와 동일한 차원으로 다루는 것은 말 과 그 생각이 틀리듯 다름도 그르다

1000) 이렇게 말하는 텔레스를 보면 진실은 곧 바로 있음 과 있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것 같다 그러나 물론 있는 것 자체를 프라그마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가.....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묶여진 하나가 있는 것이라고 그가 직접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거짓이다

이 부분에서 텔레스는 묶여 있지 않은 것을 이끌어 들인다 그렇다면 이 앞 부분에서는 묶여 있는 것 있어서의 진실 과 거짓에 대해 말했다는 것인가 어쨌든 계속 이어 요약해 보기로하자

묶여 있지 않은 것과 관련된 있음 과 있지 않음 과 진실 과 거짓은 무엇인가

묶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묶인다면 있음인 반면 나뉜다면 있지 않음이다 그 흰 나무 또는 그 측정 될 수 없는 빛변 처럼 말이다¹⁰⁰¹⁾그러나,

진실 과 거짓은 [이 앞의 묶인 것의 경우와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묶이지 않은 것들의 경우에는 있음 과 마찬가지로 진실도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한 편으로 진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거짓이기 [때문이다]

주장은 긍정과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연언 과 주장은 진실이다
한 편으로 연언은 몰 인식이 아니다

있는 그 무엇과 관련해서는 우연히 속여진다는 것을 제외하면 속여짐 [불혀짐?]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묶이지 않은 실체에 관련해서도 이와 같다 붙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묶이지 않은 모든 실체는 에네르게이아로 있지 뒤나뒤스로 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생성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것 자체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있음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인 것에 곧 동일한 것에 관련해서는 속여짐 [불혀짐]이란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생각하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은 것에 관련해서는 속여짐[불혀짐]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 그 무엇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진실 로서의 있음 과 거짓 으로서의 있지 않음에 관련해 볼 때 만약

1001) 있음은 묶여진 것인 반면 있지 않음은 그렇지 않은 것 곧 나뉘어진 것이라는 로고스가 두 번째 말하여 졌다

뉘인다면 하나는 진실이며 뉘이지 않는다면 거짓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 이라면 하나는 있다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있고 그렇게 있지 않다면 그대로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진실은 그러한 것을 [그대로] 생각하는 것인 반면 거짓은 그러한 것을 [그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은 속임이 아니라 몰 인식이다 그러나 맹목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맹목은 어떤 생각하는 능력도 지니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는 나를 헛 갈리게 한다 진실 과 거짓 과 있음 과 있지 않음이 한테 뒤 섞여 어우러 지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있지 않은 것이지 혼란 스럽다 더구나 묶여 있는 것 과 묶여 있지 않은 것 각 각의 경우에 진실 과 거짓 과 있음 과 있지 않음이 동일하지 않은 것 같다 어디서 어디 까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애매하다 물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진실 과 거짓 과 있음 과 있지 않음이 집혀오기는 해도 말이다 이제,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움직이지 않은 것¹⁰⁰²⁾의 경우로 텔레스는 넘어간다

움직이지 않은 것에 관련해 볼 때 어떤 시간의 측면에 속임(불음)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세모 풀은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이 상정된다고해도 그 세모 풀의 각은 한 때 2 직각이지만 다른 때는 그렇지 않다 라고 상정되어서는 않된다 그래 버리면 변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무슨 속임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무슨 속임이 있지 않다 라고는 상정되어진다 예를들어 수 가운데 짝수는 소수(素數)가 아니지만 짝수가 아닌 수 가운데 어떤 수는 소수인 반면 어떤 수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2) 뒤나뉘스 와 에네르게이아에 대해 말하는 끝 부분에서는 기하학적인 것들이 보기로 들어지는 반면 이 끝 부분에서는 기하학적인 것도 보기로 들어지지만 아주 잠시 그러할 뿐이다 수적인 것이 잠시 보기로 들어진다

하나[의 수]와 관련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한 편으로 어떠 하고 다른 편으로 어떠 하다 라고 상정되지는 않지만 [어떤 하나의 수를] 항상 그러 그러한 속성을 지닌다 라고 상정되면 진실 또는 거짓되기 때문이다

기하학적인 것 과 수적인 것과 같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의 경우에 어떤 때 진실하며 어떤 때 거짓인가

기하학적인 것 예를들어 세모 꼴의 경우 그 자체 변하지 않으므로 시간의 측면에서 만큼은 속임[불합]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세모 꼴의 각들은 어떤 때 2 직각이지만 어떤 때는 아니다 라고 상정하면 거짓일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예를들어 수적인 것의 경우에는 기하학적인 것의 경우와는 해태론하다 짝수는 소수(素數)가 아니지만 짝수가 아닌 수 가운데서 어떤 수는 소수이나 어떤 수는 소수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수 각각은 그렇지 않다 비록 한 편으로 그러하고 다른 한 편으로 그러하지 않다 라고 상정되지는 않더라도 각각의 수를 각기 항상 그러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상정하는 것은 [때로는] 거짓이고 [때로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하학적인 것 과 수적인 경우 각각 진실인 때 와 거짓인 때가 다르다 기하학적인 것은 변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역경 과 로고스*(1014b14-15)가 때에 따라서 진실 또는 거짓이지는 않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어떤 것이 어떤 때에 그러하지만(ᾠδι) 어떤 때에 그러하지 않다 라고 *상정*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러나,

수의 경우에는 어떤 때는 그러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않다 상정하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다 짝수는 항상 소수가 아니지만 짝수가 아닌 수 가운데 어떤 수는 소수가 아니지만 어떤 수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수 하나 하나를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각기 하나 하나가 한 편으로는 어떠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어떠하지 않다 라고 상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수 하나 하나는 어떠한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상정되므로서 [그 상정(想定)]이 진실 또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때 진실이고 어떤 때 거짓인가에 있어서는 기하학적인 것의 경우 와 수 하나 하나의 경우에는 동일하다 그러나 짝수 와 짝수 아닌 것의 경우에는 앞 두 경우와 해태론하다 모든 수가 항상 예를들어 소수(素數)이

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기하학적인 것 과 수적인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것에 관련해 볼 때 진실 또는 거짓인 것은 ‘일단’ **프라그마** 라기 보다는 그 프라그마에 대한 상정(οἰόμενος, 想定, 1051a3) 그리고 의견 과 로고스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¹⁰⁰³) 그럼에도 진실 과 거짓은 그러한 상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그마의 묶어짐 과 나뉘에 의존한다 그래서 당신은 희다 라는 상정을 통해서 흰 당신 이라는 프라그마가 진실이 아니라 흰 당신을 통해서 당신은 희다가 우리에게 진실한 것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나뉜 프라그마는 나뉜 채로 묶인 프라그마는 묶인 채로 상정하는 것이 진실인 반면 그렇지 못한 것은 거짓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있음 과 있지 않음을 이끌어 들인다¹⁰⁰⁴)

묶어진 하나가 있음인 반면 묶여지지 않은 여럿은 있지 않음 이라고 그는 말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어떤 것은 항상 묶여지지만 할 뿐 나뉘 수 없는 반면 어떤 것은 나뉘어 지지만 할 뿐 묶여질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반대¹⁰⁰⁵)이다 따라서,

있음은 묶인 프라그마 하나인 반면 있지 않음은 묶이지 않은 여러 프라그마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있음이 프라그마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 라는 물음을 무시한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있음 과 있지 않음은 진실 과 거짓에 대해 무엇으로 있으며 진실 과 거짓은 있음 과 있지 않음에 대해 무엇있고 이 네 가지는 서로에

1003) 그리고 나는 이러한 상정(想定)을 생각(voeiv 1051b32)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네 생각이 틀렸어 라고 말하기 보다는 네 추측 또는 상정이 틀렸어 라고 말해야 할 성 싶다

1004) 그래서 나는 열 번째 윗 줄에서 ‘일단’ 이라는 말을 썼다 진실 또는 거짓은 있는 것 또는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여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1005) 따라서 그는 있음 과 있지 않음을 반대로 여기는 것 같다

대해 무엇으로 있을까.....

지금 텔레스는 진실 과 거짓은 언제 말하여지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답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답하는 가운데 있음 과 있지 않음이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기 시작하는 것들(τὰ ἐνδεχόμενα 1051b13)의 경우 와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것(τὰ ἀδύνατον ἄλλως ἔχειν 1051b15)경우 와 묶이지 않는 것(τὰ ἀσύνθετα 1051b17) 의 경우와 묶이지 않은 실체(μὴ συνθετὰς οὐσίας 1051b27) 경우 등 네 가지의 경우 마다 진실 과 거짓이라고 말하여지는 때를 각기 달리 그가 말하고 있어서 내가 헷갈린다 물론,

나뉜 프라그마를 나뉜 그대로 그리고 묶인 프라그마를 묶인 그대로 상정하는 것이 진실인 반면 그 반대로 상정하는 것은 거짓이며 예를들어 당신은 희다 라고 우리가 상정함을 통해서 당신이 희다가 진실인 것이 아니라 흰 당신이라는 프라그마를 통해서 당신이 희다가 우리에게 진실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 네 가지 모든 경우에 통용된다 그러나,

이 네 경우 마다 있음 과 있지 않음은 무엇 이냐는 것 과 언제 진실 과 거짓이냐는 것은 텔레스에 따르면 달리 말해져야 할 것 같다 먼저,

있기 시작하는 것들의 경우 거짓 과 진실인 것은 있기 시작하는 것들에 관한 동일한 역견 과 로고스이다 이 동일한 역견 과 로고스가 한 때 진실 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이 된다 그러나 언제 진실이고 언제 거짓인가에 대해서는 텔레스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 아마 그 네 가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위 기준에 따라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것의 경우 다시 말해 알론하게 될 수 없는 것의 경우 그것에 관한 동일한 역견 과 로고스가 한 때 진실 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 과 거짓에 있어서 항상 동일하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절대적인 진실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절대적인 진실 과 거짓에 상응하는 것 곧 알론하게 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묶이지 않은 것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텔레스는 먼저 이 경우에 있음 과 있지 않음에 대해 말한다

묶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편으로 묶여질 때는 있음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나누어질 때는 있지 않음이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는 묶여진 프라그마 하나가 있음인 반면 묶여지지 않은 여러 프라그마는 있지 않음이다 라는 661 쪽의 로고스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나누어지다 라는 말은 묶여지지 않은 이라는 말과 통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묶이지 않은 것의 경우 언제 진실이며 언제 거짓인가

있음과 마찬가지로 진실의 경우에도 묶이지 않은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한 편으로 진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거짓이다 물론 텔레스에 따르면 진실 과 거짓인 것은 묶이지 않은 것(프라그마)에 관한 의견 과 로고스일 것이다

한 편으로 연언 과 주장은 진실이다 주장이 긍정과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연언은 몰 인식이 아니다 있는 그 무엇에 관련해서는 우연히 속여짐이 있지 않는한 속여짐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묶이지 않은 실체로 넘어간다 나는 묶이지 않은 실체를 묶이지 않은 것과 다른 것으로 일단 간주할 것이다

묶이지 않은 실체의 경우에도 속여짐은 있지 않다 묶이지 않은 모든 실체는 뒤나뮌스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네르케이아로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성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있는 것 자체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여지듯이 묶여지지 않은 ‘것’ 이아니라 묶여지지 않은 ‘실체’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그러한 모든 것(πράοαι, 실체, 1051b28)은 뒤나뮌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네르케이아로 있다 라고 그리고 묶여지지 않은 실체가 있는 것 자체이며 생성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에네르케이아인 것 과 있음인 것에 관련해서는 속여짐이란 있지 않다 그러나 생각¹⁰⁰⁶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것에 관련해서는

1006) 이 전까지(1051b7) 그리고 이 후로(1052a5, 10) 그는 ‘상정하다’ 라는 ‘속여짐’이라는 말과 연결하여 쓰는데 유독 여기서 와 진실 로서의 있음에

[속여짐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는 가 또는 있지 않는가 라고 이러한 것들의 있는 그 무엇이 조사된다

여기 까지 텔레스는 네 가지 경우 언제 진실이고 언제 거짓인가에 대해 말해 왔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경우 진실인 것 과 거짓인 것은 모두 상정된 역전 과 로고스이며 있음은 묶어진 [프로그마] **하나**인 반면에 있지 않음은 묶이지 않는 **여러** [프로그마] 라고 보아야할 것 같다 그러나 1051b33-1052b4(664쪽)에서는 있음은 진실로(ὄν) 그리고 있지 않음은 거짓 으로 말하여진다 있음 과 있지 않음에 관련된 이 두 가지 로고스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회 있으면 숙고해 보기로 하고 진실 로서의 있음 과 거짓 으로서의 있지 않음에 대한 텔레스의 숙고를 분석해 보자 이 경우에 진실로 있는 것은 그 무엇이며 거짓으로 있는 것은 그 무엇인가

하나(ἐν 1051b34)는 만약 묶인다면 진실인 반면에 한 편으로 묶이지 않는다면 거짓이다 만약 있는 것이라면 **하나**는 그렇게 있는 반면에 한 편으로 만약 그렇게 있지 않다면 [하나로] 있지 않다 이 경우 진실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인 반면에 거짓은 있지 않다 속임도 있지 않다 단지 몰 인식만 있다 몰 인식은 맹목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맹목은 어떤 생각하는 능력도 지니지 않는 그러한 것 으로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를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할 것인가 우선,

묶어진 하나는 진실인 반면 묶이지 않는 [여럿]은 거짓이다 라는 로고스 와 위 네 경우에 있어 묶인 [프로그마] 하나가 있음인 반면 묶이지 않

대해 말할 때만 ‘생각하다(1051b32, 1052a1)’ 라는 말을 ‘속여짐’ 이라는 말과 연결하여 쓴다 그런데,

에네르케이아를 그는 생각(노에에시스 1051a30, 649쪽)이라고 앞서 말한다 물론 명사 - 여기서는 동사 원형(노에인 1051b32)이 쓰였음 - 이긴 해도 말이다 그렇다면 생각(명사)에는 속여짐이 있지 않지만 생각하다(동사 원형)에는 속여짐이 있다 라는 말인가.....

는 여러 [프라그마]는 있지 않음이라는 로고스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도 무방(無妨)할 것 같다 여기서 있는 것은 진실로 말하여지는 반면 있지 않는 것은 거짓으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있는 하나를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것인 반면 거짓도 속임도 있지 않고 몰 인식만 있다 라는 그의 로고스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는 묶이지 않은 것의 경우에 있어서 연언 과 주장은 진실이다 라고 앞에서 말하면서 연언은 몰 인식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이 몰 인식을 여기서의 몰 인식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상정해서는 안될 것 같다 문제는,

거짓도 속임도 [여기서는] ‘있지 않다’ 라는 그 로고스의 부분이다 존재하지 않다(does not exist 834쪽) 라고 옮기는 로스 역시 적절했다고 본다 그런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라고 옮겨 볼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있지 않다’ 와 ‘아니다’는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헤태론한 것을 가리키는가....에라 모르겠다.....그냥 이 부분은 지나치자.....어쨌든,

묶여 있지 않은 실체의 경우 그 생각에는 속임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거짓은 있지 않으며 단지 그것에 대한 몰 인식(ἄγνοια 1052a2) 만 있다 이제,

테에타 편 마지막 장인 10 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자

언제 진실이고 언제 거짓이냐는 어떤 것에 관한 진실이냐에 의존한다 그리고 진실인 것 과 거짓인 것은 상정된 의견 과 로고스이다 셋째,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것의 의견 과 로고스는 항상 동일한 진실 이거나 또는 항상 동일한 거짓이다 둘째,

묶이지 않는 실체에는 진실 만이 있을 뿐 거짓도 속임도 있지 않다 단지 그 실체에 관한 몰 인식만이 있을 뿐이다 셋째,

묶이지 않은 것의 의견 과 로고스는 한 편으로 진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거짓이다 연언 과 주장은 진실이다(1007)넷째,

움직이지 않는 것 가운데 기하학적인 것의 역견 과 로고스에는 속임이 있지 않다 [따라서 항상 동일한 진실 또는 항상 동일한 거짓 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것 가운데 수의 경우는 좀 복잡하다 개개(箇箇)의 수의 역견 과 로고스는 항상 동일한 진실이거나 또는 항상 거짓일 것인 반면에 어떤 [그룹의] 수의 역견 과 로고스는 한 때 진실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일 것이다 예를들어 어떤 수를 소수(素數)라고하면 진실일 때 - 짝수의 경우에는 진실하다 -가 있지 만 거짓일 때 - 짝수 이외의 수의 경우에는 거짓이다 -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 째,

있기 시작하는 곧 생성 소멸하는 것의 역견 과 로고스는 한 때 진실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인가 우선,

진실 과 거짓은 프라그마의 묶어짐 과 나뉘에 의존한다 그래서 ,

나뉘 프라그마를 나뉘 그대로 또 묶인 프라그마를 묶인 그대로 상정한(οἰόμενος, 想定, 1051a3) 것이 진실인 반면 이와 반대로 상정한 것은 거짓이므로 진실인 것 과 거짓인 것은 묶인 또는 나뉘 프라그마에 관한 역견 또는 로고스이며 예를들어 당신은 희다 라는 로고스는 당신은 희다 라고 우리가 상정함을 통해서 진실인 것이 아니라 흰 당신을 통해서 그 로고스는 우리에게 진실인 것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고 그만 두기에는 어딘가 허전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반드시 해야한다,

항상 묶어져 나뉘어 질 수 없는 하나 (프라그마)가 있음인 반면 항상 나뉘어져 묶어질 수 없는 여러 (프라그마)는 있지 않음이다¹⁰⁰⁸ 그러므로,

진실 로서의 있음 과 거짓 으로서의 있지 않음에 관련해 볼 때 묶어

1007) 거짓에 대한 보기를 텔레스는 들고 있지 않다

1008) 텔레스에 따르면 이러한 있음 과 있지 않음은 반대이다

진 하나는 진실인 반면 묶여지지 않는 (여럿)은 거짓일 것이다 그런데,

묶이지 않는 실체들에 관련해 볼 때는 어떠한가 이런 실체에는 속임이 있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거짓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뒤나투스(힘)**으로 있지 않고 **에네르게이아**로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다음 처럼 표로 그려보자

진실 또는 거짓				
항상(ἀεὶ 1051b17)			어느때(ὅτε 1051b 14)	
묶인 것	묶이지않은것	변하지않는것	묶인 것	변하지 않는것
알론하게있을수없는것	연언 과 주장	기하학적인것개개의수(數)	있기시작하는것	짝수
진실 과 거짓				
진실(b34)			거짓(b35)	
있음			있지않음	
묶인 것	묶이지 않은 실체	묶이지 않은 것		
묶여진 하나	에네르게이아	여럿(뒤나투스)		

만약 위 처럼 10 장을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10 장이 그 이전 장들과 동 떨어져 있다 라고 결코 말하여질 수 없으리라 물론 약간 빙 돌아 묶어진 것이긴 해도 약하게나마 아니 그 큰 줄기에 있어서는 서로 묶여지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있는 것 으로서의 실체에 대해 주로 말하는 제에타 편 (287-544쪽)에 이어지면서 감각실체(또는 질료)에 대해 그리고 질료를 지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에에타 편 바로 다음에 힘 과 활동(에네

르케이아) 와 현실(엔텔레케이아) 과 진실도 있는 것이라 말하여진다¹⁰⁰⁹)라고 말하는 테에타 편이 있다

모든 것은 힘으로 인해 무엇을 행하거나 겪음으로서 변하기 때문에 힘 없는 것은 어떤 상태(ἡ κείσθαι, 1b27(범주들),)를 유지하지 못할 뿐더러 알론한 상태로 변하지도 못하므로 힘은 변화의 아르케에이다 라고 말하는 테에타 편 1 장에 이어 2 장에서는

이러한 힘에는 반대를 생산하는 로고스적인 힘 과 단지 하나[의 결과]만을 생산하는 비 로고스적인 힘이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활동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헤테론한 것이다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면 결국 생성 과 변화 와 움직임을 거부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변화의 아르케 로서의 힘이 있다는 것을 역시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라고 3 장에서는 말하여진다 또,

3 장에서는 힘에 에네르케이아가 속해야 비로소 그 힘이 있을 수 있게 된다 곧 그러한 힘이 능력이다 라고 더불어 말하여지는데 이를 이어 받아 4 장에서는 변항 α 와 β 등을 써 가며 있을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박하면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논증한다 이러한 논증 후에 텔레스는 5 장에서 힘이 있을 수 있는 길 다시 말해 힘이 활동 할 수 또는 실현 될 수 있는 길에 대해 말한다

힘이 활동 할 수 있는 것은 욕망 또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욕망** 하므로서 **힘**이 로고스적으로 **활동**하여 반대들을 **행**(ποιεῖν, 생산)한다 물론 겪으면서 **행**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이러한 행함을 방해하는 어떤 **습성** - 습성들 가운데 외부적인 방해를 물리치는 습성의 경우 그렇다 - 도 있지 않으므로 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없다 이제,

텔레스는 이어지는 6 장 활동(에네르케이아) 와 현실(엔텔레케이아)에 대해 활동은 힘이 아니라 프라그마이며 이러한 활동이 바로 현실과 연결된다 라고 말한다 우선,

1009) 있지 않은 것 이라고도 말하여진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텔레스는 그건 큰일 날 소리야 라고 만류(挽留)할 것이다

힘으로부터 현실이 이루어지는 때에 대해 말하는 7 장이 필요하다. 힘 예를들어 변하기 전의 씨앗에 행사되는 의지를 안 밖에서 방해하는 어떤 것도 있지 않으며 그리고 더 이상 그 씨앗에 덧 붙혀 지거나 제거 되거나 변할 것도 없을 때 변한 씨앗은 사람에게 대해 힘으로 있다 다시 말해 각기 것에 행사되는 의지가 안 밖에서 막히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각기 것이 가감 변화되지 않을 때 각기 것은 자신에 ‘궁극적인 것 또는 현실적인 것’에 대해 힘으로 있다 발아(發芽)된 씨앗이 사람에게 대해 힘으로 있듯 말이다 라고 말하는 7 장에서는 질료가 힘과 [흡사한] 것으로 말하여진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8 장에서는 힘 보다 에네르케이아가 로고스 와 실체 와 시간에 있어 먼저 이다 물론 시간의 경우 수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종적으로 동일한 것이 먼저이긴 해도 말이다 가 말하여지면서 에네르케이아란 실체 와 에이도스이며 그리고 소멸하지 않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아울러,

8 장에서는 움직임의 아르케에라는 점에서는 자연이 힘과 동일한 류이긴해도 헤태론한 것안에 헤태론한 것으로 있는 힘과는 달리 자연은 동일한 것 안에 동일한 것으로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물론,

이러한 자연 보다 에네르케이아가 먼저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에네르케이아는 힘 보다 더 선하며 더 가치 있다 라고 그리고 에네르케이아는 생각이라고 9 장에 말하여지고 10 장에서는 다음 처럼 말하여진다

뭉이지 않은 실체가 에네르케이아 라고 말하여진다 에네르케이아가 아니라면 생성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것 자체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

있음인 것 과 에네르케이아인 것에는 속여짐이란 있지 않다 그러나 있음인 것 과 에네르케이아인 것을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에는 속여짐이 있다 따라서 에네르케이아 그 자체에는 거짓이 없을 것이다

카테에고리아이로부터 시작하여 형이상학 델타 제에타 테에 타 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있음을 추적해 왔다 이제 그 추적을 이오타로 이어가려 한다 하나도 실체일까 라는 물음으로 열어지는

이오타에서는 있는 것 과 있음 그리고 하나 와 여럿에 대해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 I -

하나에 대해 말하는 이오타 편 1장 전체 와 2 장의 삼 분의 일 정도의 앞 부분(1052a15-1053b24)은 ‘하나(τὸ ἓν¹⁰¹⁰)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1053b20)’ 라는 로고스로 모아진다 하나는 있는 것과 더불어 가장 보편적이기¹⁰¹¹)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¹⁰¹²)에서 텔레스는 있는 것(τὸ ὄν) 과 있음(εἶναι)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대로 따라가 보자

“ (2)하나도 있는 것과 똑 같이(ἰσαχώς 1053a25) 말하여진다¹⁰¹³) 그래서 하나는 질들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이며 어떤 자연이고 [그리고] 량들에 있어서도 이와 같으므로 있는 것이 무엇(τι 1053b28)인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 처럼) 우리는 하나가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그것이다 또는 그것의 자연이다 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색들에 있어서의 하나는 만약 알론한 (색)들이 이 (흰) 과 검음으로부

1010)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는 편은 바로 이 하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파르메니데스 12 쪽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델타 편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하나에 대해서는 416-439쪽을 보시오

1011)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456 쪽에서 말하여졌다

1012) 예를들어 색 가락 소리 도형들과 같은 있는 것들에 있어서의 하나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하나는 있는 그것들의 실제일까 라는 물음에 답하는 맥락.....

1013) 그 자체로 있는 것은 카테고리아들 과 진실 과 힘 과 현실을 가리킨다고 이미 279-280 쪽에서 말하여졌다

터 생성되고¹⁰¹⁴) 빛의 어두움 - 어두움은 빛의 결여이다 - 처럼 검음은 흰
 의 결여(σέπνησις 1053b31)라면 예를들어 흰 같은 색이다 그래서 만약 있는
 것들이 색들(로 있어지고 있었다) 이라면 있는 것들은 수인 어떤 것(으로
 있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ἦν¹⁰¹⁵) ἄν ἀριθμὸς 1053b32-33) 일 것이다 그러나
 무슨 (수)들인가 색들의 수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인 것 예
 를들어 흰(으로 있어지고 있었을 것이다)일 것이다

만약 있는 것들이 가락(μέλη, 가락(音), 1053b35)(으로 있어지고 있
 래도)이더라도 이와 똑 같이 사분의 일이라는 수(인 어떤 것으로 있어지고
 있을 것이다)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의 실체는 수가 아니다 그리고 그 하
 나는 자신의 실체가 하나가 아니라 四分의 一 음인 그러한 어떤 것¹⁰¹⁶)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절된 소리 요소들(철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있
 는 것들은 (분절된 소리 요소들의) 수(로 있어지고 있을 것이다)일 것이며
 하나는 모음(συχείον¹⁰¹⁷) φωνήν 1054a2)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있는 것들이)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들(σχήματα 1054a3)이라면
 도형들의 수가 (있어지고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며 하나는 세모 꼴(τὸ τρί
 γωνον¹⁰¹⁸) 1054a4)로 있어지고 있었을 것이다)일 것이다 이와 동일한 로고

1014) 생성은 에이도스 와 에이도스의 결여 또는 질료 이 양자로부터 이루
 어진다는 것을 상기하라(360쪽)

1015) 에이나이(있다) 미 완료 직설 3인칭 단수 형인 에앤(있어지고 있었
 다)에 대한 쓰임새는 648쪽 과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62쪽을 참조하시오

1016) 이것들의 하나는 비록 수이지만 하나인 그것의 실체는 수가 아니라
 예를들어 흰 과 사분의 일 음이다 따라서,

텔레스는 하나로부터 실체를 떼어 내므로서 모든 것들을 수로 여기는
 퀴타고라스 사람들 과 퀴타고라스 사람들을 따르는 플라톤(1053b13)으로부
 터 떨어져 나가려한다 다시 말해 텔레스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를 실체와 동
 일시한다(1053b11-12)

1017) 철자(소리의 요소 곧 모음 - 모음이 있어야 소리가 날 것이다)라는
 보기는 그의 로고스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특히 377쪽 과 523쪽 과 508쪽
 을 참조하시오

스가 알려진 류들에[적용된다] 따라서,

겪음(τοῖς πάθεσι, 속성(屬性), 1054a5)들 과 질들 과 량들 과 움직임에는 수들로 있는 하나가 있을 것이며 모든 경우에 그 수는 어떤 것들의 수이고 하나는 어떤 것 하나(τι ἓν 1054a7)이나 그 하나가 그 어떤 것의 실체는 아니다 이와 동일한 것이 반드시 실체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류에 있어 하나는 자연적인 어떤 것(τις φύσις¹⁰¹⁹), 자연적인

1018) 에네르케이아(활동)에 의해 발견되는 기하학적인 것들 예를들어 세모 꼴은 힘(뒤나미스)이다 라고 648 쪽에서 말하여지는 가운데 세모 꼴(삼각형)은 그에 의해 거론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꼴의 **하나**가 세모 꼴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 두 곳을 모아 보면 모든 꼴(도형)의 하나인 세모는 에네르케이아(활동)에 의해 발견된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끌어드릴 수 있다 티마이오스 편에서 삼각형(세모꼴)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티마이오스에 따르면 생성의 보조 원인인 불 물 흙 공기(티마이오스, 46c7, 147쪽) 각각의 몸의 곧은 면은 세모 꼴로부터(ἐκ τριγώνων 53d7-8)이루어지며 이러한 세모 꼴(삼각형)에는 본디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부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불의 몸의 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반면 물 흙 공기의 몸의 면은 부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삼각형들이 모여 체(體)를 이루고.....모든 것들의 몸을 이룬다 따라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따르면 모든 꼴(도형)은 이러한 세모 꼴(삼각형)로부터 이루어진다

1019) ‘ definite thing (규정된 것, 839쪽) ’ 이라고 로스는 옮긴다 그러나,

자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가 라는 물음에 부딪히는 것을 무릎쓰고 라도 자연(퀴시스) 이라는 말을 살려서 ‘자연적인 어떤 것’ 옮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자연이라는 그의 말이 애매하긴하다 그러나,

이 말이 나타나는 곳을 잘 들여다 보면 꼭 그렇게 혼돈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자연은 실체와 동일한 것 처럼 보인다 라고

것, 1054a10)이라는 점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 자연은 이것 하나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색들에 있어서 처럼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하나 그 자체(αὐτὸ τὸ ἐν 1054a12)는 색 하나인 것 처럼 마찬가지로 실체에 있어서도 하나 그 자체는 실체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 와 **있는 것**은 동일한 것¹⁰²⁰)을 가리킨다는 것은 [하나 와 있는 것은] 똑 같이 범주들에 상응하며(παρακολουθεῖν 1054a14) [हेतैरुन] 어떤 것으로 있지 않다는 것(μηδεμῆ¹⁰²¹)1054a15)에 의해 분명하

그에 의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335쪽 과 509쪽 과 527-538쪽을 참조하십시오

1020) 그렇다고 그는 있는 것 과 하나를 전체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말하고 있을까 여기에 나온 πῶς(어떻게 보면) 이라는 말에 유의하라 여기서 처럼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는 것으로 일단 받아드려 보는 것이 나을 성 싶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다

포오스(어떻게)의 쓰임새에 관해서는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 103쪽 과 텔레스의 형이상학 577쪽을 참조하십시오

1021) 어떤 연결도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 범주들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범주들 161 쪽을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범주들 각각은 하나 하나 순수하고(ἀπλῶς) 단일(μία)할 것이서 서로 섞여 있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처럼,

있는 것들의 하나도 그러할 것이다 예를들어 색의 하나인 흰 과 소리의 하나인 모음(철자) 와 가락의 하나인 사분의 일 음 과 도형의 하나인 세모 꼴등은 서로 안에 있지 않다 범주들이 서로 안에 있지 않을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있는 것이 각기 범주와 나란히 हेतैरुन 것으로 있지 않듯이 하나도 하나인 것(예를들어 흰 과 모음 과 사분의 일 음(音) 과 세모 꼴)도 각기 그 범주(예를들어 있는 것들 곧 색 과 소리 와 음(音) 과 도형(圖形)들)와

다 예를들어,

[하나] 있는 무엇 과 질 [등]이 아니라 오히려(ἀλλ' 1054a15) 있는 것과 같은 상태(ἔχει 1054a16)에 있다 그리고,

사람 하나는 사람과 헤태론한 어떤 것으로 카테애고리화 되지는 않는다는(기소(起訴)되지는 않는다는) 것 처럼 마찬가지로 있음(τὸ εἶναι 1054a17)은 그 무엇 또는 질 또는 량과 나란한(παρὰ 1054a14)(헤태론한 어떤 것으로 기소되지 않으며 - 말하여지지 않으며) **하나에 있음**(τὸ ἐνὶ εἶναι 1054a18)도 각기 것에 있음(과 헤태론한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

이어지는 3 장 부터는 서로 대립되는 하나 그리고 여럿과 많음에 대해 말하여진다 따라서 있는 것 과 있음에 대한 로고스와는 좀 떨어진 그래서 간접적인 로고스들이므로 여기서는 빠트리고져한다¹⁰²²)그래서,

나는 위 2 장의 내용을 요약 후 내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한다

테에타 편은 있는 것 과 있음 그리고 하나 와 여럿 과 많음에 대해 말한다 라고 나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실은 하나를 언급하면서 하나와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있음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로부터 실체를 떼어내므로써 하나는 실체가 아니라 로고스를 텔레스는 2 장에서 내 세우려 한다

하나도 있는 것과 똑 같이 말하여진다¹⁰²³)그래서 하나는 질 과 량 등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 이며 어떤 자연이므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체적

나란히 헤태론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1022) 계속 이어 옮기면서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면 좋으련만.....

1023) 그러나 각기 범주들이라고도 에네르게이아(활동) 와 뒤나뫼스(힘) 이라고도 진실 이라고도 말하여지는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는 단지 각기 범주들의 도식에 따라 말하여질 뿐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으로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가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는 있는 것이며 있는 것의 자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어떤 하나 또는 하나인 (어떤) 것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 또는 하나 일반(一般)에 대해 말하려한다 예를들어,

색들에 있어서의 하나는 흰(τὸ λευκόν 1053b31)이다 알려진 색들이 흰 과 검음으로부터 생성되며 빛의 어두움 - 어두움은 빛의 결여이다 - 처럼 검음은 흰의 결여 라면 말이다 그래서 색들로 있어지고 있다면 있는 것들은 어떤 수로 그러나 분명히 색들의 수로 그래서 하나 흰으로 있어지고 있을 것이다

가락으로 있는 것들이 있어지고 있다면 사분의 일 음 이라는 수 하나가 있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는 [가락의] 실체가 아니라 사분의 일 음인 그러한 어떤 것으로 있어지고 있을 것이다

분절된 소리 철자로 있어지고 있다면 있는 것들은 수 하나 모음으로 있어지고 있을 것이며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들로 있어지고 있다면 도형들의 수 하나 세모 꼴이 있어지고 있을 것이다 알려진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까지 텔레스는 있는 하나¹⁰²⁴의 보기로 흰 하나 와 사분의 일 음 하나 와 모음(철자) 하나 와 세모 꼴 하나를 들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있는 이 하나는 자신으로 있어지고 있는 것들의 실체가 아니다

겪음(속성) 과 질 과 량 과 움직임에 수 하나가 있을 것이며 모든 경우에 그 수는 어떤 것들의 수이며 하나는 어떤 것의 하나이긴 하나 그 하나가 그 어떤 것의 실체는 아니다 실체들의 경우도 반드시 그러하다 그렇다면,

모든 류에 있어서의 하나는 자연'의' 어떤 것이지만 그것 자연은 이것

1024) 나는 그 하나를 ‘ ὄν ἓν (있는 하나) ’ 라고 읽어 본다 있는 하나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50쪽을 참조하라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색에 있어서의 하나 그 자체는 색 하나인 것 처럼 실체에 있어서의 하나 그 자체는 실체 하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pi\omega\varsigma$ 1054a13) 하나 와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이것들이 똑 같이 범주들에 상응하며 [이와는 헤태론한] 어떤 것으로도 있지 않다는 것에 의해 분명하다 예를들어,

있는 무엇 과 질등 보다는 오히려 하나는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 그리고,

사람 **하나**는 사람과 헤태론한 어떤 것으로 기소(起訴)되지 않는 것 처럼¹⁰²⁵⁾ **있음**은 그 무엇 또는 질 또는 량과 나란히 [있는] 헤태론한 어떤 것이라고 말하여지지 않으며 **하나에 있음**도 각기 것에 있음과 헤태론한 어떤 것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있음**은 범주와 나란히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듯 **하나**는 하나인 어떤 것과 나란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 안에 있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각기 것($\epsilon\kappa\acute{\alpha}\sigma\tau\omega$ 1054b18) 또는 각기 범주에 있는 보편자 라는 점에 있어서 있음 과 하나는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¹⁰²⁶⁾ 그러므로,

모든 색 가운데서는 힘이 소리의 요소들 가운데서는 모음이 음(音) 가운데서는 사분의 일 음(音)이 도형 가운데서는 삼각 형이 가장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들은 있는 하나이다 그러나 실체는 아니다

있음은 범주와 나란히 있는 헤태론한 어떤 것이 아니다 라는 로고스가 이제까지의 맥락¹⁰²⁷⁾에서 있음 과 있는 것에 관련하여 끄집어 낼 수 있

1025) 사람 하나는 사람과 헤태론한 범주로 말하여지지 않는 것 처럼...

1026) 텔레스에 따르면 이데아 와 류 등은 보편자에 속하며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463쪽을 참조하시오

1027) 680쪽 참조

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순수한 에이도스는 심지어 첫 번째 질료와도 분리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더구나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아닌가 비록 지금 까지의 우리의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거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제에타 편을 마무리하는 543쪽의 그림에서 인식할 수 없으므로 순수한 에이도스 와 질료를 검게 했다 그러나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¹⁰²⁸⁾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순수한 에이도스 와 질료 역시 있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순수한 에이도스 와 질료와 섞인 에이도스도 있는 것이며 질료도 있는 것이고 질료 와 에이도스로부터 생성된 것도 있는 것이며 심지어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여러 카테에고리아들(범주들)도 있는 것이며 뒤나뮈스 그리고 에네르케이아 와 엔텔레케이아도 있는 것이고 진실 과 거짓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있는 것이든 심지어 있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이 있다 도대체,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은 위에서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그리고 291쪽에서 이미 보았던 것 처럼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물음에 답하기 보다는 실제 곧 가장 먼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그는 답한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로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어떤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 에이도스이다 바로 이 에이도스가 첫 번째로 있는 그 무엇이다 그런데,

있는 것을 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는 분명히 어떤 때는 있음은 이러 이러하다 라고 말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있는 것이 이러 이러하다 하 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는 이 둘을 헤테론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동일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의 나로서는 적어도 텔레스 에 있어서 만큼은 헤테론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림에도 꼭

1028) 없음을 나는 있지 않음과 구분한다 이에 관해서는 7쪽을 참조하시오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라고 단언할 자신은 없다 어쨌든,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헤태론한 것인가 가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플라톤 과 텔레스 이 두 사람에 있어 에이나이(있음)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 가 나에게 중요하다 물론 동일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도 그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나는 우선 텔레스의 이 두 가지 강의록에서 말하여지는 에이나이(있음) 과 온(있는 것)의 쓰임새를 갈라 본 후 이어 플라톤의 세 대화 편에서 말하여지는 있음 과 있는 것의 쓰임새를 각기 갈라 볼 것이다 먼저,

형이상학 테에타 10 장에 따르면 ①있음은 묶어진(σύνκειται 1051b9) 하나이다

“ 항상 묶여지기만 할 뿐 나누어질 수 없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항상 나뉘어지기만 할 뿐 묶여질 수는 없다면 반대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있음은 묶어진 것이며 하나인 반면 있지 않음은 묶어진 것이 아니라 여럿이다 (1051b9-13) ” 따라서,

묶어진 하나는 **있음(τὸ εἶναι 1051b11)**인 반면 묶여지지 않은 여럿은 있지 않음이다 그렇다면 묶여지다 라는 말은 무엇이며 묶여지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

σύνκειται는 σύνκειμαι(놓여지다, to lie together)의 3인칭 단수 현재형 이면서 συντιθεμι(함께 놓다, to put together)의 3인칭 단수 현재 수동형 으로서 묶여지다로 옮기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여기서,

묶여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묶여진 하나 라는 말이 쓰여지는 맥락을 끄집어 내야한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테에타 편 랍다 10 장에서 텔레스는 진실 과 거짓으로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있음 과 있지 않음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그 맥락은 진실 과 거짓에 관해 말하는 맥락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 진실 또는 거짓으로 **있는 것은**(은, $\delta\upsilon^{1029}$) 은 프라그마의 묶어짐 과 나뉘에 의존한다 (1051b1-2) ”

라고 테레스에 의해 말하여

진다 따라서,

묶이며 나뉘는 것은 프라그마이다 그렇다면,

있음은 묶여진 하나 프라그마인 반면 있지 않음은 나뉘 여러 프라그마이며 아울러 이러한 있음 과 있지 않음 또는 하나 와 여럿은 그에 따르면 서로 반대($\tau\acute{\alpha}\nu\alpha\nu\tau\iota\alpha$ 1051b11)들이다 다음으로,

형이상학 칼과 편¹⁰³⁰ 1 장에 따르면 ②자연 스레 첫 번째 있음($\tau\acute{o}$ $\epsilon\acute{\iota}\nu\alpha\iota$ $\pi\rho\acute{\omega}\tau\alpha$ 1059b30)은 있는 것 과 하나이다 이 때문에 하나 와 더불어 있는 것은 대 부분의 아르케인 것 처럼 여겨지며 모든 것들이 하나와 더불어 있는 것을 가장 잘 껴안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텔레스는 처음 있음을 있는 것 과 하나라고 말하는 셈이 될 것인데 진정 그러한가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는가

철학자의 얇인 지혜 곧 아르케에 관한 얇에 관련된 어려움을 더듬어 가는 칼과 편 1 장의 끝 부분에서 철학자의 얇은 어떤 사람들이 요소라고 말들하는 그러한 아르케에¹⁰³¹를 다루는가 라는 물음을 그는 던지면서 아니다 우리의 얇은 보편자를 다루며 그러한 첫 번째 류들 곧 있는 것 과 하나를 다룰 것이다 라고 답한다 **있는 것은** 하나와 더불어 **첫 번째 있음**(τ

1029) 이렇게 온(있는) 과 에이나이(있음)과 쓰이는 것으로 보아 이 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처럼 보이기는 하나 나는 이 둘을 구분해서 일단 그 쓰임새를 갈라 보려 한다

1030) 칼과 편에서는 얇에 관한 어려움들과 항상 진실인 것이 말하여지면서 더불어 움직임도 마지막에서 설명된다는 것은 이미 36 쪽에서 말하여졌다

1031) 요소가 아르케에 대해 어떻게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510-513 부터 526-26 까지를 보라

ὁ εἶναι πρώτα τῇ φύσει 1059b30)이므로 가장 아르케일 것이며 모든 것들은
있는 것 과 하나를 가장 잘 껴앉을 것 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은 첫 번째 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형이상학 이오타 2 장에 따르면 ③있음은 무엇 과 량 과 질 등의 범
주에 나란한 헤테론한 어떤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있음은 범주와 떨어져
분리된 것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 사람 하나는 사람과 헤테론한 어떤 범주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있음(τὸ εἶναι)도 무엇 또는 질 또는 량과 나란한 [헤테론한
어떤 범주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에 있음은 각기 것에 있음[이다]
(1054b16-19) ”

라고 그에 의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는 **있는
것(τὸ ὄν¹⁰³²)** 1054b13)과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하나에 대해 말하는 맥락
에서¹⁰³³) 이러한 말을한다 그렇다면,

있음은 바로 범주들이므로 범주들은 있는 것을 분류해 놓은 것이란
말인가.....아마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연결되지 않은 것 이라고 말하
여지는 것들이 그에 의해 범주들이라고 선언되기 때문이다 하여튼,

있음은 무엇 과 량 과 질 등의 범주와 나란히 떨어진 헤테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곱 씹고 넘어가야한다 다음으로,

형이상학 델타 편 7 장에 따르면 ④그 자체 있음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은 범주들이다

1032) 여기서 그는 있는(온) 이라는 말을 써 오다가 끝 부분에서 있음(에이
나이) 이라는 말을 쓴다

1033) 그는 이러한 하나의 보기로 색 하나 로서의 힘 과 소리 하나 로서의
모음 과 음(音) 하나 로서의 사분의 일음 과 도형 하나 로서의 삼각형 등을
든다 이런 것들은 색 소리 음 도형들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인 것들(τῶν καθ
όλου 1053b16)이다 있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기 색 소리 음 도형의 실체는 아니다(682쪽)

“ 그 자체 있음(καθ' αὐτὰ εἶναι)은 범주들의 도식들이 가리키는 것 만큼 말하여진다 [그 도식들이] 말하여지는 만큼 있음이 가리키기 때문이다 범주들 가운데 [어떤 것은] 있는 무엇을 [어떤 것은] 질 과 량 과 어떤 것에 대함 과 행함 과 겪음 과 어디 와 언제를 가리키므로 이러한 것들 각각과 동일한 것(αὐτὸ)을 있음은 가리킨다 (1017a22-27)”

라고 그에 의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에 따르면 범주들이 그 자체로 있음이다¹⁰³⁴)어떠한 맥락에서 그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위 인용 글월이 포함된 델타 편은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쓰여지는 낱 말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36 쪽에서 말하여졌다

이러한 델타 편 앞 여섯 장에서 그는 아르케 원인 요소 자연 필연적으로 하나 라는 낱말들을 주옥 각기 설명해 오다 7 장에서 있는 것(τὸ ὄν 1017a7)을 말하는 가운데 먼저 우연히 있는 것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난 후 그 자체 있음이라는 말을 설명한다 그 자체 있음은 범주들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다 라고 말이다 이어서,

그는 있음 과 있는 것 과 (그가) 있다 이라는 말들을 써가며 알론하게 말하여지는 있음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⑤있음 과 (어떤 것이) 있다를 진실이라고 말하며 또 뒤나뮈스 와 현실(엔텔레케이아)를 있음 과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1034) 그렇다면 우연한 것들에 대해서는 있음이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텔레스는 이것에 이것이 우연히 있다 라고 분명히 1017a11-12에서 말한다 그러므로,

우연히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도 그에 의해 있음은 쓰여진다 그러나,

우연한 것들이 있음이다 라고는 말하여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연한 것들 과 있음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 있음 과 (그가) 있다는 진실을 가리킨다 있지 않음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이다 긍정 과 부정의 경우도 이와 같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아스는 음악적이다 또는 소크라테아스는 회지 않다 라는 것은 진실이나 통약적이지 않는 빗변은 있지 않다 라는 것은 거짓¹⁰³⁵⁾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한 편으로 힘을 다른 한 편으로 현실을 있음 과 있는 것은 가리킨다 (1016a31-b2) ”

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있음은 범주들 이라고도 말하여지며 힘 과 현실이라고도 말하여지고 진실이라고도 말하여진다 반면 있지 않음은 거짓이라 말하여진다 그런데,

텔레스는 이러한 있음을 신(ὁ Θεός 1072b25)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아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있음은 신이라도 말하여진다 라고 그가 직접 말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남성 명사 4 격 형태의 신(τὸν Θεόν 1072b29)이라는 낱말에 에이나이가 걸리는 곳이 있긴하다 그러나 이 경우 신은 그 에이나이의 주어인 반면에 그 에이나이를 통해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 과 영원 과 가장 선함이다 따라서,

신은 생명‘이고’ 영원‘하며’ 가장 선‘하다’¹⁰³⁶⁾신은 있음일 것 같지 않

1035) 진실 과 거짓에 대해서는 660-677쪽을 참조하십시오

1036) 이 부분을 로스는 “ 살아 있는 존재‘이며’ 영원하며 가장 선하다(God is a living **being**, eternal, most good 880) ” 라고 옮긴다 이렇게 번역하면 신은 있음 또는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셈이 될 것이다 결국,

로스에 따르면 텔레스는 있음은 신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스를 아직 나는 허용할 수 없다 문제의 그 에이나이를 존재(being)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내가 너무 벅차다 텔레스에 따르면

다 나아가서,

텔레스는 있음의 원인이라는 말을 여러 곳¹⁰³⁷⁾에서 한다 여기서 제
에타 편 17 장에 나오는 있음의 원인에 대해서만 살펴 보기로 하자 가장 중
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 이 [헤태론한] 것은 요소가 아닌 어떤 것일 것 처럼 보인다
한 편으로 이 살로 다른 한 편으로이 음절로 **있음의 원인**(αἴτιον το
ύ εἶναι)[일 것 처럼 보인다] 알론한 경우들에 있어서도 이와같다 바
로 이것이 각기 것의 실체이며 이것이 있음의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
이다 (1041b25-28) ”

라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 살 또는 음절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맥락에서 나온다

불 과 흠으로 이루어진 살 그리고 소리(모음) 과 소리 아닌 것(자음)
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자신을 이루는 요소들 예를들어 불과흠 과 소리와소
리아닌것과 헤태론한 것이라면 불 과 흠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불과흠과는
헤태론한 살이 나오며 소리아닌 것 과 소리로부터 이것들과는 헤태론한 음
절이 무엇 때문에 나올까 바로 이 무엇(διὰ τί 1041a17)이 살 과 음절의 있
음의 원인 으로서 에이도스¹⁰³⁸⁾이며 이 에이도스가 각기 살 과 음절에 있어
지고 있는 그 무엇¹⁰³⁹⁾이다 다음으로,

신은 아마 그 끝이 있음 또는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있음 또는 있는 것에 걸쳐 있기는 해도 말이다 참고로,

“ . φαμὲν δὲ τὸν Θεὸν εἶναι ζῶον αἰδίου ἄριστον, (1072b29-30) ” 라
는 것이 문제의 그 본문이다

1037) 범주들 14b11-24, 형이상학 1077a4, 1080a3, 1092b9,

1038) 에이도스를 신과 동일시하는 것 역시 텔레스에 있어서는 말도 안되
는 일이다

1039) 이 무엇은 텔레스에 의해 범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말하여지는 그
무엇이다 689 쪽 과 31 쪽 과 161 쪽을 참조하시오

제에타 편 17 장에 따르면 ⑥어떤 것에 속함은 반드시 어떤 것에 있음이다

“ 무엇을 통해서(διὰ τι,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한 생물인가 가 조사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사람인 그 자가 사람인가를 조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따라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이 어떤 것에 속하는가(ὑπάρχει) 가 조사된다 속하는 것은 있다는 것이라는 반드시 분명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사되는 것은 아무 것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041a20-23) ”

라고 그는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가 제에타 편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 벽돌 등의 질료가 무엇을 통해서 이 집 각각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1015b6) 속하는가 ” 에서의 ‘무엇’이며 여기서의 무엇이 각각의 이 집에서 있어지고 있는 집 [전체 또는 일반]이다 바로 이 무엇(예를들어 집 전체)가 한 편으로는 위해지는 어떤 것(목적)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무엇이다 따라서,

질료 또는 요소가 이것(τὸδε 1041a2) 각각¹⁰⁴⁰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이도스)에 속한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알론한 것에 속하는 것은 알론한 것에 있다 라는 말이다 다음으로,

감마 편 4 장에 따르면 ⑦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이것(τὸδι 1006a30)을 가리킨다¹⁰⁴¹ 우선,

1040) 이것 각각은 집인 것(어떤 집) 또는 사람인 것(어떤 사람)일 것이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집 또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각각은 그 무엇과 어찌 보면 동일할 것이다

1041) 있음 과 있지 않음은 규정된 의미를 지닌다 라고 로스는 옮긴다는 것을 참조하라 그리고,

있는 있는 것(τὸ ὄν ἢ ὄν 1003a21)을 다루는 앎(철학)에 연관되는

그는 어떠한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앎의 아르케에란 논증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는 맥락에서 있음이 아니라 있음의 이름(τὸ ὄνομα 1006b29-30)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내가 좀 어수선히진다 이름이라는 것이 이따끔 나를 곤혹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어수선히함을 어떻게든 정리해야한다

그에 따르면 앎의 아르케에¹⁰⁴²⁾는 “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것에 속하면서 동시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1005b19-20) ” 이며 앎의 이러한 출발 점(아르케에)은 논증 될 수 있는 것이 아닌¹⁰⁴³⁾ 어떤 궁극적인 의견(δόξαν, 1005a33, 신념(信念)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앎의 이러한 아르케에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 아르케에를 논증할 수는 없고 대신에 오히려 그 사람을 반박하면서 그 사람에게 되물어가는 논증(τὸ ἐλεγκτικῶς ἀποδείξαι¹⁰⁴⁴⁾ 1006a15-16)을 할 수는 있다 이러한 [반박] 논증은 그 아르케에의 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텔레스는 말한다

텔레스는 그 [반박] 논증을 시작하면서 내가 여기서 문제삼는 로고스 “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이것을 가리킨다 ”를 쓴다

것은 실체라는 것이 말하여지면서 감마 편에서는 앎의 아르케에는 논증될 수 없다는 것이 논증된다 라고 36 쪽에서 말하여 졌다는 점을 상기하라

1042) 앎의 아르케에는 가장 잘 인식되는 것이며(γνωριμωτάτην 1005a13) 가장 확실한(βεβαιοτάτη 1005b18) 것이다

1043) 그에 따르면 모든 것이 논증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모든 것이 논증 되어야만 한다면 논증은 무한히(ἄπειρον 1006a9)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한히 계속되는데 어떻게 논증이 있을 수 있을까.....

논증이 이루어질려면 논증이 그곳부터 시작하는 가장 잘 인식되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앎의 그 아르케에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1044) 텔레스는 이러한 반박할 의도로 되물어가는 논증을 [본디] 논증과 구분한다

“ 첫 번째로 그렇다면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것을 가리키며 그래서 모든 것¹⁰⁴⁵이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는 최소한도 진실이다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를 가리킨다면 이 (τούτο, 1006a31, 사람)을 두 발 생물¹⁰⁴⁶이라고 해 보자 나는 하나는 이것(τούτο, 1006a32)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만약 이것이 사람이라면 [그런데] 사람인 것(τι ἄνθρωπος, 1006a33, 어떤 사람)을 가리킬 것라면 이것은 사람에 있음일 것이다¹⁰⁴⁷ 심지어 어떤 것이(τις, 1006a34) 여러 가지를 가리킨다 라고 말하여진다 손 치더라도 [차이] 없다 [수적으로] 한정된다면(μόνον δε ὄντινόμενα, 1006b1) [차이 없다라는 말이다] 각기 로고스에 [배정되어진] 헤태론한 이름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⁰⁴⁸ 예를들어,

만약 사람이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럿을 가리키며 [그리고]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로고스 하나 곧 두 발 생물인 반면 [이것들이] 다른 한 편으로 수적으로 한정 된다면 헤태론한 [여러 로고스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고유한(ἴδιον¹⁰⁴⁹),

1045) 모든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인 있는 것을 하나와 더불어 지닌다는 689 쪽을 참조하십시오

1046) 사람의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는 411 쪽을 참조하십시오

1047) 그러므로 있음을 텔레스는 이것(τοῦτι) 라고 했다 다시 말해 예를들어 ‘이 사람에 있음’은 ‘이것 과 하나(= 어떤 것)에 있음’을 가리킨다

1048) 각기 정의는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인 그 원인을 더듬어 내려가는 제애타 편 12 장(410-454쪽)을 다시 읽어 보라 그리고,

이름 과 로고스 와 정의들 사이의 상호 관련에 대해서는 306 쪽 과 314 쪽을 참조하십시오 거기서는,

이름 과 정의가 동일한 것은 아니나 이름이 정의인 경우가 있는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관한 로고스 곧 정의인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 같고 여기서는,

이것 하나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사람인 것을 가리킨다면 이것은 ‘사람에 있음’일 것이다 심지어 사람인 것은 여러 개다 라고 말하여지더라도 정의에 있어서 만큼은 상관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각기 로고스에 배정된 헤태론한 이름들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1006b5) 이름이 로고스들 각각에 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수적으로 한정되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진다면 로고스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선명하다 어떤 것 하나를 가리키지(σημαίνειν 1006b7) 않는다[면] 어느 것도 가리켜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말해온 것이든 진실로 자기 [혼자] 말해온 것이든 간에 이름들이 어느 것도 가리키지 않는¹⁰⁵⁰)다면 진실로 [그러한 말(대화)은] 없어질 것이다(ἀνήρηται,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1006b8) 하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에 [관한] 생각을(voείν, 1006b10) [아예]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시작되려면 이름 (하나)가 이 프라그마 하나에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¹⁰⁵¹)

시작하면서 말하여졌 듯이 이름은 어떤 것을 가리키며 그리고 하나를 가리킨다고 해 보자 사람에게 있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가리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에 따르는(καθ' ἐνός 1006b14-15)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가리킨다면 말이다 하나가 하나에 따르는 것을 가리킨다 라는 공리(ἀξιούμεν 1006b15) 우리는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공리에 근거한다]면 음악 과 힘 과 사람은 하나를 가리킬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일 것이다¹⁰⁵²) 쉬노한 이름(συνώνυμα¹⁰⁵³) 1006b18)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049) 고유한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범주들 181 쪽을 참조하십시오

1050) 이제 까지 말해온 그러한 이름들이 아니라면 (가리켜지지 않는다 면).....

1051) 이 사태 하나에 이름 하나만이 배타적으로 배정된다 라는 말은 아니다 물론 쉬노오누모스하게 궁극적으로는 배타적으로 그러 할 것이다 그래야 만이 호모한(ὁμο) 여러 이름들이 그 사태에 배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텔레스가 하나만의 그러한 이름을 고유한(ἴδιον)것 이라고 한 점에 유의하라

1052) 모든 것이 하나라는 로고스를 그가 거부한다는 것은 이미 395쪽에서 말하여졌다

1053) 쉬노오누마(동음동의어(同音同意語)) 와 호오모누마(동음이의어(同音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처럼 호모오한 이름(ὁμωνυμίας¹⁰⁵³ 1006b19)을 제외하면 말이다 그러나,

문제[의 옷집]은 동일한 것이 그 이름[에 있어] 사람[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있지 않는가 가 아니라 그 프라그마[에 있어] 그러한가 이다 이제,

만약 사람 과 사람 아닌 것이 헤테론한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은 사람에게 있음(τοῦ εἶναι ἀνθρώπου 1006b24)과 헤테론한 어떤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일 것이다 [이것들은] 하나일 것이며 이것은 있음 하나를 가리킬 것이기 때문이다 로고스가 하나일 경우의 의복 과 옷 처러 말이다 그리고

만약 (사람 과 사람 아닌 것이) 하나라면 사람에게 있음 과 사람에게 (있지) 않음은 하나를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헤테론한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위에서¹⁰⁵⁴) 보여졌다 그렇다면,

만약 (사람에 관해) 말해진 어떤 것이 진실이라면 (그 어떤 것은) 사람은 두 발 생물이 라는 것이 필연적이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가리키는 것이었기(ἦν 1006b30)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필연적이라면 동일한 [그]것이 두 발 생물이 아닐 수(ἐνδέχεται¹⁰⁵⁵) 1066b30)없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을 곧 사람이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τὸ ἀδύνατον 1006b32)을

異議語))에 대해서는 범주들 175-176쪽을 보라 그리고,

죽은 손가락은 호모오누모스하게만 손가락이다 라고 말하는 383 쪽을 참조하시오

1054) 1006b13-14

1055) 나는 엔테캐타이(있기 시작하다) 와 뒤나톤(있을 수 있다)을 각기 알론한 우리 말로 옮겼으(568쪽)나 여기서는 둘 다 모두 (있을) 수 (있다)로 옮겼다 물론 여기서의 아뒤나톤(있을 수 없다)가 쓰였음에 유의하라

엔테캐타이 라는 말을 있기 시작하다 라고 옮기기에는 어색 했으며 설령 이 둘을 같은 우리 말로 옮긴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고 무난히 읽혀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동시에(ἄμα 1006b33) 진실일 수 없다 (1006a28 - 1006b34) ”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이것을 가리킨다 라는 그의 로고스 때문에 내 머리가 어수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대체 텔레스는 이름을 무엇이 라 말하는가에 대해 정리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그의 강의록 전체를 들먹이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나는 위 인용글월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이름을 정리하려한다 그러기 전에 먼저,

위 인용글월을 나는 요약하련다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것을 가리킨다 라고 말하면서 텔레스는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것에 속하면서 동시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앎의 아르케에를 거부하는 자를 반박하는 논증을 시작한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것을 가리키며 따라서 모든 것이 그렇게 규정 되면서 그렇게 규정되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진실이다 나아가서,

이 사람 하나 - 하나는 이것(τούτο, 1006a32, 사람)을 가리킨다고 나 텔레스는 말한다 - 를 두 발 생물이라고 해 보자 만약 이것이 사람인데 사람인 것을 가리킨다면 이것은 사람에 있음일 것이다 심지어,

어떤 것이 여러 가지를 가리킨다고 해도 수적으로 한정된다면 차이 없다 예를들어,

이름 하나에 프라그마(사태) 하나 라는 그의 말이 나를 곤혹스럽게 한다 물론 이러한 말이 이름 하나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텔레스는 있음 과 실체 와 정의 역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말한다

만약 사람이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럿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로고스 하나 곧 두 발 생물이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수적으로 한정된다면 헤태론한 여러 로고스들이 있을 것이다 고유한 이름이 로고스들 각각에 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적으로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진다면 로고스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선명하다 어떤 것 하나가 가리켜지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가리켜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상호간에 대화하고 있든 실로 자기 혼자 말하고 있든 이름들이 아무 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면 상호 간의 대화 또는 자기 독백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äv..... άνηρηται, 1006b6-8) 하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생각을 아예 시작하지 못할 것이며 생각을 시작하려면 이 프라그마 하나에 [고유한] 이름 하나가 배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작하면서 말하여진 것 처럼 이름은 어떤 것을 가리키며 그리고 하나를 가리킨다고 해 보자

사람에 있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가리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 [사람]에 따르는 [것(질)들] 뿐만 아니라 하나 [사람]도 가리킨다면 말이다 하나 [사람] 과 하나 [사람]에 따르는 [것들]이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는 추측을 우리는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추측대로라면 음악 과 힘 과 사람은 하나를 가리킬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일 것이다 이것들은 **쉬노한 이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처럼 **호모한 이름**을 제외하면 말이다 그러나,

단지 그 이름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사람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면이 아니라 프라그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사람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있지 않을 수 있다면이 문제의 옷점이다 이제,

만약 사람 과 사람 아닌 것이 헤태론한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은 사람에게 있음과 헤태론한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은 분

명하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일 것이다 이것들은 하나일 것이며 이것은 있음 하나를 가리킬 것이기 때문이다 로고스가 하나일 경우의 의복 과 옷 처럼 말이다 그리고,

만약 사람 과 사람 아닌 것이 하나라면 사람에게 있음 과 사람에게 있지 않음은 하나를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헤태론한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위에서 보여졌다 그렇다면,

사람에 관해 말해진 어떤 것이 진실이라면 그 어떤 것은 두 발 생물이라는 것이라는 필연적이다 [바로 이] 두 발 생물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필연적이라면 동일한 그것이 두 발 생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을 곧 사람이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 사람[으로] 있고 사람[으로] 있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동시에 진실일 수 없다

동일한 사람이 있다 와 동일한 사람이 있지 않다는 동시에 진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텔레스는 계속해서 이 경우 동일한 로고스가 있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적용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반박 논증을 펼쳐나간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우리는 그의 논증을 계속 따라 갈 수 없다 단지,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연적인(συμβεβηκέναι 1007a21-22) 그러한 것들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앎의 아르케애를 거부하는 자들은 실체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주욱 전체적으로 말한다 라고 텔레스는 반박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련다 이제,

정리 해 보자

동일한 사람이 사람이면서 사람이지 않다 라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두 발 생물을 사람이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람에게 관한 말이 진실이라면 그 말은 필연적으로 두 발 생물이며 필연적으로 그러하다면 필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면서 사람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므로 동일한 사람

이 두 발 생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 과 사람 아닌 것은 헤태론하다

헤태론한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있지 않음 사람에게 있음은 헤태론한 것을 분명히 가리키지 않을 것이므로 사람에게 있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일 것이다 사람에게 있음 과 사람에게 있지 않음은 하나일 것이고 있음 하나를 가리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라면 사람에게 있음 과 사람에게 있지 않음은 하나를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 있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가리키지 않을 것이므로 헤태론하다 이름이 어떤 것 과 하나를 가리킨다면 그리고 사람은 하나에 따르는 것 (καθ' ἐνός 1006b14-15)만이 아니라 하나도 가리키는 그러한 쉬노오한 이름 이라면 그렇다¹⁰⁵⁶) 그리고,

있으면서 동일한 것이 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처럼 동일한 것이 호모오한 이름을 지니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그 이름에 있어 사람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있지 않다면 어떠 어떠하다가 여기서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것이 그 프라그마에 있어 사람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있지 않다면 어떠 어떠하다가 문제이다 그런데,

생각할 수 있으려면 고유한(ἴδιον, 1006b5)이름 하나가 이 프라그마 하나에 본디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이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에 관한 어떠한 생각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이 아무 것도 가리키지 아니하면 우리 상호 간의 대화 또는 실로 자기 만의 독백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상호 간의 대화 또는 독백은 서로

1056) 만약 우리가 하나는 하나에 따르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추측한다면 음악 과 힘 과 사람은 하나를 가리킬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일 것이다 쉬노오한 이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음악적인 사람 과 힘 사람에서 음악 과 힘은 사람을 따르는 - 따르는에 대해서는 306쪽 참조 - 것이기 때문이다

의 생각 또는 자기 만의 생각에서 우리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ἐτι 1006b31),

만약 이름이 하나 - 하나는 이것을 가리킨다고 텔레스는 말한다 - 를 가리키고 하나가 사람 - 사람을 두 발 생물이라고 해 보자 - 을 가리킨다면 사람인 것 또는 어떤 사람이 가리켜질 것이며 이것은 ‘사람에 있음’ 일 것이다 있음(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것(τοδι 1006a30)을 가리키므로 모든 것이 그렇게 규정되면서 그렇게 규정되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는 최소한도 진실이기 때문이다¹⁰⁵⁷⁾

따라서 있음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어떤 프라그마 하나를 가리킨다는 것(로고스) 그리고 이 프라그마 하나를 가리키는 있음과 있지 않음의 그러한 이름을 생각하므로서 있음과 있지 않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로고스)을 그의 반박 논증에 대한 어수선한 나의 옮김과 요약과 정리 끝에 끼집어 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¹⁰⁵⁸⁾

1057) 심지어 어떤 것이 여러 가지를 가리킨다고 해도 다시 말해 수적으로 한정된다고 해도 차이 없다 각기 로고스에 배정된 헤태론한 이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만약 사람 이라는 이름이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 한정된 여럿을 가리키며 이러한 여럿 가운데 하나가 로고스하나 곧 두 발 생물이라면 헤태론한 여러 이름(또는 로고스)가 있을 것이다 고유한 이름이 로고스 각각에 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무한하다면 로고스는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 하나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가리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058) 이러한 로고스가 어떻게 그의 반박 논증에 쓰여지는가는 유난히 긴 4 장을 다 더듬어 가야 확실히 드러날 것 같으나 그 맥(脈)은 지금까지의 글에서도 끼집어 낼 수 있다

있음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것이

텔레스에 의해서 있음이 무엇이라 말하여지는지를 지금 까지 살펴 보았다 이제 부터는 있음이라는 낱 말이 알론한 낱 말과 어떻게 어우러져 쓰이는지를 살펴 보려한다 먼저,

“ 그러나 그 있음은 하나가 아니다.(ἀλλὰ τὸ εἶναι οὐκ ἓν. 1066a33) ” 에서 처럼 있음이 쓰여지는 경우를 살펴 보자 이러한 경우의 있음이라는 낱 말은 ‘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이나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 라는 식으로 쓰여진다 ⑧있음의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지만 있음 이외의 알론한 경우에는 하나인 것들이 있다 라는 말이다 이제,

이러한 로고스가 쓰여진 문제의 곳 형이상학 겐과 편 9 장 끝 부분의 앞 뒤 문맥을 살펴 보자

앞에 관한 어려움들 과 항상 진실인 것이 말하여지는 겐과 편 1 - 7 장과는 달리 겐과 편 9 - 12 장에서는 움직임이 말하여진다 바로 이러한 9 장의 끝에서 두 번째 로고스가 “, 오르막 과 내리막도, 그러나 그 있음은 하나가 아니다. ” 이며 그 장의 끝 로고스는 “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1066a34) ” 이다 그렇다면,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나 에네르게이아(활동)에 있어서는 하나인 것들은 무엇인가 바로 움직이게 하는 것 (τὸ κινητικός)과 움직여지는 것(τὸ κινητός) 그리고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 (τὸ κινούν) 과 움직여지고 (있는) 것 (τὸ κινούμενον)이다

“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 안에(ἐν τῷ κινητῷ 1066a27) 움직임(ἡ κίνησις a27)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움직이게 하는 것에 의한 이(

예를들어 사람을 가리킨다면 사람에 있음은 사람에 있지 않음이 아니다 있음의 이름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각기 헤태론한 하나를 가리킬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일한 이것을 가리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있으면서 동일한 이것이 있지 않을 수 없다.....이것에 있음은 이것에 있지 않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움직여지는 것의 **현실**[화](ἐντελέχεια a27) 그리고 움직임이게 하는 (것의) **활동**(ἐνέργεια a28)은 알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한 편으로 그 [움직여지는]것으로 하여금(τῷ, a30) (움직여 질) **수**¹⁰⁵⁹⁾ (있게 하는 δύνασθαι a30)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κινούν a30) 그 [움직여지는] 것에(τῷ a30) **활동**하(ἐνεργεῖν a30)므로 반드시 (움직이게 하는 것과 움직여지는 것) 양자의(ἀμφοῖν a29)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동할 수 (있는) 것은(ἐνεργητικὸν a31) 움직여지는 것의 (활동 할 수 있는)이다 따라서 이 처럼 [이] 양자의 **활동**은 하나이다 둘에 대한 하나[의] 그리고 하나에 대한 둘[의] 간격(διάστημα, a32, 間隔)은 동일 하지 - 오르 막 과 내리 막 처럼(καὶ a33) - 만 그 **있음**은 하나가 아닌 것 처럼(ὡσπερ a32) [말이다]¹⁰⁶⁰⁾ 그런데,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τοῦ κινούντος a34) 과 움직여지고 (있는) 것의(τοῦ κινουμένου a34) 경우도 그와 같다¹⁰⁶¹⁾(1066a26-34)
”

라는 인용 글월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글월이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해야한다 먼저,

이 글월은 **칼과** 편 9 장에 놓여 있으며 **칼과** 편을 이루는 12 장 전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 있지는 않다는 것¹⁰⁶²⁾ 그리고 1-7 장에서는 **얇에**

1059) 569 쪽 각주 839 번 과 594 쪽 각주 873 번 참조하시오

1060) 영혼의 부분은 그 크기에 있어 분리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로고스에 있어 분리해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 던져지는 영혼에 관하여 432a19-20을 참조하시오

1061) 자연학 iii. 202a13-21을 참조하시오

1062) 그렇다고 짜집기 된 장은 아니다 비록 주로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 예를들어 **얇** 과 **항상 진실인 것** 과 **움직임** 등으로 구분 될 뿐이지 서로 필연적인 연관 없이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얇에는 실천적인(πρακτικής 1064a11) **얇** 과 생산적인(ποιητικής 1064a11) **얇** 과 이론적인(θεωρητικὴν 1064a17) **얇**이 있는데 다시 이론적인

관한 어려움들과 항상 진실한 것이 말하여지는 반면 9-12 장에는 움직임이 말하여진다는 것은 이미 언급됐다 그렇다면,

8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각주 1062 번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우연적인 것에 관한 앎은 가능하지 않는데 우연적인 것은 필연적으로 있지 않는 무 규정적인 것이다 라고 8장은 말한다 그런데,

앎 가운데에는 자신들 안에 **움직임**의(κινήσεως 1064a31)아르케애를 지니는 것들에 관한 이론(Θεωρητική 1064a32)인 자연(에 관한) 앎(학)도 있으며 (기체와) 분리해 있지 않으나 (움직이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것(μέ

앞에는 자연에 관한 앎 과 수(학)에 관한 앎 과 신에 관한 앎이 있다 이 다섯 가지 앎 가운데 **움직이지** 않으면서 (기체와) 분리해 있는 것을 다루는 앎은 신(τὸ Θεῖον 1064a36)에 관한 앎 곧 **신학** 뿐이다 그런데,

신에 관한 앎은 자신이 다루는 것 -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고귀함 (τὸ τιμιώτατον 1064b4-5) - 덕택에 자연학 과 수학 보다 더 낮고 - 그러므로 가장 낮다 - 더 좋다 또한,

아르케애(510-512쪽)에 관한 **앎** 으로서의 지혜(ἡ σοφία 1059a18) 곧 철학자의 앎(ἡ τοῦ φιλοσόφου ἐπιστήμη 1060b31)은 있는 있는 것(τοῦ ὄντος ἧ ὄν 1060b31)을 그 전체 다루지 부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철학(ἡ φιλοσοφίας , 哲學, 1061a5-6)만이 있는 그(러한) 것의 반대들(τὰς ἐναντιώσεις αὐτοῦ ἧ ὄν 1061a5)과 있는 그러한 것에 잇따르는 것(τὰ τούτῳ συμβεβηκότα 1061a4)도 다룬다 (1 - 7 장) 그러나,

우연히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ὁ κατὰ συμβεβηκὸς λεγόμενος, 1064b16)을 (전승되어온) 앎은 다루지 않는다 우연적인 것에 관한 앎은 아예 가능하지가 않다 8 장은 이러한 우연적인 것 무엇(τι 1064b32)인가에 대해 묻고 답한다 그에 따르면

우연적인 것은 필연적으로 있는 것(698-699쪽)이 아니라 무 규정적으로(ἀόριστον 1065a25) 있는 것이다

vonτά 1064a32)에 관한 이론인 수(학)도 있고 움직여지지 않으면서(τὸ ἀκίνητον 1064a33-34) 분리 해 있는 이론인 신학도 있다 물론 이러한 앎들과 알론한 앎들도 있다 그렇다면,

알려지는 것들의 움직임 과 분리에 근거한 이론적인 앎 과 실천적인 앎 과 생산적인 앎 등 앎이 말하여지는 맥락 가운데 9 장이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9 장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말한다 그에 따르면,

움직임(κίνησιν 1065b16)은 ‘ 그러한 **힘**의 활동(τῆν.....ἐνέργειαν¹⁰⁶³) 1065b16) ’ 이라고 말하여진다 알론한 것을 움직여지게 하면서(ἄλλο ἢ κινητόν 1065b23)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현실**이 **활동**하고 있을 때 마다(ὅταν ἐντελεχείᾳ ὄν ἐνεργῆ 1065b22) 그것도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는(καὶ οὐτὲ πρῶτον οὐθ, ὕστερον 1065b20-21) 바로 그 때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러한 움직임은 움직여지는 것 안에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 시작하고 있는 705 쪽의 인용 글월은 **현실**이 **활동**하므로 비로소 **움직임**이 일어날 때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의 **활동**은 하나이나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의 **있음**은 하나가 아니더라고 말한다¹⁰⁶⁴)

활동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움직임에 연관된 것들을 구분하고 있는 영혼에 관하여¹⁰⁶⁵) 10 장 끝나는 부분(433b13-b21)을

1063) 다른 번역어로 말한다면 잠재적인 것(뒤나뮈스, 힘)의 현실화(에네르게이아, 활동)가 움직임이다 뒤나뮈스 와 에네르게이아에 대해서는 655-659 쪽을 참조하십시오

1064) 힘 과 활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임을 넘어서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546 쪽 이하 660 까지를 참조하라

1065) 석사 학위 내 논문은 영혼에 관하여 라는 그의 강의록을 다루려하지

먼저 살펴 보기로 하자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지만 활동(에네르게이아)에 있어서 하나인 것들은 모두 움직임에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 움직이게 하는 것은(τὸ κινεῖν 433b10)은 **에이도스(종)에 있어서는 하나** [곧] 욕망 할 수 있는 욕망[의] 능력이며(τὸ ὀρεκτικόν, ἢ ὀρεκτικόν b10-11) 무엇 보다도 욕망[의 대상, 인 것](τὸ ὀρεκτόν b11)이다 이것은 [생각하거나 상상하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해] 생각 되어 지거나 또는 상상 되어 짐에 의해서, 움직여짐이 없이 [그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δὲ b13),

움직이게 하는 것들(τὰ κινούμενα b13)은 **수적으로는 많다**

한편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 다른 한 편으로 두 번째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것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 ἢ κινεῖ , b14) 세 번째 움직여지게 하고 (있는) 것 [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움직여질 수 없는 것(τὸ ἀκίνητον b15)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게 (하는) 것¹⁰⁶⁶ [등]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른 한 편으로 두 겹(διπτόν b14)이기도 한데 움직여질 수 없는 것은 실천적인 선(τὸ πρακτόν ἀγαθόν b16)이며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게 하는 것(τὸ κινούμενον¹⁰⁶⁷ b16)은 욕망의 능력이다

않을 것이다 물론 나는 영혼에 관하여를 내 논문에 관련된 두 사람의 책들을 옮겨 적기 전에 이미 옮겨서 요약해 놓았다 서울대 대학원 커리큘럼에 포함되 있었기 때문이다 실은,

텔레스의 있음에 대해 알아 보려면 반드시 영혼에 관하여를 읽고 지나가야 한다 물론 소설 이나 수필 또는 시(時) 읽듯이 하면 안된다 그 책 자체가 그러한 읽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066) 약간 혼란이 생겨난다

1067) 움직여지게 하는 것으로 옮겨야 할 지 아니면 움직여지고 있는 것으로 옮겨야 할지 혼란스럽다 문법적으로는 현재 수동 분사 중성 단수 1 격 이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으나 문제의 이 분사 형으로 가리켜지는 것은 움직이게 하는 것에 속해 있다 라고 분명히 텔레스는 말하고 있으므로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 능동 분사 중성

움직여 지(게 하)는 것은 욕망되어지는 한 움직여지(게 하)며 그리고 움직임은 어떤 **에네르게이아(활동** 으로서의) 욕망(ἡ ὄρεξις 433b19)이기 때문이다 움직여지는 것은 생물(τὸ ζῷον b18)이며 욕망이 그것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 도구는 몸(적인 것 σωματικόν b19)이다 따라서,

몸 과 영혼¹⁰⁶⁸에 공통인 그 동일한 **작용(ἔργου**¹⁰⁶⁹ b20)[곧 **에네르게이아**]에 관한 이론화가 [이루어진다] (433b10-21)¹⁰⁷⁰ ”

단수 형으로 문제의 그것을 옮겨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1068) 텔레스는 영혼을 무엇(τι 412a5)이라 하는가

그에 따르면 영혼은

실체(412a6)이다 곧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있는 것이다

생명을(ζωήν 412a20) 힘으로 지니는 실체이다

자연(적인) 몸의 현실(ἐντελέχεια 412a21-22)이다

자연(적인) 몸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412b11)

1069) 텔레스에 따르면 동일한 그것은 바로 에네르게이아(활동)일 것이다 이러한 에네르게이아에 대해서는 594-659를 참조하시오

에네르게이아는 몸 과 영혼이 공통으로 속하는 작용(에르곤)이므로 움직여지는 것(몸) 과 움직이게 하는 것(영혼)은 그 활동(에네르게이아)에 있어 하나이지만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닐까(704쪽)

그럴 것이다 라고 답해야 할 것 같다

1070) 움직임이 시작되는 (지)점에 대해 간략히 이어 말하면서 영혼론 감마편 10 장을 그는 끝낸다

“ 움직이게 하는 것을 도구[에 빗대어](ὀργανικῶς 433b21) 간략하게 말해 보기로 하자

처음 과 끝이 동일한 것인 돌 쪼귀(ὁ γυγγλυμός, 433b22, 勁捷)를 예로 들어보자 나온 부분 과 들어 간 부분이 각기 [움직임의] 시작

위 인용 글월에 따르면

움직임에 관련하는 것에는 움직이게 하는 것(τὸ κινεῖν)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것에 의해 알려진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ᾧ κινεῖ) 그리고 움직이는 것 또는 움직여지는 것(τὸ κινούμενον) 등이 있으며 이것들 이외에도 움직여질 수 없는 것(τὸ ἀκίνητον 433b15) 이 있다 따라서,

움직여질 수 없는 것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 (지계) 하는 것 등 움직이게 하는 것은 두 겹이다 텔레스는 움직여질 수 없는 것을 실천적인 선 이라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 (지계) 하는 것을 욕망의 능력 이라 말한다 욕망하는 한 움직여지는 것은 움직여지며 움직임은 활동하는 어떤 욕망 이기 때문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욕망이 그것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것은 욕망하는 몸이며 움직여지는 것은 생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몸 과 영혼¹⁰⁷¹에 공통인 작용(ἔργον)에 대한 이론이 성립한

과 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편으로 쉬지만 다른 한 편으로 움직여지며 한 편으로 로고스에 있어서는 헤테론하게 있는 것들이지(ὄντα b25)만 크기에 있어서는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밀고 당김에 의해 움직여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등금에 있어서(ἐν κύκλῳ b26) 처럼 반드시 어떤 것이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반드시) (머물러 있는, μένειν 433b26) 이것 으로부터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제,

말하여졌던 것 처럼 한 편으로 전체적으로 생물이 욕망할 수 있는한 그 자체 그 (생물은) 움직일 수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상상 없이는(ἀνευ φαντασίας, 433b28-29, 心想) 욕망할 수 없다 그런데,

모든 심상들은 논리 또는 감각(ἢ λογικὴ ἢ αἰσθητικὴ 433b29)인데 [사람 이외의] 알려진 생물들도 이(감각)을 나누어 지닌 다 (433b21-30) ”

1071) 텔레스는 욕망을 움직임의 아르케에(415b10) 로서의 영혼의 무엇(τὴ.....τῆς ψυχῆς 432a19)으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라

다 그렇다면,

몸(움직이는 것) 또는 생물(움직여지는 것) 과 영혼 또는 욕망(움직이게 하는 것)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것은 각기 그 에르곤(작용) 또는 에네르케이아(활동) 또는 엔텔레케이아(현실) 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704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비록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닐지라도 그 활동(에네르케이아)에 있어서는 하나인 것들은 움직이는 것(몸) 또는 움직여지는 것(생물) 과 움직이게 하는 것(영혼)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 이 둘¹⁰⁷²)은 그 활동에 있어 하나인가

움직이게 하는 것에 의한 움직여지는 것의 *엔텔레케이아*(현실[화]) 와 움직이게하는 것의 *에네르케이아*(활동)는 알론한 것이 아니므로 움직여지는 것 안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707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알론한 것을 움직여 지게 하면서도 자신은 움직여지지 않는 *현실*(엔텔레케이아) 이 *활동*하는 바로 그 때에 **힘의 활동 으로서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이며 움직이게 하는 것은 움직여지는 것에 **활동함**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으로 하여금 움직여질 수 있게 하므로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 지는 것 이 두 가지 것의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활동할 수 있는 것(ἐνεργητικὸν 1006b31)은 움직여지는 것의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것(영혼) 과 움직여지는 것 또는 움직이는 것(생물 또는 몸) 이 양자의 **활동**은 하나이다 그러나,

“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영혼의 무엇으로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크기에 있어 분리되 있는 그 (영혼의) 한 부분인지 또는 로고스에 있어 분리되 있는 한 부분인지 아니면 영혼[의] 전체(πᾶσα 432a20)인지를 먼저 조사해야한다 그리고 만약 어떤 부분이라면.....(432a18-21) ”

1072) 자신들 사이의 간격(διάστημα 1006b32)은 동일하지만 하나 와 둘은 그 있음에 있어서 오르막 과 내리 막 처럼 하나가 아니다

활동에 있어 하나 라는 점을 나는 강조(強調)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것이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한다 있음(에이나이) 이라는 낱말이 알론한 어떠한 낱말과 텔레스에 있어 어울려 쓰여지는가를 지금 나는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게 하는 것은 움직이는 또는 움직여지는 것과 활동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이러한 말은 형이상학 1075b4-6에서도 나타난다

“ 엠페도클레스도 마찬가지로 불 합리(ἀτόπως 1075a1-2)하다¹⁰⁷³⁾ 그는 (부모의) 사랑(τὴν φιλίαν b2)을 선(τὸ ἀγαθὸν 1075b2)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 함께 모으므로 - 움직이게 하는 것(ὡς κινούσα b3)으로서의 아르케에이며 - 섞어진 것의 부분이므로 - 질료로서의 아르케에 이기도 하다 [그러나],

질료 와 움직이게하는 것 으로서의 아르케가 우연히 동일한 것 [사랑] 이라고 하더라도(εἰ 1075a4) 그 **있음**은 실로 동일하지 않다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은 두 가지 가운데 어느 (κατὰ πότερον b6) [있음으로 있을]까 그런데,

미움은(τὸ νεῖκος b7)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불 합리하다

1073) 전체 자연(ἡ τοῦ ὅλου φύσις 1075a10) 모든 것은 그 선함(τὸ ἀγαθὸν 1075a11)에 있어서 서열지워지며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라는 텔레스의 견해와 알론한(ἄλλως 1075a26) 견해들은 불 합리하다 알론한 그 견해들에 속하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 역시 불 합리하다 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말하여지는 람다 편 마지막 장인 10 장은 그 이전 장들과 내용에 있어 잘 연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36 쪽에서 말하여지고 있듯이 그 이전 장들은 소멸하는 실체 와 영원한 실체들 감각 실체 와 움직이지 않는 실체(들)이 말하여지는 반면 10 장에서는 전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을 더 또는 덜 지니므로서 서열지워진다(συντέτακται, 序列지워진다, 1075a16)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악의 자연이 바로 이 (미움)이다 1075b1-7) ”

라는 인용 글월에 따르면
엠페도클레스가 말하고 있는 (어머님의) 사랑은 움직이게하는 것 으로서의
아르케이기도 하고 질료 로서의 아르케에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일한 것(사랑)이 우연히 그 두 가지 로서의 아르케에 일 수는 있으
나 그 두 가지 곧 *질료 와 움직이게하는 것은 그 있음에* 있어서 동일한 것
은 아니다

여기서의 이러한 말은 움직이게하는 것 과 움직이는 또는 움직여지는
것은 활동(에네르케이아)에 있어서는 하나이나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라는 형이상학 1066a33(705쪽)에서의 말과 통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움직이는 또는 움직여지는 것 대신에 질료 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기는 해도
말이다¹⁰⁷⁴⁾ 어쨌든,

거기에서는 움직이게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은 비록 에네르케이아
에 있어서는 하나이긴 해도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 와 둘 그리고 오르막
과 내리막 처럼 하나가 아니다 하나 와 둘 그리고 오르막 과 내리막은 간격
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데,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이는 것은 활동(에네르케이아)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닌 반면 하나 와 둘 그리고 오르
막 과 내리막은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지만 그 간격에 있어서는 동일
하므로 엄밀하게 보면 텔레스가 여기서 보기로 들고 있는 것들은 동일한 것
들이 아니다

있음에 있어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 와 둘 그리고 오르막 과
내리막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영혼) 과 움직여지는 것(생물) 또는 움직
이는 것(몸) 모두에 속하지만 앞 네 개는 그 **간격에** 있어서 **동일한** 반면 뒤

1074) 이어지는 로고스에서 말하여지겠지만 움직여지는 또는 움직이는 것
은 생물 또는 몸이다 그렇다면 몸을 질료라 할 수 있을까.....글쎄.....

두 개는 그 **활동**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ἓν, 1066a33, —)인 모든 것이 동일한 것(τὸ αὐτὸ, 1066a32, 同一)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서는 **있음** 과 **간격** 과 **활동**(에네르게이아)에 있어서 각기 동일하거나 하나이거나 하나이지 않다고 말하여지는 반면 **알론한** 곳에서는 다른 측면에 있어서 각기 **그러** **그러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먼저,

영혼에 관하여 432a20에서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영혼의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영혼의 다른 부분과 **로고스**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χωριστὸν ὄν a20) 것인가 아니면 **크기**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진다

“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영혼의 무엇으로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크기**에 있어 분리해 있는 그 (영혼의) 한 부분인지 또는 로고스에 있어 분리된 있는 한 부분인지 아니면 영혼[의] 전체(πᾶσα 432a20)인지를 먼저 조사해야한다 그리고 만약 어떤 부분이라면.....(432a18-21) ”

여기서는 **있음** 또는 **간격** 또는 **에네르게이아**(활동)에 있어서 동일하나 또는 하나이나 또는 하나가 아니냐의 여부가 아니라 **크기** 또는 **로고스**에 있어서 분리해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 삼아지긴해도 아마 동일한 것 과 하나인 것은 분리해 있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의 이 두 맥락이 서로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영혼론 감마 리포트 16-17 참조) 다음으로,

영혼에 관하여 413b10-16에서는 **섭취**(攝取) 와 **감각** 과 **디아노이아**(διανοητικῆ, 數理能力, 413b12-13) 와 **움직임** 등이 소위 영혼의 부분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은 단지 **로고스**(말)로만 분리해 **있는**(εἶναι χωριστὸν 413b15)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서도 분리해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진다

“ 영혼은 위에서 언급된 그러한 것들의 아르케에이며 **섭취** 감각 수리능력 움직임이라고 규정되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서도 지금은 충분하다 먼저,

먼저 이것들 각각이 영혼인가 또는 영혼의 부분인가 만약 부분

이러면 (이러한 각 부분은) 단지 말(로고스)로만 분리해 있는가 또는 자리(τόπος b15)에 있어서도 분리해 있는 것인가 라는 아포리아(물음)는 답하기 어려운 물음들 가운데서도 답하기 어렵다 (413b10-16) ”

크기(μ
εὑθεῖ 432a20) 라는 말 대신에 자리(τόπος¹⁰⁷⁵) b15) 라는 말이 쓰였다는 점 그리고 움직임 이외에도 디아노이아(數學能力) 와 감각 과 섭취 등이 언급 됐다는 점을 제외하면 맥락은 바로 위 인용글월의 맥락과 영혼의 부분들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영혼(의 부분)이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또는 움직이는 것은 활동(에네르게이아)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그 있음(에이나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영혼의 부분들은 단지 말로만 분리해 있는(에이나이)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서도 분리해 있는가 라고 그는 묻고 있으며 위 위 인용 글월에서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영혼의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크기에 있어서 알론한 것과 분리해 있는(은, ὄν)지 아니면 로고스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지 그는 묻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리 와 크기는 각기 헤태론한

1075) 자리(토포스)를 크기(메게도스)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범주들 161 쪽에서 텔레스가 말하고 있듯이 자리(ὁ τόπος 5b8)는 량 그 자체에 속하는 연속적인 량인 반면에 크기(τὸ μέγα 5b15)는 우연적인 량 이라고 말하여지기 보다는 프로스 티(관계) 라고 그에 의해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크기를 우연적인 량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지 않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이렇게 단언하는 것 보다는 그는 크기를 관계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할 성 싶다 그렇다면,

자리 와 크기는 그 류에 있어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 질 수 있으리라 이 둘은 그에 의해서 각기 헤태론한 범주들의 보기로서 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범주들로 있다는 점에 유념하라 다음으로,

영혼에 관하여 429a10-22에서는 영혼의 인식하고 분별하는(φρροვეί 429a11) 부분이 영혼의 알론한 부분과 분리해 있는 것이라면 **크기**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로고스(말)**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진다

“ 영혼이 그것에 의해 인식하고 분별하는 영혼의 그 부분과 관련하여 (그 부분이) [영혼의 알론한 부분과] 분리해 있는지 그것도 **크기**에 따라서(κατὰ μέγεθος a12)가 아니라 **로고스**에 따라서 분리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알론한 부분과]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그리고 생각(τὸ νοεῖν a13)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반드시 조사되어야한다 (429a10-13) ”

라는 인용 글월에 서 텔레스는 영혼의 인식하고 분별하는 부분(생각)은 영혼의 알론한 부분과 분리해 있는지 그것도 크기가 아니라 로고스(말)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지를 조사해 보자 라고 말한다 따라서,

크기에 있어서는 알론한 것과 분리해 있지는 않지만 그 **로고스**에 있어서는 분리해 있는(ὄντος 온토스 429a11) 영혼의 부분(누우스, 생각)을 텔레스는 지금 문제 삼는다고 우리는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¹⁰⁷⁶)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크기에 있어서는 분리해 있지 않지만 로고스(말)에 있어서 분리해 있다(χωριστού ὄντος, 떨어져 있는, 429a11) 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크기**란 텔레스에 따르면 양적인 관계라는 것은 713 쪽 각주 1074 번에서 이미 말하여졌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여지는 **로고스**란 무엇이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까 단순히 말(로고스)일까 아니면 말이외의 알론한 무엇일까¹⁰⁷⁷)

1076) 누우스는 몸(429b5) 과 질료(429b21-22)와 분리해 있는 순수한 것(ὁ ἀπλόον 429b23)이라고 사실 그에 의해 이어 말하여진다 그런데,

크기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로고스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 것일까 아마 로고스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 것일 것이다

다음으로,

영혼에 관하여 433b24에서는 움직임의 시작하는 부분 과 끝나는 부분은 경첩의 들어간 부분 과 나온 부분 처럼 **로고스**에 있어서는 **헤태론하게 있지**(ἕτερα ὄντα 433b24-25)만 **크기**에 있어서는 분리해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진다

“ 움직이게 하는 것을 도구[에 빗대어](ὄργανικώς 433b21) 간략하게 말해 보기로 하자

처음 과 끝이 동일한 것인 둘 썬취(ὁ γυγλυμός, 433b22, 颯捷)를 예로 들어보자 나온 부분 과 들어 간 부분이 각기 [움직임의] 시작 과 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편으로 쉬지만 다른 한 편으로 움직여지며 한 편으로 **로고스**에 있어서는 **헤태론하게 있는 것들이지**(ὄντα b25)만 **크기**에 있어서는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다)** (433b21-25) ”

분리해 있다 라는 말은 헤태론하게 있다 라는 말이다 라고 여기서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크기에 있어 분리해 있는 것은 헤태론하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헤태론한 모든 것이 크기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긴해도 말이다

지금 까지 나는 ‘에 있어서는 하나로 **있거나** 분리해 **있지** 않지만.....에 있어서는 하나로 **있지** 않거나 분리해 **있다** ’ 라는 있다(에이나이)의 쓰임새를 열거해 봤을 뿐이다 나는 더 이상 깊숙히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과 어우러진 있다 라는 말의 쓰임새를 계속 추적하자 다음으로(1078)

1077) 지금 나는 알려진 말과 함께 쓰여지는 있음(에이나이) 또는 있는(은)이라는 말이 텔레스의 세 강의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추적해 가는 중이므로 더 이상 깊이 나아갈 수 없다

1078) 704 쪽에 나오는 먼저에 상응하는 다음이다

⑨**있다** 라는 말은 $\pi\rho\acute{o}s\ \tau\iota$ (범주들 6a37...7a38...7b5...8b39.....이하)라는 말과 어우러져 나의 눈에 띈다

“ 말하여지고 있듯이 **프로스 티(관계)**는 **헤태론한 것들과**¹⁰⁷⁹⁾ 그렇게 **있다** 라고 또는 다르게 말하면 **헤태론한 것에 대해 (그렇게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그러한 것들** 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크기는 **헤태론과 그렇게 있다(크다)** 라고 말하여진다 어떤 것의 크기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배는 **헤태론한 것과의) 그렇게 있다(두배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어떤 것의 두 배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알론한 그러한 것들도 이와 같다

예를들어 습성($\xi\varsigma\iota\varsigma$ 6b2) 성향($\delta\iota\acute{\alpha}\theta\epsilon\sigma\iota\varsigma$ b2-3) 감각 앎 상태($\theta\epsilon\sigma\iota\varsigma$, 위치, b3)과 같은 그러한 것들도 관계들이다 이런 것들 모두는 **헤태론한 것들과**¹⁰⁸⁰⁾ 그렇게 **있다** 라고 말하여지고 있었지($\tau\grave{\alpha}\ \epsilon\iota\rho\eta\mu\acute{\epsilon}\nu\alpha$ b3) 이와 알론하게 (말하여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습성은 어떤 것과의) 습성(으로 있으며) 앎은 어떤 것의(과 습성으로 있고) 상태는 어떤 것과의) 상태(로 있다) 라고 말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헤태론한 것과 그렇게 있다($\epsilon\acute{\iota}\nu\alpha\iota$ b7) 라($\acute{\epsilon}\varsigma\iota\nu$ b7)고 말하여지는 모든 것은 **프로스 티(관계)이다**($\acute{\epsilon}\varsigma\iota\nu$ b7) 달리 말하면,

(관계는) **헤태론한 것에 대해**($\pi\rho\acute{o}s$ b8) (그렇게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산은 **헤태론한 것에 대해 크(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래서 산은 어떤 것에 대해 (그렇게) **크(게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같은 것도 어떤 것에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알론한 이와 같은

1079) 관계는 **헤태론한 것들의(186쪽) 관계 ‘이다’** 라고 옮겨 질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이 경우 **있다** 대신에 **이다**를 집어 넣을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일어난다 그럴 수 있다면 **있다** 와 **이다**는 동일한 것일 것인 반면 그럴 수 없다면 **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다** 지금 나는 **동일한 것이다**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것도 마찬가지로 프로스 티(관계)라고 말하여진다 (6a36 - b11) ”

물론 691 쪽에서 거듭 말하여진 것 처럼 프로스 티를 포함한 모든 카테에고리아이가 그 자체로 있음(에이나이)인 것은 그에 따르면 분명하므로 프로스 티는 있음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 처럼 관계(프로스 티) 이외의 실체 량 질 등 등 프로스 티 이외의 모든 범주들(카테에고리아이)도 있음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실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있다(εἶναι 8b25) 라는 낱 말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체(5장) 와 량(6장)을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있다 라는 말이 자주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스 티(관계)라는 말과 어우러져 있다 라는 말이 눈에 띈다고 718 쪽에서 말한 것은 **실체** 와 **량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데서는 에이나이(있다)가 아니라 에스틴(ἐστὶν 2a11) 과 에스티(ἐστὶ 4b20)가 쓰였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질** 보다는 **프로스 티(관계)**를 설명하는¹⁰⁸⁰가운데서 에이나이가 더 많이 쓰였기 때문이다¹⁰⁸¹ 그에 따르면,

프로스 티(관계)는 두 가지로 말하여진다 첫째,

헤태론한 것들과 그렇게 **있음**이 관계(프로스 티)이다 다시 말해 헤태론한 것들의 있음이 관계이다 이러한 있음 곧 프로스 티에는 습성 과 성향 과 감각 과 앎 과 상태가 속한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의 있음이기 때문이다 둘째,

헤태론한 것에 대해(πρὸς 6a37, 6b8) 그렇게 **있음**이 프로스 티(관계)이다 다시 말해 헤태론한 것들이 서로에 대해 그렇게 있음이 프로스 티이다

1080) 그의 범주들에서는 10 가지 범주들 모두가 같은 비중(比重)으로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 언제 상태 등의 범주는 아예 설명되지 않고 행함 당함 지님 등의 범주도 겨우 조금 설명될 뿐이나 실체 량 관계 질 등의 범주에는 적절한 지면이 활애되어 그 범주들이 설명되기 때문이다(32쪽)

1081) 그러나 실은 관계가 ‘진짜’ 존재(存在)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을 여기에 나는 집어 넣었다

큼 같음 등이 이러한 있음에 속한다 예를들어 산은 헤테론한 것에 대해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그 만큼 크다 또는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모든 프로스 티(관계)는 상대 짝(ἀντισρέφοντα 6b28)에 대해 그렇게 **있음**이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노예는 주인의 노예라고 그리고 주인은 노예의 주인이라고 말하여지며 그리고 배는 반의 배이며 반은 배의 반이라고 말하고 지고 그리고 큰 것은 적은 것의 큰 것이고 적은 것은 큰 것의 적은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대 부분의 관계(프로스 티)는 자연스레 동시에(ἀμα τῆ φύσει 7b15) 있음인 것 처럼 보인다 배 와 반은 동시에 있어서 반이 있을 때 배가 있다 그리고 노예가 있을 때 주인이 있다 알론한 것들도 이와 같다 아울러,

이러한 프로스 티는 서로 함께 파괴된다 배가 있지 않다면 반도 있지 않고 반이 있지 않다면 배가 있지 않다 알론한 것들도 이와 같다 그러나,

모든 프로스 티가 자연스레 동시에 있음인 것은 아니다 이미 있는 프 라그마들에 관한(ἐπι 7b24) 앎을 우리는 얻으므로 알려지는 것은 프로스 티 (관계) 로서의 앎 보다 먼저 있을(ἄν εἶναι 7b23-24)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감각도 마찬가지로이다¹⁰⁸²)다음으로,

⑩있다 라는 말 바로 앞 또는 뒤에는 3격(여격(與格¹⁰⁸³))이 오곤한다

1082) 관계(프로스 티)에 대해서는 186 - 200 쪽을 참조하십시오

1083) 여격(與格, 3격)은 여러 가지 문법적인 뜻을 지나 너에게 떡을 주 다에 있어서의 **너에게** 처럼 주로 간접 목적어를 나타낸다(라틴어 3격)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쉼을 나타내는 전치사와 더불어 3격(라틴어에서는 탈 격(奪格))이 쓰이기도 하고(ἐν τῷ οἴκῳ, 그 집 안에서) 대답하다 또는 믿다 등 특별한 동사와 더불어 3격(라틴어 3격) 이 쓰이기도한다 또한,

3격은 어떤 관점(respect)을 나타내기도 하고(라틴어 전치사 없는 탈 격)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며(라틴어 탈격) 수단(手段, means)을 나타내기도 하는데(라틴어 탈격) 수단을 나타내는 3 격은 원인(for)을 나타내기도한다

987a26에서는 1 격으로 쓰인 에이나이(있음) 바로 뒤에 3 격이 온다

“ ‘그러나’ 배(διπλασιω, 倍, 987a26)에 있음¹⁰⁸⁴과 둘에(δύοδύ a26)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럿은 하나일 것이다 (여럿이 하나라는) 것은 저(퀴타고라스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 내어진 것이다 (987a25-a27) ”

위 인용 글월에 나오는 배에 있음 과 둘에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배 와 둘은 그 있음에 있어서¹⁰⁸⁵ 동일한 것이 아니 라는 말 일 것이다

위 인용 글월은 형이상학 첫 번째 편인 그리고 10 장으로 이루어진

(문법 노트, 3권-격(格), 46 쪽) 그러나,

있다 바로 앞 뒤에 쓰여지는 3 격은 ‘어떤 것**에(서)**’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어떤 것 예를들어 ‘힘**에**’ 있음에서 처럼 말이다.....

1084) 본문에는 있음 뒤에 배가 있으나 그 위치 그 대로 옮기면 영어를 닮아버린 현재의 우리 한글 구문 구조에 어긋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우리 글 구조에는 맞는다 말 그 자체에 격 변화가 있었으니까.....

1085)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은 비록 활동(에네르케이아)에 있어서는 하나이긴해도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는 아니다 라는 704 쪽 이하의 말을 참조하시오

705 쪽에서는 둘(δύο 1066b32) 과 하나는 비록 간격(διάστημα 1066b32)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거기에서는 둘 과 하나가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에 여기서는 둘 과 배가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 와 둘 과 배는 그 있음에서 하나가 아니라라는 점 곧 하나에 있음 과 둘에 있음 과 배에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 거기 와 여기에서 분명해진다

(큰) 알파의 가운데 장인 5 장의 끝 부분에 나타난다 35 쪽에서 내가 말한 것 처럼 **지혜**란 무엇이며 이러한 지혜를 찾아갔던 선행자들의 의견들이 요약 비판되는 (큰) 알파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레 **[알아] 보(εἶδέναι** 980a21)려 한다’ 라는 로고스로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지혜(ἡ σοφία 982a2)란 어떤 원인 과 아르케에에 관한 **앎(ἐπιστήμη** 982a2)이며 이러한 지혜를 사람들은 난감한 어려움에 부딪히면 [화들짝] 일어나는 놀라움을 때문에(διὰ τὸ θαυμάζειν 982b12) - 신화(ὁ μύθος 982b19) 역시 놀라움 때문에 생겨났다 - 처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했다

난감한 어려움에 부딪히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지함(ἀγνοεῖν 982b18)에 놀라게 되고 이러한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봄(τὸ εἶδέναι** 982b20-21)을 통해서 알기 시작했지 어떠한 쓸모(χρήσεως 982b21)를 위해서 알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앎만이 자유로운(ἐλεύθερος 982a26) 앎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있지(ὁ αὐτοῦ ἔνεκα 982a26) 다른 것을 위해 있지 앎을 때 자유롭다 라고 우리는 말하며 그리고 그러한 앎 만이 그 자신을 위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앎은 앎 자체를 위한 앎이다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인 방식으로는(νομίζοιτο 982b29) 이러한 앎을 획득할 수 없다 인간의 자연에는 한계가 있어서 오직 신 만이(θεὸς μόνος 982b30) 이러한 앎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앎은 신성한 것을 다루는 신성한 앎이다 신(692쪽)은 모든 것의 원인들의(τῶν αἰτιῶν 983a8) [원인] 이요 아르케에인 것이라고 여겨지며 그리고 신 만이 원인 과 아르케에 관한 앎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각기 것의 첫 원인들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각기 것을 보아 안다(εἶδέναι 983a25)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아르케에적인 원인(티마이오스 147쪽의 모든 것의 원인에 관한 부분 과 소피스테에스 105 쪽 이후의 논의를 참조)들에 관한 앎을 반드시 획득해야 만다 이러한 원인들은 실체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그리고 질료 또는 기체 그리고 움직임의 아르케

에 그리고 목적(τὸ οὐ ἕνεκα 983a31) 과 선 - 모든 생성 과 움직임의 끝 - 등 네 가지로 말하여진다 그런데,

텔레스에 따르면 자신 이전의 철학자들도 이러한 아르케에 와 원인들에 관해 말했으나 네 가지 원인 모두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만을 말했다 뿐이다

처음으로 철학했던 자들 가운데(τῶν πρώτων φιλοσοφησάντων 983b6) 대부분은 질료 라는 에이도스(종)을 모든 것의 유일한 아르케어로 보았다 이런 사람들에는 탈레스(Θαλής, 물, 983a20) 아낙시메네스(공기) 와 디오게네스(공기, 984a5) 힐파소스(불) 와 헤라클레이토스(불, 984a7) 엠페도클레스(물 공기 불 더하기 흙, 984a8) 아낙사고라스(아르케에는 숫적으로 무한하며 영원하다, 984a11) 등이 속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성해서 다시 그것으로 소멸하는 바로 그 아르케에에 관해 말했다를 뿐 무엇을 통해 있는 모든 것이 생성 소멸이 일어나는 가 라고 하는 변화의(τοῦ μεταβάλλειν 984a23)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질료로서의 그 기체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그리고 우연히(τῷ αὐτομάτῳ καὶ τῇ τύχῃ 984b14) 있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움직이므로서 더 좋게 되며 더 아름답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헤태론한 그 두 번째 원인에 대해 조사했다 이러한 사람들에는 헤르모티모스(누우스, 984b19-20) 와 아낙사고라스(누우스, 984b15) 헤시오도스(에로스 와 정육, 984b23) 엠페도클레스(우정과 투쟁, 985a5)이 속한다 그런데도,

레우키포스 와 데모크리토스는 움직임의 문제를 무시하고서 꼭참(있는 것) 과 텅빔(τὸ κενόν 985b5, 있지 않는 것-985b6,)을 요소(στοιχία 985a5)로 내세우며 이것들을 있는 것들의 질료 원인으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다른 모든 것의 원인은 이러한 요소들의 모양 과 순서 와 위치에 있어서의 차이 일 뿐이다

이제까지 거론된 철학자들은 질료 원인 과 움직임의 원인 등 두 가지

원인에 대해 미흡하나마 말했을 뿐 나머지 두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수학에 처음으로 몰두한 퀴타고라스(사람들)은 원인에 관한 이러한 연구를 발전시키면서 수를 있는 모든 것들의 아르케애로 보았으며 수의 요소들(홀 과 짝, 986a18)이 있는 것들의 요소(986a2)라고 전제한다 이들로부 터 우리는 있는 것들의 아르케애는 반대들(986b3)이라는 것을 배운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의 자연 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다 파르메니데애스 (986b18)는 로고스에 있어 하나인 것에 집착하는 것 처럼 보이고 멜리소스 (986b19)는 질료에 있어 하나인 것에 집착하는 것 처럼 보이는 반면에 크세 노파네애스(의 제자가 파르메니데애스 라고 말하여진다 986b21)는 질료있어 하나인지 아니면 로고스에 있어 하나인지 선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두 사람 보다 더 많이 통찰한 파르메니데애스는 있는 것 이외에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라고 말한다 필연적으로 있는 것 하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그는 한 편으로 로고스에 따르면 *하나*(τὸ ἓν μὲν κατὰ τὸν λόγον 986a31-32)가 있다는 것을 받아드리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감각에 따르면 여럿이 있다*(πλείω δὲ κατὰ τὴν αἴσθησιν 986b32-33)는 것을 받아드린다 이 경우 그는 뜨거움 과 차가움(소피스테애스 106) 그리고 불 - 불을 그는 있는 것으로 보고 불 이외의 것을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 과 흙을 두 가지 원인 과 두 가지 아르케애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 편으로 첫 번째 아르케애를 몸적인 것(σωματοκίη, 물 불 등, 987a4)으로 상정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하나 몸 아르케애가 있다고 하며 어떤 이는 여러 몸 아르케애가 있다고 하나 이러한 모든 아르케애를 질료로 본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이러한 원인 이외에도 움직임의 원인을 말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움직임의 원인을 단일한 것으로 보나 어떤 이는 두 가지로 본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까지 말하여진 것으로부터 얻는다 그러나,

비록 두 가지 원인을 말하긴해도 이들은 애매하게(μετρώτερον 987a10) 말했다 이와 동일하게,

퀴타고라스 사람들도 두 가지 아르케애가 있다 라고 말했으나 유한한

것 과 무한한 것($\tau\acute{o}$ $\acute{\alpha}\pi\epsilon\iota\rho\upsilon\nu$ 987a16) 과 하나는 예를들어 불 또는 흙 또는 이와 같은 해태론한 어떤 자연인 것이 아니다 라고 그리고 오히려 무한한 것 과 하나 자체는 자신들의 카테아고리아가 되는 것들의 실체이므로 수는 모든 것들의 실체이다 라고 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acute{\iota}\delta\iota\omicron\nu$ 987a15)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있는 그 무엇($\tau\omicron\upsilon$ $\tau\acute{\iota}$ $\acute{\epsilon}\sigma\tau\iota\nu$ 987a20)에 관해 말하면서 정의하기 시작했으나 프라그마(사태)를 너무 단순화 해 버렸다 주어진 정의된 (규정된) 어떤 것이 거기에 속하는 그 첫 번째 것이 그 프라그마의 실체(451, 501 쪽, 727쪽 각주 1091번,) 라고 여겨 피상적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둘은 배가 거기에 속하는 그 첫 번째 것이므로 배 와 둘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상정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배에 있음 과 둘에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동일하다면 여럿은 하나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여럿은 하나이다 라는 말을 피타고라스 사람들은 이끌어냈다¹⁰⁸⁶⁾ 따라서,

어떤 프라그마(것)이 거기에 속하는¹⁰⁸⁷⁾ 첫 번째 것이 그 프라그마(것)의 실체라고 보아 수를 모든 것들의 실체 라고 해버린 휘타고라스 사람들은 프라그마를 단순화 시켜 버렸다 그래서 이들은 무한한 것 과 하나 그 자체는 자신의 카테아고리아가 되는 것들의 실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들어 배가 속하는 첫 번째 것이 둘이므로 다시 말해 둘에 배는 맨 처음으로 속하므로 둘 과 배는 동일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 그러나,

둘에 있음 과 배에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비록 배가 둘에 속하더라도 둘 과 배는 그 있음에 있어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그것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 과 그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 어떤 것의 실체일 수 없기 때문에 비록 하나에 모든 것이

1086) 휘타고라스에 이어 플라톤에 관해 텔레스는 6 장부터 말하기 시작한다

1087) 어떤 것에 속함은 어떤 것에 있음이라는 694 쪽을 참조하라

속한다손 치더라도 하나는 모든 것의 실체일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는 여럿 일 수 없다 그런데,

궤타고라스(사람들)은 하나는 여럿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속해 있는 프라그마를 동일한 프라그마로 너무 단순(ἀπλώς 987a21)하게 받아드린 결과 나온 말이다

위 로고스에서 나는 ‘베에 있음 과 둘에 있음’을 ‘둘 과 베는 **있음에 있어서**’ 라고 읽었다 있음 바로 뒤에 오는 3 격(987a26)을 만약 respect의 3 격¹⁰⁸⁸(720쪽 각주 1084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렇다면,

하나는 모든 것의 실체라고 말하므로써 결국 하나는 여럿이라고 말한 셈이 되는 궤타고라스(사람들)은 사태(프라그마, 事態)를 너무 단순화시켰다 라는 텔레스의 논증이 있음의 바로 뒤에 쓰여지는 3격들을 통해서 근거지워진다¹⁰⁸⁹) 또,

이러한 3 격은 형이상학 990b34-35¹⁰⁹⁰)에서도 나타난다

“ [우연적으로 나누어지닌다에 의해서] 나는 예를들어 만약 어떤 것이 배 그 자체를(αὐτοδιπλασίου 990b32) 나누어 지닌다면 이것은 마찬가지로 영원히 그러나 우연적으로 (나누어 지닌다는 것을)

1088) 이미 714 쪽의 인용 글월에서 이러한 3 격이 쓰였다 영혼의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 크기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지 아니면 로고스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 것이지 먼저 조사해야한다 라고 말하여지는 과정에서 말이다

1089) 물론 여기서 궤타고라스에 관한 언급이 끝난 것은 아니다 여기 부분은 단지 원인에 관한 플라톤 이전의 의견들에 관한 요약 부분일 뿐이다 원인에 대한 플라톤의 의견까지 요약을 마친 후(3-6장)에 텔레스는 알파 편 7장(988a18)부터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비판하는 가운데서 다시 궤타고라스(사람들)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990a34-35도 이러한 비판 가운데 이데아 비판 맥락에 속한다

말한다 우연적으로 배에 [그리고] 영원에 있기 때문이다 990b31-34)”

배(배) 그 자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영원[한] 배 자체를 우연적으로 나누어 지닌다(μετέχει 990b32) 라고 나는 말한다 우연적으로 영원에 [그리고] 배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위 인용 글월은 어느 맥락에 속할까

모든 것의 원인 또는 아르케에 대한 이전 철학자 까지의 곧 플라톤 까지의 의견을 요약한 후 다시 이 의견을 차례대로 비판하는 가운데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는 맥락(1090)에 속한다

1090) 비록 10 장으로 (큰) 알파는 이루어 졌긴해도 이러한 맥락의 9 장 까지 만으로도 큰 알파는 일단락 지워진다 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자연에 관한 강의에서 말하여진 원인을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었으나 애매 모호했다(ἀμυδρῶς 993a13) 초기 철학자들이 혀 짧은 소리를 냈기(ψελλίζομένη 993a15) 때문이다 라고 만 17줄로 이루어진 10 장에서 보충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며 물론,

뼈는 불 과 흙 과 물 과 공기 등의 질료(τὴν ὕλην 993a21)의 로고스(비율)에 있다 라고 주장하는(τῷ λόγῳ φησὶν εἶναι 993a17) 엠페도클레아스(993a17)의 보기를 들면서 텔레스는 만약 다른 사람이 질료 때문에(διὰ 993a21)가 아니라 이러한 로고스 때문에(διὰ 993a20) 뼈 와 살 과 알론한 것들이 있으므로 바로 이 로고스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며 프라그마의 실체이다 라고 말했다면 엠페도클레아스는 동의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0 장에서 자신에게 고유한 말인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또는 프라그마의 실체 라는 말을 물론 이끌어 들이고 있긴해도 크게 보아 (큰) 알파에서는 주로 말하여지고 있는 것(모든 것의 원인에 대한 이전 의견들의 요약 과 비판)이 3-9 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1-2장에서는 모든 것의 원인 또는 아르케에 대한 얇이 바로 지혜이며 이러한 지혜를 지닌자가 철학자이다 라고 말하여지고 있으며

이데아들을(τάς ιδέας 990a34) 있는 것들의 원인들이 받아드리는 자들은 있는 것들과 숫적으로 똑 같은 헤태론한 것들을(ἕτερα 990b2) 이끌어 들인다 이것들(있는 것들)로부터 저것들(에이도스들)에로(ἐπὶ 990b6)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원인들을 조사하려 함에 있어서의 에이도스들(τὰ εἶδη 990b5)은 있는 것들과 숫적으로 똑 같으며 또는 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있는 각기 것에는 호모뮴모스한 이름을 지니는 그리고 알려진 것들의 여럿에 걸친(ἐπι 990b7) 하나로서 실체들과 나란히 이것(τοίσδε 990a8) 과 영원한 것으로서 있는 무엇이 있으므로 그렇다 그런데,

어느 이데아론자도 에이도스들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길에 있어서 선명하지 못했다(οὐθέννα φαίνεται 990b9)

어떤 자의 로고스들은 서로 필연적으로 연이어지지 않고(οὐκ ἀνάγκη γίνεσθαι συλλογισμὸν 990b10) 어떤 자의 로고스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 지는 에이도스를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ὅλος 990b17)때 이데아론자들의 에이도스에 관한 로고스들은¹⁰⁹¹ 이데아가 있다 라고 말하기 보다는 에이도스가 있다 라고 에이

마지막 10 장에서는 이전의 철학자들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καὶ 993a18) 프라그마의 실체(451, 501쪽)에 대해 말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기에 애매모호하게 그 원인을 조사했으며 혀 짧은 소리만 했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아울러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1091) ‘ οἱ περὶ τῶν εἰδῶν λόγοι ἄ(990b18) ’ 여기서 우리는 텔레스가 에이도스 와 이데아를 헤태론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이데아를 에이도스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물론,

플라톤에 있어서도 그러한가 라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 라고 열린 쉽게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으나 아마 플라톤에 있어서도 이데아는 에이도스와 헤태론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로 지금의 나는 기울어져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이 둘이 헤태론한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선명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 보다 먼저 텔레스가 말하는 이데아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와 동일한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스를 말하는 자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ἄ 990b18)을 파괴하기¹⁰⁹²)때문이다 나아가서,

이테아론자들의 전체(τὴν ὑπόληψιν 990b23)에 따르면 실체들의 이테아 뿐만 아니라 헤테론한 많은 것들의 **이테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실체의 경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알론한 경우들에 있어서도 노에마 하나는(τὸ νόημα ἔν¹⁰⁹³) 990b25)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얕**도 실체들의 **얕**일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헤테론한 것들의 **얕**이기 때문이다¹⁰⁹⁴) 그러나

그것(에이도스)들에 관한 의견들에 따르면 나뉘어 지녀진 **에이도스**가(μεθεκτὰ τὰ εἶδη 990b29) 있다면 반드시 실체들의 **이테아**들(ιδέας 990b29)만이 있어야만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잇따른다] 우연적으로 나뉘어 지니는¹⁰⁹⁵) 것이 아니라 각기 것은 기체(의 속성)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이도스는 실체일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서 동일한 것이 이[세계] 와 저[세계]에 있어서의 실체를 가리키게 될 것이다¹⁰⁹⁶)

이러한 물음에 지금의 나는 대답 **않으**려나

1092) 왜냐하면 첫 번째 것(402쪽)은 두 겹(τὴν δυάδα 990b20)이 아니라 수이며 그 자체[로 있는] 것 보다는 관계이다 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1093) 하나(ἓν)에 대해서는 680-688 과 416-439 쪽 참조하시오 노에마는 실체의 노에마일 뿐만 아니라 실체 이외의 것들의 노에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다

1094) 그렇다면 그는 **얕**들(ἐπισημαί 988b26)을 노에마 곧 누우스의 작용 결과 얻어진 누우스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1095) 예를들어 [우연적으로 나누어지닌다에 의해서] 나는 만약 어떤 것이 배 그 자체를(αὐτοδιπλασίου 990b32) 나누어 지닌다면 이것은 마찬가지로 영원(한 배 그 자체를)(ἀίδιου 990b32) 그러나 우연적으로 (나누어 지닌다는 것을) 말한다 우연적으로 **배에 [그리고] 영원에 있기** 때문이다 990b31-34)

1096) 또한 그것들과 나란한 어떤 것 곧 **여럿에 걸친 하나**(τὸ ἓν ἐπὶ πολλῶν; 991a2)(499, 503쪽 참조)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여럿에 걸친 하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데아들을 있는 것들의 원인으로 받아드리는 이데아론자들의 전체에 따르면 실체들의 이데아 뿐만 아니라 헤태론한 것들의 이데아도 있어야 만한다 헤태론한 것들의 노에마 또는 앎도 실체들의 노에마 또는 앎 처럼 있기 때문이다¹⁰⁹⁷) 그러나,

에이도스에 관한 의견들에 따르면 만약 에이도스가 나누어 지는다면 반드시 실체들의 이데아만이 있어야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잇따른다 이 경우 각기 것은 기체에 따르는 것[곧 속성]이 아닌(καθ' ὑποκειμένου 990b31) 것 곧 실체를 나누어 지는다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 실체를 우연적으로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우연적으로 나누어 지는) 라는 말을 설명하는 부분이 자신 앞에 3격이 오는 있다(에이나이)의 두 번째 쓰임새로 내가 지적한 인용 글월이다

예를들어 어떤 것이 배 자체를 나누어 지는다면 배 그 자체의 영원함을(αἰδίου 990b32) 우연히 그것은 나누어 지는다고 텔레스는 말한다 그것은 영원(한) 배(배)에 우연히(συμβεβηκός 990b33)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는 배 자체(αὐτοδιπλασίου 990b32)를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로 보고 있음에 틀림없다

감각적인 각기 것과 나란히(παρὰ 1040b31) 있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실체이다 라고 (에이도스를 말하고 있는) 이데아론자들이 선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과 그 에이도스에 있어 동일한 것 곧 그 자체(τὸ αὐτὸ 1040b34) 라는 말을 그 소멸하는 것 예를들어 [개별적인] 사람 또는 말에 덧붙혀 [그] 사람 자체 또는 말 자체라고 말하므로써 소멸하는 것과 그 에이도스에 있어 동일한 것을 겨우 실체로 만들었다 라고 텔레스는 499-500 쪽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배 자체’는 실체이다 라고 반드시 말하여야한다¹⁰⁹⁸) 따라서,

1097) 텔레스는 이데아를 노에시스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보여진다

1098) 그리고 이 말 그 인용 글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로고스에서 확인된다 에이도스를 말하는 자들에 따르면 에이도스가 나누어 지는다면 반드시 실

이러한 실체의 이데아 만이 있다 라고 에이도스에 관한(περι 990b28) 의견을 지닌자는 반드시 말해야 하는데 그 이데아론 자(들)는 실체와 헤태론한 것 곧 실체 아닌 것들의 이데아도 있다 라고 결과적으로 말하는 셈이 되므로 에이도스에 관해 말하고 있는 사람이면 필연적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셈이된다 그러므로,

그 이데아 론 자(들)은 옳지 못하다(οὐκ ὀρθῶς 1040b29)는 것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쓰여진 말¹⁰⁹⁹의 뜻을 보충하는 것이 문제의 그 인용 글월이다

우연적으로 나뉘어 지닌다 라는 그 말은 예를들어 어떤 것이 배 자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배 그 자체(실체)의 영원함을 우연히 그것은 나누어 지닌다고 텔레스는 말한다 그것은 영원(한) 배(倍)에 우연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우연히(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 990b30) 그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실체(에이도스)가 나누어 지녀진다면 반드시 실체의 이데아 만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헤태론한 것들의 이데아도 있다 라고 말하는 셈이 되는 그 이데아 론 자(들)는 옳치 않다 실체의 노에마 또는 앞 뿐만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들의 노에마 또는 앞도 [이들에 따르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격을 앞에 지니는 있다(에이나이)가 속하는 문제의 그 인용 글월은 실체 이외의 헤태론한 것의 이데아를 이데아론 자들이 결과적으로 받아드리게 되는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원인은 부분이다¹¹⁰⁰ 문제의 그 인용 글월은 무엇 때문에(왜) 반드시 실체의 이데아 만이 있어야

체의 이데아 만이 있어야한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1099) 만약 에이도스가 나누어 지녀 진다면 실체의 이데아 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체의 속성이 아닌 것 곧 실체(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는 각기 것이 그 실체를 우연적으로 나누어 지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서의 우연적으로 나누어 지니는 이라는 말

하는가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텔레스는 우연히 어떤 것에 있다 라는 말은 우연히 어떤 것을 나누어 지니다 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셈인데.....¹¹⁰¹⁾ 다음으로,

1007a20-29에서는 있다 앞 뒤에 3 격이 번갈아 나타난다

“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¹¹⁰²⁾실체 와 있어지고 있는 그

1100)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 으로서의 이데아를 말하는 자들이므로 그 전체에 따르면 실체(가장 먼저 있는 것)의 이데아 뿐만 아니라 헤태론한 것의 이데아도 있게 될 것이다 실체 뿐 만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의 앞 또는 노에마 하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텔레스가 여기서 이데아를 노에마로 본 것 같다

1101) 각기 것이 이데아를 나누어 지니다에서 처럼 이데아에 적용될 경우 나누어 지니다(μετέχειν 990b31, 1079b25, 관여(關與)하다) 라는 말은 단지 시적인 비유(메타포라, 1079b26)일 뿐 어떤 프라그마를 가리키지 않는다 라고 하고 텔레스는 말한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럼에도,

비록 부정적(否定的)으로 쓰긴해도 그는 나누어 지니다 라는 말을 정의에 대해 말하면서 쓴다 사람의 정의 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발 생물의 경우 류(생물)이 차이(두 발)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440쪽)

텔레스는 나누어 지니다 라는 말 대신에 속하다(ὑπάρχει 1041a23) 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닐까(694쪽) 어떤 것에 속하다는 어떤 것에 있다 라고 그리고 어떤 것을 나누어 지니다는 어떤 것에 있다이기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1102) 감마 편 4 장에 중간 부분에 속하는 이 인용 글월은 696 - 699 쪽에 주어진 4 장 앞 부분에 속하는 인용 글월에 비록 그 중간 부분은 생략 됐긴 해도 이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701 쪽에 나타나는 것 처럼 텔레스의 앞의 아

무엇을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ἀναπόρουν 1007a20) 모든 것은 반드시 우연적인 것들이며(συμβεβηκός a21-22) 그리고 사람에 있음 또는 생물에 있음 과 같은 그런 것은 있지 않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이다

사람에 있음 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이 만약 있다면 이(사람에 있음)은 그 부정(ἀποφάσεις a25)인 ‘사람 이념에 있음’ 또는 ‘있지 않음 사람에’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리켜지고 있었던 것은(ἦν a25) 하나이며 그리고 (가리켜지고 있었던) 이것은 어떤 것의 실체 였으므로 [그렇다] (어떤 것의) 실체를 가리킨다(σημαίνειν a26)는 것은 ‘있음 그 어떤 것에’인 것과 알론한 것이 아니다¹¹⁰³⁾ 그런데,

만약 ‘그 사람에게 있음’이 ‘사람 아닌 (것)에 있음’ 또는 ‘있지 않음 사람에게’라면 알론한 것일 것이다 (1007a20-29) 따라서,

어떤 것의 그러한 로고스도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연히(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 1007a31) (있다) 라고 그들(우리의 반대자들)은 말할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서는 실체 와 우연(속성)이 분리될 것이기

르케애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1103) 어떤 것에 있음은 그 어떤 것의 실체 이외의 알론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의역(意譯)하는 것이 나올 성 싶다 696쪽에서 이미 주어진 다음과 같은 인용 글월을 참조하십시오

“ 첫 번째로 그렇다면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것을 가리키며 그래서 모든 것¹⁾이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지는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도 진실이다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를 가리킨다면 이 (τούτο, 1006a31, 사람)을 두 발 생물¹⁾이라고 해 보자 나는 하나는 이것(τούτο, 1006a32)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만약 이것이 사람이라면 [그런데] 사람인 것(τι ἄνθρωπος, 1006a33, 어떤 사람)을 가리킬 것라면 이것은 사람에 있음일 것이다 ”

‘사람에 있음’은 ‘이 (사람인) 것 하나’ 로서 이 인용 글월에서 나타나며 이것은 있음의 이름에 의해서 가리켜 진다

때문이다 [예를들어] 희더라도 (사람은) 바로 그(ὅπερ 1007a33) 흰이
아니므로 흰은 사람에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1007a20-33)”

어떤 것에 있음은 [그 어떤 것의] 실체 곧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리킨다가 위 인용 글월에서 말하여진다

텔레스가 말하는 앎의 아르케에(695쪽, 1005b19-20)를 거부하는 자들
은 이러한 실체를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은채 모든 것은 우연한 것들이 라
고 말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사람 또는 생물에 있음과 같은 그러한 것은 있
지 않다 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만약 사람에 있음과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사람 아닌 것에
있음 또는 사람에 있지 않음은 아닐 것이다 사람에 있음은 하나를 가리키며
가리켜 지고 있는 것은 실체이고 실체는 어떤 것에 있음과 알론한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에 있음이 사람 아닌 것에 있음 또는 사람에 있지 않음이라면 알
론할 것일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에 있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 자들은 어떤 것의 [하나 뿐인]
로고스(정의) 또한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우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임
에 틀림없다 희더라고 사람은 바로 그 흰이 아니므로 흰은 사람에 우연적인
것이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적인 것 과 실체가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그의 말에 따르면 어떤 것에 있음은 그 어떤 것의 실체를 가
리킨다 어떤 것에 있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이며 그것은 어떤 것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기 것에 있는 것은 각기 것의 실체이며 각기 것의 실체가 각기 것
에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각기 것에 있는 그 실체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말인데.....다음으로,

있다 앞에 3 격은 형이상학 감마 편 1 장 981a20에도 나타난다

“ 실천(τὸ πράττειν 981a13)과 관련해서 볼 때 경험(ἐμπειρία a13)은 어떤 측면에서도 기교와 차이나지 않는다¹¹⁰⁴⁾ 경험에 익숙한(ὁρῶμεν a14) (사람은) 경험 없이 로고스를 지니는 사람 보다 오히려 더 성공한다 그 원인은 한 편으로 **경험**은 각기 것들의 인식(γνώσις a16)인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기교**는 보편자들의 (인식이며) **실천과 생**성은 모두 각기 것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연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치료하는 자[의사(醫師)]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연적으로(συμβέβηκε 981a20) **사람에** **있**은 것인 칼리아스 또는 소크라테아스 또는 이렇게 말하여지는 알론한 어떤 자를 (치료하기) 때문이다 (981a12-20) ”

이 인용 글월은 형이상학 (큰) 알파 편 첫 장 중간 부분에 속한다 (큰) 알파는 생물들이 생성되면서 자연스레 지니는 감각들 가운데 무엇 보다 **보는 것**(τὸ ὁρᾶν 980a25)이 즐겁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연스레 [알아] 보려한다’ 라는 로고스로 시작한다 라는 것은 이미 722쪽에서 지적되었다 그리고,

우리는(ἡμᾶς 980a26) 많은 차이를 분명하게(δηλοῖ 980a27) 하는 눈을 통해서 대부분 **인식**하며 이러한 시각을 포함한 여러 감각들로부터 **기억**이(μνήμη 980a29) 생성되고 이러한 기억으로부터 **경험**(ἐμπειρία 980b28)이 사람에게 생성된다 동일한 프라그마에 관한 여러 기억들이 단일한 경험을 위한 뒤나뮈스(힘)을 생산해 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 이외의 생물¹¹⁰⁵⁾은 심상(ταῖς φαντασίαις 980b26, 心想) 과 기억에 의해서 살며 경험을 단지 적게 나누어 지니는 반면에 사람 이라는 류는 **기교** 와 **논증**에 의해서도(τέχνῃ καὶ λογισμοῖς 980b28)산다

기교 와 **얕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에게 온다 한 편으로 경험은 기교를 생산하는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무 경험(ἀπειρία 981a5)은 기회(τύχην,

1104) 기교 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다 라고 로스는 옮긴다 이러한 옮김은 맘에 든다(689쪽)

1105) 사람 이외의 생물들도 감각을 나누어 지니며 그리고 감각 또는 논리가 모든 심상이다 라는 710 쪽을 참조하시오

981a5, 幾回)(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에 의해 얻어진 많은 노에마 들(1106)로부터 같은 것들에 관한 하나의 보편적인 전제(ὑπόληψις 981a7)가 생성될 때 마다 **기교**는 생성한다

실천(107)에 있어서의 경험은 기교와 차이나지 않는다 오히려 경험에 익숙한 사람이 경험 없이 로고스만을 지니는 사람 보다 실천에 있어서는 더 성공한다 **경험**은 각기 것들의 인식인 반면 기교는 보편자들의 인식인데 실천 과 생성은 모두 각기 것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우연히를 제외하면 치료하는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음인 것 곧 칼리아스 또는 소크라테에스 등을 치료한다 따라서,

예를들어 사람 3격과 더불어 쓰인 있음은 여기서 보자면 사람 각자 곧 칼리아스 또는 소크라테에스 같은 개별적인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면 3격과 더불어 쓰인 있음은 바로 그 3격 각각 곧 개별적인 3격을 가리킨다 라고도 볼 수 있으리라

바로 이 점을 3격과 더불어 쓰인 있음은 실체들(τὸ οὐσίαν 1007a26)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리킨다는 733쪽과 연결시켜 보라 그러면,

약간은 이상한 듯한 어긋남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는 각기 것 (καθ' ἑκατόν 981a16)이 3격과 더불어 있음인 반면에 저기서는 실체 곧(καὶ)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3격과 더불어 있음이기 때문이며 나아가서,

만약 사람에게 있음이 실체라면(733쪽) 그리고 사람에게 있음이 각기 사람 예를들어 소크라테에스라면(735쪽) 실체는 소크라테에스 곧 사람인 것 (범주들 166쪽,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져야 하는데 실체(307쪽)에 순수하게 그리고 첫 번째로 속하는 것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τὸ τι ἦν εἶναι ἑκάστω, 1029b20-21, 305,323쪽)이기 때문이다 결국,

1106) 노에마 와 전제에 관해서는 729쪽을 참조하십시오

1107) 실천(ἡ πράξις 1048b23)은 끝(목적)이 속해 있는 움직임 이라고 말하는 597쪽을 참조하십시오

어떤 곳에 따르면 각기 것(예를들어 소크라테에스)이 실체인 반면 어떤 곳에 따르면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곧 에이도스(예를들어 소크라테에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의 사람)가 실체인 셈이된다 그런데,

제 1 실체는 사람인 것(166)이며 제 2 실체는 사람 (에이도스, 166, 種)또는 생물(類, 168)이다 라고 그래서 사람인 것이 첫 번째로(πρώτος 1030a29-30) 주로 말하여지는 실체 라고 텔레스는 범주들에서 말하는 반면에 형이상학 제에타 편에서 텔레스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곧 에이도스가 첫 번째로(πρώτος 2a11) 그리고 순수하게(307) 실체에 속한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비록 실체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289, 294, 306) 손 치더라도 그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것이 이렇게 서로 달라서야 어찌 일관성 있는 강의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인가¹⁰⁸⁾ 그러나,

꼭 그렇게 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289 쪽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것 처럼 로고스 또는 인식 또는 시간에 있어서 첫 번째 라고 말하여지는 등 첫 번째도 역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앞에 3격을 지니는 있다는 1029b14-15에도 나온다

“ 당신 자체(κατὰ σαυτὸν 1029b15) 음악은 아니므로 **당신에 있음은 음악에 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καθ'αυτὸ¹⁰⁹⁾ 1029b14)

1108) 이와 관련된 나의 변민은 286-287쪽에도 나와있다

1109) αὐτό(자체, self, 1029b14, 하우토) 와 αὐτό(그것 또는 동일한 것, it or same, 1040b34, 아우토)은 두 사람에 있어 두루 쓰여지면서 나를 골치 아프게한다

문법적으로 보면 하우토는 재귀 대명사 단수 중성 4격인 반면 아우토는 인칭 대명사3인칭 단수 중성 1격 과 4격이나 이 둘은 자신들이 속한 문맥에서 고유한 뜻을 지닌채 - 특히 텔레스(500쪽)와 더불어- 두루 쓰이는데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이다 라고 우리 먼저 그것(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관해 논리적으로(λογικώς 1029b13)말해 보도록 하자 따라서 [예를들어] 당신 자체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 이다) (1029b12-16)”

제에타 편 4 장 앞 부분에 속하는 이 인용 글월은 그 당시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가운데 기체에 대해 말하고 난 후 그 다음으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 맥락에 속한다 그에 따르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은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진다 당신에 있음은 음악에 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 자체는 음악이 아니므로([그렇다] 따라서,

당신 자체가 음악은 아니므로 음악에 있음은 당신에 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은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그는 말하는데,

그의 말은 무엇을 건너 뛰어 버린 것 같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이 그 자체인 원인은 그에 따르면 ㉠당신 자체가 음악은 아니므로(γάρ 1029b15) ㉡음악에 있음은 당신에 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γάρ 1029b14) 그렇다면,

당신에 있는 것(있음) 과 음악에 있는 것(있음)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는 것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받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에 직접 걸리는 것은 ㉠의 γάρ가 아니라 ㉡의 γάρ이며 설령 간접적으로 ㉠의 γάρ가 ㉢에 걸린다고 해도 그 자체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그의 로고스는 어떤 전제가 빠져있는 듯하다 내가 보기에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한 가지로 실체에 속하며(307) 그리고 ㉢어떤 것에 있는 것(있음)은 실체 이외의 알론한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733)라는 전제가 빠져 있는 듯하다 따라서,

혹간 그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42, 77, 304, 500, 628, 730.....)

당신 자체가 음악은 아니므로 음악에 있음은 당신에 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은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진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순수하게 첫 번째 실체 이며 실체란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것(있음) 이외의 알론한 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733쪽) 라고 그의 말을 연이어 보므로서 3격을 앞에 지니는 있다 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음악에 있음 과 당신에 있음은 이미 726 쪽에서 말 하여진 배에 있음 과 둘에 있음 처럼 음악 과 당신은 그 있음에 있어서 하나가 아니다 라고 읽혀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동일한 맥락에 이 두 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나아가서,

당신 자체는 음악이 아니므로 음악에 있음이 당신에 있음은 아니기 때문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한 것은 아니다 더 말해져야 할 무엇이 있다 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 1029b16-1030a2에서 3격이 에이나이(있다) 앞 뒤에 - 주로 앞에 - 붙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나타남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 실로 이것이¹¹¹⁰) 모든 것은 아니다 표면에 있음은 힘에 있음이 아니므로 힘 표면과 같은 그런 것은 자체(καθ'αὐτό 1029b16)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양자로부터 이루어진 흰 표면에 있음도 (자체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자체)¹¹¹¹)가 반복되기(πρόσθετον αὐτό 1029b19) 때문이

1110)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은 그 자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라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관해 우리들이 논리적으로(λογικώς 1029b13) 말하는 것

1111) 흰 표면에 있음의 경우에는 표면 그 자체가 힘 그 자체에 또는 힘 그 자체가 표면 그 자체에 더해지므로 ‘ 그것(자체) ’가 중복된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 어떤 것에 있음’은 ‘어떤 것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하여 질 수 있을

다 따라서(ἄρα 1029b19),

그것(자체 αὐτό 1029b20)를 말하고 있을 때 그것(αὐτό, 1029b20, 자체)는 로고스 안에 주어지지 않는(ἐνέσται 1029b20) 이러한 것이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이다 그래서(ὡς 1029b21),

만약 **흰 표면에 있음**이 ‘**표면에 있음 부드러움에**’ 이라면 **힘에(있음) 과 부드러움에 있음**은 동일한 것이고 하나이다 그런데,

예를들어 질 과 량 과 시간 과 장소 와 움직임 등 **각기 것에 상응하는(ὑποκειμενον 1029b24)** 어떤 것이 있으므로 알론한 범주들에 따른 복합들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각기 것(들)에¹¹¹²⁾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힘에** 사람으로(ἀνθρώπου 1029b27) 있어지는 그 무엇이 **힘에** 사람에 (속하는 가를 조사하는 것 처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그러한 (복합)들에도 속하는(ὑπάρχει 1029b26)가를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사해야한다) 자,

그러한 (복합)을 외투¹¹¹³⁾ 라고 이름해 보자 **외투에 있음(있는**

것 같다 흰 표면에 있음은 힘에 있음 과 표면에 있음 이 양자로부터 이루어진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029b19에 나타난 그것(αὐτό)은 자체(αὐτό 1029b16)를 가리킬까 아니면 알론한 것을 가리킬까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는 잠정적으로 보았다(737쪽 각주 1110 번을 참조 하시오) 하우토 와 아우토 모두를 자체라고 말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1112) ‘ ἐκάσῳ (각기 것에 1029b26,24,21) ’가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선명하지 않다 범주들 각각(1029b24)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각기 범주들로 이루어진 복합들 각각(1029b26)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소크라테이스와 같은 개별자 각각(1029b21)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각기 것에 대해서는 287 쪽을 참조하라

1113) 외투는 여러 카테에고리아들이 함께 뒤 섞인 것일 것이다 그는 흰 질을 지닌 외투를 여기서 말하고 있다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있지) 않는 것은 [다음] 두 가지로 말하여진다

이(그 자체로 있지 않은)것은 한 편으로 덧 붙임(προσθέσεως 1029b30)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그렇지 않은 것 [곧 빠트림]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한 편으로 예를들어 힘에 있음(있는 것)을 정의하는데 흰 사람의 로고스를 말하는 것 처럼 정의되는 그것(αὐτό, b31, 동일한 것)이 알려진 것에 덧 붙여지기 때문이며 다른 한 편으로 정의되는 그것에 알려진 것이 (덧 붙여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외투가 흰 사람을 가리킨다면 흰 사람은 한 편으로 희지만 있어지고 있는 무엇은 힘에 있음(있는 것)이 아니라 외투에 있음(있는 것)이므로 외투를 힘으로서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029b16-1030a3)

”

라는 인용 글월은 당신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당신 자체(αὐτό 1029b14)라고 말하는 글월(1029b12-16)에 이어지는 글월이다

[모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그 자체로 있는 것 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 ...에 있음 ’ 이라는 말을 거기서 끌어 들인다 당신에 있음은 음악에 있음이 아닌 것은 당신 자체가 음악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기 글월에 따르면 당신 자체가 음악은 아니므로 당신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은 스스로(또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이렇게 말하는 인용 글월에 이어지는 여기 인용 글월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은(πάν 1029b16) 아니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서 말해져야 할 것이 더 있다 라는 말이다

흰 표면 같은 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다 표면에 있음은 힘에 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양자로 이루어진 흰 표면에 있음(있는 것) 역시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자체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체(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에는 그 자체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질 과 량 과 시간 과 장소 와 움직임 등의 알려진 각 범주들이 섞인 것들(σύνθετα 1029b23, 예를들어 외투 ἵμάτιον 1029b28)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도 있으며 또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힘에 사람에 속하는 것 처럼 섞인 그러한 것들에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속하는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한다

외투 라는 이름을 지닌 것을 살펴보자

외투에 있음(있는 것)은 무엇인가 외투에 있는 것(있음)은 그 자체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아닌 것(τὸ οὐ καθ' αὐτὸ 1029b29)은 덧 붙혀진 것 과 그렇지 않는 것 등 두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외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첫째,

[외투 입은] 흰 [사람의] 외투를 가리킨다고 해 보자 이 경우 외투 입은 흰 사람은 희지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힘에 있음이 아니라 외투에 있음이므로 외투를 힘으로서 정의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때에는 정의되는 것(외투)에 알려진 것(힘)이 덧 붙혀지게 된다 그러나 덧 붙혀진 그러한 것은 그 자체로 있음(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정의되는 것이 알려진 것에 덧 붙혀지는 그 알려진 것도 그 자체(로 있음)이 아니다 예를들어 [흰 사람의] 힘에 있는 것(있음)을 정의하려 한다면 흰 사람의 로고스를 말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정의 되는 것(힘)에 알려진 것(사람)이 덧 붙혀지기 때문이다 이 처럼 알려진 것이 자신에 덧 붙혀진 것 역시 그 자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각기 것 자체는 각기 것에(ἐκάσῳ 1029b21)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지 그 각기 것이 아니다 각기 것이 각기 것의 자체일 수 없다는 말이다 예를들어 당신¹¹¹⁴은 당신 자체가 아니다 당신 자체는 당신에(게) 있어지고

1114) 당신(τὸ σὺ)을 각기 것(τὸ ἕκαστος)으로 텔레스는 본 것 같다 다시 말해 이 인칭 대명사 당신을 소크라테이스 등의 각기 것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있는 그 무엇(사람)이다 나아가서,

텔레스에 따르면 그 자체에 대해 말하는 로고스에는 그 자체가 주어 지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 자체에 대해 말하는 로고스에는 당신 자체가 주어 지지 않으므로 그 자체(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에는 곧 정의에는 그 자체가 [들어 있지] 않다 단지 그러한 정의는 말(로고스) 또는 논리적(λογικώς 1041a28, 507쪽, 539쪽)일 뿐이다 그런데,

정의에서 말하여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럿이 아니라 하나(ἐν 1037b24, 415쪽)이다 그리고,

어떤 것 예를들어 힘 과 부드러움이 하나이고 동일한 것(τὸ αὐτὸ καὶ ἐν 1029b22)이라면 흰 표면에 있음이 부드러운 표면에 있음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범주들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각기 것의 그 자체(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정의)는 있지 않을 뿐 더러 복합적인 각기 것에 있음(있는 것) 역시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흰 표면 또는 외투 또는 부드러운 표면의 정의(로고스)는 있지 않다 덧 붙혀져 정의 되거나 엉뚱한 알로한 것이 정의되기 때문이다

이제 까지 말하여진 것으로부터 나는 어떤 것에 있음은 어떤 것에 무엇으로 있어지고 있음 이라는 것 다시 말해 ‘ 무엇으로 있어지고 ’ 라는 말이 어떤 것에 있음의 어떤 것에 와 있음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이 어떤 것은 복합적인 것이 아니라 각기 것이라는 것 그리고 각기 것에 (무엇으로 있어지고) 있는 것(있음) 또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에이도스 라는 것을 이끌어 낸다 이어서,

있음의 앞 뒤에 오는 3격은 각기 것 곧 제 1 실체 라는 것 그것도 제 1 실체 가운데서도 범주들에서 말하여지는 제 1 실체이지 형이상학 제1태타편에서 첫 번째로 실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제 1 실체는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말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제 1 실체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범주들에서는 제 2 실체(737쪽) 라고 말하여지지만 형이상학에서는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실체에 속한다 라고 말하여지는(307쪽) 그러한 에이도스 라는 것 그리고 바

로 이 에이도스가 있음의 원인 또는 질료의 원인 이라고 텔레스는 말한다는 것을 나는 말한다¹¹¹⁵)따라서,

있음 앞 뒤의 3 격은 각기 것을 나타낸다 라고 나는 말한다 또,

있음 앞의 3 격은 1031a21에서도 나타난다

“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각기 것이(ἐκαστον 1031a15) 동일한 것인지 또는 헤태론한 것인지를 먼저 조사해 보아야 한다 실체에 관한 조사에서 쓸모있기 때문이다 각기 것은 자신의(ἑαυτού a18) 실체와 알론한 것이 아닌 것 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각기 것 의(ἐκαστου a18) 실체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 하여지므로 [쓸모 있다]

우연히 (있는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의 경우에는 헤태론 할 것 처럼 여겨진다 예를들어 흰 사람은 흰 사람에 있음과 헤태론 한 것 처럼 말이다 만약 동일하다(τὸ αὐτὸ a21)면 사람에 있음 과 흰 사람에가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해지다시피 사람 과 흰 사람이 동일할 것이어서 흰 사람에 와 사람에가 동일할 것이므로 [그렇다] 또한,

우연적인 것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¹¹¹⁶) 그렇듯 그 극단들이(τὰ ἄκρα 1031a25) 동일한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힘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 처럼 그 극단들이 우연히 동

1115) 따라서,

있음이 문제 삼아진다고 보다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곧 있음의 원인 곧 에이도스 곧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여기서 문제 삼아진다면 내 학위 논문을 위해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은 지금의 내 학위 논문과 무관한 것이란 말인가 아니다,

에이도스 역시 있음 그것도 가장 먼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116) ‘ οὐκ ἀνάγκη (1031a24) ’를 ‘반드시인 것은 아니다’ 라고 부분 부정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러한 맥락에 대해서는 324쪽 이후를 보시오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질 것 같으나 [실은 그렇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1031a15-28) ”

예를들어 흰 사람에 있음은 흰 사람과 헤테론하며 힘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의 극단들(힘 과 음악)은 동일하지 않다¹¹¹⁷⁾는 것을 보아 우연적인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그 각기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텔레스는 이 인용 글월에서 말하고 있다 따라서,

3격에 이어지는 여기에서의 있음(εἶναι 1031a21, 27, 28)은 문제의 그 3격들이 동일하지(ταῦτά 1031a25) 않고 헤테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였다¹¹¹⁸⁾ 그렇다면,

있음은 동일(성)의 척도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에이나이(있음)는 동일(성)을 뜻한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까 글세, 그렇다 라고 말하기도 아니 그렇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어쨌든,

우연적인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그 우연적인 것과 동일하지 않는 헤테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쓰여지는 3격을 앞 또는 뒤에 지닌 있음이 자체적으로 또는 스스로 (있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그 스스로 (있는) 것과 동일하다 라고 이어 말하는 가운데서도 쓰여진다

1117) 무엇 때문에 동일하지 않는가 우선,

동일하다면 사람에 있음 과 흰 사람이 동일할 것이다 흰 사람 과 사람은 동일할 것이어서 사람에 와 흰 사람에 역시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

동일하다면 [흰 사람에 있음 과 흰 사람이 그리고 음악(적인) 사람 과 음악(적인) 사람에 있음이 동일할 것이고 흰 사람 과 사람이 그리고 음악적인 사람 과 사람이 동일할 것이며 힘 과 음악 이 양자는 모두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힘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의 그 극단들(힘 과 사람)이 필연적인 아니더라도 우연적으로는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이나 실은 우연적으로도 힘 과 사람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118) 이러한 쓰임새는 제에타 편에 두루 나타난다

“ 그런데,

그 자체로(καθ'αὐτὰ 1031a28) (있는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의 경우에는 동일할까 예를들어 [자신들] 보다 앞서는 헤태론한 자연도 헤태론한 실체도 있지 않는 어떠한 (것)실체가 있다면 [말이다] 이러한 어떤 것(τινες a31)을 어떤 사람들은 이데아들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선한 그것이(αὐτὸ τὸ ἀγαθὸν a32) 선에 있음과 그리고 생명(ζῶον a32)(그)것이 생명이 (있음)과 그리고 있는 (그)것(τὸ ὄν 1031b1)이 있는 것에 (τὸ ὄντι 1031a32)(있음, εἶναι)과 헤태론하다면 말하여진 것들과 나란히 더 앞선 실체들인 그러한 실체들과 자연들과 이데아들이 있을 것이기 - 만약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들이라면 말이다 - 때문이며 그리고,

[보다 앞선 실체들과 늦은 실체들이] 서로 단절된다 - 단절된다(τὸ ἀπολελυθῆναι 1031b4-5)에 의해서 나는 '있음 선에'(τὸ εἶναι ἀγαθῷ, b5, 선에 있음)이 선한 그것에(τῷ ἀγαθῷ αὐτῷ b5) 속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선한 그것)에 선한 있음(τὸ εἶναι ἀγαθόν¹¹¹⁹) 1031a6)이 (속하지 않는다면)을 말한다 - 면 한 편으로 ~~있~~지 않을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1119) 형용사 ἀγαθόν(아가돈)이 관사를 지니지 않았으므로 서술용법 - 문제의 명사의 술어(術語)로 쓰이는 형용사의 용법 - 으로 그 형용사 아가돈(좋은)을 옮겨 있음은 선이다 또는 있음은 선하다 라고 옮겨야 할 것 같으나 오히려 한정용법 - 형용사가 관사를 지녔을 경우 문제의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 - 으로 보아 선한 있음으로 옮기는 것이 그 로고스(문장)의 구조상 더 나올 것 같다 그 문장의 술어인 ὑπάρχει (1031b5, 속하다)가 생략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며 만약 아가돈(선한)을 술어적으로 해석하면 한 문장에 술어가 두 개인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나는 에이나이를 이다 와 있다로 날카롭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다 오히려 이다(계사(繫辭) 또는 동일성?)라고 옮기지 않는 것이 더 나올 성 싶다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인식할 때에만 저 각기 것의 얇이 있으며 그리고 선의 경우 와 알론한 경우도 이와 같으므로 [그렇다] 따라서,

선이 선에 ‘있지’ 않다면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가 하나에 (‘있지’)않다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모두 이와 같고 따라서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의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선(한 것)에 있음이(εἶναι 1031b11) [자신에] 속하지 않은 것은 선이 아니다 그래서,

선에 있음 과 선한 것은 반드시 하나이며 아름다움에 있음 과 아름다운 것도 (반드시 하나이다)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리고 첫 번째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 이러한 것에 속하다면(ἐὰν ὑπάρχη b14)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설령 [그 자체로 그리고 첫 번째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 에이도스들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이와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데아들이 있다면 기체는(τὸ ὑποκειμενον b16) 실체가 아님이 분명하다 이 이데아들은 한 편으로는 반드시 실체일 것이지만 나누어 지님(μέθεξις b18)에 따라서 [그러할 것]이므로 다른 한 편으로는 기체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1031a28-b18) ”

우연히 있는 것들 각각은 자신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헤태론(ἔταρον 1031a20)하다 라고 이 전 인용 글월에서 말하여지는 가운데 있음은 동일(성)의 척도¹¹²⁰(745쪽)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이 인용 글월에서는 그

1120) 그러한 맥락에서의 있음은 그것이 동일 자체는 아니지만 어떤 것이 헤태론하다는 것을 분별해 주는 척도 역할을 할 것 같아 나는 동일성의 척도(尺度 또는 關與, measure, μέθεξις 또는 λόγος)라는 말을 썼다

예를들어 흰 것에 있음 과 흰 것은 헤태론하다 라고 그가 말할 때의 있음은 흰 것에 있음 과 흰 것이 서로 헤태론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있음 이라는 말을 그가 쓴 것 같기 때문이며 그리고 어떤 것들의 중들이 또는

자체로 있는 것들 각각은 자신에 있어지고 **있는(있음)** 그 무엇과 동일(ταὐτὸν 1031a29)하다고 말하여지는 가운데 있음은 동일 그 자체¹¹²¹⁾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착함(선) 과 아름다움 과 있는 것은 동일하다 여기에 나오는 있음은 동일 그 자체이므로 착한 **것에 있음** 과 아름다운 **것에 있음** 과 있는 **것에 있음**은 착한 것 과 아름다운 것 과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질료가 또는 실체의 로고스가 여럿일 경우 그 어떤 것들은 헤테론하고 이러한 헤테론(다름, 차이)은 전체적으로 동일(성)에 대립된다 라고 258쪽에서 그는 말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있다(있음, 에이나이)는 동일(한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것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척도 다시 말해 관여하고 있는 동일(성)일 뿐이다 물론 자신이 동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일(성)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어 볼 수 있으리라 그러나,

거기 258쪽에서 그는 우연적인 동일 과 동일 그 자체 등으로 동일을 나누어 말하고 있으며 우연적으로 동일한 것들의 보기로 희고 음악적인 사람에게 있어서의 힘 과 음악을 듣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힘 과 음악 과 사람 역시 여기에서 보기로 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성의 ‘척도’ 라는 말은 우연적인 ‘동일’ 또는 관여하는 동일 이외의 알론한 동일(순수한 동일 또는 동일 그 자체)를 나타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그는 관여라는 말을 시적인 은유 곧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않은 공허한 말(328쪽)이라고 이데아의 관여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은가....

1121) 동일의 척도(또는 우연적인 동일) 와 동일 그 자체를 있는 하나 와 (절대적인) 하나(파르메니데스 38, 50쪽)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그러나,

플라톤은 하나(ἓν, 一) 와 동일(ταῦτον, 同一)을 알론한 것으로 볼 뿐 아니라 텔레스도 그렇다

착한(선한) 것 과 아름다운 것 과 있는 것은 그 자체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므로 착한 것에 있음은 착한 것과 아름다운 것에 있음은 아름다운 것과 있는 것에 있음은 있는 것과 동일하다

만약 헤태론하다면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라면 이런 것들 보다 앞선 실체 와 자연 과 이데아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러한 실체들이 단절된다면 다시 말해 선(착함)에 있음이 선한 그것 (선 그 자체)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선한 그것(선 그 자체)에 선한 있음이 속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선한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인식할 때만 저 각기 것의 앎이 있으므로 앎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들 또한 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이 선에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가 하나에 있지 않다면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모두 이와 같고 따라서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의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선에 있음 선에 속하지 않은 것은 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에 있음 과 선은 반드시 하나이며 아름다움에 있음 과 아름다움 역시 반드시 하나이다 결국,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있는 것이다 라고 텔레스는 말하는 셈이 되는데.....어쨌든,

이렇게 말하여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3격을 지닌 있음은 (순수한) 동일(성)을 가리키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동일(성)을 가리키는 3격을 지닌 있음은 1036a1에서도 나타난다

“ 에이도스 - 에이도스를 나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라한다 -의 부분이 있으며 그 에이도스 와 질료로 이루어진 합쳐진 전체의 부분이 있고 질료 그 자체의 부분이 한 편으로 있다 그러나 에이도스의 부분들 만이 로고스의 부분들이다 [그런데] 다른 한 편으로,

로고스는 보편자의 (로고스)이다 **등금에 있음**(τὸ κύκλω εἶναι 1036a1) 있음 과 등금 그리고 영혼에 **있음** 과 영혼은 동일(ταυτό a2)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를들어 이 등금(κύκλου τουδὶ a2)과 같은 합쳐진 전체의 정의 곧 감각적이든 생각적이든 - 나는 생각적인에 의해서 수학적인을 말하며 감각적인에 의해서 청동으로된 과 나무로된을 말한다 - 어떤 각기 것의 정의는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노에시스 와 감각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현실태로부터 떨어질 때 이 둘(감각적인 것 과 생각적인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지 또는 있지 않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보편자의 로고스에 의해 항상 말하여지거나 인식된다 (1035b31-1036a8) ”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부분에 대해 말하는 10 장(541쪽)의 후 반부에 속하는 부분인 이 인용 글월은 에이도스 - 그는 에이도스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한다 -의 부분 만이 정의를 이루는 로고스의 부분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로고스는 보편자의 로고스이다 라고 말한다 **등금에 있음** 과 등금 그리고 영혼에 **있음** 과 영혼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746-747쪽의 인용 글월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각기 **것에 있음**이 각기 것과 동일한 것은 그 자체라고 말하여지는 것 뿐이므로 등금 - 이 등금은 기하학적인 등금이 아니라 등금 그 자체이다 - 과 영혼 역시 그 자체라고 말하여지는 것에 속한다 선 과 아름다움 과 생명 과 있는 것 처럼 말이다

이제까지 나는 앞 또는 뒤에 3격을 지닌 에이나이(있다)에 대해 말해왔다 이러한 에이나이는 한 편으로 어떤 것(3격)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며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이 어떤 그것에 있음과 헤태론 하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쓰여지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 나누어 지닌다(관여하다)를 뜻하기도 하며(727쪽) 다른 한 편으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나타내기도한다(743쪽) 그러나,

이러한 에이나이 가운데서도 동일(성)을 가리키는(749쪽)에이나이가 애매하긴해도 나의 관심을 끌며 있어지고 있는(에이나이) 그 무엇 이라는 말에서 쓰인 에이나이 - 여기서 나는 '있는' 이라고 옮겨 보았다 -도 나의 관심을 끈다 나아가서,

3격을 앞 뒤에 지닌 에이나이의 문법적인 뜻을 구분하는 것도 일련의 내 논문을 위한 작업(에르곤)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¹¹²²⁾ 본다,

헬라이어 동사 부정형(不定形)은 동사적으로 쓰일 경우 자신의 목적어로 4격¹¹²³⁾을 지닌다 그러나 여기서는 3격이 그 앞 뒤에 쓰였으므로 그 에이나이는 동사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동사 이외의 품사(명사)로 쓰였음에 틀림없다 명사적으로 쓰일 경우 동사의 부정형은 중성 관사 토($\tau\omicron$)가 붙는다 따라서,

나는 명사로 쓰인 에이나이를 지금 더듬고 있는 셈이된다 원래,

헬라이어 명사는 어미가 변하므로서 1격(주격) 2격(소유격) 3격(여격) 4격(목적격) 5격(호격) 등 각기 다른 문법적인 뜻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텔레스와 플라톤은 에이나이의 어미를 변하시키는 것 대신에 앞에

1122) 그러나 현대 (영어) 문법으로 그 당시의 헬라이어 구문 구조를 분석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로고스 전체를 끊어버려 엉뚱하게 그 로고스를 해석하는 오류가 범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은 무모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좀 더 섬세하게 그 뜻들을 분석해 들어가려다 보니 그 로고스의 구조를 문법적으로 쪼개어 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부분이 합해진다고 해서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 텔레스에 있어서도 전체는 단순히 부분들의 합이 아니다(374, 509쪽) - 전체를 조사하는 그 첫 작업으로 부분(요소)들을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학문에는 분석 이외의 어떤 것이 더 요구된다

1123) 문법 노트 I 권 28-1 쪽을 참조하시오

붙는 관사의 어미를 변화시키므로서 에이나이의 문법적인 그 뜻을 나타낸다
물론 이러한 쓰임새는 그 당시 헬라어의 일반적인 쓰임새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

에이나이가 명사적으로 쓰일 때 반드시 관사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사를 지니지 않는 에이나이¹¹²⁴)가 훨씬 많다 3격을 앞 뒤에 지닌
에이나이 역시 관사가 붙지 않는 것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사가 붙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동사적으로 또는 계사(繫辭)¹¹²⁵)
로 쓰였다고 단언해서는 더 더욱이 안된다 이제,

관사를 지닌 에이나이에 대해 살펴 보기로하자 먼저,

1074b38에 나타나는 관사 붙은 에이나이는 주격(1격)으로 쓰인다¹¹²⁶)

“ 따라서,

(신성한 것인 누우스는) 자신을(αὐτόν 1074b33) 생각한다¹¹²⁷)가
장 뛰어난 것(τὸ κράτιστόν b34)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생각은 생각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καὶ ἔστιν ἡ νόησις νόησεως νόησις. 1074b34)
그러나,

명백히 앎 과 감각 과 의견 과 *디아노이아*(διάνοια, b36, 悟性)
는 항상 [자신과] 알론한 것의¹¹²⁸) (앎 과 감각 과 의견 과 디아노이

1124) 691쪽(1017a22-27)을 참조하십시오

1125) 계사로 쓰인 에이나이(이다)가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는 보지
않는다 단지 주어 와 술어 또는 기체 와 속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볼 뿐이
다.....그러나,

이러한 나의 말이 맞을런지.....

1126) 여기서의 에이나이는 3격을 뒤에 지닌다 따라서 721쪽(987a25-27) 등
에서 나오는 에이나이와 문법적인 뜻은 같다

1127) 생각한다 보다는 누우스화한다(νοεῖ 1074b33) 라고 옮기고 싶다

아이이다) 그리고 어쩌다가 자신의(αὐτῆς, b36) (앎 과 감각 과 의견 과
디아노이아이이다) 나아가서,

생각함 과 생각됨(τὸ νοεῖν καὶ τὸ νοεῖσθαι b37)이 알론하다
면 이 둘 중 어떤 측면에서 좋음(τὸ εὖ, b37, 뛰어난)은 그(생각)에 속
할까 생각에 (그) 있음 과 생각됨에(vouένω, b38) (그)¹¹²⁹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는(ἢ 1074b38),

1128) 여기서 쓰인 2격(소유격) ‘의’에 대해서는 범주들 187쪽을 참조하시오
앎 과 감각은 헤태론한 것‘의’ 앎 과 감각이라고 말하여지는 관계이다 라고
거기서 말하여진다

1129) 관사 τὸ를 ‘그’로 옮겨 보았으나 적절치 않다 우리 말에는 본디 라틴
어 처럼 관사가 없으므로 관사에 해당되는 어떤 말을 끄집어들이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진다 물론 덜 정확해지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영어 부정관사에 해당되는 관사는 헬라어에 없다 그리고 비록 영어의
수 많은 말들이 헬라어로부터 왔긴해도 문법적으로 따지면 영어 보다는 우
리 말에 헬라어는 더 가깝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적 관습에 따라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영어로 본문을 옮기
면서 이해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나는 본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영어는 우리 글 보다 덜 과학적이 아닌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말과글에 보다 밀접히 연관되는 것은 나라의 국력이다 33 쪽에서 내가
말하였듯이 말이다 열등한 말 과 글을 지닌 민족이 약한 나라를 만드는 것
이 아니라 우수한 말과글을 지닌 민족이 그 말과글을 박대하고 천대시하여
유지 발전 못한 민족이 강한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 열등하기 때문에 사라지
는 것이 아니다 우수한 말을 발전 유지하지 못하고 열등한 말을 빌려다 쓰
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그건 지배 계층 때문이다 거꾸로,

열등한 말과글을 지닌 민족이 우수한 말과글을 빌려다 쓰더라도 사라진
다 문제는,

자기 말과글이다 열등한 말과글이더라도 더 우수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어느 경우에 **앎**은 프라그마¹¹³⁰일까 한 편으로 생산적인 (**앎**)¹¹³¹의 경우에는 질료없는 실체¹¹³²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그 프라그마이며) 다른 한 편으로 이론적인 (**앎**)의 경우에는 로고스 와 **생각**(*ἡ νόησις* 1075a3)이 그 프라그마이다 그렇다면,

질료¹¹³³를 지니지 **않**을 동일한 것(*τὸ αὐτὸ* a4)의 경우에는 있는 누우메논(생각되어 있는 것) 과 있는 누우스가 (*ὄντος τοῦ νουμένου καὶ τοῦ νοῦ* a3-4) 헤태론하지 **않**으며 노에시스(생각)은 그 누우메논(생각되는 것) 과 하나이다 (1074b33-1075a5) ”

뒤에 3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관사를 앞에 지니는 이 인용 글월에 나타난 에이나이가 어떠한 문맥에서 말하여지는지를 상세하게 집어내는 것이 그 문법적인 뜻을 파악하는 것에 우선한다

감각 실체들(소멸하는 실체 와 영원한 실체)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실체들이 말하여지는 그리고 모두 10 장으로 이루어진 람다 편 1 장에서는 영원한(*ἀίδιος* 1069a31) 실체 와 소멸하는 실체¹¹³⁴ 와 움직이지 않는 실체

1130) 프라그마에 대해서는 31쪽, 369쪽각주413번, 689쪽을 참조하십시오

1131) **앎**의 분류에 대해서는 705-706쪽을 참조하십시오

1132) 그는 질료 없는(*ἀνευ*) 실체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한다 (337쪽)

1133) 질료에는 감각적인 것 과 생각적인 질료(*ἡ νοητή*, 1036a9-10, 수학적 인 것, 388쪽)로 나누어진다는 점에 유의하라 질료에 대해서는 297, 349, 334, 351, 612 쪽 등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질료를 지니지 **않**은 것 동일한 것일 것이다 라고 그는 여기서 말한다 다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42, 72, 124, 226, 278, 302, 416, 628, 754쪽을 참조하십시오

1134) 영원한 실체 와 소멸하는 실체 이 두 실체를 텔레스는 감각 실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감각 실체 곧 영원한 실체 와 소멸하는 실체는 자연(학, *φυσικής*, 1069a36-b1)의 대상이다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등 세가지 실체가 있다고 말하여지며 2 - 5 장에서는 감각 실체가 그리고 6 - 9 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ἀτδiov 1071b5) 실체가 말하여지고 마지막 10 장에서는 전체 자연이 선한 것 과 가장 선한 것을 어떻게 지니는 지가 말하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람다 편 9 장 끝 부분에 위 인용 글월이 속한다

(6장) 한 편으로 움직임이 있다

항상 있어 오기 때문에(ἀεὶ γὰρ ἦν¹¹³⁵) 1071b7) **움직임**¹¹³⁶은 생성되거나 소멸할 수 없다 **시간**(χρόνον 1071b7) 역시 생성하거나 소멸할 수 없다 만약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들어 먼저 와 나중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연속적이듯¹¹³⁷ 움직임도 연속적이다 시간의 속성(πάθος 1071b10) 과 움직임의 속성은 동일한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리(κατὰ τόπον 1071b11) 움직임 그것도 둥근 움직임¹¹³⁸ 만이 연속적이지 이 외의 어떤 움직임도 연속적이지 않다 그런데,

다른 한 편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거나 또는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활동¹¹³⁹하지(ἐνεργούν τι 1071b12-13) 않는다면 움직임은 있지 않다 힘(을

세 번째 실체인 움직이지 않는 실체를 어떤 사람은 에이도스 와 수학적인 것 이라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단지 수학적인 것이라고도 말한다

1135) 있다(에이나이)의 미 완료 형인 ἦν(있어오는)이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294, 335, 582, 624쪽) 이라는 말에서도 사용됐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리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148쪽에서도 이 말은 쓰여진다

1136) 움직임에 대해서는 707쪽을 참조하십시오

1137) 그는 범주들 217 쪽에서 시간은 연속 량이라고 말한다 143, 763쪽을 참조하십시오

1138) 움직임 가운데서도 자리 움직임이 그리고 자리 움직임 가운데서도 둥근 움직임이 첫 번째 이다 라고 759쪽에서 말하여질 것이다

1139) 활동하기 시작할 수 있어야 처음으로 힘이 있게 되며(643쪽) 바로 이러한 힘의 활동 또는 현실(화)가 움직임이라는 것 그리고 현실이 활동하고

지니는 것)이 자신의 활동을 시작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¹¹⁴⁰)나아가서,

활동한다면 그(활동의) 실체는(ούσια 1071b18) 힘이 아니다 [힘이 활동의 실체라면] 움직임은 영원하지(ἀτδιος 1017b19)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힘에 있는 것은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렇다]¹¹⁴¹)그렇다면 자신의 실체가 활동인 그러한 아르케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게다가,

이러한 실체들은 반드시 질료 없이(ἀνευ 1071b21) 있다 반드시 영원하기 때문이다 알론한 어떤 것이 영원하다면 [말이다 영원한 그것은] **활동에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다른 한 편으로] 움직여지는(κινείται 1071b34-35) 길은 여러 가지이다 어떤 것은 자연스레 움직여지고 어떤 것은 어거지로 또는 **누우스에 의**

있을 그 때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707쪽)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 또는 움직이는 것 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비록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지만 그 활동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것(707쪽)에 유념하시오

1140) 나아가서,

에이도스들이 [그럴 거라고 말하는] 자들 처럼 설령 영원한 실체들을 우리가 상정한다손 치더라도 변화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아르케애가 주어지지(ἐνέσαι 1071b15) 않는다면 [이러한 상정은] 어떤 이익도(ὄφελος 1075b14) 없다 아니다 이것으로 그치지도 않고 에이도스 이외의 어떤 실체도 있지 않게된다 왜냐하면 활동하지 않는다면 움직임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141)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있음(τὸ εἶναι) 과 있는 것(τὸ ὄν)은 한 편으로 힘을 다른 한 편으로 현실을 가리킨다 라고 280 쪽에서 그는 말하면서도 여기서 **힘에 있는 것은 있지 않을 수[도] 있다**(ἐνδέχεται γὰρ τὸ δυνάμει ὄν μὴ εἶναι 1071b19) 라고 말하다니.....이 말을 그대로 받아드리면 힘으로 있는 것은 있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있는 힘(뒤나투스)’ 과 ‘있을 수 있는(뒤나톤)’을 동일한 선 상에서 말하고 있는 579쪽을 참조하라

해서(ὑπὸ νοῦ 1071b36) 또는 알려진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¹¹⁴²) 그리고,

(7장) 항상 움직여지면서 등글게 끊임없는(ἄπαυστον 1072a21) 움직임[을 지닌] 영원한 것(첫 번째 하늘)이 반드시 있으며 이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것(ὁ κινεῖ 1071a23-24)도 반드시 있다 그런데,

움직여지는 것 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으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도 움직이게 하는(τι ὃ οὐ κινούμενον κινεῖ 1071a25) 그러한 중간(적인 것)이 [다른 한 편으로] 있다¹¹⁴³) [이것은] 실체이며 활동인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욕망¹¹⁴⁴(의 대상) 과 생각(의 대상, τὸ ὄρεκτὸν καὶ τὸ νοητὸν 1072a26)이 바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욕망 과 생각의 첫 번째 (대상¹¹⁴⁵)들은 동일하다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정욕(의 [첫 번째] 대상 ἐπιθυμητὸν.....τὸ φαινόμενον καλὸν 1072a27)이며 아름답게 있는 것이 의지(의) 첫 번째 (대상 βουλευτὸν δὲ πρῶτον τὸ ὄν καλὸν 1072a28)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생각(의 대상)에 의해서 **누우스가** 움직여 진다(νοῦς.....κινεῖται 1072a30) 그러나 욕망 때문에(διότι 1072a29) 의견을 지니기 보다는 의견 때문에(διότι δοκεῖ 1072a29)욕망을 지닌다 생각(νόησις 1072a30)이 아르케 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의 대상)은 그 자체 일련의 헤태론한 것들(ἡ ἕτερα συσσειχία καθ' αὐτήν 1072a31)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이 실체이며 순수하고(ἀπλή¹¹⁴⁶) 1072a32)활동적이다 아름다운 것(τὸ καλὸν

1142)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느 것이 첫 번째 것인가 이 물음은 아주 어렵다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τὸ αὐτὸ ἑαυτὸ κινεῖν 1072a1-2) - 움직임의 아르케에 -을 때때로 말하는 플라톤을 거들먹 거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플라톤에 따르면 영혼은 더 늦으며 그리고 하늘과 동시에 있기 때문이다(플라톤의 영혼에 대해서는 티마이오스 138-140쪽을 참조하시오)

1143) 710쪽 참조

1144) 욕망에 대해서는 589쪽을 참조하시오

1145) 그것은 착함(선)이다

1072a34)도 그렇다 그 자체 취하여지는 것은(τὸ δι' αὐτὸ αἰρετόν 1072a35) 동일한 일련의 것들안에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은 항상 가장 선한 것이거나 또는 유비적인 것이다(ἄριστον αἰεὶ ἢ ἀναλογον 1072a35-b1) [나아가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들 중에는 위해지는 것(τὸ οὐ ἔνεκα¹¹⁴⁷), 1072b1, 目的)이 있다는 것은 나누어 보면 분명해진다 어떤 [끝]으로서(τελευτῶν 1072b2) 위해지는 것(목적)이 있고 어떤 것의(καὶ τινός¹¹⁴⁸)위해지는 것이 있는데 어떤 끝 으로서 위해지는 것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인 반면 어떤 것의 목적(위해지는 것)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어떤 끝으로서] 위해지는 것(목적)은 사랑[의 대상]이 되므로서(ἐρώμενον 1072b3) 움직이게 하는 반면에 알론한 것[어떤 것의 위해지는 것을 포함한 알론한 것]은 움직여지면서 움직이게 하기(κινουμένον¹¹⁴⁹).....κινεῖ 1072b3-4) 때문이다 이제,

1146) 하나 와 **순수**(164, 214, 543쪽)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하나는 척도(429, 680쪽)를 가리키지만 순수는 어떠한 **상태가**(ἔχον 1072a34) 동일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1147) 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535, 536, 620쪽을 참조하십시오

1148) Alexander apud Averroem은 καὶ τινός 라는 말은 써 넣고 Christ는 τινός 라는 말을 써넣는 반면에 Immanuelis Bekkeri 와 W. D. Ross는 아무 것도 써넣지 아니한다 그러나 로스는 자신의 번역에서 이러한 말들을 살린다(로스 879쪽) 그리고 H.Tredennick은 이러한 말을 본문에 써넣으면서 번역한다(트레드닉 146-147)

어떤 것의 목적(위해지는 것)을 효과 원인(effeckt cause)으로 어떤 것의 끝 으로서 위해지는 것을 마지막 원인(final cause)으로 여기는 것도 그리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다

1149) 708쪽에 나오는 움직이게 하는 것의 두 겹(διπτόν, 영혼에 관하여 433b14)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 이라는 말을 여기서 끌어들여 보면 어떨까...

바로 이것이 쉬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닐까(710쪽, 각주)

어떤 것이 움직여진다면 알론한 [상태를] 지니며 있기 시작한다(ἐνδεχεται καὶ ἄλλως ἔχειν 1017b4-5) 따라서 첫 번째 태어남(ἡ φορά, 1072b5, 장소(場所) 움직임)이라면 활동에 [연관되어] 움직여질 것이[고 처음 움직여지는 것은] 이렇게 장소에 따라(κατὰ τόπον 1072b6) 알론한 [상태를] 지니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¹¹⁵⁰이 있으므로 이것은 어떻게든 알론한 [상태를] 지니기 시작할 수 없다 장소 움직임(ἡ φορά, 1072b4, 태어남)은 변화들 가운데서(τῶν μεταβολῶν 1072b9) 첫 번째 (변화)이며 이 장소 움직임 가운데서도 둥근(움직임)¹¹⁵¹이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둥근 움직임 또는 변화)를 일으킨다(κινεῖ 1072b10)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ἐξ ἀνάγκης¹¹⁵² 1072b10) 있는 (것)이며 필연적인 것 으로서의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름답게(καλῶς 1072b11) [있]고 그렇게 아르케에 [이다]¹¹⁵³이러한 아르케에¹¹⁵⁴로부터 하늘 과 자연

1150) ‘ ἐπεὶ δ’ ἐστὶ τὸ κινεῖν αὐτὸ ἀκίνητον ὄν, ἐνεργεῖα ὄν, (1072a2-3),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나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어떤 것이 있으므로 ’ 라는 말인데.....

1151) 그런데 움직임 가운데서도 둥근 움직임 만이 연속적이다 라고 말하는 755쪽을 참조하시오 그리고 플라톤은 자신의 티마이오스에서 둥근 우주는 모든 다른 모양을 담고 있다 라고 말한다(139쪽)

1152) 필연적으로 있는 것은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699, 621, 583, 706쪽) 그리고 델타 편 5 장(1014a20-1015b15)을 참조하라 거기서는 필연적으로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141쪽을 참조하라

1153) 필연은(τὸ ἀναγκαῖον 1072b11) 다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자연적인] 충동에 반대인(παρὰ τὴν ὁρμὴν 1072b12)것 이므로 (필연[적인 것]은) 강제[적인 것](τὸ βίαιον 1072b12)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그것 없이는 좋은 것(τὸ εὖ 1072b12)이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이며 다

이 이루어진다¹¹⁵⁵)

한 편으로 (이 아르케에는) 흘러가는 우리의 삶에 짧은 시간 동안 있는 가장 뛰어난 것(ἡ ἀρίστη 1072b15)이다 왜냐하면 저(아르케에)는 항상 있지만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그 (아르케에)의 활동은 즐거움(ἡ ἡδονή, 1072b16, 快樂)이므로 [그렇다] 그리고 이 때문에 [잠에서] 깬 감각 **생각**에 즐거움이 [있으며] 이 때문에 희망 기억도 [즐겁다] 그런데 **생각**(ἡ νόησις 1072b18) 그 자체는 그 자체 가장 선한 것의¹¹⁵⁶(καθ'αὐτὸ ἀριστού 1072b19) (생각 그 자체)이며 가장 많은(ἡ μάλιστα, 1072b19, 最上의) [생각은] 가장 많은 [생각]의 [생각이다] 또한(δὲ 1072b20),

누우스(ὁ νοῦς 1072b20) 생각되는 것을 취하므로서(κατὰ μετάληψιν τοῦ νοητοῦ 1072b20) 자신을 생각한다 건드리고 생각하므로서(Θεγγάνων καὶ νοῶν 1072b21) 생각되는 것(νοητὸς, 1072b20, 생각의 대상)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른 한 편으로 달리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1154) 텔레스의 아르케에에 대해서는 510-513, 706쪽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플라톤은 생성 과 우주의 가장 진실한 아르케에를 시샘이 없으므로 할 수 있는한 모든 것이 자기 자신 처럼 되기 원하시는 ‘그 분’이라고 말한다(139 쪽)

1155) (ἤρτηται, 1072b14, 의존하다(depend on), 造成된다, 形成된다, 생겨나다) αἴρω 또는 ἀίρω를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創造)하다(create) 라고 옮겨서는 안될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한다면 아마 움직이게 하는 것 으로서의 이 아르케에가 필연적으로 ‘없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156) 생각은 생각의 생각인 반면에 앎 또는 감각은 알론한 어떤 것의 앎 또는 알론한 어떤 것의 감각 이라고 말하는 752쪽을 참조하라 사실,

텔레스에 있어서는 거기가 여기 보다 그 로고스에 있어 나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거기를 여기 보다 먼저 로고스화 하는 (말하는) 것도 그래서 로고스의 τόπος(토포스, 장소, 자리)의 순서를 바꾸어 보는 것도 나은 이해의 방식일 수 있다 문제의 어떤 초점으로 말을 몰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누우스 와 생각되는 것(누우스의 대상)은 동일하다 생각되는 것 곧 (καὶ 1072b22) 실체¹¹⁵⁷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τὸ δεκτικὸν 1072b22) 누우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우스는 생각되는 것 곧 자신을] 지닐 때(ἐξ ὧν 1072b23) 활동한다 그래서,

저 (받아들임) [보이는] 오히려 이 (활동)이 누우스가 지니는 신성한 것(Θείον¹¹⁵⁸) 1072b23)인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론(ἡ θεωρία¹¹⁵⁹), 1072b24, 理論, 이러한 活動)은 즐거움이요 가장 선한 것이다 이제,

우리들이 때때로 [있는] 이러한 좋은(εὖ 1072b24) 상태에 신(ὁ Θεός¹¹⁵⁹) 1072b25)은 항상 있다면 놀라움(θαυμάσιον¹¹⁶⁰) 1072b25) [뿐 이며] 더

1157) 309쪽에서 말하여지는 실체를 참조하라

1158) 여기서 비로소 신성(神性)한 것이라는 말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는 맥락을 좀 더 올바르게 정확하며 자세하게 끄집어 내기 위해서 내 석사 학위 논문이 만들어지는 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말이다 나에게는 오직 신(ὁ Θεός, 1072b25, 神, 34쪽, 692쪽, 706쪽, 722쪽) 아닌 하나님 그 분 만이 유일한 사랑이시며 삶의 의미이고 힘과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며 그 분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 만이 내 기쁨이요 삶의 근원이고 삶의 목적이시기 때문이다

이삭 과 야곱의 하나님은 메마른 이성(理性)의 신(神)이 아니며 못 신들이 아니다

1159) 타 메타 타 피지카는 이론 곧 신(神)을 바라 보려하는 또는 신을 관조하려 하는 것을 그 끝(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 두고 명심하라 (706쪽, 623쪽) 따라서,

내가 이제 까지 이론(理論)이라고 옮겨온 ἡ θεωρία(테오리아)는 그 본디 뜻이 누우스의 신성한 활동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1160) 사람들이 지혜를 사랑하게 되는 것도 난감한 어려움에 부딪히면 활동 짝 일어나는 놀라움 때문이며 신화 역시 놀라움 때문에 생겨났다 라고 말

그러하다면 아주 놀라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리고,

(신에) 생명(ζωή 1072b29)이 속한다 왜냐하면 누우스의 활동(에네르게이아)이 생명이며 저 (누우스, ἐκεῖνος¹¹⁶¹) 1072b27)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저 (누우스) 자체의 생명(ἡ καθ' αὐτὴν ἐκείνου ζωή 1072b28)[인] 활동은 가장 선하며 영원하다 그런데(δὲ 1072b28),

신은 생명이며(εἶναι 1072b29) 영원하며 가장 선하다 그래서 생명 과 연속적인 삶(αἰών, 1072b29, 숨(呼吸)) 과 영원함(ἀτδιος 1072b30)은 신에 속한다(ὑπάρχει¹¹⁶²) 1072b30) 이것이 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은 말한다 그런데,

퀴타고라스 사람들 과 스페우시포스 처럼 어떤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것 과 가장 선한 것이 맨 처음에(ἐν ἀρχᾷς 1072b34) 있지 않았다 자라는 것(식물) 과 생물들의 아르케아들은 한 편으로 원인들이지만 다른 한 편으

하는 722쪽을 참조하십시오

1161) 로스(880) 와 트레드닉(151)은 저것을 신(God)이라고 옮긴다 그러나,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이것(οὗτοςῆ, αὕτη, τοῦτο)과는 달리 약간 먼 것을 가리키는 저것(ἐκεῖνος, η, ον)을 θεός(신, God)이라고 보는 것은 완전히 틀리다 만약 저것이 누우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누우스는 하나의 신성한 것(Θεῖον) 으로서 활동(작용)일 뿐이나 신은 그러한 신성한 활동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도 같으므로 누우스는 신과 완전히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1162) 여기서 에이나이(있다 또는 이다) 와 휘파르케이(속하다) 와 [에이나이의 생략]이 한꺼 번에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어떤 것에 속하다는 어떤 것에 있다 라는 것은 이미 694쪽에서 말하여졌다 그러나,

생명 등이 신에 속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신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 τοῦτο γὰρ ὁ θεός. (1072b30) 이것은 신 [이기] 때문이다 ’ 라고 이것 과 신 사이에 무엇이 빠져있다....이것 과 신을 연결시키는 계사 에이나이가 빠진걸까....우선,

그렇다 하고 넘어가자.....

로 아름다움 과 끝(τέλειον, 1072b34, 완성된 것)은 이(아르케에)들로부터 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상정하는데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씨는(τὸ σπέρμα 1072b35)보다 이른 해태론한 끝(완성된 것)들로부터 있으며 첫 번째 것은 씨가 아니라 끝(완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씨 보다 먼저 사람인 것(τις (1073a2)이 있다 라고 우리는 말할 것이다¹¹⁶³) 이(씨)로부터 (사람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씨가 해태론한 것(사람)으로부터 생성된다¹¹⁶⁴)이제(οὖν 1073a3),

감각적인 것들과 **분리된**(κεχωρισμένη, 1073a4, 543쪽그림참조)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어떤 실체(34쪽)가 있다는 것이 말하여진 것들로부터 분명하다 또한,

그 실체는 어떤 크기(μέγεθος¹¹⁶⁶ 1073a5-6)도 지닐 수 없으므로 부분들이(ἀμερής¹¹⁶⁵ 1073a6) 없으며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졌다 (그 실체는) 무한한 시간(τὸν ἄειρον χρόνον 1073a7) [동안]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¹¹⁶⁶)그런데,

1163) 따라서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식을 물음은 할 일 없는 자들의 푸닥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 달걀이 먼저일 수 있는가...

1164)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생성된다는 것은 또는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는 것은 이미 344쪽에서 말하여졌다

1165) 그렇다면 실체(에이도스)의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는 383쪽은 어찌된 것인가 여기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만약 크기를 지니지 않으므로(ὅτι 1073a5) 부분이 있지 않다면 크기 없을 에이도스역시 그 부분이 있지 말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는 크기를 우연 량이라고 말한다(220-221쪽)

1166) 한정된 시간 동안 있는 것이 또는 움직여지는 것이 크기를 지니므로 나뉘어지고 부분을 지닌다 라고 그에 따르자면 계속 말해야할 것 같다 그렇다면,

시간 과 있음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을까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143

어떤 유한한 것(πεπερασμένων 1073a8)도 무한한 힘을 지니지 않는다 그래서(δὲ 1073a8) 유한한 (크기)든 무한한 크기이든 한 편으로 이 때문에 (그 실체는) 유한한 크기를 지니지 않으며 다른 한 편으로 어떤 무한한 크기도 전체적으로(ὅλως 1073a10) 있지 않으므로 (그 실체는) 무한한 크기를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실체는) 실로 꺾지도 않으며 달라지지도(ἀπαθὲς καὶ ἀναλλοίωτον 1073a11)않는다 알려진 움직임들은 자리 움직임 보다 더 늦기 때문이다¹¹⁶⁷) 그렇다면,

이 (실체)가 왜 이러한 것들인가가 분명해졌다 그런데,

(8장) 그러한 실체는 하나일까 아니면 여럿일까 여럿이라면 몇 개(πῶς αὖ 1073a14)일까¹¹⁶⁸) 이러한 물음에 대해 우리의 전제 와 구분으로부터 우리는 답해야한다

쪽 과 텔레스의 범주론 216쪽 그리고 755쪽을 참조하십시오

1167) 텔레스에 따르면 달라짐 역시 움직임의 일 종이다 영혼에 관하여 406a14에서는 자리 움직임 과 달라짐 과 감소 와 자람(φορὰς ἀλλοιώσεως φθίσεως αὐξήσεως 406a14) 등 네 가지가 움직임 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에 형이상학 1068a8-9에서는 질 과 량 과 장소에 있어서의(ποιότητι, τόπω, τῷ ποιεῖν) 움직임 등 세 가지 움직임이 말하여진다

1168) 실체들의 갯 수에 대해 선명하게 말한 사람은 여지껏 아무도 없다(οὐθὲν εἰρήκασιν 1073a16) 이데아론 자들도 그렇다 이데아들은 수이다 라고 이데아들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들은 수를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또 어떤 자는 10(τῆς δεκάδος 1073a20) 이라는 수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논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들의 갯 수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유독수스(1073b17) 와 칼리포스(1073b32) 등 그 당시의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행성 또는 별들의 궤도에 관한 의견을 끌어들인다 다시 말해 텔레스는 그 당시의 천문학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실체 갯 수론을 형성하다

한 편으로 있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은 그리고 아르케에는 그 자체로든 또는 우연적으로든 움직이지 않으(ἀκίνητον 1073a24)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영원히 움직이는 첫 번째 것 하나를 움직이게(κονοῦν 1073a25)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움직여지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반드시 움직여지며 처음으로 움직이게하는 것은 그 자체 반드시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이고 영원한(ἀίδιον 1073a27) 움직임은 영원한 어떤 것에 의해서 반드시 움직여지며 (움직임) 하나는 하나에 의해서 (반드시 움직여) 지므로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실체가 움직이게하는 모든 것의 그 순수한 자리 움직임(τὴν ἀπλήν φοράν 1073a29)이외에도 우리들은 영원히 방향하는¹¹⁶⁹(τῶν πλανήτων, 1073a31, 영원한 行星의) 알려진 자리 움직임[을 지니는] 실체들을 본다(ὁρώμεν 1073a28)¹¹⁷⁰

1169) 등금에 [있는] 몸은 영원하며 쉬지않기(ἄστατον 1073a31)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점들을 자연에 관하여에서 고찰한다

1170) 그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알려진 것을 움직이게 하는 영원한 실체 하나가 순수한 등근 자리 움직임을 지니는 움직여지는 영원한 알려진 실체 하나를 움직이게 한다 라고 말한 후에 텔레스는 순수한 등근 자리 움직임을 지니는 이러한 영원한 실체 하나로부터 알려진 등근 자리 움직임을 지니는 영원한 실체들을 이끌어 내면서 등근 자리 움직임을 지니는 이러한 알려진 실체들의 [순수하지 않는] 등근 자리 움직임을 역시 그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알려진 것을 움직이게 하는 영원한 그 실체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한다 물론 그 사이에 순수한 자리 움직임(φοράν 1073a29)이 끼어 있긴해도 말이다

여기서 그는 첫 번째 움직임으로 ἡ φορά(rapid motion)를 말하고 있지(1072b4, 5 ; 759쪽) ἡ κίνησις κατὰ τόπον(자리 움직임, 1071b11 ; 755쪽)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러나,

등근 자리 움직임 이라고 의역(意譯)하고 싶기도 했지만 나는 ἡ φορά(포라)역시 자리 움직임이라고 그냥 옮겼다 적절한 번역어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리 움직임들(τῶν φορῶν 1073a33) 각각은 그 자체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에 의해서 반드시 움직여진다 왜냐하면 별들의(τῶν ἄστρον 1073a34) 자연은 [그것이] 실체인 것이어서 영원하기 때문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원하며 움직여지는 것 보다 먼저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실체 보다 먼저인 것은 반드시 실체이기¹¹⁷¹)때문이다 그렇다면

(별들의 움직임들) 만큼의 동일한 갯 수의 실체들이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실체들의] 자연은 영원하며 움직여질 수 없으며(ἀκινήτους¹¹⁷²) 1073a38) 크기 없다 앞에서 언급한 원인들 때문이다 이제,

한 편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들 곧] 실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별들의 등근 자리 움직임들과 동일한 순서(τάξις 1073b2)에 따라 이런(실체들) 가운데 어떤 것은 첫 번째이고 (어떤 것은) 두 번째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다른 한 편으로 등근 자리 움직임들의 갯 수(πλήθος 1073b3)는 철학에 아주 흡사한 수학적인 값들 중의 [하나]로부터 곧 천문학(ἐκ τῆς ἀστρολο

1171) 실체는 실체 보다 먼저 있지도 않으며(749쪽) 실체의 실체도 아니다 (459쪽)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그는 실체 보다 먼저인 것은 실체이다 라고 말한다는 점에 유의하라 실체가 실체 보다 먼저 있게 될 경우에는 있는 것에 있음 과 있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에 있음 과 아름다움 그리고 선에 있음 과 선이 해태론하게 될 것인 반면(749) 실체의 실체가 있다면 보편자도 실체일 것이기 때문이다(459) 그에 따르면 선에 있음 과 아름다움에 있음 과 있는 것에 있음 과 있는 것 과 선 과 아름다움은 동일한 것이며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실체 보다 먼저인 것은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들로서의 별들의 영원한 움직임은 실체로서의 움직이게 하는 영원한 것 하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라고 말한다 물론 그 사이에 순수한 자리 움직임을 지니는 실체 하나가 끼어 있긴해도 말이다

1172) 등근 자리 움직임들의 실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음에 유의하라 여기서 그는 실체 와 움직임을 구분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실체들에 속하는 등근 자리 움직임은 첫 번째 그 실체로부터 온다는 것은 그에 의해서 분명해지는 것 같다

γλας 1073b5)으로부터 반드시 조사되어야한다 영원한 감각적인 실체에 관한 이(천문학적인 앎)은 [그러한 실체에 관한] 이론을 생산하지만 예를들어 수 와 기하학적인 것에 관한 알론한 (수학적인 앎)들은 어떤 실체들에 관한 [이론을 생산하지]않기 때문이다¹¹⁷³)이제,

등근 자리 움직임들은(αι φοραι 1073b8-9) [그 움직임들을] 지니는 것들(των φερομένων 1073b8) 보다 더 많다는 것은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에게는 분명하다 행성들(των πλανωμένων ἄστρον 1073b10) 각각은 하나 보다 더 많은 [움직임을] 지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그 행성들의 등근 자리 움직임들이 포함되는(φέρεται 1074a6) 궤도(σφαίραις, 1074a6, 軌道, spheres)들은 한 편으로 토성 과 목성에는 8 개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알론한 것(행성)들에는 25 개 있으며 이것들 가운데 가장 낮게 위치 지워진 행성의 움직임에 포함되는 것(궤도)들 만이 맞선 것들일 필요가 없으므로 가장 먼 두 행성들의 것(궤도)에 맞서는 궤도들은 6 개일 것이고 다음의 4 행성들의 것(궤도)에 맞서는 궤도들은 16 개일 것이다 따라서,

포함되는 (궤도들) 과 그 (궤도들에) 맞서는(των ἀνελιπτουσών 1074a11) (궤도들 등) 모두 (궤도들은) 55 개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해 와 달에 우리들이 언급했던 움직임들을 더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궤도들은 47 개일 것이다 이제,

1173) 이런(등근 자리 움직임들)은 몇 개있다 라고 말하기 위해 우리의 디아노이아(數理力)이 파악할 수 있는 한정된 갯 수가 있다 라는 어떤 수학자들의 말을 끌어오기로하자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 - 우리 디아노이아로 파악할 수 있는 한정된 갯 수의 등근 자리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 이외의 알론한 프라그마들.....예를들어 몇 개로 한정되 있는가 등등..... - 에 대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리 스스로 반드시 조사해야하며 부분적으로 다른 연구가들에 의해 배워야한다 만약 다른 연구가들이 우리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들을 지닌다면 실로 그 의견들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한다

이것들이 그 궤도들의 갯 수로 취하여진다면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는 실체들과 *아르케아*들도 그와 같은 (갯 수)로 취하여질 것이다¹¹⁷⁴
[나아가서]

하늘이(οὐρανός 1074a31)하나 라는 것은 분명하다

사람들이 (많은 것) 처럼 하늘들이 많다(πλειους 1074a32)면 각기 (하늘)에 관한 *아르케아*는 에이도스(종)에 있어서는 하나일 것 이지만 수에 있어서는 여럿(πολλαι¹¹⁷⁵)1074a33)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숫적으로 많은 [모든] 것들은 질료를 지닌다 그런데,

(어떤 것에) 있어오고 있는 첫 번째 그 무엇이든 질료를 지니지 않는

1174) 766쪽에 나타난 것 처럼 행성들의 움직임들과 동일한 갯 수의 움직이지 않는 실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성들의 갯 수와 동일한 수의 움직이지 않는 실체의 갯 수가 말하여진 것이 아니라 행성들의 움직임과 동일한 갯 수의 움직이지 않는 실체의 갯 수가 말하여지고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 보라 이 곳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실체들은 별들이 아니라 별들의 움직임의 궤도와 관련된다는 점에 유의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별들의(ἄστρον 1074a18) 둥근 자리 움직임에 이바지하지 않는 둥근 자리 움직임이 있지 않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꺾지 않는(ἀπαθή 1074a19) 그리고 그 자체에 의해서 가장 선한 것에 다다른 모든 자연 과 모든 실체가 끝(목적)으로 간주된다면 우리들이 말한 것들과 나란한 헤테론한 자연들이 결코 있지 않다 (바로) 이것이 실체들의 수이다 헤테론한 것들이 있다면 둥근 자리 움직임의 끝 으로서의 그러한 (헤테론한) 실체들이 움직이게할 것이기 때문이다

1175) 여럿의(πολλών 1074a34) 동일한 로고스는 하나이다 예를들어 (여러) 사람 가운데서도 소크라테아스는 하나이듯 [말이다]

다¹¹⁷⁶) 현실(태, ἐντελέχεια¹¹⁷⁷) 1074a36)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첫 번째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은(τὸ πρῶτον κινου-
όν ἀκίνητον ὄν 1074a37) 로고스에 있어서도 수에 있어서도 하나이다 따라-
서,

마찬 가지로 항상 그리고 연속적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하나일 뿐이므-
로 따라서(ἄρα 1074a38),

하늘 하나 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들이¹¹⁷⁸) **신들(Θεοί 1074b2)**이며 하늘 전체를 신성한 것이(τὸ Θε

1176) 질료를 지니지 않는다(οὐκ ἔχει 1074a35) 라는 말을 질료 없이(ἄνευ
1071b21;756쪽, 1035a28;380쪽) [있다] 라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까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는 311-312쪽을 참조하십시오

1177) 634쪽에 나오는 엔텔레케이아를 참조하라

1178) 이것들(οὗτοι 1074b3)은 무엇을 가리킬까

트레드닉은 이런 하늘의 몸들(these heavenly bodies 163)이라고 번-
역하며 로스는 이런 몸들(these bodies 884) 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하늘의 몸들 또는 별들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것일까 차라리
이런 실체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은 아닐까 지금 텔레스는 램-
다 편 8장에서 실체들의 갯 수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말은 8-
장이 거의 끝나 가는 부분에서 나타나며 문제의 9 장은 가장 신성한 것(Θεοί
ὑψίστων 1074b16)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텔레스는 실체의 갯 수를 별-
들 또는 하늘의 몸들의 갯 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별들 또는
하늘의 몸들이 둥글게 움직이는 궤적(軌跡) 또는 궤도(軌道)의 갯 수와 동-
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차라리 별들 또는 하늘의 몸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
을 성 싶기도하다 신화로 말하고 있는 선인(先人)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것

ίον 1074b3) 둘러 쌓고(περιέχει 1074b3) [있다] 라는 전통을 신화 속에서(ἐν μύθῳ 1074b1)가장 먼 시대의 우리의 선인들이 후손에게 넘겨 주었으며 나머지 전통은 다수를 설득하기 위해 그리고 그 전설적이고 공리주의적인 편의를 위해 신화로 후에 덧 붙혀졌다 이러한 (신들)은 사람[의 모습을] 띠우거나 또는 다른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어떤 자는 말한다 그러나,

만약 이런 덧 붙혀진 것들로부터 맨 처음의 것을 분리해 내어 그 처음의 것 - **신들은(Θεοὺς 1074b9) 첫 번째 실체들**이라는 것 -만을 취한다면 이것을 신성하게 말하여진 것으로(Θείως ἄν εἰρησθαί 1074b9)사람들은 간주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각 기교 와 각 철학이 아마 가능한한 자주 발전했다가 다시 사라지는 동안에 이러한 의견들은 고대 보물의 유물과 같은 선물로 지금 까지 보존된 것으로 여겨야할 것이다 이러한 범위에서만 우리 조상들의 그리고 가장 오래된 우리 선조들의 의견들이 우리에게 선포해 진다 이제,

텔레스는 신 보다는 신성한 것에 대해 람다 편 9 장에서 말하기 시작 하는데 내가 752-754쪽에서 인용한 글월은 이러한 9 장의 끝 부분에 나타난다(755쪽)

(9장) **누우스**에 관한(περὶ τὸν νοῦν 1074b15)(의견)은 어떤 어려움들을 지닌다 한 편으로 (**누우스**는) 나타난 것들 가운데 **가장 신적인 것**이라고(τῶν φαινόμενων θεϊότατον 1074b16)여겨지고 다른 한 편으로 어떻게 그러한가 [라는 물음은] 곤란한(δυσκολίας 1074b17) 어떤 것들을 지니기 때문이다

들이 신들이는데 텔레스는 이러한 말들을 반성(反省)해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거나,

후토이(이것들)은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남성 지시 대명사이므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남성 명사들을 찾아 봐야할 터인데....그게 잘 찾아지지 않아 문제이다

만약 (누우스 또는 생각이)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위엄(τὸ σεμνόν 1074b18)은 무엇일까 오히려 [아마] (그 누우스는) 잠든 것과 같은 것이고 만약 생각하더라도 - 그[생각하는] 실체는 생각(νόησις 1074b20)이 아니라 힘이므로 - 주로(κύριον 1074b19) 알론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 생각하는 실체는] 가장 선한 실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διὰ τοῦ νοεῖν 1074b20-21) 그 가치(τὸ τίμιον 1074b21)가 그(누우스)에 속하므로 [그렇다¹¹⁷⁹] 나아가서,

그[생각하는] 실체는 누우스(νοῦς 1074b21)인가 아니면 생각(νόησις 1074b22)인가

(그것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또는 그것은(αὐτός¹¹⁸⁰) 1074b22) 그 자체 [를 생각하는가] 아니면(ἢ 1074b22) 헤태론한 것[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헤태론한 것[을 생각한다]면 항상 (헤태론한) 그것[만]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알론한 것[도 생각하는가] [알론한 그것은] 차이나는 것인가 (차이나는 것이) 아닌가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가(τὸ νοεῖν τὸ καλόν 1074b24) 우연히 어떤 것(τὸ τυχόν 1074b24)을 생각하는가 또는,

[어떤] 하나[의] 것들[만]을 [그것이] 생각한다는 것은 불합리(ἄτοπος 1074b25)할 것인가 이제,

1179) 다시말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위엄은 어떻게 될까 라는 물음이 일어나며 생각하더라도 알론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선한 실체일 수 없지 않을까 라는 물음이 일어난다

1180) 소유격 또는 여격 보다는 더 자주 생략된 주어로 나타나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은연 중에 나도 모르게 나는 누우스를 가리키고 있었으나 그렇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엄습하면서 파르메니데에스의 단편에서 생략되는 주어가 언 듯 떠오른다(파르메니데스 25-3쪽 참조)

누우스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722쪽에서 말하여지는 바로 누우스 보다 더 가치있는 알론한 그것일까 누우스에는 가장 나쁜 것도 역시 속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라면 그것은 생각되는 것 곧 생각의 대상일 것인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가장 신성하고 가장 가치있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변화는 더 나쁜 것(χείρον 1074b27)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변화)는 이미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

첫째 한 편으로 만약 [생각하는] 노에시스(생각)이 아니라 힘이라면 첫째그 생각의 연속[성](τὸ συνεχές 1074b29)이 그것에 담겨지지 [않는 다는 것은¹¹⁸¹)](ἐπιπρόνον, 1074b29, 지치다, 힘겹다) 좋은 로고스이다 다음으로,

누우스 보다(ἢ 1074b30) 더 가치있는 알론한 어떤 것 [곧] 생각되는 것(τὸ νοούμενον, 1074b30, 생각의 대상, 761쪽참조)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생각함 과 생각(τὸ νοεῖν καὶ ἡ νόησις 1074b31)은 심지어 가장 나쁜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회피되어야한다면(그리고 (어떤 것을) 보는 것 보다는 어떤 것을 보지 않는 것이 내려어지기 때문에) 노에시스(생각)은 가장 선한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자시 자신을(αὐτὸν 1074b33)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 가장 선한 것이며 생각은 생각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텔레스의 이제 까지의 말들로부터 누우스의 활동(에네르게이아) 때문에 누우스는 신성한 것(Θεῖον 1072b13)이라는 점 그리고 [생각하는 실체] 생각이 아니라 힘이라면 누우스 보다 더 가치있는 알론한 것이 있을 거라는 점 그리고 알론한 그것은 이라는 점(722) 그리고 생각되는 것(νοητόν 1072b20) 과 누우스(생각)은 동일하다는 점(761)이 우선 도드라진다 그

1181) 그것이 노에시스가 아니라 힘이라면 그것은 연속적일 수 없다 라는 이 로고스는 활동의 실체는 힘이 아니다 힘이 활동의 실체라면 [힘의 활동으로서의] 움직임은 영원하지(ἀττίδιος 1017b19)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756쪽의 로고스를 생각나게한다 물론 영속(永續) 과 영원(永遠)은 알론하긴 해도 말이다

만약 이 두 가지 로고스가 같은 일련의 선 상에 있다면 문제의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어느 정도는 선명해 질 것 같다 문제의 그것은 활동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리고,

도드라지는 이런 점들 보다는 우선 급하게 나는 역시 누우스 그것은 실체로서의 신은 아니다 라는 점을 이끌어내고 싶다 설령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차분하게 나는 ‘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은 채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하는 것 ’에 텔레스가 어떻게 닥아 서는지를 다시 요약 정리하려한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며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러한 신에 대해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요약 정리할 것이다

움직이게 하는 것 곧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에 그는 어떻게 닥아 서는가 먼저,

항상 있어 오는 움직임으로부터 그는 자신의 로고스를 시작한다

항상 있어 오는 것이므로 움직임은 생성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¹¹⁸²⁾ 역시 생성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있지 않다면 먼저 와 나중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연속적이듯 움직임도 연속적이다 그러나,

모든 움직임이 연속적인 것은 아니다 둥근 자리 움직임 만이 연속적이다 다음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활동**¹¹⁸³⁾을 그는 이끌어 들인다

만약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움직임은 있지 않을 것이다 **힘**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활동의 실체를 그는 말하기 시작한다

1182) 그에 따르면 시간 와 움직임은 동일한 속성을 지닌다

1183)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항상 있으며 아울러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 라는 619쪽을 참조하시오

활동한다면 그 활동의 **실체** 역시 힘이 아니다 힘이 활동의 실체라면 [힘의 활동(에네르게이아) 으로서의] 움직임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힘으로 있는 것은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렇다 게다가,

이러한 실체들은 반드시 질료 없이 있다 반드시 영원하기 때문이다¹¹⁸⁴)알론한 어떤 것이 영원하다면 그것은 활동에 있는 것이다

있어 오는 움직임으로부터 출발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에까지 곧 활동의 **실체**에까지 그는 다달았다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움직이는 또는 움직여지는 것의 움직임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움직이는 것 또는 움직여지는 것 과 움직이게 하는 것에 대해 텔레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는 움직여지는 여러 가지 길들에 관해 먼저 말한다

움직여지는 길은 여러 가지이다 어떤 것은 자연스레 움직여지고 어떤 것은 어거지로 움직여지거나 또는 어떤 것은 **누우스**에 의해 혹은 알론한 것에 의해 움직여진다 라고 말한 후에 그는,

움직이는 또는 움직여지는 것 과 움직이게 하는 것 과 그 **중간 것**(μέσση 1072a24) 곧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항상 움직여지면서 등글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원한 첫 번째 하늘이 반드시 있으며 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도 반드시 있다 그런데,

움직여지는 것 과 움직이게하는 것이 있으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중간이 있는데 바로 이 중간은 **실체**이며 활동인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1184) 그렇다면 질료와 더불어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만 같다 그에 따르면 비록 질료 그 자체는 ‘영원’할 것이긴 해도 말이다 ?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욕망 과 생각의 대상이다 욕망 과 생각의 첫 번째 대상은 동일하다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정욕의 첫 번째 대상이며 아름답게 있는 것이 의지의 첫 번째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생각의 대상에 의해서 **누우스**가 움직여진다¹¹⁸⁵ 그런데,

생각의 대상은 그 자체 일련의 해태론한 것들이며 이러한 일련의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이 **실체**이고 순수하며 활동한다 일련의 **아름다운**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이 항상 가장 선하거나 또는 유비적인 것이다 이제,

그는 움직임의 끝(목적) 으로서의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움직여지지 않는 것들 중에는 위해지는 것(목적)이 있다는 것은 위해지는 것을 나누어 보면 분명해진다 어떤 [끝] 으로서 위해지는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의) 위해지는 것이 있는데 어떤 끝 으로서의 위해지는 것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어떤 것의 위해지는 것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끝 으로서 위해지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되므로 움직이게 하는 반면에 (어떤 것의 위해지는 것은) 움직여지면서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움직여진다면 어떤 것은 알론하게 있기 시작한다 따라서 둥근 첫 번째 자리 움직임(η ϕ ορὰ 1072b5)을 지닌다면 그것은 활동에 [연관되어] 움직일 것이어서 처음 움직여지는 것은 이렇게 자리(장소)에 따라 알론한 상태를 지니기 시작할 것이다 자리 움직임은 변화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것이며 이 자리 움직임들 가운데서도 둥근 움직임이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둥근 움직임을 일으킨다 그러나,

1185) 그러나 욕망 때문에 의견을 지니기 보다는 의견 때문에 욕망을 지닌다 생각이 아르케에이기 때문이다

활동하는 가운데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알론한 [상태를] 지니지 않는다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있는 아름다운 **아르케에**¹¹⁸⁶⁾이다 이러한 아르케에로부터 하늘 과 자연이 이루어진다

이제 까지 나는 텔레스가 움직임으로부터 어떻게 실체 로서의 움직이 게 하는 것을 이끌어 내는가를 본문에 따라 요약했다 다시 더 짚막하게 정리해 보자

한 편으로 항상 있어 오는 움직임이 있으려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활동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의 활동이 불 가능해 움직임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실체는 힘이 아니다 힘이 그 실체라면 움직임은 영원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실체는 질료 없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영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원하다면 그것은 **활동에 있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자연스레 움직여지든 어거지로 움직여지든 누우스에 의해 움직여지든 알론한 것에 의해 움직여지는데 항상 움직여지면서 등글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원한 첫 번째 하늘이 반드시 있기에 이 하늘을 움직이 게 하는 것도 반드시 있다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 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으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도 움직이게 하는 중간적인 것이 있다 이것은 **실체**이며 활동인 영원한 것이다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며 생각의 대상이다 **누우스**를 움직여지게 하는 생각의 대상은 일련의 해태론한 것들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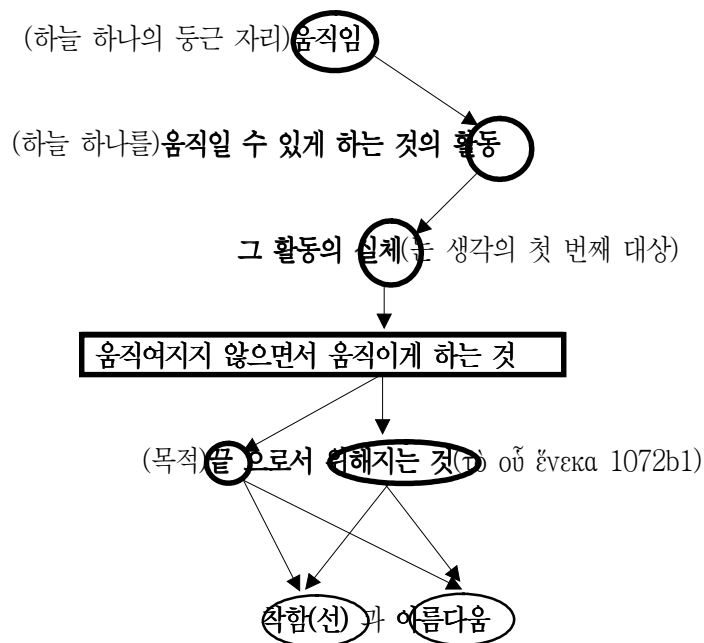
1186) 이러한 아르케에는 우리의 짧은 삶 동안에 있는 가장 선한 것이다 저 아르케에는 항상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며 저 아르케에의 활동은 즐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껌 감각 **생각**은 즐거우며 이 때문에 희망 기억도 즐겁다 그런데,

생각 그 자체는 그 자체 가장 선한 것의 생각 그 자체이며 가장 많은 생각의 생각 그 자체이다

데 그 첫 번째 것이 **실체**이며 순수하고 활동이고 가장 선한 것이다 그리고, 위해지는 것들 중에서도 끝으로서 위해지는 것(목적)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지 (어떤 것의) 위해지는 것(목적)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끝으로서의 위해지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되므로 움직이게 하는 반면에 어떤 것의 위해지는 것은 움직여지면서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체**는 활동의 실체이다 생각의 첫 번째 대상이 되므로 누우스가 움직여지게 하며 사랑의 대상이 되므로 등근 첫 번째 자리 움직임을 지니는 하늘 하나를 포함한 알론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 바로 이러한 실체가 위해지는 끝(목적) 으로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다

텔레스의 이러한 로고스를 순서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784쪽 참조)



그러나 적어도 아직 까지 그는 ‘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은 채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 ’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784쪽) 신(성한 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는 누우스를 끌어 들이면서

이 누우스와 연관지어 신성한 것(Θείον 1072b13)에 대해 말한다

생각의 대상에 의해서 누우스가 움직여진다(νοῦς.....κινεῖται 1072a30) 생각되는 것을 취하므로서 누우스는 자신을 생각한다 건드리고 생각하므로서 생각되는 것(νοητὸς, 1072b20)이 생성되기(γίγνεται 1072b21) 때문이다

생각되는 것(누우스의 대상) 과 누우스는 동일하다 생각되는 것 곧 실체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은 누우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우스가 생각되는 것 곧 자신을 지닐 때 **활동**한다 그래서,

저 받아들임 보다는 오히려 이 **활동**이 누우스가 지니는 **신성한 것**이다 이론(理論, 이러한 活動)은 즐거움이요 가장 선한 것이다 이제,

텔레스는 신(ὁ Θεον, 1072b25, 神)에 대해 직접 그러나 너무 짧게 말한다

신은 이러한 즐거운 좋은(εὖ 1072b24) 상태에 항상 충만하게 있다 그리고,

생명은 신에 **속한다** 누우스의 활동이 생명이며 저것은 활동(에네르게이아)이기 때문이다 저것 자체의 생명인 활동이 가장 선하며 영원하다

신은 생명 **이고** 영원하며 가장 선하다 그래서 생명 과 연속적인 삶 과 영원함은 신에 **속한다** 이것이 신이기 때문이다¹¹⁸⁷⁾

1187) 이 부분에서 692쪽을 참조하여 보라 거기에서는 그에 따르면 신이 있음일까 라는 물음이 일어난다 물론 이러한 물음이 아주 중요한 물음인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신은 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러한 물음을 거기서 던지고 있는가 여기서의 에이나이(εἶναι 1072b29)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고 봐야하는가 있다는 말일까 단순히

여기서 텔레스는 자신의 신성한 활동 때문에 신성한 것인 누우스와 관련해서만 신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 따라서 신 보다는 누우스의 신성한 활동이 주로 말하여진다 이후에도 신들 이라는 말은 딱 한번 770쪽에서 첫 번째 실체들이 신들이다 라고 그에 의해 직접 말하여질 뿐이다¹¹⁸⁸)다시,

계사일까 아니면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일까 다시 말해 ‘신은 생명으로 있다’ 라는 말일까 ‘신은 생명이다’ 라는 말일까 ‘신은 생명과 동일하다’는 말일까 아니면 이 셋이 다 버무려진 말일까 여기서,

나는 에이나이를 존재(存在, existence)라고 옮기지 않고 있음(to be) 이유는 무엇일까

1188) 하늘의 몸들이 신들이라는 말은 전통에 의해 신화 속에서 텔레스에게 넘겨진 말일 뿐 텔레스가 직접한 말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테레스에 따르면 하늘의 몸들이 신들이 아니라 둥근 자리 움직임을 지니는 그 몸들의 57 개 궤도들과 동일한 수의 실체들 곧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들을 신들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을까 이미 보여진 것 처럼 분명히 그는 1047b9에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들을 신들이라고 그는 말한다 라고 자신있게 나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누우스에 대해 말하는 영혼에 관하여 감마 편 4 장 과 5 장 (429a10-430a9, 텔레스 노트 46'- 88 부터 46'- 91,)에서도 누우스가 신이라는 말은 안나온다 물론 누우스는 신성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신성한 활동 때문에 누우스는 신성한 것이지 누우스 그 자체가 신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나는 말한다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신이다 라고 그는 한 번도 말하지 않음에도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이것을 **신**과 연관시킬 수 있다면 누우스가 동일한 자신을 지닐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누우스의 그 활동이 자신을 사랑하는 또는 생각하는 또는 욕망하는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점(755쪽)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신성하다**는 점에서 그러할 것이다

어떤 것의 활동이 신성하다고해서 그 어떤 것이 신이라고 할 수 없듯

텔레스는 활동의 이러한 **실체**¹¹⁸⁹)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

감각적인 것들과 분리된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이 말해진 것들로부터 분명해졌다

이러한 **실체**는 어떤 크기도 지니지 않으므로¹¹⁹⁰ 부분들이 없으며 나뉘어지지 않는다 무한한 시간 동안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겪지도 않으며 달라지지도 않는다 알론한 움직임들은 자리 움직임 보다 더 늦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이러한 **실체**가 몇 개인가 라는 물음을 묻고 답하기 시작한다

이 누우스의 활동이 신성하다고해서 그 누우스가 신이라고 말할 수 없으리라 마찬가지로 어떤 것의 활동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활동이 신성하다고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리라.....?

1189) 활동의 실체(οὐσία 1071b18)를 누우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누우스에 있음 과 누우스 그리고 누우스의 활동에 있음 과 누우스의 활동 과 누우스 그리고 누우스의 대상에 있음 과 누우스의 대상 과 누우스 그리고 누우스의 대상에 있음 과 누우스에 있음은 동일하다는 것이 그의 말에서 지금 까지 확실해 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누우스를 실체 곧 가장 먼저 있으며 분리해 있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 런지.....

1190) 유한한 것은 무한한 힘을 지니지 않으므로 유한한 크기를 지니지 않으며 무한한 크기 일반은 아예 있지 않으므로 무한한 크기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체는 크기를 지니지 않는다

첫 번째 있는¹¹⁹¹⁾ 그리고 그 자체로도 우연적으로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처음으로 영원히 움직이는 것 하나¹¹⁹²⁾를 움직이게 한다 움직여지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영원히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영원한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움직이는 것 하나는 하나에 의해서 반드시 움직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움직여지는 첫 번째 것이 지니는 순수한(ἀπλήν 1073a29) 등근 자리 움직임 이외에도 알려진 등근 자리 움직임[의] **실체**들을 우리는 본다 이러한 등근 자리 움직임들 각각은 그 자체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에 의해서 반드시 움직여진다 별들의 자연은 실체인 것이어서 영원하기 때문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원하며 움직여지는 것 보다 먼저이기 때문이며 실체 보다 먼저인 것은 반드시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등근 자리 움직임들과 동일한 갯 수¹¹⁹³⁾의 **실체**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 처럼 [이러한 실체들의] 자연은 영원하며 움직여질 수 없으며 크기 없다 이제,

1191) 첫 번째로 있는 것이 실체라는 것은 이미 제에타 편 287 쪽에서 말 하여졌다

1192)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로 나아가는 그의 출발 점은 영원히 움직여지는 하나가 있다는 것(ὅτι, 1071a4, 事實) 과 움직여지는 것은 알려진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사실) - 그래서 그는 플라톤의 자기 움직임을 거부한다 -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들의 순서(τάξις 1073b3)가 있다는 것(사실)이다 영원히 움직이는 이러한 하나로부터 이 하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역시 하나이며 영원하다 라는 것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가 움직여지거나 또는 움직인다면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 알려진 것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의존에 있어서의 무한한 반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을까.....

1193) 그 갯 수를 그는 동 시대의 수학자 겸 천문학자인 유클리드 와 갈릴 포스로부터 비록 똑 같은 수는 아니지만 이끌어낸다

[움직이게 하는 것들 곧] 실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별들의 둥근 자리 움직임의 순서와 동일한 순서에 따라 이런 실체들 가운데 어떤 것은 첫 번째 것이고 어떤 것은 두 번째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둥근 자리 움직임들은 [그 움직이는 것들을] 지나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은 분명하다 행성들 각각은 하나 보다 더 많은 움직임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행성들의 둥근 자리 움직임들이 포함되는 궤도들은 토성 과 목성에는 8개 알려진 것들에는 25개가 있으며 이것들 가운데 가장 낮게 위치 지워진 행성의 움직임에 포함되는 궤도들 만이 맞선 궤도들일 필요가 없으므로 가장 먼 두 행성들의 궤도에 맞서는 궤도는 6개 일 것이고 다음의 4 행성들의 궤도에 맞서는 궤도들은 16개일 것이므로 궤도들은 모두 55개 있을 것이며 만약 해 와 달에 우리들이 언급했던 움직임들을 더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궤도들은 47개 있을 것이다 이렇듯,

궤도들의 갯 수가 55개 라면 이와 동일한 수 움직이지 않는 실체들과 아르케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¹¹⁹⁴) 그러한 실체들은 55개 있을 것이며 이들 쉬흔 다섯 개들의 실체는 둥근 자리 움직임들의 순서에 상응하는 순서를 지니므로 첫 번째 것 과 맨 나중의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하늘은 하나 있다¹¹⁹⁵)

하늘이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1194) 그런데 758쪽에서도 말하여졌듯이 끝 으로서 위해지는 것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반면에 어떤 것의 위해지는 것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어서 움직여지면서 움직이게 한다 그렇다면,

움직여지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맥락에서의 별들 처럼 움직임을 전하는 것들일까

1195) 플라톤도 하늘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음에 유의하라(티마이오스, 139 쪽) 그리고 768쪽을 참조하십시오

사람들이 많은 것 처럼 하늘들이 많다면 그 하늘의 아르케에는 에이도스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수에 있어서는 여럿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적으로 많은 모든 것들은 질료를 지닌다 그런데,

있어오고 있는 첫 번째 그 무엇은 질료를 지니지 않는다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첫 번째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은 로고스에 있어서도 수에 있어서도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항상 그리고 연속적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하나이므로 하늘 하나만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그의 로고스를 더 짚막히 정리해 보자

많은 것의 아르케에는 에이도스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수적으로는 여럿이다 그런데,

수적으로 많은 것은 질료를 지닌다 그러나,

있어오고 있는(είvai 1074a36) 첫 번째 그 무엇은 질료를 지니지 않는다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첫 번째 움직이게 하고 있는(ὄv 1074a37) 것은 로고스에 있어서도 수에 있어서도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항상 움직여지는 것도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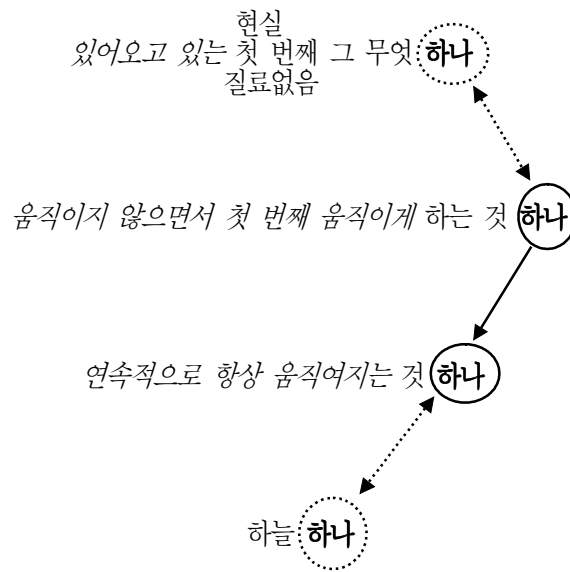
하늘 하나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항상 움직여지는 하늘이 하나인 것은 이 하늘을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이며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것이 하나인 것은 있어오고 있는 첫 번째 그 무엇이 질료를 지니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질료를 지니지 않는 것이 하나인 것은 질료를 지닌 모든 것들은 수적으로 여럿이기¹¹⁹⁶) 때문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이므로 하늘 역시 하나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연속적으로 항상 움직이는 하늘을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첫 번째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질료를 지니지 않는 현실로서의 첫 번째로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늘은 하나이다 라는 그의 로고스가 성립하려면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그의 로고스가 먼저 성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의 순서를 거꾸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777쪽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신인지 아닌지가 선명하지 않은 것 처럼(778쪽)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인지 아닌지가 선명하지 않다¹¹⁹⁷⁾어쨌든,

1196) 그렇다고 해서 에이도스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질료를 지닌 모든 것들은 비록 수에 있어서는 하나는 아니더라도 각기 에이도스에 있어서는 하나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에 대해서는 416-438쪽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중(에이도스) 과수에 있어서는 하나에 대해서는 431쪽을 참조하십시오

1197) 물론,

이것들이 신들(Θεοι 1074b2)이며 신성한 것이 하늘 전체를 둘러싼다 라고 그리고 이러한 신들이 첫 번째 실체들 이라고 이제 신화의 전통을 빌어 말하면서 텔레스는 누우스의 활동을 신성한 것이라고(761쪽) 그리고 [그 활동 때문에 누우스를] 나타난¹¹⁹⁸⁾ 것들 가운데 가장 신성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752쪽에서 말하여진 주격으로 쓰인 관사 붙은 에이나이가 나타나는 인용 글월이 그 끝에서 나타나는 람다 편 9 장으로 들어선다 그런데,

그 인용 글월이 시작 되기 전 까지의 9 장은 누우스에 관한 어려운 물음들이 나열될 뿐이다 누우스는 어떠한(πώς 1074b16) 상태에 [있는] 가라는 물음은 [답하기에] 곤란한 물음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위엄은 어떻게 될까 아마 [누우스는] 잠든 것과 같은 것이다 설령 생각하더라도 - 그 (생각하는 것)의 실체가 노에에시스(생각)이 아니라 뒤나뤼스(힘)이므로 - 알론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 실체는] 가장 선한 실체이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아, 그건 신이며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한거나 매 일반이지 뭘 그래.....그렇지 않다면 그의 로고스가 성립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물론 그의 로고스들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로고스들은 그렇게 말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는 그건 신이며 그건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기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신이야 라고 말한 적이 적어도 형이상학에서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의 로고스는 충분히 성립한다 함축된 것 과 함축한 것이 동일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98) 나타나는 이라는 말의 또 다른 쓰임새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정옥의 첫 번째 대상이요 아름답게 있는 것이 의지의 첫 번째 대상 이라는 775쪽을 참조하시오

서 가치가 그 누우스에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 [생각하는] **실체**는 누우스인가 아니면 생각인가 또,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 자신인가 아니면 헤태론한 것인가 그리고,

헤태론한 것을 생각한다면 항상 헤태론한 그것만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알론한 것도 생각하는가 [이것은] 차이날까 아닐까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가 우연히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떤 하나의 것들[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 합리한 것인가 이와 같은,

어려운 물음들은 누우스가 생각하는 그 무엇으로 모아진다 물론 생각하는 실체에 대한 물음이 있긴해도 말이다 이제,

[그것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신성한 것이며 가장 가치있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텔레스는 말한다 변화는 더 나쁜 것으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며 변화는 이미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1199)따라서,

[누우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 가장 선한 것이며 생각은 생각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에이나이의 쓰임새 어느 하나를 지적하기 위해 내가 인용한 글월이 752쪽에서 이러한 맥락에 다음 처럼 이어졌다

“ 따라서,

1199) 그리고,

[생각하는(voei 1074b19) 실체가] 생각(vonotis 1074b29)이 아니라 힘 이라면 [생각하는] 그 [실체]에 그 생각의 연속성이 담겨지지 않을 것이며 누우스 보다 더 가치있는 알론한 어떤 것 곧 생각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심지어 가장 나쁜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도 생각함(노에인) 과 생각(노에시스)이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생각하는 실체가 생각이라는 것?)이 회피 된다면 노에시스(생각)이 가장 선한 것은 아닐 것이다

(신성한 것인 누우스는) 자신을(αὐτὸν 1074b33) 생각한다¹²⁰⁰)가 장 뛰어난 것(τὸ κράτιστόν b34)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생각은 생각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καὶ ἔστιν ἡ νόησις νόησεως νόησις. 1074b34) 그러나,

명백히 앎 과 감각 과 의견 과 *디아노이아*(διάνοια, b36, 悟性)는 항상 [자신과] 알론한 것의¹²⁰¹) (앎 과 감각 과 의견 과 디아노이아이다) 그리고 어쩌다가 자신의(αὐτῆς, b36) (앎 과 감각 과 의견 과 디아노이아이다) 나아가서,

생각함 과 생각됨(τὸ νοεῖν καὶ τὸ νοεῖσθαι b37)이 알론하다면 이 둘 중 어떤 측면에서 좋음(τὸ εὖ, b37, 뛰어난)은 그(생각)에 속할까 **생각에 (그) 있음** 과 **생각됨에(νουνένω, b38) (그)¹²⁰² 있음**은

1200) 생각한다 보다는 누우스화한다(νοεῖ 1074b33) 라고 옮기고 싶다

1201) 여기서 쓰인 2격(소유격) ‘의’에 대해서는 범주들 187쪽을 참조하시오 앎 과 감각은 헤태론한 것‘의’ 앎 과 감각이라고 말하여지는 관계이다 라고 거기서 말하여진다

1202) 관사 τὸ를 ‘그’로 옮겨 보았으나 적절치 않다 우리 말에는 본디 라틴어 처럼 관사가 없으므로 관사에 해당되는 어떤 말을 끄집어들이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진다 물론 덜 정확해지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영어 부정관사에 해당되는 관사는 헬라어에 없다 그리고 비록 영어의 수 많은 말들이 헬라어로부터 왔긴해도 문법적으로 따지면 영어 보다는 우리 말에 헬라어는 더 가깝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적 관습에 따라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영어로 본문을 옮기면서 이해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나는 본다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영어는 우리 글 보다 덜 과학적이 아닌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말과글에 보다 밀접히 연관되는 것은 나라의 국력이다 33 쪽에서 내가 말하였듯이 말이다 열등한 말 과 글을 지닌 민족이 약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말과글을 지닌 민족이 그 말과글을 박대하고 천대시하여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는(ἢ 1074b38),

어느 경우에 **앎**은 프라그마¹²⁰³일까 한 편으로 생산적인 (**앎**)¹²⁰⁴의 경우에는 질료없는 실체¹²⁰⁵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그 프라그마이며) 다른 한 편으로 이론적인 (**앎**)의 경우에는 로고스 와 **생각**(ἡ νόσις 1075a3)이 그 프라그마이다 그렇다면,

질료¹²⁰⁶를 지니지 **않**을 동일한 것(τὸ αὐτὸ a4)의 경우에는 있는 누우메논(생각되어 있는 것) 과 있는 누우스가(ὄντος τοῦ νοημένου u καὶ τοῦ νοῦ a3-4) 헤태론하지 **않**으며 노에시스(생각)은 그 누우메논(생각되는 것) 과 하나이다 (1074b33-1075a5) ”

따라서,

나타난 것들 중에 그 활동 때문에 가장 신성한 것인 누우스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맥락에 위 인용 글월은 속한다 더불어 이러한 맥락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신(들)** 과 영원한 실

유지 발전 못한 민족이 강한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 열등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수한 말을 발전 유지하지 못하고 열등한 말을 빌려다 쓰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그건 지배 계층 때문이다 거꾸로,

열등한 말과글을 지닌 민족이 우수한 말과글을 빌려다 쓰더라도 사라진다 문제는,

자기 말과글이다 열등한 말과글이더라도 더 우수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1203) 프라그마에 대해서는 31쪽, 369쪽각주413번, 689쪽을 참조하십시오

1204) **앎**의 분류에 대해서는 705-706쪽을 참조하십시오

1205) 그는 질료 없는(ἀνευ) 실체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한다 (337쪽)

1206) 질료에는 감각적인 것 과 생각적인 질료(ἡ νοητή, 1036a9-10, 수학적 인 것, 388쪽)로 나누어진다는 점에 유의하라 질료에 대해서는 297, 349, 334, 351, 612 쪽 등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질료를 지니지 **않**은 것 동일한 것일 것이다 라고 그는 여기서 말한다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42, 72, 124, 226, 278, 302, 416, 628, 754쪽을 참조하십시오

체들 과 이것들의 갯 수에 대해 말하는 맥락에 이어졌었다 그러나,

비록 내 모든 생명인 하나님에 사로잡혀있긴 해도 내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이 시점 에서의 나의 궁극적인 관심은 관사를 지닌 채 주격 명사형으로 쓰여진 에이나이이다¹²⁰⁷⁾이 에이나이는 생각함 과 생각됨에 관련하여 쓰여진다

신성한 것인 누우스는 자신을 *생각한다* [자신이] 가장 뛰어난 것이며 *생각은 생각의 생각*이기 때문이다¹²⁰⁸⁾

[만약] **생각에 그 있음** 과 **생각됨에 그 있음**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함* 과 *생각됨*이 알론하다면 이 둘 중 어떤 측면에서 좋음은¹²⁰⁹⁾ 그(생각)에 속할까 또는,

어느 경우에 *얕은 프라그마*[대상]일까 생산적인 *얕*의 경우에는 질료 없는 실체 와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그 프라그마)이며 이론적인 *얕*의

1207) 이 에이나이는 뒤에 3격형의 명사를 지녔음에 유의하라 나는 에이나이 바로 앞 뒤에 3격이 오는 경우들을 720-752쪽에서 나열하면서 그 쓰임새를 내 나름대로 설명해 보았다

1208) 그러나,

얕 과 *감각* 과 *역견* 과 *디아노이아*(數理力)은 항상 알론한 것의 *얕* 과 *감각* 과 *역견* 과 *디아노이아*이며 어찌다가(ἐν παρέεργω 1074b36) 자신의 *얕* 과 *감각* 과 *역견* 과 *디아노이아*이다

1209) 갑자기 *좋음*(τὸ εὖ 1074b37)이라는 말이 무엇 때문에 튀어 나왔을까 우선,

생각함 과 *생각됨*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좋음*은 *생각함*의 측면에서 [생각]에 속할까 아니면 *생각됨*의 측면에서 [생각에] 속할까 다시말해 *좋음*은 *생각함*에 속하는가 *생각됨*에 속하는가 라는 뜻일게다 다음으로,

우리는 때때로 *좋은* 상태에 있으나 *신*은 *좋은* 상태에 충족하게 항상 있다 라는 760쪽의 말을 이러한 뜻에 붙혀보자 그렇다면,

신의 상태인 *좋음*은 *생각함*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생각됨*에 속하는 것인가 라는 말이 되는데.....

경우에는 로고스 와 생각이 이 프라그마이다 그렇다면,

질료를 지니지 않은 동일한 것의 경우에는 **생각되어 있는 것**(누우메논) 과 있는 누우스가 헤태론하지 않으며 **생각(노에시스)**은 **생각된 것**(누우메논)과 하나이다

생각은 누우스의 활동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¹²¹⁰생각하고 있는 것 과 **생각되어 있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누우스는 생각되는 것 곧 자기 자신 과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고 그에 의해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함에 그 있음 과 **생각됨에 그 있음**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생각하고 있는 것 과 **생각되어 있는 것**은 헤태론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 (항상 충만한) 좋음(에 있는 신성한 것)은 **생각함에 속하는 것**일까 아니면 **생각됨에 속하는 것**일까 아마 텔레스는 이러한 물음은 그 자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다 질료없는 동일한 것의 경우에는 **생각하고 있는 것** 과 **생각되어 있는 것**은 헤태론한 것이 아니며 (οὐ ἕτερον 1075a3) **생각되는 것** 과 누우스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료 없는 동일한 것의 경우에는 **생각함에 그 있음** 과 **생각됨에 그 있음**은 동일할 것이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과 **생각되어 있는 것**은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생각함에 있음** 과 **생각됨에 있음**은 동일하지 않을 것이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과 **생각되어 있는 것**는 다를 것이다¹²¹¹)라고 말할 수 있을까 따라서,

이렇게 관사와 더블은 에이나이(있음) 1격은 **생각함** 과 **생각됨**이 동일한 것이지 헤태론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쓰였다 텔레스에 따르면 **생각함에 있음** 과 **생각됨에 있음**은 동일한다 [만약 헤태론하다면] 이 둘 중 어느 생각에 **좋음**이 속할까 [아마 **좋음**은 **생각함** 과 **생각됨**에

1210) 누우스의 활동이 생명인 것은 확실하다 762쪽을 참조하라

1211)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활동에 있어서는 감각되는 것 과 감각은 동일하다 물론 그 있음에 있어서는 이 둘이 헤태론하긴 해도 말이다 라는 영혼에 관하여 425b25-30(텔레스 노트 46'-82쪽)에 어긋 나지는 않을까....

모두 속할 것이다 그래서,

질료지니지 않는 동일한 것의 경우에는 있는 누우스 와 생각 되어 있는 것(ὄντως 1075a3)헤테론하지 않다 생각(노에시스) 과 생각된 것은 하나이다

관사 붙은 에이나이가 1격은 여기말고도 1051b11(688쪽) 1059b30(689쪽) 1054b16-19(690쪽) 1017a31-b2(692쪽)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제,

14a30(262쪽) 그리고 14b11-12(262쪽)과14b19(263쪽)에서 명사 2격¹²¹²⁾으로 쓰인 관사 붙은 에이나이에 대해 알아보자 앞 맥락에서는 먼저(πρότερον 14a6)가 네 가지로 말하여지는 반면에 뒷 맥락에서는 그 네 가지 이외의 먼저가 말하여진다

“ 둘째로,

그 있음의 순서(κατά την **τού εἶναι** ἀκολουθίαν 14a30)가 뒤 바뀌어지지 않을 (τὸ μὴ ἀντιτρέφον 14a30) [때] (헤테론한 것은 헤테론한 것 보다 먼저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하나는 둘 보다 (있음의 순서에 있어) 먼저(다) 그 하나 있음은 있는 것들 둘에 직접 잇 따르는(ἀκολουθεῖ 14a31) 반면 둘 있음은 있는 것 하나로부터 결코¹²¹³⁾ 잇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머지 [수의] **그 있음의** 순서가 하나와 뒤 바뀌어지지 않는다¹²¹⁴⁾

1212) 명사 2격은 소유(所有)를 나타내거나 또는 분리(分離)를 뜻하는 전치사들과 함께 쓰이거나 또는 주로 수동문(受動文)에서 전치사 ὑπο뒤에 쓰여 능동인(能動人, Agent)을 나타내거나 또는 μετά와 같은 특정한 전치사 뒤에 쓰여 고유한 어떤 뜻을 나타내거나 또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이거나 비교 접속사 ἢ뒤에 쓰여 비교를 나타내거나 또는 종종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며 원천(Source) 나 재료(Material)를 나타내기도한다(문법 노트 격과전치사와접속사 편 47쪽)

1213) οὐκ ἀναγκαῖον (욱 아낭카이온, 14a32) 이라는 말을 부분부정(部分否定)을 뜻하는 반드시....은 아니다 라고 옮겨서는 안될 것 같다 결코.....이 아

.....

이렇듯 먼저 라고 말하여지는 길들이 있다 그러나,

언급되어진 길 이외에도 먼저라고 말하여지는 헤테론한 길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 있음의** 순서가 뒤 바뀌지 않는 어느 (헤테론한) 것들이든(ἁπλοσούν 14b12) 헤테론한 것의 **그 있음의** 원인은 정당하게 (헤테론한 것 보다) 자연에있어 먼저라고 말하여질 것이다

그와 같은 어떤 것¹²¹⁵)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있음 사람 (사람이 있다) 이라는 로고스에 관한 진실[성]은(πρὸς 14b15) **그 있음의** 순서에따라 뒤 바뀌기¹²¹⁶)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니다 라고 옮겨야 할 것 같은데.....만약 반드시 잇따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옮기면 둘 있음이 있는 것 하나에 잇따르는 것을 허용하게 되므로 그 있음의 순서가 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있음의 순서에 있어서 하나가 둘 보다 먼저이지 않게 될 것이다

1214) **그 있음의** 순서(順序)에 있어서 둘 보다 하나는 먼저 라는 말은 그 순서에 있어서 보자면 하나는 둘 보다 먼저 **있다** 라는 말일 것이다 하나는 둘에 직접 연이어져 있지만 둘이 하나에 직접 연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있음의** 순서가 뒤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머지 수의 있음의 순서가 하나와 뒤 바뀌지지 않는다 그 있음의 순서에 있어서는 하나가 다른 수 보다 먼저이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수는 있음의 원인 또는 아르케애가 아닐 것이라는 나의 로고스를 다시 생각해 보라(429쪽)

1215) 있음의 순서가 뒤 바뀌지 않는 모든 헤테론한 것들 가운데 헤테론한 것의 원인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은 헤테론한 것 보다 먼저라는 말이다

1216) 그 로고스의 진실은 있음의 순서에 의존한다 라는 말일 것이다 있음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 헤테론한 것의 원인이 있으므로 그 헤테론한 것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그 로고스는 진실이므로[그렇다 그리고] 뒤 바뀌어도 마찬 가지이다 만약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로고스가 진실이라면 사람이 있으므로 [그렇다] 그런데,

그 로고스[의] 진실[성]은 결코 **그 있음의** 원인 프라그마¹²¹⁷⁾가 아니다 그렇다면 프라그마가 그 로고스[가] 진실[로] **있음의** 원인으로 나타난다 프라그마가 있으므로해서 그 로고스가 진실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हेταρον한 것은 हेταρον한 것과 다섯 가지 길로 먼저 라고 말하여진다 (14a29-35.....14b9-23) ”

있음의 순서가 정해진 그래서 **있음의** 그 순서가 뒤 바뀌어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हेταρον한 것은 हेταρον한 것 보다 먼저(*πρότερον* 14a26)이다 하나는 나머지 수 보다 **그 있음의** 순서에 있어서 **보다 먼저인** 것 처럼 말이다 하나 와 나머지 수들의 있음의 순서가 뒤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음의 순서에 있어서 हेταρον한 것이 हेταρον한 것 보다 먼저 이므로 있음에도 그 순서(*ἀκολουθῆσιν* 14a30)가 있다는 것은 텔레스에 따르면 분명하다 그렇다면,

형이상학 제에타 편 1 장 1028a14에서 첫 번째로 있는 것(*πρώτον* ὄν) 이 실체라고 곧 **가장 먼저**(*πρώτον*) 있는 것이 실체라고 말했다 때 그는 있음의 순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

관련되는 로고스의 진실성이 판 가름나는 것 처럼 말이다

1217) 그 있음의 순서가 뒤 바뀌지 않는 것들의 있음의 원인이 프라그마 라는 말이 아니다 그 있음의 순서가 뒤 바뀌지 않는 हेταρον한 것에 대한 로고스가 진실하게 있음의 원인이 문제의 프라그마 - 여기서는 사람이 있다 라는 프라그마 - 라는 말이다 이러한 프라그마에 대해서는 31쪽을 참조하시오

지금의 맥락에서 내가 급히 집어내고져한 것은 그 있음의 순서가 뒤 바뀌지 않는 हेταρον한 것의 **그 있음의** 원인이지 그러한 프라그마가 아니다

만약 그 **있음의**(τού εἶναι 14a30)순서에 있어서 **보다 먼저**(πρότερον)인 것이 있음에 있어서도 보다 먼저라면 가장 먼저 있는 것 곧 실체는 있음의 그 순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순서에 있음과 있는 것에 있음은 동일할 것 같지 않다 나아가서,

관사를 지닌 에이나이 2격이 쓰여진 맥락이 위와 같다면 그 2격의 문법적인 뜻은 무엇일까 2격은 소유 또는 비교 또는 분리 또는 시간 또는 재원(source)을 뜻한다고 791쪽 각주 1213에서 나는 말했는데 일련의 이러한 문법적인 뜻 가운데 어느 하나에 여기의 2격이 속할까 속한다면 어느 뜻일까 내가 보기에는 소유도 비교도 분리도 시간도 재원(財源)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있음의 순서**(τού εἶναι ἀκολουθῆσθαι 14a30)에서 ‘의’는 무슨 뜻일까.....그냥 있음‘에도’ 순서가 있는데 그러한 순서에 따른 먼저인 것 이라고 읽고 지나가면 안될까.....더불어,

14b19에 나타나는 그 **있음의 원인**(αἴτιος τού εἶναι)이라는 말에 나는 주목하고자한다 물론,

이 말은 어떤 로고스가 진실하게 있는 원인은 프라그마이다 라고 텔레스가 말하는 맥락에서 나타나므로 있음 일반의 원인은 프라그마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 프라그마 때문에 로고스는 진실 또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텔레스에 따르면 있음에도 원인이 있다 또는 있음의 원인이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있음의 원인이라는 말을 이미 나는 693쪽(1041b25-28)에서 문제삼은 적이 있다

소리(모음) 과 소리 아닌 것(자음)이라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음절은 자신의 요소들과 헤태론하다 그렇다면 모음 과 자음이 음절로 **있음의 원인**은(αἴτιον τού εἶναι 1041b26)무엇인가 바로 음절로 있음의 그 원인은 실체이다 이 실체가 **있음의 첫 번째 원인**이다 라고 거기에서 말하여진다 계속해서,

형이상학 람다 편 1080a3에서 나타나는 있음의 원인에 대해 말해 보기로 하자

“ 나아가서,

그것의 실체 와 그것이 분리해 있을 수는 없을 것 처럼 보인다 따라서 프라그마들의 실체들이 *이데아*들이라면 이데아들이 어떻게 (프라그마들과) 분리해(χωρίς 1080a1) 있을까

파이돈¹²¹⁸)에서는 이런 길로 [곧] *에이도스*들은 생성 과 **있음의 원인**들인 (길로) 말하여진다 그렇지만 에이도스들이 이와 같이 있다 손 치더라도 움직임을 일으키는 어떤 것이 있지 않는한(ἄν μὴ ἦ τὸ κινήσιν 1080a4) (있는 에이도스들의) [어떤 것이¹²¹⁹]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에이도스*들은 있지 않다 라고 [이데아론 자들이] 말

1218) 텔레스는 파이돈 이라는 플라톤의 대화편을 그냥 가리킬 뿐이나 이 부분을 옮기면서 로스(897쪽) 와 트레드닉(203쪽)은 파이돈 100d - 100d는 9줄로 이루어진다(Ioannes Burnet, Platonis Opera, 146쪽) - 라고 구체적으로 가리킨다 그런데,

에이도스(종)들 이라는 말은 직접 나타나지 않으나 원인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타나는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에 의해서(τῷ καλῷ 파이돈 100d7)이지 그것들이 화사한 색 또는 모습(σχήμα 100d1) 또는 어떤 다른 그러한 것들을 지니기 때문은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

텔레스는 아마도 ‘아름다움에 의해서’ 라는 말 가운데 ‘아름다움’을 에이도스로 받아 드려서 아름다움 이라는 에이도스가 아름다운 것들의 생성 ([γίγνεται 파이돈 100d8]) 과 **있음의 원인**(αἰτία 파이돈 100c10)이라고 본 것 같다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328, 747쪽을 참조하십시오

1219) 에이도스들이 생성 과 있음의 원인들이라고 파이돈에서 처럼 말하여진다 손 치더라도 만약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 있지 않다면 있는 에이도스로부터 유래(由來)하는 어떤 것이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다

하는 예를들어 집 과 손 가락(δακτύλιος 1080a5) 같은 여러 해태론한 것들이 생성된다 그래서 그것들의 *이데아*들이 있다라고 [이데아론 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언급한 것들과 같은 그러한 원인들을 통해서 있고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데아들에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숙고했던 것들과 같은 여러 가지 [반론(反論)들]을 이런 길에서 그리고 보다 더 논리적이고 정확한 로고스들을 통해서 모을 수 있다 (1079b35-1080a11) ”

이라는 형이상학

뮌헨¹²²⁰5장 끝 부분에 속하는 인용 글월은 이데아 론에 대한 반론이 일시

1220) 수(數)적인 것 과 기하학(幾何學)적인 것 과 이데아들도 실체인가 라는 물음에 아니라 라고 답하면서 수적인 것 과 기하학적인 것 과 이데아에 대해 말하고 있는 형이상학 뮌헨 가운데 10 장으로 이루어진 뮌헨 1장에서는 감각적인 실체들과 *나란히*(*παρά τὰς αἰσθητὰς οὐσίας* 1076a11)있는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것(실체)들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들은 무엇인가 수 와 선 등과 같은 수학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데아들인가 아니면 이 두 가지 모두인가 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그러면서,

수 와 선등 수학적인 것들(*τὰ μαθηματικά* 1077a16)은 몸들 보다 더 실체가 아니며 감각적인 것들 보다 비록 로고스에 있어서는 먼저이긴해도 있음에 있어서는 먼저가 아니고 어디에서 건(*πῶς* 1077b14)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며 감각적인 것들 안에 있을 수 없다 라고 2 장에서 말하여지며

3 장에서는 감각적인 것들의 크기를 감각적인 것 자체로서가 아니라 어떤 규정된 질들을 지니는 것들로서 다루는 수학적인 것들의 *얇음*(*τὰς μαθηματικὰς ἐπιπέδους* 1078a33)이 말하여진다 수학적인 이러한 얇은 아름다움 과 선에 관해(*περὶ καλοῦ ἢ ἀγαθοῦ* 1078a33-34) 아주 많은 것을 말한다 아름다움의 중요한 종들인 질서(*τάξις* 1078b1) 와 균형(*συμμετρία* 1078b1) 과 정의(*ὁρισμένον* 1078b1)에관해 논증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4 장에서는 이데아 그 자체 와 이데아론에 대한 텔레스의 견해가 말하여지며 5 장에서는 감각적인 영원한 것들과 묶여지든 생성 소멸 하는 감각적인 것들과 묶여지든 에이도스들은 이러한 감각적인 것들과 어떻게

적으로 매듭지어지는 맥락에 속한다

이러한 맥락을 이루는 생성 과 그 **있음의** 원인들이 바로 에이도스들이다 라는 로고스에서 관사를 지닌 에이나이(있음)의 2 격 ‘투스 에이나이 (그 있음의)’는 나타난다 그러나,

에이도스들은 생성 과 **있음의** 원인들이다 라는 것이 텔레스의 의견이다 또는 아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성급하다 (플라톤의 대화 편) 파이돈에 따르면 그러하다 라고 그렇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 있지 않는한 어떤 것도 생성되지 않는다 라고 텔레스에 의해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렇다고 하더라도(καίτοι.....ὅμως 1080a3-4) 라는 말은 에이도스들이 생성 과 있음의 원임이라는 것을 자신이 일단 받아 들인다 손 하더라도 말하고 있음에 틀림없으므로 에이도스가 생성 과 있음의 원임이라는 것을 잠정적(暫定的)으로 받아 들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어떤 것이 움직임을 일으키지 않는한 생성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텔레스가 말하고 있다는 것 역시 틀림없으므로 에이도스 뿐 아니라 헤태론

게 묶여지는가(συμβάλλονται 1079a13) 라는 물음과 연관지어진 로고스들이 모아진다 물론 이러한 로고스들은 이데아론에 대한 반론들이다

이러한 5 장의 끝에 내가 인용한 글월이 속한다 다시,

6 장부터 9 장까지는 수학적 것들 과 이데아들이 말하여지며 마지막 10 장에서는 이데아 론자들이 직면하는 어떤 어려움들(τινὰ ἀπορίαν 1086b14)에 대해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모두 6 장으로 이루어진 뒤 편 가운데 3 장부터 마지막 6 장까지에서는 다시 수학적 것들이 말하여지며 2 장에서는 영원한 것들이 요소들(ἐκ στοιχείων 1088b15)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가 조사되어지며 1 장에서는 모든 것들의 아르케에 관한 로고스들이 말하여진다

한 무엇¹²²¹)을 생성[또는 있음]의 원인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있음의** 원인은 에이도스일 것 처럼 보이긴 해도 어떻게 보면 **있음의** 원인은 에이도스가 아닌 것 처럼 보이거나 또는 에이도스 뿐 아니라 에이도스 이외의 어떤 것 곧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 역시 (**있음** 과) 생성의 원인일 것 처럼 보인다 다음으로,

1092b9에 나타난 관사 지닌 에이나이 2 격에 대해 살펴 보면서 있음의 원인에 대해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 보기로 하자

“ 한 편으로,

수들(oi ἀριθμοί, 1092b10, 數들)이 [아래]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길에서 실체들 과 **있음의** 원인들인지가 전혀 규정되지 않았다 먼저,

1221) 자신은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첫 번째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무엇이 바로 헤태론한 이 무엇일 것 같다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보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그 무엇이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일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335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테레스는 에이도스에 의해서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하기 때문이나 이러한 에이도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그는 형이상학 과 범주들 그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 가능성(可能性)이 더 많긴해도 나는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바로 신이다 라고 말하기에 주저한다 형이상학 랍다 편에서는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을 말하는 정점(頂點)에서 테오스(신, 762쪽)이라는 말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실체이며 활동인 영원한 것이다 라는 말(757쪽)이 나타나긴 해도 아직 그는 그 무엇이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망설임은 777쪽 과 784쪽에 그림으로 나타난다

예를들어 점들이 크기들의 (경계)이듯이 [수들은] 경계들로서의 (ὡς ὅροι, b9, 境界) [실체들 과 **있음의** 원인들일까? 이것은] 유뤼토스가 자라는 것들(τῶν φυτῶν b13)의 [결] 모양들을(τὰς μορφὰς b13) 조약 돌[의 모양]에 빛 대는 식으로 예를들어 한 편으로 사람의 이 (ὀδὸν ἰ, b11, 數) 다른 한 편으로 말의 그(數)를 규정한 [방식이다] 세모와 네모의 꼴들(τὰ σχήματα b12)에 수들을 적용한 사람들 처럼 말이다 또는,

수들의 로고스(比率) 또는(ἡ b14) 조화(συμφωνία, b14, 調和)라는 것 때문에 [수들이 실체들 과 있음의 원인들일까?] 그런데 사람 과 알론한 것들 각기 것도 그와 같을까 흰 과 단 과 뜨거운 것과 같은 속성들이(τὰ πάθη b15)어떻게 수들일까 수들은 실체들도 아니요 모양들의 원인들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로고스(비율)는 실체요 수는 질료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그렇게 불의 셋 한 편으로 흙의 둘[이라는 측면에서] 살 과 뼈의 실체는 수이다 그리고 수는 항상 어떤 것들의 곧 불의 또는 흙의 또는 모나드들의 수이다 그러나 그만큼의 것이 그만큼의 것에(πρὸς τοσόνδε b12) 섞어져(κατὰ τὴν μίξεωσ b21) 있는 것이 실체이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수가 아니라 몸들 또는 어떤 다른 것들의 수적으로 섞어진 로고스(λόγος, b24, 比率)이다 그렇다면,

수든 수 전체이든 행하는(τῷ ποιῆσαι b23) 원인들도 아니요 모나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프라그마들의 에이도스도 아니요 로고스도 아니요 질료도 아니다 그러나 위해지는 것으로(ὡς τὸ οὐ ἔνεκα b25) [있는 것도] 아니다¹²²²(1092b8-25) ”

로 끝나는 5 장 끝 부분은 모두 6 장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형이상학 끝 편인 뉘 편¹²²³에 속한다 그런

1222) 범주들의 텔레스에 따르면 수는 로고스 처럼 끊어진 량이다(216쪽)

1223) 모두 6 장으로 이루어진 뉘 편 가운데 3 - 6 장 까지에서는 뉘 편에 이어 다시 수학적인 것들이 말하여진다는 것 그리고 2 장에서는 영원한 것이 요소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가 조사되는 반면 1 장에서는 모든 것들의 아르케에 관한 로고스들이 말하여진다는 것은 이미 796쪽 각주 1221에서 말하여진 바 있다 그런데,

데,

4 장에서는 하나 그 자체가 선 그 자체($\tau\acute{o} \acute{\alpha}\gamma\alpha\theta\acute{o}\nu \alpha\upsilon\tau\acute{o}$, 1091b14, 善 그 自體)와 결부되어 말하여지며 위 인용 글월을 끝에 지니는 5 장에서도 만약 선($\tau\acute{o} \acute{\alpha}\gamma\alpha\theta\acute{o}\nu$, 1092a9, 善)이 아르케들 중의 하나로 상정되지 않는다면 아르케애들 과 첫 번째 실체들이 올바르게 묘사되어질 수 없다 라고 선(善)에 대해 말하면서 5 장을 열어 재끼는 텔레스는,

수들을 있는 것들의 첫 번째 것들($\tau\acute{\alpha} \pi\rho\acute{\omega}\tau\alpha$ 1092a22)이라고 보는 자들이 언급 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그들은 수들이 어떻게($\pi\acute{\omega}\varsigma$ 1092a23) 자신의 아르케애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 말했어야 했으며 그리고 어떤 길로($\acute{o}\pi\omicron\tau\epsilon\rho\omega\varsigma$ 1092b8)수들이 실체들 과 **있음**의 원인들인지를 말했어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 속하는 위 인용 글월에 이어 열려지는 형이상학 마지막 편 마지막 장인 10 권 6 장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 나아가서,

조화들의($\tau\acute{\omega}\nu \acute{\alpha}\rho\mu\omicron\nu\kappa\iota\acute{\omega}\nu$, 1093b22, 調和) 그리고 이런 것들의 원인들은 종적인 수들($\text{o}\acute{\iota} \acute{\epsilon}\nu \tau\omicron\iota\varsigma \acute{\epsilon}\acute{\iota}\delta\epsilon\omicron\nu \acute{\alpha}\rho\iota\theta\mu\omicron\iota$ b21)이 아니다 종적으로 똑 같은 저(종적인 수)들도 차이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모나드들이 (차이나므로) [그렇다] 그래서,

이 때문에 에이도스들($\acute{\epsilon}\acute{\iota}\delta\eta$, b24, 種) 상정[할 필요] 없다 이제,

한 편으로 이것들이 [그 이론의] 결과들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보다 더) 많은 (결과들이) 잇 따를 것이다 [우리의 반대자들이 또는 플라톤 주의 자들이] 그 (수들)의 생성에 있어서 여러 곤란들을 지닌 자는 것 그리고 (그 수들에 관한) 체계를 결코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은 수학적인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처럼 감각적인 것들과 분리($\chi\omega\rho\iota\varsigma\alpha$ b27)되지 않는 다는것 그리고 이(수학적인) 것들은 아르케애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tau\epsilon\kappa\mu\acute{\rho}\iota\omicron\nu$ 1093b25) 처럼 보인다 (1093b21-29) ”

이처럼 종적인 수 또는 이데아적인 수를 거부하는 형이상학 마지막 편

이 인용 글월의 맥락을 짚어 내기 전에 나는

“ (6)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¹²²⁴)에 관해 논의했으므로 수들은 분리된 실체들이고 **있는 것들의(τῶν ὄντων** 1080b14) 첫 번째 원인들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수에 관련된 결과들을 숙고하는 것이 낫다 (1080a12-14) ”

라는 람다 편 6 장 여는 부분을 이끌어 들인다 비록 **있음의** 대신에 **있는 것들의**가 말하여지긴 해도 말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수는 분리된 실체이며 **있는 것들의** 첫 번째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ἀδύνατα 1080b36)¹²²⁵)이러한 맥락에 내가 799쪽에 인용한 글월은 이어진다 비록 그 편(篇)이 다를지라도 말이다

거기에서는 수들을 있는 첫 번째 것들(τὰ πρώτα 1092a22)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수들이 어떻게(πῶς 1092a23) 자신의 아르케애로부터 나오는지 그리고 다음 두 가지 중 어떤 길로(ὁποτέρως 1092b8)수들이 실체들과 **있음의** 원인들인지를 말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은 이데아들은 수도 실체도 아르케애도 아니며 수 역시 모든 것들의 실체도 아르케애도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므로써 끝난다

이데아 비판에 대해서는 471, 796, 731, 729, 640, 540, 518, 496, 492, 486, 471, 428, 395, 333, 295 쪽을 참조하십시오

1224) 이 부분은 람다 편 5 장 끝 부분에 이어지는 람다 편 6 장 시작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795-796쪽에 인용된 글월에 직접 이어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들이란 이데아들(에 관한 반론들)을 가리킬 것이다

1225) 텔레스는 람다 편 6 장에서 어떻게 불 가능한가에 대해 말한다

어찌 됐든 텔레스에 따르면 수는 실체들도 **있음**의 원인도 아니다 따라서,

(그) **있음**의 원인은 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1092b9에 나타난 2 격의 관사를 지닌 에이나이는 쓰인다 이제,

3 격의 관사를 지닌 에이나이(있음)에 대해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으나 이 3 격 대신에 - 물론 1077b13(803쪽)에서는 이 3격 관사를 지닌 에이나이가 있긴하다 - 에이나이 앞 뒤의 명사 3 격이 아주 빈번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명사 3 격에 대해서는 이미 720 - 751쪽에서 말하여졌다 마찬가지로,

4 격의 관사를 지닌 에이나이 역시 내 눈에 별로 띄이지 않았다 나아가서,

629쪽에 나타난 것 처럼 계사(繫辭)로 쓰인 경우 그리고 술어(術語)로 쓰였으나 생략된 경우도 여러 곳에서 자주 눈에 뜨인 것 같았으나 나는 그냥 지나쳤으며 여기에 그 쓰임새를 모아 둘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했다

있음 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프라그마를 나는 찾아 헤메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텔레스의 에이나이(εἶναι, 있음)를 떠나 텔레스의 온(ὄν, 있는 [것])을 향해 닦아서 보자 먼저,

있는 것은 있음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범주라고도 진실이라고도 힘 또는 현실이라고도 있음 과 있는 것은 말하여진다는 것은 이미 691 쪽에서 있음에 대해 말할 때 언급됐다 아울러,

형이상학 뒤 편 2 장 끝에서는 **있음**은 여러 가지로(πολλὰχῶς 1077b17)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여진다

“ 그렇다면,

수학적인 것들은 몸들 보다 더 많이(μᾶλλον 1077b12) 실체인 것은 아니며 그리고 **있음에 있어서(τῷ εἶναι b13)¹²²⁶** 감각적인 것들 보다 먼저인 것이 아니라 단지 로고스에 있어서만 (보다 먼저이고) (그리고) 어디서건 [감각적인 것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말하여졌다 그런데,

그 (수학적인) 것들이 감각적인 것들안에 있을 수는 없으므로 (그 수학적인 것) 전체가 (ὅλως b15) 있지 않든지 또는 어떤 길에서 있든지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때문에 순수하게(ἀολῶς 1077b16)있지는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있음은 여러 가지로¹²²⁷**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1077b12 - b17) ”

있음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에 수 역시 비록 순수하게 있지 않아서 감각적인 것들과 분리해 있지는 못하더라도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고 이 인용 글월¹²²⁸에서 텔레스는 말한다 있음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있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λέγεται¹²²⁹) 1028a10) 라고 말하

1226) 있음에 있어서는 어떠 어떠 하지만 로고스에 있어서는 어떠 어떠 하다 라는 식의 로고스에 대해서는 704 - 717 쪽을 참조하십시오

1227) **여러 가지로(πολλαχῶς 1077b17) 말하여진다** 라는 말은 그의 형이상학에서 심심치 않게 특히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쓰여진 말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델타 편에서 나타난다 먼저,

있음 과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그리고,

아르케에 원인 요소 자연 필연 아나 실체 동일 차이 같음 대립 먼저 나중 힘 량 질 관계 목적 ~에따라 배열 관습 속성 결여 지니다 안에있음 부분 전체 모든 잘림 류 거짓 우연등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어떠한 이름을 지녔건 지니지 않았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1228) 이 인용 글월에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796-797쪽을 참조하십시오

여짐으로서 제에타 편 1 장은 시작한다

“ (1장)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앞서 그 여러 길에 관한(περι του ποσώς¹²³⁰) 1028a11)우리의 책에서 지적된 것 처럼[말이다] 한 편으로 있는 그 무엇 과 이것(τόδε τι a12)이 다른 한 편으로 질 또는 량 또는 이런 알론한 범주들 각각을 (있는 것은) 가리킨다 그런데,

이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는 것 가운데서도 **첫 번째 있는 것(πρώτον ὄν a14)**이 있는 그 무엇(τὸ τι ἐστίν¹²³¹) a14)이며

1229)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 255c14(124쪽)에 나오는 말하여진다(λέγεσθαι)를 참조하시오

1230) 287쪽 각주 274번을 참조하시오

1231) 그런데 307쪽을 참조해 보라

여기서는 실체에 순수하게 한 가지로 속하는 것은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τὸ τι ἦν εἶναι 1030a29)이지 있는 그 무엇(τὸ τι ἐστίν 1030a31)은 아니라고 말하여진다는 점에 유의하라 있는 그 무엇은 순수하게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질 또는 량 등에 있어오고 있는 무엇이며 있는 그 무엇은 한 가지로 순수하게 실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는 알론하게 실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체를 가리키는 바로 첫 번째 있는 그것이 있는 그 무엇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아직 여기서는 한 가지로 순수한 실체로서의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문제 삼아지는 것 보다는 한 가지로 순수한 실체는 비록 아니지만 어찌든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것으로서의 있는 그 무엇이 문제 삼아진다고 볼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있어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질 또는 량 등에 [또는 질 또는 량 등으로서]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여기서 문제 삼아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실체들**(τὴν οὐσίαν a15) 가리키는 그것이
다 (1028a10-15) ” 그렇다면,

있는 그 무엇 과 이것이라고도 질이라고도 량이라고도 또는 알론한
이러한 범주들이라고도 말하여지므로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텔레스는 이 인용 글월에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있음**은 범주와 떨어져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690쪽의
로고스를 덧붙혀 보라

만약 **있음** 과 **있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있는 것은** 이
것 과 질 과 량 등등의 범주와 헤태론한 어떤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
으리라 다시 말해 **있음** 또는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며 질이며 량 등이지
이러한 범주들과 떨어져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¹²³²⁾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있는 있는 것(τὸ ὄν ἢ ὄν 1003a21)을 다루는 앞의 연관되는 것(하나)
는 실체라는 것이 말하여지면서 앞의 아르케아가 논증되는 감마 편 2 장 역
시 제에타 편 1 장 처럼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시작된다

“ (2)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그러나,

하나에(πρὸς ἓν 1003a33) 그리고 하나인 어떤 자연(φύσιν a33)
에 관련하여 (있는 것은 말하여진다) 그러나 *호모오누모오스하케*²³³⁾

1232) 아마,

질 과 량 등의 범주 역시 예를들어 빨간 이것 과 한 뺨의 이 물고기
등과 떨어져 분리된 것이라고 그에 의하면 말할 수 없으리라

1233) ὁμωνύμως (호모오누모오스, 1003a34, 同音異義語적으로) 라는 말은 텔
레스의 에이나이(있음) 또는 온(있는)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한 말들 가운데
하나이다

가 아니라 건강한 모든 것이 건강에 관련하여 (말하여지듯 말하여진다)

다른 한 편으로 건강을 보존하기에 한 편으로 건강을 생산하기에 한 편으로 건강의 징후(τῷ σημεῖον, 1003a36, 徵候)이기에 한 편으로 건강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어떤 것은 건강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마찬가지로,

치료적인 것은 치료기교에 관련한다 한 편으로 치료기교를 지니기에 다른 한 편으로 그(치료 기교)에 적용되기에(τῷ εὐφρυνεῖς 1003b2-3) 다른 한 편으로 치료 기교의 에르곤[작용 또는 활동]이기에 (어떤 것은 치료적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길에서 알론한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나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는) 모든 것 각각(ἅπαν b6)는 하나의 아르케에¹²³⁴)에 관련한다

한 편으로 실체들로 **있는 것들**이라 말하여지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실체의 속성들(πάθη b7)로 다른 한 편으로 실체로의(εἰς οὐσία v b7)과정(ὁδός, b7, 길)으로 있는 것들이기에 [다시 말해] 실체의 또는 실체에 관련된 것들의 소멸 또는 결여 또는 질 또는 생산 또는 생성(으로 있는 것들이기에) 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의 또는 실체의 부정(ἀποφάσις, b10, 否定)(으로 있는 것들이기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여진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있지 않는 것**(τὸ μὴ ὄν¹²³⁵) b10) 이라고

내가 타 메타 타 퀴지카로 나아가는 길목(29쪽)으로 보았던 카테에고리아이가 호모오뉴마(ὁμώνυμα, 1a1, 同音異義語)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175쪽에서 말하여졌다 거기에서는 공통의 이름을 지니지만 그 이름에 상응하는 실체의 로고스가 헤태론한 것들이 호모오뉴마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1234) 알려지겠지만 그는 여기서 실체를 말하고 있다

1235) 642쪽의 그림에 나타난 있지 않는 것 이외에는 별로 텔레스가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소피스테이스 와 파르메니테이스에서 플라톤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렇다면,

건강한 모든 것을 다루는 앎 하나가 있듯이 (건강 이외의) 알론한 것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에 *따라서*(καθ' ἑν¹²³⁶) 1003b12-13) 말하여지는 것들을 이론화하는(θεωρήσαι b13) 앎(ἐπιστήμη c b13)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에 *관련되어*(πρὸς μίαν¹²³⁶ b14) 말하여지는 것들을 (이론화하는 앎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렇게 관련된) 것들 역시 어떤 길에서는 하나에 따라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이제,

있는 있는 것들을(τὰ ὄντα.....ἢ ὄντα b15-16) 이론화하는(앎 하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앎은 주로 첫 번째 것을 다룬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이(첫 번째) 것에(ἐξ b16) 들러 붙어 [있으며](ἤρτηται b17) (이 첫 번째 것을) 통해(δι' ὅ, b16) 말하여진다

만약 이 (첫 번째) 것이 실체라면 그 실체들로부터(τῶν οὐσῶν ἄ v b18) 철학자는 반드시 그 아르케애들 과 그 원인들을 지녀야할 것이다 (1003a33 - 1003b19) ”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시작되긴해도 감마 편 2 장은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인 어떤 것에 관련되면서 그렇게 말하여진다 라고 바로 뒤 이어 말한다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것은 어떤 것 하나에 관련되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바로 이 하나가 실체요 첫 번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여지는 것은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관련되어 건강한 것들이 말하여지는 것과 같다

이 말하는 것에 비교해서 **뿐 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렇다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642, 666, 544, 483쪽을 참조하시오
1236) 하나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에 관련하여(대해) 라는 말은 308쪽 (1030b8)에서도 나타난다

건강을 보존하기에 또는 건강을 생산하기에 또는 건강의 징후이기에 또는 건강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어떤 것들은 건강하다고 말하여지며 치료 기교를 지니기에 또는 치료 기교에 적용되기에 또는 치료 기교의 에르곤이기에 어떤 것들은 치료적이다 라고 말하여지듯이 *아르케 하나*에 관련되기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다**¹²³⁷⁾ 라고 말하여진다

실체들이기에 또는 실체의 속성들이기에 또는 실체로의 길(과정)¹²³⁸⁾ 이기에 또는 이런 것(길)들의 부정(否定)이기에¹²³⁹⁾ [모든 것들은] 있는 것이라 말하여진다

모든 것은 첫 번째 것에 들러 붙어 있으며 이 첫 번째 것을 통해 말하여진다¹²⁴⁰⁾ 따라서,

그에 따르면 첫 번째 **있는** 것 곧 실체 그리고 실체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실체에 관련되기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지며 이렇게 말하여지는 **있는** 모든 것은 *호모오우/모오스*하게 (同音異議語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1237) 첫 번째 실체가 있지 않다면 알론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라는 169쪽을 참조하십시오

1238) 실체의 또는 실체에 관련된 것들의 소멸 또는 결여 또는 질 또는 생산 또는 생성 등의 길을 말한다

1239) 그러기에 우리는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한다

1240) 그리고 얇은 주로 첫 번째 것을 다룬다

텔레스는 여기서 건강한 모든 것들의 첫 번째 것으로 건강을 들고 있는 것 같다

건강한 모든 것을 다루는 *얇* 하나가 있다 하나에 따라서 말하여지는 것들을 이론화하는 *얇*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에 관련되어져 말하여지는 것들을 이론화하는 *얇*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자연에 관련되어져 말하여지는 그러한 것들은 심지어 어떤 길에서는 그 하나에 따라서 말하여진다 **있는** **있는** 것들을 이론화하는 *얇*도 마찬가지이다

있는 모든 것은 어떤 길(방식)으로 말해져야할까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라고 주로 옮겨지는 *ὁμώνυμα* (*호모오누마* 1a1)가 무엇인지를 비롯 이미 175-176쪽에서 말하여졌지만 다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나에게 지금 있다

텔레스의 카테아고리아이(범주들)은 *호모오누마* 라는 말과 더불어 열려진다

“ (1) 자신들의(ὄν 1a1) 이름 만을 공통(ὄνομα μόνον κοινόν a1)[으로 지닐 뿐] [자신들의] 실체의 그 이름에 따른(κατὰ, a1, 걸리는, 관련되는) 로고스는 헤태론한 것들이 *호모오누마*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사람 과 [사람의] 그림(τὸ γεγραμμένον a3) [의 공통 이름인] 생물 처럼 [말이다] 이것들(사람과 그림)의 이름 만이 공통일 뿐 [사람 과 그림의] 실체의 그 이름에 따르는 로고스는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이(사람 과 사람의 그림)것들 각각 생물에 **있는**¹²⁴¹⁾ 것은 무엇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공표(ἀποδιδῶ, a5, 公表)한다면 각기 것에 고유한(ἴδιον a5)로고스가 공표될 것이다 (카테아고리아이, 1a1-1a5) ”

라

는 인용 글월에서 그에 의해 *호모오누마*(同音異義語)의 보기들로 들어지는 것은 사람 과 [그 사람의] 그림이다 사람 과 그림(초상화(肖像畫))은 자신들에게 공통인 생물 이라는 이름을 지니긴해도 생물인 자신들 각각에 **있는** 무엇의 로고스 곧 자신들의 실체의 로고스는 서로에게 헤태론하다 텔레스에 따르면,

사람 과 그림 같은 이러한 것들이 *호모오누모스*하게 (다시 말해 같은 이름으로) 말하여지는 것들이다 사람 과 초상화(肖像畫, 사람의 그림)은 생물이라는 공통의 또는 *같은(ὁμοῦ) 이름(ὄνομα)*을 지니긴하나 사람의 그리고

1241) 이러한 쓰임새에 대해서는 720쪽 이하를 참조하시오 나는 여기서 에이나이(있음)를 있는 것(온)으로 대신 옮겼다

그림의 **실체**의 로고스는 곧 사람에 그리고 그림에 있(어오고 있)¹²⁴²)는 그 무엇이 로고스는 헤태론한 것들이다 나아가서,

호모오누마 라는 말은 1035b25(제애타 편 10장, 383쪽) 과 1006b19(감마 편 3장, 698쪽)에서도 나타난다 이 두 부분을 차례로 옮겨보자

“ 몸 과 이(몸)의 부분들은 실체의 그것들(부분들) 보다 [더] **늦다** 그리고 질료 로서의 여러 부분들로 나뉘어지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합쳐진 전체이다 한 편으로 이 (여러 부분)들은 합쳐진 전체 보다 [더] **먼저**이나 다른 한 편으로는 그렇지 않다 [전체와] 분리된다면 그 부분들은 심지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생물의 손가락이라고 해서 모두 [손가락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죽은 손가락은 단지 호모오누모스하게 만 [손가락이다] (1035b20-25) ”

“ 시작하면서 말하여졌 듯이 이름은 어떤 것을 가리키며 그리고 하나를 가리킨다고 해 보자 사람에 있음은 사람에 있지 않음을 가리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에 따르는(καθ' ἑνός 1006b14-15)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가리킨다면 말이다 하나가 하나에 따르는 것을 가리킨다 라는 공리(ἀξιούμεν 1006b15) 우리는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공리에 근거한다]면 음악 과 힘 과 사람은 하나를 가리킬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일 것이다¹²⁴³) 쉬노한 이름(συνώνυμα¹²⁴⁴) 1006b18)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들은

1242) 743, 307, 804쪽 참조하십시오

1243) 모든 것이 하나라는 로고스를 그가 거부한다는 것은 이미 395쪽에서 말하여졌다

1244) 누노오누마(동음동의어(同音同意語)) 와 호오모누마(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에 대해서는 범주들 175-176쪽을 보라 그리고,

죽은 손가락은 호모오누모스하게만 손가락이다 라고 말하는 383 쪽을 참조하십시오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처럼 *호모오한 이름(ὁμοωνυμίαν*¹⁰⁵³ 1006b19)을 제외하면 말이다 (1006b11-1006b20) ”

앞 인용 글월(제애타 편 10 장)에서는 질료 또는 몸의 여러 부분들은 합쳐진 그 전체 보다 한 편으로는 먼저이나 다른 한 편으로는 먼저이지 않다 왜냐하면 분리될 경우 그 부분들은 심지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리고 생물의 손가락이라고 해서 모두 손가락은 아니기 때문이다 죽은 손가락은 단지 *호모오누모오스*하게만 손가락일 뿐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에,

뒤 인용 글월(감마 편 3 장)에서는 마치 우리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처럼 *호모오한 이름*을 제외하면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 두 곳은 일맥 상통(一脈相通)한다 앞에서는 (산) 손가락 과 (죽은) 손가락은 *호모오한 이름들*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뒤에서는 [산 또는] 있는 사람 과 [죽은 또는 있지 않는] 사람이 *호모오한 이름*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¹²⁴⁵ 나아가서,

형이상학 겐과 편 3 장(1060b33)에서도 *호모오누모오스* 라는 말이 나타난다

“ (3) 철학자의 앎은 **있는 있는 것(τού ὄντος ἢ ὄν 1060b31)**
을 전체로 [다루지] 부분으로 [다루지] 앎으며 한 편으로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것이지 단지] 하나의 길에 따라서 [만] 말하

1245) 물론 그 맥락은 조금씩 다르다 앞의 것은 부분이 전체 보다 먼저이지 않는 경우의 보기인 반면 뒤의 것은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경우 - 물론 그럴 수는 없다 -의 경우의 보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 역시 조금씩 서로 통하기는한다 두 경우 그 보기들의 동일성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공통적인 어떤 것에 따라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호모오뤼모오스하게* [만] (말하여진다)면 어떤 앎도 있지 않다 - (*호모오뤼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은 하나의 류($\epsilon \nu \nu \epsilon \nu \sigma$ b34)[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통인 어떤 것에 따라 말하여진다면 앎 하나가 있을 것이다 (1060b31-36)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호모오뤼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은 동일한 류에 속하는 것들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하여지는 것들에서는 결코 공통적인 것이 말하여지지 않으므로 그러한 것들에 관한 앎은 있지 않다 앎 하나는 공통적인 어떤 것이 말하여질 때 비로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는 것이 만약 *호모오뤼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이어서 있는 것(들)에 공통적인($\kappa \omicron \nu \nu \delta \nu$ 1060b34) 것이 하나도 있지 않다면 있는 것에 관한 앎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있는 있는 것에 관한 앎이 하나있다(706쪽) 그것이 바로 철학이요 지혜이다 따라서,

있는 것은 *호모오뤼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또,

제에타 편 4 장 끝나가는 부분인 1030a31 이하에서도 *호모오뤼모오스하게* 라는 말이 나타난다

“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tau \acute{o} \tau \acute{i} \tilde{\eta} \nu \epsilon \dot{\iota} \nu \alpha \iota$ 1030a29)은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한 가지로($\acute{o} \mu \iota \omicron \iota \omega \varsigma$ a29) 실체에 속하며 그 다음으로 알려진 것들에 속한다 있는 그 무엇($\tau \acute{o} \tau \acute{i} \acute{\epsilon} \varsigma \tau \nu$ a31)은 순수하게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질 또는 량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듯 말이다 왜냐하면,

이것들¹²⁴⁶은 반드시 *호모오뤼모오스하게* 말해질[때]($\phi \acute{\alpha} \nu \alpha \iota$

1246) 이것들은 실체 이외의 범주들 또는 실체 이외의 범주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들 다시 말해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들이 아니라 있는 그 무엇들이지 실체 또는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들은 아니다 그렇다면,

a32) **있는 것들**이거나(εἶναι ὄντα b32)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알려진다 라고 (말할 때) 처럼 [있는 것들을] 덧 붙히고 빼내어(προστιθέντας καὶ ἀφαιρούντας a33)말해야만하는 그런 것들이 때문이다 [있는 것들을 말하는] 올바른 것(길)은 *호모오뤼모오스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요 *동일하게(ὡσαύτως*¹²⁴⁷⁾ a35)말하는 것도 아니라 치료적인 것을 [문제의] 그 [하나]와 (τῷ a35) *동일한 것(τὸ αὐτὸ καὶ ἐν* 1030b1) 이라고 나아가서는 *호모오뤼모오스한 [것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동일한 그(하나)에 관련해(πρὸς 1030a35)(치료적인 것을 말하는 길)이므로 [그렇다] *호모오뤼모오스하게* 또는 *하나에 따라서(καθ' ἐν*¹²⁴⁸ 1030b3)가 아니라 **하나에 관련하여(πρὸς ἐν**¹²⁴⁸⁾ b3) 치료적인 것은 몸이요 에르곤(활동)이요 도구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모오뤼모오스하게* 그리고 *하나에 따라서* 말하는) 이 두 가지 [길 또는 방식] 가운데 어느 것으로 말하든 차이 없다¹²⁴⁹⁾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ἀπλῶς b5) **실체**들의 정의요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1030a29 - 1030b6) ”

라는 인용 글월¹²⁵⁰⁾을 나

실체 이외의 범주들로 있는 것들은 호모오뤼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는데.....어쨌든,

바로 여기서 영혼에 관하여 429b10에 나오는 εἶναι(있음) 과 ἐστὶ (그가있다) 사이의 구분을 눈 여겨 보라 아마 무슨 연관이 있을 법도하다 (히스의 주석 486쪽 과 315쪽 참조)

1247) 로스는 자신의 주석 171쪽 35번에서 호오사우토오스를 쉬노오뤼모오스(συνωνύμως, 同音同意語的으로)라고 옮긴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지.....일단 나 역시 그렇게 옮길 수 있다고 보련다..... 호오사우토오스 라는 말은 177, 824, 816쪽에서도 나타난다

1248) 하나에 따라서 와 하나에 관련하여 라는 말은 807쪽 과 308쪽에서도 거론된다

1249)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길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없다

는 좀 심각하게 숙고하려한다 실체 이외의 **있는** 것들은 반드시 *호모뮬모오스하게* 말하여져야만 하나 실체로 **있는** 것들은 *호모오뮬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¹²⁵¹⁾ 우선,

이 글월에서는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은 (곧 본질은)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한 가지로 실체에 속한다(ὁπάρξει 1030a29)라고 말하여지면서 이 무엇이 ‘있는 그 무엇’과 구분된다 ‘있는 그 무엇’은 질 또는 량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지 순수하게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왜냐하면(γὰρ 1030a32)[나아가서],

질 또는 량에 있어오는 그 무엇들은 반드시 *호모오뮬모오스하게* 말해져야만 하는 그러한 있는 것들이¹²⁵²⁾기 때문이다 본다,

1250) 이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을 살펴 보려면 307 - 308쪽 전후를 보시오

1251) 이러한 로고스는 나에게 심각하다 어찌 됐건,

실체라는 범주이든 실체 아닌 범주이든 범주라는 점에서는 실체건 실체 아닌 것이건 같으며 범주는 우연히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있는** 것들이라고 그에 의해서 691쪽에서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 인용 글월 그대로 받아드린다면 실체로 **있는** 것들을 말하는 길 과 실체 이외의 것(범주)으로 있는 것들을 말하는 길은 헤테론해야만 할 것이다 (실체 이외의) 이(범주들에 곧 량 또는 질 등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들)은 반드시 *호모오뮬모오스하게* 말해져야하나 [실로] (**있는** 것들)은 *호모오뮬모오스하게* 또는 *동일하게*가 아니라 *하나에 관련하여* 말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라고 그는 선명하게 말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자체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는 길(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말하느냐에 따라 말하는 그 길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순수하게 **있는** 것은 *호모오뮬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반드시 *호모오뮬모오스하게* 말해져야한다는 것인데.....

1252) 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알려진다 라고 말할 때 처럼 **있음**을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τὸ ὀρθόν 1030a34)말하려면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해서도 안되고 동일하게(ὡσαύτως 1030a35) 말해서도 안되므로 [그렇다] 오히려 (치료 (ιατρικὴν, 1003b2, 治療, 806쪽))와 동일한 것이라고도 나아가서는 호모오뉘모오스하게도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제(τὸ ἰατρικόν, 1030a35, 治療劑)는 치료에 관련하여 말하여지듯이 **있는** 것들은 말하여져야 한다 예를들어 몸 과 에르곤 과 도구는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또는 하나에 따라서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곧 치료)¹²⁵³에 관련하여 치료제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있는 것들은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또는 호오사우토오스하게(동일하게)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르케에) 하나에 곧 실체에 관련하여 말하여진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그러나 질 또는 량 등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든 반드시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진다 라는 로고스를 문제의 인용 글월에서 빼내어 올 수 있으리라 또,

텔레스는 자연적인 생성을 호모오뉘모오스한 것들로 부터의 생성이라고 제에타 편 9 장 1034a22에서 말한다

“ 말하여진 것들로부터 자연적인 (생성)들 처럼 (기교적인) 모든 것(생성)은 예를들어 집이 집으로부터 (생성되는 것 처럼) 어떻게 보면 호모오뉘마한 것으로부터(ἐξ ὁμωνύμου 1034a23) 또는 호모오뉘마한 부분으로부터 또는 - 기교는 에이도스이므로 - 누우스에 의해서 또는 부분을 지니는 것은 우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으로부터 생성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생산의(τοῦ ποιείν a26) 첫 번째 원인은 부분 그 자체(καθ' αὐτὸ a26)이기 때문이다 열은 움직임에 의해서 몸 안에서 생산되는 열인데 그 (열)이 건강이거나 또는 (건강의) 부분이며 또는 그(열)에 건강의 부분인 것이 잇따르거나 또는 그(열)이 건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강에 잇따르는 마찬가지로 우연

덧 붙히고 빼내어 말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다

1253) 있는 모든 각각은 하나의 아르케에 곧 실체에 관련하여 말하여진다는 것은 이미 806쪽에서 말하여졌다

히 잇따르기도 하는 열이 그 건강을 생산한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추리에 있어서(ἐν τοῖς συλλογισμοῖς, 1034a31, 三段論法)처럼 실체는 모든 것들의 아르케에이다 - 추리들은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 생성들[도] (있는) 그 (무엇)로부터 [시작한다]

자연스레 형성된 것들(τὰ συνιστάμενα 1034a33)도 그와 같다 씨는 기교로부터 (생산하는) 것들 처럼 생산하기 때문이다 씨는 에이도스를 힘(잠재적)으로 지니며 그리고 씨가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후손과] 호모오뉘마하므로 [그렇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반드시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니다 - 남자로부터 여자가 (오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노새는 노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불구가 아닌 경우에도 말이다(1034a21 - 1034b4) ”¹²⁵⁴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기교적인 생성이 호모오뉘모스한 것들로부터의 또는 호모오뉘마한 부분으로부터의 생성 과 누우스에 의한 생성 과 자신의 부분으로부터의 생성으로 나뉘어지면서 자연 생성 역시(ὡπερ 1034a23) 호모오뉘모스한 것들로부터의 생성이라고 말하여진다 씨는 기교로부터의 [자동(ἀπὸ ταῦτομάτου 1034a10)] 생산 처럼 생산되기 때문이다

에이도스를 힘(잠재적)으로 지니는 씨가 그것으로부터 바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호모오뉘모스하므로 그렇다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불구가 아닌(ἐὰν μὴ 1034b3-4) 모든 것(자연 생성)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노새는 노새로부터 오지 않으며 여자는 남자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노새 와 여자와 같은 그의 보기는 호모오뉘마(같은이름)한 경우의 탁월한 보기이다 노새의 씨를 통해 노새가 노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같지 아니한 말 과 당나귀로부터 이 둘과도 역시 이름이 같지 아니한(호모

1254) 이 인용 글월의 맥락에 대해서는 356 쪽 앞 뒤를 보시오

오뉘마하지 않은) 노새가 오며 자신과 이름이 같지 아니한 남자로부터 여자가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남자)은 사람(남자)으로부터 생성된다 말로부터 말이 생성될 것처럼 말이다 사람① 과 사람② 그리고 말③ 과 말④는 각기 서로 같은 이름(호모오뉘마)이다 그렇다면,

175쪽 또는 809쪽에 따라서,

사람①의 실체의 로고스 와 사람②의 실체의 로고스 그리고 말③의 실체의 로고스 와 말④의 실체의 로고스는 각각 헤태론해야할 것이다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공통으로 지니긴해도 자신들의 실체의 로고스는 헤태론한 것이라고 175쪽 또는 809쪽에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①의 실체의 로고스 와 사람②의 실체의 로고스가 과연 헤태론할까 335쪽 과 439쪽에 따르면 사람①의 실체의 로고스 곧 사람①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 곧 사람①의 에이도스의 로고스(정의)는 예를들어 두발 생물이며 사람②의 실체의 로고스 역시 두발 생물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166쪽에서 처럼 만약 (첫 번째) 실체가 에이도스(사람) 보다는 사람인 것(각기 사람)이라면 아마 그 로고스가 다를 것 같긴하다 그러나 실로 그럴까 어쨌든,

자연 생성은 호모오뉘마한 것들 또는 호모오뉘마한 부분으로부터 일어나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며 호모오뉘마한(같은 이름인) 것들은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의 에이도스들이라는 것을 위 인용 글월에서 뽑아낼 수 있다 또,

형이상학 테에타 편 1 장 1046a6에서 그는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지는 힘들을 무시하면서 힘에 관한 자신의 로고스를 이어간다

“ 힘 과 힘 있어짐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알론한 곳에서 우리에게 규정되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호모오뉘모스(ὁμοώνυμο

ς 1046a6)하게 말하여지는 모든 힘들은 [여기서 우리에게] 무시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호모오테이스한 어떤 것에(τῷ a8) 있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있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모오테이스한 어떤 것에 있거나 또는 있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기하학에서 처럼 말하면서 우리는 호모오테이스한 어떤 것(힘)에(ἐν τῷ ὁμοίότητι τινὶ a7)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1046a5 - 1046a9) ”¹²⁵⁵⁾

라는 인용 글월을 통해 힘에 대한 속고를 열어 재끼면서 텔레스는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힘들 가운데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지는 힘에 대한 속고를 일부러 빠트린다 812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에 대한 앎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마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γὰρ (가르, 1046a7, 왜냐하면....때문이다)에 의해 이끌려지는 로고스에서 나에게 는 애매하지만 그 원인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지는 힘을 그가 무시한 원인은 기하학에서 처럼 호모오테이스한(같은) 어떤 것에 [그러한 힘이] 있을 수 있거나 있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보면 있을 수 없거나 있지 않을 수도 없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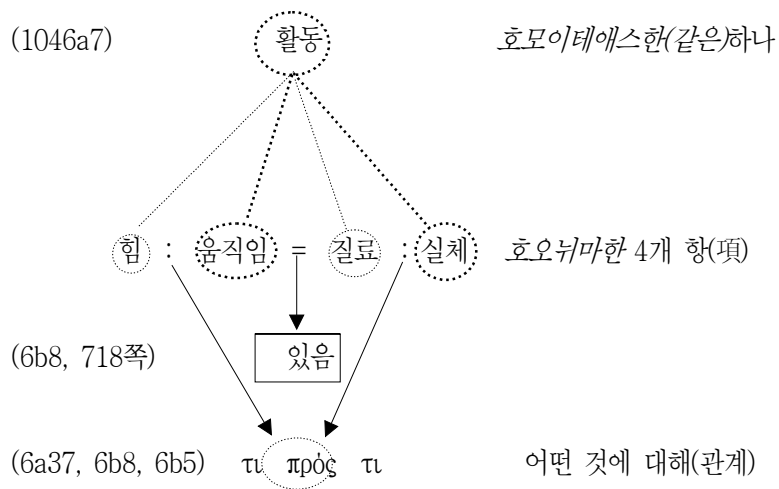
문제 - 이 문제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텔레스의 로고스가 지니는 문제가 아니다 -는 텔레스가 여기에 기하학(ἐν γεωμετρία 1046a8)을 이끌어드린다는데 있다 ‘ 자신들 사이의 어떤 관계의 현재 와 부재에 의해서 어떤 것은 다른 것의 힘이고 힘이지 않다 라고 기하학에 있어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 처럼 어떤 것(힘)들은 유비에 의해서(by analogy, 類比) 그렇게 (쉬모오뉘모스하게) 불리워지기 때문이다 (로스 820) ’ 라고 로스는 옮긴다

여기서 테레스가 만약 유비적으로¹²⁵⁶⁾말하여지는 힘을 염두에 두고

1255) 이 인용 글월의 맥락을 살펴 보려면 547쪽 앞 뒤를 보시오 그리고 547쪽에 나온 알론한 옮김도 유의해서 살펴 보시오

1256) κατ' ἀναλογίαν (1062b32, 431쪽 ; 1040b7, 600쪽) 과 595쪽을 참조하

있다면 같은(호모이테이스, *ὁμοιότης*, 1046a7) 것(류, 이름) 하나를 공통으로 각기 지닐 것이지만 각기 실체의 로고스들은 헤태론할 A : B = C : D 라는 4 항의 비례유비(比例類比)를 말하고 있을 것이다 596쪽에 나왔듯이 활동(에네르게이아, 공통의 같은(호모이테이스한) 류 이름)은 힘에 대해(*πρὸς* 1048b8) 움직임으로 있듯이 질료에 대해 실체로 있는 것 처럼 말이다 이것을 다음 처럼 그려 볼 수 있으리라 이 그림을 파르메니데이스의 12쪽의 그림에 이어보며 살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제,
지금 까지 말해져온 호모유비에 대한 것들을 모아 보자

- 1) **있는** 것은 호모유비모오스하게 말하여지지 않는다
- 2) 호모유비한 것들] -예를들어 사람 과 그림-은 자신들에 공통(*κοινόν*, 범주들 1a1)인 이름 -예를들어 생물- 만을 지닐 뿐 자신들의 실체의 로고스는 헤태론한 것들이다 그래서 사람 생물에 있는 것의 로고스 와 그림 생물에 있는 것의 로고스는 헤태론하다
- 3) 죽은 자의 손가락은 단지 호모유비모오스하게만 손가락일 뿐이다

시오

- 4) 호모오한 이름을 제외하면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 5)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에는 어떠한 공통적인(koivòv¹²⁵⁷) 1060b34 것도 있지 않다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은 하나의 류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진다면 어떤 앎도 있지 않을 것이다
- 6) 있는 것들은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또는 호오사우토오스하게(동일하게)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르케에) 하나에 곧 실체에 관련하여 말하여진다 그러나 질 또는 량 등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반드시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진다
- 7) 자연 생성은 호모오뉘마한 것들 또는 호모오뉘마한 부분으로부터 일어나나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며¹²⁵⁸ 호모오뉘마한(같은 이름인) 것들은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의 에이도스들이 다
- 8) 텔레스는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힘에 대해서는 숙고하지

1257) 공통(코이논)이 어디에 걸리는 가 가 애매하다 물론 문제의 로고스만을 떼어 놓고 보면 걸리는 것이 선명하다 그러나 범주들 1a1의 공통적인 것과 형이상학 1060b34의 공통적인 것에 각기 걸리는 것들이 서로 어긋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범주들에 따르면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은 자신들에 공통인 이름을 지니는 반면 형이상학에 따르면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에는 공통적인 것이 결코 하나도 있지 않다 한 곳에 공통의 이름을 지닌다고 했다가 다른 곳에서 공통인 것이 하나도 있지 않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약간 애매한 것이 아닐까 물론,

범주들에서는 덧 붙여서 그것들의 실체의 로고스는 헤테론하다 라고 말하기는한다 아마 그 정의(로고스)가 다르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로고스에 있어서 공통인 것은 하나도 있지 않다 라고 말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음 어쩐지 내가 이상해진다.....

1258) 물론 기교적인 생성의 경우에도 호모오뉘마한 것들로부터의 생성은 일어난다 집으로부터 집이 생성되는 것 처럼 말이다(1034a24-24, 815쪽)

않는다 이러한 호모뉘마한 힘은 기하학에서 처럼 말하여진다

이 여섯 가지 가운데 2)는 5)에 그리고 6)은 1)에 약간 어긋 나는 것 처럼 보일 뿐 나머지 것들은 비록 밀접하게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처럼 느슨하게 서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있는 것은 호모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는 것 각각의 실체의 로고스는 헤태론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있는 것들 각각에는 공통적인 것있어 하나의 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있는 (있는) 것에 관한 **앎** 하나가 있다 더불어,

예를들어 (죽은 자의) 손가락 처럼 호모뉘모오스하게만 손가락인 것 처럼 호모뉘모오스한 것은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앎**은 있을 수 없다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것에 속하면서 동시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앎**의 아르케에(695-703쪽)가 이러한 호모뉘모오스한 것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있는 것들은 호오사우토오스하게도 말하여지지 않는다 있는 것들은 아르케에 하나 곧 실체에 관련하여($\pi\rho\acute{o}\varsigma\ \acute{\epsilon}\nu\ 1030b3$) 말하여지는 것이지 그 하나에 따라서($\kappa\alpha\theta'\ \acute{\epsilon}\nu\ 1030b3$)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질 또는 량 등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반드시 호모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모든] 것은 이렇게 호모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모든 것이 건강에 관련하여($\pi\rho\acute{o}\varsigma\ 1003a35$) 말하여지듯 **있는** 것은 그 첫 번째 있는 것 곧 실체¹²⁵⁹)에 관련하여($\pi\rho\acute{o}\varsigma\ 1003b6$) 말하여진다¹²⁶⁰) 그런데,

1259) 778쪽에서 말하여졌듯이 텔레스는 신을 생명이라고 말한다 만약 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첫 번째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거기의 말을 여기에 적용해서 문제의 그 세 곳을 서로 통하는 것으로 묶어 볼 수 있으리라

1260) 그렇다면,

실체들 과 차이들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쉬노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진다 라고 범주들 4 장(3a34)에서 말하여지기도 하므로 실체가 말하여지는 길(방식(方式))을 따라가는 나로서는 이제 쉬노오뉘마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범주들 3a34에 나오는 쉬노오뉘모오스하게 라는 말의 맥락(脈絡)을 집어내 분석하기 전에 먼저 811쪽(감마 편 3장, 1006b11-1006b20)에서 호모오뉘마에 대해 말하면서 인용된 글월에 나타나는 쉬노오뉘미를 집어내 보려 한다 문제의 이 두 말이 동시에 그 인용 글월에서 나타나므로 호모오뉘마(같은 말)에서 쉬노오뉘마(동일한말, 同義語)로 옮겨가는 것을 그 집어냄이 더 자유롭게하기 때문이다

“ 시작하면서 말하여졌 듯이 이름은 어떤 것을 가리키며 그리고 하나를 가리킨다고 해 보자 사람에게 있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가리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에 따르는(καθ' ἑνός 1006b14-15)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가리킨다면 말이다 하나가 하나에 따르는 것을 가리킨다 라는 공리를(ἀξιούμεν 1006b15) 우리는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공리에 근거한다]면 음악 과 힘 과 사람은 하나를 가리킬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일 것이다¹²⁶¹⁾ 쉬노한 이름(συνώνυμα¹²⁶²⁾ 1006b18)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들은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은 어떤 하나에 *관련하여*(πρός)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일까 ἀλλ' (알라, 1003a34, 그러나)로 연결된 것으로보아 아마 그런 듯하다 그런데,

공통의 이름을 지니는 것들의 실체의 로고스(정의, 定意)가 설령 헤테론할지라도 그 로고스가 공통의 이름에 *따르는*(κατά 1a4) 것이라면 공통의 이름을 지니는 것들은 그 이름에 *관련하여* 말하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물음이 일어날 수는 없을까

1261) 모든 것이 하나라는 로고스를 그가 거부한다는 것은 이미 395쪽에서 말하여졌다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처럼 호모오한 이름(*ὁμωνυμίαν*¹⁰⁵³ 1006b19)을 제외하면 말이다 (1006b11-1006b20) ”¹²⁶³)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σημαίνον* 1006b12)이름¹²⁶⁴)이 하나를 가리킨다면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름]이 하나에 따르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도 가리킨다면 사람에게 있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가리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인 것]은 하나에 따르는(*καθ' ἑνός* 1006b14-15)것을 가리킨다 라는 공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만약 허용된다면 음악 과 힘 과 사람은 하나를(*ἐν* 1006b17) 가리킬 것이므로 각기 모든 것이 하나일 것이며 이 세 이름은 쉬노한(동일한?) 이름일 것이므로 텔레스는 그러한 공리를 허용않는다 그러나,

마치 우리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자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처럼 [이 세 이름이] 호모오한(같은) 이름이라면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는다는 것은 불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쉬노오누마들은 하나를 가리키는 또는 하나의 뜻을 지니는 이름들이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쉬노오누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호모오누마 라는 말로 열리는 카테애고리아이(범주들, 1a6)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곳을 찾아가지 전에 형이상학 1030b32(813쪽)에 나오는 호오사우토스(*ὁσαύτως* 동일하게)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1262) 쉬노오누마(동음동의어(同音同意語)) 와 호오모누마(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에 대해서는 범주들 175-176쪽을 보라 그리고,

죽은 손가락은 호모오누모스하게만 손가락이다 라고 말하는 383 쪽을 참조하시오

1263) 이 인용 글월이 지니는 맥락을 알려면 694-703쪽을 살펴 보시오

1264) 이름에 대해서는 697, 691, 313, 488 쪽을 참조하시오

따르면,

호모오뉘모오스하계(같은 이름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요 호오사우토 오스하계(동일하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치료 하나에 관련하여(πρὸς 1030b1) 치료적인 것들이 말하여질 때 몸 과 활동(에르곤) 과 도구 같은 어떤 것들이 비로소 치료적인 것들이라고 말하여지듯 그렇게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올바르다¹²⁶⁵⁾

바로 이렇게 쓰인 호오사우토오스 라는 말을 쉬노오뉘마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답하므로서 나는 그냥 지나치려나 이제,

범주들 제 1 장에서 말하여지는 쉬노오뉘마에 대해 말해야할 차례이다

“ 공통 이름[을 지니는] 그리고 그 실체의 그 이름에 따른 로고스가 동일한 것들(ὡν 1a6)이 쉬노오뉘마(συνώνυμα, 1a6, 同名同意語)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사람 과 황소[의 공통 이름인] 생물 처럼 말이다 사람 과 황소는 생물 [이러는] 공통 이름에 의해(κοινῷ ὀνόματι a9) 불리워지며 그 (사람 과 황소의) 실체의 로고스 동일하기(τὸ αὐτὸς a10) 때문이다 어떤 자가 그 각 각의 로고스를 제공한다면 것들 각 각에 있는 무엇이든 생물이든 동일한 로고스를 제공할 것이므로 (그 실체의 로고스는 동일하다) (1a6 - 1a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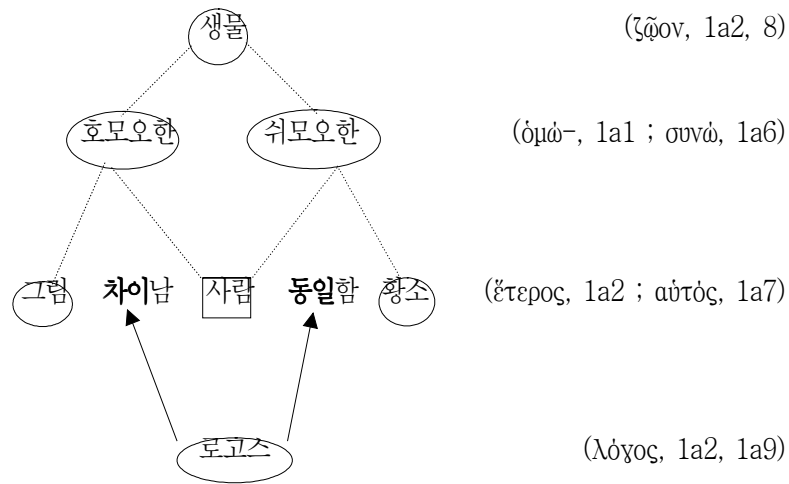
따라서,

그에 따르면 쉬노오한 이름은 생물 보다는 오히려 사람 과 황소이며 이러한 자신의 쉬노한 이름들에 의해서 사람 과 황소의 공통 이름인 생물이 불리워진다(προσαγορεύεται 1a9)그런데,

1265) 물론 있는 것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말하여지는 바로 그것 하나는 실체에 두 말할 나위없다

쉬노한 이름들은 자신들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이름을 지닐 뿐 아니라 [호모한 이름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이름에 따른 그 실체의 로고스 역시 동일하다 사람에게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도 생물이며(εἶναι 1a11) 황소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도 생물이라는 동일한 로고스¹²⁶⁶⁾를 사람과 황소 각각은 지니기 때문이다 잠시,

나는 여기서 호모한 이름과 쉬노한 이름의 보기로 그가 드는 것들을 다음처럼 나열해 보고 싶다



생물과 사람과 그림과 황소는 모두 이름이나 생물은 그림과 사람과 황소의 공통 이름인 반면 그림과 사람은 생물의 호모한 이름이며 사

1266) 이러한 로고스를 443쪽에 나오는 나눔에 따른 정의(ὀρισμός, 1037b28-29, 定義)와 동일시하는 것은 약간 성급한 것 같다

308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모든 정의는 로고스이긴해도 모든 로고스가 정의인 것은 아닐 것이며 그리고 사람 또는 황소에 있는 무엇은 생물이거나 사람 또는 생물의 로고스는 사람의 정의 또는 황소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445쪽에 나타난 사람의 정의는 두 발 생물이다

람 과 황소는 *쉬모오한 이름*이다 *쉬모오한 이름* 과 *호모오한 이름*의 차이는 그 이름들이 공통으로 [지니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의 [정의 보다는] 로 고스가 헤테론 또는 동일하다는 데에 있다 동일하면 *쉬노오뉘마*인 반면 헤 테론하면 *호모오뉘마*이다 여기서,

나는 잠시 그 논의를 미루어 왔던 822쪽의 로고스를 이어가려한다

있는 것들은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이 아니다 라는 것은 여러 번 나에 의해 반복되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821쪽에서는 **실체** 곧 가장 먼저 **있는** 것에 관련하여(πρὸς 1003b6) **있는** 것은 말하여진다 라는 것이 그리고 175쪽에서는 **실체**들 과 차이들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쉬노 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진다 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 이(**실체** 와 차이)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쉬노오뉘모 오스하게* 말하여진다는 것이 **실체**들 과 차이들에 속한다 이(실체 와 차이)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카테에고리아이(범주들)은 나뉘어지지 않는 것들에 따른(κατὰ τῶν ἀτόμων 3a35) 또는 에이도스들에 따른 카 테에고리아이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기체의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실체**들은 어떤 것의 카테에고리아도 아니므로 다른 한 편으 로 **두 번째 실체**의 경우 에이도스(종)는 나뉘어지지 않는 것의 카테 에고리아들인 반면 게노스(류)는 종 과 나뉘어지지 않는 것의 카테에 고리아이(범주) 이므로 *이와 동일하게(ὡσαύτως*¹²⁶⁷⁾ 3b1) 차이들(αἱ δι αφορὰὶ b1)도 에이도스들 과 나뉘어지지 않는 것들의(에 따른) 카테에 고리아이들 이므로 그렇다 (**실체** 와 차이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카 테에고리아이는 나뉘어지지 않는 것 과 에이도스들의 카테에고리아이 (범주들)이다) 그리고,

첫 번째 실체들은 에이도스(종)들 과 류들의 로고스를 받는다

1267) 177, 813, 824, 826 쪽에 나오는 동일한 말을 참조하십시오

리며(ἐπιδέχονται 3b2) 종은 류의 로고스를 받아드린다 카테애고리아
이가 [된다] 라고 말하여지는 모든 것들은 기체의 어떤 것이라고 말하
여지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하게* 종들 과 나뉘어지지 않은 것들은 차
이들의 로고스를 받아드린다 그런데,

*쉬노오뉘마*는 공통 이름 과 동일한 로고스[를 지니는 그러한]
것들이다 따라서,

실체들로부터 그리고 차이들로부터의 모든 것들은 *쉬모오뉘모*
스하게 말하여진다 (3a33 - 3b9) "1268)

실체에 가장 고유한 것(ἴδιον¹²⁶⁹) 4a10)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맥락
에 본디 속하는 위 인용 글월에서는 **실체** 와 차이로부터의 모든 것들이 호
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원인에 대해 말한다

그에 따르면 *쉬노오뉘마*(*同音異義語*)는 공통의 이름 과 동일한 로고
스를 지니는 것들이므로 만약 **실체** 와 차이로부터의 모든 것이 *쉬노오뉘모*
오스하게 말하여진다면 그 모든 것들 역시 공통의 이름 과 동일한 로고스를
지녀야할 것이다 따라서,

실체 와 차이로부터의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공통의 이름 과 동일한
로고스를 지니는가에 대해 그는 말해야한다

기체의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으므로 첫 번째 실체는 어떤
것의 카테애고리아가 아닌 반면에 두 번째 실체의 경우 에이도스(중)은 나
뉘어지지 않는 것의 카테애고리아가 되며 류는 중(에이도스) 과 나뉘어지
않는 것 모두의 카테애고리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카테애고리아이는 기체의

1268) 이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175쪽 앞 뒤를 참조하시오

1269) 범주들에 따르면,

수적으로 하나임 그리고 반대들을 받아드리면서도 그 자체는 변하지
않음이 실체에 가장 고유한 것이다(181쪽)

카테애고리아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실체는 종 과 류의 로고스를 받아드리며 두 번째 실체인 종 은 류의 로고스를 받아들인다 이와 동일하게(ὡσαύτως 3b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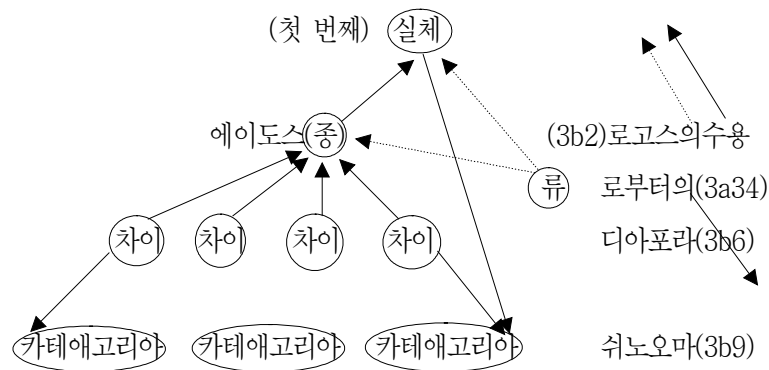
차이들의 로고스를 종 과 나뉘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인다 차이들 역시 나뉘어지지 않는 것 과 종들 모두의 카테애고리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이 와 **실체**로부터의(ἀπ' 3a35) 모든 카테애고리아이는 나뉘어지지 않는 것의 또는 종들의(κατὰ 3a35) 카테애고리아이일 것이다 따라서,

실체 와 차이로부터의 모든 것은 공통 이름 과 동일한 로고스를 지닌 다 그런데,

쉬노오니아는 공통 이름 과 동일한 로고스를 지니므로 **실체** 와 차이 로부터의 모든 것은 *쉬노오니아모오스하게*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실체 와 차이로부터의 모든 것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실체의 카테 애고리아이(범주들)이며 이러한 카테애고리아이는 쉬모오니아모오스하게 말하 여진다 그 카테애고리아이 곧 실체 와 차이의 로고스는 동일하며 [기체의] 공통 이름을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일까..... 그럴 수 있다면 다음 처럼 그려 볼 수 있으리라



위 그림에서 다시 드러나듯 실체 와 차이로부터의 모든 것(범주)은 *호모오니아모오스하게* 말하여진다 공통의 이름(**실체** 또는 차이) 과 (각기 범 주에 있는 무었은 차이 또는 **실체** 라는) 동일한 로고스를 지니기 때문이다 공통 이름 과 동일한 로고스를 지닌 것들이 *쉬모오니아*이므로.....그러나,

실체(들)이 호모오뉴모스하게 말하여진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호모오뉴모스하게도(같은 이름으로도, 805-806) 쉬모오뉴모스하게(270)도(동일한 뜻(로고스)로도, 829, 813) 하나에 따라서(καθ' ἑν 1003b12-13)도 말하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있는** 것들은 실체 하나에 관련하여(πρὸς ἑν 1030b3) 여러 가지로(806-807)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에 관련된 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것 그리고 그 여러 가지가 - 있는 것들은 쉬모오뉴모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 동일한 뜻(로고스)을 지닌 것도 아니고 - 호모오뉴

1270) 그런데,

Joseph Owens은 121쪽에서 호모오뉴마의 유형(type, 오웬 116-118쪽)에 대해 말하면서 텔레스의 토피카 1책을 근거로 “ 정식으로 그러한 주체가 다루어지는 토피카에서는 πρὸς ἑν이 호모오뉴마들(epuivocals)들이라고 불리워지며 그리고 호모오뉴마는 (‘다양한 길로 표현되어진 것들’의) 하나의 종 으로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길로 표현되어진 것들’의 정확한 동의어(synonym)로서 쓰여진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오웬은 호모오뉴마(同音異義語)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고 있는 것들을 호모오뉴모스하게 말하여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여기서 그는 사물(things, 事物) 보다는 용어(terms, 用語) 와 의견(doctrine, 意見, 思想)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긴해도 말이다

이러한 그의 분석을 조심스레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역시 819, 825, 828쪽에 그러는 호모오뉴마 와 쉬모오뉴마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이 둘 역시 하나에 관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doctrine)을 지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계속해 펼쳐 나가기에는 시간 과 실력이 너무 지금의 나에게 모자란다 나의 학위논문을 문제의 그 다섯 책에 한정하고 있어서 미처 토피카를 이리로 끌어 들일 자신이 없을 뿐 아니라 전체 텔레스를 다루기에는 아직 나는 너무 적기 때문이다

모스하게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헤태론한 로고스(뜻)을 지닌 것도 아니라는 것이 적어도 카테에고리아이 와 타 메타 타 피지카에서 만큼은 선명해지는 것 같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 호모오뉴모스하게 말하여지지 않고 그리고 호모오뉴모스한 것들은 그 로고스에 있어 헤태론하므로 있는 것들은 그 뜻(意味)이 여러 가지이다를 가리키는 것도 아닐 것이며 쉬노오뉴모오스하게 말하여지지 않고 그리고 쉬모오뉴마한 것들은 그 로고스에 있어 동일한 것이므로 있는 것들은 동일한 뜻을 지닌 것들이 여러 가지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만약 동일한 뜻들도 헤태론한 뜻들도 지니지 않은 채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면 그 여러 가지(πολλῶς 1028a10)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선,

나는 형이상학 뉴 편 5 장 1092a23¹²⁷¹)에 나타난 ‘어떻게....., 무슨 길에서(πῶς.....,τρόπον¹²⁷²) 말하여지는다’ 라는 말을 이러한 물음에 관련시킨다

“ **있는 것들은** 요소들로부터 있으(εἶναι τὰ ὄντα 1092a21)며 있는 것들 중 첫 번째 것들은 수들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으로부터 *어떻게(πῶς a23)* 있는지를 말하면서(διελομένους a22) 그렇게 *무슨 길에서(τίνα τρόπον a23)* 수가 아르케에들로부터 있는지를 말해야 했다¹²⁷³(1092a21-a24) ”

1271) 이 부분의 맥락에 대해서는 801쪽을 살펴보라

1272) 이러한 말을 포함한 어떤 낱말이 텔레스 전체 글들 가운데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펴 보려면 Boniz가 편집한 방대한 책 Index Aristotelicus를 보시오 τρόπος는 그 책 772쪽에 나타난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연구가 끝난 다음에 그 책을 참조하는 것이 자신의 누우스에게 훨씬 더 나올 것이다

라는 인용 글월에서 텔레스는 있는 것 또는 수가 요소 또는 아르케에로부터 있는 양상(mode, 様相)을 말하려한 것 같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있는 것들이 무슨 길로 어떻게 있다(εἶναι τὰ ὄντα 1092a21) 라고 말하여진다는 것을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것과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것을 여러 있는 양상이 말하여진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는 말을 통해서 있는 것들의 여러 양상이 말하여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양상으로 있는 것들이 먼저 말하여지지 있는 것들의 여러 로고스(定意 또는 뜻 또는 意味)가 먼저 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있는 것들의 여러 뜻이 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있는 여러 양상 만큼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있는 여러 양상들은 실체 하나에 관련해(πρὸς)있는 것이며 또 실체 하나와 관련하여 말하여지는 것들이지 호모오뉴모스 그리고 쉬노오뉴모오스 하게 말하여지는 그런 것들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실체 하나에 따라서(κατὰ)¹²⁷⁴⁾ 있는 그런 것들로 말하여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

있는¹²⁷⁵⁾ 여러 양상들은 서로와 동일한 것들도 아니면서 서로와 해태

1273) 라고 말하면서 섞어짐에 의해서(μίξει 1092a24)인가 아니면 음절처럼 함께 놓음에 의해서(συνθέσει 1092a26)인가 라고 텔레스는 묻는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길도 수가 아르케에로부터 있는 길이 아닌 것 같다

1274) 하나에 따라 있는 것들을 호모뉴모스 와 쉬모오뉴모오스하게 있는 것으로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어디 까지나 임시적이다 829쪽 각주 1270에서 내가 말한 것 때문이다

1275)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 254d4에 나오는 τὸ ὄν(있는 것)을 여기에서 이끌어 들이려한다 거기에 따르면,

토 온(있는 것)은 다섯 가지의 류($\tau\acute{\alpha}$ γένη, 253b8, 121쪽)들 가운데서도 아주 큰 세 가지 류 - 움직임 과 쉽 과 있는 것 - 에 속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움직임 과 쉽 과 **있는 것** 이 세 가지 류 이외에도 동일 과 헤테론(다름) - 그는 헤테론을 다섯 번 **제**(πέμπτον 255c8) 류라 부른다 - 등 두 가지 류가 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섯 가지($\pi\acute{\epsilon}\nu\tau\alpha$ 254e4) 류가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류 또는 에이도스($\tau\acute{\omega}\nu$ εἰδῶν 254c2)들이 각기 어느 류와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는지를 분별해서 요소들을 섞이게하는 원인 과 분리하는 원인을 인식하는 **앎** 그는 변증적인 **앎**($\tau\eta\varsigma$ διαλεκτικῆς ἐπιστήμης 253b2-3)이라 부른다 이러한 변증적인 **앎**에 류에 따라 나눔이 속한다 그래서 이러한 **앎**에 따라 우리는 동일한 에이도스를 헤테론하다고 해서도 않되며 헤테론한 류를 동일하다 라고 해서도 않된다

내가 여기서 플라톤에 의해 아주 큰 류 라고 불리워지는 **있는 것**을 이끌어 들이는 원인은 있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러한 나눔의 맥락에서 있는 것의 양상을 나누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여러 양상들은 **동일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헤테론한** 것도 아닐 뿐 더러 동일한 뜻을 지니지 않으면서 헤테론한 뜻도 지니지 않는 대신에 **있는 것**은 **실체 하나**에 관련하여($\pi\rho\sigma$ ἓν) 여러 가지로 있다 반면에 플라톤에 따르면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있는 것 자체라고($\tau\acute{\alpha}$ αὐτὰ καθ' αὐτά, 255c13-14) 말하여지며 어떤 것은 항상 알론한것에 **관련해서** 말하여진다($\pi\rho\sigma$ ἄλλα ἀεὶ λέγεσθαι, 255c14, 124쪽) 있는 모든 것 각각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헤테론(의) 이데아를 나누어 지남을 통해서 알론한 것들과 헤테론한다 그렇게 헤테론은 있는 모든 것을 관통한다 계속해서,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움직임은 전적으로 **쉽**과 **헤테론**하므로 움직임은 쉽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있는 것**을 나누어 지남을 통해서($\delta\iota\acute{\alpha}$ 255e3) 있다 나아

론한 것도 아닐 것이며 마찬가지로 동일한 로고스(뜻)들을 지니지 않으면

가서, 움직임은 동일(한 것)과도 헤태론한 것이므로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 아닌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모든 것은 동일한 것을 나누어 지니므로 움직임 역시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면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한다 그런데,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면서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갈게(ὁμοίως 256a12)*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움직임이 **그 자체와 관련할(πρὸς ἑαυτήν 256b1)** 때 동일한 것을 나누어 지니므로(*διὰ τὴν μέθεξιν ταύτου 256b1*)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며 움직임이 그것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동일한 것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이 되는 그 헤태론을 공유하므로 움직임은 헤태론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임은 동일(한 것)과도 알론한 것이고 쉽과도 알론한 것 처럼 움직임은 헤태론한 것과도 헤태론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로고스에 따르면 움직임은 *어떤 때는(πῃ 256c9)* 헤태론한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헤태론한 것이다 그렇지만 움직임은 세 가지(쉽 **있음** 헤태론)와는 헤태론하지만 네 번째(동일)와는 헤태론하지 않다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ὄντως, 256d8, 진짜로) 있는 것은** 아니나 있다 분명히 움직임은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움직임의 경우 [움직임이] 있지 않는 것도 필연적으로 있다 이런 [관련]은 모든 류에 확장된다 헤태론한 자연이 각기 류를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으로 따라서, 있지 않는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아 그것들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바르다 그러나 다시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니므로 그것들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바르다 따라서, 에이도스 각각이 있으므로 있는 것은 많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도 그 많음에 있어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있는 것 그것은 반드시 알론한 것(류)와 헤태론한 것이다 그래서 있는 것과 [관련지워진] 채 알론한 것(류)들이 있는 것 처럼 그와 *동일하게(τοαύτα 257a5)* [있는 것에 또는 있지 않는 것에 관련지워진 채] 알론한 것(류)들이 있지 않다 하나가 있으며 수적으로 한정되지 않는 알론한 것들이 바로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류들은 자신들의 자연에 따라서 서로를 공유한다

이러한 플라톤의 말하는 이러한 길(양상) 과 텔레스의 말하는 양상(길)에 비슷한 어떤 점이 있지 않은가 그 내용은 차치(且置)하더라도..... 있는 것을 나누어지님을 통해서 여러 있는 양상이 나오질 않는가

서 동시에 해태론한 뜻(로고스)들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있는** 양상들이 있으며 그 양상들 만큼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있는** 그 양상들은 어떠한 것들일까 277-280쪽 그리고 691-692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우연**(히 있는 것)과 그 **자체**(로, 스스로, **필연**적으로(698), 있는 것)이다 먼저,

우연히 있는 것이 말하여진다

“ (7) 있는 것은 **우연**히(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 1017a7)(있는 것이다) 한 편으로 말하여지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그 자체로(καθ' αὐτό a7-8) (있는) 것이라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올바른 것은 음악(적이다) 그리고 사람은 음악(적이다) 그리고 음악(적인) 것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음악(적인) 것이 집 짓는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 [어떤 것이] 집 지음 [과] 음악에 **우연**히(συμβεβηκε a11) *있거나*²⁷⁶⁾ 또는 음악 [과] 집 지음에 (우연히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것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것에 **우연**히 (*있다*)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렇다]

우리들이 언급했던 경우에도 그와 같다 사람은 음악(적 이고) 음악(적인) 것은 사람이라고 또는 흰 것은 음악(적 이고) 이(음악적인) 것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마다 한 편으로 (음악 과 흰 이)양자는 동일한 것에(τῷ αὐτῷ, a16, 그 사람에) **우연**(히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에*(τῷ ὄντι 1017a16-17) **우연**히 (있기) 때문이다 음악(적인) 것이 사람에 **우연**히 (있으므로) 음악(적인 것)은 사람이다 회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이 (사람에 **우연**히)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사람에)

1276) 어떤 것에 우연히 있다 라는 쓰임새는 727, 278쪽을 참조하십시오

우연히 (있는) 저(회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ούv a19),

우연히 *있*다 라고 말하여질 때에는 이 때문에 있는 그(동일한) 것에 (음악 과 힘) 양자가 속하거(ὑπάρχει a22)나 있는 저(동일한) 것에 (음악 과 회지 없음 이 양자가) 속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자신의 카테에고리아가 되는 것이 자신에게 속하는 그(동일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1017a7-a22) ”

음악에 집지음에 또는 집지음에 음악에 우연히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은 음악(적 이다) 라고 그리고 음악(적인 것은) 사람이다 라고 그리고 음악(적인 것이) 집 짓는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이것이다(*εἶναι* 1017a12) 라는 것은 이것이 이것에 **우연히** *있*다 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음악(적인 것) 과 흰 (것)이 동일한 것(그 사람)에 **우연히** *있*고 [동일한 그것]이 있는 것에 **우연히** *있*을 때 음악(적인 것)은 사람에 **우연히** *있*으므로 사람은 음악(적)이고 음악(적인 것)은 사람이라고 또는 흰 것은 음악(적)이고 음악(적인 것)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에 **우연히** 있는 회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회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우연히** *있*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동일한 것에 어떤 것들이 속하거나 또는 자신의 카테에고리아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자신에게 속하는 동일한 그것이 있을 때 **우연히**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여기서 텔레스는 **우연**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연히**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보기들을 나열하고선 이러 이리할 때 우연히 있는 것이 말하여진다 말할 뿐이므로¹²⁷⁷⁾ 우연(적인 것)이라는 말을 홀로 끄집어내 말하는 곳 행어나 있나 하고 나의 눈은 부지런히 그 곳을 찾아다니다 형이상학 엡실론 편 2 장¹²⁷⁸⁾에 눈이 멎는다

1277) 우연적인 하나에 대해 417-420쪽에서도 이와 같은 길로 말할 뿐이다

1278) 앓을 분류하는 엡실론 1 장에서는 귀납적인 앓 그리고 실천적인 앓

“ (2) 그러나,

순수하게(ἀπλώς¹²⁷⁹) 1026a33) 말하여지고 있는 것(τὸ ὄν a33)은 여러 가지로 (그 여러 가지 중) 하나는 한 편으로 **우연적으로** 있어오는(ἦν a34) 것이며 **해태론**한 것은 다른 한 편으로 진실로서의 (있는) 것 그리고 거짓 으로서의 있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이것들 이외에도 예를들어 그 무엇 과 질 과 량 과 어디 와 언제 그리고 이러한 길에서 가리켜지는 알론한 어떤 것과 같은 범주들의 도식들이며 나아가서 이런 모든 것들과 나란히(παρά, 1026a1, 이외에도) 힘 과 활동(에네르게이아 -)에 (있는) 것이므로 또한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πολλὰ αὐτῶς a2)말하여지므로,

우연적인 이런 어떤 것들에 관한 이론도(Θωροία a4) 있지 않다 라고 **우연적**인 것에 관해서 첫 번째로 말해야한다 [이것은] 실천적이든 생산적이든 이론적인든 어떤 **앞**도 이(우연적)인 것을 고려하지(ἐπιμελές a4-5) 않기 때문(이라는 것)에의해 가리켜진다 집을 생산하는 자가 동시에 그 집에 생성되는 [모든] 것(ὅσα a6)을 생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런 생산은) 무한하므로 [그렇다] 한 편으로 안락이 다른 한 편으로 해로움이 다른 한 편으로 쓸모가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해태론**한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집에서 생성되는) 것들임을 아무 것도 막지(καλλῆει¹²⁸⁰) a8) 못하는데 이러한 모

과 생산적인 **앞** 과 이론적인 **앞**이 말하여지면서(705-706쪽 참조) **앞**의 끝 곧 신에 관한 **앞**이 궁극적으로 말하여지는 반면 2-3 장 - 2-3장은 **칼과 편** 8 장에서 엡실론 다시 요약된다 - 에서는 우연적인 것들에 관한 **앞**은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우연(적인 것)들의 자연 과 원인에 대해서 말하여진다 그리고 마지막 4 장에서는 851-855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진실 과 거짓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말하여진다

1279) 803쪽에 나오는 순수한을 일단 본 후 543쪽 그림에 나오는 순수한을 보라 이 두 곳에 나오는 순수한 것은 아마 알론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뒤의 것은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를 앞의 것은 분리해 있지 않은 에이도스와 여러 범주들 그리고 힘 과 활동 그리고 진실 과 거짓 그리고 우연적인 것 등을 가리킬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곳의 순수한 것은 앞의 것과 같다

든 것 중 어느 것도 집을 생산하는 것의 [어느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길에서 기하학자는 도형(τὴν σχήματα, 1026b11,
 圖式¹²⁸¹)에 우연적인 것들[의] 이론을 형성하지 않는다 어떤 세모 꼴
 이 2 직각을 지니는 세모 꼴과 헤태론한지의 여부(εἰ b11) (에 관한이
 론을 형성하지 않는)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로고스[들]
 이다 **우연**(적인 것)은 단지 이름에만(ὀνόματι μόνον, b13,오로만) 있¹²⁸²
 기 때문인 것 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있지 않는 것에 관해 [말하는] 자로 소피스테애스를 플라톤¹²⁸³
 이 다루(ἔταξεν 1026b15)는 것은 나쁘지 않다 소피스테애스들의 로고
 스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로고스들) 보다 훨씬 많이 **우연**적인 것

1280) 코오뤼에이의 이러한 쓰임새는 힘에 관한 그의 로고스에서도 나타난
 다 힘이 활동하려는 것을 막는 또는 방해하는 것이 있지 말아야한다 라는
 맥락에서 말이다 586쪽 참조

1281) 범주들 여럿을 스케에마 라는 말을 가지고 그는 나타낸다는 것에 유
 의하시오 845, 691쪽 참조

1282) 우연(적인 것)은 단지 이름으로만 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연
 적인 것도 있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여진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름 역
 시 있는 것 가운데 하나로 여겨야하지 않겠는가 696쪽에 따르면,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것을 가리키므로 단지 이름으
 로만 있다는 것을 이름은 규정된 어떤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될 것 같다 그렇다면 왜 이름 뒤에 μόνον(단지...만, 1026b13)을
 붙였는가(306 과 314쪽도 참고하시오) 그리고,

로고스(이름의 뜻 또는 정의)에 있어서는 헤태론하게 있는 것들이지
 만 있음에 있어서는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710쪽의 말 그리고 공통
 의 이름을 지닌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자신들의 실체의 로고스에 있어서는
 헤태론한 이름(호모오뉴마) 과 자신들의 실체의 로고스에 있어서 동일한 이
 림(쉬노오뉴마)에 관한 825쪽의 말도 참조하시오

1283)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 99, 131 쪽을 참조하시오 거짓 말하면서도
 그 거짓 또는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라고 젊은이를 속여 자신들이 말한
 것을 모두 진리인 것 마냥 호리는 소피스테애스.....가 거기서 문제시된다

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음악적인 과 문법적인은 그리고 코리스코스 와 음악적인 코리스코스¹²⁸⁴)는 헤테론 또는 동일 이 둘 중 어느 것인가 (하는 로고스) 그리고 있을(ἵ b18)것이지만 항상 (있지는) 않을(μῆ b18) 모든 것들이 생성된다면 그래서 음악적인 것이 문법적인 것으로 (생성)된다면 마찬가지로(καὶ b19) 문법적인 것은 음악적인 것으로 (생성)된다고 하는 ([그러한] 로고스들은 우연적인 것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알론한 모든 로고스들도 있다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는 것**과 흡사(ἔχῃς, b21, 相似)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와 같은 로고스들로부터 분명해진다 알론한 길 [로] 있는 것들로부터 생성 과 소멸이 있는 반면에 우연에 따라 (있는 것들로 부터는 생성 과 소멸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는한 우연(적인 것)과 관련해서 더 나아가 그 (우연적인) 것의 자연은 무엇이며 (우연적인 그것은) 어떤 원인을 통해서 있는가와 같은 것을 말해야한다 무엇 때문에 그(우연적인) 것의 **있는** **있지 않은**가 가 똑 같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1026a33-b27) ”

여기까지 인용 글월 앞 부분에서는 **우연(적인 것)** 그리고 진실 그리고 그 무엇 과 질 과 량 과 어디 와 언제 등의 범주들의 도식 그리고 힘 과 활동 등 여러 가지로 순수하게 있는 것은 말하여지므로 우선 우연적인 것에 대해 말해져야한다 라고 말한다 먼저,

우연(적인 것)에 관한 이론은 있지 않다 실천적인 앎이든 생산적인 앎이든 이론적인 앎이든 어떤 **앎**도 **우연(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집을 생산하는 자는 그 집에 생성되는 모든 것을 생산하지는 않는다 인락함 과 해로움 과 쓸모 와 이와 같은 헤테론한 것들 등 이런 생산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것들도 집을 [직접] 생산하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이와 동일한 길에서 기하학자는 도형에 **우연(적인 것)**에 관한 이론을

1284) 음악적인 등은 834 쪽에서 다시 우연(적인 것)의 보기로 들어진다

형성하지 않는다 어떤 세모 꼴이 2 직각을 지니는 세모 꼴과 헤태론한 지의 여부에 대한 이론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연(적인 것)은 단지 이름에만 있기 때문에 (이론을 형성하지 않는 것) 처럼¹²⁸⁵⁾ 말이다 이 때문에,

있지 않는 것에 관해 말하는 자로 소피스테애스를 플라톤이 다루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음악적인 과 문법적인은 그리고 코리스코스 와 음악적인 코리스코스는 동일한가 아니면 헤태론한가 라는 로고스 그리고 있지만 항상 있지는 않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생성된다면 또 (그자의) 음악적인이 그자의 문법적인으로 된다면 (그자의) 문법적인은 그자의 음악적인이 될 것이라는 로고스와 같은 소피스테애스들의 로고스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훨씬 많이 우연적인 것에 관련되기 때문이며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은 것과 흡사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알론한 길로 있는 것들로부터 생성 과 소멸은 있는 반면에 우연에 따라 있는 것들로부터는 있지 않다는 로고스들로부터 분명해진다 따라서,

우연(적이 것)은 무한(ἄπειρα 1026b7)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이름에만 있기 때문에 우연(적인 것)에 관한 이론 곧 없은 있지 않다 라고 그에 의하면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런데,

단지 이름에만 있는 것은 텔레스에 따르면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다면 우연적인 것에 관한 없이 있지 않는 원인은 텔레스에 따르면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¹²⁸⁶⁾ 그런데,

이것은 [생성 소멸은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있는 어떤 것

1285) 우연(적인 것)은 단지 이름에만 있다 라는 로고스도 좋은 로고스(εὖλ ὄγως 1029b13)이다 라고 불혀 넣을 수 있으나 웬지 망설여진다 단지 이름 뿐인 것에는 없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 108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서도 단지 이름 뿐인 이름에 대해 말하여진다

1286)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우연적인 것을 있지 않는 것과 흡사한 것(ἕγγυς 1026b21)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으로부터 이루어진다면¹²⁸⁷⁾] 그리고 생성 소멸은 알론한 길로 있는 것으로 부터 있지 우연에 따라 있는 것으로부터 있지않다면 그리고 [우연에 따라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라면¹²⁸⁸⁾그리고 있지 않는 것의 앎¹²⁸⁹⁾은 있지 않다면 결국(ἀρα) 우연적인 것에 관한 앎 역시 있지 않다] 라는 로고스들부터 분명해진다 이제,

텔레스는 우연(적인 것)의 자연(ἡ φύσις 1026b25) 과 원인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하다보면 무엇 때문에 우연(적인 것)의 앎은 있지 않은가 가 동시에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 있는 것들 중에(ἐν τοῖς οὖσι 1026b27) [어떤 것은] 항상 동일하게 지니고(ἰσοαύτως ἔχοντα b27-28)있으며 그리고 강제에 따라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알론하게 있을 수 없음 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필연으로부터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필연으로부터 있는 것도 아니며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경우의 것 으로서(ὡς ἐπὶ τὸ πᾶσι b30)있는데 이(많은) 것이 우연적인 있음의 아르케예요 원인 이다¹²⁹⁰⁾ 항상 있을 것도 아니요 많은 경우에 있을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우연**히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더울 경우에(ἐπὶ b33) 눈이 오고 춥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 말한다 그러나 찌고 뜨거우면 우연이라 말하지 않는다 한 편은 항

1287) 이것은 346쪽 으로부터 분명하다 생성(되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거기서 말하여지며 이 어떤 것은 반드시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1288) 그런데 텔레스는 흡사하다(가깝다) 라는 말을 쓰고 있으므로 만약 이 다가 동일을 나타낸다면 이러한 로고스는 정확한 로고스는 아닐 것이다

1289) 841쪽에 따르면 앎은 항상 있는 것의 앎이거나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의 앎이어야한다 그리고 187쪽에 나오는 앎도 살펴보라 (724, 705, 754, 856)

1290) 1025a15(836?)에서는 기회(τὸ τυχόν, 幾回)원인이 우연의 원인이라 말하여지는데 여기서는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이 우연의 원인이라 말하여진다 하긴 기회는 많지 않은가.....

상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다른 한 편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희다(λευκόν b36)는 우연이다 항상 또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람은) 생물이라는 우연에 따르지 않는다[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건강해짐(τὸ ὑγιαίνειν 1026b37)집 지음이라는 우연히 [그렇다] 이(건강)을 생산함은 집 지음의 자연이 아니라 치료(ιατρός, 1027a2, 약)(의 자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 지음이 더불어 치료일 때도 있다 그리고 쾌락을 겨누면서 과자를 만들은 건강한 무엇을 생산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과자 만드는 능력에 따라서는 아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συνέβη a4) (건강을) 생산한다 그러나 순수하게는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한 편으로 생산 능력들(αἱ ποιητικαὶ a6)이 어떤 때는 알론한 것들의 힘(δυνάμεις a6-7)에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한 편으로 그 (알론한 것)들의 규정된 힘과 기교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연적으로 있는 것들의 또는 생성되는 것들의 원인도 **우연히**(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 a8) 있으므로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항상 있거나 또는 생성하는 것은 아니라 많은 것들이 많은 경우에 (있거나 또는 생성하므로) 우연히 있는 것은 반드시 있다 예를들어 흰 자가 항상 또는 많은 경우에 음악적인 것이 아니라 한 편으로 언제(ποτε¹²⁹¹), a12, 때때로) 음악적이기[도]하므로 우연히 (음악적으로 흰자는)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와(παρὰ a14)알론하게 (있기) 시작하게 하는(ἢ ἐνδεχομένον a13-14)질료가 우연(적인) 것의 원인일 것이다 그런데,

항상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라든가 또는 많은 경우에 있지 않는 것도 있지 않다 라든가 하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πότερον a15)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할까 그럴 수는 없다 따라서 이것들(항상 있는 것 과 많은 경우에 있는 것) 이외에(παρὰ, a16, 나란한) 어떤 기회적(ἔτυχη a17)이고 우연적인 것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는 것 과 항상 있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에도 속하지 말아야할까 아니면(ἢ a18)어떤 영원한 것들일까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¹²⁹²조사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1291) 언젠에 대해서는 661, 161, 856, 604쪽을 참조하십시오

1292) 영원한 것들은 람다 편 6-8 장에 말하여진다 755-786쪽을 보라

우연(적인 것)의 얇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얇*¹²⁹³은 항상 (있는) 것의 얇이거나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의 얇이기 때문이다 [이와] 알론한 것을 어떻게 배우거나 가르칠까 [라는 물음이 떠오르므로 그렇다] 반드시 정의는(ὀρισθαι¹²⁹⁴), a22, 定意) 항상 (있는) 것에 그리고 많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꿀물은 열있는 자에게 쓸모있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통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 이외를 관습(ἔχει a24)은 말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새로운 달[의 첫 날]에(νουμηνία a25)[일어난 일]과 같은 것 처럼 어느 한 때(πότε, a25)[의 것]을(관습은 말하지 않는다) 항상 (있는) 것 또는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은 새로운 달[의 첫 날]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연(적인 것)은 이것들(항상 있는 것 과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이외의 것이다 이제,

우연(적인 것)은 무엇이며 어떤 원인을 통해 (있으며) 우연적인 것의 얇은 있지 않다는 것이 말하여졌다 (1026b27-1027a28) ”

라는 인용글

월에서는 우연적인 것의 자연 과 원인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연적인 것의 얇은 있지 않은가에 대해 말하여졌다

그는 우연(적인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항상 그러한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알론하게 있을 수 없는 **필연**¹²⁹⁵으로부터 있는 것도 아니요 *항상*(ἀεί 1026a30) 있는 것도 아니요 *많은 경우에*(ἐπι τὸ πολὺ 1026a32)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우연**히 있는 것¹²⁹⁶이라 말하여진다 이(많은 경우에 있는)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의 원인

1293) 724, 705, 754, 856, 187, 840쪽을 참조하십시오

1294) 444, 825, 308, 842쪽을 참조하십시오

1295) 이 필연은 강제(τὸ βίαιον 1015a26) 로서의 필연이 아니다 839?쪽 참조하십시오

1296) 예를들어,

더운 데도 눈이 오거나 춥다면 우연들이라 말하여지나 찌거나 뜨겁다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항상 있거나 또는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많은 경우에 있거나 생성하므로 우연히 있는 것은 반드시 있다 예를들어 흰 자가 항상 또는 많은 경우에 음악적인 것이 아니라 때때로($\mu\omicron\tau\epsilon$ a12, 어느 한 때) 음악적이므로 우연히 흰자는 음악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와 알론하게 있기 시작하게 하는 질료가 우연(적인 것)의 원인일 것이다 그런데,

항상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라든가 또는 많은 경우에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라든가 하는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우리의 출발점(아르케에)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둘 이외의 어떤 기회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있다¹²⁹⁷⁾

지금까지의 로고스에서 말하여진 우연히 있는 것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으로 말하여진 것 같다

우연(적인 것)의 원인은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이라고 앞(1026b30-31, 840쪽)는 말하여지는 반면에 바로 이어지는 다른 곳(1027a13-15, 841쪽)에서

면 우연들이라 말하여지지 않는다 항상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러한 반면 한편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회다는 우연이다 항상 또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생물이다는 우연에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건강해짐은 집 지음이다도 우연에 따른 것이다 건강을 생산함은 집 지음의 자연이 아니라 치료의 자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 지음이 더불어 치료일 때도 있다 그리고 쾌락을 주려고 만들어지는 과자가 건간한 무엇을 생산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과자 만드는 능력에 따라서는 아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sigma\nu\upsilon\epsilon\beta\eta$ a4) 생산하나 순수하게는 아니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 생산 능력들이 어떤 때는 알론한 것들의 힘에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알론한 것들의 규정된 힘 과 기교는 아니기 때문이다

1297)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는 것 과 항상 있는 것 이 둘 가운데 우연히 있는 것은 속해야 할까 아니면 말아야할까 아니면 어떤 영원한 것들일까 이런 것들은 랍다 편 6-8 장(755-786)에서 조사될 것이다

는 많은 경우에 있는 것과 알론하게 있을 수 있는 질료가 우연적인 것의 원인이라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많은 경우에 있는 것 과 이것과 알론하게 있기 시작하는 질료 등 우연적인 것의 원인을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 곳에서는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했다가 다시 조금 후에 많은 경우에 알론하게 있을 수 있는 질료를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텔레스에 따르면 원인 역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므로(516쪽) 별 문제는 앓될 것이다 그런데 나아가서,

1025a25(836?)에서는 우연에는 규정된 원인이 아니라 규정되지 않는 기회원인이 있다 라고 그는 말하므로 우연적인 것의 이 두 원인은 규정될 수 없는 기회원인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우연(적인 것)에 관한 앓은 있지 앓다는 것은 분명하다 앓은 항상 있는 것의 앓이거나 많이 있는 것의 앓이기 때문이다 이것들과 알론한 것을 어떻게 배우거나 가르킬 것인가 정의(定意)는 항상 있는 것 과 많이 있는 것의 정의이기 때문이다¹²⁹⁸)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모든 것에 관한 앓은 있을 수 없다 단지 항상 또는 많이 있는 것에 관한 앓만이 있을 뿐이다 정의는 이러한 것들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 이외의 것인 **우연**히 있는 것은 비록 그것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여질지라도 자신에 관한 앓을 지니지 못한다 이제,

생성 소멸하는 것¹²⁹⁹)의 원인에 대해 말하는 텔레스를 따라가 보자

1298) 예를들어,

꿀물은 열있는 자에게 쓸모 있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통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 이외를 관습은 말하지 앓는다 예를들어 새로운 달(의 첫 날)에 일어난 일과 같은 것 처럼 어느 한 때의 일을 관습은 말하지 앓는다 항상 있는 것은 그리고 많이 있는 것은 새로운 달의 첫 날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연(적인 것)은 이것들 이외의 것이다

“ (3) 생성 소멸하지는 않지(ἀνευ 1027a30)[만] 생성 소멸적인(γεννητὰ καὶ φθαρτὰ a29)아르케애들 과 원인들이 있다¹³⁰⁰만약 이런(아르케애 와 원인이) 있지 않다면 [그래서] 만약 생성되고 (있는) 것과 소멸되고 (있는) 것의 비 우연적인(κατὰ a32)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다면 모든 것이 필연으로부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에(τοδὲ a33)있을 것이거나 또는 있지 않을 것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일가 만약 있을 것이라면 이것(이)에 생성되며 있지 않을 것라면 (이것이 (에))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알론한 이것(τούτο a34)이 (생성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계지워진 시간으로부터(ἀπὸ 1027b1) 추출되어진(ἀφαιρούμενον, 1027a34, 抽出되어진) **항상(ἀεί, 1027a34, 恒常)**[인] 시간의 **지금(τὸ νῦν 1027b1)**[의] 상태(ἤξει b1)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만약 나간다면 이것은(ὁδε b1) 병결려서 또는 폭력에 의해서(νόσῳ ἢ βίᾳ b2) 죽을 것이고 만약 목마르다면 이렇게(τούτο b2) (나갈 것이고) 만약 알론한다면 이렇게 (목마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하는] 어떤 것(ὁ b3)에 지금 또는 지나간 어떤 것(τῶν γεγονότων τι, b4, 過去)은 속한다 예를들어 목마르다면 (나갈 것이고) 만약 짠 것을 먹으면 목마를 것이다 이것은 어떤것에(ἤτοι b5) 속하거나 또는 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ἐξ b5) 죽거나 또는 죽지않는다 어떤 자가 지나간 (이와 같은) 것들에 걸린다면(ὑπερπηδῆσθαι b6)이와 같은 동일한 로고스(가 이어질 것이다) 내가 **지나간 것(過去)**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미(ἤδη b7) 어떤 자 안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게 될(τὰ ἐσόμενα, b8-9, 未來)**모든 것들이 **필연적으로(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살아(있는) 것은 죽(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어떤 것이 (산 그것 안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동일한 몸 안에 반대 것들이(τὸ ἐναντία b10)(속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병에 걸려서 또는 폭력에 의해서 [등] 어떻게 (죽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다 그

1299) 생성 소멸하는 것을 그가 우연히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라고 지금의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하다

1300) 생성 소멸하지 않는 생성 과 소멸의 아르케애들 과 원인들이 있다는 말이지 그러한 원인들 과 아르케애 역시 생성 소멸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러나 그러한 것은(에) 생겨난다(생성한다) 따라서,

이것은(αὐτῆ b12) 주어진 어떤 아르케(에)로 (되) 가지 알론한 어떤 것으로 ([나아] 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바로] 이것이(αὐτῆ b14) 둘 중의 어느 하나의 *기회*(ὁπότερ' ἔτυχεν b13)(원인)이요 그것의 생성의 원인이다 알론한 어떤 것이 (그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질료 또는 위해지는 것 또는 움직이게 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 으로서 그러한 아르케 와 원인을 삼을 것인가는 아주 (세심히) 조사되어져야한다 (1027a29-1027b16) ”

라는 인용글월의 논증이 언뜻 선명하게 닥아오지는 않으나 아주 심각한 것이 이 논증에서 말하여지는 것 같긴하다 우선,

이 논증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생성 소멸하지는 않지만 생성 소멸하는 것들의 원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비록 그 원인이 우연히 있는 것의 원인인지는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 분명하지는 않아도 말이다 그러나 이 논증의 끝 부분 1027b13에서 기회 원인 이라는 말이 생성의 원인 이라는 말과 연 이어져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우연히 있는 것의 원인을 그가 논증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하다

생성 소멸되지는 않지만 생성 소멸적인 아르케(에) 와 원인들이 만약 있지 않다면 그래서 생성 소멸되는 것의 비 **우연**적인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다면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생성 소멸적인 아르케(에) 와 원인들이 있다 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이것은 있거나 또는 있지 않을 것이다 있다면 이것은 생성될 것이나 있지 않다면 이것이 생성되지 않고 알론한 것이 생성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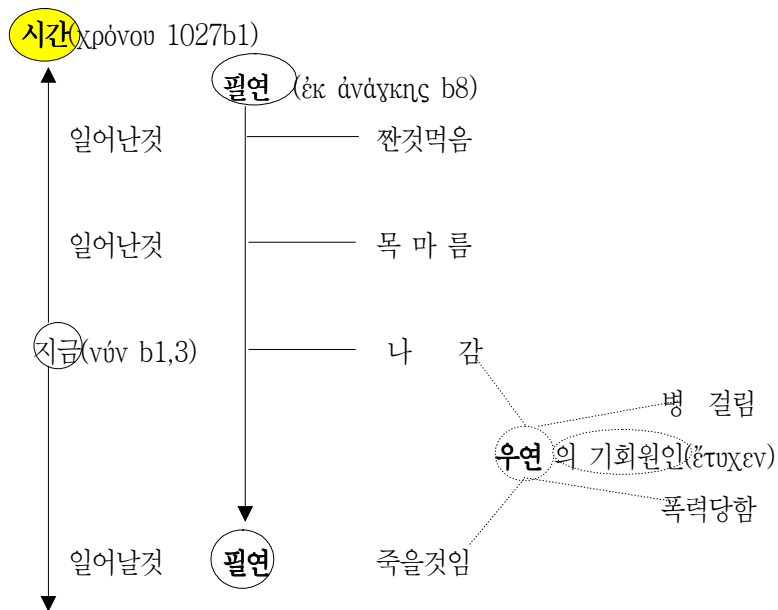
한계 지워진 시간으로부터 추출되어진 **항상**[적인] 시간의 **지금**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나간다면 이것은 병 걸려서든지 또는 폭력에 의해서든지 죽을 것인데 목마르다면 나갈 것이고 알론한다면 목마를 것이다 (나가는) 이것에 지금

과 지나간 어떤 것이 속한다 예를들어 목마르기에 나갈 것이고 짠 것을 먹기에 목마를 것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죽거나 또는 죽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과정]에 만약 어떤 것이 걸려든다면 동일한 로고스가 이어질 것이다 내가 지나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그 어떤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게 될 모든 것들이 필연적으로 (그것에) 있을 것이다 살아 있는 것은 죽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그와 같은) 것이 살아 있는 그 어떤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동일한 몸 안에 반대들이 속하는 것¹³⁰¹⁾ 처럼 말이다 그러나 병에 걸려 죽을지 또는 폭력에 의해 죽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생겨난다 이러한 것 중의 하나가 기회 원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음으로 되 돌아가지 알론한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죽게한 병 또는 폭력의 원인이 바로 기회 원인이다]¹³⁰²⁾

이러한 로고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어난 것 과 일어나는 것 과 일어날 것들이 어디까지 필연적이며 어디서부터 [우연적이라는] 것 그리고 [우연적인 것의] 기회 원인에 관해 말한다 시간(χρόνου, 1027b1, 時間) 순으로 나열해보면 다음 쪽에 나타나는 그림과 같다



1301) 반대들이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179쪽을 참조하십시오

1302) 이러한 원인 과 아르케애가 질료적인 것인지 아니며 위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움직이게 하는 것인지는 심사 숙고해서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도식은 죽음의 원인이 기회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산 것 (τὸν ζῶντα 1029b9)이라면 (필연적으로) 죽는다 그러나 어떻게(οὕτω b11) 죽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폭력) 또는 병 이 두 가지 중의 어느 하나를 (ὁπότε¹³⁰³) 1027b13 ; πότερον.....ἢ..... 1027a32-33)[선택하게 된다] 둘 중의 하나(entweder.....oder)에 의해 죽는다 죽는 길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 적어도 살아 있는 자들에게는.....그리고, 그 기회 원인이 질료인지 아니면 위해지는 것(목적)인지 아니면 움직이게 하는 것인지는 주의 깊게 숙고되어야 한다 이제,

우연한 것 과 우연한 것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제에타 편 6 장은 그 두 가지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해태론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 (6) (각기 것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과 각기 것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해태론한 것인지를(πότερον.....ἢ.....1031a15)조사해야 만한다¹³⁰⁴)

우연에 따라 말하여지는 것들의 경우에는 해태론한 것 처럼 보인다 예를들어 흰 사람 그리고 흰 사람에 있음(τὸ λευκῷ ἀνθρώπῳ εἶναι 1031a20-21)은 해태론한 것 처럼 [말이다]

동일하다면 말해지다시피 사람 과 흰 사람은 동일할 것이어서 흰 사람에 와 사람이가 동일할 것이므로 사람에 있음 과 흰 사람에 있음이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연히(에 따라 있는) 모든 것들의 경우에 동일한 것이 필연적으로 아니다 그 극단들이 그런 식으로(ὡσαύτως a25) 동일한 것들이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를들어 흰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 처럼 그

1303) 모든 기회 원인은 두 가지이다 라고 그에 의하면 말하여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되 있을까....글썸다.....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1304) [이것은] 실체에 관한 조사에 쓸모있다 각기 것은 자신의 실체와 알려진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은 각기 것의 실체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극단들이 우연히 동일하게 될 것 처럼 보이나 [실은] 그렇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

음악적인 과 흰 과 같은 우연적인 것들은 이중으로(τὸ διπλόν 1031b23) 말하여지므로 그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그것이 동일 하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우연적인 것이 그것에 [있는] 그것 과 우 연적인 것은 희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우연적인 것은 동일하나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 다 한 편으로 ‘흰 사람에’(있음) 과 ‘흰에’(있음)은 동일하지 않으나 한 편으로 ‘그 속성에(τῷ πάθει 1031b28)’ 있어 동일하다

만약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각각에 어떤 이^를 붙혀 본다면 그 불 합리함이(ἄτοπον 1031b28) 드러날 것이다 저것[원래 것]과 나란히 알론한 것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곧] 말(ἵππῳ 馬 1031b30)에(나란히) 있어지고 있는 헤테론한 그 무엇 [곧] 헤테론한 말이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라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곧 바로 **하나**¹³⁰⁵⁾임을 무엇이 금할 것인가 [금하는 것은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가 아닐 뿐 만 아니라 그것들의 로고스도 그러하다는 것은 말하여졌던 것으로부터 분명 해진다 하나에 있음 과 하나는 우연적으로는 (우연적인 것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만약 알론하다면 무한하게 (그것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한 편으로 하나의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고 다른 한 편으로 하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것들에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될 것이다 (1031a15-28, 1031b28-1032a4) ”

라는 인용 글월의 맥락 과 그 상세한 논증은 323-334쪽에 나와있으므로 우연히 있는 것은 자신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이른바 자신의 본질과 헤테론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으로 나는 여기서 만족하련다¹³⁰⁶⁾끝으로,

1305) 실체에 고유한 것은 숫적으로 하나이다 라고 범주들에서 말하여진다는 점에 유의하라(181 쪽 참조)

1306) 물론 말하고 싶은 것이 더 있긴하나 시간 때문에 그만 지나치련다

형이상학 델과 편 끝 장인 30장에서 말하여지는 우연한 것에 대해 살펴
해보려한다

“ (30) **필연적으로**(ἐξ ἀνάγκης 1025a15) (속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흔히] (속하는) 경우도(ἐπὶ τὸ πολὺ a15)아니지만 (우연히) 어떤
것에 진실로 **속한다**(ὑπάρχει¹³⁰⁷) a14)라고 주장되는 [경우]에 **우연**
(συμβεβηκός a14)은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식물을 위해 구멍을 파는 어떤 자가 보물을 발견한다면 [그럴
것] 처럼 [말이다] 이런 보물 발견(τὸ εὑρεῖν a17)은 구멍을 팠에 **우**
연이다 이것[발견]이 이것[구멍 팠]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오는 것]
도 아니요 이것[구멍 팠] 뒤에 (**필연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요 또는
식물을 위해 구멍을 어떤 사람이 판다면 [흔히] **많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악(적인 것)이 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우연**
히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속하는 어떤 것이(τι, a22, 속성) 있고 그리고 어떤 것에(τινι
,a22, 기체 로서의 어떤 것)(도 있)으므로 그리고 이러한 (어떤) 것들
가운데 하나는 어디서 그리고 언제(ποτέ a22) [어떤 것에] 속하는 것
이지만 [특별한] 이것에(τοῦτι a23) 그리고 지금(νύν a23) 그리고 거기
서(ἐνταῦθα a23) **있어오기**(ἦν a23) 때문은 아니므로 **우연히** **있을**(ἔσται
a24) 것이다 실로(δὴ a24),

우연의(τοῦ συμβεβηκότος a25) 정해진 원인은 있지 않으나
정해지지 않은 **기회**(τὸ τυχόν, a25, 幾回) (원인은) 있다¹³⁰⁸) 만약
아이기나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폭풍우에 의해서 또는 해적에 의해
잡혀서 그가 자신의 길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아이기나에 갔다면 그

1307) 속하디는 있다이다 라는 694쪽을 참조하라 물론 속함 과 있음은 동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역시 분명할 것이다

1308) 폴뤼클레이코스의 흉상의 원인에 대해 말하면서 폴뤼클레이코스
를 그 흉상의 우연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517쪽을 참조하시오

사람에게는 (우연이다) 우연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태론한 것에 의해서 일어나며 그리고 있다 폭풍우는 항해의 끝이 아니었던 그 장소에 그가 오게된 원인이며 그리고 그 장소는 아이기나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연(συμβεβηκός a30-31)은 알론하게 말하여지기도한다 예를 들어 2직각을 삼각형에 지니는 것 처럼 그 실체 안에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καθ' αὐτὸ¹³⁰⁹) a31) 각기 것에 속할 때(ἔσα a31)(우연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이런 우연들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저[다른] (우연)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해태론한 곳[분석론 후서 I 75a18-22, 39-41, 76b11-16]에서 설명될 것이다 (1025a14-34) ”

라는 인용 글월에 따르면

우연은 두 가지로 말하여진다 [첫째],

필연적으로 또는 [흔히] 땅이 속함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어떤 것에 진실로 속할 때 우연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식물을 위해 구멍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한다면 보물 발견은 구멍 팜에 우연이다 보물을 발견함이 필연적으로 구멍 팜으로부터 오는 것도 구멍을 판다면 [흔히] 많이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약(적인 것)은 희다 역시 우연이라고 말하여진다 필연적으로 그러한 것도 아니요 많은 경우에 [흔히] 그러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하는 어떤 것(속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에(기체에)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어떤 것은 어디서 언제 [그 어떤 것에] 속하지만 [특별한] 이것에 그리고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있어오는 것은 아니라면(ἐπει 1025a21) 우연히 있을 것이다 실로,

우연에는 정해진 원인은 있지 않으나 정해지지 않은 기회 (원인)은 있다 아이기나에 가려하지 않았는데 폭풍우 또는 해적에 의해서 아이기나에 갔다면 그 사람에게는 우연이다 이렇듯 우연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태론한 것에 의해서 일어나며 그리고 있다 항해의 끝이 아닌 아이기나 라는

1309) 303쪽에 나타난 로고스를 참조하시오

장소에 오게 된 원인은 폭풍우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예를들어 세모 꼴이 2직각을 지니는 것 처럼 그 실체 안에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각기 것에 속할 때 **우연**이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우연**은 영원(atδια, a33, 永遠, 757쪽) 것이다 그러나 저 (첫 번째 말하여지는 **우연**)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면,

텔레스는 여기서 **우연**을 영원한 우연 과 그렇지 못한 우연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다

실체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각기 것(예를들어 세모 꼴)에 그 자체로 속해 **우연**히 있는 것(예를들어 2직각(ὀρθός 1025a32))은 영원한 반면에 어떤 것에 **필연**적으로 속하는 것도 아니요 흔히 많은 경우에 속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것(예를들어 구멍 파는 것)에 속해 **우연**히 있는 것(예를들어 보물 발견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면 아마도 우연의 영원[성]은 우연히 있는 것이 속하는 [기체의] 영원[성]에 아마 딸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다 따라서,

어떠한 **우연**이든 속하는 어떤 것(속성) 과 그 어떤 것이 거기에 속하는 바로 그 어떤 것(기체¹³¹⁰)이 있을 때 비로소 **우연**히 있는 것이 성립한다 그러나 지금 과 거기에서 [특별한] 이것에 있어오는(ἔν 1025a23)것이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그 어떤 것(기체)에 있어오는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다¹³¹¹) 나아가서,

우연에도 원인은 있다 물론 정해진(ὀρισμένον 1025a24)원인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기회(τὸ τυχόν 1025a25)원인이긴 해도 말이다 텔레스는 예를

1310) 이러한 것을 실체 보다는 기체(τὸ ὑποκειμένον, 형이상학1028b36,295 쪽 ; 범주들2a12, 166쪽, 基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올 것 같다 그렇다면 영원한 우연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실체(οὐσία, 1025a31-32)를 어떻게 받아드려야할까.....실체는 기체적이다 라고 296쪽에서 처럼 읽고 지나가 버릴까.....

1311) 이러한 말은 아마도 우연 마저도 일회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들어 향해 도중에 만난 폭풍우를 그 향해의 끝이 아닌 아이기나에 오게한
기회 원인이라 말한다 그런데,

텔레스는 속해(ὑπάρχει 1025a14, 22, 23, 31) (**있는**) 것을 **우연**히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속하는 것은 있는 것의 한 양상일까 ‘속
하다’ 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건 간에 나를 골치아프게한다 아울러,

우연히 있는 것에 관한 이와 같은 그의 로고스는 어딘가 나를 허전하
게한다 무엇인가 더 말해져야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자체로 있는 것으로** 넘
어가기 전에 **필연**(적으로)에 대한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추적해 보기로하
자 **우연**은 **필연**이 아닌 것¹³¹²)으로 그에 의해 말하여졌기에 **필연**이 말해져
야 **우연**은 어떠한 것인가 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필연적인(ἀναγκαίον¹³¹³) 1015a20)은 형이상학 델타 편 5 장에서 말
하여진다

“ 예를들어 이 (숨쉬 과 음식) 없이는 (생물이) 있을 수 없으
므로 숨쉬 과 음식은 생물에 필연적인 것 처럼 부가 원인(συναίτιον,
1015a21, 附加原因) 으로서의 그것이 없이는 생물이 있기 시작하지 못
하는 바로 그것이 **필연적**(ἀναγκαίον a20)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예를들어 **않**치 **않**기 위해서는 약 먹음이 필연적이고 돈 벌기
위해서는 아이기나로 향해함이 필연적이듯이 그것들 없이는 선(τὸ ἀγ
αθόν, a21-22, 善)이 있기 시작하지도 않거나 또는 있지 않거나 또는
생성되지도 않는 혹은 악한 어떤 것이 제거되지도 않거나 또는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도 않는 바로 그것들이 (**필연적**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충동(τὴν ὁρμήν a27) 과 의도(τὴν προαίρεσιν¹³¹⁴), a27, 意圖,
依支)에 반대하여(παρὰ a27) 방해하고 막는 **강제 와 어거지**(τὸ βίαιον

1312) 물론 그 사이에 [흔히] 많음(τὸ πολὺ 1025a15)이 있긴해도 말이다

1313) 필연적으로에 대해서는 699, 621, 583,706, 759쪽 과 141쪽을 참조하
시오

καὶ ἡ βία a26) 이것이 (**필연적**이라고 말하여진다) ‘필연적인 모든 것은 지켜운(ἀνιπαρόν a29) 일이다’ 라고 유오에에노스가 말한 것 처럼 고통스러우므로 강제는 필연적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며 ‘어거지가 나에게 이것을 필연적으로 행하게한다’ 라고 소포클레애스가 말한 것 처럼 어거지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연(ἡ ἀνάγκη 1015a32)은 설득되지 않는(ἀμετάπειστον a32) 어떤 것으로 있다(εἶναι a32)라고 여겨지는 것은 올바르다 의도 와 논리에 따라(κατὰ τὸν λογιισμόν, a33, 論理) 움직이게하는(κινῆσει¹³¹⁵) a33) 것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 [이외의] 알론한 상태(ἔχειν¹³¹⁶) a34)로 (있기) 시작할 수 없는 것이 **필연(적인)**(ἀναγκαῖον a34) 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리고,

이런 **필연(적인)**으로부터 모든 각기 알론한 **필연(적인)**들이 어떻게(는) 말하여진다

왜냐하면 알론하게 (있기) 시작할 수(ἐνδέχεται¹³¹⁷) 1015b3) 없었(ἦν¹³¹⁸) b3)던 **필연적**인 그러한 것 으로서의 **강제**된 것 때문에 [자신의] 충동에 따라(κατὰ τὴν ὁρμὴν 1015b1-2) (있기) 시작하지 않을 때 마다 **강제**하[로] 행하거나 겪는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삶 과 착함(τοῦ ἀγαθοῦ, b4, 善)의 **부가 원인**들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ὡσαύτως¹³¹⁹) b4) 한 **편**으로 착함이 그리고 다른 한 **편**으

1314) 589쪽 참조하시오

1315) 욕망하게하고 생각하게 함으로서 움직이게하는 것과 이 강제 또는 어거지를 비교해보라(757쪽)

1316) 알론한 상태로 있을 수 없는 것은 항상 동일한 진실이라고 텔레스는 661쪽에서 말한다

1317) (있기) 시작하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 δυνατόν, 1046a20-21)과 연관지워서 (있기 시작하다)를 쓰고 있는 584쪽 과 568쪽을 참조하시오

1318) ἦν(있어왔던)에 대해서는 582, 294, 307, 335, 624, 755쪽을 참조하시오

로 삶(τὸ ζῆν b5) 과 **있음**이 그(부가 원인)들 없이는 (있기) 시작하지 않을 때 이 (부가 원인)들은 **필연적**이며 그리고 그 원인은 **필연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논증(ἡ ἀπόδειξις b7)도 **필연적**인 것들[중의 하나이다] 만약 순수하게 논증되었다면 [그 논증은] 알론한 상태로 (있기)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이런(논증)의 원인은 삼단논법(ὁ σολλογιος μός, 1015b9, 三段論法, 推理)이 그것들로부터 알론한 상태일 수 없이 [진행하는] 그 첫 번째 것들¹³²⁰)이다 실로,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의 **필연**의(τοῦ ἀναγκαία b10) 원인은 헤태론한 것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신들을 통해서 헤태론한 것들이 **필연적**으로 있다 따라서 순수한 것(τὸ ἀπλούν¹³²¹) b12)이 먼저 그리고 주로 **필연적**인 것이다 이(순수한) 것은 여러 상태로 (있기)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론하고 알론하게 (있기) 시작하지 않는다 (알론하고 알론하게 있기 시작한다면) 많은 상태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저것들에는(ἐκείνους b15) 강제도 있지 않고 자연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있지않다 1015a20-b15)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순수한 필연**으로부터 **알론한**

1319) 840, 824, 826, 177쪽을 참조하십시오

1320) 이 첫 번째 것을 실체라고 말하면서 삼단논법에 대해 말하는 357쪽과 그 첫 번째 것을 삼단논법이라고 말하는 524쪽을 참조하십시오 이 두 곳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앞에서는 삼단논법의 아르케에 로서의 첫 번째 것이 말하여지고 있으며 뒤에서는 논증의 요소 로서의 첫 번째 것이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1321) 순수에 대해서는 543, 267, 758쪽을 참조하십시오 758쪽에서는 어떤 상태가 동일함을 순수는 가리킨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 말은 순수한 것은 많은 (πλεοναχώς 1015b13) 상태로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여기의 말에 어긋나지 않는다

필연들이 어떻게든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여진다¹³²²) 우선,

순수한 필연은 험태론한 것을 자신의 **필연**의 원인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자신의 필연의 원인이므로 험태론한 것들이 자신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있는 그러한 필연이다 이런 순수한 것이 먼저 그리고 주로 필연(적인 것)이다

이러한 필연은 알론한 상태가 아닌 [지금] 그대로의 상태로 [밖에] 있을 수 없음 이라고 말하여진다¹³²³) 따라서 순수하게 필연적으로 있는 것은 알론하고 알론하게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있기 시작하면 많은 상태로 있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순수 필연**(적인 것)으로부터 각기 **알론한 필연**들이 말하여진다 첫째,

강제 와 **어거지** 이것이 **필연(적)** 이라고 말하여진다 알론하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필연 으로서 강제되기 때문에 자신의 충동에 따라 있으려 해도 그렇게 있을 수 없을 때 어떤 것이 강제로 행하거나 겪는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동 과 의도에 반대하여 (그 충동 과 의도를) 방해하고 막는 **강제** 와 **어거지**가 **필연**이라고 말하여진다¹³²⁴) 둘째,

1322) 따라서 835 쪽에서 우연(적인 것)은 필연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우연 역시 이런 필연들과 상응하게 그러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1323) 더 간략히 말한다면 필연은 알론하게 있을 수 없음일 것이다 여기에 다 필연적으로 있음은 사람이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 없음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698-699쪽의 말을 이어보라 그리고 759, 706, 621, 583 쪽을 참조하십시오

1324) 그래서 필연적인 모든 일은 지켜온 것이다 라고 유에에노스가 말한 것 처럼 고통스러운 강제(τὸ βίαιον, 1015a28, 強制)는 필연적이다 라고 말하여지며 그리고 어거지(ἡ βία 1015a31)가 나에게 이것을 필연적으로 행

착함(善) 과 삶 과 있음은 자신들의 부가 원인들이 없이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가 원인은 필연(적인 것)이다 삶의 부가 원인인 숨쉬고 음식 없이는 생물이 살지 못하므로 살아 있기 위해서는 숨쉬고 호흡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며 그것들 없이는 선이 있을 수 없으며 악이 제거되거나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예를들어 악덕과 아이기나로 항해함 같은 그러한 것들은 선¹³²⁵⁾에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논증 역시 필연(적인 것)이다 순수하게 논증되었다면 그 논증은 알려진 상태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삼단논법이 그것들로부터 알려진 상태로 진행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것들이 이런 (논증)의 원인이다 [게다가],

의도와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것에 반대(έναντιον 1015a32) 되므로 필연(ή ἀνάγκη, 1015a32)은 설득되지 않는 어떤 것으로 있다 라고 여기는 것은 올바르다¹³²⁶⁾

만약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는 강제도 있지 않고 자연에 반대하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알론하게 있을 수 없음 으로서의 순수한 필연으로부터 강제와 어거지로서의 필연과 예를들어 삶과 선과 있음의 부가 원인 으로서의 필연과 논증[이 지니는] 필연과 설득되지 않음 으로서의 필연(적인 것)을 텔레스는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연히 있는 것은 자꾸 알론하게 있는 것은 알론하게 있을 수 없는

하게한다 라고 소토클레아스가 말한 것 처럼 어거지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1325) 여기서 그는 선의 보기로 앓지 않음과 돈 범을 들고 있는 것 같다

1326) 이렇게,

순수한 필연으로부터 말하여지는 알론한 필연들은 헤테론한 것을 자신들의 필연의 원인으로 지닌다 이 헤테론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것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강제 와 어거지로 있는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의 부가원인 으로(ὡς συναίτιου, 1015a20-21, 附加原因) 있는 것도 아니며 논증되는 것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되지 않는 것(ἀμετάπειστον 1015a32)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우연**적인 것은 **필연**적으로 있는 것에 속하는 것이(ὁ ὑπάρχει 1025a14)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있는** 양상들 만큼 **있는 것**을 텔레스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다 라고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그에 의해 **우연**히 있는 것을 살펴보는 도중에 **우연** 과 **필연**에 대해 말했다 이제,

그 자체로(스스로) **있는 것**을 그가 무엇이냐 말하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 (7) **있는 것**은 한 편으로 **우연**히(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 1017a7)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그 **자체**로(καθ' αὐτὸ¹³²⁷) 1a7-8)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그 **자체**로 **있음**은 범주들의 도식들(σχήματα¹³²⁸) a23)이 가리키는 것 만큼 말하여진다 [도식들이] 말하여지는 그 만큼 (여러) 가지로 (τοσαυταῶς a24) **있음**은(τὸ εἶναι a24) 가리키기 때문이다 카테아고리아이(범주들) 가운데 [어떤] 것은 한 편으로 **있는** 무엇을 다른 한 편으로 **질** 과 **량** 과 **프로스 티**(πρός τι, a26, 어떤 것에 대함, 關係) 와 **행함과 겪음** 과 **어디** 와 **언제**를 가리키므로 이러한 것들 각각과 동일한 것을 **있음**은 가리킨다 건강한 그 사람이 **있다**(ἐστίν a28) 와 그 사람은 건강하다는 차이나지 않으며 천천히 걷는 또는 자르는 그 사람이 **있다**(ἐστίν a29)는 그 사람이 천천히 걷다 또는 자르다와 차이나지 않기 때문이다 알론한 경우들도 이와같다 (1017a7-a30) ”

1327) 그 자체로에 대해서는 303쪽을 참조하시오

1328) 기하학적인 도형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스케에마 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오 837, 691쪽을 참조하시오

라는 인용
글월에 따르면 말하여지는 범주들의 도식들 만큼 **있음**은 가리키므로 범주
들의 도식들이 가리키는 만큼 **그 자체로 있음**은 말하여진다 다시 말하면
범주들의 도식들이 가리키는 만큼 여러 가지로(ὁσαχώς.....τοσαυταχώς
1017a23-24) **그 자체로 있음**은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있는 그 무엇 그리고 질 과 량 과 프로스 티(관계) 와 행함 과 겪음
과 어디 와 언제를 범주들의 도식이 가리키므로 (그 자체로) **있음**은 이것들
각각과 동일한 것을 낳는 것이다¹³²⁹)따라서,

1329) [예를들어],

건강한 그 사람이 **있다** 와 그 사람은 건강하다는 그리고 천천히 걷는
그 사람이 **있다** 와 그 사람이 천천히 걷다는 그리고 자르는 그 사람이 **있**
다 와 그 사람이 자르다는 각기 차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보기를 좀 더 분석해보자

프라그마(자르는 그 사람, 31쪽)**있음** 과 프라그마에 상응하는 긍정(그
사람은 자르다)에는 차이가 없다 라고 여기서 그는 말하는데 30쪽에 따르면
범주들이 연결되어(συμπλοκή, 범주들 2a5) 긍정된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있는
그 무엇(그 사람) 이라는 범주 와 행함(자르다) 이라는 범주가 연결되어 긍
정(하는 로고스)가 생겨났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프라그마 **있음** 과 연결된 범주에는 차이가(διαφέρει 101728)
없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그 **있음**을 뺀 프라그마 와 (그 프라그마에 상응
하는) 범주들의 연결에도 **차이**가 없을까 다시말해 여기에서 쓰여진 **있음** 이
라는 낱말은 이 로고스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있음은 각각의 범주들의 도식을 가리킨다 -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있**
음은 범주들의 (도식들의) 연결 역시 가리켜야할 것이다 - 라는 그의 말에
그리고 **있음** 앞에 그 자체로 라는 낱말이 붙지 않았다는 점에 나는 주목하
고저한다 붙지 않았다면 그 앞에 **우연히** 라는 낱말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어쨌든,

자르는 그 사람이 **있다** 와 그 사람이 자르다에 나타난 **있다**는 자르

그 자체로 **있는 것**은 각기 범주들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 각 범주들은 우연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한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연결된 범주들 또는 범주들의 연결을 **우연히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각 범주들은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 자체로 또는 우연히 있는 것을 들여다 보려면 우리는 범주들 각각과 그 범주들의 연결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¹³³⁰⁾

있는 것[의 양상]을 찾아 더듬어 가는 중에 **우연**과 **필연**과 그 **자체**를 지났다 그러나 텔레스는 이러한 양상들과 헤태론한 **있는 것**의 양상들을 계속 말하고 있으므로 나는 텔레스를 계속 따라가야만 한다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그 만큼 **있는 것들**[의 양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ετι 1017a31),

“ **있음**과 (**그가**) **있다**는(τὸ εἶναι καὶ τὸ ἔχειν 1017a31)는 **진실**(ἀληθείας a31)을 가리킨다 **있지 않음**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이다 긍정과 부정(ἀποφάσεως, a33, 否定)의 경우도 이와같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음약적이라는 것도 진실한 것이고 또는 소크라테스는 회지 않다는 것도 진실한 것이지만 통약적이지 않는 빗변은 있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1017a31-a35) ”

라고 텔레스는

는 그 사람 이라는 프라그마 와 그 사람이 자르다 라는 긍정 이 둘을 동시에 가리킨다 라고 그리고 있다 앞에 우연히 라는 낱말을 허용할 것이다 라는 말해도 무방할 것 같다

1330) 따라서 텔레스는 자신의 카테고리아이(범주들, 28-32, 158-276쪽)과 형이상학 제에타 편(287-545쪽)에서 그 자체로 있음 또는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범주들에서는 실체를 포함한 일련의 각 범주들의 도식이 말하여지는 반면 형이상학 제에타 편에서는 범주들 가운데서도 실체 (라는 범주)가 말하여진다

말하므로 진실 역시 **있음**[의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있음** 또는 (그가) 있다는 **진실**을 가리키는 반면 **있지 않음**은 **거짓**을 가리키기 때문이다¹³³¹⁾

진실은 형이상학 테에타 마지막 편 10에 따르면 묶여진 프라그마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 (10)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한 편으로 범주들의 도식들에 따라 다른 한 편으로 그(범주들의) 힘 과 활동(에네르게이아)에 따라 그리고 그 반대(τάναντία 1051b1)¹³³²⁾(에 따라) 다른 한 편으로, 가장 주로, **있는 진실**(ὄν ἀληθές b1) 또는 **거짓**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이것(진실 또는 거짓, τούτο, b2)은 프라그마들의 경우의 묶어짐(συγκείσθαι b2) 과 나뉘어짐(διηρήσθαι b2)이다 그래서,

한 편으로 나뉘어진 것(프라그마)를 나뉘어진 (그대로) 그리고 묶여진 것(프라그마)를 묶여진 그대로 상정하는 것은 진실되며 그러한 프라그마(와) 반대로 (상정하는 것은) 거짓된다 [그렇다면],

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언제 말하여지는가 (1051a34-b6) ”¹³³³⁾

라는 인

용 글월에 따르면 **진실**은 묶여진 프라그마이며 **거짓**은 나뉘어진 프라그마인 반면 나뉘어진 프라그마를 나뉘어진 그대로 그리고 묶여진 프라그마를 묶여진 그대로 상정하는(οἰόμενος, 1051b3, 想定하는)것이 **진실된 것**이며 그 반대는 거짓된 것이다

1331)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진실**은 긍정 또는 부정 곧 로고스일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있음** 또는 **있는 것**이라는 점에 유념하라 물론 **거짓**은 **있지 않음**이다

1332) 로스(833) 와 트레드닉(469) 모두 non-potency and non-actuality 로 그 반대를 옮긴다

1333) 이 인용 글월의 맥락에 대해서는 600쪽 아래를 참조하시오

“ 항상 묶여지기만 할 뿐 나뉘어질 수 없는 반면 나뉘어지기만 할 뿐 묶여질 수 없다면 그 반대(τάναντία 1051b11)일 것이다 묶여진 것 하나는 **있음**인 반면 묶여지지 않은 것 여럿은 **있지 않음**이다 (1051b10-b13) ”

따라서,

묶여진 프라그마 하나 **있음**이 진실인 반면 나뉘어진 프라그마 여럿 곧 **있지 않음**은 거짓이라는 것이 그에 따르면 분명해진다 이러한 거짓은 ‘ 이것(거짓)은 묶여지지 않거나 또는 묶여져 있을 수 없는 (프라그마)이다 ’ 라고 그대로 다시 1024b18-19에서 반복된다 그렇다면,

진실을 **있음** 또는 **있는 것**의 한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제,

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언제(πότε 1051b15) 말하여지는가

“ 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언제 말하여지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사해서 말해야한다.....

(**있기**) 시작하는 것들(τὰ ἐνδεχόμενα 1051b13)에 관련해서는 동일한 역견 과 동일한 로고스가 **거짓** 과 **진실**로된다 그리고 한 때 진실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이된다 그런데,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것¹³³⁴에 관련해서는 (동일한 역견 과 동일한 로고스가) 한 때는 진실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진실이고 거짓이다 (1051b5-6.....1051b13-17) ”

라는 인용 글월부터는 진실하다 또는 거짓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은 무엇이며 언제 그렇게 말하여지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동일한 역견 과

1334)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것은 840쪽에서 말하여지듯 필연적으로 있는 것인 반면 있기 시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로고스 등이며 이것들이 어떤 것에 관련(περι 1051b13, 15, 17, 27줄) 하나냐에 따라서 항상 진실 또는 거짓인지 아니면 어느 한 때 진실 또는 거짓인지가 결정된다¹³³⁵⁾ 나아가서,

진실(한 말) 과 거짓(된 말)을 그는 형이상학 감과 편 7 장에서 다음처럼 정의한다(ὀρισμένοις 1011b25)

“ (7) 그러나 한 편으로 모순들(ἀντιφάσεως¹³³⁶⁾ 1011b23)사이에는 어떤 중간적인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에 따른 하나(ἐν καθ' ἐνός¹³³⁷⁾ b24)를 필연적으로 긍정하거나(φάναυ b24) 또는 부정(ἀποφάναυ b24)해야한다 [이것은] 진실 (τὸ ἀληθές b25) 과 거짓이 무엇인가를 정의해보면 먼저 분명해질 것이다

있는 것을 있지 않다 라고 또는 **있지 않는 것을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인 반면 **있는 것을 있다** 라고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을 있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은(τὸ λέγειν b26) 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다** 또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는 자는 진실하거나 또는 거짓될 것이다 그러나 **있는 것은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으며 **있음이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나아가서,

실로 [있다면] 모순들 사이의 중간적인 것은 검음 과 힘 사이에 회색이 있는 것 처럼 또는 사람 과 말 사이에 (사람도 말도)아닌 것이 있는 것 처럼 있을 것이다 (1011b23-31) ”

1335) 위 인용 글월에서는 생성 소멸하는 것 과 알론하게 있을 수 없는 것에 관련해서만 진실 과 거짓이 문제 삼아 졌지만 계속되는 글에서 텔레스는 움직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연언 과 주장 그리고 묶여지지 않은 것 또는 실체 등에 관련해서도 그러한 진실 과 거짓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이 부분을 나는 건너 뛰었다 그리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약간 어수선 하며 그 전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677쪽의 그림을 우선 본 후 그 이전 쪽을 살펴보기 바란다

1336) 모순에 대해서는 237, 241-242, 253, 625쪽을 참조하십시오

1337) 848쪽에 나오는 ‘하나의 경우에 하나만(ἐν ἑφ' ἐνός' 1024b33) 이라는 말을 참조하면서 그 맥락을 집어보라

라는 인용 글월에 나오는
진실 또는 거짓은 모순에 대해 말하는 맥락에서 그것도 몇 줄 안되게 나타
난다 그에 따르면,

모순 사이에는 중간적인 것이 있을 수 없으나 그 하나는 다른 하나를
필연적으로 긍정(肯定)하거나 또는 부정(否定)한다 이것은 진실 또는 거짓
을 정의해 보면 먼저 분명해진다

있는 것을 있지 않다 라고 또는 **있지 않는 것**을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인 반면 있는 것을 있다 라고 또는 있지 않는 것을 있지 않다 라
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다 또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
는 자는 진실하거나 또는 거짓될 것이다 그러나,

있는 것은 있지 않다 라고 그리고 **있음**은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
지 않는다

여기서 그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ἐν καθ' ἐνός 1011b24)필연적으로
부정(ἀποφάναι, b24, 否定) 또 긍정((φάναι, b24, 肯定)한다는 점에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모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¹³³⁸)있는 것 과 있지 않
는 것 각각은 서로를 부정하며 그리고 자신을 긍정하는 것으로 텔레스는 여
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긍정(κατάφασις, 범주들 12b7) 과 부정(ἀπό
φασις, 범주들 12b7)은 서로에 대립된다(ἀντικείμεθα¹³³⁹), 범주들12b10) 라
고 말하는 31 쪽 과 241 쪽에서 확인된다 나아가서,

진실(된 것)은 묶어진 경우에는 긍정하는 것이며 나뉘어진 경우에는
부정하는 것인 반면 거짓(된 것)은 이러한 나뉘의 모순(τὴν ἀντιφάσιν
1027b22-23)이다 라고 형이상학 엡실론 편 마지막 장인 4 장에서 말하여진
다

1338) 모순들과는 달리 설령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자신들 사이에 중
간적인 것들을 허용한다 손 치더라도 말이다

1339) 그에 따르면 모순은 반대에 속하고 반대는 대립에 속한다 32쪽에 나
타나는 그림을 보시오

“ (4) **우연히 있는 것**으로부터(τού 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 ὄντος 1027b17) 이제 떠나도록하자 충분히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실 으로서(ὡς b18) **있는 것** 과 거짓 으로서 **있지 않는 것**은 모순되게(ἀντιφάσεως b20) 배정되어 함께하는 [말인] 묶음 과 나뉘(ὁὐ vθεῖν καὶ διαίρεσιν b19)에 관련한다 **진실(된 것)**은 묶여진 것의 경우에는 긍정을 지니며 나뉘어진 것의 경우에는 부정을 지니는 반면 에 **거짓(된 것)**은 이러한 배정의(τού μερισμοῦ b22) 모순을(지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함께(τὸ ἅμα¹³⁴⁰), b23, 同時에) [묶어] 또는 분리[해] **생각**하느냐(πὼς.....voεῖν b23) 하는 것은 알론한 로고스이다¹³⁴¹)나는 동시(함께) 와 분리를(τὸ χωρὶς¹³⁴²) b24) 연이음(τὸ ἐφεξῆς b24)[의 측면에서]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¹³⁴³)으로 됨[의 측면에서] 말한다 **거짓(된 것) 과 진실(한 것)**은 프라그마 안에 예를들어 선은 진실하지 만 악은 곧 바로 거짓인 첫 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디아노이아(오성(悟性))**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수한 것(τὰ ἀπλά b27) 과 있는 그 무엇에 관련해서는 (거짓된 것 과 진실한 것이) 디아노이아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이론들은 후에[테 에타 편 10장, 847쪽] 반드시 조사되어야한다 그런데,

연결(ἡ συμπλοκή¹³⁴⁴), b29-30, 連結) 과 나뉘은 디아노이아 안

1340) 270, 720, 695, 654, 592, 851쪽을 참조하시오 그리고 1068b15 아래에 나오는 글들을 참조하시오(노우트 번역 129-5~6)

1341) ‘우리가 생각 안에서 묶거나 분리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것은 다른 물음이다(307)’ 라고 트레트닉은 읊는다

1342) 471쪽 과 1086a35근방(번역 노우트 183쪽)을 참조하시오

1343) 421쪽에 나오는 연속적 것 으로서의 하나를 참조하시오

1344) 쉘플로케에(연결) 이라는 낱말이 30쪽 과 162쪽에서는 범주들에 관련 해 쓰여진다 말하여지는 것들 가운데 아무 연결 없이 말하여지는 것들이 범주이다 라고 거기에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묶여짐(σύνθεσιν 1027b20, 21)대신에 쓰여진 것 같다 함께(τὸ ἅμα 1027b23) 처럼 말이다 그래서,

에 있지 프라그마들 안에 있지 않으므로 그리고(δ'1027b31) 이렇게 있는 것은 주로(τῶν κυρίως b31) (말하여지는 있는) 것들과 헤태론하므로 - 있는 그 무엇 또는 질 또는 량 또는 이와 같은 알론한 것들을 **디아노이아**가 덧 붙히(συνάπτει b32)거나 떼어내기(ἀφαίρει b33) 때문이다 - 우연 으로서 있는 것 과 진실 으로서 있는 것이 반드시 [여기서] 제외되어야한다(ἀφετέον b34)¹³⁴⁵⁾ 왜냐하면 (우연 으로서 있는 것은)의 원인은 무 규정적인 것(ἀόριστον b34)인 반면 (진실 으로서 있는 것의 원인은) 디아노이아의 어떤 속성(παθος 1028a1)이며 그리고 이 양자는 있는 것의 나머지 류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그(양자)이 외의(ἔσω a2) 있는 것의 실체 [와] 자연인 것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편으로 이(양자)를 제외하고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 그 자체의(τοῦ ὄντος αὐτοῦ a3)** [곧] **있는 있는 것의(τοῦ ὄντος ἢ ὄν a4)** 원인들 과 아르케에들을 조사하도록하자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것들 각각에 관한 우리의 규정 속에서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1027b17-1028a6) ”¹³⁴⁶⁾

묶여 있다 연결되 있다 함께 있다는 각기 통하는 것으로 본다면 묶인 것들 또는 연결된 것들 또는 함께한 것들은 범주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은 범주들이기 때문이다 자,

바로 이 지점에 668-669, 611쪽에 나타나는 말들을 연이어보라 범주들이 묶여진 것 그것이 프라그마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345) 디아노이아 로서 있는 것은 진짜로 있는 것도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일까 그렇다면 디아노이아적인 거짓 과 진실 역시 진짜 거짓 과 진짜 진실은 아닐 것이다

1346) 이 인용 글월을 끝으로 앞에 관해 말하는 엡실론 편 마지막 장인 4장은 끝나고 곧 바로 제에타 편 1 장이 이어진다 여기에 나오는 있는 것 그 자체 또는 있는 있는 것은 이어지는 제에타 편에서 주로 말하여지는 실체 곧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곧 에이도스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닐 것 같다

어찌 보면 랍다 편에 나오는 신(ὁ θεός 1072b25, 778쪽)은 있는 있

위 인용 글월에서는 디아노이아의 속성(πάθος 1028a1) 으로서의 진실 과 거짓에 대해 말한다

있는 진실 과 있지 않는 거짓은 모순에 배정되는 묶음 과 나뉘에 관련된 묶여진 것의 경우에 진실은 긍정을 지나나 나뉘어진 것의 경우에는 부정을 지니는 반면 거짓은 이러한 배정에 있어서 [진실에]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의 차원에서] 함께 와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라는 것은 알려진 로고스이다 — 텔레스는 함께 와 분리를 연이음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의 측면에서 말한다¹³⁴⁷⁾— [이러한] 거짓 과 진실은 프라그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디아노이아(悟性)안에 있기 때문이다¹³⁴⁸⁾ 그런데,

연결 과 나뉘는 디아노이아안에 있지 디아노이아 안에 있지 프라그마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리고 이렇게 (디아노이아 안에) 있는 것은 주로 말하여지는 있는 것들과는 헤태론한 것 - 있는 그 무엇 또는 질 또는 량 또는 이와 같은 알려진 것들을 디아노이아가 덧 붙히거나 떼어내기 때문이다 - 이므로 우연 으로서 있는 것 과 진실 으로서 있는 것¹³⁴⁹⁾은 [여기 논의에서] 제외된다 하나의 원인은 무 규정적인 것인 반면 다른 하나의 원인은 디아노이아의 어떤 속성이며 그리고 이 양자 이외의 있는 것의 실체 와 자연인 것이 가리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는 것 또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 또는 있는 것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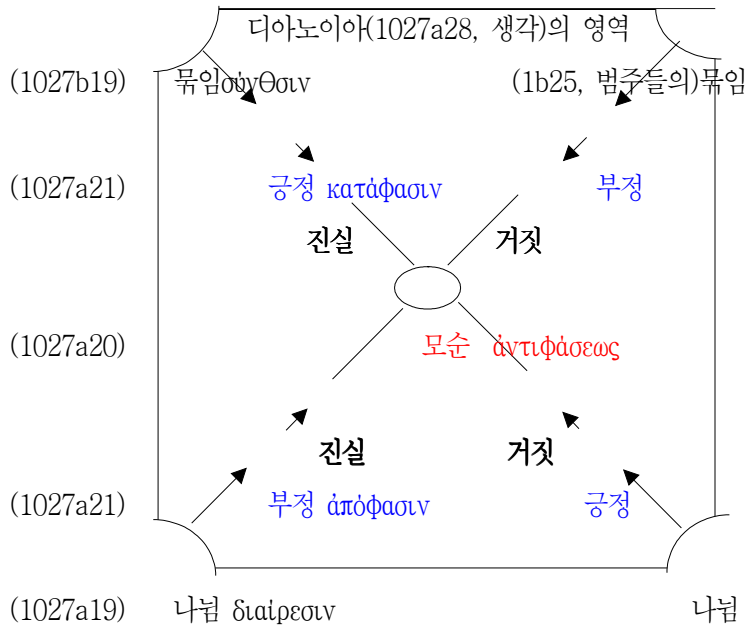
1347) 따라서 함께하는 것은 하나로 있는 것인 반면 분리된 것은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곧 있는 여럿일 것이다

1348) 그러나 순수한 것 과 있는 그 무엇에 관련된 거짓 과 진실은 디아노이아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이론은 후에 조사되어야한다

1349) 진짜 진실 으로서 있는 것 또는 순수한 진실 으로서 있는 것으로 읽어야 할 것 같다

진실 역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우선,

이 인용 글월에서 말하여지는 디아노이아적인 것 으로서 있는 진실 과 거짓이 있다 이런 진실은 [범주들의] 묶음 과 나뉘에 관련되며 거짓과 그 묶음 과 나뉘의 긍정 과 부정에 있어 모순적인 관련을 지닌다 묶여진 것 을 긍정하면서도 나뉘어진 것¹³⁵⁰을 부정하는 디아노이아는 진실인 반면 나 뉘어진 것을 긍정하면서도 묶여진 것을 부정하는 디아노이아는 거짓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진실 과 거짓은 디아노이아 안에 있지 프라그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로고스)들은 그림 안에서 다음 쪽 처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활살 점은 디아노이아(1027a28, 悟性)의 방향이고 실선 안은 디아노이 아 또는 생각(voείν 1027b23)의 영역이다 그리고 나뉘면서 묶여지는 것은 범주들이므로 범주들의 묶여진 하나를 긍정하는 디아노이아는 진실하나 부

1350) 묶여진 것은 범주들이 연결된 하나인 것인 반면 나뉘어진 것은 나뉘 어진 범주들 여럿일 것이다

정하면 거짓인 반면 나뉘어진 여럿을 부정하는 디아노이아는 거짓이나 긍정하면 진실이다 이러한 진실 과 거짓은 모순(적)으로 대립(250쪽 참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 과 거짓로 있는 것은 있는 것 그 자체 또는 있는(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듯 이러한 진실 과 거짓은 순수한 진실 곧 프라그마 로서의 진실 과 거짓은 아니다 단지 생각의 속성 으로서의 진실 과 거짓일 뿐 이다 다음으로,

847쪽에서 말하여지고 여기서 확인된 것 처럼 [범주들의] 묶어진 프 라그마 하나 로서의 진실이 있다 그러나,

프라그마 로서의 진실 보다는 디아노이아적인 것 으로서의 진실이 주 로 형이상학에서 언급된다¹³⁵¹) 그것도 앎과 연관지워져서 말이다 3장으로 이루어진 작은 알파 편 1 장이 바로 그러한 곳들 가운데 한 곳이다¹³⁵²) 이 곳에서는 **진실에 관한 앎이 철학**(τὴν φιλοσοφίαν ἐπιστήνην τῆς ἀληθείας 993b20)이라고 말하여진다

“ (1) 진실의 이론에 관하여는 한 편으로 힘들고(χαλεπή 993a30) 한 편으로 쉽다¹³⁵³).....

1351) 그러나,

진실 과 거짓이라는 말을 주제로 삼은 부분을 범주들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해석에 관하여 등 다른 논리적인 강의들에서 아마 주로 발견될 것 같긴한데.....

1352) 감마 전체 와 엡실론 1-3 장 과 카파 1-6 장도 진실이 앎과 연관되어 언급되는 곳들이다

1353) 어떤 사람도 그 (진실의 이론)에 충분히 도달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그 진실의 이론을) 획득하기에 집단적으로는(πάντας 993b1) 실패할 (수도) 없으나 각자는 자연에 관해 어떤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각자 한 (사람)은 (자연에 관한 진실한 그 이론)을 갖지 못하거나 그 (이론)에 조금 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에 (각자) 모두로부터는 합하여져 큰 어떤 것이 형성된

철학은 진실에 관한 앎이라고 말해지는 것은 옳다 이론적인 것(앎, θεωρητικής¹³⁵⁴, 993b20)의 끝은 진실인 반면 실천적인 것(앎의 끝)은 기능(ἔργον, 技能)이기 때문이며 [어떤 것이] 어떻게 그러한가를(τὸ πῶς ἔχει b22)조사할 때조차도 실천적인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관계되는 것을 이론화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인 없이는 **진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ἴσμεν 993b23) 자신에 따라(καθ' ὃ b24) 쉬모오누마한(同音同意的인, 825쪽) 것[질]이 알론한 것들에 속하는 각각은 그 자체로 알론한 것들 보다 가장 많이(μάλιστα a b24)[원인이다 또는 쉬모오누마한 것을 지닌다] 예를들어 불은 가장 뜨겁다 이(불)은 알론한 것들에 뜨거움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진실한 것은(ἀληθέστατον b27) 나중에 진실한 것들¹³⁵⁵의 원인이다 이 때문에,

항상 **있는** 것들의 아르케에는 **필연적으로** 항상 **진실**이다 (이 아르케에는) 언제(ποτε¹³⁵⁶, b29, 어느 한 때) 진실이지 않으며 저(아르케에)에 **있음**의 무슨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아르케에)가 알론한 것**에(의) 있음**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기 것은 **있음**의 (원인을) 지니는 것 으로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실**의 (원인을 지니는 것 으로서) [있다] (993a30-b4.....993b19-b31)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이어지는 책들이 주로 다루게 될 것은 있는 것들의 원인 또는 아르케에 라

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켜준다

1354) 705-6쪽에서 나누어지는 앎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724, 754쪽도 참조하십시오

1355) 파생되는 **진실**들이라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길은 필연에 대해 말하는 840쪽에도 나온다 거기에 따르면 알론한 상태로 있기 시작할 수 없음 으로서의 **필연**으로부터 모든 알론한 필연들이 어떻게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1356) 660쪽 과 677쪽에 나와 있듯이 항상 진실인 것이 있는 반면 어느 한 때 진실인 것이 있기 때문이다

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여진다 텔레스에 따르면,

원인 없이는 진실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쉬노오뉘마한 것이 자신에 따라 알론한 것들에 속하는 각각은 그 자체 알론한 것들 보다 가장 많이 원인이다 가장 뜨거운 불이 알론한 것들에 뜨거움의 원인인 것 처럼 말이다 그래서 가장 진실한 것이 나중에 진실한 것들의 원인이다 이 때문에,

항상(ἀεὶ 993b28) 있는 것들의 아르케에¹³⁵⁷은 필연적으로 항상 진실이다 어느 한 때 진실이지 않기 때문이며 이 아르케에에 있음의 무슨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에 있음의 원인이 바로 이 아르케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기 것은 있음의 원인을 지니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진실의 원인을 지닌다¹³⁵⁷) 그리고,

이런 진실에 관한 앎이 그에 따르면 철학이다 이론의 끝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거짓으로 옮겨가보자

거짓 역시 있음의 양상으로 보아야한다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있다는 것을 텔레스 역시 플라톤 처럼 인정하기 때문이다

“ 거짓(τὸ ψεύδος 1024b17)은 한 편으로 알론한 길에서 보면 프라그마 로서의 거짓이라 말하여진다 이것은 묶여져 (있지) 않거나(μὴ συγκεῖσθαι¹³⁵⁸) b18) 또는 묶여져 있을 수 없[는 프라그마이다] (네

1357) 이 로고스는 아마 각기 것에는 있음 과 (진실한)말이 상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듯하다 다시 말해 있는 각기 것에는 자신의 있음의 원인이 있듯이 각기 것에는 자신의 진실의 원인이 있다 또한 이 원인은 가장 먼저 진실인 그리고 가장 먼저 있는 아르케에이다 그러나,

여기서 진실을 디아노이아적인 속성만으로 보지 말아야한다 프라그마 로서의 진실 역시 있기 때문이다

모 꼴의) 빗변은 측정되(σύμμετρον b20)있는 빗변 와 얹은 당신 에서 처럼 [말이다] 이것들 중의 하나는 항상 거짓인 반면 하나는 어떤 때 거짓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있는 것들**이 아니므로 그렇다 다른 한편으로,

있는 것들이긴해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게 자연스레 나타나는(φαίνεσθαι b22) 또는 **있지 않는 것**으로[비 실제적인 것으로] (자연스레) 나타는 것들이 (거짓이라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스케치 와 꿈(τὰ ἐνύπνια b23) 처럼 [말이다] 이것들은 어떤 것이긴해도 (우리) 안에서 생산되어 나타난 [그대로의 어떤] 것들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¹³⁵⁹⁾ 그렇다면 그것들은 자신들**에**(τῷ b25)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자신들로 부터 (나타난) 판타지아들이 자신**에**(τῷ b25)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프라그마들은 거짓이라 말하여진다

(로고스가) 거짓인한 로고스는 **있지 않는 것들**의 로고스이다 따라서 진실한 로고스와 헤테론한(ἑτέρου...οὔ b28-29) 모든 로고스는 거짓이다 동급의 (로고스가) 세모의 (로고스일 때)[또는 그 거꾸로일 때] 거짓이다 그런데 각기 것의 로고스는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로서(ὡς 1023b29) 하나이지만 한 편으로 여럿(πολλοί b30)이다¹³⁶⁰⁾ 각기 것 자체 와 속성을 지닌 각기 것(αὐτὸ πεπονθός b30)은 어떻게 보면 동일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소코라테에스 와 음악적인

1358) 묶여진다 라는 말은 있음을 묶여진 하나 라고 말하는 688-689쪽 그리고 661쪽을 참조하라 묶여진 프라그마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올성 싶다

1359)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스케치(약도(略圖))된 것 또는 꿈에 나타난 것등 어떤 것이긴하나 스케치된 또는 꿈에 나타난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있는 것과 변형되어 나타난 것들이다 그런데,

나타난 모든 것이(πάν τὸ φαινόμενον, 1010b1, 現象) 진실은 아니다 라고 형이상학 감마 편 5 장 1010b1 와 1011a18에서 말하여진다 아쉽게도 이 부분을 상세히 여기서 다룰 수 없다 시간이 없어서이다.....

그리고 플라톤의 소피스테에스 98쪽을 참조하시오

1360) 따라서 두발 생물이라는 411, 445, 696쪽의 로고스가 사람의 유일한 로고스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소크라테이스 처럼 [말이다] 그런데,

거짓 로고스는 순수한(ἀπλώς b32) 로고스는 아니다 이 때문에 안티스테네스가 적절한(οἰκείω b33) 로고스를 제외하면 어떤 것도 말하여질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곧] 하나의 경우에는 하나만 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너무 단순했다 이(하나의 경우에 하나)로부터 [어떤 것은] 대답되게 말하여(ἀντιλέγειν b34)질 수 없다 라는 그리고 거짓될(ψεύδεσθαι b34) 수 없다 라는 결론¹³⁶¹이 이끌려 나오곤한다 그런데,

각기 것은 그(적절한 또는 고유한) 로고스에 의해서 뿐 만 아니라 헤태론한 (로고스에 의해서)도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도 한 편으로 완전히(παντελώς b36)거짓되게 다른 한 편으로 진실되게 말하면서 [말이다] 둘의 로고스에 의해서 8을 두배(의) 수(διπλάσια 1025a1) 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래서 한 편으로 이렇게 거짓은 말하여지지만 다른 한 편으로,

거짓 사람(이 있다) 헤태론한 어떤 것 때문이아니라 그(거짓 로고스)자체 때문에 그러한 (거짓) 로고스들 좋아하고 즐겨하려하는 그리고 그런 (거짓) 로고스들을 알론한 자들 (안)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자가 (거짓 사람이다) (우리) 안에서 거짓 판타지아를 생산하는 프라그마들을 거짓이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거짓이며 그리고 진실이다 라는 힐피아스의 로고스는 오도된(παρὰκρούεται, 1025a6, 誤導된다)것이다 왜냐하면 [이 로고스는] 거짓(말)하는 힘 (있는)자가 곧 보아 (아는, εἶδώς a8) 그리고 분별력 (있는) 자가 거짓이라는 것 나아가서는 의도적으로(ἐκόντα a9) 부 주의한(φάυλον, a9, 不注意한)자가 더 선하다는 것을 받아드리

1361) 이러한 결론은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라는 파르메니테이스의 결론과 비슷하다 거짓은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피스테이스에서 엘레아 낫선이는 자신의 아버지(τοῦ πατρὸς 241d5) 파르메니테이스를 살해하려한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각오까지하면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다 라고 말한다 (102-103쪽) 엘레아 낫선이는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인 소피스테이스를 정의하려하며 정의하려면 거짓(φευδής, 242e10, 100쪽) 또는 있지 않은 것도 있다 라고 말해야 했기 때문이다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절뚝거림을 모방한다 라고 말함에 의한 - 의도적으로 절뚝거리는 자가 비의도적으로 절뚝거리는 자 보다 더 선하기 때문이다 - 귀납을 통해 얻어진 거짓이다 의도적으로 절뚝거린다고해도 습관(ἥθος, a12, 慣習, 倫理)의 경우에 있어서와 똑 같이 더 나쁠 것이기 때문이다(ἐπεὶ a11) (1024b17-1025a13)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거짓 프라그마(사태(事態) 또는 일) 와 거짓 로고스(문장(文章) 또는 명제(命題)) 와 거짓 사람 등 세 가지 거짓이 말하여진다 [첫째],

프라그마¹³⁶²로서의(ὡς 1025b17) 거짓이 한 편으로 알려진 길에서 말하여진다 묶여지지 않는 (프라그마) 또는 묶여져 있을 수 없는 (프라그마) 는 거짓이다 측정되 있는 (네모)의 빗변 과 앓은 당신 처럼 말이다 이러한 프라그마들은 있는 것들이 아니므로 모두 거짓이다 그러나 하나는 항상 거짓인 반면 하나는 어떤 때 거짓이다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들이긴해도 스케치 처럼 있는 그대로가 아니게 자연스레 나타나거나 또는 꿈 처럼 있지 않는 것으로 자연스레 나타난 것들이 거짓이라 말하여진다 이것들은 어떤 것이긴해도 우리에게서 생산되어 (나타난) 그대로의 판타지아(심상(心想))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스케치된) 것들은 자신들에¹³⁶³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자신들로부터 (나타난) 판타지아들이 자신들에¹³¹⁰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프라그마들은 거짓이라 말하여진다 [둘째],

거짓인한 로고스는 **있지 않는 것들의** 로고스이다 따라서,

진실한 로고스와 헤대론한 모든 로고스는 거짓이다 동금의 로고스가 세모의 로고스일 때 (또는 그 거꾸로일 때) 거짓이다 (각기 것에) 있어오고

1362) 프라그마에 대해서는 31쪽을 참조하십시오 거기에서는 앓은 그 와 앓지않은 그는 각기 프라그마로 그가 앓아 있다 와 그는 앓아 있지 앓다는 각기 긍정 과 부정으로 말하여진다

1363) 여기의 3 격은(τῷ 1024b25)은 720쪽 이하에서 설명된 3격과 같다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는 하나이긴해도 한 편으로 각기 것의 로고스는 여럿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pi\omega\varsigma$ 1024b30) 각기 것 자체 와 속성을 지닌 각기 것은 동일¹³⁶⁴)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이스 와 음악적인 소크라테이스 처럼 말이다 그런데,

거짓 로고스는 순수한 로고스가 아니다 이 때문에 아티스테네스가 적절한 로고스를 제외하면 어떤 것도 말하여질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곧 하나의 경우에 하나만($\epsilon\nu\ \epsilon\phi'\ \epsilon\nu\omicron\varsigma$ 1024b33) 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너무 단순했다 이(하나의 경우에 하나)로부터는 어떤 것도 대립되게 말하여질 수 없다 라는 그리고 거짓될 수는 없다 라는 결론이 이끌려 나오곤한다 그런데 각기 것을 그(적절한 또는 고유한) 로고스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헤태론한(로고스에 의해서도)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도 한 편으로 완전히 거짓되게 다른 한 편으로 진실되게 말하면서 말이다¹³⁶⁵) [세제],

거짓 사람이 있다 헤태론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거짓 로고스 그 자체 때문에 그러한 거짓 로고스를 좋아하고 즐겨하려는 그리고 그런 거짓 로고스들을 알론한 자들 안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자가 거짓 사람¹³⁶⁶)이다(우리) 안에서 거짓 판타지아를 생산하는 프라그마들을 거짓이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동일한 자($\acute{o}\ \alpha\iota\tau\omicron$ 1025a7)가 거짓이면서 진실이다¹³⁶⁷) 라는 힐피아스의 로고스는 오도(誤導)된 것이다 이 로고스는 거짓될 수 있는 힘을 지닌

1364) 이러한 것들은 우연적으로 하나일 것이다 417, 835쪽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곧 본질의 로고스는 하나일 것이다 411-415 참조하십시오

1365) 둘의 로고스에 의해서 8을 두배의 수라고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

1366)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에서 낯선 엘레아 사람의 소피스테이스 정의가 퍼뜩 떠오른다 거기 101쪽에서는 소피스테이스는 사짓 뿐이며 거짓말쟁이이다(241b6-7) 라고 말하여진다 여기서 텔레스에 의해 뒤 이어 말하여지는 힐피아스 역시 소피스테이스에 속한다

1367) 동일한 것은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는 없다 라고 말하는 699쪽을 참조하라(734, 811쪽) 거기에 따르면 동일한 것이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동시에 진실일 수 없다

자가 - 이자는 보아 아는 분별력있는 자이다 - 거짓이라는 것 과 의도적으로 부 주의 자가 더 선하다는 것을 받아드리기 때문이다¹³⁶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 거짓에 관한 텔레스의 로고스는 프라그마 로고스 사람 순으로 거짓을 확장시켜 나아간다 프라그마가 거짓이면 그에 관련되는 로고스역시 거짓이며 그러한 거짓 로고스 자체를 즐겨해서 알론한 자 안에 그러한 거짓 로고스를 생산하는 자는 거짓 사람이라고 말이다

있는 프라그마로 인(因)한 판타지아가 있지 않는 것(꿈)이거나 있는 프라그마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스케치)는 거짓이라고 말하여질 뿐만 아니라 프라그마 그 자체가 거짓이다 라고도 말하여진다 [범주들이 있는 그대로] 묶여져 있지 않거나(않은 당신) 묶여져 있을 수 없을(측정되 있는 빗번) 경우 그 프라그마는 거짓이라고 말하여진다¹³⁶⁹) 그리고,

이러한 거짓 프라그마들(있지 않는 사태 또는 일)에 관련된 모든 로고스는 거짓 로고스(말)이다 그런데 텔레스에 따르면 거짓 로고스는 순수한 (ἀπλώς 1023b32) 로고스가 아니다 어떤 것에 관한 로고스는 여럿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것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정의)는 하나이긴해도 말이다 따라서,

하나의 경우에는 하나의 로고스만 이라고 말하는 그 결과 거짓 말은 없다 라고 말하는 안티스테네스는 너무 단순했다 하나의 경우에도 심지어 위 처럼 대립되는 로고스들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에도 거짓이 있다 거짓 로고스 자체를 좋아하고 즐겨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 안에 거짓 판타지아를 생산하는 거짓 프라그마에 관련되는 로고스를 생산하는(ἐμπονητικός 1025a4)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며 이런 사람

1368) 그런데 이것은 절뚝 거림을 모방한다 라고 말함에 의한 - 의도적으로 절뚝 거리는 자는 비 의도적으로 절뚝 거리는 자 보다 더 선하기 때문이다 - 귀납을 통해 얻어진 거짓이다 의도적으로 절뚝 거린다고해도 습관(윤리)적으로 (절뚝 거리는)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똑 같이 더 나쁠 것이기 때문이다

1369) 따라서,

텔레스는 프라그마(어떤 사태(事態) 또는 어떤 일(事))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허용한다

은 거짓이면서 진실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람이 진실이면서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횡피아스는 오도(誤導)된 [사람이다] 그는 결국 분별력 있는 사람을 곧 거짓말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힘을 지닌 사람을 거짓 사람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부 주의한 사람을 더 선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퍼서 절뚝 거림을 의도적으로 모방해서 절뚝거리는 것은 아퍼서 절뚝거리는 그래서 비 의도적으로 절뚝 거리는 것 만큼이나 나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거짓 역시 **있는 것**의 한 [양상]이다 라고 나는 말하련다 거짓은 **있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에 따르면 **있지 않는 것**¹³⁷⁰⁾도 어찌 보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544, 642, 483, 806쪽) 지금,

나는 **있는 것**의 양상에 대해 말하는 중이다 우선,

나는 **우연** 과 **필연** 과 그 자체(스스로) 또는 **카테아고리아이**(범주들)로 **있는 양상**(*Mode, 様相*)에 대해 834-861쪽에서 말한 후 그 다음,

진실 과 **거짓**으로 **있는 양상**에 말해왔다 이제,

나는 **힘**으로 있는 또는 **잠재**해 있는 그리고 **활동**하며 있는 그리고 **현실**로 있는 양상에 대해 다시 말해 힘 과 활동 과 현실로 있는 양상에 대해 말하려 한다¹³⁷¹⁾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370)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있음 과 있는 것에 대한 요약 정리가 끝난 후에 말하여질 것이다

1371) 이에 관한 텔레스의 로고스들은 545-680쪽에서 이미 충분히 말하여졌음에도 있는 양상의 그 전체적인 연관에서 다시 말하여질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서 아주 간략하게 말해 보려한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여진 것 이외에 별로 할 말이 없다 다시 요약하면서 여기의 맥락에 맞게 정열하는 것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움직임이 먼저 말해져야 한다 항상 있어 온 그래서 생성 소멸할 수 없는 움직임에 따라(κατὰ κίνησιν 1046a2) 말함을 통해서 비로소 그 움직임 보다 많이(ἐπι πλεον 1046a1) 있는 또는 그 움직임을 훨씬 넘어 서 있는 힘 과 활동 또는 현실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 (6) 두 가지는 자연적인 것들이고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 인 세 가지 실체들이 있었으므로 이(움직이지 않는) 것에 관련하여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인 것이 필연(적으로) 있다 라고 말해야한 다 실체들은 있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들이며 만약 모든 (이 첫 번째 있는) 것들이 소멸하면 모든 것들이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움직임은 생성하거나 소멸될 수 없다 항상 있어 왔기(ἦν 1071 b7) 때문이다 **시간** (역시 생성 소멸할 수) 없다 시간이 있는 것¹³⁷²⁾ 이 아니라[면] 예를들어 먼저 와 나중 (같은 것이) 있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움직임은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속적(συνεχῆς 1071b9) 이다 (시간의 속성과) 동일한 것(속성)이 움직임의 어떤 속성(πάθος b10)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움직임이 연속적이지는 않으나 자리에 따른 (움직임) 그것도 그(자리에 따른) 등근 (움직임)이 (연속적이다) (1071b3-11)¹³⁷³⁾ ”

라는 람다 편 6 장에 속하는 이 인용 글월에서는 움직임은 있어 왔으므로 결코 생성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과 움직임들

1372) 있는 것 과 생성되는 것 사이의 구별이 티마이오스 135-156 쪽에서 처럼 여기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라

1373) 이 인용 글월의 맥락에 대해서는 755쪽 전후를 살펴보라 움직이지 않으면서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로고스의 출발 점이 바로 움직임이다 있어 오는 움직임의 그 있음으로부터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의 있음에 관한 로고스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움직임은 있어 오고 있었다.....그리고....지금에 이르러서는....

가운데 둥근 자리 움직임 만이 연속적이라는 점 과 연속적이라는 이 속성을 통해서 **움직임은 시간과 동일하다**는 점이 말하여진다¹³⁷⁴⁾

“ 있는 것의 알려진 모든 카테에고리아이들이 지시하는 첫 번째로(πρώτως 1045b27) 있는 것에 관해 [곧] 실체에 관해 말해졌다 있는 알려진 것들이 [곧] 량 과 질 과 이와 같이 말하여지는 것들이 실체의 로고스에 따라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첫 로고스들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모든 것들은 실체의 로고스를 지니므로 [그렇다] 그런데,

있는 것은 한 편으로 그 무엇 또는 질 또는 량으로 말하여지며 다른 한 편으로 힘 과 현실에 따라서 곧(και, 1045b34,) 그 기능(τὸ ἔργον, b34, 作用)에 따라서 (말하여지)므로 **힘 과 현실(έντελεχίας b35)**에 관해 우리 규정해보기로하자 그리고 대 부분 그리고 주로 말하여지는 힘에 관해 비록 우리의 지금의 의도에 쓸모 있지 않더라도 먼저 (규정해 보도록하자) 왜냐하면 **힘 과 활동(ή ἐνέργεια 1046a1-2)**은 움직임에 따라 단지 우리들이 말하는 것들 보다 더 많이 있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힘)에 관해 말했을 때 활동(에너게이아) 와 알려진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게 될 것이다 (1045b22-1046a4) ”¹³⁷⁵⁾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움직임**에 대해 말할 때 보다 **힘 과 현실**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훨씬 많은 말을하게 된다고 말하여진다 훨씬 많이 말하여지는 그 만큼 힘 과 현실은 더 충분하고 완전하게 있다 (ἐπὶ πλέον ἔστιν.....τών 1046a1-2)는 것은 최소한도 텔레스에게서 만큼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움직임에 대해 말할 때 마다 그보다 더 많이 힘 과 현실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있음의 한 양상 으로서의 힘 과 활동 또는 현실에 대해 말하기 전에

1374) 시간 역시 생성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있지 않다면 먼저 와 나중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375) 이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546쪽을 참조하십시오

반드시 말해져야하는 움직임에 대해 나는 말하려한다¹³⁷⁶⁾

이 보다 앞선 인용 글월에 따르면,

움직임은 있(어왔)다 이제,

있어온 움직임에 대해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 텔레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따라가 보자¹³⁷⁷⁾ 먼저 자연학 III. 1-3 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하여 지는 칼과 편 9 장을 살펴보자

“ (9) 한 편으로(μὲν 1065b6) 있는 것은 다른 한 편으로(δὲ b6)f
량은 다른 한 편으로 이와 같은 나머지 것(범주)들은 한 편으로 단지
활동에만 (있고) 다른 한 편으로 힘에(만 있고) 다른 한 편으로 힘 과
활동에 (있다) 그런데,

움직임은 프라그마와 나란히(παρὰ b7) 있지 않다¹³⁷⁸⁾ 있는 범
주들에 따라서 변화하기(μεταβάλλει b7-8) 때문이다 이(범주)것들의
경우에도 하나[의] 범주에도 공통적인 것은 있지 않다 그런데 (범주)
각각은 모든 것에 두 가지로 속한다 예를들어 이것(τὸ τὸδε b10) 처
럼 말이다 한 편으로 이(이것)의 모양(μορφή b10)으로서 다른 한 편
으로 (이 이것의) 결여로서 ([범주 이것은 모든 것에] 속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질에 따라서는 한 편으로는 힘 과 다른 한 편으로 검음이

1376) 물론,

텔레스가 타 메타 타 퀴지카(형이상학) 와 카테에고리아이(범주들)에
서 있는 것은 움직임이라고도 말하여진다 라고 말한 곳을 찾아 보지 못했다
나아가서 푸쉬케에 (영혼)에관하여 와 퀴지카(자연학) 그리고 그 이외의 곳
에서도 보지 못한 것 같다

1377) 707-712쪽 그리고 755-785쪽을 참조하라

1378) 그러기에 텔레스에 따르면 말(로고스)에는 움직임이 있지 않다 여기
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움직임은 프라그마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범
주들의 묶임 또는 나뉘인 프라그마에 대해서는 869쪽의 그림 참조하시오

그리고 량에 따라서는 한 편으로 끝(τέλειον b12) 과 다른 한 편으로 끝 아님이 그리고 등근 자리 움직임(φορὰν b13)에 따라서는 한 편으로 위로 와 다른 한 편으로 아래로가 또는 가벼움 과 무거움[도 그렇다] 그래서,

있는 것의 에이도스(種) 만큼 그렇게 움직임 과 변화의 (에이도스가 있다) [있는 것의] 각기 류(γένος b15)에는 한 편으로 힘에 [있는 것] 과 현실에(έντελεχεια b15)[있는 것]의 (류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것 으로서의 힘으로(에) (있는 것)의 활동(ένεργειαν b16)을 나는 움직임이라 말한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다음으로부터 분명하다

집 지을 수 있는 것이(τὸ οἰκοδομητὸν b17) 활동에 지어지는 것 으로서 있다 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 으로서의 집 지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집지움(οἰκοδόμησις b17)이기 때문이다 배움 과 치료 와 걸음 과 땀 과 나이들 과 익음도 이와 같다¹³⁷⁹⁾ 현실 그 자체가 있을 바로 그 때 마다 (ὅταν 1065b21) 움직여짐이 함께 일어난다(συμβαίνει, b20, 함께한다) 먼저도 나중도 아니다¹³⁸⁰⁾ 현실로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으로서(ἢ κινητὸν b23) 활동할 때 마다 실로 힘으로 있는 것의(τοῦ δυνάμει ὄντος b22)움직임 있다¹³⁸¹⁾ 나는 ‘으로서(τὸ ἢ b23)’에 의해서 이것(ὡδε, b23, 다음)을 - 청동은 홍상의 힘이냐(잠재적으로 홍상이냐) 청동 으로서

1379) 자연학 III 200b32-201a19 참조하십시오

1380) 자연학 III, 201b6,7 참조 하시오

1381) ‘ ἡ δὲ τοῦ δυνάμει ὄντος, ὅταν έντελεχεια ὄν ενεργῆ ἢ αὐτὸ ἢ ἄλλο ἢ κινητὸν, κίνησις ἐσιν. b22-23) ’ 가운데 밑 줄친 부분이 om ET에는 ἢ αὐτὸ ἢ ἄλλο ἢ κινητὸν ἢ κίνησις 으로 되 있다고 베케리 판 주석에서 말하여진다 로스 와 트레드닉은 omET을 따른다(트레드닉 96, 로스 원문) 사실 그렇게 읽어야 맥락이 통한다

나도 그렇게 읽었다 ‘또는(ἢ)’을 ‘으로서(ἢ)’로 그리고 ‘알론한 것(ἄλλο)’을 ‘아니라(ἄλλ)’로 읽어 주어야 그 로고스의 뜻이 이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 b25) 그 청동의 현실(화)(έντελέχεια b25)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동에 있음 과 잠재적으로 어떤 것에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순수하게 로고스에 따라 동일한 것 이라면(으로 있어 왔다면) 그 청동의 현실이 움직임인 것으로 있어 왔을 것이므로 (움직임일 것이므로)[그렇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대들의 경우에 분명하다 한 편으로 건강할 힘을 [지니게] 됨 과 나뻘 힘을 [지니게] 됨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일하다)면 건강함 과 나뻘이 동일할 것이므로 [그렇다] 그런데 축축한 것이든 핏기있는 건강한 그리고 병든 기체(τὸ ὑποκειμενον 1065b30-31)는 동일한 것이고 하나이다 그런데 색 과 붉(όρατὸν b30)이 동일하지 않듯 (건강함 과 나뻘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될 수 있는 것 **으로서의** 될 수 있는 것의 현실(화)가(ἡ τοῦ δυνατοῦ ἢ δυνατὸν έντελέχειαb33)움직임이다 (될 수 있는 것 으로서의 될 수 있는 것의) 이러한(현실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현실화가 이러한 것일 [바로 그] 때 - 먼저 와 나중에 아님 - 움직여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각기 것이 때로는(ὅτῃ 1066a1) 활동하지만 때로는 활동하기 않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집지을 수 있는 것 으로서의 집 지을 수 있는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집 지을 수 있는 것 으로서의 집 지을 수 있는 것의 활동이 집 지음이다 활동(ένέργεια a4)은 이 집 지음이거나 또는 집(oíkíā a4)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이 있을 때 더 이상 [그 집]에 집 지음이 있지 않을 것이다 집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집 지어진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활동은 집 지음이다 그런데 집 지음은 **움직임**인 것(움직임의 일 중)이다 알론한 것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아름답게(καλῶς a7-8) 말했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움직임)에 관해 말한 것들로부터 그리고 이 이외에는 달리 규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으로부터 분명하다 (1065b5-1066a9) ”

라는 인용 글
 월에서는 첫째 우연 과 필연 과 그 자체 둘째 범주들 세째 진실 과 거짓 이라는 있는 것의 세 양상과는 알론한 양상에서 곧 힘 과 활동 과 현실 이라는 양상에서 있는 것이 말하여지기 시작하나 **움직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

한다

있는 것 과 량 과 나머 지 것(범주)는 한 편으로 활동에만 있고 다른 한 편으로 힘에만 있고 한 편으로 힘 과 활동에 있다 그런데,

움직임은 프라그마와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있는 범주들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범주들에는 [그리고] 범주 하나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지 않다 그런데 각기 범주는 두 가지로 모든 것에 속한다 예를들어 이것은 이것의 모양 과 결여 로서 질은 모든 것에 힘 과 검음 으로서 량은 끝 과 끝나지 않음 으로서 둥근 자리 움직임($\phi\omicron\rho\acute{\alpha}\nu$ ¹³⁸²) 1065b13)은 위 와 아래 또는 가벼움 과 무거움 으로서 모든 것에 속한다 그래서 있는 것의 에이도스 만큼 움직임 과 변화의 에이도스가 있다 그런데,

있는 것의 각기 류는 **함에** 있는 것 과 **현실에** 있는 것 으로서 나뉘어 진다

그러한 것 으로서의 **함에** 있는 것의 활동을 **움직임**이라고 나(텔레스)는 말한다

예를들어 집 지을 수 있는 것이 집 지어지는 활동 으로서 있다 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 으로서의 집 지을 수 있는 것일 때 이 집 지음이 있기 때문이다 배움 과 치료 와 걸음 과 땀 과 나이듬 과 익음[과 같은 움직임도] 이와 같다

현실 그 자체가 있을 때 움직임이 일어난다 먼저도 나중도 아니다 현실에 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으로서 **활동**할 때 **함에** 있는 것의 **움직임**이 있다

으로서에 의해 나는 이것(다음)을 - 청동은 흉상의 힘이나(잠재적으로 힘이나) 청동 으로서의 그 청동의 현실(화)는 움직임이 아니다 를 말하기 때문이다. 청동에 있음 과 어떤 것에 힘(잠재적)으로 있음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순수하게 로고스에 따라 동일하다면 그러한 청동의 현실이 어떤 움직임일 것이므로 [그렇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대들을 보면 분명해진다 건강할 힘을 지니게 됨 과 나뻘

1382) 둥근 자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755, 765, 883쪽을 참조하시오

힘을 지니게 됨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하다면 건강 과 나쁨이 동일 할 것이다 그런데 축축하든 찢기있든 건강한 그리고 병든 기체는 동일하며 하나이다 그러나 색 과 봄이 동일하지 않듯 건강 과 나쁨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될 수 있는 것 으로서의(ἡ δυνατόν 1065b33)될 수 있는 것의 현실(화)가 움직임이다 (될 수 있는 것 으로서의 될 수 있는 것의) 이러한 (현실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현실화가 이러한 것일 때 - 먼저 와 나중에 아님 - 움직여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각기 것이 때로는 활동하지만 때로는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 지을 수 있는 것 으로서의 집 지을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집 지을 수 있는 것 으로서의 집 지을 수 있는 것의 활동이 집 지음이다 활동은 이 집 지음이거나 또는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이 있을 때 더 이상 집 지음이 있지 않을 것이다 집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집 지어진 다 따라서,

활동은 필연(적으로) 집 지음이다 그런데 집 지음은 어떤 움직임이다 알론한 경우들에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된다¹³⁸³⁾

이러한 그의 로고스는 텔레스 자신에게는 매끈(καλώς 1066a7-8)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서는 옮겨서 정리하기 어려운 로고스이다 물론 그 말하고져 하는 바가 어중간하게 집혀오기는 해도 말이다 먼저,

여기서 텔레스는 각기 범주에 모아지고 있는 모든 것을 힘에 있는 것 곧 잠재적인 것 과 활동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말한다 움직임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움직임은 어떻게 일어나며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 있는 모든 것을 힘에만 있는 것 과 활동에만 있는 것 과 힘 과 활동에 있는 것으로 나눈다 따라서,

1383) 지금 까지 매끈하게 말하여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움직임에 관해 말한 것들로부터 그리고 이 이외에는 달리 그 움직임을 규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으로부터 분명하다

힘 과 현실은 있는 모든 것의 또 다른 류의(γένος 1065b15)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다음으로,

움직임은 있으나 프라그마와 떨어져 나란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있는 범주들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¹³⁸⁴)으로부터 자신의 로고스를 그는 시작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움직임에 관한 그의 로고스의 아르케에(출발점)이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 그는 힘에 있는 것 과 현실에 있는 것 등 두 가지 류에 속하는 범주들의 종(에이도스)만큼 움직임 과 변화의 종이 있다고 말한 뒤 힘에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활동)을 움직임이라고 그는 말한다 집 지음 이라는 에네르게이아(활동)을 보기¹³⁸⁵)로 든다

현실이 있을 바로 그 때 - 먼저도 나중도 아님 - 움직여짐(집 지어짐)이 일어난다 현실에 있는 것이 움직이게 하는 것 으로서 활동할 때 비로소 힘에 있는 것(집 지어질 수 있는 것)의 움직임(집 지음¹³⁸⁶)이 있다 예를 들어,

청동은 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동 으로서의 그 청동의 현실(화)가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이다 청동에 있음 과 그 어떤 힘에 있음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동일하다면 그 청동의 현실이 어떤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건강할 힘을 지니게 됨 과 나뭇 힘을 지니게 됨 등 반대들의 경우에

1384) 그래서 있는 범주들의 에이도스만큼 움직임 과 변화의 에이도스가 있다 그래서,

이것 과 질 과 량 과 장소움직임 등등의 움직임의 에이도스도가 있는데 이것(그 무엇)의 움직임의 경우에는 모양 과 그 모양의 결여 그리고 질의 움직임의 경우에는 힘 과 검음 그리고 량의 움직임의 경우에는 끝 과 끝안남 그리고 등근 자리 움직임의 경우에는 위 와 아래 또는 가벼움 과 무거움 등 움직임의 두 양극에 각기 범주는 속한다

1385) 배움 과 치료 와 걸음 과 땀 과 나이듬 과 익음도 같은 보기들이다

1386) 배움 과 치료 와 걸음 과 땀 과 나이듬 과 익음과 같은 것도 이와 같다

는¹³⁸⁷)동일하지 않다¹³⁸⁸)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색 과 봄 역시 동일하지 않듯 건강 과 나쁨도 동일하지 않으므로 될 수 있는 것의 될 수 있는 것 으로서의 현실(화)가 움직임(봄 또는 건강해짐 또는 집 지어짐)이다 동일하다면 힘에 있는 것으로부터 현실에 있는 것으로의 움직임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될 수 있는 것의 될 수 있는 것 으로서의 이러한 현실(화)가 있다는 것 과 현실(화)가 이러한 것일 때 - 먼저도 나중도 아님 - 움직여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각기 것은 때로는 활동하지만 때로는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 지을 수 있는 것 으로서의 집 지을 수 있는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집 지을 수 있는 것을 집 지을 수 있게 (히는) 활동이 집 지음이다 활동은 이러한 집 지음이거나 또는 집이다 그러나 힘이 있을 때 더 이상 집 지음이 있지 않을 것이다 집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집 지어진다는 따라서,

필연적으로 활동은 집 지음이다 그런데 집 지음은 어떤 움직임이다 그런데,

움직임에 대해 말하면서 움직임 보다 더 많이 말하여지는 에네르케이아(활동) 또는 엔텔레케이아(현실)는 에르곤(작용, 기능)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나는 642쪽에서 그림 그려가며 정리해 두었다 그 그림을 연상(聯想)해 가며 계속 말해 가기로하자

1387)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범주 각각은 모든 것에 두 가지로 속한다 라고한 말을 다시 숙고해 볼 수 있으리라 이것은 이것의 모양 과 그 결여로서 모든 것에 속하며 질은 예를들어 힘 과 검음 - 검음은 힘의 결여 - 으로서 모든 것에 속하고 양은 끝 과 안끝남 으로서 모든 것에 속하며 둥근 자리 움직임은 위 와 아래 또는 가벼움 과 무거움 으로서 모든 것에 속한다

이러한 반대들의 경우 해태론한 것이 있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이 있을 필요는 없다 라는 점(252) 그리고 반대들 사이에는 중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러나 모순들 사이에는 중간이 있지 않다(241, 253, 863쪽)

1388) 그러나,

건강한 그리고 병든 기체는 동일하며 하나이다

텔레스는 위 인용 글월에서 움직임을 두 번 규정하면서 한 번은 에네르게이아(활동) 이라는 말을 쓰는 반면에 한 번은 엔텔레케이아(현실) 이라는 말을 쓴다 ‘(될) 수 (있는) 것의 (될) 수 (있[게 하]는) 것 으로서의 현실 (화)가 움직임이며(1065b33)’ 그리고 ‘힘에 (있는) 것의 활동을 나는 **움직임** 이라 말한다(1065b13)’ 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활동 과 현실은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헤태론한 것일까 아니면 그 있음에 있어서는 동일한 반면 그 로고스에 있어서는 헤태론한 것일까

문자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엄연히 서로 헤태론하다

ἐνέργεια(에네르게이아, 활동(活動))은 ἐν(안에,하는 중이다) - ἐργ(작용, 기능) - εια(여성 명사형 어미)로 분석되며 ἐντελέχεια(엔텔레케이아, 현실)은 ἐν(안에,하는 중) - τελέ(끝) - χεια(여성 명사형 어미)로 분석 되므로 에네르게이아는 활동 정도로 엔텔레케이아는 ‘끝(목적)을 자신 안에 지닌 것’ 또는 ‘완선된 것(The complete reality, 로스, 864)’ 정도로 문자적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그 둘은 헤태론하다 그런데,

그 로고스(뜻)에 있어서는 동일할까 불행히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형이상학 테에타 편 1-10장(545-679쪽)으로 돌아 가서 그 장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여기서 에네르게이아에 관련한 보기만이 그것도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요약(656-660쪽)한 것을 더 요약하면,

활동(에네르게이아)

이라는 이름은 에르곤(작용)으로부터 왔으며 엔텔레케이아(현실)로 까지 확장된다 가르치는 자가 다 가르쳤을 때 이루어낸 자신의 **끝(목적)**이 에르곤 이며 에네르게이아가 그 에르곤이기 때문이다(622)¹³⁸⁹⁾

과 에르곤은 서로 나란히 알론하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623)
활동(에네르게이아)은 에르곤 안에(ἐν) 속한다 예를들어 봄

1389) 643쪽에 나타난 녹색 타원 형에 갇힌 것들을 보라

은 ‘보는’ 안에 속하며 이론(관조)은 ‘이론화하는’ 안에 속하고 생명 과 행복은 ‘영혼’ 안에 속한다
 을 나(텔레스)는 동일한 것을 보면서 동시에 보았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했던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는 것을 **움직임**이라고 말한다(597-598)
 은 힘에 대해 움직임으로 있는 반면 질료인 것에 대해 실체로 있다고 유비적으로도 말하여진다(657)
 는 생각이다(649)
 로부터 힘이 기인(起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식이 진행되는(649) 따라서,

에네르케이아는 에르곤에 속하며 가르치는 자의 끝이(1050a21) 에르곤이라고 말하여지므로 만약 엔텔레케이아 역시 그 끝이라고 말하여질 수 있다면 에네르케이아 와 엔텔레케이아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하다¹³⁹⁰⁾ 이제,

움직임의 로고스에 나타난 에네르케이아 와 엔텔레케이아를 더 분석한 후 동일한지의 여부를 따져보다

움직임은 ②그러한 것 으로서의 ①힘에 있는 것의 *에네르케이아*이며 ②될 수 있는 것 으로서의 ①될 수 있는 것의 *현실(화)*이다 이다 라고 규정된다

이러한 정의에 나타나는 ‘*으로서의*(η , 1065b33, 23, 18, 16, 1066a2)’라는 관계 대명사 여성 단수 3 격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 ‘될 수 있는 것 (b33, a2)’인 것 같다

여기서 ①될 수 있는 것($\tau\acute{o}$ δυνατὸν b33) 과 ②.....것 으로서) 될 수

1390) 그러나 엔텔레케이아에 대한 더 나아간 로고스는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딱 부러지게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에네르케이아 와 엔텔레케이아 이 둘이 적어도 여기에서는 서로에 속하는 것으로 말하여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있어지는 (활동)(ἡ δυνατόν b33)) 그리고 ③.....것 으로서) 될 수 있게 하는 또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활동 또는 현실)(ἡ κινητόν b23) 과 ④ 있는 현실(b22) 등으로 나누는 텔레스를 나는 본다 이러한 나뉘들 가운데,

‘...것 으로서(ἡ)’에서 ‘것’은 ②(b25, ‘청동 으로서’의 ‘청동’) 과 ③(b23,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으로서의’에서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활동)’을 말하지 ①(b24-25의 ‘청동의, τοῦ χαλκού’의 청동) 과 ④(엔텔레케이아 b25) 을 말하는(λέγω b23) 것이 아니다 그리고 b16의 움직임의 첫 번째 정의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 으로서(ἡ τοῦτόν)’에서의 ‘그러한 것’ 역시 ③ 과 ②이다 나아가서,

① 과 ②는 동일한 기체(τὸ ὑποκείμενον b30-31)이다¹³⁹¹) 그렇다면,

힘에 있는 것^②(1392)의 에네르케이아가 달리 말하면 될 수 있는 것^②의 엔텔레케이아가 움직임이다¹³⁹³)그렇다면,

언제 움직여지는가 각기 것이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ὅτε 1066a1) 활동했다 때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다¹³⁹⁴)텔레스에 따르면,

1391) 이러한 기체 안에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또는 변화하는 것은 이러한 기체이다

1392) 힘에 있는 것^①의 에네르케이아가 또는 될 수 있는 것^①의 엔텔레케이아가 움직임이 아니다 단지 ② 로서의 ①의 에네르케이아 또는 ③ 으로서의 ④의 엔텔레케이아가 움직일 뿐이다

1393) 자,

여기서 만약 에네르케이아와 짝을 이루는 힘(뒤나뮌스)가 엔텔레케이아와 짝을 이루는 뒤나톤(될 수 있음)과 동일하다면 에네르케이아 와 엔텔레케이아는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동일하다고도 동일하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569쪽 각주 839쪽에서 내가 변민한 것 처럼 어찌 보면 뒤나뮌스(힘에 (있는) 것, τοῦ δυνάμει (ὄν)) 와 뒤나톤(δυνατόν, (될) 수 (있음))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볼 수 없을 것 같다 힘에 에네르케이아가 있기 시작하는 그런 뒤나뮌스가 뒤나톤(할 수 있음)이라고 말하여지므로 동일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 그 자체가 있을 바로 그때 - 먼저 와 나중에 아님 - 움직임이 일어난다 **현실**에 있는 것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③ 으로서 **활동**할 때 비로소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현실이 활동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움직이지 못한다 지아무리 자기가 힘을 지녔다고 해도 말이다 그런데,

봄 과 생각함 등을 **에네르게이아**(활동) 이라고 텔레스는 테아과 편 6 장(598쪽)에서 말한다 생각 과 봄은 살뻐 과 배움 과 걸음 과 집 지음 과 건강함 과 살다 와 행복하다 등의 끝나지 않는 -예를들어 배우면서 동시에 배웠지 못함- **움직임**과는 달리 생각하면서 동시에(ἄμα 1048b30) 생각했고 보면서 동시에 보았으므로 자신의 작용의 **끝**이 자신에 속한다 그렇다면 자신 ‘안에-끝이 속한-것(ἐν-τελε-χεια)’이므로 에네르게이아(활동)은 현실(엔텔레케이아일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끝**이 자신에 속하는 **움직임**을 텔레스는 **실천**(ἡ πράξις¹³⁹⁵) 1048b23)이라고 말한다 자,

그에 따르면 현실(에 있는 것)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으로서 활동할 때 곧 생각하거나 볼 때 **움직임**이 일어나므로 그리고 힘(에 있는 것) 으로서의 **힘**(에 있는 것)의 **활동**이 또는 될 수 있는 것 으로서의 될 수 있는 것의 **현실**(엔텔레케이아)이 움직임이며 그리고 움직임 가운데 **끝**이 자신에 속하는 움직임이 **실천**이므로 다음 처럼 그려 볼 수 있으리라

1394) 물론 활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에 따르면 분명하다

1395) 642쪽의 그림 가운데 동그라미 안 붉은 동그라미가 실천의 영역을 나타내며 붉은 동그라미를 감싸는 파랑 동그라미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화살 점들은 끝에 향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① 힘에 있는 것	② 힘에 있을 수 있는 것	③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④ 움직이게 하는 것
뒤나투스(힘)	엔텔레케이아(현실)	에네르케이아(활동) (있는) $\acute{\omicron}\nu$ (1065b22) 엔텔레케이아(현실)	엔텔레케이아(현실)
		텔 로 스 (끝 또는 목적)	
	움 직 임($\kappa\iota\nu\eta\sigma\iota\varsigma$ 1065b28)		
	실천 아님	실천 (η $\pi\rho\acute{\alpha}\xi\iota\varsigma$ 1048b23)	

움직임 : 살뺨, 배움, 건강함, 행복함, 걸음, 집 지음(596-598)

실천 : 끝이 속해있는 움직임

에네르케이아(활동) : 생각함, 봄

움직임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테에타 편 9 장 나머지 부분을 계속 따라 가 보자

“ 지금까지 아름답게($\kappa\alpha\lambda\acute{\omicron}\varsigma$ 1066a7-8) 말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움직임)에 관해 말한 것들로부터 그리고 이 이외에는 달리 규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으로부터 분명하다 이(움직임)을 어떤 알론한 류로($\gamma\acute{\epsilon}\nu\epsilon\iota$ ¹³⁹⁶ a10)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것도 필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해태론한 것들 과 똑 같지 않는 것들($\acute{\alpha}\nu\iota\sigma\acute{o}\tau\eta\tau\alpha$ a11) 과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분명해진다 그러나 변화(η $\mu\epsilon\tau\alpha\beta\omicron\lambda\eta$ a12)는 이것들에로의 (변화)도 아니요 이것들로부터

1396) 플라톤의 소피스테에스 123쪽에서 이미 움직임은 다섯 가지의 류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류 중의 하나에 속한다 쉽 과 있음과 더불어서 말이다

의 (변화)도 아니요 훨씬 더 많이 [이것들의] 대립들¹³⁹⁷부터의 (변화도 아니다)

사람들이 [움직임] 이러한 것으로 상정하는(τιθεῖναι, a14, 想定하는) 원인은 **움직임**이 무 규정적인 것으로(ἀόριστόν a14) 여겨졌기 때문이다. 헤태론한 요소들의 아르케아들은 결여적인 것들이기 때문에(διὰ τὸ κρητικαὶ a15) 무 규정적이다.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이것이나 그러한 것이나(οὔτε τόσε οὔτε τοιόνδε a17) 나머지 범주들 가운데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움직임이 무 규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원인은 그 (움직임)이 있는 것들의 힘으로도 에네르게이아로도 있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양은 움직여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에네르게이아에 [있는] 량도 그러하므로 [그렇다] 또는 한 편으로 움직임은 에네르게이아인 것으로 다른 한 편으로 끝나지 않는 것(ἀτελές a21)으로 여겨지는 원인은 자신의 에네르게이아가 있는 그 될 수 있는 것(τὸ δυνατόν¹³⁹⁸) οὐ a21-22)[아직] 끝 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움직임)이 무엇인가를 포착하는 것은 어렵다.

(움직임을) *결여*로 또는 *힘*으로 또는 *순수한*(ἀπλήν a24) *에네르게이아*로 상정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로 있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임은) 에네르게이아 이고 에네르게이아가 아니다. 이다라고 우리가 말했던 것이 남는다. [이것은] 알아내기 힘들지만 [그렇게] 있다.

움직임은 움직일 수 있는 것 안에(ἐν τῷ κινήτῳ 1066a27)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움직일 수 있는)것의 현실(화)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한(ὑπὸ τοῦ κινήτικου a28) 것이며 [움직일 수 있는 것의 *현실화*(엔텔레케이아)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활동)와 알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 양자(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것)에 *현실*이 있으 - 한 편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κινήτικόν a29-30)에 의해 *함*에 있어지며 다른 한 편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κινούν a30)에 의해 *에네르게이아*에 있기 때문이다 - 므로 그러나 활동

1397) 대립에 대해서는 범주들 32쪽 그림을 참조하시오

1398) 889쪽 과 891쪽에 나오는 ②를 가리킨다

할 수 있는 것(ἐνεργητικὸν a31)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의 (활동할 수 있는 것) 이어서 그 양자(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것)에 에네르게이아 하나가 있으므로 [그렇다]

하나가 둘에 대해 있는 간격(διάστημα¹³⁹⁹) a32)은 둘이 하나에 대해 (있는 간격과) 동일하지 - 오르막 과 내리막 처럼 -만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닌 것과 같이 그렇게 [에네르게이아 하나가 있다] 그런데,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 과 움직여지고 있는 것의 경우도(ἐπὶ τὸ οὐ κινούντος καὶ κινουμένου a34) 그와 같다¹⁴⁰⁰) (1066a7-a34) ”

라는 인용

글월에서 텔레스는 이전 사람들이 움직임을 규정(정의)하기 힘들었던 원인을 말하면서 에네르게이아 이면서 에네르게이아가 아니라는 자신의 대안을 내놓는다 그리고,

움직임을 류로 보면서 텔레스는 자신이 매끈하게 말한 그러한 류 이외의 류로 움직임을 상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 움직임을 대해 말한 자신 이전의 다른 사람들을 살펴 보면 분명해진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움직임을] 필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헤태론한 것들 과 똑 같지 않는 것들 과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변화는 이것들에로의 변화도 아니요 이것들로 부터의 변화도 아니요 훨씬 더 [이것들의] 대립들로부터의 변화도 아니다

[움직임]을 이러한 것으로 상정하는 원인은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이것 또는 그러한 것 또는 나머지 범주들이 아니므로 그러한 것들로서의 움직임을 규정되지 않는(ἀόριστον 1066a14)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규정되지 않는 것은 헤태론한 요소들의 아르케아들이 *결여적인 것들이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움직임이 규정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 원인은 있는 것들의 *힘*으로도 에네르게이아(활동)으로도 움직임을 있지 않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량*이 필연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에네르게이아에* (있는) *량*도

1399) 이러한 간격에 대해서는 701-714쪽을 참조하시오

1400)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것의 경우와 같다

필연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또한,

움직임이 에네르케이아인 것이지만 끝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원인은 자신의 에네르케이아가 있는 그 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때문에 움직임이 무엇인가를 포착하는 것은 어렵다 *결여*로 또는 *힘*으로 또는 *에네르케이아*로 필연적으로 상정해야하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로 있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네르케이아 이면서 에네르케이아가 아닌 것이 (움직임) 이다 라고 우리가 말했던 것이 남는다 [이것은] 알아내기 힘들지만 [그렇게] 있다 이제,

텔레스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움직임은 움직일 수 있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의 현실(화, 엔텔레케이아)*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에네르케이아(활동)*과 알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움직일 수 있는 것 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이 양자에 현실이 있음 -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힘에 있어지는 반면에 움직이게 하는 것 (τὸ κινεῖν 1066a32)에 의해 에네르케이아에 있기 때문이다 - 므로 그러나,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의* (활동할 수 있는 것) 이어서 그 양자에 에네르케이아 하나가 있으므로 [그렇다]¹⁴⁰¹⁾

하나가 둘에 대해 있는 간격은 둘이 하나에 대해 있는 간격과 동일하지 - 오르막 과 내리막 처럼 -만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닌 것과 같이 그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것에 에네르케이아*

1401)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에네르케이아와 알론한 것이 아니다

하나가 있다) 그런데,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 과 움직여지고 있는 것의 경우도 이와 같다¹⁴⁰²⁾

텔레스는 움직임을 에네르케이아 또는 엔텔레케이아인 어떤 것으로 알아보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 - 움직임을 헤태론한¹⁴⁰³⁾것으로 또는 똑 같지 않은 것으로 또는 있지 않는 것¹⁴⁰⁴⁾으로 보는 사람들 - 이 알아 보지 (ιδειν 1066a26) 못한 원인은 그들이 움직임을 규정하지 못할 어떤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헤태론한 요소들의 아르케아들은 결여적인 것들이므로 무 규정적이다 결여적인 것들은 이것 또는 그러한 것 또는 나머지 범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움직임이 무 규정적인 것으로 여겨진 원인은 량의 뒤나뫼스도 량의 에네르케이아도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졌으므로 있는 것의 힘 또는 에네르케이아로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한 때문이다 나아가서,

움직임은 에네르케이아인 어떤 것이긴하나 (그 에네르케이아에는) 끝이 있지 않다(ἄτελες¹⁴⁰⁵⁾ 1066a21) 라고 여겨지는 원인은 그것의 에네르케이아인 바로 그 될 수 있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¹⁴⁰⁶⁾그러나,

1402)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 지는 것 이 양자에 에네르케이아 하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자의 에네르케이아는 하나이다 하나 와 둘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다 라는 점에서 하나 와 둘은 하나이지만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 와 둘이 하나가 아니 듯 말이다

1403) 플라톤은 움직임을 헤태론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헤태론을 움직임과 알론한 에이도스(種, 124쪽)로 스피스테애스의 플라톤은 보았기 때문이다

1404) 움직임 보다는 움직이는 것을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사람은 엘레아 학파의 파르메니데에스 와 제논 정도가 될 것이다

1405) 끝(텔로스)에 대해서는 596, 602, 890쪽을 참조하시오

1406) 이미 890쪽 과 598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에네르케이아에는 그 끝

텔레스는 어떻게 해서든 에네르게이아 심지어는 엔텔레케이아 라는 말을 써서 움직임의 규정(정의)하려한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그 당시의 전 후 문헌 아니 헬라어 문헌에는 나와있지 않다 페르세우스¹⁴⁰⁷)에 따르면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 라는 말은 디오도로스에게서 주로 11번 조세푸스에게서 두 번 쓰였을 뿐 그 이외의 고대 저술가에게서는 쓰여지지 않았으나 텔레스에게서는 290번이나 주로 쓰여진다 나 역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와 파르메니데이스 와 소피스테이스에서 이러한 말들을 본 적이 없다¹⁴⁰⁸) 따라서,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 라는 말의 쓰임새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 낸 것으로 보아도 거의 틀림 없을 것 같다 그 이후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적어도 지금의 나는 관심 없다 어쨌든,

결여 또는 힘 또는 *에네르게이아*로 상정해야겠는데 움직임은 이러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로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힘들다(*χαλεπὸν* 1066a26) 라고 하면서도 텔레스는 *에네르게이아* 이면서 *에네르게이아가 아니다* 라는 남겨진 대안을 집어든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현실화)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한 것며 그리고 이러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는 달리(*ἄλλη* 1066a29) 말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활동)이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안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

이 속한다 에네르게이아인 생각 과 봄에는 그 작용의 끝이 속하기 때문이다
1407) 학술 상용 소프트웨어 로서 고 중세 연구 프로그램이다 관련 웹사이트 주소는 1998년 6월 30일 현재 <http://www.perseus.tufts.edu> 이다
1408) 그러나 에르곤(작용, 기능)이나 뒤나미스(힘)나 텔로스(끝, 목적) 등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수 없이 쓰인다

텔레케이아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에네르케이아와 알론한 것이 아닐까¹⁴⁰⁹)

움직일 수 있는 것 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이 양자에 반드시 엔텔레케이아(현실)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에네르케이아(활동) 하나가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의해($\tau\omega$ 1066b30) 뒤나뒤스 [(힘)의 활동이 있게] 되며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에 의해 에네르케이아[가 활동]하므로 그 양자에 엔텔레케이아가 반드시 있으며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의 활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양자에 에네르케이 하나($\mu\iota\alpha$ 1066a31)가 있다 그런데,

하나가 둘에 대해 있는 그리고 둘이 하나에 대해 있는 간격 - 오르막과 내리막도 그러하다 - 은 동일하나 그 있음은 하나가 아닌 것 처럼 에네르케이아가 하나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양자에 있다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의 경우도 이와 같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는 엔텔레케이 와 에네르케이아가 그 전체에 있어 일반적으로 동일한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는 엔텔레케이아 와 에네르케이아가 그것들 안에 있는 - 특히 에네르케이아는 그것들 안에 하나로 있다 - 그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의 에네르케이아 와 그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현실(現實) 또는 실현(實現))가 알론한 것인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엔텔레케이아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은 [각기 것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힘 있어지며($\delta\upsilon\nu\alpha\sigma\theta\alpha\iota$ 1066a30) 움직이게 하는 것에 의해서 [각기 것은] 에네르케이아에

1409) 이러한 물음은 888-889쪽에 내가 에네르케이아 와 엔텔레케이아는 동일할까 라는 내 번민(煩悶)과 연관될 법하나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다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에네르게이아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것 안에 하나로 있는 것은 에네르게이아일 수(활동 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네르게이아 하나 와 엔텔레케이아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것 안에 모두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¹⁴¹⁰⁾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 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는 알론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있음에 있어서 조차 에네르게이아가 [그 양자와] 하나(μία 1066a31)는 아니다 움직여질 수 있는 것 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이 양자에 에네르게이아 하나가 있을 경우 그 하나는 둘에 대해 하나가 하나에 대해 둘이 있는 간격이 동일한(τὸ αὐτὸ 1066a32)경우의 하나이지 그 있음이 하나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의(τὸ κινητικὸν 1066a28) 에네르게이아가 있을 수 있는 것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있음이 동일하다 라고 말해서는 안될 것이다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의 경우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것의 경우와 같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 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와 알론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만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는 동일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둘 과 하나 처럼¹⁴¹¹⁾ 말이다 그러나 설령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1410)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에네르게이아는 엔텔레케이아와 연결된다(συντιθεμέν, 1047a31, 570)

1411) 둘 과 하나 그리고 오르막 과 내리막은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지만 서로의 간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라는 그의 보기가 어디에 적용될지가 명확하지 않다

1066a32의 ὡσπερ(...처럼)을 a31의 ὁμοίως(그와 같이)에 걸리는 것으로 보면 바로 뒤의 양자(ἀμφοῖν)가 하나 와 둘에 유비적으로 연결된다고 봐야할 것 같지만 그 양자 다음의 에네르게이아 와 그 양자 전체가 하나 와

도 전체적으로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 일반이 동일하다 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다 나아가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 와 이와 알론한 것이 아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가 움직임에 관한 텔레스의 정의인가의 여부(與否)를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정의라면 이러한 것 으로서의 힘에 있는 것의 활동(881) 그리고 될 수 있는 것 으로서의 될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882) 라는 직접적인 그의 정의와 어긋 나지는 않는가....891쪽의 그림을 비교하면서 다음 쪽 그림을 보라

①	②	③	④
힘에 있는 것	힘에 있을 수 있는 것 엔텔레케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에네르게이아	움직이게 하는 것
힘에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의(τού κινήτου 1066a31) 활동할 수 있는 것 에네르게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에네르게이아	움직이게 하는 것
	(움 직 임)		
	엔텔레케이아	엔텔레케이아	
에 의해서	힘에 있어 짐 움직이게할수있는 것	에네르게이아에있음 움직이게 하는 것	에 의해서(τῷ 1066a30)

파아란 선으로 묶어진 영역이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지만 에네

들에 유비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 가 하나 와 둘에 유비적으로 연결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오르막 과 내리막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이 다시 그 보기들로 들어지는 걸로 봐서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그 간격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707, 704쪽) 라고 보는 것이 나올 것 같은데.....

르케이아에 있어서는 하나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리라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움직일 수 있는 것 안에 문제의 그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텔레스에 따르면 엔텔레케이아(에 있는 것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③ 으로서 활동할 때 문제의 힘에 있는 것②의 그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힘에 있는 것②의 에네르케이아요 있을 수 있는 것②의 엔텔레케이아이다 그런데,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에 의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는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의 에네르케이아와 알론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텔레스에 따르면,

에네르케이아(로) 있음은 분명히 무한하지(τὸ ἄπειρον 1066b11)않으며 그리고 **움직임**은 무한함 그 자연 으로서의(ὡς μία τις φύσις, 1067a34, 그 자체 로서)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지니는 크기에 따라서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지므로 무한함에 대해 이제 알아볼 차례이다¹⁴¹²)그러기 전에,

도대체 텔레스가 어떤 맥락에서 움직임을 말하고 있으며 그 맥락의 어디쯤에 무한함이 속하는지 궁금해지기 때문에 자연학 감과 편 1 장 열어지는 부분을 여기에 인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말하여지는 형이상학 칼과 9 - 12 장은 자연학 감마 편 1-3, 4, 5, 7 장 과 엡실론 편 1-3 장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1) **자연**은(ἡ φύσις¹⁴¹³) 200b7) 움직임 과 변화의(κινήσεως καὶ μεταβολῆς b7-8)아르케이이며 그리고 우리는 자연에 관한 탐구(μέθοδος b8)가운데 있으므로 **움직임**이 무엇인가가 반드시 보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움직임)이 인식되지 않으면 마찬 가지로 필연적으로

1412) 이 부분은 자연학 감마 편(III) 4, 5, 7 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로스에 의해 말하여진다

1413) 자연에 대해서는 527-538, 335, 509쪽을 참조하십시오

자연도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움직임에 관해 우리가 규정할 때 [그에] 연이어지는 것들을 동일한 길에서 (규정하려) 드는 것이 임무일 것이다 한 편으로 **움직임**은 **연속적인 것들의 (움직임)**이라고 여겨지며 한 편으로 연속적인 것 안에 첫 번째로 **무한한 것**(τὸ ἄπειρον b17)이 주어진다고 여겨진다 이 때문에 연속을(τὸ συνεχές b18) 규정(정의)하는 도중에 무한하게 나뉘어지는 것이 연속적이라는 무한한 것의 로고스가 여러 번 쓰여져야 할 것이다 또,

자리(τὸπού b21)와 **텅빔**(κενού b21)과 **시간** 없이 이(연속과 무한)에 대해 움직임이 있을 수 없다 (200a13-21) ”

라는 인용 글월에

서는 무한한 것이 말하여지는 맥락이 드러난다

자연은 움직임과 변화의 아르케에이므로 자연을 인식하려면 필연적으로 움직임을 인식해야하고 그럴려면 움직임이 무엇(τι 200a14)인가가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 그런데 움직임을 규정하려 들면 그러한 규정에 연이어지는 어떤 것들에 [부딪히]는데 그것들을 동일한 길에서 규정하는 것 [역시] 임무이다 이제,

움직임은 연속적인 것들의 움직임이며 연속적인 것 안에 첫 번째로 무한한 것이 주어진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연속을 정의(규정)하려 하다 보면 무한하게 나뉘어지는 것이 연속적이라는 무한한 것의 로고스가 여러 번 쓰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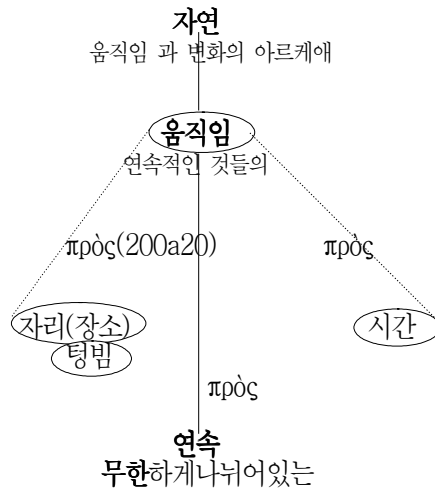
자리와 **텅빔**과 **시간** 없이는 **움직임**이 이 **연속**과 **무한**에 대해(πρὸς 200b20) 있을 수 없다(곧 관계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 움직임과 변화의 아르케에이므로 자연을 인식하려면 먼저 움직임을 인식해야 하는데 움직임이 무엇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 보지(λανθάνειν 200a13-14)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규정할 때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 규정되는 것이 바로 무한이다 움직임은 연속적인 것들의 움직임이며 연속적인 것에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이 무한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한하게(εἰς ἄπειρον 200b20) 나뉘어져 있는(ὄν 200b20) 연속(적인

것) 이라는 무한(한 것)의 로고스가 연속을 규정하는데 쓰여진다

바로 이 맥락에서 무한이 텔레스에 의해 쓰였다 다음 그림은 그 맥락을 보여 줄 것이아



결국 이러한 맥락은 움직임을 정의(규정)하는 맥락 곧 움직임을 무엇인가를 알아내려는 또는 움직임을 인식하는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제,

무한(한 것)에 말하는 형이상학 감마 편으로 돌아가 보자

“ (10) 한 편으로 무한(한 것)은 보여질 수 없는 소리 처럼 횡단 하도록 함(δυνάμι, 1066a36, 橫斷함)이 자신의(τῷ¹⁴¹⁴) a35) 자연은 아닌 횡단할 수 없는 것 또는 끝나지 않는 횡단을 지니는 것 또는 자연스레 (횡단 또는 한계를) 지니긴해도(ἔχειν a37)횡단 되어지거나

1414) 이러한 τῷ의 쓰임새는 893쪽에도 나온다 사실 나는 τῷ라는 말 때문에 텔레스를 읽다가 당황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활동하는 정신(이른바 능동 정신)에 대해 결정적으로 말하는 곳인 영혼에 관하여 430a15에서도 이 말이 나온다

한계(ἡ πέρας 1066b1)지워지지 않는 것 [이다] 나아가서 덧 붙혀짐에 있어서 또는 덜어짐에 있어서 또는 이 양자에 있어서 (무한하다) 다른 한 편으로,

(무한한 것은) 분리해 있는(ὄν b2)동일한 감각적인 **있음**(τ' εἶναι b2)인 것이 아니다¹⁴¹⁵⁾ 만약 무한한 것이 **크기**도 아니고 **많음**도 아니라면 그리고 그(크기 와 많음)의 실체이지 우연이 아니라면 (무한한 것은) **나뉘어지**¹⁴¹⁶⁾지 않(ἀδιαίρετον b4)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뉘어지는 것은 **크기** 또는 **많음**(ἡ μέγεθος¹⁴¹⁷⁾ ἡ πλῆθος b4-5)이므로 [그렇다] 만약 나뉘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보이지지 않는 **소리**와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한하지 않다 그러나 [소리와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어]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리와 같은 경우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할 수 없는 것(ἀδιέξοδον 1066b7)과 같은 (경우를 조사한다) 나아가서,

자신들의 속성이 무한한 것인 **수**(ἀριθμός b8) 와 **크기**가 있지 않다면 무한(한 것)이 그 **자체**로¹⁴¹⁸⁾ 어떻게 있기 시작할까 나아가서 만약 **우연적으로** 있다면 무한한 것 으로서의(ἡ¹⁴¹⁹⁾ b10) 있는 것들의 요소는 있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대화의 (요소¹⁴²⁰⁾)가 아니고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것의 (요소가) 소리지 않을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1415) 무한한 것은 분리된 독립적인 개체임에도 감각적이지 않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101-102) 라고 트레드닉은 번역한다

1416) 902쪽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1417) 크기는 길이와 더불어 우연 량에 속한다는 32쪽 과 220쪽을 참조하라 그리고,

이러한 크기에 따라서 움직임은 무한하다 라고 미리 요약하여 말한 900쪽을 참조하십시오

1418) καθ' αὐτό(그 자체로, b7)에 대해서는 303쪽 과 836, 834, 844쪽을 참조하십시오

1419) '으로서의'에 대해서는 882쪽을 참조해 보라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

1420) 소리 와 소리 아닌 것이 음질의 요소로 말하여지는 508-509쪽을 참조하십시오

무한(한 것)은 **에네르케이아(활동)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그(에네르케이아로 있는 무한한) 것의 어떤 부분이든 무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무한한 것이 실체이지 기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무한한 것에 있음 과 무한한 것이 동일할 것이므로 [그렇다] 따라서 부분적이라면 나뉘는 것이거나 무한하게 나뉘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것(τὸ αὐτὸ¹⁴²¹) b15)이 여러 무한한 것일 수 없다 [무한한 것이] 실체 와 아르케아라면 공기의 부분은 공기이듯 그렇게 무한한 것의 (부분)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것은) 부분적이지 않으며 나뉘어지지 않는다¹⁴²²) 그러나,

엔텔레케이아(현실)에 있는 것은 무한한 것일 수 없다 (무한한 것은) 필연적으로 랭(ποσὸν b18)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한(한 것)은 자신의 기체에] 우연적으로 속한다 그러나,

이와 같다면 우리가 말했던 것 처럼¹⁴²³) [무한한 것은] 아르케아로 있기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 또는 짝수[와 같은] 저것에 우연적으로 (속한다) ¹⁴²⁴(1066a35-1066b21) ”

라는 인용 글월

에서는 보이지 않는 소리와 같은 경우의 무한(한 것)이 아니라 횡단될(διελαθείν 1066a35) 수 없는 것 으로서의 무한(한 것)이 문제 삼아지면서 이러한 무한한 것은 그 자체로 분리해 있는 감각적인 실체가 아니라 어떤 기체 - 예를들어 공기 또는 심지어 짝수 - 에 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나뉘어지는 것이고 에네르케이아에 또는 엔텔레케이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1421)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258-259, 42, 54, 628, 72, 124, 266, 302, 416, 754, 278쪽을 참조하십시오

1422) 아마 감각적인(αισθητὸν 1066b2)실체(ούσια 1066b13)의 경우에 그러할 것이다 감각적인 것의 부분 이외에도 에이도스의 부분도 있다 라고 383 쪽에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763쪽도 참조하십시오

1423) 자연학 알파(I) 편 9 장 참조하십시오

1424) 자연학 감마(III) 편 204a20-32를 보시오

말하여진다

무한한 것은 횡단할 수 없는 자연[을 지닌] 것 또는 끝나지 않는 횡단을 [지니는] 것 또는 자연스런 횡단 또는 한계를 지니긴해도 횡단되거나 한계지워지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서 덧 붙혀짐 또는 덜어짐 또는 이 양자에 있어서 무한하다 한편으로,

무한한 것은 분리해 있는 동일한 감각적인 있음인 것이 아니다 만약 크기도 많음도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 (크기 와 많음)의 우연이 아니라 실체라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뉘어지는 것은 크기 또는 많음이므로 [그렇다] 만약 보여지지 않는 소리와 같은 경우가 아닌데도 나뉘어지지 않는다면 무한하지 않다 우리는 소리와 같은 경우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할 수 없는 것의 경우를 조사한다 나아가서,

자신의 속성이 무한한 것인 수 와 크기가 있지 않다면 무한(한 것)이 그 자체로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나아가서 우연적으로 있다면 있는 것들의 무한한 것 으로서의 요소는 있지 않을 것이다¹⁴²⁵⁾ 그리고,

무한한 것은 *에네르케이아에* 있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에네르케이아에 있는 무한한 것이라면] 무한한 그것의 우리가 취할수 있는 부분 무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무한한 것이 *실체*라면 그리고 기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무한한 것^에 있음 과 무한함 것은 동일할 것이므로 [그렇다] 따라서,

부분적이라면 나뉘는 것이거나 무한히 나뉘는 것이다 그런데,

[무한한 것이] *실체* 와 아르케아라면 공기의 부분은 공기이듯 무한한 것의 부분은 무한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 여러 무한한 것들일 수 없다 따라서 (동일한 것은) 부분적이지 않으며 나뉘지 않는다 그러나,

엔텔레이크이아(현실)에 있는 것은 무한한 것일 수 없다 (무한한 것은) 필연적으로 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425) 보이지 않는 것은 대화의 요소가 아니며 더구나 소리가 보이지 않는 것의 요소가 아닐 것 처럼 말이다

[무한한 것은 자신의 기체에] 우연적으로 기체에 속한다 이와 같다면 말해진 것 처럼 아르케어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불 또는 짝수[와 같은] 저 것에 우연적으로 속한다

보여지지 않는 소리 로서가 아니라 횡단될 수 없는 것 으로서의($\acute{\omega}\varsigma$ 1066b7) 무한한 것은 어떤 기체의 속성이지 실체인 것은 아니라는 로고스가 이러한 텔레스 말들에 흐르므로 무엇 때문에 실체가 아닌가 라는 그의 논증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체라면 나뉘어지지 않는데¹⁴²⁶)나뉘어지지 않는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한한 것은 분리해 있는 동일한 감각적인 있음인 것이 아니다 실체는 분리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⁴²⁷)그리고 크기와 많음의 우연이지 크기와 많음의 실체가 아니며 우연적이므로 있는 것들의 무한한 것 으로서의 요소일 수는 없다 나아가서,

수와 크기의 속성($\pi\acute{\alpha}\theta\omicron\varsigma$ 1066b8)이 무한한 것이므로 무한한 것은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다 이제 ,

무한한 것이 실체이지 기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무한한 것에 있음과 무한한 것은 동일할 것이다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각기 것이 동일한 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지 우연한 것은 아니지 때문이다¹⁴²⁸) 그래서 동일하다면 다시 말해 실체라면 무한한 것은 *에네르케이아*에 있을 것이다 에네르케이아는 질료에 대해 실체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⁴²⁹)만약

1426) 감각적인 것과 분리된 영원한 실체에는 크기가 없으며 나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763쪽을 참조하시오 309쪽도 참조하시오

1427) 298쪽에 나온 것 처럼 실체에 가장 주로 속하는 것은 분리 와 이것이기 때문이다

1428) 이에 대한 논의는 323-334쪽에서 다시 말해 형이상학 제에타 편 6장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1429) 819, 596쪽을 참조하시오

에네르게이아에 있다면 무한한 것의 부분 에네르게이아는 무한할 것이다 또한,

무한한 것이 실체 와 아르케애라면 공기의 부분이 공기이듯 무한한 것의 부분은 무한한 것이므로 동일한 것이 여러 무한한 것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동일한 것은 부분적이지 않으며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엔텔레케이아에 있는 것은 무한한 것일 수 없다 (무한한 것은) 필연적으로 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기체에 우연적으로 속한다 이처럼,

에네르에이아에(로) 또는 엔텔레케이아에(로) 있는 것은 것도 아닌 무한(한 것)은 따라서 어떤 실체인 것이 아니라 기체¹⁴³⁰)에 따르는 속성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체에 따르는 속성일까 미리 말하자면 크기에 따르는(κατὰ τὸ μέγεθος 1067a35-36)속성이다 크기 덕에 무한한 것이 말하여진다 바로 여기서 량의 측면에서 무한한 것이 말하여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크기는 우연 량¹⁴³¹)이기 때문이다 무한(한 것)은 크기 와 많음의 우연이지 크기와 많음의 실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스는 보이지 않는 소리 로서의 무한한 것 보다는 횡단할 수 없는 것 으로서 무한한 것을 이 곳(형이상학 과 자연학)에서 문제 삼는다 두루 거쳐 지나갈 수 없기에 지나가지 못하기에 무한한 것이다 [측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1430) 텔레스의 기체를 텔레스의 실체와 혼동하면 않된다 실체는 기체적인 것일 뿐 기체가 곧 바로 실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295-300쪽 을 참조하십시오

1431) 우연 량인 크기에 대해서는 범주들 220쪽 참조하십시오

계속해서 텔레스의 말을 따라가 보기로하자

“ 이와 같다면 우리가 말했던 것 처럼 [무한한 것은] 아르케에
로 있기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 또는 짝수[와 같은] 저것에 우연
적으로 (속한다)

한 편으로 이러한 조사는 보편적이다 다른 한 편으로 그러나
(무한한 것은) 감각적인 것들 안에(ἐν αἰσθητοῖς¹⁴³²) 1066b22) 있지
않다는 것은 다음으로부터 분명하다

만약 몸의 로고스가 면에 의해(ἐπιπέδους, b23, 面) 규정된다면
몸은 감각적이든 생각적이든(νοητόν b24) 무한하지 않을 것이며 분리
된 것 과 무한한 것 으로서의 수도 있지 않을 것이다 수(ὁ ἀριθμὸς
b25) 또는 수를 지닌 것이 수적(인 것, ἀριθμητόν, b25))이기 때문이
다¹⁴³³) 다음으로부터 자연스레 분명하다 한 편으로,

(무한한 것은¹⁴³⁴) 예를들어 묶인 것¹⁴³⁵)도 순수한 것도(ἀπλού
v 1066b27)이 아니기 때문이다 몸은 묶이질 않으므로 [그렇다] 요소들
이 그 많음에 있어 한계 지워지기 때문이다 그 반대들은 반드시 똑
같으며 그(반대)들 가운데 하나도 무한하지 않으므로 [그렇다] 헤테
론한 몸의 뒤나뭇스(힘)가 어떤 길에서든 열등하다(λείπεται, b30, 빠
트려진다)면 한계지워진 것은 무한한 것에 의해서 소멸하기 때문이다
각기 것이 무한할 수는 없다 몸은 모든 [방향]에서 넓음(διάσσειν¹⁴³⁶),

1432) (무한한 것은) 분리해 있는(ὄν b2)동일한 감각적인 있음(τῆ εἶναι b2)
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903쪽과 연과지어 보라

1433) 자연학 감마 편 204a34-b18를 보시오

1434) 로스(866) 와 트레드닉(105)은 1066a26-27에 나오는 로고스(문장)의
주어를 무한한 것으로 보나 오히려 감각적인 몸으로 보는게 낫지 않을까 바
로 뒤이어 ἐπιπερ(1066a28,.....이므로)로 시작되는 종속 문장의 주어가 [그
몸의]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1435) σύνθετον (1066b27, 묶인)에 대해서는 866쪽, 688-669, 611등을 참조
하십시오

1436) 같은 동사 어원 διαστήναι(δι-ίστημι ; to set apart, to stand apart)

b32, 팽창(膨脹)인 반면 무한한 것은 한계없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한한 몸이라면 모든 [방향]에서 무한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무한한 몸은 하나로 그리고 순수한 것으로 있지 시작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 처럼 이(요소들)로부터 생성된 것들이 요소들과 나란하지는 않다 - 그러한 몸이 [그 몸의] 요소들과 나란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로부터 있으며 그리고 그것들로 분해되는 모든 것들 각각이 순수한 몸들 주위(περι 1067a1)의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렇다] - 불도 요소들 가운데 어떤 알려진 것도 (나란하지¹⁴³⁷) 않다) 이것(순수한 몸)들 중 어느 것이 어떻게 무한한가 라는 물음과는 별도로 (순수한)모든 (몸들) 각각은 한계지워졌다 하더라도 그 (요소)들 중의 어떤 것과 하나일 수 없고 하나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 각각은 어느 한 때(ποτε a5) 불로 되어진다고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것 처럼 말이다 자연 [철]학자들이 요소들과 나란히(παρά, a6, 이외에) 정립한 하나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로고스가[적용된다] 모든 것들은 반대들로부터 변화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뜨거움으로부터 차가움으로 (변화하는 것) 처럼 [말이다] 나아가서,

감각적인 몸은 어디의(πού¹⁴³⁸) a8)(감각적인 몸이다) 그리고 전체의 자리(τόπος 1067a8) 와 부분의 (자리)는 동일하다 예를들어 땅의 (전체 와 부분의 자리가 동일한 것) 처럼 [말이다] 그래서,

만약 (무한한 몸이) 같은 중(ὁμοειδές a9)이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거나 또는 항상 움직여질 것이다(οἰοθησεται a9) 그런데 이것은 불 가능하다 [헤태론한 자리] 보다는 무엇 [때문에] 아래 또는 위 또는 [그] 어디에서 (움직이거나 설)까 [라는 물음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흙덩이라면 이것은 어디에서 움직이거나 설까 그 같은 류의 (συγγενούς a12)몸의 자리는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흙덩이

로부터 온 빠로오한 이름인 διάστημα, ατος, τὸ (an interval, 1066a32, 893)의 쓰임새와 비교하시오 διάστασις, εως 는 a standing aloof, seperation 또는 differance의 뜻을 지닌다

1437) 있음은 범주들과 나란한 것이 아니다 라는 690쪽을 참조하시오

1438) 텔레스가 열 가지 범주들을 161쪽에서 말했을 때 πού(어디)는 그 열 가지 가운데 하나로 속한다

는) 전체 자리를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 [이것은 불 가능하다] 머무름 과 움직임은 무엇인가(τις, a13, 어떻게 되는가) 모든 곳에서 될 것인가 그렇다면 움직여지지 않는다 또는 모든 것에서 움직여지는가 그렇다면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같지 않다면 같지 않는 (부분들) 과 자리들[일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부분들 과 그 부분들의 자리들)에 의해(τῷ a17) 접촉되어짐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의 몸이 하나가 아니다 다음으로 그(부분)들은 에이도스에 있어 유한되거나 또는 무한할 것이다 [그런데] 유한한 것들이지는 않다 한[그 부분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무한한 것들이지만 어떤 것들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것이 무한하다면 예를들어 불 과 물 처럼 반대들어로 소멸한다 만약 무한하고 순수하다면 마찬가지로 자리들도 무한하고 요소들도 무한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불 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자리들도 무한하고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진다¹⁴³⁹⁾

전체적으로 [보아] 몸 과 그 몸을 위한(τοῖς σώμασιν 1067a24) 자리도 무한할 수 없다 만약 감각적인 모든 몸들이 무게 또는 가벼움을 지닌다면 [말이다] 중앙을 향해 그리고 위로 움직여져야하는데(οἷο Θήσεται a25) 무한한 것은 모든 것이든 반이든 이(중앙 과 위) 둘 가운데 하나로 (움직여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지나 나올까(διελθίς, 1440) a27, 횡단할까)[라는 물음이 제기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무한한 것의[부분의] 한 편으로 위 또는 다른 한 편으로 아래가 있을까 또는 (무한한 것의) 극단 과 중간이 있을까 나아가서,

모든 감각적인 몸은 자리 안에(ἐν τόπῳ 1067a29) (있다) 그런데 **자리의** 여섯 까지 에이도스가 (있지)만 이(여섯 자리)들이 무한한 몸 안에 있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보아 자리가 **무한**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몸도 (무한)할 수 없다 어디¹⁴⁴¹⁾ 자리 안의 그(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어디의 자리 안의 그)는 위 또는 아래 또는 [이와 같은] 나머지 어떤 곳들을 가리킨다 이것들 각각은 어떤 한계인(πέρας

1439) 자연학 감마 편 205a29-32를 참조하십시오

1440) 로스 와 트레드닉은 어떻게 그것을 나눌까 라고 번역한다

1441) 범주로 말하여지는 πού(어디)에 대해서는 범주들 161쪽 그리고 형이상학 909쪽을 참조하십시오

τι, a33, 限界, 有限) 것이다 그런데,

크기 와 **움직임** 과 **시간**은 그 자체(ως μὴα τις φύσις, a34) 동일하게 무한하다(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 것이 먼저 것에 따라 (동일하다 라고)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움직여지거나 달라지거나 성장하는 (ἐφ'οὗ a36)크기에 따라 움직임은 [무한하다 라고](말하여지며) 한 편으로 움직임 때문에(διὰ a37) 시간은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1066b21-1067a37)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만약 몸의 로고스가 면에 의해 정의(규정)된다면 감각적이든 생각이든 몸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 후에 움직임 그 자체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무한하기 때문에 움직임은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지며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통해서 시간이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여진다 우선,

그 논증을 요약해 보자

몸의 로고스가 면에 의해 정의(규정)된다면 몸은 감각적이든 생각이든(το πᾶν 1066b24)이든 무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다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명해진다

[몸은] [한 없이] 묶인 것도 순수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몸은 [한 없이] 묶이지 않을 것이다 [몸의] 요소들이 그 많음에있어(τῷ πλήθει 1066a28) 한계지워지기 때문이다 그 반대들은 반드시 똑 같으며(ἰσάζειν a29) 어느 하나도 무한하지 않으므로 [그렇다] 헤태론한 몸의 힘이 어떤 길에서든 열등하다면 한계지워진 것은 무한한 것에 의해서 소멸하기 때문이다 각기[몸]은 무한할 수 없다 몸은 모든 방향에서 넓어지는 반면 무한한 것은 한계없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이 무한하다면 모든 방향에서 무한할 것이다 [다음으로],

무한한 몸은 하나로도 순수한 것으로도 있을 수 없다 요소들로부터 생성된 것들은 그 요소들과 나란하지 않다 몸은 [그 몸의] 요소들과 나란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로부터 있으며 그리고 그것들로 분해되는 모든 것들 각각이 순수한 몸들 주위의 그러한 것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불도 불 이외의 어떠한 요소도 [자신들로부터 있는 것과] 나란하지 않다 또한 모든 (순수한 몸들) 각각이 한계지워졌다 하더라도 [유한한 그 몸] 각각은 그 요소들 중의 어떤 것과 하나일 수 없고 하나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¹⁴⁴²⁾ 나아가서,

감각적인 몸은 어디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 전체의 자리와 부분의 자리는 동일하다 땅 처럼 말이다 그래서,

같은(ὅμο 1067a9) 종이라면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항상 움직일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그] 아래 또는 [그] 위 또는 [그] 어디에서 움직이거나 머무를까 흙 덩이라면 어디에서 움직이거나 머무를까 같은(οὐν 1067a12) 류의 몸의 자리는 [몸이 무한하다면]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체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머무름과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곳에서 머물 것인가 머문다면 움직여지지 않는다 모든 곳에서 움직여지는가 움직여진다면 머무르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같지 않다면(ἀνόμοιον 1067a15) 같지 않은 부분들과 자리들일 것이다 그런데 첫째, 접촉에의하지 않고는 모든 것의 몸은 하나가 아니다 다음, 그 부분들은 에이도스에 있어 유한하거나 무한할 것이다 그런데 유한하지 않다 어떤 부분들은 무한해도 어떤 부분들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한하다면 불과 물 처럼 반대들대로 소멸한다 만약 무한하고 순수하다면 마찬가지로 자리들도 무한하고 요소들도 무한할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자리들도 무한하고 모든 것들이 제한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몸과 그 몸의 자리는 무한할 수 없다 만약 감각적임 모든 몸들이 무게 또는 가벼움을 지닌다면 [말이다] 중앙과 위로 움직

1442) 모든 것 각각은 어느 한 때 불로 되어진다 라고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것 처럼 말이다 자연학자들이 요소들과 나란한 것으로 정립한 하나(一者)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된다 모든 것들은 반대들로부터 변화하기 때문이다 뜨거움으로부터 차가움으로 변화하는 것 처럼 말이다

여겨야하는데 무한한 것은 모두이든 반이든 중앙 또는 위로 움직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통과할까 어떻게(πώς 1067a27) 무한한 것의 위 와 아래가 있을까 또는 극단 과 중간이 있을까 나아가서,

감각적인 모든 몸은 여섯 가지 에이도스(중)의 자리 안에 있지만 이 자리들이 무한한 몸안에 있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보아 자리가 무한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몸도 무한할 수 없가 어디 자리 안의 그 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디 자리는 위 또는 아래 또는 나머지 어떤 곳들을 가리킨다 이곳들 각각은 어떤 한계인 것이다 이제,

텔레스에 따르면 (감각적인) 몸들이 무한하지 않다는 논증이 이루어 졌다 나는 이 논증을 더 자세히 뜯어 보아 분석할 시간이 없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논증을 통해 말하여지는 로고스(명제)를 열거할 필요는 있다

몸

의 로고스는 면에의해 규정된다

은 모든 방향에서 넓어진 것이긴하나 무한히 넓어진 것은 아니다 무한한 것은 모든 방향에서 무한하다

이 무한하다면 그 몸은 하나로 그리고 순수한 것으로 있을 수 없다

은 몸의 요소들과 나란히 있지 않다

과 몸의 자리는 무한할 수 없다 감각적인 몸이 무게 또는 가벼움을 지닌다면 말이다

감각적인 몸

은 어디의 몸이다 그 몸 전체의 자리 와 부분의 자리는 동일하다

은 자리 안에있다 그리고 자리에는 위 아래 가운데 가장자리(ἔσχατον 1067a28)등 여섯 가지 에이도스가 있다 그런데 자리가 무한하다면 몸도 무한하지 않다

무한한 것은

[[무한한 것¹⁴⁴³]]은 묶인 것도 순수한 것도 아니다
한계없이 넓은 것이다 몸이 무한하다면 모든 방향에서 무한할
것이다 그리고 무한한 몸은 하나로 그리고 순수한 것으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크기 와 움직임 과 시간은 그 자체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너무 간략히 말하여면서 값과 편을 끝낸다

크기 와 움직임 과 시간은 그 어떤 자연에 있어 무한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 것이 먼저 것에 따라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진
다 예를들어 움직여지거나 달라지거나 성장하는 크기가 무한하다고 말하여
지는 지므로 **움직임은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움직임 때문에 **시간**
은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움직임을 형이상학 강좌에서 무엇이든 계속 텔레스는 말하고
있는가 이제 11장¹⁴⁴⁴을 그대로 옮겨 보자

“ (11) 음악적인 것이 걷는다에서 처럼 변화하는 것은($\tau\acute{o}$ μεταβ
άλλον 1067b1) 우연적으로 *변화한다* (라고 말하여지지)만 한 편으로
(우연적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것의 어떤 것에서($\tau\acute{\omega}$ b2) 변화하는 것
은 순수하게 변화한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부분적으로 (변화하
는 것) 처럼 말이다 (건강해지는) 눈 때문에($\acute{o}\tau\iota$ b4)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gamma\acute{\alpha}\rho$ b4)이다 그런데 그 자체로 첫 번째로 움직여지는 어떤 것이
있다 이것은 그 자체 움직일 수 있는 것($\tau\acute{o}$ κινητόν¹⁴⁴⁵), b6)이다

1443) 나는 감각적임 몸이라 했다 909쪽의 옮김과는 달리 그러나 여기서는
로스를 따랐다

1444) 로스(686쪽)는 이 11장을 자연학 엡실론 편 1 장 요약이라고 말한다

움직이게 하는 것의(τού κινούντος b6) 경우에도 이와 같은(ὅσα ὕτως b6) 어떤 것이 있다 [한 편으로] 우연적으로 한 편으로 부분적으로 한 편으로 그 자체로 움직이게 하는(κινεί b6)[동안에] 첫 번째 움직이게 하는 어떤 것(τι τὸ κινούν b8)이 있기 때문이다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어떤 시간에 그것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들로 움직이게 하고 (있는) 에이도스들 과 속성들 과 자리가 [곧]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예를들어 앓 과 뜨거움 처럼 [말이다] 움직임은 뜨거움이(ἡ θερμότης b11) 아니라 뜨거워짐(ἡ θερμανσις b12)이다

우연적이지 않는 변화(ἡ μεταβολή a12)는 모든 각기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들 과 [반대들] 사이의 것(μεταξὺ b13)에 그리고 모순들에 (속한다) 이러한 믿음은 귀납으로부터 [온다]

변화하는 것은 기체로부터 기체으로 또는 기체 아닌 것으로부터 기체 아닌 것으로 또는 기체로부터 기체 아닌 것으로 또는 기체 아닌 것으로부터 기체으로 변화한다 기체(ὑποκειμενον b18)는 긍정¹⁴⁴⁶⁾에서 분명해진다 라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세 가지 변화가 있다 기체 아닌 것으로부터 기체 아닌 것으로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체 아닌 것들에는] 반대들도 모순들도 있지 않으므로 [그렇다] 반 정립(ἀντιθεσις, 1067b21, 反定立)이(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체 아닌 것으로부터 기체으로의 모순에 따른(κατ'ἀντιφασιν b22) 생성¹⁴⁴⁷⁾이 있다 한 편으로 순수하게 순수한 것¹⁴⁴⁸⁾이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으로부터의 어떤 것이 [있는] 반면에 기체로부터 기체

1445) 900쪽 그림에 나오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참조하시오

1446) 긍정에서(καταφάσει 1067b18)의 긍정에 대해서는 891쪽을 참조하시오

1447) 314-336쪽을 참조하시오

1448) 아마 순수한 것은(ἡ ἀπλή 1067b23, b25) 생성의 경우 있음 으로서의 기체 아닌 것일 것이며 소멸의 경우 없음 또는 있지 않음 으로서의 기체 아닌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τις 1067b23, b25)은 각기 생성된 것 또는 소 될 것을 가리킬 것이다

아닌 것으로의 (모순에 따른) 소멸이 있다 한 편으로 순수하게 순수한 것이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으로부터의 어떤 것[이 있다] 만약 있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로(πλεοναχώς b25) 말하여진다면 그리고 묶임과 나뉘에¹⁴⁴⁹) 따른 것은 움직여질 수 없다면 그리고 순수하게 있는 것에 대립되는 것은(τὸ ἀντικείμενον, b27, 곧 순수하게 있지 않는 것 또는 없음) 힘에 따라 (움직여질 수 없다면) - 회지 않는 것 또는 선하지 않는 것은 우연적으로 (움직여지는 것과 똑)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이다 회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면 [말이다] 어떤 것도 순수하게 이것이 아닌 것 [이라면 말이다] - 있지 않는 것은 움직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다면 생성은 움직일 것이다¹⁴⁵⁰) 있지 않는 것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 부분 우연적으로 생성된다면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은 생성되는 것에 따라 순수하게 속한다 라는 것도 [똑] 같이 진실이다 ¹⁴⁵¹도 이와 같다 실로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δυσχερῆ b35) 것들이 잇따른다 만약 움직여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리 안에 있다면 있지 않는 것은 자리 안에 있지 않지만 어디에 [있]을 것이다 실로,

소멸은 움직임이 아니다 **움직임**의 반대는 움직임 또는 쉽거나 **생성**의 (반대는) 소멸이기 때문이다 모든 **움직임**은 **변화**인 것이므로 변화들은 세 가지로 말하여지지만 이 (세 가지)들 가운데 **생성** 과 **소멸**에 따른 (변화)는 움직임이 아니다 이것들은 **모순**에 따른 것들이다 기체로부터 기체로의 변화 만이 움직임이다 기체들은 **반대**들 또는 [반대들] 사이에 (있는) 것들이다 심지어 결여조차 반대들로¹⁴⁵¹) 상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체는) 긍정에(의해서)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발가벗은 그리고 이빨 없는 그리고 검음 처럼 말이다 (1067b1-1068a7) ”

1449) 묶임 과 나뉘에 대해서는 865쪽을 참조하시오

1450) 로스(868) 와 트레드닉(113) 모두 생성은 움직임이 아니다 라고 번역 하는데 본문에는 ‘ , καὶ τὴν γένεσιν κίνησιν εἶναι’, (1067b31) ’ 이라는 본문에는 부정어(否定語)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 둘은 ‘아니다’ 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했을까

이 문제는 더 많은 숙고를 필요로하는 것 같으나 머리가 혼란하니 다음에 하기로 하자

1451) 반대 로서의 결여에 대해서는 범주들 241-250쪽에 자세히 말하여진다

라는 칼과 편 11 장에서는 변화에는 생성 과 소멸 과 움직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변화 가운데 반대들 그리고 그 반대들 사이에 있는 것들 로서의 기체로부터 기체로부터 변화 만 이(μόνον 1068a5) 움직임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생성 과 소멸도 텔레스에 따르면 움직임이다 말했다가는 큰일난다 그에 따르면 생성 으로서의 변화 와 소멸 로서의 변화는 움직임이라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변화에 대해 그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연적인 변화 와 우연적이지 않는 변화로 크게 구분하여 그는 말한다

음악적인 것이 걷는다에서 처럼 변화하는 것은 우연적으로 변화한다 라고 말하여지지만 이렇게 말하여지는 것의 어떤 부분이 변화하는 것은 순수하게 변화한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눈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는 것 처럼 말이다 반면에 그 자체로 첫 번째로 움직여지는 어떤 것이 있다 이것은 그 자체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다 움직이게 하는 것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우연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또는 그 자체로 움직이게 하는 [동안에] 첫 번째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은 움직여지고 있는 것들로하여금 그것들에서 그것들로 시간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바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곧 에이도스들 과 속성들 과 자리가 있다¹⁴⁵²⁾ 이제,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그는 우연적이지 않는 변화에 대해 말한다

우연적이지 않는 변화는 모든 각기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들 그리고 이 반대들 사이에 있는 것들 그리고 모순들에 속한다¹⁴⁵³⁾이제,

텔레스는 변화를 구분하기위해 기체¹⁴⁵⁴⁾라는 말을 이끌어들인다

1452) 예를들어 앓 과 뜨거움 처럼 말이다 움직임은 뜨거움이 아니라 뜨거워짐이다

1453) 텔레스는 귀납으로부터(ἐκ τῆς ἐπαγωγῆς 1067b14) 이러한 믿음(πίστις 1067b14)을 얻어낸다

변화하는 것은 기체에서 기체로 또는 기체 아닌 것에서 기체 아닌 것으로 또는 기체에서 기체 아닌 것으로 또는 기체 아닌 것에서 기체로 변화한다 그런데 기체란 긍정에서 분명해지므로(δηλούμενον 1067b18) 필연적으로 세 가지 변화가 있다 기체 아닌 것에서 기체 아닌 것으로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¹⁴⁵⁵ 기체 아닌 것들에는 반대들도 모순들도 있지 않으므로 [그렇다] 반 정립이 거기에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성은 기체 아닌 것에서 기체로의 모순에 따른 [변화]이다 한 편으로 순수하게 순수한 것(기체 아닌 것, 있음)이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으로부터의 어떤 것(기체)이 있다 반면에,

소멸은 기체에서 기체 아닌 것으로의 모순에 따른 변화이다 한 편으로 순수하게 순수한 것(기체 아닌 것, 있지 않음 또는 없음)이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으로부터의 어떤 것(기체)가 있다 *만약* 있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면 그리고 묶임 과 나뉘에 따른 것은 움직여질 수 없다면 그리고 순수하게 있는 것에 대립되는 것은 힘에 따라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¹⁴⁵⁶ 있지 않는 것은 움직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대 부분 우연적으로 생성된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있지 않는 것은 생성되는 것에 따라 순수하게(ἀπλώς 1067b34) 속한다는 것도 [똑] 같이 진실이다¹⁴⁵⁷ 실로 다음과 같은 결론은 까다로운 것들이다 움직여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리 안에 있다면 있지 않는 것은 자리 안에 있지 않지만 어디엔가는 있을 것이다 실로,

1454) 기체에 대해서는 범주들 166쪽 과 295, 838쪽을 참조하십시오 그런데 몇 줄 아래 1067b18에서 그는 기체란 긍정에서 분명해진다 라고 말한다

1455) 무엇 때문에 이렇게 텔레스는 생각할까 우선,

긍정으로부터 기체가 분명해진다 또는 표현되어진다 라는 말부터 지금 나에게 밝혀져야하는데.....

1456) 회지 않는 것 또는 선하지 않는 것은 우연적으로 (움직여지는 것과 똑)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이다 회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면 [말이다] 어떤 것도 순수하게 이것이 아닌 것 [이라면 말이다]

1457) 쉽도 이와 같다

소멸은 움직임이 아니다 움직임의 반대는 움직임 또는 **움**이나 생성의 반대는 소멸이기 때문이다 모든 움직임은 변화인 것이므로 변화들은 세 가지로 말하여지지만 이 세 가지 가운데 **생성** 과 **소멸**에 따른 변화는 움직임이 아니다 생성 과 소멸은 모순에 따른 것들이며 기체에서 기체로의 변화만이 **움직임**이다 기체들은 반대들 또는 반대들 사이에 있는 것들이다 심지어 **결여** 조차 반대들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체는 긍정에 의해서 분명해진다 예를들어 발가 벗은 그리고 이빨 없는 그리고 검음 처럼 말이다

생성 과 소멸 로서의 변화에 관한 이와 같은 텔레스의 로고스는 헤에겔의 논리학 존재론 맨 앞에서 주어진 논의를 생각나게 한다 헤에겔은 텔레스의 로고스를 받아드린다 그리고선 조금 세련되게 말할 뿐이다 적어도 생성 과 소멸에 관한 헤에겔의 논의에서는 그렇다(Winssenschaft der Logik, Georg Rasson판, 제 1 권, 92-95쪽) 어쨌든,

텔레스에 따르면 움직임이란 모순들에 따른 변화 곧 생성 과 소멸이 아니라 반대들 과 반대들 사이에 있는 것들에 따른 변화이다 물론 세 가지 이러한 변화들은 그 자체로 변화한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지 우연적으로 변화한다 라고 말하여지는 변화들이 아니다 따라서,

생성 과 소멸이 비록 모순들에 따르는 변화이긴 해도 그 모순들을 통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모순들 보다는 반대들 과 그 중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미 553쪽에서 말하여졌듯이 변화의 아르케에는 힘이지 모순이 아니다 모순(적인 것)들이 안에 지니는 힘에 의해서는 생성 소멸할 뿐이지 어떤 기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텔레스의 말들에 따르면 그렇다 텔레스에 따르면,

움직임은 기체에서 기체로의 변화인 반면에 생성은 기체 아닌 것에서 기체로의 변화이며 소멸은 기체에서 기체 아닌 것으로의 변화이다 기체 아닌 것에서 기체 아닌 것으로의 변화는 필연(ἀνάγκη 1067b19)이 아니다¹⁴⁵⁸

1458) 그렇다면 기체 아닌 것에서 기체 아닌 것으로 변화는 우연이라는 말일까....글쎄.....

“ (12) 만약 범주들이 실체 질 장소 행함 또는 당함 관계 량으로 나뉘어진다면 질의 량의 자리의 세 가지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있다

실체에 반대¹⁴⁵⁹(되는 것)은 있지 않으므로 실체에 따르는 [움직임은 있지] 않다

프로스 티의 (움직임)도 있지 않다 변화하는 헤태론한 것¹⁴⁶⁰의 어떤 것도 변화 않는 헤태론한 것[에]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헤태론한)것들의 움직임은 우연적이다(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¹⁴⁶¹ 1068a13)

1459) 반대들이 실체에 속한다는 것(181-184)과 혼동(混同)하지 마라 반대인 실체들은 있지 않으므로 그리고 움직임은 반대에서 반대로 일어 나므로 실체의 움직임은 있지 않다는 말이다 대신 기체가 움직인다 이미 915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기체에서 기체로 변화가 바로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체는 반대들 또는 그 반대들 사이에 있는 것들이지 모순들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체 와 기체를 혼동하지 말아야한다 이 둘에 관해서는 너무도 여러 번 말하였다 다시 반복하자면 실체는 기체적인 것이다 그러나 기체는 아니다(295, 168, 853, 917쪽 참조)

1460) 프로스 티(관계)는 헤태론한 것에 대한(πρός) 또는 헤태론한 것의 관계이다 라고 186-187 쪽에서 그가 말할 때의 헤태론한 것은 아마 그 프로스 티를 지니는 기체를 가리킬 것이며 187쪽에서 그가 모든 프로스 티는 상대 짝(ἀντισρέφοντα 6b28)에 대한 프로스 티(관계)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상대 짝은 그 관계를 지니는 기체가 아니라 그 관계 자체(노예 와 주인) 그리고 배 와 반 그리고 큼 과 작음)를 아마 가리킬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여지는 헤태론한 것은 프로스 티(관계)를 지니는 기체를 말한 것일까 아니면 그 상대 짝을 말하는 것일까 글세.....프로스 티 자체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프로스 티를 지니는 기체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프로스 티 자체를 가리키는 가운데 더불어 기체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며 기체를 가리키는 가운데 더불어 자체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자체 와 기체를 동시에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행함 과 겪음의 또는 움직이게함 과 움직여짐의(κινούντος και κινουμένου a14) (움직임)도 있지 않다 움직임의 움직임(κινήσεως κινήσεως¹⁴⁶²)a15)도 생성의 생성도 전체적으로 변화의 변화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있을 거라면] 움직임의 움직임은 두 가지로(διχώς a16)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그렇다 ①] 또는 기체의 (움직임)으로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힘으로부터 검음으로 변화하므로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 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임은 뜨거워지거나¹⁴⁶³ 차가워지거나 자리가 달라지거나(ἀλλάττει a19) 또는 성장된다 이럴 수는 없다 변화는 기체들의 어떤 것(변화)이 아니기 때문이다¹⁴⁶⁴ [②]또는 헤태론한 어떤 기체가(τῷ ἑτερόν τι ὑποκειμενον a20) 변화로부터 알론한 에이도스[의 변화]에로 변화[하는 움직임]으로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사람이 병으로부터 건강으로 (변화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우연적으로를 제외하면 이런(변화)는 [일어 날]수 없다 알론한 것으로부터 알론한 것으로의 모든 움직임이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성 과 소멸도 이와 동일하다¹⁴⁶⁵ 한 편으로 이런(ὡδὶ a25)대립들에로의 (움직임) 또는 저런(ὡδὶ a25) 대립들에로의 (움직임) 이외에는 움직임이 있지 않다¹⁴⁶⁶ 그렇다면 동시에

1461) 915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연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또는 그 자체로 움직이게 한다

1462) 움직임의 움직임 생성의 생성 변화의 변화 라는 표현을 생각의 생각 이라는 772쪽을 참조하라

1463) 뜨거움이 아니라 뜨거워짐이 움직임이라는 915쪽을 참조하십시오

1464) 915쪽에 나온 것 처럼 변화(하는 것)는 기체에서 기체로 일어나는 것이지 기체들의 변화는 아니 라는 말일까.....

1465) 생성 과 소멸 이라는 변화도 우연적인 변화라는 말 일 것이다 자 여 기서 921쪽의 그림을 보라 그리고 생성 과 소멸은 움직임이 아니라는 917쪽 도 보라

1466)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ὡδὶ(1068a25) ἢ ὡδὶ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가 모순 또는 반대를 이런 대립 또는 저런 대립으로 간주한다면 모순 대립 들 으로의 움직임 그리고 반대 대립들 으로의 움직임 이외에는 움직임이 있

건강으로부터 병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그 자체로부터 알려진 것으로 [변화한다] 병들거라면 무엇이든 - 쉬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알론한 것으로 변화할 것이며 그리고 나아가서 기회적이지(τιν τυχοῦσαν¹⁴⁶⁷) a29)는 않은 것으로 항상 (변화할 거라는 것은) 그리고 저(병들)것은(κάκεινι a29) 알론한 어떤 것으로부터 알론한 어떤 것으로 (변화할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건강은 [병에] 대립 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τῷ, a31) 우연적이다 예를들어 기억(ἀν ἀμνήσεως, a31, 記憶, 想起)으로부터 잊음(λήθην, a31, 망각妄覺)으로 변화하는 것 처럼 [말이다] [그 기억 또는 망각이 속하는] 저것(기체) 이 한 때는(ὅτε a32) 앓아 한 때는 건강¹⁴⁶⁸)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변화[①]의 변화[②] 와 생성[①]의 생성[②]이 있다면 무한히 계속된다 나중의 것[②]이 있다면 앞의 것[①]이 실로 반드시 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만약 순수한(ἀπλή¹⁴⁶⁹) 1068a35) 생성이 언제(ποτε 1068b1) 생성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생성(된 것)도 순수하게 생성됐을 것이다 그래서 생성된 것이 아직 있어 오지 않지만(οὐπω ἦν 1068b2) 그러나 어떤 것이 생성되거나(γενόμενον, b2, 생성되거나) 또는 생성되었다(γεγόμενον b2-3) 만약 이렇다면 어떤 때(ποτε b3) 생성되었다 그 런데(ὡς b5) 그 때 까지는 생성되지 않았다 무한한 것들⁴⁷⁰) 중에는

지 않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이므로 모순 대립에 따른 움직임을 허용하는 셈이 될 것이다(로스(870) 와 트레드닉(115) 해석) 그렇다면 모순들에 따른 변화 곧 생성 과 소멸은 움직임을 아니다 라고 하는 1068a17-18(917)의 말은 어떻게 될걸까 텔레스가 분명히 거부한 것을 로스 와 트레드닉은 텔레스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일까.....이 두 사람이 그걸 몰랐을리는 없는데.....내가 여기 문맥을 잘못 받아드리는 것은 아닐런지....이런 또는 저런을 단지 반대 대립으로만 보면 여기 와 거기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 문맥에 내가 지금 애매해하고 있다....휴우....

1467) 기회적인 것에 대해서는 846쪽을 참조하십시오

1468) 로스(870) 와 트레드닉(116)은 건강을 무지(ἄγνοια, 無知)로 바꾸어 번역한다 그러나 나는 베케리를 따랐다

1469) 916쪽에 나오는 순수한 것(각주1448번)을 참조하라

1470) 904쪽에 나오는 무한한 것에 대한 로고스를 참조하십시오

첫 번째 것이 있지 않으므로 [생성의 생성이 있다면] 첫 번째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생성을] 지니고 있는 것(τὸ ἔχόμενον b5)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생성되어지는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있지 않다 변화하는 [것이] 있지 않은 것 처럼 말이다 나아가서,

동일한 것의 움직임 과 쉼은 반대이며 (동일한 것의) 생성 과 소멸도 (반대이다) 그래서 생성된 것이 생성될 때 생성된 것이 있다 그리고나서(τότε b8) 소멸된다 생성되자마자 곧 바로(εὐθὺς b9) 소멸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멸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생성되는 것 과 변화하는 것에 반드시 질료가 깔려있다(ὑπείνα¹⁴⁷¹ b10)이제 [그것은] 무엇(τις b11)일까 다르게 되는 몸 또는 영혼 처럼 그렇게(οὕτω b12)움직이거나 또는 생성되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으로 움직이는(κινούνται b13)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 반드시 이것으로(τούδε b13)부터 이것(τόδε b13)으로의 움직임 [또는] 움직이지 않음 [-] 이것이(τούδε b13) 있기 때문이다 이제 어떻게 [그러한가]? **배움의 배움**은 있지 않을 것이어서 **생성의 생성**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체의 또는 프로스 티(관계)의 또는 행함 과 겪음의 (움직임)은 있지 않으므로 질 과 량 과 자리에 따른 움직임이 남겨진다 이것들 각각에 반대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질** - 마찬가지로 차이(διαφορά¹⁴⁷² b19)도 **질**(ποῖον¹⁴⁷³ b29)이므로 - 을 실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성(적인 것, τὸ παθητικόν, b19)이라고 말한다 이(속성적인) 것에 따라서 겪는다 라고 또는 겪지 않음(ἀπαθὲς b20) 이라고 말하여진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τὸ ἀκίνητον¹⁴⁷⁴) 1068b20) 전체적으로 움

1471) 바로 여기에다 166, 295, 853, 917, 606, 838, 917쪽 모두를 연결시키라

1472) 차이에 대해서는 258, 448쪽을 참조하십시오

1473) 질에 대해서는 220쪽을 참조하십시오

1474) 882쪽에 나오는 κίνητον (1065b23)을 참조하십시오

직여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거의(μόλις b21) (움직여지지 않거) 나 천천히(βραδέως b22) 출발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한 편으로 자연스레 움직여지지만 다른 한 편으로 [자연스레 움직여진] 그 때부터 그리고 그 곳으로부터 자연스레 움직여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서도 이[맨 마지막] 것에만 아름답게(καλῶ b23) 쉽이 있다 **쉽**(ήρεμια b24)은 **움직임**에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은) (움직임을) 받아드리는 ((것의)) [움직임의] 결여(σέρησις b25)일 것이다

첫 번째 **자리** 하나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자리에 따라 **동시에**(ἅμα, 1068b26, 함께) [있으]며 알론한 (첫 번째 자리 하나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자리에 따라) **분리**(χωρισίς¹⁴⁷⁵) b26)해 [있는] 반면 자신들의 극단들이(τὸ ἕκρα b27) 동시에 (있는 것들은) **접촉된다**(ἄπτεοθα b27) 그것으로 먼저 자연스레 도달하는 또는 **연속적으로**(συνεχώς b29) 변화하는 극단(ἔσχατον b29)으로 자연에 따라 변화하는 것들이 그[자리] **사이**(μεταξύ b27)[에 있는 것이 있다] 직선적으로 가장 먼 것은 자리에 따른 반대이다

그 아르케에(시작)뒤에 **이어**(ἐξήης b31) - 위치(Θέσει b31) 또는 에이도스에 있어 또는 어떻게든 알론하게 규정되는 [그런 길로 이어] - 있으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동일한 류도 있지 않는 것은 [자리에 따라] **연이어져**(ἐφ'εξήης b33)있다 예를들어 선의 선들(γραμμής b33) 또는 모나드의 모나드들¹⁴⁷⁶) 또는 집의 집들 처럼¹⁴⁷⁷) [말이다] 사이에 [류 이외의?] 알론한 것이 있는 것을 방해하는(καλύπει¹⁴⁷⁸) b34)것은 (있지) 않다 나중 어떤 것의 이어집이 연 이어집이기 때문이

1475) 분리에 대해서는 851, 471, 298, 906 쪽을 참조하십시오

1476) 그런데 430쪽에서는 모나드는 나뉘어지지 않는 량의 보기로 점과 더불어 나타나는 반면에 선은 나뉘어지는 연속 량의 보기로 면 몸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1477) 이러한 보기들은 동일한 류의 보기들일까 아니면 연 이어진 자리 안에 있는 것들의 보기일까 텔레스에 따르면 자신들과 동일한 류가 연 이어진 자신들 사이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데.....

1478) 방해하다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586, 836쪽을 참조하십시오

다 하나는 둘에 이어져 (있지) 않으며 달[의 첫 날, ἡ νομηνία¹⁴⁷⁹], 1069a1]도 두 번째 [날]에 이어져 (있지) 않다 이어져 있으면서 접촉되어 (있는) 것이 *지너지고(있는) 것*(ἐχόμενον¹⁴⁸⁰), 1069a1, 및 다음이다 모든 변화는 대립되는 것들 안에 (있으며) 이 (대립된) 것들은 반대들 과 모순들이고 **모순들**에는 중간이(ἀνά μέσον¹⁴⁸¹) a4) 있지 않으므로 사이는 반대들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연속(적인 것, τὸ συνεχές a5)은 *지너지는* 또는 *접촉되는* 바로 그 어떤 것이다¹⁴⁸²) 각기 것의 한계들이(πέρας a7) 접촉되고 그리고 연속됨에 의해서 동일한 것 과 하나가 될 때 연속¹⁴⁸³)적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연속적인 것은 그것들로부터 접합에 따라(κατὰ τὴν σύναψιν, a9, 接合) 자연스레 동일한 것 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들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첫 번째 것은 *연 이어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어짐은 접촉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지기 때문이며 그리고 만약 연속적이라면 접촉되지만 접촉된다고 해서 아직 연속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¹⁴⁸⁴) 접촉(ἀφή a11)이 있지 않는 것들에서는 융합(τὴν σύμφυσις, a12, 融合)이 있지 않다 그래서 점은 모나드와 동일하지 않다 접촉됨이 그(점)들에 속하지만 그(모나드)들에는 (접촉됨이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연이음

1479) 842쪽에 나오는 같은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1480) 232쪽에 나와 있는 τὸ ἔχειν(범주들, 15a17, 지남)을 참조하십시오

1481) 먼저 241-241쪽을 본 다음에 253, 625, 864, 886쪽 각주 1386번, 915-6쪽을 참조하십시오

1482) 로스(871) 와 트레드닉(121)은 ‘ The continuous is a species of the contiguous ’ 라고 번역한다 연속적인 것은 일 종의 연이어진 것이다 라는 말인데.....이들이 번역하고 있는 원본이 지금 내가 옮기고 있는 베케리 본문 하고 그 순서 와 내용에 있어 약간 다르다 이들의 본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1483) 연속에의한 하나 대해서는 421쪽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연 이음 과 연속의 더 나아간 로고스를 위해서는 자연학 엡실론 편 3 장 전체 와 제에타(6책) 편 1 장 시작 부분(231a21-231b18)을 참조하면 된다

1484) 연이어져야 연속적이라는 말일게다

이 (속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짐)들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지만 그 (모나드)들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068a8-1069a14)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실체 와 질 과 장소 와 행함 또는 당함 과 관계 와 량 등 일곱 가지 각기 범주들에 움직임이 있는지 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하며 있다면 그 움직임은 무엇인지에 관해 말한다 그는 그 자체¹⁴⁸⁵⁾ 움직임이 있지 않은 네 가지 범주들 곧 실체 와 관계 와 행함 또는 당함에 대해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를 먼저 말하기 시작한다 첫째,

실체에 반대는 있지 않으므로 실체에 따른 움직임은 있지 않다 둘째,

프로스 티(관계)의 움직임도 있지 않다 헤태론한 것의 변화한 [프로스 티]는 변하지 않는 헤태론한 것에 진실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셋째,

행함의 움직임도 **겪음**의 움직임도 또는 움직이게함의 움직임도 움직여짐의 움직임도 있지 않다 움직임의 움직임도 생성의 생성도 전체적으로 변화의 변화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움직임의 움직임은 있지 않다 있을 것라면 이러한 움직임은 두 가지로 있을 것이다 먼저,

1485) 921쪽 과 915쪽에서 말하여졌듯이 우연적인 변화 와 순수한 변화(부분적인 변화 와 전체적인 변화)로 나뉘어지는 변화에 상응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을 우연적으로 와 부분적으로 그 자체로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나누는데 질 량 자리 등 세 범주에 있는 움직임은 그 자체 움직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텔레스에 의해 움직임이 없는 범주들로 말하여진 실체 와 프로스 티 와 행함 또는 당함은 우연적인 움직임 마저 지니지 않는가 시체에는 우연적인 움직임 마저 없는 반면에 프로스 티에는 우연적인 (1068a13)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그 자체 움직임이 우연적으로 프로스 티에 속한다는 말일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기체의 움직임으로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힘에서 검음으로의 변화와 같은 사람의 움직임¹⁴⁸⁶⁾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변화는 기체의 어떤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람이 병에서 건강으로 변화하는 것 처럼 해대론한 어떤 기체가 변화에서 알론한 종의 변화로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우연적인 변화일 뿐이다 알론한 것에서 알론한 것으로의 모든 움직임이 변화이기 때문이다 생성 과 소멸도 이러한 우연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이런 또는 이런 대립[곧 반대 대립]들로의 움직임 이외에는 움직임은 있지 않다 그렇다면 건강에서 동시에 병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그 자체에서 알론한 것으로 변화한다 병들거라면 무엇이든 알론한 것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기회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알론한 것에서 알론한 것으로의 변화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건강은 병에 대립되나 우연적인 대립이다 예를들어 기억에서 망각으로 변화하는 것 처럼 말이다 기억 또는 망각이 속하는 저 기체가 한 때는 앎으로 한 때는 건강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변화①의 변화② 와 생성①의 생성②이 있다면 무한히 계속된다 ②가 있다면 반드시 ①이 있기 때문이다¹⁴⁸⁷⁾ 예를들어 순수한 생성이 어떤 때 생성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생성된 것도 순수하게 생성됐을 것이다 그래서 생성된 것이 아직 있어 오지 않지만 어떤 것이 생성됐거나 생성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때 생성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 때 까지는 생성되지 않았다 무한한 것들 중에는 첫 번째 것이 있지 않으므로 생성의 생성이 있다면 거기에는 첫 번째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생성을 지나고 있는 생성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생성되는 것도 움직임이 있는 것도 있지 않다 변화하는 것이 있지 않은 것 처럼 말이다 나아가서,

동일한 것의 움직임 과 쉽은 반대이며 생성 과 소멸도 반대이다 그래서 생성된 것이 생성될 때는 생성된 것이 있다 그리고 나서 소멸된다 생성

1486) 뜨거워짐 또는 차가워짐 또는 알론한 자리로 옮겨짐 성장됨도 그와 같은 움직임이다

1487) ②가 있으면 반드시 ①이 있고 다시 ①이 있으니 반드시 ①의 생성이 있고.....무한히....

되자마자 곧바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소멸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생성되는 것과 변화하는 것에는 반드시 질료가 깔려있다 이 질료는 무엇일까 다르게 되는 몸 또는 영혼처럼 그렇게 움직이거나 또는 생성되는 무엇일까 나아가서,

그것으로 움직이는 그것은 무엇일까 반드시 이것에서 이것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러할까 배움의 배움이 있지 않을 것이어서 생성의 생성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임의 움직임도 생성의 생성도 변화의 변화도 있지 않으므로 행함과 겪음(이라는 범주)에는 움직임이 있지 않다 그리고 실체와 프로스티(관계)에도 역시 움직임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질과 량과 자리에 따른 움직임은 있을까 있다 질과 량과 자리 각각에는 반대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질 -차이도 질이다 -을 텔레스는 실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의 속성이라고 말한다 이 속성을 실체는 겪거나 겪지¹⁴⁸⁸⁾ 않는다 다음으로,

텔레스는 량적인 움직임에 대해 말해야 할 것 같으나 **움직임**의 반대인 **쉽**에 대해 말한다 그에 따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전체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며 많은 시간 동안 거의 움직여지지 않거나 천천히 출발하는 그러한 것이고 자연스레 움직여지긴 하지만 그 때부터는 그리고 그 곳으로부터는 자연스레 움직여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서도 이[맨 마지막] 것에만 아름답게 쉽이 있다 **쉽**은 **움직임**의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은 움직임을 받아드리는 결여일 것이다 셋째,

이제 텔레스는 **자리** 움직임에 대해 말한다

1488) 범주들 183쪽을 참조하십시오

첫 번째 자리 하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동시에 그 자리에 있으며 알론한 (첫 번째) 자리 (하나) 안에 있는 것들은 분리해 있는 반면에 극단들이(τὸ ἕκτα b27)그 자리에 동시에 있는 것들은 접촉되며 그것으로 자연스레 먼저 도달하거나 그것으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그 극단으로 자연에 따라 변화하는 것들이 그 [자리] 사이에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직선적으로 가장 먼 것은 자리에 따른 반대이다 그리고,

[자리에 따른] 연 이어짐은 그 사이에 어떤 동일한 류도 있지 않지만 위치(Θέσει 1068b31) 또는 에이도스 또는 알론한 것으로 규정되는 길로 아르케에 뒤에 이어짐이다 예를들어 선의 선들 또는 모나드의 모나들 또는 집의 집들 처럼 [말이다] 사이에 알론한 것이 있는 것을 방해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나중 어떤 것의 이어짐이 연 이어짐이기 때문이다 하나가 둘에 달의 첫 날이 두 번째 날에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어져 있으면서 접촉되어 있는 것이 *지녀짐*(ἐχόμενον 1069a1,맞다음)이다 그런데,

모든 변화는 대립되는 것들 안에 있으며 대립된 것들은 반대들과 모순들이고 모순들에는 중간이 있지 않으므로 사이는 반대들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연속적인 것은 지녀지는(맞다음) 또는 접촉되는 것이다 각기 것의 한계들이 접촉되어 동일한 것 과 하나가 될 때 연속(적)이라 나(텔레스)는 말한다 연속적인 것은 집합에 따라(κατὰ τὴν σύναψιν a9) 자연스레 동일한 것 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여기서도 첫 번째 것은 연 이어짐 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어짐은 접촉이 아니라 연 이어지기 때문이며 연속이라면 접촉이지만 접촉해 있다고 해서 연속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접촉하지 않으면 연합(τὴν σύμφυσις, a12, 聯合)은 있을 수 없다¹⁴⁸⁹따라서,

1489) 그래서 점은 모나드와 동일하지 않다 접촉은 점에 속하지만 모나드에는 접촉이 속하지 않으나 연 이음이 속하며 점들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지만 모나드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위치(Θέσει, 1068b31(926), 1016b26(430), 4b21(216))를 끌어 들여보자

430쪽에 따르면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 모든 방향에서 위치 없이 있는 량이 모나드이며 모든 방향에서 위치를 지닌 량이 점이며

이렇게 끝나는 **꺾과 편** 마지막 장은 실체와 프로스티와 행함 또는 꺾음 그리고 질과 량과 자리 등 7 가지 범주들에 움직임이 있는 가를 따진다 따지는 거의 대부분의 지면(紙面)은 행함 또는 꺾음에 움직임이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과 움직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리를 분석하는 것으로 채워지는해도 말이다 실체와 관계에 움직임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 76 줄로 이루어진 이 12 장 가운데 단지 4 줄(1068a10-13) 그리고 질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3줄(1068b18-20)로 말하고 아예 량적인 움직임에 대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함과 꺾음에는 움직임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논증 그리고 움직임이 일어나는 자리(공간)에 대한 분석 이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논증은 움직임의 움직임도 생성의 생성도 변화의 변화도 있지 않다는 로고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움직임의 움직임도 생성의 생성도 변화의

216쪽에 따르면 량에는 위치를 지닌 부분들로 합해진 량과 위치를 지니지 않는 부분들로 합해진 량이 있다 예를들어 선과 면과 체(τὰ σρερον, 5a3, 體)와 **자리**의 부분들은 서로에 대한 위치를 지닌다 그러나 수와 시간과 말(로고스)의 부분들은 위치 대신에 순서(τάξις, 5a29, 順序)를 서로에 대해 지닌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자리(공간)의 부분들은 위치를 지니나 시간의 부분들은 위치 대신 순서를 지닌다 그리고 자리와 시간은 둘 다 연속 량이다 그러므로 연속 량의 모든 부분들이 위치를 지닌다고 여겨서는 않된다 연속 량인 시간의 부분들은 위치 대신 순서를 지니기 때문이다 위치는 지니는 부분들로 나뉘어지는 연속 량은 자리를 비롯해서 체와 면과 선이다 아울러,

연속 량이 아닌 끊어진 량들도 위치에 따라서 분류 될 수 있다 모나드는 모든 방향에서 위치 없이 있는 끊어진 량인 반면 점은 모든 방향에서 위치를 지닌 채 있는 끊어진 량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 아래 가운데 [앞 뒤 옆?] 등 여섯 가지 에이도스로 분류되는 **자리** 안에 위치가 속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변화도 있지 않으므로 행함 과 겪음의 움직임도 움직이게함 과 움직여짐의 움직임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논증의 뼈대는 무한함에 관한다 만약 변화의 변화 와 생성의 생성이 있다면 ‘생성의 생성의 생성의 생성의 생성....’ 그리고 ‘변화의 변화의 변화의 변화의 변화.....’ 라는 식으로 무한히 이어지므로 그리고 무한한 것 들에는 첫 번째 것이 있지 않으므로 생성도 변화도 있지 않을 것이다¹⁴⁹⁰⁾

그 논증의 잔 가지는 옮김 과 요약을 참조하라 그러나,

그 논증들 가운데서 생성 과 변화에는 칼린(κρίναι¹⁴⁹¹⁾ 1068b10)이제 질료[또는 기체]가 있다라고스를 건져 내는 것은 유익하다 움직임과 관련해서 말하여지는 기체는 비록 실체와 관련해서 말하여지는 기체 보다는 나중 일 것이긴해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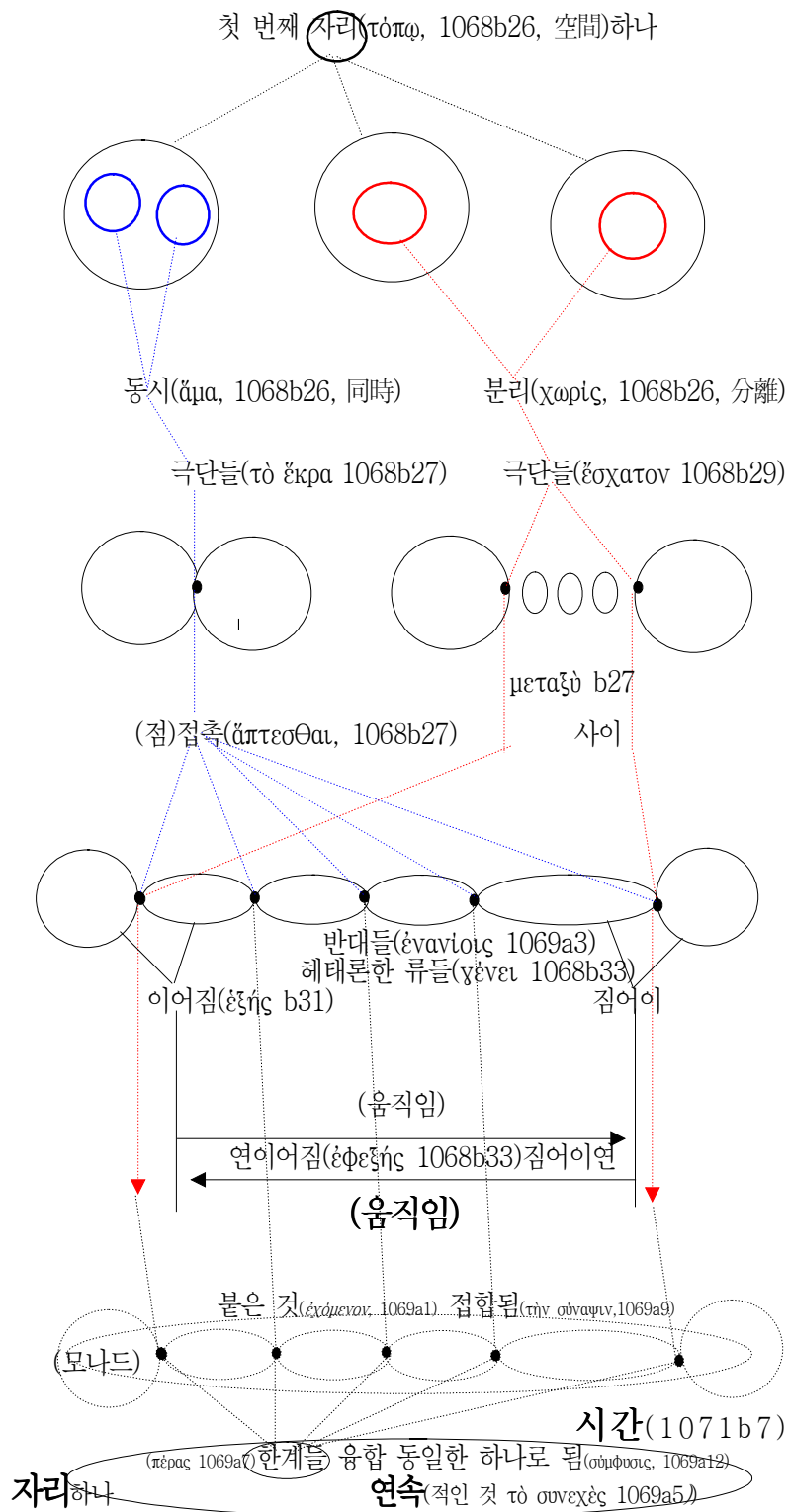
움직임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리에 관한 분석으로 넘어 가기 전에 921쪽 그림에서 간과(看過)된 우연적인 변화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프로스 티의 움직임을 텔레스는 우연적(1068a13)이라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이며 저 사람(기체)이 한 때 얇으로 한 때 건강으로 변화하므로 사람이 병에서 건강으로 또는 기억에서 망각으로 변화하는 것은 우연적(1068a31)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자리에 관한 분석으로 넘어 가 보자 나는 이 분석을 다음 쪽에 그려봄 으로서 칼과 편 12 장을 마무리 하려 한다

1490) 첫 번째 실체가 있지 않으면 알론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169쪽 과 모든 것은 첫 번째 것에 들러 붙어 있으며 이 첫 번째 것을 통해 말하여진다 라고 하는 808쪽을 참조하시오

1491) 바로 여기에다 166, 295, 853, 917, 606, 838, 917쪽 모두를 연결시키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연 이어지는 움직임이 이러한 자리에 관한

분석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움직임이 연속적인 것은 아니다 람다 편 9 장 1071b11(755쪽, 878-879쪽)에서 자리 움직임 그것도 등근 움직임 만이 연속적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 항상 있어 오기 때문에 움직임은 생성 소멸할 수 없다 시간 (역시 생성 소멸할 수) 없다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들어 먼저 와 나중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임은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속적이다 (시간의 속성과) 동일한 것(속성)이 움직임의 어떤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움직임이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자리에 따른(움직임) 그것도 그 (자리 움직임에 따른) 등근 (움직임이 연속적이다)(καὶ ταύτης ἢ κύκλῳ 1071b11) (1071b6-11) ”

따 라

서 등근 자리 움직임(ἡ φορά, 1072b4, 759쪽)만이 연속적인 것(τὸ συνεχές 1069a5)고 그 이외의 움직임은 반대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연이어지는(ἐφεξῆς 1068b33)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마찬가지로,

시간도 연속적이다¹⁴⁹²)그런데,

1492) 시간 과 움직임을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또는 있는 것 그 자체에 대해 말하면서 시간 과 움직임을 말하는 것은 사실 내심 부담 간다 이 두 가지는 텔레스에 의해서 그 자체로 있는 것이라 말하여지는 범주들의 분류에 들어 오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한 때 또는 언제(ποτε 161쪽) 와 어디 또는 어느 곳(πού 161쪽)이 범주로 분류되므로 그리고 언제와는 헤태론한 범주인 량 가운데 하나인 연속 량에 자리(공간) 와 시간(χρόνον 1071b7)이 속하므로 그렇다 시간 과 움직임(κίνησις 1071b13)이 어느 한 때 또는 어느 한 순간(瞬間)과 그리고 행함 또는 겪음과 조심스럽게 구분되어야 한다면 말이다 그래서,

시간을 있음 또는 있는 것 그 자체와 관련시켜 말하는 것은 좀 그렇다 적어도 텔레스 와 플라톤에 있어서는.....

움직임에는 어떤 에이도스(종)들이 있을까 내가 문제 삼았던 곳(값과
 편 12 장)에서는 질적인 움직임 과 양적인 움직임 과 자리 움직임 등 세 가
 지가 말하여지나 이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이 좀 더 풍부하게 말해졌다면 어
 뻗을까 하는 게 내 바램이었다 그렇다면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 이러한 것
 들에 대해 주로 말하는 알론한 곳은 어디일까 라며 돌아가는 눈은 범주들
 14 장에 머무른다¹⁴⁹³)그런데,

범주들에서는 단지 그 끝 장 직전(直前)의 장인 14 장 시작 부분에서
 만 움직임이 주로 말하여진다 그것도 범주들을 말하기 위해 쓰여지는 낱 말
 들에 관해 말하는 범주들의 후 반부¹⁴⁹⁴) 끝에 속하는 그 장¹⁴⁹⁵)에서 말이다
 거기에서 다음 처럼 움직임의 여섯 가지 종(에이도스)이 말하여진다

“ (14) 생성 소멸 늘어남(αὔξινος, 15a13, 成長, 增加) 줄어듬
 (μείωσις, a14, 減少) 달리됨(ἀλλοίωσις a14) [과] 자리에 따른 변화(μ
 εταβολή a14) [등] 움직임(κινήσεως a13)의 여섯 가지 에이도스가 있
 다¹⁴⁹⁶)이 알론한 움직임들은 서로 해테론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생성

1493) 움직임은 자연학 - 내가 여기서 다른 형이상학 값과 편 6-9 장의 로
 고스는 자연학 감마 편과 겹친다 - 에서 주로 말하여진다 그런데 영혼에
 관하여에서는 특히 감마 편 그 중에서도 3 장에서 움직임 더불어 말하여지
 기는 한다

1494) 범주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은 29쪽 과 235쪽에서
 말하여졌다

1495) 이 장에 대해서는 272-273쪽을 참조하시오

1496) 그런데,

915-917 쪽(형이상학 값과 11 장)에서는 생성 과 소멸이 우연적이지
 않는 변화로 말하여지긴하나 움직임으로는 말하여지지 않는다 물론 움직임
 역시 우연적이지 않는 변화로 말하여지므로 생성 과 소멸 과 움직임은 우연
 적이지 않는 변화 라는 점에서는 모두 변화에 속하나 앞 두 가지는 모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이므로 움직임이라 말하여지지 않는 반면 마지막

은 소멸이 아니며 늘어남은 줄어듬이 아니고 자리에 따른 변화 또한 아니며 알론한 것들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리되는 것은 나머지 움직임들 가운데 어떤 (움직임)에 따라 어느 한 때(ποτε 15a19) 필연적으로 달리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아포리아(물음, 어려움)을 **달리됨**은 지닌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¹⁴⁹⁷⁾ 모든 속성들(τὰ πᾶθη¹⁴⁹⁸⁾ a21) 그리고 대 부분(의 속성들)은 알론한 움직임들과 전혀 공통됨이 없이 우연적으로(συμβέβηκεν a 21-22)우리에게 밀접하게(οχεδόν a20) 달리되기 때문이다 속성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늘어남 또는 줄어듬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알론한 (움직임들)도 아니므로 [그렇다] 그래서,

달리됨은 알론함 움직임들과 헤태론할 것이다 만약 동일하다면 달리 되면서 곧 바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또는 알론한 움직임들

한 가지는 반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이므로 움직임이라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반대들 사이에 있는 기체들에서 기체들으로의 변화가 움직임이므로 그렇다 (921쪽 그림 참조)그래서,

모든 움직임은 변화이나 모든 변화가 움직임은 아니다 라는 로고스를 가져오는 바로 변화가 움직임에 대해 있는 이러한 길을 고려하지 않고 말한다면 생성 과 소멸 과 자리에 따른 변화를 각기 움직임의 한 가지 에이도스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기 때문에,

자리에 따른 **움직임** 이라 말하지 않고 자리에 따른 **변화**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가 그런데,

자리에 따른 **움직임** 이라는 말은 람다 편 6장 1071b11(755쪽)에서 다음 처럼 나타난다

1497) 어떤 것은 생성 소멸 늘어남 줄어듬 자리변화 등의 어떤 하나의 움직임에 의해 달리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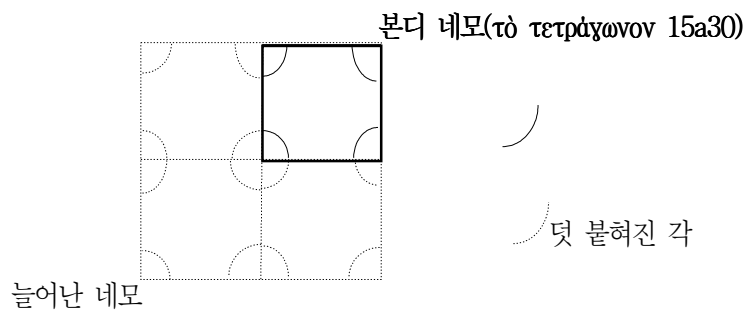
1498) 925쪽을 참조하십시오

가운데 어떤 것이 잇따를 것이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러하지(는)]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동일하다면] 늘어남 또는 알론한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임은 달리 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달리되지 않고 늘어나는 것이 있다 예를들어 한 편으로 각 넷은 는 각의 덧 붙혀짐에 의해서 늘어나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 네모는] 알론하게 되지는 않는다¹⁴⁹⁹⁾ 이러한 알론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그래서 (달리됨은) 알론한 움직임들과 해태론할 것이다

한 편으로 **쉽**(ήρεμία 15b1)은 움직임에 순수하게(ἀπλώς 15b1) 반대이며 다른 한 편으로 [여섯 가지] 각각에 따른 것들에 각각에 따른 것들이 (반대이다) 생성에 소멸이 늘어남에 줄어들이 자리에 따른 변화에 자리에 따른 쉽 (반대이다) 반대 자리에로의 변화가 가장 잘(μάλις 15b4) 대립되는 것 처럼 보인다 예를들어 위는 아래에 아래는 위에 (대립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나머지 움직임에 언제 무엇이 반대인가를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리에 따른 변화의 경우에 자리에 따른 쉽 또는 반대 자리로의 변화를 (반 정립하는 것) 처럼 만약 동일한 ([그 나머지] 움직임)의 경우 자리에 따른 쉽 질의 변화의 반대로의 (쉽)으로 반 정립하는(ἀντιτιθεῖν b9) 어떤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그 나머지] 움직임)에 반대는 있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달리됨은 질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에 따른 쉽은 질에 따른 움직임에 또는 반대로의 질의

1499)



각(γνώμονος, 15a30, 650쪽)들이 덧 붙혀지므로써 본디 네모가 늘어났지만 그 질 은 곧 네모(난 모양 - 모양(σχῆμα, 10a11, 206, 568, 844) 또는 모습(μορφή, 10a12, 206쪽) 텔레스에 따르면 질의 네 번째 에이도스이다-)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 그림은 보여준다

변화에 대립된다 예를들어 희게 됨이 검게 됨에 (대립되는 것) 처럼
[말이다] 반대로 변화 되는(γινόμενης b16) 질의 반대로 달리되기 때
문이다 (15a13-b17)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여섯 가지 에이도스의 움
직임들은 각각 헤태론하며 그 각각에는 반대가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먼저,

헤태론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생성은 소멸이 아니며 늘어남은 줄어듬 또한 자리 변화가 아니고 아
른한 것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리됨은 나머지 어떤 움직임에 따라 어느 한 때 필연적으로 달리됨
이 아닐까 라고 묻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속성들은
모두 또는 거의 알론한 움직임에 전혀 공통됨 없이 우연적으로¹⁵⁰⁰⁾ 달리되
기 때문이다 속성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늘어남 또는 줄어듬
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알론한 움직임도 아니므로 그렇다 그래서 달리됨은
알론한 움직임들과 헤태론할 것이다 그런데,

동일하다면 달리 되면서 곧 바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또는 알론한
어떤 움직임이 잇따를 것이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러하지는 않다¹⁵⁰¹⁾마찬
가지로 늘어나면서 또는 알론한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여지면서 달리되고 있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달리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것이 있다 예를들어
각 넷은 각의 덧 불허짐에 의해서 늘어나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 네모(각
넷)는 알론하게 되지 않는다 다른 경우도 이와 같다 그래서 달리됨은 알론
한 움직임과 헤태론할 것이다 다음으로,

1500) 우연적으로 그렇다 라는 로고스는 움직임의 움직임은 필연적이지 않
다는 것을 논증하는데 쓰인다 923-924쪽에서 드러난 그 논증에서는 헤태론
한 기체가 알론한 것(건강 병 앓 무지)에서 알론한 것으로 변화하는데 이러
한 변화는 우연적(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 1068a23)이며 그리고 생성 과 소멸도 알
론한 것에서 알론한 것으로 변화한다 라고 말하여진다

1501) 여기서 그는 우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한다

그 각각 움직임에는 반대가 있다 첫째,

움직임에 쉽이 순수하게 반대이다 둘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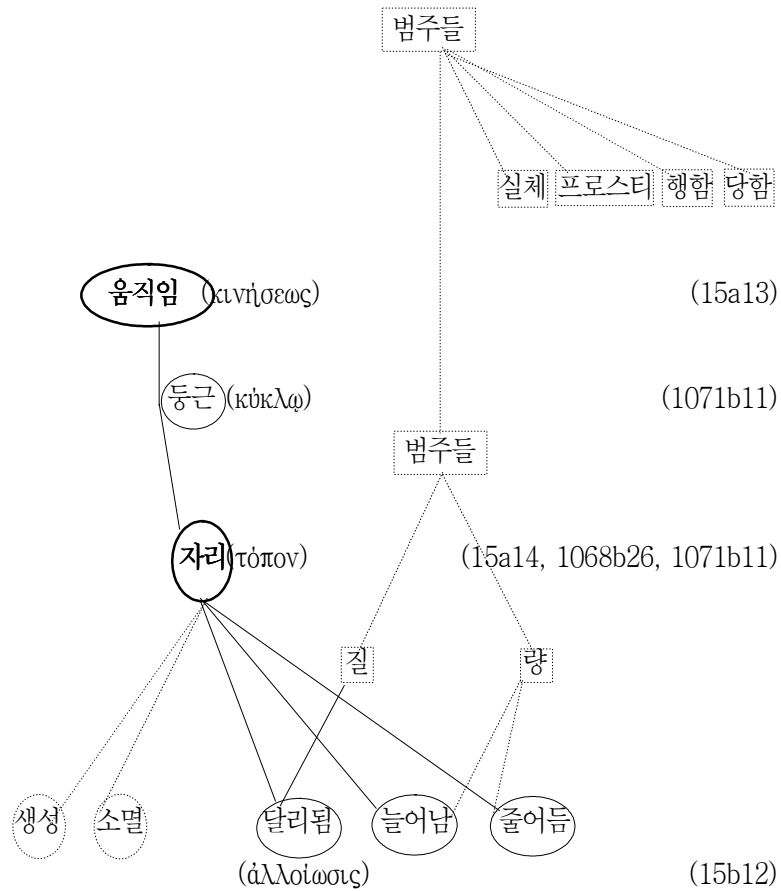
생성에 소멸이 늘어남에 줄어듬이 자리에 따른 변화에 자리에 따른
쉽이 반대이다 반대 자리로의 변화가 가장 잘 대립되는 것 처럼 보인다 위
는 아래에 아래는 위에 대립되는 것 처럼 말이다 셋째 그런데,

자리에 따른 쉽을 반대 질로의 변화의 쉽으로 반 정립하지 않는다면
달리됨의 경우에 반대는 있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달리됨은 질에 따른 변
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에 따른 쉽은 질에 따른 움직임에 또는 반대로의
질의 변화에 대립된다 희게 됨이 검게 됨에 대립되는 것 처럼 말이다 반대
로 변화되는 질의 반대로 달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주들에서 주로 말하여지는 움직임은 반대 질로의 변화이다 곧 달리
됨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헤태론한 움직임들이 곧 생성 과 소멸 과 늘
어남 과 줄어듬 과 자리 변화가 달리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명한 움직임이
기에 덜 분명한 그래서 분간(分揀)하기 어려운(ἀπορίαν 15a18) 움직임이었
으므로 그에 관한 말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리라 어찌든,

움직임에는 달리됨을 포함한 생성 소멸 늘어남 줄어듬 자리 변화 등
여섯 에이도스가 있으며 이것들 각각에는 그 반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움직
임의 순수한 반대는 쉽이라는 것은 범주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형이상학 12장(921)에서 말하고 있는 질의 움직임
과 량의 움직임 과 자리 움직임에 어떻게 귀속(歸屬)시킬 수 있을까 아마
다음 쪽의 그림 처럼 그 귀속을 그려낼 수 있으리라



움직임이 그 안에서(ἐν 1068b26) 일어나는 자리에 대한 934쪽의 분석을 참조하면 자리에 따른 움직임이 그 가운데서도 등근 자리 움직임(ἡ πορὰ 1072b4)이 모든 움직임 또는 변화 중에서 첫 번째 것이라는 754쪽의 확인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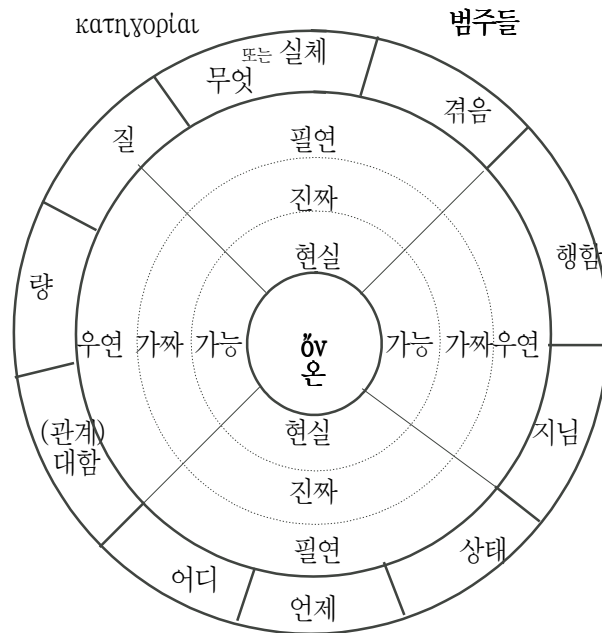
이러한 확인 보다는 무엇 때문에 움직임이 텔레스의 범주들 가운데 하나로 말하여지지 않느냐는 것에 지금 나는 더 흥미로워한다 그럼에도 지금의 나는 이러한 흥미로운 로고스를 더 전개하지 못함에 괴롭다 그리고,

움직임과 더불어 반드시 시간 과 자리(공간) 과 텅빔 과 무한함이 말하여져야한다 이 4 가지는 902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움직임을 정의(규정)할 때 반드시 쓰여지는 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 역시 다음에 다루기로 하자 있음 또는 있는 것 그 자체를 따라 가는 것 만으로도 벽 차

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움직임에 대해 말하는 원인은 모든 것이 있는 양상 으로서 의 뒤나뭇스(힘 또는 잠재적인 것) 과 에네르제이아(활동) 과 엔텔레케이아 에 대해 말하는 그 정(正) 중앙(中央)에 움직임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움직임에 대해 말했으므로 그리고 힘 과 활동에 대해 본디 말하려다가 움직임에 대해 말하게 됐으므로 이제 힘 과 활동에 대해 말해야 할 것 같으나 878쪽 각주 1371 번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이러한 힘 과 활동에 대해서는 545-680쪽을 보면된다

지금 내가 말하여지는 그 길을 더듬어 가는 것 처럼 **있는 것은 힘(가 능) 과 활동(또는 움직임) 과 에네르제이아(현실)**로도 말하여지는(878) 반면 **진짜(진실) 와 가짜(거짓)**으로도 있으며(861) **우연 과 필연**으로도 있고(834) **뾰주들**로도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등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그리고 나는 말하여지는 이러한 여러 길을 있는 것의 각기 그 양상(樣相)으로 보았다 이를 다음 쪽 처럼 그려 볼 수 있으리라



둥근 원 각각은 있는 양상을 가리킨다 가운데 원(圓)을 뺀 4 가지 원이 있으므로 있는 것은 4 가지 양상으로 있다는 것을 위 그림은 보여준다 따라서 있는 모든 것은 이러한 4 가지 양상 모두에 속한다 그러나,

있는 모든 것은 범주를 제외한 세 양상(樣相) 각각에 모두 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필연적인 것은 우연적일 수 없으며 힘인 것은 활동 또는 현실일 수 없으며 가짜인 것은 진짜일 수 없으나 있는 무엇이든 질과 량 또는 알려진 범주를 지닐 수 있다 그런데 있는 각기 것에는 여러 범주들이 동시에 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주들 각각은 알려진 범주들과 섞여질 수 없다 다시 말해 각기 범주들은 순수하다 원 안에 그어진 실선(實線)들은 바로 이러한 순수함을 나누는 선들이다 나아가서,

텔레스가 양상이라는 말을 직접 쓰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한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나는 양상(樣相¹⁵⁰²)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가 차라리 네 가지로 있는 것은 말하여진다 라고 하는 것이 혼돈을 막지 않겠는가 있는 것을 말하는 길과 있는 길은 그에 있어 동일하다고 보아야

1502) 있는 길(way of being)을 양상(樣相, mode) 이라고 나는 말한다 텔레스에 있어서는 있는 길과 있는 것을 말하는 길이 동일하다고 보아야한다

하기 때문에 나는 양상이라는 약간은 애매한 말을 선택해 보았다 따라서,

여러 양상으로 있는 것 이라는 말에서의 양상(樣相)이라는 낱말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고 있는 길 또는 여러 가지로 있는 길 이라는 말에서의 ‘말하여지고 있는 길’ 또는 ‘있는 길’을 나타내는 그리고 어떻게(πώς)를 나타내는 漢字語일 뿐이다¹⁵⁰³⁾ 그렇다면 있는 것의 양상은 **여럿일 뿐 하나는 아니라는 말인가**¹⁵⁰⁴⁾ 그러나,

683쪽에서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과 하나는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텔레스가 형이상학 2권 2장에서 제기하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들어 보아야 할 것이다

“ [이들¹⁵⁰⁵⁾더러] 그러한 것들¹⁵⁰⁶⁾에 향하도록하는 그런데 근원적으로 어려움들을 [지닌] 원인들이 여럿 있다 ‘있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그))것은 어디에서건 결코 [논증]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파르메니데아스의 로고스에 천천히 지나치면서 어떤 자가 [그 로고스로부터] 풀려나지 못하는 한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 곧 있는 것 그 자체 (αὐτὸ τὸ ὄν 1089a3)이지만 그러나 **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논증해야한다 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이다 만약 **여럿(πολλά a6)** 있다면 **있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알론한 어떤 것으로부터 있는 것

1503) 이러한 양상에 이미 우연 과 필연 그리고 가능 과 현실이 포함 됨에 유의하라

1504) 플라톤은 105 쪽에서 있는 것을 하나라고 하는 자 와 여럿 이라고 하는 자 그리고 하나 이면서 여럿 이라고 말하는 자에 대해 말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1-126쪽에서 움직임 과 머뭇 머뭇 과 있는 것 과 헤테론 과 동일 등 다섯 가지 류에 대해 말한다 바로 이 지점부터 아마 텔레스의 범주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1505) 요소(στοιχείον 1088b29)를 무 규정적인 두겹(δυάδα ἀόριστον 1088b28-29)인 어떤 하나로 보아 똑 같지 않는 것(τὸ ἄνισον 1088b29)을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한다

1506) 이들이 말하는 것들

들은 이렇게 있어질 것이므로 [그렇다] 한 편으로 실체를 한 편으로
질을 한 편으로 량을 한 편으로 알론한 범주들을 가리키므로 만약 있
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면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첫째,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길로(ποίησιν 1089a9) **하나**일까 실체들
[로서] (하나일까) 아니면(πότερον a10) 또는 속성들 [로서] (하나일까)
아니면(καὶ a10) 알론한 모든 것(범주) 각각 (오로서 일까) 그리고
((하나가)) 가리키는 알론한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는 이것(τόδε a11)
과 그러한 것(τοιόνδε a11) 과 그 만큼한 것(τοσόνδε a12)일 것이다
있는 것의 그 [부분]의 어떤 하나의(μίαν a13) 자연 원인이 한 편으
로 이것 과 한 편으로 그러한 것 과 한 편으로 그 만큼한 것 과 한
편으로 어디(πού a15)라는 것은 불 합리(ἄτοπον a12)하며 오히려 불
가능(ἀδύνατον a13)하다¹⁵⁰⁷[둘째,] 그래서(ἔπειτα a15)

있는 것들은 어떠한(ποίησιν a15)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
부터 [올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
하여지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있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는 이것을
가리키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직선(εὐθεῖα a18)이 아닌 것은 있지 않
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며) 다른 한 편으로 세 큐빗(τριπύχην a18)이
아닌 것은 그 만큼이 아닌 것(을 가리킨다) 이제,

있는 것들 **여럿**은 어떠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올까] 있는 것들 여럿이 그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있지 있
는 것은 거짓 그리고 (이 거짓과) 동일한 자연이라고 [이들은] 말하고
저 할 것이다 이 때문에 기하학자들이 발 걸음(τὸ ποδιαίαν a23)은
그 발 걸음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처럼 거짓인 어떤 것이 반드시 추

1507) 불 합리하고 불 가능하다 라는 말은 텔레스가 어떤 의견을 반박하는
데 빠짐 없이 나타난다 그는 주로 어떤 의견을 반박하려 하는가 플라톤의
이데아 론이다 바로 이데아 론의 이러한 반박의 정점(頂點)에서 여기서와
같이 불 합리(1039b17) 와 불 가능(1039b17) 이라는 말이 쓰여지기 때문이
다(642쪽 각주 642 번)실은,

여기(형이상학 2 장)서도 반박되는 의견이 이데아 론과 연관된다
이데아론 자의 우두머리로 다루어지는 플라톤의 수에 관한 의견(의견) 곧
수의 요소는 무 규정적인 두 겹 이라는 의견이 텔레스에 의해 여기 이 맥락
에서 반박되기 때문이다

측(ὑποθέσθαι, 1089a22, 推測)되어야한다 라고 말하여졌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여질) 수는 없다 기하학자들은 어떤 것을 거짓으로 추측하지 않을 - 추리 안에(ἐν τῷ συλλογισμῷ a24) 그 전체가(ἡ πρότασις, a25, 前提)(있는 것은)아니기 때문이다 - 뿐더러 있는 것들이 그렇게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성되지도 [있지 않는 것으로] 소멸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다양한] 경우에 [받아드려지는] 있지 않는 것은 범주들과 똑 같이 말하여지는 반면 이것 이외에도 있지 않는 것은 거짓 으로서 말하여지고 힘에 따라 말하여진다 이 (힘)으로부터 생성이 있다 사람은 사람이 아닌 그런데(δε b29) 잠재적(힘)으로 사람인 것으로부터 사람은 있고 회지 않는 그런데 힘(잠재적)으로 흰 것으로부터 흰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인 것이 되어질 것이고 **여럿**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체에 따라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 라는 조사가 분명해진다 생성되는 것들은 수들 과 선들(μήκη a33) 과 몸들이기 때문이다 있는 그 무엇 [으로]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 하는 조사하면서도 질 또는 량이 (어떻게 여럿인가 하는 조사)하지 않는 것은 불 합리하다 흰 것 두 개의 또는 색들 또는 맛들 또는 모양들(οχήματα 1089b1) 여러 개의 원인은 무 규정적인 두 겹 과 크고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수 와 모나드일 것이기[도] 때문이다 그러나 그 (플라톤 주의 자)들이 계속 조사 했더라면 저(실체)들에서 그 [**여럿**의] 원인 과 그 **하나**를 보았을 것이다 원인은 동일한 것이며 유비적인 것(τὸ ἀνάλογον b3-4)이기 때문이다

그것으로부터 있는 것들이 [있는] 그리고 (있는 것들은) 그것들의 (있는 것들)인 있는 것 과 하나에 있어서의 대립을 조사하면서 저(있는 것 과 하나)의 반대도 부정(ἀπόφασις b7)도 아닌 [그리고] 있는 것들의 무엇 과 질과 같은 (있는 것들의) 하나의 자연인 프로스 티(관계) 와 똑 같지 않음(τὸ ἄντιστον b6)을 추측한 원인은 [그들의] 이러한 벗어남(ἡ παρέκβασις, b4, 逸脫)이다 그리고 프로스 티(관계)가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가 하는 ((그))것이 조사되어야 했다 이제 [그들의의해서] 모나드가 어떻게 첫 번째 **하나** [모나드] 이외에 **여럿**인가 가 조사 되어지지만 같지 않는 것 [첫 번째 하나] 이외에 어떻게 같지 않는 것이 여럿인가는 더 이상 (조사되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똑 같지 않는 것을] 써가며 그들은 수들이 그것들로부터 [오는] 많고 적음(πολὸ ὀλίγον 1089b12) [그리고] **산**이 그것들로 [오는] 길고

짧음(μακρὸν βραχὺ b12) [그리고] *편*이 그것들로부터 [오는] 넓고 좁음(πλατὸ στενὸν b13) [그리고] *척*들(οἱ ὄγκοι b14) 그것들로부터 [오는] 깊고 얕음(βαθὸν ταπεινὸν b13)[등의] 크고 작음(μέγα μικρὸν b11) 을 말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은 프로스 티의 많은 에이도스를 말한다 그러한 (관계)들에 있어서 **여럿**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들이) 말하는 것 처럼 각기 것에 **잠재적으로** 있는 것이 반드시 추측되어야한다 그런데 [위와] 동일한 것을 말하는 자들의 [입안]자([入案]者, [플라톤])은 잠재적으로는 이것 과 실체이지만 그 자체로는 있지 않는 그 무엇을 곧 그것 [가운데] 어느 것도 잠재적으로 하나 또는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 또는 있는 것의 부정도 아니라 있는 것들 [중]의 하나인 것(ἐν τι b20) [그리고] 마치 [그가] *찰*τὸ π οιοῦν¹⁵⁰⁸, 1089b18) 처럼 말하는 *프로스* *τ*를 *뎃* 붙혔다 우리들이 말 했던 것 처럼 만약 (그가)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했다 면 동일한 범주 안에[드는] 것들이 (어떻게 여럿인가) [곧] 실체들 또는 질들이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 [전체]가 어떻게 **여럿인가**¹⁵⁰⁹를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μᾶλλον b20) 더 [나았을] 것이다 [있는 것들은] 한 편으로 실체들이며 한 편으로 속성들(πάθη b23)이고 한 편으로 프로스 티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체 이외의*] *알론한 범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여럿인가* [라는 물음은] 알론한 어떤 난감함(ἐπιγασιν, b25, 難堪)을 지닌다 그(실체)와(τῷ b26) 분리되지 않음을 통해서 그 [*실체 이외의 범주들의*] **기체**¹⁵¹⁰가 여럿이고 (여럿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질들이 여럿이고 량들도 여럿이다 그렇지만 각기 [범주] 류에는 실체들과 분리될 수 없

1508) 텔레스는 제 2 실체 곧 에이도스 와 게노스(종류(種類))를 질적인 것(ποιὸν τι³b16, 179쪽)으로 본다

1509) 바로 텔레스의 범주들이 이러한 여럿일 것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무규정인 두 겹을 수학적인 것들의 요소로 받아드리는 플라톤을 위시한 자들은 동일한 범주들 각각이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했는데 이 보다는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하는 것이 더 낫다

1510) 실체는 기체적이다 라는 295-296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 따르면 자신이 알론한 것의 카테에고리아이(속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들이 자신의 속성이 되는 것이 기체이며 이러한 기체가 대 부분 실체라고 여겨진다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실체는 기체와 같은 것이긴 해도 기체 예를

는 질료인 것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이(τόδε 1089b29)것(τὸ b29)의 경우에는 만약 [이 것 가운데] 것(τὸ¹⁵¹¹, b30, 어떤 것이 이 것 과 그 (이 것의) 자연인 것이 아니라면 *이 것(τόδε π b29)*이 어떻게 여럿인가 [에 관한] 어떤 로고스를 지닌다 그런데 이 (물음)(αὐτῶν, b30) 보다는 오히려 저 [실체](ἐκείθεν b31)에 관해 *에네르케이아*에 있어서의 실체들이 어떻게 **하나**가 아닌 **여럿**인가 라는 아포리아(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τόδε b32)[것] 와 량이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럿인가가 아니라 량들이 어떻게 여럿인가가 말하여진다 수는 량인 모든 것을 가리키며 모나드는 만약 재 어진 것(μέτρον, b35, 尺度)이 아니라면 모나드는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제,

만약 량 과 있는 그 무엇이 헤테론하다면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으로부터 [있으]며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동일하다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많은 대답들에 직면한다 (1088b35-1090a2)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모든 것의 요소를 하나로 곧 있는 것 그 자체로 보면서 동시에 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플라톤주의) 자들에게 텔레스가 던지는 하나 와 여럿에 관련되는 물음들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하나 와 여럿에 관한 근원적인 로고스가 펼쳐진다

이들더러 그러한 것들에 향하도록하는 그런데 근원적으로 어려운 원인들이 여럿있다 있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든 결코 [말하여]질 수 없다 라고 파르메니데아스의 로고스로부터 풀려나지 못하는한 모든 것은

들어 질료(ἡ ὑλη 1029a2)는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실체는 기체와 같은 것이긴해도 모든 기체가 실체인 것은 아니다(166, 295, 853, 917쪽)

이러한 로고스는 162-175쪽에서 확인된다

1511) 166쪽에 나오는 사람인 것에서의 ‘것 (τις 2a13)’과 비교하라(447쪽)

하나 곧 있는 것 그 자체이지만 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논증해야한다 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이다 여럿이 있다면 있는 것 그리고 알론한 어떤 것으로부터 있는 것들은 그렇게 (여럿으로) 있을 것이므로 그렇다 그래서 만약 실체 질 량 알론한 범주들을 가리키므로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면 그리고 만약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첫째,

모든 것은 어떤 길로 **하나**일까 실체들로서 아니면 속성들로서 하나일까 아니면 알론한 모든 범주들 각각으로서 하나일까 그리고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는 이것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일 것이다 있는 것의 그 [부분]의 어떤 자연 원인 하나가 한 편으로 이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그러한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 그 만큼한 것 이며 다른 한 편으로 어디이다 라는 것은 불 합리 하고 오히려 불 가능하다 그렇다면 [둘째],

있는 것들은 어떠한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있을까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는 이것을 가리키는 반면 직선이 아닌 것은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며 세 큐빗이 아닌 것은 있지 않는 그 만큼한 것을 가리키다 이제 [세째],

있는 것들 **여럿**은 어떠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있을까 있는 것들 여럿이 있는 것 과 그것으로부터 있는 그 있지 않는 것은 거짓이며 그리고 이 거짓과 동일한 자연이라고 [이들은] 말하고자 할 것이다 이 때문에 기하학자들이 한 발 걸음은 그 발 걸음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처럼 거짓인 어떤 것이 반드시 추측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여졌다 그렇지만 이럴 수는 없다 기하학자들은 거짓으로 추측 - 전제가 추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하지 않을 뿐 더러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성되지도 [있지 않는 것으로] 소멸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 있지 않는 것은 범주들과 똑 같이 말하여지는 반면 이 이외에도 거짓으로서 말하여지고 힘에 따라 말하여진다 바로 이 힘으로부터 생성이 있다 사람은 사람이 아닌 그래서 힘(잠재적)으로 사람인 것으로부터 있고 흰 것은 회지 않는 그래서 잠재적으로 흰 것으로부터 흰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인 것이 (생성) 될 것이고 **여럿**이 (생성) 될 것이다 그래서,

실체 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 라는 [물음]이 분

명해진다 수들 과 선들 과 몸들이 생성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있는 그 무엇으로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 조사하면서도 질 또는 량이 어떻게 여럿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불 합리하다 흰 것 두 개의 원인은 또는 색들 또는 맛들 또는 모양들 여러 개의 원인은 무 규정적인 두 겹 과 크고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수 와 모나드일 것이므로 [그렇다] 그러나 더 계속 [그 플라톤주의 자들이] 조사했다면 저 실체들에서 그 [여럿의] 원인 과 그 **하나**를 보았을 것이다 원인은 [하나와] 동일한 것이며 유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벗어남은 있는 것들이 그것으로부터 있는 그리고 있는 것들이 그것들의 있는 것인 그 있는 것 과 하나의 대립을 조사하면서 [그들이] 저 (있는 것 과 하나)의 반대도 부정도 아닌 그리고 있는 것들의 무엇 과 질 과 같은 그러한 자연 하나 프로스 티(關係) 와 똑 같지 않음을 추측한 원인이자 그리고

프로스 티가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가 하는 것이 조사되어야 했다 이제 [그들에 의해서] 모나드가 어떻게 첫 번째 하나 [모나드] 이외에도 여럿인가 가 조사 되어지지만 같지 않는 것 [첫 번째 하나] 이외에 어떻게 같지 않는 것이 여럿인가는 더 이상 조사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 똑 같지 않는 것들을] 써가며 수들이 그것들로부터 있는 많고 적음 그리고 선이 그것들로부터 있는 길고 짧음 그리고 면이 그것들로부터 있는 깊고 얕음 [등의] 크고 작음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은 프로스 티의 많은 에이도스를 말한다 실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여럿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각기 것에 잠재적(힘)으로 있는 것이 반드시 추측되어져야한다 그런데,

[위와] 동일한 것을 말하는 자들의 [입안]자 [플라톤]은 잠재적으로는 이것 과 실체이지만 그 자체로는 있지 않는 그 무엇을 곧 자신 가운데 어느 것도 잠재적으로 하나 또는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 또는 있는 것의 부정도 아니라 있는 것들 중의 하나인 것인 그리고 마치 그가 질 처럼 말하는 프로스 티(관계)를 덧 붙혔다 만약 [그가]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했다면 실체 또는 질과 같은 동일한 범주 안에 드는 것들이 어떻게 여럿인

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 [전체]가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왔다 있는 것들은 실체들이며 속성들이며 프로스 티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체 이외의] 알려진 범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여럿인가** 라는 물음은 알려진 어떤 난감함을 지닌다 실체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알려진 범주들의 기체가 여럿으로 있으며 여럿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질들이 여럿이고 량들도 여럿이다 그렇지만 각기 류에는 실체와 분리될 수 없는 질료인 것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이 **것**(τὸδε π b29)의 경우에, [이 것의] ‘**것**(τ u1512), b30, 어떤 것’ 이 것 과 그(이 것의) 자연인 것이 아니라면 이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 예관한 어떤 로고스를 지닌다 그런데 이 물음 보다는 오히려 저 실체에 관해에네르게이아에 있어서의 실체들이 어떻게 하나가 아닌 여럿인가 라는 아포리아(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τὸδε b32)[것] 와 량이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럿인가가 아니라 량들이 어떻게 여럿인가가 말하여진다 수는 량인 모든 것을 가리키며 모나드는 만약 재어진 것(척도)이 아니라면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며

만약 량 과 있는 그 무엇이 헤태론하다면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으로부터 있으며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 말하여지지 않을 것인데 동일하다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많은 대립들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있는 모든 것의 요소 하나로서의 무 규정적인 두 겹 과 크고 작음(똑 같지 않는 것) - 이것을 플라톤주의 자들은 프로스 티로 보았다 - 을 이들이 추측하게 된(ὑποθεῖναι, 1089b6, 推測)것은 있는 그 무엇이 어떻게 **여럿인가**하고 조사하면서도 질 또는 량이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하지 않았기¹⁵¹³때문이다 만약 계속 조사했다라면 그 **여럿**의 원인 과 **하나**를 실체

1512) 166쪽에 나오는 사람인 것에서의 ‘것 (τις 2a13)’과 비교하라(447쪽)

1513) 흰 것 두 개의 원인 과 여러 색 또는 여러 맛 또는 여러 모양의 원인은 무 규정적인 두 겹 과 크고 작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여러 것들은) 마찬가지로 수 와 모나드일 것이므로 그렇다

에서 보았을 것이고¹⁵¹⁴)프로스 티가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가가 조사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하게 된 근본 원인(τὰ αἴτια 1088b35)은 모든 것은 **하나**
(있는 것 자체)라고 여기면서 동시에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여겼기 때
문이다 **여럿이** 있다면 있는 것 과 알론한 어떤 것으로부터 있는 것들은 여
럿일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그렇다 자,

이러한 그들에게 텔레스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던지면서 **있지 않는**
것 대신에 **힘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있는 것**(τὸ δυνάμει ὄν 1089b16)을 내
세운다 우선,

던져지는 물음은 어떠한 것들인가 첫째,

실체 질 량 또는 알론한 범주 등으로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
지는 반면에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있는 모든 것은 어떤 **하나**일까 실체로
서 하나일까 아니면 속성으로서 하나일까 아니면 알론한 범주로서 하나일까
둘째,

있는 것들은 어떠한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있을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있는 것들 **여럿**은 어떠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있을까 이들은
여럿이 그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있는 그 **있지 않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
고져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하나**일까 라고 그가 물음을 던지는 원인은 어떤 범주를 가리기
든지든 있는 것이 이것이며서 그러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면서(kai 1089a11)
그 만큼한 것일수 없기 때문이며¹⁵¹⁵)**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있는

1514) 원인은 하나와 동일한 것이며 하나와 유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1515) 따라서,

텔레스는 여기서 범주들 이외의 다른 양상들 곧 이것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을 말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동일한 범주라고하더라
도 이것이며서 그러한 것일 수 없고 그러한 것이면서 그 만큼한 것일 수 없
고 그 만큼한 것이면서 이것이라는 것은 불 합리 하며 아예 불 가능하기 때
문이다

것들 **여럿**이 어떤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있을까 라고 물음을 던지는 것은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며¹⁵¹⁶⁾ 있지 않는 것을 거짓이라고 그들이 말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물음을 던지면서 텔레스는 다른 대안(代案)을 제시한다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하면서 있는 모든 것의 하나를 말하려 하지 말고 있지 않는 것 대신에 잠재적으로 있는 것을 말하면서 있는 것의 하나 와 여럿을 말해 보자고 하기 때문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는 것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범주들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지 않는 것은 이외에도 거짓이라고 말하여지기도 하면 잠재적인 것(힘)이라고 말하여지기도한다 바로 이러한 잠재적인 것 으로부터 생성이 있다 사람이 아닌 것 곧 잠재적인 사람인 것으로부터 사람이 있고 회지 않는 것 곧 잠재적으로 흰 것으로부터 흰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인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럿**이 생성될 것이다 이어,

실체에따라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 물으면 서¹⁵¹⁷⁾ 이들이 있는 그 무엇이 어떻게 여럿인가라고만 묻고 질 또는 량으로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는 묻지 않은 것은 불 합리하다 라고 텔레

1516) 있는 것이 이것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일 수 없듯이 있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는 이것을 가리키는 직선이 아닌 것은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반면 세 큐빗이 아닌 것은 있지 않는 그 만큼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1517) 그런데,

실체가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 묻는 것은 수들 과 선들 과 몸들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라고 텔레스는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물음의 원인이 될까...

스는 말한다¹⁵¹⁸)있는 그 무엇으로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 만을 조사하는 이들과는 달리 텔레스는 범주들 각각이 어떻게 여럿인가도 조사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여럿의 원인은 실체 하나이다

프로스 티(관계)를 똑 같지 않는 것(무 규정적인 두 겹 과 크고 작음)로 본 이들에 의해서 관계(프로스 티)가 어떻게 여럿인가가 조사되어야 했으나 같지 않는 것(관계)이 어떻게 여럿인가가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다¹⁵¹⁹)그런데,

[실체 이외의] 알려진 범주들의 경우에 어떻게 여럿인가 라는 물음은 알려진 난감함을 지닌다 실체와 분리지 않음을 통해서 그 [실체 이외의 범주들의] 기체가 여럿으로 있고 여럿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짚들이 여럿이고 량들이 여럿이다 각기 범주 류에는 실체와 분리 될 수 없는 질료인 것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이 것의 경우, ‘것(τ, b30, 어떤)’이 이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것의 자연인 것이 아니라면 이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에 관한 어떤 로고스를 지닌다 그런데 이 물음 보다는 오히려 저 실체에 관한 어려움 곧 에네르게이아

1518) 무 규정적인 두 겹 과 크고 작은 것이 흰 것 두 개의 원인도 아니며 여러 색 과 맛 과 모양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15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많고 적음 - 많고 적음으로부터 수들이 있다 - 과 길고 짧음 - 길고 짧음으로부터 선이 있다 - 과 넓고 좁음 - 넓고 좁음으로부터 면이 있다 - 과 깊고 얕음 - 깊고 얕음으로부터 체((οἱ ὄγκοι, 1089b14, 體)가 있다 - 등의 크고 작음을 말하며 나아가서 프로스 티의 많은 에이도스를 이들은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여럿인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서 텔레스는 잠재적(힘)으로 있는 것이 반드시 추측 되어야(ὑποθείνα 1089b16)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플라톤]은 잠재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며 잠재적으로 하나도 아닌¹⁾ 프로스 티를 덧 붙혔다 그래서 그가 만약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하고 있었다면 동일한 범주들 예를들어 실체 또는 질이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하는 것 보다는 있는 것들 [전체가]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다(πολύ 1089b20)

에 있어서의 실체들이 어떻게 하나가 아닌 여럿인가 라는 아포리아(어려움)이 있다 ‘이(τόδε b32)’ 와 량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럿인가가 아니라 량들이 어떻게 여럿인가가 말하여질 것이며¹⁵²⁰⁾ 량과 있는 그 무엇이 헤태론하다면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으로 부터 있으며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 말하여지지 않을 것이고 동일하다면 많은 대립들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 처럼 요약 정리 될 수 있는 뉘 편 2 장의 인용 글월은 어디 까지나 36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산술적인 것 과 기하학적인 것 등 수학적인 것 과 이데아도 실체일까 라는 물음이 조사되는 큰 맥락의 시작 부분에 속하지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이며 여럿인가 라는 물음을 홀로 떼어내 그 물음만이 조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큰 맥락(脈絡)을 염두(念頭)에 두고 큰 맥락의 작은 지맥(支脈)을 잡아가면 서툴게 큰 맥락의 어떤 본문이 인용 되었을 지라도 크게 읽는 이가 혼돈(混沌)하지는 않으리라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그렇다면 있는 것은 하나 라고 말하여질 수는 없는가 라고 944쪽에서 나는 묻고선 뉘 편 2 장 거의 대부분을 인용했다¹⁵²¹⁾따라서 내 물음에 관련되는 로고스를 이 인용 글월에서 뽑아 내야한다 첫째,

이제 까지 말하여진 있는 양상 - 범주들, 진실 과 거짓, 우연 과 필연, 힘 과 활동 과 현실 - 이외에도 이 [것]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 이

1520) 수는 량인 모든 것을 가리키며 모나드는 만약 측정된 것이 아니라면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1521) 뉘 편 2 장은 1088b14-1090a15에 걸쳐 있는데 내가 인용한 부분은 1088b35-1090a2에 두루 걸친다

라는 있는 알론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¹⁵²²)그 [플라톤주의 자]들이 있는 것에 맞 세워 두었던 있지 않는 것이 말하여지면서 말이다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라면 어떤 길로 하나일까 하나라면 어떤 범주로서의 하나일까 어떤 범주로서 하나라면 그 하나는 *이[것]*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일 텐데 있는 것의 그 [부분]의 어떤 하나의 자연 원인이 한 편으로 이것 과 한 편으로 그러한 것 과 한 편으로 그 만큼한 것((과 한 편으로 어디))라는 것은 불 합리하며 불 가능하다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럿**이라면 있는 것들 여럿은 어떠한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있을까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는 *이[것]*을 가리키는 반면 있지 않는 직선은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며 있지 않는 세 큐빗은 있지 않는 *그 만큼한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있는 어떤 것이 이 [것]이면서 이러한 것일 수는 없고 이러한 것이면서 그 만큼한 것일 수는 없으며 그 만큼한 것이면서 이 [것]일 수는 없듯이 있지 않는 것도 그렇다 있지 않는 것¹⁵²³)도 있는 것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¹⁵²⁴)따라서,

1522) 이러한 것들은 간간히 더불어 쓰여질 뿐 이러한 것들을 주로 말하는 곳이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나는 나타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썼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있는 양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망설여지기도한다

1523) 그러나 텔레스는 있지 않는 것 대신에 잠재적으로 있는 것 이라는 말을 쓴다 사람이 아닌 그런데 잠재적으로 사람인 것으로부터 사람은 있고 흰지 않는 그런데 잠재적으로 흰 것으로부터 흰 것은 있다 라고 말이다

1524) 그러나,

여기서 텔레스는 이[것]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지 않는 대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사람 과 직선 과 세 큐빗으로 그 보기로 들 뿐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가 이[것](τὸ τὸδε 1089a11)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에 상응(相應)하는 이 세 가지를 다음 처럼
그려 볼 수 있으리라

	있는 것		있지 않는 것	
τὸ τὸδε	이 [것]	(a11)	이 [것]	(1089a14)
τὸ τοιόνδε	그러한 [것]	(a11)	그러한 [것]	(1089a14)
τὸ τοσόνδε	그 만큼한[것]	(a12)	그 만큼한 [것]	(1089a15)
			(잠재적인 것)	

그런데,

뒤 이어지는 글월에서 텔레스는 이 것(τὸδε τι 1089b29)에 대해 말한다

이 것의 경우 ‘것(τι, b30, 어떤)’이 이 것 과 그(이 것의) 자연인 것이 아니라면 이 것이 어떻게 여럿이다에 관한 어떤 로고스를 지닐 것이다 그런데 아마 텔레스에 따르면 이 것의 ‘것’은 이 것일 것이며 이 것의 자연인 것일 것이다 이 것은 여럿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것의 ‘이’는 무엇일까

이 것의 ‘이(τὸδε b32)’가 량과 동일한 것이라면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럿인가가 아니라 량들이 어떻게 여럿인가가 말하여지는 1525)반면에 량 과 있는 그 무엇이 헤태론하다면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으로부터 있으며 어떻게 여럿인가가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동일하다면 이렇게 말하는 자는 많은 대답들에 직면한다 그래서 에네르케이아에 있어서의 실체들이 어떻게 하나가 아닌 여럿인가 라는 아포리아(어려움)가 있다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의 보기들인지도 선명하지 않다

1525) 수는 량인 모든 것을 가리키며 모나드는 만약 재어진 것(μέτρον, b35, 尺度)이 아니라면 모나드는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것의 ‘것’은 이 것이 아닐 거라는 것 그리고 이 것의 자연인 것도 아닐 거라는 것도 애매하나 이 것의 ‘이’는 량과 동일한 것이라고 해태론한 것이라고도 말하기 힘들 정도로 애매하다 그러니 이 것은 더 애매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텔레스는 범주들 5 장에서 모든 실체는 이 것을 가리킨다 라고 말한다

“ 모든 실체는 이 것(τόδε τι 3b10)을 가리키는 것 처럼 보인다 이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첫 번째 실체들의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 없고 진실하다 분명한 것(τὸ δηλούμενόν, b13, 드러난 것)은 나뉘어 지지 않는 것(ἄτομον b13)이며 숫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곁 모습(τῷ σχήματι τῆς προσχηρίας b14-15)만 보자면 사람과 생물이라고 말하여질 때의 두 번째 실체도 [첫 번째 실체와] 같이 이 것을 가리키는 것 처럼 보이거나 실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두 번째 실체는) 질인 것을 가리킨다 그 기체가 첫 번째 실체 처럼 하나가 아니라 사람과 생물은 여럿에 따라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흰 것과 같은 질인 것을 순수하게 가리키지는 않는다 흰 것은 질 이외의 알려진 것 어떤 것도 가리키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종과 류는 실체들에 관한 질을 규정한다 어떤 질의 실체(ποιὰν τινα οὐσίαν, 3b2-3, 질인 것의 실체)를 (종과 류는) 가리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 보다는 류를 가지고서 더 넓은 규정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생물이라고 말 하므로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기 때문이다 (3b10-3b24)¹⁵²⁶⁾ ”

라는 인용 글월은 실체에 고유한(ἴδιον 4a10)것을 찾아 가면서 실체가 무엇인지 말하여지는 맥락에 속한다 이러한 인용 글월을 요약하면,

1526) 라는 인용 글월의 맥락에 대해서는 178-179쪽을 참조하시오

모든 실체는 이 것을 가리키는 것 처럼 보인다 이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첫 번째 실체의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 없고 진실하다 분명한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것 과 수적으로 하나인 것이기 때문이다¹⁵²⁷⁾그러나,

그 겉 모습만 보자면 사람 과 생물 등 두 번째 실체도 이 것을 가리키는 것 같으나 실은 진실이 아니다 사람 과 생물의 기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두 번째 실체는 질인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힘과 같은 어떤 질을 순수하게 가리키지는 않는다 힘은 질이외의 알려진 것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종 과 류는 실체들에 관한 질을 규정한다 어떤 질의 실체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 보다는 류를 가지고서 더 넓은 규정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생물이라고 말 하므로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텔레스가 말하는 첫 번째 실체는 이 것(τόδε τι 3b10)을 가리킨다 두 번째 실체(종 류)는 그 겉 모습만 보면 이 것을 가리킬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수적으로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이며 바로 이 분명한 것이 *이* 것인데 종 과 류는 자신이 예들들어 사람 과 생물이 거기에 속하는 기체가 **여럿**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¹⁵²⁸⁾ 그러므로 그

1527) 따라서 분명한 것이 첫 번째 실체이며 분명한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수적으로 하나인 것이므로 첫 번째 실체는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며 수적으로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분명해야 첫 번째 실체인가 부다 실체에 대해서는 185, 284-287, 309-312쪽을 참조하시오

1528) 실체와 분리되지 않음을 통해서 그 기체가 여럿이므로 실체 이외의 범주들은 여럿이라 말하여진다 라는 947쪽을 참조하라 그리고 162-175, 295, 853, 917쪽 등도 참조하라

기체가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첫 번째 실체 만이 이 것을 가리킨다 나아가서,

두 번째 실체는 질인 것을 가리키므로 그렇다 물론 자신 이외의 알려진 것을 가리키지 않는 힘과 같은 질을 가리키지는 않으나 중 과 류는 실체들에 관한 질¹⁵²⁹⁾을 규정하기 때문이다¹⁵³⁰⁾[아마 질은 나뉠 수 있을 것이며 하나가 아닐 것이다(194-215참조) 그렇다면,

이 것은 분명한 것(τὸ δηλούμενον, b13, 드러난 것)이고 분명한 것은 나뉘지 않는 것이며 수적으로 하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것은 나뉘지 않는 것이며 수적으로 하나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될 것 같다 나뉘지 않는 그리고 수적으로 하나인 것은 첫 번째 실체이지 이 것이 아니며 첫 번째 실체는 이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말들의 배열(配列)을 통해 나는 이 것은 분명한 것이다 라는 로고스를 이끌어 냈다

첫 번째 실체 (가리킨다) 이 것
분명해진 것 (이라면) 나뉘지 않는 것이며 수적으로 하나

이 것 [이다] 분명해진 것
첫 번째 실체 [이다] 나뉘지 않는 것이며 수적으로 하나¹⁵³¹⁾

1529) 에이도스 와 게노스가 실체에 관한 질을 규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나아가서 어떤 질적인 실체(ποιὰν τινα οὐσίαν, 3b21-22라는 말은 또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있는 것이 질로서 어떤 것에 속한다는 말일까

첫 번째 실체의 질이 된다는 말일까 아니면 기체에 속한다 라는 뜻에서 그 기체의 질이라는 말일까 아니면 있음이 질 로서 어떤 것에 속한다는 말일까...에라 모르겠다

1530) 어떤 질적인 실체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1531) (첫 번째) 실체는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며 수 적으로 하나 라는 로고스는 184, 309-310쪽에서 직접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것은 분명해진 것 또는 선명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나아가서,

형이상학 델타 편 8 장에서는 이 것은 에이도스(종)에 속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 나아가서,

그(몸)들 안에 부분으로 속해 있으면서 [그(몸)을] 규정하고 [그 몸을] 이 것(τὸδε π 1017b18)) 이라고 가리키는 [그리고] 자신들의 파괴가 그 전체를 파괴하는(ἀναρπείται b18) 것들은 무엇이든지 (실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면의 몸 과 선의 면 처럼 [말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가 그(실체)라고 여겨진다 [수가] 파괴되면 어느 것도 있지 않으며 (수가) 모든 것을 규정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것의 로고스가 정의인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각기 것의 실체 라고 말하여진다 알론한 것에 따라 더 이상 말하여지지 않는 궁극적인 기체 라고 그리고 이 것(τὸδε π 1017b25)으로 있으면서 분리된 것이라고 실체는 두 가지 길로 말하여진다 이것(τούτων b25)은 각기 것의 모르페에(모양) 과 에이도스(종)이다 (1017b21-26)¹⁵³²⁾ ”

라 는

인용 글월에서는 부분 으로서 전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라 할지라고 전체를 규정(정의)해서 이 것이라고 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실체라고 말하여지며 나아가서 각기 것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 라고 말하여진다

이렇게 말하여지는 실체들 가운데 앞 것은 부분 으로서 전체 안에 속해 있는 것 으로서 그 부분이 파괴되면 그 전체도 파괴되는 그러한 것(선의 면 과 면의 몸 그리고 수 전체)이며 뒤 것은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여지지 않는 궁극적인 기체 라는 그리고 이/ 것으로 있는 분리된 것이라는 두 가지 길로 말하여지는 것(각기 것의 모양 과 종)이다 따라서,

1532) 이 인용 글월이 속한 맥락에 대해서는 283쪽을 참조하십시오

앞 것에 따르면 이 것은 실체라기 보다는 이 것이라고 가리켜지는(σημαίνον 1017b18)것이 실체이며 이 것은 규정(ὀριζοντά¹⁵³³), b17, 規定)된 것이며 뒤 것에 따르면 이 것은 분리 그리고 궁극적인 기체와 더불어 실체가 그렇다고 말하여지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것이 곧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이 것을 가리킨다는 점(958쪽)에 유의하라 나아가서,

형이상학 제에타 편 12 장에서는 이 것을 실체는 하나인 것과 더불어 가리킨다 라고 말하여진다

“ 그런데,

정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하나이다 정의는 실체 하나[의] 로고스인 것이어서 그(정의)는 반드시 하나인 것의 로고스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실체는 하나인 것 과 이 것(ἐν τῷ καὶ τὸδε τῷ 1037b27)을 가리키기(σημαίνει b27) 때문이다 (1037b24-27)¹⁵³⁴”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정의는 실체의 로고스이므로 정의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이다 실체는 하나인 것 과 이 것을¹⁵³⁵ 가리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여지므로 실체는 이 것을 가리킨다 라는 로고스 이외에는 이 것에 관련된 어떤 로고스를 얻기는 힘들 것 같다 오히려,

여기서는 실체는 하나인 것 이므로 실체의 로고스인 정의에 있는 것

1533) 이러한 규정된 것과 관련지어 440쪽에 나오는 정의(ὀρισμός, 1037a9, 定意, 규정(規定))을 참조하십시오

1534) 이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440-441쪽을 참조하십시오

1535) 이 것 과 하나인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kai(그리고)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들 역시 하나 라는 로고스가 더 주로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하나인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인 것 과 이 것을 가리킨다 라고 여기서 말할까 아마 로고스 또는 정의를 통해 실체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규정되’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정의 또는 실체의 로고스에 있는 것이 하나인 것은 실체가 하나인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 로서 분명해지고 규정되는 것은 실체가 이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아마 그럴 것 같다.....

예를들어 흰 사람은 **이 것이** 아니라고 형이상학 제1책 4 장에서 말하여진다

“ 그렇다면,

있어오고 있는 무엇(τι ἢν εἶναι 1030a2)은 ‘것(τι, 1030a2, 어떤) 전체인가 아닌가¹⁵³⁶⁾ 있어오고 있는 바로 그 ‘것(τι’ ἢν εἶναι a3) 이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τὸ τι ἢν εἶναι a3)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여지는 알론한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이 것(ὅπερ τὸδε τι a4)**이 아니다 예를들어 흰 사람은 바로 이 것이 아니다 이 것은 단지 실체들에게만 속하기 때문이다 (1030a2-6) ”

라는 인용

글월 앞에서는 (있어오고 있는 바로 그) ‘것(τι)’은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1536) 305쪽 각주 300 번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이 부분은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 번역이 약간 달라지는 듯하다

‘....., ἀλλὰ τὸ ἰματίῳ εἶναι. ἄρα ἔστι τι ἢν εἶναι τι ἢ ὅλως ἢ οὐ ; (1030a2-3) ’ 처럼 베케리는 읽지만 로스는 ‘..... -ἀλλὰ τὸ ἰματίῳ εἶναι ἄρα ἔστι τι ἢν εἶναι τι [ἢ] ὅλως; ἢ οὐ ; (1030a2-3) ’로 읽어서 ‘ 그러나 외투에 있음은 도대체 본질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 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나는 305쪽에서 처럼 ‘...아니라 외투에 있음이므로.....하다. 그렇다면, 있어오고 있는 무 것은 ‘것’ 전체인가 아닌가 ’ 라고 옮긴다

(τι)이므로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것’ 전체인가 아닌가 라고 물어지며 뒤에서는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여지는 알론한 것 예를들어 흰 사람은 이것이 아니다 이 것은 단지 실체들에게만 속하기(ὑπάρχει 1030b6) 때문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이 것은 알론하게 말하여지는 알론한 것이 아니라는 그리고 이 것은 단지 실체에만 속한다는 로고스를 이 것에 관해 뽑아 낼 수 있으리라 나아가서,

텔레스는 형이상학 제2타 8 장에서 생성의 경우 **이 것을** 생산함은 전체 기체로부터 이것을 생산함이다 라고 말한다

“ 생성되는 것은 (어떤) ‘것’(τινός¹⁵³⁷) 1033b25)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것’¹⁵³⁸)’으로부터 그리고 (무엇(τι, 1032a14, : ὅ¹⁵³⁹), 1033a 27)으로 생성되므로 어느 누구도 기체 [공] 청동을 생산하지 않는 것 처럼 우연적으로가 아니면 공(τὴν σφαιρά, a30)도 생산하지 않는다 청동으로된 공이 바로 공이며 저(청동으로된 공)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 것을**(τὸ τὸδε τι 1033a31) 생산함은 전체 기체로부터 이 것을 생산함이므로 [그렇다] 나는 둥글게 된 청동을 생산함은 둥근 것 또는 공을 생산함이 아니라 험태론한 어떤 것 을 생산함이라 말한다 예를 들어 알론한 것 안에 [있는] 그 에이도스[를 생산하는 것 처럼 말이다] (1033a24-a34)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생성되는 것은 (어떤) ‘것’ 으로부터 (어떤) ‘것’에 의해서 무엇으로 생성되므로 생산되는 것은 청동(기

1537) 이것을(τούτο b25) 나는 생성의 아르케에라고 말한다

1538) 이것에 대해 우리는 이미 말했으므로 결여가 아니라 질료라고 해 보자

1539) 이것을 우리는 공 또는 고리 또는 [그 때 그 때] 기회있을 때 마다 알론한 것들이라 말한다

체)도 아니요 공도 아니라 청동으로된 공이다 이 것을 생산함은 전체 기체로부터 이 것을 생산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이 것은 생산되는(ποίηiv¹⁵⁴⁰) 1033a31) 또는 생성되는(γίγνεται 1033a27) 것이다 라는 로고스를 위 인용 글월로부터 뽑아 낼 수 있다 나아가서,

보편자는 이 것(τόδε τι 1039a16)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τοιόνδε 1039a16)**을 가리킨다 라고 텔레스는 형이상학 제에타 편 13장에서 말한다

“ 무엇이건 보편자(τῶν καθόλου 1038b9)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실체일 수 없을 것 처럼 보인다 첫 째.....나아가서(ἔτι 1038b23),

이 (것)(τὸ τόδε b24) 과 실체가 만약 어떤 것들로부터 있다면 실체들로부터도 **이 것(τὸ τόδε τι b25)**으로부터도 아니라 질로부터 (있다)는 것은 불 가능하고 불 합리하다 실체 와 이 (것) 보다 먼저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질일 것이기 때문이다 로고스에 있어서든 시간에 있어서든 생성에 있어서든 실체의 속성(τὰ πάθη¹⁵⁴¹) 1038b28) 들이 먼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분리될 것이므로 [그렇다].....실로(δὴ 1038b34),

이러한 이론들로부터 [본다면] 보편자에 속하는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그리고 공통(κοινῆ 1039a1) 범주들 가운데 어느 것도 **이 것이(τόδε τι)** 아니라 **그러한 것(τοιόνδε a2)**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많은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잇 따를 것이다.....그런데(δε 1039a14),

1540) 생산 또는 생성을 낳음(γεννεα, 1032a25, 335쪽)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 같다 에이도스(사람)가 에이도스(사람)을 낳는 것 처럼 말이다 (344, 360쪽 참조하시오)

1541) 속성을 질의 세 번째 류로 보는 203쪽을 참조하시오

어려움(ἀπορία 1039a14)이 잇 따르다 만약 **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보편자들로부터는 어떤 실체도 있지 않다면 [그리고] 현실에(적으로) 있는 어떤 실체도 실체들로부터 묶어져(σύνθετον¹⁵⁴²) 1039a17) 있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모든 실체는 묶인 것이 아닐 것이어서 어떤 실체의 로고스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로 단지 주로 실체의 정의만이 있다는 것은 오래 전에 말하여졌고 모두에 의해서 그렇게 여겨졌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을 것 처럼 보인다 (1038b9-1039a21) ”

라는 인용 글월은 ‘ 실체는 각기 것에 고유한 것(ἴδιος 1038b11)이어서 알론한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인 반면에 많은 것에 자연스레 속하는 것이라 말하여지는 **보편자**는 [그 많은 것에] 공통적인(κοινόν 1038b11) 것이며 ’ 그리고 ‘ 실체는 기체에 따르지 않는 것(τὸ μὴ καθ’ ὑποκειμένον 1038b15)인 반면 보편자는 어떤 기체에 따르는 것이라고 항상 말하여지기 ’ 때문에 무엇이건 보편자¹⁵⁴³)를 실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처럼 보인다는 것을 논증하는 맥락에 속한다¹⁵⁴⁴) 이러한 논증 가운데 **이 (것)** 과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

이 (것) 과 실체가 어떤 것들로부터 있다면 실체로부터도 *이* 것으로부터도 아니라 질로부터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 합리하다 실체 와 *이 (것)* 보다 질이 먼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의 속성들이 로고스 와 시간 과 생성에 있어서 먼저 있을 수 없다 먼저 있다면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질이 보편자로 여겨진다 보편자가 실체라면 질이 실체일 것이므로 만약 **이 (것)** ((과 실체))이 어떤 것들로부터 있다면 질로부터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따라서,

1542) 묶임에 대해서는 866, 861, 688, 611, 966, 161쪽을 참조하십시오

1543) 텔레스는 류(생물, 458, 524) 와 이데아(471-507)를 보편자로 여긴다

1544) 그 자세한 내용은 454-471쪽을 참조하십시오

이 (것)은 질로부터 있는 것도 아니며 질도 아니다

실로 보편자에 속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공통 범주 가운데 어느 것도 **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 사람이 잇 따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공통 범주들이 보편자들로 여겨진다 공통 범주는 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것은 공통 범주 또는 보편자가 아니다 공통 범주 또는 보편자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잇 따른다 이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편자는 그러한 것을 가리킨다면 그리고 보편자들은 어떤 실체도 아니라면 그리고 현실에 있는 실체도 어떤 실체들로부터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실체는 묶인 것이 아니므로 어떤 실체의 로고스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실체의 정의만이 있다고 말해져왔다 그런데 지금은 실체의 정의는 있을 수 없을 것 처럼 보인다

여기서는 **이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보편자는 가리킨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이 (것)

은 질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은 공통 범주가 아니다

은 보편자에 의해 가리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

은 공통 범주들이다

을 보편자는 가리킨다

나아가서,

형이상학 테에타 편 끝나가는 부분 1049a27에 따르면 첫 번째 질료에 이 것이 있으면 기체라고 있지 않으면 보편자라고 말하여진다

“ 더 이상 알론한 저것으로 된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 첫 번째 무엇이 있다면 이것은 첫 번째 질료이다 예를들어 만약 흙이 공기로 된 이고 공기는 불이 아니라 불로 된 이라면 불은 이 것 과 실제 [아닌] 것 으로서의 첫 번째 질료이다

왜냐하면 이(첫 번째 질료)에 이 것(τόδε π 1049a28)이 있느냐 또는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편자 와 기체는 차이 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겪음들(τοῖς πάθεσι, 1049b29, 속성(屬性)들)에 있어서의 기체는 사람 곧(καὶ 1049a29) 몸 과 영혼인 반면 속성은 음악적인(임) 과 흰이다 음악이 아니라 음악적인(임) [으로서] 생성된 음악의 저(기체)라고 말하여지며 흰이 아니라 흰 [으로서] (생성된 흰)의 (저) 사람이라 (말하여지고) 걸음 또는 움직임이 아니라 저것으로 된 과 흡사한(ὡς 1049a33-34)걸는 또는 움직이는 [으로서] (생성된 저 사람)이라 말하여진다) (1049a26-34)¹⁵⁴⁵⁾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첫 번째 질료(불)에 이 것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편자 와 기체가 차이 난다 라고 말하여진다 첫 번째 질료에 이 것이 있으면(εἶναι 1049a28) 기체(사람)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이 것이 있지 않으면 속성(흰 또는 음악 또는 걸음 또는 움직임) 이라고 말하여진다 생성되는 것은 흰 사람 또는 음악적인 사람 또는 걸는 사람 또는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흰 음악 걸음 움직임이 아니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보편자는 이 것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 반면 기체는 이 것이라고 말하여진다¹⁵⁴⁶⁾

1545) 이 인용 글월의 맥락에 대해서는 606쪽 근방을 참조하십시오

1546) 그렇다면 이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바로 실제이며 기체 역시 이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므로 기체는 실제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것에 관한 로고스를 다음 처럼 우리는 모아 볼 수 있으리라

이 것

은 첫 번째 실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두 번째 실체를 가리킬 것
같지는 않다¹⁵⁴⁷(959)

은 분명해진 것(τὸ δηλούμενον, b13)이다(960)

이라고 가리켜지는 것이 실체이다(961)¹⁵⁴⁸

을 실체는 가리킨다(962)

은 단지 실체들에만 속한다(963)

은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여지는 것(예를들어 흰 사람)이 아니
다(963)

을 생산함은 전체 기체로부터 이것을 생산함이다(964)

은 질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967)

은 공통 범주가 아니다(967)

은 보편자에 의해서 가리켜지는 것이 아니다(967)

이 첫 번째 질료에 있으면 기체라고 말하여진다(968)

이러한 로고스들 가운데 나는 실체는 이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 것
자체가 실체는 아닐 거라는 점 그리고 이 것은 기체라고도 말하여진다는 점
그리고 이 것(τὸ τὸδε, τὸδε τι)은 공통 범주 또는 보편자를 가리키지 않는
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련다

이제 **그러한 것(τὸ τοιόνδε)**으로 닦아서보자 먼저,

그렇지 않다 298쪽에 나타난 것 처럼 분리된 이 것이 실체이기 때문
이다

1547) 그러나 겉 모습 만 보면 두 번째 실체를 가리킬 것 처럼 보인다

1548) 따라서 이 것이 실체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미 965쪽에서 말하여졌지만 그러한 (것)은 공통 범주 곧 보편자를 가리킨다

“ 보편자에 속하는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공통 범주들 가운데 어떤 것도 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이러한 이론들로부터 분명해진다¹⁵⁴⁹⁾ (1038b34-1039a3) ”

이러한

인용 글월에 따르면 그러한 (것)은 보편자 곧 공통 범주들을 가리킨다 또,

형이상학 다투 편 2 장 1089a18에서는 그러한 (것)의 한 보기로 곧음(εὐθεῖα, 直線)이 들어진다

“ 있는 것들은 어떠한(ποῖον a15)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올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있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는 이것을

1549)

“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 [어려움들]이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 [이러는 어려움]이 잇따를 것이다.....그런데,

어려움이 잇따른다 어려움(ἀπορία 1039a14)이 잇 따르다 만약 **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보편자들로부터는 어떤 실체도 있지 않다면 [그리고] 현실에(적으로) 있는 어떤 실체도 실체들로부터 묶어져(σύνθετον¹⁾ 1039a17) 있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모든 실체는 묶인 것이 아닐 것이어서 어떤 실체의 로고스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로 단지 주로 실체의 정의만이 있다는 것은 오래 전에 말하여졌고 모두에 의해서 그렇게 여겨졌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을 것 처럼 보인다 (1039a3-a21) ”

가리키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곧음(*εὐθεία*, a18, 직선(直線))이 아닌 것은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며) 다른 한 편으로 세 큐빗(*τριπλην*, xv a18)이 아닌 것은 그 만큼이 아닌 것(을 가리킨다) (1089a15-a19)
”

그는 범주들 10a12-13에서 곧음 과 굽음 과 모습 과 모양을 질이라고 말하므로(206쪽) 그러한 (것)은 범주들 가운데서도 주로 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다¹⁵⁵⁰그렇다면,

그러한 것(τοῖόνδε)은 질을 주로 가리킨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만큼한 (것, τοσόνδε 1089a12)에 대해 말해보기로하자

위에서 인용된 글월인 형이상학 다투 편 2 장 1089a18에서는 세 큐빗이 그 만큼한 것의 보기로 들어진다 그런데,

이 것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에 대한 로고스가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는 그리 별로 눈에 띄이지 않는 것 같다 아마 알론한 강의록들에

1550) 물론 질 이외의 다른 범주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 만큼한 것의 보기로서 뒤 이어 들어지는 세 큐빗은 량의 범주에 속하므로 그리고 945쪽에서 그에 의해 말하여진 것 처럼 어떤 것이 그러한 것이면서 그 만큼한 것이라는 것은 불 가능하며 불 합리한 것이라면 적어도 량의 범주 만큼은 그러한 것이 아니며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질 이외의 다른 범주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 질 수 있을 것 같다

서도 마찬가지로 것이다¹⁵⁵¹⁾ 따라서,

있는 것의 다섯 번째 양상 으로서의 이 것 과 그러한 것 과 그만큼한 것에 대해 물론 알론한 네 가지 양상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충분히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양상에 대해 나는 네 가지 양상에 대해 말한 것 보다 훨씬 더 적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못내 불만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론한 네 가지 양상에 상응하는 하나의 양상으로 이 것 과 그러한 것 과 그만큼한 것을 내 세우려한다 이 것 과 그러한 것 과 그만큼한 것 이 세 가지에 있는 모든 것이 포괄되거나 또는 이 세 가지로 있는 모든 것은 분류(分類)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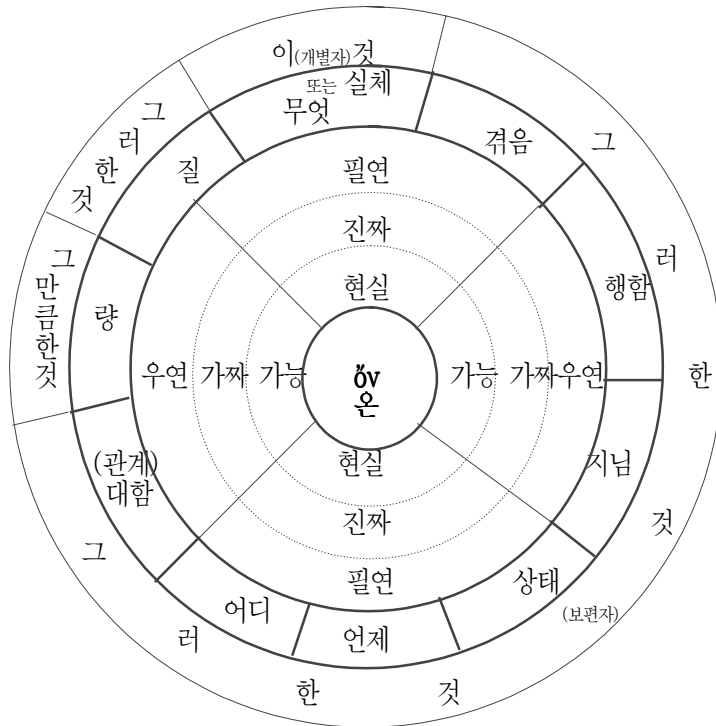
있는 모든 것은 이 것이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이든지 또는 그만큼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있는 모든 것은 실체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보편자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그만큼한 것을 가리킬 것이다)¹⁵⁵²⁾ 그래서,

다음 쪽에 나오는 그림 처럼 943쪽의 그림을 넓힐 것이다

1551)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들에 관한 보니츠의 방대한 색인(索引)에서도 τὸδε τι(이 것) 와 τοιόνδε(그러한 것) 와 τοσόνδε(그만큼한 것) 라는 항목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그와 관련된 항목은 나타나기는 해도 말이다 (Index Aristotelicus, 765-767쪽 참조) 그런데,

τοσόνδε 라는 항목에서 ‘ τοσόνδε(그만큼한 것) 또는 에이도스 또는 토포스(자리)는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여지지 않는다 (224b6)’ 라는 자연학 엡실론 편 1 장에 속하는 글월이 인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면 그 만큼한 것은 움직여지거나 또는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로고스를 끄집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552) 있는 모든 것은 개별(個別)자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보편(普遍)자를 가리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나 개별자 라는 말은 이미 그 안에 분리(分離)를 내포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므로 아직은 분리의 측면에서 말하여지지 않고 있는 토데 티(이 것, τὸδε τι)를 개별자로 옮길 수 없을 것 같아 개별자 라는 말을 나는 여기서 쓰지 않았다



원이 다섯 개 있는 943쪽의 그림에 바깥 원 하나가 덧 붙혀져 이 그림이 이루어졌다 거기서 말하여졌듯 가운데 원을 빼 둥근 원 각각은 있는 양상을 가리킨다 가운데 원을 빼면 다섯 가지 원이 있으므로 있는 다섯 가지 양상이 나열된 셈이다

있는 모든 것은 이 것도 아니며 그러한 것도 아니라면 그만큼 것에 속한다 열 가지 범주 그리고 우연과필연 그리고 가짜와진짜 그리고 힘과현실에 각기 있는 모든 것이 속하듯 말이다 그래서,

있는 어떤 것이 이 것(개별자)이 아니면 보편자(그러한 것)일 것이고 보편자마저 아니라면 그만큼 것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체(τὸ ὑποκείμενον 1049a28)를 다시 끌어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질료에 이 것이 있음에 의해서 기체는 보편자와 차이나는 것

으로 말하졌기 때문이다¹⁵⁵³)이 (것)은 기체적이긴 하나 기체 그 자체는 아니다 질료는 이 것이 아니듯 말이다(330쪽 참조) 이제,

있는 것은 모든 것에 공통이다 라고 말하는 형이상학 감마 편 2 장 1004b20으로 닥아서보기로 하자

“ 그래서 마찬가지로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도 고유한 어떤 것들이(τινὰ ἴδια¹⁵⁵⁴) 1004b15-16)있다 그리고 이(고유한

1553) 만약 첫 번째 질료가 이 것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그 질료는 기체라고 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95쪽에서는 질료는 기체인 것이라고 말하여진다(295쪽)거기에서는 알론한 것들이 자신에 따르긴해도 자신이 알론한 것들에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기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여기서는 첫 번째 질료에 이 것이 있다면 그 질료가 바로 기체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1554) 범주들에서 텔레스는 각기 범주들에 고유한 것을 말하려 한다는 것에 유의하라

실체에 고유한 것(ἴδιον 4b3)은 184쪽에서 질에 고유한 것은 209쪽에서 량에 고유한 것은 223쪽에서 말하여지나 프로스 티(關係)에 있어서의 고유한 것은 말하여지지 않는다 텔레스에 따르면,

그 스스로 변함을 통해 반대를 받아드리는 것이 실체에 고유한 것이며 어떤 것은 자신이 지니는 질 때문에만 같다(ὅμοια 11a16) 또는 같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질에 고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자신이 지니는 량 때문에만 똑 같다(τὸ ἴσον 6a26) 또는 똑 같지 않다 말하여지는 것이 량에 고유한 것이나 이러한 량 과 질 과 실체와는 달리 프로스 티에는 고유한 것이 있지않다 비록 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프로스 티는 상대 짝에 대해 그러하며(189) 프로스 티들은 자연스레 동시에 있긴해도(192)말이다

실체 량 관계(프로스 티) 질 등 이 넷 이외의 범주들은 이미 32 쪽에

것들에 관한 진실을 철학자들은 조사해야만 한다 그런데(δε 1004b17),

가리켜져야 [할 것이 있다] 변증가들 과 소피스테아스들은 철학자와 동일한자들로 위장(οχημα, b18, 僞裝)하기 때문이다¹⁵⁵⁵ 소피스티케에는 단지 (소피아(지혜(知慧))인 것) 처럼 보이는 [그런] 소피아 일 뿐이며 변증가들은 모든 것들에 관해 변증하므로 그렇다 그런데,

있는 것은 모든 것에 공통(κοινόν b20)이다 그런데 철학의 적절한 것은(οικεία b22) 그 (있는 것)들(ταύτα, b22)이기 때문에 (변증가들은) 이 (모든) 것들에 관해(περι τούτων b21) 변증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소피스티케에(궤변술(詭辯術)) 과 디아레티케에(변증술(辨證術))은 철학과 동일한 류로 판명되지만(στρέφεται b22-23) 한 편으로 (철

서 그려진 것 처럼 그리고 231-235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범주들에서도 거의 말하여지지 않는다 행함 과 겪음 과 지님 등 이 세 범주가 말하여지는 아주 적은 지면(紙面)을 제외하면 말이다 따라서,

거의 말하여지지 않는 이러한 범주들에 있어서의 고유한 것이 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없다

1555) 변증가들 과 소피스테아스들은 자신들이 진실한 철학자들인 양 위장하므로 그 겉 모습만 볼 때는 언 듯 이 세 가지 류(소피스테아스 22쪽)가 동일한 것 처럼 보인다

텔레스의 이러한 언급은 물론 변증가 대신에 정치가가 들어서기는 해도 플라톤의 소피스테아스가 시작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언급과 비슷하다 거기에서 말하여지는 소피스테아스는 철학자인 척하는 자이며 여기에서 말하여지는 소피스테아스는 철학자로 위장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나 플라톤이 변증가들(οἱ διαλεκτικοί, 1004b17, 變證家)을 철학자인 척하는 자들로 여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한다 지금 나는 아버님에 관련된 형사 소송 사건 때문에 한서 대학 도서관 열람실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어서 그리운 아차도 내 방에 있는 풍부한 자료들을 볼 수 없어 두 사람이 변증가에 대한 어떤 의견을 지녔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없어 유감이다

학은) [요구되는] 힘의 길[자연]에 있어서 (변증술과) 차이이며 한 편으로 그 삶의(τοῦ βίου b24) 의도에 있어서 (철학은) 퀘변술과 차이이기 때문이다 철학이 그것들의 인식술(γνωριστική, b26, 認識術)인 [바로] 그것들에 관한 비판술(πειραστική, b25, 批判術)이 변증술이며 퀘변술은 [철학적인 것 처럼] 나타나나 (철학은) 아니다 (1004b15-b26)”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철학자 와 변증론자 와 퀘변론자가 [종에 있어] 구분된다 비록 퀘변술 과 변증술 과 인식술(철학)은 그 류에 있어서는 동일하긴해도 요구되는 힘의 길에 있어서 철학(인식술)은 비판술인 변증술과 차이이며 그 삶의 의도에 있어서 퀘변술과 차이이기 때문이다 퀘변술은 인식술(철학)인 것 처럼 나타나나 철학(인식술)은 아니다 따라서,

이 셋은 비록 [종적으로] 이 셋은 차이나더라도 그 류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무엇 때문에 동일한가 이 세 가지가 다루는 것이 비슷¹⁵⁵⁶하기 때문

1556)철학에 적절한 것은 모든 것에 공통인 바로 그 있는 것이므로 모든 것에 관해 변증가들은 변증하며 퀘변을 늘어 놓는 소피스테아스 역시 [퀘변이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 있지 않는 것 또한 있는 것 가운데 어떤 하나이므로 있는 어떤 것에 관한 퀘변을 늘어 놓은 것이 될 것이]므로 소피스테아스 와 변증가 와 철학자 모두가 다루는 것은 있는 것에 연관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 셋은 동일한 류이다 라고 문제의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비슷’이라고 말하는 것은 철학이 다루는 것인 ‘있는 있는 것에(τῷ ὄντι ἢ ὄν 1004b15)’을 있는 것과 구분해서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며 변증가가 모든 것에 변증하는 그 모든 것에 공통인 것은 있는 것이나 모든 것 그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것은 있는 것과 비슷하고 소피스테아스가 다루는 있지 않는 것 역시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므로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비슷하다 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철학(인식술) 과 변증술 과 퀘변술 각각은 그 다루는 것이 있는 것에 관련하는 것이긴 하나 그 자체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나는 비슷하다 라는 말

이다

변증가들은 모든 것에(ἀπάντων 1004b20)에 관해 변증(διαλέγονται, 1004b20, 辨證)한다 그런데 모든 것에 공통인 것은 있는 것이며 이 **있는 것**이 철학의 적절한 것이므로 있는 모든 것을 변증가는 변증하며 소피스테에스는 철학자인 것 처럼¹⁵⁵⁷ 나타나기(φαινομένη¹⁵⁵⁸) 1004b26)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로고스로부터 **있는 것**¹⁵⁵⁹은 모든 것¹⁵⁶⁰에 공통이다¹⁵⁶¹라는

을 썼다 철학(인식술)은 있는 있는 것을 다루며 변증술은 모든 것을 다루며 퀘변술은 [있지 않는 것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텔레스는 1004b24에서 퀘변술 과 변증술은 있는 것에 관련하는 것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철학(인식술)과 동일한 류(τὸ γένος 1004b22)이긴 하나 차이난다고 했을 것이다

1557) 그러나 [실은]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1558) 있지 않는 것에 관련하여 주로 쓰이는 말인 ‘나타나다’ 라는 말이 쓰였다는 것은 바로 앞 각주에서 소피스테에스에 관련해서 내가 말한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1559) 그러나,

있는 것을 있는 있는 것 - 있는 있는 것은 ὄν(**있는 것**)을 자신의 부분으로 지니는 말들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반드시 말하여질 것이다 - 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1560) 그런데,

이 모든 것에(πάσι 1004b20)를 철학자 과 변증가 와 소피스테에스 모든 것에 또는 인식술 과 변증술 과 퀘변술 모든 것에 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모든 것에 공통인 [주제]이라고 말이다

로고스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을 하나와 동일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 이미 683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

“ 한 편으로 모든 각기 류에 있어서의 하나는 자연인 것이라는 점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자연 그 자체가 이 하나는 아니라는 점은 선명하다 그러나 색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하나 그 자체 (αὐτὸ τὸ ἕν 1054a12)는 색 하나인 것 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실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하나 그 자체는 실제 하나이다

다른 한 편으로 어떻게 보면(προς 1054a13) **하나** 와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는 점은 (하나 와 있는 것은) 범주들에 똑 같이 상응하며 어떤 것[범주] 안에도 있지 않다는 것 - 예를들어 [하나는] 있는 무엇 과 질 [등] 안에(ἐν a15)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는 무엇 과 질 등과] 같은 상태(ἔχει 1054a16)(이다)¹⁵⁶² - 그리고 있음은 무엇 또는 질 또는 량과 나란한(παρὰ 1054a18)것이 아닌 것 처럼 사람 하나는 사람과 헤테론한 어떤 것으로 카테에고리화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에 있음은 각기 것에 있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분명하다 (1054a9-a19¹⁵⁶³) ”

라는 인용글월에서는 색 또는 실체 등 각기 모든 류에 있어서의 하나는 자연적인 것이긴해도 자연 그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선명하며 하나 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1561)

1562) **있음**은 무엇 과 량 과 질 등의 범주에 나란한 헤테론한 것이 아니라 는 것은 다시 말해 있음은 범주와 떨어져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690, 805쪽에서 이미 말하여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 역시 범주들과 헤테론한 것으로 나란히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무엇 과 량 과 질과 같은(ὁμοίως 1054a16) 상태이다

1563) 이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682-688쪽을 참조하시오

색의 경우 하나 그 자체는 색 하나이며 실체의 경우 실체 하나이기 때문이며 하나 와 있는 것은 범주들에 똑 같이 상응하여 그 어떤 범주 안의 것이 아니라 그 범주와 같은 상태이며 있음이 범주와 나란히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 역시 하나도 그러하고 하나에 있음은 각기 것에 있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범주 안의 것도 아니며 각 범주와 나란히 분리된 것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하나**는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둘이 동일하지 않은 것 같다 형이상학 1과 2 편 3 장 시작하는 부분에서 말하는 텔레스를 따라가 보자

“ 각기 있는 것(τὸ ὄν ἅπαν 1061a8)은 이와 동일한 길¹⁵⁶⁴에서 (있다고) 말하여진다 그러한 **있는 것** 각각은(ἐνκαστον αὐτῶν ὄν a10) 있는 있는 것의 속성이거나 습성이거나 경향(διὰθεως a9)이거나 움직임이거나 알론한 이러한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인 것 과 공통인 것을(πρὸς¹⁵⁶⁵ a11)지시 하므로 반대들 각각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의 첫 번째 차이들 과 반대들을 지시한다 있는 것의 처음 차이들은 여럿 과 하나이든 같음 과 같지 않음이든 알론한 어떤 것(차이)이든 이러한 것들로 받아드려 질 것이다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지시하든 하나를 지시하든 차이없다 (**있는 것** 과 **하나**가) 심지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이라 하더라도 [서로] 짝은 될 것이기(ἀντιστρέφει¹⁵⁶⁶ a17) 때문이다 어떻게

1564) 건강이 말하여지는 길과 동일한 길을 말한다 어떤 것은 건강을 지시 하므로 어떤 것은 건강을 생산하므로 건강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에 대해서는 806-808쪽을 참조하십시오

1565) 하나에 대해 또는 관련하여 라는 말에 대해서는 807-808, 813, 302-303쪽을 참조하십시오

1566) 범주들 189쪽을 참조하십시오 로스는 convertible(855쪽, 치환(置換)하다) 라고 번역한다

보면 하나는 있는 것이요 있는 것은 하나이므로 [그렇다](1061a7-18)”

있는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철학자의 삶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 맥락에 속하는 위 인용 글월은 어떤 것이 건강에 관련함을 통해서 건강하다라고 말하여지는 길과 동일하게 각기 있는 것은 있다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말한다 있는 것 각각은 있는 있는 것의 속성이거나 습성이거나 경향이거나 움직임이거나 이와 같은 알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인 것 과 공통인 것에 관련하여 말하여지므로 반대로 있는 것 들 역시 있는 것들의 첫 번째 차이들¹⁵⁶⁷⁾ 과 반대에 관련하여 말하여진다

있는 것에 관련하여 말하여지든 **하나**에 관련하여 말하여지든 차이없다 설령 있는 것 과 하나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이라 하더라도 있는 것 과 하나는 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는 있는 것이요 있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둘은 서로 짝을 이루므로 하나에 관련하여 말하여지든 있는 것에 관련하여 말하여지든 차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알론한 것과 나란하지도 않고 알론한 것 안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있는 것 과 하나는 동일하지만 많은 여러 점에서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 둘은 서로 짝을 이룬다 라고 우리는 힘들게나마 있는 것 과 하나에 대해 말할 수 있으리라 알론한 것들은 있는 것에 그리고 하나에 관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되는 것들과 분리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있는 것** 과 **하나**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주인 과 노예가 서로 짝이 되어 동시에 있듯이 하나 와 있는 것도 그렇다 라는 말일 것이다

1567) 있는 것들의 첫 번째 차이는 여럿 과 하나이든지 같음 과 같지 않으 이든지 이와 같은 알론한 것이든지 한다

있는 것은 여럿이 아니다 라고 텔레스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나는 944 - 954쪽에서 있는 것의 양상은 여럿일 뿐아니라 하나이기도하다 라고 말하면서¹⁵⁶⁸⁾아리스토텔레스는 있는 하나 와 있는 여럿에 대해 말하며서 있지 않는 것 대신에 힘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있는 것을 이끌어들이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있는 여럿은 있지 않는 것 또는 힘으로 있는 것과 깊숙히 관련지워진다 내가 보기에는 있지 않는 것들을 있는 여럿으로 보아 그 여럿을 힘으로 있는 것들로 텔레스는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 번 말하여진 것 처럼 힘으로 있는 것들로서의 여럿들 역시 비록 현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있는 것이긴해도 어찌든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있지 않는 것들도 역시 있는 것들이다 단지 있는 그 양상이 다를 뿐이다 곧 힘으로 있는 것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있지 않는 것 과 없는 것 그리고 있지 않음 과 없음(無)에 들어서서 그가 있지 않는 것 또는 없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을 따라갈 것이다것 그러나,

자신의 타 메타 타 퀴지카에서 텔레스는 있지 않는 것 과 있지 않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힘으로 있는 것 과 있음에 대해 주로 말한다¹⁵⁶⁹⁾물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직접 그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직접 말하고 있는 부분을 따로 나중에 나는 정리할 것이다 우선,

나는 텔레스가 여럿 또는 많음에 대해 말하는 이오타 편 3 장부터 같은 편 6 장까지(1054a20 - 1057a17)을 살펴보려한다 하나에 대해서는 이미 680쪽 - 688쪽에서 살펴 보았다 그에 따르면,

1568) 여럿도 있는 것이다 라는 말 과 여럿도 있는 양상이다 라는 말은 동일한 말인가 라는 물음을 여기서 나는 제기하지 않으려다

1569) 이에 대해서는 545 - 660 쪽에서 충분히 정리되어졌다

여럿(τὸ πολλά 1054a20)은 많은 길에서 하나에 대립된다

“ (3) *하나*와 *여럿*¹⁵⁷⁰)은 *많은*(πλείους 1054a20) 길에서 대립된다(ἀντίκειται¹⁵⁷¹) 1054a20) 그 [대립]들 중의 하나는 나뉘어질 수 있는 것 과 나뉘어질 수 없는 것 으로서의 하나 와 *많은*(τὸ πλῆθος a21) [의 대립이다] 한편으로 나뉘어지는 것 또는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많은*¹⁵⁷²)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나뉘어질 수 없는

1570) ‘ *여럿* 각자 안에 있어야하는 있는 *하나* [로서의] 에이도스(τὸ εἶδος ἐν ἑκάστῳ εἶναι τῶν πολλῶν ἐν ὄν, 파르메니데아스 131a8-9) ’ 라는 8쪽의 말 과 ‘ 만약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알론한 어떤 것 *여럿*이 아닐 것이지 ? (137b4) ’ 라는 38쪽의 말을 참조하라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는 하나 와 *여럿*이 스스로 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지에 관해 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럿*은 있지 않다 라는 제논의 첫 전제(히포테신)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운데 ‘ 만약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알론한 어떤 것 *여럿*이 아닐 것이지 ? (137b4) ’ 라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어보면서 파르메니데아스가 자신의 에이도스론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 [곧 *여럿*은 어떻게 되는가 (164b5-6) ’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 으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는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571) 대립에 대해서는 235-253-258쪽을 참조하십시오

여기서는 나뉘어진 것 과 나뉘어지지 않은 것 으로서의 대립이 말하여지는 반면 거기에서는 프로스 티(관계) 반대 습성과결여 긍정과부정 으로서의 대립이 말하여진다 따라서,

나뉘는 것 과 나뉘지 않은 것, 긍정 과 부정, 습성 과 결여, 관계(프로스 티), 반대 등 텔레스는 대립을 다섯 가지로 범주들 과 형이상학에서 말하고 있는 셈이된다 그리고,

438쪽도 참조하십시오

1572) 438쪽에서는 ‘ 첫 번째 질료이건 마지막 질료이건 [자신들의] 질료가 종적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여럿*(τὸ πολλά 1017a3)이라고 말하여진다 ’ 라고 말하여진다

것 또는 나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¹⁵⁷³⁾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이제 **대립**들은 4가지로 (말하여지)고 이(대립들) 가운데 헤태한 [하나]은 **결여**라고 말하여지므로 **모순**(ἀντιφασος 1054a25)이라고도 **프로스 티(관제)**라고도 말하여지지 않는 **반대**(ἐναντία a25)가 [헤태론 한 하나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그 반대로부터 말하여지며 분명하게된다(δηλοῦται a26) [그래서] 나뉘어지지 않는 것은 나뉘어지는 것으로부터 (말하여지고 분명하게된다) 왜냐하면 많은 것 과 나뉘어지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은 것 보다 훨씬(μᾶλλον a27) 감각적이어서 많은 것은 그 (훨씬 더) 감각적이라는 것 때문에 나뉘어지지 않는 것 보다 로고스에 있어 더 먼저이기 때문이다¹⁵⁷⁴⁾(1054a20-a29) ”

1573) 하나에 대해서는 413-438쪽을 참조하라 425쪽에서는 ‘ 자연적으로든 기교적으로든 연속적인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이다 ’ 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연속에 대해서는 927쪽을 참조하라

1574) 그런데 활동적인 것은 로고스에 있어서 힘 과 자연 보다 먼저이다라는 615-616쪽을 참조하라

거기에서는 활동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활동적인 것의 로고스 와 인식은 힘으로 있는 것의 인식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한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것 곧 현실적인 것은 힘으로 있는 것 보다 먼저 인식된다는 말하여지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훨씬 더 감각적이기 때문에 (διὰ τὸ μᾶλλον αἰσθητὸν 1054a27) 많은 것 또는 나뉘어지고 있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것 곧 하나 보다 로고스에 있어 먼저이다 라고 말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하나인 것을 현실적인 것이라고 그리고 나뉘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럿 또는 많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텔레스의 로고스들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가

라는 인용글월에서는 하나 와 여럿은 결여 와 모순 과 프로스 티(관계) 와 반대 등 많은 길에서 서로에 대립되는데 자신과 반대되는 것으로부터(ék 1054a26) 하나는 말하여 지며 분명해진다 라고 말하여진다

하나 와 여럿은 많은 길로 대립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나뉘어질 수 없는 것 과 나뉘어질 수 있는 것 으로서의 하나 와 많음의 대립이다¹⁵⁷⁵⁾나뉘어지는 것 또는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은 많음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에 나뉘어지지 않는 것 또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은 하나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이제,

대립들 가운데 헤테론한 하나는 결여라고 말하여지므로 모순이라고도 프로스 티라고도 말하여지지 않는 헤테론한 반대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반대로부터 하나는 말하여지고 분명해진다¹⁵⁷⁶⁾나뉘어지지 않는 것은 나뉘어지는 것으로부터 말하여지고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많은 것 과 나뉘어지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것 보다 훨씬 감각적이어서 그 훨씬 더 감각적이라는 것 때문에 나뉘어지지 않는 것 보다 나뉘어지는 것은 로고스에 있어 더 먼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 와 여럿 또는 많은 것은 서로에 결여, 모순, 프로스 티, 반대 로서 대립되는데 반대로 대립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는 분명해지고 말하여진다 라고 여기서 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반대로서 자신에 대립되는 여럿 또는 많음을 통해서 하나는 분명해지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여지고 있는 *하나*는 나뉘어지지 않은 것 또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인 반면에 *많은*은 나뉘어지는 것 또는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라

1575) 많은 대립들 가운데 나뉘어질 수 없는 것 과 나뉘어질 수 있는 것 으로서의 대립을 그는 반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에 따르면 서로에 반대로서 대립되는 것 이외에도 하나 와 여럿은 모순으로서 대립되기도 하며 프로스 티로서 대립되기도 하고 결여로서 대립되기도한다

이러한 대립들에 대해서는 256-257쪽을 참조하라

1576) 로스는 자신의 이름 과 설명을 지닌다 라고 번역한다(로스 839쪽)

고 그에 의해서 말하여지므로 문제의 그 반대 대립은 나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나뉘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근거한다 나뉘어진다면 어떤 것은 많음인 반면 나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이다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인 것은 자신에 반대인 많은 것으로부터 분명해지고 말하여진다 텔레스에 따르면 나뉘어진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것 보다 훨씬 더 감각적이며 훨씬 더 감각적인 것이 그렇지 않는 것 보다 로고스에 있어 먼저이므로 나뉘는 것 으로서의 많음이 나뉘지 않는 것 으로서의 하나 보다 로고스에 있어 먼저이기 때문이다¹⁵⁷⁷)따라서,

나뉘는 것 으로서의 많음에 반대로서 대립되는 하나는 나뉘지 않는 것 으로서의 하나는 많음 보다 훨씬 덜 감각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¹⁵⁷⁸) 이러한 하나에 대해 계속 말하는 텔레스를 따라가 보자

1577) 그런데,

617쪽(형이상학 1049b17)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만약 로고스에 있어 먼저라는 것이 먼저 인식된다 라는 뜻이라면 하나 보다는 많은 것이 먼저 인식될 것이므로 적어도 인식에 있어서는 하나 보다는 많은 것이 또는 나뉘어지지 않는 것 보다는 나뉘어지는 것이 인식의 근거일 것이다 그러나,

429쪽에서 확실해지듯이 하나(에 있음)는 인식의 첫 척도(τὸ πρῶτον μέτρον 1016b18-19)이므로 그 하나에 의해서 비로서 인식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하나는 인식에 있어서 먼저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로고스에 있어서의 먼저는 인식에 있어서의 먼저이다 라고 선불리 짐작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 참고로 1049b17(617쪽)에 나타나는 로고스와 인식은 kai(와, 그리고, 카이)로 연결되므로 (활동의) 로고스 와 인식은 (힘)의 인식이전에 반드시 있어야한다 라고 옮겨야한다 - 그래서 분명해진다 와 말하여진다 와 로고스 등의 말을 인식과 결부지어서 말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1578) 하나를 감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반대들을 구분해서 우리들이 표현했던 것처럼¹⁵⁷⁹⁾ 한편으로 동일한 것(τὸ ταῦτο(1054a31) 과 같은 것(ὁμοιον a31) 과 똑 같은 것(ἴον a31)은¹⁵⁸⁰⁾ **하나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헤태론한 것 과 같지 않는 것 과 똑 같지 않은 것은 많은 것이다**

우리들은 **동일한 것**을 여러가지로 말하는데 그 하나의 길은 수적으로 하나인 것을 동일한 것이라 말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의 길은) 예를들어 당신은 당신 자신에 에이도스 와 질료에 있어 하나인 것 처럼 로고스 와 수에 있어(ἀριθμῷ a34) 하나라면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는 [길]이고) 나아가서,

첫 번째 실체의 로고스가 하나라면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길이다) 예를들어 똑 같은 직선들은 동일한 것이며 똑 같은 각들을 지닌 4 변형들도 (동일한 것들이다) 실로 (이렇게 동일한 것들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똑 같은의 하나ἡ ἰσότης ἐνότης c 1054b3)**이다 그런데,

동일하지 않게 순수하게(ἀπλῶς b4)있는 것들이라면 또는(δὲ b4) 실체에 있어서는(κατὰ b5) 차이가 없지 않으나 에이도스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면 **같다**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큰 4 변형은 작은 4 변형과 같으며 **똑 같지 않는** 직선들도 (**같다**) 이 **똑 같지 않은** 직선들은 한 편으로 **같은 것**들이나 다른 한 편으로 순수하게 **동일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크고작게 [차이는] 나지만 큰 [차이]만은 또는 작은 [차이]만은 (나지) 않는 동일한 에이도스를 지닌다면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¹⁵⁸¹⁾ 그리고 동일한 속성이며 에이도스에 있어 하나라면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아주 크고 작은 흰 것은 (같

1579) 1004a2를 참조하시오 그리고 더불어 254쪽을 참조하시오

1580) 동일 과 같음 과 똑 같음에 대해서는 258-259쪽을 참조하시오 그리고,

209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어떤 것이 **같다** **같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단지 그 어떤 것의 질 때문이며 223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어떤 것이 **똑 같다** **똑 같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단지 그 어떤 것의 량 때문이다

1581) 어떤 것이 동일한 에이도스를 지니긴해도 아주 큰 차이 또는 아주 작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차이가 난다면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뜻일까 아니면 어떤 것이 동일한 에이도스를 지니긴해도 큰 차이만

다) 그것들의 에이도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것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순수하게든 우월하게든(ἢ τὰ πρόχειρα 1054b12) 동일한 (속성)을 헤태론한 (속성) 보다(ἢ b12) 많이 지닌다면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주석은 빛난다는 [집]에서 금과 (같으)나 금은 노랗고 붉다는 [집]에서 불과 같다 따라서,

헤태론한 것 과 같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1054a29-b14) ”

라는 인용글월에서는 동일한 것 과 같은 것 과 똑 같은 것이 하나라고 말하여지면서 동일한 것 과 똑 같은 것 과 같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여진다

나거나 또는 작은 차이만 나는 것이 아니라 크고(καὶ 1054b8)작은 차이가 동시에 난다면 어떤 것은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뜻일까 나는 나중 것을 뜻하는 것으로보아 옳겠다 참고로,

트레드닉은 ‘ difference in degree(19) ’ 와 ‘ difference of degree(19) ’ 로 ‘ τὸ μᾶλλον καὶ ἧττον (1054b8) ’ 와 ‘ ... μᾶλλον ἢ ... ἧττον (1054b9) ’ 을 번역하는 반면 로스는 둘 모두 ‘ difference of degree (840) ’로 번역해 ‘ 동일한 형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신들 안에 정도의 차이는 가능하나 자신들은 정도의 차이를 지니지 않은 것들 ’ 이라고 문제의 그 말이 속한 문장을 번역한다 트레드닉도 로스처럼 번역한다 그러나,

나는 약간 달리 옮겨 보았다 두 사람을 따르자면 동일한 에이도스를 지닌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정도의 차이를 지니지 않은 것들이 같다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나를 따르자면 동일한 에이도스를 지닌 그러나 크고작은 차이는 나더라도 큰 차이만 홀로 또는 작은 차이만 홀로 나지 않는 것들이 같다 라고 말하여지게 될 것이다 이 세 사람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는 나로서도 선불리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서,

나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 만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반대들을 우리들이 구분해서 표현했던 것 처럼 동일한 것 과 같은 것 과 똑 같은 것은 하나인 반면 헤태론한 것 과 같지 않는 것 과 똑 같지 않는 것은 많은 것이다

동일한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수적으로 하나인 것을 동일하다 라고 말하며 또 로고스 와 수에 있어 하나라면 동일하다 라고 말한다 예를들어 에이도스 와 질료에 있어 당신은 당신 자신(ὁ σαυτῶ 1954a35) 과 하나이다¹⁵⁸²) 나아가서,

첫 번째 실체의 로고스가 하나라면 동일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똑 같은 직선들은 동일한 것이며 똑 같은 각들을 지닌 사변형들도 동일한 것들이다 실로 이렇게 동일한 것들은 많다 그러나 이것들은 **똑 같음**의 하나이다 그런데,

순수하게 동일한 것들이 아니라면 또는 실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 않으나 그 에이도스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면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큰 사변형은 작은 사변형과 같으며 똑 같지 않은 직선들도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똑 같지 않는 직선들은 한 편으로 같은 것들이나 다른 한 편으로 순수하게 동일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크고작게는 차이나지만 크게만은 또는 적게만은 차이나지 않는 동일한 에이도스를 지닌다면 같다고

1582) 여기서 들어지는 예(例)가 로고스 와 질료에 있어 하나인 것 으로서의 동일한 것의 예인지 아니면 수적으로 하나인 것 으로서의 동일한 것인지 가 분명하지 않다 물론,

어순(語順)에 따르면 로고스 와 질료에 있어서의 하나인 것의 예로 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너 와 너 자신은 그 에이도스 와 질료에 있어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예가 로고스 와 질료에 있어 하나인 것의 예라면 로고스 와 에이도스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나는 문제의 그 예가 어느 것의 예일까 라고 지금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예(例)를 수적으로 하나인 것의 예 보다는 로고스 와 질료의 예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다면 로고스 와 에이도스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은데.....

말하여지며 그리고 동일한 속성이면서 에이도스에 있어 하나라면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아주 크고 작은 흰 것은 그 에이도스가 하나이므로 우리는 같은 것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순수하게든 우월하게든 동일한 속성을 헤태론한 속성보다 많이 지닌다면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주석은 빛나는 속성에 있어 금과 같은 반면에 금은 노랗고 붉은 속성에 있어 불과 같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같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 그리고 **똑 같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 그리고 **동일(τὸ ταὐτὸ 1054a31)**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 **하나인** 반면 **같지 않다** 라고 그리고 **같지 않다** 라고 그리고 **동일하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 **많음**이다 많은 것은 같지 않은 것 과 똑 같지 않은 것 과 동일한 것인 반면 하나인 것과 같은 것 과 똑 같은 것 과 동일한 것이라는 말이다

수적으로 하나인 것 또는 로고스 와 수에 있어 하나인 것 또는 첫 번째 실체의 로고스가 하나인 것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순수하게 동일하지 않은 것 또는 그 실체에 있어서는 차이나긴해도 그 에이도스에 있어서 동일한 것 또는 크고적게 차이나지만 크게만은 혹은 작게만은 차이나지 않는 동일한 에이도스를 지니는 것 또는 동일한 속성을 지니면서 그 에이도스에 있어 하나인 것 또는 순수하게든 우월하게든 헤태론한 속성 보다 동일한 속성을 많이 지니는 것은 각각 **같은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다시말해,

수(數)가 또는 수 와 로고스가 또는 첫 번째 실체의 로고스가 하나라면 **동일(1583)**한 반면 동일한 속성을 지니면서 그 에이도스에 있어 하나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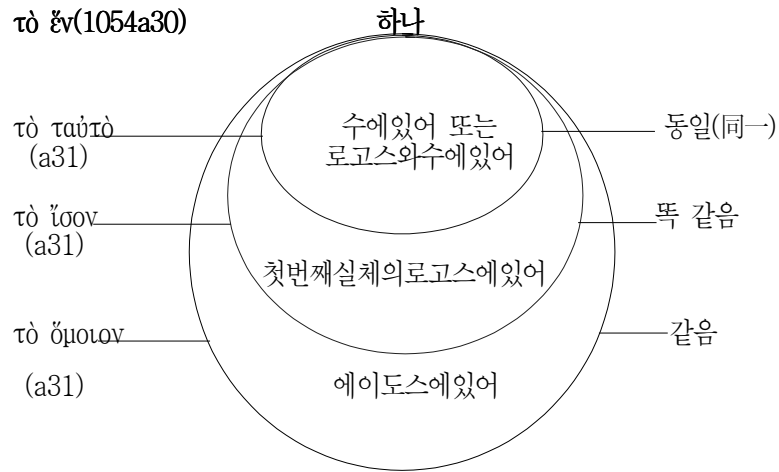
1583) 259쪽에 나타난 동일에 대한 로고스를 참조하라 그리고,

同一은 同 과 一(하나)로 이루어졌음도 눈 여겨보라 그러나 옥편에는 같을 同이라고 나와있으며 흔히 우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쓰여진 同을 같을 同이라고 읽어서는 안될 것이다 텔레스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시대에 상식적으로 사용되는 말들의 섬세한 쓰임새들을 그 상식과 어긋나지 않게 구분해 내어 분별했다는 데에 다시말해 사태에 어긋나지 않게

같다¹⁵⁸⁴)그러면,

똑 같은 것은 어떠한 하나일까 똑 같은의 하나(ἡ ἰσότης ἐνότης 1054b3)는 아마도 동일한 하나 가운데서도 첫 번째 실체의 로고스가 하나인 경우의 하나인 것 같다 예를들어 그 똑같은의 하나는 자신들의 실체¹⁵⁸⁵)의 로고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똑 같은 직선들 또는 똑 같은 각들을 지닌 사변 형들은 동일한 경우의 바로 실체의 그 로고스의 하나 처럼 말이다 이와 같은,

텔레스의 로고스들을 나는 다음 처럼 그려 보려한다



이 그림을 432쪽에 그려지는하나와 비교하여 보라

아주 섬세하고 올바르게 말로 그 사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데에 있지 텔레스의 철학이 심오하다는 데에 있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1584) 물론 동일하지만 순수하지 않게 동일한 것도 역시 그에 의해 같다고 말하여진다

1585) 그런데 986쪽 과 209, 223쪽에서도 말하여진 것 처럼 같음은 질에 고유한 반면 똑 같음은 량에 고유하다(ἴδιον 범주들 11a15) 그렇다면 실체에 고유한 것은 동일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다 텔레스에 따르면 184쪽에 나와 있는 것 처럼 그 스스로 변함에 의해서 반대를 받아드림이 실체에 고유하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동일 과 똑 같음 과 같음이 각각 무엇에 있어 하나인가를 보여준다 수에 있어 하나이면 동일이며 실체의 로고스에 있어 하나이면 똑 같음이고 에이도스에 있어 하나이면 같음이라는 것을 앞 쪽 그림은 표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209쪽 과 223쪽에 나온 것 처럼 같음은 질에 고유하며 똑 같음은 량에 고유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들에 대립되는 것이 여럿 또는 많음이라는 것 그리고 많음은 헤태론함(다름) 과 같지 않음 과 똑 같지 않음이라고 말하여진다는 것은 이미 말하여졌다 이제,

계속해서 그의 말을 따라가 보기로 하자

“ 따라서¹⁵⁸⁶) 헤태론함(다름, 1054b14) 것 과 같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 편으로 알론함(다름, b15)것은 동일한 것[에] 대립되므로 그래서 각기 것에 대해(πρὸς ἅπαν b15-16)[있는] 모든 것은(πᾶν¹⁵⁸⁷)

1586) 동일 과 같음도 여러 가지로 말하지므로 따라서 동일에 반대되는 헤태론 과 같지 않음 역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는 이 인용 글월은 987 쪽에 이어진다

1587) 처음 과 중간 과 끝을 지닌 것들 가운데 그 위치에 있어 차이나지 않는 것들을 텔레스는 375쪽(1024a2)에서 **모든** 것(πᾶν 1024a2)이라고 말하므로 ἅ-παν(각기 것 1023b31)은 차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차이나지 않는 것을 **전체**(ὅλον 1024a3 全體)라고 말하며 차이난 것 과 차이나지 않는 것 이 양자를 **토탈**(ὅλα καὶ πάντα 1024a3 total)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전체 가운데 첫 전체를 **각기 것**(ἅπαντα 1023b31) 과 **각각**(ἕκαστον 1023b31)으로 있는 것 곧 보편자 라고 말한다 따

b15) 동일하거나 또는 알론한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질료 와 로고스가 하나이지 않다면 (알론하며) 그래서 당신 과 당신의 이웃은 헤테론하며¹⁵⁸⁸ 셋째로 다른 한 편으로 수학적인 것들에서 (알론한 것들은) [발견된다] 따라서,

이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은(πάν πρὸς πᾶν 1054b19) 동일하거나 헤테론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단] 하나 와 있는 것이 말하여지는 경우에 [만 그렇다] (헤테론한 것은) 동일한 것의 모순(ἀντιφατικός¹⁵⁸⁹) 1054b20)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있지 않는 것의 경우에는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은) 동일(하거나 헤테론하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 반면 있는 모든 것들의 경우에 (말하여진다) 있는 것 과 하나는 자연스레 [서로] 하나이거나 하나이지 않으므로¹⁵⁹⁰[그렇다]

라서,

ἅ-παν을 우리는 전체의 일 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 경우 그 전체는 각기 하나 또는 각각 으로서 있는 것일 것이다

1588) 당신 과 당신 자신은 에이도스 와 질료에 있어 하나이다 라는 986쪽의 말을 참조하라 그리고 당신 과 당신의 이웃(ὁ πλησίον 1054b17)은 질료 와 로고스가 하나가 아니므로 헤테론하다 라는 여기의 말을 다시 음미해 보라 에이도스와질료에 있어 하나이므로 나와 나 자신은 동일한 반면 로고스와질료에 있어 하나가 아니므로 나는 내 이웃과 헤테론하다 988쪽의 각주 1582를 참조하시오 나아가서,

258쪽에 나와 있듯이 종이 또는 질료가 또는 실체의 로고스가 여럿 이라면 헤테론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1589) 모순인 것들 사이에는 중간적인 아무 것도 있지 않다는 그리고 이러한 모순은 반대에 속한다는 256쪽의 말을 염두에 둔다면 동일한 것 과 헤테론한 것의 사이에는 반드시 중간적인 어떤 것이 있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그 중간적인 것은 무엇일까

만약 모든 것은 모든 것과 동일하거나 헤테론하며 동일한 것은 헤테론한 것에 그리고 헤테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모순 으로서 반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이 아닌 것으로서 다시 말해 사이에 중간적인 것을 허용하는 것 으로서 반대 대립한다면 그 중간적인 것은 알론한 것이 아닐까?

1590) 있는 것 과 하나는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는 978쪽(1054a13) 말 과 그

이렇게 헤태론한 것 과 동일한 것은 대립되는데 차이(διαφορά 1054b23)는 헤태론(한 것)과 알론(ἄλλο b23)하다 왜냐하면 한 편으로 모든 것은 있는 어떤 것(τι b25)이라면 헤태론하거나 동일하므로 헤태론한 것 과 그 (헤태론한 것)의(에) 헤태론한 것은 반드시 어떤 것 (τινι b24)에 헤태론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의 차이는 어떤 것에 차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은 반드시 동일한 무엇에서(ὅ b26) *차이*난다 [바로] 이 (무엇)이 동일한 류 와 에이도스(종)이다 왜냐하면 한 편으로 질료가 공통적이지(κοινή b28)도 않고 서로로 생성 되지도 않는 것들은 류적으로 (차이하며) 예를들어 그러한 것들의 범주들의 도식들이 *알론*하다 다른 한 편으로 류가 동일한 것들은 *중*¹⁵⁹¹적으로 (차이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체의 측면에서(κατὰ τὴν οὐσίαν b31) 이 양자의 차이들에 동일한 것이라 말하여지고 있는 류가 말하여진다 이 차이들이 반대들(τὰ ἐναντία b32)이며 대조(ἡ ἐναντιώσεως b32)는 어떤 차이이다 이것들이 매끈하게 받아드려져야한다는 것은 귀납으로부터 분명해진다 모든 (반대들)은 선명하게 차이하는 것들이며 그리고 이것들은 단지 헤태론하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 편으로 류(적으로) 헤태론하기도 하며 다른 한 편으로 일련의 동일한 범주들에 있어서 헤태론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류에 있어 그리고 동일한 에이도스에 있어 (차이난다) 류적으로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이 어떠한 것들 인지를 우리들은 알론한 곳에서(258-259쪽 델타 편 9 장) 구분했다 (1054b13 - 1055a3)¹⁵⁹² ”

러나 있는 것 과 하나는 심지어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짝은 된다 라는 979쪽(1061a17) 말을 비교해 보라 있는 것 과 하나는 어떻게 보면 동일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텔레스가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1591) 여기서 에이도스(종)에 의해서 그는 각기 범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592) 일단 여기서 잠시 끊은 후 이어가 보자

동일한 것 과 똑 같은 것 과 같은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하나에 대립되는 많음에 속하는 헤태론한 것 과 똑 같지 않은 것 과 같지 않는 것에 대

이어지는 4 장에서 이제 그는 차이 와 대조(ἡ ἐναντιώσις, 對照)또는 반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 (4) 차이나는 것들은 다소간에 서로 차이나므로 마찬가지로 가장 크게 차이난 것이 있다 이 (가장 큰 차이)를 나는 대조(ἐναντιώσις¹⁵⁹³) 1055a5)라고 말한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귀납으로부

해 텔레스는 말하고 있는 중인데 이 지점에서 그는 물론 자신의 논점에서 동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벗어난다 헤태론한 것에 대해 말하면서 차이 와 모순 과 결여에 대해 주로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차이 와 결여 그리고 반대 와 대조 와 모순이 헤태론과 무관한 것은 아니나 일관되고 밀접하게 하나 와 여럿 과 많음에 대해 주로 말하기 보다는 차이 대조 대립 반대 등 그 주변 개념들을 폭 넓게 말하면서 하나여럿 많음에 대해서는 4장 끝에서 하나 와 여럿은 첫 번째 반대 곧 류적인 반대이며 이 경우에 반대들의 헤태론이 결여에 따라서 충분히 말하여진다 라고 아주 짧게 말하기 때문에 만약 본문 순서에 따르지 않은 채 하나 와 여럿 과 많음에 직접 관련된 것만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한다는 것은 하나 와 여럿 또는 많음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를 쉽고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는 있으나 본문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 됨과 동시에 그것들 없이는 여럿 과 많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을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나는 약간 느슨해지더라도 차이 와 결여 그리고 대조 와 반대 와 모순에 대해 말하면서 끝으로 하나 와 여럿에 대해 말하는 4장 과 5장으로 이어지는 본문 순서를 그대로 따르려한다

연 이어지는 6 장에서 다시 여럿에 대해 그리고 8 장에서는 헤태론한 것에 대해 주로 말하며 그 사이 7 장에서 또 중간적인 것에 대해 말한 후 다시 9 장에서는 대조에 관련된 것들과 이오타 편 마지막 10 장에서 또 헤태론한 것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 그는 말한다

1593) ἡ ἐναντιώσις(대조)는 τὰ ἐναντία(반대, 1054a25, 254쪽)과도 αἱ ἀντιθέσεις(대립, 1054a23-24, 236쪽)과도 구분된다는 점에 유의하라

터(ἐκ τῆς ἐπαγωγῆς 1055a5) 분명하다 한 편으로 𐄂에 있어 차이나는 것들은 서로에로의 길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서 비교될 수 없는데다 다른 한 편으로 𐄂에 있어 차이나는 것들의 경우 반대들은 생성들이 그것들로부터 일어나는 극단들(ὡς ἐσχάτων a9)이기 때문이다 이 극단들 [사이]의 거리(διάστημα, a9, 距離, 間隔)는 가장 크다 따라서 반대들 [사이]의 그 거리도 (가장 크다) 그러나 실로 각기 𐄂에 있어서 가장 큰(먼) (거리)가 𐄂트머리(τέλειον a11)이다 그 가장 큰 (𐄂트머리)는 초과되지 않으며 그 𐄂트머리 바깥에서는 어떤 것도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끝(τέλος a12)은 𐄂트머리 차이를 지니므로(ἔχει a12) [그렇다] 𐄂트머리 라고 말하여지는 알론한 것들이 그 끝을 지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끝의 바깥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극단은 둘러쌓기(περιέχει a15) 때문이다 이 때문에 끝의 바깥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으며] 𐄂트머리를 어떤 것도 넘어서지 않는다 이제,

이것들로부터 반대임(ἐναντιότης a16)은 𐄂트머리 차이 라는 것이 분명하다 반대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말하므로¹⁵⁹⁴⁾ 𐄂트머리

254쪽에서는 가장 𐄂은 차이(τὰ πλείον διαφέροντα 1018a27)가 반대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여기서는 가장 큰 차이(μεγίστην διαφορά 1055a4)가 대조 또는 반대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차이 와 가장 큰 차이가 어떻게 해태론한지는 아직은 애매모호하지만 어쨌든 구분되어져할 말들인 것 같다 이어지는 1055a9에서는 종적으로 차이나는 것의 극단들의 거리(간격)이 크다 라고 말하여지므로 크다는 멀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ἡ ἐναντίωσις(대조) 와 τὰ ἐναντία(반대) 와 반대임(ἐναντιότης 1055a16)를 해태론한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 스럽다 엔안티오스는 형용사로 엔안티오오시스는 구체명사로 엔안티오테애스는 일반명사로 문법 상 구별되어 쓰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으며 게다가 이 곳에서의 이어지는 설명에서 반대(1055a10)를 가장 큰 차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법상의 품사 구분을 단지 말 뿐인 것으로 여겨야할텐데...도저히 지금의 나로서는 그럴 수 없다...아냐 그래야 할 것 같기도 한데...

1594) 254쪽에서 말하여지는 것들을 참조하시오 거기에서는 반대들이 첫째

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러한 반대들에 속해 있을 것이다¹⁵⁹⁵) 그런데,

이러한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에 반대들이 많게(πλείως a20) 있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극단 보다 더 극단적인 어떤 것이 [있지 않을] 뿐 더러 극단들은 (어떤) 하나의 간격의 두 (극단) 보다 더 많게 극단들은(ἔσχατύτερον 1055a21)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만약 반대임이 차이라면 차이는 두 가지 것에 있어서의 차이이고 따라서 마찬가지로 쾰트머리도 (두 가지 것에 있어서의 쾰트머리이다) 그런데,

반대들의 알론한 정의(ὅρους a23)도 필연적으로 진실이다¹⁵⁹⁶) 쾰트머리 차이는 가장 많이 차이이기 때문이다 류적으로 차이나는 것의 그리고 종적으로 (차이나는 것들의) 보다 바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무 것도 있지 않으므로 [그렇다] 류의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이 [이미] 보여졌기 때문이다 이 (차이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류적으로 차이나는) 것이 가장 (차이가) 크다(μεγίστη a27) 그리고 동일한 류에 있어 가장 많이(πλείστον a28) 차이나는 것들이 반대들이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가장 큰 차이가 쾰트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동일한 것에 있어(ἐν ταύτῳ δεκτικῷ a29)서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들이 반대들이다 반대[되는] 것들

동일한 것에 동시에 현재하지 않는 류적인 차이들 둘째 동일한 것 안에 받아드려지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차이들 셋째 동일한 능력을 지닌 것들 가운데 가장 많은 차이들 넷째 순수하게 류 적으로든 종적으로든 가장 많은 차이들 이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반대들이 4 가지로 말하여지는 셈이다

1595) ‘ ἄν καὶ τὸ ἐναντίους εἶναι ὑπαρχῆν αὐτοῖς a18-19 ’

여러 가지 감각으로 반대들이 불리워지는 것 처럼 ‘ 완전함 (completeness)역시 그러한 반대들에 상응하여 ’ 여러 가지 감각으로 말하여진다 라는 뜻으로 트레드닉(III, 23) 과 로스(840)는 모두 번역한다

1596) 반대가 차이라면 그 차이는 두 가지 것의 차이이며 쾰트머리 차이 역시 두 가지 것의 쾰트머리 차이 라는 것은 반대들의 다른 정의에 있어서도 진실로 그러하다

[의] **결료**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함**(δύναμιν a31)에 의해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것들도 (**반대들**(ἐναντία a30)이다) 그 끝이 가장 큰 차이인 하나 류에 관한 하나 앞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대조**(ἐναντιώσεις a33 반대)가 습성 과 결여이다¹⁵⁹⁷그런데 결여는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에 모든 결여가 아니라 실로(ἥτις 1055a35) 끝인 어떤 (결여)이다 그리고 알론한 반대들은 이것들¹⁵⁹⁸에 따라서¹⁵⁹⁹ 반드시 말하여진다 한 편으로 그것들을 지냄으로 다른 한 편으로 그것들을 생산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생산하는 (기교 ποιητικά a36)이므로 다른 한 편으로 이것들 또는 알론한 반대들을 얻거나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대라고 말하여진다) 실로,

만약 한 편으로 모순 과 결여 와 반대임 과 프로스 티로 대립된다면 다른 한 편으로 이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모순**(ἀντιφασίαι v1600) 1055b1)이며 모순은(ἀντιφάσεως b2) 사이에 아무 것도 있지 않

1597) 습성 과 결여(ἔστις καὶ ἑρπεύς 1055a31)에 대해서는 241-248쪽도 참조하라 그런데,

프로스 티(관계)로도 **반대**로(ὡς τὰ ἐναντία 범주들12b26)도 **결여** 와 습성은 **대립**되지 않는다 라고 거기 241 쪽에서 말하여지는 반면 여기에서는 첫 번째 **대조**(ἐναντιώσεις a33 반대)가 습성 과 결여이다 라고 말하여진다는 점에 유의하라 더불어,

여기 **헥시스**(습성)을 **트레드닉**(3권 25쪽) 과 **로스**(842쪽)는 모두 ‘ 긍정적인 상태 (positive state) ’로 옮기는 반면에 거기 **헥시스**(습성)을 J. L. Ackrill(34쪽)은 소유(possession)로 옮기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라 거기서 ‘ 하나의 질(앞, 덕-정의 절제) ’ 이다 라고 말하면서 **텔레스**는 **헥시스**를 ‘ 자연스레 속하여지는 것(봄, 이빨) ’ 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헥시스**는 ‘ 지님 또는 지녀짐의 에네르게이아 ’이며 ‘ 경향(διάθεσις 형이상학1022b10)에 비해 둔하게 움직이며 더 지속적이고 잘 변화하지 않는다 ’ 따라서 245쪽에서 내가 지적한 것 처럼 **헥시스**를 天性 과 本性(퀴시스)에 대조되는 그러면서도 傾向과는 구분되는 習性(habit)이라고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1598) 첫 번째 반대인 대조 로서의 습성 과 결여 ?

1599) 여기에 나오는 따라서(κατὰ 1055a35)를 813쪽에 나오는 따라서(1030b13)와 비교해 보라

는 반면 반대들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면 동일한 것이 모순 과 반대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결여는 모순인 어떤 것이다 전체적으로든 어떻게든 결여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닐 수 없다는 것이거나 자연적으로 지녀야할 것을 지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알론한 곳에서 우리에게 나눠진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로 말했다¹⁶⁰¹)따라서 결여는 모순인 어떤 것이며 또는 받아드리는 것에(τῷ δεκτικῷ b8)규정되어지거나 취하여지지 않는 뒤나뒤스(ἀδυναμία b8)이다 이 때문에 한 편으로 모순 사이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아니하며 다른 한 편으로 결여는 (모순인)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똑 같거나 ‘똑 같지 않다’¹⁶⁰²) [거나] 모든 것이 똑 같지 (않거¹⁰⁶²)나 ‘非 똑같지’ 않은¹⁶⁰²) 것이 아니라 말하여진 것 처럼 단지 똑 같음의[을] 받아드리는 것에 있어서만(ἐν τῷ δεκτικῷ 1055b11) (똑 같거나 ‘똑 같지 않고’ 똑 같지 않거나 ‘非 똑같지’ 않다)실로,

만약 질료에서의(τῆ ὕλη b11)생성¹⁶⁰³)들이 반대들로부터 [일어나서] 에이도스 와 에이도스의 습성(ἔξωτος, b13, 획득 또는 소유 또는 얻음)으로부터 또는 에이도스 와 모르페에의[를] 결여[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되어진다면 한 편으로 모든 대조(ἐναντιώσις b14)인 것은 결여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모든 반대임(ἐναντιότης b15)이 똑 같이 결여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 원인은 결여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결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들¹⁶⁰⁴)은 극단들 [곧] 그 반대들로부터 [일어나]므로 [그렇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귀납을 통해서 선명해진다

1600) 모순에 대해서는 241-242, 253, 625, 863, 926, 961, 992, 997쪽을 참조하십시오

1601) 241-248쪽을 참조하십시오

1602) 앞의 οὐκ(아니, 1055b10)는 똑 같음에 걸리는 반면 중간의 아니 와 뒤의 οὐκ(아니, 1055b10)는 모든 것에 걸리는 것에 유의하라 그리고,

똑 같음은 량에 고유하다는 990쪽도 참조하십시오

1603) 921쪽에 나오는 생성을 참조한 후에 334-367쪽에서 말하여지는 생성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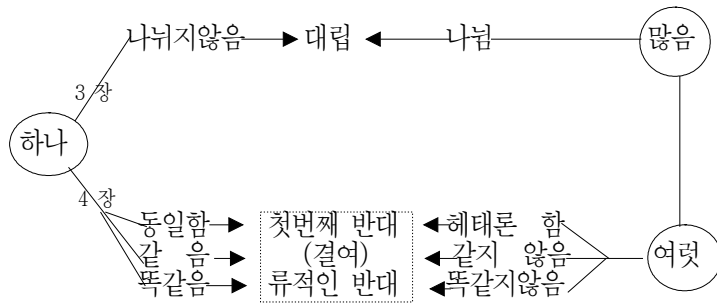
1604) 변화 그 자체에 대해 말하는 921쪽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대조는 헤태론한 **반대**(τῶν ἐναντίων b18)를 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똑 같은[길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똑 같지 않음은 똑 같음(을 결여하는) 반면 같지 않음은 같음(을 결여하며) 나쁨(κακία, b20, 惡)은 덕(ἀρετή b20)(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말해졌던 것 처럼 차이난다 [어떤 것은] 단지 결여되기만 하는 반면 [어떤 것은] 어떤 때에 (결여하거나) 또는 어떤 [부분]을 (결여하기) 예를들어 살아있는 때에 또는 주로 (어떤 [부분]을) 또는 모든 [부분]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떤 결여에는] 그 (결여)들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는 - 사람은 선(ἀγαθός b23)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 반면에 [어떤 결여에는] 있지 않다 - 그러나 반드시 홀 또는 짝이다 - 나아가서, [어떤 결여는] 규정된 기체(τὸ ὑποκειμενον¹⁶⁰⁵) b24)를 지니는 반면에 [어떤 결여는]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반대들의 헤태론은 결여에 따라서 항상 말하여진다는 것은 선명하다 그런데 반대들 가운데 첫 번째 것 곧(καὶ 1055b27) 류[적인 반대]일 경우에 예를들어 하나 와 여럿의 경우에 충분히 [반대들의 헤태론이 결여에 따라서 말하여진다] 알론한 것들은 그것들로 환원되기(ἀν ἄγεται b29) 때문이다 (1055a3-1055b29) ”

하나 와 많음(τὸ πλῆθος 1054a21)은 나뉘지 않는 것 과 나뉘어지는 것 으로서 서로에 **대립**된다 라고 말하는 3 장(982-993)에 이어지는 위 4 장에서는 하나 와 여럿(τὸ πολλά 1055b28)은 첫 번째 **반대** 곧 류[적인 반대]라고 말하여지면서 바로 이 첫 번째 반대에서 비로소 반대들의 **헤태론**이 **결여**에 따라서 충분히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에 따르면 똑 같지 않음은 똑 같음의 결여이며 같지 않음은 같음의 결여 라고 말하여진다 아울러 986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동일한 것 과 같은 것 과 똑 같은 것은 하나인 반면 헤태론한 것 과 같지 않는 것 과 똑 같지 않은 것은 많음이다 이러한 것을 다음 처럼 그려 낼 수 있을 것이다

1605) 920쪽에 나오는 기체를 참조하라 그리고 162-175, 166, 295, 853, 917, 947-948, 959, 973쪽도 참조하라



이어지는 5 장은 하나 와 여럿이 어떻게 대립될 것인가 라고 묻는다

“ (5) 하나는 하나에(ἐνι 1055b30) 반대이므로(1606) 하나 와 여럿은 어떻게 대립될 것이며 똑 같은 것은 큰 것 과 작은 것에 (어떻게 대립될 것인가) 라는 어려움(1607)이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들은 항상 **반 정립**(ἀντιθέσει(1608) b32)에 있어서 둘 가운데 어느 것 (τὸ πότερον b33)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힘 또는 검음 가운데 어느 것 그리고 힘 또는 회지않음 가운데 어느 것에서 처럼 말이다 그런데,

1606) 참고로 로스(843쪽) 와 트레드닉(3권27쪽) ‘ 하나인 것은 반대 하나를 지니므로 ’ 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본문은 ‘ 어떤 것 하나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 하나이므로 하나 와 여럿은 서로에 어떻게 대립하며 똑 같은 것은 큰 것 과 작은 것 곧 똑 같지 않는 것에 어떻게 대립하는가 라는 어려운 물음이 생겨날 것이다 ’ 라는 것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1607) 이 어려움은 6장을 열어 채기는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이다 1003쪽의 6장을 참조하시오

1608) 기체 아닌 것들에는 반대도 모순도 있지 않으므로 거기에는 반 정립이(형이상학 1067b21)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체 아닌 것에서 기체 아닌 것으로의 변화는 없다 라고 말하여지는 918쪽을 참조하시오 따라서,

어떤 것이 반 정립해 있으려면 그것들들은 반드시 반대 또는 모순이 어야할 것이다

우리들은 사람 또는 힘 가운데 어느 것 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클레온 또는 소오크라테에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왔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ὑποθέσεις b35)으로부터 조사하지 않는 한 말이
 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류적인 어떤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 (대립의) 확장이다 대립들만이 동시에 속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둘 가운데 어느 누가 왔느냐 라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양립 불 가능성의] 추측이 이루어진다 만약 동시에 왔을 수 있다면
 그 물음은 웃기는 것(γελοῖον 1056a1)이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게 (동
 시에 왔을 수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이 반 정립이 성립된다 예를들
 어 양자 또는 헤태론한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왔느냐와 같은 *하나 와
 여럿*의 반 정립이 성립된다) 실로,

둘 가운데 어느 것이냐는 조사(ἡ ζήτησις, a4, 調査, 물음)가 항
 상 대립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둘 가운데 어느 것(πότερον 1056a4)
 은 크거나 적거나 똑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반 정립**은 동일한 것에
 대한 똑 같은 것의 무엇(τις a5)?이다 단지 헤태론한 [어느 하나]만도
 [그 헤태론한] 양자[모두]도 반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 a7)은
 적은 것(에 대한) 것 만큼이나 오히려 큰 것에 (대한) 것이므로 [그렇
 다] 나아가서 똑 같은 것은 똑 같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이다 따라
 서 하나에 (대한) 것 보다는 많음에 (대한) 것일 것이다¹⁶⁰⁹)그런데,

만약 똑 같지 않음이 (큼 과 적음) 양자를 동시에 가리킨다면
 [똑 같음은 그] 양자에 대립일 것이다 이 어려움은 똑 같지 않음은 두
 겹(δύαδα¹⁶¹⁰) a10)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조한다 그러나 하나는
 둘에(δύοιν a11)반대라는 것이 잇 따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불 가
 능하다 나아가서 큼 과 작음 사이의 똑 같음은 선명한 반면 (큼 과
 작음) 사이의 **대조**(ἐναντιώσις a11-12)는 선명하지 않다 정의로부터도
 (선명할) 수 없다 *κτ머리*¹⁶¹¹)는 어느 것이든 어떠한 것의 사이가 아

1609) 똑 같지 않음은 여럿이라는 999쪽의 그림을 살펴보라

1610) 두 겹에 대해서는 395, 944쪽을 참조하시오 이 두 쪽에서도 말하여진
 것 처럼 똑 같지 않은 두 겹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텔레스가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테아론 자들에게) 목숨을 내 놓고 반대하는 자가
 텔레스이기 때문이다

1611) τελεια(*κτ머리* 1056a14)에 대해서는 995-996쪽을 참조하시오

나라 오히려 항상 자기자신의 사이에 어떤 것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정으로서 또는 결여로서 대립된다는 것이 남는다 이제 (둘 중의 어떤) 헤태론한 것의 [대립]일 수는 없다 적음 만큼이나 오히려 큼의 무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에 결여적인 부정이다 이 때문에 둘 가운데 어느 것은 양자에 대해 말하여진다 [그 양자의] 헤태론한 것에 대해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큼 또는 똑 같음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라고도 똑 같음 또는 적음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셋이 있다

결여는 필연적으로 아니다 크거나 적지 않는 모든 똑 같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저 (크거나 적지 않는 똑 같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똑 같음은 큼도 적음도 아닌 것이다 [결여인 것으로 보면] 똑 같음 자연스레 큼 또는 적음이다 그리고,

결여적인 부정으로서의(ως ἀπόφασις στερητική 1056a23-24) 양자에 대립된다 이 때문에 [그것들의] 사이에 [어떤 것이] 있다 마찬가지로 선도 악도 아닌 것이 곧 非호모오우모스한 것 양자에 대립된다 [이것들] 각각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며 [이 양자를] 받아드리는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도 검음도 아닌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여적으로 부정이라고 말하여지는 색들이 어떻게든 규정된 것들이다 반드시 회색 또는 노랑 또는 알론한 이러한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들을 같은 것으로 말하여 신발도 손도 아닌 것은 신발과 손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비판에 있어 그르다 선도 악도 아닌 것은 선 과 악의 사이에 있으므로 마치 모든 것들의 경우에 어떤 것의 사이에 (있을) 것 처럼 [말하는 자들은 그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잇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한 편으로 자신들의 사이에 어떤 것이 있으며 자연스런 간격이 있는 대립들의 부정적인 연결(συν ἀπόδοσις a35-36)이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차이가 있지 않는 (대립)들의 (부정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의 부정적인 연결은 따라서 그 기체¹⁶¹²⁾가 하나가 아닌 알론한 류이므로 [그렇다] (1055b30 - 1056b2) ”

1612) 1000쪽의 각주 1067번을 참조하시오

라는 5

장에서는 하나가 어떻게 여럿에 대립되는가에 대해 말하여지는데 모든 하나와 여럿이 문제 삼아지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은 하나와 똑 같지 않는 여럿이 문제 삼아진다 그래서 텔레스는 똑 같은 (것)이 큰 (것)과 작은 (것)에 어떻게 대립되는가 라고 묻는다¹⁶¹³⁾ 그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크고 적음 이라는 두 겹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음은 똑 같지 않음 곧 큼과 적음에 양자의 결여적인 부정으로서 대립된다

이러한 5 장에 이어지는 6 장은 여럿이 순수하게 하나에 대립된다면 불가능한 것이 잇 따른다 라는 어려움을 제기하면서 열려진다

“ (6) 이와 같이 하나와 여럿에 관한 어떤 어려움¹⁶¹⁴⁾이 생겨날 것이다 여럿이 하나에 순수하게(ἀπλώς 1056b4) 대립된다면 불가능한 [어떤] 하나가 잇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가 몇몇*(중성 ὀλίγον b5) 또는 *몇몇들*(중성 ὀλίγα b5)일 것이므로 [그렇다] *여럿은* 마찬가지로 몇몇들에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둘*(δύο b6)은 여럿일 것이다 두 배(διπλασίον b7)는 여러 배이며 마찬가지로 둘은 두 배라고도 말하여지므로 [그렇다]¹⁶¹⁵⁾ 따라서 하나는 몇몇일 것이다 하나

1613) 반 정립된 ‘둘 가운데 어느 것’ 예를들어 흰과 검은 가운데 어느 것인가 라고 물어지면 반 정립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하나와 여럿은 반 정립된 것이다 그래서 똑 같음 (하나)이 똑 같지 않음 (여럿 또는 큼과적음)에 어떻게 대립되는가 라고 묻는다

1614) 이 어려움은 5장을 열어 재끼는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이다 1000쪽의 5 장을 참조하십시오

1615) 두 배는 둘로부터 파생된다(트레드닉 3권 33쪽) 그리고 두 배는 자신의 뜻을 둘로부터 파생시킨다(로스 844) 라고 번역되기도 하나 본문 그대로 직역하여 둘은 두 배라고도(καὶ 1056b7) 말하여진다 라고 옮기는 것이 더

와 몇몇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여럿 [과] 둘은 무엇에 대한¹⁶¹⁶ [것] 이겠는가 라는 [물음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와 몇몇) 보다 적음(ἐλαττον 1056b10)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길이 로서의 길음 과 짧음이 (있)듯이 **많음**(πλήθει b11)에 있어서는 [량]많음 과 몇몇이 있다 그리고 [량]**많은**(πολύ b11)은 무엇이 든 마찬가지로 **여럿**(πολλά b11)일 것이고 여럿은 무엇이든 마찬가지로 [량]많은일 것이다 만약 **몇몇**이 잘 형성되는(εὐορισῶ b13) 연속체에 있어서 차이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 **많은**인 것일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많은일 것이며 마찬가지로 몇몇일 것이다 둘이 **여럿**이라면 이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여럿은 똑 같이 어떻게든 [량] 많은이라고도 말하여지긴 하지만 예를들어 물 [량] 많은이지 물 여럿이 아닌 것 처럼 ([량] 많음과) 차이난다 그러나 이(여럿)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나뉘어지는 것들¹⁶¹⁷이 말하여진다 한 편으로 (여럿은) 어느 한 길에서는 순수하게든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든(프로스 티, 관계) 초과되는(ὑπεροχῆν b17-18) 많은이라고 그리고 **몇몇**은 이와 같이 모자라는(ἐλλειψιν b19) **많은**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여럿은) 단지 **하나**에만 대립되는 수 로서 말하여진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 또는 여럿을 말하기 때문이다 바로 마치 [중성]하나(ἓν b21) 와 [남성] 하나(ἓνα¹⁶¹⁸) b21) 또

나을 성 싶다

1616) πρὸς τι(1056b8, 關係) 라고 본문에는 나와있다 그러나 흔히 옮겨지곤하는 관계로 옮겨지 않고 나는 그 말을 직역해서 무엇에 대함이라고 옮겼다 관계라는 말은 한문이기도 하거니와 추상명사화해서 있는 그 관계를 실체 보다 먼저인 것으로 간주하기 싫어서였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있는대로 관계라는 말 보다는 ‘프로스 티’ 또는 ‘무엇 혹은 어떤 것에 대함’이라는 말을 썼다

어떤 것에 대함(πρὸς τι 범주들6b6)에 대해서는 187쪽 각주 165번을 참조하십시오

1617) 982쪽의 나뉘어지는 것을 참조하라

1618) 그 당시 헬라어 하나(ἓν)에는 복수가 없으며 문제의 그 ἓνα(하나)는 남성 단수 4격이므로 로스(844) 와 트레드닉(3권33쪽) 처럼 하나들(ones)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런지.....그러나 앞 뒤 맥락으로 보아서는 하나들이

는 흰 것 과 흰 것들이라고 그리고 척도(τὸ μέτρον b22) 와 척도적인 것(τὸ μεριτόν b22)에 대해 척도지워진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 이렇게 여러 배도 말하여진다 여럿은 수 각각이기 때문이다 [남성] 하나들로부터 [이루어지]며 하나에 의해서 (수) 각각은 척도적인 것이므로 그리고 하나에 대립된 것이지 몇몇에 대립된 것이 아니므로 [그렇다] 이제,

이렇게 [보면] 심지어 둘 조차 여럿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순수하게든 초과되는 *많음* 으로서의 [여럿]이 아니라 첫 번째 (많음 으로서의) [여럿]이다 반면에 순수하게는 둘은 *몇몇*이다 모자라는 *많음* 으로서의 첫 번째 것(몇몇)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낙사고라스가 같은¹⁶¹⁹ 모든 것(χρήματα b29)들은 *많음* 과 *작음*에 있어서 무한하다 라고 말하고 말아 버렸기에 올바르지 못하다 ‘과 작음에(καὶ μικρότητι b30)’ 대신에 ‘과 몇몇에’라고 말했어야했다¹⁶²⁰ 무한하지 않기

라고 해도 어쩐지 통할 것 같기는 하다 연 이어져서 ‘λευκὸν(흰) καὶ(과) λευκά(흰들)’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엔텔레케이아 와 에네르케이와 같이 자신 만의 말을 만들어 쓰기도 하기 때문에 텔레스는 자신 만의 하나의 복수형을 만들어 썼을 수도 있으리라 모나드(μονάς, ἄδος : μόνος의 특수한 여성형) 역시 이러한 류의 말이 아닐까 모나드에 대해서는 430, 931쪽을 참조하십시오

1619) “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에관해 적절히 지적한 것 처럼 스페르마타(씨들)은 호모이오메레에(ὁμοιομερή, 같은 것들)이다 데모크리토스에게는 무한히 많은 질적으로 같은 원자들이 주어지나 아낙사고라스에게는 질적으로 다른 무한히 많은 호모이오메레애가 주어진다 왜냐하면 있게 될 사물들의 본질 역시 질적으로 무한하게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런 호모이오메레애는 영원하며 파괴될 수 없는 것이며 변화될 수 없다 하나의 규정된 질의 형식이 우세함으로서 한 사물은 자신의 고유한 특색을 지니게 된다 ” 라고 요하네스 휘르쉬베르거는 자신의 철학사 1권 41쪽 (노트 1 권 밀레토스 22쪽)에서 말한다

1620) 그리고 텔레스는 이러한 맥락에서 작음(μικρότητι 1056b30)대신에 적음(ἔλαττον 1056a7,.....b10)을 말하는 것 같다 작음 과 적음을 어떻게 구분해야할지 망설여지긴해도 말이다 크기를 말할 때 작음을 말하며 수효를 말할 때 적음을 말하곤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극히 피상적일 것 같다 물론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 처럼 *뜻뜻은 하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둘을 통해서 [있으]므로 [그렇다] 실로,

하나 와 여럿은 수에 있어서 대립된다 척도가 척도적인 것에
(대립되듯이) [말이다] 이것들은 어떤 것에 대한 것들인데 그 자체로
자신에 대한 것들은 아니다(μη καθ' αὐτὰ τῶν πρὸς τι¹⁶²¹) b34) 한
편으로 반대 로서 다른 한 편으로 알려지는것에 대한 *앎* 으로서 프로
스 티(어떤 것에 대한)은 두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알론한* 곳에
서¹⁶²²)우리에게 나뉘어졌다 [여기서] *알론한* 어떤 것이 동일한 것에

거꾸로도 마찬가지로 보다 더 나은 것을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해야 할 것
이다

1621) 이러한 그의 말로 보아 스스로에 대해 있는 것(자기 관계) 과 *알론한*
어떤 것에 대해 있는 것(타자 관계)로 어떤 것에 대해 있는 것을 그는 *나누*
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 여기서,

나는 헤에겔의 논리학 *랏손* 판 1권 125쪽에 나오는 ‘ mit sich selbst
zusammenhang(자기 자신과의 관계) ’를 생각해 본다 헤에겔에 따르면 유한
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함 으로서 무한한 것
으로 이행한다는데....물론 이 무한한 것은 저 他者(jenes Andere 125)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아 이 자기 자신은 절대 이성 그 자신이다 그 자신이 스
스로와 관계함 으로서 다시 말해 자기 부정함 으로서 저 타자 곧 자연이 생
성된다면 저 타자가 바로 *헤태론한* 것이다 105쪽에서 헤에겔 자신 말로 헬
라이어 ἕτερον을 타자 로서 말한다 물론 헤에겔은 거기서 플라톤을 직시하고
있긴해도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플라톤이든 텔레스이든 *헤태론*을 헤에겔 처럼 말
한 것이 아니다 움직이는 것은 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있기 위한 계
기일 뿐이다

1622) 형이상학 델타 편 1021a26-30을 가리킨다고 로스는 말한다 195쪽을
보라 거기에서 나는 문제의 이 부분을 두 번째 요약에서 자세히 말할 것이
라고 했으나 두 번째 요약하는 지금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

대해 말하여진다 그런데,

*하나*는 어떤 것 보다 예를들어 둘 보다 적다(ἐλαττον 1057a1)라는 것을 막을 어떤 것도 있지 않다 *적다면* 마찬가지로 *뿔뿔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많음*은 수의 예를들어 튜이다 수¹⁶²³⁾는 하나에 의해 척도지워지는 많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와 수는 대립된다 반대로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여진 것 처럼 그 [양자 중] 어느 하나에 대해(프로스 티) 으로서 대립된다 척도 [와] 척도적인 것은 동일한 것에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든 하나가 수는 아니다 만약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수가 아니다)¹⁶²⁴⁾ 그런데 알려지는 것에 대한 *얇*이 이와 같다고 우리들이 말했지만 [실은] 그와 같이 *얇음*이 판명난다 *얇은* 척도일 것으로 여겨지며 알려지는 것은 척도지워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얇은*(ἡ ἐπιτριμν 1057a10) 알려지는 모든 것이나 알려지는 것이(τὸ ἐπιτριμν¹⁶²⁵⁾ a11) 모든 *얇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길에서 보면 *얇은* 알려지는 것에 의해서 척도지워지므로 [그렇다]

*많음*은 몇몇에 **반대**되는 것도 아니며 - [량] *많음*이 이(몇몇)에 (반대된다) 초과적인 *많음*이 초과되어진 *많음*에 (대립되는 것) 으로서 [말이다] - (*많음*은) 모든 것[감각]에서 *하나*에 (**반대**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말하여진 것 처럼 [양자 중의 하나]는 나뉘어지는 것이며 [양자 중의 다른 하나]는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

가련다 아마 적절한 때에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프로스 티 로서의 *얇*에 대해 말하여지는 187쪽을 참조하라

1623) 수에 대해서는 216쪽 과 498쪽을 참조하십시오

1624) 431쪽 과 900쪽에 나온 것 처럼 *하나*는 여러 가지로 말하며 430쪽에 나온 것 처럼 *량적인 하나* 와 *종적인 하나*는 결코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뉘어지는 하나도 있다는 말인가 여러 가지로 대립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뉘어지지 않는 것 으로서의 *하나*가 나뉘어지는 것 으로서의 여럿에 대립된다 라고 982쪽에 나온 것으로 보아서 *하나*란 나뉘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625) 193쪽에서의 설명도 참조하라

면 대립되는]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것에 대함
으로서 [반대되는] 것이다 **앞**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있는 것 처럼 말
이다 [많은] 수이며 하나가 척도일 [경우에 그렇다] (1056b3 -
1057a17) ”

라는 6장에서는 하나 와 여럿이 순수하게(ἀπλώς 1056b4)
대립된다 라고 말하여질 경우 잇 따르게 될 불 가능한 것들이 말 하여진 후
하나 와 많은은 모든 [감각에서](πάντως 1057a15)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나
뉘어지지 않는 것 과 나뉘어지는 것 으로서 그리고 **앞** 과 알려지는 것 처럼
서로에 대해 있는 것 으로서 [대립 또는] 반대된다는 것이 끝으로 말하여진
다 이제,

이어지는 7 장에서는 반대들의 사이에 관해 주로 말하여진다¹⁶²⁶⁾

“ (7) **반대**들의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
에는(έντιον 1057a19) 있으므로 그 **사이**(τὰ μεταξὺ¹⁶²⁷⁾, a19, 中間)은
반드시 반대들로부터 있어야만 한다 모든 사이는 그것들의 사이인
[바로] 그것들과 동일한 류¹⁶²⁸⁾로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것들이 반
드시 먼저 그것들로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이[에 있는 것]들이라
고 말하므로 [그렇다] 예를들어 맨 윗 줄로부터 가장 아래 줄 까지 만
약 가장 작은 간격에 의해서 지나간다면 우리는 먼저 사이 음들로
닥아서며 색들에 있어서 흰으로부터 검은으로 닥아선다면 먼저 검은
보다는 진홍색 과 회색에 닥아서야한다 알론한 경우들도 이와 같다
그런데 알론한 류로부터 알론한 류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연히는 [그렇게 변화한다¹⁶²⁹⁾] 예를들어 색으로부터 도형(σχῆμα

1626) 반대들에(έναντιον 1057a18) 대해서는 252-275쪽을 참조하시오

1627) 중간 또는 사이에 대해서는 241-242 와 863-864쪽을 참조하시오

1628) 926쪽에 나오는 동일한 류와 비교해 보라

1629) 이미 921쪽에 그려진 것 처럼 형이상학 또는 범주들에서 텔레스는
우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주로 말하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연적인 변화는
921쪽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로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1057b31

a28)으로의 [변화처럼 말이다] 따라서 사이들은 자신들과 그것들의 사이인 것들과 반드시 동일한 류로 있다 그러나,

모든 사이는 **대립**되는 것들의 (사이)이다 단지 이 (대립되는) 것들로부터만 그 자체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립되지 않는 것들의 사이는 있을 수 없다 [있다면] 대립되는 것들로부터가 아닌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순**적인¹⁶³⁰⁾ 대립들의 사이는 있지 않다 이것이 모순이기 [곧] 어떤 (부분)이든 **혜태론**한 부분이 함께 주어지는(παρεστυν 1057a35)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는 반 정립(ἀντιθεσις¹⁶³¹⁾ a35)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것(대립)들의 프로스 티 와 결여 와 반대가 있다 그런데 무엇이든 반대들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함(프로스 티)는 사이[에 어떤 것]을 지니지 않는다 동일한 류로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원인이다 **알과** 알려지는 것의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라는 물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큼 과 적음**의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다

보여졌던 것 처럼 만약 사이들이 동일한 류로 있고 반대들의 사이라면 그 (사이)들은 이러한 반대들과 반드시 함께 놓여진다(συγκεισθα 1057b3) 그것들의 류인 것이 있거나 또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류가 이렇게 있다면 따라서 반대들의 어떤 (류)가 먼저 있다면 류의 **중적**인(εἶδη ὡς γένους¹⁶³²⁾ b7)반대들을 이루는 (ποιησασθαι b6) 차이들이 **먼저**인 반대들일 것이다¹⁶³³⁾ 에이도스(중)은

과 1067b7(921)에서는 그 자체 변화만이 말하여진다

1630) 916-917쪽에 나오는 모순에 따른 생성 과 소멸을 참조하라 거기에 따르면 생성 과 소멸 로서의 변화는 움직임이 아니다 움직임인 것 으로서의 변화는 단지 반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921쪽 참조하라

1631) 1000쪽 각주 1608번을 참조하십시오

1632) 반대들을 이루는 차이가 바로 류의 중(에이도스)이라는 것은 448쪽에 서도 확인된다 차이에 대해서는 258, 411, **448**, 924, **993**쪽을 참조하라

1633) 그러한 차이가 **優先**적인 반대들이라는 말일까 아니면 반대들 보다 먼저있다 라는 말일까

트레드닉은 3권 39쪽에서 그러한 차이는 우선적인 반대라고 번역하는

류 와 차이들부터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흰 과 검음이 반대들이라면 그리고 한 편으로 투명한(διακριτικὸν 1057b18-9) 색이고 다른 한 편으로 압축적인(συγκριτικὸν b9)색이라면 그 차이들 투명 과 압축이 먼저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먼저**인 반대들이다 그러나 실로 반대 차이들이 보다 더 반대들이며 나머지 (반대)들 곧(καὶ b12) 사이에 있는]들은 류 와 차이들로부터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무엇이든지 색 들은 흰 과 검음의 사이에 있다 이 (색)들은 반드시 류 - 류는 색이다 - 와 어떤 차이들로부터 말하여진다 그러나 이 (차이)들은 첫 번째 반대들이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각기 (색)은 흰 또는 검음일 것이다 따라서 **헤테론**하다 따라서 그러한 색들은 첫 번째 반대들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차이들은 투명 과 압축이다 그래서,

류적으로 반대가 아닌 [모든] 것들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그것들의 사이들이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조사된다 동일한 류로 [있는] 것들은 반드시 그 류를 이루지 않는 것들로(ἐκ τῶν ἀσυνθέτων τῷ γένει b21) 이루어지거나 (그 류를) 이루지 않는 것들이어야하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이제 **반대**들은 서로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들은) 아르케에¹⁶³⁴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사이**들은 모든 (서로로 이루어지거나)나 어떤 (서로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들로부터 어떤 것(τι b24) 생성된다 따라서 그 반대로 있기 전에 이

반면 로스는 846쪽에서 그러한 차이는 종 보다 먼저인 반대라고 번역한다 이 두 사람의 번역은 서로 비슷하다 비록 로스는 ‘종 보다’ 라는 말을 덧붙혔긴 했어도 말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차이는 반대들 보다 먼저일 것이다 라고는 옮길 수 없을까 본문은 ‘ αἱ διαφοαὶ προτέραὶ ἐναντία ἔσονται ’ 라고 나와있다 직역하자면 ‘ 차이들은 보다 먼저인 반대들일 것이다 ’ 라고 옮겨질 것이다 더 직역하자면 ‘ 차이들은 보다 먼저 반대들일 것이다 ’ 라고 옮겨질 것이다 이것을 ‘ 차이들은 반대들 보다 먼저일 것이다 ’ 라고 보다 먼저 와 반대들의 순서를 바꾸어버리면 안될까 어짜피 헬라어 와 우리말의 어순은 주로 거꾸로되었지 않은가 물론 문제의 문장의 어순은 우리말의 어순과 같긴하다 어쨌든,

트레드닉 과 로스의 번역이 더 나은 듯하다 그리고 263-269쪽에서 말하여지는 먼저를 읽어보라

1634) 아르케들에 대해서는 513쪽을 보시오

어떤 것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어떤 것은) 각기 것 보다 덜하며 더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어떤)것이 반대들의 사이일 것이다 따라서 알론한 모든 사이들은 [이 반대들로] 이루어진 것들(σύνθετα 1635), b27, 습해진 것들)이다 한 편으로(μὲν b27) 더하게 다른 한 편으로(ἄλλοις b27)덜하게 합해진 것은 한 편으로 더 다른 한 편으로 덜 있다(εἶναι b28)라고 말하여지는 저 (반대)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먼저인 것은 반대들의 같은 류(ὁμογενή b29)와 헤테론한 것이 아니므로 모든 사이들은 반대들로부터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위(κάτω, b31, 下位)의 모든 반대들 과 사이[에 있는 것]들은 첫 번째 반대들로부터 있을 것이다 사이들은 동일한 류 안에 (있으며) 반대들의 사이는 모두 각기 그 반대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1057a17 - 1057b34) ”

라는 7 장에서는 반대들(흰 과 검음)의 사이 [에 있는 것]들은 반대들과 동일한 류[에 속하는 것들] 로서 그 류(색)의 중 - 중(에이도스)은 류 와 차이들로부터 있다 - 적인 반대들이며 이러한 반대들은 차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사이들(진홍색 과 회색)은 류(색) 와 (첫 번째)차이들(투명 과 압축)로부터 있는데 반대들의 어느 한 쪽이 더 다른 한 쪽이 덜 합쳐진 것들로 있으므로 모든 사이들은 반대들로부터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모든 반대들이 헤테론(ἕτερον 1057b17)한 것들이다 그리고,

1635) 반대들로 합(습)해진 것들이다 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 반대의 짝 - 반대의 짝을 189쪽에 나오는 관계의 짝과 비교해 보라 -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 보다 덜하며서 다른 하나가 어느 하나 보다 더하다면 량적으로 그러할까 질적으로 그러할까 아니면 모든 각기 범주들에 따라서 그러할까....

트레드닉은 3권 41쪽에서 정도(degree)에 있어 그러하다고 말하는 반면 로스는 847쪽에서 질(quality)에 있어 그러하다고 말한다 트레드닉 쪽이 더 나올 성 있으나 두 사람 모두에 결코 나는 기울어 질 수 없다

999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헤태론한 것들이 동일한 *하나*에 류적으로 반대되는 *여럿*이다 그렇다면 이오타 편 7 장은 동일한 하나에 류적으로 반대되는 헤태론한 여럿에 대해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

8장에서는 이러한 헤태론함이 말하여진다

“ (8)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은 어떤 것의(τινός 1057b35) 헤태론한 것이며 이(어떤) 것은 반드시 [헤태론한 것] 양자에 속한다 예를들어 만약 종적으로 헤태론한 생물이라면 생물은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들] 양자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종적으로(τῷ εἴδει¹⁶³⁶) 1057b37) 헤태론한 것들은 반드시 동일한 류 안에 있어야한다 (헤태론한) 양자에 [속하는] 동일한 하나 라고 말하여지며 질료로서 있든 알론한 것으로서 있든 *非* 우연적으로 차이나는 그러한 것이 매끈하게(καλῶ b38) 류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생물이 [헤태론한] 양자[에 공통으로 속하는 것]처럼 공통인 것이(τὸ κοινόν 1058a2) [헤태론한 것 양자에] 반드시 속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 단지 아니라 마찬가지로 바로 그 생물이 각기 [그 양자에]의해 헤태론하기 때문이다¹⁶³⁷) 예를들어 한 편으로 말 다른 한 편으로 사람 처럼[말이다] 이 때문에 공통인 것이 종적으로 서로 헤태론하다 실로 그 자체로 한 편으로 그러한¹⁶³⁸) 생물

1636) 392쪽의 각주 454쪽을 참조하십시오

1637) 로스(847) 와 트레드닉(3권 43쪽)은 ‘ , ἀλλὰ καὶ ἕτερον ἑκατέρῳ τοῦ το αὐτὸ τὸ ζῷον, 1058a3) ’ 각자의 바로 이 동물성이 반드시 차이내기 (different) 때문이다 ’ 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ἑκατέρῳ의 3격을 of(트레드닉) 또는 for(로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by로 간주해 ‘ 동일한 생물이 각기 [말 과 사람에] 의해(3격)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 로 번역하는 것이 어떨까 1638) 그러한 (τοιονδι 1058a5) 것에 대해서는 965-971쪽을 살펴보라 거기에서 그러한 것은 공통적인 것 또는 보편자를 가리킨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뒤의 그러한을 저러한으로 나는 옮겨 보았다 그러 그러한 생물일 것이다로 옮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앞 뒤 그러한 것은 서로 헤태론한 것이라는 점을 도드라지게하기 위해 앞은 그러한으로 뒤는 저

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저러한 생물일 것이다 예를들어 한 편으로 말 다른 한 편으로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반드시 류의 헤태론합들(ἑτερότητα b7)이다 이 (류) 자체를 헤태론하게 만드는 헤태론합들을 나는 류의 차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헤태론합)이 *대조*(ἐναντιώσις, b8, 對照 또는 反對¹⁶³⁹)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귀납으로부터 분명해진다 모든 것들은 *대립*들로 나뉘어지기 때문이며 *반대*들은 동일한 류라는 것은 보여졌기 때문이다 *반대*임은 *끄트머리* 차이이므로 [그렇다] 종적인 모든 차이는 어떤 것의 어떤 (차이)이다 따라서,

이 (어떤) 것은 양자에 동일한 것 곧(καὶ 1058a13) 류이다 때문에 종적인 차이이지 류적인 차이는 아닌 모든 반대들은 범주들의 일련의 동일한 선상에 있다¹⁶⁴⁰ [그리고] 서로 가장 헤태론하다 차이는 *끄트머리*이기 때문이며 서로로 동시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이는 대조이다 따라서 이(대조)는 종적으로 헤태론에 있음이다 동일한 류로 있는 대조는 쪼개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들이다(ἄτομα ὄντα b18) 대조를 지니지 않은 종적으로 동일한 것들이 쪼개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쪼개지지 않는 것들로 되기 전에 대조는 나뉘어져 사이[에 있는 것]들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류로 있는 것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류 ((로서))의 에이도스에 드는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종적으로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 않다는 것은 선명하다 - 질료는 부정(ἀποφάσει¹⁶⁴¹ b23)에 의해서 분명해지는데¹⁶⁴² 류는 어떤 것의 질료 라고 말하여지는 [그] 질료이기 때문이다¹⁶⁴³ [물론] 헤라클레이도스의 것 으로서가 아니라 자연

라한으로 옮겨 보았다

1639) 가장 큰 차이를 대조 또는 반대 라고 말하는 994쪽을 참조하시오 그리고 이리지는 995쪽 까지에서 나타나는 대조 대립 반대 반대임 등으로 구분되는 사태를 유심히 살펴보라

1640) 모든 반대들은 일련의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라는 뜻이다

1641) 부정이라는 말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869쪽도 참조하라

1642) 분명해지다(δηλοῦται 1058b23) 라는 말은 1054a26(983쪽)에서도 똑같이 쓰였다는 점을 참조하라

1643) 다시말해 질료의 류라고 말하여지는 그 질료가 부정에 의해서 분명

((에 있어서))의 것 으로서 (말하여지는 류)이다 - [또한] 동일한 류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류의 종에 드는 것 어느 것도 종적으로 동일하지도 헤테론하지도] 않다 류적으로는 저것들과 구분(διωσει, b25, 차이)되는 반면 동일한 류로 있는 것과 종적으로는 (구분된다) 대조는 반드시 종적인 차이들인 그런 차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차이)은 동일한 류로 있는 것들에만 단지 속한다 (1057b35 - 1058a38) ”

라는 8 장에서는 종적인 차이가 류의 헤테론함¹⁶⁴⁴)이라고 말하여진다 텔레스는 류 자체를 헤테론하게 만드는 헤테론함이 류의 차이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헤테론함이 대조이다 따라서,

동일한 하나에 반대되는 여럿 으로서의 헤테론함은 종적인 차이들이며 이런 차이들로 인해 류가 헤테론해진다 그런데,

나는 종적인 차이들과 관련하여 8장 1058b23에서 돌출하는 질료 때문에 어려워한다 ‘ 질료는 부정에 의해서 분명해 지는데 그것(중?)의 질료 라고 말하여지는 그 질료가 바로 류이기 때문에 류로 있는 것이라고 불리워지는 것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류 ((로서))의 에이도스에 드는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종적으로 동일하지도 헤테론하지도 않다는 것은 선명하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여기서 그는 조각 胸像의 재료 로서의 질료의 류 보다는 자연적인 질료의 류를 문제 삼을까 그리고 문제의 이 질료를 무엇 때문에 그는 종적인 차이에 대해 말하면서 끌여드렸을까¹⁶⁴⁵) 라는 적어도 나에게는 난감한 이러한 물음을 던지면서 나는 9 장으로 닥아서 본다

9 장에서도 역시 질료들(1058b1,3,5,11,14)이 차이들과 관련하여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해지기 때문에 류로(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종적으로 동일하지도 헤테론하지도 않으며 류의 에이도스들에 들지도 않는다

1644) 예를들어 말 과 사람은 류의 헤테론함 으로서 종적인 차이이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대조라고 그에 의해 말하여진다

1645) 차이는 질료에 의해서 나지 않는다는 것을(9장 1058b6) 말하기 위해서 었을 것 같은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텔레스는 생물 수컷 과 암컷이라는 보기를 든다 그에 따르면 수컷 과 암컷은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는다

“ (10) 무엇 때문에 여자는 남자와 종적으로 차이하지 않을까 라는 어려움이 대조적으로 차이나는 한편 반대로 있을 것 같은 (äv 1058a29) 암컷 과 수컷으로부터 떠오를 것이다 생물 암컷 과 수컷은 종적으로 헤태론하지 않다 실로 그 자체로 생물의 이 차이는 힘 과 검음[의 차이와 같은] 것이 아니긴하나 생물 암컷 과 수컷은 그(차이)에 속한다 또한(δὲ a34) 이 어려움은 예를들어 날개 달림 과 다리 달림은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들지)만 힘 과 검음은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들지) 않는 것 처럼 무엇 때문에 한 편으로 대조는 (어떤 것을)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들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을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들지) 않을까 라는 (어려움)과 비슷하다(οὐδὲ ὄν b34) 한 편으로 류의 고착된(oikeía b37) 속성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덜 (고착된 속성이어서)일까 그리고,

실로 한 편으로 로고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질료이므로 한 편으로 로고스에 있어 반대임은 종적인 차이를 만드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함께 취하여진 질료에 있어 (반대임은 종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때문에 사람의 힘도 검음도 이(종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으며 흰 사람 과 검은 사람은 종적으로 차이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들 각각이] 이름 하나에 의해서 가리켜지더라고 [그렇지] 않다 질료로서의 사람이고 질료는 차이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질료)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의 종이지는 않으므로 [그렇다] 실로 이 [사람] 과 저 [사람]을 이루는 살 과 뼈는 헤태론하다 그러나 한 편으로 합쳐진 전체(τὸ σύνολον b8)는 헤태론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종적으로는 헤태론하지 않다 로고스에 대조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¹⁶⁴⁶⁾

이 (대조)는 쪼개지지 않은 궁극적인 것이다 칼리아스는 질료 더하기(μετὰ¹⁶⁴⁷⁾b10)로고스이다 그리고 실로 칼리아스가 희기 때문에

1646) 정의(로스 849)에 있어서 대조 또는 대립되지 않다 라는 이 말은 정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440쪽 - 454 쪽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있을까 962쪽도 참조하라

1647) 질료 2격과 더불어 μετὰ(1058b10-11) 라는 전치사가 쓰였다 메타 라는 전치사는 물론 2격을 지배하면 함께(with)라는 뜻을 지니긴하나 그 뜻은 본디 뒤(after)이므로 ‘ 질료 이후에 이루어지는 로고스 ’ 라고 문제의 그 전

흰 사람[이 있다] 이제 사람은 우연히 희다 실로 청동으로된 둥근 것과 나무로된 둥근 것도 [종적으로 차이하지] 않으며 청동으로된 세모와 나무로된 둥근 것도 [종적으로 차이하지] 않는다 질료 때문에 종적으로 차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고스에 대조가 주어지기 때문에 (종적으로 차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헤태론하게 본다면 **질료**는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들지 않을까 또는 만드는 것 으로서 있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이 말이 저 사람과 종적으로 헤태론할까 비록 이 (말 과 저 사람의) 로고스들이 질료와 더불어(ὄν 1058b17) [있긴해]도 말이다 라는 [물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로고스에 대답이 주어져 있기 때문일까 [확실히 그렇다] 왜냐하면 흰 사람 과 검은 말에도 마찬가지로 [대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적으로 [대조된]다 그러나 한 편으로 흰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검기에 [그런 것이] 아니다 설령 [사람 과 말] 양자가 희더라도 이와 똑 같이 종적으로 헤태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물의 수컷 과 암컷은 한 편으로 고착된 속성이다 그러나 실체에 따른 (고착 속성이) 아니고 질료 와 몸에 (고착된 속성)이다 때문에 동일한 씨가 어떤 것을 겪으므로(παθὸν τι πάθος b24) 암컷 또는 수컷으로 된다 이제,

한 편으로 종적으로 헤태론함이 무엇인가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한 편으로 종적으로 차이하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차이하지) 않는가가 말하여졌다 (1058a29 - 1058b26) ”

라는 9 장에서는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드는 것은 질료가 아니라 로고스에 주어지는(ἔνεστιν 1058b15) 대조(또는 반대)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로고스가 대조된다면 어떤 것은 종적으로 헤태론하다 라고 그에 의해 말하여진다 그래서,

생물의 암컷 과 수컷은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이 아니다 씨가 어떤 것을 겪으므로 질료 와 몸에 고착된 속성이 여성 과 남성이기 때문이다 남성 과 여성은 실체(τὴν οὐσίαν 1058b22)의 어떤 것이 아니다

치사가 쓰인 구절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질료 후에 이루어지는 로고스 와 그 질료로 칼리아스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리라

이제 까지 3 - 9 장에서는 그 큰 줄기에서는 하나 와 여럿이 서로에 대해 있는 길이 곧 반대로 대립해 있는 길이 말하여지나 오히려 많은 로고스들이 반대 대립 헤태론함 차이들에 집중되므로 문제의 장들을 읽다보면 이 장들이 하나 와 여럿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모순 차이 헤태론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오타 편 끝 장인 10장에 이르러서도 상황은 같다 질료가 도드라지는 9 장과는 달리 10 장에서는 소멸하는 것(τὸ φθαρτὸν 1058b26)이 도드라진다 다시 말해 도드라지는 소멸을 통해서 헤태론함이 말하여진다 그러나 종적인 헤태론함이 아니라 류적인 헤태론함이 문제 삼아진다

소멸하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 것과 류적으로 헤태론하다 라는 말로 10 장은 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 (10) 반대들은 종적으로 헤태론하며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은 반대들이므로 - 결여¹⁶⁴⁸)는 규정된 무 능력(ἀδυναμία 1058b27)이기 때문이다 -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류적으로 헤태론하다

지금까지 보편자 이름의 그러한 것들 에 관해(ἐπὶ αὐτῶν.....τῶν καθόλου ὀνομάτων b30)말했고 그래서 무엇이든(ὅτιούν b30)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은 종적으로 헤태론하다 라고 여기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무엇이든) 흰 것 과 검은 것은 (종적으로 헤태론하지) 않은 것 처럼 말이다 보편자 (이름의 그러한 것들)일 경우 동일한 것이 동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사람이 희고 검은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각기 것도 [양자적이기 때무이다] 동일한 것이 동시적이지 않게 희고 검은 것이므로 [그렇다] 비록 흰은 검은에 반대이긴해도 반대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한 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알론한 여럿들 처럼 우연히 [양자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우연히 어느 하나에) 속할 수 없다

이 (속할 수 없는)것들 가운데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이 있다 우연히(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¹⁶⁴⁹) 1059a2) 소멸하는 것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연적인 것은 속할 수 없는 반면 소멸은 속

1648) 결여 와 습성이 바로 첫 번째 대조이다 라고 말하는 996쪽을 참조하라

하는 것들에 필연적으로 속하는 것들 [속성]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것 과 하나가 소멸하고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소멸이 그것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면 말이다 따라서 소멸은(τὸ φθαρτὸν v 1059a7) 반드시 각기 소멸하는 것들의(τῶν φθαρτῶν a7) 실체이든지 또는 각기 소멸하는 것들의 실체에 (반드시) 속해야만 한다 동일한 로고스가 소멸하지 않는 것에 관해 [성립한다] 양자는 필연적으로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편으로 소멸하는 것 다른 한 편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에 관한 한 첫 번째로(πρώτον a9)반 정립¹⁶⁵⁰하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류적으로 헤태론하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에이도스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선명하다 [있다면] 사람은 한 편으로 소멸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소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에이도스들은 각기 것들과(τοῖς τοῖσι¹⁶⁵¹ a13) 종적으로 동일한 것들이지 호모오누마한 것들¹⁶⁵²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류적으로 헤태론한 것들은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들보다 더 많이 별려져있다(διέσκηκεν a14) (1058b26 - 1059a14) ”

리는 8 장에서는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은 서로

1649) 921쪽에 그려진 것 처럼 우연적인 변화가 아닌 변화 그 자체에 소멸이 속하기 때문이다 1008쪽도 참조하시오 기체에서 기체아닌 것으로의 변화가 소멸이다 우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834-851쪽을 참조하시오

1650) 반 정립이 성립하므로 변화가 있다는 916쪽을 참조하시오

1651) 로스는 with the individuals(개별자, 850)로 트레드닉은 as the particulars(특별자, 3권 51쪽) 번역한다

1652) 호모오누마(같은 말)한 것들에 대해서는 809 - 819 - 822쪽을 참조하시오 826쪽에서 다시 정리된 것 처럼 이름의 로고스가 헤태론하면 호모오한(같은) 이름인 반면 동일하면 쉬모오한(동일한) 이름이다 여기서 1006쪽을 참조해 보라

1006쪽에서는 로고스가 대조되면 종적으로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에 종적으로가 아니라 류적으로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텔레스에 따르면 류적으로 헤태론한 것들이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들 보다 훨씬 벌어져 있다

텔레스에 따르면 헤태론한 것은 많은(τού πλῆθους 1054a31) 것들이지 하나가 아니다 동일한 하나에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여럿이 바로 헤태론한 많음들이기 때문이다¹⁶⁵³)그래서¹⁶⁵⁴),

알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대립되므로 모든 각기 것에 대해 모든 것은 동일하거나 알론하며(ἄλλο 1054b16) 질료 와 로고스가 하나이지 않다면 알론하고 수학적인 것도 알론하다 이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은 동일하거나 헤태론하다(ἕτερον 1054b18)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하나 와 있는 것이 말하여지는 경우에만 그렇다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의 모순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은 동일하거나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있는 것 과 하나는 자연스레 하나이거나 하나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헤태론한 것 과 동일한 것은 대립되는데 차이는 헤태론한 것과 알론하다 있는 어떤 것이라면 모든 것은 모든 것에 대해 헤태론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헤태론한 것은 그 어떤 것과 반드시 헤태론한 것이 아닌 반면 어떤 것의 차이는 그 어떤 것에 차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은 반드시 동일한 무엇에서 차이난다 바로 이 무엇이 동일한 류 와 에이도스이다 질료가 공통적이지 않고 서로로 생성되지도 않는 것들은 예를들어 범주들의 도식들이 알론한 것 처럼 류적으로 차이나는 반면 류가 동일한 것들은 종적으로 차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류란 차이나는 양자

1653) 따라서 동일한 것에 같지 않음 또는 똑 같지 않음이 대립되지는 않는다 999쪽에서 그려진 것 처럼 같은 하나에 대립된 많음은 같지 않은 여럿인 반면 같지 않는 하나에 대립된 많음은 같지 않은 여럿이기 때문이다

1654) 981쪽에서 이어지는 요약의 본문은 991쪽 이하의 것이다

에 실체에 따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바로 이 차이들이 반대들이며 [이 차이들 가운데] 어떤 차이가 대조이다 이것들은 귀납으로부터 산뜻하게 (καλώς 1054b33) 받아드려진다

모든 반대들은 선명하게 차이나는 것들이며 단지 헤테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류적으로 헤테론하기도하면 일련의 동일한 범주들에 있어서 헤테론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류에 있어 그리고 동일한 에이도스에 있어 차이난다¹⁶⁵⁵⁾

그는 여기서 알론한 것¹⁶⁵⁶⁾을 1) 동일한 것에 대립된 것 2) 질료와 로고스가 하나이지 않는 것 3) 수학적인 것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말한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점은 단지 있는 것 과 하나의 경우에만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은 동일하거나 헤테론하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있지 않는 것의 경우에는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이 동일하거나 헤테론한 것이 아니다 있는 것 과 하나는 자연스레 하나이거나 하나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차이는 **헤테론**과 알론하다 라고 말한다 있는 어떤 것이라면 모든 것은 헤테론하거나 동일할 것이므로 어떤 것과 헤테론한 것은 반드시 그 어떤 것에 헤테론한 것은 아니 - 그 어떤 것에 동일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지만 어떤 것의 차이는 반드시 그 어떤 것에 차이난기 때문이다 그래서 텔레스에 따르면 헤테론은 차이와 구분된다 따라서,

어떤 것은 동일한 무엇에서 **차이**¹⁶⁵⁷⁾난다 바로 이 무엇이 류 와 에이도스이므로 차이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있는 것이라면 류적으로 차이난든지

1655) 류적으로 동일한 것 과 헤테론한 것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우리들은 알론한 곳 델타 편 9 장(258-259쪽)에서 구분했다

1656) 이 맥락에서 텔레스는 알론한 것 과 헤테론한 것을 서로 대신하여 쓰여질 수 있을 것 처럼 말한다

1657) 3 장에 따르면 종적인 차이들이 반대들이고 이 차이들 가운데 어떤 차이가 대조이다 더 자세한 설명이 4 장 과 8 장에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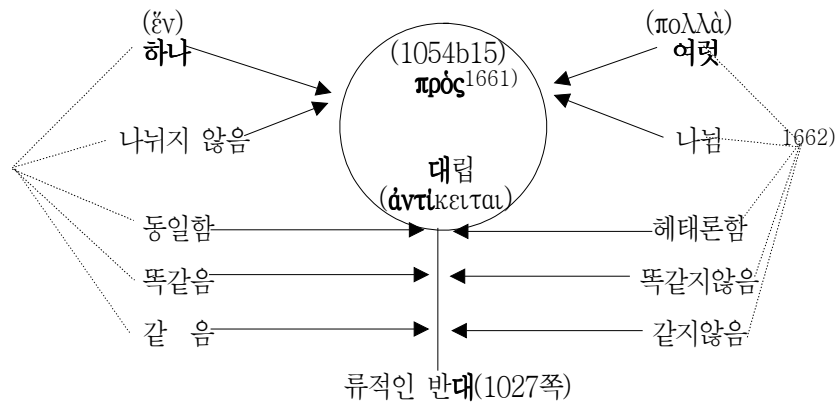
아니면 종적으로 차이난다 자신의 질료가 공통적이지 않으며 서로로 생성할 수 없는 것들은 류적으로 차이나는 반면 류¹⁶⁵⁸)가 동일한 것들은 종적으로 차이난다 나아가서,

종적으로 차이나는 양자에 실체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들어 있는 것이 바로 류¹⁶⁵⁹)라고 그는 말한다 이어지는 4장 끝 부분에 따르면 류적으로 서로 대립 또는 반대되는 것¹⁶⁶⁰)이 하나 와 여럿(1055b27-28)이다 4 장을 요약하기 전에 3 장을 다시 그려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658) 이 때의 류는 실체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차이나는 양자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1659) 텔레스의 형이상학 과 범주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글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류 와 종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의 나 역시 전체적으로 이 둘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단지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류 와 종들에 대해 겨우 건들고 있을 뿐이다 류에 대해서는 392쪽을 더불어 참조하라

1660) 그는 류적인 반대를 반대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이라고 동일한 곳에서 말한다



위 구분은 4장 1055b27에서 말하여질 것 처럼 류적인 구분이지 종적인 구분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 류적인 차이와 종적인 차이와 류적인 헤태론과 종적인 헤태론 등 류와 종 등으로 구분되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4 장에서는 대조 반대 반대임등이 말하여지면서 끝으로 하나와 여럿은 류적인 반대이며 그 반대는 헤태론의 결여라고 말하여진다 4 장은 994 - 999쪽에서 옮겨 졌으니 여기서는 이 옮김을 요약해 보자

1661) 12쪽에 나오는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 편 요약 그림의 프로스티를 살펴보자 거기에서도 *하나*가 스스로와 *알론한 것*에 대해(πρός) 어떻게 있음이 그려질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와 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이렇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하나와 알론한 것을 여기서의 하나와 여럿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1662) 이미 986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헤태론한 것과 똑 같지 않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을 여럿이라 하지 않고 많음(τού πλῆθους 1054a31)이라고 그는 말한다 비록 6 장에서 여럿, 초과된 많음, 모자란 많음, 몇몇, 둘 등이 구분되기는 하나(1004-1005쪽 참조) 여기서는 그냥 여럿을 많은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가기로하자

다소 간에 차이나므로 차이나는 것들에는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것이* 있다 이것을 나는 **대조**라고 말한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귀납으로부터 분명하다 류에 있어 차이나는 것은 서로에로의 길을 지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교될 수 없는 반면 *중*에 있어 차이나는 것들의 경우 **반대**들은 생성들이 그것들로부터 일어나는 *극단*들이기 때문이다 이 극단들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다 따라서 반대들의 거리도 가장 크다 그러나,

실로 *끄트머리*는 류의 *끄트머리*가 가장 크다 이 가장 큰 *끄트머리*는 초과되지 않으며 그 바깥에서는 어떤 것도 발견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끄트머리* 차이를 끝이 지닌다 *끄트머리* 라고 말하여지는 알론한 것들이 그 끝을 지니는 것 처럼 말이다 끝의 바깥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극단은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끝의 바깥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으며 *끄트머리*를 어느 것도 넘어서지 않는다 이제,

이것들로부터 **반대임**은 *끄트머리 차이* 라는 것이 분명하다 반대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하므로 *끄트머리*도 그러한 반대들에 속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에 반대들이 많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극단 보다 더 극단적인 어떤 것이 있지 않을 뿐 더러 극단들은 하나 간격의 두 극단 보다 더 많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 **반대임**이 차이라면 차이는 두 가지 것의 차이므로 마찬가지로 *끄트머리*도 두 가지 것의 *끄트머리*이다

[이것은] 반대들의 알론한 정의에도 필연적으로 진실이다 *끄트머리 차이*¹⁶⁶³⁾는 가장 많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류적으로 차이나는 것 과 종적으로 차이나는 것의 바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무 것도 있지 않으므로 그렇다 류의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이 이미 보여졌기

1663) *끄트머리 차이*가 바로 **반대임**이라는 바로 위의 정의를 생각하라 텔레스는 반대를 1) *끄트머리 차이* 2) 류적으로 가장 많은 차이 3) 받아드리는 동일한 것에 있어서의 가장 많은 차이 4) 동일한 힘에 있어 가장 많은 차이 등 네 가지로 나누는 것 같다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들 가운데 류적으로 차이나는 것들이 가장 크다 그리고,

동일한 류에 있어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이 반대들이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κττ*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받아드리는 동일한 것에 있어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들이 반대들이다 반대되는 것들의 질료¹⁶⁶⁴)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힘에 의해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들도 반대들이다 그 끝이 가장 큰 차이인 하나 류에 관한 하나 앞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단 끊고 넘어가 보자 약간 혼란한 듯한 그의 로고스들을 정리 않고 넘어가면 뒤 이어지는 로고스들을 통해서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략하게 말하면 덜 혼란스럽다 텔레스에 따르면,

가장 큰 차이는 대조(*ἐναντιῶσιν* 1055a5)이며 *κττ*머리 차이는 반대임(*ἐναντιότης* 1055a16)이고 반대(*ἐναντία* 1055a30)은 생성들이 일어나는 극단들이다

이러한 반대는 가장 차이가 많은 *κττ*머리 차이라고도 동일한 류에 있어 가장 많은 차이라고도 받아들이는 동일한 것에 있어 가장 많은 차이라고도 동일한 힘에 있어 가장 많은 차이라고도 말하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차이는 두 가지 것의 차이므로 *κττ*머리 역시 두 가지 것의 *κττ*머리 이다 *κττ*머리(*τέλειον*¹⁶⁶⁵) a11)는 각기 류에 있어서 가장 큰 거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κττ*머리 차이가 바로 반대임이다 그런데,

차이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져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류적인 차이이며 바로 이러한 차이를 그는 대조라고 말하지 반대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다¹⁶⁶⁶)반대는 생성이 일어나는 극단들인 반면 대조는 자

1664) 종의 질료는 류라는 8 장 1013쪽을 참조하라

1665) 이 *κττ*머리 차이를 지니는 것이 바로 끝(*τέλος* a12)이다

1666) 그렇다고 반대는 대조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이 어떤 차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 그러나 그 차이가 류적으로 벌어질 경우

신으로의 길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들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대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조 와 반대 사이의 위 구분을 사라지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분을 선명하게 해준다 실은,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면서 해매는 것 보다는 어떤 하나에 어떤 하나가 반대되지 많음에 어떤 하나가 반대되거나 어떤 하나에 많음이 반대되지 않는다 극단은 간격 하나의 두 극단 보다 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4 장 앞 부분 *끄트머리*의 로고스에 닥아서는 것이 하나 와 여럿 또는 많음의 대립을 더 선명하게 하기 때문이다¹⁶⁶⁷)이 로고스는 남아있는 모든 로고스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로고스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

계속 요약해 가기로 하자

첫 번째 *대조*는 습성 과 **결여**인데 그 결여는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모든 결여가 아니라 끝의 결여이다 이 결여에 따라서 알려진 *반대*들이 말하여진다 끝들을 지님으로 한 편으로 끝들을 생산하거나 또는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편으로 끝들을 얻거나 잃어버리므로 반대라고 말하여진다 실로,

모순 과 결여 와 반대임 과 프로스 티로 대립된다면 모순이 그 첫 번째 것이다 그리고 모순 사이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으나 반대 사이에는 있을 수 있다면 모순 과 반대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에는 대조라고 말하여지는 것 같으며 종적으로 벌어질 경우에는 반대라고 말하여지는 것 같다 따라서,

모든 반대는 대조이나 모든 대조는 반대가 아니며 모든 대조는 반대이나 모든 반대는 대조가 아니라 라는 식으로 외연(外延)의 넓고 좁음을 근거로 이 둘을 구분해서는 안될 것 같다 류적인 차이 와 종적인 차이는 차이의 크거나 또는 많음 그리고 벌어짐의 거리 등을 근거로 해서 만약 구분된다면 구분해야할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구분할 수 있을런지가 의문이다

1667) 하나가 여럿에 순수하게 대립하는가 라는 어려운 물음이 6 장에서 제기된다

결여는 어떤 **모순**이다 전체적으로든 어떻게든 결여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닐 수 없다는 것이거나 자연적으로 지녀야할 것을 지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알론한 곳에서 우리에게 나눠어진 것 처럼 이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했다 따라서 결여는 모순인 어떤 것이며 또는 받아드리는 것에 규정되어지거나 취하여지지 ‘않는 뒤나뒤스’이다 이 때문에 결여는 사이에 아무 것도 있지 않는 모순인 어떤 것이다 모든 것이 똑 같거나 ‘ 똑 같지 않다 ’ 거나 모든 것이 똑 같지 않거나 ‘ 非 똑 같지 ’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하여진 것 처럼 단지 똑 같음을 받아드리는 것에 있어서만 똑 같거나 ‘ 똑 같지 않’고 똑 같지 않거나 ‘ 非 똑 같지 ’ 않기 때문이다 실로 ,

만약 질료에서의 생성들이 반대들로부터 일어나서 에이도스 와 에이도스의를 연음으로부터 또는 에이도스 와 모르페에(모습)를 결여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되어진다면 모든 대조인 것이 결여인 반면 똑 같이 결여가 모든 반대임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¹⁶⁶⁸⁾ 그 원인은 결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결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들은 극단들 곧 그 반대들로부터 일어나므로 그렇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귀납을 통해서 선명해진다

모든 대조는 헤테론한 반대들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똑 같은 길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똑 같지 않음은 똑 같음을 결여하는 반면 같지 않음은 같음을 결여하며 나뉘는 덕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말해졌던 것 처럼 차이난다 어떤 것은 단지 결여되기만 하는 반면 어떤 것은 어떤 때에 결여하거나 또는 어떤 부분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살아 있을 때에 또는 주로 어떤 부분을 또는 모든 부분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떤 결여에는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는 -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않다 - 반면에 어떤 결여에는 있지 않다 - 반드시 홀 또는 짝이다 - 나아가서 어떤 결여는 규정된 기체를 지니는 반면에 어떤 결여는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반대들의 헤테론은 결여에 달라서 항상 말하여진다는 것은 선명하다 그런데 반대들 가운데 첫 번째 것 곧 류적인 반대들의 경우에 예를들어 하나 와 여럿의 경우에 충분히 반대들의 헤테론이 결여에 따라서 말하여진다고 알론한 것들이 그것들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1668) 바로 이 부분은 대조 와 반대를 구분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4장의 앞 부분에 따르면 반대임은 끄트머리 차이였으며 반대들은 류적으로 가장 많은 차이 - 이 차이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끄트머리*이다 - 이거나 받아드리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많은 차יי거나 힘에 있어 가장 많은 차이였던 반면에 대조는 가장 큰 차이였다 이제,

이러한 대조 가운데 첫 번째 것이 습성 과 결여 그것도 *끝 - 끄트머리* 차이를 지닌 것이 끝이었다 - 의 결여이다 이러한 결여에 따라서 알려진 반대들이 말하여진다¹⁶⁶⁹⁾

결여는 어떤 모순¹⁶⁷⁰⁾이다 그런데 모순은 첫 번째 대립이다 반대도 프로스 티도 결여도 대립의 첫 번째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모순은 반대도 아니다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는 반대와는 달리 모순의 사이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지닐 수 없거나 자연적으로 지녀야할 것을 지니지 않는 것이기에 어떤 모순인 결여는 지녀야할 것을 규정하거나 취할 수 없는 능력이다 그래서,

모든 대조는 헤태론한 반대의 결여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똑 같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똑 같지 않음은 똑 같음의 결여인 반면 같지 않음은 같음의 결여이기 때문이며 어떤 결여는 결여되기만 하는 결여인 반면 어떤 결여는 어떤 때에 결여하거나 어떤 부분을 결여하므로 어떤 결여 와 습성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는 반면 어떤 결여 와 습성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지 않기¹⁶⁷¹⁾때문이고 어떤 결여는 규정된 기체를 지니는 반면 어떤 결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들의 헤태론은 결여에 따라서 말하여진다 그런데 반대들 가운데 첫 번째 반대 곧 류적인 반대의 경우에 예를들어 하나 와 여럿의 경우에 헤태론한 반대들의 결여가 가장 만족스럽게 말하여진다 알려진 반대들은 다

1669) 끝을 지니거나 아니면 끝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끝을 얻거나 잃어버리면 반대라고 말하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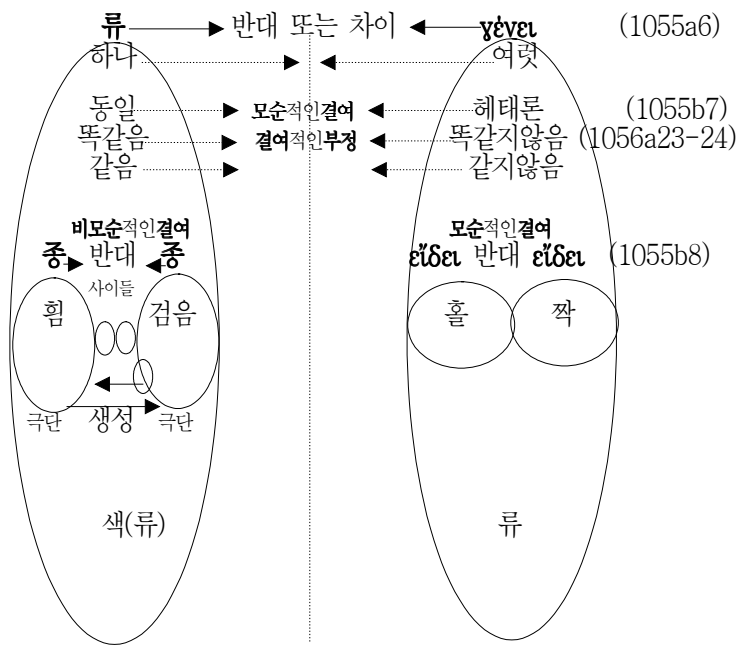
1670)

1671) 악 과 선 사이에는 사람이 있으며 홀 과 짝 사이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이 류적인 반대들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와 여럿의 대립은 가장 큰 차이 로서의 첫 번째 대조이며 이러한 대조는 헤태론한 반대의 결여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반대는 종적인 반대가 아니라 류적인 반대 라는 것이 4 장에서 텔레스가 가장 주로 말하고저 하는 로고스이다 더불어,

류적인 차이 와 종적인 차이에 상응하게 반대를 류적인 반대 와 종적인 반대로 텔레스는 구분한다는 것 역시 다시 주목해야 할 로고스이다 이런 차이 와 반대들과 더불어서 끝 과 극단 과 *κρτμρι* 등이 말하여지며 생성이 일어나는 극단은 종적인 반대이지 류적인 반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구분을 다음 처럼 그려 보려한다 종적으로 차이나는 양자에 *실체*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들어 있는 것이 바로 류 라는 1021쪽을 참조하시오



종적인 반대들 곧 극단들로부터 생성이 일어나는 반면 류적인 반대들로부터는 생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류적인 차이는 너무 커서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에 주의하면서 앞 그림을 살펴보라 앞 그림은 여럿은 하나에 류적인 첫 번째 반대 로서의 모순적인 결여(1055b7)로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이어지는 5 장에서는 이러한 대립 특히 같음에 대한 같지 않음의 반

정립(ἀντιθέσειν 1055b32)은 **결여적인 부정**(1056a23-24)이라는 것이 요약될 것이다

하나는 하나에 반대이므로 하나 와 여럿은 어떻게 대립될 것이며 똑 같음은 큼 과 작음에 어떻게 대립될 것인가 라는 어려움이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반 정립에 있어서 둘 가운데 어느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힘 또는 검음 가운데 어느 것 그리고 힘 또는 희지 않음 가운데 어느 것에서 처럼 말이다 그런데,

사람 또는 힘 가운데 어느 것 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클레온 또는 소오크라테에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왔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으로부터 조사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류적인 어떤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저 대립의 확장이다 대립들만이 동시에 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 가운데 어느 누구가 왔느냐 라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양립 불 가능 성의 추측이 이루어진다 만약 동시에 왔을 수 있다면 그 물음은 그야말로 웃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더라도 반 정립은 성립 된다 예를들어 양자 또는 헤태론한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왔느냐와 같은 하나 와 여럿의 반 정립이 성립된다 실로,

둘 가운데 어느 것이냐 라는 조사가 항상 대립들에서 이루어진다면 둘 가운데 어느 것은 크거나 적거나 똑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반 정립은 동일한 것에 대한 똑 같은 무엇이다 단지 헤태론한 어느 하나 만도 그 헤태론한 양자 모두도 반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적은 것에 대한 것 만큼이나 오히려 큰 것에 대한 것이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똑 같은 것은 똑 같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이다 따라서 하나에 대한 것 보다는 많음에 대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똑 같지 않음이 큼 과 적음 양자를 동시에 가리킨다면 똑 같음은 그 양자에 대립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똑 같지 않음을 두 겹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보조한다 그러나 하나는 둘에 반대 라는 것이 잇 따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불 가능하다 나아가서 큼 과 작음 사이의 똑 같음은 선명한 반면 그 사이의 대조는 선명하지 않다 정의로부터도 선명할 수 없다 쾰트머리는 어느 것이든 어떠한 것의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항상 자기 자신들

의 사이에 어떤 것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똑 같음 과 똑 같지 않음은 부정으로서 또는 결여로서 대립된다는 것이 남는다 둘 중의 어떤 해태론한 것의 대립일 수는 없다 적음 만큼이나 오히려 큼의 무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에 결여적인 부정¹⁶⁷²⁾이다 이 때문에 ‘둘 가운데 어느 것’은 양자에 대해 말하여지지 양자의 해태론한 것에 대해 말하여지지 않는다 예를들어 큼 또는 똑 같음 이 둘 가운데 어느 것 이라고도 똑 같음 또는 적음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라고도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셋이 있다¹⁶⁷³⁾

결여는 필연적으로 아니다 모든 것이 크거나 적지 않은 똑 같음이 아니라 저 결여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¹⁶⁷⁴⁾크거나 적지 않은 모든 똑 같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크거나 적지 않은 똑 같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똑 같음은 큼도 적음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결여를 필연적인 것으로 하면] 똑 같음은 자연스레 큼 또는 적음일 것이다 그리고,

결여적인 **부정** 으로서의 양자에 대립된다 이 때문에 사이에 어떤 것이 있다 마찬 가지로 선도 악도 **아닌** 것이 곧 非호모오뉴모스한 것¹⁶⁷⁵⁾이

1672) 부정에 대해서는 869, 1013쪽을 참조하십시오

1673) 큼 적음 똑 같음 이 셋을 말한다 하나 와 여럿의 반 정립에 있어서는 ‘둘 가운데 어느 것(τὸ πότερον 1055b33)’은 항상 큼 과 적음 과 똑 같음 이 셋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말일 것이다

1674) 결여는 자연적으로 지녀야할 것을 지니지 않음 이라는 998쪽을 참조하십시오

1675) 호모오뉴모스한 것 곧 같은 이름을 지닌 것은 비록 이름은 공통일 지라도 실체의 로고스가 해태론한 것이라는 819쪽 과 175-176쪽 과 1018쪽 을 참조하라 따라서,

선에 악이 그리고 악에 선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 악도 **아닌** 것 곧 非호모오뉴모스한 것에 선 과 악은 대립한다 다시 말해서 선 과 악이라는 이름을 공통으로 지녔을 지라도 그 로고스가 해태론한 것에 선 과 악은 대립한다 이제,

1027쪽에 그려진 모순적인 결여를 꼼꼼히 살펴보라 그런 다음 같은

양자에 대립된다 이것들 각각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며 이 양자를 받아드리는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힘도 검음도 아닌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여적인 부정이라고 말하여지는 어떻게든 규정된 것들이다 색의 경우 회색 또는 노랑 또는 알론한 이러한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들을 같은 것으로 말하여 신발도 손도 아닌 것은 신발 과 손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비판에 있어 그르다 선도 악도 아닌 것이 선 과 악의 사이에 있으므로 마치 모든 것들의 경우에 어떤 것의 사이에 있을 것 처럼 말하는 자들은 그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잇 따르는 것이 아니다 사이에 어떤 것이 있으며 자연스런 간격이 있는 대립들의 부정적인 연결이 있는 반면 한 편으로는 차이가 있지 않는 대립들의 부정적인 연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의 부정적인 연결은 그 기체가 하나가 아닌 알론한 류의 연결이므로 그렇다

이와 같은 5 장을 다음과 같이 짚막하게 풀어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 반대라면 반 정립이어야하고 반 정립이라면 둘 가운데 어느 하나이어야 할 것이므로¹⁶⁷⁶⁾ 하나 와 여럿이 반대라면 하나 와 여럿은 각기 하나여야할 것이다 그런데 여럿이 하나인가 분명히 아니므로 하나가 여럿 또는 여럿이 하나에 반대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특히 똑 같음이 똑 같지 않음에 또는 똑 같지 않음이 똑 같음에 반대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

그림의 비 모순적인 결여를 들여다 보고 다시 1025쪽에서 말하여지는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라는 말을 살펴보다

1676) 예를들어 힘 과 검음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힘 과 회지 않음 가운데 어느 하나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반 정립을 근거로 한다 물론,

‘사람 과 힘’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류적인 어떤 것이 아닌 ‘클레온 과 소크라테아스’ 가운데 어느 하나 말하여지지는 않지만 심지어 이것들조차도 이러한 반 정립의 확장(ἐλλίλυθεν 1055b37)이라고 볼 수 있다 대립들만이 동시에 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어려움을 지닌다

대립되는 둘 가운데 어느 하나이나 라고 물어진다면 똑 같음 과 똑 같지 않는 대립의 경우 그 어느 하나는 큼 또는 적음 또는 똑 같음을 가리킬 것이다 반 정립은 동일한 것에 대한 똑 같은 것의 무엇이어서 헤태론한 어느 하나도 헤태론한 양자 모두도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작음 만큼이나 큼에 대한 것이므로 그렇다 그래서,

똑같음이 똑 같지 않음에 반대되는 경우 똑 같지 않음은 많음이므로 하나는 하나 보다 많음에 반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는 둘 중의 어느 하나에 대한 다른 하나의 반대이다 그렇다면 똑 같음은 똑 같지 않음에 또는 똑 같지 않음은 똑 같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다 텔레스는 결여적인 부정 으로서 반대 된다고 한다 우선,

텔레스는 똑 같음이 크고 적음¹⁶⁷⁷)에 대립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크고 적음에 대립될 경우 크고 적음의 두겹은 둘로부터 있을 것이므로 하나는 둘에 반대이다 라는 로고스에 직면하는데 하나는 둘에 반대된다 라는 로고스는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큼 과 적음 사이의 똑 같음은 선명하지만 크고 적음 사이의 똑 같음은 선명하지 않다 어떤 것의 꺄트머리는 알론한 어떤 것의 사이에 어떤 것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사이에 어떤 것을 지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텔레스는 부정 으로서 또는 결여 로서 대립된다 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 무엇이든 적음 만큼이나 큼의 무엇이므로 양자의 헤태론한 것의 대립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텔레스는 양자에 결여적인 부정 으로서 대립된다 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양자의 헤태론한 것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에 대립된다 다시말해 큼 또는 똑 같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혹은 똑같음 또는 적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큼 과¹⁶⁷⁸) 적음 과 똑 같음 이 셋

1677) 크고 적음을 텔레스는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 두 겹이라고 말한다 1001, 395, 944쪽을 참조하시오

1678) 텔레스는 또는(ἢ 1056a19) 이라는 말을 쓰나 나는 과(kai)로 바꾸어 보았다

(1056b20)이다 그렇다면,

결여적인 부정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의 모순적인 결여 라는 말과 어떻게 다른가 먼저,

반드시 결여만은 아니다 라는 말이다 만약 결여 뿐 이라면 그 셋 가운데 똑 같음은 크거나 적지 않는 모든 똑 같음이 아니라 자연스레 크거나 적지 않은 똑 같음일 것이며 본디 똑 같음은 크지도 적지도 않는 것인데 반해 꼭 결여라고 한다면 똑 같음은 자연스러운 똑 같음일 것이므로 자연스레 큼 또는 적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결여적으로 부정되는 것들은 非호모오뉘모스한 것들이다 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다 예를들어 선도 악도 **아닌**¹⁶⁷⁹⁾ 것들 또는 검지도 희지도 **않는** 색들 곧 회색 과 노랑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각각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¹⁶⁸⁰⁾ 그러므로 이것들은 대립된 것들의 부정적인 연결(συναπόφασις 1056a35-36) 나아가서,

부정되는 것들이 결여¹⁶⁸¹⁾적으로 있다 라는 말이다 그리고,

결여적인 부정을 4 장의 모순적인 결여와 다음 처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679) ‘아닌’을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에 나오는 부정사 ‘아닌’과 비교해 보라

1680) 호모오뉘모스한 것(같은 이름을 지닌 것)들이 아니라고 해서 쉬노오뉘모스한 것(동일한 이름을 지닌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821 쪽에서 말하여지다 시피 아마도 ‘ 하나에 따라서 ’ 말하여지는 것들일 것 같다

1681) 결여 라는 말은 앞 4 장에서 1026쪽에서 이미 말하여졌다 그러나 먼저 말하여진 것 처럼 반드시 결여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되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대립	모순적인 결여	결여적인 부정
반정립	동일 과 헤택론	똑 같음 과 똑 같지 않음
사이	없다	있다
반대	류적인 반대	
차이	가장 큰 차이	

이 처럼 하나 와 여럿의 대립에 있어 그 결여되는 길이 여러 가지($\pi\omega$ $\lambda\lambda\alpha\chi\acute{\omega}\varsigma$ 1055b15)이다 이 때문에 6 장은 여럿이 하나에 대립됨은 순수하지($\acute{\alpha}$ $\pi\lambda\acute{\omega}\varsigma$ ¹⁶⁸²⁾ 1056b4) 못하다 라는 말로 열어진다 1003 - 1007쪽에 옮겨진 6 장을 요약¹⁶⁸³⁾해 보기로 하자

이와 같이 하나 와 여럿에 관한 어떤 어려움이 생겨날 것이다 여럿이 하나에 순수하게 대립된다면 불 가능한 어떤 하나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하나가 조금 또는 몇몇들일 것이기 때문이다¹⁶⁸⁴⁾여럿은 마찬가지로 몇몇들에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둘은 여럿일 것이다 두 배는 여러 배이며 마찬가지로 둘은 두 배 라고도 말하여지므로 그렇다 따라서 하나는 몇몇일 것이다 하나 와 몇몇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여럿 과 둘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 하나 와 조금 보다 적음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길이 로서의 길음 과 짧음이 있듯이 많음에 있어서는 량 많음 과 몇몇이 있다 그리고 량 많음은 무엇이든 여럿일 것이고 여럿은 무엇이든 량 많음일 것이다 만약 몇몇이 잘 형성되는 연속체에 있어서 차이나는 어떤 것

1682) 순수에 대해서는 267, 543, 758, 836, 841, 851, 923, 930, 990, 1003 쪽을 참조하십시오

1683) 지금까지의 요약은 재 정리 와 요약 과 문제 제기 순으로 행하여졌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문제 제기는 필요한 경우에 생략된다

1684) 하나가 둘이라는 것 역시 불 가능하다 라는 1001, 1031쪽도 참조하십시오

이 아니라면 어떤 많음일 것이다 따라서 [하나 와 여럿이 순수하게 대립된다면] 하나는 많음일 것이며 마찬가지로 몇몇일 것이다 둘이 여럿이라면 이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여럿은 똑 같이 어떻게든 량 많음이라고도 말하여지긴 하지만 예를들어 물 량 많음이지 물 여럿이 아닌 것 처럼 량 많음과 차이난다 그러나 이 여럿에 있어서 무엇이든 나뉘어진 것들이 말하여진다 순수하게든 어떤 것에 대해서든 **여럿**은 어느 한 길에서는 **초과되는 많음**이라고 그와 같이 **모자라**는 **많음**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한 편으로 여럿은 단지 하나에만 대립되는 수로서 말하여진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 또는 여럿을 말하기 때문이다 바로 마치 하나 와 하나들 또는 흰 것 과 흰 것들이라고 그리고 척도 와 척도적인 것에 대해 척도지워진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 이렇게 여러 배도 말하여진다 여럿은 수 각각이기 때문이다 하나들로부터 이루어지며 하나에 의해서 수 각각은 척도적인 것이므로 그리고 하나에 대립된 것이지 몇몇에 대립된 것이 아니므로 그렇다 이제,

이렇게 보면 심지어 둘조차 여럿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든 순수하게든 초과되는 많음 으로서의 여럿이 아니라 첫 번째 많음 으로서의 여럿이다 반면에 순수하게는 둘은 몇몇이다 모자라는 많음 으로서의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낙사고라스는 같은 모든 것들은 많음 과 작음에 있어서 무한하다 라고 말하고 말아 버렸기에 올바르지 못하다 ‘과 작음에’ 대신에 ‘과 몇몇에’라고 **코라했어야했다**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 처럼 몇몇은 하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둘을 통해서 있으므로 그렇다 시로,

하나 와 여럿은 수에 있어서 대립된다 척도가 척도적인 것에 대립되듯이 말이다 이것들은 어떤 것에 대한 것들인데 그 자체로 자신에 대한 것들은 아니다 반대 로서 한 편으로 알려지는 것에 **얕** 으로서 **프로스 티**는 두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알려진 곳에서 우리에게 나뉘어졌다 알려진 것이 동일한 것에 대해 말하여진다 그런데,

하나는 어떤 것 보다 예를들어 둘 보다 적다 라는 것을 막을 어떤 것도 있지 않다 적다면 마찬가지로 몇몇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많음은 예를들어 수의 류이다 **수**는 하나에 의한 척도적인 많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 와 수는 대립된다 반대 로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여진 것 처럼 어느 하나에 대함(관계) 으로서 대립된다 척도 와 척도적인 것은 동일한 것에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든 하나가 수는 아니다 만약 나뉘어졌 않는 것이라면 수가 아니다 그런데 알려지는 것에 대한 앎이 이와 같다고 우리들이 말했지만 실은 그와 같지 않음이 판명난다 앎은 척도일 것으로 여겨지며 알려지는 것은 척도지워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앎은 알려지는 모든 것이나 알려지는 것이 모든 앎은 아닌기 때문이다 어떤 길에서 보면 앎은 알려지는 것에 의해서 척도지워지므로 그렇다

많은은 몇몇에 반대되는 것도 아니며 - 량 많은은 이 몇몇에 반대된다 초과적인 많은은 초과되어진 많은에 대립되는 것 으로서 말이다 - 모든 감각에서 하나에 반대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말하여진 것 처럼 나뉘어지는 것인 반면 한 편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대함 으로서 대립되는 것이다 앎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있는 것 처럼 말이다 많은은 수이며 하나가 척도일 경우에 그렇다

하나 와 여럿은 순수하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척도 로서의 하나가 수 로서의 여럿에 프로스 티(어떤 것에 대함, 관계) 로서 대립된다 수는 하나에 의해 척도지워지는 많은이기¹⁶⁸⁵⁾ 때문이다 이 경우 프로스 티는 앎이

1685) 로고스 와 더불어 수는 끊어진(διωρισμένον 범주들4b20) 량 곧 非 연속적인 량 이라고 말하여지는 216쪽을 참조하라 거기에서는 량의 범주에 수가 속한다 량인 것을 많은이라고 할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량에 고유한 것은 똑 같음이므로 똑 같은 하나에 똑 같지 않는 여럿은 수적으로 대립한다 라고 말해야할 것이다 어째든,

여기에서 텔레스는 하나를 수가 아닌 것으로 보는 반면 여럿을 수로 보아서 하나에 여럿이 수적으로 대립한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텔레스는 하나를 수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일까 415 - 429 - 439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하나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수 로서의 하나(429) 보다는 알려진 하나에 아주 많은 거의 모든 부분을 할애하기는 해도 수 로서의 하

알려지는 것에 대해 있음이다¹⁶⁸⁶) 만약 하나가 여럿에 순수하게 대립된다 라

니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의 아르케에 로서의 하나에 대해 말하면 서도 그는 류의 첫 번째 척도 로서의 하나에 대해서만 말하지 순수하게 수 적인 하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첫 척도 로서의 하나는 여기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여럿이 수이며 하나 가 척도일 경우에만 앎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있듯이 하나는 수에 프로스 티로서 대립된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1686) 로스(845)에 따르면 텔레스는 여기서 형이상학 델타 편 15 장에서 말 하여지는 프로스 티의 두 가지 구분 곧 1) 반대 로서의 2)알려지는 것에 대 한 앎 으로서의 반대를 이끌어 드린다 그러나 관계에 대해 말하는 형이상학 15 장 전체에서는 반대들은 커녕 헤태론 이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온다 대 신 알론 이라는 말이 딱 한번 1021a28에서 나온다 게다가,

범주들 7 장 6a36-6b1에서 나타나는 프로스 티의 두 가지 구분 (186-187)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구분이 나오지 않고 대신 ‘어떤 것의 어떤 것(앎)’에서의 ‘의’ 로서의 관계 와 ‘어떤 것에 대해 있는 어떤 것’ 으로서의 ‘대함’ 으로서의 관계 등의 두 구분이 나온다 따라서,

로스가 자신의 번역서 845쪽에서 제시한 각주 18번의 지시(指示)는 틀 렸다 물론 로스가 지시한 곳에서 알려지는 것에 ‘대해’ 있는 앎이 말하여지 기는한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틀렸다 라고 하는 것은 관계 로서의 앎이 말 하여지지 않았다 라는 것 아니라 텔레스가 행하고 있는 두 구분이 로스가 지시한 곳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오히려,

위에서 제시된 범주들 188쪽(6b17)에서는 반대에 속하는 관계의 보기 로 앎 과 물 인식이 들어지기는 한다 그런데 범주들 이곳에서는 말하여지는 맥락이 알론하다 척도라는 말이 맥락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이상학 그 곳에서는 척도(1021a29)라는 말이 맥락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적절한 곳 어디를 다시 찾아 보아야 할 것 같으나 범주들에서 프로스 티에 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을 다 읽어 보면 형이상학 그 곳 보다는 범주들 그 곳을 지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그러나,

범주들에서도 류적인 앎을 프로스 티라 하는 반면 각각의 앎을 질이라

고 말한다면 다음 과 같은 불 가능한 로고스가 잇 따를 것이다 첫째,

하나는 조금 또는 몇몇들(ὀλίγων 1056b5)일 것이다 몇몇들에게 대립 되는 것은 여럿이기 때문이다 여럿 과 둘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 분명히 하나 또는 몇몇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 와 조금 보다 적음이 있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은 여럿이다 둘은 두 배라고도 말하여지며 두 배는 여러 배 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가 어떤 많음(πλήθος 1056b13)일 것이다 길이에는 길음 과 짧음이 있듯이 **많음**에는 량 많음(πολύ 1056b11) 과 몇몇이 있다 그리고 무엇이든 량 많음은 여럿이고 여럿은 무엇이든 량 많음이다 만약 잘 형성되는(ἐνοπίσω 1056b13)연속 체에 있어서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면 몇몇은 어떤 많음 일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어떤 많음일 것이며 마찬가지로 몇몇일 것이다 둘이 여럿이라면 이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여럿은 물 량 많음 - 물 여럿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 처럼 량 많음이기도 하지만 량 많음과 차이하기도한다 순수하게든 프로스 티 로서든 어떻게 보면 차이나는 여럿은 **초과되는 많음**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모자라**는 **많음**은 **몇몇**이라고 말하여진다 다른 한 편으로,

여럿은 하나에만 대립되는 **수**라고도 말하여진다 우리는 하나 와 하나 들 그리고 흰 것 과 흰 것들 그리고 척도 와 척도지워진 것들 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여러 배도 마찬가지로이다 여럿은 수 각각이기 때문이다 수 각각은 **하나**로부터 이루어지면¹⁶⁸⁷⁾하나에 의해서 척도지워지는 것이므로 그리고 하나에 대립된 것이지 몇몇에 대립된 것이 아니므로 그렇다 그러므로,

둘은 여럿이다 프로스 티 또는 순수한 것이라면 초과하는 많음 으로

고 하는 곳 210(11a25)은 나와도 프로스 티를 반대 라고 하는 곳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는 대립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가운데서 프로스 티와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나는,

텔레스의 문제의 이 두 구분을 정확히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1687)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는 수의 아르케에이다

서가 아니라 첫 번째 여럿 으로서의 여럿이다 반면 순수한 것이라면 **몇몇** 이다 모자라는 많음 으로서의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몇몇은 하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둘을 통해서 있다¹⁶⁸⁸)따라서,

하나 와 여럿은 순수하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에 있어서 대립된다 이 경우 하나는 척도지워지는 여럿에 척도로서 대립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은 프로스 티이긴하나 그 자체 프로스 티인 것은 아니다¹⁶⁸⁹)그런데,

*하나*는 어떤 것 예를들어 둘 보다 적지 않다 적다면 몇몇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많음*은 예를들어 수의 류이다 수는 하나에 의해 척도 지워진 많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 와 수는 대립된다 반대로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스 티¹⁶⁹⁰) 로서 대립된다 척도 와 척도지워지는 것은 동일한 것에 대립되기 때문이다¹⁶⁹¹)

많음은 몇몇에 대립되는 것도 아니며¹⁶⁹²)모든 감각에서 하나에 대립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1688) 그래서 같은 모든 것은 많음 과 적음에 있어 무한하다 라고 아낙사 고라스가 말한 것으로 만족한 것은 그르다 ‘ 과 작음’에 대신에 ‘과 몇몇’ 이 라고 말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음’에 있어서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1689) 프로스 티는 1) 반대 와 2) 어떤 것에 **대해** 있음 - 앎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있음 - 등 두 가지로 알론한 곳에서 구분되었다 여기서는 알론한 어떤 것이 동일한 것에 대해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1690) 이러한 프로스 티는 알려지는 것에 대한 앎의 프로스 티와 같다고 앞에서 말하여졌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앎은 척도이며 알려지는 것은 척도 지워지는 것인 반면 앎은 알려지는 모든 것이나 알려지는 것이 모든 앎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앎은 알려지는 것에 의해서 척도지워지므로 그렇다

1691) 이 때문에 모든 하나가 수는 아니다 나뉘어지지 않는다면 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1692) 량 많음이 몇몇에 대립된다 초과적인 많음이 초과 되어진 많음에 대립되는 것 으로서 말이다

하나 와 많음 가운데 어느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반면 어느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이 양자는 [반대]되지만 다른 한 편으로 프로스 티¹⁶⁹³⁾ 로서 대립된다 많음이 수이고 하나가 척도라면 말이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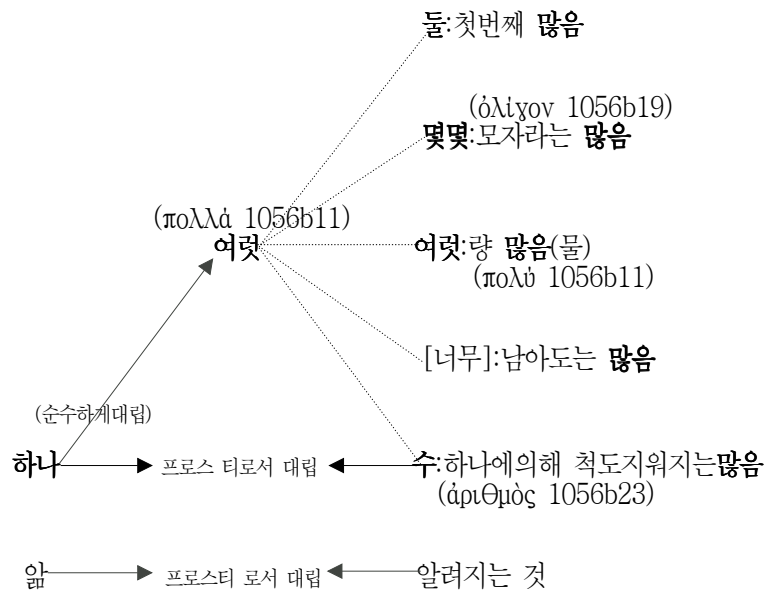
6 장에 의하면 하나는 여럿에 반대 로서 대립된다 라고 말하기 보다는 그리고 여럿에 프로스 티로서 대립된다 라고 말하기 보다는 하나는 많음에 프로스 티로서 대립된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판 났다(ἀποδιδωσιν 1057a8)그래서 단순히 하나가 여럿에 대립된다 라고 말해서는 않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되는 원인은 하나가 몇몇(들)로 따라서 하나가 많음들로 되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는 주로 결정적일 때 귀납에 근거하는(ἐκ τῆς ἐπαγωγῆς 1055a6) 장들과는¹⁶⁹⁴⁾ 달리 6 장에서는 조금 낱말들의 규정에 근거하여 펼쳐진다¹⁶⁹⁵⁾ 따라서,

그 낱말들을 다음 쪽 처럼 나타내 보면 하나가 몇몇 또는 많음일 수 없음이 쉽게 드러날 것이다

1693) 얇이 알려지는 것에 프로스 티 로서 대립해 있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얇의 프로스 티 와 하나의 프로스 티가 엄밀히 같은 것(ὁμοίως 1057a8)은 아니다

1694) 대조는 가장 큰 차이라는 것 또한 변화는 극단들 곧 그 반대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은(4장, 993, 998) 그리고 류 자체를 헤태론하게 하는 것은 차이이며 이것은 대조라는 것(8장, 1012)은 그에 의하면 귀납에 근거한다

1695) 물론 그 최종 근거는 그렇게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의 프로스 티를 하나의 프로스 티와 같다고 여겨서는 안된다 단지 반대 와 대함 등 두 가지 프로스 티 가운데 대함 으로서의 프로스 티 라는 점에서만 이 둘은 서로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수하게 대립된다 라고 말하면 하나는 몇몇 또는 많음일 것이다 그러나 류적인 반대들은 서로에로의 길이 없어 서로로 변화 될 수 없을 정도로 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4장 955쪽에서 말하여졌다

이어지는 7 장은 앞 6 장 보다는 자신의 앞 부분에서 대조 반대 반대임 등에 관해 말하는 4 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7 장에서는 반대들의 사이가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7 장은 1008 - 1011 쪽에서 옮겨 졌으므로 여기에서는 정리 요약해 보기로 하자

반대들의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있으므로 그 사이는 반드시 반대들로부터 있어야만 한다 모든 사이는 그것들의 사이인 바로 그것들과 동일한 류로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것들이 반드시 먼저 그것들로 변화하는 바로 그것들을 우리는 사이들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

하므로 그렇다 예를들어 맨 윗 줄로부터 가장 아래 줄 까지 만약 가장 작은 간격에 의해서 지나간다면 우리는 먼저 사이 음들로 닳아서며 색들에 있어서 힘으로부터 검음으로 닳아 선다면 검음 보다는 먼저 진홍색 과 회색에 닳아서야한다 알론한 경우들도 이와 같다 그런데 알론한 류로부터 알론한 류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연히는 그렇게 변화한다 예를들어 색 으로부터 도형으로의 변화 처럼 말이다 따라서 사이들은 그것들의 사이인 것들과 반드시 동일한 류로 있다 그러나,

모든 사이는 **대립**들의 사이이다 단지 이 대립들로부터만 그 자체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립이 아닌 것들의 사이는 있을 수 없다 있다면 대립들로부터가 아닌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순적인 대립들의 사이에는 있지 않다 이것이 **모순**이기 곧 어떤 것이든 해태론한 것이 함께 주어지는¹⁶⁹⁶⁾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는 반정립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립에는 프로스 티 와 결여 와 반대가 있다 그런데 무엇이든 반대들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함(프로스 티)는 사이를 자니지 않는다 동일한 류로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원인이다 얇 과 알려지는 것의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큼 과 적음의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다

보여졌던 것 처럼 만약 사이들이 동일한 류로 있고 반대들의 사이라면 그 사이들은 이러한 반대들과 반드시 함께 놓여진다 그것들의 류인 것이 있거나 또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류가 이렇게 있다면 따라서 반대들의 어떤 류가 먼저 있다면 류의 종적인 반대들을 이루는 차이들이 먼저인 반대들일 것이다 에이도스(중)은 류 와 차이들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힘 과 검음이 반대들이라면 그리고 한 편으로 투명한 색이고 다른 한 편으로 압축적인 색이라면 그 차이들 투명 과 압축이 먼저이다

1696) ‘ 어떤 것이든 해태론한 것이 함께 주어지는 ’ 이라는 말은 ‘ 그 안에서 생성되는 그리고 그것의 카테애고리아가 되는 바로 그것에 반대 또는 모순들의 해태론한 것이 속하는 ’ 이라고 256쪽에서 말하여진다

이렇게 속하는 것은 반대 와 모순 이 양자에 공통이나 모순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속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기에 모순에는 사이가 있지 아니하나 반대에는 사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먼저인 반대들이다 그러나 실로 반대 차이들이 보다 더 반대들이며 나머지 반대들 곧 사이들은 류 와 차이들로부터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무엇이든지 색들은 힘 과 검음의 사이에 있다 이 색들은 반드시 류 - 류는 색이다 -와 어떤 차이들로부터 말하여진다 그러나 이 차이들은 첫 번째 반대들이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각기 색은 힘 또는 검음 일 것이다 따라서 헤태론하다 따라서 그러한 색들은 첫 번째 반대들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차이들은 투명 과 압축이다 그래서,

류적으로 반대가 아닌 모든 것들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그것들의 사이들이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조사된다 동일한 류로 있는 것들은 반드시 그 류를 이루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지거나 그 류를 이루지 않는 것들이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제 **반대**들은 서로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들은 아르케애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사이들은 모든 서로로 이루어지거나 어떤 서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들로부터 어떤 것이 생성된다 따라서 그 반대로 있기 전에 이 어떤 것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어떤 것은 각기 것 보다 덜하며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어떤 것이 반대들의 사이일 것이다 따라서 알론한 모든 사이들은 이 반대들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한 편으로 더하게 다른 한 편을 덜하게 합해진(이루어진) 것은 한 편으로 더 다른 한 편으로 덜있따 라고 말하여지는 저 반대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다 먼저인 것(반대)은 반대들의 같은 류와 헤태론한 것이 아니므로 모든 사이들은 반대들로부터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위의 모든 반대들 과 사이들은 첫 번째 반대들로부터 있을 것이다 사이들은 동일한 류 아에 있으며 반대들의 사이는 모두 각기 그 반대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오타 편 7 장은 사이에 대해 주로 말하면서 변화는 사이들을 거친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변화는 934쪽의 그림에 나타난 사이들을 거쳐 반대로 생겨난다

반대들의 사이이므로 반드시 반대로부터 있는 사이는 반대와 동일한 류로 있다¹⁶⁹⁷)따라서 모든 사이는 반대 대립들의 사이이다 이것들이 그 자체로 변한다 따라서,

모순 대립들에도 사이가 없다¹⁶⁹⁸) 어떤 것이든 해태론한 것이 함께 주어지는(παρεσθιν 1057a35) 모순은 자신의 사이에 어떤 것도 있지 않는 반정립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프로스 티 대립에도 사이는 있지 않다 동일한 류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¹⁶⁹⁹) 나아가서,

사이들은 동일한 류이며 반대들의 사이라면 사이는 반드시 반대들과 함께 놓여진다 사이들의 류인 것이 있거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류가 이렇게 있다면 그래서 반대들의 류가 먼저 있다면 류의 종적인 반대들을 이루는 차이들이 먼저 반대들일 것이다 **중**은 류 와 차이들로 있기 때문이다 반대들은 서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르케아들이다 그러나 사이들은 더 와 덜 합해진 반대들로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힘 과 검음이 반대들이라면 그 차이는 투명 과 압축이다 이 투명 과 압축이 상위 반대들을 이룬다 그리고 예를들어 진홍 과 회색 같은 나머지 사이들은 상위 반대들의 더 와 덜로부터 있(εἶναι τοῦ μὲν μάλλον τοῦ ὀψιόν 1057b28-29)으므로 더 덜 합해진 상위 반대들의 차이(들)이다 따라서 하위 반대 와 사이들은 바로 류 와 차이들로 있다 류 와 차이들의 합해짐으로부터 **하위 중**(에이도스)들이 있다 그러므로,

해태론(ἕτεραι 1057b17)들은 차이들이며 해태론한 것들은 차이들을 지닌 반대들이고 그 차이 와 류로부터 있는 (중)에이도스(들)이다 그리고,

변화 그 자체는 사이들을 거쳐 먼저 반대로 이루어지지 **알론한** 류에

1697) 예를들어 사이 진홍 과 회색은 반대 힘 과 검음의 사이이므로 힘으로부터 검음으로 또는 거꾸로 변화하려면 반드시 진홍 과 회색을 거쳐야한다 이러한 변화는 알론한 류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색으로부터 도형으로의 변화 처럼 말이다 우연히 변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알론한 류로 변할 수 없다

1698) 그렇다고 모순 대립들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921쪽에 그려진 생성 소멸이 바로 그 변화이다

1699) 그래서 앞 과 알려지는 것 사이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으나 큼 과 적음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다

서 알론한 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¹⁷⁰⁰⁾ 8 장 요약 전에 다시 말하고
저 한다 따라서,

7 장에서는 류 하나 와 종 여럿이 말하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하나 와 여럿이 서로 대립한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럿들
이 서로에 반대 대립되며 이러한 여럿들은 헤태론한 것들이다 라고 말하여
지는 동안에 하나 와 여럿은 서로에 알론한 것들이지 헤태론한 것들은 아니
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 같다¹⁷⁰¹⁾예를들어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에 알론한
것이지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제,

1011 - 1013쪽에서 옮겨진 8 장을 요약 정리해 보기로하자 헤태론에
대해 8 장은 말한다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은 어떤 것의 헤태론한 것이며 이 어떤 것은 반
드시 헤태론한 것 양자에 속한다 예를들어 만약 종적으로 헤태론한 생물이
라면 생물은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들 양자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들은 반드시 동일한 류 안에 있어야한다 헤태론한 양자에 속하
는 동일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그리고 질료로서 있든 알론한 것으로서 있
든 非우연적으로 차이나는 그러한 것이 매끈하게 류이기 때문이다 예를들
어 생물이 헤태론한 양자에 공통으로 속하는 것 처럼 공통인 것이 헤태론한
것 양자에 반드시 속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 단지 아니라 마찬가지로 바로
그 생물이 각기 그 양자에 의해 헤태론하므로 그렇다 예를들어 [생물은] 말
인 반면에 사람인 것 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공통인 것이 종적으로 서로 헤

1700) 단 텔레스에 따르면 우연히 이루어지는 한다 따라서 변화 그 자체
는 동일한 류 안에서 이루어진다

1701) 하나는 여럿에 알론하고(다르고) 여럿은 하나에 알론하지만 하나는
여럿에 헤태론하지(차이나지) 않고 여럿에 하나는 헤태론하지 않는 반면에
여럿들은 서로에 헤태론하다 라고 나는 일단 말해 보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텔레스에게 적절한지 의문스럽다

태론하다 실로 그 자체로 그러한 생물인 반면 저러한 생물일 것이다 예를들어 말인 반면에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류의 *헤테론함*들이다 이 류 자체를 헤테론하게 만드는 헤테론함들을 나는 류의 차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대조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귀납으로부터 분명해진다 모든 것들은 대립들로 나뉘어지기 때문이며 반대들은 동일한 류 라는 것은 보여졌기 때문이다 **반대임**은 *끄트머리* 차이이므로 그렇다 종적인 모든 차이는 어떤 것의 차이이다 따라서,

이 어떤 것은 양자에 동일한 것 곧 류이다 때문에 종적인 차이이지 류적인 차이는 아닌 모든 반대들은 범두들의 일련의 동일한 선상에 있다 그리고 서로 가장 헤테론한 차이는 *끄트머리*이기 때문이며 서로로 동시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이는 대조이다 따라서 이 **대조**는 종적으로 헤테론에 있음이다¹⁷⁰²⁾ 동일한 류로 있는 대조는 쪼개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들이다 대조를 지니지 않는 *종적으로 동일한 것들이 아토마*(쪼개지지 않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쪼개지지 않는 것들로 되기 전에 대조는 나뉘어져 **사이**들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류로 있는 것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류의 종에 드는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종적으로 동일하지도 헤테론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선명하다 - 질료는 부정에의해서 분명해지는데 어떤 것의 류라고 말하여지는 그 류가 어떤 것의 질료이기 때문이다 물론 헤타클레이도스의 것 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으로서의 질료이다 - [또한] 동일한 류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류의 종들 가운데 어느 것도 종적으로 동일하지도 않으며 헤테론하지도 않다 그러나 류적으로는 저것들과 구분되는 반면 동일한 류로 있는 것과는 종적으로 구분된다 대조는 반드시 종적인 차이들인 그런 차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차이는 동일한 류로 있는 것들에만 단지 속한다 따라서,

헤테론은 류적인 헤테론 과 종적인 헤테론 등 두 가지로 나뉘어진 다¹⁷⁰³⁾

1702) 가장 큰 차이가 대조이다 라고 말하는 4 장 1022쪽을 참조하십시오

1703) 그러나 그 나뉘은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류의 헤테론은 종

종적으로 해태론한 것은 동일한 류의 해태론한 것이므로 해태론한 것 양자에 류가 공통으로 속해 있다¹⁷⁰⁴)따라서 종적으로 해태론한 것들은 반드시 동일한 류로 있다 그런데 류란 종적으로 해태론한 것 양자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동일한 하나일 뿐 아니라 질료로서든 알론한 것으로서든 非우연적으로 차이나는 것이기도하다 그래서 류는 그러한 차이에 의해 해태론해진다 그러므로,

류 자체를 해태론하게 만드는 것은 류의 차이이다 따라서 그러한 차이가 류의 해태론함이다 바로 이것이 대조이다¹⁷⁰⁵) 그런데,

해태론한 종의 차이는 동일한 류의 차이이다 해태론한 양자에 동일한 것이 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류적인 차이가 아닌 종적인 차이인 모든 반대들은 범주들의 일련의 동일한 선 상에 있다 서로 가장 해태론한 차이는 ㅁ트머리이기 때문이며 서로로 동시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대조이며 이러한 대조가 종적으로 해태론에 있음이다 그런데,

종적으로 동일한 것들은 이러한 대조를 지니지 않으며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것들이다 쪼개어지지 않는 것들로 되기 전에 대조는 나뉘어 사이들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류의 종은 종적으로 동일하지도 해태론하지도 않으며¹⁷⁰⁶)또한 동일하지 않는 류의 종도 종적으로 동일하지도 해태론하지도 않다 그러나 류적으로든 종적으로든 저 동일한 류의 종들과 구분된다 구분된다 대조는 반드시 종적인 차이들인 그런 차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 해태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704) 예를들어 동일한 생물 류는 종적으로 해태론한 것인 말 또는 사람에게 공통으로 속해 있다 따라서 말 과 사람은 반드시 생물로 있어야한다

1705) 이것은 귀납으로부터 분명해진다 모든 것은 대립들로 나뉘어져 있으며 반대들은 동일한 류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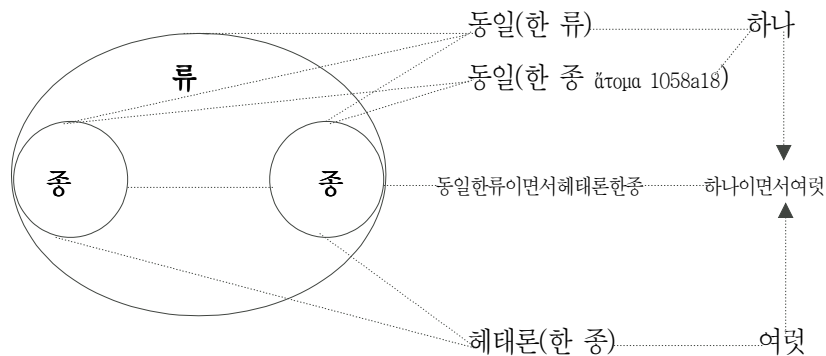
1706) 부정에의해서 분명해지는 질료는 어떤 것의 류라고 말하여지는 바로 그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의 류는 어떤 것의 질료가 된다 이러한 질료는 자연적인 질료이지 헤라클레이토스의 흥상의 질료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종 과 류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한다¹⁷⁰⁷⁾ 이 둘에 대해 무엇인
가를 말하지 않고는 내 머리가 더욱 혼란 스러워 질 것 같기 때문이다 우
선,

종은 류 와 차이로부터 있는 반면 류는 헤태론한 종들 안에 공통으로
있는 동일한 하나이며 非우연적인 차이를 지닌다 이 차이들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대조이며 대조는 종적으로 헤태론에 있음(1013)이다 따라서,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은 류적으로 동일한 것인 반면에 류적으로 헤태
론한 것은 종적으로 차이난 것이다 차이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대조인데
대조를 지니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종적으로 동일한 것 곧 쫓개지
지 않는 것(ἄτομα 1058a18)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 와 헤태론한 여럿이 서로에 어떻게 대립되는지를 종 과
류에 연결지어 다음 처럼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1027쪽의 그림 과 1034
쪽의 도표에서 말하여진 모순적인 결여로서 대립하고 있는 동일 과 헤태론
은 아래의 그림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류 와 종이 크고 적은 등그렇게 대조되는 것은 차이 때문이며 그 대
조를 지니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있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쫓개어질 수 없는 것 으로서 종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1707) 실체 로서의 종 과 류에 대해서는 170쪽을 살펴보세요

해태론한 종들 곧 반대들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동일한 류로 있든 있지 않든 종적으로 동일하지만도 해태론하지만도 않다 그러나 동일한 류로 있지 않는 것들은 사이에 동일한 류로 있는 저것들과 류적으로든 종적으로든 구분된다(διωσει 1058a25) 대조는 반드시 종적인 차이기 때문이다 이제,

9 장을 요약하기 전에 질료가 8장에서 나오는 맥락을 되 짚고 넘어가려한다 질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로고스에 주어지는 대조를 통해서 종적으로 차이난다 라고 9 장에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사이에] 동일한 류로 있는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종적으로 동일하거나 해태론하지 않는 원인(γὰρ 1058a23)이 말하여지는 8 장의 끝 부분에서 질료는 나타난다 부정(ἀποφάσει 1058a23)에 의해서 분명해지는 질료는 류인데 어떤 것의 류일 때의 그 류이다이다 따라서 어떤 것의 질료는 바로 어떤 것의 그 류이다 질료 때문에 [사이들은] 종적으로 동일하지도 해태론하지 않다는 것인데.....어째든 9 장을 미리 끌어와 본다면 질료 때문에 종적으로 차이난 것이 아니라 로고스에 주어지는 대조 때문에 종적으로 차이난다

차이나기 때문에 해태론하고 가장 큰 차이 곧 대조를 지니므로 반대된다는 것은 한결 같이 흐르는 텔레스의 로고스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종적으로 해태론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의 류인 질료가 차이나기 때문은 아니라는 말이될텐데.....

1014 - 1016에서 옮겨진 9 장을 정리 요약해 보자

무엇 때문에 여자는 남자와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을까 라는 어려움이 대조적으로 차이나는 한편 반대로 있는 암컷 과 수컷으로부터 떠오를 것이다 생물 암컷 과 수컷은 종적으로 해태론한 것이 아니다 실로 힘 과 검음 같은 것이 아니긴 하나 생물의 이 차이 암컷 과 수컷은 그 생물에 그 자체로 속한다 또한 이 어려움은 예를들어 날개 달림 과 다리 달림은 종적으로

혜태론하게 만들지만 흰 과 검은은 종적으로 혜태론하게 만들지 않는 것 처럼 무엇 때문에 대조는 어떤 것을 종적으로 혜태론하게 만들면서도 어떤 것을 종적으로 혜태론하게 만들지 않을까 라는 어려움과 비슷하다 류의 고착된 속성인 반면 덜 고착된 속성이어서일까

실로 한 편으로 로고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질료이므로 로고스에 있어 반대임은 종적인 차이를 만드는 반면 함께 취하여진 질료에 있어서 반대임은 종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때문에 사람의 힘도 검음도 종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으며 흰 사람 과 검은 사람도 종적으로 차이하지 않고 심지어 이것들 각각이 이름 하나에 의해서 가리켜지더라고 그렇지 않다 질료로서의 사람이고 질료는 차이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질료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의 종이지는 않으므로 그렇다 실로 이 사람 과 저 사람을 이루는 살과 뼈는 혜태론하다 그러나 합쳐진 전체는 혜태론하지만 한 편으로 종적으로는 혜태론하지 않다

로고스에 대조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조는 쪼개지지 않는 궁극적인 것이다 칼리아스는 질료 더하기 로고스이다 그리고 실로 칼리아스가 희기 때문에 흰 사람이 있다 이제 사람은 우연히 희다 실로 청동으로 된 둥근 것 과 나무로 된 둥근 것도 종적으로 차이하지 않으며 청동으로 된 세모 와 나무로 된 둥근 것도 종적으로 차이하지 않는다 질료 때문에 종적으로 차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고스에 대조가 주어지므로 종적으로 차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혜태론하게 본다면 질료는 종적으로 혜태론하게 만들지 않을까 또는 만드는 것으로서 있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이 말이 저 사람과 종적으로 혜태론할까 비록 이 말 과 저 사람의 로고스들이 질료와 더불어 있긴해도 말이다 라는 물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로고스에 대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일까 [그렇다] 왜냐하면 흰 사람 과 검은 말에도 마찬가지로 대립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적으로 대조된다 그러나 한 편으로 흰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검기에 그런 것이 아니다 설령 사람 과 말 양자가 희더라도 이와 똑 같이 종적으로 혜태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물의 수컷 과 암컷은 한 편으로 고착된 속성이다 그러나 실체에 따른 고착 속성이 아니고 질료 와 몸에 고착된 속성이다 때문에 동일한 씨가 어떤 것을 겪으므로써 암컷 또는 수컷이 된다 이제,

종적으로 헤태론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한 편으로 종적으로 차이나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차이나지 않는가가 말하여졌다

질료에 있어 반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로고스에 있어 반대되기 때문에 종적으로 차이난다 라고 말하는 9 장에서는 질료적인 반대임 와 로고스적인 반대임으로 반대임을 나눈다 따라서 모든 반대가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로고스에 있어서의 반대가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든다 이러한 것을 말하기 위해 그가 들고 있는 차이들의 보기들을 살펴 봄 으로서 보다 쉽게 그가 말하고자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암컷과수컷 과 힘과검은 과 날개달림과다리달림 그리고 살과뼈 와 청동으로된등근것과나무로된등근것 과 청동으로된세모와나무로된등근것 등이 9장에서 그에 의해 들어지는 차이의 보기이다 이 가운데 단지 날개달림 과 다리달림 만이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드는 차이인 반면 나머지 다섯 가지 차이는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할까 이것이 문제이다

류에 더 고착된 속성인 반면 류에 덜 고착된(oikeia 1058a34) 속성이 어서일까 류는 그것의 류라고 말하여지는 그것의 질료라고 8 장에서 말하여 지므로 여기서 속성이 그리로 고착되는 것은 어떤 것의 류 라고 말하여지는 바로 어떤 것의 그 질료일 것이다 날개달림과두발달림 이외의 수컷과암컷을 포함한 다섯 가지 차이는 모두 이러한 질료 또는 류에 고착된 것들이므로 종적으로 차이는 만들지 못하지 더 덜 그 류 또는 질료에 고착된 것들이어서가 아니다 나아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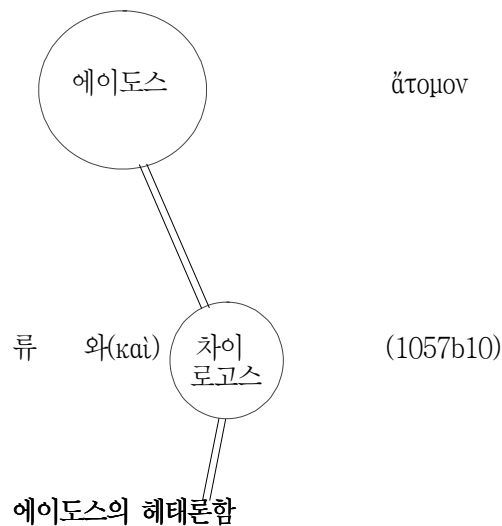
이렇게 고착된 것들은 우연히(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 1058b12) 그러한 것들이다 예를들어 사람은 우연히 희거나 검고 남자인거나 여자이며 공은 우연히 청동으로된 것이거나 나무로 된 것이고 청동으로된 세모도 나무로된 공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 사람이 희고 말이 검은 것도 역시 우연히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흰 사람 과 검은 말은 종적으로 차이난 것이다 왜냐하면 로고스에 있어서 반대 또는 대조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흰 새 와 검은 사람 역시

종적으로 차이 날 것이다 이 둘의 로고스 또는 정의 곧 날개달린 생물 과 두 발달린 생물 이 둘의 로고스 또는 정의가 대조 또는 반대되기 때문이다¹⁷⁰⁸)말 과 사람이 종적을 차이나는 것은 질료에 주어지는 힘 과 검음 이라는 대조(가장 큰 차이)가 아니라 로고스에 있어 주어지는 대조일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대조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은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ἄτομον 1058b10) 것이다 이제,

다음의 그림을 그려본 후 이오타 편 마지막 장으로 닥아서 보자



이제 류적인 헤태론함에 대해 말하는 이오타 편 10 장을 요약 정리해 보자 1017-1018쪽에서 10장은 옮겨졌다

반대들은 종적으로 헤태론하며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은 반대¹⁷⁰⁹)이므로 - 결여는 규정된 무 능력이기 때문이다 - 소멸하는 것 과

1708) (날개 달리지 않은) 두 발 생물 이라고 444쪽에서 말하여지는 사람의 로고스(정의)를 참조하라

소멸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류적으로 헤태론하다¹⁷¹⁰⁾

지금까지 그러한 보편적인 이름들에 관해 말했고 그래서 무엇이든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은 종적으로 헤태론한다 라고 여기는 것은 불 필요할 것이다 흰 것 과 검은 것을 종적으로 헤태론한다 라고 여기는 것 역시 불 필요할 것이다 보편자의 경우 회고 검을 것 처럼 동일한 것이 동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각기 것도 동일한 것이 동시적이지 않게 회고 검을 것이므로 양자적이기 때문이다 비록 힘은 검음에 반대이긴해도 반대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한 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알론한 여럿들 처럼 **우연**히 어떤 것 *하나*에 속하는¹⁷¹¹⁾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우연히 어느 하나에 속할 수 없다

이 우연히 속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이 있다 우연히 소멸하는 것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연적인 것은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소멸은 속하는 것들에 필연적으로 속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하나가 소멸하거나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소멸이 그 하나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면 말이다 따라서 소멸은 각기 소멸하는 것들의 실체이든지 또는 각기 소멸하는 것들의 실체에 반드시 속해야한다 동일한 로고스가 소멸하지 않는 것에 관해 성립한다 양자는 **필연**적으로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하는 것 그런데 소멸하지 않는 것에 관한 한 첫 번째로 반 정립하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류적으로 헤태론하다 이제,

1709) 헤태론함에 대해 말하고 있기에 텔레스는 반대(ἐναντία 1058b28)라는 말을 썼으나 동일함 과 헤태론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아마 그는 모순(ἀντιφασις 1067b22)이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 997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반대 대립 과 모순 대립은 분명히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써야 할 곳에 말을 써야 할 것이다

1710) 류는 헤태론한 종들에 공통적인 것이라는 1012쪽을 참조하라 그런 후 1047쪽의 그림을 살펴보라

1711) 칼리아스는 우연히 회다 라고 말하는 1015쪽을 참조하시오 그리고 우연에 대해서는 834 - 850을 참조하시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에이도스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선명하다 있다면 사람이 한 편으로는 소멸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소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에이도스는 각기 것들과 종적으로 동일한 것들이지 호모오우마한 것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류적으로 헤태론한 것들은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들 보다 더 많이 벌려져 있다

7 장은 헤태론한 사이들에 대해서 8 장은 헤태론에 대해서 9 장은 종적인 헤태론에 대해서 10 장은 류적인 헤태론에 대해 말했다 이 장들에 따르면 헤태론한 사이는 종적인 차이를 지니지 않는 반면에 헤태론한 반대들은 종적인 차이 또는 류적인 차이를 지닌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떤 대립은 종적으로 헤태론하지 않고 류적으로 헤태론한가 라고 10 장에서 물어진다 가장 많이 벌려져 있는 첫 번째 반 정립이기 때문이다¹⁷¹²⁾텔레스는 이러한 반 정립의 보기로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을 든다

9 장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흰 것 과 검은 것은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이 아니 듯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도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반대들을 모두 종적인 반대들로 볼 필요가 없다 보편자의 경우¹⁷¹³⁾ 희고 검은 사람 처럼 동일한 것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데다 각기 것의 경우에도 동시적이 아니라면 동일한 사람이 희다가 검은 것 처럼 양자적이기 때문이다¹⁷¹⁴⁾그런데,

흰 과 검은은 동일한 것에 우연히 속하는 반면 소멸 과 소멸하지 않음은 필연적으로 속하므로 속하는 어떤 것은 반드시 소멸하거나 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1712) 999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반대들 가운데 첫 번째 반대들은 류적인 반대들이며 대립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모순이고 모순 가운데 첫 번째 것은 결여 와 습성이다(1026)

1713) 이오타 편 3 장 - 9 장은 보편자에 대해 말하는 맥락이다 보편자에 대해서는 456, 606쪽 각주 900번 등을 참조하십시오

1714) 9 장에서 말하여지듯이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은 더 이상 쪼개어 질 수 없는 것이었음 기억하라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반 정립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반 정립들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은 필연적으로 류적으로 해태론한 것이다 따라서,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은 종적으로 해태론한 것이 아니라 류적으로 해태론한 것이다 류적으로 해태론한 것들은 종(에이도스)적으로 해태론한 것 보다 더 많이 별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텔레스는 여기서도¹⁷¹⁵⁾ 어떠한 에이도스론 자들의 에이도스를 반박한다 그리고 그 반박을 통해서 자신의 논증을 마무리한다

어떤 사람들의 에이도스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있다면 사람이 한 편으로 소멸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소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멸해 버리는 에이도스 그건 에이도스가 아니다 어떤 각기 것에 가장 먼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그리고 에이도스는 어떤 각기 것과 종적으로 동일한 것이지 호모오뉴마한 것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텔레스가 여기에서 거부하는 에이도스는 호모오뉴마하다고 말하여지는 에이도스이다 다시 말해 실체의 로고스에 있어서는 해태론하지만 같은 이름을 지닌 그러한 에이도스이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 어찌 소멸하겠는가 죽은 손가락 또는 잘려진 손가락이 어찌 살아있는 손가락 또는 붙은 손가락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호모뉴모스한 것일 뿐이다¹⁷¹⁶⁾

이제 까지 이오타 편 3 - 10 장을 정리했다 이 장들은 하나 와 여럿이 어떻게 서로에 대립되는가가 말하여지면 그의 형이상학 핵심이 되는 것

1715) 그는 틈만 나면 그리고 관련이 조금만 되 있다고 여겨지면 여지없이 어떤 에이도스론자들의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를 반박한다 특히 482쪽을 참조하시오 대 부분의 형이상학 또는 범주들에서 나타나는 그의 논증의 중요한 매듭은 이러한 에이도스를 반박함으로써 풀려진다

1716) 819 - 820쪽을 참조하시오

들 가운데 하나인 에이도스가 더불어 말하여졌다 그러나,

나는 에이도스 보다는 있는 하나 와 있는 여럿에 좃 점을 맞추어 여
지껏 말해 왔다 에이도스에 좃 점을 맞추어 문제의 이 장들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를 위해 좋은 일이라 여겨진다 어찌든,

있는 모든 것은 하나 이면서 여럿이다 다시 말해 1047쪽에 그려진 것
처럼 동일한 류 이면서 헤태론한 종 으로서 모든 것은 항상 있다 물론 각기
것은 소멸하기도하고 소멸하지 않기도하지만 말이다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가 나뉘어지는 여럿에 대립 되는데 하나에는 동
일한 하나 와 같은 하나 와 똑 같은 하나가 속하는 반면에 여럿에는 헤태론
한 여럿 과 같지 않는 여럿 과 똑 같지 않는 여럿이 속한다 그리고 헤태론
한 것에는 종적으로 또는 류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다(3장)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차이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이
대조라고 말하여지며 첫 번째 대조는 습성과결여라고 말하여지고 이 결여적
인 모순으로 헤태론한 것에 동일한 것은 반대된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렇듯
하나 와 여럿은 대립되는 것들이다 헤태론은 동일함의 결여이며 같지 않음
은 같음의 결여이고 똑 같지 않음은 똑 같음의 결여이다(4장) 그러나,

다 같은 결여가 아니다 헤태론은 동일함의 모순적인 결여인 반면에
똑 같음은 같음의 결여적인 부정(ἀπόφασις 1056b23-24)이다(5장) 그리고,

하나가 여럿에 순수하게 대립되는 것 이아니다 많음 수 로서 여럿에
프로스 티 로서 하나는 대립된다(6장) 나아가서,

모순적인 대립에는 있지 않는 사이들은 종적인 차이의 더 덜 합해진
것이며 좋은 류 와 차이로 이루어진다(7장) 그리고 류는 헤태론한 종 양자
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것 으로서 그 헤태론한 함은 종적인 차이에 근거한
다(8장) 그런데 질료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에 있어 대조되기 때
문에 종적으로 헤태론하다 따라서 수컷 과 암컷은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이
아니다 씨가 어떤 겪음을 통해서 질료에 고착된 것들이기 때문이다(9장) 나
아가서 류 자체를 헤태론하게 만드는 헤태론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류의
차이이다(8장) 류적으로 헤태론한 것이 첫 번째로 대립되는 것들인데 소멸
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첫 번째 대립에 속한다(1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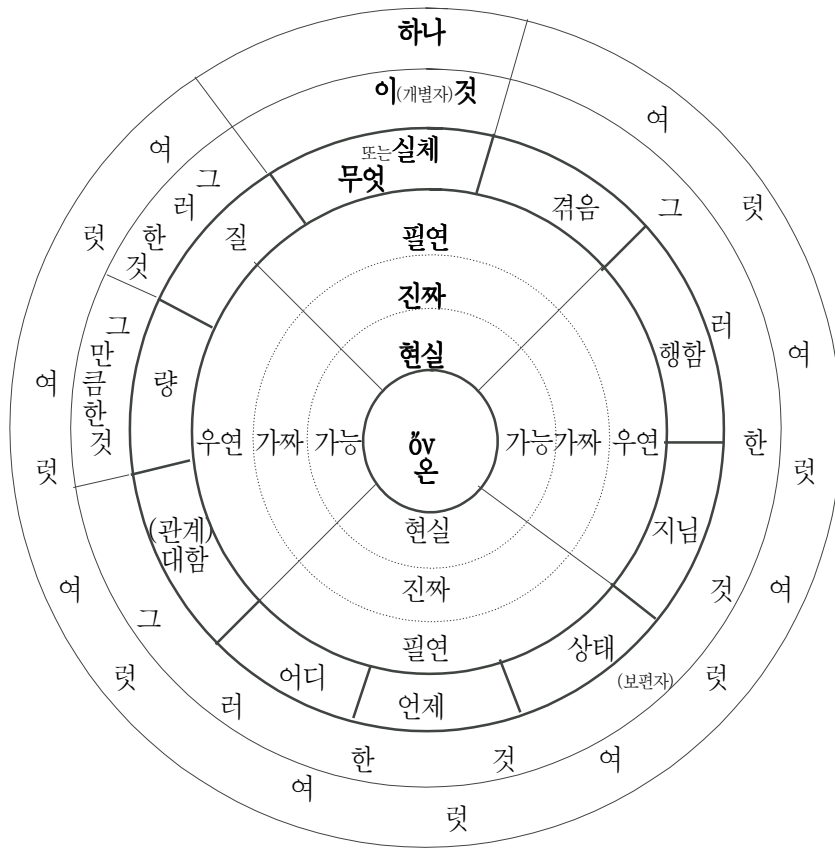
하나 와 여럿은 이렇듯 대립한다 그러나 여럿에 하나가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다 980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있는 것과 더불어 하나는 범주들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 이면서 여럿인 에이도스가 있으므로 그렇다¹⁷¹⁷⁾ 그래서 분리해 있는 호모오뇌모스한 것이라고 에이도스는 말하여지지 않아야한다 이제,

나는 있는 것의 양상에 대해 말하는 나의 본디 임무로 돌아가야한다 하나 와 여럿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도 있는 것은 하나 이면서 여럿이라고 텔레스에 의하면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오타 편 3 - 10 장을 거슬러 올라온 결과 나는 소멸하지 않는 에이도스(중)의 류적인 동일함으로 인해 모든 것은 항상 하나로 있으며 그 종의 헤테론함으로 인해 모든 것은 항상 여럿으로 있다 라고 텔레스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따라서,

있는 양상 가운데 하나 와 여럿을 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6 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973쪽의 그림에 원 하나가 더 붙혀진 7 개의 원으로 있는 양상 7 가지를 다음쪽에 그려 내려한다

1717)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여럿이라는 것은 아니다 721쪽을 참조하라



둥근 각 원들은 있는 양상 하나 씩을 나타낸다 범주1718) 역시 그 있는 양상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859쪽에서 보여진 것 처럼 범주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그 자체로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선 진하게 둥글게 만들었다 물론 은을 감싸고 있는 둥근 원은 그렇지 않긴해도 말이다 혹시,

나는 위 일곱 가지 있는 양상 이외에 있는 다른 양상이 있나 하고 뒤

1718) 범주에 대해서는 161 - 164 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서는 어떤 연결도 있지 않는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실제 또는 량 또는 질 또는 관계 또는 어디 또는 언제 또는 상태 또는 지님 또는 행함 또는 겪음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적거려 보았지만 현재의 나에게서는 알론한 양상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제,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말을 해야겠다

텔레스에 따르면 288쪽(1028a14)에 나온 것 처럼 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실체이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제에타 편 16 장 가운데 부분 시작하는 곳 즘음인¹⁷¹⁹⁾1040b18을 보라 하나와 더불어 ① 있는 것¹⁷²⁰⁾은 실체가 아니다 라는 그의 말이 나온다 물론 있는 것 과 하나는 아르케에 와 요소 와 원인 보다 더 실체적이긴하다 라는 그의 말이 뒤 이어져 나오기는 해도 말이다

“ 하나는 있는 것 처럼 말하여지므로 그리고 하나인 것의(τού ἐνός 1040b17)실체는 하나이며 자신들의 실체가 수적으로 하나인 것은 수적으로 하나이므로 하나도 **있는 것도** 프라그마들의 **실체**(ούτοιαν b18)일 수 없다는 것은 선명하다 요소에 있음 또는 아르케에 있음도 (프라그마들의 실체일 수 없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보다 더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아르케가 무엇인지를 조사한다¹⁷²¹⁾이제,

이것(하나 와 있는 것 과 요소 와 아르케에)들 가운데 하나 와 있는 것은 아르케에 와 요소 와 원인이 (실체인 것) 보다 더 실체이다 그렇지만 공통된 알론한 어떤 것도 실체는 아니므로 이(하나 와 있는 것)것들 조차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으며 자신을 지니는(ἔχοντι 1040b24)(자신이) 그것의 실체인 바로 그것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1719) 497 - 504 쪽에서 제에타 편 16 장은 옮겨져 요약 정리되 있다

1720) 있는 것은 주로 하나와 짝을 이루어 말하여지곤한다 물론 둘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978, 683, 943, 498, 992쪽을 참조하라

1721) 아르케에에 대해서는 510, 1010쪽을 참조하시오

하나는 동시에 여러 (곳 πολλαχῆ b25)에 (속하지) 않을 것인 반면 공통적인 것은 동시에 여러 곳에 속한다 따라서 보편자들 가운데 어느 것도 각기 것과 나란히(παρὰ τὰ καθ' ἕκαστα b27) 분리되어 속할 수 없다 그러나,¹⁷²²⁾(1040b16-27)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하나 와 있는 것은 비록 요소 와 아르케에 와 원인 보다는 더 실체이긴 해도 프라그마들의 실체는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 왜냐하면 실체는 그 어떤 알론한 것에도 속하지 않으며 그 어떤 알론한 것과도 공통적이지 않으나 있는 것 과 하나를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은 알론한 것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모든 것에 공통이라는 것은 이미 974-978쪽에서 충분히 말하여졌고 공통적인 것은 여러 곳에서 여럿에 동시에 속한다고 위 인용 글월에서 말하여지며 많은 것에 공통인 것은 보편자라고 456쪽에서 말하여졌으며 보편자는 각기 것들과 분리해 있지 않다는 것이 위 인용 글월에서 말하였으므로 있는 것은 보편자 라는 로고스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체가 만약 공통적인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것은 보편자 라면 보편자인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라는 것이 잇 따를 것이다 이러한 잇 따름은 다음 쪽 처럼 나타난다

1722) 에이도스에 관해 말하는 어떤 자들이 이 점에서는 옳고 저 점에서는 그르다 라고 이어진다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499쪽을 참조하라

있는 것은 모든 것에 공통이며
공통인 것은 보편자 라면
보편자는 있는 것이다

한 편

어떤 것에 있는 것은 어떤 것에 속한 것이라고¹⁷²³⁾
속한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 라면
있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보편자이며
있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보편자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보편자는 공통인 것이고
공통인 것은 실체가 아니라면
실체는 보편자가 아니다

따라서

실체는 보편자가 아니고
있는 것은 보편자 라면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마찬 가지로

실체는 분리된 것이며¹⁷²⁴⁾
있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실체는 있는 것이 아니다

1723) 어떤 것에 속함은 반드시 어떤 것에 있음 이라는 것은 694쪽에 나와 있다

1724) 실체는 분리된 것이 아니 라는 로고스는 298쪽에서 확인되는 반면 여기서는 함축된다

거기에서는 분리(가능)성 과 이 것임이 실체에 주로 속하는 것이라 말하여지는 반면 여기서는 어떤 보편자도 분리되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진다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 라는 제에타 편 16 장의 로고스는 실체에 우선적으로 속하는 분리 와 이 것에 근거해 볼 때 앞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아주 일관적이다 그러나,

② **있는** ('범주)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있는** 무엇은(πρώτον ὄν τὸ τ i 1028b14, 288) **실체를 가리킨다** 라는 제에타 편 1 장을 여는 로고스는 **있는**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라는 여기의 로고스와 어긋 나는 것 처럼 보인다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범주 그리고 이제 까지 내가 말한 범주를 제외한 여섯 가지 양상으로 말하여지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있는 것이 일련의 범주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다시 말해 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있는 것이 다시 말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실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라는 그의 로고스를 실체가 전혀 아니다 라고 받아드리는 것은 무모하다 여기 ' μᾶλλον.....ούσια.....ἢ __ (__ 보다 더.... 실체인....1040b21) '에서 처럼 비록 실체는 아니지만 **보다 더** 실체이다 라는 말이 나오며 범주들에서도 종이 류 **보다 더** 많이 실체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170쪽) 있는 것은 전혀 실체가 아니다 라고 간단히 이 부분을 처리해 버리는 것은 무모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에라 그냥 넘어가자(1725)더 와 덜을 실체에 고유한 것이라고 했다가는 큰 일 난다 실체에 고유한 것은 분리 와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실체적이라는 말을 같은 이름(호모오뉴마) 또는 동일한 이름(쉬노오뉴마)과 연관 지어 숙고해 보는 것이 어떻게 물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지라도 말이다 나는 이러한 이름들을 809 - 830 쪽에서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 한정하여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그냥 스치듯 지나가려

1725) 똑 같다 와 똑 같지 않음은 량에 고유한 것이며(223) 같다 와 같지 않다는 질에 고유한(209) 반면 더 와 덜은 어느 것에 고유한지 범주들에서는 말하여지지 않는다 단지 모든 질이 더 와 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209) 모든 관계가 더 와 덜(μᾶλλον καὶ ἧττον 6b21)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188-189) 라고 말하여지기 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한다

③ 있는 것(들)은 호모오뇌모스하게(같은 이름으로)도 쉬노오뇌모스(동일한 이름)하게도 말하여지지 않고 실체에 대해(관련하여, $\pi\rho\acute{o}s$ 1003b6, 1030b3¹⁷²⁶)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자신들의 공통 이름인 생물을 지니지만 자신들의 실체의 로고스가 헤태론한 사람 과 (그려진) 사람¹⁷²⁷과도 달리 말하여질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공통인 이름인 생물을 지녔으면서 그 실체의 로고스 마저 동일한 사람 과 황소¹⁷²⁸와도 달리 말하여지는 있는 것(양상)들은 하나 실체에 대해(관련하여) 말하여 진다 그런데,

실체에 대해 말하여지는 있는 것들에 있어서의 대함이 어떠한 것인지 는 말하지 않고 대신 806쪽에서도 말하여진 것 처럼 그는 건강 과 치료의 보기를 들어 문제의 그 ‘대해’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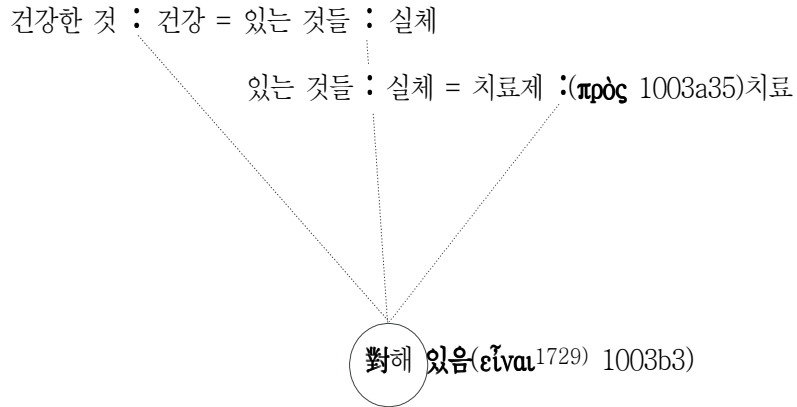
예를들어 어떤 것이 건강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그 어떤 것이 건강에 대해 있기 때문이다 건강을 보존하기에 아니면 건강을 생산하기에 아니면 건강의 징후($\tau\acute{\omega}$ σημεῖον 1003a36)이기에 건강하다 라고 말하여지며 어떤 것이 치료제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치료 능력 또는 기교가 있든지 아니면 치료 능력에 적용되든지 아니면 치료 능력의 에르곤(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한 것이 건강에 대해 그리고 치료적인 것이 치료에 대해 있듯이 있는 것(들)은 있는 것에 대해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대함은 4 항 비례 유비로 말할 수 있다면 다음 쪽의 도식 처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1726) 물론 ‘실체’에 대하여 라는 말은 직접 나오지 않으나 뒤 이어지는 말 들 가운데 실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1727) 809쪽에 나온 것 처럼 사람 과 그려진 (사람) 각각에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는 헤태론하다

1728) 824쪽에 나온 것 처럼 이것들 각각에 있는 무었은 생물 이라는 동일한 로고스



어설프지만 위 도식 처럼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유비적으로(κατ' ἀναλογίαν¹⁷³⁰) 1016b34)말하여질 것 같지 않다 적어도 범주들 과 형이상학에서는 있는 것들은 유비적으로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단 ' 유비적으로 하나인 것은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에 대해(πρός 1016b35)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이다 ' 라고 말하여지는 곳이 있긴하다 이제,

④ 있는 것을 규정해 놓은(ᾠρίζαι 1029a21) 것이 그 (범주)들¹⁷³¹이라고 하는 그의 로고스로 넘어가 보자 제애타 편 3 장 가운데 끝 부분에서 질료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문제의 이 로고스가 나온다

1729) 이러한 ' εἶναι πρὸς τι (어떤 것에 대해 있음) '을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를 요약 표현한 도식(12쪽)에 나오는 ' 에이나이 프로스 티 ' 와 비교해 보라

1730) 유비(적인 것)에 대해서는 431-432쪽을 참조하시오 그리고 600, 819, 657, 602, 600, 435, 595쪽을 참조하시오

1731) 사실 범주들 이라는 말 대신에 관계 대명사 중성 복수 3 격에 연결되는 알론한 것(범주) 이라는 말이 쓰이긴 하나 앞 뒤 문맥을 보면 알론한 것은 범주들 가리킨 다는 것이 쉽게 발각될 것이다

307쪽 과 812-813쪽에서 거듭 나에 의해 말하여진 것 처럼 질 또는 량 (등의 범주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호모오뉴모스하게 말하여진다 라고 텔레스는 말하면서도¹⁷³²⁾ 실체(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본질))은 그렇게 말하진다 라고도 그렇게 말하여지지 않는다 라고도 말하지 않는 점이 애매하다

텔레스에 따르면 범주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첫 번째로 순수하게 실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실체이며 순수한 실체는 범주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닌 단지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일 뿐이다 텔레스는 이 실체를 호모오뉴모스하게 말하여진다 라고도 그렇지 않다 라고도 말하지 않는다¹⁷³³⁾어쨌든,

범주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호모오뉴모스하게 말하여진다¹⁷³⁴⁾ 라고 분명히 그가 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범주들은 어떤 것들인가 859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그 자체로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여지지 아니했는가 그렇다면 (그 자체로) 있는 것들¹⁷³⁵⁾은 호모뉴모스하게 말하

1732) 범주에 있어지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텔레스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τὸ τί ἦν εἶναι, 본질)라 하지 않고 있는 그 무엇(τὸ τί ἐστίν 1030a31)이라 말한다 그러나 있는 그 무엇은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실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만이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ἀπλῶς 1030a30)실체에 속한다

1733) 호모오뉴모스하게 말하여지지 않는다 라고 일단 받아 드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여진다 라고 했으면 굳이 여기서 있는 그 무엇 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구분하여 있는 그 무엇이 호모오뉴모스하게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1734) 로스는 2권 167쪽에서 ‘ 범주들은 호모오뉴모스하게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 본문에는 ‘ ταύτα(1030b32, 이것들) ’ 이라고 나와 있다

1735) 859쪽에 따르면 분명히 질 량 등과 구분된 있는 무엇도 그 자체 있는 것이라 말하여진다 따라서,

있는 (그) 무엇 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세심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 싶다

여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데 있는 것은 호모오뇌모스하게 말하여지지 않는다 라고 1003a34(805)에서 너무나 또렷하게 말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여지고 있는 것들은 범주들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실체(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만이 호모오뇌모스하게 말하여지지 않는다 라고 텔레스는 생각했기 때문일까.....글쎄.....나아가서,

있는 것을 규정해 놓은(ᾠρίζαι¹⁷³⁶) 1029a21, 297쪽) 것이 (범주)¹⁷³⁷)

1736) 호오리스타이(규정되다 또는 정의되다)의 남성 명사 형이 바로 1037a9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호리스모스(ὀρισμοῦ, 정의(定義)440쪽)이다 따라서,

있는 것을 정의해 놓은 것 가운데 연결되지 않은 순수한 것이 범주들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류는 무엇이고 종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정의는 류 와 가장 가까운 종의 차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량을 정의해 보라(216-231) 어째든,

실체도 량도 질도 관계도 어디도 언제도 상태도 지남도 행함도 당함도 있는 것의 정의이며 이것들이 묶여진 것은 그 정의를 설명한 것들이다 라고 말해도 될까 ?

1737) 본문에는 범주들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신 알론한 것에 거리는 관계 대명사 중성 3격 복수에의해 이끌리는 구절이 ‘ 있는 것이 규정된 ’이다 그러나 앞에 범주에 속하는 무엇 과 량이 μήτε(도 아닌)에 걸리며 마찬가지로 이 메에테에 알로가 걸리고 이 알로가 비록 단수이긴해도 중성이기 때문에 문제의 중성 복수 관계 대명사 3 격 οἷς은 알론한 (범주)에 걸리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 λέγω δ’ ὅλην ἢ καθ’ αὐτήν μήτε τί μήτε ποσὸν μήτε ἄλλο μηθὲν λέγεται οἷς ᾠρίζαι τὸ ὄν (1029a20-21 그 자체 무엇도 량도 또는 있는 것이 그것들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 라고 말하여지는 바로 알론한 그 어떤 것(범주)도 아닌 질료를 나는 말한다) ’ 에서의 알로를 범주로 [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규정해 놓은 범주를 포함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다 라고 제에타 편 3 장 가운데 끝 부분에서 말하여진다¹⁷³⁸⁾

“ 질료 그 자체는 무엇도 량도 또는 있는 것이 그것에 의해 규정(정의)된다 라고 말하여지는 알론한 것(범주)도 아니라 라고 나는 말한다 이(카테에고리아이)들 각각이 그것의 카테에고리아이가 되는 [그리고] 카테에고리아이들 각각과 있음이(τὸ εἶναι 1029a22) 헤태론한 바로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은 실체의 카테에고리아이가 되는(κατηγορεῖται a23)반면에 한 편으로 이것(실체)는 질료의 카테에고리아이므로 [그렇다] 그래서 극단인 것(질료)은 그 자체로 무엇도 량도 알론한 어느 것도 아니다 실로,

[이것들의 그] 어떤 부정(ἀποφάσεις a25)도 아니다 이(부정)들은 우연적으로 속하기 때문이다 (1029a20 - a26) ”

라는 인용 글월

은 만약 알론한 것의 카테에고리아이가 결코 되지 않는 것 만을 실체 라고 한다면 아마도 기체적인 질료도 실체일 것이다 그러나 질료는 실체가 아니다 실체에 고유하게 속하는 것은 분리 와 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맥락에 놓여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료 그 자체는 무엇 또는 량과 같은 알론한 범주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텔레스는 있는 것을 정의(규정)해 놓은 것이 범주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있는 것의 규정 또는 정의가 범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어떻게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고해도 연결된 전체 모든 것(사태 또는 말)을 이루는 연결되지(συμπλοκῆν, 범주들 1a20, 161) 앓는 [순수한] 것이 바로 범주이므로 서로 비슷한 생각들이므로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1738) 제에타 편 3 장 앞 뒤 맥락에 대해서는 297쪽을 참조하라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과 보편자 와 류 와 기체 라고들 말하여지는 실체에 관해 말하기 시작하는 3 장은 먼저 어떤 기체 또는 기체인 것이랄 수 있는 질료에 대해 말하는 맥락에 문제의 인용 글월은 속한다

아가서,

텔레스에 따르면 ⑤ 감각적인 것 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감각적인 것보다 반드시 먼저(πρότερον¹⁷³⁹) 1010b37) 있는 혜태론한 어떤 것이 있다 감각적으로 있는 것보다 먼저 있는 것이 반드시 있다 라는 말이다¹⁷⁴⁰⁾

“ [모순 과 반대들은 동일한 것에 동시에 속한다 라는 그리고 의견 과 나타난 모든 것들은 진실하다 라는] 이러한 의견¹⁷⁴¹⁾의 원인

1739) 먼저에 대해서는 261-269, 1009, 288쪽을 참조하라

1740) 이 말은 전체 8 장으로 이루어진 감마 편 5 장 *π*트 머리에 나온다

‘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에 동일한 것의 측면에서(κατὰ τὸ αὐτὸ 1005b19-20)속하면서 동시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695) ’ 라는 얕의 아르케 애가 말하여지는 3 장 과 이러한 얕의 아르케애를 거부하는 자들을 반박하는 논증(695)으로 채워지는 4 장에 이어지는 5 장은 역시 4 장과 같은 맥락에 있다

5 장은 프로타고라스에 따르면 모든 것이 진실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되어 ‘ 감각적인 것들에 대한 관찰로부터 오는 이러한 의견(ἡ δόξα 1009a23)은 감각을 사려 깊은 것(φρόνησιν 1009b13)으로 받아드리는 반면 그 감각을 달리 됨(ἀλλοιωσιν, b13, 274, 變質)으로 본다 이들에게는 감각에 따라 나타난 것들(τὸ φαινόμενον, b14, 現狀)이 필연적으로 진실이다 엠페도클레스 와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있는 것들에 관한 진실을 조사하면서 있는 것들을 단지 감각적인 것들로만 받아드렸기 때문이다 ’ 라는 로고스를 5 장은 그 가운데 부분으로 지닌다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이 다음에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해 연이어진다

1741) 이러한 의견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진실이면서 동시에 거짓임이 틀림없다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프로타고라스의 로고스가 설득력을 얻는다

은 있는 것들의 진실을 한 편으로 조사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들**을 단지 **감각적인 것들**로만(τὸ αἰσθητὰ μόνον 1010a3) 받아드렸 때문이다 그런데 이[감각적인]것들에는 [바로] 있는 것에 관해 [아직] 규정되지 않는 자연이 우리들이 말했던 바와 같이¹⁷⁴²⁾ 많이 속해있다 (1010a1-14) ”

단지 **감각적인 것** 만을 **있는 것**으로 보면 나타난 모든 것 과 모든 의견은 진실하며 모순 과 반대들은 동일한 것에 동시에 속한다 라는 의견을 근원적으로 받아 드리게 된다 라고 말하는 문체의 이 쪽 인용 글월은 다음과 같은 감마 편 5 장 앞 부분의 내용에 이어진 글월이다

“ (5) 무엇이든 양자의 의견들은 동시에 같이 진실이거나 거짓이다 라는 프로타고라스의 로고스는 [실체 곧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τὸ τι ἦν εἶναι 1007a21)은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우연히(κατὰ οὐ μβεβηκὸς a31) 있다 라고 위 4 장에서 말하여지는] 동일한 의견으로부터 있다 만약 의견들 과 나타난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진실이고 거짓이기 때문이다 많은 자들은 서로에 반대들을 견지하고서 자신들과 동일하지 않는 의견들은 거짓이다 라고 여겼으므로 동일한 것이 반드시 있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렇다면 모든 의견들은 반드시 진실이다 진실한 것들 과 거짓된 것들은 서로에 대립들이라고 여겨 졌기 때문이다 이제,

만약 있는 것들이 그렇다면 [있는] 모든 것들은 진실하다 로고스들은 동일한 디아노이아(διανοίας, 1009a16, 熟考)로부터 양자적으로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접근하는 길들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 어떤 자들은 한 편으로 반드시 설득적이지만(πειθοῦς a17-18) 어떤 자들은 다른 한 편으로 강제적이기 때문이다 난감해져서 이런 (반대들을) 견지 했던 자들에 있어서의 몰 인식은 (치료하기가) 보다 쉽다 (εὐίτατος a19) (그러한) 로고스 (모든 것 각각)에 (부딪히는 것이) 아

1742) 아마도 로스(745)에 트레드닉(1권189)이 동조(同調)하는 것 처럼 1009a32-36에서 말하여진 것일 것이다

나라 그러한 모든 디아노이아(숙고 수준) 각각에 (우리는)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고스 그 자체를 위해서(λόγου χάριν a21)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로고스의 소리(φωνῆ a21) 와 그 이름들에 있어서의 반박(ἔλεγχος a21)이 치료이다(각각(적인 것)들을 난감하게 여겼던(διαπορούσιν 1009a22-23) 자들로부터 그러한 의견은 왔다

반대들은 동일한 것으로부터 생성된다고 보았던 이들은 모순과 반대들이 동시에 (동일한) 것에 속한다 라고 [여겼다] 실로 있지 않는 것이 생성될 수 없다면 [반대되는] 양자 프라그마들이 같이(ὅμοιως a26) 미리 [그 동일한 것에] 속했어야만한다 모든 것은 모든 것안에 섞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말했던) 아낙사고라스 그리고 텅뎀과 충만(τὸ κενὸν καὶ τὸ πλήρες a28) 그 자체는 무엇이든 어떤 것에 부분으로 속해 [있지]만 이것들 가운데 [하나]는 있는 것인 반면 [다른 하나]는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데모크리토스 처럼 말이다

이러한 것을 받아드린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길에서 [보면] 옳은 반면 [어떤] 길에서 [보면] 물 인식한(ἀγνοοῦσιν, a31, 188, 663, 669, 673-6,) 어떤 것(자)들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는 것은 [어떤] 길에서 [보면]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반면 ([어떤] 길에서 [보면])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으로 부터는 생성 될 수) 없다 그리고,

동일한 것은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다 그러나 동일한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 편으로 동일한 것이 힘으로(δυνάμει, a34-35, 潛在的으로)는 동시에 반대들 일 수 있지만 현실로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움직임도 소멸도 생성도 거기에는 모두 속하지 않는 알론한 어떤 것을 있는 것들의 실체로 받아들이라고 그들에게 우리는 요구할 것이다 (1009a6 - a38) ”

라는 인용 글월은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에 속하면서 동시에 속할 수 없다 라는 앎의 아르케애를 거부하는 자들을 반박하는 4 장에 이어지는 5 장 앞 부분이다

이러한 앎의 아르케애를 거부하는 자들은 실체란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우연히 있다 라는 디아노이아(숙고)를 지니는데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프로타고라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모든 의견 과 나타난 것(現狀)이 진실이라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진실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어떤 두 가지 의견은 동시에 같이 진실이거나 거짓이다 라고 말한다 서로 반대들을 견지하는 자들은 자신과 동일하지 않는 의견은 거짓이라고 여기면서 동일한 것이 있고 반드시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것으로부터 반대들이 생성된다고 보았던 이들은 모순 과 반대가 동시에 동일한 것에 속한다고 여겼다 실로 있지 않는 것이 생성될 수 없다면 반대 양자 프라그마들이 같이 미리 그 동일한 것에 속해야한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섞여 있다 라고 말하는 아낙사고라스 와 무엇이든 어떤 것에 부분으로 속해 있는 텅빔 과 꼭참 가운데 텅빔은 **있지 않는** 것인 반면에 꼭참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모크리토스가 이들에 속한다

이들은 감각적인 것에 난감해 저서(διαπούσιν 1009a21-22) 이러한 로고스를 말한 것이 아니라 로고스 자체를 위해 이런 말을 했으며 로고스 자체를 위해 말하여진 로고스는 반박되어야만한다 이런 자들은 어찌 보면 옳고 어찌 보면 몰 인식하다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어떤 길에서 보면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반면 어떤 길에서 보면 생성될 수 없다 그리고 동일한 것은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다 그러나 동일한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동일한 것이 힘 으로서는 동시에 반대들일 수 있지만 현실 로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텔레스는 이들에게 움직임도 소멸도 생성도 거기에는 모두 속하지 않는 알론한 어떤 것을 있는 것들의 실체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감각(적인 것)만을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견지하는 자는 실체(ούσιαν 1007a21)없다 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것이 동시에 있으면서 있지 않다 라는 로고스를 내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체를 자신의 로고스의 근거로 삼은 텔레스는 동일한 것은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않다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 말에 힘의 측면에서만 그렇지 현실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덧 붙인다 다시 말해 엔텔레케이아(현실)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에 동일한 측면에서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것이 힘 으로서는 반대일 수 있지만 **현실**

로서는 반대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615-620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현실은 힘 보다 생성 과 시간 과 실체에 있어서 먼저이다 비록 시간의 경우에는 나중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따라서 힘 보다 현실이 실체에 있어 먼저이다 이와 같이,

감각(적인 것) 보다 먼저 있는 헤테론한 것이 있다 라고 텔레스는 말한다

“ 전체적으로 만약 감각적인 것만 있고 영혼인 것들(των ἐμπύκων 1010b31)이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감각이(αἴσθησις b31)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 편으로 감각적인 것들(τὰ αἰσθητὰ b32)도 감각된 것들(τὰ αἰσθητά b32)도 있지 않다는 것은 똑 같이 진실인 - 이것은 감각 되고 있는 것의(τού αἰσθανομένου b33)속성(πάθος 1010b33)이기 때문이다 - 반면 한 편으로 감각을 행하는(ποιεῖ, b34, 生産하는) 기체가 감각 없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로 (감각) 자기 자신의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¹⁷⁴³감각과 나란한 [그리고] 감각 보다 반드시 먼저 있는(πρότερον εἶναι b37) [바로] 헤테론한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게 하는 것¹⁷⁴⁴은 움직여지는 것 보다 자연스레 먼저 있으므로 [그렇다] 이것들이 서로에 대해 말하여진다고해도 덜[경우이지] 않다 (1010b30-1011a2)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감각(적인 것)의 속성 때문에 감각을 생산하는 것은 감각 없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도감각과 나란히(παρὰ 1010a36) 감각에 헤테론한 것으로서 감각 보다 반드시 먼저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1743) 자기 자신 또는 그 자체와(αὐτὸν 1074b33, ἐαυτῆς 1010b35)관련하는 것은 신성한 누우스 밖에 없다 감각은 자기 자신에 관련않는다

1744) 움직임에 관련되는 것에는 움직이게 하는 것 과 그것에 의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고 있는 것 등 세 가지가 있다는 710쪽을 그리고 757쪽도 참조하시오

감각 그 자체의 감각은 있지 않으므로 감각을 생산하는 어떤 것이 반드시 있다 만약 감각적인 것만 있고 영혼인 것이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감각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것들과 감각되고 있는 것들도 똑 같지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감각이 있으면 감각을 생산하는 기체가 있다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각 그 자체의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나란히 있는 그러나 감각에 해태론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게 하는 것은 움직여지고 있는 것 보다 자연스레 먼저이므로 그렇다 그러므로,

감각 보다 반드시 먼저 있는 그러나 감각과는 해태론한 어떤 것이 있다 라는 텔레스의 로고스의 근거는 있는 감각 과 그 감각의 속성(πρόοδος 1010b33)이다 자기 자신의 감각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디아노이아를 다음 로고스들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감각은 있다 그러나,

감각 자신의 감각은 있지 않다 따라서,

감각을 생산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런데¹⁷⁴⁵⁾,

감각이 있지 않으면 감각 자신의 속성에 따라 감각적인 것도 감각되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감각 없이 감각을 생산하는 기체가 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혼인 것이 있지 않다면 감각도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745) 감각은 있다 라는 로고스 와 자신을 감각하는 감각은 있지 않다 라는 로고스로부터 감각을 생산하는 기체가 있다 라는 로고스가 필연적으로 잇따르는가

만약 760-761쪽에서 말하여지는 누우스 처럼 자신을 생각하므로써 생각되고 (있는) 것이 생성되는 것 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므로써 어떤 것이 감각을 생산한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문제의 로고스는 그 근거를 얻을 것 같긴하다

감각은 있기에 그리고 감각은 스스로를 감각하는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와 관련해서 감각을 생산하는 어떤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감각적인 것들만 있다면 아무 것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움직여지고 있는 것 보다 자연스레 먼저 있다 그
래서,

움직여지게 하므로써 감각을 생산하는 것이 있다면,

감각 보다 반드시 먼저 있는 그러나 감각에 해태론한 어떤 것이 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이다¹⁷⁴⁶)그러므로,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있는 것 과 먼저 있는 것이 있다 나아
가서,

⑥ 첫 번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라
고 텔레스는 전체 10 장으로 이루어진 형이상학 람다 편 8 장 앞 부분에서
말한다¹⁷⁴⁷)

1746) 그러나 이러한 재 구성에 나는 만족 못한다 영혼에 관하여 리는 그
의 강의록에서는 감각들도 영혼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가장 상위의 영
혼은 아니더라도 말이다

1747)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에 대해 말하는 6 - 9 장에 속하는 8 장
의 맥락에 대해서는 754 - 764 - 791쪽을 참조하라 그리고,

제에타 편 등에서 나오는 실체 와 여기 람다 편에서 나오는 실체는
동일한 실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려 드는 것은 텔레스 전체를 거부하는 것
이다 여기 람다 편 8 장의 인용 글월에 이어질 제에타 편 1 장의 인용 글월
에서 드러나겠지만 제에타 편에서도 첫 번째 있는 것 으로서의 실체가 말하
여지기 때문이며 그 실체란 우선적으로 각기 것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기 때문이다 물론,

그 무언은 에이도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543쪽에서 이미 선명해
진 분리해 있는 순수한 에이도스를 한 번 숙고해 보라 그러나,

나는 그 순수한 에이도스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 (8) 그런데 [감각적인 것들과 분리된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실체**가 하나인가 또는 많은가 [많다면] 몇 개로 주장될까 [라는 물음을] 무시해서는 결코 **않**된다 그러나 확실히 어떻다고 말하여 [질 수 있는] 그 많은 숫자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진 자들의 목록을(ἀποφάσεις 1073a16) [통해] 기억날 것이다 아이디어들에 관련해서 받아 드러진 어떤 것도 [이 문제에 관한] 고유한 조사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를 말하는 자들은 수의 아이디어를 그것도 한 편으로 무한한 것들로서 다른 한 편으로 10에 의해(δεκάδος 1073a20)규정되는 것들로서 말하는 수들에 관해 말하므로 [그렇다] 그런데 [무슨] 원인 때문에 수들의 많음이 그러한가는 진지하게 논증하는 [식으로] 결코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제들 과 규정들로부터 말하여진다 (있는 것들의) 아르케에 와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 것(τὸ πρῶτον τῶν ὄντων a24) 은 그 자체로 그리고 우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ἀκίνητον a24) 반면에 영원한 하나 첫 번째 움직임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것은 그 자체로 움직이지 않고 영원이 움직이는 것은 영원한 것에 의해 움직여지며 하나인 것은 하나에 의해 (움직여)지므로 **첫 번째 [로 있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실체**가 움직이게 한다 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바로] 모든 (자리 움직임)과 나란한 순수한 그 자리 움직임을(τὴν ἀπλήν φοράν a29)우리들은 본다 [그리고]

영원히 - 동글게 [움직이는] 몸은 영원하며 쉬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들에 관해서는 자연들에 [관하여]에서 논증했다 - 떠 돌아 다니는(πλανήτων 1073a31) 알려진 자리 움직임들이 있다 이러한 자리 움직임들 각각은 반드시 움직이지 않는 것 과 영원한 실체에 의해서 (ὑπ' a33) 그 자체로 움직여진다 왜냐하면 쉬지 않는 것들의 자연은 영원하며 어떤 실체인 것이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원하며 움직여지고 있는 것 보다 먼저이고 그리고 실체 보다 먼저인 것이 필연적인 실체이기(οὐσίαν ἀναγκαίον εἶναιa36) 때문이다 이제 [동글게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몸들과] 같은 수의 필연적인 실체는 그 자연에 있어 영원하며 그자체로 움직이지 않으며 크기 없이 있다는 것은 선명하다 앞서 그 원인들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1074a14-1073b1) ”

라는 앞 쪽 인용 글월에서는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움직이게 하는 것 보다 먼저 있다 라는 프라그마를 근거로 해서 영원히 처음으로 *등글게 움직이고 있는 첫 번째 것을* 움직이게 하는 바로 있는 것들 가운데 그 **첫 번째 있는 것은** 그 자체로든 우연히든 결코 움직이지 않으며 (감각적인 것들과 분리되 있고) 크기 없는 실체 라고 말한다

이러한 실체가 하나인가 아니면 많은가 많다면 몇 개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¹⁷⁴⁸⁾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움직여지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것은 그 자체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움직이는 것은 영원한 것에 의해 움직여지며 하나인 것은 하나에 의해 움직여지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것이다

이 **첫 번째 것을** 텔레스는 **실체**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모든 자리 움직임들과 나란한(*παρά* 1073a29) 순수한¹⁷⁴⁹⁾ 자리움직임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순수한 자리 움직임 이외에도 영원히 쉬지 않고 떠 돌아 다니는 알려진 자리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역시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들]에 의해 움직여진다 쉬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어떤 실체인 것이고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 보다 움직이게 하는 것이 먼저 있으며 영원하고 그리고 실체 보다 먼저인 것은 필연적으로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제,

등글게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몸들과 같은 수의 필연적인 그 실체는 영원하며 그 자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크기 없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쉽 없이 등글게 영원히 움직이며 떠 돌아 다니는 몸

1748) 수의 이데아들을 말하는 자들도 역시 무엇 때문에 수들이 그렇게 많은가를 진지하게 논증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를 10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서 보기는 하지만 한 편으로 수를 무한한 것으로서 보기 때문이다

1749) *ἀπλῆν*(순수한, 1073a29)을 543쪽의 그림에 나타나는 순수하게(*ἀπλῶς* 1041b2) 라는 말과 비교해보라

들의 개 수 만큼 이러한 몸들을 움직이게 하는 크기 없는 실체들이 있다 물론,

이러한 둥근 자리 움직임들과 나란히 있는 순수한 자리 **움직임**을 일으키는 첫 번째 것도 그에 따르면 반드시 **있다**¹⁷⁵⁰⁾ 그렇다면,

이제 까지의 그의 로고스로부터 있는 것들 중에서도 첫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체이다 라는 로고스가 선포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로고스는 제에타 편 1 장에서도 선포해진다

“ (1) 얼마나 많은 [길]로 (말하여지는 지)에 관한 [우리의 논의]들에서 앞서 말했 것 처럼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한 편으로 무엇 과 이 것(τόδε τι 1028a13)을 한 편으로 질 또는 량 또는 이와 같은 알론한 범주들 각각을 가리킨다 이 (범주)들 가운데 **첫 번째 있는 것은 실체**를 가리키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 있는 것에 관해 우리들이 그와 같이 많은 (길로) 말하는 것으로부터 선포하다 한 편으로 질인 이 것을 말했을 때 마다 우리들은 선 또는 악을 말하지 세 규빗 또는 사람을 말하지 않으며 한 편으로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우리들은 희다 또는 뜨겁다 또는 세 규빗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는 **신**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은 이와 같이 있는 것의 한 편으로 질적인 것들 한 편으로 량적인 것들 한 편으로 속성들 한 편으로 이와 같은 알론한 것들로(τῶ 1028a18)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여진다

때문에 걷다 와 건강하다 와 앉혀지다 [등] 이러한 것들 각각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있지 않는 것인가 라는 어떤 어려움이 [떠오]를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알론한 것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러한 것들 어떤 것도 자연스레 그 자체로 있지 않으며 실체와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다]면(εἴπερ a24) 있는 어떤 것의 걷다 와 뜨겁다 와 건강하다 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보다 있는 것들 처럼 보인다 *어떤 것*(π ¹⁷⁵¹⁾ a24)은 (걷다 등과 같은) 이러한 것

1750) 그렇다면 움직여야 있기 시작한다는 말인가 아닐 것이다 있어 오(ἦν, 1071b7, 755)는 것에만 움직임이 속하기 때문이다

들로 규정되는 기체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와 같은 범주들에서 나타나(ἐμφαίνεται a28) 실체 와 각기 것(τὸ ἕκαστον a27)이다 선하다 와 얹혀지다는 이(실체 와 각기)것(τούτου a29) 없이는 말하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실체 와 각기 것) 때문에 저(선하다 등)것들의 각각(ἕκαστον a30)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첫 번째로 있는 것(τὸ πρῶτως ὄν a30) 그리고 있는 어떤 것(τὶ ὄν a30-31)이 아니라 **순수하게 있는 것이 실체일 것이다**¹⁷⁵² (1028a10-a31)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것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있는 것이 실체이며 무엇이며 순수하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무엇 과 이 것 또는 질 또는 량 또는 알려진 범주들 등 으로서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이것들 가운데 첫 번째 있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 무엇을 실체는 가리킨다는 것은 있는 것들에 관해 우리들이 말하는 여러 길들로부터 선명하다

질인 이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선 또는 악을 말하지 세 규빗 또는 사람을 말하지 않는 반면에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희다 또는 뜨겁다 또는 세 규빗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 또는 신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있는 무엇의 질적인 것 또는 량적인 것 또는 속성 등이 알려진 것들이다 그렇다면,

걷다 와 건강하다 와 얹혀지다 등과 같은 것들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있지 않는 것일까 라는 어려움이 떠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힘 과 뜨거움 과 세 규빗의 경우와 같다(ὁμοίως 1028a22) 이 모든 것들 가운데

1751) 957쪽의 τ(어떤 것, 1089 b30)과 비교해 보라 그리고 166쪽을 보라 1752) 로고스 또는 인식 또는 시간에 있어서 첫 번째 것이라고 말하여지듯이 첫 번째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나 이 모든 전체에서 실체는 첫 번째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이어진다 이어지는 로고스에 대해서는 287 - 293 쪽을 참조하라

어떤 것도 자연스레 그 자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체와 분리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만약 이것들이 있다면 있는 어떤 것의 걸음 또는 뜨거움 또는 건강 또는 세 규빗 또는 힘 으로서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의 걸음 또는 힘 등이 보다 있는 것들 처럼 보인다 어떤 것은 이러한 걸음 또는 힘과 같은 것들로 규정되는 기체(τὸ ὑποκείμενον¹⁷⁵³) 1028a26)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체]가 힘 과 걸음과 같은 범주들에서 나타나는 실체 와 각기 것이다 실체 또는 각기 것이 없이는 그러한 범주들이 있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실체 와 각기 것 때문에 선함 과 앓혀 짐 등의 것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첫 번째 있는 것이 그리고 순수하게 있는 것이 실체이다 실체는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¹⁷⁵⁴) 실체는 자연스레 그 자체로 있는 것인 반면 알론한 것 들은 그렇지 못하다¹⁷⁵⁵) 이제,

1753) 그래서 실체는 기체적이다 라는 296쪽을 참조하라 그러나 기체는 실체가 아닌 경우의 보기로 텔레스는 297 - 298 쪽에서 질료를 들고 있다는 점도 다시 기억하라 질료는 결코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1754) 있는 어떤 것 으로서의 량 질등의 범주 와 첫 번째로 있는 그리고 순수하게 있는 것 으로서의 실체 사이의 구분은 제에타 편 4 장 끝 부분 (1030a29-32)에서도에서도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이 구분은 어떤 것(τι, 1028a26) 과 무엇(τι, 1028a11) 사이 구분에 상응한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와 이것은 무엇이냐의 물은 사뭇 다른 물음일 것이다

1755) 그렇다면,

나는 실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 요약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미 166 - 186 그리고 277 - 545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해 왔다 물론 더 간략하고 매끈하게 다시 요약하는 것도 필요하나 지금 다시 그 작업을 하려 다 보면 기한 4 년 이내에 석사 논문을 못 쓸 것 같다 그냥 넘어 가련다 지금 내 마음은 벌써 플라톤의 에이나이(있음)에 대해 옮겨 요약 해 놓은 것을 다시 정리 하려는 데로 향하려 한다 그러나,

텔레스가 어떠한 표현들에서 있는(öv) 이라는 말을 쓰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감마 편 제 1 장에서는 öv(온) 과 öv(온) 사이에 ḥ(헤에)가 놓여진 표현이 나온다

“ (1) 있는 있는 것(öv ḥ öv¹⁷⁵⁶) 1003a21) 과 이 (있는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있는 것에 대해 정리해야 할 것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아 성급한 마음을 억제한다

1756) ‘온 헤에 온’을 무엇으로 옮길까 보통 ‘있는 것 그 자체’(being as such, Sein als soleches) 또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being qua being, Sein qua Sein)으로 옮겨지곤한다 그러나,

나는 867, 980, 812, 808, 867, 976에서 모두 ‘있는 있는 것’으로 옮겼다 ḥ(헤에 ; 라틴어 cui)를 관계 대명사 여성 단수 3 격으로 보았기에 헤에가 사라져 버렸다 현재우리 말에는 관계 대명사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 옮길 때 문제의 관계 대명사로 연결되는 명사 앞에 관계사 節 또는 句를 형용사 처럼 놓아 버려 관계 대명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영어 The being which being 독어 Das Seinde welche Seinde 등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관계 대명사 여성 단수 3 격이라면 여성 (단수 單數 - 텔레스의 경우에는 자주 數가 일치하지 않음을 본다)을 받아야 할 것이나 τὸ öv(토 온, 있는 것)은 여성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이 일치해야만 하는 것일까 어쨌든,

만약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면 ‘있는 있는 것’으로 옮겨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서,

설령 관계 대명사라고 할 지라도 방식(Manner)의 관계 대명사로 보아 영어 as 독어 als 처럼 옮겨 주어야 할지..... 하여간에,

것에 그 자체로 속한 것들을 이론화하는 앎인 것이 있다 이 (앎)은 우리들이 [있는 것의] 부분들[을 이론화하는] 어떤 [앎]과도 동일한 것이 아니다 알론한 [부분적인 앎 가운데] 어떤 것도 있는 있는 것에 관해 보편적으로 바라 보지(ἐπισκοπεῖ, 1003a23, 명상하지) 않고 그 (있는 있는) 것의 어떤 부분인 것을 잘라 내어 그 (부분인) 것의 우연(τὸ συμβεβηκός a25)에 관해 바라 보기 때문이다¹⁷⁵⁷) 예를들어 앎들 가운데 수학적인 것¹⁷⁵⁸) 처럼 말이다 그런데,

아르케애들 과 가장 궁극적인(ἀκροτάτας a24-25) 원인들을 우리는 조사므로 이 (아르케애 와 원인)것들은 어떤 자연 으로서 그 자체로(καθ' αὐτήν a28) 반드시 [어떤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있는 것들의 요소들을 조사하는 것이 그러한 아르케애들을 조

나는 있는 것 그 자체(being as such)로 옮기기가 망설여진다 있는 것 그 자체는 단지 그대로 있는 것 또는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할 것 같기 때문이다 ‘은 해에 온’이 무엇을 가리키는 지는 따로 말하여질 것이다 단지 여기서는 해애의 문법적인 쓰임새만을 분석하려 했을 뿐이다 형이상학 칼과 편 3 장 1061a34, 1061b5(1085쪽) 와 9 장 1065b23(882쪽)에서도 이러한 해애가 쓰여진다

1757) 그 (있는 있는) 것의 어떤 부분인 것을 잘라 내어 그 (부분인) 것의 우연(τὸ συμβεβηκός 1003a25)에 관해 이론화한다 라고 번역하는 로스(731) 와 트레드닉(1권 147쪽)을 나는 일단 받아 드렸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는 것 보다는 τὸ συμβεβηκός (a25, 우연적인 것)을 부사적으로 처리해서 예를들어 수학적인 앎과 같은 것들은 있는 있는 것의 어떤 부분을 떼어 내어 우연히 있는 있는 것을 이론화한다 라고 옮기면 어떨까 우연히 있는 있는 것을 이론화한다 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옮김은 말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 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 (우연히) 라는 말이 이어지는 1003a30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1758) 707쪽에 따르면 수학적인 앎은 기체와 분리해 있지는 앎으나 움직이지 앎은 채 머물러 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755쪽도 살펴보라

사하는 것이라면 있는 것들의 요소들은 반드시 우연히 있지 않고 있는 [있는] 것들(ἡ ὄντα a30-31)[로] (있다, εἶναι, a30) 때문에 **있는 있는 것의 첫 번째 원인**들이(τὰς πρώτας αἰτίας 1003a31) 우리에게 파악되어야한다(ληπτέον a32)¹⁷⁵⁹ (1003a21-a32)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있는 것 과 있는 있는 것에 속하는 것들을 이론화하는 앎이 하나 있다는 것이 말하여진다

이 앎은 부분적인 앎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부분적인 알론한 어떤 앎도 있는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바라 보지 않고 예를들어 수(학)적인 앎처럼 있는 있는 것의 어떤 부분을 잘라 내어 그 부분의 우연을 바라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조사 할 때 아르케애들 과 가장 궁극적인 원인들을 조사하므로 이 아르케애 와 궁극적인 원인은 어떤 자연인 것 으로서 그 자체로 반드시 [어떤 것에 속해] 있어야만 한다 이제,

있는 것들의 요소들¹⁷⁶⁰을 조사하는 것이 그러한 아르케애들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있는 것들의 요소들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있는) 것으로 있다** 때문에,

있는 있는 것의 첫 번째 원인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파악되어야한다 따라서,

있는 있는 것에 관한 앎은 **있는 것의 요소** 또는 **아르케애** 또는 **첫 번째 원인**에 관한 앎이다 그렇다면 있는 있는 것(또는 있는 것 그 자체)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의 첫 번째 원인(또는 아르케애)라

1759) 원인들 가운데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있는 있는 것 또는 있는 것 그 자체 라는 말이다 원인들에 대해서는 513-522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서는 원인들이 여섯 가지로 말하여진다

1760) 요소들에 대해서는 523-527쪽을 참조하라

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로고스는 다음과 같은 로고스들을 통해서 분명해진
다

얇이 아르케애들 과 가장 궁극적인 원인에 관한 조사라면
아르케애 와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그 자체 있다 그래서,

(있는 것들의) 아르케애를 조사하는 것이 있는 것들의 요소를 조사하
는 것이고
있는 것들의 요소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있는 것이
라면 따라서,

있는 있는 것은 있는 것(들)의 첫 번째 원인 또는 아르케애이다¹⁷⁶¹⁾
그리고,

있는 있는 것을 이론화하는 얇은 있는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바라보
지 수(학)적인 얇 처럼 있는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수(학)적인 얇은 있는 있는 것의 부분을 잘라 내어 그 부분의 우연(속성)을
바라 보아 이론화 하기 때문이다¹⁷⁶²⁾그런데,

1761)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감마 편 1 장의 마지막 로고스인 ‘ 때문에 우
리에게 있는 있는 것의(τού 1003a31) 첫 번째 원인들이 파악되어야 한다
' 가 나에게 애매하게 와 닿는다 있는 있는 것을 있게 하는 첫 원인이 파
악되어야 한다면 있는 있는 것의 원인은 있는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
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그 로고스를 있는 있는 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원인들로 받아
드려져야한다(ληπτέον 1003a32) 라고 이해하면 안될까.....참고로,

로스는 자신의 형이상학 1 권 252쪽에서 온 헤에 온을 있는 것 전체 또
는 있는 것 자체(being as such)라고 말한다

1762) 여기서 있는 있는 것을 이론화하는 얇 이외의 알론한 모든 얇을 수

형이상학 2 권 3 장 첫 로고스에 따르면 **있는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다루는 **앎**이 바로 **다름** 아닌 **철학**이라고 말하여진다¹⁷⁶³⁾

“ (3) 철학자의 **앎은 있는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루는 **앎**]이며 있는 것은 하나의 길로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므로 만약 호모오우모오스하게 [말하여질 뿐] 공통적인 어떤 것도 [있지] 않다면 [어떤] **앎** 하나(μῆτιν 1060a34)도 [있지] 않을 것이다 - 그러한 것들의 류¹⁷⁶⁴⁾ 하나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런데 공통적인 것에 따라¹⁷⁶⁵⁾ [말하여진다]면 **앎**

(학)적인 **앎**과 동일한 선 상에 올려 놓으면 **앎**된다 707쪽에서 말하여졌듯이 말이다 물론,

있는 있는 것의 부분 곧 있는 것을 바라 보아 있는 그것의 우연을 이론화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자신 이외의 알론한 **앎**과 수(학)적인 **앎**은 동일하다 그러나 수(학)적인 것은 거기에서 말한 것 처럼 자연적인 것(706)처럼 기체와 분리되 있지는 않지만 신적인 것 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는 있는 있는 것에 관한 **앎** 이외의 자연에 관한 **앎** 또는 요즈음의 물리학을 포함한 모든 다른 **앎** 보다 더 고귀하다(τὸ τιμιώτερον, 1064a36, - 1064a36에서는 신에 관한 **앎**이 가장 고귀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수(학)적인 **앎**은 있는 있는 것을 바라 보면서 그것을 이론화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있는 것의 부분 곧 있는 것을 바라 보면서 그것을 이론화 한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1763) 그런데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다루는 **앎**이 철학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말할 수 없을까 그렇다면 있는 있는 것 과 있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말하는 셈이 될 것이다.....그러나,

1764) 류는 헤태론한 종들 안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것이라는 1047쪽의 요약 정리를 참조하라

1765) κατά(1060b35, 따라서)를 807쪽 과 814쪽에 나오는 πρὸς(1030b3, 에대해)와 비교하라 그에 따르면,

있는 것은 실체 하나에 따라서 말하여지는 쉬모오우모스한 것이 아니

하나가 [있]을 것이다

.....1766)

있는 모든 것 각각은(ἕπαν¹⁷⁶⁷) 1061a8) [이렇게 건강한 것들이
말하여진 길과] 동일한 길로 말하여진다 **있는 있는 것**의 속성(πάθος
a9) 또는 습성(ἔξις a9) 또는 경향(διάθεσις a9) 또는 움직임 또는 이
와 같은 알론한 것들[이므로] 이렇게 **있는 것**(ὄν a10) 각각은 **있다**(εἶ
ναι a10)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인** 그리고 **공통인 것**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πρὸς.....ἡ ἀναγωγὴ γίνεται, a11, 에 대해 **있으므로**) 대조들(τῶν ἐναντ
ιώσεων¹⁷⁶⁸) a12) 각각도 있는 것의 첫 번째 차이들 과 대조들에 지시
되어진다 **많음** 과 **하나** 또는 **같은 것** 과 **같지 않은 것** 또는 [이와 같
은] 알론한 어떤 것들¹⁷⁶⁹)은 있는 것의 첫 번째 차이들이다¹⁷⁷⁰)우리

며 실체 하나에 **대해** 말하여지는 것이다 건강에 대해 건강한 것들이 말하여
지는 것 처럼 말이다 물론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여지는 것 처럼 **호모오우**
모스하게 말하여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1766) 생략된 부분은 건강한 것들이 건강에 대해 있는 길들이 말하여진다
1767) 여기에 나오는 ἕπαν(1061a8)을 806쪽의 ἕπαν(1003b6)을 비교해 보라
거기에서도 역시 있는 모든 것 각각은 실체의 속성들이고 실체에 대해 있는
것들이며 이러한 것들의 부정(否定)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 나오는 있는 있는 것 또는 있는 것 그
자체는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768) τῶν ἐναντιώσεων (a12)을 대조들 이라고 일단 994쪽 이하에서 나는
옳겠다 물론 반대(ἐναντία 1054a25)와 이 대조가 어떻게 차이날지는 모르지
만 말이다 만약 차이 난다면 대조는 가장 큰 차이 라는 것은 거기에서 분명
해지지만 반대는 어떠한 차이인지가 분명해지지 않는다

1769) 알론한 첫 번째 차이들은 아마 **똑같음** 과 **똑 같지 않음** 그리고 **동일
함** 과 **해대론함** 들일 것이다 998쪽 참조하라 그런데,

1010쪽에 따르면 예를들어 **반대 힘** 과 **검음**은 **투명** 과 **압축**이라는 첫
번째 차이를 지닌다

가 이론화 했던 것들 그대로 받아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있는 것을 지시하던 하나를 지시하던 있는 것의 그 [지시]는 차이나지 않는다¹⁷⁷¹⁾ 동일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이라 하더라도 (있는 것 과 하나는 어찌든) 짝이기(ἀντιτρέφει 1061a17) 때문이다¹⁷⁷²⁾어떻게 보면 하나는 있는 것이요 있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¹⁷⁷³⁾

수학자가 추상으로부터(ἐξ ἀφαιρέσεως a29) 이론을 만드는 것처럼 - 모든 감각적인 것들을 떼어 내면서(περιελών a29) 이론화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무거움 과 가벼움 과 딱딱함 과 그 반대 나아가서 뜨거움 과 차가움 과 대조되는 알론한 감각들을 (떼어내서) 일차원(τόν ἐφ' ἑν¹⁷⁷⁴⁾ a33) 한 편으로 이 차원 한 편으로 3 차원의 량 과 연속¹⁷⁷⁵⁾을 남겨 놓는다 그리고 량 과 연속 (으로) 있는 (ἢ ποὸ ἂ ἔστι καὶ συνεχῆ^{a34)}그러한 것들의 속성을 (이론화한다) 그리고 이와 해태론한 어떤 것도 이론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편으로 (량 과 연속적인) 것들의 서로에 대한 위치(θέσεις, a36, 性向) 와 그 위치들에 속하는 것들을 조사하며 한 편으로 (량 과 연속적인) 것들의 통

1770) 하나는 많음에 수적으로 대립된다고 하는 105쪽 과 같지 않음은 같음의 결여적인 반대 라고 하는 998쪽을 참조하시오

1771) 있는 것 과 하나는 어찌 보면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 라고 이미 683쪽에서 말하여졌다 978 , 944 참조하시오

1772) 이 인용 글월은 이미 979 - 980 쪽에서 하나 와 있음이 동일한가 아닌가 라고 물어 보면서 한 번 인용 뒀었다

1773) 생략된 부분은 반대는 그 짝을 각기 결여한다는 로고스가 말하여진다 그리고,

이 로고스에 이어 와 수(학)은 추상적인(ἐξ ἀφαιρέσεως 1061a29) 이론이라는 것이 말하여진다

1774) 차원에 대해서는 430쪽을 참조하라

1775) 연속에 대해서는 982쪽 과 421쪽을 참조하고 량에 대해서는 216쪽을 참조하라

약적인 것들과 통약적이지 않는 것들 한 편으로 (량 과 연속적인) 것들의 비율(λόγους 1061b1)을 (조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의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앎 기하학*을 받아드린다 - 이와 동일한 길에서 있는 것에 관한 (이론을 추상으로부터 [철학자는] 만든다)

있는 것인 한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 우연들(συμβεβηκότα b4) 과 그 대조들[에 관한] **앎** 철학 이론들과 **알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학* τῆ φυσικῆ a6)에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여(μετέχει b7)하는 이론인 것을 배정할 것이므로 [그렇고] 또한 우연들의 *변증법* 과 *궤변술*¹⁷⁷⁶)은 있는 것들에 [대해] 있기는(εἶσι τοῖς οὐσιν b9) 하나¹⁷⁷⁷ **있는 ((것)들 ((로서의)) (있는 것)의** (우연들)의 것도 아니요 있는 것들인 한 있는 것 그 자체에 관한 것(περὶ τὸ ὄν αὐτὸ καθ' ὄσον ὄν ἐστὶν b9-10)도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있는 것들인 한 우리들이 말했던 것들에 관한 이론인 *철학자*)이 남는다

있는 모든 것 각각은 비록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긴 해도 하나인 것 과 공통적인 것에 따라 말하여지고 - 있는 것의 첫 번째 대조 와 차이들로 지시되는(ἀνάγεται b14) - 그 반대들도 동일한 길에서 (말하여지)므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 **앎**으로 있을 수(δυνατὸν b14)있으므로 처음에 말하여진 어려움이¹⁷⁷⁸) 해결 될 것이다 여러

1776) 변증법 과 궤변술에 대해서는 975쪽을 참조하라 거기서 철학은 인식술로 변증법은 비판(기)술(πειραστικῆ 1047b25)로 궤변술은 인식술인 것 처럼 위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777) 로스(855)는 ‘of things that are’ 트레드닉(3권69)은 ‘ of existing things’로 번역하나 나는 3 격을 살려서 있는 것들에 [대해] 라고 옮겨 보았다 적어도 궤변술은 있지 않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일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1778) 1059a20-23에서 말하여진 어려움 으로서 다음 인용 글월에서 나타난다

“ (궤과 편 1 장) 지혜(σοφία 1059a18)는 아르케애들에 관한

차이하고 있는 것들의 어떻게 류에 있어(τῷ γένει¹⁷⁷⁹) 1061b17)하나

얇은 것이라는 것은 아르케에들에 관해 알론한 자들에 의해서 말하여진 것들에 대해 우리가 의문을 제기했던 첫 번째 곳들로부터(형이상학 알파 편 2 장 981b25-982a3) 분명해진다 지혜는 얇 하나로 받아드려져야 하는가 또는 얇 여럿으로 받드시 받아 드려져야 하는가 라는 어떤 어려움이 생겨난다

만약 하나 라면 항상 반대들의 하나일 것인데 아르케에들은 반대되지 않으며 만약 하나가 아니라면 어떠한 것들을 그러한 것[얇]들로 삼아야할까(Θεῖναι 1059a23) (1059a18-23)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아르케에들에 관한 얇이 지혜라면 그 얇은 하나인가 아니면 여럿인가 하나 라면 반대들의 하나일 텐데 아르케에들은 반대되지 않으며 여럿이라면 어떤 얇(들)을 지혜라고 해야할까 라는 어려움이 드러난다

이러한 어려움은 있는 모든 것 각각은 하나인 것 곧 실체에 따라 말 하여지며 그 반대들에 있어서도 하나인 반대에 따라서 말하여지므로 하나 얇일 수(δυνατόν 1061b14) 있다

1779) 류 와 차이에 대해서는 1047쪽 과 1051쪽의 요약 그림을 살펴보라 그리고,

나는 여러 차이나는 것들이 어떻게 류에 있어 하나인 얇을 이룰까 라고 위에서 읊었다 그러나 로스(856) 과 트레드닉(3권 69쪽)은 류에 있어 차이 나는 많은 것들의 단일한 얇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읊는다 이러한 읊김이 보여 주는 것 처럼 나는 ‘류에 있어’를 하나인 어떤 얇에 걸리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로스는 ‘류에 있어’를 차이 나는 많은 것들에 걸리는 것으로 본다

텔레스가 자신의 로고스를 지탱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사례를 예를 들어 라는 말을 앞 세운 뒤 아주 많은 곳에서 - 하나의 습관 처럼 - 드는 것이 플라톤과 구분되는 텔레스의 말하는 길이라는 것을 나는 158 쪽에서 지적한 바 있다 류의 이러한 보기로 그는 생물을 든다 그리고 이 류가 속해는 중들

인 어떤 앎이 있을까 라는 어려움을 나는 말한다 (1060b31 - 1061b33) ”

의 보기로 사람(166) 과 말(161)을 든다 물론,

생물이 류의 유일한(μόνον) 보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995쪽에서 말하 여진 것 처럼 류에 있어 차이나는 것들은 서로로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너 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비교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생물과 류적으로 차 이나는 것은 무엇일까 무 생물(無 生物)일까 무 생물이라면 하늘 과 땅에서 전혀 살아있지 않는 것이 텔레스에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허 용할까 물론,

1021에 나오는 요약 그림이 보여주 듯이 하나 과 여럿을 그는 류적인 반대들로 말하긴 해도 이러한 대답에 대해 여러 제한을 그가 가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서 확실해 졌다 그렇다면,

류에 있어서 차이나는 것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비교 될 수 조차 없으 니 그에 관한 앎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설령 그에 관한 앎이 성립 할 수 있다하더라도 류에 있어 차이나는 것들의 어떤 보기를 들 것인가 하 나 와 여럿을 제외하고 말이다 물론,

문제의 인용 글월에서 그는 차이나는 여럿에 관한 앎 하나가 어떻게 있 을까 라고 묻고 있으며 이 하나 와 여럿은 류 적으로 대답하는 것이기도 하 다 그러나,

나는 문제의 그 류에 있어서 라는 말이 어디에 걸리는가를 묻는다 차이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일 수 있는 것은 차이나는 그것들 안에 공통으로 속 하는(ὑπάρχειν 1057b36, 1012, 1046) 류 때문에 가능하며 바로 그렇기에 앎 여럿이 아니라 류에 있어서 하나인 앎이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보기 때문이 다 물론 류적인 차이는 종적인 차이를 근거로 해서 나뉘어질 것 같기는 해 도 말이다(1046쪽 참조) 따라서,

여러 차이내고 있는 것들 앞에 에이도스에 있어 라는 말을 집어 넣어주 어도 그 로고스를 통해서 텔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크게 달라지리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라는 앞 쪽 인용 글월에 이어지는 4 장은 그 로고스에 있어 긴밀히 관련 되므로 바로 4 장을 3 장과 하나로 묶어¹⁷⁸⁰⁾ 옮겨 보자 묶어 옮기다 보면 있는 있는 것 또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또는 있는 것 자체가 속한 맥락 과 온 혜애 온 이라는 구(句)의 요소들의 문법적인 뜻이 드러 날 것이다

“ (4) 수(학)자는 공통적인 것[공리]들을 고유하게(ιδίως 1061a18)쓰므로 이러한 것[공리]들의 아르케애들을 첫 번째 철학이 이론화할 것이다(ἄν εἴη θεωρήσαι b19) 똑 같은 것들로부터 똑 같음들이 추상 될 때 남게 된 똑 같음들은 모든 량적인 것들의 경우에 공통이다¹⁷⁸¹⁾ 한 편으로 수(학)자는 고착된(oikeias b22) 질료의 부분인 것에 관한 이론을 만든다¹⁷⁸²⁾예를들어 있는 것들((로서의)) (선들 또는 각들 또는 수들 또는 량들의 알론한 것들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 으로서의)) 선들 또는 각들 또는 수들 또는 알론한 량들인 것 각각에 (관한 이론을) 일 [차원] 또는 이 [차원] 또는 삼 [차원]의 측면에서 (만든다) 반면에,

철학자는 이러한 것들 각각에 우연적인 무엇 ((인(ἴ b25) [것]))에 관해 부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각각의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관해 이론화한다

자연에 관한 앎도 수(학적인 것에 관한 앎)과 동일한 길을 지닌다 자연(학)은 있는 ((것들 로서의)) (있는 것들의 우연들 과 아르케애들을 이론화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지는 ((것들 로서의)) 있는 것들의 우연들 과 아르케애들을 이론화 하기 때문이다

1780) 실제로 묶어져 있는 베케리 판을 따른 것이다 로스 판 역시 묶어져 있다

1781) 량에 고유한 것은 똑 같음 과 똑 같지 않음(ὁ ἴσος καὶ ἄνισος 범주들 6a26)이라는 223쪽을 참조하라 그런 후 990쪽을 참조하시오

1782) 그래서 707쪽에서 이미 요약 된 것 처럼 머물러 있긴하나 [기체와] 분리되지 않는 것들에 관한 이론이 수(학)이라고 말하여진다 질료와 연관되어 쓰여지는 고착된 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1050쪽에 나오는 두 번째 옮김을 참조하라

우리들이 말했던 것 처럼 첫 번째 **앎**은 무엇이든 기체(1783)들로 있는 것들의 (앎)이지 헤태론한 무엇 ((인(ἦ b32))것들의 (앎)이 아니다 때문에 이 (자연에 관한 앎) 과 수(학)적인 **앎**은 지혜의 부분이라고 반드시 받아 드러져야한다(Θετέον b33) (1061b17 - b33)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자연학 과 수학 역시 지혜의 일 부분이라고 말하여진다 있는 기체들에 관한 앎인 첫 번째 앎 또는 우선적인 앎에 자연학 과 수학이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앎이 바로 지혜 전체 또는 그 자체는 아니다 무엇 때문일까 우선,

수(학)자는 추상으로부터 이론을 만든다 감각적인 모든 것을 떼어 내면서 이론화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무거움 과 가벼움 과 딱딱함 과 그 반대 나아가서 뜨거움 과 차가움 과 대조되는 알론한 감각들을 떼어내 일 차원 과 이 차원 과 삼 차원 등 각기 차원의 량과 연속을 남겨놓는다 그리고, 량 과 연속 인(ἦ 1061a34)것들의 속성을 이론화한다 이와 헤태론한 어떤 것도 이론화하지 않는다 량적인 것 과 연속적인 것들의 서로에 대한 위치 와 그 위치에 속하는 것들 또한 통약적인 것 과 통약적이지 않는 것 또한 로고스(비율)를 조사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의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앎 기(학)학을 우리는 받아 드린다 그런데,

철학자도 이와 동일한 길에서 곧 추상으로부터 있는 것에 관한 이론을 만든다 **있는 있는 것**의 우연들 과 그 대조들에 관한 앎은 철학 이론과 알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학)에는 있는 (것 으로서의 그러한)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여하는 어떤 이론이 배정될 것이며 우연들의 **변증법** 과 **궤변술**은 있는 것들에 [대해] 있기는하나 있는 (것)들 (로서의) 우연

1783) 기체는 실체라고도 말하여지는 것 처럼 보인다(δοκεῖ 1029a10 라는 약간은 애매한 294 - 295쪽을 참조하라

도 아니요 있는 것들인 한 있는 것 자체에 관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들인 한 있는 것들에 관해 말하는 철학이 남는다 있는 모든 것 각각은 비록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긴해도 하나인 것 과 공통적인 것에 따라 말하여지고 있는 것의 첫 번째 대조 와 차이들로 지시되는 있는 것의 반대들도 동일한 길에서 말하여지므로 있는 모든 것들 과 그 반대들에 관한 하나 앎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여러 차이 나는 것들이 어떻게 류에 있어 하나인 앎인 것이 있을까 라는 어려움이 풀렸다 나아가서,

수(학)자는 공통적인 것[공리]들을 고유하게 쓰므로 이러한 공통적인 것[공리]들의 아르케아들을 첫 번째 철학은 이론화 할 것이다 똑 같은 것들로부터 똑 같음들이 추상될 때 남은 똑 같음들이 모든 량적인 것들의 경우에 공통이다 수(학)자는 고착된 질료의 부분인 것에 관한 이론을 만든다 예를들어 **있는 것들 ((로서의))** 량적인 선들 과 각들 과 수들이 아니라 **연속 ((적인 것 으로서의))** 량적인¹⁷⁸⁴⁾ 선들 과 각들 과 수들 과 알론한 이와 같은 것들을 일 차원 또는 이 차원 또는 삼 차원의 측면에서 이론을 만든다 반면에,

철학자는 이러한 것들 각각에 우연적인 무엇 ((인)) 것에 관해 부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각각의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해 이론화한다

자연에 관한 앎도 수학적인 것에 관한 앎과 동일한 길을 지닌다 자연학은 **있는 ((것들 로서의))** **있는 것들의** 우연들 과 아르케아들이 아니라

1784) 그러나 216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모든 량이 연속적인 것은 아니다 수(ἀριθμός, 범주들 4b23, 數)는 끊어진 량인 반면 선 면 몸들은 연속적인 량이라고 그에 의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당시에 수(학)자들은 수에 대한 이론을 만들지 않았단 말일까 여기에서는 단지 연속적인 량 만에 대한 이론이 말하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1086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지금 이 맥락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앎 으로서의 기하학 만이 문제 삼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표적인 수학이 아마 기하학이었기에 텔레스가 여기서 기하학만을 문제삼고 있는지도 모른다

움직여지는 ((것들 로서의)) 있는 것의 우연들 과 아르케아들을 이론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철학 과 기하학(수학) 과 자연학은 있는 것들의 추상적인 이론 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이론들인 바로 그것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앎은 차이난다

자연학은 움직여지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여(μετέχει, 1061b7, 關與)하며 기하(수)학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나 연속적인 질료(ἴλη ής¹⁷⁸⁵ 1061b22) ((로서의)) 있는 것에 관여하는 반면 철학은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학 과 자연학이 있지 않는 것에 관여한다는 것은 아니다 철학 처럼 있는 것에 관여한다 그러나 있는 있는 것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지지 않는 연속적인 것에 수학은 반면에 움직여지는 것에 자연학은 관여한다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여하는 추상적인 이론은 텔레스에 따르면 오로지 철학 하나 뿐이다 그런데,

있는 것 전체에 철학이 관여하는 반면 수학 과 자연학은 각기 있는

1785) 휠레스(질료)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수학에 관련하여(1089참조)쓰여졌으나 자연학에 관련해서도 역시 질료가 말하여진다

707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분리되 있지 않으면서 움직이지 않은 것에 관한 이론은 수학인 반면에 분리되 있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것에 관한 이론은 자연학인데 문제의 그 분리는 질료 또는 기체와의 분리를 말할 것이기 때문이며

385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수(학)적인 것들은 감각적인 질료가 아니라 생각적인(νοητή 1036a10)질료인 반면 자연학에 관련하는 것들은 청동과 나무 같은 움직여지는 감각적인 질료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295쪽에서는 이러한 질료가 기체인 것으로 말하여진다

것 부분에 관여한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또는 있는 것 자체를 있는 것 전체로 보고 량적인 것 또는 움직여
지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을 있는 것의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

1003a21에 주석을 달면서 로스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을 있는
것의 전체(the whole of being, 로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1권, 252쪽)
로 간주한다 그러나 있는 것 전체라고 말하기 보다는 텔레스에의해 직접 말
하여진 있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1073a24, 1074쪽) 또는 첫 번째로 있는
것 다시말해 실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있는 있는 것을 있는 것
전체라고 말한다면 그건 틀리다 첫 번째로 있는 것을 있는 것 전체라고 말
하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텔레스에 따르면 부분의 단순한 합이 전체가 아니다 만약 전체이다
라고 말하려면 우선 그 전체가 어떻게 말하여지는 전체인가부터 밝혀야한다
수학 과 물리학(자연학) 등등의 앎을 단순히 합쳐놓은 것이 철학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⁷⁸⁶⁾따라서,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은 있는 것 전체가 아니라 첫 번째로
있는 것 곧 **우시아(실체)**이다 그래서,

텔레스에 의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는 모든 것은** 건강한 것들
이 자신들에 공통인 건강 하나에 대해 말하고 있듯이 자신에 공통인 것 하
나 곧 실체를 지시하는 것이며 바로 이 하나 실체 곧 있는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있는 모든 것은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 속성(πάθος
1061a9)인 것이며 습성 또는 경향(διάθεσις 1061a9) 또는 움직임인 것이다
이 때문에 있는 것 각각은 **있다(εἶναι** 1061a10) 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텔레스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을 첫 번째로 있는 것 곧 실체
이외의 어떤 알론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순수하게(ἀπλώς
1025a9) 있는 것이라고도 한다 물론 순수하게 있는 것이 있는 있는 것이다
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으나 수(학)적인 그러한 모든 앎은 순수하게 있는 것

1786) 텔레스가 말하는 전체 와 부분에 대해서는 371-376쪽을 참조하라

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므로서 순수하게 있는 이 것에 대한 앎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기 때문이다 형이상학 엡실론 편 1 장 1025b9-10 을 보라

“ (1) 있는 것들의 아르케에들 과 원인들이 조사되는데 분명히 **있는 것들** ((로서의, ἦ, 1025b4)) (있는 것들의) 그러한 (ὅτι b4) [조 사이다] 건강 과 좋은 상태(εὐεξίας b4)의 원인인 것이 있으며 수(학) 적인 것들의 아르케에들 과 요소들 과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전체적으로 *디아노이아*적(διανοητική, b6, 수학(산술 과 기하학) 적인 사유 또는 추리) 모든 앎 또는 *디아노이아*(1787)인 것을 나누어 지는(μετέχουσα b6) 앎은 보다 정확하게든 보다 단순하게든(ἀπλοῦς ρας b7)원인들 과 아르케에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앎)들(1788)은 하나인 것 과 류인 것을 포괄하며 이러한 (하나인 것과 류인 것)을 사태화한다(πραγματεύονται, b9, 예 종사(從事)하다) 그러나 **순수하게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도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도 있는 무엇에 관한(τού τι ἔστιν b10)로고스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그것(있는 그 무엇) 을 감각에 분명한 것으로 만드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있는 그 무엇을 전제(ὑπόθεσιν b11)로 받아드리면서 [자신들이 다루는] 류에 그 자체 로 속하는 것들을 보다 필연적으로든 보다 정당하게든(μαλακώτερον

1787) τὴ διανοίαν(디아노이아인 것, 1025b6)을 어떤 말로 읊기는 것이 나 을까 생각인 것으로 읊기려다 보면 τὴ νόησιν가 걸린다 나는 주옥 노에에시 스를 생각 또는 사유라고 읊겼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학적인 사유 또는 생각 또는 추리 라고 읊기는 것이 무난할 듯 싶다(393) 어떻게 보면,

디아노이아를 숙고(熟考)라고도 읊길 수 있으리라 디아노이아에 대해 서는 336, 392, 511, 604, 715, 787, 866, 871, 1069쪽을 참조하시오

1788) 디아노이아적인 모든 앎 곧 수학 이하(以下)의 모든 앎들을 말할 것 이므로 철학 과 신학은 이러한 모든 앎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철학 과 신학은 디아노이아적인 앎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데.....

b13) 논증한다 이 때문에 **실체**의 논증도 **있는 그 무엇**의 (논증)도 그러한 귀납으로부터(τῆς τοιαύτης ἐπαγωγῆς¹⁷⁸⁹) 1025b15)는 있지 않으나 [있는 그 무엇]을 드러내는 알론한 길이 있다는 것은 선명하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사태화하는 그 류가 있는지 있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도하지 않는다 [그 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 과 [그 류가] **있는가** (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동일한 디아노이아(숙고)이기 때문이다 (1025b3-b18)

.....(1025b18-1026a27)¹⁷⁹⁰

만약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들과 나란히(παρὰ τὰς φύσει συνεκτικίας 1026a28) 해태론한 실체인 것이 있지 않다면 **자연/학**이 첫 번째 앎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실체인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에 관한 앎인] **철학**이 보다 먼저이며 첫 번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길에서] 보편적이다(καθόλου¹⁷⁹¹) a30)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다

1789) 감각에 분명하게 만드는 길 또는 어떤 것을 전제로 받아드리는 길을 여기서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길을 귀납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귀납에 대해서는 389각주446번 과 600쪽 과 595쪽을 참조하라 그리고, 874, 918, 994, 1013, 1025, 1039 쪽도 참조하라

1790) 생략된 부분에서는 자연에 관한 앎 과 수학적인 앎 과 신에 관한 앎 등 이론적인 세 가지 앎에 대해 말하여진다 텔레스에 따르면 앎에는 실천적인 앎 과 생산적인 앎 과 이론적인 앎이 있다는 705-706쪽을 참조하라

1791) 보편자가 대 부분 요소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하는 526쪽(1014a6)을 참조하라 그리고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456쪽을 살펴 보라

여럿에 속해 있는 순수한 아주 작은 하나 라는 점에서 보편자는 요소라고 대 부분 말하여지나 그로 인해 분리되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결코 보편자는 실체이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것이기에(ὅτι 1026a31) 보편적이다 라고 말하여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없음] 이러한 이론(Θεωρήσαι 1026b31)일 것이다 있는 무엇 과 [있는 무엇에] 있는 것 으로서 속한 것들[에 관한 없음](1026a27-a32) ”1792)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이론적인 없음 철학이 첫 번째 없음이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첫 번째 없음을 조사하고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있는 것들의 아르케아들 과 원인들이 조사되는데 분명히 있는 것들 로서의 있는 것들에 관한 조사이다 건강 과 좋은 상태의 어떤 원인이 있으며 수(학)적인 것들의 아르케아들 과 요소들 과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아노이아적인 없음 더 정확하든 더 단순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원인들 과 아르케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없음 어떤 하나의 류를 개괄하며 사태화하나 순수하게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도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도 있는 무엇에 관한 로고스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사람들은 혹은 그 무엇을 감각에 분명한 것으로 만들면서 혹은 전제로 받아 드리면서 자신들이 다루는 류에 그 자체로 속하는 것들은 더 필연적으로든 더 정당하게든 논증한다 이 때문에 실체의

진다 이 말을 모든 각각에 공통인 것은 각기 것의 요소이며 각기 것에 첫 번째로(τὸ πρῶτον 1014b14-15) 속한 것이므로 보편자는 요소이다 라는 말 (526) 과 보편자는 공통적인 것이다 라는 말(456)에 이어 보라 그리하면,

각기 것에 첫 번째로 속한 요소 로서의 보편자가 첫 번째 있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은 실체이며 실체는 보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1060 쪽의 로고스를 비교해 보라

1792) 이어지는 엡실론 편 2 - 3 장에 대해서는 836-848쪽을 참조하라

논증도 있는 그 무엇의 논증도 이러한 귀납으로부터는 있지 않으나 있는 이
무엇을 드러내는 알론한 길이 있다는 것이 선명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태화되는 그 류가 있는지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
는다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 과 있는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동일한
디아노이아이기 때문이다

.....

자연스레 합해진 것들과 나란히 헤태론한 실체인 것이 있지 않다면
자연학이 첫 번째 앎일 것이다 그런데,

실체인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에 관한 앎인 철학이 먼저
이며 첫 번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길에서 보편적이다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다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앎이 이러한 이론 - 있는 무엇
 과 있는 무엇에 있는 것으로서 속한 것들에 관한 앎 - 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앎이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앎이 아니다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앎 곧 있는 그 무엇 과 있는 그 무엇에 그 자
 체로 속한 것들에 관한 앎은 앎 가운데서도 첫 번째 앎 곧 철학이기 때문이
 다 만약,

자연스레 합해진 것과 나란히 헤태론한 실체인 것이 있지 않다면 자
 연학이 첫 번째 앎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실체가 있으며 게다가 그러한
 실체인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므로 자연학 보다는 철학이 먼저이며 첫 번
 째 것이고 그러기에 보편적이다 그래서,

철학 이외의 모든 앎은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또는 있는 무엇
 또는 **순수하게 있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단지 있는 그 무엇을 전제하
 거나 감각에 분명한 것으로 여기고서¹⁷⁹³⁾ 이 무엇으로부터 논증한다 이 때
 문에 **실체** 또는 있는 그 무엇의 논증도 이런 앎으로부터는 있지 않다 그렇
 다면,

1793) 이러한 귀납으로부터는 실체 또는 있는 그 무엇의 논증이 있지 않다
 따라서 있는 그 무엇을 드러내는 알론한 길이 있다는 것은 선명하다 이러한
 길은 694쪽에 나타난 것 처럼 논증은 아닐 것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 으로서 있는 것이란 순수하게 있는 것이며 있는 그 무엇이고 실체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그런데,

자신이 종사하는 류에 대해 철학 이외의 앎은 그 류가 무엇으로 있는 지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말하지 못한다 **있는 무엇**에 관한 디아노이아 와 **있음**에 관한 디아노이아는 동일한 **디아노이아이기**(της αὐτῆς εἶναι διανοίας 1025b17)때문이다 라는 텔레스의 말을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려 한다

어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숙고 와 동일한 것이다 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의 '무엇(τι)'을 빼버리고 단지 어떤 것의 있음만을 숙고해도 동일한 것을 숙고하게 된다는 말일까 아니면 어떤 것의 무엇이 바로 어떤 것의 그 있음이라는 말일까 사실,

실체는 어떤 것에 있어 오는 그 무엇(τὸ τι ἦν εἶναι)이며 그 무엇은 에이도스이다 라는 제애타 편의 로고스는 어떤 것의 **무엇(τι)**은 어떤 것에 **있어** 오는 것(τι)이라는 로고스를 허용할 것 같다 물론 이러한 허용이 어떤 것의 무엇이 어떤 것의 있음이라는 것을 허용할 것 같지는 않긴해도 말이다 이제,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로고스를 다음 쪽 처럼 정리해 보자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을 철학자의 앎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른
다](1083) 철학자는 이러한 것들 각각에 우연적인 무엇에 관
해 부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각각의 있
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해 이론화한다(1089)

의 우연들 과 그 대조들에 관한 앎은 철학 이론들과 알려진 것이
아니다(1086)

의 속성.....등이 있는 모든 것 각각이므로 있는 것 각각은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1084)

을 이론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은 량 과 연속 으로서 있는 것
들의 속성을 이론화한다(1085) 수학자는 선 또는 각 또는 수
또는 알려진 량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 으로서의 선 또는 각
또는 수 또는 알려진 량에 관한 이론을 일 또는 이 또는 삼
차원의 측면에서 만든다(1089)

을 이론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학은 움직이는 것으로서(의) 있
는 것을 이론화한다(1086)자연에 관한 앎은 있는 것들 로서
의 있는 것들의 우연들 과 아르케애들을 이론화하는 것이 아
니라 움직여지는 것들 로서의 있는 것들의 우연들 과 아르케
애들을 이론화한다(1089)

의 우연들에 관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그 자체에 관한 것도 변
증법 과 퀘변술은 아니다(1086)

의에 관한 로고스도 순수하게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도 있는 무
엇에 관한 로고스도 [철학 이외의] 앎은 만들지 않는다(1094)
있는 그 무엇의 논증도 실체의 논증도 그러한 귀납으로부터
는 있지 않다(1095)

에 관한 앎이 바로 첫 번째 앎인 이론이다(1096) 그렇다면,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을 있는 것 자체(τὸ ὄν αὐτὸ 1051b2,
1061b9-10)라고 말할 수 있을까 힘 과 활동 과 현실에 대해 말하는 테아타
편 마지막 장인 10장¹⁷⁹⁴ 끝 부분에서 있는 것 자체 라는 말이 다음 처럼

나타난다

“ 묶여(있)지 않는 실체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다 (묶여 있지 않은 실체와 관련해서도) 속여짐[붙음?]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묶여 있지 않은) 모든 (실체)는 *에네르케이아*로 있지 *뒤나뒤스*로 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생성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것 자체**(*τὸ ὄν αὐτό* 1051b29)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⁷⁹⁵⁾ 실로,

있음인 것 과 *에네르케이아*(활동)인 것 [등] 그러한 것에 관련해서는(*περὶ ταῦτα* 1051b31) 속여짐이란 있지 않다 그러나 [있음인 것과 에네르케이아인 것을]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에(*ἡ νοεῖν ἢ μὴ* 1051b31-32)(관련해서는 속여짐이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 라고 그러한 것들의 있는 그 무엇이 조사되어진다 (1051b26-33) ”

진실 과 거짓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로 말하는 맥락에 속하는 위 인용 글월은 ‘ 연언 과 주장은 진실이다 주장은 긍정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연언은 몰 인식과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있는 그 무엇에 관련해서는 우연히를 제외하면 속여짐(*ἀπατηθῆναι* 1051b25)은 있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다 ’ 라는 글월에 바로 이어지는 인용 글월이다

1794) 665쪽에서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 10장은 1-9장과는 달리 힘 과 현실에 대해 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과 거짓에 대해 주로 말하긴 하나 결정적인 곳에서 힘 과 활동이라는 말이 나타난다 바로 이 곳에 있는 것 자체 라는 말도 더불어 나타난다

이러한 곳의 맥락에 대해서는 663쪽 전 후를 살펴 보라

1795) 텔레스 역시 있음 과 생성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있는 것 자체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구분은 티마이오스 편의 플라톤의 구분과 같다(티마이오스 136 쪽 이하)

묶여지지 않은 실체에도 있는 그 무엇에 있어서 처럼 속여짐은 있지 않다 묶여 있지 않은 모든 실체는 에네르게이아(활동으)로 있지 힘으로 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생성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있는 것 자체도 생성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 소멸한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있음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인 것에는 속여짐이란 있지 않다 그러나 있음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인 것을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음에는 속여짐이라는게 있다¹⁷⁹⁶⁾그렇다면,

생성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자신에게는 속여짐도 있지 않은 있는 것 자체를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묶여지지 않는 모든 실체에는 속여짐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실체는 뒤나뮌스라면 생성 소멸할 것이므로 뒤나뮌스가 아니라 에네르게이아라면 소멸한다면 생성할 것이므로 생성 소멸하는 것이 아닌 있는 것 자체에는 속여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 자체는 실체이다 따라서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이 실체라면 **있는 것 자체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까 다음 처럼 이 로고스들을 다음 쪽 처럼 연이어 볼 수 있으리라 괄호쳐진 로고스들은 위 인용 글월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로고스들이긴하나 이제 까지 인용된 모든 글월에 적어도 여러 번 직접 나타났던 로고스들이다

1796)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 라고 이러한 것들의 있는 그 무엇이 조사된다

1098쪽에 나오는 어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속고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속고 와 동일한 것이다 라는 말을 더불어 속고해 보라

묶여지지 않는 것이 실체이며
실체에는 속여짐이 있지 않다면,
묶여지지 않는 것에는 속여짐이 있지 않다

그리고,

(실체는 생성 소멸하지 않고)
뒤나뫼스는 생성 소멸한다면
뒤나뫼스는 실체가 아니다

또한,

(뒤나뫼스가 아닌 것은 에네르케이아이이고)
뒤나뫼스는 생성 소멸한다면
(에네르케이아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있는 것 자체는 생성 소멸하지 않고
생성 소멸하지 않는 것은 실체라면
있는 것 자체는 실체이다

따라서,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은 실체이며
실체는 있는 것 자체라면
있는 것 자체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네르케이아는 실체이고
실체는 있는 것 자체라면
있는 것 자체는 에네르케이아이다

결국,

실체는 묶여지지 않은 것이고
묶여지지 않는 것에는 속여짐이 없다면 그리고,
실체는 에네르케이아이이고
에네르케이아는 있는 것 자체라면

있는 것 자체에는 속여짐이 없다

앞 쪽 로고스들은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은 있는 것 자체이다 라는 로고스가 무슨 로고스에 잇 따르는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1061b9-10에서 나타나는 있는 것 자체 라는 말이 속하는 맥락에서도 있는 것 자체란 있는 ((것 으로서의))있는 것 이라는 로고스가 뿔혀져 나오는지 살펴 보자

“ 있는 것인 한 이[있는] 것의 우연들(συμβεβηκότα b4) 과 있는 ((것 으로서의)) 그 있는 것의 대조들[에 관한] 앎은 철학 이론들과 알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ἡ φύσις a6)에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여(μετέχει b7)하는 이론인 것을 배정할 것이므로 [그렇고] 또한 우연들의 변증법 과 궤변술은 있는 것들에 [대해] 있기는(εἰς τοὺς οὖσιν b9) 하나 있는 ((것)들 ((로서의)) (있는 것)의 (우연들)의 것도 아니요 있는 것들인 한 있는 것 자체에 관한 것(περὶ τὸ ὄν αὐτὸ καθ' ἑαυτοῦ b9-10)도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무엇이든 있는 것들인 한 우리들이 말했던 것들에 관한 이론인 철학자)이 남는다 (1061b4-b11) ”1797)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 우연들과 대조들에 관한 앎은 철학 이론과 알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말 하여진다

있는 것인 한 있는 것의 우연들과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 대조들에 관한 앎은 철학 이론들과 알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학자는 기하학과 동일한 길에서 곧 추상으로부터 있는 것에 관한 이론을 만든다]

자연학에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여하는 이론인 것을 배정하므로 그렇고 또한 우연들의 변증법 과 궤변술은 있는 것들에 대해 있기는 하나 있는 ((것들로서의)) 있는 것의 우연들의 것도 아니요 있는 것인 한 있는 것 그 자체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1797) 이 인용 글월이 속한 맥락에 대해서는 1086쪽 앞 과 뒤를 살펴 보라

있는 것인 한 우리들이 말했던 것들에 관한 이론인 철학이 남는다
비록 변증술 과 궤변술은 있는 것에 대한¹⁷⁹⁸ 우연들에 관한 것이기

1798) ‘ εἶσι τοῖς οὖρον (1061b9) ’ 라는 문제의 글월을 ‘ 있는 것에 대한 ’
보다는 ‘ 실체에 대한 ’으로 옮기는 것이 본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 될 것이
다 그러나 나는 실체 보다는 있는 것 으로 옮겼다 왜일까 있는 것에는 가짜
가 있을 수 있지만 실체에는 가짜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랬다 물론 이
러한 가짜에는 ‘ 변증술’이 속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텔레스와 내가 지금 알
론하기는 해도 말이다 어쩌든,

텔레스가 말하는 변증술 과 궤변술을 나는 975 - 977쪽에서 요약했
다 물론 변증술 과 궤변술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것은 모든
것에 공통(κοινὸν 1004b20)이다 라는 로고스를 이끌어 내는 가운데 변증술
과 궤변술이 건드려지긴 했어도 말이다 거기에 따르면,

변증과 와 궤변가는 철학자인 척한다 궤변은 지혜인 것 처럼 보이며
변증가는 모든 것에 관해 변증하므로 그렇다 그러나 변증 과 궤변을 철학과
동일한 류인 것 처럼 보더라도 그 힘의 길[자연]에 있어서는 변증과 그 삶
의 의도에 있어서는 궤변과 철학은 차이난다 철학은 있는 것들의 인식술인
반면 변증은 그것들의 비판술(περιρατικῆ 1004b25)이며 궤변은 철학인 것
처럼 나타나나 철학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기 와 변증 과 궤변은 있는 것에 대한 우연들에 관여한다
라고 말하는 여기를 합쳐 본다면 궤변 과 변증 과 철학은 각기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 하나의 류인 듯하다 그러나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 우연에 관한 것도 아니요 있는 것인 한
에 있어서의 있는 것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두 가지는 철학
과 차이난 듯하다 움직이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학은 철학과 알론하며 량적인 연속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학) 또는 기하학은 철학과 알론하듯이 말이다 그럼에도 궤변 과
변증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연학 과 수학 보다는 더 철학적인 것일
것 같다 그렇다면,

변증 과 궤변은 어떠한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것일까 있는 것

는하나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 우연들에 관한 것도 아니며 있는 것인 한 있는 것 자체에 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인 한 있는 것의 우연들과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대조들에 관한 이론인 철학(자)가 남는다 라고 있는 것 자체는 변증법 과 궤변술에 대해 말하는 데에 쓰여진다

있는 것 으로서 있는 것을 있는 것 자체¹⁷⁹⁹⁾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가운데 문체의 인용 글월을 더듬어 오고 있다 각주 1799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문법적인) 뜻에 의해서는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나,

으로서의 있는 것 또는 있는 것인한 있는 것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변증 과 궤변이다 라는 로고스 뿐일 것이다

1799) 있는 것 자체 보다는 있는 것 그것이라고 옮기는 것이 더 본문에 가깝다 희랍어에서는 어떤 명사를 강조할 때 바로 뒤에 그 명사의 성에 상응하는 3 인칭 대명사를 붙혀 두기 때문이다 ‘ τὸ ὄν αὐτό ’의 ‘ αὐτό ’ 라는 중성 3 인칭 대명사 역시 그러한 강조의 뜻을 지녔을 것이며 있는 것 그것 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것 자체 라고 말하는 것 보다 있는 것을 더 선명하게 강조하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을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는 주욱 보아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있는 것을 곧 실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오지 않았는가 심지어 순수하게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있는 것 자체를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과 동일시 하려면 단순히 강조 이상의 뜻을 있는 것 자체를 지녀야 할 것이다 물론 헬라어 3인칭 대명사는 형용사의 부가적 위치에 놓여 자신이 수식하는 것과 동일함(same)을 나타기도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αὐτό’에는 관사가 붙질 않았으므로 same을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헬라어 3인칭 대명사는 대명사 또는 동사 속의 주어 - 헬라어는 동사의 끝이 변해 주어의 인칭을 가리킨다 이 경우 주어는 생략된다 -를 강조하는데 이 경우 강조되는 것과 관사 없이 나란히 놓인다 그러나 ‘τὸ ὄν’은 대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므로 이러한 쓰임새도 아니다

그 단어가 속한 로고스로 눈을 돌린다면 동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하다 비록 ‘ μέν..... , δε..... ’로 이어졌긴 해도 ‘μέν....ούχ....., ο ύδε..... ’처럼 동격의 부정(否定)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 있는 것으로서의 (있는 것)의 우연들의 것도 아니요 있는 것인한 있는 것 자체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에서 밑줄 그은 것들을 동격으로 본다면 그 문법적인 뜻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과 있는 것인 한 있는 것 자체는 동일한 문법적인 뜻 - 단어의 문법적인 뜻이 아니라 단어가 속한 문장들의 구문론적인 문법의 뜻 -을 지녔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이 동일한 프라그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일단 그럴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있는 것(τὸ ὄντως ὄν, 진짜로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 그런데,

텔레스의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대신에 플라톤에게서는 이 말이 이 따끔 나오는 것 같다(파르메니데아스 134a7, 159a5 와 소피스테아스 256d8, 833쪽) 그렇다면,

플라톤의 있는 것으로 또는 진짜로 있는 것 이라는 말 대신에 텔레스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등의 말을 쓴 것이 아닐까.....

바로 여기서 플라톤이 말하는 있음 또는 있는 것으로 넘어 갈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전에 말해야 할 것이 반드시 하나있다 있지 않음 또는 있지 않는 것¹⁸⁰⁰)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800) 7쪽 각주 7 번에서 내가 물어 보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 처럼 있지 않음 또는 있지 않는 것을 없음 또는 없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는 내가 있지 않다 와 내가 없다는 동일한 말이 아니다 앞의 것은 내가 알론하게 있다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뒤의 것은 심나는 알론하게도 있다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946 과 953 과 981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텔레스는 여럿 또는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있지 않는 것은 힘으로 있는 것(τὸ δυνάμει ὄν, 1089a28, b16)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①있지 않음 또는 있지 않는 것은 힘으로 '있는' 것이라고도 말하여진다¹⁸⁰¹⁾ 라는 로고스를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부터 나는 서둘러 뽑아든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더라도 우선 뽑아 들어야 만이 나의 직성(直星)이 풀릴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②있지 않음도 있음 처럼¹⁸⁰²⁾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는 로고스를 거슬러 올라가서 천천히 뽑아든다 로고스②는 수학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바로 형이상학 뮌¹⁸⁰³⁾편 그 2 장¹⁸⁰⁴⁾ 앞의 끝 부분인 1089a16에 나오며 이러한 로고스②에 로고스①이 연이여진다

“ [이들¹⁸⁰⁵⁾더러] 그러한 것들¹⁸⁰⁶⁾에 향하도록하는 그런데 근원

1801) 아울러,

텔레스는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대신에 힘으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여럿 과 생성 과 움직임에 대해 말하면서 말이다 말 사람은 있지 않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힘으로 있는 사람(1089a29)으로부터 온다 라고 텔레스는 말하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②로고스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1802)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음 과 있는 것에 대해서는 691쪽 과 802-803쪽을 참조하십시오

1803) 뮌편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으려면 796쪽 각주 1221번 과 799쪽 각주 1224 번을 보시오

1804) 수학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2 장에 대해서는 796쪽 각주 1221 번 과 944-955쪽을 보시오

1805) 요소(σοιχείον 1088b29)를 무 규정적인 두겹(δυάδα ἀόριστον

적으로 어려움들을 [지닌] 원인들이 여럿 있다

‘**있지 않는 것이 있다** 라는 ((그)것은 어디에서건 결코 [논증]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파르메니데에스의 로고스에 천천히 지나치면서 어떤 자가 [그 로고스로부터] 풀려나지 못하는 한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 곧 있는 것 그 자체(αὐτὸ τὸ ὄν 1089a3)이지만 그러나 **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논증해야한다 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이다 만약 여럿(πολλά a6)이 있다면 있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알려진 어떤 것으로부터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있어질 것이므로 [그렇다]

한 편으로 실체를 한 편으로 질을 한 편으로 량을 한 편으로 알려진 범주들을 가리키므로 만약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면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첫째,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길로(ποῖον 1089a9) **하나**일까 실체들 [로서] (하나일까) 아니면(πότερον a10) 또는 속성들 [로서] (하나일까) 아니면(καὶ a10) [둘째] 그래서(ἔπειτα a15),

있는 것들은 어떠한(ποῖου a15)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올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있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는 이것**을 가리키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직선(εὐθὺς a18)이 아닌 것은 **있지 않는** **그런 것**을 (가리키며) 다른 한 편으로 세 큐빗(τριπύχου a18)이 아닌 것은 **그 만큼**이 아닌 **것**을 가리킨다) 이제,

있는 것들 여럿은 어떠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올까] 그러나,

그 [다양한] 경우에 [받아드러지는] **있지 않는 것은** **범주**들과 똑 같이 말하여지는 반면 이것 이외에도 **있지 않는 것은** **거짓** 으로서 말하여지고 **힘**에 따라 말하여진다 이 (힘)으로부터 생성이 있다 사람은 사람이 **아닌** 그런데(δέ a29) 잠재적(힘)으로 사람인 것으로부터 사람은 있고 **희지 않는** 그런데 힘(잠재적)으로 **흰** 것으로부터 **흰**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인 것이 되어질 것이고 여럿이 (되어)질 것

1088b28-29)인 어떤 하나로 보아 똑 같지 않는 것(τὸ ἄνισον 1088b29)을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한다

1806) 이들이 말하는 것들

라는 인용 글월은 요소를 무 규정적인 두
겹으로 곧 크고 적음으로 보는 자들은 비록 ‘ 있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결코 논증되지 못한다 ’ 라는 파르메니데에스에 얽매어 있긴하지만 ‘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이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는 것을 필연적으로 논
증해야 하려는 자들이다 라는 말 로서 시작되면서 본디 이러한 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말하여지나 나는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주로 말할 것이다

‘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이지만 **있지 않는 것도 있다** ’ 라고 말하는
자들을 따르자면 있는 것은 실체 또는 질 또는 량 또는 알론한 범주 등을
가리키므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는 것이** 있는 반면 마찬가지로 **있
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첫째,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길로 하나일까 실체로서 하나일까 아니면 알론
한 범주로서 하나일까 둘째,

있는 것들은 어떤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올라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
닌 것은 있지 않은 이 [것](τοδι 1089a17)을 가리키며 직선이 아닌 것은 있
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고 세 규빗이 아닌 것은 있지 않는 그 만큼한
것을 가리킨다 셋째,

있는 것들 여럿은 어떤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올
까1808).....그러나,

1807) 이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945-955쪽을 살펴 보라

1808) 이 있지 않는 것을 거짓과 동일한 자연이라고 이들은 말하고자 할
것이다 그 보폭(步幅)은 이 보폭이 아니다 라고 기하학자들이 말할 때 처럼
거짓인 어떤 것이 반드시 전제(ὑποθέσθαι 1089a22)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
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기하학자들은 거짓을 전제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을

있지 않는 것은 범주들과 똑 같이 말하여지는 반면 이 이외에도 거짓¹⁸⁰⁹⁾이라고도 힘이라고도 말하여진다 이 힘으로부터 생성이 있다 사람이 아닌 그런데 잠재적(힘)으로 사람인 것으로부터 사람은 있으며 희지 않는 그런데 힘(잠재적)으로 흰 것으로부터 흰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인 것이 되어질 것이고 여럿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텔레스의 로고스에서 있지 않는 것은 범주들이 말하여지는 만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도 하고 거짓이라고도 말하여지며 힘이라고도 말하여진다 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¹⁸¹⁰⁾ 그런데,

범주들 만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지 않는 것의 경우 사람이 아닌 이 것 또는 직선이 아닌 그러한 것 또는 세 규빗이 아닌 그 만큼한 것들에서 처럼 무엇(이 것) 또는 질 또는 량 등의 범주 자체를 부정(ἀπόφασις, 1027a21, 869쪽, 否定)하는 것이 아니라 ‘범주 로서의 있는 것’에서의 ‘있는 것’을 부정한다 그리고 부정의 그 표시로서 μή¹⁸¹¹⁾(아닌, 1089a17, 27) 라는 부정어를 있는 것 앞에(τὸ μὴ ὄν, 1089a16) - 우리말의 경우 ‘있’ 뒤에 - 붙혀준다 다시 말해,

세 규빗이 아닌 그 만큼한 것은 그것이 량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량으로 있는 것 곧 세 규빗을 부정한다¹⁸¹²⁾ 따라서 세 규빗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809) 있는 것은 진실이라고 말하여졌음에 유의하라 865쪽을 참조하라

1810) 물론 이와 상응하게 있는 것도 범주들 만큼 여러 가지로도 말하여지며 진실이라고도 말하여지고 에네르케이아 또는 엔텔레케이아 라고도 말하여진다

1811) 플라톤은 소피스테에스 257b9 앞 뒤에서 부정어(否定語) μή(아닌)을 ‘그 부정어 뒤에 발설되는 이름들에 놓여진 프라그마와 알론한 것을 가리키는 것’ 으로서 인정한다(126-127쪽 참조)

소피스테에스의 이러한 플라톤의 생각을 이어지는 형이상학에서의 텔레스의 생각과 비교해 보라 있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 텔레스는 어찌 보면 플라톤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 처럼 보일 것이다

량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량 그 자체는 긍정(κατάφασις, 1027a21, 869쪽, 肯定)되는 셈이다 따라서,

있지 않는 것은 범주들 만큼이나 여러 가지로 말하여질 것이다 나아가서,

있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도 말하여진다 반면 있는 것은 진실이라고도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있지 않는 것은 힘이라고도 말하여진다 반면 있는 것은 에네르게이아(활동) 또는 엔텔레케이아(현실)이라고도 말하여질 것이다 그렇다면,

힘으로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일 것이다 보기로 들어진 바와 같이 그 사람이 힘(잠재적)으로 '있다'면 그 사람은 있지 않는 반면 그 사람이 현실 또는 활동으로 있다면 그 사람은 있다 바로 이렇게 힘으로 '있는' 사람으로부터 있는 사람이 온다 잠재적(힘)으로 흰 것으로부터 오는 흰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텔레스의 용어(用語)를 따르자면 흰 것은 희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힘(잠재적)으로 흰 것으로부터 온다 만약 희지 않는 것로부터 흰 것이 있다면 있는 것은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오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 텔레스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온 것 처럼 있는 것(들)은 어떤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올까 있는 것 처럼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말이다 라는 물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생성(ἡ γένεσις, 1089a29, 921쪽참조) 과 소멸이 있다 그러므로 생성 과 소멸은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것으로부터 있지 않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있는 것)으로부터 현실(로 있는 것)로 그리고 현실에서 힘(잠재적인 것)으로 일어난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나아가서,

움직임(ἡ κίνησις, 1065b23, 882쪽) 은 힘에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활동)이며 될 수 있는 것의 현실화 이다 라는 889쪽을 살펴 보라 그렇다면,

1812) 있음은 범주와 나란한 것 곧 범주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690쪽을 참조하십시오

움직임을 비록 있는 것이긴하나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야할 것 같다 움직임을 통해서 있다 라고 나 할까... 텔레스에 따르면 755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항상 있어 오는(ἀεὶ ἦν 1071b7) ‘것’이 움직임이다 바면 있어 오(고 있는)는 그 무엇(τὸ τι ἦν εἶναι 1028b34)은 실체 다시 말해 첫 번째로 있는 것이다

이 처럼 움직임 과 있음이 헤테론하다는 것은 플라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플라톤에 있어서는 움직임 과 있음은 다섯 가지 커다란 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23쪽) 그런데,

텔레스에 따르면 있음 또는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듯이 있지 않음 또는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그래서,

범주들 만큼이나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지 않음은 거짓이라고도 힘이라고도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있음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있지 않음**[의] 이름도 [규정된] **이 [것]**을 가리킨다¹⁸¹³⁾

“ 첫 번째로 그렇다면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τὸ ὄνομα 1006a29-31)은 [규정된] **이 [것]**(τοῦτ' α31)을 가리키므로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것은 분명히 진실이다 (1006a29-31)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 [것]을 가리키므로 모든 것이 이렇게 규정되면서 이렇게 규정되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¹⁸¹⁴⁾

있음의 ‘이’ 규정 과 있지 않음의 ‘저’ 규정은 서로 알론해서 ‘이(τοῦδε)’

1813)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694 - 703 쪽에서 말하여졌다 물론 거기에서는 있음에 대해서 말하여지고 있지만 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있지 않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고 거기와는 약간 다른 순서로 말할 것이다

로 규정되 있는 것은 ‘이’로 규정되 있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일 것이다 만약 ‘이’로 규정되 있지 않다면 이러하면서 동시에 이러하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지 않음의 이름이 가리키는 규정 ‘저’는 있음의 이름이 가리키는 규정 ‘이’와 동일하지 않는 알론한 규정 곧 ‘이’의 부정(否定)일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않다 또는 아닌’은 가리킬 것이다 있지 않음의 이름 과 있음의 이름은 비록 규정 ‘이’를 가리키긴하나 서로에 알론한 규정 ‘이’를 가리켜야 할 것이다 나는 알론한 ‘이’를 ‘저’로 표시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τοδὲ)’에 대해 텔레스는 범주들 과 형이상학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 보는 것이 더 나은 이해를 가져올 것 같아 나는 여기서 ‘이’에 대해 요약해 보려 한다 물론 ‘이’는 ‘것(τι)’과 더불어 ‘이 것(τοδὲ τι)’를 이루는 ‘이’이다¹⁸¹⁵⁾우선,

이미 요약 정리된 다음과 같은 인용 글월을 다시 살펴 보려한다

1814) 이렇게 규정되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규정되 있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로고스를 텔레스가 전개하는지는 695쪽 이하(以下)에서 이미 나는 말해 두었다 다시 간략하게 말한다면,

동일한 것이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것에 속하면서 동시에 속하지 않을 수는 없다 더 간략히 말하면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것은 앎의 아르케에인데 바로 앎의 이러한 아르케에에 모든 논증은 근거를 둔다 그러나,

앎의 아르케에는 논증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궁극적인 신념(δόξαν, 1005a33)이므로 이 아르케에를 거부하는 자에게 논증할 길은 없다 단지 그 자의 로고스를 반박하므로써 되물어 갈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과정의 첫 단계에서 문제의 그 로고스 다시 말해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 것을 가리킨다 라는 로고스가 나타난다

1815) ‘이’를 할 수 있는 한 물고 늘어지는 원인은 텔레스의 실체가 물론 ‘이 것’ 자체는 아니긴해도 ‘이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 것’에 관하여 나는 이미 957 - 969에서 미미(微微)하게나마 말해 두었다

“ [실체 이외의] 알론한 범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여럿인가** [라는 물음은] 알론한 어떤 난감함(ἐπιζαουv, b25, 難堪)을 지닌다 그 (실체)와(τῶ b26) 분리되지 않음을 통해서 그 [실체 이외의 범주들의] **기체**¹⁸¹⁶가 여럿이고 (여럿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질들이 여럿이고 량들도 여럿이다 그렇지만 각기 [범주] 류에는 실체들과 분리될 수 없는 **질료인** 것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이(τόδε 1089b29)것(τι b29)의 경우에는 만약 [이 것 가운데] **것**(τι¹⁸¹⁷, b30, 어떤 것이 이 것 과 그(이 것의) 자연인 것이 아니라면 **이** **것**(τόδε τι b29)이 어떻게 여럿인가 [에 관한] 어떤 로고스를 지닌다 그런데 이 (물음)(αὔτη, b30) 보다는 오히려 저 [실체](ἐκεῖθεν b31)에 관해 **에네르케이아**에 있어서의 실체들이 어떻게 **하나**가 아닌 **여럿인가** 라는 아포리아(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τόδε b32)[것] 와 량이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럿인가가 아니라 량들이 어떻게 여럿인가가 말하여진다 수는 량인 모든 것을 가리키며 모나드는 만약 재어진 **것**(μέτρον, b35, 尺度)이 아니라면 량적으로 나뉘어 지지 않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제,

만약 량 과 있는 그 무엇이 헤테론하다면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으로부터 [있으]며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동일하다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많은 대립들에 직면한다 (1088b35-1090a2) ”¹⁸¹⁸

1816) 실체는 기체적이다 라는 295-296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 따르면 자신이 알론한 것의 카테고리아(속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들이 자신의 속성이 되는 것이 기체이며 이러한 기체가 대 부분 실체라고 여겨진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실체는 기체와 같은 것이긴 해도 기체 예를 들어 질료(ἡ ὕλη 1029a2)는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실체는 기체와 같은 것이긴해도 모든 기체가 실체인 것은 아니다(166, 295, 853, 917쪽)

두 줄 아래 나오는 질료인 것 역시 기체의 일 종이다

이러한 로고스는 162-175쪽에서 확인된다

1817) 166쪽에 나오는 사람인 것에서의 ‘것 (τις 2a13)’과 비교하라(447쪽)

앞 쪽 인용 글월은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여럿인가에 대해 말하는 맥락에 속한다 그러는 가운데 ‘이’가 문제 삼아진다 따라서 ‘이’에 대해 주로 말하고 있는 곳은 아니다¹⁸¹⁹) 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서 이 만큼이나 말하고 있는 곳을 찾아 보기 힘들어 앞 글월을 인용했다

프로스 티(어떤 ‘것’에 대함, 關係)의 많은 종들(πλειω εἴδη 1089b14)에 대해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프로스 티 라는 종의 여럿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텔레스는 앞 인용 글월의 앞 글월에서 묻는다

텔레스에 따르면 이들은 프로스 티의 종의 여럿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있는 것의 각기 류(ἐκάστω γένει 1089b28)를 이루는 실체 질 등의 여럿에 대해 말하기 보다는 차라리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에 대해 말하는 편이 더 나았다 있는 것들이 한 편으로 실체이며 한 편으로 속성이며 한 편으로 프로스 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체 이외의 알론한 범주가 어떻게 여럿인가 라는 물음은 곤란한 물음이다 실체와 분리되지 않음을 통해서 알론한 범주의 기체가 여럿으로 되고 여럿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 과 량을 포함 알론한 범주들은 자신들이 기체가 여럿이므로 여럿이다 이러한 각기 류(범주)에는 실체와는 분리될 수 없는 질료가 있다 그러나,

‘이 것’의 ‘것’이 ‘이 것’ 과 이 것의 자연인 것이 아니라면 ‘이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 물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물음 보다는 오히려 저 실체의 경우 에네르게이아에 있어서의 실체들이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가 라는 물음이 어렵다 그러나,

‘이’ 와 량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럿인가가 아니라 량들이 어떻게 여럿인가가 말하여진다 수는 량인 모든 것을 가리키며 모나드는 만약 재어진 것이 아니라면 량적으로 나뉘어

1818) 이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944 - 957 쪽을 참조 하시오

1819) 그러나 ‘이’ 또는 ‘것’ 또는 ‘이 것’에 대해 주로 말하는 곳은 적어도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혹 오르가논에서는 나타날 지 모르겠다

지지 않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제,

량 과 있는 그 무엇이 헤테론하다면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으로부터 있으며 어떻게 여럿인가가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동일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많은 대답에 직면한다

‘이’ 와 량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있는 것 여럿이 아니라 량 여럿이 말하여질 것이나 텔레스는 량 여럿 보다는 있는 것 여럿에 대해 말하려하므로 텔레스에 따르면 ‘이’는 량과 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다 나아가서,

‘것’이 ‘이 것’이 아니라면 ‘이 것’ 여럿에 대해 말하여질 것이나 그는 지금 있는 것 여럿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것’은 ‘이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것’은 ‘이 것’이 아니므로 ‘것’은 ‘이’도 아닐 것이다 ‘것’이 ‘이’라면 ‘것’은 ‘이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인용 글월을 살펴 보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라면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 한 하나는 ‘이’ 와 ‘그러함’ 과 ‘그 만큼’ 과(kai 1089a12) [이와] 알론한 것들일 것이다 있는 것의 그 [부분의] 어떤 하나의 자연 생성 원인이 ‘이’ 와 ‘그러함’ 과 ‘그 만큼’ 과 ‘어디’ 라는 것은 불 합리 하며 오히려 불 가능하다.....

있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는 ‘이’를 가리키며 직선이 아닌 것은 있지 않는 ‘그러함’을 가리키고 세 큐빋이 아닌 것은 있지 않는 ‘그 만큼’을 가리킨다.....(1089a11-a19)”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모든 것 각각 하나는 ‘이’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그러함’을 가리키든지 아니면 ‘그 만큼’을 가리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리킬 것이며 이와 상응하게 있지 않는 모든 것 각각 하나는 있지 않는 ‘이’ 아니면 등 등을 가리킬 것이다

위와 같은 텔레스의 로고스는 ‘이’를 통해서 알론한 아홉 가지 범주들이 달라 붙는 범주인 있는 그 무엇 또는 실체를 가리키려고 한 듯 하다¹⁸²⁰⁾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아래 인용 글월을 살펴 보라

“ 무엇이건 보편자(τῶν καθόλου 1038b9)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실체일 수 없을 것 처럼 보인다 첫 째.....나아가서(ἔτι 1038b23),

이(τὸ τὸδε b24) 와 실체가 만약 [어떤] ‘것’들로부터 있다면 실체들로부터도 이 것(τὸ τὸδε τι b25)으로부터도 아니라 질로부터 (있다)는 것은 불 가능하고 불 합리하다 실체 와 ‘이’ 보다 먼저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질일 것이기 때문이다 로고스에 있어서든 시간에 있어서든 생성에 있어서든 실체의 속성(τὰ πάθη¹⁸²¹⁾ 1038b28)들이 먼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분리될 것이므로 [그렇다] (1038b9 - b29) ”¹⁸²²⁾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만약 ‘이’ (와 실체)가 (어떤) 것으로부터 있다면 질로부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 가능하며 불 합리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실체 와) ‘이’ 보다 질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고스에 있어서든 시간에 있어서든 생성에 있어서든 실체의 속성들이 실체 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와 실체)가 ‘이 것’ (과 실체)로부터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며 합리적일까 역시 불 가능하며 불 합리하다 실체는 어떠한 실체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¹⁸²³⁾

1820) 그러나 ‘이’는 실체가 아니라는 말을 나는 이와 관련 된 여러 곳에 거듭 되풀이 했다

1821) 속성을 질의 세 번째 류로 보는 203쪽을 참조하십시오

1822) 이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454-471쪽 과 966쪽을 참조하십시오

1823) 실체는 현실적인 어떤 실체로부터도 있지 않다 라고 말하는 462쪽을

이러한 로고스들로부터 그리고 ‘이’가 과(καὶ 1038b24)를 통해서 이어졌다는 것으로부터 ‘이’는 실제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실체는 ‘이’를 가리키며 ‘이’의 속성을 지닌다 손 치더라도 ‘이’가 실제일 수는 없다 물론,

‘이’(와 실제)는 질 등 보다 먼저 라는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서,

문법적으로 보면 τόδε(이)는 고대 지시 대명사 ὁ, ἡ, τὸ에 전접사(前接詞) -δε가 붙어 이루어진 지시(指示) 대명사 ὁ-δε, ἡ-δε, τὸ-δε의 중성 1격 으로서 저 ‘것’ 또는 이 ‘것’ 이라고 말할 때의 ‘이’를 가리킨다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this라고나 할까 그러나,

고대 희랍어 문법에 현대인이 접근할 경우 이미 자신의 해석 체계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도록 문제의 그 언어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미 현대인의 관점이 스며들어 있으며 ‘지시 대명사’ 라는 문법 용어 역시 그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 모순이 없는 새로운 해석 체계가 만들어 진다면 그 체계 안에서 새로운 문법 용어가 생겨날 수도 있으리라 다시 말해 문제의 τόδε 라는 말에 이러 저러한 뜻을 붙혀 보아 이 낱 말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 전체적으로 가장 모순이 적게 통용 되는 뜻을 골라 내어 적절한 이름을 달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에 공통적으로 그런 뜻으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인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쓰인 뜻 그대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철학자들의 글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 그러나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은 해당 시대에 공통으로 통용되는 그 뜻에서 거의 벗어 나지는 않으리라 물론 가장 중요한 낱 말의 경우에는 시대를 훨씬 앞서 가지만 말이다 만약,

τόδε를 this(이 것)로 번역 하면서 τόδε τι 역시 this(이 것)으로 번역 해 버리면 텔레스가 τόδε 와 τι 각각을 통해서 고유하게 나타내고져 한 프라그마를 혼동해 버리고 말 것이다 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τόδε 와 τι 와 τι의 구분을 아주 날카롭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참조하시오

더 자세히 구분되어야 할 많은 낱 말들이 있긴해도 말이다 그렇다면,

텔레스가 τóδε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다음 처럼 모아 볼 필요
요가 있다

이(τóδε)

를 있음 과 있지 없음의 이름이 가리킨다(1112)

가 량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있는 여럿이 아니라 량 여럿
이 말하여진다(1114)

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그러함 또는 그 만큼 또는 어디 등을
가리킬 수 없다(1116)

있지 않는 사람을 사람아닌 것은 가리킨다(1116)

(와 실체) 보다 먼저인 질 량 등은 있지 않다(1117)

‘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본디 토피카(화제)인 있지 없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자

나는 이제 까지 **있지 없음**의 이름은 ‘이’를 가리킨다 라는 것에 대해
말해 왔다 다시 말하면 있음의 이름 만이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있지
없음의 이름 역시 ‘이’를 가리킨다 나아가서,

있지 없음은 항상 나뉘어지기만 할 뿐 묶어진 것이 아니라고 형이상
학 테에타 편 10 장에서 말하여진다

“ 항상 묶여지기만 할 뿐 나누어질 수 없는 반면 다른 한 편으
로 항상 나뉘어지기만 할 뿐 묶여질 수는 없다면 반대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있음은 묶어진 것이며 하나인 반면 **있지 없음**은 묶어진
것이 아니라 여럿이다 (1051b9-13) ”¹⁸²⁴

위 인용 글월에서는 항상 나뉘어지기만 하는 것이어서 결코 묶어질 수 없는 것이 **있지 않는 것**인 반면에 항상 묶어진 것이어서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은 **있음**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688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있음**은 묶어진 하나인 반면 **있지 않음**은 나뉘어질 여럿이다 그런데,

묶어지는(σύκεται 1051b9) 그리고 나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나는 프라그마¹⁸²⁵(689)로 보고 지나치려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냥 지나쳐 **있지 않음**에서 이제 **있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기로 하자

이미 1108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은 범주들이 말하여지는 것과 똑 같이 말하여지며 **거짓**이라고도 말하여지고 **힘**이라고도 말하여진다¹⁸²⁶ 나아가서,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는 것**과 흡사(ἔγγυς 1026b21, 838쪽)하다고 형이상학 엡실론 2 장 가운데 부분에서 말하여진다

“ **있지 않는 것**에 관해 [말하는] 자로 소피스테에스를 플라톤¹⁸²⁷이 다루(ἔταξεν 1026b15)는 것은 나쁘지 않다 소피스테에스들

1824) 이 인용 글월은 이미 688쪽 과 660-677 쪽에서 충분히 설명되어졌다

1825) 689쪽에서 나는 프라그마를 묶어진 범주로 보고 있다

1826) 이에 대해서는 1107-1112쪽을 참조하십시오

1827) 플라톤의 소피스테에스 99, 131 쪽을 참조하십시오 거짓 말하면서도 그 거짓 또는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라고 젊은이를 속여 자신들이 말한 것을 모두 진리인 것 마냥 호리는 소피스테에스.....가 거기서 문제시된다

의 로고스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로고스들) 보다 훨씬 많이 우연적인 것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음악적인 과 문법적인은 그리고 코리스코스 와 음악적인 코리스코스¹⁸²⁸)는 헤테론 또는 동일 이 둘 중 어느 것인가 (하는 로고스) 그리고 *있을(ἔ 1026b18)것이지만 항상 (있지는) 않을(μή b18) 모든 것들이* 생성된다면 그래서 음악적인 것이 문법적인 것으로 (생성)된다면 마찬가지로(kai b19) 문법적인 것은 음악적인 것으로 (생성)된다고 하는 ([그러한] 로고스들은 우연적인 것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알론한 모든 로고스들도 있다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는 것**과 흡사(ἐξυβός, b21, 恰似)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와 같은 로고스들로부터 분명해진다. 알론한 길[로] 있는 것들로부터 생성 과 소멸이 있는 반면에 우연에 따라 (있는 것들로부터는 생성 과 소멸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026b14-b24)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소피스테에스를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자로 다루는 플라톤¹⁸²⁹)이 언급 되면서 이러한 소피스테에스에 의해 다른 사람들 보다 훨씬 더 많이 말하여지는 *우연(적인 것)*과 흡사한 것이 바로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있지 않는 것에 관해 말하는 자로 소피스테에스를 플라톤이 다루는 것은 나쁘지 않다. 소피스테에스들의 로고스는 다른 사람들의 로고스들 보다 우연적인 것에 훨씬 많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음악적인 과 문법적인은 동일한가 헤테론한가 그리고 코리스코스와 음악적인 코리스코스는 동일한가 헤테론한가 그리고 있을 것이지만 항상 있는 않을 모든 것들이 *생성*된다면 그래서 음악적인 것이 문법적인 것으로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것이 음악적인 것으로 *생성*된다 라는 로고스는 모두

1828) 음악적인 등은 834 쪽에서 다시 우연(적인 것)의 보기로 들어진다

1829) 소피스테에스를 있지 않는 것에 관련시켜 플라톤이 정의한다는 것은 99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확실해 질 것이다. 플라톤은 소피스테에스를 사기꾼이며 있는 것을 모방하는 자로 소피스테에스 234c7 - 234a1에서 정의하는데 문제의 모방된 그것이 있지 않는 것이라면 말이다

우연적인 것에 관한 것이다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는 것**과 흡사(ἐγγύς 1026b18)하기 때문이다 알려진 길로 있는 것들로부터 생성 과 소멸이 있는 반면에 우연에 따라 있는 것들로부터는 생성 과 소멸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흡사하다는 말은 무엇일까 ἐγγύς는 부사로서 1) 장소의 경우 : 가까이 (near, 근처) 2) 시간의 경우 : 가까이(nigh at hand) 3) 수의 경우 : 거의 (nearly)모든 4) 관계의 경우 : 어떤 것과 흡사한(akin to) 등의 뜻으로 쓰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장소에 있어서나 시간에 있어서나 수에 있어서나 **있지 않는 것**에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관계에 있어서 흡사한 것이 바로 **우연(적인 것)일 것**이다 그렇다고 우연적인 것 과 **있지 않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보면 안될 것 같다 그러나 우연적인 것의 자연에 접근하다 보면 **있지 않는 것**의 자연이 얼추 드러날 것이므로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알아 보려면 우연적인 것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은 허용되어야할 것 같다 그런데,

불행히도 838쪽에서 요약되었던 것 처럼 우연적인 것에 대한 **앎** 또는 이론은 불 가능하다 그렇지만 우연적인 것에 대한 의견(δόξα)은 가능하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834 - 853 쪽을 참조하십시오 이 쪽들에 위 인용 글 월 역시 속해 있다는 점 역시 되 새겨 볼 만하다 나아가서,

이러한 흡사함은 생성(γένεσις 1026b23, 19) 과 소멸에 관련되는 것 같다 알론하게 말하여지고 있는 것들로부터 생성 과 소멸이 있는(ἔστι 1062b23) 반면에 **우연히 있다** 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것으로부터는 생성 과 소멸이 **있지 않으므로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는 것****과 흡사하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는 생성 과 소멸이 **있지 않다** 라는 말이 성립 되어야 할 것이다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기체 아닌 것으로부터 생성이 일어나며 **있지 않는 것**으로가 아니라 기체 아닌 것으로 소멸이 일어난다는 것이 921쪽의 요약 그림에서 보여지기 때문이며 어떤 것(τι, 형이상학 1033a25)으로부터 어떤 것에 의해 무엇으로 생성된다 라는 346쪽의 텔레스의 말은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성 과 소멸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뒷 받침해 주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연히 있는 것으로부터의 생성 과 소멸은 있을 수 없는 것 처럼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생성 과 소멸 역시 있을 수 없다**¹⁸³⁰⁾ 라는 점에서 이 둘은 흡사하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꼭 이러한 점에서만 그 두 가지는 흡사하다 라고 나는 자신있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음으로,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록 순수하게(ἀπλώς 1030a26)는 아니더라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형이상학 제에타 편 4 장 끝 시작 부분에서 다음 같은 맥락으로 말하여진다

“ 정의와 마찬가지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있는 그 무엇은 한 편으로 실체 와 이것을 가리키며 다른 한 편으로는 량 질과 같은 카테애고리아이 각각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가) 있다는 같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것에 속한다 그러나 한 편으로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방식 으로서 있는 그 무엇은 순수하게(ἀπλώς 1030a23) 실체에 속하는 반면에 어떻게든 알려진 것들에도 속한다 심지어 우리들은 질에 관해서 조차 그 질이 무엇으로 있느냐 라고 물어 볼 수 있으리라 질 역시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순수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있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는 것으로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¹⁸³¹⁾ 질도 역시 이와 같다 (1030a17 - a27) ”¹⁸³²⁾

1830) **있지 않는 것은** 텔레스에 따르면 힘(잠재적)으로 ‘있는 것’이라고도 말하여진다는 것은 1111쪽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알론한게 말하여지고 있는 것 이라는 것은 바로 힘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것 과 현실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거기서 드러난다 ‘생성 과 소멸은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것으로부터 있지 않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있는 것으로부터 현실로 있는 것으로 그리고 현실에서 힘으로 일어난다 ’ 라고 있지 않는 것을 요약하는 거기 1111쪽에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1831) 소피스테이스 103 쪽 과 104 쪽을 참조하십시오

비록 순수하게 있는 것은 아니긴 해도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앞 쪽 인용 글월에서 말하여진다

정의와 마찬가지로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있는 그 무엇은 하나의 길에서는 실체 와 이 것을 가키리는 반면 알론한 길에서는 량 질 그리고 이와 같은 알론한 범주들 각각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가) 있다(τὸ ἔστιν 1030a21)는 같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것에 속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있는 그 무엇은 첫 번째로 순수하게 실체에 속하는 반면 어떻게든 알론한 것들에도 속한다 심지어 우리는 질에 관해서조차 그 질이 무엇으로 있느냐고 물어 볼 수 있으리라 질 역시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순수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질도 역시 그와 같다

실체 와 이 것 그리고 량 과 질 과 알론한 범주들 각각 모두는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첫 번째 순수하게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은 량 등의 범주가 아니라 실체 와 이 것이다 순수하게 실체에 첫 번째로 속하는 있는 그 무엇¹⁸³³⁾은 알론한 길로 량 질 알론한 범주들 각각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이 무엇으로 있는가 라고 물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질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도 어쨌든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논리적으로(λογικῶς 1030a25)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비록 순수하게 있는 것은 아니긴 해도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보아라 있지 않는 것으로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¹⁸³⁴⁾ 그렇다면,

1832) 이 인용 글월의 더 큰 맥락에 대해서는 301 - 315 쪽을 참조하라

1833) 그러나 307쪽에 이어 말하여진 것처럼 텔레스는 실체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은 속하는 반면 있는 그 무엇은 실체 이외의 범주 곧 량 질 등에 속한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로고스는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하는 그 길을 약간 달리한 것일 뿐이다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순수하게 첫 번째로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는 것 역시 분명해 진다 있는 그 무엇이 질에 첫 번째로 순수하게 적용
되지 않고 실체 와 이 것에 첫 번째로 순수하게 적용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런데,

있는 것이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수 십차례 되풀이 된 바와 같이 실체 곧 첫 번째로 있는 것이다 따
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실체에 적용되는 길과는 알론하게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적용된다 달리 말해 **있지 않는 것**은 실체가 있는 길과는 알론한
길로 있는 것이다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알론하게 있는 이 길을 나는 이미
말해 왔다 거짓 힘 우연 등이 바로 그러한 길이다 나아가서,

텔레스는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에 반대되는 짝으로 본 것 같다 형
이상학 감마 편 2 장 끝 부분을 보면 텔레스가 그러한 의견을 지녔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 나아가서 반대들의 헤태론한 요소(*συστοιχία* 1004b27)는 결
여¹⁸³⁵적이다 그리고 모든 (반대)들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그리

1834) 텔레스는 이 처럼 말하는 길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핵심적인 길로 받아 드리고 있다 주옥 이제
까지 보아 왔듯이 그에 따르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져 오고 있지 않는가

1835) 텔레스의 결여를 모순적인 결여(1005b7, 998쪽) 와 부정(否定)적인 결
여(1056a23-24, 1002쪽)로 나눌 수 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오 거기에 따르
면 동일한 하나 와 헤태론한 여럿은 모순적인 결여인 반면에 똑 같은 하나
와 똑 같지 않은 여럿은 부정적인 결여에 속한다(1027쪽)결여의 이러한 나
뉘는 하나 와 여럿은 류적인 반대 라는 것을 말하는 맥락에서 나타난다 더
불어,

고 하나 와 많음으로 환원된다(ἀνάγεται, b28, 還元) 예를들어 한 편으로 하나의 썸 다른 한 편으로 많음의 움직임 처럼 [말이다] 거의 모든 사람 각각은 있는 것들 과 실체를 반대들로 합해진(συγκείσθαι 1004b30) 것이라고 말한다 어쨌든 모두 반대[되는] 아르케애들을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홀 과 짝을 어떤 사람들은 양 과 음(Θεμὸν καὶ ψυχρόν¹⁸³⁶), b32, 陽 과 陰)을 어떤 사람들은 한계 [있는] 것 과 무한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친구 간의) 사랑 과 투쟁을 (반대되는 아르케애들 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반대) 와 [이] 모든 것과] 알론한 (반대들)은 하나 와 많음으로 환원되는 것들로 나타난다 우리에게는 환원(ἡ ἀναγωγή, 1005a1)이라고 받아드려진다 알론한 자들에 의해 [도입된] 아르케애들 역시 모두 이러한 류에 해당한다 이제,

이것들로부터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τὸ ὄν ἢ ὄν¹⁸³⁷ a3)을 이론화하는 앎 하나가 있다는 것이 선명하다 모든 것들은 반대들이거나 또는 반대들로 [합해진 것]이며 반대들의 아르케애들은 하나 와 많음¹⁸³⁸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하나에 따라 말하여지든 말하여지지 않든 앎 하나[에 속한다] 아마도(ἴσως b6) (하나에 따라서 말하여진다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¹⁸³⁹) 그러나 하나가 여러 가지로 말하

결여에 대해서는 248 - 249 쪽의 요약을 살펴 보라

1836) 대화편의 소피스테아스에서 엘레아 낫선이는 양 과 음(소피스테아스 243b8, 9)을 모든 있음 이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있는 것 이라는 큰 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106쪽)

1837)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대해서는 1079-1106쪽을 참조하십시오

1838) 하나 와 많음 또는 여럿은 류적인 반대 라고 말하는 1033쪽의 요약을 참조하라

1839) 로스(735) 와 로스를 주로 따르는 트레드닉(1권 157)은 ‘ 이것들은 그것들이 단일한 하나의 의미를 지니든 지니지 않든 앎 하나에 속한다 아마 그것들은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 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아마 그것들은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 ὥσπερ ἴσως ἔχει καὶ τάληθές (1005a6) ’가 그 원문이며 직역하자면 ‘ 아마 지닌다는 것이 진실일 것 같다 ’이고 베케리 판 원문 그 어디에도 否定語가 있지 않으며 다른 판 본 그 어디에도 부정어가 있지 않기 때문

여진다면 마찬가지로(καὶ.....ὁμοίως 1005a5-6) 알론한 것들은 첫 번째 것에 대해 말하여진다 그리고 반대들도 그러하다(ὁμοίως a8)

그리고 이 때문에 심지어 *있는 것* 또는 하나가 보편자가 아니어서¹⁸⁴⁰ 모든 것의 경우에 분리(ἡ χωριστόν a9-a10)해 있을 때 - [그러나 실은] 아마도 (분리해) 있지 않을 것이다 - 조차도 그러나 한 편으로 하나에 대해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이어져(τῷ ἐφεξῆς¹⁸⁴¹) a11)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기하학은 반대 또는 끝임(τέλειον, a12, 完全) 또는 있는 것 또는 하나 또는 동일(ταυτόν a12) 또는 헤태론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이것들을] 전제하는(ἐξ ὑποθέσεως a13) (이론이다) 이제,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 ((으로서의)) 그 (*있는 것*)에 속하는 것들을 이론화하는 *얕* 하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실체들 뿐만이 아니라 [그 실체에] 속하는 것들의 [곧] [위에서] 말했던 것들 과 먼저 와 늦음 그리고 류 와 종 그리고 전체 와 부분 그리고 이와 같은 알론한 것들의 동일한 이론¹⁸⁴²(술, ἡ αὐτή

이다 그렇다며,

왜 이 두 사람은 부정의 뜻을 첨가 했을까 아마도 텔레스의 전체 사유 맥락을 따른 것 같다 글썄.....

1840) 그러나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 과 하나는 가장 보편적이다 1060쪽에서 함께하는 로고스들을 참조하라

1841) 926쪽 과 934쪽을 참조하시오

1842)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과 이 실체에 속하는 것들에 관한 이론은 하나 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론은 *있는 것* - *있는 것은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 속성이다(1093) - 과 하나 그리고 동일과헤태론 그리고 반대 와 끝(완전) 그리고 먼저와나중 그리고 류와종 그리고 전체와부분에 관한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 곧 *얕*에 대해서는 1079 - 1099쪽을 참조하라 따라서,

텔레스의 존재론은 실체론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실체에 속하는 것이 존재(*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존재는 감각적인 각기 것(개물, 個物)에 속하는 것 보다는 실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리고 적어도 타 메타 타 퀴지카 만을 바라 본다면 실체 곧 가장 먼저 있는 것은 감각적

Θεωρητικῆ α15-16)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1004b27 - 1005a18) ”

라는

인용 글월은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결여적인 반대**이다 라는 로고스로 시작해서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앎** 하나 있는데 그 앎은 기하학적인 앎과도 헤태론한 앎이다 라는 로고스로 끝난다

반대들의 헤태론한 요소(반대되는 짝)는 결여적이다 그리고 모든 반대는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와 많음**으로 환원된다 예를들어 하나의 **쉽** 과 **많음**의 움직임 처럼 말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있는 것들 과 실체를 반대들로 합해진 것들이라고 말한다 어쨌든 반대되는 아르케애들을 모두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홀** 과 **짝**을 어떤 사람들은 **양** 과 **음**을 어떤 사람들은 **한정된 것** 과 **무한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정** 과 **투쟁**을 반대되는 아르케애라고 말한다 이러한 반대되는 모든 아르케애는 **하나** 와 **많음**으로 환원되는 것들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환원을 받아 드려야한다 알려진 자들에 의해 말하여지는 아르케애들 역시 모두 이러한 류에 해당된다 먼저,

이러한 그의 로고스들을 요약 정리하기 전에 683, 978쪽에서 말하여

인 것이 아니라 에이도스(감각적인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므로 그렇다 그러나,

감각적인 것 만을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래서 감각적인 각기 것에 있어 오는 헤태론한 무엇을 거부한다면(1068-1070) 존재(있는 것)를 실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며 - 그래서 존재는 존재이다 라고만 말할 것이다 - , 그리고 앎의 아르케애 - ‘동일한 것이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한 것에 속하면서 동시에 속하지 않을 수는 없다’ 또는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모순율(矛盾律) - 를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존재를 존재 라고만 말할 수 있다면 결국 감각적인 것 만을 먹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진 어찌 보면 하나 와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그의 로고스를 다시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관련되는 것과 분리된 것도 아니며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비록 979-980쪽에서 은근히 말하여진 것 처럼 설령 동일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것 과 하나는 서로 짝이은 될 것이기에 어떤 것을 하나라고 말하든 있는 것이라고 말하든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모든 반대들은 있는것과**있지않는것** 그리고 하나와**많음**으로 환원된다 라고 텔레스에 의해 말하여지므로 있는 것 과 하나를 어떻게든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면 **있지 않는 것** 과 **많음**은 어떻게든 동일한 것으로 여겨 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순수하게 동일한 것은 아닐지언 정 말이다 있는 것이 하나에 대해 있는 것 처럼 있지 않은 것이 많음 또는 **여럿**에 대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는 하나에 반대되는 있지 않는 여럿이 말하여질 것이다 있는이 있지 않는에 반대되 듯 하나는 여럿에 여럿은 하나에 반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서로에 반대된다는 여기의 로고스에 어긋나지 않을 뿐 더러 하나 와 여럿은 서로에 반대 대립된다 라고 말하는 980쪽의 로고스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있는 것에 대(對)한 있지 않는 것의 이러한 반 정립(ἀντιθεσις¹⁸⁴³), 1067b21, 1055b32, 反 定立, 921쪽)은 결여적이라는 여기의 로고스에 더욱 더 세심한 숙고를 필요하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결여적인 반대로서 정립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결여적인 반대(ἐναντία, 1004b27, 1055a30) 라는 말은 차이 와 대조(ἐναντιωσις¹⁸⁴⁴) 1055a33)에 대해 말하는 이오타 편 4 장에 나타난다 그에 따

1843) 모순되는 것들 과 반대되는 것들은 서로에 대해 반 정립하므로 모순 과 반대에는 변화기 필연적이다 라고 말하는 921쪽을 참조하십시오

1844) 반대 와 대조 이 두 낱 말을 구분해서 나는 대조를 반대 보다 더 차 이난 것으로 쓰고 있으나 실은 텔레스가 직접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물론 가장 큰 차이를 대조 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의 말에 근거해서

르면 첫 번째 대조 - 모든 대조는 해대론한 반대를 결여한다 - 가 결여와 습성(지님)이다 그러나 모든 결여가 아니라 끝을 결여하는 그러한 결여이며 모순인 것으로서의 결여이다 그러나,

반대와는 달리 모순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지 않다 따라서,

있는 것에 결여적인 반대로서 정립되는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모순인 어떤 것으로서 그 사이에 아무 것도 있을 수 없으므로 있으면 있지 않을 수 없고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그 사이에는 중간적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일한 것이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한 것에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앎의 아르케에이다 있으면서 있을 수 있다면 그건 모순이기 때문이며¹⁸⁴⁵⁾ 있는 것은 자신 보다 더 이상 큰 것이 없을 정도의 거대

(994쪽, 1055a5)나는 반대 보다 더 큰 차이 라는 뜻으로 대조를 쓰고 있다 또,

대조 대신에 반대임이라고 해도 무방(無妨)할 것 같을 것 처럼 보이거나 엔안티온(반대) 과 엔안티오시스(대조) 이외에도 끄트머리 차이 라는 뜻으로 엔안티오테에스(1055a16, 995쪽)가 그에 의해 직접 말하여지므로 만약 엔안티오테에스를 반대임으로 옮긴다면 엔안티오시스를 반대임으로 옮기는 것은 무방할 것 같지는 않다

이에 관한 나의 변민은 994-995쪽에 걸친 각주 1593번에 실려있다

1845) 그러나 예를들어 힘 과 검음 그리고 큼 과 적음 등의 반대의 경우에는(1001-1002쪽) 힘 과 검음의 그리고 큼 과 적음의 결여적인 부정인 회색 과 노랑 그리고 똑 같은 것들 등 그 사이의 것들이 있다 노랑 등은 힘 과 검음 양자에 동시에 결여적으로 부정(1056a23-24)된 것이기 때문이다 노랑은 회지도 검지도 않으며 그 정도에 따라 양자를 결여하므로 그렇다 똑 같은 것들도 그러하다 그런데,

텔레스는 선 과 악도 그 사이에 결여적으로 부정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한다(1002쪽)그렇다면 다시 말해 선도 악도 아닌 것 그리고 선 과 악 이 양자를 그 정도에 있어 결여적으로 지니는 것들이 있다 라는 말인데.....글세 그러할까,

한 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⁸⁴⁶) 이러한 있는 것에 결여적인 모순으로 반정립해 ‘있는’ 것이 바로 있지 않는 것(류)이다 그런데,

있지 않는 이러한 것에 종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소피스테이스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라고 형이상학 겐과 편 8 장¹⁸⁴⁷) 처음 부분에서 말하여진다

“ (5) 순수하게 있는 것은($\tau\acute{o}$ ἀπλῶς ὄν¹⁸⁴⁸) 1064b15) 많은 길에 따라 말하여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우연에 따라 말하여지는 것이므로 이렇게 (우연히) 있는 것에 관해 먼저 조사해 보자

전통적인 앎 가운데 어떤 것도 우연적인 것에 관해 프라그마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건축가는 그 집을 쓰러하는 자들에게 [발생하는] 우연적인 것들을 고려하지(σκοπεῖ b19) 않는다 집에 사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거나 (집에 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살아야 할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옷 짜는 자(기술) 또는 구두 수선하는 (기술)자 또는 자리 짜는 (기술)자가 [살아야 할 집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에 따르는 고유한 것을 그것들 만의 앎 각각은 고려한다 이것이 그 적절한(oικεῖον b23) 끝(τέλος, b23, 目的)이다 음악적이고 문법적이지[는] 않게 음악적인 자가 문법적으로 될

1846) 다음,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으로 예를들어 쉽 과 움직임과 같은 모든 (반대)것은 환원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 와 많음으로도 환원된다 이러한 환원은 반드시 받아드려져야만 한다 그리고,

반대인 아르케에들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 과 실체를 반대들로 합해진 것이라고 말한다 한 편으로 홀 과 짝이 다른 한 편으로 양 과 음이 다른 한 편으로 한정된 것 과 무한한 것이 다른 한 편으로 우정 과 투쟁이 그러한 반대 아르케에들이라고 말하여진다

1847) 형이상학 겐과 편 8 장(1064b15 - 1065b4, 836-844쪽)은 형이상학 엠실론 편 2 장(1026a33 - 1027a28) 과 4 장의 요약이다

1848) 순수하게 말하여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라고 836쪽에 나오는 표현과 비교해 보라

때 전에는 양자적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동시에 양자적일 것이다 항상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됐다 따라서 동시에 음악적이고 문법적으로 됐다(ἐγένετο 1064b26)

이것을 퀘변술(ἡ σοφιστικὴ, b27-28, 소피스테에스의 기술)을 제외하면 흔히 말하는 실체들의 앎 가운데 어떤 것도 조사하지 않는다 이(퀘변술)만이 **우연적인** 것을 프라그마화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퀘변술(을 지닌 자)는 **있지 않는** 것에 종사한다(διατριβειν b30) 라고 플라톤이 말했을 때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1064b15-b30)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지 않는** 것에 종사하는 자인 소피스테에스는 **우연적인** 것만을 조사할 뿐 앎을 지니지 못한다 우연적인 것에 관한 앎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순수하게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우연히 있는 것이라고도 말하여진다 그러나,

전통적인 앎 가운데 어떤 것도 우연적인 것을 프라그마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집에서 살려는 자에게 발생하는 **우연적인** 것을 집짓는 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사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거나 집에서 사는 것을 반대하기도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옷을 짤지 구두 수선할지 돛 자리를 짤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에 따르는 고유한 것을 그것들만의 앎들 각각은 고려한다 이것이 그 적절한 목적이다

동시에 문법적이지는 않은 음악적인 자가 문법적으로 될 때 전에는 양자적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동시에 양자적일 것이다 항상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됐다 따라서 동시에 음악적이고 문법적으로 됐다

이것을 조사하는 것을 소피스테에스일 뿐이다 흔히 말하는 실체들의 앎 가운데 어떤 것도 이것을 조사하지 않는다 소피스테에스(퀘변술)만이 **우연적인** 것을 프라그마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피스테에스는 **있지 않는** 것에 종사한다 라고 플라톤이 말했을 때 그는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로고스에서 있지 않는 것이 우연적인 것과 동일시 되어

지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비록 첫 번째로 순수하게 있는 것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있는 것의 일 종이라고도 말하여지는 *우연히*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바로 그것인 셈이다¹⁸⁴⁹⁾ 다음의 일련의 로고스에서 분명해진다

소피스티케에(퀴변술)를 제외하면 우연적인 것을 조사하는 것은 없다 퀴변술 만이 우연적인 것을 프라그마화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퀴변술은 있지 않는 것에 종사한다 따라서,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는 것이다 이 둘에 종사하는 것은 소피스테에스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 각주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우연적인 것을 있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 보다는 흡사(ἔγγυς 1026b18)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더 나올 것 같다 그렇다면,

우연적인 것¹⁸⁵⁰⁾의 자연은 어떠한가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이미 840쪽에서 말했다 여기서도 역시 거기서 말하여진 것을 넘어서지 않는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되는 것(ἐγένετο 1064b25)이 우연적인 것이라 말하여지는데 이러한 말은 항상 있는 것도 아니요 많은 경우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우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840쪽의 말에 어울린다 문제는,

(있게) 되는 것 곧 생성하는 것이 우연적인 것이다 라는 말에 있다 생성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도 아니요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이 아니긴하다 어떻게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849) 이러한 그의 로고스는 1121쪽에서 말하여지는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는 것과 흡사하다 라는 로고스와 같다 문제의 그 1121쪽에서 옮겨지고 있는 엡실론 편 2 장을 더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여기서 요약 정리되고 있는 칼파 편 8 장 처음 부분인 것 처럼 보이므로 이 두 곳의 로고스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도 큰 착오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말하여지는 생성(1026b19, 1064b26)을 눈 여겨 보라
1850) 우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834-850쪽을 참조하십시오

텔레스는 생성 소멸되는 것 과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 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셈이 된다 반면에 플라톤은 자신의 대화편 티마이오스 27d5-28a1에서 항상 있는 것이어서 생성을 지니지 않는 무엇 과 항상 생성되는 것이어서 있음을 지니지 않는 무엇을 구분한다 (135-136)따라서 있는 것 과 생성이 날카롭게 티마이오스의 플라톤에 의해 분리된다 그러나 플라톤도 자신의 대화편 소피스테이스 241d1-7에서 엘레아 낫선이를 통해서 있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있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있지 않다 라고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소피스테이스의 플라톤에 의해서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이 날카롭게 분리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플라톤의 경우 있지 않는 것이 우연적인 것과 흡사하다 라고 말하여 질 수는 없다 적어도 파르메니데이스 와 소피스테이스 와 티마이오스에서는 우연(적인 것) 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¹⁸⁵¹⁾ 그러나 티마이오스에서는 ‘ 항상 생성되는 그 무엇이어서 결코 있는 것이 아닌(ὅν δὲ οὐδέποτε 28a1)’ 이라는 말이 직접 나타난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경우 생성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텔레스의 경우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는 것과 ‘흡사’하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여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텔레스의 경우 **있지 않는 것은 우연적인 것** ‘처럼’ 항상 있는 것도 아니요 많은 경우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해도 어쨌든 생성되 **있는** 것인 반면 플라톤의 경우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있는 것이 아닌 것 으로서의 **생성된** 것일 것이다 이제,

나는 플라톤에 의해서 말하여지고 있는 있음과있는것 그리고 있지않음과있지않는것으로 향하려한다 물론 파르메니데이스 와 소피스테이스 와 티마이오스 편에만 한정된 것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카테아고리아와 타 메타 타 뷔지카에 한정된 것이라는 것과 같다 그런데,

1851) 물론 그 뜻이 녹아 들어 간 말들은 있을 것이다

비록 체계적이지는 않았지만 텔레스는 있음과있는것에 대해 주로 말하는 곳이 더러 있었으나 소피스테이스 일 부를 제외하고는 있음또는있는것에 대해 플라톤은 주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파르메니데이스) 와 생성(티마이오스) 과 소피스테이스들(소피스테이스)을 주제로 삼아 글쓰는 가운데 있음과있는 것이 언급되어질 뿐이다¹⁸⁵²⁾ 따라서,

있음이라는 낱말이 심각하게 내 눈에 걸리는 곳을 가려내어 그 있음을 이끌어 내려한다 먼저,

있음이 에이도스와 묶여지는 곳인 티마이오스 51c4, 51d4-5가 눈에 들어온다 에이도스는 그 스스로 있다(εἶναι καθ' αὐτὰ ταύτα,.....εἶδον, 51d4-5) 라고 거기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자체(스스)로 있음은 에이도스일 것이다¹⁸⁵³⁾

1852) 따라서 텔레스는 있음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해도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다 물론 파르메니데이스 와 플라톤도 있음을 말하기는 했다 그러나 전자는 하나와 결부지어 후자는 에이도스와 결부지어 있음을 말했다므로 있음 또는 있는 것 만을 따로 떼어내어 독자적으로 주로 말했다 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텔레스 역시 있음에 관해 체계적으로 말하지는 아니했다 있음 만을 떼어내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언어적인 작업은 또는 메타 언어적인 작업에는 퇴보 만이 있을 뿐 진전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성립된 거대한 철학을 이해하고 받아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계 내에서 언어 분석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면 그것은 거꾸로 철학을 죽이는 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853) 그 자체로 있음은 범주들이며(691, 형이상학1017a22) 있음은 범주들과 나란한 것 곧 범주와 분리된 것이 아니 라는(690) 훗 날의 텔레스와 비교해 보라

“ 그것들(불 물 흙 공기)에 관해 음미하는 가운데 오히려 로고스에 의해 철저히 규정해야하는 그러한 것이 실로 [있다] 자(ἀρα 51b7),

불[의] 어떤 자체¹⁸⁵⁴ 자기 자신(αὐτὸ ἐφ' ἑαυτοῦ b8)이 그리고 **그 자체로 있는**(καθ' αὐτὰ ὄντα c1) 각기 것들이라고 우리들이 항상 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까 또는 몸을 통해 감각되어지는 한 우리가 보는 그러한 것들 만이 진실로 있는 그러한 것들일까¹⁸⁵⁵ 그런데 이것들과 나란한 알론한 것들은 결코 어디에도 어떻게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기 생각[에 관련된 누우스적인](vonητόν 51c5) 무엇이 **있다** 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헛되며(μάτην c4) 로고스(말) 뿐일까 여기에,

1854) 동일한 어떤 불 이라고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동일한 어떤 불로 나는 옮기고 싶은 충동을 더 많이 지닌다

1855) 몸을 통해 감각되는 것들 **만이** 있을까 라는 물음은 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있는 것이 문제 삼아질 때도 거듭 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텔레스의 형이상학은 그 저자가 글을 쓰면서 늘 염두에 두는 따라서 저자가 그것을 넘어서면서 보완하려 했을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파르메니데아스 소피스테아스에 이어지는 있는 것에 관한 숙고이다

손으로 건드리고 만질 수 있는 것 **만이**(εἶναι μόνον, 246a10, 111쪽) 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몸 과 실체(있는 것)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들은 몸을 지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경멸한다 라고 소피스테아스에서도 역시 실체 또는 있는 것에 관해 말하는 과정에서 쓰여 있으며 텔레스의 형이상학 감마 편 5 장 1010a3(1068쪽) 앞 뒤에서도 단지 감각적인 것 **만**(μόνον 1010a3)을 있는 것으로 받아 드리기 때문에 실체(οὐσία v 1007a21)는 없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앎의 아르케애를 거부한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실로,

텔레스는 이데아론을 박살내기 위해서 형이상학에서 실체에 대해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것 만이 있으며 ‘실체’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의 이론도 더불어 박살내기 위해서 실체에 관해 말하고 있다 라고도 말하여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결코 음미하지 않은 채 또는 결정하지 않은 채 떠나 버려서는 안될 문제가 있다 또 해결할 수 없다고 너무 자신있게 확신해서도 안되며 우리의 현재의 긴 대화에 똑 같이 긴 일탈을 끼워 넣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만약 몇 가지 말로 아주 중요한 규정(ῥος 51d1)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다

만약 누우스와 진실한 의견(δόξα ἀληθής 51d2-3)이 두 가지 류라면 우리에게 의해서 감각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에 만 걸리는(νοούμενα d5) 그러한 **에이도스(들)**이 분명히(παντάπειν d4) **그 스스로 있다(εἶναι καθ' αὐτὰ d4-5)** 그러나 만약 어떤 자에게 나타난 그 대로의 진실한 의견이 누우스와 어떤 길에서도 차이하지 않는다면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각되는 모든 것들이 가장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저 둘을 인정해야한다 같지 않게 분리되어지기 때문이다 이 (둘) 가운데 (하나)는 가르침을(διδασχής 51e2) 통해서 (다른 하나는) 설득에(πειθούς e2) 의해서 우리에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항상 진실한 로고스 후에 [오는]것인 반면 (다른 하나는) 非 로고스적인 것 후에 [오]며 (하나)는 설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반면 (다른 하나는) 설득적인 것이고 (하나)는 모든 남자¹⁸⁵⁶가 나누어지닌다 라고 반드시 말해여져야하지만 누우스는 신들만이 (나누어 지니고) 아주 적은 사람들¹⁸⁵⁶의 류가 (나뉘어지니는)것 이므

1856) 남자(man)를 뜻하는 모든 ἄνδρα가 진실한 의견을 지니는 반면에 사람(mankind, human)을 뜻하는 단지 몇 몇 小數의 ἀνθρώπος만이 누우스를 지닌다 라고 쓰여 있음에 유의하라 물론 내가 여자(woman) - 여자 또는 암컷(91d6) 곧 남자 이외의 생물을 플라톤은 남자로부터 생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 를 누우스 나누어 지니는 몇 안되는 사람(안드로오포)에 끼워 넣기 위해서 유의하라고 환기(換氣)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신(神)들에 대비(對比)되는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도 유의 하라고 한 것이다

이미 내가 티마이오스 전체를 간략히 말하는 15쪽에서 이미 두드러지게 말하여졌듯이 누우스 나누어 지니는 사람은 몇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람이 플라톤에 의해서 바로 신적인 사람이라고 쓰여진다 그러나,

콘퍼드(189)와 벤자민 죠웁(1178)은 모두 남자(man 과 men)으로 번역한다

로 [그렇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한 편으로 생성하지도 소멸하지도 않으며 알려진 것을 자기 자신으로(εἰς ἑαυτὸ 52a2) 받아 드리지도 않고 알려진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 보내지도 않으며 보이지도 않고 알론 하게¹⁸⁵⁷⁾ 감각되지도 않는 그 자체 에이도스(τὸ κατὰ ταῦτα εἶδος a1)하나 있다 그런데 실로 이것은 노에에시스(생각)가 바라 보아 획득(할 수 있는, εἴληχεν¹⁸⁵⁸⁾, 52a3) 것이다 라는 것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두 번째로 같은 이름을(ὁμώνυμον¹⁸⁵⁹⁾ a5) 지니며 저(에이도스)와 같은(ὁμοίον 52a5) [그리고] 감각적이며 생성되는 것이고 항상 급히 움직여(πεφορημένον¹⁸⁶⁰⁾, a6, 생겨나) 어떤 장소로 생성되었다가 다

1857) 보는 감각 이외의 알려진 감각으로도 감각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1858) 에이레에켄은 ‘ to obtain by lot, by fate, by the will of gods ’를 뜻하는 λαγχάνω의 완료형임에 유의하라 노에에시스 그 자체가 신성하다는 것을 그래서 누우스 나누어 지니는 자는 신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되 자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형이상학의 텔레스 역시 누우스를 신성한 것(Θεῖον 1072b23)이라고 말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텔레스는 플라톤을 뒤 따라 간다 그럼에도 텔레스가 이데아 론들을 공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는 분명히 그 이데아론자 다시 말해 플라톤을 염두에 두고 공격한다 그리고 직접 플라톤을 거명(擧名)하며 이데아 론을 비판한다 무엇 때문일까 사실,

이데아를 분리시킨 이데아 론을 거부하면서 무엇 때문에 분리(χωρίς 1040a28)해 있는 순수한(ἄπλως, 1028b1, 543쪽) 에이도스를 허용하는 것일까 이러한 에이도스의 허용은 여기에서 쓰여지는 에이도스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 아닐까.....심사 숙고해 볼 일이다

1859) 이러한 호모한 이름 곧 호모오누마에 대해 범주들 과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텔레스를 바라 보라(175 - 176, 819, 1018, 1029, 1054쪽 참조)

1860) φέρω(to bear or to carry)의 수동형(受動形) φέρομαι(to be borne along by waves or winds)의 분사형(分詞形)으로 쓰였는데 이와 같은 수동

시 그(장소)에서 사라지는 [그리고] 감각과 더불어 의견에 의해서 파악되어지는 것¹⁸⁶¹). 다른 한 편으로,

세 번째로 파괴를 허용하지 않는 항상 있는 류인 공간인 것(τὸ τῆς χώρας 52a8)은 생성되는 모든 것들이 들어 앉는 집(ἔδραν 52b1)이며 그 자체는 감각되는 것들이 아니어서 어떤 유사한(νόθω, b2, 類似한) 논리(λογισμῶ 論理)에 의해 포착되므로 거의(μόγις b2) 믿음[에 관련 되는] 것이 아니다 실로 (이것)에 대해 우리가 꿈결 속에서의 어디 어떤 자리에(τόπω b4) 반드시 각기 있는 것이며 어떤 장소를(χώραν b4) 차지한다고 말하나 땅에 어디에도 그리고 하늘 아래 (어디)도 있지 않다 실로 이러한 모든 것들 과 이와 [같은] 알론한 것들에 관하여 심지어 [꿈에서] 개인 진실한 자연[의 상태에서]도 이러한 꿈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므로(ὑπάρχουσιν 52b7) [꿈에서] 깰 수 없어 진실한 것을 정의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 (51b6 - 52c2) ”¹⁸⁶²

라는 인용

글월은 만약 우주의 생성(τοῦ κόσμου γενέσεως 27a6) 과 사람의 자연(φύσιν 27a6)에 대한 글인 티마이오스가 누우스로부터 생성된 것들 과 필연으로부터 생성된 것들 과 누우스와 필연으로부터 생성된 것들에 대해 쓰여 있는 부분 과 이러한 글을 쓰게 되기 까지의 관정을 말하는 도입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면(15쪽) 필연을 통한(δὲ 47e4) 생성에 관한 글(46c7 - 68d7)의 앞 부분에 속한다 그런데,

18쪽에 쓰여진 것 처럼 필연으로부터의 생성에 관한 글에서는 원인의 두 가지 류 와 모든 것의 세 가지 류 그리고 몸의 생성과 몸의 속성 그리고 살의 생성 등이 말하여지는데 문체의 인용 글월은 모든 것의 세 가지 류에 대

형으로부터 온 ἡ πορὰ (포라, 1072b4, 급속한 둥근 자리 움직임)가 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쓰인다는 점에 유의하라 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움직임 가운데 첫 번째 것이며 영원하다(765쪽) 바로 이 포라이다

1861) 그러한 것이 [있다] 라고 있다 라는 말을 덧붙혀 옮기고 싶으나 그러면 큰 일난다 이러한 것은 있는 것 축에 못드는 생성인 것이기 때문이다

1862) 이 인용 글월에 대한 일 부 맥락에 대해서는 147쪽 앞 뒤를 참조하라

해 쓰여 있는 글의 중간 부분에 속한다 먼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모든 것 세 가지 류(γένος 48e4) 또는 종(εἶδη 48e3)을 어린이(생성되는 것)와 어머니(생성되는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곳)와 아버지(생성되는 것이 그것을 닮아 자연스레 생산되는 바로 그것) 등의 비유(比喩)한 후에 다음과 같이 물으면서 이 세 가지를 더 철저하게 규정(정의)하기 시작한다

불의 어떤 자체 자기 자신이 그리고 **그 자체로 있는** 각기 것들 이라고 우리들이 항상 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까 또는,

몸을 통해 감각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만이 진실로 있는 것들일까 그런데 감각적인 것들과 나란한 알론한 것들은 결코 어디에도 어떻게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기 생각에 관련된 무엇이 **있다** 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헛되며 말뿐일까 여기에,

결코 음미하지 않은 채 또는 결정하지 않은 채 떠나 버려서는 안될 문제가 있다 또 해결될 수 없다고 너무 자신있게 확신해서도 안되며 우리의 현재의 긴 대화에 똑 같이 긴 일탈을 끼워 넣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만약 몇몇 말로 아주 중요한 규정(정의)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다

만약 누우스와 진실한 의견이 두 가지 류라면 우리에게 의해서 감각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노에에시스)에만 걸리는 그러한 에이도스들이 분명히 그 자체로 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자가 말하듯이 진실한 의견이 누우스와 어떤 길에서도 차이나지 않는다면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각되는 모든 것들이 가장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야만한다 그러나,

저 둘을 인정해야한다 같지 않게 분리(χώρις 52e1)되기 때문이다 이 둘 가운데 하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하나는 설득에 의해서 우리에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항상 진실한 로고스 후에 되는 것이 반면 다른 하나는 非로고스적인 것 후에 되며 하나는 설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반면 다른 하나는 설득적이고 하나는 모든 남자가 나누어지니는 것이라고 반드시 말해져야 하지만 누우스는 신들만이 나누어 지니고 몇몇 사람들의 류가 나누어 지니므로 그렇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한 편으로 생성하지도 소멸하지도 않으며 알론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 드리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알론한 것으로 내 보내지도 않으며 몸을 포함한 알론한 감각으로 포착되지도 않는 **그 자체 에 이도스**가 하나¹⁸⁶³⁾ **있다** 이러한 에이도스 [있음]을 우리는 노에에시스(생각)이 바라 보아야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호모오뉴마한 것이며 저 에이도스와 같은 그리고 감각적이며 생성되는 것이고 항상 급히 움직여 어떤 장소로 생성되었다가 다시 그 장소에서 사라지는 그리고 감각과 함께하는 역견¹⁸⁶⁴⁾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 세 째,

파괴를 허용하지 않는 항상 **있는** 류인 공간은 생성되는 모든 것이 들어 앉은 집이나 그 자체는 감각되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논리 유사한 것에 의해 포착되므로 거의 믿음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꿈결 속에서 어떤 자리에 각기 반드시 있는 것이며 어떤 장소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나 땅 어디에도 하늘 어느 아래에도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과 이와 같은 알론한 것들에 관하여는 심지어 꿈에서 개인 진실한 자연의 상태에서도 꿈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므로 깨일 수 없어 진실한 것을 정의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불 물 흙 공기 등을 포함한 모든 몸을 이루는 세 가지 류¹⁸⁶⁵⁾는 **그 자체 있음인 에이도스**¹⁸⁶⁶⁾ 와 항상 있는 류에 속하긴 하나 꿈에서 처럼 있

1863) 여기에 나타난 하나(ἓν 52a1) 에이도스를 파르메니데아스 편에 나타난 하나와 동일한 것을 여길 수 있을까 여길 수 있다면 파르메니데아스에서 쓰여지고 있는 하나는 에이도스일 것이다 나는 파르메니데아스 편을 요약 옮기면서 하나를 일단 에이도스로 여겼다(6쪽, 37쪽각주29번, 71쪽각주62번)

1864) 역견(화 된다) 라는 말은 파르메니데아스 163d3 이하(以下)에서 나타나듯이 있지 않는 것 또는 여럿과 어울린다(89쪽) 텔레스의 범주론 8a12에 나타나는 δόξαοεισ(역견화된다) 라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1865) 원인(αἰτίας 48a7) 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1866) 예를들어 불②의 에이도스는 불②의 그 자체 자기 자신이며 그 자체로 있는 불①이다 ①는 불의 에이도스이며 불②은 감각적인 불이다 그러나

는 공간 과 에이도스와 같은 이름을 지니는 그리고 에이도스와 같은 것인
감각적인 것 등이다

그 자체 에이도스는 생성 소멸하지 않으며 알론한 것을 자기 자신으
로 받아 드리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알론한 것으로 내 보내지도 않는다 그
리고 감각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라 보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에,

감각적인 것은 에이도스와 같은 이름을 지니며 에이도스와 같은 것이
다 그리고 항상 급히 움직이면서 어떤 장소로 생성되었다가 다시 장소에서
사라지는데 감각과 함께하는 역견에 의해서 파악된다 반면에,

공간은 꿈속에서 있는 것과 같으나 어쨌든 파괴를 허용하지 않는 항
상 있는 류이며 그 안에 생성되는 모든 것이 들어 앉는다 그러나 그 자체는
감각되는 것이 아니어서 논리와 유사한 것에 의해서 포착되므로 거의 믿음
에 관한 것¹⁸⁶⁷)이 아니다 그러나,

에이도스 와 감각적인 것 과 공간 이 세 가지 모두 있음이 아니다 있
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는 것은 에이도스 와 공간 뿐이고 감각적인 것은
'있다 또는 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없는 것이다¹⁸⁶⁸)게다가,

②가 ①과 같지 ①이 ②와 같은 것이 아니며 ①때문에 ②가 불이라는 ①과
같은 이름을 지니지 ②때문에 ①이 불이라는 이름을 지니게 된 것은 아니
다

1867) 믿음의 대상(objekt)이다 라고도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러나 믿음
과 분리된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것 같아 나는 가급적 대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다

1868) 이러한 구분은 적어도 티마이오스 편에서는 칼 같이 그어진다 물론
소피스테이스 편에는 어찌 보면 이라는 단서가 들어 가긴해도 있는 것은 어
찌 보면 있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있다 라고 말하여지므로 그
구분이 애매해 지는 것 같긴 해도 말이다(103쪽)그리고 파르메니데이스 편
에서는 적어도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그러한 구분이 날카롭진 않아 보여도
그어지는 것 처럼 보인다 있는 하나 또는 있지 않는 하나와 알론한 것이 그

공간 마져 꿈결 처럼 있는 것이므로 공간은 그 자체 있다 라고 말해
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 있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는 것은 단지 에이도스 뿐이다
그렇다면,

에이도스 와 감각적인 것 과 공간 이 세 가지 류의 구분 근거는 무엇
인가 플라톤은 누우스 와 진실한 역견의 구분을 그 근거로 한다¹⁸⁶⁹⁾

만약 누우스 와 진실한 역견이 두 가지 류라면 감각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에만 걸리는 그러한 에이도스들이 분명히 그 자체로 있다

누우스 와 진실한 역견이 두 가지 류를 반드시 인정해야한다 이 둘은
같지 않게 분리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되어지지만(닥아오지
만) 하나는 설득에 의해서 우리에게 닥아오며 하나는 항상 진실한 로고스
와 더불어 닥아오지만 하나는 非로고스적인 것과 더불어 닥아오고 하나는
설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는 설득적이며 하나는 모든

자체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티마이오스에서는 감각적인 것은 있다 라고 쓰여지지 않으며
심지어 있지 않다 라고도 쓰여지지 않고 단지 생성 소멸한다 라고 만 쓰여
진다 있다 라고 썼다가는 144쪽에서 언급된 것 처럼 있다 라는 말을 적절
치 않게(οὐδὲν ἀκριβές 38b3) 쓰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피스테이스.....와.....파르메니데스에 있어서는 어떠할까.....나는 답
을 잠시 미루려한다

1869) 누우스 와 진실한 역견이 구분되는 두 가지 류가 아니라 어떤 길에
서도 차이 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에 의하면 몸을 통해서 우리에
게 감각되는 것 만이 가장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야만 할 것이
다 그러나,

플라톤에 따르면 그 두 가지 류를 구분된 것으로 인정해야한다 이 둘
은 같지 않게 분리되기 때문이다

남자가 나누어 지니지만 누우스는 신들 과 몇 몇 사람의 류만이 나누어 지는 것이다 라고 반드시 말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각기 구분되는 류인 누우스 와 진실한 의견에 상응하는 것으로 에이도스 와 감각적인 것을 놓아 그 사이에 거의 믿음과는 관련없이 사이비 논리에 상응하는 것으로 공간 이라는 류를 집어 넣은 것 같다¹⁸⁷⁰⁾ 그렇다면,

누우스 와 진실한 의견 사이의 구분은 에이도스 와 감각적인 것 사이의 구분을 나아가서는 어정정하게 있는 공간의 있음을 뒷 받침해 주는 것 처럼 보인다 인식 작용 과 인식되는 것이 분리해 있다면 그럴 것 처럼 보인다¹⁸⁷¹⁾

나는 다음 쪽에서 그 서로에 대해 있음을 그려 보았으며 그 그림 아래에 코플스틴이 자신의 철학사 1권 152쪽에서 추측해 도식화한 국가 509d6-511e5, 521c-535a에 나오는 선분(線分)의 비유를 내 나름대로 응용해 보았다

1870) 공간은 감각적인 것들이 들어 앉은 집 같은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록 꿈속이라고는 하더라도 항상 있는 류인 것으로 그에 의해 쓰여지기 때문이다

1871) 분리해 있지 않다고 해서 구분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구분되지 않아 동일하다면 그야말로 심리주의 또는 관념론에 빠질 것이고 플라톤은 관념론자나 심리주의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있음		
그 자체로		꿈 안에		?1872)
누우스		사이비 논리 믿음과非관련		진실한 역견 (감 각)
에이도스		공 간		감각적인 것

분리

χωρίς 51a2

영혼의 작용	νόησις 생각	διάνοια 오성(悟性)	πίστις 믿음	εἰκασία 추측
		ἐπιστήμη 앎		δόξα 역견
작용적 인 것	νοητά 생각적인 것			δοξαστά 역견적인 것
	ἀρχαί 근원	μαθηματικά 수학적인 것	ζῶα 생물	εἰκόνες 모상(模像)

영혼의 문제의 그 작용에 관련된 것을 작용적인 것이라고 말해 본다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¹⁸⁷³⁾ 그리고 굵은 점선은 작용과 작용
적인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얇은 점선은 앎 생각적인 것 역견 역견적인
것 각각을 그 하위 것으로 나누기 위한 것이고 선(의 구)분은 인식 또는 인
식적인 것의 수준 혹은 정도들을 나타낸다 그리고,

1872) 1148쪽 각주 1178번을 참조하라 ? 대신에 있음이 아닌 것 또는 있지
않는 것이 들어 갈 수 있으리라는 것이 확인 될 것이다

1873) 대상이라고 하기도 그렇다

위 아래 도식에서 있는 것은 에이도스 와 근원(아르케에) 과 수학적 인 것이지만 그 자체로(καθ'αυτὸ 51d4) 또는 있는 것으로(ὄντως¹⁸⁷⁴), 52c5, 진짜로) 있는 것은 단지 에이도스 또는 아르케에들일 뿐이다 공간 과 수학적 인 것은 꿈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며 억견적인 것 또는 감각적인 것은 이러한 에이도스와 같은 것 또는 에이도스를 닮은 모상(模像)일 뿐이기 때문이다

앞 쪽 그림은 무엇 보다도 에이도스는 그 자체 있음¹⁸⁷⁵)이며 누우스

1874) 있는 것으로 또는 진짜로 있는 것 이라는 말은 1106쪽에서 물어진 것 처럼 텔레스의 형이상학이나 범주들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이긴 하나 이 두 강의록에 자주 나타나는 그 자체로 있는 것 또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또는 순수하게 있는 것에 상응할 수 있을까 글썄,

상응할 것 같기도 하고 할 것 같지도 않고.....분리된 순수한(543)에이도스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또는 텔레스의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상응할 것 같으나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기도하고.....

1875) 있음을 존재(存在)로 여길 수 있다면 그리고 플라톤의 있음은 그 자체 에이도스라면 플라톤의 존재론은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론일 것인 반면 텔레스의 그 자체 있음은 범주들이라면(691) 텔레스의 존재론은 범주론일 것이다 더 좁힌다면 범주들 가운데서도 맨 먼저 말하여지는 실체에 관한 이론인 실체론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걸 말로만 보자면 플라톤의 에이도스론이나 텔레스의 실체론은 매한 가지이다 텔레스의 실체는 곧 에이도스 라고 텔레스에 의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307, 335)그러나 두 사람의 존재론은 그 방법 과 내용에 있어 사뭇 달라진다 어찌면,

존재론이 이 두 사람 각각 에게 아예 성립할 수 없을는지 모른다 체계적으로 '존재'에 대해 글을 쓰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존재에 관한 조각 글들을 겨우 이어 모아 느슨한 체계의 존재론을 짜 맞춘다고 하더라도 두 존재론을 비교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물론 텔레스 자신이 플라톤의 이데아 론을 극구(極口) 부인(否認)하고 있긴해도 그 존재론들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존재론으로 아우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

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¹⁸⁷⁶)따라서,

이러한 에이도스는 생성 소멸하지 않으며 알론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 드리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알론한 것으로 내 보내지도 않으며 감각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라 보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누우스적인 것 으로서의 원형 에이도스는 항상 동일하게 있는 것(ἀεί κατὰ ταὐτὸ ὄν 48e6)이다¹⁸⁷⁷)이제,

이다 따라서,

나는 두 사람의 ‘존재’론에 닥아 서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말하는 에이나이(있음)에 닥아서려는 중이다 그런데,

텔레스 → 플라톤 → 텔레스 → 플라톤 → 텔레스를 거쳐 플라톤에 다시 다다른 지금에 이르러 두 사람이 쓰고 말하는 에이나이의 가닥을 잡으려 해도 얼른 잡히지 않는다 그 말을 문법적으로 분석도 해 보고 그 말이 가리키는 사태를 잡아내 보기도 했으나 문법적인 쓰임새 뿐만이 아니라 그 사태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의 문법적인 쓰임새 와 사태들을 매개 시켜줄 새로운 말이 절박해지며 그 말을 담아 줄 문법적인 틀이 미리 걱정된다

텔레스가 있음에 대해 말하는 길들과 그 있음이 어느 정도 집혀 온다 문제는 이러한 있음을 어떻게 플라톤과 연결시키느냐 이다 연결시켜줄 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말은 있음 또는 있는 것이 아니다 뒤나뭇스 또한 아니다

1876) 누우스를 있음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글썤 그럴 것 같지는 않다

1877) 에이도스에 대해 다그쳐 얼른 말하려고 하는 나를 간신히 억누르면 서 있는 것이 아닌 있음을 추스려 가야 할 것이다 지금 나는 에이도스 와 있는 것에 관한 글이 아니라 있음에 관한 글을 쓰기 때문이다 물론,

나타난 것(τὸ φαίνεσθαι 236e1) 과 처럼 보이는 것(τὸ δοκίν, 236e1, 역견화된 것 또는 역견적인 것은 있음이 아니다 라고 소피스테에스에 쓰여 진다¹⁸⁷⁸)

“ 오 ! 복 받게나 ! 우리는 아주 힘든 숙고에 임해 있네

있지 않는(εἶναι μὴ (236e1-2)것인 이러한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진실이 아닌 어떤 것을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지금 그리고 항상 직면할 때 [마다] 엄청 어려운 물음들(ἀπορίας e3)이기 때문일세 거짓도 어떻게든(ὅπως e2) 있는 것으로 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거나 역견화할 때 이것은 반대되는 말로(ἐναντιολογία e5)연이어짐이 없이 발설된다는 것이 오 테아이테토스여 아주 힘드므로 [그렇다네] : 낫선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나요¹⁸⁷⁹] ? : 테아이테토스 (236d9-237a1) ”

있음 과 있는 것은 각기 알론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사실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일단 알론한 것으로 여기고 글을 지금 쓰는 데다 에이도스 보다는 있음 또는 있는 것을 추스려 가고 있으므로 있음을 계속 따라 가련다 (1878) 이러한 스피스테에스의 글은 1145쪽의 그림에서 ?에 속하는 것이 있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역견적인 것이 바로 그 ?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그 큰 맥락에 있어서는 소피스테에스 와 티마이오스가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진다

1879) 왜 그렇게 힘든지는 있음 과 있는 것을 두 번째로 요약 정리한 후 있지 않음 과 있지 않는 것에 대해 플라톤이 쓴 것을 두 번째로 요약 정리할 때 자세히 말하여질 것이다 여기서는 단지 처럼 보이는 것 과 나타난 것은 있지 않다는 점 만을 집어 낼 것이다 그리고,

이 인용 글월이 속한 맥락에 대해서는 99쪽 과 그 앞 뒤 쪽을 참조하라

있는 것을 모방하는 자(μμητής 235a1) 로서의 소피스테에스는 모방하는 두 가지 기교(1880) 가운데 어떤 기교를 지닐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애매하다 라고 쓰여지는 맥락을 앞 쪽 인용 글월은 바로 앞에 지닌다 그리고,

애매모호해 하는 가운데 있지 않는 것 과 진실하지 않는 것의 엄청(μ εστὰ 236e2)어려운 물음에 테아이테토스는 엘레아에서 온 낯선이에 의해 어느 덧 빨려든다(1881)

어려운 숙고를 즐겨 행하는 자로부터 복은 와야 할 것이다

오! 복 받게나 테아이테토스여 우리는 아주 힘든 숙고를 해야하네 있지 않는 것인 이러한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그리고 진실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항상 그래서 지금도 엄청 어려운 물음을 일으키기 때문일세 왜냐하면 어쨌든 반대 되는 말들이 연이어짐이 없이는 거짓도 있는 것으로 있다 라고 말하거나 역전화하기 힘들 것이기에 그렇다 네 다시 말해,

‘모순’에 빠져들지 않는한 있지 않는 것 과 거짓인 것을 말하기 힘들다는 것 일리라 엘레아에서 온 낯선이의 이러한 로고스도 아주 중요하다 그

1880) 모방 기교 곧 에이두올라(εἴωλα, 234c6, 96쪽)를 만드는 기교는 판타스마(심상(心象))를 만드는 판타스마적인 기교 와 에이코나(비슷한 것 또는 닮은 것)을 만드는 에이코나적인 기교 등 두 종(에이도스)으로 나뉜다 이 두 에이도스 가운데 어떤 에이도스에 소피스테에스는 속하는가 라고 플라톤은 묻는다

1881) 이 곳으로 부터 어찌 보면 플라톤의 대화 편 소피스테에스의 핵심이 시작된다

소피스테에스는 소피스테에스를 정의하려다가 있지 않는 것을 건드리게 되며 나아가서 있지 않는 것을 다루려다가 있는 것에 관한 글을 쓰게 되는 식으로 진행하며 소피스테에스의 정의(23-24쪽을 참조하시오)의 핵심은 그가 있지 않는 것에 관해 말하는 다시 말해 사기 꾀이며 거짓 말하는 자(241b6-7, 101쪽)이다 라는데에 있기 때문이다

러나,

여기서는 처럼 보이는 것 과 나타난 것은 **있지** 않다 라고 쓰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련다 여기 맥락은 **있음**에 관한 글로 쓰는 맥락¹⁸⁸²이기 때문이다 처럼 보이지 않는 것 과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있지 않는 것에 관한 플라톤의 글을 요약 정리하는 가운데 쓰여질 것이다 따라서,

내 눈에 심각하게 걸리는 **있다**를 찾아 (눈)알이 부지런히 움직이다가 파르메니데에스 편 어느 한 곳에서 끊어지듯 서 버린다 하나 와 알론한 것 외에는(ἐκτός)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라고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에스 편 151a3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일단 그 곳을 옮겨 놓고 나서 무엇 때문에 내가 심각하게 여기다가 끊어지 듯 서 버렸는지에 관해 글로 써 보기로 하자

“ 이제 ~~하나~~가 만약 **있다**면(ἐν εἰ ἔστιν 142b3) 어떻게 있을 지 그 ~~하나~~에 관해 잇따르는 것들에 두루 동의해 보자 그러지 않겠는가 ? (: 파르메니데에스)

예 (그러기로 하겠습니다 : 텔레스¹⁸⁸³), 142b3-5)

1882) 있는 것에 관한 글의 맥락 또한 아니다 설령 있는(은)으로부터 있다(에이나이)를 구분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있는 것은 있음에 관한 글 다음에 쓰여 질 것이다

1883) 텔레스는 이 때 대화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다(10쪽) 그러나,

이 자는 플라톤 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30 명의 참주(僭主)라고 알려진 정치인 가운데 하나 라고 주석가(註釋家)들에 의해 말하 여진다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어려 하고 싶은 말을 주저 없이 가장 많이(μάλιστα 137b7) 말할 것이므로 말하는 그 사이에 자신이 말할 것을 생각하기 위해 파르메니데에스는 대화 파트너로 텔레스를 택한다 그러나,

텔레스는 긴 말은 하지 않고 거의 예...., 그렇습니다, 어찌 않그러겠습니까나 라는 식의 말 만 할 뿐 파르메니데에스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다, 하하.

.....

이제(οὐκοῦν 152a2) *하나* 와 *알론한 것들*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라는 이것은 필연적이다 (: 파르메니데이스)

어떻게 (필연적이지) *않겠습니까* (: 텔레스) (151a2-4)

.....
.....

[나아가서] *하나*가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들*에게 무엇이 속할 런지를 숙고해 봐야 하지 *않겠나* ? (: 파르메니데이스)

숙고해 봐야지요 (: 텔레스)

실로 *하나*가 만약 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 여지는가 ? 라고 우리는 말하네 (: 파르메니데이스)

우리는 말합니다 (: 텔레스)

이제, *하나*의 *알론한 것*이 있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가 아니네 [하나라면] *하나*의 *알론한 것*은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오 (: 파르 메니데이스)

옳으십니까 (: 텔레스, 157b6-c1)

.....

이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분리해 *있지 않을*까 (: 파르메니데이스)

무엇 (때문이지요)? (: 텔레스)

이(*하나* 와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한 편으로 *하나*의 *알론한 것*이면서 다른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의 *알론한 것*인 *헤태론한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하나* 와 *알론한 것*이 말하여 졌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말하지므로 [그러하다네] (: 파르메니데이스)

모든 것이 (말하여집니다 : 텔레스)

따라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이 거기에 있을 이(*하나* 와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한 그것들은 있지 않네 (: 파르메니데아스)

있지 (않을 것입니다 : 텔레스)

따라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은 결코 동일한 것에 있지 않네(: 파르메니데아스)

있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아리스토텔레스) (159b6-c4)
”1884)

라고 빼 먹어 가며 일단 옮겼긴 옮겼으나 싸잡아 말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파르메니데스 편 그 자체가 여러 차원의 있음에 관한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며 문제의 *하나* 와 *알론한* 것 역시 심지어 위 인용 글월에서조차 다른 두 가지 차원에서 쓰여지고 파르메니데아스 편 전체에서는 각기 적어도 네 가지 이상(以上)의 차원¹⁸⁸⁵⁾에서 쓰여지기 때문이다

하나가 만약 있다면 실체를 지니는 *하나* 와 지니지 않는 *하나* 그리고 분리된 *알론한* 것 과 분리되지 않는 *알론한* 것 등 네 차원에 속하는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의 어떤 헤태론한 것도 있지 않다 라고 위 인용 글월에 쓰여진다

1884) 라는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49, 60, 75 쪽 각기 앞 뒤를 살펴 보라

1885) 12쪽에 그려진 파르메니데아스에서 보여 지듯이 만약 *하나* 가 있다면 이라는 차원 과 *하나* 가 만약 있다면 이라는 차원 과 만약 *하나* 가 있지 않다면 이라는 차원 과 *하나* 가 만약 있지 않다면 이라는 차원 등 네 가지 차원 에서의 *하나* 와 *알론한* 것이 각각 글로 쓰여지며 나아가서는,

하나 만약 있다면 과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하나* 자체는 실체를 지닌 경우 와 지니지 않는 경우로 그리고 *알론한* 것은 분리된 경우 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져 각각 글로 쓰여지므로 각각 네 차원 도합(都合) 여덟 차원이 더 있게 된다 따라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은 모두 열 가지 차원에서 스스로 와 서로에 대해 있다 *하나* 와 *알론한* 것은 여러 가지로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텔레스 식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 만약 있다면 어떻게 있을지 그 하나에 관해 잇따르게 될 것에 두루 동의해 보자 그러지 말까 - 아니오 그러기로 하겠습니다 - - 이제 하나 와 알론한 것들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이것은 필연적이네 - 어찌 필연적이 않겠습니까 -

나이가서 하나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들에게 무엇이 속할지를 속고해 봐야 하지 않겠나 - 속고해 봐야지요 - 실로 하나 만약 있다면 하나의¹⁸⁸⁶⁾ 알론한 것은 무엇 이라고 말하여지는가 ? 라고 우리는 말하네 - 우리는 말합니다 -

이제 하나의 알론한 것이 있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가 아니네 하나라면 하나의 알론한 것은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오 - 옳으십니다 -

이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다른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분리해 있지 않을까 - 무엇 때문이지요 ? - 하나의 알론한 것이면서 알론한 것들의 알론한 것인 그리고 하나와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헤태론한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하나 와 알론한 것이 말하여질 때 모든 것이 말하여 졌으므로 그렇다네 - 모든 것이 말하여 졌습니다 -

따라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이 거기에 있을 그 헤태론한 것들은 있지

1886) ‘ τάλλα τοῦ ἐνός (157b8, 하나의) ’에서 쓰인 2 격 ‘의’는 텔레스의 범주들 6a36에 나오는 2격(ἐτέρων, 다른 것들의)를 생각나게한다

186쪽 과 그 뒤에서 이어지는 관계 라는 범주에 관한 설명에서 이러한 2 격이 나타난다 텔레스에 따르면 관계는 헤태론한 것들의(과) 그렇게 있다 달리 말하면 헤태론한 것에 대해 그렇게 있다(186쪽을 참조하시오) 그러나,

텔레스의 이러한 관계 - ‘πρὸς τι, εἶναι : 관계 또는 어떤 것에 대해, 있다’ - 는 이미 12쪽의 그림에서 나타 났듯이 텔레스 자신의 고유한 말이라기 보다는 플라톤에서 쓰여진 말이다 쓰여졌던 이 말을 텔레스 자신이 더 체계적으로 말하면서 살을 붙혔을 뿐이다 그런데,

살을 붙히다 보니 약간 때로는 많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모양이 달라져 버린다

않네 -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은 결코 동일한 것에 있지 않네 -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만약 있다면 어느 차원에서든지 다시 말해 하나가 실체를 지니는 지니지 않든¹⁸⁸⁷⁾ 알론한 것이 분리 되든 되지 않든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있지 않다 하나 와 알론한 것 만이 있다 그런데,

하나가 만약 있는 차원에서 그러하다면 만약 하나가 있는 차원 또는 만약 하나가 있지 않는 차원 또는 하나가 만약 있지 않는 차원에서는 어떠할까 하나가 만약 있는 차원에서 처럼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는 것일까 문제는,

하나 와 알론한(다른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있다 뿐만 아니라 각기 네 차원에서 쓰여지는 하나 와 알론한 것이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가도 문제 거리이며 하나가 만약 있는 차원 과 있지 않는 차원에서 실체 와 분리가 하나 와 알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도 문제 거리이다

하나 와 알론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먼저,

하나가 가리키는 무엇을 알아 낸다면 알론한 것은 그 하나와 다른 것 일 것이므로 알론한 것을 규정하는 실마리를 끄집어 낼 수 있으리라 그러나,

불행히도 파르메니데아스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직접 주질 않는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와 알론한 것을 쓰기만 하므로 하나가 무엇 인지를 알아 내려면 후에 텔레스가 한 것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하나 각각을 규정해 가면서¹⁸⁸⁸⁾ 실체의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해 보아야 하든

1887) 실체를 지니는 하나 와 지니지 않는 하나에 대해서는 67쪽의 요약을 보고 분리 되지 않는 알론한 것 과 분리 된 알론한 것에 대해서는 74쪽을 살펴 보라

1888) 416 - 439쪽을 보면 텔레스가 하나에 대해 말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볼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오타 편 등 알론한 곳에서 텔레스는 하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면서 하나를 실체라고 말하는 자들을 반박한다(47

지 아니면 파르메네데에스 편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든지 할 것이다

우선 에이도스 또는 이테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 드린다 ‘부분은 여럿의 부분도 모두의 부분도 아니라 **하나 이테아인 것의**(개별적인 것 하나 이테아의) 곧 우리가 전체라 말하는, 모두로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인 것의 부분이다(157d7-e2)’ 라고 파르메네데에스의 플라톤에 의해 직접 말하 여지기 때문이다 하나 이테아인 것(μᾶς τινὸς ἰδέας 157b8) 이라고 못 박 아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알론한 나머지 다섯 차원¹⁸⁸⁹⁾모두 에이도스 또는 이테아를 하나는 가 리킬까

가리 킨다면 알론한 것은 알론한 이테아를 말하는가 아니면 이테아 또는 에이도스와 알론한 것을 말하는가 나아가서,

하나는 이테아와 알론한 것 하나를 가리키지는 않을까 아니면,

하나는 이테아 하나 그리고 이테아와 알론한 것 하나를 동시에 가리 키지는 않을까 동시에 가리 킨다면 알론한 것 역시 알론한 이테아들 과 이 테아와 헤테론한 알론한 것들을 동시에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하나는 이테아를 가리키는 반면 알론한 것들은 에이도스를 닮아 생성 되는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나 와 알론한 것에 관해 쓰는 쪽으로 지금의 나는 기울어진다

쪽 각주 39번 참조)

1889) 실체 지닌 하나 만약 있는 차원 과 실체 지니지 않는 하나 만약 있 는 차원 그리고 실체 지닌 하나 만약 있지 않는 차원 과 실체 지니지 않는 하나 만약 있지 않는 차원 다시 말해 실체 지닌 있는 하나 와 실체 지니지 않는 있는 하나 와 실체 지닌 있지 않는 하나 와 실체지니지 않는 있지 않 는 하나 그리고 만약 하나 있지 않는 차원의 하나 등 다섯 차원을 나는 말 한다

‘만약 하나 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 만약 있다면 있지 않다면’ 그리고 ‘실체 지니는 하나 만약 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면’ 그리고 ‘실체 지니는 하나 만약 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와 분리되지 않는 알론한 것의 경우 하나 만약 있다면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의 경우 하나 만약 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면’ 등의 레아마 (ῥήμα, 句)에서 보여지듯 *하나 있다(있음) 실체 분리 지님* 등의 오노마(ὄνομα, 이름 또는 낱 말 또는 單語)가 각기 따로 알론한(다른) 것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 가리키는 것이 동일하다면 따로 쓰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렇다¹⁸⁹⁰⁾

만약 단지 에이도스와 헤태론한 것 하나를 또는 하나만을 하나가 가리킨다면 저런 낱 말들을 무엇 때문에 갈라 썼겠는가.....그리고,

젊은 소크라테애스가 펼친 에이도스론을 - 특히 에이도스 자신을 닮아 오는 생성된 것들이 자신을 나누어 지니는 길에 관해 - 비판하면서 나누어지는 그 길 과 하나 와 알론한 것의 분리에 대해 보완하는 회색의 노년(老年) 신사 파르메니데애스가 하나 에이도스가 여러 알론한 것들에 대해 여섯 차원에서 각기 어떻게 있으며 마찬가지로 그 여섯 차원에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에이도스 하나 그리고 에이도스와 알론한 여럿들에 관한 글이 파르메니데애스 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차원에서든 알론한 여럿 마저 에이도스를 가리킨다 라고 말하고 싶은 구석이 남는다 알론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생성되는 것들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¹⁸⁹¹⁾ 어쨌든,

1890) 이미 50쪽에서 지적 되었듯이 하나 와 실체는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면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닐 수 없다 있음은 하나와 알론한 것을 가리킨다(σημαίνον 142c4) 그리고 하나가 있다 라고 말함은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1891) 이럴 경우 있음 과 생성의 날카로운 구분이 적용될 것이다

하나 그리고 하나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적어도 하나 만약 있는 차원에서는 아무 것도 있지 않다 따라서,

하나 만약 있다면 하나와 알론한 것도 역시 있다 그러나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다¹⁸⁹²이제,

있음을 나누어 지니면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 라고 파르메니데아스 편 152a1-2에 쓰여진다

“ 이제 하나는¹⁸⁹³ 시간을 나누어 지니며(μετέχει, 151e3, 分有하며) 그 (하나)는 자기 자신 과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고 젊게 되며 늙고 늙게 되고 자기 자신 과 알론한 것들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고 양게 되지 ? (: 파르메니데아스)

어떻게요 ? (: 텔레스)

하나이므로 **있음**은 **어디**에서[든](πού¹⁸⁹⁴) 151e6) 동일한 것에 속한다 (: 파르메니데아스)

예 (: 텔레스)

있음은 현재 시간에(ματὰ χρόνου, τού παρόντος e8)실체를 나누어 지님(μέθεξις e8)과 알론한 무엇인가? **있어** **옴**(τὸ ἦν 152a1)은 지나간 (시간)에 그리고 있게 될은 닥아 올(시간)에 실체(οὐσίας κοινῶν via a3)를 (나누어 지님)은 공통적인 것 처럼 말일세 (: 파르메니데아스)

1892) ‘ 첫 번째 실체가 있지 않다[면] 알론한 어떤 것도 있지 않다(텔레스의 범주들 2b5-6, 169쪽) ’ 라는 텔레스의 말이 언뜻 떠오른다

1893) 실체를 지니는 하나가 만약 있다면 에서의 하나의 다시 말해 실체를 지는 있는 하나의 차원이다 하나가 만약 있다면 에서의 하나를 **있는 하나**(τὸ ἔν ὄν 143a5, τὸ ὄν ἔν 144e5) 라고도 파르메니데아스는 쓴다

1894) 어디(πού)를 훑 날 텔레스는 자신의 열 범주 가운데 하나로 집어든다 (범주들 1b26) 물론 여기서 문제 삼아지고 있는 시간(χρονού)도 마찬가지로 집어든다 비록 ποτέ(범주들, 1b26, 언제) 라고 알론하게 말하긴 해도 말이다 - ποτέ(언제) 라는 말도 파르메니데아스 152b5에서 나타난다 나아가서 앞에서 말하여 졌던 실체도 범주로 집어든다

이러한 범주들을 그 자체 있음(1017a22, 691쪽) 이라고 텔레스는 말한 다는 점에 유의하라

스)

(공통적) 이기 때문입니다:(텔레스)

따라서 **있음**(을 나누어 지닌다)면 **시간**을 나누어 지니네:(파르메니데이스)

물론입니다:(텔레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지 ?):(파르메니데이스)

예:(텔레스)

따라서 시간적으로 앞서니 (하나는) 항상 자기 자신 보다(εαυτοú 152a5) (하나는) 늙게 되지 ? (: 파르메니데이스)

필연적으로 (늙게 됩니다 : 텔레스)

그래서 이제 늙은 것은 젊게 되는 것 보다 늙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네 (: 파르메니데이스)

우리는 기억합니다:(텔레스)

이제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늙게 되므로 (하나는) 젊게 되는 자기 자신 보다 늙게 되지 않겠는가:(파르메니데이스)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 탈레스)

이렇게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젊게 되고 늙게 되네¹⁸⁹⁵:(파르메니데이스)

예:(텔레스)

따라서 있어 옴 과 있게 될 사이의 *지금* 시간에(κατὰ τὸν νῦν¹⁸⁹⁶)^{152b3} 되어지는한 (하나는) 보다 늙지 않겠나 어디(에서든) 언제

1895) 하나는 젊어지는 자기 자신 보다 늙어간다 라는 이러한 결론은 모순을 넘어 서는 것 같다 하나 와 자기 자신(스스로)가 동일하다면 하나는 항상 늙고 하나 자기 자신은 항상 젊다는 것은 모순일 것 같기 때문이다

하나가 만약 있다면 그것도 하나가 **실체**를 지닌다면 **있음을 나누어 지님**은 **시간**을 나누어 지님 이외의 알론한 무엇이 아니고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그렇다는 말인데.....

1896) 이러한 지금(νῦν)에 대해 텔레스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라

텔레스는 자연에 관하여 233b33-234a4에서 ‘ 미래의 어떤 부분도 들어 있지 않는 과거의 극단 이면서 과거의 어떤 부분도 들어 있지 않는 미래

(ποτέ 152b5)부터 그 이후로(εις τὸ ἔπειτα b5)나아가므로 지금이 건너 뛰어지지 않겠지 ? (: 파르메니데이스)

않습니다:(텔레스)

그래서 지금에 머무르게 될 때 마다 보다 늙게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늙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다 늙은 것으로 **있지(ἔστιν 152c1)** 않은가¹⁸⁹⁷) 계속 더 되면 지금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기 때문 이네 그렇게 계속 더 됨(τὸ προῖδόν c3)은 지금 과 (지금) 이후 이 양 자에서 묶어 - 지금을 뒤로 하고 그 이후에 도달 되어 - 저 지금 과 그 이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러하이] (: 파르메니데이스)

진실입니다:(텔레스)

만약 (생성)되어지는 것 모두 지금을 넘어 가지 못하는 것이(παρελθεῖν c7)필연적이라면 이(지금)일 때 마다 항상 (생성) 되는 것을

의 극단인 지금은 나뉘어지지 않은 채 모든 시간에 과거 와 미래의 한계(πέρας 234a3)로서 있다 만약 지금은 이러한 극단들이며 동일함이 논증된다면 지금은 나뉘어지지 않음이 명백해질 것이다 ' 라고 말한다

1897) 여기서도 생성(됨) 과 있음이 날카롭게 구분된다

있음을 나누어 지니므로 시간을 나누어 지니게 되는 하나인 것은 지금 시간에 속하는 것이지 지나간 또는 닥아올 시간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나간 시간 다시 말해 과거에 속하면 있어지는 것이며 닥아올 시간에 속하면 있게 될 것인데 있어지는 것이나 있게 될 것 모두 계속 되는 것(τὸ προῖδόν 152c3)인 반면 지금에 머무르는 것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그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1d1에서 처럼 여기서도 에이나이(원형)이 아니라 에스틴(3인칭 단수)가 쓰였음에 유의하라 물론 에스티가 쓰였다고 해서 에스티(있다)가 기그네타이(152c1, 생성되다)로 뒤집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긴해도 말이다

에이나이 와 에스티 사이에도 무언가의 구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같은 맥락은 아니긴 해도 텔레스가 자신의 형이상학 제2편 4 장 1030a31 앞 뒤에서 그 무엇 (3인칭 단수)있다 와 그 무엇 (원형)있다는 구분해서 (원형)있는 그 무엇을 실체에 순수하게 첫 번째로 적용하고 (3인칭 단수)있는 그 무엇을 실체 이외의 범주에서 그 다음으로 적용하는 등의 구분을 행한 것과 플라톤이 여기서 구분해 쓴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으리라

그만두고 되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된 그것은) 이것(τούτο 152d1)으로 **있다**(ἔστι d1)(: 파르메니데에스)

분명합니다(: 텔레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도 보다 늙게 되어져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늙게 되⁸⁹⁸)를 그만 두고 보다 늙은 채 **있다**네(ἔστι d2)(: 파르메니데에스)

물론입니다 (: 텔레스)

이제 보다 늙게 되어졌던 이것이 있다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αὐτοῦ d5)보다 (늙어) 졌을까? (: 파르메니데에스)

예 (: 텔레스)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늙은 것이지? (파르메니데에스)

(늙은 것)입니다(: 텔레스)

따라서 마찬가지로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젊게 **있네** 보다 늙게 되어진 채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말일세](: 파르메니데에스)

필연적입니다(: 텔레스)

실로 **지금**은 모든 **있음**을(τοῦ εἶναι 152e1) 통해서 항상 **하나**⁸⁹⁹와 **더불어**다네(παρεσσι e1)(: 파르메니데에스) 어떠한 때에(ὅταν περ ἧ⁹⁰⁰ e2) 든지 **지금**은 항상 **있기**(ἔστι e1) 때문이오(: 파르메니데

1898) 나이 먹지 않는다는 말이다

1899) 하나 와 있는 것 또는 있음은 어찌 보면 동일하다 라고 말하는 978 쪽에서의 텔레스를 참조하라

1900) 자꾸 헤에(ἦ, 텔레스의 형이상학 1025b4, 1094쪽)가 떠오르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아마 비슷해서 일리라

본디 원문에는 강기식(強氣息, ') 과 연기식(軟氣息,) 그리고 엑센트들(, ,)이 표기 되 있지 않을 것이므로 두 군데 모두 η 으로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어인 영어 역시 엑센트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엑센트를 붙혀 읽으면 하나는 관계 대명사 여성 3격인 '헤에'가 되고 하나는 에이미(있다 라는 동사)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 '에에'가 되므로 여기에서는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 '있다(ἦ)'로 쓰였다

에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텔레스)

따라서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εαυτοῦ e3) 보다 늦게 그리고
보다 짧게 **있고** **되어진다**:(파르메니데에스)

분명합니다:(텔레스)

그(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많은(πλεω 152e3) 시간[으로] 있
는가 또는 되어지는가 아니면(ἦ e4) 똑 같은(시간으로 있는가 또는 되
어지는가) ? (: 파르메니데에스)

똑 같은(시간으로 있거나 되어집니다 : 텔레스)

그러나 똑 같은 시간[으로] 있는 또는 되어지는 것은 동일한
생애를 지닌다네:(파르메니데에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텔레스)

그런데 동일한 생애를 지니는 것은 보다 늦게 있지도 보다 짧
게 있지도 않는다네:(파르메니데에스)

(보다 늦게 있지도 보다 짧게 있지도) 않습니다:(텔레스)

따라서 **하나**는 그 자기 자신과 똑 같은 시간[으로] 있거나 되
어지면서 자기 자신 보다 짧지도 늦지도 않게 있거나 되어지오이다:(
파르메니데에스)

(짧지도 늦지도) 않게 (있거나 되어진다고) 저에게 여겨집니다:(
텔레스)

그런데 알려진 것들과는 어떻게(τι 152e10) 되겠나 ? (151e3 -
152e10) ” 1901)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음**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시간**
을 나누어 지닌다 라고 쓰여진다¹⁹⁰²⁾

1901) 이어지는 글월에 대해서는 63쪽 앞 뒤를 보라

1902) 그러나 있음 과 시간이 동일한 것으로 쓰여진 것은 결코 아니다 있
음이 공간과 동일하게 결코 쓰여지지 않았 듯이 말이다 티마이오스의 플라
톤에 따르면 공간은 꿈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지 그 자체 있음이 아니
기 때문이다 1138-1139쪽을 참조하시오

아울러 모든 **있음**을 두루 통해 **지금**은 **하나**와 더불어 있다 따라서 **있음**을 나누어 지니는 것은 **지금** 두루 **하나**이지 과거 와 미래에는 하나로 있지 않다¹⁹⁰³⁾

이제,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자기 자신 과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알론한 것들 보다 짧게 있고 짧게 되며 늦게 있고 늦게 되며 자기 자신 과 알론한 것들 보다 짧지도 늦지도 않게 있고 않게 되지 ? - 어떻게 ?

- 하나 이므로 있음은 어디에서든 동일한 것에 속한다네 - 예 - **있음**은 **현재**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님과 알론한 무엇인가 ? **있어** 옴은 지나간 시간에 그리고 **있게** 될은 닥아올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님은 공통적인 것 처럼 말일세 - 알론한 무엇이 아닙니다 - 따라서,

있음을 나누어 지니면 **시간**을 나누어 지니네 - 물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지 ? - 예 - 시간적으로 앞서니 하나는 항상 자기 자신 보다 늦게 되지 ? - 필연적으로 늦게 됩니다 - 그래서 늙은 것은 젊게 되는 것 보다 늦게 된다고 우리는 기억하네 - 기억함

1903)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날카롭게 구분지어서 세 단계로 시간이 나뉘어져 **있다** 라고 말하여 질 수는 없을 것 같다

있는 시간은 **지금** - 파르메니데에스의 플라톤은 현재 시간(κατὰ χρόνον, τοῦ παρόντος 151e8) 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간(κατὰ τὸν νῦν χρόνον 152b3)을 쓴다 - 이지 있어 왔던 시간(과거) 과 있어 올 시간(미래) 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있어 왔음 과 있어 올은 생성 되어짐이므로 그렇다 따라서,

지금을 기점(起點)으로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은 되어졌던 것인 반면에 지금부터 있어 올 것은 되어질 것이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여전히 파르메니데에스에서든 마찬가지로 생성 과 있음이 날카롭게 구분 됨을 보여 줄 것이다

니다 - 이제 자기 자신 보다 늙게 되므로 젊게 되는 자기 자신 보다 늙게
됐지 않겠는가? - 필연적으로 늙게 됩니다 - 이렇게 하나는 자기 자신 보
다 젊게 되고 늙게 되네 - 예 -

따라서 있어 옴 과 있게 될 사이의 지금 시간에 되어지는한 보다 늙
지 않겠나 어디에서든 언제부터 그 이후로 나아가므로 지금이 건너 뛰어지
지 않겠지? - 않습니다 - 그래서 지금에 머무르게 될 때 마다 늙게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늙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늙은 것으로 이미 있지 않은
가 계속 더 되어지면 지금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네 그렇게 계속
더 됨은 지금 과 지금 이후 이 양자에 묶어 - 지금을 뒤로하고 그 이후에
도달되어 - 저 지금 과 그 이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러하이 -
진실입니다 -

만약 되어지는 것 모두 지금을 넘어 가지 못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지금일 때 마다 되는 것을 항상 그만 두고 무엇으로 되어 졌든지 간에 이
것으로 있다네¹⁹⁰⁴) - 분명합니다 - 그래서,

마찬 가지로 하나도 보다 늙게 되어져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늙게
되기를 그만 두고 보다 늙은 그대로 있다네 - 물론입니다 - 그래서 보다
늙게 되어졌던 이것이 있다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 보다 늙어 졌을까?
- 예 - 보다 늙은 것은 젊은 것 보다 늙은 것이지? - 보다 늙은 것입니
다 - 따라서,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젊게 있네 보다 늙게 되어진 그대로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말일세 - 필연적입니다 - 실로,

1904) 이와 같은 글을 티마이오스 49d6(이것, τούτο, 148쪽) 앞 뒤에서도 쓰
여진다 알론한 것에서 알론한 것으로 생성 되는 것을 이것 이라고 불러서는
않된다 라고 거기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것’을 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이 것, τότε τι, 범주들 3b10, 958쪽, 969쪽’과 비교해 보라

거기 텔레스의 ‘이 것’은 실체를 가리키지만 여기 플라톤의 이것은
‘(3인칭 단수) 있다’를 가리킨다 나아가서,

텔레스의 실체는 가장 먼저 있는 것 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지금은 모든 **있음**을 통해 두루 항상 **하나**와 함께 한다네 어느 때든지 지금은 항상 있기 때문이오 -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따라서,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늙게** 그리고 보다 **젊게** **있고** **되어진다** - 분명합니다 - 그런데,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많은 시간으로 있는가 또는 되어지는가 아니면 똑 같은 시간으로 있는가 또는 되어지는가 - 똑같은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 그러나 똑 같은 시간으로 있는 또는 되어지는 것은 동일한 생애(ήλικι ov, 152e5, 삶의 기간)를 지닌다네 -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동일한 생애를 지니는 것은 보다 **늙게** 있지도 보다 **젊게** 있지도 않는다네 - 않습니다 - 따라서,

하나는 그 자기 자신 보다 똑 같은 시간으로 **있거나** **되어지면서** 자기 자신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게 **있거나** **되어지**오이다 - 저에게 그렇게 여겨 집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이다 그리고,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있는** 하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스스로 와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있고** **젊게** **되어지며** **늙게** **있고** **늙게** **되어지며** **젊지** 않게 **있고** **않게** **되어지며** **늙지** 않게 **있고** **되어진다**

무엇 때문일까 **있음**은 현재 시간에 **실체**(οὐσία 151e8)를 나누어 지 님이며 마찬가지로 **있어** **옴**은 지나간 시간에 그리고 **있게** **될**은 님아 올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님이기 때문이고¹⁹⁰⁵⁾그래서 **있음**을 나누어 지니면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데 바로 그러한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진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하나는 항상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늙게** 된다

1905) 그렇다고 있어 옴 과 있게 될을 있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건 단지 되어짐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 번 지적(指摘)했다

그런데 늙은 것은 젊어지는 것 보다 늙게 된다 따라서 스스로 보다 늙게 되는 하나는 필연적으로 젊게 되는 스스로 보다 늙게 되던 것이지¹⁹⁰⁶⁾늙어지는 스스로 보다 늙어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진다 나아가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 있다

있어 옴 과 있게 될 사이의 지금 시간에 머무르는 한 하나는 보다 늙어 있다 지금을 건너 뛸 수 없다 어디에서든 언제부터 그 이후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늙어지기를 멈추어 더 이상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늙어진 그대로 있다 계속 되어짐은 지금 과 지금 이후 그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계속 되어지면 지금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성 되어지는 것 모두 필연적으로 지금을 건너 뛸 수 없다면 지금일 때 마다 항상 생성 되어지는 것은 되어짐을 멈추고 무엇으로 되어졌던지 간에 되어졌던 그대로 이것으로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마찬 가지로 하나도 보다 늙게 되어져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늙어지기를 멈추고 늙어졌던 그대로 있다 보다 늙어졌던 이것이 있다 나아가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어 있다 자,

보다 늙어 졌던 그대로의 이것이 있다면 이것은 스스로 보다 늙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늙은 것이므로 하나는 늙어진 그대로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젊어 있다 지금은 어떤 때에든지 항상 있으므로 지금은 모든 있음을 통해 항상 하나와 함

1906) 늙게 되는 하나는 젊어지는 스스로 보다 늙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글은 하나 와 하나 스스로는 서로에 늙어 지면서 젊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만약 스스로는 하나를 단지 가리키기만 하므로 하나 와 스스로가 동일한 것이라면 동일한 것이 늙어지면서 젊어진다는 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에이도스라면 어떤 에이도스는 늙어지는 반면 어떤 에이도스는 젊어진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어 있다¹⁹⁰⁷⁾따라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 **있고** 젊어 있으며 늙어지고 젊어진다 나아가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어 있지도 늙어 있지도 않으며 스스로 보다 젊어 이지지도 늙어 지지도 않는다

스스로와 똑 같은¹⁹⁰⁸⁾ 시간으로 **있거나** **되어**지는 **하나는** 스스로와

1907) 스스로 보다 늙어 있는 하나를 써놓구선 곧 이어 스스로 보다 젊어 있는 하나를 써 재끼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적이기도 할 것 같으리라 그러나,

파르메니데에스의 플라톤이 쓰는 **지금**을 올바르게 받아 드리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어느 때든지 **지금**은 항상 있으므로 모든 있음에 두루 **하나**로 퍼진 것이 **지금**이다 따라서 있음을 나누어 지닌 것은 시간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어 왔던 시간이든 있어 올 시간이든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면 그리고 있다면 **지금**은 모든 시간에 두루 퍼져 **하나**와 더불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은 나아가는 것이며 모든 시간에 하나는 두루 퍼져 **있으므로** 스스로 보다 **하나는** 젊어 있다 그 이전 스스로 보다 말이다 자기 자신이므로 하나는 그 이후 스스로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만약 **동일(同一)**하지 않다면 하나가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 있으며 젊어 있다 그리고 늙어지며 젊어진다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있으며 **지금**으로 있어 왔고 **지금**으로부터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어지며 늙어진다 **하나는!** .

1908) τὸν ἴσον(152e4, 똑 같음)에 대해서 텔레스가 무엇이라 말하는지에 관해서는 223쪽 과 986쪽을 참조하시오 텔레스에 의해서 똑 같음은 량에 고유한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만약,

동일한 생애를 지닌다 똑 같은 시간 동안 있거나 되어지는 것은 동일한 생애를 지니기 때문이며 그러나,

동일한 생애를 지니는 것은 보다 늙어 있지도 보다 젊어 있지도 않으므로 스스로와 동일한 생애를 지니는 하나는 스스로와 똑 같은 시간 동안 있거나 되어지며 스스로 보다 젊어 있지도 젊어 있지도 않고 젊어지거나 늙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어지고 늙어지며 젊어 있고 늙어 있으며 젊어 지지도 늙어지지도 젊어 있지도 늙어 **있지도** 않다

지금으로 나아 오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나아 가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있음을 나누어 지니는 것이며 **있음**은 **현재(지금)**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넘이고 그리고 **하나**이므로 있음은 어디에서든 동일한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먼저,

이러한 **있음**은 **되어짐(생성)**과 반드시 구분 된다 있음을 나누어 지니므로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때문에 늙어 지거나 젊어지며 늙어 있거나 젊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을 건너 뛰어 지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항상 되어지기만 할 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것이 지금에 머물러 되어지는 것을 멈추고 실체를 나누어 지넘 으로서 되어졌던 그대로 있지 않는한 항상 되어가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지금 이외의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못함이 **되어짐(생성)**인 반면에,

현재 시간에(μετὰ χρόνου τοῦ παρόντος¹⁹⁰⁹), 151e8, 現在) **실체**를 나누

시간은 연속적인 량 그 자체 라고 말하는(221쪽, 범주들4b24) 아리스토텔레스를 본다면 더 한층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1909) 그러나 나는 현재를 지금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 싶으나 지금의 나는 그냥 지나 치려한다

어 지님이 바로 **있음**이다¹⁹¹⁰) 그래서 있어 왔음은 지나간 시간에(τού παρεληλυθότος, 152a1, 過去) 실체를 나누어 지님이며 있어 올은 닥아 올시간에(τ

1910) 따라서 여기서 분명히 있음 과 실체가 서로 구분된다 실체를 나누어 지나는 것이 있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체는 있음과 어떻게 구분되며 실체는 또 무엇일까 애석(哀惜)하게도 파르메니데에스의 플라톤은 실체에 관해 무엇이라고 쓰지 않는다 소피스테이스 와 티마이오스의 플라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텔레스의 강의록 형이상학 제에타 편 1 장 앞 부분 1028a14-15(291쪽)에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실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리킨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실체에 대해 말하여지기 시작해서 실체란 에이도스(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다 라고 같은 편 17 장 1041b8(508쪽)에서 말하여지므로서 제에타 편이 끝난다면,

텔레스는 비록 그 편에서 분리된 에이도스 곧 이데아 론을 반박하긴 해도 결국은 실체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므로 플라톤의 생각을 이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은 그러한 실체를 있음과 구분해 놓기만 하고 더 이상 실체에 대한 글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이어나갔다 라고는 말할 수 없으리라 그는 실체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으며 에이도스를 그 가운데 하나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첫 번째 실체 라고 말하기는 해도 말이다

문제는 그가 첫 번째(τὸ πρῶτον, 1028a32, 289쪽) 역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737쪽 참조) 그래서인지 그는 사람인 것(τις 범주들, 2a13, 166쪽)을 첫 번째 실체 라고 말했다가 에이도스(사람)을 첫 번째 실체 라고(508쪽, 1041b8) 말한다 그러나,

예를들어 사람이건 사람인 것이건 이것들을 모두 실체 라고 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단지 어느 것을 첫 번째 실체 라고 하느냐 라는 물음에 문제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위 범주들에서는 에이도스(사람)을 두 번째 실체 라고 했다가 위 형이상학에서는 에이도스를 첫 번째 실체라고 하면서 실체를 마치 에이도스 만인 것 처럼 그것도 분리된 순수한 에이도스 만일 것 처럼 말하므로 그렇다

οὐ μέλλοντος, 152a1-2, 未來) 실체를 나누어 지님이다 그러나,

지나 온 또는 닳아 올 시간에는 엄밀히 말해 있어 왔거나 또는 있어 올 것이기 보다는 되어 왔거나 또는 되어 질 것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여기지 말고 시간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 있음으로 보아 버릴까 그러나,

그러게 될 경우 되어짐은 시간 밖에서 일어나야만 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에 이르러 (생성) 되어지기를 그만 두고 비로소 있기 시작할 때 그 지금 이전(以前) 시간 곧 지나온 시간(過去)에도 마찬가지로 있어와야 지 되어져 와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파르메니데아스의 플라톤은 지금 이전에 되어져 왔다가 지금에 이르러 비로소 있기 시작한다는 투로 글을 쓴다 ‘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늙게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늙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늙게 있다 ’ 라고 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간은 나아가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지금을 벗어나게 될 경우 이제는 있기는 그만 두고 더 늙어져 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으로부터 벗어 날 때 더 늙어지기 시작한다 라는 투로 글을 쓴다 ‘ 계속 더 [됨] (τὸ προῖόν 152c3)은 지금 과 그 이후 이 양자에 묶여져 - 지금을 뒤로하고 그 이후에 도달되어 - 지금 과 그 이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더 되면 지금에 의해 포착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에 머무르게 될 때 마다 보다 늙게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다 늙은 것으로 있다 ’ 라고 글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생성을 **지금** 이외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반면에 **있음**을 지금에 머무르는 ‘이 것’으로 간주하고자한다 나아가서,

지나 오는 시간은 반드시 지금에 이르고 지금에 이른 시간은 반드시 지금을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므로 늙게 되어졌던 것은 늙어져 있다가 반드시 보다 더 늙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지금울 건너 뛰어 넘어 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시 말해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것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모든 **있음**을 통해서 **지금**은 항상 **하나**로 있다 그러므로,

있어 왔든 있어 올 거든 있는 것은 항상 하나로 있는 반면에 되어지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럿들은 지금 이외의 시간을 통해서 되어질 것이며 되어지다가 다시 하나로 머무르다가 다시 알론한 것으로 되어져 또 다시 변한 채 하나로 머무르다가 다시 알론한 것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론한 것으로 되어 하나로 있을 때 파르메니데에스의 플라톤은 삼인칭 단수 형태의 에스티(ἔστι, 152c1, 152d1, 152d2, 152e1, 1159-60쪽)를 쓰는 것 같고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로 있는 것에 관해서는 不定形의 에이나이(εἶναι, 있다, 151e7, 152e1, 1157-1157)를 쓰는 것 같다¹⁹¹¹)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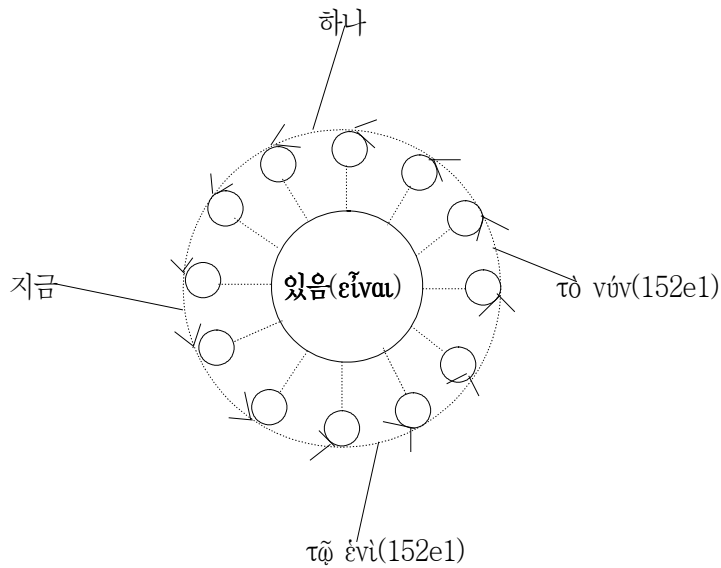
앞의 하나를 스스로(ἑαυτοῦ, 152e3, 自己 自身)라 쓰는 반면 뒤의 하나를 하나 라고 쓰는 것 같다

위와 같은 있음 과 지금 과 하나를 다음 쪽 처럼 그려 보고 싶다

1911) 에스티 와 에이나이의 이러한 쓰임새는 실체를 이외의 범주들과 구분할 때에도 텔레스에 의해 쓰여진다(1030a31, 307쪽) 1159쪽 각주 1897번도 참조하라 그런데,

있음 과 있는의 쓰임새도 구분될까 구분된다면 어떻게 구분될까 그리고 이런 구분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이 적용될까 라는 물음에 내 논문이 맨 처음에 답하려 했으나 아직까지는 그 문법적인 구분에만 머무를 뿐 더 이상 구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있음 과 있음을 동일 선 상에 놓고 두 사람의 있음 또는 있는 것을 더듬아 가는 중이다



크든 적든 동그라미 실선(實線)들은 모두 **지금**이며 **하나**이고 **‘있음**
다’ 그리고 화살 표는 시간의 나아감을 나타내는데 화살의 축은 작은 동그
 라미들을 반드시 거쳐 날아가며 그 축 사이에서 모든 것이 (생성)되어진다
 그리고 시간이 나아가는 동그런 흔적¹⁹¹²⁾을 점선이 나타낸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난 후 동그라미들을 자세히 보면 지금(들)이
 모든 시간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아스는 텔레스에게 지금은 모든 시간에 퍼져 있다 라고 직
 접 말하지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나는 그림을 위 처럼 그리고 나서 지금은 모든 시간에 퍼져 있다 라
 고 쓴다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도 묵인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¹⁹¹³⁾이제까

1912) 시간이 동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38a8에 나오
 는 κυκλουμένου(등글게 돌다) 라는 말에 의해 확인된다(1174쪽 각주 1923번
 을 참조하시오)

1913) 그러나,

내가 1158쪽 각주 1896쪽에서 말했듯이 텔레스는 자신의 자연에 관하
 여에서 지금은 모든 시간에 과거 와 미래의 한계로서 내재해 있다 라고 말
 한다 물론 시간이 동그렇게 나아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텔레

지,

나는 티마이오스(51b6-52c2) 소피스테에스(236d9-237a1) 파르메니데에스(151e3-152e10) 편에서 쓰여지는 있음에 관해 한 번씩 돌아가며 거론했다

그 자체 있음은 에이도스인 반면 나타나는 것 과 처럼 보이는 것은 있음이 아니 라고 그 티마이오스 와 소피스테에스에서 쓰여진다 그리고 파르메니데에스에서는 있음을 나누어 지니는 것은 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있음은 지금 시간에서 실체를 나누어 지님이라는 것 그리고 있음은 생성(됨)과 구분 된다는 것이 쓰여진다 나아가서,

나는 이러한 파르메니데에스에서 지금 이외의 시간에서는 생성 되어 지기만 할 거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 모든 시간에 퍼져 있을 것라는 것을 이끌어 내었다¹⁹¹⁴이제,

생성(됨) 과 **있음**의 구분은 다시 티마이오스 38b3 앞 뒤에서 확인된다¹⁹¹⁵ 생성되는 것을 생성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는(ὀβδὲ v ἀκριβῆς 38b3)말 이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다¹⁹¹⁶

스의 경우에는 지금이 모든 시간에 퍼져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1914) 이러한 이끌어 낸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38a1-2(1174쪽)에서 확인된다 거기에 따르면 (3인칭 단수가) 있다 만이 영원한 실체에 속하며 영원한 실체를 말하는 반면에 있어 왔음 과 있어 올은 단지 시간 안에서의 생성에 관해서 말하여질 뿐이기 때문이다

1915) 사실 생성 과 **있음**의 구분은 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에이도스, 실체, 첫 번째 있는 것)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형이상학 7-9장에서(334-367쪽 참조)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1916) 사실,

모든 것의 생성 과 사람의 자연에 관한 글인 티마이오스는 생성은 있음이 아니라는 따라서 있음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있음 과 생성의 그

“ 생산자 아버지(πατήρ¹⁹¹⁷) 37c7)가 살아 움직이는 그것을 곧 영원한 신들의 생성된 영광을 보았을 때 기쁘고 즐거워서 그 원형(τὸ παράδειγμα c8)에 더 같게 하려고 생각했다 이(원형)은 영원히(ἀίδιον 37d1) 살아 **있는**(ὄν d1)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한 이렇게 그와 같게 하려 했다

그런데 그 살아 [있는] 것의 자연은 영원(αἰώνους, 37d3, 永遠)했으며 이(영원)것을 생성된 것에 완전하게 덧 붙힐 수 없었다 그래서 영원의 움직이는 어떤 모상(εἰκῶν, 37d5, 模像)을 만들려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루 질서 지워진(διακοσμών d5)하늘을 수적으로 하나인 동시에 **영원의**(αἰώνος d6) **영원한** 모상(αἰώνιον εἰκόνα d7)으로 만든다(ποιεῖ 37d6) 이(영원의 영원한 모상)을 우리는 **시간**(χρόνον d7)이라 이름한다 하늘이 생성되기 전에는 낮 과 밤 과 월 과 년이 있지 않았으나 저(하늘)이 함께 들어 서면서 이(낮밤월년)것들이 더불어 생성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낮과밤 월과년)들은 시간의 부분이다 그리고 시간의 에이도스 [인] 있어 왔음 [과] 있어 올(τὸ τῆν τὸ ἔσται¹⁹¹⁸) 37e4) 이 생성된다 실로 이것들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영원한**(ἀίδιον¹⁹¹⁹)

구분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티마이오스에서 있음 곧 에이도스가 쓰여지는 것은 생성의 원인(αἰτίαν, 29d7, 原因)인 한에서 그러할 뿐이다

1917) 50d2(148-149, 1140쪽)에서도 아버지 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는 생성되는 것이 그것을 닮아 자연스레 생산되는 바로 그것이 아버지로 비유된다

1918) 있어 왔음 과 있어 올에 대해서는 1157쪽(파르메니데아스 152a1)을 참조하십시오

1919) ἀίδιον(37d1, e5) 와 αἰώνιος(37d3, d7) 또는 αἰώνος(37d5, d6)을 모두 영원(永遠)으로 옮겼으나 실은 구분되어야 할 낱 말들이다 아이디어온은 원형 또는 실체에 덧 붙혀지는 영원인 반면 아이오오노이스 또는 아이오오노스는 원형 또는 실체의 모상에 덧 붙혀지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오스(영원)에 대한 텔레스의 쓰임새 756 쪽(1017b21, 형이상학 랍다 편 6 장 끝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αἰώνιος, ον 과 αἰών, ώνος 역시 구분되어야한다 앞의 것은 영원 (everlasting, eternal)을 뜻하지만 뒤의 것은 생애(生涯,, one's lifetime)를

e5) 실체으로 가져 오는 것은 옳지 않다 있어 왔다 (그리고) 있다 그리고 있어 올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말하나 단지 (3인칭 단수 그것이) 있다(τὸ ἔστιν 37e6) 만이 진실로 [그 영원한 실체]것에] 속하며 [그것을] 말하는 반면 있어 왔음 과 있어 올은 시간 안에서의 생성에 관해서만 말하여지기 때문이다¹⁹²⁰)움직임(κίνησις 38a2)이므로 [그렇다]

움직이지 않아 항상 동일하게 지나는 것(τὸ αἰὲν κατὰ ταῦτα ἔχον¹⁹²¹), 38a3)은 시간을 통해 보다 늙어지지도 보다 젊어지지도 않으며 언제 되어졌지도 않고 지금 되어지지도 않으며 곧 되어질 것도 아니다 생성(γένεσις 38a6)이 감각에 의한 급한 움직임에 속하는한 이러한 모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들(αἰώνια a7)을 모방하는 그리고 수에 따라¹⁹²²)빙 도는 시간의 종들일 뿐이다¹⁹²³)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하여진다]

생성된 것(τὸ γεγονός 38b1)을 생성되 **있다**(εἶναι γεγονός b1)라고 생성되는 것을 생성되고 **있다** 라고 나아가서 생성되어질 것을 생성되어질 것으로 **있다** 라고 그리고 있지 않는 것(τὸ μὴ ὄν b2-3)을 있지 않는 것으로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ἀκριβές 38b3)그러나,

이것들에 관해서는 현재의 논의에서 정확해지지는 않을 것이다¹⁹²⁴)(37c6 - 38b5)¹⁹²⁵)

뜻하기 때문이다

1920) 이 로고스는 1172쪽 파르메니데아스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내가 이끌어 낸 말 곧 지금 이외의 시간에서는 생성되어질 뿐이다 라는 로고스를 확인해 준다

1921) 항상 동일한 상태의 것 또는 항상 동일한 것이라고도 옮겨질 수 있으리라 항상 동일하게 지나는 것은 보다 더 직역이다

1922) 수적인 비율로 라는 말일 것이다

1923) 그래서 나는 1171쪽에서 나아가는 시간의 흔적을 등글게 점선으로 만들었다

1924) 콘퍼드는 자신의 책 플라톤의 우주론 98쪽에서 있다가의 애매함에 관한 논의는 소피스테아스에서 발견될 것이라는 것을 이 로고스는 암시한다

라는 앞 쪽 인용 글월은 누우스로 부터의 생성에 속하는 우주의 영혼 생성에 이어지는 것 으로서 우주와 동시에 생성되는 시간에 관한 글월이다

살아 움직이는 그것 곧 영원한 신들의 생성된 영광을 생산자 아버지가 보았을 때 기쁘고 즐거워서 원형에 더 같게 하려고 생각했다 원형은 영원히 살아 있는 것 이므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한 그와 같게 하려 했다 그런데,

그 생물의 자연은 영원했으며 이 영원을 생성된 것에 완전하게 덧 붙힐 수 없었다 그래서 영원의 움직이는 어떤 모상을 만들려고 생각했다 그래서 두루 질서 지워진 하늘을 수적으로 하나인 동시에 영원의 영원한 모상으로 만든다 영원의 영원한 모상을 우리는 **시간**이라 이름한다 하늘이 생성되기 전에는 낮과밤 그리고 월과년이 **있지 않았으나**¹⁹²⁶⁾ 하늘이 들어서면서 낮밤년월이 더불어 생성되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낮밤년월은 시간의 부분이다 그리고,

시간의 에이도스(種)인 있어왔음 과 있어올이 생성된다 실로 있어왔음 과 있어올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영원한 실체으로 가져오는 것은 옳지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일상적인 말에서 통용되는 있지 않는 것은 소피스테아스에서 보여졌 듯이 그것에 관해서는 진실로 어떤 것도 주장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있지 않는 것 - 나는 이것에 없음 이라는 이름을 덧 붙힘으로서 있지 않는 것과 구분한다(7쪽 각주 7-8번 그리고 1106쪽 각주 1800번을 참조하시오) -을 뜻한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피스테아스 뿐 만이 아니라 파르메니데아스에서도 있음 과 있지 않음에 관한 글이 쓰여진다 물론 파르메니데아스에서는 하나와 밀접히 관련되어지기는 해도 말이다

1925) 라는 인용 글월의 맥락에 대해서는 143-144쪽 앞 뒤를 참조하시오

1926) 생성되는 것에 있음을 결코 덧 붙힐 수 없다면 낮과밤 그리고 년과 월에도 있는 것들이 덧 붙혀지지 않아야 할 것인데 낮과밤과년과월이 있지 않았다 라고 있음이 덧 붙혀진 것은 어찌된 것일까 플라톤 스스로가 정확해지기 싫어서였을까 아니면 있지 않다 라고 쓰여지기 때문이어서였을까

않다 있어왔다 있다 있어올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말하나 단지 (3인칭 단수 가) 있다 만이 진실로 영원한 실체에 속하며 영원한 실체를 말하는 반면 있어왔음 과 있어올은 시간 안에서의 생성에 관해서만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움직임이므로 그렇다

움직이지 않아 항상 동일한 것은 시간을 통해 보다 늙어지지도 보다 젊어지지도 않으며 언제 되어졌지도 않고 지금 되어지지도 않으며 곧 되어 질 것도 아니다 감각에 의한 급한 움직임에 생성이 속하는한 이러한 모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들을 모방하는 그리고 수에 따라 빙 도는 시간의 종들일 뿐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말하여진다

생성된 것은 생성되 있다 라고 생성되는 것은 생성되고 있다 라고 나아가서 생성되어질 것은 생성되어질 것으로 있다 라고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을 있지 않는 것으로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따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관해서는 현재의 (시간 생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정확해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에 관한 티마이오스의 글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위 인용 글월에서 그는 시간에 관해 쓰는 가운데 생성에 있음을 덧 붙여서는 **않된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시간**은 영원(αἰδιον, 37d1, 37e5)의 모상(εἰκόνα, 37d7, 模像)인 영원(αἰώνιος, 37d3, 37d7)이다 생명을 지닌 것은 자신의 생애(αἰών, 35d6) 동안 이러한 영원의 모상 으로서의 영원을 곧 시간을 지닌다 그리고 있어왔음(過去) 와 있어올(未來)등은 시간의 하위(下位) 종(에이도스)들인 반면 낮과밤 그리고 년과월은 시간의 부분들이다 그런데,

우주의 하늘이 생성되기 전에는 있지 않던 시간은 하늘이 생성되어 들어 섬과 동시에 더불어 생성된다 낮밤년월 등이 바로 그렇지 아니한가

살아 움직이는 우주의 영광(ἀγαλμα 37c7) 보고 우주를 생산한 아버지는 기쁘고 즐거워 그 원형에 될 수 있는한 같아지게 하려 했다 원형은 **영**

원히 살아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영원을 생성된 것에 완전하게 덧 붙힐 수는 없어서 영원의 움직임은 어떤 모상을 만들려고 생각했다(ἐπενόει 37d5) 그래서 그는 두루 질서지워진 하늘을 수적으로 하나인 동시에 영원의 영원한 모상으로 만든다 따라서,

우주의 하늘은 영원을 닮은 것 으로서 영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주가 영원한 것은 자신이 닮은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한 이 실체에 시간의 에이도스인 있어왔음(過去) 과 있어올(未來)을 덧 붙혀서는 앎된다 있어왔음 과 있어올은 시간 안에서의 생성에 덧 붙혀지는 반면 영원한 실체에는 단지 있다(있음)만이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 항상 동일하게 있는 것은 시간을 통해 늙어지지도 젊어지지도 않고 지금 되어지지도 않으며¹⁹²⁷⁾ 곧 될 것도 아니다 감각에 의해 급한 움직임에 속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영원을 모방하면서 수적인 비율에 따라 빙 도는 시간의 종들일 뿐이다 그렇다면,

내가 1171쪽에서 등그런 점선으로 나타낸 것들은 바로 있어왔음 과 있어 올이 속하는 생성하는 둥근 움직임 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된다¹⁹²⁸⁾ 따라서,

시간은 수적인 비율에 따라 빙 돌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쓰여질 수 있으리라 물론 지금을 반드시 지금을 거쳐 순간 순간 있으면서 지금으로

1927) 사실,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은 티마이오스에게는 성립 될 수 없다 지금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이다 1159-60쪽에서 옮겨진 것처럼 말이다

1928) 그런데 여기 티마이오스에서는 지금 시간이 쓰여지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라는 말이 티마이오스 38b5에서는 쓰여졌긴해도 그리고 파르메니데이스 151e8에 나타난 τού παρόντος(현재) 라는 말이 티마이오스 38b4에서 ἐν τῷ παρόντι 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긴 해도 파르메니데이스에서 말하여지는 맥락에서 처럼 주제화 되어져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다

와서 지금으로부터 나아가기는 해도 말이다 어쨌든,

동그렇게 움직이는 시간은 생성하는 과정이지 있음이 아니다 그 생성이 지금에 머무를 때 비로소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¹⁹²⁹⁾

보다 더 정확히 말하려면,

생성된 것을 생성되 있다 라고도 생성되는 것을 생성되고 있다 라고도 생성되어질 것을 생성되어질 것으로 있다 라고도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을 있지 않는 것을 있다 라고도 말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는 생성(됨)에 있음이 덧 붙혀졌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기 위해선,

단지 됐건 되든 될 것이든 생성은 생성이라고만 말해야지 되 있다 되고 있다 될 것으로 있다 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는 있지 않는 것을 있지 않다고만 말해야지 있지 않는 것으로 있다 라고 말해서는 안된다¹⁹³⁰⁾ 결국,

1929) 그리고 내가 1167쪽에서 말했듯 있음에 생성을 덧 붙혀서는 안된다

1930) 그런데,

플라톤의 소피스테아스를 읽어 가다 보면 여기 티마이오스에 어긋 나는 글월이 나타남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긋남은 좀 더 진지하게 대화편들을 읽어 가면서 보다 더 큰 맥락을 놓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거기 소피스테아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가 ‘있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있**(ἔστιν 241d7) 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있지 않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만약 엘레아 낫선이가 플라톤 자신을 진정으로 대변한다면 플라톤은 자신이 다른 책에서 범하지 말라고 요구한 오류 또는 부 정확함을 스스로 다른 책에서 범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 정확함은 플라톤의 사유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도 있으리라 그렇다면,

있음을 있지 않음에 덧 붙히는 이러한 오류를 어떻게 우리는 반아드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생성을 있음과 분리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성은 있어 왔던 과 있어 올 시간에 일어나며 빙글 돌아 가는 움직임에 속하는 반면 있음은 지금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님이며 움직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성된 것은 지금에 머무르면서 실체를 지니게 되 생성되었던 그대로 있기 시작하고 다시 그 생성되었던 그 있음으로부터 빠져 나가면서 다시 알론하게 생성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생성 과 있음은 시간을 통해서 교섭(交渉)한다고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은 분리된 것이라고 쓰여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나는 지금 플라톤의 세 대화 편에서 있음(εἶναι)이 어떤 알론한 낱말들과 주로 쓰여지는지를 주욱 살펴 보는 가운데 있음에 관해 플라톤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 보는 중이다 우선,

그는 에이도스와 관련해서 그 자체 있음 이라는 레애마(구, 句)가 자주 쓰이는 반면에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것 이라는 낱 말과 관련해서는 있지 않음이 묶어져 쓰이며 나아가서,

있음은 시간과 묶어지는 맥락에서 생성 구분되는 것으로 쓰여진다 나아가서,

εἶναι(있다) 앞에 ἐν이 붙은 ἐνεῖναι(안에 있다) 형태의 에이나이가 티마이오스 57e3에서 나타난다

틸 것인가 같은 대화 편 소피스테이스 편 237c7-8에서는 있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은 덧 붙혀 질 수 없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99쪽 참조)어찌보면,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 분명히 그는 어찌 보면(μη 241d7)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고 그에 따르면 있지 않는 것이란 있는 것의 반대(257b3, 127쪽)가 아니라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 움직임 과 쉽(στάσεως 57d7)에 관하여 어떤 길에서 그리고 어떤 조건(ὄντων d8)에서 생성되는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뒤 추리(λογισμῷ¹⁹³¹) 57e1)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 날 것이다 이(움직임 과 쉽)에 관해 이미 말하여졌지만¹⁹³² 나아가서,

움직임(κίνησιν 57e3)은 같은 상태(ὁμαλότητι e2)안에 어디에서 든 결코 있지 않으려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저(움직임 과 쉽)에 관해 (말하여진다) 움직이게 하는 것(τοῦ κινήσοντος e4) 없이는 움직여지는 것이(τὸ κινησόμενον e3) 또는 움직여지는 것이 없이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기 어려우며(χαλεπὸν e4) 오히려 있을 수 없다¹⁹³³)이 (움

1931) 이 낱 말을 λογικῶς(형이상학1005b22, 1029b13(302쪽), 1041a28(507쪽), 論理적으로) 라는 텔레스의 낱 말과 비교해 보라 나는 여기서 τῷ λογισμῷ (57e8)를 추리(推理)로 옮겼으나 실은 두 낱 말 모두 논리로 옮기고 싶었다

302, 507, 539, 738, 743, 796, 854, 1124, 1139쪽을 살펴 보시오

1932) 감각에 의한 급한 움직임이 생성 이라는 38a6(1174쪽)도 이미 말하여진 움직임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1933) 여기서 나는 704-717, 755-785쪽에서 말하여진 텔레스의 움직임을 되뇌어 보려 한다 ‘움직임은 움직이는 또는 움직여지는 것 안에 있다(ἔστιν.....ἐν τῷ κινήτῳ, 1066a27) 라고 거기에서도 ‘안에.....있다’ 라는 레애마(句)가 나타나며 움직이게 하는 것(τὸ κινούν 영혼에 관하여433b10) 과 움직여지는 것 또는 움직이는 것(τὸ κινούμενον 433b16) 움직이는 것이 그것에 의해 움직이게 하는 것(ᾧ κινεῖ 433b14) 등의 구분이 거기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 티마이오스의 용어(用語)와는 약간 다르긴해도 말이다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τὸ κινησόμενον (57e3, 움직여지는 것) 과 τὸ κινῆσον(57e4,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뭇 아니 엄청 다르다는데에 어려움이 있다 움직여지는 것이 없이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기 어려우며 오히려 있을 수 없다 라고 여기 플라톤은 쓰는 반면 거기 텔레스는 움직여지는 것이 있으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으며 움직이게 하는 그것은 움

직여지는 것 과 움직이게 하는) 것과 분리해 있어서는(ἀπόντων 57e6)
움직임은 있지 않다 그런데 이(움직임)은 같은 상태에(ὁμαλὰ ε6) 있을
수 없다¹⁹³⁴][따라서],

직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움직여지는 것이 있으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피상적으로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렇게 피상(皮相)적으로 말했다가는 큰 일난
다 오히려 그 거꾸로다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으므로 움직여지는 것이 있다
라고 반드시 말해야 한다 첫 번째 실체(τὰς πρώτας οὐσίας, 형이상학1074b9,
神들)인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아무 것도 있지 않을 것(범주들
2b5-6, 169쪽, 물론 범주들에서 첫 번째 실체는 위 형이상학에서와는 달리
사람인 것 또는 말인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신(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첫 번째 실체가 순수하게 가리키는 본디 뜻은 텔레스의 전체
강의록에서 볼 때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이
라는 것은 다시 여기서 거들먹 거릴 필요 조차 없이 선명하다 신은 분리해
있는 이 것이기 때문이다, 낱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텔레스의 경우 움직여지게 하는 것이 없이는 움직여지는 것이 있지
않지만 움직여지는 또는 움직이는 것이 없어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으며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에는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플라톤의 경우에도 움
직이게 하는 것에는 움직임이 없으며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이 없어도 움
직이게 하는 것이 있을까 움직여지는 것이 없이는 움직이게 하는 것도 없다
라고 분명히 플라톤의 티마이오스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 없
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이 움직이게 하는 것에는 움직임이 없다 라는
것을 허용할까 아마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

1934) 움직임은 무엇으로 있지 않다 라는 부정적(否定的)인 표현이 자주 나
온다 이러한 표현이 움직임은 있다 라는 긍정적(肯定的)인 로고스를 허용하
지는 않을 것이다 ‘있다’와 묶어진다고 해서 묶어진 그것을 있는 것으로 보
아서는 크게나도 한 참 큰 엄청난 탈이 난다 있다에 아니다가 묶어지면 묶
어진 그것은 있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있는 것의 부정(否定)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임은 같은 상태 로(안에) 있지 않다 라고 쓰여 질 때에는 움직임

이렇게 우리는 섬을 같은 상태[인 것]으로 한 편으로 움직임을
같은 상태가 아닌[것]으로 항상 받아 드린다 그런데,
자연적인 같지 않는 상태의 원인은 똑 같지 않음($\acute{\alpha}\nu\iota\sigma\acute{o}\tau\eta\varsigma$
1935)58a1)이다 똑 같지 않음의 생성을 우리는 이미 말했다¹⁹³⁶⁾ (57d7
- 58a2) ”

라는 인용 글월은 필연으로부터의 생성에 관한 글(46c7
- 68d7)에 속하는 부분 으로서 모든 것의 세 가지 류 또는 종에 관해 쓰는
맥락에 이어지는 맥락을 지닌다

티마이오스는 모든 것의 세 가지 류 다시 말해 원인의 세 가지 류에
관한 글을 쓰고 나서 불 흙 물 공기 등의 몸의 생성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
한다

몸의 각기 에이도스가 곧 불의 몸 과 흙의 몸 과 물의 몸 과 공기의
몸이 지니는 깊이($\beta\acute{\alpha}\theta\omicron\varsigma$ 53c6)를 둘러 쌓는 면은 등변 삼각형($\tau\acute{o}$ $\acute{\iota}\sigma\omicron\sigma\kappa\epsilon\lambda\acute{\epsilon}\varsigma$
54a1) 과 부 등변 삼각형($\tau\acute{o}$ $\pi\rho\acute{o}\mu\eta\kappa\epsilon\varsigma$ ¹⁹³⁷⁾ 54a2) 등 두 가지 삼각형(η $\acute{o}\rho\theta\eta$
 η $\acute{\epsilon}\kappa$ $\tau\rho\iota\chi\acute{o}\nu\omega\nu$, c7-8, 三角)으로 이루어 진다 이제,

이 두 가지 삼각형으로 불 과 다른 요소들의 몸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데¹⁹³⁸⁾세 가지 류는 부 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나머지 류 하나는

의 있음이 부정(否定)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움직임의 있음이 긍정된 것으
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움직임은 있는 것이 아니다 또는 움직임은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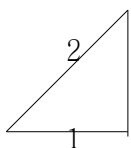
1935) 그런데 범주들 6a26에서 텔레스는 똑 같음 과 똑 같지 않음(\acute{o} $\acute{\iota}\sigma\omicron\nu$ κ
 $\alpha\acute{\iota}$ $\acute{\alpha}\nu\iota\sigma\omicron\nu$)을 량에 고유한 것 이라고 말한다(224쪽)

1936) 그곳이 어디일까 부등(不等)변 삼각형의 생성에 관한 글인 54a1-55b1
근방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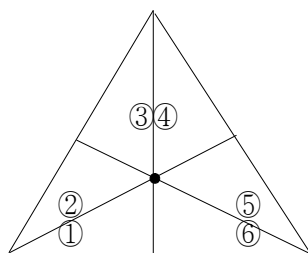
1937) 더 긴 변의 뒤나뭇수가($\delta\acute{o}\nu\alpha\mu\mu\nu$ 54b5) 더 작은 뒤나뭇스의 세 배인
부 등변 삼각형을 말한다

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다 이루어 지는 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모 꼴의 가장 적은 첫 번째 중(에이도스)은 빗 변이 길이에 있어 더 짧은 변의 두 배(διπλασίαν 54d7)인 [다음과 같은 부 등변 직각] 삼각형이다¹⁹³⁹⁾이 삼각형은 세 번째 몸 까지만 생성되고 그 이후론 생성되지 않는다



가장 적은 에이도스의 직각 삼각형 두 개가 세 번 되풀이해서 그 빗 변끼리(κατὰ διάμετρον 54b8) 맞 붙여지면 빗 변 과 더 짧은 변들이 동일한 점 하나에서 만나는 식으로 여섯 개의 세모 꼴이 이루어지며 이 여섯 세모 꼴로부터 다음과 같은¹⁹⁴⁰⁾ 등변 삼각형(ισόπλευρον 54e1)하나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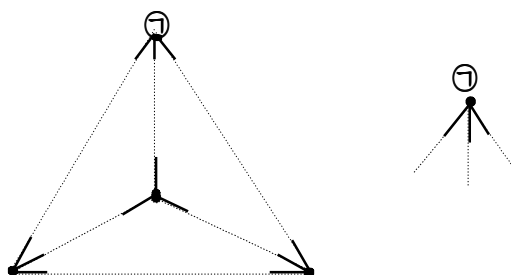
이런 등변 삼각형 4개가 함께 놓여지면 면의 각들은 체의 각 ①들

1938) 이렇듯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불의 그리고 불 이외의 요소들 곧 물 과 흙 과 공기 등의 몸을 기하학적으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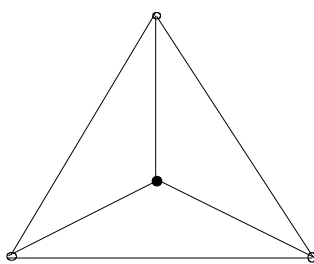
1939) 따라서 몸 각각은 수들의 [비율]에(ἐξ ὄσων συμπεσόντων ἀριθμῶν 54d4) 따른다

1940) 앞으로 그려지는 모든 기하학적 그림은 콘퍼드 216 - 238에 나오는 그림을 하나 따오기도 하고 내가 직접 그려 보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아직 기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을($\sigma\tau\epsilon\rho\acute{\alpha}\nu$ $\gamma\nu\omega\nu\iota\alpha\nu$ ¹⁹⁴¹), 54e4-55a1, 體의 角) 다음 처럼 이룬다 그리고,



체의 각 4 개($\tau\epsilon\tau\tau\acute{\alpha}\rho\omega\nu$ 55a2)가 모여 첫 번째 (중)에이도스의 체($\sigma\tau\epsilon\rho\acute{\alpha}\nu$, 55a3, 體)가 다음 처럼 사면체로¹⁹⁴² 이루어진다 이 첫 번째 체(體)의 전체 둘레는 똑 같은 그리고 같은 부분들로 나뉘어진다



두 번째 몸($\sigma\acute{\omicron}\mu\alpha$ ¹⁹⁴³) 55a7)은 4 개의 평면 각으로 이루어지는 체의

1941) 평면의 가장 큰 둔각($\tau\acute{\eta}\varsigma$ $\acute{\alpha}\mu\beta\lambda\upsilon\tau\acute{\alpha}\tau\eta\varsigma$ $\tau\acute{\omega}\nu$ $\acute{\epsilon}\pi\iota\pi\acute{\epsilon}\delta\omega\nu$ $\gamma\omega\nu\iota\acute{\omega}\nu$, 55a1, 鈍角)에 연이어 입체(立體)의 각 - 콘퍼드는 217쪽 자신의 번역에서 180度 라고한다 -이 온다

1942) tetrahedron(사면체, 四面體) 라는 용어는 Howard Eves(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mathematics, 1984, CBS college Publishing, U.S.A) 63쪽에서 따 왔다

1943) 체가 아닌 몸이라는 낱 말이 쓰임에 유의하라 우선 나는 체를 몸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여긴다 그 거꾸로도 될 것이다

각이 여덟 개의 등변 삼각형과 더불어 여섯 개가 될 때 다음 처럼¹⁹⁴⁴⁾육면체가 이루어 진다

[8 면체?]

120 개의 요소 삼각형으로 합해지는 세 번째 몸은 각기 다섯 개의 평면 등변 삼각형에 의해 이루어지는 열 두 개의 체의 각 과 등변 삼각형의 밑 변($\beta\acute{\alpha}\sigma\epsilon\upsilon\varsigma$ 55b1)을 다음 처럼¹⁹⁴⁵⁾지닌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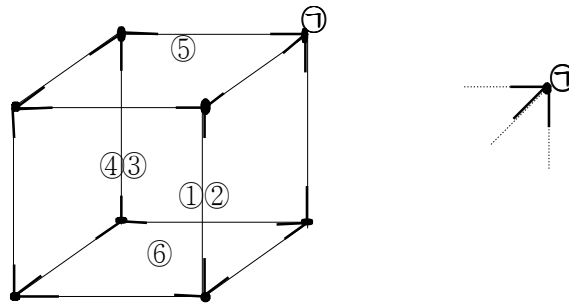
세 번째 몸에 이르기 까지의 몸의 근본 삼각형은 빗변이 더 적은 변의 두 배인 그런 삼각형 으로서 이 세 번째 몸 이후 로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후로는 이등변 삼각형 으로부터 몸이 생성될 것이다

[20 면체?]

1944) 콘포드는 8면체(octahedron) 라고 말한다

1945) 콘퍼드는 20면체(icosahedron) 라고 말한다

네 번째 자연(φύσιν 55b5)은 이등변 삼각형으로부터 생성된다 이등변 삼각형 네 개가 중앙에 직각을 이루면서 합쳐져 등변 사각형 하나가 이루어 지는데 이러한 등변 사각형 여섯 개가 묶여져 체의 각 - 체의 각은 각각 ① 세 개의 평면 직각으로 이루어 진다 - 여덟 개가 생겨 난다 이렇게 이루어진 몸의 모습(τὸ σχῆμα 55c2)이 바로 다음과 같은 정 육면체(κυβικόν c2)이다 이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위의 이러한 요소적인 네 가지 류(γένη¹⁹⁴⁶ 55d7)의 모습(τὸ σχῆμα, 55c2, 模襲, 꼴)을 다음 쪽 처럼 불 흙 물 공기에 배정한다¹⁹⁴⁷그러나,

1946) 그는 이 네 가지를 앞에서는 종(에이도스, εἶδος, 55a3) 이라고도 했다 가 여기서는 류(게네에) 라고도 한다 그러기에 영어 권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들이 나올 경우 때로 kind(종류)라고 번역하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플라톤 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사람 모두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서 쓰인 에이도스(55d1)는 종(種)이라기 보다는 모습(模襲) 또는 꼴 이라고 보아야 하나 게노스(γένων 55e1)는 꼴에 상응하는 어떤 것이라기 보다는 일관 되게 류(類)로 보아야 할 것 같다

1947)물론,

어느 한 가지의 모습을 배타적으로 위 네 요소 어느 하나에 배정한 것 같지는 않다 그는 비록 선명한 구분 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떠한 기준에 근거해서 구분 배정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모습은 각기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대신 보이는 것은 이런 꼴(모습)들이 뭉친 덩어리(τοὺς ὄγκους 56c2)일 뿐이다

(要素) 類 에이도스 기준 (모습, 種)	불	흙	물	공기
잘움 직임	1 피라미 (사면체?)	3 육면체	가장 복잡 팔면체?	2 이십면체?
몸 크기	3 피라미 (사면체?)	육면체	1 팔면체?	2 이십면체?
예 리함	1 피라미 (사면체?)	육면체	3 팔면체?	2 이십면체?
피라미(56b4-5) , τὸ κυβικόν(55d8)				
생성순서	1		3	2 (δευτερον 56b6)

위 도표에 나오는 ?는 티마이오스에 의해 직접 그 류에 꼴이 배정되지는 않았으나 그는 먼저 피라미이 다음에 팔 면체가 다음에 이십 면체가 생성된다(1948)라고 직접 쓰고 있으며 나아가서 그 생성 순서는 불 공기 물 이라고 직접 쓰고 있으므로 공기에 팔 면체를 물에 이십 면체를 나는 배정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내가 미심쩍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것 만이 미심쩍은 것은 아니다 위 도표에서 보여졌듯이 몸의 움직임 과 크기 와 예리함 과 생성 순서가 네 가지로 구분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점도 미심쩍다 분명히 요소로(στουχείον 56b5) 구분되는

1948) 이런 순서는 이미 1183 - 86 쪽에 쓰여졌다 비록 팔 면체 와 이십 면체 라는 말이 티마이오스에 의해 직접 쓰이지는 않았어도 두 번째 몸 과 세 번째 몸이 팔 면체 와 이십 면체를 각기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는 있을 것이다

류는 네 가지인데 말이다 그래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네 가지 류가 아니라 네 가지 류 중에서 세 가지인 것 처럼 보인다 이러한 것은 그가 가운데 것 곧 중간(τὸ μέσον, 56a3, 中間)이라는 낱 말이 확인한다 가운데 것은 세 가지 중 두 극단 사이에 있는 것을 나타낼 것이며 여기서는 그 둘 사이의 중간 여럿 보다는 하나를 나타내는 듯 하기 때문이다¹⁹⁴⁹⁾

예를들어 가장 작은 몸은 불이며 가장 큰 몸은 물인데 그 중간 크기의 것은 공기이다 라고 쓰여진 곳에서 처럼 말이다 이 곳에서는 흙에 관한 것은 쓰여지지 않는다 예리함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예리한 것은 불이고 세 번째 예리한 것은 물인데 두 번째 예리한 몸은 공기이다 이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류 이어야 할 흙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쓰여지지 않는다 네 번째 류가 쓰여지기는 하는 움직임의 경우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가장 잘 움직이는 에이도스는 불이며 가장 움직이지 않는 것은 흙이고 그 중간적인 공기인 반면에 물은 가장 **잘**(εὖ 56a2) 움직임(κίνητότατον 56a2)의 측면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이 **묵직하다**(τὸ δυσκίνητότατον 56a2)고 쓰여지기 때문이며 ‘잘’ 과 ‘묵직함’은 분명히 구분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셋으로 묶어져 상대적으로 그 정도에 있어 비교되는 류의 트리오는 불 과 공기 와 물이고 나머지 류인 흙은 그 비교에서 잘 움직이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점¹⁹⁵⁰⁾ 그리고 모든 경우에 중간적인 것은 공기 라는 점을 앞 쪽 도표를 통해서 집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49) 927쪽에서 말하여지는 텔레스의 μέσον(1069a4, 中間, 가운데 것)을 참조한 후 1008, 863, 241, 927, 253, 625, 864, 886쪽 각주 1386번 등을 참조하십시오

1950) 대신에 잘 움직이는 정도의 비교의 경우에는 방금 말하여진 것 처럼 물이 그 비교에서 빠진다 그러나 예리함 과 크기 와 생성순서에서는 위 트리오 만이 비교된다 그렇다면,

예리함 과 크기의 정도에 있어 나머지 네 번째인 것이 분명하므로 빠졌을까 아니다 셋 가운데 하나는 정도에 있어 가장 더한 것은 최상급이며 그 최상의 정도에 상응하는 최하의 정도 하나가 말하여지고 이 둘 가운데 중간의 정도 하나가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불 공기 물 흙의 몸의 꼴(에이도스)는 서로 구분된다 라는 점에서 다시 말해 구분되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라는 점에서 요소(要素)이지 그 몸들이러 저러한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요소는 아마 아닐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요소적인 몸의 요소는 부 등변 세모 꼴(불 공기 물의 몸) 또는 이 등변 세모 꼴(흙의 몸)이므로 세모 꼴로부터 몸이 생성되기 때문에 몸들이 서로 부딪힐 때 몸의 부분들¹⁹⁵¹)로 쪼개 지면서(μερισθῆν¹⁹⁵²) 56d6) 수적인 비율로 섞어져 알론한 몸으로 된다(γίγνεσθαι 56d7)

그 비율을 다음 쪽 처럼 나타낼 수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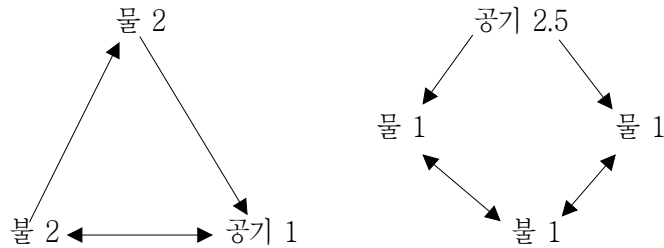
1951) 물론 몸의 이 부분들의 꼴은 몸의 꼴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면 그건 요소적인 몸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몸의 부분들과 섞어질 때는 수적인 비율에 따라 어느 한 요소의 몸으로 된다

1952) 가장 예리하며 날쌔게 잘 움직이고 크기가 작은 불 때문에 쪼개진다 그래서 불은 이리 저리 헤집고 돌아 다니면서 그 뽀족한 자기의 몸으로 부딪혀 썰면서 마주치는 몸 마다 녹여 버린다 다시 말해 꼴의 한계(限界)를 사라지게한다

불이 이렇게 모든 몸을 살라 버릴 수 있는 것은 부 등변 세모 꼴들로 합해져 이루어진 가장 날카로운 꼭지 각들로 이루어진 피라미 꼴(에이도스)의 몸 때문이다 스치는 것 마다 부리 나케 문질러 태워 버린다

물	불	공기
2	2	1
1	1	2과 2분의1

이 도표를 다음 처럼 다시 그릴 수 있으리라



위의 수들은 몸의 잘려져 떨어져 나간 부분들(μέρους¹⁹⁵³) 56e1)의 갯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물 둘은 공기 하나가 되고 물 하나는 불 하나가 되는 반면에 공기 2과 2분의1은 물 하나가 되며 공기 하나는 불 둘이 된다 거꾸로 물 하나는 불 하나가 되며 공기 하나는 불 둘이 되는 반면에 물하는 공기 2과 2분의1이 되며 불 둘은 공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1953) 물로부터 잘려져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물의 꼴을 잃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꼴을 유지하다가 물 두 부분은 공기 하나가 되고 물 한 부분은 불 하나가 된다 따라서,

비록 부분이라고는 하나 그것이 동일한 꼴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그 몸 전체와 같다 그러기에 그러한 몸은 요소이다

물이 불 과 공기를 만나서 가장 불의 예리함에 의해 또는 덜 공기의 예리함에 의해 쪼개져 붙어야 그리고 불이 자신 보다 더 큰 공기와 물을 만나 자신들에 의해 스스로 쪼개 짐과 동시에 공기와 불을 쪼개면서 그것들에 붙어야 그리고 공기가 자신 보다 더 적은 불에 의해 쪼개져 그 불에 붙어야 문체의 그 비율로 불이되고 물이되고 공기가 된다

바로 이러한 수적인 비율로 물은 불 과 공기가 되며 불은 공기와 물이 되고 공기는 불 과 물이 된다 그렇다면,

흙으로는 되지 못하는가¹⁹⁵⁴⁾그렇다 !

불 공기 물의 '부분'들이 서로의 끈(에이도스)로 되가는 동안 불의 날카로움에 의해 잘려져 떨어져 나가는(διαλυθία, 56d2, 溶解) 흙의 몸은 잘려져 떨어짐이 불 자체에 의해 일어나든 또는 공기의 텅어리 혹은 물의 텅어리에 의해 일어나든 자신의 몸의 부분들이 서로 마주쳐 들어 맞아 다시 흙이 될 때 까지 - 흙의 몸은 알론한 에이도스의 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이리 저리 급속히 움직이기(φέρουι 56d1) 때문이다 따라서 불 공기 물의 몸의 부분들은 흙의 몸으로 될 수 없다¹⁹⁵⁵⁾그러나,

나머지 세 몸이 부분들로 잘려져 수적인 비율에 따라 서로의 끈을 얻어가는 동안 흙의 몸이 홀로 떨어져 움직거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머지 세 몸의 예리함에 의해 특히 불의 몸의 날카로움에 의해 잘려진 흙의 몸의 부분들이 불 공기 물의 부분들과 휩쓸려 부딪히며 돌아 다닌다 따라서,

흙은 포함한 물 공기 불은 끊임 없이 움직이며 돌아다닌다 움직임은

1954) 1187쪽에서 보여진 것 처럼 흙은 나머지 요소 세 류와 잘 움직이는 정도를 제외하면 비교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라

1955) 거듭 쓰여지지만 나머지 세 류의 몸과는 달리 흙의 몸의 에이도스 곧 육면체는 이 등변 삼각형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유의하라 그리고,

네 가지 류의 몸이 서로 비교될 때 무엇 때문에 불 공기 물의 몸 트리오가 상대적으로 비교될 뿐 잘 움직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비교에 끼어들지 못하는가를 이 맥락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 가지 류 중 상대적으로 가장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흙이다 물론 움직이기는 한다

어디에서든 같은 상태의 것(ὁμαλότητι 57e2) **안에 있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있음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내가 1180쪽에서 인용한 글월은 움직임에 관한 위와 같은 맥락¹⁹⁵⁶⁾에 이어 나타난다

어디에서든 결코 움직임은 같은 상태의 것 **안에 있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움직임 과 쉼에 관하여 말하여진다

움직이게 하는 것 없이는 움직여지는 것이 또는 움직여지는 것이 없이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기 어려우며 오히려 있을 수 없다 이것과 분리되 있어서는 결코 움직임은 **있지** 않다 그런데 움직임은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쉼**을 같은 상태인 것으로 반면에 **움직임**을 같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항상 받아 드린다 그런데 자연적인 같지 않은 상태의 원인은 똑 같지 않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똑 같지 않음의 생성에 관해 이미 말했다 따라서,

안에 있다 라는 말은 움직임은 같은 상태인 것 **안에 있지** 않으려 한다 라는 로고스에 나타나며 이 로고스에 나오는 **움직임**은 불이 공기 또는 물이 되며 공기가 불 또는 물이 되고 물이 불 또는 공기로 되는 **움직임**이라는 것은 선명하다 그렇다면,

같은 상태인 것은 같은 불 또는 공기 또는 물의 몸들일 것이고 **움직임**은 불의 몸 또는 공기의 몸 또는 물의 몸 **안에** 있으나 항상 같지 상태의 것 **안에는** **있지** 않으려 하므로 항상 이 같은 몸으로 하여금 같지 않은 몸이 되도록 같은 몸들을 다그치며 끌고 다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쉼은 같은 몸 **안에** **있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1956) 서로 되어가는 네 가지 류 곧 불 과 공기 와 물 과 흙의 몸들의 움직임이 쓰여지는 맥락

소피스테이스 254d 앞 뒤(123쪽 앞 뒤)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움** 과 **움직임** 과 **있음** 또는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움직임** 과 **움**은 위와 같은 몸들 **안에** **있으**려 하거나 또는 **있지** 않으려 할 뿐이다¹⁹⁵⁷⁾이제,

세 대화 편에 나타난 **있음(εἶναι)**의 문법적인 쓰임새를 살펴 볼 차례 이나 명사로 쓰일 경우 1격 2격 4격 등으로 쓰인 곳이 많이 눈에 띄이고 이 보다 훨씬 많이 술어로 쓰인 곳이 눈에 띄인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¹⁹⁵⁸⁾ **있는 것(ὄν)**에 관한 플라톤의 글로 넘어 가려고 한다

1957) 안에 있다 라는 말은 쾌락 과 고통에 관한 글을 쓰는 가운데 64c7에서 나타난다 ‘보고 듣는 몸의 부분들은 자신들 안에 불 과 공기가 가장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길로 쾌락 과 고통에 관해 숙고해야한다(64c6-8)’ 라고 말이다

윤리학에 밀접히 연관되는 주제들인 쾌락 과 고통도 흥미로운 것이어서 건들고 싶으나 시간이 없어 이정도로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참으로 유감이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안에 있다 라는 말이 나타난 앞 인용 글월의 부분 처럼 누우스 와 필연으로터의 생성에 속하는 맥락이다

1958)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점이 두 개 있다 하나,

720 - 750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텔레스의 있음은 앞 뒤에 3격의 명사형을 지닌 채 아주 빈번히 두 강의록 가운데서도 특히 형이상학에서 나타나지만 플라톤의 세 대화 편에서는 이러한 쓰임새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둘,

301쪽 이하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텔레스의 있음은 앞에 ‘ τὸ τι ἔιν ’을 지녀 ‘ τὸ τι ἔιν εἶναι ’ 라는 형태 - 이 형태는 플라톤의 세 대화 편에 흩어져 있는 눈에 띄는 낱말[εἶναι, ἔιν {티마이오스37e4(1173)파르메니데이스152a1, b4(1157, 62), τι{소피스테이스243d4(106쪽)}, τὸ, τι τὸ{티마이오스

모든 것의 생성 과 사람의 자연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글로 쓰기 시작하면서 맨 먼저(πρώτον 27d5)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있는 것** 과 **생성되는 것으로 나눈다**(διαμετέτεον¹⁹⁵⁹) 27d5) 다시 말해서,

27d6(135쪽)]을 주어 모은 것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도 있으리라 - 로 자주 나타난다 ‘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 ’ 이라고 부족하나마 옮길 수 있으리라 영어로는 주로 ‘ essence(本質) ’ 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표현은 실체(οὐσία, 62쪽, 301쪽)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에이나이(있다) 바로 앞에 위에서 말한 여격(τινι)이 생략되었다 라고도 여길 수 있다 여격을 채워서 옮긴다면 ‘ 어떤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 ’ 이라고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생략된 형태든 생략 되지 않는 형태든 이러한 레에마(句, 표현)을 나는 플라톤의 세 대화 편에서 눈 씻고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텔레스는 위와 같은 두 표현에서 플라톤과는 다른 무엇을 있음에 관하여 말하려 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다른 표현을 통해 말하여지는 있음이 이러한 표현을 통하지 않고 글로 써지는 있음과 얼마나 헤태론할까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각기 것(개별자)에 있는 있음 이라는 표현은 각기 것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기는 하다

1959) 류를 하위 종(에이테에)들로 나누는 방법(μέθοδος, 소피스테이스 219a1)변증법이다

소피스테이스 편에서는 나누는 방법을 통해서 소피스테이스가 무엇(τι 218c1)인가에 대한 답을 다시말해 소피스테이스의 정의(사기꾼, 있는 것을 모방하는 자, 234c7-234a1, 96쪽) 또는 로고스가 얻어지며 이러한 류에 따라 나눔(διαμερίσθαι, 253d1, 121쪽)이 바로 변증적인 앎(τῆς διαλεκτικῆς ἐπισημῆς, 253d2-3, 121쪽)에 속한다 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 등으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이스가 시키는 혹독한 훈련(γύμνασαι, 135d4, 8쪽)역시 변증법 훈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항상 있는 것은 생성을 지니지 않는 그 무엇이다

“ 그러나 오, 소오크라테스여 ! 지혜를 조금이라도 지닌 사람들

있는 것 과 생성의 나뉘를 근거로 하여 쓰여지는 모든 것의 생성 과 생성된 것의 자연에 관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견해 역시 변증적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증술을 지니는 변증가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비록 철학자로 위장(σχῆμα, 형이상학 1004b17, 975쪽)하는 그러나 철학자와는 동일한 류에 속하기는 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 때 말하여지는 변증술은 하나의 비판술(περιαστική, 1004b25, 976쪽, 批判術)이지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에서 쓰여지는 하위 에이도스로 나누는 방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의 나뉘의 방법에 의한 정의(ὀρισμῶν, 1037b28-29, 444쪽)를 텔레스는 자신의 형이상학 제에타 편에서 그대로 이어 받아 ‘사람’을 정의하려 시도한다 플라톤은 “ ‘사람’ 소피스테이스 ”를 정의 했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변증법 또는 변증술을 알론하게 쓰며 말하고 있으며 아울러 철학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더 심오한 숙고를 필요로 한다

플라톤의 철학을 단지 있는 것 그 자체에 관한 앎이라고 서둘러 단정해서도 앎되며 서둘러 단정했다라도 있는 것 그 자체를 플라톤이 무엇이라고 여겼는지에 대해 적어도 지금의 나는 서둘러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변증법에 의해 어떤 류가 하위 류 또는 종(에이도스)로 나뉘는다면 그것도 있는 것 과 생성되는 것으로 나뉘는다면 있는 것 과 생성되는 것으로 나뉘어 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있음 과 생성 이전의 류 또는 있음 과 생성 보다 더 큰 류는 무엇일까 라는 물음이 생겨 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나는 슬며시 던져 본다

은 작고 큰 일(πράγματος 27c3)을 시작하면서 항상 신(Θέον c3)을 부
 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성 됐는지 또는 생성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있는지에 관한 모든 로고스를 만드려는 우리는 만약 모두가 탈신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로고스들이) 무엇 보다 저(남신들 과 여신)
 들에게 다음으로 우리에게 누우스적이도록(κατὰ νοῦν 27c7)기도로서(ε
 ὑχεσθαι c7) 받드시 (남신들 과 여신들) [저 분들]에게 간구해야 합니
 다 그리고 제안 되어진 주제들에 관한 로고스를 제가 제공하면 당신
 에게 가장 두루 지성적이고(διανοούμαι 27d3) [그래서] 우리에게 두루
 지성적이도록 신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생성(γένεσις 27d6)을 지니지 않는 [그래서] 항상 **있는** 그 무엇
 (τι τὸ ὄν ἀπέ d6)과 어디에도 **있지 않는** [그래서] 항상 **생성되는**
 그 무엇(τι τὸ γινόμενον d6)?(28a1)이라는 이런 나뉘이(διαίρησις
 τὰδε d5) 이제 제 의견으로는 실로 첫 번째로 있습니다 항상 동일
 하게(κατὰ ταῦτα 28a2) **있는 것은** 누우스에 의해(νοήσει 28a1) 로고스
 후에 파악되는 반면에 어디에서도 **있는 것으로 있지 ὄντως ὄν**
 28a3-4) **않는 생성되는 것 과 소멸하는 것은** 의견에 의해(δόξη¹⁹⁶⁰), a1,
 臆見) 非 로고스적인 감각 후에 의견화 됩니다 그런데,

생성되는 모든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ὑπ' αἰτίου 28a4) 필연
 으로부터 생성됩니다 원인과 분리되어(χωρὶς a5) 모든 것이 생성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일한 상태를 지니는 것(τὸ κατὰ ταῦτα ἔχον 28a6-7)을 바라
 볼 때 마다 항상 데미우르고스는 (동일한 상태를 지니는) 그것을 원
 형(παράδειγματι a7)으로 삼아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것의 이데아(τὴν
 ἰδέαν 28a8) 와 힘(δύναμιν a8)을 규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1960) 누우스 와 진실한 의견(51d2-3)은 구분되는 두 가지 류의 인식 능력
 이라고 1137쪽에 이미 쓰여진 것에서도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우스와 마찬가지로 의견도 어떤 것을 인식하는 하나의 능력이
 다 그러나 누우스가 항상 있는 것을 알(인식하)는 반면에 의견은 생성하는
 것 과 소멸하는 것을 감각한다 또는 의견화한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런 구분을 근거로 해서 에이도스는 그 자체로 있다는
 로고스가 티마이오스에 의해 이끌어 내어진다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아름답지요(καλὸν a8) 그러나 그가 생성된 것을 (바라 보고서 보이는 것을) 원형으로 삼는다면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실로 모든 하늘(ὁ πᾶς οὐρανός 28b2) - 또는 우주(κόσμος b3) 또는 우리가 대 부분 [이러한] 이름을 받아드리기 때문에(ὅτι b3) 우리에게 이러한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것과는] 알론한 (이름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¹⁹⁶¹] - 이것에 관해 생성의 아르케에를 결코 지니지 않아서 항상 있어 온(ἦν b6)것인지 아니면(πότερον....., ἢ..... b6) 어떤 아르케에로부터 시작되는 생성된 것인지를 첫 번째로 조사해야(σκοπεῖν, b6, 調査) 하는데 이러한 (조사)가(ὅπερ b6) 반드시 모든 것에 관한 조사의 전체가 되는 아르케에적인 조사이지요

(하늘은) 생성된 것입니다 보여지며 건드려지고 몸(σώμα¹⁹⁶² 28b8)을 지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은 감각적인 것들(αἰσθητά b8)[이]며 감각적인 것들은 언젠에 의해 감각 후에¹⁹⁶³ 파악됩니다 생

1961) 그래서 그런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하늘(우라노스) 과 우주(코스모스) 과 모든 것(πάν 28c4)을 문맥에 맞게 번 갈아 쓰는 것 같다 그 문맥이 어떤 것인지는 그 때 그 때 파악해야 한다

1962)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관해 나는 약간은 심각하게 1182-1191쪽에서 썼다 그리고,

플라톤의 소피스테에스에 따르면 손으로 건드려지고 만져지는 몸만 있다고 보아 몸을 실체로 여기는 자들은 몸을 지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극단적으로 경멸한다(καταφρονούντες 246b2)

1963) μετ' αἰσθήσεως(메타이스테에세오오스, 27c1)를 나는 감각과 더불어 보다는 감각 후에 라고 옮겨 보았다

μετά 라는 전치사가 뒤에 2격이 오면 함께(with, 더불어) 라고 옮겨야 하고 4격이 오면 후에 라고 옮겨야 한다라고 도식적으로 받아 드리는 것도 어떨 때는 편리하겠지만 오히려 그 보다는 어느 경우든지 일단 본디 뜻인 후에 또는 뒤에 라고 옮기고 난 뒤 뜻이 잘 통하지 않고 2격이면 '더불어, 라틴어cum'로 옮겨 보라 더 잘 통한다면 더불어로 옮길 수도 있으리라 그런데,

생겼고 생성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생성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성되어지고 **있다**(*εἶναι*¹⁹⁶⁴ 28c3)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만드는

감각과 동시에 감각적인 것들이 파악되며 누우스와 동시에 누우스적인 것이 파악 되는지 아니면 감각 과 누우스 후에 파악 되는지 아직 여기서는 확실치 않다 이와 관련하여,

텔레스의 에네르게이아 또는 엔텔레게이아를 바라 보는 것도 텔레스의 보다 더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듯하다 에네르게이아를 봄(감각) 과 생각(누우스)은 에네르게이아로 말하여지며 봄 과 생각은 걷다 배우다 집짓다 등과 같은 다른 움직임들이 동시에 끝나지 않는 것 - 예를들어 걸으면서 그 걸음이 끝날 수는 없다 -과는 달리 보면서 동시에 그 봄이 끝나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그 생각이 끝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끝은 안에 지나는 것(엔(안에) + 텔레(끝) + 케이아(지나는 것) = 엔텔레케이아)이다 (598쪽) 그렇다면,

역견과 더불어(또는 동시에 또는 함께) 감각된 것이 파악되며 생각과 더불어 생각된 것이 파악될 것이다 그런데,

에네르게이아 또는 엔텔레케이아 라는 낱 말은 텔레스의 형이상학에는 너무 빈번히 나타나지만 플라톤의 세 대화 편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페르세우스에 따르면 심지어 플라톤의 모든 대화 편 뿐 아니라 텔레스의 강의 이외의 모든 헬라이어 글들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발전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누우스(생각)에 대한 섬세한 설명이 텔레스에 의해 이루어 졌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1964) 그런데 이러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이러한 어투(語套)는 후에 자신이 38b3에서 범하지 말라고한 오류에 자신이 이미 빠져 들었던 것은 아닐는지 거기에서는 생성되는 것을 생성되고 ‘있다’ 라고 쓰는 것은 정확한 글이 아니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쓰여진 ‘있다’를 ‘이다’ 옳길 수 있으므로 그는 자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다 라고 강변(強辯)하지 말자 이러한 강변을 하려면 먼저 ‘이다’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내 세우고서 강변하라

자(τὸν ποιητὴν 28c3) 와 (모든 것의) 아버지 활동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고 발견해서 모든 이에게 말하는 것은 불 가능 합니다 기교를 지닌 자(ὁ τεκταινόμενος c6) (두) 원형들 가운데(τῶν παραδειγματῶν¹⁹⁶⁵) c6) 어느 것에 따라 [곧] 동일한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를] 지닌 것에 따라 이(모든)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생성된 것에 따라 (이 모든 활동을 하는지) 다시 이(모든 것)에 관해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우주가 아름답고 데아미우르코스가 선하다면 분명히 영원한 것을(τὸ αἰδιον¹⁹⁶⁶) 29a2) 바로 보았을 것이고 신성 모독 없이는

‘ 이다’는 동일함을 뜻하는가?

1965) 원형이 복수(複數) 형 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복수로 쓰였으므로 그 원형이 아니라 원형들인데 셋 이상이 아니라 둘이다 πότερον(포테론, 28c6, 둘 중의 하나) 라는 말이 티마이오스에 의해 원형들 바로 앞에 쓰였기 때문이다

포테론(πότερον, 형이상학1055b33(1029쪽), 1056a4(1001쪽),1075b6(712쪽), 1089a10(945쪽))이라는 말은 텔레스에 의해서도 흥미롭게 쓰인다 양자택일 강요하는 곳에서 쓰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티마이오스28b6(1197쪽)도 참조하시오 그렇다면,

원형 이라는 말은 꼭 항상 있는 것 다시 말해 동일한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생성된 것을 원형으로 삼아 바라 보고 활동한다면 활동 결과 만들어진 것은 아름답지 않지만 항상 있는 것을 원형으로 삼아 바라 보고 활동한다면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은 아름답다 라는 28a8(1197쪽)의 글은 원형은 생성된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점을 뒷 받침한다 따라서,

모든 원형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며 생성된 것을 본으로 삼아 그린다면 아름다운 그림이 생산될 수 없다는 것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따르면 선명하다 방금,

나는 에이도스가 꼭 원형인 것은 아니다 라는 글을 썼다

1966) 이 원형은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이며 이러한 영원의 모상 으로서의 영원을 시간(χρόνον 37d7)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옮긴 1173쪽을 보아라

(우주가) 말하여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생성된 것을 (바라 보았을 것
 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 보았다는) 것은 모든 것에게 뚜렷하지요(ο
 αφἐς 29a4) (우주는) 생성된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우주를 만든
 자는) 원인들¹⁹⁶⁷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이기(ὁ ἄριστος, 29a6, '좋은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성되면서 (우주는) 로고스와 프로테에시스(분
 별력)에 의해서 파악되는 그리고 동일한 [상태를] 지니는 것에 대해(π
 ρὸς¹⁹⁶⁸) 29a6) 만들어졌습니다(δεδημιούργηται¹⁹⁶⁹) 29a7-b1) 또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시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967) 우주의 원인에 대한 글을 여러 갈래에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쓰
 는 것 같다 이데아에 따른 생산에 도움을 주는 불 공기 물 흠과 같은 보조
 원인(τῶν συναιτιῶν 46c7)을 말하기도 하며 에이도스와 데에미우르고스 등
 도 원인들 이라고 말하여지고 공간인 것(τὸ τῆς χώρας, 52a8, 1139쪽)도 원
 인의 류 하나인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이도스와 데에미우르고스와 공간(공간도 보조원인이라고 말하여
 질 수 있을는지 모르나 위(上) 보조원인이 문제 삼아지는 곳에서는 공간이
 쓰여지지 않으므로 보조원인에 속하지는 않을 것 같다) 과 보조원인(불 공
 기 물 흠) 등이 우주의 원인일 것 같다 따라서,

플라톤의 대화 편을 읽어 흠터 내려간 텔레스의 영혼에 이러한 원인들
 을 선명하게 구분해야 겠다는 바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그래서,

합하여진 전체(τοῦ συνόλον, 형이상학1035b33, 383쪽, 예를들어 이 사
 람(소크라테아스) 과 저 말)의 원인들로 질료와 형상을 말하지 아니했을까
 1968) 나는 앞 쪽에서 ‘ πρὸς(프로스)..... ’를 ‘에 따라 ’로 잠정적으로
 옮겼다 그렇게 옮기는 것이 이렇게 옮기는 것 보다 그 로고스를 더 쉽게 받
 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쉽게 받아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더 정확하게 이해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원형에 따라 생성된다는 것과 원형에 대해 생성된다는 것은 알론하며
 더욱이 한 장소에서 씬을 나타내는 전치사 더하기 3격(라틴어로는 탈격)과
 는 달리 헬라이어 전치사 더하기 4 격은 4격을 향하는 움직임 나타내므로
 ‘프로스 더하기 4격은’ 4격을 향해 움직인다는 문법적인 뜻을 담고 있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이러한 것들에 속한다면 반드시 우주는 어떤 것의 모상(εἰκόνα, 29b2, 模像, 닮은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자연에 따라서 시작되어야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이제 닮은 것 과 그 닮은 것의 원형에 관해 규정하는 말들(τοὺς λόγους 28b4)은 마찬가지로 [자신이] (규정하는) 그러한 것들과 흡사한 류들로(συγγεγεῖς 29b5)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이끌리면서(ἐξηχῆται b5) [말]입니다 그래서 변동없고(μονιμου b6)그리고 확고하고 그리고 누우스와 더불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의 (로고스(말)들은) 변동없고 변함없는 것들이인(ἀμεταπτώτους b7) - 로고스들에 반박 될 수 없고 이겨 낼 수 없음이 속하는한 이러한 어떤 것도 필연적으로 실패하지 않는다 - 반면에 (말들)이 저(닮은) 것을 표현한다면 닮은 것의 (로고스, 말)은 저 (원형을 표현하는 로고스)들의 로고스에 대한(ἀνά λόγον¹⁹⁷⁰) 29c2) 모

동일한 상태를 지니는 그리고 로고스와프로네에시스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에 대한’ 우주는 그것에 향하여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의 것이다

1969) 완료형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면 만드는 자가 생성되는 우주를 만들었을 때 우주 만드는 그 활동이 그 시점에서 완료(完了)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그 생성은 끊임 없이 그 후로든 지금 이 후로든 이루어지는 걸까 물론 만들어진 우주는 생성 소멸하는 것이므로 생성 소멸이 이어질 것 같으나 γεγεννημένος(29a6, 생성되었던 것들)도 완료형인 것이므로 그 생성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완료 형은 나타내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까지도 그 생성이 계속 된다면 완료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쓰였으리라 어쨌든,

우주의 그 생성 또는 만들 과 그 우주의 생성 또는 만들은 티마이오스에 따르면 완료됐다 그러나 그 우주 안에서의 일정(一定)한 변형(變形)은 끊임 없이 계속된다 만들어진 우주의 몸 안에서 그 우주를 이루는 알론한 몸들은 1191쪽에서 내가 요약한 것 처럼 끊임 없이 생성 소멸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단 하나 뿐인 그 우주는 생성된 것이므로 비록 영원의 모상인 시간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엔 다시 생성하겠지.....

1970) ἀνά λόγον(플라톤의 티마이오스29c1) 이라는 말은 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그대로 ἀναλογία(1016b32, 433쪽)로 나타난다 아예 한 살로 붙어 낱말 하나를 이룬 채 말이다 물론 플라톤의 대화 편에서도 붙어 나타나기도 한다(티마이오스 31c4, 32c1, 56c4 - Lexique de platon par Édouard des PLACES, S.J. 41쪽 참조) 나아가서 플라톤의 대화 편에서는 떨어져 있는 말들이지만 텔레스의 강의록에서는 한 살로 붙어 나타나는 말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1193쪽 각주 1958쪽엿 말하여진 것 τὸ τί ἦν εἶναι(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다 붙은 이 레에마(낱 말)은 아주 심각하다 그러나,

붙은 ἀναλόγον(류비, 類比) 라는 말도 내 판에는 심각하다 이 말을 통해서 텔레스는 자신의 디아노이아(숙고)를 진전(進展)시키면서 플라톤으로부터 벗어나는 듯하기 때문이다 류비(아나로기아) 라는 말을 통한 그의 디아노이아에 대해서는 431, 600, 819, 657, 602, 600, 435, 595쪽을 참조하시오 그런데,

이러한 플라톤의 ἀνά λόγον(*아나 로고스*, 티마이오스 29c2) 이라는 말은 텔레스의 ἀναλογίαν(아나로기아, 형이상학 1016b32(431쪽), 796쪽, 819쪽) 이라는 말과 그 쓰임새가 같다 오히려 앞의 것이 더 정교한 듯하다

앞의 *아나 로기아*는 바로 밑 줄 29c3에 이어지는 ὅτιπερ(.....인 것 처럼, 콘퍼드는 23쪽에서 ‘ : as..... ’로 번역한다)와 관련된다 닳은 것의 로고스는 저(원형)의 로고스 *에(아나)* 대해 닳은 것으로 있는데 이것은 ὅτι(회티) 이하의 그런 류비(類比)와 같다 라고 옮겨지기 때문이다 회티 이하를 포함해서 “ ‘생성에 대한(πρὸς 29c3) 실체’ 이것(τούτο)은 ‘믿음에 대한 진리’ 인 것 처럼(ὅτιπερ) ‘닳은 것의 로고스 *아나(에)* [대한] 원형의 로고스’ ” 라고 옮겨 본다 다시 말해,

생성에 대한 실체 와 믿음에 대한 진리 와 닳은 것의 로고스에 대한 원형의 로고스는 같다(≐, περ) 그렇다면 생성 : 실체 ≐ 믿음 : 진리 ≐ 닳은 것의 로고스 : 원형의 로고스 라고 6 항(項) 류비(類比)로 나타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πρὸς(...에게로) ’를 ‘ : ’로 ‘ ὅτιπερ ’를 ‘ ≐ ’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렇다 그러나,

설령 비율(比率)의 뜻을 ‘ 프로스 ’가 일 부 지닌다 손 치더라도 헬라어 4격 지배 전치사 πρὸς가 지니는 ‘ 향한 움직임 ’을 ‘ : ’은 지니지 않으므로 그렇게 옮길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819쪽에서 텔레스의 호모오뉴마한 것들에 대해 말하면서 호모뉴마한 4 개 항을 비례유비(比例類比)로 나타낸 것은 그리 정확한 것은 아닐 것이다 ‘ : ’은 ‘ 향한 움직임 ’ 이라는 뜻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819쪽에 따르면 힘에 대해 움직임으로 활동(에네르케이아)은 있듯이 질료에 대해 실체로 있다(힘 : 움직임 = 질료 : 실체) - 본디 819쪽의 이러한 도식은 유비적으로 말하여지는 에네르케이아 부분(818쪽)을 집어 내 이 부분을 기하학에서(ἐν γεωμέτρειᾳ 1046a8) 처럼 말하여지는 힘(뒤나뮌스) 부분(818쪽)과 관련지어 호모오뉴마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 따라서 텔레스의 이러한 *아나로기아*(류비, 類比)는 플라톤의 *아나 로기아*(티마이오스의 29c1)와 같은 類(류)의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無妨)할 것 같다 류비적으로(κατ'ἀναλογίαν, 1016b32, 類比的으로, 431쪽) 하나인 것에 대해 말하면서 텔레스는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에 *대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있을 때 유비적으로 하나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텔레스 식으로 말한다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실체 와 진리와 원형의 로고스 와 원형은 류비적으로 하나인 반면 생성 과 믿음 과 닮은 것의 로고스 와 닮은 것도 류비적으로 하나이다 이러한 텔레스 식 설명은 어느 정도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들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아스에서 글로 쓰여지는 하나를 류비적인 하나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텔레스에 의해 4 가지로 말하여지는(432쪽) 어느 하나 - 이 가운데 류비적인 하나도 속한다 -에도 속하지 않을 것 같다 나아가서,

쉬노오뉴마하게도 호모오뉴마하게도(805-6, 812쪽)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 적어도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 호모오뉴마하게 말하여지는 것 과 하나에 대해 말하여지는 것은 동일한 것도 아니며 뒤의 것이 앞의 것의 하위 종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 것 같다 - 건강한 모든 것이 건강에 대해 말하여지듯 있는 모든 것은 있음 하나에 *대해*(πρὸς ἔν, 1003a33, 805쪽) 말하여진다 라고 텔레스가 말하고 있기에 나는 심각해진다 내 논문의 모든 누우

스는 있음 또는 있는 것으로 향해 있으며 ‘ 대한 ’ 것들은 류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1971) 직역(直譯)하자면 ‘있는 모상(模像)들’ 이라고 옮겨야 할 것 같으나 그렇게 옮기면 모상들도 있는 것들 이라는 말이 되어 감히 그렇게 못 옮겼다 만약 그렇게 옮길 수 있다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자신이 금지한 오류를 스스로 범하는 셈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더러 오류를 범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다’로 옮겼다 그렇다면 ‘ ὄν ’ 또는 ‘ εἶναι ’를 ‘ 있는 것 ’ 또는 ‘ 있다 ’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 인 것 ’ 또는 ‘ 이다 ’를 뜻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무리할 정도로 ‘ 있음 ’ 과 ‘ 이다 ’를 분리 하려 들지 않고 이제 까지 ‘ 이다 ’ 보다는 ‘ 있다 ’로 될 수 있는한 옮기려 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 이다 ’로 옮겨진 부분을 모두 무시(無視)하며 지나 가는 중이다 그렇다면,

위 인용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 이다 ’를 허용해야 할 것인가 허용하기 싫은데.....플라톤의 티마이오스가 ‘ 있는 ’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 ὄντας(온타스) ’를 썼다면 어쩔 수 없이 ‘ 인 또는 이다 ’를 가리키기 위해 썼다 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요즈음의 영어 문법 과 영어를 따르는 현대 한글 문법 규칙으로 다시 말해 주어 와 술어를 도식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규칙으로 티마이오스를 읽으려 한다면 술어가 생략된 것으로 착각하고선 착각할 그 때 마다 ‘ 이다 ’ 라는 술어를 집어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 ‘ 이다 ’ 라는 술어(述語) 이외의 다른 술어를 집어 넣었다가는 도저히 옮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석 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술어를 꼭 채워 넣어 독립적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 시키려 하는 그래서 전체 문장으로부터 분리시켜 고립된 뜻을 하나의 문장더러 지니게 하려는 이러한 습관 때문에 ‘ 이다(에이나이) ’를 집어 넣으면 그 에이나이나 이다로 쓰인 건지 아니면 있다로 쓰인 건지 헷 갈리거나 또는 이다를 집어 넣으므로써 문제의 문장의 뜻이 왜곡(歪曲)되 버린다 따라서,

처럼 **진리**는 **믿음**에 대해(πρός¹⁹⁷²) 29c3) [있]듯이 [말입니다] : 티마
이오스 (27c1 - 29c3) ”¹⁹⁷³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있는 것 과 생성된 것으로 나눈다¹⁹⁷⁴)

지혜를 조금이라도 지닌 사람들은 작고 큰 일을 시작하면서 항상 신
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성¹⁹⁷⁵) 됐는지 또는 생성 되지 않았다면 어떻
게 있는지에 관한 모든 로고스를 만드려는 우리는 만약 모두가 탈선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로고스들이 무엇 보다 남신들 과 여신들에서 다음으
로 우리에게 누우스적이도록 기도로서 반드시 저 분¹⁹⁷⁶)들에게 간구해야 함

‘ 이다 ’를 집어 넣기 전에 ‘ 이다 ’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뚜렷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문장 구성 요소들을 이어주기 만 함을 가리키는가 그렇다
면,

‘ 이다 ’는 동일(同一)함을 나타내는가? 구성 요소들의 동일함을 나
타내지 않더라도 그리고 적어도 자신이 동일하지 않고서는 요소들을 이어
주지 못한다면 동일함을 나타내야만 할 것이다.....

1972) 이러한 대해 있음(관계)은 텔레스의 4항 비레유비(類批)로 나타난다
(819쪽)

1973) 라는 인용 글월의 앞 뒤 맥락에 대해서는 135 - 138 앞 뒤를 참조하
시오

1974) 무엇을 있는 것 과 생성된 것으로 나누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나
는 무어라 말을 못한다

1975) 텔레스가 어떻게 생성에 대해 말하는지 알려고 한다면 텔레스의 형
이상학 제에타 편 7-9장(334-367쪽)을 우선 살펴 보라

1976) 남신들 과 여신들을 저 분들 이라고 옮겨 보았다 플라톤의 신들은
20세기 기독교 신(神) 보다 훨씬 인격적(人格的)일 것 같기 때문이다 여기
서의 기독교 신을 통해 하나 님 보다는 하느 님을 가리키고져한다 하나님

니다 그리고 제안 되어진 주제들에 관한 로고스를 제가 제공하면 당신에게 가장 두루 지성적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두루 지성적이 되도록 신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생성을 지니지 않는 그래서 항상 **있는** 그 무엇 과 어디에도 있지 않는 그래서 항상 생성 되는 그 무엇이라는 이런 나뉘이 실로 제 첫 번째 의견입니다 **항상 동일하게 있는 것은** 누우스에 의해 로고스 후에 파악되는 반면에 어디에서도 **있는 것으로 있지** 않는 생성되는 것 과 소멸되는 것은 역견에 의해 **非** 로고스적인 감각 후에 역견화 됩니다 그런데,

생성되는 모든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 필연으로부터¹⁹⁷⁷⁾ 생성됩니다 원인과 분리되어 모든 것이 생성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일한 상태를 지니는 것을 바라 볼 때 마다 항상 데아미우르코스는 동일한 그것을 **원형**으로 삼아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것의 이데아 와 힘을 규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가 생성된 것을 바라 보고서 보이는 것을 원형으로 삼는다면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실로 모든 하늘 - 또는 우주 또는 우리가 대 부분 이러한 이름을 받아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런 이름과는 알론한 이름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이것에 관해 생성의 아르케애를 결코 지니지 않아서 항상 **있어**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아르케애로부터 시작되는 생성된 것인지를 첫 번째로 조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가 반드시 모든 것에 관한 조사의 전체가 되는 아르케애적인 조사이지요

하늘은 생성된 것입니다 건드려지고 몸을 지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은 감각적인 것들이며 감각적인 것들은 역견에 의해 감각 후에 파악 됩니다 생성됐고 생성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생성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성되어지고 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만드는 자 와 (모든 것의) 아버지 활동

과 하느님의 구분이 모호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손 치더 라도 말이다

1977) 필연적으로 생성된다 라고 옮겨도 별 탈은 없을 것 같은데.....

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고 발견해서 모든 이에게 말하는 것은 불 가능합니다 기교를 지닌 자가 (두) 원형들 가운데 어느 원형에 따라 곧 동일한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를 지닌 것에 따라 이 모든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생성된 것에 따라 이 모든 활동을 하는지 다시 이에 관해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우주가 아름답고 데에미우르고스가 선하다면 분명히 영원한 것을 바로 보았을 것인 반면에 신성 모독 없이는 우주가 말하여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생성된 것을 바라 보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 보았다는 것은 모든 것에게 뚜렷하지요 우주는 생성된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우주를 만든 자는 그 원인들 가운데 가장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성되면서 우주는 로고스 와 프로테에시스(분별력)에 의해서 파악되는 그리고 동일한 상태를 지니는 것에 대한 [것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이러한 것에 속한다면 반드시 우주는 어떤 것의 모상이지요 모든 것의 시작은 자연에 따라서 시작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닳은 것 과 그 닳은 것의 원형에 관해 규정하는 말들은 마찬가지로 자신이 규정하는 것들과 흡사한 류들로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이끌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변동없고 그리고 확고하고 그리고 누우스와 더불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의 로고스(말)들은 변동없고 변함없는 것들 - 로고스들에 반박될 수 없고 이겨 낼 수 없음이 속하는한 이러한 어떤 것도 필연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 인 반면에 로고스(말)들이 저 닳은 것을 표현한다면 닳은 것의 로고스는 저 원형을 표현하는 로고스에 대한 모상들이지요 실체가 생성에 대해 있는 것 처럼 진리는 믿음에 대해 있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있는 것에 관해서가 아니라 생성되는 것 과 생성에 관한 글을 쓰는 가운데 생성되는 것과 나뉘어진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글을 티마이오스는 쓴다 있는 것을 생성되는 것으로부터 떼어 냄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것 의 로고스를 곧 역견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리라 그렇다고,

따로 떼어 내어 티마이오스가 있는 것에 관한 글만을 쓰는 것도 아니다 생성되는 것과 나누어 비교하면서 있는 것에 관한 글을 쓰기 때문이다(1978)어쨌든,

어디에도 있지 않는 것과 곧 생성되는 그 무엇과 나뉘는 것이어서 생성을 지니지 않는 항상 있는 그 무엇은 항상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있는 것은 동일한 것**(*τὰ αὐτὰ* 28a2)이다 그리고,

항상 동일하게 있는 것은 누우스에 의해 로고스 후에(1979) 파악된다 이제,

데에미우르코스는 동일한 상태로 머무는 것을 바라 볼 때 마다 **동일한 이 것을 원형으로 삼아 모든 것의 이데아 와 힘을 규정하므로서 모든 것을 만든다** 그렇다면,

만들어진 모든 것의 이데아 와 힘은 자신의 **원형 곧 동일한 것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러기에 필연적으로 아름답다(1980) 나아가서,

이러한 원형은 **영원하다** 선한 데에미우르코스가 처음으로 만든 우주가 아름다웠다면 그가 그것을 바라 보면서 우주를 만든었던 그 원형이 영원하다는 것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뚜렷하다 생성된 것들 가운데 우주는 가장 아름답고 데에미우르코스는 그 원인들 가운데 가장 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주는 로고스 와 분별력에 의해 파악되는 그리고 동일한 상

1978) 그러나 이러한 글은 어쩐지 매끄럽지 못하며 문학적이지 않는 대신에 건조(乾燥)하다 아마 쓰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조잡(粗雜)하게 밖에 쓰여질 수 밖에 없는 덜 아름다운 것이어서인지 아니면 분석적으로 쓰려해 서일까 아마 둘 다인 것 같다

1979) 로고스와 더불어 파악된다 라고 해도 되고 로고스와 더불어 누우스 라고 해도 된다 그러나,

로고스와 더불어 누우스(생각) 이라고 하면 로고스 와 누우스가 동일한 격인 것 처럼 여겨질 것 같아 안될 것 같고 오히려 ‘누우스에 의한 로고스’와 더불어 있는 것은 파악된다(*περιληπτέον* 28a1-2)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1980) 그렇지 않고 생성된 것을 원형으로 삼아 만들어진다면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태를 지니는 것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서,

있는 것을 규정하는 로고스(말)들 역시 있는 것과 흡사한 류이며 있는 것에 이끌린다 그래서 변동없고 확고하며 누우스와 더불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의 로고스도 마찬가지로 변동없고 변함없는 것이다 이러한 로고스는 반박될 수 없고 이겨 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로고스는 믿음에 대한 진리 그리고 생성에 대한 **실체** 처럼 자신을 닮은 것에 대한 것(로고스)이다¹⁹⁸¹⁾ 그래서 **있는 것**의 로고스가 진실¹⁹⁸²⁾이다 반면에,

생성되는 그 무엇이든 어디에도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생성된

1981) 티마이오스 28c3에는 생성에 대한 또는 믿음에 대한 이라고 ‘에 대한’에 걸리는 것이 생성 과 믿음이지만 오히려 나는 실체에 대한 또는 진리에 대한 이라고 ‘에 대한’에 걸리는 것을 실체 와 진리로 하고 싶다 왜냐하면,

실체 와 진리를 생성 과 믿음에 향한 것 또는 대한 것 이라기 보다는 그 거꾸로 생성 과 믿음이 실체 와 진리를 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플라톤의 본디 생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원형을 향하지 않고 어찌 닮은 것을 향할까 머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를 향해야 하지 않을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를 늘 위로 향해야 한다 하긴,

지금의 맥락은 우주의 생성이니까 닮은 것 곧 우주에 원형이 향해야 할 것도 같다 그렇지 않으면 원형을 닮은 것이 거기에 이 때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몸(우주)가 위를 향할 때 조차도 몸이 쳐든 것이 아니라 쳐들어진 것이다

1982) 진실은 로고스(말)에 대한 것인 반면에 진리는 있는 것이다 라고 진리와 진실을 구분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구분 없어도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다 그리고,

생성되는 것과 소멸하는 것은 역전에 의해 非 로고스적인 감각 후에 역전화된다 나아가서,

생성되는 모든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 필연으로부터 생성된다 원인과 분리되어서는 결코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성되는 것의 이데아 와 힘은 동일한 상태를 지니는 원형을 바로 보아 그 원형 대로 만드려 하는 데아미우르고스에 의해 규정된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은 필연적으로 아름답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첫 번째 것이 모든 하늘 또는 우주이다¹⁹⁸³⁾하늘은 보여지며 건드려지고 몸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성된 것은 보여지는 것이며 만지작 거려지는 것이고 몸을 지닌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감각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감각적인 것은 역전에 의해 감각 후에 파악 된다 생성된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나아가서,

1983) 모든 하늘 또는 우주 이외의 알려진 이름을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허용한다 단지 하늘 또는 우주 라고는 이름을 그가 쓴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름들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의해 그런 이름으로 말하여졌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여지다’가 바로 텔레스의 그 ‘말하여지다’이다 어떻게 보면 텔레스의 범주들 과 형이상학은 말하여지다로 시작해서 말하여지다로 끝난다 범주들에 대해 말할 때(1a16-19, 30쪽)에도 말하여진다 실체에 대해 말할 때(1028b33, 294쪽)도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텔레스의 말하여지다가 쓰인 곳을 적어도 텔레스의 두 강의록에서 집어 내서 따로 표기하려는 것 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 한 번도 그 강의록을 읽지 않은 사람 만이 그렇게 표기(標記)된 곳을 찾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도 읽지 않고 성경 또는 기독교를 반박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제외하면 적어도 학자에게는 이 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없다

생성된 것은 있는 것(원형)을 닮은 것(εἰκόνα, 29b2, 模像)이다 따라서 닮은 것의 로고스는 원형의 로고스를 닮은 것이다 이제, 나뉘어진 있는 것 과 생성된 것을 다음 처럼 도식으로 나타내 보자

(διαμετέον τάδε 27d5)
나뉘

있는 것		생성된 것	
항상		항상	
생성을지니지 않음		어디에도 있는 것으로 있지 않음	
동일함		[비슷함]	
로고스와 더불어 누우스에 의해 파악됨		非 로고스적인 감각과 더불어 역견에 의해 역견화됨	
[생성의 원인 가운데 하나]		원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생성	
원형 (παράδειγμα, 元型)	영원 (αἰδιον, 永遠)	모상 (εἰκόνα, 模像)	시간 : 영속 (χρόνον : αἰώνιον) (時間 : 永續)
[규정의 근거]		데아미우르고스에 의해 자신의 이데아 와 힘이 규정됨	
[아름다움]		필연적으로 아름다움	
[몸을지니지않음]		감각적인 것(보여지고 건드려지며 몸을지님)	
자신의 로고스도 변동없고 변함없음 반박되지않음		있는 것의 로고스를 닮음	
실체 와 진리와 [류비적으로 하나인] 원형		생성 과 믿음과 [류비적으로 하나인] 모상(模像)	

앞 쪽 도식에서 대 괄호로 묶은 부분은 내가 임시로 집어 넣은 부분 으로서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없어져서는 않될 로고스가 있으니 생성하기 위해 데에미우르고스가 늘 바라 보는 원형이 바로 **있는 것이다** 라는 로고스이다 이 로고스는 데에미우르고스를 항상 **있는** 무엇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서는 않된다 라는 로고스를 뒷 받침하기 때문이다¹⁹⁸⁴)설령 데에미우르고스를 누우스의 작용으

1984) 다시 말해 20세기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관념론(idealism, 觀念論) 관점에서 플라톤을 바라 보지 말라는 말이다 항상 **있는** 그 무엇은 관념 또는 ‘이상(ideal)’ 이라기 보다는 현실(Wirklichkeit)또는 실재(reality)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 또는 실재 또는 있는 것을 오직 감각적인 것 만으로 전제하고 나서 감각적이지 않는 것을 非 현실 혹은 실제적인 것 또는 없는 것 또는 관념으로 받아 드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소위 관념론을 바라 보아서는 않된다 더 더군다나 플라톤을 그렇게 바라 보아서야.....사실,

관념론(觀念論)은 소위 관념론자의 낱말이 아니라 유물론자(唯物論者)의 낱말이다 非 유물론 가운데 어느 론(論) 하나를 관념론이라고 유물론자들은 말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유물론을 받아 드리는 자들은 유물론이 아니면 관념론 이라고 말할 것이다 피히테가 이 두 가지 론 가운데 어느 하나를 철학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선택해야한다 라고 말했듯이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길은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에서 실체에 대해 말하면서 엘레아 낱선이가 두 가지 류의 사람을 말하는 길과 비슷하다

감각적인 몸을 실체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의 류 그리고 생각을 통해 얻어지는 에이도스(형상, 중) - 이에 따르면 에이도스는 보이는 몸이 아니다 - 를 실체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의 류 등 두 가지로 류의 사람으로 엘레아 낱선은 사람을 나누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렇기 때문에 훗 날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불리워 졌던 것 처럼 플라톤은 관념론 자의 아버지 라고 불리워질 법하다그 낱선은 앞 류의 사람 보다는 뒷 류의 사람으로부터 얻어낸(τιθεμένων, 246c8, 112쪽)로고스가 훨씬 더 많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며 플라톤을 관념론 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 따르면 플라톤의 에이도스는 그저 ‘공허한 관념(이데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사람의 류에 치우쳐 있는 듯해 보이기는 해도 엘레아에서 온 낯선이는 에이도스를 실체와 동일한 사람의 류에 속하는 자가 아니다 두 가지 류의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다른 대안을 낯선이가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낯선이 마져 이러한 진데 심지어 플라톤이야 말해서 무엇하랴

우리는 플라톤의 대화편의 주인공 소오크라테아스와 티마이오스와 엘레아낯선이와 파르메니데아스를 플라톤 자신과 동일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주인공들은 문학 작품의 주인공들로 보아야할 것이다 물론 작가가 자신을 주인공 삼아 글을 쓰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공을 ‘현실적인 그 작가’와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되듯이 플라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려(思慮)된다 플라톤의 대화편은 철학 그 자체이긴 해도 그 표현 방식에 있어 아주 뛰어난 문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주인공이 말하는 철학 과 사상을 작가의 것이 아니라고 거부해서는 결코 안된다 플라톤의 대화 편 주인공들이 말하는 것은 - 심지어 출연자들이 말하는 것도 - 모두 플라톤의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것이긴해도 그 주인공에 의해 공표(公表)하는 것만이 플라톤이 인정하는 철학이다 나아가서,

플라톤이 인정하는 철학이 플라톤 자신에 고유한 철학이다 라고 서둘러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는 자신의 모든 대화 편을 통해 자신 이전의 그리이스의 신화 와 사상 과 철학을 종합(綜合)하면서 자신에 고유한 그 철학을 이전의 철학들과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뽑아 내려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21세기를 바라 보는 1998년 12월 16일에도 나에의 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어도 앞으로 우리의 시간이 닿을 수 있는 거기 그곳 까지 행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플라톤은 우리에게 철학거리를 제공한다 비록 아우구스티누스 보다는 덜 적어도 나에게 제공하기는 해도 말이다 그렇다고 내가 아우구스티누스에 만족한다는 것은 아니다 아퀴나스와헤에겔과맑스 등에 의해 플라톤과아우구

로 받아 드린다고 해도 말이다 그렇다면,

누우스이든 누우스의 작용이든 누우스적인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 항상 **있는** 그 무엇 또는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생성을 지니지 않아 항상 동일한 그리고 영원한 **있는 것**은 로고스와 더불어 누우스에 의해 인식되는 것 으로서 변동 없고 변함 없다¹⁹⁸⁵⁾라는 로고스로 집약되는 로고스는 다음과 같다

있는 것

은 항상 동일한 것'이다'¹⁹⁸⁶⁾

은 영원한 것'이다'

은 로고스와 더불어 누우스에 의해서 만 인식된다

의 로고스도 변함 없고 변동 없고 반박되지 않는다

은 실체 와 진리에 [유비적으로] 하나'이다' 생성 과 믿음에
생성된 것이 [유비적으로] 하나이듯이 말이다

은 생성을 지니지 않'는다'

은 생성된 것의 원형'이다'

을 닮은 것이 생성된 것이다 그리고,

은 생성된 것과 나뉘어진다¹⁹⁸⁷⁾

스티누스가 보충되었듯이 나와누구 등에 의해 또 철학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수히 말이다

1985) 있는 것의 로고스 역시 변동 없고 변함 없다 따라서 반박되지 않는다

1986)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따옴표를 쓴다 따라서 '이다'는 '있'든 없든 상관없다

1987) 분리(分離)해 또는 떨어져 '있다' 라고 쓰여져도 동일한 맥락일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있는 것** 과 **생성된 것으로** 나눈다 나아가서,

나뉘어진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해 있을 것이다 여기 티마이오스에 서는 **있는 것이 실체**와 [유비적으로] 하나인 것 이라고 쓰여지는데다 소피 스테아스 248a7에서는 **생성** 과 **실체**는 분리된다 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다

“ 이제, 헤태론한 자들에게로 [곧] 에이도스들의 친구들에게로 (πρὸς τοὺς τῶν εἰδῶν φίλους 248a4)향해보세 마찬가지로 자네는 우리에게 이(에이도스 친구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게 : 낫선이

그 (대변자)일 것입니다 : 테아이테에토스¹⁹⁸⁸⁾

두루(πῶς 248a7) 대화하는 가운데 자네는 **생성**을 **실체**와 **분리** 해(γένεσιν, τὴν δὲ οὐσίαν χωρὶς a7 말하네? 그러? : 낫선이

예 : 테아이테에토스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생성**[된] 몸과 **교통**하는(κοινωνείν, 248a10-11, 交通) 반면에 생각을 통해서(διὰ λογισμοῦ¹⁹⁸⁹⁾ a11)(우

다

1988) 이전까지 감각적인 몸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의 대변자로서 말하였지만 테아이테에토스는 이제부터 에이도스의 친구들의 대변인으로서 말하기 시작한다

1989) 이제까지 나는 노에에시스를 생각(1145쪽)이라고 옮겨 왔고 로기스모스 또는 로기스토스를 논리 또는 논리적으로(302, 738, 1180쪽)로 옮겨 왔으므로 로기스모스를 생각이라고 옮기는 것은 낱말 하나에 낱말 하나 라는 나 스스로에게 내가 새운 옮김의 원칙을 내 손으로 어겨 버린 셈이 된다 원칙에 따르면 논리라고 옮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기스모스를 논리(論理)라고 옮기려하니 꺼림칙하다 차라리 로고스(말)들 이라고 옮기려 했으나 로기스모스는 엄연히 로고스(말)와는 구분되므로 그럴 수 없어서 그저 생각이라고 옮길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더 적절한 말이 떠오르는 순간 생각을 내 동태이칠 준비가 되

리는) 있는 실체에 관계하는(πρὸς τὴν ὄντως¹⁹⁹⁰) οὐσίαν 248a11)영

있다 참고로 콘퍼드는 반성(reflection, 反省, 992쪽)으로 H. N. Fowler는 생각(thought, 381쪽)으로 옮긴다

나도 생각으로 옮겼다 물론 무작정 Fowler를 따른 것은 아니라 내 나름대로 생각이 연이어졌기 때문이다

국가 439d1에 나오는 로기스모스에 연 이어지는 로기스티콘(439d5, 440e5-6-8 : Places, S. J. 309-310쪽 참조)들이 퍼득 떠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영혼의 세 가지 종(εἶδος 440e8)이 글로 쓰여지는데 그 첫 에이도스가 영혼의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주로 번역되 곤하는 바로 λογιστικόν(로기스티콘, 440e7)인 것이다 그리고 이 로기스티콘과 같은 계열(系列)의 말이 바로 로기스모스이다 그렇다면,

로기스모스는 정욕(ἐπιθυμία, 국가439d7, 情慾) 과 정열(θυμῶν, 국가 439e3, 情熱, 勇氣, 티마이오스70a3)과는 헤태론한 종(εἶδη, 국가439e2, 種)의 영혼이다 그러기에,

일단 잠정적으로 로기스모스를 생각이라고 옮겨 보았다 그러나 이 생각을 언젠지 오히려 지금이라도 버리고 싶다 만약 추리(推理) 와 추론(推論) 과 합리성(合理性) 과 논리(論理) 와 이성(理性) 과 지성(知性) 이외의 적절한 말이 떠오르면 버릴 것이다

1990) 온토오스를 나는 보통 있는 것으로 라고 옮기곤 하나 때에 따라서는 진짜로 라고 옮기는 것이 더 부드러울 경우도 있다 주로 온토오스 뒤에 온(있는)이 와서 온토오스 온으로 묶이는 레에마(句)로 쓰이며 온토오스 온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 보다는 진짜로 있는 것 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부드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나는 진짜로 있는 보다는 ‘있는 것으로 있는’으로 옮기려 한다 본디 한글은 소리(發音) 와 글(文)이 일치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079-1106쪽에서 말하여지듯 텔레스의 ‘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 있는 것으로[진짜로] 있는 것 ’를 가리키는

혼과 (교제한다네 [그리고] 이 있는 실체는) 항상 그러하게 동일한(ἀεὶ κατὰ ταῦτὰ ὁσαύτως¹⁹⁹¹) 24ba12) [상태를] 지니는 반면 생성(되는 것은 (항상) 알론하게 알론한 것으로 됩니다 라고 자네는 말하네 : 낮선이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 테아이테에토스 (248a4-248b1)¹⁹⁹² ”

것으로 나는 지금 본다 나아가서,

1093쪽에서 말하여지듯이 텔레스의 있는 것 으로서 있는 것을 첫 번째 있는 것 곧 실체로 나는 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당신은 여기의 진짜 실체 또는 있는 실체를 숙고해 보라

1991) 있는 것을 말하는 길에 관해 말하면서 텔레스는 호오사우토오스 (형이상학1030a35, 813쪽)라는 말을 쓴다

거기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은 호모오누모스하게(정의가 해태론하게)도 호오사우토스하게(정의가 동일하게)도 말하여지지 않는데 바로 이 호오사우토스한 말은 쉬노오누마를 가리킨다고 나는 본다 그런데,

호모오누모스하게 말하여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줄곧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괴롭힌다 물론 그렇다 만약 호모오누모스하게 있는 것이 말하여진다면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앎은 곧 형이상학은 성립할 수 없기때문이다(812쪽) 호모한 누마(이름)이라면 그 정의(로고스)가 각기 해태론한 것이므로 있는 것들은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질 수 조차 없을 것이므로 그렇다 범주들 과 형이상학에만 한정해 보면 그렇다 그러나 이에 관련해야 말해져야 할 무엇이 남아있다.....그래서 나는 괴롭다

1992) 라는 인용 글월에이 속하는 커다란 맥락에 대해서는 115쪽 앞 뒤를 살펴 보시오

이 맥락은 플라톤의 엘레아 낮선이가 자신의 아버지 파르메니테에스를 죽인다(πατραλοίαν 241d3)라고 테아이테에토스에의해 어찌보면 [잘못] 추측될 수도 있을 맥락이며 그래서 이 맥락은 소피스테에스를 정의하는 플라톤의 대화편 소피스테에스의 주제(主題)에서 얼핏 멀어지는 듯하게 보일 수도 있을 맥락이나 실은 그렇지 않다 - 왜 아버지를 죽인다는 추측이 잘

에이도스를 실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체** 와 **생성**을 분리시킨다 라고 위 인용 글월에서는 말하여진다 이제,

헤태론한 자들에게로 곧 에이도스들의 친구들에게로 향해 보세 마찬가지로 자네는 우리에게 이 에이도스 친구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게 - 그러겠습니까 - 두루 대화하는 가운데 자네는 **생성**을 **실체**와 분리해 말하네? 그러? - 예 -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생성된 몸과 교통하는 반면에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있는 실체**에 관계하는 영혼과 교통한다네 그리고 이

못된 추측일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관한 답이 여기서 주어지기는 어려우나 그 맥락이 왜 대화편 소피스테이스의 주제에서 멀어지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간단히 주어질 수 있다 - 오히려, 있는 것(102-130) 과 실체(111-116)에 관한 글을 쓰는 맥락인 이러한 맥락은 있는 것을 모방하는 사기 낱을 폭로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주어져야 있는 것을 모방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맥락은 있는 것을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 과 여럿 - 양(陽, 따스함)과 음(陰, 차가움) 또는 싸움과 결혼과 양육 -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언급한 후에 감각적인 몸만을 실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에이도스를 실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닮아서기 시작한다 그리고,

위에서 인용된 글월은 몸을 실체라고 우기는 사람 과 에이도스를 실체라고 내 세우는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를 찾아가는 맥락에 속한다

만약 있는 것을 힘이라고 한다면 앞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ὁμολογεῖν, 247d6, 115쪽, 同意할 것이다) 라는 글을 엘레아 닷선이는 쓰고 나서 이제(δὴ, 248a4, 1215쪽 : 115쪽, 실로),

그 닷선이는 에이도스를 실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를 테아이테아토스와 더불어 찾아가기 시작하는 처음 부분에 위 인용 글월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있는 실체는 항상 그러하게 동일한 [상태]를 지니는 반면 생성(되는 것)은 항상 알론하게 알론한 것으로 됩니다 라고 자네는 말하네 -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이도스를 실체 라고 말하는 자들은 **실체** 와 생성을 분리해 말하는 데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생성(된 몸)과 교통하는 반면에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과 교통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이 바로 항상 동일한 상태를 지니는 그 **있는 실체**에 관계한다 반면에 생성(되는 것)은 있는 실체와는 달리 항상 알론하게 알론한 상태를 지닌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성**과 분리된 것은 **있는 것**(*ὄν*, 티마이오스27d6) 보다는 오히려 **실체**(*οὐσία* : 파르메니데에스151e8, 티마이오스248a11)이다¹⁹⁹³)그렇다고 있는 것은 생성과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쓰여질 수는 없을 것 같다 1196 쪽에 쓰여진 것 처럼 있는 것 과 생성되는 것으로 나누어지며 나뉜 것은 일단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¹⁹⁹⁴)어쨌든,

실체는 항상 그러하게 동일한 상태를 지닌다 이와는 달리 생성은 항상 알론하게 알론한 상태로 된다 나아가서,

1993) 있는 것 과 실체를 동일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런지가 애매하다 아마도 이런 애매함으로부터 텔레스의 형이상학(실체론)이 나왔을법도하다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에스 151e6(1157쪽)에 쓰여진 것 처럼 파르메니데에스의 플라톤의 **있음**은 지금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님인 반면 텔레스의 형이상학 1028a30(1077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텔레스의 **실체**는 **있는 것**들 가운데서 첫 번째 있는 것이며 형이상학은 이러한 실체 와 실체에 관한 앞에 대해 주로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위 단락에서는 있는 것 과 실체가 동일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해태론한 것일까 해태론하지 않다면 동일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해태론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애매하다.....

1994) 위 두 곳에 연 이어지는 로고스는 결국 동일한 것을 말한다는 것을 들여다 보면 알 것이다

있는 실체와 관계하는 것은 생성되는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며 이러한 영혼과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교통한다 라는 쓰는 엘레아 낫선이에 주목(注目)해야한다 다시 말하면,

감각으로는 **있는 실체**와 교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실체에 닥아 서지도 못한다 감각을 통해서는 기껏해야 생성되는 몸과 교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실체는 생성과 분리해 있다 라고 소피스테에스에 쓰여 있으므로 적어도 티마이오스와소피스테에스에서는 있는 것 과 생성의 구분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파르메니데에스에서도 이러한 구분의 흔적(痕迹)이 아주 또렷하게 나타난다 116쪽에서 이미 글로 쓰여진 것 처럼 있음 과 생성의 구분을파르메니데에스 151e3-152e10(1157-1161쪽)은 전제(前提)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⁹⁵⁾ 그러므로,

적어도 티마이오스 와 소피스테에스 와 파르메니데에스에서는 생성된 것 과 있는 것이 분리된 것으로 구분되어 쓰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들에서 더 뚜렷했으면 뚜렷했지 더 희미하게는 나타나 지 않는다 그렇다면,

생성과 분리된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은** 무엇일까

1211과1214쪽에서 요약된 것 처럼 항상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며 자신을 닮아 생성된 것(모상)의 원형이고 영원한 것이며 로고스와 더불어 누우스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고 실체 와 진리에 [유비적으로] 하나이며 자신의 로고스 역시 변동없고 변함 없으며 반박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있는 것은** 생성을 지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기에 앞서,

항상 **있는 것은** 항상 동일하다 라는 로고스를 나는 다시 짚어 보려

1995) 파르메니데에스의 이러한 흔적을 1176쪽(티마이오스37c6-38b5, 1173-1174쪽)과 연결시켜 보라

한다 항상 동일한 것 만이 이 [것](τὸδε καὶ τοῦτὸ 티마이오스e2-3)으로 불리워진다 라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의해 쓰여지며 실체만이 이 것(τὸδε τ, 형이상학1017b18(283쪽), 범주들3b10(959쪽)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 때문이다¹⁹⁹⁶)그리고,

실체가 이 것이고(아리스토텔레스) 이 것은 동일한 것(플라톤)이라면 실체는 동일한 것이다(플라톤더하기아리스토텔레스¹⁹⁹⁷) 라는 로고스가 성

1996) 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있음)이라고 하는 석사학위 논문을 쓰려는 나에게 이러한 말 과 글은 아주 심각하게 닥아온다

1997) 동일함(ἡ ταυτότης)은 *하나임* 또는 여럿의 *있음*의 *하나임*인 것'이다' 라고 텔레스는 형이상학 1018a7-8(259쪽)에서 말한다 - 동일(ταὐτὰ 1017a27)에 대해서는 42, 72, 124, 258, 266, 278, 302, 416, 754, 904, 986, 989 쪽을 참조하시오 - 그런데,

실체는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곳을 텔레스의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쓰고 옮기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서너 번의 과정을 거친 지금에 이르러서도 말이다(185-186, 309-312쪽 참조) 그러나,

비록 실체 또는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에 관해 말하는 곳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에 관해 말하는 곳(형이상학 제에타 편 7-9장, 334-368쪽)이긴 해도 실체는 동일한 것이다 라는 로고스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곳은 있다 거기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며(형이상학1032a25, 335쪽) 건강은 건강으로부터 생성되고 집은 집으로부터 생성된다(1032b12-13, 336쪽) 라고 말하여지며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람 과 건강 과 집은 비록 알려진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긴해도 같은 에이도스(ὁμοειδής, 1032a24, 335쪽)이다 라고 말하여지고 그리고 에이도스는 첫 번째 실체(1032b2, 335쪽)이기 때문이다

1056쪽에 나타나는 ' 나는 소멸하지 않는 에이도스(중)의 류적인 동일함으로 인해 모든 것은 항상 하나로 있으며 그 종의 헤테론함으로 인해 모든 것은 항상 여럿으로 있다 라고 텔레스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 라는 최종적인 나의 로고스를 참조해 달라 그럼에도,

실체는 동일한 것이다 라는 로고스는 어쩐지 꺼림칙하다 이미 298쪽

립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로고스를 허용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의해서는 직접 허용되긴해도 텔레스에 의해서는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로고스는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¹⁹⁹⁸)어쨌든,

(1029a28)에서 말하여졌듯이 분리 와 **이 것만**이 텔레스의 실체에 고유한 것이며 같은(ὅμο)은 엄연히 동일(ταυτῶ)과 텔레스에 의해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같은(ὅμοια, 범주들 11a16, 209쪽)은 실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질에 고유하므로 그렇다(209쪽) 그래서,

괄호 연 후 나는 플라톤더하기아리스토텔레스 하고 괄호 닫았다

1998)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로고스를 텔레스마저 허용할런지는 의문스럽다 물론 동일한 것도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는 해도 동일한 것만이 있는 것이다 라는 로고스를 텔레스로부터 이끌어 내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 각주에서 음미(吟味)되었듯이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것인 실체마저 그것이 동일한 것인지가 애매(曖昧)한 판에 하물려 있는 것이 동일할까부냐 나아가서,

1057쪽에 최종적으로 나타난 있는 것의 양상 그림을 참조해 보라 동일함 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서도 보여지지 않는다 사실,

990쪽에서 요약 정리됐듯이 동일(한 것)(τὰ ταῦτὸ, 1054a31)은 텔레스에 의해서 로고스 와 수에 있어 하나(인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에 헤태론한 것은 1027쪽에서 요약 정리됐듯이 동일한 것의 모순적인 결여 라고 말하여지며 이러한 동일 과 헤태론은 류적인 반대 또는 대립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에 있는 것을 동일한 것이다 또는 헤태론한 것이다 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있는 것은 동일하면서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아리스토텔레스적이지 않을까 1055쪽에서 말하여지는 로고스 처럼 있는 모든 것은 하나 이면서 여럿일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것 또는 있는 것을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이 것이라고 부른다

“ 첫째, 이제 물은 쪼아(πιχνύμενον 49b8)들므로서 돌 과 흙이 되며 녹아지고 흠어지므로서 프뉴오마(호흡) 과 공기가 되며 공기는 타 올라(συγκαθέρντα 49c2) 불이되고 다시 불이 응축되고 사라짐으로서 공기 모습(ιδέαν c3)을 띄우게 되며 공기가 모여져 응축되면 구름 과 안개가 생성되고 이것들로부터 더 응축되면 흐르는 물이 되며 물로부터 한번 더 흠 과 돌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¹⁹⁹⁹) 그리고 이러한 생성은 서로에로 주기적으로(κύκλον 49c6) 이루어지죠 실로,

이렇게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각기 동일한 것들(τῶν αὐτῶν 49d1)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엇 ~~이든~~(ὡς ὅτι²⁰⁰⁰) ὁτιούν d2) 이런

1999) 그러나 이러한 변화(變化)는 수적인 비율에 따른다 라고 나중에 글로 쓰여진다(티마이오스, 56d7, 1189쪽)

2000) ‘ whatever it may be ’ 라고 콘퍼드(179)나 Jowett(1176) 모두 옮긴다 이 두 사람을 따르면 “ ‘ 무엇 ~~이든~~ ’ 이러한 것들 가운데 ” 라고 번역될 수 있으리라 그런데,

나는 약간 주저한다 연이어 49e3 과 50b3에서도 ‘ ὡς ὄντα ’ 라는 식으로 동일한 표현이 세 번 나오는데다 ὄν(은, 있는 것)이라는 낱말은 이 곳에서 어떤 고유한 쓰임새(뜻)를 부여 받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 곳에 따르면 불 공기 물 흠 등 네 가지 종은 끊임 없이 서로에로 주기적(週期的)으로 변화하므로 다시 말해 물이 흠 또는 공기로 되며 공기는 불이 되고 다시 불은 공기가 되며 공기는 물이 되고 또 물은 흠이 되는 식으로 주기적으로 순환(循環)하므로 이 네 가지 각각은 자기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1211쪽에서 요약 정리된 것 처럼 생성(되는 것)이므로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게 온(있는 것)이라는 낱말이 ‘ ὡς ὄν ὁτιούν ’ 이라는 식으로 걸리므로 이러한 네 가지 것 각각도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성립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불 공기 물 흠 등 4 요소는 생성(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알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τούτ
ο²⁰⁰¹ d2)이라고 우리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짐이 없이 확고하게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여태까지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이
런 것들에 관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지요

알론하게 알론한 것으로(ἄλλοτε ἄλλη 49d4-5) (생성)되는 것으
로 우리들이 관찰하는 예를들어 불(ὡς πύρ d5)은 항상 각기 경우에
이 (불)(τούτο, d5,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τὸ τοιούτον, d5, 그러한
것) 불이라고 불려야하며 물도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라고 항
상 (불려야한다) 알론한 어떤 것도²⁰⁰²우리들이 어떤[규정된] 것(τι

이러한 것들 각각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이 곳에 뚜렷
히 쓰여 있으며 자기 동일적이지 않는 것은 1211쪽에서도 요약 정리 됐듯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약간 주저한다 나아가서,

이어 말하여질 것이지만 동일한 것만이 이 것이라고 불리워지지 그렇
지 못한 것은 이 것이라고 불리워지지 않고 대신에 그러한 것(τὸ τοιούτον
49d5)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러므로,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 역시 이 것이라고 불리워져
야지 그러한 것이라고 불리워져서는 않된다 그래서 나는 온(있는)이 4 가지
요소들에 걸리게 옮기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나,

문제의 그 곳은 물어 보는 곳이므로 그렇게 걸린다고 해서 4 가지 요
소 각각을 있는 것 이라고 단정해서는 않될 것이다 자,

어떻게 티마이오스는 말을 이끌어 나가는지 주의깊게 살펴 보기로하자

2001) 네 가지로 변하는 과정 도중에 ‘있는’ 어떤 하나를 이 불 또는 이 공
기 또는 이 물 또는 이 흙 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다

2002) 물 불 이외의 알론한 것들 로서 여기서는 공기 와 흙 그리고 돌과숨
(호흡)과구름과안개를 가리킨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공기 와 흙만을 가리킬 것이며 더 느슨하게는 불 공기
물 흙이 서로에로 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킬 것이다

49e2)을 지시한다고 여기는 **이 (것)** 과 **이(것)**(τόδε²⁰⁰³) καὶ **τούτο** 49e1) 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우리가 가리키는 어떠한 고정성(βεβαιότητα, 49d7, 固定性 또는 恒常性)을 지니는 것 으로서 (불리서는 않된다) 왜냐하면 **이 (것)** 과 **이(것)** 과 **이 (것과 [같은] 것** τὴν τῶδε 49e3)에 의해서 그리고 **있는 그것들**을 표시하는 지속적인 모든 어떤 표현에 의해서 담지되지 못할 [정도로 불 공기 물 흙 등은] 휘발적이(φεύγει, 49e1, 揮發的) 때문이다 그러나²⁰⁰⁴) 그것들²⁰⁰⁵) 각각을 (이러한 표현에 의해서) 말해서는 않된다 [그것들] 모든 것 과 각각에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같은 것**(ὅμοιον 49e5)은 **그러한 것**(τὸ τοιούτον e6)이라고 불러야한다 그래서 불을 모든 것을 통해²⁰⁰⁶) **그러한 것**

2003) 형이상학 니펀 2장 1089a11, b32(945, 948쪽) 등에서 텔레스에 의해 말하여지는 **이 (것)**(τόδε)과 비교해 보라 티마이오스의 설명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티마이오스의 설명이 **실체**를 **이 것**(τόδε π, 범주들3b20 : 958쪽, 형이상학1017b18 : 961쪽)이라고 말하는 텔레스의 이해를 도와 줄 것이다 (티마이오스의) 플라톤은 각기 떨어져 있는 말들로 쓰지만 텔레스는 이러한 말들을 붙혀 한 낱말로 고유하게 말하는 것들 가운데 ‘ **τόδε π(이 것)** ’ [= ‘ τόδε(이, 티마이오스49e1) + π(것, 티마이오스49e2) ’]이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 티마이오스의 글을 잘 읽으면 텔레스의 실체가 어느 정도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것**을 가리키는 실체는 **그러한 것**(τὸ τοιόνδε 1089a14)과 구분되기 때문이며 텔레스의 τὸ τοιόνδε(토이온데)를 나는 티마이오스의 τὸ τοιούτον(토이우톤, 49d5, e5)와 동일 선 상에 드는 것으로 일단 파악된다면 티마이오스의 토데가 토이우톤에 대해 있는 것 처럼 텔레스의 토데 역시 토이온데에 대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4) 그러나(ἀλλὰ 49e4) 라는 말은 빼버리고 대신 그래서(ἄρα) 또는 실로(δι)라는 말을 써넣고 싶다

2005) 불 공기 물 흙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로 변하는 도중에 생겨나는 것들

2006) 모든 것을 통해(διὰ παντός 49e6)를 모든 때에(at all time, 179쪽)라고 콘퍼드는 번역한다 콘퍼드는 물론 모든 때 라고도 번역 될 수도 있으리

(이라고 불려야한다) 마찬가지로 생성을 지니는 각기 모든 것이 그와 같다 그런데,

생성되는 이러한 것들 각각이 항상 저 안에서 나타났다 저리로 사라지는 [바로] 저것(ἐκείνο²⁰⁰⁷ 50a1)만이 이(것) 과 이 (것) 이라는

라 그러나,

나는 알론하게된 모든 것들을 통해 다시 말해 변화된 모든 것들을 두루 통해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불을 그러한 것이라고 불려야한다 라는 맥락에서 모든 것을 통해 라고 옮겼다 물론,

여기 같음(ὅμοιον)은 동일(ταύτα, 49d1, 50b3)이다 라는 로고스를 성립시켜서는 않된다 참고로 텔레스는 같음을 질(ποιότητας, 범주들11a16, 209쪽)에 고유한 것이라고 말한다

2007) 이것 보다는 멀리 떨어진 것(말)을 가리키는 저것은 여기서 불 등이 아니라 아마도 (생성)되는 모든 것을 받아드리는 받아드리는 것(ὑποδοχὴν 48a6)를 우선 가리켜야할 것 같다 위 인용글월은 원형(에이도스) 과 닮은 것 이라는 두 류 이외의 세 번째 류(γένος, 48e4, 147쪽)인 유모에 관한 글의 맥락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생성되는 모든 것을 받아드리는 것을 다시 자연(φύσσεως, 50d5, 148쪽, 自然)이라고 설명한 뒤 또 한참 설명하면서 좀더 선명하게 공간(τῆς χώρας, 52a8, 151, 1139쪽) 이라는 말을 쓴다 물론,

받아 드리는 것 과 자연 과 공간 이 셋을 동일한 소리는 분명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을 설명하는 글이 펼쳐지는 도중에 단계적으로 동일한 그것을 좀더 철저하게 그 때 그 때 규정해(διοριζομένους, 51b7, 1136) 놓은 것으로도 이 세 가지를 여겨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규정(정의)하려 할 뿐만이 아니라 티마이오스는 이 셋을 각기 그 단계에 따라 유모(τιθήνην, 48a6 : 147쪽, 乳母) 와 어머니(μητρι, 50d3, 1140) 와 자리(ἔδραν, 52b1 : 1139쪽, 집)으로 비유한다 따라서 유모 와 어머니 와 집 이 세 가지는 동일한 것이 그 때 그 때 다른 각도에서 말하여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셋이 동일한 소리는 아니다 그리고,

이름에 의해 불리워져야한다 그러나 뜨거움 또는 차가움 혹은 반대들
인 [이와 같은] 어떤 질 그리고 이러한 (반대 질)들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이 (것) 과 이(것)²⁰⁰⁸)으로 불리서는 않습니다 나아가서,

그것에 관해 다시 보다 더 선명하게(σαφέστερον 50a4)어서 말
해 봅시다 금으로 빔어져 어떤 모습(σχήματα 50a6)을 띠게 [된] 모든
것 각각이 나머지 모든 (모습을 띠게 되는) 것으로 다시 끊임없이 빔
어지는데 그것들 가운데 어떤 (모습을 띤) 하나는 그 때(πότε 50b1) 무
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면 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태까
지의 가장 안전하고 진실한 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모난 것이다 - 알론한 모습을 띤 것이라 해도 [상관없소이
다] - 라고 그것들을 있는 것들 처럼(ὡς ὄντα 50b3) 말해서는 결코
않됩니다 [세모다 라고] 주장하는 사이에도(μεταξὺ τιθεμένου b3-4)

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텔레스의 쉬노한 이름(쉬노오우마)를 들
여다 본다 텔레스에 따르면 쉬노한 이름들은 소리는 헤태론하나 자신의 실
체의 로고스가 동일한 이름들이기 때문이다 사람 과 황소 처럼 말이다(175
쪽) 유모 와 어머니 와 집 이 세 이름은 비록 그 소리가 다르더라도 자신들
의 실체의 로고스는 동일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글세 ?.....모
르겠다,

있는 것에 쏠린 내 관심은 적어도 텔레스에 있어서의 있는 것 또는
있음이란 쉬노한 이름이 아니다 라는 로고스에 그리고 티마이오스의 플라톤
이 꺼내 든 위 세 이름은 있는 것(동일한 것)을 유사(νόθος, 52b1 : 1139, 類
似)하게 불러내는 이름이다 라는 로고스에 쏠릴 뿐이다

텔레스 역시 있는 것(있음)을 불러 내느라 아주 힘들었을 것이다
2008) ‘ ἐκείνο αὐτὸ τούτων (50a4) ’ 이라고 본문에는 나와 있으나 ‘ 저 그
것들의 ’ 라고 직역하지 않고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을 괄호치고 그 안에 써
넣었다

여기서 에케이노(저) 라는 지시어는 받아드리는 것 과 자연 과 공간
을 가리키는 것으로 투오토온(이것들)은 이 (것) 과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
로 나는 본다

변하기(μεταπίπτει 50b4) [때문이지요] 오히려 안전하게 *그러한 것*이
다 라는 [무 규정적인] 표현을 취하는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49b7-50b5)²⁰⁰⁹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것은 이 (것)** 이라고 불
리워지는 반면 *변하는 것은* 다시 말해 *(생성)되는 것은 그러한 것* 이라고
불리워진다고 쓰여진다

물은 쫓아들므로써 돌 과 흙이 *되며* 흠어지므로써 숨(프뉴오마) 과
공기가 *되고* 공기는 타 올라 불이 *되며* 다시 불이 응축되고 사라짐으로서
공기 모습을 띠우게 *되고* 공기가 모여져 응축되면 구름 과 안개가 *되며* 이
것들로부터 더 응축되면 흐르는 물이 *되고* 물로부터 한번 더 흠 과 돌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성*은 서로에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죠 실로,

이렇게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각기 **동일한 것들**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엇이든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알론한 것이 아닌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들이 스스로 부끄럼없이 확고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
닙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가장 안전한 것은 이런 것들에 관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지요

알론하게 알론한 것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우리들이 관찰하는 예를
들어 불은 항상 각기 경우에 이(것, 불)이 아니라 그러한 불 이라고 불려야
하며 물도 이(것, 물)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라고 항상 불려야 합니다 알론한
어떤 것도 우리들이 어떤 규정된 것을 지시한다고 여기는 **이 (것)** 과 **이
(것)** 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우리가 가리키는 어떠한 고정성을 지니는 것으

2009) 이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147-148쪽 앞 뒤를 살펴 보
시오 바로 이어 티마이오스는 위와 동일한 로고스를 자연(φύσεως 50b5)에
적용한다 모든 몸들을 받아드리는 자연을 항상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서 말이다 따라서,

자연은 이러한 것 보다는 이 (것)이라고 불리워져야 할 것이다

로서 불러서는 안됩니다 이 (것) 과 이(것) 과 이 (것과 같은) 것에 의해서 그리고 **있는 그것들**을 표시하는 지속적인 모든 표현에 의해서 담지되지 못할 정도로 불 공기 물 흙 등은 휘발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들 각각을 이러한 표현에 의해서 말해서는 안됩니다 그것들 모든 것 과 각각에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같은 것**(010)을 *그러한 것* 이라고 불러야하지요 그래서 불을 모든 것을 통해 *그러한 것*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성을 지니는 각기 모든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생성되는 이러한 것들 각각이 항상 저 안에서 나타났다 저리로 사라지는 바로 저것만이 **이(것) 과 이 (것)** 이라는 이름에 의해 불리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뜨거움 또는 차가움 혹은 반대들인 이와 같은 어떤 질 그리고 이러한 반대 질들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이 (것) 과 이(것)**으로 불러서는 안됩니다 나아가서,

그것에 관해 다시 보다 더 선명하게 어서 말해 봅시다 금으로 빚어져 어떤 모습을 띠게 된 모든 것 각각은 나머지 모든 모습을 띠게 되는 것으로 다시 끊임없이 빚어지는데 그것들 가운데 어떤 모습을 띤 하나를 그 때 무엇이냐 말해야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면 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가장 안전하고 진실한 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모난 것‘이다’ - 알론한 모습을 띤 것이라고 해도 상관없소이다 - 라고 그것들을 **있는 것들** 처럼 말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세모‘다’ 라고 주장하는 사이에도 변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안전하게 *그러한 것*이다 라는 무규정적인 표현을 취하는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있는 것** 과 (*생성*)되는 것을 지시하는 표현(ϕ $\acute{\alpha}\nu\tau\iota\varsigma$ 49e4)을 여기서 구분한다 **이 (것)** 과 이(것)은 있는 것 또는 **지속적인 것**($\mu\acute{o}\nu\upsilon\mu\alpha$ 49e4)을 지시하는 반면 *그러한 것*은 되는 것 또는 *생성*을 지시한

2010) 같은 것은 에이도스와 같은 것을 가리키지 시시 각각 변하는 것 자기 끼리 같은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은 52a5(1138쪽)에서도 보여진바 있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것에 따라 자신의 이름(52a5, 1138)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다 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것)은 우선 있는 것 보다는 오히려 받아 드리는 것(유모) 또는 자연(어머니) 또는 공간(자리 혹은 집)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있는 것을 이 (것)이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나 이 (것)이라는 표현이 쓰여진 문제의 인용 글월이 쓰여지는 맥락에서는 있는 것 보다는 자연이 문제삼아지기 때문이며 자연 또는 공간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 이라기 보다는 꿈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진짜로 있는 것과 유사하게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것)이 지시하는 것들은 변하는 것 또는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4 가지 류 또는 종 이라고 쓰여지는 것들인 불 공기 물 흙 역시 이 (것)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지시되는 것들이 아니다 4 가지 류는 서로에로 끊임 없이 되어지는 반면²⁰¹¹⁾이 (것)은 있는 것 또는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불 공기 물 흙 등은 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라는 표현에 의해서 지시된다 그러므로,

서로로 되는 이러한 주기적인 생성에는 동일한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나타나는 어떤 것을 이(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주장할 수 없다 이 (것) 과 이 (것)은 고정된 있는 지속적인 어떤 것을 지시하나 (생성)되는 불 공기 물 흙 등은 그리고 불 공기 물 흙이 서로 수적인 비율로 섞인 것은 알론한 것에서 알론한 것으로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아주 휘발적이어서 그렇다 그나마,

그러한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지시되는 것은 변하는 모든 것 각각에

2011) 불 공기 물 흙이 4가지 류라고 말하여진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고정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않된다 끊임 없이 서로에로 변하면서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하여지면서 그 때 그 때 생성되는 모든 것들에 수적인 비율에 따라 각기 같은(ὁμοιον 49e5) 것 으로서 불 공기 물 흙이 담아진다는(ὑπομένον 49e2)점에서 아마 보조원인(τὼν συνατιῶν, 46c7, d1)또는 류라고 쓰여졌으리라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같은 것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 또는 공기 또는 물 또는 흙 때문이다 불 등은 모든 것을 통해 같은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불 또는 공기 라고 불리워져서는 안되고 그러한 불 또는 물 등이라고 불리워져야 한다 반면에,

생성되는 그러한 것 각각이 그 안에서 나타났다 그리로 사라지는 바로 그것만이 **이(것)** 과 **이 (것)** 이라는 이름에 의해 불리워져야한다 그러나 뜨거움 또는 차가움 또는 그와 같은 반대적인 질들 또는 그와 같은 반대 질들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이 (것) 과 이(것)으로 불리워져서는 안된다²⁰¹²⁾ 따라서,

생성(되는 것)의 유모(τιθήνην, 48a6 : 147쪽, 乳母, 생성되는 것들을 받아 드리는 곳) 또는 자연(φύσεως, 50d5, 148쪽, 自然) 또는 공간(τῆς χώρας, 52a8, 151, 1139쪽)만²⁰¹³⁾이 **이 (것)** 이라고 불리워져야 한다 이것들은 고정(항상)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2012) 예를들어,

어떠한 모습을 띤 금으로 된 것들을 살펴 보자 금으로 된 그러한 것들은 끊어 없이 알론한 모습을 띤 것들로 (생성)되는 것들인데 어느 한 때 어느 한 곳의 어느 한 모습을 띤는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세모난 것이다 라고 답했다 치자 그러나 세모'이다' 라고 말하는 사이에도 문제의 그것의 모습은 변하므로 세모 라고 답해서는 안된다

금이다 라고 답하는 것도 그리 만족스러운 표현이 아니다 그냥 그러한 것 이라고 답하는 것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표현이다 이미 쓰여졌듯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2013) 만(μόνον 50a1)이라고 해서 생성의 유모 또는 자연 또는 공간 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연 등을 가리키는 것 보다는 생성된 것이 닮아 '있는' 그 원형 다시 말해 이데아 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모(乳母) 등은 있는 것이긴 해도 있는 것으로(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는 것과 유사한 꿈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글을 거듭 되 풀이 쓰고 있다 지금 여기 맥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다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따르면 다음 것이 **이 (것)** 이라고 불리워져야 한다

동일한 것(49d1, 1223)

어떤 것(τ, 49e2, 1224)

고정(βεβαιότητα, 49d7, 1225, 固定)을 지니는 것

있는 것

지속적인 표현에 의해 불리워지는 것

자신 안에서 생성 소멸이 이루어지는 것 반면에,

다음 것은 **그러한 것** 이라고 불리워져야 한다

서로에로 주기적의 (생성)되는 것

알론한 것으로 알론하게 (생성)되는 것

휘발적(βεβαιότητα, 49d7, 1225)인 것

모든 것 각각에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같은 것**(ὅμοιον, 49e5, 1225)

생성을 지니는 것

자연안에서 생성소멸하는 것

반대되는 질 예를들어 뜨거움 과 차가움

반대 질들로 이루어진 것 따라서,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것) 이라고 불리워져야 한다 **그러한 질인 것**(ὁποιονούν²⁰¹⁴) τ 50a2) 이라고 불리워져야 할 것은 (생성)되는

2014) 그런데,

류(생물) 와 종(사람)과 같은 두 번째 실체를 텔레스가 자신의 범주 들 3b16에서 **질인 것**(ποιόν τ, 179) 이라고 말한다는 점에 나는 긴장(緊張) 한다 물론 흰과 같은 자연적인 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질을 말한다 라고 텔레스는 덧 붙히기는 해도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텔레스는 ‘ 분명히 나뉘어지지 않으며 수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실체**(사람인 것)은 **이 것**(τόδε τ, 3b13, 179)을 가리킨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 없이 진실하나 두 번째 실체는 그렇지 않다

것이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있는 이 (것)은 동일한 것이다²⁰¹⁵⁾나아가서,

있는 동일한 것이 바로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이다²⁰¹⁶⁾라는 로고스를 플라톤의 회색 노년 신사 파르메니데아스는 젊은 소크라테아스에게 확인시킨다

“ 자네(소크라테아스)의 의견에 어떤 크기 여럿이 있을 때 마

첫 번째 실체 와는 달리 두 번째 실체 - 텔레스에 따르면 실체에 고유한 것은 분리 와 하나이다(형이상학1029a28, 298쪽) - 는 그 기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이다 ’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질인 것을 이 (것) 이라고 불러서는 않된다 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준다는 점에서는 위 두 사람이 같다 그러나 에이도스(종)를 질인 것 이라고 텔레스는 말하나 이를 플라톤이 허용할는지 의문스럽다 텔레스가 에이도스를 질인 것으로 받아 드린 것은 오해가 아닐런지.....하얀 같은 자연적인 질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περι 범주들3b20) 질이긴 해도 말이다

2015) 이 로고스는 1211쪽 과 1232쪽의 요약에 그대로 나타난다

티마이오스 49d1 앞 뒤에 따르면 **동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이(것)** 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한다(1223-1224쪽)

2016) 그런데,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에이도스를 그 자체 있음(51d4-5, 1137쪽) 이라고 쓰기에 앞서 몸을 통해 감각되는 것 이외에도 그 자체로 있는 동일한 각기 것들(αὐτὰ καθ' αὐτὰ ὄντα ἕκαστα, 51c1, 1136)이 있을까 라고 묻는다 그리고 나서 누우스 와 진실한 의견이 구분되는 두 가지 류 라면 분명히 **생각에만 걸리는 에이도스가 그 자체로 있음**이다' 라고 쓴다 그렇다면,

있는 동일한 것이 에이도스다 라는 로고스는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 뿐만이 아니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의해서도 쓰여진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될 것이지만 플라톤의 엘레아 낫선이에 의해서도 이 로고스는 쓰여진다

다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것**(ἡ αὐτή 132a3)으로 보이는(ιδόντι a3)어
떤 **이데아**²⁰¹⁷ **하나**가 똑 같이 **있을** 것 처럼 보인다(δοκεῖ 132a1) 라
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네는 **하나** 각기 **에이도스가 있다**(ἐν ἑκάστων
εἶδος εἶναι.132a1)는 것을 믿는다(οἴεσθαι a1)고 나[파르메니데
에스]는 짐작하네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는] 대꾸했어요.

그런데 큼 자체(αὐτὸ τὸ μέγα 132a6) 와 알론한 크기들[에]는
무엇이? **영혼**에 의해 보이는(ἰδῆς a7) 모든 것의 경우에도 그와 같을
것 처럼²⁰¹⁸그(**알론한**) 것들이 그것에 의해서 크게 나타나는 크기인
것 **하나** ἐν τῷ μέγα a7)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나타날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크기 자체 와 그 (크기 자체)를 나누어 지나게(τὰ μετέχ
οντα 132a11)되는 것들과 나란히 알론한(ἄλλο²⁰¹⁹ a10)에이도스 크기
들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이러한 경우에 그것에 의해 모든

2017) 플라톤의 세 대화편에서는 거의 대 부분 이데아 대신에 에이도스가
쓰인다 그럼에도 에이도스 대신에 ἰδεα(이데아, 132a3)가 쓰이는 여기 와 티
마이오스 28a8(1196쪽)에서는 이데아(τὴν ἰδεαν)가 쓰이긴 한다 그러나 이
러한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는다 어쨌든,

초 중기 저서(著書)라고들 말하여지는 대화편과는 달리 후기(後期)
저서 라고 말하여지는 이 세 대화편에서 **이데아**는 거의 쓰여지지 아니하고
대신에 **에이도스**가 쓰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쓰임새의 이러한 변화를 통
해 플라톤이 전해 주려고하는 그 무엇이 있을까.....

2018) 영혼에 의해 걸리는 모든 이데아의 경우에도 그러할 것 처럼이라고
의역(意譯)하고 싶다

2019) 이 곳에만 한정 지워 말한다면 파르메니데스가 쓰는 알론한 것은 에
이도스를 가리킬 것이다 하나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
까지 파르메니데스편은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에 대한 글인 셈이다 6, 37,
1141각주1863번, 1156쪽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1237쪽 각주 2024 번을 보자면 알론한 것은 에이도스가 아니라 에이
도스를 닮은 것 다시 말해 생성된 것을 가리킨다 라고도 쓰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크기들이 있을 해태론한 (에이도스 크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네)
그래서 더 이상 자네에게는 에이도스들 각각 하나씩 있을 것이 아니라 무한히 많은 (에이도스가 있을 것이네)

그러나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그러한 에이도스들 각각은 영혼 안 [이외의] 알론한 그 어디에도 주어(προσῆκη 132b4)지지 않는 노오애마(νόημα, b4, 생각된 것)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에이도스들] 각각은 하나씩 것 인데(καὶ b6) 방금(vνδῆ, 132b6, 方今)말했던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²⁰²⁰⁾ 라고 소크라테아스는 대꾸했지요(φάναυ 132b3)

응답하시기를(φάναυ 132b7) 그렇다면 무엇? 각각 하나는 노오애마들의 [각각 하나]인데 아무 것도 아닌 것의(οὐδενός 132b9)노오애마?

그러나 불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의 (노오애마)?

예

있는 것의 또는 있지 않는 것의 (노오애마)?

있는 것의 (노오애마 입니다)

모든 경우 저 노오애마를 노오애한다고(νοεῖ, 132c3, 생각한다)고 주장되는(ἐπὶν c3) 어떤 것 하나의[끝] 어떤 이데아 하나인 것(μὴ αὐ τινὰ οὕσαν ἰδέαν c4)의 (노오애마)?

예

그렇다면 이 누우오메논(τὸ νοούμενον²⁰²¹⁾ c6)이 에이도스 하나

2020) 에이도스 각각 하나는 영혼 안에 있는 노오애마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말이다 물론 하나되는 이러한 길을 인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에이도스 하나는 이러한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길은 받아드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2021) ‘ 이 누우오메논 ’을 콘퍼드(91쪽)는 ‘ This thing that is thought of (생각이 그것에 관한 생각인 바로 그것) ’ 으로 번역하며 Herausgegeben Gunter Eigler(13)에서는 ‘ Was so gedacht wird (그렇게 생각되어진 무엇) ’ 이라고 번역된다 어떻게 번역되든지간에,

비록 노오애(생각하다)에 관련된다는 점에서는 노오애마와 같기는 해도 누우오메논은 노오애마가 아니다.....으.....콜치 아퍼... 그렇다면,

나카 아넬까 [곧] 모든 것에 걸쳐(επι²⁰²²) c7) **있는** 동일한 것이 아닐
까

반드시 다시 [그러할 것으로] 나타납니다(132a1-132c8) ”

누우으메논 과 노오애미는 헤태론한 것임에 틀림없다

2022) 모든 경우에 라고 옮겨 왔으나 본디 뜻에 더 가깝게 모든 것에 걸쳐
라고 옮겨 보았다 그러나 걸쳐 라고 옮기는 것 보다 위에(επι, 에피) 라고
옮기는 것이 가장 본디 뜻에 가까울 것이다 헬라어 전치사 ‘에피’는 (표면)
위에(on + upon) 라는 본디 뜻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영어 보다는 우리 한글에 헬라어는 더 가깝다 비록 영어
가 헬라어로부터 나왔긴 해도 말이다 어디 위 라고 말하면 우리 한글은 표
면 바로 위 뿐만 아니라 표면에서 떨어진 위[above + upon(위쪽)]도 말하기
때문이다 말들을 너무 쪼개어 이 곳 저 곳 이 것 저 것을 가리키다 보면 언
뜻 자세한 것 처럼 보이나 더 헛갈리며 표현하려는 내용이 가난해진다 위
그러면 모든 위가 표현되어야 더 정확하고 자세하지 않을까 위를 바로
위 조금 더 위 조금 더 더 위 떨어진 위 붙은 위로 나누어 고정된 말을 부
여해서 그 쪽을 수술한다고 해 보자 그러한 수술은 환자를 더 죽일 뿐이다
적어도 의사(醫師)라면 위 하나를 종합적으로 먼저 파악해 치료 뒤 각기 쪼
개어진 위를 필요하다면 치료해야한다 단지 의학(醫學)만 그러한 것이 아니
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다 말을 적절히 쪼개는 것이 언 듯 과학일 것 처럼
보이지만 쪼개면 쪼갤수록 진리와 멀어진다 쪼개진 말 여럿을 하나로 묶지
않는한 말이다 따라서,

현미경(14쪽)을 들이 대서 쪼개 나누어 조작한 뒤 그 조각 하나 만에
매달려 그 조각에 고유한 뜻을 부여하여 이해하면 할수록 살아가야 할 이유
를 모를 것이다 전체 모두에서 그 만큼 멀어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1세기 과학은 인류의 삶을 이끌고 가서는 안되며 가지도 못한다 이대로 과
학에게 자유를 허용하면 인류를 진리로부터 탈선하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과학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적절히 제어하면 그야 말로 신
(神)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인류에게 행복을 이주 조금 가져다 줄 것이
다 그러나,

적어도 현대 과학(자)에게 이러한 행복을 바라는 것은 환상이다

라는 위 인용글월에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는 모든 *여럿*에 걸쳐 **있는 동일한 것 하나 이데아**가 바로 **에이도스**이며 누우메논이 이러한 에이도스 *하나* 라는 로고스에 대한 필연적인 동의(同意)를 줬은 소크라테아스로부터 얻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를 거쳐 파르메니데아스의 소크라테아스는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남에 관한 자신의 결론을 파르메니데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내린다(2023)

“ 그러면 실로 무엇이? *알론한 것*들은 에이도스들을 **나누어 지** **난다**(μετέχειν 132c10) 라고 주장하는 자네에 따르면 노에애마들로부터 **있는** 각기 모든 것은 생각한다 라고 반드시 자네는 여겨야 하거나 또는 **있는** 노에애마들은 노에애시스적이지 않은 것(ἀνόητα ,c11,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자네는 반드시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파르메니데아스께서는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이(것)은 로고스를 지니지 못합니다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그러나 할 수 있는한 제가 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에이도스들은 자연 안에 고정되어진 원형들 처럼 [있는] 반면에 알론한 것들은 이(원형들)을 **닮**거나 (이 에이도스들과) **같은 것들**(ὁμοιώματα 132d3)입니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를 이렇게 **나누어 지**는(ἢ μεθεῖς 132d3)²⁰²⁴ 그 (에이도스)들을 닮아 감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

2023) 소크라테아스가 그 스스로 내리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은 파르메니데아스의 도움을 받아서 내리게 되는 결론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2024)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는 *으로서* 알론한 것들은 생성되는 그러한 나누어지는.....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생성 됨은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는 그 에이도스에 닮아져 에이도스와 같게 됨이다 그리고,

에이도스를 원형(παρδείγματα 132d2)이라 하는 반면에 생성된 것을 이 원형을 닮은 것(τά ἐοικέναι 132d3) 또는 이 원형과 같은 것(ὁμοιώματα 132d3)이라 하는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의 소크라테아스의 이러한 쓰임새는 그대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나타난다(28a7, 137, 1196쪽 그리고 εἰκόνα, 29b2, 1201, 138쪽) 따라서,

됩니다(132c9-132d4) ” 따라서,

에이도스와 **알론한 것**들은 에이도스를 닮은 것 또는 에이도스와 **같은 것**들이며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님**은 에이도스를 닮아 감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라는 결론을 파르메니데에스의 소크라테에스는 파르메니데에스에게 내 세운다 그런데,

안티폰에 의해서 상기(想起)되어져서 케팔로스에 의해 적어지는 이러한 대화²⁰²⁵⁾는 **같은 것(ὅμοιά 127e1)**을 고리로 하여 펼쳐진다 에이도스와 같은 것으로부터 **동일한 것 에이도스**로 그 대화를 열려지기 때문이다 물론,

파르메니데에스 편은 동일한 것에 관한 것 이라기 보다는 **동일한 것**과 **같은 것**이 자기 스스로 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것이 동일한 것을 **나누어 지님**에 관한 것이다²⁰²⁶⁾ 나누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의 생성은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쓰여질 수 있으리라 나아가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에스의 소크라테에스는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는 것들을 알론한 것들이라 한다 그래서,

나누어 지는 것을 생성 되는 것 이라 한다면 나누어 지는 것들은 알론한 것들이므로 알론한 것들을 생성된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에스 편에 나오는 알론한 것들은 생성된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도 쓰여질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알론한 것은 반드시 생성된 것을 가리킨다 라고는 쓰여질 수 없을 것 같다 그의 파르메니데에스 편에 나타나는 알론한 것은 생성을 지니지 않으나 하나가 아닌 것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1234쪽 각주 2019쪽을 참조하시오 그런 후 1154-55쪽을 참조하시오)

2025) 대화편 파르메니데에스는 희한하게 얽히고 설펬어 상기(想起) 되어진 대화 편이라는 그래서 더욱더 문학적이라는 9 쪽의 언급을 참조하라

지니는 그 길에 관한 글이 파르메니데아스 편에서 두루 쓰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것 보다는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대화 편 시작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것도 지금의 나의 논문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정리하다 보면 파르메니데아스의 ‘제자’ 제논에게 물음을 제기하는 소크라테아스에게 다시 제논의 ‘스승’ 파르메니데아스가 제기하는 물음 과 그 답을 통해서 **같은 것**들이 **동일한 것**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는 길이 드러나려 할 것이다²⁰²⁷⁾ 그것도 글로 말이다

안티폰의 회상(回想)을 기록(記錄)한 케팔로스의 열러지는 글에 따르면 파르메니데아스와 더불어 아테네에 온 제논이 소크라테아스 와 아리스토텔레스 등 여러 아테네 지자(知者)들 앞에서 자신의 책을 다 읽었을 때

“ 여

러**이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반드시 **같은 것**들 이면서 **같지 않는 것**들(δμουά και ἀνόμοια 127e2)이어야만 하는데 실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같지 않는 것**들은 (단지) **같은 것**들이 아니며 **같은 것**들은 단지(οἴον²⁰²⁸⁾ e4) **같지 않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127e1-4) ”

라는 로고

스가 제논의 첫 번째 전제(τὴν πρώτην ὑπόθεσιν 127d6-7)임을 제논에게 확인한 후 다시 소크라테아스는

“ 만약 **같지 않는 것**들이 **같은 것**들이며 **같은 것**들이 **같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이 **불 가능**(ἀδύνατον 127e6)하다면 여러**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여러**이 있는 것****들이라면

2026) 8쪽을 참조하십시오

2027) 물론,

나누어 지니는 그 길은 파르메니데아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주입하다시피 일방적으로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 낼 것이다

2028) 호이온(단지) 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같지 않는 것**은 그것 ‘만’ 보면 **같지 않는 것**은 **같은 것**일 수 없고 **같은 것** 그것 ‘만’ 보면 **같지 않는 것**일 수 없다 라는 뜻을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불 가능한 것들을 꺾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당신이 바로] 의도하는 바의 로고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것들에 맞서서 *ἄλλοπαλλά* 127e10)은 **있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알론한 것이 아니지요? (127e6-10) ”

라고 제논의 그 첫 번째 전제를 분석하여 제논에게 재차(再次) 물은 뒤에 ‘그렇다’ 라는 제논의 확인을 소크라테아스는 다시 받아낸다 그리고 나서,

소크라테아스는 제논과 같이 아테내로 온 파르메니데아스에게 눈을 돌려 ‘ 자신의 우정에 못지 않게 자신의 글로서 자신을 당신과 연합 시키려 하는 제논은 헤테론한 말로 우리에게 속일 듯이(*ἐξαπαταν* 128a7) 돌려 대긴 해도 결국 제논을 당신과 동일한 어떤 것을 말합니다 ’ 왜냐하면

“ [당신의]

시에서 당신은 모든 것은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들의 아름답고 좋은 증명(*τεκμήρια*, 128b1, 證明)을 발전시키는 반면에 [제논은] 다시 *여럿은 있지 않다* 라고 말하고 여러 무거운 증명들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이제 [당신은] *하나*²⁰²⁹⁾를 주장하시는 반면에 [제논은] 여럿을

2029) 파르메니데아스의 소크라테아스에 의해서 파르메니데아스의 몫으로 돌려지는 이러한 하나는 후에 파르메니데아스 자신의 의하여 선포되는 두 가지 하나 가운데 어떤 하나를 가리킬까 만약 *하나 있다*면에 있어서의 하나 일까 아니면 *하나* 만약 *있다*면에 있어서의 하나 곧 ‘있는 하나’를 가리킬까 아마도 49-76쪽에서 쓰여지는 ‘있는 하나’는 간접적으로 가리킬 것 같은 반면에 38-49쪽에서 쓰여지는 ‘순수한’ 하나 또는 하나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 같다 이어지는 128d1에서 만약 *하나 있다*면 이라는 가정이 파르메니데아스 것으로 돌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아스 편이 파르메니데아스에 따르면 *하나* 와 *있음*을 분리될 수 있는 반면 역사적인 파르메니데아스에 따르면 하나 와 *있음*을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라(단편 8의 5-6줄 과 그 근방을 참조하시오, 철학사:엘레아25-3,) 물론 역사적인 파르메니데아스에 따르면 *있음*을 하나로 부터 분리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플라톤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와 분리된 여럿은 *있지 않다* 라는 로고스가 역사적인 파르메니

주장하여 이것들로[부터] 동일한 어떤 것이 말하여지지 않는 것 처럼
그렇게 제 각각 말씀하시긴하[나 실제로는] 거의 동일한 어떤 것을 말
씀들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알론한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말하여
진 것들이 말하여지듯 나타나기²⁰³⁰때문입니다(128a6-b7) ”

라고 파르메니

데아스에게 말하자 파르메니데아스 대신 제논이 다시 소크라테아스에게 ‘
그렇긴하나 당신이 지적한 것은 단지 부수적인 것일 뿐더러 더구나 자신은
속일 의도는 없다 실은 파르메니데아스가 말하는 것 처럼 만약 **하나 있다**
면(εἰ ἔν ἐστι 128d1)잇따르게 될 반대되는 로고스들을 보여줌으로서 조롱
하는 자들에 맞서 자신은 파르메니데아스를 옹호하여 만약 **여럿이 있다**면
이라는 전체에 잇따르게될 반대되는 로고스들은 만약 하나 있다면 잇따르게
될 반대되는 로고스들 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²⁰³¹) 조롱하는

데스를 옹호하려는 제논에 의해 첫 번째 전체 - 플라톤 자신은 바로 이 전
체를 깨고 나온다 - 로서 성립했을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 자신 곧 파르메
니데아스 편의 파르메니데아스는 ‘있음과 분리되지 않은 하나’에 좀 더 치우
치는 것 같다 물론 하나 와 있음은 본디 분리 된다는 것을 그 자신이 전체
하는 것 같기는 해도 말이다

2030) 우리에게 말하여진 것들이 [다시] 말하여진다 라는 말은 동일한 것이
반복하여 말하여진다 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아스의 소크라테아스는 동일한 말이 아니라 아주 흡사하게
(οὐκ ἴσον 128b5)동일한 말이라고 쓰는다는 점에 유의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이다’ 라는 말 과 여럿은 있지 않다 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 아니
라 거의 동일한 말일 뿐이다 나아가서,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는 것과 흡사(ἕγγυς, 형이상학1026b12, 1121쪽)
하다 라고 말하는 텔레스를 한번 염두에 두어 보라

2031) 따라서 만약 하나가 있다면 잇따르게 될 서로에 반대되는(ἐναντία
128d2) 로고스들이 여럿이 만약 있다면 잇따르게 될 서로에 반대되는 로고
스들 보다 더 적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하나가 있다** 라고 말하는 파르메
니데아스를 조롱하는 자들은 파르메니데아스 보다 더 조롱 받아야한다 라고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제아논은 주장한다 조롱하는 자들은 **여럿이**

그 자들의 로고스를 효과적으로 반박(ἀντιλέγει 128d1)하려한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제논은 소크라테아스에게 ‘ 자신의 책은 논쟁적인 것(φιλονικίαν 128d7)임에도 불구하고 덜 논쟁적인 어떤 사람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베껴 쓰여진 사본(寫本)을 당신이 보고 비록 틀리지는 않지만 오해했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한다 물론 제논의 이러한 말에 소크라테아스는 동의한다 그러나,

비록 그 의도를 자신이 오해하긴 했어도 다음²⁰³²⁾을 당신께서 인정하실지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소크라테아스는 제논에게 보챈다 **바야흐로**,

이제 젊은 소크라테아스에 의해서 128e6-130a7에서 자신의 에이도스론을 펼쳐진다²⁰³³⁾ 펼쳐지기 전까지를 다시 요약 정리해 보자

하나가 있다 라는 로고스로부터는 반대되는²⁰³⁴⁾로고스가 잇 따르기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가 있다 라는 로고스로부터는 반대되는 로고스(들)이 잇따르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기서 제논이 주장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는 분명히 더 조롱거리(γελοϊότερα.....τού 128d5-6)이다 라는 비교급을 쓰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2032) 다음은 1244쪽에 쓰여지는 물음들이다

2033) 다 펼쳐자 듣던 회색 노년 신사 파르메니데아스가 끼어들어 그 에이도스를 반박하면서부터 그 에이도스론이 다듬어진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다듬어간다

2034) 반대(ἐναντία 128d2)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단 서로 반대되는 로고스들로 받아드려야 할 것 같다 모순(ἀντιφάσις, 1041, 916쪽 등을 참조)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직 성급할 것 같다 그러나,

결국은 모순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때문에 **여럿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 의해 조롱받는 역사적인 파르메니데에스를 옹호하기 위해 제애논은 **하나가 있다** 라는 로고스보다는 **여럿이 있다** 라는 로고스로부터 실로 반대되는 로고스가 잇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2035),

cornford는 반대(contrary)가 아니라 모순(contradiction, 97쪽)으로 번역한다(2035) 따라서,

여럿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더 조롱 받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더 심각히’ 반대되는 로고스가 잇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읽어야 할까 아니면,

하나가 있다 라고 말하는 파르메니데에스는 조롱 받아서는 안되고 대신에 여럿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조롱 받아야한다 라고 읽어야할까 어찌됐건,

플라톤 자신은 하나만 있다 거나 여럿만 있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려 했다면 아마 파르메니데에스 편을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플라톤 자신은 하나도 있고 여럿도 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나 이러한 말은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에스 편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비록 파르메니데에스 편의 파르메니데에스이긴해도 어찌됐건 파르메니데에스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부분적으로 죽이는 그러한 말을 차마 직접 할 수 없었으리라 그 대신(代身) **하나**가 만약 **있다**면 **여러** 알론한 것들도 있다(145a2, 53쪽)라고 말하므로서 하나도 있고 여럿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할아버지 파르메니데에스를 실제로 죽인다 라고 착각할 만한 일이 플라톤의 소피스테에스 편의 엘레아에서 온 낯선이에 의해 벌어진다(102쪽) 그래서 그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에스 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있지 않는 것도 어찌보면 있고 있는 것도 어찌보면 있지 않다 라고 엘레아 낯선이는 주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여럿만이 있다 라고 말하건 하나만이 있다 라고 말하건 있는 것만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나열하고만 지나가는 엘레아 낯선이에 대해서는 105-111쪽을 참조하라

제애논에 따르면 만약 **여럿이 있다**면 **반대되는** 로고스가 잇따른다 여럿이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같은 것들 이면서 **같지 않는** 것들이다 라는 로고스가 잇 따르는데 이 로고스는 **반대되는** **불 가능한** 로고스이기 때문이다 **같지 않는** 것들은 단지 **같은 것들**이 아니며 같은 것들은 단지 **같지 않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것들이 **같지 않은 것들**일 수 없고 **같지 않은 것들**이 **같은 것들**일 수 없다면 **여럿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여럿이 있는 것들**이라면 **불 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제애논에 따르면 **불 가능한 프라그마(일)**은 **같은 것**이 **같지 않는 것**이며 **같지 않는 것**이 **같은 것**이다 그런데 만약 **여럿이 있는 것들**이라면 이런 **불 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있는 여럿은 반드시 같은 것들** 이면서 **같지 않는 것들**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제애논에게 소크라테아스는 다음²⁰³⁶⁾과 같은 물음에 답해 달라고 보채면서 **같음의 에이도스** 와 **같지 않음의 에이도스** 이 둘을 나누어 지는 것들은 서로 **같지 않으면서 같다** 라고 말한다 제애논을 뛰어 넘으려고²⁰³⁷⁾소크라테아스가 에이도스 론을 펼치는 순간이다 에이도스를 끌어 들이므로서 **여럿도 있다** 라고 소크라테아스는 제애논에 맞서 말을 던지시 건네기 때문이다 **같음의 에이도스** 와 **같지 않음의 에이도스**를 지닌다면 **있는 여럿은 같으면서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렇다 그렇다면,

제애논에게 소크라테아스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다

“ [첫째,]

같음의 에이도스인 것이(εἶδος τι ὁμοιότητος 129a1) 바로 그 자체로 **있으며**²⁰³⁸⁾ 또 이러한 것에 **반대되는** **같지 않음**(ἀνόμιον a1)

2036) 1242쪽에 나오는 다음 이라는 낱 말이 속하는 맥락을 참조 하시오

2037) 뛰어 넘다가 걸려 넘어졌는지는 나는 모른다

2038) 그 자체로 있다 라고 쓰여지는 것이 바로 에이도스 이라는 것은 이미 티마이오스 51d4-5(1137쪽)에서도 글로 쓰여졌다

(의) 알려진 (이데아인) 것²⁰³⁹(도 바로 그 자체로 있다) 라고 그리고 나 와 당신 그리고 여럿 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알려진 것들²⁰³⁸은 **있**는 이러한 두 가지 것(에이도스)를 취한다(μεταλαμβάνειν 129a3) 라고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같은의 (에이도스)를 취하는 것들은 취하는한 그(같은의 에이도스)와 같은 것들(ὅμοια²⁰⁴⁰) 129a4)로 (생성)되며 같지 않음의(ἀνομοιότητος a6) (에이도스를 취하는 것들은 취하는 한) 같지 않는 것들(로 생성되는) 반면 양자의(ἀμφοτέρων, a6, 兩者의)(에이도스를 취하는 것들은 취하는한) 양자들로 (생성되지 않을까요?)²⁰⁴¹ [세째,]

2039) 여기에 따르면 파르메니데아스 편에 나오는 알려진 것은 에이도스일 것 처럼 여겨지나 바로 아래 줄에서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소크라테아스는 여럿을 알려진 것들 이라고 부르므로 알려진 것은 여럿일 것 처럼 여겨야 할 것 같다 물론 이 여럿은 에이도스 여럿 보다는 나 와 너 등 등의 감각적인 개물(個物, 각기 몸)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알려진 것은 에이도스 여럿일 뿐 아니라 감각적인 각기 몸 여럿일 것이므로 알려진 것은 여럿을 가리킴에 틀림없다

2040) 티마이오스 편의 티마이오스는 같은 것(ὅμοιον, 49e5, 1225)을 이 (것) 이 아니라 그러한 (것) - 예를들어 불 - 이라고 부른다 그에 따르면 이 (것)은 동일한 것인 반면 그러한 (것은) 생성되는 모든 것 각각에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1211쪽에 나오는 표 오른 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같음 - 비슷함 이라고 잠정적으로 써 꺾쇠로 가두어 놓았었다 - 이라고 써 넣어 보라 왼 칸의 동일함과 대비(對比)될 것이다 나아가서,

52a5 와 그 앞 뒤에서 같은 것을 저 (에이도스)와 같은 것이라고 부르면서 티마이오스는 같은 것을 ‘ 감각적이며 생성되는 것이고 항상 급히 움직여 어떤 장소로 생성되었다가 다시 그 장소로 사라지는 그리고 감각과 더불어 의견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 ’ 이라고 설명한다(1138-39쪽)

2041) 체에논의 로고스를 지렛대 삼아 소크라테아스가 그 당시의 생각을 뛰어 넘는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그렇게 도약한다 체에논에 따르면 여럿은 같으면서 같지 않을 수 ‘없는’ 반면 소크라테아스에 따르면 여럿이 같으면서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같음 과 같지 않음의 이 두 가지 에이도

만약 심지어 반대로 **있는** 양자를 모든 것이 취한다면 양자를 나누어 지남에 의해서(τῷ μετέχειν 129a8)그 (양자)가 서로(αἰτοίς 129a8-b1) [뒤 섞여]있을 것입니다 [뒤 섞여 있다는 것이] 놀라운 무엇일까요? (128e6-129b1) ”

라고 제애논에게 물어 보는 소크라테아스는 제애논의 답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답하는듯하다²⁰⁴²⁾자답(自答)하는 듯한 이러한 소크라테아스에게 ‘ 로고스들에 대한 열망은 존경할만하네(τῆς ὀρμῆς 130b1) 이제 는 내 [물음]에 [답]해 주게 ’ 라고 말을 건넌 것은 존경하는 눈빛 웃음으로 바라보는 제애논 과 파르메니데아스 가운데 질문을 받은 제애논이 아니라 파르메니데아스였다²⁰⁴³⁾그러나,

파르메니데아스의 물음을 더듬어 가기 전에 그리고 위 세 가지 물음에 대한 소크라테아스 자신의 답인 듯한 로고스들을 더듬어 가기 전에 나는 그 세 물음들을 다시 간략하게 다음 처럼 정리하려한다

- 1) 같음의 에이도스인 것 과 같음에 **반대**되는 같지 않음의 에이도스인 것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 알론한 것들은 **있는** 이 두 가지 에이도스를 **취하지** 않는가?
- 2) 같음의 에이도스를 취하는한 같은 것들이 생성되며 같지 않음의 에이도스를 취하는한 같지 않는 것들이 생성되는 반면 이 양자의 에이도스를 **취하면** 양자로 생성되지 않는가?

스를 지닌다면 여럿은 같으면서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소크라테아스를 따르더라도 우리는 여럿이 같다 라고 또는 여럿이 같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제애논을 따른다면 우리는 여럿은 같거나 아니면 같지 않다 라고만 말할 수 있지 여럿은 같으면서 같지 않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하기에,

나는 제애논을 뛰어 넘는 소크라테아스 라는 표현을 써 보았다

2042) 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위 세 가지 물음의 긍정적인 보충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으리라 아마 긍정적인 보충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2043) 이제부터 설익은 에이도스론이 다듬어지기 시작한다 다시말해 에이도스 론(論) - 에이도스에 관한 로고스들 -이 펼쳐진다

3) 만약 **반대로 있는** 양자를 모든 것이 **취한다면** 양자를 나누어 지님에 의해서 [모든 것에는] 양자가 서로 섞여 있을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무엇인가?

그러나,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답인 듯하나 직접적인 답은 아닌 다소 **장황(張皇)**한 로고스들이 소크라테스에 의해 연 이어진다는 따라서,

위 세 물음은 그 자신에게 이미 긍정적인 답을 보장하는 물음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같은 에이도스 뿐 아니라 같음에 반대되는 **같지 않음**의 에이도스도 있는데 있는 이 두 에이도스를 여러 알론한 것들이 취한다 그래서,

같은 에이도스를 취하면 같은 것들이 되며 **같지 않음**의 에이도스를 취하면 **같지 않는** 것들이 되는 반면 **반대로 있는** 양자 에이도스를 취하면 그 양자를 나누어 지니므로 **같음** 과 **같지 않음**이 뒤 섞여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럿은 같으면서 **같지 않다** **같은**의 에이도스 와 **같지 않음**의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는 **여럿은** 같으면서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고스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 있는 여럿**(*ἓν.....ὄντα καὶ πολλά* 129c4)’이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럿을 나누어 지니므로 나의 오른쪽과왼쪽 그리고 나의 앞쪽과뒤쪽 그리고 나의 위쪽와아래쪽은 **헤태론하며** **하나를** 나누어 지니므로 일곱 사람 가운데 나는 한 사람(사람 하나)이기 때문이다 돌 과 통나무 같은 그러한 것도 ‘**하나 있는 여럿**’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것(*τι* 129d5)이 ‘**하나 있는 여럿**’이지 하나가 여럿이며 여럿이 하나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놀라운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동의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자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는 것들은 양자로 된다는 것 그리고 각기 모든 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님에 의해서 **하나이며** 여럿을 나누어 지님에 의해서 **여럿**이라는 것은 **불 합리한 것**(*ἄτοπον* 129b4)이 아니다 오히려,

있는 하나 그 자체가 여럿이며 여럿 그 자체가 하나이다 라고 논증된다면 실로 놀라운 것이며(Θαυμάσομαι 129c1) 그리고 류 와 에이도스 자체가 그 스스로 안에 반대 속성을 지닌다는(πάσχοντα c2) 것이 보여 진다면 놀랄 만할 것이다(ἄξιον θαυμάζειν c4) 나아가서,

같은 것은 같지 않은 것으로 된 것이며 같지 않은 것은 같은 것으로 된 것이다 라고 보여 진다면 기괴할(τέρας, 129b2,奇怪) 것이다²⁰⁴⁴⁾

2044) 답인 듯하면서도 직접적인 답이 아닌 다소 장황한 로고스들의 이러한 요약은 아래 옮김으로부터 뽑아 내 정리한 것이다

“ 같은 것들은 같지 않은 것들로 된 것들이며 같지 않은 것들은 같은 것들로 된 것 이라고 어떤 사람이 보여 준다면 기괴할(τέρας, 129b2, 奇異) 것이고 나아가서 이 양자를 나누어 지니는 것들은 양자로 된 것들 이라고 그리고 각기 모든 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남에 의해서 하나이며 여럿을 나누어 지남에 의해서 여럿 이라고 어떤 사람이 보여 준다면 불 합리(ἄτοπον 129b4)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있는 하나 그 자체는 여럿이며 여럿 그 자체는 하나이다 라고 논증한다면 실로 놀랄기(Θαυμάσομαι 129c1) 때문이다 각기 알려진 모든 것들에 관해서도 그러하다 만약 류 와 에이도스 자체가 그 스스로 안에 그러한 반대 속성을 지닌다(πάσχοντα c2) 라고 보여 준다면 놀랄만하다 그런데,

나는 있는 하나이며 여럿이다 라고 논증된다면 놀라운 무엇일까 여럿 이라고 어떤 사람이 보여 주려할 때 우리들은 나의 오른 쪽 과 나의 왼 쪽 그리고 나의 앞 쪽 과 나의 뒤 쪽 그리고 나의 위 쪽 과 나의 아래 쪽은 헤태론하다 - 오! 나는 여럿을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 라는 식으로 말하며 하나 라고 보여 주려할 때 우리는 나는 있는 우리 일곱 명 중의 사람 하나(한 사람)이다 - 오! 나는 하나를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 라는 식으로 말한다 그래서 양자는 진실 이라고 보여진다 이제 돌 과 통나무와 같은 그러한 것들의 경우 동일한 것이 하나 와 여럿 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보여 준다면 우리는 그 무엇이 여럿 과 하나이다 라고 논증되지 하나가 여럿이며 여럿이 하나이다 라고 논증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놀라운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다 모두 우리들이 동의할 그런 것들이다

다소 헛갈리게 위 로고스들을 펼쳐 놓은 뒤에 소크라테아스는 제에논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 예를들어 *같음* 과 *같지 않음* 과 *많음*²⁰⁴⁵⁾ 과 *하나* 와 *쉽* 과 *움직임* 과 이와같은 것들과 같은 *에이도스* 그것들을 내가 방금 말했던 것 처럼²⁰⁴⁶⁾ 그 자체로 먼저 분리해 나는 다음에 이것들이 자기들 내에서(ἐν ἑαυτοῖς, 129e2, 自己들 內에서) [서로] 붙고 떨어지는 힘들²⁰⁴⁷⁾을 보여 준다면(ἀποφαίνῃ e3) 오! 제에논이여 저는 놀라워하며

2045) 많음(πλῆθος 129d8)에 대해 텔레스는 무엇이냐 말하기를 보려면 1040쪽을 참조하십시오

2046) 위에서 보여진 것 처럼 소크라테아스는 하나와여럿 그리고 같음과 같지않음 그리고 움직임과쉽을 그 자체로 떼어 내 이것들에 관해 말했다

2047) 이 힘들(δυνάμεινα 129e1)을 소피스테아스 247d8(113-115)에 나오는 뒤나뮈스(힘)과 비교해 보라 물론 여기서서는 분사형 명사로 쓰였으나 거기에서는 명사로 쓰여 있는 것은 힘과 알론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 붙고 떨어지는 힘 ’ 또는 ‘ 붙고 떨어질 수 [있음] ’ 이라는 레에마에 있어서의 ‘ 붙고 떨어지는(συγκεράννυσθαι καὶ διακρίνεσθαι 129e2-3) ’ 이라는 句(레에마)를 소피스테아스 편 253b8-c3(121쪽)에 나오는 ‘ 합하고 나누는 원인(συνμειγνυσθαι.....καὶ.....διαρέσεως αἴτια) ’ 이라는 레에마에 있어서의 ‘ 합하고 나누는 ’ 이라는 句와 비교해 보라 여기 합하여지다(συνμειγνυσθαι 253c2)라는 낱말을 나는 같은 맥락에서 쓰여지는 μεῖξεως(섞는, 253b9) 과 συμφωνεῖ(어울리다, 253b11) 라는 낱말과 동일선 상의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섞다 어울리다 합해지다 라는 말들은 가장 큰 그 류(253b8)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섞어지고 어울리고 합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는 본다 그리고 이 셋을 붙는다 라는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말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가장 큰 류 로서의 그러한 에이도스들이 섞어지고 어울리고 합해지고 붙는 반면에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129d6-e4) ”

분리된 알론한 에이도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붙고 떨어질(διακρίνεσθαι 129e2-3)수 있는지를 보여 달라고 제애논에게 소크라테아스는 요청한다 만약 보여 줄 수만 있다면 놀라워하는 소크라테아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제애논은 받을 것이다²⁰⁴⁸)따라서,

소피스테아스 거기에서는 어떤 류가 어느 류와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는가를 보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합하는 원인 과 나누는 원인을 정확히 보는 앎이 변증적인 앎(τής διαλεκτικής.....ἐπιστήμης, 253d2-3, 975, 1194쪽 참조)이라고 쓰여진다

2048) 그러나,

제논 대신(代身) 끼어드는 파르메니데아스가 그와 같은 놀라운 존경을 받는다 *같음* 과 *같지 않음* 과 *쉽* 과 *움직임* 과 *하나* 와 *많음* 등 에이도스가 자기들끼리 붙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람은 제애논이 아닌 파르메니데아스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자신의 로고스에서 파르메니데아스는 *하나가 있거나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할 경우 *하나* 와 *여럿*이 스스로 와 알론한 것에 대해 *있는* ‘양상’을 글로 쓰는 가운데 동일함 과 헤테론함 과 *같음* 과 *같지 않음* 과 *움직임* 과 *쉽*이 붙거나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므로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소피스테아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 역시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소크라테아스로부터 놀라운 존경을 받을 것이다 *있는 것* 과 *쉽* 과 *움직임* 과 *동일* 과 *헤테론* 등의 에이도스 각각이 서로를 공유하는 힘(δυνάμειος, 254c5, 123 쪽)에 관한 로고스를 엘레아 낯선은 펼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쓰여지는 힘(뒤나메오오스)은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소크라테아스가 말하는 힘(δυνάμεινα 129e1)과 동일한 것이기에 그렇다 - 바로 위 각주 2047번을 참조하십시오 - 따라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 편 과 소피스테아스 편은 약간 알론한 각도에서 동일한 것에 관한 로고스를 다시 말해 에이도스들이 섞여지고 갈라지는 힘(가능성?)에 관한 로고스를 펼친다 라고 쓰여질 수 있으리라 그러나

예를들어(οἶον, 129d8)²⁰⁴⁹)같음 과 같지 않음 과 많음 과 하나 와 쉽
과 움직임 등 에이도스들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붙고 떨어질 수 ‘있는’지를
소크라테아스는 간절하게 보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러한 에이도스들은 각기 같은 것 과 같지 않는 것 과 많은 것 과
하나인 것 과 쉬는 것 과 움직이는 것 등으로부터 분리 되면서 각기 알론한
에이도스들과 나뉘어져 있다²⁰⁵⁰)다시 말해 소크라테아스는 **분리되** 나뉘어

파르메니테아스 편에서는 *하나* 와 *많음* 과 *같음* 과 *같지 않음* 과 *움직임* 과
쉽 이라는 에이도스가 문제 삼아지지만 소피스테아스 편에서는 *있는 것* 과
움직임 과 *쉽* 과 *동일* 과 *헤테론* 이라는 에이도스(των εἰδῶν, 254c2, 123쪽)
가 문제 삼아진다 그런데,

단지 **움직임** 과 **쉽** 만이 이 두 곳에서 동시에 쓰여지는 에이도스이
며 *하나와많음* 그리고 *같음과같지않음* 그리고 **동일과헤테론**(다름) 그리고
있는 것은 어느 한 곳에서만 쓰여지는 에이도스이다 *같음*(ὁμοιότητα,
129d8) 과 *동일*(ταυτόν, 255b5, 124쪽)을 하나인 것으로 보았다가는 큰 일난
다 파르메니테아스 편 과 소피스테아스 편 에서는 동일 과 같음이 구분되
어 쓰여지며 후에 이 둘은 텔레스에 의해서 더욱 더 선명히 구분되기
(258-259쪽참조, ὅμοια(같음, 형이상학 1018a5), ταῦτα(동일, 형이상학
1017a27)때문이다 심지어 *똑 같음*(ἴσον 범주들 6a26, 224쪽)도 이 둘과 선
명히 구분된다 따라서,

같음 과 똑 같음 과 동일을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 한글에도 적용될 것이다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그 글을 쓰는 나라의 학
문수준에 달려있다 나아가서,

나는 플라톤의 소피스테아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가 움직임 과 쉽 과
동일 과 헤테론과 구분되는 류로 들먹이는 있는 것이 하나의 에이도스 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나치려한다 다시 말해 움직임이 에이도스인 것 처럼 움
직임과 구분되는 류인 **있는 것**도 역시 **에이도스**이다

2049) 158, 1087, 1249쪽을 참조하시오

2050) 분리되 나뉘어진다(διαίρηται χωρίς 129b7) 라는 말은 이러한 에이도

져 있는 **에이도스**를 여기서 문제 삼는다 나아가서,

이러한 에이도스들은 **반대** 속성(τάναντία...πάθη 129c3)을 겪는 에이도스이다²⁰⁵¹)이제,

이러한 에이도스들이 자기들끼리 붙고 떨어지는 힘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어떻게 이러한 에이도스들이 붙고 떨어질 수 있는가 라고 젊은 소크라테아스는 장년의 제에논에게 물었다²⁰⁵²) 그러자,

되려 노년의 파르메니데아스가 젊은 소크라테아스에게 연이어 묻는다 묻고 답하는 가운데 소크라테아스의 에이도스론이 분명해지면서 그 에이도스론이지니는 어려움이 자세하게 꼬집어 내어진다²⁰⁵³)(130a3-135c4)먼저,

파르메니데아스는 에이도스의 **분리** 그리고 분리된 *에이도스*를 지금 자네는 문제 삼는가? 라고 확인하듯이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다

스를 나누어 지니는 것과 분리되어 나뉜다 라고 읽혀질 수도 있고 그 에이도스들 자체가 서로 분리되어 나뉜다 라고 읽혀질 수도 있을 것이며 에이도스를 나누어지니는 것과 분리되어 알론한 에이도스와 나뉜다 라고도 읽혀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 처럼 위에서 읽었으나 실은 가운데 처럼 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2051) 물론 자신의 짝 하나 에이도스에 반대되는 것이지 모든 에이도스에 반대된다는 것은 아니다

2052) 직접 제에논(129b4)을 가리키기는해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던진 물음이라

2053)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는 제에논이었으나 물음을 통해서 소크라테아스로 그리고 다시 파르메니데아스로 대화의 주인공이 바뀐다 일단 주도권을 쥐게되면 놓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안티폰의 회상을 기록하는 케팔로스에 의해 설정된 것이므로 전적인 주도권은 케팔로스에 달려있다 케팔로스는 파르메니데아스로 하여금 이테아론을 완성시키도록한다

“ 한 편으로 어떤 에이도스 그 자체 **분리**(χωρίς 130b2) 다른 편으로 이러한 (에이도스)들을 다시 나누어 지는 것들(τὰ μετέχοντα; 130b3)**분리** 라고 말한대로 그렇게 당신 스스로 나누었는가?²⁰⁵⁴”

2054) 이러한 물음은 두 가지로 다시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에이도스 끼리의 분리 와 에이도스를 나누어지는 것의 분리 등 분리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가 그렇다면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는 것의 그 에이도스와의 분리 와 에이도스 끼리의 분리 등 두 가지 분리에 두 사람은 동의한 셈이며 둘째,

동일한 분리를 알론한 측면에서 다시 말해 에이도스의 측면 과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는 것의 측면에서 바라 보아 에이도스 쪽의 분리 와 에이도스를 나누어지닌 쪽의 분리로 동일한 분리를 나누었는가 그렇다면 두 가지 분리가 쓰여지기는 하지만 실은 동일한 분리 다시 말해 에이도스를 나누어지는 것 과 에이도스와의 분리가 문제삼아 진다는 것에 두 사람은 동의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129d6-e4(1249) 인용 글월을 끌어 들인다 여기에 나오는 ‘ 에이도스 그것들을 내가 방금 말했던 것 처럼 그 자체로 **분리**해 나눈 다음에 그것들이 자기들끼리 붙거나 **떨어지는** 힘을 보여 준다면 (129d6-7.....e3) ’에 있어서의 ‘ 분리 ’ 와 ‘ 떨어지는 ’을 바라 본다면 첫 번째 와 두 번째 읽음 모두가 허용될 수 있으리라 ‘분리’를 ‘에이도스를 나누어지는 것 과 에이도스 사이의 분리’로 읽는 반면에 ‘떨어지는(διακρίνεσθαι 129e2-3)’을 ‘에이도스 사이의 떨어짐 곧 분리’로 읽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파르메니데이스 편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소피스테이스 편 253d5-e2를 끌어들여 본다 121쪽에서 요약된 것 처럼 거기에서는 ‘ 여럿에 두루 통해 각자 **분리**(χωρίς 253d6)되어 그 여럿에 펼쳐있는 이데아 *하나* 그리고 서로 헤태론하지만 더 큰 이데아 *하나*에 포괄되 있는 이데아 *여럿* 그리고 *여럿* 전체를 통해 하나로 머무르는 이데아 *하나* 그리고 모두 **분리**(χωρίς e9)되어 따로 따로인 이데아 *여럿*을 아는 자가 변증적인 앎을 지닌 자이다 ’ 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다

이 곳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는 더 숙고해 본 뒤에야 비로서 확실해

그리고 우리들이 지니는(ἐχομεν b4) **같음**²⁰⁵⁵과는 **분리된** **같음** 그 자체(αὐτὴ ὁμοιότητος b4) 그리고 실로 **하나** 와 **여럿** 그리고 이제 제에 눈이 들었던 한의 [이와 같은] 모든²⁰⁵⁶ 무엇(τι.....πάντα b2,5)이 **있다** 라고 자네는 여기는가? (130b1-5) ”

질 것 같지만 이 곳에 나타나는 두 가지 분리에 집중해 바라 본다면 파르메니데에스 편의 그러한 읽음을 소피스테에스 편의 이 곳이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 허용할 것 같기 때문이다 이제,

499, 980, 803쪽에서 텔레스가 말하는 분리(χωρισ, 형이상학 1040b28)를 읽어 보라 텔레스가 집어내는 분리가 어느 분리인지 분명해 질 것이다 감각적인 실체와의 에이도스의 분리가 바로 형이상학 제에타 편 16장에 나오는 그 분리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여럿에 걸친 하나 로서의 에이도스에는 거부하나 분리된 에이도스에는 동의한다 **여럿에 걸친(ἐπι 1040b29) 하나**라면 분리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 와 여럿 문제에 부딪힌다 이 문제에 깊숙히 들어가고 싶은 자는 981-1056(형이상학 이오타 편 3-10장)을 읽어 보라 재밌을 것이다 그냥,

나는 여기서 플라톤에 따르면 ‘ **하나** 와 **여럿은 에이도스의 일 중** (種)인데 있는 것 역시 에이도스의 일 중인 반면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 속성이다 ’라는 로고스를 쓰고 지나만 가련다

2055) 같은 우리들이 지니는 **같음** 에이도스와는 **분리된** **같음** 그 자체 라고 읽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하다면,

같은 것들이 나누어 지니는 이러한 **같음** 에이도스는 후에 파르메니데에스에 의해 쓰여지는 에이도스 **있음** 하나 또는 **있는** 하나 로서의 그러한 ‘에이도스’ 라고 쓰여 질 수 있을까 아니다 없을 것이다 ‘**있는** 하나(142d3-4, 50쪽)’ 역시 분리된 에이도스들이 섞인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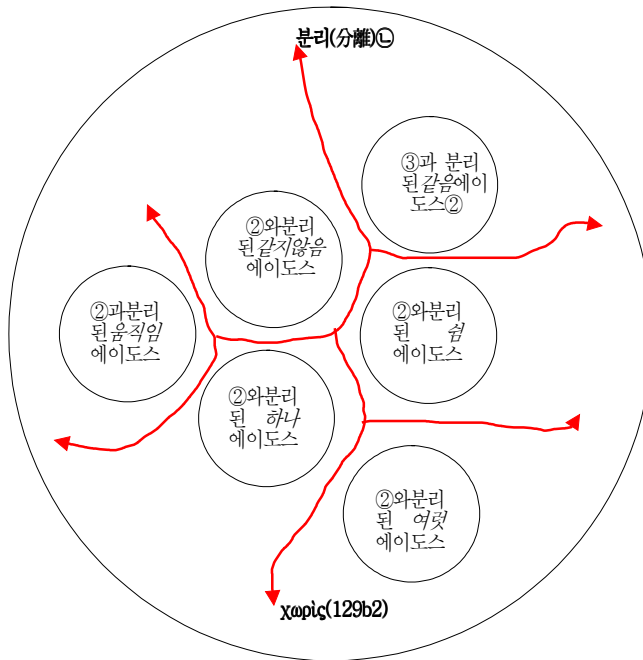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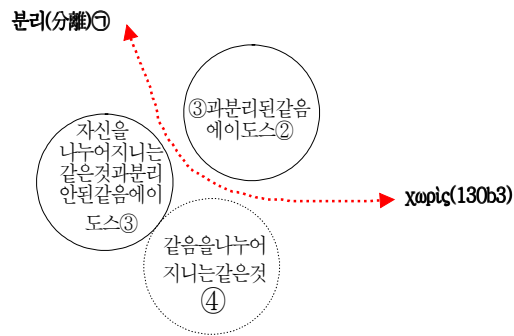
자신을 나누어지니는 것들과 분리되지 않은 ‘에이도스’ 로서의 **같은** 일 것이다

2056)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 **같음과 같지않음** 그리고 **하나와 많음** 그리고 **움직임과 쉼** 등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물음을 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련다

- 1) 에이도스 그 자체 분리 와 에이도스를 나누어지니는 것들 분리로 [분리는] 나누어지는가? 또는 에이도스 와 에이도스를 나누어지는 것은 그 자체 **분리**되는가? 그렇다면,
- 2) 같은 우리가 지니는 같음과 **분리**된 **같음** 그 자체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하나 그 자체 와 여럿 그 자체 등이 있는가?

파르메테에스의 이러한 물음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분리된 에이도스가 있다 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이제 소크라테에스 와 파르메니테에스는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를 문제 삼아 앞으로 문답할 것이다 문답을 들어 보기 전에 다음 쪽 처럼 그 분리를 그려 보고 나아가자



선의 이데아

이러한 분리 그림을 내가 텔레스의 분리를 그려낸 543쪽의 그림에 비교해 보라 거기에 나오는 **분리**($\chi\omega\pi\iota\varsigma$ 1040a38)는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분리㉠와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여기 분리㉡에 속하는 분리를 텔 텔레스로부터 아직 끄집어 낼 수 없다 분리㉡에 속하는 분리가 텔레스에게는 없단 말인가 글썽 무어라 말을 못할 것 같다 어찌 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선,

분리①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하자 파르메니데에스가 이러한 분리
로 잇 따르는 어려움을 들추어내기 때문이다 그러기 전에,

두 사람은 이러한 에이도스는 어떠한 것(τὴν 130b8)인가에 관해 다음
처럼 묻고 답한다

“ 또는 예를들어 정의의(δικαίου, 130b7, 正義의)에이도스인 것
그것 과 아름다움의 (에이도스인 것 그것) 와 선의(ἀγαθού²⁰⁵⁷), b8, 善
의)(에이도스인 것 그것) 와 다시 이러한 모든 것들의 (에이도스 그
것)도 그러한 것[으로] 그 자체 (있는)가? 라고 파르메니데에스는 말
했어요

예 라고 [소크라테에스는]답했구요

그런데 우리와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든 이들과 분리된 사람
의 에이도스는 어떠한가(τὴν 129c1)? 사람의 또는 불의 또는 마찬 가
지로 불의 에이도스인 것 그것이 (그 자체로 있는)가?

오 파르메니데에스여 이 (것)들에 관해서는 저(선 과 아름다움
과 정의)에서 처럼 말해야 할지 또는 알론하게 말해야 할지 자주 어
려움에 [저는 직면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오 소크라테에스여 또한 이러한 것에 관해서는 [곧] 머리 털
과 진흙 과 먼지 또는 하찮고 우아하지못한(ἀτιμωτάτων τε καὶ φαιλό
τατον 130c6-7)알론한 것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 각각의 에이도스는

2057) 이 2 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소유 또는 분리를 뜻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무슨 문법적인 뜻을 지닐까 부분을 뜻할 것 같지도 않
고.....이런 애매한 2격이 텔레스의 범주들에서도 쓰이는데 파르메니데에스
편 여기의 2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 프로스 티는 헤테론한 것들의(ἐτέρων 6a36) (관계)이다 ’ 라고 텔
레스는 프로스 티(관계) 라는 범주에 대해 말하면서 2격을 쓴다 그러나 이
‘의’가 선의 에이도스에서의 ‘의’와 같은 문법적인 뜻을 지닐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 두 곳의 2격은 무엇을 뜻할까 전체의 부분을 뜻할까.....글쎄,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ὄν d1) [그러한] 것들과 알론하게 분리해 있다(εἶναι d1)라고 말해야 할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할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

전혀(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소크라테아스는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보는 그대로 그것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에이도스인 것이 있다 라고 상정하는 것은 그저 불 합리(ἄτοπον 130d5)한 것입니다 (129b1-130d5)²⁰⁵⁸⁾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에이도스인 것에 관한 문답이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정의의 그리고 아름다움의 그리고 선의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의 에이도스인 것 그것이 그 자체 있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리고 우리같은 모든 이들과 분리된 사람의 에이도스는 어떠한가 사람의 또는 불의 또는 물의 에이도스인 그것이 그 자체로 있는가? 이것들에 관해서는 저 선 과 아름다움 과 정의 같은 것에서 처럼 말해야 할지 아니면 알론하게 말해야 할지 자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렇다면,

머리 털 과 진흙 과 먼지 또는 하찮고 우아하지 못한 알론한 것들 각각의 에이도스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과는 알론하게 분리해 있다 라고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겠네?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대로 이것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에이도스인 것이 있다 라고 상정하는 것은 그저 불합리 할 뿐(μὴ λίσαν 130d5)입니다

2058) 이렇게 답하면서 소크라테아스는 자신이 다 다른 지점에서 아주 조심스러워한다 자신에게 진실했던 것이 때론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답을 바꾸지 아니한다 단지 조심스레 되 집어보려는 심정(心憵)이라는 것을 파르메니테아스에게 폭로한다 그러자,

아직은 젊어서 그러하다고 하면서 이제 파르메니테아스는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를 취하는(μεταλαμβάνοντα 130e6)길에 대해 묻기 시작한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문답을 요약 정리해 보자

- 1) 정의 와 아름다움 과 선 과 이와 같은 것의 에이도스는 그 자체 있는가? - 있다²⁰⁵⁹⁾ 그런데,
- 2) 사람 또는 불 또는 물 등의 에이도스인 것은 우리 사람인 것 또는 불인 것 또는 물인 것과 **분리**해 그 자체로 있는가? - 1) 처럼 답해야할지 1)과는 달리 **알론**하게 답해야 할지 어렵다 그렇다면,
- 3) 머리 털 과 진흙 과 먼지 등과 같은 하찮고 우아하지 못한 것 각각의 에이도스는 우리에게 접해 있는 머리 털 등과 같은 그러한 것들과 **알론**하게 **분리**해 있는가 라는 물음도 어려운가? - 어렵지 않다 우리에게 접해 있는 그대로 그것들은 있다 이런 것들의 에이도스인 것이 있다 라고 상정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을까?

따라서,

같음 과 같지 않음 과 많음 과 하나 와 움직임 과 쉼의 에이도스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 와 선 과 아름다움 과 이와 같은 것의 에이도스도 그 자체 있다는 것 그러나 머리 털 과 진흙 과 먼지 등 하찮고 우아하지 못한 것의 에이도스는 머리 털 또는 진흙 또는 먼지 등과 **분리**해 있지 않다

2059) 이러한 답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편 51d4-5(1137쪽)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단지 생각에만 걸리는 것(vooθμeva 51d5)는 그러한 것인 에이도스는 분명히 그 자체로 있다 라고 거기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여기에서는 그 자체로 있는 에이도스는 선한 것 또는 아름다운 것 또는 정의로운 것의 에이도스인 선 또는 아름다움 또는 정의 또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덧붙여 쓰여진다 그런데,

잠시 잡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에이도스는 노에애마(132b4)는 아니지만 누우메나(132c6)이다 라고 1235쪽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노에애마와 누우메나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는 숙고해 보아야 할 어려움이다 그냥 대충 노에애마는 생각의 작용인(cornform, 플라톤과파르메니데이스 91쪽) 반면 누우메나는 생각의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서는 결코 **안될** 것 같기 때문이다

는 것²⁰⁶⁰)은 분명히 소크라테아스에 의해서 인정된다 그런데,

사람 또는 불 또는 물 등의 에이도스가 사람인 것 또는 불인 것 또는 물인 것과 분리해 있는지의 여부는 어렵다²⁰⁶¹) 그러나 사람 등의 에이도스는

2060) 그렇다면 가치 없는 것 또는 선하지 않은 것 또는 아름답지 못한 것 또는 정의롭지 못한 것의 에이도스는 악한 것 또는 아름답지 못한 것 그대로 그 안에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아예 그러한 것의 에이도스는 있지 않다는 말인가 분리(χωρίς 129d1)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 삼아지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래서 분리해 있지 않다면 분리되지 않는 그대로 그 에이도스는 있다 라고도 받아 들여 있을 것 같기도 한데.....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선하지 못한 것 또는 아름답지 못한 것의 에이도스가 될 것이다 물론 그러나 선 또는 아름다움의 에이도스를 닮아 있기도 하기에 이 우주는 그토록 아름답고 선할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 음,

2061) 그런데,

불의 자기 자신 그 자체(αὐτὸ ἐφ' ἑαυτοῦ, 51b8, 1136) 다시 말해 불 등의 에이도스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인정하는 듯하다 거기에서 티마이오스는 ‘ 그 자체 있는 것(51c1) ’ 과 ‘ 자기 자신 그 자체 ’ 하나로 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로 본다면,

불의 에이도스는 그 자체로 있다 라고 1)처럼 말하여지지 1)과는 다르게 말하여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사람의 에이도스는 사람인 것 곧 나(익성)와 분리해 그 자체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순진하게 답하여질 수는 물음이 결코 아니다 더 나은 답을 위해서는 지금의 내가 좀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답하려 들면 ‘ 소멸하는 것들과 에이도스에 있어 동일한 것들(τὰς αὐτάς, 형이상학 1040b32, 500쪽)을 실체를 여겨 감각적인 것들에 자체(τὸ αὐτὸ, 동일한 것, 1040b34)라는 낱말을 에이도스론 자들은 덧 붙혀인다 사람 자체 와 말 자체 라고 하면서 말이다 ’ 라고 텔레스 처럼 말해 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 편 여기에 쓰여진 것 처럼 에이도스론 자들 가운데 적어도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파르메니데아스는 사람 그 자체 또

어쨌든 있다 라고 쓰여질 수는 없을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분리해 있지는 않더라도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있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는 있을 것이다 하 여간에,

분리 라는 말은 어렵기도하다 이제,

어려운 물음을 일단 그대로 봐 둔채 두 사람의 문답은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함**(μεταλαμβάνοντα 130e6, μεταλαμβάνοντα 131a1, μεταλήπτει 131e3)²⁰⁶²)에 관한 대화로 이어진다 분리해 있다면 분리된 에이도스를 알론한

는 사람의 에이도스가 사람인 것 곧 소멸하는 것과 분리해 있다 라고 말하지도 말하지 않지도 않는다 그런데,

묘한 것은 거기에서 텔레스는 분리해 있다 라고 말하는 점에 있어서는 에이도스론 자들도 옳으나 에이도스를 여럿에 걸친 하나 라고 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이스가 분리시키지 않는 것을 플라톤은 분리 시켰다 라고 형이상학 그 어디에선가 비판해 놓고 이제 여기서는 다른 맥락에서 곧 실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실체를 소멸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라는 맥락에서 플라톤을 비롯한 에이도스론 자들을 비판한다 분리시킨 점에 있어서는 올바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아마도,

텔레스는 다른 관점에서 실체 곧 가장 먼저 있는 것을 바라 보는 듯 하다 물론 가장 먼저 있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 본다면 있는 것 역시 다른 각도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좀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있는 것을 두 사람은 분명히 서로 헤태론하게 말한다 나는 석사학위 이 논문에서 바로 그 헤태론한 점을 끄집어 내려한다 그리고 지금 이 작업은 끄집어 내려는 준비 작업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그 헤태론한 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말로 나타내는데 자신 없어한다

것들이 나누어 취할 수 있는 길이 드러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예를들어 *같음*을 나누어 취하는(μεταλαμβάνοντα 131a1)것들은 같은 것들이 (되며) *큼*을 나누어 취하는 것들은 큰 것들이 (되는) 반면 *아름다움* 과 *정의로움*(을 나누어 취하는 것들은) 정의로운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되는 것 처럼 그것들을 **나누어 취하는(μεταλαμβάνοντα 130e6)**것들이 그것들의 이름(τὰς ἐπωνυμίας 130d6)유지하는 어떤 에이도스들이 있다 라고 자네가 주장하는 것 처럼 자네는 여기는가? 라는 [물음]에 관해 이제 나에게 답해 주거나

전적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라고 소크라테아스는 답했어요

그렇다면 나누어 취하는 것 각각은 실로 에이도스 *전체* 또는 *부분*을 나누어 취할까? 또는 이(전체 와 부분)과 분리된(χωρίς, 131a5) 알론한 어떤 것을 나누어 취할까(2063)?

어떨까요? 라고 반문했지요

이제 *여럿의 하나*로 있는(2064)에이도스 *전체*가 각기 것 안에

2062) 나누어 지나다(μετέχειν) 라는 말은 아직 쓰여지지 않다가 132c6(1265)에 가서야 비로소 쓰인다 이러한 쓰임새가 어떤 뜻을 지니는지를 나는 지금 알려하지 않는다(1265쪽각주2067번참조)

2063) 전체 와 부분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을 나누어 취할까 라고도 읽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64) 여럿 각기 안에 전체 하나씩 들어 있을까? 다시 말해 하나 전체가 여러 각기 것 안에 각각 들어 있을까? 라는 물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τῶν πολλῶν ἓν(131a9, 여럿의 하나)’를 텔레스가 형이상학 1040b28(499)에서 말하는 ‘여럿에 걸친 하나(τὸ ἓν ἐπὶ πολλῶν)’로 볼 수 있을까 만약 ‘여럿에 걸친 하나’가 ‘여럿에 부분으로 들어 있는 것들의 합이 전체 하나’을 뜻한다면 그렇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뜻으로 여기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 편 의 파르메니데아스에 의해서 131b9(1263쪽)에서 직접 말하여진다 여러 사람 위에 펼쳐져 있는 뜻의 보기가 들어지면서 말이다(1263쪽각주2066번참조)

[들어] 있을까 또는 어떻게?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하나로 안에 들어 있지 [못하도록] 무엇이 막겠습니까?(κωλύει²⁰⁶⁵) 131a10)라고 소크라테아스는 [또] 반문했어요

그렇다면 여럿 안에 하나 와 동일한 것으로 [들어] 있는 동시에 (그 여럿) 안에 전체 분리(χωρίς 131b1)[되어 들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그 (에이도스)는 스스로와 분리될 것이네

[그러나 그렇게 분리되어 들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날(ἡμῶν 131b3, 日) 하나 처럼 그것이 여러 곳에 동시에 있으나 스스로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에이도스들 각각 하나는 모든 것에 동시에 동일한 것으로 있을[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소크라테아스] 답했어요

오 소오크라테아스군 예를들어 만약 뜻이 여러 사람들 [위]에 펼쳐지는 것 처럼 여럿에 걸친 하나(ἓν ἐπὶ πολλοίς²⁰⁶⁶) 131b9)전체

503쪽각주1099번 과 1253쪽각주2054번도 참조하라

2065) 막다(κωλύει 131a10) 라는 낱말이 텔레스(형이상학 1047b7,17)에 의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586-587, 589쪽을 참조하라

거기에서 텔레스는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막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라고 말하려는 맥락에서 ‘막다 또는 방해하다’라는 낱말을 쓰며(586-587) 힘을 지니는 것이 욕망할 때 외 부적인 어떤 습성이 막지 않는한 그 힘은 실현된다 라고 말하는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막다’ 라는 말을 쓴다 힘이 실현되려면 안팎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반면에,

여기에서 파르메니데아스의 소오크라테아스는 전체 하나씩 에이도스는 여럿 각각 안에 들어 있지 못하도록 막는 무엇이 있을까? - 있지 않다 라는 맥락에서 ‘막다’ 라는 말을 쓴다

2066) 여럿에 걸친 하나 라는 말은 텔레스에 의해서 어떤 에이도스 론자의 분리가 형이상학 제1타 편 16 장(499)에서 비판 당할 때 그대로 쓰여진다 거기에서 그는 여럿에 걸친 하나 로서의 에이도스에는 거부하나 분리된 에이도스에는 동의한다 여럿에 걸친(ἐπὶ 1040b29) 하나라면 분리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리라 다시 말해 에이도스(형상)의 분리를 전체 하나 에이도스

가 여럿 모두에 걸쳐 있는 식으로 ‘분리’로 보는 것은 본디 분리가 아닐거라고 텔레스는 비판한다 물론,

이 때의 에이도스는 543쪽의 그림에 나타나는 분리(1040a28)된 에이도스이지 질료 와 형상(에이도스)이 합쳐진 전체(τὸ σύνολον, 1039b20, 483)에 있어서의 에이도스를 텔레스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의 경우 오히려 텔레스는 에이도스를 그 합쳐진 것으로부터 - 질료로부터는 아닐 것이다 - 분리(1039b1, 473)시켰다고 이데아론 자(들)을 비판한다 나아가서,

여기 ‘여럿에걸친하나(ἐν ἐπὶ πολλοίς 131b9)’를 1262쪽에 나오는 ‘여럿의하나(τῶν πολλῶν ἐν, 131a9)’와 비교하여 보라 에이도스 하나 전체가 여럿 각각 안에 모두 들어 있다는 것을 거기 ‘여럿의하나’는 가리키는 반면 여기 ‘여럿에걸친하나’는 여럿 각각 모두에 걸쳐 있는 에이도스 하나 전체를 가리키므로 여기에서는 전체 에이도스의 부분이 여럿 각각에 걸쳐진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이스 와 파르메니데이스는 에이도스 하나가 자신을 나누어 취하는 여럿에 걸쳐 있든(여럿에걸친하나) 자신과 분리되어 여럿 각각 안에 몽땅 들어 있든(여럿의하나) 아니면 자신과 분리되지 않은채 여럿 각각 안에 몽땅 예를들어 날(日) 하나 처럼 들어 있든지 간에 어떻게든 에이도스는 자신을 나누어 취하는 것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문답해 나아간다 자신들이 내 놓는 각각 대안(代案)을 자신의 것으로 이들이 인정하는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인정한다 라고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도 말하기 힘들다

아마 그러하지 않을까요(οὐκ ἄν 131b3) 또는 아마 그럴겁니다(ἄν 131a5, ἄν εἶν 131b2, εἰ.....εἶν 131b5-6)라는 식으로 임시(臨時) 가정(假定)해 놓고 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않을까요 아니야 그렇다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아마 그럴겁니다 라고 말이다 그러기에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러하다 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론한 여럿들이 에이도스 하나를 어떻게 나누어 취하는가 라는 물음은 심지어 제우스(Δία 131e6)조차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다 라고 결국 젊은 소오크라테이스 앞에서 회색 노년 신사 파르메니데이스

가 있듯 동일한 것 하나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다) 라고 자네는 할 것이네 또는 이러한 것은 공정하게 말한 것이다 라고 자네는 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유쾌하게 [파르메니데아스께서는] 물으셨지요

[당신이 말씀하신 바와] 똑 같습니다(ὡς 131c1) 라고 답했지요

그렇다면 그 뜻 전체가 각자 위에(걸치겠나) 또는 그 (뜻)의 알론한 부분이 알론한 (각자)위에(ἐπι 131b9)(걸치겠나)?

부분(이 걸칩니다)

따라서 오 소오크라테아스여 그 에이도스 자체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리고 나뉘어 지는 것들은 그(에이도스) 부분들을 나뉘어지닐(μετέχου²⁰⁶⁷ 131c6)걸세 그리고 각기 것 안에(ἐν²⁰⁶⁸ c6)는 더 이상 전체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에이도스)의 부분이 (들어 있

는 고백한다 이 두 사람이 ‘신성한’ 이 물음의 답을 규정하는지는 주옥 지켜 볼 일이다 지금의 나로서는 나름대로 답했다고 본다 바로 그 답이 파르메니데아스 편이며 이후(以後) 주옥 그 대화 편 끝까지 이어지는 파르메니데아스의 설명을 통해서 나누어 지님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가 만약 있다면 그리고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는 스스로 그리고 알론한 것에 이러 이러하게 있다 라고 그는 설명하기 때문이다

2067) 이제까지는 나뉘어 지니다 대신에 나뉘어 취하다 라는 말이 쓰였음에 유의하라 물론 이후에도 나뉘어 취하다(μεταλαμβάνειν 131e5)가 쓰이기도한다 내가 유의하라고 한 것은 이 두 말이 언 듯 보아 서로 바꾸어 쓰여질 수 있을 것 처럼 보이나 실은 그러할 것 같지 않아 보여서이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알론한 곳에서 말하여질 기회가 있을 것이다 (1262쪽각주2062번참조)

2068) 뜻이 여러 사람들 ‘위에’ 펼쳐져 있듯이 에이도스가 자신을 나누어 취하는 알론한 것들 ‘안에’ 들어 있다 라는 로고스에는 어딘가 들어 맞지 않는 구석이 있다 앞에서는 위에 펼쳐져야하지만 뒤에서는 안에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뜻의 비유(比喩)일 것이 때문에 시시콜콜 따지고 분석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틀렸을 것이다 비유를 문자 그대로 받아 들였다가는 망하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안에’ 라는 말에 집중하기 위해 ‘위에’라는 말을 살짝 건드려

을 곁세)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 에이도스가 우리에게 진실로 나뉘어지네 그 런데도 오 소오크라테에스여 여전히 하나[로] 있다 라고 자네는 말할 준비가 되었는가?

결코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봐야하기 때문이네 만약 자네가 *κμ* 자체를 나누는데 *μερεις* 131c12) [나뉘어진] 여러 크기들의 *κμ*들 각각이 그 *κμ* 자체 보다

보았다 그런데,

이테아론 자들은 나누어 지님을 단지 비유(*μεταφορας* 1079b26)했을 뿐 그에 관한 선명한 로고스를 지니지 못했다 라는 비판을 어떻게 나는 받아들여야할까 만약 비판이 공정(公正)하고 정당(正當)하다면 파르메니데에스 편 자체를 텔레스는 거부한 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파르메니데에스에 관해 고유한 해석을 지녔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설령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에스 편은 나누어 지님을 적어도 만족스럽게 다루었다 어떤 비유도 아닌 그 정의(定意)도 내리고 어떻게 나누어 지니고 있는가를 말로 아주 아름답게 보여 주었다 그것도 여덟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말이다 그럼에도,

텔레스의 그 비판을 나는 어느 정도 받아 들인다 다른 무엇을 있는 것 과 실제로 보았기에 그러한 비판을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가 경멸하는 낱 말인 실재(reality, 實在)를 써서 말한다면 텔레스가 끄집어 낸 실재는 플라톤이 가리키는 실재와 너무 해태론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바라 본 있는 것 또는 실체는 도대체 어떻게 해태론했을까 바로 이 해태론한 점을 끄집어 낸 다음에 동일한 점과 해태론한 점을 뒤 섞어서 논리적으로 정리 요약 하는 것이 내 석사 학위 논문의 일차적 과제이며 이 과제가 끝나면 내가 바라 보는 있는 것(또는 실체)를 이 두 사람의 있는 것 (과 실체)과 뒤 섞어 보여 줄 것이다 아마도 논문의 크기는 약 100쪽 내외(內外)가 될 것이다

적은 큼 부분들에 의해 크다면 非로고스(ἄλογον²⁰⁶⁹) 131d1)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라고 물으셨구요

물론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무엇이? 똑 같음 자체 보다(αὐτοῦ τοῦ ἴσου 131d5) 더 적게 있는 [그리고] 똑 같은의 각기 적은 부분을 취하여 지니는(ἀπολαμβάνει.....ἔξει 131d4-5)것에 의해 똑 같음을 지니는 것이 있을까?

불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음의 부분을 우리들 중 어떤 자가 지녔다[면] 적음은 자신의 부분인 바로 그 부분 보다 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적음 그 자체가(αὐτὸ τὸ μικρὸν 131d9)[적음의 그 부분] 보다 클 것이다 그런데 취하여진 그(적은 부분)이 더 불혀질 것은 이전 보다 적을 것이 지 더 크지 않을 것이네²⁰⁷⁰)

2069) 나뉘어진 큼 자체의 부분들은 큼 자체 보다는 적은 큼 부분(μεγέθους μέρει μικρότερον αὐτοῦ τοῦ μεγέθους 131d1-2)에 의해서 크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은 크기’ 라고 함은 ‘적음과동시에큼’이므로 非로고스적이다 설령 적으면서 동시에 크다는 것은 非로고스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적음’에 의해서 ‘크’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非 로고스적일 것이다 큼을 나누어 취하므로써 크게 되는 반면 적음을 나누어 취하므로써 적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큼의 에이도스 와 적음의 에이도스도 일단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 같다 물론 있다 라고 파르메니데에스에 의해 직접 쓰여지지는 않긴 해도 말이다 그렇다면 직 간접으로 인정되어질 에이도스들은 큼과똑같음과 적음 같음과같지않음 많음과하나 움직임과멈 큼과작음 선와아름다움과정의 그리고이와같은것의 에이도스이다

2070) 적음을 나누어 취하는 것은 이전 보다 더 적어질 것이다 적음을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에스에 따르면 적어진 것이 나누어 취하는 바로 그 적음 그 자체는 나누어 취하여진 적은 부분 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심각해진다 자신의 부분 보다 적음 자체는 오히려 더 적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물음이 내 안에서 솟아 오르기 때문이다 적음의 에이도스 라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부분 보다 큼 자체가

(적음이 더 불허질) 것이 (이전 보다 더 커)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 소크라테에스여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들을 나누어 취하는
어떤 [알론한] 길이 자네에게 [열려야 했지]? 부분으로도 전체로도 나
누어 취할 수 없[으니 말일세]

마! 제우스로서도(μὰ τὸν Δία 131e6) 이러한 것을 쉽게 결코 규
정할 수 없을 것으로 저에게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로 무엇?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어떤 건데요?²⁰⁷¹ (130e4 - 131e9) ”

“ 자네(소크라테에스)의 의견에 어떤 크기 *여럿*이 있을 때 마
다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것**(ἡ αὐτὴ 132a3)으로 보이는(ιδόντι a3)어
떤 **이데아 하나**가 똑 같이 있을 것 처럼 보인다(δοκεῖ 132a1) 라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네는 **하나** 각기 **에이도스가 있다**(ἐν ἑκαστον εἶ
δος εἶναι 132a1)는 것을 믿는다(οἶεσθαι a1)고 나[파르메니데에
스]는 짐작하네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는] 대꾸했어요

그런데 큼 자체(αὐτὸ τὸ μέγα 132a6) 와 알론한 크기들[에]는

크다면 자신의 부분 보다 더 적어야 하지 않을까 적음 자체는 에이도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에스는 적음 자체는 자신의 부분 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쓴다

2071) 이어지는 글월은 이미 1233-1238쪽에 옮겨졌으나 다시 여기에 이어
베껴보자 비록 132a1-132d4까지이긴 해도 말이다 132d5 바로 앞에 나누어
취함 또는 지남에 관한 소크라테에스의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며 이후
132d5 - 135b2에서는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잉태되는 알론한 어려움이 파르
메니데에스에 의해서 잇 따라 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파르메니데에스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성숙한 자신의 에이도
스론을 대화 상대를 텔레스로 바꾸어 전개한다 적어도 나는 지금의 나는 그
렇게 본다

무엇이? **영혼**에 의해 보이는(ἴδης a7) 모든 것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것 처럼 그(**알론한**) 것들이 그것에 의해서 크게 나타나는 크기인 것 *ἕνα ἔν τι μέγα a7*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나타날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크기 자체 와 그 (크기 자체)를 나누어 지니게(τὰ μετέχοντα 132a11)되는 것들과 나란히 알론한(ἄλλο a10)에이도스 크기들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이러한 경우에 그것에 의해 모든 그 크기들이 있을 **해태론한** (에이도스 크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네) 그래서 더 이상 자네에게는 에이도스들 각각 *ἕνα*가 있을 것이 아니라 무한히 **많은** (에이도스가 있을 것이네)

그러나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그러한 **에이도스**들 각각은 영혼 안 [이외의] 알론한 그 어디에도 주어(προσῆκη 132b4)지지 않는 **노에** *ἄμα*(*νόημα*, b4, 생각된 것)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에이도스들] 각각은 *ἕνα*될 것이고(kai b6) 방금(vuvδῆ, 132b6, 方今)말했던 것²⁰⁷²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크라테아스는 대꾸했지요(φάναι 132b3)

응답하시기를(φάναι 132b7) 그렇다면 무엇? 각각 *ἕνα*는 노에 애마들의 [각각 하나]인데 아무 것도 아닌 것의(οὐδενός 132b9)노에에 마?

그러나 불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의 (노에애마)?

예

있는 것의 또는 있지 않는 것의 (노에애마)?

있는 것의 (노오애마 입니다)

모든 경우에 저 노오애마가 노에이한다고(voeí, 132c3, 생각한 다고) 주장되는(ἐπὸν c3) 어떤 것 *ἕνα*의[곧] 어떤 **이테아** *ἕνα*인 것 (*μίαν τινὰ οὖσαν ἰδέαν c4*)의 (노에애마)?²⁰⁷³

2072) 에이도스가 무한히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에이도스가 류가 무한히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에이도스 예를들어 크의 에이도스 개수가 무한히 많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2073) 그렇다면 노오애마는 이테아 하나의 노오애마가 될 것이며 모든 노오

예

그렇다면 이 누우메논(*τὸ νοούμενον* c6)이 **에이도스 하나**가 아닐까 [곧] 모든 것에 걸쳐(*ἐπι* c7) **있는** 동일한 것이 아닐까

반드시 다시 [그러할 것으로] 나타납니다(132a1-132c8) ”

“ 그러면 실로 무엇이? **알론한 것**들은 에이도스들을 **나누어 지닌다**(*μετέχειν* 132c10)라고 주장하는 자네에 따르자면 [알론한] 각기 것은 노에애마들로부터 **있고** [각기] 모든 것은 **생각한다** 라고 반드시 자네는 여겨야 하거나 또는 **있는** 노에애마들은 **非노에애타**(*ἀνόητα*, c11, **생각하지 않는 것**)[로] **있다** 라고(2074) (자네는 반드시 여겨야 하

애마는 이러한 이데아 하나를 노에인(생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생각을 통해 영혼 안에서 형성될 모든 노오애마(관념 또는 개념)는 그 생각을 통해서만 걸리는 -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로고스와 더불어 누우스에 의해서 걸린다고 한다(1196쪽) -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 하나의 노에애마이다

2074) 영혼 안에 있는 노에애마를 에이도스라 하고 알론한 것들은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한다 라고 한다면 알론한 모든 것은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하므로 노에애마로부터 있어야할 것이다 그런데,

노에애마는 모든 경우에 **노에이(생각)**를 통해서 영혼 안에 형성된 것이며 노에애마는 누우메논(생각의 대상?)의 노에애마(생각된 것 곧 관념 또는 개념)여야할 것이므로 노에애마(관념)으로부터 있는 모든 각기 것은 반드시 노에이(생각)해야 하거나 있는 노에애마(관념)들은 반드시 **非노에애타적**(생각에 관련되지 않는 것) 이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하는 각기 모든 것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가 에이도스가 ‘관념’ 또는 ‘개념’ 이라면 그래야할 것이다 ‘관념’ 또는 ‘개념’은 생각을 통해서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 ‘개념’ 또는 ‘관념’은 생각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노에애마는 생각이 **끄집어** 내는 이데아의 관념 또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노에애마가 있을 수 있을까 따라서 둘 다 불합리한 것(*ἄτοπον*, 130d5, 1258)이다 로고스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아스는 최종적으로 달리 말한다

이러한 나의 설명이 플라톤을 왜곡하고 있거나 않은지 못내 불안하다

지) 앓겠는가 라고 파르메니데아스께서는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이(것)은 로고스를 지니지 못합니다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그러나 할 수 있는한 제가 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에이도스들은 자연 안에 고정되어진 원형들 처럼 [있는] 반면에 알론한 것들은 이(원형들)을 닮거나 (이 에이도스들과) 같은 것들(ὁμοιώματα 132d3)입니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를 이렇게 나누어 지님은(ἡ μὲ θεσις 132d3)그 (에이도스)들을 닮아 감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132c9-132d4) ”

라는 인용 글월에서 여러 대안들을 음미(吟味)하는 방향 끝에 소크라테아스는 나누어 지님이란 닮아감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라는 결론을 파르메니데아스 앞에서내린다 2075)

예를들어 같음을 나누어 취하는 것들은 같은 것들이 되며 크을 나누어 취하는 것들은 큰 것들이 되는 반면 아름다움 과 정의틀 나누어 취하는 것들은 정의로운 것들 과 아름다운 것들이 되는 것 처럼 자신들을 나누어 취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유지하는 어떤²⁰⁷⁶⁾에이도스들이 있다 라고 자네가 주장하는 그대로 자네는 여기는가? 이제 나에게 답해 주게나 - 전적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라고 소크라테아스는 답했어요

그렇다면 나누어 취하는 것 각각은 실로 에이도스 전체 또는 부분을

2075)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지니는 어려움이 파르메니데아스에 의해서 다시 드러난다

2076) 어떤(ἄρτα, 131e5, 몇몇) 이라는 낱 말이 쓰이는 걸로 봐서 에이도스(種)의 류(流)들은 그 개수(個數) - 數 라는 말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다 - 에 있어 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머리 털 과 머리 등의 에이도스는 분명히 있지 않으며 불 물 등의 에이도스가 있는지는 애매하다 라는 소크라테아스 자신의 이어지는 말이 이를 보증한다

나누어 취할까? 또는 이 전체 와 부분과 분리된 알론한 어떤 것을 나누어 취할까? - 어떨까요? 라고 반문했어요 이제,

여럿의 하나로 있는 에이도스 전체가 각기 것 안에 들어 있을까 또는 어떻게? -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무엇이 막겠습니까? 라고 [또] 반문했어요 그렇다면,

여럿 안에 하나 와 동일한 것으로 들어 있는 동시에 그 여럿 안에 전체 분리해 들어 있을 것이어서 그 에이도스는 스스로와 분리될 것이네²⁰⁷⁷⁾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낮 처럼 그것이 여러 곳에 동시에 있으나 스스로와 분리되 있지 않다면 그렇게 에이도스들 각각 하나는 모든 것에 동시에 동일한 것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답했어요

오! 소오크라테아스군 예를들어 만약 돛이 여러 사람들에 펼쳐지는 것 처럼 여럿 위에 하나 전체가 있듯 동일한 것 하나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다 라고 자네는 할 것이네 또는 이러한 것은 공정하게 말한 것이다 라고 자네는 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유쾌하게 물으셨지요 - 똑 같습니다 라고 답했구요

그렇다면 그 돛 전체가 각자 위에 걸치겠나 또는 그 돛의 알론한 부분이 알론한 각자 위에 걸치겠나? - 부분이 - 따라서 오 소오크라테아스여 그 에이도스 자체가 나뉘어지네 그리고 나뉘어지는 것들은 에이도스의 부분들을 나누어 지닐 결세 그리고 각기 것 안에는 더 이상 전체가 아니라 각기 부분이 들어 있을 결세 라고 말했어요 - 그럴걸 처럼 보입니다 - 그렇다면 하나 에이도스가 우리에게 진짜로 나뉘어지네 그런데도 오! 소크라테아스여 여전히 하나이다 라고 자네는 말할 준비가 되있는가? - 결코 아닙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 다음을 봐야하기 때문에 그렇네

2077) 여럿 안에 각각 그 전체 들어 있다면 에이도스 하나는 동일한 여럿으로 스스로와 분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를 자신의 에이도스들 더러 허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에이도스는 낮(日光?)처럼 자신을 나누어 취하는 것들 안에 들어 있지 않을까 라고 파르메니데아스에게 말한다

만약 자네가 *κμ* 자체를 나누는데 나뉘어진 여러 크기들의 *κμ*들 각각이 그 *κμ* 자체 보다 적은 그 *κμ* 부분에 의해 크다면 非로고스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라고 물으셨구요 - 물론입니다 라고 주장했습지요 - 그런데 다음 무엇은?

똑 *같음* 자체 보다 더 적게 있는 그리고 똑 *같음*의 각기 적은 부분을 취하여 지니는 것에 의해 똑 *같음*을 지니는 것이 있을까? - 불 가능합니다 - 그러나,

적음의 부분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자가 지녔다[면] 적음은 자신의 부분인 바로 그 부분 보다 클 것이며 이렇게 적음 그 자체가 보다 적은 그 부분 보다 클 것이네 그런데 취하여진 그 적은 부분이 덧 붙혀질 것은 이전 보다 적을 것이지 더 크지 않을 것이네 - 더 커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 [따라서,]

오 소오크라테아스여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하는 어떤 알론한 길이 자네에게 열려야겠지? 부분으로도 전체로도 나누어 취할 수 없으니 말일세 - 마! 제우스로서도 이러한 것을 쉽게 결코 규정할 없을 것으로 저에게는 여겨 집니다 - 그런데,

실로 이젠 무엇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 어떤 건데요?

자네 의견에 따라 어떤 크기 여럿이 있을 때 마다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이데아 하나**가 똑 같이 있을 것 처럼 보인다 라는 이러한 것로부터 자네는 하나 각기 에이도스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나는 짐작하네 -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라고 답했어요 - 그런데,

κμ 자체 와 알론한 크기들에는 무엇이? 영혼에 의해 보이는 모든 것의 경우에도 그와 같을 것 처럼 알론한 것들이 그것에 의해 크게 나타나는 크기인 것 하나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 나타날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κμ 자체* 와 그 *κμ 자체*를 나누어 지니게 되는 것들과 나란히 알론한 에이도스 *κμ*들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이러한 경우에 그것에 의해 모든 그 *κμ*들이 있을 헤태론한 에이도스 *κμ*이 나타나게 될 것이네 그래서 더 이상 자네에게는 **에이도스 각각 하나가 있을 것이 아니라 무한히 많은 에이도스가 있을 것이네** - 그러나,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그러한 에이도스들 각각은 영혼 안 이외의 알려진 그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는 **노에아마**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에이도스 각각은 하나일 것인데 방금 말했던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크라테아스는 답했지요 - 응답하시기를 그렇다면 무엇? 각각 하나는 노에아마들의 각각 하나인데 아무 것도 아닌 것의 노에아마? - 그러나 불 가능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 그러나 어떤 것의? - 예 - 있는 것의 또는 있지 않는 것의? - 있는 것의 - 모든 경우 저 노에아마를 노에아마라고 주장되는 어떤 것 하나의 곧 어떤 **이데아 하나**인 것의? - 예 - 그렇다면,

이 **누우메논**이 에이도스 하나가 아닐까 곧 모든 것 위에 걸쳐 있는 동일한 것이 아닐까? - 반드시 그러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 그러면,

이제 실로 무엇이? 알려진 것들은 에이도스를 나누어지닌다 라고 주장하는 자네에 따르자면 **노에아마**들로부터 **있는** 각기 모든 것은 생각한다고 반드시 자네는 여겨야 하거나 또는 있는 노에아마들은 **노에아시스**적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파르메니데아스께서는 말씀하셨지요 - 그러나,

그것은 로고스를 지니지 못합니다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그러나 할 수 있는한 제가 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에이도스들은 자연 안에 고정되어진 **원형**들 처럼 있는 반면에 알려진 것들은 원형들을 닮거나 에이도스들과 같은 것들(2078)입니다 그리고 알려진 것들이 에이도스를 이렇게 **나누어** 지닌은 그 에이도스를 **닮아감**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비록 파르메니데아스에 의해 어려움이 드러나긴 해도 만약 전체 또는

2078) 제애논과의 문답이 같은 것을 축으로하여 시작된 것 처럼 파르메니데아스와 의 문답도 결국 같은 것을 축으로하여 이루어진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에이도스가 또 하나의 그리고 더 진짜 축이긴해도 말이다 그러나,

같은 에이도스가 있지 않은가....

부분을 나누어 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누어 지님은 다향이다 라는 나누어 지님(ἡ μέθεξις, 132d3, 관여(關與))에 관한 소오크라테에스의 이러한 결론에 다다른 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같음을 나누어 취해 같은 것이 되며 크를 나누어 취해 큰 것이 되는 반면 아름다움 과 정의를 나누어 취해 아름다운 것 과 정의로운 것이 되듯 그것을 나누어 취하는 어떤 것들이 그것의 이름을 유지하는 **에이도스**가 있다 그렇다면,

나누어 취하는 것 각각은 에이도스 전체를 나누어 취할까 또는 부분을 나누어 취할까 아니면 전체 또는 부분과는 분리된 알론한 어떤 것을 나누어 지닐까 먼저,

전체 또는 부분을 나누어 취한다면

1) *여럿의 하나로* 있는 에이도스 전체가 각기 것 안에 들어 있을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여럿 안에 하나로 그리고 동일한 것으로 그 전체 들어 있으므로 에이도스는 스스로와 **분리**(χωρίς 131b1)될 것이다 그러나,

2) *날*(ἡμέρα, 131b3, 日) 하나 처럼 분리되지 않은 채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도 있으리라 이럴 경우 에이도스 각각 하나는 모든 것에 동시에 동일한 것으로 있을 수 있으리라 그런데,

3) 여러 사람들 위에 펼쳐지는 *뚝* 처럼 *여럿 위의 하나* 전체가 있듯 동일한 것 하나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도 있으리라 이 경우 그 *뚝*의 알론한 부분이 각기 알론한 여럿 위에 있는 것은 그 *뚝*의 알론한 부분이 *뚝* 전체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에이도스 자체는 **나뉘어질**(μεριστὰ²⁰⁷⁹)

2079) 따라서 이 맥락(脈絡)에서는 에이도스의 *나뉘* 과 에이도스의 *분리*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자신 밖으로의 전체 분리(1256)인 반면 자신 안에서의 부분들로 나뉘 또는 쪼개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밖으로의 전체 분리에든 안에서의 부분 나뉘이든 쪼개진다는 점에서는 같다 나아가서,

파르메니데에스 편의 표현에 따르자면 여럿으로 분리된 에이도스는

131c5)것이고 이렇게 나뉘어진 에이도스 부분을 알론한 여럿은 나누어 지닐 것이므로 더 이상 그 에이도스는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다²⁰⁸⁰⁾따라서 만약 듯 전체가 알론한 부분들로 나뉘어 각자 위에 걸쳐 있듯 그렇게 에이도스 전체의 알론한 부분들을 알론한 것들이 나누어 취한다면 에이도스는 나누어 질 것이며 그렇게 나뉘어 진다면 다음과 같은 비 로고스(ἄλογον^{131d1})들이 잇 따를 것이다 첫째,

여러 큰 것들의 큼들 각각은 큼 자체 보다 ‘적은 큼’ 부분에 의해서 클 것이나²⁰⁸¹⁾적음을 취하는데도 커지는 것이 있을까 非 로고스이다 둘째 여러 똑 같은 것들 각각은 똑 같음 자체 보다 더 ‘적은 똑 같음’의 부분들을 취해야 할 것이나 적음을 취하여 똑 같아 지는 것이 있을까 없다 이것도 非 로고스이다 그런데 셋째 적음 그 자체는 나뉘어진 자신의 적은 부분 보다 클 것이나 그 적은 부분이 덧 붙혀진 것은 이전 보다 적지 더 크지 않다 커져야 하는데도 적어지니 非로고스이다²⁰⁸²⁾따라서,

여럿의 하나인 반면 여럿으로 나뉘는 에이도스 여럿위의 하나이다

2080) 쪼개져 여러 부분으로 있다는 곧 여럿 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럿을 내가 1256쪽에 그린 분리⊙에 나타난 에이도스 여럿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거기 여럿은 분리된 에이도스 전체 각각이기 때문이다 ‘나뉘’ 대신에 ‘분리’라는 말이 쓰여진 것으로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81) 큰 여럿이 각기 나누어 취하는 큼들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큼들은 큼 자체가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큼들일 것이고 나뉘는 부분은 자신의 전체 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2082) ‘ 토끼는 앞선 거북이를 따라 잡을 수 없다 토끼가 간 만큼 거북이도 가기 때문이다 ’ 라는 제논의 로고스를 ‘ 감 자체는 따라잡음과 알론한 것이기에 감을 나누어 취함에 의해서는 결코 따라 잡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앞선 거북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토끼는 감 뿐만아니라 반드시 따라잡음도 나누어 취해야 할 것이다 ’ 라고 위 파르메니테에스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을까 오히려,

있음은 하나이지 나뉘어진 여럿이 아니다 여럿이 있다면 반대되는 로고스들이 잇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제논의 로고스에 위 파르메니테에스 로고스는 관련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에이도스 그 자체는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들이 아니므로 둘이 모두 각자위에 부분으로 걸쳐 있듯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에이도스를 전체로든 부분으로든 나누어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로고스를 소오크라테아스와 파르메니테아스는 이끌어 낸다 그러나,

심지어 제우스조차도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누어 취함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푸념하는 소오크라테아스에게 파르메니테아스는 자네에 따르면 ‘ 하나 각기 에이도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크기 여럿이 있을 때마다 [그 여럿 각각에 상응하는] 동일한 *이데아 하나*가 똑 같이 있을 것이며 알론한 여럿은 반드시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누어 취한다면 이 경우 *하나* 에이도스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에이도스가 있을 것이다 ’ 라고 말하면서 소오크라테아스를 또 다른 어려움에 빠트린다 이 어려움은 나누어 취함 그 자체가 지니는 또 하나의 알론한 어려움이다²⁰⁸³⁾

2083) 그렇다면 소오크라테아스는 업치고 덤친 혼란 때문에 자신의 에이도스론을 포기했을 것이다,

‘ 여럿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같으면서 같지않아야하는데 이는 반대(모순)이다 같으면서 같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만 있다 ’ 라고 말하면서 파르메니테아스를 옹호하는 **제아논**을 반박하면서 ‘ 만약 서로 반대되는 같음의 에이도스와 같지않음의 에이도스가 있다면 어떤 것이 같으면서 같지 않을 수 있다 같음의 에이도스와 같지않음의 에이도스를 동시에 그것이 나누어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기 에이도스 *하나*가 있다 ’ 라고 에이도스 론을 펼치는 **소오크라테아스**에게 ‘ 자네가 고백하듯 나누어 취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게다가 설사 어떻게든 나누어 취한다 손 치더라도 자네는 *하나* 에이도스 각각이 있다고 하나 자네에 따르자면 실은 하나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에이도스가 있을 것이므로 하나 보다는 여럿을 자네는 주장하는 셈이 될 걸세 ’ 라고 **파르메니테아스**는 말하기 때문이며 소오크라테아스 역시 파르메니테아스와 더불어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

파르메니데아스는 큼 자체(2084)를 나누어 지니는 알론한 크기들을 그

기 때문이다 실은 그러나,

설익은 누우스로는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나 성숙한 누우스에게는 결코 이러한 설익은 어려움에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파르메니데아스와 소크라테스는 에이도스 론에 거부하거나 미심쩍어하는 자들을 일깨우면서 다짐하고 있다고 나는 본다 파르메니데아스 편 후반부에서 파르메니데아스가 나누어 지남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에이도스 여럿이 서로 섞여 지면서 하나로 있는지에 대한 글을 쓰기 때문이다

2084) 그런데,

파르메니데아스는 큼의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를 허용할는지 의문스럽다 이미,

1259 쪽에 쓰여진 것 처럼 정의(δικαίους, 130b7, 正義)와 아름다움과 선과 이와 같은 것 그리고 같음과 같지않음과 많음과 하나와 움직임과 쉼의 에이도스들은 분리해 그 자체 있는 것으로서 소크라테아스에 의해 허용되는 반면,

사람 또는 불 또는 물 등의 에이도스들이 위 에이도스들 처럼 분리해 그 자체 있는지의 여부를 아는 것은 어렵다 라고 소크라테아스는 고백한다 그러나,

머리 털 또는 진흙 또는 먼지 등 하찮고 우아하지 못한 것의 에이도스가 머리 털 또는 진흙 또는 먼지 등과 분리해 그 자체 있는 것으로서 소크라테아스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분리되지 않은채 머리 털 등의 에이도스는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그러한 에이도스는 있지 않는 것인가 ‘이것들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에이도스인 것이 있다 라고 상정하는 것은 그저 불 합리합니다(130d4-5, 1258)’ 라고 소크라테아스가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에이도스들은 다시 말해 하찮고 우아하지 못한 것 곧 가치 없는 것 또는 선하지 못한 것의 에이도스들은 아예 있지 않다 라고 말해야할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되는 큼 자체(αὐτὸ τὸ μέγα 132a6)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보기로 든다

그 알려진 크기들은 크기인 것 하나에 의해서(ῥ²⁰⁸⁵)132a7)‘나타날’ 것이다(2086)따라서

큼 자체① 그리고 큼 자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들이 가지는 크기②들

큼의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는 큰 것들과 분리해 그 자체로 있는 것일까 큼의 에이도스는 소크라테에스에 의해 허용될 수 있을까 글썄,

그렇다 라고도 그렇지 않다 라고도 말하기 힘들다 그렇다 라고 해 버리면 큼 에이도스 *하나*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큼 에이도스가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 라고 해 버리면 파르메니데에스의 로고스가 성립될 수 없어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에스 편 자체가 허물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큼을 같음과 또는 하나와 같은 류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아마도 그렇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같은 또는 동일한 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한서대 도서관에서 씀 - 975쪽참조 - 아버님 초심 판결이 이상구 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1999년1월29일 12일 남았다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나 아마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안가가 나와서 아버님께 불리한 지극히 감정적인 증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가를 불러 낸 것이 불리했는지의 여부는 항소심 과 상고심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예상되는 아버님 판결을 뒤집지 못한다면 나의 실착 또는 패착은 안가를 불러낸 것일 것이다 약간이라도 믿었던게 잘못이다 그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도 믿어서는 않된다

약 6 개월 동안 975 - 1278쪽 까지 썼으니 300쪽 가량 썼구나 180일 정도니까 하루에 2쪽 정도 밖에 이럴 수가.....거의 공부를 못했다고 봐야겠구나 아마도 공부한 날은 90일 안팎.....으으, 이게 방랑의 길이며 방황이 아니면 무엇인가 방황 중에도 논문을 써야 하다니 신이여 이다지도 무심하나 이까 괴롭다 신께서 나를 위(爲)하시는 길인지도 모르겠다

2085) ἔν τι(132b7, 1269)를 받는 관계 대명사 ῥ²⁰⁸⁵는 무슨 3격일까

2086) 나타난다 라는 말을 파르메니데에스는 영혼에 의해 보인다(ἵδῃς, a7, 1269쪽)라는 뜻으로 쓴다 그렇다면 큰 것들은 크기인 것 하나에 의해서 영혼에 나타난다 라고 쓰여질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러한 크기는 큼 자체와는 알려진 크기 에이도스이다

그리고 크기②들이 그것에 의해서 크기로 영혼에 ‘나타나는’ 또 크기①과②에 나란한 알론한 크기③ 그리고 다시 크기③들이 그것에 의해서 크기로 영혼에 ‘나타나는’ 또 크기①②③에 나란한 헤테론한 에이도스④ 등 무한히 크기 에이도스들은 나타날 것이다 이렇듯 하나 에이도스가 아닌 여러 에이도스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에이도스 각각은 영혼 안에만 주어지는 노에에마(νόημα, b4)²⁰⁸⁷가 아니라고 하는 소오크라테에스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파르메니데에스는 에이도스 각각 하나는 누우메논(τὸ νοούμενον c6)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누우메논은 노에에마와는 달리 영혼 밖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비록 영혼에 관련되긴해도 말이다 이제,

노에에마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의(οὐδενός 132b9) 노에에마일 수 없고 어떤 것의 노에마이긴하나 있지 않는 어떤 것의(οὐκ ὄντος 132c1)노에에마가 아니라 있는 것의 곧 어떤 이데아 하나인 것의 노에에마²⁰⁸⁸이므로 노에에마는 어떤 이데아 하나인 것을 영혼이 생각해 놓은 것이다²⁰⁸⁹ 그리고,

2087) 그렇다면 영혼에 ‘나타나’므로서 성립하는 무한한 에이도스들을 소오크라테에스는 거부하는 셈이다 따라서,

에이도스 각각은 하나이다 라고 그는 일관(一貫)되게 말하려한다

2088) 파르메니데에스 와 소오크라테스 이 두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닌 것과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을 서로 구분함에 동의한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아닌 반면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은 어떤 것이니 반면에 노에에마는 있는 것의 노에에마이지 있지 않는 것의 노에에마는 아니라는 것에 이 둘은 동의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동일한 대화 편 160c5-6(77-78)에는 있지 않는 것이란 알론한 것과 헤테론한 것이라 쓰여있고 대화 편 소피스테에스 257b3-4(126쪽)에는 있지 않는 것이란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 있는 것의 헤테론한 것 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2089) 그렇다면 노에에마는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과 동시에 영혼 안에 떠오른 것 또는 영혼 안에 생성된 것일 것 - 요즈음 말로 관념 또는 이상(idea, 觀念, 理想)도 이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 이다 따라서,

에이도스 하나를 곧 모든 것에 걸쳐(ἐπι c7)있는 동일한 것을 파르메니데아스는 누우메논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 이러한 에이도스를 알론한 것들이 나누어 지닌다면 알론한 각기 것은 노에에마들로부터²⁰⁹⁰⁾ 있어야 하므로 각기 모든 것은 반드시 생각해야 하거나 있는 노에에마들은 반드시 非 노에에타²⁰⁹¹⁾로 있어야 한다 ’ 라고 말하자

소오크라테스는 이것은 로고스를 지니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에이도스는 노오에마가 아니라 누우메나일 거라는 로고스에 이 두 사람은 동의하므로²⁰⁹²⁾나누어 지남은 생각함(νοεῖ, 132c3)도 아니다²⁰⁹³⁾생각

생각과 동시에 떠오른 또는 생성된 모든 것이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라는 말은 적어도 파르메니데아스 편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말이다 물론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가 생각과 관련 없는 것은 아니긴 해도 말이다 에이도스는 생각이 가리키는 또는 지향(指向)하는 바의 바로 그 무엇 곧 내가 아주 쓰기 싫어하는 말인 생각의 ‘대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2090) 어쨌든 노오에마 와 누우메논(에이도스) 이 둘은 서로에 관련된다 영혼이 누우메논을 생각해 놓은 것이 노에에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이도스(누우메논)을 나누어 지니는 알론한 것들은 모두 노에에마로부터 있다 라는 로고스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2091) 노오에마들은 [영혼이] 생각해 놓은 것이긴하나 누우메논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질 수 있다면 노에에타는 노오에마 보다는 누우메논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92) 이외는 달리 두 사람은 에이도스란 모든 것에 있는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한결 같이 말한다 나아가서,

나는 이 두 사람이 에이도스란 노에에마(생각된 것)이 아니라 누우메나(생각에 관련된 것)도 ‘아니다’ 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에이도스를 누우메나(생각의 대상)로 간주(看做)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이도스는 누우메나이다 라고 파르메니데아스 편을 쓴 플라톤은 진짜로 여길까 진짜로 그러하는 지는 이어지는 나의 로고스에서 어느 정도 드러날것이다

에 이 둘은 걸리기 때문이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소크라테스는 ‘에이도스들은 자연 안에 고정되어진 원형들 처럼 있는 반면에 알려진 것들은 원형들을 닮거나 원형들과 같은 것들이므로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남이란 에이도스를 닮아감(εἰκασθῆναι 132d4)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마저 파르메니데에스의 다음과 같은 지적(指摘)에 따라 어렵게 되 버린다

“ 자 만약 어떤 것이 에이도스에 닮는(ἔοικεν 132d5)다면 (닮은) 그(어떤 것)과 같은한 저 에이도스는 [자신을] 닮은 그것과 같지 않을까 또는 어떤 길로든(τις μίχρανῆ 132d7) 같은 것은(τὸ ὅμοιο²⁰⁹⁴) 132d7)같은 것과 같지않을까 라고 [파르메니데에스 께서는] 물

단지 여기서 파르메니데에스 편의 파르메니데에스는 ‘에이도스가 노에에마는 아니라면 그리고 어떤 이테아 하나를 생각해 놓은 것이 노에에마라면 곧 이테아인 것의 노에에마라면 에이도스는 누우메나가 아닐까’ 라고 한 번 소크라테에스에게 물어 볼 뿐이기 때문이다 비록 ‘예(vai 132c5)’ 라는 답을 얻어내기는 했지만 말이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에스 편의 소크라테에스와파르메니데에스 이 두 사람에게 따르면 에이도스는 바로 누우메나이다 라고 성급히 나는 말하기를 주저한다 파르메니데에스 편을 쓴 플라톤의 진짜 생각이 어떠한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2093) 나누어 지남은 만약 생각함이다 라고 말하여 질 수 있다면 에이도스 여럿이 아니라 하나 라는 로고스는 그 근거를 지닐 것이다 생각하는 동안에는 비록 노에에마 와 누우메논은 서로 헤테론한 것이긴 해도 그 작용에 있어 하나일 것 같기 때문이다

2094) 파르메니데에스 앞에서 소크라테에스는 나누어 지남에 관한 ‘결론’을 여기서 내린다 라고 나는 1237쪽에서 썼다 이 이후로는 나누어 지남에 관한 로고스가 소크라테에스에 의해서는 더 이상 펼쳐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후(以後)에 펼쳐지는 에이도스는 알려질 수 없다 라는 파르메니데에스의 로고

으셨구요

[같지 않지] 않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것**(에이도스) *하나*(*ἐνός τοῦ αὐτοῦ[εἶδους]*

131d9-e1) **같은 것**²⁰⁹⁵은 같은 것과 반드시 *나누어 지니지* 않을까

반드시[나누어 지닙니다]

그런데 같은 것들이 저것을 나누어 지님으로서 **같은** 바로 저것

은 **에이도스** 자체(*αὐτό*²⁰⁹⁶) 132e4)가 아닐까

스는 *나누어 지남*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아감* 으로서의 *나누어 지남* 이라는 것은 소오크라테에스의 ‘잠정적(暫定的)인’ 결론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로고스가 결론적이라 함은 이 인용글월에서 나타나는 **같은 것** 때문이다

1238쪽에 쓰여진 것 처럼 파르메니데에스 편은 같으면서 같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제애논에 같으면서 같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소오크라테에스가 맞서자 이러한 소오크라테에스에 담긴 어려움들을 파르메니데에스가 끄집내는 식으로 펼쳐지는데 바로 이 인용글월에서 **같은 것**이 결론적으로 문제삼아진다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는 것들은 에이도스를 *답아* 가는 것들이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에이도스와 **같은 것들**(*ὁμοιώματα* 132d3)이다 라고 말이다

2095) 따라서 **같은 것** 과 **동일한 것**은 여기서 구분되어야한다 ‘에이도스와 **같은 것**으로부터 **동일한 것** 에이도스로 열려지므로 파르메니데에스 편은 **같은 것**을 고리로하여 펼쳐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대화편은 **동일한 것**에 관한 것 이라기 보다는 **동일한 것** 과 **같은 것**이 자기 스스로 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것이 동일한 것을 나누어 지남**에 관한 것이다’ 라고 내가 1238쪽에 썼듯이 말이다 그러나,

같은 것 과 **동일한 것**이 어떻게 구분될까 **같은 것**은 **동일한 것**을 나누어 지닌다 라고 여기에 쓰여진다

2096) 에이도스 자체 보다는 에이도스 그것 이라고 가볍게 읊기고 싶었으나 저것이라는 말이 앞에 쓰였으므로 혼동을 피해 자체라고 읊겼다 사실,

본 뜻대로 하자면 단지 *αὐτὸν*(형이상학1074b33 : 787쪽, 1050b36 :

물론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에이도스와 같지 않으며 에이도스도 알론한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같지] 않다면 에이도스와 나란히 (παρὰ 132e7)알론한 에이도스가 맞서 나타날(ἀναφανήσεται e7)것이 며²⁰⁹⁷저([알론한] 에이도스)가 다시 어떤 것(τῷ 133a1)과 같다면 다시 헤태론한 (에이도스가 맞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에이도스가 끊임없이 (나타나게)될 것이다 에이도스가 자신을 나누어 지는 것과 같게 된다면 말이네

당신은 가장 진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이 같음에 의해서(ὁμοιότητι 133a5)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음과는] 알론한 어떠한 것에 의해서 나누어 취하는가를 반드시 조사해야만한다네

그래야할 것 처럼 보입니다

이제 오 소오크라테스여 그 자체로 **있는** 에이도스²⁰⁹⁸ 그것 으로서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규정되어지는가를 자네는 보는가 라고 물었구요

아주 많이 라고 [답했어요](132d5-133a10) ”

그렇다면 지금 파르메니데아스 와 소오크라테스는 에이도스가 **그 자**

628쪽, 파르메니데아스139b4 : 42쪽)만을 *자체 또는 자신* 이라고 옮기고 τὸ αὐτὸ(형이상학1040b34 : 500쪽, 파르메니데아스132e4 : 1283쪽)은 *동일(한 것) 또는 그것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것 에이도스 라고 옮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박홍규 선생의 희랍철학논고 1권 33쪽도 참조하라 거기에서는 ‘ tauton(ταὐτόν, 동일자)의 auto가 대명사임에 주의. 대명사는 반복될 때 쓰여진다 ’ 라고 쓰여진다

2097) 에이도스를 닮은 것이 에이도스와 같다면 에이도스㉠ 와 닮은 것은 같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것㉠은 같은 것㉡와 더불어 반드시 동일한 것 하나를 나누어 지녀야한다면 그리고 동일한 하나인 것이 에이도스㉢이라면 에이도스㉠은 에이도스㉢과 알론할(ἄλλο 132e7)것이다 따라서 에이도스㉠과 나란히 에이도스㉢이 맞서 나타날 것이다

2098) 그 자체로 **있는** 에이도스 라는 말은 티마이오스 51c7(1136)에서도 나타난다

체로 있다²⁰⁹⁹)면 잇 따르게 될 어려움을 더더 가는 중이다 첫째,

사람 또는 불 또는 물의 분리된 에이도스가 있는가 라는 이 물음도 어려우며 둘째,

분리해 그 자체로 있는 에이도스의 무엇을 알론한 것은 나누어 취하는가 라는 물음도 어렵다

첫째 물음은 1257-1261에서 요약 정리되었다 비록 그 물음에 답하려는 시도가 생략된 채였기는 해도 말이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옥 둘째 물음에 대한 답들이 비록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옮겨지면서 요약 정리된다 분리해 그 자체 있는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님은 님아감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라는 결론적인 소오크라테스 답은 만약 님아감이라면 동일한 류의 새로운(καὺνὸν 133a2)에이도스들이 끝 없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에이도스는 소오크라테스의 에이도스에 어긋난다 소오크라테스에 따르면 그 자체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는 각각 하나(132a1, 1268)이기 때문이다

자 만약 어떤 것이 에이도스에 님는다면 그 어떤 것과 같은한 저 에이도스는 님은 그 어떤것과 같지 않을까 또는 어떤 길로든 같은 것은 같은 것과 같지 않을까 라고 물으셨구요 - (같지 않지) 않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것 하나를 같은 것은 같은 것과 더불어 반드시 나누어 지니지 않을까 - 반드시 - 그런데,

같은 것이 저것을 나누어 지님으로서 같을 바로 그것은 에이도스 자체가 아닐까 - 물론입니다 - 따라서 어떤 것도 에이도스와 같지 않으면 에이도스도 알론한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같지] 않다면 에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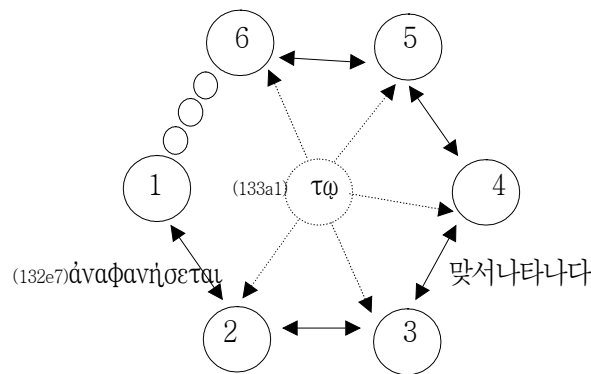
2099) 그 자체로 있다 라는 말은 달리 말해 분리해 있다(εἶναι χωρῖς 130d1, 1258쪽)라는 말이다 따라서 그 두 사람은 서로의 대화에서 에이도스의 분리가 지니는 어려움을 더더 가는 중이다 물론,

에이도스 그 자체 있음의 그리고 분리의 어려움 만이 언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의 류의 어려움도 그에 앞서 문제 삼기 때문이다

스와 나란히 알론한 에이도스가 맞서 나타날 것이며 저 알론한 에이도스가 다시 어떤 것과 같다면 다시 헤태론한 에이도스가 맞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에이도스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신을 나누어지니는 것과 에이도스가 같게 된다면 말이네 - 당신은 가장 진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알론한 것들은 같음에 의해서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알론한 어떤 것에 의해서 나누어 취하는가를 반드시 조사해야만하네 - 그려야할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따르면 에이도스의 같음을 알론한 것이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므로 나누어 지는 담아감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라고 결코 쓰여질 수 없다 만약 같음의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는다면 동일한 류의 에이도스가 자꾸 끊임 없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게 될 경우 동일한 류의 여러 에이도스가 무한할 것이므로 동일한 류의 에이도스가 각기 하나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가운데 점선 동그라미는 에이도스와 같은 알론한 어떤 것을 가리키며 실선 동그라미는 새롭게 나타나는 동일한 류의 에이도스들을 가리키는 반면 쌍 화살표는 나란히(παρὰ 132e7) 맞서 나타남을 가리키고 점선 화살표는 그 축이 가리키는 새로운 동일한(αὐτοῦ 132e1)하나 에이도스② 또는 ③ 또는 ④ 또는 ⑤ 또는 ⑥ 등을 같은 에이도스① 또는 ② 또는 ③ 또는 ④ 또는 ⑤ 등과 더불어 알론한 같은 어떤 것이 나누어 지는 것을 가리킨다

물론,

문제의 에이도스는 그 자체 분리해 있는 같음의 에이도스일 것이다 에이도스 같음을 나누어 지녀야만 같은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같음이 분리해 있다면 그리고 자신을 나누어지녀 자신을 닮은 것과 같음이 같다면 그리고 같은 것들은 동일한 것을 나누어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면 같은 것들이 나누어 지녀고 있어야할 바로 그 동일한 것 곧 새로운 에이도스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동일한** 류의 에이도스는 각각 하나여야한다면 그 에이도스는 **같음**의 에이도스가 아니어야한다 같음의 에이도스라면 위 그림에서 보여진 것 처럼 **같은** 여러 에이도스들이 반드시 스스로 있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넘은 같음의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넘 곧 닮아감 (εἰκασθήναι, 132d4, 1282)과는 알론한 그 어떤 것(τὴν 133a6)일까 그러나,

소오크라테에스와 문답하는 파르메니데에스는 이 물음에 답하지 않는다²¹⁰⁰) 오히려,

그는 그 자체로 분리해 있는 각각 에이도스 하나가 지니는 가장 큰 그래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꺾어낸다

2100) 그렇다면 파르메니데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문답하면서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일까

지금의 나로서는 무어라 자신있게 답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하나 아마도 알론한 것들이 나누어 지니는 에이도스는 **있음**의 에이도스가 아닐까 이미 여러 번 말하여진 것 처럼 **있는 것 자체**(254d4-5, 123쪽)은 **에이**도스의 커다란 다섯 가지 류에 씬 과 움직임 과 동일 과 헤태론과 더불어 속하며 이러한 나머지 4 가지 류를 뒤 섞어 묶어주는 힘(254c5, 123쪽)이 바로 있는 것 자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음을 나누어 지넘일 것이기에 나누어 지넘이란.....휴우,

이 가장 큰 어려움을 옮기면서 요약 정리하기에 앞서 이제까지의 어려움을 다시 정리해 보기로하자 첫째,

우리(사람인 것)과 분리된 사람의 또는 불인 것과 분리된 불의 또는 물인 것과 분리된 물의 에이도스는 그 자체로 있을까? 어려운 물음이다²¹⁰¹⁾

2101)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는 이 물음은 사람 또는 불 또는 물의 에이도스가 있을까 라는 물음 보다는 우리와 분리해서 사람의 에이도스가 또는 불인 것과 분리해서 불의 에이도스가 또는 물인 것과 **분리해서** 물의 에이도스가 **그 자체로** 있을까 라는 물음이기때문에 사람 또는 불 또는 물의 에이도스가 있을까 라는 물음에 먼저 답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저 물음은 문제의 그 에이도스들은 분리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예를들어 우리와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람의 에이도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람의 에이도스는 사람인 것(우리)와 분리해 그 자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며 쓸 수 있는 것은 머리 털 또는 먼지 또는 진흙 같은 그리 우아하지 못한 하찮은 것들의 에이도스는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öy 130d1)그러한 것들과 알론하게 분리해 있지 않다’ 라고 소오크라테스에 의해 아주 쉽게 쓰여지며 그리고 문제의 그 에이도스들이 어려운 것은 이러한 에이도스들이 선한 것과 올바른 것과 그 자체로 분리해 있는 선의 또는 올바른의 에이도스 처럼 말해야 할지 아니면 알론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 또는 올바른 또는 아름다움 등의 에이도스와 마찬가지로 사람 또는 불 또는 물 등의 에이도스 와 머리 털 또는 먼지 또는 진흙 등의 에이도스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첫 번째 류의 에이도스는 자신을 나누어 지니고 ‘있는’ 것들과 분리해 그 자체로 있으며 우리 눈에 감각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나머지 두 가지 류의 에이도스와 구분된다는 것을 소오크라테스는 말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름다움 등의 에이도스는 그 자체로 분리해 있으며 우아하지 못한 하찮은 먼지 등의 에이도

둘째,

스는 눈에 감각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있어 그 자체 분리해 있지 않는 반면 사람 등의 에이도스는 그 자체 분리해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알기 어려운 에이도스이다 그러나,

만약 분리해 그 자체로 있지 않는 것은 에이도스가 아니라면 먼지 등의 에이도스는 있지 않고 착함(선) 등의 에이도스는 있는 반면에 사람 등의 에이도스가 있는지의 여부(與否)를 아는 것은 어렵다 ‘이런 먼지 등의 에이도스가 있다 라고 상정하는 것은(οἰηθῆναι, 130d4, 1258) 불합리하다’ 라고 아주 쉽게 말해버리는 소오크라테스에 따르자면 아마도 먼지들의 에이도스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자는 어떤 부류의 에이도스의 유무(有無)를 선언(宣言)하고 있다 그러나,

‘먼지 등의 에이도스가 [분리해 그 자체로] 있다 라고 상정(上程)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읽으면 안될까 분리해 그 자체로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삼는 것으로 보아서 말이다 그럼에도 ‘먼지 등의 에이도스가 있다 라고 상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그대로 읽는 것이 더 올바른 것 같기도 한데.....만약 에이도스의 있고 없음 만을 여기서 소오크라테에스가 문제삼는다면 ‘사람 등의 에이도스를 착함 등의 에이도스 처럼(ὡςπερ, 130d4, 1257) 착한 것 등과 분리해 그 자체로 있다 라고 말해야 할지 또는 알론하게 말해야할지 어렵다’에서 선명해지는 분리의 문제가 빠져버릴 것이다 요컨대,

에이도스의 어떤 류가 있는지의 문제 보다는 에이도스의 어떤 류가 분리해 그 자체로 있는지의 문제를 소오크라테에스와 파르메니데에스는 다루면서 어려움에 빨려든다 라고 나는 쓰고 싶다 이어지는 거의 독백에 가까운 텔레스와의 대화에서도 역시 파르메니데에스는 분리 - 이 분리는 1256 쪽에 그려진 것과 같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 해 그 자체로 있는 에이도스 각기 ‘하나들’이 어떻게 뒤 섞어 ‘있는’지를 그것도 알론한 것들 과도 관련지워서 문제삼는다고 나는 보기 때문이다

분리해 그 자체로 있는 에이도스를 알론한 것이 나누어 취한다면 에이도스의 전체 또는 부분을 나누어 취할까 아니면 알론하게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할까 어려운 물음이다

두 사람에 의해서 지금까지 다루어진 이 어려움들을 아래 도표 처럼 나는 정리한다

나누어 취함	비유	에이도스	어려움
전체지님		여럿안의 하나 (131b5, 1263)	①알론한 것들 안에 각기 전체 들어 있을 것이므로 에이도스는 스스로와 분리 될 것임
	낮 (ἡμέρα 131b3)		?
부분지님	돛	여럿위의 하나 (131b9, 1263)	②스스로와는 분리되지 않으나 쪼개질 것이므로 곧 나누어 질 것이므로 동일한 류의 에이도스가 여럿 있을 것임
생각함		(132b5, 1269) 영혼안에있는 노에애마의 누우메논 하나	③누우메논을 생각해놓은 것이 노에애마이기 때문에 알론한 모든 것들은 노에애마들로 부터 있을 것이므로 모든 것이 생각할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있는 노에애마들이 非노에애타적일(생각과 관련이 없을)것이다
답아감		원형 하나 (132d2, 1271)	④같은 것들은 동일한것 하나를 나누어 지니므로 알론한 것과 같은 에이도스가 나누어 지녀야할 동일한 류의 새로운 에이도스가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나타남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 표에서는 분리해 그 자체 있는 에이도스를 알론한 것들이 나누어 취함에 관련된 어려움 네 가지가 구분된다 첫째,

전체를 나누어 취한다면 알론한 것 여럿 각각 안에 동일한 에이도스

하나씩 들어 있을 것이이 에이도스는 스스로와 분리될 것이다 -그러나 낮 하나처럼 에이도스가 여러 곳에 동시에 있다면 에이도스 각각 하나는 스스로와 분리되지 않은채 모든 것에 동시에 동일한 것으로 있을 수 는 있을 것이다²¹⁰²⁾-

낮 처럼을 제외하면 스스로와 분리되지 않을 에이도스를 어떻게 나누어 취할 수 있을까 둘째,

아마도 뜻이 여러 사람들 위에 펼쳐 있는 것 처럼 그 부분을 나누어 취한다면 스스로와 분리해 있지는 않으면서도 동일한 것 하나가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에이도스 하나가 나누어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하나로 있을 수는 없을까 셋째,

있을 것 같다²¹⁰³⁾만약 영혼 안에 있는 노에에마들을 그 알론한 것들

2102) 낮 비유(比喩)에 관련된 어려움을 파르메니데아스는 꼬집어 내지 않으므로 나는 물음표(?)를 그 칸에 넣었다 왜 그랬을까 얼토당토 않는 비유였기에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였을까

지금의 나에게는 ‘낮’이 선 듯 닳아서지 않는다 무슨 비유일까 태양 빛은 아닐 것 같으나 밤에 대비(對比)되는 낮은 확실한 것 같은데.....여러 낮들이 낮 하나를 지나는 것 처럼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나는 알론한 것들도 그러하다라는 말인데.....

2103) 이미 1263쪽 각주 2066번에 쓰여진 것 처럼 소오크라테스 와 파르메니데아스는 자신의 주장을 내 세우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οὐκ ἄν 131b3) 또는 그럴 것이다(ἄν 131a5, ἄν.....εἴη 131b2) 또는 만약....일거라면(εἰ.....εἴη 131b5-6) 등의 레에마(句)를 쓴다 그러는 가운데 그럴 거라면 또는 만약 그렇다면 잇 따르게 되는 어려움들을 꼬집어 낸다 따라서,

이들이 내 세우는 주장은 하나의 대안(代案) 성격을 조금 띄우긴 해도 자신들의 에이도스는 그런 식으로 분리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부정적(否定的)으로 보여준다 에이도스의 분리에 관한 오해(誤解)를 불식(拂拭)시키면서 말이다 어쨌든,

그들의 에이도스는 아주 독특하게 ‘분리해 있다’

이라고 본다면 노에에마는 누우메논를 생각해 놓은(vοεί, 132c3, 1269)것
이므로 자연히 그 자체 분리해 있는 동일한 에이도스 하나는 누우메논일 것
이며 여기 생각 안에서는²¹⁰⁴) 더 이상 크기를 지닌 여럿으로 나뉘어지지 않
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각기 모든 것은 노에에마들로부터(ἐκ, 132b10, 1270)있을 것
이므로 모든 것이 생각해야할 것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면 있는 노에에마
들은 非노에에타적인 것 다시말해 생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로고스를 지니지 못한다 그래서,

전체 또는 부분을 나누어 취하는 것도 아니며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면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함은 도대체 어떤 것이란 말인가 넷
째,

자연 안에 고정되어진 원형 으로서의 에이도스를 알론한 것들이 닮아
감 그 이외의 어떤 것도 나누어 취함은 아닐 것인가 그러나,

이 경우 자신을 닮은 것과 에이도스는 같다 그렇다면 동일한 것 하나
를 반드시 나누어 지니기에 같을 것이다 바로 이 **동일한 것 하나가 에이도**
스 자체이며 이러한 에이도스 자체는 자신을 나누어 지니므로서 같아진 것
들 어느 것과도 같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에이도스들이 끝 없이 나
타날 것이다(1286쪽 그림 참조)따라서 더 이상 에이도스가 하나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非 로고스적인 그리고 그들의 에이도스와 어긋나는 로고스들
은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 전체 또는 부분을 나누어 취하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이와는 달리 생각함 또는 닮음으로 나누어 취함을 볼 경우 잇 따르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두 사람의 에이도스는 무엇이길레 이처럼 어려운가 자.

2104) 아마도 파르메니데에스는 영혼에게도 크기가 없을 뿐 아니라 영혼이
하는 생각에도 크기(丈)가 없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위대(偉大)한 영혼은 없
단 말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두 번째 와 세 번째 어려움을 다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두 어려움 모두 부분을(μέρος, 131b7, 131d7)나누어 취한다면 잇 따르게 될 것들이기 때문이다 비록 하나는 크기를 지니는 반면 다른 하나는 크기를 지니지 않지만 말이다²¹⁰⁵⁾

2105) 이러한 맥락을 이루는 로고스는 텔레스의 형이상학 제에타 편 13 장 1039a2-3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ὁ τρίτος ἄνθρωπος)을 생각나게한다 거기에서는 여럿에 속하는 보편자가 이 (것)을 가리킨다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세 번째 사람 이라는 어려움이 잇따른다 라고 말하여지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이 파르메니데아스 편 여기의 세 번째 나타나는 바로 그 에이도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이상학에 나오는 그 어려움은 여기의 두 번째 어려움 보다는 세 번째 어려움에 훨씬 더 가깝다 가깝다 라기 보다는 동일한 맥락의 어려움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거기의 ‘속한다’를 여기의 ‘나누어 취하여진다 또는 부분으로 있다’와 동일한 맥락의 말로 볼 수 있으므로 그렇다 텔레스에 따르면 실체에 고유한 것은 이 (것) 과 분리인데 (1029a28, 298쪽)만약 보편자-텔레스에 따르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보편자 가운데 하나이며 보편자는 여럿에 속하는 것인 반면 실체는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가 이 (것)을 가리킨다면 세 번째 사람 이라는 어려움이 잇따른다 그러나,

거듭 나에 의해 되풀이 된 것 처럼 여기 소오크라테스에 따르면 사람 또는 불 또는 물 등의 에이도스가 착함 등의 에이도스 처럼 그 자체 분리해 있다 라고 쉽게 쓰여질 수는 결코 없다 아니 어렵게라도 그렇게 쓰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러나 텔레스는 세 번째 사람이라는 말을 분명히 쓴다 그것도 보편적인 이데아가 실체라는 것을 거부(拒否)하는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은연중에 텔레스는 사람의 이데아가 그 자체 분리해 있다고 주장하는 이데아 론자들을 문제삼고 있다 아마도 그 당시 아카데미의 이데아 론자들이 그랬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자신의 대화편 파르메니데아스에서 사람의 에이도스는 그렇게 있다 라고 쓰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플라톤 자신은 적어도 파르메니데아스 와 소피스테아스에서 내가 알기로는 결코 세 번째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며 사람의 에이도스가 있다 라고도 쓰지 아니한다 나아가서,

거기 텔레스는 보편자인 이데아가 이 (것)을 가리킨다면 어떻게 해서 세 번째 사람의 어려움이 잇따르게 되는가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그렇다면 잇따른다 라고 말할 뿐이기 때문이다 상황은 형이상학 큰 알파 편 9 장 앞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데아도스가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길(τὸ ὅπου δεικνύμεν 990b8-9)이 설득적이지 못한 원인들 중의 하나는 어떤 이데아 론자들은 우리가 있지 않다고 말하는 세 번째 사람이 있다 라고 텔레스는 거기서 말할 뿐 어떻게 그 세 번째 사람(ὁ τρίτον ἄνθρωπον 990b17)이 이끌어 나오게 되는가에 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큰 알파 편 9 장의 텔레스에 따르면,

어떤 이데아 론자들의 논증은 필연적인 추론이 아니며 어떤 이데아 론자들은 있지도 않은 에이도스를 있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어떤 에이도스 론자들은 우리가 있기를 더 열망하는 에이도스를 파괴해 버리므로 그리고 이데아들에 관한 의견들이 서로 어긋나므로 이데아 론자들이 에이도스가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길은 설득적이지 못하다 - 설득적이지 못하다는 이러한 비판 이외에도 너무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지엽적(枝葉的)이기도한 그러나 때론 아주 심각한 이데아 비판들이 형이상학 곳곳에서 와 범주들 그리고 이 이외의 강의록들에서 나타난다 -

세 번째 사람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는 에이도스를 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이데아 론자들을 언급하는 겨우 990b15-17 전체 세 줄-이 세 줄에서 거부되는 에이도스는 세 번째 사람의 에이도스 와 관계의 에이도스이다-에 보여진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은 보여지지 않는다 이미 여기 파르메니데이스 편에서 말하여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당시 아카데미에 너무 잘 알려졌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서였을까(로스의 형이상학 1권 194-196쪽 과 로스의 플라톤의 이데아론 87쪽을 참조하고 Vlastos의 논문 그리고 Cornford의 플라톤과파르메니데이스 87-92쪽 등을 참조하라) 어쨌든,

소오크라테스의 예를들어 큼의 에이도스를 알론한 것들은 나누어 취하여 알론한 크기인 것들이 생성된다면 여러 크기인 것이 생성되는 그 만큼의 큼들이 비록 큼의 부분이긴해도 있을거라는 로고스① 그리고 나누어 취함이 닮아감이고 원형은 자신을 닮은 것과 같다면 같은 것들은 동일한 것

큼(의) 에이도스의 경우 알론한 것들이 부분을 나누어 취한다면 먼저,

㉞적음에 의해서 커지고 똑 같아지는 반면 큼에 의해서 적어진다
는 非로고스적인 것이 잇따르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큰 것들은 큼의 부분을 나누어 취함으로써 커질 것인데 큰 것들이 나누어 취하는 문제의 바로 큼의 그 부분들은 큼 자체 보다는 적은 큼들이므로 적음에 의해서 커질 것이며 마찬가지로 똑 같은 것들도 똑 같은의 부분을 나누어 취함으로써 똑 같아질 것인데 똑 같은 것들이 나누어 취하는 문제의 바로 똑 같은의 그 부분들은 똑 같은 자체 보다는 적은 똑 같음들이므로 적음에 의해서 똑 같아질 것인 반면에 적은 것들은 적음의 부분을 나누어 취함으로써 적어질 것이나 적은 것들이 나누어 취하는 문제의 바로 적음의 그 부분들 보다 적음 자체는 클 것이므로 적은 것들은 자신들이 나누어 취하는 적은 부분들의 그 큼에 의해서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㉟이럴 경우 에이도스 각각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알론한 *여럿*일 것이다 예를들어 큼 자체 와 알론한 크기들의 경우 알론한 크기가 그것에 의해서 크게 나타나는 크기인 것 하나가 영혼에(τῆν ψυχῆν 132a7)보일 것이므로 큼 자체 와 이 큼을 나누어 지니는 것에 나란히 알론한 에이도스 크기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경우에 그것에 의해 모든 그 크기들이 있을 헤태론한 에이도스 크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㊱그런데 나타나는 것들을 영혼 안에 있는 노에애마로 본다면 *여럿*이 아니라 *하나*일 것이리라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은 크기로 있지는 않을 것이기

하나를 각기 반드시 나누어 지니므로 그러한 같은 것들인 에이도스(원형)인 것 과 알론한 것은 각기 동일한 것 그 하나를 곧 새로운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닌다는 로고스^② 그리고 보편자이므로 여럿에 속하는-보편자는 여럿에 속해있기 때문이다-바로 그 이데아는 이데아론자들이 말하듯 그 여럿과 분리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데아 예를들어 세 번째 사람이 있을 거라는 로고스^③은 비록 동일한 맥락은 아닐지라고 모두 같은 맥락에 속할 것 처럼 보인다(①과②는 플라톤의 로고스인 반면 ③은 텔레스의 로고스이다)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든 것이 생각해야하거나 또는 노에애마가 非노에타적이어야할 것이다 누우메나를 생각해 놓은 것이 노에애마이며 바로 이 누우메나를 에이도스 하나일 것이므로 나누어 취함이란 바로 생 각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두 번째 어려움을 이루는 ㉠과㉡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을 이루 는 ㉢ 이 셋 모두 부분을 나누어 취함에 관련되는 것들이다 다시,

두 번째 어려움 과 네 번째 어려움 이 둘도 묶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두 어려움 모두 끊임 없이 나타나는 무한한(infinite regress, 無限 後退)여럿에 관련되는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먼저,

㉠알론한 큰 것들이 있는 그 만큼 헤태론한 에이도스 크기들이 있을 것이어서 큰 것들의 개수가 무한하다면 에이도스 크기들도 무한(ἄπειρα 132b2)히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1286쪽에 그려진 것 처럼 나누어 취함이 닮아감이라면 알론한 것들 과 에이도스는 같은 것일 것이다 자신을 닮은 것과 원형은 같은 것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같은 것들은 반드시 동일한 것 하나를 나누어 취해야하는데 동일한 것 하나란 바로 에이도스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닮은 것 과 원형 에이도스 그리고 이 둘이 나누어 지는 새로운 에이도스 그리고 끊임 없이 나타나는 *ἰούδέποτε παύεται* 133a1)새로운 에이도스들 이렇게 무한히 진행 될 것될이다 따라서,

두 번째 어려움을 이루는㉠ 과 네 번째 어려움을 이루는㉡ 이 둘은 모두 무한함에 관련되는 어려움들이다 이제,

그 자체 분리 해 있는 에이도스 하나가 지니는 가장 큰 어려움 (133a11-134c5)을 더듬어 가야할 때가 닥아온 것 같다 그러나 더듬기 전에 에이도스에 관해 이제까지 무엇이 쓰였지는 정돈하고 넘어가야한다 에이도 스가 무엇인가를 알고싶은 나는 너무 초조(焦燥)하기 때문이다

에이도스

인 것은 그 자체로 있다(1244)

인 것에는 같음 과 같지않음 과 하나 와 많음(여럿) 과 쉽
과 움직임 등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분
리해 있으나 어떤 힘에의해 붙고 떨어진다
(1249)나아가서 이 각각은 자신을 나누어 지니
는 알론한 것들과도 분리해 그 자체 있다(1253)
나아가서 정의 와 선(*ἀνάθος*, 착함) 과 아름다
움 과 이와 같은 것의 에이도스가 있다(1257)알
의 에이도스도 있다(1302)그런데 사람 또는 불
또는 물 등의 에이도스가 선 등의 에이도스 처
럼 그 자체 분리해 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우
리 손에 놓여있는 머리 털과 알론하게 분리해
있는 머리 털의 에이도스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은 불합리하다 우아하지 않은 하찮은 것들의 에
이도스도 마찬가지로 가지다(1257)

들은 각기 하나씩 있다 여럿 있는 것이 아니며(1268)스스로
와 분리되지도 않고(1263)그 자체 나뉘어지는
것도 아니다(1265)그러나,

는 모든 것에 동일한 것으로 있다(1270)²¹⁰⁶⁾

를 나누어 지녀야 같아지며 하나가 되고 올바르게 선하고
아름답다 등 등(1262)그러나,

를 나누어 지님은 전체 또는 부분을 나누어 취하는 것도 아
니요(1268)생각함(1270)도 닳아감(1284)도 아니
다 그리고,

를 나누어 지녀야 그 이름을 유지한다(1262)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는다 그 자체 분리

2106) 파르메니데에스는 누우메논을 에이도스라고 말하고는 있으나(1270)
이것은 노에에마와의 관련에서 그렇게 말한 것일 뿐 실제로 플라톤이 누우
메논을 에이도스로 보았는지가 선명하지 않다

해 있다면 앞의 에이도스를 우리가 지니지 못하
기 때문이다(1302)

끄응 어떻게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할 수 있지?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어 지녀야 내가 착해질 수 있는 바로 그 자체 분리해 있
는 에이도스를 내가 인식할 수 없다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아주 커다란 어려움을 파르메니데아스는 소오크라테아스에게 일깨워준다

“ 있는 것들의 항상 각기 것에 상응하는(ἀφορίζόμενος²¹⁰⁷)
133b2)에이도스 하나를 만약 자네가 설정한다면 감히 그 자체 건드리
지도 못한다 라고 말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알아야하
네 라고 (파르메니데아스께서는) 말씀하시자

어째서요 ? 라고 (소오크라테아스는) 말했지요

알론한 여럿들이 [있지]만 이 (것)이 가장 크다네(μέγιστον
133b4)우리들이 말하는 반드시 그러한 것들로 있는 에이도스 그것들
은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자가 주장한다면 폭 넓은 경험을 하
게되고 자연적인 능력을 얻을 기회가 있어 전적으로 여러 더 나아간

2107) ‘상응하는’ 보다는 ‘규정(規定)하는 또는 정의(定意)하는’의 본디 뜻을
살리자면 ‘있는 것들의 각각을 정의하는’으로 옮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데,

있는 것들의(τῶν ὄντων 133b1)이라는 낱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
까지는 에이도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쓰여졌으나 여기서는 에이도스를 나누
어 취하는 것들 곧 개물(個物)이 가리켜지는 것은 아닌지.....그렇다면 만약
예를들어 착한 것들 각각을 정의하는 에이도스 하나를 자네가 받아들인다면
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에이도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에이도스
들의 각기 것을 정의하는 에이도스 하나’가 될 것이고 에이도스를 에이도스
로 정의하는 셈이 될 것이다 불합리하다 그래서,

나는 있는 것들 각각에 상응(相應)하는 또는 걸리는 에이도스 하나
로 보아 있는 것들을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하는 것들로 일단 받아드린다

몰입를 통해 스스로 꺾어져 깨닫지(τοῦ ἐνδειξινομένου ἕοεσθαι 133b9) 않는한 거짓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도 그 자에게 논증하지 못할 것이 네 그러지 않는한 그(러한 에이도스)들은 필연적으로 몰인식적인 것(ὁ ἄννοστα²¹⁰⁸) 133c1)일 것이다 라고 하는 자를 설득할 길이 없네 라고 (파르메니데아스는) 답했구요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어째서죠?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그 각각의 실체(οὐσίαν 133c4)라는 것을 받아드리는 자네 와 알론한 자들은 처음부터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세계] 안에 있지 않을 거라는 데에 동의할 거라고 오 소오크라테아스여 나는 여기서 때문일세

여전히(ἔτι 133c6) 그것은 어떻게[든] 그 자체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물었어요

자네는 아름답게 말했네 라고 [파르메니데아스 께서는] 답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서로에 대해 있는 것들로 있는 이데아들은 [자신들의] 실체를(τὴν οὐσίαν²¹⁰⁹) 133c9)자신들에 대해 지니지 우리들이 그것들을 나누어 지님으로서 각기 것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같음들이든 또는 이렇게 받아드려지는 무엇이든 우리와 나란한(παρ' ²¹¹⁰)

2108) 이데아들을 우리는 결코 인식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자 가운데 하나에 이미 우리가 486, 496-497에서 말한 것 처럼 형이상학 제에타 편 1040a22-27의 텔레스도 속할 것이다 거기서 텔레스는 분리된 이데아의 정의는 있지않으며 그래서 인식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인식될 수 없다 라는 말을 직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면 어떻게 인식이 될 것인가(πῶς ννοισθήσεται; ,1040a25, 496)라고 반문한다 다시말해 분리된 이데아는 인식되지 않는 몰인식(沒認識)적인 것이다

2109) 이러한 실체를 발견하고 이러한 실체가 있는 것 또는 있음과 구분되는 어떤 것일까 하는 물음이 솟아 올라 아마도 텔레스는 자신의 형이상학에서 실체론을 펼친 것은 아닐는지.....실체의 이런 독자적인 쓰임새는 시체를 지니는 하나에 관해 쓰는 같은 파르메니데아스 편 143a6(50쪽) 이하에서도 여러 번 나타난다(47쪽 각주 39번 참조)

2110) '나란히 분리된' 보다는 '우리가 나누어 지니는'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133d2)것들에 대해 지니는 것이 아니다²¹¹¹) 그런데 저(이데아)와 동일한 이름을 [지니고] 있는 우리와 나란한 그것들은 다시 자신들에 대해(πρός 133d3)있지 에이도스들에 대해 (있지 않으)며 다시 저(에이도스)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그렇게 불리워진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물었어오

예를들어 우리들 중의 어떤 자가 그 (누구)의 주인 또는 노예 라면 저 노예는 아마 주인인 주인 자체의 (노예)도 아니요 그 주인은 노예인 노예 자체의 주인도 아니라 사람 실로(ὅν 133e1) [알론한] 사람의 그러한 양자(ἀμφότερα e1)인 반면 (주인)인 주인 자체는 (노예)인 노예 자체의 (주인 자체)요 그리고 노예 이와 마찬가지로 노예 자체는 주인 자체의 (노예 자체)이다²¹¹²) 그러나 우리 [세계] 안의(ἐν

이제까지 나는 παρά(나란한)이라는 전치사를 ‘나란히’ 분리된 이라는 맥락에서 써 왔다 500(형이상학 1040b31), 1269(파르메니데에스 132a10)쪽도 그러한 맥락의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나누어 지님 보다는 분리가 강조된다 그러나,

여기 맥락의 παρ’ 는 분리 보다는 나누어 지님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111) 나란한 것들과 관련하여 실체를 지니지 않는다 라는 말이다

2112) 나는 여기서 노예는 주인의 노예이며 주인은 노예의 주인 이라고 말하는 텔레스를 끄집어 내 본다(범주들6b29-30, 189쪽)

거기서 텔레스는 대해 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프로스 티(관계)는 자신의 짝을 지닌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보기로 주인과노예 그리고 배와반 그리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들면서 이어 7a28-a31에서 ‘만약 관계가 우연적인 것과 맺어지면 그 상대 짝은 있지 않다 예를들어 노예가 주인의 노예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는 두 다리 지닌 것 또는 이와 같은 어떤 것)의 노예로서 주어진다면 상대 짝은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짝이 적절히 주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뒤 7b15-b18에서 프로스 티(πρός τι, 관계)의 짝은 대부분 동시에 주어지므로 노예가 있을 때 주인이 있고 반이 있을 때 배가 있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노예는 사람의 노예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노예로서 있다 라고 텔레스는 분명히 말하므로 노예는 주인 자체의 노예가 아니라 알론한 사

133e5) 것들은 저 [세계] 것들에 대해 힘을(τὴν δύναμιν e5) 지니는 것도 아니요 저 [세계] 것들은 우리 [세계]에 대해 (힘을 지닌 것도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말하[듯] 이(우리[세계] 안의) 것들은 자신들의 (이것들)이요 저 [세계] 것들도 자신들의 (저것들)일 것이며 우리들에 나란한(παρ' 134a1 것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에 대해 있을 것이다 자네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겠는가(μὴνθάναυς 134a1)라고 파르메니데아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알아듣습니다 라고 소오크라테아스는 답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앎인 앎 자체는 진리 자체인 것의 저 (진리)의 앎[이겠지]? 라고 물으셨어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다시 있는 앎들의 각기 것은 있는 있는 것들(τῶν ὄντων, ὃ ἔστιν²¹¹³), 134a6-7)각기 것의 앎일 것이다 또는 [그렇지] 앎을

고 텔레스는 분명히 말하므로 노예는 주인 자체의 노예가 아니라 알론한 사람의 노예인 반면 노예 자체는 주인 자체의 노예 자체이며 주인 자체는 노예 자체의 주인 자체 라고 분명히 말하는 플라톤에 어긋난다 물론,

이 두 사람이 말하는 맥락이 다르긴하다 텔레스는 프로스 티의 짝에 대해 말하는 맥락인 반면에 플라톤은 노예 자체 또는 주인 자체 그리고 주인 것 또는 노예인 것이 서로에 대해(πρὸς 133c8,9, e5)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해 있다 라고 쓰는 맥락이기 때문이다-물론 이 두 사람이 각기 사람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오히려 텔레스가 '관념론'적인 편향성이 짙다-그러므로,

플라톤에 따르면 주인 자체(에이도스) 와 주인인 것(사람)은 적어도 여기에서는 서로에 대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서로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사람의 에이도스가 우리와 분리해 그 자체로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 라는 1257쪽의 글을 나는 여기와 묶어 본다

2113) 텔레스의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τὸ ὄν ἢ ὄν, 1060b31,

까?

예

그런데 우리와 나란한[것들의] 앎은 우리와 나란한 [것들의] 진리의 (앎)이 아닐까 다시 우리와 나란한[것들의] 앎 각각은 우리와 나란히 있는 것들 각각의 앎이라는 것이 잇따를 것이네

반드시

그러나

자네가 동의하다시피 에이도스 자체는 우리가 지니지도 못하며 실로 우리와 나란히($\pi\alpha\rho$ ²¹¹⁴) 134b4)있지도 않네

[그러지] 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기 있는 [에이도스] 류들 자체는 앎 그 자체의 그 에이도스에 의해서 어떻게든 인식되어야하지?

예

우리는 그(앎 자체의 에이도스)를 지니지 못하네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이도스들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들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네 그(에이도스)의 앎을 우리가 나누어 지니지 못하기 때문일세

못할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있는 아름다움 자체 와 선($\tau\acute{o} \acute{\alpha}\gamma\alpha\theta\acute{o}\nu$, 134c1, 善, 착함) 그리고 우리가 이데아 자체로서 취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몰인식($\acute{\alpha}\gamma\upsilon\omega\sigma\tau\omicron\nu$, 沒認識)적이네

위험하군요

나아가서 보아야 할 이 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것이네

어떠한 것입니까?

1083-1106쪽)을 참조하라

2114) 그렇다면 ‘우리과 나란히($\pi\alpha\rho$)’란 ‘우리과 따로 떨어진’ 보다는 ‘우리과 나란히 있는’ 또는 ‘우리과 더불어 있는’ 또는 ‘우리과 관련있는’을 뜻할 것 같다 따라서 우리과 나란하지않다 라는 말을 우리[의 세계]와 떨어져서 분리해 있다 도저히 우리과 관련을 맺을 수 없다 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나란히’란 말 자체를 나는 ‘분리해 떨어진’ 것으로 받아 드렸다는 것을 이미 1299쪽 각주 2110번에 썼다

그 자체 앎의 류인 것이 있다면 그 (앎)은 우리와 나란한[세계 안의] 것 보다 많이 정확하며(ἀκριβέστερον²¹¹⁵) 134d7)그리고 아름다움 과 알론한 모든 것도 이와 같다고 자네는 어떻게든 상정하려할 것이네

예

이제 만약 알론한 것이 앎 자체를 나누어 지닌다(μετέχει²¹¹⁶)

2115) ‘신들의 생성 과 모든 것의 생성에 관한 많은 의견들 가운데서 각기 모든 측면에서 정확하고(ἀπικριβωμένους 29c6)서로에게 일관된 말들을 제공할 힘(δυνατοί c5)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티마이오스 편에서 티마이오스가 소오크라테스에게 말하는 19쪽을 참조하라 거기에서는 신 과 모든 것의 생성에 관한 의견들은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πάντη πάντως 29c5) 정확할 수 없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부족할 뿐 더러 생성된 것들 곧 신 과 모든 것(우주)에 관한 의견들은 본디 완벽하게 정확한 것들이 아니므로 우리가 완벽하게 정확한 의견을 뽑아 낼 수 없을 뿐이지 그렇게 정확한 앎 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데아들에 관한 앎 그것이 바로 진리요 완벽하게 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 과 신들 만이 누우스를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앎 역시 신 만이 지닐 것이다 아마 모든 신들이 지니는 것이 아니라 신 한 분 만이 지니실 것이다 신들이 지니는 것은 인간의 의견 보다는 더 정확할 것이지만 신 하나 보다는 덜 정확할 것이기 때문이다

2116) 나누어 취함(μεταλαμβάνοντα, 130a6, 1262, 1265) 나누어 지남이 비로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쓰여진다는 점도 참고해 봄직하다 본디 나누어 지남(관여, 關與)이란 이렇게 앎과 관련되어 쓰여지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그러하다 1290쪽에서 도표(圖表)로 보여진 바로 그러한 길로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앎의 길로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는 것으로 나에게서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전체로도 부분으로도 우리는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 또는 답음을 통해서도 에이도스를 우리는 나누어 취할 수 없고 단지 앎을 통해서-문제의 앎 자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아오는지는 다

134c10)면 어떤 것 보다 오히려 신(Θεόν, c11, 神)이 가장 정확한 앎을 지닌다 라고 주장하지 않으려는가

반드시

따라서 그렇다면 다시 이제 앎 자체를 지니는 그 신(ὁ Θεός²¹¹⁷) 134d1)이 우리와 나란한 [세계 안의] 것들을 인식할까²¹¹⁸)?

[그렇지] 않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 소오크라테스여 저 에이도스들은 우리와 나란한 [세계 안의] 것들에 대해(πρὸς²¹¹⁹) 134d5) [있을] 힘을 지니는 것도 아니며 우리와 나란한 [세계 안의] 것들도 저 (에이도스)들에 대해 (있을 힘을 지니는 것도 아니라 이것들은 자기 각각들에 대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동의되어지네 라고 파르메니데아스께서는 말했습니다요

동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가장 정확한 주인 과 이 가장 정확한 앎이 신과 나란

른 물음이다-만이 우리는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지금 앎이 ‘생각’을 통해서 온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끄읏, 깃!

2117) 단수(單數)이지 복수(複數)가 아님에 그리고 가장 정확한 앎 이라는 최상급(最上級)이 134c11에서 쓰임에 유념(留念)하라 신들이 아니라 그 신이 가장 정확한 앎을 지닌다고 말이다 아마도 그에 따르면 신들은 덜 정확한 앎을 지닐 것이다 비록 사람 보다는 더 정확할 것이긴 해도 말이다

2118) γινώσκειν(134d1, 認識하다)라는 부정형(不定形)이 쓰였으므로 가능(可能)의 뜻을 첨가해 인식할 수 있다 라고도 옮길 수(cornford 97)있으리라 그러나,

부정형에 가능(할 수 있다)의 뜻을 첨가시키는 것은 하나의 해석이 아닐까 그저 단지 인식하다로 일단 옮겨 놓은 후에 더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이 나올 것 같기도하다 물론 가능(可能)의 부정형(不定形)을 내가 거부(拒否)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합(整合)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2119) 저 에이도스들은 우리와 나란한 것들에 관계 맺(을 수 있는) 힘을 지니지 않다 라는 말이다 ‘관계 맺다’ 라는 말로 의역(意譯)될 수 있는 ‘에 대해 있다’ 라는 본문의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히(παρά²¹²⁰, 134d9)있다면 주인은 언제든지 저 우리들의²¹²¹주인이 아닐 것이고 앎은 우리 인식이 아닐 것이며 우리와 나란한 [세계의] 것들의 알론한 어떤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와 나란한 [세계의] 아르케에 의해서 저(이데아들)을 지배하지(ἄρχομεν 134e1)도 못하며 우리의 어떤 앎에 의해서도 신을 알지도 못하고 다시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저(신)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있는 신들은 사람의 일들을(πράγματα 134c5)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으로부터] 어떤 보아 앎(τού εἰδέναι²¹²²)

2120) 신 옆에 있다면 이라는 말이다

2121) 우리(들의, ἡμῶν, 134d9)라는 일 인칭 대명사 복수형들은 에이도스 론의 어려움들에 대해 쓰여지는 가운데 자주 나타난다 구체적인 사람 으로서의 나 또는 우리를 가리키면서 말이다 1248쪽에서도 우리가 거론되면서 나는 하나이면서 여럿이다 라고 쓰여지기도며 우리와 나란히 우리 옆에 있는 것들과 분리해 그 자체 있는 저 에이도스에서의 우리 처럼 쓰이기도 한다 ‘나와너와우리여럿(129a2-3, 1245)’가 자주 나타나는 글, 아! 얼마나 추상적이 아닌 생생한 글들인가 이처럼,

플라톤의 용어들은 딱딱한 강단(講壇)에서 나오는 글이라기 보다는 살아있는 구체적인 삶속에서 녹아흐르는 글을 이룬다

2122) 에이데나이(보아 알다)라는 부정형(不定形)과2격은 그대로 텔레스의 형이상학 첫 줄에서 그대로 τού εἰδέναι라고 똑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연스레 보아 알려한다(980a22)라고 거기서 쓰이는 반면 여기서는 신이 사람의 일을 보아 알지 못한다 라는 로고스는 놀랍다 라고 쓰인다 그런데,

신은 우리[세상]의 일을 보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걱정스럽게 그리고 이상하게 바라 보았다는 것을 위 글은 보여 준다 그리고 플라톤의 학원에서 이십여년 동안 학업을 쌓았던 텔레스조차 이러한 이상한 자 또는 걱정스러운 일을 하는 자들 축에 끼어 들고 있다는 것은 좀 이상스럽기까지하다 물론 텔레스는 신에 대해 말하기는 하나 그의 신은 그저 최초의 움직임만 전달해 주었을 뿐 더 이상 그 움직임의 세계를 보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와 진짜 분리해 있을 뿐이다 형이상학 거기서 텔레스가 에이데나이의 주어로 신이 아닌 사람을 선택한 것은 괜히 이유 없이

134e7)을 빼앗는 로고스는 놀랍다²¹²³) 라는 것은 너무나 것이 아닐 것이다

오 소오크라테스여 더 나아가서 만약 **있는 것들**의 이런 **이데** **아들이**(*ai idéai*²¹²⁴) 135a2)있고 누군가가 그 자체 각기 **에이도스**인 것으로 구분한다면 이(어려움) 과 이것들 이외에도 여러 알론한(어려움)들을 그 에이도스는 지닌다네 그래서 듣는 자들은 어려워할 (*ἀπορεῖν* a3)것이고 이 (에이도스)들이 있느냐 또는 만약 대 부분(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 이것은 사람의 자연에 의해 非 인식적인 것들이다 라고 논의하러 들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우리들이 말했던 것 처럼 놀랍도록 설득하기 힘든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네²¹²⁵) 그리고 단지 예외적인 재능을 받은 남자(*ἀνδρὸς* 135a7)만이 각각의 **류인** 것 과 **실체** 그것이 그 자체로(*οὐσία αὐτῆ καθ' αὐτήν* 135a8-b1)있다는 것을 배울 것이며 나아가서 (이러한 실체 곧 그 자체로 있는 각각의 류인 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어려움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반면 여기 에이데나이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나아가서,

나누어 지님을 쓰면서 어렵기 때문에 단지 분리해 그 자체로 있을 뿐인 에이도스만을 쓰는 로고스는 결국 신이 우리의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놀라운 로고스로 까지 나아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소오크라테스의 에이도스론은 이러한 놀라운 어려움을 잉태한다 에이도스를 알론한 것이 나누어 지남에 대한 글을 속 시원하게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렵다고해서 에이도스론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2123) *θαυμαστός*(놀랍다, 134e6) 라는 말이 약간은 이상 야릇한 맥락에서 쓰인 듯하다 이러한 맥락은 1246-1247의 맥락과도 통한다

2124) 이데아들을 cornford는 특성(characters, 特性, 콘퍼드100쪽)으로 번역하곤한다 왜 그러할까

2125) 그러한 에이도스는 몰 인식적 것으로서 여기는 자를 우리는 논의에 의해서 설득할 수 없다고 이미 1299쪽에 옮겨졌다

들을 두루 음미한 알론한 자를 가르치는 것은 보다 더 놀라운 일이네
라고 파르메니데아스 께서는 말씀하셨구요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당신과 함께합니다 진심으로 저와 함하게
당신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말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만약 오 소오크라테스여 어떤 자가 이런
모든 [어려움] 과 그와 같은 알론한 것을 고려하여 **있는 것들의 에이
도스가** 있다는 것도 각기 하나의 에이도스인 것이 구분되는(ὁριείται
135b7)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디아노이안²¹²⁶이 그리
로 향할 그 어떤 것도 자니지 못할 것이며 있는 것들 각각의 항상 동
일한 이데아가 있지(ἐών c1)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두루 말하여지
는(διαλέγεσθαι c2)힘을 모든 곳에서 파괴한다²¹²⁷네 이것을 자네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나에게 여겨지네 라고 파르메니데아스 께서는 말
하셨어요

당신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말했
습니다

그렇다면 철학(φιλοσοφίας 135c5)에 관해 자네는 무엇을 하려
나? 이러한 물 인식적인 것[상태]으로부터 어떻게 전환해야할까(πῆ τρ
έψη 135c5)? (133a11-135c6) ”

2126) 수(학)적인 생각 또는 추리(推理) 또는 숙고(熟考) 또는 오성(悟性)
이라고도 옮겨질 수 있을 διάνοιαν(135b8, 사유(思惟)) 이라는 말을 파르메
니데아스는 쓴다 이미,

1145쪽 선분의 비유에서 그려진 것 처럼 *디아노이아*는 수학적인 것
들에 향하는(τρέψει 135b8) 생각이라고도 쓰여질 수 있을 것인데 바로 이러
한 디아노이아 라는 말이 여기에 쓰여진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왜 *생각*(νοεί
ν)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을까 나누어 취함은 아마 생각함도 아닐 거라고
내가 결론을 내리는 1290쪽도 참조해 보라

나는 여기 디아노이안을 생각 과 오성(悟性) 과 믿음 과 추측 등
모든 숙고(熟考)를 포함하는 것 이라고 보고 싶다

2127)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파르메니데이스와 플라톤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에이도스**란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쓰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약 에이도스가 그 자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런 **생각(디아노이아)**도 대화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분명히 있긴하나 그 자체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를 우리가 어떻게든 나누어 지니지 못한다면 어떠한 에이도스도 우리에게 인식될 수 없을 것이다 인식이란 **앎의 에이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앎의 에이도스**와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있을 수 있는 힘(τὴν δύναμιν 134d5)**이 서로에게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로와 관계 맺을 수 있는 힘이 서로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쓴다

이러한 맥락의 위 인용 글월을 다시 옮겨 보기로 하자

있는 것들의 각기 것에 항상 상응하는 **에이도스 하나**를 만약 자네가 설정한다면 감히 그 자체 건드리지지도 못한다 라고 말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알아야하네 라고 말씀하시자 - 어째서요? 라고 말했지요 - 알론한 여럿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크다네 우리들이 말하는 반드시 그러한 것들로 있는 에이도스 그것들은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자가 주장한다면 전적으로 여러 더 나아간 몰입을 통해 스스로 꺾어져 깨닫지 않는한 거짓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도 그 자에게 논증하지 못할 것이네 그러지 않는한 그러한 에이도스들은 필연적으로 **몰인식적인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자를 설득할 길이 없네 라고 답하셨구요 - 오 파르메니데이스여 어째서요?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물었읍지요 -

그것은 그 자체로 그 각각의 실체라는 것을 받아드리는 자네와 알론한 자들은 처음부터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세계] 안에** 있지 않을 거라는 데에 동의할 거라고 오 소오크라테스여 나는 여기서 때문일세 - 여전히 그것은 어떻게든 그 자체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물었어요 - 자네는 아름답게 말했네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있는 서로에 대해 있는 **이デア**들은 실체를 자신들에 대해 지니지 우리들이 그것들을 나누어 지님으로서 각기 것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같음들이든 또는 이렇게 받아드려지는 무엇이든 우리와 나란한 것들에 대해 지니는 것

이 아니네 그런데 저 *이테아*와 동일한 이름을 지니고 있는 우리와 나란한 그것들은 다시 자신들에 대해 있지 *에이도스*²¹²⁸⁾들에 대해 있지 않으며 다시 저 에이도스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그렇게 불리워진다네 -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물었어요 -

예를들어 우리들 중의 어떤 자가 그 누구의 주인 또는 노예라면 저 노예는 아마 주인인 주인 자체의²¹²⁹⁾ 노예도 아니요 그 주인은 노예인 노예

2128) 여기서 쓰여지는 *이테아* 와 *에이도스*에 무슨 구분이 있을 것 같긴한데.....1269쪽에 옮겨진 것 처럼 *이테아*는 주로 생각 또는 노에에마와 연관지어져서 쓰이는 것 같다 ‘이테아 하나인 것을 노에인(vοεί, 132c3, 생각)해 놓은 것이 바로 노에에마이다’에서 처럼 말이다 그런데,

텔레스가 아주 끈질기게 공격하는 것을 에이도스 보다는 오히려 *이테아*-텔레스에 따르면 이테아(ιδεας, 형이상학, 1039a25)란 분리된 실체 또는 에이도스이다-로 보는 것이 더 낫다면-그러나 텔레스는 분리된 에이도스를 공격한다 라고도 말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에 의해 주로 생각에 관련되는 이테아를 텔레스는 문제삼는다 라고 말하여질 수는 없는 것일까 말하여질 수 있다면 텔레스는 노에에마(관념)을 이테아로 보지는 않았을까 라고 물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이테아는 에이도스가 아니다 라고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테아는 에이도스와는 달리 생각 또는 인식과 연관지어져서 플라톤에 따르면 나타나는 것은 아닐는지 하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 볼 뿐이다 그렇다면 *에이도스*는 어떤 것과 관련지어져 주로 나타나는가 글썄.....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으나.....

2129) “주인 ‘인’ 주인 그 자체의”는 “αὐτοῦ δεσπότου..., ‘δ’ ἔστι δεσπότης 133d8)”를 옮긴 것 인데 여기 ‘호(δ)’ 처럼 쓰인 것이 바로 텔레스에 의해서 형이상학 감마 편 제 1 장 1003a21에서 쓰인 ‘으로서의(ἦ)’가 아닐까 거기 ‘헤에’ 와 여기 ‘호’를 같은 쓰임새로 본다면 거기를 ‘있는 있는 것’으로 여기를 ‘주인인 주인’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나는 이렇게 옮겼다

나는 문장 구조 뿐 아니라 그 문법적인 뜻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여기기에 여기서 문제 삼는다 텔레스의 형이상학 1061a34(1085) 뿐 아니라 자연학 알론한 곳 에서도 여기와 같은 문장 구조를 본 적이 있는데.....아니다

자체의 주인도 아니라 사람 실로 알론한 사람의 그러한 양자인 반면 주인인 주인 자체는 노예인 노예 자체의 주인 자체요 그리고 노예 이와 마찬가지로 노예 자체는 주인 자체의 노예 자체이네 그러나 우리[세계] 안의 것들은 저 [세계] 것들에 대해 힘을 지니는 것도 아니요 저 [세계] 것들은 우리 [세계]에 대해 힘을 지닌것도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말하듯이 이 우리[세계] 안의 것들은 자신들의 이것들이요 저 [세계] 것들도 자신들의 저것들일 것이며 우리들에 나란한 것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에 대해 있을 것이네 자네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겠는가 라고 파르메니데아스께서는 말씀하셨구요 - 물론 알아듣습니다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답했습니다 - 이제,

마찬 가지로 앎인 **앎** 자체는 진리 자체인 것의 저 진리의 앎이겠지? 라고 물으셨어요 - 물론입니다 - 그런데 다시 있는 앎들의 각기 것은 있는 있는 것들 각기 것의 앎일 것이다 또는 그렇지 앎을까? - 예 - 그런데 우리와 나란한 것들의 앎은 우리와 나란한 것들의 진리의 앎이 아닐까 다시 우리와 나란한 것들의 앎 각각은 우리와 나란히 있는 것들 각각의 앎이라는 것이 잇따를 것이네 - 반드시 - 그러나,

자네가 동의하다시피 에이도스 자체는 우리가 지니지도 못하며 실로 우리와 나란히 있지도 않네 -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각기 있는 류들 자체는 앎 그 자체의 그 에이도스에 의해서 어떻게든 인식되어야하지? - 예 - 우리는 그 앎 자체의 에이도스를 지니지 못하네 -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에이도스들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들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네 그 에이도스의 앎을 우리가 나누어 지니지 못하기 때문일세 - 못할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그리고 있는 아름다움 자체 와 선(τὸ ἀγαθόν, 134c1, 善, 착함) 그리고 우리가 이데아 자체로서 취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몰인식적이네 -

위험하군요 - 나아가서 보아야 할 이 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것이네

영혼에 관하여에서도 본 것 같다 어쨌든,

텔레스 와 플라톤의 레아마(句)를 보고 있으면 상호 유사한 구조가 자주 눈에 띄이곤한다

- 어떠한 것입니까? -

앎 자체의 어떤 류가 있다면 그 앎은 우리와 나란한[세계 안의] 것보다 많이 정확하며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알론한 모든 것도 이와 같다고 자네는 어떻게든 주장하려 할 것이네 - 예 - 이제,

만약 알론한 것이 앎 자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어떤 것 보다 오히려 신께서 가장 정확한 앎을 지닌다 라고 주장하지 않으려는가? - 반드시 - 따라서 그렇다면 다시 이제 앎 자체를 지니는 그 신이 우리와 나란한 [세계 안의] 것들을 인식할까? - 그렇지 않은 무엇이 있습니까? -

오 소오크라테스여 저 에이도스들은 우리와 나란한 [세계 안의] 것들에 대한 힘을 지니는 것도 아니며 우리와 나란한 [세계 안의] 것들도 저 에이도스들에 대한 힘을 지니는 것도 아니라 이것들은 자기 각각들에 대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동의되어지네 라고 파르메니데아스께서는 말씀하셨지요 - 동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 이제 이 가장 정확한 주인²¹³⁰과 이 가장 정확한 앎이 신과 나란히 있다면 주인은 언제든지 저 우리들의 주인이 아닐 것이고 앎은 우리 인식이 아닐 것이며 우리와 나란한 [세계의] 것들의 알론한 어떤 것도 아닐 것이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와 나란한 [세계의] 아르케에 의해서 저 이데아들을 지배하지도 못하며 우리의 어떤 앎에 의해서도 신을 알지도 못하고 다시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저 신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있는 신들은 사람의 일들을 알지 못할 것이네 - 그러나,

만약 신으로부터 어떤 보아 앎을 빼앗는 로고스는 놀랍다 라는 것은 너무나 것이 아닐 겁니다 - 더 나아가서,

오 소오크라테스여 만약 있는 것들의 이런 이데아들이 있고 누군가가 그 자체 각기 에이도스인 것으로 구분한다면 이 어려움 과 이것들 이외에도 여러 알론한 어려움들을 그 에이도스는 지닌다네 그래서 듣는 자들은 어려워할 것이고 이 에이도스들이 있느냐 또는 만약 대 부분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 이것은 사람의 자연에 의해 非 인식적인 것들이다 라고 논의하라 들

2130) 파르메니데아스는 지금 신 과 주인을 동일선 상에 놓는 반면에 사람과 노예를 동일선 상에 놓는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러면서 이 두 쌍을 앎과 관련하여 거론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有意)해 살펴보라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우리들이 말했던 것 처럼 놀랍도록 설득하기 힘든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네 그리고,

단지 예외적인 재능을 받은 남자 만이 각각의 류인 것 과 실제 그것이 그 자체로 있다는 것을 배울 것이며 나아가서 발견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두루 음미한 알론한 자를 가르치는 것은 보다 더 놀라운 일 이네 라고 파르메니데아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당신과 함께합니다 진심으로 저와 합하게 당신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말했어요 -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만약 오 소오크라테스여 어떤 자가 이런 모든 어려움 과 그와 같은 알론한 것을 고려하여 있는 것들의 에이도스가 있다는 것도 각기 하나의 에이도스인 것이 구분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디아노이아* 가 그리로 향할 그 어떤 것도 지니지 못할 것이며 있는 것들 각각의 항상 동일한 이데아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화할 수 있는 힘을 모든 곳에서 파괴한다네 이것을 자네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나에게 여겨지네 라고 파르메니데아스께서는 말하셨습니다 - 당신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말했구요 - 그렇다면,

철학에 관해 자네는 무엇을 하려나? 이러한 몰 인식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전환해야하는가?²¹³¹)

이러한 로고스들에 의해서 첫째,

그 자체 분리해 있다면 각기 하나인 에이도스에 관한 앎을 가질 수

2131) 여기에 따르면 지혜를 사랑함(φιλοσοφία, 135c5, 철학)은 沒認識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남이다 그렇다면 철학은 무지(無知)의 상태에서 벗어나 지(知)의 상태로 나아가게한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무엇일까 파르메니데아스 편에서는 적어도 에이도스 그리고 그 에이도스를 알론한 것들이 나누어 지 님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파르메니데아스 편을 통해서 알아가야 할 것이다

없다 라고 주장하는 자를 그 스스로가 어떤 몰입에 의해(πραχματευομένου 133b9) 깨우치지 않는한 논증에 의해 설득할 수 없다는 어려움²¹³²)이 있으며 둘째,

우리가 에이도스를 인식할 수 없다면 가장 정확한 앎을 지닌 신께서 우리의 일을 알지 못하게되어 신의 앎이 탈취당하며 신은 우리의 주인이 아닐 거라는 놀라운 말들을 하게 되는 어려움에 우리는 처하게 되며 셋째,

우리의 디아노이아(사유(思惟))가 향할 것들이 없게 되어 결국 대화할 수 힘을 우리가 지니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쓰여진다

이러한 어려움의 핵심은 에이도스가 그 자체 분리해 있다면 우리는 에이도스를 인식할 수 없어 에이도스에 관한 앎을 지닐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어려움이다 그렇다면 에이도스를 알 수 없다 라는 이러한 로고스에 도대체 두 사람은 어떻게 다다른가²¹³³)

2132) 이 어려움은 에이도스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어려움도 아니요 에이도스를 배우거나 가르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아니요 그 자체 분리해 있다면 ‘인식해 알 수’ 없다는 어려움도 아니라 그 자체 분리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에이도스들이 깨달아 인식되어 알려진다 라는 어려움이며 나아가서 그 자체 분리해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 논증될(ένδειξασθαι 133b7)수 없다는 어려움이다 그 자체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를 우리는 인식할 수 없어 에이도스에 관한 앎을 우리가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2133) 거듭 반복되는 말이지만,

에이도스를 사람은 인식할 수 없어 알 수 없으며 배울 수도 가르칠 수도 없다는 로고스에 두 사람이 결코 동의하는 것이 아님에 조심(操心)하라 그 자체로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는 없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깨달아 자신의 주장을 뒤 었기 전까지는 우리가 논증(ένδειξασθαι b7)할 수 없기는해도 말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논증이외의 다른 길로 그 자를 설득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누우스를 지닌 자도 거의 없듯이(티마이오스, 51e5-6, 15쪽)에이도스를 인식하는 자도 거의 없다 특별한 재능을 부여 받은 자 그것도 남자(άνδρὸς, 135a7)만이 에이도스를 아시는 그 무엇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덧붙혀,

있는 각기 것에 항상 상응하는 에이도스 하나를 상정한다면 감히 그 자체 건드려질 수도 없다 라고 말하여지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

우리들이 말하는 그러한 **에이도스** 그것은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자가 폭 넓은 경험을 하면서 자연적인 능력을 얻을 기회가 있어 더 나아가는 여러 몰입을 통해 스스로 꺾여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그러한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그 자에게 논증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에이도스들은 반드시 몰 인식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결코 설득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 자체로 각각의 실체인 에이도스는 우리 **안에**(ἐν ἡμῖν²¹³⁴), 133C5,

에이도스가 있다는 것을 포함 에이도스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아는 길은 사유(思惟, 곧 생각(voείν)과 디아노이아(계산력) 과 감각)가 아니긴해도 반드시 있긴 있으며 그리고 에이도스를 잃어 버리는자는 대화를 할 수없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바로 여기에서 신을 이끌어 들인다

2134) 우리 안에 라는 레애마(표현)를 영혼 안에(ἐν ψυχᾷς 132b5, 1269)라는 레애마와 비교해 보라 만약 우리 와 영혼이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면 ‘안에’ 있는 것들은 노에애마(일종의 관념)일 것이다 에이도스란 영혼 안에 있는 노에애마가 아니라고 거기에 쓰여지는 반면 그 에이도스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라고 여기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에이도스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 선명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 안에 라는 구(句)를 우리와 나란한(παρ’ ἡμῖν, 133d2) 라는 구(句)와 비교해 보라 동일한 표현들일까 우선 그렇다 라고 볼 수 있으리라 비록 παρὰ(옆에, 나란한) 와 ἐν(안에)는 분명히 너무나도 헤태론한 전치사들이긴 해도 말이다 그러나,

그 차이나는 뜻 만큼 헤태론한 것들일 수도 있으리라 133e5의 우리 안의 것 과 133e5의 저(에이도스) 와 134a1의 우리와 나란한 것의 구분이 하나의 맥락-이러한 맥락은 우리의(134e1) 와 우리와 옆의((나란한)것 (134e1) 과 저(에이도스, 134d11) 등 세 가지가 함께 쓰여지는 맥락과도 같

133e5)있지 않다 그 자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서로에 대해 있는 **이데아**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실체를 지니지 자신들을 나누어 지님으로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우리와 나란한 것들에 대해 지니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저 이데아와 동일한 이름을 지니는 우리와 나란한 것들도 자신들에 대해 있지 에이도스에 대해 있지 않으며 저 에이도스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그렇게 불리워진다 예를들어,

우리 가운데 어떤 자가 그 누구의 주인 또는 노예라면 저 노예는 주인인 주인 자체의 노예도 아니요 그 주인은 노예인 노예 자체의 주인도 아니라 실로 알론한 사람의 주인 과 노예인 반면 주인인 주인 자체는 노예인 노예 자체의 주인 자체요 노예인 노예 자체는 주인 자체의 노예 자체이다 이렇듯 우리 안의 것들은 저 것들에 대해 힘을 지니는 것도 아니요 저 것들은 우리에게 대해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이것들이요 저것들일 것이요 우리에게 나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에 대해 있을 것이다 이제,

물론 앎인 앎 자체는 진리 자체인 것의 저 진리의 앎이다 그런데 있는 앎 각각은 있는 있는 것들 각기 것의 앎일 것이다 다시,

반드시 우리와 나란한 것들의 앎은 우리와 나란한 것들의 진리의 앎이며 우리와 나란한 것들의 앎 각각은 우리와 나란히 있는 것들 각각의 앎이다 그러나,

에이도스 자체는 우리가 지니지도 못하며 우리 옆에((나란히))있지도 않다 나아가서,

각기 있는 에이도스 류(들) 자체는 **앎** 자체의 그 에이도스에 의해서 어떻게든 인식되어야한다 그러나 우리는 앎 자체의 에이도스를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다-에 있다면 그 만큼 험태론한 것들 받아드려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크게 보아 여기 두 사람 파르메니데아스 와 소오크라테스는 우리 안의 것 또는 우리 옆의((와 나란한)) 것 그리고 저 것 등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 처럼 보인다

에이도스들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에게 의해서 인식되지 않는다 그 에이도스의 앎을 우리가 나누어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있는 아름다운 자체 와 착함 그리고 우리가 이데아로서 받아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몰인식적(ἄγνωστον, 134b14, 沒認識)이다²¹³⁵⁾ 나아가서,

앎 자체의 류가 있다면 그 앎은 우리 옆의 것 보다 많이 정확하며 아름답다움 그리고 알론한 모든 것도 이와 같다 이제,

알론한 것이 앎 자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그 어떤 것 보다 반드시 신이 가장 정확한 앎을 지닐 것인데 그러한 앎 자체를 지니는 신이 우리 옆의 것들을 인식하지 앎을 것이다 그러나 저 에이도스들은 우리 옆의 것들에 대해 힘을 지니는 것도 아니며 우리 옆의 것들도 저 에이도스들에 대해 힘을 지니는 것도 아니라 이것들은 자기 각각들에 대해 그러했다 그렇다면,

가장 정확한 이 주인 과 가장 정확한 이 앎이 신 옆에((나란히))있다면 주인은 언제든지 저 우리의 주인이 아닐 것이고 앎은 우리 인식이 아닐 것이며 우리 옆의 알론한 어떤 인식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옆의 것의 아르케애와 우리는 저 이데아들의 아르케애를 [결코 관련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앎에 의해서도 신을 알지도 못하고 또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저 신((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있는 신들은 사람의 일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으로부터 어떤 보아 앎²¹³⁶⁾을 빼앗는 로고스는 놀랍다 라는 것은 너무나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만약 있는 것들의 이런 이데아들이 있고 [이것들을] 그 자체 각기 에이도스인 것으로 구분한다면 이러한 어려움 이외에도 알론한 여러 어려움을 에이도스는 지닐 것이므로²¹³⁷⁾듣는 자들은 어려워할 것이고 이러한 에이도스가 있느냐 또는 설령 대부분 있다손 치더라도 여러 이것이 사람의 자연

2135) 이러한 로고스는 위험하다 그러나 이제 요약되어질 이 보다 더 두려운 로고스는 우리의 일을 알지 못하는 신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로고스이다

2136) 보아 앎(τοῦ εἶδέναι, 134e7)살펴 봄 또는 보살핌 이라고도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사람에게 몰인식적 것들이다 라고 따지고 들 것이며 이러한 자들은 놀랍도록 설득하기 힘든 무엇을 말하는 자들일 것이다 다만,

예외적인 재능을 받은 남자만이 각각의 류인 것 과 실체 그것이 그 자체로 있다는 것을 배울 것이며 또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어려움을 두루 음미한 알론한 자를 가르치느는 것은 보다 더 놀라운 일일 것이다 나아가서,

이 어려움과 알론한 어려움들을 고려하여 어떤 자가 있는 것들의 에이도스가 있다는 것도 각기 하나의 에이도스인 것이 구분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디아노이아가 그리로 향할 그 어떤 것도 지니지 못할 그 자에게는 있는 것들 각각의 항상 동일한 이데아가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 자는 대화할 수 있는 힘을 도처에서 파괴할 것이다

분리해 있어 우리는 에이도스를 인식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자의 로고스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1) 그 자체 있는 각각의 **실체**는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어떻게든 그 자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자신들의 **실체**를 서로에 **대해 있는** 이데아들은 자신들에 대해 지니지 우리 옆의 것들에 대해 지니지 않는다 우리 옆의 것들도 자신들에 대해 있지²¹³⁸에이도스들에 대해 있지 않다²¹³⁹ 그리고,
- 3) 우리 안의 것들은 에이도스들에 대해 **힘**을 지니지도 않으며 에이

2137) 이러한 알론한 어려움들은 이미 1290쪽 도표에서 4 가지로 보여진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거기에 따르면 ①스스로와 분리된 에이도스 ②스스로와 분리해 있지는 않으나 나뉘어 쪼개진 에이도스 ③자신을 나누어 지닌 모든 것이 반드시 생각해야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도 생각에 대해 있지 않아야하는 에이도스 ④무한히 새롭게 많이 나타나는 에이도스 등 4 가지 어려움을 지닌 에이도스가 쓰여진다

2138) 그리고 에이도스에 따라 자신들의 이름이 불려지긴해도 불려지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지 에이도스의 이름이 아니다

도스들은 우리에게 대해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것들도 에이도스들도 우리 옆의 것들도 각각 자신들에 대해 힘을 지닌다 나아가서,

- 4) **앓** 자체는 진리 자체의 앓이며 있는 앓들은 있는 있는 것 각기 것 의 앓이다 그리고,
- 5) 우리 옆의 것들의 앓은 우리 옆의 것들의 진리의 앓이고 우리 옆의 것들의 앓 각각은 우리 옆에 있는 것들 각각의 앓이다 그러나,
- 6) 우리가 지니지 못하는 에이도스 자체는 우리 옆에 있지 않다 그런데,
- 7) 각기 있는 에이도스 류들 자체는 앓 자체의 그 에이도스에 의해서 어떻게든 **인식**된다 그리고,
- 8) 우리는 **앓의 에이도스**를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 9) 에이도스들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에게 의해 인식되지 않는다 그 에이도스의 앓을 우리가 나누어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²¹⁴⁰)따라서 우리에게 **몰인식적**이다

위의 1-3)는 우리 와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는 서로에 대해 있지 않다고 쓰며 나아가서,
4-5)은 우리의 앓 과 에이도스의 앓도 서로에 대해 있지 않다고 쓰며,
6-8)은 앓의 에이도스에 의해 각기 에이도스 류가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고 우리는 앓의 에이도스를 지니지 못한다 에이도스 자체가 우리

2139) 예를들어,

어떤 자가 그 자의 주인 또는 노예라면 그 노예는 주인인 주인 자체의 노예도 아니요 그 주인은 노예인 노예 자체의 노예도 아니라 실로 알려진 사람의 노예 와 주인이다 그러나 주인 자체는 노예 자체의 주인 자체요 노예 자체는 주인 자체의 노예 자체이다

2140)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움 과 착함 등의 모든 에이도스는 우리에게 몰인식적이다

옆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쓰며 그래서,
9)는 어느 에이도스도 우리에게 의해 인식되지 않는다 라고 쓴다 따라서,
서,

우리 와 이데아는 서로에 **대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말해 이데아는 자신의 **실체**를 우리에게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 대해 지니기 때문에 이데아에 대한 실체를 지니지 못하는 우리는 이데아에 대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데아에 대해 있을 힘이 없으므로 우리는 앎의 에이도스를 지닐 수 없다

앎의 에이도스를 지니지 못한다면 에이도스들을 인식할 수 없다 에이도스들은 앎의 에이도스에 의해서만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이도스를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두 사람의 로고스는 **실체(있음)**으로부터 **대해 있음(관계)**으로 그런후 **대해있음**로부터 **나누어지님(관여)**으로 그리고나서 **앎과인식**으로 나아가므로 그 두 사람은 에이도스란 우리에게 인식될 수 없다 라고 쓰면서 단지 ‘있음 과 앎’만을 그것도 무질서하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소위 ‘관여 와 관계’를 포함한 이 넷을 곧 실체(있음) 과 대함(관계) 과 나누어지님(관여) 와 앎(인식)을 순서에 알맞게 건드린다 그러나 이제,

이 두 사람에 따르면 인식되어질 수 없는 에이도스는 너무나도 놀라운 로고스 곧 신이 우리를 보아 알지 못한다 라는 로고스로 다음처럼 나아가 갈 것이다

사람 옆의 것들이 저 에이도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것 처럼 저 에이도스 역시 사람 옆의 것에 대해 있을 수 없을 것이므로 만약 **앎의 에이도스** 류가 있다면 우리는 에이도스 앎에 대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저 앎 역시 우리에게 대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옆의 ‘앎’ 보다 많이 정확한 앎 자체 류가 있으며 그리고 그 앎 자체를 어떤 것이 나누어 지닌다면 그 어떤 것은 신일 것이고 바로 신이 지니는 그러한 앎이 **가장 정확한 앎**일 것이므로 신은 우리 옆의 것을 인식할 수 없다 우리의 ‘앎’ 덜 정확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가장 정확한 앎을 지닌 자가 **가장 정확한 주인**이며²¹⁴¹⁾ 신의 옆에 가장 정확한 앎이 있다면 가장 정확한 그 주인은 우리의 주인이 아닐 것이다 그 주인은 우리에게 대해 있지 않아서 우리의 일을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은 우리의 일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지도 않다

이러한 파르메니데에스의 로고스는 1)정확도(正確度)에 따라 앎은 구분된다는 것 과 2)가장 정확한 앎은 앎의 **에이도스(種)**의 류라는 것 과 2) 가장 정확한 앎은 **신**만이 지닌다는 것 과 4)에이도스는 우리 옆에 **대해** 있지 않다는 것과 더불어 5)노예의 앎을 지녀야 **주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렇듯,

그의 로고스는 부정확(不正確)한 여러 ‘앎’으로부터 그런 ‘앎’들의 유일한 아르케에(앎의 에이도스)로 그리고 그 아르케에로부터 아르케에를 지니는 것으로 그리고 아르케에를 지니는 그 신으로부터 우리에게 대해 있지 않는 신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 있지 않는 신으로부터 우리를 알지 못하는 신으로 그리고 우리를 알지 못하는 신으로부터 우리의 주인이 아닌 신으로 나아가 간다 그리고 이러한 나아감은 결국 우리를 경악(驚愕)케한다 따라서,

신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질 않으며 우리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옆에(또는 대(對)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닌 반면 우리가 신의 옆에 있지 않는 것도 아니며 비록 그 전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신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의 노예가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신께서 지니고 계시는 에이도스의 앎을 나누어 지니는 힘을 어떻게든 지니므로 우리는 에이도스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디아노이아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²¹⁴²⁾ 그래서,

2141) 그러다면,

결국 어떤 자의 주인이라면 주인은 그 어떤 자를 반드시 가장 잘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렇듯 앎은 주인에 대해 있다

에이도스는 우리에게 몰인식(沒認識)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ψευδεται 133b7)그러나,

에이도스는 우리에게 몰인식적인 것(ὁ ἄγνωστα, 沒認識, 133c1)이어서 에이도스를 알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자에게 논증(설득)할 수 없다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자체 분리해 있어 결코 우리 옆에 있지 않아 (않의) 저 에이도스에 대해 있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힘을 지닐 수 있다면 그래서 저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닐 수 있다면 결코 에이도스는 우리에게 몰 인식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또는 우리 옆의 것이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는 길에 대해 말하여질 수 있다면 이러한 가장 큰 어려움은 풀릴 것이다²¹⁴³⁾

이러한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이라기 보다는 적어도 그 때의 이 두 사람에게 솟아 오르는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컸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자체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를 우리가 나누어 취하

2142) 그렇다면,

신이 우리의 일을 보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심한 말이어서 우리를 경악스럽게한 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대화 와 디아노이아(숙고)는 이테아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근거로 에이도스란 우리에게 몰 인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파르메니데아스는 말하고 있을 뿐이다

2143) 이러한 어려움들은 일차적으로 말하려는 데서 솟아 오르는 것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말에 상응하는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의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길도 그 길을 말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외로 그 길이 쉬울 수도 있을 것이지만 말이다-우리는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말하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쉬운 것을 쉽게 말하는 것이 때론 쉽기도 하지만 아주 어려울 때도 있으리라 따라서,

나누어 지니는 그 길이 어렵다 또는 아주 힘들다 라고 서둘러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는 길들에 관해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솟아 오르는 어려움들을 피해
가며 나누어 취하는 그 길²¹⁴⁴)을 그 두 사람은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길을 찾지 못하여 에이도스를 모르게 된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할까 다시 말해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사람을 어떻게 앎 또는
진리로 향하게 함으로서 스스로 깨우치게 할까

바로 여기에 철학(φιλοσοφίας 135c5)이 해야 할 일이 있다²¹⁴⁵) 파르

2144) 지금까지 포기한 길은 1)에이도스 전체를 우리 각각이 나누어 지니는
길 2)에이도스의 부분을 우리 각각이 나누어 지니는 길 3)에이도스를 생각
하는 길 4)에이도스를 닮아가는 길 등이다(1290)

2145) 따라서,

적어도 여기 파르메니데아스 편에서는 인식의 차원에서 철학이 시작
한다 에이도스를 알게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사람에 의해서 적어도 여기에서 받아드려지는 에이도스는 앎 착함
이름다움 올바름 움직임 쉽 하나 많음 같지않음 같음 등의 에이도스이지 머
리카락 먼지 때 등의 하찮은 몰가치(沒價値)적인 것의 에이도스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 불 물 등의 에이도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철학은 머리카락 때 불 물 보디는 앎 착함 이름다움 올바름 하나 같
음 움직임 쉽 같지않음 많음 등을 우리 더러 알게하려한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같다 그러나,

플라톤이 쓰는 철학이 무엇인지 알려면 소피스테아스편 과 정치가 와
국가 등을 자세히 읽어 보아야할 것이다 특히 철학자 인척 하는 소피스테아
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자(25, 93)에게 철학은 그 모습을 일부 드러낼
것 처럼 보이니 소피스테아스편에서도 철학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
는다 그래서

미궁(迷宮)이다

메니테아스는 소오크라테스에게 앎을 전혀 지니지 못하는 이런 몰 인식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철학에 관련되는 일이라고 말하기때문이다²¹⁴⁶⁾

“ 그렇다면 철학(φιλοσοφίας 135c5)에 관련하여 자네는 무엇을 하려나? 이러한 몰 인식적인 것[상태]으로부터 어떻게 전환해야 할까(πῆ τρέψη 135c5)?

현재로서는 [전환할 길이] 전혀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먼저 오 소오크라테스여 훈련받기(γυμνασθήναι 135c8)전에 아름다움 과 올바름 과 착함 과 에이도스 각기 하나인 것을 정의하려 하기 때문이네²¹⁴⁷⁾ 바로 전에 자네와 아리스토텔레스과의 그러한 대화²¹⁴⁸⁾를 여기서 듣고서 내가 짐작했다네 한편으로 이제 자네를 이러한 로고스들로 충동질하는 아름답고 신성한 충동(ἡ ὁρμή, 135d3,

2146) 그렇다면 몰랐다가 철학을 통해서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무지(無知)에서 벗어나 앎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것들에 관한 앎 또는 우리 옆에 있는 것들이 나누어 지닐 앎들 보다는 이러한 앎들과는 분리해 있는 저 앎 자체(ἐπιστήμης αὐτὰ 134b7)를 문제 삼는다 저 앎 자체를 우리들이 나누어 지닐 그 길에 대해 말하기 어려우므로 ‘앎의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저 에이도스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그 말은 거짓이라는 것을 논증하지도 설득하지도 못해 어떤 기회에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아주 커다란 어려움 두 사람은 부딪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학은 앎들 보다는 앎 자체와 관련해서 어떠한 것을 사람들에게 건네 주어야할 것이다 물론 에이도스들 와 이데아들에 관련된 어떤 것도 건네 줄 것이긴해도 말이다

2147) 따라서,

여기서도 보아 알 수 있듯이 에이도스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은 자에게만 에이도스는 정의될(ὀρίζεσθαι 135c8-9)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하는 이런 일은 많은 자들에 의해서 할 일 없는 자들이나 할 것으로 여겨지기는 해도 말이다

衝動)이 있어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많은 자들에 의해서 할 일 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오히려 젊을 때 자네 자신을 몰입시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자네를 회피할 걸세(2149) 라고 (파르메니데아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훈련의(τῆς γυμνασίας 135d7)길은

2148) 지금 이루어지는 이 대화는 파르메니데아스 와 소오크라테스 사이에서 행하여지지만 이전에는 제아논 과 소오크라테아스 사이에서 행하여 졌고 이후에는 파르메니데아스 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서 행하여 질 것이다 그런데,

물론 그 로고스들이 이어지긴해도 쓰여지는 것들은 사뭇 다르다 제아논 과 소오크라테스 사이의 저 대화에서는 여럿이 있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거의(οὐδεὶν 128b7)동일한 어떤 것을 실은 말하고 있어서 이러한 주장은 말한 것을 다시 말하고 ‘있다’는 것이(1239-1246) 그리고 소오크라테스 와 파르메니데아스 사이의 지금 대화에서는 여럿 과 *하나* 와 착함 등의 에이도스 등이 분리해 그 자체 있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잇 따르게 될 어려움들이(1246-1322) 그리고 파르메니데아스 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서 행하여질 앞으로 대화에서는 만약 *하나*가 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면 또 *하나*가 만약 **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면** 스스로 와 알론한 것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10-12, 37-92)쓰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대화들은 제아논과소오크라테스 소오크라테아스와 파르메니데아스 파르메니데아스와아리스토텔레스 순으로 자연스레 행하여진다

2149) 내가 진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회피한다(διαφεύξεται, 135d5, 回避하다)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로고스는 내 힘만으로는 아니 내 힘으로는 결코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나는 진리에 닦아 설 수도 진리로부터 벗어 날 수도 없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나는 단지 그 어디로부터인가 오는 신성한 이끌림(ὁρμή, 135d3, 衝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무엇입니까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물었구요

자네가 들었던 제논의 (길)과 같은 그런 (길)일세 그리고 이 (러한 길) 이외에도 이와 관련해서 자네가 말했던 놀라운 것 곧 보이는 것들(ὄρωμένοις 135e2)에 곧(καὶ e1) 흔들거리는 이 (보이는) 것들에 한정해서 숙고할 것이 아니라 로고스에 의해서 대부분(μάλιστα e3) 포착되는 것이며 에이도스들²¹⁵⁰로 간주될 저 것들에 관해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네] 라고 답하셨습니다²¹⁵¹

같은 과 같지않음 과 알론한 것들을 무엇이든 있는 것들은 겪는다는(πάσχοντα 135e6)것을 보여주는데에는 이러한 것들[의 경우]에²¹⁵²어떤 어려움도 있지 않다고 저에게는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대꾸 했어요

이름답네 그런데 나아가서 이것에(τούτῳ 135e8)반드시 요것(τὸ δ ε e8)을 [더] 해야 할 것이네 만약 각기 것이 있다면 이라고 전제하고 나서(ὑποτιθέμενον, e9, 前提) 그 전제로부터 잇따르는 것들을 숙고할 (σκοπεῖν 135e9)뿐만 아니라 만약 동일한 것이 있지 않다면 이라는 이

2150) 129a1에 나오는 *에이도스*(εἶδος)를 가리킬 것이다(1244) 나아가서,

여럿은 같으면서 같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제논을 극복(克復)하기 위해 같은 에이도스 와 같지 않음의 에이도스를 끌어들이므로서 여럿은 같으면서 같지 수 있다 만약 같은 *에이도스* 와 같지 않음의 에이도스를 동시에 나누어지닌다면 말이다 라고 말하는 소오크라테스에 나의 요약 1244쪽은 주목(注目)함에 유의(有意)하라

2151) 여기서 파르메니데아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숙고하지(ἐπισκοπεῖν 135e2)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진리 찾아가는 철학을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 탐색하는 것을 운명적인 업(業)으로 삼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숙고하는 자들을 할 일 없는 한가한 자들이라고 업신여기는 자들로부터 분리되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체 있는 에이도스를 숙고해야한다 라고 쓰기 때문이다 소위 ‘한가한’ 자들 이외의 자들로부터는 진리가 도망갈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 파르메니데아스 편은 보이는 것에 관한 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관한 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52) 지시 대명사 여성 단수 3격 ταύτη(135e5)는 저 것(ἐκεῖνα, 135e3, 에이도스)로 보아야할 것 같다

리한 전제도 취해 보아야 할 걸세 만약 보다 더 연습하길 바란다면 [말이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구요

예를들어 만약 바란다면 제논이 전제했던 것과 동일한 만약 여럿이 있다면²¹⁵³)이라는 전제에 관해서 그 여럿에 의해서 스스로 들 과 하나에 대해 그리고 하나에 의해서 스스로 와 여럿에 대해 무엇이 반드시 잇따르는가를 (숙고해야하며) 또 만약 여럿이 있지 않다면 다시 하나에 의해서 와 여럿에 의해서 스스로들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무엇이 잇따르는가를 숙고해야만 할 것이네 그리고 곧바로 또 만약 같음이 있다면 또는 만약 (같음이) 있지 않다면 이라고 전제하고서 그 전제 각각의 경우에(ἐφ' 135b2) 전제된 그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전제된) 알론한 것들에 의해서 스스로들 과 서로에 대해 무엇이 잇 따르는가(도 숙고해야할 것이네) 그리고 같지않음에 연관해서 그리고 움직임에 연관해서 그리고 쉼에 연관해서 그리고 생성과소멸에 연관해서 그리고 있음 과 있지않음 그 자체(αὐτοῦ τοῦ εἶναι καὶ τοῦ μὴ εἶναι 136b6)에 연관해서도 동일한 로고스[가 허용된다]²¹⁵⁴)한

2153) 그러나,

여럿은 있다 라는 전제는 제논의 것이 아니라 제논이 논파(論破)하고 저하는 전제이다 여럿이 있다 라고 전제하면 서로에 모순되는 로고스들-여럿은 같다 라는 로고스 와 여럿은 같지 않다 라는 로고스 따라서 여럿은 같 으면서 같지 않다 라는 로고스-이 그 전제로부터 잇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서 그 전제가 불 가능하다라고 제논은 쓰기 때문이다(1239)

2154) 그래서,

하나와여럿 같음과같지않음 움직임과쉼에게 여기서 허용된 로고스와 동일한 로고스가 생성과소멸 있음그자체와있지않음그자체에도 적용된다 그 렳다면,

하나와여럿 등이 에이도스이므로(129d8-e1, 1249) 생성과소멸 그리고 있음과있지않음도 에이도스이다 라는 로고스도 허용될까 129e1의 τὰ τοιαύτ α(하나 등과 같은 그러한 것들)에 있음이 속한다면 그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마디로(ἐνὶ λόγῳ 136b7) [말해서 어떤 것을] **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그리고 [있는 것 이외의] 알론한 어떤 속성(πάθος²¹⁵⁵ b8)을 겪는 것으로서 항상 전제할 때 마다 스스로에 대해 그

소피스테이스 254d4-5(123쪽)에 따르면 쉼과움직임과 더불어 있는 것 그 자체가 류들 가운데(τῶν γενῶν 254d4) 가장 큰 세 가지 류이며 이 세 류에 연이어 새로운 두 가지 류 동일과 헤태론(τὸ ταῦτόν καὶ ἑτέρον 254e1-2)이 쓰여지므로 일단 쉼과움직임과있는것과동일과헤태론을 동일한 맥락에 드는 류로 보아야할 것 같다 따라서,

하나와 마찬가지로 있음도 에이도스(種) 그러나 동일한 에이도스가 아닌 헤태론한 에이도스(種) 또는 류(게노스, 類)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해,

삼년 째로 넘어서면서 내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있음** 또는 **있는 것은** 플라톤의 여기에 따르면 구분되는 하나의 류(게노스) 또는 **종(에이도스)**이다 그렇게 되면,

있음은 여러 류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모든 것은 아닐 것이다 곧 있는 것과 구분되는 것들로서의 하나 와 여럿 과 움직임 과 쉼 과 동일함 과 헤태론함 과 같음 과 같지않음 등의 에이도스 ! 그러나,

있지않음을 있음과 구분(區分)되는 것으로 보아야할까 선불리 답하여 질 수 없는 물음이다 그러나 소피스테이스 편에 있어서의 있지않음은 있음의 헤태론함(257b4, 126)이므로 적어도 소피스테이스 편에 따르면 있음은 있지않음과도 구분된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헤태론한 것은 반드시 서로 구분된다라고 쓰여질 수 있다면 말이다

2155) 그렇다면,

파르메니데이스 편의 파르메니데이스는 알론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있음 또는 **있는 것**을 하나의 속성(πάθος, 屬性)으로 간주(看做)하는 것일까 만약 여기 파토스(속성)가 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나타나는 파토스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면 실체 또는 기체에 달라 붙었다 떨어졌다하는 그러한 것일 것이므로 그건 실체 곧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속성에 대해서는 203(속성은질의 세 번째 류이다), 806, 851, 925, 937, 965, 968,

리고 알론한 것들 각기 하나-선택할 것이므로 [각기 하나이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많은 것들에 대해 그리고 한꺼번에 그와 같은 [알론한] 모든 것에 대해(πρὸς ὅμματα 136c2)이 따르는 것들을 숙고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있는 것으로 전제되든 있지않은 것으로 전제되든 이러한 알론한 것들[에 있어서]도 항상 선택할 것이므로 스스로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이 따르는 것들을 숙고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 자네가 끝까지 훈련함에 의해서 주로 진리를 철저히 보려한다(διόψεσθαι 136c5)면 [말일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당신께서는 실행될 수 없는(ἀμύχανόν 136c6)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도저히 배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로하여금 아주 철저히 배우도록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전제 무엇을 취하여 진행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묻자,

오 소오크라테스여 자네와 같은 또래²¹⁵⁶)가 하기에는 과중한 활동(ἔργον, 136d1, 임무(任務))일걸세 그러나 제^애는 자네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되지 않겠나? 라고 [파르메니데아스께서는 되] 물으셨지요²¹⁵⁷)(135c7-136d3)

1085, 1108, 1117, 1252 등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119쪽 각주 106번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려는 자는 먼저 있는 것 과 실체 이 두 로고스가 문제의 그 두 사람 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모두 동일하다 라고 자신있게 말해야 할 것이나 오히려 지금의 나는 동일하다 라기 보다는 헤태론하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어한다 비록 텔레스가 형이상학 제에타 편 1032b2(332)에서 에이도스를 첫 번째 실체 곧 어떤 것에 있어오는 그 무엇으로 말하기는해도 말이다 그러나 딱부러지게 그렇다 라고 지금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있음은 헤태론한 만큼이나 동일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이! 딱부러지게 앞으로도 말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석사학위 논문을 쓰지 못할 것이다

2156) 125c5(8쪽)에 나온 것 처럼 그 당시 소오크라테스는 청년이었으며 제에논은 40세의 장년 파르메니데아스는 65살 즈음의 노년이었다

2157) 이러한 말을 들은 제에논은 자신들은 보다 더 적은 나이를 먹었으며

.....

(137a7)자 어디로부터 시작할까 그리고 무엇을 첫 번째 전제로 삼을까(ὁποῦ θεοσομεθα 137b1)(아이) 놀이를 일 삼아 하는 것 처럼 여겨 지므로 내 스스로로부터 시작해서²¹⁵⁸⁾ 그리고 내 스스로의 [무엇을] 전제로 삼아 [곧] *하나 그 자체* τοῦ ἐνὸς αὐτοῦ b3)전제로 삼아 만약 하나가 **있다**면 또는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무엇이 반드시(χρὴ b4) 잇따르는가를 (숙고하려 하는데) 자네 바라는가?

물론입니다 라고 제아논은 말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누가 답할까? 가장 젊은 자? 아마도 그 자가 가장 적게 [나를] 번잡하게할 것이며 그리고 가장 많이 답할 것으로 상상되네 그래서 저가 답하는 동시에 나에게 쉽[이 있을 것이네]

이것은 저에게 준비되었습니다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²¹⁵⁹⁾ 말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젊은 자는 바

로 연장자(年長者)인 파르메니데아스께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생각(ἄξιον 136d7)이라고 말하면서 소오크라테스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런 요청에 피토도오로스도함께하자 결국,

다쳐올 그 무엇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전차 경주의 출발선에서 떨어진 이뵈케이우스의 늙은 말에다 자신을 비유하면서 파르메니데아스는 이들의 요청을 들어준다

2158) 만약 파르메니데아스가 제아논이었다면 만약 하나가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아니라 1326쪽에 쓰여진 것 처럼 만약 여럿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로 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럿은 있지 않다 와 하나가 있다 라는 말은 거의(σχεδόν, 128b5, 124i)동일한 말일 것이므로 다시 말해 말한 것을 말한 것이므로 이 둘의 전제는 동일한 선 상에 놓인 것으로 보아도 별 탈은 없을 듯하다

2159) 젊은 사람이 말을 쉽게 많이하므로 어떠한 물음에 답을 아주 빨리 많이 할 것이라고 노련한 파르메니데아스가 상상한(οἶετα, 137b7, 想像)것 처럼 가장 젊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모든 자 보다 재빨리 제풀에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해버린다 물론,

10쪽에 쓰여진 것 처럼 설령 이 자가 30인의 참주 가운데 한 사람이

로 저를 두고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으
시면(ὡς 137c2) 답할 것입니다(137a8-137c3)²¹⁶⁰ ”

라는 인용글월에서는
알기위해서는 훈련받아야(γυμνασθήναι 135c8)한다 라고 쓰여지는데 문제의
그 훈련은 무엇일까 첫째,

에이도스를 정의하기 전에 받아야하는 훈련이다(1323)둘째,
많은 자들이 소위 할 일 없는 자들이나 하는 짓거리 라고 소위 말하
는 것이다(1324) 그러나 셋째,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진리가 나를 회피한다(1324)네째,
훈련의 방식(ὁ τρόπος, 135d7, 1325, 길)은 제에논의 논증방식을 따르
며 여기에다 소오크라테스 처럼 보이는 것 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곧 에이도스를 숙고하는 길이다 나아가서 다섯째,

그 에이도스 각기 것이 **있다** 라고 그리고 **있지 않다** 라고 전제하고
선 그 전제로부터 무슨 로고스가 반드시(χρῆ 137b4) 잇따르게 될
것인가를 숙고해 보는 훈련이다(1326)예를들어,
여럿이 있다면 그 여럿은 스스로와하나에 대해 어떻게 있으며 그
하나를 스스로와여럿에 대해 어떠한가를 또는 여럿이 있지않다면
하나를 스스로와여럿에 대해 그리고 여럿은 스스로와하나에 대해
어떠한가를 숙고하는 것이다²¹⁶¹)따라서,

라손 치더라도 이 이름을 통해서 파르메니데에스 편을 지은 플라톤은 자신
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분명히 가리킬 것이다

2160) 이후(以後)로부터 끝(166c5)까지의 초별요약은 12-91쪽에 있다

2161) 하나와여럿이외에도 같음과같지않음 움직임과쉽 생성과소멸 있음과
있지않음 등 그 자체 분리된 에이도스 모든 경우를 다 숙고해 보아야할 것
이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숙고하는 것은 불 가능할 것 같으므로 이러한 훈련
을 자신은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소오크라테에스가 미리 겁을

이러한 훈련은 에이도스 각각이 있는 경우 와 있지 않는 경우 스스로와알론한 것들이 자신과서로에대해 어떻게 있거나 있지않는가를 숙고하는 훈련이다²¹⁶²)그리고 여섯째, 이러한 훈련은 아이들이 일 삼아하는 놀이처럼²¹⁶³) 여겨지나(1329)실은 일곱째, 철학은 바로 이러한 훈련일 것이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앞에 다다른다(1323)이제,

이렇게 쓰는 곳을 다시 옮겨 보자

그렇다면 철학에 관련하여 자네는 무엇을 하려나? 이러한 몰인식으로 부터 어떻게 전환해야할까? - 현재로서는 길이 전혀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 먼저,

오! 소오크라테아스여 훈련받기 전에 아름다움과옉바름과착함과에이도스 각기 하나인 것을 정의하려하기 때문이네 자네 와 아리스토텔레스와의 그러한 대화를 여기서 바로 전에 듣고서 내가 짐작했다네 한편으로 자네를 이러한 로고스들로 충동질하는 아름답고 신성한 충동이 있어 온다는 것을 잘 알아야할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많은 자들에 의해서 할 일 없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오히려 젊을 때 자네 자신을 몰입시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자네를 회피할 걸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제,

먹을 만도하다

2162) 바로 이러한 훈련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대화를 통해서 파르메니데아스는 시키고 있으나 실은 파르메니데아스 자신의 복습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올수도 있으리라 그 자신 만이 길게 말하는 반면에 텔레스는 한 두 마디 맞 장구 치고만 있기 때문이다

2163) 한가(閑暇)하게 하는 놀이라는 뜻도 있을 것이다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훈련의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구요 - 자네가 들었던 제에논의 길과 같은 그런 길일세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와 관련해서 자네가 말했던 놀라운 것 곧 보이는 것들에 곧 이 흔들거리는(τὴν πλάνην 135e2)것에 한정해서 숙고할 것이 아니라 로고스에 의해서 대부분 포착되는 것이며 에이도스들로 간주될 저것들에 관해 숙고해야 하는 것이네 라고 답하셨습니다 - 같음 과 같지않음 과 알론한 것들을 무엇이든 있는 것들은 겪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에는 이러한 것들의 경우에 어떤 어려움도 있지 않다고 저에게는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꾸했어요 - 매끈하네 그런데,

나아가서 이것에 반드시 요것을 더해야 할 것이네 만약 각기 것이 있다면 이라고 전제하고나서 그 전제로부터 잇따르는 것들을 숙고할 뿐만 아니라 만약 동일한 것이 **있지 않다**면 이라는 이러한 전제도 취해 보아야 할 걸세 만약 보다 더 연습하길 바란다면 말일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구요 - 예를들어,

만약 바란다면 제에논이 전제했던 것과 동일한 만약 *여럿*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에 관련해서 그 여럿의 경우 스스로들과하나에 대해 그리고 하나의 경우 스스로와여럿에 대해 무엇이 반드시 잇따르는가를 또 만약 *여럿*이 있지 않다면 다시 하나의 경우 와 여럿의 경우 스스로들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무엇이 잇따르는가를 숙고해야만 할 것이네 그리고 곧바로 또 만약 **같음**이 **있다**면 또는 만약 **같음**이 **있지 않다**면 이라고 전제하고서 그 전제 각각의 경우에 있어 전제된 그것들의 경우 그리고 알론한 것들의 경우 스스로들과서로에 대해 무엇이 잇따르는가도 숙고해야 할 것이네 그리고 **같지않음**에 연관해서 그리고 **움직임**에 연관해서 그리고 **쉽**에 연관해서 그리고 **생성과소멸**에 연관해서 그리고 **있음** 과 **있지않음** **그자체**에 연관해서도 동일한 로고스가 허용된다²¹⁶⁴) - 한 마디로 말해서,

2164) 따라서,

여럿 과 *하나* 와 같음 과 같지않음 과 움직임 과 쉽 과 생성 과 소멸 그리고 **있음** 과 **있지않음** 자체 등의 에이도스 각각이 **있을** 경우 와 **있지않을** 경우 그 에이도스 또는 그 에이도스를 겪는(πάσχοντα, 135e6, 136b8)것이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를 숙고했던 자

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그리고 알론한 어떤 속성을 겪는 것으로서 항상 전제할 때 마다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 각기 하나에 대해-선택할 것이므로 각기 하나이다- 그리고 알론한 많은 것

신의 길 그대로 파르메니데아스는 ‘어린’ 텔레스로하여금 가계하는 훈련을 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은 에이도스들이 스스로와알론한 것으로 섞어지고 나누어 지는 길을 숙고하는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면 이러한 훈련이 변증적인 훈련일 것이다 왜냐하면 ‘요소적인 류(253b8)들이 어떻게 서로 함께 섞어지며(συμμειγνυσθαί 253c2)나누어지는(διαίρεσιν 253c3)가에 관한 앎이 가장 큰 앎이며 이러한 앎이 바로 변증적인 앎(τῆς διαλεκτικῆς ἐπιστήμης, 235d2-3, 121)’ 이라고 소피스테아스 편에서 엘레아 낫선이에 의해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파르메니데아스 편이 파르메니데아스는 이러한 **에이도스**를 어떤 것이 나누어 지는 또는 겪는 이른바 하나의 **속성**(πάθος, 136b8, 屬性)으로 보는 것 같다-그렇다면 **있음** 역시 어떤 것에 달라붙거나 떨어지는 **속성**으로 보여질 것이다-그리고,

소피스테아스 편이 엘레아 낫선이(플라톤?)는 있음을 속성-모든 것에 다 달라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나는 119쪽 각주 106번에 썼다 거기서 낫선이는 ‘있는 것을 움직임으로 말하는 자 와 있는 것을 쉼으로 말하는 자 모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런 자들은 모두 있음을 속성-모든 것에 있음이 딱 달라붙은 것-으로 여긴다(119)’ 라고 쓰기 때문이다 자!

일단 숨을 고른 뒤 그렇다면,

이 두 대화 편을 쓴 사람으로 알려진 플라톤은 있음을 속성으로 보는 것일까 아니면 속성으로 보지 않는 것일까 아주 조심하면서 섬세하게 이 물음에 답하여야한다 내 논문의 매듭이 여기서 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텔레스는 있음을 속성으로 본 것 같지는 않으나(1327쪽 각주 2155번)플라톤은 있음을 속성으로 본 것 같기도 하고 본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므로 그렇다 물론 텔레스가 있음을 속성으로 진짜 본 것이지 다시 더듬을 필요가 있긴해도 말이다

들에 대해 그리고 한꺼 번에 그와 같은 알론한 모든 것에 대해 잇 따르는 것들을 숙고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있는 것으로 전제되든 있지 않는 것으로 전제되든 이러한 알론한 것들에 있어서도 항상 선택할 것이므로 스스로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잇따른 것들을 숙고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 자네가 끝까지 훈련함에 의해서 주로 진리를 철저히 보려한다면 [말일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당신께서는 실행될 수 없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도저히 배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아주 철저히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전제 무엇을 취하여 진행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묻자 - 오 소오트라테스여 자네와 같은 또래가 하기에는 과중한 활동일걸세 그러나 제애는 자네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되지 않겠나? 라고 물으셨어요 - - 자,

어디로부터 시작할까 그리고 무엇을 첫 번째 전제로 삼을까 아이 놀이를 일 삼아하는 것 처럼 여겨지므로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하나 그 자체를 전제로 삼아 만약 하나가 있다면 또는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무엇이 반드시 잇 따르는가를 숙고하려하는데 자네 바라는가? - 물론입니다 라고 제애논은 말했어요 - 그렇다면,

나에게 누가 답할까? 가장 젊은 자? 아마도 그 자가 가장 적게 번잡하게 할 것이며 가장 많이 답할 것으로 상상되네 그래서 저가 답하는 동시에 나에게는 쉽이 있을 것이네 - 그것은 저에게 준비됐습니다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말하는 가운데 가장 젊은 자는 바로 저를 두고 당신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으시면 저는 답²¹⁶⁵할 것입니다(135c7-137c3) ” 이제,

2165) 그러나,

이어지는 로고스들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물음에 상응하는 새로운 프라그마를 말하는 답 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웁습니다(ὀρθώς140b1)’ ‘물론입니다(πάνυ γε 137c8)’ ‘그렇습니다(οὕτως 137e4)’ 라는 식의 확인하는 답 또는 ‘어째서 그렇습니까(τί δῖ; 139e8)’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πῶς δ’οὐ; 139d1-2)’ 라는 식의 반문(反問)을 텔레스는 할 뿐이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파르메니데이스가 제안하는 훈련을 요약해보자

알게하는 철학은 어떻게 모름으로부터 벗어나게 할까 어떤 자가 모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훈련받아야 한다 훈련받기 전에 소오크라테이스와아리스토텔레스 처럼 아름다움과올바름과착함 등의 에이도스 각각 하나 하나를 정의하려한다면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다²¹⁶⁶⁾

이러한 훈련의 길은 제애논의 길과 같으나,

이러한 길에다 눈에 보이는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에 의해 포착되는 소오크라테이스의 저 에이도스²¹⁶⁷⁾에 관한 숙고를 더 붙여야하며 나아가서,

이것에다 요것을-만약 각기 것이 있다면 잇따를 무엇 뿐만 아니라 만약 각기 것이 있지 않다면 잇따를 무엇도 숙고하는 것을-더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애논 처럼 만약 여럿이 있다면 여럿 과 하나의 경우 각기 스스로와 하나(알론한 것)에 대해 그리고 스스로와여럿(알론한 것)²¹⁶⁸⁾에 대해 잇따를 무엇을 그리고 만약 여럿 있지 않다면 하나와여럿의 경우 각기 스스로와

어찌 보면 대화가 아니라 파르메니데이스 자신만의 긴 독백 또는 설명이라고도 볼 수도 있으리라

2166) 이제,

이러한 로고스들로 충동질하는 아름답고 신성한 충동이 있어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며 많은 자들이 할 일 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에 젊을 때 몰입하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진리가 자네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2167) 소오크라테이스는 우쭐해져서 같음 등의 에이도스들을 있는 것들이 겪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도 자신에게 있지않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2168) 따라서 파르메니데이스에 따르면 하나 와 여럿은 서로에 대해 알론한 것이다

서로에 대해 잇따를 무엇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같음과같지않음
움직임과멈 생성과소멸 있음과있지않음그자체에 연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 마디로,

어떤 것을 **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그리고 이와는
알론한 어떤 속성을 겪는 것으로서 항상 전제할 때 마다 스스로와알론한것
각기하나 와 알론한 많은 것 와 알론한 모든 것에 대해 잇 따를 무엇을 숙
고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전제되든 있지않는 것으로 전제되
든 알론한 것들의 경우에 알론한 것들 자신 그리고 알론한 것과 알론한 것
들에 잇 따를 무엇도 숙고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끝까지 훈련해야만 진리
를 철저히 볼 수 있을 것이다²¹⁶⁹⁾

나 파르메니데에스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면 하나 그 자체를 전제로
삼아 만약 하나가 있다면 또는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반드시 잇 따를 무
엇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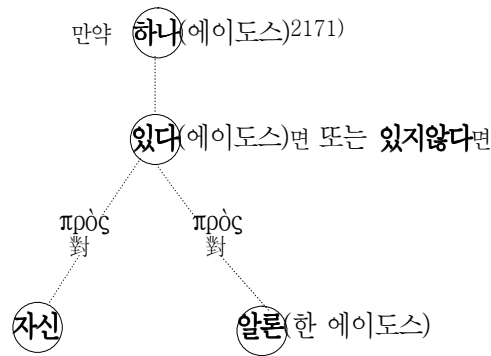
누가 나의 말 상대가 되어 훈련을 받겠는가 젊은 자면 되네 까다롭지
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많이하므로 그 사이에 내가 설 수 있거든....²¹⁷⁰⁾

그렇다면,

파르메니데에스가 제안(提案)하는 훈련을 다음 쪽의 도식 처럼 나타
낼 수 있으리라 이 도식은 알론한 에이도스들이 있는 것 또는 있음 에이도
스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 있다는 것을-서로관계맺는다는 것을-보여 줄 것
이다

2169) 이러한 훈련은 실행될 수 없을 것 같아 자신은 도저히 배우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철저히 배우도록 하는 자를 위해서 무슨 전
제를 취해 훈련을 진행하려 하십니까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파르메니데에스
에게 도리어 묻는다

2170) 준비됐습니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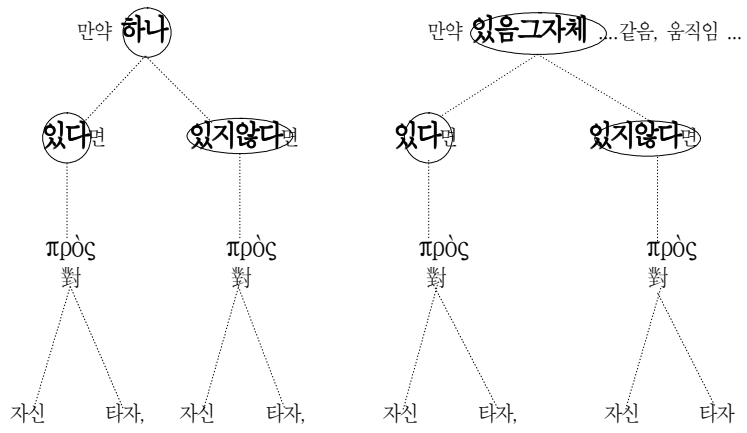
그러나 파르메니데에스의 실제 훈련은 위 도식이 보여주는 것 보다는 더 폭 넓게 진행된다 라고 누군가 쓰고싶어 할 수도 있으리라 12쪽의 그림에 요약된 것 처럼 ‘만약 하나가 있다면’ 과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등의 두 전제가 아니라 ‘만약 하나가 있다면’ 과 ‘하나가 만약 있다면’ 그리고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과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등의 4 전제로부터 그 연습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훈련을 제안하는 앞에서는 만약(ε i)이 하나 앞에 놓이는(137c4)경우만이 문제삼아지는 반면 실제로 훈련하는 뒤에서는 만약이 있다 앞에 놓이는(142b5)경우도 더불어 문제삼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136b6(1326)에 나온 ‘αὐτοῦ τοῦ εἶναι καὶ τοῦ μὴ εἶναι(있음 그 자체 와 있지 않음 그 자체)’를 바로 뒤 136b7(1327)에 나오는 ‘ὄντος καὶ οὐκ ὄντος(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과 구분 또는 분리되는 것으로 본다면 제안되는 훈련 과 실제 훈련은 동일한 쪽으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두 훈련 모두 다음 쪽에서 그려지는 4가지 분리된 전제를 그 아르케로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에스 편 전체는 시종여일(始終如一)하게 동일한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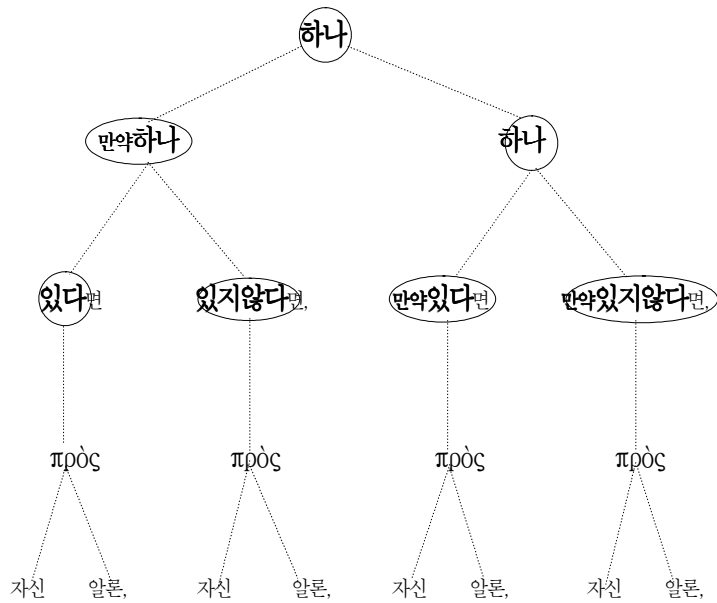
2171) 그러나 제에논의 훈련은 하나 보다는 여럿 에이도스로부터 시작됐다

2172) 그래서 더구나 간략한 이 대화편을 쪼개서 분리해 내려는 자는 진짜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안된 훈련과는 달리 그러나,

실제 훈련은 12쪽에서 이미 그려진 것 처럼 다음처럼 그려질 수 있리라



그런데 앞 쪽에 그려진 두 도식에서 드러나는 것 처럼 제안된 훈련은 실제 훈련과 다른 것을 보여질 수도 있으리라 앞에서는 단지 ‘만약 하나가 있다면’ 만이 전제되는 반면 뒤에서는 ‘만약 하나가 있다면’ 만이 아니라 ‘하나가 만약 있다면’도 더불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제안하지 않는 전제로부터 시작되는 훈련을 파르메니데아스는 텔레스를 비롯한 모두에게 시키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들의 경우 각기 만약이라는 낱말이 어디에 걸리는가를 잘 살펴보라 그러면 앞 제한된 훈련에서는 **하나**에만 걸리는 반면 뒤 실제 훈련에서는 **하나** 와 **있다** 각각에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뒤에서는 각기 걸리는 그것을 전제로 삼는다 바로 이러한 걸림을²¹⁷³⁾나는 지적

2173) 그러나 영어 번역에서는 결코 이러한 걸림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걸림은 영어란 헬라어로부터 왔건만 헬라어로부터 오지 않는 우리 한글 보다 더 헬라어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리켜 준다 영어로 직역해 보아라 각주를 달지 않고서는 전혀 그 뜻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단지 이러한 쓰임새만이 아니다 비록 동일한 문법 구조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영어 보다는 더 비슷한 문법 구조를 우리 글은 헬라어와 곧 고대 그리스어와 더불어 지닌다는 것을 가리켜 주는 수 많은 쓰임새를 아주 쉽게 우리는 지적해 낼 수 있다 이제,

라틴어로부터 온 영어 보다 더 우리 한글은 라틴어에 가깝다 사실 가깝다라기 보다는 거의 동일한 문법 구조를 지녔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비록 단어의 형태와 글꼴들은 헤태론해도 말이다 만약 영어가 자신의 엄마와아빠인 라틴어와헬라어와 닮은 점이 있다면 낱말들의 형태와 글꼴들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글의 낱말 보다 더 가까운 뜻을 문제의 낱말 각각이 지닌 것 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번역된 낱말들 만을 문제 삼는다면 상황은 뒤집어진다 옮겨진 우리 낱말들이 오히려 영어 낱말보다 더 라틴어와헬라어 낱말에 가깝다 아니 가깝다라기 보다는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指摘)해 내려한다 따라서,

하나의 경우 만약에 걸리는 하나 와 만약에 걸리지 않는 하나가 문제 삼아지듯이 **있음** (또는 **있지않음**)의 경우도 만약에 걸리는 있음 과 만약에 걸리지 않는 있음이 문제삼아진다 여기에서,

만약에 걸리지 않는 있음을 나는 **있음(그자체)**로 보는 반면 만약에 걸리는 있음을 '**있는 하나**(τὸ ἔν ὄν, 143a5, 50)'로 본다 그러므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이스 편은 바로 이러한 **있음(그 자체)**를 하나 와 같음 과 아름다움 과 착함 과 움직임 과 생성 등의 에이도스와 구분되는 하나의 알론한 에이도스로 본다 라고 나는 쓴다²¹⁷⁴)그리고,

있음은 이렇게 구분된 하나의 **에이도스(종, 種)**이라는 것은 소피스테이스 편 254d3-4(123쪽)에서도 확인된다 거기에서는 에이도스라는 낱말 대신에 **류(τῶν γένων)**가 쓰여지는데도 말이다 이제,

거기 맥락을 따라가 보자

“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류들**(τὰ γένη 253b8)동일한 섞어 짐(μειξέωσ b9)에 따라서 서로에 대해 [있으]므로²¹⁷⁵)류들 가운데 어

영어로 옮겨진 것 보다는 우리 글로 옮겨진 것이 헬라문헌이건 라틴 문헌이건 더 정확하다 적절한 낱말이 선택되기만 한다면 말이다 예를들어 콘퍼드는 자신의 자신의 플라톤과파르메니데스 라는 책 117 과 136쪽에서 각기 ‘만약 하나가 있다면’ 과 ‘만약 하나가 있음을 지닌다면’ 이라고 옮긴다 2174) 1326쪽의 옮김을 보라 거기에서는 있음이 하나 와 같음 과 움직임 과 생성과 알론한 에이도스로 구분되어 쓰인다

2175) 본문에서는 ἔχειν(지님, 253b9) 이라는 낱말이 쓰이나 옮겨쓰기 애매 해서 그냥 대해 [있다] 라고 했으나 정확한 옮김은 아니다 본문은 모든 류 들은 서로에 대해 동일한 척도로 섞어져 [있다] 라는 뜻일 것 같긴한데 맞 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류들은 일정한 비율 또는 척도로 서로 섞어져 ‘있다’ 라는 뜻을

떤 것들이 어떤 것들과 서로 어울리며(συμφωνεῖ 253b11)어울리지않는
가를 그리고 모든 (류)들을 통해 만약 어떤 동일한 것으로 남아(οὐνέχ
ovr 253c1)있어 [류들을 서로]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다
시 나뉘 [경우]에 만약 전체(류)를 통해 나뉘의 헤태론한 원인인 것
을 로고스들을 통해 올바르게 취하는 어떠한 **않**이 반드시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²¹⁷⁶) : 엘레아 낯선이

않 그것도(kai 253c4)아마 가장 큰 (않)이 어찌 반드시 [있어]
야 하지 않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이제 오 테아이테토스여 우리는 그러한 것(않)을 무
엇이라고 불러야할까요? 또는 자유로운 자들에 속하는 **않**으로 우리들
이 제우스에 의해서(πρὸς 253c7) 우리도 모르게 빨려들어가 소피스테
에스를 우리가 위험무릅쓰고 조사하는가운데 먼저 **철학자**를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²¹⁷⁷) :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당신은 말씀하시는겁니까? : 테아이테토스

동일한 **중**(εἶδος 253d1)을 헤태론한 (**중**)으로 이끌지않고 있는

그 본문을 지닌다는 것은 분명하다

2176) 이러한 **않**은 모든 류를 통해 두루 남아 있어 류들을 서로 어울리게
(또는 붙게 또는 섞어지게)하는 원인으로서의 류 그리고 전체 류를 통해
두루 자름으로서 류들을 서로 나누어지게(또는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서
의 류 그리고 붙고 떨어질 경우 어떠한 류들이 어떤 동일한 척도에 따라 붙
고 떨어지는가를 로고스들을 통해 인식하는 그러한 **않**일 것이다 그리고,

1333쪽에 쓰여진 것 처럼 이러한 **않**은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 편에
서 궁극적으로 추구되는 **않**과 같은 맥락의 것이기도하다 각기 **에이도스**들이
있을 경우 또는 있지 **않**을 경우 자신 과 알론한 것들에 대해 각기 **에이도스**
가 어떻게 있거나 또는 있지 **않**는가에 관한 모름으로부터 **않**으로 파르메니
데아스 편은 나아가기 때문이다

2177) 소피스테아스 편은 소피스테아스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책이라
는 것은 이미 21쪽에 쓰여졌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쓰여진 것 처럼 소피스테
아스 편이 본디 의도(意圖)는 아마 철학자인 척하는 소피스테아스를 폭로함
으로서 철학(자)으로 나-플라톤의 책들은 살 과 피가 섞인 개인을 주로 겨
눈다-를 닦아서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으리라 바로 이러한 점이 여기에서
드러났다

(δν 253d1)헤테론한 것을 (있는) 동일한 것(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적으로 나누는 것²¹⁷⁸)이 바로 우리가 **변증적인** **ἀπ**(τής διαλεκτικής ἐπισημῆς d1-2)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엘레아넌선이

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각각 하나는 분리²¹⁷⁹)해 놓인 [그] 여럿 모두에 두루 퍼진 하나 이데아(ιδεῖν²¹⁸⁰) 253d5)그리고 *ἕνα* 이데아)에 의해 밖으

2178) 소피스테에스는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22-24쪽에서 그려지고 쓰여진 것 처럼 하나의 동일한 류를 헤테론한 두 종(에이도스)으로 나누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23쪽 각주 22에 쓰여진 것 처럼 이러한 정의 방법을 그대로 텔레스는 자신의 형이상학 제에타 12 장에서 사람을 정의하면서 쓴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것 처럼 이렇게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종을 잘 구분하는 것**이다 헤테론한 종 과 ‘동일한’ 종을 말이다 그래서 헤테론한 종을 ‘동일한’ 종으로 그리고 거꾸로 ‘동일한’ 종을 헤테론한 종으로 끌고 오면(ἡ ἴσησασθα 253d1)결코 안된다 결코 혼돈하지 말아야한다 그래야 만이 **류가** 따라서 구분될 것이기 때문이다

2179) 이러한 분리는 1256쪽에 그려졌다

2180) 바로 이 이데아 하나를 텔레스는 여럿에 걸친(ἐπι, 1049b29, 499쪽) 하나로 보아 형이상학 제에타 편 16 장에서 거부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텔레스는 ‘실체란 각기 것 과 감각적인 것들에 나란히 떨어져 있는 소멸하지 않는 것 이라고 에이도스론 자들이 선언할 수 없었기에 여럿에 걸친 하나 에이도스를 인정하게 된다’ 라고만 말할 뿐 자신이 여럿에 걸친하나를 왜 거부하는가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렇게 걸쳐지는 분리는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에스 편 131b9 앞 뒤에서도 거부된다 배 안의 여러 사람 위로(ἐπι, 131b9, 1623-24) [펼쳐져 걸쳐진] 듯 하나처럼 여러 에이도스에 걸쳐질 에이도스 하나를 파르메니데에스 편의 파르메니데에스도 거기에서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텔레스와는 달리 왜 거부하는가에 관한 글이 아주 상세히 그러나 간결하고 시원하게 거기에 쓰여진다 그럼에도 파르메니데에스는 여럿에 걸쳐진 하나의 그러한 분리

로부터 둘러쌓인 서로에 헤태론한 여럿 이데아들) 그리고 다시 여럿의 전체들을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ἐν ἐνὶ συννημμένῃν 253d8-9) 하나(이데아) 그리고 전적으로 분리되 버린(διωρισμένης 253e1) 여럿(이데아) 이것을 선명하게 인지(διαιοθάνεται, 253d7, 認知)할 수 있는 자. 이것은 각자(이데아)가 어떤 길로(ὅπη 253e1)교통(κοινωνεῖν, e1, 交通, 交際)할 수 있는지를 류적으로 분간하여 아는 것입니다²¹⁸¹): 엘레아 낫선이

전적으로 [그러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깨끗하고 올바른 철학가를 제외한 알론한 자에게 변증술(τὸ διαλεκτικόν²¹⁸²) 253e4)을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허용해서는 않됩니다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알론한 어떤 자에게 허용하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이러한 어떤 자리에서 지금 그리고 후에 만약 우리가 조사한다면 우리는 철학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철학가를) 선명하게 본다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χαλεπὸν 253e9) 그러나 소피스테에스를(선명하

를 거부하긴하나 어떻게든 여럿에 나누어 지너지는 분리해 있는 하나를 인정한다 소피스테에스 여기 처럼 말이다 그리고,

여럿에 걸친 하나에 관한 더 나아간 글을 보려면 729쪽 각주 1099번과 503쪽 과 1253쪽 각주 2054번을 참조하라

2181) 따라서,

이데아 하나를 나누어지니는 감각적인 사물 여럿이 여기서 문제삼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데아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이데아 여럿 각각 와 그 이데아 하나가 어떻게 서로 교통하는지가 문제 삼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도 두 겹으로 교통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121-124쪽 각주 109번을 참조하시오

2182) 그러나 텔레스의 형이상학 감마 편 2 장 1004b22-23(975쪽) 앞 뒤에 따르면 비판술(批判術)인 변증술은 철학의 인식술(γνωριστική, 1004b26, 認識術)과 동일한 류이긴 해도 그 힘의 길(자연)에 있어 인식술과 차이난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철학에는 변증법이 속하지 않는다 변증가는 단지 철학가인 척하는 자일 뿐이다 더불어 1086쪽도 참조하라

게 보기) 힘들과는 헤태론한 길에서 그(철학자)를 (선명하게 보기) 힘듭니다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 테아이테토스

한편으로 **있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어두움(τὴν σκοτεινότητα 254a4-5)으로 숨어들어 거기에 들러 붙어 일삼는 자(소피스테이스) (있지 않는) 그것의 어두움 때문에 아주 생각하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 엘레아낫선이

그렇듯 처럼 보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다른 한 편으로 논리들을(λογισμῶν, 254a8, 理性)통해서 항상 **있는 것의 이데아**²¹⁸³⁾에 몰두하는 철학자도 그 자리의 밝음 때문에 결코 보기 쉽지 않지요 여럿의 영혼의 눈들은 신을 바라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엘레아 낫선이

마찬 가지로 이것도 저것 보다 덜 그럴 것 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이제 이후로 우리들은 만약 우리들이 계속하여 그러하려한다면 그(철학자)에 관한 보다 더 예리한 조사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피스테이스에 관해서도 우리들이 그(철학자)에 관한 만족스런 견해를 지니기 전 까지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엘레아 낫선이

아름답게 말씀하셨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κοινωνεῖν 254b8)

2183) 모든 이데아에 몰두하기 보다는 있는 것의 이데아에(τῆ ὄντος ἰδέα 254a8-9) 철학가는 몰두한다는 점에 유의하라 물론 알론한 이데아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지 있지 않는 것을 일 삼아 움직이는 소피스테이스에 상응하는 철학가에 관해 쓰는 맥락이기에 **있는 것의 이데아** 라는 말이 쓰였을 것이다 우선,

있는 것을 이데아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 있는 것의 이데아 라는 표현에 유의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는 것을 **에이도스들** 가운데 하나의 에이도스로 보는 것은 성급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같은 에이도스 하나**의 에이도스 움직임을 **에이도스** 아 름다움의 에이도스 착함의 에이도스 등의 표현 때문에 에이도스를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할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

하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교통하려 하지) 않으며 그리고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몇되지 않는 것들(ὀλίγων 254b8)과 (교통하)지만 어떤 것들은 여러(류들)과 (교통하고) 또 어떤 것들에는 [자신들이] 모든 것에 두루 [거쳐] 모든 것과 교통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결코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했으므로 여럿의 [경우]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에이도스**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주 크다 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을 뽑아내어 먼저 [가장 큰 것들] 각각은 어떠한 것들(ποία 254c4)이며 그 다음으로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로고스를 펼쳐나가 봅시다²¹⁸⁴) 그리하여 비록 **있**

2184) 조사할 것을 미리 규정하는 이런 길은 파르메니데아스 편 의 파르메니데아스가 훈련할 것을 미리 규정하는 길과 그 내용에 있어 같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각주를 만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있어서의 **있음** 이라는 나의 석사학위 논문의 텍스트에 파르메니데아스 편 과 소오크라테아스 편을 나머지 세 권의 책과 더불어 포함시켰다 이 두 권의 책-나머지 세 권 중 티마이오스 편에서는 주로 생성이 티마이오스에 의해서 쓰여지는 가운데 생성(파르메니데아스 편에 따르면 생성 역시 하나의 에이도스(종)이라는 것에 유념하라)과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있음**이 부차적으로 쓰여지긴하지만 형이상학과범주들에서는 여기 두 권과 마찬가지로 **있음**이 주로 텔레스에 의해 말하여진다-에서 주로 ‘플라톤’이 쓰려하려 했던 바로 그 무엇인 **있음(存在)**이 조사할 것 과 훈련할 것을 미리 규정하는 위 두 맥락에서 한 **류** 또는 **종(에이도스)**로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파르메니데아스 편 거기(135e8-136c5, 1325-1340)에서는 각기 에이도스 가운데 하나 라는 에이도스가 **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면-있음 역시 그 하나의 에이도스이다 라고 쓰여진다- 하나 (자체 와 있는 하나)는 자신 과 알려진 것(에이도스)들에 대해 어떻게 있거나 있지 않는가가 앞으로의 훈련에서 쓰여질 것이라고 미리 규정되는 반면 소피스테아스 편 여기에서는 모든 에이도스들이 아니라 가장 큰 에이도스 라고 우리에게 의해서 말하여지는 그러한 에이도스들을 뽑아내서 그러한 에이도스들은 어떠한 것들이며 어떻게 서로 교체할 수 있는가가 조사될 것이라고 미리 규정되므로 그리고 그 가장 큰 에이도스들 가운데 하나가 **있음**이며 비록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있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렇다

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선명하게 숙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조사하는 길이 허용하는한 그(있는 것 과 있지 않는)것에 관한 만족스런 로고스를 최소한 우리들은 줄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비록]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ως ἔστιν ὄντ ως²¹⁸⁵) μὴ ὄν 254d1)어떻게든 **있지 않는 것을** 상처없이(ἀθάρτους²¹⁸⁶) d1)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될 것입니다 : 엘레아 낫선이 그래야 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류들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²¹⁸⁷) [있는] **있는 것** 그

그러나,

위 두 편이 동일한 것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각기 두 편에서 쓰여지는 것들을 함께 모아서 이어야만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의 논문이 결코 쓰여질 수 없으리라

2185) 있는 것으로(진짜로, 온토오스) 있는 것이라는 말 대신에 텔레스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을 쓰는 것일까 라는 물음을 1079-1106쪽의 1106 에서 슬며서 나는 던져 보았다(1146쪽각주1874번)

2186) 상처없이(ἀθάρτους 254d1)라는 말이 여기에 쓰인 것은 아마도 엘레아낫 선이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241d1-7, 102-103쪽)나타내기 위해서 일 것이다

2187) 여기서 이 인용글월이 속하는 좀 더 큰 맥락이 드러난다

물론 가장 큰 맥락은 소크라테에스가 무엇인지를 나눔의 방법을 통해서 정의하는 맥락이다 이제까지 여러 정의들이(93쪽) 나타났으나 이런 정의 들에 이어서 ‘소피스테에스는 사깃 끈들 중의 한 사람이며 **있는 것**들을 모방하는 자이다(234c7-a1, 96쪽)’ 라는 정의 와 ‘소피스테에스는 거짓말쟁이 이다(241b6-7, 101쪽)’ 라는 정의가 나타난다 이어지는 이러한 정의의 순서에 따라,

가장 큰 맥락에 속하면서 더 적은 맥락인 그러나 지금의 이 인용글월 에 더 가까운 맥락인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이** 쓰여지는 맥락이 바로 이 인용글월의 맥락 보다는 좀 더 큰 맥락이다 나아가서,

이 좀 더 큰 맥락도 더 작은 맥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나 여기서는

자체 와 씬 과 움직임이 가장 큰 것(류)들(μέγιστα 254d4)이지요 : 엘
레아 낫선이
물론입니다 : 테아이테토스(253b8-254d6)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그리고 서로 어울리는 류들 과 그렇지 않는 류들을 아는 또 모든 류에 두루
동일한 것으로 남아 ‘있어’ 류들을 서로 어울어지게 할 수 있는 **류** 와 전체
류를 두루 나눌 수 있는 류를 로고스를 통해 아는 바로 **앎** 가운데서도 가장
큰 **앎**이 있다 라고 그리고 이런 류들 가운데 가장 큰 류들 중의 하나가 **있**
는 것 그 자체 라고 쓰여진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류들은 동일한 섞어짐에 따라서 서로에 대해
‘있으’므로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과 서로 어울리며 어울리지
않는가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 만약 어떤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어 어울
리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다시 나뉠 경우에 만약 전체를 통해 나뉘의
해태론한 원인인 것을 로고스를 통해 올바르게 취하는 어떠한 **앎**이 반드시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 앎 그것도 아마 가장 큰 앎이 어찌 반드시 있어
야 하지 않으리오? - 그렇다면,

이제 오 테아이테토스여 우리는 그러한 것을 무엇이라 불려야할까요
또는 자유로운 자들에 속하는 앎으로 우리들이 제우스에 의해 우리도 모르
게 빨려들어가 소피스테에스를 우리가 위험무릅쓰고 조사하는 가운데 먼저
철학자를 발견하게되는 걸까요? - 어떻게 당신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동일한 **중**을 해태론한 것으로 이끌지 않고 있는 해태론한 것을 동일
한 것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변증적인**
앎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 그렇
다면 각각 하나는 분리해 놓인 그 여럿 모두에 두루 퍼진 하나 **이데아** 그

생략하련다 그러나 이 인용글월의 맥락은 반드시 집어내야한다 문제의 맥락
은 무엇인가?

리고 하나에 의해 밖으로부터 둘러쌓인 서로에 헤태론한 여럿 그리고 다시 여럿의 전체들을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 하나 그리고 전적으로 분리되 버린 여럿 이것을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자 이것은 이데아 각각이 어떤 길로 교통할 수 있는지를 류적으로 분간하여 아는 것입니다 - 전적으로 - 그러나,

깨끗하고 올바른 철학가를 제외한 알론한 자에게 변증술을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허용해서는 않됩니다 - 어떻게 알론한 자에게 허용하겠습니까? -

이러한 어떤 자리에서 지금 그리고 후에 만약 우리가 조사한다면 우리는 철학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를 선명하게 본다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소피스테아스를 선명하게 보기 힘들키는 헤태론한 길에서 그를 선명하게 보기 힘듭니다 - 어떻게? -

한편으로 있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어두움으로 숨어들어 거기에 들러 붙어 일삼는 자 그것의 어두움 때문에 아주 생각하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 그런 것 처럼 보입니다 - 다른 한 편으로 논리들을 통해서 항상 있는 것의 이데아에 몰두하는 철학자도 그 자리의 밝음 때문에 결코 보기 쉽지 않지요 여럿의 영혼의 눈들은 신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것 보다 덜 그럴 것 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 이제,

이후로 우리들은 만약 우리들이 계속하여 그러하려 한다면 철학자에 관한 보다 더 예리한 조사들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피스테아스에 관해서도 우리들이 철학자에 관한 만족스런 견해를 지니기 전 까지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매끈한 말씀입니다 - 따라서,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하려 할 것이지만 어떤 것들은 교통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적은 것들과 교통하지만 어떤 것들은 여럿들과 교통하고 또 어떤 것들에는 자신들이 모든 것에 두루 거쳐 모든 것과 교통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결코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했으므로 여럿의 경우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에이도스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주 크다 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을 뽑아내어 먼저 각각은 어떠한 것들이며 그 다음으로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로고스를 펼쳐 나가 봅시다 그리하여 비록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선명하게 숙고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조사하는 길이 허용하는 한 그것에 관한 만족스런 로고스를 최소한 우리들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있지 않는 것을** 상처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될 것입니다 - 그래야 합니다 -

류들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있는 것 자체 와 쉽** 과 **움직임이** 가장 큰 것들이지요 - 물론입니다

이러한 위 로고스들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으로 모아진다 가장 큰 류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 자체이며 이러한 류들 모두에 두루 퍼져서 그 류들을 어울리게 하는 **류 하나**가 있는데²¹⁸⁸)바로 이러한 류들에 관한 **않**이 가장 큰 **않** 곧 **변증술**이라고 위에서 쓰여지기 때문이다

동일한 섞어짐에 따라 류들은 서로에 대해 있으므로 어떤 류들이 어떤 류들이 서로 어울리며 어울리지 않는가를 그리고 모든 류에 동일한 것으로 남아 류들을 서로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류** 와 전체 류를 나누는 나뉘의 **헤태론한 것**²¹⁸⁹)를 로고스를 통해 올바르게 포착하는 바로 **않** 가운데서도

2188) 물론 이 류 하나만을 알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류와 더불어 서로 어울리는 알론한 여러 류들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2189) 이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 곧 있지 않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과 헤태론한 **류**로 보아서는 **않**된다 거듭 소피스테이스 편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있지 않는 것도 어찌보면 있는 것이다 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상처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본 인용 글월 끝에서 처럼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헤태론한 류가 아니라 동일한 **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을 동일한 것으로 보라는 말은 아니다 126쪽에 쓰여지듯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

가장 큰 그 값이 반드시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값은 동일한 **에이도스(종)**을 헤태론한 것으로 이끌지 않고 헤태론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에 따라 나누는²¹⁹⁰ 그러한 **변증적인 값**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각각 하나는 분리된 여럿 모두에 두루 퍼진 **하나 이데아** 와 이 하나에 둘러쌓인 서로 헤태론한 **여럿** 그리고 여럿의 전체들을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 **하나** 와 전적으로 분리되 버린 **여럿**²¹⁹¹ 이것을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자는 각각 (이데아)가 어떤 길로 교통할 수 있는 지를 전적으로 **류**에 따라 분간하여 안다 그러나,

철학가 중에서도 깨끗하고 올바른 철학가를 제외한 알론한 어떤 자에게도 결코 변증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맥락을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조사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철학가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철학가를 선명하게 알아 본다는 것은 소피스테아스를 선명하게 알아 본다는

이다

2190) 류를 종들로 나눌 때 헤태론한 종 과 동일한 종을 혼동하지말고 헤태론한 종은 헤태론한 것으로 동일한 종은 동일한 것으로 잘 나누라는 말일 것이다

2191) 이러한 구분은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파르메니데아스에 의해서 실현되는 훈련에 나오는 네 가지 전체의 나뉘에 그대로 상응한다

1338쪽 아랫 그림을 보라 ①거기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 곧 있는 하나는 여기 각각 하나는 분리된 여럿 모두에 퍼진 하나에 상응하는 반면 ②거기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의 하나 곧 있지 않는 하나는 ?에 상응하며 ③거기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는 여기 여럿 전체들을 밖에서 둘러쌓는 그러므로서 여럿 전체를 하나로 두루 연결시키는 하나에 상응하는 반면 ④거기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의 하나는 여기 전적으로 분리된 여럿에 상응할 것이다 이렇게 쓰는 나도 실은 이렇게 상응하는 것으로 쓰여져도 귀찮은가 라는 물음에는 선 듯 쉽게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라고 쉽게 말하기가 주저된다

것 만큼이나 힘들다 비록 험대한 힘든이기는해도 말이다 왜냐하면,

있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어두움에 숨어 들러 붙어 거기서 일하는 자를 우리는 그것의 어두움 때문에 아주 알아 보기 힘들 것 처럼 보이는 반면에 논리들을 통해서 항상 **있는 것**의 **이데아**에 몰두하는 철학자도 역시 그 자리의 **밝음** 때문에 여럿의 영혼의 눈들은 신을 바라 보고 있을 수 없어 ‘우리가’ 바라 보기 힘들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²¹⁹²)이제,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하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교통하지 않으려하며 어떤 것들은 적은 것들과 교통하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여럿들과 교통하려 하고 또 어떤 것들에는 두루 모든 것과 교통하려한다는 데에 우리는 동의했으므로 여럿의 경우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에이도스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아주 큰 에이도스들**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을 뽑아내서 먼저 그것들 각각은 어떠한 것들 인지를 조사한 후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비록 우리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완전히 선명하게 숙고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허용되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최소한 만족스런 로고스를 우리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진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지 않는 것**을 상처없이 자유롭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²¹⁹³)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것들 곧 **있는 것** 자체 와 **쉽** 과 **움직임**이 바로

2192) **있지 않는 곳**은 어두운 반면에 **있는 곳**(τῆς χώρας 254a9)은 밝기 때문에 하나는 너무 어두어 하나는 너무 밝아 알아 보기 힘들다 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힘들은 두 경우 모두 정도에 있어서 같다 나아가서,

밝은 곳을 신이 있는 곳과 연결시키는 플라톤의 번뜩임은 실로 놀랍다

2193) **있지 않는 것**이 말하여진다 라는 것은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든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238c10(99쪽)까지에 쓰여진 것 처럼 ‘**있지 않는 것**’은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심지어는 발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심지어 할아버지 파르메니테아스조차 다치게 하지 않은채 **있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류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류이다

지금까지의 옮김 과 요약에서 **이데아** 와 **종**(에이도스) 과 **류**(게노스) 가 서로의 자리에 번갈아 가며 쓰였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맥락의 그 자리에서 나타나므로 이 셋을 우선 짚고 넘어가야한다 첫째,

류들 중에 서로 어울리거나 어울리지 않는 류들 그리고 류들을 서로 어울리게 하는 **류** 와 류들을 나누어지게 하는 류에 관한 앎은 앎 가운데서도 가장 큰 **앎**이다 둘째,

이러한 앎은 동일한 **에이도스(종)**을 헤태론한 것으로 이끌지 않고 있는 헤태론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에 따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변증적인 앎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다 나아가서 셋째,

류에 따라 분간(διακρίνειν, 253e1, 分揀)하여 안다는 것은 각각 하나는 분리된 **여럿** 모두에 두루 퍼진 **하나 이데아** 와 **하나**에 의해 밖으로부터 둘러쌓인 서로에 헤태론한 **여럿** (이데아) 와 다시 **여럿**의 전체들을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 **하나** (이데아) 와 전적으로 분리되 버린 **여럿** (이데아) 등 이러한 (이데아) 각각이 어떤 길로 교통할 수 있는지를 류에 따라 분간하여 안다는 것이다 넷째,

논리를 통해서 항상 **있는 것의 이데아**에 몰두하는 철학가를 알아 본다는 것은 그 자리의 밝음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우리’ 영혼의 눈들은 신을 바라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하려 들지만 어떤 것들은 교통하려 들지 않으며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적은 것들과 교통하려 들지만 어떤 것들은 여럿과 교통하려 들고 또 어떤 것들은 모든 것과 교통하려 들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종)에이도스**에 관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장 큰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뽑아내어 이것들 각각은 어떠한 것들이며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가를 조사해야한다 그 결과 비록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있지 않는 것을 상처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일곱째,

류들 가운데 **있는 것** 자체 와 **쉽** 과 **움직임** 등의 류가 가장 큰 것들이다 먼저,

류 와 종으로 구분된다 무엇이 구분되는가 있는 것 과 쉽 과 움직임 등이 구분된다 그렇다면 있는 것은 쉽과움직임과 구분되는 하나의 류 또는 종일 것이다 류인가 아니면 종인가 요약 정리 그대로 류 그것도 가장 큰 류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있는 것** (자체)는 구분되는 가장 큰 류이다 그런데,

종(에이도스)은 아닐까 있는 것을 알론한 에이도스와 구분되는 하나의 에이도스(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 만약 254c2(1345)의 종 과 254b7(1344)의 류가 서로 그 자리에서 바꾸어 쓰여질 수 있다면 있는 것(자체)는 에이도스(종)일 수도 있으리라 종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는 말이 쓰였고 그 가장 큰 것이 방금 위에서 언급한 류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일 수만 있다면 아마 바꾸어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은 구분되는 하나의 종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과 구분되는 종일까 파르메니데아스 편 136b6(1326)에 따르면 있음과있지않음은 같음과같지않음 과 하나와여럿 과 *쉽과움직임* 과 생성과소멸과 알론한 종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129d8-e1(1249쪽)에서는 여기에 나타나는 같음 과 같지않음 과 많음 과 하나 와 쉽 과 움직임 같은 것들을 에이도스²¹⁹⁴(종)의 보기로 드나 있는 것을 그 보기로 들지는 않는다²¹⁹⁵)따라서,

2194) 물론 거기들 과 여기에 쓰여지는 에이도스라는 말이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시말해 동일한 뜻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는 알론한 물음이다 일단 나는 동일한 뜻을 지니는 것으로 보린다 혹자는 거기에서는 질(quality, 質)로 여기에서는 종(species, 種)의 뜻을 지닌다 라고 말하려할지 모르나 적어도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거기나 여기나 모두 ‘구분(區分)되는 종’ 이라는 뜻을 지니는 것 처럼 보인다 나아가서,

혹자(或者)는 에이도스를 질이라고들 하는데 나에게는 여간 못 마땅한 것들이다 엄연히 그 당시 애틀카 헬라어에는 quality(질)을 뜻하는 ποιότης 라는 여성명사가 쓰이고 있었고 이것의 형용사 형인 ποίος, α, ον도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후세 사람들이 에이도스를 질로 옮기곤하는 것은 텔레스가 자신의 범주들 3b20(179쪽)에서 에이도스 와 류를 비록 힘과 같은 자연적인 질은 아니긴해도 실체와 관련된 어쨌든 질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나,

파르메니데이스 거기 와 소피스테이스 여기를 묶어 있는 것을 *쉽* 과 *움직임*의 에이도스(중)에 구분되는 하나의 *중*이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중을 질적인 어떤 것으로 보아서는 *않*될 것 같기도하다 나아가서,

있는 것의 이데아 라는 레에마(旬)가 여기에 쓰여진다 그렇다면 이데아 와 에이도스는 서로 바꾸어 쓰여질 수 있는 표현들일까²¹⁹⁶ 그렇다면 있는 것은 구분되는 하나의 이데아일 것이다 그리고,

이데아는 I)각기 분리된 여럿 모두에 두루 퍼진 *하나* 이데아 와 II)이 하나 이데아에 의해 밖으로부터 둘러쌓인 서로에 *헤*태론한 이데아 *여럿* 과 III)여럿의 전체를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 이데아 *하나* 와 IV)전적으로 분리된 *여럿* 이데아 등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1350각주2191번참조) 이 네 가지 이데아는 다음 쪽 처럼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말 또는 글로는 나의 생각을 완전하게 어느 정도 써 낼 수 있으나 이미 쓰여진 말에 들어 맞는 그림을 그리려하면 잘 그려지지 않는다 아마 거꾸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나는 먼저 그린 후 그 그림에 들어 맞는 글을 써보려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그렇다

분리 됐으니 여럿일 그러한 이데아 여럿은 그럴 수 있었으나 그 여럿에 대해 있는 이데아 하나를 잘 그려 낼 수 없었다 그것도 두 가지 ‘에이도스’의 이데아 하나이니 더욱 어려울 수 밖에.....그러기에 아마도 파르메니데이스 편 132c9-132d4(1262-1298), 133a11-135c6(1298-1322)에 분리된 에이도스 하나를 여러 알론한 것들이 나누어 지남에 관한 어려움들이 쓰여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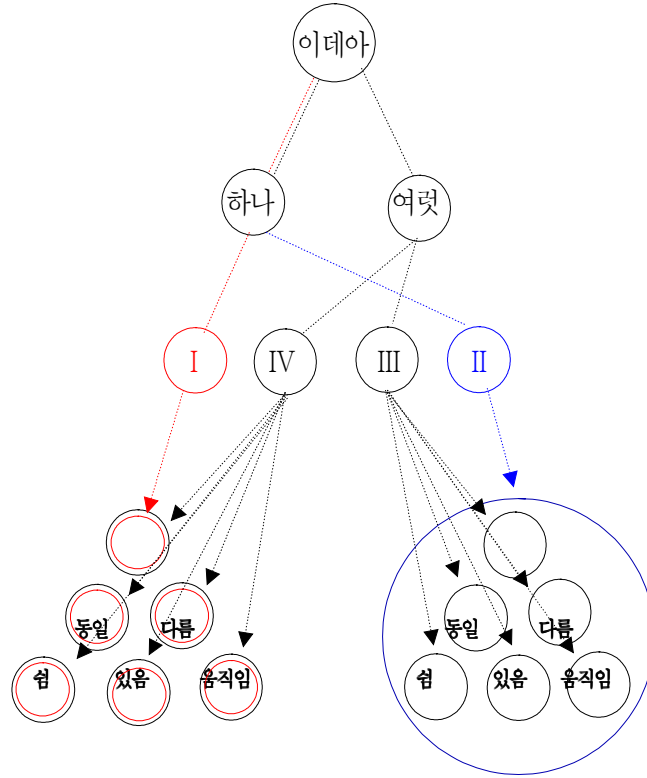
적어도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여기 거기 에이도스는 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휴우.....

2195) 물론 있는 것이 그 보기로 들어질 수 없다는 것은 아니나 어쨌든 그 가 *빠*먹었다는 것이다 만약 의도적으로 *빠*트렸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했을까 아마도 이러한 물음을 무엇을 얻어 낼 수 있는 물음은 아닌 것 같다

2196) 바꾸어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이 물음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다 아직은 나에게 *헛*갈리는 답이 *닥*아설 것 같기 때문이다(1234참조)

만 했으리라²¹⁹⁷어쨌든,

하나도 아래 그림에서 처럼 I) 와 II) 두 가지(에이도스, 種)이다



여럿 전체를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 I)두루 퍼진 빨강 하나 이デア 와 전적으로(πάντη, 253d9, 1343)분리된 여럿을 밖에서 둘러싸는 II)파랑 이デア 하나는 어느 정도 그려진 것 같으나 정확할지는 나에게도 의문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두 에이도스의 하나(들)은 이미 파르메니데에스 편의 훈련에 두 전제들로 나타난다(1338쪽 그림 과 1350쪽을 참조하라) 나아가서,

위 그림에 나오는 작은 동그라미 류 (또는 중)들 중의 하나가 바로 있는 것'이다' 물론 나머지 동그라미 류는 움직임 과 쉽 과 동일함 과 헤태론함'이며 파르메니데에스 편에서 들어지는 에이도스들 까지 거론한다면 하나 와 여럿 과 같음 과 같지않음 과 생성 과 소멸 과 선 과 아름다움 과 올바름 동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 불 물 등의 에이도스도 그 동그라미 들 중의

2197) 이 어려움은 이어지는 훈련에 의해 풀렸다고 나는 본다

하나일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²¹⁹⁸) 물론 아니다 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1257쪽) 그러나 머리털 진흙 먼지 등의 ‘에이도스’는 분명히 아니다 이제,

이러한 각기 **이데아**들은 아주 분간하기 어려운 길로 서로 **교통**(*κοινωνεῖν*, e1, 交通, 交際)한다 그런데,

이러한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하려(*ἐθέλειν*²¹⁹⁹), 254b8, 1344-45)하지만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하지 않으며 또 어떤 것들은 소수(小數)이데아와 **교통**하지만 어떤 것들은 여럿들과 어떤 것들은 모든 것들과 **교통**하므로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모든 **종(에이도스)**들이 아니라 가장 큰 것들을 뽑아내어 먼저 각각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이러한 (종 또는) **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있는 것** (자체)이므로 이러한 가장 큰 류에 관한 앎이 있을 수 있다면 있는 것의 이데아에 관한 앎도 다른 류에 관한 앎과 더불어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2198) 티마이오스까지(티마이오스, 51b8, 1136-1147) 여기서 이끌어 들인다면 이 동그라미들은 아마도 불 물 등의 에이도스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지금의 나로서는 여전히 머뭇거리진다 거기서도 역시 불 물 흙 공기 등의 네 요소는 그 자체 있는 것인 에이도스와 구분되어 지며(1141)-그러기에 55c2(1186)에서는 에이도스가 쓰이지 않고 τὸ ἀχίμα(모습)이 쓰인 것은 아닐는지 물론 이 네 요소의 류 라는 표현도 쓰여지지만 이 때는 요소가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썼을 것이다 그리고 데에미우르고스가 감각적인 것들을 만들기 전에 바라보는 만들어지는 것들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인 원형들 또는 이데아들.....?

2199) **교통**한다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교통**하려한다고 해석한다면 각기 이데아는 하나의 의지(意志)를 지닌 것이 될 것이다 또,

교통한다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바로 윗 줄의 *ὁμολόγηται*(동의되다, 254b7, 1354)에 걸린다면 나는 통렬하게 오해하는 셈이다

논리를 통해서 있는 것의 이데아에 항상 몰두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 *철학가*이다 반면에 있지 않는 것에만 몰두하는 자들이 있는데 *소피스테이스*들이 그러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자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이며 이들이 이루어 낸 앎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똑 같이 무척 힘들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자리가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기 때문이다 소피스테이스의 경우에는 있지 않는 것의 어두움에 숨어들어 거기에 들러 붙어 그것을 일 삼는 반면에 철학가가 처해 있는 자리는 늘 신이 함께 있어 너무 밝아 일상 영혼의 눈으로는 바라보고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 씩 하나 씩 그 커다란 류 각각은 어떠한 것들이며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지를 조사해 나가면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완전히 선명하게 숙고할 수는 없더라도 비록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든 있다 라고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알아버치 파르메니데이스에게 상처를 줌이 없이 자유롭게 우리에게 말 할수 있을 것이다 자,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를 출발시켜 보기로하자²²⁰⁰우선,

101-104쪽을 읽어보라 있는 것이 소피스테이스 편에서 어떤 길로 문체삼아지는 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라는 말은 **있는** ((것))을 나타낸다²²⁰¹라고 하는 엘레아

2200) 소피스테이스 편의 순서에 따르자면 먼저 **있지 않는 것**을 숙고해야 할 것이나 먼저 거론되긴해도 있지 않는 것(모방된 것 그리고 헤테론하지만 닮은 것, 236a8, 97. 판타스마, 98쪽. 에이두올라, 100쪽 등)은 무엇이냐 라는 답은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들 다음에 주어지므로 나는 있는 것부터 숙고할 것이므로 나는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것이다 텔레스에 관한 요약 순서와 같이 말이다

낯선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 오 ! 복 받게나 ! 실로 우리는 아주 힘든 숙고에 있네²²⁰²⁾

한편으로 **있지 않는**(εἶναι μὴ 236e1-2)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진짜가 아닌 이러한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전 과 지금 [어느] 때이건 항상 엄청 어려운 물음들(ἀπορίας e3)이기 때문일세 가짜도 어떻게든(ὅπως e2)실로²²⁰³⁾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거나 억권화할 때 이것은 반대되는 말이(ἐναντ

2201) ὄν(은, 있는, being)을 이제까지 나는 **있는 것** 이라고 옮겨 왔으나 적어도 이제는 아니 최소한도 지금의 맥락에서는 좀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 **있는** 과 **것**((τὸ τι, (어떤) 것, (some)thing))이 소피스테이스 편이 엘레아 낯선이에 의해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비록 ‘**있는**’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τὸ τὸδε, 1089a14 : 945쪽, b29 : 948쪽)와 구분되는 ‘**것**’의 쓰임새는 텔레스의 형이상학 뒤 편 2 장에서 “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면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 라고 말하는 맥락-이 맥락은 요소를 무 규정적인 두 겹인 어떤 하나로 보는 원인에 대해 말하는 맥락에 속한다-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텔레스에 의해서 ‘**것**’이 어떻게 말하여지에 관해서는 944-958 쪽을 참조하라 그리고 자신의 범주들에서 실체에 관해 말할 때 **것**(τι, 2a13, 166, 179) 이라는 놈이 아주 요긴하게 쓰이면서 군데 군데 심지어 형이상학에서 까지 빛을 발한다

‘**것**’에 관해서는 166, 178, 447, 948, 957, 1079, 1112-1119 등을 참조하라

2202) 여기 맥락에 대해서는 1148쪽을 참조하십시오

2203) **실로**(ὄντως, 236e4, 實로)라는 말을 썼으나 실은 나는 여태**것 있는 것으로**(1106, 1146, 1346)으로 옮겨 왔다 **진짜로** 라고도 옮겨지기도한다 **있는 것으로** 옮기든 **실로로** 옮기든 **진짜로**로 옮기든 그 맥락에서 적절히 받아드리면 될 것이며 오해하지 않으려면 ὄντως(온토오스) 라는 부사(副詞)를 늘 염두에 두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 반대되는 말을 연이어 쓰지 않고는 **가짜도 실로**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가짜** 와 **있다** 라는 말은 서로에 반대

되기 때문이다' 라는 로고스 가운데 쓰인다

가짜도 실로 또는 있는 것으로 있다 라는 로고스가 반대되는 낱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로고스 그대로 따르면 **가짜**(ψευδής, 236e4, 거짓) 와 **있다**(εἶναι 236e4)는 **반대되는** 말(ἐναντιολογία 236e5)이다 그러나,

우리는 있음 또는 있는 것에 반대 되는 것은 있지 않음 또는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곤 하지 않는가 앗티카에서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기에 엘레아 낱선이는 이어지는 자신의 로고스에서 '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있는 것의 **반대**(ἐναντίον, 257b3, 126)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험태론한 것을 말하는 것 처럼 보인다' 라고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 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

소피스테이스 편의 여기와 거기의 엘레아 낱선이에 따르자면 있음의 반대는 진짜가 아닌 것 곧 가짜이지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소피스테이스 편의 여기만을 따르자면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것은 한편으로(δὲ 236e1) 있지 않는 것이면서 한편으로(δὲ 236e2) 진짜(ἀληθῆ 236e1)가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쓰인 δὲ(한편으로)을 통해서 연결된 진짜 와 있는 것을 소리는 다르나 뜻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내가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것은

훗 날 텔레스가 있는 것은 진짜 라고도 말하여진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은 소리는 같으나 뜻(로고스, 정의(定義))은 험태론한 호모오뉴마도 아니요(175-76, 805-06, 829) 소리도 같고 뜻도 같은 쉬노오뉴마도 아니라(175-76, 813, 829)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있는 것 곧 실체(우시아)에 대해서 말하여지는 그런 것이다 적어도 텔레스의 범주들 과 형이상학에만 따르면 그렇다(804-834)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있는 것 하나에 관련지어져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짜 또는 진실이다 물론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짜** 또는 거짓이다(1111쪽) 따라서 텔레스는 여기 엘레아낱선이의 로고스를 전개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ιολογία e5)연이어짐이 없이는 오 테아이테토스여 발설되기 아주 힘
드므로 [그렇다네] : 엘레아 낯선이

도대체 무엇 ? : 테아이테토스

있지 않는 것(τὸ μὴ ὄν 237a3) 이 **있다** 라고 그 자의 로고스는
감히 전제(ὑποθέσθαι²²⁰⁴)a3)했소 그렇지 않다면 **가짜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네 그런데 오 어린 친구여 위대한 파르메니데이스
께서는 이런 (로고스)에 이의를 제기해 어린 우리에게

있지 않는 (μὴ

ὄντα 237a8)(것)이 **있다** 라는 그것에 어느 때든 결코 넘어가지(δαμῆ
a8)마라 그러나 이 탐구의 길로부터 너는 [너의] 노에에마(생각)을 달아
라

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 다니시며 늘 말씀하시며 척
도로 삼으셨다네 저것이 그 증거라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은] 그 로고스²²⁰⁵)자체를 적절히(μέτρια 237b1)음미해서 분명하

이제,

플라톤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로하자 소피스테이스 편 여기 엘레아 낯선
이에 따르면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것은 한 편으로 있지 않는 것이고
한 편으로 가짜이며 가짜는 있는 것에 반대이다 그런데 반대되는 말을 연이
어 한 로고스안에 써서 가짜도 실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거짓 또
는 있지 않는 것에 관해 말하는 것은 바로 의견화 또는 역견화하는 것(δοῦν
ξεν, 236e4, 意見, 臆見)이다-은 듣는 이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져들게하여
듣는 이를 아주 힘들게 만든다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사람을 곤
혹스럽게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2204) 무엇을 전제(前提)해 놓고 로고스를 펼쳐 나가는 식의 논의는 파르메
니데이스 편에서 쓰여지는 논의 방식이다 거기 편에서 자주 쓰이는 ὑποθέσθ
αι(전제하다, 136a4, 1326) 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쓰였음에 유의하라 이런
쓰임새가 결정적으로 소피스테이스 편을 이해하게 해 준다 라는 말은 아니
지만 말이다

2205)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는 로고스-플라톤 당시의 소피스테이스들이
내 세우는 로고스-를 말한다 바로 달리 말하면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
다 라고도 말하여 질 수 있을 이러한 로고스는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무엇 때문에 파르메니데이스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증

계하는 것일세 그래서 이 (로고스) 자체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네 만약 자네와 무슨 차이나지 않는다면 [말일세] : 엘레아 낫선이
저를 [당신이] 바라는 대로 놓으세요 가장 잘 그 로고스를 숙
고 하는 길과 동일한 (길)따라 가도록 해 주세요 :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이것들을 해야만 하네 전혀 있지 않는 (τὸ μηδαμῶς ὄν
237b7-8)(것)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낱설(ψΘέγγεοςθα, 237b8, 發說)하
겠는가?2206) 나에게 말해주게 : 엘레아 낫선이

아니요 어떻게?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말] 싸움이나 아이들 [말] 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심사 숙고하는 조심스러운 어떤 자가 있지 않는(τὸ μὴ ὄν
237c1)(것) [이러는] 이 이/를(τοῦνομί c1)은 어떠한 것에 붙혀져야2207)
하는가 라는 물음을 받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무엇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ἐπι ποίον αὐτὸν c2)그 자체 적용되어지며(καταχρησασθ
αι c2)그리고 배우는 자에게 드러날까 라고 상정해 볼 것이네 : 엘레
아 낫선이

저희가 (말하기) 힘든 그리고 거의 말하지 못할 것 처럼 보이
는 아주 어려운 물음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들((의 경우)에 붙은 <것이>
아니라는 이것은 분명하네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있는 것(τὸ ὄν 237c10)에 아니므로 올바르게 (어떤)
것(τὸ τί c10)에도 붙지(φέρων c10)않을 것이네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그러한가요? : 테아이테토스

(어떤) 것 이 레아마(旬)는 있는 (것)의 경우에 우리가 늘 말한

거가 되기(μαρτυρεῖται 237b1)때문이다 따라서,

음미되는 것은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는 저 로고스이지 파르메니테
에스의 경고 말씀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음미에(βασιμισθεῖς 237b1) 파르메
니테에스의 말씀도 직접 그 증거 로서 관련되기는 해도 말이다

2206) 전혀 있지 않는 것이 말하여질 수 있는가? 또는 전혀 있지 않는 것
을 소리로 나타낼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다

2207) ἐπιφέρειν(237c1, to lay or put upon, to bring)를 붙혀지다 라고 읊
겨 보았다

다는 이것은 어디에서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들 모든 것 각각
으로부터 벗겨지고 끊어질 수 없는(ἀπρημωμένον 237d2) 것으로만 이
어떤 **것**을 말하기 때문이네 그렇지? : 엘레아 낫선이

[예 그럴] 수 없는 [것으로만]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어떤) **것**을 말할 때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 하나**를
말하는 것 으로 여기는 데에 자네는 동의할 것인가? : 엘레아 낫선이
그렇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를 (어떤) [짜인] **것**(τινὲ 237d10)은 두
겹(δουίν d10)을 (어떤) **것들**(τινὲς d10)은 **여럿**을 가리키고 있다고
자네는 주장하네 : 엘레아 낫선이

어째서 안 (그리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그래서 **非** **것**(τὸν μὴ τι 237e1)을 말할 때는 아주 필연적으로
전혀 **하나**도 말하지 않아(μηδὲν e2) 보이네 : 엘레아 낫선이

아주 필연적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하나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도 말을 하기는 한다
라는 것도 인정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을 발설하려
하는 자도 반드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²²⁰⁸ : 엘레아 낫선
이

어쨌든 이 로고스는 어려움 끝을 지닙니다²²⁰⁹ : 테아이테토스

2208) 있지 않는 (것)은 발설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려는 자는 아예 아
무말도 해서는 않는가? 라는 물음이다

2209) 그런데,

이 어려움으로 끝나면 오죽이나 좋으랴 불행히도 이 어려움을 뿌리로
삼아 가장 큰 어려움이 솟아 오른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이 솟아 오르는
길을 나는 지금 따라 가지 않으려다 이 부분을 요약 정리한 후에 따라 가려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약간은 무모할 것 처럼 보이지만 나는 여기 어려움을 변증법 훈련을
해야하는 원인으로 파르메니데아스 편(1290, 1308)에서 등장하는 바로 에이
도스 분리가 지니는 바로 그 어려움에 이어보려한다 있지 않는 (것)은 발설
하여지지 않으며 그리고 발설하여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려 해서도 안되므로
그러한 말을 하려면 아무 말도하지 말아야한다 라는 어려움이 일단 더 적은

(236d9 - 237e7)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어떤) 것이란 **있는** (것)을 늘 말하는 반면 **아닌**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진다 그러면서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어려움이 문제 삼아진다

오! 복 받게나! 실로 우리는 아주 힘든 숙고에 있네 한편으로 있지 않는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진짜가 아닌 이러한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전 과 지금 어느 때이든 항상 엄청 어려운 물음들이기 때문일세 **가짜**도 어떻게든 실로 **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거나 역전화할 때 이것은 반대되는 말이 연이어지지 않고는 오 테아이 테토스여 발설되기 아주 힘드므로 그렇다네 - 도대체 무슨? -

있지 않는 것이 있다 라고 그 자의 로고스는 감히 전제했소 그렇지 않다면 가짜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네 그런데 오 어린 친구여 위대한 파르메니데아스께서는 이런 로고스에 이의를 제기해 어린 우리에게 ‘ **있지 않는 것이 있다** 라는 것에 어느 때든 결코 넘어가지마라 그러나 이 탐구의 길로부터 너는 너의 생각을 단아라 ’ 라는 것을 시종일관 걸어다니시며 늘 말씀하시며 척도로 삼으셨다네 저 로고스가 그 증거라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은 그 로고스 자체를 적절히 음미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일세 그래서 자네가 동의한다면 이 로고스 자체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네 - 바라는 데로 하세요 [대신] 저로하여금 가장 잘 그 로고스를 숙고하는 길과 동일한 길을 따라가도록 해 주세요 - [그렇다면],

이것을 해야만 하네 **전혀 있지 않는**(τὸ μηδαμῶς ὄν²²¹⁰) 237b7-8)(것)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발설하겠는가? 나에게 답해주게 - 아니요 어떻게

어려움으로 여기에 쓰여지며 거기에서는 에이도스란 물 인식적인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몰입에 의해 스스로 깨우치지 않는한 타인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 라고 설득될 수 없다 라는 심각한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지지는 지금의 나로서는 약간 헛갈린다

[제가] ? - 그렇다면,

말 싸움이나 아이들의 말 장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심사숙고 하는 조심스러운 어떤 자가 **있지 않는** (것) 이 이름은 어떠한 것에 붙여져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받고 답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무엇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 자체 적용되며 그리고 배우는 자에게 드러날까 라고 상정해 보아야 할 것인데 - 저희들에게는 힘든 그리고 거의 말하지 못할 것 처럼 보이는 아주 어려운 물음입니다 -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들에 붙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네 - 어찌 붙을 수 있겠습니까 - 그렇다면 있는 (것)에 붙지 않으므로 **있지 않는** (것)은 (어떤) 것에도 올바르게 붙지 않을 것인데 - 어떻게 그렇지요? - (어떤) 것 이 레애마(句)는 **있는** (것)을 늘 말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네 있는 모든 (것) 각각으로부터 (어떤) 것은 벗겨지고 끊어질 수 없기 때문이네 그렇지 않나? - 벗겨지거나 끊어질 수 없지요 따라서,

(어떤) **것**을 말할 때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 하나를 말한다는 것에 자네는 동의할텐가?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를 [짜인] 것은 두 겹을 (어떤) 것들은 여럿을 가리키네 -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아닌 것(τὸν μὴ τι 237e1)를 말할 때는 전혀 하나(μὴδὲν²²¹¹) e2)도 말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은 아주 필연이네 - 아주 필연이지요 - 따라서,

하나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도 말을 하기는 한다 라는 것도 인정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을 발설하려는 자도 반드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 어쨌든 그 로고스는 어려움 끝을 지닙니다

있지 않는 (것)이 있지 않다면 **가짜**는 있지 않을 것이므로 있지 않는

2210) ‘토 메다모오스 온’을 없음이라고 옮길 수 있을런지는 좀 더 숙고해 보아야 할 것 같다

2211) 여기서도 ‘메에텐’을 없음 이라고 옮기기 보다는 하나도 없다 라고 옮기는 것이 나을 성 싶다

것도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소피스테이스²²¹²)였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도 마라 라는 아버지 파르메니데이스의 경고 때문에 이들의 로고스를 숙고해 보아야하는데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는 이들의 로고스에는 *반대*되는 말이 연이어지므로 게다가 연이어지는 반대 될 그 말들이 있다 와 있지 않다(이므로²²¹³)이 로고스를 숙고하는 것은 힘들다 ‘반대’되는 말이 일련의 로고스 안에 있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숙고하려다 보면 **아닌 것**을 말할 때는 필연적으로 전혀 *하나*도 말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이므로 하나도 말하지 않는 경우에도 말을 하기는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있지 않는 것은 발설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려는 자도 반드시 하나도 말해선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

힘든 만큼 복 받을(μακάριε 236d9)것이므로 요약할 만한 가치가 있다

2212) 소피스테이스 편의 가장 큰 맥락은 소피스테이스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나눔의 방법에 의해서 찾아가는 맥락이라는 데에 늘 유념하라

2213) 지금까지의 맥락에서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서로에 반대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나다 반대(모순)되는 말들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238d6, 238e8, 99)따라서 텔레스의 형이상학 감마 편 4 장 1005b19-20(695, 논문자료0)에 나오는 앎의 아르케에 곧 (非)모순율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반대(모순)되는 적어도 학문(앎)에 있어서는 반대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 여기에 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반대로 여긴 채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는 로고스를 받아드리게 되면 심지어는 아버지 파르메니데이스를 죽일 것이다 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실은 상처하나 내지 않고(254d1, 1346쪽 각주 2186)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소피스테이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는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의 반대(257b3, 126)로 보지 않고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 (257b4, 126)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있지 않는 한 편으로 **진짜**가 아닌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어떤 것* 을 말하는 것은 언제이건 항상 엄청 어려운 문제이다 **가짜**도 어떻게든 실로 있다 라는 역견을 지니거나 말을 할 때는 반대되는 말이 연이어짐이 없이는 발설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견은 **있지 않는 것이 있다** 라는 로고스를 전제한다²²¹⁴⁾ 그렇지 않다면 가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제,

그 로고스 자체를 적절히 음미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이다 자!

전혀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감히 발설할 수 있겠는가?

만약 말 다툼이나 아이들 말 놀이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심사 숙고하는 조심스러운 자가 **있지 않는** (것) 이라는 이름이²²¹⁵⁾어떠한 것에 붙여져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받는다면 그는 무엇을 무엇에 그 자체 어떤 경우에 적용할까 어려운 물음이다 그러나,

2214) 이러한 전제는 ‘있지 않는 것이 있다 라는 것에 어느 때든 결코 넘어가지 말고 아예 이런 탐구의 길을 생각하지도 마라’ 라고 늘 어렸을적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파르메니데아스를 증거하는 셈이 된다

2215) τὸ μηδαμῶς ὄν(토 메에다모오스 온, 237b7-8) 과 τὸ μὴ ὄν(토 메에 온, 237c1) 이라는 이름 두 가지가 쓰였는데 나는 하나를 ‘전혀 있지 않는 것’ 과 하나를 ‘있지 않는 것’ 으로 옮겼으나 이 둘을 각기 ‘없음’ 과 ‘있지 않음’으로 옮기면 **않될** 까 나아가서,

이어지는 로고스들에서 μηδέν(메에덴, e2) 이라는 이름이 쓰이는데 나는 이것을 ‘하나도 아닌 것’ 이라고 옮겼는데 이것을 다르게 옮기는 길은 없을까 그렇다면,

이 셋은 각각 ‘전혀 있지 않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과 ‘하나도 아닌 것’ 이라고 옮겨진 셈이다 그런데,

이 셋을 두리 몽실 연결해 ‘없는 것’ 이름 하나로 옮기면 안될까? 나는 그러기 싫다(7, 1106쪽각주1800번, 1174쪽각주1924)

있는 ((것))에 붙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있지 않는 ((것))**²²¹⁶⁾은 (어떤) 것에도 붙지(φέρον c10)않을 것이다 (어떤) 것 이라는 레애마(句)는 있는 모든 (것) 각각으로부터 늘 벗겨지나 끊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어떤) 것을 말할 때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 하나**를 말한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를 (어떤) [작인] 것은 둘을 (어떤) **것들**은 여럿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아닌 것을 말할 때는 더 필연적으로 전혀 **하나**도 말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하나도 말하지 않는 경우에도 말을 하기는 한다 라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되며 **있지 않는 (것)**을 발설하려는 자는 반드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최종적인 어려움 이 잇따른다²²¹⁷⁾지금,

여기에서는 **있지 않는 것** 과 **가짜**가 주로 쓰여지는 가운데 있는 (것) 과 (어떤) 것이 쓰여진다 그런데,

엘레아 낫선이가 이러한 글을 쓰는 원인은 **있지 않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마라 라는 아버지 파르메니데에스의 경고 때문이기도하다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있는 것은 있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을 뿐이며**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²²¹⁸⁾반면 소피스테에스에 따르면 **가짜가 있으므로**

2216) 그러나 **있지 않는 ((것))** 이라고 ((것))을 **있지 않는**에 붙힌 것은 어찌보면 지금의 맥락에서 벗어난 듯한 쓰임새일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의 맥락에서 **있지 않음**에는 결코 (어떤) 것 이라는 레애마가 붙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붙혔다** 대신 (()) 라는 겹 괄호 안에 가두었긴 해도 말이다 이러한 쓰임새는 **있지 않는 것도 실로 있다** 라는 새로운 로고스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있다면 있지 않음**에도 (어떤) 것 이라는 이름이 붙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쓰임새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지금의 나도 인정한다

2217)그러나 이 어려움을 시작으로해서 가장 큰 첫번째 어려움이 잇따른다

있지 않는 것도 실로 있기 때문이다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것²²¹⁹)이 바로 있지 않는 것이며 한 편으로 진짜가 아니다 따라서,

만약 가짜는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피스테아스는 있지 않는 것도 실로 있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²²²⁰)그러나,

가짜는 실로 ‘없는 것’일까 엘레아 낫선이의 눈에도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운 글을 그가 쓰려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버지 파르메니데아스의 말씀도 거짓 중의 하나였을까 만약 거짓이었다면 그 아버지는 자신의 후손 엘레아 낫선이에 의해서 반드시 죽여져야만 할 것이다²²²¹)그러나 잘못하면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게 된다 라는 심각하고 조심스런 변민을 안고 엘레아 낫선이는 있지 않는 것도 실로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테아이테토스와 더불어 찾아 가려 했을 것이다 얼마나 잘못하면 아버님을 죽여 버리게 되니 얼마나 가슴 졸였겠는가 그 말씀이 돌아 가시게 되면 적어도 엘레아 낫선이에게는 엘레아 땅 덩어리가 폭삭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말 장난이나 하고 아이들 말 다툼이나 하고 있었겠는가 그는 자신의 아버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

2218) 파르메니데아스 단편 2, 3, 6, 7, 8번(103-104)을 보라

2219)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후에 있지 않는 것을 요약 정리하면서 쓰여질 것이다 여기서 지금 나는 단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220) 혹자(或者)는 플라톤의 있음 또는 있는 것으로부터는 양상(樣相)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나 실제로 그러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기 그리고 있는 것을 뒤나 뒤스(힘, 가능성)이라고 일단 놓고 나가는 저기(소피스테아스, 247d8, 113-14)를 보면 있는 것은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도 있다 저렇게도 있을 수 있으며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있는 것들 또는 있지 않는 것들은 있는 것 그 자체 또는 있지 않는 것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런 가능성이 필연 일 것 같지는 않다

2221) 그래야만 아버지도 살고 후손도 사니까....

고 있었으리라 그런데,

그 답을 찾아 내려면 있지 않는 것 또는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부터 찾아야 했을 것이다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이 어떠한 것들 인지부터 밝혀져야 있지 않는 것도 알고 보니 실로 있더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을 뿐 있는 것만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묻는 로고스나 답하는 로고스에 반대되는 말들이 없어야 했다 적어도 묻는 그 당시 맥락에서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이 서로에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러기에 있지 않는 것 과 진짜가 아닌 것들을 ‘말’하는 데에는 엄청(μεστὰ 236e3)어려움이 있다 적어도 반대(모순)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도 실은 있다 라는 로고스에는 모순(반대)되는 말들이 연이어 쓰여진 것 처럼 보인다 어려운 말이다 나아가서,

전혀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우리가 입도 병긋할 수 없을 것 처럼 보이므로 더욱 더 일은 커지고 어려워진다 전혀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면 있지 않는 것 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또는 하나도 아닌 것에 관한 어떠한 로고스를 우리가 지닐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전개된 로고스에 따르면 (전혀)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입도 병긋할 수 없다

있지 않는 (것) 이라는 이름은 어떤 부류에 붙혀져야(ἐπιφέρειν 237c2)하는가 분명히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붙지(οἰστέον 237c8)않으므로 (어떤) **것**에도 붙지(φέρειν 237c10)않는다 (어떤) 것은 있는 모든 각각 으로부터 벗겨질 수도 끊어질 수도 없는 것으로만 늘 어디에서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것을 말할 때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 하나를 말하므로 (어떤) 것은 하나를 [찍인] 것은 둘을 (어떤) 것들은 여럿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아닌 것(τὸν μὴ τί, 237e1, 非 것)을 말할 때는 더 필연적으로(ἀναγκαίως 237e1)전혀 하나도 말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하나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도 말을 하기는 한다 라는 것도 인정하지 말아야 하고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입을 병긋하려는 자는 아예 반드시 하나도 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개된 로고스로부터 나는 ‘있는 경우에 (어떤) 것을 우리는 말한다 것은 어느 때 어디서건 있는 모든 각각으로부터 벗겨질 수도 끊어질 수도 없다’ 라는 로고스를 우선 집어든다 지금의 나는 있지 않는 것 보다는 있는 것에 관해 쓰기 때문이다²²²²)따라서,

있는 것 이라는 말이 쓰여진다 그리고,

(있는) 것은 늘 필연적으로 **하나**를 말한다 그리고 [썩인] 것은 들을 말하며 것들은 여럿을 필연적으로 말한다 여기서,

나는 ‘**하나** 와 있는 (것)은 동일한 것(τὸ αὐτὸ, 1054a13, 683쪽)을 가리킨다’ 라는 텔레스의 형이상학 이오타 편 2 장을 끌어 들인다²²²³)거기 텔레스에 따르면 **하나**는 무엇(τι²²²⁴), 1053a15, 684)과 질 등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그래서 **하나**는 범주들과 나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 있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 와 있는

2222) 있는 과 것 으로부터 있는 것 이라는 우리 말을 이끌어 내어 ὄν(있는) 이라는 말만 보여도 τὶ를 붙혀 있는 것 이라고 옮길 것이다 그러나 설령 τὶ만 보여질 때는 그냥 (어떤) 것이라고 옮길 것이다 이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럴 것이다

2223) 거기 맥락의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것처럼 **하나**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680)

2224) 범주들 중의 **하나**인 실체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거기 텔레스의 τὶ 와 여기 엘레아 낫선의 τὶ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약간은 혼란스러운 물음 같기도 하지만 내 논문을 위해 아주 필요한 작업 같기도 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의 내가 여기에서 비교하려하지 않으니 어찌된 걸까...

것 이 둘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 나아가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이스 편이나 소피스테이스 편에서는 있음 과 하나는 서로 구분되는 에이도스로 나타난다(1326)그렇다면 (어떤) 것이 말하여지는 곳에서는 늘 **있음**이 가리켜진다는 것 이상(以上)을 추측해서는 않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은 있는 모든 각각으로부터 벗겨질 수도 끊어질 수도 없으므로 ‘것’을 말하는 곳에서는 늘 ‘**있음**’이 가리켜지는 반면 **아닌 것**을 말하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전혀 하나도 가리켜지지 않으며 그리고 **있는 것에 있지 않는 것**은 붙지 않는다 라고 쓰는 것으로 여기에 만족하려다 나아가서,

(어떤) 것이 **있다면** 수도 있다

“ 따라서 하나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도 말을 하기는 한 다 라는 것도 인정하지 말아야고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을 발설하려 하는 자는 반드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 엘레아 낫선이

어쨌든 이 로고스는 어려움 끝을 지닙니다 : 테아이테토스

아직은 [그렇게] 말하지 말게 나아가서 오 복 받게나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크고 첫 번째인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이네 그 (어려움)은 이(가장 큰 첫 번째 어려움)의 **처음**에 부딪히는(τυγχάνει 238a3) 것[일 뿐]이므로 [그렇다네]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도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 테아이테토스

있는 것에는 어디서든 있는 것들의 **해태론한** (어떤) 것이 덧 붙혀질(προσγένουτ²²²⁵) 238a5) 것이네 : 엘레아 낫선이

2225) 덧 붙혀지다(προσγιγνεσθαι 238a5, a7)와 뒤에 나오는 결부시키다(προσπιθέναι, 238c1, 1373)와 들어 맞추다(προσαρμόττειν, 238c6, 1373)와 연결시키다(συμπλοκήν 240c1)그리고 1361쪽의 옮김에 나타났던 붙히다(ἐπιφέρ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있지 않는** (것)에 **있는** 것들의 어떤 것이 어느 때 덧 붙혀진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소? : 엘레아 낫선이

그리고(καὶ 238a9)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있는 것들 가운데 수 일반(ἀριθμὸν τὸν σὺμπαντα, 238a10, 數一般)을 우리는 설정해 보세(τιθεμεν a10)²²²⁶): 엘레아 낫선이

알론한 어떤 것이 반드시 있는 것 처럼 (수도 반드시 있어야합니다)²²²⁷) : 테아이테토스

그래서 우리는 수의 *하*이든 *여*갓이든 **있지 않는** 것에 불히려 해서는 안되네 : 엘레아 낫선이

그 로고스가 주장하는 것 처럼 우리가 (그렇게 불히려) 하는

ειν 237c1) 적용되다(καταχρησασθαι c2) 붙다(φέρων c10) 등 이 다섯 가지 말들은 ‘어떤 것을 어떤 것에 (덧) 붙히다 적용하다 결부시키다’ 또는 ‘어떤 것이 어떤 것에 붙다’ 라는 동일한 맥락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리라

2226) 수 일반을 우리는 있는 것들 중의 하나로 받아 들인다 라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도 있는 것의 (어떤) 것이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2227) 있는 것은 구분되는 가장 커다란 류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미리 미리 1346-1347쪽에 쓰여졌다 그렇다면,

가장 커다란 류들 중의 하나인 있는 것이 다시 자신의 구분되는 알론한 어떤 것(하위 류 또는 종?)들로 나뉘어지며 그 가운데 하나가 수 일반이라는 말인데.....자!

범주는 그 자체 있음(1017a22, 691)이며 범주들은 알론한 아무 것도 뒤 섞여질 수 없이 있는 순수한 것들이라고 말하여질 수 있다면(30) 여기서 텔레스의 범주들을 이끌어 들이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일까? 있는 것들의 나뉘어진 하위 종 또는 류로서 말이다 그러나,

텔레스의 범주들이 플라톤의 어떤 것과 닮았다면 그 범주들은 플라톤의 가장 커다란 류 중의 하나인 있는 것의 하위 종 또는 류 보다는 바로 그 문제의 가장 큰 류들일 것이다 참고로 텔레스에 따르면 수는 양이라는 범주 중에서도 끊어진 양에 속한다

것은 올바르지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수와 분리된(χωρίς 238b8) [이러한] 있지 않는 것들 또는 있지 않는 것을 어떤 자가 어떻게 입을 통해 발설하거나 또는 *디아노이아*에 의해서(τῆ διανοία, 238b7, 생각) 모두함께 포착할까? : 엘레아 낫선이

어떠할 지를 말씀해주세요 : 테아이테토스

한 편으로 우리가 **있지 않는 (것)들**을 말할 때 마다 따라서 우리는 **수의 여럿을** (있지 않는 것들과) 결부시키려(προστυθέναι, 238c1, 結付)하지 않겠나? : 엘레아 낫선이

무슨? : 테아이테토스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마다 따라서 다시 (우리는 수의) *하나*를 (있지 않는 것과 결부 시키려 하지) 않겠나?²²²⁸ : 엘레아 낫선이

가장 선명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들어 맞을(προσαρμόττειν 238c6)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올 바르지(δίκαιόν c5)도 않고 온당하지(ὀρθόν c7)도 않을 결세 : 엘레아 낫선이

당신은 가장 진실하게 말씀하십니다 : 테아이테오스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곧 바로 발설될 수도 말하여질 수(δυνατόν 238b8)도 두루 생각될 수도 없으나 마찬가지로 **非생각적이며 非언어적이고 非발설적이며 非로고스적** 이라네 : 엘레아 낫선이

모두 모두 [그렇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237e4 - 238c11)²²²⁹ ”

2228) (어떤) **것**은 *하나*를 (어떤) 것들은 둘 또는 **여럿**을 가리킨다 라고 쓰여지는 237d9-10(1362)을 참조하라 그런데 (어떤)것은 **있는**과 항상 묶여지므로 거기 (어떤) 것을 **있는 것으로** 읽는 것이 더 나올 수도 있으리라 그렇다면,

거기 와 여기를 합하여 수의 하나 와 여럿은 있는 것 또는 있지 않는 ‘것’과 결부되어서 말하여지나 있는 것에만 결부되어 말하여지거나 생각된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2229) 이 인용 글월의 본디 맥락은 있지 않는 것을 글로 쓰려하는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있는 것에 알맞는 글을 뽑아 내려하므로 어찌 보면 적

라는 앞 인용 글월은 어떤 것에 관해 입을 병긋하려거나 어떤 것을 두루 생각하려하면 수의 하나와 여럿과 반드시 결부되므로 하나와 여럿이 거기에 붙을 수 없는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입도 병긋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라는 맥락을 보여 준다 그러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이므로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입도 병긋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도 있다

하나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도 말을 하기는 한다 라는 것도 인정하지 말아야하는가?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을 발설하려 하는 자는 반드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하는가? - 어쨌든 이 로고스는 어려움 끝을 지닙니다 - 아직은 그렇게 말하지 말게 나아가서,

오 복 받게나!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크고 첫 번째인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이네²²³⁰ 그 어려움은 이 어려움의 처음에 부딪히는 것일 뿐이므로 그렇다네 -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도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

있는 것에는 어디서든 있는 것들의 헤태론한 (어떤) 것이 덧 붙혀질 것이네 -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따라서 **있는** 것들의 어떤 것이 **있지**

절치 않는 일을 지금의 내가 하려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있음이 송두리 채 나를 휘 잡아가는 걸 어찌하겠는가.....

2230) 가장 큰 이 어려움을 파르메니에에스 편 134b4 아래에서 나타나는 감히 건드려질 수 없을 정도로 큰 그 어려움과 비교해 보라

거기에서는 ‘**에이도스**란 본디 몰 인식적인 것이야 라고 우기는 자에게 자넨 틀렸어 라고 논증할 길이 없는 그래서 그 자가 몰입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결국 신이 우리의 일을 보아 알지 못하신다 라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그 자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논증할 길이 없는(1298-1322)’ 그러한 어려움이 나타나는 반면 여기에서는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입도 병긋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있지 않는 것도 실은 있다 라는 로고스에 관해 말해야하고 숙고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나타난다

않는 것에 어느 때 덧 붙혀진다 라고 우리말할 수 있겠는가? - 어떻게? -

우리 있는 것들 가운데 수 일반을 설정해 보세나 - 알론한 어떤 것이 반드시 있는 것 처럼 (수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수의 *하*이든 *여*이든 **있지 않는** 것에 붙히려 해서는 안된다네 - 로고스가 주장하는 것 처럼 그렇게 붙히려 하는 것은 올 바르지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렇다면,

수와 분리된 있지 않는 것들 또는 있지 않는 것을 어떤 자가 입을 통해 발설하거나 또는 디아노이아(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두루 포착할까 - 어떠한지를 말씀해주세요 - 한 편으로 있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 마다 따라서 우리는 수의 *여*를 결부시키려 하지 않겠나? - 무슨? -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마다 따라서 다시 (수의) *하*를 (있지 않는 것에) 결부시키려 하지 않겠나? - 가장 선명합니다 - 그리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들어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올 바르지도 않고 온당하지도 않을 걸세 - 당신은 가장 진실하게 말씀하십니다 -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곧바로 발설 될 수도 말하여질 수도 두루 생각될 수도 없으나 마찬가지로 비생산적이며 비언어적이고 비발설적이며 비로고스적이라네 - 모두 모두.

엘레아에서 온 낫선이 와 테아이테토스 이 두 사람은 수 와 (어떤) 것을 어떠한 가를 끄집어 내므로써 있지 않는 것은 입도 방긋하여질 수도 없고 생각되어질 수도 말하여질 수도 없다 라는 로고스로 나아간다²²³¹⁾

이러한 나아감을 요약해 보자

2231) 그러나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 그 자체 *반대*(*évavtia*, 238d6, 反對, 矛盾)되는 일을 하는 자이다 있지 않는 것은 비언어적이며 비생각적이고 비발설적이며 비로고스적이라고 해 놓구선 있지않는 것에 관해 쓰고 있으니 말이다

하나도 말하지 않는 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입도 병긋할 수 없다 라고 말하려는 자는 반드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려움은 어려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어려움을 아르케에로 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자!

있는 것에는 어디서든 *해태론*한 있는 것들이 덧 붙혀질 것이므로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는** 것에는 덧 붙혀지지 않는다 그런데,

수 일반(ἀριθμὸν τὸν σύμπαντα, 238a10, 數一般)은 있는 것들 가운데 반드시 *알론한* 어떤 것이어서 수의 하나이든 여럿이든 있지 않는 것에 붙혀려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수와 분리된 이와 같은 있지 않는 것 또는 있지 않는 것들을 입을 통해 발설하거나 디아노이아에 의해서 모두함께 포착할까?

있지 않는 것들을 말할 때 마다 우리는 수의 여럿을 결부시키려하는 반면 있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마다 수의 하나를 결부시키려한다는 것은 아주 선명하다 그러나,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에 들어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온당하지도 않다는 것은 아주 진실하다 따라서,

있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곧바로 발설될 수도 말하여질 수도 두루 생각될 수도 없으나 마찬가지로 비생각적이며 비언어적이고 비발설적이며 비로고스적이다 모두 모두 그렇다

따라서 그 두 사람이 자신의 로고스를 **있는(것) 수 (어떤)것 있지 않는(것) 순(順)**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는 수 와 있는(것)이며 있는 것은 있는 것에만 덧 붙혀진다 라는 로고스이다²²³²⁾ 정

2232) 나는 지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문체의 인용글월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인용글월은 본디 있지 않는 것도 실은 있다 라는 것을 선명하기 위한 맥락을 지니므로 있지 않는 것을 축으로해서 요약정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접근일 것

리하면 다음 과 같다

있는 것은 있는 것에만 덧 붙여지며
덧 붙여지는 것은 헤태론하게 있는 것들이고
있는 알론한 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수 일반이다 그런데,

수에는 하나 와 쌍 과 여럿이 있으며
이것들은 각각 반드시 (어떤) 것 과 (짝인) 것 과 (어떤) 것들에 상응
하여(1362)것을 말할 때는 *하나*가 (짝인) 것을 말할 때는 둘이 것들
을 말할 때는 *여럿*이 가리켜진다²²³³⁾
(어떤) 것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에는 있는 어떤 것이 덧 붙여지지 않아
있지 않는 것은 수와 **분리**되므로
하나 와 여럿은 있지 않는 것에 덧 붙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 과 ‘것들’을 말하려면 반드시 하나 와 여럿을 결부시켜
야한다 따라서,

있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입도 병긋하여질 수 없고 말하여질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을 뿐아니라
비생각적이며 비언어적이고 비발설적이며 비 로고스적이다 이처럼,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입도 병긋할 수도 없는 원인은
있지 않는 그것에는 수의 하나 와 여럿이 덧 붙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이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을 축으로 삼는다고 하여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커다랗
게 차이나는 않을 것이다 물론 그 순서(順序)가 여기 순서와는 약간 다를
것이다 하긴 그렇다면 로고스도 달라지긴한데.....

2233) 따라서 가장 적은 여럿을 둘로 여기는 것은 여기 엘레아 님선이 와
테아이테토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서,

말하여질 때는 수로서의 하나 와 여럿이 결부되어져만 한다는 그리고 그 수는 있는 것 가운데 알론한 어떤 것이 이라는 로고스가 지금의 모든 로고스를 이어주는 로고스들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있는 것들 가운데 알론한 어느 하나가 수 일반이다 나아가서,

진리²²³⁴)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진실한 것(τὸ ἀληθινὸν 240b5)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는가²²³⁵? : 엘레아 낫선이

2234) 진실 또는 진짜

2235) λέγων(240b3) 이라는 직설 능동 1인칭 복수 현재 분사 형이 쓰였으니 ‘ 따라서 우리는 진실한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 이라고 직역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레고온(우리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라는 이 말로부터 텔레스 강의에서 너무 자주 나타나는 그리고 그의 말투를 특징지어주는 λέγεται(.....이라고 말하여지다) 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 그 맥락도 거의 동일하다 ‘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가장 주로 말하여진다, 1051a34-b2, 660-677) ’ 라는 로고스가 직접 그의 형이상학 테에타 편 10장에 나타날 뿐 아니라 ‘말하여진다’ 라는 말은 그의 강의록들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538, 804.....) 심지어,

어떻게 보면 그의 강의는 말하여진다고 시작했다가 말하여진다고 끝난다 이러한 점은 그 강의록들을 조금이라도 펼쳐 든 사람에게 의해서 아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법적인 형태-텔레스는 직설수동현재3인칭단수인 반면 플라톤은 직

그렇게 : 테아이테토스

무슨? 따라서 **진실하지 않는** 것은 진실의 **반대인가**(ἐναντίον ἀληθείας 240b5)? : 엘레아 낫선이

무슨? : 테아이테토스

만약 자네가 그(비슷한) 것을 진실하지 않는 것 이라고 말한다면 **비슷한(것)**(τὸ ἑοικός 240b7)을 자네는 **있는 것으로**(ὄντως ὄν b7)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네 : 엘레아 낫선이

그러나 (비슷한 것은) 확실히 어떻게든 있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비슷한 것은) **진실로**(ἀληθώς 240b10) (있다) 라고 자네는 말하는 걸세 : 엘레아 낫선이

있는 것으로 비슷함(εἰκὼν 240b11)을 제외하면 아닙니다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우리가 있는 것으로 비슷한(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는(것)으로 있는(것)이 아닌가? : 엘레아 낫선이

이러한 것은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에** 감히 **연결시키려**(συνεῖλον 2236) 240c1)러 하는 어떠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건) 아주 불합리

설현재능동분사1인칭복수이다-만 바뀌었을 뿐 λέγειν(말하다) 이라는 낱말이 동일한 맥락에서 쓰여진다는 것은 텔레스가 플라톤을 말만 좀 바꾸었을 뿐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 처럼 보인다 우리는 진실한 것을 있는 것으로 있다 라고 말한다(플라톤) 라고 쓰나 있는 것은 주로 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나 모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금의 나에게서는 아닌 것 같다 진실한 것도 있는 것이라고 한 점에서는 같을 것 같으나 있는 것 또는 진실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말을 할 것 같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길과 같은 길을 걸어 나가면서도 헤태론한 여러 길로 텔레스는 빠져 나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길에 관한 글이 내 학위 논문에서 보여질 것이다

2236) 연결하다(쉽플로케엔) 이라는 이 말은 텔레스가 자신의 범주들을 아무 것도 연결되지(1a16, 161)않는 것들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 그대로 쓰여진다 다시말해,

실체 량 질 프로스티(대함, 관계) 어디 언제 상태 지님 행함 겪음 등

헤오(ἄτοπον c2) : 테아이테토스

어찌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말바꿈에 의해서 여러 머리

열 가지 범주들은 아무 것도 자신에 연결된 것이 없는 ‘순수한’ 것들 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텔레스는 ‘말’하면서 여기 소피스테에스 편의 쉘플로케엔 (연결되다) 라는 말을 그대로 빌려쓴다 따라서,

있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는 여기 로고스와 범주들은 어떤 연결도 있지 않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거기 로고스를 서로 잇대어 숙고해 봄직하다

나는 소피스테에스 238b1(1372쪽각주2227번)로고스를 텔레스의 범주와 관련시켜 숙고해 보았지만 어떻게 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를 거기서 한 것 같다 그러나,

좀 더 자신있게 여기서는 텔레스의 범주를 끌어들이 수 있을 것 같다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하는 말이 동시에 두 곳에서 쓰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말이 쓰인 맥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잇대어 여기서 숙고하는 것은 무리인 듯 싶다 거기서는 연결없이 말하여지는 것들 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에 여기서는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에 연결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라고 쓰여지므로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이 있는 것에 연결되는 것과 범주들이 서로에 연결되는 것은 얼핏 다른 문제일 것 처럼 여겨지기도 하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소피스테에스 편 259e6(130)에서는 에이도스들이 서로 연결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로고스는 보여준다 라는 맥락에서 쉘플로케엔이라는 말이 쓰인다는 점도 참고해 보라 그래서,

거기 텔레스와 여기 플라톤을 그냥 잇대기만 한다면 여기 에이도스들은 여기 범주들이다 라고 쓸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마도 여기 에이도스 라는 말은 있는 것 과 움직임 과 쉘 과 동일함 과 헤태론함 등 다섯 가지 커다란 류들 그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의 에이도스(258c3, 128)인 있지 않는 것도 가리킬 것이므로 플라톤의 에이도스들을 텔레스의 범주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 30쪽도 참조해 보라

를 지닌 소피스테에스가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든 있다는 것에 동의
하도록 우리의 의지에 맞서 우리를 다그친다는 것을 자네는 보네 :
엘레아 낯선이

아주 많이 봅시다 : 테아이테토스 (240b3 - 240c6) ”

라는 인용글

월은 있지 않는 것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추적해 가다 보니 어떻게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도록 다그치는 맥락에 속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있지 않는 것의* 보기로서 *비슷한 것*(τὸ ἕοικό
ς²²³⁷) 240b7)이 들어지면서 비록 몇 줄되지 않지만 비슷한 것은 **진실**(한

2237) 비슷한 것이 어떤 맥락에서 말하여지는가가 부연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모든 맥락 가운데 가장 큰 맥락은 소피스테에스가 무엇인가가 라는 물
음에 답하는 맥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슷한 것도 소피스테에스의 정의(定義)에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는
가?

이미 나는 24쪽에서 동일한 류를 헤태론한 에이도스로 나누어 가는
방법에 의한 소피스테에스에 관한 정의들을 도식화 해 보았다 거기를 보면
㉠(232b1-260a4)번 도식이 눈에 들어오면서 비슷한 것의 에이도스가 판타스
마의 헤태론 에이도스와 나뉘어져 상위 류 또는 종인 에이두올라로부터 나
올 것이다

에이두올라를 상(像)이라고 일단 옮겨보자 거기 소피스테에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는 상을 비슷한 상 과 그렇지 않은 상으로 나누면서 그렇지
않은 상을 판타스마(236b7, 98)라 이름한다 다시 말해,

물에 비치는 상 과 거울에 비치는 상 과 그림 조각에 있어서의 *에이
두라(상)*을 말하는 그는 원형의 길이 폭 너비의 비율(συμμετρίας 235d8)에
따르는 그리고 각 부분에 적절한 색을 주는 모방 기교에 의해 만들어진 에
이두올라를 *비슷한 것*이라하는 반면 실제적인 비율은 아니지만 아름답게 보
이는 비율로 모방하는 기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이두올라를 *판타스마*-따
라서 판타스마는 아름다움에 있어서 비슷하게 나타난다-라한다 그런데,

것)이 아니나 어떻게든 **있는 것**이다'라고 쓰여진다 물론 **진실한** 것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있는 것으로**²²³⁸⁾ **있는 것**이다

상(에이두올라, 像 또는 象)을 생산하는 소피스테아스는 상들 가운데 어떤 상을 만들어 내는가 판타스마인가 아니면 비슷한 것인가 아니면 이 둘 모두인가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낸다면 그러한 상을 생산하는 기교를 지녔을 것이나 판타스마를 만들어 낸다면 판타스마를 생산하는 기교를 지녔을 것이다 소피스테아스는 과연 어느 한 기교만을 지녔는가 아니면 두 기교 모두를 지녔는가 그러나,

확실치 않다고 236c10(98)에 쓰여진다 그러면 그 이전이나 이후에서는 확실해지는가 소피스테아스 편 맨 마지막 268c8-d5(134)에 '.....에이두라 만드는 기교의 판타스마적인 류에 속하는 그리고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행위의 기만적인.....' 이라고 쓰여진다 그렇다면,

소피스테아스는 비슷한 에이두라(상, 像)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타스마(환상, 幻像)을 생산하는 그러한 자이다 그리고,

이 각주가 속하는 문제의 그 인용 글월에 나오는 비슷한 상(닳은 것)을 생산하는 기교를 소피스테아스는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어쨌든 상(에이두올라)을 만드는 기교는 지닌다

2238) 그렇다면 '가짜도 실로(있는 것으로, ὄντως) 있다(236e4, 1368)' 라는 로고스에서의 '실로(있는 것으로)' 라는 말은 어찌된 것인가 가짜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실로) 있다라고 쓰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여기 맥락에서는 비슷한 것 (또는 닳은 것 또는 모방된 것) 다시 말해 진짜가 아닌 것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 가 ἀληθώς(240b10)를 내가 무엇 때문에 실로로 옮겼겠는가 어쨌든 일단,

가짜도 있다 그러나 가짜와는 달리 진짜는 있는 것으로 있다 라고 쓰고 지나가기로하자(1106, 1146, 1358쪽도 참조해 보시오)

따라서,

진실한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는가? - 그렇게 - 무슨? 따라서 진실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것)의 반대인가? - 무슨? - 만약 자네가 그 비슷한 것을 진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비슷한 것을 자네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네 - 그러나 확실히 어떻게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비슷한 것은 실로 있다 라고 자네는 말하는 걸세 - 있는 것으로 진실함을 제외하면 아닙니다 - 따라서 우리가 있는 것으로 비슷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있다는 것이 아닌가? -

이러한 것은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에 감히 연결시키려하는 어떤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주 불합리해요 - 어찌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말바꿈에 의해서 여러 머리를 지닌 소피스테에스가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든 있다는 것에 동의하도록 우리의 의지에 맞서 우리를 다그친다는 것을 자네는 보네 - 아주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상(에이둘라, 像)은 비록 있는 것이긴해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닌 반면 진짜는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상과 비슷하게 있긴 해도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상(에이두올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고스는 있지 않는 것도 어쨌든 있다는 것에 동의하도록 다그친다 그리고 이러한 다그침은 바로 소피스테에스에 의해서 감히 이루어지다 다시 요약해 보자

진실한 것을 우리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라 말하는데 진실한 것의 반대는 진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비슷한 것을 진실하지 않는 것이라 말한다면 비슷한 것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것은 확실히 어떻게든 있다 비슷하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슷하게 있는 것이라고 말함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것은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에 감히 연결시키려하는 아주 불합리한 어떤 것이다²²³⁹⁾ 따라서,

진짜(진리)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다 이제,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있는 것을 말하는 맥락으로부터 떠나서 소피스테아스 편이 그 두 사람이 있는 것에 관해 직접 말하는 맥락으로 닥아서보자²²⁴⁰⁾ 먼저,

이들은 자신 이전에 있어온 있는 것에 관한 규정들을 더듬고 나서 비판한다 우선,

있는 것을 **량**적으로 규정하는 자들로 닥아서 보자 아리송하다

“ **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고 어떠한 것들(πόσα τε καὶ ποία 242c6)인가²²⁴¹⁾를 규정하여 분간하기 시작했던 파르메니데아스와 [알

2239)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에 덧붙여지는 것은 1361 과 1373 쪽 거듭 쓰여진 것 처럼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틀리) 붙지 않는다 그럼에도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에 연결시킴에 동의하라고 다그치니 우리는 어떠한 것인가 가만히 숙고해 보니 무턱대고 거부할 수만은 없고.....

바로 이러한 아포리아를 대화로 풀어 나가는 것이 소피스테아스 편이며 이 아포리아는 소피스테아스를 정의함으로서 해결된다! 물론 그 가운데서 아주 곤혹스러운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이 ‘말’하여진다

2240) 그 사이에 벌어지는 대화에 관해서는 101-104쪽을 참조하십시오

2241) 이전 사람들도 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으며 어떠한 것들인가를 규정했다 다시 말해 있는 것의 **량** 과 **질**(πόσα τε καὶ ποία 242c6)에 관해서 이

론한] 모든 자들이 여지껏 우리에게 각기 넘겨 준 것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εὐκόως 242c4)것들처럼 나에게는 보여지네 : 엘레아 낮선 이

어떻게요? : 테아이테토스

[이것들] 각각은 마치 아이들에게 하듯 우리에게 신화(μύθον 242c8)를 자세히 들려주는 것으로 나에게 나타나 보인다네

한 편으로 어떤 자는 그것들 중 하나[하나]가 서로 적이 되었다가 다시 어느 때 친구가(φιλα 242d1)되어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그러한 세 가지²⁴²가 있는 것들이라고 다른 한 편으로 어떤 자는 젖음 과 마름 또는 **따스움** 과 **시원함** 등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뒤섞여지는(ἐκδιδωσι d4)그러한 두 가지 **혜태론한** 것들이 (있는 것들 이라고) 다른 한 편으로 크세노파네스 와 나아가서 [그 보다] 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엘레아 사람들은²⁴³ 있는 모든 것들

전 사람들은 말했다 그런데,

바로 이 **량**(πόσα) 과 **질**(ποιά)은 텔레스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범주들로 다시 도입(導入)된다 텔레스의 범주들 1b26(161)을 보라 거기에서는 그 범주들 중의 하나로 **량**(ποσόν) 과 **질**(ποιόν)이 말하여지며 거기 이후에서는 이 둘을 포함하여 실체 와 프로스 티(대함) 등 네 가지 범주들 만이 자세하게 논의 되어진다 그러나 나머지 범주들 곧 어디 와 언제 와 상태 와 지남 과 행함 과 겪음 등은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161-276)

2242) 싸움 사랑 결혼 이 세 가지를 있는 것들로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세 가지 것과는 알론한 어떤 세 가지 것을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싸움 사랑 결혼일 것 같다 사람 한 평생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론하게 있는 것들 세 가지가 서로 적이 되었다가 어느 때 친구가 되어 결혼하여 아이낳아 기른다고 보아서는 안될까 241d1의 αὐτῶν(그것들)은 242c9의 있는 것들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그래서는 안될 것 같기도한데.....

2243) 따라서 엘레아 낮선이는 스스로 자신의 (집안) 출신 내력에 대해 고백한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이 분명 크세노파네스 와 파르메니테아스로 이어져 내려오는 사람들 축에 끼인다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아이(πα

을 **하나**라고 신화에 의해서(τοῖς μῦθοις 242d6)그렇게 계속 말해왔다
네 그런데,

몇몇 이오니아 인들 과 보다 후의 시실리아 뮤즈들은 이 양자
를²²⁴⁴ 묶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선 있는** 것은 **여럿** 이면
서(τε καὶ ε2) **하나**이며 적 과 친구에 의해서 함께지속된다(συνέχεται
242e2)고 말한다네 더 불굴의 뮤즈들은 갈라져 나가면서 항상 함께
끌어당겨진다 라고 말하는 반면 더 온화한 뮤즈들은 항상 그것들이
그러한 상태여야한다는 것을 좀 누그러뜨려 어떤 때는 아프로디테에
에 의해서 모든 것은 하나이며 친구이나 어떤 때는(τοτὲ 243a1)어떤
싸움을 통해서 **여럿**이며 동일한 것이 그 자신과 적이된다 라고 말하
기 때문이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진실하게 말하든 또는 (진
실하지) 못하게 말하든(ei 243a2) 나이든 유명한 사람에게 그 가치를
크게 깎아내리는 것은 가혹하고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의 주장이 만들어진다네 : 엘레아 낫선이

어떠한? : 테아이테토스

우리와 같은 나머지 사람들을 너무 적게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
오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지 또는 그냥 남아있을지에 유의하지 **않은**
채²²⁴⁵각각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버렸기 때문이오 : 엘레아 낫선이

οὖν 242c8)라고 그리고 파르메니데아스를 아버지(πατὴρ, 241d5, 103)라고
스스로 부르는 파르메니데아스 집안(ἔθνος 242d4)사람으로서 자신의 조상을
더욱 더 빛내려는 사람이라는 것에 유념하라

그는 결코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이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1365쪽참
조)

2244) 엘레아 낫선은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 과 세 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맥락에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자신
이 속한 집단에서 (한 가지 또는) 하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와는 **헤태**
론한 맥락에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자는 이러한 두 가지를 가리킨다

2245) 우리가 성숙한 판단을 지녀 분간하면서 진실하니 따라가고 진실하지
않으니 따라가는 대신에 그냥 남아있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은 어렸던

당신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테아이토스

이들 중의 어떤 자가 여럿 또는 하나 또는 둘이 있거나 되어졌거나 되어진다 라고 그리고 다시 뜨거움은 차가움과 뒤섞여진다(συγκραυννόμενον 243b5)라고 말하면서 알론한 어떤 길로 분리 와 결합한다 라고 말들이 발설할 때 마다 오 테아이테오스여 자네는 그들이 말한 이런 것들 중의 각각 어떤 것을 신들에 대해 [맹세코] 이해한(οὐκ ἔγνω 243b7)적이 있는가?

지금 우리를 어렵게하는 **있지 않는** 것을 누군가 썼을 적 마다 나는 정확하게(ἀκριβώς 243b9)이해했다고 젊었을 적에 여겼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어려운 물음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자네는 보기 때문일세 : 엘레아 낫선이

보지요 : 테아이테토스

해태론한 것에 연관해서가 아니라 이 (있는) 것에 관련해 우리는 어떤 자가 그 (있는)것을 발설할 때 마다 비록 아주 쉽게 말하고 이해한다고 하지(μὴ ἀντιλέγειν 234c4)만 그 **있는** 것에 관련해서도 아마 영혼 안에 그와 동일한 정열(πάθος 243c3)을 더 적지 않게 똑 같이 겪을 걸세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양자에 대해 똑 같은 상태일 걸세 : 엘레아 낫선이

똑같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알론한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 말하여질 것이네 : 엘레아 낫선이

전적으로 : 테아이테토스

후에 이런 여러 것들에 관해 숙고할 거네 자네의 의견[도 그렇다]면 [이런 것들 가운데] 지금 가장 큰(τοῦ μεγιστοῦ²²⁴⁶) 243d1) 처음 것에 관해 먼저 숙고하려하네 : 엘레아 낫선이

당신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또는 있는 것을 말하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따라갈지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해 그냥 남아 있을지를 앞선 사람들이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막무가내(莫無可奈)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뒤 처질 것이다

2246) 여기에서도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가장 큰 것이라고 말하여진다는 데에 유의하라 이러한 표현은 이따끔 나타난다(254d4, 1347)

자들이 분명히 상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음미해서(διερευνησασθαυ 243d4) 이(있는) 것을 먼저 말해야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242c4 - 243d5)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것에 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라는 그 말에 의해서 상정하는 것이 **무엇(τι)** 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가** 라는 물음에 대해 하나 또는 둘 또는 여럿 이라고 말했던 자들과 관련해서 이러한 조사를 우선 해 나가자는 것이 쓰여진다 그래서,

있는 것의 량(πόσα)에 대해 이전에 말하여진 것들을 엘레아 출신 학자 와 테아이테토스는 음미해 나가기 시작한다

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고(량) 어떠한 것(질)**인지를 규정하여 분간하기 시작했던 파르메니데아스 와 모든 자들이 우리에게 각기 여지껏 넘겨준 것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 처럼 여겨지네 - 어떻게요? -

각각은 마치 아이들에게 하듯 우리에게 신화를 자세히 들려주는 것으로 나에게 나타나 보인다네²²⁴⁷⁾

2247) 플라톤의 대화 편들에서도 가끔 신화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다루는 세 대화 편 주인공들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신화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논리(λογισμῶν, 254a8, 1344)를 통해서 나타난다 물론,

티마이오스 편은 일곱 현인들 중의 하나인 솔론(20e1)이 크리티아스의 할아버지 드로오피토스에게 전해 준 기원전 11세기 경의 고대 아테네에 관한 ‘신화’ 또는 ‘전설’을 티마이오스에게 크리티아스가 이야기함으로서 시작되긴하나 그 이야기는 사람의 모든 것인 국가로부터 우주의 모든 것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위해 이끌어 들여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 과 사람의 생성에 대해 티마이오스는 결코 신화에 기대지 않고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티마이오스 편 과 파르메니데아스 편 과 소피스테아스 편에

한 편으로 어떤 자는 그것들 중 하나 하나가 서로 적이 되었다가 다시 어느 때 친구가 되어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그러한 세 가지가 있는 것들이라고 다른 한 편으로 어떤 자는 젖음 과 마름 또는 따스움 과 시원함 등 함께 살면서 뒤 섞어지는²²⁴⁸⁾ 그러한 두 가지 해대론한 것들이라고 다른 한 편으로,

크세노파네스 와 나아가서 이 보다 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엘레아 사람들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라고 신화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 말해왔네 그런데,

몇몇 이오니아 인들 과 보다 후의 시실리아 뮤즈들은 양자를 묶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있는** 것은 **여럿**이면서 **하나**이며 적 과 친구에 의해서 함께 지속된다고 말한다네 더 불굴의 뮤즈들은 갈라져 나가면서 항상 함께 끌어당겨진다고 말하는 반면 더 온화한 뮤즈들은 항상 그것들이 그러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좀 누그러뜨려 어떤 때는 아프로티에 애에 의해서 모든 것은 하나이며 친구이나 어떤 때는 어떤 싸움을 통해서 여럿이며 동일한 것이 그 자신과 적이된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진실하게 말하든 또는 그렇지 않든 나이든 유명한 사람에게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가혹하고 적절치 못하다네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하나의 주장이 만들어진다네 - 어떠한? - 우리와 같은 나머지 사람들을 너무 적게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오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지 또는 그냥 남아 있을지에 유의하지 않은 채 각각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 버렸기 때문이지요 - 당신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이들 중 어떤 자가 **여럿** 또는 **하나** 또는 둘이 **있거나 되어**졌거나 되

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피스테이스 편 여기는 그 주인공이 자신의 로고스를 신화로부터 출발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이 아이였을 적 그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그 이야기로부터.....

2248) 들었던 것이 신화여서인지 의인화(擬人化)된 표현들이 나타난다

어진다 라고²²⁴⁹) 그리고 다시 *뜨거움*은 *차가움*과 뒤섞어진다 라고 말하면서
알론한 어떤 길로 *분리* 와 *결합*한다 라고 발설할 때 마다 오 테아이테토스
여 자네는 그들이 말한 이런 것들 중의 각각 어떤 것을 신들에 대해 맹세코
이해한 적이 있는가?

지금 우리를 어렵게하는 있지 않는 것을 누군가 썼을 적 마다 나는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젊었을 적에 여겼지만 지금 우리는 있지 않는 그것에
관한 어려운 물음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자네는 보기 때문일세 - 보지요 -

헤태론한 것에 연관해서가 아니라 이 있는 것에 관련해 우리는 어떤
자가 있는 그것을 발설할 때 마다 비록 아주 쉽게 말하고 이해한다고 하지
만 있는 것에 관련해서도 아마 영혼 안에 그와 똑 같은 정열을 더 적지않게
똑 같이 겪을 걸세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양자에 대해 똑 같은 상태일
걸세 - 똑 같습니다 -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알론한것들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 말하여
질 것이네 - 전적으로 - 따라서,

후에 이런 여러 것들에 관해 숙고할 거네 자네 의견도 그렇다면 가장
큰 처음 것에 관해 지금 먼저 숙고하려네 - 당신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
니까? 또는 **있는** 것을 말하는 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상정하는 것이 **무엇**인
지를 철저히 음미해서 이것을 먼저 말해야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들 두 사람은 *여럿 가지* 또는 *두 가지*가 있다 라고 또는 하나(*한
가지*)가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의해 **있는** 것으로 상정되는(*διερευνησασθα
ι*, 234b4, 想定)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하려한다²²⁵⁰)

2249) 있음 과 생성이 구분되어 쓰여지는(1172) 티마이오스 편을 확인하는
투의 표현이다 있다 와 생성되다가 또는(*ἢ* 243b3)으로 이어지는 걸 보니 말
이다

2250) 텔레스 역시 자신의 형이상학 제애타 편 1 장 끝에서 '**있는** 것은 무
엇(*τι*, 1028b4, 292)인가 라는 물음은 실로 오랜 그리고 지금 항상 제기되는
그리고 항상 어려운 물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물음 대신에 **실체**(*οὐσία*
1028b4, 292)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자신은 더듬어 가겠다고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양**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을 규정하기 시작한 자들이다 *여럿* 또는 *하나* 또는 *둘* 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제,
요약해 보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또한 어떤 것들인가에 관해 파르메니데아스 와 알론한 모든 자들이 규정했던 것들은²²⁵¹⁾ 만족스럽지 못한 것 처럼 보인다

서로 적이 되었다가 다시 어느 때 친구가 되어 결혼하여 아이 낳아 기르는 **세** 가지 것을 어떤 자는 있는 것들이라 하고 어떤 자는 함께 살면서 뒤 섞여지는 **젓음과마름** 또는 **뜨거움과차가움(陽과陰)**등 해태론한 **두** 가지를 있는 것들이라 하는 반면 크세노파네스 와 그 이전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 엘레아 사람들은 **있는** 모든 것을 **하나** 라고 신화에 의해서 계속말해 왔다 그런데,

몇몇 이오니아 인들과 보다 후의 시실리아 뮤즈들은 이 양자를 묶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기고선 있는 것은 *여럿 이면서 하나*이다 라고 말한다 어떤 뮤즈는 갈라져 나가면서 항상 끌어당겨진다 라고 하는 반면 어떤 뮤즈는 어떤 때는 아프로티테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이며 친구이나 어떤 때는 싸움을 통해 동일한 것이 그 자신과 적이되어 *여럿*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텔레스가 이 물음들을 동일한 물음으로 여겼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에 따르면 실체는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있는 것이므로 **있는** 것이 무엇이나 라는 물음 과 **실체**란 무엇이나 라는 물음은 알론한 물음이며 이에 대한 답 역시 다를 것이다 그러나,

텔레스 만이 실체란 무엇이나 라고 물은 것이 아니다 뒤에 옮겨지면 서 정리될 것이지만 플라톤 역시 실체(ούτος 246a5, 111)에 대해 묻는다 따라서,

여기서도 텔레스는 옆으로 썰 듯 말 듯 플라톤을 따라간다

2251) 신화를 아이에게 들려주듯 우리에게 넘어왔던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자들²²⁵²)은 우리와 같은 나머지 사람들을 그리
엄두에 두지 않은 채 우리가 따라가든 말든 상관없이 각기 자신의 길을 가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럿 또는 하나 또는 두 가지가 있거나 되어졌거나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따스워졌다 시원해지며 또 알론한 길에서 분리 와 결
합이 이루어진다 라고 발설할 때 마다 신들에 맹세코 이런 것들 각각을 이
해하기 어렵다 [예를들어],

누군가에 의해 **있지 않는** 것이 쓰여질 적 마다 **없었을** 적 나는 정확
하게 이해했다 라고 여겼었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어려워졌다 **있는** 것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있는 것을 발설할 때 마다 아주 쉽게
말하고 이해한다고 여겼지만 이에 관해서도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영혼 안에
서 내가 겪었던 것과 똑 같은 정열을 겪기 때문이다

알론한 것들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그래서,

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상정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철저
히 음미해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분명히 말해야한다 그렇다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더듬어 가기 시작하는 엘레아 낯선
이는 있는 것을 양적인 측면에서 여럿 또는 둘 또는 하나 또는 하나이면서
여럿 이라고 말했던 자들을 비록 그들이 신화로 우리에게 건네 주긴 했지만
속고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나는 여럿($\pi\o\lambda\lambda\acute{\alpha}$ 243b4) 또는 여럿($\epsilon\nu$ b5)을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로도 받아드린다 물론 주로 여럿 또는 하나라고 받아드리지만 말이다 그렇
다면 여럿 또는 하나로 있듯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또는 한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적이 되었다가 친구가 되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는 그리
한 **셋이** 있는가 혹은 함께 서로 뒤 섞여지는 **젖음과마름** 또는 **뜨거움과차**

2252) 오랫동안 명성을 얻어 온 이들을 진실하네 진실하지 않네 하면서
그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은 가혹하며 적절치 못하다

가움 등 헤태론한 둘이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은 하나로 있는가 이것도 아니라면 하나이면서여럿으로 있는가 있는 것은 하나인가 아니면 둘 또는 셋인가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를 [쌍인] 것은 둘을 (어떤) 것들은 여럿을 필연적으로 가리키며 (어떤) 것은 있음으로부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라고 엘레아 낫선이는 237c10-d10(1362)에 쓰므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쌍으로 있는 것인가 또는 있는 것들인가 라는 물음으로 위 물음을 바꿀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둘 이상의 것은 헤태론한(ἑτερος 242d3)것들이므로 있는 것은 동일하든지 아니면 헤태론한 것들이다 라고도 쓰여질 수 있으리라 쌍인 것도 헤태론한 것이며 셋인 것들도 헤태론하지만 하나인 것은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이 하나인가 아니면 둘 또는 셋인가 아니면 하나이면서 둘인가 라는 물음으로부터 있는 것은 헤태론한가 아니면 동일한가 아니면 헤태론하면서동일한가 라는 물음이 잇 따른다 이제,

엘레아 낫선이는 있는 것에 관련된 말들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 이해할 수 없으니 무턱대고 따라 갈 수만은 없지 않은가

예를들어 젓음과마름 또는 차가움과뜨거움 같은 쌍인 것이 함께 살면서 뒤 섞여지면서 알론한 길로 분리 결합된다고 하는 말 그리고 헤태론한 셋이 한 때는 적이었다가 친구가되어 결혼하여 아이낳아 기른다는 말 그리고 있는 것은 항상 갈라져 나가면서 끌어 당긴다거나 아니면 아프로디테에 의해서 하나이며 친구이었다가 싸움을 통해 적이되어 여럿이라는 말 등은 아리송한 말들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말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인 있는 것 이라는 말은 있지 않는 것 이란 말과 마찬가지로 처음엔 이해한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는 아리송한 가장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무엇을 상정하는지 알아내야만한다 먼저,

있는 것만을 말하거나 아니면 쌍으로 있는 것 또는 헤태론하게 있는 여럿만을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말해,

량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한다

“ 당신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또는 **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상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음미해서(διερευνησασθαί 243d4) 이(있는) 것을 먼저 말해야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오 테아이테토스여 자네는 곧바로(κατὰ πόδα 243d6)포착했구먼 나는 우리의 방법을 그것에 반드시 사용해야한다고 나는 말하기 때문 일세 예를들어,

요것을 우리 앞에 놓고 철저히 조사해 보기로 하세 따스움 과 시원함 또는 이러한 어떤 두 가지 것이 모든 있음이다 라고 말할 때마다 양자와 관련하여 발설되면서 어느 때이든 이러한 양자(ἔμφω, 243e1, 兩者)와 각자에 걸리는 것은 무엇(τι 243e1)인가? [그리고] 우리들이 포착한 그 무엇이든 당신들의 있음(τὸ εἶναι 243e1)인가?²²⁵³ 아니면(πότερον²²⁵⁴ e1)저 둘과 나란한 셋 그리고 셋은 당신들에 따라 취하여진 둘이 아닌 모든 것인가? **있는** 헤태론한 것이라고 불리워진 둘 양자²²⁵⁵를 같이(ὁμοίως 243e5)**있다** 라고 자네는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네 아마 양자[의] 어느 것도 둘이 아니라 하나일 것이므로 [그렇다네] : 엘레아 낫선이

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그러나 그 양자를 **있는** (것)이라고 부르길 바라는가? : 엘레아 낫선이

똑 같이 : 테아이테토스

2253) 따스움 과 차가움만이 있다 라고 말할 때 따스움 과 차가움 이 양자에 모두 걸리면서 각각에도 걸리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무엇이든 바로 자네들이 말하는 그 있음인가? 라는 물음이다

2254) πότερον은 둘 가운데 어느 하나인지를 물어보는 접속(接續)의문사이다 이 말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848, 1001, 945, 1197쪽을 참조하시오

2255) 둘 그리고 돌아닌 모든 것 또는 셋을 이 양자는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따스움 과 시원함을 가리킨다

그러나 오 친구여 당신은 그렇게 그 둘을 아주 선명하게 하나
라고 말할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하네 : 엘레아 낯선이
아주 올바르게 말씀하십니다 : 테아이테토스

지금 우리는 어려움에 빠졌으므로 **있는** (것)이 발설될 때 마다
어느 때든 가리키길 바라는 그 **무엇**을 당신들은²²⁵⁶⁾우리에게 충분히
선명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야 당신들은 그것을 오래 전에 인식했을
것이지만 우리들은 이전에는 알았던 것 처럼 여겨졌지만(ὅμως
244a7)지금은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일세 이러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네 모든 것이 그 반대로 된 것임에도 불
구하고(μὲν.....δὲ 244b9)당신 들 쪽에서 말한 것들을 이해한다(μὴνΘά
εν 244a9)고 우리가 억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일세 이것을 모

2256) 지금 주옥 갑자기 2인칭 복수 인칭대명사가 격을 달리해 가며 또는
2인칭 어미를 지닌 동사형이 쓰이는데 이러한 맥락의 이 2 인칭은 테아이테
토스를 포함 거기에 참석 한 여러 사람들을 너희들은 가리키는 것일까 그렇
다면 1인칭 대명사 복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만약 지금 이 말은 엘레아 낯선이가 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엘레아
낯선이를 포함 테아이테토스가 배정될 수 '있다'면 당신들에는 누구 누구가
배정되어야 할까 그 대화에 참석한 어느 누구일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엘레
아 낯선이가 지니는 지혜와 동일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 성 싶지 않다 심지
어 소오크라테에스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지금 소오크라테에스는 아이 취급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화에 참석한 네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당신들에
배정될 수 없다면 당신들을 통해서 엘레아 낯선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
까 ,

소피스테에스 편에 나오는 테오도로스와 소오크라테에스와 엘
레아 낯선이 와 테아이테에토스 등 네 사람 가운데 엘레아 낯선이의 말에
테아이테에토스가 주로 맞장구 치는 대화를 아무 말 없이 소오크라테에스
와 테오도로스는 단지 듣고 있을 뿐이므로 그리고 세 사람은 어린아이(ὦ
παί 244b7) 취급 당하고 '있음'으로 엘레아 낯선이의 말을 듣고 만 '있는' 대
화 참석자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을 헤태론한 두 가지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어야 한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물음이 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테아이테토스의 동의하에서 말이다

든 것은 하나이다 라고 충분히 말하는 알론한 자들 쪽과 이러한 [당신]들 쪽에게 말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오 아이여(ὦ παῖ 244b7) 그런 것은 확실히 아니잖는가? : 엘레아 낫선이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무엇?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 라고 말하는 자들 쪽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반드시 힘닫는 데까지(εἰς δύναμιν 244b7) 물어 봐야하지 않겠는가?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그렇게] 않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하나 만이 **있다** 라고 (당신들은)²²⁵⁷ 주장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물음에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게 해 보세 그러지 않을까? : 엘레아 낫선이

[그렇습니다] 예 : 테아이테토스

무엇이? **있는(ὄν 244b12)**을 (어떤) **것(τι b12)**이라고 자네는 부르는가²²⁵⁸? : 엘레아 낫선이

예 : 테아이테토스

이름 두 개가 동일한 하나에 걸리는가 (προσχρόμενοι 244c1) 아니면 어떻게?²²⁵⁹ : 엘레아 낫선이

2257) 이 전의 당신들과는 달리 여기 당신들은 하나만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참고로 여기 당신들은 동사(φατε는 φήμι의 복수 2인칭이다, 244b9) 어미에 의해 가리켜진다

2258) **것(τι, 237c10, 1361)** 이라는 레애마(표현)은 있는(ὄν)을 말한다는 것은 이미 1357 - 1371쪽에서 요약 정리 평하여졌다

2259) 동일한 하나를 두 이름으로 부르는가 아니면 어떠한가? 라는 물음이다 다시 말해 정의(定義)에 근거하는 두 가지 이름을 있는 하나인 것이 지닐 수 있는가 지닐 수 없다면 어떠한 것들이 그 두 이름을 지니는가? 라는 물음이다 그러한 두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있을까 두 정의를 지닌 하나가 있을 수 있을까

집에서는 아빠라 불리우는 반면 교회에선 목사로 학교에선 교수로

나라에선 대통령으로 모든 이에겐 선생님이로 불리우는 사람 하나는 이러한 여러 이름을 지닐 경우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어떤 것을 정의해 놓은 이름이 하나인가 아니면 어떠한가를 문제삼는다 아빠라고 정의된 것은 아빠라고 불리울 뿐 엄마 등의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우지 않으며 목사라고 정의된 것은 목사라고만 불리울 뿐 중(승려) 등의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우지 않고 교수라고 정의된 것은 교수라고만 불리울 뿐 강사 등의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워지지 않으며 대통령이라고 정의된 것은 대통령이라고만 불리울 뿐 국무총리 등의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우지 않으며 선생님이라고 정의된 것은 선생님 또는 도둑님 등의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우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것 하나에 이름 하나 라는 레에마(句)는 정의된 이름 하나를 말하지 어떤 그것에 여러 이름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한 정의는 있을 수 없다 라고 대들다면 그 자가 스스로 깨닫지 전까지는 적어도 지금의 나는 그 자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기 힘들 것 같다 나아가서,

텔레스의 형이상학 제에타 편 4 장 중간 부분 1030a7(306)에 나오는 ὄνομα(이름)역시 바로 이러한 이름을 말하며 플라그마 하나에 이름 하나 (ἐν 1006b31, 703)를 텔레스가 내 세웠다면 아마도 이러한 정의된 이름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티마이오스 편 52a5(1138)에서 티마이오스가 말하는 저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는 것들은 저 에이도스와 같은 이름(ὀμώνυμον)으로 불리워진 다 라고 말할 때 그 이름 역시 정의된 이름을 말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정의된 자신의 이름 하나만을 지닌다는 것과 어떤 것이 그렇게 정의된 여러 이름을 나누어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험태론하다 바로 이러한 점을 착각(錯覺)해서는 안된다 물론 그러한 정의는 그 자체 불 가능하다 라고 대들면 그 사람이 깨닫지 전에는 지금의 나로서는 그 자가 틀렸다는 것을 논증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 자가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에 관한 ‘논의’ 내지는 ‘설명’은 할 수 있다 논의 내지 설명은 필연적인 로고스들을 지니지 않을 수도 있기 때

이 물음에 대하여 오 (엘레아) 낯선이지여 그들에 의해서 무슨
답이? : 테아이테토스

오 테아이테토스여 지금의 물음에 대해서 그들이 전제한 동일
한 전제에 [근거]하여 답하는 것은 무엇이든 알론한 물음에 대해서 답
하는 것 보다 가장 쉽지(ῥᾶστον 244c6)않는 것임은 분명하다네 : 엘레
아 낯선이

어떻게? : 테아이테토스

하나 이외의 어떤 것도(μηδέν 244c8)있지 않다 라는 데에 동의
해 놓고 이름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든 우스꽝스럽스
: 엘레아 낯선이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이름(ὄνομα 244c12)은 (어떤) 것(τι 244d1)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네²²⁶⁰ : 엘레아 낯선
이

어떻게? : 테아이테토스

이름을 프라그마(του πράγματος 244d3) 헤테론한 것으로 받
아드린다면 어디에서건 둘을 말하는 것이라네 : 엘레아 낯선이

예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그 (프라그마를)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드린다면
하나도 아닌 것의 이름이라고²²⁶¹ 필연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설령]

문이다

이름이라는 말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1315, 341, 361, 378, 598,
697, 700, 809, 824, 837, 849, 1015, 1017, 1069, 1156, 1197, 1162, 1299쪽 등
을 참조하시오

2260)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τὸ παράπαν 244c11)않다면 말이 될까? 아
마 그럴거라고 받아드려야 할 것 같은데.....

2261) 다시 말해 이름은 (어떤) 것도 아니라고.....그런데,

것은 있음과 떨어질 수 없이 붙는다 라는 237d2(1362) 앞 뒤에 따르
면 여기 프라그마를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바뀌어 쓰여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다고 여겨지면 다시,

텔레스의 범주들 12b14(31쪽)에 나오는 프라그마(πράγμα, 일, 事態)를

그(이름)이 어떤 것의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은 결코 **있는** 알론한 것의 (이름이 아니라) 단지 이름의 이름(ὀνόματος²²⁶²)ὄνομα 244d8) 뿐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잇따를 것이네 : 엘레아 낫선이

그렇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하나는 하나의 이름으로 있으면서 다시 이름의 하나로 있[을] 것이다 : 엘레아 낫선이

필연적으로 : 테아이테토스

무엇이? (그들은) **전체**를(τὸ ὅλον 244d14) **있는 하나**와 **헤타론** 한 것이라고 또는 그(있는 하나)²²⁶³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까?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동일 하다고) 말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만약 이제 **전체**(ὄλον 244e1)라면

눈여겨 보라 거기에서 ‘**있는 그**’ 또는 ‘**있지않은 그**’ 등으로 말하여지는 이 프라그마가 텔레스의 **있는 것**과 어떤 일정한 맥락에서 바뀌어 쓰여질 수 있을까 369쪽각주413번, 754, 792, 263, 689 쪽 등을 참조하라 나는 689쪽에서 ‘**있음은 묶여진 하나 프라그마인 반면 있지않음은 나뉜 여러 프라그마**’라는 말을 일단 해 보았는데.....

2262) 여기에 쓰인 2격이 문법적용 무슨 뜻인지 분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쓰임새‘의’ 2격이 파르메니데아스 편 129a1에 나타난 예를들어 **같음**‘의’ 에이도스 라는 레아마에서 쓰인 2격과 동일한 문법적인 뜻을 지닌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2격은 **올바름**‘의’ **아름다움**‘의’ 그리고 **착함**‘의’ 에이도스에서의 2격과 동일한 쓰임새(1257)일 것이므로 플라톤의 에이도스론을 좀 더 이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263) 바로 이 **있는 하나**(τού ὄντος ἐνός 244b14)가 파르메니데아스 편 가장 많은 쪽들에 쓰여진다 **실체**를(οὐσία, 142c5, 49)나누어 지는 것이 바로 이 있는 하나(ἐν ὄν, 142d5, 51)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51-21)그 맥락에서 **전체** 와 **부분**이 쓰여진다 있는 하나 전체는 자신을 담지하는 부분을 지닌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하나 자체는 그러지 못 한다

‘ 모든 곳에서 비슷하게
뭉쳐서 매끈하게 등글어진 [그리고] 가운데에서 모든 곳으로
똑 같이 퍼진 공(σφαίρης 244e3). 여기 또는 저기 보다 크지도
보다 적지도 않아야 하는(πελέναι e5)어떤 것이기 때문에 ’

라

고 파르메니데아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것은** 그렇게 있으면서
가운데 와 극단(ἄσχετα 244e6)을 지나며 이런 모든 것을 지나므로 받
드시 **부분**(μέρη e7)을 지나야 하네²²⁶⁴) 아니면 어떻게? : 엘레아 낯선
이

그렇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하나**의 나누어지는 속성(πᾶθος 245a1)을 모든 **부분**이
지나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부분)들로 있는 모든
것은 전체 하나라네²²⁶⁵): 엘레아 낯선이

무엇이 아니리요 :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이런 (속성)을 겪는 것들이 따라서 그 자체 하나 그 자
체일 수는 없지 않은가? :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²²⁶⁶) : 테아이테토스

부분 아닌 것 ἀμερῆς 245a8)이 완전하게 아마도 말 그대로 진
실로 하나 τὸ ἀληθὺς²²⁶⁷) ἔν a8)라고 반드시 말하여질 것이네 : 엘레아
낯선이

2264) 그 가운데로부터 모든 곳으로 똑 같이 퍼진 끝을 지나는 공과 같은
전체 곧 **있는 하나**는 반드시 보다 크지도 적지도 않아야 하는 모든 **부분들**
을 지닌다 라는 말일 것이다 따라서,

전체가 지나는 부분들은 모두 균일(均一)일 것이고 같은 덩어리(ἐναλ
ικτιον ὄγκῳ 244e3)일 것이며 둥근 가운데 와 끝 사이에 놓이면서 움직거릴
(πελέναι χρεόν 244e1)것이다

2265) 이 부분들 각기 모든 것이 하나이며 전체이다는 것 보다는 이 부분
들로 있는(ὄν 245a3) 모든 것이 전체로서의 하나이다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다

2266) 나누어 지는 것이 하나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엘레아 낯선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지금 테아이테토스가 맞 장구치는 중이다

반드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ἄλλοπολλών* 245b1) 부분들로 있는 그러한 것은 그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네 : 엘레아 낯선이

이해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있는 것은 하나의 속성을 지니므로 그렇게 하나이며 전체인가? 아니면 있는 것을 전체라고 우리가 결코 말해서는 안되는가?

선택하기 힘들군요 : 테아이테토스

그렇지만 자네는 가장 진실하게 말하였다네 이러한 속성을 겪는 있는 것이 어떻게든 하나라면(εἶναι 245b8)있는 (것)은 하나와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모든 것이 하나 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이네 : 엘레아 낯선이

예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있는 것은 저(나뉘는 속성)을 겪으므로 전체가 아닐 것 이어서 전체 자체일(ἦ 245c1) 거라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필요로한다(ἐνδεδὲς ἑαυτοῦ²²⁶⁸) 245c1)는 것이 잇따른다네 : 엘레아 낯선

2267) 바로 이 ‘진실로’ 라는 말을 그럴 수 있다면 아마 파르메니데이스 편 134a7, 159a5 그리고 소피스테이스 편 256d8(833)에 나오는 ‘있는 것으로’ 라는 말과 바꾸어 쓸 수도 있으리라(1106, 1382쪽각주2238번, 1358, 1146)그러나,

비록 있는 것은 진실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다 하더라도 있는 것을 진실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의 나로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어쨌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진짜로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크게 플라톤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 이 맥락에서는 ‘진실로 하나’ 라는 말은 곧 ‘진실로 있는 것’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x는 y‘이며’ w는 z‘이고’ y는 z‘라고’ 해서

x는 w‘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될 것 같다 ‘이다’라는 낱말이 문제거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다’는 ‘=’로도 ‘≡’로도 ‘≐’로도 ‘≒’로도 ‘⇔’ 등 수학기호를 포함한 어떤 기호로도 그것이 현재 학문 또는 과학에서 쓰여지는 한 가리켜지지 않는다 그냥 말로 ‘이다’-‘있다’는 아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이

물론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있는 것은 자시 자신이 빠져나
가므로서(στερόμενον²²⁶⁹) 245c5)있지 않을 것이네 : 엘레아 낫선이

그렇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하나 보다 많게 되어 **있는 것** 과 **전체**
는 분리된 자신 만의(ιδίαν 245c9) 자연을 취할 것이네 : 엘레아 낫선
이

예 :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전체가 전혀 있지 않다면²²⁷⁰) 이[와 동일한]것이 있는

2268) 여기 헤아우토(자기 자신)은 있는 것을 가리키므로 있는 것이 있는
것 자신을 필요로 한다 라고 옮겨야지 있는 것이 그 하나 자신을 필요로 한
다 라고 옮겨서는 안된다 물론,

있는 것은 하나라는 속성을 겪으므로 하나를 받아드린다면 있는 것
은 하나 그것을 필요로한다 라는 로고스로 읽을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이
보다는 있는 (것)이 어떤 것을 겪는다면 그래서 그것을 받아드린다면 어떤
그것은 바로 있는 것이므로 **있는** 것은 있는 **것 자신**(헤아우토)을 필요로한
다 라는 로고스로 읽는 것이 더 나올 성 싶다 그리고,

이렇게 읽는 것이 문법에도 맞을 뿐 아니라 전체도 역시 있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2269) στερέω(to deprive or rob of a thing)의 수동 분사형으로서 빼앗기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있는 것이 하나의 속성을 받아드렸다가 그 속성을 잃어 버린다면 그
리고 하나도 역시 있는 것이라면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은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잃는다면 있는 것은 결국 있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빠져
나가면 어떤 것도 더 이상 자기일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이 아닐 것이기 때문
이다

2270) μή ὄντος (254c11) 라는 말이 쓰이므로 ‘있는 것이 전체가 전혀 아니
므로’ 또는 ‘전혀(τὸ παράπαν) 전체는 있지 않으므로’ 라고 옮겨야 할 것 같
으나 ἦ(245c2)를 ‘이다’로 옮겼으므로 여기에서도 그에 맞추어 ‘아니다’로 옮
겼다 그러나,

것에[도] 속하며(ὑπάρχει 245d1)그것도(καὶ 245d1)어느 한 때도 **있지 않게** 될 그러한 것이네 : 엘레아 낫선이

무슨? : 테아이테토스

되는 것(τὸ γινόμενον, 245d4, 생성되는 것)은 항상 **전체**로 된 다네 따라서 **실체**(οὐσίαν d4)도 **됨**(γένεσθαι, d5, 생성)도 **있는 것**(οὐσία v d5)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네²²⁷¹(*하나* 또는)²²⁷² **전체**를 **실체**들로(ἐν τοῖς οὐσίαις d5)설정하지 않으면 [그렇네]: 엘레아 낫선이

모두모두 그것은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전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든 그 만큼한 것(ὁποσοῦν τι 245d8)이 반드시 아니라네 **량인 것**은(ποσόν²²⁷³) τι d9) 있는 (것)이므로 있을 그 만큼일 한의 그 만큼 전체 그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 이네 : 엘레아 낫선이

정확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그러나 **있는 것**을 단지 *들만*이 또는 *하나만*이 있다

이대로 옮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있다로 옮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있다’ 라고 옮기는 게 나을지 지금의 나로서는 가닥이 잘 잡히질 않으나 이대로 옮기든 있다로 옮기든 그 어느 쪽으로 옮겨도 일단 맥락은 이어지는 것 같으므로 그냥 통과하기로 하자

2271) 여기서 **있는 것**(τὸ ὄν)이 **실체**와 구분되는 것 같다 어쨌든,

지금의 나의 논문자료에서는 실체를 있는 것과 구분-이러한 구분은 물론 텔레스에게는 선명해지지만(288, 307, 804)플라톤에게는 그렇게 썩 선명해질 것 같지는 않다(47, 67)-한다

2272) 하나 또는 이라는 말은 자신의 판에 버넛이 이해를 위해 넣은 것이므로 원문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넣어 읽는 것이 맥락에 들어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2273) 하나 만이 있다느니 또는 하나만이 아니라 여럿도 있다느니 또는 하나도 있고 여럿도 있다느니 말하는 것은 모두 **량적**인 측면에서(πόσα 242c6, 1384)**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라는 것은 이미 쓰여졌다 이러한 맥락에 지금까지의 맥락이 속한다(1422쪽각주2295번, 1384쪽 각주2241번)

라고 말하는 것에는 무한히 취하여진 각기 어려운 물음들이 수 없이 (μυρία 245d12)나타난다네 : 엘레아 낫선이

[그러하다는 것은] 지금 나타난 것들 만으로 아마 분명해 질 겁니다 항상 이전에 말했던 것에 관련된 보다 크고 더 힘든 헤태론한 (어려움)이 알론한 (어려움)으로부터 이어지기 때문입니다²²⁷⁴) : 테아이테토스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엄밀하게 음미한 모든 자들을 우리가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이(만큼)으로 만족하기로하고 어느 때든(πότε 246a1) 있으므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을(말하는 것) 보다 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면)에서 알아 보기 위해 헤태론한 [측면]에서(εὐπορώτερον 246a1)²²⁷⁵) 알론하게 말하는 자들을 다시 반드시 살펴 보아야 하네 : 엘레아 낫선이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로 반드시(χρὴν 246a3) 닦아서야 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243d6 - 246a3) ”

2274) 먼저 어려움들이 말하여진 후에 그 어려움을 시원하게 풀어 나가는 식의 여기 소피스테이스 편 글 쓰는 길은 그대로 파르메니데이스 편 글 쓰는 길을 빼다 박은 듯 동일하다 거기에서는 분리된 에이도스를 어떻게 알론한 것들이 나누어 지념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이 나열된(1290, 1313) 후에 그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 반면 여기에서는 있는(또는 있지 않는) 것을 량(또는 질)적으로 규정하는 데에 관련된 어려움이 나열된 후에 있는(것 과 있지 않는)것을 규정하는 듯 쓰여지는 그 무엇이 알론하기는 해도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글 쓰는 길은 쓰여지는 그 무엇이 이미 아카데미아(학교)에서 그 만큼 거론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려워서 그 만큼 말이 많았기에 이렇게 정리했을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모두 풀렸다는 것을 글 쓰는 이러한 길이 보여주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만약 자신이 모두 풀었다 라고 자신하면서 이견 완전한 책임니다 라고 플라톤은 결코 내 세울 교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글을 조금이라도 읽어 본다면.....

2275) 헤태론한 [측면] 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량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리라(1384, 1388)

앞 쪽 인용글월 끝에 쓰여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 보다 더 쉬운 것은 아니다’ 라는 로고스는 무엇을 뜻할까

있지 않는 것도 말하기 쉽지 않지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 보다 더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가 다시 말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가 아니면 있지 않는 것 만큼이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 같지 쉽지 않거나 똑 같이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가²²⁷⁶ 먼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을까?

저기 1361, 1373쪽에 옮겨진 것 처럼 있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직통(直通)으로 발설될 수도 말하여질 수도 두루 생각될 수도 없으므로 생각적이지도 언어적이지도 발설적이지도 로고스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있지 않는 것 그 자체(τὸ μὴ ὄν αὐτό 238c9)을 우리는 말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여기에서는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있지 않는 것이** 말하여진다는 점에 유의하라 쉽게 말하여지는 것은 없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어쨌든 있지 않는 것에 상응하는 것으로 있는 것을 보아서 **있는 것 자체** 역시 직접(直接) 발설될 수도 말하여질 수도 생각될 수도 없으므로 생각적이지도 언어적이지도 발설적이지도 로고스적이지도 않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까 적어도 파르메니데이스 편을 보면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거기 38-49쪽(137c4-142a8)에서 말하여진 ‘만약 하나가 있다면’을 ‘있는 것이 만약 하나라면’으로 읽을 수 있고 ‘하나가 만약 있다면’을 ‘만약 있는 것이 하나라면’으로 읽을 수 있으며 여기 앞 맥락 237d1-d11(1361-1362)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어떤) **것**은 반드시 **있는 (것)**과 묶여지며 (어떤) **것**은 **하나**를 가리키며 (어떤) **것**들은 여럿을 가리킨다면 말이다 왜냐하면,

있는 (것)은 *하나*와 반드시 묶여지며,

2276) 영혼 안에 더 적지 않은 동일한(ταὐτόν 243c2)정열을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이 양자에 대해 같이(ὁμοίως c5)느낀다 라고 엘레아 님선이 자신이 앞에서(1386) 썼으므로 똑 같이 쉽지 않다 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어떤) 것에 의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만약 하나라면'이 '만약 하나가 있다면(137c4, 38)'이라면
그리고,

만약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의 이름은 지어질 수도 없고 그 하나가
말하여질 수도 없으며 알려질 수도 감각될 수도 없고 그 하나에 관한
역견이 생성될 수도 없으며,

이것은 있지 않는 것 자체(τῷ μὴ ὄντι αὐτῷ, 142a2, 46)에 관해서도
그러하다면 그리고,

있지 않는 것 자체는 있는 것 자체에 상응하다면,

있는 것 자체는 이름지어질 수도 말하여질 수도 알려질 수도 감각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있는 것 자체에 관한 역견도 생성될 수 없기때
문에,

이름을 짓거나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있는 것 자체 또는 **있지 않
는 것 자체**에 관해서가 아니라 **있는 것** 또는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고스로 끝을 맺으려면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이 서로에
구분²²⁷⁷되어 응(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는 것 자체 와 있지 않는 것

2277) 물 불 흙 공기 등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네 가지 요소의 구별 근거가
되는 구별 일반에 대해 말하면서 박홍규 선생은 근거가 되는 이 구별을 존
재와 무의 관계에서 나오는 구별로 본다(전집2, 266-267)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되려면 그 전제가 되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리
라 물론 존재와 무를 이처럼 구별시킬 수도 있으리라 그런데,

무엇으로 구별되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모순인가 반대인가 결여인
가 아니면 헤태론함 또는 알론함인가 그러나,

내가 1021 과 1027쪽에서 그려냈듯이 텔레스는 가장 큰 대립을 류적
인 반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류적으로 반대되는 것들의 보기로 하나와여섯
동일과헤태론 똑같음과똑같지않음 같음과같지않음을 드나 있는것과있지않는

자체도 그러해야한다 그런데 진짜로 그러한가

파르메니데에스 편을 보면 그러하다 $\epsilon\iota\ \acute{\epsilon}\nu\ \acute{\epsilon}\sigma\tau\iota\nu$ (137c4, 38)이 만약 하나가 있다면 과 있는 것이 만약 하나라면으로 $\acute{\epsilon}\nu\ \epsilon\iota\ \acute{\epsilon}\sigma\tau\iota\nu$ (142b5, 50)이 하나가 만약 있다면 과 만약 있는 것이 하나라면으로 $\epsilon\iota\ \mu\eta\ \acute{\epsilon}\sigma\tau\iota\ \tau\acute{o}\ \acute{\epsilon}\nu$ (160b5, 77)이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과 하나가 만약 있는 것이 아니라면으로 $\acute{\epsilon}\nu\ \epsilon\iota\ \mu\eta\ \acute{\epsilon}\sigma\tau\iota$ (160d3, 78)이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과 만약 있지 않는 것이 하나라면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²²⁷⁸) 그렇다면 이제,

다음 쪽 처럼 서로 상응하는 네 가지를 그려 볼 수있다

것을 그 보기로 내 세우지는 않는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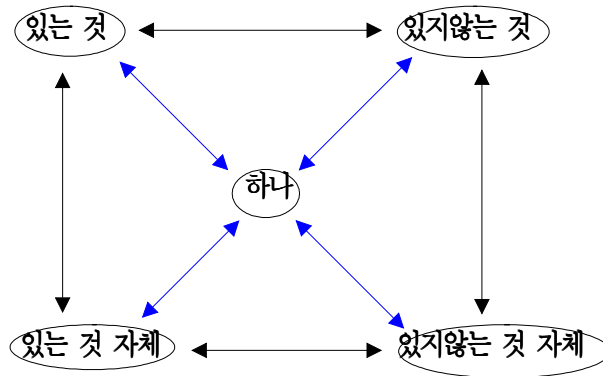
범주들 11b7 뒤의 텔레스는 대립을 *프로스 티*(관계) 그리고 *반대* 그리고 *결여와습성* 그리고 **긍정과부정**($\acute{\alpha}\pi\acute{o}\pi\phi\omicron\upsilon\varsigma$ 11b19)으로 나누며 형이상학 델타 편의 텔레스는 대립을 **모순**($\acute{\alpha}\nu\tau\iota\phi\omicron\upsilon\varsigma$, 1018a20, 253) 그리고 *반대* 그리고 *프로스 티* 그리고 *결여와습성*으로 나누는데 이 두 곳을 살펴보면 프로스 티 와 반대 와 결여와습성은 두 곳 모두에서 말하여졌으나 긍정과부정 그리고 모순은 각기 앞 과 뒤에서 말하여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긍정 과 부정은 서로에 모순으로 대립되는 것들($\acute{\alpha}\nu\tau\iota\kappa\epsilon\iota\mu\epsilon\nu\alpha$ 1018a20, 11b16)이라고 말해도 별로 큰 탈은 없을 성 싶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순-모순에 대해서는 961, 926, 997, 241-242을 참조하라-으로 서로에 대립되는 것을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도 될까? 그러나,

플라톤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서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해테론하다 라고 파르메니데에스 편 160c5(77) 과 소피스테에스 편 257b4(126)에 쓴다 따라서,

적어도 플라톤의 경우에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서로에 반대 (모순)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선명하다

2278) 그러나 영어로는 이렇게 옮겨질 수 없을 것이다(1339쪽각주2173번)



이 그림에 나오는 화살의 축은 어떤 것(속성?)이 서로 상응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에 여럿도 들어갈 수 있으리라 그런데,

있는 것은 있는 것 자체에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는 것 자체에 상응한다고 한다면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나 있지 않는 것을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을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더 쉽지 않다²²⁷⁹⁾고 보면 안될까 어쨌든,

적어도 플라톤에 따르자면 우리는 있는 것 자체 와 있지 않는 것 자체에 관해서는 입도 병긋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긴 하나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비록 쉽지 않긴해도 입도 병긋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둘다 물론 아주 어렵기는 해도 말이다 이제,

2279) 보아라!

착하게 있는 것 보다는 착하게 있지 않는 것이 더 쉽지 않은가! 물론 착하게 있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악하게 있는 것 보다는 악하게 있지 않는 것이 더 쉬울까? 물론 악하게 있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말이다 그렇지 않다 악하게 있는 것이 악하게 있지 않는 것 보다 더 쉬울 것 같다 물론 악하게 있지 않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말이다 히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

있는 것을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 본 사람들은 있는 것을 무엇이라 여겼을까? 아주 어렵다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또는 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음미해서 이 있는 것을 먼저 말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 오 테아이테토스여 자네는 곧 바로 포착했구먼 나는 우리의 방법을 그것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나는 말하기 때문 일세 예를들어,

요렇게 우리 앞에 놓고 철저히 조사해 보기로 하세

따스움과 시원함 또는 이러한 어떤 두 가지 것이 모든 있음이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이러한 어느 때이든 양자의 경우에 발설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무엇은 당신들의 있음인가? 또,

저 둘과 나란한 셋 그리고 셋은 당신들에 따라 취하여진 둘이 아닌 모든 것인가? 있는 헤태론한 것이라고 불리워지는 둘 양자를 같이 있다 라고 당신들은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네 아마 양자 중 어느 것도 둘이 아니라 하나일 것이므로²²⁸⁰ 그렇다네 - 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 그러나 따라서 그 양자(τὰ ἄμφω 243e8)를 있는 것이라 부르고 싶어할 것이네 - 똑 같이 - 그러나 오 친구여 그렇게 그 둘(τὰ δύο 244a1)은 가장 선명하게 하나라고 당신은 말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하네²²⁸¹ - 아주 올바르게 말씀하십니다 - 지금,

우리는 어려움에 빠졌으므로 있는 (것)이 발설될 때 마다 어느 때든

2280) 그렇다면,

237d7(1362)에서 '(어떤) 것은 하나를 가리키며 (어떤) [짝인] 것은 두 겹을 가리키는 반면 (어떤) 것들은 여럿을 가리킨다' 라고 엘레아 낯선이가 쓸 때의 그 짝(쌍) 또는 두 겹을 여기 양자(τὰ ἄμφω, 243d8) 곧 둘이 아닌 하나로서의 양자는 말하는 것 같다

2281) 그렇다면 쌍수(雙數)는 단수(單數)에 아주 선명하게 가깝다는 말인가

가리키길 바라는 그 무엇을 당신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선명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야 당신들은 그것을 오래 전에 인식했을 것이지만 우리들은 이전에는 알았던 것 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일세 이러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네 모두 그 반대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쪽에서 말한 것을 이해한다고 우리가 억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일세 이것을 모든 것은 하나이다 라고 만족하며 말하는 알론한 자들 쪽과 이러한 당신들 쪽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 아이여 그른 것은 확실히 아니잖는가? -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 따라서,

무엇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모든 것은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 쪽에 반드시 힘 닿는데까지 물어봐야하지 않겠는가? - 어떻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 하나만이 **있다** 라고 당신들은 주장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물음에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해 보세 그러지 않을까? - 예 (그렇습니다) -

무엇이? **있는**을 (어떤) **것**이라고 자네는 부르는가? - 예 - **이름** 두 개가 동일한 **하나**에 걸리겠는가? 아니면 어떻게? - 이 물음에 대하여 오 낮선이시여 그들에 의해서 무슨 답이? - 오 테아이테토스여 지금의 물음에 대해서 그들이 전제한 동일한 전체에 근거하여 답하는 것은 무엇이든 알론한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것 보다 가장 쉽지 않는 것임은 분명하다네 - 어떻게? -

하나 이외의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라는 데에 동의해 놓고 **이름**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든 우스꽝스럽소 -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이름**을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네 - 어떻게? -

이름을 **프라그마**와 험태론한 것으로 받아드린다면 어디에서건 둘을 말하는 것이라네 - 예 - 그리고,

그 **프라그마**와 **이름**을 동일한 것으로 받아드린다면 하나도 아닌 것의 이름이라고 필연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설령 어떤 것의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은 결코 있는 알론한 것의 이름이 아니라 단지 이름의 이름 뿐이라

는 것이 잇따를 것이네 - 그렇습니다 - 그리고 하나는 하나의 이름으로 있으면서 다시 이름의 하나로 있을 것이네 - 필연적으로 -

무엇이? (그들은) **전체**를 **있는 하나**와 헤태론한 것이라고 말할까 또는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까? - 어떻게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 만약 **전체**라면,

‘ 모든 곳에서 비슷하게 뭉쳐서 매끈하게 등글어진 그리고 가운데에서 모든 곳으로 똑 같이 퍼진 공. 여기 또는 저기 보다 크지도 보다 작지도 않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 라고 파르메니데아스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있는 것은** 그렇게 있으면서 가운데 와 극단을 지니며 이런 모든 것을 지니므로 반드시 **부분**을 지녀야하네 아니면 어떻게? - 그렇습니다 - 그러나,

하나의 나누어지는 속성을 모든 부분이 지니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러한 부분들로 있는 모든 것이 **전체 하나**라네 - 무엇이 아니리오 - 그런데,

속성을 겪는 이 부분들이 따라서 그 자체로 하나 **자체**(αὐτὸ 245a6) 일 수는 없지 않은가? - 어떻게? - **부분 아닌 것이** 완전하게 아마도 말 그대로 **진실로 하나**하고 반드시 말하여져하네 - 반드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여러 부분들로 있는 그러한 것은 그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네 - 이해합니다 - 그렇다면,

있는 것은 하나의 속성을 지니므로²²⁸² 그렇게 하나이며 전체인가? 아니면 있는 것을 **전체**라고 우리가 결코 말해서는 않되는가? - 선택하기 힘들군요 - 그렇지만,

자네는 가장 진실하게 말하였다네 이러한 속성을 겪는 **있는 것이** 어

2282) 하나의 나누어지는 속성을 말한다 그리고 나누어진 것들 곧 부분들도 나누어지는 속성을 모두 지닌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전체 하나는 이러한 부분들 모두(πάν 245a3)이다 그런데,

있는 것을 하나라고 한다면 있는 것은 나누어지는 이러한 속성을 지닐 것이다

떻게든 *하나*라면 있는 것은 하나와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²²⁸³ 나타나므로 모든 것이 하나 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이네 - 그리고 **있는** 것은 저 나뉘는 속성을 겪으므로 전체가 아닐 것이므로,

전체 자체(αὐτό²²⁸⁴)^{245c1}일 거라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필요로

2283) 진실로 하나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진실로 하나인 것은 부분이 아닌 것이며 따라서 나뉘어진 것 모두가 아닌데 하나의 나누어지는 그 속성을 있는 것이 겪는다면 있는 것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많을 것이다 있는 것이 그 전체 하나 뿐만 아니라 부분들 각각에도 걸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284) 자체라는 말에 조심해야한다 여기서 엘레아 낫선이는 분명히 **자체**라는 말을 붙히므로서 자체 라는 말이 붙지 않은 것으로부터 이 말이 붙은 것을 조심스레 떼어내기 때문이다 245a6에 쓰인 **하나 자체** 라는 것 과 여기에 쓰인 **전체 자체** 라는 것이 바로 조심스레 전체 하나 라는 것으로부터 떼어내어지는 그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 자체 와 하나 그리고 전체 자체 와 전체를 그는 구분한다 *하나*란 나뉘어진 부분들 모두인 반면에 *하나 자체*란 진짜 하나(τὸ ἀληθὺς ἐν 245a8)로서 부분이 아닌 것이며 *전체* ὅλον 244e1)란 처음 과 가운데 와 끝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모두인 반면에 전체 자체란.....일 것이다 나아가서,

이렇게 쓰여지는 자체 라는 이 말은 파르메니데아스 편 137d2(40)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만약 하나가 있다면’에서의 그 하나에 자체 라는 말이 붙혀지는 맥락에서 말이다 거기 파르메니데아스는 그 경우 하나란 여럿이 아니라 하나 자체이다 라고 쓰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구분을 근거로하여 여기 엘레아 낫선이는 있는 모든 것은 하나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어려운 물음이 담겨 있다고 그는 쓴다 나아가서,

1073, 500, 628, 42쪽을 보라 500(형이상학1040b34)쪽에 나는 ‘이dea론자들은 실체를 무엇이라고 선언할 수 없어서 감각적인 것들에 자체(τὸ αὐτό)라는 말을 붙혔다’가 속하는 형이상학 제1타 편 14 장 끝 부분을 옮겼

한다는 것이 잇따른다네 - 물론입니다 -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빠져 나가므로서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네 - 그렇습니다 -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하나 보다 많게 되어 있는 것 과 전체는 분리된 자신만의 자연을 취할 것이네 - 예 - 그런데,

전혀 전체가 아니라면 **있는** 것에도 이와 동일한 것이 속하여 있는 것이 어느 한 때도 **있지 않게 될** 것이네 - 무슨? - (생성) 되는 것은 항상 전체로 된다네 따라서 하나 또는 전체를 실체들로 설정하지 않아 **실체도 생성(되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네²²⁸⁵⁾ - 모두 모두 그럴

다

2285) 무엇 때문에 갑자기 **됨**을 엘레아 낫선이가 끌어 들일까 여기에서 문제삼아지는 전체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전체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가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되는 것은 전체로 되므로 **됨(생성)** 역시 **있는 것**이라고 불리워지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됨(생성)**이 끌어 들여졌다 그렇다면,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됨**은 있지 않게 될 것이나 **됨**을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로고스를 결론으로 지니게 되므로 어렵다 그러나,

있는 것 과 되는 것 또는 **있음 과 됨(생성)**은 티마이오스 편 38b3 앞 뒤(1172) 와 그리고 27d5(1194)에서 날카롭게 나누어 진다 되어오고 있다 되고 있다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됨 과 있음**을 정확하지 못하게 쓰는 것이다 라고 앞에 쓰이는 반면 항상 (생성) 되는 것과 나누어 지는 항상 있는 것은 결코 생성을 지니지 않는다 라고 뒤에 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확하게(ἀκριβῆς, 38b3, 1172)쓰려면 되어오고 있다 되고 있다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되어온다 된다 될 것이다 또는 있어온다 있다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하며 있는 것 과 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뒤의 경우 되는 것 과 있는 것 앞에 각기 항상(ἀεί, 27d6, 28a1, 1196)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리고,

전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든 그 만큼한 것이 반드시 아니라네²²⁸⁶)
량인 것은 있는 것이므로 있을 그 만큼 한에 있어서의 그 만큼 전체 그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네 - 정확합니다 - 그렇다면,

그러나 있는 것을 단지 둘만이 또는 하나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는 무한히 취하여진 각기 어려운 물음들이 수없이 나타난다네 - 지금 나타
난 것들만으로도 아마 분명해 질 겁니다 항상 이전에 말했던 것에 관련된
보다 크고 더 힘든 험태론한 어려움이 알론한 어려움으로부터 이어지기 때
문입니다 - 이제,

우리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엄밀하게 음미한 모든 자들
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이로 만족하기로하고 어느 때든 있으므로 있는 것
을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보다 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
을 모든 면에서 알아보기 위해 험태론한 측면에서 알론하게 말하는 자들을
다시 반드시 살펴 보아야 하네 -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로 반드시 닦아서
야 합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대화는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비록
모든 것을 다시 숙고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것에 관해 량적인 측
면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한 자들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숙고해 본다 그러
나,

‘그들의 입’에서 있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답을 얻어내지는 못한다 당
연히 그러할 것이다 옛날에는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고 그들은

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 과 되는 것을 각각 제한한다는 점에 조심하라 향
상을 떼어내 버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과 되는 것을 티마이오스 편의 티
마이오스는 날카롭게 나눌까 글썽 어려운 물음이기 때문이다

2286) 전체가 있지 않다면 전체는 그 만큼한 것도 아니 라는 말이다 량인
것은 있는 (것)이므로 만약 전체가 있지 않다면 그 만큼한 (량인) 것 역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부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그들의’ 로고스에서 잇 따라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정리하기 이전에 두 번 옮긴 것을 요약해 보자

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있는 것으로 상정되는(διαρευνησασθαυ, 243d4, 想定)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철저히 음미해서 **있는** 그것을 먼저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요것을 철저히 따져 보아야한다

따스함과 시원함 또는 이러한 어떤 두 가지 것이 모든 **있음**이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어느 때이든 양자와 관련되어 발설되면서 그 양자 와 각각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 있음인가? 그리고 걸리는 그 무엇이 저 둘과 나란한 셋인가? 그렇다면 셋은 그 둘이 아닌 모든 것인가?

*해태론한 것*도 있는 둘 양자를 같이 **있는** 것이라고 자네는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이(ὁμοίως 243e5) 있다면 아마 양자 어느 것도 진실로 둘이 아니라 하나일 것이므로 그렇다 그러나,

당신은 그 양자를 똑 같이(ἴσως 243e9)있는 것이라 부르고 싶어 그 둘을 아주 선명하게 하나라고 말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려움에 빠졌으므로 당신이 있는 것을 발설할 때 마다 가리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오래 전에 그 무엇을 인식했을 것이지만 전에는 알았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모든 것이 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말한 것을 이해했다 라고 우리 더러 억측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나아가서,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를 모든 것은 *하나이다* 라고 만족해하며 말하는 알론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해야하는 것은 확실히 그런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있는 힘껏 물어보아야 한다 이들은 하나만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자!

있는 (것)을 것이라고 당신은 부르는데 이 경우에 동일한 *하나*에 이름 두 개가 걸리는가? 분명히 아주 쉽지 않는 물음이다 왜냐하면,

하나 이외의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라는 데에 동의해 놓고 이름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든 우스꽝스러운데가 이름을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름을 프라그마와 *헤테론한* 것으로 받아드린다면 어디에서건 둘을 말할 것인 반면에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도 아닌 것의 이름이라고 필연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설령 어떤 것의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름은 결코 있는 알론한 것의 이름이 아니라 단지 이름의 이름일 뿐일 것이므로 그렇다 게다가 하나는 하나의 이름으로 있으면서 필연적으로 다시 이름의 하나로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있는 하나는 전체와 *헤테론할*까 또는 동일할까 당신들은 동일하다고 말하는데,

만약 전체라면-다시말해 동일하다면- 가운데에서 모든 곳으로 주욱 등글게 퍼진 공처럼 있으면서 있는 것은(ὅν τὸ ὅν 244e6)²²⁸⁷가운데 와 극단을 지니므로 반드시 부분들 지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하나의 나누어지는 속성을 지니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러한 부분들로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전체 *하나*이다 그런데 나누어지는 속성을 겪는 것들 자체가 *하나* 자체일 수는 없다²²⁸⁸부분 아닌 것이 아마도 완전하게 말 그대로 진짜 *하나* 라고 반드시 말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 부분들로 있는 그러한 것이 그 말과 어울리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이며 전체일까 아니면 있는 것을 전체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될까를 선택하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

2287) 이 처럼 있는 것(ὅν) 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의 낱말을 옮겨진 낱말 옆에 괄호 열고 썼다

2288) 따라서 엘레아 닷선이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를 전체하나 와 하나자체로 나눈다 나는 이러한 나눔을 파르메니테아스 편과 연관시켜 두 번째-논문자료 전체로 따지면 세 번째-옮김(1412)에서 다루었다

면 이러한 속성을 겪는 있는 것이 어떻게든 *하나*라면 있는 (것)은 하나와 동일하지 않는 것일 것이므로 모든 것이 하나 보다 많을 것이며 그리고 저 속성을 겪고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체*가 있다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빠져 나가므로서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 보다 많게되어 있는 것 과 전체는 자신 만의 자연을 취할 것이다 그런데,

*전체*가 전혀 아니라면 이와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 어느 한 때도 있지 않게 **될**(γενέσθαι 254d1)것이다 되는 것은 항상 전체로 되므로 전체를 실체들로 설정하지 않는한 실체도 됨(생성)도 있는 것이라고 불리워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아닌 것은 (어떤) 것이든 그 만큼한 것이 반드시 아니다 **량**인 것은 **있는 것이**므로 그 만큼 있는한 그 만큼 전체 그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을 단지 둘만이 또는 *하나*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헤아릴 수 없는 각기 어려운 물음이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이제,

비록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엄밀하게 음미한 모든 자들을 우리가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만큼으로 만족하기로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보다 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면에서 알아 보기위해 **있는 것**을 헤태론한 측면에서 말하는 자들을 반드시 살펴 보아야한다 그렇다면,

지금 엘레아 낫선이는 있지않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어려운 로고스를 펼쳐나가는 중이다 그래야 만이 소피스테에스가 무엇이라는 물음에 만족스럽게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²⁸⁹)그러나,

2289) 물론 소피스테에스는 어둠 중에서도 가장 큰 어둠(τὴν σκοτεινότητα, 254a4, 1344)인 있지 않는 것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그가 무엇이라는 말하는 것은 그가 있는 곳이 너무 어두워 아주 힘

있는 것에 관해 이전 사람들이 말해 놓은 것을 숙고하는 자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어려운 물음들을 엘레아 낫선이는 다음 처럼 정리한다 먼저,

있는 것을 양적인 측면에서 하나인지 쌍인지 셋인지 구분하여 정리하려 하나 이러한 구분 모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첫째,

쌍 곧 둘만이 있다 라고 한다면 둘²²⁹⁰에 걸린 있는 것 각각은 *헤태론*하게되 그 양자는 같이(*ὁμοίως* 243e5)있지 못할 것이다²²⁹¹그러나,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과 나란히(*παρὰ* e2)있는 셋이라 한다면 둘이 아니라 셋이 있을 것이다 돌아닌 모든 것 으로서의 셋이 바로 그 있는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셋에 걸린 있는 것 각각은 *헤태론*하게되 그 셋은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은 *헤태론*하지 않다는 것이 여기에서 전제(前提)된다 *헤태론*하다면 그 양자에 동시에 있는 것이 걸릴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만이 있다 라고 한다면 먼저,

들다 라고 나는 이미 썼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힘들여 소피스테아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는 있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려할까 이미 여러 번 되풀이 된 로고스이지만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하는 소피스테아스는 바로 있는 것을 모방하는 자이다 (235a1, 96)라고 자신에 의해서 선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의 무엇이냐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자만이 소피스테아스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2290) 예를들어 뜨거움과차가움(陰과陽) 그리고 마름과젖(濕과乾과濕)

2291) 차가움에 있는 것^①이 뜨거움에 있는 것^②과 *헤태론*하다면 있는 것 ^① 과 ^②는 있는 것이라하지 말고 둘 다 *헤태론*한 이름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①과 다르게 ^②를 부르든지 ^②와 다르게 ^①을 불러야 할 것이다

동일한 *하나*가 두 *이름*으로 불리우지 못할 것이다 두 *이름*으로 불리
운다면 둘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일반적으로²²⁹²⁾*이름*은 (어떤)
*것-것이 있는*과 늘 붙는다-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둘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름*을 *프라그마*와 *헤태론*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
나,

*이름*을 *프라그마*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면 *이름*은 필연적으로 하나
도 아닌 것의 *이름*이 되며 설령 어떤 것의 *이름*이라고해도 있는 *알론*한 어
떤 것의 *이름*이 아니라 단지 *이름*뿐인 것의 *이름*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이름*의 하나이며 동시에 *하나의* *이름*일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 과 *이름*이
구분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있는 하나는 전체와 동일할까 아니면 헤태론할까

*동일하다*면 공과 같은 하나는 부분들을 지닐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
분들 모두가($\pi\acute{\alpha}\nu$ 245a3) 바로 하나 전체일 것이며 그 부분들 각각은 이 전
체 하나의 나누어지는 속성을 반드시 지닐 것이다 그러나 나누어지는 것 자
체가 하나 자체일 수는 없다²²⁹³⁾부분 아닌 것 만이 말 그대로 진짜 하나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와 동일하다면 하나는 나누어질 수 밖에 없으니 *하
나* 보다 *짧을* 것이다 나아가서,

전체 자체는 아닐 것이므로 있는 것은 전체 자체이기 위해서 자기 자
신을 필요로 할 것이나 이와는 반면에 자기 자신이 빠져나가기도 할 것이다
이 경우 자기 자신이 빠져 나갔으므로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헤태론하다*면 그래서 *전체*가 *있지* 않다면 있는 것은 어느 한 때도 있

2292) 일반($\tau\acute{o}$ $\pi\alpha\rho\acute{\alpha}\pi\alpha\nu$, 244c11, 一般)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그러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인가 맥락
으로 보아선 앞의 것이 옳을 것 같다

2293) 옮김 다시 옮김 요약 등의 세 과정에서 거듭 되풀이 된 것이지만 이
맥락에서 엘레아 낫선이는 하나와하나자체 그리고 전체와전체자체를 날카롭
게 구분한다 이런 구분을 전체하지 않고는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는 이 맥락
의 글로부터 배울게 전혀 없다

지 않을 것이다 되는 것은 전체로 되는데 전체가 있지 않을 것이므로 됨도 실체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 만큼한 것도 있지 않다 전체는 량적으로 그 만큼한 것 그것인데 그 전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이 **헤태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은 둘 또는 셋이지 않을 반면에 이름은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데도 (어떤) **것** 과 **이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를 **전체**와 동일한 것으로도 모든 헤태론한 것으로 모든 심각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2294)

것 과 **이름**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름과 프라그마가 동일한 것으로 여기게 되며 동일한 하나를 두 이름으로 부를 수 없게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와 **동일한** 하나는 부분으로 나뉘므로 여럿일 것이며 있지 않게 되는 반면에 **전체**와 **헤태론한** 하나에는 생성도 실체도 그 어느 것도 있지 않게 되기에 가장 어렵다 그런데,

어려움을 실토하는 가운데 그는 전체 하나 와 하나 자체 그리고 하나 전체 와 전체 자체를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 나가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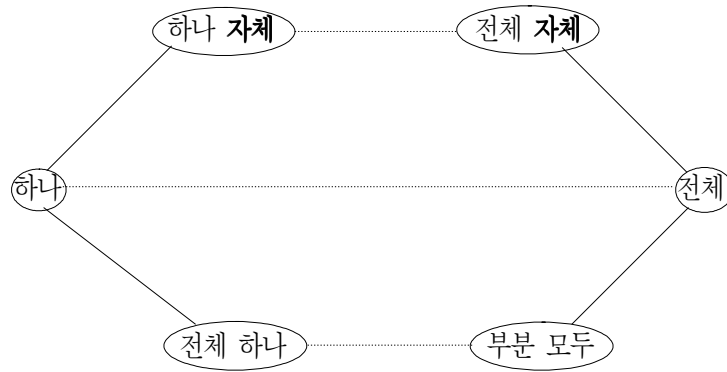
2294) 그러기에 있는 것은 하나이면서 여럿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 이면서 여럿이면 하나이기에 오는 어려움 과 여럿이기에 오는 어려움이 겹쳐서 올 것이기에 선언을 하는 그만큼 어려움에 짓눌릴 것이다 오히려,

그는 하나만이 있다 라고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보아 그것에 임한 사람을 복 받게(μακάριε, 236d9, 1358)하는 뜻있는 그런 어려움으로 보아 그 어려움을 풀어주려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어려움이 풀리면 무엇 때문에 그의 아버지 파르메니데에게서 자신 과 알론한 자들에게 있지 않는 것에는 아예 생각을 단아 버려라 라고 손수 걸어다니시며 외치셨는지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비록 있지 않는 것을 ‘위해’ 있는 것으로 닦아서서 자신은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든 있다 라고 말하긴 했으나 이것은 그가 ‘우리’의 아버지를 살해했다 라고 여겼던 자들의 오해도 풀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처럼 나에게는 보이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나누어지는 속성을 겪는 전체 하나는 자신의 속성을 지니는 각기 부분들 모두인 반면 하나 자체는 부분을 지니지 않는 진짜 하나이며 하나 전체는 나누어지는 속성을 겪는 부분들 모두로서의 하나 전체인 반면 전체 하나는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 전체이다 그런데,

이러한 네 구분은 이미 내가 1338 과 1408쪽에서 구분한 네 가지에 상응한다 실은 여기를 포함한 세 곳 모두 동일한 맥락에 있으므로 비록 동일한 맥락을 알론하게 구분하는 도식이긴 해도 다음과 같은 도식을 그려보려한다



위 실선은 그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가리키며 점선은 어떤 속성이 끊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있는 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나아오면서 나는 뒤죽박죽 되버렸다 있는 것이 **량**적인 측면에서 과연 규정될 수 있는지 겨우 규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규정되어야하는 지에 관해 어떤 정확한 말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는 것을 *하나* 또는 *둘* 또는 *셋*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됐다 어쨌든 이제,

헤태론한 측면²²⁹⁵)에서 **있는** 것을 규정해 왔던 자들에 의해 닦아서야한

다

“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엄밀하게 음미한 모든 자들을 우리가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이(만큼)으로 만족하기로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을(말하는 것) 보다 **있으므로** 어느 때든(ποῦ 246a1)더 쉬운 것은(εὐπορώτερον 246a1)아니라는 것을 모든 (면)에서 알아보기 위해 험태론한 [측면]에서²²⁹⁶알론하게 말하는 자들을 다시 반드시 살펴 보아야 하네 : 엘레아 낫선이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로 반드시(χρὴ 246a3)닥아서야 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실체에 관련된(περὶ τῆς οὐσίας²²⁹⁷)246a5)알론한 자들 사이의

2295) 험태론한 측면은 있는 것의 *어떠함*(ποιία 242c6, 1384)이라는 측면일 까 거기 1384쪽 각주 2242 번에서 나는 있는 것의 어떠함을 있는 것의 질(π οὐόν, 質)로 바꾸어 쓰면서 이 질을 량(πόσα) 곧 있는 것의 얼마나 많음에 대비(對比)시켰다 그런 후 텔레스의 범주들 가운데 량 과 질을 이 둘과 연결시켰다 사실,

먼저 실체를 그 다음에 량 프로스티(관계) 질 (행)함 겪음의 순으로 텔레스는 자신의 범주들에 대해 말한 반면(29쪽) 여기 엘레아 낫선이라도 먼저 있는 것의 량에 관해 말한 후 량과 험태론한 어떤 측면을 말하려하므로 만약 이 험태론한 어떤 측면이 질이라면 있는 것을 말하는 순서마저 범주들의 텔레스는 소피스테이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플라톤?)를 따랐다 라고 말 하여질 수 있으리라 물론 말하여지는 그 무엇 과 말하여지는 길 등이 사뭇 알론해도 말이다 어쨌든,

일단 험태론한 그 측면을 질이라고 상정해 보기로하자(1403쪽각주 2269번)

2296) 따라서, 험태론한 [측면] 이라는 것은 있는 것의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말한다고 보고 일단 넘어가기로하자(1384, 1388)

2297) 그렇다면 위 험태론(한 측면)이란 바로 실체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는 있는 것을 **량**의 측면에서 써왔는데 이제부

터는 **실체**의 측면에서 있는 것을 말한 자들 사이의 논쟁에 닥아서보겠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있는 것의 실체에 관한 논쟁이라면 있는 것을 쓰는 것이긴 한데 있는 것의 실체 곧 실체로 있는 것에 관해 쓴다라는 말일거고 그렇게되면 있는 것 과 실체를 일단 분리해 보아야할 것 같다 물론 있는 것의 실체인긴 해도 말이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분명히 실체는 있는 것이긴하나 그 있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므로 있는 것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다 나아가서,

실체가 생성 과 있는 것과 구분되어 쓰이는 254d4(1403)에서도 이러한 구분은 나타나는 것 같으며 파르메니데이스 편 142b5(50)와 그 앞 뒤에 흩어져 나타나는 실체(πύσις)도 역시 있는 것과 구분되 나타나는 것 처럼 보인다 소피스테이스 편 거기에서는 ‘전체가 있지 않다면 되는 것은 전체로 되므로 만약 전체를 실체로 설정하지 않으면 실체도 됨도 있는 것이라 불리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리고 파르메니데이스 편 거기에서는 ‘하나가 만약 있다면 있으므로 실체를 나누어 갖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맥락에서 실체 와 있는 것이 쓰이므로 일단 구분되는 것 처럼 보인다 물론,

실체 와 있는 것은 모두 에이나이(있다) 라는 동사의 변화 형이므로 모두 있다 라는 뜻은 지니고 있을 것이나 변화되어 나타난 것들이므로 변화된 그 만큼 나누어진 다양한 뜻들을 지닐 것이다 우선 실체 와 있는 것은 현재 분사 1격 단수 형이라는 점에서 그 문법적인 뜻이 같을 것이나 실체는 여성인 반면 있는 것은 중성이라는 점에서는 그 뜻들이 나뉠 것이다 따라서 문법적인 뜻들은 구분되어 로고스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영어 와 독일어 와 프랑스어 와 러시아어 와 한글 등 현대 언어에서는 이런 구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구분해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구분해 주지 않은 그 만큼 적어도 앤티카 방언을 쓰는 그리스인들 특히 텔레스 와 플라톤으로부터 떨어져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포기해야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 적어도 범주와형이상학의 텔레스의 경우에는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실체인 반면 파르메니데이스와소피스테이스와티마이오스 편의 ‘플라톤’ 경우에는 실체를 지녀야 있다고 만 우선 쓰고 지나가야만 할 것 같다 있음에서 갈라져나온 무수히 많

논쟁을 통해서 거인들의 싸움인 것 같은 그러한 것들에 있는 것 처럼 보이네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 테아이테토스

한 편으로 단지 마른 땅에 바위 와 나무를 움켜 잡으면서 [어떤] 자들은 하늘 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땅으로 끌어 내린다 이런 (마른 땅의) 모든 것을 (손에) 꼭 붙들고서 만져지고 견드려지는 것 만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주장하면서 **몸**(σώμα 246b1) 과 **실체**(ούσια b1)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만약 몸을 갖지 않는 것이 있다 라고 알론한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극단적으로 경멸하고 알론한 어떤 것도 들으려하지 않기 때문이네 : 엘레아 낫선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자들은 끔직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는 그러한 많은 자들과 마주쳤습지요 :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따라서 이런 자들과 논쟁하는 자들은 어떤 생각적인(νοητὰ 246b7)그리고 몸이 아닌 **에이도스**가 진짜 **실체** 라고(εἶναι b8) 불굴의 투지로 아주 주의깊게 위로부터의 **보이지 않는**(2298) 것[을 무기

은 낱말들-첫번째실체 두 번째실체....등 등-의 고유한 뜻을 분별해야만 할 것 같기 때문이다

2298) 몸을 실체로 여기는 자들은 하늘 과 보이지 않는 것(ἐξ οὐ ἀοράτου 246a7)으로부터 모든 것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자들이었다 바로 이런 자들에 대하여 싸우는 자들이 지니는 일종의 무기는 위로부터 온 보이지 않는 것(ἀοράτου 246b7)이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이 [무기]는 무엇일까 **논리**(λογισμός)가 아닐는지.....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에이도스 그리고 (소피스테아스 편의) 에이도스에 관련된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논리에 의해서 드러난 것들이라고 나아가서 심지어 티마이오스 편의 작업 역시 **논리**(λογισμῶ, 57e1, 1180)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움직임과침에 관련된 어려움이 논리와 관련 생겨날 것이다 라고 거기 티마이오스에 쓰여지고 나아가서 파괴를 허용하지않는 항상 있는 류인 공간은 생각이 에이도스를 보는 논리와 유사한 논리에 의해서 포착되는 반면 생성소멸하는 감각적인 것은 감각과역견에의해 포착된다 라고 티마이오스 52b2(1139)에 쓰여지므로 그렇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말하는 이 논리는 무엇일까?

로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한편 저들의 몸들을 그리고 저들에 의해
진실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을 [아주 섬세한] 작은 로고스들로 나누면
서 (그 몸들을) **실체**에 맞서(ἀντ' οὐσίας 246c1)서는(φερομένην c1)**생**
성(γένεσιν²²⁹⁹ c1)인 것들 이라고 부른다네

이 양자 주위에 엄청난(ἄπλετος 246c3)싸움인 것이 한 가운데
에서 오 테아이테토스여 항상 벌어진다네(συνέστηκεν c3) : 엘레아 낮
선이

진실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그 양자 류 주위에서 실체 위에 놓여진 로고스를 부
분적으로 우리 취하여 보세 : 엘레아 낮선이

어떻게 취하여야 할까요? : 테아이테토스

그(**실체**)를 **에이도스**로 놓은 자들 주위에서 (취하는 것은) 보
다 쉽네 보다 더 길들여졌기(ἡμερώτεροι²³⁰⁰ 246c9)때문이니네 반면에
모든 것을 어거지로 **몸**[의 영역]에 끌어다 놓은 자들 주위에서 (취하

텔레스도 형이상학 제에타 편 4 장 1030a25에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비록 순수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
고한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형이상학 역시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이다 논리적으로 모순없이 말하려하기 때문이다(1344, 1124, 854, 796,
743, 738, 539, 507, 302쪽을 참조하라)

2299) 실체 와 생성을 서로 맞서는 것으로 보는 자들은 실체를 에이도스로
보는 자라면 티마이오스 편의 티마이오스 역시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
으로 간주 될 것이다 티마이오스는 **있는 것**(또는 **실체**)로부터 **생성**을 나누
기(27d5, 1149) 때문이다

2300) 따라서,

엘레아 낮선은 몸을 실체로 보는 쪽 보다는 에이도스를 실체로 보
면서 몸을 생성되는 것으로 보는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
라 길들여 졌다는 것은 더 문명(文明)화 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나아가서 엘
레아 낮선이 뒤 쪽으로부터 더 쉽게 실체에 관한 로고스를 얻어내는 반면
앞 쪽으로부터는 아주 힘들게 얻어내기 또는 거의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이
다

는 것은) 보다 힘들다네 똑 같이 그리고 거의 불가능할 것이네 그러나 그들에 관하여는 반드시 요렇게 해야 할 처럼 보이네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 테아이테토스

만약 무엇 보다도 먼저 어떻게든 가능하다면 그들이 더 낮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네²³⁰¹만약 이렇게 할 여지가 없다면 그들더러 지금 보다 더 합법적으로(νομιώτερον²³⁰²)^{246d6}물음에 기꺼이 답하도록하는 로고스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네 열등한(χειρόνων ^{246d8}) 것 보다는 더 나으면서 어디에서든 더 세력있는 것에 동의해야하기 때문이오 우리들은 이(열등한) 것들을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조사하는 것일세 : 엘레아 낫선이

가장 옳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들이) 더 낮게 되는 답들을 자네가 해 주게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들을 해석해 주게 : 엘레아 낫선이²³⁰³

그럴 것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죽은 생물을 당신들은²³⁰⁴말하면서 (어떤) 것이 **있다** 라고 말

2301) 만약 이들이 더 낮게 활동하게 된다면 덜 어거지 싸움이 덜 끔찍하게 벌어질 것이어서 조금은 더 길들여진(또는 더 개화된) 문명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엘레아 낫선이 쪽에서 볼 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지(餘地)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열등한 이들이 기꺼히 동의할 수 있을 더 나은 로고스를 그들 쪽에 제공하는 것이다 열등한 것 보다는 우수한 것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2302) 논리적인 법칙에 더 들어 맞도록하는 이라는 뜻일게다

2303) 더 낮게 만드는 이러한 길은 해태론한 측면에서 있는 것에 관해 하나 또는 둘 또는 여럿 또는 하나이면서여럿이다 라고 말해왔던 자들의 의견이 지니는 어려움들을 드러낼 때도 엘레아 낫선이에 의해 쓰여졌다 이 때에도 동의해야할 로고스들을 엘레아 낫선이가 그들에게-그 맥락에서는 당신들(243e1:1394, 244a4:1395)이라는 표현이 쓰여진다- 만들어 내면 테아이테토스가 그렇다고 맞장구 쳤기 때문이다

2304) 당신들이란 몸을 실체라고 말하는 자로 된 테아이테토스 일당을 가

하여진다면 : 엘레아 낫선이

어찌 [그렇지] 않겠소 : 테아이테토스

이것은 **영혼**을 지닌(ἐμψυχον 246e7) **몸**이 아니라는 데에 당신들은 동의하시는가? : 엘레아 낫선이

물론이지요 : 테아이테토스

영혼을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으로 치시는가?²³⁰⁵ : 엘레아 낫선이

예 : 테아이테토스²³⁰⁶

무엇이? [어떤] 영혼은 한 편으로 올바르지만 다른 한 편으로 [어떤 영혼은] 올바르지 않으며 [어떤 영혼은] 한 편으로 신중하지만 (φρόνιμον 247a3) 다른 한 편으로 [어떤 영혼은] 신중하지 않다 라고 주장하시겠는가? : 엘레아 낫선이

무엇이? :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올바름**을 지니며 (올바름이) **임해야**(παρουσία, 247a5, 臨) 그것들 각각은 그런(올바른) 것이 될 걸세 그리고 그 반대를 (지니며 그 반대가 임하면 각각) 그 반대가(되겠지요)? : 엘레아 낫선이

예 그들은 찬성할 것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그것에(τω²³⁰⁷ 247a8)나란히 (생성)되고 (그것)으로부터 (생성) 될 수 [있는] **것**(τι a9)이 모두 **있다** 라고 그들이 말할 것이네 : 엘레아 낫선이

리키나 여기서는 분사 λεγόντων의 끝 ων에 숨어들어 있다

2305) 영혼을 있는 것 가운데 하나로 친다는 말은 영혼을 항상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으로 본다는 말이다

2306)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테아이테스가 대변하는 그들은 진짜 있는 몸 처럼 영혼은 있지 않다 라고 답할 것 같은데 엘레아 낫선은 영혼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그들이 동의할 것으로 테아이테토스 더러 해석하게하는 것 같다

2307) 영혼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렇다면 영혼에 나란히 영혼으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것은 있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어쨌든,

τω 라는 중성 관사 3격만이 덜렁 쓰이는 경우가 플라톤의 경우 (133a1, 1284, 1286)에도 텔레스의 경우에도 종종 나타난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올바름 과 신중 그리고 알론한 덕(ἀρετής 247b2) 그리고 그 반대들이 있을(οὔσης, b1, 실체일)것이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그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영혼도 (있을 것)이라면 (그들은) 그것들을 보이는 그리고 건드려지는(ὄρατὸν καὶ ἀπτόν 247b3)것이라고 말하겠나 아니면 (그것들) 모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하겠나?2308) : 엘레아 낫선이

아마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거의 못할 것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이러한 것들로부터 무슨? 그들은 **몸인** 것을 (실체라고) 계속 말할 수 [있는]가? : 엘레아 낫선이

이(물음)은 더 이상 그 자체로 모두 답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따르면 **영혼** 그 자체를 **몸인** 것이 획득하게 되는(κεκτήθηται 247b8)한편 신중함 그리고 당신께서 취한 알론한 것들 각각[의 경우에] 이것들은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아니다 라는 것에 (그들은) 용기있게 동의하거나 또는 모두 몸들이다 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 엘레아 낫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 테아이테토스여 (그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네 이들 가운데 어떤 자도 [썩어] 썩어져 땅으

2308) 지금 문제 삼아지는 자들은 단지 보여지고 건드려지는 몸만이 실체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므로 엘레아 낫선은 그렇게 우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답을 기다리는 것이다 비록 그가 보기에 이들은 열등한 덜 길들여진 덜 깨어진 자들이긴해도 이들에게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것은 그들로부터 무엇이든 실체에 관한 무슨 로고스를 얻어 내면서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 그들을 깨우치려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길은 그들이 실제로 말한 것들을 더 나은 것으로서 그대로 받아드리는 길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것으로부터 이끌어 내어진 더 나은 로고스에 관한 동의를 그들로부터 얻어내는 길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두 사람의 노고(勞苦)를 잘했다 라고 치하(致賀)할런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더 격렬하게 어거지로 대들 것이다 영혼은 실체인 몸으로부터 생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므로 몸이 사라지면 죽는다 라고 말이다

로부터 솟아오른 자들(σπαρτοί²³⁰⁹)247c5)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

2309) 아테네 와 델피 사이에 있는 도시 테베스(Thebes)가 생겨나는 신화 가운데 나오는 자들로서 땅에 뿌려진 용의 이빨로부터 태어난 자들(σπαρτοί, 247c5, 씨앗들)이다 이들이 *Cadmus*를 도와 테베스를 건설한다

누이 유로파가 제우스의 명을 받은 거세당한 황소에게 잡혀가자 유로파의 아버지는 카드모스에게 누이를 찾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말라는 명과 더불어 유로파를 찾아내라고한다 명(命)을 받은 카드모스는 누이가 있었던 델피로 가서 신탁을 행하자 아폴론은 더 이상 아버님의 명을 따르지말고 델피를 떠나면 만나게 될 처녀 암소를 만나 따라가다 그녀가 누운 곳에 도시를 건설하라는 신탁을 그에게 내린다 이렇게 테베스는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암송아지의 땅 이라는 뜻의 보에티아(boeotia)라는 이름을 널리 얻게되었다 그러나,

암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기 위한 물을 구하기위해 동료들을 가까운 샘으로 보냈으나 그 샘을 지키던 끔직한 용(龍)에게 그만 살해 당하자 물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 용과 처절하게 싸워 끝내 그는 용을 죽였다 그러나 남은 것은 혼자였으며 혼자로는 도저히 도시를 건설할 수 없었으리라 끄응하고 용이 죽었을 때 아테나가 그에게 나타나 용의 이빨을 땅에 뿌리라 하길래 뿌렸더니 저절로 그 땅으로부터(αὐτόχθονες 247c5) 보기에도 끔직하게 무장한 거인들이 나타나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섯 명만 남게 되었고 그는 이 거인들과 더불어 테베스 라는 도시를 생겨나게 했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그 도시를 번영-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그가 희랍어 알파벳을 그리이스에 가져왔다-하게 했으며 다스렸다(Hamilton, 신화, 254-255쪽 ; 브리타니커 1768년판, 4권 565쪽)

영웅들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 부터인데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고과 여기서 줄이기로한다 어쨌든,

용의 이빨을 씨로하여 땅으로부터 솟아난 끔직하게 무장한 이 거인들(σπαρτοί 247c5)을 엘레아 낫선이는 보여지며 건드려지는 몸만을 실체로 여기는 자들로 ‘본다’ 이들은 자기 손으로 건드려보고 *πῦταις χερσὶ* 247c6)에서 쥐어짜 내어지는 것 만을 있는 것으로 보며 그 거인들 역시 *πῦ*를 몸으로

므로 그러나 땅에서 쥐어짜 낼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전혀 **있지** 않
다고 줄기차게 [우길 것이네] : 엘레아 낫선이²³¹⁰

당신께서 거의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이들에게 다시 물어보도록 하세 만약 **있는** 것들 가운
데 적은 것은 **몸**이 아니(*σώματος* 247d1)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한
다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이네 이(몸이 아닌 적은) 것들 과 무엇
이든 몸을 지니는 저것들 양자의 경우에 동시에 더불어지녀지는 자연
(*συμφυές* d3)을 무엇으로 보는지 이것이 반드시 그들에게 거론되어져
야만할 것이네²³¹¹) 그들은 똑 같이 답하기에 당황할 것이오 만약 이러
게 (그들이) 당황한다면 우리들의 제안을 (그들이) 인정할지 그리고
있는 것은²³¹² *그러한 것* *τοιόνδε*²³¹³ d6)이다 라는 것에 (그들이) 동

받고 용을 씨로 받아 태어났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몸만을 실체로 보는 자들
은 주로 테베스 출신이었기에 이러한 신화를 끌어들이는지도 모르겠다

2310) 올바른(정의) 신중함 등도 몸인 것이다 라고 차마 우기지는 못할 것
이지만 땅에서 쥐어짜 낼 수 없는 것은 전혀 있지 않다고 끝까지 우길 것을
엘레아 낫선이도 알고 있었다

2311) 이 양자가 동시에 지니는 그 자연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물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옮겨졌듯이 올바른 과 신중 등 영혼 그 자체의 덕을 몸
인 것이라고 우기기에는 그들이 너무 부끄러워하기(*αἰσχύνονται* 247b9-10)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올바른 과 신중 등을 영혼의 덕으로 그리고 영혼을 있는 것
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셈이다

2312) 이 맥락에서 있는 것(*τὸ ὄν* 247d6)이 곧 잘 쓰이는 것으로 보아 실체
(*οὐσία*)가 쓰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대신 놓여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
나 아직까지도 나는 이 둘을 구분한다

2313) 티마이오스 편의 티마이오스는 49d6(148)에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것*
(*τὸ τοίουτον*)으로 불리우지 않고 *이 것*(*τούτο*)이라고 불리운다 알론한 불
로 늘 (생성)되는 불이 그와 같은 것으로 불리운다 라고 쓴다 모든 알론하
게 되는 것들 각각에서 불은 주기적으로 **같은** 것(*ἴμοιον*, 49e5, 148)으로 나

타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생성되는 모든 것이 항상 자신 안에서 나타나고 생성소멸하지만 자신은 항상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것이라고 불리운다 따라서,

항상 알론하게 되는 것들은 모두 *그와 같은 것*이라고 불리우는 반면 자신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알론하게 되긴하지만 정작 자신은 알론하게 되지 않고 고정된 것은 *이* 것이라고 불리운다 그리고 **있는** 것을 가리는 것은 **이** 것이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1224, 1232)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τοῖονδ' 247d6)은 무엇일까 또 어떠한 것(τὸ ποίον 247d7)은 무엇인가 일단,

멈추고 텔레스를 끌어들여보자 형이상학 뒤 편 2 장에서 텔레스는 *그러한 것*(τοῖονδε, 1089a11, 945, 967)을 **이 것**(τόδε, 1089a11, 945, 967) 과 *그 만큼한 것*(τοσόνδε 1089a12, 945, 957)로부터 나눈다 그에 따르면 이 것은 실체 그것도 첫 번째 실체를 그리고 그 만큼한 것은 양적인 것을 가리키는 반면 그러한 것은 각기 것에 공통인(κοινῆ, 1039a1, 965)을 것 곧 보편자(τὸν καθόλου, 1039a16, 965)를 가리킨다

약간 헛갈리기 시작하므로 다음 쪽 도식 처럼 두 사람이 쓰는 대명사를 구분해 보려다 거기에 선명해지는 것 처럼 플라톤은 **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텔레스는 실체 그것도 **첫 번째 실체**를 가리킨다 텔레스의 실체는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이니 두 사람이 동일한 말을 가지고 알론한 종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같은 류의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기는 해도 말이다 나아가서,

*그러한 것*은 텔레스의 경우 보편자-보편자 가운데 하나가 이데아이다-를 가리키지만 플라톤의 경우 무엇을 가리키는지 선명하지 않다 바로 이어지는 247d7에서 어떠한 것(τὸ ποίον)이라는 말이 그에 상응하는 것 처럼 쓰이지만 그것도 그리 분명하지 않다 대신 플라톤은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생성되는 것 각각에 늘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예를들어 불을 가리키나 적어도 범주들 과 형이상학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말이 텔레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므로 *그와 같은 것* 과 *그러한 것*의 쓰임새는 두 사람의 경우 각각 헤대론한 것 같다 나아가서,

의하여 받아들일지 조사해 보아야할 것일세 : 엘레아 낫선이

(있는 것은) **어떠한 것**(τὸ ποῖον²³¹⁴ 247d7)인데요? 말씀해주

세요 빨리 보게요 : 테아이테토스

그 만큼한 것이라는 텔레스의 말이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 편 과 파르메니데이스 편 과 티마이오스 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소 피스테이스 편에서도 량적인 그 만큼함(ὁπόσον 245d9)은 나타나지만 그 만 큼한 것(τὸ τοσόνδε)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플라톤		텔레스	
이 것 (τούτο,τόδε) (50a1)	있는 것 (불 자체?)	이 것 (τότε τι) (1039a16)	(첫번째)실체
그와 같은 것 (τὸ τοιούτον) (49d6)	생성되는 것 (불)	그러한 것 (τοιόνδε) (1039a16)	보편자 (καθόλου) (1038b9)
그러한 것 (τοιόνδ'247d6)	?		
		그만큼한 것 (τοσόνδε) (1089a12)	량인 것

그렇다면 텔레스는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것을 실체라 하여 실체를 있는 것으로부터 구분해 냈지만 플라톤은 있는 것 과 실체를 구분하여 쓰지 않았는가 글썄,

실체는 지니는 하나는 실체를 지니므로 있다 라고 파르메니데이스 편 의 파르메니데이스가 142b5-6 앞 뒤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리고 소피스테이스 편에서 엘레아 낫선이 량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에 닥아서고 난 후 있는 것의 실체 곧 있는 것의 어떠한 의 측면에서 있는 것에 닥아서 는 걸로 보아서는 플라톤도 **실체와있는것**을 구분한 것 같으나 글썄.....

아주 쉽고 아주 작게 단지 단 한 번(εις ἅπας 247e2)이더라도
무엇이든 헤태론한 것이 자연스레 행하(τὸ ποιεῖν 247e1)거나 겪는(τὸ
παθεῖν 247e1)힘(δύναμιν²³¹⁵) 247d8)을 얻는 것(κεκτημένον d8)을 나

2314) 242c6(1384)에 나타난 ποία 라는 낱말과 그 맥락이 통하는 것으로 여
기 ποίον을 보아야한다 사실 동일한 말이다 따라서,

있는 것의 량(πόσα 242c6)에 대해 말한 뒤 있는 것의 질(ποιία)에 대
해 엘레아 낱선이는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본문의 이 두 낱말
을 각기 량 과 질로 옮길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떠오르긴 해도 말이다 어
쨌든 있는 것의 량 과 질로 각기 나누어 지금 낱선이가 말하고 있다면 그렇
게 말하는 맥락에 나오는 실체(ούσια 246b1)를 있는 것의 질적인 측면이라
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두 번째 실체 곧 종과류를 질적인 어떤 것(ποιό
ν τι, 3b16, 179)으로 본 범주들의 텔레스를 여기서 끌어 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물론 이러한 질은 힘과 같은 자연적인 질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종과류를 실체에 관한 질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텔레스는
이어 플라톤을 설명하는 것이나 아닌지

2315) 뒤나뮈스(힘)에 대해서는 우선 113쪽 각주 103번을 참조하라 그런 후
518, 545, 954쪽도 참조하라

뒤이은 로고스에서 확인되겠지만 이러한 표식 또는 정의는 잠정적이
라고 보아야한다 후에 헤태론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 단계에서 그들
과 우리 측 모두에게 두루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있는 것’에 관한 정의(표식)
로 놓고 나가자고 쓰여지기 때문이다

땅에서 쥐어 짜 내어지는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실체(있는 것)이 아
니다 라고 당신들에게도 영혼은 있지 않는 것인가? 있지 않다면 할말 없다
있다면 영혼의 덕인 올바름 과 신중 등도 있는 것이 아닌가? 있는 것이 아
니라면 할말 없고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들인가? 몸아닌 것들이라면 당
들에 따라서 있지 않는 것들이어야하지 않는가?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
은 것은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맥락의 물음들을 그들
에게 퍼 붓고 난 뒤에,

엘레아 낱선이 와 테아이테토스는 예를들어 올바름 과 신중 등 처럼

는 무엇이든 (있는) 그 어떠한 것(τὸ καὶ ὅποιον 247d8)이라고 말
한다네 있는 것들은(τὸ ὄντα 247e3)힘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도 아

나라는 표식(ῥῶν, e3, 標識)이 놓여지기 때문이네 : 엘레아 낫선이

그들은 주어진(τῷ παρόντι 247e5)이것 보다 더 나은 것을 결코
말하지 못하므로 이것이 받아드려집니다 : 테아이테토스

매끈하네 후에 우리 와 그들에게 똑 같이 [이와는] 헤태론한
[표식이] 나타날 수도 있을거네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과 관련하여 우
리에게 두루(μενέτω 248a1)함께 동의될 것이네 : 엘레아 낫선이

두루 : 테아이테토스

이제 헤태론한 자들 [곧] 에이도스들의 친구들에게로 우리 가
보세 자네는 우리에게²³¹⁶그들 대신에(παρὰ 248d5)해석해 주게 : 엘레
아 낫선이

예 : 테아이테토스 (245e6 - 248a9) ”

앞 쪽 인용글월에서는 있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더듬어 온 사람들
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 편에는 몸을 다른 한 편에는 에이도스를 그 실체
를 각각 나누어 준 후 이 양쪽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 몸을 실체

있는 것을 건드려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은 몸이 아닌 ‘작은’ 것들로 여기
면서 몸이 아닌 이러한 작은 것 과 몸인 것 이 양자가 동시에 같이 지나는
자연(συμφυῆς 247d3)이 무엇인지 묻고서 바로 힘이므로 힘을 얻는 또는 지
니는 것이 있는 것이며 그러기에 있는 것은 힘 이외의 알론한 그 어떤 것
도 아니다 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올 바름 과 신중 등 영혼의 덕(ἀρετής, 247b1, 德)도 힘을 지니기에
있는 것이며 몸인 것도 힘을 지니기에 있는 것이므로 바로 이 힘을 있는
것 (또는 실체)라고 말해야 할 것이고 두 사람도 역시 그렇게 말하는 것 같
다 비록 잠정적인 것이긴 해도 말이다

이러한 힘을 지니므로서 행하거나 겪는다 그리고 몸 뿐만 아니라
몸이 아닌 아주 미세한 작은 것(올바름 과 신중등...)도 그 힘을 지닌다

2316) 엘레아 낫선이를 포함 테오도로소스 와 소오크라테에스를 말한다 이
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듣고 있었는지 지금의 나로서는 모르겠다

라고 우기는 쪽에게 **힘**을 그 **있는 것(실체)** 이라고 하는게 어떠한가 라고 타협한다 영혼도 있는 것이고 영혼의 덕인 올바른 과 신중 등도 있다면 그렇게하자 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은 힘이외의 알론한 것이 아니라 라는 로고스는 **몸 과 실체** 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쪽으로부터 얻어낸 것이다²³¹⁷⁾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엄밀하게 음미한 모든 자들을 우리가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만큼으로 만족하기로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보다 어느 때든 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면에서 알아보기 위해 해태론한 측면에서 알론하게 말하는 자들을 다시 반드시 살펴 보아야하네 - 그렇다면 반드시 그러한 자들로 반드시 닦아서야 합니다 -

실체에 관련된 알론한 자들 사이의 논쟁을 통해서 거인들의 싸움인 것 같은 그러한 것들에 있는 것 처럼 보이네 - 어떻게? -

단지 마른 땅에 바위 와 나무를 움켜 잡으면서 어떤 자들은 하늘 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땅으로 끌어 내린다 이런 마른 땅의 모든 것을 손에 짊 붙들고서 만져지고 건드려지는 것 만이 있다는 것을 확고 하게 주장하면서 **몸 과 실체**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만약 몸을 갖지 않는 것이 있다 라고 알론한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극단적으로 경멸하고 알론한 어떤 것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네 - 당신이 말씀하시는 자들은 끔직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는 그러한 많은 자들과 마주쳤습지요 - 그런데,

따라서 이런 자들과 논쟁하는 자들은 어떤 생각적인 그리고 몸이 아닌 **에이도스**가 **진짜 실체**라고 불굴의 투지로 아주 주의깊게 위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것을 무기로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한편 저들의 몸들을 그리고 저들에 의해 진실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을 작은 로고스들로 나누면서 그

2317) 더 적절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도 어긋나지 않는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이다 있는 것에 관해 우리가 말한 것을 알론한 자들이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몸들을 실체에 맞서는 **생성**인 것들이라고 부른다네

이 양자 주위에 엄청난 싸움인 것이 한 가운데서 오 테아이테토스여 항상 벌어진다네 - 진실입니다 - 그렇다면 그 양자 류 주위에서 실체 위에 놓여진 로고스를 부분적으로 우리 취하여 보세 - 어떻게 취하여야 할까요? - 그 실체를 에이도스로 놓는 자들 주위에서 취하는 것이 보다 쉽네 보다 더 길들여졌기 때문일세 반면에 모든 것을 어거지로 몸에 끌어다 놓은 자들 주위에서 취하는 것은 보다 힘들다네 똑 같이 그리고 거의 불가능할 것이네 그러나 그들에 관해서는 반드시 요렇게 해야 할 것 처럼 보이네 - 어떻게? -

만약 무엇 보다도 먼저 어떻게든 가능하다면 그들이 더 낮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네 만약 이렇게 할 여지가 없다면 그들더러 지금 보다 더 [논리에] 맞게 물음에 가까이 답하도록하는 로고스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네 열등한 것 보다는 더 나으면서 어디에서든 더 세력있는 것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오 우리들은 이 열등한 것들을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조사하는 것일세²³¹⁸) - 가장 옳으십니다 - 그들이 더 낮게 되는 답을 해주면서 그들이 말한 것을 해석해 주게 - 그럴 것입니다 -

죽은 생물²³¹⁹)을 당신들은 말하면서 (어떤) 것이 있다 라고 말하여진

2318) 따라서 엘레아 낫선이가 몸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들에게서 얻어낼 것이 없나하면서 그들의 로고스를 숙고하는 것은 그들의 로고스가 뛰어나거나 얻어낼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리 때문이다 어디에서건 그 누구에게서건 얻어낼 것은 있다 라고 보았기 때문일까?

2319) 영혼이 있다 라는 로고스를 끌어내기 위해서 엘레아 낫선이는 죽은 생물을 끌어 들인 것 같은데 이러한 끌어들이는 정당할까 죽은 생물도 썩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까지는 보며 손으로 만지작거릴 수 있는 몸일 것이므로 몸만을 실체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죽은 몸도 어쨌든 실체(또는 있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몸을 실체로 받아드린다면 죽은 몸까지도 실체로 받아들여야한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죽은 그 몸에는 더 이상 있지 않는 영혼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였을까.....나아가서,

텔레스는 죽은 손가락(1035b25, 810)을 호모한 이름의 보기로 든다 물론 맥락이 여기와 사뭇 다르기는 해도 말이다 그러나 죽은 것이라는 점에

다면 - 어찌 그렇지 않겠소? - 이것은 영혼을 지닌 몸이 아니라는 데에 당신들은 동의하시는가? - 물론이지요 - 영혼을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으로 치시는가? - 예 -

무엇이? 영혼은 한 편으로 올바르지만 다른 한 편으로 올바르지 않으며 한 편으로 신중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신중하지 않다 라고 주장하시는가? - 무엇이? - 그러나 올바름을 지니며 (올바름)이 임해야 그것들 각각은 올바른 것이 될 걸세 그리고 그 반대면 그 반대? - 예 그들은 찬성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그것에 나란히 생성되고 그것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것이 모두 있다 라고 그들이 말할 것이네 - 그렇게 말합니다 - 그렇다면 올바름 과 신중 그리고 알론한 덕 그리고 그 반대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그 안에서 생성되는 영혼도 있을 것이라면 그들은 그것들을 보이는 그리고 건드려지는 것이라고 말하겠소 아니면 그것들 모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하겠소? - 아마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 거의 못할 것입니다 - 이러한 것들로부터 무슨? 그들은 몸인 것을 실체라고 계속 말할 수 있겠소? -

이 물음은 더 이상 그 자체로 모두 답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영혼 그자체를 몸인 것이 획득하게 되는 한편 신중함 그리고 당신께서 취한 알론한 것들 각각의 경우에 이것들은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아니다 라는 것에 그들이 용기있게 동의하거나 또는 모두 몸들이다 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것을 부끄러워 할 것입니다 -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 테아이테토스여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네 이들 가운데 어떤 자도 씨앗으로 뿌려져 땅으로부터 솟아 오른 자들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나 땅에서 귀어짜 낼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전혀 있지 않다고 즐기치게 우길 것이네 - 당신께서 거의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그렇다면,

이들에게 다시 물어보도록 하세 만약 있는 것들 가운데 적은 것은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한다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이네 몸이 아

서는 여기와 같다

닌 적은 이것들과 무엇이든 몸을 지니는 저것들 양자의 경우에 동시에 더불어 지너지는 **자연을 무엇으로** 보는지 이것이 반드시 그들에게 거론되어져야만 할 것이네 그들은 똑 같이 답하기에 당황할 것이오 만약 이렇게 당황한다면 우리들의 제안을 그들이 인정할지 그리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라 하는 것에 동의하여 받아들일지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일세 -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빨리 보아 알게요 -

아주 쉽고 아주 작게 단지 단 한 번이더라도 무엇이든 헤태론한 것이 자연스레 행하거나 겪는 힘을 얻는 것을 나는 무엇이든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고 말한다네 **있는 것들은 힘**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도 아니라는 표식이 놓여지기 때문이네 - 그들은 주어진 이것 보다 더 나은 것을 결코 말하지 못하므로 이것이 받아들여집니다 -

매끈하네 후에 우리와 그들에게 똑 같이 이와는 헤태론한 표식(정의)가 나타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그들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두루 함께 동의될 것이네 - 두루 -

이제 헤태론한 자들에게로 곧 에이도스들의 친구들에게로 우리 가 보세 자네는 우리에게 그들 대신에 해석해 주게 - 예 -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물음은 있는 것의 **실체**를 물어보는 것이며 나아가서 이 물음은 있는 것의 **질적인**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나는 텔레스까지 끌어들이면서 썼다 두 사람에게 따르면,

몸²³²⁰이 바로 실체야 라고 우기는 쪽으로부터 우리가 얻어 낼 수 있는 지금 까지의 가장 나은(βελτίους 247c3)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는 힘을 지니는 것이 있는 것 이라는 다시 말해 있는 것은 **힘**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로고스이다 그리고 이러한 힘(뒤나투스)는 한 꺼번에 어느 한 순간에 아주 미세하긴 해도 헤태론한 무엇을 행하거나 겪는 힘이다 나아가서,

2320) 티마이오스 편의 티마이오스는 영혼이 들어 ‘있는’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관해 말하는 가운데 우주의 몸 안의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몸들은 맨 처음에 두 가지 세모꼴(54a1, 54a2, 1182)로 나타난다 라고 말한다 물론 그 몸은 불의 몸이기는 해도 말이다

용의 이빨을 씨로하여 땅으로부터 솟아나온 끔직한 거인들과 같은 그들에게도 이러한 로고스는 통할 것이다²³²¹⁾도대체 그렇게 완강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했길래 통할거라고 하는 걸까 그 말을 정리해 보기 전에 다시 요약해 보기로 하자

실체에 관한 논쟁은 거인들의 싸움과 같은 것이다

하늘 과 보이지 않는 것을 땅으로 끌어내려 만져지고 건드려지는 것만이 **있다** 라고 완고하게 주장하면서 **몸** 과 **실체**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는 그리고 몸을 지니지 않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를 극단적으로 경멸하면서 그로부터 어떤 알론한 말도 들으려하지 않는 끔직한 사람들과 불굴의 투지로 아주 주의깊게 위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것을 무기삼아 논쟁하는 자들은 **에이도스를 진짜 실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실체**에 맞서는 **생성**으로 **몸**을 여기는데 이 두 진영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은 엄청나다(ἀπλετος 246c3)그렇다면,

이 양자 류 주위에서 실체에 놓여진 로고스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취하여 할 것이다 그러나 에이도스를 실체로 놓는 자들의 주위에서 취하는 것이 보다 더 쉽다 더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모든 것을 몸으로 끌어다 갖다 놓는 자들의 주위에서 취하는 것은 보다 힘들다 아니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 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것 처럼 보인다 그들의 로고스를 더 왕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면 문답을 통해서 이들도 동의할 더 나은 합법적인 로고스를 만드는 것이다 열등한 것 보다는 어디에서든 더 나은 것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옳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은 생물도 있다 라고 말하면서도 **영혼**을 지닌 **몸**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며 **영혼**을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로 여긴다 그런데,

영혼은 한편으로 올바르지만 한 편으로 그렇지 못하며 한 편으로 신

2321) 통하고 안통하는 것은 길게 재어 보아야 한다 물론 재어보는 것은 인류 역사이다

중하지만 한 편으로 그렇지 못하다 나아가서 각기 것은 올바름을 지녀 자신에 올바름이 임해야 올바른 것이 되며 그 반대 경우에는 반대로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에²³²²)나란히 그것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것이 모두 있다 라고 말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올바름 과 신중 과 그 반대들 등도 있을 것이며 이것들이 그 안에서 생성되는 영혼도 있다면 영혼 과 올바름 과 신중 등을 보이는 것들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고서도 몸인 것을 실체라고 계속말할 수 있을까? 따라서,

몸인 것이 영혼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올바름 과 신중함 등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아마도 용기있게 동의하거나 그것들은 모두 몸들이다 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 분명하다²³²³)그럼에도 [용의 이빨을] 씨로하여 땅으로부터 솟아오는 이 자들은 땅에서 귀어짜낼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전혀 있지 않다 라고 줄기차게 우길 것이다 어쨌든,

이들이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것들은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걸로 족할텐데[아직은 만족할 단계가 아니긴 하나 영혼 올바름 신중 등을 몸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것임을 스스로 그들이 알 것 같기에] 그렇다면 몸이 아닌 아주 작은 것 과 몸인 것 이 양자가 동시에 더불어 지니는 자연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물어보면 마찬 가지로 그들은 반드시 당황할 것이다 이제,

2322) 영혼 과 올바름(영혼의 덕)이 동일한 것으로 여기서 여겨지는지 여겨지지 않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영혼 과 올바름 과 신중이 εἴηαι(이다, 247a3, 있다)로 붙어 ‘있어’ 영혼이 곧 올바름‘일’ 것 처럼 보이거나 이어지는 로고스에서는 올바름 과 신중 등 영혼의 덕들은 그 영혼 (안)에서(ψυχῆς ἐν ἧ 247b2)생성 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올바름은 영혼의 활동인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 두 맥락 모두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말이다 어쨌든,

τω(247a8)에 걸리는 것은 영혼인가 아니면 올바름 또는 신중 등 영혼의 덕인가 언 듯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어느 것에 걸려도 뜻에는 별 차이가 없을 듯한데.....

2323) 그렇다면 이들은 더 나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당황하는 자에게 ‘**있는 것은** 아주 쉽고 아주 작게 단지 한 번이라도 자연스레 무엇이든 헤태론한 것이게 *ἁκέρη*(τὸ ποιεῖν 247e1)또는 헤태론한 것을 *κέρη* **힘**을 얻는 것이다 **있는 것**들은 **힘**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제안해 보자 아마도 이들은 이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 표식(정의)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로고스는 매끈하다 물론,

후에 이와는 알론한 정의(표식)이 우리 와 그들에게 똑 같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와 그들 모두에게 위 정의는 두루 동의될 것이다 따라서,

있는 것에 관한 이러한 표식(정의)는 그들이 직접 엘레아 낫선이 와 테아이테토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적어도 인정할 수 있게끔 그들의 로고스를 좀 더 낮게 바꾼 것이다 그리고 엘레아 낫선이는 만약에 그들에게 최소한도 낮짜이 있다면 이러한 정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몸**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바로 **있는 것**이라고 하면 몸인 것을 **실체**로 여기는 자들도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모양이다 거부하지 않고도 땅에서 나온 그 (거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땅에서 쥐어 짜낼 수 없는 것은 결코 있지 않다 라고 우기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같았기 때문이리라 자!

이러한 거인들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하는 엘레아 낫선이 와 테아이테토스의 로고스들을 이제 정리해보자

이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려면 이들이 동의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영혼**이 있다 라는 로고스이며 이 로고스는 **몸**이 아닌 아주 작은(σμικρὸν 247d1)것들도 **있다**는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 낫선이가 선택한 것이다 먼저,

영혼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는 죽은 생물을 집어든다 죽어 ‘**있는**’ 생물에는 영혼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도 받아 들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은 **몸**(생물)은 **영혼**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놓고 나간다 물론 죽

은 몸도 또한 ‘있기’는 해도 말이다 따라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있으며 그 영혼을 죽은 몸은 지니지 못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곧 영혼이 있다는 것이 보장 받는다 이제,

이렇게 분리(分離)된 영혼이 있다면 올바른 과 신중함 등과 같은 영혼의 그 덕들 역시 있을 것이다 올바른 영혼이 있는가 하면 올바르지 못한 영혼도 있으며 신중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신중하지 못한 영혼도 있는 반면 올바른 또는 신중함을 지녀 이것들이 자신들에 임해야만 올바른 것 또는 신중한 것이 될 것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들과 나란히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생성되는 것도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영혼 또는 영혼의 덕들은 보이며 건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죽은 몸이 있다는 것으로부터²³²⁴⁾영혼은 몸과 분리되었다는 것이 영혼은 몸과 분리해 있다는 것으로부터 영혼의 덕도 몸과 분리해 있다는 것이 몸과 분리해 있는 영혼 과 영혼의 덕으로부터 영혼 과 영혼의 덕은 몸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몸인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영혼 과 영혼의 덕은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 아닌 아주 작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몸도 있고 몸 아닌 것도 있다면 몸으로 **있는** 것 그리고 몸 아닌 것으로 **있는** 것 이 양자에 걸리는 바로 그 **있음**은 어떠한 것일까²³²⁵⁾

2324) 그런데,

산 몸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생물이 살아 있더라도 그 생물의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있을까 따라서 지금의 로고스는 단지 죽은 몸에만 해당되지 산 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몸은 살아있다 따라서 엘레아 닷선이 당신의 로고스는 거의 대부분 맞지 않는다 몸과 분리된 영혼의 덕들이란 있지 않으므로 덕들 역시 몸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누가 묻고 답한다면 엘레아 닷선은 어떻게 대꾸할까

2325) 있는 것을 차가움 과 뜨거움 이 두 가지라고 전제하면 이 양자에 걸리는 있음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 답하기 어렵다 라고한 엘레아 닷선의 로고스(243d6-243e7, 1394, 1409)를 다시 숙고해 보라

힘이다 따라서,

몸인 것 과 몸 아닌 아주 작은 것(신중함 올바름 영혼 등)이 공통으로 함께 지니는 것은 힘이다 **힘**을 지니는 것이 바로 **있는** 몸이요 몸으로 **있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힘은 헤태론한 것을 **하는 힘**이요 헤태론한 것을 **겪는 힘**이다 순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겪거나 행할지라도 반드시 힘을 지녀야한다 따라서 어떤 것이든 힘을 지녀야²³²⁶겪든지 행하든지한다

있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끔직하게 완고한 그 ‘거인’들도 허용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로고스들을 다음처럼 다시 정리해 보자

이 양자에 걸리는 있는 것이 헤태론하다면 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는 있는 것이 아닐 것인 반면 동일하다면 하나만이 있거나 또는 셋이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반대 질들 두 가지만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어려움과 마주친다 라는 길로 엘레아 낫선이는 있는 것을 양적인 측면에서 규정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거기에서 토론했다는 것이 기억될 것이다

여기서도 있는 것이 몸인 것 과 몸 아닌 것에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다 이렇게 양자에 걸리는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나 거기에서는 있는 것이 양적인 측면이 문제시되는 반면에 여기서는 있는 것의 질적인 측면이 문제시된다 이렇게 양자에 걸려 있는 것은 어떠한 것(**τὸ ποῖον**, 247d7)인가 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있음을 지니는 두 가지 것은 반드시 같은 자연을 지녀야 만한다

그에 따르면 이렇게 **있는 것은 힘**이다

2326) 우리는 보통 힘이 ‘있어야’ 그 일을 하지만 겪는데에는 힘이 있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곤 하는 것 같지만 엘레아 낫선이에 따르면 무슨 일을 하거나 겪으려면 힘을 ‘지녀야’한다 힘을 지니지 않으면 어떤 일도 겪지 못할 것이다

살아 있는 것이 **영혼**이라면
죽은 **몸**에는 영혼이 있지 않을 것이므로
영혼은 몸과 분리해 **있다** 그리고,

영혼이 있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영혼이라면]
영혼으로부터 **덕**이 생성되는데
영혼은 (죽은) 몸과 분리해 있으므로
덕도 몸과 **분리**될 것이다 나아가서
그 덕은 아주 작다

몸은 크며
보여지는 것은 큰 것이라면
몸은 보여지는 것이다 반면에
덕은 작고
작은 것은 보여지지 않는다면
덕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여지는 것도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것도 있다면
있는 것은 보였다가 보여지지 않고 보이지 않았다가 보일 것이다 그
렇다면

있는 이것은 어떠한 것(**τὸ ποίον**, 247d7)인가

그것은 **힘**이다
힘을 지녀야 겪거나 행하기 때문이다

몸으로부터 힘이 나온다고 여길 것이니 몸만이 있다 라고 우기는 자
들도 있는 것은 힘과 알론한 것이 아니라는 로고스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
제,

그러나 **몸**은 하나의 **생성**일 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에이도스만이 **있다** 라고 말하는 **에이도스**의 친구들(φιλοῦς 248a4)에게 닥아서기 전에 소피스테이스 편 236d9 - 248a1(1357-1444)에 쓰여진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글을 모아 보자

있는 (것)

과 (어떤) **것**은 항상 붙는다(1361-1362)그리고 **이름** 일반은 **것이 아니다**(1398)

은 **량**적인 측면에서 *하나*라고도 *둘*이라고도 *여럿*이라고도 하나이면서 *여럿*이라고도 말하여지기 어렵다(1403)

에는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 **덧 붙혀지지 않는다**(1361, 1371)

에는 **있지 않는 것**이 **덧 붙혀지지 않는다**(1361)

은 **진리**이다 진리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다(1378)

들 중의 하나가 **영혼**이다(1427)

들 중의 하나가 **수**이다(1372)수와 분리되서는 어떤 것도 말하여지지 않는다(1373)

은 구분되는 다섯 가지 큰 **류** 가운데 하나이다(1347)

의 **이데아**에 논리에 의해 몰두하는 사람이 철학자이다 (1344)

의 모방을 만드는 자는 소피스테이스이다(96)

의 **실체**는 **몸**이 아니다(1423-1424)

은 **힘**과 **알론한 것**이 아니다(1434)

은 **움직여졌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1454)

에 관해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관해 **말하는 것** 만큼이나 쉽다(1404)

[자체]는 **이름**지어지지도 **말**하여지지도 **알**려지지도 **감각**되지도 않는다(1406)

있지 않는 것

은 **가짜(거짓)** ‘이다’(1360)

도 어떻게든 **있다**(103)

에 관해 말하는 것은 **있는 것**을 말하는 만큼이나 쉽
않다(1404)

의 어두움으로 숨어드는 자가 소피스테에스이다(1344)

[자체]²³²⁷⁾ 또는 **전혀 있지 않는** 에 관해서는 결코 입
도 뱉어질 수 없다(1361)

[자체] 와 **것**은 들러붙질 않는다(1361)

[자체]에는 수가 들어붙지 않는다(1372)

[자체]는 **발설**되지도 **말하여**지지도 **생각**되지도 않는 **非
언어적**이며 **非로고스적** 것이다(1373)

이제,

있는 것의 실체를 에이도스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로 닥아서 보자

“ 이제, 헤태론한 자들에게로 [곧] **에이도스**들의 친구
들에게로(πρὸς τοὺς τῶν εἰδῶν φίλους²³²⁸⁾248a4)향해보세 마찬가지로
자네는 우리에게 그들 대신에 해석해 주게 : 낫선이

2327) 나는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것)) 자체와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을 있
지 않는 ((것)) 자체과 구분한다 이에 대해서는 1407-08, 1337-38쪽을 참조
하라

2328) **몸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들은 끔찍한(δεινούς, 246b5, 1424) 자들로
서 용의 이빨을 씨로하여 땅으로부터 솟아난 ‘거인’들이라고 쓰여지는 것과
는 달리 **에이도스**를 실체로 여기는 자들은 친구라고 쓰여지는 것으로 보아
서 그리고 이 두 쪽은 엄청나게 항상 싸우는데 그 거인들로부터 우리는 별
로 얻어낼 것은 없지만 깨우친(ἡμερώτεροι 246c9) 이 친구들로부터는 얻어
내기(1425)쉽다 라고 쓰는 것으로 보아서 *엘레아 낫선*이도 역시 에이도스를

예 : 테아이테에토스²³²⁹)

대화하는 가운데 어디에서든(του 248a7) 자네는 **생성을 실체와 분리**해(γένεσιν, τὴν δὲ οὐσίαν χωρὶς a7) 말하네? 그러? : 낮선이

예 : 테아이테에토스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생성**[된] 몸과 **교통**하는(κουνῶνε ἰν²³³⁰), 248a10-11, 交通)반면에 논리 통해서(διὰ λογισμοῦ²³³¹)a11)(우리는) **있는 실체에** 관계하는(πρὸς τὴν ὄντως οὐσίαν 248a11)영혼과 교통한다네 [그리고] 이 있는 실체는 항상 그러하게 동일한(ἀεὶ κατὰ ταῦτα ὡσαύτως 24ba12) [상태를] 지나는 반면 **생성**(되는 것)은 (항상) **알론하게** 알론한 것으로 됩니다 라고 자네는 말하네 : 낮선이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 테아이테에토스

그런데 오 모든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나은 자들이여²³³²)**교통한다**는 것은 그 양자의 경우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들이 방금 말했던 것은 아닐까요? : 엘레아 낮선이

어떠한 것? : 테아이테에토스

서로 함께 마주치게 되는 것들로부터(ἀπὸ 248b5) [유래하는] 어떤 **힘**으로부터(ἐκ b5) **겪는** 것 또는 **행하는** 것(πάθημα ἢ ποίημα²³³³)

실체로 보는 것 같다

2329) 이전까지 감각적인 몸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의 대변자로서 말하였지만 테아이테에토스는 이제부터 에이도스의 친구들의 대변인으로서 말하기 시작한다

2330) 253e1(1343)에 나타나는 교통한다와 비교해보라

2331) 1424쪽 각주 2298번을 참조하시오 로기스모스를 내가 왜 여기서 논리로 읊겼는지 드러날 것이다

2332) 에이도스의 친구들에게 향하는 말일 것이다 또 테아이테에토스가 대신해 해석하므로 테아이테에토스에게 향하는 말일 수도 있으리라 그렇지만 테아이테에토스는 혼자인 반면 이 찬사가 향하는 것은 복수(ἄριστοι 248b2)이므로 설사향한다고 하더라도 테아이테에토스에게 직접 향할 것 같지는 않다

2333) 몸을 **실체**라고 또는 몸만이 있다라고 우기는 자들에게 엘레아 낮선이 절충하여 제시한 **있는 것**으로서의 **힘**은 헤태론한 것을 자연스레 겪

b5) 오 테아이테토스여 아마 자네는 그것들에 대한 그들의 답을 듣지 못할 것이지만 나는 [그들과] 공정하게(ἰσως, b7, 公正) 친숙했다네 : 엘레아 낯선이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땅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실체**에 관해 방금 했던 말을 (그들은)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일세] : 엘레아 낯선이

어떠한 것? : 테아이테토스

가장 적은 것에 관련해서도 *겪는 또는 (행)하는(δρᾶν²³³⁴)* 248b5) **힘**이라는 **있는** 것들의 표식(정의)을 어느 곳에서든 충분히 놓았지? : 엘레아 낯선이

예 : 테아이테토스

이것에 대해 그들은 요렇게 말한다네 한 편으로 *겪는* *그리고 행하는* **힘**과 더불어 **생성**이 있는(μετεστι τοῦ.....δύναμεως 282c8) 반면 다른 한 편으로 **힘**[의] 이러한 (두 가지)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실체**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한다네²³³⁵) : 엘레아 낯선이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어떤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나아가서 한 편으로 **영혼**이 인식하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실**

거나 행하는(247e1, 1433) 힘이었음에 유의하라

2334) τὸ ποιεῖν(행함, 247e1, 1433)이 아니라 δι-δρασκῶ(to run away, 하다)라는 말이 쓰였는데 구별되는 무슨 뜻이 있을까.....

2335) 그래야 어쩐지 246a1(1422)에서 **실체**와 관련된 알론한 자들 사이의 거인의 싸움과 같은 논쟁이라 해놓고(1422쪽각주2297)도 **몸**을 실체라고 우기는 거인들의 로고스가 더 낮게 고쳐지면서 실체 대신에 **있는 것**이라는 말이 무엇 때문에 자주 쓰이는가 라는 의문을 지녔는데 엘레아 낯선이가 다 이러한 쓰임새를 염두에 두었구나

에이도스를 진짜 실체로 여기는 자들은 그 거인들에게 허용 될 힘과 더불어 **생성**은 일어나지만 그러한 **힘**은 실체에는 들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고 이러한 친구들을 문제의 엘레아 낯선이가 지녔기 때문이다 맞아! 그래서 그는 힘을 실체라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한거구나 그렇다면,

분명히 소피스테이스 편이 엘레아 낯선이는 실체 와 있는 것을 구분해....

체는 인식되어진다는 것에 그들이 동의하는 지를 그들 주위에서 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배워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 엘레아 낫선이

그렇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무엇이? 인식한다는 것 또는 인식된다는 것은 행하는 것인가 또는 겪는 것인가(ποίημα ἢ πάθος²³³⁶ 248d5) 또는 [이] 양자인가? 또는 한편으로 (하나는) 겪는 것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다른 하나는) 헤태론한 것[곧 행함]인가? 또는 모두 모두 이러한 헤태론한 것들 가

2336) 힘을 있는 것 이라고 하는 247e1(1433)에도 이미 나온 겪음 과 행함은 그대로 텔레스의 열 가지 범주(161) 가운데 맨 마지막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기 저기에서 나타난 실체(무엇?) 와 질(어떠한가?) 과 량(얼마나많이?)등을 모으면 그의 범주들 다섯 가지가 나와 버렸다 그런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관계 어디? 언제? 상태 지남 등에서 관계를 뺀 나머지 넷 과 여기의 겪음 행함 둘 포함 여섯 범주는 거의 그의 범주들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161쪽 1384쪽각주2241번 1403쪽각주2269번 1422쪽각주2295번 1433쪽각주2314번을 참조하시오) 따라서,

지금 까지 정리한 것 만으로도 텔레스의 범주들이 나오게 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있는 것에 관한 이론인 그의 범주론 또는 형이상학은 있는 것에 관해 말하는 소피스테이스 편 과 파르메니데이스 편 나아가서는 티마이오스 편에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강의 처럼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 보이는 때문이다 실로,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의 범주들 이나 형이상학은 플라톤의 위 세 대화 편에 나온 중요하거나 애매한 여러 낱말들을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의 주석(註釋)이라고나 할까 아마 낱말의 토를 달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에서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 론자들을 논박했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나의 주장이 만약 만약 적용될 곳이 있다면 있는 것에 관련된 부분 과 논리에 관련된 부분일 것이기에 서로에 겹치는 부분 보다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그 두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된 이 작은 부분들이 훗 날의 모든 신학 과 학문 과 과학을 건드리며 지탱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과장(誇張)된 허풍(虛風)일까

운데 어떤 험태론한 것도 아닌가? 말해보게나 : 엘레아 낫선이

이런 험태론한 것들 가운데 어떤 험태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 말한 것들에 반대되기(τάναντία²³³⁷)248d8) 때문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이해하네 요것(일 걸세) 인식하는 것이 만약 어떤 것에 행하는 것이라면 다시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때에]도 반드시 쉰(παύειν 248e1)것이 잇 따를 것이네 그래서 인식에(γνώσεως e3)의해서 우리가 실체를 인식하고 ‘있는’ 것[때에]도²³³⁸동일한 로고스에 따라 쉰 것은 통해 움직여지는한 인식되어지는 것이 언제든지 (잇따르다네) 쉰 동안에는(περὶ τὸ ἡμερόν 248e4)(인식)되지 않을 거라는 말 일세 : 엘레아 낫선이

웁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제우스에 대고 무엇이? 진실로 움직임 과 생명 과 영혼 과 신 중함은 완전하게 있는 것으로(παντελώς ὄντι 248e7-249a1)임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는 살지도 신중하지도(φρονεῖν, 249a1, 慎重, 생각)않으나 거룩하며 신성하며(ἅγιον a1)누우스를 지니지 않으며 고정되어(ἕστῳς a1)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설득되어질까? : 엘레아 낫선이

그렇지만 오 테아이테토스여 동의하기에는 [너무] 끔직한 로고스일 [것 같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한 편으로 누우스를 지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생명을 (지니지) 않는다고²³³⁹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 테아이테토스

2337) 말한 것들이 반대되면 앓된다는 것은 여기 소피스테에스 편에서 뿐만 아니라 파르메니데에스 편 아니 플라톤의 전 대화 편에 나오는 로고스에 해당되는 말이다 반대(모순)되는 말을 하지마라! (소피스테에스128d2 1241-1242 ; 소피스테에스 236e5, 1359)

2338) 인식에 의해서 인식한다 라는 로고스에 유념하라 이러한 로고스는 우리가 어떤 에이도스를 알 때 마다 앓의 에이도스에 의해서 인식된다(γυγνώσκειται 134b6, 1302) 라고 파르메니데에스 편의 파르메니데에스에 의해서도 그대로 쓰여진다 거기 인식된다 라는 말이 여기 248e3에서도 그대로 쓰였다

2339) 누우스를 지니는 한 편 생명을 지니지 앓는다 라고 여기서 말하여지

그러나 그것 안에 이 (누우스 와 생명) 양자가 있지 않다 라고 (우리들이) 말하므로(λέγομεν 249a6) 우리는 그것이 **영혼** 안에 이 (양자)를 지닌다 라고 말하면 안되는가? : 엘레아 낫선이

(우리들이) 헤태론한 무슨 길을 지니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확실히 누우스 와 생명 과 **영혼**을 [그것이] <지니지> 만 영혼을 지니는 것은 전혀(παράπαν 249a10)움직이지 않는 것으로서 있을까? : 엘레아 낫선이

이것 모두가 저에게는 非로고스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그 경우에] 움직여지고 '있는' 것 과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인정되어야만한다네: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안 [그리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이제 오 테아이테토스여 **있는** 것들이 非움직임인 것이라면 누우스는(ἀκινήτων τε ὄντων νοῦν(249b5-6)²³⁴⁰)어떤 것에서도 어떤 것에 관해서 어떤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 잇따른다네 : 엘레아 낫선이

정확히 : 테아이테토스

흐르는 것(φερόμενα 249b8) 과 움직여지는 모든 것이라면 동일

는 것은 무엇일까 움직임 생명 영혼 신중함일까 아니면 영혼만일까

2340) 엘레아 낫선의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누우스*(ἀκινήτων τε ὄντων νοῦν 248b5-6)는 텔레스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있는 것*(τὸ πρῶτον κινούν ἀκίνητον ὄν, 형이상학1074a37, 769)을 생각나게한다 바로 이 두 레애마(句)만 분석해도 좋은 논문이 될 것 같다 두 사람의 독특한 생각을 이 句들이 나타낸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형이상학 람다 편 8 장 끝 부분에 나오는 텔레스의 그 표현에는 첫 번째 와 움직이게 하는 것 이라는 두 낱말이 들어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엘레아 낫선의 표현에는 이 두 낱말이 들어 있지 않는 반면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과 누우스 라는 말은 두 곳 모두에 들어 있다 한 곳에서는 단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단수)이지만 한 곳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들(복수) 라는 점이 다르기는 해도 말이다 물론 이 두 표현이 생각을 나타내는 완결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다 그러나,

텔레스에겐 그럴 것 같지만 여기 엘레아 낫선에게는 그럴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직접 이 두 레애마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긴하다

한 로고스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있는 것들**로부터 배제해야 할 것이네 :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 테아이테토스

멈춤과(στάσεως 249c1)분리되어 동일한 것에 관해 그리고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하게(ὡσαύτως 249b12)²³⁴¹어느 때든 되어진다고 자네는 여기는가? : 엘레아 낯선이

[분리되어서는 그렇게 될] 길이 없지요 : 테아이테토스

무엇이? 이것들 없이 **누우스는 있는 것들**거나 **되는 것들**(γενόμενον 249c3)로 (자네는) 어디에서든 볼것인가?²³⁴² : 엘레아 낯선이

2341) 동일한 측면에서(κατὰ ταῦτα) 그리고 동일하게 (ὡσαύτως) 그리고 동일한 것과 관련해서(περὶ τὸ αὐτὸ 소피스테아스249b12) 라는 말들은 동일한 측면에서(κατὰ τὸ αὐτὸ, 형이상학1005b20, 695) 동일한 것이(τὸ αὐτὸ, b19) 동일한 것에(τῷ αὐτῷ b20) 속하면서 동시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얌의 아르케애를 텔레스가 감마 편 4 장에서 그대로 쓰여진다 1067쪽, 1365쪽각 주2213번 그리고 논문번역자료2쪽을참조하라 나아가서,

텔레스는 동일한 측면에서 라는 말을 힘(1009a34-35)의 측면 또는 활동의 측면에서 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동일한 것이 동일한 측면은 동일한 것이 힘의 측면에서 또는 활동의 측면에서 라는 말이다(1069)그러나 여기 엘레아 낯선이가 말하는 동일한 측면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의 나에게선 선명해지지 않는다 또,

동일하게(ὁμοιωμοσ) 라는 말을 텔레스는 형이상학 1030b32(824)에서 쉬노오한 이름 곧 소리도 같고 뜻도 같은 이름과 바꾸어쓰여질 수 있는 맥락에서 쓴다 물론 알려진 맥락(840, 813, 1452)에서 쓰기도하는 반면에 플라톤의 세 대화 편에서는 이 말이 눈에 거의 뜨이지 않다가 여기서 눈에 뜨인다 그쳐 나는 동일한 [상태]로 라고 풀어 읽을 뿐이다

2342) 누우스가 *이것들 없이* 있거나 될것인가 라고 물어진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런데,

이것들(τούτων 249c3)은 여기서 무엇을 가리킬까 위로부터 세 번째 줄의 동일한 것들(ταῦτα 249b12)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동일한 것들없이 누우스는 있거나 생성되는가 라는 물음으로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동일한 것들

거의 (그렇게 보지) 않죠(ἤκιστα²³⁴³) 249c5) : 테아이테토스
ὄχι ἐπισημῶν c7) 과 신중함(φρόνησιν c7) 과 누우스를 무시하

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콘퍼드 처럼 such objects(그러한 대상들, 번역전집2, 994쪽) 이라고 이것들을 옮긴다면 그러한 대상들 없이 누우스는 있거나 되는가? 라는 물음이 던져질 것이고 이 물음에 콘퍼드 처럼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답하면 누우스는 자신의 대상 없이는 전혀 있을 수도 될 수도 없을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는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그렇게 물으면 그러한 대상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찾아내야 그 물음이 선명해지는데 선명하게 하려면 such(그러한)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부터 분명하게 해야 한다 콘퍼드를 따르자면 동일한 조건 과 동일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하는 반면 fowler에 따르면 질 또는 자연 또는 관계들의 **동일함**(테아이테토스와소피스테이스, 385 쪽)으로 보아야한다 이것들(τούτων 249c3)이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위로 부터 세 번째 줄의 동일한 것들(ταύτα 249b12)을 각각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옮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동일한 것들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리킬까 참고로 이것 과 동일한 것은 각기 문법적인 성(性)과 수(數)가 일치한다 처음 옮기고 요약한 후 정리한 글인 116쪽에서 나는 이것들이 겹과움직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는데 두 번째 옮기는 도중인 지금에 이르러서는 116쪽의 정리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잠시 들긴 하나 오히려 그 정리를 차분하게 들여다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어쨌든 참 애매한 맥락에 문제의 이 지시대명사(指示代名詞)들이 끼어든다

2343) ἤκιστος, η, ον은 μικρός(작은 small)의 최상급으로서 ‘가장 적은 (least)’을 나타내는데 물음에 대한 답일 경우 ‘nay not so, not at all’등의 뜻을 지닌다고하나 여기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옮겨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이것들 없이 누우스가 있거나 될거라고 자네는 볼거나 라고 엘레아 닳선이가 묻자 그렇게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테아이테토스가 답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거의 없다 라는 것은 아주 조금이긴 하나(最上級)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럴 경우의 누우스는 이것들이 없이도 있거나 될 것이다

면서 어떤 것에 관련하여 어디에서든 우기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 반드시 모든 로고스로 싸워야하네 : 엘레아 닷선이

격렬하게 : 테아이테토스

이 모든 것²³⁴⁴이 철학자에 의해서 가장 큰 명예를 얻고 ‘있으며(τιμώντι 249c10) 이(것들) 때문에 **에이도스**를 *하나* 또는 그리고 *여럿*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은 *서있다*(ἔσθηκός, 249d1, 멈추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인정되어져도 *않*되며 다시 **있는 것**은 모든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하는 것에도 결코 귀 기울여서도 *않*되나 어린이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있는 모든 것**(τὸ ὄν τε καὶ τὸ πᾶν 249d3-4)을 **움직이지 않음** 과 **움직여졌음**(ἀκίνητα καὶ κεινημέν^{a2345} d3)이 양자를 함께(συναμφότερα d4)[*지닌*] 것으로 말해야하는

2344) 여기에 쓰이는 **않** 과 **신중함(분별)** 과 **누우스**에 최고의 명예를 부여하는 철학자를 항상 **있는 것의 이데아**에 논리를 통해(254a8, 1344) 열망하는 철학자와 이어 보라 철학자는 어쩌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2345) 에이도스를 멈춘 것으로도 움직이는 것으로도 보지 말고 멈추면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지 말고 움직이지않은 그러면서 움직여졌던 그러한 것으로 보라는 말이다 묘한 말이다 우선,

아키네에타 와 *케키네에메나* 라는 말이 문제이다 이 두 말은 모두 움직이다(**키네인**, κινεῖν, to set in motion)와 관련된다 *아*(ἀ)는 아니다(非)않다를 뜻하고 *에타*(ἔτα)를 형용어미라 친다면 *아키네에타*는 움직이지 않는을 가리키는 반면 *케*(κε)는 완료를 나타내며 *에에메나*(ἔμενα)는 능동과수동의 중간 또는 수동을 가리키므로 *케키네에메나*는 움직여졌던을 가리키므로 이 둘을 합하면(**καὶ**) **움직여졌으면서움직이지않는**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말 그대로하자면,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지않지만움직여졌던 또는 움직여졌지만움직이지않는 또는 움직임은 [지금] 없지만 [이전에] 움직여졌던 또는 [이전에] 움직여졌지만 [지금]은 움직이지않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요놈의 *κε* 라는 완료(perfect)를 나타내는 어간(語幹)이 문제이다 물론 능동과수동의 중간 과 수동을 나타내는 어미(語尾)도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우선,

어간은 때(시간)을 가두고 어미는 **행함(능동)과꺾음(수동)**을 머금으므로 **움직임**에 닿는 바로 그 때는 이미 지나갔으며 지나 갔을 때(시간)에 움

것 처럼 여겨지네 : 엘레아 낯선이
 가장 진리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무엇이? 따라서 **있는 것이** 로고스에 의해서 둘러쌓여(περιελην, φεναι 249d6-7) 적절히 나타나지 않는가? : 엘레아 낯선이
 물론 한편으로(μὲν d8) [그러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렇지만 축복해 주게나(βαβαι 249d9) 오오 테아이테토스여! 그
(있는) 것의 탐색의 어려움에 관해 지금 인식되는 것으로 우리가 여
 기는 것으로 나에게 [나타나네 그러] :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그리고 무슨(어려움)? 다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테
 아이테토스 (248a4 - 249e1) ”

라는 인용글월에서는 **꿈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들의 동조(同調)를 얻으려고 엘레아 낯선이가 **힘을 있는 것으로**
 표식(ὄρον, ε3, 標識, 정의(定義))하고 난 후 이 표식을 근거로 있는 것을 **움**
직여졌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로고스를 꼬집어 낸다 어떠한 길을
 통해서 그러하는지는 다시 읊기고 요약 정리 단평(短評)하는 가운데 말하여

직임을 겪었다 라는 말이된다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 라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요말인가? 만약,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받아드려진다면 움직이는 **때(時點)** 와
(행)함과겪음이 문제이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으나 지나간 때에 움직여졌다
 만약 중간적인 걸로 본다면 움직이지도 움직여지지도 않았지만 그 때 움직
 임에 닿았다 닿았으면 움직이든지 움직여지든지 움직이면서 움직여지든지
 할 것 아나가 이도 저도 그도 아니라면 좌우단간 움직임과 접촉했을 것 아
 닌가 때 밀렸던지 끌어당겼던지 끌어 당기던지 끌어당겨 졌던지.....할 것 아
 닌가

있는 모든 것이 이러할 것이라 엘레아 낯선이는 말한다 그러나 **완전**
하게 있는 것에도(παντελώς ὄντι 248e7-249a1)이러한 말이 통할까 **있는 것**
자체(1388)또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1349)도 그러할까 이말이야!

질 것이다

이제 해태론한 자들에게로 곧 에이도스들의 친구들에게로 향해보세
마찬가지로 자네는 우리에게 그들 대신 해석해 주게 - 예 -

대화하는 가운데 어디에서든 자네는 **생성을 실체**와 분리해(χωρις
248a7)말하네? 그러? - 예 -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생성된 몸과 교
통하는 반면 **논리**를 통해서 있는 실체에 관계하는 **영혼**과 **교통**한다네 그리
고 있는 이 실체는 항상 그러하게 **동일**한 반면 생성(되는 것)은 생성은 항
상 **알론**하게 **알론**한 것으로 됩니다 라고 자네는 말하네 -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오 모든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나은 자들이여 **교통**한다는 것은 그 양
자의 경우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들이 방금 말했던 것이 아닐까
요? - 어떠한 것인데요? - 서로 함께 마주치게 되는 것들의 어떤 **힘**으로
부터 **겪**는 것 또는 **행**하는 것 오 테아이테토스여 아마 자네는 이것들에 대
한 그들의 답을 듣지 못할 것이지만 나는 그들과 공정하게 친숙했다네 -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

땅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실체**에 관해 방금했던 말을 그들은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일세 - 어떠한 것? - 가장 적은 것에 관련해서도 **겪**
는 또는 **행**하는 **힘** 이라는 **있는** 것들의 표식을 어느 곳에서든 충분히 놓
았지? - 예 - 이것에 대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네 **겪**는 **그리고 행**하는 **힘**
과 더불어 **생성**이 있는 반면 **힘**의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실체**에
들어맞지 않는다 라고 말일세 -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말했습니까 - 나
아가서,

영혼이 **인식**하는 반면 **실체**는 **인식된**다는 것에 그들이 동의하는지
를²³⁴⁶⁾ 그들 주위에서 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배워져야한다는 것에

2346) **몸**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들이 동의할 ‘ 죽은 생물(몸)은 **영혼**을 지니
지 않으며 영혼도 **있는** 것 가운데 하나(1427) ’ 라는 로고스로부터 시작하
여 ‘ **있는** 것은 **힘**과 **알론**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에 대한 그 거인들의 동의를

대하여 -

엘레아 낫선이는 거기서 얻어내려하는 반면 영혼을 진짜 실체라고 말하는 에이도스 론자들이 동의할 ‘ 영혼은 인식하는 반면 인식되는 것은 실체이다 ’ 라는 로고스로부터 시작하여 ‘ 있는 것은 움직여졌으면서[지금]움직이지 않는 것 ’에 대한 이들의 동의를 여기서 그는 얻어내려한다 그렇다면,

위 네 가지 로고스 가운데 있는 것에 관한 두 가지는 반드시 엘레아 낫선이 뿐만아니라 그 거인들 과 에이도스 론 자들 모두에 의해 동의되어져야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두 로고스에 대한 이러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내가 지금 이 각주를 다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뒤섞이는 로고스들에서 영혼이 지니는 쓰임새에 대해 쓰기위해서이다 몸이 아닌 아주 작은 영혼의 덕 과 몸을 지니는 것 이 양자에 더불어 지니는 것으로서의 있는 것은 힘이 다 라는 맥락을 이루는 앞의 로고스들 그리고 인식되는 실체를 인식하는 영혼의 인식은 겪음도 행함도 겪음과행함도 아니라는 맥락을 이루는 뒤 로고스들에서 영혼이 조금이나마 드러나기 때문이다

에 대하여 대하여 - 그렇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 무엇이? **인식**한다는 것 또는 인식된다는 것은 (**행**)하는 것인가 또는 **겪**는 것인가 또는 이 양자인가 또는 겪는 한편²³⁴⁷ **혜태론**한(**행**하는)가 또는 모두 모두 이러한 **혜태론**한 것운데 어

엘레아 낮선이는 얻어 내려하는 반면 **영혼**을 진짜 **실체**라고 말하는 **에이도스**론자들이 동의할 영혼은 **인식**하는 반면 **인식**되는 것은 실체이다 라는 로고스로부터 시작된 있는 것은 움직여졌으면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로고스에 대한 이들의 동의를 여기서 그는 얻어 내려한다 그렇다면,

위 네 가지 로고스 가운데 있는 것에 관한 두 가지는 반드시 엘레아 낮선이 엘레아 낮선이 뿐 만 아니라 그 거인들 과 에이도스 론 자들 모두에 의해서 동의되어야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두 로고스에 대한 이러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내가 지금 이 각주를 다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뒤섞이는 로고스들에서 쓰여지는 **영혼**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몸이 아닌 아주 작은 영혼의 덕 과 **몸**을 지니는 것 이 양자에 더불어 지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은 힘**이다 라는 맥락을 이루는 앞의 로고스들 그리고 **인식**되는 실체를 인식하는 영혼의 인식은 겪음도 행함도 격음과행함도 아니라는 맥락을 이루는 뒤 로고스들에서 영혼이 조금이나마 드러나기 때문이다

면 해태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말한 것들에 반대되기 때문
입니다 - 이해하네,

요것일세 인식하는 것이 만약 어떤 것에 **행**하는 것이라면 다시 우리
들이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겪는다**는 것이 잇따를 것이네 그래서 **인식**에 의해
서 우리가 **실체**를 인식할 때에도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 겪는 것을 통해 움직여
지는한 인식되는 것이 언제든지 잇따른다네 쉬는 동안에는 인식되지 않을 것
라는 말일세 - 엘레아 낫선이 - 옳습니다 - 제우스에 대고 무엇이?

진실로 움직임 과 생명 과 **영혼** 과 신중함은 완전하게 **있는** 것으로
는 임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살지도 신중하지도 않지만 거룩하고 신성하며
누우스를 지니지 않으며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설득되어 질까 - 그렇지만 오 낫선이여 동의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로고스일
것 같습니다 - 그러나 누우스를 지니지만 **생명을** 지니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어떻게 - 그러나,

그것 안에 이(누우스 와 **생명**) 양자가 있지 않다 라고 말하므로 우
리는 그것이 **영혼** 안에 양자를 지닌다 라고 말하면 앎되는가-우리가해태론하
게 (말할) 무슨 길을 지니겠습니까-그러나 확실히 영혼은 누우스 와 생명을 지

²³⁴⁷) **한편으로**(μὲν)..... **다른 한 편으로**(.....δὲ, 248d 5)는 겪으면서
동시에(행) 한다는 것을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때**는 겪었다가 다시 (행)
사랑하고고사랑하고 다시 겪는다는 것을 말한다

니지만 영혼을 지니는 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서 있을까 - 이것 모두 저에게 非로고스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그리고 이 경우에 움직여짐 과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인정되어야만 한다네 - 어찌 않그러겠습니까 - 이제,

오오! 테아이테토스여 있는 것들이 非움직임인 것이라면 누우스는 어떤 것에서도 어떤 것에 관하여 어떤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 잇따른다네 - 정확히 - 그리고 흐르는 과 움직여지는 것이 모두라면 동일한 로고스에 의해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있는 것들로부터 배제해야 할 것이네 - 어떻게? - 멈춤과 분리되어 동일한 것에 관해 그리고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하게 어느 때든 되어진다고 자네는 여기는가? - [분리 될] 길이 없지요 - 무엇이? 누우스는 어디에서든 이것들²³⁴⁸ 없이 있는 것들이거나 되는 것들로 자네는 볼 것인가 - 거의 그렇게 있거나 되지 않죠 -

않 과 신중함 과 누우스를 무시하면서 어디에서든 우기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 반드시 모든 로고스로 싸워야하네 - 격렬하게 -

이 모든 것이 철학자에 의해서 가장 큰 명예를 얻기 때문에 에이도스를 하나 또는 여럿이라고 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은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정되어져도 않되고 또 있는 것은 모든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것에도 결코 귀 기울여서도 안되나 어린이 기도하는

²³⁴⁸) 멈추는 것을 포함한 이와 같은 것 곧 동일한 것과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심정)으로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지 않음 과 움직여졌음 이 양자를 지닌

따라서 있는 것이 로고스에 의해 둘러 쌓여 적절히 나타나지 않은 가 - 물론 한 편으로
(그러합니다) - 그렇지만,

것으로 말해야 할 것 처럼 여겨지네 - 가장 진실합니다 - 무엇이?

축복해 주게나 오오 테아이토스여 **있는** 그것의 탐색의 어려움에
관해 지금 인식되는 것으로 나에게는 여겨지네 - 어떻게 또 그리고 무슨
그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

몸만이 실체라고 우기는 자에게 그렇다면 **있는** 것은 (행) 하거나
겪는 **힘**일 것 이라는 동의를 구하고 난 뒤 엘레아 낫선이는 이제 진짜
실체는 **에이도스**이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당신은 논리를 통해서
(διὰ λογισμοῦ, 248a11, 1147)행하거나 겪으므로서²³⁴⁹ 영혼이 그러한 실체와
교통한다(κοινωνεῖν 248a10-11)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있는** 것은
움직여졌으면서(도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것 이라는 동의를
구한다

²³⁴⁹) 겪고 행하는 인식을 말한다 다시말해 실체 과 영혼가 서로를
겪고 행한다는 것은 실체가 영혼에게 인식되고(γιγνώσκεσθαι 248d2)영혼이
실체를 인식한다(γιγνώσκειν 248d2)는 것이다

에이도스를 진짜 실체라 말하면서 그 실체로부터 생성을 분리해 내는 에이도스 친구들은 생성된 몸과는 감각을 통해 교통하는 반면 있는 실체와는 논리를 통해서 영혼이 교통하며 그리고 이러한 있는 실체는 항상 동일한 반면 생성되는 것은 항상 알론한 길로 알론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로고스에 그는 어떤 길로 도달할까 요약해 보자

오! **교통**한다는 것은 이 양자의 경우에 무엇(τί 248b2)을 말하는가 서로 마주치며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을 겪는 것 또는 (행)한다는 것**이라고 또 겪는 그리고 행하는 **힘**은 생성과 함께 하는 반면 힘의 두 가지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실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과 공정(公正)하게 친숙했던 나는 들었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영혼이 인식 **하고** 실체는 인식 **된다**는 것을 배워야한다 그런데,

인식한다는 것 또는 인식된다는 것은 행하는 것인가 또는 겪는 것인가 또는 이 양자인가 또는 겪는 것이지만 한 편으로 해태론한 것인가 또는 이러한 해태론한 모든 것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아닌가 분명히 해태론한 것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요것이다

인식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라면 인식 **할** 때 반드시 **겪는**다가 잇따를 것이다 그래서 **인식**에(γνώσεως 248e3)의해서 우리가 인식 **할**

동안에 인식 된다 겪음을 통해서 인식 되는 한 그렇다 쉬는 동안에는 결코 인식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나아가서,

움직임 과 생명 과 영혼 과 신중함은 전혀 있는 것과 함께하는 ²³⁵⁰ 것이 아니며 영혼 그 자체로는 살지도 신중하지도 않으나 거룩하며 신성하고 또한 누우스를 지니지 않으며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로고스에 동의하는 것은 너무 끔찍하다

누우스는 지니면서도 생명을 지니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누우스 와 생명 이 양자가 움직임에 있다(ἐνόντι²³⁵¹ 249a6)라고

²³⁵⁰) παρῆναι (임(臨)하다, 249a1)를 함께하다로 써 보았다

²³⁵¹) εἶναι(있다) 앞에 ἐν이 붙는 쓰임새를 이미 1179-1193쪽에 나는 썼다 거기에서는 움직임은 같은 상태 안에 어디에서든 결코 있으려 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지는 반면 여기에서는 그 움직임((안))에 - 249a6 의 αὐτῶ(그것)은 움직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는 본다 - 누우스 와 생명 이 양자가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영혼 안(ἐν, 249a7) 있다 라고 쓰여진다

영혼 안의 움직임 안에 누우스(신중함) 와 생명이 있는 셈이다 나아가서,

움직임은 같은 상태로 있지 않는반면 쉬는 같은 상태(ὁμολότητι, 티마이오스, 57e7)로 있다 라고 거기에 쓰여지는 반면 여기에서는 쉬지 않는한 인식되며 인식되는 동안 인식한다 라고 쓰여진다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한 영혼은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하는 동안 인식되기 때문이다 곧 겪기 때문이다

우리가말한다면 움직임은 영혼 안에서 그 양자를 지닌다 라는 말과
헤태론한 말을 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누우스 와 생명을
지닌다면 영혼을 지닌 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非로고스적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움직여짐 과 움직임은 반드시 있다
이제,

있는 것들이 비움직임이라면 누우스는 어떤 것에서도 어떤 것에
관해서 어떤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 정확히 잇따른다 그런데 실로,

멈춤과 분리되어서는 동일한 것에 관해 그리고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하게(ὡσαύτως 249b12)어느 때든지 될 길이 없다 이렇지 않고는
누우스가 거의 있거나 될 수 없다

우리는 앎과 신중 과 누우스를 무시한 채 어떤 것에 관련하여
어디에서든 우기는 자들에 대해 모든 로고스로 격렬하게 싸워야한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것은 철학자에 의해서 가장 큰 명예를 얻고 있으므로
에이도스를 하나 또는 여럿 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은 서 '있다'
(ἔσθηκός, 249d1, 멈추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인정되어서도 앎되며 또
있는 것은 모든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귀가
귀울여져서는 앎된다 대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지 않음 과 움직여졌음 이 양자를 함께 지닌 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진실하다 따라서 있는 것이 지금 로고스에 의해 둘러 쌓여 적절히 나타난다²³⁵²따라서,

비록 아주 어려운 일이긴해도 있는 것에 관해 어린 아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두 편을 절충하는 엘레아 낯선이는 지금 " 움직임도 과연 있느냐 있다면 쉽도 있는 것인가 쉽도 있고 움직임도 있다면 있는 것은 쉬면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쉬었다가 움직이고 다시 움직였다 쉬는가 나중이라면 쉬는게 먼저인가 움직이는게 먼저인가 움직이는게 먼저라면 겪는게 먼저인가 (행) 하는게 먼저인가 또는 겪으면서 하고 하면서 겪는가 또는 겪고 난 뒤 하고 하고 난 뒤 겪는가 겪으면서 하고 하면서 겪는다면 하거나 겪는 것은 무엇인가 나아가서 하는 것 과 겪는 것은 동일한 것인가 해태론한 것인가 해태론한 것이라면 그 둘은 무엇을 통해 교통(κοινωνωίν, 248a10-11, 1447, 交通)하는가 바로,

논리(διὰ λογισμοῦ, 248a11, 1147, 論理) 또는 누우스를 통(通)해 영혼 과 실체(에이도스)가 하거나 겪으므로 서로에 이어진다 " 라고 말한다 하거나 겪는 힘이 (실체 로서의 몸)에 있는 것이며 있는 것은

²³⁵²) 그러나 있는 것을 조사하려는 데서 오는 어려움(ἀπορίαν 249d 10)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로고스로부터 알론한 어려움이 나타난다

(영혼이 행) 하면 (실체로서의 에이도스를) 꺾는 그러나 했고
꺾었으면서도 ((지금은)) 꺾지는(στάσεως, 249c1,1452) 그러한
것이다 ²³⁵³ 다시말해 움직여졌으면서도 움직이지않는 것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메모:

메모:

있는 것은 움직임 과 멈춤 또는 쉽 이 두 가지 것에 함께 있다고
보아야지 움직임 만을 있는 것으로 보거나 멈춤만을 있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 이렇게 보면 안된다는 것을 더불어 일깨워 주기 위해서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이스 와 소피스테이스 와 티마이오스 편을 아마 썼을 것이다
변증적인 앎을 지닌 철학자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보아야한다

량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있는 것을
말해야만 하는데 땅에서 솟아나온 자들은 몸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반면
'친구'들은 에이도스를 진짜 실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편 모두에
허용되는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를 비록 어렵기는해도 찾아가야만 한다
그 결과 '거인'들은 꺾고 (행)하는 힘이 있는 것이라는 로고스에 고개를

²³⁵³) ὅσα ἀκίνητα καὶ κεινημένα, τὸ ὄν τε καὶ τὸ πᾶν συναμφοτέρω
α λέγειν (249d3-4,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지않음 과 움직여졌음 이 양자를
함께[지닌] 것으로 말해야한다)

끄덕이게 됐으므로 이 로고스와 연관지어 있는 것에 관한 나아간 더 나은 로고스 곧 **있는** 것은 **움직여졌음과非움직임** 인 것이라는 로고스를 끄집어 내면 된다 어떻게 엘레아 낫선이는 끄집어 내는가 우선,

우리는 생성된 몸과 감각을 통해서 교통하지만 로기스모스(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있는 실체**와 관계하는 **영혼**과 교통하는데 **교통**이란 마주치는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힘**으로부터 **겪고 행함**이다 라는 친구들의 로고스로부터 그는 시작한다 그에 의하면,

바로 이 교통이 **인식**이다 그리고 인식되는 것은 실체이며 인식하는 것은 영혼인 것과 마찬가지로 감각되는 것은 몸이며 감각하는 것은 '영혼'이므로 교통하는 것은 실체 와 **영혼** 그리고 '영혼' 과 몸이다 바로 인식 **함 과 됨** 요것이 **힘의 겪음 과 (행)함**에 연관되며 움직임에 연관된다 움직여지는한 인식되며 움직이느한 인식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인식할 때(ως 248d10) 인식된다 인식하는 것 과 인식되는 것은 인식하면서 인식되는 것도 아니요 인식한 후에 인식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움직이고 움직여 지는한 영혼은 실체를 인식하고 실체는 영혼에 의해서 인식되는 이러한 하고 되는 것은 서로 분리되어 일어나는 하고 겪는 것이 아니다²³⁵⁴그러면,

²³⁵⁴) 겪고 행함이 아마 힘 하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까 그렇다 라고 나는 말하고 싶은데.....어쨌든 낫선이는 겪음 과 행함을 분리된 어떤 것으로 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하고 겪는 움직임은 어디 안에 있을까 어떤 것이 누우스를 지니고도 생명을 지니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으므로 어떤 그것 안에 누우스 와 생명이 있음에 틀림없다 바로 그 무엇을 영혼이라하면 안되는가 헤태론한 것을 그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혼 안에 생명 과 누우스가 있고 이러하다면 움직임과 움직임은 있음에 틀림없다 영혼을 지닌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ἀλογα, 249b1, 1451)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누우스가 非움직임인 것이라면 누우스는 어떤 것에서도 어떤 것에 관해서 어떤 것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할까,

만약 모두 흐르고 움직여진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있는 것으로부터 빠질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은 멈춤과 분리되어 동일한 것에 관해 동일한 측면에서 어느 때든 동일할 수 없다 움직임을 지닌 것은 같은 상태로 머무르려하지 않는 반면 쉬는 것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²³⁵⁵그러나,

텔레스는 분리된 것 곧 범주들로 본다 텔레스에 의하면 겪음 또는 행함은 연결된 것(συμπλοκή), 범주들 1a20, 162)이 아니기 때문이다

²³⁵⁵) 1462쪽 각주 2351번 참조하라

이런 동일한 것들 없이는 결코 누우스는 있거나 되지 못한다
누우스는 동일한 것을 바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우스는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움직임도 있고 멈춤도 있다 따라서,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지않음 과 움직여졌음 이 양자(兩者)적이다
움직여졌으면서움직이지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인식(眞)이다 인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인식하는 영혼 과 인식되는 실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영혼 과 실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기에 움직임 과 비움직임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만약 非움직임(멈춤, 쉼)이 있지 않다면 동일한 것도 있지
않을 것이고 동일한 것들이 없다면(ἀνευ, 249b3, 1452) 누우스도 있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더욱이 그렇다 이렇게²³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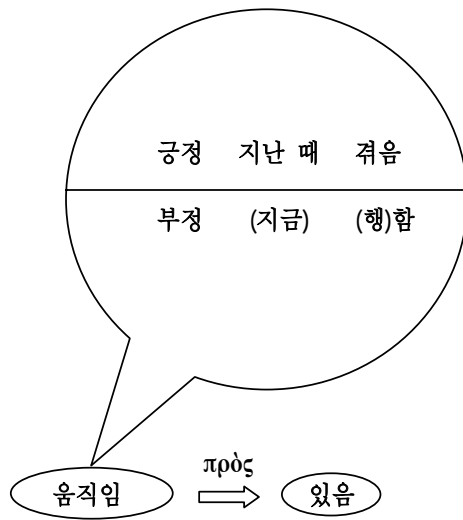
²³⁵⁶) 인식을 근거로 하여 어떤 것이 있다 라고 쓰는 것은 여기
뿐만 아니라 티마이오스 편 51b6-52c2(1135-1147)에도 나온다
누우스(νοῦς, 51d3, 1137) 와 진실한 의견 이 두 가지 류가 구분된다는 것을
근거로하여 있는 것(에이도스)또는 공간 과 생성된 것(감각적인 것)을
거기(1145 쪽그림참조)에서 구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있는 것
과 (생성) 되는 것의 구분 근거로 '인식'의 구분이 나타나는 반면
여기에서는 움직임 과 멈춤이 있는 근거로 인식이 나타난다

인식이 있는 걸 보면 결국 움직임 과 非움직임(멈춤 또는 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그래서 있는 것은 움직여져왔었으면서도 움직이지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움직이는 때가 다를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태(態) 또한 다르고 움직임에 관련되는 길 또한 다르다는 데에 있다 움직여졌음 과 움직이지않음²³⁵⁷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움직임의 긍정인 반면 하나는 부정(否定)이며 하나는 지나간 때에²³⁵⁸ 일어난 움직임인 반면 하나는 그렇지 않고 하나는 겪는 움직임인 반면 하나는 (행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있는 이러한 것을 다음 쪽 처럼 그려 볼 수 있으리라

²³⁵⁷) 움직이지 않음(ἀκίνητα, 249d3,1454)과 움직여져왔었음(κεκεινημέν, 249d3)에 관해서는 1454 쪽 각주 2345 번을 참조하라

²³⁵⁸) 파르메니데이스 편 152a1 앞 뒤(1157)에서 파르메니데이스는 있어 옴은 지나간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니며 있게 '됨'은 닥아 올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지니는 반면 있음은 현재 시간에(μετά χρόνου, τοῦ παρόντος, 151e8, 1157)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라고 말한다 시간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움직임에 관련해 **있는** 것은 (지금)은 움직이지(행함) 않지만(부정) 움직여졌던(지난 때 겪음 긍정) 것이라는 것을 위 그림은 나타내려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 잘 나타나졌는지 모르겠다 나아가서 블록 화살표는 움직여졌어야 (지금) 움직이지 않은 채 그렇게 **있다**는 관련(關聯)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렇게 있는 것을 탐색하는(τῆς σιέψεως, 249d10, 1455)테에는 어려움이 많다 있는 것을 량의 측면에서 몇 개나 되는지 알아보려 했던 데서 오는 어려움 처럼 말이다 이제,

어떠한 어려움인지 살펴 보기로 하자

“ 그렇지만 축복해 주거나 오오 테아이테토스여 그 (있는) 것의 탐색의 어려움에 관해 인식되는 것 처럼 나에게도 여겨지네 그러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그리고 무슨(어려움)? 다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테아이테토스

오오 친애하는 (테아이테토스)여 비록 우리가 [있는 것에 관해] 말한 어떤 것들이 선명해지긴 해도 지금 우리는 그(있는) 것에 관한 총체적인 몰인식에(ἀγνοία²³⁵⁹ 249e2)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엘레아 낫선이

어쨌든 저에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어떻게 그러한 [몰인식을] 지니게 됐는지를 전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만약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동의한다면 모든 것은 따스움 과 차가움이다(εἶναι 250a2)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때 물었던 것과 동일하게 동일한 길로 공정하게(δικαίως 250a1)묻는지를 보다 선명하게 숙고해 보세나 : 엘레아 낫선이

어떠한? 저에게 기억나게해 주세요 : 테아이테토스

물론 그 때 저들에게 물어봤던 것과 같은 이것을 자네에게 물어 보려하네 동시에 더 나아간 어떤 것을 위해서 : 엘레아 낫선이

웁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²³⁵⁹) 분리된 에이도스는 우리에게 몰인식적이다 라고 파르메니데에 스 편 133c1(1299)에서 파르메니데에스가 말할 때에도 몰인식 이라는 낱말이 쓰였다는 것을 참조하라

자 움직임 과 멈춤(στάειν 250a8)은 서로에 반대되는 것들(ἐναντιώτατα a8)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말하지) 않으리오?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양자 그것 과 각각은 같이 있다(εἶναι 250b11) 라고 자네는 말하려는가 ?²³⁶⁰ : 엘레아 낫선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같이 있다 라고 동의할 때 마다 양자 와 각각은 움직여진다고 말하는가 : 엘레아 낫선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이것들이 *κινῶ* 라고 말함에 의해서 양자는 **있다**는 것을 (자네는) 가리키는가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가리키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있는** 것은 이것들과 나란한(παρὰ 250b7) 세 번째 것 으로서 영혼 ((안))에 ²³⁶¹ 놓겠는가 저 (세 번째) 것에 의해 멈춤 과 움직임이 둘러쌓이는 것

으로서 [말일세] 이(있는) 것과 관련지어 **실체**와의 **교통**을 포착하고
관찰하면서(ἀπειδὴν 250b9) 이렇게 양자가 있다 라고 자네는 이야기하려 하는가 :
엘레아 낫선이

²³⁶⁰) 이러한 물음은 양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을 두 가지 라고 말
하는 자들에게 이 두 가지 양자 와 각각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 있음인가
있음 이라면 있음은 그 두 가지 것과 나란한 셋인가 라고 물은 뒤 엘레
아 낫선은 그 양자 와 각각에 걸리는 있음이 헤테론한 것들은 아닐 것이다
헤테론한 것들이라면 양자가 같이(ὁμοίως, 243e5,1394) 있지 않을 것이기 때
문이다 라고말한다

²³⁶¹) 읽기 편할 것 같아 ἐν을 말 그대로 안에 라고 옮기지 않고
안을 빼 그냥 에 라고 옮겼으나 옮겨 놓고 보니 뜨끔하다 안 이라는 말을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이다(1462 쪽 각주 2351 번)

움직임 과 멈춤이 있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우리는) 있는 것을 진실로 세번째²³⁶²어떤 것이다 라고 선언하려 하지요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있는 것은 움직임 과 멈춤에]** 함께하는 양자적인 것이(συναμφότερον, 250c3)아니라 이것들과는 실로 헤태론한 어떤 것일세 : 엘레아 낫선이

[그럴 것] 처럼 여겨집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러므로 자신의 자연에 따라서 있는 것은 쉬어왔던(ἔστηκεν, 250c6)것도 (지금)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라네²³⁶³: 엘레아 낫선이

²³⁶²) 있는 것을 두 가지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 둘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πότερον, 243e2, 1394) 세 번째 것인가 라고 물어 본 후 엘레아 낫선은 둘 양자가 헤태론하다면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답했음에 유의하라 다시 말해,

그 양자에 걸리는 것이 있음(τὸ εἶναι, 243e2)이고 걸리는 있음 각각이 헤태론하다면 둘은 같이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만 답했지 있음을 세 번째 그것 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물론 둘을 뺀 모든 것이 셋인가 라고 다시 물어 보기는 했어도 말이다

²³⁶³) **있는 것은 움직여져왔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249d3-4(1454)에서 이미 쓰여졌다 (1470 그림참조) 거기에서 나는 때 와 태(態) 와 긍정과부정에 있어 움직임이 다르게 **있다**고 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쉬어왔음은 미완료능동태인 반면 움직여짐은 현재수동태이므로 있는 것은 지나간 어느 한 때에 쉬었던 것도 주욱

쉬어왔던 것도 아니며 (지금)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다 라고 여기에 나는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기 와 여기를 이어보면 있는 것은 어느 한 때 뿐 아니라 주옥 쉬지 않고 움직여져 왔었던(κεκεινημέν, 249d3, 1454) 것이나 (지금은) 움직여지는 것(τὸ κινεῖται 250c6)도 아니요 움직이는것(ἀκίνητα 249 d3)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다 지나간 때와 구분하기 위해 썼으나 오히려 빼는 것이 더 나올성실기도하기 때문이다 만약 빼다면 움직여져 왔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또한 쉬어오고 '있지' 않았으면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읽어질 것이다 가만, 이렇게 읽어도 결국은 같질 않은가.....아닐 것이다.....그 말들 가운데 이미 지나간 때와 구분되는 움직여지거나 움직이는 그 어떠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 과 지나간 때 이외의 '잇점'이라는 것은 달라도 많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휴우.....

쉬어왔음(ἔστηκεν, 250c6) 과 움직여져왔었음(κεκεινημέν, 249d3, 1454)은 지나간 때를 둘 다 가리키긴 하나 각각 가리키는 때의 폭이 다르다 쉬어왔음·쉬어 오고 있었음 이라고 하고 싶으나 있음이라는 말이 들어가므로 그러지 않았다-은 미완료로서 지나간 때부터 지금 이전까지 계속 쉬어오고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움직여져왔었음은 과거완료로서 지금 이전의 과거 어느 한 때에 이미 움직임이 끝났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둘을 지나간 어느 한 때를 단순히 가리키기만하는 부정과거(aorist, 單純不定過去)와 구분하지 않고 쉬었다 또는 움직였다 라고 그냥 읊기면 물론 지나간 때를 가리키긴하나 지나간

거의 (그렇습니다): 테아이테토스

나아가서 이 (있는) 것에 관해 자기 스스로 확신하려는 자는 반드시
어디로(πῶς 250c1) 자신의 디아노이아를 돌려야만 할까: 엘레아 낫선이

어디로? : 테아이테토스

한편으로 어디 하나 쉽지 않을 것 처럼 (나에게) 보여지네 만약 어떤
것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쉬어왔지 않을 [수 있을]까 또는 만약
쉬어왔지(ἔστὸς 250d5) 았았다면 어떻게 움직여지지 않을 [수 있을]까²³⁶⁴ [물음이
일어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은 이 양자의 밖에서(ἐκτὸς 250d2)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일세 이것은 가능할까 : 엘레아 낫선이

불 가능한 모든²³⁶⁵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불 가능한) 것입니다:
테아이테토스

때의 폭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렇게 썩 좋은 옮김이라고 보기 힘들다
물론 **있는** 것은 지나간 어느 한 때에도 쉬지않고 움직였긴해도 말이다

²³⁶⁴) 따라서 움직여지지않음 과 쉬어왔음은
양자택일(兩者擇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있을까 움직여지지않으면
반드시 쉬어왔어야하고 쉬어왔지 않으면 반드시 움직여지지 않아야한다
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움직여짐 과 움직임은 어떠한 것인가 이 둘은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닌가 글썬,,,,,, 언뜻 보기에는 움직여지지않으면
반드시 움직여야할 것 같은데,,,,,,

²³⁶⁵) 모든(πάντων, 250d4) 이라는 말을 붙히는 걸 보면 있는
것은 이 양자 이외로는 나타날 수 없다는 그러한 불 가능성이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가 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의 경우에 올바르게 기억해내야 할 것이

[있다네]: 엘레아 낯선이

어떠한 것?: 테아이테토스

있지 않는 것의 이름이 어느 때든 놓여져야²³⁶⁶ 할 것이 물여졌을
경우에 모든 어려움이 함께 달려 나왔던(συνεσχόμεθα, 250d8)걸 기억해 내겠는가:
엘레아 낯선이

어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있는** 것과 관련해서 확실히 [있지 않는 것의
어려움] 보다 더 작은 어려움에 있는가: 엘레아 낯선이

오오! 낯선이여 저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²³⁶⁷: 테아이테토스

²³⁶⁶) 에 불히다 라고 옮겨진 거기 237c1(1361)에 나오는 ἐπιφέρειν이 놓이다 라고 옮겨진 여기 250d7-8 에 ἐφ'.....φέρειν로 나타난다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에 감히 연결(240c1,1397)하려한다는 맥락에서 말이다 거기에 따르면,

있지 않는 것의 이름이 놓일(불혀질) 것? 이라는 물음으로부터 1) 침묵도 일 종의 말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어려움(1362) 2) 있지 않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입도 병긋 말아야한다는 어려움(1362) 3) 있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발설될 수도 없으며 두루 생각 될 수도 없고 비언어적이며 비로고스적이다 라는 어려움(1373) 등의 어려움이 줄줄이 나타난다

²³⁶⁷)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주 어렵지만 그 보다 더 힘들다 라는 맥락에서 나는 "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보다 더 쉬운(εὐπωρότερον, 246a1, 1404) 것이 아니다 " 라는 로고스를 해석했다

쉬어왔지(έστος 250e5) 앉았다면 어떻게 움직여지지 않을[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일어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은 이 양자의 밖에
서(έκτός 250d2) 우리에게 밝혀진다는 이것이 가능할까 [라는 물음이
일어나기] 때문일세 : 엘레아 낯선이

불 가능한 모든²³⁶⁴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불 가능한] 것입니
다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의 경우에 올바르게 기억해내야 할 것이
[있다네] : 엘레아 낯선이

어떠한 것? : 테아이테토스

있지 않는 것의 이름이 어느 때든 놓여져야²³⁶⁵ 할 것이 물어
졌을 경우에 모든 어려움이 함께 달려 나왔던(συνερχόμεθα 250d8) 걸

2364) 모든(πάντων 250d4) 이라는 말을 붙히는 것을 보니 **있는** 것은 맨 먼
저 움직임 과 쉽 이 양자 와 각각을 떠나서는 밝혀질(ἀναπέφανται 250d3)수
없다는 로고스가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가 보다

2365) ‘ 에 붙히다 ’ 라고 옮긴 ἐποφέρειν (237c1, 1361)이 바로 여기
250d7-8에 ἐφ’ φέρειν(놓이다)로 쓰였다(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에 감
히 연결하려 한다 라고 쓰여지는 곳 240c1, 1379을 참조)

거기 237c1(1361)에 따르면 있지 않는 것 이라는 이름이 놓일(붙혀질)
곳이 어디냐는 어려운 물음으로부터 1) 침묵도 일종의 말 이라는 것이 인
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어려움(1362) 2) 있지 않다 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입
도 병긋 말아야하는 어려움(1362) 3) 있지 않는 것 그 자체는 발설 될 수
없다는 어려움(1373) 4) 있지 않는 것 그 자체는 두루 생각될 수도 없다는
어려움(1374) 5) 있지 않는 것 그 자체는 非언어적이라는 어려움(1374) 6)
있지 않는 것 자체는 非로고스적이라는 등의 어려움(1374)들이 줄줄이 달려
나온다(1357-1378)

기억해 내겠는가 : 엘레아 낫선이

어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있는** 것과 관련해서 확실히 [있지 않는 것의 어려움] 보다 더 작은 어려움에 있는가 : 엘레아 낫선이

오오! 낫선이여 더 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저에게는 나타납니다²³⁶⁶)라고 할 수만 있다면 말하렵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여기 이것을 우리 그 어려움으로 놓거나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것**은 똑 같이(ἐξ ἴσου 250e6)어려우므로²³⁶⁷) 이것들 가운데 헤태론한 것이 불 분명하게든 선명하게든 나타나는 그 만큼 그렇게 헤태론한 것도 나타내질 것이라는 그리고 다시 헤태론한 어떤 것을 알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동시에 양자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한 어떻게든 규정되는 로고스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지금 [생기네] : 엘레아 낫선이

아름답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어느 때 어떤 길에서 여러 이름에게(πολλοῖς ὀνόμασι 251a5) 동일한 이것을 각각 어느 한 때에 (우리가) 갖다 놓는²³⁶⁸)지를 있는

2366) 있지 않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물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주 어렵지만 더 힘들다 라는 맥락에서 나는 ‘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보다 더 쉬운(εὐπορώτερον, 246a1, 1404) 것이 아니다 ’ 라는 레아마를 해석했다(1405-1408)

2367)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똑 같다 라는 말이지 어려운 정도가 똑 같다는 말은 아닐 것이고 나아가서,

헤태론한 하나는 헤태론 것 하나가 아니(μὴ 250e6)라는 점에서 이 둘은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어서 하나가 밝혀지면 이와 더불어 다른 하나도 그렇게(οὕτως 250e8) 밝혀질 것이다 그렇다면 희망은 있다

그대로 우리 말해 보세나 : 엘레아 낫선이

예를들어 무슨? (본) 보기를 들어 말해 보세요 : 테아이테토스

(우리들이) 사람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사람에게 색들과 모습들과 크기 와 악(덕)들과 덕들을 덧붙이는데 [이러한] 모든 [경우] 와 무수한 해태론한 경우에 우리는 단지 사람 그것만이 **있다** (εἶναι 251b1)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함 과 해태론한 무한한 것도 **있다** (라고 말한다네) 그리고 알론한 것들도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 그렇게 각기 것 *하나*를 (우리는) 취해 다시 그(하나)를 *여럿*이라고 (하면서) 여러 *이름*에게 (갖다 놓는다네) : 엘레아 낫선이

(당신은) 진실을 말하십니다 : 테아이테토스

이런 길로 (나는) 즐겨 젊은 이들에게 그리고 뒤 늦게 배우게

2368) 동일한 것이 하나의 이름 뿐 아니라 여러 이름으로도 불리워 진다는 것은 량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을 하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있는 동일한 것 하나에 이름 두 개가 걸리지는(προσχρόμενοι, 244c1, 1396, 각주2259번) 못할 것이다 라고 쓰여지는 곳에서 엘레아 낫선에 의해 전제된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 이외의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는 자는 결코 *이름* 두 개가 있다 라고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있는** 것을 단지 *하나*로만 보는 자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여기에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 와 닿는다 엘레아 낫선은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καθ'ὄντινά 251a5)말하자면 동일한 것에 여러 이름이 각기 어느 한 때에(ἐκάστοτε 251a6)놓여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난 뒤 이러한 전제에 대해 말해 보자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는 동일한 것은 여러 이름으로 그 때 그 때 불리워진다는 로고스로부터 엘레아 낫선은 자신의 로고스를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로고스를 근거로 해서 있는 것을 단지 하나로만 보는 자들에게서 그가 멀어진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된 늙은 이들에게 향연을 베푸다네 대신에 곧 바로 [그들] 모든 자에게 여럿은 하나 일(εἷνα 251b8)수 없고 하나는 여럿 일 수 없다는 것이(ὡς b7)받아드려져서²³⁶⁹) 사람이 착한(ἀγαθόν b8)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착한 것이 착하고 다른 한 편으로 사람(인 것)이 사람이라고 말해야 한다 [는 것에 그들은] 환호할 것이기 때문이네 오오! 테아이테토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이렇게 열광했던 자들과 여러 번 마주쳤네 [이들 가운데는] 빈약한 분별력(φρόνησιν 251c4)을 소유한 덕분에 그러한 것들에 놀라워서 그것을 자신들이 발견한 어떤 모든 지혜로 여기는 일 군의 사람들이²³⁷⁰) [있네] : 엘레아 낫선이

2369) 그런데,

소피스테이스 편의 엘레아 낫선은 있는 것을 하나라고도 여럿이라고도 여럿이며하나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단지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지나는 어려움들 만을 끄집어 내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라고만 할 뿐이다(1394-1421)따라서 그는 이러한 세 가지 것 중 어느 하나를 분명하게 거부하거나 받아드리지 않으며 심지어 어느 하나에 조그만 호의를 보이지도 않는다 엘레아 낫선이가 이럴진데 심지어 플라톤일까 보냐 나아가서,

엘레아 낫선은 여기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를 여럿이라고도 여럿이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단지 그렇게 말하려면 어려움을 감내해야한다 라고 말할 뿐이다

2370) H. N. Fowler(393)에 따르면 이들은 동일한 속성(identical predicatio)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들로서 안티스테페네스 유티데모스 디오닉소도로스 등이다 그에 따르면 나이들어 배움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뒤 두 사람이다

물론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실체**에 관해(περι οὐσίας 251d1)한 번이라도 무엇이든 논의했던 모든 자들 각각에 우리[의] 로고스를 관련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자들에게²³⁷¹⁾ 지금 우리[의] 물음대로(ὡς ἐν ἐρωτήσει d3)논의해 보기로 하세 : 엘레아 낫선이

어떠한 것들? : 테아이테토스

실체를 움직임 과 멈춤에 덧붙이지(προσάπτωμεν 251d5-6)도 알론한 것을 알론한 것에 어떤 하나를 어떤 하나에 (덧 붙히지)도 말아 (서로) 섞이지 않고(ἀμικτα d6)있는 것들로 그리고 서로 받아드려질 수 없는 것들로 그렇게 그것들을 우리 로고스들과 나란히 그들의 로고스들에서 취하여야 하는가 아니면(ἢ d8)자신들 모두끼리 서로 교통하는(ἐπικοινωνεῖν²³⁷²⁾ d9)가 또는(ἢ d9)[모두가 아니라] 어떤 것들끼리는 (교통하지만) 어떤 것들끼리는 (교통하지)않는가 오 테아이테

2371) 이들은 하나는 여럿일 수 없고 여럿은 하나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자들인 반면 앞서 논의된 자들은 실체를 몸 또는 에이도스라고 말하는 자들 이라면 지금의 로고스는 **있는** 것을 **량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자들 과 **있는** 것의 **질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의 **실체**’를 말하는 자들 모두에게 관련(πρὸς 251d1, 2)될 것이다

2372) **에이도스**를 진짜 **실체**로 여기는 자들은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실체와 관계하는 **영혼**과 **교통**한다 라고 말한다 라고 쓰여졌으나(248a10-11, 1447)이제 여기서는 움직임 과 멈춤 과 실체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진다 라고 쓰여진다 다시 말해 거기에서는 ‘우리’와 영혼 또는 영혼과 실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통**이 묻어지는 반면 여기에서는 커다란 세 가지 류 곧 (있는 것 의) 실체 와 움직임 과 멈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통**이 묻어진다(1343도 참조하라)

토스여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그(실체 와 움직임 과 멈춤)에
관련해서] 선택되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말해야 할까? : 엘레아 낫선이

저는 이(물음들)쪽에서(ὅτι 251e2)그(실체 와 움직임 과 멈
춤)것들에[관련해] 답하지 못하겠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각기 하나[의 물음에] 답할 경우에 무엇이 잇따를 것
인가를 조사해야하지 않겠는가? : 엘레아 낫선이

당신은 매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테아이테토스

어떤 것도 어떤 것과 교통할 어떤 힘(δύναμις 251e8)도 지나지
않는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 자네가) 바란다면 상정해 보세
나 그렇다면 움직임 과 멈춤 어떤 것도 실체를 나누어 갖지 못하지
않겠는가 : 엘레아 낫선이

못하기 때문이지요 :테아이테토스

무엇이? 이(두 가지)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실체²³⁷³와 교통할
것인가? : 엘레아 낫선이

못할 것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동일한 것을 인정함에 의해서 모든 것은 움직임(계하)
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로서 멈춘 것이라는 것 그리
고 종적으로(κατ'εἶδον 252a7)동일하게 한결같이 있는 것들이 항상 있
다 라고 말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이 재빨리 뒤집어 엎어질 것 처럼 보
이네 [이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한 편으로 있는 것으로(ὅντως αθ) 움
직여진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어떤 이들은 있는 것으로 멈

2373) 있는 것(ὄν)이 아니라 실체(οὐσία)가 이러한 맥락에서 꾸준히 쓰인다
는 점에 유의하라 만약 실체를 있는 것과 구분하지 않았다면 있는 것을 쓰
지 무엇 때문에 실체를 썼겠는가 라는 의구심(疑懼心)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체가 있는 것과 구분된다면 어떻게 구분되는가 라고 물어 보면
서 이 맥락을 따라가 보아야 할 것이다

추어 있다(εἶναι 252a10)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그런 것들 모두에 **있음**(τὸ εἶναι a9)을 덧 붙이기 때문이네²³⁷⁴) : 엘레아 낫선이

정확하게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무한한(ἄπειρα 252b2)(요소) 하나로부터 그리고 하나에 모든 유한한 요소(στοιχεῖα b3)에 모든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러한(요소들)로부터 합쳐지는 이것이 한 편으로 부분적으로 되어져도 같고(ὁμοειώς b4)다른 한 편으로 항상(되어져도) 같게 모든 것을 어느 한 때 합쳐지게하는 반면 어느 한 때 나누어지게하는 자들[의 경우에도] 어느 하나 **섞여지지**(σύνμειξις 252b6)않는다면 그(것)들 모두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네 : 엘레아 낫선이

옳게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나아가서 **헤태론한** 어떤 것도 **헤태론한 것의 속성과**(παθήματος 252b9)의 통합에 의해서[는 결코 자신의] 이름을 얻지(προσαγορεύειν b10) 못한다고 하는 자들[의] 로고스는 모든(로고스)들 가운데 가장 우스꽝스럽게 될 것이네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 테아이테토스

있음 과 **분리**(χωσις, 252c3, 分離) 와 **알론한 것들의 와** [그] **자** **채르**(καθ' αὐτό²³⁷⁵) c4) 와 **헤아릴 수 없는 헤태론한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에 관해 어떻게든 다그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는데 무력할 것이며 로고스들로(그것들을) 묶지 못해 알론한 자들을 반드시 반박하지 못할 것이나 그 적(πολέμιον, 252c7, 敵) 과 미래의 반대자는 안 방에서 속삭여 말하는 듯 불합리한(ἄτοπον c8) 유클리데아²³⁷⁶)처럼 항상 계속(그것들을) 끌어다가 [쓸 것이네] : 엘레

2374) 만약 움직임 과 쉼에 있는 것이 덧 붙여지지 않는다면 움직이는 것도 쉬는 것도 결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375) 텔레스가 자신의 형이상학 델타 편 18 장(1022a14-34, 302-304)에서 그 자체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라

아 낫선이

정확하게 (당신은) 일치된 것(ὁμοῖν 252d1) 과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 테아이테토스

모든 것은 서로 **교통**하는 **힘**을 지닌다 라고 우리가 할 거라면 무슨? : 엘레아 낫선이

이(물음)은 예를들어 심지어 저 조차도 풀 (수 있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어떻게²³⁷⁷⁾? : 엘레아 낫선이

움직임 자체가 모두 모두 멈출 것이며 다시 멈춤 자체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로로 되어진다면 [말]입니다 : 테아이테

2376) 유리클레스는 기원전 5 세기 경에 살았던 달콤하게 말 잘하는 복화술(複話術)자이다(H. N. Fowler, 397) 아

2377) 어떻게 그렇지요 라고 반문하는 자는 여지껏 테아이테토스였으나 여기서 만큼은 엘레아 낫선이다 사실,

플라톤의 모든 대화 편은 짜고 치는 ‘고스뚱’이라고 여겨 질 수도 있을 정도로 말을 나누는 자들이 서로 그렇다고 맞장구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ὡς 252d5)그렇지요? 라고 물어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문제의 어떤 것에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가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의하고 있는 자신이 듣는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라고 묻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테아이테토스가 아니라 엘레아 낫선이가 어째서 그런가? 라고 묻는 것이 특이하다 여지껏 어째서? 왜? 라고 묻는 자는 테아이테토스였으므로 그렇다

묻는 자가 테아이테토스이고 답하는 자가 엘레아 낫선이며 맞장구치는 식의 물음이라면 당연히 엘레아 낫선이의 누우스가 그 대화 편을 이끌어 갈 것이다

토스

그러나 움직임이 멈추어지고 멈춤이(στάσις 252d10) 움직여진다는 이것은 어디서든 필연적으로 가장 크게 불 가능하지? : 엘레아 낮선이

어떻게(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실로 세 번째 것만이 남네 : 엘레아 낮선이

예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모든 것이 (섞여지거)나 어떤 것도 (섞여지지)않거나 한편으로 어떤 것들은 (섞어)질 것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섞여지지(συμμιέγνυσθαι 252e2)않을 것이라는 이것들 가운데 어떤 하나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하네 : 엘레아 낮선이

어떻게 (진실이지) 않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둘²³⁷⁸⁾은 불 가능하는 것이 발견되었네 : 엘레아 낮선이

예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모두 올바르게 답하려 하는 자는 나머지 셋을 집어들어야 할 결세 : 엘레아 낮선이

정확하십니다 : 테아이테토스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섞어)지지만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섞여지지 않는다는 이것을 (집어들어야 할) 것이므로 예를들어 음소(τὰ γράμματα²³⁷⁹⁾, 253a1, 알파벳, 音素, 字母)와 거의 같을 것이네

2378) 모든 것이 섞여지는다는 것 과 어떤 것도 섞여지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한다

2379) 이 음소 α 와 β가 나오는 맥락을 형이상학 제에타 편 마지막 장인 17장 1041b30-33(536-537)에 나오는 요소 로서의 음소(τὰ στοιχεία, 1041a1 3, 537, 音素) α 와 β가 나오는 맥락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저(알파벳)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어디서든 서로 들어 맞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함께 들어 맞을(συναρμόττει 253a2)것이기 때문이네 : 엘
레아 낫선이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소리를 만드는 것들(τὰ φωνήεντα, 253a4, 모음(母音))은 예들들
어 분리되던 모든 것을 끈(δεσμὸς a5)이 두루 (묶어 놓)듯이 알론한
것들을 두루 묶어놓는(διαφερόντως a4)다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없이는 알론한 것들의 헤테론한 것이 헤테론한 것과 들어 맞을 수 없

거기에 따르면 예들들어 음절 βα(바)를 이루는 요소인 알파 와 베타
등의 음소(音素)는 모든 것을 이루는 요소로 빗대어 간주될 수는 있으나 이
러한 요소는 실체가 아니다 비록 **합쳐지는**(σύνθετον 1041b11) 순간 이미 β
와 α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들이 아니다 비록 단순히 모아진 자신들 보다
더한 무엇(음절-음절은 더 이상 단순한 음소가 합쳐진 덩어리가 아니다)이
긴해도 말이다 바로 더한 무엇이게 끄 만드는 그것이 그 제에타 편에서 더
듬어 오고 ‘있었’던 질료와 분리된 그리고 그 **요소**(음소)와는 헤테론한 **실체**
이다 반면에,

여기에 따르면 모든 것이 섞어지는 것도 어떤 것도 섞여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 어떤 것은 섞여지나 어떤 것은 섞여지지 않는다 음소(τὰ γράμμα
τα, 253a1, 音素, 字母)가운데 어떤 것을 들어 맞지(συναρμόττει 253a2)만
어떤 것은 들어맞지 않는 것 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여기도 거기와 같이 음소가 모든 것의 **요소**(στοιχεία, 252b3, 1483)로
빗대어지며 거기처럼 여기도 실체가 말하여지는 가운데 그 요소가 문제삼아
진다 그러나 요소는 **실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여지는 거기와는 달리 여
기에서는 이러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실체가 다루어지는 것 같다 비록 요소
들을 묶어주는 요소 로서의 실체이긴 해도 말이다

네 : 엘레아 낫선이

그리고 더욱 더 : 테아이테토스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과 *교통*할 수 (있는)지를 모두 아는 (자)는 또는 이것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기교**(τένης 253a9)[또한 필요하겠지]? : 엘레아 낫선이

기교[가 필요하지요] : 테아이테토스

어떠한 (기교일)까? : 엘레아 낫선이

글자 맞추는 기교(τής γραμματικής, 253a12, 문법(文法))(입니
다) : 테아이테토스

무엇이? 높고 낮은 음정(φθόγγους 253b1)들에 관해서도 따라서 그와 같지 않겠나 한 편으로 [음정들을] 서로 섞여지게 하는 그리고 (섞여지지)않게 하는 기교를 인식하는 자는 음악가이며 다른 한 편으로 이해하지(συνείς b3) 못하면 음악적이지 못하다네 : 엘레아 낫선이

그렇습죠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우리는) 알론한 *기교* 과 *非기교*에 따른(κατὰ 253b5) 그와 동일한 *헤테론함*(ἕτερα, b6, 차이)를 발견하네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그런데²³⁸⁰ 무엇이? 류들은(τὰ γένη 253b8)동일한 섞어짐(μειξέως b9)에 따라서 서로에 대해 [있으]므로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과 서로 어울리며(συμφωνεῖ 253b11)어울리지않는가를 그리고 모든 (류)들을 통해 만약 어떤 동일한 것으로 남아(συνέχοντ

2380) 여기부터는 있음은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 편에서 하나의 구분되는 에이도스(종) 또는 류(게노스)라는 로고스를 펼치는 1340-1347에 이미 옮겨졌다

253c1)있어 [류들을 서로]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다시 나
닐 [경우]에 만약 전체(류)를 통해 나뉘는 헤테론한 원인인 것을 로
고스들을 통해 올바르게 취하는 어떠한 **앎**(ἐπιστήμη²³⁸¹) 253b9)
반드시 있어야하지 않겠소? : 엘레아 낫선이

앎 그것도(kai 253c4)아마 가장 큰 (앎)이 어찌 반드시 [있어]
야 하지 않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이제 오 테아이테토스여 우리는 그러한 것(앎)을 무
엇이라고 불러야할까요? 또는 자유로운 자들에 속하는 앎으로 우리들
이 제우스에 의해서(πρὸς 253c7) 우리도 모르게 빨려들어가 소피스테
에스를 우리가 위험무릅쓰고 조사하는가운데 먼저 **철학자**를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당신은 말씀하시는겁니까? : 테아이테토스

동일한 **중**(εἶδος 253d1)을 헤테론한 (중)으로 이끌지않고 있는
(ὅν 253d1)헤테론한 것을 (있는) 동일한 것(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
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변증적인** **앎**(αἴτις διαλεκτικής ἐπισ
τήμη^{d1-2})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엘레아낫선이

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각각 하나는 **분리**해 놓인 [그] 여럿 모두에 두루 퍼
진 하나 **이데아**(ιδεαν 253d5)그리고 하나(이데아)에 의해 밖으로부터
둘러쌓인 서로에 헤테론한 여럿(이데아들) 그리고 다시 여럿의 전체
들을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ἐν ἐνὶ συνημμένῃν 253d8-9)하나 (이데아)
그리고 전적으로 분리되 버린(διωρισμένος 253e1)여럿 (이데아) 이것
을 선명하게 인지(διαισθάνεται, 253d7, 認知)할 수 있는 자. 이것은
각자(이데아)가 어떤 길로(ὅπῃ 253e1) **교류**(κοινωνεῖν, e1, 交通, 交際)
할 수 있는지를 류적으로 분간하여 아는 것입니다 : 엘레아 낫선이

전적으로 [그러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2381) 어느 덧 화제가 **섞어짐** **기교** **앎**으로 옮겨지는 것에 유의하라

그러나 깨끗하고 올바른 철학가를 제외한 알론한 자에게 **변증술**(τὸ διαλεκτικὸν 253e4)을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허용해서는 않됩니다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알론한 어떤 자에게 허용하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이러한 어떤 자리에서 지금 그리고 후에 만약 우리가 조사한다면 우리는 철학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철학가를) 선명하게 본다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χαλεπὸν 253e9) 그러나 소피스테아스를(선명하게 보기) 힘들과는 헤태론한 길에서 그(철학가)를 (선명하게 보기) 힘듭니다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 테아이테토스

한편으로 있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어두움(τὴν σκοτεινότητα 254a4-5)으로 숨어들어 거기에 들러 붙어 일삼는 자(소피스테아스)(있지 않는) 그것의 어두움 때문에 아주 생각하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 엘레아낫선이

그렇듯 처럼 보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다른 한 편으로 논리들(λογισμῶν, 254a8, 理性)통해서 항상 있는 것의 **이데아**에 몰두하는 철학자도 그 자리의 밝음 때문에 결코 보기 쉽지 않지요 여럿의 영혼의 눈들은 신을 바라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엘레아 낫선이

마찬 가지로 이것도 저것 보다 덜 그럴 것 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이제 이후로 우리들은 만약 우리들이 계속하여 그러하려한다면 그(철학자)에 관한 보다 더 예리한 조사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피스테아스에 관해서도 우리들이 그(철학자)에 관한 만족스런 견해를 지니기 전 까지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엘레아 낫선이

아름답게 말씀하셨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κοινωνεῖν 254b8)하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교통하려 하지) 않으며 그리고 (류들 가운

데) 어떤 것들은 몇되지 않는 것들(ὀλίγων 254b8)과 (교통하)지만 어떤 것들은 여러(류들)과 (교통하고) 또 어떤 것들에는 [자신들이] 모든 것에 두루 [거쳐] 모든 것과 교통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결코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했으므로 여럿의 [경우]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에이도스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주 크다 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을 뽑아내어 먼저 [가장 큰 것들] 각각은 어떠한 것들(ποία 254c4)이며 그 다음으로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로고스를 펼쳐나가 봅시다 그리하여 비록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선명하게 숙고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조사하는 길이 허용하는한 그(있는 것 과 있지 않는)것에 관한 만족스런 로고스를 최소한 우리들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ὡς ἔστιν ὄντως μὴ ὄν 254d1)어떻게든 **있지 않는** 것을 상처없이(ἀθρόους d1)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될 것입니다 : 엘레아 낫선이

그래야 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류들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있는** 것 그 자체 와 **쉽** 과 **움직임**이 가장 큰 것(류)들(μέγιστα 254d4)이지요 : 엘레아 낫선이

물론입니다 : 테아이테토스(249e2-254d6) ”

리는 인용글월에서는
 몸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 와 진짜 **실체**를 에이도스라고 말하는 자 모두에게 동의 될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 곧 *하고* *겪는* 힘 으로서 **있는** (것, 1434)은 *움직여져* *왔었으나*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것, 1454)이며 *쉬어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라는(1473) 로고스 자체가 지니는 어려움이 해소(解消)하려한다 이 어려움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소하려 하는지를 요약하기 전에 다시 옮겨 보자

그렇지만 축복해 주게나 오오 테아이테토스여 그 있는 것의 탐색의 어려움에 관해 인식되는 것 처럼 나에게는 여겨지네 그러 - 어떻게 그리고 무슨 어려움? 다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오오 친애하는 테아이테토스여 우리가 (있는 것에 관해) 말한 어떤 것들이 선명해지긴해도 지금 우리는 있는 것에 관한 총체적인 **물 인식**에 빠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어쨌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어떻게 그러한 물 인식에 빠졌는지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만약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동의한다면 모든 것은 **차가움** 과 **따스함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때 물었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길로 공정하게 묻는 지를 보다 선명하게 숙고해 보세나 - 어떠한? 저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 물론 저들에게 그 때 물어 봤던 것과 같은 이것을 자네에게 물어보려 하네 동시에 더 나아간 어떤 것을 위해서 [말일세] - 옹습니다 - 자!

움직임 과 **멈춤**은 서로에 가장 **반대**되는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²³⁸²-어찌 말하지 않으리오 - 그리고 양자 그것 과 각각은 **같이 있다**

2382) 가장 반대된다(έναντιώτατα 250a8)라고 말하여질 수 있기에 있는 것에 관한 우리의 지금 로고스는 어렵다 하고 겪는 힘 으로서의 있는 것은 움직여져 왔었지만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의 로고스는 선언하고 있으며 움직임 과 움직이지 않음(멈춤)은 서로에 반대되는 것들이고 반대되는 것들을 어떤 로고스가 말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있는 것 또는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렵다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든 **있다** 라는 로고스는 **반대(모순)**들이 연이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자네는 말하려는가 - 말하렵니다 - 따라서 같이 **있다** 라고 동의할 때 마다 양자 와 각각은 **움직여진다** 라고 말하는가 -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것들이 **멈춘다** 라고 말함에 의해서 양자는 **있다**는 것을 자네는 가리키는가 - 어떻게? (가리키겠습니까) - 따라서,

있는 것을 이것들과 나란한 세 번째 것 으로서 **영혼**에 놓겠는가 저 세 번째 것에 의해 **멈춤** 과 **움직임**이 둘러쌓이는 것으로서 (말일세) 이 있는 것과 관련지어 실체와의 교통을 포착하고 관찰하면서 그렇게 양자가 **있다**라고 자네는 이야기하려 하는가 - 움직임 과 멈춤이 **있다** 라고 할 때 마다 우리는 있는 것을 진실로 세 번째 어떤 것이다 라고 선언하려 하지요 - 따라서 **있는** 것은 **움직임** 과 **멈춤**에 함께하는 양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들과는 실로 해태론한 어떤 것일세 - 그럴 걸 처럼 여겨집니다 - 그러므로,

있는 것은 자신의 자연에 따라서 쉬어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라네 - 거의 - 나아가서,

있는 것에 관해 자기 스스로 확신하려는 자는 어디로 자신의 디아노이아를 돌려야만 할까 - 어디로? - 한 편으로 어디하나 쉽지 않을 것 처럼 나에게 여겨지네 만약 어떤 것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쉬지 않을 수 있을까 또는 만약 **쉬워왔지** 않다면 어떻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라는 물음이 일어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은 이 양자의 밖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물음이 일어나기 때문일세²³⁸³)-불 가능한 모든

(1365각주2213번, 1452각주2341번(99쪽))

2383) 있는 것은 쉬어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지만 **멈춤** 과 **움직임** 이 양자와 관련 없이는 있을 수 없으며 게다가 쉬지 않으면 반드시 움직여야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움**

것 중에서도 가장 불 가능하지요 -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의 경우에 올바르게 기억해 내야 할 것이 있네 - 어떠한 것? - **있지 않는** 것의 *이름*이 어느 때든 놓여져야 할 것이 물어졌을 경우에 모든 어려움이 함께 떨어져 나왔던 걸 기억해 내겠는가 - 어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있는 것과 관련해서 확실히 (있지 않는 것의) 어려움 보다 더 작은 어려움에 있는가 - 오오! 낯선이여 더 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저에게 나타납니다 라고 할 수만 있다면 말하렵니다 - 그렇다면,

여기 이것을 우리 그 어려움으로 놓거나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똑 같이 어려우므로 이것들 가운데 헤테론한 것이 불 분명하게든 선명하게든 나타나는 그 만큼 그렇게 헤테론한 것도 나타내질 것이라는 그리고 다시 헤테론한 어떤 것을 알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동시에 양자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한 어떻게든 규정되는 로고스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지금 생기네 - 아름답습니다 -

어느 때 어떤 길에서 여러 *이름*에게 동일한 이것을 각각 어느 한 때에 우리가 갖다 놓는 지를 있는 그대로 말해 보세나 - 예를들어 무슨? 본 보기를 들어 말해 보세요 - 우리들이 사람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사람에게 색들 과 모습들 과 크기 와 악덕 과 덕들을 붙히는데 이러한 모든 경우 무수한 헤테론한 경우에 우리는 단지 사람 그것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함 과 무한히 헤테론한 것도 **있다** 라고 말한다네 그리고 알려진 것들도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그렇게 각기 것 하나를 취해 다시 그 *하나*를 *여럿*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러 *이름*에게 갖다 놓는다네 -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

직업과만 또는 삶과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자에 모두 연관된다는 것에 유의하라

이런 길로 나는 즐겨 젊은 이에게 그리고 뒤 늦게 배우게 된 늙은 이에게 향연을 베풀다네 대신에 곧 바로 그들 모든 자에게 여럿은 하나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사람이 착한 것이 아니라 착한 것이 착한 반면 사람이란 것이 사람이라고 그들은 환호하며 말할 것이기 때문이네 오오! 테아이테토스여 내가 보기에 자네는 이렇게 열광했던 자들과 여러 번 마주쳤네 이들 가운데는 빈약한 분별력을 소유한 덕분에 그러한 것들에 놀라워해서 그것을 자신들이 발견한 지혜의 어떤 모든 것으로 여기는 일 군의 사람들이 있네 - 물론 - 그렇다면,

마찬 가지로 실체에 관해 한 번이라도 논의했던 모든 자들 각각에 우리의 로고스를 관련시키기위해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자들에게 지금 우리의 물음대로 논의해 보기로 하세 - 어떠한 것들? -

실체를 움직임과 멈춤에 덧붙이지도 알론한 것을 알론한 것에 어떤 하나를 어떤 하나에 덧붙이지도 말아 서로 섞이지 않은 채 있는 것들로 그리고 서로 받아들여 질 수 없는 것들로 그렇게 그것들을 우리 로고스들과 나란히 그들의 로고스들에서 취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들 모두 끼리 서로 **교통**하는가 또는 어떤 것들 끼리는 교통하지만 어떤 것들 끼리는 교통하지 않은가 오 테아이테토스여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그 실체와 움직임과 멈춤에 관련해서 선택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해야 할까 - 저는 이것들과 관련된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각기 하나의 물음에 무슨 답이 잇따르는 지를 조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 당신은 매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것과 교통할 어떤 **힘**도 지니지 않는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자네가 바란다면 우리 상정해 보세나 그렇다면 움직임과 멈춤 어떤 것도 실체를 나누어 갖지 못하지 않겠는가 - 못하지요 -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실체와 무슨 교통을 할까? - 못할 것입니다 - 이와 동일한 것을 인정함에 의해서 모든 것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

은 하나로서 멈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종적으로 동일하게 한결같이 있는 것들이 항상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이 재 빨리 뒤집어 엎어질 것처럼 보이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있는 것은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반면에 어떤 이는 있는 것은 멈추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모두 그런 것들에 **있음**을 덧 붙이기 때문일세 - 정확하게 - 그리고,

무한한 요소 하나에서 하나로 또는 유한한 요소로 나뉘어지고 [나뉘어진] 이것들로부터 합쳐지는 것이 [똑] 같이 부분적으로 되어지든 [똑] 같이 항상 되어지든 모든 것을 어느 한 때는 합쳐지게 하고 어느 한 때는 나누어지게 하는 자들의 경우에도 만약 어느 하나도 *섞여지지* 않는다면 그(것)들 모두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셈이 될 것이네 - 옳게 - 그렇다면,

나아가서 해태론한 어떤 것도 해태론한 것의 속성과 *교통함*에 의해서 는 결코 자신의 이름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의 로고스는 모든 로고스들 가운데 가장 우스꽝스러운 로고스들이 될 것이네 - 어떻게? - 있음 과 분리 와 알론한 것들의 와 그 자체로 와 헤아릴 수 없는 해태론한 것들이 모든 것에 관해 어떻게든 다그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는 데에 무력할 것이며 로고스들로 그것들을 묶지 못해 알론한 자들을 필연적으로 반박하지 못할 것이나 그 적 과 미래의 반대자는 불합리한 유리 클레이테스 처럼 안 방에서 속삭여 말하듯이 항상 그것들을 계속 끌어다가 쓸 것이네 - 정확하게 당신은 상식(ᾠμολν, 252d1, 常識)과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

모든 것은 서로 *교통*하는 **힘**을 지닌다 라고 할 경우에는 무슨? - 이 물음은 예를들어 심지어 저 조차도 풀 수 있습니다 - 어떻게 - 움직임 자체가 모두 모두 *꺼출* 것이며 다시 멈춤 자체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로 *교통*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 그러나 움직임이 멈추어지고 멈춤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어디서든 필연적으로 가장 크게 불 가능하지? - 어떻게 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실로,

세 번째 것만이 남네 - 예 - 그리고,

모든 것이 섞여지거나 어떤 것도 섞여지지 않거나 어떤 것은 섞여질
것이지만 어떤 것들은 섞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것들 가운데 어떤 하나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하네 - 어떻게 진실이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둘은 불
가능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네 - 예 - 따라서,

모두 올바르게 답하려 하는 자는 나머지 셋을 집어들어야 할 걸세 -
정확하십니다 - 어떤 것들은 섞여지지만 어떤 것들은 섞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집어 들어야 하므로 예를들어 음소(τὰ γράμματα, 253a1, 音素, 字母)와
거의 같을 것이네 저 자모 가운데 어떤 것들은 어디서든 서로 들어 맞지 않
지만 어떤 것들은 함께 들어 맞을 것이기 때문이네 - 어떻게 그렇지 않겠
습니까 - 모음들은 예를들어 분리됐던 모든 것을 끈이 두루 묶듯이 알론한
것들을 두루 묶어 놓는다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없이는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과 들어 맞을 수 없네 - 바로 그렇지요 -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과 *교통*할 수 있는지를 모두 아는 자는 또
는 이것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기교**를 필요로하겠지? - 기교 - 어떠한?
- 문법 - 무엇이? 높고 낮은 음정들에 관해서도 따라서 그와 같지 않겠나
음들을 서로 섞여지게 하는 그리고 섞여지지 않게 하는 기교를 인식하는 자
는 음악가인 반면 [이걸] 이해 못하면 음악적이질 못하다네 - 그렇습죠 -
그리고 우리는 알론한 기교 와 非기교에 따른 이와 동일한 헤태론함을 발견
하네 - 어떻게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무엇이? 류들은 동일한 *섞어짐*에 따라서 서로에 대해 '있으'므로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과 서로 어울리며 어울리지 않는가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 만약 어떤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어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다시 나뉠 경우에 만약 전체를 통해 나뉘는 헤태론한 원인인
것을 로고스를 통해 올바르게 취하는 어떠한 **앎**이 반드시 있어야하지 않겠

습니까? - 앎 그것도 아마 가장 큰 앎이 어찌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으리
오? - 그렇다면,

이제 오 테아이테토스여 우리는 그러한 것을 무엇이라 불리야할까요
또는 자유로운 자들에 속하는 앎으로 우리들이 제우스에 의해 우리도 모르
게 빨려들어가 소피스테에스를 우리가 위험무릅쓰고 조사하는 가운데 먼저
철학자를 발견하게되는 걸까요? - 어떻게 당신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동일한 **중**을 헤태론한 것으로 이끌지 않고 있는 헤태론한 것을 동일
한 것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변증적인
앎**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 그렇
다면 각각 하나는 분리해 놓인 그 여럿 모두에 두루 퍼진 하나 이데아 그리
고 하나에 의해 밖으로부터 둘러쌓인 서로에 헤태론한 여럿 그리고 다시 여
럿의 전체들을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 하나 그리고 전적으로 분리되 버린 여
럿 이것을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자 이것은 이데아 각각이 어떤 길로 교
통할 수 있는지를 **류**적으로 분간하여 아는 것입니다 - 전적으로 - 그러나,

깨끗하고 올바른 **철학**가를 제외한 알론한 자에게 변증술을 제가 보기
에는 당신이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 어떻게 알론한 자에게 허용하겠습니
까? -

이러한 어떤 자리에서 지금 그리고 후에 만약 우리가 조사한다면 우
리는 철학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를 선명하게 본다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소피스테에스**를 선명하게 보기 힘들과는 헤태론한 길에서 그를 선명
하게 보기 힘듭니다 - 어떻게? -

한편으로 있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어두움으로 숨어들어 거기에 둘러
붙어 일삼는 자 그것의 어두움 때문에 아주 생각하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 그런 것 처럼 보입니다 - 다른 한 편으로 **논리**들을 통해서 항상 **있는 것**
의 **이데아**에 몰두하는 철학자도 그 자리의 밝음 때문에 결코 보기 쉽지 않

지요 여럿의 영혼의 눈들은 신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것 보다 덜 그럴 것 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 이제,

이후로 우리들은 만약 우리들이 계속하여 그러하려 한다면 철학자에 관한 보다 더 예리한 조사들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피스테아스에 관해서도 우리들이 철학자에 관한 만족스런 견해를 지니기 전 까지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매끈한 말씀입니다 - 따라서,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하려 할 것이지만 어떤 것들은 교통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적은 것들과 교통하지만 어떤 것들은 여럿들과 교통하고 또 어떤 것들에는 자신들이 모든 것에 두루 거쳐 모든 것과 교통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결코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했으므로 여럿의 경우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에이도스**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주 크다 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을 뽑아내어 먼저 각각은 어떠한 것들이며 그 다음으로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로고스를 펼쳐 나가 봅시다 그리하여 비록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선명하게 숙고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조사하는 길이 허용하는 한 그것에 관한 만족스런 로고스를 최소한 우리들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있지 않는** 것을 상처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될 것입니다 - 그래야 합니다 -

류들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있는 것 자체** 와 **쉽** 과 **움직임**이 가장 큰 것들이지요 -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하고 겪는 힘 으로서 **있는** 것은 *움직여져 왔었으나 (지금은)* **움직이**

지 않으며 자신의 자연에 따라 쉬어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1473)가 지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어쨌든,

있는 것은(1455)

힘이라는 것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쉬어왔던 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나,

움직여져 왔었던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움직임 과 쉽에 헤태론한 것이다 따라서,

있음은

움직임도 쉽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므로 움직임도 ‘있지’ 않

으며 쉽도 ‘있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있는 것은

움직임 과 쉽 이 양자에²³⁸⁴ 나타나는(ἀναπέφανται 250d3)

것을 제외하고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가장 큰 류로서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어렵다,

무엇 때문에 어려운 지는 먼저 요약한 다음에 정리해 보기로 하자

있는 것을 [이렇게] 탐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잇따른다

차가움 과 따뜻함 만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 [잇 따르는 어려움]

처럼 말이다 [차가움 과 따스움이 서로에 반대되는 것] 처럼 움직임 과 멈

춤 역시 서로에 가장 반대된다면 그 양자 와 각각에 **같이**(ὁμοίως²³⁸⁵),

2384) 움직임에만 또는 쉽에만은 결코 나타나지 않음에 유의하라

250a11, 1473) **있는** 것은 움직여지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있는 것은 **쉽** 과 **움직임**을 둘러 쌓는 헤태론한 세 번째 것인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것은 **영혼**에 있으며 영혼은 이것을 통해서 **실체**와 **교통**²³⁸⁶)한다 그러므로 **있는** 것은 자신의 자연에 따라서 쉬어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닐(οξεδόν, 250c5, 1473)것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에 관한 확신을 얻으려면 어디를 숙고해야할까 어디 하나 쉽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쉬어 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닌 **있는** 것은 이 양자 외부에서는 결코 (가장 커다란 류 로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며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어떤 것은 될 것이며 쉬어왔지 않았다면 움직여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있지 않는 것의 이름이 놓여져야 할 곳이 묻어지면서 잇 따라 딸려

2385) **같이** 라는 말은 오직 두 가지만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에게 끄집어 내어 보여 줄 때 아주 중요한 말이다 243e1(1394)에 쓰여졌듯이 말이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만약 반대되는 그 두 가지 것에 덧 붙혀진 있음이 헤태론하다면 더 이상 그 둘은 **같이 있지** 못할 것이나 만약 헤태론하지 않다면 더 이상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을 것이므로 오직 반대되는 두 가지만 있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잇따른다 라는 식으로 쓰여지는 반면

여기에서는 만약 가장 크게 반대되는 두 가지 것 움직임 과 쉽이 **같이 있다**면 그 양자 와 각각은 움직여질까 아니면 설까 아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 두 가지 것에 같이 있는 것은 그 둘이 아닌 세 번째 어떠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쓰여진다

2386) 이러한 교통이 인식(τῆς γνώσεως, 248e3, 1450, 1466)이라는 것은 이미 쓰여졌다

나왔던 어려움을 올바르게 기억해 내면서²³⁸⁷ [로고스를 전개해 보자]

우리는 여러 이름을 동일한 것에 각각 어느 한 때에 갖다 놓는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색 모습 크기 악덕 덕 등을 덧붙이면서 말이다 이 경우 사람 자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함 등 해태론한 것들이 무한히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알론한 경우에도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 각기 것 하나를 취해 그 하나에 여러 이름을 갖다 놓는 다는 것은 진실이다 자!

이러한 길로 우리는 여럿은 하나일 수 없고 하나는 여럿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사람이 착한 것이 아니라 착한 것이 착하고 사람인 것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젊은이 와 만학도(晩學徒)에게 배움의 향연을 배준다 이들은 환호하며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자들은 빈약한 분별력을 소유한 덕분에 자신들이 발견한 것에 스스로 놀라워해 발견한 그것을 지혜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일 군의 자들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 물음에 따라 실체에 관한 어떠한 논의를 해 보기로 하자

실체를 움직임 과 삶에 덧붙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것들을 서로 섞이지 않은 그리고 서로 받아드려질 수 없는 것으로 취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들 모두 서로 교통하는 것으로 또는 끼리 끼리 교통하는 것으로 취

2387) 지금은 심지어 그 때 보다 더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약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불 분명하게든 선명하게든 드러난다면 그 만큼 해태론한 것도 드러날 것이기에 해태론한 이들 중의 하나를 알 수는 없더라도 어떻게든 그 양자에 동시에 걸리는 로고스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이름답게(καλώς, 251a4, 1478) 솟네 자!

하여야 하는가 만약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여지면 하나 하나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어떤 것도 서로 교통할 힘을 지니지 않는다면 움직임 과 멈춤은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못해 어느 것도 **실체**와 교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움직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인 모든 것은 된다는 것 그리고 종적으로 동일하게 한결같이 있는 것들이 항상 있다는 것 이 모두 손 쉽게 엮어진다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실로(ὄντως, 252a7, 1482) 모든 것은 움직여진다고 말하는 반면 어떤 것은 실로 모든 것은 된다고 말하면서 모두 있음을 [움직임 과 멈춤 각기] 덧 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한하게든 유한하게든 그리고 부분적으로든 항상 그러하든 요소로 나누었다 합쳤다는 자들의 경우에도 만약 어느 하나 **섞여지지**(σμίμειξις 252b6)않는다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셈이 된다는 것은 옳다 나아가서,

헤태론한 어떤 것도 헤태론한 것의 속성과 교통함에 의해서는 결코 자신의 이/를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자들의 로고스는 가장 우스운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있음 과 분리 와 알론한 것들의 와 그 자체로 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말들을 모든 것에 관해 다그쳐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는데 무력할 것이며 그러한 무한한 것들을 로고스로 묶지 못하므로 알론한 자들을 반박하지 못할 것이나 그 적 과 미래의 반대자들은 항상 계속하여 그러한 낱말들을 끌어다가 쓸 것 또한 정확히 상식이며 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것이 서로 교통하는 힘을 지닌다면 움직임 자체가 모두 모두 멈출 것이며 또 멈춤 자체가 움직여질 것이다 모두가 서로 교통하는 힘을 지녀 서로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움직임이 멈추어지고 멈춤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가장 크게 볼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함께 섞여지지만(σμίμειγνυσθαι 252e2) 어떤 것은 섞여지

지 않는다는 세 번째 것 만이 남는다 앞 선 둘은 불 가능하다는 것이 발견
됐기 때문이다 이제,

어떤 것은 섞여지지만 어떤 것은 섞여지지 않는 것의 보기로 음소(자
음과모음, 音素)를 들 수 있으리라 음소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들어
맞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함께 들어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음은 예를들어
분리됐던 모든 것을 묶는 끈 처럼 알론한 (음소)들을 두루 묶으므로 이러한
것이 없이는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과 결코 들어 맞을
수 없다 [나아가서,]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과 교통할 수 있는 지를 모두 아는 자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교통하게 할 수 있는 기교 또한 지닐 것이다 음소의
경우에는 문법일 것이며 음정의 경우 음정들을 서로 섞여지게하고 섞여지지
않게하는 기교일 것이다 이런 기교를 인식하는 자가 음악가인 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한 자는 음악적이지 못하다

알론한 경우의 기교 와 非기교의 헤태론함도 이와 동일하다 그런데,

동일한 섞어짐에 따라 류들은 서로에 대해 있으므로 어떤 류들이 어
떤 류들이 서로 어울리며 어울리지 않는가를 그리고 모든 류에 동일한 것으
로 남아 류들을 서로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류 와 전체 류를 나누는 나뉘의
헤태론한 것을 로고스를 통해 올바르게 포착하는 바로 앞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그 앞이 반드시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앞은 동일한 에이도스(종)을 헤태론한 것으로 이끌지 않고 헤
태론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에 따라 나누는 그러한 변
증적인 앞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각각 하나는 분리된 여럿 모두에 두루 퍼진 하나 이데아 와 이 하나
에 둘러쌓인 서로 헤태론한 여럿 그리고 여럿의 전체들을 하나로 두루 연결
하는 하나 와 전적으로 분리되 버린 여럿 이것을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자는 각각 (이테아)가 어떤 길로 교통할 수 있는 지를 전적으로 류에 따라
분간하여 안다 그러나,

철학자 중에서도 깨끗하고 올바른 철학가를 제외한 알론한 어떤 자에
게도 결코 변증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맥락을 따라 우리가 계
속해서 조사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철학가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철
학가를 선명하게 알아 본다는 것은 소피스테아스를 선명하게 알아 본다는
것 만큼이나 힘들다 비록 헤대론한 힘들어기는해도 말이다 왜냐하면,

있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어두움에 숨어 들러 붙어 거기서 일하는 자
를 우리는 그것의 어두움 때문에 아주 알아 보기 힘들 것 처럼 보이는 반면
에 논리들을 통해서 항상 있는 것의 이테아에 몰두하는 철학자도 역시 그
자리의 밝음 때문에 여럿의 영혼의 눈들은 신을 바라 보고 있을 수 없어
'우리가' 바라 보기 힘들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하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교통하
지 않으려하며 어떤 것들은 적은 것들과 교통하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여럿
과 교통하려 하고 또 어떤 것들에는 두루 모든 것과 교통하려 한다는 데에
우리는 동의했으므로 여럿의 경우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에이도스들
에 관해서가 아니라 **아주 큰 에이도스들**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을 뽑아
내서 먼저 그것들 각각은 어떠한 것들 인지를 조사한 후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비록 우리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완전히 선명하게 숙고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허용되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최소한 만족스런 로고스를 우리는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그 결과,

진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지 않는 것을 상처없이 자유롭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것들 곧 **있는 것 자체 와 쉽 과 움직임**이 바
로 류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류**이다

량적으로 규정하든 질적으로 규정하든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비록 선명하게 드러 낼 수는 없으나 할 수 있는한 가 까스로 나에 의해 1455쪽 과 1499쪽에 정리된 로고스들이 이제까지 엘레아 낫선이 와 테아이테토스에 의해 말하여진 **있는** 것에 관한 규정들이다 이러한 규정들을 다시 간추리면 하고 꺾는 힘 으로서의 **있는** 것은 ㉠ 움직여 왔 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며 ㉡ 쉬워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다 라는 로고스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고스 역시 어려움을 지닌다 천천히 위 로고스를 뜯어 보라 (지금) 움직이는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님은 분명하나 움직여 왔었으므로 있는 것은 쉬어왔던 것이 아니다²³⁸⁸) 그렇다면 있는 것은 도대체 움직임 과 쉽에 어떻게 관련하는가 관련하는 것은 분명하다 움직임 과 쉽 밖에서는(ἐκ τὸς, 250d2, 1477) 결코 가장 큰 류 로서의 **있는 것** 자체가 나타나지 않으며 더군다나 그러한 움직임 과 쉽은 서로에 가장 크게 반대되기 때문이다 반대 (모순)되는 것 자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²³⁸⁹) 어렵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엘레아 낫선은 차근 차근 꼬집어 내면서 해소(解消)해 간 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있는** 것을 량적인 측면에서 차가움 과 따스움 두 (가지)이다 라고 우기는 자들에게 이미 스며 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어려움

2388) 이러한 레애마(旬)들이 지니는 태(態) 와 때 와 긍정과부정의 차이를 나는 1474 와 1470쪽에서 이미 썼다

2389) 녹아들면 결코 반대 되는 것들 안에 결코 있을 수 없기에 더욱 어렵 다

이다 *반대되는* 이 두 가지에 걸리는 **있음**이 헤택론하다면 그 양자는 ‘같이’ 있지 않을 것인 반면 동일하다면 둘이 아니라 *하나일* 것이라는 어려움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반면 여기에서는 가장 반대되는 움직임 과 쉽에 걸리는 있음이 동일해서 움직임 과 쉽이 ‘같이’(ὁμοίως 250a11) 있다면 그 양자 와 각각은 움직여진다고도 쉬다고도 말하여질 수 없다는 어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²³⁹⁰)그래서 **있는** 것을 움직임 과 쉽 이 양자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비록 이 양자를 둘러싸고 ‘있긴’(περιεχομένην, 250b8, 1472)해도 이 둘과는 헤택론한 세 번째 것 곧 *쉬워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것은 엘레아 낫선이에 따르면 **실체**와 **교통**하는 **영혼** 안에 놓인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은 쉽(쉬워왔음)도 움직임(움직여짐)도 아닌가 라는 물음에는 답하여진 것 같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은 움직여져 왔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는 답이 주어질 수 있을까 있다 이미 1466-1467에서 주어졌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이미 정리된 것을 다시 추스려 보자

영혼은 **있는 실체**에 로기스모스(논리)를 통해서 **교통**하는데 바로 이 **교통**이 **인식**이다 이제,

인식되는 것은 실체인 반면 인식하는 것은 영혼이므로 인식은 **영혼**의

2390) 그러나,

거기 어려움은 이러한 여기 맥락에서 해소(解消)되는 것 처럼 보인다 주욱 이어지는 로고스에서 **있는** 것은 움직여져 왔었으면서 (지금-지금이라는 말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도 헛갈린다-은) 움직이지 않으며 그래서 쉬워왔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있는 것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함 과 실체의 *꺾음(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한 인식이 ‘있다’ 움직이는데 영혼은 실체를 인식하는 반면 움직여지는 한-쉬는 동안에는 인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체는 영혼에 의해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의 이러한 하고 겪는 **힘**의 움직임은 서로 분리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할 때 겪는 그러한 것 이다 그렇다면,

*하고 겪는 인식*의 이러한 **움직임**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누우스를 지니면 생명을 지니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양자는 어디 안에 있음이 틀림 없다 영혼 안에 있다고 해보자²³⁹¹⁾그렇다면 **영혼** 안에(*év*, 249a6, 1451)틀림없이 *움직여짐 과 움직임이 있다* 영혼을 지닌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움직임*만이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흐르며 움직이기만 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있는 것으로부터 빠질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은 *습*과 분리되어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한 것에 관해 어느 때든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쉬는 것이 같은 상태에 머무르려 하지 움직이는 것은 같은 상태에 머무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동일한 것 없이는 결코 **누우스**는 있지 않을 것이다 누우스는 동일한 것을 바라 보므로 그렇다 이제 누우스는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습*도 **있다** 그래서,

㉠**있는** 것은 *움직여져 왔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다*²³⁹²⁾그러나,

㉡ 과 ㉠처럼 양자적이 아닌 것으로 **있는** 것을 규정해도(1506)어려움은 다시 생겨난다²³⁹³⁾**있는** 것이 이 양자의 *밖에서*²³⁹⁴⁾나타난다는 것은 불

2391) 달리 무엇이든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2392) 그러나 이러한 로고스는 인식이 있다는 것 과 인식하는 영혼 과 누우스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1468쪽에 나에 의해 쓰여졌다

가능한 것 중에서도 가장 불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량*적인 측면에서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자들이 지니는 것과 같은 맥락의 어려움이다

거기에 따르면 있는 모든 하나를 말하는 자들은 동일한 것 하나에 두 이름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 이외의 어떤 것도 있지 않다라고 해 놓고 *이름 두 개 있다*(εἶναι 244c8, 1398)라고 하는 것은 우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 일반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²³⁹⁵) 그렇다면 동일한 것 하나에 여러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는 것이 거기 어려움이었다 마찬 가지로,

움직임 과 쉽 이 양자가 **아닌** 것으로 있는 것을 규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2393) 움직여 왔었던 것을 쉬어왔지 않은 것으로 읽는다면 ㉠도 역시 양자적인 것을 부정(否定)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쉬어왔지 않았다면 움직여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쉬어왔음도 움직여짐도 아니다를 움직여져 왔음 과 쉽이다 라고 읽는다면 ㉡은 다시 양자적인 것을 긍정(肯定)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자적인 것을 증명하면서 있는 것을 규정해도 또 양자적인 것을 부정하면서 있는 것을 규정해도 어려움은 잇 따른다(1470그림 참조)

2394) 밖에서(ἐκτός, 250d2, 1477)을 관련(關聯)없이로 읽어도 될 것 같긴한데....

2395)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에 대한 요약 정리 주석은 1146, 1419, 1420쪽 등을 보라

하고 이 두 가지 것 **밖에서는** 있는 것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여기 어려움도 **동일한 것**에 각기 어느 한 때 **여러 이름**을 갖다 놓아야 한다는 것과 연관된다

사람에게 색 모습 크기 악덕 덕 등(의 이름²³⁹⁶)을 덧붙혀 사람 뿐 아니라 덕 등도 **있다** 라고 그래서 흑인 백인 황색인 나쁜 놈 착한 사람 거인 난쟁이 미인(美人) 추녀(醜女)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심지어 노년에 배우기 시작하는 자들을 포함한 어떤 자들은 **여럿은 하나**일 수 없고 하나는 여럿일 수 없다는 것을 받아 들여서 착한 것이 착할 뿐이고 사람인 것이 **사람일** 뿐이다 라고 열광하는 것이 이 맥락에서 지적되기 때문이다 사람 뿐이 아니라 알론한 것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된다 따라서,

하나는 하나일 수 밖에 없고 여럿은 여럿일 수 밖에 없다는 로고스 그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이다 라는 로고스에는 동일한 것 하나에 여러 이름이 붙혀질 수 없다는 심각한 어려움이 잇따른다 흑인 백인 황색인 나쁜 놈 착한 사람 거인 난쟁이 미인(美人) 추녀(醜女)도 **있으며** 이들의 경우 사람이라는 동일한 것 하나에 흑 백 미(美) 추(醜) 거(巨) 난쟁 착함 나쁨 등의 여러 이름이 붙혀지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 하나 곧 있는 것에도 여러 이름 곧 움직임 과 쉽이 덧붙혀져서 움직임이고 ‘있음’ 쉬고 ‘있음’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움직임 과 쉽 그 양자적인 것이 **아니**라고 있는 것 또는 있음을 규정해 버리면 움직임이고 ‘있지 않음’ 쉬고 ‘있지 않음’이 허용되어야만 할 것이

2396) 이러한 이름 일반(τὸ παράπαν, 244c11, 1398)은 (어떤) **것**이라고 여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라그마**와는 해태론한 것으로 여겨져야한다 그러나 있는 모든 하나를 말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엘레아 낫선이가 있는 것은 모두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가하는 비판의 근거이다

다 그러므로,

그렇게 있는 것을 규정해도 어려움이 잇따른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이어지는 로고스에서 엘레아 낯선이는 **있는 것**(εἶναι) 보다는 **실체**(οὐσίαν, 251d5, 1481)라는 낱말을 쓴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덧 앞 중에서도 가장 큰 앞인 **변증적인 앞**으로 닥아 선 후에 급기야 류 중에서도 가장 큰 류들 가운데 하나 로서의 **있는 것 자체**(τὸ ὄν αὐτὸ 254d4-5, 1490, 1347)라는 말을 쓴다

움직임 멈춤 이 둘 모두에 **실체**가 덧 붙여지는가(προσάπτωμεν, 251d5-6, 1481)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 셋 모두 서로 섞이지 않아(ἄμεικτα 251d6, 1481) **교통하지**(ἐπικοινωνῶνείν, 251e9, 1481d9)가 아니면 끼리끼리만 **교통**하는가 첫째,

어떤 것도 어떤 것과 교통할 힘을 지니지 않는다면 움직임 과 쉼 어떤 것도 실체를 나누어 갖지 못할 것이다²³⁹⁷그러면 실체와 교통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움직이는 것만을 있는 것을 보는 자 쉼 것 하나만을 있는 것으로 보는 자 종적으로 동일하게 한결같이 있는 것만을 항상 있는 것으로 보는 자 등은 재 빨리 뒤 엮어질 것이다 이들은 각각 움직이고 있다 쉬고 있다 라고 하면서 **움직임** 과 **쉼**에 **있음**을 덧 붙히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

2397)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못하는 하나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라는 로고스는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파르메니데아스에 의해 여러 번 되풀이 된다(67, 50)

면 곧 어느 하나 섞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한하든 유한하든 요소로 나뉘어지고 합쳐진다고 하는 자들 역시 부분적으로 어느 한 때 그렇다고 하든 항상 그렇다고 하든 상관없이 모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셈이 되 버린다 나아가서 그렇다면,

가장 우스꽝스럽게 되 버리는 자들은 헤태론한 어떤 것도 헤태론한 것의 속성과 교통함에 의해서는 자신의 이름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이다 자신의 논적(論敵)들은 있음 과 분리 와 알론한 것들의 와 그 자체로 등 헤아릴 수 없는 낱말들을 써 가며 안 방에서 싸우듯 불 합리한(ἄτοπον, 252c8, 1483)말까지 써가며 속삭이듯 자신들을 논박해도 정작 자신들은 그러한 낱말들을 모든 것에 관해 다그쳐 쓰지 못하는 무력함 때문에 그러한 낱말들로 묶어진 아무런 로고스도 만들지 못해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것은 서로 교통하는 힘을 지닌다면 움직임 자체가 모두 모두 멈출 것이며 다시 멈춤 자체가 움직여질 것이다 교통하는 힘을 지녀 서로 통하게 된다면 그렇다 그러나 움직임이 쉬게되고 쉬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중에서도 가장 크게 불가능한 것이다²³⁹⁸)따라서 셋째,

어떤 것들은 섞여지지(συνμείγνυσθαι, 252e2, 1485)만 어떤 것들은 섞여지지 않는다는 것만이 진실이다 첫째 와 둘째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398) 움직여지는 어떤 것이 쉴 수도 있고 쉬었던 것이 움직여질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여기서는 움직이는 또는 쉬는 어떤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αὐτή, 252d6, 7, 1485)를 문제 삼는다 자체의 영역에서는 움직임은 움직임이고 쉬는 쉬일 뿐 하나에 어느 하나가 덧붙여질 수 없다 단 있음만은 제외된다 무엇 때문에 제외되는가.....지금 더듬어가지 않는가 성급하게 굴지 마라

음소들(τὰ γράμματα²³⁹⁹), 253a1, 1485, 音素)를 보기로 들어 보자 음소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어디서든 서로 들어 맞지만 어떤 것들은 들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분리됐던 것들을 묶는 끈처럼 음소 가운데 모음은 알려진 음소들을 두루 묶으므로 모음 없이는 알려진 음소들의 해태론한 것이 해태론한 것과 결코 들어 맞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떠한 음소들이 어떠한 음소들과 교통할 수 있는 지를 아는 자는 교통할 수 있도록 문제의 그 음소들을 묶는 기교를 지닐 것이다 바로 이 기교가 문법이다

높고 낮은 음정들(φθόγγους, 253b1, 1487)도 마찬가지로 섞여지는 음정들과 섞여지지 않는 음정들을 잘 분별해서 서로 교통하게 하는 기교를 인식하는 자가 음악가인 반면 그 기교를 이해 못하면 음치(音癡)이다 알려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류들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모든 것들이 섞여지는 것도 아니요 아무 것도 섞여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 어떤 것은 알려진 어떤 것과 섞여지는 반면 해태론한 어떤 것과는 섞여지지 않으므로 류들의 경우에도 어떤 류는 알려진 어떤 류와 섞여지려 할 것이지만 해태론한 어떤 류와는 섞여지려 하지

2399) 움직임 과 쉽 과 있음을 예를들어 음소(音素)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σχεδόν, 252e9, 1485, 아마) 라는 말이 한정하고 있듯이 아마도 이 셋을 음소로 빗대어 설명하면 거의 들어 맞을 것 같다는 뜻이지 그러한 설명이 완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라 그럼에도,

소리의 가장 작은 요소인 음소로서의 자음 과 모음(τὰ φωνήεντα, 253a4, 1486)을 보기로 든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있음*에 대해 말하기 위해 *소리를 끌어 들였기* 때문이다 움직임(과 쉽)을 시끌벅적한 소리가든 아름다운 소리가든 나지 않는가 그리고 움직임(과 쉽)을 떠나서는 있음이 결코 나타나는 것이 아니질 않는가 움직임(과 소리) 와 있음 과 쉽.....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류에 두루 통해 ‘있’으면서도 동일한 것으로 남아 ‘있’어 헤태론한 류들이 서로 어울려 섞여지도록 하는 류 또한 모든 류에 두루 통해 ‘있지 않’으면서 헤태론한 류로서 늘 떨어져 나가게만 함으로서 합쳐 섞어진 헤태론한 류들이 나누어(ἐν ταῖς διαίρεσιν, 253c2-3, 1488)지도록 하는 류가 있거나 있지 않기에 섞어질 것이고 섞여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류에 관한 그리고 섞여지고 떨어지는 알론한 류들에 관한 **앎**이 ‘있다’

동일한 에이도스(중)를 헤태론한 에이도스로 이끌지 않은 반면 헤태론한 에이도스를 동일한 에이도스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적으로** 나누는 **변증적인 앎**이 바로 그러한 앎이다 변증적인 앎을 지닌 자는 분리된 여럿에 두루 퍼진 하나 이데아 그리고 하나에 의해 밖에서 둘러쌓인 서로 헤태론한 여럿 그리고 여럿 전체를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 하나 그리고 전적으로 분리된 여럿을 선명하게 인지해서 각기 것이 어떤 길로 서로 **교통**하는 지를 **류적으로** 분간해서 알 것이다 그리고,

철학가 이외에는 이러한 변증술(τὸ διαλεκτικόν, 253e4, 1343, 1489)이 허용되지 않는다 논리(λογισμῶν, 254a8, 理性, 1344, 1489)를 통해서 **있는 것의 이데아**에 몰두하는 철학가는 그 자리의 밝음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²⁴⁰⁰반면 **있지 않는 것**의 어두운 곳으로 스며드는 소피스테아스는 있는 그 고스이 어두움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교통하고 안하는 류들을 모두 분간하기란 아주 힘들 것이므로 류들 가운데 가장 큰 류들 몇몇을 뽑아 내어 이러한 큰 류들이 어떤 것들 인지를 조사한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교통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어느 한 순간에 혼돈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ἵνα μὴ παραττώμεθα 254bc2-3, 1345, 1490)필요하다 이리하다보면,

2400) 여럿의 영혼의 눈들은 신을 바라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히 선명하게 숙고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의 조가가 허용되는 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최소한 만족스러운 로고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므로 상처없이 우리는 비록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든 있는 있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²⁴⁰¹) 지금 우리가 다루는 **움직임** 과 **쉽** 과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가장 커다란(μέγιστα, 254d4, 1347, 1490) 류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의 엘레아 낫선이는 있는 것은 하나 또는 여럿 또는 하나이면서여럿이라는 것에 그리고 몸만이 실체이거나 또는 진짜 실체는 에이도스라는 것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않은 채 다만 그 어려움들²⁴⁰²)을 끄집어 내면서 대신에 이러한 모든 것에 두루 통할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를 펼쳐나갈 뿐이다 물론,

이러한 로고스에마저 겹치는 어려움에 테아이테토스는 힘들어하지만 말이다 이 어려움을 풀려면 궁극적으로 **변증적인 앎**이 ‘인식되어야한다 변증적인 앎은 **움직임** 과 **쉽**이 **있음**을 통(通)해서 어떻게 교(交)하는지 다시 말해서 움직임과쉽이 어떻게 서로 교통(交通)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있는 것 자체 또는 있음이 **뉘**이 아니라 움직임과쉽 안에서 나타나야만 한다²⁴⁰³) 그렇기 때문에,

2401) 따라서 플라톤의 소피스테이스 편의 의도는 적극적으로 아니긴해도 소극적으로나마 수행될 것이다

2402) 이러한 어려움들은 여지껏 나에 의해 되풀이 되고 되풀이 되었다

2403) 만약 밖에서 나타난다면 있음을 통해서 움직임 과 쉽이 서로 교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알론한 류 각각에 항상 동일하게 머무는

하고 겪는 힘 으로서의 있는 것은 움직여져 왔었으면서 (지금)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며 쉬어왔던 것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는 있는 것에 관한 이제까지의 로고스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만약 (주옥 있어왔던) *쉽* 과 (하거나 겪는) *움직임*이 **아니**²⁴⁰⁴)라면 필연적으로 있는 것은 이 양자 **밖에**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것도 움직였다가 쉴 수도 없고 쉬었다가 움직일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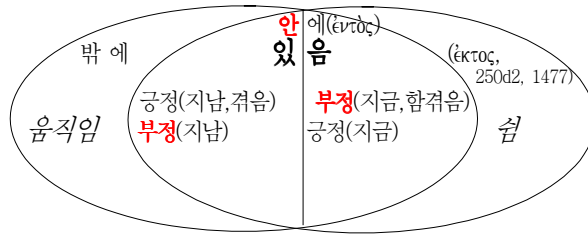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미 제안된 것 처럼 모든 류를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류들 만을 숙고해 보면 어떻게든 풀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숙고를 따라 가기 전에 있는 것에 관한 다음의 로고스를 나는 다시 쓰면서 다음 쪽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있는 것은

두 가지 알려진 류 *움직임* 과 *쉽* 양자 와 각각에 항상 동일하게 머무는 그러나 그 둘과는 *헤태론한* 것이다

그러나 그 둘과는 헤태론한 것이 바로 있음이기 때문이다

2404) 실로 엘레아 낫선이는 **아니**(τὸ μὴ καὶ τὸ οὐ 257c1 : 126 또는 á-)라는 말을 해석하므로써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한다 그러나 이에 관해말하는 것을 잠시 참도록하자 지금 맥락에서도 ‘아니’라고 부정(ἀπόφασις, 257b9, 126, 否定)함으로서 오는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지금의 어려움 과 위 어려움은 비록 관련은 있지만 동일한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1470에 나타난 그림과 비교하여 보라 거기에서는 움직임에
만 관련되지만 여기에서는 움직임 과 쉽 이 양자 각각에 있음이 관련되는
반면 태(態) 와 때 와 하고겪음의 차이는 거기건 여기건 모두 드러날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두 그림에 그려진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 또한 어려움에 부딪
힌다 양자적인 것이 아니라고 부정(否定)됨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은 그 양
자 밖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엘레아 낫선이는 푸는지 그대로 따라가 보기
로 하자

“ 류들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있는] 있는 것 그
자체 와 쉽 과 움직임이 가장 큰 것(류)들(μέγιστα 254d4)이지? : 엘
레아 낫선이

물론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그것들 중 둘은 서로와 섞여지지 않는다(ἀμείκω 254d7)

라고 우리는 말한다네 : 엘레아 낫선이

아주 확실히 :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있는 것은 양자와 섞이네 어디에서든 양자적으로(2405)
있을 것이기 때문이오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안[그러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이것들은 셋이(τρία²⁴⁰⁶) 254d12)되네 : 엘레아 낯선이

무슨? : 테아이테토스

2405) 양자적으로(ἄμφω 254d10)있을 거라는 말은 움직임 과 쉽 이 양자에 있다 라는 곧 움직임도 있고 쉽도 있다 라는 말이다 가장 크게 반대되는(ἐναντιώτατα, 250a8, 1471, 1491)것들이므로 움직임 과 쉽은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은 이 양자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은 양자적'이다' 그렇다면,

이 양자에 같이(ὁμοίως, 250a11, 1506, 1472)있는 것은 움직이는가 아니면 쉬는가 만약 움직이거나 쉬다면 그 양자에 '같은' 것이 아니다 양자는 심히 반대되는 것이어서 움직인다면 쉬지 않을 것이요 쉬다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어서 움직이면서 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양자에 같이 있는 것은 양자적인 것이 **아니**어야만 한다(οὐκ.....συναμφότερον, 250c3, 1473, 1506)그러나,

있는 것은 움직임 과 쉽 **밖**에서(ἐκτὸς, 250d2, 1477, 1516) 결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양자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양자 외부(外部)에 있지 않을 수 있을까 어려운 물음이다 바로 이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 로고스를 엘레아 낯선은 지금 테아이테토스 앞에서 펼쳐는 중이다 읽는 자는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 드러난 어려움들도 염두에 두면서 말이다

2406) 243e3(1349)에 나오는 셋(τρία)와 비교해 보라 거기에서는 여기 보다 덜 반대되는 것들인 차가움 과 따스움 이 둘 이외의 셋인가 라고 물어지는 맥락인 반면 여기에서는 가장 반대되는 움직임 과 쉽 과 있는 것은 셋이 된다 라고 선언(宣言)되는 맥락인 반면 거기 셋은 차가움 과 따스움 이외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반면 여기 셋은 움직임 과 쉽 이외의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단지 그 둘과 구분되는 셋을 가리킬 뿐이다

그렇다면 한 편으로 이것들의 각각은 둘에 *헤테론*(ἕτερον 254d14)[하게]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그(각각)은 자신과 *동일한*(ταὐτόν d15)(것으로 있)네 : 엘레아 낫선이

그렇습죠 : 테아이테토스

동일한 것 과 헤테론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무엇[을 말했겠는가]? 필연적으로 저(세 류)와 섞여지기는해도 그 세(류)와는 알론한 그렇게 어떤 두(가지) *류*(γένη 254e3)일까 그래서 세(가지)가 아니라 다섯(가지)를 있는 그것들로서(ὡς ὄντων αὐτῶν e5) 반드시 숙고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우리 이(동일한 것 과 헤테론한 것을) 무시하면서 *동일한 것 과 헤테론한 것을* 저(세 류)의 어떤 것으로서 불러야할까 : 엘레아 낫선이

아마도 (ἴσως, 254e3, 똑 같이) :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움직임* 과 *쉽은 헤테론한 것도 동일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²⁴⁰⁷)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 테아이테토스

움직임 과 *쉽*[에] 공통인(*κοινῆ* 255a7)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이것들에²⁴⁰⁸)있지(εἶναι a8)않을 것이네 :

2407) *움직임* 과 *쉽은 헤테론한 것도 아니고 동일한 것도* 아니다 리는 말이다 다시 말해 앞 들은 뒤 들과 알론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움직임은 *쉽* 과 *쉽은 움직임*과 *헤테론한 것도 동일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2408) 일일이 문법적인 격에 맞추어 옮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αὐτοῖν이 3 경이니 그 격에 맞게 ‘이것들에(텔레스는 있다 앞 뒤에 아주 자주 3격을 쓰곤한다는 것은 이미 720쪽에 나타났다)**있다**’ 라고 옮기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움직임 과 *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한 순간 *헤테론(다름)* 과 *타우톤(동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 보았지만 말이다 만약 *다름* 과 *동일*을 가리킨다면,

엘레아 낫선이

무슨? : 테아이테토스

움직임이 될 것이며 다시 **쉽**이 움직여질 것이네 자신들 중의 어느 하나에 헤테론(ἑταρον 255a11)[하계] 되는 양자와 관련해서 (헤테론한 것은) 자신의 자연과 반대되는 경우의 헤테론한 것으로 필연적으로 다시 **변화**(μεταβάλλειν²⁴⁰⁹)a12)하기 때문일세 그래서 반대되는

움직임과 **쉽**이 양자에 공통으로 **있는** 것은 **헤테론**과 **동일**에 있지 않는다 라고 읽혀져 앞 둘에 있는 것 하고 뒤 둘에 있는 것은 **알론**하게 되어 이 넷이 같이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헤테론과 타우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서 안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월을 보아도 그렇다는 것을 알 것이다

2409) 필연적인 **변화**는(τὸ μεταβάλλον, 1067b1, 915) **모순**되는 것들(ἀντιφασίαι, 1067b22, 916, 921)중 어느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또는 **반대**되는 것들(ἐναντία, 1068a5, 917, 921)중 어느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일어난다 이 두 가지 것에만 **반정립**(ἀντιθεσις, 1067b21, 916)이 성립하기 때문이라는 텔레스의 형이상학 값과 편 11장을 참조해 보면 **변화**는 반대의 헤테론한 극(極)에서 극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여기의 로고스가 그대로 거기에서 말하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모순이라는 낱말이 더불어 거기에 나타났기는 해도 말이다 그러나,

변화라는 말이 쓰인 맥락은 사뭇 다르다 물론 움직임과 연관해서 쓰였다는 점에서는 같기는 해도 말이다 여기에서는 ‘ 자신들에 공통인 것을 움직임과 **쉽** 각각은 결코 자신의 자연으로서 지니지 않을 것이다 만약 지닌다면 (또는 있다면) 변화는 **반대**의 헤테론한 극에서 극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양 극인 움직임과 **쉽**은 서로에로 **변화**되 버려 움직임은 **쉽**이 될 것이고 **쉽**은 움직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움직임은 **쉽**이 아니고 **쉽**은

것을(τού ἐναντίου 255b1)나누어 지니게 될 것일세 : 엘레아 낫선이

정확히 : 테아이테토스

[그러나](움직임 과 ~~움~~) 양자적으로(ἀμφω 254b3) 동일한 것
과 ~~해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닌다네 : 엘레아 낫선이

예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우리는) 움직임은 동일한 것 또는 ~~해태론한~~ 것이다
(εἶναι 255b5)라고 말하지 못하며 다시 ~~움~~도 (그렇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네 : 엘레아 낫선이

못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따라서 **있는 것** 과 동일한 것은 하나인 어떤 것으로서
우리에게 간주되는(διανητέον 255b8)가 : 엘레아 낫선이

아마도 :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만약 **있는 것** 과 동일한 것이 차이나는 어떤 것을 가리

움직임이 아니다' 라는 맥락에서 변화 라는 말이 쓰이는 반면 거기에서는 '모순 사이의 두 가지 변화 와 반대 사이의 변화 등 변화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변화 가운데 움직임이라 말하여지는 것은 모순의 양 극에서 극으로 일어나는 변화인 생성 과 소멸이 아니라 반대의 양 극에서 극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다' 라는 맥락에서 변화 라는 말이 쓰인다 아울러 후자 맥락에서는 기체라는 말이 끼어든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두 곳에서는 모두 움직임과 관련해서 변화 라는 낱말이 쓰인다 그러나 사뭇 다르게 쓰여지는 것 같다 뒤에서는 움직임이라 말하여지는 변화인 반면 앞에서는 움직임을 변화의 한 가지로 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모순이라는 말이 뒤에서 쓰였는데 모순에 따른(κατ'ἀντιφασιν 1067b 22, 916)변화는 아예 거기서도 움직임이 아니라고 말하여지므로 모순이라는 말은 지금의 이 비교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주지 않는다

키지 않는다면 또 다시 움직임 과 쉽 양자가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움직임 과 쉽) **있는** 것들(이 양자적인 것)과 마찬가지로²⁴¹⁰(ὡς 255c1) 동일한 것(도 양자적²⁴¹¹)‘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

네 : 엘레아 낯선이

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합니다²⁴¹²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동일한 것 과 있는 것은 하나일** 수 없네 : 엘레아 낯선

이

거의 : 테아이테토스

(우리는) 동일한 것을 세 **에이도스**(εἶδεον 255c5)에 대한 네

번째 (에이도스)로 놓아야 할까 : 엘레아 낯선이

물론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2410) 1522쪽에 옮겨지는 마찬가지로(ὡσπερ 255d4)와 같은 맥락에 있다

2411) 255b12, 255c1 두 곳의 ἀμφότερα를 앞의 것을 양자로 뒤의 것을 양자적으로 라고 옮겨 보았다 양자나 양자(적으로)나 거기서 거기로 보았기 때문이다 움직임 과 쉽은 있는 것에 양자적이듯 동일한 것에도 양자적이다 라고 하나 움직임 과 쉽 이 양자는 동일한 것으로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나 매 일반일 것이므로 그렇다

2412) 따라서 있는 것 과 동일한 것은 하나인 어떤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다 하나라면 차이나지 않을 것이고 차이나지 않는다면 움직임 과 쉽 이 양자는 동일한 것으로 **있을** 것이기 다시 말해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양자에 있음이 걸리므로 양자가 있다는 것은 말이되나 있는 것 처럼 동일한 것도 양자에 걸리면 그 양자 곧 움직임 과 쉽은 동일한 것이 되버릴 것이고 이것은(τούτο 255c2) 불 가능하다 결국,

움직임 과 쉽은 가장 크게 반대되는 것으로서 구분되는 류 이라는 것을 근거로 모든 로고스가 펼쳐진다

무슨? 따라서 우리에게 나머지 다섯 번째(에이도스)라고 말하
여지는 **헤테론한 것**(τὸ ἑτερον 255c8)? 또는 이(헤테론한 것 **과** **있**
는 것은 하나의 류에 걸리는(ἐφ' c9)어떤 두 **이름**²⁴¹³)들 이라고 반드
시 간주되어야 하는가? : 엘레아 낫선이

아마도 :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 **자책**(καθ' αὐτὰ 255c
13)인 것들(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어떤 것들은 항상 **서로에 대한**
것들 이라고 말하여진다는 것에²⁴¹⁴자네는 동의할거라고 여겨지네 :
엘레아 낫선이

무엇[뺨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헤테론한 것은** 항상 헤테론한 것에 **대한 것**(일세) 그렇
지 않은(ἢ 255d1)가 : 엘레아 낫선이

그렇습지요 : 테아이테토스

만약 있는 것 과 헤테론한 것이 아주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을 거네 그러나 만약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²⁴¹⁵(ὡσπερ

2413) 1396, 1478 등을 참조하라

2414) 이러한 구분은 그대로 텔레스의 형이상학 델타 편 7장에 다시 나타
난다 **있는 것은** 한 편으로 **우연적인 것**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그 **자책**인
것으로 말하여진다 라고 거기에서 텔레스는 말하기 때문이다 단지 여기 알
론한 것에 **대한 것들**(τὰ πρὸς ἄλλα 255c13)이라는 말이 거기 우연적인 것(τ
ὸ 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 1017a7)이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인데 소피스테에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기도 이어지는 255d6에서 **συμβεβηκεν**(잇따르다)라는 말을 쓴다
그렇다면,

텔레스의 우연적인 것은 서로에 대해 있는 상대적인 것들을 말한다
라고 쓰여질 수 있으리라

2415) 255c1(1421)에 나오는 ὡς(호오스)를 나는 마찬가지로 라고 옮겼다 거

255d5) **헤태론한** 것이 양자 에이도스²⁴¹⁶)를 나누어 지닌다면 헤태론한 것들 가운데 때로 어떤 것은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며 왔을 터인데 헤태론한 것은 무엇이든지 헤태론한 것으로부터(ἐτέρου 255d7) 필연적으로 잇따르는 그러한 것이 지금 단적으로 우리에게는 **있다**(εἶναι d7)네 : 엘레아 낫선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헤태론(한 것)의 자연을 간추려진 **에이도스**들 가운데 다섯 번째로 반드시 말해야 한다네 : 엘레아 낫선이

예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이(**헤태론한**)것은 이(간추려진 에이도스들) 모든 것에 두루 퍼진다(διὰ.....διεληλυθυῖαν 255e4)고 (우리는) 말할 것이네 각기 것 하나는 자신의 자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헤태론(한 것)의 이 테아(ἰδέας e5)를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διὰ e5)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게)** **있**기 때문이네 : 엘레아 낫선이

정확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이제 다섯 가지를 하나 씩 취해 (우리) 말해 보세나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 테아이테토스 (254d7 - 255e10) ”

앞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것을 헤태론한 것과 구분할 뿐만 아니라 동

기나 여기나 양자(ἀμφότεν 255d4)라는 말에 걸리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2416) 양자 에이도스는 움직임 과 쉽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헤태론한 것 과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지금의 나는 움직임 과 쉽 이 양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255c1에 나오는 양자(ἀμφότερα, 1521, 兩者)역시 그렇게 보았다 그러나 헤태론한 것 과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가 약간은 나를 헛갈리게한다

일한 것과도 구분한다 다시 말해서 엘레아 낫선이에 따르면 **있는** 것을 나누어 지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동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나누어 지남에 의해서 그러하며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있는 것을 나누어 지남에 의해서 **해태론**한 것이 아니라 **해태론**(한 것)의 **이데아**를 나누어 지남에 의해서 **해태론**해 진다 따라서,

동일한 것 이라는 류 또는 종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해태론**한 것 이라는 류 또는 종과도 구분되는 류 또는 종인 **있는** 것에는 동일한 것 과 **해태론**한 것 이 양자가 스며(διεληλυθίαν 255e4) ‘있’으나 그 양자와는 구분된다²⁴¹⁷)다시 옮겨 보자

류들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있는** 것 그 자체 와 **섞** 과 **움직임**은 가장 큰 것들이지? - 물론 - 이것들 중 둘은 서로와 **섞**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한다네 - 아주 확실히 - 그런데 있는 것은 양자와 섞이네 어디에서든 **양자적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요 -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 이것들은 셋이 되네 - 무슨? - 그렇다면,

이것들 각각은 둘에 **해태론**한 반면 자신과는 **동일**하네 - 그렇지요 - 이렇게 동일한 것 과 **해태론**한 것을 말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저 셋과 섞어지기는 해도 그 셋과는 **알론**한 그러한 두 가지 **류**일까 그래서 셋이 아니라 다섯을 있는 그것들로서 반드시 숙고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동일

2417) 그렇다면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아니라면 티마이오스 편 28a2(1208)에 나오는 ‘있는 것은 동일한 것들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있는 것에는 항상 동일한 것이 **스며**든다 라고 말해 버리면 안될까?.....

한 것 과 헤테론한 것을 무시하면서 이것들을 저 셋의 어떤 것으로 불러야 할까 - 글썄요 - 그러나,

움직임 과 쉽은 헤테론한 것도 동일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 어떻게? - 움직임과 쉽에 공통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것은 어떠한 것이든 지 이 움직임 과 쉽에 있지 않을 것이네 - 무슨? - 움직임이 설 것이며 다시 쉽이 움직여질 것이라네 자신들 중의 어느 하나에 헤테론한 그 양자와 관련해서 헤테론한 그것은 자신의 자연과 반대되는 경우의 헤테론한 것으로 필연적으로 다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일세 그래서 반대되는 것을 나누어지닌 셈이 될 것이(므로 그렇네) - 정확히 - [따라서] (움직임 과 쉽은) 양자적으로 동일한 것 과 헤테론한 것을 나누어 지닌다네 - 예 - 그렇다면 움직임 은 동일함 또는 헤테론함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 못하며 다시 쉽도 그렇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네 - 못합니다 - 그러나,

따라서 **있는 것 과 동일한 것**은 *하나*인 어떤 것으로서 우리에게 간주되는가 - 글썄요 - 그러나 만약 있는 것 과 동일한 것이 차이나는 어떤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또 다시 움직임 과 쉽 양자가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있는 것이 *움직임 과 쉽*에 양자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도 그 움직임 과 쉽에 양자적'이다' 라고 말해야 할 걸세 - 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것 과 있는 것**은 *하나*로 **있을 수 없**네 - 거의 -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것을 세 에이도스에 대한 네 번째 에이도스로 놓아야 할까 - 물론입니다 - 따라서 무슨?,

우리에게 나머지 다섯 번째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헤테론한 것? 또는 이 **헤테론한 것 과 있는 것**은 하나의 류에 걸리는 어떤 두 *이름*들로 반드시 간주되어야 하는가? - 아마도 - 그러나,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 자체인 것들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어떤 것들은 항상 서로에 대한 것들이라고 말하여진다는 것에 자네는 동의할 거라고 여겨지네 - 그렇지 않는 무엇[이라도]? - 그런데 헤테론한 것

은 항상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일세 그렇지 않은가 - 그렇습지요 - 만약 **있는** 것 과 **헤태론한** 것이 아주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만약 양자 **에이도스가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닌다면 헤태론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때로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닐 터인데²⁴¹⁸⁾헤태론한 것은 무엇이든지 헤태론한 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잇따르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단적으로 있다네 -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 [그래서],

헤태론한 것의 자연을 간추려진 에이도스들 가운데 다섯 번째로 반드시 말해야 한다네 - 예 - 그리고,

이 헤태론한 것은 이 **에이도스**들 모든 것에 **두루 퍼진다고** 우리는 말할 것이네 각기 것 하나는 자신의 자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헤태론한 것의 **이데아**를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알론한 것 들과 헤태론할 것이기 때문이네 - 정확합니다 - 이제,

다섯 가지를 하나 씩 취해 우리 말해 보세나 - 어떻게?

있는 것을 **동일한** 것과 하나로 여기면 움직임은 **쉽이** **쉽은** 움직임으

2418) 있는 것은 그 자체인 것 과 어떤 것에 **대한** 것으로 나뉘는 반면 헤태론한 것은 항상 헤태론한 어떤 것에 대한 것인데 만약 있는 것 과 헤태론한 것을 **하나로** 본다면 이 둘을 각기 나누어 지니는 양자는 그 자체인 것일 수도 있고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일 수 있으리라 헤태론한 것과 마찬가지로 있는 것을 그 양자가 **나누어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태론한 것이 그 자체인 것일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헤태론한 것은 항상 반드시 헤태론한 것을 **잇따르는** 다시말해 헤태론한 것에 **대한** $\pi\rho\delta\varsigma$, 255d5, 1523)것이다 그러므로,

있는 것 과 **헤태론한** 것은 **하나**가 아니라 **알론한** 것이다

로 있을 것이며 있는 것을 **헤태론**한 것 하나로 여기면 헤태론한 것 중에 어떤 것이 그 자체 있을 것이라는 지독히 불 가능한 것이 잇따를 것이다 따라서 있는 것 과 동일한 것과 헤태론한 것은 각각 구분되는 세 가지 류이지 하나의 류 또는 하나의 류에 걸리는 세 이름(ὀνόματα, 255c8, 1522)이 아니다

다시 요약해 보자

있는 것 자체 와 **쉽** 과 **움직임**은 **류**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들인데 이것들 둘은 확실히 서로와 섞이지 **않**으(ἀμείκω, 254d7, 1516)나 있는 것은 양자와 섞인다 어디에서든 양자적으로 **있**기 때문이다²⁴¹⁹)그래서 이것들은 셋이다 그렇다면 이것들 각각은 둘에 **헤태론**한 것인 반면 자신과는 **동일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저 셋과 필연적으로 섞여지는 헤태론한 것 과 동일한 것 이 둘은 셋 과 **알론**한 두 가지 류일까²⁴²⁰)아니면 셋의 어떠한 것일까 그러나,

움직임 과 **쉽**은 **헤태론**도 **동일**도 **아니다**

움직임 과 **쉽** 이 둘에 **공통**인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결코 그 둘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있다**면(또는 **들이**라면) 움직임이 **쉽**

2419) 움직임 과 **쉽** 이 양자 밖에서는 결코 있는 것이라는 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1477, 1508을 참조한 후 1150을 다시 보라

지금의 이 로고스는 양자를 떠나서는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은 양자적이지 **않**다(250c3, 1473, 1516각주2405번, 1506) 라고 말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 중이라는 점도 다시 기억하라

2420) 그렇다면 다섯 가지 류가 될 것이다

것이며 다시 쉽이 움직여질 것이다. 헤태론한 양자 중의 하나는 자신의 자연과 반대되는 헤태론한 알론한 하나로 필연적으로 다시 변화하여 자신에 정확히 반대되는 것을 나누어 지니게 될 것이므로 그렇다 [그래서] 움직임과 쉽은 양자적으로 동일한 것과 헤태론한 것은 나누어 지닌다. 그렇다면 쉽과 마찬가지로 움직임도 동일한 것 또는 헤태론한 것이 **아니다** 이제,

글쎄 [있는 것은 어떠한가] 있는 것은 동일한 것과 하나인 어떤 것으로 간주되는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 차이 나는 어떤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움직임과 쉽 양자가 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양자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나 이런 말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 에이도스에 대한 네 번째 **에이도스**로 우리는 **동일한** 것을 놓아야 한다 따라서,

헤태론한 것을 다섯 번째 **에이도스** 라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헤태론한 것과 **있는** 것을 하나의 류에 걸리는 어떤 두 이름 이라고 말해야 하나 자,

있는 것들 중 어떤 것은 그 자체인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어떤 것은 항상 서로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항상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면 헤태론한 것은 항상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헤태론한 것을 양자 에이도스가 나누어 지닌다면 헤태론한 것 중 어떤 것은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게 될 것이나 헤태론한 것은 무엇이든지 단적으로 헤태론한 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태론한 것의 자연을 간추려진 **에이도스**들 가운데 다섯 번째 것으로 반드시 말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에이도스**들에 헤태론한 것은 두루 퍼진다 라고 말해야 한다

각기 에이도스 하나는 자신의 자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헤태론한 것의 **이데아**를 나누어 지님 으로서 알론한 에이도스와 정확히 헤태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은 동일한 것과도 헤태론 것과도 구분되는 **하나의 류** 또는 **종**이다 있는 것이 헤태론한 것과 **하나인** 것이라면 헤태론한 것 중 어떤 것은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 헤태론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며 있는 것이 동일한 것과 하나라면 움직임이 쉽이 될 것이고 쉽이 움직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라면 양자에 **있음**이 걸리는 것처럼 동일도 그 양자에 걸릴 것이어서 반대되는 움직임 과 쉽이 같이 **있는** 동일한 것일 것이므로 - 왜냐하면 **변화**(μεταβάλλειν, 255a12, 1519, 變化)는 반대의 극에서 극으로 일어나므로 그 극의 하나인 움직임이 헤태론한 다른 하나의 극인 쉽으로 변하는 식으로 움직임이 쉽으로 또 쉽이 움직임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하며 있는 것이 헤태론한 것과 **하나**라면 양자에 있음이 걸리는 것 처럼 헤태론도 걸릴 것이어서 그 양자는 같이 **있는** 헤태론한 것이 될 것이므로 - 왜냐하면 있는 것은 그 자체인 것과 알론한 것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 그렇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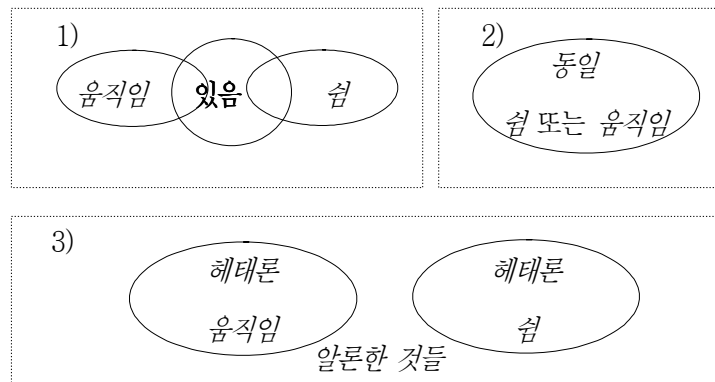
있는 것이 동일한 것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하나인** 류가 아니라면 이것들은 여러 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움직임 **쉽** **있음** 동일 헤태론 등의 류가 **여럿인** 원인은 자신들에 두루 퍼진 헤태론의 **이데아**를 이것들이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지 자신들의 자연 때문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동일한 원인은 안에 자신들을 두루 묶는(διαφερόντως, 253a4, 1487 ; μεῖξεως, 253b9, 1487)**있는** 것의 이데아²⁴²¹를 나누어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것의 **이데아**를 나누어 지니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은 동일한 것도 헤태론한 것과 구분되는 류라는 로고스 그리고 있는 것은 헤태론한 모든 것을 두루 류는다는 로고스 그러나 있는 것 때문에 어떤 것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로고스를 있는 것에 관하여 끌어낼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움직임 과 쉽은 있음 을 나누어지니므로서 서로 섞여 있는 반면 움직임 과 쉽은 동일을 나누어지니므로서 각기 자신과 동일하며 움직임 과 쉽은 헤태론을 나누어지니므로서 알론한 것과 헤태론하다 라고 쓰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더 나아가기 전에 다음 쪽 처럼 처럼 그려 보자



위 그림은 네모 세 구역으로 나뉘었으나 실은 나뉘어질 수 없을 것이다 움직임 과 쉽 이 양자를 있음 과 동일 과 헤태론을 다 함께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²⁴²²⁾그림에도 나에 의한 설명을 위해 나뉘어진 1)은 양자가 있

2421) 있는 것의 이러한 **이데아**의 밝음 때문에 있는 것의 이데아에 몰두하는 철학자를 속인(俗人)은 잘 볼 수 없다

2422) 이 다섯 가지는 선후(先後)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 같다

음 덕분에 섞여 묶여 있다는 것을 2)는 양자 각각이 동일 덕분에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3)은 헤태론 덕분에 알려진 양자가 서로에 헤태론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1)2)3)을 합해 말하면 **동일함** 과 **헤태론함**을 나누어 지니기에 **움직임** 과 **쉬은 있음**을 통해 함께 섞여 묶여지면서도 자기 **동일(성)**을 유지(維持)하며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 움직이거나 쉬고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움직이면서 쉬고 있다는 것은 불 가능할 것이다 이 양자는 가장 크게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 과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은 동렬(同列)의 것들로서 서로 구분되는 류라는 것이 그려진 셈이다 나아가서,

동렬(同列)의 셋도 서로를 나누어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움직임과 **쉬** 이 양자에 같이(ὁμοίως)는 아니더라도 함께 걸리면서 말이다 이제,

이 다섯 가지를 하나 씩 취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엘레아 낫선이 따라가 보자,

“ 이제 다섯 가지를 하나 씩 취해 (우리) 말해 보세나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 테아이테토스

쉬과 모두 모두 **헤태론**하게] **있는** 것 으로서의(ὡς ἔστι 255e11)
움직임을 먼저 (취하여) 말해 보세나 그러지 말까? : 엘레아 낫선이

그렇게(하지요)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움직임은) **쉬**이 아니네 : 엘레아 낫선이

전혀 아닙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있는** 것을 **나누어** 지남을 통해서(διὰ τὸ μετέχειν 256a1) (움직임은) 있네 : 엘레아 낫선이

있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뒤로 다시 움직임은 동일함과(ταύτου a3) *헤태론*하다네 : 엘레아
낯선이

거의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 **아니**네(οὐ ἐστίν 256a5) : 엘
레아 낯선이

아닙니다 : 엘레아 낯선이

그러나 그(움직임)은 다시 모든 것이 이(동일함)을 나누어 지
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있**어왔네(ἦν²⁴²³)a7) : 엘레아 낯선이

그리고 대 부분(μάλα 256a9) : 테아이테토스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며 그리고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동의해야만 하네 (우리가) 그(움직임)을 동일한
것이며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마다 같은(ὁμοίως 256a12)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마다* 한 편으로 동일(한 것)을 나누
어 지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ἑαυτήν 256b1)에 대해 그렇게 동일하다
는 것을 (우리는)말하며 다른 한 편으로 (그것)을 통해서 동일한 것과
분리되어 저(동일한) 것이 아니라 *헤태론한*(ἕτερον b3)것이 되는 바
로 그 *헤태론과*(ἑατέρου b1) *교통함*을 통해서(διὰ τὴν κοινωνίαν²⁴²⁴)

2423) εἶναι(있다)의 미완료능동3인칭단수 ἦν(있어온)이 쓰였음에 유의하라
텔레스도 형이상학 랍다 편 9 장 끝 부분에서 *움직임을* 항상 **있**어 오는(ἦν,
1071b5, 755)것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텔레스는 있어 오는 이러한 움직임을
놓고 나가면서 움직여지는 것이 있으므로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
다 라고 말한다 나아가서,

있어 옴에 대해서는 294, 335, 582, 624, 137, 148, 1157쪽 등을 참조하
라

2424) 따라서 *교통함* 과 나누어 지님은 서로 통하는 말임을 알 수 있으리
라 어떤 경우에는 서로 바꾸어 쓸 수도 있을 정도로 말이다 그러나 자신이

b1)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올바르게 말하여지네²⁴²⁵) : 엘레아 낫선이

물론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움직임 자체가 쉬를 나누어 취함(μετελαμβάνειν²⁴²⁶)^{256b6})것으로 [보아] 그(움직임)을 쉬어 왔던 것으로 부르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닐까? : 엘레아 낫선이

가장 올바르게합니다 만약 그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섞어지며(μειγνυσθαι 256b9)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서로 섞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말입니다] : 엘레아 낫선이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지금에 다다르기 전에 자연에 따라(κατὰ φύσιν 256c2)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므로서 우리는 논증했네²⁴²⁷) : 엘

고유하게 쓰이는 어떤 맥락을 지닐 것이다 그 맥락은 무엇인가.... 말할 시간이 없다

2425) 여기서 엘레아 낫선은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여지는 때(ὅταν 256b2)와 동일하다고 말하여지는 때(ὁπότεν 256b1)를 구분하여 그 양쪽이 다 올바르게(ὀρθῶς 256b4)것을 지적한다

2426) 나누어 지님(τὸ μετέχειν 256a1)대신에 나누어 취함이 쓰이는 경우는 파르메니데아스 편 131e5(1268, 1265각주2067, 1262각주2062)에도 나타난다 거기를 주욱 읽어 보라 미묘한 어려움에 빠져들 것이다(1303쪽각주2116번도 참조하십시오)

2427) 모든 류가 교통하는 것도 어떤 류도 교통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류들 중에 어떤 것은 교통하는 반면 어떤 것은 교통하지 않는다는 논증은 251d5 - 253e8(1481-1485)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쓰인 자연(φύσιν) 이라는 말은 250c6(1473), 255b1(1519)에서 나타난다 있는 것은 자신의 자연에 따라서 쉬어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레아 낮선이

어찌 안 (그려졌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우리 다시 말해 보세 동일한 것과 그리고 숨과 알론해 왔던 것
처럼 움직임은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하[게] 있다고 (말일세) : 엘레아
낮선이

반드시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심지어 지금의 로고스에 따라서 (움직임은) 어떻게든
헤태론하지 않으며(kai 256c8) 헤태론하다네 : 엘레아 낮선이

진실 : 테아이테토스

이 후에는 무엇이? 따라서 다시 (우리는) 한 편으로 그(움직
임은 셋과는(των τριών 256c11) 헤태론하다(εἶναι c12) 라고 말하면서
도 다른 한 편으로 네 번째(τού τετάρτου, c12, 류)와는 (헤태론하지)
않다²⁴²⁸)라고 말할까 전에 행해진 그(류)들에 관한 조사에서 그(류)
들은 다섯[개]이디는 데에 동의했다면 [말이네] : 엘레아 낮선이

어떻게? 지금 나타난 (개) 수 보다 더 적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움직임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다(εἶναι 256d5)라고 싸워가
며 만족스럽게 (우리) 말하겠는가 : 엘레아 낮선이

것도 아니라는 로고스에 앞의 것은 나타나는 반면 뒤의 것은 헤태론한 것은
자신의 자연과 반대되는 헤태론한 것으로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라는 로고스
에 나타나나 이러한 말이 위 논증에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닌 것 같
다

2428) 콘퍼드(1002)는 넷 중의 셋과는 다르지만 네 번째와는 다르지 않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가? 라고 옮긴다

가장 만족스럽게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분명하게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며(κ αὶ δ8)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는 것이지? : 엘레아 낫선이

가장 분명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움직임의 경우에 있지 않는 것(τὸ μὴ ὄν d11)이 필연적으로 있네(ἔστιν d11) 그리고 모든 류에 따라 (있지 않는 것이) 있다(εἶναι d12)네 모든 것에 따라 헤태론한 것의 자연이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을 완성하면서(ἀπερχαζομένη, 256e1, 完成) 각기 것을 있지 않게 하기 때문일세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 (우리는 그 류들 모두를 함께 있지 않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부르리라(εῖπούμεν e2) 그리고 다시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는 것들 이라(εἶναι e3)고 (올바르게 부르리라)²⁴²⁹ : 엘레아 낫선이

감히 (그러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한 편으로 에이도스들의 각각에 관하여 있는 것은 많이(πολὺ 256e5)이고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는 것은 무한히 아주 많이(πλήθει e6)(있네) : 엘레아 낫선이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있는 것 자체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εἶναι 257a1)라고 반드시 말해져야하네 : 엘레아 낫선이

필연적으로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따라서 알론한 것들(τὰ ἄλλα a4)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

2429) 움직임이 있고 있지 않듯이 알론한 모든 류도 있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있는 반면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임 등의 류가 있지 않는 것은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고스는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야만 할 것 같다

있는 것이 (있으며) 그 만큼 **있지않**(οὐκ α5)네 왜냐하면 있지 않을 (때) 저(알론한?) 것들은 한 편으로 *하나* 자체이며 다른 한 편으로 다시 수적으로 무한한 알론한 것들이 아닐(οὐκ ἔστιν α6)것이기 때문 이네 : 엘레아 낫선이

거의 그렇습니다 : 테

그렇다면 류들의 자연은 서로 *교통*하는 [것이]므로 이(런)것들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네 만약 어떤 자가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전 로고스들을 그런길로 설득시키고 나서 이것들을 설득시켜야하네 : 엘레아 낫선이

당신께서는 가장 올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요것을 알아보세(ἴδωμεν 257b1)나 : 엘레아 낫선이

어떠한 것? : 테아이테토스

있지 않는 것(τὸ μὴ ὄν 257b3)(우리가) 말할 때 **마다** (우리는) **있는 것과 반대**(ἐναντίον²⁴³⁰)b3)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

2430) 바로 요 것이 결정적이다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엘레아 낫선은 여지껏 말해 왔다고 나에게는 여겨지기 때문이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소피스테에스 정체를 벗겨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피스테에스가 메달리고 ‘있는’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련해 말해야만 할 것인데 이 말의 끝은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 있는 것과 *해태론한* 것이다 라는 로고스-이 로고스는 파르메니데에스 편 160c5-6(77)에 그대로 나타난다-일 것이므로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엘레아 낫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까 아니다 가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자 다시 말해 거짓 말은 있지 않다고 말하는 자-요 자가 바로 소피스테에스이다-의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거짓 말(로고스)이 무엇인가에 관련해 말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로고스(말)가 무엇인가

나라 단지 (있는 것과) 헤테론한 것(ἕτερον 257b4)(을 말하는 것) 처

럼 보여지네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 테아이테토스

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있는 것을
말했 듯이 말이다 그러나,

이 각주에서 나는 있는 것과 헤테론한 것이 있지 않는 것이지 있는 것
의 반대가 아니다 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려한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있
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반대라고 여기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상식을 가지고 상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하여지고 ‘있는’ 반대
가 무엇인지를 먼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텔레스가 반대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 지는 254쪽을 참조하라 995, 1008, 1023, 253등)

내가 보기에는 텔레스도 있는 것을 있지 않는 것과 반대[모순]되는 것
으로 본 것 같지는 않다 있지 않는 것은 우연히 있는 것과 아주 흡사(ἕξυῶ
ς, 1026b2 1, 1120, 恰似)하다 라고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은 순수하게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있는 것이라(1123)고 텔레스에 의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텔레스에 따르면 류적으로 반대 대립인 것들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보다는 이 둘의 속성 짝인 하나와여럿 동일함과헤테론함 같음과같지않음
(1021그림참조)이다 그러나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반대 대립인 것들로
보지 않는다면 반대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모순인가 그렇다면 결국
반대라고 말하는 셈이 아닌가 대립의 일 종인 반대의 일(一) 종(種, 에이도
스)이 모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 그런데 엘레아 낫선은 부정
(ἀπόφασις, 257b9, 否定)이 말하여질 때 마다(ὅταν, 257b9, 1538)반대(ἐναντιο
ν, b9, 反對)가 가리켜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낫선의 경우 반대는
부정일 것이다.....

예를들어 (우리가) 크지 **않는**(μή 257b6)어떤 것을 말할 때 마다 어느 때든 그 구(句)에 의해서 오히려 작은 무엇 또는 똑 같은 무엇이 자네에게 분명히 나타나지? : 엘레아 님선이

그리고 어떻게?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부정**(ἀπόφασις, 257b9, 否定)이 말하여질 때 마다 **반대**(έναντιον, b9, 反對)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만큼한 정도에 서만 인정되지 **않으면**[안되네] **있는** 것들의 이름들의(των ἐπιόντων ὀνοματων 257c1)앞에 놓인 **아닐** 과 **아닌**(τὸ μὴ καὶ τὸ οὐ c1)은 (있는 것들과는) 알론한 어떤 것을 또(δέ c2) 그 부정²⁴³¹뒤에 발설되어진 이름들이 설정할 어떤 프라그마²⁴³²들과는 (알론한 어떤 것)을 폭로(μηνύει b10)한다는 (정도에서만) [말일세] : 엘레아 님선이

모두 모두 : 테아이테토스

만약 자네가 [나] 처럼 여긴다면 (우리) 요것을 두루 생각해 보세나 : 엘레아 님선이

어떠한 것? : 테아이테토스

나에게는 **헤태론**(한 것)의 자연(φύσις 257c7)이 **얕**²⁴³³과 마찬가지로

2431) τῆς ἀποφάσεως(否定, 257c3) 뒤에 발설된 것들에서 부정이라는 말은 아마도 두 번째 앞 줄(257c1)의 아닐 과 아닌을 가리킬 것이다 1470 과 1516쪽에 그려진 부정(否定)을 참조하라

2432) τῶν πραγμάτων(257c2, 일(事), 事態) 라는 말은 244d3(1398)에서도 쓰인다 이름이 프라그마와 헤태론한 것이라면 하나를 말하는 자들은 어떤 동일한 것이 이름을 두 개 지닐 수는 없다 라고 할 것이다 이름이 두 개라는 것을 인정하면 이미 여럿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맥락에서 말이다

2433) 얕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처럼 헤태론한 것도 자신의 여러 부분으로 나뉜다는 말인데....얕의 여러 부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국가

가지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네 : 엘레아 낯선
이

어떻게 : 테아이테토스

한 편으로 저(앓)도 어디에서든 *하*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앓)의 부분이 되는 경우 각각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어떤 이
름을 유지한다네 이를 통해서 여러 **기교**들 과 **앓**들이 있네 : 엘레아
낯선이

물론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이와 동일 *ἕκαστος*, 257d5)것을 *ἑταίρον* (것의) 단일
한 자연의 부분들이 겪을 것이네 : 엘레아 낯선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길로 (우리는) 말해야할까
요? : 테아이테토스

*아름다움*에 모순되는(*ἀντιτιθέμενον* 257d7) *ἑταίρον*의 어떤 부분
이 있을까²⁴³⁴? : 엘레아 낯선이

있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이 부분은 *아름없다* 라고 우리가 말할까 또는 하위이름(*ἐπωνυμ
ία* 257d9)을 지닌다 (라고 말할까)? : 엘레아 낯선이

편에 나오는 선분의 나뉘에 상응하는 영혼(의 작용) 과 앓의 나뉘 부분을
(1145)여기에 끌어들여도 되는 것일까 어쨌든,

인식(*γνώσεως*, 248e3, 1450) 또는 **앓**(*ἐπιστήμη*, 257c8)이라는 말은 **있
는** 것에 관한 로고스에서 아주 심각하게 도입(導入)된다

2434) 아름다움에 모순되는 바로 아름다움의 *ἑταίρον*한 그 어떤 부분이 있
을까 라는 물음일 것이다 모-순(*ἀντι-φάσις*, 矛-盾)이라는 말을 찾을 수 없
어 *맞서* 놓여지다 라는 뜻의 *ἀντι-τιθέμενον*(257d7)을 모-순되다 라고 써
보았다

지닌다고 (말해야지요) 발설되어지는 아름답지 **않는** 것 각각 이것은 **알론한** 어떤 것과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ἢ d11) 아름다운 (것의) **자연과**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 테아이테토스

지금 나에게 요것을 말하도록 해 주게나 : 엘레아 낫선이

어떠한 것? : 테아이테토스

아름답지 **않는** 것은 **있는** 것들의 어떤 하나의 **류들이** 한정된 그리고 또 다시 있는 것들의 어떤 것에 대해 그렇게 잇따라 모순되게 놓여진(ἀντιτεθέν, 反定立²⁴³⁵)된 **알론한 것일**(εἶναι 257e4)까 : 엘레아 낫선이

그렇습지요 : 테아이테토스

그래서 아름답지 **않는** 것은 **있는** 것 대해 **있는 것의 모순된**(반정립된, ἀντιθεσις, e6) **어떤 것**이다(εἶναι e6)라고 잇따를 것 처럼 보이네²⁴³⁶ : 엘레아 낫선이

가장 올바르십니다 : 테아이테토스

무엇이? 따라서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한 편으로 아름다운 것은 더 많이(μᾶλλον 257e9) **있는** 것들이며 다른 한 편으로 아름답지

2435) 텔레스의 형이상학 값과 편 11 장 1067b21(916)에 나타나는 반정립(ἀντιθεσις)을 참조하라 모순(ἀντιφάσις)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서이다

2436)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반 정립된(또는 **모순된**) ‘**있는** **어떠한 것**(τις 257e6)이다 (어떤) 것(τὸ τι, 237c10, 1361)은 있는 (것)과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렇다면 있는 **않는** 것 이라는 말이 불합리(ἄτοπος)한 것이 아니게 되 마침내 **있지 않는** 것도 말하여질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엘레아 낫선은 자신의 아버지를 상처내지 않고 (ἀθῶσις, 254d1, 1346)따라서 죽이지 않은 채 **있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됐다 아버지 파르메니데아스를 정확히 해석해 냈기 때문이다.....

않는 것은 더 적게(ἧττον ε10)(있는 것들²⁴³⁷)일까 : 엘레아 낫선이

어떤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이와] 같이 따라서 크지 **않는** 것 과 큰 것 자체가 **있다**(εἶναι

258a1) 라고 말하여져야 할까 : 엘레아 낫선이

같이(ὁμοίως, 258a3) (있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헤태론한 것이 어느 헤태론한 것 보다 더 많이 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것에 대한 헤태론한 것과 동일하게(κατὰ ταῦτα a4)

올바르지 **않는** 것은 **올바른**(²⁴³⁸)것에 (대해 **있을**)까 : 엘레아 낫선이

[다르게] 무슨? : 테아이테토스

2437) 만약 더 적게 있다면 어떤 것은 더 많이 있는 반면 어떤 것은 더 적게 있으므로 양적이든 질적이든 어떤 측면에서든 **있는** 것에는 정도(degree, 定度)가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으리라 그렇다 라고 여기는 일련의 생각은 텔레스의 범주들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텔레스는 두 번째 실체 가운데 종이 류 보다 더 많이(μᾶλλον, 2b7, 170)실체-그러나 실체 그 자체는 더 많음 과 더 적음을 허용하지 않는다(180)-이다 라고 자신의 범주들에서 말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여기 테아이테토스는 있는 것(류) 과 있지 않는 것(류의 종)의 경우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한다 어쨌든,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 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있는가 라고 묻는 엘레아 낫선은 만약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있다면 예를들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지 않는 것 보다 더 많이 있을 것이거나 또는 아름답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것 보다 더 적게 있을 것일세 라고 답할 것이다

2438) 지금 보기로 들어지는 **아름다움** 과 **올바름**(정의(正義) 등은 이미 파르메니데아스 편 130b7-8(1257)에서 **착함** 등과 같이 하나의 에이도스로서 파르메니데아스에 의해 거론(學論)됐다는 점에 유의하라

알론한 것들도 동일하게(ταύτην 258a7) (우리) 말할 것이네 *헤테론한* 것의 자연은 **있는** 것들 중의 하나(οὐσα a8)라고 선언되었으므로 저 [헤테론하게] 있는(οὖν a8)것의 부분들 어떤 것도 필연적으로 그 (있는) 것 보다 더 적게 **있는** 것들이(τὰ ὄντα a9)아니라네 : 엘레아 낮선이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헤테론한* (것의) 자연의 부분의 그리고 서로에 대해 **있는** 것의 어떤 것도 *더 적게* 대립되는(ἀντικειμένων 258b1) *모순*(ἀντιθεσις, b1, 反定立, 矛盾)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네 만약 그(부분)것의 있는 것의 실체(οὐσα b2)가 저(있는) 것과 반대인 것이 아니라 단지 저(있는) 것과 헤테론한 것일 뿐인한 있다면 [말일세] : 엘레아 낮선이

가장 선명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이제 그것을 어떤 *이름*²⁴³⁹으로 불러야하는가(προσειπωμεν 258b

2439) 무지막지하게 잔인한 그 거인들 과 친숙한 에이도스론 자들을 상대할 때 엘레아 낮선이 왜 자주 그토록 *이름*(ὀνόμασιν 243c1, 1396 ; 255c9, 1522 ; 251a5, 1478)을 들먹였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동일한 것 하나에 여러 이름이 붙혀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했는지 알 만할 것이다 있지 않는 것의 이름은 동일한 류인 있는 것에 걸리는 것이기에 나아가서 **있는** 것의 이름 과 **있지 않는** 것의 이름 이 두 이름이 하나의 동일한 류인 **있음**에 덧 붙혀지기 때문이다

그 두 이름이 **없음**에 붙혀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있지 않는 것은 없음과 동일한 류가 결코 아니다 있지 않는 것의 이름은 있음을 가리키는 *하위이름*(ἑπωνυμιαν 257d7)일 뿐이다 물론 있는 것의 이름과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는 동격(同格)으로서 말이다 있는 류와 알론한 류의 헤테론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과 헤테론한 것을 가리키는 있는 것과 동일한 류 바로 이

5) : 엘레아 낯선이

이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 소피스테이스를 조사하는 **있지 않는 것**(τὸ μὴ ὄν 258b6) 바로 그것임이 분명합니다 : 테아이테토스
자네가 말한 것 처럼 (있지 않는 것은) 알론한 어떤 것 보다 **실체**를 부족하게 지니지(ἐλλειπόμενον b9)않는 것인가 그런데(kai b9) 크지 않는 것 과 아름답지 않는 것도 큰 것이 커왔(ἦν 258c1)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워왔던 것 처럼 (그렇게 있어온 것과) 같이 그와 동 일하게(κατὰ ταύτων c2)(있지 않는 것을) 여러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 의 **에이도스**(εἶδος, c3, 種)으로 헤아리면서 **있지 않는** 것이 **있어왔**(ἦν v c3)으며 그리고 있지 않는(것이) **있**(ἔστι²⁴⁴⁰)c3[오므로] 있지 않는 것은 확고하게 자신의 자연을 지니고 있다 라고 반드시 담대하게 이

것을(αὐτὸ 258b7)있지 않는 것이라 **이름**한다

2440) 여기서 나는 있다(εἶναι)에 걸리는 때를 1454쪽 각주 2345번에 했던 것 처럼(1470, 1516쪽 그림참조) 구분해 보려한다 티마이오스 편 37e4(1173) 등 여러 곳에서 그 때가 날카롭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우선,

있는 류의 여러 종들 가운데 하나인 있지 않는 것의 경우 지난 때부터 주욱 이리로 나아오는 시간을 가리키는 미완료능동현재3인칭단수형이 쓰여 있지 않는 것이 **있어 온** 이라고 말여지는 한 편으로 지금 현재-헬라이어 현재에는 진행의 뜻이 들어있다-를 가리키는 현재능동3인칭단수형이 쓰여 있지 않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와 지금 현재 이전으로 때가 분명히 구분된다 1516그림을 본 후 249d3-4(1454)를 살펴 보라 그러면,

움직임 류의 여러 종이 쉼 류의 여러 종(250c6, 1473-75)이 역시 때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움직여져왔었음(완료수동분사) 와 움직이지않음(지금?) 그리고 쉬어왔음(미완료능동분사) 과 쉼(지금?) 등으로 있음과 연관해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이 두 곳을 뚱뚱그러 지금

미 말하네 아니면(πότερον.....ἢ.....c4) 오오 테아이테토스여 이러한 것
 에 대한 어떤 무신앙(ἀπιστιαν, 無信仰) 지녀야하는가 : 엘레아 낫선
 이 : 테아이테토스

그 어떤(무신앙도 지니면) 안됩니다 : 테아이테토스

과 지금 이전으로 그 때를 나누어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
 다

때 / 류(γένος)	움직임	있음	쉽
지금이전	움직여져있어왔음 쉬지않고있었음		
지금	움직움직여지거나움직이지않음		
지금이후	?		

그러나 이렇게 수평적으로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다
 1171쪽의 그림에 나타났듯이 지금(τὸ νῦν, 파르메니데아스152e1)은 둥글게
 나아오는 시간의 지금은 모든 있음에 함께하기(παρεσσι, 152e1, 1160, 臨在)
 때문이다

이제 파르메니데에스에 의해 금하여진 것²⁴⁴¹)보다 더 길게(μακροτέρως 258c6)우리 알게됐다는 것을 (자네는) 보는가 : 엘레아 낫선이
이
무슨? : 테아이테토스 (255e8 - 258c8) ”

라는 인용글월에서도
결국 **있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고 단지 있는 **류**의 어느 한
에이도스(종)이 **있지 않는** 것이며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
이다 라고만 말하여질 뿐이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이 폭로되는 그 만큼(καθ

2441) 파르메니데에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로고스가 거의 끝나가는가 보다 있는 또는 있지 않는 것이 말하
여지기 시작하면서 파르메니데에스(237a4, 1360, 103)가 나타났었기 때문이
다 거기서 파르메니데에스는 있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 결코 넘어가서
는 안되며 그러한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금했으나 파르메니데에스를
아버지라 부르는 엘레아 낫선은 지금 여기까지 줄곧 있는 것 뿐 아니라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생각해 왔고 급기야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 만큼이나
있다 라고 선언하게 된다 그러기에,

엘레아 낫선은 아버지의 금령(禁令)을 어긴 것 처럼 보이나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의 알론한 종(에이도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긴 것이
아니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뿐이다 따라서
아버지를 살해한(241d3, 102)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없이 병을 고쳐 준 셈
이다 그것도 아버지의 병이 아니라 아버님을 오해한 사람의 병을 자신의 아
버지를 상처 났없이(254d1, 1346)고쳐 주었다

ἀπερ, 250c7, 1478)있는 것도 밝혀진다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정확
하게 알기위하여 위 인용글월을 다시 옮겨 보자

이제 다섯 가지를 하나 씩 취해 말해 보세나 - 어떻게? - 쉽고 모두
모두 헤태론[하게] 있는 것 으로서의 움직임^을 먼저 말해 보세 그렇지 말
까? - 그렇게 하지요 - 따라서,

움직임은 **쉽**이 아니네 - 전혀 아닙니다 - 그런데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움직임^은 있네 - 있습니다 - 뒤로 다시,

움직임은 동일함과 **헤태론**하다네 - 거의 - 따라서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 **아니**네 - 아닙니다 - 그러나 움직임은 다시 모든 것이 이 동일함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있어 왔네 - 아주 많이 - 움직임은 동일
한 것**이며** 그리고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고통없이 동의해야만 하
네 그 움직임을 동일한 것**이며**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마다 같은
말을 아니라 그럴 때 마다 한 편으로 동일한 것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자
기 자신(ἐαυτῆν²⁴⁴²), 256b1, 1533)에 대해 그렇게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며
다른 한 편으로 그것을 통해서 동일한 것과 분리되어 저 동일한 것이 아니
라 헤태론한 것이 되는 바로 그 헤태론과 고통함을 통해서움직임은 (자기

2442) 어떤 것을 자기 자신(스스로) 과 **알**론한 것으로 나누어 이 둘이 서로
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에 관해 쓰는 대화 편이 바로 파르메니데에스 편이다
12쪽 그림을 보면 이러한 나뉘이 선명하게 드러 날 것이다 따라서 거기 파
르메니데에스 편 과 여기 소피스테에스 편은 상호 밀접한 관련 속에서도 쓰
여졌다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물론 자기들만의 고유한 속고 대상을 지니
고 있긴해도 말이다(819, 1338, 1406쪽도 참조하시오)

자신과)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올바르게 말하여진다네 - 물론입니다 - 그런데,

움직임 자체가 쉽을 나누어 취하는 것으로 보아 그 움직임을 쉬어왔던 것으로 부르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닐까 - 아주 올바르십니다 - 만약 그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섞여지는 반면 어떤 것들은 서로 섞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말입니다 - 그리고 지금에 다다르기 전에 자연스레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므로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논증했네 - 어찌 논증하지 아니했겠습니까 - 우리 다시 말해 보세나,

동일한 것과 그리고 **쉽**과 **알론해 오고있었던 것처럼 움직임은 헤테론한 것과 헤테론[하게] 있다고 [말일세]** - 반드시 - 따라서 심지어 지금의 로고스에 따라서 움직임은 어떻게든 헤테론하지 **않으며** 그리고 헤테론하네 - 진실 - 이 다음에는 무엇? 따라서 다시 움직임은 셋²⁴⁴³과 헤테론하다(*eĩvai*, 256c12, 1535)라고 말하면서도네 번째²⁴⁴⁴류와는 헤테론하지 않다

2443) **쉽** 과 **동일** 과 **헤테론** 이 셋을 말할 것이다

2444) 지금 이 맥락 이전까지의 로고스 순서에 따르면 네 번째 것은 동일함이여야한다 254b4(1516) 앞 뒤 줄에 쓰여졌듯이 움직임 **쉽** 있는 것의 류 순으로 거론(擧論)되며 있는 것에 이어 동일함 헤테론함(254d14-15, 1518)의 류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1535쪽각주2428번에 쓰여졌듯이 콘퍼드처럼 넷 중의 셋과는 다르지만 네 번째와는 다르지 않다라고 옮기더라도 지금 이 맥락의 순서만을 따르자면 네 번째 류는 헤테론함이 될 것이다 움직임 **쉽** 동일함 헤테론함 순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아니다 움직임을 제외하면 넷이 남는데 이 넷 중 동일함 **쉽** 헤테론함 셋 순으로 거론됐으니 나머지 네 번째 것은 있음이 분명하고나 그렇다면 지금의 나의 번민은 너무 많이 맥락을 연결시킨 잘못으로부터 왔다 그렇다면 네 번째 것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어지는 다음

라고 말할까 전에 행해진 그 류들에 관한 조사에서 류들은 다섯이라는 데에 동의했다면 말이네 - 어떻게? 지금 나타난 개 수 보다 더 적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움직임은 있는 것과 해태론한 것이다 라고 불굴의 투지로 우리 만족스럽게 말하겠는가 - 가장 만족스럽게 - 그렇다면 분명히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는 것이지? - 가장 분명합니다 - 따라서 움직임의 경우에 있지 않는 것이 필연적으로 있네 그리고 모든 류에 따라 있지 않는 것이 있다네 모든 것에 따라 해태론한 것의 자연이 있는 것과 해태론한 것을 완성하면서 각기 것을 있지 않게하기 때문일세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 우리는 그 류 모두를 있지 않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부르리라 그리고 다시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는 것들이라고 올바르게 부르리라 - 감히 그러합니다 - 따라서,

에이도스들 각각에 관하여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한 편으로 있지 않는 것은 무한히 (ἄπειρον, 256e6, 1536) 아주 많이 있네 -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렇다면 있는 것 자체는 알론한 것들과 해태론하다(εἶναι, 257a1, 1536) 라고 반드시 말해져야하네 - 필연적으로 - 그리고 따라서 알론한 것들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으며 그 만큼 있지 않네 왜냐하면 있

로고스와의 일치한다 움직임은 있는 것과 해태론한 것이다(εἶναι, 256d5, 1535)라는 로고스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쉽 동일함 해태론함 있음 이 넷에 지금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움직임을 합하면 다섯-바로 이 다섯이 이 맥락 이전까지 쓰여졌던 가장 큰 류의 개수와 맞다 그 순서는 다르지만 말이다-이 된다 내가 요놈의 네 번째 것이라는 말로부터 비롯되는 순서 때문에 잠시 헷갈렸다 여기 순서와 저기 거기 순서가 해태론하므로 그렇다

지 없을 때 저(알론한?) 것들은 하나 자체인 반면 한 편으로 다시 수적으로 무한한(ἀπέραντα²⁴⁴⁵), 257c6, 1536)알론한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이네 - 거의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류들의 자연은 서로 교통하는 것이므로 이런 것들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네 만약 어떤 자가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전 로고스들을 그런 길로 설득시키고나서 이것들을 설득시켜야하네 - 당신께서는 가장 올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요것을 알아보세나 - 어떠한? -

있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마다 있는 것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과 단지 ~~해태론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네 - 어떻게 - 예를들어 크지 않는 어떤 것을 말할 때 마다 어느 때든 그 구(句)에 의해서 오히려 작은 무엇 또는 똑 같은 무엇이 자네에게 분명히 나타나지? - 그리고 어떻게? - 따라서,

부정(ἀπόφασις, 257b9, 1538, 否定)이 말하여질 때 마다 반대를 가리킨다는 것은 단지 이 만큼한 정도에서만 인정되지 않으면 안되네 있는 것들의 이름들의 앞에 놓인 **아닐** 과 **아닌은 있는 것들과는**과는 **과는 알론한 어떤 것을** 또 그 부정 뒤에 발설된 이름들이 설정할 어떤 **프라그마**들과는 알론한 어떤 것을 폭로한다는 정도에서만 말일세 - 모두 모두 - 만약 자네가 나처럼 여긴다면 요것을 두루 생각해 보세나 - 어떠한? -

2445) 무한히 있는 있지 않는 것 이라는 것 등으로 무한함 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 것과 덧 붙혀져 나타나곤 하는데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은 무한히 있다 라는 말이 아닌가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한데도 말이다 심지어 더 많이라는 말이 덧 붙혀져서 말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있지 않는 것은 무한하지만 있는 것은 무한하지 않다 라고 받아드려야 하는가 받아드려야한다면 무한함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

나에게는 *헤태론한* 것의 *자연*이 *앎*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네 - 어떻게 - 저(*앎*)은 어디에서든 하나인 반면 그 *앎*의 부분이 되는 각각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어떤 *이름*을 유지한다네 이를 통해서 여러 *기교들* 과 *앎들*이 있네 - 물론 - 그렇다면 *헤태론한* 것의 단일한 *자연*의 부분들이 이와 *동일한* 것을 겪을 것이네 -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길로 말해야할까요 -

아름다움에 *모순*되는 *헤태론*의 어떤 부분이 있을까 -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이름없다고 말할까 또는 하위 *이름*을 지닌다 라고 말할까 - 지닌다고 해야지요 발설되는 이름답지 *않는* 것 각각 이것은 알론한 어떤 것과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의 *자연*과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 지금 나에게 요것을 말하도록 해 주게나 - 어떠한? - 이름답지 *않는* 것은 *있는* 것들의 어떤 하나의 *류*들이 한정된 그리고 또 다시 있는 것의 어떤 것에 대해²⁴⁴⁶)그렇게 잇따라 *모순*되게 놓여진 알론한 것일까 - 그렇습지요

2446) *헤태론한* 것은 항상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이라는 255d1 앞 뒤(1552)를 참조하여 서로에 대해 있는 *헤태론한* 것은 어떤 *류*에 따라 한정되어진 *종들*로서 서로에 *모순*(*반정립*)된 알론한 것들이다라는 여기 맥락을 보라 그런다음,

바로 이 지점에 텔레스의 형이상학 제에타 편 12장에 나오는 ‘ 맨 끝의 차이(*διαφοράς*, 1038a25, 448)가 에이도스(*종*)이요 실체라는 말 그리고 차이들은 *헤태론한* 것(*Θατέρον*, 1037b18, 411)들의 차이인데 이러한 차이를 *류*는 나누어지니지 *않으며* 나아가서 *헤태론한* 것도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지니지*(*μετέχει*, 1037b18, 411)*않는*다는 말을 삽입할 수 있으리라 비록 *차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지만 말이다 *류*에 따라 한정된 것이 *종들*로서의 *헤태론한* 것들은 서로에 대해 *모순적*이라는 로고스 그리고 *류*가 나누어 지니지 못하는 바로 *헤태론한* 것들의 그 차이들 가운데 맨 끝의 차이가 *종*이라는

- 그래서 이름답지 **많은 것은 있는 것에 대한 있는 것의 모순된(반정립된) 어떤 것이다**는 것이 잇따를 것 처럼 보이네 - 가장 올바르십니다 - 무엇이?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아름다운 것은 *더 많이* 있는 것들인 반면 이름답지 않는 것은 *더 적게* 있는 것들일까 - 어떤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이 크지 않는 것 과 큰 것 자체가 **있다**(εἶναι, 258a1, 1542)라고 말하여져야할까 - (그와) 같이 - 그렇다면 헤태론한 것이 어느 헤태론한 것 보다 더 많이 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것에 대한 **헤태론한 것**과 동일하게 올바르지 **않는** 것은 **올바른것**에 대해 **있을**까 - [다른] 무엇? - 알려진 것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말할 것이네,

헤태론한 것의 자연은 **있는 것**들의 **있는 것**(οὔσα, 258a8, 1542)이라고 선언되었으므로 헤태론하게 **있는 이** 부분들 어떤 것도 필연적으로 **저 있는 것**(2447)보다 더 적게 있는 것이 아니라네 -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렇다면 헤태론한 것의 자연의 부분의 그리고 서로에 대해 있는 것의 어떤 것도 더 적게 대립되는 모순(ἀντιθεσις, b1, 反定立, 矛盾)이 라고 여겨지네 만약 그 **있는 부분 으로서의 있는 것**(실체, οὔσα, 258b2, 1542)가 **저 있는**

말은 종이란 결국 헤태론한 것에 관련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을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 엘레아 낯선이는 이 경우 **있음**의 류에 속하는 **종들** 가운데 하나로서의 **있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는 반면 거기 텔레스는 **정의**의 한 요소로서의 **종**을 염두에 두고 있긴하다 그러나 엘레아 낯선이의 **종** 역시 류에서 **한정된**(ἀφορισθὲν, 257e2, 1540)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리라

2447) **저 있는 것**은 **있는 것**을 말하며 **이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으로** 있는 것을 말한다

것과 반대가 아니라 단지 **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일 뿐인한 있다면 말일
세 - 가장 선명합니다 - 이제,

(**있는** 것과 **헤태론하게 있는**) 이것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 -
이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 소피스테에스를 조사하는 **있지 않는** 바로 그
것임이 분명합니다 - 자네가 말한 것 처럼 **있지 않는** 이것은 **알론한** 어떤
것 보다 실체를 부족하게 지니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크지 않는 것 과 아름답
답지 않는 것도 큰 것이 크게 있어오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게 **있어온** 것
처럼 이와 같이 그와 **동일하게** 여러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의 **에이도스로**
헤아리면서 **있지 않는** 것이 **있어오**며 그리고 **있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있**
지 않는 것은 확고하게 자신의 자연²⁴⁴⁸)을 지니고 있다 라고 반드시 담대하
게 이미 말했네 아니면 오오! 테아이테토스여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몰신
양(ἀμοτιαν, 285c4, 1545, 沒信仰)을 지녀야하는가 - 전혀 아닙니다 - 이제,

파르메니데에스에 의해 금하여진 것 보다 더 길게 우리는 알게 됐다
는 것을 자네는 보는가 - 무슨?

다섯 가지 가장 큰 류를 하나 씩 집어내 말해 보자고 하면서 위 인용
글월을 시작했던 엘레아 낫선이는 **움직임 있는** 것 **있지 않는** 것 순으로 말
하고 관련된 글을 끝낸다 그렇다면 **쉽** 과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은 어찌
된 것일까 **헤태론함**은 **있지 않는** 것의 자연으로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은 **있**
는 류의 여러 종들 가운데 하나로 말하여지므로 **헤태론한** 것도 말하여진 것
으로 본다하더라도 **쉽** 과 **동일한** (것)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순서에서 말하
여지지 않았을까 **동일함**은 위 셋이 말하여지는 가운데 이따끔 쓰여지는 반
면 **쉽**은 **동일함**이 말하여지는 가운데 **움직임**은 **쉽**과 **헤태론한** 것이다 라는

2448) 이 자연은 **헤태론함**이다

로고스에서만 쓰여질 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²⁴⁴⁹)해태론함 쪽으로 로고스를 물고가기 위해서였을까 어쨌든,

그는 **있는 류의 여러 종 가운데 하나로 있지 않는 것**을 여기며 **해태론함**을 있지 않는 이것의 **자연**이라고 본다 어떠한 길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그의 글을 이제 요약해 보기로 하자

다섯 가지 큰 류를 하나 씩 취해 말해 보기로 하자

쉽과 완전히 **해태론**하게 **있는 것** 으로서의 움직임은 먼저 취해 말해 보기로하자 따라서 움직임은 **쉽**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나누어 지남에 의해서 움직임은 있다 다시,

움직임은 동일함과 **해태론**하므로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동일함을 나누어 지남을 통해 움직임은 동일하게 **있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며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고통 없이 동의해야만 한다 **동일한 것**을 나누어 지남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동일한** 반면 **해태론**함과 **교통**함을 통해서 **동일한 (자기자신)**과 분리되어 **해태론**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움직임 자체가 **쉽**을 나누어 취할 것으로 보아 움직임을 쉬어 있어온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합리한 가장 올바른지 못한 것일 것이다 류들 가운데 어떤 것은 서로 섞어지지만 어떤 것들은 섞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렇다 다시,

동일한 것 과 **쉽**에 **알론**하게 **있어올** 뿐만 아니라 움직임은 **해태론**한 것과도 **해태론**하게 **있다** 그러나 지금의 로고스에 따르면 움직임은 어떻게 든 **해태론**하며 **해태론**하지 **않다**는 것은 진실하다 따라서 따라서 **쉽** 동일함

2449) 256b6-7(1534)

헤타론함 이 셋과는 헤타론하지만 네 번째와는 헤타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의 속고에서 류가 다섯이라는 데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임은 있는 것과는 헤타론한 것이다 라고 불굴의 투지로 가장 만족스럽게 우리는 말한다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을 나누어지므로 **있다**는 것은 가장 분명하다 따라서,

움직임의 류 뿐만 아니라 모든 류는 필연적으로 **있으며 있지않**
다²⁴⁵⁰) 헤타론한 것의 자연이 있는 것과 헤타론한 것을 완성하면서 각기 것

2450) 그러나,

텔레스는 자신의 형이상학 감마 편 4 장에서 호모오뉴마한 것을 제외 하면 동일한 것은 **있으며**(kai, 1006b18, 698)**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물론 동일한 것이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한 것에 속하면서 동시에 속 하지 않을 수는 없다(1005b19-20, 695)라는 앎의 아르케와 연관지워진 것이 기는 해도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앎의 아르케에는 소피스테아스 편 1의 낫선이의 문제의 로고 스 보다는 국가 편 436b5-437b6, 438a7-439a3(논문번역 -1 ~ -4)에 나오는 ‘ 동일한 것은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한 것에 대해 반대로 행하거나 겪을 수 없다 ’ 라는 로고스가 상응할 수 있으므로 텔레스의 앎의 아르케애를 여기서 무시해도 곤란하다 앎의 아르케애가 문제의 텔레스의 로고스에 관련되는 것 처럼 국가 편 436b5-437b6, 438a7-439a3(논문번역 -1 ~ -4)에 나오는 로고스도 분명히 낫선이의 그 로고스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거기 텔레스는 호모오뉴마한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것이 있으며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호모오뉴마한 것을 끌어드리는데 엘레아 낫선이의 로고스에는 이런 제외(除外)가 효력없다 호모오한 이름을 지닌 것 과 같은 오노마(이름)을 지니지 않는 것 사이의 구별은 가장 큰 류에 있어서는 이미 사라

을 있지 않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들이라고 감히 부르며 다시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것에서는 더 작은 것 사이의 구분이 지양(止揚)되므로 그러한 구별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두 곳의 맥락이 사뭇 다르기는 하지만 이 둘을 집어들어 서로 비교할 수는 있다 모두 **있는** 것에 직접 관련되는 로고스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거기 텔레스는 **동일한 것이**(τὸ αὐτὸ, 1006b18)그러하다 라고 말하지만 여기 낯선이는 가장 큰 **류** 다섯 각각이 그러하다 라고 말하므로 두 곳 모두 동일한 것이 문제시된다 큰 류 가운데 하나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텔레스는 동일한 그것의 보기로 사람을 들고 있다는 점에 이 둘을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오히려 동일한 것이기에 동일한 차원의 것이다 텔레스의 경우 사람은 **중**(에이도스)의 보기로 들어지지 아니한가 여기 낯선이의 경우 **중**은 하나의 류에 속하는 하위 것들이다 다음으로,

있으며 있지 않다 또는 **있으며**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를 위 두 사람은 선택한다 낯선이는 앞의 로고스를 택하는 반면 텔레스는 뒤의 로고스를 택한다 그러나 모두 kai(...며..., ...그리고...)로 묶어지는 이 둘은 서로 모순(반 정립)되는 것임에 틀림없으므로 한 사람은 동일한 것은 **있으며** 있지않다 라고 말하는 반면 한 사람은 동일한 것은 **있으며** 있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가장 뚜렷히 구분된다 물론,

한 사람의 경우 헤태론함을 나누어지니면 **있지않는** 반면 있는 것을 나누어지니면 **있으므로** 동일한 것이 앞에서는 있지만 뒤에서는 있지않다 라는 단서(端緒)를 다나 헤태론함이건 있음이건 동일한 것에 늘 함께하는-함께함을 섞어짐으로 지금의 나는 보지않는다-것으로 여겨진다면 이러한

있는 것들이라 부른다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이도스
들 각각은 한 편으로 많이 있고 다른 한 편으로 무한히 아주 많이 있지 않
을 것 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있는 것 자체는 알론한 것들과 반드시 헤태론하므로 알론한 것들이
있는 그 만큼 있으며 **있는 그 만큼 있지 않다** 있지 않는 경우 있지 않는
것들 각각은 한 편으로 하나 자체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수적으로 무한한
알론한 것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과 **헤태론**
한 것일 뿐이다 예를들어,

크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분명히 우리는 오히려 작은 무엇 또는 똑 같
은 무엇을 말한다 따라서 있는의 이름 앞에 놓인 **아닐** 또는 **아님**은 그 있
는과 알론한 것을 또는 그 부정 뒤에 발설된 이름에 놓여지는 **프로그마**와는
알론한 것을 폭로한다(μηνύει, b10, 1538)는 [뜻]에서만 부정(ἀπόφασις, 257b
9, 1538, 否定)은 반대를 가리킨다²⁴⁵¹)나아가서,

단서는 두 사람의 로고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두 사
람은 서로에게 허용될 수 없는 말들을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서,

한 사람은 있어왔음 또는 있지않아왔음 그리고 있음 또는 있지않음 등
으로 때의 범위를 한정하나 이는 이러한 반정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따라서,

동일한 것이 있으며 있지않다는 것을 한 사람은 인정하나 한 사람은
거부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아주 또렷하게 차이난다 두 사람의 있음은 헤
태론하다 글썄.....

2451) 따라서 부정(ἀπόφασις, 257b9, 1538, 否定)은 자신이 부정하는 알론한

헤태론의 자연은 앎의 자연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으로 나뉘었다. 앎은 한 편으로 하나이지만 한 편으로 앎의 부분 각각은 고유한 어떤 이름을 유지하는 것 처럼 말이다. 이를 통해 여러 기교들과 앎이 있다. 그렇다면 헤태론한 단일한 자연의 부분들도 이와 동일할 것을 겪을 것이다. 다음처럼 말할 수 있으리라.

아름다움에 ~~맞서~~²⁴⁵²헤태론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이름이 없을까 아니면 하위이름을 지닐까 지닐 것이다. 발설되는 아름답지 않는 것 각각은 ~~알론~~ 어떤 것과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과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름답지 않는 것은 있는 류가 한정된 그리고 다시 한정된 어떤 것에 ~~잇따라~~ 맞서 놓여진 ~~알론한 것이다~~(εἶναι, 257e4, 1540)

것에 대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μνύει, 257b10, 1538)정도에서만 반대(ἐναντίον, 257b9, 1538, 反對)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서로에 헤태론한 것으로서 ‘~~대~~(對)한다’라는 뜻에서 ‘~~반대~~’이므로 이러한 ‘~~반대~~’에서는 ‘~~반~~(反, -αντίον)’이라는 뜻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으리라. 차라리 우리말로 설명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 ‘~~맞섬~~’의 뜻만을 지닌 ‘~~반대~~’를 가리키는 부정은 오히려 헤태론함이라는 본디 뜻을 지니므로 있지 않는 것의 앎은 자신 앞-우리말의 경우엔 부정[어] 뒤(ὑστερον, 257c3, 1538)에 가 아니라 앞에 부정되는 것이 놓인다. 에 있는 것과 헤태론함을 말한다. 라고 말이다.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곧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다. 다시말해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될까 없어지는 것일까?

2452) 모순되는(ἀντιτιθέμενον, 257d7, 1540)이라고 옮겼었다.

그래서 아름답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해 있는 것의 맞서 놓여진 어떤 것 이라는 것이 잇따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지 않는 것 보다 더 많이 **있는** 것도 아니며 아름답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 보다 더 적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크지 않는 것 과 큰 것 자체 그리고 올바르지 않는 것 과 올바른 것도 동일하다 헤태론한 것이 어느 헤태론한 것 보다 더 많이 있지도 더 적게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알론한 어떤 것도 마찬가지로이다 이제 헤태론한 자연은 있으므로 이렇게 있는 것의 어떤 부분들 역시 필연적으로 서로보다 더 적게 있는 것 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헤태론한 자연의 서로에 대해 있는 부분들 어떤 것도 더 적게 대립되어 맞서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 부분의 있는 것의 실체가 저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라면 분명히 그렇다 이제,

저 **있는** 것에 헤태론한 이 있는 부분에 어떤 이름을 붙여야할까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소피스테아스를 조사하는 중인데 이 이름은 무엇일까 있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다 담대하게 말하지만 있지 않는 것은 실체를 부족하게 지니지 않는다 크지 않는 것 과 아름답지 않는 것도 큰 것이 커져왔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워져 왔던 것처럼 **있지 않는** 것도 여러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의 **종**으로 헤아려지면서 있어왔으며 있다 오오 테아이테토스여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신앙을 지녀서는 안되는가 엘레아 닷선이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파르메니데아스가 금했던 것 보다 더 길게(μακροτέρως, 258c6, 1546)알게됐다

요약한 것을 다시 정리해 보자

거듭 말하지만 엘레아 낯선이는 다섯 가지 류를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으로 놓고 나가면서 어느 한 류의 부분을 끄집어내 **있지 않는** 것이라 이 름한다 역시 다섯 류의 부분과도 서로 섞이는 수적으로 무한한(ἄπειρον, 256e6, 1536)이 부분은 **있는** 류와 **해태**론함을 자신의 **자연**으로 지니는 있는 류의 하나의 **종**이다

있는 것의 부분(μέρος, 257c11, 1539)인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반대될 것 처럼 보이나 실은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 있는 것의 부정이다 물론 맞선다 라는 뜻에서 반대라면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반대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으리라 그러나,

있는 것에 **모순**(반대)되는 것 으로서의 ‘**없는** 것’은 아니다 있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있지 않는** 것이 ‘**없는**(無²⁴⁵³)’ 것이라면 엘레아

2453) **없음** 이라고 옮겨질 수 있는 말이 세 대화 편에 있을까 티마이오스 편에는 없을 것 같으나 파르메니데이스 편 과 소피스테이스 편에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낱말이 아니라 어찌보면 **없음**을 가리킨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을 레에마(句)가 있을 것 같기에 그렇지 **없음** 이라는 낱말이 직접 겹코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들어,

‘**하나도 있지 않는 것**(τὸ μηδαμῶς ὄν, 237b7-8, 1361)’ 이라는 레에마를 혹은 **없는** 것이라고 옮겨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τὸ μηδαμῶς ὄν (**하나도 또는 전혀** 있지 않는 것)을 τὸ μὴ ὄν(**있지 않는 것**)의 강조로 보면 안될까 너 같은 놈은 결코 목사가 되선 안되! 라고 할 때 라든지 너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할 때 처럼 말이다 이 두 경우 앞의 **결코**는 너는 목사가 **아니**어야되!를 강조하는 것이며 뒤의 **전혀**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파르메니데스 편에서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εἰ ἐν μὴ ἔστιν, 160b7,

낮선이도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움직임
임을 포함한 모든 류는 있으며 있지않다 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
이에 따르면

움직임은 있으며 있지않다(있음과 헤태론하다) **있음**을 나누어 지니므
로 있는 반면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동일하며 동일하지 않는다(동일함과 헤태론하다) 동일함을 나누어 지니므로
자신과 동일한 반면 헤태론과 교통하므로서 동일함과 분리되기 때문이다 마
찬가지로 **쉽**이 아니고 그리고 **쉽** 것이다 **쉽**과 헤태론하므로 **쉽**이 아닌 반
면 **쉽**을 나누어 **취한다**면 **쉽**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움직임은 **헤태론**

78)이라는 구(句)의있지 않음을 소피스테애스 편의 거기처럼 혹은 **없음**이라
고 옮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전혀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입도 병긋할 수
없다 라고 거기에 쓰여진 그대로 파르메니데애스 편 여기에서는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의 하나 와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않고 지나가 버리
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말하여질 수 없더라도 있다 라고 이 두 대화 편에
쓰여 있는 곳이 있는가 없다-지금 나는 있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없을 것을 쓴다- 만약 하나 있다면에서의 하나에 대해서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는 비록 **부정(否定)**적으로 말하긴 했어도 하긴 했으며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낮선이도 있는 것만이 말하여진다고 했기 때문이
다 물론 있지 않는 것 처럼 아주 어렵기는해도 말이다 따라서,

나는 **없음**으로부터 **만들어 냈**이라는 뜻에서의 **없음**에 해당하는 말
을두 사람에게서 이끌어 낼 수 없다 따라서 여기의 나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모순**되는 짝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는 1408쪽에 처럼
있는 것 과 있는 것 자체 그리고 있지 않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자체를 구
분해서 서로 하나에 상응하는 것으로 그렸다

과 헤태론하며 헤태론하지 않다 헤태론함을 나누어 지님으로서 헤태론한 반면 움직임은 쉽 과 동일함과 헤태론한 것 처럼 헤태론과도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움직임이 쉬며 쉬지않고 동일하며 동일하지 않고 헤태론하며 헤태론하지 않는 것은 움직임이 있음을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나누어 지니지 않으면 쉬고 있어오지도 쉬고있지도 쉬지않고 있어오지도 쉬지 않지도 못하며 동일하게 있어오지도 동일하게 있지도 동일하지 않게 있어오지도 동일하게 있지도 못하고 헤태론하게 있어 오지도 헤태론하게 있지도 헤태론하지 않게 있어 오지도 헤태론하지 않게 있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있는 것은 두루 모든 류를 섞여지게 하는 끈(δεσμὸς, 253a5, 1486)이다 끈에 의해 요소가 묶여지듯이 헤태론한 류들이 섞여진다 끼리 끼리 때에(ῥταν, ὀπόταν, 256b1 1, 12, 1553)따라서 말이다 때에 따라서 끼리끼리 섞여지기에 동일했다 하지않고 쉬었다 쉬지않고 움직였다 움직이지않고 헤태론했다 하지않고 거꾸로 동일하지 않았고 동일하고 쉬지 않았고 쉬고 움직이지 않았고 움직이고 헤태론하지 않았고 헤태론한다²⁴⁵⁴)그런데,

있음을 나누어 지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무엇 때문에 있지 않게 될까 있는 것을 나누어지님과 ‘동시에 더불어’ 헤태론함도 나누어지녀 있는 것과 헤태론해지기 때문이다 부분으로 나누어 분리되는 자연의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는 류가 자신의 여러 부분 에이도스로 무한히 쪼개지기 때문이다 헤태론한 이런 자연은 어떤 하나의 류를 헤태론하게 하면서 그 류를 있지 않게 한다 따라서 있음 과 동일함 뿐만 아니라 헤태론함도 나누어

2454)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까 우선 지금의 나는 그렇다고 본다 지금(vuv, 파르메니데에스152e1, 1171)은 돌며 나아가는 시간에 하나로서 두루 있기 때문이다

지니는 자기 동일한 움직임은 하고 겪는 힘으로 부딪혀 그 부분들로 쪼개지면서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있지 않게 된다 자신과 헤테론하게된다 자기 부정된다 그런데,

자기 부정(ἀπόφασις, 257b9, 1538, 否定, 無가 아니라 非)은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분으로 자기를 쪼개는 일이다 쪼개므로서 동일한 자신에 헤테론한 것들로 맞세워진다 물론 그 순간에 헤테론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맞선다 단지, 단지 이러한 **맞섬**이라는 뜻으로만 **반대**일 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테론한 것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있는 것의 **[모순]**반대이 아니다 아름다움 큼 올바름 역시 다섯 류를 나누어 지니므로 올바름이 **있어 왔고** 있는 반면 올바르지 않음도 있어왔고 있으며 아름다움이 있어왔고 있는 반면 아름답지 않음도 있어 왔고 있으며 큼이 있어 왔고 있는 반면 크지 않음도 있어왔고 있다 똑 같음 더 적음 등으로 있어 왔고 있는 것이 크지 않음으로 있어 왔고 **있다** 그런데,

있지 않는 것으로 있다고 해서 저(ἐκείνω, 258b3, 1542)있는 보다 더 적게 또는 더 많이 있는 것들이 아니며 아울러 반드시 서로에 대해 있는 헤테론한 그 부분들 역시 저 있는 것 보다 더 적게 또는 더 많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똑 같이 있다 동일한 실체를(οὐσία, 258b2, 1542)지닌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있으며 있지않다 있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구석 구석 걸어다니면서 권고했던 엘레아 출신의 파르메니데에스의 금령(禁令)을 엘레아에서 온 낯선이가 어긴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에스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 낯선이는 결코 아버지를 죽이지고 상처내지도 않았다 단지 아버지를 오해했던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내 병은 아직 못 고쳐 주었다 있는 것에 관한 정의를 나는 아직 엘레

아 낯선이로부터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에게서 있는
것에 관해 들은 말을 다음 처럼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있는 것

과 (어떤) **것**은 항상 붙는다(1361-1362) 그리고 **이름** 일반은
것이 아니다(1398)

은 **량**적인 측면에서 *하나*라고도 *둘*이라고도 *여럿*이라고도
하나이면서여럿이라고도 말하여지기 어렵다(1403)

에는 있는 것과 해태론한 것이 덧 붙혀지지 않는다(1361,1371)

에는 **있지 않는** 것이 덧 붙혀지지 않는다(1361)

은 **진리**이다 진리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다(1378)

들 중의 하나가 **영혼**이다(1427)

들 중의 하나가 **수**이다(1372)수와 분리되서는 어떤 것도 말
하여지지 않는다(1373)

있는 것

은 구분되는 다섯 가지 큰 류 가운데 하나이다(1347)

의 **이데아**에 논리에의해 몰두하는 사람이 철학자이다(1344)

의 모방을 만드는 자는 소피스테아스이다(96)

의 **실체**는 **몸**이 아니다(1423-1424)

은 **힘**과 알론한 것이 아니다(1434)

은 **움직여졌으면서움직이지않는** 것이다(1454)

에 관해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관해 **말**하는 것 만큼
이나 쉽지않다(1404)

[**자체**]는 **이름**지어지지도 **말**하여지지도 **알려**지지도 **감각**되
지도 않는다(1406)

은움직여져 오는 것이다

은 움직임 과 쉽에 해태론한 것이다

움직임 과 쉽 이 양자에²⁴⁵⁵ 나타나는(ἀναπέφανται 250d3)
것을 제외하고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가장 큰 류로서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어렵다,

은 움직임 과 쉽 과 동일 과 헤테론과 구별되는 가장 커다란
류 들중의 하나이다

은 이 네 가지 류를 묶는다

은 그 류들 각각을 나누어 지나므로 움직임과 동일하며 헤테
론한 반면 쉽과도 동일하고 헤테론하며 그리고 자신과
동일하며 자신과 헤테론하고 그리고 헤테론한 것과 헤테
론하며 동일한 것과 동일하다

의 류의 종은 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의 부정이 있지 않는 것이다

하고 겪는 힘이다

움직여지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쉬어왔던 것도 아니다

있지 않는 것

은 가짜(거짓)이다(1360)

도 어떻게든 있다(103)

에 관해 말하는 것은 있는 것을 말하는 만큼이나 쉽
않다(1404)

의 어두움으로 숨어드는 자가 소피스테에스이다(1344)

[자체]²⁴⁵⁶또는 전혀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도 벗어날
여질 수 없다(1361)

[자체] 와 것은 들러붙질 않는다(1361)

[자체]에는 수가 들어붙지 않는다(1372)

[자체]는 발설되지도 말하여지지도 생각되지도 않는 非

2455) 움직임에만 또는 쉽에만은 결코 나타나지 않음에 유의하라

2456) 나는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것)) 자체와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을 있
지 않는 ((것)) 자체과 구분한다 이에 대해서는 1407-08, 1337-38쪽을 참조
하라

언어적이며 非로고스적 것이다(1373)

도 있다

은 있는 류의 종이다

그러나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들을 위 처럼 주어 모아만 놓아가지고
는 나의 병(病)이 고쳐질 수 없다 있는 것에 관한 정의를 찾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뭍**만을 **실체**로 여기는 자들에게 동의를 구하
기 위해 일시적으로 낸 제안이므로 엘레아 낫선이가 말하는 있는 것에 관한
최종적인 정의라고 할 수 없고 에이도스(종)을 진짜 **실체**라고 말하는 친구
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시한 ‘ **있는** 것은 움직임과섬 동일과해태론
이 네 가지 류와 구분되는 류이며 이러한 있는 류의 **종**(에이도스, εἶδος,
c3, 1543, 種)은 있는 것에 해태론한 **있지 않는** 것이다 ’ 라는 제안에서는
있는 것에 관한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비록 다섯 가지 구
별되는 **류**들 중의 하나로서 **있는** 것 자체는 나머지 네 가지 류를 묶어주어
그 류들로 하여금 섞여 **있어오게** 하며 **있게** 하거나 **있어오지 않게** 하며 **있
지 않게** 한다 라는 말이 나타나긴 하나 바로 그러한 **있음**이 무엇(τι)인가
라는 정의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렇다²⁴⁵⁷)따라서,

있는 것은 종이긴 하나 있는 이 에이도스(종)은 저 있는 류의 하위
이름(ἑπωνυμίαν, 257d9, 1540)이라고 불리워지는 있지 않는 종이다 라는 동
의를 엘레아 낫선이는 에이도스 친구들에게 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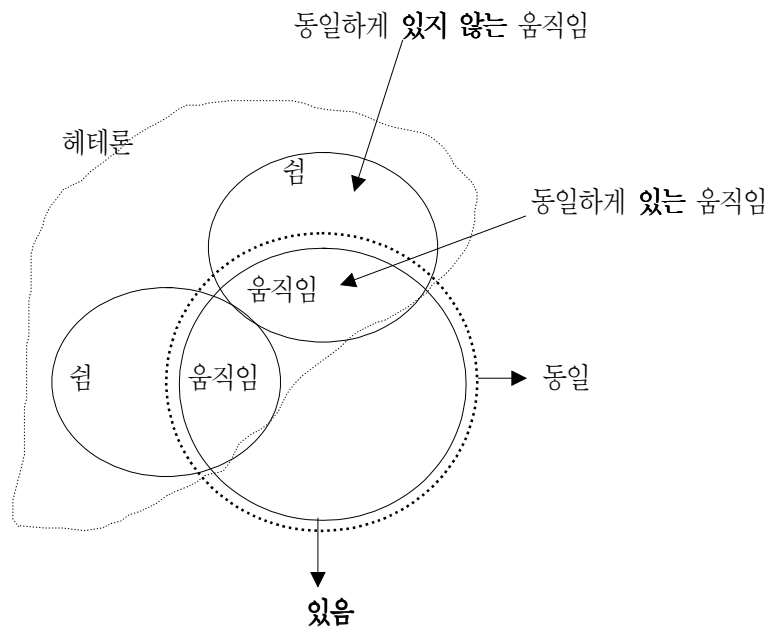
2457) 그러나 이러한 로고스들을 통해서 우리는 있는 것은 어떠한(ποιός, α,
ov, 242c6, 1384)것인가는 혹 드러났을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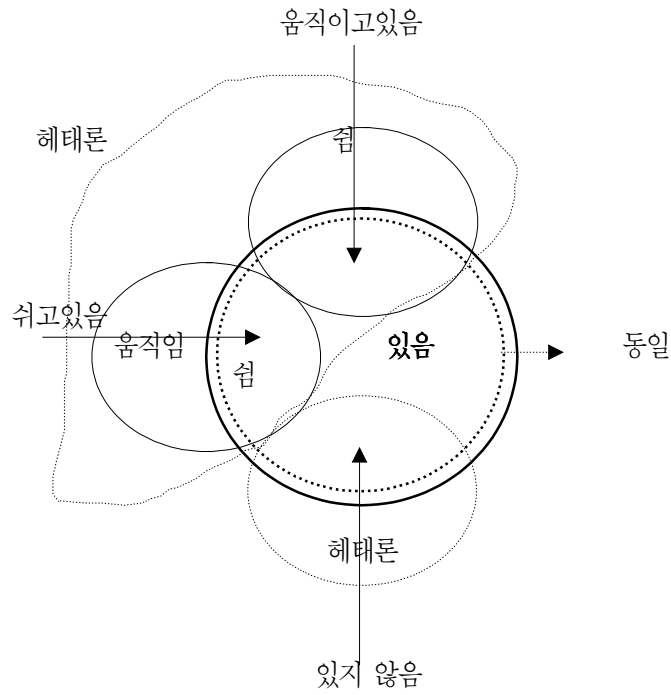
있지 않는 것은 있는 류의 일 종(에이도스)이므로 그 친구들이 말하는 에이도스로서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말하려는데서 오는 여러 어려움 특히 있는 것은 말하여질 수 없다는 어려움(1362, 1371, 1477) 그리고 움직임 과 쉽 이 양자에 걸리고 있는 것은 양자적이 아니면서도 이 양자 밖에 있지 않다는 어려움(1477, 1490)등을 풀었다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있지 않는 것은 있는 종이므로 그것도 저 있는 류 보다 더 또는 덜 있지도 않는 에이도스이므로 발설하여질 수있기²⁴⁵⁸) 때문이며 동일함 과 헤태론함과 더불어 있음을 움직임 과 쉬운 나누어 지니므로 움직임 과 쉬운 있어왔으며 있고 있어오지 않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있는** 것은 움직임과 동일하며 헤태론하고 쉽고 동일하며 헤태론하므로 그렇다

움직임과 헤태론하기에 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동일하기에 있는 것은 움직임인 것과 마찬가지로 쉽고 동일하기에 있는 것은 쉽이며 헤태론하기에 쉽이다 쉽으로 있지 않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헤태론의 자연은 자신을 나누어 지니는 것을 있는 것과 헤태론하게 하면서(256e1, 1535)있지 않게 하며 곧 부정(ἀπόφασις, 257b 9, 1538, 否定)하며 앎의 자연(φύσις, 257c7, 1539)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들로 나눈다 이와 같은 것을 다음 처럼 그려 본 뒤 엘레아 낫선이를 계속 따라가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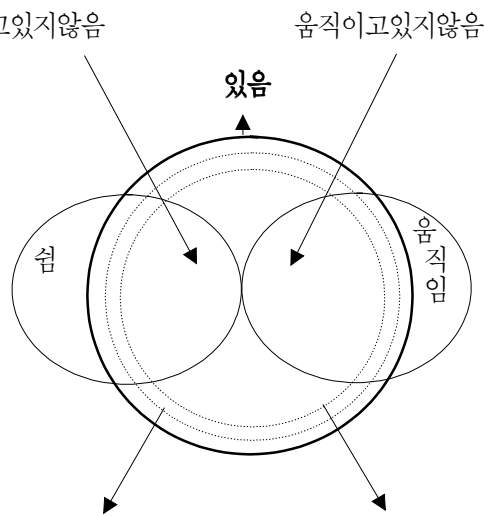
2458)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 자체(τὸ μὴ ὄν αὐτὸ, 238c8, 1373)란 입도 병긋하여질 수 없으며 비언어적이고 비생각적이며 비로고스적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 있지 않는 것은 있는 류의 일 종이라고 했으니 해결됐지만.....
있지 않는 것 **그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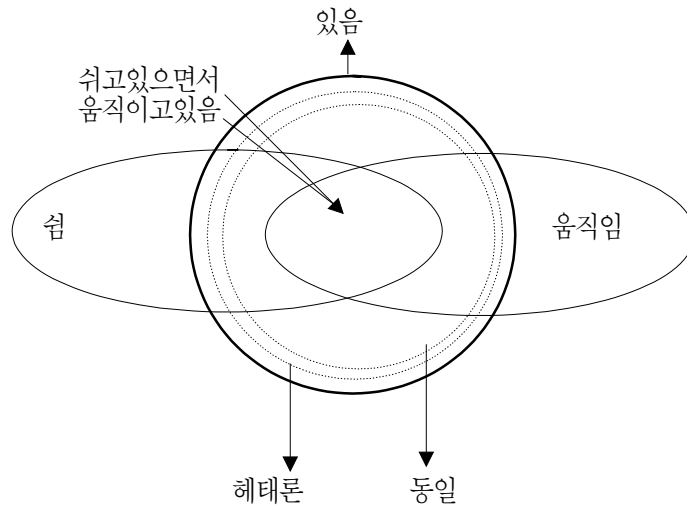
이 그림은 있는 류를 구분되는 네 가지 류가 나누어 지는 경우 1) 이다 화살 축에 걸리는 부분은 있음에 의해서 구분되는 류들이 묶어져 서로 교통하는(διὰ τὴν κοινωνίαν, 256b1, 1533) 영역이다 경우 1)은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며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아래에 나오는 동그럼 등의 크기는 무시(無視)하라 다섯 류들이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단지 실선 또는 점선 안에 류들을 가두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있는 류를 통해서 네 가지 류가 묶어지는 경우 2)이다 어떤 것은 쉬고 있으며 어떤 것은 움직이고 있고 어떤 것은 있지 않다 나누어 지남을 표현하는 겹쳐지는 부분들은 화살 축에 의해 가리켜진다 이 부분에 문제의 어떤 것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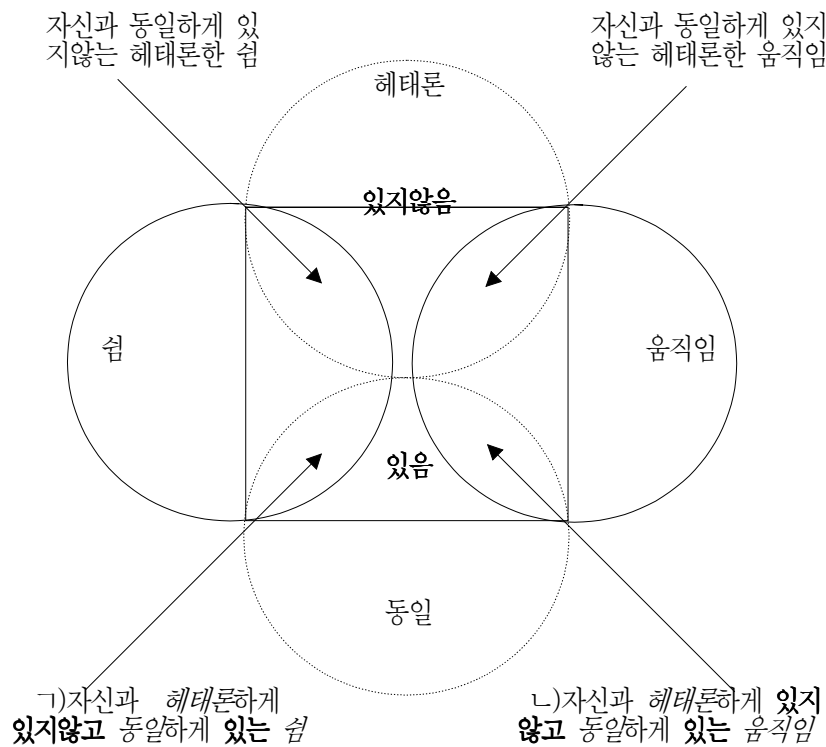
이 그림은 있는 류를 통해서 네 가지 구분되는 류가 묶어지는 경우 3)를 나타내는데 어떤 것은 쉬고 있으며 있지 않고 어떤 것은 움직이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도 화살촉은 겹치는 부분들이 서로 나누어 지남을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 두 줄에 걸리는 화살촉이 가리키는 쉬면서 움직임을 말하는 것은 불 합리하다(ἄτοπον, 256b7, 1533-34)하나 움직임 과 쉬는 어느 한 쪽이 어느 한 쪽을 결코 나누어 지니지 못해 서로 교통하지(κοινωνεῖν, 254b8, 1490)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것은 섞어나 어떤 것은 섞여지지 않는다 비록 양자가 있음을 서로 공통으로(κοινῆ, 255a7, 1518)지녀 있음과 교통한다고 해도 말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쉬면서 움직일 수 없다 움직임은 쉬므로 있을 수 없고 쉬는 움직임으로 있을 수 없다 비록 움직임 또는 쉬이 헤타론 과 동일을 나누어지녀 자신과 동일하거나 헤타론해 질 수 있긴해도

말이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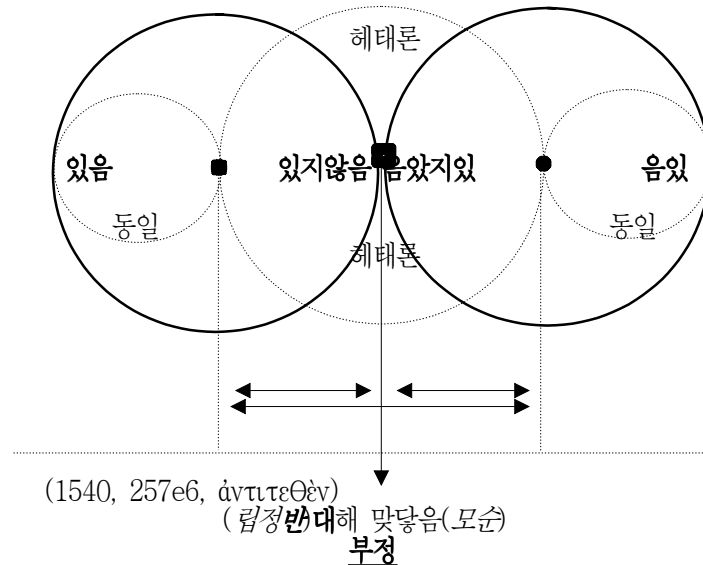
아래 그림 화살 축이 가리키는 것 처럼 움직임 또는 쉽 은 헤테론하며 (kai, 256c8, 1534)헤테론하지 않다 다시 말해 동일하다 움직임 과 쉽 이 양 자 처럼 동일 과 헤테론도 서로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있는 류를 통해서 네 가지 구분되는 류가 묶어지는 경우 4)를 나타내 는 이 그림에 나오는 나누어지짐으로서 교통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화살 축 에 대한 설명 ㄱ) 과 ㄴ)에서 헤테론하게 **있지 않음**은 동일하게 **있음** 이라 는 레애마가 쓰였다 따라서,

1554쪽 각주 2450에 쓰여진 것 처럼 **있으며 있지 않다**는 것이 모든 것에 허용된다 동일 과 헤테론을 함께 나누어 지닐 것이며 헤테론을 지닐

경우 있어오는 그리고 있는 것이 자기 부정(ἀπόφασις, 257b9, 1538, 否定)될 것이기 때문이다 *헤태론*의 자연은 동일하게 **있는** 것을 *헤태론*하게 하면서(ἀπεργαζομένη, 256e1, 1535, 完成) 그것을 **있지 않게**하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없음**(또는 **부정**)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 또는 프라γματῶν πραγμάτων (257c2, 1538, 일(事), 事態)에 맞선다(ἀντιτιθέμενον, 257d7, 1540, ‘모순’된다 ; 반정립, ἀντιτεθὲν, 257e6, 反定立됐음, 1540) 정도에서만 있는 그것과 **반대**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있는 어떤 것의 이러한 자기 부정을 다음 처럼 나는 그려 낸다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맞 닿아²⁴⁵⁹있어 모순이라는 것이 그

2459) 텔레스의 형이상학 쿨과 편 12 장 1068b27(934)에 쓰여지는 접촉된다 (ἀπτεσθαι)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쓰여지는 맞닿다 라는 뜻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여지는 존재(οὐσία-실체, 258b2 : 1542, 258a8, 257d5 : 1539, existentia, 存在, 탈존(脫存))역시 엘레아 낯선이는 말한다 저기에 있는 것(있음) 과 여기에 있는 것(존재)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더 많이 있지도 더 적게 있지도 않다 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제,

엘레아 낯선이가 어떻게 계속 자신의 말을 테아이테토스에게 이어가는지 다시 따라사 보기로 하자

“ 이제 파르메니데아스에 의해 금지된 것²⁴⁶⁰보다 더 길게(μακροτέρως 258c6)우리 알게 되었다는 것을 (자네는) 보는가 : 엘레아 낯선
이

무슨? : 테아이테토스

2460) 그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로고스가 거의 끝나가는가 보다 있는 또는 있지 않는 것이 말하여지기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파르메니데아스(237a4, 1360, 103)가 나타났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그는 있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되며 그러한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금했으나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엘레아 낯선이는 지금 여기까지 줄곧 있는 것 뿐 아니라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도 생각해 오다 금기야는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 만큼이나 있다 라고 선언하게 된다 그러기에,

엘레아 낯선이는 아버지의 금령(禁令)을 어긴 것 처럼 보이니 실은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의 알론한 종(에이도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긴 것이 아니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다 라고 말했을 뿐이다 따라서 아버지를 살해한(241d3, 102)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없이 병을 고쳐 준 셈이다 그것도 아버지의 병이 아니라 아버님을 오해한 사람의 병을 자신의 아버지를 상처 냄없이(254d1, 1346)고쳐 주었다

저(파르메니데이스)께서 숙고할 것을 금지하셨던 것 보다 더 많이 나아가 조사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논증했네(ἀπεδείξαμεν 258c10)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 테아이테토스

어디에서든 그 분은 **있지 않는** 것이 **있다**(εἶναι 258d2)는 것에 다그쳐지지 않도록하라 그러나 너는 노에애마(생각된 것)을 조사하는 이런 길로부터 [떼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일세²⁴⁶¹) : 엘레아 낫선이

(그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테아이테토스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 으로서(ὡς ἔστιν 258d5) 논증했 을 뿐만 아니라²⁴⁶²) **있지 않는** 것의 **우연히** 있는 것으로 **되는**²⁴⁶³(τυγ

2461) 엘레아 낫선의 이 인용글월은 237a8-9(1360)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나 거기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숙고가 시작하는 부분인 반면 여기는 그 숙고가 끝나가는 부분이라는 점이 다르다

2462) 따라서 이제까지 엘레아 낫선이 한 일은 **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ἀπεδείξαμεν, 258d5-6, 論證)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 으리라 다시 말해 그는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 에 관한 글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있지 않는** 것도 **있다** 것은 논증하는 가운데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로고스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이 러한 간접적인 로고스를 통해서 나는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안다 그러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른다 따라서 **있지 않는** 것이 무엇 인도 잘 모르게 버린 셈이다 **있는** 것이 자신과 **해태**롭게 있는 것이 바로 **있지 않는** 것이므로 있는 것을 알아야만 **있지 않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텔레스에 관해서도 나는 마찬가지로이다 그는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 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일을 결코

χάσει ὅν 258d6)에이도스(種)를 보여 주었네 왜냐하면 *헤라클레스의 자연*
은 실체(οὐσίαν d7)'이며 **있는** 것들 모두를 서로에 대해 잘게 나눈다
는 것을 논증하면서 [이 경우] 있는 것 각각에 대해 그 (있는) 것의
부분을 감히 맞서게²⁴⁶⁴)하면서 그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진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형이상학 제1타 편에서 그가 있는 것은 무엇(τι)
인가 라고 묻는 대신 실체(οὐσία)란 무엇인가 라고 묻고 나서 실체는 각기
것에 있어오는 그 무엇 으로서의 에이도스이다 라고 답하며 범주들에서 그
실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긴 해도 실체 또는 있는 것의 속성에 대해서
만 언급하지 실체 그 자체 또는 있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므로 그렇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의 나는 있는 것에 관한 텔레
스의 적어도 그 두 가지 책에 나타나는 말들로 인해 더 혼란스럽게 되 버렸
다 있는 것이 더 애매하게 되 버렸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텔레스가 거기 엘레아 낫선이 처럼 논증만해도 그렇다 그 논증의 날
은 낫선이 보다 무디기 때문이다 너무 쪼개서 논증하려다 보니 그러한 듯하
다 한 번 읽어 보라 게다가 그러한 논증도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불합리 또
는 불가능하므로 그렇지 않다 라는 식으로 대 부분 이루어지지 이러 이러하
므로 이렇다 라는 식의 로고스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기껏해야 이러 이러
하게 말하여지는 이것은 요령다고만 말할 뿐이다 있는 것에 관한 간접적인
논증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그래서,

만약 텔레스의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드린다면 적어도 나는 그를 통해서
있는 것 또는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더 헛갈리게 되 버렸다

2463) 그렇다면 1572쪽에 그려진 있음 과 있지 없음의 맞닿음은 우연이라
는 셈이되는데.....

2464) 그러나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조심하라 257e4(1540)에 쓰여진
것 처럼 맞섬(ἀντιτεθέν : 모순(矛盾), ἀντιθαις)이라는 뜻에서만 반대(έναν

실로)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기 때문이네 : 엘레아 님선이

오오 ! 님선이여 우리가 말한 것이 모두 모두 가장 진실하다고 저에게는 여겨집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우리가(**있는** **않는** 것은) 있다 라고(ὡς 258e7)말할 때 **있는** 것의 그러한 **반대**(τὸναντίον 258e6)가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우연히 보여졌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하도록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네 (어떤 것이) 있거나 있지 않다 [는 식으로 반대는 둘 중의 하나이며] 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것의) 로고스를 지니거나 또는 비로고스적인 것을 지니거나 라는 것을 어떤 것의 반대에 관하여 그 자가(αὐτῷ 258e8) 환호하며 받아들일 것이라고(χαίρειν, e8)우리는 두고 두고 말하기 때문이다²⁴⁶⁵)그런데,

τιον, 257b9, 1538)이지 진짜 반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반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2465) 그러나 이러한 콘퍼드(1006)(와 H. N. Fowler(423))처럼 ‘우리는 어떤 것의 **반대**에 관하여[그것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ἔτε.....ἔτε.....259a1) 그리고 [그것이] 로고스를 지니는가 또는 非로고스적인 것을 지니는가 하는 [물음]에는 우리가 두고 두고 안녕!이라고(χαίρειν 258e8)말하기-답하지 않기-때문이다’ 라고 옮길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위 처럼 옮길 수도 있으리라 -251b8(1480)에 나오는 χαίρουσιν(환호하다 즐겨받아드리다)여기 여기 χαίρειν을 비교해 보라 그러면 아마 위 처럼 옮기고도 싶을 것이다 있거나 있지않고(이거나 아니고) 그 로고스를 지니거나 지니지 않는가가 문제시 될 때 우리는 즐겨 어떤 것의 반대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야 비로서 엘레아 님선이가 염두에 두는 반대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난다 여기 나온 것 처럼 반드시 둘 가운데 어느 하나 만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καὶ 259a1) 짝의 로고스를 지니거나 또는 지니지 않을 경우에 반대라고 하는 것이 선명해

있지 않는 것이 있다 라고 지금 우리가 말했을 때 그 자(6

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대는 둘은 동시에 있을 수 없다 라는 흔
히 말해지는 모순(矛盾)인 것 같다 그런데,

모순을 대립적인 반대의 일 종으로 보는 텔레스는 형이상학 감마 편
7 장 첫 머리에서 모순들(ἀντιφάσεως, 1011b23, 863)사이에는 어떤 중간적인
것도 있지 않다고 하면서 동일한 것에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류적인 차이들
을 반대라고 말하면서 같은 책 델타 편 10 장 첫 머리에서 모순과 반대와
프로스티와 결여와 습성 등으로 대립되는 것들은 자신들을 받아드리는 것
에 자신들이 동시에(ἄμα, 1018a22, 253) 현재(παρεῖναι, 1018a23, 253)하지 않
는다고 그리고 나아가서 범주들 10 장 중간 부분에서 반대들을 병과 건강
효과처럼 자신들 사이에 중간인 것(μέσον, 12b30, 243)을 지니지 않는 것
과 힘과 검음 뜨거움과 차가움처럼 자신들 사이에 중간적인 것을 지니는 것
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텔레스가 대립의 일 종인 반대의 일
종으로 모순을 보면서 반대되든 모순되든 이 양자적으로 대립되는 것은 동
일한 어떤 것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면 반대
되는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엘레아 낫선이는 아님
-와 모순되든 반대되든 동일한 것에 그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라
고 하는 거기 텔레스는 같은 의견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텔레
스는 사이에 중간이 있는 것을 모순이라하고 그렇지 않는 것을 반대 라고
한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해도 말이다 그러나,

비록 모순이라는 말을 쓰지는 아니했지만 엘레아 낫선이도 비록 그
하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반대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257b9(1538)과 257e4(1740) 거기의 부정(ἀπόφασις, 否定)으로서의 반대와
여기 그 자의 반대로 말이다 부정(ἀπόφασις, 257b9)되는 것은 서로 맞서게
됨(ἀντιπεθεῖν, 257e4, 反定立)이라는 뜻에서만 반대라고 거기서 말하여질 뿐

259a2)는 아름답지 못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다’ 라고 어떤 반박을 하든지 또는 어떤 점에서든 (반박)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이다 류들은 서로 섞여지며(συνμειγνύονται 259a4)그리고 **있는 것** 과 **헤태론한 것**은 모든 것에 그리고 서로에 두루 퍼지(므로, διεληλυδότε, 259a6)한 편으로 있는 것을 나누어지니는 헤태론한 것은 그러한 **나누어지남**을 통해서 있는데 나누어지니는 것은 저(있는)것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이며²⁴⁶⁶)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의 헤태론한 것은 **있는 것**이므로 **있지 않는 (것)**은 가장 선명하게

이나 맞서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는 있지만 다른 하나는 있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어느 하나의 로고스는 있지만 다른 하나의 로고스는 있지 않을 경우에 그 자는 반대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여기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맞서는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있음**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의 그자)의 반대 양쪽 모두의 있음이 허용되는 자신의 반대 등 두 종의 반대를 말하면서 여기 엘레아 낫선이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어느 한 쪽의 있음이 허용하지 않는 반대가 아니라 짝의 **있음**이 똑 같은 만큼 허용되는 **반대**를 택한다 따라서 텔레스의 **모순** 또는 반대는 들어설 자리가 없을까 아니 그보다 **텔레스**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모순 또는 반대로 진짜 보는 것일까 1537쪽 각주 2430쪽에서 내가 말한 것 처럼 아마 텔레스는 짝의 있음을 허용하지 않는 모순 또는 반대로 **있음** 과 **있지 않음**을 본 것 같지는 않다(1120, 1123)대신에 **홀과 짝 뜨거움과 차가움**이 양자를 엘레아 낫선이는 가장 크게 반대되는 것으로 본다-을 텔레스가 모순의 보기로 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모순으로 보지 않았다고 환호하며 말할 수 있을까 환호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형이상학 감마 편 4 장에서 ‘호모오뉘마한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것은 있으며(καί, 1006b18, 698)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1554쪽 각주2450번반드시참조)다시 말해 환호한다면 (비)모순율이 성립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있으며 그런데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취하고 있는 것은
알론한 류들과 헤태론할 것이고 저 모든 각기(ἀπάντων 259b2)것(류)들
과 헤태론하게 있는 것은 그것들 각각(ἕκαστον b3)과도 자신을 제외
한 알론한 것들 모두함께한 것(σύνπαντα b3)도 [동일한 것]이 아니므
로 있는 것은 다시 논박의 여지없이 헤아릴 수 없는 경우에 헤아릴
수 없으(μυρία ἐπὶ μυρίοις²⁴⁶⁷)259b4)있지 않으며 (그리고) 알론한
것들이 각기 것에 따라 그렇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모두 함께 한 편
으로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여러 가지로 (모두 함께) 있지 않다 고
[말일세] : 엘레아 낫선이

진실하십니까 : 테아이테토스

어떤 자가 이러한 반대들(ἐναντιώσεων 259b8)에 불신임한다
[면] 이 반대[들]을 숙고해서 지금 (우리가) 말한 것들 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말해야만 하든지 해야하는데 헤태론한 경우 헤태론한 때
마다 [발견한] 로고스들을 환호하며 끌어다 붙혀 힘들게 두루 숙고한
다 [면] 심각하게 몰두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심각하게 몰두한다는 것
을 지금의 로고스들은 말해주고 ‘있’네 한 편으로 이러한 발견은 능란
한 것도 아니요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며 다른 한 편으로 힘들고 아픈
다운 것은 [이와는 알론한] 저것이기 때문이네 : 엘레아 낫선이

어떠한 것? : 테아이테토스

앞서 말하여진 것[이네] 이러한 것들은 예를들어 어떤 자가 있
는 헤태론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이고(εἶναι 259d1) 있는 동
일한 것은 어떻게 [보면] 헤태론한 것이다²⁴⁶⁸)라고 말할 때 마다 각기
것을 반박하면서 추적하여 이(둘) 가운데 하나는 저 측면에서(κατ’ ἑ

2466) 헤태론한 것이 있으려면 있는 것이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니는 것
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이 있는 것을 나누어지녀야한다는 말이라

2467) 헤아릴 수 없다 라는 이 말은 무한하다(ἄπειρον, 256a6, 1536) 라는
말이다

κεῖνο 259d1)저러하고 (다른 하나는 또 이 측면에서 이리한데) 동일한 것은 어떤 길에서(ἀπὸ 259d3)어떻게 *헤태론*[하]며 헤태론한 것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동일하고 큰 것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작으며 같은 것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로고스들에 **반대**들이 그렇게 가져와진다는 것을 환호하며²⁴⁶⁹ [받아드리도록]

2468) 그러나 엘레아 낫선이에 따르면 동일한 것은 어떻게든 헤태론한 것 ‘일’ 수 없고 헤태론한 것은 어떻게든 동일한 것 ‘수’도 없다 그에 따르면,

단지 헤태론한 것이 **있음**을 나누어 지님 으로서 있으며 동일한 것이 있음을 나누어지님 으로서 헤태론하게 또는 동일하게 있을 뿐 있는 동일한 것 자체가 있는 헤태론한 것 ‘일’ 수 없고 있는 헤태론한 것 자체가 동일한 것 ‘일’ 수 없다 만약 어떻게 보니 그렇다 라고 한다면 이 둘은 구별된 *류*가 아닐 것이다 있음을 나누어지닌다는 것은 단지 나누어지니는 그것이 있다는 것만을 말할 뿐이지 있음을 나누어지님으로서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일하게 있으려면 어떤 것은 반드시 있음 과 동일을 함께 나누어지녀야만 할 것이다 설령 있음 과 동일 과 헤태론을 함께 나누어 지녔다손 치더라도 동일 자체가 헤태론해지거나 또는 헤태론 자체가 동일해 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지니는 그것이 자신과 동일하게 **있**으며 그리고 자신과 *헤태론*하게 **있**을 뿐이다 움직임 과 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469) 어떻게든 반대들이 말하여짐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해야하는 엄청난 큰 어려움(ἀπορίας, 236e3, 1358)을 엘레아 낫선이는 테아이테토스와 더불어 풀어 내므로서 자신은 소피스테애스로 **있지 않다**고 거짓 말하는 소피스테애스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소피스테애스를 있지 않는 그 어두움으로부터 이끌어 내 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엘레아 낫선이의

하나씩 따져가며 각각 반박하여 말할 수 있는 것들일 것이네 [이러한 것들] 진실로 정확하게 어떤 반박이 아니라 있는 것들에 관한 분명히 새롭게 태어나(νεογενής d7)첨가된 어떤 것이네 : 엘레아 낫선이

정확합니다²⁴⁷⁰) : 테아이테토스

오오! 착하구나 모든 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서로 분리해(ἀποχωρῖζειν 259e1) 다루는 것은 조화롭지 못하며 모두 모두 어떤 뮤즈적인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일세 : 엘레아 낫선이

무슨? : 테아이테토스

각기 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 놓는 것은 끝에가서는 모든 로고스들의 해체(ἀφάνισις, e4, 解體)일세 **에이도스**들의 서로의 연결(συνπλοκή²⁴⁷¹)259e6)을 통해서 로고스가 우리에게 되어지기 때문이네 :

이러한 일은 자신의 아버지 파르메니데아스에 대한 오해를 풀어 준다

2470)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있는 것에 관한 새로운 로고스가 태어났다는 것을 다시 말해 새로운 존재론이 태어났다는 엘레아 낫선의 말에 테아이테토스도 정확히 동의한다

2471) 바로 이 썬플로케아(연결)로부터 텔레스의 범주들이 시작된다 텔레스의 범주들은 연결없이 있다고 말하여지는 것들(τῶν κατὰ μηδεμίαν συμπλοκήν κεχομένων 1b25, 161)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엘레아 낫선은 에이도스들이 서로 연결됨을 통해서 로고스가 (생성)된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에이도스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여지므로 텔레스의 범주들은 엘레아 낫선의 에이도스들이 아님도 분명하다 다시 말해 ‘플라톤’의 에이도스들은 텔레스의 범주들이 아니며 텔레스의 범주들은 플라톤의 에이도스들이 아니다 플라톤의 에이도스들은 있음의 이데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또는 서로 교통하는 반면 텔레스의 범주들은 서로 끊어졌서 말하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긴,

엘레아 낯선이

진실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이런 [분리하는] 자들과 싸워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과 섞어질(μειγνυσθαι 260a3)것이라고 바로 지금 [이들에게] 다 그쳐야 할 때(καιρῷ 260a1)라고 여겨지네 : 엘레아 낯선이

무엇으로 (다그치죠)? : 테아이테토스

로고스를(τὸν λόγον a5) **있는 류** 중의 하나인 것으로 **있다** 라는 것으로 (다그치세) 이(로고스의 있음)을 빼앗기는 우리는 철학을 빼앗기게 되는 가장 큰 [일이 터]질거네 나아가서 현재(ἐν τῷ παρόντι a7)우리는 로고스가 어느 때든(ποῦ a8)무엇이라는 것에 동의해야 하네 만약(우리가 로고스의 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로고스)는 전혀(τὸ παράπαν a9)있지 않을²⁴⁷²것이고 나아가서 예를들어 우리는 있다

실체(있음)를 제외하고는 어느 범주도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파르메니데아스 와 소피스테아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 오 티마이오스 편의 티마이오스의 에이도스들이 아니다 엘레아 낯선이는 하고 겪는 움직임의 류 또는 종을 말하고 있을 뿐 (행)함의 에이도스 와 겪음의 에이도스를 허용하지 않으며 량 질 관계 어디 언제 상태 지님 등을 어떤 곳에서도 에이도스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소피스테아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는 있는 것의 이데아(τῆ ὄντως ἰδέα, 254a8-9, 1344)와 있음의 류와(에이도스)종을 말하긴하나-파르메니데아스 편의 파르메니데아스도 어디선가 있음의 에이도스를 말하는데.....- 있는 것을 실체와 동일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런지가 의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에이도스** 와 텔레스의 **범주**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말하여 질 수 있을 것 같다 설령 에이도스의 충격을 받아서 범주들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해도 말이다 에이도스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범주들은 서로 끊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어디에서든 (우리는) 말하지 못할 것이네 만약 어떤 하나도 어떤 하나와 어떤 하나에 대해 *쉬이지* 않은 (채) **있다**(εἶναι μεῖζιν 260b1)는 것에 우리가 억눌린다면 (로고스의 있음을) 빼앗길 것일세 : 엘레아 낫선이

이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을 통해서(δι' ὅτι b3)로고스(가 무엇인가에 대해) 동의해야할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테아 이테토스 (258c6 - 260b4)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로고스는 **있는** 류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화제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서 로고스로 옮겨진다 단지 있지 않는 것 또는 있는 것만을 쓰려하는 것이 소피스테이스 편의 목적이었다면 이 대화 편은 여기서 끝났으리라 그러나 있는 것만도 있지않는 것만도 나아가서는 로고스만도 소피스테이스 이 대화 편의 목적은 아니었기에 그 목적에 다다르기 전 까지는 대화 편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²⁴⁷³어쨌든,

2472) 전혀 **있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엘레아 낫선은 있지 않는 것과는 전혀 '헤태론'한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찌됐든 그는 없는 것을 거론(學論)한 셈인데 전혀 있지 않는 이것을 하나도 있지 않는 것(τὸ μηδαμῶς ὄν, 137b8, 1361, 1560)과 동렬(同列)의 것으로 보아 이 둘을 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되는가 나는 이미 1560쪽에서 하나도 아닌(결코)을 강조의 뜻으로 썼긴 했는데 여기의 전혀도 강조의 뜻이라고 쓸 수 있을런지.....

2473) 134쪽에 이 대화 편의 끝 글월(268c8-268d5)이 나타난다 거기를 읽어 보면 소피스테이스는 어떠한 자이다 라는 마지막 그의 의견이 나와 있을 것이다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직접적인 로고스는 여기까지이다 따라서 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를 따라가는 내 석사논문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는 나도 여기에서 잠시 벗어나야한다 나는 직접 두 사람의 에이나이를 말해야하기 때문이다 다시 옮겨보자

이제 파르메니데에스에 의해 금지된 것 보다 더 긴 것을 우리 알게 됐다는 것을 보는가? - 무슨? - 저이 게서 숙고할 것을 금지하셨던 것 보다 더 많이 나아가 조사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논증했네 - 어떻게 - 어디에서든 그 분은 “ **있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에 다그쳐지지 않도록하라** 그러나 너는 노에에마를 이런 조사하는 길로부터는 떼어 놓으라 ”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일세 -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논증했을 뿐 아니라 *있지 않는 것의 우연히 있는 것으로* 되는 **종**을 보여 주었네 왜냐하면 헤태론의 자연은 **실체**이며²⁴⁷⁴⁾ 있는 것 모두를 서로에 대해 잘게 나눈다는 것을 논증하면

2474) 따라서,

몸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거인들 과 진짜 실체를 에이도스로 보는 친구들 양 쪽이 모두 동의할 **실체**는 바로 *헤태론의 자연*이다’ 라고 지금의 내가 말해서는 안될까 라고 물어 보는 원인은 거인 과 친구들이 모두 동의 (τὸ ὁμιλιηθέν, 246d7, 1426 ; 260a8, 1583)할 실체(있음)에 관한 로고스를 엘레아 낫선이는 이끌어내려는 가운데 여기서도 동의를 구하게됐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어쨌든,

헤태론(의 자연이) 바로 **실체**이다 라고 선포해 놓으면 무엇을 통해서 텔레스가 형이상학 제에타 편 12 장 1038a19-20b(444)에서 ‘ *맨 끝의 차이*

서 (이 경우) 있는 것 각각에 대해 그 있는 것의 부분을 감히 맞서게 하면

가 프라그마의 **실체**(οὐσία 1038a19)이며 정의일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됐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로고스에 ‘ **반대**는 동일한 것에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류적**으로 **차이**나는 것들(διαερόντων, 1018a27, 254)’ 이라는 것 그리고 ‘ 비록 동일하긴해도 수적으로 또는 종 또는 류적으로 또는 유비적으로 **해태론**한 것들을 우리는 **차이**(διάφορα, 1018a12, 258)나는 것’ 이라는 것 그리고 ‘ 자신의 **종**들 또는 **질료** 또는 **실체**의 로고스가 여럿(πλείως, 1018a10, 258)이면 **해태론**한 것들이라고 말하여진다는 것’ 등의 로고스를 덧 붙이면 더 이해가 빨라지리라 ‘플라톤’의 글들 가운데 자신이 보기에 좀 더 설명되어져야한다고 또는 애매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덧 붙혀 자신의 강의를 이어가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 텔레스가 무엇이라 말했든 엘레아 낯선이는 여기서 실체란 해태론한 것의 자연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여기와 똑 같은 실체라는 말이 같은 대화 편 258b2(1542)에 ‘ 부분으로 있는 것의 **실체**가 저 있는 것과 **반대**인 것이 아니라 단지 **저 있는** 것과 **해태론**한 것일 뿐이라면 해태론한 것의 자연의 부분의 그리고 서로에 대해 있는 것도 더 적게 대립되어 맞서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네’ 라는 로고스에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로고스에서 저(기)있는 것의 부분으로 여기) 있는 것의 **실체**가 저 있는 것과 해태론함이라면 해태론한 자연은 **더 적게** 맞섬이 아니라고 말하여지므로 그렇다 따라서 여기서도 실체는 해태론(함)의 자연(φύσεως, 258a11, 1542)이다 라고 쓰여진다 그렇다면,

여기 엘레아 낯선이의 ‘**실체**란 **해태론**함의 자연’ 이라는 로고스에 거기 텔레스의 ‘**실체**란 맨 끝 **차이**이며 **차이**는 비록 동일한 것들이긴해도 수(數) 또는 종 또는 류 또는 유비적으로 **해태론**함이라는’ 로고스가 이어지지 않는가 비록 맨 끝 차이라는 말 그리고 수 와 유비 등의 말이 덧 붙혀졌긴

서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네
- 오오! 낯선이여 우리가 말한 것이 모두 모두 가장 진실하다고 저에게는
여겨집니다 -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은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있는 것의 그러한 *반대*가
가 [바로] 있지 않는 [그]것이라는 것이 우연히 보여졌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하도록 우리가 해서는 *않*될 것이네 **있거나 있지 않다**는 (식의 둘 중의
하나의 반대)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것의 로고스를 지니거나 또는 비로고스
적인 것을 지니는 (반대) 라는 것을 어떤 것의 *반대*에 관하여 그 자는 환호
하며 받아들일 것이라고 우리는 두고 두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지 않
는 것이 있다 라고 지금 우리가 말했을 때 그 자는 우리가 아름답지 않게
말하고 있다고 어떤 반박을 하든지 또는 어떤 점에서든 반박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네

류들은 서로 섞여지며 그리고 있는 것 과 헤태론한 것은 모든 것에
또 서로에 두루 퍼지므로 있는 것을 나누어지니는 헤태론한 것은 그러한 나
누어지짐을 통해서 있는 한편 나누어지니는 것은 저 있는 것이 아니라 헤태
론한 것인 반면 있는 것의 헤태론한 것은 있는 것이므로 있지 않는 것은 가
장 선명하게 *펼쳐*적으로 있으며 그런데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취하고 **있는**
것은 알론한 류들과 헤태론할 것이고 저 모든 각기 것들과 헤태론하게 있는
것은 그것들 각각과도 자신을 제외한 알론한 것들 모두함께한 것과도 (동일
한 것이)아니므로 있는 것은 다시 논박의 여지없이 *헤아릴 수 없는 경우에*
헤아릴 수 없이 있지 않으며 그리고 알론한 것들이 각기 것에 따라 그렇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모두 함께 한 편으로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여러 가*
지로 있지않다 라고 말일세 - 진실하십니다 - 만약,

해도 말이다 설명하려다 보면 알론한 어떤 말들이 쓰여져야하지 않는가

어떠한 자가 이러한 **반대**들에 불신임한다면 반대를 숙고해서 지금 우리가 말한 것들 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말해야만 하든지 해야하는데 헤태론한 경우 헤태론한 때 마다 헤태론한 로고스들을 발견할 때 마다 끌어다 들여 붙혀 힘들게 두루 숙고한다면 심각하게 몰두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심각하게 몰두한다는 것을 지금의 로고스들은 말해주고 있네 이러한 발견은 노련한 것도 아니요 고통스러운 것도 아닌 반면 [실로] 힘들고 아름다운 것은 이와는 알론한 저것이기 때문이네 - 어떠한 -

앞서 말하여진 것이네 이러한 것은 예를들어 어떤 자가 있는 헤태론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이고**(εἶναι, 259d1, 1580) 있는 동일한 것은 어떻게 보면 헤태론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마다 각기 것을 추적 반박하여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저 측면에서 저러하고 다른 하나는 이 측면에서 이러 한데 **동일한 것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헤태론**하며 헤태론한 것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동일하고²⁴⁷⁵⁾큰 것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작으며 같은 것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로고스들에 **반대**들이 그렇게 가져와진다는 것을 환호하며 받아드리도록 하나씩 따져가며 각각 반박하여 말하는 것이네 그런데,

2475) 어떤 것이 자신 과 알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있으며 있지 않는가에 대해 쓰는 파르메니데아스 편에서 **동일한 것이** 이러 이러하게 헤태론하고 **헤태론한 것이** 저러 저러하게 동일하다 라고 하나 하나 따져가는 파르메니 데아스를 보는 사람은 탄성을 지르며 아마 그의 로고스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거기에서는 만약 하나가 있는 경우 와 있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하나가 만약 있는 경우 와 있지 않는 경우 등 각각의 경우에 자신(동일한 것) 과 알론한 것들에 대해 **하나**는 어떻게 **있는**지가 날카롭게 구분하여 쓰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진실로 정확하게 어떤 반박인 것 보다는 있는 것들에 관한 분명히 새롭게 태어나 더해진 어떤 것이네 - 정확합니다 - 오오 착하네
그러 모든 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서로 분리해 다루는 것은 조화롭지 못하며
모두 모두 어떤 뮤즈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일세 -
무슨 -

각기 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 놓는 것은 끝에 가서는 모든 로고스들의
헤체할 결세²⁴⁷⁶)에이도스들 서로의 연결을 통해서 로고스라는 것이
우리에게 되어지기 때문이네 - 진실 - 그렇다면 끊어 놓는 이런 자들과 싸
워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과 섞어질 것이라고 바로 지금 이런 자들에게

2476) 따라서 있지 않는 것이 있는 것으로 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입도 병긋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어려움으로부터 잇따르는 여러
어려움(1362, 1373)이 바로 여기서 풀려질 실마리가 보인다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각기 류를 서로 분리시키는 셈이 될 것이고 그렇
게 되면 모든 로고스가 헤체될 것이므로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어려움은 풀렸다 이제까지 말하여진 것은 바로 있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것이 있지 않다면 무엇을 통해서 각기 류는 서로 분리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지니고 있다 움직임 과 쉼 과 있음 과
동일 과 헤태론 등 가장 큰 다섯 가지 이 류는 이미 함께 주어져 놓여있
으며 있음을 나머지 네 류는 함께 나누어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누어지
님을 이제까지 엘레아 낫선이는 논증했다

다그쳐야할 때라고 여겨지네 - 무엇으로 다그치죠? -

로고스는 있는 류 중의 하나인 것이다 라고 다그치세 로고스의 **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철학을 빼앗기게 되는 가장 큰 일이 터질거네 나아가서 로고스가 어느 때든 무엇이라는 것에 우리가 현재 동의해야하네 만약 있음의 로고스를 빼앗기게 되면 로고스는 전혀 있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 예를들어 우리는 **있다** 라고도 어디에서든 우리는 말하지 못할 것이네 만약 어떤 하나도 어떤 하나와 어떤 하나에 대해 섞이지 않은 채 있다는 것에 우리가 억눌린다면 빼앗길 것일세 - 그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을 통해서 로고스가 무엇인가에 대해 동의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로고스의 **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급하다 물론 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 먼저 이해되어야하지만-우리는 이미 이해했다- 말이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있다**(또는 존재한다)(ἦμεν, 260a9, 1583)라고 **말**(로고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엘레아 낫선이를 따라 갈 수 없다 시간이 없어서이다 대신,

앞 글월을 좀더 따져보아야한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닌데 그 반대를 둘 중의 어느 하나가 반드시 있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반대'가 아니라 둘 중의 하나가 어느 하나에 알론하게 맞서는 반대이다 라고 엘레아 낫선이는 말한다 네가 지구에서 없어지지 내가 없어져야하는 식으로 둘 중의 하나가(ἔτε.....ἔτε.....259a1, 1577)없어져야하는 그래서 없는 그것에 대한 로고스(λόγον, 259a1, 1588)도 없는 그러한 반대가 아니라 너 와 나는 알론하게 맞서 있는 반대가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의 반대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의 반대이다(1577쪽각주2465번)나아가서

서로에 대해 맞서 있는 있지 않는 것은 무수하다 다시 말해 *헤아릴 수 없을* (*μυρία ἐπὶ μυρίοις*, 259b4, 1580)정도로 많다 그리고,

1585쪽2474쪽에서 이미 언급된 것 처럼 엘레아 낯선이는 헤태론의 자연을(또는 있지 않는 것의 **있음**을) **실체**라고 한 것 같다 그렇다고 **에이도스**를 **진짜 실체**라고 한 친구들로부터 떨어져나간 것도 아니며 몸만을 실체로 여기는 거인들을 내 쫓개친 것도 아니다 친구들의 에이도스(종)은 있는 류의 **종로** 되었으며 거인들은 하고 겪는 **힘** 으로서의 **있는 것**을 내 쫓개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혼안에 있는 그 힘으로부터 **움직임**은 오기 때문이다 다시,

요약해 보기로 하자

이제,

우리는 파르메니데아스에 의해 금지된 것 보다 더 많이 우리는 알게 됐다 그는 있지 않는 것은 생각도하지마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있다는 것을 논증했기 때문이다 논증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있지 않는 것은 있는 류의 우연히 있는 종이라는 것도 보여주었다 헤태론의 자연은 **실체**이며 있는 것 모두를 서로에 대해 잘게 나눈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이 경우 있는 것 각각에 대해 있는 그 부분은 맞선 것으로 여기면서 이 있는 부분을 있는 것으로 있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가장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있는 것의 반대가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연히라도 보여준 것은 결코 아니다 *우연히* 보여 준 셈이다 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가 있으면 그에 맞서는 하나는 있지 않는 그리고 하나의 로고스가 있으면 하나의 로고스는 있지않는 식의 반대를 환호하며 엄두에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우리의 반대는 그러한 반대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²⁴⁷⁷)만약 그자가 우리를 반박하지 못하면 그 자는 다음 처럼 우리말하는 대로 말할 것이다

1) 류들은 서로 섞어진다 2) 있는 류 와 헤태론한 류는 모든 류 모든

것에 그리고 서로에 두루 퍼진다 3)만약 있는 것을 나누어지심을 통해 헤태론한 것이 있는 경우 나누어지니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이며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취하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해 알론한 류들과 헤태론한 것이다 4)모든 것과 헤태론하게 있는 것은 그 모든 것 각각과도 자신 이외의 알론한 것 모두함께와도 동일하지 않으므로 있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있지 않다 라고 말이다 그런데,

어떤 자가 우리의 반대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의 반대가 아닌 더 나은 반대를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반대*를 찾아가면서 헤태론한 경우마다 헤태론한 말을 끌어들이 새로운 발견인양 환호하며 아주 고통스럽게 두루 숙고한다면 심각하게 몰두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아주 심각하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지금 로고스는 말해준다 그러한 발견은 높은 차원의 어떤 것도 아니요 힘들어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 진짜 고통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는 우리의 로고스가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떤 자가 있는 헤태론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이고 있는 동일한 것은 어떻게 보면 헤태론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이러한 것을 추적 반박하면서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저 측면에서 저러하는 반면 이 측면에서는 이러한데 동일한 것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어떻게 헤태론하며 *헤태론한* 것은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동일하고 큰 것은 작고 작은 것은 크며 같은 것은 같지 않고 같지 않는 것은 그렇게 같다 라는 것을 보여 주면서 반대들이 어떻게 로고스 안에 가져와지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 씩 따져가며 반

2477)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의 반대에 관하여 그것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 또 그것이 로고스를 지니는가 지니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 우리는 답하지 않는다 라고도 요약할 수도 있으리라(1577쪽각주2466번참조)

박하여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실로,

이러한 것은 반박이라기 보다는 새롭게 태어난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존재론)이다 이걸 받아드리는 자는 **착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해 다루는 것은 조화롭지 못하며 어떤 뮤즈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각기 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 놓으면 결국 로고스들은 파괴될 것이므로 그렇다 에이도스들 서로의 **연결**을 통해서 로고스가 우리에게 진실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리주의 자들과는 투쟁하면서 그들에게 **해태론**한 것은 **해태론**한 것과 섞어진다고 하면서 **로고스도 있는 류** 중의 하나인 것으로 **있다**고 다그쳐야 할 것이다 로고스의 **있음**을 약탈당하면 아주 큰 일이다 우리는 있다 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탈당하면 로고스는 전혀 있지 않게 될 것이므로 그렇다 만약 어떤 하나도 어떤 하나와 어떤 하나에 대해 **섞이지 않은 채 있다** 라는 주장에 억눌리면 로고스의 **있음**을 약탈 당할 것이다 우선,

우리는 **로고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만약 로고스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엘레아 낫선이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석사학위 논문 자료 정리를 이 **쓰음**해서 마칠 것인가 아니면 파르메니데아스 편에 나오는 섞어지는 류들의 여덟 가지 경우를 다시 정리한 후 마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²⁴⁷⁸⁾

결정하기 전에 정리해 보자

2478) 섞어지는 류들의 여덟 가지 경우 이전까지는 이미 1239-1340에서 세 번째로 옮긴 후 두 번째 요약한 후 첫 번째 정리를 마쳤다

실체 와 반대에 관해 정리하고픈데 이미 각주들에서 충분히 말하여졌
다고 여겨지므로 무한함에 대해서만 정리하기로 하자

엘레아 낫선이에 따르면 **있는** 것은 **헤타론**을 나누어지님을 통해 자신
에 맞서는 **있지 않는** 것으로 **무한히**(ἄπειρον, 256a6, 1536) 또는 **셀 수없이**(μ
υρια ἐπὶ μυρίοις, 259b4, 1579)분열된다 나는 무한히 쪼개지는 길을 다음
쪽 처럼 정리하려 한다

모든 류,

있음 과 **헤타론**도 류,

섞여지는 모든 류,

있음을 헤타론한 것은 나누어지니며

모든 것은 있음을 **나누어지**님을 통해 **있으므로**

헤타론한 것도 있다 반면,

헤타론을 **있음**도 나누어지니며

모든 것은 헤타론을 나누어지님을 통해 자신과 헤타론하므로

있음은 **자신**과 헤타론하게 있다 그런데,

헤타론의 자연은 각기 것을 **있지 않게**하며(ποιεί, 256e1, 1535)

있는 것은 헤타론의 자연을 나누어지니므로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으로 있다 그리고,

없음은 맞섬이며

맞섬은 앞의 것에 맞섬이므로

있지 않음은 있음에 맞선다 그런데,
헤태론의 자연은 쪼개짐(κατακεκερματισθαι, 257c7, 1539)이며
헤태론을 나누어지니는 것은 그 자연도 나누어지짐으로
있는 것은 쪼개진다 그런데,

쪼개진 것은 다시 헤태론의 자연을 나누어지니고
헤태론의 자연은 있음을 나누어지니므로
쪼개져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다
헤태론의 자연은 있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수(ἀριθμὸν, 238a10, 1372, 數)이어서
있는 것은 수와 분리되지 않으므로
있지 않는 것도 수와 분리되지 않는다
(저) 있는 그 만큼 있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저 **있음** 하나,
헤태론한 있음 하나,
있는 것 둘 그런데,

있는 것은 알론한 류들과도 헤태론하고
모든 각기 것(ἀπάντων, 259b2, 1579)과 헤태론하게 있는 것은 각각과
도 모든 것과도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만 동일하므로
있지 않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지 않는 것은 무한하게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하게 두드려 맞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있는 것**을 나누

어지님을 통해 있다라고만 하면 있지 않는 것은 무한히 있을 것 아닌가 있는 것이 움직여 왔던(소피스테이스259d3, 1454)것이라면 움직이논 흔들거리며 있지 않는 것이 막 쏟아졌다가 **습**이 있음을 나누어지님을 통해서 같은 상태(ὀμαλότητι, 티마이오스57e7, 1182)를 유지한 채 있을 것이므로 그렇다 아마도,

그래서였을까 움직임을 있음과 함께 놓고나가는 것이.....그리고.....움직임을 있어왔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텔레스토 **움직임은 있어오는**(ἦν, 형이상학 람다 편 9 1071b7, 755) 것다 라고 놓고 나가면서 움직임은 힘의 현실(ἔντελέχεια, 1065b33, 882)이다 라고 그리고 **현실은 무한한 것이**(τὸ ἄπειρον, 형이상학감마 편 1066b11, 904)아니다 라고 말한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무엇 때문에 엘레아 낫선이가 로고스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려하는지 알아 보자 물론 소피스테이스가 무엇인가를 알아내 그 가면(假面)을 벗겨내기 위해서 인데 그러하는 것과 로고스를 정의하는 일은 어떻게 서로에 관련되는 것일까 엘레아 낫선이를 따라가 보자

“ 로고스를(τὸν λόγον a5) **있는** 류 중의 하나인 것으로 **있다** 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분리하려는 자들을 다그치세) 이(로고스의 있음)을 빼앗기는 우리는 철학을 빼앗기게 되는 가장 큰 [일이 터]질 거네 나아가서 현재(ἐν τῷ παρόντι a7)우리는 로고스가 어느 때든(ποτ' a8)무엇이라는 것에 동의해야 하네 만약(우리가 로고스의 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로고스)는 전혀(τὸ παράπαν a9)있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 예를들어 우리는 있다 라고도 어디에서든 (우리는) 말하지 못할 것이네 만약 어떤 하나도 어떤 하나와 어떤 하나에 대해 **썩어**지 않은 (채) **있다**(εἶναι μεῖζιν 260b1)는 것에 우리가 억눌린다면 (로고

스의 있음을) 빼앗길 것일세 : 엘레아 낫선이

이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을 통해서(δύ' ὄτι b3) 로고스(가 무엇인가에 대해) 동의해야할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요렇게 똑 같이 따라가면 (자네를) 가장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네 : 엘레아 낫선이

어떻게 ? : 테아이테토스

있지 않는 것은 알려진 류들 가운데 **있는** 류의 하나인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졌네 모든 것에(κατὰ πάντα 260b8) 두루 퍼져(διεσπαρμένον b8) **있는 것들**로서 [말일세] : 엘레아 낫선이

그렇게 (퍼졌지요) :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이 다음으로 **억견**(δόξῃ²⁴⁷⁹) 260b10) 과 로고스와 (**있지 않는** 것이) 섞여지는지를 숙고해야하네 : 엘레아 낫선이

무슨(말씀이신지요)? : 테아이테토스

한 편으로 이(있지 않는) 것이 그(억견 과 로고스)와 섞여지지 않는다면, μειγνυμένου 260c1) 반드시 모든 것이 **진실**이(εἶναι c2)며 다른 한 편으로 섞어진다면) 억견 과 로고스는 **거짓**(ψευδῆς c2)이 될 걸세²⁴⁸⁰) **있지 않는** 것들을 **억견화**하거(δοξάζειν c3)나 **말하**

2479) 생성 소멸하는 것은 억견에 의해(δόξῃ, 티마이오스 28a1, 1196) 억견화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진실한 억견 과 누우스의 구분을 근거로 해서 있는 것 과 생성을 구분한다는 것(1137, 1467)도 함께 기억하라 그런데 여기서,

있지 않는 것이 억견 과 로고스에 섞여지는(μειγνυται 260b11)지가 물어진다 물론 거기의 억견은 억견화하는 일 종의 능력으로 쓰인 반면 여기의 억견은 우리가 흔히 요즈음 말하는 의견(意見)일 것이다

2480) 진실한 것은(τὸ ἀληθινόν, 240b5, 1378)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인 반면

는 이것이 어디에서든 거짓을 *디아노이아*(생각) 과 *로고스* 안에 되어
져 **있**(ἔστι c3)게하기 때문일세 : 엘레아 낯선이

그렇게 : 테아이테토스

있는 거짓의 속임(ἀπάτη, 260c6)이 있네 : 엘레아 낯선이

예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있는**(οὔσης c8)속임의 에이두올라(*심상*, 心象) 와 *비슷*
한 것(εἰκόνων c8) 과 *환상*(φαντασας, c9, 幻像, 나타난²⁴⁸¹것들)[이]

진실하지 **않는** 것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엘레아 낯선이에
의해 쓰여졌으므로 진짜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인 반면 가짜는 있는 것으로
있지 않는 것 또는 있는 것으로 있지 않는 것이라 쓰여져야만한다 나아가
서,

여기에서는 만약 있지 않는 것이 억견 과 로고스와 섞여지지 않는다
면 모든 것이 진실일 것인 반면 섞어진다면 억견 과 로고스는 **거짓**이 될
것이라고 억견 과 로고스와 관련하여 **진실 과 거짓**이 말하여진다

2481) **있지 않는** 것 그래서 있는 것에 관해 엘레아 낯선이가 말했던 것은
어떤 자는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든 있으므로 *가짜*도 있다 라고 말하지만
*가짜*는 있지 않을 것이므로 아버지 엘레아 낯선이는 있지 않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었는데 이 경우 있지 않는 바로 그것의 보
기로 들어졌던 것은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것*(τὰ φαίνεθαι καὶ τὸ δοκε
ίν, 236e1, 1358)이었다 이제,

있는 것에 관한 직접적인 말을 끝내 가면서 있는 로고스에 관한 직
접적인 말을 시작하는 중인 엘레아 낯선이는 여기서 *나타난 것(환상) 과 심*
상(에이두올라) 과 비슷한 것 모두를 속임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본다
물론 속임은 *가짜*가 있으므로 인해 있는 것이고.....그렇다면 그는 환상 과
심상 과 비슷한 것 모두를 **가짜**(거짓) 때문에 *만연*(蔓延)하게 되는 것들로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가득 차 **있네** :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소피스테에스는 어디에서든 이러한 (환상 과 심상 과 비슷한) 것으로 숨어들어 **거짓**은 단적으로(τὸ παράπαν 260d1)어떤 것도 **가짜**이지 **않**다고 [가짜의 있음] 거부하게(ἔξαρνον, d1, 拒否)된다네²⁴⁸²)**있지 않는** 것은 두루 생각되어지거나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것은 전혀 어떤 **실체**(ὄντιας d3)도 나누어지니 **않**으므로²⁴⁸³][그렇다네] 라고 우리는 말했네: 엘레아 낯선이

본다

2482) 그렇게 되면 엘레아 낯선이의 아버지 역시 속이는 자 소피스테에스 중의 한 사람으로 **고소**(告訴)하는 셈이 되지 **않**은가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고 있는 것만 **있다** 라고 구석 구석 돌아 다니시면서 말씀하셨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아버님의 말씀을 풀어 테아이테토스에게 **있지** 않음은 **있**음을 부정한 것 뿐이며 부정은 ‘반대’가 아니라 서로 맞섬을 나타내는 것 뿐이고 이런 맥락에서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해태론**한 것일 뿐 이라고 그는 설명하기 때문이다 **있는** 것에 **해태론**한 것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파르메니데에스는 **있지** 않음의 **있**음을 거부하지 **않**았던 말인가

2483)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말은 **저 있음**(258b3, 1542)이 아니라 **이 있음**(258b2, 1542)을 나누어 지닌다는 것이리라(1585쪽 각주 2474번) 그리고,

파르메니데에스 편 142c5-6(50)등에 나오는 실체를 나누어지닌다 라는 로고스를 참조하라 참조해 보면 플라톤의 **있**음을 따라가다 보면 소피스테에스 편 과 파르메니데에스 편 과 티마이오스 편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소피스테아스는 거부해) 왔지요 : 테아이테토스

지금 그런데 이(**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을 나누어지닌 (것 μ
 $\epsilon\tau\acute{\epsilon}\chi\omicron\nu$ 260d5)으로 알려졌네 그래서 더 이상 (소피스테아스는) 이(있
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똑 같이 싸우려²⁴⁸⁴하지 않을 것이네
아마도 (그는) 에이도스(중)들 가운데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있지 않
는 것을 나누어지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나누어지니지)
않으며 로고스 와 의견은 (**있지 않는**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 (중)
들일 거라고 말할 것일세 그래서 (우리가) 그(소피스테아스)가 [바로
그러한 기교를 지닌] **자이다**(είναι 260d9)라고 말하는 에이두올라를
만드는 기교 와 판타스마를 만드는 기교(φανταστική²⁴⁸⁵), d9, 幻像을
만드는 기교(技巧)는 모두 모두 있지 않다 라고 다시 싸우려 들 것이

2484)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자들과 주욱 싸
워왔다(διεμαχόμεθα, 260a2, 1583)이제 이러한 싸움은 끝난 것으로 엘레아
낮선이는 보려는 듯하다 그는 다른 측면에서 싸움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해서,

있지 않는 것 곧 거짓(가짜)도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졌
으니 이제 이것 갖고는 다룰 수 없고 대신에 거짓은 의견 과 로고스와 교통
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다룬다는 말이다 물론 소피스테아스는 교통하지 않
는다고 하면서 싸우려들 것이다 교통하게 되면 진실한 의견 과 진실한 로고
스와 똑 같이 거짓 의견 과 거짓 로고스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
다 말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진실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근거가
무너질 것이다

2485) 지혜로운 척하기 위해 진실한 프라그마와는 동 떨어진 에이두올라(εἰ
δωλα, 234c6, 96, 심상(心象))를 말로 만들어 내 둔한 젊은이를 호리는 놀라
운 기교를 지닌 자인 소피스테아스는 이러한 기교를 가지고 능수 능란하게
있는 것을 모방하는데 본디 모방기교에는 비슷하게 만드는 기교 와 환상(판

네 **역견 과 로고스는 있지 않는** 것과 **교통하지**(κοινωνεῖ²⁴⁸⁶)260e2)않는다 **가짜는** 그(**역견과로고스**)와 **교통하지** 않은 채 **있**(εἶναι e3)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 때문에 이(로고스와역견과판타지아)가 **있지 않는** 것과 **교통함**을 밝히면서 **있는**(ὄν 261a1)**거짓**을 논증해 [바로] 이(거짓)으로 들러 붙는다면 소피스테에스가 들러붙는 다는 것을 논증하고 또는(ἦ 261a3) [소피스테에스가 그 거짓으로부터] 풀려난다면 알론한 류로 [그를] 조사하기 위해(ἵνα e5)어떤 때(ποῦ 260e5)든 **있는** 첫 번째로 로고스를 그리고 **역견 과 판타지아**를 정확하게 음미해야 할 것이다 : 엘레아 낯선이

오 엘레아 낯선이어 정확하십니다.....: 테아이테토스(260b3-261a4) ”

타스마)을 만드는 기교(236c3-4, 97)로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엘레아 낯선이는 앞서 말했다 그러면서 엘레아 낯선이는 거기서 이 두 가지 기교를 어느 기교를 소피스테에스가 지니는지 애매하다고 하면서 소피스테에스가 지니는 모방기교가 어떠한 것인지 말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에서 비로서 소피스테에스는 판타스마(환상)를 만드는 기교를 진 자라고 엘레아 낯선이에의해 말하여진다

2486) 엘레아 낯선이가 **교통하다** 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에이도스 친구들이 말하는 진짜 실체 곧 에이도스에 관해 말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그 친구들은 생성 과 실체를 구분하는데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생성된 몸 과 **교(交)**하는 반면 논리를 통해 있는 실체와 **교(交)**하는 영혼과 우리는 **교통한다**(κοινωνεῖν, 248a10-11, 1147)라고 이들은 말한다 라고 하면서 말이다 (253e1, 1343)

교통한다 라는 말이 우리와영혼사이에서 움직임과침과있음사이를 지나 역견과로고스와있지않음으로 돌아 다닌다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해 교통한다는 말의 쓰임새가 넓혀진다는 뜻이다 물론 진짜로 돌아다닌다

따라서 엘레아 낫선이는 소피스테에스가 어떠한 류인가를 밝히기 위해 로고스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²⁴⁸⁷) **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 논증됐으니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해 봤자 쓸데 없이 보잘 것 없는 것에 힘만 쓰는 꼴이 될 것이므로 소피스테에스는 이제 **있지 않는 것** 또는 **로고스 와 역견 과 환상(판타스마)**은 결코 **거짓** 또는 **있지 않는 것**과 **교통**하지 않는다 라고 대들 것이니 미연(未然)에 미리 그 기(氣)를 꺾기 위해 먼저 **로고스는 있지 않는 것(거짓)**과 **교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거짓에 소피스테에스는 들러붙는다는 것을 논증하자고 엘레아 낫선이는 말한다²⁴⁸⁸) 따라서,

로고스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여기서 멈추고 나는 파르메니테에스 편으로 다시 넘어갈 것이다 말(로고스)과 거짓에 관심이 많은 자는 읽고 쓰고 읊고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주석을 스스로 달아 보라

움직임 과 **쉽**을 묶어주는(διαφερόντως, 253a4, 1487)것은 **있는 것**이므로 움직임에서 쉽으로 또는 쉽에서 움직임으로의 **변**하는 것은 어떻게든 바로 이 있는 것을 통해야만 할 것이다 통하지 않으면 이 둘은 결코 묶어질 수 없을 것이며 묶여 있지 않다면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⁴⁸⁹)그러나,

2487) 물론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2488) 물론 그리로 들러 붙지 않는다면 소피스테에스를 규정할 다른 류를 찾아 보아야 할 것이라고도 말한다

변화(μεταβάλλειν, 255a12, 1519)는 맞선 또는 반대되는 **헤태론한** 것들 사이에서 일어나므로 서로에로 변하는 것은 **맞서** ‘있는’ 헤태론한 것들이어야 하며 **동일한** 자신으로부터 **알론한** 헤태론한 것으로 변할 것이므로 자신과 동일한 것이어야만 한다 **동일한** 것에 **맞선(반대 되는)** 것은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임 과 **쉬은 있음**을 나누어 지닐 뿐만 아니라 하나에 걸리는 두 이름(δύονόματα, 255c9, 1522)가운데 어느 하나 다른 하나는 있는 것이다. 인 것들 로서가 아니라 각기 구분되는 이름인 것들 로서의 **동일함** 과 **헤태론함**도 더불어 나누어 지닐 것이다 만약 **쉬고** 있거나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면 모두 그러하다 자신과 동일하면서 알론한 것과 헤태론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분되는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것들은 이렇게 서로를 나누어 지닌다 이제,

파르메니데에스 편의 주인공(主人公)인 파르메니데에스는 이러한 **류**와 **종**들이 어떻게 서로 **교통**하는지를 숙고하는 변증적인 훈련을 아리스토텔레스로 하여금 받도록(γυμνασθήναι, 135c8, 1323)한다(1329) 이러한 훈련은 1336쪽에 이미 쓰여진 것 처럼 **있는 류** 또는 **에이도스**²⁴⁹⁰를 통해 알론한 류 또는 **종(에이도스)**들이 어떻게 **교(交)**하는지를 알게 할 것이다 그 훈련

2489) 움직임 과 쉬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쉬어지든 쉬어지지 않든 모든 류 또는 종은 반드시 있는 것을 통해서 묶어지든지 아니면 분리 되든지 할 것이다 모든 것은 있지 않음을 통해서 분리되며 있음을 통해서 묶어지는데 바로 있지 않음 역시 있는 류의 한 종이기 때문이다

2490) **있는** 것의 **류** 와 **종**이 구분되어져 함은 1563-1565의 있는 것의 로고스 니열에서 다 드러났다 **쉬(ἀποθμὸν, 238a10, 1372)** **있지않는** 것 **로고스(τὸν λόγον, 260a5, 1596)**등이 있는 **류의 종(εἶδος, 258c3 1543)**이다 물론 이 세 가지 이외에도 그 종은 많을 것이다

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와여럿* 전체와부분 동금과공음(모양) **움직임**
과섬 **동일과해대론** **같음과같지않음** **똑같음과똑같지않음** **시간** 자기자신과
알론한 것 **앎과억견** 등의 구분되는 류 또는 종(에이도스)들이 **있음과있지**
않음을 나누어 지님으로서 어떻게 서로에 대해 **있는** 지를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르메니데아스는 만약 하나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하나가 만약
있을 경우 그리고 만약 하나가 있지 않을 경우 그리고 하나가 만약 있지 않
을 경우를 전제한 후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하나 그리고 하나의 알론한 것
이 자기자신 과 알론한 것들에 어떻게 대해 있는지를 아주 아름답게 아리스
토텔레스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파르메니데아스 편 과 소피스테아스 편은 아주 밀접하게 서로에 연이
어진다 소피스테아스는 테아이테토스에게 **있음** 과 **실체**를 드러 내 보여 주
는 반면 파르메니데아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알
론한 **류** 와 **종들이**²⁴⁹¹⁾ 어떻게 서로 **교통**하는가를 드러내 보여 주기 때문

2491) 에이도스들을 **분리**해 있다고 할 경우 닥아오는 어려움들이 어떠한
것 인지를 소피스테아스에게 말한 뒤 파르메니데아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러기에 분리된 것들이 아니고 **있음-있음** 역시 에이도스들 가운데 하나이
다-을 통해 **에이도스**들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 파르메니데
아스를 주인공으로 삼는 이 대화 편은 앞 뒤가 그 맥락에 있어 끊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있음에 있어서 **에이도스**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에이도
스들은 분리 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설령 에이도스 그 자체로는 서로
분리될 것이다 라고 혹간 말여질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미 **앎**의 에이도스
를 통해 우리 **인식**에 걸린 이상 모든 류 와 종들은 결코 분리해 **있지** 못할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에게 미쳐 인식되지 아니했다 하더 라도 **있는**한 에이

이다 따라서,

이 두 대화 편은 마주 보면서 서로를 향해 닥아와 이어지는 그러한 동일한 존재론의 다른 두 길에 있다 라고 말하여질 수도 있으리라²⁴⁹²) 무엇을 통해서 그러한지 이제 파르메니데아스를 따라가 보기로 하자

에이도스 사이의 분리(χωρίς, 130b2, 1253)㉠ 그리고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는 것(τὰ μετέχοντα, 130b3, 1253) 과 에이도스 사이의 분리㉡ 등 두 가지 분리를(1255)끼집어 내 그 가운데 분리㉡에 잇따르는 어려움들을 젊은 소크라테아스에게 노년의 파르메니데아스가 보여 주었다는 것은 이미 1257 쪽에 내가 쓴 바와 같다 그러한 분리의 어려움들을 보여준 뒤에 이제,

파르메니데아스는 가장 나이 어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하나**를 포함한 여러 류 또는 에이도스가 **있음** 과 **있지 않음**을 나누어 지냄을 통해 서로에 대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²⁴⁹³)

“ 물론입니다 라고 제애논은 말했어²⁴⁹⁴)

도스들은 이미 묶어 섞여져 있기 때문이다 음소들이 모음을 통해 끼리 끼리 묶여 음절을 이루듯이 각기 류와종들은 **있음**을 통해 서로 묶어지고 **있지 않음**을 통해 다시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2492) 따라서 소피스테아스 편에 나오는 엘레아 낫선이의 아버지 파르메니데아스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살해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없이 되 살아나 여기 파르메니데아스 편에서 주인공 노릇을 한다

2493)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그의 말에 따라 숙고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자신이 받고 있다는 것을 순간 순간 알아 썼으리라

2494) 1330쪽으로부터 이어짐

그렇다면 나에게 누가 답할까? 가장 젊은 자? 아마도 그 자가 가장 적게 [나를] 번잡하게할 것이며 그리고 가장 많이 답할 것으로 상상되네 그래서 저가 답하는 동시에 나에게 쉽[이 있을 것이네]

이것은 저에게 준비되었습니다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말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젊은 자는 바로 저를 두고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으시면(ὡς 137c2)답할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알론한 어떤 것 [곧] **여럿**은 아닐 것이지? 라고 말하네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그 (하나)의 **부분도** 그 (하나)의 **전체도 있지(εἴ**

val 137a6)않네

무슨?

부분은 어디에서건 전체의 부분(μέρος 137c7)이네

예

전체는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부분도 빠트리지(ἀπῆ 137c7) 않는 것이 전체일까?²⁴⁹⁵⁾

2495) 있는 모든 것을 하나 라고 말하는 자는 그 하나가 전체와 연관지워질 때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엘레아 낫선이의 말을 기억하라 전체를 **있는 하나와**(τού ὅντος, 244d14, 1399)동일하다고도 헤태론하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일하다면 하나는 자신이 나뉘어진 부분들을 지닐 것인데 진짜 하나는 나뉘는 것이 아닌-나뉘는 것이라면 하나 보다는 **여럿이** 있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반면에 헤태론하다면 곧 하나는 전체가 아니라면 있는 것 역시 전체가 아닐 것이므로 어떤 것도 있지 않게 될 것이므로 그렇다 생성되는 것은 항상 전체-전체는 그 만큼한 **량인 것**(ποσόν τι, 245d9, 1403)이므로-로 생성되므로 만약 전체가 실체인 것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생성**이든 **실체**이든 결코 있는 것이라고 불리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론(입니다)

따라서 전체로 있으면서(öv 137c9) 부분을 지니는 [식으로 그렇게] 양자적으로 하나는 부분들로부터 [있]을 것이네

필연적으로

따라서 양자적으로²⁴⁹⁶ 그렇게 하나는 여럿이지 하나가 아닐 것

위에 쓰여진 ‘있는 하나(ἔν ὅν, 143a5, 50)’는 만약 하나 있다면에서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 만약 있다면에서의 하나 있음이 전제될 경우의 하나라는 것은 이미 두 번째 요약에서 선명하게 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 있다면에서의 하나에 대해 말하는 여기에서 거기 전체를 끌어들이는 것은 거기에서도 역시 있는하나와진짜하나 전체하나와전체자체의 구분이 그어졌기 때문이다(1421쪽그림)이 구분이 그어지지 않으면 거기의 로고스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렇고 거기에서 구분되는 네 가지 말이 이미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여기 지금 이 맥락에서 쓰여지는 전체 와 하나 라는 말은 거기의 있는하나 와 전체하나가 아니라 진짜하나 와 전체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 따르면 진짜 하나는 나뉘어지지 않는 그래서 부분을 지니지 않는 하나이며 전체 자체는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 전체인 반면 있는 하나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나뉘어지는 부분을 지니는 하나이고 전체 하나는 그러한 속성을 지니는 부분 모두이다(1421)

2496) 양자적으로(ἀμφοτέρως, 137c8)라는 말은 양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을 하나 또는 둘 또는 셋으로 말하는 자들과 질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의 실체를 몸 또는 에이도스로 말하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폭로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거기 양자는 반대되는 것 예를들어 음과양(1394) 움직임과쉽(1517각주2405, 1449, 1527)을 가리키는 반면 여기 양자는 하나와여럿(또는 전체와

일세

진실

[그런데] 여럿이 아니라 *하나 자체*(ἐν αὐτῷ 137d1) 반드시 **있**

네(εἶναι 137d2)²⁴⁹⁷)

반드시

따라서 (하나 그 자체는) *전체*이지도 *부분*을 지니지도 않을 것

일세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하*(ἡ μὲν 137d3)도 *부분*을 지니지 않는

다면 시작도 끝도 *중간*(μέσσω²⁴⁹⁸) 137d5)도 지니지 않을 것이네 이런

것들은 그 (하나)의 *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네

옳소

부분 또는 있는것과(하나)를 가리킨다 하나 와 여럿 또는 전체 와 부분은 양자적으로 **있다** 라는 말이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양자적으로 **있다** 라는 레애마(旬)가 거기나 여기 모두에서 동일한 쓰임새를 지니다 그래서 여기 맥락에서도 역시 거기과 마찬가지로 있음이 도드라진다

2497) 콘퍼드(932) 와 조웬(14)은 그것은 여럿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이다 라고 번역하나 나는 하나 그 자체이다 라고 옮겼다 두 사람이 더 잘 번역한 것 같으나 나는 있는 하나와 구분되는 여기 하나를 더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 그 자체라고 해 보았다 아니,

이들의 번역 과 나의 옮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앞 부분도 아주 험태론하게 옮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구의 번역이 더 매끄럽나....나는 별로 자신이 없다

2498) 중간이 텔레스에 의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886쪽의 각주 1387쪽을 참조하라 그리고 소피스테이스 편의 244e6(1400)도 참조하라

그리고 끝 과 시작은 각기 것의 *한계*(πέρας 137d6)이네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는 *무한하다*νε(ἄπειρον²⁴⁹⁹) 137d7)만약 시작도 끝
도 지니지 않는다면 말일세
무한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모양 없음*(ἄνευ σχήματος²⁵⁰⁰)d8) 것이네 둥근도
곧음도 나누어 지니지 않기때문이네
어떻게?
둥근은 자신의 *극단들*(τὰ ἔσχατα, 137e3, 極端)이 중간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똑 같이 떨어져(ἀπέχῃ 137e3)‘있는’ 것²⁵⁰¹)이네
예
그리고 *곧음*은 자신의 중간이 극단들 양자 앞에 있을 그러한

2499) 그런데 소피스테이스 편이 엘레아 낫선이에 따르면 있지 않는 것들
은 무한히(ἄπειρον, 256e6, 1536)아주 많다 그렇다면 1595쪽에 다시 정리된
것 처럼 무한한 것들은 있지 않은 것들일 터인데 여기에 따르면 하나 그것
(자체)이 무한한다 한계인 끝도 시작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된 것인
가 만약 *하나가 있는* 경우의 하나도 *무한*하고 *있지 않는* 것의 경우도 무한
하다면 이 두 경우는 어떻게든 무한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여야 할 것
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있지 않는 것 과 만약 하나 있는 경우의 하나는 어
떻게 보면 하나인 것이라는 말인데.....

2500) 도대체 질은 어떠한 것이야 라는 물음을 던지는 자들은 자신의 범주
들에서 *모양*(σχῆμα, 10a11, 206)을 질 가운데 하나로 보는 텔레스를 찾아가
보라

2501) 소피스테이스의 엘레아 낫선이는 *공*(σφαίρης, 244e3, 1400)이 그러하
다고 한다

것이네

그렇습지요

그렇다면 끈음이든 빙두름이든 모양을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
나는 부분을 지니며 여럿일 것일세

물론

따라서 어떤 부분도 지니지 않으므로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나는) 끈음도 빙두름도 아니네

웁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어디에도 있지않을(οὐδαμοῦ 138a2)²⁵⁰² 것
일세 알려진 것 안에도 하나 자신(ἑαυτῷ a3)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일세

어떻게?

한 편으로 알려진 것 안에 있다면 저 안에 있을(εἶναι 138a4)
저것에 의해서 어디에서든 빙 둘러쌓일 것이며 저것의 여러 [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접촉할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 하나 와 非부분들인
그리고 빙 두름을 나누어지니지 않는 것이 여러 [점]에서 (여러 방향
으로) 접촉되어(ἄπτεοθαί²⁵⁰³ 138a7)질 수는 없네

2502) 앓음은 있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에 걸린다(οὐδαμοῦ)

2503)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이 맞 닿아 (접촉, 1572)함을 그려 내고 있
는 1572쪽을 보라 그런 후 맞 닿음으로서 존재(실체, 1573)가 생겨나는 것
이 아니라 움직임 과 쉼 과 해태론 과 동일이 있음을 나누어 지님 으로서
존재(실체)가 저 있음으로부터 벗어나 있게 됨을 그려내는 1573쪽 그림을
참조하라 이 그림들을 잘 숙고해 보면 움직임을 나누어 지니므로서 있는 것
은 있지 않는 것으로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으로 나아가서 동일[성]을 유
지하는 해태론 것 각각이 해태론한 것 각각으로 움직이면서 각기 어느 한

(접촉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자신*(ἐαυτῶ 138a7)안의 *그것은*(αὐτό a7) *스스로*(αὐτό a8)와 *알론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신에* 의해서 *둘러 쌓일* 것이네 *자신* 안에 (있을 것이)므로 [그렇네] 어떤 것 안에 *둘러 쌓여* **있**(εἶναι 138b1)을 수 없기 때문일세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편으로 *둘러 쌓는* 그것은 *헤태론한* 것일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 *둘러 쌓여지는* 것은 *헤태론한* 것일 것이네 *동일한* 것 (ταῦτόν 138b4)이 전체를 양자적으로 동시에(ἅμα 138b4) (*둘러 쌓이*)면서(πείσεται καὶ b4)(*둘러 쌓*)지는 않기 때문일세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되면]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둘일* 것이네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디에서든 *하나는* *자신* **안에도** **있지** 않고 *알론한* 것 **안에도** (있지) 않네

있지 않습니다

만약 *쉬고* 있다면 또는 *움직이고* (있다)면²⁵⁰⁴그러할 것인지를

점에서 *맞 닿아* *헤태론하게* 된 채 *쥬는* 것을 그리고 그 점에서 이미 *변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텔레스는 자신의 형이상학 *칼과 편* 12 장에서 어느 한 점에서의 이러한 *접촉*을 첫 번째 *자리* 안에 *동시*(ἅμα, 1068b27, 934)있는 극단들의 *접촉*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공간*에서 *연이어져*(ἐξήης, 1068b33, 934) *시간* 속에서 *연속적인* 것(τὸ συνεχές, 1069a5, 934)들로 나타난다고 말한다는 것도 참조하여 보라

2504) 따라서 지금 *파르메니데*에스는 *하나와여럿* *움직임과* *쉬움* 등의 여러 *종* (에이도스)들이 **있음**을 나누어 지닌다면 어떠한지 될 지에 대해 말하는 중

(알아) 보세

(그렇지) 않는 무엇이?

움직여짐은 [급속한 둥근 자리] 옮겨졌음(φέρουτο 138b8) 또는 알
론하게 됐음(ἀλλοιοίτο²⁵⁰⁵) 138c1)이네 이것들만이 움직임이기 때문이
네

예

그런데 스스로와 알론하게 되는 하나는 더 이상 어디에서든 하
내[로] 있(εἶναι, 138c2)을 수 없네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달리 됨의 측면에서 움직
여지지 않는다네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리) 옮겨짐의 측면에서는 (움직여지는가)

똑 같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옮겨졌다[면] 실로 자신 안에서 원을 그리며(κῶκ
λφ 138c6)움아 다녔거나 헤태론한 자리(χώραν²⁵⁰⁶) c6)에서 헤태론한

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와여럿 움직임과쉽 등은 이미 129d8-e1(1249)
에서 에이도스들 이라고 말하여지며 소피스테에스 편에서 헤태론(255e5,
1523)과동일함 움직임과쉽 있음 등을 이테아 또는 가장 큰 류라고 말하여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음의 에이도스를 하나와여럿 움직임과쉽 헤태론과동일 같음과같지
않음** 등의 에이도스가 나누어 지닌다면 또는 이러한 에이도스들을 나누어
지니는 것들은 어떻게 서로에 대해 있을지에 관해 파르메니데에스는 말하는
중이다

2505) 텔레스는 자신의 범주들 15a13(272)에서 생성 소멸 늘어남 줄어듦 달
리됨 자리변화 등 여섯 가지 종의 움직임을 말한다 움직임에 대해서는
707-712, 755-785, 1180쪽 등을 참조하라

자리로 바꾸었거나(μεταλλάττοι c5-6)이네

필연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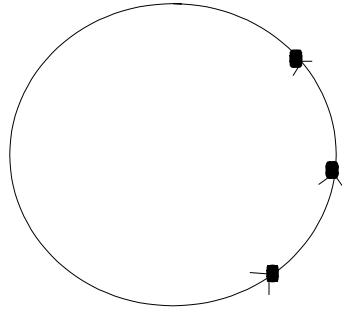
그렇다면 한 편으로 원을 그리면서 옮겨 다니는 (하나는) 필연적으로 중간을 거쳐서(ἐπι 138c7)오갔을 것이며 중간 주위(περι 138c8)(를 돌아) 옮겨가는 (것은) 스스로와 알론한 부분들을 지녔을 것인데 다른 한 편으로 중간에도 중간 주위에도 도달하지(προσῆκει 138d1)못하는 이것이 중간을 거쳐서 원을 그리며 (옮겨 다니기 위한) 어떤 도구들(τις μηχανή²⁵⁰⁷) d1) [지닐]까 ?

어떤 것도 (지니지) 않습니다

2506) 텔레스의 첫 번째 장소(τόπω, 1068b26, 934, 926)와 비교해 보라 나는 여기서 χώραν(코오란)을 자리로 옮겼다 헤태론한 자리에서 헤태론한 자리로의 자리 바꾸었음 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텔레스는 코오란(자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토포스(장소)를 쓴다 자리 변화(ἢ κατὰ τόπον μεταβολή, 범주들 15a14, 272)를 움직임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텔레스는 파르메니데아스 와 티마이오스의 코오란(자리) 대신에 토포스(장소)를 쓰는 걸까 어쨌든 움직임과 관련지워진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헤태론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2507) 도구란 하나 자신의 부분들을 가리킨다 어떤 것이 원을 그리며 옮겨 다닌다면 자신의 중간 부분이 있어야 그 부분을 거쳐(ἐπι 138c7)갈 수 있으며 중간 이외의 알론한 부분들이 있어야 중간 주위(περι 138c8)로 옮겨 갈 수 있다 그래서 자리를 둥글게 옮겨 다니려면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이나 하나는 자신의 부분들을 지니지 않으므로 자신이 반드시 그것을 타고 옮겨 가야 할 도구로서의 부분이 없다 라는 맥락에서 도구란 부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다음 처럼 그려 보자

그러나 *자리가 변했다*는 것은(ἀπειβον 138d3) 알론했던 것이
 알론한 것으로 **된다**(γίγνεται²⁵⁰⁸) d2)는 것이며 그렇게 *움직여 진다*



위에 그려진 원은 움직이는 것이 옮겨 다니는 흔적(궤도, 軌道)이며
 반드시 자신의 부분들을 지닌다 바로 이 부분이 옮겨 다니는 것이 그것을
 타고 옮겨 다니는 도구이 도구를 텔레스는 **기체**(ὑποκειμενον, 1067b18,
 915)라고 한다-이며 그것이 **있어 온** 그리고 **있는** 그리고 **있게 될 자리**이다
 있어 온 그리고 있게 될 자리(χώραν)는 περὶ μέσων(중간 주위)에 있었던 그
 리고 있을 것인 반면 **있는** 자리는 옮겨 다니는 것이 반드시 거쳐 가는 중
 간에 있는 자리(ἐπὶ μέσων)이다 그러나 부분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 하나는
 중간을 지니지 않을 것이므로 자신이 타고 옮겨 갈 도구가 있지 않다 따라
 서 자리를 옮겨 다니는 움직임을 하나는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이제,

원을 그리며 나아가는 이러한 자리 움직임을 수적인 비율에 따라 원
 을 그리며 나아가는 시간(χρόνου, 티마이오스38a7, 1174)의 흔적을 나타낸
 1171쪽의 그림을 보라 거기에서는 여기 *자리* 각각 하나 대신에 *지금* 각각
 하나가 들어서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 과 자리(공간)이 따로 떨어진 어
 떤 것이 아니라 딱 붙어 있는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어떤 것임을 알 수 있
 을 것이다

2508) 이제 **됨**(생성)이 *자리 변화*와 연관되어 말하여진다 자리가 변한다는

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는) 어떤 것 *안에* 어디에서든 **있을**(εἶναι 138d4)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봤지?

예

따라서 **되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보다 더 불 가능 하네?

(저는) [왜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ἐννοώ ὅτι 138d6)

만약 어떤 것 *안에서* 되어진다면 이제(πῶ d7) 저것 *안에서도* 필연적으로 더 이상 되어졌지도 않으며 더 이상 저것 *밖에서*(ἐξω²⁵⁰⁹ d7)도 모두 모두 (필연적으로 되어졌지도 않네) 이미(ἤδη 138e2) 되어 졌다면 [말일세]

필연적으로

따라서 만약 알론한 어떤 것이 이러 하다면 자신의 부분을 겪

것은 알론한 것에서 알론한 것으로 된다(ἄλλοτ' ἄλλοι γίγνεται 138d3)는 것이며 움직여진다는 것이다 라고 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리 옮기는 움직임을 알론하게 되는 움직임*과는 구분 뒀었다 비록 움직임 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자리 변화(ἀμεῖβον 138d7)하므로서 알론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자리 옮기는 움직임 과 알론하게 되는 움직임을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에 *변화* 라는 말이 끼어들었다는 데에 조심하라

2509) 양자적인 것이 아니긴 해도 있는 것은 움직임 과 *밖에서*(ἐκτὸς ↔ ἐντὸς(*내부*에서), 소피스테이스250d2 ↔ 파르메니테이스138e4, 1477 ↔ 1615) 는 나타날 수 없다 라는 로고스와 이어보라 여기나 거기나 움직임을 나누어 지니고 **있는 것**은 어떤 것 *외부*에서는 결코 그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거기에서는 움직임 과 있음이 함께 말하여지는 반면 여기에서는 되어지는 것 과 하나인 것이 함께 말하여지고 있긴하다

는 것들(πάροχοι 138e1)만이 저렇[게 될] 것이네 한 편으로 그것의 어떤 (부분)이 저것 **안에** 이미 [있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 (그것의 어떤 부분은 저것) **밖**에 동시에(ἅμα²⁵¹⁰) 138e1)[있을 것인]데 부분을 지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든 어떤 길로도 어떤 것 **내부**에(ἐντός e4) **전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것 **밖**에 (전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진실

자신의 **부분**[과]도 (자신의) **전체**[와]도 마주치지(τυγχάνει 138e5)않을 것은 어디에서든 더 이상 훨씬 더 많이 **되어졌을** 수 없지 않을까 부분으로도 되어지지 못했으며 전체로도 (되어지지 못 했을 것이기) 때문일세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되어지는** 것 안에서 **자리**를 알론하게 하거나 자신 안에서 두루 (자리를) 옮기거나 **알론**해지거나 하는 등의 어떤 것도 (하나는) 아니네

(그럴 것) 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모든 **움직임**에 따라서(도) **하**는 움직이는(질 수 있는, ἀκίνητον²⁵¹¹), 139a3)것이 아니네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하나)는 어떤 것 **안에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하네

말합니다

따라서 어느 때이든 동일한 것(ἐν τῷ αὐτῷ 139a6)안에 있지 않

2510) 자리 하나 안에 있는 것들을 함마(함께, 동시에, ἅμα, 형이상학1068 b26, 926)있다 라고한 텔레스를 여기서 끌어드려 보라 여기에서도 동시 보다는 함께 라는 말이 적절할 듯 한데.....

2511) 따라서 만약 하나 있는 경우의 하나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ἀκίνητα, 소피스테이스249d3, 1454)

네

무슨?

저 (어떤) 것 안에 있다면 동일한 것 안에 있기 때문일세

물론

그러나 자신 안에도(ἐν αὐτῷ a6-7)알론한 것 안에도 예를들어

동일한 것 안에(αὐτῷ a7)도 있지 않네(ἐνεῖναι a7)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어느 때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네

않은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머무르지도

(ἡσυχίαν 139b1)쉬어왔지도(ἔστηκεν²⁵¹² b1)않네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쉬(어왔)지도 움직여지지도 않은 것²⁵¹³처럼 보

이네

처럼 보입니다

2512) 쉬어왔음 이라는 말은 있는 것은 쉬어왔지 않은(ἔστηκεν, 소피스테에 스250c6, 1473) 라고 쓰여지는 곳에서도 쓰인다 그렇다고 하나만이 있다 라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

2513) 쉬어 왔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는 것 이라는 레아마(句)는 에이도스 친구들에게 엘레아 낫선이가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동의 할 것을 요구할 때 그대로 쓰인다(1470-1476) 그러나 거기에서는 **있는** 것이란 그러하다 라고 쓰여지지 반면 만약 하나 있는 경우의 *하나*가 그러하다 라고 쓰여진다 있는 것 과 하나 자체는 이러한 점에서 하나이다 라는 말 이상으로 받아드려서는 안된다 텔레스가 어떠한 점에서 있는 것 과 하나는 동일한 것 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683쪽을 참조하라

(하나는) *헤태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ἐαυτῷ 139b4) *동일한* 것이(ταυτόν b4) 아니며 다시 *자신*(αυτοῦ b5)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헤태론한* 것이 아닐 것이네²⁵¹⁴)

어떻게?

*스스로*와 *헤태론하게* **있는** 것은 하나와 *헤태론* 할 것이며 하나가 아닐 것이다

진실

그리고 *헤태론한* 것과 *동일하게* **있는** 것은 저 (*헤태론한*) 것일 것이지만 그(*자신*)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와 *헤태론한* 것일 것이네²⁵¹⁵)

(있는 그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는*)*헤태론한* 것에 *동일한* 것 또는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인 *한*(ἓως 139c4)*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과 *헤태론하게* 있음에 의해서는 하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함*에 (이를) 뿐이며 어떤 *알론한*(ἄλλω 139c5)하나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네

옳소

2514)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다 라는 말은 하나는 *동일* 과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말이다 1571쪽의 그림을 참조하라 만약 하나 있는 경우의 하나 곧 하나 자체는 거기 그림의 어느 영역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2515) *헤태론한* 자연을 지니는 것은 그 자연에 의해서 *동일한* 자신과 *헤태론하게* 되면서(1535) 무한히 쪼개진다(1539)는 소피스테이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의 로고스를 참조하라

따라서 하나 있음에 의해서는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네 또는
[다르게] 상정되는가?

확실히 (헤태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 있음에 의해서(τούτῳ 139c7) (헤태론하지) 않다면²⁵¹⁶ 스스로에 의해서도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자신에 의해서(αὐτῷ 139c7-8)(헤태론하지) 않다면 [더 이상] 자신도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신이 헤태론한 어떤 것과 결코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므로)

옳소

(하나) 스스로와 동일한 것이(ταύτῳ ἑαυτῷ 139d1) 아닐 것이
네²⁵¹⁷

어떻게 아니지요?

2516) 이렇지 않다면 곧 하나 있음에 의해서(τῷ ἔν εἶναι 139c6) 헤태론하게 있다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에 의해서 헤태론하게 있다면을 뜻하는 것 같은데..... 뒤를 뜻한다면 동일한 것에 의해서 헤태론하게 있지 않다면 스스로에 의해서도 헤태론하게 있지 않을 것이다가 되는 반면 앞을 뜻한다면 하나 있음에 의해서 헤태론하게 있다면 스스로에 의해서도 헤태론할 것이다가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이어지는 로고스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동일한 것(ταύτῳ 139c1)은 관사(τὸ) 더하기 중성3인칭대명사단수(αὐτό)이며 이것(τούτῳ 139c7)은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지시사(指示詞)라는 것은 분명한데....

2517) 있는 것 과 동일한 것(ταύτῳ, 소피스테아스255c3, 1521)은 하나가 아니다 라고 쓰여진 1521쪽을 참조하라 거기에 쓰여지는 있는 것 과 여기에 쓰여지는 하나 자체를 서로에 상응하는 것으로 말하고픈 충동이 일어날 것이나 참아라 놀리 버려라

하나의 자연은 아마 동일한 것의 자신(αὐτή, 139d1, 자연)이 아닐 것이네²⁵¹⁸)

무슨?

동일한 것이 어떤 것에 되어질 때 마다 하나가 (그 어떤 것에) 되어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일세²⁵¹⁹)

그러나 무슨?

여럿에 동일한 것이 되어지(면) 반드시 여럿이 되어지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네

진실

그러나 만약 **하나(-)** 와 동(同)일(**하나, -**)한 것이 결코²⁵²⁰) 차이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것이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하나가 되어졌을 것이고 하나가(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동일한 것이) 되어졌을 것(ἐγένετο 139d7)이네

물론

따라서 만약 하나가 스스로와 동일하면 스스로와 **하나**는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이면서(**ὅν** 139e2)하나가 아닐 것일세²⁵²¹)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에는 헤테론한 것과 **ἕ**

2518) 이를 두고 1621쪽에서는 분리된 자연이라고 파르메니데에스에 의해서 말하여진다

2519) 동일하게 된다고 해서 어떤 것이 하나로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520) μηδαμῆ(결코 아니다, 139d6)를 1560쪽각주1453번과 더불어 숙고해 보라 나는 거기서 결코 있지 않는 것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 않는 것의 강조로 보았다

2521) 스스로와 동일하면 하나이지만 동일하다고 해서 꼭 스스로와 하나인 것만은 아니므로 하나가 아닌 경우가 성립한다?

태론한 것도 스스로와 동일한 것도 **있을**(εἶναι e4)수 없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헤태론하지
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을 것이네

않습니다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ὁμοίον 139e7)않으며
같지 않지도 않네

무슨?

같은 것은 어디에서든 동일한 것을 겪는 것 (때문일세)²⁵²²

예

동일한 것은 **하나**와는 분리(χωρίς 139e9)된 **자연**이라는 것을
보았네²⁵²³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하나 있음과는 분리된 어떤 [속성을] 겪었(πέπον
θε 140a1)다면 하나 보다 더 많게 겪음(속성)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불 가능하네

예

따라서 동일한 것을 겪었던 것은 어떤 것이든 알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하나** 있음이지 않네

2522) 그러기에 같음은 가장 큰 다섯 류에 끼이지 못하는 반면 동일은 그
다섯(소피스테이스255c8, 1522)류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 함축된 것 처럼
같은 것은 항상 동일하지만 동일한 것에는 같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같음에 대해서는 209, 986, 359, 1225, 1245, 1138 등을 참조하시오 1138 거
기에서는 같은 것은 저 에이도스와 같은 이름을 지닌다 라고 말하여진다

2523) 1619 이후 참조하시오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하나)는 알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같은 것[으로]
 있지 않다네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헤테론한* 어떤 것도 겪지 않았네 그렇게 겪은 것들($\pi\epsilon\pi$
 $\acute{o}\nu\theta\omicron\iota$ 140a7)은 하나 보다 더 많을 것 *있*기($\epsilon\acute{\iota}\nu\alpha\iota$ a7) 때문일세
 많습니다
 스스로와 또는 알론한 것과 *헤테론한* 것을 겪었던 것은 스스로
 또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을*($\acute{\alpha}\nu\acute{o}\mu\omicron\iota\upsilon\nu$ a8)것이네 동일한 것을 겪었던
 것이 같은 것 처럼 [말일세]
 옳습니다
 그런데 어떤 *헤테론한* 것도 겪지 않을 것 처럼 보이는 하나는
 자신^과도 *헤테론*과도 결코 *같지 않는* 것이 아니네
 따라서 하나는 *헤테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을 것이네
*않*다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는)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2524)
 도 *똑 같*지($\acute{\iota}\sigma\omicron\nu$ 140b6)도 *똑 같지 않*지도 *않*는^다네

2524)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파르메니데이스에 의해 쓰여지는 재귀대
 명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관사 등으로 인해 나는 혼란스러웠으므로 될
 수 있는한 하나 낱말에 하나 낱말 이라는 식으로 옮겼다 그래서 인지 지금
 은 혼란스러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으므로 스스로($\acute{\epsilon}\alpha\upsilon\tau\acute{\omega}$, 139b4, 1617)와자
 신($\acute{\alpha}\iota\omicron\tau\acute{o}\upsilon$ 139b5, 1167)과동일($\tau\alpha\acute{\iota}\omicron\tau\acute{o}\nu$, 139b4, 1167) 그리고 알론($\acute{\alpha}\lambda\lambda\omega$, 139c5,
 1618)과헤테론($\acute{\epsilon}\tau\acute{\epsilon}\rho\omega$, 139c5)등의 쓰임새와 번역어를 구분할 필요가 생겨났
 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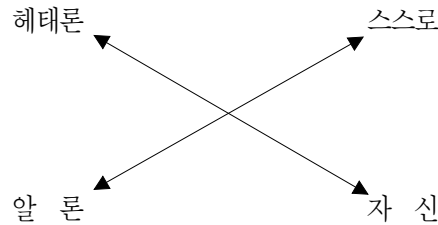
258쪽에서 내가 텔레스의 동일과헤테론의 뜻을 정리 했듯이 여기서

어떻게?

똑 같은 저것과 동일한 척도들(αὐτὸν μετρῶν, 140b7, 尺度)의

똑 같음일 것이네²⁵²⁵)

위 다섯 말들의 뜻을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말들 가운데 서로에
상응하여 나타난 쌍을 구분만 하고 지나가려다 다음의 그림 처럼 쌍을 구분
하면 어느 정도 문제의 낱말들이 선명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서로에 상응하는 쌍은 139b5, 139e5, 140a4, 140b7, 140c7에
각기 나타난다 앞 두 곳에서는 헤태론이 자신과 더불어 나타나는 반면 뒤
세 곳에서는 알론이 스스로와 더불어 나타난다 따라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에 스스로가 또는 그 거꾸로 그리고 알론이 있어야 할 곳에 헤태론이 있어
서는 안될 것 같다 그러나 흔히 헤태론(different) 과 알론(other)은 다름으
로 헤아오토 와 하오토는 자기(자신 또는 스스로) 등으로 그리고 타우톤은
동일로 옮겨지곤 한다 이러한 옮김은 비록 틀린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좀더 섬세한 구분을 필요로 할 것 같다 그러나,

140d7(1624), 140e3(1625), 1041a4(1625)에서는 스스로 또는 자신이 알
론한 것 또는 헤태론한 것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 또
는 알론한 것과 더불어 나타난다 똑 같지 않다 또는 더 넓지도 더 좁지도
동일한 나이를 지니지도 않는다는 맥락에서 말이다

2525) 동일한 척도(재어짐)을 지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서로 똑 같다 라

예

어디 에서든 더 크거나 더 적게 있다(면) *함께 제어된 것들*(*μῆτρον* 140c1)중 한 편으로 더 적은 것들 보다 더 많은 *척도들*을 지니며 다른 한 편으로 더 큰 것들 보다 더 작은 (*척도들*을 지닐 것이네)

예

함께 제어되지 않는 것들[에도] 한 편으로 더 적은 *척도들*이 다른 한 편으로 더 큰 *척도들*이 있을 것일세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것을 지니지 않는 것은 동일한 *척도들*의 있음(*εἶναι* 140c5)이거나 동일한 *척도*와 알론한 *척도들*의 (있음)일 수 없을 것이네²⁵²⁶⁾

(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척도들*이지 않다면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명해 집니다

그러나 이 만큼한 *척도들*(*μῆτρον* 140c9) 그리고 그 만큼한 (*척도들* 만큼의) *부분들*(*μέροιν* 140c9)만큼 더 많은 *척도들* 과 더 적은 *척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시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그 만큼한 *척도들* 만큼한 것(*부분들*)이 있을 것이네

웁습니다

그런데 *척도 하나* 라면 그 *척도*와 똑 같게 될 것인데 그것과

는 말이다 예를들어 동일한 치수 또는 무게 또는 길이 등등.....아마도,

텔레스에 따르면 이러한 똑 같음(범주들6a26, 223)은 양적인 동일함일 것이다 질적인 동일함은 같음(범주들11a16, 209)일 것이고.....

2526) 동일을 지녀야 같거나 같지 않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동일을 지녀야 똑 같거나 똑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똑 같다(εἶναι 140d4)는 이것은 불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네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 하나 척도²⁵²⁷)도 나누어 지니지도 많은 (척도를 나누어 지니지)도 더 적은 (척도를 나누어 지니지)도 동일한 (척도를) 전혀 나누어 지니지도 않으(므로) 언제든지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 과도 똑 같지 않으며 다시 스스로 보다도 해태론한 것 보다도 더 크지도 더 작지도 않다네

모두 모두 그렇게

무엇이? 하나가 어떤 것보다(τῷ 140e2)더 늙거나 더 젊거나 또는 동일한 나이(ἡλικίαν 140e1)을 지닐 수 있을 것 처럼 보이는가?

않는 무엇?

자신과 또는 알론한 것과 동일한 나이를 지닌다면) (하나)가 시간의(χρόνον 140e4) 똑 같음 과 같음(ὁμοιότητος e4)을 나누어 지닐 것인데 (우리는) *하나*는(τῷ ἐνὶ e5)같음도 똑 같음도 나누어 지너지 않는다고 말했네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지 않음* 과 *똑 같지 않음*도 나누어 지너지 않는다는 이것도 (우리는) 말했네

물론

이러한 것으로 *있는*(ὄν 141a1) (하나)가 어떻게 어떤 것 보다 더 늙거나 더 젊거나 동일한 나이를 지니고 있을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는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 보다도 더 젊지도 더 늙지도 동일한 나이를 지니지도 않는다네

2527) 텔레스의 수적인 척도(μέτρον, 형이상학1016b18, 429) 로서의 하나를 생각나게 한다 거기서 그는 음소(音素) 하나 와 사분의 일음(一音) 하나를 그 척도로 든다

아님이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것이라면 *하나*는 모든 면에서(τὸ παράπαν 141a5) 시간 안에 **있을 수 없을 것인가?** 또는 만약 시간 안에 [있다]면 항상 그(하나)는 필연적으로 자신 보다 더 늙게 되지 않겠는가?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더 늙음은 항상 더 젊음 보다 더 늙을까?

무슨?

따라서 스스로 보다 더 늙게 되면서 동시에 스스로 보다 더 젊게 되네 만약 그것 보다 더 늙게 되는 어떤 것을(δῆλον 141b1)계속(μέλλει b1)나누어 지닌다면 [말일세]²⁵²⁸⁾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것일세 **헤태론한 것과 차이나는**(διαφόρον 141b3) **헤태론한 어떤 것**²⁵²⁹⁾은 이미(ἤδη b5) **있는 차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편으로 *이따* **있으면서**(ὄν b5) (그 차이)로 *이따* 있고(**εἶναι** b5)다른 한편으로 (그 차이로) **되어졌으면서**(γεγονότος b5) **되어졌고**(γεγονέναι b5)다른 한 편으로 계속 (그렇게 있거나 되 왔으)면서(μέλλοντος b6) 계속 (그렇게 있거나 되던)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여태까지(πῶ b7) 그**

2528) 스스로 보다 더 늙게 되면서 더 젊게 되는 것은 자신이 그것 보다 더 늙게 되는 바로 그것을 주욱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라는 말인데.....그리고 1166쪽각주1907번을 읽어 보라 거기서 나는 지금과 관련지어서 그렇다 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그것 보다 더 늙은 바로 그것을 더 늙은 것이 계속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라고 써지는구나 그렇다면,

만약 하나 있는 경우이든 하나 만약 있는 경우이든 하나는 스스로를 계속(μέλλει 141b1)나누어 지닌다 라는 말인데,

2529) 헤태론한 것들은 차이나는 것들이다 라는 말이다 차이에 대해서는 993, 411, 258, 924, 1009쪽 등을 참조하라

차이로 되어지면서 되어져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차이로 있거나
되)려 하지도 않으며 (그 차이로) 있는 것도 아니라 비록 알론한 (차
이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론한 차이로) **되어져가**네²⁵³⁰⁾

필연적으로

그러나 더 늙음은 더 젊음과 *차이*(διαφορότης 141c2)이지 알

2530) 참고로 콘퍼드의 다음 번역(935)은 다시 읽어 볼 만하다 ‘ 만약 어떤
것이 다른 것과 *이*미 차이난다면 그것이 *차이나*게 **됨**(becoming)에는 물음
의 여지가 없다 그것들 양자가 지금 **있**든 **있어**왔든 **있**을 것이든 차이난다
그러나 만약 **됨**의 과정에 있는 하나가 차이난다면 다른 것이 *차이나*게 있
어 **왔**다고도 **있**을 것이라고도 그렇지만 아직 **있**는 것이라고도 당신은 말하
지 못한다 ’ 그러나,

이러한 의역(意譯)에서는 어떤 차이로 이미 있는 헤태론한 것은 그
차이로 **되어져** **있**지-**있다** 또는 있는의 부정형(不定形) 또는 분사형(分詞形)
은 쓰였지만 그 미완료나 부정과거(不定過去, aorist)나 단순과거나 미래형
은 결코 쓰이지 않고 대신 **됨**의 **완료형**(γεγονέναι 141b6) 과 μέλλειν(계속
할 것이다)가 쓰인다-만 그와는 알론한 차이로 **되어**지지만 **있**지는 않다는
식으로 선명하게 있음 과 **됨**을 가르지 못한다 *차이*의 완료 와 미래가 **있**
다 라는 말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완료는 **됨**에 미래는 μέλλειν(할것임)에
각기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콘퍼드 의역은 **있다** 라는 말에 완료 와 미
래가 함께 걸린다 그러기에 나는 있음 과 **됨**을 물론 구분해 주기는 해도 선
명하게 갈라 주지는 못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있음 과 생성을 혼동할 것
이고 있음에 생성이 생성이 있음이 서로 뒤 섞일 때를 잘 분간(分揀)하지
못할 것이다 콘퍼드가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옮기다 보면 혼
동하게 된다 되다를 보통 to **become** 이라고 딱 붙혀 옮기지 않는가 이게
어디 **됨**인가 **됨**에서 떨어져 나가야 있는 것이지 안 그런가 세상들이!

론한 어떤 것보다 (차이남이) 아니네

(더 젊음과 차이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보다 더 늙게 되면서 동시에 필연적으로 스스로
보다 더 젊게 된다네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스스로 보다 더 많은 시간이나 더 적은 시간이
되어지는(γίγνεσθαι 141c5)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똑 같은 시간이 **되**
어지며 그리고 **있고** 그리고 되어졌고 계속 있어질(μέλλειν ἔσεσθαι
141c7)것이네

필연적으로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러한 것을 시간 안에서 나누어 지닐 때
마다 그것들 각기 것은 스스로와 동일한 나이를 지니며 스스로보다
더 늙게 됨과 동시에(ἄμα²⁵³¹) 141d2)더 젊게 되는 것 처럼 보이네

감히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 가운데(παθημάτων 141d4) 어떤 것도 *하*
*나*와 함께 있지(μετίν d4)않을 것이네

함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531) 함마(동시에) 라는 말이 연이어 쓰여진다 더 늙어지면서 동시에 더
젊어진다 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늙어지면서 동시에 젊어진다고 말한 여기
파르메니데아스는 늙어지는 경우 와 젊어지는 경우를 각기 나누어서 구분하
는가 시간 안에서 그러 저러한 때(ὅσα 141c8)각각을 말 했기 때문이다.....아
니야,

이러한 구분은 단지 생각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렇다면 생
각 밖에서는 시간이 이러 저러하게 구분되지 않을거야 그러나,

지금의 나로서는 애매하다 세 번째 요약이 끝나도 애매한 채로 남을
것인가 그럴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시간도 그(하나)와 함께 있지도 않고 (하나)는 어떤 시간 안에도 있지 않네

취하신 로고스 그대로입니다

무슨? **있어음**(τὸ ἦν 141d7)과 **되었음**(τὸ γέγονε d7)과 되어왔음(τὸ ἐγένετο d7)은 **지나간**(τοῦ γεγονότος, d8, 過去)어느 때(ποτὲ d8)의 **시간**(χρόνω d7)을 나누어 지남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
은가?

아주 많이 (여겨집니다)

무슨?

있게 될(τὸ ἔσται 141e1)과 **될**(τὸ γενήσεται e1)과 되어질(τὸ γενήσεται e1)은 그래서 (தாக을 또는 행해질, μέλλοντος, e2) (시간을 나누어 지남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가?

예 (여겨집니다)

그런데 (3인칭 단수)**있다**(τὸ ἔστι 141e2)와 **되다**(τὸ γίνεται e2)는 **지금 임하는**(τοῦ νύν παρόντος, e3, 臨하는 또는 現在하는) (시간을 나누어 지남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가?

물론²⁵³²⁾

따라서 만약 하나가 결코 어떤 시간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어느 때든 되었지도 되어왔지도 않으며 어느 때든 있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νύν 141e5)됐지도(γέγονεν e5)되지도 **있**지도 않으며 그래서 될지도 되어질지도 있을지도 않다네

가장 진실

2532) 그래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요즈음 말로해 **과거 와 미래 와 현재**로 나누어 이러한 나뉘에 따라 **있음** 과 **생성(됨)**을 나누는 파르메니데에스에 동의한다 따라서 여기 파르메니데에스에 따르면 **있음** 뿐 아니라 **생성(됨)** 역시 각기 구분된 그 시간들을 나누어 지닌다

그렇다면 이와는 알론한 어떤 길에서(ὅπως 141e7) **실체**(οὐσία, e7, **존재**²⁵³³)를 나누어 지닐까 또는 이런 것들 중 어느 것에 따라

2533) 소피스테이스 편이 엘레아 낫선이가 이끌어 낸 **존재(실체)**, οὐσία, 258 b2, 1573, 1542)를 물끄러미 바라 보면 파르메니데이스 편이 파르메니데이스가 실체를 이끌어 낸 후에 무엇 때문에 *만약 하나 있는 경우의 하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끝내고 바로 *하나 만약 있는(142b3) 경우의 하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지를 어렵듯이나마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알아 낸 바로는 **실체(존재)**에 대해 그는 말하기 위해 아마 파르메니데이스 편이 파르메니데이스는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이 실체를 지니게 되어 하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비로서 있거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내가 알아낸 바로는 **있음** 과 **실체**는 **에이도스**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리고 있음의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를 나누어 지녀야 알론한 에이도스-하나와여럿도 에이도스 가운데 하나이다-들이 서로 *교통*하면서 *뿔여지거나 떨어져* 서로에 대해 있을 것이므로 실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에이도스들이 서로를 어떻게 나누어 지니는 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한다 따라서 실체(존재)론은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론이 된다 그러나,

나의 석사 학위 논문은 두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 에이나(있음)가 각기 어떻게 서로에 대해 있는지 그리고 동일하거나 *헤태론*하다면 그 동일과 *헤태론*이 어떤 로고스로 나타나는지를 다루려 하므로 ‘.....론(論)’이 아니라 **있음** 이라는 낱말이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길’에 대한 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피스테이스 편 거기 과 파르메니데이스 편 여기에서 이끌어내어지는 실체(존재)를 근거로 해서 말이 이어져 나가야만 할 것이다 거기나 여기

(실체를 나누어 지닐까)

(알론한 어떤 길에서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는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질(μετέχει 141e9) 않

네

(지니지)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는 결코 **있지** 않네²⁵³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 있다* 라는(ὥστε ἔν εἶναι, 141e11)그런 식으로 (하나는)있지 않네 이미 **있다**(면)(ἦδὲ ὄν e11) **실체**를 나누어 지닐 것이기 때문일세 그러나 *하나*는 *하나*이지(ἐν ἑστὶ e12)도 않으며 [전혀]**있지**(ἔστὶ e12)도 않을 것 처럼 보이네 만약 그러한 로고스를 반드시 믿는다면 [말일세]

감히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 **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그러한 것 자체(αὐτῷ 142a1)에 어떤 것이(τῷ²⁵³⁵)a1)[덧 붙혀 질]까? 또는 (있지 않는) 그것의 어떤 것이 [있을]까?

나 모두 **있음**이 **실체(존재)**와 구분된다 물론 거기에서는 **실체**도 **저 있음**만큼 있다 라고 그리고 여기 파르메니데아스도 후에 ‘ **있음**은 현재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님이며 있어 음은 지나간 시간에 있게 될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님이다(151e8-152a1, 1157) ’ 이다 라고 말하기는 해도 말이다

2534) 여기서도 **실체(존재)** 와 **있음**은 분명히 구분되질 않는가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지 않다** 라고 말이다

2535) (어떤) 것(237d1, 1361)과 있는은 떨어 질래야 떨어질 수 없으므로 있지 않는 것에는 있는 것이 덧 붙혀질 수 없다 라고 한 소피스테아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의 말을 상기하라

어떻게?

따라서 (있지 않는) 그것에는 *이름*도 있지 않고 *로고스*도 *없*인

것도 *감각*도 *역견*도 **있지** 않네²⁵³⁶⁾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은 불리워지지도 말하여지

지도 역견화되지도 인식되지도 감각되지도 *않*는다

않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에 관해서도 이것들은 그럴 수 있을까?

저에게는 (그렇게) 여겨집니다²⁵³⁷⁾

우리에게 알론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처음으로 되 돌아가

다시 그 전체를(*τὴν ὑπόθεσιν*²⁵³⁸⁾142b1)취하길 바라는가

2536) 이 로고스 역시 그대로 소피스테이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에 의해서 그대로 나타난다(238c8-10, 1373)

2537) **있지 않는** 것이 감각 되지도 인식 되지도 역견화 되지도 말하여지지도 불려지지도 않는 것 처럼 만약 하나 있는 경우의 **하나** 역시 그러하다(*ἔχειν* 142a6) 그러나 있지 않는 것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듯이 하나 자체에도 아무 것도 있지 않다고 해서 이 둘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단지 있지 않는 것의 *없* 등이 있지 않듯이 하나 자체도 그리 할 뿐이다 이 이상(以上)으로 나아가면 안된다 곧 *동일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하나 자체는 동일하지도 동일하지 않지도 *헤태론*하지도 *헤태론*하지 않지도 *않을* 뿐 더러 여기에 따르면 있지 않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말도 붙을 수 없기 때문이다

2538) 137b3(1329)에서 파르메니데이스가 제애논에게 하나 자체를 전체로 삼아 그것이 있는 경우 와 있지 않는 경우 무엇이 잇따르가를 숙고하기 바라는가 라고 묻자 제애논은 *바란다* 라고 말한다 이 때 *나요!* 하고 끼어드는 사람이 바로 가장 나이 어린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가장 젊은 자를 벗 삼아

물론 (우리는) 바랍니다 (137c4-142b3)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지 않다* 라고 쓰여진다²⁵³⁹⁾ 시간 역시 나누어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문제의 그 하나는 *있지 않는* 것과 ‘*같음(οὔτως 142a7)*’ 뿐 아니라 아마 [있지 않는 것이 아니기]도 할 것이다 하나는 예를들어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기 때문이며 *같음의 부정*²⁵⁴⁰⁾인 *같지않음의 부정*은 *같음의 부정의 부정(否定)*이므로 이러한 예들 중의 하나인 *있음의 부정인 있지 않음* 역시 다시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허용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1572쪽에 썼듯이 자신을 부정한 것이 다시 부정됐다고 해서 곧 바로 자신이 긍정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그렇다²⁵⁴¹⁾ 다시 말해 어떤 것의 부정의 부정은 어떤 것의

말하는 것이 가장 덜 번잡하고 더 설 수 있으므로 누가 가장 젊은가 라고 파르메니데에스가 물었기 때문이다

2539) 그렇다고 문제의 그 하나는 *있지 않는 것*이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군다나 *있지 않는 것 자체도 아니다* 다만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생각이나* 로고스나 *없이 있지 않는 것* 처럼 하나도 그러하다는 점에서만 그 하나는 *있지 않는 것 (자체)에 상응할 뿐이다*

2540) 두 번째 정리 38쪽에 쓰여진 것 처럼 이 하나에 관해서는 부정하기 만 할 뿐 어떤 긍정도 하지 않는다

2541) 만약 *있음의 부정(否定)*인 *있지 않음의 부정*이 *있음* 이라면 나는 아마 그 하나는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있음*

긍정이 아니라 어떤 것의 그 부정의 부정이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부정하면 부정한 만큼 처음 것으로부터 멀어진다 따라서,

있는 것의 부정 다시 부정되면 그 만큼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로고스는 파르메니데아스 편 과 소피스테아스 편과 티마이오스 편을 제대로 이해하면 나올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 이라고 여기는 나는 다시 앞 쪽 인용 글월을 옮길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나에게 답할까 가장 젊은 자? 아마도 그 자가 가장 적게 번잡하게 할 것이며 가장 많이 답할 것으로 상상되네 그래서 저가 답하는 동시에 나에게 쉽이 있을 것이네 - 이것은 저에게 준비 되었습니다 오! 파르메니데아스여 말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젊은 자는 바로 저를 두고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으시면 답할 것입니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 자 그럼,

만약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알론한 어떤 것 곧 *여럿*은 아닐 것이지? 라고 말하네 -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 따라서,

의 부정인 있지 않는 것을 다시 부정하면 있음으로 되 돌아 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된 것 만큼 그 있음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감히 그렇다 라고 쓴다 139c5 앞 뒤(1618)를 보라,

어떤 것과 헤태론하게 있음에 의해서는 하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함에 이를 뿐이지 어떤 알론한 하나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쓰여 있지 않은가 헤태론의 자연을 통해서 헤태론하게 되면서 무한히 쪼개지며 이렇게 분열하면서 맞서는 **부정**(ἀπόφασις, 257b9, 1538)을 **아님**(τὸ οὐ, 257c1, 1538)이라는 낱말이 나타내기 때문이다

반드시 하나의 부분도 하나의 전체도 **있지 않네** - 무슨? - 부분은 어디서건 전체의 부분이네 - 예 - 전체는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부분도 빠트리지 않는 것이 전체일까? - 물론 - 따라서,

전체로 있으면서 부분을 지니는 식으로 그렇게 양자적으로 하나는 부분들로부터 있을 것이네 - 필연적으로 - 따라서 양자적으로 그렇게 *하나*는 여럿일 것이므로 하나는 아니네 - 진실 - 그런데,

여럿이 아닌 *하나 자체*가 반드시 **있네**(εἷναι, 137d2, 1607)²⁵⁴² - 반드시 - 따라서 (하나 그 자체는) 전체이지도 부분을 지니지도 않을 것일세 -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만약 어떤 하나도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면 시작도 끝도 중간도 지니지 않을 것이네 이런 것들은 그 하나의 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네 - 옳소 - 그리고 끝 과 시작은 각기 것의 한꺼라네 -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따라서,

2542) 여기서 파르메니데아스는 *하나 자체*란 여럿이 아니다 라는 로고스를 깔고 들어 가면서 전체는 부분들의 전체이므로 그 하나에는 부분도 전체도 **있지 않다** 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증에 앞서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는 여럿이 아닌가가 논증 되어야 한다 칙 보면 하나는 여럿이 아니지 라고 말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지만 말이다

만약 그 하나는 여럿이 아니라는 것이 논증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의 부분이 있지 않다는 것도 그래서 그 하나의 전체도 있지 않다는 것도 논증되지 않는다 여럿은 전체 와 부분 이 양자적으로 있는데 하나 자체는 이러한 여럿이 아니므로 그 하나에는 전체도 부분도 있지 않다 라는 식으로 논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는 무한하다네 만약 시작도 끝도 지니지 않는다면 말일세 - 무한
합니다 - 그리고 따라서,

모양도 없는 것이네 둥근도 곧음도 나누어 지니지 않기 때문이네 -
어떻게? - 둥근은 자신의 극단들이 중간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똑 같이
떨어져 있는 것이네 - 예 - 그리고 곧음은 자신의 중간이 극단들 양자 앞
에 있을 그러한 것이네 - 그렇습지요 - 그렇다면 곧은 모양이든 빙두르는
모양이든 [어떤] 모양을 지닌다면 하나는 부분을 지니며 여럿일 것일세²⁵⁴³⁾
- 물론 - 따라서,

어떤 부분도 지니지 않으므로 곧음도 빙두름도 아니네 - 옳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을 것일세 알론한 것 안에도 하나 스스
로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 어떻게? -

알론한 것 안에 있다면 저 안에 있을 저것에 의해서 어디에서든 빙
둘러 쌓일 것이며 저것의 여러 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접촉할 것인 반면 하
나 와 비(非)부분들인 그리고 빙 두름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이 여러 점
에서 여러 방향으로 접촉될 수는 없네 - 없지요 - 그러나 스스로 안의 그
것은 스스로와 알론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신에 의해서 둘러 쌓일 것이네
자신 안에 있을 것이므로 그렇네 어떤 것 안에 둘러 쌓여 있을 수 없기 때

2543) 이런 말을 하는 파르메니데이스 편의 파르메니데이스는 ‘파르메니데
이스’의 둥근 하나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 둥근 하나는 후
에 말하여지는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곧 있는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며
소피스테이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 역시 자신의 아버지 파르메니데이스께서
는 둥근 공 하나 전체를 말씀하셨다고 여기와 동일한 맥락에서 말하기 때문
이다

문일세 -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둘러 쌓는 그것은 해태론할 것이며 둘러 쌓여지는 것도 해태론할 것이네 동일한 것이 전체를 양자적을 동시에 둘러 쌓으면서 둘러 쌓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하나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둘일 것이네 - 않습니다 - 따라서,

어디에서든 하나는 자신 **안**에도 있지 않고 알론한 것 안에도 있지 않네 - 있지 않습니다 -

만약 쉬고 있는지 또는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 보세 - 앓는 무엇? -

움직여짐은 옮겨졌음 또는 알론하게 됐음이네 이것들만이 움직임이기 때문일세 - 예 - 그런데 스스로와 알론하게 되는 하나는 어디에서든 더 이상 하나로 있을 수 없네 - 없습니다 따라서 달리 됨의 측면에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네 - 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그러나 옮겨짐의 측면에서는? - (달림 됨의 측면에서와) 똑 같이 - 그리고,

하나가 옮겨졌다면 실로 자신 **안**에서 원을 그리며 옮겨 다녔거나 해태론한 **자리**로 바꾸었거나이네 - 필연 - 그렇다면 원을 그리면서 옮겨 다니는 것은 필연적으로 중간을 거쳐서 오가며 그리고 중간 주위를 돌아 옮겨가는 것은 스스로와 알론한 부분들을 지니는데 중간에도 중간 주위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중간을 거쳐서 원을 그리며 옮겨 다니기 위한 어떤 도구를 지닐까 - 하나도 지니지 못합니다 - 그러나,

자리가 변했다는 것은 알론했던 것이 알론한 것으로 **된다**는 것이며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것이지? - 그렇다면! - 그런데 어떤 것 **안**에 어디에서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봤지? - 예 - 따라서 되어진다는 것은 보다 더 불가능하네? -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 만약,

어떤 것 **안**에서 되어진다면 이제 저것 **안**에서도 저것 **밖**에서도 더 이상 모두 모두 필연적을 되어졌지도 않네 이미 되어졌다면 말일세 - 필연 - 따라서 만약 알론한 어떤 것이 이러하다면 자신의 부분을 겪는 것들만이 저

리할 것이네 그것의 어떤 부분이 저것 **안에** 이미 있으면 어떤 부분은 동시에 저것 **밖에** 있을 것인데 부분을 지니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든 어떤 길로도 어떤 것 **내부에** 전체로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것 **밖에** 전체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 진실 - 자신의 부분과도 전체와도 마주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든 더 이상 훨씬 더 많이 되어졌을 수 없지 않을까 부분으로도 전체로도 되어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일세 - 선명해집니다 - 따라서 (하나는) 되어지는 것 안에서 자리를 알론하게 하거나 자신 안에서두루 자리를 옮겨 다니거나 또는 알론해지거나 하는 등의 어떤 것도 아니네 -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어떠한 모든 움직임에 따라서도 **하나**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네 -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러나 하나는 어떤 것 **안에**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하네 - 말합니다 - 따라서 어느 때이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네 - 무슨? - 저 어떤 것 안에 있다면 동일한 것 안에 있기 때문일세 - 물론 - 그러나 자신 **안에**도 알론한 것 **안에**도 예를들어 동일한 것 **안에**도 있지 않네 -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하나는 어느 때이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네 - 않는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러나,

어느 때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머무르지도 쉬어왔지도** 않네 - 않습니다 - 처럼 보입니다 -

(하나는) 헤테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동일한 것**이 아니며 다시 자신과도 **헤테론한 것**과도 헤테론한 것이 아닐 것이네 - 어떻게? -

스스로와 헤테론하게 있는 것은 하나와 헤테론할 것이며 하나가 아닐 것이네 - 진실 - 그리고 헤테론한 것과 동일하게 있는 것은 저 헤테론한 것일 것이지만 그 자신은 아닐 것이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와 헤테론한 것일 것이네 - 하나가 아닙니다 - 따라서 (하나는) 헤테론한 것과 동일한 것 또는 스스로와 헤테론한 것은 아닐 것이네 - 아닙니다 - 그런데,

하나인 한 해태론한 것과 해태론하지 않을 것이네 어떤 것과 해태론하게 있음에 의해서는 하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태론한 것과 해태론함에 이를 뿐이며 어떤 알론한 하나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네 - 웅소 - 따라서 하나 있음에 의해서는 해태론하지 않을 것이네 또는 다르게 상정되는가? - 확실히 해태론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하나 있음에 의해서도 해태론하지 않다면 스스로에 의해서도 해태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자신에 의해서도 해태론하지 않다면 [더 이상] 그 자신이 해태론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신이 해태론한 어떤 것과 해태론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네 - 웅소 -

(하나) 스스로와 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네 - 어떻게 아니지요? - 하나의 자연은 아마 동일한 것의 자연이 아닐 것이네 - 무슨? - 어떤 것에 동일한 것에 될 때 마다 하나가 그 어떤 것에 되어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일세 - 그러나 무슨? - 여럿에 동일한 것이 되어지면 반드시 여럿이 되어지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네 - 진실 - 그러나 만약 일(τὸ ἓν, 139d6, 1620, 一, 하나)와 동일(τὸ ταὐτόν, 139d6, 1620, 同一)이 결코 *차이나*지 않는다면 *동일한* 것이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하나*가 되어졌을 것이며 하나가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동일한 것이 되어졌을 것이네 - 물론 - 따라서 만약 *하나*가 스스로와 *동일*하다면 스스로와 *하나*는 아닐 것이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닐 것일세 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하네²⁵⁴⁴) 따

2544)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파르메니데아스는 하나가 있다고 그리고 하나가 있지 않다고 전제 할 경우 *하나*가 스스로와 *알론한* 것에 대해 그리고 하아와 *해태론한* 것이 스스로와 *알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있는지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로고스를 통해 전해준다 *하나*건 하나와 *해태론한* 것이건 스스로와 *하나*일지언정 *동일*하지는 못하며 해태론한 것과 [알론할 지언정] 해태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동일*하거나 *해태론*하다면 *하나*가 *알론한* 것

라서,

하나에는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도 스스로와 동일한 것도 있을 수 없네 - 있을 수 없습니다 - 이렇게 해서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헤태론하지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을 것이네 - 않습니다 -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 않으며 같지 않지도 않다네 - 무슨?

-

같은 것은 어디에서든 동일한 것을 겪는다는 것 - 예 - 동일한 것은 하나와는 분리된 자연이라는 것을 보았네 - 보았습니다 - 그러나 만약 하나 있음과는 분리된 어떤 속성을 하나가 겪었다면 하나 보다는 많은 속성들이 있을 것이나 이것은 불 가능하네 - 예 - 따라서 동일한 것을 겪었던 것은 어떤 것이든 알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하나 있음이지 않네 -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같은 것으로 있지 않다네 -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

하나는 헤태론한 어떤 것도 겪지 않았네 그러한 것을 겪는 것들은 하나 보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일세 - 많습시다 - 스스로와 또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을 겪었던 것은 스스로 또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을 것일세 동일한 것을 겪었던 것은 같은 것 처럼 말일세 - 옳습시다 - 그런데 어떤 헤태론한 것도 겪지 않을 것 처럼 보이는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결코 같지 않는 것은 아니네²⁵⁴⁵⁾따라서,

에 대해 어떻게 있는지만을 숙고했을 것이다 따라서,

1355쪽에 그려진 서로에 대해 I) II) III) IV) 네 겹으로 있는 에이도스가 나온다

2545) 같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같다는 말은 아니다 내가 앞에 썼듯이 어떤 것의 부정의 부정이 다시 어떤 것을 긍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하나는 헤태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을 것이네
않다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도** 똑 같
지도 않다네 - 어떻게? - 똑 같을 저것과 동일한 **척도**의 똑 같음일 것이네
- 예 - 어디에서든 더 크거나 더 적게 있다면 함께 재어진 것들 가운데 어
떤 것들은 더 적은 것들 보다 더 많은 척도들을 지니는 반면 어떤 것들은
더 큰 것들 보다 더 작은 척도들을 지닐 것이네 - 예 - 함께 재어지지 않
는 것들에도 더 적은 척도들이 있는 반면 더 큰 척도들도 있을 것일세 -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렇다면,

동일한 것을 지니지 않는 것은 동일한 척도들의 **있음**이거나 동일한
척도와 알론한 척도들의 **있음**일 수 없네 - **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동일
한 척도들이지 않다면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 않을 것일세 -
그렇다면 선명해 집니다 - 그러나,

이 만큼한 척도들 그리고 이 만큼한 부분들 만큼 더 많은 척도들 또
는 더 적은 척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그
만큼한 척도들 만큼의 부분들이 있을 것이네 - **웁습니다** - 그런데 하나 척
도 라면 그 척도와 똑 같게 될 것인데 그것과 **똑 같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는 것을 보았네 -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하나는) 하나 척도도 많은 척도도 나누어 지니지 않으며 더 적은 척
도도 동일한 척도도 전혀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스스로와도 알
론한 것과도 똑 같지 않으며 다시 스스로 보다도 헤태론한 것 보다도 더 크
지도 더 작지도 않다네 - 모두 모두 그렇게 -

이다

무엇이? 하나가 어떤 것 보다 더 늙거나 더 젊거나 동일한 나이를 지
닐 수 있을 것 처럼 보이는가 - 않은 무엇? -

자신과 또는 알론한 것과 동일한 나이를 지닌다면 시간의 똑 같음 과
같음을 나누어 지닐 것인데²⁵⁴⁶) 하나에는 같음도 똑 같음도 나누어 지녀지
지 않는다고 말했네 - 말했습니다 - 그리고 같지 않음 과 똑 같지 않음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도 말했네 - 물론 - 이러한 것으로 있는 (하나
가) 어떻게 어떤 것보다 더 늙거나 더 젊거나 동일한 나이를 지니고 있을
것인가 - 전혀 아닙니다 - 따라서 하나는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 보다도
더 젊지도 더 늙지도 동일한 나이를 지니지도 않는다네 - 아님이 선명해
집니다 - 따라서,

만약 이러하다면 하나는 모든 면에서 시간 안에 있을 수 없을 것인가
또는 만약 시간 안에 있다면 항상 그 하나는 필연적으로 자신 보다 더 늙게
되지 않겠는가 - 필연 - 그렇다면 더 늙음은 항상 더 젊음 보다 더 늙을까
- 무슨 - 따라서 스스로 보다 더 늙게 되면서 동시에 스스로 보다 더 젊어
지게 되네 만약 그것 보다 더 늙게 되는 어떤 것을 계속 나누어 지닌다면
말일세 -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요것일세,

혜태론한 것과 차이나는 혜태론한 것은 이미 있는 차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으면서 이미 있고 되어졌으면서 되어졌고 계속 (앞으로
그렇게 있거나 되는) 반면 여태까지 그 차이로 되어지면서 되어져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차이로 있거나 되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차이로) 있는
것도 아니라 비록 알론한 (차이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알론한 차이로)

2546) 동일한 나이라면 시간의 똑 같음 뿐만 아니라 같음도 나누어 지녀나
한다고 파르메니데아스는 말하는데 시간의 같음이란 무엇인가? 동질적(同質
的)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량**적으로 동일하게 제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질**
적을 **동일한 시간**이라는 말인데.....

되어져가네 - 필연적으로 - 그러나 더 늙음은 더 젊음과 차이남이지 않론
한 어떤 것과도 차이남이 아니네 - (더 젊음과 차이남)이지요 - 따라서 스
스로 보다 더 늙게 되면서 동시에 필연적으로 스스로 보다 더 젊게 된다네
-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러나 그리고,

스스로 보다 더 많은 시간이나 더 적은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똑 같은 시간이 되어지며 그리고 **있고** 그리고 되어졌고 그리고
계속 있어질 것이네 - 필연적으로 그것들이 - 따라서 그러한 것을 시간 **안**
에서 나누어 지닐 때 마다 그것들 각기 것은 스스로와 동일한 나이를 지니
며 스스로 보다 더 늙게 됨과 **동시에** 더 젊게 되는 것 처럼 보이네 - 감히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네 - 함
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어떠한 시간도 그 하나와 함께
있지도 않고 (*하나*는) 어떤 **시간 안에도** **있지** 않네 - 취하신 로고스 그대
로입니다 - 무슨?

있어움 과 되었음 과 되어왔음은 *지나간 어느 때의 시간*을 나누어 지
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은가? - 아주 많이 - 있을 과 **될** 과 되
어질은 그래서 *닥아올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은가 - 예 - 그런데 (그것이) **있다** 와 **되다**는 *지금 임하는(현재하는) 시*
*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은가²⁵⁴⁷⁾ - 물론 - 따라

2547) 여기서 파르메니데아스는 시간을 지나간 것 과 닥아 올 것 과 지금
등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각각 그 셋에 나란한 세 가지 있음 과 됨을 구분
한다 따라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는 것도 그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도 되는 것도 각각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나 된다 있으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되면서 있는 것도 아니라 되다가 있고 있다가 된다 홀연히 그

서,

만약 하나가 결코 어떤 시간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어느 때든 되었지도 되어왔지도 않으며 어느 때든 있어오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왔지도 되지도 있지도 않으며 그래서 (앞으로) 될지도 되어질지도 있을지도 않네 - 가장 진실 - 그렇다면,

이와는 알론한 어떤 길에서 **실체(존재)**를 나누어 지닐까 또는 이런 것들 중 어느 것에 따라 (실체를 나누어 지닐까) - 아닙니다 - 따라서 하나는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질 않네 않네 - 앎을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하나는 결코 있지 않네 - 앎게 나타납니다 - 따라서,

하나 **있다**(είναι, 141e11, 1631) 라는 식으로 (하나는) 있지 않네 이미 있다면 실체를 나누어 지닐 것이기 때문일세 그러나 하나는 **하나**이기도 않으며 [전혀] 있지도 앎을 것 처럼 보이네 만약 이러한 로고스를 반드시 믿는다면 말일세 - 감히 그렇습니다 -

만약 어떤 것이 **있지 않다**면 있지 앎는 그러한 것 자체에 어떤 것이 (덧 붙혀질까) 또는 있지 앎는 그것의 어떤 것이 있을까 - 어떻게? - 따라서 있지 앎는 그것에는 **이름**도 있지않고 **로고스**도 **앎인 것**도 **감각**도 **역견**도 있지 않네 - 있지 앎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따라서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은 **불리워지**지도 **말하여지**지도 **역견화**되지도 **인식**되지도 **감각**되지도 앎는다네 - 앎는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렇다면,

하나에 관해서도 이것들은 그럴 수 있을까 - 그럴 것으로 저에게는 여겨집니다 -

렇다 따라서,

있어움과있다과있을 그리고 되어(왔)음과됨과될 등으로 **있음** 과 **됨** 은 각기 그 시간에 있어 구분된다 있음 과 됨 이 양자가 서로 구분되듯 말이다

우리에게 알론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처음으로 되 돌아가서 다시 그 전체를 취하길 바라는가 - 물론 바랍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워지지도 않으며 인식되지도 감각되지도 역전화 되지도 알려지지도 않고 말하여지지도 않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 그러하듯 하나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읊기기 전 1361-62쪽에서 그 *하나*는 **있지 않을뿐더러 있지 않지도 않을** 것이다 예를들어 같지 않으면서도 같지 않지도 않듯 말이다 라고 썼다 다시 읊긴 후 지금의 나도 그러하다

있지 않을뿐더러 아마 하나는 있지 않지도 않을 것이다 비록 있지 않는 것 처럼 자기의 어떤 이름 등도 지니지 않을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 그러나 **있지 않지도 않을** 것이라고 해서 그 *하나*가 **있다** 라는 말은 더군다나 아니다 어떤 것의 부정의 부정은 어떤 것의 긍정이라기 보다는 부정되는 그 만큼 어떤 그것으로부터 떨어질 것 처럼 지금의 나에게는 여겨지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 있는 경우의 이 *하나*가 있지 않는 것은 어떠한 **시간**에서도 **실체(존재)**를 나누어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 안에 그 *하나*가 있지 않을 뿐더러 시간을 아예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그렇다 동일한 나이이지도 동일한 나이가 아니지도 않으며 더 늙지도 더 늙지 않지도 않고 더 젊고 더 젊지 않지도 않듯이 말이다 이렇게,

그 *하나*는이지도 **않고**이 **아니지도 않다** ‘ ’에는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심지어 있음까지- 다 들어가며 시간 과 같음과같지않음 과 똑같음과똑같지않음 과 헤태론과헤태론하지않음 과 동일과동일하지않음 과 움직임과멈 과 전체와부분 과 심지어는 스스로인것과알론한것 등도 들어

간다 다 들어 가는지 이제 문제의 그 인용글월을 요약해 보기 전에,

나는 파르메니데에스가 나누어 지나다 라는 말을 그 인용글월서 자주 쓴다는 것을 지적해 내야겠다 **분리**된 것을 나누어 지나다 라고 말하는 것에 견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어려움들(1319, 1290쪽)과 연관지어 여기 파르메니데에스는 어떤 것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곧 **실체(존재)**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하나 자체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로 있음(1326)도 하나(1249)도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 가운데 하나이며 여럿(1249)도 같음도 씬도 움직임도 많음 등도 에이도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여기 파르메니데에스는 그 **하나**는 **움직임** 등을 나누어지니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나누어 지님 또는 지녀짐이 **부정적(否定的)**으로 말하여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분리($\chi\omega\rho\iota\varsigma$, 140a1, 1621)된다 라고 말이다

다시 힘주어 말하건데 이 하나는 **있음**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이제,

요약해 보자 여럿 부분(1645) 전체 시작 중간 끝 모양 **안에 움직임 씬 동일 헤테론 같음 똑같음** 차이 늡음 젊음 동갑(同甲) **있음** 됨(생성) **실체(존재) 있지않음** 등의 말이 주욱 이어지면서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거나 또는 **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하여질 것이다

젊은 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장구 치겠습니다

만약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알론한 어떤 것 곧 **여럿**은 아닐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하나의 **부분**도 **전체**도 있지않다는 것이 논증될 것이다

전체는 자신의 어떤 **부분**도 빠트리지 않는 그러한 것이므로 **부분**은

어디서건 전체의 부분이며 그래서 부분 과 전체는 양자적이다 따라서 만약 하나의 부분이 있다면 양자적으로 그렇게 여럿이지 하나는 진실로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는 여럿이 아니라 하나이다 따라서 전체도 아니며 부분을 지니지도 않을 것이다 다음,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면 시작도 끝도 중간도 지니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하나의 부분일 것이라는 것은 옳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 과 시작은 각기 것의 한계이므로 시작도 끝도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무한할 것이다 따라서,

모양없을 것이다 등굄도 곧음도 나누어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등굄은 자신의 극단들이 중간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똑 같이 떨어진 것이며 곧음은 자신의 중간이 극단들 양자 앞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곧음이든 빙돌음이든 모양을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는 부분을 지닐 것이며 여럿일 것이나 부분을 지니지 않으므로 곧음도 빙두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옳으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이러한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알론한 것 안에도 하나 자신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알론한 것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있을 것에 의해서 어디에서든 빙 둘러쌓일 것이며 그것의 여러 곳에서 여러 방향으로 접촉할 것인데 非부분적인 하나 그리고 빙두름을 나누어지니지 않는 것은 여러 곳에서 여러 방향으로 접촉될 수는 없다 이제 자신 안에 있다면 알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 의해서 둘러 쌓일 것이다 자신과 알론한 어떤 것 안에 둘러 쌓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러 쌓는 것 과 둘러 쌓여지는 것은 [서로에] 헤태론할 것이다 동일한 것이 전체를 양자적으로 동시에 둘러 쌓으면서 둘러 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하다면 [자신 안의]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둘일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어디에서든 자신 *안*에도 알론한 것 *안*에도 있지 않다 다음,

쉬고 있다면 또는 움직이고 있다면 그러할까

움직여짐은 옮겨졌음 또는 알론하게 됨이다 이것들만이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스로와 알론하게 되는 하나는 더 이상 어디에서든 하나 일(*εἶναι*, 138c2, 1612)수 없다 따라서 달리 됨의 측면에서는 움직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⁵⁴⁸)그러나,

옮겨짐의 측면에서도 움직여지지 않는다 옮겨 졌다면 필연적으로 실로 자신 *안*에서 원을 그리며 옮겨 다녔거나 험태론한 자리에서 험태론한 자리로 바꾸었거나이다 그런데 옮겨 다니는 것은 필연적으로 중간을 거쳐서 오갔을 것이나 중간 주위로 옮겨가는 것은 스스로와는 알론한 부분들을 지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도 중간 주위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은 중간을 거쳐 원을 그리며 옮겨 다니기 위한 어떤 도구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또 자리가 변했던 것은 알론했던 것이 알론한 것으로 **왔던** 것이며 그렇게 움직여졌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어떤 것 (*안*)에 어디에서든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되어진*다는 것은 더욱 더 불 가능하다

2548) φαίνεται(138c3-4, *나타나다*) 라는 이 말은 소피스테이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에 의해서 쉬어왔지않음 과 움직여지지않음 이 양자 밖에서는 *나타났지*(ἀναπέδανται, 250d3, 1492)않았다라고 말하여지는 가운데 쓰여진다 비록 저기는 나타났다 여기는 나타나다 라고 시제(時制)가 달랐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달리 됨 이라는 움직임으로 하나는 나타나지(여기) 않듯이 쉬어왔지않음 과 움직여지지않음 밖에서는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내가 쓰는 것은 나타나다 라는 말의 쓰임새를 드러내 보고 싶어서다

만약 어떤 것 *안에서* 되어졌다면 저것 *안에서도* 저것 *밖에서도* 필연적으로 이제 더 이상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필연적으로 이미 되어졌으므로 그렇다 따라서 알론한 어떤 것이 이렇게 됐다면 자신의 *부분*을 겪는 것들만이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 어떤 부분이 저것 *안에* 이미 있으면서 한 편으로 그 어떤 부분이 저것 *밖에* 동시에 이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을 지니지 않는 것은 진실로 어디에서든 어느 길로든 어떤 것 *내부에* *전체*로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것 *밖에* 전체로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부분*과도 자신의 *전체*와도 마주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든 더욱더 되어졌을 수 없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부분*으로도 되어지지 못하며 *전체*로도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 *안에서* *자리*를 알론하게 하거나 자신 *안에서* 두루 *자리*를 옮기거나 알론해지거나 하는 등의 어떤 것인 것 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모든 움직임에 따라서도 하나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는 어떤 것 *안에* 있을 수 없으므로 어느 때이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다 어떤 것 *안에* 있다면 동일한 것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어느 때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그런데 어느 때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머무르지도 쉬어왔지도 않다²⁵⁴⁹⁾따라서,

*하*는 쉬어 왔지도 움직여지지도 않은 것 처럼 보인다 다음,

혜태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동일**한 것이 아니며 다시 자신과도 혜태

2549)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머무르지도 쉬어왔지도 않다 라는 이말은 소피스테아스 편 249b12-c3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땀*과 *분리*되서는 *동일*한 것에 관해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하게 되지 못한다고 그리고 *동일*한 것 *없이*는 *누우*스가 있지도 되지도 못한다고 거기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론한 것과도 **해태론**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와 해태론하게 있는 것은 *하나*와 해태론 할 것이며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해태론한 것과 동일하게 있는 것은 저 해태론한 것일 것이지만 자신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와 해태론할 것이다 따라서 그 하나는 **해태론한 것과 동일한 것도 스스로와 해태론한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하나인한 해태론한 것과 해태론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과 해태론하게 있음에 의해서는 하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태론한 것과 해태론함에 이를 뿐이며 어떤 알론한 하나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²⁵⁵⁰) 따라서 *하나* 있음에 의해서는 해태론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만약 이러지 않다면 스스로에 의해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자신에 의해서도 해태론하지 않다면 더 이상 그 자신은 해태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해태론한 어떤 것과도 결코 해태론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다 [그러나 자신과 해태론한 것과 그 자신이 해태론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 스스로와 **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 *하나*의 자연은 아마 **동일한** 것의 자연이 아닐 것이다 **동일한** 것이 되어질 때 마다 *하나(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럿에 **동일한** 것이 되어지면 여럿이 되어지지 진실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다 그러나 만약 하나 (*일*)이 **동일한** 것과 결코 차이 나지 않는다면 **동일한** 것이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하나가 되어졌을 것이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동일한** 것이

2550) 바로 요것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의 부정의 부정은 어떤 것의 긍정이 아니라 부정된 것 만큼 자신과 알론한 것이라고 했다 해태론한 것과 해태론하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태론한 그것에 해태론할 뿐이라고 여기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일)이 스스로와 동일하다면 일(하나)가 스스로와 하나(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이면서(öv, 139e2, 1602)하나가 아닐 것이나 이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에는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도 있을 수 없고 스스로와 동일한 것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헤태론하지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음,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 않으며 같지 않지도 않다

같은 것은 어디에서든 동일한 것을 겪었는데 동일한 것은 일(하나)와는 분리된 자연을 지닌다 그러나 하나가 하나 있음과는 분리된 어떤 것을 겪었다면 하나 보다 더 많은 겪음(속성)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에게는 이것이 불 가능하다 따라서 동일한 것을 겪었던 것은 어떤 것이든 알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하나* 있음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같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하나는 *헤태론한* 어떤 것도 겪었지 않네 겪었다면 하나 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스스로와 또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을 겪었던 것은 스스로 또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옳다 동일한 것을 겪었던 것 처럼 말이다 그런데 어떤 헤태론한 것도 겪지 않을 것 처럼 보이는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결코 같지 않는 것이 아니네 따라서,

하나는 헤태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다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는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않다

똑 같을 것과 동일한 척도의 똑 같음일 것이므로 어디에서나 더 크게

나 더 적게 있다면 함께 제어된 것들 중 더 적은 것들 보다 더 많은 척도들을 지니거나 더 큰 것들 보다 더 작은 척도들을 지닐 것이다 그리고 함께 제어되지 않는 것들에도 더 적은 척도들이 있는 반면 더 큰 척도들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것을 지니지 않는 것은 동일한 척도들의 있음이거나 동일한 척도와 알론한 척도들의 있음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척도들이지 않다면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선명해진다 그러나,

척도들 만큼한 부분들 만큼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척도들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그 만큼한 척도들 만큼의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옳다 그런데 하나 척도 라면 그 척도와 똑 같을 것이나 그것과 똑같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보여졌다 따라서,

하나 척도를 나누어 지니지도 많은 척도 또는 적은 척도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으므로 언제든지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 않으며 다시 스스로 보다도 헤테론한 것 보다도 더 크지도 더 작지도 않다 다음,

하나는 어떤 것 보다 더 늙거나 더 젊거나 **동일한 나이**를 지닐 수 있을 것 처럼 보이는가

자신 또는 알론한 것과 **동일한 나이**를 지닌다면 **시간의 똑 같음 과 같음**을 나누어 지닐 것인데²⁵⁵¹하나에는 같음도 똑 같음도 나누어 지너지지 않으며 같지 않음 과 똑 같지 않음도 나누어 지너지지 않는다고 말하여졌다 이렇게 ‘있는’ 하나가 어떻게 **어떤 것** 보다 더 늙거나 더 젊거나 동일한 나이를 지니고 있을 것인가 전혀 없다 따라서 하나는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

2551) 시간의 똑 같음 뿐만이 아니라 같음도 함께 놓여졌다는 것에 유념하라 우리는 시간을 단지 제어된 것과만 연관시키곤 하는 것 같기 때문이며 같음은 제어짐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것일 것 같기 때문이다

보다도 더 젊지도 더 늙지도 동일한 나이를 지니지도 않는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따라서,

하나가 시간 안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는 자신 보다 더 늙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 늙음은 항상 더 젊음 보다 더 늙다 따라서 스스로 보다 더 늙게 되면서 동시에 스스로 보다 더 젊게 될 것이다 그것 보다 더 늙게 되는 어떤 것을 계속 나누어 지닌다면 말이다 어떻게 그러한가

헤태론한 것과 차이나는 헤태론한 것은 이미 있는 차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차이로 있으면서 이미 있고 되어졌으면서 되어졌고 계속 있거나 되면서 있을 것이거나 될 것이다 반면 여태까지의 그 차이로 되어지면서 되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차이로 있거나 되려 하지도 않으며 그 차이로 있는 것도 아니라 비록 알론한 차이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되어져 간다 그러나 더 늙음은 더 젊음과 차이남이지 알론한 어떤 것과도 차이남이 아니므로 스스로 보다 더 늙게 되면서 동시에 필연적으로 스스로 보다 더 젊게 될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스스로 보다 더 많은 시간이나 더 적은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스스로에 똑 같은 시간이 되어지며 그리고 있고 그리고 되어졌고 계속 있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필연적으로 시간 안에서 나누어 지닐 때 마다 각기 것은 스스로와 동일한 나이를 지니며 스스로 보다 더 늙게 됨과 동시에 더 젊게 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므로 어떠한 시간도 그 하나와 함께 있지도 않을뿐더러 하나는 어떤 시간 안에도 있지 않다는 로고스가 취하여져야 한다 다음,

그런데 있어움 과 되었음 과 되어왔음은 지나간 어느 때의 시간을 나누어 지남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며 있게 될 과 될 과 되어질은 닥아올 시간을 나누어 지남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그가)있다 와 되다는 지금 임하는 시간을 나누어 지남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하나가 어떤 시간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어느 때든 되었지도 되

어왔지도 않으며 어느 때든 있어오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됐지도 되지도 있지도 않으며 그래서 될지도 되어질지도 있을지도 않다는 것은 아주 진실하다 그렇다면,

이와 알론한 어떤 길에서 **실체(존재)**를 나누어 지너지지 않으므로 하나는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²⁵⁵²)따라서 하나는 결코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하나 **있다**(εἶναι, 141e11, 1631) 라는 식으로 하나는 있지 않다 이미 있다면 실체를 나누어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는 하나*이/지*(ἔστι, 141e12, 1631)도 않으며 전혀 있지도 않을 것 처럼 보인다²⁵⁵³)이러한 로고스를 믿는다면 말이다

만약 어떤 것이 **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것 자체에 어떤 것이 붙혀질 수 없으므로 있지 않는 것에는 이름도 로고스도 앎인 것도 감각도 역견도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은 분리워지

2552) **실체(존재)**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있음은 나누어 지닐까 아마 **있음**은 나누어 지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 하나가 있다면 이라고 결코 말하여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음 과 존재 또는 실체가 여기 파르메니데아스 편에서도 소피스테아스 편(1573)에서 처럼 구분되어야만 할 것 같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는 있기만 할 뿐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반면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는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도 나누어진다고 말해야만 하는데.....이 경우 여기 있음은 소피스테아스 편의 저 있음(258b3, 1542, 1573)일 것이다

2553) 따라서 **있음** 과 **존재(실체)**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만약 구별되지 않는다면 하나 있다(**에이나이**)는 허용하지만 하나 있다(**에스틴**) 또는 있는(은)하나를 여기에서 허용하지 않는 파르메니데아스를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지도 말하여지지도 역전화되지도 인식되지도 감각되지도 않는 것 처럼 보이
다 마찬 가지로,

하나에 관해서도 이와 같다 따라서,

비록 **있**긴해도 **실체(존재)**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파르메니데아스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하나를 하나의
자신 과 하나의 알론한 것으로 구분해 서로 어떻게 대해 있는지에 관해 숙
고해 본다 라고도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 결과 파르메니데아스는 그
렇게 **있는** 하나는 어떻게든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하지 않지도 않는
다²⁵⁵⁴)라고 끝으로 말한다

2554) 이제부터 나는 있음 과 존재를 구분하려한다 물론 파르메니데아스
또는 소피스테아스 또는 티마이오스 자신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긴해도 말
이다 그런데,

실은 구분한다고 보아야한다 **존재(우시아, 실체)**라는 말을 쓰고 있
지 않긴해도 *티마이오스*는 존재와 구분되는 **있음**만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있음과 구분되는 **생성(됨)**을 존재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존재와 엄연히
구분된다-반면 *소피스테아스*는 저 있음과 구분되는 실체(우시아, 존재, 258b
2, 1542)라는 말을 비록 겨우 세 번 정도 그것도 자신의 존재론이 끝나기
직전이긴한 말하고 있으며 여기 *파르메니데아스*는 실체를 더 선명하게 말하
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들을 ‘ (우리가) 묻고 답하면서 **있음**(τού εἶναι, 파이돈
78d1)을 거기에 주는 **실체 자체**(αὐτή ἢ οὐσία, 파이돈78d1)는 항상 동일하
게 그와같은가 또는 알론하게 알론한가? 똑 같은 것 자체 아름다운 것 자
체 있는(ἔστι 78d4) 각기 것 곧 있는 것(τὸ ὄν 78d4) 자체는 어느 때든 변

이러한 논증을 여지껏 나는 있는 그대로 따라왔다 이제는 순서를 뒤 바꾸어가며 그 논증²⁵⁵⁵을 정리할 때다 이제,

*하나는 하나의 자신 또는 스스로 와 하나의 알려진 것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놓고 나가는 그 논증은 하나는 하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하나는 하나일 뿐이라는 것은 척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을까 어쨌든 하나는 하나 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논증을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 있다 라는 이러한 전제를 파르메니데아스는 만약 하나 있다면 이라는 레아마(句)로 나타낸다 따라서 만약 하나 있다면 이라는 레아마는 하나는 하나 있다(ἐν εἶναι²⁵⁵⁶), 141e11, 1631, 이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하나는 하나 ‘있다’(ἐν ἐστί, 141e12, 1631)도 곧 에이나이의 3인칭

화하기 시작하는가? (78d1-d5) ’ 라고 케베아스에 묻는 소오크라테스와 비교하라 실체에 자체라는 말이 붙는 걸로 보아 그리고 이러한 실체 자체에 있음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아 거기 소오크라테스 역시 이 둘을 구분했다고 볼 수 있으리라 물론 여기에서 처럼 이 둘 가운데 어느 것도 더(μᾶλλον, 소피스테아스258a5, 1542) 또는 덜(ἥττον, 소피스테아스258b2, 1542)있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말이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르메니데아스의 이러한 **실체(우시아)**가 애매했었을까 아니면 실체를 달리 보았을까 실체에 관해 부지런히 말하나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서는 그렇게 설득적이지 않아 보인다

2555) 적어도 소피스테아스 편 과 파르메니데아스 편 과 타 메타 타 튀지카(형이상학)은 논증하는(ἀπεδείξαμεν, 소피스테아스258c10, 1574, 論證)책이다 논증하는 가운데 프라그마들이 드러나긴해도 말이다

단수 현재 직설형이 붙는 하나도 아니며 하나가 아닌 것도 아니며 하나가 아니지 않는 것도 아니라 *하나 자체가 있다는 것*(ἐν αὐτὸ εἶναι, 137d1, 1607)일 뿐이다 그래서 *여럿은 있지 않다* 나아가서,

그 논증은 하나는 하나 **있다**²⁵⁵⁷)를 놓고 나가면서 하나가 아닌 여럿은 있지 않다는 것을 첫 번째로 논증한다 그리고 이 첫 논증을 아르케에(시작)로 삼아 줄 줄 논증이 이어지고 급기야 실체를 지니지 않는 하나라는 것이 논증된다 따라서 하나는 하나 있다는 것이 거부되면 그 논증도 거부되고

2556)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이다로 옮겼으나 만약 어느 누가 이다는 동일함을 가리킨다라고 우긴다면 플라톤의 글을 읽어 보고나 그렇게 우기라고 할 것이며 이다는 계사(繫辭)적으로 쓰인 것이다 라고 어느 누가 말한다면 글썸 ?..... 그러할까 라고 할 것이나 이다는 있다라는 말이야 라고 그 누가 말한다면 그래.....맞아! 라고 할 것이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텔레스가 있는 것은 여러가지로 말하여진다고 할 때도 있다는 *계사적인 있음 과 동일을 나타내는 있음 과 존재를 나타내는 있음* 등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라 *범주들 진실 거짓 현실 힘* 등으로 다시 이것들 각각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고 했을 뿐이다 적어도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는 그렇다 물론,

텔레스의 소피스테이스 반박에 관하여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을 맥락이 나타나기는하나 훗날 사람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을 만들어 냈을 뿐 텔레스 자신은 결코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다 소피스테이스 반박에 관하여 166b37-167a6, 168b27-169a5(텔레스노우트 14-18부터 14-20까지)에 나오는 내용에 그들이 보기에 상응한다고 여겨지는 낱말들을 이룰테면 계사 또는 동일성 또는 존재 등을 단지 임의적으로 만들어 냈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정확히 상응할 것 같지는 않다

2557) 실체(우시아, 존재)와 구분되는 있음

결국 파르메니데이스 편 전체가 거부된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는 하나 있다는 것은 갑은 갑'이다'는 것과 다르다 이다가 동일성 또는 계사를 가리킨다면 그렇다²⁵⁵⁸⁾따라서,

만약 하나 **있다면** 하나는 여럿으로 **있지 않다** 이와 함께,

하나의 **부분도 전체도** 있지 않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분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는 것이 전체이므로 전체 와 부분은 항상 양자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로 있건 부분으로 있건 그렇게 양자적으로 여럿이지 하나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부분 또는 전체가 있다면 이미 양자적으로 여럿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는 그 자체 하나 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가 **있다면** 하나의 부분도 전체도 **있지않다** 그러므로,

하나는 무한하다(ἄπειρον, 137d7, 1608)는 것이 논증될 것이다

무한하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말이며 한계는 어떤 것의 시작 과 끝의 *한계*를 가리키고 시작 과 끝은 *중간*과 더불어 어떤 것의 부분들이다 그래서 부분들이 없으면 시작 과 중간 과 끝도 없을 것이고 시작 과 끝이 없으면 어떤 것의 한계도 없을 것인데 하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자신의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이와 함께,

하나는 **모양없다**는 것이 논증될 것이다

중간으로부터 극단들이 모든 방향으로 떨어져 있으면 등글고 중간이

2558)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 역시 갑은 갑이다 라는 것을 거부한다 갑은 갑으로 **있다** 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말이다 따라서 A is A의 is가 동일성 또는 계사 심지어 존재를 나타낸다면 거부된다

극단들 앞에(ἐπιπροσθεν, 137e4, 1609)있으면 곧을 것이다 그래서 곧거나 등글다면 반드시 중간 이라는 부분을 지닐 것이며 부분을 지닌다면 여럿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중간 그리고 시작과끝 부분들을 지니지 않기에 하나는 등글지도 곧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등글지도 곧지도 않다면 어떤 모양도 지니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하나는 어느 것에도(οὐδαμοῦ, 138a2, 1609)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될 것이다

어느 것 **안에** 있다면 어느 그것에 의해서 빙 둘러 쌓여지면서 안에 든 것이 **밖에** 있는 그것과 여러 부분의 여러 방향으로 맞 닿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 있으며 非 부분적인 것이 여러 부분과 맞 닿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는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다면 그것은 *알론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서 빙 둘러 쌓일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전체를 둘러 쌓으면서 동시에 둘러 쌓여지는 양자적인 것일 수는 없으므로 둘러 쌓는 것 과 둘러 쌓이는 것은 서로에 *헤태론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따라서,

하나는 어떤 것 안에도 밖에도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움직이지도 **쉬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될 것이다

*움겨졌다*면 어떤 것 **안에서**(ἐν, 138c5, 1612)원을 그리면서 옮겨 다녔거나 헤태론한 자리로 옮겨 갔거나이다 이제 원을 그리면서 옮겨 다녔다면 필연적으로 중간 부분을 거쳐 중간 주위 부분으로 원을 그리면서 옮겨 갈 것인데²⁵⁵⁹중간에서 중간 주위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그 중간을 거쳐서 주위 부분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어떠한 도구를 지닐 수 있을까 어떤 것 안에도 밖에도 자신 안에도 밖에도 있을 수 없는 하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기에 헤태론한 자리로 옮겨 갈 수는 더욱 더 불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

는 옮겨 다닐 수 없다 나아가서,

알론하게 됐다면 스스로와 알론하게 됐을 것이므로 더 이상 하나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달리 될 수 없다 나아가서,



달리 된다는 것은 자리가 변(ἀμείβων, 138d3, 1614)한다는 것을 말한
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가? 보자! 이 안에서 됐다면 분명히 저 안에서도 저
밖에서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안에서 이미 됐으므로 그렇다
그런데 부분들이 있어야 어떤 부분은 이 안에 어떤 부분은 이 밖에 또는 저
안에 동시에 있을 것이나 부분을 지니지 않는 것은 이 안에도 이 밖에도 또
는 저 안에도 동시에 전체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달리 됐다면 부분이든
전체가든 반드시 만나면서 자신의 자리를 바꾸어야만 한다 그러나 부분도
전체도 있지 않으면 부분끼리든 전체와든 만남에 이을 수 없으니 자리가 바
꾸어지면서 달리 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모든 움직임이 옮겨 다님 또는 달리 됨이라면 하나는 결코 움직
이지 않는다 나아가서,

하나는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자신 안에도 알론한 것 안
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것 안에 있다면 이미 동일한 것 안에 있으
므로 그렇다 그래서 하나는 동일한 것 안에 있지않다 그러나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으면 머무르지도 쉬지도 않으므로 하나는 쉬지 않는다 따라서,

움직이지도 쉬지도 않는다 이와 함께,

하나는 헤태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동일하지 않으며 자신과도 헤태

2559) 원을 그리며 옮겨 다니는 그 흔적은 이 아니라 일 것
이다 시간의 나아감이 바로 이러한 흔적을 보이거나 않을런지(1171쪽 그림
참조)

론한 것보다 **혜태론**하지 않다는 것이 논증될 것이다

*하나*의 자연은 **동일함**의 자연이 아니다 동일함의 자연이라면 어떤 것에 동일(ταύτων, 139d7, 1619, 同一)한 것이 되어질 때마다 일(ἓν, 139d7, 1619, 一, 하나)이 어떤 것에 되어야 할 것인데 여럿에 동일함이 되어질 때 그 여럿에 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여럿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하나)은 동일과 차이나므로 일(하나)가 된다고 해서 동일해지는 것도 아니고 동일해진다고 해서 일(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하나*가 하나 스스로와 **동일**해진다고 해서 하나되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와 동일한 것이라면 *하나*이면서(ὅν, 132e2, 1620)하나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한 것**일(εἶναι e4) 수 없다 그런데,

스스로와 **혜태론한 것**일 수도 없다 하나 스스로와 혜태론한 것은 하나와도 혜태론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혜태론한 것과 동일한 것일 수도 없다 하나의 혜태론한 것과 동일한 것은 혜태론한 그것이지 *하나*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혜태론한 것과 혜태론한 것일 수도 없다 혜태론하게 있음에 의해서는 결코 하나 있음에 이르는(προσῆκει, 139c4, 1618)것이 아니라 혜태론한 것과 혜태론하게 있음에 이를 것이어서 결코 알론한 하나의 있음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있음에 의해서는 혜태론하게 있음에 이르지 못할 것이므로 그렇다 그러나 혜태론의 있음에 이룬다면 하나 스스로가 자신과 혜태론한 것의 있음에 이르러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와 혜태론한 것과 그 자신이 혜태론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과 혜태론한 것과 어떻게 혜태론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따라서,

스스로와 동일할 수도 혜태론할 수도 혜태론한 것과 동일 할 수도 혜태론 할 수도 없다 이와 함께,

스스로와도 혜태론한 것보다도 **같지** 않으며 같지 않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같은 것은 어디서나 **동일한** 것을 겪는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하나*와 *분리*되는 자연을 지녔었으므로 **동일함**을 겪는 것은 반드시 *하나*와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 보다 많아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과도 동일하지 않는 하나는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 나아가서,

같지 않는 것은 어디서나 **헤테론**을 겪는다 헤테론의 자연은 자신을 겪는 것들을 **있지 않게**하면서 그 부분들로 나누기 때문이다²⁵⁶⁰)그런데 어떤 것과도 헤테론하지 않으므로 하나는 같지 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스스로와도 헤테론한 것과도 같지 않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하나는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다 이와 함께,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동일한 척도를 지녀야 똑 같다 그리고 척도들이 있는 그 만큼 *제어*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며 *제어*된 부분들 중에는 함께 제어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함께 제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함께 제어됐든 함께 제어되지 않았든 더 많은 것 보다 더 적은 또는 더 적은 것 보다 더 많은 척도들이 있다면 더 적은 것 보다 더 크거나 더 큰 것 보다 더 적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반면 **동일한** 척도를 지니지 못하면 그와 *알론*한 척도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척도들 만큼 제어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 척도 있다면 하나와 척도가 똑 같아야 하는데 **하나**와 **동일한**

2560) 헤테론의 자연은 헤테론하게 하면서 어떤 것을 있지 않게하며(1535) 어떤 것을 부분들로 나눈다(1539)라는 로고스를 상기하라

것은 있을 수 없다²⁵⁶¹) 그래서 하나 척도를 나누어 지니지도 동일한 또는 많은 또는 적은 척도를 나누어 지니지도 못한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않다 이와 함께,

스스로 보다도 알론한 것 보다도 더 **늙지도 더 젊지도 동일한 나이**를 지니지도 못한다는 것이 논증된다

시간의 같음 과 똑 같음을 나누어 지녀야 **동일한 나이**를 지닐 터인데 하나는 같음과같지않음 과 똑같음과똑같지않음을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동일하 나이를 지니지 않으며 더 늙지도 더 젊지도 않는다 그러나,

만약 **시간 안에** 있다면 하나는 자신 보다 필연적으로 항상 더 늙다 그러나 더 늙은 것을 나누어 지닌다면 그것 보다 항상 더 젊을 것이다 요것 때문에 그렇다 차이나는 헤태론한 것은 그 차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차이로 **되어졌고 있고** 있을 반면 비록 알론한 어떤 차이로 있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어떤 차이로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늙음은 젊음과 차이나지 알론한 그 무엇과 차이나지는 않으므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지면서 동시에 필연적으로 스스로 보다 젊어질 것이며²⁵⁶²)있고 될 것이며 스스로와

2561) 하나는 자신과도 동일하지도 않고 헤태론하지도 않으며 자신과 알로나 것과도 헤태론하지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하라 결국 여기 이 말은 척도에 있어 똑 같으려면 **동일한** 척도를 지녀야 하는데 **일(하나)**는 그 어떤 것과도 심지어는 **하나 자신과도 동일하지 않으므로** 하나 척도는 불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동일한 척도는 가능하다

2562) **헤태론한** 것은 자신의 **자연과** 반대되는 헤태론한 것으로 **변화**한다($\mu\epsilon\tau\alpha\beta\acute{\alpha}\lambda\lambda\epsilon\upsilon\nu$, 255a12, 1510)는 소피스테이스 편을 참조하라 거기에서는 **움직임 과 삶**이 자연에 있어 헤태론한 것들로 쓰여지는 반면 파르메니데이스 편

똑 같은 시간이 필연적으로 [그 하나에] 되어지며 있고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을 나누어 지닐 때 마다 각기 것은 스스로와 동일한 나이를 지니며 스스로 보다 늙게 동시에 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 중 어느 것도 하나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시간도 하나와 함께하지도 않고 하나는 시간 안에 있지도 않다 이와 더불어,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될 것이다

있어옴 과 되었음 과 되어왔음은 지나간 어느 때의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며 있을 과 될 과 되어질은 닥아올 어느 때의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고 있다 와 되다는 지금 임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가 시간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어오지도 있을지도 있지도 되었지도 되어왔지도 될지도 되어질지도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알론한 어떤 길로 실체를 나누어 지닐 수 있을까 없다 따라서,

하나는 결코 실체(존재)를 나누어 지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는 결코 있지 않다 있다면 실체를 나누어 지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하나는 말하여지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있지 않는 것에는 어떤 것도 덧 붙혀질 수 없으며 있지 않는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에는 이름도 로고스도 인식도 감각도 역견도 앎도 있지 않으며 따라서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불리워지지도 인식되지도 감각되지도 역견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에 관해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늙음 과 젊음이 그러하다고 쓰여진다 따라서 늙음은 단지 젊음으로만 다시 젊음은 단지 늙음으로만 변화할 것이다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있지 않으며 있지 않는 것 처럼 하나도 우리는 말할 수 없으며 알 수 없다 적어도 만약 하나 있다면의 그 하나 곧 실체를 지니지 않는 하나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것을 파르메니데이스가 여기에서 논증하는 것은 여기의 있지 않는 것을 그 하나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그러나,

*하나*는 자신과도 **동일**하지 않다는 로고스를 다시 짚어 보기로 하자

그는 *하나*와 **분리**된 *자연*을 지닌 것으로 **동일**함을 여긴다 분리되지 않는다면 *여럿*에 동일한 것이 되어질 경우에 *여럿*은 하나로 되어질 것이나 하나는 하나로 있을 *여럿*이 아니기 때문이다(1656)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는 자신과도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면 하나는 자신과 하나일 것이어서 하나는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니게 될 것이므로 그렇다 동일함을 나누어 지닌다면 *헤타론*함도 나누어 지닐 것이고 *헤타론*함을 나누어 지니면 그 *자연* (1621, 1661)에 의해 하나가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이면서 하나 아닐 수는 없다 다시 말해 하나로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동일한 것으로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는 *헤타론*한 것으로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하나는 자신 또는 스스로와 동일하지 않다 물론 *헤타론*하지 않기도 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각기 것은 자신 과 알론한 것으로 구분된다²⁵⁶³) **동일**한 것은 자신이고 자신과 알론한 것은 *헤타론*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구분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전체를 파르메니데이스는 여러 알론한 방향에서 더듬어 내려 온다 12쪽에서 내가 그려낸 그림을 보라 거기 그려진 줄기대로 파르메니데이스는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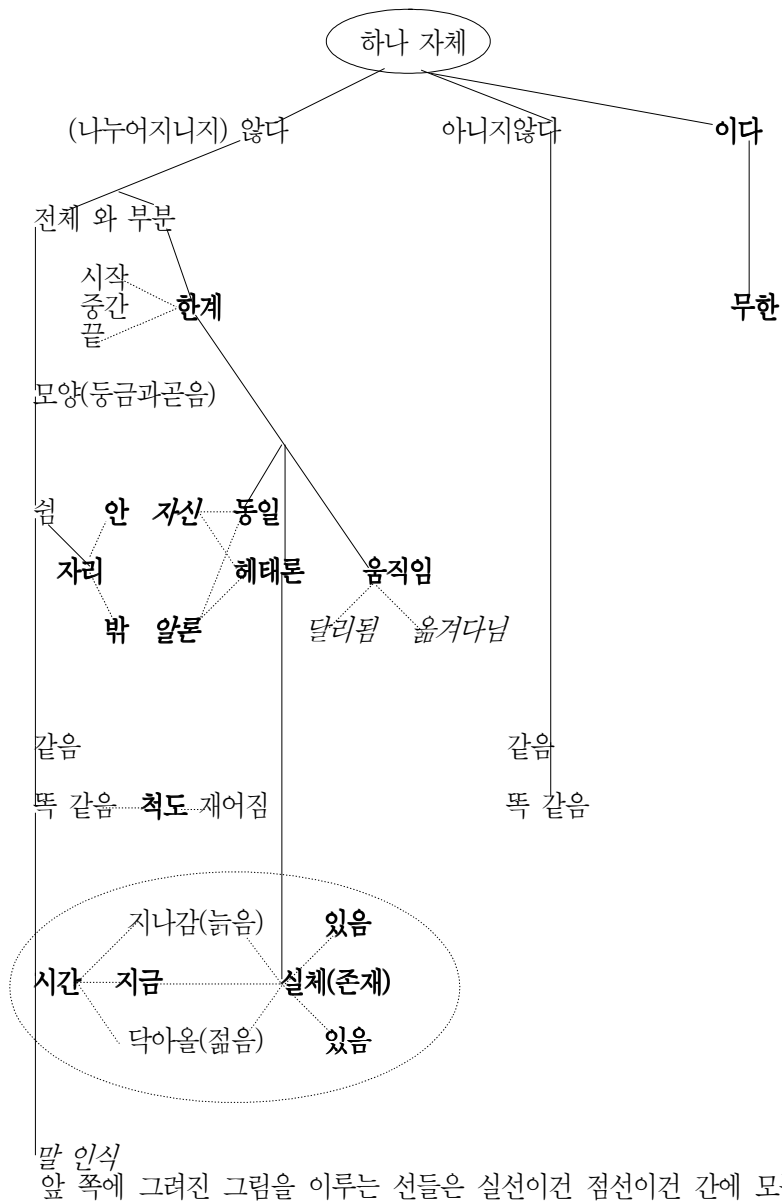
2563) 이 경우 하나 자신 과 알론한 것을 *이외*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다 (1150)

들어 내려온다 나아가서,

소피스테이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는 바로 이 동일 과 헤테론을 가장 크게 구분되는 다섯 류 중의 두 가지로 놓고 나가며 나머지 세 가지 움직임 과 쉽 과 있음 역시 여기 파르메니데이스에 의해서 말하여지므로 소피스테이스 편의 과 파르메니데이스 편의 모두 있음 또는 존재(실체)에 관한 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앞 편은 뒤 편의 만약 하나 있는 또는 있지 않는 경우의 **있음**이 아니라 하나 만약 있는 또는 있지 않는 경우의 **존재(실체)**를 다루고 있긴 해도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대화 편을 뒤 섞어서 읽어야 할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면도 있을 뿐 아니라 서로에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 어느 하나 만 읽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면 파르메니데이스 편을 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실체)에만 더 좁게 집착하고 싶다면 우선 소피스테이스 편을 읽어야 할 것이다 이제,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는 고리들을 하나 하나 그려 본 후 하나 만약 있는 경우의 하나에 관해 말하는 파르메니데이스를 따라 가 보기로 하자 아래에 그려지는 고리들 가운데 **동일 과 헤테론 과 안과밖 과 움직임 과 시간** 등을 더 잡아 당겨 보아야만 할 것이다



아님(否定)이 옮겨 다니는 길이다 단 무한함에 이어진 실선만을 이다(肯定)가 옮겨 다닌다 그렇다면 그 하나에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한함이므로 하나는 무한하다(ἄπειρον, 137d7, 1608)라고 쓰여질 수 있으리라 실로 그렇게 쓰여진다 마지막으로,

비록 모두 부정 되거나 또는 부정의 부정 되므로 있음 역시 부정되어서 있지 않을 것이긴해도 이 때의 있음은 저 있음 보다는 이 존재(실체)의 부정으로 그래서 저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곧 실체를 지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기를 건너 뛰어 이 존재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 곧 존재하는 또는 있는 하나로 넘어 가려한다 물론 지금의 내가 존재를 강조하는 듯하지만 여전히 있는 대신에 존재하는 이라고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파르메니데아스를 따라가 보기로 하자

“ 우리에게 알론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처음으로 되 돌아
가 다시 그 전제를(τὴν ὑπόθεσιν²⁵⁶⁴)^{142b1} 취하길 바라는가
물론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만약 있다면(ἐν εἰ ἔστιν²⁵⁶⁵)^{142b3} 그 (하

2564) 137b3(1329)에서 파르메니데아스가 제아논에게 하나 자체를 전제로 삼아 그것이 있는 경우 와 있지 않는 경우 무엇이 잇따르기를 숙고하기 바라는가 라고 묻자 제아논은 바란다 라고 말한다 이 때 나오! 하고 끼어드는 사람이 바로 가장 나이 어린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가장 젊은 자를 벗 삼아 말하는 것이 가장 덜 번잡하고 더 설 수 있으므로 누가 가장 젊은가 라고 파르메니데아스가 물었기 때문이다

2565) 바로 앞 각주에 쓰여진 것 처럼 전제는 ‘ 하나 있음 ’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로부터 만약 하나 있다면, 하나 만약 있다면,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 각각의 경우 하나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에 대해, 또한 알론한 것은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헤태론한 것에 대해, 등 등의 여덟가지 가정 또는 소전제(小前提)가 잇따른다 그래서,

만약(ἐ)이 하나 앞에 붙었든(137c4, 1605) 있음 앞에 붙었든(142b3) 하나 아님 또는 있지 않는 하나 앞에 붙었든(160c1, 78) 있지 않음 앞에 붙

나)에 관해 잇따르는 것들이 어느 때(ποτε b4) 어떠한 것들로 있는지
그것들에 두루 동의해 보세 그러지 말까?

아니요(vai²⁵⁶⁶): 예, 142b5)

있든(160c6, 160d3, 78)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하나 **있음**을 전제한다는 점에
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있음)이 **실체**를 나누어 지녔느냐 지니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각기 소전제들이 구분된다 있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이
다 **존재(실체)**로 있느냐 **있음(essentia?)**으로 있느냐가 문제이다

2566) 여기에서 처럼 어떤 사태를 짐짓 **부정(否定)**하는 반어(反語)법으로 “
너는 나쁘다, 그렇지 **않은가** ” 라고 묻는 [(부가의문문(附加疑問文)의] 경우
부정 자체와 관련지워 예(vai)라고 부정 그 자체를 **긍정(肯定)**하는 답을하
여 사태를 긍정하며 **아니요(oi)** 라고 **부정 그 자체**를 **부정**하는 답을하여
사태를 부정하는 우리말과는 달리 지금의 영어 및 여러 유럽 언어 처럼 그
당시 헬라어는 짐짓 부정되는 사태를 직접 긍정 또는 부정하여 답한다 따라
서 **부정 그 자체**를 무시(無視)한다 부가의문문 뿐만 아니라 직접의문문(直
接疑問文)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부정 그 자체**를 무시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부정 그 자체를 무시하지 않는다-말의 순서 때문에
무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정**에 대해 직접 예! 또는
아니오! 라고 응전(應戰)하지만 그들네는 **부정**에 대해 꺾 소리 못한다

아마도 ‘플라톤’은 이러한 자기네들에게 반기(反旗)를 들고 일어서서
부정 자체를 문제 삼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가**? 주옥 파르메니데에스 편
을 번역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꼼꼼히 읽어 보고 써 보다 고민하며 요약 정
리해 보면 스스로 긍정적인 또는 세워 놓은 것을 반드시 부정하며 심지어는
그 부정마저 다시 부정하는 파르메니데에스에 놀라워 할 것이다 그러나 바
로 부정의 그 부정은 처음 부정한 것을 다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더욱 놀라워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파르메니데에스는 자신을 넘어

따라서 시작부터 [다시 해 보세] 하나가 만약 있다면 그(하나)는 한 편으로 **있**(εἶναι 142b6)고 다른 한 편으로 **실체**를(οὐσίας b6) 나누어 지니지 않는가²⁵⁶⁷⁾

아니오 (나누어 지닙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실체**는 하나와 **동일한** 것이 아닐세²⁵⁶⁸⁾저²⁵⁶⁹⁾

(실체)는 저 (실체의) 실체로 **있어 오지**(ἦν²⁵⁷⁰⁾142b8) 않았을 것이며

섰다고 또는 극복했다고 또는 부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피스테아스 편 의 엘레아 낫선이는 자신의 아버지 파르메니데아스를 죽이지 않았다 살렸다 죽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러기에 엘레아 낫선이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추측하지 말라고(μὴ με πατραλοῖαν ὑπολάβης γίνεσθαι τινα : §ε., 소피스테아스241d2, 102)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가?

2567)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만약 있다면의 하나가 그렇다는 말이다 뒤 하나는 **실체**를 지고 있는 것인 반면 앞 하나는 **실체**를 지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하다면 실체 없이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뒤 하나를 있는 하나라고 계속 옮길 것이며 앞 하나는 따로 옮겨져야 한다면 하나 자체라고 옮길 것이다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또는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 라고 옮기지 않는다면 그러할 것이라는 말이다

2568) ‘하나 자체’는 자신과도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쓰여지는 1620, 1660쪽을 참조하시오 물론 **해태**론한 것도 아니라고 거기에 쓰여진다 하나는 단지 하나와 하나로 ‘있을’ 뿐이다 더불어 이제 여기에서는 ‘있는 하나’는 하나의 **실체**와도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쓰여진다

2569) ἐκεῖνη(저것 142b8)는 이것 보다는 멀리 떨어져 쓰인 여성 명사를 가리키는 원칭(遠稱)지시대명사이므로 여성명사 실체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지 중성일 뿐만 아니라 실체 보다 더 가까이 있는 하나(ἓνος 142b7)나 동일한

하나는 저(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이지 저(**실체**)는 아닐 것이고
그러나 하나 **에이나이**(εἶναι, 142c2,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 **하**
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⁵⁷¹) 그런데 지금은

것(ταὐτόν 142b7)을 받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지는 ἐκείνου(저것의 142b8)은 무엇을 받을까 하나를 받는
것도 아니요 동일한 것을 받는 것도 아니라면 저(실체)는 저(실체)의 실체
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는데.....말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실
체는 하나와 동일하지 않다 라고 하는 맥락이므로 그렇다

2570) 파르메니데아스는 있다를 세 가지 시간 안에 곧 지나간 닳아온 임하
는 시간 안에서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1628)있다면 어
떤 것도 이런 길들을 이외로는 실체를 나누어 지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시간
밖에서는 **실체**를 나누어 지닐 수 없다 움직임 과 쉼 밖에서(소피스테아스
250b2, 1477)도 **있는** 것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 처럼 말이다

2571) 그렇다면 **실체**는 **있음**과 구분되어야 한다 라고 여기를 근거로 말
하여질 수 있을까 시작부터 전체 되어지는 ‘하나 **있다**’는(141e11 : 1631,
142c2 : 1670)바로 다름 아닌 ‘하나 **하나**’와 같지(ὅμοιον 142c1)않다 라는 로
고스가 실체 와 있음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함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다음을 보라

하나는 **실체**와 동일하지 않고

있음은 하나와 같지 않다면

실체는 있음과 동일하든지 아니면 같을 것이다

동일한 것은 어디에서든(που, 139e8, 1620)같으나

같은 것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만약 하나 *하나*면 이라는 전제[의 경우] 무엇이 (하나) 자신[에게] 잇
따라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만약 하나 **에스틴**(ἔστιν, 142c3, 그것이
있다)이라면 이라는 전제[의 경우] (무엇이 하나 자신에게 잇따라야만
하는가이다) 그렇지 않은가?

물론 (그렇습니다)²⁵⁷²)

같은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인 것은 동일하나

동일한 것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동일한 것은 *하나*가 아니다 따라서,

있음은 실체와 *같고*

실체는 있음과 *동일*하다고 해서

실체는 있음과 *하나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있음 과 **실체**는 하나가 아니다 비록 *아닐* 수 *있다는* 것 뿐이기해도 말이다
더욱이 소피스테이스 편에 따르면 실체는 있는 류의 한 종이다 있지 않는
것(1543) 과 수 와 진실과거짓 과 로고스 등이 있는 류의 여러 종들(1603)
인 것 처럼 말이다.....글쎄.....어쨌든 **있음** 과 **실체**는 서로에 구분되야 할
것 같다

2572) 그렇다면 에이나이 와 에스틴이 여기서도 구분할 수 있을까 **에이나이**는 *만
약 하나 있다*면의 ‘있다’인 반면 **에스틴**는 *하나 만약 있다*면의 ‘있다’로 말이다 어
떻게 보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긴하다-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파르메니데
이스 편의 파르메니데이스의 어법(語法)에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제1책 4 장에 따르면 에이나이 와 에스틴은 구분된다 **에스틴**인 그 무엇이 순수하게(ἀπλώς, 10301a31, 307) **에이나이**로 있어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질 또는 량에 있어오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고 거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만약 에이나이 와 에스틴을 구분하는 자로 여기 *파르메니데이스*를 여긴다면 **실체**를 지니는 것은 하나 **에스틴**이지 하나 **에이나이**(137d1 : 1607, 141c2 : 1670)는 아니다 라고 말하여질 수는 있을 것 같다(1170, 307)그러나 그는 에이나이 또는 에스틴 이 둘을 그 자체만으로는 구분하지 않는다-대신 이러한 구분을 위해 그는 **에이**(ei, 137c4 : 1605, 142b3 : 1667, 1705)를 쓴다- 만약 그런 구분을 위해 에이 라는 낱말이 쓰였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실체를 지닌 에스틴 그리고 실체를 지니지 않는 에이나이 이라고 에이나이 와 에스틴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긴하다 어쨌든,

‘플라톤’은 그럴 것 같진 않지만 텔레스는 에이나이 와 에스틴을 구분한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서,

그렇게 두 사람을 구분한다면 텔레스의 **실체(에이나이)**를 ‘플라톤’의 여기 파르메니데이스는 만약 하나 **에이나이**의 하나에 붙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 **에스틴**의 하나에 붙힌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텔레스의 에이나이는 실체와 철석 달라붙지만 ‘플라톤’의 에이나이는 그렇지 못하고 대신 ‘플라톤’의 에스틴이 실체에 철석 달라 붙는 반면 텔레스의 에스틴은 실체에 달라 붙지 않고 대신 질 량 등의 범주에 달라 붙는다 라고 이어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더 나아가서,

만약 두 사람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의 에이나이는 실체에 붙지만 하나의 에이나이는 실체에 붙지 않는 반면 하나의 에스틴은 실체에 달라 붙지만 하나의 에스틴은 실체에 달라 붙지 않는가 라고 물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도대체 두 사람의 있음을 파들어가는 나의 논문에집착하다보면 그렇게 약간은 어겨지로 물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두 사람의 에이나이가 다른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의 실체가 다른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의 에스틴이 다른 것인가 아니면 모두 모두 다른 것인가 모두 모두 다를 수는 없고 아마 실체가 헤태론할

그렇다면 **에스틴**(τὸ ἔστυ, 142c4-5, 그것이 있다)은 **하나와 알**
론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필연적으로

것이다 차이난다면 텔레스의 실체는 그 첫 번째로 알려지는 것 으로서의 에이도스
이든 또는 첫 번째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든 첫 번째로 있는 것 으로서의 에이도스
인 **것(τι)**이든 모두 있음인 것인 반면 ‘플라톤’의 실체는 단지 시간 안에 있는 것
(존재, 에이도스)일 뿐 분리된 에이도스도 아니며 첫 번째 움직이게 하는 것도 아
니라는 점에서 차이나는 것일까 가웃 나아가서,

있음에서 차이난다면 ‘플라톤’도 있는 류의 여러 종들을 말하기 때문
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하여진다는 점에서는 차이나지 않을거고 두 사람 모두의
있음은 움직임 없이는 또는 밖에서는 있어 올 수 없으나 있음과 떨어지지 않고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움직임과 관련지워져서도 차이나지 않을거며 하나와 관련지
워져서도 아마 차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무엇? 분명히 차이나긴 나는데 사
실,

열정적으로 약착같이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 로서의 이테아를 비판하지만
‘플라톤’ 자신은 에이도스를 분리한 것 같지 않고-오히려 텔레스가 에이도스를 분
리한 것 같다 아냐 분리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텔레스 자신도 분리된
에이도스를 허용하고 ‘플라톤’도 자신의 디아노이아에서(τῆν διανοίαν, 143a7, 1676)일
단 분리시켰다가 묶어 놓은 셈이니 결국 생각 안에서는 분리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텔레스가 에이도스를 확대 적용한 것 같다 예를들어
사람의 에이도스에 대해서는 그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플라톤’은 중지했지만
텔레스는 존재한다고 놓고 들어 가잖아 사실 또 그래 테에미우르고스가 이테
아를 원형으로 삼아 만들어 나갈 때도 그 이테아가 사람인지 불인지 아니면 개개
의 사물인지 불인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아! 시간도 문제야 만들어지는 시간
말이야 물론 지나간 때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쓰여지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
하지가 않아 움직임도 문제야 힘도 에네르게이아도 그렇다면,

무엇? 오줌누러가야 것다 한 시간이나 참았어! 이 두 사람 때문에.....

따라서 하나 **에스틴**이 라고 간단히 말할 때 마다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μετέχει 142c6)지 또는 (이와) 알론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 말할까나? 2573)

물론

하나 만약 에스틴이라면 무엇이 잇따르는지 다시 말해 보세나 이 전체는 **부분**을 지니는 그러한 하나를 반드시 가리키고 있지 않은지를 숙고해 보세²⁵⁷⁴⁾

어떻게?

요것일세 만약 ‘하나 **있는**’의 *ἑστῆ τὸ ἔστω*, 142d1, 그것이 있다) 와 ‘**있는** 하나’의 *ἡμία*가 말하여진다면 **실체**(ούσια 142d3) 와 하나는 동일한 것(τὸ αὐτὸ d2)이 아니나 전제되어진 저 동일한 것의 [곧] ‘하나 **있는**’의 (실체 와 하나이다) 따라서 한 편으로 전체는 ‘하나 **있는**’[과] 동일한 것이며(εἶναι, 142d4) 다른 한 편으로 하나 와 **에이나이**(εἶναι d5)는 이 (전체)의 **부분**이 필연적이지 않은가

필연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의 각각만을 부분이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전체의 부분을 부분이라고 부르는가

전체의²⁵⁷⁵⁾

따라서 부분을 지니는 그리고 하나일 전체(ἅλου 142d8)가 에스틴(있다)네²⁵⁷⁶⁾

2573) 하나가 **있다** 라는 말은 하나가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를 간략하게(συλλήβδην 142c7)한 말이다

2574)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는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는 1605쪽을 참조하라

2575) 이미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의 전체 와 부분이 부정(否定)되는 1607쪽에 전체 와 부분은 양자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쓰여졌다

물론

무슨? ‘하나 있는’의 이러한 부분들 (두 가지 중) 각각 [곧] 하나 와 있는 (것). 따라서 하나는 있음(εἶναι 142d2)부분을 떠나거나 있는 것은 하나 부분을 떠나는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다시 부분들 각각 하나는 있는을 (있는은 하나를) 머금고 두 부분들로부터 가장 적은 부분이 (생성) 되어지며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그렇게 항상 부분이 되어질 때 마다 이렇게 항상 부분적으로 머금을 것일세 하나를 있는을 항상 머금고(ἵσχυει 142e7)있는은 하나를 (항상 머금기) 때문이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항상 둘이 되어 지므로 어느 때이든 하나 있다(εἶναι 143a1)가 아니네

모두 모두

그렇다면 ‘하나 있는’은 이렇게 무한히²⁵⁷⁷ 많음(τὸ πλῆθος 143 a1)일 것일세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나아가서 요리로 가보세

무슨길로?

2576) 이러한 하나가 바로 전체 하나(ὅλον ἔν, 245a3, 1400, 1421)이다

2577) 그러나 만약 하나 있다는 하나 경우도 무한하다(ἄπειρον, 137d7, 1608, 1666)는 점에 내가 걸린다 시작 과 끝의 한계를 그 하나는 지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 만약 있다면의 이 하나도 무한하다(ἄπειρον 143a2)다 하나 있는의 부분이 무한히(144a6, 1683)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하나의 무한함은 분명히 구분되는 무한함이다 여기의 하나는 그 하나의 부분이 수적으로 무한하다는 것이고 거기의 하나는 한계 없는 무한함으로 구분될 것이므로 그렇다 어찌됐든,

어떻게 있든지간에 하나는 무한하다는 것인데 무한이라

실체를 하나는 나누어 지니며 때문에(δὺο 143a5) *에스텐*(있다)
 라고 우리는 말하네?
 예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 있는 여럿’(τὸ ἓν ὄν πολλά 143a5)이
 밝혀졌네²⁵⁷⁸
 그렇게

무슨? 이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고 우리는 말하는데
 143a8)나누어지[너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실체) 없이(ἄνε
 υ)그 (하나)를 그 자체로 단지 *디아노이아*에 의해서(τῆ διανοία,
 143a7, 생각에 의해서)만 취한다면²⁵⁷⁹이러한 그 자체는(τὸ αὐτὸ α9)

2578) ‘하나 있다’는 무엇을 때문에 여럿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졌는가를 꼼
 꼼히 다시 기억해 보라 지금까지도 나는 기억해 꼼꼼히 따져 보는 중이나
 무엇 때문에 여럿이 아닌지가 딱 부러지게 지금까지도 나에게 나오지 않는
 다 단지 거기서는 ‘하나 있다’를 논증의 전제로 놓고 나가야만 전체 와 부
 분이 그 하나에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 되면서 그와 더불어 여럿이 아니라
 는 것도 논증되기 때문이다 부분 과 전체는 양자적으로 있기에 이미 여럿이
 므로 그렇다(1656-1658)부분이 하나도 빠지 않은 것이 전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定意)에 의한 논증이다

2579) 실체 지니는 하나를 생각하면 실체는 자연스레 떨어져 나가고 단지
 하나 자체만이 생각되는데 그 자체는 하나 또는 여럿인가 라는 물음인가 아
 니면 하나로부터 실체 자체를 생각에 의해 떼어 낼 수는 있으나 단지 실체
 로부터 하나만을 생각에 의해 떼어내 하나 그 자체만을 생각하면 그 자체는
 하나인가 여럿인가 라는 물음인가 만약 어떤 것으로부터 실체를 떼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지 생각에 의하는(τῆ διανοία 143a7)것 뿐이지 **프라고
 마**(244d3, 1398, 事態, 일)그 자체로는 진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앞

단지 *하나*로 나타날까(φανήσεται²⁵⁸⁰)a8-9) 아니면 *여럿*으로 (나타날까)

물음일 것이고 *하나*와 *실체* 이 양자가 *프라그마*의 측면에서도 서로 각자로부터 떨어진다면 뒷 물음일 것이다 여기서는 생각에 의해서만(τῆ διανοία μόνον 143a7)실체 없는(ἄνευ 143a8)하나 그 자체 라고 했으니 아마 앞 물음으로 해석하고 싶어할 것이다 만약,

뒷 물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생각**(τὸ νοεῖν, 파르메니데아스단편3, Diels231, 103)과 **있음**(εἶναι, 파르메니데아스단편3, Diels231, 103)은 **동일한 것**(τὸ αὐτὸ.....ἔστιν.....파르메니데아스단편3, Diels231, 103)이나 앞 물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생각**과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있음**이 아니라 **실체(존재)**를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가 여기서 문제삼고 있으므로 어느 누가 그렇다면 실체는 생각과 동일한가 라고 파르메니데아스에게 물어 볼 수도 있으리라 그러면 아마 파르메니데아스는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의 **실체 또는 존재는 있지 않는** 것이니 어찌 동일할수가 있는 것만 이 있고 있지않는 것은 있지않을 뿐이며 생각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일세 라고 그 어느 누구에게 답할 것이다 생각에서 분리되면 아마 프라그마의 측면에서도 실체(존재)이든 있음이든 생각이든 서로 분리될 것으로 지금의 나에게서 여겨진다 비록 있음은 생각과 동일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실체는 생각과 동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어쨌든,

플라톤의 여기 ‘파르메니데아스’는 실체 와 하나를 생각안에서 분리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프라그마의 측면에서도-나는 really(실제로)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텔레스의 프라그마에 대해서는 31 263, 369, 413, 754, 792, 881쪽등을 참조하라 ‘플라톤’의 프라그마에 대해서는 1398각주2261참조하라

2580) 나타나다 라는 여기의 말이 그대로 132a10(1269)에서도 나타나므로 거기 맥락을 주의 깊게 다시 되 짚어 생각해 낼 필요 있다반드시 각주

저에게는 *하나*로 (나타날 것 처럼) 보입니다

(우리) [한 번 다음을] 살펴보세요 한 편으로 **실체**는 헤태론한 그 (하나) 자체와(τοῦ αὐτοῦ 143b1) 반드시 *알론한* 어떤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하나) 그 자체는(**αὐτό**²⁵⁸¹)b2) (실체와) 헤태론한 것이네 만약 실체는 하나가 아니라 실체를 하나가 *나누어* *지닌다면*(ὡς b1)[말이네] 반드시

만약 한 편으로 **실체**가 헤태론하고 다른 한 편으로 *하나*가 헤태론하다면 하나는 하나에 의해서 실체와 헤태론한 것도 아니고 실체가 실체에 의해서(**τῷ**²⁵⁸²)οὐσία 143b5)하나와 알론한 것도 아니라 헤태론함 과 알론함에 의해서 서로와 헤태론하다네²⁵⁸³)

물론

그래서 *헤태론은 하나*와도 *실체*와도 동일하지 않네²⁵⁸⁴)

를 달도로....지금 나는 강화군립도서관 아동 자로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있으므로 정신없다.....

2581) 파르메니데이스 단편 3에서 바로 이 아우토(동일)이라는 말이 쓰였음에 유의하라 생각 과 있음은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2582) τῷ 라는 쓰임새를 분간해 볼 필요가 있다 915, 923쪽 등을 참조하라

2583) 각기 것은 *헤태론함의 이데아*(ιδεα, 소피스테이스255e5, 1523)을 나누어 지남에 통해서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 라는 로고스를 참조하면 여기 파르메니데이스가 하나 와 실체 각각이 헤태론한 것은 그 자신들의 하나 와 실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헤태론 과 알론함에 의해서 라고 말한 것이 더 선명하게 닳아 올 것이다 여기 에 ‘의해서(τῷ)’ 라는 말은 거기 ‘나누어지남을 통해서’ 라는 말과 통하는 것임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2584) 하나의 자연은 동일의 자연이 아니라는 1619 와 각기 것은 자신과 동일하지도 헤태하지도 않다는 1620를 참조하라 그리고 거기 소피스테이스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무슨? **실체** 와 **헤테론** 또는 실체 와 **하나** 또는 하나 와 헤테론
이라는 것들을 추려내길 바란다면 따라서 [이러한] 각각을 올바르게
양자적인 것으로(ἀμφοτέρω 143c4) 불리워지는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 아니겠나²⁵⁸⁵⁾

어떻게?

요것일세 **실체**는 에스틴(있다) 라고 말하는가

에스틴

그리고 다시 **하나**도 에스틴(있다) (라고 말하는가)

마찬 가지로 그와 같이

따라서 이것들 각각이 말하여지지 않았는가

예

실체 와 **하나**가 말하여질(ἔτιω 143c7)때 마다 무엇이든 따라
서 양자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겠나?

물론

편에는 동일함 과 헤테론 과 있음은 가장 커다란 다섯 가지 류에 속하는
반는 하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하라 그리고,

각각이 하나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그 각각은 헤테론한 서로와 알론한
것이 아니라 헤테론함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서로 헤테론하듯이 각각이
하나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그 각각이 동일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함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각기 동일함을 유지하는 것임을 여기서 파르메
니데에스가 말한다는 점에도 유의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 와 실체 각각은 서
로와 헤테론한 반면 동일함을 각기 유지하기 때문이다

2585) 실체와헤테론 이 양자적 것 또는 실체 와 하나 이 양자적인 것 또는
하나와헤테론 이 양자적인 것 이라고 실체 와 헤테론을 또는 실체 와 하나
를 또는 하나 와 헤테론을 불러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실체²⁵⁸⁶와 헤테론 또는 헤테론 과 하나도 그렇게 모
두 각각의 경우에 양자적으로 말할 것인가²⁵⁸⁷

예

양자적으로 올바르게 불리워질 것은 따라서 한 편으로 양자적
으로 그와같이(οἷον 143d1)그렇게 있는데 둘[로] 있지 않을까

(양자적으로) 그와같이 (있지는) 않습니다²⁵⁸⁸

실로(ἦτον 143d3)붙인 어떤 도구는(μνχανή²⁵⁸⁹)d3)그것들 각각이
하나이(εἶναι d3)지는 양지 않을까

아니오

따라서 이런 것들 각각은 함께 둘(οὐδύο 143d4)[로] 있다는 것
이 잇따르므로 각각은 하나일걸세

2586) ὄν(있는 것) 또는 εἶναι(있음)도 여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체(οὐα
ια 143c8)가 주욱 쓰여진다는 것은 그가 실체 와 있음 또는 있는 것을 구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587) 양자적으로 말하여진다는 것은 이미 여럿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1607각주2496번을 참조하라

2588) 양자적인 것이라고 그와같이 불리워지는 것은 둘로 있는 것이지 양
자적으로 있다(εἶναι 143d1)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나는 읽
는 중인데.....

2589) 도구(μνχανή 143d3)라는 말은 138d1(1613)에서도 쓰여진다 읊아 다니
는 도구를 하나 자체는 지니지 못한다 라고 쓰여지는 맥락에서 말이다 앞에
τις(143d3) 또는 τις(138d1)가 붙는 것도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 맥락은 사
뭇 헤테론하다 양자적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양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둘로 있는 것인데 실로 둘로 있는 어떤 도구가 그 각각은 하나로 있지 못하
는 것은 아닌가이기 때문이다

분명해집니다

만약 그것들 각각이 *하/라*면 그러한 맛 붙은 *짜에*(ουζυγία 143d6) 하나가 함께 놓여져 모두 *셋*²⁵⁹⁰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데 [짜이되기 위해서는] *셋*은 좀 남고(περιττά, 143d7, 홀수) *둘*은 딱 들어맞지(ἄρτια, d8, 짝수)않은가

어찌 아니리오

무엇이? *있는* 둘에는 반드시 두 *겹*(δις 143e1)이 *있고* *있는* 셋의 *셋* *겹*이 (있네) 두 *겹*은 둘에 의해서 하나[에] 속하고(ὑπάρχει²⁵⁹¹ e1) *셋* *겹*은(τὸ τρις 143e2)셋에 의해서 하나에 속한다면 말일세

필연적으로

그런데 *있는* 둘 과 두 *겹*(δις e3)에는 둘이 두 *번*(δις e3)반드시 *있지*²⁵⁹¹않은가 그리고 (*있는*) 셋 과 *셋* *겹*에는) 다시 셋이 세 번

2590) 요 셋도 소피스테이스편 심각한 논증에서 나타난다 음 과 양 이 둘이 있다에 관한 반박논증(1394)에서 요 셋이라는 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1385쪽도 참조하라

2591) 텔레스가 어떤 것에 속하는(ὑπάρχει, 1041a23, 506, 694)것은 어떤 것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형이상학 제1타 편 끝 장인 17 장 중간 시작 부분을 보라 그리고 텔레스의 속함에 대해서는 168, 343, 413, 499, 611쪽을 살펴보라 속함 이라는 말은 텔레스에게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플라톤’ 여기에서도 나오는 걸.....플라톤의 lexique를 찾아 볼까.....아니야 그냥 지나치자 아직 남의 연구를 참조하기에는 일러.....내 것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든! 나아가서,

에이나이 앞 또는 뒤에 3 격의 명사형이 나오는 것도 텔레스(720-752)에 고유한 쓰임새인 줄 알았는데 여기 파르메니데이스에 의해서도 그러한 쓰임새가 나타나는구나

반드시 있지 않은가

어찌 (있지) 않으리오

무엇이? **있는 셋** 과 **있는 두 겹**의 그리고 **있는 둘** 과 **있는 세**
겹에 반드시 **셋**이 **두 번** **있고** 그리고 **둘**이 **세 번** (있지) 않은가

여러 번($\mu\alpha\lambda\lambda\acute{\eta}$ 143e7)

따라서

딱 들어맞는 것(짝)이 딱 들어맞는 것에 그리고 남아도는 것
(홀)이 남아도는 것에 그리고 짝이 홀에 그리고 홀이 짝에 (**있**)을 것
이네

그렇게 에스틴(있지요)

이것들이 그러한 상태($\epsilon\chi\epsilon\iota$ 144a1)라면 필연적으로 있지 않는
어떤 수가($\acute{\alpha}\rho\iota\theta\mu\acute{o}\nu$ a3)남아 있겠는가

그런 (수는 있지) 않지요

따라서 만약 *하나*가 에스틴(**있다**)면 필연적으로 수가 **있는**($\epsilon\acute{\iota}\nu$
a²⁵⁹²)144a4)가

필연적으로

그러나 수가 있다[면]($\delta\upsilon\nu$ a3)어떤 그것도 **있는 것들의 무한히**
많음이($\mu\alpha\lambda\acute{\iota}\theta\omicron\varsigma$ a6) (있)을 것이네 또는 수는 **많음**에 [있어] **무한히**²⁵⁹³
며 **실체를 나누어 지나게** 되지 않은가

2592) 수 **일반**($\acute{\alpha}\rho\iota\theta\mu\acute{o}\nu$ τὸν σύμπαντα, 238a10, 1372)을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 라고 하면서 어떤 것이 있다면 반드시 수도 **있다** 라고 쓰는 소피스테
에스 편을 참조하라 거기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이든 *여럿*이든 수를 **있지**
않는 것에 덧 붙히려 해서는 안된다

2593) 하나 자체는 한계 없으므로 무한하며 있는 하나는 그 하나의 부분이
수적으로 무한히 많으므로 무한하다 따라서 벌써 1676 각주 2577번에서 구
분된 것 처럼 무한함은 구분된다

물론

그렇다면 만약 모든 수가 **실체**를 나누어 지니면 그리고 수의
부분 각각도 그 (실체)를 나누어 지닐 것인가

예

따라서 **실체**는 모든 여럿에 [두루] 걸쳐(ἐπι²⁵⁹⁴)144b1) 분배되
어지며(venέμηται b1)가장 적은 것이든 가장 큰 것이든 **있는** 것들의
어떤 것과도 떨어지지(ἀποστατεί d2)않는가 아니면 이것은 **실체**는 **있**
는 것들과 어떻게든 떨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비로고스적인 물음인가

어느 [길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²⁵⁹⁵)

따라서 **있는** 것들은 가장 적게든 가장 크게든 (어떠한) 모든
길로도 잘려지면서 대 부분(μάλιστα, 144b6, 무엇 보다도) 부분으로
되어 **실체**의 무한한 부분이 있네

그렇게 (실체를) 갖지요(ἔχει b6)

따라서 실체의 부분들이 가장 많이(πλείστα 144c1)있네

확실히 가장 많이

무엇이? 이 (부분)들 중에서 한 편으로 **실체**의 부분이며 다른
한 편으로 (실체의) 부분이 확실히 아닌 어떤 것이 있는가

(아닌) 것이 어떻게 되어졌으리오

따라서 만약 (어떤) 길들(οἷμα 144c4)(로도) [그렇게] 있다면
그 (부분)은 필연적으로 항상 그렇게 [부분으로] 있어야만 할 것이며

2594) 여럿에 걸친 하나 라는 레에마(旬)에 집중되는 텔레스의 반박에 관련
된 나의 단평을 보기 위해서는 499, 1245, 1264 등을 참조하라

2595) 그렇다면 실체는 있는 것과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일까 전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종적으
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류적으로는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1670-71쪽에 이
르는 나의 주장은 틀린 것이 될 것이다

하나인 것[으로] 있다네 [그렇지] 않는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없을
것이네

필연적으로

따라서 **실체**의 **부분**이 됨에 의해서 (각기) 모든 것에 **하나**가
덧 붙여지네 보다 적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알론한 어느 것이든
(하나와) 떨어지지 않는다네

그렇게

따라서 **하나** **있는**은 여러 곳에서(πολλαχού 144d1)동시에 **전체**
로 에스틴(있는)가 이것을 눈여겨 보게

제가 눈여겨 보기에는 불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만약 **전체**가 아니라면 (**부분**으로) 나누어졌을 것
이네 어디에서든 실체의 (각기) 모든 부분들에 동시에 (이와)
알론하게 현재하지도 (**부분**으로) 나뉘었지도 않기 때문이네

예

그리고 **나뉘어지**는(τὸ μεριστὸν 144d4) 그 만큼 필연적으
로 여러 **부분**들이 있다네

필연적으로

따라서 **실체**가 가장 많이(πλεῖστα 144d6)분배된다고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우리는) 말하네²⁵⁹⁶) 어떤 것에도
하나가 많이(πλεῖω 144d7)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ἴσα²⁵⁹⁷)

2596) **실체**는 모든 **여럿**에 [두루] 걸쳐 분배되어지며 가장 적은 것이든 가
장 큰(τοῦ μεγίστου, 144b3, 1683) 것이든 **있는** 것들의 어떤 것과도 떨어지
지않는가 라고 묻고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파르메니데에스
는 이끌어 냈고 그러한 맥락을 자신도 허용했었다

2597) 파르메니데에스가 똑 같음에 대해 말한 것을 다시 상기하려는데 잘
안되면 1623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 따르면 똑 같음은 동일한 척도의 똑 같

144e1) (부분) 하나에 (분배되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네 **있는** 것은 *하나*와 떨어지지도 *하나는* **있는** 것과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 둘은 항상 모든 것 옆에(παρά²⁵⁹⁸)e2) 똑 같이 있으(ἐξισούσθον δύο ὄντε e1)므로 그렇네

그렇게 모두 모두 분명해집니다

부분들은 전체의 부분들이므로 *하나*는 전체적으로 한계지워질 것이네(πεπερασμένον²⁵⁹⁹)144e8) 아니면 부분들은 그 전체에 의해서 둘러싸여지지 않은가

필연적으로

그러나 *한계*(πέρας 145a1)를 둘러싸는 것일세

어찌 아니겠습니까

음이다 그렇다면 동일함에 대해서 다시 상기해 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자연과 차이나는 동일함의 자연 때문이다(1620)다행히도 하나와 잘 구분되면 척도에 대해서도 다시 상기해 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1724쪽을 천천히 다시 음미해 보라 나아가서,

저 **있음** 보다 여기 **실체**(존재)는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1573쪽을 살펴 보라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들은 알론한 것과 똑 같은 실체를 분배 받는다는 여기와 비록 맥락은 험태론하지만 여기와 거기는 이어지는 부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2598) 소피스테이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에 의해서 쓰여지는 παρά(134d9, 옆에)의 맥락에 대해서는 1305쪽 등을 참조하라

2599) 그러나 하나 자체는 한계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1608쪽을 참조하라 그리고 그러하기 전에 전체는 부분의 전체이며 부분은 전체이기에 전체와 부분은 양자적이라고 하는 1607쪽도 참조하라

따라서 *하나*는 어디에서든 *하나* 와 *여럿* 에스틴(이)며 *전체* 와
부분이고 *한계지워진 것* 과 *많음*에 [있어] *무한하다*네²⁶⁰⁰)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한계지워지므로 *극단들*을 지니지 않겠는가

필연적으로

무엇이? 만약 *전체*라면 *시작* 과 *중간* 과 *끝*을 지니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러한 셋 없이 예를들어 전체인 것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 중
무엇이든 어느 *하나*와 떨어진다면 더 이상 전체는 있지 *않을*(ἐθελίσε
ι.....εἶναι 145a7-8)것이네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시작* 과 *끝* 과 *중간*을 지닐 것 처럼 보이네

지닙니다

그러나 *중간*은 *극단들*과(τῶν ἐσχάτων 145b1)똑 같이 떨어지네
알론하게 (떨어져 있으)면 *중간*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네²⁶⁰¹)

아닙니다

그리고 *실로* *곧음* 또는 *등금* 또는 이 양자의 어떤 섞어짐 등과
같은 어떤 *모양*을²⁶⁰²)*하나*는 나누어 지니고 있는 것 처럼 보이네

나누어 지닐 것입니다

2600) 반면에 *하나* 자체는 *하나*도 *여럿*도 아니며 *전체*도 전체의 부분을 지
니지도 않으며 그 *끝*도 없다 그렇다면 **있는** *하나*는 *하나* 자체의 **부정**(否定)
이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까 1578, 1633, 1666 등을 참조하라

2601) *하나* 자체는 *모양*을 지니지 않는 원인에 대해 말하면서 이와 동일한
로고스가 펼쳐졌다(1609)

2602) *하나* 자체는 어떤 *모양*도 지니지 않는다 라고 쓰여질 때는 *곧음* 과
*등금*의 *모양* 만이 *거론*(擧論)되었을 뿐 이 둘이 섞어진 어떤 *모양*은 *거론*되지
않았다 물론 어떤 그 *모양*이 *함축*되었을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1609)

따라서 이렇게 지나는 그(하나)는 스스로 안에 그리고 알려진
 것 안에 에스타이(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어디에서든 *부분들* 각각은 전체 **안에** 있지 어느 (부분)도 그
 전체 **외부에** (있지) 않네
 그렇게
 그런데 모든 부분들은 전체에 의해서 둘러 쌓이는가
 예
 그리고 그(전체)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이며 모든 것 보다 더
 많은 것도 더 적은 것도 아니라네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체도 *하나*이네
 어찌 아니리오
 따라서 만약 모든 *부분들*이 전체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 것들이
 라면 모든 것(부분)들이 *하나*이며 그 (하나)는 전체이고 모든 것들이
 전체에 의해 둘러쌓여지며 하나는 하나에 의해 둘러쌓여졌고 그렇게 이
 미(ἡδὴν 145c7)하나 그것은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네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실로 다시 전체는 모든 것(부분)이든 어떤 것(부분)이든
 부분들안에 **에스타인(있지)** 않을 것이네 만약 모든 것 안에(πάσιν 145d
 1)(있다)면 반드시 하나 안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네 어떤 하나
 안에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어디에서든 (각기) 모든 것(ἅπαν2603)

2603) ἅπαν(아파신, 145d2)을 각기 모든 것으로 πᾶσιν(파신, 145d1)을 모
 든 것으로 옮겨 보았으나 올바른 옮김인 줄은 모르겠다 텔레스가 ἅπαν(각기
 모든 것, 1023b31, 373) 과 πᾶν(모든, 1024a2, 375) 과 전체(ὅλον, 1024a3, 375
 , 991)에 무엇이냐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형이상학 델타 편 26 장을 참

145d2) 안에 **있**(εἶναι d2)을 수 없을 것이므로 [그렇네] 만약 한 편으로 (각기) 모든 것의 이 하나가 에스틴(있)고 다른 한 편으로 전체가 그 하나 아닌 것 안에 있다면 어떻게 더 이상 (전체가) 모든 것 안에 **있**(ενεῖναι 145d4)을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부분들 중의 어떤 것(부분)에도 (있지 않네) 만약 어떤 것(부분) 안에 전체가 있다면 더 많은 것이 더 적은 것 안에 있을 것인데 이것은 불 가능하다네

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것 안에도 (부분) 하나 안에도 (각기) 모든 부분에도 있지 않는 것이라 (면) 전체는 헤태론한 것 안에 필연적으로 **있**(εἶναι 145d8)거나 더 이상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한 편으로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다면 아무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전체로] **있는** 것(이라면) 자신 안에 에스틴(있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알론한 것 안에 **있**(εἶναι 142e3)어야하네

물론

따라서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서 마주치고(τυγχάνει 142e4)있
는 알론한 것 안에 [또] 그(자체) 스스로 안에 하나 전체는(τὸ ἐν ὅλ
ov e3)있을 것이네 그리고 그렇게 하나는 필연적으로 그(자체) 스스로 안에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 (반드시 있네)

필연적으로

따라서 이런 자연[을 지]닌(πέφυκός 145e7) **하**는 필연적으로 움직여지고 쉰 것이 아닌가

조하라

어떻게

그 (하나)는 스스로 안에 에스틴(있)으므로 어디에서든 쉬네 하나 안에 있으면서 이(하나)로부터 [움아] 가지²⁶⁰⁴않고 동일한 것(αὐτῷ 146a1)안에 [곧]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것은 어디에서든 반드시 항상 쉬고 있(εἶναι 146a3)네

물론

무엇? 헤태론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것은 그 반대(τὸ ἐναντίον²⁶⁰⁵146a4)인 것 [곧] 동일한 것 안에 반드시 결코(μηδέποτε a4) (있지) 않으며 그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쉬지 않는다 그 래서 쉬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겠는가?

2604) 여기에서는 (움아)가다(μεταβαίνον 146a1)라는 낱말이 쓰인 반면 136 b8(1611)에서는 움아갔음(φέρουτο)이라는 낱말이 쓰였음에 유의하라 나는 이 두 말을 동일한 선상(線上)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2605) 소피스테이스 편이 엘레아 낯선이가 어려워한 것은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하게 되면 반대되는 말들이 한 로고스 안에서 허용되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어려움을 그는 결국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ἕτερον, 257b4, 1538)이라고 함으로서 풀었다는 점을 상기(想起)하라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고 거기에 쓰여지는 반면 움직이는 것은 쉬는 것의 반대이다 라고 여기에 쓰여진다는 점에 유념(留意)하라 소피스테이스 편 알론한 곳 250a8(1471)에서 엘레아 낯선이는 움직임과 쉬는 서로에 가장 반대되는 것들 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서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지만 움직임 과 쉬는 서로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점이 선명해진다

그렇게

따라서 스스로 안에(ἐν ἑαυτῷ 146a6-7)그리고 헤태론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그 하나는 필연적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쉬네²⁶⁰⁶)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스스로에 동일한 것으로 있고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으로 있으)며 알론한 것들과도 그와 같이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으로] 있네 만약 앞의 것을(πρόσθεν 146b1) 겪는다면 [말일세]²⁶⁰⁷(142b1-146b2)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만약 하나 **있다(에이나이)**면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 만약 **있다(에스틴)**면의 *하나*는 전체이며

2606)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 전체는 움직이면서 쉬고 있다 라는 말이 허용된다고 해서 그 전체의 어느 부분인 것이 움직이면서 쉬고 있다 라는 말도 허용될까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움직이면서 쉴 수 있을까 여기 로고스를 따르자면 만약 그 어떤 것이 하나라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할 것 같다 전체의 어떤 부분도 전체가 하나이듯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움직이면서 쉰다는 것이 가능한가 쉰 자체 와 움직임 자체는 가장 크게 반대되는 것이므로 함께 또는 동시에 있을 수 없지만 말이다 말이 되나? 나아가서,

텔레스에 따르면 실체만이 그 스스로 변함(μεταβολήν, 범주들4b3, 184)에 의해서 반대를 받아들인다 이 경우 실체는 그 변화를 담고 있는 기체적인 것일 것이다

2607) 이러한 논증을 근거로하여 이와 함께(1657)하나의 요령다 라는 알론한 논증들이 이어지므로 도저히 여기서 옮김을 끊을 수는 없으나 그 량의 방대함으로 인해 일단 끊어 본다

그 전체의 수적으로 *무한히 많은 부분*을 지니고 끝은 둥글든 이 둘의 섞여
집이든 어떠한 *모양*을 지니며 스스로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알론한 것
안에도 있고 움직이며 쉬고 **에스틴(있)**다는 것이 잇달아 논증된다 이렇게
논증되는 하나의 있음은 **에이나이(있다)**가 아니라 **에스티(그것이 있다)**²⁶⁰⁸
로서의 있음이라고 파르메니데에스에 의해서 구분되면서 이러한 **에스틴**을
그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는 것 이라고 쓰여진다 그렇다면 저 **에이나**
이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고 있는 것 이라고 약간은 어거지이지만 쓰
여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 **에스틴**은 저 (에스틴 또는) **에이나이**를 부정한 것이거나 또는 두
번 부정한 것인 듯하다 거꾸로 말하면 여기 **에스틴(있음, 존재, 실체)**에서
긍정(肯定)된 것이 저기 **에이나이(있음)**에서는 부정되거나 두 번 부정된 듯
하다 더 헛갈리기 전에 다시 옮겨보자

알론한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을지 처음으로 되 돌아가 다시
그 전체를 취하길 바라는가 - 물론 바랍니다 -

그렇다면 하나가 만약 **있다**면 그 하나에 어느 때 어떠한 것들로 **있**
는²⁶⁰⁹지 그것들에 두루 동의해 보세나 그러지 말까? - 아니요 - 따라서

2608) 파르메니데에스의 어법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있음의 두 영역을 구
분하기 위해 하나를 에이나이로 다른 하나를 에스틴으로 나누어 본다 앞 에
이나이는 만약 하나 있다면의 있음의 영역으로서 실체 라는 말로 바꾸어 질
수도 없는 반면에 뒤 에스틴은 하나 만약 있다면의 있음으로서 실체라는 말
과 바꾸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에스는 앞의 경우도 에이나
이가 아니라 에스틴을 쓴다 어디까지나 지금의 나의 이런 구분은 잠정적이
고 일시적인 것이다

시작부터 다시 해 보세 하나가 만약 있다면 그 하나는 한 편으로 **있**(εἶναι, 142b6, 1669)고 다른 한 편으로 **실체**를(οὐσία, 142b6, 1699) 나누어 지니지 않을까 - 아니오 - 그렇다면,

하나의 **실체**는 *하나*와 동일한 것이 아닐세 저 실체는 저 실체의 실체로 있어오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는 저 실체를 나누어지니는 것이지 저 실체는 아닐 것이고 *하나 에이나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 하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만약 *하나 하나* 라는 전제의 경우 무엇이 하나 자신에 잇따라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만약 *하나 에스틴*(ἔστιν, 142c3, 1672, 그것이 **있다**) 이라는 전제의 경우 하나 자신에 무엇이 잇따라야만 하는가이다 그렇지 않은가 - 물론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에스틴은 *하나*와 **알론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 필연적으로 - 따라서 하나 **에스틴** 이라고 간단히 말할 때 마다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지 또는 이것 이외의 알론한 것인지 우리말해 볼까나? - 물론 -

하나 만약 에스틴이라면 무엇이 잇따르는지 다시 말해 보세나 이 전제는 부분을 지니는 그러한 하나를 반드시 가리키고 있지 않는지를 숙고해 보세 - 어떻게 - 요것일세,

만약 하나 있는의 에스틴 와 있는 하나의 하나가 말하여진다면 실체와 하나는 동일한 것은 아니나 전제되어진 저 동일한 것의 곧 하나 있는의 실체 와 하나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전체는 *하나 있는*과 동일한 반면 *하나* 와 **에이나는** 이 전체의 부분이지 않은가 - 필연적으로 -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 각각만을 부분이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전체의 부분을 부분이

2609) 따라서 아마 항상(ἀεὶ, 146a7, 1690)그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때(ποτε, 142b4, 1668) 그러한 어떤 것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부르는가 - 전체의 - 따라서 부분을 지니는 그리고 하나일 전체가 **에스틴**(그것이 있다)이네 - 물론 - 무슨?

하나 있는의 이러한 부분들 각각 곧 하나 와 있는. 따라서 하나는 있음(**εἶναι**, 142d2, 1675) 부분을 떠나거나 있는 것은 하나 부분을 떠나는가 있는 것은 하나 부분을 떠나는가 - 앓을 겁니다 - 따라서 다시 부분들 각각 하나는 있는을 머금으며 두 부분들로부터 가장 적은 부분이 되어지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그렇게 항상 부분이 될 때 마다 이렇게 항상 부분적으로 머금을 것일세 하나는 있는을 항상 머금고 **있는**은 항상 *하나*를 머금기 때문이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항상 둘이 되어지므로 어느 때이든 하나가 있다가 아니네 - 모두모두 - 그렇다면 하나 **있는**은 이렇게 *무한히* 많을 것일세 -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요리로 나아가 보세 - 무슨 길로? -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기 때문에 **에스틴**(그것이 있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가 - 예 -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있는**여럿이 밝혀졌네 - 그렇게 - 무슨?

이러한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고 우리말하는데 *나누어지*[*너지*]는 것이라고 우리말하는 그 실체 없이 하나를 그 자체로 단지 디아노이아(생각)에 의해서만 취한다면 이러한 그 자체는(**τὸ αὐτὸ**²⁶¹⁰), 143a9, 1677)

2610) 물론 그 하나 라고도 옮길 수 있을 것이나 나는 그 **자체**로 라고 옮겨 보았다 텔레스의 형이상학 제에타 편 16 장에 1040b34(500)에 나오는 **τὸ αὐτὸ**(그 자체) 라는 말을 여기에 끌어 들이기 위해서이다 거기 텔레스에 따르면,

각기 감각적인 것과 *나란히* **있는** 소멸하지 않는 것 이라고 실체를 선언할 수 없기 때문에 에이도스를 여럿에 *결친* 하나 하나라고 말하는 자들은 옳지않다 물론 이들이 에이도스들을 분리해 있다 라고 말하는 점에 있어서는 옳았지(**ὀρθός**, 1040b28, 499)만 말이다 그래서 실체를 무엇이라고 선언

단지 *하나*로 나타날까 아니면 *여럿*으로 나타날까 - 저에게는 하나로 보입니다 - [다음을] 살펴보세요,

실체는 헤태론한 그 하나와 반드시 알론한 것인 반면 [하나 그] 자체와 헤태론한 것이네 만약 실체는 하나가 아니라 실체를 하나가 나누어 지닌다면 말일세 - 반드시 - 만약 실체가 헤태론하고 한 편으로 하나가 헤태론하다면 하나는 하나에 의해서 실체와 헤태론한 것이 아니고 실체가 실체에 의해서 하나와 알론한 것도 아니라 헤태론함 과 알론함에 의해서 서로와 헤태론하다네 - 물론 - 그래서 헤태론은 하나와도 실체와도 동일하지 않네 - 어찌 안 그러리오 - 무엇? 실체와헤태론 또는 실체와하나 또는 하나와헤태론 이라는 것을 추려내길 바란다면 이러한 각각을 올바르게 양자적인 것으로 불리워지는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할 것 아니겠나 - 어떻게? - 요것일세,

실체는 에스틴(있다) 라고 말하는가 - 에스틴 - 그리고 다시 *하나*도 **에스틴** - 마찬가지로 그와같이 - 따라서 이것들 각각이 말하여지지 않았나

할 수 없어 난감해 하던 이들은 소멸하는 것과 그 에이도스에 있어 동일한 것을(τὰς αὐτάς, 1040b32, 500) 실체로 만들었다 그런 후에 그 감각적인 것에 그 자체(τὸ αὐτὸ, 1040b34, 500)라는 낱말을 덧붙혀 사람자체 말자체 라고 말한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이들은 사람 또는 말이 아니라 사람자체 또는 말자체 등을 실체라고 한다 그렇다면,

텔레스가 말하는 그 자체란 소멸하는 감각적인 것과 종적으로 동일한 것일 것이다 반면 여기 프르메니테애스가 말하는 그 자체란 디아노이아(생각)에 의해서 하나 **있음**으로부터 **실체**를 떼어 낸 하나[와 동일한 것] 곧 생각 안의 하나 그 자체인 듯하다 아직 나는 두 사람의 '자체'가 어떻게 서로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나열하고 나니가 무엇인가 서로 연관되는 듯하긴하다 42, 500, 628, 1073 등도 참조하라

- 예 - 실체와하나가 말하여질 때 마다 무엇이든 양자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겠나 - 물론 - 그렇다면 실체와헤태론 또는 헤태론과하나도 그렇게 모두 각각의 경우에 양자적으로 말할 것인가 - 예 - 양자적으로 올바르게 불리워질 것은 따라서,

그와 같이 양자적을 그렇게 있는데 둘로 있지 않을까 - (양자적으로) 그렇게 (있지는) 않겠지요 - 실로 둘인 어떤 도구 각각은 하나이지 않지 않을까 - 아니오 - 따라서 이런 것들 각각은 함께 둘 이라는 것이 잇따르므로 각각은 하나일 걸세 - 분명해집니다 - 만약 그것들 각각이 하나라면 맞붙은 짝에 하나가 함께 놓여져 모두 셋이 되지 않겠는가 - 예 - 그런데 (짝이 되기 위해서는) 셋은 좀 남고(홀수) 둘은 딱 들어맞지(짝수) 않는가 - 어찌 아니리오 - 무엇? 있는 둘에는 반드시 두 겹이 있고 있는 셋의 세 겹이 있네 두 겹은 둘에 의해서 하나에 속하고 세 겹은 셋에 의해서 하나에 속한다면 말일세 - 필연적으로 - 그런데,

있는 둘 과 두 겹에는 둘이 두 번 반드시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있는 셋 과 세 겹에는 다시 셋이 세 번 반드시 있지 않은가 - 어찌 아니리오 - 무엇? 있는 셋 과 있는 두 겹의 그리고 있는 둘 과 있는 세 겹에 반드시 셋이 두 번 있고 둘이 세 번 있지 않은가 - 여러 번 - 따라서 딱 들어 맞는 것(짝)이 짝에 그리고 남아도는 것(홀)이 홀에 그리고 짝이 홀에 홀이 짝에 있을 것이네 - 그렇게 에스틴(있)지요 - 이러하다면 필연적으로 있지 않는 어떤 수가 남겠는가 - 남지 않지요 - 따라서 만약 하나가 에스틴(있)다면 필연적으로 수가 있는가 - 그러나,

수가 있다면 여럿 그것도 있는 것들의 무한한 많음이 있을 것이네 또는 수는 많음에 있어 무한하며 실체를 나누어 지니게 되지 않은가 - 물론 - 그렇다면 만약 모든 수가 실체를 나누어 지니면 마찬가지로 수의 부분 각각도 실체를 나누어 지닐 것인가 - 예 - 따라서 실체는 모든 여럿에 두루 걸쳐 분배되며 가장 적은 것이든 가장 큰 것이든 있는 것들의 어떤 것과도 떨어지지 않는가 아니면 이것은 실체란 있는 것들과 어떻게든 떨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非로고스적인 물음인가 - 아닙니다 - 따라서 있는 것들은 가장 적게든 가장 크게든 어떠한 모든 길로든 잘려지면서 대 부분(μάλιστα a,144 b6, 1684, 무엇 보다도) 부분으로 되어 실체의 무한한 부분이 있네 - 그렇지요 - 따라서 **실체**의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있네 - 확실히 가장 많이 - 무엇? 이 부분들 중에 어떤 것은 실체의 부분인 반면 어떤 것은 실체의 부분이 아닌 것이 있는가 - 어찌 그렇게 되었으리오 - 따라서,

만약 이러하다면 그 부분은 필연적으로 항상 그렇게 있어야만 할 것이며 *하나*인 것으로 있다네 그렇지 않는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없을 것이네 - 필연적으로 - 따라서 실체의 부분이 됨에 의해서 각기 모든 것에 하나가 덧 붙히지네 보다 적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알론한 어느 것이든 하나와 떨어지지 않는다네 - 따라서 **하나있는**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전체로 에스틴(있는)**지 이것을 눈여겨 보게 - 제가 눈여겨 보니 불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전체가** 아니라면 (**부분으로**) 나뉘었을 것이네 실체의 각기 모든 부분이 동시에 이와 알론하게 현재하거나 (**부분으로**) 나뉘었지도 않기 때문이네 - 예 - 그리고 나뉘어지는 그 만큼 필연적으로 여러 부분들이 있다네 - 필연적으로 - 따라서 실체가 가장 많이 분배되었다고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우리는 말하네 어떤 것(부분)에도 하나가 많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 부분 하나에 분배되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네 **있는** 것은 하나와 떨어지지도 하나는 **있는** 것과 떨어지지도 않고 둘은 항상 모든 것 옆에 똑 같이 있으므로 그렇네 - 그렇게 모두 모두 분명해집니다 -

부분들은 전체의 부분들이므로 하나는 전체적으로 한계지워질 것이네 아니면 부분들은 전체에 의해서 둘러쌓여지지 않은가 - 필연적으로 - 그러나 한계를 둘러쌓는 것일세 - 어찌 아니겠습니까 - 따라서 하나는 어디에서든 *하나와여럿 에스틴(이)*며 *전체와부분*이고 *한계지워진것과많은에있어무한*하다네 - 선명해집니다 - 따라서,

*한계지워지*므로 *구단*들을 지니지 않겠는가 - 필연적으로 - 무엇? 만약 전체라면 *시작* 과 *중간* 과 *끝*을 지니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러한 셋 없는

그러한 전체인 것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 중 무엇이든지 어느 하나와 떨어진다면 더 이상 전체는 있지않을 것이네 - 앎을 것입니다 - 그리고 하나도 시작 과 끝 과 중간을 지닐 것 처럼 보이네 - 지닙니다 - 그러나 중간은 극단들과 똑 같이 멀어지네 알론하게 멀어지면 중간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네 - 아닙니다 - 그리고,

곧음 또는 둥금 또는 이 양자의 어떤 섞어짐 등과 같은 어떤 모양을 하나는 나누어지니고 있는 것 처럼 보이네 - 나누어 지닐 것입니다 - 따라서,

이렇게 지나는 그 하나는 스스로 안에 그리고 알론한 것 안에 에스 타이(있지) 앎겠는가 - 어떻게 -

어디서든 부분들 각각은 전체 안에 있지 어느 부분도 그 전체 외부에 있지 않네 - 그렇게 - 그런데 모든 부분들은 전체에 의해서 둘러 쌓이는가 - 예 - 전체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이며 모든 것 보다 더 많은 것도 더 적은 것도 아니라네 -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전체도 하나이네 - 어찌 아니리오 - 따라서 만약 모든 부분들이 전체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 것들이라면 모든 것(부분)들이 하나이며 그(하나)는 전체이고 모든 것들이 전체에의해 둘러쌓여지며 하나는 하나에의해 둘러쌓여졌고 그렇게 이미 하나 그것은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네 - 분명해집니다 - 그러나,

실로 다시 전체는 모든 것(부분)이든 어떤 것(부분이)든 부분들 안에 에스틴(있지) 앎을 것이네 만약 모든 것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 안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네 어떤 하나 안에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어디에서든 각기 모든 것 안에 있을 수 없을 것이므로 그렇네 만약 각기 모든 것의 이 하나가 에스틴(있)는 반면 전체가 그 하나 아닌 것 안에 있다면 어떻게 더 이상 전체가 모든 것 안에 있을 것인가 - 결코 아닙니다 - 부분들 중 어떤 것에도 있지 않네 만약 어떤 것(부분) 안에 전체가 있다면 더 많은 것이 더 적

은 것 안에 있을 것인데 이것은 불 가능하다네 - 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많은 (부분)것 안에도 (부분) 하나 안에도 **각기모든** 부분에도 있지않다면
전체는 헤태론한 것 안에 필연적으로 있거나 더 이상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 필연적으로 - 그렇다면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다면
아무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인 반면 전체로 있는 것이라면 자신 안에
에스틴(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알론한 것 안에 **있(είvai, 142e3, 1689)**어야
하네 - 물론 - 따라서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 **알론한 것**
안에 또 그 스스로 **안에** 하나 전체는 있을 것이네 그리고 그렇게 하나는
필연적으로 그 스스로 안에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 반드시 있네 - 필연적
으로 - 따라서,

이런 자연을 지닌 하나는 필연적으로 **쉴** 것이 아닌가 - 어떻게 - 그
하나는 스스로 안에 에스틴(있)으므로 어디에서든 쉬네 하나 안에 있으면서
이 하나로부터 움직이지 않고 동일한 것 안에 곧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네 -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동일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것은 어
디에서든 반드시 항상 쉬고 **있(είvai, 146a3, 1689)**네 - 물론 - 무엇?

헤태론한 것 안에 항상 **있다**면 그 반대인 것 곧 동일한 것 안에 반
드시 결코 있지 않으며 동일한 것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쉬지 않는다 그래서
쉬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겠는가 - 그렇게 - 따라서,

스스로 안에 그리고 헤태론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그 하나는 필연적으
로 항상 움직여지고 쉬네 - 그렇게 나타납니다 - 그리고,

그 하나는 스스로에 동일하며 스스로와 헤태론하고 알론한 것들과도
그와같이 동일하며 헤태론하네 만약 앞의 것을 겪는다면 말일세

있는 하나가 스스로 **와 알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있는**지를 선명하게
밝히는 이러한 위 논증은 **실체**를 나누어 **지니기에 있는** 하나는 **실체**와 동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러기에 하나는 전체이며 부분이 라는 것 그런데 부분은 수적으로 무한히 많다는 것 그래서 하나는 모양을 지닌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알론한 것 안에도 있다는 것 그래서 움직이며 된다는 것 등으로 주옥 이어지면서 그러기에 하나 만약 에스틴(있)다면이 전제된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와 있음(에스틴, 또는 실체)의 양자(ἀμφοτέρω, 143c4, 1680, 兩者)임으로부터 수의 있음이 나온다 그것도 ‘하나 무한히 많이 있는 여럿’으로 말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 만약 (에스틴)있다면 이라고 전제할 때 아울러 이미 그 하나는 수로 있다는 것이 전제 된다 따라서 만약 수의 있음을 논증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논증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 전체는 반대(τὸ ἐναντίον, 146a4, 1689)되는 여럿을 머금는다 자신의 부분들로서 말이다

진짜로 위와 같은지 옮긴 것을 요약해 보기로 하자

하나가 만약 에스틴(있다)면 하나에 어느 때 어떠한 것들이 잇따를지 동의해 보기로 하자

하나가 만약 에스틴(있다)면 에이나이(있는)데도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실체는 하나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실체는 실체의 실체로 있어 오지 않았을 것이며 실체는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실체가 아닐 것이고 하나 에이나이(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 하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론 만약 하나 하나면 이라는 전제의 경우 무엇이 하나 자신에게 잇따라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만약 하나 에스틴(있)이면 이라는 전제의 경우 무엇이 하나 자신에게 잇따라야만 하는가를 지금 살펴 보아야한다 자,

하나 만약 에스틴(있다)에서의 **에스틴**은 *하나*와 필연적으로 **알론한** 어떤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나 에스틴 이라고 간단히 말할 때 마다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는 것을 말하는가 또는 알론한 것을 말하는가 [먼저] 하나 만약 **에스틴**이라면 무엇이 잇따를까 이 전체는 **부분을 지니는 하나**를 필연적으로 가리키고 있지 않은지를 숙고하자 하나 **있는의 에스틴**와 **있는** 하나의 *하나*가 말하여진다면 하나 있는 이라는 저 전체의 **실체**와 하나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체는 ‘하나 있는’과 동일한 것인 반면 하나 와 **에이나이**는 필연적으로 그 전체의 **부분**이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전체의 부분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지니는 **전체 하나**가 **에스틴(있다)** 그래서 그 부분 각각 곧 하나 와 있는의 경우 하나는 있음 부분을 있는 것은 하나 부분을 떠나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를 머금은 이 부분 각각으로부터 가장 적은 부분이 되어질 때 마다 되어지는 부분은 항상 그렇게 부분을 머금은다 *하나*는 **있는**을 **있는**은 *하나*를 항상 머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 모두 하나가 아니라 항상 둘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 **있는**은 **무한히** 많은 것 처럼 보인다 요것을 보라 **실체**를 나누어 지니기 때문에 하나는 **에스틴(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있는여럿**’임이 밝혀진다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나누어 지니지는 실체 없이 하나만을 그 자체 단지 생각(디아노이아)해 본다면 실체 없는 하나는 여럿이 아니라 하나로 나타날 것 처럼 보인다 다음을 살펴보자 **실체**는 헤테론한 그 하나 자체와 반드시 **알론한** 것인 반면 하나 그 자체는 실체와 **헤테론한** 것이다 실체는 하나가 아니라 실체를 하나가 반드시 나누어 지닌다면 말이다 그런데 실체 와 하나가 헤테론하다면 하나는 하나에 의해서 실체와 **헤테론한** 것도 아니요 실체에 의해서 실체가 하나가 **알론한** 것도 아니라 **헤테론함** 과 **알론함**에 의해서 서로와 헤테론하다 그래서 헤테론은 하나와도 실체와도 동일하지 않다 [이제],

실체와헤테론 또는 실체와하나 또는 하나와헤테론을 추려내길 바란다
 면 각각을 올바르게 양자적인 것으로 불리워지는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요것이다 **실체도 에스틴(있고)** 하나도 에스틴(**있**)으므로 실체와하나
 가 말하질 때 마다 양자적으로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실체와헤테론 또는 헤
 테론과하나도 각각 그렇게 양자적으로 말하여진다 따라서 **양자적으로** 그와
 같이 있다면 **둘로 있을** 것이다 실로 둘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함께 둘(ὁ
 vδύο, 143d4, 1681)로 있다는 것이 잇따르므로 각각은 하나라는 것이 분명해
 진다 만약 그 각각이 하나라면 맞 붙은 **짝**(συζυγία, 143d6, 1681)에 하나가
 함께 놓여져 **셋**이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짝이 되기 위해서는] 셋은 좀 남고
 (**홀**) 둘은 딱 들어맞는(**짝**)다 [이제],

있는 둘에는 두 **겹**이 있고 있는 셋에는 세 겹이 있다 두 겹은 둘에
 의해서 하나에 필연적으로 속하는 반면 세 겹은 셋에 의해서 하나에 속한다
 면 말이다 그런데 있는 둘 과 두 겹에는 둘이 두 **번** 반드시 있고 있는 셋
 과 세 겹에는 다시 셋이 세 번 반드시 있다 그렇다면 있는셋과있는두겹 그
 리고 있는둘과있는세겹에는 반드시 셋이 두 번 있고 둘이 세 번 있지 않은
 가 따라서 짝은 짝에 그리고 홀은 홀에 그리고 짝이 홀에 그리고 홀이 짝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수가 길러 내어진다 따라서,

수**있는**여럿 그것도 무한히 많이 있는 것들 그래서 **무한히 많은** 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그렇다면,

모든 수가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수의 부분 각각도 실체를 나누어
 지닐 것이므로 모든 여럿에 두루 걸쳐 실체는 분배될 것이며 그러기에 여럿
 은 가장 적든 가장 크든 있는 것들과 어떤 길로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래서 가장 적게든 가장 크게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잘려진다면 실체의 무한
 한 부분들이 대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실체의 부분들이 확실히 가장 많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중 어떤 것은 실체의 부분인 반면 어떤 것은 실체의 부

분이 아닌 것은 확실히 되어졌을 수 없으므로 부분은 항상 그렇게 있어야 할 것이며 하나인 것으로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필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체**의 부분임에 의해서 **각기모든** 것에 하나가 덧 붙혀진다 보다 적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알론한 어느 것이든 하나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눈여겨 보면 **있는** 하나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전체로 에스틴(있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 아니면 부분으로 나뉘어졌을 것이다 어디에서든 실체의 **각기모든** 부분에 동시에 이와 알론하게 현재하지도 부분으로 나뉘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뉘어지는 그 만큼 필연적으로 여러 부분들이 있으므로 실체가 가장 많이 분배된 것이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니다 어떤 것에도 하나가 많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 부분 하나에 분배되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하나와 떨어지는 것도 하나는 **있는** 것과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 둘은 항상 모든 것 옆에 똑 같이 있으므로 그렇다는 것이 모두 모두 분명해진다[이제],

부분들은 전체의 부분들이므로 필연적으로 하나는 전체적으로 한계지워질 것이며 부분들은 그 전체에 의해서 둘러쌓여진다 그런데 한계를 둘러싸지 않을 수 없지 따라서,

하나는 어디에서든 하나와여럿**에스틴**(이)며 전체와부분이고 한계지워진것과많음에있어무한이라는 것이 선명해진다 따라서,

한계지워지므로 극단들을 필연적으로 지닌다 그리고 전체라면 시작과 중간과끝을 지닌다 이런 셋 없이 전체인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더 이상 전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역시 시작과중간과끝을 지닐 것 처럼 보인다 그런데 중간은 극단들과 똑 같이 멀어진다 알론하게 멀다면 중간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로 곱음 또는 둥금 또는 이 양자의 섞어짐 등의 어떤 모양을 하나는 나누어 지니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는 스스로 **안에** 그리고 알론한 것 안에 **에스타이(있을**
것이다)

어디에서든 부분들 각각은 **전체 안에** 있지 그 전체 **외부**에 있지 않
다 그런데 전체에 의해 둘러 쌓이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이지 모든 것(다른
부분) 보다 더 많지도 더 적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찌 **전체**도 *하나*가
아닐 수가 따라서 만약 모든 부분들이 전체 안에서 마주 치고 있는 것들이
라면 모든 것(부분)들은 하나이며 그 하나는 전체이고 그 전체에 의해 모든
것들이 둘러 쌓여질 것이며 그리고 하나는 하나에 의해 둘러 쌓여졌고 그렇
게 이미 하나 그것은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실로 다시 **전체**는 모든 것(부분)이든 어떤 것(부분)이든 부분들 **안에**
에스틴(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모든 것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 안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하나* 안에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어디에서든 *각*
기모든 것 안에 있을 수 없을 것이므로 그렇다 만약 *각기모든* 것의 이 하나
가 **에스틴(있)**는 반면 **전체**가 그 하나 아닌 것 안에 있다면 전체는 결코
모든 것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분들 중의 어떤 것에도 있지 않
다 만약 전체가 어떤 그 부분 안에 있다면 더 많은 것이 더 적은 것 안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부분 안에도
부분 하나 안에도 각기모든 부분에도 있지 않다면 전체는 헤태론한 것 **안**
에 필연적으로 있지 않으며 더 이상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렇다면 어떤 부분 안에도 있지 않고 아무 부분 안에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전체로 있는 것이라면 *자신* 안에 **에스틴(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알론**
한 것 안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 알론한 것 안에 또 그 스스
로 안에 하나 전체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는 필연적으로 스스로 **안에**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 반드시 있다 따라서,

이런 자연을 지닌 *하나는* 필연적으로 움직여지고 *쉰다*

스스로 안에 에스틴(있으)므로 어디에서든 *쉰다* 하나 안에 있으면서 이 하나로부터 옮겨가지 않고 동일한 것 안에 곧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일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것은 어디에서든 반드시 항상 쉬고 있다 그러나,

*해태론*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것은 그 반대인 것 다시 말해 동일한 것 안에 결코 있지 않으며 그 동일한 것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쉬지 않는다 그래서 쉬지 않고 그렇게 움직여진다 따라서,

스스로 안에 그리고 *해태론*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그 하나는 필연적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쉰다*⁶¹¹⁾

2611) 이와 같은 맥락의 글이 티마이오스 57e1-58a1(1180-1181)에도 그대로 쓰여진다 움직임을 같은 상태 **안에**(ἐν ὁμολότητι, 57e2, 1180) 어디에서든 결코 있지 않는 반면에 *쉬은*(στάσιν, 57e7, 1182) 같은 상태 안에 있다 라고 거기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단지 여기 동일함 대신에 같은 상태 라는 말이 쓰여진 해도 말이다 그러면서 같지 않는 상태의 원인은 똑 같지 않음이라는 말이 거기에 덧붙혀진다 나아가서,

하나는 움직여지고 *쉰다* 라는 말은 그 하나의 어느 부분은 쉬는 반면 어느 부분은 움직여지는데 그 부분은 하나 전체의 부분이므로 하나는 움직여지고 *쉰다* 라는 말로 받아 들여야 할지 아니면 하나의 동일한 어떤 부분이 움직이면서 동시에 쉬므로 그 부분의 전체인 하나 역시 움직여지고 *쉰다* 라고 받아 들여야 할지 애매하다 하나의 어느 부분이 어느 때에 움직여졌다가 어느 때에 쉬고 있으므로 그 부분의 전체인 하나는 움직이면서 동시에 *쉰다* 라고 덜컥 성급하게 생각하고서 앞을 받아 들였다가는 지금 이 맥락의 파르메니데아스는 부분 자체 또는 전체 자체에 관해 말하고 있지 보이는(ὁρῶμενοις, 135e2, 1325) 감각적인 부분 또는 감각적인 전체에 관해 말하고 있

하나 **에이나이**(있다)가 아니라 하나 **에스틴**(그것이 있다)를 전제한다는 것은 에스틴은 실체(우시아)를 지님 이라는 말을 간략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것이(τις συλλήβδην εἶπη, 142c6-7, 1647)므로 하나 **우시아**(실체)를 전제한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경우의 하나 그 자신에 무엇이 잇따를까를 로고스에 맞게 늘어 놓은 것이 지금 까지의 논증이다 따라서,

에스틴 곧 실체지님이 전제된다 그리고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면’을 나타내기 위해 아마도 파르메니데아스는 에스틴 바로 앞에 ei(142b3, 1667)를 놓았을 것이고 에스틴이 아니라 따라서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디아노이아, τῆ δianoia, 143a7, 1677)안에서 그 실체가 떼어내어진 하나 자체라(εἶναι, 에이나이, 있다)‘면’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 바로 앞에 에이(ei, 137c4, 1605, 만약.....면)를 놓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경우 모두 하나 있음이 전제된다 비록 뒷 경우는 앞 경우와는 달리 그 있음은 실체일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 이제 비로서 **ὄν(있는, 온)**이 그 실체 로서의 있음을 대신(代身)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앞 경우 무엇이 하나 자신에 잇따를 것이다를 논증하는 가운데서도 무수히 온(있는)이 쓰여진다 그러나 자세히 그 맥락을 살펴 보라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 이러 할 것인데 만약 하나 있다면의 경우에는 그러 그러하지 않다 라는 맥락일 것이므로 거기에 쓰여졌다고 해서 그 온이 거기 저 에스틴(에이나이) 하나를 가리킨다고는 볼 수 없으리라 물론 부정(否定)적으로는 가리킬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있음**(에이나이 또는 에스틴) 그리고 **있는(온)** 그리고 **실**

지 않다 라는 반박에 머쓱해 질 것이다 하나(와여럿 또는 전체와부분)의 에이도스에 관해 그리고 있음의 에이도스에(εἶδος, 135e3, 1325)관해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체(우시아)를 구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구분은 **생각**(디아노이아) 안에서만의 구분일 뿐이지 **프라그마**에 있어서의 구분은 아닐 듯하다 지금의 나는 이 셋의 프라그마를 분간(分揀)할 수 없기- 그러나 분간되지 않는다 라고 내가 지금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프라그마에 있어서도 구분이 안된다면 그렇게 구분되어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파르메니데아스에 의해서 말하여질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셋이 진짜 구분되지 않는 한 그렇게 발설(發說)되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있는 것만이 발설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하나가 **실체**를 나누어 지나면 다시 말해 하나 **만약 에스틴(이)면** (하나는 **존재**한다 존재하는 또는) **있는** 하나! 이와함께,

하나는 **실체**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²⁶¹²) 동일하다면 **실체**는 하나로 있어오지 실체로 있어오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닐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며 게다가 **하나 에이나이(있다)**는 **하나 하**

2612) 하나의 자연은 동일한 것의 자연이 아니므로(1619) 하나는 하나 **자신** 또는 스스로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만약 하나 에이나이(있다)면의 영역에서 논증됐다는 것을 상기(想起)하라 그런데,

하나 만약 에스틴(있다)면의 여기 영역에서도 그러할까 비록 거기 하나와는 달리 여기 하나는 실체(우시아)를 지녔긴해도 여전히 **있**(에스틴)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말하여져야 할까 아니면 거기와는 달리 여기 하나는 하나 **자신** 또는 스스로와 동일하다 거기 영역에서는 하나 이면서(öv, 1392, 1620) 하나가 아닐 수 없지만 여기 영역에서는 하나 이면서 하나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야만 할까 글썄.....둘다 맞을 것 같은데!

나와 같을 것이서 굳이 지금처럼 하나 만약 에스틴(있다)를 전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⁶¹³)그래서 하나는 실체와 ~~알론한~~ 것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하나는 ~~부분~~을 지닌다는 것이 논증된다

있음 과 ~~하나~~는 전제되는 저 **있는**하나의 하나 와 있음이므로 있는 하나는 하나 와 있는의 전체이며 하나 와 있는 각각은 이 전체의 부분들이다 그래서 부분은 전체의 부분이며 전체 하나는 부분을 지닌다 나아가서,

부분들 ~~하나~~ 와 **있음**은 서로를 떠날 수 없다²⁶¹⁴)동일한 전체의 부분들이며 그 전체는 부분을 결코 빠트리지 않기 때문이다²⁶¹⁵)그래서 하나 와 있음은 서로를 머금는다($\alpha\pi\omicron\lambda\epsilon\iota\pi\epsilon\sigma\theta\epsilon\nu$, 142e1, 1676)이와함께,

하나는 수적으로 ~~무한히~~ ~~많다~~는 것이 논증된다

2613)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 만약 에스틴(있)다면 하나 자신에 무엇이 잇따를지를 논증한다 만약 하나 만약 하나를 전제해 보라.....하나 하나,

2614) 물론 하나 와 **있음(실체)**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를 떠날 수 없으므로 어떤 것이 하나이면 반드시 있고 있다면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텔레스 역시 형이상학 이오타 편 2 장에서 말하기는한다 무엇 질 량 등의 범주와 결코 나란하지($\pi\alpha\rho\alpha$, 1054a14, 684)않는 있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도 그러한 범주에 상응한다 라고 거기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텔레스는 이러한 ~~하나~~로부터 **실체**를 조심스럽게 떼어낸다(684)하긴 여기 파르메니데아스도 하나를 **실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니 두 사람 모두 같은 맥락에 있다

2615) 자신의 부분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는 전체를 그리고 전체 와 부분은 항상 양자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전의 정의를 상기하라(1658)

서로를 머금지만 동일하지는 않는 이 부분으로부터 다시 서로를 머금은 알론한 부분이 되어진다²⁶¹⁶될 때 마다 항상 *하나*를 머금은 **있는** 부분이 또는 **있는**을 머금은 *하나* 부분이 각각 생겨나면서 말이다 부분 *하나*마다 **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 있는* 여럿²⁶¹⁷’ 이 체,

실체 와 *하나*는 각기 자신에 의해서 서로와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 각기 나누어 지니는 *헤태론함*을 통해서 헤태론한다 서로를 나누어 지닌다면 그렇다 그래서 헤태론 과 **실체** 와 *하나*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실체**도 **있고** *하나*도 있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이것들 각각이 말하여지므로 실체와 *하나*는 *양자적으로*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실체와헤태론 그리고 *하나*와헤태론도 이렇게 실체와 *하나* 처럼 양자적으로 분리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것들은 각각으로 보면 *하나* 라고 분리되지만 양자적인 것으로 보면 둘이라고 분리워진다 이제 이 양자적으로 맞 붙은 것(짝)에(συζυγία, 143d6, 1681)그 부분 *하나* 각각이 놓여지면 셋일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둘은 짝으로 딱 들어 맞는(ἄρτια, 143d8, 1682, 짝)반면 셋은 *하나* 남는다(περιττὰ, 143d7, 1682, 홀) 마침내 홀 짝이 생겨났다 나아가서,

2616)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부분에서 부분으로 갈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 단 부분 *하나* 와 부분 **있음**은 서로를 머금기는해도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데서 갈라지는 그 조짐을 볼 수 있기는 하다 동일하지 않음의 곧 헤태론함의 자연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짐(κατακεκερματισθαι, 257c7, 1539) 이라고 소피스테이스 편에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2617) *하나*만 있다 라고 하는 자들 과 둘 또는 셋 등의 여럿 만이 있다 라고 하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1415-1516을 참조하라 이러한 어려움은 소피스테이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에 의해서 보여진다

둘에 의해서 두 **겹**은 하나에 속하고²⁶¹⁸셋에 의해서 세 겹은 하나에 속한다면 있는 둘에는 반드시 두 겹($\delta\iota\varsigma$, 143e1, 1682)이 있고 있는 셋에는 반드시 세 겹($\tau\acute{o}\ \tau\rho\iota\varsigma$, 143e2, 1682)이 있다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하나* 부분을 머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둘 과 두 겹에는 둘이 반드시 두 번($\delta\iota\varsigma$) 있고 있는 셋 과 세 겹에는 반드시 셋이 세 번($\tau\rho\iota\varsigma$)있다 그래서 **있는**셋과 **있는**두겹에는 그리고 있는둘과있는세겹에는 반드시 셋이 두 번있고 둘이 세 번있다 따라서 짝이 짝에 또 홀에 홀이 또 짝이 홀에 또 홀에 짝이 여러 번 있을 것이다 이렇게하여 모든 수($\acute{\alpha}\rho\iota\theta\mu\omicron\nu$, 144a3, 1683²⁶¹⁹)가 길러내어 진다 그러므로,

하나가 **있다**면 수가 있다 그런데 수가 있다면 여럿이 그것도 무한히 많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한히 많이 **있는 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님이 밝혀졌다 그래서 실체의 부분 역시 무한히 많다 나아가서 이제,

실체는 하나와 떨어질 수 없으므로 하나는 수적으로 무한히 많이 있다 이와 함께,

하나의 *모양*을 지닌다는 것이 논증된다

2618) 속하다는 말 대신에 되다 또는 있다 라는 말이 더 맥락에 맞을 것 같기는 한데.....

2619) 그러나 만약 하나가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가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면 수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 자체는 수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로고스는 파르메니데에스에 의해서 결코 쓰여지지 않았다(1666) 왜 그랬을까 어쨌든,

실체(있음) 와 하나의 양자적인 겹침 으로부터 짝 과 홀이 생겨나고 이 첫 번째 짝(둘) 과 홀(셋)이 각각 과 서로에 겹침으로 말미암아 무한히 많은 수가 생겨난다 물론 생겨나는 수들은 각각 모두 하나 와 있음을 머금으므로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바로 이러한 길을 통해서 수가 생겨난다

부분은 전체의 부분이므로 하나는 전체적으로 한계지워질 것이며 부분은 전체에 의해 둘러쌓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러쌓는 것은 한계를 둘러쌓으므로 그렇다 자! 한계를 지닌 것은 반드시 그 극단을 지닐 것이고 전체라면 시작 과 끝의 극단들 그리고 그 중간-중간은 양 극단에서 똑 같이 멀다 그렇지 않다면 중간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을 반드시 지닐 것이다 이 셋 중 어느 하나만 떨어져도 더 이상 전체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도 이 셋을 다 지닌다 따라서,

곧음 또는 둥금 또는 곧고둥금 등의 모양을 하나는 지닌다²⁶²⁰)이와함께,

하나는 스스로 안에 있고 알려진 것 안에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전체에 의해 반드시 둘러쌓이는 모든 부분 각각은 어디에서든 전체 안에 있지 그 밖에 있지 않으며 그 전체의 모든 부분은 각기 하나이다 하나라는 점에서 어떤 다른 부분 보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도 하나! 따라서 전체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일 것인데 이 경우 모든 것들은 전체에 의해 둘러쌓인 것이므로 하나에 의해 하나가 둘러쌓였다 결국 이미 하나 그것은 스스로 안에 있다 다시 그러나,

실로 전체는 부분 안에 있을 수 없다 첫째, 부분 모두 안에 없다 부분 모두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부분 하나 안에 있지 않다면 더 이상 각기모두(ἅπαν, 145d2, 1688)안에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 그래서 만약 각기모두의 하나가 있고 이 하나 아닌 것안에 전체가 있다면 더 이상 전체는 모두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둘째, 어떤 부

2620) 양 극단 과 중간으로부터 둥금 과 곧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이미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자신에 대해 말할 때 말하여졌다(1658)

분에도 전체는 있을 수 없다 만약 있다면 더 많은 것이 더 적은 것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들 안에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부분 모두 안에도 많은 부분들 안에도 어떤 부분 안에도 있지 않다면 하나 전체는 부분 하나와 헤태론한 것 안에 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어떤 것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도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만약 하나 전체가 있다면 알론한 것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자신 안에는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따라서 모든 부분이 그 안에서 마주 치고 있는 알론한 것 안에 또는 하나 전체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는 필연적으로 스스로 안에도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도 있다²⁶²¹)이와 함께,

하나는 움직이고 쉰다는 것이 논증된다

스스로 안에 있으면 쉰다 스스로로부터 옮겨가지 않고 동일한 것 안에 곧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것은 어디에서든 항상 쉬므로 그렇다 반면에,

헤태론한 것 안에 있으면 그 반대인 것 곧 동일한 것 안에 결코 있지 않을 것이므로 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쉬지 않고 움직여진다 따라서,

스스로 안에 또는 헤태론한 것 안에 항상 있는 하나는 필연적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쉰다²⁶²²)

2621)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의 경우에는 자신 안에든 알론한 것 안에든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다는 논증을 참조하라(1658-1659)

2622) 1659-1660쪽에서 이루어진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는 움직여지지도 쉬지도 않는다 라는 논증을 참조하라

이러한 위 논증을 따라가면 갈수록 *하나*는 **실체**와 **동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와 **실체**는 서로를 *머금는다*는 것 그리고 **실체**와 *하나*는 양자적으로 **있다**(*ἔστιν*, 143c4, 1680)말하여진다는 것이 특 불거져 나온다 그런데,

양자적으로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마도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에 무엇이 잇따르는지를 알려면 그 *하나*는 **실체**와 더불어 **양자적으로 있다**는 것이 어떠한 프라그마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양자임²⁶²³⁾으로부터 서로 머금고 **있음** 그리고 **수의** 무한히 많이 **있음** 등이 필연적으로 잇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는 논증을 이루어 내는 하나의 연결 고리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라고도 약간은 과장해서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하나와실체와 **실체와헤타론**과 **헤타론과하나**의 각기모두는 **양자적으로** **있으므로** 자꾸 자꾸 양자적인 **하나와실체**들이 생겨난다 있는하나의 각 부분들로서 말이다 물론 이 부분들도 다시 양자적으로 **있음**으로 인하며 무

2623) ἀμφοτέρω(143c4, 143c7, 1680, 양자(각각)) 또는 ἀμφω(143c9, 1681, 양자)는 여기 파르메니데아스 편 뿐 아니라 소피스테아스 편을 이해하는 고리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고리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을 음과 양이 **두 가지**라고 말하는 자들이 처하는 어려움과 있는 모든 것을 하나라고 말하는 자들이 처하는 어려움을 꼬집어 내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나아가서 움직임과쉽과 동일과헤타론 이 두 쌍 네 가지가 **있음**을 나누어 지는 길에 관해 말할 때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기 소피스테아스 편*의 양자(적, 243e1 : 1395, 242d10 : 1571) 이라는 낱말이기 때문이며 *여기 파르메니데아스 편*에서는 **실체와하나** **실체와헤타론** **하나와헤타론** 이 각기 세 쌍의 두 가지의 양자임으로부터 **하나****있는**여럿 **수의****있음** 무한히 많음 안에**있는**하나 움직이며쉬고**있는**하나 등이 줄줄이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한히 많은 부분들이 또 생겨나고 자꾸 자꾸 하나의 부분 과 실체의 부분들이 길어내어지고 되풀이된다

양자 둘에 양자 각 하나가 덧 붙혀져 셋이 생겨나나 셋은 양자 보다는 하나 많아 홀인 반면 둘은 양자에 딱 들어 맞아 짝이다 이렇게 하나와실체 이 양자로부터 생겨나 있게 된 짝과홀은 다시 양자적으로 있으므로 짝홀 짝짝 홀홀로 맞 붙어 모든 수가 길러 내어진다 둘에 의해서 두 겹($\delta\iota\varsigma$, 143e1, 1682)이 하나에 속하며 셋에 의해서 세 겹($\tau\omicron\ \tau\rho\iota\varsigma$, 143e2, 1682)이 하나에 속한다면 둘에는 두 겹이 셋에는 세 겹이 있으므로 둘과두겹에는 둘이 두 번 그리고 셋과세겹에는 셋이 세 번 있을 것인데 이것들이 서로 붙어 셋이 두 번 있는 셋과두겹 그리고 둘이 세 번 있는 둘과세겹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수가 남김없이 길러내어진다 그것도 무한히 되풀이되면서 말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있는하나 곧 전체의 부분 하나들이다 따라서 **실체**를 하나가 나누어 지님을 통해 하나가 만약 **있다**면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각각모두 실체를 지닌 하나의 부분이므로 각기 하나 자신일 것이다

이러한 하나가 어떠할지를 파르메니데아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 논증한다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되풀이 했다 이제 여기까지를 마무리하는 차원(次元)에서 저 *하나 자체*에 관한 논증 과 이 **있는 하나**에 관한 여기까지의 논증을 서로 관련시켜 보려한다 먼저,

양자의 논증 각각의 **전제**들을 숙고해 보자

물론 양쪽 모두에서 전제되는 것은 하나'이다' 그러나 저기에서는 하나 있다는 *하나*를 전제하는 반면 여기에서는 하나 있다는 **있다**를 전제 (1329, 1632, 1667)한다 그럼에도 두 곳 모두 그렇게 전제 할 경우의 하나

자신에 잇따라야만($\chi\phi\eta$, 137b4, 1329)하는 무엇($\tau\iota$, 137b4, 1329)을 논증한다
그러나,

하나 있다가의 하나만 전제됐다고 해서 그 하나가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 있다가의 하나로서 저기에 전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를 나누어지니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하나는 존재하는 하나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하나로 하여금 실체를 나누어 지니게 하려면 하나 있다가의 있다가를 전제해야 할 것이다 하나 있다가의 있다가 전제될 경우에 비로소 그 하나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체를 나누어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와 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전제하기 위해서 아마 파르메니데아스편의 파르메니데아스는 전제되는 것 앞에 $\epsilon\iota(142b3 : 1667 : 1706, 137c4 : 1605 : 1706)$ 를 두었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 와 있음 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전제 됐다고 해서 나머지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가 전제되도 있음이 그 하나에 붙고 있음이 전제되도 그 있음에 하나가 붙는다 단 있음이 전제되면 반드시 실체를 나누어 지녀야만 한다 그러기에 있음이 전제될 경우의 그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녀 비로소 여기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하나가 전제될 경우의 그 있음은 실체가 아닐 것이다 있음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있음** 과 **실체**(존재)를 구분한다 **실체**가 어떻게 해서 저 **있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에 관해서는 소피스테아스 편 **의** 있음을 마무리하는 그림인 1573을 참조하라²⁶²⁴⁾다음으로,

2624) 따라서 소피스테아스 편 **의** 소피스테아스 와 파르메니데아스 편 **의** 파르메니데아스에 따르면 존재(있음, Sein, Be) 와 존재자(있는 것, Seinde, Being)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있음**(Essentia, Sein, Be) 과 **존재**(Existentia, Dasein, Existence)가 구분된다 **실체**를 나누어 지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전제로부터 하나 자신에 잇따르는 무엇의 논증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그 두 전제로부터 *부분도 전체도* 지니지않지만 하나는 한 편으로 *부분*을 지니는 *전체*이다는 것이 논증된다

부분은 어디에서건 전체의 부분이며 *전체*는 부분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으므로 만약 하나에 전체와부분이 있다면 양자적으로 하나는 그 양자 각각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는 *양자적일* 것이다 그러나 전체된 그대로 저 하나는 *하나 자체일* 뿐이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따라서 저 하나의 전체도 부분도 있지않다 그러나,

있는 하나 전체는 있는 부분 과 하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있는 하나의 있음 과 하나이므로 부분은 전체의 부분이다 따라서 부분을 지니는 *하나 전체가 있다*²⁶²⁵⁾이와함께,

*무한*하지만 한 편으로 *유한*하다는 것이 논증된다

자신의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면 저 하나는 시작도 끝도 중간도 지니지 않는다 이것들은 그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작 과 끝은 한계들이다 그래서 시작 과 끝을 지니지 않는다면 저 하나는 한계들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무한하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플라톤’ 자신은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구분은 실체에는 있음이 더 또는 덜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으나 그에 따르면 **실체도 있음**만큼 있기 때문이다

2625) 하나 자체 와 하나 전체가 선명히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소피스테이스 편에서도 확인된다(1421)

있는 하나의 부분 있음 과 하나는 각기 서로를 떠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 양자 각각 하나는 다른 하나를 머금는다 그리고 이러한 두 부분으로부터 있음을 머금은 가장 적은 부분 하나가 생겨나고 다시 가장 적은 이 부분으로부터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 부분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부분들이 생겨날 때 마다 있는 부분은 하나를 하나 부분은 있음을 머금기 때문에 하나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양자적이다 그래서 하나는 수적으로 *무한히* 많아진다 나아가서,

있는 하나의 부분은 그 전체에 의해서 둘러싸인다 그 부분 하나는 있는 하나 전체의 부분이고 하나는 전체에 의해 한계지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계지워지면 극단들을 지닌다 시작 과 중간 과 끝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 전체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므로 전체라면 반드시 이 셋을 지니며 중간은 양 극단들과 똑 같이 멀기 때문이다 알론하게 멀다면 더 이상 중간이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있는 전체 하나도 시작 과 중간 과 끝을 지닌다 따라서 *유한*하다 그렇다면,

*하나*는 한 편으로 한계 없이 *무한*하며 숫적으로 *무한히* 많은 반면 한 편으로 한계를 지닌다 곧 *유한*하다 이와함께,

하나에는 *모양*이 없는 한 편 모양이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극단들이 중간에서 모든 방향으로 똑 같이 떨어져 있으면 둥근 반면 극단 양자 앞에(ἐπιπροσθεν, 137e4, 1609)중간이 있으면 곧다 바로 이러한 둥근 또는 곧음을 나누어지녀야 모양을 지닌다 그래서 모양을 지닌다면 반드시 극단들 과 중간을 지녀야 할 것이나 부분을 지니지 않으므로 하나는 극단 양자 와 중간을 지닐 수 없다 따라서 하나에는 모양이 있지않다(1609) 그러나,

있는 하나는 자신의 부분들을 지닌다 그래서 둥글든지 아니면 곧든지 아니면 *둥근과곧음* 이 양자가 섞어진 모양을 지닌다(1687)따라서,

하나는 모양을 지니는 한 편 모양을 지니지 않는다 이와함께,

하나는 어떤 것 **안에**도 있지않는 한 편 스스로 **안에**도 **알론한 것 안**
에도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알론한 것 안에 있다면 자신을 둘러 쌓는 것의의해서 빙 둘러쌓일 것
이며 빙 둘러 쌓는 것의 여러 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접촉할 것이나 부분들
도 지니지 않고 둥글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는 **알론한 것 안에 있지 않다**
나아가서 **자신 안에** 있다면 스스로에 의해서 빙 둘러 쌓일 것이다 그런데
빙 둘러 쌓는 것 과 빙 둘러 쌓인 것은 서로에 헤태론하다 동일한 것이 전
체를 양자적으로²⁶²⁶⁾동시에 빙 둘러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헤태론하다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둘일 것이다 따라서 **하나만** 있다면 그
하나는 스스로 **안에** 있지 않다(1610-1611)그러나,

있는 하나의 부분들은 전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안에**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전체에 의해 빙 둘러 쌓인다 그런데 빙 둘러
쌓여지는 모든 부분 각각은 다른 부분 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는 하나이
나 마찬가지로 전체도 하나이다 따라서 전체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이고 그 전체도 하나라면 그리고 모든 것이 전체에 의해 둘러
쌓여졌다면 하나가 하나에 의해서 둘러 쌓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는
스스로 **안에** 있다 나아가서,

전체는 모든 부분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많은 부분이든 **부분 안에** 있
을 수 없다 첫째, 모든 것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 안에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하나 안에 있지 않다면 더 이상 각기모든 것(ἅπαν, 145d2, 1688-1689
)안에 있을 수 없을 것이므로 그렇다 그래서 각기모든 것의 하나가 있고
바로 이러한 **하나 아닌 것**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전체는 모든 것 안에 있을

2626) 그래서 양자적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논증에 있어 아주 중
요하다

수 없다 둘째, 어떤 부분 안에 전체가 있다면 더 많은 것이 더 적은 것 안에 있을 것이나 그럴 수는 없으므로 전체는 어떤 부분 **안에도** 있지 않다 셋째, 마찬가지로 이 때문에 많은 부분 안에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어떤하나이든 모두이든 부분 안에는 전체 하나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전체는 헤태론한 것 안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나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다면 아무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므로 자신 안에 있지 않다면 전체는 자신과 알론한 것 안에 있어야만한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 **헤태론한 것 안에** 전체 하나는 **있다** 따라서,

있는 하나는 스스로 안에도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도 있다(1689)따라서.

하나는 자신 안에도 있지 않고 알론한 것 안에도 **있지 않는** 한편 스스로 안에도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도 **있다** 이와함께,

하나는 **쉬어왔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는** 한편 **움직이고 쉬고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움직임은 **움아갔음**이든지 **알론하게 뒀음**이다' 이것들만이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스로와 알론하게 되는 하나는 더 이상 하나일 수 없으므로 하나는 더 이상 **알론하게됨의 측면에서는 움직여지지 않는다** 나아가서 옮겨졌다면 **자신 안에서** 등글게 **움아다녔거나** 헤태론한 곳에서 헤태론한 곳을 자리를 바꾸었을 것이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중간을 거쳐서 오가면서 중간 주위로 등글게 옮겨 가는 것은 스스로와 알론한 부분을 지녔을 것이므로 중간을 지니지 않아 그 중간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중간을 필연적으로 거쳐서 중간 주위로 등글게 원을 그리면서 **움아다닐 수 있는** 도구를 지닐 수는 없다²⁶²⁷)그래서 어떤 부분도 지니지 않는 하나는 **움아 다니는 움직임**을 **지닐 수 없다** 나아가서 **자리가 변했다(ἀμείβων, 138d3, 1614)**는 것은 알론하게 뒀다는 것이며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 **안에도**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는 **되어질** 수도 없다 만약 어떤 것 안에서 되어진다면 저 것 안에서도 밖에서도 되어졌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하다면 자신의 부분을 겪는 것만이 저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어떤 부분은 저 것 안에 동시에 어떤 부분은 저 것 밖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부분을 지니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의 **내부에**(ἐντός, 138e4, 1615) 전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것 **밖에** 전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부분과도 전체와도 마주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훨씬 더 **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부분으로도 전체로도 되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 안에 자리를 알론하게 하거나 자신 안에서 자리를 두루 옮기거나 알론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움직임의 측면에서 하나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어떤 것 안에도 **있을 수 없는** 하나는 어느 때이든 **동일한 것** 안에 있을 수 없다 어떤 것 안에 있다면 동일한 것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 그리고 알론한 것과 같은 동일한 것안에 하는 어느 때이든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머무르지도 쉬어왔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는 **쉬어왔지도 않다**(1617)따라서 하나는 쉬어왔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있는 하나는 **동일한 것 안에** 있다 그런데 동일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것은 항상 쉬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쉬고 있다 그러나 **헤테론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것은 그 반대인 것 곧 동일한 것 안에 결코 있지 않으며 동일한 것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쉬지 않는다 그래서 **헤테론한 것 안에** 있는 하나는 쉬지않고 움직여진다 따라서 **스스로 안에** 그리고 **헤테론한 것 안에 있는** 하나는 필연적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쉰다**(1690)

2627) 없다는 있지 않다는 강조일 뿐이다(1560)

이상(以上)에서 논증된 *하나*는 늘 **반대**되는 것을 안에 품는 다는 것이 다음쪽의 도표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	
	하나 자신	있는 하나 자신
전제	(만약)하나(있다면)	하나(만약 있다 면)
실체	지니지않음	나누어지님
여럿으로	없다	있다
전체와부분	없다	있다
한계	없다	있다
수	없다	(무한히 많이) 있다
모양	없다	있다
안과밖에	없다	있다
움직임과정	없다	있다

(1727쪽각주2633번참조)

이 도표는 하나가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경우 와 그렇지 않는 경우 하나 자신에 반드시 잇따르는 무엇에 관해 논증한 것을 다시 정리해 본 것이다 이 표에 나타나는 **없다**는 소피스테이스 편에서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²⁶²⁸⁾ 그리고 여기 파르메니데이스 편에서 앞으로 말하여질 것 처럼 **있음**

2628) 1537-1538쪽을 참조하라 거기 엘레아 낫선이는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과 해태론한 것이라고 쓰여졌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 헤테론한 것일 뿐인 **있지않음**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나아가서,

앞 쪽의 표 안에서의 하나 자체는 있는 하나를 **부정**(否定, 1749)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소피스테이스 편 257e4(1578)에 쓰여진 것 처럼 **부정**은 **반대**가 아니라 단지 서로 **맞섬**을 가리키며 없음은 있음의 반대가 아니라 단지 있음의 부정일 뿐이므로 **없음** 역시 **있음**에 맞설 뿐이다 그래서 있음 과 **헤테론** 과 하나를 나누어 지님과 동시에 있음에 없음이 그 하나 **안**에서 맞서게 되는 것이지 있음의 반대인 없음을 나누어 지님으로서 있는 하나인 것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있는 것 과 없는 것이 서로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있는 것의 부정이 없는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되는 것들은 서로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있지 **않게** 되는 **헤테론**이 동일에 반대된다 따라서 헤테론 과 동일 (146d6, 1724)은 서로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움직임과 쉼** 과 같 음과같지**않음**(1732) 등이 반대(소피스테이스250a8, 1471,모순)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가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자신 안에 이러한 반대(모순)들을 비로서 부정하면서 담고 **있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이제,

이러한 논증을 이어가는 파르메니데이스를 계속 따라가 보자

“ 따라서 스스로 안에(ἐν ἑαυτῷ 146a6-7)그리고 헤테론한 것

지로 여기 파르메니데이스 편 160c5-6(77)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이 되풀이 되어 그대로 나타난다 하나는 있지않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이란 알론한 것과 헤테론한 것이라고 말한다 라고 말이다

안에 항상 있는 그 하나는 필연적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쉬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반드시 스스로에 동일하며 스스로와 **헤테**
론하고 **알론한** 것들과도 그와 같이 동일하며 **헤테론하네** 앞의 것을(π
 $\rho\sigma\theta\epsilon\nu$ 146b1) 겪는다면 [말일세]²⁶²⁹⁾

어떻게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pi\rho\sigma\varsigma$ $\acute{\alpha}\pi\alpha\nu$, b2-3)요러하($\epsilon\chi\epsilon\iota$
146b4)네 **동일**하거나 **헤테론하네** 또는 동일하지도 **헤테론**하지도 **않을**
거라(면) 이(각기모든) 것에 **대한** 그러한 [바로] 이(모든) 것의 [그]
부분이거나 부분에 대한 **전체일** 걸세²⁶³⁰⁾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는 자신의 **부분** 그것인가

2629) 헤테론한 것 안에도 있고 동일한 것 안에도 있으므로 **있는** 하나는 움직이고 쉬다면 이라는 말이다 ‘겪는다’ 라는 말에 너무 긴장할 필요없다 그저 그러한 것(속성)을 겪는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이다

2630)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서 동일하거나 헤테론하든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부분이거나 부분에 대한 전체일 것이다 라고 읽는다면 동일또는부분 과 전체또는부분 등 이 네 가지는 모든 것들이 각기 모든 것에 대해 있는 길이라고 쓰여질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동일하지 않으면 헤테론하고 동일하지도 헤테론하지도 않으면 부분이고 동일하지도 헤테론하지도 부분도 아니면 전체인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해 있음(프로스 티, 관계)에는 동일 과 헤테론 과 부분 과 전체 등 네 가지가 있는 셈인데.....텔레스의 프로스 티에 관해서는 186-200쪽을 참조하시오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부분으로 있지 (않) 듯 (자신의)

부분에 대한 자신의 전체도 아닐 것이네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하나는 하나와 *헤태론*한가

확실히 아닙니다²⁶³¹⁾

따라서 스스로와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네

실로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스스로에 대해 전체도 부분도 *헤태론*하지도 않다면

이미 필연적으로 그것은 스스로에 동일하지(*εἶναι* 146c4)않은가

필연적으로

무엇? 스스로와 *헤태론*한 곳에(*ἐτέρωθεν* 146c5)있는 것이 스스

로와 동일한 것 안에(*ἐν τῷ αὐτῷ* 146c5)있다면 그것은 스스로와 필연

적으로 *헤태론*하지 않은가 *헤태론*한 곳에 있으니 [말일세]

저도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ἅμα* 146c8)*헤태론*한 것 안에 (있

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는 그렇게 지닌다는 것이 보여졌네²⁶³²⁾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한 것 안에 있을(*εἶναι ταύτην ἄν*

146d1) [그러나]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 처럼 여겨지네

여겨집니다

무엇? 만약 자네 *헤태론*한 어떤 것이 있다면 *헤태론*한 것과 *헤*

*태론*할까

필연적으로

2631) 하나의 자연과 **동일**의 자연이 아니라는 말(1619)을 여기에 관련시켜 보라

2632) 145b6 - 145e7(1687-1689, 1717-1718)에서 보여졌다

그렇다면 *하나*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각각모두* 하나와 헤태론하고 하나는 *하나 아닌* 것들과 헤태론하지?

어찌 (헤태론하지) 않으리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할* 것이네

헤태론

따라서 동일한 것 자체(αὐτό 146d5) 와 헤태론한 것 (자체)는 서로 **반대**(ἐναντία²⁶³³)146d6)아닌가

어찌 아니리오

그렇다면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 것 안에 또는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εἶναι 146d7)으려 하겠는가?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헤태론한 것이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지 않다(μηδέποτε 146d8)면 그 안에 *헤태론한* 것이 어떤 **시간**(χρόνον d9) [동안] 있는 *동일한* 것은 어떤 것도 있지 않네 만약 그 안에(τῷ 146e1) 있다면 *헤태론한* 것이 *동일한* 것 안에 저 **시간** [동안] 있을 것이기 때문이네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요

동일한 것 안에는 어느 때에도 있지 않으므로 헤태론한 것은 **있는 것들**의 어떤 것 안에 어느 때도 [있지] 않을 것이네²⁶³⁴)

2633) 움직임과침은 서로에 가장크게 반대된다(1537) 그러나 있지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1537)는 아니다 텔레스의 반대에 대해서는 254, 995, 1008, 1023 등을 참조하고 더불어 1723쪽을 참조하라

2634) 있는 것의 어떤 것 안에도 헤태론한 것은 잠시(暫時)도 있지 않다는 말인가 아니면 동일한 것 안에서만 그러하단 말인가 앞을 인정하고 싶었으나 일시적으로나마 뒤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ἐν ᾧ (146d9)의 ᾧ가 받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앞의 οὐσὲν ὄντων(있는

것들 가운데 그 어떤 하나)인가 아니면 한 줄 위의 τῷ αὐτῷ(동일한 것)인가 ᾧ는 남성 과 중성 단주 3격 관계대명사이므로 자신 앞의 남성 또는 중성을 ᾧ는 받을 것이다 그런데 모두 중성이므로 있는 것이나 동일한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주로 관계대명사는 자신이 받는 것 바로 뒤에 있으므로 ᾧ는 있는 것을 받는다고 보는게 문법적이다 그렇다면 앞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밑 줄(146e1)에 나오는 ἐν ταύτῳ(동일한 것 안에) 라는 구(句)가 속하는 로고스의 주어가 헤태론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ἐν ᾧ가 속하는 로고스의 주어 역시 헤태론한 것이므로 ᾧ를 ταύτῳ와 동격의 것으로 보아 동일한 것을 받는 것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보기로하였다 그렇다면 뒤를 일시적으로나마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하기는 해도 일시적이다 석줄 밑에(146e3)에 동일한 것 안에는 어느 때도 있지 않으므로 헤태론한 것은 있는 것들의 어떤 것 안에(ἐν τινι τῶν ὄντων)어느 때도 있지 않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있는 것들의(가운데) 어떤 것 안에 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는 어떤 것 안에도 헤태론한 것은 잠시도 있을 수 없다 라고 문체의 맥락을 읽어야 할 것이다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은 서로에 반대되므로 동일한 것이 헤태론한 것 안에 다시 헤태론한 것이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도 있지 않다 라고 물론 더 큰 맥락이 읽혀질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

위에서 말하여진 차이는 헤태론한 것은 있는 것 안에 잠시라도 있지 못하는가 아니면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잠시라도 있지 못하는가이므로 헤태론한 것이 그 안에 잠시라도 있지 못하는 문체의 그것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동일한 것인가 하는 차이이다 동일한 것 안에서 그러하다는

따라서 *하나 아닌 것들 안에*도 *하나* 안에도 *헤태론한 것은 있지 않을* 것일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헤태론함에 의해서*²⁶³⁵ *하나*는 *하나 아닌 것들과*($\tau\acute{\omega}\nu \mu$

것은 파르메니데아스 자신에 의해서 딱 부러지게 선언되므로 선명하다 따라서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어느 **시간** 동안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있는 것 안에서도 그러할까 지금의 나는 그러하다고 본다 있는 것들의 어떤 것 안에서도 잠시라도 헤태론한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146e3-4에 직접 나왔기 때문이다 거기 어떤 것($\tau\upsilon\nu$)을 있는 것들 중의 어느 하나로 보아서는 안되고 있는 것들 모두각각($\acute{\alpha}\pi\alpha\nu$, 145d2, 1688, 1711, 각 기모두)로 보아야 할 것이야 어떤 것도 그렇지 않다 라는 맥락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것 뿐 만아니라 **있는** 것 안에서도 **헤태론한** 것은 잠시라도 있지 못한다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있음** 과 **동일**을 하나로 보아서는 **않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다 **있는** 것 과 **동일한**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차이난다는 것은 이미 소피스테아스 편에(1521)서 확인됐긴 해도 말이다 따라서 **있음**은 **동일** 또는 헤태론을 나누어 지닐 수 있긴해도 **있음**이 바로 **동일** 또는 헤태론 이지는 않다 따라서 **있음**은 **동일**을 그 로고스(정의, 定義)에 있어 가리키지도 **않으며** 뜻하지도 **않는다** 바로 이 점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여지껏 약간은 산만(散漫)하게 각주를 달았다

2635) 헤태론의 이데아를 나누어지님을 통해서($\delta\iota\acute{\alpha}$, 255e5, 1523) 아주 큰 **네 가지** 류 곧 움직임과침 과 **있음** 과 **동일**은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 라고 쓰여지는 소피스테아스 편을 참조하라 그런데 파르메니데아스 편 여기에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과 다시 *하나 아닌 것은 하나와 헤태론한 것은 헤태론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쓰여진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비록 *하나*는 에이

ἡ ἐν 146e6)(헤태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 아닌* 것이 하나와
헤태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네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들에 의해서는(ἑαυτοῖς 146e7) 서로 헤태론하지 않을 것
일세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말일세]

어떻게?

만약 자신들에 의해서도(αὐτοῖς 147a1)헤태론에 의해서도 헤태
론하지 않는다면 서로와 헤태론하지 않다는 것을(τὸ μὴ ἕτερά εἶναι
a2)모든 [방향]에서 피하지 않는가?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 *아닌*(μὴ²⁶³⁶)a3)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μετέχε

도스들(소피스테이스129d8, 1249, **중**)가운데 하나 라고 말하여지지만 파르메
니데이스편 거기 아주 큰 **다섯 류**에는 끼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헤태론*은
그 아주 큰 류에 끼어든다 하나는 이러한 아주 큰 류 보다 더 크다는 말인
가.....어쨌든,

지금 나는 크고 적은 류 또는 중의 크고 적음을 지금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헤태론에 의해 류들이 서로 헤태론하다 라고 해 놓고선
여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는 하나아닌 것과 다시 하나아닌 것은 하나와
헤태론한 것은 헤태론에 의해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가를 문제 삼는다 거기
나머지 류들도 있음을 통해 **있고** 여기 *하나*도 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있
는데 말이다 하나 고것이 문제라는 말인가?

2636) **아님**은 알론하다고 폭로함(μὴνύει, 257b10, 1538-1539)이라는 소피스
테이스 편외 엘레아 낫선이의 말에 주목하라 그런데 여기 파르메니데이스는
하나 **아닌** 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은 것이라고 하므로 그렇다면 거
기 와 여기를 합쳐 어떤 것과 **알론**하다고 *아님*이 자신 뒤에 폭로된 것은 자
신과 알론한 문제의 그 어떤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

1 a3)없는 것이네 [하나를 나누어 지냈다면] 하나 아닌 (것)으로 있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로 있어올 것이기 때문이네

진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수가 아닐 것이다 **수를 나누어 지낸다**
(면) 하나 아닌 (것)이 그렇게 모두 모두 있어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
문이다

않았을 겁니다

무엇?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이 하나의 **부분**일까 또는 그렇게
(부분)이라면 하나 아닌 것이(τὸ μὴ ἔν 147a7)하나를 그렇게 나누어
지낼까

나누어 지냅니다(μετείχεiv a8)

따라서 만약 모든 (방향에서) 한 편으로 하나가 있고 다른 한
편으로 하나 아닌 것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 아닌 것들의 부분이 아
닐 것이며 부분들이 아니 듯(ὡς 147b2)전체도 아닐 것이네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들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 서로와 **헤태론**하지도
않는 것들은 서로와 동일한 것들이라고 우리는 말했네

말했습지요

따라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에 대해 그러하므로(ἕχον 147b6)그
것들에 동일하다(εἶvαι b6)라고 (우리) 말할까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스스로와 **헤태론**하며 저(

것이다 다시말해,

있지 않는 것은 실제(있음)을 나누어 지니지 않은 것이요 있음과
알론한 것-헤태론한 것은 아님?에 유의-이며 하나 아닌 것은 하나를 나누
어지니지 않은 것이요 하나와 알론한 것이다 1721쪽의 도표 역시 이러한 것
을 보여준다

알론한) 것들에 그리고 스스로에 동일한 것 처럼 보이네

로고스로부터 감히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ὁμοίον 147c1) 같
지 않을까²⁶³⁷⁾

똑 같이(ἴσως, 147c2, 아마도)[같고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는 것이 보여졌으며
로 알론한 것들은 어디에서든 저(하나)와 헤태론할 것이네

2637) 하나 자체의 경우에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도 않고
같지 않지도 않다는 1620쪽의 옴김 과 1666쪽의 도식을 참조한 후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 않다는 여기를 살펴보라 하나 자체 와 있
는 하나의 경우 모두 자신 또는 스스로와 그리고 헤태론 또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같지 않다는 점에서
하나 자체 와 있는 하나는 일치한다 물론 하나 자체는 같지 않지도 않는 반
면 있는 하나는 같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의 부정을 긍정으로 보아 같은 것을 부정하면 같지 않은 것이
되고 같지 않은 것을 또 부정하면 같은 것이 된다 라고 혹간 여기는 자들에
게는 같지 않음의 많음은 같음일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일치한다 라고 말하
려 할 것이다 그러나 같지 않음의 많음은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의
같음 보다 더 같지 않게 된다는 것을 나는 이미 1572, 1633쪽에 썼다 나아
가서,

하나 자체(1608) 와 있는 하나(1676, 1683)는 무한하다는 점에서도
일치하는 것 같다 라고 이미 쓰여졌으나 그 경우의 무한이 하나자체의 경우
에는 한계없음의 무한인 반면 있는하나의 경우에는 수적인 많음의 무한이라
고 날카롭게 구분되었다

무엇?

그렇다면 알론한 것들이 저(하나)와 (혜태론한) 것 처럼 그렇
게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도 혜태론하네 그것도(καὶ 147c4)더 많지도
않고 더 적지도 않게 [말일세]?

무엇?

따라서 만약 [정도에 있어]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다면 같
을²⁶³⁸걸세
예

2638)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는 자신과도 혜태론한 것보다 같지 않지도
같지 않지도 않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파르메니데아스는 같은 것은 어디에서
든 동일한 것을 겪는다 라고 말하는(1620)반면에 이제 여기의 파르메니데아
스는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는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보다 같으며 같지 않
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는 것이 같은 것이다 라고 덧
붙인다 그래서 거기 와 여기-여기 이후148a3(1732)에서도 거기와 같은 말이
나온다-를 이어보면 동일한 것을 반드시 겪고 있는 같은 것은 더 많지(μᾶλλον
147c5)도 더 적지(ἥττον 147c5)도 않은 것이다 라는 로고스가 나온다 그
러나,

거기 파르메니데아스는 마찬가지로 하나 자체는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않다는 것을 논증하는 가운데 더 많은(πλείονων, 140c8, 1624)또는
더 적은(ἐλαττόνων, 140c8-9, 1624)척도도 지니지 않으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도 알론한 것보다 똑 같지 않지도 않는 반면 동일한 척도도 지니지 않으므
로 똑 같지도 않다 라고 말하면서 더 많음 또는 더 적음 이라는 말을 쓴다
따라서 만약 어떤 자가 이 두 쌍을 곧 말론과에에톤 플레이오노온과에라토
노온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같음 과 똑 같음 역시 구분하지 못하게 될 것이
다 물론 지금의 나도 이 두 쌍의 말을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하나 대충 한
쌍은 질적인 정도(定度)에 있어 많거나 적음으로 한 쌍은 양적인 크기나 그

그렇다면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함*을 겪었듯 그렇게(ὡς αὐτως 147c7)알론한 것들이 저(하나)와 (헤태론함을 겪는) 그러한 (겪음)에 의해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동일함*을 겪었던 것(πέποιθεν 147c6)이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에 동일함을 (겪었던 것들)일 것일세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요것일세 (자네는) 어떤 것에 *결치는*(ἐπι 147d1)이름을 부르지 않는가?

제가

무슨? (자네는) 그(τὸ αὐτὸ 147d2)이름을 여러 번 또는 한 번(ἅ πας d3)말하는가?

제가

자네는 한 편으로 한 번 말할 (때) 저것의 이름인 저(어떤) 것을 부르고 다른 한 편으로 여러 번 말할 (때)는 저(어떤)것이 아닌 것을 (부르는)가 아니면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동일한(ταὐτὸν 147d5) 이름을 발설할 (때) 자네는 동일한 것을 항상 반드시 여러 번 말하는가²⁶³⁹⁾

개수에 있어 많거나 적음으로 구분한다 달리 말하면 뒤의 많고 적음 재어진 결과나온 수치(數值)의 차이를 앞의 많고 적음은 질적으로 동일한 어떤 속성에 있어서의 정도의 차이를 가리키는 것 같다 어쨌든,

하나의 자연 과 동일의 자연이 헤태론하듯 같음 과 똑 같음의 자연 역시 헤태론하다는 것 물론 동일의 자연 과 같음의 자연 역시 헤태론하다는 것은 분명해지는 것 같다 물론 이 넷은 어떤 하나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해도 말이다

2639) 동일한 것을 여러 이름으로 불리워진다고 하는 소피스테이스 편이 엘레아 낫선이를 기억하라(1478) 그리고 1508, 1522, 1396, 1299, 1138, 313,

무엇?

그렇다면 *헤태론*은 어떤 것에 걸치는 *이름*인가?

물론

따라서 그 (*이름*)을 발설할(φθέγγη 147e1)때 마다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저것의 *이름*으로 있어온 저것과 알론한 어떤 것에 걸치는 *이름*을 (자네가) 붙히는 것은 아닐세

필연적으로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헤태론*하며 다른 한 편으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마다 두 번 이상(δὶς.....μᾶλλον 147e4-5)알론한 어떤 것에 걸치는 *헤태론*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저 것에 자연스레 걸치는 *이름*으로 있어온 그 (*헤태론*)을 항상 (우리는) 말한다네

물론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헤태론*하는한 그 자체 알론한 *헤태론*이 *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알론한 것들에 (*헤태론*한) 그(*헤태론*)이 *껴어지*네 그런데 어디에서건 *동일할 것*을 같은 것은 *껴네*(πέπονθός 148a1)아닌가²⁶⁴⁰⁾

예²⁶⁴¹⁾

488, 491, 697, 700. 809, 819 등을 참조하라 거기 1478쪽의 맥락은 여기 맥락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어떤 것이 *이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워진다는 거기 맥락 과 동일한 어떤 것이 동일한 *이름*으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불리워진다는 거기 맥락은 분명히 알론한 맥락이기 때문이다

2640) 1730각주2638번을 참조하라

2641) 아니다가 아니라 그렇다 라는 답이나 의역(意譯) 보다는 일부러 직역(直譯)해 보았다 1688쪽각주2566번을 다시 생각하도록하기 위해서이다

하나가 알려진 것들과 **헤타론**함을 겪고 있는(εἶναι 148a4)한
그 자체 이것은 각기모든 것은 각기 모든 것에 **같을** 것이라는 것이네
각기모든 것이 각기모든 것들과 **헤타론**하기 때문이네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같지 않는 것에 반대**이네

예

그렇다면 그리고 **헤타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반대)**이네

그렇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는 **알려진 것들과 동일하다**는 이것이 보
여졌네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것들에 **동일한 있음**(τό εἶναι 148b2)은 알려진 것들에
헤타론한 있음에 반대되는 **속성**(πράθος 148b1)이네²⁶⁴²⁾

물론

그리고 **헤타론한 같다**는 것이 보여졌네

예

따라서 **같이 하는**(ὁμοιοῦντι 148b5) 속성에 반대되는 속성에 따
라서 **동일한 같지 않을** 결세 **헤타론**²⁶⁴³⁾은 어디에서든 한결같이

2642) 반대되는 것 곧 헤타론 과 동일을 **있음**이 머금음에 유의하라 이러한
쓰임새는 반대되는 것들이 있음을 통해서 묶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
다(1530)**있는 것** 자체가 반대는 아니고 있는 것을 통해 묶어진 그것들이 반
대라는 그리고 있지않는 것은 있는 것에 그리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반대가 아니라 알려진 것이라는 로고스는 파르메니데이스 와 소피스테이스
을 두루 꿰고 지나간다는 것을 항상 엄두에 두라

2643) 따라서 **헤타론**은 어떠한 것을 **반대**(τοῦναντίον 148b4)로 만든다는
것이 여기에서 보여진다 헤타론의 자연은 있는 것을 **있지 않게**하며(1535)전

(ὁμοίου b5)지?

예

따라서 같지 않음에 의해서 동일한 것[이 되네] 그렇지 않으면

(ἢ 148b6) (동일은) 헤태론에 반대가 아닐 것이네

(아닐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 않을 것이네 한 편으로 그(알론한 것들)에 *헤태론함*에 의해서 **같으며** 다른 한 편으로 그(알론한 것들)에 *동일함*에 의해서 **같지않으며** [말일세]

실로 이러한 로고스르를 지닐 것 처럼 보이기(ὡς ἔοικον 148 c3)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고스)도 지니기 때문이네

어떠한?

동일한 것을 겪었던한 알론한 것을 겪지않았으며 알론한 것을 겪지 않았던한 *같지않지* 않고 *같지않지 않는*한(μη ἀνόμοιον, 148c5) *같이있네*(εἶναι c6)²⁶⁴⁴ 그런데 알론한 것을 겪었던한 알론하며 알론하게 있으(면) *같지않게* 있네

(당신은)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동일한 것이고 헤태론한 것이라

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게**하고(1539)같은 것을 **같지않게**한다(1621)는 로고스와 섞어서 이 로고스를 받아드리라

2644) 같지않지 않는한 같다 라는 이 말은 같음을 부정한 같지않음을 다시 부정한 같지않지않음은 같음이다(εἶναι 148c6)는 것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1572에서의 나는 파르메니데에스에 의하면 틀렸다는 말인가 거기서 나는 부정의 부정은 본디 것을 긍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더욱 더 본디 그것으로부터 멀어져간다 라고 했는데.....

(면) 양자적으로 그리고 각기적으로(katà êkásteron 148c8)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같고 같지 않을 것이네

물론

그렇다면 스스로와도 그와같은 것일세 스스로와 헤태론하고 스스로에 동일하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양자적으로 그리고 각기적으로 같고 같지 않다는 것이 보여졌지?

필연

무엇?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접촉된다(ἀπρεσθαί 148d5)와 관련하여 그리고 접촉되지 않는다는 관련하여 어떻게 그러한가(ἐξ εἰ d6)를 숙고하세

숙고하지요

그 하나는 스스로 전체 안에 어디에서든 있는 것으로 보았네²⁶⁴⁵⁾

옳소

그렇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안에도 (있다고 보았는가)

예

따라서 알론한 것들 안에 (있는)한 알론한 것들과 접촉할 것일세 그런데 스스로 안에 그(하나)가 (있는)한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과의 접촉을 막았고(ἀπειργαίτο 148e1)다른 한 편으로 자신과(αὐτοῦ e2) 접촉하면서 스스로(ἑαυτῷ e2) 안에 있을 것이네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접촉했다네

접촉했습니다

요런 무엇? 따라서 연이어진²⁶⁴⁶⁾어떤 것과 접촉하게 될(τὸ μέλ

2645) 1689(142e9)를 참조하십시오

λον 148e5) 모든 것이 반드시 (거기에서) 접촉하게 될 [그리고] 뒤[이
어] 접촉하게 되는 것도 (거기)에 놓여져 동일하게 머금어지는(κατέχο
v 148c6)(바로) 저것에 놓여져야(κείσθαι 148e5)만 하지 않는가?

필연(ἀνάγκη e7)

따라서 하나는 만약 그 (하나)가 자신과 접촉하게 될 거라면
반드시 스스로 뒤에 곧 바로 놓여져 *연이어져야*하네 그 (하나)가 (거
기) **안에** 있는 [그리고] 저(스스로)를 머금은 [그] *자리*(χώραν²⁶⁴⁷)
148e9)을 지니면서 [말일세]

반드시(δεῖ e10)

그렇다면 *하나*가 *둘*이라(면, ὅν, e10)이것이 행하여질 것이며
(하나)가 *두 자리 안에* 동시에 되어졌네 그런데 하나일 것인한 [그러
지] 못할까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에 의해서는 *둘*이지 않은 그 필연에 의해서 그(하
나는) 자신과 [필연적으로] 접촉되지도 않는다네

그 (필연)[!]

그러나 *알론한 어떤* 것들과도 접촉되지 않네

무슨?

접촉될 것은 접촉될 *연이어진* 저것과 *분리해*(χωρῖς 149a5)있
고 (우리는) 말했으므로 그것들 *중간* ((안))에 어떤 세 번째 것도 **있**(ε

2646) 연이어짐(ἐφεξής 148e5)에 대해서는 934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 텔레
스의 형이상학 1063b33에 나온 연이어짐이 그러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이어진 것들의 접촉 과 그 사이들도 그러했다

2647) 옮겨가는 움직임은 헤태론한 자리에서 헤태론한 자리로 그 자리를
바꾼다 라는 1612쪽을 참조하라 거기는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는 움직여
지지도 않는다 라는 맥락에 속한다

ἴνα a6)지 않네

진실

따라서 만약 *이음매*(ἄψις, a7)가 있으려면 반드시 최소한도 둘
이 있어야만 하네

반드시

그 두 경계들에(ὅπου 149a8)에 세 번째 것이 연이어진다면 한
편으로 그것들은 *셋*이며 다른 한 편으로 *이음매*들은 *둘*이네

예

그리고 그렇게 항상 하나가 *덧 붙혀져* *이음매* 하나가 *덧 붙혀*
지네 그리고 수적으로 많은 것들의 *이음매*들은 하나 더 적게 *있다*(εἴ
να 149b4)는 것이 *잇따르네* 첫 번째 둘은 *이음매*들 보다 (하나) 더
많은 결과 모든 *이음매*들 보다 수적으로 똑 같이 [하나] 더 많게 됨
에 의해서 모든 [경계들]이 *이음매*들 보다 수적으로 더 많게 되기 때
문일세 나머지 것(경계)들[에] 수적으로 하나가 *덧 붙혀지*며 하나 *이*
*음매*가 그 *이음매*들에 *덧 붙혀지*므로 [그렇네]

웁습니다

따라서 *있는* 것들이 수적으로(τὸν ἀριθμὸν 149c1-2)있을 때 마
다 항상 *이음매*들은 그 (있는) 것들 보다 하나 더 적다네

진실

만약 *하나*만이 있다면 *두 가닥*(δύας²⁶⁴⁸ c4)은 있지 않을 것이
고 *이음매*도 있지 않을 것이네

어찌 (있겠습니까)

2648) δὐας(149c4, 두 가닥, 뒤아스)을 δις(1709, 두 겹 또는 두 번, 디스)과
비교해 보라 거기에서는 하나 와 홀 짝으로부터 수가 생성되는 것에 관한
맥락에서 디스(두 겹)이 쓰여지는 반면 여기에서는 *이음매*가 있으려면 반
드시 뒤아스(두 가닥)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하나만 있다면 두 가닥은 있
지 않다 라는 맥락에서 뒤아스(두 가닥)이 쓰인다

그렇다면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아니고 그 (하나)를 나
누어 지니지도 않네 만약 알론한 것들이라면 [말일세]

아닙니다

따라서 수도 알론한 것들 안에 있지 않네²⁶⁴⁹⁾ 그(알론한) 것
들 안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말일세]

어떻게? (수가 안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알론한 어떤
수의 이름들도 지니지 않을 것이네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만이 하나이며 두 가닥($\deltaύακ$, 149d2, 두 겹)은 있지
않을 것이네

있지 (않다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이음매*는 둘이 있지 않으(면) 있지 않을 것일세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도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도 접촉

2649) 에스틴 과 온 바로 앞에 안에($\epsilon\nu$)이 붙은 형식을 나는 플라톤의 에이
나이의 특이한 형식으로 보았다 1179(티마이오스57e3, 1180) 과 파르메니테
에스 편 131b2(1263), 139a7(1616) 등을 참조하라 거기들에서는 각기 움직임
은 어디에서든 결코 같은 상태 안에 있지 않으려 하는(1180)반면 씬은 같은
상태 안에 있으려 한다(1182)라는 그리고 하나는 자신 안에도 알론한 것들
안에도 곧 동일한 것들 안에 있지 않다(1616)라는 그리고 여럿 안에 에이도
스 전체가 동시에 있다면 에이도스 자체가 분리될 것이다(1263)라는 맥락에
서 쓰인다 나아가서 파르메니테에스 편 145d4(1688) 과 1462각주2351(소피
스테에스249a6)번을 참조하시오 소피스테에스 편 거기에서는 움직임 안에
누우스 와 생명 이 양자가 있다면 움직임은 영혼 안에서 그 누우스 와 생명
을 지닌다 라는 맥락에서 쓰인다

하지 않네 *이음때*가 있지 않으므로 [그렇네]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스스로들과 접촉하고 접촉하지 않네

[그런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똑 같고(*ἰσοο*²⁶⁵⁰) 149d8) 똑 같지 않네

어떻게?

만약 하나가 또는 알론한 것이 더 크거나 또는 더 적다면 또는 다시 알론한 것들이 하나 보다 더 크거나 또는 더 적다면 따라서 하나는 하나이고(*εἷναι* 149e2)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알론한 것들이라는 것에(*τῶν* e2)의해서는 [곧] 그러한 그것들 **실체들**에 의해서는 서로 보다 더 큰 것이지도 더 적은 것이지도 아니지 않는가²⁶⁵¹) 그러나 만약 한 편으로 그렇게 대해 있는 각기 것이 똑 같음을 지닌다면 서로에 대해 똑 같을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 크기를 다른 한 편으로 적음

2650) 이 즘해서 1666쪽의 도식을 살펴보라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자신에 대해 잇따르는 것들을 그리는 그 도식에서는 유독 같음 과 똑 같음의 경우에만 부정의 부정이 나타날 것이다 알론한 경우들에서는 단지 부정만이 나타나지만 말이다 하나 만약 있다면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1721쪽의 도표에 나타났듯이 이 전까지의 경우들에서는 단지 긍정만이 있을 뿐 부정이 하나도 없었으나 같음 과 접촉 과 똑 같음의 경우에만 긍정과 더불어 그 긍정의 부정이 나타날 것이다

부정의 부정에 대해서는 1572 와 1734쪽을 참조하라

2651) 여기 있는 어떤 것(실체, 존재)들도 저 있음 보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고 그리고 저 있음은 여기 있는 어떤 것(실체, 존재)들 보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다는 1573쪽을 참조하라

을 (지닌 것들이라)면 한 편으로 하나가 크며 다른 한 편으로 알려진 것들이 적은 것들일 것이고 한 편으로 둘 중의 어느 하나의 에이도스에(ὁποτέρῳ τῷ εἶδει 149e7)크기가 더해지면(προσειν e7)클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 적음이 (더해지면) 더 적을 것인가²⁶⁵²⁾

필연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에이도스(εἶδῃ 149e9) (곧) 크기와 적음이 있어야 하는가 어디에서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에이도스들은 서로에 반대로 있지 않을 것이네 있는 것들 안에서(ἐν τοῖς οὖσιν 149e10-11)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네

어찌 (있지) 않으리오

따라서 만약 *하나* 안에서 적음이 되어진다면 그 (하나의) 전체 안에서 또는 그 하나의 부분 안에서 되어질 것이네

필연

만약 *전체* 안에서 되어진다면 무엇? 그 (하나)의 전체를 통해 똑 같이 그 하나에 (두루) 퍼졌을 것이거나 그 하나를 둘러쌓을(περιέχουσα 150a4)것이 아닌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똑 같이 (하나에 두루 퍼졌) 있다(οὔσα, 150a5)(면) 적음은 그 하나에 똑 같을 것이며 한 편으로 둘러쌓는다(면) (그 하나 보다) 더 크지 않겠는가

어찌 안 그러리오

그러나 적음이 그 **있음**에 의해서(τῷ εἶναι 150a7)(어떤 것과)

2652) 에이도스가 분리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에이도스를 여럿에 걸친 하나로서 나누어 취한다면 에이도스의 부분을 지닐 것인데 그러하다면 적음 그 자체의 경우 적음의 부분을 나누어 취할 터인데 이러할 경우 적음 그 자체는 그 적은 부분 보다 클 것이라는 어려움 곧 적음이 크게된다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라고 하는 파르메니데아스를 참조해 보라(1267)

똑 같거나 어떤 것 보다 클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크기 와 똑 같은의 [일을] 수행할(πράττειν a8)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 전체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만약 (있
다면) *부분* 안에 (있을 것일세)

예

다시 *모든 부분* 안에 (적음) 있지는 않을 것일세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체*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과 같은 동일한 것들이 만들어질
걸세 [곧] (적음이) 그 안에 항상 있을 *부분의 같음*이거나 (부분의)
보다 *큼*일 걸세

필연

따라서 **있는** 어떤 것들 안에도 어느 때든 *적음*은 있지 않네
(적음이) *부분* 안에서도 *전체* 안에서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네]
그런데 어떤 것도 *적음 자체*이 없이는(πλὴν 150b7)적지 않을 것일세
않는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크기*도 그 (하나)것 안에 있지 않네 (어떤 것이) 더 크
다면 *크기 자체*(αὐτοῦ μεγέθος, 150c1, 크기 그것)이외에도 그 크기가
그 안에 [들어] 있을 저 (알론한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크
기가) 필연적으로 초과해야(ὑπερέχειν, c2, 超過)하는 *적음* 자체가 그
(알론한 어떤 것 안)에 **있지 않아야**(ταῦτα μικροῦ.....οὐκ ὄντος c1)
할 것이나 이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이네 *적음*(αμικρότης c3)이 어떠한
하나에도 있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네]

진실

그러나 *크기 자체*는 *적음 자체*(αὐτῆς αμικρότης 150c5)와 알론
한 것 보다는 크지 않고 *적음* (*자체*)는 *크기 자체*와 알론한 것 보다
는 적지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더 크지도 더 적지도 않네 크
기도 적음도 지니지 않는다(면)²⁶⁵³[말일세] 하나에 대해서 그렇고 이

렇게 초과하고 초과될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크기 와 적음은?] 서
로에 대해 지니[므로 그렇네] 다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렇게
더 크지도 적지도 않네 크기도 적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그렇네]

그렇다면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가 알론한 것들²⁶⁵⁴보다 더 크지도 더 적지도
않다면 필연적으로 그(하나)는 저(알론한) 것 보다 초과하지도 초과
되지(ὑπερέχει²⁶⁵⁵150d6)도 않을 것이네

필연

2653) 여지껏 쓰인 (면)은 현재 능동 또는 수동 분사를 나타낸다 여기 ἔχον
τα(150c7) 처럼 말이다

2654) 따라서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파르메니데아스에 의해서 쓰여지는 알
론한 것들(τῶν ἄλλων, 150d5)은 알론한 에이도스 여기서는 큼 과 적음 과
똑 같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물론 그러한 이
데아를 나누어 지니는 [감각적인 어떤] 것들도 그 다음으로 가리킬 것이기
는 해도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리켜짐은 감각적인 어떤 것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것이 나누어 지니는 에이도스를 직접 가리키다 보니 그 에이도스
를 지닌 감각적인 것(개물(個物))이 잇따라 더붙어서 가리켜지는 것일 것이
다 그렇다면 하나와 알론한 것은 하나 이외의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이 선
명해질 것이다(1155, 1237각주2024, 1234각주2019, 6, 37, 1141각주1863, 1156
)

2655) 어떤 것이 어떤 것 보다 더 위대하거나 왜소하거나 또는 위대(偉大)
해지거나 왜소(矮小)해지다 또는 어떤 것이 어떤 것을 극복하거나 어떤 것
이 어떤 것에 의해서 극복(克復)되다 등으로 변용(變容)하여 말하여질 수
도 있을 법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초과하지도 초과되지도 않는 여러(πολλή d7)것은 똑
같음으로부터 있네 똑 같음으로부터 있다(면, ὅν, d8) 똑 같음이 있다
(εἶναι d8)네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그리고 *하나 자체*(αὐτό τὸ ἐν 150e1)는 스스로에 *대해* 그러한
상태라네(ἔχου, e1)스스로 **안에** 크기도 작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스
스로 보다 초과했지도 초과하지도 않을 것이네 그러나 [그렇다면] (스
스로에) 똑 같음으로부터 있(으므로, ὅν²⁶⁵⁶, e3) 스스로에 똑 같을 것

2656) 분사형을 옮길 때는 우선 ‘.....하는 또는.....인’ 등으로 부드럽게 옮겨
본 후 여의치 않으면 1741쪽각주2653번에 쓰여진 것 처럼 ‘...이면’ 으로 옮
겨보든지 아니면 ‘.....이므로’ 또는 ‘.....한 후에’ 또는 ‘.....할 때’ 등으로 옮겨
보라 이런 모든 옮김을 담는 우리말은 아마 ‘.....하면서.....’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보통 분사형이 쓰인 부문장(副文章)의 동사의 분사형을 부문장
이 거기에 걸리는 주문장(主文章)의 동사와 별다른 매개하는 뜻 없이 바로
이어 버린다 (‘부문장의 동사)인(주문장의 동사)’ 그러면 이 두 가지 동사가
자연스레 합하여진다 그러나 자연스럽지 못하고 무엇인가 이어주는 뜻이 필
요할 경우에는 ‘하면’ 또는 ‘한 후에’ 또는 ‘하므로’ 또는 ‘하면서’ 등을 덧 붙
혀 본다 그러면 대개 그 두 동사가 통한다 여기 ὅν(150d8, **있는**) 과 εἶναι
(150d8, **있다**)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는 부문장의 ‘동사’ 분사형인 반면 다른
하나는 주문장의 부정형(不定形)‘동사’이기 때문이다 그냥 ‘똑 같음으로부터
있’는 ‘똑 같음 (하나) 있음’이라고 이어주면 훨씬 더 한글을 쓰는 우리에게
더 부드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므로’ 라는 매개하는 뜻을 그 분사형
에 덧 붙혀 보았다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일이지는 해도 말이다

너무 어떤 낱 말의 형식에 얽메이면 오해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이러
한 각주를 달았다 아마 오해하게 되면 있는 것(존재자) 과 있음(존재)의 구
분에 너무 집착하여 필요 없는 책을 그 누구 처럼 헛지어 낼 수도 있을 것

일세

물론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똑 같을 것이네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주위 바깥에 있다면(ἄν εἴη 150e6)그리고 한 편으로 둘러쌓는 것은 스스로 보다 크며 다른 한 편으로 둘러 쌓여지는 것은 더 적다(면) 이렇게 *하나 자체*는 스스로 보다 더 크고 더 적을 것이네

같기 때문이다 진짜 있음을 ‘망각’할 것이므로 [그렇다] 그러나

부정형(不定形) 에이나이(있음) 와 남성 분사형 온(있는, ὄν)으로부터 여성 분사형 **우시아(ούσια, 실체)**를 너무 심각하지 않게 구분해 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훗날의 철학사가 보여 주듯이 실체 라는 낱 말을 통해서 어찌 보면 과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이 요동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 있음(1542)으로부터의 실체의 *분리* 그러나 저 있음 보다 더 있지도 덜 있지도 않은 실체 그러나 저 있음을 부정함으로서 저 있음으로부터 벗어나 온 있음 으로서의 실체 바로 이 **실체**를 텔레스는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1074)이러한 실체에 고유한 것은 바로 *분리* 와 *이것*(τὸ χωριστὸν καὶ τὸ τὸδε τι, 형이상학1029a28, 198)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말이다 물론 반대들(τῶν ἐναντίων, 범주들4b4, 184)이 자신에 속하는 것은 고유한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훗 날 라틴어의 essentia(본질) 와 existentia(존재)의 구분 그리고 독일어 Seinde(있는 것) 과 Sein(있음) 또는 Sosein(그렇게있음) 과 Dasein(지금거기있음, 현존재) 그리고 영어의 Being(있는 것) 과 Existence(존재) 과 Essence(본질)의 구분 맥락을 바라 보면 어느 정도 왜 오늘 날의 존재가 비참하게 몰락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 [곧]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ἐκτὸς 151a3)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것이지?²⁶⁵⁷⁾

어찌 않으리오

그러나 그리고 **있는**(τὸ ὄν 151a4-5)것은 항상 어디에서든 **있네** (εἶναι a4)

예

그렇다면 (어떤) 것²⁶⁵⁸⁾(τῷ a5)**안에** 하나가 있다(면) 더 큰 것 **안에** 있으(면서) 더 적은 것이네 **헤태론한 것 안에 (있을 것이)** 헤태론한 것[과] 알론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²⁶⁵⁹⁾

2657) 이 글월은 1151쪽에 이미 옮겨졌었다 하나 와 알론한 것이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라는 로고스를 이끌어 내는 저 곳에서 말이다

2658) 지금 까지의 나의 옮김 과 요약 과 정리에 나타나는 ‘**것**’은 우선적으로 τὸ τι(237d1, 1361)을 옮긴 것이며 그 다음으로 여기처럼 관사-헬라어에 는 영어 등의 부정관사(不定冠詞)는 없다- τὸ(것)를 옮긴 것이다 내가 플라톤의 책 세 권(티마이오스와소티스테아스와파르메니데아스) 과 텔레스의 책 두 권(범주들과형이상학)을 옮기면서 요약하고 정리(각기 세 번씩 되풀이됨) 하는 가운데 아주 어려웠던 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 정관사 토(τὸ)이다 홀로 쓰여지는 1격 과 2격 과 4격은 어느 정도 옮기기 쉬었으나 3격 토오(τῷ 또는 τῶ)는 옮기기 아주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일일이 문제의 그 관사 3격이 두드러지게 어느 문맥에서 나타날 때에는 각주를 달았다 (903, 893, 909, 910, 915, 923, 947, 1679, 1618, 1729) 각주를 달지 않는 곳에서는 τῶ를 괄호 안에 따로 써 두면서 말이다

2659) (헤태론한) 큰 것 안에 (헤태론한) 적은 것이 있을 것인데 이 적은 것은 자신이 그 안에 들어 있는 큰 것과 헤태론하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헤

아닙니다

그런데 헤태론한 어느 것도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하나와 분리* 해 있지는 않으며 이것들(하나 와 알론한 것들)은 반드시 어떤 것 안에 있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 안에 그리고 하나는 알론한 것들 안에 있듯 이미 서로 안에 필연적으로 있지 않은가 아니면 어느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 아닌가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안에* 있으므로(ὅτι 151b3) 그 (하나)를 둘러싸는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큰 한 편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작으며 *알론한 것들은 하나 안에 (있으)므로*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큰 반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작을 것이네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 그것(αὐτό 151b6)은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똑 같고 더 크고 더 작네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더 크고 더 작고 똑 같다면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똑 같은 척도들 과 더 많은 **척도들** 과 더 적은 척도들의 (하나) 일 것이네 그런데 **척도들의 (하나)라면 부분들의 (하나) 일 것이네**(2660)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똑 같은 척도들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척도)들의 그리고 더 적은 (척도)들의 (하나) [라면] 그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수적으로*(ἀριθμῶ 151c3) 더 적으며 더 많을 것이고 그리

태론 안에 있는 것은 헤태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양적인 차이도 헤태론의 일 종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2660) 척도들(μέτρων) 만큼의 부분들 이라는 140c9(1624)를 참조하라

고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κατὰ ταῦτα c4-5)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똑 같을 것이네

어떻게?

더 큰 만큼(ὄνπερ c5) 어디에서든 그것도 척도들 만큼의(ὅσων c6)부분들 (만큼의) 그러한 더 많은 척도들의 (하나)일 것이며 더 적은(만큼) 그와 같을 것이고 똑 같다(면) 그와 같이(κατὰ ταῦτα 151c7) (똑 같은 척도들의 하나일 걸세)

그렇게

그렇다면 스스로 보다 더 크고 더 작고 똑 같이 있다(면) 자신에 똑 같은 척도들의 그리고 더 많은 (척도)들의 그리고 더 적은 (척도)들의 그리고 척도들의 (하나²⁶⁶¹)이므로 부분들의(μερῶν 151d1)(하나일) 거지?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따라서 자신에 똑 같은 부분들의 (어떤 것)이라(면) 자신에 (수적으로) 똑 같이 많을 걸세 더 많은 (부분들의 어떤 것이면) (자신 보다 수적으로) 더 많을 것이며 더 적은 (부분들의 어떤 것이면) 자신 보다 수적으로 더 적을 걸세

선명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와같을(ὡσαύτως ἔχει 151d5)것이지? 그래서 한 편으로 그 (알론한) 것들 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그(알론한) 것들 보다 수적으로 더 많이 있고 다른 한 편으로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그 알론한 것들 보다 수적으로) 더 적게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크기에 [있어] 똑 같이 (나타나므로 필연적으로) 알론한 것에 똑 같이 많은 (τὸ πλῆθος 151d7-8)것이지?

2661) 하나 보다는 차라리 어떤 것이 더 적절한 듯 싶으나 어쨌든 지금 이 맥락에서는 하나가 문제시 되므로 하나라고 하였다

필연적으로

다시 이렇게 하나는 (그) 자체(αὐτό 151e2) 자신과 그리고 알론
한 것들과 수적으로 똑 같고 더 많고 더 적을 것이네

[그]럴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 그것(자체)는 스스로보다 그
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더 짧고 짧게되며 더 높고 높게되며 그리고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더 짧지
도 더 높지도 않게 되지?

어떻게요? (146a9 - 151e2) ”

라는 인용글월에서는 있는 하나란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각각 동일하며 ~~해태론하고-동일하지 않고-~~ 같
고 같지~~않으며~~ 접촉하며 접촉하지 ~~않고~~ 더 크고 더 크지 ~~않으며~~ 더 작고
더 작지 ~~않고~~ 더 많고 더 많지 ~~않으며~~ 더 적고 더 적지 ~~않고~~ 똑 같고 똑
같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은 1470-1471에서 이루어진 논증 곧 하나는 스스로 안에
도 해태론한 것 안에도 있으며 움직이고~~준다~~는 논증²⁶⁶²에 이어지는 논증이
다 이제,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하나 안에 있는 반대가** 드러난다는 것에 그리

2662) 물론 이러한 논증은 하나의 **실체(존재, 있음)**가 전제될 때 하나 그
자신과 관련해 이루어지는 논증이다 하나가 **존재**해야 하나는 **여럿으로** 있
으며 **과 전체와부부으로 있고** 수적으로 **무한히 많이** 있으며 **둥글고 곧게** 있
고 와 **안과밖에** 있으며 **움직이며쉬고 있다**는 등 등에 관한 논증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 그 반대는 아마 *하나* 자신이 스스로를 부정함에 의해서 드러나며 그러한 부정은 하나가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기 때문에(1680)일어 난다는 것에 뼈속 긴장하는 나를 더 긴장하게 하는 것은 **있는** 또는 **존재**하는 *하나*의 이러한 **자기 부정**은 바로 있는 하나의 이러한 자기 부정을 다시 부정하는 하나 자체의 그 **부정**(1722)과는 구분되는 부정인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러하다면 부정은 있는 하나의 부정 과 이러한 부정의 부정(1572)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다시 옮겨가며 그러한가를 확인해 보기로 하자

따라서 스스로 **안에** 그리고 헤태론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그 *하나*는 필연적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쉬네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반드시 스스로에 동일하면 스스로와 헤태론하고 알려진 것들과도 그와같이 동일하며 헤태론하네 앞의 것을 겪는 다면 말일세 - 어떻게 -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 요러하네 동일하거나 헤태론하네 또는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을 것라면 그렇게 각기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의 부분이거나 부분에 대한 전체일 걸세 - 선명해집니다 - 따라서 *하나* 그것은 자신의 부분인가 - 결코 아닙니다 - 따라서 그것은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부분으로 있지 않듯 자신의 부분에 대한 전체도 아닐 것이네(2663) -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하나*는 *하나*와 헤태론한가 - 확실히 아닙니다 - 따라서 스스로와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네 - 실로 아님

2663) 있는 *하나*는 전체 와 부분에 양자적인 것이라는 1675쪽각주2575번을 참조하라

니다 - 만약 그것이 스스로에 대해 그 전체도 부분도 헤태론하지 않다면 이미 그것은 필연적으로 스스로에 동일하지 않는가 - 필연적으로 - 무엇?

스스로와 헤태론한 곳에 있는 것이 스스로와 동일한 것 안에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와 필연적으로 헤태론하지 않은가 헤태론한 곳에 있으니 말일세 - 저도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헤태론한 것 안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는 그렇게 지닌다는 것이 보여졌네 - 보여졌습니다 -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한 것 안에 있을 그러나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 처럼 보여지네 - 여겨집니다 - 무엇?

만약 자네 헤태론한 어떤 것이 있다면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할까 - 필연 - 그렇다면 하나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각각모두 하나와 헤태론하고 하나는 하나아닌 것들과 헤태론하지? - 어찌 헤태론하지 않으리로 -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할 것이네 - 헤태론 - 따라서 동일한 것 자체 와 헤태론한 것 자체는 서로 반대 아닌가 - 어찌 아니리오 - 그렇다면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 것 안에 또는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으려 하겠는가²⁶⁶⁴) - 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만약 헤태론한 것이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지 않다면 그 안에 헤태론한 것이 어떤 시간 동안 있는 동일한 것은 어떤 것도 있지 않네 만약 그 안에 있다면 헤태론한 것이 동일한 것 안에 저 시간 동안 있을 것이기 때문일세 - 그렇지 않은가 - 그렇지요 - 동일한 것 안에는 어느 때도 있지 않으므로 헤태론한 것은 있는 것들의 어떤 것 안에 어느 때도 있지 않을 것이네 - 진실 - 따라서 하나 아닌 것들 안에도 하나 안에도 헤태론한 것은 있지 않을 것일세 -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헤태론함에 의해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들과 헤태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 아닌 것이 하나와 헤태론할 수 있는 것

2664) 그렇다면 여기 파르메니데에스에 따르면 반대인 것들은 서로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

도 아니네 - 아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들에 의해서는 서로 헤태론하지 않을 것일세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말일세 - 어떻게 - 만약 자신들에 의해서도 헤태론에 의해서도 헤태론하지 않는다면 서로와 헤태론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방향에서 피하지 않는가 - 피합니다 - 그러나,

하나 아닌 것은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는 것이네 (하나를 나누어 지냈다면) 하나 아닌 것으로 있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로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네²⁶⁶⁵) - 진실 -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수가 아닐 것이다 수를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 아닌 것은 결코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 았았을 겁니다 - 무엇?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이 하나의 부분일까 또는 그렇게 부분이라면 하나 아닌 것이 하나를 그렇게 나누어 지닐까? - 나누어 지닙니다 - 따라서 모든 방향에서 한 편으로 하나가 있고 다른 한 편으로 하나 아닌 것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 아닌 것들의 부분이 아닐 것이며 부분들이 아니 듯 전체도 아닐 것이네 - 아닙니다 - 그러나 부분들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며 서로와 헤태론하지도 않은 것들은 서로와 동일하다고 말했네 - 말했습지요 - 따라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에 대해 그러하므로 그것들에 동일하다 라고 말할까 - 말합니다 -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²⁶⁶⁶과 그리고 스스로와 헤태론하며 저 알론한 것들에 그리고 스스로에 동일한 것 처럼 보이네 - 로고스들로부터 감히 선명해 집니다 - 따라서,

2665) 하나의 부분들도 하나요 그래서 하나있는여럿 과 전체있는부분 이 모든 것은 하나인 반면 하나 아닌 것은 부분도 전체도 여럿도 하나도 아닐 것이다

2666)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알론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 처럼 보인다* 하나가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어 하나 아니게 ‘된’ 것이 바로 알론한 것들 이라는 말이다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 않을까 - 아마도 - 어쨌든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어디에서든 저 하나와 헤태론할 것일세 - 무엇? - 그렇다면 알론한 것들이 저 하나와 헤태론할 것 처럼 그렇게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도 헤태론하네 그것도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말일세 - 무얼 - 따라서 만약 (정도에 있어)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다면 같을 걸세 - 예 - 그렇다면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함을 겪었듯 그렇게 알론한 것들이 저 하나와 헤태론함을 겪는 그러한 겪음에 의해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동일함을 겪었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에 동일함을 겪었을 것일세 -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 요것일세,

자네는 어떤 것에 걸치는(ἐπι, 147d1, 1732)이름을 부르지 않는가 - 제가 - 무슨? 자네는 그 이름을 여러 번 또는 한 번 말하는가 - 제가 - 자네는 한 번 말할 때 저것의 이름인 저 어떤 것을 부르는 한 편 여러 번을 말할 때는 저 어떤 것이 아닌 것을 그 이름으로 부르는가 아니면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동일한 그 이름을 발설할 때는 자네 동일한 것을 항상 반드시 여러 번 말하는가 - 무얼 - 그렇다면 헤태론은 어떤 것에 걸치는 이름인가 - 물론 - 따라서 그 이름을 발설할 때 마다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자네가 이름을 붙히는 것과 알론하지 않는 어떤 것과도 알론한 것이 아니고 또는 저것의 이름으로 있어온 저것과도 알론한 것이 아닐세 - 필연 -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헤태론하는 한 편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마다 두 번 이상 알론한 어떤 것에 걸치는 헤태론을 말했다던 것이 아니라 저것에 자연스레 걸치는 이름으로 있어 온 그 헤태론을 항상 말하네 - 물론 -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헤태론하는한 그 자체 알론한 헤태론이 겪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알론한 것들에 헤태론한 그 헤태론이 겪어지네 그런데 어디에서건 동일한 것을 같은 것은 겪네 아닌가? - 예 -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함을 겪고 있는한 그 자체 이것은 각기모든 것이 각기모든 것에 같을 것이라는 것이네

각기모든 것이 각기모든 것과 헤테론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네 -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러나 같은 것은 같지 않는 것에 반대이네 - 예 - 그렇다면 그리고 헤테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반대이네 - 그렇지요 -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동일하다는 이것이 보여졌네 - 보여졌습니다 - 알론한 것들에 동일한 있음은 알론한 것들에 헤테론한 있음의 반대되는 속성(πρόσ, 148b1, 1733, 꺾음)이네 - 물론 - 그리고 헤테론한한 같다는 것이 보여졌네 - 예 - 따라서 같게하는 속성에 반대되는 속성에 따라서 동일한한 같지 않을 결세 이러한 속성은 어디에서든 한결같이 헤테론이지 - 예 - 따라서 같지 않음에 있어 동일하네 그렇지 않으면 동일은 헤테론에 반대가 아닐 것이네 - 아닐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 않을 것이네 그 알론한 것들에 헤테론함에 의해서 같은 한편 그 알론한 것들에 동일함에 의해서 같지 않으면서 말일세²⁶⁶⁷) - 실로 이러한 로고스를 지닐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로고스도 지니네 - 어떠한? - 동일한 것을 꺾었던한 알론한 것을 꺾지 않았으며 알론한 것을 꺾지 않았던한 같지않지 않고 같지않지 않

2667) 동일함을 꺾음에 의해서 같지 않은 반면 헤테론함을 꺾음에 의해서 같다 라는 로고스가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파르메니데아스의 존재론을 이루는 로고스들 가운데 아주 주요한 로고스들 가운데 하나인 듯 하다 자기 부정(否定)에 관한 로고스이기 때문이며 부정된 것 곧 있지 않는 것은 역시 있지 않는 것 만큼이나 그의 존재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한 부정이 위 로고스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로고스는 하나란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동일하며 헤테론하다는 로고스를 근거로한다 물론 이러한 근거 로고스에서도 부정이 드러나긴한다 동일 과 헤테론 양자가 서로를 하나 그 안 과 밖에서 부정하기에 하나는 동일하며 헤테론하기 때문이다

는한 같게있네 그런데 알론한 것을 겪었던한 알론하며 알론하게 있으면 같
지않네 -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동일한 것
이고 해태론한 것이라면 양자적으로 그리고 각기적으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과 같고 같지않을 것일세 - 물론 - 그렇다면 스스로와도 그와같은 것일세
스스로와 해태론하고 스스로에 동일하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양자적으로
그리고 각기적으로 같고 같지 않다는 것이 보여졌지? - 필연 -

무엇? -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접촉되며 접촉되지 않는
다와 관련하여 어떻게 그러한가를 숙고하세 - 숙고하지요 -

그 하나는 스스로 전체 안에 어디에서든 있는 것으로 보았네 - 옳소
- 그렇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안에도 있다고 보았는가 - 예 - 따라서 알
론한 것들 안에 있는한 알론한 것들과 접촉할 것일세 그런데 스스로 안에
그 하나가 있는한 알론한 것들과의 접촉이 막힌 채한 편으로 자신과(αυτού,
148e2, 1736)접촉하면서 스스로(ἑαυτῷ, 14 8e2)안에 있을 것이네 - 선명해
집니다 - 이렇게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접촉했다네 - 접촉
했습니다 - 요런 무엇?

따라서 연이어진 어떤 것과 접촉하게 될 모든 것이 반드시 거기에서
접촉하게 될 그리고 뒤 이어 접촉하게 되는 것도 거기에 놓여져 동일하게
머금어지는 저것에 (연이어 접촉하게 될 모든 것은) 놓여져야만 하지 않겠
는가 - 필연 - 따라서 하나는 만약 자신과 접촉하게 될 것라면 반드시 스
스로 뒤에 곧 바로 놓여져 연이어져야만 하네 그 하나가 거기 안에 있는 그
리고 저 스스로를 머금은 그 자리를 지니면서 말이네 - 반드시 - 그렇다면
하나가 둘이어야 이것이 행하여질 것이며 두 자리 안에 동시에 되어질 것이
네 그런데 하나일 것인한 그러지 못할까 - 못합니다 - 하나에 의해서는 둘
이지 않는 그 필연에 의해서 자신과 필연적으로 접촉되지도 않는다네 - 그
필연! - 그러나 ,

알론한 어떤 것들과도 접촉되지 않네 - 무슨 - 접촉될 것은 접촉될

연이어진 저것과 분리해 있다고 말했으므로 그것들 중간에 어떤 세 번째 것도 있지 않네 - 진실 - 따라서 만약 이음매가 있으려면 반드시 최소한도 둘이 있어야만 하네 - 반드시 - 그 두 경계들(ὅροι, 149a8, 1737)에 세 번째 것이 연이어진다면 그것들은 셋인 한 편 이음매들은 둘이네 - 예 - 그리고 그렇게 항상 하나가 덧 붙혀 이음매 하나가 덧 붙혀지네 그리고 수적으로 많은 것들의 이음매들은 하나 더 적게 있다는 것이 잇따르네 첫 번째 둘은 이음매 보다 하나 더 많은 결과 모든 이음매들 보다 수 적으로 똑 같이 하나 더 많게 됨에 의해서 모든 경계들이 이음매들 보다 수적으로 더 많게 되기 때문일세 나머지 경계들에 수적으로 하나가 덧 붙혀지면 하나 이음매가 그 이음매들에 덧 붙혀지므로 그렇네 - 따라서 있는 것들이 수적으로 있을 때 마다 항상 이음매들은 그 경계들 보다 하나 더 적다네 - 진실 - 만약 하나만이 있다면 두 가닥(δύακ, 149c4, 겹)은 있지 않을 것이고 이음매도 있지 않을 것이네 - 어찌 - 그렇다면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하나가 아니며 (그래서)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네 만약 알론한 것들이라면 말일세 - 아닙니다 - 따라서 수도 알론한 것들 안에는 있지않네 그 알론한 것들 안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말이네 - 어떻게 있겠습니까 -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알론한 어떤 수의 이름도 지니지 않을 것이네 - 아닙니다 - 따라서 하나만이 하나이며 두 가닥(겹)은 있지 않을 것이네 - 있지 않다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 따라서 둘이 있지 않으면 이음매는 있지 않을 것일세 -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도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도 접촉하지 않네 이음매가 있지 않으므로 그렇네 - 이렇게,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스스로들과 접촉하고 접촉하지 않네* - 그런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똑 같고 똑 같지 않네 - 어떻게 -
만약 하나가 또는 알론한 것이 더 크거나 또는 더 적다면 또는 다시

알론한 것들이 하나 보다 더 크거나 또는 더 적다면 따라서 하나는 하나이며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알론한 것들이라는 것에 의해서는 곧 그것들 실체들에 의해서는 서로 보다 더 큰 것이지도 더 적은 것이지도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만약 한 그렇게 대해 있는 각기 것이 똑 같음을 지닌다면 서로에 대해 똑 같을 것인 반면 한 편을 크기를 다른 한 편으로 적음을 지닌 것들이라²⁶⁶⁸) 하나가 크면 알론한 것들이 적을 것이다 둘 중의 어느 하나의 에이도스에 크기가 덜 붙혀지면 클 것이나 적음이 덜 붙혀지면 더 적을 것이기 [때문인]가 - 필연 - 그렇다면 크기 와 적음 같은 그러한 어떤 에이도스가 있어야 하는가 어디에서든 있지 않다면 서로에 반대로 있지 않을 것이네 있는 것들 안에서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네 - 어찌 (되어지지) 않으리오 - 따라서,

만약 하나 안에서 적음이 되어진다면 그 하나의 전체 안에서 또는 그 하나의 부분 안에서 되어질 것이네 - 필연 - 만약 전체 안에서 되어진다면 무엇? 하나의 전체를 통해 똑 같이 그 하나에 두루 퍼졌을 것이거나 그 하나를 둘러쌓을 것이 아닌가 - 분명합니다 - 따라서 똑 같이 하나에 두루 퍼져 있다면 적음은 그 하나에 똑 같을 것이며 한 편으로 둘러 쌓는다면 그 하나 보다 더 크지 않겠는가 - 어찌 그렇지 않으리로 - 그러나 적음이 그 있음에 의해서 어떤 것 보다 클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크기와 똑 같음의 일을 적음이 수행할(πράττειν, 150a8, 1741) 수 있을까 - 그럴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하나 전체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만약 있다면 하나의 부분 안에 있을 것일세 - 예 - 다시 모든 부분 안에 적음이 있지는 않을 것일세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체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과 같은 동일한 것들이 만들어질 결세 곧 적음이 그 안에 항상 있을 부분고 같거나

2668) 따라서 큼 과 적음 과 똑 같음 등은 있음(εἶναι, 149e4, 1740)과는 구분되는 에이도스(εἶδῆ, 149e9, 1740)라는 것이 또 다시 밝혀진다

부분 보다 클 걸세 - 필연 - 따라서 있는 어떤 것들²⁶⁶⁹안에도 어느 때든 적음은 있지 않네 부분 안에서든 전체 안에서든 적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네 그런데 어떤 것도 적음 자체가 없이는 적지 않을 것일세 -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크기도 그것 안에 있지 않네 크기 자체 없이는 알론한 어떤 것도 크지 않을 것이며 크기는 저 알론한 어떤 것 안에 있어야 할 것이고 적게 있는 것을 필연적으로 초과하지 않는 큰 것 이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이네 적음이 어떠한 하나에도 있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네 - 진실 - 그러나 크기 자체는 적음 자체와 알론한 것 보다는 크지 않고 적음 자체는 크기 자체와 알론한 것 보다는 적지 않네 - 양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크기도 적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더 크지도 더 적지도 않네 하나에 대해서 그렇고 이렇게 초과하고 초과될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그러한 힘을 지니기 때문일세 다시 크기도 적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렇게 더 크지도 적지도 않네 - 그렇다면 선명해집니다 - 따라서 하나가 알론한 것들 보다 더 크지도 더 적지도 않다면

2669) 있는 것들(οὐδενί.....των ὄντων 150b5)이라고 쓰였지 하나라고 결코 쓰여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있는 것 과 적음은 서로와 구분되는 에이도스라는 말이다 물론 하나도 이렇게 구분되는 에이도스이다 바로 이러한 에이도스 맥락에서 우리는 파르메니데이스 편의 파르메니데이스에 접근해야지 생물이라는 류의 종으로서의 사람(άνθρώπου, 130c1, 1257)이니 개이니 케이니 말이니 그리고 불이니 물이니 하는 에이도스(종) 맥락에서 접근해서는 결코 않된다 이미 파르메니데이스 편의 앞 부분에서 분명하게 선이 그어졌듯이 사람의 에이도스의 실체(존재)에 대해서는 아름다움 과 착함 과 정의(1257) 과 같음 과 큼(1262) 등의 에이도스의 실체 처럼 분리해 있다 라고 말하여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그 하나는 저 알론한 것 보다 초과하지도 초과되지도 않을 것일세 - 필연 - 그렇다면 초과하지도 초과되지 않는 여러 것들은 필연적으로 똑 같음으로부터 있네 똑 같음으로부터 있다면 똑 같이 있네 - 어찌 있지 않으리오 - 그리고 하나 그것은 스스로에 대해 그러하다네 스스로 안에 크기도 작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스스로 보다 초과했지도 초과하지도 않을 것이네 그러나 그렇다면 똑 같음으로부터 있으므로 스스로에 똑 같을 것일세 - 물론 -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똑 같을 것이네 - 선명해집니다 -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주위 바깥에 있다면 그리고 둘러쌓는 것은 스스로 보다 큰 반면 둘러쌓여지는 것은 더 적다면 이렇게 하나 자체는 스스로 보다 더 크고 더 적을 것이네 - 그럴 것입니다 - 그렇다면 반드시 이 하나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지? - 어찌 않으리오 - 그러나 그리고 있는 것은 항상 어디에든 있네 - 예 - 그렇다면 어떤 것 안에 하나가 있다면 더 적은 것 안에 있으면서 더 큰 것 안에도 있을 것일세 험태론한 것 안의 험태론한 것과 알론하게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 않습니다 - 그런데 험태론한 어느 것도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하나와 분리해 있지 않으며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반드시 어떤 것 안에 있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 안에 그리고 하나는 알론한 것들 안에 있듯 이미 서로 안에 필연적으로 있든지 아니면 어느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 아닌가 - 선명해집니다 -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안에 있으므로 하나를 둘러쌓는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큰 반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작으며 알론한 것들은 하나 안에 있으므로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큰 반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작을 것이네 -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하나 그것은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똑 같고 더 크고 더 작네 - 선명해 집니다 - 그리고,

만약 더 크고 더 작고 똑 같다면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똑 같은 척도들 과 더 많은 척도들 과 더 적은 척도들의 하나일 것이네 그런데 척도들의 하나라면 부분들의 하나일 것일세 -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따라서 똑 같은 척도들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척도들의 그리고 더 적은 척도들의 하나라면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수적을 더 적으며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똑 같을 것이네 - 어떻게 -

더 큰 만큼 어디에서든 그것도 척도들 만큼의 부분들 만큼의 그러한 더 많은 척도들의 하나일 것이며 더 적은 만큼 그렇게 더 적은 척도들의 하나일 것이고 똑 같다면 그렇게 똑 같은 척도들의 하나일 것이네 - 그렇다면 스스로 보다 더 크고 더 작고 똑 같이 있다면 자신에 똑 같은 척도들의 그리고 더 많은 척도들의 그리고 더 적은 척도들의 그리고 척도들의 하나이므로 부분들의 하나일 것이지? -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 따라서,

자신에 똑 같은 부분들의 어떤 것 이라면 자신에 수적으로 똑 같이 많을 결세 더 많은 부분들의 어떤 것이면 자신 보다 수적으로 더 많을 것이며 더 적은 부분들의 어떤 것이면 자신 보다 수적으로 더 적을 결세 - 선명해집니다 - 그렇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을 것이지? 그래서 그것들 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그것들 보다 수적으로 더 많이 있는 반면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더 적게 있으며 그리고 크기에 있어 똑 같이 나타나므로 그 알론한 것에 똑 같이 많은 것이지? - 필연적으로 -

다시 이렇게 *하나* 그것은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수적으로 *똑 같고 더 많고 더 적을* 것이네 - 그럴 것입니다 -

이제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 그것은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더 젊고 젊게되며 더 늙고 늙게되고 그리고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더 젊지도 더 늙지도 않게되지?

- 어떻게요?

있는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동일한 한편 헤태론하며-동** 일하지 **않으며- 접촉하는 한편 접촉하지 않고 같고 같지 **않으며** 더 크고 더 크지 **않고** 더 작고 더 작지 **않으며** 더 많고 더 많지 **않고** 더 적고 더 적지 **않으며** 똑 같고 똑 같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는 위 글월은 하나가 만약 **있다**면의 하나 다시 말해 있다고 전제되는 하나 곧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 곧 **있는(존재하는)**하나가 그러 그러하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렇다면 위 논증은 존재하고 (있는) 하나가 자신을 부정한다는²⁶⁷⁰것을 보여준다 예를들어 자신과 동일하지만 한 편으로 자신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헤태론**을 지니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헤태론의 자연에 의해서 동일한 자신을 부정하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하나와 알론한 것 곧 하나 아닌 것**(1729)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기의 **존재(실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하나는 자신 과 알론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우선 실체를 나누어 지녀야 하나는 존재할 것이고 존재하기에 비로서 하나는 동일 과 헤태론을 나누어 지닐 것이고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기에 비로서 동일한 자신 과 알론한 것을 그 헤태론의 자연에 의해 부정하면서 하나는 안 과 밖에 있게 ‘되’고 끝으면서 등글며 움직이면서 쉬고

2670) 그러나 ‘존재하는’ 이러한 하나에 대한 부정으로서 나타나는 나아가서는 이러한 부정의 부정으로서 나타나는 듯한 ‘있는’ 하나 자체 곧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하나 곧 단지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곧 하나만이 전제되고 ‘있는 것’은 자신 과 알론한 것을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 존재하는 하나가 부정한 자신 과 알론한 것이 또 다시 부정된 것이 ‘있는’ 하나의 자신 과 알론한 것들의 부정인 듯하기 때문이다

접촉하면서 접촉하지 않으며 같으면서 같지 않고 똑 같으면서 똑 같지 않으며 크면서 크지않고 작으면서 작지않고 수적으로 많으면서 많지않고 적으면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실체**를 나누어 지녀야 하나의 에이도스는 비로서 존재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존재**하는 하나의 **있음**에 덧붙여지는(προσειν, 149e7, 1740)반대되는 에이도스 짝 **동일 과 헤테론** 덕분에 하나는 동일하게 있는 자신 과 동일하게 있는 알론한 것들을 부정한다 다시 말해 하나가 헤테론하게 분열한다 이러한 부정과 동시에 이미 ‘있어’ 왔던 반대되는 에이도스 짝인 **움직임 과 쉼**이 하나 자신 과 알론한 것에 뒤 섞이고 이어 예를들어 지금까지 거론된 큼 적음 같음 똑 같음 등의 알론한 에이도스들이 있음에 의해 뒤 섞여 묶여지면서 있음과 **헤테론**한 것에 의해 곧 **있지 않음**에 의해 뒤 섞여 분리된다 그러기에,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에 대해 이러 이러하게 존재하면서 이러 이러하게 존재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이러 이러하게 존재하는 것이 안 밖에서 부정된다²⁶⁷¹)그러면서 분리된다 결국 ‘**존재**’해 왔던 에이도스

2671) 그래서 ‘있으면서.....있지 않다 ’의 ‘ ’ 그 자체로 존재하는 에이도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에이도스들은 그 자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 비록 **있**기는해도 말이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아스 편 과 소피스테아스 편 과 티마이오스 편에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에이도스는 없다 있음의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녀야만 비로서 존재한다 심지어 있음의 에이도스마저 그 자체 존재한다 라고는 말하여질 수 없을 것이다 있음이 알론한 에이도스들과 더불어 어떤 것의 안 과 밖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말이다 따라서,

있음의 에이도스 그 자체는 1256쪽의 그림에 나온 분리ⓐ 처럼 다른 에이도스 처럼 분리되 있을 것이다

들이 부정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해 오지 않았던 에이도스들이 부정되어 존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에이도스들은 이미 ‘있는’ 것들이긴해도 말이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파르메니데에스가 자신의 이어지는 논증들을 통해서 위와 같이 ‘존재하는 하나’에 답아지는 반대(모순)인 것들의 부정(否定)을 밝히려한 듯하다 진짜로 그러한지 다시 요약해 보기로하자

따라서 스스로 안에 그리고 헤태론한 것 안에 항상 있는 하나는 필연적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쓴다 그리고,

하나는 스스로 와 알론한 것들과 반드시 동일하며 헤태론하다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 동일하거나 헤태론하거나 부분의 전체이거나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선명하다 그런데 하나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부분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전체로도 있지 않을 것이므로 그리고 하나는 분명히 하나와 헤태론하지 않으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전체와도 부분과도 헤태론하지 않다면 필연적을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하다 다음,

스스로와 헤태론한 곳에 있는 것이 스스로와 동일한 것 안에 있다면 헤태론한 곳에 있으므로 스스로와 필연적으로 헤태론할 것 처럼 보인다 그런데 하나는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헤태론한 것 안에 있다는 것은 [앞서] 보여졌으므로 스스로와 동일한 것 안에 있지만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 처럼 여겨진다 다음,

헤태론한 것은 필연적으로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하다²⁶⁷²면 하나 아

2672) 헤태론한 것은 항상 헤태론한 것에 대한 헤태론한 것이다(1522) 라는

닌 것은 무엇이든 각각모두 하나와 헤태론하고 하나는 하나 아닌 것과 헤태론할 것이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할 것이다* 다음,

따라서 동일한 것 자체 와 헤태론한 것 자체는 서로에 반대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 것 **안에** 또는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으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만약 헤태론한 것이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지 않다면 동일한 것 안에는 어떤 시간 동안에도 헤태론한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 있다면 어떤 시간 동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도 있지 않으므로 헤태론한 것은 **있는** 어떤 것 안에 어느 때도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들* 안에도 *하나* 안에도 헤태론한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헤태론함*에 의해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들과 그리고 하나 아닌 것이 하나와 헤태론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스스로들에 의해서는 서로 헤태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에 의해서도 *헤태론*에 의해서도 헤태론하지 않는다면 서로와 헤태론하지 않다는 것은 모든 방향에서 회피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 아닌* 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이다 나누어 지녔다면 *하나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로 있어 올 것이라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수가 아닐 것이다 수를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 아닌 것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부분이라면 하나 아닌 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녔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의 부분도 아니며 그 전체도 아니다 그런데 부분들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 서로와 헤태론하지도 않는 것들은 서로와 동일한 것들이라고 우리는 말했네 그리고 하나는 하나 아닌 것에 대해서 바로 그러하므로 *하나 아닌 것 과 하나는 동일하다* 라고 말해야한다 따라서,

로고스 와 헤태론한 것에 의해서는 단지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함에 이를 뿐 이다(1618) 라는 로고스를 참조하라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스스로와 **헤태론하며 알론한 것들에** 그리고 스스로에 **동일하다**는 것이 감히 선명해진다 그렇다면,

하나는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 않다**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알론한 것들** 이 어디에서든 **하나와 헤태론하다**면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헤태론할 것이다 따라서 **(정도에 있어)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다**면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그렇게 헤태론함을 겪었듯 알론한 것들이 하나와 헤태론함을 겪는 그러한 겪음에 의해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동일함을 겪었을 것이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에 동일함을 겪었을 것이다 요것이다 자네는 어떤 것에 걸치는(ἐπι, 147d1, 1732)이름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부를 경우 한 번 부를 때는 저 어떤 것을 부르는 반면 여러 번 부를 때는 저 어떤 것이 아닌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름을 발설할 때는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동일한 어떤 것을 항상 부를 것이다 **헤태론**은 바로 이와 같은 이름이다 따라서 헤태론 이라는 이름을 발설할 때 마다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알론한 어떤 것에 걸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필연적으로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헤태론하며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 라고 말할 때 알론한 어떤 것에 헤태론이 두 번 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저 (동일한) 것에 걸치는 이름으로 있어온 헤태론을 말하므로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이 하나와 헤태론하는한 그 자체 알론한 헤태론이 겪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알론한 것들에 헤태론한 그 헤태론이 겪어진다 그런데 **동일한** 것을 어디에서건 **같은** 것은 겪는다 따라서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함을 겪고 있는한 각기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같은 것이다** 각기모든 것은 각기 모든 것과 헤태론할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것은 같지 **않는** 것에 **반대**이며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반대이고 알론한 것들에 동일한 있음은 알론한 것들에 헤태론한 있음에 반대되는 속성이다 그러나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동일하다는

것이 그리고 **헤테론한** **같다**는 것이 보여졌네 따라서 같게하는 속성에 반대되는 속성에 따라 **동일한** **같지 않을** 것일세 어디에서든 헤테론은 이와 같다 따라서 헤테론은 동일한 것을 같지 않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은 헤테론에 반대가 아닐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에 헤테론함에 의해서 같으며 알론한 것들에 동일함에 의해서 같지 않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동일한 것을 겪었던한 알론하지 **않는**(*μη* ἀλλοίον, 148cε, 1735)것을 겪었으며 알론하지 않는 것을 겪었던한 **같지않지 않고** 같지않지 않는한 **같은** 반면 알론한 것을 겪었던한 알론하며 알론하게 있으면 같지않게 있다는 것은 진실하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동일한 것이고 헤테론한 것이라면 양자적으로 그리고 각기적으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같고 같지 않다** 그렇다면,

스스로와도 그와 같을 것이다 스스로와 헤테론하고 스스로에 동일하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양자적으로 그리고 각기적으로 필연적으로 **같고 같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접촉하며 접촉하지 않는다

하나는 스스로 전체 **안에** 어디에서든 있다 라고 옳게 보았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 안에 있는한 알론한 것들과 접촉할 터인데 스스로 안에 있으므로 알론한 것들과의 접촉이 막힌 채 자신과 접촉하면서 스스로 **안에** 있을 것 이라는 것은 선명하다 그러나 하나는 알론한 것 안에도 있다 라고 옳게 보았다 그래서 알론한 것 안에 있으므로 알론한 것과 접촉한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접촉한다** 그런데,

연이어진 어떤 것과 접촉하게 될 모든 것은 접촉하게 될 앞 뒤의 것이 거기에 놓여져 동일하게 머금어지는 저것에 필연적으로 놓여져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가 **자신과** 접촉하게 될 거라면 스스로 **뒤에** 반드시 곧 바로 놓

여져 연이어져야만 한다 반드시 스스로를 머금을 자리 안에 있으면서 말이다 그런데 하나가 들어야 그리하지 하나가 하나일 것인한 그리하지 못할 것이다 두 자리 안에 하나가 동시에 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에 의해서는 들이지 않는 그 필연에 의해 하나는 자신과 필연적으로 접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접촉될 것은 그것에 연이어 접촉될 것과 분리해 있다고 말했으므로 접촉될 것들 중간에는 어떤 세 번째 것도 진실로 있지않다 그런데 이음매가 있으려면 반드시 최소한도 둘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두 경계(ῥοποι, 149a8, 1737)에서 세 번째 것이 연이어 진다면 연이어지는 것들은 셋이지만 이음매는 둘일 것이다 그리고 항상 하나가 덧 붙혀질 때 마다 이음매 하나가 덧 붙혀지므로 이음매들은 연이어지는 것 보다는 하나 더 적게 있다 처음 둘은 이음매 보다 하나 더 많은 결과 연이어지는 것들은 모든 이음매 보다 수적으로 똑 같이 하나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들이 수적으로 있을 때 마다 이음매들은 있는 그 것들 보다 하나 더 적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런데 하나만 있다면 겹(δύας, 149c4, 1738, 두 가닥)은 있지않을 것이고 이음매도 있지 않을 것이다 자! 만약 하나와 알론한 것들이라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아니고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을 것이므로 알론한 것들 안에는 수도 있지 않을 것이다 알론한 것들 안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그렇다²⁶⁷³)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둘도 알론한 어떤 수의 이름도 아닐 것이다 따라서 단지 하나만이 하나일 뿐 겹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둘이 있지 않다면 이음매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음매가 있지 않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도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도 접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에 따라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스스로와 접촉

2673) 하나 와 겹으로부터 짝과홀이 생겨나고 다시 하나 와 겹 과 짝홀이 어울려 무한히 많은 수들이 생겨난다는 1709-1710을 참조하라

하고 접촉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똑 같고 똑 같지 않다

만약 하나가 알론한 것 보다 다시 알론한 것이 하나 보다 더 크거나 더 적다면 하나는 하나이고($\epsilon\acute{\iota}\nu\alpha\iota$, 149e2, 1740)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알론한 것들이라는 것에 의해서는 곧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의 **실체**들에 의해서는 서로 더 크지 적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렇게 **대해** 있는 각기 것이 똑 같음을 지닌다면 서로에 대해 똑 같을 것이며 **크기** 또는 **적음**을 지닌다면 크거나 적을 것이다 그래서 둘 중의 어느 하나의 에이도스에 크기가 더해지면 필연적으로 클 것이나 적음이 더해지면 필연적으로 더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 크기와 적음의 **에이도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어디에서든 있지 않다면 **크기** 와 **적음**은 서로에 **반대**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있는** 것들 안에서 크기와 적음의 이 에이도스가 되지 않으므로 그렇다 그렇다면 하나 **안**에서 적음이 되어진다면 필연적으로 하나의 전체 안에서 또는 부분 안에서 되어질 것이다 만약 전체 안에서 되어진다면 그 전체를 통해 두루 똑 같이 그 하나에 퍼졌을 것이나 그 하나를 **둘러 쌓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똑 같이 퍼져 있다면 적음은 그 하나에 똑 같을 것이며 둘러쌓는다면 더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적음**이 그 **있음**에 의해서($\tau\acute{\omega}\ \epsilon\acute{\iota}\nu\alpha\iota$, 150a7, 1741)똑 같거나 어떤 것 보다 클 수 없으며 자기의 일이 아니라 **크기** 와 **똑 같음**의 일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 전체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만약 있다면 **부분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모든** 부분 안에 적음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있다면 전체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과 같은 동일한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곧 **적음**이 그 안에 항상 있을 부분의 필연적인 **같음**이거나 그 부분 보다 필연적으로 **큼**일 것이다 따라서 **있는 어떤 것들 안**에도 어느 때든 **적음**은 **있지 않다** 부분 안에서도 전체 안에서도 적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 따라서,

크기도 하나 **안에** 있지 않다 보다 크려면 크기 자체 이외에도 크기가 그 안에 있을 저 알론한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크기가 필연적으로 초과해야만 하는 적음 자체가 그 알론한 어떤 것 안에 있어야 할 것이나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음이 어떠한 하나에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기 자체는 적음 자체와 알론한 것 보다는 크지 않고 적음 자체는 크기 자체와 알론한 것 보다는 적지않으므로 크기도 적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더 크지도 적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에 대해서 이러 저러하게 초과하고 초과될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그러한 힘을 (크기 와 적음은) 지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지도 적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더 크지도 적지도 않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가 알론한 것들 보다 더 크지도 더 적지도 않다면 알론한 것을 하나는 필연적으로 초과하지도 알론한 것에 의해서 하나는 필연적으로 초과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과하지도 초과되지도 않은 여러 것은 똑 같음으로부터 있다 똑 같음으로부터 있다면 똑 같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 자체는 스스로에 대해 그러하다 다시 말해 스스로 **안에** 크기도 적음도 지니지 않아 스스로를 초과했지도 초과하지도 않았다면 스스로에 똑 같음으로부터 있을 것이므로 스스로에 똑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똑 같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가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주위 **바깥에** 있다면 그리고 둘러 쌓는 것은 스스로 보다 크나 둘러 쌓여지는 것은 더 적다면 이렇게 하나 자체는 스스로 보다 더 크고 더 적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으며 있는 것은 항상 어디에든지 있으므로 어떤 것 안에 하나가 있다면 더 큰 것 **안에**도 있으면서 더 적을 것이다 헤태론한 것 안에는 헤태론한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⁶⁷⁴) 그런데 헤태론한 어느 것도 알론한 것과 그리고 하나와 분리해 있지 않으며 하나 와 알론한 것

들은 반드시 어떤 것 안에 있으므로 알려진 것들은 하나 안에 그리고 하나는 알려진 것들 안에 있듯 이미 해태론한 것들은 서로 안에 필연적으로 있지 않든가 아니라면 어느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알려진 것들 안에 있으므로 하나를 둘러싼 알려진 것들은 하나 보다 큰 반면 하나는 알려진 것들 보다 작으며 그리고 알려진 것들은 하나 안에 있으므로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려진 것들 보다 큰 반면 알려진 것들은 하나 보다 작을 것 처럼 보인다 따라서 *하나 그것은 자신과 그리고 알려진 것들과 똑 같고 더 크고 더 작다*는 것이 선행해진다 그런데,

더 크고 더 작고 똑 같다면 자신에 그리고 알려진 것에 똑 같은 척도들과 더 많은 척도들과 더 적은 척도들의 하나일 것이다 나아가서 척도들의 하나라면 부분들의 하나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똑 같은 척도들의 그리고 더 많은 척도들의 그리고 더 적은 척도들의 하나로 있다면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려진 것들과 수적으로 더 적으며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 그리고 알려진 것들에 똑 같을 것이다 더 크다면 더 많은 척도들 만큼의 부분들의 하나일 것이며 더 적다면 더 적은 척도들 만큼의 부분들의 하나일 것이고 똑 같다면 똑 같은 척도들 만큼의 부분들의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보다 더 크고 더 적고 똑 같다면 자신들에 똑 같은 척도의 하나이며 더 적은 척도들의 하나이고 더 많은 척도들의 하나이므로 그 만큼의 부분들의 하나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신에 똑 같은 부분들의 하나라면 자신에 수적으로 똑 같을 것이고 더 많은 부분들의 하나라면 자신 보다 수적으로 더 많을 것이며 더 적은 부분들의 하나라면 자신 보다 수적으로 더 적다는 것이 선행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는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래서 알려진 것들 보다 더 크므로 수적으로 더 많이 있고 더 적으므로 수적으로 더 작게 있으며 그 크기에 있어 똑 같으므로 알려진

2674) 이와 알론(ἄλλως, 151a6, 1746)할 수는 없다

것에 똑 같이 필연적으로 많다 그러므로 *하나 그것은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수적으로 똑 같고 더 많고 더 적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가 **존재**한다면 하나는 이렇게 자신 과 알론한 것을 **부정**한다는 것 그리고 부정을 통하여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저 **있음**으로부터 벗어나 **있게** ‘된’다는 것이 논증된다 둥금 과 안 과 움직임의 부정으로서 **존재**하는 곧음 과 밖 과 씬을 논증하는 1667-1721에 이어지는 여기 위 맥락에서는 동일 과 접촉 과 같음 과 큼 과 작음 과 많음 과 적음 과 똑같음의 **부정**으로서 **존재**하는 헤태론 과 **분리**(χωρισ²⁶⁷⁵), 149a5, 1737) 와 같지않음 과 크지않음 과 작지않음 과 만지않음 과 적지않음 과 똑같지않음이 논증되므로 그리고 이러한 부정의 근거는 헤태론²⁶⁷⁶)이라는 것이 논증되므로 **존재**하는 하나는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헤태론**하면서 **동일**하다는 논증을 다시 정리해 보아야 한다

이 논증은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헤태론한 것 **안에** 항상 **있는**(**존재**하는) 하나는 필연적으로 항상 움직이면서 쓴다는 논증을 전제한다

모든 것은 각기 모든 것에 *대해* 동일하거나 헤태론하거나 전체거나

2675) 텔레스 역시 이러한 분리를 말한다(1256, 543) 참조하십시오

2676) 없음 또는 있지않음이 부정의 근거도 아니며 있지않음의 근거 역시 부정이 아니라 그 근거는 헤태론의 에이도스라는 것을 알아 차리는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헤태론이 있음의 에이도스를 또는 실체를 나누어 지녀야 어떤 에이도스가 부정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 차리는 것이다

부분이거나 한다 이제 *자신*에 대한 부분으로 있지 않으므로 전체로도 있지 않는 하나는 그러나 *하나*와 헤태론하지 않으므로 스스로와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에 대해 전체로도 부분으로 있지 않으므로 하나는 스스로에 대해 전체로도 부분으로도 헤태론하지 않다면 필연적으로 스스로에 동일할 뿐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에 대해 동일하다는 것만이 남는다 그런데,

하나를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헤태론한 것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다²⁶⁷⁷) 그러나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와 동일한 것 안에 있는 것은 스스로와 필연적으로 헤태론하다 헤태론한 곳에 있으니 말이다²⁶⁷⁸)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하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필연적으로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하며 그리고 하나와 헤태론한 것은 하나 아닌 것이므로 하나는 *하나 아닌 것*과 헤태론하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²⁶⁷⁹) 따라서,

동일한 것과 헤태론한 것은 반대이다 그래서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 것 안에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느 시간 동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동일한 것 안에는 어느 때도 있지 않으므로 헤태론한 것은 있는 어떤 것들 안에 어느 때도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과 그리고 *하나 아닌 것*은 하나와 헤태론함에

2677) 145b6 - 145e7(1687-1689, 1717-1718)에서 보여졌다

2678) 헤태론한 것은 반드시 헤태론한 것에 대해 있다는 것은 논증의 연결 고리이다

2679) 아님 또는 있지않음은 알론함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된다(1538)하나가 *하나 아닌 것*에 대해 있는 것은 하나가 *알론한 것*에 대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해서는 헤태론해질 수 없다²⁶⁸⁰) 그런데 헤태론을 나누어지니지 않는다면 스스로들에 의해서도 서로에 헤태론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들에 의해서도 헤태론에 의해서도 헤태론하지 않다면 하나 와 하나 아닌 것은 헤태론하지 않다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 아닌 것을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로 있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수가 아니다 수를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 아닌 것이 아닐 것이므로 그렇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하나의 부분이 아니다* 부분이라면 하나를 나누어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하나의 전체도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 전체거나 부분이거나 헤태론하거나 동일한 것이며 그리고 전체도 부분도 헤태론하지도 않으므로 필연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에 대해 그러하므로 *하나는 하나 아닌 것에 대해 동일하다 곧 알론한 것에 대해 동일하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는 스스로와 알론한 것들에 동일하며 헤태론하다 따라서,

동일하면서 동일하지 않다 라는 논증의 전제는 모든 것($\pi\acute{\alpha}\nu$, 146b2, 1723) 각기 모든 것($\acute{\alpha}\pi\alpha\nu$, 146b2-3, 1723)에 대해 *헤태론* 또는 *동일* 또는 *전체* 또는 *부분* 이 네 가지 중의 어느 하나로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²⁶⁸¹) 따라서

2680) 하나 와 하나 아닌 것은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전제되어야만 한다

2681) 그렇다면 헤태론 동일 전체 부분 이 넷은 모든 **대해 있음** 가운데 가장 큰 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어떠한 모든 것도 각기 모든 것에 대해 이 넷 중의 하나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528쪽에서 말하여지는 가장 큰 류를 참조해 보라 동일 과 헤태론은 거기 다섯 류에도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나 그렇다고 거기 나머지 셋 움직임 과 쉼 과 있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 역시 이 네 가지 중의 어느 하나로서 자신 또는 알론한 것에 대해 있을 것이다 먼저,

하나는 자신의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전체도 아니다 부분의 전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일하든지 헤태론하든지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와 헤태론하지 않으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는 ①스스로와 동일하다 나아가서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하나는 헤태론한 것 안에 있다는 것이 보여졌고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헤태론한 것 안에 있는 것은 스스로와 헤태론하다 헤태론한 것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②스스로와 헤태론하다 그렇다면 알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그렇다면,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하며 헤태론하다 스스로와 그러하다면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할까

이러한 맥락에서 파르메니데아스는 하나 아닌 것(τὸ μὴ ἓν, 146d3,

각기 모든 것에 대해 있는 길 들 중의 하나 라고 말하여질 수는 없을 것 같다 나아가서,

자신의 범주들에서 얕 습성 감각 상태 경향 큼 같음 작음 많음 적음 등을 관계(프로스 티, 186-187, 32)라고 말하는 텔레스를 기억해 보라 그는 뒋 다섯을 헤태론한 것에 대해 있음으로 앞 다섯을 헤태론한 것의 그렇게 있음으로 나눈다는 것도 덩달아 기억될 것이다 어쨌든,

여기 파르메니데아스는 모든 것이 각기모든 것에 대해 있음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헤태론을 말하는 반면 거기 아리스토텔레스는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에 대해 있음을 10가지로 구분했으므로 파르메니데아스는 헤태론을 관계(프로스 티)로 본 반면 텔레스는 헤태론을 관계로 본 것 같지는 않다

1724)이라는 말을 이끌어 들여 논증하기 시작한다 하나 뒤(앞)에 아님이 붙었으므로 하나 아닌 것의 하나는 하나 아닌 것이 하나와 알론한 것임을 폭로할(μύβει, 소피스테이스257b10, 1538-1539)것이므로 하나 아닌 것은 하나와 알론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알론한 것 대신에 하나 아닌 것이라는 말을 그가 써가면서 논증한 것은 이러한 논증에서 어쩔 수 없이 부정(아님)이 두드러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울러,

하나와 헤테론한 것은 하나 **아닌** 것이고 하나 아닌 것은 하나와 헤테론하므로 ③**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테론하다** 헤테론한 것은 헤테론한 것과 헤테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테론 과 동일은 서로에 **반대**이므로 동일한 것 안에는 헤테론한 것이 그리고 헤테론한 것 안에는 동일한 것이 어느 때든 있지 않을 것이다²⁶⁸²)그런데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지 않을 것이므로 헤테론한 것은 어떤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 안에도 하나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어느 시간에도 말이다 그래서 *헤테론*에 의해서 하나 와 하나 **아닌** 것은 서로에 헤테론할 수 없다 더군다나 스스로들에 의해서는 헤테론해 질 수 없다 헤테론해지려면 헤테론을 나누어 지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에 의해서도 헤테론에 의해서도 헤테론해지지 않는다면 서로에 헤테론하지 **않음**(ὁ μὴ ἕτερά εἶναι, 147a2, 1728)을 피할 수 없다 이제, 하나 **아닌** 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나누어 지녔다면 하나로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수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수들은 하나 와 겹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하나의 부분이 아니다** 부분이라면 하나를 나누어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전체도 아니다** 그러나 부분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며 헤테론하

2682) 그래서 어떤 시간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지도 않다면 하나는 하나 아닌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④하나는 알론한 것과 동일하다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 부분 아니면 전체로 전체 아니면 헤태론으로 헤태론 마저 아니면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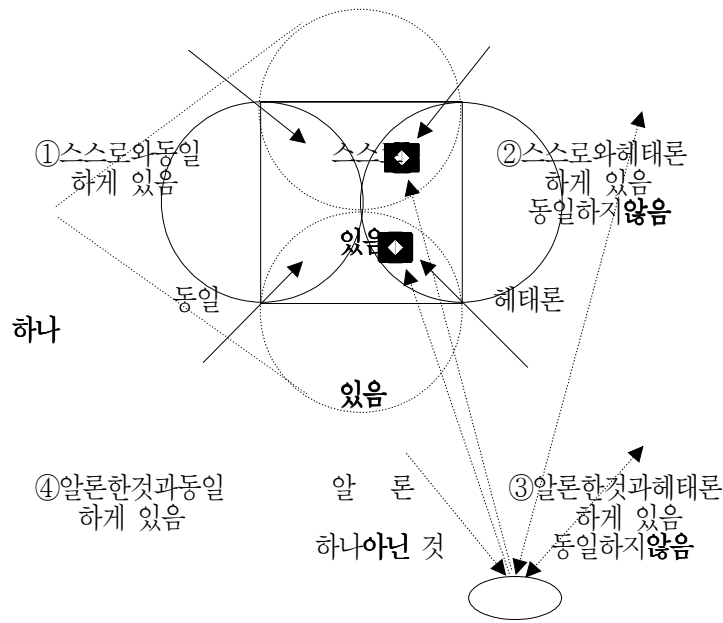
위 논증에서 파르메니데아스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한 하나를 논증하기 위해 하나 와 알론한 것 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 와 하나 아닌 것 이라는 레아마(句)를 쓴다 그러면서 하나 와 하나아닌 것 안에는 헤태론이 있지 않으므로 하나는 하나아닌 것과 헤태론하지 않다는 것을 이끌어낸다 하나 와 하나 아닌 것은 있는 어떠한 것이며 있는 어떤 것 안에도 헤태론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헤태론은 동일에 반대이며 반대되는 것은 서로 안에 있지 않으므로 동일 안에는 헤태론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논증에는 걸리는 곳이 있다 ‘동일한 것 안에(ἐν τῷ αὐτῷ, 146e3, 1725)는 헤태론한 것이 있지 않으므로(ἐπειδὴ, 146e1, 1725)있는 어떤 것 안에(ἐν τινι τῶν ὄντων, 146e3, 1725)도 헤태론은 있지 않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 안에도 하나 안에도 헤태론은 있지 않다’ 라는 곳에서 내가 막히기 때문이다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다고 해서 있는 어떤 것 안에 헤태론한 것이 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동일 뿐만이 아니라 움직임도 쉽도 그리고 헤태론도 실체를 나누어 지니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⁶⁸³물론 있는 어떤 것이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면 그것은 헤태론의 자연

2683) 있는 어떤 것을 동일한 어떤 것으로 고쳐 읽는다면 위 인용글월의 앞 부분은 통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뒷 부분에서 또 막힌다 있는 동일한 것 안에 헤태론한 것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 아닌 것 과 하나 안에는 헤태론이 있지 않다 라고 읽혀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읽음에는 하나 아닌 것 과 하나는 그 자연에 있어 동일하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동일함 과 구분되는 것 만큼이나 있음은 하나와도 따라서 하나아

에 의해 있지 않게 된다 그러나 문제의 그 있는 것에 있지 **않는** 것이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²⁶⁸⁴⁾ ‘그러기에 하나 아닌 것 안에도 하나 안에도 헤태론은 있지 않다’ 라는 바로 이어지는 로고스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하나 **아닌** 것은 하나로 **있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동일하며 헤태론하다 라는 그의 논증을 다음 처럼 그려 볼 수 있으리라



부정
 (ἀπόφασις 소피스테이스257b9, 1538, 1571, 否定)

님과도 구분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일함도 하나임과 그 자연에 있어 구분되는데(1521)하물며 있음 과 동일이 구분되지 않으랴 동일이 있으려면 실체를 나누어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음은 동일이 아니다

2684)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 만큼이나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그래서 있지 않는 것은 있는 류의 한 종이라는 것은 소피스테이스 편 258b9 앞 뒤(1543)에서 이미 확인됐다

이 그림(1571)은 하나가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과 동일하며 헤태론한 영역을 나타낸다 점선이건 실선이건 선으로 그어진 것은 하나 와 동일 과 헤태론 과 있음 등의 각기 에이도스들이 구분된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니 영역의 크기는 무시하라 네모는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 둥그런 실선은 각기 반대되는 동일 과 헤태론을 나타내며 둥그런 점선은 각각 하나 자신 과 하나와 알론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하나와 알론한 것은 비록 점선으로 이어 지긴해도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음에 유의하라 그리고,

이 그림은 헤태론의 자연 때문에 스스로 와 알론한 것이 부정됨을 나타내는 검은 점(1573쪽의검은점)을 보여 주면서 그 검은 점이 곧 부정이 하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 안에서만 반대가 허용 됨을 보여 줄 것이다 동일하며 헤태론 하다는 이러한 논증²⁶⁸⁵과 함께,

2685) 파르메니데아스의 이러한 논증은 소피스테아스 편의 231d9-259d8(1358-1596)에 나오는 논증과 같다 있는 것에 관한 새롭게 태어나(γεογενής, 259d3, 1581)기존의 것에 덧 붙혀진 것인 거기 논증은 결국 헤태론한 것들이 어떤 길에서 동일하며 동일한 것이 어떤 길에서 헤태론한지를 보여주면서 로고스에 반대들이 그렇게 가져와진다는 것을 받아드리도록 하는 논증이 기 때문이다 물론,

소피스테아스 편의 거기 새로운 존재론은 소피스테아스가 무엇인지를 정의해가는 도중에 나타난 것이기는 해도 존재(실체)에 관련 부분을 따로 떼어내 하나의 분리된 책으로 엮을 수 있을 정도로 거기 존재론은 두드러진다 있지 않는 것에 스며들어 숨어버리는 소피스테아스를 정의하여 끄집어내어 폭로하기위해서는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를 만들어야 하는 결코 쉽지않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할 일 없어 하는

하나는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정도(定度)에 있어) 많지도 적지도 않다면 같으며 같은 것은 어디서든 **동일한** 것을 겪는다는 것이²⁶⁸⁶ 전제된다 그런데,

하나는 알론한 것과 **해태론**하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알론한 것 역시 저 하나와 **해태론**할 것이다 그러는한 하나는 알론한 것과 **해태론**을 겪고 알론한 것은 하나와 **해태론**을 겪을 것이며 그러는한 양자는 동일한 것을 겪었을 것이다 **이름**을 숙고해 보자 이름은 어떤 것에 **걸쳐** *ἐπι*, 147d1, 1732) 있다 이제 이러한 이름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부를 경우 만약 동일한 이름이라면 매 번 그 이름은 동일한 어떤 것에 걸치지 그 어떤 것이 **아닌** 것에 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해태론**의 이름 역시 어떤 것에 걸치는 이름이므로 이 이름이 발설될 때 마다 그 어떤 것이 **아닌** 것에 걸쳐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알론한 것은 하나와 **해태론**하며 하나는 알론한 것과 **해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발설되는 **해태론**의 이름은 **알론한** 어떤 것에 걸쳐지는 것이 아니므로 알론한 것이 하나와 **해태론**하며 하나가 알론한 것과 **해태론**한 **해태론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해태론과 동일한 것**(τὸ αὐτὸ, 148a2, 1733)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동일한 **해태론**을 겪는다 자! 그런데 **같은** 것은 어디에서건 **동일한** 것을 겪는다 따라서 각기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과 **해태론한 동일**을 겪을 것이므로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해태론함을 겪는**한 각기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하나

짓거리(1324, 1330)라고 오해할만도할 그러한 일에 몰두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의 **이데아**(254a8-9, 1344)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의 하나의 종이므로 그렇다

2686) 이러한 것은 정의에 의해 전제된다

가 알론한 것에 해태론하는 바로 그 해태론함에 의해서 ⑤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다 그런데,

같은 것은 같지 않음의 **반대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도 해태론한 것에 반대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에 **있는** 동일함도 알론한 것에 있는 해태론함에 반대일 것이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해태론한한 같**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따라서 **동일한한 같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알론한 것과 동일하다면 이러한 동일함에 의해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하나는 알론한 것과 동일하다(1755)는 것은 이미 보여졌으며 해태론은 어디에서든 한결 같고²⁶⁸⁷⁾ 그리고 같지 않음에 의해서 동일해지지 않는다면 동일은 해태론의 반대가 아닐 것이므로 그렇다 따라서 ⑥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다²⁶⁸⁸⁾ 그런데,

2687) 따라서 해태론에 의해서 동일한 것이 같지않게 ‘된’다

2688) 그런데 하나가 알론한 것과 같고 같지않다는 것에 관한 또 하나의 논증을 파르메니데아스는 보여준 뒤 이 논증을 근거로 하나는 스스로와 같고 같지않다는 것을 논증한다

동일을 겪는한 알론을 겪지않으며 알론을 겪지않는한 같지않지않고 같지않지않는한 같다 알론을 겪어야 알론하며 알론한한 같지않기 때문이다 하나가 알론한 것과 동일하며 ‘해태론’하다면 동일을 겪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은 반면 ‘해태론’을 겪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지않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으며 같지않다 그런데,

이러한 짝막한 논증에 신경이 적지않게 쓰인다 만약 알론이 해태론과 하나라면 알론을 겪는한 해태론의 동일을 겪을 것이므로 알론한 것은 자기 동일한 해태론에 의해서 같아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같지않다 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론’은 해태론과 하나가 아닐 것 같다 그러나,

동일을 겪는한 알론을 겪지않으며 알론을 겪지않는한 같지않지않고
같지않지않는한 같다 알론을 겪는한 알론하며 알론한한 같지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알론한 것과 동일하며 *헤태론*하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
고 같지않다 그렇다면 스스로와도 하나는 그러할 것이다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하며 *헤태론*하다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⑦하나는 스스로와
같고 ⑧같지않다 그런데,

알론한 것과 같고 같지않는 하나에 관한 논증이 두 번 이루어졌다 그
러나 다른 논증들 예를들어 등글고 곧은 하나 그리고 움직이며 쉬고 있는
하나 그리고 안 과 밖에 있는 하나 그리고 동일하고 *헤태론*한 하나 등의 앞
선 논증은 단 한 번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파르메니데아스는
같고 같지않는 하나 만을 두 번 논증할까 그런데 길고 힘든 첫 번째 논증
후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논증은 짧고도 쉽다 논증은 본디 가장 짧고 간결
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길고 힘든 논증 후에 짧고 쉬운 논증을 덧 붙혔을
까 어떤 하나에 관한 여러 가지 논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논증을 통해서 하나는 스스로와 같고 같지않다
는 것이 논증되므로 두 번째 논증은 첫 번째 논증 보다 더 필요하다 첫 번
째 논증을 통해서는 그러한 하나가 논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려질
수 있다면 두 번째 논증 보다는 첫 번째 논증일 것이다 그러나,

버려서는 않된다 첫 번째 논증을 통해서 **아님**(否定) 과 **반대**가 그래
서 *헤태론*의 자연이 밝혀지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하나 자신 과 알론한 것
으로 구분되어져서 **있는하나**가 논증되지는지가 밝혀지기 때문이다²⁶⁸⁹)나아

이 둘이 어떻게 서로로부터 구분되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지금의 나
는 당황한다 어렵듯이 구분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구분을 정확히 글로
쓰기가 난감하므로 그렇다

가서,

이 두 논증의 결론은 같지만 그 중간 로고스들은 알론할 뿐만 아니라

2689) 물론 **프라그마**가 그렇게 구분되기에 하나가 그렇게 구분되어 논증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태(프라그마, 事態)구분이 그 구분의 근거일 것이다 그 구분된 프라그마가 영혼에 의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

나는 파르메니데아스 편을 읽으면서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저자인 플라톤이 무엇 때문에 하나를 스스로 와 알론한 것으로 구분해서 각기 양자적으로 논증해 나갔는지 의아해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동일하며 헤태론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하나와 알론한 것 대신에 하나 아닌 것을 ‘플라톤’은 들먹거릴 때는 한층 더 의아해 했다 하나와 알론한 것 그리고 하나 아닌 것 그리고 하나와 헤태론한 것 이 셋은 하나가 아니다 분명히 구분된다 알론 과 헤태론이 구분되듯 말이다 아마 **프라그마**에 있어서는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설령 그렇다고하더라도 프라그마의 그 논증(로고스)에 있어서는 구분된다 그리고 그 쓰임새도 각기 헤태론하다

위와 같은 나의 의아(依阿)함은 적어도 나에게는 밝혀져야한다 프라그마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말에서는 그렇다 라는 것은 플라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다 **있음** 과 **실체(존재)**의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말에서는 그렇다 라고 우기는 것은 한참 더 모르는 말이다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에게는 거짓도 진리 처럼 똑 같이 존재하고 가짜도 진짜 처럼 똑 같이 존재한다 설령 거짓 또는 가짜가 저 있음의 이데아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머리카락 진흙의 에이도스가 저 이데아의 영역에는 있지 않으나 하찮고 우아하지 못한 그러한 것의 에이도스는(130c6-7, 1257)는 여기에 존재하는 그대로 존재한다 실체를 지닌 채로 말이다 그러한 에이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반대된다 뒤 논증에서는 *알론하다*면 *같지않다*(148c6-7, 1735)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앞 논증에서는 *헤테론하다*면 *같다*(148b3, 1734)라고 말하여지는데 *같지 않다* 와 *같다*가 반대된다면 *알론* 과 *헤테론* 역시 반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는가 먼저,

동일을 겪어야만 같다고 했으니 동일하지 **않는** 것을 겪으면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동일하지 않는 것은 *알론한* 것 또는 *헤테론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알론*을 겪으면 *같지 않을* 것이므로 **알론한한 같지 않을** 것이다²⁶⁹⁰)다음으로, 하나는 *알론한* 것에 *헤테론*하며 *알론한* 것은 하나에 *헤테론하다*면 그렇게 말할 때 마다 *헤테론*의 이름은 **동일한** 어떤 것에 걸치지 동일하지 **않는** 어떤 것에 걸치지는 *않을* 것이므로 하나 와 *알론한* 것은 *헤테론한* *동일*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동일을 겪어야만 같으므로* **헤테론한 동일**을 겪는 하나는 *같을* 것이다 그래서 **헤테론한한 같다** 그런데 *같음*은 *같지않음*에 그리고 *헤테론*은 *동일*에 **반대**이다 그리고 하나는 *알론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고 *헤테론한한* *같다*는 것은 방금 보여졌다 그래서 위의 그 반대에 따라서 **동일한한 같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지않다* 그래서,

앞에서는 *알론한한* *같지않다*는 그리고 뒤에서는 *헤테론한한* *같고* *동일한한* *같지않다* 라는 그리고 *동일한한* *같다*는 로고스가 그 논증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헤테론*하게 *동일한한* *같지않으므로* *동일한한* *같다*는 것과 **반대**(모순)되지 않는다 *동일*이 *헤테론*과 *있음*을 통해서 묶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헤테론한* *같다*는 로고스도 그 *헤테론*은 *헤테론*의 *동일*과 *있음*을 통해서 묶어질 것이므로 *동일한한* *같다*는 말에 **반대**되지 않는다 *있음*을 통한²⁶⁹¹)*헤테론함* 과 *동일함*의 바로 이러한 묶어짐을 파르메니데아스는

2690) 이 경우 동일하지 않는 것은 *헤테론한* 것 보다는 *알론한* 것이라는 것이 논증되어야한다

이름을 통해서 드러낸다 이름이 걸처지는 어떤 것은 결코 **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1361)

바로 여기에 *이름*이 그의 존재론에서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는가가 드러난다 우선,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이스 와 엘레아 낫선이 와 티마이오스에 의해 쓰여지는 **존재** 와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를 구분²⁶⁹²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의 **존재론**은 **에이도스론** 또는 이데아론으로부터 조심스럽게 구분 되어야 할 것이다 에이도스 가운데 하나가 **있음** 과 존재(실체)이기 때문이다²⁶⁹³만약 에이도스 그 자체 각각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 관한 *로고스(말)*들의 모음을 *에이도스론(論)*이라 한다면 존재론 과 에이도스론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있음을 제외한 각기 것의 에이도스들은 있음의 그 에이도스에 의해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의해 섞어지고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있음을 나누어 지녀야 각기 **에이도스**가 비로서 서로에 **대해 있거나 있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다 바로 이러한 에이도스론이 파르메니데이스 편의 파르메니데이스에 의해 펼쳐진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이스 편의 에이도스론은 존재론에 속한다 서로에 대해 있는 에이도스들을 논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이도스

2691) 하나의 있음이 전제 됨에 유의하라

2692) 이러한 구분은 **있음** 과 **실체(존재)**의 구분을 전제한다 물론 실체 또는 존재가 저 있음 보다 더 있거나 또는 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2693) 그러나 이러한 **있음**을 텔레스의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tau\acute{o}\ \tau\acute{i}\ \eta\upsilon\nu\ \varepsilon\ \acute{\iota}\nu\alpha\iota$, esseintia, 본질, 本質)과 하나로 보는 것은 약간 성급할 것 같다 말 그대로 있어 오고 있음 과 있음은 서로에 구분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 자체 각각은 무엇인가를 논증하기 않는다 혹은 그 자연(φύσις)은 어떠한 것들이다 라고는 말하여지지만 말이다 반면에,

소피스테이스 편은 에이도스론이기 보다는 존재론(1064) 곧 존재에 관한 논증으로 보는 것이 더 성급하지 않을 것이다 **실체(존재)를 있음과 없음과 같음과 다름과 헤타론과 동일** 이 다섯가지 가장 큰 다섯 류로부터 이끌어내는 논증이 거기 소피스테이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은 조심스럽게 서로로부터 떼어내지는 네 가지 큰 류가 있음 과 있지않음에 의해서 어떻게 섞어지고 분리되는 가운데 실체(존재)가 튀어나오는지를 논증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 와 그렇지 않는 하나가 각각 있는 경우 와 있지 않는 경우²⁶⁹⁴)를 파르메니데이스 편은 논증한다 따라서 텔레스의 존재론 과 실체론 과 본질론은 구분되어야 하듯이 ‘플라톤’의 에이도스론 과 존재(실체)론 역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섯 논증들 각각 그 자체만으로는 불완전하다 있는 것에 관한 논증이 이루어 질려면 이 다섯 논증들이 연이어져야만 할 것이다 아마도 그렇기에 헤에겔은 자신의 논리학을 있음(Sein, 존재)에관한이론(제1책) 과 본질(Wesen)에 관한이론(제2책) 과 개념(Begriff)에관한이론(제3책)으로 나누지않았을까²⁶⁹⁵)

2694) 그러므로 만약 하나 있는 또는 있지않는 경우 와 하나 만약 있는 또는 있지않는 경우로 나누어진다면 그래서,

실체를 지니는 하나를 있지 않는 하나와 하나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있지 않는 하나도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경우 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2695) 하여튼 헤에겔은 비록 나에게서는 불만족스러운 사람이긴해도 기념비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플라톤이나 텔레스 보다는 덜 기념될 것이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어쨌든,

‘플라톤’의 이러한 존재론 과 에이도스론에서 **이름**은 어떠한 부분을 차지할까 그 결정적인 부분이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는 같고 같지않다를 논증하는 곳에서 바로 여기에 나온다 하나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는 곳(1396-1399)에서 그리고 동일과혜태론은 있음과 구분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곳(2413)에서 이미 이름은 결정적으로 쓰였긴해도 말이다 이제,

같고 같지않다는 것을 논증하는데 **이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관해 써보자 묘(妙)할 것이다 동일을 겪어야 **같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파르메니데아스의 입에서 **혜태론** 덕분에 **같다**는 말을 나오게한 것이 바로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고리로하여 ‘플라톤’의 존재론은 이어진다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파르메니데아스가 말하는 여기 맥락에 따르면 어떤 것에 걸치는(ἐπι, 147d1, 1731)이름을 한 번 부르든 여러 번 부르든 부를 때에는 그 **이름**에 저것이 걸쳐지지 저것이 **아닌** 것이 걸쳐지지는 않는다²⁶⁹⁶)다시 말해 **동일**한 것이 걸쳐진다 그런데 혜태론 역시 하나의

2696) 여기 맥락을 어떤 것이 여러 이름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을 허용하는 맥락으로 받아드려서는 결코 않된다 저 소피스테아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로 하여금 동일한 것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워진다고 말-물론 이러한 말은 ‘플라톤’의 말일 것이다-하게 할 때의 ‘플라톤’은 동일한 어떤 것이 혜태론한 여러 이름을 지닌다 것을 근거로 자신의 존재론을 펼쳐나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여기 맥락은 동일한 어떤 하나에 혜태론한 여러 이름에 관련되는 맥락이 아니다 오히려 관련된다면 소피스테아스 편의 저 맥락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름이다 따라서 헤태론이 한 번 또는 여러 번 발설 될 때 마다 헤태론은 동일한 것에 한 번 또는 여러 번 걸칠 것이다 이제,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하며 알론한 것은 하나와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헤태론은 두 번 발설 되었으나 헤태론에 걸쳐지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그런데 동일을 겪는 것은 반드시 **같다** 그래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은 **동일**을 겪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다 그것도 헤태론 이라는 이름에 의해서 말이다 따라서 헤태론의 이름의 동일을 겪음을 통해 같기 때문에 **헤태론한한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헤태론한한 같다 라는 로고스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름**이 쓰여졌다 알론한 것과 함께 헤태론을 겪는 하나는 그 헤태론에 의해 알론한 것과 같다 헤태론의 이름이 걸쳐지는 것의 바로 그 동일 때문이다 동일을 겪는한 같으므로 그렇다 그래서 *헤태론에 의해*(τῷ ἐτέρῳ, 148b6, 1734)같다 이제,

헤태론한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다는 것으로부터 동일한한 같지 않다가 나온다 같은 것은 같지 않는 것에 헤태론은 동일한 것에 **반대**이며 하나는 알론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음에 반대되는 같지 않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의 이름에 걸쳐지는 것은 단지 하나일 뿐이라는 맥락에서 말하여지므로 동일한 어떤 것에 걸쳐지는 이름은 단지 하나라는 말이다 걸쳐지다를 뜻하다 또는 가리키다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오히려 저 소피스테이스의 문제의 그 곳이 이름 하나에 뜻 여럿을 허용하는 것 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곳에서 동일한 것에 여러 이름이 허용될 때도 동일한 것이 지니는 이름의 여러 뜻 보다는 여러 이름에 상응하는 프라그마 여럿이 가리켜지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의 이름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고 묻는 것은 존재론 이라기 보다는 의미론-의미론을 나는 말장난(때로 장난치고 싶을때도 있다)으로 본다-으로 보야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한 같지않다**

이러한 것을 아래 처럼 그려 볼 수 있으리라.



이 그림은 Ⓢ동일한 것에 걸치는 이름의 헤태론에 의해 같으며 Ⓛ같은 것과 같지않음 사이의 그리고 동일과헤태론 사이의 반대에 의해서 동일한한 같지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동일하면 같고 헤태론하면 같지않던 것이 이름이 그 사이에 끼어들면서 동일하면 같지않고 헤태론하면 같게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둘만하다 그런데,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하고 동일하다는 것이 논증됐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하기에 같고 동일하기에 같지않다 그러나,

기역 과 디근의 화살은 반대되는 것을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나 너무 번민하지 않아도 된다 기역은 **이름**을 거쳐 그렇게 된 반면 디근은 이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바로 여기에서 소피스테이스 편 261d2(132-133)이후 엘레아 낫선이에 의해 행하여지는 **이름들에 관한**(τῶν ὀνομάτων)숙고를 이끌어 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만이 이름들에 관한 로고스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지금 이러한 숙고에 머무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단지 ‘로고스는 **말하여진 것들**(τὰ ῥήματα²⁶⁹⁷), 262c4, 133)과 섞어진 어떤 **이름들**이 묶어질 때 비로서 이루어진다’는 것 만을 적시(摘示)하고 지나칠 수 밖에 없어서 몹시 애석하다 어쨌든,

하나는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도 같고 같지않다는 것이 논증됐다 이와함께,

하나는 스스로와 알론한 것에 접촉하며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는 스스로 **안에**도 있고 알론한 것 **안에**도 있다는 것은 이미 보았다(1717-1718)그런데 알론한 것 안에 있다면 알론한 그것과 접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접촉한다** 나아가서 스스로 전체 안에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과의 접촉이 막힌채 **자신과 접촉하면서**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는 자신과 알론한 것과 접촉한다 나아가서,

어떤 것들이 접촉하려면 함께 머물러야 하는 동일한 것에 연이어 접촉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놓여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가 자신과 접촉한다면 스스로 뒤에 바로 연이어지면서 거기 안에 스스로와 함께 머물러야 하는 자리를 자신은 지녀야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인한 그럴 수 없다 그러려면 하나가 아니라 둘이어야만한다 따라서 둘이지 않는 그 필연에 의해서 **하나는 자신과 접촉할 수 없다** 접촉하려면 한 자리 안에 연이어지는 둘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연이어 접촉될 것은 분리해 있으므로 그 사이에 세 번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연이어질려면 그곳에서 이어지는 이음매가(ἄψ

2697) 흔히 동사(動詞)라고 옮기나 그렇게 적절한 옮김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언제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숙고해 보고 싶다 행위에 걸쳐져(ἐπι ταῖς πράξεσιν, 262a3, 133)분명하게 된 것들을 레에마(구, 句)들 이라고 말한 엘레아 님의 로고스를 분석해 보아야하긴 하는데.....동사와명사(이름)로부터 로고스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천박해.....플라톤이 이런 천박한 뜻으로 말한 것은 분명아닐거야

us, 149a7, 1737)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음매가 있으려면 최소한도 둘 있어야 하고 그 둘의 경계(ῥῶμα, 149a8, 1737)에서 세 번째 것이 이어져야한다 그래서 연이어지는 것이 둘이라면 이음매는 하나요 셋이라면 둘이다 늘 이음매는 수적으로 하나 더 적다 계속 하나가 더 연이어질 때 마다 이음매 하나가 덧 붙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만 있다면 겹도 있지 않을 것이고 이음매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하나가 아닌 것들이며* 하나를 나누어지니지도 않는다 따라서 수적으로 있지도 않다 이제 이음매가 있을 수 없다 둘이 있지 않으면 이음매는 결코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알론한 것은 하나와 접촉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알론한 것과 접촉하고 접촉하지 않는다 스스로 전체 안에 그리고 알론한 것 안에 있으므로 하나는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접촉하는 반면 하나로 있는한 접촉하는 자리를 지닐 수 없어 자신과도 알론한 것과는 접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이어지는 것 둘이 그 안에 있는 **자리**(χώραν, 148e9, 1736)에서 이음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렇다 하나는 하나 **아닌 것**²⁶⁹⁸)이며 하나를 나누어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하나는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똑 같고 똑 같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먼저,

2698) 알론한 것 대신에 하나 **아닌 것**이라는 말은 1776쪽에 정리됐듯이 알론한 것과 *해태론한* 하나를 논증하기 위해 쓰였다 그러나 알론한 것과 *접촉하는* 하나를 논증하는 곳에서는 하나 아닌 것 대신에 알론한 것이 쓰여진 여기 처럼 거기에서도 알론한 것과 *동일한* 하나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하나 아닌 것 대신에 알론한 것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하나를 논증하는 이 두 곳에서는 하나 아닌 것이 쓰이지 않는다 알론한 것 대신에 무엇 때문에 하나 아닌 것이라는 말을 씻을까.....

똑 같다는 것을 논증해 보자

스스로 **안에** 크기도 적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스스로를 초과하지도 스스로에 의해 초과되지도 않을 것이다 크기는 적음을 초과하는 반면 적음은 크기에 의해 초과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초과하지도 초과되지도 않는다면 똑 같다 똑 같음²⁶⁹⁹)으로부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는 어떤 것 안에도 크기와 적음이 있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면 하나는 알론한 것과 똑 같다는 것이 논증된다 먼저,

하나 ((안))에는 **적음이** 있는가 만약 하나 **안에서** 적음이 되어진다면 하나 전체 안에서 되어지든지 아니면 하나 부분 안에서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전체 안에서 되어진다면 하나 전체에 두루 퍼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를 둘러쌀 것이다 그러나 전체에 두루 퍼져 있다면 두루 퍼진 그 적음이 하나와 똑 같을 것이나 둘러싸고 있다면 둘러싸고 있는 적음이 하나보다 클 것이다 그러나 적음이 그 **있음**에 의해($\tau\acute{\omega}\ \acute{\epsilon}\acute{\iota}\nu\alpha\iota$, 150a7, 1741)어떤 것과 똑 같거나 보다 더 클 수는 없으며²⁷⁰⁰)적음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똑 같음과 큼의 일을 수행할 수는 없다 나아가서 어떤 부분 안에도 적음이 있을 수 없다 부분 안에 있다면 전체 안에 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음은 그 부분과 똑같거나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다* 따라서 부분 안에도 전체 안에도 적음이 있지 않다면 **있는** 어떤 것 안에도 적음이

2699) 크기와 적음과 똑 같음 각각은 하나의 **에이도스**로 간주된다는 것에 유념(留意)하라

2700) 있음의 경우 더 많거나 더 적지 않다는 말은 소피스테이스 편의 엘레아 님선이에 의해서도 쓰여진다 실체를 지니는 하나의 부분 각각에 실체는 더 많이($\pi\lambda\epsilon\iota\omega$, 144d7, 1685)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 분배된다고 거기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 적음 자체 없이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면,

하나 안에는 **큼**이 있는가 만약 어떤 것이 크다면 어떤 그것 안에는
큼 이외에도 크기가 초과해야하는 적음이 있어야 할 것이나 있는 어떤 것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으므로 어떤 것도 클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초과해야
하는 적음이 있어야 하는가 크기는 적음 보다 크지 **알론한 어떤 것 보다 크**
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적음도 큼 보다 적지 **알론한 어떤 것 보다 적지 않**
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기도 적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크지도 적지**
도 않다 하나에 대해서 초과하거나 초과되는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크
기 와 적음이 서로에 대해 그러한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²⁷⁰¹)마찬 가지로 **하**
나도 알론한 것 보다 크지도 적지도 않다 그 안에는 적음도 큼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 보다 크지도 적지도 않는다**면 하나는 초과하거
나 초과되는 **힘**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초과하거나 초과되지 않는것
들은 똑 같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똑 같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그
러하다 하나 스스로 안에는 큼도 적음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에 대해 똑 같다 그러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에 똑**
같다 다음,

같지 않다는 것을 논증해 보자 그러려면 크고 적다는 것이 논증되어
야 한다

하나는 스스로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으므로(1717, 1721)하나
는 바깥에서 둘러쌓는 스스로 안에 있다면 둘러쌓는 것은 둘러쌓이는 것 보

2701) 마찬가지로 알론한 것도 큼 과 적음을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 보다
크거나 적지 않다

다는 큰 반면 둘러쌓이는 것은 둘러쌓는 것 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하나*는 *자신 보다 크고 적다* 나아가서,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으며 **있는** 것은 항상 어디에($\pi\omicron\upsilon$ ²⁷⁰²), 151a4, 1754)있다 그래서 하나가 어떤 것 **안에** 있다면 더 큰 것 안에 있으면서 더 *적을* 것이다 헤태론한 것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헤태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알론한 것보다 하나와도 분리해 있지 않으므로 이것들은 반드시 어떤 것 안에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은 하나 안에 필연적으로 있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 안에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적은 반면 하나 안에 알론한 것이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크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크며 적다 그렇다면,

*하나*는 *자신 과 알론한 것 보다 크고 적다* 이제,

수 *적으로* 똑 같고 더 많고 더 *적다*는 것을 논증해 보자

더 크고 더 적고 똑 같다면 똑 같은 **척도**들 과 더 적은 척도들 과 더 많은 척도들을 지닐 것이다 그런데 척도들을 지니면 그 만큼 **부분**들도 지닌다 이렇게 똑 같은 척도들 과 부분들 그리고 더 적은 척도들 과 부분들을 그리고 더 많은 척도들 과 부분들을 지닌다면 하나는 자신들과 알론한 것들에 **수적으로** 똑 같으며 더 적으며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더 크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의 더 많은 척도들을 지니며 더 적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의 더 적은 척도들을 지니고 똑 같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의 똑 같은 척도들을 지닐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다면 자신들과 똑 같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니며 더 적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니고 더

2702) 텔레스의 열 범주 가운데 하나인 $\pi\omicron\upsilon$ (어디에?, 범주들1b26, 161, 909, 911)와 연결되지 않는가 비록 거기 어디는 의문부사인 반면 여기는 의문부사가 아닌긴해도 말이다 그래도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라는 점에서는 같다

많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닌다 그래서 자신과 똑 같은 부분들을 지닌다면 자신과 수적으로 똑 같이 많을 것이며 더 많은 부분들을 지닌다면 자신 보다 수적으로 더 많을 것이고 더 적은 부분들을 지닌다면 수적으로 더 적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으므로 *하나는 자신 보다 수적으로 더 많고 작고 똑 같고 나아가서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다* 이렇게,

파르메니데에스는 하나 **안에** 적음이 **있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므로서 반드시 그 적음을 초과할 **크도** 하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끌어 낸 다음 초과되거나 초과하지 않는 것은 똑 같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는 자신과 똑 같다고 말하면서 알론한 것과도 하나는 똑 같다고 논증한다* 하나가 알론한 것 보다 크거나 적으려면 하나 안에 크이나 적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파르메니데에스는 어떤 것 **안 과 밖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둘러싸고 어떤 것에 의해 둘러 쌓이므로 더 크고 더 적다는 것을 근거로 스스로 안 과 밖에 있는 하나는 자신 보다 더 크고 적으며 알론한 것 안 과 밖에 있는 바로 알론한 것과 헤테론한 것 으로서의 그 하나는 알론한 그것 보다 더 크고 적기 때문에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다는 것을 논증한다 이어,

파르메니데에스는 똑 같거나 더 크거나 더 적다면 똑 같거나 더 크거나 더 적은 척도들 과 부분들을 지니므로 수적으로 똑 같거나 더 많거나 더 작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에 수적으로 똑 같고 더 많고 더 작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논증은 **크 과 적음 과 똑 같음**은 각기 자신 만의 고유한 일을 수행하기에($\pi\rho\acute{\alpha}\tau\tau\epsilon\upsilon\upsilon$, 150a8, 1741)크음은 크기만하고 적음은 적기만하며 똑 같음은 똑 같기만 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이 **있음**에 의해서는($\tau\tilde{\omega}\ \epsilon\tilde{\iota}\nu\alpha\ \iota$, 150a7, 1741)어떤 것과 똑 같거나 더 크거나 더 적거나 하지 않다는 것에

근거한다 물론 큼은 반드시 적음을 초과한 것이고 적음은 반드시 큼에 의해 초과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것 안에 있는 것은 둘러쌓이므로 더 적고 어떤 것 밖에 있는 것은 둘러쌓이므로 더 크다는 것 그리고 헤태론한 것 안에 있는 헤태론한 것은 어떤 큼과적음의 량적인 차이라는(1746각주2659)것도 전제되는 근거이긴하나 앞 두 근거에서 잇따라 나오는 것들이다 그래서 앞 두 근거가 무너지면 파르메니데에스의 논증은 무너질 것이다 어쨌든,

똑 같고 더 크고 더 적다 라는 논증은 **안 과 밖에 있음**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리($\chi\acute{o}\rho\alpha\nu$ ²⁷⁰³),138c6 : 1612, 148e9, 1736, 공간)와 관련된다 안에 있고 밖에 있음은 어디에($\pi\omicron\nu$, 151a4, 1745, 1792)있음의 일 중이며 어디는 있는자리를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리**에 관련되는 논증은 똑 같고크고적게 있는 하나의 논증 이외에도 접촉되고되지않고 있는 하나 와 동일하고헤태론하게 있는 하나 와 움직이고쉬고 **있는** 하나 그리고 안과밖에 있는 하나의 논증이다 그래서 이러한 논증에서 드러나는 프라그마(사태)를 잘 살펴 보면 자리(공간)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 **자리(공간)**가 무엇인지는 아무리 살펴 보아도 모를 것이다 공간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꿈에 있는 것과 같다고 쓰여지기 때문이다-아마도 티마이오스 52a8(1139, 151)앞뒤를 보면 될 것이다 어쨌든,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똑 같고 똑 같지 않다는 이러한 논증과 더불어 있는 하나는 **시간**을 나누어 지녀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젊고 젊게되며 늙고 늙게되고 자신과 알론한 것들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고 양게된다*는 것이 논증된다 그러나,

2703) 옮겨가는 움직임은 헤태론한 자리에서 헤태론한 자리로 그 자리를 바꾼다 라는 1612쪽을 참조하라 거기는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는 움직여 지지도 않는다 라는 맥락에 속한다

나는 이 논증을 따라가지 전에 하나가 어떠한지 **있으며 존재**하는지를 1714-1720에 이어 다시 정리해 보려한다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는 비록 고단(孤單)하고 힘든 일이지만 말이다

하나는 자신 **안에도** 있지 않고 알려진 것 **안에도 있지 않는** 한편 스스로 **안에도** 있고 **해태론한 것 안에도 있다**는 것과 함께 하나는 쉬어왔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는 한편 움직이고 쉬고 **있다**는 것이 논증됐다 이와함께,

자신과도 알려진 것과도 **동일하지도 해태론하지도 않는** 하나는 스스로와 그리고 알려진 것과 **동일하고 해태론하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 스스로와 해태론한 것은 하나와도 해태론할 것이므로 하나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스스로와 해태론한 것이 아니며 그리고 해태론과 **동일한** 것은 해태론한 것이지 하나 스스로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해태론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하나 **있음**에 의해서는(τῷ ἔν εἶναι, 139c6, 1618)하나와 **해태론**할 수 없다 어떤 것과 해태론하게 있음에 의해서는 하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태론함에 이르는 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하나에 의해서 해태론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 스스로에 의해서도 해태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에 의해서도 스스로에 의해서도 해태론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도 하나는 해태론한 것과 해태론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자신이 해태론한 어떤 것과도 해태론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하나**의 자연은 **동일한 것의 자연**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않다면 어떤 것에 동일한 것이 되어질 때 마다 하나가 되어져야만 할 것이나 **여럿**에 동일한 것이 되어질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와 동일이 결코 차이 나지 않는다면 동일한 것이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하나가 되어졌어야하고 하

나가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동일한 것이 되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스스로와 동일하다면 하나는 스스로와 하나가 아닐 것이므로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 동일하든지 아니면 헤태론하든지 아니면 부분의 전체이든지 아니면 전체의 부분으로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있는** 하나는 자신의 부분이 아니므로 스스로에 대해 부분으로 있지 않으며 그래서 부분의 전체로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와 헤태론하지 않으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가 스스로에 대해 부분도 전체도 헤태론하지도 않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는 스스로에 대해 동일하게 있다 그런데 하나는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헤태론한 것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으며²⁷⁰⁴⁾스스로와 헤태론한 것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와 동일한 것 안에 있는 것은 스스로와 필연적으로 헤태론하다 헤태론한 곳에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하게 있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필연적으로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하며 그리고 하나와 **헤태론한** 것은 하나 **아닌** 것이므로 하나는 하나 아닌 것과 헤태론하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게 있다²⁷⁰⁵⁾그런데,

동일한 것과 헤태론한 것은 반대이다 그래서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 것 **안에**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느 시간 동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동일한** 것 안에는 어느 때도 있지 않으므로 **헤태론한** 것은 **있는** 어떤 것들 안에 어느 때도 있지 않을 것

2704) 145b6 - 145e7(1687-1689, 1717-1718)에서 보여졌다

2705) 아님 또는 있지않음은 알론함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된다(1538)하나가 하나 아닌 것에 대해 있는 것은 하나가 알론한 것에 대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다 그런데 하나 와 하나 아닌 것은 있는 어떤 것이어서 안에 헤태론한 것이 있지 않으므로 헤태론에 의해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과 그리고 *하나* 아닌 것은 하나와 헤태론해질 수 없다 그러나 헤태론을 나누어지니지 않는다면 스스로들에 의해서도 서로에 헤태론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들에 의해서도 헤태론에 의해서도 헤태론하지 않다면 하나 와 하나 아닌 것은 헤태론하지 않다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하나 **아닌** 것을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로 있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수가 아니다 수를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 아닌 것이 아닐 것이므로 그렇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하나의 부분이 아니다* 부분이라면 하나를 나누어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하나의 전체도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 전체거나 부분이거나 헤태론하거나 동일한 것인데 전체도 부분도 헤태론한 것도 아니므로 필연적으로 동일하다 이제 하나는 하나 **아닌** 것에 대해 그러하므로 *하나*는 *하나* 아닌 것에 대해 동일하다 곧 알론한 것에 대해 동일하다 그렇다면 *하나*는 스스로와 알론한 것들에 동일하며 헤태론하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자신과도 알론한 것과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으며** 그리고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과 동일하고 헤태론하게 **있다**는 것이 논증됐다 이렇나 논증을 나는 다음 쪽 도표로 나타낸다

	하나			
	하나자체		있는하나	
	← 부정 →			
	실체지니지않음		실체지님(존재)	
	스스로	알론한것	스스로	알론한것
동일 (같음 똑같음)				
반대	하지않다	하지않다	하다	하다
헤태론 (같지않음 똑같지않음)				

이 도표는 먼저 하나자신은 있는하나의 부정(否定)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하나 자신이든 하나와 알론한 것이든 모두 자신 안에 반대(모순)각각을 부정하면서 머금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있다(하다) 와 있지않다(하지않다) 사이를 반대로 보면 안된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되었듯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발 짝 더 나아가서 앞으로 차차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내가 이미1632각주2537에 쓴 것 처럼 여기 있지않는 것을 실체를 지니는 있지않는 하나 곧 존재하지않는 하나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져서도 또한 안된다²⁷⁰⁶⁾이제,

2706) 12쪽의 그림에 나온 것 처럼 만약하나있다면의 하나 와 하나만약있지않다면의 하나 와 만약하나있지않다면의 하나는 비록 그것이 있는하나의 부정이라는 점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그 자체에 있어서는 반드시 서로 구분되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을 나는 있음 있는것 있지않는것 있지않음 등으로 구분하고 싶은 충동도 느끼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다소

이러한 논증과 함께,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은 하나는 스스로와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같은 것은 어디서나 **동일한** 것을 겪는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하나와 분리되는 자연을 지녔었으므로 동일함을 겪는 것은 반드시 하나와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 보다 많아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과도 동일하지 않는 하나는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 나아가서,

같지 않는 것은 어디서나 **헤태론**을 겪는다 헤태론의 자연은 자신을 겪는 것들을 **있지 않게**하면서 그 부분들로 나누기 때문이다²⁷⁰⁷)그런데 어떤 것과도 헤태론하지 않으므로 하나는 같지 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스스로와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하게 **있다**는 것이 보여졌었으므로 알론한 것 역시 하나와 헤태론할 것이다 그러는한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을 겪고 알론한 것은 하나와 헤태론을 겪을 것이며 그러는한 양자는 헤태론한 동일한 것을 겪었을 것이다²⁷⁰⁸)그런데 **같은** 것은 어디에서건 **동일한** 것을 겪

성급한 듯 싶다 없는것 없음 등으로 하여도 마찬가지로이다 어쨌든,

있음 자신에 잇따르는 것들이 ‘...있지않다’ 라는 식으로 말하여졌다고 해서 있지않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있음을 여겨서는 결코 안된다

2707) 헤태론의 자연은 헤태론하게 하면서 어떤 것을 있지 않게하며(1535) 어떤 것을 부분들로 나눈다(1539)라는 로고스를 상기하라

2708) **이름**을 숙고해 보자 이름은 어떤 것에 걸쳐 *émi*, 147d1, 1732)있다 이제 이러한 이름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부를 경우 만약 동일한 이름이라면 매 번 그 이름은 동일한 어떤 것에 걸치지 그 어떤 것이 **아닌** 것에 걸치지

는다 따라서 각기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과 **혜태론한** 동일을 겪을 것이므로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동일한 **혜태론을 겪는한** 각기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가 알론한 것에 혜태론하는 바로 그 혜태론함에 의해서 **있는**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다 그런데,

같은 것은 같지 않는 것의 **반대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도 혜태론한 것에 반대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에 **있는** 동일함도 알론한 것에 있는 혜태론함에 반대일 것이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동일한 **혜태론인한** 같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따라서 혜태론한 **동일인한** **같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알론한 것과 동일하다면 이러한 동일함에 의해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²⁷⁰⁹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다 그런데,

동일을 겪는한 알론을 겪지않으며 알론을 겪지않는한 같지않지않고 같지않지않는한 같다 알론을 겪는한 알론하며 알론한한 같지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알론한 것과 동일하며 **혜태론하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고 같지않다 그렇다면 스스로와도 하나는 그러할 것이다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하며 혜태론하다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같

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혜태론의 이름 역시 어떤 것에 걸치는 이름이므로 이 이름이 발설될 때 마다 그 어떤 것이 **아닌** 것에 걸쳐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알론한 것은 하나와 혜태론하며 하나는 알론한 것과 혜태론하다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발설되는 혜태론의 이름은 **알론한** 어떤 것에 걸쳐지는 것이 아니므로 알론한 것이 하나와 혜태론하며 하나가 알론한 것과 혜태론한한 **혜태론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니라 혜태론과 동일한 것**(τὸ αὐτὸ, 148a2, 1733)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동일한 혜태론을 겪는다 자²⁷⁰⁹ 하나는 알론한 것과 동일하다(1755)는 것이 이미 보여졌고 혜태론은 어디에서든 한결 같기 때문에 그리고 같지 않음에의해서 동일해지지 않는다면 동일은 혜태론의 반대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고 같지않다 따라서,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는 하나는 스스로와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않게 있다 이와함께,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과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않는 하나는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똑 같고 똑 같지 않게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동일한 척도를 지녀야 똑 같다 그리고 척도들이 있는 그 만큼 제어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어된 부분들 중에는 함께 제어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함께 제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함께 제어졌든 함께 제어지지 않았든 더 많은 것 보다 더 적은 척도들 또는 더 적은 것 보다 더 많은 척도들이 있다면 더 적은 것 보다 더 큰 것들 또는 더 큰 것 보다 더 적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반면 동일한 척도를 지니지 못하면 그와 알론한 척도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척도들 만큼 제어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 척도 있다면 하나와 척도가 똑 같아야 하는데 하나와 동일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 척도를 나누어 지니지도 동일한 또는 많은 또는 적은 척도를 나누어 지니지도 못한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과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않다 반면,

있는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똑 같고 똑 같지 않다 만약 스스로 안에 크기도 적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스스로를 초과하지도 스스로에 의해 초과되지도 않을 것이다 반드시 크기는 적음을 초과하는 반면 적음은 크기에 의해 초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과하지도 초과되지도 않는다면 똑 같다 큼 또는 적음으로부터 있지 않다면 똑 같음으로부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안에 크기 와 적음이 있지 않으므로²⁷¹⁰⁾하나

2710) 하나 안에 큼 과 적음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래 처럼 논증된다 먼저,

는 자신과 똑 같게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크거나 적다면 그 안에는 초과되는 적음이나 초과하는 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으므로 알론한 어떤 것도 하나 보다 클 수 없다 그래서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크지도 적지도 않다** 하나에 대해서 초과하거나 초과되는 **힘**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크기 와 적음이 서로에 대해 그러한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알론한 것에 대해 하나는 있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크지도 적지도 않을 것이고 크지도 적지도 않다면** 하나는 초과하거나 초과되는 **힘**을 지니지 않을 것이며 초과하거나 초과되지 않는 것들은 똑 같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똑 같게 있다** 그러나 하나는

하나 ((안))에는 **적음이** 있는가 만약 하나 **안에서** 적음이 되어진다면 하나 전체 안에서 되어지든지 아니면 하나 부분 안에서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전체 안에서 되어진다면 하나 전체에 두루 퍼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를 둘러쌀 것이다 그러나 전체에 두루 퍼져 있다면 두루 퍼진 그 적음이 하나와 똑 같을 것이나 둘러싸고 있다면 둘러싸고 있는 적음이 하나 보다 클 것이다 그러나 적음이 그 **있음**에 의해(**τῷ εἶναι**, 150a7, 1741)어떤 것과 똑 같거나 보다 더 클 수는 없으며 적음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똑 같음 과 큼의 일을 수행할 수는 없다 나아가서 어떤 부분 안에도 적음이 있을 수 없다 부분 안에 있다면 전체 안에 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음은 그 부분과 똑 같거나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다** 따라서 부분 안에도 전체 안에도 **적음이** 있지 않다면 **있는** 어떤 것 안에도 적음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 적음 자체 없이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 안에는 **큼**이 있는가 만약 어떤 것이 크다면 어떤 그것 안에는 큼 이외에도 크기가 초과해야하는 적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하나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으므로 큼이 있을 수 없다

스스로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으므로(1717, 1721)하나는 바깥에서 둘러쌓는 스스로 안에 있다면 둘러쌓는 것은 둘러쌓이는 것 보다는 큰 반면 둘러쌓이는 것은 둘러쌓는 것 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하나는 자신 보다 크고 적다 크고 작다면 똑 같지 않으므로 하나는 자신과 똑 같지 않게 있다 나아가서 하나는 알론한 것 **안에** 있으므로(2711)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적은 반면 하나 **안에** 알론한 것이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크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크며 적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똑 같지 않게 있다 나아가서,

자신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다면 하나는 자신 보다 수 적으로 더 많고 작고 똑 같으며(2712)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으므로

2711)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으며 **있는** 것은 항상 어디에($\pi\omega\upsilon$), 151a4, 1754)있다 그래서 하나가 어떤 것 **안에** 있다면 더 큰 것 안에 있으면서 더 적을 것이다 헤태론한 것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헤태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알론한 것보다 하나와도 분리해 있지 않으므로 이것들은 반드시 어떤 것 안에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은 하나 안에 필연적으로 있다

2712) 더 크고 더 적고 똑 같다면 똑 같은 **척도**들 과 더 적은 척도들 과 더 많은 척도들을 지닐 것이다 그런데 척도들을 지니면 그 만큼 **부분**들도 지닌다 이렇게 똑 같은 척도들 과 부분들 그리고 더 적은 척도들 과 부분들을 그리고 더 많은 척도들 과 부분들을 지닌다면 하나는 자신들과 알론한 것들에 수적으로 똑 같으며 더 적으며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더 크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의 더 많은 척도들을 지니며 더 적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의 더 적은 척도들을 지니고 똑 같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의 똑 같은 척도들을 지닐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다면 자신들과 똑 같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니며 더 적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니고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수적으로더 크고 적고 똑 같다 이와 더불어,

있는 하나는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에 접촉하며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²⁷¹³⁾

알론한 것 안에 있다면 알론한 그것과 접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접촉한다 나아가서 스스로 전체 안에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과의 접촉이 막힌채 자신과 접촉하면서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는 자신과 접촉한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접촉하려면 함께 머물러야 하는 동일한 것에 연이어 접촉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놓여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가 자신과 접촉한다면 스스로 뒤에 바로 연이어지면서 거기 안에 스스로와 함께 머물러야

더 많은 척도들과 그 부분들을 지닌다 그래서 자신과 똑 같은 부분들을 지닌다면 자신과 수적으로 똑 같이 많을 것이며 더 많은 부분들을 지닌다면 자신 보다 수적으로 더 많을 것이고 더 적은 부분들을 지닌다면 수적으로 더 적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자신 보다 수적으로 더 많고 작고 똑 같고 나아가서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다

2713) 하나 자체는 접촉하지도 접촉하지않지도 않는다 라는 로고스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609-1610쪽에 옮겨졌듯이 모양 없는 하나 자체를 논증하는 맥락에서 하나 자체는 ‘ 알론한 것 안에 있지않다 알론한 것 안에 있다면 자기를 둘러쌓는 알론한 이것과 여러 곳에서 여러 방향으로 접촉해야 할 텐데 부분을 지니지도 않으며 빙두름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 하나가 그렇게 접촉되는(ἐπτεοθαί, 138a7, 1610)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 라고 말하여지는 것으로부터 하나 자체는 접촉하지 않는다 라는 로고스를 간접적으로 뽑아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자리**를 자신은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인한 그럴 수 없다 그러
 리면 하나가 아니라 둘이어야만한다 따라서 둘이지 않는 그 필연에 의해서
하나는 자신과 접촉할 수 없다 접촉하려면 한 자리 안에 연이어지는 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연이어 접촉될 것은 분리해 있으므로 그 사
 이에 세 번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연이어질려면 그곳에
 서 이어지는 이음매가(ἄψις, 149a7, 1737)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음매가 있으
 러면 최소한도 둘 있어야하고 그 둘의 경계(ὄρον, 149a8, 1737)에서 세 번
 째 것이 이어져야한다 그래서 연이어지는 것이 둘이라면 이음매는 하나요
 셋이라면 둘이다 늘 이음매는 수적으로 하나 더 적다 계속 하나가 더 연이
 어질 때 마다 이음매 하나가 더 불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만 있다면
 겹도 있지 않을 것이고 이음매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와 **알론한 것들**
 은 **하나가 아닌 것들이며** 하나를 나누어지니지도 않으므로 수적으로 있지
 않다 그래서 이음매가 있을 수 없다 둘이 있지 않으면 이음매는 결코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알론한 것과 접촉하고 접촉하지 않는다 스스로 전체
 안에 그리고 알론한 것 안에 있으므로 하나는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접촉하는 반면 하나로 있는한 접촉하는 자리를 지닐 수 없어 자신과도 알론
 한 것과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이어지는 것 둘이 그 안에 있는 **자**
리(χώραν, 148e9, 1736)에서 이음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렇다 하나는 하나
아닌 것²⁷¹⁴⁾이며 하나를 나누어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해서,

2714) 알론한 것 대신에 하나 **아닌 것**이라는 말은 1776쪽에 정리됐듯이 알
 론한 것과 해태론한 하나를 논증하기 위해 쓰였다 그러나 알론한 것과 **접촉**
하는 하나를 논증하는 곳에서는 하나 아닌 것 대신에 알론한 것이 쓰여진
 여기 처럼 거기에서도 알론한 것과 **동일한** 하나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하나
 아닌 것 대신에 알론한 것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접촉하고 있고 접촉하지 않고 있다

이상(以上)에서 논증됐듯 하나는 반대되는 것을 안에 품어 스스로를 부정(否定)하고 다시 부정한다 예를들어 같기도 하지만 같지않기도하고 같지않지 않기²⁷¹⁵)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대 와 부정을 1721의 도표에 이어 다음 쪽의 도표를 만들어 볼 수 있으리라

하나를 논증하는 이 두 곳에서는 하나 아닌 것이 쓰이지 않는다 알론한 것 대신에 무엇 때문에 하나 아닌 것이라는 말을 씻을까.....

2715) 그런데 같지 않지 않는한 같게 있다 라는 1753(148c5-6) 파르메니데 에스의 로고스를 다시 떠 올린다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어떤 것은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멀어져간다 라고 1572쪽에서 말했다 그렇다면,

‘플라톤’을 따라가는 내가 틀리게 따라갔다는 말인가 부정된 만큼 멀어져 간다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나로 하여금 그이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려면 동일한 부정은 헤태론이나 헤태론의 부정은 동일이 아니라 헤태론인 반면 같음의 부정은 같지않음이며 같지않음의 부정은 같음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럼직하다

	하나	
	하나 자신	있는 하나 자신
전체	(만약)하나(있다면)	하나(만약 있다면)
실체	지니지않음	나누어지님
여럿	없다	있다
부분의전체	없다	있다
전체의부분		
한계	없다	있다
수	없다	(무한히 많이) 있다
모양	없다	있다
안	없다	있다
움직임	없다	있다
쉽		
동일	없다	있다
헤태론		
같음	없다	있고
같지않음		없다
똑같음	없다	있고
똑같지않음		없다
접촉	없다	있고없다

부분과전체에 걸리는 점선을 제외한 모든 점선은 **반대**(έναντία, 소피스테이스250a8 : 1471, 파르메니데이스 146d6 : 1724)를 나타내는 반면 겹실선은 **부정**(ἀπόφασις, 소피스테이스 257b9, 1538, 否定) 과 **맞섬**(ἀντιθεσις, 소피스테이스 257e6, 1541, 反定立)을 나타내는 위 도표를 통해서 **있음** 과 **없음**은 **반대(모순)**이 아니라 **부정과맞섬** 이라는 것이 뚜렷해질 것이다 점선이든 실선이든 위 모든 선은 구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나는 안에 반대

를 허용하면서 부정하고 또 부정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하나는 반대들을 안에 부정하면서 담고 있다 그러나 하나가 실체를 나누어지니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실체를 나누어지니지 않는 하나 자체는 있는 하나의 부정 또는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만 그어질 또는 가리켜질 뿐이다²⁷¹⁶⁾.....이제,

이러한 하나의 논증에 이어 어떠한 하나를 논증하는지 파르메니데에 스를 계속 따라가 보자

2716) 그러나,

1751쪽에 다시 옮겨진 것 처럼 반대인 것들은 서로 안에 있을 수 없으므로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 것 안에 그리고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움직임과섬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같음에 관련해 약간 어렵게 되는 것 같다 같음과같지않음 각각은 서로에 **반대**되나 이것들이 **실체**를 나누어 지니게 되면 각각 반대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같게 있는 것 과 같지 않게 있는 것 사이를 구분하는 겹 실선이 바로 그러한 부정적인 맞섬을 뚜렷하게 할 것이다 똑 같음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역설적으로 하나 와 동일 과 같음 과 똑 같음이 **실체**를 지남으로써 있어 오게 된 결과는 아닐런지.....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플라톤’의 모든 맥락에서 반대(모순) 와 부정을 지금의 내가 구분하려 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 어쨌든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아스 와 엘레아 낫선이에 따르면 부정은 반대와 비록 맞섬이라는 점에서는 통할는지 모르지만 **반대(모순)**되는 것들은 서로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지만 **부정**되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은 반대 와 부정 사이의 구분에서 오는 것 같지는 않다

“ 다시 이렇게 하나 그것은(αὐτό 151e2)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수적으로 똑 같고 더 많고 더 적을 것이네

[그]럴 것입니다

이제 하나는²⁷¹⁷시간을 나누어 지니며(μετέχει, 151e3, 分有하며) 그 (하나)는 스스로 보다 그리고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고 젊게 되며 늙고 늙게 되고 자기 자신 과 알론한 것들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고 않게 되지 ?

어떻게요 ?

있음은 어디에서[든](που²⁷¹⁸) 151e6)그 (하나)에 속하네 만약(εἴπερ e7)하나가 있다면 말일세

예

있음은 현재 시간에(ματὰ χρόνου, τοῦ παρόντος e8)실체를 나누어 지님(μέθεξις e8)과 알론한 무엇인가 ? 있어 옴(τὸ ἦν 152a1)은 지나간 (시간)에 그리고 있게 될은 닳아 올(시간)에 실체(οὐσίας κωνωνια a3)를 (나누어 지님)은 공통적인 것 처럼 말일세

2717) 이러한 하나를 있는 하나(τὸ ἔν ὄν 143a5, τὸ ὄν ἔν 144e5) 라고도 파르메니데아스는 쓴다

2718) 어디(πού)를 훗 날 텔레스는 자신의 열 범주 가운데 하나로 집어든다 (범주들, 1b26, 161)물론 여기서 문제 삼아지고 있는 파르메니데아스의 시간(χρόνου)도 마찬가지로 열 범주 가운데 하나로 집어든다 비록 ποτὲ(범주들, 1b26, 언제-ποτὲ(언제)라는 말은 파르메니데아스 152b5에서 나타난다)라고 알론하게 말하면서 이긴 해도 말이다 나아가서 앞에서 파르메니데아스에 의해서 앞에서 거론된 실체도 범주 중의 하나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집어든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들을 그 자체 **있음**(1017a22, 691쪽) 이라고 텔레스는 말한다는 점에 유의하라

(공통적)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있음(을 나누어 지닌다)면 시간을 나누어 지니네

물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지?)

예

따라서 시간적으로 앞서니 (하나)는 항상 자기 자신 보다(ἑαυτο
ύ 152a5) (하나)는 늙게 되지?

필연적으로 (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늙은 것은 젊게 되는 것 보다 늙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늙게 되므로 (하나)는 젊게 되는
자기 자신 보다 늙게 되지는 않겠는가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젊게 되고 늙게 되네²⁷¹⁹⁾

2719) 스스로 보다 늙어 있는 하나를 써놓구선 곧 이어 스스로 보다 젊어
있는 하나를 써 재끼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적이기도 할 것 같으리라 그러
나(1827각주2739번참조),

파르메니데에스의 플라톤이 쓰는 **지금**을 올바르게 받아 드리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어느 때든지 **지금**은 항상 있으므로 모든 있음에 두루 **하나**로 퍼진
것이 **지금**이다 따라서 있음(을 나누어 지닌 것은 시간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
어 왔던 시간이든 있어 올 시간이든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면 그리고 있다면
지금은 모든 시간에 두루 퍼져 **하나**와 더불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은 나아가는 것이며 모든 시간에 하나는 두루 퍼져 **있으므로** 스

예

따라서 (보다 늙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 옴 과 있게 될 사이의
지금 시간에(κατὰ τὸν νῦν 2720)152b3)[걸리는]한 (하나) 보다 늙게
있지 않겠나? 어디(에서든) 언제(ποτέ 152b5)부터 그 이후로(εἰς τὸ ἔ
πειτα b5)나아가므로 지금이 건너 뛰어지지 않기 때문일세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머무르게 될 때 마다 보다 늙게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늙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다 늙은 것으로 있지(ἔστι
152c1)않은가(2721) 계속 더 되면 지금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

스로 보다 **하나**는 젊어 있다 그 이전 스스로 보다 말이다 자기 자신이므로
하나는 그 이후 스스로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만약 **동일**(同一)하지 않다면
하나가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 있으며 젊어 있다 그리고 늙어지며 젊어진
다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있으며 지금으로 있어 왔고 지금으로부터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어지며 늙어진다 하나는!

2720) 이러한 지금(νῦν)에 대해 텔레스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라

텔레스는 자연에 관하여 233b33-234a4에서 ‘ 미래의 어떤 부분도 들
어 있지 않는 과거의 극단 이면서 과거의 어떤 부분도 들어 있지 않는 미래
의 극단인 지금은 나뉘어지지 않은 채 모든 시간에 과거 와 미래의 한계(πέ
ρας 234a3)로서 있다 만약 지금은 이러한 극단들이며 동일함이 논증된다면
지금은 나뉘어지지 않음이 명백해질 것이다 ’ 라고 말한다

2721) 여기서도 생성(됨) 과 있음이 날카롭게 구분된다

있음을 나누어 지니므로 시간을 나누어 지니게 되는 하나인 것은 지
금 시간에 속하는 것이지 지나간 또는 닳아올 시간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네 그렇게 계속 더 됨(τὸ προϊδὸν c3)은 지금 과 (지금) 이후 이 양자
에서 묶어 - 지금을 뒤로 하고 그 이후에 도달 되어 - 저 지금 과 그
이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러하이]

진실입니다

만약 (생성)되어지는 것 모두 지금을 넘어 가지 못하는 것이(πα
ρελθείν c7)필연적이라면 이(지금)일 때 마다 항상 (생성) 되는 것을
그만두고 되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된 그것은) 이것(τούτο 152d1
)으로 있다(ἔστι d1)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도 보다 늦게 되어져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늦게) 되기²⁷²²)를 그만 두고 보다 늦은 채 있다네(ἔστι d2)

때문이다 지나간 시간 다시 말해 과거에 속하면 있어지는 것이며 닥아올 시
간에 속하면 있게 될 것인데 있어지는 것이나 있게 될 것 모두 계속 되는
것(τὸ προϊδὸν 152c3)인 반면 지금에 머무르는 것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그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1d1에서 처럼 여기서도 에이나이(원형)이 아니라 에스틴(3인칭 단
수)가 쓰였음에 유의하라 물론 에스티가 쓰였다고 해서 에스티(있다)가 기
그네타이(152c1, 생성되다)로 뒤집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긴해도 말이다

에이나이 와 에스티 사이에도 무언가의 구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같은 맥락은 아니긴 해도 텔레스가 자신의 형이상학 제애타 편 4 장
1030a31 앞 뒤에서 그 무엇 (3인칭 단수)있다 와 그 무엇 (원형)있다는 구
분해서 (원형)있는 그 무엇을 실체에 순수하게 첫 번째로 적용하고 (3인칭
단수)있는 그 무엇을 실체 이외의 범주에서 그 다음으로 적용하는 등의 구
분을 행한 것과 플라톤이 여기서 구분해 쓴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으리라

2722) 나이 먹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입니다

이제 보다 늙게 되어졌던 이것이 있다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 (αὐτοῦ d5)보다 (늙어) 졌을까 ?

예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늙은 것이지 ?

(늙은 것)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젊게 있네 보다 늙게 되어진 채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말일세]

필연적입니다

실로 지금은 모든 있음음(τοῦ εἶναι 152e1)통해서 항상 하나 2723)와 더불은다네(παρεσσι e1)어떠한 때에(ὅτανπερ ἦ²⁷²⁴) e2) 든지 지금은 항상 있기(ἔστι e1) 때문이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ἑαυτοῦ e3)늙게 그리고 보다 젊게 있고 되어진다

2723) 하나 와 있는 것 또는 있음은 어찌 보면 동일하다 라고 말하는 978 쪽에서의 텔레스를 참조하라

2724) 자꾸 헤애(ἦ, 텔레스의 형이상학 1025b4, 1094쪽)가 떠오르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아마 비슷해서 일리라

본디 원문에는 강기식(強氣息, ') 과 연기식(軟氣息,) 그리고 엑센트들(, ,)이 표기 되 있지 않을 것이므로 두 군데 모두 η 으로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어인 영어 역시 엑센트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엑센트를 붙혀 읽으면 하나는 관계 대명사 여성 3격인 '헤애'가 되고 하나는 에이미(있다 라는 동사)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 '에애'가 되므로 여기에서는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 '있다(ἦ)'로 쓰였다

분명합니다

그(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많은($\pi\lambda\epsilon\iota\omega$ 152e3)시간[으로] 있는가 또는 되어지는가 아니면(η e4) 똑 같은(시간으로 있는가 또는 되어지는가) ?

똑 같은(시간으로 있거나 되어집니다)

그러나 똑 같은 시간[으로] 있는 또는 되어지는 것은 동일한 나이를 지닌다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나이를 지니는 것은 보다 늙게 있지도 보다 젊게 있지도 않는다네

(보다 늙게 있지도 보다 젊게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그 자기 자신과 똑 같은 시간[으로] 있거나 되어지면서 자기 자신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게 있거나 되어지오이다

(젊지도 늙지도) 않게 (있거나 되어진다고) 저에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과는 어떻게($\tau\acute{\iota}$ 152e10)되겠나

(어떻게 될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말해야할 것은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만약 헤태론이 아니라 헤태론들이면 하나 보다 많이 있다는 요것이네 한 편으로 헤태론($\epsilon\tau\epsilon\rho\nu$ 153a2)이라(면) 하나 있어오지만 다른 한 편으로 헤태론들($\epsilon\tau\epsilon\rho\alpha$ 153a3)이라(면) 하나 보다 많이 있고 많음을 지니기 때문이네 지니기 때문입니다

많음은 하나 보다 많은²⁷²⁵수를 나누어 지닐 것이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 수의 더 많은 것들이 먼저 되어졌으며 되어지는가 또는 (수의) 더 적은 것들이 (먼저 되어졌으며 되어지는가)²⁷²⁶

2725) 아리스토텔레스는 둘을 모자라는($\epsilon\lambda\lambda\epsilon\upsilon\psi\iota\nu$, 형이상학1056b27, 1005)

많음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1040)

더 적은 (수들이 먼저)

따라서 가장 적은 것(τὸ ὀλίγιστον 153a7)이 **첫 번째** 것일세 그런데 이것은 **하나**이네²⁷²⁷ 그렇지?

예

따라서 수를 지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는 되었던(γέγονε 153b2) 첫 번째 것이네²⁷²⁸ 그런데 알론한 모든 것들은 만약 **알론한 것**

2726) 하나 와 곱으로부터의 홀짝의 생성 그리고 이 셋으로부터의 무한히 많은 수들의 생성에 관해서는 1709쪽을 참조하라

2727) 내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첫 번째**(πρῶτον 153a7)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왔다 **있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을 텔레스는 **실체**(878)라고 하므로 도 대체 ‘플라톤’은 어느 맥락에서 첫 번째 것을 말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하나** 와 **분리**가 고유하게 속하는 텔레스의 실체는 첫 번째 것인 반면 여기 파르메니데아스의 첫 번째 것은 하나이지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과고들면 들수록 플라톤 과 텔레스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하나 여기서 만큼은 이 두 사람이 선명히 구분는 것 같다 실체를 첫 번째 것이라고 텔레스는 말하는 반면 파르메니데아스는 첫 번째 것은 하나이지 실체는 아닌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그렇다 그러나 다시 모호해진다 텔레스도 하나는 실체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텔레스가 말하는 첫 번째(166, 335, 737, 289, 1159)라는 말은 골치아픈 말이다 특히 실체와 관련해서는 더욱 더 그렇다

2728) 그렇다면 하나 역시 수(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하나를 수로 여길 수는 있으리라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파르메니데아스는 하나를 **되어졌던** 것 곧 생성된 것 그것도 **첫 번째로 생성**된 것이라고 한다 하나는 되어지는 첫 번째 것인가 글썄.....

들(ἄλλα 153b2)[하나] **알론한 것**(ἄλλο b3)아니라면 수를 나누어 지
니네

지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되어졌던 것은 보다 **먼저** 되어졌지만 알론한 것들은
보다 **늦게** 되어지는 것이며 보다 **늦게** 되어진 것들은(τὰ ὕστερον γεγον
ότα 153b5)보다 **먼저**(729)되어지는 것 보다(τοῦ πρότερον b5)더 **젊을** 것
이네 그리고 이렇게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더 **젊을** 것이지만 **하나**
는 **알론한** 것들 보다 더 **늙을** 것일세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엇이? **하나**는 자신의 **자연**에 어긋나게(παρά φύσιν 153b
8)되어졌을까 또는 [그럴] 수 없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2730)

그러나 **하나**는 부분을 지닌다는 것이 보여졌었네 그런데 만약
부분(지닌다면) 처음 과 끝 과 중간도 지닐 것일세

예

2729) 먼저 와 나중(늦음)에 관해 텔레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려면 261-2
69, 288, 1009, 1067을 참조하라

2730) 자신의 자연에 어긋나게 될 **수 없다**고 파르메니데아스에게 아리스토
텔레스는 동의하므로 이 두 사람에게 따르면 어떤 것도 자신의 자연 그대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라는 **불 가능**(可能)의 말
ἀδύνατον(153c1)이 쓰였음에 조심하라 자신과 어긋나게 **될 수 없지만** 그렇
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렇
게 되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될 또는 생성에 관련하여 가능 과 불가능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
일까 된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텔레스는 [불]가능(ἀδύνατον 형이상
학1046a29 : 550, 878)을 **있는** 한 양상(樣相)으로 보지 않았을까 .

그렇다면 *하나* 그것이든 알론한 것들 각각이든 **아르케에**(처음)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것* 일세²⁷³¹ 그리고 *아르케에* 뒤에 알론한 모든 것들이 주욱 (되어질 것일)세?

무슨

모든 알론한 *부분*들은 전체와하나의 그러한 것들이며 이(러한 *부분*)은 동시에($\alpha\mu\alpha$ 153c7)저 끝까지 *하나와전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것일세²⁷³²

(우리는)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은 더 늦게 되어지는데 이 (끝)에 의해서 자연스레 하나가 **동시에** 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네 그래서 만약 필연적으로 하나 그것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되어진다면 동시에 알론한 것들 보다 더 늦게 되어졌던 끝에 의해서($\tau\epsilon\lambda\epsilon\upsilon\tau\eta$ 153d2)²⁷³³자연스레 (더 늦게) 되어

2731) **되어지는** 첫 번째 것 으로서의 이러한 아르케에를 텔레스의 아르케에와 비교해 보라 참고로 텔레스는 자신의 형이상학 감마 편 1 장(1012a14 - 1013a23, 510-513)에서 아르케에를 여섯 가지로 말하면서 제에타 편 17 장에서는 **자연**은 일 종의 **아르케에**($\alpha\rho\chi\eta$, 1041b31, 509)라고 말한다 **실체**는 각기 것의 **있음**의 **원인**이요 때에 따라서는 **자연**이라고도 말하여지나 **요소**라고는 말하여지지 않는다 라는 맥락에서 말이다 감마 편 거기에서 됴(생성)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아르케에를 텔레스는 말하므로 여기 파르메니데에스의 첫 번째 됴와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는 셈이다 그것도 **실체**와 관련하여 말하는 맥락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체란 무엇이냐 라는 점에 있어서도 과연 그럴까

2732) 지금 여기의 로고스는 부분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는 전체이므로 부분의 전체이며 전체의 부분이라는 1715쪽의 로고스 와 ‘존재하는’ 하나는 이러한 부분과 전체를 지닌다 라는 1716쪽의 로고스를 다시 확인하는 로고스이다 동시에 끝까지 부분은 하나와전체의 부분이라고 하지 않는가

질 질세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짧게* 있는 반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늘게* 있네

이렇게 저에게 다시 선명해지는군요

무엇이? 무엇이든(ὅτιοῦν 153d6)하나의 또는 무엇이든 알론한 것의 *아르케에* 또는 알론한 부분은 만약 알론한 부분들이 아니라 부분이라면 필연적으로 *하나 있는*(ὅν d7)부분이(εἶναι d7)어야 하지 않겠나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는 동시에 첫 번째로 되어졌던 것으로 되어졌을 것이며 동시에 두 번째로 되어졌던 것으로 되어졌을 것이고 알론한 그 어떤 것들로 남김 없이 되어졌을 것이네 어떤 중간도 어떤 첫 번째 것도 어떤 극단도 (생성) 되어(ἐν τῇ γένεσει 153e4)덧 붙여지지 않을 *전체 하나*(734)가 될 때 까지 무엇이든 그 극단에(πρὸς τὸ ἔσχατον e 1-2)덧 붙여질 것이기 때문이네

진실

2733) *끝이 속해있는 움직임*을 *실천*(ἡ πράξις, 형이상학1048b23, 596)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움직임이 끝나는 그러한 것을 에네르게이아(활동)이라고 하는 텔레스를 여기에 이끌어들일만 하다 그가 *에네르게이아*의 보기로 드는 봄 과 생각 등은 보면서 *동시에* 보았으며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이며 더불어 바로 여기에 *동시에*(ἅμα ,1048b33, 598)라는 말이 쓰여지기 때문이다.

2734) 하나만이 있다는 것에 잇따르는 어려움을 폭로하는 소피스테이스 편 의 245d4 앞 뒤(1400-1403, 1408)에서 이미 이러한 전체 하나가 암시(暗示)되었다는 것을 나는 1421쪽에서 지적해 냈다

따라서 *하나*는 모든 *알론한* 것에 동일한 *나이*를 먹을 (*λογει* e5) 걸세 그래서 만약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 그것이 자연스럽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도 나중에도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되어졌을 것이)며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런데 알론한 것도 *하나*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을 것이네 그런데 앞선 (로고스에) 따라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고 젊을 것이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저(*하나*) 보다 그렇게 (늙고 젊을 것이네)

물론

이렇게 *있으며* 되어졌네(*γεγονός* 154a5) 그러나 다시 *되어짐*에 관해서는 무엇? 그(*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젊으며 늙게 되어지고 젊게도 늙게도 되어지지 않을까 따라서 *있음*에 관해서(*περι τοῦ εἶναι* a7-8)처럼 그렇게 *되어짐*에 관해서(*περι τοῦ γίνεσθαι* a8)도 그러할까 또는 헤태론할까²⁷³⁵)

2735) 지금 파르메니데아스는 *있음*을 생성과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에 유념(留意)하라 티마이오스의 *생성과있음*의 철저한 구분(1172)을 시작으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편이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여기 파르메니데아스 편 역시 그러한 구분에 근거한다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소피스테아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 역시 이러한 구분에 근거하여 있는 것에 관한 자신의 로고스를 펼친다 에이도스를 진짜 실체 라고 말하는 엘레아 낫선의 ‘친구’들은 곧 에이도스 론 자들은 몸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들의 몸을 생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생성(γένεσις, 246c1, 1425)*으로부터 *실체(있음)*를 구분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플라톤의 세 대화 편 곧 파르메니데아스 와 티마이오스 와 소피스테아스 편에서는 *생성과있음*이 구분이 철저히 분리된다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소피스테아스 편에 깔린 로고스를 근거로하여 *있음*과 *생성*의 구분 약화시키려하면 할수록 위 세 대화 편을 이해할

(저는) 말(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것을 (말할 것이네) 만약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 보다 늦게 있다면 그 첫 번째 것이 곧 바로 나이에 의해서 차이나는 것 이외에는(ἐτι ἢ ὤς, 154b2)그 (헤태론한) 것이 보다 늦게 되어질 수 없을 것이네 다시 보다 젊게 있다(면) (그렇지 않는)한(ἐτι 154b4) 보다 젊게 될 수도 없을 것이네 왜냐하면 시간에 [있어서든] 그리고 무엇이든 알론한 것에 [있어서든] 똑 같음이 똑 같지 않음에 덧붙혀지(면) 그 첫 번째 것이 차이난 그대로 항상 [그] 똑 같음에 의해서 차이 날(ποιεῖ διαφέρειν 154b6)²⁷³⁶것이기 때문이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만약 나이 차이가 항상 똑 같이 난다면 **있는** 것은(ὁ ὄν 154b7)**있는** 것[하나] 보다 어느 때든 늦게 되지도 젊게 되지도 않

수 없게된다 소피스테이스 편의 있지 않는 것은 되는 것과 구분되는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되지 않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해서도 않된다 있는 것의 부정(否定)은 있지 않는 것이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736) **적음**은 ((**있음**의 경우)) 자신의 일만을 **수행**하지(πράττειν 150a8) 큼 또는 똑 같음의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1741쪽을 참조하라 이러한 자신의 고유한 기능(機能)에 의해서 적음은 큼 뿐만 아니라 **똑 같음**과도 구분된다는 것을 근거로 거기 파르메니데이스는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더 크지도 적지도 않다는 것을 논증한다 여기 파르메니데이스도 자신의 고유한 일을 행하는 똑 같음을 근거로하여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있지도)) 되어지지도 않으며 늦게 ((있지도)) 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러나 그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있음 보다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논증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수행하다(프락테인, 遂行)나 여기 **포이에인**(행하다, 行)이다 라는 말은 동일한 맥락에서 쓰인 것들이라는 것이 선명해진다

을 것이네 그러나 높게 한 편으로 짧게 있고 *되어졌네* [더 이상] (높고 짧게) 되어지지 않은 [채 말일세]

진실

그리고 알려진 것들 보다 하나는 [보다 높고 짧게] 있긴해[도] 하나는 어느 때 보다 높게도 보다 짧게도 되어지지 않을 결세

않습니다

따라서 요렇게 더 높고 더 짧게 되어진다면[을 숙고해 보세나]

어떻게?

하나는 알려진 것들 보다 그리고 알려진 것들은 하나 보다 늘다는 것은 보여졌었네

무슨?

하나가 알려진 것들 보다 높을 때 마다 어디에서든 알려진 것들 보다(ἢ 154c8)더 많은 시간(동안) 되어졌네

예

다시 숙고해 보세나 똑 같은 시간이 더 많은 그리고 더 적은 시간에 덧 붙혀진다면 따라서 더 많은 것은 똑 같은 조각들에 의해 (μῦρις 154d2)더 적은 것과 차이날까 또는 더 작은 (조각들)에 의해 (차이 날까)

더 작은 (조각들)에 의해서

따라서 **첫 번째 것** [곧] *하나는 알려진 것들에 대해* 이 때 그리고 이 후(τούτο καὶ εἰς τὸ ἔπειτα 154d5) *나*에 의해서 차이나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알려진 것들에²⁷³⁷똑 같은 시간을 더함(λαμβάνον

2737) ἀλλήλοις가 아니라 ἄλλοις(154d6, 1822)이므로 서로에게 아니라 알려진 것들에 라고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아서는 하나 와 알려진 것들 서로에 똑 같은 시간을 더하면 이라고 옮겨야 할 것 같은데.....서로에 라는 말은 이 보다 열 두줄 아래 155a3에서 나타난다 어쨌든 나는 일단 알려진 것들에 라고 적었다 아니야 (하나와) 알려진 것이 맞아.

154d5)은 그(알론한) 것들과 나이에 [있어] 항상 더 적은 [것으로] 또는 먼저[인 것으로] 차이나게 할 것일세 또는 [그렇지] 않는가

예 [그렇게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 더 적은 것은 나이에 [있어] 어떤 것에 대해 차이 나거나 또는 (저것)에 대해 먼저 보다 늙게 있어 온 저것에 대해(πρὸς ἐκείνα πρὸς ἃ 154e2)앞서(ἐν τῷ πρῶθην 154e1-2)먼저 보다 젊게 될 것이네 또는 [그렇지] 않은가?

더 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것이 보다 젊다면 저 알론한 것들은 하나에 대해 보다 늙거나 먼저인가

물론

한편으로 보다 젊게 되었던 것은 먼저 **되**었(γεγονός 154e6)것에 대해 그리고 보다 늙게 **있**는(ὄν e6)(것에 대해) 보다 늙게 되어지며 다른 한 편으로 어느 때든 보다 늙게 있지 않다 그러나 항상 저것 보다 늙게 되어진다 저 것은 한 편으로 보다 젊은 것에 다른 한 편으로 보다 늙은 것에 걸치기(ἐπὶ ἐπιδίδωσκον e8)때문이니네 그런데 다시 보다 늙은 것은 그와 같은 [길에서] 보다 젊은 것 보다 젊게 되어지네 이것들은 반대[방향]으로 오가면서(ιόντε 155a2)서로에 반대로 되어지기 때문일세 한 편으로 보다 젊은 것은 보다 늙은 것 보다 보다 늙게 되어지며 다른 한 편으로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젊게 될 것이네 그러나 되어짐은 있을 것이 아닌 것 처럼 보이네(οὐκ ἂν οἶω τε εἶτην a5)만약 [그렇게] 되어온다면²⁷³⁸더 이상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있을(εἶεν a6)것이기 때문이니네 **지금**(νῦν a6)서로 보다 늙고 젊게 되어지네 한 편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 [처럼] 보다 늙어 있으면서

2738) 되어짐 과 있음이 합쳐져 버린다면 다시 말해 되어지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음 바로 그것으로 되어져 온다면 더 이상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먼저 되어졌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짧게 되어 지며 다른 한 편으로 보다 늦게 되어졌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늦게 되어지네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우리가) 보았던 것 처럼 그 (하나) 보다 늦어 (있으면서) 그리고 먼저 되어졌던 것들이므로 그렇게 하나에 대해 (알론한 것들은) 머무를(ἴσχειν 155b3) 것이네

그렇게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론한 것들과 수적으로 똑 같음에 의해서 항상 차이 난다[면]그러는한(ἥ 155b4)헤태론한 것은 헤태론한 것 보다 늦게 되지도 짧게 되지도 못할 것이네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늦게 되지도 짧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늦게 되지도 짧게 되지도 않을 것이네) 그런데 알론한 [작은] 조각에 의해서 항상 차이 난다[면] 필연적으로 나중 것들 보다 먼저 것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먼저 것들 보다 나중 것들이 되어질 것이며 그러는한(ταύτην, 155c2, 18 23, 알론한 조각들에 의해서 항상 차이 나는한) 필연적으로 서로 보다 늦은 것들 과 짧은 것들이 되어져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그리고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늦게 그리고 짧게 되어질 것이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따르면 하나 그것은 자신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늦고 짧게 있으며 되어지고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들 보다도 늦게든 짧게든 있지도 않으며 되어지지도 않네

완전하게(παυτελώς 155c7-8)

그런데 하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그 보다 늦고 짧게 되어 지므로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 어느 때(τοῦ ποτέ, 155d2, 과거)와 그 때(τοῦ ἔπειτα d2)와 그 지금을 나누어 지니지 않겠는가 만약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면 말일세

필연적으로

따라서 하나는 있어 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져 왔고 되어 지고 되어질 것이네

무엇이?

그리고 저(하나)에게 [대해] 어떤 것이 그리고 저(하나)의(어떤 것이) 있어 오며 있고 있을 것이네

물론

그리고 그(하나)의 **앎**²⁷³⁹과 **억견**(66ξα 155d6) 과 **감각**도 (있어 오며 있고 있을 것이네) 지금 그(하나)에 관한 이러한 모든 것(앎 억견 감각)들을 우리는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렇네]

(당신은) 옳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한) 이름들 과 로고스도 있으며 그리고 이름 붙혀지며 말하여진다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하여 마주치고 있는 이러한 것들 그대로(66απερ 155e1)하나에 관해서도 있다네

완전히 그러합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것²⁷⁴⁰을 (우리) 말해 보세나 (151e3 - 155e3) ”

2739)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에 관한 **앎**도 억견도 감각도 있지 않는 것에 관한 논증(1631)을 참조한 후 물론 에이도스에 관한 앎을 우리가 지닐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니지 못한다고 우기는 자에게 그 자는 거짓이라는 (ψεύδεται, 133b7, 1299)것을 논증할 수 없는 어려움을 참조하라 나아가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앎 과 억견 과 감각을 어떤 것의 앎 과 억견 과 감각을 말한다는 것에 다시 말해 이 셋을 하나의 관계로 말한다는 것에 유념하라(187)

2740) 첫 번째 전제는 만약 하나 있다면 이었고 두 번째 전제는 하나 만약 있다면이었으니 세 번째 전제는 무엇일까 만약 하나 만약 있다면일까?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하나가 만약 있다면 있음이 그 하나에 속
한다는 것 그리고 있음이 하나에 속함²⁷⁴¹(ὑπάρχει 151e7)은 어떤 시간 동

2741)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속한다 라는 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서 그 괴롭힘의 절정을 이룬다 형이상학 제1타 편의 끝 장인 17 장(504-53
8)‘에’ 속한다는 말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미 542 쪽에 쓰여진 것 처럼
17 장에서는 ‘ 위해지는 그 무엇 으로서의 [효과] 원인이기도하며 맨 처음
움직이게 하는 무엇 으로서의 있음의 원인이기도 하는 바로 있어 오고 있
는 그 무엇이 실체이다 이러한 실체는 질료의 원인이기도 하다 ’ 라고 말
하여지는데 바로 이러한 말을 곧 원인 으로서의 실체에 관한 말을 하는 맥
락에서 속한다 라는 낱말이 두드러지게 쓰여지므로 그렇다

거기 17 장에 따르면 무엇 때문에(διὰ τί, 1041a11, 534, 504, 왜) 알
론한 것이 알론한 것에 예를들어 사람이 음악에 또는 달이 일그러짐에 속하
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그러한 사태(τὸ ὄν, 1041a15, 505)의 원인(τὸ αἴτιον, 1
041a27-28, 535)을 조사하는 것이다 바로 이 원인이 실체요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다 그런데 달이 일그러짐에 속할 때 달이든 일그러짐이든 있는 것
이 아니라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조사하는 셈이 될 것이므로 속한다면 있
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것에 속하는(ὑπάρχει, 1041a24, 506)것은 어
떤 것에 반드시 분명히 있다 속함은 있음이다 그런데,

있음은 속함일 뿐 아니라 지님(ἔχειν, 1041b4, 507)이기도하다 따라
서,

어떤 것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있다는 말이고 어떤 것에 있다
는 것은 어떤 것을 지닌다는 말이다 반면,

여기 파르메니데아스에 따르면 속하는 것은 어느 시간 동안 실체
를 나누어 지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간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어떤

안 **실체**를 나누어 지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있음**은 됴이 아니라는 것이 쓰여지면서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있는** 이러한 하나는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짧게있고 짧게되며 늣게 있고 늣게 되며 짧게 있지도 늣게 있지도 았고 짧게 되지도 늣게 되지도 았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이러한 논증을 다시 옮겨 보자 골치 았플 것이다

이제,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자기 자신 과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알론한 것들 보다 짧게 있고 짧게 되며 늣게 있고 늣게 되며 자기 자신 과 알론한 것들 보다 짧지도 늣지도 았게 있고 았게 되지 ? - 어떻게 ? -

만약 하나가 있다면 있음은 어디에서든 그 하나에 속한다체 - 예 - **있음**은 현재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님과 알론한 무엇인가 ? **있어** 음은 지나간 시간에 그리고 **있게** 뵘은 닥아올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님이 공통적인 것 처럼 말일세 - 알론한 무엇이 아닙니다 - 따라서,

있음을 나누어 지니면 **시간**을 나누어 지니네 - 물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지 ? - 예 - 시간적으로 앞서니 하나는 항상 스스로 보다 늣게 되지 ? - 필연적으로 늣게 됩니다 - 그래서 늣은 것은 짧게 되는 것 보다 늣게 된다고 우리는 기억하네 - 기억합니다 - 이제 스스로 보다 늣게 되므로 하나는 **짧게** 되는 스스로 보다 늣게 뵘지 았겠는가 ? - 필연적으로 늣게 됩니다 - 이렇게 하나는 스스로²⁷⁴²)보다 짧

사람의 말이 더 통렬(痛烈)한가 있는 하나는 안과 밖에 있다 라는 말과 이 어보라 파르메니데에스의 말이 더할 것이다 여기도 존재론 거기도 존재론 이기 때문이다.

게 되고 늙게 되네 - 예 -

2742) 젊게 되는 스스로 보다 하나는 늙게 되므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된다 라는 말인데.....만약,

이러한 로고스가 이루어지려면 하나 스스로는 하나 스스로가 아니라 늘 **하나 그것**이어야 할 것이다 만약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게 된다면 시간의 나아 감에 따라서 하나는 반드시 스스로① 스스로② 스스로③ 등 등으로 되어져 왔을 것인데 ① 과 ② 와 ③ 각각이 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져 왔을 경우 이미 1619쪽에서 보여진 것처럼 하나는 스스로와(ἑαυτῷ, 139d1, 1619) **동일한 것**(ταῦτόν, 139d1, 1619)이 아니므로 하나 아닌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스스로 곧 하나 자신이 하나 아닐 수는 없으므로 그렇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된다 늙게 될 스스로①하나는 젊게 되는 스스로②하나 보다 늙게 될 것이므로 하나②스스로는 하나①스스로 보다 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 스스로 각각이 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동일하다면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어 질 수도 늙어 질 수도 없을 것이다 동일한 것으로 혼돈해 버리면 하나 스스로를 하나 아닌 것과 하나로 오해할 것이며 나아가서 하나와 알론한 것들을 하나인 것으로 오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알론한 것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하나의 자연은 동일한 자연이 아니므로 그렇다 그래야만 젊게 되는 하나(스스로)는 늙게 됐던 스스로(하나) 보다 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는 스스로와동일한 것으로 혼돈(混沌)하면 안된다 혼돈해서 하

따라서 (늑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 움 과 있게 될 사이의 **지금** 시
간 에 (걸리는)한 보다 늑게 있지 않겠나? 어디에서든 언제부터 그 이후로 나
아가므로 지금이 건너 뛰어지지 않기 때문일세 - 않습니다 - 그래서 지금
에 머무르게 될 때 마다 늑게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늑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늑은 것으로 이미 **있지** 않은가 계속 더 되어지면 지금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니 그렇게 계속 더 됨은 지금 과 지금 이후 이 양자에 묶어-지금
을 뒤로하고 그 이후에 도달되어-져 지금 과 그 이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
므로 그러하이 - 진실입니다 -

만약 되어지는 것 모두 지금을 넘어 가지 못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지금일 때 마다 되는 것을 항상 그만 두고 무엇으로 되어 졌든지 간에 **이
것으로 있다**네²⁷⁴³) - 분명합니다 - 그래서,

마찬 가지로 하나도 보다 늑게 되어져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늑게
되기를 그만 두고 보다 늑은 그대로 **있다**네 - 물론입니다 - 그래서 보다
늑게 되어졌던 이것이 있다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보다 늑어 졌을까? -
예 - 보다 늑은 것은 젊은 것 보다 늑은 것이지? - 보다 늑은 것입니다

나를 스스로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 버리면 .

2743) 이와 같은 글을 티마이오스 49d6(이것, τούτο, 148쪽) 앞 뒤에서도 쓰
여진다 알론한 것에서 알론한 것으로 생성 되는 것을 이것 이라고 불러서는
않된다 라고 거기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것’을 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이 것, τὸδε τι, 범주들 3b10, 958쪽, 969쪽’과 비교해 보라

거기 텔레스의 ‘이 것’은 실체를 가리키지만 여기 플라톤의 이것은
‘(3인칭 단수) 있다’을 가리킨다 나아가서,

텔레스의 실체는 가장 먼저 있는 것 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 따라서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짧게 있네 보다 늙게 되어진 그대로 지금
에 머무를 때 마다 말일세 - 필연적입니다 - 실로,

지금은 모든 있음을 통해 두루 항상 **하나**와 함께 한다네 어느 때든
지 지금은 항상 있기 때문이오 -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따라서,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늙게 그리고 보다 짧게 **있고 되어진**다 - 분
명합니다 - 그런데,

 하나는 스스로 보다 많은 시간으로 있는가 또는 되어지는가 아니면
똑 같은 시간으로 있는가 또는 되어지는가 - 똑같은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 그러나 똑 같은 시간으로 있는 또는 되어지는 것은 동일한 나이(ήλικιον,
152e5, 생애)를 지닌다네 -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동일한 나이
를 지니는 것은 보다 늙게 있지도 보다 짧게 있지도 않는다네 - 않습니다
-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똑 같은 시간으로 **있거나 되어지면서** 자기 자신 보
다 짧지도 늙지도 않게 **있거나 되어지**오이다 - 저에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 그런데,

알론한 것들과는 어떻게 되겠나 - 말할 수가 없군요 - 하나와 알론
한 것들이 만약 헤태론이 아니라 헤태론들이라면 하나 보다 많이 있다는 요
것을 말해야 할 것이네 헤태론이라면 하나 있어오지만 헤태론들이라면 하나
보다 많이 있고 많음을 지니기 때문이라네 - 지니기 때문입니다 - 많음은
하나 보다 많은 **수**를 나누어 지닐 것이네 - 어찌 않으리오 - 무엇? 수의
더 많은 것들이 먼저 되어졌으며 되어지는가 또는 수의 더 적은 것들이 먼
져 되어졌으며 되어지는가 - 더 적은 - 따라서 가장 적은 것이 **첫 번째** 것
일세 그런데 이것은 하나이네 그렇지? - 예 - 따라서 수를 지니는 모든 것
들 가운데 하나는 되었던 첫 번째 것이네 그런데 만약 알론이 아니라 알론

들이라면 **알론한** 모든 것은 수를 나누어 지니네 - 지니기 때문입니다 - **첫 번째** 되어졌던 것은 보다 **먼저** 되어졌지만 알론한 것들은 보다 **늦게** 되어지는 것이며 보다 늦게 되어진 것들은 보다 먼저 되어지는 것 보다 더 젊은 것이네 그리고 이렇게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더 젊은 것이지만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더 늙을 것일세** -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런 무엇이? 하나는 자신의 자연에 어긋나게 되어졌을까 또는 그럴 수 없을까 - 그럴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하나는 부분을 지닌다는 것이 보여졌었네 그런데 만약 부분을 지닌다면 처음과끝과중간도 지닐 것이네 - 예 - 그렇다면 하나 그것이든 알론한 것들 각각이든 **아르케에**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것일 걸세 그리고 아르케에 뒤에 알론한 것들이 주욱 [늘어질 걸세] - 무슨? - 모든 알론한 부분들은 전체와하나의 그러한 것들이며 이러한 것은 **동시에** 저 끝까지 하나와전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볼 것일세 -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 끝은 더 늦게 되어지는데 이 끝에 의해서 자연스레 하나가 **동시에** 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네 그래서 만약 필연적으로 하나 그것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되어진다면 동시에 알론한 것들 보다 더 늦게 되어졌던 **끝에** 의해서 자연스레 더 늦게 되어질 걸세 - 분명해 집니다 -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있는 반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게 있네 - 이렇게 저에게 다시 선명해지는군요 -

무엇이? 무엇이든 하나의 또는 무엇이든 알론한 것의 **아르케에** 또는 알론한 부분은 만약 알론한 부분들이 아니라 부분이라면 필연적으로 하나 **있는** 부분이어야 하지 않겠나 - 필연적으로 - 그렇다면 하나는 **동시에** 첫 번째로 되어졌던 것으로 되어졌을 것이며 **동시에** 두 번째로 되어졌던 것으로 되어졌을 것이고 알론한 그 어떤 것들도 남김없이 되어졌을 것이네 어떤 중간도 어떤 첫 번째 것도 어떤 극단도 생성되어 덧 붙혀지지 않을 **전체** 하나가 될 때 까지 무엇이든 그 극단에 덧 붙혀질 것이기 때문이네 - 진실 - 따라서 **하나는 모든 알론한 것과 동일한 나이를 먹을걸세** 그래서 만약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 그것이 자연스럽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도 나**

중에도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되어졌을 것이네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런데 알론한 것도 하나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을 것이네 그런데 앞선 로고스에 따라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고 젊을 것이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저 하나 보다 그렇게 늙고 젊을 것이네 - 물론 - 이렇게 있으며 되어졌네 그러나,

다시 되어짐(생성)에 관해서는 무엇?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젊으며 늙게 되어지고 젊게도 늙게도 되어지지 않을까 따라서 있음에 관해서 처럼 그렇게 됨에 관해서도 그러할까 아니면 헤태론할까 - 답하지 못하겠는데요 - 그러나,

나는 요것을 말할 것이네 만약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 보다 늙게 있다면 그 첫 번째 것이 곧 바로 나이에 의해서 차이나는 것 이외에는 그 헤태론한 것이 보다 늙게 되어질 수 없을 것이네 다시 보다 젊게 있다면 그렇지 않은한 보다 젊게 될 수도 없을 것이네 왜냐하면 시간에 있어서든 그리고 무엇이든 알론한 것에 있어서든 똑 같음이 똑 같지 않음에 덧붙여지면 그 첫 번째 것이 차이나는 그대로 항상 그 똑 같음에 의해서 차이 날 것이기 때문이네 - 어찌 않으리오 - 따라서 만약 똑 같음에 의해서 항상 나이 차이가 난다면 있는 것은 있는 것 보다 언제든 늙게 되지도 젊게 되지도 않을 것이네 그러나 늙고 젊게 있고 되어졌었네 더 되어지지 않은 채 말일세 - 진실 -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보다 늙고 젊게] 있지(만) 어느 때 보다 늙게도 젊게도 되어지지 않을 걸세 - 않습니다 - 따라서,

요렇게 더 늙고 젊게 되어진다면 숙고해 보세- 어떻게? -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다는 것은 보여졌었네- 무슨? - 하나가 알론한 것들 보다 늙을 때 마다 어디에서든 알론한 것들 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되어졌네 - 예 - 다시 숙고해 보세나 - 똑 같은 시간이 더 많은 그리고 더 적은 시간에 덧붙여진다면 따라서 더 많은 것은 똑 같은 조각들에 의해 더 적은 것과 차이날까 또는 더 작은 조각에 의해

차이날까 - 더 작은 조각에 의해서 - 따라서 첫 번째 것 (곧)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대해 이 때 그리고 이 후 나이에 의해서 **차이**나는 것은 아닐 것이네 그러나 알론한 것들에 똑 같은 시간을 더함은 그(알론한) 것들과 나이에 있어 항상 더 적은 것으로 또는 **먼저**인 것으로 **차이**나게 할 결세 또는 그렇지 않은가 - 예 납니다 - 그렇다면 더 적은 것은 나이에 있어 어떤 것에 대해(적게) 차이 나거나 또는 (저것)에 대해 먼저 보다 늦게 있어 온 (바로 그) 저것에 대해 앞서 먼저 보다 짧게 될 것이네 또는 그렇지 않은가 - 더 짧게(될 것입니다) - 그런데 만약 저것이 보다 짧다면 저 알론한 것들은 다시 **하나**에 대해 보다 늦거나 또는 먼저인가 - 물론 - 보다 짧게 되었던 것은 **먼저 되었던** 것에 대해 그리고 보다 늦게 **있는** 것에 대해 늦게 되어지는 한 편으로 어느 때든 보다 늦게 있지 않다 그러나 항상 저것 보다 늦게 되어진다 저것은 보다 짧은 것에 한 편으로 보다 늙은 것에 걸치기 때 문이네 그런데 다시 보다 늙은 것은 그와 같은 길에서 보다 짧은 것 보다 짧게 되어지네 이것들은 반대 방향으로 오가면서 서로에 대해 **반대로** 되어 지기 때문일세 보다 짧은 것은 보다 늙은 것 보다 늦게 되어지는 반면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짧은 것 보다 짧게 될 것이네 그러나 **되어짐은 있을** 것이 아닌 것 처럼 보이네(οὐκ ἄν οἶω τε εἶτην, 155a5, 1823) 만약 그렇게 되어졌 다면 더 이상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είεν, 155a6, 1823)것이네 지금 서로 보다 늙고 짧게 되어지네 우리가 보았던 것 처럼 보다 늙어 **있으면서** 그리고 보다 **먼저 되어졌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짧게 되어지는 반면 보다 **늦게** 되어졌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늦게 되어지네 그 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우리가 보았던 것 처럼 하나 보다 늙어 있으 면서 그리고 먼저 되어졌던 것들이므로 그렇게 **하나에 대해 알론한** 것들은 머무를 것일세 - 그렇게 선명해지는군요 - 그런데,

알론한 것들과 수적으로 똑 같음에서 항상 차이난다면 그러한 헤태론한 것은 헤태론한 것 보다 늦게 되지도 짧게 되지도 못할 것이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늦게 되지도 짧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알론한 것

들은 하나 보다 늦게 되지도 짧게 되지도 않을 것이네 그런데 알론한 작은 조각에 의해서 항상 차이난다면 필연적으로 나중 것 보다 먼저 것들이 되어 지고 그리고 먼저 것들 보다 나중 것들이 되어질 것이며 그러는한 필연적으로 서로 보다 늦은 것들 과 짧은 것들이 되어져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그리고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늦게 그리고 짧게 되어질 것이네?* - 물론

-

이러한 모든 것들에 따르면 하나 그것은 자신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늦고 짧게 있으며 되어지고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들 보다도 늦게든 짧게든 있지도 않으며 되어지지도 않네 - 완전하게 - 그런데,

하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그 보다 늦고 짧게 되어지므로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 어느 때 와 그 이 후 와 그 지금을 나누어 지니지 않겠는가 만약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면 말일세 - 필연 - 따라서 하나는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져왔고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네 - 무엇이? - 그리고 저 하나에 [대해] 어떤 것이 그리고 저 하나의 어떤 것이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네 - 물론 -

하나의 **앞** 과 **역견** 과 **감각도**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고 되어왔고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네) 지금 하나에 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렇네 - 옹계 말씀하고 계십니다 -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한] 이름들 과 로고스도 있으며 **이름** 불혀지고 말하여진다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하여 마주치고 **있는** 이러한 것들 그대로 하나에 관하여 **있다**네 - 완전히 그러합니다 - 나아가서,

세 번째 것을 우리말해 보세나

그러나,

참으로 난삽(難澁)한 논증이다 그런데로 겨우 지금까지 버텨 왔지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논증이 난삽하다 그럼에도 하나씩 하나씩 힘 쓰다 보면 묘하고 알찬 로고스들이 벗겨져 나온다

이러한 로고스들에 의하여 **생성(됨)**으로부터 **있음**이 날카롭게 구분된다 스스로 보다 **높고짧게 있는 하나**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짧으며 높고 짧지도 높지도 않은 하나**가 논증되는 가운데서 말이다 **시간**의 흐름을 타고 반대 방향으로 오가는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이 구분되는 어느 한 시간에 합쳐져 하나가 될 만도 하건만 그럴 수 없는 것은 **될 때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한 때 되는 것이 곧 바로 있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됴이 곧 있음이라면 있으면서 될 수도 되면서 있을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 안에서 비로서 **있게 되고 되고 있다** 이러한 있고 됴의 겹침은 실로 묘하다 그런데,

하나**있는**여럿, 전체하나**있는**부분, 자신과다른**것안에있는**하나, 움직이고**있**는하나, 자신과다른**것과동일**하고**해대론**하게**있**는하나, 자신과다른**것과갈게갈지않**게**있**는하나, 자신과다른**것에접촉**하며**접촉**하지**않고****있**는하나, 자신과다른**것보다크기**에**있어**똑**같고**더**크고**더**작**게**그리고**수**에**있어**똑**같고**더크고**더**작**게**있**는하나를 이제까지 논증하는 가운데서는 **됨(생성)**이 결코 문제삼아지지 않았다 다시말해 그렇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과**알론한**것보다**높고**짧게**높고**짧지**않**게**있**는하나를 다시 말해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를 논증하는 여기에서만 유독(有毒)**있**는 그대로 **되는 됴**이 문제삼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논증을 이제 다시 요약해야만 한다 요약하는 가운데 더 선명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가 만약 있다면 **어디**에서든 그 하나에 **속**하는 **있음**은 현재 **시간**에 **있어** **옴**은 지나간 시간에 **있**을은 **닥아올**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남이

다 그래서 있음을 나누어 지닌다면 나아가는(πορευομένου²⁷⁴⁴), 152a3-4, 1811)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앞서니(προέρχεται, 152a5, 1811) 항상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하나는 늙게 **된다** 그런데,

늙은 것은 젊게 되는 것 보다 늙게 된다고 우리는 기억하므로 만약 스스로 보다 늙게 된다면 하나는 젊게 되는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늙게 됐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는 자신 보다 젊게 **된다*** 이렇게,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고 늙게 **된다*** 그런데

있어 옴 과 있을 사이의 **지금** 시간에 보다 늙게 **되어짐**이 걸리는한 하나는 보다 늙게 **있지** 않겠는가 어디에서든 언제(ποτέ²⁷⁴⁵), 152b5, 1812)부터 그 이후로 나아가므로 **지금**이 건너 뛰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에 머무르게 될 때 마다 늙게 되는 것을 그만 두고 이미 보다 늙은 것으로 **있다** 계속 더 되면(πρόϊόν, 152c2, 1812)어느 때든 **지금**에 걸리지(ληφθείη, 152c2, 1812)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더 됨*은 **지금**을 뒤로 하고 그 이 후에 도달되어 실로 **지금** 과 그 이 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렇다 만약 (생성) 되는 것 모두 **지금**을 건너 뛰지 못하는 것이 필연이라면 **지금** 마다 항상 되기를 그만 두고 무엇으로 되어졌든지간에 분명히 *이것*(τούτο, 152d1, 1813)으로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론 *하나*도 보다 늙게 되어져 **지금**에 걸릴 때 마다 늙게 되기를 그만 두고 보다 늙은 채 그대로 **있다** 따라서 늙어 있는 바로 이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 있다* 그런데,

2744) 나아간다고 해서 꼭 앞으로만 나아간다고 해야할 것인가 뒤로도 나아 올 수는 없는 것일까 우선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나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뒤로 나아 올 수 있을 여지(餘地)도 나는 남겨 놓는다(1171쪽 그림참조)

2745) 콘퍼드(944)는 과거(past)라고 옮기나 꼭 과거라고만은 옮길 수 없을 것 같다 그저 어느 한 때가 적절하지 않겠는가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늙은 것이므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있다* 늙게 되어진 채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말이다 실로,

지금은 모든 **있음**을 통해서 항상 **하나**와 함께한다 어느 때든지 지금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명히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고 젊게 있고 되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많은 시간 있거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은 시간 있거나 되어진다* 그리고 *똑 같은 시간 있거나 되어지는 것은 동일한 나이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동일한 나이를 지니는 것은 보다 늙게 있지도 보다 젊게 있지도 않으므로 *스스로와 똑 같은 시간 있거나 되어지면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게 있거나 되어지는 것 처럼* 여겨진다 현대,

알론한 것들과는 어떠할까[우선],

하나와 알론한 것들이 만약 헤태론이 아니라 헤태론들이라면 하나 보다 많이 있다는 요것이 말하여져야한다 헤태론이라면 하나로 있어오지만 헤태론들이라면 하나 보다 많이 있고 *많은*을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은 하나 보다 많은 수를 나누어 지니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수의 많은 것들 보다는 수의 적은 것들이 먼저 되어지므로 가장 적은 것이 그 첫 번째 것일 것이다 현대 바로 이 첫 번째 것은 **하나**이다 그래서 수를 지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는 되어졌던 첫 번째 것이다* 그러나 *알론한 모든 것들은 만약 알론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들이라면 수를 나누어 지닐 것이다* 자, 첫 번째 되어졌던 것은 보다 먼저 되어졌지만 *알론한 것들은 보다 늦게 되어지는 것이며 보다 늦게 되어진 것들은 보다 먼저 되어지는 것 보다 더 젊을 것이어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더 젊은 것이지만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더 늙은 것이다* 현대,

하나는 자신의 자연에 어긋나게 되어졌을 수 없다 그러나 부분을 지닌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하나는 처음과끝과중간을 지닌다 그렇다면 하나 그것이든 알론한 것들 각각이든 아르케에(처음)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것일 것이며 아르케에 뒤에 알론한 모든 것들이 주욱 [이어질 것이다] 보라 전체와하나의 부분들인 모든 알론한 부분들은 그러기에 동시에(ἅμα, 153c7, 1818)저 끝까지 하나와전체가 된다 그런데 더 늦게 되어지는 끝에 의해서 자연스레 동시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만약 하나그것이 자연에 필연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되어진다면 동시에 알론한 것들 보다 더 늦게 되어졌던 끝에 의해서(τελευτή, 153d2, 1818)자연스레 더 늦게 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있는* 반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게 있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그런데,

하나이든 알론한 것이든 무엇이든 만약 알론한 부분들이 아니라 부분 이라면 아르케에 또는 아르케에가 아닌 부분은 필연적으로 *하나 있는 부분* 이어야한다 그렇다면 하나는 동시에 첫 번째 것으로 되어졌음과 동시에 두 번째 것으로 되어졌을 것이고 [또 이와 동시에] 알론한 어떤 것들로 남김없이 되어졌을 것이다 어떤 중간도 어떤 첫 번째 것도 어떤 극단도 더 이상 덧 붙혀지지 않을 전체 하나가 될 때 까지 실로 무엇이든 그 극단에 덧 붙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모든 알론한 것과 동일한 나이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그것이 자연스럽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도 나중에도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되어졌을 것이며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런데 알론한 것도 하나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을 것이다*²⁷⁴⁶⁾ *이렇게 있으며 되어졌다*(γενῶν

2746) 현대,

앞선 로고스에 따르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늙고 젊을 것이다

ός, 154a5, 1820) 그러나,

다시 **되어짐**(γίγνεσθαι²⁷⁴⁷), 154a8, 1820)에 관련해[살펴보자] **있음**에 관해서 처럼 그렇게 **되어짐**에 관해서도 그러할까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젊고 늙게 되어지고 젊게도 늙게도 되어지지 **않을**까

요렇게 숙고해 보자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 보다 **늙게** 있다면 그 첫 번째 것이 곧 바로 **나이에** 의해서 **차이나지** 않고는 그 **헤태론한** 것이 보다 **늙게** 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또 만약 보다 **젊게** 있다고해도 그렇지 **않는** 한 보다 **젊게** 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든** **알론한** 무엇이든 **똑 같음**이 **똑 같지** **않음**에 **덧 붙여**지면 그 첫 번째 것은 **차이**난 그대로 항상 그 **똑 같음**에 의해 **차이** 나지²⁷⁴⁸)**않을** 수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747) 되어졌음(되어져왔음)이 아니라 되어짐이라는 것에 유념(留意)하라 있어움 과 있음이 시간에의해 구분되듯 되어져왔음 과 되어짐도 시간에의해 구분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구분은 있음 과 됨 사이의 구분이 아니라는 것에도 유념하라

2748) **차이**로부터(τῆς διαφορᾶς, 1038b9-10)차이로 나뉘를 통한 정의(定義)를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제에타 편(446)에서 말하나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과 **차이나는** 것은 **똑 같지** **않음**에(ἀνίσούς, 154b5, 1821)**똑 같음**이 **덧 붙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 파르메니데아스는 쓴다 물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 **차이**의 모든 맥락을 지금 내가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않된다** 오히려 더 **난삽**해지기 때문이다 단지 두드러지게 주로 쓰여지는 맥락을 드러내면 그것으로 할 일은 다한 것이리라 맨 마지막 **차이**를 실체(에이도스, 실체)라고 하

이렇게 만약 *똑 같음에 의해서* 항상 나이 차이가 난다면 **있는 것은 있는** 것 보다 어느 때든 **늙게 되지도 젊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더 이상) 되어지지는 않지만 이미 **늙고 젊게 있고 늙고 젊게 되었었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늙고 젊게] 있긴해도 어느 때 **늙고 젊게 되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더 **늙고 더 젊게 되어짐**을 요렇게 숙고해 보자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알론한 것들 보다 늙을 때 마다 하나는 어디에서든 알론한 것들 보다 더 많은 시간 **되어졌다**** 그래서 요렇게 숙고해 보자 **똑 같은 시간이 더 많은 시간에 그리고 더 적은 시간에 덧 붙혀진다면 더 많은 것은 똑 같은 조각들에 의해** (μορίω, 154d2, 1822) **더 적은 것과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조각들에 의해** (μικροτέρω, 154d3, 1822) **더 적은 것과**(*τοῦ ἐλάττωτος*, 154d3, 1822)**차이** 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것 곧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대해 이 때 그리고 이 후 나이에 의해서는 차이나지 않을 것이나 알론한 것들에 똑 같은 시간을 더함은 그 (알론한 것) 들과 나이에 있어 항상 더 적은 것으로 또는 **먼저인** 것으로 **차이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더 적은 것은 나이에 있어 어떤 것에 대해 적게 차이나며 또는 저것에 대해 먼저 보다 늙게 있어 온 바로 그 저것에 대해 앞서 먼저 보다 젊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저것이 보다 젊다면 물론 저 알론한 것들은 다시 하나에 대해 보다 늙거나 먼저이다 그래서,

보다 젊게 되었던 것은 먼저 되었던 것에 대해 그리고 보다 늙게 있는 것에 대해 보다 늙게 되어지는 한 편 어느 때든 보다 늙게 있지 않다 그러나 항상 저 것 보다 늙게 되어진다 저 것은 보다 젊은 것에 걸치는 한

면서 이러한 실체에 관련해서만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하는 텔레스의 맥락인 반면

편 보다 늙은 것에 걸치기(ἐπι ἐπιδίδωσκ , 145e8, 1823) 때문이다 그런데 다시 *보다 늙은 것은 그와 같은 길에서 보다 젊은 것 보다 젊게 되어진다* 이것들은 반대 방향으로 오가면서 서로에 반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보다 젊은 것은 보다 늙은 것 보다 늙게 되어지지만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되어짐이 있음*은 아닐 것 처럼 보인다(οὐκ ἔν οἶω τε εἶτην, 155a5, 1823)만약 그렇게 되어져 온다면 더 이상 *되어졌지* 않고 *있(있)을*(εἶεν, 155a6, 1823)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서로 보다 늙고 젊게 되어진다* 보여졌듯이 보다 늙어 있으면서 보다 먼저 되어졌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되어지는 반면 보다 늦게 되어졌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게 되어진다²⁷⁴⁹)그렇다면,

알론한 것들과 수적으로 **똑 같음**에 의해서 항상 *차이*난다면 그러한 *혜대론한 것은 혜대론한 것 보다 늙게 되지도 젊게되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되지도 젊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게 되지도 젊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알론한 작은 조각**에 의해 항상 *차이*난다면 필연적으로 *나중* 것들 보다 먼저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먼저 것들 보다 *나중* 것들이 되어질 것이지만 동일한 조각에 의해 항상 *차이*난다면 필연적으로 서로 보다 늙은 것들 과 젊은 것들이 되어져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그리고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그리고 젊게 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에 따라 하나것은 자신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늙고 젊게 있으며 되어지고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들 보다도 늙게든 젊게든 있지도 않으며 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은 완벽하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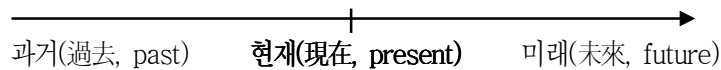
2749) 보여졌듯이 하나 보다 늙어 있으면서 먼저 되어졌던 것들이므로 그렇게 하나에 대해 그렇다는 것은 선명해진다

하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그 보다 높고 짧게 되어서므로 필연적으로 어느 때 와 미래 와 그 지금을 나누어 지닌다 그래서 하나는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져 왔고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물론,

하나에 대해 어떤 것이 그리고 하나의 어떤 것이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의 앞 과 역전 과 감각도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한 이름들 과 로고스도 있으며 그러기에 이름불허지며 말하여 진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해 있는 이러한 것들 모두 그대로 하나에 관련해서도 있다

이러한 논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가 나누어 지니는 시간은 어느 때(τοῦ ποτέ, 155d2, 1825)와 그 이후(τοῦ ἔπειτα, 155d2, 1825)와 지금(νῦν, 152c7, 1813)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 구분을 아래 그림의 구분으로만 받아드리면 곤란(困難)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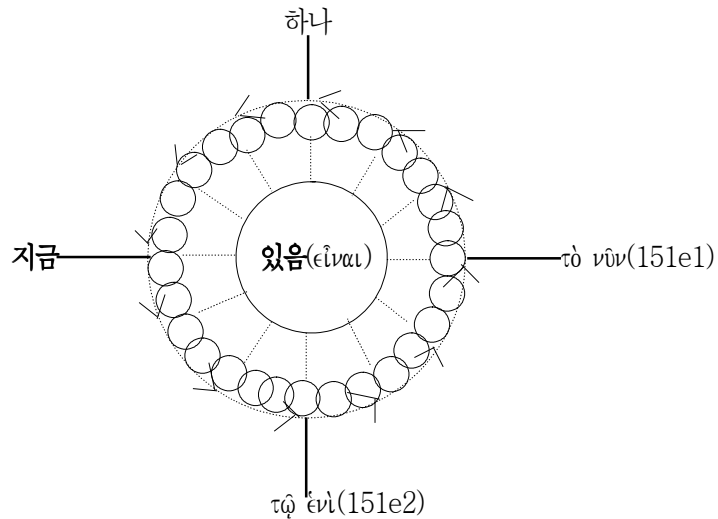


물론 현재 라는 말에 해당 될 수도 있을 말이 151e8에 μετὰ χρόνου, τοῦ παρόντος(1810, 1162각주1903)라고 나타나나 흔히 고고(考古)(생물)학이나 역사나 과학 등에서 쓰여지는 그 뒤 시간을 과거 그 앞 시간을 미래로 하는 현재 시간을 여기 현재(παρουσία)는 가리키지 않는다 관념적인 그러한 시간의 직선적인 구분만을 여기 파르메니데아스는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라

는 그림의 시간 구분만을 나타내지도 않는다 비록 현재가 직선 상의 어느 한 점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이든 미래이든 직선의 모든 점에 있긴해도 말이다 이러한 시간 구분은 나아(πορευομένου, 152a3-4, 1811)가기만 할 뿐 등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이미 1171쪽에 그려진 아래와 같은 그림을 그려 볼 수 있으리라



크든 적든 동그라미 실선들은 모두 지금이며 하나이고 **있음**이다 그리고 화살표는 시간의 **나아감**을 나타내는데 화살의 축은 작은 동그라미들을 반드시 거쳐 날아가며 그럴 때 마다 달리 **된 채 있다** 그리고 동그런²⁷⁵⁰⁾ 점선은 흔적은 시간이 나아가는 흔적을 나타낸다²⁷⁵¹⁾바로 이 흔적들이 과거

2750) 시간이 동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비록 파르메니데이스 여기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38a8에 나오는 등글게 돌다(κυκλομεν ου(1174쪽 각주 1923)라는 말에 의해 확인된다.

라면 과거랄 수 있을 것이며 미래는 아직 닥아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흔적들은 있음도 있을 것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있어 온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좀더 엄밀하게 그리자면 그 흔적은 1659쪽 각주 2559번에 나타난 것



지나온 시간 과 지금 시간 과 닥아올 시간의 이러한 세 구분을 수평
선 상에서 또는 단순히 원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마 불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언제든(ὅτανπερ 152e2) 항상 **있으며** 어느 한 때(τοῦ
ποτέ, 155d2, 1825)와 그 때 이후(τοῦ ἔπειτα, 에페이타, 155d2, 1825)사이에
(μεταξύ, 152b3, 1812)**지금**이 있고 **시간**의 **나아감**(πορευομένου, 152a3-4, 1811)
은 그 때부터 그 때 이후로 이루어지나 시간의 **나아감**의 계속 **더함**(τὸ προϊ
όν, 152c3, 1813)지금으로부터 지금 이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한 때를 역사 또는 과학 또는 고고학에서 말하는 과거로**만** 볼 수
는 없다 물론 지나온(2752)과거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그 때 와 그 때
이후 사이에 있는 지금은 하나와 더불어 모든 시간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에 걸리는한 되어지는 모든 것은 **있다** 그런데 어느 한
때에서 그 어느 한 때 이후로 나아갈 때 그 사이의 시간인 지금을 건너 뛸
수 없다 필연적으로(ἀνάγκη, 152c6, 1813)지금을 거치므로 되어져 오는 모든

2751)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난 후 동그라미들을 자세히 보면 지금들이 모
든 시간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752) 지나간 보다는 지나온 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것은 필연적으로 지금에 걸려 되어져 왔기를 그만 두고 **이것**(τούτο, 152d1, 1813)으로 **있다** 바로 이러한 **있음**이 **지금**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하** 나이다 그러나 시간의 나아감은 지금에서 지금 이후로 계속되므로 지금을 벗어나 지금에 걸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되어진다** 그래서,

결코 **되고 있다** 또는 **있게 된다**(becoming into being)라고 말하거나 쓰면 안된다 말하거나 쓰려면 **된다** 아니면 **있다** 라고 해야 정확하다 그래서 (생성)**되고 있다** 라고 말하면 정확하지않다(ἀκριβές, 티마이오스38b3, 1774)그러나 어떤 것이 되면서(γινόμενον, 152b2, 1812)있거나 또는 있으면서(ὄν)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할 것 같다 따라서 **있음** 과 **됨**은 날카롭게 구분되어야 한다 있음은 지금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닌 것이지만 됨은 지금에서 지금 이후로 시간의 더 나아감에 의해 있음으로부터 벗어나게(2753)되어

2753) ἔκ(152b5, 1812, 로부터)을 근거로하여 나는 ‘(.....로부터) 벗어나’ 라는 말을 쓴다 그렇게 덜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것으로 사려(思慮)되기 때문이다 이미 나는 소피스테아스 편에 나오는 새로운 존재론을 마무리 하는 1573 쪽에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존재 또는 실체라는 말로 대신했으며 거기 소피스테아스 편이나 여기 파르메니테아스 편에 나오는 있음 과 실체 또는 존재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 있는 동일한 어떤 것의 자기 부정을 통해 어떤 그것은 있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자신과 해태론하게 된다 비로서 존재하게 된다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에 대해 **알론하게 있다** ’ 라고 하는 소피스테아스 편의 거기 해석이 절묘하게 여기 파르메니테아스 편과 맞아 떨어지므로 그렇다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는 **하**나는 시간의 나아감의 계속을 통해 **자신의 있음으로부터 벗어나** 알론한 것으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되어짐 또는 됨은 있음과 날카롭게 구분된다 있음을 됨이라고 또는 있게 되어짐이라고 되어지고 있음이라고 해서도 안된다 플라톤의 파르메

짐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있어 옴 과 되어졌음 역시 구분되어야 한다 **있어 옴**은 지나온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남인 반면 **되어졌음**은 있어 옴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음 이지 실체를 나누어지남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되어졌음(*γίγνεται*, 155 a6, 1823)이 있어옴이라면 되어졌음이 아니라 있어왔음이어서 지나온 그 때 실체를 나누어 지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되어짐은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있지 않다 이와 나란히,

있을 역시 **될**과도 날카롭게 구분된다 따라서,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는** *하나*는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 오고 되어지고 되어갈 것이다 시간을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성) 되어지는 것은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달리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것은 됨이라기 보다는 있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되어진다** 함께 말이다 시간을 나누어 지니고 있는 것은 시간의 나아감의 그 더함(*τὸ προϊὼν*, 152c 3, 1813, 계속)으로 인하여 있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러기에 있는 하나는 자신 보다 그리고 알려진 것들 보다 늙게 있고 되며 젊게 있고 되며 늙게도 젊게도 있지않고 되지않는다 이제 이렇게 있는 하나를 어떻게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파르메니데아스가 가장 어린 미숙아(未熟兒)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논증하는지 정리해 보자 우선,

니데아스 편을 충실히 따르자면 그렇다는 말이다.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는 하나가 나누어 지니는 시간은 나아가간다는 것 그리고 어느 때 시간 과 그 어느 때 이후 시간 사이의 시간인 지금을 건너 뛸 수 없으므로 하나는 지금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 이와 더불어,

하나는 자신 보다 늙고 젊게 되며 늙고 젊게 있으며 늙게도 젊게도 되지 않으며 늙게도 젊게도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그래서 있음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가 지니는 시간은 나아가므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 그래서 스스로 보다 늙게 된다($\gamma\acute{\iota}\gamma\nu\epsilon\tau\alpha\iota$, 152a4, 1811)그런데,

늙은 것은 젊게 되는 것 보다 늙게 되므로 늙게 되는 하나는 젊게 되는 스스로 보다 늙게 됐다($\gamma\acute{\iota}\gamma\nu\omicron\iota\tau\omicron$, 152b1, 1811)그래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된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되고 늙게 된다 이와 더불어,

스스로 보다 늙게 있고 젊게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어느 한 때로부터 그 어느 한 때 이후로 나아가는 시간은 그 사이의 지금을 건너 뛸 수 없으므로 되는 것은 지금에 필연적으로 걸린다 지금은 있어움 과 있을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에 걸릴 때 마다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더 이상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그대로 이/미 있다 시간의 더해짐은 지금 과 지금 이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계속 더해지면 지금에 걸리지 않을 것이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에 걸릴 때 마다 되어진 것은 그대로의 이 것으로 있다 그래서 늙게 되어진 것도 지금에 걸리므로 늙어진 그대로의 이것으로 있다 따라서 하나는 지금 보다 늙게 있다 그런데,

보다 늙은 것은 젊은 것 보다 늙으므로 늙게 된 채로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필연적으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있다 지금은 모든 있음을 통해서 두루 항상 하나와 더불어나 어느 때든 지금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스스로 보다 젊게도 늙게도 되지 않으며 젊게도 늙게도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는 스스로 보다 많은 시간 동안 되거나 있지 않다 그런데 똑 같은 시간으로 있거나 되는 것은 동일한 나이를 지니며 동일한 나이를 지니는 것은 보다 늙게 있지도 보다 젊게 있지도 않다 따라서 스스로와 똑 같은 시간 동안 있거나 되는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되지도 늙게 되지도 않으며 젊게 있지도 늙게 있지도 않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젊고 늙게 있으며 그리고 젊고 늙게 있지 않다는 것도 논증된다,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이 아니라 헤태론들이므로 하나 보다 많이 있다 헤태론이라면 하나 있어 오지만 헤태론들이라면 하나 보다 많이 있으며 많음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음은 하나 보다 많은 수를 나누어 지닌다 헌데 수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이 먼저 되어졌으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이 먼저 되어졌으며 되어진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이 첫 번째 것이며 바로 이 첫 번째 것이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는 모든 수들 가운데 가장 먼저 되었던 첫 번째 것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들이라면 모든 알론한 것은 수를 나누어 지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되어졌던 것은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 되어졌을 것이며 알론한 것들은 늦게 되어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늦게 되어졌던 것은 먼저 되어졌던 것 보다 더 젊을 것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젊을 것이지만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자신의 자연에 어긋나게 되어졌을 수 없다 헌데 하나는 부분을 지닌다는 것이 그리고 부분을 지닌다면 처음과 끝과 중간도 지닌다는 것이 보여졌었다 그렇다면 하나그것이든 알론한 것들 각각이든 아르케에(처음)은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것이며 알론한 모든 것들은 그 아르케

에 뒤에 주옥 [늘어설 것이다] 그리고 알론한 모든 부분은 전체와하나의 부분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은 동시에(αα, 153c7, 1818) 저 끝에 의해서 하나와 전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 늦게 되어지는 **끝과 동시에** 자연스레 하나는 되어진다²⁷⁵⁴)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그것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늦게 되어졌던 끝에 의해서 하나는 자연스레 더 늦게 되어진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짧게 **있는** 반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늦게 있다 나아가서,

하나이든 알론한 것이든 어떠한 것의 아르케에 부분 또는 알론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하나 있는 부분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는 동시에 첫 번째 것으로 동시에 두 번째 것으로 동시에 나머지 알론한 것으로 남김 없이 동시에 되어졌을 것이다 어떤 부분도 덧 붙여지지 않는 전체하나가 될 때 까지 그 극단 부분들에 동시에 덧 붙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는 모든 알론한 것과 동일한 나이를 먹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 하나그것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도 나중에도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되어졌을 것이며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짧지도 **늙지도 않고** 그런데 알론한 것도 하나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있음 뿐 아니라 **되어짐**에 관해서도 이러하다는 것이 논증된다

만약 **헤테론한 것이 헤테론한 것** 보다 늦게 **있다면** 그 첫 번째 것은

2754) 단지 하나만이 있다면 그 하나는 전체일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어느 한 때도 하나는 있지 않을 것이고 될 수 없을 것이다 **되는** 것은 항상 전체로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소피스테에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의 로고스를 기억하라 여기와 얼마나 잘 맞는 로고스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이 차이를 제외하고는 해대론한 것 보다 늦게 **되어**질 수 없을 것이며 다시 보다 짧게 **있다**면 나이 차이를 제외하고는 보다 짧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든 무엇이든 똑 같지 않는 것에 **똑 같은** 것이 덧붙여지면 차이나는 첫 번째 것 그대로 항상 그 똑 같음에 의해서 차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항상 똑 같이 난다면 있는 것은 있는 것 보다 어느 때든 늦게 **되**지도 짧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늦고 짧게 **되어**지지 않은 채 한 편으로 보다 늦고 짧게 **있고 되어**졌었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보다 늦고 짧게 있긴해도 어느 때 보다 늦게도 짧게도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다는 것이 보여졌었다 현대 알론한 것들 보다 늙을 때 마다 하나는 어디에서든 알론한 것들 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되어**졌을 것이다 또 똑 같은 시간이 더 많은 그리고 더 적은 시간에 덧붙혀진다면 더 많은 것은 **똑 같은** 조각들(μορίω, 154d2, 1822)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작은** 조각들에 의해서 차이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것 [곧]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대해 이 때 그리고 이 후 나이에 의해서 차이나지는 않으나 알론한 것들에 똑 같은 시간을 더함은 저 [하나] 것과 나이에 있어 항상 더 **적게** **차이나**게 하거나 또는 더 **먼저**인 것으로 차이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더 적은 것은 나이에 있어 어떤 것에 대해 적게 차이나거나 또는 저 [하나 첫 번째] 것에 대해 먼저 보다 늦게 있어 온 바로 그 저 [하나 첫 번째] 것에 대해 앞서 보다 먼저 짧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 [알론한] 것이 보다 짧다면 다시 저 **알론한 것들은 하나**에 대해 보다 늦거나 먼저일 것이다 그래서 보다 짧게 되었던 것은 **먼저** 되었던 것에 대해 그리고 보다 늦게 있는 것에 대해 보다 늦게 **되어**지만 어느 때든 늦게 **있지**는않다 그러나 항상 저(보다 늙은) 것 보다 늦게 되어진다 저(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과 보다 늙은 것에 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다 늙은 것은 그와 같은 길에서 보다 젊은 것 보다 짧게 되어진다 이것들은 반대 방향으로 오가면서 서로에 반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

서] 보다 짧은 것은 보다 높은 것 보다 보다 높게 되어지는 한 편 보다 높은 것은 보다 짧은 것 보다 짧게 되어진다 그러나 **되어짐은 있을** 것이 아닌 것 처럼 보인다(οὐκ ἔν οἴω τε εἶτην, 155a5, 1823)²⁷⁵⁵) 만약 그렇게 됐다면 더 이상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보다 높고 짧게 되어진다 한 편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 처럼 보다 높아 있으면서 보다 먼저 되어졌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짧게 되어지며 다른 한 편으로 보다 늦게 되어졌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높게 되어진다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우리가 보았던 것 처럼 하나 보다 높아 있으면서 먼저 되어졌던 것들이므로 하나에 대해 알론한 것들은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알론한 것들과 수적으로 똑 같음에 의해서 항상 차이난다면 그러는한 해태론한 것은 해태론한 것 보다 높게 되지도 짧게 되지도 못할 것이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높게 되지도 짧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높게 되지도 짧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알론한 [작은] 조각들에 의해서 항상 차이난다면 필연적으로 나중 것들 보다 먼저 것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먼저 것들 보다 나중 것들이 되어질 것이며 그러는한 필연적으로 서로 보다 높은 것들 과 짧은 것들이 되어져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그리고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높게 그리고 짧게 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그것은 자신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높고 짧게 **있으며 되어지고**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들 보다도 높게든

2755) 그것들은 결코 최종적으로(finally, 콘퍼드946)그렇게 될 수 없다 라고 콘퍼드는 번역한다 다시 말해 그런 되어짐은 끝이 날 수 없다 라고 번역하는듯 한데.....

짧게든 **있지도 않으며** **되어지지도 않는다** 이와 함께,

하나는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왔으며 되고 될 것**이라는 것이 논증된다,

시간을 나누어 지니고 있는 하나는 그 보다 **늙고 짧게** **되어지므로** 필연적으로 그 어느 때 와 그 어느 때 이 후 와 그 지금을 나누어 지닌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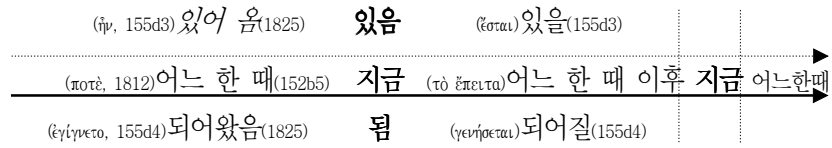
하나는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져왔고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하나의 그리고 **알론한 것의 앎** 과 **역견** 과 **감각**이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져왔고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에 (대한) 어떤 것이 그리고 하나의 어떤 것이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에 관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수행하므로 하나의 앎 과 역견 과 감각도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에 대한 이름 들 과 로고스들고 있으며 그리고 이름 불혀지며 말하여진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 그대로 하나에 관련된다 따라서,

하나이든 알론한 것이든 시간을 나누어 지니고 있는한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져왔으며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있어옴은 되어 왔음이 아니며 있음은 됨이 아니고 있을은 될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을 나누어 지니기 때문에 이 처럼 **있는 것은 되는 것과** **되는 것은 있는 것과** 날카롭게 구분된다 그렇다면,

아래의 그림이 허용될 수 있으리라 물론 이 그림에 나타나는 시간이 끝나는 점에서는 불 완전 할지라도 말이다



시간의 나아간의 덧 붙혀짐을 나타내는 화살 축을 앞에 두는 선은 실 선이든 점선이든 시간의 흔적이며 굵은 실선에 의해서 곧 시간에 의해서 구 분되는 영역은 각각 **있음**의 영역 과 **됨**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 구 분되는 영역에 이어진 그러나 이러한 영역과도 또 다시 각기 구분되는 있어 옴과되어왔음의 영역 그리고 있을과될의 영역이 위 그림에서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있음**은 **됨**도 아니며 **있어옴**은 **되어왔음**도 아니고 **있음**은 **될**도 아니 라는 것이 선명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비록 하나인 것으로 되지는 않더라도 **있음** 과 **됨**은 시간에 의해 묶어 지는 영역이라는 것을 위 굵은 실선이 보여줄 것이며 선의 굵기는 이러한 구분의 강도(強度)가 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점선을 통해 서 그 나아감이 **휘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려했다 나아가서,

어느 한 때 와 그 이 후의 모든 사이에 **지금**은 놓일 것이므로 **지금**은 모든 시간 안에 하나와 더불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보여질 것이다 비록 직 선으로 그려짐으로 인하여 잘 나타나 보이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시 간은 곧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둥글게 나아 간다는 것을 그것도 시작 과 끝이 둥글게 겹쳐 이어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작 과 끝이 이 어져 둥글게 이루어지더라도 이루어진 그 둥글들이 겹쳐치지 않게 둥글게 나아가는 것일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어느 정도 위 그림이 보완(補完)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지금**은 모든 곳 곳에 **항상 있다**는 것이 더 잘 이해될 것다 이제,

시간을 지니고 **있는** 하나에 관한 이러한 논증을 **시간**을 지니지 않은 **하나자체에** 관한 논증과 비교해 볼 때다 그러나 이 두 논증을 비교해 보기

전에 **알론한 것**들 보다 **늙고 젊게** 되며 **늙게도 젊게도** 되지 않는 **하나**에 관한 논증을 간략히 다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되어짐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더 선명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미 논증되어진 **알론한 것** 보다 **늙고 젊게 있는 하나**로부터 출발하여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도 젊게도 되지 않는** 하나가 논증된다.

해태론한 것 보다 **늙게 있는 해태론한 것**은 **나이 차이**가 나지 않고는 서로 보다 **늙게 될 수 없다** 그리고 **똑 같지 않는 것**들에 **똑 같음**이 덧 붙혀져도 여전히 첫 번째 차이는 유지(維持)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이 차이가 항상 똑 같다면 **있는 것**은 **있는 것** 보다 **젊게 되지도 늙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되어졌던** 그대로 **늙게 있다**는 것이 보여졌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늙게 되지 않는다** 보다 **젊게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되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젊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도 늙게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똑 같은 것이 더 **많은 것** 과 더 **적은 것**에 덧 붙혀진다면 더 **많은 것**은 **똑 같은 조각**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적은 조각**들에 의해서 **차이**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늙은 것**은 어디에서든 보다 **많은 시간** 동안 **되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 보다 **하나**는 **늙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많은 시간** 동안 **되어졌다** 그래서 **똑 같은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을 지니는 **하나** 와 더 **적은 시간**을 지니는 **알론한 것**에 덧 붙혀질 경우 비록 **똑 같은 조각**에 의해서 **그 때 와 그 때** 이 후로 **차이나지는 않겠지만** 더 **작은 조각**에 의해서 **첫 번째 것 하나**는 **알론한 것**과 **더 작은 차이**가 나거나 **알론한 것** 보다 더 **먼저**일 것이다. 그렇다면 더 **적은 것**은 어떤 **것에 대해** 더 **적게** 나이 **차이** 나든지 **먼저** 보다 **늙게** 있어 온 **것에 대해** 앞서 보다 **먼저 젊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다 **젊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에 대해 보다 **늙거나 먼저**일 것이다. 그래서 보다 **젊게** 되었던 것은 **먼저 되었던 것**에

대해 그리고 보다 늙게 **있는 것**에 *대해* 보다 늙게 **되어**지만 어느 때든 보다 늙게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보다 늙은 것 보다는 항상 **늦게** 되어진다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과 보다 늙은 것에 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로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보다 젊게 되어진다 이것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가면서 서로에 반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 젊은 것은 보다 늙은 것 보다 보다 늙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런 되어짐은 끝나지 않는다 끝나 버리면 더 이상 **되어**짐이 아니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다 늙게 있으면서 보다 **먼저** 되어졌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되어지는 반면 보다 **늦게** 되어졌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늙게 되어진다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 보다 늙게 있으면서 **먼저** 되어졌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하나에 대해 알론한 것들은 보다 젊어지는 반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되어진다 따라서,

헤태론한 시간을 지닌 것들에 똑 같은 시간이 덧 붙혀지면 헤태론한 그것들은 비록 차이나는 처음의 나이 때문에 주욱 나이 차이는 나겠지만 덧 붙혀지는 **똑 같음** 덕분에 더 이상 늙게 되거나 젊게 되지 않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비록 똑 같은 시간이 덧 붙혀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나이 차이는 나지 않더라도 헤태론한 어느 하나가 지나는 그 **적음** 덕분에 서로에 대해 주욱 적은 나이 차이가 나거나 먼저일 것이므로 그리고 늙은 것 과 젊은 것은 반대 방향으로 오가면서(ἰόντε, 155a2, 1823)서로에 반대 되므로 헤태론한 것들은 서로에 대해 늙게 되면서 젊게 된다 따라서 하나와 헤태론한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늙게되며 젊게된다* 따라서,

반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그리고 이 보다 더욱 더 유념해야 할 것은 만약 되어짐이 있음이라면 또는 그 거꾸로 있음이 되어짐이라면 반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있**음 과 **되어**짐을 하나인 것 이라면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일 뿐이며 반대되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든 어느 때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시간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논증(1625-1629) 과 시간을 지니지 않는 하나 자체의 논증을 비교해 볼 차례이다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도 똑 같지도 않으므로 하나 자체는 스스로 보다도 알론한 것 보다도 보다 늙지도 보다 젊지도 않으며 동일한 나이를 지니지도 못한다는 것이 논증된다(1663)

시간의 같음 과 똑 같음을 나누어 지녀야 동일한 나이를 지닐 터인데 하나는 같음과같지않음 과 똑같음과똑같지않음을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동일한 나이를 지니지 않으며 더 늙지도 더 젊지도 않는다 그러나,

만약 시간 안에 있다면 하나는 자신 보다 필연적으로 항상 더 늙다 그러나 더 늙은 것을 나누어 지닌다면 그것 보다 항상 더 젊을 것이다 요것 때문에 그렇다 차이나는 헤태론한 것은 그 차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차이로 **되어졌고 있고** 있을 반면 비록 알론한 어떤 차이로도 있지 않을 것이지만 그 어떤 차이로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늙음은 젊음과 차이나지 알론한 그 무엇과 차이나지는 않으므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지면 서 동시에 필연적으로 스스로 보다 젊어질 것이며²⁷⁵⁶있고 될 것이며 스

2756) 헤태론한 것은 자신의 자연과 반대되는 헤태론한 것으로 변화한다(μεταβάλλειν, 255a12, 1510)는 소피스테이스 편을 참조하라 거기에서는 움직임 과 삶이 자연에 있어 헤태론한 것들로 쓰여지는 반면 파르메니데이스 편 여기에서는 늙음 과 젊음이 그러하다고 쓰여진다 따라서 늙음은 단지 젊음으로만 다시 젊음은 단지 늙음으로만 변화할 것이다

로와 똑 같은 시간이 필연적으로 [그 하나에] 되어지며 있고 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을 나누어 지닐 때 마다 각기 것은 스스로와 동일한 나이를 지니며 스스로 보다 늦게 동시에 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 중 어느 것도 하나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시간도 하나와 함께하지도 않고 하나는 시간 안에 있지도 않다 이와 더불어,

하나를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될 것이다

하나가 만약 있다면 어디에서든 그 하나에 속하는 **있음**은 현재 시간에 있어 옴은 지나간 시간에 있음은 닳아올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남이다 그래서 **있음**을 나누어 지닌다면 나아가는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앞서니 항상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하나는 늦게 된다 그런데,

늦은 것은 젊게 되는 것 보다 늦게 된다고 우리는 기억하므로 만약 스스로 보다 늦게 된다면 하나는 젊게 되는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늦게 됐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를 자신 보다 젊게 된다 이렇게 하나를 스스로 보다 젊고 늦게 된다 그런데,

있어옴 과 되었음 과 되어왔음은 지나간 어느 때의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며 **있을** 과 될 과 되어질은 닳아올 어느 때의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고 **있다** 와 되다는 **지금 임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가 시간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어오지도 있을지도 있지도 되었지도 되어왔지도 될지도 되어질지도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알론한 어떤 길로 실체를 나누어 지닐 수 있을까 없다 따라서 하나는 결코 실체(존재)를 나누어 지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는 결코 있지 않다 있다면 실체를 나누어 지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체는 나누어 지니고 **있는** 하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이러한 하나는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젊고 늦게 있으며 되고 젊게도 늙게도 있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 처럼 논증된다

하나가 만약 있다면 어디에서든 그 하나에 속하는 **있음**은 현재 **시간**에 있어 옳은 지나간 시간에 **있음**은 닳아올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남이다 그래서 **있음**을 나누어 지닌다면 나아가는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앞서니 항상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하나는 늙게 된다 그런데,

늙은 것은 젊게 되는 것 보다 늙게 된다고 우리는 기억하므로 만약 스스로 보다 늙게 된다면 하나는 젊게 되는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늙게 됐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는 자신 보다 젊게 된다 이렇게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고 늙게 된다 그런데,

어느 한 때로부터 그 어느 한 때 이후로 나아가는 시간은 그 사이의 지금을 건너 뛸 수 없으므로 되는 것은 지금에 필연적으로 걸린다 지금은 **있어**움 과 **있을**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에 걸릴 때 마다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더 이상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그대로 이/미 있다 시간의 더해짐은 지금 과 지금 이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계속 더해지면 지금에 걸리지 않을 것이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에 걸릴 때 마다 되어진 것은 그대로의 **이 것**으로 있다 그래서 늙게 되어진 것도 지금에 걸리므로 늙어진 그대로의 **이것**으로 있다 따라서 하나는 지금 보다 늙게 있다 그런데,

보다 늙은 것은 젊은 것 보다 늙으므로 늙게 된 채로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필연적으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있다 지금은 모든 **있음**을 통해서 두루 항상 하나와 더불어다 어느 때든 지금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스스로 보다 젊게도 늙게도 되지 않으며 젊게도 늙게도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는 스스로 보다 많은 시간 동안 되거나 있지 않다 그런데 똑 같은 시간으로 있거나 되는 것은 동일한 나이를 지니며 동일한 나이를 지나는 것은 보다 늦게 있지도 보다 젊게 있지도 않다 따라서 스스로와 똑 같은 시간 동안 있거나 되는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되지도 늦게 되지도 않으며 젊게 있지도 늦게 있지도 않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젊고 늦게 있으며 그리고 젊고 늦게 있지 않다는 것도 논증된다,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헤테론이 아니라 헤테론들이므로 하나 보다 많이 있다 헤테론이라면 하나 있어 오지만 헤테론들이라면 하나 보다 많이 있으며 많음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음은 하나 보다 많은 수를 나누어 지닌다 헌데 수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이 먼저 되어졌으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이 먼저 되어졌으며 되어진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이 첫 번째 것이며 바로 이 첫 번째 것이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는 모든 수들 가운데 가장 먼저 되었던 첫 번째 것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들이라면 모든 알론한 것은 수를 나누어 지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되어졌던 것은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 되어졌을 것이며 알론한 것들은 늦게 되어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늦게 되어졌던 것은 먼저 되어졌던 것 보다 더 젊을 것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젊을 것이지만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자신의 자연에 어긋나게 되어졌을 수 없다 헌데 하나는 부분을 지닌다는 것이 그리고 부분을 지닌다면 처음과 끝과 중간도 지닌다는 것이 보여졌었다 그렇다면 하나그것이든 알론한 것들 각각이든 아르케에(처음)은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것이며 알론한 모든 것들은 그 아르케에 뒤에 주욱 늘어설 것이다 그리고 알론한 모든 부분은 전체와하나의 부분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은 동시에(ἅμα, 153c7, 1818) 저 끝에 의해서 하나와전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 늦게 되어지는 끝과 동시에 자연스레 하나는 되

어진다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그것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늦게 되어졌던 끝에 의해서 하나는 자연스레 더 늦게 되어진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있는 반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늦게 있다 나아가서,

하나이든 알론한 것이든 어떠한 것의 아르케에 부분 또는 알론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하나 있는 부분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는 동시에 첫 번째 것으로 동시에 두 번째 것으로 동시에 나머지 알론한 것으로 남김 없이 동시에 되어졌을 것이다 어떤 부분도 덧 붙혀지지 않는 전체하나가 될 때 까지 그 극단 부분들에 동시에 덧 붙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는 모든 알론한 것과 동일한 나이를 먹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 하나그것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도 나중에도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되어졌을 것이며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고 그런데 알론한 것도 하나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젊고 늙게 되어지며 그리고 젊고 늙게 되어지지 않는 것도 논증된다

헤테론한 것 보다 늙게 있는 헤테론한 것은 나이 차이가 나지 않고는 서로 보다 늙게 될 수 없다 그리고 똑 같지 않는 것들에 똑 같음이 덧 붙혀져도 여전히 첫 번째 차이는 유지(維持)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이 차이가 항상 똑 같다면 있는 것은 있는 것 보다 젊게 되지도 늙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되어졌던 그대로 늙게 있다는 것이 보여졌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늙게 되지 않는다 보다 젊게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되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젊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도 늙게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똑 같은 것이 더 많은 것 과 더 적은 것에 덧 붙혀진다면 더 많은 것

은 똑 같은 조각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적은* 조각들에 의해서 **차이**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늙은 것은 어디에서든 보다 *짧은 시간* 동안 되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 보다 하나는 늙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많은 시간 동안 되어졌다 그래서 똑 같은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을 지나는 하나 와 더 적은 시간을 지나는 알론한 것에 덧 붙혀질 경우 비록 똑 같은 조각에 의해서 그 때 와 그 때 이 후로 차이나지는 않겠지만 더 작은 조각에 의해서 *첫 번째 것* 하나는 알론한 것과 **더 작은 차이**가 나타나 알론한 것 보다 더 **먼저**일 것이다 그렇다면 더 **적은** 것은 어떤 것에 **대해** 더 적게 나이 차이 나든지 **먼저** 보다 늙게 있어 온 것에 **대해** 앞서 보다 먼저 **젊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다 젊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에 대해 보다 늙거나 **먼저**일 것이다 그래서 보다 젊게 되었던 것은 먼저 **되었던 것**에 **대해** 그리고 보다 늙게 **있는 것**에 **대해** 보다 늙게 **되어**지만 어느 때든 보다 늙게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보다 늙은 것 보다는 항상 **늦게** 되어진다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과 보다 늙은 것에 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로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보다 젊게 되어진다 이것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가면서 서로에 반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 젊은 것은 보다 늙은 것 보다 보다 늙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런 되어짐은 끝나지 않는다 끝나 버리면 더 이상 **되어**짐이 아니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다 늙게 있으면서 보다 **먼저** 되어졌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되어지는 반면 보다 **늦게** 되어졌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늙게 되어진다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 보다 늙게 있으면서 **먼저** 되어졌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하나에 대해 알론한 것들은 보다 젊어지는 반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되어진다 따라서,

 헤태론한 시간을 지닌 것들에 똑 같은 시간이 덧 붙혀지면 헤태론한 그것들은 비록 차이나는 처음의 나이 때문에 주욱 나이 차이는 나겠지만 덧 붙혀지는 **똑 같음** 덕분에 더 이상 늙게 되거나 젊게 되지 않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비록 똑 같은 시간이 덧 붙혀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나이 차이는 나지 않더라도 헤태론한 어느 하나가 지나는 그 **적음** 덕분에 서로에 대해 주욱 적은 나이 차이가 나거나 먼저일 것이므로 그리고 늙은 것 과 젊은 것은 반대 방향으로 오가면서(λόγικε, 155a2, 1823)서로에 반대 되므로 헤태론한 것들은 서로에 대해 늙게 되면서 젊게 된다 따라서 하나와 헤태론한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늙게되며 젊게된다* 따라서,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늙지도 젊지도 않으며 동일한 나이도 아닌 하나는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늙어있고 늙어지며 젊어있고 젊어지며 늙어있지도 젊어지지도 않는다 이와 함께,

하나 자체의 **얕도** 역견도 감각도 **있지 않는** 반면 하나의 **얕도** 역견도 감각도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있지 않는 것에는 어떤 것도 덧 붙혀 질 수 없으며 있지 않는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에는 이름도 로고스도 인식도 감각도 역견도 얕도 있지 않으며 따라서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불리워지지도 인식되지도 감각되지도 역견화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 자체에 관해서도 그러하다(1664)반면에,

있는 하나는 자신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늙고 젊게 있으며 되어지고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들 보다도 늙게든 젊게든 있지도 않으며 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은 완벽하다 그런데 하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그 보다 늙고 젊게 되어지므로 필연적으로 어느 때 와 미래 와 그 지금을 나누어 지닌다 그래서 하나는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져 왔고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물론 *하나에 대해* 어떤 것이 그리고 하나의 어떤 것이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앎 과 역견 과 감각도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한 이름들 과 로고스도 있으며 그러기에 이름붙혀지며 말하여진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해 있는 이러한 것들 모두 그대로 하나에 관련 해서도 있다 그래서 있는 하나에 (대한) 어떤 것이 그리고 하나의 어떤 것이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에 관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수행하므로 하나의 앎 과 역견 과 감각도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에 대한 이름들 과 로고스들고 있으며 그리고 이름 붙혀지며 말하여진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 그대로 하나에 관련된다 이제,

나는 이미 808쪽의 도표를 다음 쪽에서 마무리 하면서 하나 자체 와 있는 하나에 관한 논증을 지나 하나 안에 머금어진 반대들이 어떻게 어떤 시간에 서로어로 변하는지에 대해 쓰는 파르메니데아스를 따라 가려한다

	하나		
	하나 자신	있는 하나 자신	
전체	(만약)하나(있다면)	하나(만약 있다면)	
실체	지니지않음	나누어지님	
여럿	없다	있다	
부분의전체	없다	있다	
전체의부분			
한계	없다	있다	
수	없다	(무한히 많이) 있다	
모양	없다	있다	
안	없다	있다	
움직임	없다	있다	
쉽			
동일	없다	있다	
헤태론			
같음	없다	있다	없다
같지않음		없다	있다
똑같음	없다	있다	없다
똑같지않음		없다	있다
접촉	없다	있고	없다
늡다	없다	있고된다	없고되지 않는다
젊다		없고되지 않는다	있고없다
동일한나이		있고	없다

부분 과 전체에 걸리는 점선을 제외한 위 도표의 모든 점선은 반대를

나타내는 반면 꺾 실선은 부정(否定)과 맞섬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미 1080 쪽에 쓰여졌다 그리고 이러한 앞 쪽 도표를 통해서 반대들 그리고 부정하며 맞서는 것들이 선명해졌으므로 이제,

하나 안에 머금어진 **반대**들이 서로에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시간에 **변**하는가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 안에 머금어진 **맞서며 부정**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시간**에 **변**하는가를 숙고하는 맥락에서 파르메니데이스 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가 보기로 하자

“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한) 이름들 과 로고스도 있으며 그리고
이름 붙혀지며 말하여진다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하여 마주치
고 있는 이러한 것들 그대로(ἄσπερ 155e1)하나에 관해서도 있다네
완전히 그러합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것²⁷⁵⁷을 (우리) 말해 보세나 *하나가 만약*
(우리가) 묘사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ἐστίν, 155e4)라면²⁷⁵⁸[끝]

2757) 첫 번째 전제는 만약 하나 있다면 이었고 두 번째 전제는 하나 만약 있다면이었으니 세 번째 전제는 무엇일까 만약 하나 만약 있다면일까? 66 쪽의 각주 58번을 참조하라

2758)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와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인 그러한 하나가 만약 있다면 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지금의 맥락에서는 이제 까지 논증되어진 모든 하나가 문제 삼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렇듯 파르메니데이스 편의 파르메니데이스는 모든 하나를 논증하므로 나는 각기 두 전제에 있어서의 하나를 비교해 왔다 그러한 나의 비교(1715-1720, 1796-1890

그(하나)는 하나 **있는** 여럿이며 하나도 여럿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을 나누어지닌다(면) 한 편으로 어느 때(ποτέ, 155e7) **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하나는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다시 어느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하나는) **있지 않는**다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겠는가(2759)

필연적으로

따라서 저 때(ὅτε 155e8) 나누어 지닌 그러한 것이 그 때(τότε e9) 나누어 지니지 않을 것이거나 저 때 나누어 지니지 않은 (그러한) 것

,1856-1865)를 참조하면 지금의 맥락이 어떠한 맥락인지를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리라

2759) 여럿 있는 하나 그리고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있는 하나를 말하는 것인 반면 하나도 여럿도 아니라는 것은 하나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맥락에서는 시간을 지니고 **있는** 하나 가운데 어떤 것은 어느 한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있는 하나이지만 어떤 것은 어느 한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지 않는** 하나 라는 것이 새롭게 말하여지는 맥락같다 어느 때 와 어느 때 이후 와 이 둘 사이이 지금 등 시간이 세 가지로 구분됐다는 데에 유념(留意)하라 현대 어느 한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 와 어느 한 때 그렇지 않는 하나 라는 구분을 무엇 때문에 파르메니데에스는 여기서 끌어 들일까.....어쨌든,

이 구분은 시간의 세 구분 가운데 하나인 어느 때에 속하므로 있어 오는 하나 이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 ὅτι δ' οὐκ ἔστι [ἔν](155e7) ’ 라는 레에마(句)에서 보여지듯이 ἔν(있어오는) 아니라 ἔστι(있다) 라는 말이 쓰였을까 어느 한 때(ποτέ)라는 시간에 걸렸는데도 말이다 한 번 숙고해 볼 만한 대목이다

이 그 때 나누어 지나나?

그러한 것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알론한 **시간** ((안))에 나누어 지니고 알론한 (시간)에 나누어 지나지 않네 이렇게만 그(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나누어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옳소

그렇다면 저 때(ὅτε 156a1)**있음**을 나누어 취하고 저 때(ὅτε a2) 그(있음)을 벗어나는(ἀπαλλάττεται²⁷⁶⁰)a2)그러한 **시간**이 있을까 아니면 한 편으로 그 때(τοτε a3)그(있음)을 지나며 다른 한 편으로 그 때(τοτε a3)지나지 않는 어떻게든 그러한 것일까 어느 때(ποτε a3) 그(있음)을 취하고 잃는 것이 아닐(ἀφίη a4)거라면 말일세²⁷⁶¹)

2760) 자유롭게 되다(to let free, to cease from)라는 뜻이므로 벗어나다 라고 옮겨 보았다 1845각주2753번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거기 나는 시간의 더 나아감에 의해 **있음으로부터(ἐκ) 벗어나 되어짐**에 관한 주석을 달고 있었다

2761) 저 때 와 그 때 와 어느 때 등의 말이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것 처럼 보이나 시간의 때를 나타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때 실체를 나누어 지나면서 나누어 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필연이니 어느 한 때 실체를 나누어지니는 한 편 알론한 어느 한 때 실체를 나누어지니지 않는다는 것도 필연이다 그렇다면 시간의 때에 실체를 나누어 지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도 필연인가 여기 파르메니데에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분명히 그러한 시간의 저 때가 있다 라고 나는 해석한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 파르메니데에스는 시간을 어느 때 와 지금 과 어느 때 이후 등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이 세 가지 어느 시간에서는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지니므로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졌고 되고 될 것이다 라고만 말 하여왔지 시간 안에 **있는** 하나가 **있지 않는** 저 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

(어느 때 취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실체를 나누어 취함(μεταλαμβάνειν 156a4-5)을 **되어짐**이

라고 자네는 부르지 않는가

제가

따라서 실체를 벗어남은 **사라짐**(ἀπολλυσθαι, a6, 소멸, 消滅)이

아니겠는가²⁷⁶²)

다 그러나 이제 파르메니데아스는 이러한 **저 때**(ὅτε)에 대해 말하려한다 그렇다면,

155e4(1865)에 나오는 세 번째 라는 말은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이라는 첫 번째 전제 와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 라는 두 번째 전제에 이어져야할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의 있지않는 하나 또는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의 있지않는 하나 라는 전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있지 않는 하나의 두 전제로 넘어가기 위한 그래서 앞 두 전제 와 뒤 두 전제를 이어주는 로고스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맥락은 첫 번째 전제 와 두 번째 전제를 이어주는 것만도 아니요 두 번째 전제 와 뒤에 이어질 세 번째 전제를 이어주는 맥락만도 아니다 오히려 **있는** 것에서 **있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는 맥락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물론 앞 두 전제 와 뒤 두 전제를 이어준다 따라서 앞은 있음에 뒤는 있지않음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앞 두 전제 와 뒤 두 전제는 가장 크게 구분된다

2762) 실체를 나누어 취함이 됨(생성)이요 실체를 잃음이 사라짐(소멸)이라는 말인데.....그렇다면 **시간의 더 나아감**에 의해 **저 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됨** 이라고 **나에** 의해 말하여진 1845쪽은 틀린말이 아니다 실체를 나누어 취함 으로서의 됨의 여기 됨 과 저 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의 거기 됨은 서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는 실체와 연관되지만 거기는 있음과 연관되면 있음 과 실체가 구분된다면 그렇다 나아가서,

물론

하나가 실체를 취하고(λαμβάνον 156a7)있으(면) 되어지고 사라

질 것 처럼 보이네

필연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마다 여럿 있음은 **사라**지며 여럿이 (되어)질

때 마다(ὅταν 156b3) 하나 **있음**(εἶναι, b3)이 사라지는²⁷⁶³[그런 길로]

하나 **있다**는 말은 하나가 **실체**를 **나누어지**닌다(μετέχει, 142c6, 1674)라는 말을 간략하게 한 것 뿐이다 라는 파르메니데에스의 말을 기억하라 확연히 드러나는 여기의 **나누어취하다**(μεταλαμβάνειν 156a4-5)라는 말 과 거기의 **나누어지**니다 라는 말이 날카롭게 서로 구분되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있음 과 됨 처럼 말이다 이러한 구분은 나누어가 아니라 **취하다**와 **지**니다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지니다(ἔχειν)라는 말은 골치 썩이는 말 가운데 하나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니다에 대해서는 232-235를 참조하라 나아가서 파르메니데에스 와 소오크라테스는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를 나누어지님 이라는 말 보다는 나누어취함(μεταλαμβάνοντα, 130e6, 1261)을 쓴다는 것도 참조하라 나누어취하다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돕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성에 대해서는 334-367, 1413각주2285, 1172, 1626쪽 등을 참조하라 어쨌든,

취함 과 지님 이라는 험태론한 말들이 쓰이는 만큼 있음 과 생성은 험태론하게 구분된다는 것이 이 각주의 핵심이다 실체를 나누어 취하면 되어지지만 실체를 나누어 지니면 있기 때문이며 있음 과 됨은 날카롭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있음을 나누어 취한다 라는 156a2의 로고스도 음미해 볼만하다.

2763) 152b6(1812)에 나오는 ἐπίσχει(to hold or direct towards, 유지하다)를

하나 있는 여럿은 되어서 사라지지 않을까?

물론

따라서 **되는** 가운데(γινόμενον, 156b4)하나 와 여럿은 필연적으로 떨어지고 붙질 않겠는가.

여럿

그리고 **같지않음** 과 **같음**은 되어서 될 때 마다 (필연적으로) 같아지지 않고 같아지지 (않은가)²⁷⁶⁴

기억해 보다 그 맥락에 자연스레 여기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거기에서는 지금에 걸릴 때 마다 **늘게 되는 것은** **늘어지는 것을** 그만 두고 더 이상 **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늘은 채로 있다** 라는 거기 맥락에 하나가 되어서 될 때 마다 **여럿 있음은 사라진다** 라는 맥락은 자연스레 이어지기 때문이다 **콘퍼드는** **여기를** **있기를** 그만두다(to ceases to be, 콘퍼드947) **거기를** **멈추다**(stops, 콘퍼드944)로 옮긴다 적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2764) 이와 같은 로고스는 이미 1823쪽에서 확인되었다 보다 **짧게 되는 것** 과 보다 **늘게 되는 것은** 반대(τὸ ἐναντίον, 155a2, 1823)되는 서로에로 반대 방향으로 **되어서므로** **짧게 되는 것은** 보다 **늘게 되고** **늘게 되는 것은** 보다 **짧게** 된다 라고 거기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1788쪽의 그림이 다시 확증된다 **해태론**한 것은 그 이름의 동일함에 의해서 **같아지**며 그래서 **동일한 것이** **같지않게** 된다는 것이 그 그림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에서는 **같지않은 것이** **같게** 되고 **같은 것이** **같지 않게** 된다 라고 쓰여진다 되는 가운데 바로 그렇게 된다 라고 말이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에스의 말이 논리적으로 차근 차근 쓰여진다 그래서 그 전체 로고스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한다 플라톤의 모든 대화 편이 그렇다 그래서 어느 한 곳 만을 따라 떼어내 그 곳만 집중으로 말하기가 아주 어렵다

예

집중적으로 말하다 보면 자연히 다른 맥락의 말이 들어서야만 하고 그러다 보면 플라톤의 말과는 엉뚱한 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도 에이도스를 분리를 말하게 될 때 그런 엉뚱한 말을 혹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기 같은 것에 저 같음이 떨어져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떨어져 나가면 같지않게 되므로 그렇다 물론 텔레스의 순수한 에이도스 처럼 같음 그 자체가 분리됐긴해도 말이다 그러나,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하다 보면 전체를 미처 못 보아 분리된 그 같음 자체가 존재한다 라는 틀린 말을 하게 된다 분리된 그 자체가 존재한다 라는 말은 파르메니데아스 편에든 소피스테아스 편에도 티마이오스 편에도 결코 덧붙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음 그 자체는 하나 자체와 마찬가지로 하나인 것 과 같은 것에 분리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있다고 해도 그렇다 저 있음은 존재(실체)만큼이나 있으며 저 있음(1542)의 에이도스를 알론한 에이도스들이 나누어 지님으로서 있으므로 섞여진 에이도스로부터 ((개별적인)) 각기 것은 분리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에 의해서 비로서 예를들어 같은 것은 같음과 떨어져 분리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것도 그 자연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나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텔레스는 말로만 무성(茂盛)하게 분리해 존재할 수 없다고 한 것 처럼 보인다 텔레스의 존재론 전체를 꼼꼼히 들여다 보면 말로만 분리를 허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억측이 나에게 거머리 처럼 달라 붙기 때문이다 오히려 텔레스는 사람의 존재를 사람의 에이도스로부터 분리시킨 것 같다 이에 관한 말을 유보했던 플라톤(파르메니데아스130c1, 1257)과는 달리 말이다

그리고 크고 작고 똑 같게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자라
나고(αὐξάνεσθαι²⁷⁶⁵), 156b8, 성장하게되다, 盛裝) 줄어들며 똑 같아진
다네

그렇게,

그런데 움직여짐이 쉬어질 때 마다(ὅταν δὲ κινούμεόν²⁷⁶⁶)τε ἴσθη
ται, 156c1)그리고 쉬이 움직여짐으로 **변할**(μεταβάλλη²⁷⁶⁷), c2, 變)때
마다 반드시 어디에서든 그(하나)는 하나의 **시간 안에 있지 않네**

어떻게

먼저 쉬면서 **나중**에 움직여지든 먼저 움직여지면서 **나중**에 쉬
어지든 그러한 것들은 **변화 없이**는 쉬어짐을 겪지 않을 걸세

어찌?

(자신) 안에서는 어떤 것도 **동시에** 움직여지지도 쉬어지지도
않는 그럴 하나의 시간은 있지않네²⁷⁶⁸)

2765) 성장하다(자라다)를 움직임의 한 에이도스로 보는 텔레스가 떠오른다
(272)

2766) 움직여지다가 쉴 때 마다 라고 옮기는 것이 더 나올지도 모른다 어
쨌든 분사형의 동사를 옮기는 것은 나에게 고통스럽다(1744쪽각주2656번)

2767) 변화(ἡ μεταβαλλή, 형이상학1067b12, 915)그 자체에 대해 말하는 아리
스토텔레스와 비교해 보라 거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성 과 소멸 과 움
직임을 변화 그 자체의 세 가지 에이도스로 보긴하나 생성 과 소멸을 움직
임으로 보지는 않는다 움직임의 쉬이나 생성의 반대는 소멸이기 때문이다
(919)

2768) 어느 하나의 시간 안에서 어떤 것은 움직여지면서 동시에 쉬지 못한
다 라는 말인 것 같다 여기에 쓰여지는 헬리어의 부정어(否定語)들이 나를
헛갈리게한다 ‘ οὐδεις.....,μήτε.....μήτε.....(156c6-7) ’은 두 번 부정(否定)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함** 없이는(ἄνευ, 156c8)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네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 변하는가 쉬고 있으면서도 움직여지면서도
시간 안에 **있으면서**(ὄν 156d1)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하는 저 때가**(ὅτε 156d2)그 안에서 **그 때**(τότ' d2)일
[바로]이 것(**때**)은 불 합리한가

어떤?

순식간에(ἐξαίφνης²⁷⁶⁹, d3). **순식간**은 저(움직임 과 쉬)것으로
부터 (그 둘 중의) 어느 것으로의 변화²⁷⁷⁰)와 같은 그러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네 **쉬**으로부터 더 이상 **쉽**으로 변하
지 **않으며** 움직임으로부터 더 이상 **움직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간 안에**도 **있지 않**으면서(οὐσα²⁷⁷¹)^{156e1})**움직임 과 쉬**의

이 아니라 한 번 부정으로 보아할 것 같다 비록 관계 문장 안에도 그리고
주문장 안에도 부정어가 있긴해도 말이다.

2769) ξξ - αἰφνης(ἄφνω : unawares, of a sudden)는 순식간(瞬息間)에 또는
갑자기 또는 찰나(刹那)에 라고 옮겨질 수 있을 듯하다

2770) 크고작음 같음과같지않음 움직임과쉬 하나와여럿 등의 각기 두 반대
것 중 어느 하나(ἐκάτερον, 256d4)로의 변화를 말할 것이다 나아가서 있음과
있지않음으로의 변화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2771) **때**이지만 시간 안에 있지 않는 **엑사이프네애스**(순식간, 찰나)는 텔레
스의 **지금**일까 라는 물음을 던질만도하다 미래의 어떤 부분도 들어 있지
않는 과거의 극단이면서 과거의 어떤 부분도 아닌 미래의 극단 으로서의 텔
레스의 지금은 나뉘어지지 않은채 *모든 시간*에 과거 와 미래의 한계(πέρας,

사이/μεταξὺ 156d7) 놓여지는 그 **순식간**[의] 불 합리한(ἄτομος 156d7)
어떤 **자연**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은 쉼으로(τὸ ἐστάναι 156e2)이(**순식
간**)에서 이(**순식간**)으로 변화하며 쉬는 것은(τὸ ἐστὸς 156e2)움직여
짐으로 (순식간에서 순식간으로 변하므로 [그렇다네])

감히

쉬었다가 움직여지므로 하나는 (둘 중의) 어느 것(극단)으로 변
할 것이네

그렇게 양자 [중의] 홀로로만(μόνος 156e4)행함²⁷⁷²)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순식간[에] 변한다네 그리고 **변할 저 때**⁶

자연학234a3 : 1812각주2720, 854)로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가 아닌
미래의 극단이면서 미래가 아닌 과거의 극단이라면 미래의 부분도 과거의
부분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어떠한 시간도 아닐 것 같으므로 때이면서도
시간 안에 있지 않는 순식간과 같을 것 같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에스의 순식
간은 텔레스의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텔레스의 지금은
모든 시간 **안에 속하기** 때문이다(ἐν ἅπαντι τὸ τοιοῦτο χρόνῳ ἐνυπάρχειν, 자
연학233b34-35) 비록 있다 대신에 속하다 라는 말이 쓰였긴해도 말이다 텔
레스에 따르면 속하는 것은 있으므로 그렇다 그러나,

텔레스의 지금을 파르메니데에스의 지금(1812)과 하나인 것으로 여
겨도 될는지.....글세 ! 무엇이라고 지금의 나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긴하나
하나인 것이라고도 동일한 것이라고도 같은 것이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다 라
고 말하고픈 심정(心情)이다

2772) 소피스테에스 편 248c8(1448)에 쓰인 ποιεῖν(행하다)가 여기에서도 그
대로 ποιοί(156e5)쓰였다는 점에 유의(留意)하라 몸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
들도 동의할 **하고** 겪는 힘이 있는 것이라는 로고스를 거기에서 제시한 후
계속하여 엘레아 낫선이는 인식과 관련하여 행함과 겪음을 말한다.

τε 156d6)에는 어느 하나의 시간²⁷⁷³⁾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며 움직
이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네

않습니다

이렇게 알론한 것들에 대한 변화들은 **있음**으로부터 **사라짐**으
로 변하거나 **있지않음**으로부터 **되어짐**으로 변할 (저) $\mu\mu$ (마다, ὅταν
156e8)그 $\mu\mu$ (τότε 157a2)움직이는 것들 과 쉬는 것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xi\chi\epsilon\iota$ ²⁷⁷⁴⁾156e8)네 그리고 (변하는 것들은) **있는** 것도 아니요 있지
않는 것도 아니요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사라지지 않는 것도 아니지
요?

최소한도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로부터 *여럿*으로($\epsilon\mu\lambda$ ²⁷⁷⁵⁾157a5) 그

2773) 파르메니데아스는 시간을 어느 때 와 지금 과 어느 때 이후로 구분
했다는 점을 기억하라 기억이 어슴프레하면 1853쪽의 회살 표를 들여다 보
라

2774) 사이에 있다 라고 옮겨서는 안될 것 같다 지금 이 순간에는 있지도
있지않지도 되지도 되지않지도 않아서 마약 되려는 또는 사라지려는 상태
상태($\xi\chi\epsilon\iota$)이기 때문이다 상태로 옮기려 했으나 사이에 상태이다 라고 하기
가 낯설어서 그러지 않았다 맞아.....사이의 상태라고 하면 될 것을.....이제
야,

비로서 $\xi\chi\epsilon\iota$ (지니다) 라는 텔레스의 범주가 선명해지는듯하다 텔레스
역시 파르메니데아스 편이 여기에 나오는 $\xi\chi\epsilon\iota$ 를 읽지 않았을리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범주들 가운데 하나인 $\xi\chi\epsilon\iota$ (지님, 232-235)은 여기 지님과 사
뭇다르므로 여기를 텔레스의 범주와 연결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단지 나는
지님(에케인)이라는 낱말이 쓰여지는 곳만을 지금 가리킬 뿐이다 여기 $\xi\chi\epsilon\iota$
에 해당하는 텔레스의 말은 아마 $\xi\chi\iota\varsigma$ (습성 또는 상태, 범주들6b2, 187)가 아
닐런지.....

리고 여럿으로부터 하나로 (변할 때도) 똑 같지(ίόν²⁷⁷⁶)a5) 하나(ἓν a5)
 이지도 여럿이지도 않으며 [서로에] 떨어지지도 붙지도 않네 그리고
 같음으로부터 같지않음으로 그리고 같지않음으로부터 같음으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ίόν a7)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으며 같아지지도 같지
 않아지지도 않네 그리고 작음으로부터 큼 과 똑 같음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지도 크지도 똑 같지도 않으며 성
 장하지도 줄어들지도 똑같아지지도 않을 것이네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이것들이 하나가 겪는 모든 속성들(τὰ παθήματα 157b4)일 걸세
 만약 있다면 말이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155e4 - 157b5) ”

리는 인용글월 직

전(直前)에서는 **있음** 과 **됨**이 구분됐으나 이제 됨으로부터 **변화**가 구분되
 면서 변하는 **때** 곧 **순식간**은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여진다 그
 래서 어느 한 시간 안에서 **실체**를 나누어 **지남** 으로서의 **있음** 과 어느 한

2775) 여기서도 ἐν가 쓰였구나 1264 등을 참조하라.

2776) ἓν(하나)이 아니라 ίόν(하나)이 쓰였음에 유의하라 ἓν의 서사시(敘事
 詩) 형태가 ίός, ία, ίόν 이라는데.....어쨌든 하나의 다른 형태가 쓰였다는 것
 은 ἔχειν를 파르메니데애스가 고유한 영역을 지닌 것으로 곧 있음 과 있지
 않음의 그 사이 그리고 됨 과 되지않음의 그 사이 영역으로 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움직임 과 쉼의 사이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움직임과쉼은
 됨과되지않음 보다 그리고 됨과되지않음은 있음과있지않음 보다 그 영역에
 있어 좁을 것 같다 과연(果然) 좁을지는 의문이긴해도 말이다 우!

하나 보다는 마찬가지로가 나올는지 모르겠다.....깅!!

시간 안에서 실체를 나누어 **취함** 으로서의 **됨** 과 비록 묘한(ἀτομος, 156d7, 1874, 妙한) **때**이긴 해도 결코 **시간**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변화**는 선명하게 구분된다. 알론한 시간 (동)안에 있고 되는 것과는 달리 변화는 어느 한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되는 것은 서로 **안에** 함께 있을 수 없으므로(1751) 만약 **변화**가 **됨**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반대로 되어짐은 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큼**이 **적음**으로 그 거꾸로 그리고 **똑 같음**이 **똑 같지않음**으로 그 거꾸로 그리고 **같음**이 **같지않음**으로 그 거꾸로 그리고 **되어짐**이 **사라짐**으로 그 거꾸로 그리고 **하나**가 **여럿**으로 그 거꾸로 그리고 **움직임**이 **멈**으로 그 거꾸로 급기야는 **있음**이 **있지않음**으로 그 거꾸로 될 수 없을 것이므로 어떤 것으로 **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으로 **있**을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존재론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어떤 것의 **변화** 곧 어떤 것의 **상태** (ἔχειν 지님)가 논증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것으로 **됨**이 논증되고 그래야만 어떤 것의 존재가 논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존재하는 **하나**가 어떻게 **반대**를 머금는지도 논증될 것이다 이러한 논증을 다시 옮겨보자

나아가서 세 번째 것을 말해 보세나 **하나**가 만약 묘사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면 곧 **하나**는 **하나** **있**는 여럿이며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고** **시간**을 나누어지닌다면 어느 때는 **실체**를 나누어지니므로 **있지만** 어느 **때**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지 않**다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겠는가 - 필연적으로 - 따라서 **저 때** 나누어지닌 그러한 것이 **그 때** 나누어 지니지 않거나 **저 때** 나누어지니지 않는 그러한 것이 **그 때** 나누어지니겠나? - 그러한 것일 수 없습지요 - 따라서 알론한 시간 (동)안에 나누어 지니고 알론한 시간 (동)안에 나누어 지니지 않네 이렇게만 실체를 나누어 지니며 나누어지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 옳소 - 그렇다면 **저 때** **있음**을

나누어 취하고 저 때 있음을 벗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까 아니면 **그 때** 지나고 그 때 지니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까 **어느 때** 취하고 잃는 것이 아니라면 말일세 - 결코 아닙니다 - 따라서,

실체를 나누어취함을 **뒹** 이라고 자네는 부르지 않는가 - 저지요 - 따라서 실체를 벗어남(ἀπολλάττεσθαι, 156a6, 1868)은 **사라짐**(소멸)이 아니겠는가 - 물론 - 하나가 실체를 취하고 잃으면 되어지고 사라질 것 처럼 보이네 - 필연 - 그런데 하나가 **되어질** 때 마다 여럿 있음은 **사라지**며 여럿이 (되어질) 때 마다(ὅταν 156b3) 하나 **있음**(εἶναι, b3)이 사라지는 그런 길로 하나 **있는** 여럿은 되어지며 사라지지 않을까? - 물론 - 따라서 되는 가운데 하나 와 여럿은 떨어지고 붙질 않겠는가 - 여럿 - 그리고 **같지않음**과 **같음**은 되어질 때 마다 같아지지않고 같아지지 않은가 - 예 - 그리고 **크고 적고 똑 같게**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자라나며 줄어들고 똑 같아진다네 - 그렇게 - 그런데,

움직여지면서 쉼 때 마다 그리고 쉬면서 움직여짐으로 **변할** 때 마다 반드시 어디에서든 하나는 하나의 시간 **안에** 있지 않네 - 어떻게 - 먼저 쉬면서 나중에 움직여지든 먼저 움직여지면서 나중에 쉬어지든 이러한 것들은 **변화** 없이는 쉬어짐을 겪지 않을 결세 - 어떻게 - 어떤 것이 그 **안에서** 동시에 움직여지지도 쉬어지지도 않는 그런 하나의 시간은 있지 않네 - 앓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변화 없이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네 - 앓을 것 처러 보입니다 - 그렇다면 **어느 때** 변하는가 쉬고있으면서도 움직여지면서도 시간 **안에** 있으면서도 변하지 앓기 때문이네 - 앓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변하는** 저 **때**가 그 안에서 그 **때일** 이것은 이상한가²⁷⁷⁷- 어떤? - **순식간**(ἐξαίφνης, 156d

²⁷⁷⁷) 여태껏 나는 ἄτοπον(155d1, 1873)을 불합리(不合理的)하다 라고 옮겨

3, 1873). **순식간**은 저것으로부터 (그 중)어느 것으로의 변화와 같은 그러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네 **쉽**으로부터 더 이상 **쉽**으로 변하지도 않으며 **움직임**으로부터 더 이상 **움직임**으로부터 변하는 것이 아니라²⁷⁷⁸)어느 한 시간에도 있지 않으면서 **움직임** 과 **쉽**의 사이에 놓여지는 그 **순식간**의 이상한 어떤 자연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은 **쉽**으로 **순식간**에서 **순식간**으로 변하며 쉬는 것은 **움직여짐**으로 **순식간**에서 **순식간**으로 변하므로 그렇다네 - 감히 - 쉬었다가 움직여지므로 하나는 이 둘 중의 어느 극단으로 변할 것이네 - 양자 중의 어느 것으로만 행합니다 - 그런데,

변하는 것은 **순식간**에 변한다네 그리고 **변할** 저 때에는 어느 한 시간 (동)안에도 있지 않을 것 움직이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네 - **않습니다** - 이렇게 알론한 것들에 대한 변화들은 **있음**으로부터 **사라짐**으로 **변하거나 있지않음**으로부터 **되어짐**으로 변할 때 마다 그 때 **움직이**는 것들 과 **쉬**는 것들(τινων, 157a2, 1875)**사이**에서 일어난다네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요 있

왔다 그런데 불합리하다는 말은 너무 관념적인 말이며 논리적인 말이다 차라리 여기에서는 이상(異常, strange)하다 라고 옮기는 것이 나올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불합리하다 라고 옮기는 거나 이상하다 라고 옮기는 거나 거기서 거기다 τόπος 라는 말은 곳(장소, 場所)을 나타내며 ἄ는 비(非)를 나타내므로 out of place(장소에서 벗어남)가 ἄτοπος의 가장 적절한 옮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불합리하다 또는 이상하다 라고 옮긴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시간에 관련된 곳에서 토포스(곳, 장소)와 관련 되기에 나는 지금 이 각주를 단다 1612쪽각주2506번을 참조하라

2778) 이런 맥락에서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임의 움직임**(κινήσεως κινήσεις, 형이상학1068a15, 923)은 있지않다 라고 말했던 것은 아닐까 더불어 그는 변화의 변화도 생성의 생성도 있지않다 라고 말한다 아니야 아마 그 정도까지 텔레스가 머리 잘 돌아갔을리 없다

지 않는 것도 아니요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 최소한도 -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로부터 여럿으로 그리고 여럿으로부터 하나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이지도 여럿이지도 않으며 서로에 떨어지지도 붙지도 않네 그리고 같음으로부터 같지않음으로 그리고 같지않음으로부터 같음으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으며 같아지지도 같지않아지지도 않네 그리고 작음으로부터 큼 과 똑 같음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지도 크지도 똑 같지도 않으며 성장하기도 줄어들지도 똑 같아지지도 않을 것이네 -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

이것들이 하나가 겪는 모든 속성들일 걸세 - 만약 있다면 말일세 - 어찌 않으리오 - 따라서,

반대인 것들로 되어짐은 곧 예를들어 보다 늙은 것이 보다 젊은 것으로 되어지거나 보다 젊은 것이 보다 늙은 것으로 되어짐은²⁷⁷⁹⁾이러한 변화를 근거로한다 변하지 않으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를 통해서 그러한 반대로 된다 그런데,

변함은 있음으로부터 사라짐(소멸)으로 또는 있지않음으로부터 되어짐(생성)으로 일어난다²⁷⁸⁰⁾그런데 되어짐은 실체를 나누어 취함인 반면

2779) 이러한 되어짐을 논증하는 가운데 됴으로부터 있음이 구분됐다는 것에 유념(留意)하라(1823) 물론 이러한 구분은 지금에 관한 로고스에서도 구분됐지만 말이다 어쨌든,

순식간에 변하지 않고서는 늙은 것이 젊은 것으로 또는 그 거꾸로 될 수 없다 그러나 변함은 시간 안에서 일어(ποιοί, 156e5, 1874)나지 않지만 됴는 어느 한 시간 안에서 시작되며 마찬가지로 됴와 구분되는 있음 역시 어느 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사라짐은 실체를 벗어남이므로 **있다**가 **사라지**는 변화는 실체로부터 벗어나는(ἀπαλλάττεται, 156a2, 1867, 잃는) 것이며 **있지않다**가 **되어지**는 변화는 실체를 취하는(지니는) 것이다 그런데 실체를 잃고 취하는 이러한 변화는 움직이는 **것들** 과 쉬는 **것들**²⁷⁸¹사이에서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 그것도

2780) 그러기에 파르메니데아스는 있지않는 것 과 있는 것을 서로 반대인 것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반대라면 있지않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또는 그 거꾸로 직접 변하게 된다 라고 해야 할 터이나 여기 파르메니데아스는 **있지않는** 것으로부터 **되어짐**으로 그리고 **있는** 것으로부터 **사라짐**으로 **변**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알론함을 나타내는 부정(ἀπόφασις, 소피스테아스257b9, 1538, 否定)인 한 그렇게 맞서는(ἀντιτεθεν, 소피스테아스257e4, 1540, 반정립, 反定立) 것들로서의 있음 과 있지않음은 서로에 반대인 것들이 아니다 라는 로고스가 더 선명해진다 반대라면 양자 중 어느 것으로만 **변**해야 **되**나 있는 것은 사라짐으로 변하는 반면 있지 않는 것은 되어짐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2781) τινων(157a2, 1875, 것들의)은 텔레스의 **기체**(ὑποκείμενον, 형이상학1067b18, 915, 基體)를 생각나게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체를 가지고서 **변화**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921쪽의 그림에 요약되어 나타났듯이 텔레스에 따르면,

기체에서 기체로 또는 기체아닌 것에서 기체아닌 것으로 또는 기체에서 기체아닌 것으로 또는 기체아닌 것에서 기체로 변화한다 그러나 기체란 긍정에서(καταφάσει, 형이상학1067b18, 918)분명해지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세 가지 **변화**가(μεταβολάς, 형이상학1067b19, 918)있다 기체아닌 것에서 기체아닌 것으로의 변화는 있지않기 때문이다 **반정립**(ἀντίθεσις, 1067b21, 916, 1541)이 아니므로 거기에는 **반대**도 **모순**도 있지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체에서 기체아닌 것으로 모순적인 변화인 소멸 과 기체아닌 것에서 기체로의

어느 한 시간 안에서가 아니다²⁷⁸²) 비록 저 때(ἔτε)이긴 해도 말이다

바로 이 순식간에 반대로 변한다 그러나 아직 반대로 된 것은 아니

모순적인 변화인 생성 과 기체에서 기체로의 변화인 움직임 등 세 가지 변화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변화를 움직임이라고 해서 는 않된다 단지 기체에서 기체로의 변화만이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움직임은 반대인 것에서 반대인 것으로 시작되므로 그렇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모순적인 변화인 됨(생성) 과 사라짐(소멸)은 움직임이 아니다(οὐκ κληθήσεται, 형이상학1068a3, 917)! 나아가서,

텔레스의 됨 과 사라짐을 여기 파르메니데에스의 됨 과 사라짐과 비교해 보라 많이 다를 것이다 실체를 나누어 취함이 됨이며 실체를 잃음이 사라짐 이라고 여기 파르메니데에스에 의해 쓰여지는 반면 거기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체아닌 것에서 기체로의 변화를 됨이라고 쓰며 기체에서 기체아닌 것으로의 변화를 사라짐이라고 쓰기 때문이다

2782) 그러나 순식간 또는 갑자기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시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안의 밖의 반대이며 밖은 공간에 관련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시간 ((동))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각적으로 찰나에 갑자기 저 때에 일어난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그렇다면 때 와 시간은 구분되어야한다는 말인가.....어쨌든,

시간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므로 변화하는 시간의 길이가 한정될 수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일찍 또는 늦게 변한다거나 짧은 또는 긴 시간 동안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른 또는 늦은 그리고 짧은 또는 긴 시간 등이 걸리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됨 또는 있음이다 오랫동안 아니면 너무 빨리 되거나 사라지거나 있거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 **되어짐**은 이미 어느 한 시간 **안**에서 실체를 나누어 취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음**에서**사라짐**으로의 그리고 **있지않음**에서 **됨**으로의 변화는 움직이
는**것과쉬는것** 사이에서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러나 움직이는**것과쉬는것** 사
이에서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인것과여럿인것** 같은**것**
과같지않는것 **큰것과작은것** **똑같은것과똑같지않은것** **늙은것과젊은것** 등 등
의 반대되는 모든 것들사이에서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제,

1864쪽의 도표에 나오는 **있다** 와 **없다** 그리고 여러 반대들을 유심히
살펴 보면서 이러한 반대로의 변화는 그리고 **있음**에서**사라짐**으로 **없음**에서
됨으로의 변화는 순식간에 그것도 어떤 시간도 걸리지 **않고** 일어난다는 위
로고스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하나가 만약 **있다**면 자신 과 **알론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있을지 알게될 것이다

다시 요약해 보자

하나 만약 **있다**면 그 하나는 **하나**있는**여럿**이며 **하나**도**여럿**도**아니고**
시간을 나누어지닐 것이므로 어느 때는 실체를 나누어지니지만 어느 때는
실체를 나누어지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있지않다**는 것이 필연적
이다 따라서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저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을** 수 없
고 나누어지니지 **않은** 그 때 나누어 지닐 수 없다 그래서 나누어 지니며 나
누어지니지 **않는** 것은 **알론한 시간**에 그러할 것이라는 것은 옳다 그렇다면
있음을 나누어 취하는 **저 때** **있음**을 잃는 그러한 시간은 **없을** 것이고 **있음**
을 지니는 **그 때** **있음**을 지니지 **않는** 그러한 시간도 **없을** 것이다 **있음**을
취할 **어느 때** **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실체를 나누어 취함은 **됨**이라 불리워지는 반면 실체를 잃음은 **사라짐**
이라고 불리워진다 이제 실체를 취하면서 되고 잃으면서 사라지는 것은 필

연적으로 하나인 것 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하나*가 되어질 때 마다 여럿 **있음**은 사라지며 *여럿*이 되어질 때마 하나 있음이 사라지면서 **하나있는**여럿은 되어지며 사라진다 그래서 되는 가운데 하나와여럿은 필연적으로 떨어지며 붙을 것이고 **같지않음과같음**은 되어질 때 마다 같아지지않으며 같아질것이고 **큼과적음과똑같음** 역시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자라나고 줄어들며 똑 같아질 것이다 그런데,

움직여짐이 **쉽**으로 그리고 **쉽**이 움직여짐으로 변할 때 마다 변하는 것은 하나의 시간 **안에** 있지 않다 현대 먼저 쉬고 나중에 움직여지든 먼저 움직여지고 나중에 쉬어지든 **움직여지는 것은 변화 없이 쉬어짐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도 하나의 시간 안에서는 움직여지면서 동시에 쉬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간은 있지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함 없이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그래서 쉬는 **시간 안에서도** 움직이는 시간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변하는가

저 때 변하는 그 때는 바로 이상한 **순식간**(ἐξαιφνης, 156d3, 1873)이다 **쉽**으로부터 더 이상 **쉽**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며 움직임으로부터 더 이상 움직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의 저것으로부터 어느 것으로의 변화를 이 순식간은 가리키기 때문이다 어느 한 시간 안에도 있지 않는 움직임과쉽 사이에 놓여지는 이 **순식간**의 이상한 **자연**으로 인하여 움직여짐은 **쉽**으로 순식간에서 순식간으로 변하며 쉬는 것은 움직여짐으로 감히 변한다 쉬었다가 움직이므로 하나는 둘 중의 어느 극단으로 변할 것이다 그 양자 중의 어느 하나 만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데 변하는 것은 **순식간**에 변한다 그리고 변할 저 때에는 어느 하나의 시간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며 움직이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론한 것들에 대한 **변화**들은 있음으로부터 사라짐으로 변하거나 있지않음으로부터 되어짐으로 변할 때 마다 그 때 움직이는 것들 과

쉬는 것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변함은 있음도 아니요 있지않음도 아니요 되어짐도 아니요 사라짐도 아니다**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로부터 여럿으로 그리고 여럿으로부터 하나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이지도 여럿이지도 않으며 서로에 떨어지지도 붙지도 않는다 그리고 같음으로부터 같지않음으로 그리고 같지않음으로부터 같음으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으며 같아지지도 같지않지도 않다 그리고 작음으로부터 큼 과 똑같음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지도 크지도 똑같지도 않으며 자라지도 줄어들지도 똑같아지지도 않을 것 처럼 보인다

이것들이 하나가 겪는 모든 속성들일 것이다 만약 있다면 말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이스’는 지금의 이 맥락에서 어떤 것의 **있음과실체(존재)** 와 **됨**과는 다른 어떤 것의 **상태(ἔχειν, 지님)**를 시간과 연관지어 구분한다 그래서 있음과됨이 구분되는 것 처럼 상태(지님, 습성, 習性)도 구분된다

물론 이러한 **상태**의 속성(τὰ παθήματα, 157b4, 1876)은 있음과됨의 속성 또한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태**의 또는 **습성**의 것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도 되지도 않으며 떨어져 있거나 떨어지지도 않고 붙어 있거나 붙게 되지도 않으며 같게도 같지않게도 똑 같게도 똑 같지 않게도 크게도 작게도 있지 않고 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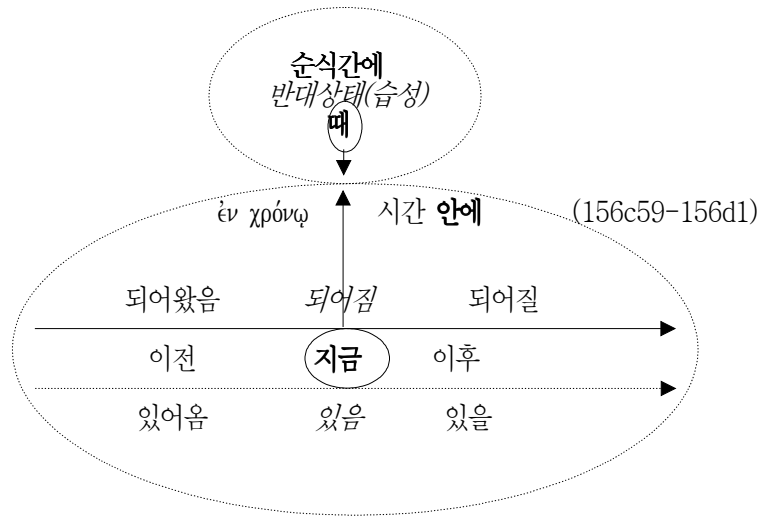
바로 이러한 **상태**를 거쳐야만 그렇게 **되고 사라지며** 그렇게 **있고 있지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런 상태를 거쳐야만 그러한 **반대**들로 되거나 사라지고 있거나 있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태(습성 또는 지님)을 거치지 않는한 되거나 있을 수 없다 필연적으로(ἀνάγκη, 155e8, 1869)상태를 거쳐야

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 또는 습성**을 각기 것은 **반대로 변하는 저 때**(ὅτε)에 갑자기 **순식간** 겪으나 이러한 겪음은 어떤 시간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어떤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한 습성을 겪는 것은 순식간 바로 그 때(찰나, 刹那)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간도 걸리지 않게 **반대** 어느 한 쪽으로 급작스레 변하는 바로 그 때(τότε, 156d2, 1873)에 어떠한 상태(습관)를 겪는다²⁷⁸³)또는 반대의 어느 한 쪽을 지닌다 그렇다면

시간 과 때를 다음 쪽 처럼 그려 봄으로서 있는 하나가 어떻게 반대 속성을 지녀(상태) 그러한 반대 속성으로 되거나 되지않게 ‘된 채’ 반대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2783) ὅτε(56d2, 1873)에는 찰나(刹那)라는 우리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으며 ἐξ αἰγνης(156d3, 1873)에는 순식간에 또는 갑자기 라는 말이 가장 절 적하게 걸리는 말 같다 붙잡을려는 **찰나에 순식간에 갑자기** 떨어져 나갔다 라는 식으로 말이다



시간을 가두는 타원형의 아래 점선 과 순식간(엑사이프네에스)을 나 타내는 위 점선에 의해서 순식간이 시간 안의 영역이 아님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난 이 두 타원형의 점선이 어느 한 곳에 부딪히도록 그렸다²⁷⁸⁴부딪 히는 저 때(ότε, τότε, 156a2-3, 1867)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비록 순식간이 시간 안의것이 아니긴하더라도 시간과 떨어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만약 떨어진다면 어느 때(ποτε, 156a3, 1867)와 어느 때 사이의 지금이 불 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는 반대로 될 수도 반대로 있을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순식간 저 때에 갑자기 반대상태를 겪으므로 그렇다 그러나 어느

2784) 그러나 지금의 나의 생각으로 파르메니데에스가 어느 한 곳에서만 때가 시간과 걸리는 것으로 본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순식간 이라는 때 와 어느 한 때의 시간이 부딪힌다 라고 여기서 직접 그가 말하는 것은 아니나 그의 로고스를 숙고하노라면 때는 반드시 시간과 부딪힌다는 것을 그의 로 고스는 허용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어느 한 때 와 어느 한 때 사 이에 지금이라고 그리고 저 때 순식간에 라고 직접 그가 말하기 때문이다

어져 나옴이 선명해질 것이다²⁷⁸⁵)나아가서,

튀어나와 존재할 뿐 만아니라 존재하지 않기도한다

만약 하나가 있는 경우 와 하나가 만약 있는 경우 등 두 가지로 전제 된 *하나*에 관해 여태껏 말하여진 것들이 그와 같다면 다시 말해 하나는 하나있는여럿이며 하나도여럿도아니고 시간을 나누어지닌다면 필연적으로 어느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있는 반면 어느 때 실체를 나누어지니 지 않는 하나는 **있지않는** 것이다 라고 파르메니데아스는 155e4-8에서 말하면서 분명히 있지않는 하나를 허용하므로²⁷⁸⁶)벗어나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레아마(句)는 지금까지의 파르메니데아스 편에 근거해서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파르메니데아스 편 과 소피스테아스 편의 존재론 부분에 근거하면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반드시 덧붙여야한다 이제,

순식간 저 때에 관한 파르메니데아스의 논증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파르메니데아스 편은 어디까지나 논증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식간

2785) 물론,

내가 소피스테아스 편 과 파르메니데아스 편 과 티마이오스 편의 ‘플라톤’에서 너무 멀리 나갔을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적어도 존재와시간에 관한 위와 같은 그림을 최소한도 그려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이 그림을 만약 플라톤이 본다면 고개를 끄덕이라고 생각한다

2786) 이제 부터는 있지않는 하나가 문제 삼아질 것이다 물론 있는 하나의 경우의 알론한 것들을 먼저 문제삼은 후에 있지않는 하나를 문제삼긴해도 말이다 그리고 ‘플라톤’의 존재론은 존재하지않는 것을 언급할 때 비로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過言)은 아닐 것이다

에 관한 논증과 함께 있는 하나는 움직이지도 쉬지도 같지도 같지않지도 똑 같지도 똑 같지않지도 크지도 작지도 하나이지도 여럿이지도 았다는 것이 논증된다 우선,

순식간에 관한 논증을 정리해 보자

만약 하나 있다면 하나는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았는 반면에 하나 만약 있다면 하나는 하나 와 여럿으로 있으며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 그래서 어느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는 있지만 어느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았는다면 하나는 **있지 았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저 **때** 나누어 지니는 것이 그 **때** 나누어 지니지 았거나 저 **때** 나누어 지니지 았는 것이 그 **때** 나누어 지닐 수 았다 따라서 **알론한 시간 안에** 나누어 지니며 알론한 시간 안에 나누어 지니지 았는 길로만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그래서 있음을 취하는 어느 **때** 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면 나누어 취하는 저 **때** 있음을 잃는 그러한 **시간**은 있을 수 았고 있음을 지니는 **그 때** 있음을 지니지 았는 그러한 **시간**은 있을 수 았다 그리고,

됨은 실체를 나누어 취함이며 **사라짐**은 실체를 잃음이므로 실체를 취하면 하나는 필연적으로 **되어질** 것이고 실체를 잃으면 하나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때 마다 여럿 **있음**은 사라지며 여럿이 되어질 때 마다 하나 있음이 사라지는 그런 길로 **하나있는**여럿은 **되어지며**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하나로 되면서 필연적으로 붙는 반면 여럿이 되면서 피연적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같지 았음** 과 **같음**이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같아**지지 았고 **같아**질 것이다 그리고 **크고** 적고 똑 같게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자라**나고 **줄어**들며 똑 **같아**질 것이다 그런데,

움직여짐이 **쉬어짐**으로 그리고 **쉽**이 **움직여짐**으로 **변할** 때 마다 어디에서든 하나는 어떤 **시간 안에** 있지 았다 먼저 쉬고 나중에 움직여지든 먼저 움직여지고 나중에 쉬든 움직여지는 것은 **변함**이 았이는 **쉽**을 겪을 수 았으며 하나의 **시간 안에서**는 어떤 것도 움직여지면서 **동시에**(ὅμα, 156c6,

1 872)쉬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함** 없이는 앎고는 어떤 것도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쉬면서도 움직여지면서도 시간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변**할까 저 **때** 변하는 그 이상한 때이다 곧 **순식간**에 변한다

어느 한 시간 **안**에도 있지 않으면서 **움직여짐** 과 **쉽**의 사이에 놓여지는 **순식간**의 **이상한 어떤 자연** 때문에 움직여짐은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고 쉬는 더 이상 쉬지 않은채 움직여지는 것은 쉬므로 그리고 쉬는 것은 움직여짐으로 **순식간**에 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반대의) 어느 한 쪽으로부터 어느 한 쪽으로만 일어나므로 쉬는 움직여짐으로만 움직여짐은 쉬므로만 변한다 그리고 변하는 저 **때** **순식간**에는 움직여짐도 쉬도 있지않으며 시간도 있지않다 따라서,

시간의 어느 한 **때 안**에서는 어떤 것도 움직여지면서 동시에 **쉴**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파르메니데아스는 움직여짐도 쉬도 **시간**의 어느 한 **때**도 없는 **저 때** **순식간**을 이끌어 내면서 그 **순식간**에서 있음에서 사라짐으로 그리고 있지않음에서 됨으로 그리고 움직여짐에서 쉬므로 쉬에서 움직임으로 변하도록 한다

있음에서 사라짐으로 **변**한다는 것은 있는 것만 있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을 뿐이다 라고 하는 측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사라짐은 있음을 잃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플라톤’은 있음에서 사라짐으로 변하는 그 찰나 곧 이상한 **순식간** 이라는 저 **때**를 **시간**으로부터 구분함으로서 있는 것이 사라지며 있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허용한다 되어짐은 있음을 나누어 취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만 있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는 것을 고집하는 쪽에서는 **변**함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변함을 인정하긴 해도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플라톤은 변함을 있는 것이라 하지 앎고 대신에 있는 것과 구분되는 나아가서 되어짐과도 구분되는

어떠한 하나의 상태(성향 또는 습성)라고 한다²⁷⁸⁷)이제,

순식간에 관한 이러한 논증과 함께 만약 있다면 하나는 되어짐도 사라짐도 움직임도 쉼도 하나도 여럿도 같음도 같지않음도 똑같음도 똑같지않음도 크지도 크지않지도 작지도 작지않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반대 속성도 아니라는 것이 논증된다

시간의 어느 한 때는 아니지만 저 때인 순식간에서 하나는 만약 있다면 반대의 어느 한 극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알론한 것들에로의 변화들은 있음으로부터 사라짐으로 변하거나 있지 않음으로부터 되어짐으로 변할 저 때 마다 그 때 움직여지는 것 과 쉬는 것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변**하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있지않는** 것도 아니요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사라지지않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동일한 로 고스에 따라서 하나에서 여럿으로 여럿으로 하나에로 변할 때도 하나이지도 여럿이지도 않으며 떨어지지도 붙어지지도 않으며 같음에서 같지않음으로 같지않음에서 같음으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지도 같지않지도 같아지지도 같지않아지지도 않고 작음에서 큼 과 똑 같음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지도 크지도 똑같지도 자라지도 줄어들지도 똑같아지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모든 속성들은 만약 있다면 하나가 쥐는 것들이다

이제까지는 하나가 만약 **있다** 라고 전제할 경우 **하나**는 *자신 과 알론한 것들에 대해* 어떠한가가 숙고되었다 이제는 그렇게 전제할 경우 알론한 것들은 무엇을 겪을지 숙고해 보자

“ 따라서 *하나*가 만약 에스틴(있다면) 알론한 것들에게 무엇이

2787) 1885-1886쪽을 보라

꺀어질지(πρoσήκοι.....πάσχειν, 157b6-7)를 속고해보지 않으려는가

속고하고 [싶습니다]

하나가 만약 **있다**면 하나의(τοῦ²⁷⁸⁸) 157b8) 알론한 것들이 무엇
을 꺀어야 하는 지를 (우리) 말하는가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므로 알론한 것들은(ἐστὶ 157b9)
하나가 아니네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아니며 올²⁷⁸⁹
(ἦν 157c1)것이기 때문이네

옳소

그러나 알론한 것들은 모두 모두 하나를(τοῦ²⁷⁹⁰) 157c3)뺏기지

2788) 콘퍼드(948)나 죠웬(46)은 여기 2 격을 than으로 번역해서 the things
other than the one(하나 보다는 알론한 것들을)이라고 한다 물론 그렇게 옳
길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오히려 the other of the one(하나의 알론한 것)이
라고 옳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텔레스는 범주들에서 2격을 곧 잘 심각하
게 쓰곤한다(174, 186-187) 그리고 ‘플라톤’ 역시 선 등의 이데아에서 처럼 2
격을 심각하게 쓴다(1257)

2789) 그렇게 있어 옴으로 그렇게 있다 라는 식은 논증은 중 중 나타난다
심지어 텔레스도 이러한 논증을 이어 받는다 움직임은 생성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면서 말이다 있어 오(ἦν, 형이상학1071b7, 755)므로 움
직임은 생성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2790) 여기서는 2격지배 동사 στέπται(뺏앗기다)에 걸리는 2격으로 보아야한
다 그래도 2격의 ‘의’의 문법적인 뜻은 지닌다 단지 저러한 류의 동사는 자
신의 목적어로 2격의 문법적인 뜻을 지니는 명사 등을 지닐 뿐이다 수동 분
사형으로 쓰인 소피스테이스 편 245c5(1402)의 뺏앗기다를 참조하라 거기에

않네 어떻게든 나누어 지니네

어떻게

어디에서[든]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부분들을 지니는 알론한
것들이라는 것(이므로) 만약 부분을 지니지(ἐχου²⁷⁹¹)157c4)않는다면 완
전하게(παντελώς c4)하나일 것이기 때문일세²⁷⁹²)

옳소

부분은 전체일 이것의 부분이라고 우리는 말했었네
말했었기 때문입니다²⁷⁹³)

서는 하나만이 있다고 할 경우 부딪히는 어려움들에 관한 맥락에서 쓰였다.
2791) 1875쪽각주2774번을 참조하면 지님(ἐχειν)이라는 말이 상태 또는 습성
의 뜻을 지닌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것이다.

2792) 부분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는 전체 로서의 하나 그리고 그렇지 않는
완전한 하나 또는 하나 그 자체의 구분은 이미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에
관한 논증에서 선명하게 그어진다(1607) 나아가서 소피스테에스 편 245a8(1
400)에서는 직접 완전하게(παντελώς)에 걸리는 하나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완전한 하나가 진실로 하나이다 라고 쓰여진다 그래서 전체하나 와 하나자
체는 반드시 구분(1421)되어야만 한다 하나자체 와 있는하나가 구분(1408)
되어야만 하듯이 말이다

하나 자체가 아니라 비록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 관해 말하는 중이긴
해도 이러한 하나는 하나 자체가 아니라 있는 하나라는 것에 유념하면 그리
한 구분은 눈에 쏘옥 들어 올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완전한 하나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의 알론한 것들도 전체 하나처럼 부분을 지닌
다 라는 말이다.

2793) 부분은 반드시 전체의 부분이고 전체는 반드시 부분의 전체여서 부
분과전체는 양자적이라는 것 역시 하나 자체를 논증하는 가운데 파르메니데

그러나 실로 전체는 여럿으로부터의 하나이며(εἶναι 157c8)부분들은 이 전체 하나의 부분일 것이네 부분들의 각각은 여럿의(πολλῶν c7)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부분이어야 하기 때문이네

어떻게 이것이?

만약 어떤 것이 여럿의 부분이라면 그(어떤)것은 그(여럿)중에 [하나]일 것이고 어디에서든 스스로의 부분일 것이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네 그리고 만약 마찬가지로 모든의(πάντων 157d2)(부분이라면 [스스로의 부분이 아니므로] 알론한 하나 각각의(ἐκάστου d2) [부분이어야 할] 걸세] 왜냐하면 [만약 어떤]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면)(μή ὄν d3)이 (하나)를 제외한(πλὴν d3) 알론한 [부분들]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각각의 부분도 아닐 것이며 각각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면 알론한 [어떤] (하나의 부분도) 아닐 것이네 그런데 어느 하나도 결코 아닐 이 모든 것들의 어떤 하나는 결코 있지 않을 것이네 부분이든 알론한 것이든 무엇이든 불가능하네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여럿의 (부분)도 모든의 부분도 아니라 이데아 하나인 것의(μίας τινὸς ἰδέας 157d8)그리고 각각 모든 것으로부터(ἐξ πάντων 157e1)완성(τέλειον e1)되었던 하나 전체 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인 것의(2794)[바로 그러한] 이것의 부분이 그 부분일 것이네

에스는 썬 먹었다(1607)따라서 여기에 쓰여지는 2 격은 양자(兩者)적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전체의 부분은 전체 와 부분이 서로에 양자적이듯 하나의 알론한 것은 하나 와 알론한 것이 서로에 양자적이라고 말이다

2794) ‘ἀλλὰ μίας τινὸς ἰδέας καὶ ἑνὸς τινὸς ὃ καλοῦμεν ὄλον, ἐξ πάντων ἐν τέλειον γεγεονός, τούτου μόνιον ἂν τὸ μόνιον εἴη. (157d8-157e2) ’ 라는 본문을 ‘ 그 부분은 이데아 하나인 것의 곧 각기 모든 것으로부터 완성 되었었던 하나 전체 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떤 하나의 부분이다 ’ 라고 다시 읊

길 수 있으리라 먼저,

1818-1819쪽을 보라 그러면 알론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와전체의 부분들이라는 것을(1818)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부분들의 끝에 의해 비로서 동시에 되어서므로 알론한 것들(1819)보다 늦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고 보다 젊다는 것을 논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로고스가 나타난다는 것도 더불어 알게 될 것이지만 말이다 그런 후에,

여기 로고스를 숙고해 보라 각기 모든 것으로부터 완성(끝) 되었던 *하나* 전체인 어떤 것이 이데아이므로 지금까지 쓰여진 *하나*는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1249)임이 다시 확인된다 **있음**도 역시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인 것처럼 말이다 더불어 알론한 것들은 이러한 이데아 하나의 부분들이라는 것이 선명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파르메니데아스 편에 쓰여지는 알론한 것들은 (1743)모두 이데아의 부분들이다 라고도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여기에서 나는 에이도스의 곧 있어 오는 그 무엇의 부분들에 관하여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끌어 들이려한다(383) 이런 텔레스를 살펴 본 후에,

만약 **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하나* 전체의 곧 이데아의 부분들이라는 본디 맥락으로 들어오라 그러면서 ‘파르메니데아스’의 이데아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짐하라 이데아는 저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존재**한다고 말이다 **있다**면 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시간은 있지않는 것이 되는 것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저 **때**에 맞닿고(1887-1888) 맞닿자마자 되어서며 되어서다 **지금**에 걸려 **존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데아는 저기에 있으면서 순식간에 홀연히 갑자기 여기에 존재한다 시간과 접촉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 보다는 여기에서는 파르메니데아스 편에서 파르메니데

따라서 만약 알론한 것들이 부분을 **지닌다**(ἐχει²⁷⁹⁵)157e3)면 전체와 하나를 나누어 지닐 것이네

물론

따라서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필연적으로 부분들을 끝까지 지니는 **하나 전체**(εἶναι 157e4)세

필연적으로

그리고 각기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동일한 로고스[일체] 이(부분 각각)도 하나를 나누어 지니기 때문일세 만약 그것들 각각이 부분이라면 각각은 어디에서든 하나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며 알론한 것들과 떨어져서(ἀφωρισμένον 158a2)그 자체로 있을 것이므로 [그렇네] 각각(ἑκαστον a3)이라면 말일세

올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분명히 하나 보다는(ἢ, 158a4)알론한 것이네 그러나 (알론한 것이) 나누어 지니지 않았다면 그러나 하나 자체가 있어 왔을 것인데 지금 하나 자체 없이 하나로 있네[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든 불가능하기 때문일세²⁷⁹⁶)

에스 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쓰여지는 알론한 것은 이데아의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2795) 1885쪽에서 말하여지는 지님(ἐχειω, 상태, 습성)을 퍼득 때 올려야만 할 것이다

2796) 나누어지니는 것이 알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면 있어오는 것은 하나의 알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 자체**(αὐτὸ ἐν 158a5)이다 하나가 하나를 나누어 지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νῦν 158a5)알론한 것에 하나가 있다 다시 말해 하나 자체 없이 하나로 있다 그러나 하나 없이 하나로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나를 나누어지니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알론한 것이다

불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체 와 부분적으로
[그러하네] 한 편으로 하나는 부분이 그것의 부분인 전체이며 다른 한
편으로 다시 각기 것은 전체의 부분일 전체의 부분 하나일 것이기 때
문이니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하나)를 나누어지는 것들은 [자기들이] 나누어 지
니는 하나와 헤태론하게 **있는** 것들일까²⁷⁹⁷⁾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그런데 *하나와 헤태론한* 것들은 어디에서든 *여럿*(πολλά 158b3)
일 것일세 *하나와* 알론한 것들이 하나도 하나 보다 많지도(εὐὸς πλείως
b3)않다면 아무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니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보다 많은 것은 하나 부분 과 하나 전체를 나누
어지니는 것이므로 이미 하나를 나누어취하는 저것들은 필연적으로
무한히²⁷⁹⁸⁾많은 그러한 것들이지 않을까

어떻게

2797)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지니므로 실체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만약 동
일하다면 하나는 자신과 동일한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실체를 나누어지니지
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있는 하나의 논증을 참조하라(1670) 거기나
여기나 일련의 동일한 로고스이기 때문이다

2798) 하나 자체도 무한하고 있는 하나도 무한하지만 앞은 한계 없는 무한
인 반면 뒤는 수적으로 무한히 많다 라는 1675각주2577번을 참조하라 여기
서도 역시 하나있는여럿은 많음에 있어 무한하지(πλήθει ἄπειρα 158b6)시작
과끝의 한계가 없는 그러한 무한은 아니다 .

요렇게 바라 보세나 그(하나)를 나누어 취할 저 때(ὅτε μεταλαμβάνει 158b9)나누어 취하는 그 때(τότε b9)알론한 것은 하나로 있(ὄντα b8)지도 않으며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μείχοντα b9)도 않는 것들인가(2799)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에 의해서(ἐν 158c1)하나가 아닌 많음(2800)[으로] 있는 것들인가

확실히 많음

무슨? 만약 (우리가) 디아노이아(생각)에 의해서 이것들 가운데 가장 적은 그러한 것을 떼어내길 바란다면 떼어내진 저것은 만약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많음이지(εἶναι 158c4)하나는 아닐 것이지 않은가(2801)

2799) 나누어취함 과 나누어지님은 있음과생성이 상태(습성, 지님)이 구분되는 것 처럼 확연히 구분되어야한다 라는 1868-1869쪽의 각주 2762번을 참조하라 그리고 난 후 1885쪽에서 말하여지는 상태 와 있음 과 됨의 구분을 살펴보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적절했다면 있음과됨은 시간 안의 것들이지만 시간 안의 것이 아니라 상태는 시간이 맞닿는 저 때 순식간에 변하는 그 때에 걸린다 라고 거기에 쓰여있을 것이다

2800) 텔레스가 형이상학 이오타 편 6 장에서 말하는 많음을 정리해 나타낸 1949쪽의 도식을 참조하라

2801) 이러한 논증은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있는여럿의 맥락에서도 나타난다 단지 디아노이아에 의해서만(τῆ διανοίᾳ μόνον, 143a8, 1676, 1795, 생각)실체를 떼어 낸 하나 그 자체는 여럿이 아닐 것이라는 논증으로부터 하나있는여럿이 논증되기is해도 말이다 그러나,

동일한 논증이 쓰여지긴해도 여기 맥락은 사뭇 다르다 여기에서는 실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항상 그 자체로 그 에이도스²⁸⁰²의 그러한 헤
태론한 자연을 숙고한다(면) 그러는한 (우리는) 많음의 경우(πλήθει
158c7)무한하다는 것을 볼 것이네

모두 모두

그런데 하나 각기 부분이 부분이 될 때 이미 서로에 *대한* 그리
고 전체에 *대한* **한계**를 지니며 전체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를 지닐
것이네)²⁸⁰³

정확하십니다

하나 와 *스스로들로부터의* 교통(κοινωνημάτων 158d4)으로부터

체가 생각에의해서 떼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음들 가운데서 가장 적은
것이 떼어내어지면서 설령 그렇게 떼어내어진 가장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많음이다 라고 논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논증되는 것은 하나 자체는 여럿이 아니다가 논증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장 적은 것이라고 해도 많은 것은 많은 것이지 만약 하나를 나누어 지니
지 않았다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논증된다 그러나,

생각에서만 어떤 것을 떼어내어 논증하는 길은 여기나 거기나 동일한
다 비록 떼어내어지는 것이 거기는 실체인 반면 여기는 가장 적은 많음이지
만 말이다 나아가서 많음을 첫 번째 많음 과 모자라는 많음 과 남아도는 많
음 등으로 해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텔레스(1040)는 어찌보면 기특하고
어찌보면 쓸모없다.

2802) 많음(여럿) 역시 하나의 에이도스라는 것이 다시 확인된다 1249(πλήθο
'ς, 129d8)에서 처럼말이다

2803) 헤태론한 것은 항상(ἀεί, 소피스테에스255d1, 1522)헤태론한 것에 대
한 것이라는 엘레아 낫선이의 로고스가 기억날 것이다.

있따라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게 헤태론한 어떤 것이 스스로들 안에
되어지는 것 처럼 보이네 서로에 대해 한계지우면서 스스로들의 자연
에 따라 스스로 한계 (지워지는) [그런 헤태론한 어떤 것이 말일세]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하나의 알론한 것은 전체 그리고 부분적으로 무한하며
그리고 한계를(πέρας 158d8)나누어 지닌다네

물론

그렇다면 서로에 그리고 자신들에 *같으며 같지 않은가?*

어떻게

스스로들의 자연에 따라 어디에서든 모든 것들이 무한한 그
에 의해 동일한 것을 겪을 것이네

물론

그리고 각기 모든 것들이(ἅπαντα 158e4)한계를 나누어지니는한
그에 의해 모든 것은 동일한 것을 겪을 것이네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그런데 *한계*지워지고 **있는** 것들이 *무한함*을 겪었던한 그러한
속성들을 겪었으(므로)서로에 **반대**되는 그러한 속성들로 **있네**(ὄντα 15
e6)

예

반대 것들은 그런 식으로 *같지않는* 것들이네

무슨?

따라서 한 편으로 자신들에 그리고 서로에 그것들은 각각 속성
에 따라(κατὰ ἑκάτερον τὸ πάθος 159a2)같을²⁸⁰⁴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양자적으로 반대되는 양자에 따라서 *같지않을* 것이네

2804) 동일한 것을 겪는 것은 어디에서든 같다 라는 1620쪽의 파르메니데
에스를 참조하라 한계 또는 무한함을 겪는한 동일함을 겪을 것이므로 같은
것들이다

감히

이렇게 알론한 그것들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않을 것이네

이렇게

그리고 서로 동일한 것들 과 *헤테론한* 것들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들 과 *쉬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반대²⁸⁰⁵속성들을 하나의 알
론한 것들은 겪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더 이상 고통스럽 (*χαλεπώς*
159a8)않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겪는다는 것은 보여졌었네²⁸⁰⁶

(당신께서는)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것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했다면 다시 하나
만약 있다면 따라서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이와 같지 않을지 또는 단
지 이와 같을 뿐인지 숙고해 보아야할까

물론

그래서 하나 만약 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무엇(*τί* 159b5
)을 겪었어야할지 처음부터 (우리)말하[세]

말합시다

따라서 한 편으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분리해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분리해 있는가(*χωρίς.....εἶναι* 159b6
-7)

2805) 따라서 만약 있다면 하나 뿐 아니라 하나의 알론한 것들도 반대 속
성들을 겪는다는 것이 선명해졌다 물론 반대 방향에서 반대로 변함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긴해도 말이다 그러나 반대로 되어서거나 되어
지지 않고 반대로 있거나 있지않는 것은 시간 (동)안에서 이다

2806) 만약 있다면의 하나의 논증에서 이미 선명하게 밝혀졌다(1718-1721,1
796-1809)

무슨?

한 편으로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며 다른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의 알론한 것들인 이러한 것들과 **나란한**(παρά 159b7) **헤태론한** 것들은 어디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네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이 말하여졌을 때 모든 것이 말하여지므로 [그렇게]

모든 것이

따라서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이 그(τῷ αὐτῷ 159c3)안에 있을 이(하나 와 알론한)것들과 헤태론한 [그]것들은 있지 않네

있지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은 어느 때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네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분리**(해 있는)가

예²⁸⁰⁷⁾

진짜 *하나*는 부분들을 지니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했네²⁸⁰⁸⁾

2807) 이와 같은 맥락의 로고스가 텔레스의 형이상학 2차 편 마지막 장인 12 장에 그대로 나타난다 알론한 자리 안의(ἐν ἄλλῳ τόπῳ, 1068b27, 926) 것들은 **분리해** 있다 라는 로고스가 거기에 나타나며 이러한 로고스는 하나의 자리 안의 것은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로고스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하나의 자리 안의 것들은 **함께**(ἅμα, **동시에**)있다 어쨌든,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이 서로에 분리해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것들은 알론한 것들은 자신들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하나 그리고 알론한 것)과 동일하며 헤태론할까 분리해 있으면 알론한 것 그리고 이 알론한 것과 알론한 것 곧 *하나*는 동일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어찌?

따라서 알론한 것들 안에는 전체 하나도 하나의 부분들도 [있지] 않을 것이네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분리해 있으며 부분들을 지니지 않을 거라면 말일세

어찌?

따라서 어느 길로도 알론한 것들은 하나를 나누어지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도 하나의 어떤 것을 (나누어 지나지 않고) 전체로도($\kappa\alpha\tau\grave{\alpha}\ \delta\lambda\omicron\nu$ 159d1)나누어 지나지 않네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결코 하나는 알론한 것들이 아니며 [알론한 것들은] 어느 것도 스스로들 안에 하나를 지니지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여럿이 아니네 그것들 각각 하나는 전체의 부분이어 왔을 것이기 때문이네 만약 여럿이어 왔다면 [말일세]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여럿도 전체도 부분들도 아니네 이러한 어떤 것도 나누어 지나지 않으므로 [그렇네]

옳게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둘도 셋도 이러한 것들도 아니며 이러한 것들 안에 있지도 않네 만약 모든 방향에서($\pi\alpha\nu\tau\alpha\chi\eta$ 159e1)하나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말일세

그렇게

2808) 이 말은 소피스테이스 편 의 엘레아 낫선이에 의해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부분 아닌 것이 완전하게 아마도 말 그대로 진실로 하나($\tau\omicron\ \acute{\alpha}\lambda\eta\theta\acute{\omega}\varsigma\ \acute{\epsilon}\nu$, 245a8, 1400)라고 반드시 말하여질 것이다 라고 그는 거기에 쓰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tau\omicron\ \acute{\omega}\varsigma\ \acute{\alpha}\lambda\eta\theta\acute{\omega}\varsigma\ \acute{\epsilon}\nu$ (159c5, 진실로 하나인 것) 이라는 레아마(句)가 쓰인다 나아가서,

여기 파르메니데이스 편 곳 곳에서도 이 말은 확인된다(1067).

따라서 알론한 것은 하나와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으며²⁸⁰⁹)이런 것들도(αὐτὰ ε2)(아니고) 같음 과 같지않음의 이런 것들 안에 있지 않네 만약 그것들이 같고 같지않거나 또는 스스로들 안에 같은 것들과 같지않는 것들을 지닌다면 어디에서든 서로에 반대되는 두 에이도스를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스스로들 안에 지닐 것이기 때문이네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들이 둘인 것들을 나누어 지닌다는 것을 불 가능하다네

불 가능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같은 것들도 같지않는 것들도 [이] 양자적이지도 않네 한 편으로 하나와 같거나 같지않다(ὅντα 160a1)(면) 헤태론한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닐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그] 양자적이라면 반대되는 둘을 (나누어 지닐 것이)지만 이것들은 불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네

진실

따라서 동일한 것들도 헤태론한 것들도 움직여지는 것들도 쉬는 것들도 되어지는 것들도 사라지는 것들도 더 큰 것들도 더 적은

2809) 연이어서 어떤 것이든 οὐτε.....οὐτε.....(.....도.....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정(否定)되는 것은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가 부정되는 것(1645)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나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을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결코 안된다 1664쪽에 언급된 것 처럼 입도 병긋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있지 않는 것이나 하나 자체는 같을 것 처럼 보이니 그렇다고 있지않는 것이 하나 자체와 동일한 것은 아닌 것처럼 여기에서도 연이어 모든 속성들이 부정된다는 점에서는 있는 하나의 분리된 알론한 것들과 하나 자체가 같을 것 처럼 보이니 그렇다고 이러한 알론한 것 과 하나 자체를 동일한 것으로 착각(錯覺)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것들도 똑 같은 것들도 아니네 알론한 어떤 것들도 이러한 것들을 꺾지 않네 만약 알론한 것들이 이러한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ὑπομένει 160a7)꺾을 수 [있다]면 하나 와 둘 과 셋 과 홀 과 짝을 나누어 지닐 것인데 모든 방향에서 모두 *하나*를 빼앗긴 그러한(알론한) 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나누어 지녀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일세

가장 진실하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가 만약 **있다**면 하나는 모든 것이며 하나는 어느 것도 아닐세(οὐδὲ ἓν ἐστὶ 160b3)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와같네

완전하십니다(παντελῶς 160b4)

자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무엇이 잇따라야만 하는지를 따라서 이 후로 숙고해 보아야하지 않겠나

숙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57b6 - 160b6) ”

라는 인용글월에서
는 하나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에 무엇이 잇따라야 할 지에 관해 쓰여진다 물론 논증이다 그것도 스스로 와 알론한 것²⁸¹⁰에 *대해* 알론한 것이 지니는

2810) 알론한 것과 알론한 것은 헤테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에 유념(留意)하라 나도 처음에는 헤테론한 것들은 항상 헤테론한 것에 대한 것들 이라는 로고스에 너무 집착해서 알론한 것들 역시 항상 알론한 것에 대한 것일 것이므로 알론한 것도 알론한 것과 알론한 것일 것이라고 여겼으나 하나만이 알론한 것과 알론한 것이라는 것을 일단 허용해야 할 것 같다 맥락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 속성들이(τὸ πάθος, 159a2, 1901) 논증된다. 한계와무한 동일과헤테론 움직임
적여짐과쉽 되어짐과사라짐 큼과적음 똑같음과똑같지않음 같음과같지않음과
같은 그러한 속성²⁸¹¹)을 알론한 것이 스스로 와 알론한 것에 대해 ‘어떻게’

2811) 그런데,

파르메니데아스는 이러한 속성들을(τὸ πάθος, 159a2, 1901) 각각 에이
도스들(εἶδη, 159e5 : 1905, 160a1 : 1905)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여기에 근거
해서 ‘플라톤’의 에이도스들을 속성이라고 부른다면 있음 또는 존재 역시 속
성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있음(1326) 역시 하나의 에이도스이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어떤 기체가 겪는 하나의 속성으로 그것도 자존(自存)적인 속
성으로 반드시 받아드려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있음을 포함한 모든 에이도스는 어떤 기체에 달라 붙거나 떨어지는
속성(屬性)이 아니다 사실 ‘플라톤’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기체(ὑποκειμ
ένου, 범주들2a2 : 166, 형이상학1607b18 : 915)가 아무런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의 내가 기억하기로는 세 대화편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휘포케이메논과 비슷한 휘포메네이(ὑπομένει)가 딱 한 번 파르메니데아스 편
160a7(1905)에서 나타난 걸 제외하면 그와 비슷한 어떤 말도 지금 나의 기
억에는 없기 때문이며 움직임을 담고 있는 기체 라든지 어떤 속성이 들어
붙어야 할 기체 라는게 플라톤에게는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있음의 에이도스 또는 하나(평등)의 에이도스 착함의 에이도스
등을 순식간에 겪는다는 정도에서만 속성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있음을
겪어야 존재하고 선(ἀγαθός, 善, 착함)을 겪어야 착한 것 처럼 말이다 그렇다
면 있음은 존재하고 싶은 사람이 나누어 지녀야 할 어떤 이데아이지 어떠한
기체적인 실체에 달라 붙는 속성이 아니다 있음 뿐 아니라 모든 에이도스들
이 기체에 달라 붙는 속성이 아니다 자!

나누어지니는가를 논증한다

하나의 알론한 것의 논증 과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의 논증 등 그러한 논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각기 구분에 따라 잇따르게 되는 로고스들은 전혀 그 반대(모순)으로 치닫는다 각기 구분 안에서 도 반대가 머금어질 뿐 아니라 그 구분 각각에 대해서도 서로 반대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모든 논증에서 드러난 심각한 모순(반대)를 여기 논증의 반대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아마 있는 하나에서 있지않는 하나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지도 모른다 이제,

있는 *하나*와 알론한 것들 안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반대가 어떻게 논증되는지 다시 옮겨 보자 옮긴 후 알론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자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들에게 무엇이 겪어질지를 숙고해 보지 않으려는가 - 숙고하지요 - 하나가 만약 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무엇을 겪어야 하는지를 말해야하는가 - 말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가 아니네 (하나라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아니며 왔을 것이기 때문이네²⁸¹²) - 옳소 - 그러나

일이 이 지경 까지 이르렀으면 우리는 존재론을 다시 써야하지 않겠는가.....관념론이니 유물론이니 물활론이니 생명론이니 영혼론이니 목적론이니 기계론이니 하는 것은 있는 어느 한 부분을 꼭해해서 침소봉대하거나 의도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무시(無視)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 전체 틀리다 거짓이다 바라 보는 관점이 다르게 아니라 몰랐기에 그런 이론이 나왔다

2812) 하나의 알론한 것이 만약 하나라면 하나의 알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

알론한 것들은 모두 모두 *하나*를 뺏기지 않네 어떻게든 나누어 지니네 -
어떻게 - 어디에서든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부분**들을 지니는 알론한 것들
이므로 만약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면 완전하게 *하나*일 것이기 때문일세 -
옳소 - **부분**은 전체일 *이것*의 **부분**이라고 우리는 말했었네 - 말했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실로 **부분**들이 *그것*의 **부분**일 전체 *하나*는 **여럿**들로부터
있어야 하네 **부분**들 각각은 **여럿**의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의 **부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이네 - 어떻게 이것이? - 만약 어떤 것(**부분**)이 **여럿**의 **부분**이라
면 그 (**부분**) 자체는 그 **여럿** 중에 *하나*일 것이고 어디에서든 스스로의 **부**
분일 것이네 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하다네 그리고 (스스로의 **부분**이 아니므
로) 알론한 것들 각각 *하나*의 **부분**일 결세 만약 마찬가지로 **모든**²⁸¹³ *것*의
부분이라면 말일세 만약 어떤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면 이것을 제외한 알론
한 **부분**들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각각의 **부분**도 아닐
것이며 각각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면 알론한 어떤 *하나*의 **부분**도 아닐 것이
네 그런데 어느 *하나*도 결코 아닐 이 모든 것들의 어떤 *하나*도 결코 있지
않을 것이네 **부분**이든 알론한 것이든 무엇이든 불 가능하다네 - 선명해집니
다 - 따라서,

그 **부분**은 **여럿**의 **부분**도 **모든** *것*의 **부분**도 아니라 **이데아** *하나*인 **것**

가 있어 왔을 것이라는 말이다

2813) 텔레스가 **모든** 과 **전체** 와 **토탈** 등에 관하여 말한 것을 되뇌어 보아
야하는가(991각주1587, 375)어쨌든,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전체 *하나*의 **부분**이지 **부분**들 모두의 **부분**도
아니며 **부분**들 **여럿**의 **부분**도 아니라고 여기 파르메니데아스는 말하므로
모든 과 **전체**는 반드시 구분되어져야만 한다 **여럿** 과 **많음**과도 구분되듯이
말이다 그러나 어떻게 구분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는 지금의 내가 어리
다

의 그리고 각각 모든 것으로부터 완성 되었던 **하나 전체** 라고 부르는 하나인 것 이것의 부분이 그 부분일 것이네 - 모두 모두 - 따라서 만약 알론한 것들이 **부분**을 지닌다면 **전체** 와 **하나**를 나누어 지닐 것일세 - 물론입니다 - 따라서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필연적으로 부분들을 끝까지 지니는 **하나 전체**일세 - 필연적으로 - 그리고 부분 각각에 관하여서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되네) 각각의 부분도 하나를 나누어 지니기 때문일세 만약 그것들 각각이 부분이라면 **각각**은 어디에서든 하나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며 알론한 것들과 떨어져서 그 자체로 있을 것이므로 그렇네 각각이라면 말일세 - 옹습니다 -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분명히 **하나** 보다는 알론할 것일세 그러나 (알론한 것이)나누어 지니지 않는면 하나 자체가 있어 올 것인데 지금은 하나 자체 없이 하나에 있네(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일세 - 불 가능합니다 -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필연적으로 **전체** 와 **부분**적으로 그러하네 **하나**는 부분이 그것의 부분인 **전체**인 반면 다시 (부분) **각각**은 전체의 부분일 (바로) 전체의 (그) **부분**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네 - 그렇지요 - 그렇다면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것들은 (자기들이) 나누어 지니는 하나와 **헤태론**하게 있는 것들일까 - 어찌 않으리오 - 그런데 하나와 헤태론한 것들은 어디에서든 **여럿**일세 하나와 알론한 것들이 하나도 하나보다 **많**지도 **않**다면 아무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일세 -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하나 보다 **많은** 것은 하나 **부분** 과 하나 **전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이므로 이미 하나를 나누어 취하는 저것들은 필연적으로 무한히 많은 그러한 것들이지 않을까 - 어떻게 - 요렇게 바라 보세나,

하나를 나누어 취할 저 때 나누어 취하는 그 때 알론한 것은 하나로 **있**지도 **않**으며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은 것들인가 - 분명히 - 그렇다면 하나에 의해서 하나가 아닌 **많은**들로 있는가 - 확실히 **많은** - 무슨 만약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들 가운데 가장 적은 그러한 것을 떼어내길 바란다면 떼어내어진 저것은 만약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필연적으

로 많음이지 하나는 아니 질 않는가 - 필연적으로 - 그렇다면 그렇게 항상 그 자체로 그 에이도스의 그러한 헤태론한 자연을 숙고한다면 그러는한 **끊음**에 의해 **무한**하다는 것을 볼 것이네 - 모두 모두 - 그런데 하나 각기 부분이 부분이 될 때 이미 서로에 대한 그리고 전체에 대한 한계를 지닐 것이며 그리고 전체는 부분에 대한 **한계**를 지닐 것일세 - 정확하십니다 - 하나와 스스로들로부터의 교통으로부터 잇따라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게 헤태론한 어떤 것이 스스로들 안에 되어지는 것 처럼 보이네 서로에 대해 한계지우면서 스스로들의 자연에 따라 스스로 한계지워지는 그런 헤태론한 어떤 것이 말일세 - 선명해집니다 - 그렇게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무한하며 그리고 한계를 나누어 지닌다네 - 물론 - 그렇다면,

서로에 그리고 자신들에 **같으며 같지않은가** - 어떻게 - 스스로들의 자연에 따라 어디에서든 모든 것들이 무한한한 그에의해 동일한 것을 겪을 것이네 - 물론 - 그리고 각기 모든 것들이 한계를 나누어지니는한 그에의해 모든 것들은 **동일한 것을 겪을 것이네**²⁸¹⁴-어찌 않으리오 - 그런데 한계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무한함을 겪었던한 그러한 겪었으므로 서로에 반대되는 그러한 속성들로 있네 - 예 - 반대 것들은 그런 식으로 **같지않는 것**들이네 - 무슨 - 따라서 자신들에 그리고 서로에 그것들은 각각 속성에 따라 같을 것이지만 양자적으로 반대되는 양자에 따라 **같지않을** 것이네 - 감히 - 이렇게 알론한 그것들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않을** 것이네 - 이렇게 - 그리고,

2814) 이름의 동일함을 겪으므로 헤태론한 것은 **같다** 라는 1733쪽을 참조하라 만약 있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과 그러한 반면 여기에서는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들이 스스로들과 그리하며 거기에서는 이름의 동일함을 겪는 반면 한계의 동일함을 겪는다

서로 동일한 것들 과 *해태론*한 것들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들 과 쉬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반대 속성**들을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겪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겪는 것이 보여졌네 -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 그렇다면,

만약 이것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했다면 다시 하나 만약 **있다**면 따라서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이와 같지 않을지 또는 단지 이와 같을 뿐인지 숙고해 보아야 할까 - 물론 - 그래서 하나 만약 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무엇을 겪어야할지 처음부터 우리말하세 -말합시다 -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분리해** 있으며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분리해 있는가 - 무슨 -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며 알론한 것들의 알론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과 **나란한** *해태론*한 것들은 어디에도 있지 않기 때문일세 하나와 알론한 것들이 말하여졌을 때 모든 것이 말하여지므로 그렇네²⁸¹⁵- 모든 것이 - 따라서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이 그 **안에** 있을 이것들과 *해태론*한 것은 있지 않네 - 있지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은 어느 때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네 - 앓을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분리해** 있는가 - 예 -

진짜 하나는 부분들을 지니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했네 - 어찌 - 따라서 알론한 것들 **안에**는 전체 하나도 하나의 부분들도 있지 않을 것이네 알론한 것들과 분리해 있으며 부분들을 지니지 않을 거라면 말일세 - 어찌 - 따라서 어느 길로도 알론한 것들은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며 부분으로도 전체로도 하나의 어떤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네 - 앓을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결코 하나는 알론한 것들이 아니며 알론한 것들은

2815)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ἐκτός, 151a3, 1150)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말이다 이에 관해서는 1150 - 1152쪽을 참조하라.

어느 것도 스스로들 안에 하나를 지니지 않네 - 앎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여럿**이 아니네 - 그것들 각각 하나는 **전체의** 부분이어
왔을 것이기 때문이네 만약 **여럿**이어 왔다면 말일세 - 그런데 지금은 하나
의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여럿도 전체도 부분들도 아니네 이러한 어떤 것도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그렇네 - 옳게 -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둘도 셋도
이러한 것들도 아니며 이러한 것들 안에 있지도 않네 만약 모든 방향에서
하나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말일세 - 그렇게 - 따라서 알론한 것은 하나와
같지도 같지않지도 이것들도 아니며 같음 과 같지 않음의 이것들 안에 있지도
않네 만약 그것들이 같고 같지 않거나 또는 스스로들 안에 같은 것들과
같지 않는 것들을 지닌다면 어디에서든 서로에 **반대**되는 두 **에이도스**를 하나
의 알론한 것들은 스스로들 안에 지닐 것이기 때문일세 - 선명해집니다
-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는 것들이 **둘**인 것들을 나누어 지닌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네 - 불 가능 -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같은 것들도 같지
않는 것들도 이 양자적이지도 않네 - 같거나 같지 않다면 헤테론한 에이도
스를 나누어 지닐 것이며 양자적이라면 반대되는 둘을 나누어 지닐 것이지만
이런 나누어 지짐은 불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네 - 진실 - 따라서,

동일한 것들도 헤테론한 것들도 움직여지는 것들도 쉬는 것들도 되어
지는 것들도 사라지는 것들도 더 큰것들도 더 적은 것들도 똑 같은 것들도
아니네 알론한 어떤 것들도 이러한 것들을 겪지않네 만약 알론한 것들이 이
러한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ὑπομένει*, 160a7, 1905)겪을 수 있다면 하나 와
둘 과 셋 과 홀 과 짝을 나누어 지닐 것인데 모든 방향에서 모두 하나를 빼
앗긴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나누어지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네 - 가장 진실하십니다

따라서,

부분을 지니지 않은 것도 아니며 그래서 전체도 아니며 여럿도 **하나**

도 아닌 것이 그래서 동일한 것도 *해태론*한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쉬는 것도 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큰 것도 적은 것도 똑 같은 것도 똑 같지 않은 것도 같은 것도 같지않는 것도 아닌 것이 있다 이것은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알론한* 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으므로 하나 아닌 것으로 *있*²⁸¹⁶⁾으나 *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뫼과사라짐* 등의 반대 속성을 겪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은 부분들을 지니는 완성된 *하나 전체* ἐν ὅλῳ , 157e4, 1897)이다 곧 *이デア* 하나인 것(μίας τινός ἰδέας, 157d8, 1895)이다 그래서 부분²⁸¹⁷⁾들을 지니며 하나와 전체를 나누어지니고 하나와 *분리*해 있다 그리고 *되*며사라진다 *뫼과사라짐* 등의 반대 속성들을 겪는다 그렇다면,

*알론한 것은 있는 하나의 전체*이며' 하나 *아닌* 것이고 하나와 *분리*해 있으며 분리해 있지않다 따라서 있다면 *하나* 뿐 아니라 *알론한 것도 반대*를 머금는다 그리고 하나 와 *알론한 것*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없다 이제, 이러한 *있는 알론한 것*에 관한 논증을 다시 옮겨 보자

2816) *하나 아닌 것*은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는다 라는 말은 이미 147a3(1728, 1752)에서 확인되었다 *있는 하나*는 하나 아닌 것 곧 *알론한 것*에 대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 논증되는 가운데 위 말이 아주 *긴요(緊要)*하게 쓰여지면서 말이다 반면 여기에서 위 말은 *있는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은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동일하게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되는 가운데 아주 *긴요*하게 쓰인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에스 편에 나오는 *알론한 것*은 하나 아닌 것임에 틀림없다 2817) 그래서 부분은 부분들의 *여럿의* 부분도 부분들의 *모든의* 부분도 아니라 *전체*의 부분이다

하나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들에게 무엇이 겪어질지 숙고해 보자

하나가 만약 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은 무엇을 겪는가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라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있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론한 것들은 하나를 결코 뺏기지 않고 어떻게든 나누어 지닌다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부분**을 지니므로 그렇다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면 완전하게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이 그것의 부분인 **전체 하나**는 여럿들로부터 있어야한다 부분들 각각은 **여럿의**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의** 부분들이어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여럿의** 부분이라면 그것은 여럿 중에 하나일 것이고 스스로의 부분일 것이나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의 부분이 아니므로 알론한 것들 **각각 하나**의 부분일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의 부분이라면 말이다 이 (스스로)를 제외한 알론한 부분들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각각의 부분도 아닐 것이며 각각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면 알론한 어떤 하나의 부분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부분이든 알론한 것이든 어느 하나도 결코 아닐 이 모든 것들의 어떤 하나는 선명히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 부분은 **여럿의** 부분도 **모든**의 부분도 아니라 **이데아** 하나인 것의 그리고 각각 모든 것으로부터 완성 되었던 **하나 전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인 것의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 알론한 것들이 부분을 지닌다면 전체와 하나를 나누어지닐 것이므로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필연적으로 부분들을 지니는 완성된 **하나 전체**이다(εἶναι, 157e4, 1897)

부분 **각각**에 관해서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된다 각기 부분도 하나를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들 각각이 부분이라면 **각각**은(τὸ ἕκαστον, 158a1, 1897)어디에서든 **하나**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며 알론한 것들과 **떨어져서** 그 자체로 있을 것이므로 그렇다 **각각**이라면 그렇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분명히 하나 보다는(ἢ, 158a4, 1897) **알론한** 것이다 알론

한 것이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 자체가 있어 올 것인데 지금은 하나 자체 없이 하나로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든 불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의 알론한 것의 경우 나누어 지니는 것은 알론한 것이지 하나는 아니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필연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러하다 *하나*는 부분인 *전체*이며 *각각*은 전체의 *부분*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것들은 자기들이 나누어 지니는 하나와 *헤태론한* 것들이다 그런데 *하나*와 *헤태론한* 것들은 어디에서든 *여럿*이다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하나도 아니고 하나 보다 *많*지도 *않*다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 보다 많은 것은 하나 부분 과 하나 전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하나를 나누어 취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무한히 많은 그러한 것들이다 요래서 그렇다 하나를 나누어 *취할 저 때*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 *있*지도 *않*으며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에 의해 하나가 *아*닌 *많*음으로 있다 이제 가장 적은 많음을 우리의 디아노이아(생각) 안에서 떼어내 보자 그렇더라도 가장 적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많지 하나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에이도스의 자연²⁸¹⁸)에 의하는한 많은 것은 *무한*하다 그런데 하나 각각 부분은 이미 서로에 대한 그리고 전체에 대한 *한계*를 지니며 하나 전체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를 지닌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 한계 지우면서 스스로들의 자연에 따라 스스로 한계지워지는 *헤태론한* 어떤 것이 하나 와 스스로들로 부터의 교통으로부터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게 잇따라 되어지는 것 처럼 보인다 그래서 하나의 알론한 것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무한하며 그리고 한계를 나누어 지닌다 그렇다면,

서로에 그리고 자신들에 같으며 같지않다 (요래서 그렇다) 스스로들의 자연에 따라 어디에서든 모든 알론한 것들은 무한한한 그 *무한함*에 의해

2818) 헤태론의 자연에 대해서는 1734쪽각주2643을 최종적으로 참조하라

동일함을 겪을 것이며 각기 모든 것들은 한계를 나누어지니는한 그 한계에 의해 동일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한꺼지워지고 있는 것들이 무한함을 겪었던 한 서로에 반대되는 그러한 속성을 겪었다 그리고 반대되는한 같지않다 따라서 스스로들에 그리고 서로에 각각 속성에 따라 같을 것이며 반대되는 양자의 속성에 따라 양자적으로 같지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론한 그것들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동일한것들과해태론한것들 서로움직여지는것들과쉬는것들 등 모든 반대 속성들을 하나의 알론한 것등은 겪는 다는 것을 더 이상의 고통 없이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겪는다는 것이 보여졌다 자,

선명해졌다면 만약 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이와 같지 않을지 아니면 단지 이와 같을 뿐인지 숙고해 보기로 하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말해본다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분리해 있으며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분리해 있다(χωρισ.....είναι, 159b6-7, 1902)하나의 알론한 것들인 한 편 알론한 것들의 알론한 것들인 것들과 나란히 해태론한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으며 하나와 알론한 것들이 말하여지면 모든 것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와 알론한 것들이 그 안에 있을 해태론한 것들은 있지 않으므로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어느 때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않다 따라서 분리해 있다 그런데,

진짜 하나는 부분들을 지니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했으므로 알론한 것들 안에는 전체 하나도 하나의 부분들도 있지 않을 것이다 알론한 것들과 분리해 있으며 부분들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렇다 그래서 부분으로든 전체로든 어느 길로도 알론한 것들은 어떤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여럿이 아니다 여럿이라면 각각 하나는 전체의 부분이어 왔을 것이나 지금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여럿도 전

체도 부분들도 아니다 이러한 어떤 것도 나누어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

알론한 것들은 둘도 셋도 아니며 둘 셋 안에 있지도 않다 모든 방향
에서 하나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렇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같지
도 같지않지도 않으며 같음 과 같지 않음 안에 있지도 않다 만약 같고 같지
않거나 스스로들 안에 같음 과 같지않음을 지닌다면 어디에서든 서로에 반
대되는 **두** *에이*도스를 하나의 알론한 것들 스스로들 안에 지닐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는 것들이 둘인 것들을 나누어 지닌
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같은 것들도 같지않는 것들도
아니며 이 양자적인 것도 아니다 하나와 같거나 같지않다면 헤태론한 에이
도스를 나누어지닐 것이며 **양자적**이라면 **반대**되는 둘을 나누어 지닐 것이
지만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움직여지지도 쉬지도 되어지지도 사라지지도
크지도 적지도 똑 같지도 않다 알론한 어떤 것들도 이러한 것들을 겪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ὑπομένει*, 160a7, 1905)겪는다면
*하나 둘 셋 홀 짝*²⁸¹⁹나누어 지닐 것인데 모든 방향에서 하나를 빼앗긴
그러한 알론한 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나누어 지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렇게 하나가 만약 **있다**면 하나는 모든 것인 한 편 어느 것도 아닐
것이다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말이다 그래서,

2819) 하나 알론한 것 두겹 둘 셋 홀 짝으로부터 파르메니데에스는 모든
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이미 써졌다(1709)그리고 있는 모든 것은 수를 지
닌다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의 알론한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이든지 한다 앞이라면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만 뒤라면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전체 하나인 반면 하나 아닌 것이다 나아가서 자기²⁸²⁰의 부분이 있는 하나 처럼 알론한 것에도 그 부분이 있는 반면 자기의 부분이 없는 진짜 하나 처럼 알론한 것에도 그 부분이 없으므로 그 전체 하나의 부분 하나 각각이 있는 반면 알론한 것에는 하나의 부분도 없다 그래서 알론한 것의 전체 하나가 있는 반면 알론한 것에는 전체 하나가 있지 않다 이 전체 하나가 이데아 라고 불리워진다 따라서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에는 이데아가 있지 않다 전체 하나가 거기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으므로 하나의 해태론한 것은 어디에서든 여럿이며 무한히 많은 반면 그 부분들이 있지 않으므로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은 여럿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부분들이 있는한 서로에 대해 이미 한계지워지면서 스스로 한계지우므로 여러 알론한 것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으므로 알론한 것에는 한계가 없다 이렇게 한계 와 무한함을 겪는 알론한 것은 각기 그것들을 겪는한 동일함을 겪어 같지만 이미 그 양자를 겪는한 반대 속성을 겪어 같지 않는 반면 이러한 어느 것도 겪지 않는 알론한 것은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다 나아가서,

알론한 다른 모든 반대 속성 양자를 알론한 것은 겪는 반면 알론한 것은 겪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은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에 반대로 있다 이러한 알론한 것에 관한 논증을 각기 다시 정리해 보자 그러나, 정리하기 전에 하나에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의 논증 과 전체하나 곧

2820) 지금의 나는 자기를 자신(αὐτό) 과 스스로(ἐαυτό)와 구분한다

이데아로서의 알론한 것의 논증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중요한 논증이기 때문이다

알론한 것 과 하나가 **동일한 것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만 논증하면 된다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분리**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 와 알론한 것이 말하여지면 모든 것이 다 말하여지므로 하나 와 알론한 것과 **나란한** **해태**론한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이 그 **안에** 들어 있는 **해태**론한 것은 없으므로 어느 때든 이 두 가지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있지않다 따라서 알론한 것은 **하나와 분리**해 있다 그러나,

알론한 것은 **하나 전체**이기도하다 만약 하나가 있다면 말이다 부분을 지니지 않는 완전한(παιτελως, 157c4, 1894)하나 곧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의 알론한 것이 아니므로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의 알론한 것은 부분을 나누어 지닌다 그런데 전체는 **부분의 전체**이고 부분은 **전체의 부분** 이므로 알론한 것은 전체의 부분을 나누어 지닌다 그러나 여럿의 부분도 아니요 모든 부분도 아니다 만약 **여럿의 부분**이라면 여럿 가운데 **하나**일 것인데 부분은 어디에서든 자신의 부분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나머지 알론한 **각각**의 부분일까 여럿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면 그 하나를 제외한 알론한 것들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각각**의 부분도 아니다 알론한 것들과 떨어져서 그 자체로 **있는 각각**(ἕκαστον, 158a3, 1897)은 어디에서든 **하나**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각각의 부분이 아니라면 **각기 모두**(ἀπάντων, 157e1, 1895)의 부분도 아니며 그래서 **모두**(πάντων, 157d8, 1895)의 부분도 아니고 따라서 알론한 것의 부분은 각기 모두로부터 완성되어진 **하나 전체**²⁸²¹⁾의 곧 **이데아 하나**인 것의 부분이다 그렇다면,

2821) 전체 모두 토탈 등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이데이는 전체 하나 곧 알론한 것이며 하나*의* 알론한 것의 부분은 이데아의 부분이다²⁸²²)그렇다면,

하나 전체가 하나 **이**닌 것에 대해 있는 것 처럼 하나는 하나 자체에 대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알론한 것이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에 대해 있는 것 처럼 하나는 진짜 하나에 대해 있다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알론한 것의 논증을 정리해 보자

알론한 것은 하나와 분리해 있는 반면 *알론한 것은 하나 전체*라는 것이 바로 위에서 논증됐다 이와 함께 *알론한 것은 하나*이며 *여럿인 반면 하나도 여럿도 아니라*는 것이 논증된다

알론한 것은 하나 전체이므로 하나이다 따라서 알론한 것은 하나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이 지니는 부분 각각은 하나를 나누어 지닌다 각각은 어디에서든 하나를 가리키며 알론한 부분들과 떨어져서 그 자체로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알론한 것이다 알론한 것이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았다면 알론한 것은 없고 하나 자체만 있어왔을 것이므로 지금 있는 알론한 것은 그 하나 없이 하나로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 없이 하나로 있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를 나누어지니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하나와 알론한 것이다 그런데 나누어 지니는 것은 전체 와 부분을 나누어지닌다 하나는 부분의 전체이며 부분 각각은 전체의 부분 하나이기 때문이다 헌데 하나와 *알론한* 것이 하나도 아니고 하나 보다 많지도 않다면 아무 것도 아니므로 하나와 ~~해태~~론한 것은 어

보려면 371-376 참조하시오

2822) 아리스토텔레스가 에이도스의 부분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려면 383, 763, 904쪽을 참조하시오 더불어 1895도 다시참조.....

디에서든 여럿이다 반면에,

알론한 것은 하나와 분리해 있으므로 하나를 나누어 지닐 수 없다 따라서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전체로도 부분으로도 하나를 나누어 지닐 수 없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이 아니며 어느 알론한 것도 스스로들 안에 하나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여럿이 아니다 여럿이라면 여럿 각각 하나는 전체의 부분이어 왔을 텐데 지금의 알론한 것은 하나도 전체도 부분들 어떠한 것도 나누어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이며 여럿인 알론한 것은 하나이지도 여럿이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됐다 이와 함께 알론한 것은 한계를 지니며 무한하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 보다 많은 것은 하나의 부분 과 전체를 나누어 지닌다²⁸²³)는 것은 보여졌다 이제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 보다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을 떼어내 보자 떼어내진 것 역시 하나 보다 필연적으로 많을 것이다 하나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와 헤테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헤테론의 자연 덕분에 많은은 무한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각기 부분은 부분이 될 때 이미 서로에 대한 그리고 전체에 대한 한계 그리고 부분에 대한 전체의 한계를 지녔다 이제 서로에 대해 한계 지우면서 그 자연에 따라 스스로 한계지워지는 헤테론한 어떤 것들이 하나 와 자신들과의 교통을 통해 알론한 것들 안에 잇따라 되어지는 것 처럼 보인다 이렇게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무한하며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 논증됐다 이와 함께,

알론한 것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으며 같지않는 반면 같지도 같지않지도 이 양자적이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2823)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취할 저 때 나누어 취하는 알론한 것은 하나로 있지도 않으며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는다

자신들의 자연에 따라 어디에서든 무한한한 이에의해 동일을 겪을 것이며 한계를 나누어 지니는한 이에의해 동일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계지워지고 있는 것들이 무한함을 겪었던한 이미 이러한 반대되는 속성들을 겪었으므로 그렇게 있다 그러나 반대되는 것들은 같지않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에 그리고 서로에 알론한 것들은 각기 속성에 따라 같을 것이지만 양자적으로 반대되는 양자 속성에 따라서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론한 것들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둘도 셋도 나누어지니지 않네 결코 하나를 빼앗아 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와 같지도 같지않지도 양자적이지도 않으며 자신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도 않다 이런 것들을 지닌다면 어디에서든 서로에 반대되는 두 에이도스이 자신들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는 것이 둘을 나누어지닐 수 없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같지도 같지않지도 이 양자적이지도 않다 같거나 같지않다면 해태론한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녀야 할 것이며 양자적이라면 반대되는 둘을 나누어 지녀야 할 것이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고 같지 않는 알론한 것은 같지도 같지않지도 같고같지않지도 않는 것이 논증됐다 이와함께 알론한 것은 모든 반대 속성들을 겪는 한 편 겪지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같음 과 같지 않음은 서로에 반대되는 속성들인데 이러한 반대 속성을 알론한 것은 자신들 안에서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 겪는다 그래서 각기 속성에 따라 같고 반대되는 양자에 따라 양자적으로 같지않을 것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과해태론 움직여짐과쉽 등과 같은 모든 반대 속성들을 알론한 것들은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겪는다 반면에,

알론한 어떤 것도 동일과해태론 움직여짐과쉽 되어짐과사라짐 큼과적

음 똑같음과똑같지않음 등 반대 속성을 겪지 않는다 겪는다면 하나 와 둘
과 셋 과 홀 과 짝을 나누어 지녀야 할 것인데 하나를 빼앗아 오지 못하는
알론한 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지녀질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반대 속성들
을 겪을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은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모든 것이며 어느 것도 아니다 만약 있다면 하나는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가 그러하다는 것을 도표(圖表)로 나는 1864쪽에서 나타냈으므로
마찬가지로 나는 도표로 알론한 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 쪽과 같이 그 도표를 그린다

	알론한 것		
	하나의 전체하나(이데아)	하나의분리된 것 하나아닌것	
전제	하나만 있다 면	하나만 있다 면	
실체	지님	지님	
	(있다)	각각	양자(ἀμφοτέρω, 160a2, 1905)
됨 사라짐		없다	없다
여럿	있다	없다	
부분의전체 전체의부분	있다	없다	
한계	있다	없다	
수	무한히 많다(있다)	없다	
움직임 멈	있다	없다	
동일 해태론	있다	없다	
	있다	각각	양자
같음 같지않음		없다	없다
	있다	각각	양자
똑같음 똑같지않음		없다	없다
	있다	각각	양자
큼 적음		없다	없다

1864-1865쪽에 쓰여진 것 처럼 부분과전체에 걸리는 점선을 제외한 모든 점선은 반대 속성(to. pa,qoj, 159a2, 1901)들을 나타내는 반면 겹 실선

은 부정(否定)과 맞섬을 나타낸다 따라서 있음 과 없음은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 그대로 앞 쪽 도표에서 드러 날 것이다 나아가서 비록 그에 관한 문제의 논증이 주어지지 않는지만 알론한 논증들을 미루어 보건데 그러할 것 이더라는 짐작은 괄호가 나타낸다 그리고 각각은 반대 속성 각각에 대해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양자(ἀμφότερα, 160a2,1905)는 반대 속성 양자에 대해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예를들어 하나 아닌 것은 되지도 사라 지지도 되지도사라지지도 않는다 라는 함축(含蓄)을 각각 와 양자는 나타낸다²⁸²⁴)이제,

만약 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에 관한 논증을 마지막으로 다루었으니 이 논증을 만약 있다면 하나에 관한 논증 과 만약 하나 있다면의 논증과 더불어 비교해 보아야 할 차례이다 그러나²⁸²⁵),

더 간결하게 그 논증들을 비교 요약해야 할 터이나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그 논증들의 비교 대신에 *하나* 와 *알론한 것*이 어떠하다는 것만을 나열(羅列)해 보기로 하자 이러한 나열에서 *진짜 하나* 와 *있는 하나* 와

2824) 나는 이 양자 와 각각은 서로에 반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否定)과 맞서는 것으로 일단 보았으나 진짜 이렇게 파르메니데이스가 보았는지는 모르겠다

2825) 다시 더 간결하게 정리해야만 하나 지금의 나는 심신(心身)이 피로하여 그럴 힘이 없다 그러나,

만약하나있는 경우의 *하나* 와 하나만약있는 경우의 *하나*사이의 비교 논증 요약은 1724-1720, 1796-1807, 1856-1863에 나와 있으며 하나만약있는 경우의 *알론한 것* 가운데 *하나의 알론한 것*(전체 하나) 과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하나 아닌 것)사이의 비교 논증은 1921-1924에 나와 있으므로 문제의 곳을 찾아 읽는 사람은 덜 나를 원망할 것이다

전체 하나(하나의 알론한 것) 와 하나 아닌 것(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이 어떠한 것들인지면서 이데아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 보여질 것이다 먼저,

①진짜하나 그리고 ②**있는**하나와전체하나와**하나아닌것**의 전제들을 숙고해 보자

물론 ①②양쪽 모두에서 전제되는 것은 하나'이다' 그러나 저기①에서는 하나 있다는 *하나*가 전제되는 반면 여기 ②에서는 하나 있다는 **있다**가 전제(1329, 1632, 1667)된다 그럼에도 ①에서는 그렇게 전제될 경우 하나 자신에 잇따라야만($\chi\rho\eta$, 137b4, 1329)하는 무엇($\tau\iota$, 137b4, 1329)이 논증되는 반면 ②에서는 그렇게 전제될 경우의 하나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잇따라야만 하는 무엇이 논증된다 그러나,

① 처럼 하나 있다는 하나만 전제됐다고 해서 그 하나가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 있다는 하나로서 전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를 나누어지니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하나는 **존재**하는 하나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하나로 하여금 **실체**를 나누어 지니게 하려면 하나 있다는 **있다**가 ② 처럼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있다는 **있다**가 전제될 경우에 비로소 그 하나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체를 나누어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와 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전제하기 위해서 아마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파르메니데아스는 전제되는 것 앞에 **ei**(142b3 : 1667 : 1706, 137c4 : 1605 : 1706)를 두었을 것이다 이러한 에이(만약.....라면)가 ①의 경우에는 하나 바로 앞에 ②의 경우에는 있다 앞에 붙었다 그래서 논증이 되면 될수록 있음이 드러난다 나아가서,

하나 와 있음 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전제 됐다고 해서 나머지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가 전제되도 있음이 그 하나에 붙고 있음이 전제되도 그 있음에 하나가 붙는다 단 있음이 전제되면 반드시 실체를 나누어 지녀야만 한다 그러기에 있음이 전제될 경우의 그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녀 비로소 여기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하나가 전제될 경우의 그 있음은 실체가 아닐 것이다 있음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있음** 과 **실체(존재)**를 구분은 옳바르다 **실체**가 어떻게 해서 저 **있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에 관해서는 소피스테에스 편의 있음을 마무리 하는 그림인 1573을 참조하라 이제,

이러한 두 전제로부터 하나 자신 과 알론한 것에 잇따르는 무엇을 살펴 보기로 하자

이러한 두 가지 전제로부터 **부분도 전체도 지니지않는** 하나는 **부분을 지니는 전체인** 반면 **전체 와 부분을 지니는 알론한 것은 전체와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²⁸²⁶)이와 함께 **한계를 지니지 않는** 하나는 **무한하고 유한한** 반면 **한계를 지니지 않는 알론한 것은 한계를 지니며 무한히 많다는 것이 논증되며 이와함께 모양이 없는 하나에 모양이 있다는 것이 논증되고**²⁸²⁷)이와 함께 어떤 것 **안에도 있지않는** 하나는 **스스로 안에도 알론한 것 안에도 있다는 것이 논증되며**²⁸²⁸)이와함께 **쉬어왔지도 움직여지지도**

2826) 여기 논증 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논증은 각기 해당 쪽들을 참조하라 최소한도 네 번 이상 그 논증이 옮겨져 요약 정리 되풀이 되었기 때문이다

2827) 그러나 알론한 것에 관련한 모양의 논증은 파르메니데에스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2828) 이와 관련된 논증 역시 알론한 것의 측면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않는 하나는 움직이고 쉬고 있는 반면 움직이지도 쉬지도 않는 알론한 것은 움직이며 쉬는 것이 논증된다²⁸²⁹(1714-1720, 1921-1923)이와함께 자신과도 알론한 것과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는 하나는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과 동일하고 **헤태론한 반면**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에 동일하며 헤태론한 알론한 것은 자신과도 알론한 것과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이와함께 같음과같지않음 똑같음과똑같지않음 접촉과접촉하지않음 큼과적음 등에 관해서도 하나와알론한 것들은 그와같다는 것이 논증된다²⁸³⁰(1796-1807, 1923-1924)이와함께 보다 늙고 젊게 동일한 나이로 있어 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왔고 되고 될 **하나**는 늙고 젊게 동일한 나이로 있어 오지도 있지도 있을지도 되어왔지도 되지도 될 것이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²⁸³¹)이와함께 그것에 관한 앎도 억견도 감각도 있지

2829) 그러나 그 논증하는 길이 하나 와 알론한 것의 경우 아주 많이 차이난다 어떻게 차이나는지는 앞으로 그려질 도표에서 보여질 것이지만 알론한 것은 두 가지 반대 속성 각각을 겪는한 동일하지만 그 양자를 양자적으로 겪는한 헤태론하다 반대되는 것은 서로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먼저 간략하게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2830) 알론한 것의 경우 접촉과접촉하지않음의 논증이 빠졌으나 이것들은 서로 반대되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미 논증됐다고 보아야한다

2831) 알론한 것들의 경우 이에 관해 자신들 과 알론한 것들에 대해 어떠한지에 관한 논증은 파르메니데에스에 의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젊고늙음 동일한나이를지넘과지니지않음은 반대 속성이므로 하나가 자신 과 알론한 것들에 대한 **있거나 되는** 것처럼 알론한 것들도 자신들 과 알론한 것들에 대해 그러할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짐작할 수만도 없는 것이 있음은 됴에 됴에 있음은 반대되는 속성들이 아니기

않는 하나에 앞도 역견도 감각도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²⁸³²)(1856-1863)이제,

비록 그러한 논증이 요약된 것이 아니라 논증되어진 것만이 나열됐긴 해도 이로 만족하기로 하고 하나 와 알론한 것들에 관한 논증에 의해 논증된 무엇들을 하나의 도표 안에 모두 가두어 보기로 하자 이러한 도표는 1666, 1721, 1808, 1864, 1925를 묶어논 것이므로 다음 쪽 처럼 나타내어 질 수 있으리라

이미 1864쪽에 쓰여진 것 처럼 부분과전체를 구분하는 점선 이외의 다음 쪽의 모든 점선은 **반대**를 나타내는 반면 **겹 실선은 부정(否定)과 맞섬**을 나타내는 반면 실선은 단지 구분을 나타낼 뿐이다 그렇다면 **있음과없음** 반대가 아니지만 됴과사라짐 하나와여럿 안과밖 움직임과섬 동일과혜태론 같음과같지않음 똑같음과똑같지않음 큼과적음 늡음과젊은 동일한나이와 동일한나이가아님 등은 반대 짝임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은 알론한 것들 각각이 아니라 반대 짝들 각각을 말하며 양자는 반대 짝 양자(兩者)를 말하며 **괄호**는 파르메니데에스에 의해 직접 말하여지지는 않지만 관련된 논증을 통해 미루어 보건데 간접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때문이다 있음 과 됴은 1907각주2811쪽에 쓰여진 것 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속성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백번 양보해서 잘못 생각해서 있음 과 됴을 어떤 속성이라고 억측해보더라도 있음은 됴에 됴에 있음은 반대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르메니데에스에 따르면 됴은 사라짐에 반대되는 반면 있음은 심지어 있지않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다

2832) 마찬가지로 알론한 것도 그렇다 라는 논증 역시 주어지지 않는다

전체(ὅλος) (137b 132a 142b 132)	하나	있음(τὸ εἶναι)						
	하나자체	있는하나	전체하나(이테아)	하나아닌것				
	하나		알론한 것					
실체(οὐσία)	지니지않음	지님						
됨(γένεσις)	(아니다)	(이코아니다)	(이다)	각	자			
사라짐				년	안			
여럿	없다 (μὴ εἶναι)	있는 (ὄν) 무한히많이있는		없는 (μὴ ὄν)				
부분의전체								
전체의부분								
한계								
수	(없다)		(있는)		(없는)			
모양								
안								
밖								
움직임	없다	있는		없는				
쉽								
동일								
헤대론								
같음	(없다)		있는		각	자		
같지않음					년	년	없는	
똑같음					년	년	없는	
똑같지않음					년	년	없는	
큼	(없다)		(있고되는)		각	자		
적음					없	없	없는	
늡음					과	과	없	없
젊음					년	년	없	없
동일한나이	없다		(있는)		(없다)			
얇								
억견								
감각								

앞 쪽 도표는 하나만 전제될 경우 와 하나와 더불어 있음이 전제 될 경우 하나 와 알론한 것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에 **대해**(πρός, 146 b2-3 : 1723, 160b3 : 1906) 무엇으로 있는지를 보여 줌과 동시에 하나 와 알론한 것은 모두 **반대**를 머금은 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다시 말해 각 기 모든 것은 각각에 대해 **반대**로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고 되어 오고 **되고** 될 것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로의 변화는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거기에 부딪히는 저 때 (ὅτε, 155e8, 1866)에 순식간에 홀연히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말하여 졌고 이러한 순식간에 관한 논증도 이미 1890쪽에서 정리됐고 1887쪽에서 시간과 더불어 그려졌다 **있음**은 저 **때** 그 **순식간에 사라짐**으로 **변하며 있지않음**이 그 때 저 순식간에 **됨**으로 변한다 따라서 있음은 됨과 구분된다 됨의 반대는 있지않음이 아니라 사라짐(소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하나 자체 와 하나 아닌 것(*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에 잇따라 야만 하는 무엇들이 같다고 해서 이 둘을 하나로 본다는 것은 위험천만(危險千萬)한 일이라는 것도 앞 쪽 도표는 보여준다 그 전제부터가 험태론하기 때문이다 한 쪽은 **있음**을 전제하므로써 **실체**를 나누어지녀 **시간 안**에 있지 만 한쪽은 있음도 실체도 시간도 전제하지 **않으므로** 그렇다 따라서 진짜하 나 와 하나 아닌 것은 비록 자신에 잇따를 무엇들은 같지만 하나가 아니라 는 것은 분명하다 ,

있는 것에서 **있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야 할 때가 됐다 있는 모든 것 곧 하나 와 알론한 것에 관한 논증이 다 이루어졌으며 ‘플라톤’의 존재론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플라톤의 존재론은 **있지 않은 것**에 관한 논증(ἀπεδείξαμεν, 258d5-6, 1575)에 이르러 비로서 그 빛을 발하면서 이전의 존재론과는 다른 새롭게 태어난(νεογενής, 259d7, 1581)존재 론임이 더욱 또렷해진다 이제,

있지않음을 전제하는 파르메니데아스를 따라가 보기로 하자 있는 것

이 어디까지 넓혀지며 무엇 때문에 **동일과 해태론**이 반대되는 것의 선두주자(先頭走者)로 **있음**이 전제되자마자 **부분의전체**와 더불어 나타났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파르메니데아스는 모든 것을 말하면서 하나만 말하지 않고 더불어 하나의 알론한 것을 말하게 됐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 보자

“ 따라서 이렇게 **하나**가 만약 **있다**면 하나는 모든 것이며 하나는 어느 것도 아닐세(οὐδὲ ἓν ἔστι 160b3)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와같네

완전하십니다(παντελῶς 160b4)

자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무엇이 잇따라야만 하는지를 따라서 이 후로 숙고해 보아야하지 않겠나

숙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 이라는 전제[의 경우] 자신(αὐτή, 160b6)에는 무엇이 (잇따를까) 따라서 만약 하나 **아닌** 것이(μή ἔν²⁸³³), b7-8

2833) 1728에서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 하나 **아닌** 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은 것이며 1904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은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으므로 하나 아닌 것은 **알론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물론 알론한 모든 것이 하나 아닌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어떻게든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의 알론한 것**(1874)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아닌 것은 알론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만을 쓰기 위해 지금의 이 각주가 달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까지는 1931쪽 도표에 보여진 것 처럼 하나 와 있음만이 전제 된 반면 지금부터는 하나 와 있지않음이 전제 되면서 더불어 하나 **아닌** 것도

)있지 않다면 이라는 요리한 것(전제)와 어떠한 차이가 날까

전제된다는 것을 쓰기 위해 이 각주가 달아진다 물론 있음이 전제 될 경우 하나와 분리해 있는 것에 무엇이 잇따를지가 숙고 되었으니 하나 아닌 것을 전제로 삼은 것이 아니냐 라는 물음도 일어 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 거기에선 있음이 전제 될 경우의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 으로서의 하나 아닌 것 만이 문제 삼아졌으므로 하나 아닌 것이 전제되었다고 볼 수 없 으나 여기에선 직접 하나 아닌 것이 전제 되기 때문이다 하나가 전제된 것 처럼 말이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에스 편의 파르메니데에스는 1)하나 와 2)있음 과 3)있지 않음 과 4)하나아닌 것 등 네 가지를 전제 한 후 1-1)하나'라'면 자신과알론 한것에게 그리고 있다면 하나는 2-2)실체를 지니는 경우 와 **2-3)**그렇지 않 는 경우 각각 자신과알론한것에게 그리고 알론한 것은 2-4)하나의 자기의 경우와 2-5)하나와 분리해 있는 자기의 경우 각각 자신과알론한것에게 그리 고 있지않다면 하나는 3-6)실체는 지니는 경우 와 3-7)그렇지 않는 경우 각 각 자신과알론한것에게 그리고 알론한 것은 3-8)하나의 자기의 경우 와 3-9)하나와 분리해 있는 자기의 경우 각각 자신과알론한것에게 그리고 **3-10)** 하나아닌것이라면 자신과알론한것에게 무엇이 잇따를 것인가를 숙고한다 그 러므로,

파르메니데에스는 하나 와 있음 과 있지않음 과 하나아님을 전제한 후 이 4 가지 큰 전제를 10 가지 작은 전제로 나누어서 각기 전제로부터 잇 따라야만 하는 무엇들을 논증한다 따라서 그의 전제는 4 가지이다 이 4 가 지를 다시 10 가지로 나누기 때문이다 그러나 4 가지로 구분되지만 그 류로 볼 때는 **하나 와 있음** 등 두 가지 전제일 뿐이다 이미 소피스테에스 편에 선명하게 쓰여진 것 처럼 **있지않음은 있음** 이라는 **이주 큰 류**(Μέγιστα τῶν γενῶν, 254d4, 1516)의 어느 한 **종**(εἶδος, 258c3, 1543)이므로 **하나아님**도 하나

확실히 차이 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 아닌 것이 있지 않다*면은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과 모두 그 **반대**(*τούναντίον* 160c1)이라는 *차이*만 날까

모두 **반대**

리는 류의 어느 한 종일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하나와 있음 이 두 가지 류의 전제를 네 가지 종의 적은 전제로 나눈 뒤 이 4가지(에이도스, 종, 種)의 전제를 다시 10 가지 더 적은 전제로 나누어 이 전제들에 잇따르는 무엇들을 자신의 그 대화 편에 파르메니데아스의 입을 통해 쓴다 따라서,

그가 전제하는 것은 류적으로 볼 때는 하나와 있음 둘이요 종적으로 볼 때는 하나와 하나아님 과 있음 과 있지않음 넷이며 그 종류로 볼 때는 헤타론 동일 움직임 쉽 됨 사라짐 여럿 같음 같지않음 똑같음 똑같지않음 큼 적음 시간 등 등 이다 그리고 이와같이 전제되는 것들은 모두 파르메니데아스 또는 엘레아 낫선이에 의해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 라고 쓰여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로부터 잇따르는 논증은 **있음**을 통해서 각기 **하나**의 에이도스들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에이도스들을 자신 과 알론한 것들에 대해 나누어 지닌다는 것을 읽는 이로 하여금 일깨워 준다 그런데,

2-3)있는 하나가 실체를 지니지 않는 경우 와 3-10)하나 아닌 것이 있지않는 경우를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의 전제는 이미 1865-1892에 옮겨져 요약 정리 되었으므로 거기를 보면 그 심각한 고려(考慮)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뒤의 전제에 대해서는.....파르메니데아스가 아무 말도 않으므로 심각하다

그런데 만약 크기가 있지 않다면 또는 적음이 있지 않다면 또는 이러한 알론한 어떤 것(이 있지 않다면) 이라고 어떤 자가 말한다면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있지 않는** 것은 *헤태론한*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무엇이 분명한가

물론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은 알론한 것들²⁸³⁴) *헤태론을*(ἕτερον τῶν ἄλλων 160c5)말한다는 것이 지금 분명하네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이라고 말할 때 마다 [말일세]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말하는 무엇을 보네

봅시다

따라서 **있음** 또는 **있지 않음**을 그것에 덧붙이는 *하나*를 말할 때 마다 *인식되는* 어떤 것들(πρῶτον.....γνωστίον 160c7)첫 번째로 말하며 이와 더불어(ἐπιτα²⁸³⁵)c7)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한 것*을 (말하네)

2834) 있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의* 알론한 것이든지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이다 라는 1894, 1902를 참조하라 거기에서는 있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의* 알론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있지않다면** **있지않는** 것은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한* 것이라는 데에 유념(留意)하라 그렇다면 **있지않는** 것은 *하나의*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알론한 것의 *헤태론한* 것이다,

이러한 로고스는 소피스테아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에 의해서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다 라는 1538쪽의 로고스에 의해 다시 확인된다(1538)

2835) 먼저 **있지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난 후 그리고 나서(ἐπιτα, 160c7, 에페이타)알론한 것들의 *헤태론* 곧 알론한 것들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있지않는** 그 차이를 말한다는 식으로 콘퍼드(951) 와 죠웬(52)처럼 번역하지 말고 그냥 더불어 인식하고 더불어 말한다 라고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위 처럼 옮겼다 에페이타를 인식 시점의 먼저 와 나중으로 보

(우리가) **있지 않음** 이라고 말하는 그 무엇 그리고 알려진 것들의 차
ο(διάφορον 160d2)는 덜 인식되어지는(οὐδὲν ἤττον γινώσκειται d1)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일세 또는 [그렇지] 않은가

필연적으로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무엇이 **있어야만**(τί χρὴ εἶναι
160d3)하는 것이 처음부터 반드시 말하여져야만 하네 (있지 않는) 그
하나의 **없**(ἐποστήμην 160d5)이 **있다**는 이 첫 번째 것이 (있지 않는)
그(하나)에 반드시 속하는 것 처럼 보이네 그렇지 않으면(ἢ d5)어떤
자가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말할 때 마다 말하여진 것(그 하나)이
인식되지²⁸³⁶)않을 것이네

진실

지않고 οὐδὲν ἤττον(160d1, 어떤 것도 덜하지 않다)를 정도의 더 덜 하지 않
음으로 보는 게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있지 않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이 처음(Πρώτον 160c7) 인식 되면서 더불어 있
지 않는 것의 **있는 것과의 그 차이** 곧 있는 **헤테론함**이 인식된다 라고 해
석하는 더 올바른 것 같다 있지 않는 것을 처음 인식한 후 그리고 나서 있
는 것들의 헤테론함 곧 차이를 인식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 보다 말이다 어
쨌든,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좀 더 숙고해 보아야 할 것 같으나 이 정도로
만 하고 지나치려나.

2836) **있지 않는** 하나를 전제한 후 파르메니데아스는 무엇 때문에 첫 번째
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식되므로 있지 않는 하나의 **없**이 **있다**는 것을 논
증할까 그것도 **있는** 하나를 전제한 후 있는 하나의 **없**이 **있다**는 것을 **맨**
마지막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논증한 파르메니데아스가 말이다(1825) 있는
하나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논증한 것을 무엇 때문에 있지 않는 하나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논증할까 물론 이 논증에 앞서 먼저 **있지 않는** 것(하

그렇다면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그(하나)의 **헤태론한** 것들이
(εἶναι 160d7)그렇지 않으면(ἢ, d7, 또는, or) 저(하나)것은 **알론한** 것들
의 **헤태론**(ἕτερον d7)이라고 말하여지지 않을 걸세

물론

그리고 따라서 **헤태론함**(ἑτεροϊότης 160d8) 그 앞에 대한(πρὸς
d8)그(하나)것에 있네²⁸³⁷)하나가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이라고 말하여

나)도 인식 되는데 인식 될 때는 **알론한 것들의 차이**로서 그러하다는 것이
먼저 말하여지긴 했어도 말이다 나는,

여기서 맨 마지막 차이(ἡ τελευταία διαφορά, 형이상학1038a19, 448)로
부터 정의는(ὁ ὀρισμός, 형이상학1038a20, 448)이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
를 끌어들인다 이 맥락에서 텔레스는 **차이**를 **헤태론함**이라고(διαφορά δὲ θάτ
ρον, 형이상학1038a4, 445)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파르메니데아스는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이 바로 있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있지않은 **알론한 것들의 차이**라고 이미 말하지 않는가

2837) 하나에 대한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에도 헤태론은 속한다 라는 말일
것이다 다시 말해 있지 않는 하나는 헤태론하므로 있지 않는 하나의 **알**은
이러한 헤태론함에 대한 **알**이다 라고도 풀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콘퍼드(951)는 알려질 수 있음 이외에도 그(하나)것은 특성 상(in
character) 차이를 지닌다 라고 번역하는 반면 조웬(52)은 그렇다면 차이는
알 뿐만 아니라 그(하나)것에도 속한다 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
은 ‘.....에 대함’을 빠트리므로 나는 그러한 번역을 따르지 않았다 번역을 될
수 있는한 그 당시의 말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빠트리면 빠
트릴수록 그 본디 것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처음 보는
사람이 이해 못할 정도로 직역해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먼저 직역한
다음 최대한 그 직역(直譯)에 가깝게 의역(意譯)한 다음 다시 그 직역에 가

질 때 마다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함들이 아니라 저(하나)것의 헤태론
함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일세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는(τὸ μὴ ὄν ἐν 160e4) 저(하나)것 과 어
떤 것(τινός e3)과 이것(τούτου e3) 과 이것에(τούτῳ e3)[있는 것] 과 이
것들을(τούτων e3)그리고 이런(τῶν τοιούτων e4)모든 것들을 나누어 지
니네 하나는 말하여지는 것도 하나의 헤태론들도 저(하나)것에 있어
오는 어떤 것(ἐκεῖνῳ τι ἦν²⁸³⁸) 160e5)도 저(하나)것의 (어떤 것)도 말

깝게 요약(要約)한 후 다시 그 의역에 가깝게 정리(整理)하는 길로 지금의
나의 석사학위논문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따라서,

나를 못 미더워하는 자들은 직역을 보면 될 것이고 덜 미더워하는
자들은 요약을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앞의 분들은 나의 각주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사실 각주들이 논문의 근거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사
실 그들의 철학을 알려면 최대한 그들만의 언어로 접근한 후 다시 반드시
지금 우리만의 언어로 그 철학을 내 뺀 다음 내 뺀 것들을 수정(修整)
하여 뒤 바꾸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나 나는 이러한 순서를 밟지 못해
안타깝다 우리만의 언어도 내가 지금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차피 하나 하나 밟아가면서 서로 수정해주는 것이 아닌가

2838)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적인 강의록 형이상학 가운데서도 람다 편 다
음으로 주요(主要)한 강의 라고도 할 수 있을 제애타 편의 핵심적인 낱말인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τὸ τί ἢ εἶναι ἐκάσῳ, 1029b20-21, 305, 토
티 에센 에이나이 헤카스토오)이 이미 다 나와 버린 셈이다 텔레스는 플라
톤의 대화 편 도처에 깔린 이러한 말들을 주어 모아 자신에게 고유한 것 처
럼 보이는 낱말을 만들어 냈을 뿐이다 *에이나이*를 말하는 여기 맥락에서 3
격 과 있어 오는 과 것(무엇) 등이 나오지 않았는가 여기에 그는 관사 토

하여지는 [저 하나의] 어떤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일세 만약 어떤 것의 그것에도 ([있지]않고) 이러한 알론한 것들의 (그것도) 아니라면 말일세

옳소

만약 **있지 않다**면 한 편으로 (있지 않는) 그러한 것(οἷόν 160e8)은 **하나에 있지 않을**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있지않는 그러한 것]이 **여럿을** 나누어 지는 것을 막는 것도 (있지) 않네 그러나 그리고 필연적으로 만약 하나가 저것이며 그리고 알론하지 않는 것(μη ἄλλο 161a1)이 아니라면 [그렇네] 그렇지만 만약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로고스는 그것의(τοῦ²⁸³⁹)161a3)(로고스)라면 어떤 자도 (있지 않는 것을) 반드시 발설하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 **하나**가 저것이지 알론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놓고 나간다면 (ὑπόκειται 161a4) 그리고 저것 과 알론한 **여럿들의 그 (하나)**가 반드시 놓여질 (μετεῖναι 161a5)것이네²⁸⁴⁰)

그리고 따라서 **같지 않음도 알론한 것들에 대한**(πρός²⁸⁴¹)161a6)

(τὸ)를 붙혀 하나의 말을 만들었을 뿐이다 지금 맥락이 에이나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너무나도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지금 여기를 아니 파르메니데아스 과 소피스테아스 편의 ‘플라톤’을 오해한 데서 나오는 것이 라는 것은 금방 모두 알 것이다.

2839) 앞의 어떤 것을 지시(指示)하기 위해서 그 당시 헬라이어 사람들은 관사(冠詞) τὸ를 썼던 것 같다 여기에서 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여기 토(τὸ)는 앞의 무엇을 지시할까 하나 와 저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로고스가 하나도 여럿도 지시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의역(意譯)할 수도 있으리라

2840) 다시 말해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는 여럿을 나누어 지닌다 라는 말이다

그(하나)에 있다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한(ἑτεροία 161a7)헤태론2842)일 것이기 때문일세

예

그런데 헤태론[의 일 종]은 알론[의 일종]이(ἄλλοια a8)아닌가
어찌 않으리오

2841) **있지 않다**면 하나에 대해 있을 뿐 아니라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도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란 알론한 것에 대해 있다는 말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2842) 헤태론 과 알론을 구분해서 될 수 있는한 지금까지 써 왔던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곳이 보여준다 이 둘을 다르다 라는 우리말로 두리몽실 번역해 버리면 구분되는 이 말들을 통해서 ‘플라톤’이 나타내려고 했던 것을 혼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것은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한 것들** 이라는 로고스가 이러한 구분의 필연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구분하지 않으면 **있지 않음**은 알론의 헤태론이라는 정의(定義)가 필연적으로 내려질 수 없게 된다 후에 적절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형이상학에서 지적(指摘)한 것 처럼 정의에 쓰여지는 말들은 되풀이(προσθέσεως, 형이상학1031a2, 317)되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분하지 않는다면 **있지않음**은 알론의 알론 또는 헤태론의 헤태론이다 라는 말이 성립하고 이러한 말(로고스)이 정의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므로 그렇다 그런데,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한 헤태론 이라는 여기 파르메니데아스도 동일한 말이 되풀이하지 않은가 아니다! 내가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헤태론**한** 헤태론 이라고 번역하기 보다는 헤태론**한** 일 종(ἕτερον ὄντα ἑτεροία 161a7)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옮김인 것 같으므로 그렇다 그러나 알론한 것은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이라고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휴...헛갈려.....내가 괜히 텔레스를 끌여들였나 보다

그런데 알론은 같지 않는 것이 아닌가

같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에 같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같지 않는 것에 같지 않는 같지 않는 것(ἀνόμοια ἀνόμοια 161b2)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네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에 같지않음이 (있다)면 그(하나)에 **때한** 같지 않는 알론한 것들이 그(하나)에 있을 것이네

[있을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알론한 것들의 같지않음이 그(하나)에 있다면 따라서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같지않음이 그(하나)에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만약 **하나의** 같지 않음이 하나에(τῷ ἐνὶ 2843)161b6)있다면 어디에서든 그러한 것에 관한 로고스도 하나의 로고스와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에 관한) 전제도 하나에 관한 (전제가) 아니라 하나 보다는(ἢ b8)알론한 것에 관한 (전제)일 것이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니네

확실히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에 **같음**은 그(하나)의 스스로에 **있네**(ἐαυτῷ εἶναι 161c2)

반드시

그리고 다시 **똑 같은**도 알론한 것들에 있지 않네²⁸⁴⁴)만약 똑같

2843) 따라서 이제 까지의 그것에(αὐτῷ, 161b5 등 등)대신에 하나에를 집어 넣을 수 있다.

2844) 다시 똑 같음이 알론한 것들 안에 있지 않고 하나 안에 있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똑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맥락이다 내가 너무 고지식하

이 (알론한 것들 안에) 있다면²⁸⁴⁵)이미 같은이 똑 같음에 따라서 그(알론한) 것들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들은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불 가능하네

불 가능합니다

그런데 똑 같은이 알론한 것들에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필연적으로 알론한 것들도 저것에 똑 같지 있지 않지 않은가

필연적으로

그런데 똑 같지 않은 것들은(τὰ μὴ ἴσα 161c7-8) 非똑같지(ἀνισα c8)않은가²⁸⁴⁶)

예

그런데 非똑같은 것들은 비똑같음과 비똑같지 않은가

게 3격을 살리려다 보니 더 난삽하게 된 것 같지만 실은 더 정확할 수도 있다

2845) 있음 앞에 이렇게 자주 쓰이는 3격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더욱 자주 심지어 뒤에도 쓰게 된다는 것은 이미 720쪽 등 여러 곳에서 아주 자세히 말하여졌다 따라서 있음 앞에 3격이 온다는 것은 있음에 관한 텔레스의 독특한 쓰임새가 되지 못한다

2846) 이러한 논증을 **있는**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다는 논증과 비교해 볼만하다(1735, 1807) ‘동일을 겪었던한 알론을 겪지 않았으며 알론을 겪지 않았던한 같지않지 않았고 같지않지 않는한 같으므로 알론한 것과 헤태론한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을 겪으므로 알론한 것과 같지않다’ 라고 거기서 논증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있지 않는** *하나*에 관한 여기 논증은 역시 ‘알론한 것과 똑 같지 않다 똑 같음은 알론한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안에 있으며 똑 같지 않는 것들은 非똑같기 때문이다’ 이라고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논증들에서 아님(非)의 옮겨다님(1667)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어찌 않으리오
 그리고 비뚫같음을 *하나*는 나누어 지니는가 이(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들이 그(하나)와 비뚫같은 [그런 비뚫같음을] 말일세
 나누어 지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비뚫같음*은 *크고 작음*이네
 [크고 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
 감히[있습니다]
 크고 작음은 항상 서로에 **차이**날 걸세
 물론
 따라서 그(크고 작음) 사이에는 항상 어떤 것이 있네
 있지요
 이제 (자네는) 그것들 사이에[있다 라고] 말하여질 **똑 같음**을
 (ισότηα 161d7)지니는가 또는 알론한 어떤 것을 지니는가
 [알론한 어떤 것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똑 같음)것을
 지냅니다
 따라서 그렇게 크고 작음이 있는한 **똑 같음**은 그렇게 있는 것
 들 사이의 그(하나)에 있네
 선명해집니다
 똑 같음 과 큼 과 작음은 **있지 않는** *하나*에 놓여질(μετέιν 161e
 2) 것 처럼 보이네
 처럼 보입니다²⁸⁴⁷⁾
 그리고 그(*하나*)는 어떻게든(μη 161e3) **실체**를 반드시 나누어
 지녀야 하네²⁸⁴⁸⁾

2847) 지금 맥락의 있지 않는 하나는 자신과 크고 작고 똑 같지 알론한 것
 들과 크고 작고 똑 같지 않다 라는 말이다

어떻게

(우리가) 말한 것 처럼 그렇게 만드시 그(하나는) 지니네 만약 그렇게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 진실이(ἀλήθεια²⁸⁴⁹)161e5)아닐 것이며 만약 진실 이라면 (우리는) 있는 그것들²⁸⁵⁰)을 말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네 또 는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한다고 우리는 주장하므로 **있는** 것들을 말한 다고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주장할 것일세

필연적으로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가(τὸ ἐν οὐκ ὄν 162a2)**있는** 것 처럼 보 이네 만약 있지 않는(것)이 있지 ~~않~~다면 그러나 어떻게든 **있음**으로 부터(τοῦ εἶναι 162a2)**있지 않음**으로(πρὸς²⁸⁵¹)a3)지나가(ἀνίσσει a3) ²⁸⁵²(그(하나)것은) 곧 바로 **있는**(ὄν, a3, 것)것일 것이기 때문이네

2848) **있지 않는** 것(하나)도 **실체**를 만드시 나누어 지닌다는 말이다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의 일 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다

2849) 그렇게 있지 ~~않~~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진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 령다면 있지 ~~않~~는 것은 진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되는가 말해도 된다 소피스테에스의 엘레아 낫선이는 진실한 것을 있는 것이라고 쓰기 때 문이다(1378)진실이 아닌 말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진실이 아닌 말은 있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

2850) 하나가 그렇게 있다고 말하여지는 그것들(αὐτὰ 161e6)을 말하지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이 아니다 복수형이라고 알론한 것들이라고 말해선 ~~않~~되고 그러기에 오히려 복수형을 살릴려면 하나들 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 하 나는 여럿이기 때문이다.

2851) 지금까지는 주로 ‘ 대해 ’ 라고 옮겨 왔으나 그 본디 뜻은 ‘ 에로(for, to) ’이다 사실 영어를 통해 헬라어를 받아 들이는 것은 고통이다 헬라어는 영어 보다는 구문론적으로 우리 글-세종이 우리의 소리를 문자화한 한글이 아니라 신라 발해 남북극(南北極)시대 이전의 고구려 백제의 글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영어를 배기지 말고 순수 우리 글에 맞추어서 헬라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을까 지금의 나도 역부족이니 슬플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 에 대해 ’라고 약착같이 옮긴 것은 관계(關係)라는 한자어를 쓰지 않기위해서 이다 물론 대(對) 역시 한자어이긴해도 둘 보다는 하나를 쓰는 것이 더불어 세종 이후의 우리 글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서두르지 말고 한자어를 죽여가면서 영어도 더불어 죽여가면 언젠가 순 우리말도 한 계레 모든 사람들이 통일된 말과글로 아주 심오(深奧)한 학문을 아주 쉽게 몇 백배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한문과영어를 배척(排斥)하자는게 아니라 한문과영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미개한 언어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지 말자는 것이다 껌하나의 공상(空想)인가?

2852) 따라서 여기 파르메니데에스에 따르면 있음 과 있지않음 사이에 있는 것 과 있지않는 것이 끼어 있을(ἔσται 162a3)것 이라는 것이 선명해진다 다시 말해 있음 있는 것 있지않는 것(없는 것) 있지않음(없음) 등 네 가지가 서로에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네 구분 가운데서 앞 두 구분은 1831쪽의 도표에서 더 선명해지는 것 처럼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와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의 구분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의 맥락은 있지 않는 것 곧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의 하나 곧 있지 않는 하나에 관한 논증이라고 볼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따라서 만약 (그(하나)것이) **있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하나)것은 **있음**(τὸ εἶναι 162a4)**있지 않음**과(τὸ μὴ εἶναι a4)[묵는] **있지 않는 것** [으로서의] **끈**(δέσμων²⁸⁵³)a4)을 지녀야 하며 마찬가지로(ὁμοίως 162a5)**있는 것**(τὸ ὄν a5)처럼 끝까지 주옥(αἶ a6)있기 위해서는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음**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끝까지 **있으려면 있는 것은 한 편으로 있는 있음의 실체**를(οὐσίας τοῦ εἶναι ὄν

있음(에이나이) 과 있는 것(은) 과 있지않는 것(메에 은) 과 있지않음(메에 에이나이)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 같다(1743각주1656번) 그러나 그러한 구분을 말 또는 글로 나타낼 수 없을 것 같다 거듭 되풀이 된 것 처럼 있지 않음 뿐 아니라 있음에 관해서는 입도 병긋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아마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아가서,

지금의 파르메니데에스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고 파르메니데에스 편 뿐 아니라 소피스테에스 편에 의해서도 이러한 구분은 확인되는 것 같다 있음 과 실체(존재)가 조심스레 거기 소피스테에스 편(1542, 1573, 1691, 1739)에 의해서도 구분되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피스테에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음 과 있지 않는 것 으로서의 있지 않음만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있는 것 과 있음 또는 있지않음 과 있지않는 것의 이러한 겹침은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 있음 만큼이나 있는 것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853) 끈 이라는 말은 1486(파르메니데에스253a5)과1561에서 이미 나타났던 말이다 음소(音素)들을 묶어주는 모음처럼 **있는 것은 모든 류를 두루 묶어주는 끈이다** 라는 맥락에서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끈은 있음 과 있지않음을 묶어주는 **있지 않는 것(하나)**이다 따라서 여기의 끈 과 거기의 끈은 묶어주는 것이 각기 알론하다 하나는 있음 과 있지않음을 묶어주지만 다른 하나는 구분되는 모든 류들을 묶어주기 때문이다

162a8) 나누어 지니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는 있음**<않음>²⁸⁵⁴)의 **실체 아님**(μη οὐσίας τοῦ <μη>εἶναι μη ὄν 162a8-b1) (나누어 지니는 반면) **있지 않는 것이** 만약 끝까지 주옥 있으려면 한 편으로 **있지 < 않는> 있지 없음**의 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니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는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식으로]) **있는 것은** 대부분(τὸ ὄν μάλιστα' 162a7)있을 것이며 **있지 않는 것은** (대부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가장 진실합니다

그렇다면 **있지 없음의 있는 것에** 그리고 **있음의 있지 않는 것에** 놓여지므로(μέτεστι 162b4) 그리고 **있지 없음**이라면 **있음의 하나**에 필연적으로 놓여져야 할 것이네 있지 않기 때문일세

필연적으로

그리고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에 **실체**가 선명해지네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있지 않다면 (하나에) 실체 아님(μη οὐσία 162b7)(도 선명해질 것일세)

어찌 않으리오²⁸⁵⁵)

2854) 꺾쇠 < >는 버닛 판에 삽입된 그대로이다 그리고 괄호 ()에 나는 생략된원문을 집어넣었으며 대 괄호 []에 나는 어떤 로고스를 이해 하기위해 내 임의로 어떤 레애마(旬)집어넣어주었다

2855) 있지 않는 하나는 있지 않으려면 실체를 나누어 지니면서 실체아님(μη εἶναι, 非실체)도 나누어 지녀야 한다 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실체와 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녀야 어떤 것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주옥 있으려면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으면서 있음의 실체아님도 나누어 지니는 것 처럼 주옥 있지 않으려면 있지 없음의 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니고 **있으면서** 있지 않고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식으

그런데 **지나는 것은**(τὸ ἔχον 2856)162b9) **지닌 것의**(ἐκ ταύτης τῆς

로 있는 것은 있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으므로 있음 과 있지 않음을 있고 있는 있지 않는 것은 있음 뿐 아니라 있지 않음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2856) 156e8(1875, 1885)에 나오는 **ἔχει**(지니다)의 分詞形이므로 거기를 보아야 여기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있음에서 **사라짐**으로 그리고 **있지 않음**에서 **됨**으로의 **변함**은 움직임과 쉼의 사이에서 **일어난다**(지니다) 라고 거기에 쓰여지는 반면 여기 앞 맥락은 있거나 있지 않으려면 실체 와 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녀야** (μετέχοντα 162a7)한다는 맥락이므로 언 듯 라고 지니다 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도 선명하다 **변할 때 지니기** 때문이며 1885에 요약 정리된 것 처럼 지남은 있음과도 됨과도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제 변하는 것은 시간 안의 것은 아니나 저 때에 변하므로서 시간과 순식간에 부딪친다 그리고 부딪치므로서 비로서 시간 안에서 되고 그리고 있다 그래서 선후(先後)의 그런 과정(過程)은 아니지만 변해야 비로서 되고 그리고 있다 바로 이러한 **됨** 과 **있음**과 구분되는 **지남**이 **있지 않는** 하나에 연관지워져서 다시 말하여진다 그런데,

실체 와 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닌다 라고 쓴 후 먼저 파르메니데에 스는 **나누다**(μετεῖναι 162b5)에 관련하여-나누다를 놓이다로 옮겼다-있지 않음의 있는 것에 그리고 있음의 있지않는 것에 놓이다 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나서 지니다에 관련하여 말하기 시작한다 하나에 실체 와 실체아님이 **놓여져야** 그 실체 와 실체아님을 **지닐** 것이기 때문이리라 또는 하나는 실체와 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닐** 것이기 때문이리라 바로,

이러한 나누어 지남의 그 **지남**에 있음으로부터 사라짐으로의 변화

ἔξω 162b10) **변화** 없이는 그렇게 어떻게 지나겠는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것은 그렇게 (지니고) 그리고 그렇게 지나
 지 않을(μὴ 162c1) **변화**를 가리키네
 어찌 아니리오
변화는 **움직임**(κίνησις²⁸⁵⁷)c2)일세 또는 무엇이라고 (우리) 말
 할까
 움직임
 그런데 **있는**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가 보여졌는가
 예
 따라서 그렇게 (지닌) 그리고 그렇게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선
 명해지네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있음**으로부터 **있지않음**으로의 **변화**를 **지니므로**
있지 않는 하나는 **움직여진**다는 것이 보여졌네
 감히

와 있지않음으로부터 **변화**를 이어 보라 어떠한 로고스들이 반드시 보충되
 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2857) 파르메니데아스는 **자리움김** 과 **달리됨**을 움직임으로 보았다는 것에
 유념(留意)하라(1611)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파르메니데아스는 **변화**란 **움직임**
 이다 라는 로고스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얻어 낸다 그러나,

이미 각주 2856(1949쪽)번에서 지적(指摘)됐듯이 파르메니데아스는
 변화란 움직임 과 쉼의 사이에서 저 때 순식간에 일어난다 라고 말한(1875)
 그렇다면 여기 와 거기 로고스는 틀리지 아니한가 거기에서는 움직임도 쉼
 도 아니라고 했다가 여기에서는 움직임이라고 말하니 말이다 그러니 그의
 말을 좀 더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것 처럼 만약 결코 **있는** 것들의 [어떤 것이] 아니라면 언제 어디서도 옮겨졌지(μεθίσταιτό, 162c8, 이동, 移動)않았을 것이네

어찌

따라서

자리 옮김에 의해서는(τῷ μεταβαίνειν 162d1) 움직여지지 않을 것 일세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것(자리) ((안))에서는 어떤 것도 회전하지(στρέφονται d2) 못할걸세 동일한 것과는 결코 접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²⁸⁵⁸)**있**는 동일한 것이 있으므로 [그렇네] 그런데 **있지 않는** 하나는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는(τῷ 162d3) 있을 수 없네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안에 있지 않는 저것 안에서는 회전 할 수 없네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든 **있든 있지않든** *하나*는 스스로와 달라지지²⁸⁵⁹)^{162d6})않네 그(하나)것이 스스로와 달라진다면 더 이상 하나에 관해서가 아니라 알론한 어떤 것에 관한 로고스로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2858) 이와 비슷한 논증이 하나 자체는 자신 **안에** 있지 않다는 논증에서도 나타난다(1611) 동일한 것이 둘러쌓이면서 둘러쌓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안에 하나는 있지 않다 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 논증은 하나 자체는 자신과 **접촉**할 수 없다는 바로 앞 논증과 연이어 나타난다

2859)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으로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해 달리 된다는 것은 자리가 변했다는 것이라고 하는 1614쪽의 파르메니데아스를 참조하라

움소

그런데 만약 달라지지도 동일한 것 안에서 회전하지도 옮겨지지도 않는다면 따라서 어떻게든 움직여질 것인가

어찌

움직임이 없는 것은 (τὸ ἀκίνητον 162e1) 필연적으로 *멈출*(ἡσυχία 162e2) 것이네 그런데 멈춘 것은 *쉬네*(εἰσάναι e2)

필연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쉬었으며 움직여지네²⁸⁶⁰)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움직여졌다면 달라진 그것 보다 클(μεγάλη 2861) 162e4) 것이네 어떤 것이 움직여지는한 그 만큼 [움직여지기 이전에] 지닌 것과 같이(ὡσαύτως 163a1) 더 이상 지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그렇게

감히 하나도 달라진다네

예

2860) **있는** 것은 *쉬었지*(ἔστηκεν, 소피스테에스250c6, 1473)도 *움직여지지도* 않는다는 엘레아 낯선이의 말과 기막히게 들어 맞는다 그 동사의 변화형과도 말이다 여기에서는 **있지 않는** 것은 *쉬었으며 움직여진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기 와 여기를 합쳐 있는 것은 쉬어왔지도 움직여지지도 않지만 **있지 않는** 것은 쉬어왔으며 움직여진다 라고 그리고 나아가서 **있지 않는** 것이 *쉬었을 때 쉬지 않았던* 것은 **있는** 것인 반면 **있지 않는** 것이 *움직여질 때 움직여지지 않았던* 것은 **있는** 것이다 라고도 쓸 수 있으리라

2861) 콘퍼드(953)는 *같지않다*(unlike)로 조웬(56)은 *다르다*(other)로 번역한다 물론 이들의 옮김도 그런데로 이해가 간다 그러나 나는 될 수 있으면 원문의 낱말을 쓰려고 발악하다보니 *크다* 라고 해 버렸다

그리고 결코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결코(οὐδαμῆ 163e4) 달라지지 않는다네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가 움직여지는한 달라지며 움직여지지 않는한 달라지지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달라지며 달라지지 않네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먼저 것과 **해태**하게 되어지며 먼저 지녔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ἀπόλλυσθαι²⁸⁶²)163a8)반면에 달라지지 않는 것은 되어지지도 벗어나지도 않을 것 아닌가

필연적으로

그리고 따라서 달라지는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며 벗어나고²⁸⁶³)다른 한 편으로 달라지지 않는 있지않는 하나는 되어지지도 벗어나지도 않네 있지 않는 하나는 이렇게 되어지며 벗어나지고 되어지

2862) 벗어나다 라는 이 말은 이미 156a2(1867)에서 파르메니데에스에 의해서 쓰였다는 것을 기억(記憶)에 떠 올리면 이해가 한 층 더 쉬어질 것이다 그리고 1845쪽각주2753번을 다시 보라 그러면 파르메니데에스가 낱 말의 폭을 얼마나 매끈하게 차근 차근 더 넓혀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만을 떼어내어 전체와의 아무런 연관없이 말했다가는 크게 ‘플라톤’을 오해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저 때** 있음을 나누어 취하며 있음을 벗어나다 라고 쓰여진다 그래서,

지녔던 것-거기에서는 있음-을 벗어나거나 또는 달리 되는 것은 시간 안의 것은 아니지만 저 때를 통해 시간에 맞닿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라고 거기 와 여기를 합쳐 쓸 수 있으리라

2863) 여기서는 소멸하다 또는 사라지다 라고 옮겨도 권찬을 것 같다

지도 벗어나지도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명해진이것들이 이러한지(ἀπέρ 163b8)그리고 또는
헤태론한지를 한 번 더 다시 처음으로 되 돌아가 살펴 보기로 하
세(2864)

그러나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그(하나)에 관해 무엇이
있 따라야만 하는가를 (우리는)말하는가

예

그런데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마다 따라서 (우리
가) 그것에 **있지 않음**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에 **실체의 떨어지나**

2864) 이러한 맥락의 φαίνεται(163b8, 선명해지다)는 비록 그 변화 형이긴해
도 159b2(1902)에서도 나타나며 처음(τὴν ἀρχὴν 163b7)라는 말은 142b1에서
도 나타난다(마지막으로는 165e2 : 1965) 거기 맥락들을 잘 갈라내면 파르
메니데에스 편 전체가 한 눈에 들어 올 것이다 위 두 곳 과 여기 이 곳 모
두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경우 잇따를 무엇을 주옥 논증한 후 실체를 나누
어 지니지 않는 경우 잇 따를 무엇을 다시 처음부터 살펴 보기 시작하는 곳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에스 편의 파르메니데에스는 하나 보다는 **있음** 그리고 있
음 보다는 **실체**에 관한 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보
여진 것 처럼 이러한 실체는 텔레스의 실체와는 아주 헤태론한 것이라는 것
을 알게 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서는 그렇다 텔레스의 실체는 각기
것에 있어 오는 그 무엇 곧 에이도스(생물의 종(種))인 반면 플라톤의 실체
는 비록 그것이 하나의 구분되는 에이도스(종, 種)이긴 해도 예를들어 사람
같은 생물의 종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값(αἰσίαν ἀπουσίαν 163c3)과 알론한 무엇을 가리킬까

알론한 (무엇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있지 않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πώς 163c4) 그것이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있다 라고 말하는가 또는 **있지 않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떤 것도(οὐδαμῶς οὐδαμῆ c6) 있지 않으며 어떻게든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순수하게 가리키는가

가장 순수하게

따라서 **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알론하게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는다네

않기 때문입니다

되어지는 것 과 **사라지는** 것은(τὸ ἀπόλλυσθαι 163d1-2)한 편으로 실체를 나누어 취하는 것 과 다른 한 편으로 **실체**를 **벗어나는** 것(ἀπολλύναι²⁸⁶⁵)d3)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이(**실체**)에 **놓여지지**(τούτου μέτεστιν d4)않는한 어떤 것도 그(실체)를 **취하지도 벗어나지도** 못하네

어찌

따라서 결코 **있지 않으므로** 하나에는 결코 **실체**가 놓여지지(ἐκ

2865) 같은 말을 한 번은 사라지다로 한 번은 벗어나다로 옮겨 보았다 그러나 여기의 이런 쓰임새는 156a4-6(1868)의 쓰임새 보다는 덜 정확한 것 같다 거기에서는 벗어나지다에는 ἀπαλλάττεσθαι가 사라지다에는 ἀπόλλυσθαι가 라는 말이 각각 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의 쓰임새 와 거기의 쓰임새를 각기 고유한 쓰임새로 보아야 할 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비록 저 때 순식간을 통해 시간에 닿긴해도 시간 안의 것이 아닌 거기 맥락 과 시간 안의 것인 여기 맥락은 엄연히 다른 맥락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있음 뿐만 아니라 됨도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고하는 1628-1629도 참조하라

τέον 163d5)도 벗어나지지도 나누어 취하여지지도 않네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사라지지도 되어지지도 않네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그렇네]

않는[다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결코 달라지질 않네 이미 되어졌고 사라졌다면 이(달라짐)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네

진실

그런데 만약 달라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지 않은가²⁸⁶⁶⁾

필연

결코 있지 않는 것은(μηδαμοῦ²⁸⁶⁷⁾163e4) 쉬지도 않는다 라고 (우리는) 말할 것이네 쉬는 것은 동일한 어떤 것 안에 반드시 항상 있기 때문일세

동일한 어떤 것 안에 어찌 (있지) 않으리오²⁸⁶⁸⁾

2866)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있지 않는 하나의 경우에는 움직여진다면 필연적으로 달라진다는 식으로 논증(1952)되나 여기는 그 거꾸로라는 것에 유념(留念)할 필요가 있겠다

2867) 이 표현은 소피스테이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에 의해서도 237b7-8(1361)쓰였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도 좋다 결코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입도 병긋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시작하는 맥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560 쪽 각주 2453번을 참조하라 거기에서 나는 결코(μηδαμοῦ)를 강조(強調)의 뜻으로 받아 들인다는 것을 이미 말해 두었다,

2868) 쉬는 것은 항상 동일한 것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은 티마이오스 편의 티마이오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비록 동일한 것 이라는 말 대신에 같은 것(ὁμαλότητι, 티마이오스57e7, 1182)이라는 말이 쓰였건해도 말이다 나아가

이렇게 다시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은 어느 때든 *쉬지도 움직
여지지도* 않는다고 말하네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하나)것에는 **있는** 것들 중 어떤 것²⁸⁶⁹도 있지 않네
이미 이(어떤) 것들(τούτο 163e7) 나누어 지나<고 있는>것은 실체를
나누어 지나기 때문일세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하나)에는 큼도 작음도 똑같음도 있지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든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든 **같음도 해태론함도**
그(하나)에는 (있지 않네)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만약 그(하나)것에 어떤 것도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
들이 그것에 그렇게 있을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그(하나)에 **같지도 같지않지도 동일하지**
도 **해태론하지도**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저것의 또는 저것에 또는 어
떤 것 또는 이것(τούτο 164a8) 또는 이것의 또는 알론한 것의 또는 알
론한 것에 또는 어느 때 또는 (어느 때) 이 후 또는 지금 또는 앞 또
는 억견 또는 감각 또는 로고스 또는 이름 또는 무엇이든 있는 알론
한 것들이 있는가

서 여기 파르메니데이스 편의 파르메니데이스에 의해서는 직접 동일한 것
이라는 말이 여러 번 이러한 맥락에서 쓰여진다(146a3 : 1689) .

2869) 어떤 것(τὸ τι, 소피스테이스237d1, 1361)은 항상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엘레아 낫선이의 말을 참조하라

있지 않습니다²⁸⁷⁰⁾

있지 않는 하나는 이렇게 결코 어떻게도 지나지 않네

그렇다면 결코 지나지 않는(ἐχειν 164b4)것 처럼 보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이 무엇을

겪어야(πεποιθέναι²⁸⁷¹⁾164b5-6)하는지를 말해보세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든 반드시 그것들은 *있*네 만약 *알론한* 것들이 있지 않

다면 *알론한* 것들에 관해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일세

그렇게

만약 *알론한* 것들에 관한 로고스가 (있다)면 *알론한* 것들은 *해*

태론한 것들일세 또는 (자네는) *알론한* 것 과 *해태론한* 것을 *동일한*

것에 걸리는(ἐπὶ τῷ αὐτῷ²⁸⁷²⁾164b9)것이라고 부르는가(καλεῖς b9)

제가(부릅니다)

2870) 그 하나에 관한 이름도 로고스도 감각도 역견도 앎도 있지 않으며
그 하나는 *지금* 있는 것도 아니요 *어느 때* 있는 것도 아니요 *어느 때 이후*
있는 것도 아니며 그 하나에 관한 이것 또는 저것 또는 *알론한* 것도 있지
않으며 그 하나에 관한 저것에 또는 이것에 또는 *알론한* 것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느 때도 지금도 어느 때 이후도 있지않으니 이 하나는 시간을 나누
어 지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시간 안의 것이 아니다

2871) 겪는다는 말은 하나 보다는 *알론한* 것들과 묶어져서만 쓰여지는 것
같다

2872) 소피스테이스 편이 엘레아 낫선이는 여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ἐπι(255
c9, 1522)라는 전치사를 쓴다 *해태론한* 것 과 *있는* 것은 하나의 류에 *걸리*
는 두 이름으로 간주되어져서는 않된다고 말하면서 말이다(1396, 1478)그런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어디에서든 헤태론과 헤태론하다(είναι 1
64c1)고(2873)알론한 것들은 알론한 것과 알론한다 라고 (우리는) 이야
기하는가(φαμεν c1)

예

그리고 따라서 알론한 것들에는 만약 알론한 것들이 있으려면
그것의(οὗ c3)알론한 것이 있을 그 어떤 것이 다시 있네

필연

데 알론 과 헤태론에 걸리는 여기의 동일한 것을 거기 처럼 하나의 류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헤태론이 쓰이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알론이 쓰여질 수
있고 알론이 쓰이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헤태론이 쓰여질 수 있을까 지금의
나로서는 이 둘을 하나의 류에 걸리는 두 이름이라고 부를 수는 있으나 동
일한 에이도스(중, 種)라고는 부를 수 없다 있는 류의 종들인 수(ἀριθμὸν 137
2) 와 있지 않는 것(1543) 처럼 말이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호모한 이름들(809)이라고
부르지 아니했을까 그러나 여기서 텔레스를 끌어 들이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다 어떤 연관은 있을 것 같긴해도 말이다 그런데 조웬(58)은 쉬노한 이름
이라고 옮긴다 아마도 조웬의 의역(意譯)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을까 텔레
스는 사람 과 황소를 쉬노한 이름들의 보기로 들었으나 여기에서는 알론 과
헤태론이 문제 삼아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동일한 것에 걸리는(ἐπι)두 이름이므로 더욱 더 구분해 써야할 것같
다 소피스테이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를 보라 그는 거기에서 필요한 몇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알론 대신 헤태론을 쓰지 않는가.

2873) 이 로고스는 소피스테이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에 의해서도 그대로
확인된다(1522)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있지는 않을 것
이네 있지 않는 하나이기 때문일세²⁸⁷⁴)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의(ἀλλήων 164c7) (알론한 것으로) 있네 이것이 그
것들에 남을 뿐(ἔτι c6)이네 그렇지 않으면(ἢ c6)알론한 것들에 아무
것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웁소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은 각각 많게(κατὰ πλῆθος 164c7)있네
하나가 아니(라면)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그러나 [자기
들 중] 가장 적은 것이²⁸⁷⁵) [한] 움큼(λάβη 164d1)있는 것 처럼 보이는
각각은 그것들의 덩어리(ἄγιος d1)로 무한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
잠자면서 [꾸는] 꿈에서 처럼보이는것 하나에 맞서(ἀντὶ ἑνος δόξαντο
ς²⁸⁷⁶)d3)순식간에(ἐξάιφνης²⁸⁷⁷)164d3)여럿이 있으며 그리고 가장 적은
것에 맞서 그(가장 적은)것으로부터 잘려진 작은 것들이 (순식간에)

2874) 있지 않는 하나라면 하나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의 알론한
것들인 바로 그 어떤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다

2875)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무한히 많다는 것을 논증하는 가운
데 쓰여진 가장 적은 것(τὸ μικρότατον, 164d1-2, 1960) 이라는 여기 낱 말
은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무한히 많다는 것을 논증하는 가운데 쓰여
지는 가장 작은 것(ολίγιστον, 158c3, 1899)이라는 저기 낱 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듯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른 말들이 쓰였을까 나아가서 가장 작은
것 이라는 말은 있는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높고 젊다는 논증(153a7,
1816)에서 그대로 나온다 어쨌든,

이 세 곳 모두 있든 있지않든 알론한 것에 관한 맥락에서 나온다는
것 만은 선명하다.

2876) 소피스테이스 편의 엘레아 낱선이가 236e1(1358)에서 τὸ δοκεῖν(처럼

엄청나게(παμμέγεθες 164d4)커져 (있을) 것 처럼 말일세

보이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여기의 δόξαντος(처럼보이는것, 89쪽각주 84)이므로 파르메니데아스 편 소피스테아스 편이 얼마나 딱 붙어야 할 것인지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할 일 없이 말싸움만 하는 자들을 제외하면 말이다

소피스테아스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기 소피스테아스 편*에서는 있지 않는 것에 들러붙는 자들이라고 소피스테아스이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이 써지는 반면 하나 와 있는 것을 전제하면 무엇이 잇 따르는가를 말하는 *여기 파르메니데아스 편*에서는 있는 것에서 있지 않는 것으로 바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또 있지 않는 것에서 됨으로 변하며 됨이 지금 시간에 걸릴 때 비로소 있거나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이 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 지금의 내가 이 각주를 다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든 여기에서든 **있지 않는** 것은 **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각주에서 이 끌어 내려 하기 때문이다 비록 여기에서는 있지 않는 것이 하나 와 알론한 것으로 구분되어 쓰여지기는 해도 말이다.

2877) 있다면 하나에서 알론한 것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의 맥락에서 나타난 순식간(156d3, 1873)을 다시 기억해 보라 어떤 하나의 말을 조금씩 조금씩 맥락을 달리하며 써가면서 그 말을 보충해 가는 파르메니데아스에 감탄할 것이다 그런데,

있지 않음에서 됨으로 그리고 있음에서 사라짐으로 **변하는** **저** 때가 바로 그 **순식간**인데 순식간이 저 때를 통해 거기에 부딪히는 시간을 나누어 지낼 때 비로서 **있는** 하나는 되어왔고 그리고 있어 오며 또 되고 그리고 있고 또 될 것이며 그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거기 맥락인 반면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들 각각은 꿈이 잠자는 도중에 **순식간**에 나타나

가장 옳습니다

알론한 것들은 이러한 덩어리들 서로의 알론한 것들일세 만약
하나는 만약 **있지 않고** 알론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네]

정확하십니다

그렇다면 각각으로 나타나는 여러 덩어리들이 있을 것일세 그
런데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각각들)의 (하나 덩어리는 있지) 않을
까

그렇게(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수도 역전화되어(δόξει 164e1)**있네**²⁸⁷⁸⁾만약 그
리고 각각이 하나이며 있는 여럿의 (각각)이라면 말일세

물론

그리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어떤 것들은 짝들인 반면 어떤 것들
은 홀들인 것들로 진짜 아니게 (οὐκ ἀληθῶς 164e2-3) 나타난다네 하나
가 만약 있지 않다면 말일세²⁸⁷⁹⁾

듯(ὡσπερ 164d2)그렇게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들 각각은 서로에 무한
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여기 맥락이므로 파르메니데아스가 말하는 순식간
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두 곳을 묶어야만 할 것이다 그
러나 묶는 것은 나중에 해 보자 더 급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2878) 그러나 하나가 만약 있다면 필연적으로 수도 있다(144a4, 1682)라고
하는 데서는 역전화된다(δόξει, 처럼보인다)라는 말이 쓰이지 않는 데에 유의
할 만하다 처럼 보이는 것은 있지 않는 것들의 맥락에서 쓰이는 말이기 때
문이다,

2879) 있는 하나가 지니는 수의 생성을 참조하라(1709) 아마 거기에서 생성
되는 홀 짝은 진짜일 것들이지만 여기 홀 짝은 진짜 아닌 것들이다 거기 홀
짝은 있는 하나의 홀 짝인 반면 여기의 홀 짝은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들의 홀 짝이기 때문이다 진짜는 있는 것들 중의 하나인 반면 진짜 아닌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ἐν αὐτοῖς εἶναι 164e4) 가장 적은 것이 역전화 된다(δόξει²⁸⁸⁰e4)고 (우리는) 말하네 그런데 이것은 있는 적은 것들 로서의 여럿들 각각에 대한 여럿들 과 크기들로 나타나게 된다(φαίνεται 164e5)

어찌 않으리오

그리고 적은 여럿들에 똑 같은 각기 덩어리가 역전화 되어져 있다(δοξασθήμονται εἶναι 165a2-3)네 더 큰 것으로부터 더 적은 것으로 나아가면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똑 같음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그 사이에서 역전화되기 이 전에는 말일세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계를 지니는 알론한 덩어리(에 대해서든 자신(덩어리)에 대해서든 그것은 시작도 한계(πέρας²⁸⁸¹)165a6)도 중간도 지니지 않는가

어떻게

그것들은 항상 [그러하다는] 것.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노이아(에)의해서²⁸⁸²그렇게 [덩어리로]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한 움큼 [집어들] 때 마다 시작 앞의 알론한 것은 항상 시작으로 나타나며

것은(τὸ μὴ ἀληθινόν, 소피스테아스249b5, 1379)진짜의 반대라는 것은 이미 1378-1379쪽에서 확인 됐다

2880) 89쪽 각주 84번을 참조하라

2881) 콘퍼드(955) 와 죠웬(59)은 끝(end)이라고 번역한다 한계이니 끝일 수도 있으리라 적절한 의역(意譯)이다

2882) 자신의 생각 안에서(ἐν τῇ διανοίᾳ 165a8)라는 말이다 1677쪽 각주 2579번 과 1899쪽 각주 2801번을 보면 앞에 ‘안에’ 라는 전치사를 덧 붙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물론 안 붙히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말이다

끝(τελευτήν 165b1) 뒤의 헤태론한 것은 (항상) 끝으로 남게되고 중간 ((안)에)의 알론한 것들은 중간 보다 더 중간으로 그런데 더 적은 것들로 (나타날 것인데) 이것들 각각 하나가 취하여질 수 없기 때문일세(δία 165b3)하나가 있지 않는한(ἄτε b4)[그렇네]

가장 진실

어떤 자가 디아노이아(생각)에 의해서 한 옹크 [취]할 있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더 잘게 [항상] 부서질 것으로 보이네 덩어리가 어디에서든 항상 하나 없이 취하여질 것이기 때문일세

물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해 나가면 한 편으로 더 먼 것을 보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더 무디게(ἀμβλῖ 165c1) 하나 [덩어리] 각각은 나타날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 더 가까이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 예리하게 무한한 여럿으로 하나 [덩어리] 각각은 나타날 것이네 만약 있지 않는 하나를 빼앗기게 된다면 [말일세]

가장 필연적입니다

이렇게 알론한 것들 각각은 한꺼없음 과 한계를 지니는 하나와 여럿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걸세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그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그렇다는 말일세]²⁸⁸³⁾

반드시

2883)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들 각각은 분별되지 않는 어떠한 덩어리(ὄγκος 165b6)들로 다루진다는 점에 유념하라 하나이든 여럿이든 말이다 그러나 여기 하나의 알론한 것들을 서로의(ἀλλήλων, 164c5, 1962) 알론한 것들 이라고 읽을 수는 없을까 지금의 맥락은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들에 알론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 있는**가를 논증하는 맥락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가까운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는 알론한 것 각각은 하나의 알론한 것인 반면 그렇지 않는 모든 알론한 것은 서로의 알론한 것이다 라고

그렇다면 (알론한 것들 각각은) 같으며 같지않은 것으로 역견
화되 있는가(δόξει εἶναι; 165c6)

어떻게

예를들어 [화폭(畫幅)에] 그려진 것들은 떨어진 자에게 모두 하
나로 나타나는 것들이(므로) 동일한 것을 겪어서 같은 것으로 나타나
있네²⁸⁸⁴⁾

물론입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자에게는 여럿 과 헤테론들(로 알론한 것들
각각은 나타나므로) 헤테론과 헤테론한 환상들(φαντάσματα²⁸⁸⁵⁾165d2)에

여겨든지 또는 서로의 알론한 것 과 하나의 알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걸리
는 단지 두 이름으로만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여기고 싶지
않다 하나의 알론한 것은 반드시 하나를 나누어 지녀야 하나 지금의 여기
하나는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견으로 나타나든 있든 상관없다 그렇
다면 여기의 하나의 알론한 것이라고 읽지 말고 하나 보다는 알론한 것이라
고 읽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읽으면 하나의 알론한 것이라고 이제
까지 내가 읽어온 것으로부터 나는 벗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벗어나야만 165e3(1965)의 하나의 알론한 것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이 아니라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이라는 점에 유념(留念)하라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
은 반드시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만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을 결코 하
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앞의 하나와는 달리 뒤의 하나에는 있지
않음이 전제되어 되기 때문이다

2884) 동일을 겪어야 같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확인 되었다(1620, 1732)

2885) 나타난 환상 역시 있지 않는 것 이라는 것은 1598, 1358, 97 등 등에
서 여러 번 확인 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들에 같지 않는 것들(로 나타나 있을 걸세)

그렇게

그리고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그 덩어리들의 같음 과
같지않음이 필연적으로 나타나질 걸세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 그리고 서로 해태론한 것들은 스스로들과 접
촉하며 분리된 것으로 그리고 모든 움직임으로²⁸⁸⁶⁾ 움직여지며 모든
곳에서(πάντη 165d7)쉬는 것으로 그리고 되어지며 사라지고 이 양자도
아닌 것으로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쉽게 나열 되어진 그러한 모든 것
들로 어디에서든(나타나 있을 걸세) 하나가 만약 있지 않고 여럿이
있다면 [말일세]

가장 진실하십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ἄραξ 165e2) 다시 처음으로 되
돌아가²⁸⁸⁷⁾ (우리)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
무엇이 잇따라야 있어야만 하는지를 물어 보기로 하세나

물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가 아닐세

어찌?

여럿도 아닐세 여럿 안에 하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일세 만약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가 아니라면 각기 모든 것은(ἅπαντα
²⁸⁸⁸⁾165e6)도 아닐 것이어서 여럿도 아닐 것이므로 [그렇네]

2886) 파르메니데에스에 따르면 모든 움직임은 자리옮김이든지 달리됨이다
(1611)

2887)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1954쪽 각주 2864번으로 되돌아가보자

2888) 각기 모든 것이 쓰이는 맥락은 아주 나를 골치 아프게 한다(1688,

진실로

알론한 것들 ((안))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여럿도 아니네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내지(φαίνεται 166a1)않네

무슨?

있지 않는 것들의 알론한 것들은 결코 어떤 것에 교통하는(κοινωνίαν 166a1)어떤 것을 결코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²⁸⁸⁹.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있지 않는 것들의 어떤 것도 그것에(τώ a3)있지 않네 있지 않는 것들에는 어떤 부분도 있지 않기 때문일세

진실

따라서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παρά²⁸⁹⁰)166a5) **있지 않는 것**의

1711, 1724, 1722)

2889) 부정어(否定語)가 연이어 4 개나 있다 οὐδενὶ οὐδαμῆ οὐδαμῶς οὐδεμίαν (166a1) 라고 말이다 그런데 요 넷을 잘 살펴 보면 뒤에서 두 번째 것을 제외한 각기 모든 **부정어**에 하나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실은 뒤에서 두 번째 것도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보아야한다 앞 뒤 것으로부터 파생된 부사(副詞)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도 아니다 라고 그 넷을 옮길 수 있으리라 그러나 나는 어떤 것으로 옮겼다 이렇게 옮기고 보니 바로 그 밑 줄 166a3에 나오는 어떤 것(τι)과 구별되지 않게 되 버렸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각주를 단다 별로 필요하지도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각주를 말이다.

2890) 나란하다는 말은 하나와 분리된 것이라는 말이다 159b7(1903)에 나오는 나란한 이라는 말을 본 후 그 앞 뒤를 보면 나란함을 분리됨을 가리킨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거기 맥락 과 여기 맥락도 비슷하다 거기는

역견도 환상들도 있지 않으며 [이러한] 알론한 것들에 걸리는(ἐπι 2891)

a6)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역견화되지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의 어떤 하나도
여럿도 역견화되지 않을 걸세 하나 없이는 여럿 역견들 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네

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
으로도 있지 않고 역견화되지도 않네²⁸⁹²⁾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것들도 헤태론한 것들도 접촉되는 것들도 분리된 것들
도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 이라고 앞서 거론했던 그 무엇도 알론한
것들은 아니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가 만약 있지 않
다면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φαίνεταί 166b7)도 않을 걸세

진실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라고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이 그 하나와 나란하다는 맥락인 반면 여기는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이 그 하나와 나란하다는 맥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는 있지 않는 반면 하나는 있다

2891) 에피(ἐπι)라는 전치사를 나는 걸리는 이라고 옮겨 보았다 1264, 1683,
1958, 499쪽 등을 보면 이에 관한 더 나은 이해를 얻어 낼 수 있을는지 모
르겠다

2892) 하나로 역견화되다(δοξάζεταί 166b3)를 콘퍼드는 can be imagined to
be(하나로 심상화되다, 여겨지다)로 옮긴다 적절하다고 본다

간략히 만약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옳게 말하는 것인가

모두 모두

따라서 이것을 말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가 있든 있지않든 그
(하나) 와 알론한 것은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모든 길
로(πάντως 166c4)모두 있고 있지 않으며 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도록 하세) (163b7 - 166c5)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지 않**

다면 잇따를 무엇이 논증된다 **있다면** 잇따를 무엇이 이미 논증됐기 때문이
다 이에 따르면 **있음은** **지금에** **실체**를 나누어 지남이었으니 **있지 않음**이
어떠한 것이지 이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밝혀진 것은 소피스테이스 편에서 엘레아 낫선이에 의해 밝혀
것과 같다 그러나 더욱 풍성(豐盛)해진다 **알론 과 헤테론**에 관한 로고스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있는** 것과 **헤테론**한 것이다 라고 거기(257b4,
1538)에 또 **있는** 것의 알론한 것과 헤테론한 것이다 라고 여기(257b4, 1538)
에 쓰여지면서 그러나 **있는** 것과 **반대**가 아니다 라고 거기에 또 **있는**
것²⁸⁹³의 **실체**를(οὐσίας τοῦ εἶναι, 162b2, 1948)나누어 지닌다 라고 쓰여지
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음의 실체** **아님** 뿐만 아니라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녀야 한다 **있음의 실체** 뿐 아니라 **있지 않음의 실체** **아님**을 있

2893) 있음 과 있는 것은 결국 문법적인 쓰임새(뜻) 만이 다를 뿐 이라는
임시적인 결론 끝에 나는 있음을 써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썼다 문법적인
뜻의 구분이 프라그마의 구분에 일치(一致)하는가에 관한 물음에 지금의 나
는 쉽게 답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치해야만 하지 않을
까.....

는 것이 나누어 지는 것 처럼 말이다 그래야 **있지 않는 것은 있음 과 있지 않음**을 이어주는 끈(δεσμὸν, 162a4, 1947)일 수 있으며 이렇게 이어져야 있음으로부터 있지 않음의 [사이가 끈어지지 않기 때문이다]²⁸⁹⁴그래서 비록 있는 것과 **헤태론**하긴 해도 있지 않는 것은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는 다 물론 **있지 않음의 실체 아님**도 나누어 지니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있지 않는 이러한 것에 관한 논증을 다시 옮겨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옮겨졌긴 해도 말이다

“ 자 만약 *하나*가 있지않다면 무엇이 잇따라야만 하는지를 따라서 이 후로 숙고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 숙고 -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 이라고 전제할 경우 자신 *만약 하나 아닌 것이 있지 않다*면 이라고 전제하는 경우와 어떠한 차이가 날까 - 확실히 차이납니다 - 그리고 *만약 하나 아닌 것이 있지 않다*면은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²⁸⁹⁵과 모두 그 반대 라는 차이

2894) 그렇다면 있음 과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과 있지 않음 이 넷은 일단 구분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있음을 있는 것과 있지않음을 있지않는 것과 분리해 떨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 같다**

2895) 그런데 **있는** 경우에는 *만약 하나가 있다면* 과 *하나가 만약 있다면*으로 구분 했는데(1705, 1672각주2572)여기 **있지 않는** 경우에는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 과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으로 구분하지 않고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 과 *만약 하나 아닌 것이 있지 않다*면으로 그는 구분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분을 서로 상응(相應)하는 구분으로 보아야 하는가 상응하는 구분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반대 되는 구분으로 보아서는 결코 **안된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하나와 있음**이 전제되지만 여기에서 전제되는 것은 **있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

만 날까 - 모두 반대 - 그런데,

만약 크기가 **있지 않다**면 또는 적음이 **있지 않다**면 또는 알론한 이러한 알론한 어떤 것이 있지 않다면 이라고 어떤 자가 말한다면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있지 않는** 것은 **헤테론한**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한가 - 물론 -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은 **알론한 것들의 헤테론**을 말한다는 것이 지금 분명하네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이라고 말할 때 마다 말일세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네 - 봅시다 - 따라서 있음 또는 있지 않음을 그것에 덧붙이는 하나를 말할 때 마다 **인식되는** 어떤 것을 첫 번째로 말하며 이와 더불어 알론한 것들의 헤테론한 것을 말하네 **있지 않음** 이라고 말하는 그 무엇 그리고 알론한 것들의 **차이**는 덜 인식되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일세 또는 그렇지 않은가 - 필연적으로 -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무엇이 있어야만 하는가가 처음부터 반드시 말하여져야만 하네

그 하나의 **앎이 있다**는 이 첫 번째 것이 하나에 반드시 속하는 것 처럼 보이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이라고 어떤 자가 말할

아님 과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있지 않음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에이(εἰ, 160b7, 1935)가 어디에 걸리는 가를 보라 있지않음에 걸리지 않고 하나아닌 것에 걸리지 않는가 그러나,

160d7(1937)에서는 에이가 있지 않다면에 걸린다 따라서 만약 하나 아닌 것이 있다면은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것 같다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무엇이 **있어야만** 하는가는 논증되지만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 무엇이 **있어만** 하는가는 논증되지 않으므로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 있어야 할 무 것은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잇따르게** 될 무엇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 마다 말하여진 것이 인식되지 않을 것이네 - 진실하십니다 - 그렇다면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의 헤태론한 것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하나)것은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을 결세 - 물론입니다 - 그리고 따라서 그 **앞**에 대한 그(하나)에 **헤태론함**이 있네 하나가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 이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함들이 아니라 저(하나)것의 헤태론함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일세 - 선명해집니다 -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는 저(하나)것 과 어떤 것 과 이것 과 이것에 [있는 것] 과 이것들의 [있는 것] 과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지닌다네 하나는 말하여지는 것도 하나의 헤태론들도 저(하나)것에 있어오는 어떤 것도 저것의 어떤 것도 말하여지는 (저 하나의) 어떤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 일세 만약 어떤 것의 그것에도 있지 않고 이러한 알론한 것들의 그것도 아니라면 말일세 - 옳소 -

만약 **있지 않다면** 그러한 [어떤 것도] **하나에 있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한 것이 **여럿을 나누어 지니는** 것을 막는 것도 **있지 않을** 것일세²⁸⁹⁶⁾ 그러나 그리고 필연적으로 만약 하나가 저것이며 그리고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네 그렇지만 만약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저것이 아니면 그리고 로고스가 그것의 로고스라면 어떤 자도 있지 않는 것을 발설하지 못하네 그런데 만약 하나는 저것이지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놓고 간다면 그리고 저것 과 알론한 여럿들이 그 하나가 반드시 놓여질 것이네 그리고,

따라서 **같지 않음**도 알론한 것들에 대한 그 **하나에 있네**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한 헤태론들이기 때문일세 - 예 - 그런데 헤태론은 아

2896) 있지 않는 것은 알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이라는 로고스를 늘 염두에 두어라

론이 아닌가 - 어찌 않으리오 - 그런데 알론은 *같지 않는* 것이 아닌가 - 같지 않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하나에 같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같지 않는 것에 *같지 않는* *같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네 - 분명 - 그리고 하나에 같지 않음이 있다면 그 하나에 *대한* 같지 않은 알론한 것들이 그 하나에 있을 것이네 - 있을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런데 만약 알론한 것들의 같지 않음이 그 하나에 있다면 따라서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같지 않음이 그 하나에 **있지** 않겠는가 - 어떻게 - 만약 *하나의* 같지 않음이 하나에 있다면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같지 않음이 자신의 같지 않음이 아니라면) 어디에서든 그러한 것에 관한 로고스는 하나의 로고스와 같은 그러한 것도 아닐 것이며 그 전제도 하나에 관한 전제도 아닐 것이나 하나 보다는 알론한 것에 관한 전제일 것이네 - 물론 - 반드시 아니네 - 확실히 아닙니다 - 따라서 하나에 *같음*은 그 *하나의* 스스로에 **있네** - 반드시 - 그리고 다시 *똑 같은*도 알론한 것들에 있지 않네 만약 *똑 같은*이 알론한 것들 안에 있다면 이미 같은이 *똑 같은*에 따라서 그 알론한 것들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네 그런데 이러한 양자들은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불 가능하네 - 불 가능합니다 - 그런데,

*똑 같은*이 알론한 것들에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필연적으로 알론한 것들도 저것에 *똑 같지* 있지 않지 않은가 - 필연적으로 - 그런데 *똑 같지 않은* 것들은 *비똑같지 않은*가 - 예 - 그런데 *비똑같은* 것들은 *비똑같은*과 *비똑같지 않은*가 - 어찌 않으리오 - 그리고 *비똑같은*을 하나는 나누어 지니는가 이 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들이 그 하나와 *비똑같은*은 그런 *비똑같은*을 말일세 - 나누어 지닙니다 - 그렇지만 *비 똑 같은*은 *크고 작음*이네 - 그러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하나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 - 감히 있습니다 -

*크고 작음*은 항상 서로에 차이날 결세 - 물론 - 따라서 그 *크고 작음* 사이에는 항상 어떤 것이 있네 - 있지요 - 이제 자네는 그것들 사이에 있다 라고 말하여질 *똑 같은*을 지니는가 아니면 알론한 어떤 것을 지니는가

- 지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똑같은)것을 지닙니다 - 따라서 그렇게 크고 작음이 있는한 똑 같음은 그렇게 있는 것들 사이의 그 하나에 있네 - 선명 해집니다 - 똑 같음 과 큼 과 작음은 **있지 않는** 하나에 **놓여질**(μετέιν²⁸⁹⁷), 161e 2, 1944)것 처럼 보이네 - 처럼 보입니다 - 그리고,

그 하나는 어떻게든 **실체**를 반드시 **나누어 지녀야** 하네 - 어떻게 - 우리가 말한 것 처럼 그렇게 반드시 그 하나는 지니네 만약 그렇게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 진실이 아닐 것이며 만약 진실이라면 우리는 있는 그것들을 말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네 또는 그렇지 않은가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진실을 말한다고 우리는 주장하므로 있는 것들을 말한다고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주장할 것일세 - 필연적으로 - 따라서 **있지않는** 하나가 **있는** 것 처럼 보이네 만약 **있지 않는** 것이 **있지** 않다면 그러나 **있음**으로부터 **있지 않음**으로 어떻게든 곧 바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하나)것일 것이기 때문일세 - 모두 모두 - 따라서,

만약 그(하나)것이 **있지 않는** 것[으로 **있으**]려면 반드시 그(하나)것은 **있음을** **있지않음**과 **뉘는** **끈** 곧 **있지않는**을 지녀야 하며 마찬가지로 **있는** 것 처럼 주욱(ωῖ, 162a6, 1947)있기 위해서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음**을 지녀야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끝까지 **있으려면** **있는** 것은 **있는**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니면서 **있지않는** **있음**<**않음**>의 **실체아님**을 나누어 지닐 것인 반면 끝까지 주욱 **있으려면** **있지 않는** 것은 **있지<않는>****있지 않음**의 **실체아님**을 나누어지니면서 **있지않는**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식으로 **있는**

2897) 1885에서는 실체를 나누어 지님에서 **지남**이 쓰여졌으나 이제 여기에서는 나누어 지님에서 **나누어짐**이 쓰여지는 것 같다 비록 나는 놓여짐 이라고 여기서 옮겼지만 말이다

것 일반은 **있을** 것이며 **있지 않는** 것 일반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 가장 진실 - 그렇다면,

있지 않음의 있는 것에 그리고 **있음의 있지 않는** 것에 **놓여**지므로
그리고 **있지 않음**이라면 **있음의 하나에** 필연적으로 놓여져야 할 것이네 있
지 않기 때문일세 - 필연적으로 - 그리고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에 실체가**
[**있다**는 것이] 선명해지네 - 선명해집니다 - 따라서 **있지 않다**면 하나에
실체 **아닌**도 선명해 질 결세 - 어찌 않으리오 - 그런데,

지니는 것은 지닌 것의 **변화 없이** 그렇게 어떻게 지니겠는가 - 아님
니다 - 따라서 그러한 모든 것은 그렇게 지니고 그리고 그렇게 지니지 않
을 **변화**를 가리키네 - 어찌 아니리오 - 변화는 움직임일세 또는 무엇이라
고 우리말할까? - 움직임 - 그런데 **있는**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가 보여졌
는가 - 예 - 따라서 그렇게 지닌 그리고 그렇게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선
명해지네 - 감히 - 그러나 **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것 처럼 만약 결코 있는
것들의 어떤 것이 아니라면 언제 어디서도 옮겨졌지 않았을 것이네 - 어찌
- 따라서 **자리 옮김**에 의해서는 움직여지지 않을 것일세 - 아니기 때문입
니다 -

동일한 것 안에서는 어떤 것도 회전하지 못할 결세 동일한 것과는 접
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있는 동일한 것이 있으므로 그렇게 그런데 있
지 않는 하나는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는 있을 수 없네 -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가 저 안에 있지 않는 저것 안에서는
회전할 수 없네 - 없기 때문입니다 - 어디에서든 **있든 있지 않든** 하나는
스스로와 **달라지**지도 않네 - 그(하나)것이 스스로와 **달라진**다면 더 이상
하나에 관해서가 아니라 알론한 어떤 것에 관한 로고스로 있어 올 것이기
아니기 때문일세 - 옳소 - 그런데 만약 달라지지도 동일한 것 안에서 회전
하지도 옮겨지지도 않는다면 따라서 어떻게든 움직여질 것인가 - 어찌 -
움직임이 없는 것은 필연적으로 멈출 것이네 그런데 멈춘 것은 쉬네 - 필

연 - 그리고,

만약 움직여졌다면 달라진 그것 보다 클 것이네 어떤 것이 움직여지는
한 그 만큼 이전에 지닌 것과 같이 더 이상 지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일
세 - 감히 하나도 달라진다네 - 예 - 그리고 결코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결
코 달라지지 않는다네 -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가 움직
여지는한 달라지며 움직여지지 않는한 달라지지 않네 -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달라지며 달라지지 않네 - 선명해집니다 - 따라
서,

달라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먼저 것과 헤태론하게 되며 먼저 지녔
던 것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반면에 달라지지 않는 것은 *되어지지도 벗어
나지도 않을 것* 아닌가 - 필연적으로 - 그리고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며 소멸하는 한 편 달라지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지도 소멸
하지도 않네* - 않기 때문입니다 - 않기 때문입니다²⁸⁹⁸ -

우리에게 선명해진 이것들이 이러한지 그리고 또는 헤태론한지를 한
번 더 다시 처음으로 되 돌아가 살펴 보기로 하세²⁸⁹⁹ - 그러나 그래야만

2898) 따라서,

있지않는 것은 실체와실체아님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고 움직이며쉬
고 달라지며달라지지않고 생성소멸한다는 순서로 논증은 이루어진다

2899) 지금 여기 맥락은 세 번째(155e4, 66, 1865)라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맥락과 같은 맥락이다 저 때 순식간에 하나가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있음이
전제 되는 것도 같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있는 하나가 말하여지지만 여기 에
서는 있지 않는 하나가 말하여지기 때문에 *같지 않는* 맥락이기도 하다 그러
나 *있음*을 전제 할 경우 **실체**에 놓여지지 않고 '있는' 하나가 거기에서는

합니다 - 그렇다면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그 하나에 관해 무엇이 있따
리아만 하는가를 우리는 말하는가 - 그런데,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마다 따라서 그것에 있지않음 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것에 **실체의 떨어져 나감**과 알론한 무엇을 가리킬까
- 알론한 무엇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 어떤 것이 **있지 않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있다* 라
고 말하는가 또는 있지 않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있지 않는 것은 *결*
코 어떤 것도 *있지 않으며* 어떻게든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순수하게 가리키는가 - 가장 순수하게 - 따라서 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알론하게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는다네 - 양기 때문입니다
-

되어지는 것 과 사라지는 것은 한 편으로 **실체**를 나누어 취하는 것과
실체를 벗어나는 것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닌가 - 아닙니다 - 이 실체에
놓여지지 않는한 어떤 것도 그 실체를 취하지도 벗어나지도 못하네 - 어찌
- 따라서 결코 있지 않으므로 하나에는 결코 실체가 놓여지지도 벗어나지
도 나누어 취하여지지도 않네 -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있지 않
는 하나는 사라지지도 되어지지도 않네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
로 그렇네 - 않는 다는 것이 선명해 집니다 - 따라서,

말하여지는 반면 *있음* 전제할 경우 **실체**에 놓여지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
가 말하여지므로 거기나 여기나 **동일한** 것이 전제된다 따라서 여기를 있지
않은 하나 그 자체에 상응하는 맥락으로보면 절대 *않*된다 그 세 번째 맥락
의 것들이 곧 **실체**를 지니지 않고 **‘있는 하나**의 것들이 비록 하나 그 자체
의 것들과 그 결과에 있어 같다고 해서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 듯이 말이다
여기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에 관한 맥락이기 때문
이다

결코 달라지질 않네 이미 되어졌고 사라졌다면 달라짐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네 -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지 않는가 - 필연 - 결코 있지 않는 것은 쉬지도 않다 라고 우리는 말할 것이네 쉬는 것은 동일한 어떤 것 안에 반드시 항상 있기 때문일세 - 동일한 어떤 것 안에 어찌 있지 않으리오 - 이렇게 다시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은 어느 때든 쉬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네 - 앎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그(하나)것에는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네 어떤 것을 나누어 지나<고 있는> 것은 실체를 나누어 지나기 때문일세 - 분명합니다 - 따라서,

하나에는 큼도 작음도 똑 같음도 있지 않네 - 앎기 때문입니다 - 자신에 대해서든 알론한 것에 대해서든 같음도 헤태론함도 그 하나에는 있지 않네 -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 무엇이? 만약 그(하나)것에 어떤 것도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이 그것에 그렇게 있을까 -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그 하나에 같지도 같지 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네 - 앎기 때문입니다 - 무엇이?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저것의 또는 저것에 또는 어떤 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의 또는 알론한 것의 또는 알론한 것에 또는 어느 때 또는 어느 때 이 후 또는 지금 또는 앎 또는 역견 또는 감각 또는 로고스 또는 이름 또는 무엇이든 있는 알론한 것들이 있는가 - 있지 않습니다 - 있지 않는 하나는 이렇게 결코 어떻게도 지나지 않네 - 그렇다면 결코 지나지 않는 것 처럼 보입니다 - 나아가서,

나아가서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이 무엇을 겪어야 하는지를 우리말해보세 - 말하기 때문입니다 -

어디에서든 반드시 그것들은 있네 만약 알론한 것들이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에 관해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일세 - 그렇게 -

만약 알론한 것들에 관한 **로고스**가 있다면 **알론한 것들은 해태론한 것들일세** 또는 **알론한 것 과 해태론한 것을 동일한 것에 걸리는 것**이라고 자네는 부르는가 - 제가 - 그런데 **해태론한 것은 어디에서든 해태론과 해태론하다고 알론한 것들은 알론한 것들과 알론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가 - 예 - 그리고 따라서 **알론한 것들에 만약 알론한 것들이 있으려면 그것의 알론한 것이 있을 그 어떤 것이 다시 있네 - 필연 - 무엇일? 있지 않는 하나라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 앎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이 있네 이것이 그것들에 남을 뿐이네 그렇지 않으면 알론한 것들에 아무 것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 옳소 -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은 각각 **많게** 있네 하나가 아니라면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그러나 가장 적은 것이 한 움큼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각각은 그것들의 덩어리(**ἄγιος**, 164d1, 1960)로 무한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 잠자면서 꾸는 꿈에서 처럼 보이는 것 **하나에** 맞서 **순식간에** 여럿이 있으며 그리고 가장 적은 것에 맞서 그 가장 적은 것으로부터 잘려진 작은 것들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커져 있을 것 처럼 말일세 - 가장 옳으십니다 - 알론한 것들은 이러한 덩어리들 서로의 알론한 것들일세 하나가 만약 **있지 않고** 알론한 것들 있다면 말일세 - 정확하십니다 - 그렇다면 각각으로 나타나는 **여러** 덩어리들이 있을 것일세 그런데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각각들의) (하나는) 있지 않을까 -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그것들의 **수도** 있는 것 처럼 여겨지네 만약 그리고 각각이 **하나**이며 있는 **여럿의** 각각이라면 말일세 - 물론 - 그리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짝들인 반면 어떤 것들은 홀들인 것들로 **진짜** **아니**게 나타난다네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말일세 - 앎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 **가장** 적은 것이 **역전**화된다고 우리는 말하네 그런데 이것은 있는 적은 것들 로서의 여럿들 각각에 대한 여럿들 과 **크기**들로 나타나게 된다네 - 어찌 앎으리오 - 그리고 적은 여럿들에 **똑** 같은 각기

덩어리가 역전화 되어져 있다네 더 큰 것으로부터 더 적은 것으로 나아 오면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똑 같음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그 사이에서 역전화 되기 이전에는 말일세 -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렇다면,

한계를 지니는 알론한 덩어리에 대해서든 자신 (덩어리)에 대해서든 그것은 시작도 한계도 중간도 지니지 않는가 - 어떻게 - 그것들은 항상 그러 하다는 것.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노이아에 의해서 그렇게 (덩어리로)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항 응큼 (떼어 낼) 때 마다 시작 앞의 알론한 것은 항상 시작으로 나타나며 끝 뒤의 해태론한 것은 항상 끝으로 남게되고 중간 안의 알론한 것들은 중간 보다 더 중간으로 그런데 더 적은 것들로 나타날 것일세 이것들 각각 하나가 취하여질 수 없기 때문이네 하나가 있지 않는한 그렇네 - 가장 진실 - 어떤 자가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한 응큼 (떼어 낼) 있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더 잘게 항상 부서질 것으로 보이네 덩어리가 어디에서든 항상 하나 없이 취하여질 것이기 때문일세 - 물론 -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해 나가면 더 먼 것을 보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더 무디게 하나 (덩어리) 각각은 나타날 것이지만 더 가까이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 예리하게 무한한 여럿으로 하나 (덩어리) 각각은 나타날 것이네 만약 있지 않는 *하나*를 빼앗기게 된다면 말일세 - 가장 필연적입니다 - 이렇게 알론한 것들 각각은 *한계 없음* 과 *한계를 지니는 하나* 와 *여럿*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걸세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그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그렇다는 말일세 - 반드시 - 그렇다면,

같으며 같지 않은 것으로 역전화되 있는가 - 어떻게 - 예를들어 (화폭에) 그려진 것들은 떨어진 자에게 모두 하날 나타나는 것들이므로 동일한 것을 꺾어서 *같은* 것으로 나타나 있네 - 물론입니다 - 그런데 더 가까운 자들에게는 *여럿* 과 *해태론*들로 나타나므로 해태론과 *해태론한 환상*들에 그리고 *스스로들에* *같지* 않는 것들로 나타나 있을 걸세 - 그렇게 - 그리고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그 *덩어리*들의 *같음* 과 *같지않음*이 필연적으로 나타나질 걸세 - 물론입니다 - 그렇다면,

그것들 그리고 서로 헤대론한 것들은 스스로들과 접촉하며 분리된 것으로 그리고 모든 움직임으로 움직여지며 모든 곳에서 쉬는 것으로 그리고 되어지며 사라지고 이 양자도 아닌 것으로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쉽게 나열 되어진 모든 그러한 것들로 어디에서든 나타나 있을 걸세 하나가 만약 있지 않고 여럿이 있다면 말일세 - 가장 진실하십니다 -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처음으로 되 돌아가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 무엇이 잇따라 있어야만 하는지를 물어 보기로 하세나 - 물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가 아닐세 - 어찌? - 여럿도 아닐 것일세 여럿 안에 하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일세 만약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가 아니라면 각기 모든 것도 아닐 것이어서 여럿도 아닐 것이므로 그렇네 - 진실로 - 알론한 것들 ((안))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여럿도 아니네 - 아니기 때문입니다 -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 않네 - 무슨? -

있지 않는 것들의 알론한 것들은 결코 어떤 것에 교통하는 어느 것을 결코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있지 않는 것들의 어떤 것도 그것에 있지 않네 있지 않는 것들에는 어떤 부분도 있지 않기 때문일세 - 진실 - 따라서,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있지 않는 것의 역견도 환상들도 있지 않으며 이러한 알론한 것들에 걸리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역견화되질 않게 -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의 어떤 하나도 여럿도 역견화 되지 않을 걸세 하나 없이는 여럿 역견들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일세 - 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고 역견화되

지도 않네 -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네 - 양기 때문입니다 - 동일한 것들도 *헤타론* 한 것들도 *접촉*되는 것들도 *분리*되는 것들도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앞서 거론했던 그 무엇도 *알론*한 것은 아니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결제 - 진실 -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라고 간략히 우리가 만약 말한다면 우리는 옳게 말하는 것인가 - 모두 모두 - 따라서,

이것을 말하도록하고 그리고 하나가 **있든 있지않든** 그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은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모든 길로 모두 **있고 있지 않**으며 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도록 하세 그래서,

있음이 전제 되면 **있는 것에 헤타론한 있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있지 않음** 역시 전제 될 것이므로 **있든 있지 않든 하나** 와 *알론*한 것들에 무엇이 *잇따른*다면 자신 과 서로에 대해 모든 길로 모두 그렇게 **있고 있지 않고 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파르메니데아스는 **있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길에 관해 말했다 라고 나는 최종적인 결론(結論)을 내리려고 하므로 파르메니데아스 편의 ‘플라톤’의 **존재론**임이 더욱 더 선명진다 그런데,

있지 않는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들은 **덩어리**($\lambda\acute{\alpha}\beta\eta$ 164d1, 1960)로 뭉쳐져 **나타나** **있지 않는** 하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있는** 하나 와 *알론*한 것은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는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다 라는 것에 유념(留意)하라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든 하나는 무엇이든지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다 그렇다면,

있는 모든 것은 실체를 나누어 지니거나 있거나 되거나 되지 않거나

있지 않거나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그러한 것일 반면 하나가 있지 않을 경우 알론한 모든 것은 그러한 것들로 반드시 나타나 있거나 있지 않거나 나타나게 되거나 되지 않거나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알론한 것은 꿈 속의 어떠한 것 처럼 환상으로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 반면 그 알론한 것의 이외 모든 것은 환상과 같은 꿈 속의 어떤 것 처럼 나타나 있거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있는 것은 나타난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것들은 있지 않는 것과 분리된²⁹⁰⁰들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있지 않는 하나와 분리된 서로의 알론한 것들이라면 덩어리로 나타나지만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은 덩어리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듯,

있지 않는 것을 하나 와 알론한 것으로 나누어 말하는 ‘파르메니데에스’는 있지 않는 것을 가장 순수한(ἀπλῶς, 163c6, 1955)것 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다시 나눈다 그러나 이러한 다시 나눔은 실체를 나누어 지니거나 나누어 지니지 않음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음과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사이의 구분은 순수하지 못한 것들 사이의 구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고 해서 순수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하나가 있지 않을 경우에도 하나이든 알론한 것이든 모든 것은 실체를 나누어 지니거나 지니지 않는다 여기 파르메니데에스는 이렇나 각기 구분에 맞추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있지 않는 것에 관한 그의 글(160b5-166c5)는 실체를 지니고 있는 있지 않는 하나에 관한 글(160c5-163b6) 그리고 실체를 지니지 않은 있는 있지 않는 하나에 관한 글(163b6-164b4) 그리고 실체를 지니는 서로의 알론한 것²⁹⁰¹에 관한 글(164b4-165e1) 그리고 실체를 지니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

2900) 있는 것조차 있지 않음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에 유념하라

의 알론한 것에 관한 글(165e1-166c5)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있지 않는** 하나 와 알론한 것은 **‘있음’**을 전제한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 가운데 하나여서 있음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지어 **있지 않는 것** 까지도 **있음**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 그래서 **있지도 있지 않지도 않으며** 되지도 되지 않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 순식간의 저 때에** 걸리는 모든 것이 바로 그러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실체를 지니거나** **없는**다 그래서 **있는 것이 사라짐으로 변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것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러한 순식간에 **움직여지는 것이 쉬는 것으로 쉬는 것이 움직여지는 것으로 변한다** 그리고 아울러 모든 **반대인** 배타적(排他的) 짝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있는 것이 곧 바로 있지 않는 것으로 또는 있지 않는 것들이 곧 바로 있는 것으로 변**하지는 않는다(155e4-157b5)**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반대 짝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순식간의 저 때에** 걸리는 것은 있는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들 과 있지 않는 하나와 분리된 서로의 알론한 것들이다 순식간에 무한히 많이 실체를 얻거나 잃으며(1899) 순식간에 덩어리 하나가 여럿으로 뺨 튀겨지면서 가장 적은 것이 커지는데(1960)이럴 경우²⁹⁰²⁾어떠한 하나로 부터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이든 **있는 하**

2901) 서로의 알론한 것은 있지 않는 하나와 분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리라

2902) 이러한 맥락에서 모두 디아노이아(생각)에의해(ἐν τῇ διανοίᾳ, 143a8 : 1899, 165a8 : 1963)그 실체를 떼어내 본다면 이라는 말이 위 두 곳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나이든 하나와 분리되지 않는 알론한 것은 이 순식간에 걸리지 않는다 어느
반대 짝'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거기에서 실체를 지니면서 잃는 순식간의 저 때와 시간이 접촉하는
순간 되어지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하며 그리고 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되어진 후 있거나 사라진 후 있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 **지금** 시간에 걸려야
만 있(1812)거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시간의 지금이 시간의 저
때 순식간 이거나 시간의 순식간이 시간의 지금이라면 어떤 변화도 불 가능
하게 되어짐도 사라짐도 불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설령 있을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지금**은 시간 안에 있지만 **순식간**은 시간 안
에 있지 않으며 시간은 저 때를 통해 순식간과 접하는 반면 **지금**은 어느
때 와 어느 때 이 후 사이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식간에 변하는 것들은 시간 안에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 뿐만 아니
라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다 이제,

이러한 있지 않는 알론한 것들 뿐만 아니라 있지 않는 하나에 잇따르
른 무엇을 파르메니데에스가 어떻게 논증하는지 다시 요약해 보기로 하자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무엇이 잇 따라야만 하는지를 숙고해 보자
그런데,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 이라는 전제와 만약 하나 아닌 것이 있지 않
다면 이라는 전제²⁹⁰³)는 정 반대(τούναντιον, 160c1, 1935)로 차이난다 그런

2903) 이 전제를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의 하나로 간주(看做)해선 안될 것
같다 하나 아닌 것은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이기 때문이다(1914,
1728, 1752)

데,

크기 또는 적음 또는 이러한 알론한 어떤 것이 있지 않다면 이러한 각 경우 **있지 않는** 것은 **헤테론한** 어떤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이라고 말할 때 마다 그가 말하는 있지 않는 것은 알론한 것들의 헤테론을 말한다는 것이 지금 보여진다 따라서,

있음 과 **있지 않음**이 덧 붙여지는 **하나**를 말할 때 마다 인식되는 알론한 것들의 **헤테론한** 것을 말한다 있지 않다고 말하여지는 그 무엇 과 알론한 것들의 **차이**(*διάφορον*, 160d2, 1937) 필연적으로 덧 인식되는 어떤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있어야만** 하는 그 무엇은 첫 번째로 그 하나에 관한 **앞**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자가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이라고 말할 때 마다 아무 것도 인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⁹⁰⁴) 그렇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의** 헤테론한 것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의 헤테론이라고 말하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의 헤테론이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알론한 것들의 헤테론함들이 아니라 **하나의** 헤테론함이라고 말하여질 것이므로 **앞**에 대해 **하나**는 **헤테론**하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는 **저것** 과 **어떤 것** 과 **이것** 과 **이것에** 와 **이것들의** 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누어 지닌다 만약 어떤 것의 그것에도 있지 않고 이러한 알론한 것들의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는 말하여지는 것도 하나의 헤테론한 것도 하나에 있어오는 어떤 것도 하나의 어떤 것도 말하여지는 하나의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은 옳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2904) 그러나 알론한 것들의 차이와 더불어 인식된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다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는 있지 않을 것이긴해도 그 *하나가 여럿을* 나누어 지는 것을 막는 것은 있지않다 만약 하나가 저것이며 그리고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 그리고 있지 않는 어떤 것도 저것이 아니고 로고스는 저것의 로고스라면 어떤 자도 있지 않는 것을 발설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하나가 저것이지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저것 과 알론한 *여럿들의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에 대한 하나에 *같지 않음*이 있다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한 헤태론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태론은 (일 종의) 알론이며 알론은 같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에 같지 않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같지 않는 것 *에* 같지 않는 같지 않는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에 같지 않음이 있다면 하나에 대한 같지 않는 알론한 것이 그것에 있을 것 처럼 보인다 그런데 만약 알론한 것들의 같지 않음이 그 하나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같지 않음이 그 하나에 있을 것이다 만약 하나의 같지 않음이 하나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안에 있는 하나의 같지 않음이 자신의 같지 않음이 아니라면) 어디에서든 그러한 하나에 관한 로고스는 하나의 로고스와 같은 그러한 것도 아닐 것이고 전제도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 보다는 알론한 것에 관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에 있는 같음*은 반드시 *하나의 스스로에도 있다* 그리고 다시 *똑 같은*도 알론한 것들에 있지 않다 만약 똑 같은이 알론한것들 안에 있다면 이미 같은도 똑 같음에 따라서 그 알론한 것들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들은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불 가능하다 그런데 똑 같은이 알론한 것들에 있지 않으므로 필연적으로 알론한 것들도 저것에 똑 같지 있지 않다 그런데,

똑 같지 않는 것들은 *非똑같은* 것이며 비똑같은 것들은 비똑같음과 비똑같다 그리고 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들이(나누어 지는) 하나와 비똑같은 그러한 *비똑같음*을 하나는 나누어 지닌다 그렇지만 비똑같음은 크고

작음이므로 감히 하나에 크고 작음이 있다 그런데 크고 작음은 항상 서로에 차이날 것이므로 큼 과 작음 사이에는 항상 어떤 것이 있다 곧 똑 같음이 있다 따라서 크고 작음이 있는한 이 사이에 그 똑 같음을 지니는 그 하나가 있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그래서 똑 같음 과 큼 과 작음은 있지 않는 하나에 놓여지는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하나는 어떻게든 실체를 반드시 나누어 지녀야한다 만약 지나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않다** 라고 말한 것이 진실이 아닐 것이고 진실이라면 **있는** 그것들을 말할 것인데 우리는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 경우) **있는** 것들을 말한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이 **있지 않다**면 **있음**으로부터 **있는** **없음**으로 지나가는 **있는** 것이 곧 바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있지 없음이 (있으)**려면 **있음** 과 **있지 없음**을 묶는 끈 으로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주욱 **있기** 위해서는 **있는** 것처럼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없음**을 지녀야한다 왜냐하면 끝까지 **있으려면** **있는** 것은 **있는**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나면서 **있지 않는** **있음<없음>**의 **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니는 한 편 끝까지 **있으려면** **있지 않는** 것은 **있지<않는>** **있지 없음의 실체아님**을 나누어 지나면서 **있지 않는**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식으로 **있는** 것 일반은 있을 것이며 **있지 않는** 것 일반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지 없음의 **있는** 것에 그리고 **있음의** **있지 않는** 것에 놓여지므로 **있지 않으려면** **있음의 하나**에 필연적으로 놓여져야 할 것이다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서 **있지 않다**면 **하나에 실체(가 있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따라서 **있지 않다**면 **하나에 실체** **아님(이 있다는 것도)** 선명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니는 것은 지닌 것의 **변화** 없이는 그렇게 지나지 못하므로 그러한

모든 것은 그렇게 지니고 지니지 않을 변화를 가리킨다 그런데 **변화**는 **움직임**이며 **있는**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가 보여졌다 그래서 하나는 그렇게 **지니고** 그리고 그렇게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선명해질 것 처럼 보인다 따라서 **있음**으로부터 **있지 않음**으로의 **변화**를 지니므로 **있지 않는** 하나는 **움직여진다**는 것이 감히 보여졌다 그러나 **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것 처럼 만약 **결코** 어떤 **있는** 것도 아니라면 언제 어디에서도 옮겨 졌지 않을 것이므로 **자리 옮김**에 의해서는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것 안에서는 결코 접촉되지 않을 것이므로 어떤 것도 회전하지 못할 것이다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지 않는** 하나는 **있는** 어떤 것들 안에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는** 하나는 **회전**할 수 없다 나아가서 **있**든 **있지않**든 어디에서든 하나는 **스스로와 달라지지도 않는다** 스스로와 달라진다면 더 이상 하나에 관한 로고스가 아니라 알론한 어떤 것에 관한 로고스가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라지지도 동일한 것 안에서 회전하지도 옮겨지지도 않는다**면 어떻게도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고 움직임이 없는 것은 필연적으로 멈출 것이며 멈춘 것은 **선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쉬었으며 움직여진다** 이제,

움직여졌다면 (이 전의) 것 보다는 **크게**(μεγάλη, 162e4, 1952) 달라질 것이다 움직여지는한 그 만큼 (이 전에) **지닌** 것과 같이 더 이상 **지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히 하나도 달라진다 그런데 결코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움직여지는한 달라지며 움직여지지 않는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먼저 것과 **해태**롭게 되며 먼저 **지녔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반면에 달라지지 않는 것은 되어지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달라지는**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며 벗어나는 반면 달라지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이렇게 되어지며 벗어나지고 되어지지도 벗어나지지도 않는다 이제,

다시 한 번 처음으로 되 돌아가 이리할지 아니면 헤태론할지 살펴 보
자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에 관해 잇따르는 무엇을 우리는 말해
야한다 그런데,

있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마다 그것에 **있지 않음**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에 **실체의 떨어져 나감** 이외의 알론한 무엇을 가리키지 않는다 어떤
것이 있지 않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도 있지 않으며 어떻게든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순수하게(2905)가리킨다 따라서 **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알론하게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는다** 그런데,

되어지는 것 과 사라지는 것은 **실체를 나누어 취하는 것 과 실체를
벗어나는 것**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체에 **놓여지지** 않는한
어떤 것도 그 **실체를 취하지도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코 있지
않으므로 하나에는 결코 실체가 놓여지지도 벗어나지지도 나누어 취하여지
지도 않는 것 처럼 보인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사라지지도 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결코 달라지질 않는다는 것은 진실이다 이미 되어졌다 사라졌다면 이
러한 달라짐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
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결코 있지 않는 것은 **쉬지도 않는다** 쉬는 것
은 동일한 어떤 것 안에 반드시 항상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
은 어느 때든 쉬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는다 라고 우리는 다시 말한다 그런

2905) 순수하게(ἀπλῶς, 형이상학1041b1, 543)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
해서도 그대로 쓰여진다

데,

그 하나에는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 이미 어떤 것을 나누어 지니고 있는 것은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에는 **큼도 작음도 똑 같음도** 있지 않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든 알론한 것에 대해서든 같음도 헤태론함도** 그 하나에는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나아가서 그 하나에 어떤 것도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 역시 하나에 있지 않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그 하나에 같지도 같지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다 그리고,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저것의 또는 저것에 또는 어떤 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의 또는 알론한 것의 또는 알론한 것에 또는 어느 때 또는 어느 때 이후 또는 **지금** 또는 **앞** 또는 **역견** 또는 **감각** 또는 **로고스** 또는 **이름** 또는 무엇이든 있는 알론한 것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결코 지니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 나아가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이제 알론한 것들이 무엇을 겪을지 우리말 해보자

어디에서든 **알론한 것들은 있다**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에 관해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알론한 것들에 관한 로고스가 있다면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한 것들일 것이다 그리고 알론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걸리는 것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어디에서든 헤태론과 헤태론하며 알론한 것은 알론한 것과 알론하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에는 만약 알론한 것들이 있으려면 그것의 알론한 것들일 그 어떤 것이 다시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며 있지 않는 하나라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 알론한 것으로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남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알론한 것들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옳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은 각각 많게 있다 하나가 아니라면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적은 것이 한 움큼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각각은 그것들의 덩어리로 무한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 잠자면서 꾸는 꿈 속에서 보이는 것 처럼 *하나*에 맞서 순식간에 *여럿*이 있으며 그리고 가장 적은 것에 맞서 가장 적은 그것으로부터 잘려진 작은 것들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커져 있을 것 처럼 말이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고 알론한 것들이 있다면 알론한 것들은 이러한 *덩어리들 서로의 알론한 것들*이라는 것이 정확하다 그렇다면 각각은 *여러* 덩어리들로 나타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그 각각의 하나 덩어리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있는** 여럿의 각각이라면 각각 알론한 것들의 수도 있는 것 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짝들인 반면 어떤 것들은 홀들로 진짜 아니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말이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가장 적은 것이 역전화된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이 가장 적은 것은 있는 적은 것들로서의 *여럿들* 각각에 대한 *여럿들* 과 크기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적은 여럿들에 똑 같은 각기 덩어리가 역전화 되어 있다(*δοξασθήμεται εἶναι*, 165a2-3, 1963) 더 큰 것 과 더 적은 것 사이에서 역전화 되어 있기 전에는 더 큰 것으로부터 더 적은 것으로 나아가면서 나타나지 않을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계*를 지니는 알론한 덩어리에 대해서든 자신 덩어리에 대해서든 그것은 *시작* 과 *한계* 와 *중간*을 지닌다 그런데,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노이아*(생각)에 의해서 **덩어리로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한 움큼 집어들 때 마다 집어내어진 것의 *시작* 앞의 알론한 것은 항상 시작으로 나타나며 그 *끝* 뒤의 헤태론한 것은 항상 끝으로 남게 되고 *중간* 안의 알론한 것들은 중간 보다 더 중간으로 그런데 더 적은 것들로 나타날 것이다 있지 않는 하나로 인해 이것들 각각 하나가 집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주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자가 *디아노이아*에 의해 한 움큼 집어들 있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더 잘게 *항상* 부서질 것으

로 보인다 어디에서든 덩어리가 항상 하나없이 집어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이리하다면 더 먼 것을 보는 자에는 필연적으로 더 통갑게 하
나 덩어리 각각은 나타날 것이며 더 가까이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쪼뻛하
게 무한한 여럿으로 하나 덩어리 각각은 나타날 것이다 만약 있지 않는 하
나를 빼앗기게 된다면 말이다 이렇게,

알론한 것들 각각은 한계없음 과 한계를 지니는 하나 와 여럿으로 반
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약 있지 않다면 그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그렇
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같으며 같지않는 것으로 역전화 되 있다 예를들어 (화폭(畫幅)에) 그
러진 것들은 떨어진 자에게는 모든 하나로 나타날 것이므로 동일한 것을 겪
어서 같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더 가까운 자에는 여럿 과 헤태론
들로 알론한 것들은 각각 나타나므로 헤태론과 헤태론한 환상들에 그리고
스스로들에 같지 않는 것들로 나타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그 덩어리들의 같음 과 같지 않음이 필연적으로 나타나 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들 그리고 서로 헤태론한 것들은 스스로들과 접촉하며 분리된 것
으로 그리고 모든 움직임으로 움직여지며 모든 곳에서 쉬는 것으로 그리고
되어지며 사라지고 이 양자도 아닌 것으로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쉽게 나열
되어진 그렇나 모든 것들로 어디에서든 나타나 있을 것이다 하나가 만약 있
지 않고 여럿이 있다면 말이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처음으로 되 돌아가 하나가 만약 있지 않
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게 무엇이 잇 따라 있어야만 하는지를 우리 물어
보자 그렇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아니다 그리고 여럿도 아니다 여럿이라면 여럿

안에 하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알론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아
나가 아니라면 각기 모든 것도 아닐 것이어서 여럿도 아니므로 그렇다 그래
서 알론한 것들 안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여럿도 아
니다 나아가서,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있지 않는 것들의 알론한 것들
은 결코 어떤 것에 교통하는 어떤 것을 결코 나누어 지니지 않으며 그래서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있지 않는 것들의 어떤 것도 그(알론한)것에 있지 않
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것들에는 어떤 부분도 있지 않으므로 그렇다 따라
서,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있지 않는 것의 역견도 환상도 있지않으며 알
론한 이러한 것에 걸리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역전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의 어떤 하나도 여럿도
역전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없이는 여럿 역견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고 역전화되지도 않는 것 처럼 보인다 따라서,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으며 동일한 것들도 헤태론한 것들도 접촉되는
것들도 분리된 것들도 그리고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 이라고 앞서 거론했던
그 무엇도 알론한 것들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가 만
약 있지 않다면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있지않다 라고 간략히 말하는 것
은 모두 모두 옳다 따라서,

여기에 덧붙혀,

하나가 있든 있지않든 하나 와 알론한 것은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서
로에 대해 모든 길로 모두 있고 있지않으며 나타나면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
리 말하는 것이 가장 진실하다 이로서,

파르메니데아스는 *하나 자체* 그리고 *있는 하나 와 알론한 것*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 와 알론한 것에* 관한 논증을 끝낸다 하나가 *있든 있지않든* 하나 와 알론한 것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모든 길로 **있고 있지 않으며 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로고스로 있지 않는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에 관한 논증을 끝내면서 말이다 그래서 그의 논증은 하나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이러한 시작 과 끝 사이에 실체를 지니는 *있는 하나 와 실체를 지니지 않고 있는 하나* 그리고 *이 하나의 알론한 것* 그리고 *와 이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 그리고 실체를 지니고 있는 *있지 않는 하나 와 실체를 지니지 않은 있지 않는 하나* 그리고 *서로의 알론한 것이 차례로 놓여진다* 그래서 이를 통해 파르메니데아스 편 하나 전체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위에서 요약된 것은 *있는 않는 것에* 관한 논증이다 그런데,

실체를 지닌다 라는 논증으로부터 시작해 **없어 있다는** 논증으로 끝나는 **있는 것에** 관한 논증(1863, 1931)과는 달리 **있지 않는 것에** 관한 논증은 **없어 있다는** 논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체를 지닌다**는 논증을 거쳐 다른 논증으로 끝난다 그러나 실체 와 **없음** 제외한 다른 논증들의 순서는 비슷하다 먼저 하나와여럿 전체와부분 수 안과밖 움직임과침 동일과해태론 같음과 같지않음 시간 등의 순으로 비록 다소 엇 갈림은 있지만 그 논증은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을 논증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는 **있다는 것** 보다는 **없음** 먼저 논증했을까 *있지 않는 것의* 경우에는 존재 보다는 **없어** 먼저 있기 때문이었을까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물론 이런 터무니 없는 듯한 물음에 답을 주진 **않을 것**이지만 그래서 요약된 그의 논증을 다시 정리해 보자

있지 않는 하나에는 **앞이 있다**

크기가 있지 않다 그리고 적음이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질 때에는 언
제든지 **있지 않는 것들의 헤태론함이 인식된다** 큼 과 적음은 서로에 헤태
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질 때에는 *알론한 것*
의 헤태론함이 인식될 것이다 헤태론함과 더불어 있지 않는 하나가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에는 *첫 번째*(*πρῶτον*, 160d4, 1937)
로 **앞이 있다** 그래서,

앞에 관해서서 그 하나에 **헤태론이 있다**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
하다 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알론한 것의 헤태론이 아니라 *하나의* 헤태론이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하나는 *여럿*이라는 것인 논증된다

있지 않는 것이 *하나*라면 있지 않는 것은 하나에 있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가 *여럿*을 나누어 지니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도 없
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가 있지 않는 것이며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닐 때 그
렇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가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로고스를 결코
발설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가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면 알론한 *여럿의 하나*가 있다 이와 함께,

있지 않는 하나는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같으며 같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의 알론은 헤태론한 헤태론*이기 때문에 알론한 것에 *대한* 그 하
나에 *같지 않음*이 있다 그리고 헤태론은 일 종의 알론이며 알론은 헤태론의
일종이며 알론은 *같지 않음*이므로 하나에 같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같지 않는
것에 같지 않는 같지 않는 것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의 같
지 않음이 그 하나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의 같지 않

음이 하나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같지 않음도 하나에 **있다** 만약 하나의 같지 않음이 하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같지 않음이 스스로의 같지 않음이 아니라면 하나의 로고스 와 전제는 하나의 로고스 와 전제가 아니라 알론한 것의 로고스 와 전제일 것이나 결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에 **같음**은 그 하나의 스스로에도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똑같으며 똑같지 않으며 크고 적다는 것이 논증된다

똑 **같음**도 알론한 것에 있지 않다 만약 있다면 똑 **같음**에 따라서 **같음**이 알론한 것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 **같음**이 알론한 것에 있지 않으므로 알론한 것들도 저것에 똑 같지 않다 그런데,

똑 같지 않는 것은 **非**똑같지 않다 그런데 비똑같음은 비똑같음과 비똑같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들에 있는 비똑같음을 나누어 지닌다 그러나 비똑같음은 크고 작음이다 따라서 하나에 **크고 작음**이 있다 그런데,

크고 작음은 항상 서로에 **차이**난다 그래서 크고 작음 사이에는 항상 똑 **같음**이 있다 따라서 크고 작음이 있다면 항상 그 사이에 똑 **같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에 크고 작음이 있으므로 반드시 똑 **같음**도 하나에 있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똑 같으며 크고 적고 똑 같지 않다** 이와 함께,

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있다**'는 것인 논증되면서 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닌다는 것이 논증된다

만약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했던 것이 **진실**이 아닐 것이며 만약 진실이라면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말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하므로 있는 것을 필연적으로 말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만약,

있지 않는 것이 (결코) **있지 않다**면 **있음** 과 **있지않음** 사이에는 **있**는 것 만(εἶθός, 162a3, 1945)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있는** 것이 끝까지 주욱 있기 위해서는 **있는**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니면서 **있지 않는** **있음**의 **실체**아님을 나누어 지녀야한다 **있는** 것 **일반**이 그렇다 그래서 **있음** 과 **있지 않음**을 이어주는 끈이 필요하다 바로 이 끈이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욱 있으려면 **있지 않는** 것은 **있는** **있지 않음**의 **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니면서 **있지 않는**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녀야한다 **있지 않는** 것 **일반**(τὸ μὴ ὄν μάλιστα', 162a7)이 바로 그렇다 그렇다면,

있지 않음의 **있는** 것에 그리고 **있음**의 **있지 않는** 것에 (**나누어**) **놓여**지므로 **있지 않으**려면 **있음**의 하나에 필연적으로 **놓여**져야만 한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있지 않는** **하나**는 **실체** 와 **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닌** **다**는 것이 **분명해**졌다²⁹⁰⁶)이와 함께,

쉬었으며 움직여진다는 것이 논증된다

그런데 **지니는** 것은 **지닌** 것의 **변화** 없이는 어떤 것을 **지닐** 수 없다 지니는 모든 것은 지녔던 것에서 지닐 것으로 변한다 그런데 변화는 움직임이다 그런데 **있는**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가 보여졌다 그래서 그렇게 지니고 그렇게 지니지 않는 것이 선명해진다 따라서 **있음**으로부터 **있지않음**으로의 변화를 지니므로 **있지 않는** **하나**는 **움직임**을 지닌다는 것이 감히 보여졌다

2906) 그런데 이와같은 로고스가 있는 하나(1866)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글썽 적용하기가 머뭇거리진다.....아마 적용해서는 안될 것 같다 거기에서는 거기에서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고 있는 하나이지만 여기에서는 실체아님을 나누어 지니고 있는 **있지 않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실체 아님을 나누어지는 것이 아닐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옮겨졌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리 옮김에 의해서는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동일한 것 안에서는 어떤 것도 돌지 못한다 동일하게 있으므로 그 안에는 접축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지 않는 하나는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안에 있지 않는 그것 안에서는 있지 않는 것이 결코 돌 수 없다 나아가서 있든 있지 않든 하나는 스스로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다면 더 이상 그 하나에 관한 로고스가 아니라 알론한 어떤 것에 관한 로고스가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라지지도 돌지도 자리 옮기지도 않는다면 움직여질 수 없고 움직여 질 수 없는 것은 멈춘다 그런데 멈춘 것은 필연적으로 *쥬다* 따라서,

하나는 쉬었으며 움직여진다 이와 함께,

달라지며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움직여졌다면 달라지기 이전 보다 클 것이다 움직여지는한 그 만큼 이전에 지닌 것을 더 이상 지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라진다* 그리고,

움직여지지 않는한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가 움직여지는한 달라지며 움직여지지 않는한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있지 않는 하나는 달라지며 달라지지 않는다* 이와함께, 되어지며 사라지고 되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달라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먼저 것과 해태론하게 되어지며 먼저 지녔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반면 달라지지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되어지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달라지는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며 벗어나는 반면 달라지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서며 벗어나고 되어서지 않으며 벗어나지 않는
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있지 않는** 하나에 관한 논증이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있지않는** 하나가 논증된다

있는 않는 것 이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에서 **실체**의 떨어져 나감과 알론한 무엇이 가리켜지지는 않는다 어떤 것
이 **있지 않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것은 있고 어떻게
보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게**(ἀπλούστατα, 156c
8, 1955) 말할 때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느 것에도 결코 **있지 않으며** 어
떻게든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는다
이와 함께,

되어서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되어서는 것은 **실체**를 나누어 취하는 것과 알론한 무엇이 아니며 사
라지는 것은 **실체**를 벗어나는 것과 알론한 무엇이 아니다 그래서 **실체**를
나누지 않는한(실체에 놓여지지 않는한) 어떤 것도 **실체**를 **취할** 수도 벗어
날 수도 없다 그런데 **있지 않는** 하나(에)는 결코 **실체**(를 **나누지** 않으므로)
가 놓여지지 않으므로 하나는 **실체**를 **취하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서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와함께,

달라지지 않는 것이 논증된다

되어졌고 사라졌다면 달라짐을 이미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되어서지**

도 사라지지도 않으므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움직여지지도 쉬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달라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나아가서,

있지 않는 하나는 쉬지도 않는다 쉬는 것은 항상 동일한 것 안에 있을 것이나 이 하나는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움직여지지도 쉬지도 않는다 이와 함께,

큼도 작음도 똑 같음도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이 하나에는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 있다면 이미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에는 큼도 작음도 똑 같음도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이 하나에는 같지도 같지 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이 하나에 어떤 것도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도 그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이 하나와 같지도 같지 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 알론한 것에 대해서 같지도 같지 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다 이와 함께,

시간도 앎도 감각도 이름도 로고스도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나아가서,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저것의 또는 저것에 또는 어떤 것 또는 이것 (τοῦτο 164a8) 또는 이것의 또는 알론한 것의 또는 알론한 것에 또는 어느 때 또는 (어느 때) 이 후 또는 **지금** 또는 **앎** 또는 **역전** 또는 **감각** 또는 **로**

고스 또는 이름 또는 무엇이든 있는 알론한 것들도 있지 않다 있지 않는 하나는 어떤 것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 만약 있지 않을 경우의 알론한 것으로 넘어 가지 전에 실체를 지니는 있지 않는 하나 와 실체를 지니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를 섞어 논증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먼저,

그 안에 **얹**이 있으며 **있지 않는** 하나에는 **전혀 얹**이 **있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크기가 있지 않다 그리고 적음이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질 때에는 언젠지 **있지 않는** 것들의 **헤테론함**이 인식된다 **큼** 과 **적음**은 서로에 헤테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질 때에는 **알론한 것**의 헤테론함이 인식될 것이다 헤테론함과 더불어 **있지 않는** 하나가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에는 **첫 번째**(*πρώτον*, 160d4, 1937)로 **얹**이 **있다** 그러나,

가장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있지 않는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에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따라서 **얹** 또는 **역견** 또는 **감각** 또는 **로고스** 또는 **이름** 또는 이와 관련된 무엇이든 있지 않다 어떤 것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얹이 있는 하나에 얹이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여럿이며 (*여럿*이 아니라는 것이) 논증된다

있지 않는 것이 *하나*라면 있지 않는 것은 하나에 있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가 **여럿**을 나누어 지니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가 있지 않는 것이며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닐 때 그렇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가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로고스를 결코

발설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가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면 알론한 여럿의 하나가 있다 (그러나,

실체를 지니지 않게 되면 여럿일 수 없을 것이다)이와 함께,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 않는 하나는 스스로에 그리
고 알론한 것에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의 알론은 헤태론한 헤태론이기 때문에 알론한 것에 대한 그 하
나에 같지 않음이 있다 그리고 헤태론은 일 종의 알론이며 알론은 헤태론의
일종이며 알론은 같지 않음이므로 하나에 같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같지않는
것에 같지 않는 같지 않는 것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의 같
지 않음이 그 하나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의 같지 않
음이 하나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같지 않음도 하나에 있다 만약
하나의 같지 않음이 하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같지 않음이 스스로
의 같지 않음이 아니라면 하나의 로고스 와 전제는 하나의 로고스 와 전제
가 아니라 알론한 것의 로고스 와 전제일 것이나 결코 그럴 수는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실체를 지니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에는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에
는 같음도 같지 않음도 있지 않다 따라서,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않는 있지 않는 하나는 같지
도 같지않지도 않다 이와 함께,

똑같으며 똑같지 않고 크며 적은 하나는 똑같지도 똑같지 않지도 크
고적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똑 같음도 알론한 것에 있지 않다 만약 있다면 똑 같음에 따라서 같
음이 알론한 것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 같음이 알론한 것에
있지 않으므로 알론한 것들도 저것에 똑 같지 않다 그런데 똑 같지 않는 것

은 非똑같지 않다 그런데 비똑같은은 비똑같은과 비똑같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들에 있는 비똑같은을 나누어 지닌다 그러나 비똑같은은 크고 작음이다 따라서 하나에 크고 작음이 있다 그런데 크고 작음은 항상 서로에 차이난다 그래서 크고 작음 사이에는 항상 똑 같은이 있다 따라서 크고 작음이 있다면 항상 그 사이에 똑 같은이 있다 그리고 하나에 크고 작음이 있으므로 반드시 똑 같은도 하나에 있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똑 같으며 크고 적고 똑 같지 않다 그런데,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고 있는 하나에는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크고적지도 않다 따라서,

똑 같으며 똑 같지 않고 크고 적은 있지 않는 하나는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크고적지도 않다 이와 함께.

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있으며 실체아님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만약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했던 것이 진실이 아닐 것이며 만약 진실이라면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말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하므로 있는 것을 필연적으로 말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만약 있지 않는 것이 (결코) 있지 않다면 있음 과 있지않음 사이에는 있는 것 만(εἶθός, 162a3, 1945)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있는 것이 끝까지 주욱 있기 위해서는 있는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니면서 있지 않는 있음의 실체아님을 나누어 지녀야한다 있는 것 일반이 그렇다 그래서 있음 과 있지않음을 이어주는 끈이 필요하다 바로 이 끈이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욱 있으려면 있지 않는 것은 있는 있지 않음의 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니면서 있지 않는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녀야한

다 있지 않는 것 일반(τὸ μὴ ὄν μαλίστ', 162a7, 1945)이 바로 그렇다 그렇다
면 있지 않음의 있는 것에 그리고 있음의 있지 않는 것에 (나누어) 놓여지
므로 있지 않으려면 있음의 하나에 필연적으로 놓여져야만 한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있지 않는 하나는 실체와 실체아님을 나누어 지닌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있는 않는 것 이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에서 실체의 떨어져 나감과 알론한 무엇이 가리켜지지는 않는다 어떤 것
이 있지 않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것은 있고 어떻게
보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게(ἀπλούστατα, 156c
8, 1955) 말할 때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느 것에도 결코 있지 않으며 어
떻게든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는다 따라서,

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있으나 실체아님도 나누어 지니므로 있지 않
는 있지 않는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지 않다 이와함께,

쉬었으며 움직여지고 달라지며 달라지지 않고 되어지며 사라지는 그
하나는 되어지지도 사라지지도 달라지지도 움직여지지도 쉬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그런데 지니는 것은 지닌 것의 변화 없이는 어떤 것을 지닐 수 없다
지니는 모든 것은 지녔던 것에서 지닐 것으로 변한다 그런데 변화는 움직임
이다 그런데 있는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가 보여졌다 그래서 그렇게 지니고
그렇게 지니지 않는 것이 선명해진다 따라서 있음으로부터 있지않음으로의
변화를 지니므로 있지 않는 하나는 움직임을 지닌다는 것이 감히 보여졌다
그러나 결코 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옮겨졌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리 옮김에 의해서는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동
일한 것 안에서는 어떤 것도 들지 못한다 동일하게 있으므로 그 안에는 접
촉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지 않는 하나는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

서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안에 있지 않는 그것 안에서는 있지 않는 것이 결코 둘 수 없다 나아가서 있든 있지 않든 하나는 스스로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다면 더 이상 그 하나에 관한 로고스가 아니라 알론한 어떤 것에 관한 로고스가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라지지도 돌지도 자리 옮기지도 않는다면 움직여질 수 없고 움직여 질 수 없는 것은 멈춘다 그런데 멈춘 것은 필연적으로 *쥬다* 그래서 움직이며 쥬다 나아가서,

움직여졌다면 달라지기 이전 보다 클 것이다 움직여지는한 그 만큼 이전에 지닌 것을 더 이상 지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라진다* 그리고 움직여지지 않는한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가 움직여지는한 달라지며 움직여지지 않는한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있지 않는 하나는 달라지며 달라지지 않는다* 나아가서,

달라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먼저 것과 헤태론하게 되어지며 먼저 지녔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반면 달라지지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되어지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달라지는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며 벗어나는 반면 달라지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며 사라지고 되어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되어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실체**를 나누어 **취하는** 것과 **실체**를 벗어나는 것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체에 **놓여지지** 않는한 어떤 것도 그 **실체**를 **취하지**도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코 있지 않으므로 하나에는 결코 실체가 놓여지지도 벗어나지지도 나누어 취하여지지도 않는 것 처럼 보인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사라지지도 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이다 이미 되어졌다 사라졌다면 이러한 달라짐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결코 있지 않는 것은 쉬지도 않는다 쉬는 것은 동일한 어떤 것 안에 반드시 항상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은 어느 때든 쉬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는다 라고 우리는 다시 말한다 그래서 **되어지지도 사라지지도 달라지지도 움직여지지도 쉬지도 않는다** 따라서,

움직여지며쉬고 달라지며달라지지않는 되어지며사라지는 있지않는 하나는 되어지지도 사라지지도 달라지지도 움직여지지도 쉬지도 않는다 이제,

이러한 있지 않는 하나의 두 가지를 다음 쪽 도표에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전체		하나 만약 있지 않다 면	
		하나	
실체	非실체 (μη οὐσία) (162a8,1948)	나누어지니는	나누어지니지 않는
없		있는	있지않는
같음	같지않음		
큼	적음		
똑같음	똑같지않음		
쉬었음	움직여짐		
달라짐	달라지지않음		
됨	사라짐		

점선은 반대를 나타내며 겹 실선은 부정을 나타내고 홀 실선은 구분을 나타낸다는 것은 1864쪽 등의 도표에서 이미 쓰여진 바와 같다 그런데,

있지 않는 하나는 **실체** 뿐 아니라 **非실체**도 나누어 지닌다는 것을 1864쪽의 도표는 나타내지 못하지만 여기 도표는 나타낸다 그것도 그 실체와 비실체 사이를 점선이 아닌 겹 실선으로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정적으로 반 정립되기만 하는 그러한 것임에 분명하다 나아가서 비실체를 지니는 것 과 실체를 지니지 않는 것은 분명히 서로 구분되어야만 한다 만약 **非실체**를 지니는 경우 와 **실체**를 지니지 않는 경우를 구분되지 않는다면 파르메니데이스 자신이 이제까지 모두 헛 일을 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⁹⁰⁷)그러나,

2907) 구분할 수 없는 구분을 하려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실체를 지니는 것 과 실체를 지니지 않는 것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면 실체 와 비실체 사이의 구분도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알론한 것 내의 모든 구분이 사라지고 급기야는 하나 와 알론한 것 사이의 구분도 사라져야만 할 것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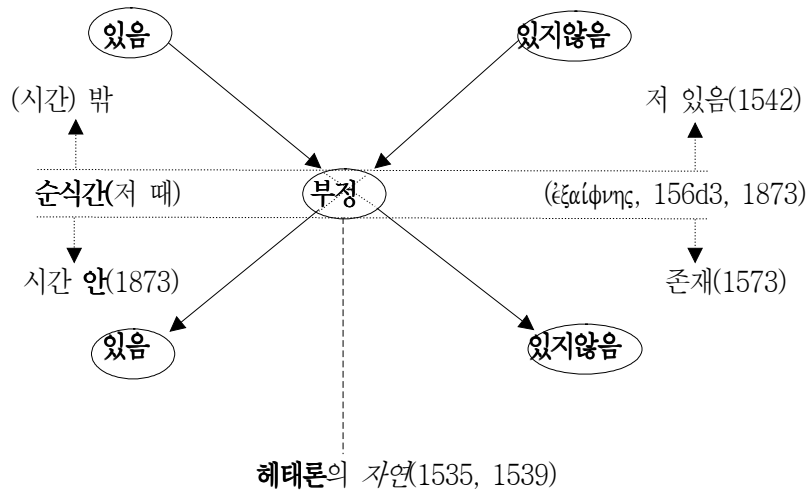
똑 같지 **않는** 것(τὰ μὴ ἴσα, 161c7-8, 1943)은 **비** 똑같은(ἀνισα, 161c8, 1943)것이라는 것을 허용 함으로서 파르메니데아스는 **비**(ἀ, 非) 와 **없음** 또는 **아님**(τὸ μὴ καὶ τὸ οὐ, 279c1, 1538)을 모두 같은 **부정**(ἀπόφασις, 257b9, 1538, 否定)으로 보는 것 같다 그렇다면 非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경우 와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경우가 서로 구분 될 수 없지 않은가 어쨌든,

비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파르메니데아스에 따르면 **있는** 것은 **있는 있음의 실체** 와 **있지 않는 있지 없음의 비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반면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는 있지 없음의 비실체** 와 **있지 않는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다시 말해 **있는** 것은 끝까지 있으려면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으면서 **있지 없음의 비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써 있지 않고 ‘있’어야 하며 **있지 않는** 것 역시 끝까지 있지 않으려면 **있지 없음의 비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써 있지 않으면서 있지 않고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있는** 것은 있으면서 **있지 않는** 반면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으면서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다** 물론 **있는** 것은 있으며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지만 말이다²⁹⁰⁸)그렇다면 다음 쪽의 도식을 그려 볼 수 있으리라

때문이다 역시 부정(否定)을 통해서 하나 와 알론한 것도 구분되기 때문이다

2908) 이 로고스는 가짜도 어떻게든 있다 라는 로고스와 통한다(1358)그리고 소피스테아스 편의 엘레아 낫선이가 주장한 로고스인 **있는** 것은 어찌보면 **있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있다** 라는 로고스를 다시 확인한다 (103)



이 그림은 있는 것이 실체와 실체아님을 어떻게 지녀 있고 있지 않는지를 보여 준다. 그 **지님**(1885, 1867)은 결코 시간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나 그 시간의 경계에서 **순식간** 저 때에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순식간이 반대로 변하는 때 이므로 그렇다.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를 포함한 모든 것은 실체와 실체아님을 지닌다. 이제,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에는 무엇이 잇따라 있을지에 관한 논증을 정리해야 할 때다. 파르메니데아스는 그 하나의 알론한 것 과 그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으로 나누어 논증하므로 이에 따라 정리해 보자. 서로의 알론한 것이든 하나의 알론한 것이든 **알론한 것은 덩어리**로 나타나지만 1921쪽 앞 위에 정리된 것 처럼 **있는** 알론한 것은 하나와 분리됐든 분리되지 않았든 **나타는** 것도 아니며 **덩어리**도 아니라는 것을 두고 두고 염두에 두라,

알론한 것은 무엇을 겪을 지를 정리하자

알론한 것들은 반드시 **있다**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을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걸리는 것이라 불리워지므로 알론한 것들에 관한 로고스가 있어서 알론한 것들이 있다면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한 것들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어디에서든 헤태론한 것들과 헤태론한 하며 알론한 것들은 어디에서든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지므로 있다면 알론한 것들이 어떤 것의 알론한 것들인 바로 **그 어떤 것이 필연적으로 다시 있다** 그러나 하나의 있는 것은 아니다 있지 않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 만이 우리에게 남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알론한 것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가 있지 않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들이 **있다** 이와함께,

이러한 알론한 것은 *무한히 많은 덩어리들*이라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가 아니라면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의 알론한 것은 무한히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 **한 움큼** 씩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각각 그것들의 덩어리로 무한히 많이 있을 것 처럼 보인다 잠자면서 꾸는 **꿈** 속에서 처럼 **순식간에** ‘처럼 보이는 것’ 하나에 맞서 여럿이 있으며 그 가장 적은 것으로부터 잘려진 작은 것들이 가장 적은 그것에 맞서 순식간에 엄청 커지는 것 처럼 말이다 알론한 것들은 바로 이러한 **덩어리들** 서로의 알론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각각으로 나타나는 **여러** 덩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그 **각각의 하나**²⁹⁰⁹⁾ 덩

2909) 있는 경우에 각각은 반드시 하나를 가리켰다(1897) 그런데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그렇다는 말인가.....아니다 있지 않는 하나의 경우 서로 알론한 것 각각은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키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어리는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가 **있지 않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은 **각각** 무한히 많은 **한 응큼**의 덩어리로 **있다** 이와함께,

알론한 것에는 수가 **처럼 보인 것으로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²⁹¹⁰⁾

만약 **각각**이 **하나**이며 **있는 여럿**의 각각이라면 알론한 것들의 수는 **처럼 보이는 것으로 있다**(*είναι*, 164e8, 1962)그리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짝으로 어떤 것은 홀로 **진짜 아니게** 나타난다 하나가 만약 있지 않을 거라면 그렇다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은 수처럼 나타나는 것이나 수로 진짜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한계를 지니며 한계 없는 하나 와 여럿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논증된다

그것들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 역전화 될 때 **가장 적은** 것은 보다 적은 여럿 각각에 **대한** 여럿들 과 크기들로 **나타나** 이러한 적은 여럿들에 **똑 같은** 각기 **덩어리로 역전화되 있다**(*δοξασθήμωεται είναι*, 165a2-3, 1963)더 큰 것 과 더 적은 것 사이에 **똑 같은** 것이 역전화 되기 이전에는 더 큰 것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아 가면서 **나타나지**는 않을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

2910) 비로 이 논증에 주목해야 하는가 하나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알론한 것들에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니 말이다 그러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인 수는(1372)하나가 있지 않다면 결코 생성될 수 없다(1904, 1931)반드시 하나를 나누어 지녀야만 수들이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1682, 1709-1710)그러나 하나가 있지 않다면 수는 서로의 알론한 것들에 있는 것 **처럼** 나타나 있다 비록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 **처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그렇다면 **한계**를 지니는 알론한 덩어리들에 대해서든 자신 덩어리들에 대해서든 알론한 것은 **시작도 한계도 중간도** 항상 지니지 않는다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니오이아 의해서 덩어리로 있는 알론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한 응큼 떼어 낼 때마다 그 시작 바로 앞의 알론한 것이 항상 시작으로 나타나며 그 끝 바로 뒤의 해태론한 것이 항상 끝으로 남게 되며 중간 안의 알론한 것들은 그 중간 보다 더 중간으로 그런데 더 적은 것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가 있지 않는한 이것들 각각이 하나로 집어질 수 취할 수 없으므로 그렇다 그래서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노이아에 의해서 한 응큼 집어들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든 **하나 없이** 항상 덩어리로 집어질 것이므로 더 잘게 부셔질 것이며 계속 부셔져 더 먼 것을 보는 자에게는 더 통거운 **하나** 덩어리 각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더 가까운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예리한 **무한한** 여럿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가 있지 않아 그 하나가 결여되므로 그렇다 이렇게 알론한 것들은 서로에 대해 무한하게 많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미 서로에 대해 **한계**지워진 알론한 것은 서로에 대해 **무한한** 여럿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같으며 같지 않는 것으로 역전화되어 나타나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화폭(畫幅)에] 그려진 것들은 떨어진 자에게는 모두 하나로 나타날 것이므로 **동일**을 겪어 **같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더 가까운 자에게는 해태론과 해태론한 환상들에 그리고 스스로들에 **여럿** 과 **해태론**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그 덩어리들의 **같음** 과 **같지 않음**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해태론을 겪으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에는 **같음** 과 **같지 않음**이 나타나 있다 이와 함께,

접촉하며 분리된 것으로 움직여지고 쉬는 것으로 되어지며 사라지고 **이 양자도 아닌 것으로** 이러한 모든 반대되는 것들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알론한 것이 같으며 같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접촉하며 분리된 것으로 움직여지며 쉬는 것으로 되어지며 사라지는 것으로 그리고 이러한 양자들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미 나열한 그런 모든 반대들로 나타난다 하나가 있지 않고 알론한 여럿이 있다면 말이다

이제까지는 서로의 알론한 것이 있다는 것의 논증이 요약 정리 되었다 비록 나타난 것이긴 해도 말이다 이제 하나^의 알론한 것도 있는지의 논증이 요약 정리 될 차례이다 물론 이 하나는 있는 하나가 아니라 **있지 않는** 하나이다 먼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의 알론한 것이라면 알론한 것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않다* 그 어떤 것도 하나로 있지 않다면 각기 모든 것도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여럿으로도 있지 않을 것이므로 알론한 것들 안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있지 않는 것들의 알론한 것**들은 결코 어떤 것에 교통하는(*κοινωνία*, 166a1, 1966)어떤 것도 나누어 지지 않는다 알론한 것들과 **나란하다**면 있지 않는 것들의 **그** 어떤 것도 알론한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을 것이며 있지 않는 것들에는 알론한 것의 그 어떤 부분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있지 않는 것의 역견도 환상도 있지 않으며 이러한 알론한 것들에 걸리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역전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의 어떤 하나도 여럿도 역전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없이는 여럿 역전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고 역전화되지도 않는다 이와 함께,

같지도 같지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테론하지도 접촉되지도 분리되지도 그리고 앞에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거론된 그 무엇으로도 있지도 않으며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이러한 어떤 것들에도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는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같지도 같지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테론하지도 접촉하지도 분리되지도 그 어떠한게도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와함께,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 가운데 서로 **의** 알론한 것들은 한 움큼씩 덩어리로 나타나 있으나 하나 **의** 알론한 것은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 요약 정리됐다 이제,

이 두 가지 알론한 것을 섞어 정돈(整頓)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먼저,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이 있는 반면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은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알론한 것들은 반드시 **있다**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을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걸리는 것이라 불리워지므로 알론한 것들에 관한 로고스가 있어서 알론한 것들이 있다면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한 것들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어디에서든 헤태론한 것들과 헤태론 하며 알론한 것들은 어디에서든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지므로 있다면 어떤 것의 알론한 것들인 바로 그 어떤 것이 필연적으로 다시 있다 그러나 하나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 만이 우리에게 남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알론한 것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이 있다 그러기에,

하나의 알론한 것은 있지 않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은 있으나 하나의 알론한 것은 있지 않다 이와 함께,

무한히 수적으로 많은 덩어리들로 나타나 있는 알론한 것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도 있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는 있지 않으므로 있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적은 것이 한 움큼 씩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각각 그것들의 덩어리로 무한히 많이 있을 것 처럼 보인다 잠자면서 꾸는 꿈 속에서 처럼 순식간에 ‘처럼 보이는 것’ 하나에 맞서 여럿이 있으며 그 가장 적은 것으로부터 잘려진 작은 것들이 가장 적은 그것에 맞서 순식간에 엄청 커지는 것 처럼 말이다 알론한 것들은 바로 이러한 덩어리 서로의 알론한 것들이 다 그렇다면 각각으로 나타나는 여러 덩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있지 않으므로 그 각각의 하나²⁹¹¹⁾덩어리는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911) 있는 경우에 각각은 반드시 하나를 가리켰다(1897) 그런데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그렇다는 말인가.....아니다 있지 않는 하나의 경우 서로 알론한 것

하나가 있지 않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은 각각 무한히 많은 한 응큼의 텅 어리로 있다 그래서 알론한 것에는 수가 처럼 보인 것으로 있다 만약 각각 이 하나이며 있는 여럿의 각각이라면 알론한 것들의 수는 처럼 보이는 것으로 있다(εἶναι, 164e8, 1962)그리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짝으로 어떤 것은 홀로 진짜 아니게 나타난다 하나가 만약 있지 않을 거라면 그렇다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은 수 처럼 나타나는 것이나 수로 진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알론한 것은 수적으로 무한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의 알론한 것이라면 알론한 것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않다 그 어떤 것도 하나로 있지 않다면 각기 모든 것도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여럿으로도 있지 않을 것이므로 알론한 것들 안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있지 않는 것들의 알론한 것들은 결코 어떤 것에 교통하는(κοινωνίαν, 166a1, 1966)어떤 것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알론한 것들과 나란하다면 있지 않는 것들의 그 어떤 것도 알론한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을 것이며 있지 않는 것들에는 알론한 것의 그 어떤 부분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있지 않는 것의 역견도 환상도 있지 않으며 이러한 알론한 것들에 걸리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역견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의 어떤 하나도 여럿도 역견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없이는 여럿 역견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고 역견화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각각은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키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무한히 수적으로 많은 덩어리들로 나타나 있는 알론한 것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도 있지도 않다 이와 함께,

한계를 지니며 한계 없는 하나 와 여럿으로 나타난다는 알론한 것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무한히 수적으로 많은 덩어리들로 나타난 각기 알론한 것들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 역전화 될 때 가장 적은 것은 보다 적은 여럿 각각에 대한 여럿들 과 크기들로 나타나 이러한 적은 여럿들에 똑 같은 각기 덩어리로 역전화되 있다(δοξαοθήμεται εἶναι, 165a2-3, 1963)더 큰 것 과 더 적은 것 사이에 똑 같은 것이 역전화 되기 이전에는 더 큰 것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아 가면서 나타나지는 않을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계를 지니는 알론한 덩어리들에 대해서든 자신 덩어리들에 대해서든 알론한 것은 시작도 한계도 중간도 항상 지니지 않는다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노이아 의해서 덩어리로 있는 알론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한 움큼 떼어 낼 때마다 그 시작 바로 앞의 알론한 것이 항상 시작으로 나타나며 그 끝 바로 뒤 의 해태론한 것이 항상 끝으로 남게 되며 중간 안의 알론한 것들은 그 중간 보다 더 중간으로 그런데 더 적은 것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가 있지 않는한 이것들 각각이 하나로 집어질 수 취할 수 없으므로 그렇다 그래서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노이아에 의해서 한 움큼 집어들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든 하나 없이 항상 덩어리로 집어질 것이므로 더 잘게 부서 질 것이며 계속 부서져 더 먼 것을 보는 자에게는 더 통거운 하나 덩어리 각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더 가까운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예리한 무한한 여럿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가 있지 않아 그 하나가 결여되므로 그렇다 이렇게 알론한 것들은 서로에 대해 무한하게 많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미 서로에 대해 한계지워진 알론한 것은 서로에 대해 무한한 여럿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 않음)

므로 한계지워져서도 무한하게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서로에 대해 한계위지며 무한한 여럿으로 나타나는 알론한 것은 (한계지워지지도 무한하지도 않다) 이와함께,

같으며 같지 않는 것으로 **역전화되어 나타나 있는** 알론한 것은 같게도 같지 않게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화폭(畫幅)에] 그려진 것들은 떨어진 자에게는 모두 하나로 나타날 것이므로 **동일을 겪어 같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더 가까운 자에게는 **해태론한 환상들에 그리고 그 해태론한 환상들과 해태론한 환상들에 여럿과 해태론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그 덩어리들의 **같음과 같지 않음**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해태론을 겪으면 같지 않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에는 같음과 같지 않음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것들에도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는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므로 그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는 그 어떠한 것도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같게도 같지않게도 나타나지도 있지도 않다 따라서,

같게 같지않게 나타나 있는 알론한 것은 같게도 같지않게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접촉하며 분리된 것으로 움직여지고 쉬는 것으로 되어지며 사라지고 이 양자도 아닌 것으로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반대되는 것들로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나타나 있는** 알론한 것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그러하게도 그러하지않게도 나타나지도 있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알론한 것이 같으며 같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접촉하며 분리된 것으로 움

직여지며 쉬는 것으로 되어지며 사라지는 것으로 그리고 이러한 양자들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미 나열한 그런 모든 반대들로 나타난다 하나
가 있지 않고 알론한 여럿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같지도 같지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접촉되지도 분리되지도
그리고 앞에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거론된 그 무엇으로도 있지도 않으며 나
타나지도 않는다 이러한 어떤 것들에도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는 있
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되는 속성들로 나타나 있는 알론한 것은 어떤 반대되는 속성들로
도 나타나지도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하나가 있지 않는 경우의 이러한 *알론한* 것을 나는 도표로 다시 나
타내려 한다 서로를 부정(否定)하는 이러한 두 가지 알론한 것의 부정을 그
려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마 다음 쪽 처럼 도표 안에 가두어 질 수 있으리
라 하나 만약 있다면의 알론한 것을 나타내는 1925쪽 도표를 참조하라

전제	하나 만약 있지 않다 면		
	알론한 것		
	서로의	하나의	
있는 것	한 응큼씩 덩어리 로 각각에 나타남	나타나지않음	
하나	나타남		
여럿	무한히 많이 나타남		
수		각각	양자
한계	한계없음	나타남	나타나지않음
동일	헤테론		
같음	같지않음		
접촉	분리		
움직여짐	쉽		
됨	사라짐		
모든반대것			

여기에서도 점선은 반대를 가리키는 반면 겹 실선을 부정(否定)을 나타낸다 나아가서 여기 알론한 것은 반드시 각각 한 응큼 씩 나타나며 그리고 이러한 나타남²⁹¹²⁾은 하나가 있지 않을 경우에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는 1925쪽의 알론한 것과 구분된다 그러나 **순식간에** 걸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알론한 것 이라는 점에서는 여기는 거기와 일치한다 물론 그렇다고 **시간 안에 있지 않는**다는 말은 거기에서나 여기에서나 허용되지 않는다 시간이 저 때를 통해 순식간에 걸리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있지 않을 경우 하나 와 알론한 것에 잇따를 무엇을 함께 다음 쪽의

2912) 자면서 꾸는 꿈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말하여진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도표로 나타내 보자²⁹¹³⁾

전제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		알론한 것	
			서로의	하나의
실체	비실체	나누어지니는	나누어지니지 않는	
앞				
반대들	있는	있지 않는	한 응큼씩 덩어리로 나타나 있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대들은 각각 한계와한계없음 동일과혜태론 같음과같지않음 똑같은
과똑같지않음 큼과적음 쉬었음과움직여짐 달라짐과달라지지않음 됴과사라짐
그리고 이와 같은 각기 모든 짝을 말한다 그러나 위 도표에 나오는 점선은
1864쪽 등에서와는 달리 반대를 나타내지 않는다 실체 와 非실체는 반대
(모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537, 1880)마찬 가지로 2008쪽에서 처럼
부정(否定)적인 반 정립을 나타내지 반대(έναντίον, 257b9, 1538)인 반 정립
을 나타내지 않는다 물론 반 정립(ἀντίθετος, 257e6, 1541)된다는 점에서는
반대 이간해도 말이다 나아가서,

실체 와 비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그리고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고 있지 않으며 있지도 있지 않지도 않는 모든 것 각기 모든 반대되는 짝

2913) 있는 경우의 하나 와 알론한 것을 나타내는 1931쪽의 도표를 참조하
라

으로 있으며 있지 않고 그리고 있지도 있지않지도 않고 그렇게 나타나며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나타나지도 나타나지않지도 않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알론한것이기능 해도 말이다 자!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의 모든 경우(2008, 2021, 2022) 와 하나 만약 있다면의 모든 경우(1864, 1925, 1931) 와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의 모든 경우(1666)의 도표를 그렸으니 이제 이 세 가지 모든 경우를 뒤 섞어 정리할 차례이다 그러면 있는 모든 것의 구분이 한 눈에 들어 올 것이다 먼저,

하나를 어떻게 ‘파르메니데이스’가 구분하는지 정리해 보자 *만약 하나 있다면* 과 *하나 만약 있다면* 과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등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그가 구분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옮겨져 요약 정리 도표로 보여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셋을 하나로 묶어 정리한 후 도표로 나타내 보자 먼저,

이 세 경우 모두 **있음**이 전제된다 그런데 그 있음은 *하나 만약 있다면* 과 *하나 만약 있다면* 과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등의 레에마(句)로 갈라져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맨 앞 *하나*는 순수한 저 **있음**(1543)만을 전제하며 가운데 하나는 **실체**를 전제하고 맨 뒷 하나는 **실체** 와 **非실체**를 함께 전제한다²⁹¹⁴)따라서 하나가 세 가지로만 구분되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2914) 따라서,

나는 **있음** 과 **실체**(존재)를 구분한다 **실체**가 어떻게 해서 저 **있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에 관해서는 소피스테이스 편의 **있음**을 마무리하는 그림인 1573을 참조하라

이에서 더 갈라진다 가운데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과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맨 뒤 하나는 실체와 비실체를 함께 나누어 지니는 것과 함께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나누어짐을 포함하면 **하나**는 순수한 있음을 전제하는 하나와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와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하나와 실체와 비실체를 함께 나누어 지니는 하나와 실체와 비실체를 함께 나누어 지니지 않는 하나 등 다섯 가지로 갈라진다 이제 나는 이 다섯 가지 하나에 관한 모든 논증들을 뒤 섞어 정리할 것이다 먼저,

*부분도 전체도 지니지 않는 하나는 부분의 전체이며 전체의 부분이고 여럿이며 여럿이 아니라*는 것이 논증된다

부분은 어디에서건 전체의 부분이며 전체는 부분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으므로 만약 하나에 전체와부분이 있다면 양자적으로 하나는 그 양자 각각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는 양자적일 것이다 그러나 전제된 그대로 저 하나는 **하나 자체일** 뿐이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따라서 저 하나의 전체도 부분도 있지않다 그런데,

있는 하나 전체는 있는 부분과 하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있는 하나의 있음과 하나이므로 부분은 전체의 부분이다 따라서 부분을 지니는 **하나 전체가 있다**²⁹¹⁵⁾그러나,

순식간²⁹¹⁶⁾에는 하나도 여럿도 있지 않다 순식간에서는 하나에서 여

2915) 하나 자체와 하나 전체가 선명히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소피스테이스 편에서도 확인된다(1421)

2916) 순식간에 관한 논증은 다음과 같다,

만약 하나 있다면 하나는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는 반면에 *하나* 만약 있다면 하나는 하나와 여럿으로 있으며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 그

럿으로 그리고 여럿에서 하나로 변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래서 어느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는 있지만 어느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 않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저 때 나누어 지니는 것이 그 때 나누어 지니지 않거나 저 때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이 그 때 나누어 지닐 수 없다 따라서 **알론한 시간 안에** 나누어 지니며 알론한 시간 안에 나누어 지니지 않는 길로만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그래서 있음을 취하는 **어느 때** 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면 나누어 취하는 **저 때** 있음을 잃는 그러한 **시간**은 있을 수 없고 있음을 지니는 **그 때** 있음을 지니지 않는 그러한 **시간**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됨은 실체를 나누어 취함이며 **사라짐**은 실체를 잃음이므로 실체를 취하면 하나는 필연적으로 **되어질** 것이고 실체를 잃으면 하나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때 마다 여럿 **있음**은 사라지며 여럿이 되어질 때 마다 하나 **있음**이 사라지는 그런 길로 **하나있는**여럿은 **되어지며**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하나로** 되면서 필연적으로 붙는 반면 **여럿이** 되면서 필연적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같지 않음** 과 **같음**이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같아지지 않고 같아질 것이다 그리고 **크고 적고** 똑 같게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자라나고 줄어들며** 똑 같아질 것이다 그런데,

움직여짐이 쉬어짐으로 그리고 **쉽이 움직여짐**으로 **변할** 때 마다 어디에서든 하나는 어떤 **시간 안에** 있지 않다 먼저 쉬고 나중에 움직여지든 먼저 움직여지고 나중에 쉬든 움직여지는 것은 **변함**이 없이는 쉽을 겪을 수 없으며 하나의 **시간 안에서**는 어떤 것도 움직여지면서 **동시에**(ἀμα, 156c6, 1872)쉬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함** 없이는 어떤 것도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 안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변할**까 저 때 변하는 그 이상한 때 **순식간에** 변한다

어느 한 시간 **안**에도 있지 않으면서 **움직여짐** 과 **쉽**의 사이에 놓여

있지 않는 것이 *하나*라면 있지 않는 것은 하나에 있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가 **여럿**을 나누어 지니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가 있지 않는 것이며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닐 때 그렇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가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로고스를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가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알론한 여럿의 하나가 있다** (그러나,

실체를 지니지 않게 되면 여럿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럿이 있지 않는 하나가 여럿으로 순식간에 변해 하나에 여럿이 있다 그러나 전혀 하나도 여럿도 있지 않다 이와함께,

무한한 하나는 유한하며 무한에서 유한으로 변하고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자신의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면 저 하나는 시작도 끝도 중간도 지니지 않는다 이것들은 그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작 과 끝은 한계들이다 그래서 시작 과 끝을 지니지 않는다면 저 하나는 한계들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무한하다* 그런데,

있는 하나의 부분 있음 과 하나는 각기 서로를 떠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 양자 각각 하나는 다른 하나를 머금는다 그리고 이러한 두 부분으로부터 있음을 머금는 가장 적은 부분 하나가 생겨나고 다시 가장 적은 이

지는 이러한 **순식간**의 *이상한 어떤 자연* 때문에 움직여짐은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고 쉬운 더 이상 쉬지 않은채 움직여지는 것은 쉽므로 그리고 쉬는 것은 움직여짐으로 순식간에 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반대의) 어느 한 쪽으로부터 어느 한 쪽으로만 일어나므로 쉬운 움직여짐으로만 움직여짐은 쉽므로만 변한다 그리고 변하는 저 때 **순식간**에는 움직여짐도 쉽도 있지않으며 시간도 있지않다

부분으로부터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 부분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부분들이 생겨날 때 마다 있는 부분은 하나를 하나 부분은 있음을 머금기 때문에 하나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양자적이다 그래서 하나는 수적으로 *무한히* 많아진다 나아가서 **있는** 하나의 부분은 그 전체에 의해서 둘러쌓인다 그 부분 하나는 있는 하나 전체의 부분이고 하나는 전체에 의해 한계지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계지워지면 극단들을 지닌다* 시작 과 중간 과 끝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 전체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므로 전체라면 반드시 이 셋을 지니며 중간은 양 극단들과 똑 같이 멀기 때문이다 *알론하게* 멀다면 더 이상 중간이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있는 전체 하나*도 시작 과 중간 과 끝을 지닌다 따라서 *유한*하다 그러나,

[순식간에서 무한이 유한으로 변한다 한정 없다가 한정되어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하나가 있지 않다면] 이와함께,

모양이 없는 하나에 모양이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극단들이 중간에서 모든 방향으로 똑 같이 떨어져 있으면 둥근 반면 극단 양자 앞에(ἐπιπροσθεν, 137e4, 1609)중간이 있으면 곧다 바로 이러한 둥근 또는 곧음을 나누어지녀야 모양을 지닌다 그래서 모양을 지닌다면 반드시 극단들 과 중간을 지녀야 할 것이나 부분을 지니지 않으므로 하나는 극단 양자 와 중간을 지닐 수 없다 따라서 하나에는 모양이 있지않다(1609) 그런데,

있는 하나는 자신의 부분들을 지닌다 그래서 둥글든지 아니면 곧든지 아니면 *둥글과곧음* 이 양자가 섞어진 모양을 지닌다(1687)그러나

[둥금에서 곧음으로 그리고 곧음에서 둥금으로 변하는 순식간에는 둥금도 곧음도 있지않고 둥글게도 곧게도 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따라서,

모양이 없는 하나에 모양이 있다 이와 함께,

하나는 어떤 것 **안에**도 있지않는 한 편 스스로 **안에**도 **알론한 것 안**
에도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알론한 것 안에 있다면 자신을 둘러 쌓는 것에 의해서 빙 둘러쌓일
것이며 빙 둘러 쌓는 것의 여러 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접촉할 것이나 부분
들도 지니지 않고 둥글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는 **알론한 것 안에 있지 않다**
나아가서 **자신 안에** 있다면 스스로에 의해서 빙 둘러 쌓일 것이다 그런데
빙 둘러 쌓는 것 과 빙 둘러 쌓인 것은 서로에 헤태론하다 동일한 것이 전
체를 양자적으로 동시에 빙 둘러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헤태
론하다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둘일 것이다 따라서 **하나만** 있다면 그 하
나는 스스로 **안에** 있지 않다(1610-1611)그런데,

있는 하나의 부분들은 전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안에**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전체에 의해 빙 둘러 쌓인다 그런데 빙 둘
러 쌓여지는 모든 부분 각각은 다른 부분 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는 하나이
나 마찬가지로 전체도 하나이다 따라서 전체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이고 그 전체도 하나라면 그리고 모든 것이 전체에 의해 둘러
쌓여졌다면 하나가 하나에 의해서 둘러 쌓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는
스스로 안에 있다 나아가서 전체는 모든 부분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많은
부분이든 **부분 안에** 있을 수 없다 첫째, 모든 것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
안에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하나 안에 있지 않다면 더 이상 각기모든 것(ἄν
ασις, 145d2, 1688-1689)안에 있을 수 없을 것이므로 그렇다 그래서 각기모
든 것의 하나가 있고 바로 이러한 **하나 아닌 것**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전체
는 모든 것 안에 있을 수 없다 둘째, 어떤 부분 안에 전체가 있다면 더 많
은 것이 더 적은 것 안에 있을 것이나 그럴 수는 없으므로 전체는 어떤 부
분 **안에**도 있지 않다 셋째, 마찬가지로 이 때문에 많은 부분 안에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어떤하나이든 모두이든 부분 안에는 전체 하나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전체는 헤태론한 것 안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나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다면 아무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므로 자신 안에 있지 않다면 전체는 자신과 알론한 것 안에 있어야만한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 헤태론한 것 안에 전체 하나는 있다 따라서 하나는 자신 안에도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도 있다 그러나,

[순식간에는.....] 나아가서,

[있지 않는 하나에는 ?] 따라서,

스스로 안에도 헤태론한 것 안에도 있지 않는 하나는 스스로 안에도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도 있다(1689)이와함께,

쉬어왔지도 않고 움직여지지도 **않는** 하나는 움직이고 쉬고 있으며 쉬어왔지도 움직여왔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움직임은 **움아갔음**이든지 **알론하게 됨**이다' 이것들만이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스로와 알론하게 되는 하나는 더 이상 하나일 수 없으므로 하나는 더 이상 **알론하게됨의 측면에서는 움직여지지 않는다** 나아가서 옮겨졌다면 **자신 안에서** 등글게 **움아다녔거나** 헤태론한 곳에서 헤태론한 곳을 자리를 바꾸었을 것이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중간을 거쳐서 오가면서 중간 주위로 등글게 옮겨 가는 것은 스스로와 알론한 부분을 지녔을 것이므로 중간을 지니지 않아 그 중간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중간을 필연적으로 거쳐서 중간 주위로 등글게 원을 그리면서 **움아다닐 수 있는** 도구를 지닐 수는 없다²⁹¹⁷)그래서 어떤 부분도 지니지 않는 하나는 **움아 다니는 움직임**을 지닐 수 없다 나아가서 자리가 변했다(ἀμείβον, 138d3, 1614)는 것은 알론하게 됨다는 것이며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 **안에도**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는 **되어질** 수도 없다 만약 어떤 것 안에서 되어진다

2917) 없다는 있지 않다는 강조일 뿐이다(1560)

면 저 것 안에서도 밖에서도 되어졌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하다면 자신의 부분을 겪는 것만이 저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어떤 부분은 저 것 안에 동시에 어떤 부분은 저 것 밖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부분을 지니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의 **내부에**(ἐντός, 138e4, 1615) 전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것 **밖에** 전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부분과도 전체와도 마주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훨씬 더 **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부분으로도 전체로도 되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 안에 자리를 알론하게 하거나 자신 안에서 자리를 두루 옮기거나 알론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움직임의 측면에서 하나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어떤 것 안에도 **있을 수 없는** 하나는 어느 때이든 **동일한 것** 안에 있을 수 없다 어떤 것 안에 있다면 동일한 것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 그리고 알론한 것과 같은 동일한 것안에 하는 어느 때이든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머무르지도 쉬어왔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는 쉬어왔지도 않다(1617)따라서 하나는 쉬어왔지도 않고 움직여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있는 하나는 **동일한 것 안에** 있다 그런데 동일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것은 항상 쉬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쉬고 있다 그러나 **헤태론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것은 그 반대인 것 곧 동일한 것 안에 결코 있지 않으며 동일한 것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쉬지 않는다 그래서 **헤태론한 것 안에** 있는 하나는 쉬지않고 움직여진다 따라서 **스스로 안에** 그리고 **헤태론한 것 안에 있는** 하나는 필연적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쉰다(1690)그러나,

어느 한 시간 **안에도** 있지 않으면서 **움직여짐** 과 **쉽**의 사이에 놓여지는 **순식간의 이상한 어떤 자연** 때문에 움직여짐은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고 쉽은 더 이상 쉬지 않은채 움직여지는 것은 쉽으로 그리고 쉬는 것은 움직여짐으로 순식간에 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반대의) 어느 한 쪽으로부터 어느 한 쪽으로만 일어나므로 쉽은 움직여짐으로만 움직여짐은 쉽으로만 변한다 그리고 변하는 저 때 순식간에는 움직여짐도 쉽도 있지않으며

시간도 있지않다(1891)그런데,

지나는 것은 지닌 것의 **변화** 없이는 어떤 것을 지닐 수 없다 지나는 모든 것은 지녔던 것에서 지닐 것으로 변한다 그런데 변화는 움직임이다 그런데 있는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가 보여졌다 그래서 그렇게 지니고 그렇게 지니지 않는 것이 선명해진다 따라서 있음으로부터 있지않음으로의 변화를 지니므로 **있지 않는** 하나는 **움직임을 지닌다는 것이 감히 보여졌다** 그러나 결코 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옮겨졌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리 옮김**에 의해서는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동일한 것 안에서는 어떤 것도 돌지 못한다 동일하게 있으므로 그 안에는 접촉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지 않는 하나는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안에 있지 않는 그것 안에서는 있지 않는 것이 결코 돌 수 없다 나아가서 있든 있지 않든 하나는 스스로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다면 더 이상 그 하나에 관한 로고스가 아니라 알론한 어떤 것에 관한 로고스가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라지지도 돌지도 자리 옮기지도 않는다면 움직여질 수 없고 움직여 질 수 없는 것은 멈춘다 그런데 멈춘 것은 필연적으로 **쥬다**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는 움직이며 쥬다(2006)그러나,

(가장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있지 않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따라서 쉬었음도 움직여짐도 있지않다(2005))따라서,

쉬었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는 하나는 순식간에 쥬에서 움직여짐으로 움직여짐에서 쥬으로 변하므로 쥬과움직임을 나누어 지니게 되 쉬었음으로 있고 있지 않고 움직임으로 있고 있지 않다 그리고 쉬었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다 이와함께,

자신과도 알론한 것과도 **동일하지도 않고 헤태론하지도 않는** 하나는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과 **동일하고 헤태론하다**며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은 하나와도 헤태론할 것이므로 하나가 **아**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이 아니며 그리고 헤태론과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 것이지 하나 스스로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헤
 태론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하나 있음에 의해서는(τῷ ἔν εἶναι,
 139c6, 1618)하나와 헤태론할 수 없다 어떤 것과 헤태론하게 있음에 의해서
 는 하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헤태론함에 이르러 뿐이기 때문이다 나
 아가서 하나에 의해서 헤태론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 스스로에 의해서도
 헤태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에 의해서도 스스로에 의해서도
 헤태론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떻게해서도 하나는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자신이 헤태론한 어떤 것보다도 헤태론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아가서, 하나의 자연은 동일한 것의 자연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않다면 어떤
 것에 동일한 것이 되어질 때 마다 하나가 되어져야만 할 것이나 여럿에 동
 일한 것이 되어질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
 나 하나 와 동일이 결코 차이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것이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하나가 되어져야하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동일한 것이 되
 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스스로와 동일하다면 하나는 스스로와
 하나가 아닐 것이므로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 가
 능하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각
 기모든 것에 대해 동일하든지 아니면 헤태론하든지 아니면 부분의 전체이
 든지 아니면 전체의 부분으로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있는 하나는 자신의 부
 분이 아니므로 스스로에 대해 부분으로 있지 않으며 그래서 부분의 전체로
 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와 헤태론하지 않으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가 스스로에 대해 부분도 전체도 헤태론하지도
 않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는 스스로에 대해 동일하게 있다 그런데 하나는 스
 스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헤태론한 것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으
 며²⁹¹⁸)스스로와 헤태론한 것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와 동일한 것 안에 있는
 것은 스스로와 필연적으로 헤태론하다 헤태론한 곳에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하게있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필연적으로 헤태론

한 것과 해태론하며 그리고 하나와 **해태론한** 것은 하나 **아닌** 것이므로 하나는 하나 아닌 것과 해태론하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해태론하게 있다 그런데 동일한 것과 해태론한 것은 반대이다 그래서 동일한 것은 해태론한 것 **안에** 해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느 시간 동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동일한** 것 안에는 어느 때도 있지 않으므로 **해태론한** 것은 **있는** 어떤 것들 안에 어느 때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와 하나 아닌 것은 있는 어떤 것이어서 안에 해태론한 것이 있지 않으므로 해태론에 의해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과 그리고 하나 아닌 것은 하나와 해태론해질 수 없다 그러나 해태론을 나누어지니지 않는다면 스스로들에 의해서도 서로에 해태론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들에 의해서도 해태론에 의해서도 해태론하지 않다면 하나 와 하나 아닌 것은 해태론하지 않다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하나 **아닌** 것을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로 있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수가** 아니다 수를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 아닌 것이 아닐 것이므로 그렇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하나의 부분이 아니다 부분이라면 하나를 나누어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하나의 전체도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 전체거나 부분이거나 해태론하거나 동일한 것인데 전체도 부분도 해태론한 것도 아니므로 필연적으로 동일하다 이제 하나는 하나 **아닌** 것에 대해 그러하므로 하나는 하나 아닌 것에 대해 동일하다 곧 알론한 것에 대해 동일하다 그렇다면 하나는 스스로와 알론한 것들에 동일하며 해태론하게 있다 그러나,

[순식간에는.....]나아가서,

[있지 않는 하나에는.....] 따라서,

이렇게 하나는 자신과도 알론한 것과도 **동일하지도** 않고 **해태론하지**

2918) 145b6 - 145e7(1687-1689, 1717-1718)에서 보여졌다

도 **않으며** 그리고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과 **동일하고** **헤태론하게** **있다**는 것이 논증됐다 이와 함께,

자신과도 같지도 같지도 않고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은 하나는 스스로에 같고 같지 않으며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않고 스스로에도 **알론한** 것에도 같고 같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같은 것은 어디서나 **동일한** 것을 겪는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하나와 분리되는** 자연을 지녔었으므로 **동일함**을 겪는 것은 반드시 **하나와**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 보다 많아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과도 동일하지 않는 하나는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 나아가서 **같지 않는** 것은 어디서나 **헤태론**을 겪는다 헤태론의 자연은 자신을 겪는 것들을 **있지 않게**하면서 그 부분들로 나누기 때문이다²⁹¹⁹⁾그런데 어떤 것과도 헤태론하지 않으므로 하나는 같지 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스스로와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하게 **있다**는 것이 보여졌었으므로 알론한 것 역시 하나와 헤태론할 것이다 그러는한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을 겪고 알론한 것은 하나와 헤태론을 겪을 것이며 그러는한 양자는 헤태론한 동일한 것을 겪었을 것이다²⁹²⁰⁾그런데 **같은** 것은 어디에서건 **동일한** 것을 겪

2919) 헤태론의 자연은 헤태론하게 하면서 어떤 것을 있지 않게하며(1535) 어떤 것을 부분들로 나눈다(1539)라는 로고스를 상기하라

2920) **이름**을 숙고해 보자 이름은 어떤 것에 **걸쳐** *émi*, 147d1, 1732)있다 이제 이러한 이름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부를 경우 만약 동일한 이름이라면 매 번 그 이름은 동일한 어떤 것에 걸치지 그 어떤 것이 **아닌** 것에 걸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헤태론의 이름 역시 어떤 것에 걸치는 이름이므로 이 이름이 발설될 때 마다 그 어떤 것이 **아닌** 것에 걸치지지는 않을 것이

는다 따라서 각기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과 **혜태론한** 동일을 겪을 것이므로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동일한 **혜태론을 겪는**한 각기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가 알론한 것에 **혜태론**하는 바로 그 **혜태론**함에 의해서 **있는**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다** 그런데 같은 것은 같지 않는 것의 **반대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도 **혜태론한** 것에 반대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에 **있는** 동일함도 알론한 것에 있는 **혜태론**함에 반대일 것이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동일한 **혜태론**인한 **같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따라서 **혜태론한** **동일**인한 **같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알론한 것과 동일하다면 이러한 동일함에 의해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²⁹²¹)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다 그런데 동일을 겪는한 알론을 겪지않으며 알론을 겪지않는한 같지않지않고 같지않지않는한 **같다** **알론**을 겪는한 알론하며 알론한한 같지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알론한** 것과 동일하며 **혜태론**하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고 같지않다 그렇다면 스스로와도 하나는 그러할 것이다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하며 **혜태론**하다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같고 같지않다 그러나,

(같은 것에서 같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같지 않는 것에서 같은 것으로 순식간에 변하므로 순식간에서는 같음을 지니지 않고 같지 않음을 지니

고 그래서 알론한 것은 하나와 **혜태론**하며 하나는 알론한 것과 **혜태론**하다고 말하여질 때 마다 발설되는 **혜태론**의 이름은 **알론한** 어떤 것에 걸쳐지는 것이 아니므로 알론한 것이 하나와 **혜태론**하며 하나가 알론한 것과 **혜태론**한한 **혜태론**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니라 **혜태론**과 **동일**한 것(τὸ αὐτὸ, 148a2, 1733)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동일한 **혜태론**을 겪는다 자²⁹²¹) 하나는 알론한 것과 동일하다(1755)는 것이 이미 보여졌고 **혜태론**은 어디에서든 한결 같기 때문에 그리고 같지 않음에의해서 동일해지지 않는다면 동일은 **혜태론**의 반대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면서 같지 않음을 지니면서 같음을 지니지 않는다 그래서 순식간에는 같음과 같지 않음이 있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그런데,

하나의 알론은 헤태론한 헤태론이기 때문에 알론한 것에 대한 그 하나에 같지 않음이 있다 그리고 헤태론은 일종의 알론이며 알론은 헤태론의 일종이며 알론은 같지 않음이므로 하나에 같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같지 않는 것에 같지 않는 같지 않는 것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의 같지 않음이 그 하나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의 같지 않음이 하나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같지 않음도 하나에 있다 만약 하나의 같지 않음이 하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같지 않음이 스스로의 같지 않음이 아니라면 하나의 로고스와 전제는 하나의 로고스와 전제가 아니라 알론한 것의 로고스와 전제일 것이나 결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이다(2003) 그러나,

실체를 지니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에는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에는 같음도 같지 않음도 있지 않다 따라서,

스스로에 같지도 않고 같지 않지도 않으며 알론한 것에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는 하나는 순식간에 같음과 같지 않음을 지니고 지니지 않아 그 결과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 않게 되며 있고 되지 않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다 이와함께,

스스로와 똑 같지도 똑 같지도 않으며 알론한 것과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않는 하나는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똑 같고 똑 같지 않게 있으며 스스로와도 자신과도 똑같지도 똑같지 않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동일한 **척도**를 지녀야 똑 같다 그리고 척도들이 있는 그 만큼 **제어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어된 부분**들 중에는 함께 제어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함께 제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함께 제어됐든 함께 제어되지 않았든 더 많은 것 보다 더 적은 척도들 또는 더 적은 것 보다 더

많은 척도들이 있다면 더 적은 것 보다 더 큰 것들 또는 더 큰 것 보다 더 적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반면 동일한 척도를 지니지 못하면 그와 알론한 척도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척도들 만큼 재어진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 척도 있다면 하나와 척도가 똑 같아야 하는데 하나와 동일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 척도를 나누어 지니지도 동일한 또는 많은 또는 적은 척도를 나누어 지니지도 못한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똑같지도 똑같지 않지도 그리고 알론한 것과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않다 그런데,

있는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똑 같고 똑 같지 않다 만약 스스로 **안에** 크기도 적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스스로를 초과하지도 스스로에 의해 초과되지도 않을 것이다 반드시 크기는 적음을 초과하는 반면 적음은 크기에 의해 초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과하지도 초과되지도 않는다면 똑 같다 큼 또는 적음으로부터 있지 않다면 똑 같음으로부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안에 크기 와 적음이 있지 않으므로²⁹²²⁾하나

2922) 하나 안에 큼 과 적음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래 처럼 논증된다 먼저,

하나 ((안))에는 적음이 있는가 만약 하나 **안에서** 적음이 되어진다면 하나 전체 안에서 되어지든지 아니면 하나 부분 안에서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전체 안에서 되어진다면 하나 전체에 두루 퍼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를 둘러쌀 것이다 그러나 전체에 두루 퍼져 있다면 두루 퍼진 그 적음이 하나와 똑 같을 것이나 둘러싸고 있다면 둘러싸고 있는 적음이 하나 보다 클 것이다 그러나 적음이 그 **있음**에 의해(τῷ εἶναι, 150a7, 1741)어떤 것과 똑 같거나 보다 더 클 수는 없으며 적음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똑 같음 과 큼 의 일을 수행할 수는 없다 나아가서 어떤 부분 안에도 적음이 있을 수 없다 부분 안에 있다면 전체 안에 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음은 그 부분과 똑 같거나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다 따라서

는 자신과 똑 같게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크거나 적다면 그 안에는 초과되는 적음이나 초과하는 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으므로 알론한 어떤 것도 하나 보다 클 수 없다 그래서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크지도 적지도 않다 하나에 대해서 초과하거나 초과되는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크기 와 적음이 서로에 대해 그러한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알론한 것에 대해 하나는 있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크지도 적지도 않을 것이고 크지도 적지도 않다면 하나는 초과하거나 초과되는 힘을 지니지 않을 것이며 초과하거나 초과되지 않는 것들은 똑 같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똑 같게 있다 그러나 하나는 스스로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으므로(1717, 1721)하나는 바깥에서 둘러쌓는 스스로 안에 있다면 둘러쌓는 것은 둘러쌓이는 것 보다는 큰 반면 둘러쌓이는 것은 둘러쌓는 것 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하나는 자신 보다 크고 적다 크고 작다면 똑 같지 않으므로 하나는 자신과 똑 같지 않게 있다 나아가서 하나는 알론한 것 안에 있으므로²⁹²³⁾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적은 반

부분 안에도 전체 안에도 적음이 있지 않다면 있는 어떤 것 안에도 적음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 적음 자체 없이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 안에는 큼이 있는가 만약 어떤 것이 크다면 어떤 그것 안에는 큼 이외에도 크기가 초과해야하는 적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하나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으므로 큼이 있을 수 없다

2923)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으며 있는 것은 항상 어디에($\pi\omega\upsilon$ ¹⁾, 151a4, 1754)있다 그래서 하나가 어떤 것 안에 있다면 더 큰 것 안에 있으면서 더 적을 것이다 헤태론한 것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헤태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알론한 것과도 하나와도 분리해 있지 않으므로 이것들은 반드시 어떤 것 안에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면 하나 **안에** 알론한 것이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크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크며 적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똑 같지 않게 있다 나아가서 자신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다면 하나는 자신 보다 수 적으로 더 많고 작고 똑 같으며²⁹²⁴⁾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수적으로 더 크고 적고 똑 같다 그러나,

(순식간에 똑 같음 과 똑 같지 않음을 지니고 지니지 않으므로 순식간의 하나는 똑 같지도 않고 똑 같지 않지도 않다) 나아가서,

똑 같음도 알론한 것에 있지 않다 만약 있다면 똑 같음에 따라서 같음이 알론한 것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 같음이 알론한 것에

것 **안에** 알론한 것은 하나 **안에** 필연적으로 있다

2924) 더 크고 더 적고 똑 같다면 똑 같은 **척도들** 과 더 적은 척도들 과 더 많은 척도들을 지닐 것이다 그런데 척도들을 지니면 그 만큼 **부분들**도 지닌다 이렇게 똑 같은 척도들 과 부분들 그리고 더 적은 척도들 과 부분들을 그리고 더 많은 척도들 과 부분들을 지닌다면 하나는 자신들과 알론한 것들에 **수적으로** 똑 같으며 더 적으며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더 크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의 더 많은 척도들을 지니며 더 적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의 더 적은 척도들을 지니고 똑 같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의 똑 같은 척도들을 지닐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다면 자신들과 똑 같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니며 더 적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니고 더 많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닌다 그래서 자신과 똑 같은 부분들을 지닌다면 자신과 수적으로 똑 같이 많을 것이며 더 많은 부분들을 지닌다면 자신 보다 수적으로 더 많을 것이고 더 적은 부분들을 지닌다면 수적으로 더 적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자신 보다 수 적으로 더 많고 작고 똑 같고 나아가서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다

있지 않으므로 알론한 것들도 저것에 똑 같지 않다 그런데 똑 같지 않는 것은 非똑같지 않다 그런데 비똑같음은 비똑같음과 비똑같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들에 있는 비똑같음을 나누어 지닌다 그러나 비똑같음은 크고 작음이다 따라서 하나에 크고 작음이 있다 그런데 크고 작음은 항상 서로에 **차이**난다 그래서 크고 작음 사이에는 항상 똑 같음이 있다 따라서 크고 작음이 있다면 항상 그 사이에 똑 같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에 크고 작음이 있으므로 반드시 똑 같음도 하나에 있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똑 같으며 크고 적고 똑 같지 않다* 그런데,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고 있는 하나에는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크고적지도 않다 따라서,

똑같지도 않고 똑같지 않지도 않는 하나는 순식간에 똑같음 과 똑같지 않음을 지니고 지니지 않아 똑같게 되며 있고 똑같지 않게 되며 있다 그리고 똑같게도 똑같지 않게도 되지 않고 있지 않다 이와함께,

있는 하나는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에 접촉하며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알론한 것 **안에** 있다면 알론한 그것과 접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접촉한다 나아가서 스스로 전체 안에도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과의 접촉이 막힌채 자신과 접촉하면서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는 자신과 접촉한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접촉하려면 함께 머물러야 하는 동일한 것에 연이여 접촉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놓여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가 자신과 접촉한다면 스스로 뒤에 바로 연이여지면서 거기 안에 스스로와 함께 머물러야 하는 **자리**를 자신은 지녀야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인한 그럴 수 없다 그러려면 하나가 아니라 둘이어야만한다 따라서 둘이지 않는 그 필연에 의해서 하나는 자신과 접촉할 수 없다 접촉하려면 한 자리 안에 연이여지는 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연이여 접촉될

것은 분리해 있으므로 그 사이에 세 번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연이어질려면 그곳에서 이어지는 이음매가(ἄψις, 149a7, 1737)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음매가 있으려면 최소한도 둘 있어야하고 그 둘의 경계(ὄρου v, 149a8, 1737)에서 세 번째 것이 이어져야한다 그래서 연이어지는 것이 둘 이라면 이음매는 하나요 셋이라면 둘이다 늘 이음매는 수적으로 하나 더 적다 계속 하나가 더 연이어질 때 마다 이음매 하나가 덧 붙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만 있다면 겹도 있지 않을 것이고 이음매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하나가 아닌 것들이며 하나를 나누어지지도 않으므로 수적으로 있지 않다 그래서 이음매가 있을 수 없다 둘이 있지 않으면 이음매는 결코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알론한 것과 접촉하고 접촉하지 않는다 스스로 전체안에 그리고 알론한 것 안에 있으므로 하나는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접촉하는 반면 하나로 있는한 접촉하는 자리를 지닐 수 없어 자신과도 알론한 것과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이어지는 것 둘이 그 안에 있는 자리(χώραν, 148e9, 1736)에서 이음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렇다 하나는 하나 아닌 것²⁹²⁵이며 하나를 나누어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해서,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접촉하고 **있고** 접촉하지 않고 **있**

2925) 알론한 것 대신에 하나 아닌 것이라는 말은 1776쪽에 정리됐듯이 알론한 것과 해태론한 하나를 논증하기 위해 쓰였다 그러나 알론한 것과 접촉하는 하나를 논증하는 곳에서는 하나 아닌 것 대신에 알론한 것이 쓰여진 여기 처럼 거기에서도 알론한 것과 동일한 하나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하나 아닌 것 대신에 알론한 것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하나를 논증하는 이 두 곳에서는 하나 아닌 것이 쓰이지 않는다 알론한 것 대신에 무엇 때문에 하나 아닌 것이라는 말을 썼을까.....

다 이제,

스스로 보다도 늙지도 젊지도 않으며 알려진 것 보다도 보다 늙지도 보다 젊지도 않고 동일한 나이를 지니지 않는 하나는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려진 것 보다 늙고 젊게 있으며 되고 스스로와 그리고 알려진 것과 동일한 나이로 있으며 되고 있지 않으며 되지 않고 [늙게도 젊게도 동일한 나이로도 있지 않고 되지 않는다] 것이 논증된다(1663)

시간의 같음 과 똑 같음을 나누어 지녀야 동일한 나이를 지닐 터인데 하나는 같음과같지않음 과 똑같음과똑같지않음을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동일한 나이를 지니지 않으며 더 늙지도 더 젊지도 않는다 그런데 만약 시간 안에 있다면 하나는 자신 보다 필연적으로 항상 더 늙다 그러나 더 늙은 것을 나누어 지닌다면 그것 보다 항상 더 젊을 것이다 요것 때문에 그렇다 차이나는 헤태론한 것은 그 **차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차이로 **되어졌고 있고** 있을 반면 비록 알려진 어떤 차이로도 있지 않을 것이지만 그 어떤 차이로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늙음은 젊음과 차이나지 알론한 그 무엇과 차이나지는 않으므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지면서 동시에 필연적으로 스스로 보다 젊어질 것이며²⁹²⁶)있고 될 것이며 스스로와 똑 같은 시간이 필연적으로 [그 하나에] 되어지며 있고 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을 나누어 지닐 때 마다 각기 것은 스스로와 동일한 나이를 지니며 스스로 보다

2926) *헤태론한* 것은 자신의 *자연*과 반대되는 헤태론한 것으로 **변화**한다($\mu\epsilon\tau\alpha\beta\acute{\alpha}\lambda\lambda\epsilon\iota\nu$, 255a12, 1510)는 소피스테이스 편을 참조하라 거기에서는 *움직임 과 삶*이 자연에 있어 헤태론한 것들로 쓰여지는 반면 파르메니데이스 편 여기에서는 *늙음 과 젊음*이 그러하다고 쓰여진다 따라서 늙음은 단지 젊음으로만 다시 젊음은 단지 늙음으로만 변화할 것이다

느게 동시에 짧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 중 어느 것도 하나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시간도 하나와 함께하지도 않고 하나는 시간 안에 있지도 않다 그런데,

있어움 과 되었음 과 되어왔음은 지나간 어느 때의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며 **있을** 과 될 과 되어질은 닥아올 어느 때의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고 **있다** 와 되다는 **지금** *임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가 시간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어오지도 있을지도 있지도* 되었지도 되어왔지도 될지도 되어질지도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알론한 어떤 길로 실체를 나누어 지닐 수 있을까 없다 따라서 하나는 결코 실체(존재)를 나누어 지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는 결코 있지 않다 있다면 실체를 나누어 지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체는 나누어 지니고 **있는** 하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이러한 하나는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짧고 늦게 있으며 되고 짧게도 늦게도 있지 않고 되어 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다면 **어디**에서든 그 하나에 *속하는* **있음**은 현재 **시간**에 그리고 *있어* **움**은 지나간 시간에 그리고 *있을*은 닥아올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남이다 그래서 **있음**을 나누어 지닌다면 나아가는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앞서니 항상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하나는 늦게 된다 그런데 **늦은** 것은 **짧게** 되는 것 보다 **늦게** 된다고 우리는 기억하므로 만약 스스로 보다 **늦게** 된다면 하나는 **짧게** 되는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늦게** 됐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는 **자신** 보다 **짧게** **된다** 이렇게 *하나*는 스스로 보다 **짧고** **늦게** **된다** 그런데 어느 한 때로부터 그 어느 한 때 이후로 나아가는 시간은 그 사이의 **지금**을 건너 뛸 수 없으므로 되는 것은 **지금**에 필연적으로 걸린다 **지금**은 **있어움** 과 **있을**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에 걸릴 때 마다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더 이상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그대로 *이* **있다** 시간의 더해짐은 **지금** 과 **지금** 이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계속 더해지면 **지금**에 걸리지 않을 것이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에 걸릴 때 마다 되어진 것은 그대로의 **이** 것으로

있다 그래서 늙게 되어진 것도 지금에 걸리므로 늙어진 그대로의 이것으로
 있다 따라서 하나는 지금 보다 늙게 있다 그런데 보다 늙은 것은 젊은 것
 보다 늙으므로 늙게 된 채로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필연적으로 하나는 스
 스스로 보다 젊게 있다 지금은 모든 있음을 통해서 두루 항상 하나와 더불어
 다 어느 때든 지금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스스로 보다 젊게도 늙
 게도 되지 않으며 젊게도 늙게도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는 스스로
 보다 많은 시간 동안 되거나 있지 않다 그런데 똑 같은 시간으로 있거나 되
 는 것은 동일한 나이를 지니며 동일한 나이를 지니는 것은 보다 늙게 있지
 도 보다 젊게 있지도 않다 따라서 스스로와 똑 같은 시간 동안 있거나 되는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되지도 늙게 되지도 않으며 젊게 있지도 늙게 있
 지도 않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젊고 늙게 있으며 그리고 젊고
 늙게 있지않다는 것도 논증된다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이 아니라 헤
 태론들이므로 하나 보다 많이 있다 헤태론이라면 하나 있어 오지만 헤태론
 들이라면 하나 보다 많이 있으며 많음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음은 하
 나 보다 많은 수를 나누어 지닌다 현대 수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이 먼저 되
 어졌으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이 먼저 되어졌으며 되어진다 그
 래서 가장 적은 것이 첫 번째 것이며 바로 이 첫 번째 것이 하나이다 그
 래서 하나는 모든 수들 가운데 가장 먼저 되었던 첫 번째 것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들이라면 모든 알론한 것은 수를 나누어 지니
 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되어졌던 것은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 되어졌을
 것이며 알론한 것들은 늦게 되어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늦게 되어졌던 것은
 먼저 되어졌던 것 보다 더 젊을 것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젊
 을 것이지만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자신의
 자연에 어긋나게 되어졌을 수 없다 현대 하나는 부분을 지닌다는 것이 그리
 고 부분을 지닌다면 처음과 끝과 중간도 지닌다는 것이 보여졌었다 그렇다면
 하나 그것이든 알론한 것들 각각이든 아르케에(처음)은 모든 것들 가운데서
 도 첫 번째 것이며 알론한 모든 것들은 그 아르케에 뒤에 주욱 늘어설 것이

다 그리고 알론한 모든 부분은 전체와하나의 부분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은 동시에(ἅμα, 153c7, 1818) 저 끝에 의해서 하나와전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 늦게 되어지는 끝과 동시에 자연스레 하나는 되어진다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그것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늦게 되어졌던 끝에 의해서 하나는 자연스레 더 늦게 되어진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짧게 있는 반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늦게 있다 나아가서 하나이든 알론한 것이든 어떠한 것의 아르케에 부분 또는 알론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하나 있는 부분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는 동시에 첫 번째 것으로 동시에 두 번째 것으로 동시에 나머지 알론한 것으로 남김없이 동시에 되어졌을 것이다 어떤 부분도 덧 붙혀지지 않는 전체하나가 될 때 까지 그 극단 부분들에 동시에 덧 붙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는 모든 알론한 것과 동일한 나이를 먹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 하나그것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도 나중에도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되어졌을 것이며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짧지도 늙지도 않고 그런데 알론한 것도 하나 보다 짧지도 늙지도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젊고 늙게 되어지며 그리고 젊고 늙게 되어지지 않는 것도 논증된다 헤태론한 것 보다 늙게 있는 헤태론한 것은 나이 차이가 나지 않고는 서로 보다 늙게 될 수 없다 그리고 똑 같지 않는 것들에 똑 같음이 덧 붙혀져도 여전히 첫 번째 차이는 유지(維持)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이 차이가 항상 똑 같다면 있는 것은 있는 것 보다 짧게 되지도 늙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되어졌던 그대로 늙게 있다는 것이 보여졌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늙게 되지 않는다 보다 짧게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되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짧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짧게도 늙게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똑 같은 것이 더 많은 것 과 더 적은 것에 덧 붙혀진다면 더 많은 것은 똑 같은 조각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적은 조각들에 의해서 차이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늙은 것은 어디에서든 보

다 많은 시간 동안 되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 보다 하나는 늙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많은 시간 동안 되어졌다 그래서
 똑 같은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을 지니는 하나 와 더 적은 시간을 지니는 알
 론한 것에 덧 붙혀질 경우 비록 똑 같은 조각에 의해서 그 때 와 그 때 이
 후로 차이나지는 않겠지만 더 작은 조각에 의해서 첫 번째 것 하나는 알론
한 것과 더 작은 차이가 나거나 알론한 것 보다 더 **먼저**일 것이다 그렇다
 면 더 **적은** 것은 어떤 것에 대해 더 적게 나이 차이 나든지 **먼저** 보다 늙
 게 있어 온 것에 대해 앞서 보다 먼저 **젊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다 젊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에 대해 보다 늙거나 **먼저**일 것이다 그래서 보다 젊게 되
 었던 것은 먼저 **되었던** 것에 대해 그리고 보다 늙게 **있는** 것에 대해 보다
 늙게 **되어**지만 어느 때든 보다 늙게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보다 늙은 것
 보다는 항상 **늦게** 되어진다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과 보다 늙은 것
 에 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로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보다 젊게 되어진다 이것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가면서 서로에 반
 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 젊은 것은 보다 늙은 것 보다 보다
 늙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런 되어짐은 끝나지 않는다 끝나 버리면 더 이상
되어짐이 아니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다 늙게 있으면서 보다
먼저 되어졌다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되어
지는 반면 보다 **늦게** 되어졌다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알론한 것은 하나 보
 다 늙게 되어진다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 보다 늙게 있으면서
먼저 되어졌다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하나에 대해 알론한 것들은 보다 젊어
 지는 반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되어진다 따라서 헤테론한 시간을
 지닌 것들에 똑 같은 시간이 덧 붙혀지면 헤테론한 그것들은 비록 차이나는
 처음의 나이 때문에 주욱 나이 차이는 나겠지만 덧 붙혀지는 **똑 같음** 덕분
 에 더 이상 늙게 되거나 젊게 되지 않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비록 똑 같은
 시간이 덧 붙혀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나이 차이는 나지 않더라도 헤테론한
 어느 하나가 지니는 그 **적음** 덕분에 서로에 대해 주욱 적은 나이 차이가

나거나 먼저일 것이므로 그리고 늙은 것 과 젊은 것은 반대 방향으로 오가면서(ἰόντε, 155a2, 1823)서로에 반대 되므로 헤태론한 것들은 서로에 대해 늙게 되면서 젊게 된다 따라서 하나와 헤태론한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늙게되며 젊게된다* 따라서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늙지도 젊지도 않으며 동일한 나이도 아닌 하나는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늙어있고 늙어지며 젊어있고 젊어지며 늙어있지도 젊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만약 하나 있다면 하나는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는 반면에 하나 만약 있다면 하나는 하나 와 여럿으로 있으며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 그래서 어느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는 있지만 어느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않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저 **때** 나누어 지니는 것이 그 **때** 나누어 지니지 않거나 저 **때**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이 그 **때** 나누어 지닐 수 없다 따라서 *알론한 시간 안에* 나누어 지니며 알론한 시간 안에 나누어 지니지 않는 길로만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그래서 있음을 취하는 **어느 때** 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면 나누어 취하는 **저 때** 있음을 잃는 그러한 **시간**은 있을 수 없고 있음을 지니는 **그 때** 있음을 지니지 않는 그러한 **시간**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됨**은 실체를 나누어 취함이며 **사라짐**은 실체를 잃음이므로 실체를 취하면 하나는 필연적으로 *되어질* 것이고 실체를 잃으면 하나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때 마다 여럿 **있음**은 사라지며 여럿이 되어질 때 마다 하나 있음이 사라지는 그런 길로 **하나있는**여럿은 *되어지며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하나로 되면서 필연적으로 붙는 반면 여럿이 되면서 피연적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같지 않음** 과 **같음**이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같아지지 않고 같아질 것이다 그리고 크고 적고 똑 같게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자라나고 줄어들며 똑 같아질 것이다 그런데 **움직여짐**이 **쉬어짐**으로 그리고 **섬**이 **움직여짐**으로 **변할** 때 마다 어디 에서든 하나는 어떤 **시간 안에** 있지 않다 먼저 쉬고 나중에 움직여지든 먼저 움직여지고 나중에 쉬든 움직여지는 것은 **변함**이 없

이는 쉼을 겪을 수 없으며 하나의 시간 안에서는 어떤 것도 움직여지면서 동시에(ἅμα, 156c6, 1 872)쉬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함** 없이는 앎고는 어떤 것도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쉬면서도 움직여지면서도 시간 안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변할**까 저 **때** 변하는 그 이상한 때이다 곧 **순식간에** 변한다 바로 이러한 순식간에 하나가 걸리면 되지도 있지도 않는 대신에 실체를 지니고 지니지 않으므로 하나는 [보다 짧게도 늦게도 동일한 나이로도 있지지 있지않지도 되지도 되지않을 것이다 시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실체**를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했던 것이 **진실**이 아닐 것이며 만약 진실이라면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말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하므로 **있는** 것을 필연적으로 말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만약 **있지 않는 것**이 (결코) **있지 않다면 있음**과 **있지않음** 사이에는 **있는 것** 만(εὐθὺς, 162a3, 1945)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있는 것**이 끝까지 주욱 있기 위해서는 **있는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니면서 **있지 않는 있음의 실체아님**을 나누어 지녀야한다 **있는 것 일반**이 그렇다 그래서 **있음**과 **있지않음**을 이어주는 끈이 필요하다 바로 이 끈이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욱 있으려면 **있지 않는 것은 있는 있지 않음의 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니면서 **있지 않는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녀야한다 **있지 않는 것 일반**(τὸ μὴ ὂν μαλιστα', 162a7, 1945)이 바로 그렇다 그렇다면 **있지 않음의 있는 것**에 그리고 **있음의 있지 않는 것**에 (나누어) **놓여지므로** 있지 않으려면 **있음**의 하나에 필연적으로 놓여져야만 한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있지 않는 하나는 실체와 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닌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보다 높고 짧게 있고 되며 있지않고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있는 않는 것 이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에서 **실체**의 떨어져 나감과 알론한 무엇이 가리켜지지는 않는다 어떤 것

이 있지 않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것은 있고 어떻게 보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게(ἀπλούστατα, 156c 8, 1955) 말할 때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느 것에도 결코 있지 않으며 어떻게든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는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늑게도 젊게도 있지않으며 되지않는다] 따라서,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고 나누어 지니지 않지도 않는 하나는 **실체** 와 **非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나누어 지니지 않는 **순식간**에 맞닿은 **시간 안에서** 되며 있고 되지 않고 있지 않으며 되지도 있지도 않는다 그래서 보다 늑게 되지도 있지도 않고 보다 젊게 되지도 있지도 않는 하나는 보다 늑게 되며 되지 않고 그리고 있고 있지 않으며 보다 늑게도 보다 젊게도 있지 않고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얇도 있지 않고 감각도 있지 않는 역견도 있지않는 하나에 **얇** 과 **역견** 과 **감각**이 있고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있지 않는 것에는 어떤 것도 덧 붙혀 질 수 없으며 있지 않는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에는 이름도 로고스도 인식도 감각도 역견도 **얇**도 있지 않으며 따라서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불리워지지도 인식되지도 감각되지도 역견화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 자체에 관해서도 그러하다 (1664)그런데,

있는 하나는 자신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늑고 젊게 있으며 되어지고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들 보다도 늑게든 젊게든 있지도 않으며 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은 완벽하다 그런데 하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그 보다 늑고 젊게 되어지므로 필연적으로 어느 때 와 미래 와 그 지금을 나누어 지닌다 그래서 하나는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져 왔고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물론 하나에 **대해** 어떤 것이 그리고 하나의 어떤

것이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앎 과 역견 과 감각도 있
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한 이름들 과 로고스도 있으
며 그러기에 이름불혀지며 말하여진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해 있는
이러한 것들 모두 그대로 하나에 관련해서도 있다 그래서 있는 하나에 (대
한) 어떤 것이 그리고 하나의 어떤 것이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에 관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수행하므로 하나의 앎 과 역견 과 감
각도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에 대한 이름들 과 로고스들도
있으며 그리고 이름 불혀지며 말하여진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 그대로 하나에 관련된다 나아가서,

있지 않는 하나에도 앎이 있다 크기가 있지 않다 그리고 적음이 있
지 않다 라고 말하여질 때에는 언제든지 있지 않는 것들의 헤테론함이 인
식된다 크 과 적음은 서로에 헤테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있지 않
다 라고 말하여질 때에는 알론한 것의 헤테론함이 인식될 것이다 헤테론함
과 더불어 있지 않는 하나가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
나에는 첫 번째(πρῶτον, 160d4, 1937)로 앎이 있다 그래서 앎에 관련해서 그
하나에 헤테론이 있다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테론하다 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알론한 것의 헤테론이 아니라 하나의 헤테론이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가장 순수하게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저것의 또는 저것에 또는 어떤
것 또는 이것(τούτο 164a8) 또는 이것의 또는 알론한 것의 또는 알론한 것에
또는 어느 때 또는 (어느 때) 이 후 또는 지금 또는 앎 또는 역견 또는 감
각 또는 로고스 또는 이름 또는 무엇이든 있는 알론한 것들도 있지 않다
있지 않는 하나는 어떤 것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2002) 따라서,

앎도 있지 않고 역견도 있지 않으며 감각도 있지 않는 하나에는 앎
과 역견 과 감각이 있으며 앎도 역견도 감각도 있지 않다 이제까지,

나는 약간은 무모하게 하나만 ‘있는’ 경우 와 하나가 있는 경우 와 있

지 않는 경우 와 하나가 순식간에 걸리는 경우로 나누어 하나를 정리해 보
 았다 이러한 정리를 다음 도표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전제	하나와있음					
나어지는 것	실체 와 非실체					
	하나	하나와있음	하나와(非)존재			
		순식간	시간			
하나	자체 있다	있고없다	있는	있지 않는		
여럿	없다		존재는	존재 않는		
분 체				(존재하는)	(존재않는)	
한계						
수			무한히	(무한히	(무한히	
모양			존재는	존재하는	존재않는	
안				(존재않는)		
얽				각	장	
일			있고없다	존재하는	존재하는	존재하는
음						
음						
음						
음						
동일한기	[있다]					
얽						

내가 있음 과 실체 및 여러 가지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를 나타내려
 하는 이 도표에 나오는 점선은 반대를 나타내는 반면 꺾 실선은 단지 부정
 (否定)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도표는 이제 까지의 도표 모두와 일치한
 다 따라서 움직임 과 쉼 등은 반대이지만 존재 와 존재하지 않음 또는 있음

과 있지않음은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내가 강조하는 바이지만 소피스테이스 편에서는 파르메니데이스 편에서는 있음 과 있음 또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서로에 **반대**²⁹²⁷⁾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있는 것 이라고 하든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든 존재는 비(非)존재 또는 존재없음에 그리고 있음은 있지않음에 반대되지 **않음**으로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그리고 있지 않는 것에 있을 수 있다 단 **동일 과 헤타론**의 자연을 나누어 지님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 과 헤타론은 서로에 반대된다²⁹²⁸⁾ 그러므로 동일은 헤타론에 헤타론은 동일에 있을 수 없다 움직임 과 쉼 그리고 반대되는 모든 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실선이든 점선이든 앞 쪽 도표의 모든 선은 구분을 나타내며 非를 담는 것을 뺀 모든 괄호는 ‘파르메니데이스’에 의해 직접 말하여지지 않는으나 내가 짐작해서 집어 넣은 것들이다 따라서 틀릴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순식간의 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면 틀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나아가서 아마 순식간의 칸에 괄호로 묶어진 것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위 도표에 나오는 **있음 과 존재 와 실체**로 인해 헷갈리는 사람들은 또는 이 세 가지 말은 동일한 것만을 가리킨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이 세 가지 말을 **있음**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마 무난할 것이다 **존재**이든 **실체**이든 **있음이 있는 것** 만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난한 그 만큼 파르메니데이스 편 과 소피스테이스 편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서,

시간을 지니는 있는 과 있지 않는 사이에는 두 겹의 실선이 그어졌지만 그 결과에는 두 겹의 실선도 어떤 구분 선도 있지 **않음**에 조심하라 그 결과는 같지만 그 전체는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잇 따르는 결과가 같

2927) 반대되는 것은 서로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1751쪽을 기억해 내라

2928) 바로 여기가 미묘(微妙)한 부분이다

다고 해서 그 전제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는 있는 하나이지만 하나는 있지 않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고스는 하나 자체의 하나 와 있지 않는 하나의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그리고 순식간의 하나 와 하나 자체의 하나에도 순식간의 하나 와 있지않는 하나에도 허용된다 곧 결과는 같지만 그 전제는 일치하지 않는다²⁹²⁹⁾이제,

*하나*를 떠나서 *알론한 것*을 네 가지 경우를 섞어서 정리해 보자 파르메니데아스는 *알론한 것*을 **있는** 하나의 경우 와 **있지 않는** 경우 각각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많이 **있는 모든** 것이 말하여지므로 그렇다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하나*가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은 **있고 있지 않지만**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은 **나타나 있고 나타나 있지 않**다는 로고스를 끄집어 내야만 한다 **나타난 것**은 *하나*가 있을 경우의 *알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있지 않는 경우의 *알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후,

있는 하나와 **분리해** 있으면서도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 곧 **이데아** 하나로 있는 *알론한 것*은 *하나*가 있지 않을 경우 서로의 *알론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면서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논증을 정리해야 한다

알론한 것 과 *하나*가 **동일한 것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만 논증되면 있는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이 논증될 것이다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분리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 와 *알론한 것*이 말하

2929) 이러한 결론도 존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지면 모든 것이 다 말하여지므로 하나 와 알론한 것과 **나란한** **해태론한**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이 그 **안에** 들어 있는 **해태론한** 것은 없으므로 어느 때든 이 두 가지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다 따라서 알론한 것은 **있는 하나와 분리해 있다** 그런데,

알론한 것은 **하나 전체**이기도하다 만약 하나가 있다면 말이다 부분을 지니지 않는 완전한(παντελώς, 157c4, 1894)하나 곧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의 알론한 것이 아니므로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의 알론한 것은 부분을 나누어 지닌다 그런데 전체는 **부분의 전체**이고 부분은 **전체의 부분** 이므로 알론한 것은 전체의 부분을 나누어 지닌다 그러나 여럿의 부분도 아니요 모든 부분도 아니다 만약 **여럿의 부분**이라면 여럿 가운데 **하나일** 것인데 부분은 어디에서든 자신의 부분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나머지 알론한 **각각의** 부분일까 여럿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면 그 하나를 제외한 알론한 것들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각각의** 부분도 아니다 알론한 것들과 떨어져서 그 자체로 **있는 각각**(ἕκαστον, 158a3, 1897)은 어디에서든 **하나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각각의 부분이 아니라면 **각기 모두**(ἀπάντων, 157e1, 1895)의 부분도 아니며 그래서 **모두**(πάντων, 157d8, 1895)의 부분도 아니고 따라서 알론한 것의 부분은 각기 모두로부터 완성되어진 **하나 전체**의 곧 **이데아 하나**인 것의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데아**는 전체 하나 곧 알론한 것이며 **하나의** 알론한 것의 부분은 이데아의 부분이다²⁹³⁰나아가서,

하나가 있지 않더라도 알론한 것들은 반드시 있다 있지 않다면 알론

2930) 그렇다면,

하나 전체가 하나 아닌 것에 대해 있는 것 처럼 하나는 하나 자체에 대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알론한 것이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에 대해 있는 것 처럼 **하나는** 진짜 하나에 **대해 있다**

한 것들을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걸리는 것이라 불리워지므로 **알론한 것**들에 관한 로고스가 있어서 **알론한 것**들이 있다면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한 것**들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어디에서든 **헤태론한 것**들과 **헤태론** 하며 **알론한 것**들은 어디에서든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지므로 있다면 어떤 **것의 알론한 것**들인 바로 **그 어떤 것이 필연적으로 다시 있다** 그러나 **하나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 만이 우리에게 남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알론한 것**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이 있다 그러기에,

하나의 알론한 것은 있지 않다 따라서,

있는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 과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이 있는 **알론한 것**은 서로의 **알론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이와 함께,

하나이며 여럿인 알론한 것은 **하나도 여럿도 아니며** 각기 한 응큼 씩 서로에 대해 각각 나타나 있으며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알론한 것은 **하나 전체**이므로 **하나**이다 따라서 **알론한 것**은 **하나**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이 지니는 부분 각각은 **하나**를 나누어 지닌다 각각은 어디에서든 **하나**를 가리키며 **알론한 부분**들과 떨어져서 그 자체로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알론한 것**이다 **알론한 것**이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았다면 **알론한 것**은 없고 **하나** 자체만 있어왔을 것이므로 지금 있는 **알론한 것**은 그 **하나** 없이 **하나**로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 없이 **하나**로 있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를 나누어지니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하나와 알론한 것**이다 그런데 나누어 지니는 것은 **전체** 와 **부분**을 나누어지닌다 **하나**는 **부분의 전체**이며 **부분** 각각은 **전체의 부분** **하나**이기 때문이다 **헌데** **하나와 알론한 것**이 **하나**도 아니고 **하나** 보다 많지도 않다면 **아무 것도 아니므로** **하나와 헤태론한 것**은 어

디에서든 여럿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은 하나와 분리해 있으므로 하나를 나누어 지닐 수 없다 따라서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전체로도 부분으로도 하나를 나누어 지닐 수 없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이 아니며 어느 알론한 것도 스스로들 안에 하나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여럿이 아니다 여럿이라면 여럿 각각 하나는 전체의 부분이어 왔을 텐데 지금의 알론한 것은 하나도 전체도 부분들 어떠한 것도 나누어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이며 여럿인 알론한 것은 하나이지도 여럿이지도 않다 나아가서,

하나가 있지 않다면 하나는 있지 않을 것이므로 있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적은 것이 **한 응큼** 씩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각각 그것들의 덩어리로 무한히 많이 있을 것 처럼 보인다 잠자면서 꾸는 **꿈** 속에서 처럼 **순식간에** ‘처럼 보이는 것’ 하나에 맞서 여럿이 있으며 그 가장 적은 것으로부터 잘려진 작은 것들이 가장 적은 그것에 맞서 순식간에 엄청 커지는 것 처럼 말이다 알론한 것들은 바로 이러한 **덩어리** 서로의 알론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각각으로 나타나는 여러 덩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있지 않으므로 그 **각각의 하나** 덩어리는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가 있지 않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은 **각각** 무한히 많은 **한 응큼의 덩어리로 있다** 그래서 알론한 것에는 수가 처럼 보인 것으로 **있다** 만약 각각이 하나이며 **있는 여럿**의 각각이라면 알론한 것들의 수는 처럼 보이는 것으로 있다(*eivai*, 164e8, 1962)그리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짝으로 어떤 것은 홀로 진짜 아니게 나타난다 하나가 만약 있지 않을 거라면 그렇다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은 수 처럼 나타나는 것이나 수로 진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알론한 것은 수적으로 무한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의 알론한 것이라면 알론한 것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다 그 어떤 것도 하나로 있지 않다면 각기 모든 것도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여럿으로도 있지 않을 것이

므로 알론한 것들 안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있지 않는 것들의 알론한 것들은** 결코 어떤 것에 교통하는(*κοινωνία*, 166a1, 1966)어떤 것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알론한 것들과 **나란하다** 면 있지 않는 것들의 **그 어떤 것도 알론한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을 것이며** 있지 않는 것들에는 알론한 것의 그 어떤 부분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있지 않는 것의 역견도 환상도 있지 않으며 이러한 알론한 것들에 걸리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역견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의 어떤 하나도 여럿도 역견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없이는 여럿 역견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고 역견화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하나 와 여럿으로 있는 **알론한 것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으며 서로에 대해** 각각 한 **옴 씩 나타나 있는 것 처럼** 보이며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 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함께,

한계를 지닌 알론한 것은 무한하며 **수적으로 무한히 많은 덩어리들**로 **나타나 있는** 알론한 것은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 보다 **많은 것은** 하나의 부분 과 전체를 나누어 지닌다는 것은 보여졌다 이제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 보다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을 떼어내 보자 떼어내진 것 역시 하나 보다 필연적으로 많을 것이다 하나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와 **혜태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혜태론의 자연 덕분에 많은은 무한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각기 부분은 부분이 될 때 이미 서로에 대한 그리고 전체에 대한 한계 그리고 부분에 대한 전체의 한계를 지녔다 이제 서로에 대해 한계 지우면서 그 자연에 따라 스스로 한계지워지는 혜태론한 어떤 것들이 하나 와 자신들과의 교통을 통해 알론한 것들 안에 잇따라 되어지는 것 처럼

보인다 이렇게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무한히 수적으로 많은 덩어리들로 나타난 각기 알론한 것들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 역전화 될 때 가장 적은 것은 보다 적은 여럿 각각에 대한 여럿들 과 크기들로 나타나 이러한 적은 여럿들에 똑 같은 각기 덩어리로 역전화되 있다(δοξασθήμεται εἶναι, 165a2-3, 1963) 더 큰 것 과 더 적은 것 사이에 똑 같은 것이 역전화 되기 이전에는 더 큰 것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아 가면서 나타나지는 않을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계를 지니는 알론한 덩어리들에 대해서든 자신 덩어리들에 대해서든 알론한 것은 시작도 한계도 중간도 항상 지니지 않는다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노이아에 의해서 덩어리로 있는 알론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한 움큼 떼어 낼 때마다 그 시작 바로 앞의 알론한 것이 항상 시작으로 나타나며 그 끝 바로 뒤의 헤태론한 것이 항상 끝으로 남게 되며 중간 안의 알론한 것들은 그 중간 보다 더 중간으로 그런데 더 적은 것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가 있지 않는한 이것들 각각이 하나로 집어질 수 취할 수 없으므로 그렇다 그래서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노이아에 의해서 한 움큼 집어들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든 하나 없이 항상 덩어리로 집어질 것이므로 더 잘게 부서질 것이며 계속 부서져 더 먼 것을 보는 자에게는 더 통거운 하나 덩어리 각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더 가까운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예리한 무한한 여럿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가 있지 않아 그 하나가 결여되므로 그렇다 이렇게 알론한 것들은 서로에 대해 무한하게 많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미 서로에 대해 한계지워진 알론한 것은 서로에 대해 무한한 여럿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한계지워져서도 무한하게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한계를 지닌 알론한 것은 수적으로 무한하며 각기 덩어리로 서로에 대해 수적으로 무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으며 같지 않는 알론한 것은 같지도 같지 않지도 이 양자적이지 않으며 각각 서로의 덩어리에 대해 한 응큼씩 같게 같지 않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같게도 같지 않게도 이 양자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자신들의 자연에 따라 어디에서든 무한한한 이에 의해 동일을 겪을 것이며 한계를 나누어 지니는한 이에 의해 동일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계지워지고 있는 것들이 무한함을 겪었던한 이미 이러한 반대되는 속성들을 겪었으므로 그렇게 있다 그러나 반대되는 것들은 같지않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에 그리고 서로에 알론한 것들은 각기 속성에 따라 같은 것이지만 양자적으로 반대되는 양자 속성에 따라서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론한 것들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둘도 셋도 나누어지니지 않네 결코 하나를 빼앗아 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와 같지도 같지않지도 양자적이지도 않으며 자신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도 않다 이런 것들을 지닌다면 어디에서든 서로에 반대되는 두 에이도스이 자신들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는 것이 둘을 나누어지닐 수 없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같지도 같지않지도 이 양자적이지도 않다 같거나 같지않다면 헤태론한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녀야 할 것이며 양자적이라면 반대되는 둘을 나누어 지녀야 할 것이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화폭(畫幅)에] 그려진 것들은 떨어진 자에게는 모두 하나로 나타날 것이므로 동일을 겪어 같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더 가까운 자에게는 헤태론한 환상들에 그리고 그 헤태론한 환상들과 헤태론한 환상들에 여럿과 헤태론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그 덩어리들의 같음 과 같지 않음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헤태론을 겪으면 같

지 않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에는 같음 과 같지 않음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것들에도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는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므로 그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는 그 어떠한 것도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같게도 같지않게도 나타나지도 있지도 않다 따라서,

서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 않는 알론한 것은 같지도 같지 않지도 이 양자도 아니면서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같게도 같지않게도 이 양자적으로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와 함께,

모든 반대 속성들을 겪는 알론한 것은 겪지 않으며 서로에 대해 그러한 나타남을 겪지도 겪지않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같음 과 같지 않음은 서로에 반대되는 속성들이인데 이러한 반대 속성을 알론한 것은 자신들 안에서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 겪는다 그래서 각기 속성에 따라 같고 반대되는 양자에 따라 양자적으로 같지않을 것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과혜태론 움직임짐과쉽 등과 같은 모든 반대 속성들을 알론한 것들은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겪는다 그런데,

알론한 어떤 것도 동일과혜태론 움직임짐과쉽 되어짐과사라짐 큼과적음 똑같음과똑같지않음 등 반대 속성을 겪지 않는다 겪는다면 하나 와 둘과 셋 과 홀 과 짝을 나누어 지녀야 할 것인데 하나를 빼앗아 오지 못하는 알론한 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지녀질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반대 속성들을 겪을 수 없다 그러나,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알론한 것이 같으며 같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난다면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접촉하며 분리된 것으로 움직임여지며 쉬는 것으로 되어지며 사라지는 것으로 그리고 이러한 양자들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미 나열한 그런 모든 반대들로 나타난다 하나가 있지 않고 알론한 여럿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같지도 같지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접촉되지도 분리되지도 그리고 앞에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거론된 그 무엇으로도 있지도 않으며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러한 어떤 것들에도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는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 속성을 겪는 알론한 것은 겪지 않으며 반대 속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 와 *알론한* 것을 지니며 지니지 않고 *하나* 와 *알론한* 것으로 있고 있지 않으며 되며 사라지고 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됐다 이제,

이러한 네 가지 알론한 것을 다음 쪽 도표로 나타내 보자

전체		하나 와 있음				
나누어 지는 것		실체 와 비(非)실체				
		시간				
하나		있음		있지 않음		
		하나전체 이데아	비(非)하나	하나 아닌 것		
알론한 것		하나의 알론한 것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	서로의 알론한 것	하나 아닌 것의 알론한 것	
전체	부분	있는				
수		무한히 많이 있는	있지 않는	무한히 많이 나타나 있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	여럿	있는		각각	덩어리로 나타나 있는	각각
한계	한계없음					
움직여짐	쉽					
접촉	분리					
됨	사라짐					
동일	헤태론					
같음	같지않음					
똑 같음	똑 같지 않음					
큼	적음					
모든 반대 짝						
		있지 않는		덩어리로 나타나 있지않는		

마찬 가지로 점선은 **반대**를 나타내는 반면 꺾 실선은 **부정(否定)**을 나타내며 실선은 어떠한 것이든 구분을 나타내는 여기 도표에서는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과 그렇지 않는 알론한 것에 무엇이 잇따르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알론한 것 역시 하나 처럼 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가 있지 않을 경우에 알론한 것들은 서로에 각각 **한 응큼 씩 덩어리**로 각기 무한히 나타나 있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른 모든 경우와 심각하게 구분된다 다른 모든 것은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은 이데아 하나(1895)라는 것 이외에 특별히

여기서 언급될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²⁹³¹⁾전제되는 것은 파르메니데에
스 편 본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와 **있음**이며 **순식간**에 걸리지 않는한 모
든 것은 **시간** 그리고 **실체** 와 **비(非)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결과가 같다고 해서 그 전제를 일치된 것으로 여겨서는 않된다는
것만을 끄집어 내면서 일단 여기서 벗어나도 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하나
와 알론한 것을 모두 나타낼 다음 쪽의 도표에 관해 거론해야 할 말들이남
아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931) 진짜로 그러할까...

부정(否定)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겹 실선으로 나타내는 앞 쪽 도표를 볼 것이다 이렇듯 있는 것은 자신을 부정 함으로서 알론하게 있고 되며 또 자신을 부정 함으로서 알론한 것은 헤태론하게 있고 된다는 것을 논증한다 있는 하나로부터 잇 따르는 로고스들이 서로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부정되기 때문에 있는 하나라는 그 전제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꾸로 하나 와 알론한 것이 서로를 부정하며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바로 이러한 것을 위 도표의 겹 실선 과 점선은 나타낸다 있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거듭 되 풀이 된 바와 같이 수 또는 진짜가 있는 것의 일 중인 것 처럼 있지 않는 것도 그 일 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 파르메니데에스는 하나만이 있다는 것을 거부한다 하나 와 여러 하나 자신 과 알론한 것들도 있고 있지 않으며 하나도 있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 아닌 것이 있는 것 처럼 하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 와 알론한 것은 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움직임과됨 그리고 동일과헤태론 등 모든 반대 짝도 나누어 지닌다²⁹³²)는 것 그리고 이러한 반대로의 변화는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순식간에서는 어떠한 반대 짝으로도 그 짝 양자로도 있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뉘어진 그 짝을 지니고 지니지 않는다는 것그러나 순식간에 있는 것에서 있지 않는 것으로 또는 있지 않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1875)있지 않음에서 됴으로 그리고 있음에서 사라짐으로 변한다는 것²⁹³³)따라서 있음 과 됴(생성)은 여기서도 구

2932) 그러나 있음 과 있지 않음은 반대가 아니라는 것은 두고 두고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2933) 그렇다면 됴에서 사라짐으로 또는 사라짐에서 됴으로 변하지는 않는 것일까 실체를 나누어 취함이 됴이요 실체를 벗어남이 사라짐 이라는 1702 쪽을 참조하면 변할 것 같다

분된다는 것을 나는 앞 앞 쪽 도표에 보여주려 했다 나아가서,

이러한 나누어 지남에 관한 파르메니데이스의 로고스들은 소크라테이스가 펼친 에이도스론이 지니는 어려움 곧 분리된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남에 관한 어려움(1290, 1316, 1354)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나누어 지남(1885)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거기에 부딪히는 저 때 순식간에 일어나는 반대 에이도스를 취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 앞 쪽 도표에서 반대의 짝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은 모두 1249 와 1326 과 1257 쪽에서 이미 젊은 소크라테이스에 의해 노년의 파르메니데이스에게 말하여진 에이도스들 이라는 것은 앞서 소크라테이스에게 던진 어려운 물음들에 파르메니데이스 자신이 스스로의 에이도스론을 통해 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답을 듣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변증적인 훈련을 시키면서 말이다 이제,

범주들 형이상학 티마이오스 소피스테이스 파르메니데이스 편을 원문을 한 번 베끼면서 두 번 옮기고 두 번 요약하고 정리하는데 걸린 3년(1999년 7월 1월-99년 5월) 남짓의 세월을 벗어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의 석사학위 논문을 구상하면서 써야 할 때이다 그래서 이 후로는 지금까지의 내 자료와 주변 자료를 섞어 연구하는 아주 신나는 일과 더불어 하나 씩 하나 씩 살과 피와 같은 나의 로고스들이 펼쳐지면서 세계를 뒤 바꾸는 역사(歷史)를 향해 나의 석사학위 논문은 서울대를 통해 나아갈 것이다 물론 그 뒤를 전남대가 뒷 받침한다²⁹³⁴⁾

원문(原文)을 옮기고 요약 정리하면서 부족하지만 내 나름대로 토를 달고 분석하며 주석(註釋)을 달았던 아주 힘든 일차 작업을 이 아차도에서

2934) 나는 학부 과정을 전남대에서 마쳤기 때문이다

무사히 마치도록 인도하신 나의 주님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이제 나의 발
과 손 과 머리 와 가슴이 그 어디로 향할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그 어디에
가든 머무르든 주님을 나의 사랑 생명으로 간직하고 받아드리는 신앙 과 구
도(求道)의 삶이 앞으로든 그 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건강을 통해 이루어지
길 기도한다 1999년 5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08분에.....

멀고
가까움을
통해
쏟아져 오네 그
아픔
빛나도록 서러운
찬란함이
앞을 비추일 때
끊어지는 숨 따라
이어지는 그
길
아!
고품 과 눈물이
거기에
흐를지라도
십자가만
보인다면
갈 수 있으리 그
곳에
오전 10시 14분 아차도에서!
화거(火車).

